문화관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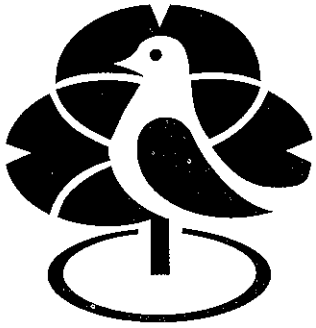
# 富平史

仁川廣域市富平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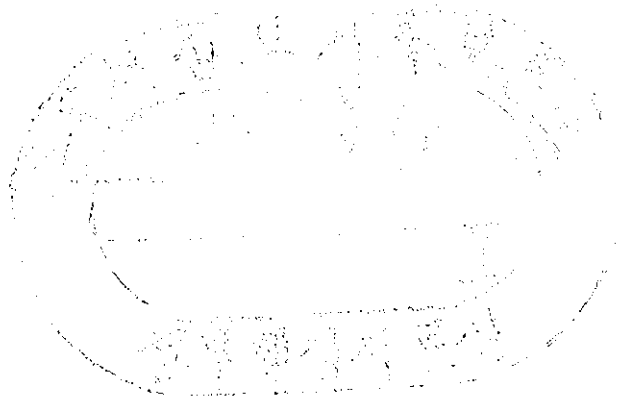
富平史

仁川廣域市富平區

# 富平史



仁川廣域市 富平區



# 발간사

부평구청장 최 용 규



부평구의 역사적 발자취와 향토문화를 발굴,집대성하여 부평의 모습을 담은 부평사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아울러 처음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50만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은 서울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서 계양산과 철마산 줄기를 기점으로 상업, 공업, 농업의 복합형태의 거대 도시로 형성 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최초 부평구는 급격한 인구증가 및 구세확장 등으로 '88년과 '95년에는 서구와 계양구를 각각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잠재력의 풍부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지하철 1호선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및 녹지공간사업 등 성장의 발돋움을 힘차게 시작하여 인천의 중추도시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상의 얼을 되살리는 한편 미래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전통문화를 올바르고 소상하게 전수하는 것이 우리 부평구민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부평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향토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부평구민으로서의 위상정립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책자가 부평지역이 걸어온 지난 날을 성찰하고 현재를 정리하여 후세에 나아갈 지표와 발전을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10년, 20년후에 더 더욱 보완된 부평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학계 여러분과 여러 기관들, 그리고 장기간 자료의 취합과 원고를 집필하신 각계의 선생님과 이를 추진해 주시고 편집해 주신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에 감사드리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3월

# 발간축사



부평구의회의장 이 복 란

부평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나간 부평의 역사를 돠돌아 보며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부평사가 발간됨을 50만 구민과 더불어 기뻐하며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부평지역은 역사적으로 보아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가는 유서깊은 고장으로 예로부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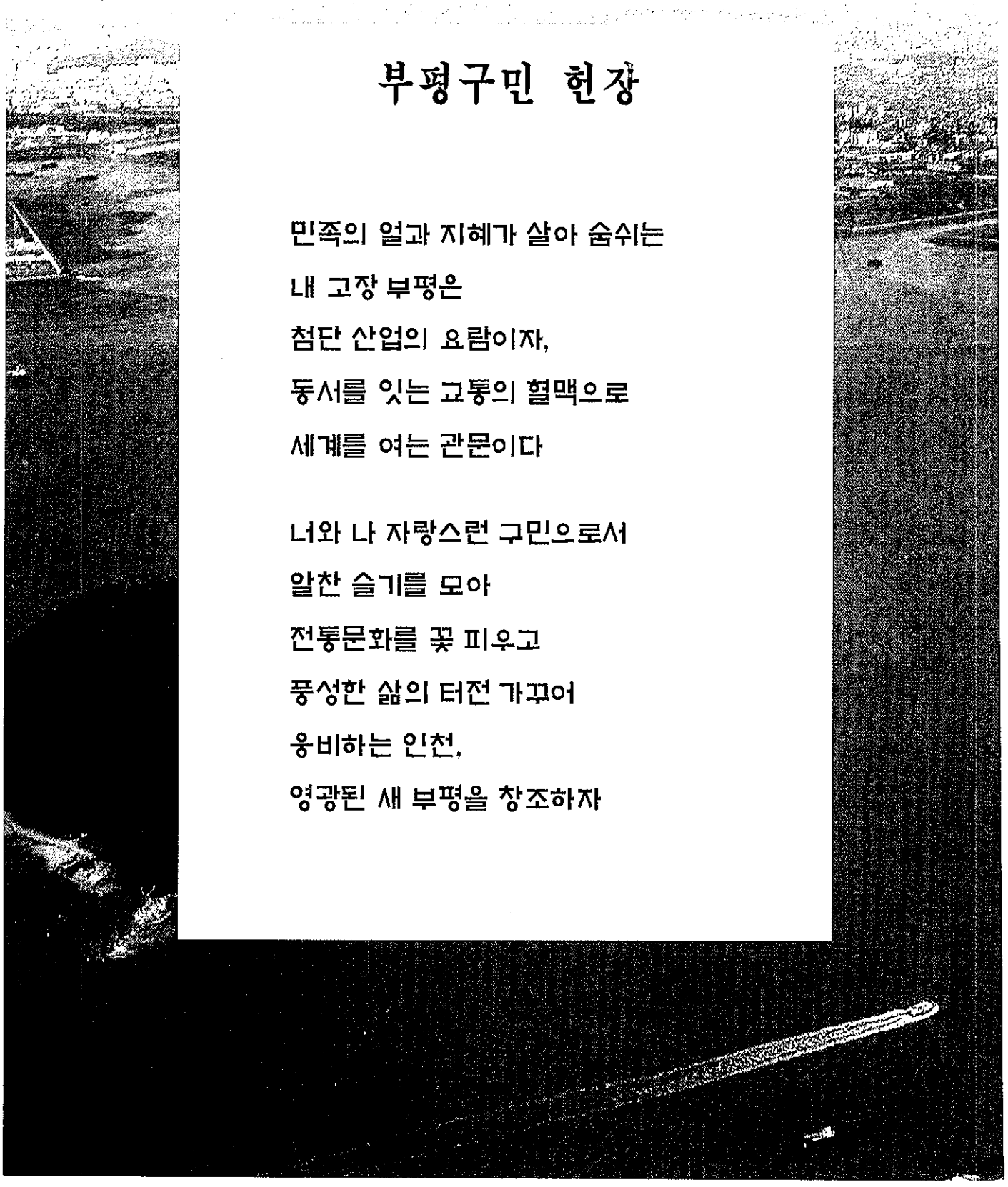
고속도로가 뚫리고 부평 4공단이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인구의 급작스런 유입과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군이 형성되어 이제는 인구의 과밀을 걱정할 단계까지 고속으로 성장하였고 외지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부평지역의 독자적 문화와 역사적 중요성을 새롭게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전에 이 지역의 향토사가이신 조기준 선생님의 부평사 연구가 발간되어 부평지역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에 본격적인 부평사를 집필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3년여의 자료수집과 정리를 거쳐 부평의 역사를 다룬 부평사를 펴내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평사가 널리 활용되어 부평구민 모두에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해 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부평의 향토사 및 행정연구와 향토 문화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 수집 및 발간에 애쓰신 학계 여러분과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 연구소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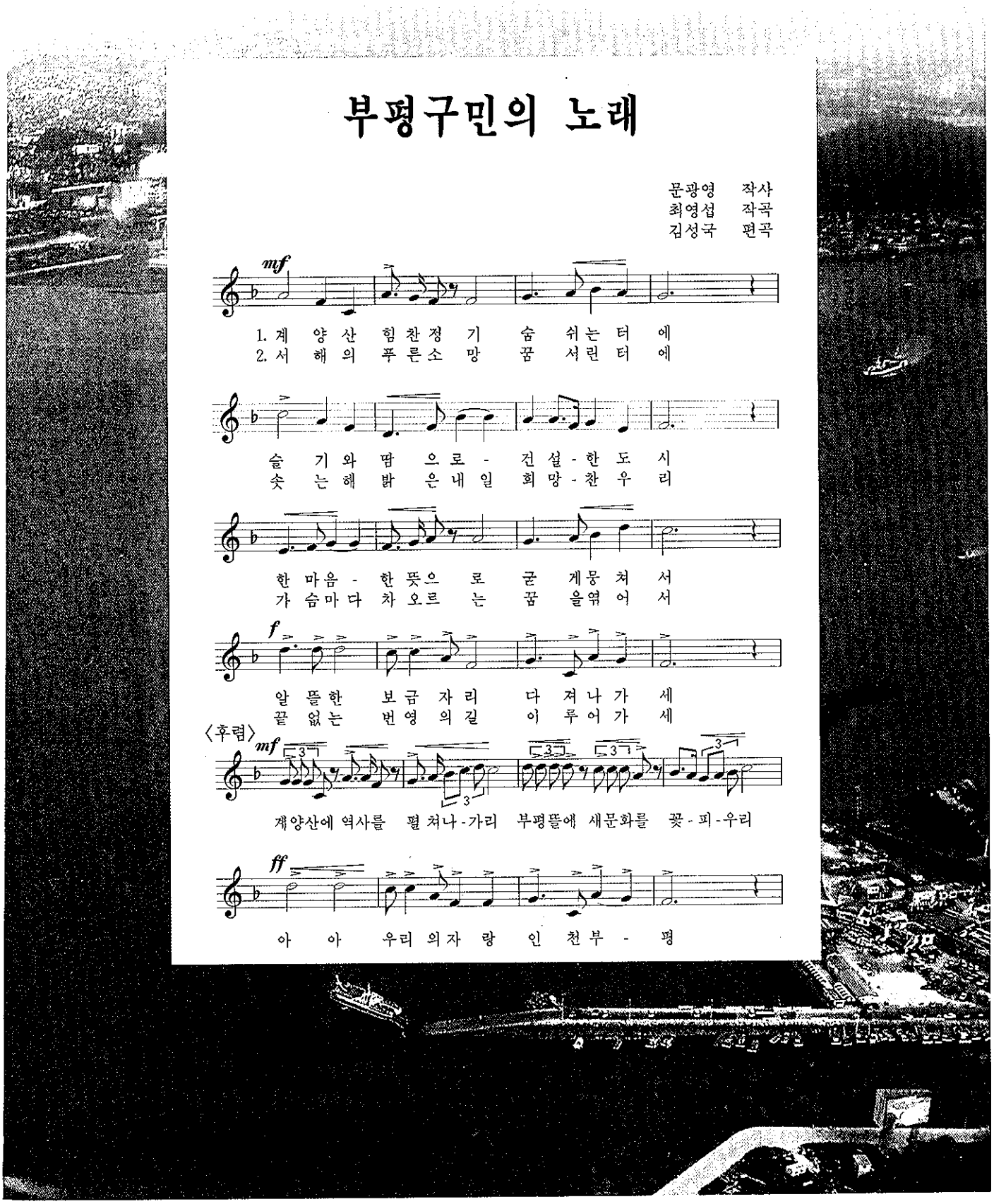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 부평구민 헌장

민족의 얼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내 고장 부평은
첨단 산업의 요람이자,
동서를 잇는 교통의 혈맥으로
세계를 여는 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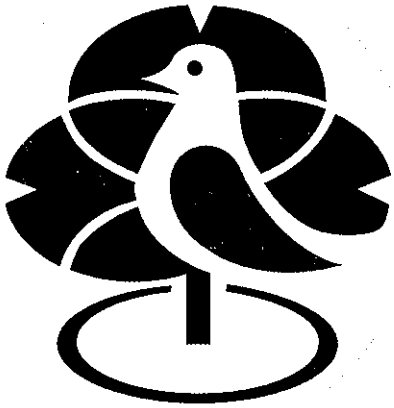
너와 나 자랑스런 구민으로서
알찬 슬기를 모아
전통문화를 꽃 피우고
풍성한 삶의 터전 가꾸어
웅비하는 인천,
영광된 새 부평을 창조하자



# 부평구민의 노래

문광영 작사
최영섭 작곡
김성국 편곡

## 區 상징마크



부평의 「P」자와 은행나무를 형상화 하여 자연의 조화, 구민의 화합,무궁한 번영을 뜻한다.

## 區鳥 : 비둘기



전통적인 텃새로 온순하고 소박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구민의 성품과 희망을 상징한다.

## 區木 :



병충해에 강하고 곧게 안정과 화합속에 힘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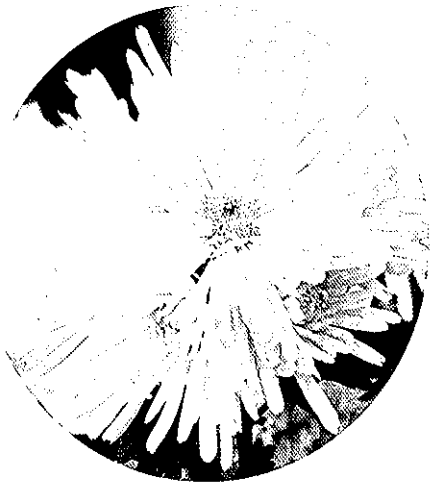


##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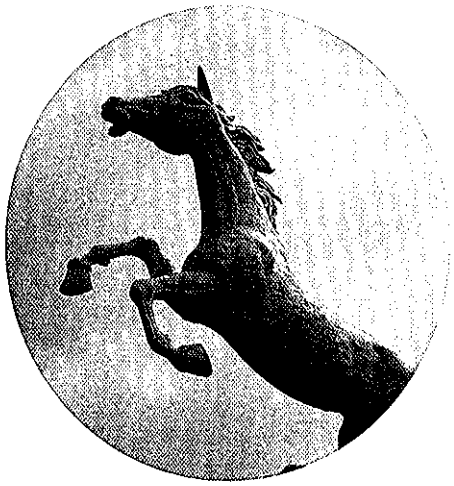
자라는 경제수목으로 발전함을 상징한다.

## 區花 : 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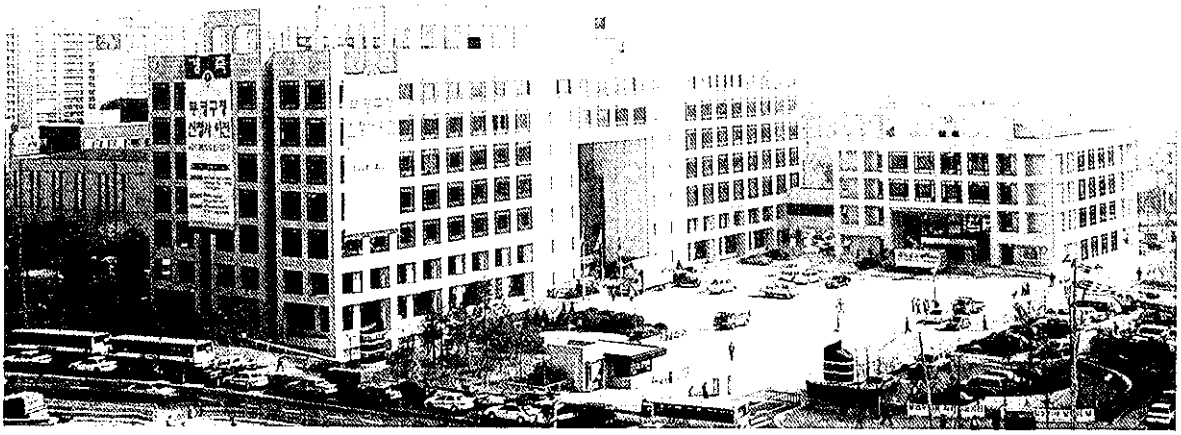
풍토에 강한 가을화단의 대표적인 꽃으로 다정하고 끈기있는 구민을 상징한다.

## 區상징물 : 백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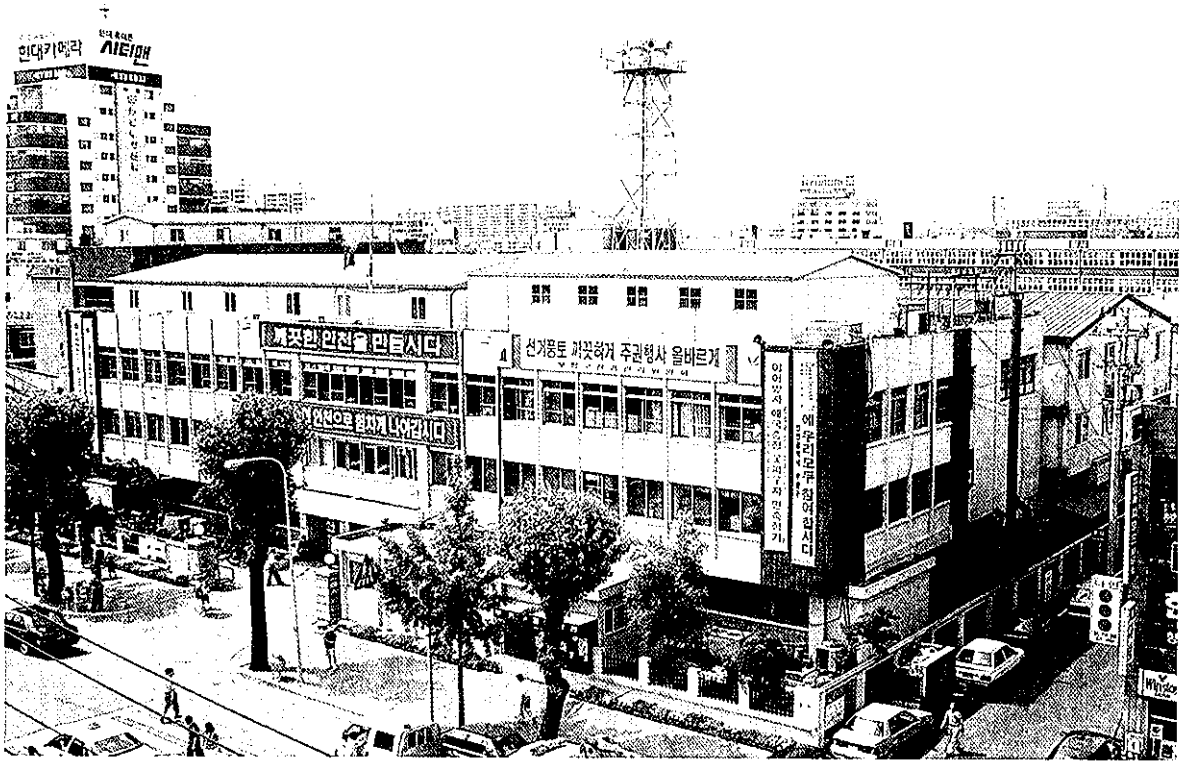


건강한 부평구민과 힘차게 발전하는 부평구의 기상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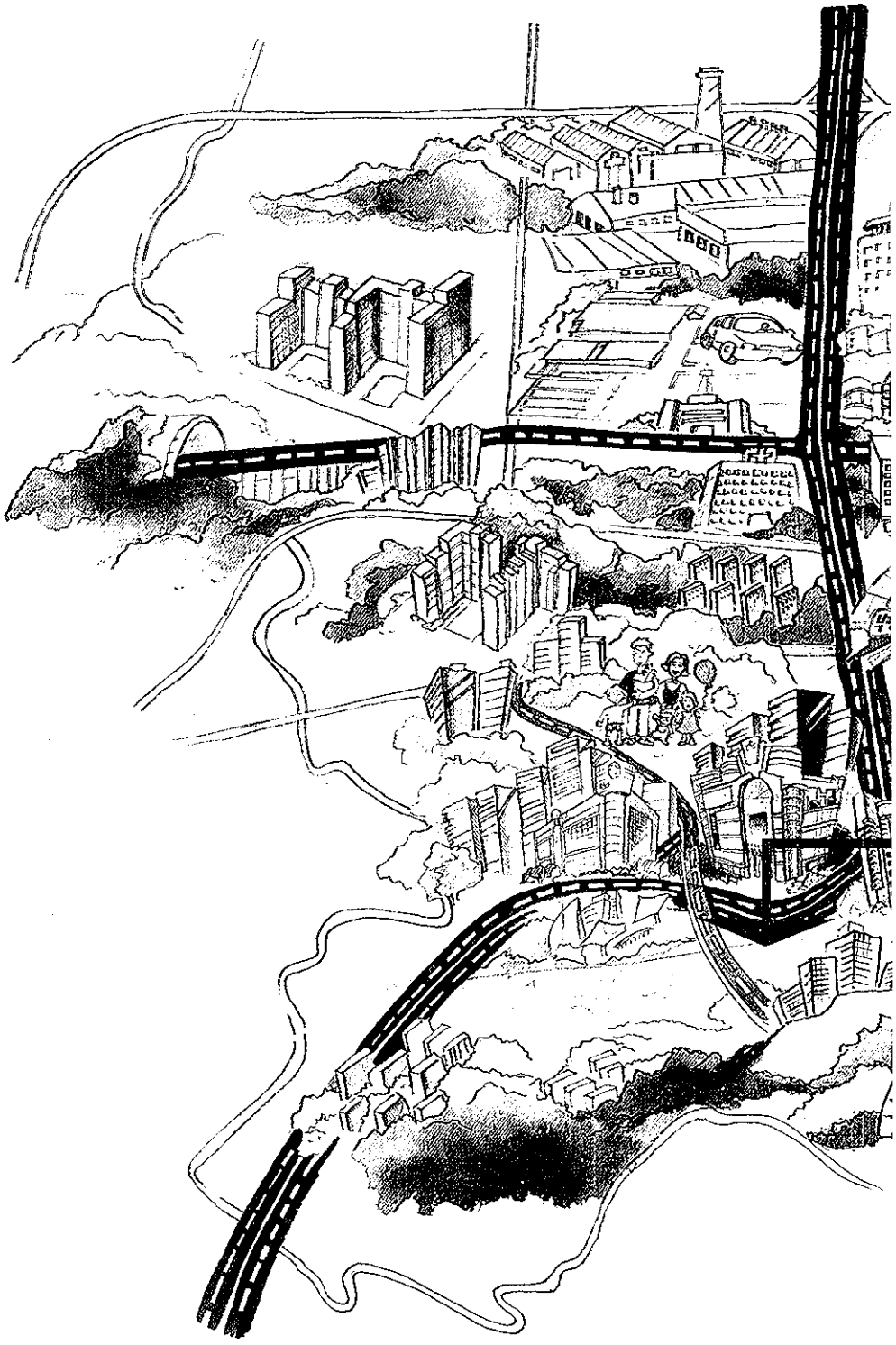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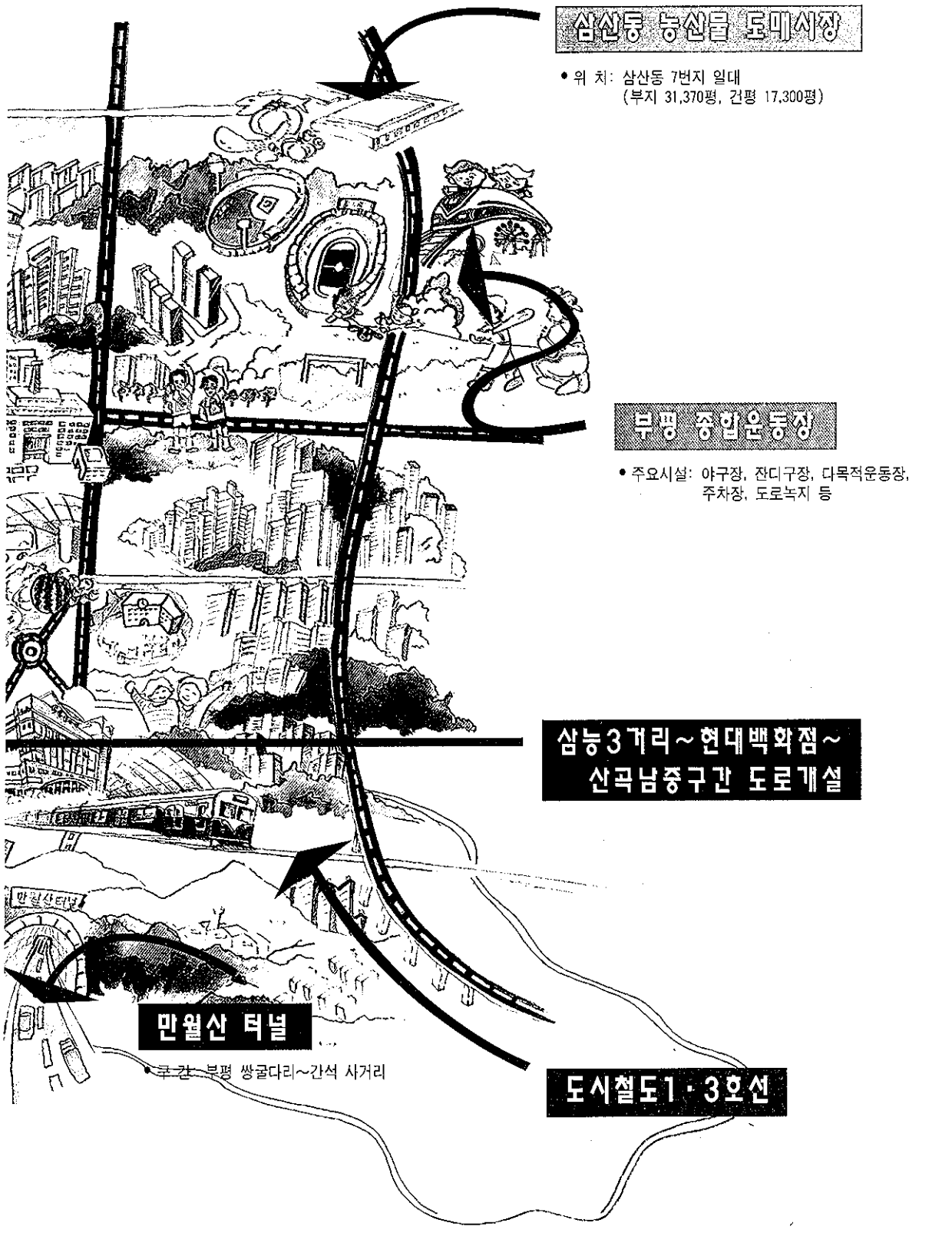
▲ 1996년 11월 2일에 개청한 부평구 신청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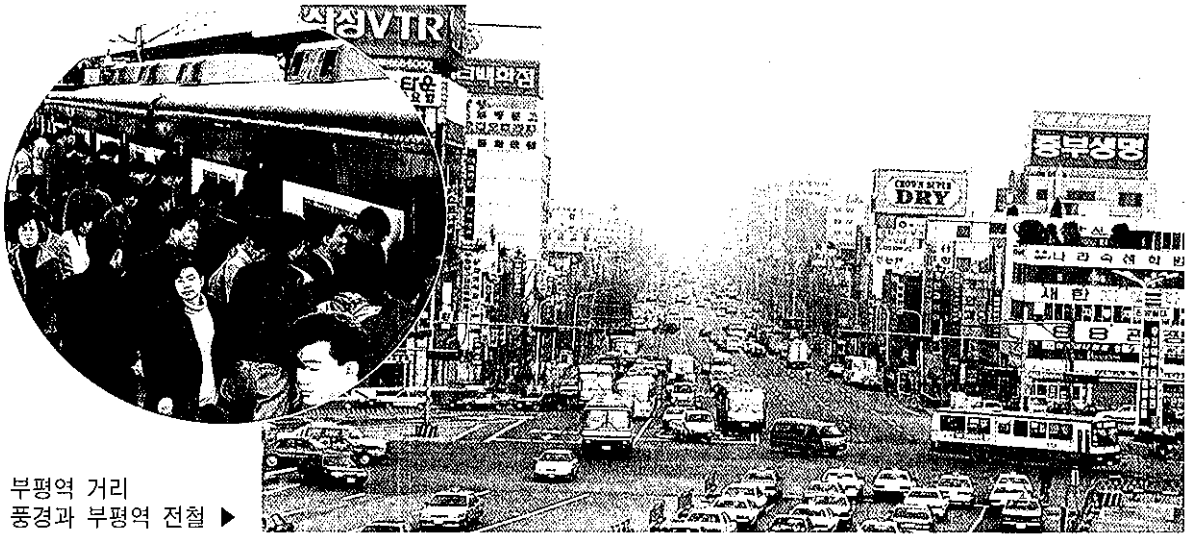

▲북구 및 부평구 청사로 사용했던 구청사 전경

▲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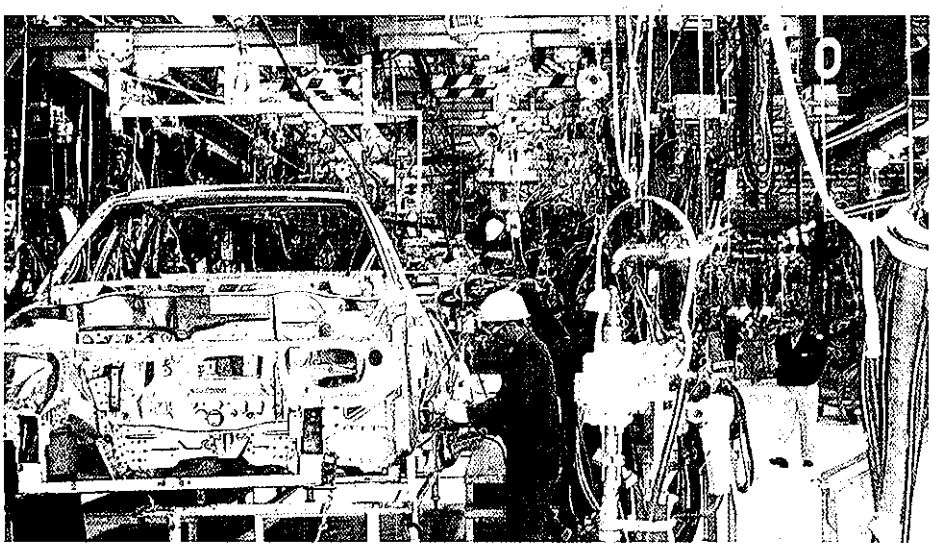





▲ 21세기를 열어갈 부평구 종합발전계획 시가지 모형




부평역 거리
풍경과 부평역 전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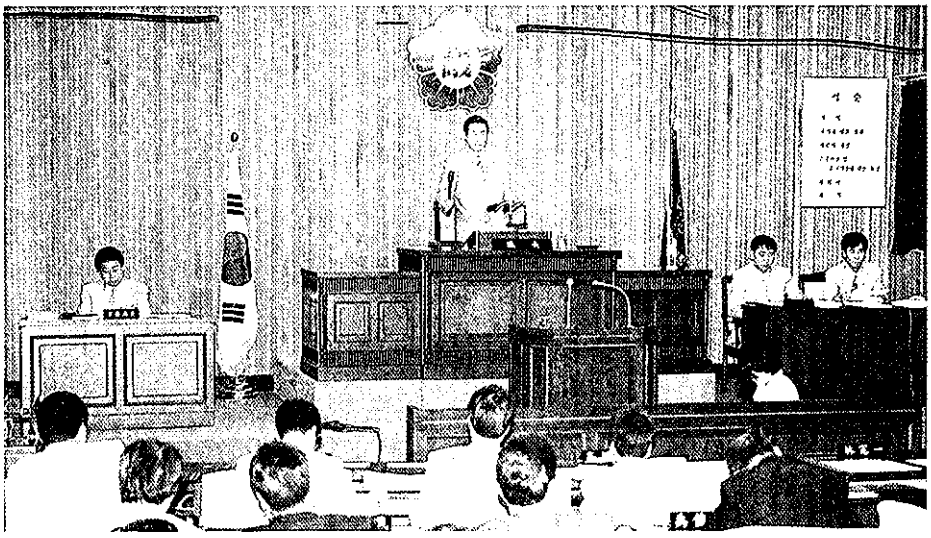
◀ 대우자동차
생산라인




새롭게 변모해가는
갈산아파트단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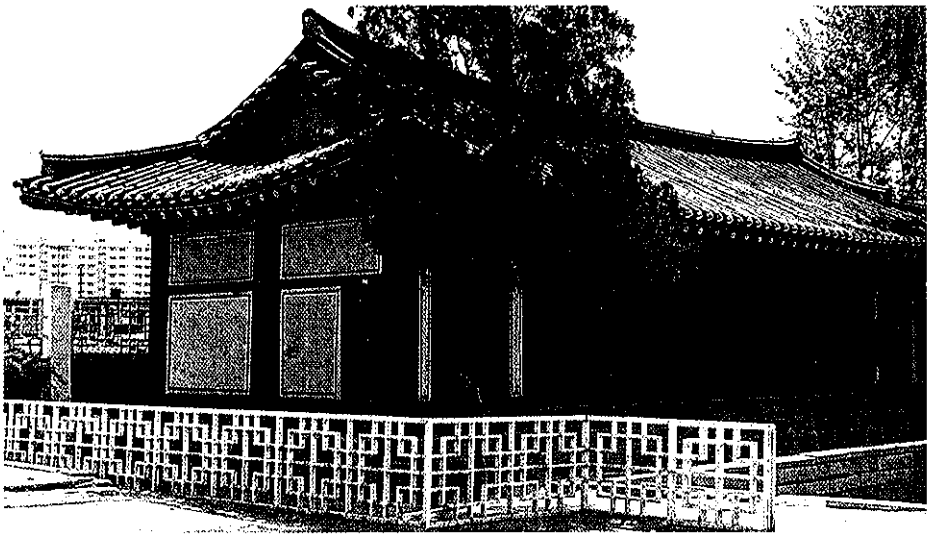

◀ 국회의원 선거철의
부평시가지



민의의 전당
구의회 회의 전경 ▶



◀ 친절과 봉사의 구정
민원업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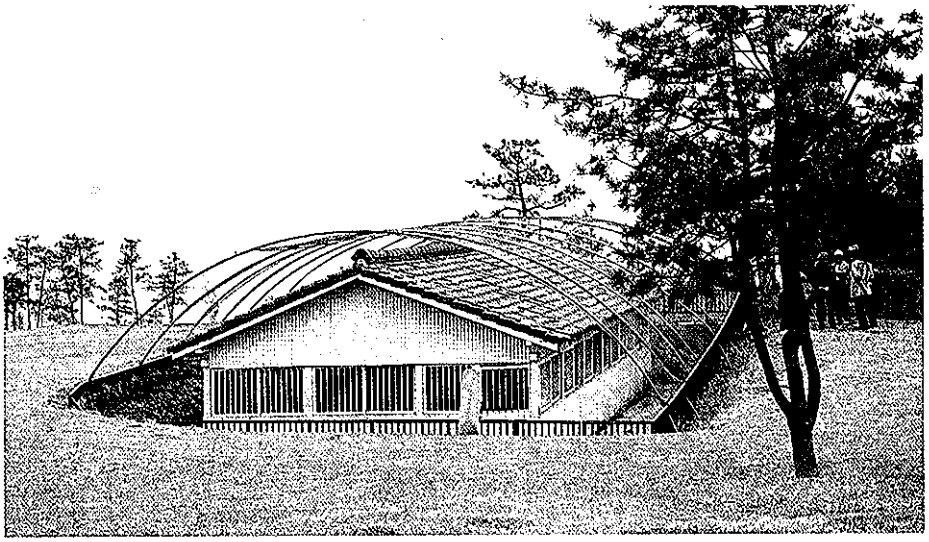
◀ 옛 부평도호부청사 자리(계산동 부평국교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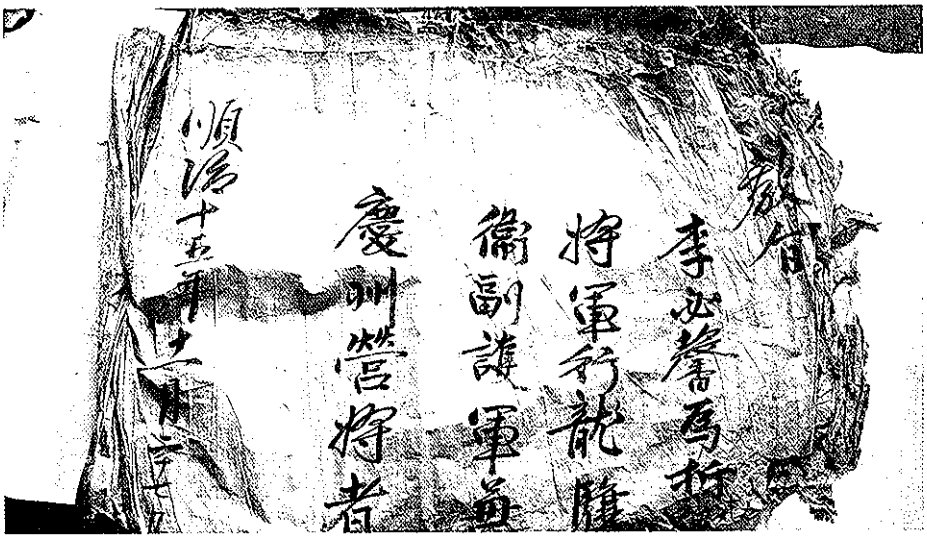
임금이 활을 쏘았다는 어사대(계산동 소재) ▶



◀ 부평향교 (계산동 소재)



녹청자 도요지
(서구 경서동 소재) ▶




◀ 임금이 벼슬을
내리는 교지



송덕비
(계산동소재) ▶

# 부평의 연혁

- 475년 (고구려 장수왕 58년): 주부토군
- 757년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한산주(한주)소속 장제군
  : 무성 · 김포 · 동성 · 분진현 등
- 940년 (고려 태조 23년): 수주
- 1018년 (고려 현종 9년): 수주지주사
- 1150년 (고려 의종 4년): 안남도호부 : 금주 · 동성 · 통진 · 공암 · 김포 · 수안현 등
- 1215년 (고려 의종 2년): 계양도호부
- 1308년 (고려 충렬왕 34년): 길주목
- 1310년 (고려 충의왕 2년): 부평부
- 1413년 (조선 태종 13년): 부평도호부: 15개면 84개리
  ※ 1438년(세종20년), 1505년(연산11년), 1698년(숙종24년) 세차례나 부평현으로 강등 되었다가 부평도호부로 환원
- 1895년 1월 : 부평군
- 1896년 8월 4일: 경기도 부평군
- 1914년 3월 1일: 부평군이 폐지되고 부천군으로 통합
- 1936년 10월 1일: 부천군의 일부가 인천부에 편입
- 1940년 4월 1일: 부천군의 4개면이 인천부에 편입
- 1945년 8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인천부를 인천시로 승격
- 1968년 1월 1일: 출장소는 폐지되고 구제 실시로 부평지역은 북구에 속함
- 1981년 7월 1일: 인천직할시로 승격, 이후 관할구역은 큰 변경없음
- 1988년 1월 1일: 북구와 서구로 나뉨
- 1989년 1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 북구로 편입
- 1995년 3월 1일: 북구는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뉨

# 目　　次

간 행 사 / 부평구청장 최용규　　題字 : 文谷 박병천

발간축사 / 부평구의회의장 이복란

## 序　　章

## 第1篇 地　　理


第1章 자연환경(自然環境) ---- 45

1. 위치·면적 ---- 45

1) 위치(位置) ---- 45

2) 면적(面積) ---- 47

2. 지질·지형 ---- 48

1) 지질(地質) ---- 48

2) 지형(地型) ---- 49

3. 기　　후 ---- 55

1) 기온(氣溫) ---- 58

2) 강수(降水) ---- 60

3) 바람 ---- 62

第2章 인문경관(人文景觀) ---- 64

1. 인구현황(人口現況) ---- 64

1) 인구추이(人口推移) ---- 64

2) 인구분포(人口分布) ---- 67

3) 인구구조(人口構造) ---- 69

2. 지역개황(地域概況) ---- 71
1) 지역적 특성 ---- 71
2) 기능별 지역구조 ---- 73
3) 각 동(洞)의 성격 ---- 75
4) 부평지역의 분구 ---- 77

第3章 부평의 지지(地誌)와 고지도(古地圖) ---- 79
1. 지지(地誌) ---- 79
1) 전국 지리지에 포함된 부평의 지지 ---- 79
2) 부평의 읍지 ---- 84
2. 고지도(古地圖) ---- 90
1) 지도류에 포함된 부평지도 ---- 90
2) 지지에 포함된 지도 ---- 93

# 第2篇 歷 史

第1章 개항이전(改港以前) ---- 111
1. 고대의 부평 ---- 111
1) 선사시대 ---- 111
2) 삼한시대 ---- 114
3) 삼국시대 ---- 116
4) 통일신라시대 ---- 120
2. 고려시대 ---- 121
1) 수주시대 ---- 122
2) 안남(도호부)시대 ---- 123
3) 계양(도호부)시대 ---- 124
4) 길주시대 ---- 124
5) 부평시대 ---- 125

3. 조선시대 ---- 127
1) 부평부(府)의 변천 ---- 127
2) 양란과 부평향고 ---- 130
3) 양요와 부평 ---- 136

第2章 개항이후(改港以後) ---- 144
1. 부평연안의 방비노력 ---- 144
2. 부평군으로 변천 ---- 148

第3章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 152
1. 부평군에 편입과 변천 ---- 152
2. 3·1운동과 산미증식 계획 ---- 153

第4章 光復以後 ---- 157
1. 정부수립과 행정제도정비 ---- 157
2. 구제(區制)실시 이후 ---- 159

# 第3篇 政 治

第1章 정치발전(政治發展) ---- 165
1. 광복직후의 정치 ---- 165
2. 제1~2공화국시대의 정치 ---- 168
3. 제3~6공화국시대의 정치 ---- 170

第2章 정당활동(政黨活動) ---- 172
1. 광복직후 ---- 172
2. 제1~2공화국시대 ---- 174
3. 제3~6공화국시대 ---- 177
4. 지방자치운동 ---- 182

第3章 선거양상(選擧樣相) ---- 186
1. 정부통령선거 ---- 186
2. 국회의원선거 ---- 190
3. 국민투표 ---- 198
4.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 200
5.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 201
6.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 202
7. 통일자문회의 ---- 205

第4章 선거관리위원회 ---- 207
1. 인천직할시 북구갑 선거관리위원회 ---- 207
2. 인천직할시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 ---- 215

# 第4篇 行 政

第1章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의 변천 ---- 221
1. 행정구역의 변천 ---- 221
1) 안남(安南), 계양(桂陽)도호부 시대 ---- 221
2)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시대 ---- 224
3) 부평군(富平郡) 시대 ---- 225
4) 부천군(富川郡) 시대 ---- 227
5) 인천부(仁川府) 및 인천시(仁川市) 시대 ---- 230
6) 인천시(仁川市) 및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 북구 시대 ---- 235
7)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대 ---- 246
2. 행정기구의 변천 ---- 255
1) 고려시대 ---- 255
2) 조선시대 ---- 256

3) 일제 및 미군정시대 ---- 260
4) 대한민국 수립 이후 ---- 267

第2章 행정시책(行政施策)의 전개(展開) ---- 284
1. 내무행정(內務行政) ---- 284
2. 재무행정(財務行政) ---- 308
1) 지방 재정 ---- 308
2) 지방 세정 ---- 313
3) 재산 관리 ---- 320
3. 상공행정(商工行政) ---- 324
1) 상공행정의 변천 ---- 324
2) 상공행정의 특징 ---- 340
4. 건설행정(建設行政) ---- 342
1) 건설행정의 특징 ---- 342
2) 건설행정의 변천 ---- 343
5. 주택행정(住宅行政) ---- 357
1) 주택행정의 변천 ---- 358
2) 주택행정의 특징 ---- 395
6. 상수도행정(上水道行政) ---- 403
1) 상수도행정의 변천 ---- 403
2) 상수도 시설 ---- 405
3) 송·배수 시설 ---- 414
4) 급수 시설 ---- 417
5) 수질 관리 ---- 420
7. 보건위생행정(保健衛生行政) ---- 424
1) 보건위생행정의 변천 ---- 424
2) 보건행정의 특징 ---- 429
3) 위생행정의 특징 ---- 447

8. 사회복지행정(社會福祉行政) ---- 454
1) 사회복지행정의 변천 ---- 454
2) 사회복지시설 ---- 461
9. 문화공보행정(文化公報行政) ---- 463
1) 문화행정 ---- 463
2) 공보행정 ---- 478
10. 도시계획행정(都市計劃行政) ---- 482
1) 도시계획행정의 변천과 특징 ---- 482
2) 도시계획사업 ---- 494
11. 민방위행정(民防衛行政) ---- 509
1) 민방위제도의 변천 ---- 509
2) 부평구의 민방위현황 ---- 513
12. 소방행정(消防行政) ---- 518
1) 소방행정의 변천 ---- 518
2) 구 소방행정의 특징 ---- 530
13. 새마을행정 ---- 533
1) 새마을행정의 특징 ---- 533
2) 새마을행정의 변천 ---- 534

# 第5篇 産業·經濟

第1章 농업(農業) ---- 563
1. 농업의 변천 ---- 563
1) 개항기 이전의 농업활동 ---- 563
2) 개항기의 농업활동 ---- 564
3) 일제 강점기의 농업활동 ---- 565

4) 부평수리조합의 설치 ---- 566
5) 광복이후의 농업활동 ---- 568
2. 농업의 특징 ---- 571

第2章 공업(工業) ---- 572
1. 공업의 변천 ---- 572
1) 개항기의 공업활동 ---- 572
2) 일제강점기의 공업활동 ---- 573
3) 광복이후의 공업활동 ---- 575
4) 정부수립 이후 구제(區制) 이전의 공업활동 ---- 577
5) 구제(區制) 이후의 공업활동 ---- 583
2. 공업의 특징 ---- 615

第3章 상업(商業) ---- 617
1. 상업의 변천 ---- 617
1) 개항기의 상업활동 ---- 617
2) 일제강점기의 상업활동 ---- 618
3) 광복이후의 상업활동 ---- 619
4) 정부수립 이후 구제(區制) 이전의 상업활동 ---- 620
5) 구제(區制) 이후의 상업활동 ---- 620
2. 상업의 특징 ---- 627

第4章 금융(金融) ---- 628
1. 금융의 변천 ---- 629
2. 금융기관 현황 ---- 632

第5章 무역(貿易) ---- 640
1. 무역의 변천 ---- 641
2. 수출입 활동 ---- 643

第 6 章 교통(交通) ---- 651
1. 교통의 변천 ---- 651
1) 도로교통의 발달 ---- 651
2) 철도교통의 발달 ---- 674
2. 교통의 특징 ---- 686

第 7 章 통신(通信) ---- 687
1. 통신의 변천 ---- 687
1) 개항이후 광복이전의 통신 ---- 687
2) 광복이후 구제(區制) 이전의 통신 ---- 690
3) 구제(區制) 이후의 통신 ---- 692
2. 통신의 특징 ---- 700

第 8 章 동력원(動力源) ---- 701
1. 동력원의 변천 ---- 701
1) 전력사업의 발전 ---- 701
2) 가스사업의 발전 ---- 708
2. 동력원의 특징 ---- 712

第 9 章 산업경제단체(産業經濟團體) ---- 713
1. 정부투자기관 ---- 713
2. 금융기관 ---- 721

# 第 6 篇 社 會

第 1 章 사회(社會) ---- 739
1. 사회의 변천 ---- 739
2. 사회의 특징 ---- 748

第 2 章 사회운동(社會運動) ---------- 752
1. 청소년 운동 ---------- 752
1) 청소년 운동 ---------- 752
2) 여성 운동 ---------- 757
2.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 ---------- 760
1) 새마을 운동 ---------- 760
2) 바르게 살기 운동 ---------- 763
3. 노동운동 ---------- 765
4. 소비자보호운동 ---------- 767
5. 복지사업 ---------- 768
1) 저소득층 생활보호 ---------- 769
2) 근로자 보호 ---------- 770
3) 의료 보호 ---------- 771
4) 노인 복지 ---------- 771
5) 부녀 복지 ---------- 772
6) 아동 복지 ---------- 773
7) 영·유아 보호사업 ---------- 774
8) 청소년 복지 ---------- 775
9) 보훈 복지 ---------- 778

第 3 章 사회단체(社會團體) ---------- 779
1. 공공단체 ---------- 779
2. 민간단체 ---------- 783
3. 기타단체 ---------- 794

# 第7篇 文 化


第1章 종교(宗敎) ---- 797

1. 유교(儒敎) ---- 797
2. 불교(佛敎) ---- 802
3. 천주교(天主敎) ---- 808
4. 기독교(基督敎) ---- 811
5. 민족종교(民族宗敎) ---- 824
6. 종교단체(宗敎團體) ---- 825

第2章 교육(敎育) ---- 826

1. 개항기의 교육 ---- 826
2. 일제강점기의 교육 ---- 829
3. 광복이후의 교육 ---- 833
4. 정부수립 이후의 교육 ---- 835
5. 교육단체 ---- 844

第3章 예술(藝術) ---- 857

1. 문학 ---- 857
2. 음악 ---- 861
3. 미술 ---- 863
4. 공연예술 및 영화 ---- 865

第4章 언론·출판 ---- 869

1. 언론의 변천 ---- 869
2. 출판의 변천 ---- 880

第5章 체육(體育) ---- 885
1. 체육의 변천 ---- 885
2. 체육의 특징 ---- 898
3. 체육단체 ---- 902
4. 체육의 근황 ---- 904

第6章 부평의 시문(詩文) ---- 908

# 第8篇 姓氏·人物

第1章 성씨(姓氏) ---- 939
1. 관향 성씨 ---- 939
2. 성씨의 분포 ---- 944

第2章 인물(人物) ---- 958
1. 고려시대의 인물 ---- 958
2. 이조시대의 인물 ---- 962
3. 개화 이후(開化 以後) ---- 994
4. 근세(近世)의 인물 ---- 996

# 第9篇 文化財·遺跡地

第1章 문화재(文化財) ---- 1001
1. 지정문화재 ---- 1001
2. 문화재 자료 ---- 1005

第2章 유적(遺跡) ---- 1007
1. 유적지 ---- 1007
2. 비 문 ---- 1013

第3章 기념물 ---- 1025

# 第 10 篇　方言과 地名

第 1 章 방언 ---- 1031
1. 방언 조사의 범위와 방법 ---- 1031
2. 부평 방언의 특성 ---- 1034
3. 맺음말 ---- 1082

第 2 章 지명 ---- 1083
1. 「전국지리지」·「토지」·「읍지」에 나타난 부평의 지명 ---- 1083
2. 소지명(小地名) ---- 1107

第 3 章 각 동(洞)의 유래(由來) ---- 1136
1. 부평구 ---- 1136
2. 계양구 ---- 1141
3. 서구 ---- 1148

# 第 11 篇　민속과 구비전승자료

第 1 章 민속 ---- 1157
1. 민속신앙 ---- 1157
2. 민속생활사 자료 ---- 1181
3. 세시풍속 ---- 1198
4. 민속놀이 ---- 1210
5. 민속극과 연극 ---- 1219
6. 민간의료 ---- 1229

第 2 章 구비전승자료 ---- 1234
1. 민요 ---- 1234
2. 전설 ---- 1256
3. 금기언(禁忌言) ---- 1299

# 第 12 篇　富平의 未來像

1.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
2. 한반도·동북아시아의 교통요지 부평
3. 부평대학교와 부평공업전문대학 신설
4. 사회복지의 향상

## 부록(附錄)

富平의 歷代 先生案
富平의 年表
歷代 구청장 일람
富平區 議會 의원 명단
富平區 산하 간부 명단

# 序　　章



# 서 장 (序章)

오늘의 부평(富平－인천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은 계양산(桂陽山)을 진산(鎭山)으로 주거지 및 공단지대와 농경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대략 76,87㎢의 면적과 75만에 이르는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1994년 기준).

북쪽은 한강유역의 김포평야와 남쪽은 인천항에 근접한 남동구와 서쪽은 인천 해안쪽의 서구와 동쪽은 부천시 및 서울시 강서구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인천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전철, 고속도로, 국도 등으로 인천권과 서울권을 연결해주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부평이라는 고을 명칭(邑號)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 충선왕(忠宣王) 2년(1310)의 일이다. 당시 이 고장은 길주목(吉州牧)이었으나 전국의 여러 목(牧)을 폐지함에 따라 부평부(富平府)로 강등되었고[1], 이때부터 '부평'이라는 지명이 쓰여지기 시작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686년전이었다.

부평은 문헌상으로는 고구려시대에 주부토군(主夫吐郡)이라고 한 것이 첫 번째 고을이름이다. 그 뒤 시대에 따라 장제(長堤), 수주(樹州), 안남(安南), 계양(桂陽), 길주(吉州), 부평 등으로 불리었다.

그러면 이 고장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존하는 옛 문헌이나 기록이 거의 없어 이 지역에 대한 고대사회의 사실을 밝히기가 어렵고, 고고학적 발굴작업이나 면밀한 지표조사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부평에서는 1950년대에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화강석의 돌도끼(石釜) 3점이 발견되고, 인근 인천지역에서도 돌도끼 10여 점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부족장급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 지석묘(支石墓;고인돌)가 여러 기(基) 발견되었다.[2] 이같은 유물과 유적의 발견으로 미루어 부평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청동기문화를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와 『삼국지(三國志)』에 의하면 한강(漢江) 이남 지역의 남방 사회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한(韓)족의 정치 사회는 진국(辰國)이다. 진국은 어떤 진보와 통일된 체제의 국가사회가 아니라 여러 부족사회를 포함한 대집단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B.C 2세기 경 진국은 북쪽에서 남하·이주해 온 유이민과 철기문화의 보급으로 남방사회는 지역적으로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등의 부족연맹체 사회로 발전하여 삼한시대를 이루게 된다.[3]

---

1) 『高麗史』 卷56志 卷第10地理1 楊廣道 條.
2) 李慶成, 「石器時代의 仁川」 『畿甸文化硏究』 제3집, 1973, pp.13-16.
3) 『後漢書』 「東夷傳」 韓條 :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

삼한[4]시대의 부평은 진한이 영역에서도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에 속해 있었으며[5], 우휴모탁국은 부평을 중심으로 김포, 양천, 시흥 등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영역으로 하고 있었다.

한반도에는 주변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면서 몇 개의 초기국가가 형성되었으며 초기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방지역에는 고구려, 남방인 삼한지역에는 백제와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립되어, 이른바 삼국정립 시대를 출현하게 되었다.

온조(溫祚)가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에 백제를 건국(B.C 18년)하고[6],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평지역의 우휴모탁국은 국력이 약화되고 끝내 소멸된 것이며, 이후 부평은 백제의 영역이 되었다.

삼국시대의 부평지역은 삼국의 각축이 진행되는 동안 그 성쇠에 따라 귀속을 달리하였다. 특히 부평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흐르는 한강에 인접해 있으므로, 3국의 한강 유역 쟁탈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즉 백제가 한강 유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초기부터 근초고왕 이후)에는 백제에 귀속하고,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점유하고 있을 때(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후)에는 고구려에 예속하고,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하고 있을 때(진흥왕대 이후)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부평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점유하고(475) 이곳에 주부토군(主夫吐郡)을 설치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문헌에 나타나는 최초의 부평읍호이기도 하다.[7]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부평지역이 신라의 판도로 편입된 후에도 주부토군은 전과 같이 존속되었다. 그러나 경덕왕 16년(757)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지명들을 한자식(漢字式)의 이름으로, 한화정책의 시행과 지방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주부토군'을 '장제군'으로 개칭하게 되었다.[8]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王建)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23년(940)에는 지방 제도를 갖추어 각 주·부·군·현(州·府·郡·縣)의 명호(名號)를 개정하면서[9], 신라때의 '장제군'을 '수주(樹州)'로 고치었다. 그후 성종 14년(995)에 단련사(團鍊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에 이를 혁파

---

4) 三韓의 位置와 境域문제에 대하여 학계에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李丙燾의 說을 참고하였다.

5)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 考察」『震檀學報』 제4권, 1936.:震檀學會,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p. 284.

6) 『三國史記』 卷 第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條.

7) 『三國史記』 券37 雜志 第6地理(4) 高句麗 韓山州 條 : 『高麗史』 卷56 志 卷 第10 地理1 安南都護府 條 등 많은 기록이 있다.

8) 『高麗史』 卷56志 卷 第10 地理1 安南都護府 條.

하였다.

고려초기의 지방통치는 중앙에서 행정관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 호족(豪族)들의 자치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다가 성종 2년(983)에 12목(牧)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그후 성종 14년에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전국을 10도(道)로 나누는 동시에 중용한 주·군에 도단련사(都團鍊使)·단련사·자사(刺史) 등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12목을 12절도사(節度使)로 변경하는 등 지방제도의 체제를 강화해 나갔다.[10]

현종 9년(1018)에는 전국에 4대도호부(大都護府)·8목(牧)·56지주사(知州事)·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이 설치되어 지방행정구역이 크게 개편되면서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 이때에 수주(樹州)에도 지주사(知州事)가 설치되었다.

그후 의종 4년(1150)에 '수주'는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승격되었는데, '안남'은 '계양산(桂陽山)'의 다른 이름 '안남산'에서 따온 것으로 부평의 지명은 이때부터 '안남'으로 불려졌다. 고종 2년(1215)에 '안남도호부'는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개칭되었는데, 계양은 계양산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 34년(1308)에는 '계양도호부'가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되었으나, 2년 뒤인 충선왕 2년(1310)에 여러 목(牧)을 폐지하면서 강등시켜 '부평부(富平府)'로 삼았다. '부평'이라는 지명은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금주(衿州:시흥군)·동성(童城:김포군)·통진(通津:김포군)·공암(孔巖:김포군)·김포(金浦:김포군)·수안(守安:김포군) 등 여섯 현(縣)이 속현으로 소속되었다.[11]

부평의 지명은 고려왕조가 끝날때까지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지방행정제도상 몇 차례 현(縣)으로 강등되기도 하고, 다시 도호부로 승격되거나 복구되는 등 조선말기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다.

조선의 태종 13년(1413)에 있었던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부평은 도호부(富平都護府)가 되었으며, 세종 20년(1438)에는 현(縣)으로 강등된 바가 있으나, 세종 28년(1446)에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다. 부평이 현으로 강등된 것은 세종이 대신들의 권유로 온양 온천에 가서 목욕한 후 병환 치료에 효험이 있었기 때문에 온천에 대한 관심과 도성에 가까운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여 온천을 탐색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백방으로 탐색을 하였어도 끝내 찾지 못하였다. 세종은 부평의 관민이 민폐를 두려워하여 온천의 소재지를 숨기고 고하지

10) 震檀學會, 『韓國史』「中世篇」 乙酉文化社, 1961, pp.118~122.

11) 『高麗史』 卷56 志卷 第10 地理 1 安南都護府 條

않은 것이라 하여 부평도호부를 현으로 강등시킨 것이다. 그러나 온천 발견의 가능성이 없음을 깨달은 세종은 다시 도호부로 복구시켰던 것이다.

그후 연산군 11년(1505)에 이곳 출신의 환자(宦者 : 내시) 김순손(金舜孫)이 죄가 있어 그를 처형하고 도호부가 폐지되었으나 중종 원년(1506)에 다시 설치되었다.[12]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나 공신의 출생지인 경우에 그 지역의 읍호를 승격시켜 주는가 하면, 반역자 및 패륜아의 출신지이거나 적에게 투항한 지역의 읍호를 강등시키는 등의 관례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부평도호부'의 경내(境內)는 부치(府治)에서 동쪽으로 금천현(衿川縣) 경계까지 34리, 양천현(陽川縣) 경계까지 15리, 남쪽으로 안산군(安山郡) 경계까지 48리, 인천부(仁川府) 경계까지 15리, 서쪽으로 큰바다까지 14리, 북쪽으로 김포현(金浦縣) 경계까지 17리, 통진현(通津縣) 경계까지 36리, 서울까지 55리가 된다고 하였다.[13]

숙종 11년(1685), 부평에 영(營)이 설치되었는데, 진무전영장(鎭撫前營將)은 부사가 겸직하였다. 그리고 숙종 24년(1698)에는 장능(章陵 : 인조의 아버지 元宗陵)에 방화한 죄인 최필성(崔弼成)의 출생지가 부평이기 때문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숙종 33년(1707)에 다시 도호부로 복구된 바가 있다.[14]

『여지도서』에 의하면, '부평도호부'의 방리(坊里)는 부내면(府內面)과 부치(府治) 동쪽 5리에 동면(東面), 동쪽 10리에 당산면(堂山面), 동쪽 15리에 주화곶면(注火串面), 동남 20리에 상오정면(上梧丁面), 동남 20리에 하오정면(下梧丁面), 동쪽 30리에 수탄면(水呑面), 동남 30리에 옥모면(玉毛面), 남쪽 15리에 석천면(石川面), 남쪽 20리에 동소정면(同所井面), 남쪽 5리에 서면(西面), 남쪽 10리에 마장면(馬場面), 서남쪽 20리에 석곶면(石串面) 서쪽 20리에 모월곶면(毛月串面), 북쪽 15리에 황어면(黃漁面) 등 15개 면이 있다.[15]

태종 13년(1413)에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부평지역은 도호부를 오랜동안 유지하다가(현으로의 강등과 도호부 복구가 몇차례 있었음), 고종 32년(1895) 갑오개혁에 의한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전국을 23부(府)로 개편하고, 336군(郡)을 신설하여 23개부 밑에 분속시켰다.[16]

이때에 '부평도호부'는 '부평군(富平郡)'이 되고 '인천부'에 속해있다가, 다음해(1896)에 13도

---

12) 『新增東國與地勝覽』 富平都護府 條.

13) 前揭書와 같음.

14) 『與地圖書』 상, 京畿道 富平府 條.

15) 前揭書와 같음.

16)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17, 1973, pp.294~297.

제가 시행되면서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작된 후 일제는 1914년 부·군·면의 통폐합때에 부평군 전역과 인천부와 남양군의 일부지역 및 강화군의 이부 도서(島嶼)를 통합하여 부평에서 '부'자와 인천에서 '천'자를 뽑아서 부천군(富川郡)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고려의 충선왕 2년(1310) 이후 사용되어 온 '부평'이란 지명은 군단위 이상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 명칭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개항장일대로 축소되었던 인천부는 그 후 1936년 제1차 인천부역(仁川府域)확장시에 문학면과 사주면 일부가 인천부에 편입되고, 1940년 제2차 인천부역확장때 문학·남동·서곶·부내면 등 4개면이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인천부는 옛 인천의 대부분 지역과 옛 부평의 상당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부평지역은 하나의 독립된 행정구역 단위의 부(府)·군(郡)과 같은 성격이 없어지고 인천부에 예속된 하부 행정구역으로 전락된 것이다.

이같은 인천부역의 확장과 더불어 인천부는 3개 출장소를 신설하였으며, 이중에 옛부내면 전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부평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광복과 정부수립 후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부'는 '인천시'로 개칭되었으며 종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고, 경기도의 관할하에 들어 있었다.

1968년 1월 1일부터 구청제도(區廳制度)가 실시됨에 따라 인천시의 출장소는 모두 폐지되고 새로 중구·동구·남구·북구의 4개구가 설치되었으며 부평지역은 북구가 관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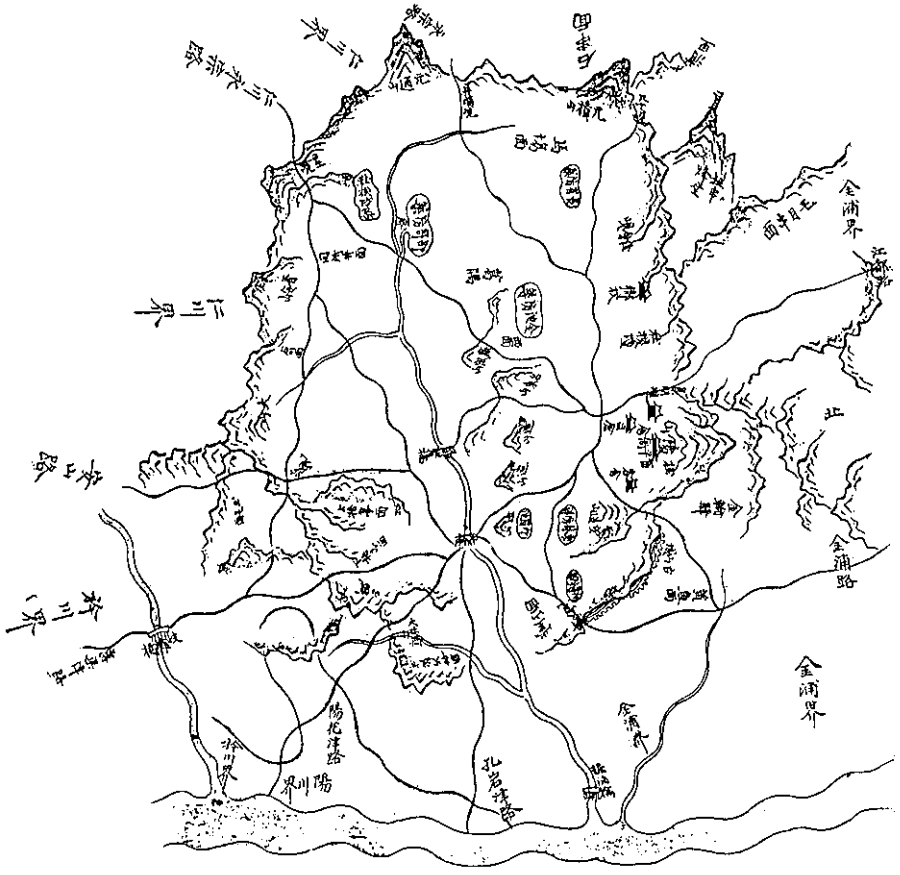
1914년 신설된 부천군은 1973년 7월 1일 소사읍(素沙邑)이 부천시로 승격되면서 부천군은 없어지고 부천군 관할 각면(面)은 시흥군·김포군·옹진군에 각각 편입되었다. 인천시는 1970년에 접어들면서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발전에 힘입어 1981년 7월 1일에 대구와 함께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 소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88년 1월 1일에는 북구의 서곶출장소와 남구의 남동출장소가 폐지되고 북구에서 서구(西區), 남구에서 남동구(南洞區)가 분구되어 6개의 구청으로 증가되었다.

인천직할시의 꾸준한 시역의 확장으로 김포군의 계양면 전부가 북구로, 옹진군의 영종면과 용유면 전부가 중구로 편입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 법률 제4802호, 1994년 12월 22일)로 승격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화군과 화성군에 편입된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및 김포군 검단면 전부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전국 최대면적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역시의 발전과 더불어 1995년 3월 1일부터 북구를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하여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남쪽은 부평구, 북쪽은 계양구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지현〉

# 第1篇　地　　理



# 第 1 章 자연환경(自然環境)

인간의 생활형태를 볼 때, 인간 및 그 집단이 처한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배재하고는 존재할 수 가 없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행동, 풍속, 습관, 가옥의 형태, 토지이용 등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자연환경은 사회환경의 기초가 되고, 자연환경 위에 혹은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활동이 이룩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인간생활의 무대라고 해 왔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파악은 인간생활이나 사회환경(인문환경)을 생각하고자 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의 생활양식은 근본적으로 주어진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또한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들 자연환경 중 특히 우리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 지형을 위주로 부평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인문환경을 살펴본다.

## 1. 위치(位置)·면적(面積)

### 1) 위치(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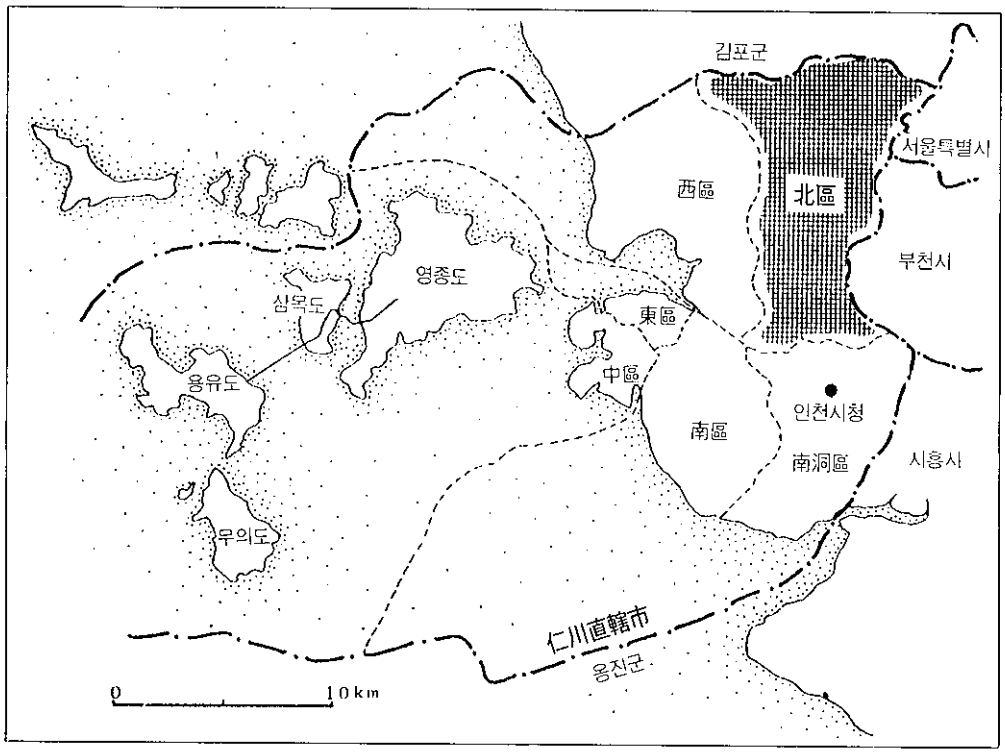
부평구와 계양구의 전신인 북구는 인천의 동북부에 위치하는데, 행정구역상으로 북쪽은 김포군 고촌면과 검단면, 서쪽은 서구와, 동쪽은 부천시 원미구와 오정구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와, 남쪽은 남동구와 경계하고 있다.

〈표 1〉 부평지역의 수리적 위치

| | 지 역 | 위도 및 경도 |
|---|---|---|
| 극 동 | 하야동 | 동경 126°47′45″ |
| 극 서 | 둑실동 | 동경 126°41′00″ |
| 극 남 | 구산동 | 북위 37°27′45″ |
| 극 북 | 이화동 | 북위 37°35′25″ |

또 북방으로는 한강유역의 김포평야와 남방으로는 서해의 관문인 인천항에 접한 교통의 요충지(要衝地)로서 인천권과 서울권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그 지형은 계양산(桂陽山 : 395m)줄기가 뻗어나가 있고 준용하천(準用河川) 4개소가 흐르고 있어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기본적 여건을 갖춘 구(區)라고 할 수 있다. 북구의 중심지역을 이루어 온 부평(富平)은 고려시대부터 중요한 전략적 위치로 인천지역과 더불어 경기만으로부터 한강과 예성강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위치하여 조운로(漕運路)와 대외무역로상의 요지(要地)였었다.

개경(開京)의 외항인 예성강으로부터 염하(鹽河), 인천 앞바다, 자연도(紫燕島), 덕적도(德積島)로 이어지는 해로는 송(宋)나라를 비롯한 외국상선이 빈번히 왕래한 뱃길이었다.




〈도1〉 분구 이전 북구의 위치

그러나 14세기부터는 왜구가 자주 출몰함에 따라 해로는 폐쇄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대피하였다. 계양산성(桂陽山城)과 문학산성(文鶴山城) 등 인천지방의 고대산성이 구축된 것은 이러한 왜(倭)의 침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조선시대에는 부평의 영역이 인천과 김포 사이에서 해안지방에 면해 있었다. 금륜역(金輪驛)은 인천, 김포, 양천 등지와 연결되는 도로상에 발달했는데, 당시에는 강화도와 함께 서울의 서쪽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 였다.[1]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촌락형태가 풍수사상(風水思想)에 의거하여 배산임수(背山臨水)가 입지의 기본을 이루어 온것 같이 부평지역의 취락도 진산(鎭山)인 계양산의 산록과 곡구(谷口)를 중심으로 발달되고 있으며, 외적의 침입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에서 지형적인 요새지와 한랭한 북풍을 피하고 연료 등의 취득이 용이한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취락 입지라고 할 수 있다.

1) 노도양,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을 중심한 이 지역은 과거의 전략적 위치에서 지금은 인천과 서울권을 연결해 주고 있는 수도권 통과교통의 요충지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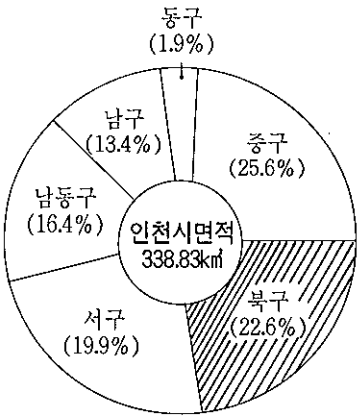
이 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교통로는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국도(39번) 그리고 여러개의 지방도 등으로서, 서울 김포 등과 수도권지역의 1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여 그 변모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 2) 면적(面積)

오늘날의 북구가 되기까지에는 1968년구제(區制)실시 이후 몇 차례의 경계 변화가 있었다.

먼저 부평지역이 인천에 포함된 것은 인천부(仁川府)의 제2차 확장 시기인 1940년 4월에 부천군 관할이던 남동, 부내, 서곶과 더불어였다. 그후 1968년에 처음 구제 실시에 따라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를 통합하여 북구로 명명되면서 29개 법정동과 19개 행정동으로 되었으나, 1988년에는 북구에서 가좌동 등 10개동이 서구로 분구되면서 19개동으로 줄었었다.

〈도 2〉 구별 면적 비율




〈표 2〉 동별 면적

| 동 별 | 면적(㎢) | 구성비(%) |
|---|---|---|
| 부 평 (6 개 동) | 7.38 | 9.60 |
| 산 곡 (3 개 동) | 5.19 | 6.75 |
| 청 천 (2 개 동) | 3.52 | 4.85 |
| 효 성 (2 개 동) | 6.06 | 7.88 |
| 계 산 (3 개 동) | 4.41 | 5.74 |
| 작 전 (2 개 동) | 2.67 | 3.47 |
| 서 운 동 | 2.54 | 3.30 |
| 갈 산 동 | 1.70 | 2.21 |
| 삼 산 동 | 2.11 | 2.74 |
| 부 개 (3 개 동) | 3.74 | 4.86 |
| 일 신 동 | 4.31 | 5.61 |
| 십 정 (2 개 동) | 2.84 | 3.69 |
| 계 양 지 구 | 30.40 | 39.54 |
| 계 | 76.87 | 100 |

* 자료 : 북구청 통계연보

그러나 1989년 1월에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 북구로 편입되고 그간 몇차례의 행정구역 변화를 거쳐 1992년 8월 31일 현재 법정동 32, 행정동 29개동과 1,102통, 5,699반을 거느리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2]

현재 북구의 지역범위는 동서 경도간격 6′45″거리 9.94km, 남북 위도간격 7′40″에 거리는 14.28km에 이르며, 총면적은 76.87㎢가 된다.

이것이 인천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시(317.18㎢)의 24.2%이고, 인천직할시 6개구 중에서 중구 다음으로 크다. 그러나 구 전체면적의 43.8%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지역, 그리고 절대농지의 분포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 2. 지질(地質)·지형(地形)

### 1) 지질(地質)

인천지역의 지질은 그 기반암이 캄브리아기(약 8억년전)에 해당하는 화강편마암(花崗片麻岩)의 혼성암류(混聲岩類)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질구조는 지하자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화강암 종류는 대부분이 특별한 광화작용(鑛化作用)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할 지하자원은 없다.

또 이들 화강편마암은 심한 동력변질작용(動力變質作用)을 받은 퇴적암(堆積岩)을 모체로 하였기 때문에 풍화에 약하여 산록이 완만한 낮은 구릉성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오랜 침식기간을 거치게 되면 산지는 준평원(準平原)의 형태로 변모하게 되는데 부평평야는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 부평준평원은 지질이 풍화되기 쉬운 화강편마암인데다 기후조건이 침식과정을 더욱 촉진하였음으로 그 결과 직접적으로 노년기(老年期)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부평에서 한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은 후에 신생대 제4기 플라이토세(Pleistocene)빙기(氷期), 특히 뷰름(Wurm)빙기 이후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하곡(河谷) 깊숙이 충적층(沖積層)으로 덮이게 되었다. 그런데 계양산, 천마산에 이르는 남북으로 뻗어있는 산계(山系)의 암석은 주로 결정편암(結晶片岩)이나 화강반암(花崗斑岩)의 종류로서, 이들 암석은 비교적 지하의 깊은 곳에서 마그마(Magma)가 냉각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풍화에 비교적 강하다. 그래서 이 산계의 산들은 경사가 급한곳이 많고 노두(露頭)가 나타나는 골산(骨山)을 형성하고 있고, 인천지역에서는 높은 편인 고도가 200m이상의 산지가 있어서 경인간의 교통은 물론 구시가와 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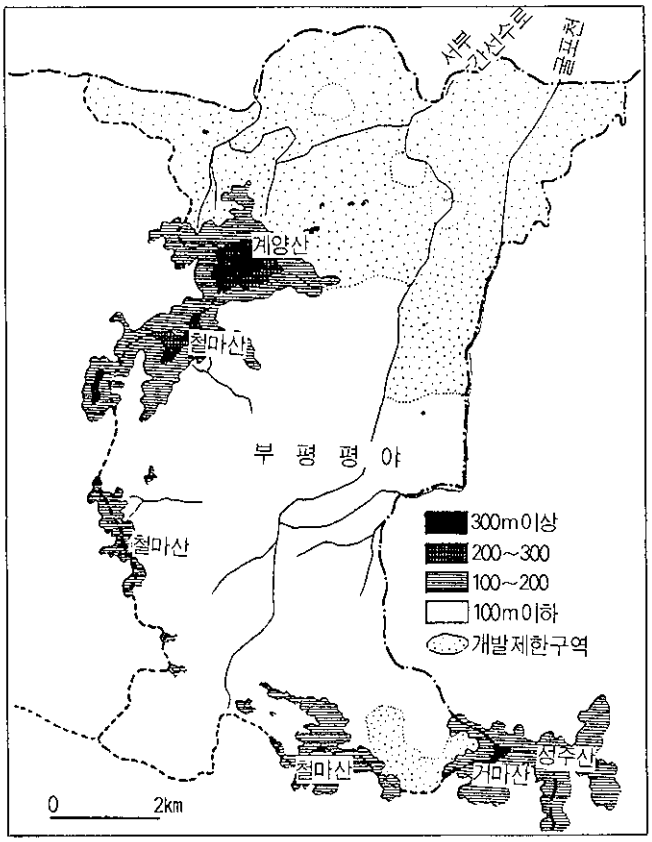
2) 인천시 북구, 『북구통계연보』, 1993.

및 김포간에 고개들(장명이고개, 원통고개등)을 넘나들게 하는 교통의 장애를 이루었다.

또 이 지역은 운모류(雲母類)의 풍화에 따르는 철분의 형성으로 인하여 토양은 적색을 띠는 곳이 많다.

### 2) 지형(地形)

부평과 더불어 인천지역의 지형은 중부지방의 서쪽 끝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지형을 보면 동고서저(東高西低)인 경동지형(傾動地形)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동쪽방향에는 한국방향의 비교적 고도가 높은 태백산맥이 동해쪽에 치우쳐 험준한 산지가 전개되며 서쪽을 향하여 점차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부지방의 지형을 크게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과 저위평탄면(低位平坦面)으로 구분되는데, 동쪽의 고위평탄면은 해발고도가 900~1000m에 이르고, 서쪽의 저위평탄면은 600m이하가 된다. 인천지역의 경우는 계양산(桂陽山 : 395m)을 제외하면 겨우 200m정도의 낮은 구릉성(丘陵性)산지가 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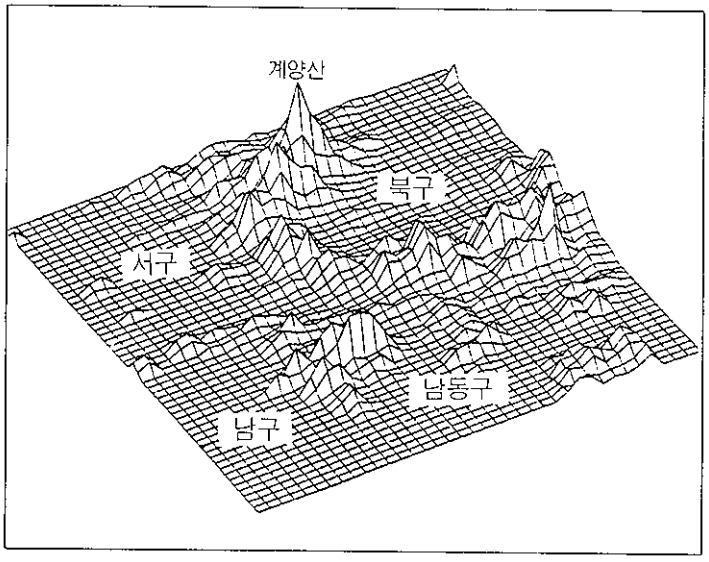

〈도 3〉 분구 이전의 북구 지형

부평에서 인천쪽으로 향하는 산줄기는 비교적 높은 것이 계양산(395m), 철마산(鐵馬山:226m), 거마산(距馬山:206m)등을 거느리고 뻗어 있고, 바다쪽으로 밀듯이 나가 있는 반도에는 수봉산(壽鳳山 : 112m)에서 이어지는 나지막한 산줄기 하나와 문학산(文鶴山:213m), 청량산(淸涼山)을 잇는 다른 한줄기의 산지가 여릿하게 지나고 있다.

인천지역은 중부내륙에서 뻗은 산맥의 말단부에 속하고, 그 형태가 미미하여 계통적인 규명은 곤란하나 이들 구릉성 산지들을 관찰하면 대체로 두 줄기의 맥을 형성하고 있다.

하나는 북부지역에 있는 남북주향(南北走向)의 산줄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부의 북서~남동주향의 산계이다. 부평지역은 남북주향의 산줄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마식령산맥이나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북쪽에서부터 국사봉(國師峰:764m), 천마산(天麻山:762m), 화장산(華藏山:560m)등 500m이상의 준봉(峻峰)에서 시작하여 김포반도의 문수산(文殊山:376m)에 이어 계양산, 철마산, 만월산에 이르기까지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게 뻗고 있다. 그리고 부평지역을 둘러싼 산지는 북쪽에서 서쪽을 거쳐 남쪽에 이르는 "ㄷ"자형으로 둘러싸고 있어 인천 중심지인 중구, 동구 뿐만 아니라 주안 등의 남구, 북부의 해안지방과 분리시키고 있으면서 원통이고개(圓通峴), 장명이고개(景明峴)등 완만한 안부(鞍部)나 통곡(通谷)사이로 교통로가 통하고 있다. 산지의 기복이 낮기 때문에 이 사이를 흐르는 하천들은 하각침식(下刻浸蝕)을 정지하고 측방침식(側方浸蝕)을 계속하여 노년기(老年期)의 준평원(準平原)을 형성하고 있는데 부평평야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본래 이와같은 침식평야는 산지의 토사가 운반·퇴적되었기 때문에 토질은 비옥하지 못하다. 이러한 준평원 상에 풍화와 침식작용에 끝까지 남은 구릉이 잔구(殘丘)로써 이 지역의 구릉성 산지는 계양산을 위시하여 모두 이에 해당한다. 해안유역은 평야가 발달하지 못한데 반해서 한강유역은 퇴적층이 비교적 발달되고 배수로(配水路)도 많아 한강유역의 주요한 지류(支流)가 되고 있다.



〈도 4〉 3차원에서 본 인천지형

부평평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기평야의 일부로써 비교적 규모가 크며 이는 제4기의 충적층(沖積層)으로 이루어 졌다. 김포에서 부평, 부천에 이르는 이 평야는 오늘날 우리나라 굴지의 곡창지대이고, 또 주요 공업지대로 등장하고 있지만 본래 이 평야는 고려중기까지도 개간되지 않는 저습지(低濕地)였었다.

이규보(李奎報)는 『망해지(望海誌)』에서 "桂陽땅에 길이 사면으로 났는데 오직 한 면만이 육지로 통하고 삼면은 모두 물이다. 처음에 내가 조정에서 쫓겨나 이 고을의 사또가 되었을 때는

사방을 둘러 봐도 넓고 푸른 물이어서 마치 섬가운데 들어 왔는가 의심하여……."라 했는데, 이 시에 묘사된 삼면의 물이란 계양산 서쪽의 경기만, 북쪽의 한강, 그리고 저습지를 이루었던 부평평야를 의미한다.

당시 부평부 동쪽 10리 밖에는 직포(直浦)라는 개울이 있었고, 이 직포와 양천 현계(陽川縣界)사이에는 장택(長澤)이라는 넓은 저습지가 발달되었다.

굴포천(掘浦川)의 중류에 발달되었던 장택은 독특한 지형조건 때문에 우기에는 범위가 넓어지고, 건기에는 축소하는 한강하류의 배후습지(背後濕地)의 하나였다. 즉 한강으로 유입하는 굴포천(掘浦川)하구 부근은 장택보다 3~4m 높기 때문에 홍수기에 부평평야의 물을 쉽게 배수하지 못하였으며, 한강이 범람할 때는 한강물이 넘쳐 역류하였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이 저습지가 농경지로 개간되기 까지는 김포굴포(金浦掘浦)의 운하공사를 비롯한 꾸준한 토목사업이 요구되었다. 굴포운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이 공사는 우리나라 국토개발사상 주요한 사실의 하나이다.

김포굴포 계획은 고려말 무인집권시대에 최이(崔怡)가 시도하였으나 부평일대의 지형을 정찰해 본 결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착수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중종때) 다시 거론되어 김안로(金安老)가 현재의 인천교 쪽과 한강의 양천교 서쪽에서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원통(圓通)이고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로는 원통이고개의 암반을 굴착할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운하는 한강지류인 굴포천으로부터 원통이고개를 경유하여 소풀(주안염전 수로)에 이르는 약 20 km의 수로로 계획되었다. 만일 이 운하가 완공되었다면 염하(鹽河)를 우회하는 해로를 약 45 km 단축 할 수 있었다. 불행히도 원통이 고개의 약 4km 굴착에 실패하고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완공된 구간은 16km가 넘었다.

인천 쪽의 운하는 인천교에서 동암역 앞에 이르는 주안염전수로(朱安鹽田水路)이며, 김포쪽의 운하는 양천현북포(陽川縣北浦)에서 굴포교(掘浦橋)와 한다리를 지나 부평역 부근의 직포(直浦)에 이르는 수로이다.

이 수로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부평평야의 관개용 수로로 이용되었다.[3] 인천지방은 큰 산이 적고 지역이 협소함으로 큰 하천의 발달은 없다. 또 노년기 지형에서의 하천은 운반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천 양안에 사력(砂礫)을 공급하게 되고 하상면(河床面)이 높아져서 청정천(天井川)을 이루어 우기의 수해를 조장한다.

---

3) 建設部 國立地理院,『韓國地誌』地方篇 I, pp.341~349.

이 지역의 하계망(河系網)은 대체로 남북방향의 산계(山系)를 경계로 하여 동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유입하는 것과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유입하는 하계망으로 구분된다.

서쪽 해안유역의 배수로(排水路)는 내(川)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야가 발달하지 못한데 비하여 동쪽 한강유역은 부평평야에서와 같이 퇴적층이 발달되고 그 배수로도 계양산, 철마산 등의 물을 합치고 있어서 한강하류의 주요한 지류가 되고 있다.

이 남북방향 산계의 동쪽에 위치하는 부평지역에서 한강으로 유입하는 하천은 북부 부평등의 굴포천(掘浦川)과 굴포천으로 유입하는 청천천(淸川川:5.1km), 또 시천동에서 굴포천으로 유입하는 계산천(桂山川:4.1km) 등이 있다. 그중 굴포천은 부평지역뿐 아니라 인천지역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서, 이 하천은 계양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한 줄기와, 산곡동 중구봉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줄기, 또 청천동 뒷산에서 흐르는 줄기 등 여러 지류가 합류하여 부평, 계양지역뿐만 아니라 부천(富川)일대를 관통하여 한강으로 유입하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이다. 그리고 인천지역에는 전체 12개의 법정준용하천(法定準用河川)이 있는데 이중 5개는 북구에 있어 한강을 방류선(放流先)으로 하고 있다.

〈표 3〉 법정 준용 하천 현황

| 河川名 | 延長 (km) | 流路延長 (km) | 流域面積 (㎢) | 起 點 | 終 點 | |
|---|---|---|---|---|---|---|
| | | | | | 河川合流點 | 位 置 |
| 掘浦川 | 11.50 | 11.50 | 60.0 | 부평구 富平洞 | 市 界 | 계양구 桂陽洞 |
| 桂山川 | 1.50 | — | — | 계양구 桂山洞 | 掘浦川 | 계양구 桂山洞 |
| 靑川川 | 1.30 | — | — | 부평구 갈산동 | 掘浦川 | 부평구 갈산동 |
| 桂陽川 | 1.10 | — | — | 계양구 목삼동 | 市 界 | 계양구 갈현동 |
| 굴현천 | 2.25 | — | | 계양구 다남동 | 서부간선수로 | 계양구 계양동 |

* 자료 : 「인천지역 환경보전 실태조사 보고서」, 인천직할시

### ① 계양산(桂陽山:394.9m)

인천직할시에 있는 가장 높은산으로 서구의 공촌동과 북구의 계산동, 방축동, 목상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다. 『동국여지승람』에 부평도호부 북쪽 2리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으로 일명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진산이란 각 고을 뒤에 있는 큰 산을 그 고을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지내던 산을 말하는데 계양산은 부평도호부의 진산이었다.

계양산 동쪽 해발 203m 지점에는 계양산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근래에 축조된 팔각정 아래 일부 잔해만 남아있다. 또 산 남쪽 계곡에는 계양공원이 있으며 산중에는 만월사지(萬月寺地), 봉일사지(奉日寺地), 명월사지(明月寺地)등이 있고, 구 부평읍이 있던 계양산 일대는 많은 유적과 함께 관광자원이 많다.

근래에 계양산의 개발(공원조성)을 놓고 시행청과 이 일대 주민과의 의견이 첨여하게 대립되어 있다.

인천시는 1988년 시공원 제1호인 계양공원을 2001년까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계양산성을 복원하고 전망대, 사적관, 부평도호부청사, 팔각정, 야외공연장, 진입로, 휴게소 등 각종 시설을 갖춘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훼손이냐 개발이냐 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 했다. 계양산공원 조성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과 전문가들은 서울에서의 남산복원계획의 예를 들어 한번 훼손된 자연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 먼 장래를 내다보면 인공위락시설보다 천해의 자연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산에는 회양목(繪陽木)등 각종 수목이 울창하고, 전해지는 얘기로는 계양산 건너편 강화도에 큰 산인 마리산(摩尼山 : 469m)과 마주했는데 마리산을 형산(兄山), 계양산을 제산(弟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 까닭은 마리산의 반쪽이 떠내려가서 계양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계양산에 구름이 뜨면 반드시 비가 내리고 해풍이 몰아치면 비가 개인다고 전해온다.[4] 그리고 계양산에는 유명한 부싯돌이 채석되었는데 부평사람들은 농한기에 계양산의 부싯돌을 서울 등지에 팔러 다녔었다.

고려때의 문장가 이규보(1168~1241)는 그의 저서 『望海誌』에서 "길이 사면으로 계양지경에 났는데 오직 한면 만이 육지를 통하고 삼면은 물이다……"라고 계양산의 풍경을 예찬 했는데, 오늘날 계양산은 서울근교의 가볼만한 산행지로도 부상하고 있는 수도권의 명산이다.

② 철마산(鐵馬山)

인천에는 3곳의 철마산이 있는데 북구 효성동과 서구 가정동, 심곡동에 걸쳐있는 높이 227m의 산(인천에서 세번째로 높은 산)과 북구 산곡동과 서구 가좌동 사이에 솟은 165m의 산, 그리고 남동구 만수동과 북구 일신동과의 경계에 있는 201m의 산이다. 1918년 조선총독부제작 1:5만의 지형도에서는 227m의 산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단지 높이만 203m와 166m로 표시되어 있다.

4) 李薰益, 『仁川地名考』, 仁川地方鄕土文化硏究所, 1993.

이들 산꼭대기에는 모두 철마(鐵馬:쇠로 만든 작은 말)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래의 이름은 산기슭에서 용마가 났다고 해서 천마산(天馬山) 또는 마제봉(馬蹄峰·말발굽 봉우리의 뜻)이라고 고도 한다. 이 세개의 철마산이 위치한 것을 보면, 계양산에서 이어진 능선을 따라 효성동의 철마산까지가 약 4km, 다음에 산곡동의 철마산까지가 약 4km, 그리고 또 일신동의 철마산까지도 약 4km가 되어 계양산에서부터 4개의 산이 거의 등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 일신동의 철마산에서 계속하여 부천에 있는 성주산(聖柱山:218m)까지도 4km, 계속 옛 인천도호부의 주산이었던 소래산(蘇萊山:279m)으로 6.5km로 이어진다. 그래서 북의 계양산에서 이어진 이 능선의 길이는 약 18.5km가 되는데 이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마천령산맥 — 함경산맥 — 낭림산맥 — 태백산맥으로 이어져 소백산맥 중 속리산(俗離山:1,057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된다.

③ 장명이 고개(景明峴)

북구 계산동에서 서구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계양산 서쪽에 있는 고개로서, 해발고도 100m, 길이가 8km에 이르는 인천지역에서 가장 높고 긴 고개이다. 옛부터 이 고개에는 많은 도둑떼들이 있어 이곳을 넘어갈 때는 길손이 1,000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개를 흔히 천명고개라고도 불렀다.

연해의 관문인 이곳에는 인천과 부평의 방비를 위해서 정상에 1883년(고종 20년)에 축조된 중심성지(衆心城地)가 있다. 현재 중심성(衆心城)은 완전히 없어지고, 성문인 공해루(控海樓)의 초석 4개만 남아있다.

옛날 길고 험난하였던 장명이고개는 현재 도로가 시원하게 개설되어 완전히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이곳을 통하여 계양산 등반도 하게 되었다.

④ 굴포천(掘浦川 : 21km)

부평동 철마산(201m)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흘러 김포군 고촌면 전호리평야를 지나 신곡리 경계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인천의 대표적인 하천이다. 본래의 이름은 판개로 "개(강)를 팠다"는 뜻인데 그냥 소리나는데로 "팽개"라고 부르기도 한다.[5] 굴포천이란 이름은 하천을 따라 김포굴포(金浦掘浦)가 시도되었던 것으로 이는 인천쪽 서해안과 김포쪽 한강을 연결하려던 옛 운하계획이었다.

근래(1992년)에 와서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이는 굴포천을 이용하여 황해안

5) 이형석, 『인천의 땅이름』, 가천문화재단.

과 한강을 연결시켜 경인운하를 건설하는 첫단계가 된다. 연장 15.6km, 폭 5m의 수로를 신설하는 이 공사는 홍수로 유입되는 물을 한강하구를 거치지 않고 경기만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1995년에 완공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 사업을 계기로 경기만에서 한강으로 선박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인운하의 건설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3. 기 후(氣候)

일찌기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날씨를 모르고 그 지역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기후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요소(要素)로 특히 인간의 생활형태에 주는 영향은 크다. 또 헌팅톤은 『문명과 기후』라는 저서에서 기후적 환경이 인간의 능률을 지배하고,[6] 그것에 따라 세계문명의 차이가 결정 된다고 했다.

기후는 인간의 정신적 능률뿐만 아니라 생물적 신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인간의 신체는 어느정도 기후환경에 적응하며 오랜시일에 걸쳐서 서서히 체질을 변화시켜 그 지역기후에 순응하기도 한다.[7] 그리고 추위나 더위 등은 인간의 정신상태에 스트레스를 준다. 인체가 기후로부터 받는 종합적인 스트레스도 체감기후(體感氣候)의 하나이다. 기후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쾌적도(快適度)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몹시 무덥게 느껴지며 또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더욱 춥게 느껴진다. 이와같이 인체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른 기후요소와 복합적으로 인체에 작용되고 지각되는데, 특히 겨울의 추위는 바람의 유무 그리고 풍속(風速)에 따라 크게 다르게 느껴진다.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후의 특징은 위도(緯度), 지형(地形), 해류(海流)등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데,[8] 먼저 위도는 지리학적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 달라져서 일사량의 변화가 생긴다. 만약 지표가 수륙의 분포나 기복이 없이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면 지구의 기후는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등온선도 위도선과 평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북위 33°~43°에 위치해 있는데, 부평지역이 자리한 위치는 북위 37°(북구의 남북간 위도차는 7′40″)에 해당한다.

이는 위도상으로 중위는(中緯度)로서 온대성기후의 특색을 나타내는데, 온대기후의 특징은

---

6) 육체노동은 15~18℃정도, 정신노동은 4~10℃에서 능률의 극대가 된다고 해서, 평균하여 10℃내외를 능률이 극대화되는 최적기온(Optimum Temperature)라고 하였다.

7)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대출판부, 1985, pp.24~31.

8) 金光植 外, 『韓國의 氣候』 一志社, 1973, pp.10~15.

기후상으로 그리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인간생활에 가장 적합한 기후이다.[9] 그래서 세계의 대인구 집단지가 되고 있는 서부유럽, 동부아시아, 미국의 북동부가 모두 온대기후에 속하고 대도시의 분포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에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의 풍화침식으로 저산성의 노년기 산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맥이 동쪽의 척추산맥에서 황해쪽으로 뻗어 내리는 중국 방향의 산맥이다. 또 요동 방향이라 일컫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산맥이 모두 낮은 구릉성 산지로서, 이들 낮은 산맥들은 공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들 산맥들은 이를 경계로 하는 양쪽지역의 기후 요소간에 큰 차이를 초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을 경계로 하는 동해사면과 황해사면 사이에는 기후의 차이를 현격히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산맥은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주어 부근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인천지역에서 부평권이 인천권과 분리되어 발달한 것을 보면 인천권은 해안지역으로 부평권은 내륙지역으로 볼 수 있다. 즉 계양산~철마산~만월산으로 이어지는 남북주향의 산줄기는 ㄷ자형으로서 부평평야를 감싸면서 황해바다의 영향으로부터 바람막이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나, 계양산에서 철마산에 이르는 산지를 제외하면 200m미만의 낮은 산지로서 그 역할은 미미하다. 그래서 부평지역의 기후는 해안을 끼고 있는 서구지역과 별다른 특성은 볼 수 없다.

한편 지형에 의한 영향은 해발고도에 따른 기온감소 때문에 주위의 평지와는 다른 기후를 나타낸다. 높이에 따른 기온의 감소는 계절과 장소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대략 100m 높아짐에 따라 0.4~0.7℃ 낮아진다.

우리나라에서 1,500m의 개마고원이나 800m높이의 태백산맥, 보다 낮으나 소백산맥들에서는 평야지대와는 다른 기후가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200m이상의 산지 정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해발고도가 낮기 때문에 지형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수(海水)는 육지에 비해서 가열이나 냉각이 잘되지 않으므로 그 표면온도의 변화는 크지 않다. 따라서 해안지방이나 도서에서는 해수의 표면온도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수의 표면온도와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는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9) 수판(A.Supan)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부가 온대에 들어가고, 쾨펜(Koppen)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해안지방만 온대이고 나머지는 냉온대(冷溫帶)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동해는 외해(外海)인 태평양과 통하고 있는 내해(內海)이며, 그 평균수심은 1,700m나 되어 표면수온의 연변화가 적으나 황해는 대체로 100m미만의 얕은 깊이이므로 표면수온의 변화가 크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황해는 동해바다에 비해서 기온 조절(調節)의 역할은 적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황해바다의 해류를 보면, 쿠로시오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난류가 황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중국해안을 따라서 남하한다. 그러나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중부이북 지방까지 북상하기 어렵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겨울철의 한냉건조한 계절풍은 이 난류 위에서 열대 수증기를 얻어서 겨울철에는 인천 앞바다에 안개가 잦고 황해안 지방에는 흐린 일기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안선에 비해서 바다의 영향은 적은 편으로, 인천의 해안지역이나 인천의 내륙에 해당하는 부평지역에 있어 기후상의 큰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 구분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 구분은 그 대상지역이 아주 좁고 또 특정지역의 경우는 소기후(小氣候)나 미기후(微氣候)적인 구분에 불과하게 된다.

부평지역같은 작은 지역의 기후를 언급하는데 있어는 먼저 우리나라 기후의 전반적인 형태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쾨펜(Kopeen)의 기후구분에 의하면 한반도는 온난습윤기후구(溫暖濕潤氣候區 : Cf)와 한랭동계소우기후구(寒冷冬季小雨氣候區 : Dw)로 나누어 진다.[10] 그리고 온대(C)와 냉대(D)의 구분선은 금강산을 북쪽 경계로 한 태백산맥과 태백산맥을 전향축(轉向軸)으로 하는 소백산맥을 따라 남서쪽으로 내려오다가 충북을 북부와 남부로 양분하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분수령인 괴산부근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천안부근에서 차령산맥을 따라 보령과 서천의 군계에서 끝나는 설형(舌形)의 선을 연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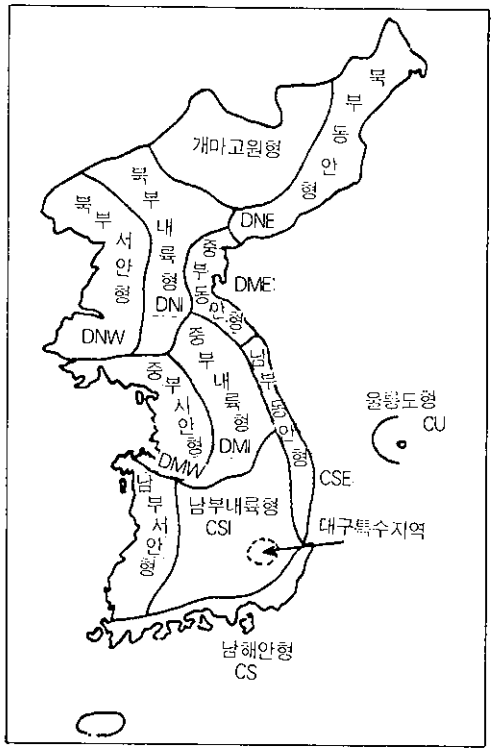
이를 기준으로 남북의 기온변화에 따라서 남부, 중부, 북부의 3기후형, 그리고 계절풍과 해안거리에 따라 동서로 서안형, 내륙형, 동안형으로 나누어 井자 모양으로 구분되는 9개의 기후형으로 나누고, 여기에 복잡한 지형이나 기타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기후구 안에서도 곳에 따라 별개의 특색을 가진 기후지역이 있다.

그래서 인천·부평지역의 기후는 위치로 볼 때 우리나라의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중간형에 속하며 기후 구분상으로는 냉대(冷帶)의 중부서안형(中部西岸型)에 속한다.

---

10) 金光植 外, 『韓國의 氣候』, 一志社, 1973, p.93.

〈도 5〉 한국의 기후구분




* 자료 : 韓國의 氣候, 金光植外, 一志社, 1973.

대륙에 연결된 북부는 대륙성이 강하고 남부는 해양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는데, 중부지방은 남부에서 북부로 옮아가는 점이지대(漸移地帶)로서 인천이 있는 이 지역 기후의 개요를 살펴보자.

중부서안기후형(DMW)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기후형은 황해에 연하고 있는 평야지역으로 멸악산맥의 남사면에서 차령산맥의 북사면에 이른다.

그리고 북부서안기후형과 남부서안기후형 중간에서 위도에 따른 기온변화와 식물분포상의 변화가 뚜렷하다. 연평균 기온은 10℃내외이고, 1월의 평균기온이 −3.5℃정도 이다.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탁월하여 강화만의 파도가 높을 때가 많고, 봄에는 선풍(旋風)의 해를 많이 받는다. 강수량은 1,100㎜정도로써 북부서안기후 지역과 비슷하나 내륙지방으로 들어갈 수록 강수량이 증가하여 경기·강원도의 접경지역에서는 1,300㎜가량의 다우지역이 나타나는 것도 북부서안기후형과 비슷하다.

식물분포도 북부기후형 지역과 남부기후형 지역과의 점이지역을 이루어 이들지역의 식물이 섞여 있으며 부분적으로 2모작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후 형태에서 그 지역의 지형 등 요인에 의하여 국지적인 기후가 이루어 진다.

### 1) 기온(氣溫)

인천은 개항 21년 후인 1904년에 항구의 발전과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측후소(測候所)를 설치 하였다.[11] 여기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과학적인 기상관측이 실시 됐으며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소지역적(小地域的)기후의 고찰이 가능하다. 전반에서의 한반도 기후의 전반적인 고찰을 기본으로 소기후적인 측면에서 부평지역을 중심한 인천지역의 기후를 각 요소별로 살펴 보도록 한다.

11) 인천광역시, 『仁川市史』, 1994,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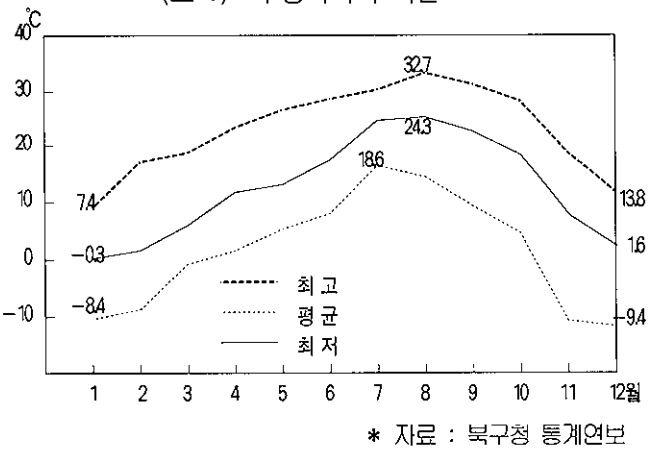
온도계가 표시하는 한난(寒暖)의정도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습도나 바람의 상태에 따라 우리몸에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일정하지는 않다. 이와같은 체감기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여름의 더위와 관계되는 것은 불쾌지수(不快指數)이다. 또 추위에 대한 체감은 바람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추위나 더위 등은 인간의 정신상태에 스트레스를 준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 즉 쾌적온도(快適溫度)도 인종에 따라 다르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이 일반적으로 몹시 덥다고 느끼는 것은 기온이 27℃가 넘을 때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30℃가 되어야 더위를 호소한다.

그리고 온도 18~20℃, 습도 40~70%가 우리 인간활동에 가장 알맞는 기후라고 하며, 작업능률과 기상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20℃에서의 작업능률을 100%로 한 경우, 24℃에는 83%로, 30℃에서는 63%로 각각 저하된다고 한다.

미국의 지리학자 헌팅턴(Huntington)은 인간활동에 가장 적합한 기온은 16℃라 하고, 노동능률이 가장 좋은 기온은 근육노동일 경우에 15~17℃, 정신 노동일 때는 7~10℃라고 했다.

부평지역은 연 평균 기온이 11.9℃로서 다른주요도시에 비해서 다소 냉온(冷溫)에 가까운 편이나 생활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12] 그러나 다른 해안도시에 비하여 한서(寒暑)의 차가 심한 편으로 1992년 관측에 의하면 월평균 기온 최저가 1월에 −0.3℃, 최고가 8월 24.3℃로서 연교차는 24.6℃가 되는 셈이다.[13]

〈도 6〉 부평지역의 기온




* 자료 : 북구청 통계연보

인천 기상대가 설치된 이후의 기록으로는 최고 기온은 1949년 8월 16일의 38.9℃였고, 최저 기온은 1915년 1월 23일의 −20.9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근래 5년간(1987~1992)의 기온을 보면, 최고가 1988년 8월 11일의 34.5℃였는데, 부평지역에서 연중 최고의 기온을 나타내온 날은 모두 8월의 중순에 해당되는 날이었다. 또 최저는 1990년 1월 25일의 −16.2℃였는데, 연중

12) 강릉(12.4℃), 서울(11.6℃), 대구(13.0℃), 광주(13.1℃), 부산(14.0℃), 제주(15.1℃)
13) 위도에 따른 기온의 연교차를 이용하여 대륙기후의 정도를 수량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안도시를 보면 인천(16.0), 부산(49.5), 목포(54.4), 강릉(49.8), 제주(44.3)

최저 기온은 주로 1,2월에 있었다. 그래서 부평지역의 기온은 1,2월에 가장 낮고 8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기온 11.9℃이상의 달(5,6,7,8,9,10월)과 이하의 달(11,12,1,2,3,4월)은 각각 반년씩이고 부평지역에서 인간생활에 능률적인 기후의 달로 평가되는 것은 4,5,10월 달로 3개월이 된다.

인간은 한계온도(限界溫度)에 대하여 예민하여서, 다소의 개인차는 있어도 대체로 20℃가 넘으면 덥다고 한다. 부평지역에서 월평균 기온이 20℃ 이상되는 달은 1992년의 경우 7월(23.7℃), 8월(24.3℃), 9월(20.5℃)인데 어느 정도 해양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무더위는 완화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7,8월이 가장 덥다. 부평을 포함한 인천지역의 기온을 보면, 30℃이상의 일수가 24일 이상이 되고 25℃이상 일수는 2개월 미만이다.

그러고 0℃ 이하의 추운 겨울 날씨는 100일 이상으로 여름의 더위 보다는 겨울의 추위가 더욱 심한 기후이다. 거의 같은 위도에 있는 강릉과 비교해 볼 때 서해안의 인천이 동해안의 강릉보다 저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대기오염에 의한 기온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도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특히 인천은 우리나라의 도시중에서 공해배출이 가장 높았고, 더욱이 공단이 밀집된 부평지역은 공기의 오염도가 가중되어 과거의 혹한이었던 겨울철 기온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형성된 열섬(熱島)[14] 현상이 차츰 그 범위가 인천권으로 확장 되면서 부평지역은 이미 그 영역안에 들어가 있다.

### 2) 강수(降水)

대기중의 수증기는 비, 눈, 서리, 이슬 등 여러 형태로 응결되어 지면에 떨어진다. 이들의 종합을 강수(降水)라 하며, 열대지방에서는 주로 비, 한대지방에서는 주로 눈이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비가 되나 겨울에는 눈이 되어 내리기도 한다.

기후요소 중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은 강수량으로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몬순지대에 공통되는 하계집중형(夏季集中型)으로서 여름에 비가 많다. 이 여름비의 많고 적음은 그 해의 강수량을 결정하며 이것이 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우리 나라의 연평균 총강수량은 500~1,500㎜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800~1,000㎜가 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비교적 많아 습윤(濕潤)한 기후에 해당 한다. 같은 온대의 일본에 비하면 1/2, 중국 북부에 비하면 약 2배에 달한다.

---

14) 19C이후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100만인구이상의 대도시가 출현하면서 변두리보다 1~2℃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도시기후의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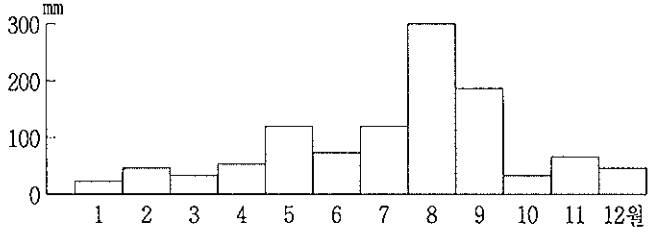
대체로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감소되나 풍향(風向), 해안과의 거리,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역에 따르는 강수량의 차이는 많다.

인천지방은 해양의 영향을 받아 대기중에 많은 수증기가 포함되지만, 상승기류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복이 큰 산악이 없기 때문에 지형성강우(地形性降雨)는 드물다. 그러나 부평지역은 계양산 등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가 있어서 인천지역의 장마성 강우와 더불어 소나기성 강우도 자주 나타나서 인천의 다른지역에 비하면 강수량은 많은 편이다.

부평지역의 강수량을 과거 5년간(1987~1991)을 보면, 평균은 1310.06㎜이고 가장 많이 온 것은 1990년의 2,009.8㎜, 가장 적은 것은 1988년의 802.4㎜로[15] 1990년 강수량의 40%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대부분은 연 강수가 적고 강수량의 차이도 비교적 적은 편이나 계양산, 철마산 등 산지에 격리되고 있는 부평지역은 인천에서는 비교적 강수도 많은 편이고 연 강수량의 차이도 크다.

〈도 7〉 부평지역의 강수량




* 자료 : 북구청 통계연보

월 평균 강수 형태를 보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건기이고 4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로 구별된다. 그리고 월별 강수량을 보면 대체로 7월에 가장 많고 1월에 가장 적은데, 간혹 2월이나 9, 10월에 돌발적으로 나타나서 1990년의 경우에는 최고가 9월의 528.7㎜, 최저는 10월의 2.2㎜를 나타내는 등 해에 따라 심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강수 일수는 과거 5년간의 평균은 102일이었고, 1993년은 112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강수일의 차이는 비교적 큰 편으로 이 기간에 1987년에 125일이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해는 1991년의 77일로 무려 48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강수 형성과 밀접한 것은 대기중의 수증기의 양이다. 대기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은 단위체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절대량을 중량이나 압력으로 표시하는 절대습도(絶對濕度)도 있으나 기후요소로서 보통 사용되는 것은 상대습도(相對濕度)이다. 그리고 상대습도를 그냥 습도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강수가 형성될 포화상태(飽和狀態)와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습도는 대기의 건습(乾濕)상태를 표시하는 요소로서 모든 물질의 부식상태, 미생물의 번식

15) 인천시북구청, 『북구통계연보』, 1993.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최근에 와서는 제조공업이나 생산물의 보존 또는 보관상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또 바람과 더불어 큰 화재의 발생에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후요소이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연평균 습도의 지역별 차는 ±8이내로써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지 않으나 동해안 지방과 북부내륙지방이 다소 낮아서 60%내외이며 해안지방은 70%내외이다. 계절별로는 겨울에 대체로 낮고 여름에 높으며 여름철 해안지방은 80%정도에 이른다.

부평지역의 경우 지난 5년간의 평균은 69.96%였고, 1992년에는 71.0%로 가장 높은 달은 7월의 86.7%, 가장 낮은 달은 2월의 58.2%로 나타났다. 또 습도는 불쾌지수(不快指數)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불쾌지수는 여름철, 특히 무더운 여름날에 매스컴에서 화제로 많이 삼는다. 이는 지수(指數)이므로 직접 관측 되는 것 보다 기후상태로 인하여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같은 상태라도 민족에 따라서 대응하는 체감이 다르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수가 70을 넘으면 10%가 불쾌감을 느끼고 75가 되면 50%, 그리고 80이상이 되면 100%가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는데[16]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75이상이 되면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80이상이 되면 약 50%, 83이상이 되어야 100%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 3) 바람

기후의 3대 요소로서 바람은 체감온도와 직접 관계가 있고 강풍일 때는 농작물이나 가옥에 큰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륙기단(大陸氣團)의 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 반년을 주기로 풍향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각 지방의 풍향을 살펴 보면, 겨울철에는 대체로 북서풍이 많고 여름철에는 남풍이 많으며 봄과 가을철에는 특히 뚜렷하게 탁월한 방향의 바람이 없다. 그리고 풍향은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특수한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연중 거의 일정한 방향의 바람만이 탁월한 곳도 있어서 한마디로 어떻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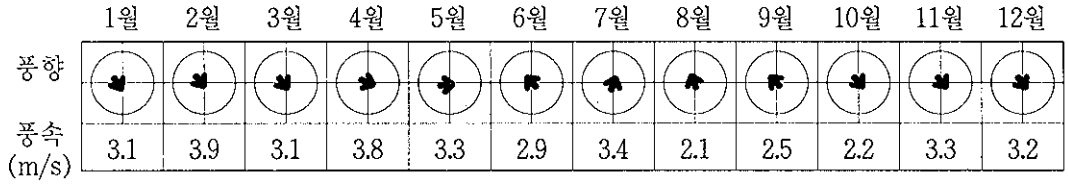
인천지역에서의 풍향은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요한바람은 북풍 내지 북서풍인데 그중 반 이상이 북서풍이다. 때문에 내항(內港)에는 이 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이 축조되었다. 또 4월에서 8월까지는 남풍 내지 서풍이 우세하여 계절풍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16)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대 출판부, 1985. p.207.

있다.

인천지역에서의 바람은 겨울철의 북서풍은 실제기온 보다도 체감온도가 훨씬 낮게 느껴지게 하고 있고, 또 여름기간은 바다의 영향 때문에 실제기온 보다도 체감온도가 다소 낮아져서 심한 더위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등 기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도 8〉 월별 풍향과 풍속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풍향 | | | | | | | | | | | | |
| 풍속 (m/s) | 3.1 | 3.9 | 3.1 | 3.8 | 3.3 | 2.9 | 3.4 | 2.1 | 2.5 | 2.2 | 3.3 | 3.2 |

* 자료 : 북구청 통계연보

풍속(風速)도 풍향과 같이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일반적으로 섬지방은 해안지방보다, 해안지방은 내륙지방보다 바람이 강하며, 또 월평균 풍속의 분포 상태를 보면 대체로 12월에서 4월까지 풍속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겨울철의 계절풍이 여름철보다 우세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1992년 인천 측후소의 관측에 의하면 평균 풍속은 3.1m/sec로 울릉도(4.8m/sec), 제주(4.7m/sec), 목포(4.2m/sec), 부산, 군산, 여수에 이어 바람이 강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풍속 32m/sec이상이 되면 태풍(颱風)이라 하는데 이러한 강풍은 농작물, 가옥은 물론 해일로 인한 폭우 등 그 피해는 광범위하다.

태풍이 발생하는 장소는 북태평양 서부의 필리핀 동쪽 해상이며 처음에는 북서쪽으로 서서히 세력을 증가 하면서 이동하다가 남지나해 부근에 이르면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한다. 그 진로는 주로 대만, 일본을 지나지만 때로는 우리나라의 서남해상을 통과한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진로권에 있고 비가 많은 8, 9월이 태풍 내습기와 겹쳐 풍수해는 더욱 커진다.

인천지역에 내습했던 가장 강한 바람은 1919년 9월의 풍속 33.8m/sec의 폭풍이었고, 우리나라는 1959년 9월의 사라호 태풍이래 14번의 큰 태풍의 피해를 보았으나 대부분 제주도를 비롯한 영·호남의 해안지방이고 인천은 다른 해안지역에 비해서 바람의 피해는 적은 편이다. 더구나 부평지방은 인천의 대표적인 분지지역(盆地地域)으로 되어 바다바람의 영향을 더욱 차단해 주고 있다.

# 第 2 章 인문경관(人文景觀)

## 1. 인구현황(人口現況)

### 1) 인구추이(人口推移)

우리나라에서 유사이래 총인구조사(Census)가 실시된 것은 1925년이며, 연차별로의 인구통계는 1910년 이후로 계속하여 조사되어 왔음으로 근대적 과학성을 지닌 인구통계는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찌기 징병이나 과세, 부역 등 국가적 필요에서 호적에 관한 조사와 편제는 여러 기록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서 국세 조사가 실시되기 전의 오랜 인구 또는 호구(戶口)의 추이(推移)를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 정조(正祖) 13년(1789년)에 편성한 호구총수(戶口總數)가 가장 좋은 자료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인천과 부평의 인구자료가 나와있다.

조선시대의 인구조사는 전국적인 것은 불완전하였으나, 각 지방별조사는 비교적 정확했는데, 특히 정조시대의 조사는 성별인구까지 조사되어 있었다.

〈표 4〉 京畿地方의 戶數 및 人口表

| 年度別 \ 地方別 | | 仁川 | 富平 | 水源 | 金浦 | 漢城 | 江華 | 京畿道 | 全國 |
|---|---|---|---|---|---|---|---|---|---|
| 一七八九年 | 戶數 | 4,100 | 3,200 | 15,100 | 1,700 | 43,900 | 9,800 | 159,200 | 1,753,000 |
| | 人口 | 14,600 | 11,600 | 57,700 | 6,700 | 189,200 | 34,200 | 642,100 | 7,404,000 |
| | 女子100명에대한 男子比 | 106 | 112 | 96 | 101 | 104 | 123 | 102 | 95 |
| 一九〇七年 | 戶數 | 8,000 | 3,300 | 13,200 | 2,100 | 46,400 | 8,300 | 210,200 | 2,333,000 |
| | 人口 | 27,000 | 12,500 | 55,700 | 9,100 | 199,300 | 28,300 | 769,000 | 9,782,000 |
| | 女子100명에대한 男子比 | 120 | 122 | 117 | 126 | 121 | 115 | 119 | 118 |

* 자료 : 『인천市史』

이 때의 인구조사는 통치자들이 국민에 대하여 조세 및 병역, 부역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까닭에 그조사 대상은 주로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성년 남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 조사는 동기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었으나 역사적인 자료로서 가치는 있다. 그 당시 구한말의 부평군의 인구는 1789년에 11,600명, 118년후인 1907년에는 12,500명으로 자료에 비하면 대체로 인구는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때의 호구조사가 신빙도가 낮았고 행정구역이나 면적도 분명치 않아서 정확을 기하기는 어려우나 부평,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한 인구증가를 한 것을 사실이다. 또 1911년에는 부평읍의 호수와 인구가 240호와 1,040명이었으며 공공기관으로는 군청, 우편소, 지방금융조합, 사주재소(査駐在所), 사립보통학교 등도 입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평과 인천은 본래 역사적, 행정적으로 분리되었던 지역으로 1940년(1940. 4월에 인천시의 제2차확장으로 부평은 인천에 편입됨)이전까지는 각기 독자적인 발전을 하여왔다. 그래서 인구도 대부분 구시가지 중심으로해서 인천권은 개항장에 부평권은 부평구읍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1899년이후의 철도 건설과 1906년이후 전국적인 도로의 개축은 근대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동맥을 이루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경제활동의 중심권을 형성하면서 인구를 끌어 들였다. 그래서 부평의 중심지도 인천의 관교동(官校洞)으로 이전하고 또 2차로 소사리(素砂里)로 군청도 이전 되었었다.

부평지역이 공업단지가 되면서 인구유입의 계기가 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을 치루면서 일본의 병참기지(兵站基地)가 되면서 이다. 즉 1939년에 부평에 착공된 인천육군공창인데 朝鮮軍槪要史[17]에 의하면 이곳에서의 생산품목은 소총, 총검, 소총탄환, 포탄, 군도, 차량, 무전기 등으로서 1945년 종전때까지 일본군 침략전쟁의 군수보급기지로서 역할을 했었다. 해방후 1963년에 와서 부평지역은 대도시권 확장계획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 부지의 진출로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되고 1968년에는 구제(區制)실시에 따라 9개의 직할출장소중 부평출장소와 서곶 출장소를 통합하여 북구(北區)가 되었다.

그래서 행정·경제중심인 부평동을 중심으로 해서 북구는 발전해오고 있으며, 1969년에는 수출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수출공업단지(제4단지)가 북구 효성동에 조성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공업단지사에 최초의 장을 연 것으로 동시에 북구의 인구증가에 기폭제 역할도 했다. 1977년에서 82년의 5년간 인구의 변화를 보면 북구는 인천의 다른구에 비해서 대단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당시 중구는 85,227명에서 82년에는 86,735명으로 5년간 인구의 증가는 별로 없는 반면 북구는 77년의 250,723명에서 82년에는 391,801명으로 무려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활권의 인구배분 정책과 부도심을 중심으로한 주거기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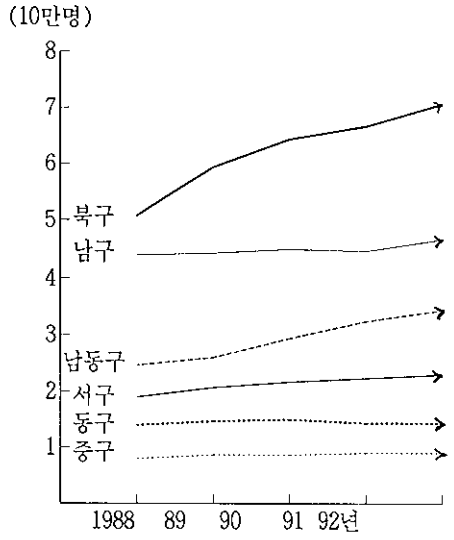
17) 『朝鮮軍槪要史』 朝鮮軍殘務整理部.

상업기능의 강화 및 공업단지를 형성한데에 기인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성별구성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여초현상(女超現象)이 뚜렷하였다.

또 최근 5년간(1988~1992)의 인구추이를 볼 때, 인천시의 6개구 중에서 중구, 동구, 남구는 10%이하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북구, 서구, 남동구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북구는 50%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 인천시의 새로운 인구밀집지역으로서의 변모를 더해 가고 있다. 그리고 북구는 전입인구와 전출인구가 어느지역 보다도 많아 (1992년 인천시의 37%) 사회적 증가도 다양하고, 인구의 유동도 빈번하여 하루에 부평지역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30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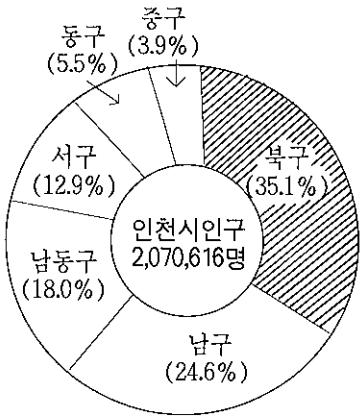
1992년 현재 북구의 인구는 인천시의 35.13%인 727,528명[18]으로 이중 부평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63%, 계양구는 37%의 인구비율을 차지 한다.

〈도 9〉 구별 인구증가




* 자료 : 인천시 통계연보

〈도 10〉 구별인구의 비율




* 자료 : 인천시 통계연보

18) 인천직할시, 『인천시통계연보』, 1993.

〈표 5〉 동별 가구 및 인구현황

| 동 별 | 가 구 | 인 구 수 | | | 인구밀도 |
|---|---|---|---|---|---|
| | | 계 | 남 | 여 | |
| 부평 (6 개 동) | 43,848 | 143,117 | 72,274 | 70,843 | 21,555 |
| 산곡 (3 개 동) | 30,723 | 102,451 | 51,185 | 51,266 | 22,721 |
| 청천 (2 개 동) | 12,894 | 40,559 | 21,154 | 19,494 | 11,531 |
| 효성 (2 개 동) | 15,894 | 52,559 | 26,973 | 25,586 | 9,788 |
| 계산 (3 개 동) | 25,064 | 82,142 | 41,177 | 40,965 | 20,277 |
| 작전 (2 개 동) | 21,707 | 70,786 | 35,734 | 35,052 | 27,509 |
| 서 운 동 | 931 | 3,211 | 1,670 | 11,541 | 1,264 |
| 갈 산 동 | 9,463 | 31,907 | 16,211 | 15,696 | 18,769 |
| 삼 산 동 | 7,202 | 24,189 | 12,125 | 12,064 | 11,464 |
| 부개 (3 개 동) | 19,596 | 66,373 | 33,556 | 32,817 | 20,182 |
| 일 신 동 | 2,816 | 9,634 | 5,036 | 4,598 | 2,235 |
| 십정동 (2 동) | 18,861 | 10,333 | 31,047 | 29,286 | 22,800 |
| 계양지구 | 12,450 | 40,178 | 20,435 | 19,743 | 4,149 |
| 계 | 221,449 | 677,439 | 368,577 | 368,951 | 194,244 |

* 자료 : 북구청 통계연보

### 2) 인구분포(人口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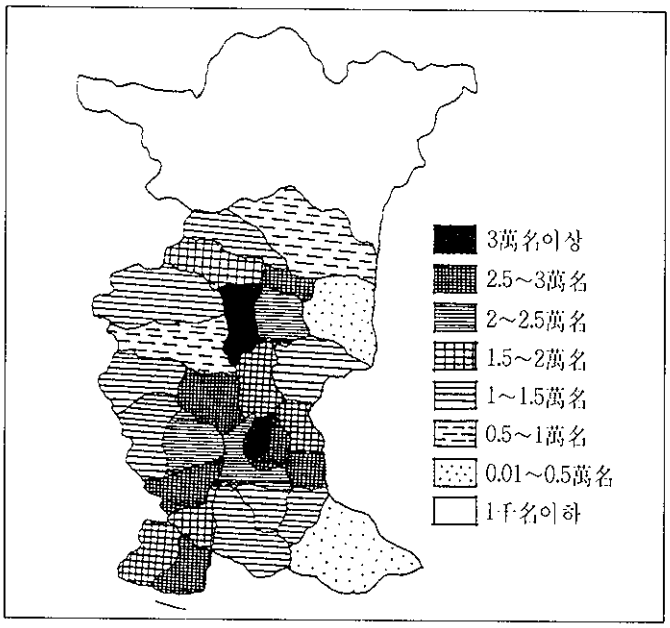
인구분포를 상대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 인구밀도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구조밀 국가로서 특히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 지역은 그 도가 지나치리 만큼 모든 것이 과밀화 되어 있다.

인천은 시역(市域)이 비교적 넓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밀도 면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구가 구시가(舊市街)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심한 편재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 인구의 75%이상이 북구, 남구 및 남동구에 밀집되고 있는데 이곳으로의 편중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

인천의 인구조밀 지역은 1965년까지는 신흥동, 송림동, 인현동 등 원인천(元仁川)지역이었고, 점차 도로나 철로변을 따라 인구의 분산을 보이다가 1970년에 와서 북구의 부평지구(부평 1,2,3,4,5동)에 또 하나의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1992년 현재 북구의 인구밀도는 9,465명/㎢으로 인천의 평균 6,112명/㎢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6개구중에서 동구(17,801), 남구(11,229) 다음으로 많다. 북구가 계속된 구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외부인구의 유입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도 11〉 동별 인구밀도




* 자료 : 북구청 통계연보

〈표 6〉 부평지역의 외국인 거주현황

| 지 역 | 계 | 중국인 | 미국인 | 일본인 | 기 타 |
|---|---|---|---|---|---|
| 부평동 | 263 | 153 | 65 | 33 | 12 |
| 산곡동 | 210 | 87 | 84 | 27 | 12 |
| 청천동 | 5 | 1 | 2 | 1 | 1 |
| 효성동 | 160 | 54 | 6 | 6 | 94 |
| 계산동 | 32 | 14 | 2 | 3 | 13 |
| 작전동 | 67 | 44 | 12 | 10 | 1 |
| 서운동 | 1 | · | · | · | 1 |
| 갈산동 | 18 | 11 | 3 | 1 | 3 |
| 삼산동 | 17 | 13 | 3 | · | 1 |
| 부개동 | 50 | 23 | 18 | 8 | 1 |
| 일신동 | 9 | 8 | 1 | · | · |
| 십정동 | 47 | 29 | 11 | 7 | · |
| 계양동 | 12 | · 10 | 2 | · | · |

* 자료 : 북구청 통계연보

지역적으로 보아서 부평4동(35,151), 작전2동(32,352)이 인구밀도가 3만명 이상으로 단연 높고, 반면 대부분 농촌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계양1동은 473명/㎢에 불과하다. 북구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곳은 최고 산곡2동을 비롯하여 작전1동, 작전2동, 효성1동, 갈산동, 산곡3동, 십정2동 등으로서, 이들 지역은 북구 전체 면적의 13%로서 전인구의 33%가 거주하는 북구의 인구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북구는 인천의 다른 구에 비해서 계양동이나 일신동, 서운동 등 농촌지역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인구분포의 편중현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혼재(混在)된 지역구조의 성격으로 생각된다.

인천의 개항이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던 만큼 초창기에는 외국인이 득실거리는 국제도시적인 형태를 지녔었다. 따라서 부평지역에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1992년 현재 부평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부평지역인구의 0.12%에 해당하는 891명으로, 그중 반수가 넘는 449명이 중국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부평동이나 산곡동 등 부평의 도심지역에서 주로 상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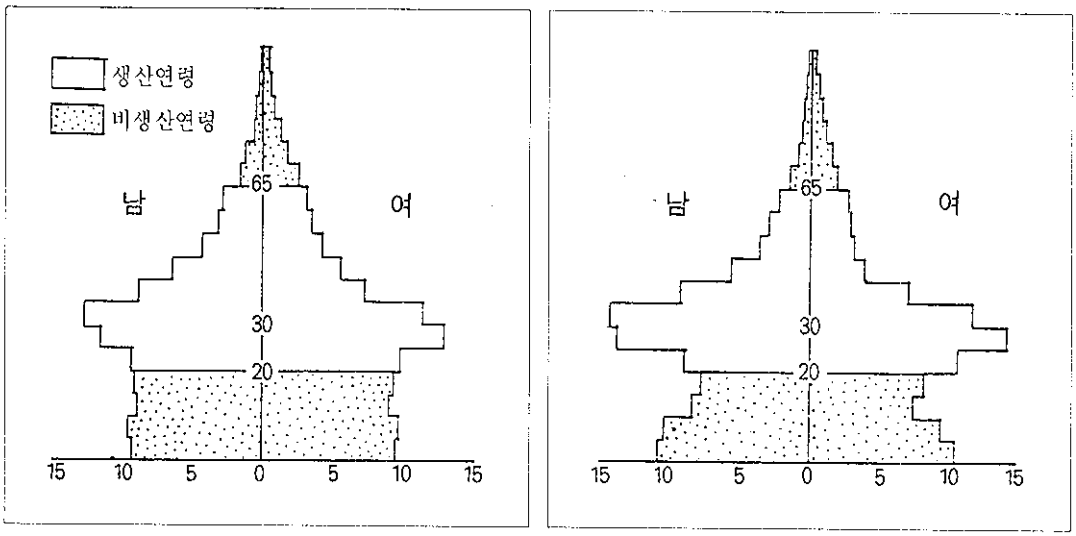
### 3) 인구구조(人口構造)

다음에 인구구조(人口構造)도 그 지역의 주민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인구의 구조적 파악을 통해서 그 사회의 발전단계와 특징을 규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구조적 차이는 또 사회의 조직 및 제도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선 부평지역에 있어 남여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1977년에는 남자 100에 대하여 여자는 108.3으로서 여초현상(女超現象)이 뚜렷했으며, 1982년에도 남자 100에 대하여 여자는 103.4로 여자가 많았는데 특히 이 시기에 효성동은 남자 100에 대하여 여자가 128.5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공업단지인 산업지대와 관련이 크다.

그런데 1990년에는 남자대 여자의 비율이 100:98.8로 되어 여자가 오히려 적어졌고, 또 1992년 현재는 남녀의 비가 100:97.4가 되어 같은 해 인천의 남여비 100:98.1에 비해서 부평지역이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부평지역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산업구조로 개편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연령별 인구구조에 의하여 20세에서 65세까지를 생산연령으로하고,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비생산연령으로 할 때 비생산연령의 인구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생산활동 인구집단에 주는 부양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발달에 지장을 준다. 부평지역의 경우는 생산연령층의 비율이 60.75%로서 인천시(60.55%)보다 조금 큰 편이다. 또 연령별로 볼때, 25~34세에서 가장 높은(27.26%)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30~34세에서 14.12%, 여자는 25~29세에서 14.6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여러가지 구조 가운데서도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는 인구학(人口學)의 기본으로서 일반적으로 인구 피라미드라고 한다. 이 인구 피라미드는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인천시의 경우는 성형(星型) 또는 도시형(都市型)을 나타낸다. 도시사회는 그 기능과 사회구조면에서 생산연령층 인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시화가 고도로 진전된 지역일 수록 성형 인구구조가 뚜렷하게 된다. 북구는 인천시보다 성형의 인구구조가 더 뚜렷하고 북구내에서도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탁월한 작전1동이나 효성2동은 더욱 두드러진 인구구조의 특성을 보여준다. 반면 부평지역에서도 농촌적 경관이 많은 일신동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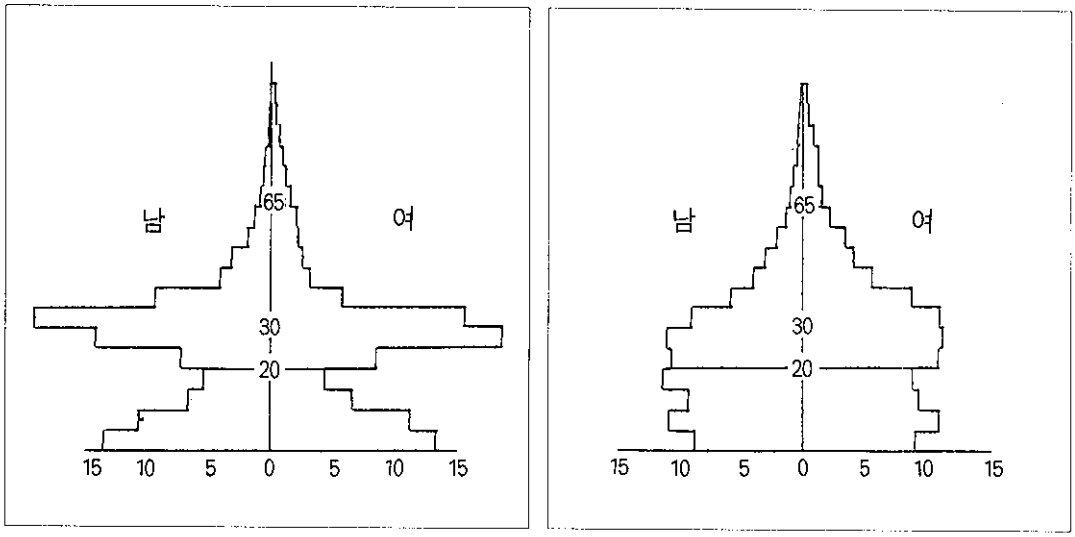
〈도 12〉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인천시) (북구)

자료 :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통계청, 1990.

〈도 13〉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작전 1동) (일 신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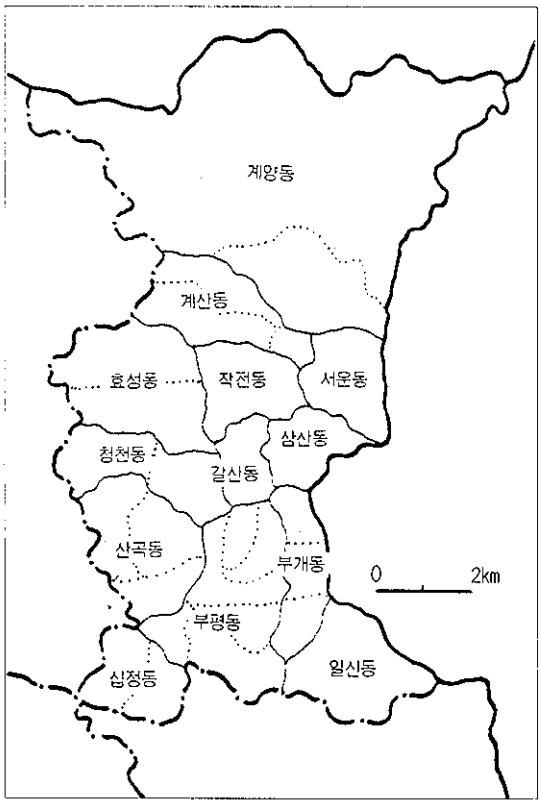
자료 :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통계청, 1990.

## 2. 지역개황(地域槪況)

### 1) 지역적(地域的) 특성(特性)

부평지역은 인천시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북방으로는 한강유역의 김포평야와 남방으로는 서해의 관문인 인천항에 접한 교통의 요충지(要衝地)로서 근래에 와서는 인천의 어느지역 보다도 급격한 성장을 보여왔고, 또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오늘날의 인천지역 안에는 옛부터 독자적인 지역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문학산록(文鶴山麓)일대의 인천권과 계양산록(桂陽山麓)일대의 부평권이다. 이는 지형적으로도 소래산맥과 계양산맥이 경계를 이루어 두 지역간을 차단하였고, 입지적으로도 다른 측면에서 지역의 중심지가 될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평지역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으로, 통일신라시대에는 장제군(長堤郡)으로, 고려시대에는 수주(樹州), 안남(安南), 고주(古州), 부평(富平) 등으로 불리었었다. 그리고 15C말의 행정구역 개편당시에는 경기도는 3목(牧), 8도호부(都護府), 10군(郡), 12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인천시역과 거의 일치하는 범위안에는 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가 포함되었었다. 지리적으로 보면 북구는 부평동을 중심하여 산곡동, 갈산동, 부개동,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지역은 동쪽을 제외한 3면이 산및 구릉으로 막혀서 분지를 이루어 해안쪽의 인천권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 14〉 부평지역의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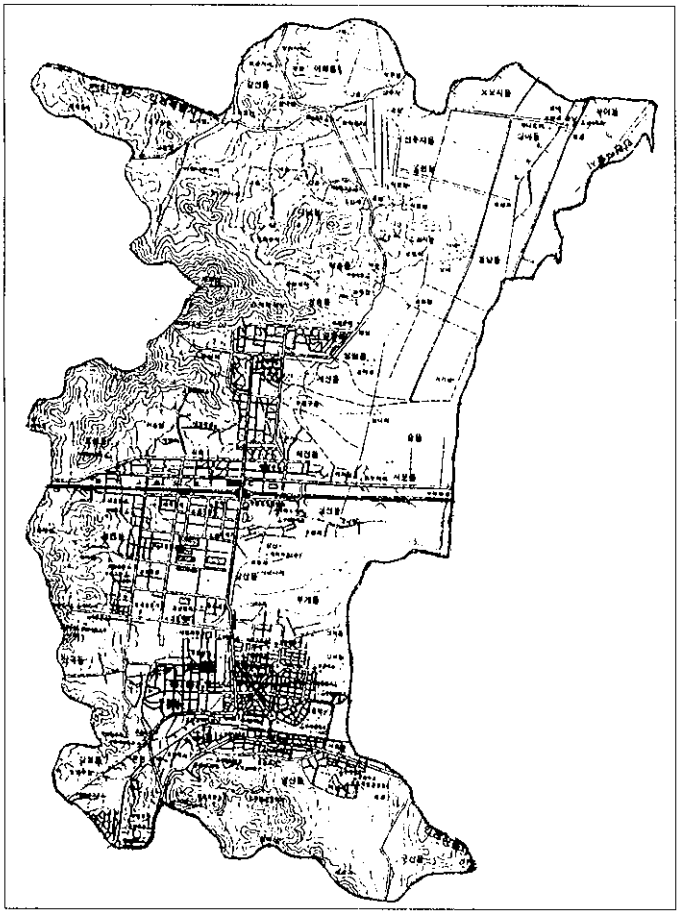

부평의 중심지역으로 명맥을 이어온 곳은 부평동 지역인데 옛부터 부평읍은 진산(鎭山)인 계양산의 산록과 곡구에 발달해 왔다. 계양산은 인천 제일의 녹지 보존지역으로 계수나무와 회양목이 많아 계양산이라 하는데, 해발 395m에 불과하지만 백두대간(白頭大幹)에서 한반도의 중서부쪽으로 방향을 틀어 용솟음치며 달리던 한북정맥(漢北正脈)이 이곳 계양산에서 기(氣)를 틀고 앉아 한반도 서쪽 허리를 굳게 지키는 명산 중의 하나로서 조선건국 후보지의 물망까지 올랐던 명당(明堂)이라 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취락 입지가 풍수사상(風水思想)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이 부평읍의 취락도 계양산을 끼고 북방민족의 침입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에서 지형적인 요새지와 한냉한 북풍을 피하고 연료를 얻기가 쉬운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취락입지(聚落立地)라고 할 수 있다.

취락의 형태는 가옥의 밀도가 높은 집촌(集村)을 형성하였으며 읍내를 중심으로한 도로가 서울, 김포, 인천으로 통하는 육로의 교통요지를 이루어 이곳에 관아(官衙)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호부청사(都護府廳舍), 향교(鄕校), 어사대(御射帶), 사직단(社稷壇)등이 위치하였다.

그러나 부평읍(계산동)은 1899년 이후 철도의 건설과 1906년이후의 전국적인 도로의 개축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의 혁신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인구집중이 이루어져 생활의 중심권을 형성함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그 무대가 옮겨가게 되었다. 즉 부평의 중심은 인천의 관교동(官校洞)으로 이전되고 다음으로는 소사리(素砂里)로 군청의 이전을 보게 되었다.

〈도 15〉 부평지역의 시가지 형태



인천의 시가지 개발은 개항이후 외국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 졌었는데 본격적인 개발사업은 1937년부터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 제도화 되었는다. 부평지역의 시가는 1941년에 소화지구(昭和地區 : 지금의 부평지구)에서 시작되었다.

개항이후의 인천의 시가지 형태를 보면, 항만지역만이 주로 발달하였고, 부평쪽은 경인선의 부평역 중심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었다.

인천의 발전방향은 1981년에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구·동구지역의 중심지가 남구와 북구로 이전되었고, 1988년에는 북구가 분구되어 서구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계획지역으로서 부각되었다.

특히 부평지역은 계양산 줄기가 뻗어난 곳에 준용하천(準用河川) 4개소가 흐르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기본적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구의 도심지인 부평동 지역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부개지구(富開地區)와 북으로는 계산(桂山), 계양(桂陽), 작전(鵲田) 지구의 신흥개발지역으로써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신시가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효성(曉星), 산곡동(山谷洞)의 수출 4공단과 대우자동차 등의 대단위 공업지역을 이루고 있다.

시가지는 중심도로인 부평로, 철마로, 가현로, 청천로, 백마로, 경인국도 등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부평지구는 인천의 항망과 서울권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경인전철(동암, 백운, 간석, 부평역)과 고속도로가 이 지역의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데 1일에 유입되는 인구가 30만이 넘는 활기찬 도시지역이다.

그리고 부평지역은 상업, 공업, 주택,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지구로서 새로 편입된 계양지구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비교적 쾌적한 환경이 보존된 지역도 많으나, 주변에는 군부대가 주둔한 군사보호구역도 많아 개발에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평지구는 공해 1번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 지역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각종 문명의 이기(利器)가 집적한 대도시나 공업단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현상을 수반하게 되는데 공해가 심각해지면 도시기후의 문제도 부각되어진다.

부평지역도 수도권(首都圈)에서는 서울에 이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각종 기상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 2) 기능별 지역구조

부평의 지역별 구조는 한마디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수출 4공단의 공업지역과 구획정리된 주택지가 있는가 하면 변두리에는 농경지와 임야지역이 구성되어 있고 김포의 일부가 편입함에 따라 군사시설도 보유하게 되었다.

기능별 용도지역의 구분을 크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북구의 경우 이들이 토지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상·공업지역은 16.5%, 주거지역은 17.7%, 녹지지역은 53.5%이고 나머지 12.3%는 기타로 되어 있다.[19]

---

19) 仁川直轄市 北區, 『區政白書』, 1993, p.15.

〈표 7〉 도시계획 용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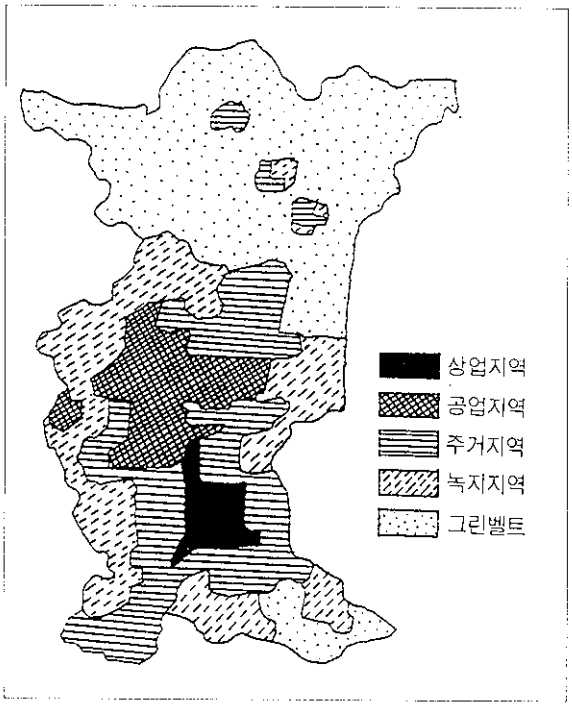
(단위 : ㎢)

| 계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 | 생산녹지 | 기 타 |
|---|---|---|---|---|---|---|---|---|
| 77.150 | 14.662 | 1.271 | 1.927 | 2.990 | 6.400 | 46.457 | 3.428 | 0.015 |

* 자료 : 북구청 구정백서

그러나 1975년 부터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왔다.[20]

〈도 16〉 부평지역의 기능




* 자료 : 인천시 도시계획총괄도 인천직할시

부평지역은 대규모의 공단과 더불어 임야와 농경지가 아직 많고 계획된 주거지로도 매력을 갖춘 곳이다. 기능별 지역에 있어 먼저 주거기능을 보면, 부평과 백마지구(산곡동, 청천동)를 들 수 있다. 부평지구는 원래 인천의 도시계획에서 구인천(중구와 동구)의 인구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부도심(副都心)으로 개발한 것으로 상업과 더불어 주거기능을 목표로 했었고, 백마지구는 대단위 공업단지와 더불어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계산동과 새로 편입된 계양지구가 쾌적한 환경을 배경으로 새로운 주거지역단지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에 상업기능으로서, 1966년에 지정되었던 상업지역은 부평동, 부개동 일대의 1,577,000㎡였다.

이 지역은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지이며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적인 성격을 띤 곳으로 현재 북구청을 위시하여 관공서가 집합되어 있고 북구의 상업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또 산곡동은 지역사회의 중심지이며, 시장의 중심지로서 거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백마시장이 있으며 그 주변은 주택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상업구는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하는 한편, 주변

20) 주거지역 –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 시설녹지

공업지역의 업무 중심지로서 개발되고 있으며 주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다음에 공업지역으로서, 공업단지의 조성은 1967년에 부평지구에 그 계획을 마련했었는데, 서울-인천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인천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수출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공장의 유치로 취업인구를 증대시키며 용도지역제(用途地域制)의 획일화를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평수출공업단지 조성은 효성·작전·갈산동지역의 약 21만평(전체 면적의 72.8%를 공장부지로 하는 13개의 블럭으로 함)이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준공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는데 그지역은 계양준공업지구(효성, 계산동), 작전·부평준공업지구(갈산, 청천, 산곡, 부평동), 부개준공업지구(부개동)이다.

〈표 8〉 인천시 구역별 시장 및 상가의 분포

| 구분 \ 지역 | 중 구 | 동 구 | 남 구 | 남동구 | 북 구 | 서 구 |
|---|---|---|---|---|---|---|
| 상가·상가수(개소) | 7 | 5 | 21 | 9 | 17 | 1 |
| 대 지(평) | 6,895 | 7,484 | 21,321 | 7,515 | 14,603 | 1,900 |
| 건 물(평) | 7,951 | 5,253 | 24,301 | 12,968 | 18,549 | 2,626 |
| 점 포 수(개소) | 1,128 | 444 | 2,019 | 764 | 1,782 | 258 |

* 자료 : 한국의 상권

또 녹지지역은 공원, 풍치지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자연녹지는 효성·계산·구산동의 일부가, 생산녹지는 서운, 삼산, 일신동 및 계양지구의 일부가, 그리고 풍치지구는 계양산의 서쪽 산록지 대가 이에 해당한다. 공원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연공원, 그린공원을 합하여 20여개가 되며 그 면적은 10㎢가 된다.

### 3) 각동(各洞)의 성격(性格)

#### (1) 부평동(富平洞)

부평동은 부평군(富平郡) 부내면(富內面)소속의 대정리(大井里)라 하였다. 1940년에 제2차 부역(府域)확장으로 인천부(仁川府)에 편입되어 소화정(昭和町)으로 되었다가 해방후(1946년 1월) 부평동(富平洞)으로 개칭되었다. 일정때는 일본군의 병기를 제조하는 곳이었고, 6.25동란 때는 대단위의 미군이 주둔하여 이 지대를 애스캄(Ascom)이라고 호칭하여 새로운 미 군수경기를 이르켰고 애스캄 정문 주변을 신촌(新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부평동은 도시계획을 부평지구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였으며 시장, 상가가 집결된 상업의 요지로서 또 구청이 소재한 동으로서 부평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2) 청천동(淸川洞)

청천동은 부평부(富平府) 마장면(馬場面)소속이었던 것이 1914년 부내면의 淸川里가 되었다가 1940년 제2차 확장으로 인천부(仁川府)에 편입되어 천상정(川上町)이 되었다.

해방후 1946년 1월 1일에 동명을 우리식으로 개정하면서 청천동이 되었다.

대우자동차 등 대형 기업체들이 소재하여 효성동과 더불어 부평지역 대표적인 공업지역이다.

(3) 산곡동(山谷洞)

산곡동의 내력도 옛날의 마장(馬場)이 있었던 곳으로 부평부가 근세에 이르러 동리명칭을 확정 지을때 산곡리로 하였다. 일제때(1940년)는 일본식 이름인 백마정(白馬町)으로해서 인천부에 편입되었고, 해방후(1946년 1월 1일)에 동명 개칭으로 산곡동(山谷洞)이 되었다.

동의 동부지역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나 서쪽 산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다.

(3) 효성동(曉星洞)

효성동은 옛날에 마장(馬場)이라 불리던 곳으로 본래 부평군 부내면 효성리(曉星里)였는데,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어 일본식 이름으로 서정(署町)이 되었다. 해방후 1946년 1월에 동명 개칭으로 효성동(曉星洞)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공단 4단지를 위시한, 북구뿐 아니라 인천 최대의 공업지역이고, 최근에는 대규모 주거단지도 조성되고 있다.

(5) 부개동(富開洞)

부개동은 본래 부평군 부내면 마분리(馬墳里)였는데 1940년 인천부로 편입되어 명치정(明治町)이 되었다가 해방후(1946년 1월) 동명을 우리식으로 개칭하면서 부개동(富開洞)이 되었다.

부평의 중심지에 인접해 있으면서 지금은 부개택지지구의 조성 등 주거지역으로 그 모습을 변해가고 있다.

(6) 갈산동(葛山洞)

갈산동은 본시 부평군 부내면 갈월리(葛月里)였는데, 1940년에 인천부에 편입되어 길야정(吉野町)이 되었다가 해방후 1946년 1월 동명 개정으로 갈산동(葛山洞)이 되었다.

현재 갈산택지지구에 대형아파트단지의 주거지역과 새로운 공업지역들이 혼재하고 있다.

(7) 삼산동(三山洞)

삼산동은 원래 부평군 부내면 후정리(後井里)였는데 1940년에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삼입정

(三笠町)이 되었다가 해방후 1946년에 동명개정으로 삼산동(三山洞)이 되었다. 현재 대부분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논과 밭이 많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지역이 들어서고 있다.

(8) 일신동(日新洞)

일신동은 본래 부평군 부내면의 선동리(船洞里)였는데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향취정(香取町)이 되었다가 해방후 1946년 동명 개정으로 일신동(日新洞)이 되었다. 왜정때는 일본의 군사기지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철거 당하고 변두리에 민가 몇 채만 있었고 지금은 개발 제한구역과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서운동(瑞雲洞)과 더불어 인구밀도가 가장 낮다.

### 4) 부평지역의 분구

종래 북구로 되어있던 부평지역 행정구역의 변화를 보면, 1995년 3월 1일에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대부면은 제외)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그 면적이 339.4㎢에서 954.1㎢로 확장되어 인천지역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구에는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되는 반면에 북구 서운동지역의 일부(7,941m)가 경기도 부천시로 넘어가기도 했으나 북구는 남구와 더불어 인천광역시의 행정상 과대구로 평가되어 95년 3월 1일부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었으며 이에 기존의 북구명칭은 없어지게 되었다.

〈표 9〉 북구의 분구

| | | 면적(㎢) | 인구(명) | 행정동 |
|---|---|---|---|---|
| 북 구 | | 76.87(100%) | 750,385(100%) | 32 |
| 분구후 | 계양구 | 43.75(57%) | 235,603(34%) | 11 |
| | 부평구 | 33.12(43%) | 496,782(66%) | 21 |

* 부평구 통계연보, 1995.

그리고 두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은 북구의 거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가 되어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남·북 양생활권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분구로 인하여 두개구로 나누어지게 된 부평지역은 각각 다른 지역성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를 계기로 그 지역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먼저 부평동을 중심한 부평구는 철마산-만월산의 줄기를 축으로 하여 부평정주대권을 형성하여 인천권과 분리되어 왔으며 인천의 도심다핵화정책에 의하여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인천북부 지역의 금융, 상업, 유통 등 도심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구로 인하여 예상되는 것은 특히 계양구의 변화가 주목되는데, 그 이전에는 북구의 외곽지대로서 단지 신개발지로서만 각광을 받아 왔으나 분구 후에는 계양구가 인천광역시 북부지역 개발의 견인차로서 가장 활발한 발전이 예상된다.

계양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수도 서울과 인접된 지역으로 농촌과 도시생활권이 교차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원래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대부분 군사시설 및 그린벨트지역이나 대단위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등 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계산동 중심의 이 지역은 옛 부평읍으로서 개화기에는 내륙에 위치한 불리한 여건 때문에 그 중심기능을 경쟁지역인 해안의 인천권에 빼앗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철의 건설 및 서울을 잇는 도로망의 확충 등이 지역환경과 어우러져서 옛날의 번영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

# 第3章 부평의 지지(地誌)와 고지도(古地圖)

## 1. 부평의 지지(地誌)

지금의 인천직할시 북부 및 북동부, 부천시 일대는 조선 시대에는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지역이었다. 지방제도 개정으로 1895년에 인천부 부평군, 1896년에 경기도 부평군이 되었다.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기초 작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한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부평군이 폐지되고, 부천군에 통합되었다. 이 때 면의 폐합도 이루어져 군내면·서면·마장면·동소정면이 부내면으로, 동면·당산면·황어면이 계양면으로, 법화관면·상오정면·하오정면이 오정면으로, 수탄면·수곡면·옥산면·석천면이 계남면으로, 모월관면·석관면이 서관면으로 통합되었다. 이 글에서는 1914년 이전에 편찬된 부평의 지리지(地理志)와 고지도(古地圖)를 검토하여, 현재 부평지역의 옛 모습을 직접적으로 전해 주는 자료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부평의 지역 사정을 기술한 지지(地誌)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를 제외하면, 조선 시대 이후에 편찬된 자료들만 전하고 있다. 이들 지지를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전국지리지의 일부로 수록된 지지이다. 둘째는 각 군현에서 작성한 읍지를 각 도에서 일차수합하여 도별로 장책한 도지(道誌) 혹은 전국의 읍지를 모아 놓은 전국 읍지 중에 포함된 지지이다. 셋째는 군현별로 작성되어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군현 읍지이다.

### 1) 전국지리지에 포함된 부평의 지지

전국의 모든 지역의 지지를 일정한 체제에 따라 편찬한 전국지리지는 조선 전기에는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개인이 편찬하였다. 전국지리지는 전국의 각 군현을 모두 포함한 장점이 있지만, 각 군현의 지지(地誌) 내용은 비교적 간략하다. 전국 지리지 중에 포함된 부평 지역의 지지는 다음과 같다.

가. 『世宗(莊憲大王)實錄』권148, 地理志

나. 『新增東國輿地勝覽』(奎892, 1932, 3477)[1]

다. 『東國輿地誌』(古 4790~51)

1)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에는 소장처를 표시하지 않고, 도서번호만 기록하였다. 이하 같음.

라.『東輿圖誌』(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마.『輿圖備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바.『大東地誌』(고려대학교 소장)

부평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지지 가운데『삼국사기(三國史記)』지리지(地理志)와『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志)는 지방 행정구역의 변화 및 지명 개정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명의 변화, 행정 구역 체제 등을 다루고 있어 지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옛 지명과 그 변화, 지역행정 체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삼국사기(三國史記)』권34, 지리지(地理志)의 '장제군(長堤郡)'조에는 부평이 당시 무성현(戊城縣), 김포현(金浦縣), 동성현(童城縣), 분진현(分津縣) 등 4곳의 영현(領縣)을 가진 고장이었음을 기록하였다.『고려사(高麗史)』권56, 지리지(地理志)를 보면, 지금의 부평 지역의 이름은 안남도호부수주(安南都護府樹州)로 되어 있다. 당시 금주(衿州), 동성현(童城縣), 통진현(通津縣), 공암현(孔巖縣), 김포현(金浦縣), 분진현(分津縣)등 6개의 속현(屬縣)을 가진 큰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지리지 가운데 지역의 특성을 기록한 지지의 편찬은 1424년(세종6)에 편찬령을 내려 1432년(세종14)에 완성한『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지는 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종(世宗)의 사후(死後) 세종 대에 편찬된 지리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동안에 새로 조선의 영토로 편입된 부분인 평안도·함경 양계(兩界) 지방을 추가하여 편찬한『세종실록』중의 지리지(1454, 단종 2)에 수록함으로써『신찬팔도리지리』의 내용과 세종대 각 지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가운데 부평 지역의 지지로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조가 수록된 이후 조선 시대의『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에는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로 수록되었다. '부평(富平)'이라는 지명은 고려 시대 충선왕 2년(1310)에 개칭된 이래 조선 시대 동안 이 지역의 이름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세종실록』지리지의 부평도호부에 수록된 내용은 〈표1〉과 같이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치연혁, 인구, 경지, 성씨,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산 등 사회, 경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당시 지지 편찬의 주 목적이 인구수와 인구 이동 같은 사회적 실태, 경지면적과 물산과 같은 각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파악하는데 있었음을 보여 준다. 관할 소령(所領) 지역으로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 인천군(仁川郡), 해풍군(海豊郡), 김포현(金浦縣), 교동현(喬桐縣), 양천현(陽川縣), 통진현(通津縣) 등 강화에서 양천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1477년(성종8)에는『세종실록』지리지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지리지 편찬이 이루어져 마침내『8도지리지(八道地理志)』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지리는 전하지 않는다.

『팔도지리지』의 완성 후 4년이 지난 1481년(성종7)에 『팔도지리지』의 내용에 우리나라 문사 들의 시문(詩文)을 첨가하여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두 번의 수교 과정을 거친 후 1530년(중종 25)에 새로운 내용을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표 1〉의 항목에서 보듯이 인구, 경지면적, 물산 등 사회 경제적인 내용이 제외되거나 대폭 약화되었다. 반면에 형승, 누정, 학교, 불우, 사묘, 고적, 인물, 재영 등 문화적인 내용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확립을 반영한 조선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일컬어진다. 더욱이 다른 대부분의 지리지가 필사본으로 편찬됨으로써 지리지가 보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데 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비교적 다수가 보급됨으로써 조선 후기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지리지의 편찬은 조선 후기에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개인에 의해 전국지리지가 편찬되어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誌)』[2]는 편찬자와 편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1622~1673)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3] 17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국여지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로서, 16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사찬읍지의 성과를 수용한 것이었다. 반계는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당시 읍지가 수행하였던 사회적 유용성을 인식하고 지리지 편찬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계는 읍지가 지니는 지방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시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과 사회 현상을 올바로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위하여 전국지리지인 『동국여지지』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신증동국여지승람』·『대명일통지』등을 기본으로 하여 편찬되었다. 그러나 역사지리적인 내용이 늘어나고, 군현 하부 행정단위인 면(面)의 수를 기록한 반면, 『성씨』·『제영』등의 내용은 삭제함으로써 『신증동국여지승람』과는 성격이 다른 지리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각 군현의 경지 면적인 「한전(旱田)」「수전(水田)」 항목을 지지의 첫 항목으로 설정한 점이며, 경지의 단위도 당시 사용되던 결부법(結負法)대신 경무법(頃畝法)을 사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항목은 기록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중시하였던 반계의 사회개혁안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각 군현의 토지 면적을 경무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국가의 전제(田制) 개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제도 개혁을 기다리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

2) 東國輿地誌(古 4790-51) 10책은 亞細亞文化社, 1983, 韓國地理誌叢書, 全國地志誌 ③으로 영인되었다.

3) 朴仁鎬, 1989, 「柳馨遠의 東國輿地誌에 대한 一考察 -歷史意識과 관련하여-」『清溪史學』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楊普景, 1992, 「磻溪 柳馨遠의 地理思想- 『東國輿地誌』와 『郡縣制』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第4號,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범례(凡例)」에 의하면, 대부분의 책들이 각 군현의 연혁에서 대체로 삼국시대 이후의 것을 서술하고, 삼국 이전은 서술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비판하고, 서술에서 빠진 지역을 찾아 바로잡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로 김부식의 『삼국사기』 지리지를 거론하였다. 『삼국사기』에 백제 경역의 북쪽 경계가 한강이라 하였으나, 한강 남쪽 지역 즉 광주·여주·이천·부평·인천·안산·금천·과천·음죽·죽산·안성·양성·영인·진위·직산·진천·청안 등이 백제 부분의 서술에서 누락되고, 고구려에 기록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국여지지』에는 부평도호부 「건치연혁(建置沿革)」조에 이 지역의 역사를 백제의 미초홀(彌超忽)로부터 기록하였다. 이는 이전의 지리서들이 이 지방 연혁의 시작으로 기록하던 고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보다 한 시기 앞선 것으로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조선 후기를 마감하는 19세기 중엽, 위대한 지리학자 김정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청구도(靑邱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수선전도(首善全圖)』등의 지도 외에도 『동여지도(東輿圖誌)』[4]·『여도비지(輿圖備誌)』[5]·『대동지지(大東地誌)』[6]와 같은 전국 지리지를 남겼다.[7] 이들 지리지 중에 부평의 지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지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물, 성씨, 시문(詩文), 고적과 관련된 항목들이 제외된 점이다. 『여지승람』이래 조선시대에 편찬된 읍지들이 지방의 인물과 그 지방과 관련된 시문 등을 중시하였고, 19세기 이후 읍지에 인물에 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던 것과 비교할 때 이들 지지들의 특징은 두드러진다. 반면에 『동여도지』와 『대동지지』에는 「전고(典故)」조를, 『여도비지』에는 「전략(戰略)」조를 두어 역대 외국의 침략과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외세(外勢)가 본격적으로 밀려들어오기 이전이었으나 외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자 하였던 의도로 보인다. 이들 읍지에는 「방면(坊面)」조에 각 면의 이름과 위치 등을 기록하여 군현보다 하위의 행정 지역에 대한 파악을 전국지리지 차원에서도 상세히 하였다.

---

4) 『東輿圖誌』 총 20책, 1834년경 편찬, 이후 1861년까지 보완. 17책은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2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5) 『輿圖備誌』 총20책. 1851~1856년 편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韓國人文科學院에서 1991년 韓國邑誌摠覽의 일부분으로 3책으로 영인. 각 卷의 앞에 "蘂城 崔理煥星玉甫 彙輯 鰲山 金正浩 元甫 圖編"이라 기록하여 최성환과 김정호가 공동으로 편찬하였음을 명기하였다.

6) 『大東地誌』 총32권 15책 중 30책 현전. 1861년 완성, 1866년까지 추보. 1974년 한양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영인, 1976년 亞細亞文化社에서 영인.

7) 고산자의 지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李相泰, 1988, 『金正浩의 三大地誌硏究』,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楊普景, 1991, 『古山子 地誌의 現代的 評價』, 『地理學』 第26卷 第26號, 大韓地理學會.

〈표 1〉 전국지리지에 포함된 부평 지지의 항목

| 世宗實錄 地 理 誌 | 新增東國 輿地勝覽 | 東國輿地誌 | 大東地誌 | 東輿圖誌 | 輿圖備誌 |
|---|---|---|---|---|---|
| (建置沿革) | 建置沿革 | 建置沿革 | 沿革 | 沿革 | 建置 |
| 四境 | (四境) | (四境) | (도 통계) | 彊域 | (도 통계) |
| 戶 | | | (도 통계) | 戶口 | (도 통계) |
| 口 | | | (도 통계) | | (도 통계) |
| | 山川 | 山川 | 山水 | 山類 | 山川 |
| | | | 嶺路 | 嶺阨 | 嶺路 |
| | | | | 水類 | |
| | | | 島嶼 | 島嶼 | |
| 軍丁 | | | (도 통계) | 軍兵 | (도 통계) |
| | 風俗 | 風俗 | | 風俗 | 風俗 |
| (姓氏)× | 姓氏 | | | | |
| 厥土肥瘠 | | | | | |
| 風氣 | | | | | 食貨 |
| 墾田 | | 〈旱田,水田〉 | (도 통계) | 田賦 | (도 통계) |
| 討宜 | 土産 | 土産 | 土産 | 土産 | 土産 |
| 藥材 | | | | | |
| 漁梁 | | | | 場市 | 場市 |
| 鹽所 | | | | 穀傳 | 漕運 |
| | | | | | 武備 |
| | 城郭 | | 城池 | 城郭 | 城池 |
| 烽火 | 烽燧 | 烽燧 | 烽燧 | 烽燧 | 烽燧 |
| | | | 典故 | 典故 | 戰略 |
| 驛 | 驛院 | 郵驛 | 驛站 | | 道理 |
| | | | | 驛站 | 驛道 |
| | | | | | 津渡 |
| | 橋梁 | 關梁 | | 橋梁 | 橋梁 |
| | | | | 院店 | 院店 |
| 所領(郡縣) | 官員 | 官員 | 官員 | 官員 | |
| | 郡名 | 郡名 | 邑號 | | 邑號 |
| | 形勝 | 形勝 | | 形勝 | 形勝 |
| | 學校 | 學校 | | 宮室 | |
| | 佛宇 | 寺刹 | | | |
| | 祠廟 | 祠廟 | | 壇遺 | 祀典 |
| | 塚墓 | 陵廟 | | 廟殿 | |
| | 古蹟 | 古蹟 | | | |
| | 名宦 | 名宦 | | | |
| | 人物 | 人物 | | | |
| | 寓居 | | | | |
| | 孝子 | | | | |
| | 題詠 | | | | |
| | | 〈掌面〉 | 坊面 | 坊面 | 坊面 |
| | | 宮室 | | 倉庫 | 倉庫 |

주) ① 『세종실록』지리지의 성씨는 土姓, 來姓, 亡姓, 亡來姓, 縞姓 등으로 세분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② 『대동지지』·『여도비지』에 '도통계'로 기록한 것은 각 군현 읍지에 수록되지 않고 도별로 통계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가리킨다.

연혁 중 삼국시대에 이 지역의 소속을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이후 『여지승람』 등 대부분의 지지에서 고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이라 하여 고구려의 영토로 기록하였으나, 『여도비지』와 『대동지지』는 백제의 주부토군으로 기록하여 백제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정정한 점도 주목된다.

### 2) 부평의 읍지(邑誌)

16세기 중엽 이후 각 지방에서는 군현 단위의 지리지 즉 읍지의 편찬이 활발하여 조선 후기에 각 지역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읍지를 편찬하였다. 초기에는 각 지역의 유자(儒子)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사찬읍지(私撰邑誌)가 많았으나,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국가에서 읍지를 주목하고 수시로 읍지 편찬령을 내려 관이 주도가 되어 편찬한 관찬읍지(官撰邑誌)들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도(道) 단위로 수합한 도지(道誌)나 전국의 읍지를 수합한 전국읍지(全國邑誌)들은 중앙 정부가 주체가 된 관찬읍지였다. 현존하는 부평 지역의 도지나 전국읍지는 18세기 중엽 영조대로부터 19세기 말에 편찬된 것이 전한다. 이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읍지가 가장 다수인데, 전국읍지와 도지 중에 포함된 부평지역의 지지(地誌)는 다음과 같다.

가. 『輿地圖書』(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55책, 1760년경, 제3책 富平都護府
나. 京畿誌(奎 12178) 1842년(헌종8), 4책 중 제1책
다. 京畿邑誌(奎 12177) 1871년, 6책 중 제1책 『富平府邑誌附邑事例』
라. 畿甸邑誌(奎 12182) 1894년 3책 중 제2책 『富平府邑誌』

또 전국 읍지나 도지의 일부로 포함된 것이 아닌 부평 지역의 읍지로서 단독으로 독립된 개별 읍지도 전한다. 그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 富平府邑誌(古 915.12-B889b) 1책(8장), 채색지도
바. 富平郡邑誌(奎 10715) 1899, 1책(5장)
사. 富平郡邑誌(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4241) 1책(46장), 채색지도
아. 富平府邑誌(奎 17361) 1책(3장)
1842년(헌종 8)에 편찬된 경기지(奎 12178)의 부평 읍지를 후대에 전사한 것
자. 富平府邑誌(국사편찬위원회 B16BBB-19)
1871년에 편찬된 京畿邑誌(奎 12177)의 부평 읍지를 일제시기에 전사한 것

이들 지지는 형태상 도지나 전국읍지의 일부로 포함된 것이거나, 또는 단독으로 독립된 개별군현 읍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아)와 『부평부읍지』(자)는 각각 1842년, 1871년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나)와 『경기읍지(京畿邑誌)』(다)를 전사한 읍지이므로 사실상 도지와 단독 유지 사이의 구별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지의 내용을 비교하는 데에는 함께 고찰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위에 제시된 읍지들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편찬 시기별로 각 읍지의 편목을 편찬 시기에 따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16세기 말, 17세기 전반에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같은 큰 전쟁을 겪음에 따라 기존의 국토, 사회 질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피폐해진 지방 사회를 다시 회복하고 건설하는데 지리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광해군 대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다시 간행되고,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각 지방에서는 사찬읍지의 편찬이 활발하였다.

17세기 중엽 이후 사회 질서가 서서히 정비되어 가고, 지방사회에 대한 국가의 파악도 진전되어 갔다. 행정력의 하부 단위에까지 침투와 정비는 지방 행정자료에 대한 필요를 증대시켰다. 중앙 정부는 군현 단위로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작성하였던 읍지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작성된 후 150여년이 지나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지리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재위하였던 숙종 대에는 몇 차례 지리지 편찬 의논이 제기되었으나 복잡한 정치 상황과 그에 따른 관료의 교체로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때 완수하지 못한 지리지 편찬 사업은 18세기 중엽 영조 대에 실현되었다. 이 때에는 여지승람의 증보에서 한걸음 나아가 새로 국가에서 각 읍의 읍지를 종합하고 여러 차례 개수하였으나, 이 책이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여지도서』는 1757년(영조 33)에 영조가 정상기(鄭尙驥)의 지도를 모사하여 비치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서 홍문관 수찬이던 홍량한(洪良漢)의 건의에 의해 편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지도서』의 「호구」 등 항목에는 대부분 "기묘장적(己卯帳籍)"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1759년 이후 즉 1760년을 전후 한 시기에 편찬된 읍지들을 모았음을 보여 준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부평 지역 읍지의 항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하여 『여지도서』의 내용 체계는 사회, 경제, 행정적인 내용이 매우 강화되 것이었다. 즉 채색지도가 각 군현 읍지의 앞에 반드시 수록되고, 방리, 도로, 제언, 교량, 제언, 전결 한전(旱田), 수전(水田), 부세(賦稅) 진공(進貢), 조적(糶糴) 전세(田稅)·대동(大同)·균세(均稅), 군병(軍兵) 등의 항목이 새로 설정되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수록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16세기 후반이래 활성화되었던 새로운 읍지 편찬의 경향을 정리하고 종합한 것으로서 18세기 읍지의 종합적 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방리, 도로, 부세에 관한 여러 조항 및 지도이다. 군현의 역사와 행정제도의 변화에 관한 내용인 「건치연혁」이 일반적으로 읍지의 첫머리에

기록되었으나, 『여지도서』에는 「방리(坊里)」조를 가장 첫머리에 두고 면별(面別)로 방수(坊數), 명칭, 위치, 호수, 남녀인구수를 기록하여 매우 자세하게 군현의 하부 행정 단위와 지역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면 단위 인구 기록은 지방 실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는 국가 행정력의 강화와 함께 면(面)이 국가 행정의 하부 단위로 파악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촌락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지도서』의 부평 지역 기술에서 독특한 점은 면 아래의 행정구역을 방(坊)으로 표시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면 아래의 행정 단위는 리·동이었다. 방(坊)은 주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 면(面)에 해당하는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었으나, 부평에는 면아래에 (坊)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주목된다.

「道路」 조도 일반적으로 읍지의 처음에 기록되는 「건치연혁(建置沿革)」조 보다 앞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시기에 신설된 항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용에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路)로 구분하여 군현 내의 도로망과 인접 지역과의 거리, 경계 표지물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앞에 첨부된 지도에 도로가 상세하게 표시되고, 「교량」조의 기록들도 도로가 매우 중시되고 있던 당시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도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간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지역간 및 지역내의 구체적인 유통망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조세 수취와 관련된 「진공」·「조적」·「전세」·「대동」·「균세」·「봉름」등이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되는 변화가 보인다. 조세량의 정확한 파악과 수납은 국가의 지방 통치 장악 및 중앙재정에 긴요한 것이었다. 읍지에서는 이에 관한 기록의 비중이 18세기 중엽 이후 점차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밖에도 군사적인 측면이 강화되었으며, 「제언」조에도 저수지의 이름 위치, 둘레, 길이와 너비, 높이, 수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농업에서 중요한 물의 확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각 군현 읍지의 첫머리에 채색지도가 안내지도 역할을 하도록 첨부된 점이다. 읍지의 내용을 지도에 도시함으로써 읍지의 내용에 정확성이 증가되고, 지도의 이용으로 당시 사람들의 공간적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부분의 읍지에 지도가 수록되는 것도 지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상백 고(古) 915.12-B889b)는 1894년에 편찬된 『기전읍지(畿甸邑誌)』 소수 부평읍지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1899년의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와 항목 편제와 순서가 거의 동일하다. 단지 이 읍지에는 지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1894년 읍지에는 뒤에 읍사례(邑事例)가, 1899년 읍지에는 선생안(先生案)이 첨부되어 있다.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고(古) 915.12-B889b)는 1795년(정조19)에 시흥(始興)으로 개칭된 금천(衿川)이 옛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정조대(正祖代) 이전에 편찬되었거나, 정조대 이전에 편찬된 읍지를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전결, 부세(賦稅)에 관련된 여러 조항 등 경제·재정에 관련된 항목이 수록되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경기지(京畿誌)』(규 12178)는 1842~1843년에 편찬된 읍지로 경기도 34개 읍지를 4책으로 합한 것이다. 『경기지(京畿誌)』는 현전하는 최고(最高)의 경기도 도지(道誌)로서, 제1책 중에 포함된 부평도호부 읍지는 인물 관련 항목을 세분하여 충신(忠臣), 효자(孝子), 효부(孝婦), 열녀(烈女) 등으로 세분한 점, 「시장(市場)」조가 신설된 점, 「방리(坊里)」조가 독립 항목으로 설정된 점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반면에 재정 관련 항목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시장(市場)」조에 기록된 3곳 중 황어면(黃魚面)의 발하장(發阿場)을 제외한 2곳은 이미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부평의 장시 수가 감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경기읍지(京畿邑誌)』(규 12177) 6책은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경기도 각 읍 읍지를 모은 것이다. 병인 양요와 신미양요 등 외세와 직접적인 충돌을 겪고 난 후 국가가 전국에 읍지 편찬 명령을 내려 작성한 것이 이 시기의 읍지이다. 부평부읍지의 제목에 "부읍사례(附邑事例)"라 쓴 것처럼 읍지의 뒤에 간략한 읍사례가 첨부되었다. 「방리」조에도 각 면(面)마다 호구수(戶口數)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주목되는 것은 「해세염(海稅鹽)」 항목이 신설된 점이다. 염정(鹽井)의 수와 염정(鹽井)의 크기에 따른 세금액수가 기록되어 있어, 소금을 굽는 염정(鹽井)의 숫자가 부평 지역에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역대 수령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한 「환적(宦蹟)」조도 신설되어 읍지의 편찬 시기, 역대 수령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제영(題詠)」조도 수록하여 지역의 건물, 경치에 관한 시문(詩文)을 정리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읍지 끝에 「군물(軍物)」·「본읍사례(本邑事例)」등의 항목이 첨부된 점이다. 특히 읍사례(邑事例)는 중앙으로의 상납 내역 등 지방 재정의 지출 부분을 주로 기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전 읍지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성이다. 이는 1862년 임술민란(壬戌民亂) 이후 사회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던 개혁의 필요성과 병인양요·신미양요 등을 겪으면서 대외적으로 외세에 대한 위기감에 대응하고자 하는 대원군의 개혁정치의 조치들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전읍지(畿甸邑誌)』(규 12182)는 1894~1895년에 편찬된 3책으로 된 읍지이다.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 등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이 시기에도 전국에 걸쳐 읍지가 편찬되어 도지(道誌)로 묶였다. 이시기의 읍지는 읍사례(邑事例) 중심으로 읍지의 비중이 변화되고, 본래의 지지적인 내용은 사례의 부속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읍지(邑誌) 부분은 형식화되어 새로 작성되는 것보다 이전의 읍지를 전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부평읍지의 경우에도 지도를 제외하면,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古915.12-B889b)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시기 읍지의 가치는 읍사례(邑事例) 부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부평읍지의 읍사례는 「개국오백삼년십일월일부평부결세호포응봉각양응하신정사례(開國五百三年十一月日富平府結稅戶布應捧各樣應下新定事例)」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부평읍지는 1894년 11월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실린 13조의 내용은 주로 조세 수취, 잡세(雜稅) 혁파 등

에 관한 원칙들로 1차 갑오개혁의 실질적인 개혁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계사(癸巳)(1893년)실총(實摠), 갑오승총(甲午陞摠), 결총(結摠), 호포전(戶布錢), 각종 상납질(上納秩), 읍응하질(邑應下秩), 기타 각종 지출을 규정한 각종 질(秩)로 사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앙재정 관련 부분은 탁지부(度支部)의 국가재정 관할에 따른 조세의 탁지부 이관 및 조세의 금납화(金納化) 조치에 따른 결당(結當) 세액(稅額) 결정, 그리고 역둔토 정리에 따른 역둔토 관리권의 변화 등과 관련되어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오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읍지는 1895년에 실시된 정부의 지방 재정 개혁, 지방 제도 개혁의 기초 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8]

1899년에 편찬된 부평의 읍지는 2종이 전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은 5월에 편찬된 것으로서, 책머리에 "대한광무3년5월일당부평군읍지(大韓光武三年五月 日當平郡邑誌)"라 적혀 있다. 이 당시의 읍지 편찬은 1895년과 1896년에 실시된 전국적인 지방제도 개혁의 성과를 정리하고, 광무개혁(光武改革)의 일환으로 지방실정을 정리·파악해 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895년에 조선 시대 동안 유지되었던 지방행정 단위인 부목군현(府木郡縣)이 폐지되고, 군(郡)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역의 명칭이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에서 부평군(富平郡)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내부(內部)에서 13도에 훈령하기를 30일 이내에 지도와 함께 작성해 올리라 하였으므로(황성신문, 광무 3년 4월 26일), 새로 지역 사정을 조사하여 읍지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읍지도 이전 시기의 읍지를 전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평의 읍지는 1871년에 편찬된 『경기읍지』의 부평 읍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단지 읍지 앞부분에 첨부된 읍지도는 이 시기에 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부평군읍지』는 책머리에 "광무3년11월부평군읍지(光武三年十一月 日富平郡邑誌)"라 기록되어 있어, 1899년 같은 해에 다시 한 차례 읍지 편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 읍지 역시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이전 읍지를 베낀 것이었다. 이 읍지는 1894년에 편찬된 『기전읍지』의 부평 읍지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단지 1894년 읍지에 수록되었던 「읍사례(邑事例)」 대신에 「부평군선생안(富平郡先生案)」을 실었다. 읍지가 10장인데 비하여, 「선생안(先生案)」조를 기록하여 당시까지 지역의 수령을 지냈던 인물을 정리하였던 데 비하여, 1899년 5월에 작성된 부평읍지가 「선생안」조를 결여하고 있어서 「先生案」을 자세히 정리한 읍지를 다시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先生案」조에는 역대 수령의 이름과 문·무 관직, 도임 일지와 옛 관직, 이임 일자와 새 관직, 이임 사유,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의 경우는 최고 관직 등을 기록하였다.

8) 李相燦, 1986, 『京畿道邑誌 解題』, 亞細亞文化社, 韓國地理誌叢書.

## 〈표 2〉 읍지 중에 포함된 부평 읍지의 항목 구성

| | 輿地圖書 (1759경) | 京畿誌 (古915.12-B889b) | 京畿邑誌 (1842) | 京畿邑誌 (1871) | 畿甸邑誌 (1894) | 富平郡邑誌 (1894) | 富平郡邑誌 (1899.12) |
|---|---|---|---|---|---|---|---|
| 1 | 채색지도 | | 1 | 1 | 1 | 1 | 1 |
| 2 | 〔鎭官·屬邑〕 | 4 | | 0 | 5 | | 5 |
| 3 | 〔四界〕 | 2 | | 2 | 3 | 2 | 3 |
| 4 | 坊里 (면별 호구) | | 6 (郡戶口) | 10 (面戶口) | | 10 (面戶口) | |
| 5 | 道路 | | | | | | |
| 6 | 建置沿革 | 3 | | 3 | 4 | 3 | 4 |
| 7 | 郡名 | 1 邑號 | 4 | 4 | 2 邑號 | 4 | 2 邑號 |
| 8 | 形勝 | 7 形勢 | | 8 | 8 形勢 | 8 | 8 形勢 |
| 9 | 官職 | 5 官員 | 2 | 5(2) | 6 官員 | 5 | 6 官員 |
| 10 | 山川 | 9 | 5 | 9 | 10 | 9 | 10 |
| | | 10 島嶼 | | | 11 島嶼 | | 11 島嶼 |
| 11 | 姓氏 | 6 | | 6 | 7 | 6 | 7 |
| 12 | 風俗 | 8 | | 7 | 9 | 7 | 9 |
| 13 | 壇廟 | 19 祠廟 | 12 | 12 | 20 祠廟 | 12 | 19 祠廟 |
| 14 | 公廨 | 14 館舍 | 10 | 13(16) | 15 館舍 | 13 | 14 館舍 |
| 15 | 堤堰 | 17 | 15 | 18 | 18 | 18 | 18 |
| 16 | 倉庫 | | | 0 | | | |
| 17 | 物産 | 11 土産 | 16 土産 | 24 土産 | 12 土産 | | 12 土産 |
| 18 | 橋梁 | 16 | | 16 | 17 | 16 | 17 |
| 19 | 驛院 | 15 | 13 | 14 | 16 | 14 | 16 |
| 20 | 烽燧 | 12 | 9 | 23 | 13 | | 13 |
| 21 | 寺刹 | 18 佛宇 | 14 佛宇 | 15 佛宇 | 19 佛宇 | 15 佛宇 | 19 佛宇 |
| 22 | 古蹟 | 21 | 17 | 25 | 22 | | 22 |
| 23 | 人物 | 23 | | 28(20',21'21'21'23') | 24 | | 24 |
| 24 | 旱田 | | 7 | 19 田賦 | | 19 田賦 | |
| | 水田 | | 元帳簿田畓 | (26,27,28) | | | |
| 25 | 羅羅 | | | 20 | | | |
| 26 | 田稅 | | | 0 | | | |
| 27 | 大同 | | | 0 | | | |
| 28 | 均稅 | | | 0 | | | |
| 29 | 俸廩 | | | 21 | | | |
| 30 | 軍兵 | | 8 軍額 | 22 軍額 | | | |
| | | 13 學校 | 11 | 11 | 14 | 11 | 14 |
| | | 20 塚墓 | 19 | 26 | 21 | | 21 |
| | | 22 名宦 | | | 23 | | 23 |
| | | | 18-1 市場 | 17 | | 17 | |
| | | | 20-1 忠臣 | 0 | | | |
| | | | 21-1 孝子 | 0 | | | |
| | | | 22-1 孝婦 | 0 | | | |
| | | | 23-1 烈女 | | 0 | | |
| | | | | 20-2 海鹽稅 | | 20 海稅 | |
| | | | | 27-2 宦蹟 | | | 25 富平郡 先生案 |
| | | | | 29-1 題詠 | | | |
| | | | | 30-1 軍物 | | | |
| | | | | 〈本邑事例〉 | 〈新定事例〉 | | |

1) 좌단의 『輿地圖書』소재 부평부읍지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읍지들의 항목 수록 순서를 숫자로 표시하고, 내용은 동일하나 항목 명이 상이할 경우 항목 명을 기록하였다.

2) ( )안의 표시는 숫자로 쓰여진 항목이 독립되지 않고 다른 항목 중에 포함된 경우이다. 이렇게 항목은 설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내용이 다른 항목에 포함된 경우 그 항목에는 0표를 하였다.

## 2. 고지도(古地圖)

부평의 옛 지도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본들만 전하고 있다.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편찬된 지도들이 남아 있는데, 이는 군현지도의 제작이 18세기 이후 이르러 보편화되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과 동일한 현상이다.

현전하고 있는 부평 지역의 지도를 크게 분류해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는 개별군현지도로 독립되어 있는 지도이다. 둘째는 전국이나 도별 지도책 또는 지도첩 속에 다른 군현지도들과 함께 일련의 지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셋째는 읍지 등 지지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이다. 그러나 부평 지역의 지도로서 단독으로 전하는 지도는 1872년에 편찬된 지도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단독지도와 지도책(첩)속에 포함된 지도를 함께 살펴 보고, 지지(地誌) 중에 포함 된 지도를 별도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들 지도는 모두 채색필사본이다.

### 1) 지도류에 포함된 부평 지도

조선 시대에 제작된 부평 지도를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輿地圖(古 4709-68) 6책 중 제1책 세로 26.5× 가로 19㎝

나. 廣輿圖(古 4790-58) 7책 중 제1책 37×38.3

다. 地乘(奎 15423) 6책 중 제1책 36.6×33.0

라. 輿地圖(국립 한 61-3, 貴 230) 6책 중 제1책

마. 海東地圖(古大 4709-41) 8첩중 제1첩. 47×37.5

바. 朝鮮地圖(규 16030) 7책 중 제1책 49.8×38.5
八道郡縣地圖(古 4709-111) 제1책, 八道地圖(국립 한-61-21-)「畿輔方輿」제1책,
海東輿地圖(국립 古 2107-36) 3책중 1책의 부평 지도는 내용 동일

사. 富平(府地圖)(규 10373) 1장. 1872년

부평을 그린 옛 지도는 다른 지역과 같은 현상이지만, 조선 전기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들만 전하고 있다. 전국 각 군현의 지도를 모두 수록한 전국 군현지도집인 『여지도(輿地圖)』(가)〈그림 1〉와 『광여도(廣輿圖)』(나)〈그림 2〉, 『지승(地乘)』(다)〈그림3〉, 『여지도(輿地圖)』(라)는 1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전국군현지도집(全國郡縣地圖集)』이다. 전국 군현지도집이란 전국 각 지방의 모든 군현의 지도를 함께 모은 지도집을 말한다. 이 3종의 지도집은 지도책의 형태로 묶어져 있으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지도의 뒷면에는 각 지역에 대한 인구, 토지면적 등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기(註記)의 내용도 모두 같다(표 3참조). 다만 책의 크기가

다르고, 지형적이나 건물의 표현 양식·채색 등이 상이하다. 규장각에 소장된 3종의 지도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도』에는 도로가 적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뒷면이나 앞면에는 인구, 재정곡, 경지면적, 사방강계, 성곽, 창(倉), 면(面)의 이름과 위치 초경(初境)·종경(終境)에 관한 내용이 주기(註記)로 기록되어 있어 지방 각 군현의 지역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뒤 시기에 앞 시기의 지도를 전사하면서 도 통계 기록을 그대로 전재하였으므로, 이러한 통계 숫치로 지도에 제작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3〉 조선 후기 읍지·지도에 기록된 부평부의 인구

| 읍지류 | 여지도서 (1759년) | 동여도지 (영남대) | 여도비지 | 대동지지 | 京畿誌 (1842) | 京畿邑誌 (1871) | 富平郡邑誌 (1899,규) |
|---|---|---|---|---|---|---|---|
| 戶 數 | 2,923 | 3,009 | 3,009 | 3,009 | 3,164 | 2,757 | 3,054 |
| 人 口 | (10,898) | 11,471 | (11,471) | 11,471 | | 7,996 | |
| 男人口 | 4,928 | 6,085 | 6,085 | | | 4,577 | |
| 女人口 | 5,970 | 5,386 | 5,386 | | | 3,419 | |
| 지도류 | 輿地圖 (고4709-68) | 廣輿圖 (고4709-58) | 地 乘 (규 15423) | 海東地圖 (고대 479-41) | | | |
| 戶 數 | 2,945 | 좌동 | 좌동 | 3,197 | | | |
| 人 口 | | | | (13,219) | | | |
| 男人口 | | | | 6,802 | | | |
| 女人口 | | | | 6,417 | | | |

『여지도』는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지도책으로 추정되는데, 지도책 중에 수록된 각 군현 지도는 18세기 전반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지도의 내곽선 밖 상단 여백에 수주(樹州), 안남(安南), 계양(桂陽), 길주(吉州), 장제(長堤)등 부평의 옛 이름과 별호(別號)를 기록하였으며, 우측 여백에는 '半日'이라고 서울에서 부평까지의 일정(日程)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도를 만든 뒤에 별도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크기가 작고 아담하여 열람이나 보관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광여도』는 『여지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책의 판형이 크고, 수정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어 『여지도』류의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이다.

『해동지도(海東地圖)』는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또다른 훌륭한 지도책이다. 이 지도책도 전국 각 군현의 지도를 모두 수록한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이러한 군현지도집들을 통해 18세기

에 많은 지도들이 편찬되었으며, 군현지도들이 다수 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지도책의 제1책에 부평부(富平府)의 지도 〈그림 4〉가 포함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주요 산천, 관아, 역원, 면, 창 등이 표시되어 있고, 도로도 적색 선으로 그려져 있다. 서쪽이 지도의 위로 되어 있어, 한강이 지도의 아래에 그려져 있다. 특히 이 지도는 도로가 매우 상세하게 표시된 점이 특징이다. 다른 부평 지도에 모두 그려진 서해와 서해의 섬들이 이 지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주기(註記)의 「산천(山川)」조에 설명으로 11개의 섬과 섬의 크기를 기록하였다.

또 지지(地誌)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여 부평에 관한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주기(註記)에는 호구(戶口), 경지면적, 고장의 둘레, 군병총수(軍兵總數), 환곡총수(還穀總數), 각 면과 위치(중심지로부터의 거리), 연혁(沿革), 사방강계, 지형적 특징, 군명(郡名), 산천(山川), 고적(古跡), 교량(橋梁), 봉대(烽燧), 택원(驛院), 형승(形勝), 토산(土産) 등을 매주 자세하게 기록하여 마치 邑誌를 요약해 놓은 것 처럼 보인다.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지지(地誌)와 지도(地圖)에 기록된 인구 기록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주기 중에 이 곳의 지형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땅이 모두 평야이고 작은 구릉으로 되어 이어 진수(津水)가 통한다. 그러므로 수재(水災)가 많다. 장마가 지면 옵 앞의 큰 들판이 문득 큰 바다를 이루어 서울로 가는 길 경로(京路)가 통하지 않는다."라 기록되어 있어 조선 시대에 부평은 큰 비가 오면 수재를 입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경명현(景明峴)은 삼남(三南)에서 강로(江路) 및 송도(松都)로 통하는 길이라 하여 교통의 요지로 설명하였다.

규장각 소장의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고4709-111)〈그림 5〉와 『조선지도(朝鮮地圖)』(규 1630)는 1767~1776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현 지도집이다. 이들 지도집에 소장된 부평 지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두 지도집 중 하나는 원본을 전사한 부본(副本)이거나, 두 지도 모두 부본(副本)일 가능성이 있다. 이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약 4.1cm의 방안(方眼)에 그린 지도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도의 크기가 가로 12cm 세로 10cm에 불과한 작은 지도이므로 상세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 군현을 일정한 축척에 의해 그려 지도책으로 수록하는 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역을 일정한 축척으로 그린 점, 그것을 통해 전국을 군현 단위로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든 점 등은 지도 제작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9]

---

9) 楊普景, 1995,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韓國史市民講座』 제16집, pp.84~121.

즉 이 지도는 일정한 크기의 방안에 전국 각 군현을 그렸기 때문에 축척이 동일하여 각 지역의 크기와 거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으며, 전국지도로 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 제작의 기본 요소인 축척을 방안(方眼)으로 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선의 지도 발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도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팔도지도(八道地圖)』와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그림 6)도 같은 양식의 지도로 위의 규장각 소장의 방안지도(方眼地圖)와 내용이 동일한데, 좀더 뒤 시기인 19세기에 전사하거나 제작한 지도책으로 추정된다.

부평의 지도로서 유일한 단독지도인 『부평부지도(富平府地圖)』(그림 7)는 1872년(고종 9)에 편찬된 지도이다. 1866년에 병인양요,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중앙으로부터 각 지방에 읍지와 지도 편찬령이 내렸으며, 그 결과 이 지도를 각 읍에서 작성하여 상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크기가 매우 큰 대축척지도임은 물론, 채색이 명료하며, 그 내용도 매우 풍부하고 상세하여 부평 지역의 옛 모습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부평부지도』는 1872년 당시의 부평의 산천, 행정구역, 도로, 주요 건물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훌륭한 지도이다. 작은 사각형은 제언(堤堰)을 표시한 것이다. 적색으로 표시된 도로 끝에는 연결되는 지역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청색으로 채색된 바다에는 짙은 청색으로 바닷길을 표시하여 놓았다. 지도의 우측 굴포천이 유입되는 한강은 넓게 그리고 '행호(杏湖)'라고 적어 놓았다.

### 2) 지지(地誌)에 포함된 지도

18세기 중엽 이후에 편찬된 읍지에는 그 지역의 읍지도(邑地圖)가 첨부되는 것이 일반화된다. 그러나 모든 읍지에 지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같은 시기에 작성된 지지에도 군현별로 차이가 있다. 부평의 읍지들은 대체로 책의 앞부분에 채색지도를 첨부하여, 지지(地誌)에 포함된 부평 지도를 시대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가. 輿地圖書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나. 京畿誌 (奎 12178)
다. 京畿邑誌 (奎 12177)
라. 畿甸邑誌 (奎 12182)
마. 富平郡邑誌 (奎 10715)
바. 富平郡邑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4241)

읍지에 포함된 지도들은 본질적으로는 읍지에 문자로 표현된 내용들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한 권의 책을 한 도면에 압축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글자로 표현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내용물을 담아 낼 수 있는 최종 목표물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읍지의 지도들은 각 군현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독자적으로 그린 상태 그대로 수록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이 매우 개성적인 양상을 보인다.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지만 그리는 사람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것이다. 또 같은 시기에 이웃 지역에서 그린 지도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어떠한 대상을 지도에 나타내는가 하는 대상의 선정부터, 동일한 대상의 표현방식, 채색 등에 이르기까지 지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려져 있어 때로는 서로 다른 지역의 지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18세기 중엽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수록된 부평 지도는 부평 관내를 간략하게 보여 주는 지도이다〈그림 8〉. 읍지 중에 포함된 지도이므로 정교하거나 정돈된 지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후에 편찬되는 여러 부평 읍지에 수록되는 읍지도(邑地圖)의 바탕이 된 지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서남북(東西南北)의 방위 표시, 서해에 있는 도서(島嶼)를 실제보다 크게 그리고 이 섬 이름을 기입해 넣은점, 산·하천·제언(堤堰)이 강조된 점 등은 이후 대부분의 부평 읍지도(邑地圖)에 전승되고 있다. 그 밖에 면(面), 역(驛), 도로(道路), 교량(橋梁), 봉대(烽燧), 고산성(古山城) 등을 그린 기본 구도는 이후의 지도에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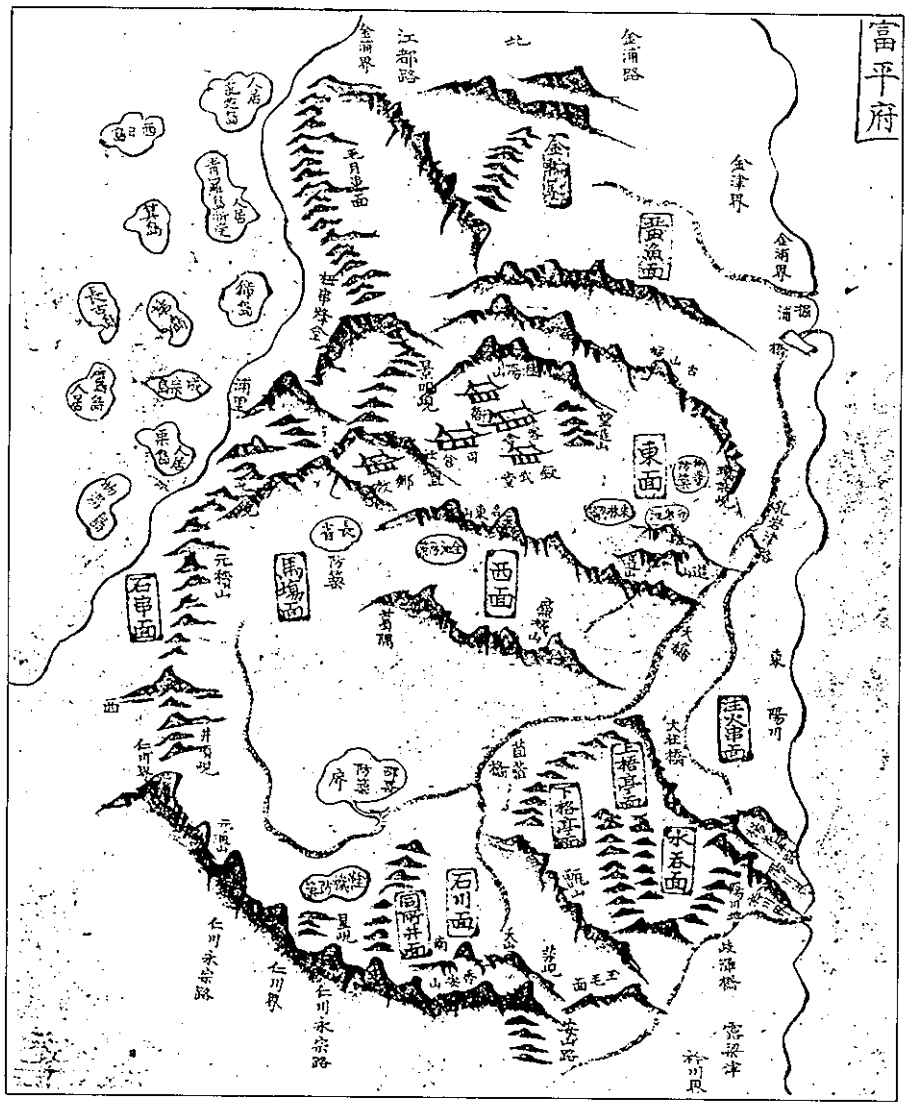
1842년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의 부평 읍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으로 되어 있다〈그림 9〉. 기본적인 형태는 위의 『여지도서(輿地圖書)』의 부평 지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도로·한강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부평이 어느 곳에 위치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상대적인 위치 표시와 길의 표시가 소략하다. 그러나 읍내 남쪽의 3처의 조산(造山), 망동산(望東山), 영성산(靈成山) 등의 산 이름이 추가되었고, 제언·교량 등이 더 상세하게 표시되었으며,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島嶼)에 '인거(人居)'라 표시한 점도 앞의 지도와의 차이점이다.

1871년에 편찬된 『경기읍지(京畿邑誌)』의 부평 지도도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그림 10〉. 그러나 1842년의 읍지도에 비해 훨씬 정돈되고 자세한 지도이다. 도로의 표시, 도로와 하천이 만나는 곳에 일일이 교량의 이름을 적었으며, 구십현(九十峴)·경명현(景明峴)·가회현(佳會峴)·성현(星峴) 등 고개를 좀더 자세하게 표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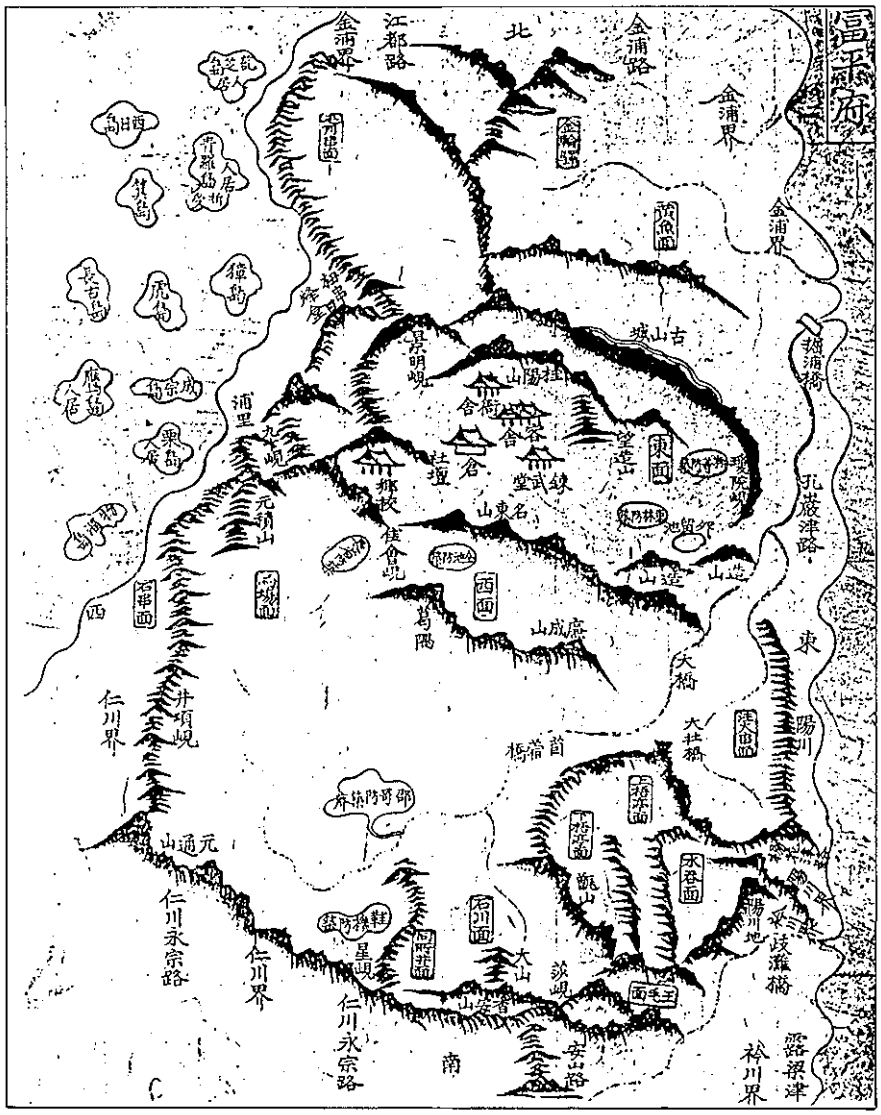
1894년에 편찬된 『기전읍지』에도 부평 지도가 있다〈그림11〉. 이 지도에는 읍 남쪽의 조산(造山)이 앞의 지도보다 1처 많은 4기로 표시된 점, 표시되 도서(島嶼)의 숫자가 많은 점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나, 읍지(邑誌) 부분과 같이 지도(地圖) 부분도 이전 시기의 것을 대체로 전사한 것이다.

1899년 5월에 편찬된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의 지도 〈그림 12〉와 11월에 편찬된 『부평군읍지』〈그림13〉의 지도는 채색, 구도, 형태 면에서 거의 같다. 단지 5월에 편찬된 읍지 속의 지도가 채색, 글씨, 그림 등 여러 면에서 정돈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들은 (面)의 표시를 큰 원을 그리고 이름을 여백에 표시하여 강조된 느낌을 준다.

1899년 5월 부평군읍지의 지도 앞면에는 「범례(凡例)」가 수록되어 있어 흥미롭다. 읍지의 지도에는 범례가 수록된 일이 거의 없어 주목된다. 여기에 표시된 내용은 산(山), 천계(川溪), 도로(道路), 교량(橋梁), 방면(坊面), 산성(山城), 지(池), 봉대(烽燧), 아사(衙舍) 등이다. 범례에 이어 양면에 걸쳐 지도(세로 32.6 가로 38.8)가 그려져 있는데, 비교적 세련된 형태와 채색을 보인다. 그러나 범례에서는 면(面)을 적황색 원으로 표시하였으나 지도에는 황색 원으로 채색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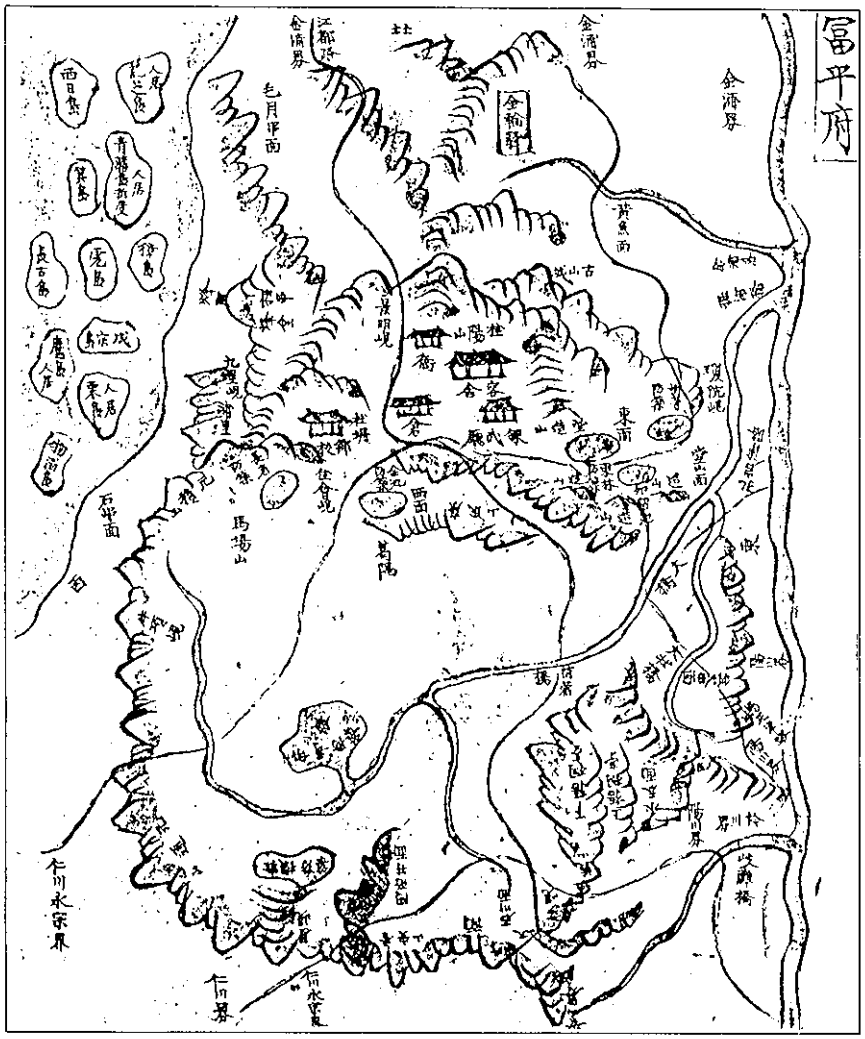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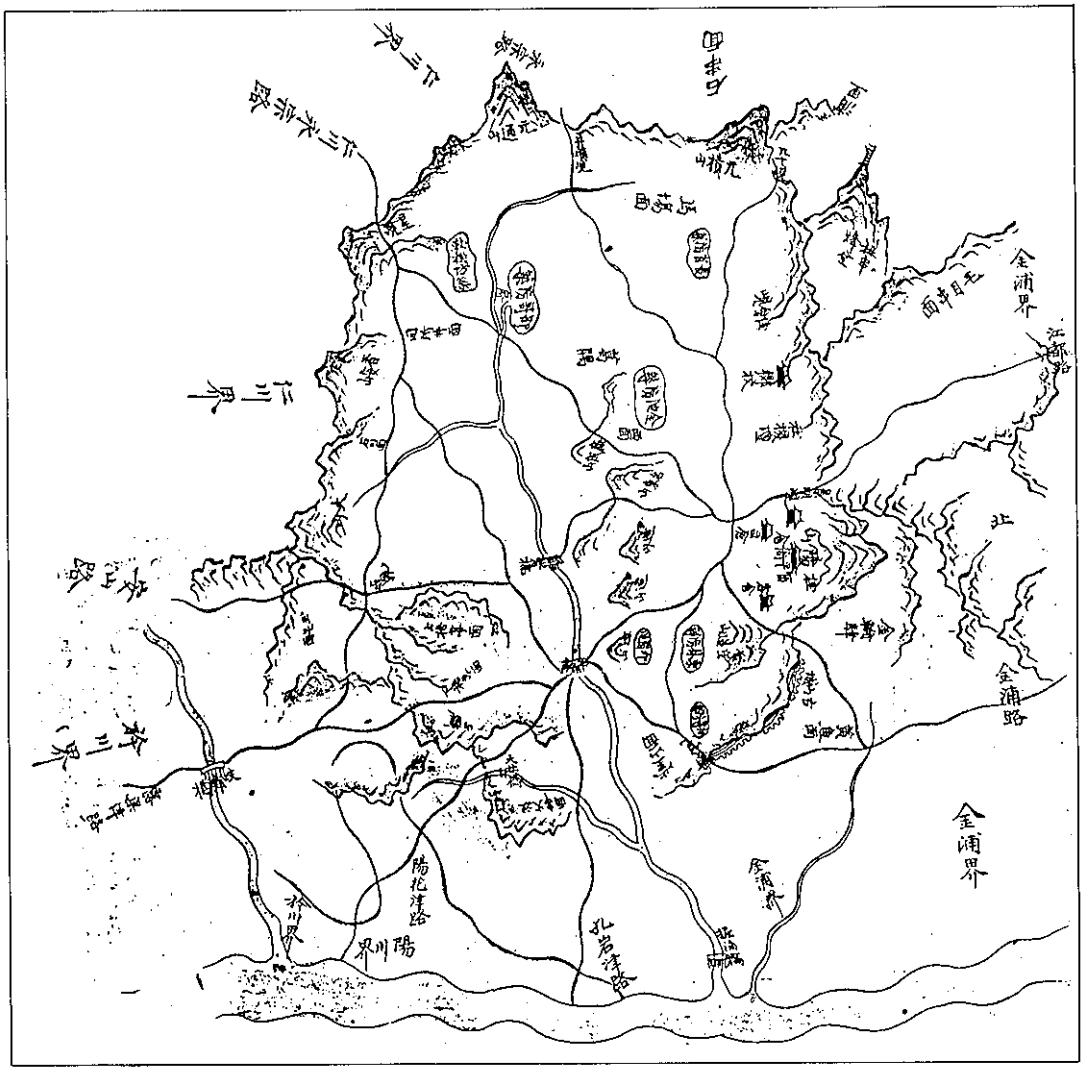

〈그림 1〉『여지도(輿地圖)』에 수록된 부평부(富平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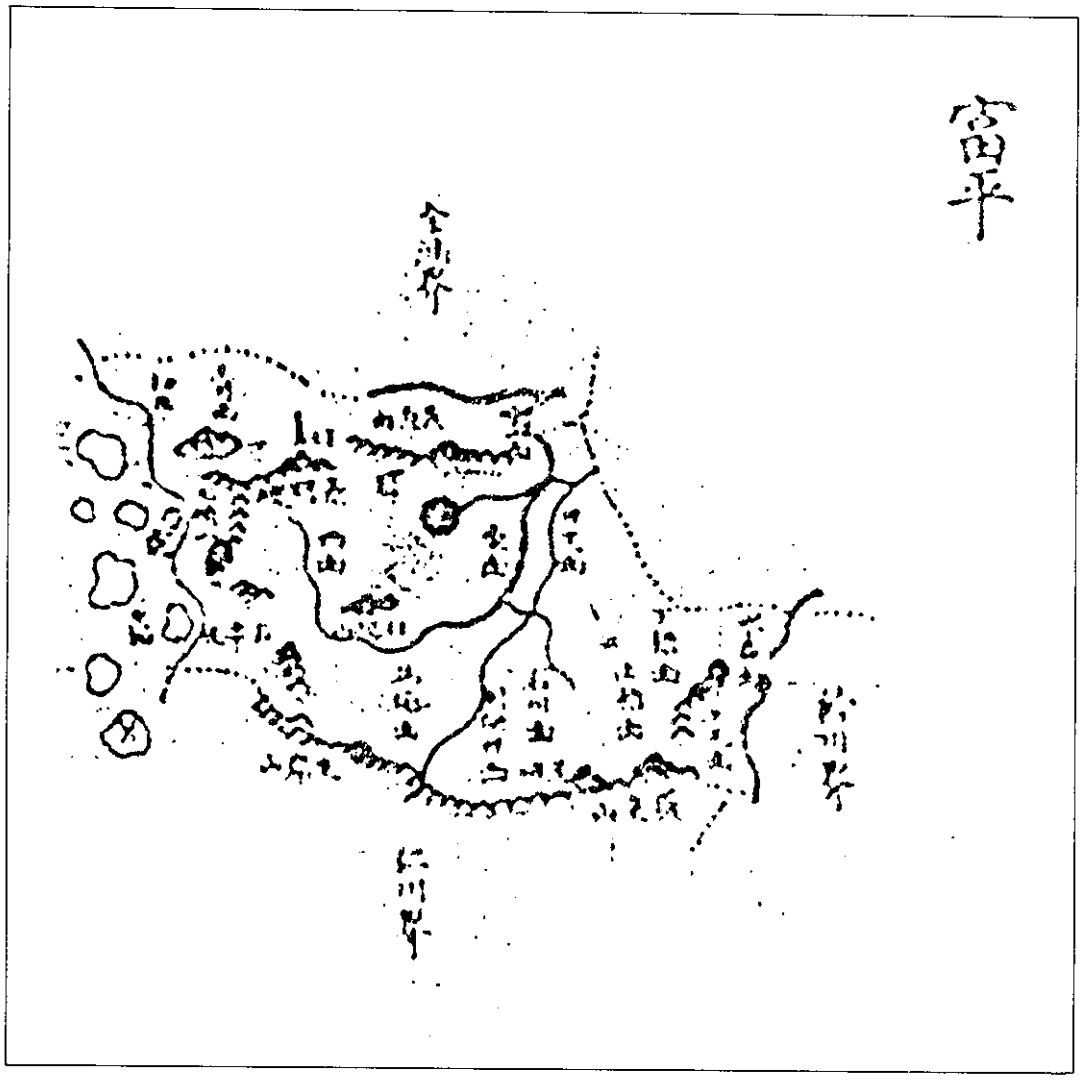

民戶二千九百四十五戶
兵曹軍二百名
各鎭水軍二百八十九名
訓局砲保軍餉保并一百七名
京各司雜色保一百六十四名
御軍戶保二百四十六名
禁衛軍戶保一百十七名
北漢守禦軍官三十五名
各陵軍戶保一百十五名
摠戎軍五百七十二名
監營旗手戶保八十三名
鎭撫束伍雜色軍七百八十名
倉付米八百十一石十斗五刀
田二千五百五十七結六十四負
畓二千四百七十二結二十五負
東距陽川界二十里距陽川三十里
南距
西距
北距金浦界十里距金浦三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東面初境三里終境七里
注大串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下吾子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玉毛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同所井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馬場面初境五里終境十里
毛月串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堂山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上吾所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水谷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石川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西面初境三里終境七里
石串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黃魚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그림 2〉『광여도(廣輿圖)』에 수록된 부평부(富平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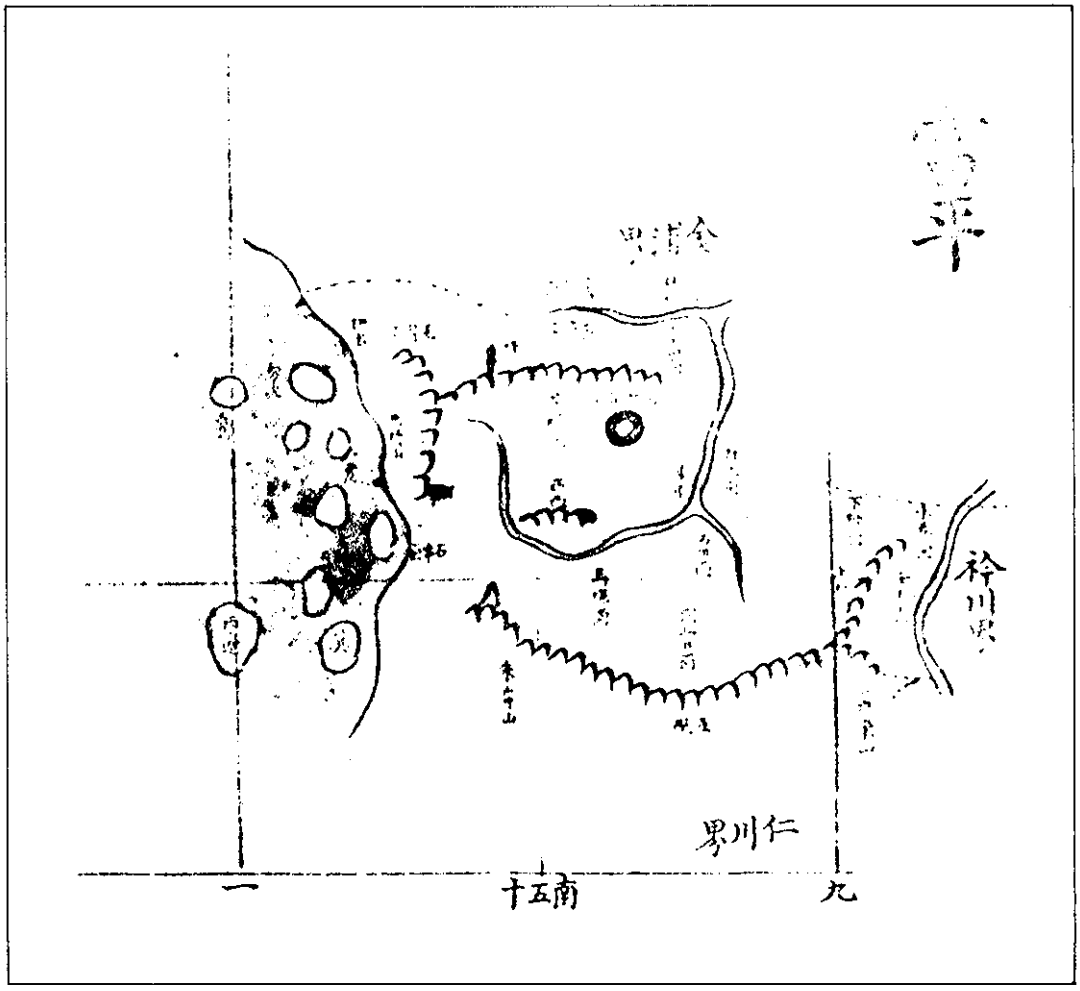

富平府
金浦界
金浦界
金浦界
金輪驛
毛月平面
江都府
西日島
人居
貴島
人居
虎島
人居
成宗島
人居
唐島
人居
物治島
石串面
馬場山
北漢明峴
北漢山城
北漢山城
北漢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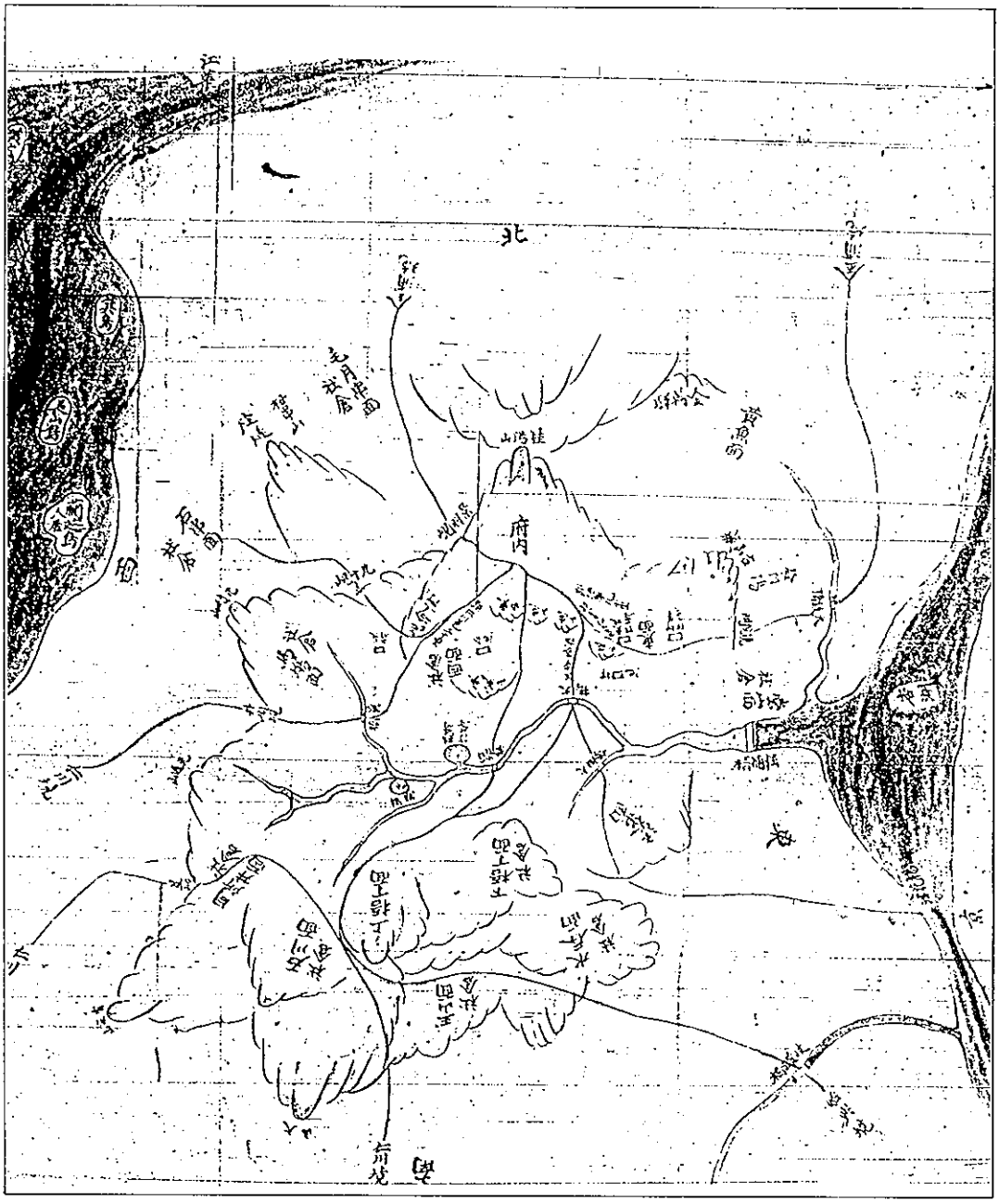
〈그림 4〉『해동지도(海東地圖)』에 수록된 부평부(富平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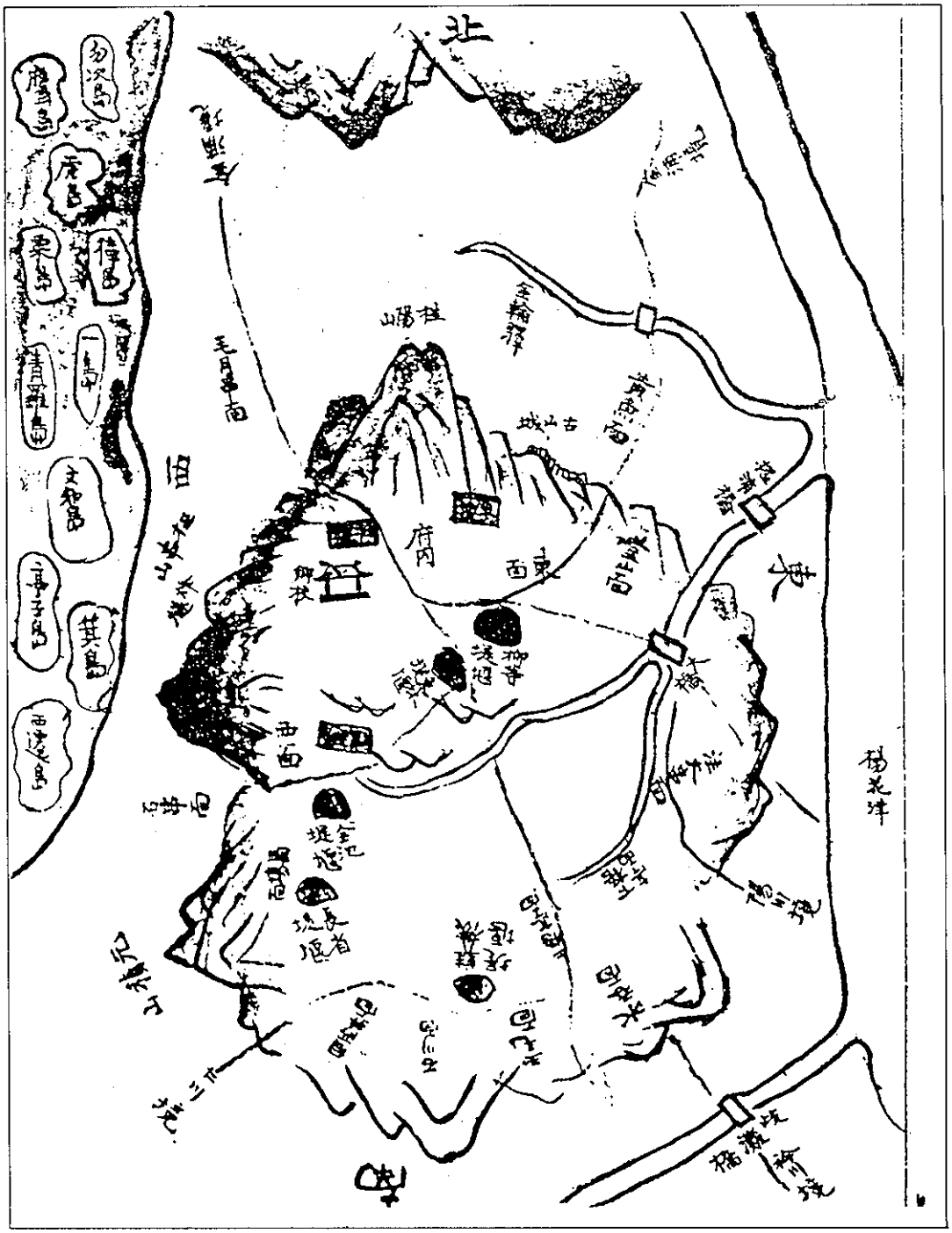

〈그림 5〉『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에 수록된 부평(富平)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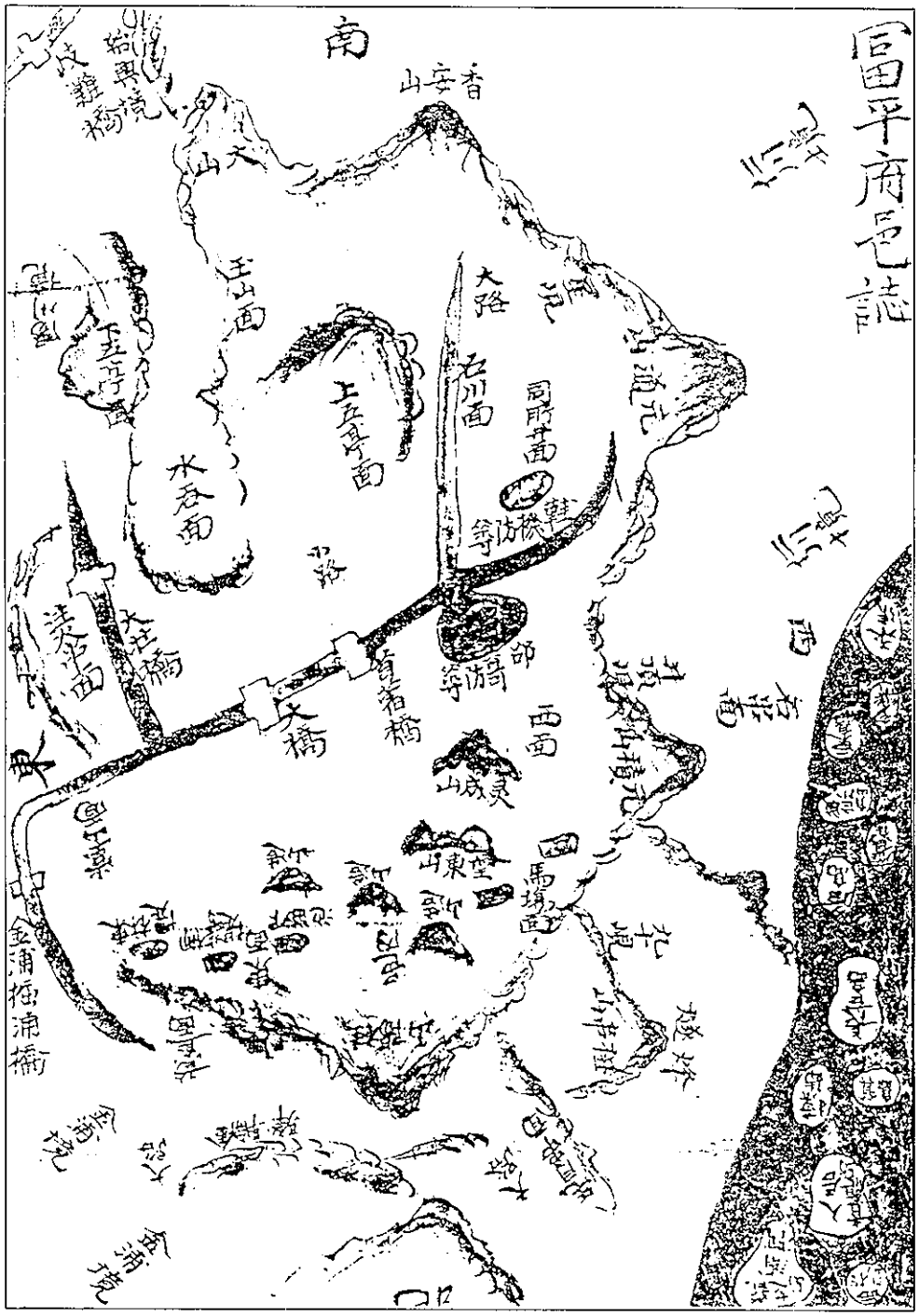

(그림 6)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에 수록된 부평(富平)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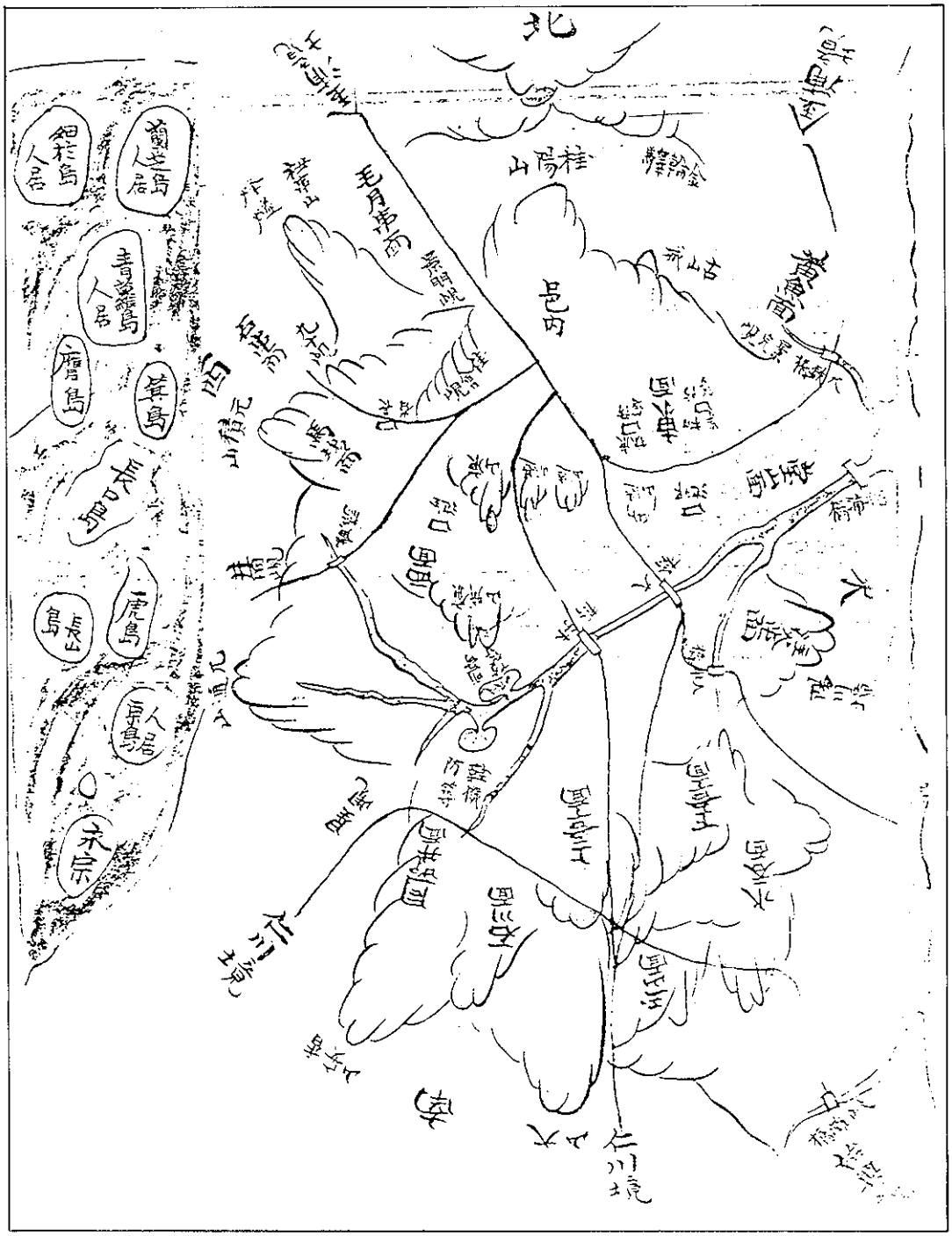
〈그림 7〉 1872년에 제작된『부평부지도(富平府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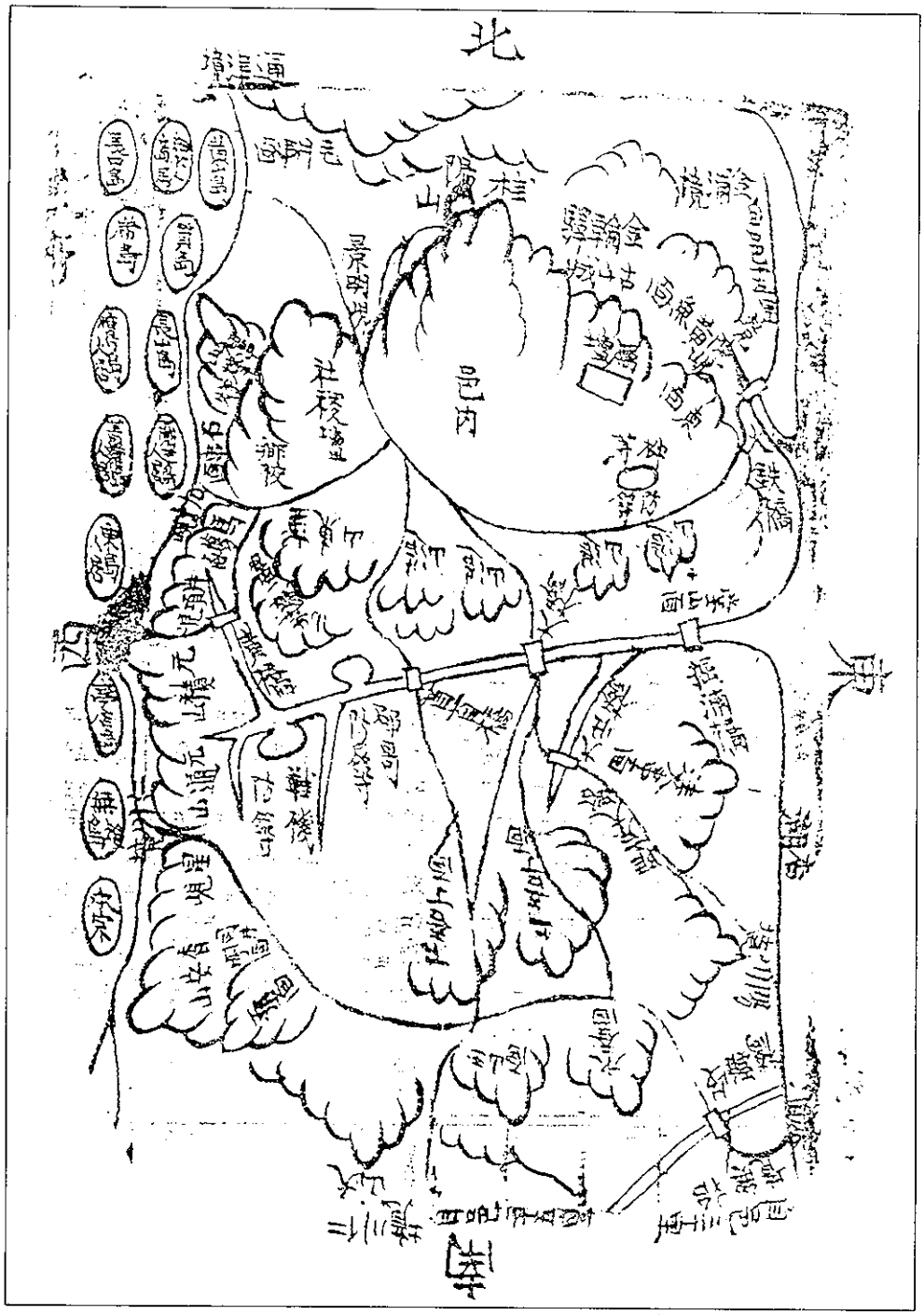
〈그림 8〉『여지도서(輿地圖書)』에 포함된 부평(富平)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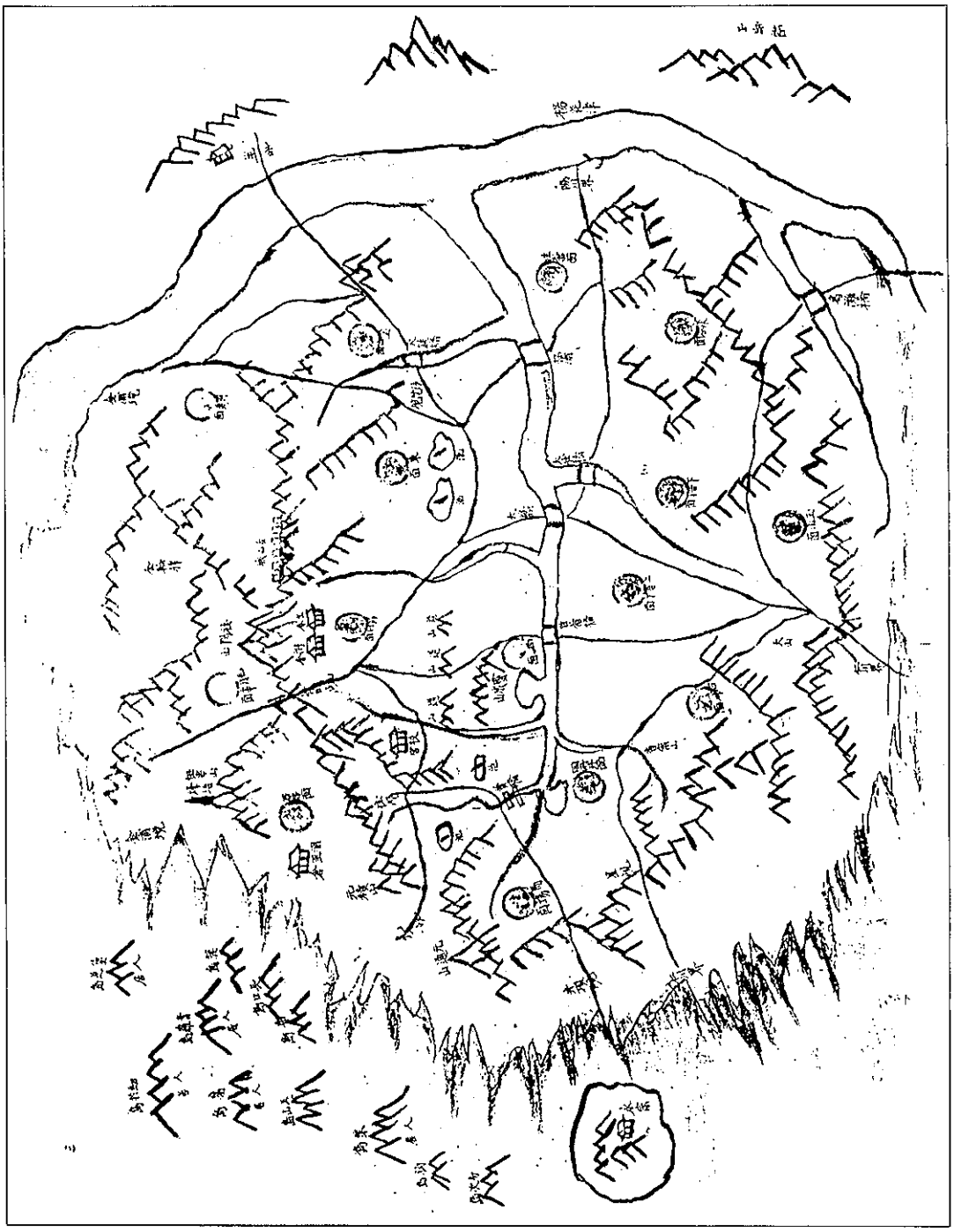

〈그림 9〉『경기지(京畿誌)』에 포함된 부평(富平)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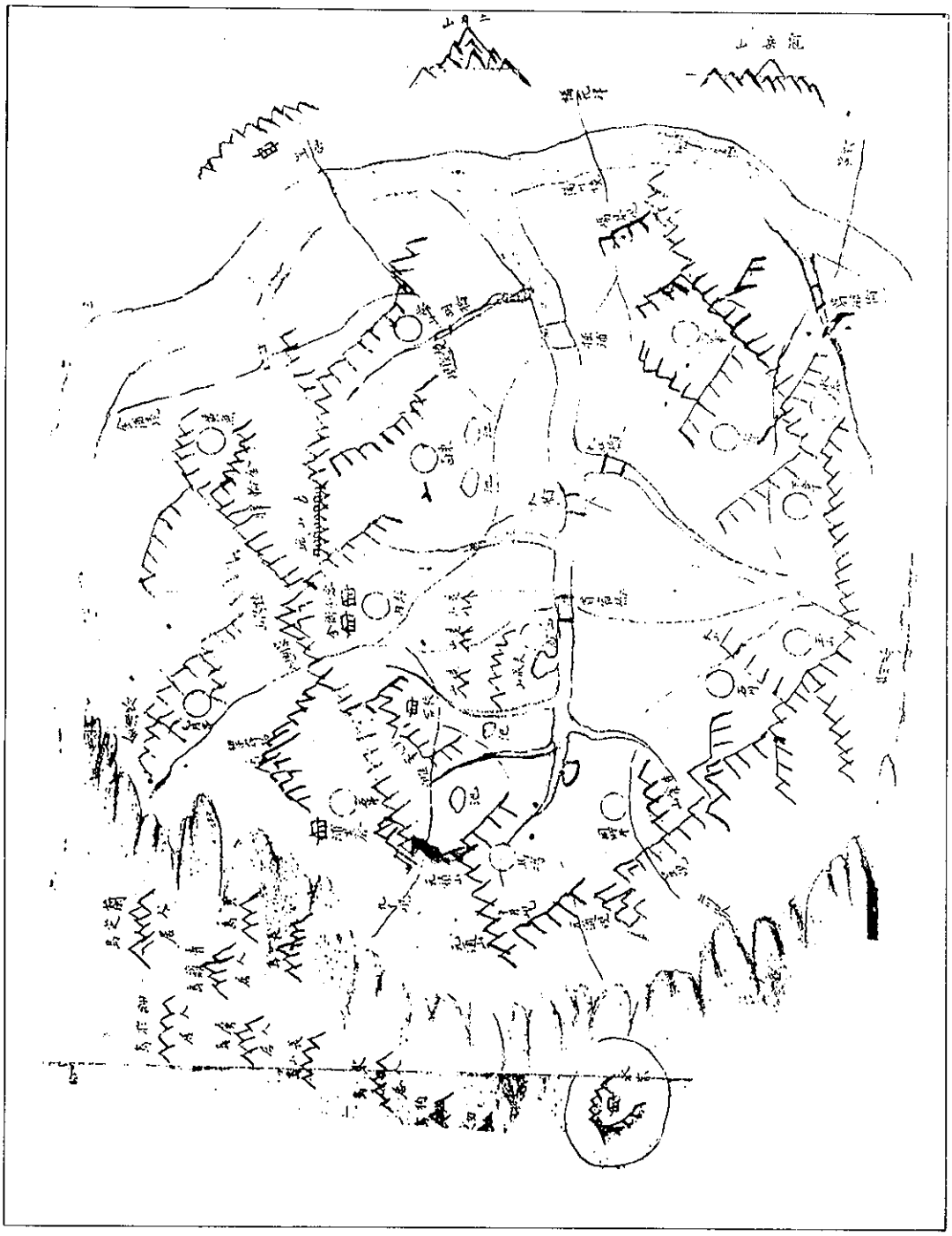
〈그림 10〉『경기읍지(京畿邑誌)』에 포함된 부평(富平) 지도



〈그림 11〉『기전읍지(畿甸邑誌)』에 포함된 부평(富平) 지도



〈그림 12〉『부평읍지(富平郡邑誌)』(1899년 5월)에 포함된 부평(富平) 지도



〈그림 13〉『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1899년 12월)에 포함된 부평(富平) 지도

# 第2篇　歷　　史



# 第1章 개항이전(開港以前)

## 1. 고대의 부평

### 1) 선사시대

오늘날 부평(富平)이라는 명칭은 부평향교를 비롯하여 부평국민학교, 부평역, 부평동, 그리고 부평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곳의 지명(郡名·邑號)이 옛날부터 부평이라고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주부토(主夫吐), 장제(長堤), 수주(樹州), 안남(安南), 계양(桂陽), 길주(吉州) 부평 등으로 불리었다. 후에 다시 논하겠지만 이 고장 명칭을 부평으로 사용하게 된것은 고려시대 후기부터였다. 이곳 부평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선사시대 부평의 생활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아직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발굴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지금까지 선사시대 부평지역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석기(石器) 몇 점이 있을 뿐 별로 찾아지지 않는다.

대개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발전하는데 우리 한국사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았다. 어떠한 생활도구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구분된 이러한 발전과정에 대하여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여러 곳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견되어 한반도에도 구석기시대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한반도의 구석기인이 오늘날 한국인의 직접 조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한국민족의 모체가 된것은 신석기인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상한은 B.C. 5000년까지 소급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물의 특징은 종래의 타제석기에서 마제석기로 발전하고 새로운 토기가 출현한 것이었다. 특히 토기는 신석기시대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물인데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토기는 빗살무늬토기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음이 특징이었다. 또한 이 시대에는 경제 생활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석기시대는 B.C.10세기 경 청동기가 수용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니라라의 청동기 문화는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중국의 그것과는 계통이 다른 북방계의 문화였다. 청동기시

대에는 평등하였던 부족사회가 붕괴되고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나 최초의 정치사회인 군장(君長)국가가 성립되었다. 이 군장국가는 평등한 부족사회에서 국왕이 출현한 초기국가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였으니 철기의 사용과 함께 보다 발전하여 왕이 출현하고 정식 국가가 형성되었다. 위와 같은 선사시대 한국사의 보편적 흐름과 관련하여 부평지역의 개별성 내지 특수성을 찾아 볼 때 지금까지 이 지방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신석기시대의 유물이나 유적도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다만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부(石斧·돌도끼) 3점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오늘날까지 부평을 포함한 인천지역에서 발견된 석부는 모두 17점인데, 현재 12점이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 가운데 부평지역에서 발견된 석부 3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

① 계산동(桂山洞)에서 발견된 석부파편(9호)은 인천에 거주하는 박국성(朴國星)씨가 1954년 부평의 계양산(桂陽山)에서 발견한 것인데 현재 원형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파편이다. 그의 길이가 9.8cm, 폭이 8.8cm가 되니 실제의 석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석부의 석재(石材)는 녹색이 나는 화강석이다.

② 계산동에서 발견된 또 다른 석부(미등록)는 인천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1957년에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반마제(半磨製)의 화강석재(花崗石製)로 길이가 12.5cm, 폭이 5cm이다.

③ 경서동(景西洞)에서 발견된 석부(36호)는 1955년 노해경(盧海慶)씨가 발견한 것인데, 크기는 길이가 13.3cm이고 폭이 6cm이다.

위에서 설명한 석부 3점만으로는 선사시대 부평의 모습을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부평과 인접한 인천지역의 학익동(鶴翼洞), 주안동(朱安洞), 문학동(文鶴洞) 등에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지석묘(支石墓, 고인돌) 몇 기(基)가 발견되었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군장의 가족묘로 보여지며 선돌(立石)과 더불어 거석(巨石)문화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지석묘는 네개의 판석을 세워서 장방형의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돌을 개석으로 얹어 놓은 형태가 전형적인 것이다. 이 밖에 변형지석묘로서 매장시설인 석실을 지하에 두고 개석을 땅위에 올려 놓은 것도 있다. 종래에는 한국의 지석묘를 북방식인 탁자형과 남방식인 기반형으로 나누어 왔는데, 근래에는 한국 지석묘의 전형적인 형태는 탁자형이며, 기반형은 석실을 지하에 두고 개석 밑에 몇개의 석괴를 받친 변형된 지석묘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묘제에는 고인돌 외에 석관묘가 있는데 이것은

1) 李慶成,「石器時代의 仁川」『畿甸文化硏究』第三輯, 1973, pp.16~18.

지하에 판석으로 상자모양의 석관을 만들어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었다. 또 드물기는 하나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적석총과 옹관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2] 인천지역에서는 지석묘만이 발견되었다.

학익동지석묘는 일찍이 학계에 알려진 것으로, 이는 1927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일본인 촉탁에 의하여 3기가 발굴 조사되었는데 모두 탁자식(북방식)이다. 1954년 4월 30일 류희강(柳熙綱)씨가 이곳 지상에서 석촉 파편을 발견하였다고 한다.[3] 처음에는 이 곳에 5기의 지석묘가 있었다고 하는데[4] 1935년에 일본인들이 그 곳에 소년형무소를 세운다고 헐어버려 2기만이 남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1971년 소년교도소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유공원으로 이전하여 보존되어 오다가 인천시립박물관 이전과 더불어 1990년 4월 송도의 박물관 구내로 이전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년교도소 구내에 보존되고 있다.

주안지석묘는 주안동의 속칭 '너분바위'라는 곳에 있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도 정형(定形)의 지석묘 1기와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1기 등 2기가 확인되었다. 주안지석묘는 1957년 11월에 인천시립박물관이 주동이 되어 국립박물관의 김원용(金元龍), 윤무병(尹武炳), 임천(林泉) 등 제씨와 이화여대의 이경성·최숙경(崔淑卿)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굴결과 아무런 유물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5] 이 지석묘는 시가지 확장공사로 인하여 1979년 8월에 수봉공원 반공회관 앞 능선으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문학동지석묘는 문학산 서북쪽 도천현(禱天峴) 남쪽 밭 가운데 있었는데 판석(板石)은 없고 상석(上石)만 있었다. 이 지석묘는 1962년 인천시립박물관장 우문국(禹文國)씨와 이화여대의 이경성이 약식으로 발굴하였으나 유물은 찾아내지 못하였다.[6] 상석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동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상석은 1979년 8월에 수봉공원 반공회관 앞에 있는 능선으로 옮겨져 현재 보존되고 있다.[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평지역에서 발견된 석부와 인접지역인 학익동, 주안동, 문학동 등에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지석묘가 발견된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선사시대 부평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당시의 부평사람들은 해안이나 강변으로부터 이곳으로 생활무대를 옮겨 돌도끼를 쥐고 땅을 파면서 농경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

2) 박희현,「한국의 고인돌 문화에 대한 한 고찰 – 그 상한 연대를 중심으로」『韓國史硏究』46, 1984.
3) 李慶成,「石器時代의 仁川」『畿甸文化硏究』第三輯, 1973, pp.13~14.
4) 『仁川府史』1933, p.36.
5) 李慶成,「石器時代의 仁川」『畿甸文化硏究』第三輯, 1973, pp.14~15.
6) 李慶成,「石器時代의 仁川」『畿甸文化硏究』第三輯, 1973, pp.16.
7) 『仁川市史』上卷, 1993, p.66.

### 2) 삼한시대

청동기시대의 정치조직은 군장국가로 특징지워진다. 이들 군장국가의 성립은 지역에 따라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일찍부터 청동기문화를 수용한 북쪽지방에서 먼저 그 모습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강 이남지역에서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한(韓)족의 정치사회는 진국(辰國)이다. 진국은 B.C.2세기경 위씨조선의 방해로 한(漢)과의 교통이 두절되었고 한4군이 설치된 후에는 그들의 토착사회에 대한 분리정책으로 정치적 발전에 제약을 받았지만 남방의 여러 군장국가 중 중심세력으로 대외관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후 진국은 북쪽에서 내려온 유이민에 의해 철기문화가 보급되면서 사회가 발전하여 지역에 따라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 등의 연맹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삼국지(三國志)에 의하면 한(韓)에는 마한·진한·변한이 있는데 진한이 옛 진국이라고 하여 진한 만이 옛 진국의 땅이라고 하였다.[8]

그런데 진한의 위치에 대하여 학계에는 일반화된 학설은 없는 실정이고 진한북방설과 남방설 등의 이론이 있다. 이병도(李丙燾)는 진한에 대하여 진국 동북부로 남하한 고조선 준(準)왕이 진왕의 보호와 지배하에 한왕(韓王)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낙랑의 한(漢)인들로부터 진한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후 한(韓)의 칭호가 점차 확대되면서 맹주지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을 구별하여 전자를 마한, 후자를 진한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하여 진한북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9] 이병도는 「삼한문제의 신고찰」에서 종래에는 흔히 진한을 변진(弁辰)과 지역적 혹은 종족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았음에 대하여 그는 도리어 진한을 마한과 지역적 또는 정치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소재를 마한의 동북계인 한강유역에 비정하고 있다.[10]

반면에 천관우(千寬宇)는 요동의 북진한이 남하하여 경상도지역에 최종 정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중부지역에 일정한 기간동안 위치했던 남진한의 전신이 진국이었다고 하였다. 진국은 후에 한강유역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남하하여 경주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1] 그리하여 그는 진한남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역사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삼한시대에 부평지역은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에 속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진한북방설을 전제할때 가능한 이론이다. 이병도는

8) 『三國志』〈魏志 東夷傳〉 韓條.
9) 李丙燾, 「三韓問題의 硏究」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pp.256~257.
10)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 『震檀學報』 第8卷, 1937, pp.259~260.
11) 千寬宇,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硏究』 26, 1975, pp.40~47.

「삼한문제의 신고찰」에서 위지의 마한 50여국과 그 정치적 중심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부평지역에 비정하고 있다. 즉 우휴모탁국은 후의 고구려시대의 주부토(부평)에 비정할 수 있는데 "우휴(優休)"는 "유(iu)"로 반절(反切)되어 후에 主 즉 "쥬(jiu)"로 전(轉)한 것 같고, "모(牟)"는 "부(夫)"로 변한 듯하며, 또 "탁(涿)"과 "吐"는 거의 같은 음으로 제(堤 : 뚝, 덕) 혹은 양(梁 : 돌)을 의미한 말인 것 같다고 하였다. 주부토(主夫吐)군이 통일신라시대에 장제군(長堤郡)으로 개칭되고, 또 고구려시대의 나토현군(奈吐縣郡 : 지금의 제천군)이 역시 통일신라시대에 나제군(奈堤郡)이라고 개명된 것을 보면 "토(吐)"는 확실히 "제(堤)"를 의미한 말로, 바로 오늘날의 "둑""뚝""덕" 그것이며 "탁(涿)"도 이러한 의미의 말을 사음(寫音)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하였다. 다만 "우휴(優休)"와 "주(主)"는 무엇을 의미한 말인지 자세하지 않지만 신라시대의 이름이 장제인 것으로 보면, 혹시 장(長)·직(直)의 뜻이 아닌가 생각되며, 모(牟)는 물(水)의 사음인 듯하고 부(夫)는 벌 혹은 불(平野)의 사음인 것 같다고 하였다. 이어서 옛날 부평읍 동쪽에 한강으로 주입되는 직포(直浦)란 내(川)가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12] 한편 이와는 달리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오늘날의 춘천지역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한시대의 부평지역은 진한의 영역, 그 중에서도 우휴모탁국에 속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휴모탁국의 영역은 부평을 포함하여 김포, 양천, 시흥 등 주변지역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 이외에 우휴모탁국에 관한 더이상 상세한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삼한시대 부평지역의 구체적 생활상은 알 길이 없다.

군장국가 중에는 이미 청동기시대 말기부터 국가형태를 이룬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군장국가는 철기를 사용하게 된 후에 초기국가 단계로 발전하였다. 즉 각지에서 우세한 군장국가가 주위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여 몇개의 초기국가가 성립되었는데 삼한지역에서도 마침내 백제국과 사로국을 중심으로 백제·신라의 국가가 각각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초기국가 내지는 고대국가(삼국)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우휴모탁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이후 부평지역은 삼국의 각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귀속을 달리하였다

12) 李丙燾,「三韓問題의 新考察」『震檀學報』第4卷, 1936, pp.34~40.
震檀學會,『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p.284.
13) 千寬宇,「馬韓諸國의 位置試論」『東洋學』9, 1979, p.36.

### 3) 삼국시대

우리나라 각지에 성장한 정치세력 가운데 초기국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고조선·부여·고구려·백제·신라였다. 옥저의 중심세력인 옥저현후(沃沮縣侯)나 동예의 불내예후국(不耐濊侯國) 그리고 삼한의 목지국(目支國)과 구야국(拘邪國)은 국가형태로 발전하지 못한 채 소멸하고 말았다. 그러나 초기국가를 이룩한 이들 여러나라들도 모두 순조롭게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고조선은 한의 침략으로 멸망하였고, 부여는 고구려에 병합됨으로써 마침내 고구려·백제·신라만이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

고대국가는 초기국가와는 달리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성립되었다. 즉 중앙의 국왕권이 세습에 의하여 절대화되고 지방의 군장세력은 왕권밑에 편입되어 그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고대국가의 특징은 대외적으로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광대한 영토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대국가는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정비된 중앙집권적 통치조직의 편성을 필요로 하게 되어 관료제가 마련되어 갔다. 요컨대 고대국가는 안으로는 왕권의 강화 및 국가조직의 정비와 밖으로는 정복사업의 전개에 따른 영토의 확장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에 이르러 이러한 고대국가의 완성을 보게된 것이다.

고구려는 A.D.1세기 후엽에 이르러 고대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때 고구려는 밖으로 부여 및 중국세력과 부단히 대립하는 가운데 영토의 확장을 도모하였고 안으로는 국가체의 정비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백제는 마한의 한 군장국가인 백제국으로부터 발전하여 기원 전후에 초기국가를 형성하였으며 한군현의 압박으로 정치발전에 제약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에 대항하면서 계속 성장하여 3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대국가를 이룩하였다. 신라는 군장국가인 사로국이 기원 후 1세기 후엽에 이르러 국가형태를 갖춘 나라였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건국전설에는 B.C.57년 박혁거세에 의하여 건국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초기국가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삼국 중 가장 늦은 1세기 말 경으로 추측된다. 신라가 마침내 고대국가 체제를 갖춘 것은 내물왕대(356~402)였다.

삼국시대 부평지역은 처음에는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평은 삼한시대 마한의 지배하에 있던 한강유역의 부족연맹체인 "우휴모탁국"에 속하였음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한강유역이 역사상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백제가 건국되면서 부터이다. 백제는 부여·고구려 계통의 유이민집단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처음에는 지금의 서울 강남~남한산 북록 일대에

위치한 마한의 여러 소국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한강유역의 농업생산력과 발전된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주변지역을 통합해나감으로써, 마침내 한강유역의 영도세력으로 발전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왕대(溫祚王代)에 비류(沸流)집단이 백제에 흡수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백제가 세력을 확장한 최초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백제가 비류집단의 근거지인 미추홀(彌鄒忽 - 인천) 지역을 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이미 흡수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평지역은 비류집단의 근거지인 인천과 백제의 중심지인 하남 위례성(河南慰禮城)의 중간에 위치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백제 성장의 초기단계에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에 편찬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의 부평조에 의하면 부평의 연혁에서 "본백제주부토(本百濟主夫吐)"라 하여 백제 때의 부평지역이 주부토였다고 하였다.[14] 이는 『대동지지』의 오기(誤記)이거나, 아니면 주부토가 고구려에 속하기 전에 백제의 땅이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동지지』에서 말하는 백제주부토설은 『대동지지』가 다른 문헌들이 이용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를 참고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동지지』가 그보다 일찍 편찬된 『삼국사기』나 『고려사』에서도 이용하지 못한 자료를 홀로 이용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대의 지명 가운데 백제의 지명에는 어미(語尾)가 "토(吐)"인 것은 없고, 어미가 "토"인 것은 대체로 고구려의 지명이다.[15]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백제 주부토설은 주부토가 비록 고구려의 지명으로 전해지지만, 한강유역이 고구려가 차지하기 전에는 백제의 영역이었던 만큼 백제의 영역으로 있을 당시에도 그렇게 불리워졌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 백제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한 부평지역은 삼국간의 대내적 항쟁인 영토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귀속을 달리하였다. 즉 부평지역은 고구려의 전성기인 광개토왕(廣開土王), 장수왕(長壽王)대에는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가 6세기 중엽 신라의 진흥왕(眞興王)대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고대국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복적이고 군사적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삼국간에는 대내적으로 항쟁이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삼국간의 영토분쟁으로 전개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왕의 업적으로 표시되었다.

백제는 3세기 중엽인 고이왕(古爾王)대에 이르면 대외적으로 정복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고

14) 金正浩, 『大東地志』 卷4, 富平條.
15) 『三國史記』 卷35, 地理2 참조.

대내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 그 후 4세기 후반인 근초고왕(近肖古王)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백제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였다. 즉 근초고왕은 밖으로 활발한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으니, 남으로 마한의 나머지 땅을 정복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하고, 북으로는 고구려를 쳐서 고국원왕을 전사케 하였다.

고구려와의 충돌에서 한동안 우세한 입장에 있었던 백제는 4세기 말 고구려에서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부터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 이 때부터 삼국의 상호 항쟁은 격화되었는데, 이는 삼국으로 하여금 각각 내부적 발전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광개토왕은 특히 활발한 정복사업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으니, 그것은 지금 통구에 남아 있는 광개토왕비로 알 수 있다. 광개토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한 이는 장수왕이었다. 장수왕은 그 시호가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98세까지 장수한 왕으로 재위기간도 78년이나 되는데 이 동안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고구려는 장수왕 15년(427)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으며, 군사를 또한 장수왕 63년(475)에는 3만의 군사를 보내어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 한성(위례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처형하였다.[16] 이에 백제는 수도를 남쪽의 웅진(熊津—지금의 공주)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구려의 영토는 남으로 더욱 확장되어 죽령(竹嶺), 조령(鳥嶺) 일대로부터 남양만(南陽灣)을 연결하는 선까지 뻗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부평지역은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 후 부평지역은 신라에 귀속되었는데 그것은 신라가 비약적인 대외발전을 하게 된 진흥왕대였다. 즉 진흥왕은 왕 12년(551)에 백제 성왕과 연맹하여 고구려를 쳐서 한강 상류지역의 10군을 점유하였고, 2년 후에는 백제가 점유한 한강 하류지역 마저 탈취하여 중부지방을 모두 독차지하였다. 진흥왕의 영토확장 가운데 특히 한강유역의 점령은 신라로 하여금 삼국간의 항쟁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게 해 준 것이었다. 이는 또한 훗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삼국시대 부평의 지명은 "주부토"였는데, 이는 문헌에 나타나는 최초의 부평지명이기도 하다. 부평의 연혁을 전하는 문헌들은 고구려시대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17] 이들에 의하면 고구려시대에 부평지역에는 주부토군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전술한 바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만 백제시대에 주부토군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16)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蓋鹵王25年 秋9月條.
17) ① 『三國史記』, 卷37, 雜誌 第6, 地理(4) 高句麗 漢山州條.
② 『高麗史』 志卷第10, 地理 1, 安南都護府條.
③ 『東國輿地志』 卷之2, 京畿道 富平都護府條.
④ 『新增東國輿地勝覽』卷9 富平都護府條.
⑤ 『輿地圖書』, 京畿道 富平條.
⑥ 『富平府邑誌』 6種.
⑦ 『富平郡邑誌』 2種.

그런데 고구려의 장수왕 2년(414)에 건립된 '광개토왕릉비'에는 많은 고구려의 지명들이 열거되어 있으나 군(郡)이란 행정단위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구당서(舊唐書)』 고려전(高麗傳)에는 고구려 멸망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5부(部) 176성(城)이 있었음을 적고 있을 뿐, 역시 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군이란 행정단위가 고구려의 지방조직에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아울러 주부토가 군이란 것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부토가 고구려의 지명이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의 지명에 토(吐)자가 들어있는 것은 대체로 고구려의 지명이기 때문이다. 주부토에 관하여는 그것이 '님자터'의 음차(音借)라는 설[18], '님터'의 음차라는 설[19] 등이 있다.

한편 주부토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주부토군이 통일신라시대 장제군(長堤郡)으로 고쳐진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것은 긴 뚝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長)은 주부(主夫)와 대응되고, 뚝을 의미하는 제(堤)는 토(吐)를 번역한 것이란 견해이다.[20] 또한 주부토는 진한의 우휴모탁국에서 유래한다는 주장과 함께 우휴의 반절(反切)은 주(主)와 음통(音通)하고 모탁은 수제(水堤·물뚝)의 의미로서 후에 부토(보뚝)로 변했다는 주장이 있다.[21] 이에 대하여 구전되어 오는 전설을 근거로 주부토란 부평평야 황무지에 뚝을 쌓아 농경지를 만들었는데 그 뚝(제방)이 줄줄이 연이어졌다는 "줄보뚝"이란 어휘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생겼다는 견해도 있다.[2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부토가 긴 뚝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부평지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제방을 이용한 관개시설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한 농경생활이 영위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세기에 들어오면서 고구려가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신라는 진흥왕 12년(551)에 백제의 성왕과 공동작전으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공격하였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때에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 6개 군을 차지 하고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의 10개 군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2년 뒤인 진흥왕 14년(553)에는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지역까지 점령하였다. 한강유역의 이같은 역사적 추세로 보아 부평지역은 A.D. 551년에 고구려의 영토에서 70여 년만에 백제의 영토로 되었다가, 다시 2년 후인 A.D. 553년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8) 梁柱東, 『增訂古歌研究』 1965, p.434.
19) 辛兌鉉, 「三國史記地理志의 研究」 『新興大學論文集』 I, 1958, p.49.
20) 『富川市史』 1988, p.63.
21) 李丙燾, 「三韓問題의 研究」 『韓國古代史研究』 1976, pp.261~268.
22) 李薰益, 『仁川地名考』 仁文社, 1993, p.73.

신라는 한강유역을 독차지한 후 이지역에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가야의 왕족 출신인 김무력(金武力…… 김유신의 조부)을 그 장관인 신주도행군총관(新州道行軍摠管)에 임명하였다.[23] 당시 신라는 정복사업에 따른 영토의 확장으로 지방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을 주-군- 성·촌(州-郡-城·村)으로 편성하는 주군제를 실시하였다. 부평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후에도 여전히 주부토로 불리워진 것 같다. 왜냐하면 부평지역은 A.D.553년에 신라의 영토가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평의 연혁을 전하는 문헌들에는 신라의 경덕왕 16년(757) 주부토군이 장제군으로 개명되기 이전의 이 지역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삼국시대의 부평지역은 삼국의 상호항쟁으로 그 영토의 귀속은 달리하였으나 그 명칭은 일관되게 주부토로 불리웠다고 하겠다.

### 4)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기 위하여 보다 정비된 정치제도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중대(中代 : 무열왕~혜공왕)에는 중앙의 정치기구가 확대되고 지방행정조직도 재편성되는 조치가 취하여지게 되었다.

특히 신라는 삼국통일로 확대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조직의 정비가 피요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신문왕 5년(685)에 9주(州)·5소경(小京)의 지방제도를 마련하였다. 주(州) 밑에는 군(郡)·현(縣)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통일전의 군과 성(城)·촌(村)을 개편한 것으로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전구에 군현이 120군·305현이 있었다고 한다. 군에는 장관으로 군태수(郡太守)가 있고 현에는 현령(縣令) 또는 소수(少守)가 있었는데 이들 외관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로서 통일신라의 지방제도가 중앙집권적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주와 군에는 감찰의 임무를 가진 외사정(外司正)이 설치되어 중앙 집권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24]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문무왕 13년조에서 "비로소 외사정을 설치하였는데 주에는 두 사람, 군에는 한 사람을 두었다."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25]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또 한 차례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이 때 경덕왕은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국(고구려·백제·신라)의

---

23) 『三國史記』 卷41 列傳 第1, 金庾信條.
24) 李文基, 「統一新羅의 地方官制硏究」 『국사관 논총』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25)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文武王 13年條.

문화전통을 융화해보려는 시도가 한계에 부딪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시행하였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종래의 전통적인 지명들을 그 음이나 뜻을 고려하여 모두 한자식(漢字式)의 두글자 이름으로 고치었다. 이와 아울러 주·군·현 간의 영속(領屬) 관계를 정비하여 신라의 지방제도를 더욱 조직화하고 정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에 영속된 부평의 지명은 주부토군에서 한자식 지명인 장제군으로 개칭되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장제군은 한주(漢州)에 소속된 군의 하나로서 본래 주부토군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인데 그 영현(領縣)은 넷이라고 하였다. 즉 그것은

① 술성현(戍城縣) : 본래 고구려의 수이홀(首尔忽)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김포군 구읍면)

② 김포현(金浦縣) : 본래 고구려의 검포현(黔浦縣)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김포군 김포읍)

③ 동성현(童城縣) : 본래 고구려의 동자홀현(童子忽縣)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통진고읍)

④ 분진현(分津縣) : 본래 고구려의 호유압현(乎唯押縣)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김포군 월곶면) 등이다.[26] 그러나 장제군과 이들 4개의 영현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삼국통일 후 한동안 전성기를 맞이했던 신라는 경덕왕 이후 점차 쇠잔하여 갔다. 마침내 9세기 말에는 견훤과 궁예가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움으로써 후삼국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 때에 장제군은 후고구려의 판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7]

## 2. 고려시대

왕건(王建)은 송악(지금의 개성) 지방의 호족으로 후고구려의 궁예를 몰아내고 새왕조를 개창하였다.(A.D.918) 그는 국호를 고려라고 칭하였는데, 이것은 궁예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이는 종래의 신라에 대하여 혁명적인 새 왕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왕건은 이듬해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고 개경이라 불렀다. 송악지방의 호족출신인 왕건에게는 이 곳에 토착적인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는 사회적 모순이 격화되어 안으로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었고, 또한 밖으로부터는 후백제의 침략을 받아 더 이상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들어 고려에 귀부하였다(A.D. 935).

---

26) 『三國史記』 卷35, 雜誌 4, 地理 3.
27)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 孝恭王 2年 秋7月條.

그후 왕건은 후백제의 내분을 틈타신검의 군사를 선산(善山)에서 대파하여 그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하였다(태조 19년, 936). 따라서 부평지역은 고려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평의 연혁을 전하는 문헌들을 살펴볼 때 고려시대 부평의 지명은 처음 수주(樹州)로 바뀌었다가 그 후 계속하여 안남(安南), 계양(桂陽), 길주(吉州), 부평 등으로 개칭되었다. 그 내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주시대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의하면 신라의 장제군을 고려시대 태조 23년(940)에 수주로 고치고, 성종 14년(995)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에 이를 혁파하였고, 현종 9년(1018)에 지주사(知州事)로 고쳤다고 하였다.[28]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사』에서도 확인되는 바 태조세가(太祖世家) 23년조에 보면 "3월 봄에 주·부·군·현의 이름을 개정하였다"고 하였다.[29] 또한 지리조에서는 "생각컨대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가리워 지고 한 구석이 육지에 연접하여 폭의 넓이가 거의 만리나 된다. 고려 태조가 고구려의 땅에서 일어나 신라에게 항복받고 후백제를 멸하여 개경에 도읍을 하고 삼한의 땅을 통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방을 처음 평정하매 나라를 다스리는데 겨를이 없더니 23년에 이르러 비로소 여러 주·부·군·현의 명호(名號)를 고쳤다."라고 하였다.[30] 이로써 볼 때 고려시대 주·부·군·현의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태조 23년(940)부터이고 또한 장제군이 수주로 개명된 것도 이때였음을 알 수 있다.

수주로 개명된 것은 계양산 북쪽인 수소리(樹蘇里)에 주청사(州廳舍)가 있었는데 이곳이 밀림속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31], 이곳의 고지명인 주부토의 "주(主)"가 "님"의 음차(音借)이며 이것이 "나무"와 음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32]

장제군을 수주로 개칭한 것은 부평지방의 승격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집권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부·군·현의 승격과 강등을 통하여 일면 협조 일면 경쟁관계에 있던 지방호족세력을 교묘하게 통제하던 태조의 지방사회에 대한 통제수단의 일환으로 여겨진다.[33] 고려는 건국 초기에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하지 못하고 다만 금유(今有)·조장(租藏)이라는 조세를 관장하는 사자(使者)를 두었을 뿐 지방통치는 호족들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

---

28) 金正浩, 『大東地志』 卷4, 富平條.
29) 『高麗史』, 卷2 世家, 太祖 23年條.
30) 『高麗史』, 卷56 志 第10 地理 1.
31) 李蓀益, 『仁川地名考』 仁文社, p.74.
32) 辛兌鉉, 「三國史記地理志의 硏究」 『新興大學論文集』 I, 1958.
33) 邊太燮, 「高麗初期의 地方制度」 『韓國史硏究』 57, 1987, pp.26~30.

고려시대 중앙에서 외관(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2년(983) 12목(牧)에 목사를 파견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성종 14년(995)에는 10도(道)를 신설하는 한편 12목을 12군(軍)으로 개편하여 그 지방관도 절도사로 바꾸고 그 밖에 7도 단련사(都團練使), 11단련사, 21방어사(防禦使), 15자사(刺使)등의 지방관을 대폭 증설하여 전국에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갔다.[34] 이 때 수주에도 군사적 성격의 단련사란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수주에도 A.D. 995년 이후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지방관인 단련사를 중심으로 군정(軍政)이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행정제도는 설치된 지 10년만인 목종 8년(1005)에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후 현종 9년(1018)에 4도호(都護)·8목(牧)·56지주사(知州使)·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의 외관조직으로 개편되면서 고려의 지방제도는 그 정비가 일단락되었다. 이 때에 수주에도 문신 중심의 지방관인 지주사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안남(도호부)시대

수주는 의종 4년(1150)에 안남도호부로 되었고 속현(屬縣)으로 금천(衿川)·동성(童城)·통진(通津)·공암(孔岩)·김포(金浦)·수안(守安) 등 6개의 현을 두게 되었다. 이로부터 부평의 지명은 안남으로 불리워졌는데 이는 계양산(일명 안남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수주라는 지명은 생긴지 210년만에 없어졌다.

안남도호부로 개칭되게 된 것은 이곳 부평지역이 수도인 개경의 방비를 위한 요충지로서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부평지역의 위상이 그만큼 승격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건국 이후 몇 차례의 치폐(置廢)를 거듭한 뒤 현종 9년에 그 정비가 일단락되었다. 이 때에 4도호부가 설치된 곳은 안동(경주)·안서(해주)·안남(전주)·안북(안주)이었으나 그 뒤에도 몇번의 변동이 있었다. 도호부는 고려일대에 걸쳐 실질적으로 지방의 최고행정기관이었다.

안남도호부의 기원은 고려의 태조가 후백제의 견훤을 멸하고 전주(全州)를 안남도호부로 삼은데서 비롯되었다.[35] 그 후 광종 2년(951)에는 고부(古阜)를 안남도호부로 삼았으며[36] 현종 9년(1018)에는 다시 전주를 안남도호부로 삼았다. 그리고 성종 14년(995)에는 영암(靈岩)을 낭주(朗州) 안남 도호부로 고쳤다가[37], 의종 4년 수주를 안남도호부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

---

34)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pp.122~129.
35) 『高麗史』 卷57, 志 第11 地理(2) 全州牧條.
36) 『高麗史』 古阜郡條.
37) 『高麗史』 靈岩郡條.

### 3) 계양(도호부)시대

안남도호부는 고종 2년(1215)에 계양도호부로 개칭되었고 이 때부터 부평지역은 계양으로 불리워졌다. 따라서 안남은 65년만에 없어졌다. 계양은 계양산에서 유래한 듯하며, 계양산은 계수나무와 회양나무가 이곳에 자생한 데에 기인하였다는 주장도 있다.[38]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평도호부 명환(名宦)조에 의하면 『파한집(破閑集)』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이인로(李仁老, 1152-1220)가 계양관기(桂陽管記, 계양서기)에 임명되었음을 적고 있다. 그는 무신란 때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가 다시 환속하여 명종 10년(1180)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후에 계양관기에 임명되었다. 『파한집』에는 그가 계양관기로 있을 때 한언국(韓彦國)의 서재에서 시를 짓던 일 등의 일화가 실려 있다.

또한 고려의 대문호였던 이규보(1168~1241)는 고종 6년(1219)에 좌사간(左司諫)으로부터 나와서 계양부사가 되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던 이규보는 고종 5년(1218)에 좌사간의 벼슬에 있으면서 지방의 수령들이 팔관회에 하표(賀表)를 올리지 못한 것을 탄핵하려 하였으나, 김의(金儀)의 만류로 포기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최충헌에게 알려지자 그는 파직되어 계양부사로 좌천되었다. 이규보는 14개월 동안 계양부사로 있으면서 많은 시문을 지었다. 그의 기문(記文) 중에는 당시 부평지방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많다. 오늘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그의 기문에는 자오당기(自娛堂記), 초정시(草亭詩), 초정기(草亭記), 명월사시(明月寺詩), 망해지(望海誌) 등이 있다.

특히 그는 시문에서 부평지역의 풍속에 대하여 "사람이 순박하고 일이 간단한 것은 비록 가상하나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쇠잔하여 차마 볼 수 없다."고 하여 당시 부평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

### 4) 길주시대

계양은 충렬왕 34년(1308)에 길주목으로 승격되었으나 2년 후에 다시 개칭되었다. 이로써 계양이란 지명은 93년만에 없어지게 되었다.

충렬왕 때 길주목으로 승격된 것은 충렬왕의 매사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은 원종의 장자로서 일찌기 원나라에 두 차례 다녀왔으며 원종 15년(1274)에는 그 곳에 들어가 원의 세조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齊國大長) 공주와 혼인하고 원종이 세상을 떠나자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원나라에서 익힌 매사냥에 탐닉하였다.

---

38) 李薰益, 『仁川地名考』 仁文社, p.76.

충렬왕은 즉위하자 그의 원년(1275)에 응방(鷹坊 : 매 기르는 곳)을 설치하고, 왕 9년(1283)에는 응방도감을 설치하면서 매사냥을 제도화 시켰다.[39] 응방은 원의 구색(求索)에 따른 헌납과 함께 충렬왕이 사냥용 매를 기르기 위해 설치 되었다.

그러나 응방은 매의 사육을 핑계로 민가에 대한 폐가 커서 도성 밖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때 응방을 관리하던 이정(李貞)은 윤수(尹秀)로 하여금 부평으로 응방을 옮기게 하였다고 한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충렬왕은 두 차례나 부평지방에서 매사냥을 하였다. 즉 충렬왕 8년(1282) 8월에 왕이 안남에 당도하였는데 공주(齊國大長公主)가 윤수를 책망하기를 "여기는 오리나 기러기가 없는데, 어찌하여 왕을 권유해서 이렇게 멀리 왔느냐?" 하며, 또 왕에게 말하기를 "사냥놀이하는 것만을 일삼으니 나라 일을 어찌하려는 것이요."하니 왕이 부끄럽고 분하여 밖에 나와 앉아 있는데 장군 박의(朴儀)가 기러기 한 마리를 잡아다 바치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고 하였다.[40] 또한 왕17년(1291) 11월에도 왕이 안남에서 사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41]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평은 응방을 옮긴 곳이고, 또한 충렬왕이 즐겨 찾던 사냥터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길주목으로의 승격은 충렬왕의 매사냥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길주목이 승격된지 2년만에 충렬왕이 세상을 떠나자 곧 개칭된 데에서도 짐작되어 진다. 오늘날 부평에는 속칭 징매이고개(景明峴)가 있는데, 여기에 고려시대의 응방이 있어 징매(徵鷹)한 고개라 하였는데 징매고개가 변음되어 징매이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42]

### 5) 부평시대

길주는 충선왕 2년(1310)에 여러 목(牧)을 없앨 때에 부평으로 개명되었고 강등시켜 부(府)로 만들었다. "부평"이란 지명은 이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니 지금부터 685년 전이다. 이 지명은 이후 고려시대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지방행정 제도상 여러번 위상의 승강(陞降)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다. "부평"이란 지명이 문헌에 처음 보이는 것은 『삼국사기』에서이다. 즉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제4) 지리조에 의하면 "부평군(富平郡)"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고구려의 부여군(夫如郡)을

39) 『高麗史』 卷77, 百官志 諸司都監各色條.
40) 『高麗史節要』 第20卷, 忠烈王 8年 8月條.
41) 『高麗史節要』 第21卷, 忠烈王 17年 11月條.
42) 趙璣濬, 『富平史硏究』 韓國印刷公社, 1994, p.57.

경덕왕이 개명한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김화현(金化縣)으로 불리었다.[43] 따라서 이는 지금 강원도에 소재하는 김화군(金化郡)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부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고려사』에 의하면 공양왕때 경기(京畿) 확장에 따른 세주(細註)에 문종 23년(1069)에 편입되었다는 신경기(新京畿)의 41개 주현(州縣)가운데 "부평"이 들어 있어 혹시 부평의 지명이 이 때부터 사용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44] 그러나 이것은 첫째, 경기 확대의 사실이『고려사』지리지 본문의 문종조(文宗條)에 실려 있지 않고 공양왕 2년의 경기 확장에 딸려 그 세주에 기록된 점, 둘째 문종 23년에 편입되었다는 신경기의 41주현명이 문종 당시의 원명(原名)이 아니라 여말의 개명(改名)으로 기록되고 있는 점, 셋째, 새로 경기에 편입된 주현이 그 후에도 여전히 원소속(原所屬)으로 표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문종 23년 경기확장의 사실이 여말 당시의 상태에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일으킨 착오로 생각된다.[45]

고려시대의 경기(京畿)에 관찰사가 설치된 것은 고려가 멸망하기 2년 전의 일이다. 즉 공양왕 2년(1390)에 비로소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 다른 도와 같이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설치되었다. 그 이전의 경기는 특별구역으로서 다른 지방과는 상이한 특수 통치제도를 시행하였다.

고려 경기제의 시작은 성종 14년에 개주(開州)를 중심으로 설치된 적현(赤縣)·기현(畿縣)이다. 그러나 고려 왕조가 왕도(王都) 주위를 정식으로 경기라 칭한 것은 현종조(顯宗朝)의 일이다. 현종 9년(1018)에 개성현이 관할하는 3개의 현과 장단현이 관할하는 7개의 현을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접 예속시키고, 이를 경기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기의 제도는 영역·통치제도·통치기구 등의 변동 및 개편이 있었는데 특히 공양왕 때 일대변혁이 있었다. 즉『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공양왕 2년(1390)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경기를 확장하여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도관찰출척사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전에 비하여 ①경기가 확대되었고 ②경기를 좌·우도로 구분하였으며, ③각 도에 도관찰출척사를 두었다는 세가지 점에서 변혁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공양왕 2년 경기의 확장은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科田法) 시행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46]

이 때에 부평은 경기우도에 소속되었는데 당시 경기우도에는 개성·강음(江陰)·해풍(海豊 : 풍덕)·덕수(德水)·우봉(牛峰) 등 5개 군현을 중심으로, 여기에 남쪽 양광도의 부평·강화·교동·김포·통진 등의 군현과 서해도의 연안·평주(平州)·백주(白州)·곡주(谷州)·수안(遂安)·재령

43)『삼국사기』卷 第35 雜志 第4, 地理(2).
44)『高麗史』卷56, 志卷第10, 地理 1.
45) 邊太燮,『高麗政治制度史研究』一潮閣, 1971, pp.244~254.
46) 邊太燮,『高麗政治制度史研究』一潮閣, 1971, pp.255~266.

(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俠溪) 등이 소속되었다.[47] 공양왕 2년 경기좌우도에 도관찰출척사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 3. 조선시대

### 1) 부평부(府)의 변천

고려말 위화도 회군과 사전개혁을 통하여 정치·경제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는 마침내 공양왕에게서 선양을 받아 왕위에 오르니(A.D. 1392), 이가 곧 조선의 태조이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모든 면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교체를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태조는 즉위 직후 모든 법제·문물을 전조의 고사에 따르겠다고 선포하였지만 이는 민심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새로운 정치기반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통치기구의 개편은 지방제도에 대해서도 취하여졌다. 국도의 천도 역시 즉위 직후에 그 의사가 표명되었고 태조 3년(1394) 한양으로 정하여 옮겨졌다. 이것은 고려 구세력의 전통기반인 개경을 떠나 새 왕조의 새로운 정치기반을 구축할 필요에서 였다.

조선시대의 지방제도는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경·평안 등 8도로 나누고, 도 아래에는 부·목·군·현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감사)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방백(方伯)이라 하여 자기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 즉 부윤·목사·군수·현령(감) 등을 통할 감독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지방은 8도체제로 정비되어 명실공히 행정구획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전시대인 고려에서는 다분히 신분적이고 계층적이며 다원적이던 군현제가 인구의 다과와 토지의 광협에 따라 일원적 행정구역으로서의 군현제로 전환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부평부는 조선 건국후에도 경기우도에 속하였다. 즉, 태조 4년(1395)에 평주(平州)·수안·곡주·재령·서흥·신은·협계 등 군현을 서해도로 이식시키고 나머지 군현을 좌·우도로 개편하였는데, 이 때 부평·양주·철원·연안의 군현은 경기우도로 되었다. 그 후 태종 2년(1402)에는 좌·우도를 통합함으로써 단일체의 경기 좌우도성이 되었다. 또한 태종

47) 『高麗史』 卷56 志 第10, 地理 1.

13년(1413)경기에는 이속(移屬)·내속(來屬) 등으로 관내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는 한양천도에 따른 조처였다.[48]

『대동지지』에 의하면 부평부는 태종 13년(1413) 예(例)에 따라 고쳐서 도호부(都護府)가 되었고, 그 이듬해인 1414년에는 김포현을 부평도호부에 편입시켰다가 동왕 16년(1416)에 다시 분리시켰다.[49]

부평도호부는 그 후 세종 20년(1438)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세종 28년(1446)에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는데,[50] 이것은 부평의 관민이 온천 소재를 숨기고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평지방에 실제로 온천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뭏든 이 온천파동으로 인하여 부평도호부는 세종의 기휘(忌諱)에 저촉되어 일시나마 현으로 강등되었었다. 왕실과 관련이 있었거나 공신의 출생지 등의 경우에 읍호를 승격시켜주는 예가 있는 반면, 적에게 투항한 고을이나 반역자, 패륜아 등의 출신지는 읍호를 강등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부평도호부의 경우는 왕의 기휘에 저촉된 예이다.

부평의 온천파동은 다음과 같다. 즉 세종은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였고, 등에는 부종(浮腫)이 생겨 고통이 심하였으면서도 독서를 좋아하여 주야로 책을 읽었으므로 시력이 극도로 쇠약해 졌다. 세종은 대신들의 권유로 온양온천에 가서 목욕한 후 효험을 보았다. 온천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세종은 도성(都城) 가까운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온천탐색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 온천이 있다는 장소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백방으로 탐색하여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에 세종은 부평의 관민이 민폐를 두려워 하여 온천의 소재지를 숨기고 고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부평도호부를 현으로 강등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세종은 부평의 온천 탐색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온천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세종 25년(1443) 7월에 온천 발견의 가망이 없음을 자각한 세종은 예조에 명하여 부평현의 향리로서 온천 소재를 고하지 아니한 죄로 함경도 변경으로 쫓겨났던 자를 복귀시키고, 이후로 온천 소재를 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논죄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 세종 28년에는 부평현을 다시 도호부로 복구시켰다.[51]

그 후 부평도호부에는 세조 원년(1455)에 중익진(中翼陣)이 설치되어 부사(府使)가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겸임하였다. 조선시대의 군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군이었는데, 지방군제는 세조 때에 크게 정비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제도(諸道)의 연안 중 주요

48)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49) 金正浩, 『大東地志』 富平條.
50) 金正浩, 『大東地志』 富平條.
51) 『富川市史』 1988, pp.92~93.

지대에 진(鎭)을 설치하여 외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지(內地)의 주와 현에는 진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외적이 침범하였을 경우 변방에서 막지 못하면 적이 내지에 까지 난입하여 무인지경이 될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세조 원년(1455) 9월에는 이때까지 북방의 익군(翼軍)과 남방의 영진군(營鎭軍)으로 2원화되어 있던 군사조직을 북방의 예에 따라 군익도(軍翼道)의 체제로 통일하였다. 이는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다시 중·좌·우의 3익으로 편성하여 인근의 여러 고을들을 여기에 소속시킴으로써 하나의 군사단위를 이루도록 한것이었다.

이에 따라 부평은 하나의 군익도가 되었고, 중익(中翼)에 부평·인천·양천·금천(시흥)·고양을, 좌익(左翼)에 수원·남양·안산·과천을 그리고 우익(右翼)에 김포·교하(交河)·통진을 각각 속하게 하였다.[52]

이러한 제도는 시행된 지 2년만인 세조 3년(1457)에 폐지되었고, 다시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변경되어 지방군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진관체제는 군익도의 중첩성을 지양하고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들을 이에 속하게 하여 하나의 진관으로 편성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이 때 육군만이 아니라 수군도 이러한 진관조직을 갖추었다. 이러한 진관체제로 바뀌면서 부평은 수원진에 예속되었다.

부평도호부는 연산군 11년(1505)에 부(府) 사람인 환자(宦者-내시) 김순손(金舜孫)이 죄를 짓자 그를 처형한 후 폐지되었다가, 그 이듬해인 중종 원년(1506)에 다시 설치되었다.[53] 김순손은 부평 출신의 환관으로 연산군 1년(1495)에 연산군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궁중에서 문란한 생활을 하자 이를 간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연산군은 제주목사로 하여금 그를 문초케하고 처형토록 하였으나, 간관들은 법에 의해 죄상을 밝히지 않고 왕이 자의로 처형함은 부당하다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결국 김순손은 연산군 10년(1504)에 제주도에서 참형을 당하였는데, 중종반정 후 그 공을 인정받아 복호되고 내시부 종2품직인 상선(尙膳)에 추증 되었다.

중종대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부평도호부는 동쪽으로 금천현(衿川縣) 경계까지 34리, 양천현 경계까지 15리, 남쪽으로 안산군 경계까지 48리, 인천부 경계까지 15리, 서쪽으로 큰 바다까지 14리, 북쪽으로 김포현 경계까지 17리, 통진현 경계까지 36리, 서울까지 55리가 된다고 하였다.

---

52) 『世宗實錄』 卷2, 元年 乙亥, 9月條.
53) 『新增東國輿地勝覽』 富平都護府條.

『여지도서』에 의하면 숙종 11년(1685)에 부평에는 영(營)을 설치하였는데 진무전영장(鎭撫前營將)을 겸하였다. 동왕 24년(1698)에 부평도호부는 세번째 현으로 강등되었다. 그것은 김포에 있는 장릉(章陵)에 방화한 죄인 최필성(崔弼成)의 출생지가 부평이라는 이유에서 였다.[54]

장릉은 조선시대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 원종(元宗－인조의 생부로 추존)과 그의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추존)의 능이다. 경기도 김포군에 소재하는데 추존하기 이전에는 묘 이름을 흥경원(興慶園)이라고 했는데 인조 10년(1632) 추존과 동시에 장릉으로 고쳤다. 최필성은 사형에 처해지고 그 처는 양반집 노비가 되었다.

부평은 현으로 강등된 지 10년만인 숙종 33년(1707)에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다. 그동안 부평도호부는 온천파동으로 8년간, 환관 김순손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1년간 장릉 방화죄인인 최필성의 태생지라는 이유로 10년간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현으로 강등되는 수난을 겪었다.

### 2) 양란과 부평향교

『대동지지』에 의하면 부평지방은 고려시대 우왕 4년(1378)에 왜구의 침입을 받은 바 있다.[55] 조선시대에 들어와 붕당의 대립으로 양반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16세기 후엽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여진족의 통합 기운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일본에서는 풍신수길(豊臣秀吉)에 의해 100년간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통일국가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외족의 조선침략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것이 선조 25년(1592)에 일어난 임진왜란인데, 당시 7년 간의 전란으로 조선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였다.

이 때에 부평지방도 큰 피해를 입었다. 『쇄미록』에 의하면 1592년 8월 16일에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이 의병 1500여명을 이끌고 안산에 주둔하였으며 병사(兵使) 최원(崔遠)이 1,800여명을 통솔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을 느낀 병사들이 강화도로 도망하니 겨우 4·5천명이 남아 있었으나 그들도 도주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

당시 노량진에 주둔해 있던 왜군은 한서(漢西)지방이 공백상태임을 알고 인천·부평을 포함한 한서지방으로 침입하여 왔다. 인천을 함락시킨 왜군은 부평과 김포를 점령하고 8월 24일에는 통진에 이르렀다.[56] 이어서 왜군은 계속해서 북상 하였다.

---

54) 『輿地圖書』上, 京畿道 富平.
55) 金正浩, 『大東地志』 卷4, 富平條.
56) 『鎖尾錄』 上, 第1 壬辰 8月條.

평양까지 북상했던 왜군은 수군에서의 승리와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동으로 전세가 반전되어 가고 있을 때 명의 원군이 도착하여 평양을 탈환하면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남하하던 왜군은 한강에 이르자 일부는 임진강을 건너 서울로 들어갔으며 일부는 한강 하류를 건너 통진을 점령하고 이어서 김포를 점령하였으며 부평으로 향하였다. 이 때에 부평부사 김시회(金時晦)는 겁에 질려 싸우지도 않고 도망하여 왜군은 부평을 점령하였다. 김시회는 후일 백성들의 비난을 받고 피신해 있었는데 나라에서 책임을 추궁하자 자살하였다고 한다.[57]

왜군은 부평의 고성(古城)을 수리하고 그곳에 주둔하면서 부근의 고을들을 약탈하다가 서울에 주둔한 왜군이 퇴각하면서 철수하였다.

이때에 부평향교가 부평부청사와 함께 병화(兵火)를 입어 소실되었다. 당시 부평향교는 계양산 아래에 있었고 부평 부청사는 옛 산성 밑 심일촌(深逸村)에 있었다고 한다.

『부평부읍지』 광무판(光武版)에 의하면 부평향교가 불에 탈 때 교생(校生) 박무영(朴茂榮)·박대충(朴大忠)·이언복(李彦馥) 등 세 사람이 성전위판(聖殿位版)을 계양산의 굴(장사골)에 숨겼다가 난이 평정된 후에 다시 봉안하였다. 임진왜란 때 인근의 여러 향교는 위판(位版)이 소실되어 후일 향교를 복원할 때 부평향교의 위판을 본받아 봉안하였다고 한다. 부평향교의 위판을 보관했던 위의 세 사람은 그 공로로 참봉 벼슬을 받고, 그 자손들까지 부역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받았다.

왜란 중 명의 세력에서 벗어난 여진족은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후금을 건국하고(1616) 명을 압박하였다.

그 후 후금의 태종은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대해서는 군신의 관계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리한 요구에 조선이 크게 반발하여 선전의 교서를 내리고 청에 대항하려 하자 청 태종은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침공하니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인조 14년, 1636).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은지 불과 40년만에 다시 청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청군이 서울에 육박하자 왕족과 일부 관리들은 강화도로 피난하고 인조는 길이 막히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을 꾀하였다.

청나라 군사들은 서울을 점령한 후 강화도를 침략하려고 양천을 지나 부평을 통과하려고 하였다. 이 때 철곶첨사(鐵串〈김포〉僉使)는 김득남(金得男)이었는데, 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부하들과 함께 청군의 통로를 차단하고 용감하게 싸웠다. 김득남은 청군을 맞이하여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1636년 12월 22일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당시의 부평부사 전이성(全以性)은 청군의 위세에 눌려 전의를 상실하고 피신에 급급하다가 후에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

57) 李薰益, 『仁川地誌』 美文出版社, 1987, p.32.

청군의 포위 공격을 받은 남한상성에서는 식량이 떨어지고 또 지방의 원병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주전·주화의 양론이 분분하다가 결국 인조가 삼전도(三田渡－지금의 송파)에 나아가 항복의 예를 행하게 되었다. 인조 17년(1639) 청의 강요로 청태종 송덕비 즉 삼전도비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비문을 쓴 사람은 한성판윤 오준(吳竣)이었다. 오준은 인조 6년(1628) 부평부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연안부사로 전근한 바 있는데 오늘날 그의 송덕비가 싸이클 경기장 경내에 남아 있다.

청군이 강화도를 침공하고 다시 남한산성에 집결하고자 부평을 통과할 때 부평청사와 향교에 불을 질렀다. 그 때 부평문묘에서 유생을 가르치던 동지(同知 : 종2품) 송윤(宋玧)은[58] 향교가 불에 타오르자 화염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열성(列聖)의 위패를 구출하여 사제(私第)로 옮겼다가 경명현(징맹이고개)을 넘어 공촌동(公村洞 : 공자지벌)에 비장하였다. 이 때에 문묘건물은 완전히 소진되었고 또한 보관중이던 많은 문헌들도 함께 소실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59]

부평향교는 병자호란이 평정된 후 숙종 14년(1688)에 현재의 자리(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2－1)에 새로 문묘를 재건하고 공촌동에 보관하였던 열성의 위판을 다시 봉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60] 현존하는 부평향교의 건립연대는 보존된 환안제홀기(還安祭笏記)에 "무진8월초4일"의 기문(記文)과 명륜당 북면 현판말미의 낙인으로 보아 1688년이 확실하다. 이로써 볼 때 오늘날의 부평향교는 병자호란 평정 후 52년만에 재건된 것으로, 『여지도서』와 『부평부읍지』 등에 보이는 향교 재부서2리(鄕校 在府西二里)의 부평향교이다.

향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서 지방관학으로 지방 자제의 교육과 선현의 봉사(奉祀)라는 2중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교적 정치이념을 향촌사회에 널리 보급하고, 또한 유교적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향교는 일반적으로 공자와 그 제자들을 봉사하면서 지방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의 관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향교의 기원에 관하여 아직까지 학계에서 일반화된 견해는 없는 실정이다. 대체로 향교가 고려시대에 기원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론이 분분하다. 그것을 성종대 설치론, 인종대 설치론, 그리고 고려후기 설치론 등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58) 鎭川人으로 시조 舜恭의 15世孫, 부평향교의 유림명부에 제1호로 등재되어 있음.
59) 『富平鄕校誌』 p.89.
60) 위와 같음.

먼저 성종대 설치론은[61] 성종이 12목에 지방학관을 파견한 사실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다음 인종대 설치론은[62] 인종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식목도감으로 하여금 중외 학교의 학식(學式)을 상정(詳定)케 한 것에 주목하면서 동왕 5년(1127) 3월에 "제주(諸州)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도(敎道)를 넓히라"고 한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향교설치의 고려후기론은[63]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의 지방교육은 "향학"이라 지칭되어 왔으며, 더우기 고려때는 지방제도가 확립되지 못하여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던 점을 들어 향교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교는 여말선초 성리학의 보급과 더불어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견해이다.

고려 인종대로부터 설치된 향교는 지방교육에 기여하면서 발전하였으나 무인 집권기에는 과거의 침체, 이민족의 침입등으로 쇠퇴하였다. 그러나 충선왕과 충숙왕대의 지방교육 부흥책과 특히 성리학의 전래는 여말 유학의 학풍을 진작 시켰으며, 향교 또한 그 기능이 복구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리의 자제들에게도 수학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고, 이로 인하여 이들이 과거를 통하여 관료로 진출함으로써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교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발전하였다. 그것은 태조 원년(1392)에 즉위교서에서 제도의 안찰사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서 수령고과의 제도를 정하고 지방 향교의 설치를 강조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64]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는 수령의 임무가 수령5사(守令 五事)[65]로 표기되었던 것이 조선에서는 "흥학교(興學校)"가 추가된 수령7사(守令七事)[66]로 되어 유교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태종은 향교의 수학성과로 수령포폄의 기준을 삼아 향교 교육을 진흥시켰다.[67] 조선시대 향교와 과거제도의 운영은 상호 보완하면서 이루어져 지방 향교에서 배우는 것과 지방단위로 시행되는 향시(鄕試)의 운영은 표리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에는 향교의 기능이 더욱 강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평향교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상고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부평향교의 설치경위와 그 변천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 실전되어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의 설치경위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기록은 확실한 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의 추측에 의한 것이다.

---

61) 朴贊洙, 「高麗時代의 鄕校」『韓國史硏究』 42, 1983, p.39.
62) 韓東一, 『朝鮮時代 鄕校制度의 硏究』 1981, 학위논문.
63) 李成茂, 「朝鮮初期 文科의 應試資格」『國民大論文集』(人文科學篇) 1975, p.93.
64) 古典刊行會, 『文獻備考』(下) 1970, p.431.
65) 『高麗史』 卷75, 志 卷29, 選擧3.
66) 조선시대의 守令七事는 農桑盛, 學校興, 詞訟簡, 好猾息, 軍政修 戶口增, 賦役均 등이다.
67) 『太宗實錄』 卷12, 太宗 6年 12月 乙巳.

먼저 부평향교는 고려 인종 2년(1124)에 설치되었다는 기록을 들 수 있다.[68] 이는 "부평향교안(富平鄕校案)"을 근거로 한 것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부평향교의 설치시기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이다. 그러나 부평향교안이 찾아지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가 없다.

다음 부평향교는 인종 5년(1127)에 설치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기록이다. 『부평향교지』에 의하면 성묘(聖廟)의 설치에 대하여 '본 문묘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당시 수주의 진산인 계양산의 남쪽 기슭 심일리(深逸里)(현재 부평국민학교 교사 후측)에 건립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69] 이 외에 수주향교는 인종 6,7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모두 고려 인종 5년에 전국 56주에 학(學)을 세워 널리 가르치라는 왕명 즉 '유신교서'를[70] 주목하여 추측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평향교의 설치시기는 고려시대 인종 2년설, 인종 5년설, 인종 6,7년설 등이 있으나 모두 추측한 것으로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고려 인종대의 부평지명은 수주(樹州)였으니 향교의 명칭이라도 일관되게 수주향교로 불리워왔다면 위의 추측은 좀 더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부평향교는 전술한 바 임진·병자의 양란으로 인하여 크게 전화를 입었다. 현재의 부평향교는 조선시대 숙종 14년(1688)에 재건된 것으로 원래 계양산의 동남구릉지대에 동남향으로 자리하여 한눈에 넓은 부평평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시가지구역내에 존치되고 있다.

부평향교는 부평향교지에 전하는 중수기를 통해 살펴 볼 때 1853년부터 1989년까지 모두 17차례의 중수·보수·개축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평향교는 일제하에서 한 때 문학문묘와 합감(合龕)되어 '인천향교'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 즉 1910년 국권상실 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자 인천은 총독부의 신관제에 의하여 부(府)가 설치되고 부행정이 실시되었다. 인천의 관할구역은 처음에는 개항장으로 국한되었으나 1936년에 제1차, 1940년에 제2차로 부역(府域)을 확장함으로써 인천부내에는 부평향교와 문학향교(당시는 부천향교라 칭함)[71]가 병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1943년 당시 인천부윤(일본인 永井照雄)이 동일부내(府內)에 2개의 향교가 불필요하다 하여 문학향교와 부평향교를 합감케 하고 명칭도 인천향교라 하였다.

그 후 8·15광복 직후인 1946년 3월에 뜻있는 유림들이 회동하여 여러 차례 숙의한 끝에 문학향교(문묘)는 '인천향교'로, 부평향교(문묘)는 '부평향교'로 분리·복원하고 문묘위패를 나누어 봉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68) 朴贊洙, 「高麗時代의 鄕校」『韓國史硏究』, 42, 1983, p.45.
69) 『富平鄕校誌』 1987, p.88.
70) 『高麗史』 卷74, 志卷 第28, 選擧 2, 學校條(仁宗 5年 3月詔).
71) 『仁川鄕校誌』 1983,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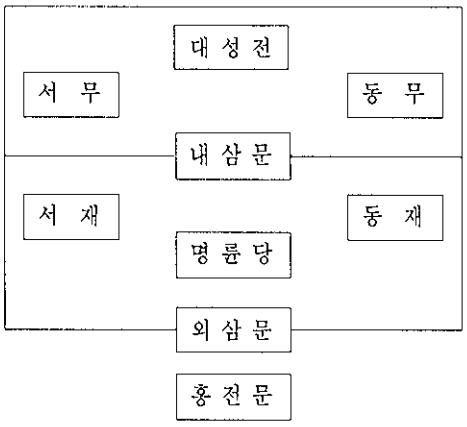
부평향교의 현황을 살펴 보면, 부평향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구역상의 변경과 그에 따른 변천을 거듭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부평군내의 유림들이 전래대로 석전봉행(釋奠奉行)과 교궁보존·관리 및 문화교화사업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부평향교에는 유도회지부(儒道會 支部)가 있는데 이는 유도회총본부와 연계되어 있다. 1945년 10월에 전국의 유림 2,500여명이 성균관 명륜당에서 회합하여 유도회총본부를 창립하였다. 그 후 1970년 3월 전국의 유림대표자대회에서 유도회헌장 및 조직세칙을 제정, 선포하고 이후 이 헌장에 따라 전국 유도회가 운영되고 있다. 부평향교의 유도회는 관할구역을 부내(富內)·부평·서곶·소사·오정·계양·오류 등 7개 지구로 분할하여 1개 지구에 대의원 5인씩을 두어 그 중에서 장의(掌議) 3인을 선임하여 교무를 감리케 한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에서 향교의 전교(典校), 장의 및 감사와 유도회의 정·부 지부장과 감찰위원을 선출한다.[72]

부평향교는 1981년 7월 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어 인천직할시로 승격됨으로써 재단법인 인천직할시 향교재단이 1982년 11월 15일 창설됨으로 이 산하에 속하게 되었다.

부평향교는 1975년 2월 5일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건조물 경기 제2호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통지서'를 받았다. 그후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을 각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에 따라 1983년 3월 2일 인천직할시장의 '문화재지정서'를 교부받아 명륜당에 걸었다.

부평향교의 건물현황은 대성전(大成殿), 동·서무(東·西廡), 동·서재(東·西齋), 명륜당(明倫堂), 내삼문, 외삼문, 교직실(校直室), 유림회관, 향교회관, 홍전문(紅箭門) 등이 하나씩 있다. 대성전은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 형태이고 좌우에 방풍판이 있으며 정면이 3간, 좌측면이 4간, 우측면은 3간으로 되어 있다. 좌우의 동·서무는 건물의 규모와 건축양식이 동일하며 맞배지붕에 좌우에 방풍판을 달고 있으며 정면 2간, 측면 1간 반으로 되어 있다. 동·서재는 정면 5간, 측면 1간 반의 민도리집으로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이다. 명륜당은 정면 5간 측면 2간이며 팔작(八作)지붕에 한식 골기와 형태이다. 서재는 1987년에 복원한 것이며, 유림회관은 부평동 21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 건평 104.67평의 현대식 건물로 1980년에 건축한 것이다. 향교회관은 1989년 9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1월에 준공된 1층 75평, 2층 75평의 건물이다. 부평향교의 건물위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우측그림과 같다.

《부평향교 평면도》




72) 『富平鄕校誌』 참조.

현재 부평향교에 봉안된 열성위패로는 5성위(五聖位 :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를 위시해서 정·주(程·朱)양공과 한국 18현(설총·최치원·안유·정몽주·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이이·성혼·김장생·송시열·송준길·박세채·김인후·조헌·김집)이다.

부평향교에서는 1981년 춘향시(春享時)부터 동서종향(東西從享)에 봉안한 정·주양공 및 한국 18현께도 종전에 단헌하던 것을 5성위와 같이 3헌을 드린다. 따라서 석전대제홀기를 새로 제정하여 봉행하고 있다. 그리고 석전제를 춘추로 2회 들여왔으나 향교재단 결의에 의해 봄 2월 상정일(上丁日)에 1회만 지내기로 하여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부평향교에서는 1986년 8월부터 충효교실을 상설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학(經學)과 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평균 30여명 정도가 적을 두고 교육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평향교에서는 전래의 교화사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효·열·선행자를 찾아서 석전제 때에 표창하고 있다. 포상자의 선정은 각동리의 이장, 학교장, 유림대표자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이루어 진다. 지금까지 표창받은 사람들을 보면 효자·효부·효열선행(孝烈善行)·망부선행(亡夫善行)·선행자 등이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장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3) 양요와 부평

조선에서 세도정치가 실시되던 19세기에는 서양에서 일찍이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룩한 열강들이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함을 앞세워 아시아 여러 나라에 경쟁적으로 침투해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서양세력의 파동은 조선에도 닥쳐오고 있었다.

이미 18세기부터 서양의 선박은 우리나라 연해에 나타나 처음에는 탐험과 측량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통상을 요구하여 왔다. 이들 이양선(異樣船)의 출몰은 조선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중국에서의 아편전쟁과 영국·프랑스 군대의 베이징 점령 소식은 이들 서양세력이 조선에도 침공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전통질서를 재정비하고 왕권을 재확립하여 조선왕조의 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대원군의 개혁정치에 있어서 서양세력의 통상요구는 일단 저지해야 할 대상이었다. 대원군의 집권 이전부터 조선에는 프랑스 선교사가 잠입하여 선교활동을 하고 천주교 신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었다. 또한 의주·동래 등지의 국경무역을 통해 서양 문물이 전래됨으로써 당시 조선에서는 서양세력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때에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고수하여 서양의 통상요구를 거절하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단행하였다. 대원군은 고종 3년(1866) 정월에 천주교 탄압령을 내려 불과 몇 개월 동안에 9명의 프랑스 신부와 남종삼(南鍾三) 등을 비롯한 8,000여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다.

이를 병인사옥이라 한다.

서양세력의 침투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천주교 박해는 서양과의 무력대결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 때에 살아 남은 3명의 프랑스 신부 가운데 한 사람인 리델(Ridel)이 중국으로 탈출하여 천진에 있는 프랑스 극동함대의 사령관인 로즈(Rose) 제독에게 보고하였다. 북경에 있던 프랑스 대리공사 벨로네(Bellonet)는 이 보고를 받자 조선침공을 감행하였다. 로즈 제독은 1866년 9월에 프랑스 극동함대의 전함 프리모오게 등 3척을 이끌고 리델 신부와 조선인 신자 3명의 안내로 조선에 왔다.

이때 프랑스의 전함 2척은 부평부 영해인 난지도 앞바다에 정박하였고 다른 1척은 호도(虎島:범섬)에 정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연락 받은 당시 부평부사 조병로(趙秉老)는 즉시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병조에서는 부평부사 조병로, 영종첨사 심영규(沈永奎)에게 명하여 곧 프랑스 함정을 방문해서 엄중문책하고 퇴거시키도록 하였으나 프랑스 측에서 승선을 거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조정의 명을 받은 조병로는 그후 좌수 이사격(李思格)과 중군 홍윤석(洪胤錫)을 대동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산더미 같은 프랑스 군함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타고갈 배를 찾으니 배는 있는데 뱃사공은 도망쳐 버리고 없었다. 근처에 있는 뱃사공을 동원하여 배를 타고 난지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프랑스 군함에 접근한 조병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큰 소리로 함장의 면회를 청하였다. 그러자 조선인 통역이 나타나 말하기를 사령관은 호도(범섬) 앞바다에 정박한 군함에 있으니 그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부평부사와 그 일행은 다시 배를 돌려 그 곳으로 가서 다시 큰 소리로 사령관의 면회를 청하니 얼마 후 배에서 사다리를 내려 주면서 군함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었다.

프랑스 군함에 올라간 조병로 부사는 조즈 제독에게 항의는 고사하고 겁을 먹고 하는 말이 상부의 명으로 어쩔 수 없이 왔으니 제발 부평의 영역이라도 벗어나 줄 것을 애원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의 사령관은 부평부사의 요구에는 한 마디의 대꾸도 없이, 찾아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통역을 앞세워 배안 구경이나 하라고 하였다.

부사 일행은 통역의 안내를 받아 군함 내부를 두루 보았는데 큰 대포, 진기한 군기와 물품, 시계 등을 보고 감탄하였다. 특히 유성기 소리를 듣고는 아주 신기해 하였다. 군함 구경을 마친 부사 일행은 프랑스 사령관에게 부평구역만이라도 떠나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사령관은 우리는 때가 되면 간다고 하면서, 지금 이 군함에는 쌀, 고기, 야채 등이 부족하니 그것을 주면 후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사 일행은 그것은 상부의 명령 없이는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돌아 왔다.

그 후 프랑스 함대는 양화진(楊花津)·서강(西江)까지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서울 도성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는 3척의 소함대로서는 도성의 공격이 곤란함을 깨닫고, 그 부근의 지형만 정찰하고 돌아갔다. 로즈 제독은 그 해 10월에 7척의 군함을 이끌고 다시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물치도(勿淄島 : 작약도) 근처에 나타나 14일에는 갑곶에 상륙하고, 16일에는 강화부를 점령하여 군기·양식·서적 등을 약탈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경하(李景夏)·이기조(李基祖)·이용희·이원희(李元熙) 등의 용장을 뽑아 서울을 비롯하여 양화진, 통진, 광성진, 부평, 제물포 등의 요지나 문수산과 정족산의 두 산성에 비치하였다. 후에 프랑스군은 여러 곳에서 조선군과 교전이 있었는데, 로즈 제독은 사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11월 18일 드디어 전 함대를 거두어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이 병인년에 있어났으므로 병인양요라고 부른다.[73]

한편 천주교의 박해가 진행되던 고종 3년(1866)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어먼(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교역을 요구하다가 평양 군민의 공격으로 불타 침몰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조선을 개국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중국에 있는 미국의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Rodgers)로 하여금 군함 5척으로 조선을 침공케 하였는데 이를 '신미양요'라고 한다(고종 8년:1871).

미국은 1844년에 미청망하조약(美淸望廈條約) 체결로 중국과 통상관계를 수립하였고, 10년 후인 1854년에 페리(Perry)제독의 일본원정으로 대일포함외교(對日砲艦外交)에 의해 일본을 개항시키는 데 성공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미국정부가 조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866년 8월 제너럴 셔어먼호 사건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1868년 시워드(W.H.Seward) 국무장관은 두 차례나 조선 개항을 시도했으나 실행을 보지 못하였다. 1868년 조지 시워드(G.F. Seward) 상해총영사와 시워드 국무장관이 수립해 놓은 조선원정계획안은 그란트(Ulysses Grant)행정부의 피쉬(H. Fish) 국무장관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1871년의 조선원정이다. 미국의 조선원정의 표면상 이유는 셔어먼호 사건에 대한 응징이고, 주목적은 조선원정을 통하여 조선과 협상을 전개 통상조약을 실현시키는데 있었다. 그러나 만약 조선이 이에 불응할 경우 무력행사를 불사하고라도 조선과 전쟁을 해서 강제적으로 조선을 개항시켜 통상관계를 수립하려고 한 것이다. 1870년 4월 20일 피쉬 국무장관은 북경주재 미국 공사 로우(F.Low)에게 조선원정의 전권을 부여하는 훈령문을 내릴 때, 1854년, 1858년에 각각 체결한 미·일조약문 부본을 동봉했다는 사실로도 미국정부가 얼마나 조선과 입약을 희망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로우 공사는 표

73) 『承政院日記』 高宗 3年 8月 16日~9月 12日條.
李光麟, 『韓國史講座』(近代篇), 一潮閣 1984, pp.31~39.

면상으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교섭임무수행이 달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까닭없는 공격'을 할 경우 무력행사로 이에 대처할 태세를 갖추고 조선원정에 임하였다.

당시 로저스 제독이 거느리고 조선원정을 수행할 아시아함대는 군함 5척(콜로라도호:Colorado, 알래스카호:Alaska, 베니시아호:Benicia, 모노카시호:Monocacy, 팔로스호:Palos), 함재대포 78문, 총병력은 수해병(水海兵) 1,369명이었다.[74]

1871년 5월 26일(음 4월 8일) 정오경 미국 탐측함대가 물치도를 지나 부평경내로 들어오며 탐측하면서 정박하였는데,[75] 이에 남양(南陽)부사 신철구(申轍求)는 화양(花梁) 첨사와 같이 문정하려고 미선에 접근하려 시도했지만, 강풍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제부도(濟扶島)로 퇴박하였다. 때마침 미국 기정(汽艇) 3척이 와 신철구 부사는 화양 첨사와 함께 손을 들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문정차래차(問情次來此)"라는 5자를 표시하니 미국기정은 잠시 멈추고 연안으로 접근하여 3·4명이 하륙(下陸)하였다. 그러나 언어 불통으로 문정은 실패하였다.

5월 28일 미국의 아시아 함대의 5척 군함이 부평경계 앞바다에 있는 호도(범섬)에 정박하였다. 이에 5월 30일 의주에서 온 통역 3인과 인천읍리 김진성(金振聲) 등 4명이 작약도와 율도사이에 정박중인 콜로라도호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문정하였다.

이 때에 미국의 요구사항은 ①로우 공사가 아시아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방문한 목적은 조선정부와 중대사를 상판(商辦)하기 위하여 온 것이며, ②조선정부가 직위상 미국특사와 대등한 대관(大官)을 파견하면 그와 협상에 응해서 조선 방문의 경위를 설명할 것이다. ③로우 공사는 조선정부로부터의 공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수일간 이곳 정박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④로우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의 대형 함정이 수도 서울 가까이로 이동·항진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아시아 함대의 소형 함정이 탐측작업을 전개할 것이다. ⑤미국 함정의 승무원에게 친절한 예우를 하는 한 조선 백성을 위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⑥로우 공사와 로저스 제독은 앞으로 조·미간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로우 공사의 훈령 내용을 조선 백성에게 충분히 인식 시켜주기 바란다 등이다.[76]

이에 대하여 조선 대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미국 함대의 조선방문 목적과 의도만을 타진하려는 태도였다. 조선대표는 문정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강화해협 탐측에 대한 찬반의사를 밝힐 권한도 없었다. 조선이 품계가 낮은 관리를 파견한 것은 일종의 지연전술이며, 이러한 전술은 양이(洋夷)와의 외교교섭에서 흔히 사용하는 동양인의 전통적 수법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①5월 30일자의 미국 공한은 조선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요 도전장으로

74) 金源模, 『近代韓美交涉史』 弘盛社, 1982, p.252.
75) 『高宗純宗實錄』 上 p.360, 高宗8年 辛未 4月 初8日條.
76) 金源模, 『近代韓美交涉史』 弘盛社, 1982, p.264.

볼 수 있고, ②미국의 요구조건에 대해 조선대표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자 미국은 강화 해협 탐측을 찬성한 것으로 해석하는 오해를 초래하였고, ③아시아 외교에는 인내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로우·로저스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조·미간에 전쟁의 불씨가 된 것이다.[77]

미국은 조선 대표에게 강화해협을 탐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였을 때 조선 대표가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자, 그것은 곧 '무언의 보증'으로 생각하고, 로저스 제독은 즉각 강화해협에로의 아시아 함대의 항진을 위한 예비작업으로 강화해협의 해로를 탐사할 탐측함대를 편성하였다. 탐측함대는 6월 1일 작약도 모함 정박지로부터 출항 탐측항해에 나섰다. 이 함대는 초지진을 지나 덕진진을 통과해서 손돌목(孫乭項)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항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날 2시경 조·미간에는 손돌목에서 마침내 포격전이 벌어졌다. 손돌목 포격사건에서 쌍방은 포격을 주고 받았지만 사실상 큰 인명피해 없이 전투는 끝났다. 이후 조·미간에 대화에 의한 교섭은 단절되고 말았다.

미국은 조선정부가 10일 내로 정식사죄를 하지 않으면 응징보복전을 감행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서 윤도의 해안 백사장에 꽂아 놓았다. 이로부터 조·미전쟁이 발발한 6월 10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조·미간의 교섭은 변칙적인 '장대교섭'이 진행되었다.

1871년 6월 3일 윤도의 백사장에서 부평도호부사 이기조의 편지를 매달아 놓은 장대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부평 부사의 편지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1868년 4월에 페비거(J. C.Febiger) 함장이 평안도 해역에 내박했으나 피차간 불상사 없이 평화적으로 이곳을 떠나갔다. 이제 다시 미국함대가 부평부 경계내에 들어와서 정박하고 있는 것은 전자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조선은 동해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은 서쪽 대양에 자리잡고 있어서 거리가 7만리나 된다. 역사 이래로 조·미간에는 교통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취향이 다르고 지도원리도 상이하다. 셔어먼호 사건은 전적으로 미국측이 자초한 돌발사건이다. 종전에 피차간에는 악감정이라곤 추호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상호 원한과 분개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가? 미국은 우리 나라를 정복하기를 원하는지, 우리와 상담을 통해서 우호관계 수립을 원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국토와 국민을 미국에 넘겨주기를 원한다면, 삼천리 강산을 어떻게 그처럼 가볍게 넘겨줄 수 있겠는가? 미국은 협상을 통하여 우리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4천년 이래로 전해내려오는 예절·음악·문학 등 모든 문물제도를 충분히 이유없이 일조일석에 파괴·폐기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 어불성설이다.[78]

---

77) 金源模, 앞의 책, pp.263－266.
78) 金源模, 앞의 책, 1982, p.292.

6월 3일자 부평부사 이기조의 편지를 접수하고 미국측의 드루(F.J.Drew)서기관은 이에 대한 회신을 역시 율도의 백사장 장대꼭대기에 매달아 놓았다. 1871년 6월 5일 부평부사에게 보낸 드루서기관의 회답을 보면, 드루는 로우 공사의 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6월 1일의 손돌목 포격을 비난하는 서신을 보낸다고 하였다.

드루 서기관은 이 편지에서 미국 함대는 평화적 의도로 조선을 방문했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의 대관이 파견되면 언제든지 로우 공사와 상판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양국간의 분쟁을 평화로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시작해서 손돌목사건을 평화적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조선정부의 처리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무력으로 보복할 수 있는 기동능력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끝으로 조·미간에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감정이 영속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부평부사는 드루의 편지를 접수하고 자기는 일개 지방관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소관인 협상문제를 운위할 자격이 없으므로 직속 상관인 강화부 진무사(江華府鎭撫使) 정기원(鄭岐源)에게 드루의 편지를 전교(轉交)하는 동시에 이후 강화부 진무사와 교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6월 7일자로 드루에게 보냈다.

이에 정기원 강화유수는 드루 서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장대를 통하여 보냈다. 즉 우선 미국은 예절을 존중함이 다른 나라보다 그 명성이 자자한데 어찌하여 대양을 건너 이국을 침범하느냐고 비난하면서 6월 1일의 전투행위는 유감된 일이나 그것은 조선의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이며 또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6월 7일 강화진무사에 보낸 드루의 회신문에서 드루 서기관은 우선 조선의 우호적인 협상 거부 방침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조선군이 미국 탐측함대에 대한 까닭없는 공격을 가한데 대해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이러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어서 미국 함대는 6월 10일을 디-데이(D-day)로 정해 놓고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 즉 사죄나 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이 없는 한 즉각 응징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적인 태도로 나섰다.

한편 대원군은 진무사인 정기원을 통하여 미국 함대에 보낸 6월 6일자 서한에서 6월 1일의 손돌목 포격사건은 유감스런 일이나 그것은 정당방위라고 강조하였다. 대원군은 미국이 예절을 존중하고 있는 나라이면서 외국 선박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타국의 관방(關防)을 함부로 침범해서 이러한 사단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지면서, 외국과 교섭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선 조종(祖宗)전래의 성헌(成憲)이라고 말함으로써 상판(商辦)불응의 뜻을 밝혔다.[79]

대원군의 단호한 불교섭정책의 선언이 있자 조·미간의 평화적 교섭의 가망은 바라볼 수 없

79) 『高宗純宗實錄』 上, pp.362~363.

게 되었다. 미국 함대가 강화도 원정에 출동하는 날인 6월 10일 강화진무사는 로우 공사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다. 즉 각하는 평화적 우호적 사명을 띠고 조선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 조정은 이에 알맞는 접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호소해 보았다. 그러나 로우 공사와 로저스 제독은 지휘관을 소집하여 손돌목사건에 대한 조선 당국의 정식 사죄가 없는 한, 보복원정을 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요컨대 강화해협에서의 미국 함대 항행이 한 나라가 타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해석하는 조선정부의 주장과, 이것은 평화적 사명을 띤 탐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격은 "까닭없는 공격"이며 그것은 곧 조선측이 전쟁을 도발했다고 해석하는 미국측 주장 간에는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 함대는 6월 10일 초지진(草芝鎭)을 점거하고 이어서 덕진진(德津鎭)·광성보(廣城堡)를 점령하여 무자비한 보복전쟁을 벌였다. 미국의 아시아 함대사령관 로저스 제독은 강화도 전투에서 압도적인 전승소식을 듣고 6월 12일 광성보를 점거하고 있는 상륙부대와 해상의 모든 함대에게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는 손돌목사건에 대한 보복임무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륙부대는 광성보를 철수하기 전에 철저한 파괴와 방화를 하였고, 약탈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전리품을 가득 싣고 축포와 함성이 요란한 가운데 기함정박지로 귀환함으로써 강화도에서의 조·미전쟁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조·미간에 친교의 가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문호는 더욱 폐쇄되었다. 대원군은 그 유명한 척화비를 서울 종로를 비롯하여 전국 각 주요지에 세우게 하였으니, 그 비문에 "양이가 침범해도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하는 것이오.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80]라 하여 쇄국정책을 내외에 널리 알렸다.

부평부사 이기조는 그 후 포로 송환에도 관여하였다. 광성보전투에서 부상병으로 미군에 포로가 된 자는 약 20명인데 이들은 함상에서 군의관 마요(Mayo)에게 치료를 받았다. 6월 13일 드루서기관은 강화유수에게 포로를 석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부평부사는 우리 나라 포로를 석방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달려 있다. 우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먼저 귀국이 싸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째서 귀하는 전쟁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전쟁을 하고 싶으면 우리도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포로석방은 조선측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미군의 배려에 의해서 단행되었다.

부평부사 이기조는 6월 12일자로 서한을 통하여 미국의 강화도상륙작전을 비난하였다. 즉 미함대가 국방상 요충지인 관해(關海)로 침입한 것은 도발행위라고 전제한 다음, 겉으로 화호

80) 『高宗純宗實錄』 上 p.364, 高宗 8年 4月 25日條.

를 가장하며 내심으로는 흉계를 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공공건물을 불태우고 심지어 민가까지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한 것은 도적이나 간첩의 짓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서한을 전달하면서 이기조는 윤도 백사장에 장대꼭대기에 회신을 요구하는 편지를 매달아 놓았다.

이를 발견하고 드루 서기관은 회신을 장대로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미국측이 평화적 교섭을 하려해도 조선측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고 힐책하면서 강화도 상륙작전을 정당화하였다.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로우 공사의 친서가 동봉되어 있었다.[81]

부평부사 이기조는 장대로부터 회수한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로우 공사의 친서」를 접수하였으나, 자기로서는 감히 이러한 편지를 채상(遞上)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6월 17일 역시 장대위에 매달아 전달했다.

이에 대하여 드루 서기관은 6월 18일자 서한에서 로우 공사의 편지를 조선국왕에게 체상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재차 서한의 전달을 간곡히 호소했다.

당시 이기조부사의 교섭불응태도는 곧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대변해 주고 있거니와, 그는 드루 서기관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회신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의 교섭거부 태도가 얼마나 강경한지 알 수 있다. 이기조는 6월 20일 드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다시 한번 로우 공사의 편지에 대한 채상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로우 공사는 7월 3일 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귀환하기 전 7월 2일 마지막으로 드루 서기관을 통하여 부평부사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였다. 즉 미국공사가 조선에 온 목적은 교섭을 통하여 미국의 조약체결의사를 전달하려 왔는데 조선은 진소(陳訴)의 문마저 닫아버리니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하면서 끝으로 조난 선원이 발생하면 구휼·호송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로써 약 45일 간에 걸친 신미양요는 끝을 맺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신미양요' 당시 부평부사 이기조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81) 金源模, 『앞의 책』 pp.332~333.

# 第 2 章 개항이후(開港以後)

## 1. 부평연안의 방비노력

고종 즉위와 함께 정권을 장악한 대원군은 많은 개혁을 단행하였고, 또 그 개혁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쇄국양이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대원군의 전제적인 개혁정치와 쇄국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실정과 함께 점차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때 은연중 왕비 민씨의 세력이 성장하여 반대원군세력을 규합해 나갔다. 마침내 대원군은 고종 10년(1873)국왕의 친정을 주장하면서 그의 실정을 공격하는 유생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를 계기로 하야하였다.

조선에서 대원군이 하야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개항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을 침공하자는 정한론(征韓論)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이 막부체제에서 천황중심제로 정치적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래의 군벌 세력이 신정부의 정치세력과 경쟁하면서 대한교섭의 실패를 이유로 신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한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신정부의 지도자들은 근대국가로서의 내정개혁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면서 정한론자들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였다.(1873)[82]

일본은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의 개항에 실패하고 자국의 사정으로 조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 때 조선 침략의 기선을 잡으려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일본은 운양호(雲揚號) 사건을 일으켰다(1875). 운양호는 길이 119척, 폭 24척, 깊이 11척, 마력 104, 배수톤 245, 포문 8, 승선 승무원 65~75명의 목조선으로 1870년 영국에서 건조되었고 1876년 10월 항해 중 폭풍을 만나 일본 근해에서 좌초·침몰된 선박이다.[83]

운양호가 1875년 9월 20일(음 8월 21일)강화도 동남방 초지진 부근 해역을 침공하고 돌아간 그 이듬해 즉 고종 13년(1876)에 조선과 일본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일명 강화도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페리(M.C.Perry) 함대가 포함외교로 일본을 개항시킨 것을 답습한 것이었다.

---

82) 李炫熙, 『征韓論의 背景과 影響』 大旺社, 1986 참조.
83) 申國柱, 『近代朝鮮外交史』, 探求堂, 1965, p.49.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고, 이것으로 조선은 쇄국을 깨고 개항을 하게 되었다. 모두 12관으로된 이조규는 타율적인 것이었고, 불평등한 것이었다. 조약의 내용은 1858년 영·일조약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왕에 구미제국으로부터 강요당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조선에게 강요한 것이다.

이제 조선은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일본과 새로운 국제관계를 맺었고, 또한 개항과 더불어 근대적인 서양문물을 수용하여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외세의 일방적인 침략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주적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과 함께 외세의 침투에 반대하는 배외운동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고, 또한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일본해군이 무력시위를 하는 가운데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므로써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특히 서해의 방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인천과 아울러 부평 연안의 방비문제가 제기된 것은 일본의 외무 대서기관겸 대리공사 화방의질(花房義質)이 개항 교섭을 위하여 내한한 고종 14년(1877) 10월이다. 부산에 도착한 화방의질이 전라도 방면을 측량한 후 상경할 것이라는 동래부사의 보고에 접한, 조정에서는 10월 15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장차 일본이 인천을 개항지로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대비책으로 인천과 부평 연안의 방비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인천과 부평을 해문요충(海門要衝)으로서 강화에 못지 않는 보장지중지(保障之重地)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과 부평은 보장지중지일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부평을 거쳐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강화를 경유하는 노정보다 편의하고 거리 또한 가까왔다. 따라서 이 방면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손돌항(孫乭項)이란 험로가 가로놓여 있는 강화도를 취하지 않고 인천으로 직항할 것은 쉽게 예견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고종은 일본 선박이 인천으로 직항하는 것은 강화로 보다 인천로가 편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은 일본인들이 인천·부평로를 잘 알고 있는 이상 편리한 길을 버리고 험로를 경유할 리가 만무하므로 그들 선박이 곧바로 인천·부평으로 향할 것은 작은 걱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우의정 김병국(金炳國)은 일본인 들이 강화로 보다 거리가 가까운 인천·부평 노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종은 그 대비책으로서 인천·부평 등지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였다.[84]

부평 연안에 대한 방비책이 구체화된 것은 고종 15년(1878) 8월 27일에 이르러 진을 설치

84) 『日省錄』(198), 高宗 14年 10月 15日條.

하고 포대를 축조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고종 12년(1875) 운양호의 포격으로 영종진이 파괴되었으므로 인천부를 방어영(防禦營)으로 승격시킨 바 있는데 다시 인천과 부평 연안에 진과 포대를 설치하여 그 방비책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방비 축조는 무위소가 주관하여 포대 설치장소를 결정하고 8월 27일에 무위소별장을 역임한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가 책임자로 임명되어 본격화되었다. 그의 부친 신헌(申櫶)이 강화진무사로 재직시에 강화도 연안에 포대를 설치한 바 있었으므로 고종은 신정희에게 부친의 전례를 본 받아 훌륭하게 진과 포대를 설치하라고 당부하였다.[85]

인천과 부평 연안의 방비 축조는 두개의 진과 여러 곳의 포대 축조로 완성되었다. 무위소의 준공 되었다는 상계가 있자, 고종은 인천의 신설 진을 화도진(花島鎭)이라 명명하고, 부평의 신설 진은 연희진(連喜鎭)이라고 명명하였다.[86]

이 때에 축조된 연희진사(連喜鎭舍)는 현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47번지, 옛 인천시 서곶 출장소 자리에 위치하였다. 그해 11월 15일에 모월곶면 1개의 면을 이에 예속시켜 자립할 수 있는 독진(獨鎭)으로 만들었다. 이 연희진은 임오군란 직후인 고종 19년(1882) 6월 28일에 왕명에 의하여 혁파되었다.

연희포대지(連喜砲坮址)는 연희진 서쪽 바닷가 용두산(龍頭山)에 설치되어 「용두포대」라고도 한다. 이 포대는 「논현포대」와 더불어 고종 16년(1879) 연희진이 설치될 때 축조되었는데 연희진이 관할하였다. 연희포대는 모두 3개좌의 포대가 설치되었는데, 갯말(浦里, 元倉洞)에 2개좌, 봉우재(佳亭洞)에 1개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 흔적은 없고 다만 용두산에 축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인천과 부평 연안에 진과 포대를 축조하던 기간은 개항지를 물색하기 위한 일본측의 서해안 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이고 또한 일본측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천이 개항지로 요구된 시기이다. 조정에서는 인천 개항 불허방침을 고수하면서 진과 포대 축조공사를 계속하여 완성하였으나, 일본측의 압력으로 고종 17년(1880) 말에 인천 개항을 허용함으로써 모처럼 축조된 방비책도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이다.[87]

한편 고종 20년(1883) 1월 1일을 기하여 인천이 개항되자 10월에 부평에서 서곶으로 넘어가는 경명현(景明峴 : 일명 징맹이고개)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하였고, 이듬 해 1월 4일에는 부평 관내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였다.[88]

---

85) 『日省錄』(210), 高宗 15年 8月 27日條.
86) 『日省錄』(222), 高宗 16年 7月 1日條.
87) 朴廣成, 「仁川開港과 沿岸防備策에 對하여」 『畿甸文化硏究』 第11輯 1980, pp.23~25.
88) 『高宗純宗實錄』 (21), 高宗 21年 1月 4日條.

「중심성사적비(衆心城事蹟碑)」에 의하면, 중심성은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이 조정의 명령에 따라 주민들을 동원하여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심성사적비는 경명문루 서쪽 옆에 세워져 있었는데 인천시는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립박물관에 옮겨 놓았었다. 그러나 6.25 사변이 일어나고 9.28 수복때 함포사격에 명중되어 부서지고 비의 대석(臺石)만이 남아 있다. 비석은 오석(烏石)으로 높이가 5척 넓이가 1.5척, 두께가 0.8척이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양산 서쪽에 고개가 있으니 이르기를 경명(景明)이요, 곧 연해관문(沿海關門)이다. 내가 이 고을에 원으로 와서 관문의 방어를 마음 먹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해 9월 그믐에 조칙(詔勅)이 있어 성을 쌓을 제 아전과 백성에게 관문을 막아야 고을이 평안한 점을 설명하였더니 백성들이 즐겁게 역사(役事)에 응하여 주어서 서쪽에 장대를 쌓고 병정훈련을 하는 곳으로 삼았다.
>
> 문은 지명을 따라 경명이라 부르고 바다를 바라보며 방어토록하게 하고 중심성이라고 이름한 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이것은 읍민의 마음으로써 성을 쌓았은즉 이것을 우리말로 여럿이 마음과 힘을 모아 성을 만들었다 함이다. 고로 이름을 중심성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때에 군기를 중수하고 모든 나루에 포사들이 이를 굳게 지키는 방법으로 하였다.
> …… (생략)
>
> 광서 9년(1883) 계미 10월 일
> 행부사 박희방 기록하고 쓰노라[89]

중심성은 『성곽실측조사서』에 의하면 석축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52에 소재하며, 철마산에 있는 산성이라 하였다. 『전국유적목록』에는 "계산동 철마산, 중심성, 석성"이라 하였고, 또한 『문화유적총람』(상)에는 "부평과 서곶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명현을 중심으로하여 남북으로 쌓여진 성곽"이라 하였다.

경명문 위에는 누각을 세워 공해루(控海樓)라 하였다고 하였으나 오늘날 중심성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남아 있는 것이 없다.

한편 기연해방영은 1884년 1월에 경기·충청·황해 3도의 수군을 통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이듬 해 3월에는 용산의 만리창지(萬里倉址)로 이설되었다.

이는 부평 기지가 평야에 임하여 전방을 가릴 것이 없어 군영기지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90]

---

89) 趙璣濬, 『富平史研究』 (增補版) 1995, pp.144~145.
90) 『仁川市史』 (上卷) 1993, p.166.

## 2. 부평군으로 변천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후 당시 조선에서는 개화운동이 전개되었고, 인천이 개항되고 또한 구미제국과의 수교도 이루어졌다. 한편 개화와 보수의 갈등으로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등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으나 부평지역은 지방행정제도상 도호부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고종 32년(1895)에 부평군으로 강등되어 인천 관찰부에 예속되었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직후 조선정부는 수신사로 김기수(金綺秀)를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그들의 발전된 모습을 목격하고 그 견문을 기록한 『일동기유(日東紀游)』를 국왕에게 바치었다. 일본은 고종 16년(1879)에 화방의질(花房義質)을 공사로 조선에 파견하였고 조선정부는 서울 서대문 밖에 있는 청수관(淸水館)을 가공사관으로 하여 그를 머물게 하니 일본의 상주공관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천의 개항문제는 고종 16년(1879) 4월 화방의질이 군함 2척을 거느리고 내한하였을 때 서해안의 개항장으로서 인천이 적당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제기되었다. 그는 6월 20일 강수관(講修官) 홍우창(洪祐昌)과 회담할 때 정식으로 인천개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6월 23일에 홍우창은 조선정부의 회답서를 화방공사에게 전하면서 이를 반대하였다. 즉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나라의 요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뒤에도 몇차례의 회담을 하였으나 조선측은 인천개항의 반대를 고집하였다.[91]

일본측의 인천개항 요구는 조일수호조규 제5관에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처를 택하여 개항케 하고, 그 기일은 조규 조인으로부터 20개월 내로 한다는 것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일수호조규가 조선정부의 자주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의 무력시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된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애초부터 조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성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일본측은 그들이 조선 연안에 대한 해도를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항 적지의 선정이 늦어졌다. 당시 우리나라 서해안에 대한 해도로는 프랑스와 미국 군함이 작성한 것이 있었으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으므로 일본측은 직접적인 측량을 통하여 적격지를 물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측의 서해안에 대한 측량이 시작된 것은 고종 14년(1877) 가을부터인데 개항 문제와 공사 주차(駐箚)문제 등을 교섭하기 위하여 대리대사로 파견된 화방의질이 상경하는 도중 서해안 방면을 측량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리고 일본측의 서해안

91) 李光麟, 『韓國史講座』 (近代篇), 1984, p.97.

방면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는 고종 15년(1878) 8월부터 군함 천성호(天城號)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인천개항에 대한 조선정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일본측은 조선 서남해안의 개항을 20개월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 양호(兩湖)지방을 측량하여 적당한 항구를 얻지 못하면 인천으로 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선측은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조선측은 일본측의 20개월간의 연기에 대해 7개년을 내세우고 그 동안에 후보지가 없을 때에는 경기도 남양부(南陽府) 혹은 교동부(喬桐府)를 개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일본 군함이 교동부와 남양부를 조사해 보고 그곳은 조류가 격심하고 수심도 낮아 개항장으로 부적당함을 알게 되었다. 화방공사는 고종 17년(1880) 조선국주차변리공사(朝鮮國駐劄辨理公使)가 되어 내한하여 공사의 서울 주재와 인천 개항 등의 문제를 갖고 조선측과 재협상을 시도하였다.[92] 고종을 알현하고 국서를 봉정함으로써 공사의 서울 주재 문제를 해결한 화방공사는 예조판서 윤자승(尹滋承)에게 공문을 보내 인천 개항에 관한 회담을 청함에 조선정부는 김홍집(金弘集)을 강수관으로 임명하여 협상케 하였다. 처음에는 계속 반대하였으나 일본측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마침내 조선정부는 고종 18년(1881) 2월 승낙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20개월 뒤 고종 20년(1883) 1월 1일을 기하여 인천을 개항한다고 포고하였다. 이로써 회담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에 인천 개항은 실현되었다.[93]

그러나 인천 개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883년 6월경으로 보여진다.[94] 인천이 개항되자 개항장에는 통상사무를 취급하는 관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천에는 고종 20년(1883) 8월 감리서(監理署)가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는 내동(內洞)의 옛 법원 자리였다.

감리서는 개항장·개시장(開市場)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고종 20년(1883)에 처음으로 부산·인천·원산에 두었다. 고종 32년(1895) 지방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감리서를 폐지하고 지사서(知事署)를 설치하여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1896년 다시 감리서를 부활시켜 각 항구와 평양에 두었다. 그후 1906년에 이를 전부 폐지하였다.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조선은 이제 종래의 척양정책을 그대로 추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서양의 여러 나라가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세계정세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형성되면서 서양과의 교섭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정부는 고종 19년(1882)에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서양의 다른 여러 나라와도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즉 영국(1882), 독일(1882), 이탈리아(1884), 러시아(1884), 프랑스(1886)

92) 李光麟, 『韓國史講座』 (近代篇), 1984, p.98.
93)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의 硏究』(上卷) pp.716~736.
94) 『仁川府史』 1933, p.120.

등 서양 제국과의 수교를 맺어 나감으로써 조선은 국제무대에 참여하여 서양문물을 수용하고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화운동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위정척사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개화와 보수의 갈등이 있었다. 그것은 전술한 바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갑신정변이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운동이라면 동학농민 운동은 농민들이 청·일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투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나 지배층에 반발하여 아래로 부터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일으킨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개의 흐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전근대적인 전통사회를 지양하는 혁신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갑오개혁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2차 갑오개혁에서는 중앙정부의 기구개혁과 아울러 지방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이 단행되었다. 제1차 갑오개혁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혁된 것이다. 내부아문에서는 사무에 숙달한 관리들을 각 도에서 불러 지방행정의 연혁과 활동 등을 상세히 청취하고 이를 참고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왕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다가 내부대신 박영효(朴泳孝)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895년 6월 18일(개국 504년 5월 26일) 공포, 6월 23일(윤 5월 1일)에 시행케 되었다.

이 개혁으로 8도의 감영, 안무영(按撫營) 및 유수부(留守府)가 폐지되고 종래의 부·목·군·현 등 행정구역도 폐합되어 모두 일률적으로 군(郡)이 되었고, 또한 소지역주의가 채택되어 전국을 23부(府)로 개편하고 그 밑에 337개의 군을 예속 시켰다. 그리고 군수는 관찰사의,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었다. 이로써 태종 13년(1413) 이래 482년간 습용하여 오던 8도제는 폐지되었다. 참고로 신설된 23부(府)와 각 부에 소속된 군의 수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한성부 – 11군 | 제주부 – 3군 | 해주부 – 16군 |
| 인천부 – 12구 | 진주부 – 21군 | 평양부 – 27군 |
| 충주부 – 20군 | 동래부 – 10군 | 의주부 – 13군 |
| 홍주부 – 22군 | 대구부 – 23군 | 강계부 – 6군 |
| 공주부 – 27군 | 안동부 – 16군 | 함흥부 – 11군 |
| 전주부 – 20군 | 강릉부 – 9군 | 갑산부 – 2군 |
| 남원부 – 15군 | 춘천부 – 13군 | 경성부 – 11군 |
| 나주부 – 16군 | 개성부 – 13군 등이다.[95] | |

95) 『舊韓國官報』 3, pp.795~808(開國 504年 5月28日).

이 때에 부평도호부는 부평군이 되어 인천부(관찰부)에 예속되었다. 당시 인천부의 관할 구역은 부평, 김포, 양천, 시흥, 안산, 과천, 수원, 남양, 강화, 교동, 통진, 인천 등 12군이었다.

한편 각 부(府)의 관할구역은 칙령으로 정해지고 각 부청(府廳)의 소재지는 이전과 같이 수읍(首邑)으로 정해졌다. 이 때에 인천부청은 구(舊) 인천부 제물포로 이전케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제도의 개정과 함께 지방관의 관제도 공포되었는데 각 부에는 관찰사(勅任 또는 奏任) 1명, 참서관(參書官), 경무관(警務官)(이상 奏任) 각 1명을 군에는 군수(奏任)1명을 두었다.

23부제는 이듬해 새로운 지방제도가 실시되면서 폐지되었다. 즉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5호「지방제도 개정」으로 23부제는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되었다.[96] 13도는 경기·강원·황해도와 충청·전라·경상·평안·함경도 등을 남북도로 분할한 것으로 그 밑에는 부·목·군을 두었다. 이것은 23부제가 소지역주의에 입각하여 지나치게 분할됨으로써 행정운영상 오히려 어려움이 초래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였다. 13도제가 실시됨으로서 전국의 행정구역수는 13도 8부 1목 331군이 되었다. 따라서 부평군은 경기도의 소속군이 되었다.

이러한 23부제와 13도제에 의한 두차례에 걸친 행정제도의 개혁은 종래 모든 관리들이 왕에게 직접 책임을 지던 행정조직체제에서 계서제(階序制)에 의한 책임분담제로 바뀐 것으로 오늘날 지방행정체제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부평도호부가 부평군이 되면서 종래 도호부의 소재지를 부내면(府內面)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되었다. 부평군 시절 광무 3년(1899) 9월 18일에 인천과 노량진간 33.2km의 경인철도가 부설됨으로써 경인간의 육상교통은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경인선 개통과 함께 업무를 개시한 부평역은 오늘날까지 부평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부평군은 광무 10년(1906) 병오장적(丙午帳籍)에 의하면 군내면 등 15개 면을 관할하였다.

96) 『高宗純宗實錄』 建陽 3年 8月 4日條.

# 第3章 일제 강점기(日帝強占期)

## 1. 부천군에 편입과 변천

일제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한·일합방조약」을 1910년 8월 22일 조인함으로써 끝내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였다. 그리고 같은해 8월 29일에는 이를 발표하였고, 동시에 식민지 통치의 본산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1910년 9월 30일에는 조선총독부 관제와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고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식민지 통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제의 개혁으로 도(道)의 관찰사를 도의 장관으로 개칭하고, 도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부·군·면을 두었다.

특히 각 부·군에는 면을 두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면에는 면장을 두어 이를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부·군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총독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지방제도를 개혁할 때 서해안의 관문인 인천 개항장 설치의 필요에 따라 인천이 부(府)로 승격됨에 따라 이 일대의 지역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1913년 12월 29일에 제정·공포된 부령 제111호(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의하여 인천부의 관할구역은 개항장으로 축소되고, 다른 지역은 전부 부평군에 통합하였다. 이 때 부평군의 일원과 인천부에 편입되지 못한 종래 인천군의 일부 지역, 그리고 강화군 중에서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부평에서 "부"자와 인천에서 "천"자를 합하여 부천군(富川郡)을 신설하였다. 당시 부천군의 행정 구역은 다주면(多朱面)을 비롯하여 15개의 면을 관할하였다. 당시 부천군의 군청은 문학면의 관교리에 개설하였다.

관할구역이 축소된 인천부는 그후 두 차례에 걸쳐 부역(府域)을 확장시켰다. 1차는 1936년 9월 26일, 부령 제93호(1936년 10월 1일 실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옛 인천의 관할이었던 부천군 문학면의 학익리, 옥련리, 관교리, 승기리의 일부와 다주면의 도화리, 용정리, 사충리, 장의리, 간석리의 일부를 인천부에 병합시킨 것이다. 2차로는 1940년 4월 1일에 조선총독부령 제40호의 경기도령 제5호에 의하여 부천군의 서곶·문학·남동·부내(富內)면 등 4개 면이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인천부는 옛 인천부역의 대부분과 옛 부평의 일부지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위의 4개 면 중 서곶면과 부내면은 옛부평군의 관할 지역이었다.

한편 두 차례에 걸친 부역 확장으로 관할구역이 광범해진 인천부는 1940년 4월 1일 인천부고시 제32호에 의거하여 출장소규정을 공포하여 부내면 지역에는 부평출장소, 남동면 지역에는 남동출장소, 서곶면 지역에는 서곶출장소를 각각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그 후 1943년 7월 10일에는 문학출장소를 설치하여 남동출장소가 관할하던 일부와 문학면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97]

## 2. 3.1운동과 산미증식 계획

일제의 무단정치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발발한 3·1만세 운동은 일제하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같은 시간에 탑골공원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들어간 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만세운동은 지방에 따라서는 4월말까지 계속되었는데, 참가한 인원은 200만이 넘었고 운동회수는 1,500여회에 달하였으며 전국 218군 가운데 211개 군에서 활발한 시위가 일어났다.[98]

이 때 인천지역에서도 시위가 있었는데 가장 큰 시위운동이 일어난 곳은 부평이었다. 3월 13일 이후 소래면과 계양면 주민 수백명이 소래산에서 불을 놓고 만세를 불렀으며, 읍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한 바 있었는데, 3월 24일 부평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일어난 만세시위가 가장 대규모 였다. 이것은 강화도의 시위운동이 도화선이 되어 김포와 부천지역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만세를 불렀으며 형세가 자못 컸던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인천경찰서에서는 3월 23일 순사 10여 명을 부평주재소로 증파하여 예견되는 시위운동에 대비케 하였다. 그러나 장날인 3월 24일 부평시장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청년들은 예측한 대로 군중이 많이 모이자 이들을 지휘하여 만세를 부르고 부평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 당황한 경찰은 인천본청에 헌병과 수비대의 증파를 요청하였고 시위군중에 대해 무자비하게 발포하는 등 형세가 험악하였다. 이에 군중은 경찰에 대항하여 격투 까지 벌였으나, 증파되어 온 경찰에 제압당하여 5,6명의 사상자를 내고 강제해산 되었다.[99]

---

97) 『仁川市史』(上卷) 1993, pp.412~414.
98) 李炫熙, 「三一獨立運動에 관한 硏究」『誠信女大論文集』 12, 1979.
99) 『仁川市史』(上卷) 1993, p.352.
100) 愼鏞廈, 「3.1獨立運動 勃發의 經緯」『韓國近代史論』 II, 지식산업사, 1979, p.105.

부평에서의 시위규모가 컸던 것은 장날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3.1운동이 본질적으로 민중운동단계에서 중앙의 조직적인 지도 없이도 전국에 걸쳐 자발적인 운동으로 격렬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100]

1920년대에 일제의 식량 약탈은 「산미증식계획」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탈을 추구하던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으로부터 식량, 특히 쌀을 대규모로 약탈해가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독점자본이 급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농촌의 희생이 강요되어 쌀값이 폭등하고 쌀 소동이 일어나는 등 식량문제가 주요한 정치·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1918년에 완료된 토지조사사업을 기반으로 일제는 소위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1920년부터 3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잡고, 우선 1차로 15년 동안에 427,500정보의 경작지를 개간하고 관개시설, 품종개량 등의 방법으로 920여만 석의 쌀을 증산해서 그 중 500만석을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예정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26년에는 목표가 축소 조정·되었다가 1930년대에 당시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었던 경제공황의 여파로 일본에 농업공황이 일어나자 중단되고 말았다(1934).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부평에는 수리조합을 창설·운영하였다. 부평수리조합은 1922년 5월 22일에 설립을 신청하여 1923년 4월 9일에 총독부로 부터 설치인가를 받아 창설되었으며, 1923년 4월부터 1925년 3월 사이에 설치공사를 하였다. 설치 당시의 부평수리조합은 경인선 소사·부평역으로부터 북방 한강변 사이에 있는 부평평야를 몽리구역(蒙利區域)으로 하였다. 즉 오늘날 인천광역시 부평의 대부분과 부천 및 김포군 양서(陽西)·고촌면(高村面) 내의 3,645정보를 몽리구역으로 하였다. 몽리구역을 기준으로 중부지방에서는 최대 규모였고 전국적으로 제5위 규모의 조합이었다.[101]

부평수리조합은 계속 구역을 확장하였는데 1929년 3월부터 1930년 6월 사이에 기존 구역의 남쪽인 부천시 심곡동·중동·송내와 인천광역시의 부개동·일신동 일대 450정보를 몽리구역으로 하였다. 또한 1944년부터 1952년까지 3차 확장공사를 하여 김포군 김포·고촌·양촌·대곶·일곶·하성면을 그 몽리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부평수리조합은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직원과 조합원의 의사기구라 할 평의회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각종 사업은 일제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추진되었다. 이 조합은 30정보 이상을 소유하면서 주로 경성과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 대지주가 중심이 되고

101) 大韓水利組合聯合會, 『韓國土地改良事業十年史』 1956, pp.368~380.

이들이 일부 조선인 중·소지주를 포섭하여 창설하였다. 그것은 1927년 12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 중에 "부평수리조합은 전조합장 송산(松山)씨를 중심으로 한 일파의 맹렬한 조합 설치운동과 당국의 지도 후원이 서로 어울려…… 구역내 조선인 지주의 동의여부와는 거의 인과가 없이 1923년 4월 인가가 났다"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부평수리조합은 초대 조합장이자 창립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일본인이 조합의 창설에서부터 토목공사에 이르기까지 도맡아 하였다. 따라서 설계부실, 공사부정, 사업비의 고율책정 등에 따라 조합비 부담이 과중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1926년부터 부정공사 시비가 일더니 1927년 8월 경에는 신문지상에 까지 기사화되었다.[102]

이렇듯 일제하 부평수리조합은 조선인 빈농층의 희생 위에서 일제와 대지주의 이익을 위해 설립·운영되었다. 부평수리 조합 지구에서는 분명히 일정한 증산이 달성되었지만 그 성과는 주로 조합의 주도권을 장악한 일본인 지주층에 돌아갔다.[103] 또한 조합의 설치·운영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시정방침은 조선의 대륙침략 병참기지화로 굳어졌고,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농공병진정책은 공업중심의 정책으로 변하였다.

그 중에서 서울·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경인공업지대를 설정하여 중시하였는데 그것은 ①북부지역의 풍부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점, ②경인지방은 전통적으로 조선교육의 중심지로서 높은 인구밀도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구가 공급될 수 있는 점, ③육상교통의 중심지인 서울과 인천이라고 하는 국제규모의 항구를 갖고 있는 점, ④풍부한 공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이었다.[104]

따라서 부평에는 인천육군공창이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1939년에 착공되었다. 여기에서는 인천지역의 중화학기계공장의 지원으로 주로 소총·탄약·소구경화포탄약·총검·수류탄·경차량 등을 제작하였다. 그의 일부 공정은 각지의 민간 하청공장에 위임하기도 하였는데 주로 포탄과 수류탄을 제작하였다.

또한 인천육군공창에서는 육군병기 외에 1944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잠수정의 급격한 수요에 대비하여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을 감독하여 잠수정을 제작하기도 하였다.[105]

일제 말기에 부평지역 하면, 먼저 조병창(造兵廠)을 연상하게 될 정도였는데, 조병창은 곧

---

102) 『동아일보』 1927년 9월 1일자.
103) 『仁川市史』 (上卷), 1993, p.343.
104) 高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Ⅳ, 1978, p.568.
105) 『仁川市史』 (上卷) 1993, p.418.

인천육군공창을 말한다. 당시 그곳에서는 수천을 헤아리는 군인과 군속이 종사하였으며, 특히 일제 말기에 한국인 채병덕(蔡秉德) 소좌가 책임자로 부임한 일이 있었다. 그 외에 동공창의 하청공장으로 동경제강, 베아링공장 등 많은 자(子)회사가 그 밑에서 가동되었으며, 그 공장 종사자에게는 징용을 면제해주는 특혜가 주어졌다.

인천육군병기공창의 생산품 및 월간생산능력은 소총 4,000정, 총검 2만정, 소총탄환 70만발, 포탄 3만발, 군도 2,000정, 차량 200량 등이다. 또한 1944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까지 소형선박 250척과 1945년 무전기 200조를 생산하였다고 한다.[106]

한편, 일제는 부평에 부평공업단지를 조성하였는데, 그것은 경기도가 주동이 되어 효성동, 갈산동, 청천동, 산곡동 등 현재 수출 4공단 지역(현 대우자동차 공장)일대 약 500만평을 조성하였다.

부평 조병창의 군수기지였던 그곳에는 지금 부평1동의 동아, 대림, 욱일아파트와 산곡 3·4동의 미군부대, 현대, 우성, 동남, 삼일아파트, 화랑농장 등이 들어서 있다.

106) 『仁川市史』(上卷) 1993, p.418.

# 第4章 광복이후

## 1. 정부 수립과 행정제도 정비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국에게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동시에 우리 민족도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국의 광복으로 한국은 국권을 되찾아 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므로써 현대사를 펴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국광복의 이면에는 온 민족의 꾸준한 항일독립운동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3.1운동 직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광복군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무력항쟁을 전개하였고, 국내에서도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항거하여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였으니 이것이 곧 민족광복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광복을 맞이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역사·문화의 단절로 한동안 행정적 공백과 혼란이 있었으나 1945년 9월 7일에 상륙 진주한 미군에 의하여 군정이 실시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는 같은 해 9월 11일 군정장관에 아놀드를 임명하였으며, 인천 군정관에는 스틸맨을 임명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평은 일제하에서 1940년 4월 인천부의 2차 부역확장에 따라 인천부에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인천에 예속된 하부행정구역이 되었다. 따라서 부평지역의 변화와 발전은 인천의 그것과 밀접한 연관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미군정하에서 인천은 1945년 10월 10일, 인천부가 제물포시로 개칭되었고, 시장에 임홍재(任鴻宰), 부평지구장(富平地區長)에 김석기(金碩基), 서곶지구장에 김원용(金元容)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6일에 창영국민학교에서 정회장연합회의(町會長聯合會議)를 소집하고 모스 중위를 파견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몇 사람의 후보를 추천케 한 후, 두 차례의 투표를 통해 임홍재를 시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그 해 10월 27일에는 제물포시를 다시 인천부로 환원하였다.

인천군정관인 스틸맨은 1945년 11월 1일, 인천부 훈령 제11호로 인천부의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9개 과를 설치하고 과장을 임명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인천부 고시(告示) 제53호로 「인천부 지청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일제하에 있었던 부평·서곶·남동·문학출장소를 부평·서곶·남동·문학지청으로 각각 그 명칭을 개정하였다. 또한 인천부 고시 제62호에 의하여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의 정명칭(町名稱)을 동(洞)으로 개정하였다.

광복과 더불어 분단된 남북한에서는 1948년에 각각 다른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남한에서는 미군정하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인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서는 소군정의 영향 아래 공산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즉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의회가 구성되었고, 여기에서 7월 17일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을 선출하였고(7월 20일), 1945년 8월 15일 광복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정부수립 후 행정제도의 정비과정에서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는데, 동법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부·군·면의 관할구역은 1948년 8월 15일 현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다.[107] 또한 이 때 출장소를 지청으로 개칭하였던 것을 다시 출장소로 환원하였다.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인천부는 인천시로 개칭되었다. 또한 동법에서는 시·읍·면을 기초적 자치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인천시는 경기도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역사적인 초대 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의원 28명을 선출하였는데 이 때 부평의 당선 의원은 김영길(金永吉), 정은용(鄭殷鎔)이고 서곶의 당선의원은 심덕기(沈德基)였다. 1956년 8월 8일 제2대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2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였다. 이 때 부평에서 당선된 의원은 김용기(金龍基)와 노태용(盧泰容)이었다.

1960년에는 3대 시의원을 선출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지방자치제도 중단되었다.[108]

광복 직후부터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던 북한은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여 3일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3개월만에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토를 점령하였다. 이 때 인천은 7월 4일 북한 공산군에게 점령당하였다.

미국은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한편 유엔군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참전하였으며, 유엔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 때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을 계속하여 압록강까지 도달함으로써 민족통일이 곧 달성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0월 하순경부터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공산군이 점령하였다. 이후 서울을 탈환하고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107) 『仁川市史』 (上卷) 1993, p.441.
108) 趙璣濬, 『富平史硏究』(增補版), 1995, p.85.

이와 같이 전쟁이 소련이나 북한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의 양상을 띠자 소련은 유엔을 통해서 휴전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51년 7월에 개성에서 처음 휴전회담이 열렸고, 2년만에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휴전이 성립되었다.(1953년 7월 27일) 따라서 우리는 아직까지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휴전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한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힌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남북한에서는 약 150만명이 사망하고 360만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산업시설, 도로, 건물, 교량 등이 모두 파괴되어 온국토가 폐허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피해는 민족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한의 대립이 고정되었다는 것이다.

휴전이 성립된 후 우리는 전후 복구 사업에 직면하였다. 당시 미군부대의 군수경기는 민생고 해결과 복구사업에 크게 일조를 하였다. 1953년 10월 30일 발족한 한미친선위원회 인천지구는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각계 전문인과 미국 제21함대 사령관 및 그 참모진들의 회담으로 성사되었다.

한미친선위원회의 전후 복구사업에 있어서 부평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면, 1954년－부평장로교회 신축, 부평성결 교회 신축, 1955년－부평소방서청사 신축, 부평서국민학교 신축, 부개동 공민학교 증축, 1956년－부평 제방수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부평지역에는 옛날 조병창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많은 미군부대가(에스캄) 주둔하면서 뜻밖에 호경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당시 굶주렸던 서민들은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다 소위 "꿀꿀이 죽"을 끓여 먹고 허기를 면하기도 하였다.

## 2. 구제(區制)실시 이후

인천시는 1950년대 중반에 들어 전후 복구사업과 아울러 점차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인구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행정 업무도 복잡하여졌다. 따라서 인천시는 1956년 11월 23일자로 인천시 조례 제144호로 「인천시 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195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써 인천시는 종래 있었던 부평·서곶·남동·문학·주안 등 5개 출장소 외에 중부·남부·동부·북부 등 4개 출장소를 증설하여 9개의 출장소를 두었다. 또한 인천시규칙 제53호로 출장소직제를 제정하여 지방참사 또는 지방주사로서 소장과 부소장을 임명하였다.

그후 인천시는 시기구의 확대, 시의회의 구성, 시구역의 확장 도시계획 등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다가 1967에 이르러는 시행정의 확대개편을 위하여 구제(區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즉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19호로써 「인천시구제」 실시에 대한 법률이 공포되고, 이를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써 인천시는 모든 출장소를 폐지하고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의 구를 설치하였다. 다만 1967년 12월 29일 인천시규칙 제24호로써 「구출장소직제」를 제정·공포하여 북구와 남구에 각각 1개씩 구출장소를 두었다. 따라서 북구에는 서곶출장소를 설치하였고 남구에는 남동출장소를 두었다.

이에 따라 부평지역에는 북구가 설치되었는데 당시 법정동(法定洞) 29개동, 행정동 19개의 동으로서 면적은 81.61㎢였고, 인구는 120,475명이었다. (1968년 1월 1일 현재)[109] 구제실시와 더불어 십정동(十井洞)이 북구에 편입되었다.

한편 1965년 1월 11일 경인지구가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공고됨에 따라 인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 오던 공업단지 유치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65년 6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141호로서 공업단지가 지정·공고되었고,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인천수출산업공단」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따라서 1966년 4월 8일에는 북구의 효성동, 작전동, 갈산동에 이르는 약 211,215평의 부지가 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 1970년말 이 단지에는 15개 업종의 51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그 해에 이들 업체들의 수출금액은 2,356만불에 달하였다. 당시 부평의 공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발달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1969년 8월 5일자 건설부 공고 제82호로 「주안공업단지」가 지정되고, 동년 10월 22일에는 기공식을 갖고 약 205,388평의 부지를 가좌동에 마련하였고, 이웃의 북구 십정동과 남구 도화동 그리고 주안동에 걸쳐 있는 폐기된 주안염전 등을 매립하여 808,750평의 주안공단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가좌동에는 목재단지가 조성 되었는데 1965년 인천에 처음으로 수출산업공단 설치의 인가가 나오자 인천과 부평은 이를 서로 유치하려고 하였다.

당시 인천과 부평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를 유치하는데 주동 인물들이 인천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또 수출공단이 들어설 경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평사람들은 공단유치에 큰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같이 공단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은 당시 부평경제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미군부대의 철수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불황의 극복책에서 였다.

1966년 4월 8일 부평공단 기공식을 갖던 해에 이 공단에 이웃하여 새나라 자동차주식회사가 30만평 규모의 공장을 세워 일본의 도요다(豊田)회사와 기술제휴로 자동차 조립을 하게

109) 『開港100年史』 참조.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우자동차 공장이다.[110]

1914년 부평의 일부와 인천의 일부가 합쳐서 생긴 부천군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79호로 폐지되고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되었다.

인천시는 1970년대에 들어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이에 1981년 4월 13일에 법률 제3424호로서 인천시는 대구와 함께 직할시로 승격되었는데,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인천직할시는 행정기구가 크게 개편되었다. 1988년 1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236호에 의하여 북구의 서곶과 남구의 남동 등 두개의 출장소가 폐지되었고,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되었다. 당시 서구의 관할구역은 백석, 시천, 검암, 경서, 연희, 공촌, 심곡, 가정, 신현, 석남, 원창, 가정 등의 각동이었다.

꾸준히 시역을 확장하여 온 인천시는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2호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로 발전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강화군, 화성군에 편입된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역, 김포군의 검단면 전역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면적이 339.41㎢에서 954.13㎢로 확대되어 전국최대 면적의 광역시가 되었다.

또한 북구도 그동안 급속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다시 분구되었다. 즉 전술한 1994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802호의 제4조 2항 및 3항의 규칙에 의거하여 북구를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하였다. 그것은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하여 남쪽을 부평구로 하였고 북쪽에는 계양구를 신설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양이란 읍호는 고려시대 안남도호부가 고려 고종 2년(1215년) 계양도호부로 되면서 93년간 사용했던 때가 있었다. 또한 일제하에서 지방행정이 개혁될 때 1914년 계양면이 생기어 1989년 인천직할시 북구에 편입될 때까지 75년간 계양이란 지방행정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제 다시 계양은 인천광역시의 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110) 趙璣濬, 『富平史硏究』(增補版), 1995, pp.88~90.

# 第3篇　政　　治



# 第1章 정치발전(政治發展)

부평의 정치 또는 정치발전에 관하여는 단행본으로 나온 책자가 없거나 논문이 전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중앙 또는 인천의 일간 신문에도 부평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찾아 볼 길이 없다.

인천의 정치발전에 관하여는 논문이 약간 있을 뿐이고, 단행본으로 나온 책자로는 김영일의 『격동기의 인천』 그리고 『인천시사』가 있다. 부평에 생존해 부평에 관한 기록을 비교적 자세하게 갖고 있는 김영길 선생이 구술 또는 증언을 하여 주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리고 김영일의 『격동기의 인천』 『인천시사』등을 참고로 북구청과 북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증언을 청취하여 부평의 정치 발전 문제를 새로 발굴하는 심정으로, 광복직후의 정치, 제1~2공화국 시대의 정치, 제3~6공화국 시대의 정치문제를 규명 정당활동도 광복직후의 활동, 제1~2공화국의 정당활동, 제3~6공화국의 정당활동을 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활동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광복직후의 정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온 겨레가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였다.

1943년 11월의 카이로(Cairo)에서 미, 영, 중 3국의 수뇌회담(首腦會談)에서 처음으로 국제적 문서로서 독립을 보장 받았고, 1945년 7월의 베르린(Berlin)교외의 포츠담(Potsdam)에서 미, 영, 소 3국의 수뇌회담에서 이를 확인받음으로써 다시 국제적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1945년 8월 16일 당시의 인천시 부평출장소(현 북구청) 2층 부평공회당(富平公會堂)에서 치안대가 조직되었다.[1] 학생 치안대장에는 류석웅(柳錫雄), 일반치안대장에는 김석기(金錫基)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와는 별도로 산곡동에서 당시 조병창(造兵廠)의 제1공장장이었던 일본 육군 중령 채병덕(蔡秉德)이 치안대를 조직하였다.[2]

---

1) 학생치안대장 柳錫雄의 證言.
2) 柳錫雄의 증언과, 일반치안대원 金永吉의 증언.

학생 치안대와 채병덕의 치안대에 참여한 인사는 알길이 없으나, 일반 치안대에 참여한 인사로는 강한성(姜漢成), 권봉성(權鳳成), 김건룡(金健龍), 김흥태(金興泰), 송문섭(宋文燮), 류한구(柳漢九), 이기만(李起滿), 이창재(李昌在), 이재준(李載濬) 등이다.

일본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감격은 잠시일 뿐 우리 한국 도처에서는 극도의 혼란상태가 야기되었으며, 부평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족진영에서는 세를 규합하여 류한구의 사무실을 본부로 사용하면서 부평서국민학교 교정에서 반공집회를 가지는가 하면 좌익 진영에서는 부평동국민학교에서 집회를 하는 등 극단적인 대립상태를 보이면서 혼란을 야기하였다.[3]

당시 민족진영의 지도자는 김석기, 이재준, 김영길 등 지명도가 있는 인사였다. 좌익진영에서 활약한 인물은 잘 알 수 없으나, 경인간 관공서 폭파 음모사건에 연류 체포된 이선익(李善益), 이태종(李泰鍾), 이기서(李起瑞), 염규영(廉圭榮)[4]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부는 중학교 고학년(현 고등학교 2~3학년)학생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1945년 10월 10일, 인천의 미 군정청은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개칭하는 동시에 제물포시장에 임홍재(任鴻宰), 부평지구장에 김석기, 남동지구장에 오혁근(吳赫根), 서곶지구장에 정원용(鄭元鎔)을 임명하여 치안을 담당케 하였다.[5] 그리고 10월 27일에 제물포시는 다시 인천시로 명칭이 환언되었다.[6] 1945년 10월경, 서울에서 건국청년회(회장 吳正邦)를 결성하자, 공산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부평에서도 건국청년회 부평지부(회장 김건룡, 부회장 김영길, 총무 윤재화, 감찰 김흥태)를 결성하였다.[7] 그 후 건국청년회는 송택선(宋澤宣)을 중심으로 한 평안청년회와 김두하(金斗河), 이정기(李正基)를 중심으로 한 함경도 청년회와 유대를 갖고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1945년 10월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기치아래 환국한 이승만이 1946년 2월 8일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하자, 그해 2월 말경에 부평에서도 부평지역의 민족진영이 총궐기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부평지부의 발기인 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발기인을 보면[8] 김석기, 이재준(李載濬), 김영길, 김건룡(金健龍), 김흥태(金興泰), 류한구(柳漢九), 강한성(姜漢成), 권봉성(權鳳成), 윤재화(尹在華), 정인환(鄭仁煥), 이후규(李厚珪), 정완성(鄭完成), 임덕용(林德容), 김홍수(金興洙), 박상현(朴相賢), 최명복(崔命福), 이선문(李先文), 장수경(張壽京), 박태원

3) 金永吉의 증언.
4) 金英一, 『激動期의 仁川』 東亞社, 1986, p.444.
5) 大衆日報, 1945년 10월 11일, 1면.
6) 大衆日報, 1945년 10월 30일.
7) 金永吉의 증언.
8) 김영길 증언, 金英一, 앞의 책, p.440 참조.

(朴泰遠), 김양한(金良漢), 윤주환(尹柱煥), 공옥성(孔玉成), 이회창(李會昌), 박상현(朴商賢), 이승제(李昇濟), 이빈경(李斌卿), 양재윤(楊載潤), 송문섭(宋文燮), 윤상옥(尹相玉), 이창재(李昌在) 등이다. 이들 발기인을 중심으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부평지회를 결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임원은 회장에 김석기, 부회장에 이재준, 정완성, 그리고 총무 윤주환, 조직 김영길 등이다.

1946년 6월 15일에 조선공산당 총무부장 이관술(李觀述)이 총지휘한 위조지폐 사건이 터졌으나 다행히 그 일당이 모두 검거되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조봉암(曺奉岩)이 박헌영(朴憲永)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부평지부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각 청년단체와 좌익진영의 전향인사들을 망라하여 '독립전취 시민대회'를 1946년 7월 14일, 소화고녀(昭和高女, 현 박문여고 전신, 지금의 경찰학교) 교정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부평에서 뿐만 아니라 계양, 소사, 오류동에서도 운집하여 인산 인해를 이룬 가운데 대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회는 김영길의 사회아래 김석기 대회장의 개식사로 시작되어 중앙에서 신익희(申翼熙) 부회장이 참석하여 청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정세에 관한 말씀'으로 격려사를 해 주었고, 대동신문사 사장 이종영(李鍾榮)이 '공산주의 비판', 그리고 서북학생연맹(西北學生聯盟) 대표가 실정보고를 하는 등 큰 결실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9]

1947년 4월 21일 광복군 사령관 이청천(李靑天)장군이 도미외교를 마치고 중국을 거쳐 이승만 박사와 함께 귀국하였다. 이장군은 귀국 제1성으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단체가 하나로 뭉칠 것"을 호소하였으며, 그 취지에 따라 각 단체의 대표자 회의를 가진 후 1947년 9월 1일 서울 운동장에서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의 결성식을 가졌다. 이에 호응하여 부평지역에서도 기존 단체 등이 회의를 소집하여 통합하기로 원칙을 합의하고 그 주비위원장(籌備委員長)에 김영길을 선출하고 통합작업을 진행, 마침내 1947년 10월 15일 국민회관에서 결단식을 거행하였다.

당시의 임원을 보면, 단장에 이재준, 부단장에 김영길, 김건룡, 간부에 강한성, 권봉성, 김정추, 박태원, 류한구, 감찰부장에 김홍태, 서곳지구책에 이창재 등이 맡게 되었다.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각 동(부락(部落))책임자를 두는 등 조직의 특성을 살려서 정보 파악에 유리하게 하였는데, 그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10]

---

9) 金英一, 위의 책, pp.441~442, 김영길의 증언.
10) 金英一, 위의 책, pp.444~446, 김영길의 증언.

하촌(下村)단장 권봉성, 역전단장 강한성, 시장단장 이종석(李鍾錫), 사거리단장 공옥성(孔玉成), 신트리단장 이승제(李昇濟), 갈산동단장 이선문(李先文), 후정회단장 최명복(崔命福), 작전동단장 이빈경(李斌卿), 계산동단장 박태원(朴泰遠), 효성동단장 이회창(李會昌), 부평2동단장 이규종(李圭鍾), 부평3동단장 양재윤(楊栽潤), 산곡동단장 윤재화(尹在華), 까치 말단장 김영익(金永翼)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1945년 말 모스크바의 미, 영, 소의 3상회의는 "미, 영, 중, 소의 4개국이 5년간 신탁통치를 한 후 한국을 독립하여 준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이 국내에 알려지자 좌우익을 막론하고 모두 반대를 하였다가, 며칠 후 좌익은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모스크바 회담의 이행을 위하여 미·소는 몇차례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게 되었다. UN은 "UN감시하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평양측은 "38선 이북으로의 입북"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은 "선거가능지역에서의 총선거"라는 차선책으로 총선거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부평에서는 정당의 활동이 전무하였다. '인천'이라는 이름아래에서의 정당은 모두 구 시내(舊 市內)에서만 이루어졌다. 그 당시의 인구 밀집지역은 구시내와 부평뿐이었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농촌의 형태였다. 그리고 부평은 부평출장소에서 모든 행정을 관장하였다.

부평에서의 '김석기'라는 존재는 한국의 '이승만'과 같았다. 선거구가 확정되자 인천은 갑, 을로 양분하여 경인철도의 남쪽은 갑구, 북쪽은 을구로 하였다.[11]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시행되었다. 당시 인천 을구에 입후보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이성민(李性玟), 하상훈(河相勳), 조봉암(曺奉岩), 임홍재(任鴻宰), 김석기(金碩基) 등이었으며, 이중 조봉암과 김석기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그 결과 전자가 17,620표, 후자가 15,827를 얻었는데, 표차는 1,793표에 불과했다.

## 2. 제1~2공화국 시대의 정치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신생국가의 동량이 될 청년을 한데 묶어 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애국단체의 통합을 지시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19일, 서울 운동

11) 당시 부평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석기를 무서워하는 나머지 철길을 중심으로 나누어 부평 2동과 부개, 일신, 구산동을 갑구로 하고 그 밖에는 을구로 하였다고 하는 풍문이 있었음.

장에서 대한청년단의 결성식을 가지고 단장에 신성모(申性模)를 임명하였다. 이어서 각 지방에서도 결성식을 가지게 되었던 바, 부평에서는 김영길이 주비위원장이 되고 각 단체가 해체하여 참가하도록 하였다. 1949년 1월 말경, 부평 공회당에서 결성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즉, 단장에 이재준, 부단장에 김영길, 한동선(韓東鮮), 감찰부장에 김홍태, 총무에 김정추, 재무에 윤재화, 조직에 이규종, 사회에 이영주(李永柱), 그리고 각 동(洞)별로 책임자를 임명하였다.[12]

1950년 1월 15일 오전 10시에 동단 사무실에서 대의원 56명이 모여 창단 1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이어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간부를 만장일치로 다시 선출하였다.

정부 수립후 점차 각 분야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중에 1949년 7~8월 공세설이 유포되면서 민심이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려고 대한청년단부평지구에서는 1949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부평 공회당에서 이재준 단장을 위시하여 전 단원과 국민회의 김석기 지부장 등 내빈 다수가 참석, 청년 궐기대회를 개최해 북의 어떠한 책동도 분쇄한다고 결의를 표명하였다.

1949년 7월 6일 오후 1시에 부평공회당에서 대한부인회 부평분회가 결성되었으며, 임원으로는 지회장에 최상명, 부지회장에 최은석[13]이 각각 임명되었다.

1950년 9월 15일 UN군이 인천에 상륙하면서 부평지역은 후퇴했던 군, 경찰, 공무원들이 복귀하여 집무를 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려고 민간치안대를 조직하였다. 단장에는 이재준, 그리고 부평출장소의 행정책임에 윤주환(尹柱煥)을 뽑았으며 각 동책임자도 선출하였으나, 그밖의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다. 다만 작전동은 이양복(李養福)과 필자가 담당하였다.

휴전회담이 한참 진행중인 1953년 6월 18일 오전 3시경, 부평의 청년들은 구 조병창에 있던 부평포로수용소(제10수용소)에 가 국군헌병대의 지원을 받아 미군 헌병대의 제지를 물리치고, 애국반공 포로를 탈출케 하여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쾌거도 있었다. 이때 자유를 찾은 반공 포로는 약 560명이었으며, 불행하게도 미 구출된 반공 포로도 870명이나 되었다.[14]

전쟁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다시 정치가 시작되었다.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였으나, 제2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의 움직임을 보였다. 1952년 4월 17일 곽상훈(郭尙勳)의원외 122명이 제안한 의원내각제 개헌안과 1952년 5월 14일 정부가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있었다. 정치파동을 겪으면서 1952년 6월 20일 위의 2개 헌법 개정

12) 金英一, 앞의 책, pp.449~450. 하부조직은 대동단의 그것과 비슷함.
13) 金英一, 위의 책, p.45.
14) 김영길 증언, 金英一, 위의 책, p.459.

안 중에서 전자의 의원내각제 일부와 후자의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소위 발췌 개헌안이 작성되었다. 이어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한이 재석 166명 중에서 기립표결 결과 가(可) 163, 기권 3으로 통과, 소위 정치파동 또는 발췌개헌 파동 때 부평에서도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또한 1954년 11월 27일(토)의 표결에서 가(可)135, 부(否)60으로 개헌안의 부결을 선포하였다가, 29일(월) 4사5입의 이론으로 번복하여 가결을 선포하는 소위 4사5입 파동을 겪으며, 그 후 자유당 탈당파와 민주국민당, 그리고 홍사단 등이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탄압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 기색을 국민들은 감지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야의 바람은 대단하여 1956년 8월 7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의회(市道議會)의원 선거, 1958년 5월 2일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즉 민주당의 당선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인천과 그 중의 일부인 부평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야당 탄압은 1960년 3·15정부통령 선거시 절정에 달하였다.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의 4.19혁명이 성공을 거두자,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과도정부는 부정선거와 그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고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의 개헌을 추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1960년 7월 29일 참의원과 민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7·29총선거는 50년대 후반부터 일고 있던 야당의 바람이 몰아쳐 야당이 3분의 2를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부평을 포함하여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 3. 제3~6공화국시대의 정치

제1공화국 말 정부의 탄압에 있다가 제2공화국의 자유분방한 사회를 맞이하면서 국민의 혼란은 극에 달할 정도로 우왕좌왕 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갈 무렵 5·16군사혁명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5·16에 대한 거부감이 도처에 일어났으며, 부평에서도 5·16에 대한 좋지 못한 정서 때문에 고초를 겪은 인사도 있었다. 5·16군사혁명을 거쳐 1953년에 제3공화국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50년대 후반기부터의 야당의 바람은 식지 아니하였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평이 속하고 있는 인천 을 선거구에서 민정당의 김은하(金殷夏)후보가 당선되었음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1967년의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천 갑 선거구에서 신민당의 김정렬(金正烈)후보가, 인천 을 선거구에서는 신민당의 김은하 후보가 각각 당선됨으로써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1969년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계기로 야당의 바람이 식기 시작하였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던 바, 인천 중·동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유승원(柳承源), 인천 남구에서는 신민당의 김은하, 인천 북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김숙현(金淑鉉)이 당선됨으로써 야도(野都)인천을 무색케 했다.

1972년 10월 17일의 '대통령 특별선언' 즉 친위혁명(親衛革命)을 계기로 야당의 바람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정치는 경색되었으며 국민의 인권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었다. 1973년의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은 1개 선거구로 되고, 1선거구 2인을 선출하는 여야 동반 당선의 모양을 갖추었다. 1978년 12월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후 19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하자 1979년 12·12사태, 1980년의 5·17, 5·18사태로 이어지면서 제4공화국은 종지부를 찍고, 1980년 10월 27일의 헌법개정으로 제5공화국의 막을 열게 되었다.

1981년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인천은 인구의 증가로 2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2개 선거구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당선되어 형평을 유지하였다.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인천은 2개 선거구로 여·야 각각 2명씩 동반당선되었다.

1988년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다시 소선거제도로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인천은 7개 선거구로 되어,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6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야당인 통일민주당이 북구갑 선거구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말하자면 여당도시가 된 것이다.

1992년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출발하면서 선거가 치뤄졌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7개 선거구에서 7명을 선출하였다. 야는 남구 을에서, 무소속은 북구 갑에서, 각각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이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북구 갑선거구에서 통일민주당의 정정훈(鄭貞勳), 제14대 때에는 북구 갑선거구에서 무소속의 조진형(趙鎭衡)을 당선시킴으로서 (당선후 민자당에 입당 함)부평이 야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 4. 11) 때에는 서구에서 새정치 국민회의의 조철구(趙徹九), 계양 강화 갑에서 새정치 국민회의의 이기문(李基文)을 당선시킴으로써 인천의 변두리요 시골에서 야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

# 第 2 章 정당활동(政黨活動)

## 1. 광복직후

해방직후 인천의 정치세력의 중요 인물은 모두 인천에서 다년간 거주한 자이나, 그중 대부분이 외지에서 이주해온 인물들이다.

해방이 되자 전국 도처에서 사회적 혼란이 나타났다. 또한 중앙의 정국과 마찬가지로 인천에서도 좌익세력이 대세를 장악하였다. 이승엽(李承燁)은 일정치하에서 박헌영(朴憲永)과 동일보조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직후 공산당 중앙조직에 참여하고, 인천은 박남칠(朴南七), 김용규(金容圭), 이보운(李寶云) 및 조봉암(曺奉岩) 등에게 일임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저녁 조봉암 주도하에 건국준비위원회 조직에 관한 협의를 가지고, 18일에는 인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참가자 중의 간부는 조봉암, 권충일(權忠一) 김용규, 박남칠, 이보운, 김형원(金瀅源), 윤석준(尹錫俊), 이상운(李祥云), 문두호(文斗昊), 한기동(韓起東), 이필상(李弼商 도중탈퇴) 등이었다.[15] 이어서 치안유지를 위하여 보안대를 조직, 그 대장에는 이임옥(李壬玉), 고문에 류창호(柳昌浩)가 담당하게 되었고, 대원은 무도인, 역도인, 주먹파, 전과자들이 중심이었다. 보안대는 좌경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다. 인천의 좌익세력은 항만노동자와 공업노동자 및 이승엽, 조봉암이 관계했던 식량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증대해 갔다.

부평지역에서도 해방과 동시에 좌익세력은 서울과 인천지역의 공산세력과 연락을 하고 조직을 하며 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를 확장하여 나갔으나, 그 주모자가 누구이며 좌익세력의 분포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16]

1945년 9월 초에 송진우(宋鎭禹)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9월 16일에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이 결성되자, 인천에서도 동아일보에 관여하였던 언론인을 중심으로 한국민주당 인천지부를 10월 1일에 결성하였다. 지부 위원장에 곽상훈(郭尙勳), 부위원장에 양제박(梁濟博), 사무국장에 이범진(李汎鎭), 총무에 하상훈(河尙勳), 부장급에 이열헌(李列憲), 정태익(鄭泰翊), 장인수(張仁秀), 홍의선(洪義善), 류창호(柳昌浩), 조종식(趙鍾植), 이중찬(李重燦), 정용복(丁龍福), 감찰위원장에는 서병훈(徐丙勳),

15) 鄭國老,「建國過程에서의 社會團體小考-仁川을 中心으로」,『論文集』第三輯, 仁川專門大學, 1992, p.116.
16) 부평의 다수 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았으나 아는 분이 없음.

감찰 부위원장에 전두영(全斗榮) 등으로 조직하였다.

신탁통치 반대의 대의 명분을 내세워 우익진영이 세력을 확대해 가자, 이를 계기로 좌익세력 또한 단합하기에 이른다. 인민당, 공산당, 신민당의 좌파 3개 정당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통합을 하여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단일 정당을 결성하였다. 이어서 1947년 1월 12일 남조선 노동당 인천시당을 결성하였으니 그 위원장에 이보운, 부위원장에 박남칠이 임명되었다.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후 좌익세력은 합법적인 투쟁보다는 폭력에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평의회를 통한 파업, 민주 학련을 통한 맹휴를 계속하다가, 드디어 전국적인 폭동이 발생되자 미 군정청으로 부터 해산령을 받고 지하운동을 전개하였다. 인천에서 미 군정으로부터 해산령을 받은 뒤 지하책은 이영일(李英逸), 부책임자 이재규(李在規), 기타 간부 김효근(金孝根), 홍사동(洪思童), 류경옥(柳京玉), 오창진(吳昌振), 조예형(趙禮衡), 심만택(沈萬澤) 등으로 새로 구성되었다.[17]

정당설립의 최초의 법적 근거는 미군정 법령이다. 동 법령 제55호는 "어떤 형식으로나 정치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된 3인 이상의 단체"라고 정당 및 정치적 활동단체를 규정하고 등록하도록 하였던 바, 1946년 당시에 미 군정청과 도청에 등록된 정당의 수는 107개나 되었고, 1947년에는 344개의 정당이 난립하였다.[18]

그러나 UN의 의결을 거쳐서 UN의 감시하에 시행된 1948년 5월 10일의 역사적인 제헌의원 선거에서는 그러한 면을 엿볼 수가 없었다. 즉 당시의 부평지역의 대부분이 속했던 인천 을 선거구(부평2동, 부개, 일신 구산동 제외)에서 입후보한 자와 소속 정당은 다음과 같다.[19]

해방직후 부평에서 사회적 단체의 결성이나 활동을 하거나 정당을 창당한 면은 전혀 엿볼 수가 없다.

〈표 1〉 인천 을선거구 제헌(制憲)의원선거 후보자

| 성 명 | 연령 | 학 력 | 소속정당단체 |
|---|---|---|---|
| 이성민(李性玟) | 31 | 중졸 | 조선민족청년단 |
| 하상훈(河相勳) | 56 | 중졸 | 무 소 속 |
| 조봉암(曺奉岩) | 50 | 모스크바대 2년수료 | 〃 |
| 임홍재(任鴻宰) | 48 | 전문대졸 | 〃 |
| 김석기(金錫基) | 50 | 중졸 | 〃 |

17) 鄭仁老, 위의 글, p.118.
18) 仁川直轄市史編輯委員會, 『仁川市史』, 中卷, 1993, p.117.
19) 仁川直轄市史編輯委員會, 『仁川市史』, 中卷, 1993, p.59.

## 2. 제1~제2 공화국 시대

광복직후 가장 강력한 민족진영의 정당은 한국민주당이다. 한국민주당은 5·10선거 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승만의 버림을 받고 야당으로 전락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적대관계에 서게 되는 야당의 입장으로 돌아서는 순간 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신익희(申翼熙)의 대한국민당과 합당을 해서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였다.

제헌국회는 원래가 임기가 없는 것으로 헌법 제정의 임무를 마치면 곧 해산을 하고 헌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내외 여건이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서 제헌국회이자 제1대의 국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헌법 부칙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었다.

정부수립과 동시에 곧 새로운 국회의원의 선거가 대두되었다. 민주국민당은 5·30 선거를 앞두고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로의 개헌을 추진하였고, 이승만도 이를 막는데 주력하였지만, 결과는 개헌의 좌절이었다. 개헌이 좌절되자 곧 1950년 5월 30일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10석의 의석이 증가하여 210석이 되었고, 총 2,209명이 입후보하여 1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이 선거의 의의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군정법령인 국회의원 선거법이 폐기되고 제헌의회에서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는데 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시는 갑, 을 병의 3개 선거구로 분할하게 되고, 부평의 대부분이 속하게 된 인천 병구에서의 입후보 상황은 다음과 같다.[20]

〈표2〉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정당보다는 무소속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표 2〉 인천 병구 제2대국회의원 입후보자

| 성 명 | 연령 | 소속정당(사회단체) |
|---|---|---|
| 조봉암(曺奉岩) | 52 | 국민당 |
| 임홍재(任鴻宰) | 50 | 무소속 |
| 김석기(金碩基) | 52 | 무소속 |
| 김영배(金榮培) | 53 | 기권 |
| 김영일(金英一) | 32 | 대한청년단 |
| 이필상(李弼商) | 45 | 민주국민당 |
| 이열헌(李列憲) | 52 | 무소속 |
| 최익환(崔益煥) | 48 | 무소속 |
| 류경원(柳京元) | 40 | 대한노총 |
| 조윤수(趙允壽) | 39 | 무소속 |
| 김태훈(金泰勳) | 57 | 무소속 |
| 이종모(李鍾模) | 36 | 무소속 |

20) 仁川直轄市史編輯委員會, 『仁川市史』, 中卷, 1993, p.61.

이러한 사실은 인천갑구(무소속 3명, 민주국민당 1명), 인천을구(무소속 4명, 민주국민당 1명, 국민당 1명, 대한 노총 1명)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민주당의 맥을 이은 민주국민당(약칭 민국당)은 갑, 을 병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입후보를 하였다.

5·30선거 후 바로 6·25를 만났다. 6·25전란 중에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정치가 다시 재개 되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의 선거를 국민의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이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정당을 기피하고 경원했던 이승만이 개헌의 주도세력으로서의 정당의 필요성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등장한 것이 자유당이다. 1952년의 소위 정치파동에 의한 발췌개헌안이 7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 5일에 공포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 8월 5일에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1954년 5월 20일에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1950년 4월 12일에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시행되게 됐으나 휴전선 이북의 7개 미수복지구를 제외한 203개 선거구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특징적인 사항은 정당공천제의 도입이었다. 즉,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자유당과 강력한 야당인 민주국민당이 각각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양당정치의 기반이 조성되어 건전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유당은 부평이 속해 있는 인천 병구를 비롯하여 인천 갑과 인천 을구 등 3개 지역에 모두 후보자를 내세운 반면, 제1야당이라 할 민주국민당에서는 3개 선거구 모두에서 후보자를 내 세우지 않았다. 인천 병구에서는 전 인천시장인 자유당의 표양문(表良文)과 부평거주자인 무소속의 김훈(金勳)이 대결하였다.

인천 갑구에서는 6인의 후보가 인천 을구에서는 4인의 후보가 경합을 벌렸다. 제3대 의회가 구성되자 가장 커다란 과제는 대통령의 3선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이었다. 3선 제한 철폐를 위한 헌법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되어 1954년 11월 29일 소위 4사5입의 이론을 적용하여 27일에 부결선포하였던 것을 번복하여 다시 가결 선포하였다.

4사5입 파동을 계기로 '헌법수호'를 기치로 하여 야(野)의 계열이 뭉쳐서 민주당을 탄생시켰다. 이때부터 야의 바람이 거세어지자 정부는 서서히 야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럴즈음 야는 정부와 자유당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1월 25일에 법률 제470호로서 민의원의원 선거법을 개정·공포하고 이 법에 따라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1958년 5월 2일에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야가 선거 사상 가장 많은 당선자를 냈다는 점이며,

동시에 많은 국민이 자유당이 아니면 민주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무소속보다는 정당 소속인을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언필칭 협상 선거법의 결과이다. 이 때부터 도시에서는 야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부평이 속해있는 인천 병구에서는 자유당의 김석기(金碩基)와 민주당의 김훈이 대결하였으나, 야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 김훈이 당선되었다. 처음으로 부평인끼리의 대결이었다. 한편 인천 갑구에서는 김재곤외 3인이 인천 을구에는 문병관과 곽상훈이 후보로 나왔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종지부를 찍고, 허정(許政)이 주도하는 과도정부가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위한 산파역을 하였다. 허정 과도정부하의 국회는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였고, 이 의회의 가장 커다란 과제는 선선후개(先選後改)이냐 선개후선(先改後選)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였다. 자유당의 입장은 후자였고, 민주당의 입장은 전자였다. 그러나 장차의 집권세력인 민주당이 양보하고 자유당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실마리는 쉽게 풀렸다. 즉, 먼저 헌법 개정을 한 연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자유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제4대 마지막 의회에서 형식상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제2공화국의 기틀인 헌법개정은 의회를 거쳐 1960년 6월 15일에야 공포되었다.

〈표 3〉 인천 병구 제5대 국회의원 후보자

| 성 명 | 연령 | 소속정당 및 단체 |
|---|---|---|
| 조규동(趙奎東) | 42 | 한국교수협회 |
| 김 훈(金 勳) | 50 | 민 주 당 |
| 허 섭(許 燮) | 35 | 무 소 속 |
| 양재범(梁在範) | 43 | 무 소 속 |
| 백창섭(白昌燮) | 43 | 무 소 속 |
| 이성진(李成鎭) | 54 | 무 소 속 |
| 조규희(曺圭熙) | 45 | 사회대중당 |
| 김진영(金振榮) | 27 | 무 소 속 |
| 심동기(沈東基) | 29 | 무 소 속 |
| 노재기(盧在璣) | 29 | 자 유 당 |

이 헌법에 의하면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와 양원제(兩院制)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일이었다. 새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구성될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여 1960년 6월 23일 법률 제551호로 공포하고, 국회(당시의 헌법에는 민의원)는 해산하였다.

허정 과도정부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민의원과 참의원의 동시선거를 1960년 7월 29일에 실시하여 새로운 내각(정부)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7.29선거에서의 후보자(부평이 속해 있는 인천 병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21] 인천 선거구 전체를 살펴볼 때 인천 갑구에서 7인, 인천 을구에서 3인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는데, 3개구 모두가 민주당 출신인

21) 仁川直轄市史編輯委員會, 『仁川市史』, 中卷 1993, p.64.

3개구 모두가 민주당 출신인 김재곤, 곽상훈, 김훈이 당선되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승하여 민주당이 2/3를 상회하는 의석을 차지하였다.

## 3. 제3~제6 공화국 시대

1961년 5월 16일의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헌정이 중단되고 정당활동이 중지되었다. 이어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정이양 후의 새공화국의 기틀이 될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962년 12월 17일에 정치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회부, 새 공화국의 헌법을 확정하였다. 새 헌법에 의하여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하고 정당정치가 강조된 점이 특징이다.

이어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인구 20만명에 1명을 뽑는 지역구 대표 131인과 전국구 비례대표 44인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무소속 후보의 출마를 금하는 정당추천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였다.

1963년 11월 26일에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국의 131개 선거구에서 모두 847명이 입후보를 하였다. 당시 인천의 선거구는 경기 제1지역구, 제2지역구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때는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금지되었는데, 인천에서 공천한 정당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당시 부평이 속해있는 경기 제2선거구의 등록 상황을 보면 〈표 4〉와 같다.[22]

〈표 4〉 경기제2지구 제6대 국회의원 후보자

| 성 명 | 연령 | 소속정당 |
|---|---|---|
| 허이복(許利福) | 58 | 자유민주당 |
| 신응섭(申應涉) | 37 | 보수당 |
| 김 훈(金 勳) | 54 | 민주당 |
| 김은하(金殷夏) | 40 | 민정당 |
| 백창섭(白昌涉) | 48 | 정민회 |
| 김숙현(金淑鉉) | 46 | 민주공화당 |

경기 제1지구당에서 후보로 출마한 자의 소속정당을 보면 신민회, 한국독립당, 국민의당, 보수당, 민주당, 민정당, 민주공화당 등 다양했다. 그리고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을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면,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소정당을 기피하고 대정당(大政黨)을 택해서 양당정치로의 지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제6대 국회가 개회한 이후 국회에서 선거실시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정당법과 선거 관계 법률의 개정을 제6대 국회 마지막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22) 仁川直轄市史編輯委員會, 『仁川市史』, 中卷, 1993, p.66.

개정법률에 따라서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되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가 금지되어 있어서 정당의 이합집산이 심하였다. 그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시의 후보자 명단으로 알 수가 있다. 당시 경기 제2지구의 후보자는 〈표 5〉와 같다.[23]

〈표 5〉 경기 제2지구 제7대 국회의원 후보자

| 성 명 | 주 소 | 소속정당 |
|---|---|---|
| 조남두(趙南斗) | 숭의동 127 | 대 중 당 |
| 김은하(金殷夏) | 숭의동 72-26 | 신 민 당 |
| 김숙현(金淑鉉) | 부평동 110 | 민주공화당 |
| 정 명(鄭 明) | 종로구 옥인동 47-19 | 한국독립당 |
| 김 훈(金 勳) | 부평동 760 | 민 주 당 |

제7대 의원 선거에서 경기 1, 2지구가 다같이 신민당 후보를 선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선호하는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경기 제1지구당의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보면 자유당, 신민당, 민주공화당, 한국독립당, 자민당, 민주당 등이다.

1969년 1월과 1970년 12월의 두차례에 거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1971년 5월 25일에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이 때는 지역구가 153개로 늘어났는데, 인천도 3개구로 늘어났다.

〈표 6〉 경기 제3선거구 제8대 국회의원 후보자

| 성 명 | 경 력 | 소속정당 |
|---|---|---|
| 김숙현(金淑鉉) | 국방부법무과장 | 민주공화당 |
| 신현정(申鉉鼎) | 변호사 | 신 민 당 |
| 김 훈(金 勳) | 전 국회의원(4,5대) | 국 민 의 당 |

인천 갑구는 중구와 동구, 인천 을구는 남구 전역, 인천 병구는 북구 전역으로, 부평이 비로소 독립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당시 인천 병구의 입후보자와 소속정당은 〈표 6〉과 같다.[24]

인천 갑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유승원과 신민당의 사 준 인천 을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최정환, 신민당의 김은하, 국민당의 박정렬, 대중당의 조남두가 입후보했다.

〈표 7〉 제9대 의원 후보자

| 성 명 | 학 력 | 소속정당 |
|---|---|---|
| 유승원(柳承源) | 국 학 대 졸 | 민주공화당 |
| 김은하(金殷夏) | 동 국 대 졸 | 신 민 당 |
| 심재갑(沈載甲) | 서 울 법 대 졸 | 민주통일당 |
| 한종수(韓宗秀) | | 무 소 속 |

1972년 10월 17일의 10·17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서 헌법이 개정되고, 1972년 12월에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이 개정선거법에 의거하여 1973년 2월 27일에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 개정선거법은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인천은 하나의 선거구로

23) 仁川直轄市史編輯委員會, 『仁川市史』, 中卷 1993, p.68.
24) 仁川直轄市, 『仁川開港 100年史』, 1983, p.791.

선거구로 하여 2명을 선출하였다. 당시 제9대 의원 입후보자는 〈표 7〉과 같다.[25]

1978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10대의원 선거에서 유승원, 김숙현, 이시광(李時廣) 김동수(金東洙) 등이 민주공화당에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유승원이 공천되었다.[26] 제9대와 같이 2인을 뽑는 인천시에서의 후보자는 〈표 8〉과 같다.

〈표 8〉 제10대 의원 후보자

| 성 명 | 학 력 | 소속정당 |
|---|---|---|
| 유승원(柳承源) | 대 졸 | 민주공화당 |
| 김은하(金殷夏) | 대 졸 | 신 민 당 |
| 한종수(韓宗秀) | 대 졸 | 민주통일당 |
| 김숙현(金淑鉉) | 대 졸 | 무 소 속 |
| 최낙구(崔洛九) | 대 졸 | |

제5공화국의 헌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 헌법 부칙에 의거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1980년 11월 22일에 정치활동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이어 1981년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의 선거가 시행되었다. 당시 북구 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구당 등록 일람표에 의하면 동년 3월 25일까지 등록한 정당 상황은 〈표 9〉와 같다.[26]

〈표 9〉 정당 등록 상황

| 정 당 명 | 대표자(등록시) | 등록연월일 |
|---|---|---|
|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 김숙현(金淑鉉) | 1981. 2.17 |
| 신 정 당(新 政 黨) | 박영복(朴榮福) | 1981. 2. 4 |
|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 | 최정환(崔正煥) | 1981. 2.10 |
|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 | 정정훈(鄭正薰) | 1981. 3. 2 |
| 원일민립당(円一民立黨) | 이정대(李正大) | 1981. 3. 7 |
| 민 권 당(民 權 黨) | 심현조(沈鉉祚) | 1981. 3. 9 |

당시 경기 제2선거구가 북구와 동구로 제2선거구에서 입후보하려는 자들의 등록상황인 것 같다. 그것은 후보자 상황으로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민주정의당 김숙현, 민주한국당의 정정훈, 한국국민당의 최정환, 신정당의 박영복, 민권당의 김유현, 사회당의 심현조, 원일민립당의 이정대, 무소속의 김영일, 차병락 등이다.

1985년 2월 12일에 시행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선거구인 인천 제2선거구도 역시 북구와 동구지역이었다. 이 때 새로 창당하여 등록한 정당은 유제연(柳濟然)의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이었다. 이 때 따라서 당시의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상황은 〈표 10〉과 같다.

25) 仁川直轄市史編輯委員會, 『仁川開港 100年史』, 1983, p.72.
26) 위의 책, p.122.
27) 위의 책, p.73.
27) 仁川北區甲選擧委員會가 保管하고 있는 '地區黨登錄一覽表' 參照.

1988년 2월 25일에 제6공화국이 출발하였다. 그리고 두달 후인 1988년 4월 26일에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의 선거구는 7개구로, 부평은 북구 갑과 북구 을의 2개 선거구로 분할되었다.

〈표 10〉 제12대 국회의원 후보자(인천 제2선거구)

| 정 당 명 | 대표자(등록시) | 등록연월일 |
|---|---|---|
|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 김숙현(金淑鉉) | 1981. 2.17 |
|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 | 이정대(李正大) | 1981. 2.10 |
|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 | 유제연(柳濟然) | 1981. 1.21 |
|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 | 정정훈(鄭正薰) | 1981. 3. 2 |

북구 갑에서는 민주정의당의 대표자였던 1988년 4월 6일 김숙현이 조진형(趙鎭衡)으로 변경 등록 되었고, 통일민주당에서는 정정훈이 1988년 4월 21일에 등록했으며, 평화민주당에서는 김용석(金用錫)이 1987년 11월 11일에 등록했고, 한겨레민주당에서는 하필승(河弼升)이 1988년 3월 25일에 등록하였다. 민중당은 송경평(宋炅平)이 1988년 3월 7일 등록한 후 1988년 3월 31일에 북구 을선거구로 변경하여 등록을 하였다. 또한 북구 을선거구에서는 민주정의당 이승윤(李承潤)이 1988년 4월 8일에 등록을 하였고, 통일민주당 이병현(李炳賢)이 1988년 4월 12일에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평화민주당에서는 지영길(池永吉)이 1988년 4월 15일에 등록을 하였으며, 허 섭(許燮)은 1988년 3월 31일에 신민주공화당으로 등록을 하였다.[29]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92년 3월 24일에 시행되었다. 이 선거는 제6공화국의 업적을 평가하고,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통합(1990년 1월 15일)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한데 대한 국민의 반응을, 그리고 평화민주당이 통일민주당의 이탈자를 영입하여 민주당을 창당한데 대한 국민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북구 갑 책임자로 정정훈이, 북구 을 책임자로 이승윤이 각각 1990년 2월 15일에 등록하였다. 민주당은 북구 갑에 송선근(宋善根)이 1992년 2월 20일에, 북구 을에는 이병현이 1991년 5월 1일에 등록하였다. 통일국민당은 북구 갑에서는 심현구(沈炫求)가 1992년 1월 31일에 등록했다가 1992년 3월 6일에 이정대(李正大)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북구 을에서는 김숙현이 1992년 3월 13일에 등록하였다. 북구 갑에서 신정치개혁당(신정당)의 이수일(李壽一)이 1993년 3월 19일에 등록하였고, 민중당의 전희식(全喜植)이 1990년 11월 9일에 등록을 마쳤다.

선거가 끝난 후인 1994년 7월 8일에 신정당과 통일국민당이 합당하여 신민당을 만들었는데, 공동대표로 최영한, 이수일이 북구 갑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북구 을에서는 송경평이 민중

당으로 1990년 11월 1일에 등록하였다. 선거가 끝난 후인 1994년 7월 8일에는 김성정이 신민당으로 북구 을에 등록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 4월 11일)직전의 부평의 정당 등록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부평 갑)〕

| 정 당 명 | 대 표 자 | 등록일자 |
|---|---|---|
|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 | 조진형(趙鎭衡) | 95. 8. 24 |
| 후에 신한국당(新韓國黨)으로 변경 | | 96. 2. 7 |
| 신민당(新民黨) | 하필승(河弼昇) | 95. 8. 24 |
| 무정파 전국연합(無政派 全國聯合) | 진영광(陳英光) | 96. 3. 22 |
| 통합민주당(統合民主黨) | 정정훈(鄭正熏) | 96. 3. 8 |
| 후에 민주당(民主黨)으로 변경 | | 96. 6. 13 |
| 새정치 국민회의 | 송선근(宋善根) | 96. 1. 31 |

(부평갑구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부평을구)〕

| 정 당 명 | 대 표 자 | 등록일자 |
|---|---|---|
|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 | 이재명(李在明) | 96. 1. 14 |
| 신한국당(新韓國黨)으로 변경 | | 96. 2. 7 |
| 새정치 국민회의 | 신용석(愼鏞碩) | 96. 2. 13 |
| 통합민주당(統合民主黨) | 정화영(鄭華永) | 96. 3. 18 |
| 자유민주연합(自由民主聯合) | 김유동(金裕東) | 96. 4. 6 |

(부평을구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계양·강화갑구)〕

| 정 당 명 | 대 표 자 | 등록일자 |
|---|---|---|
| 신한국당(新韓國黨) | 안상수(安相洙) | 95. 8. 21 |
| 새정치 국민회의 | 이기문(李基文) | 95.12. 8 |
| 자유민주연합(自由民主聯合) | 조홍규(趙弘圭) | 95. 9. 25 |
| 민주당(民主黨) | 김말룡(金末龍) | 96. 3. 18 |
| 무당파 국민연합(無黨派 國民聯合) | 이병현(李炳賢) | 96. 3. 26 |

(계양·강화 갑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4. 지방자치 운동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市·邑·面長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인천시장은 1952년 5월 7일 표양문(表良文)을 선출하였다.[1]

그 후 제 2, 3, 4대 시장 선거를 끝으로(1960년) 199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중단되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1994년 3월 25일)이 법률 제4739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부활이 되었다.

당시의 시장은 현재의 구청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장의 선거는 언급을 하지 않고 구청장의 선거만 언급하고자 한다.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구청장의 선거가 시행되었다. 부평구에서 민주 자유당의 서정식(徐廷植), 민주당의 최용규(崔龍圭), 자유 민주 연합의 하창수(河昌洙), 무소속에서 송청길(宋淸吉), 이도경(李道卿) 등 5명이 후보로 나왔다. 그러나 야당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민주당의 최용규가 압도적인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계양구에서는 민주자유당에서 박희룡(朴喜龍), 민주당에서 이헌진(李憲珍), 자유민주 연합에서 김성정(金盛政)이 출마하였다. 이곳도 역시 야당의 바람으로 민주당의 이헌진이 당선되었다.

### 2) 의회 의원 선거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1952년 2월 25일에는 역사적인 인천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당선된 의원은 모두 28명으로, 부평에서는 김영길, 이후규(李厚珪), 정은용(鄭殷溶) 3인이고, 서곳에서는 심덕기(沈德基) 1인이었다.

1956년 2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 법은 시행을 하지 못한 채, 같은 해 7월 8일 개정을 다시 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 규칙 제142호로 인천시 의회 의원 선거구는 9개 지구를 감축하고, 의원수도 22인으로 감소하였다. 1956년 8월 8일에는 제2대 인천시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부평에서는 노태용(盧泰容), 김용기(金龍基), 김국환(金國煥) 3인이 당선되었고, 서곳에서는 심덕기 의원이 재선되었다. 그리고 제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원 구성에서 심덕기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당시 제2대 인천시의회 의원의 임기만료일은 1960년 8월이었다.

자유당에 의해 1958년 12월 26일에 지방자치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법은 4·19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후 1960년 11월 1일에 법률 제536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기에 이른다.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인천시의회 의원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부평에서는 무소속의 김용기와 노태용, 민주당의 최준서(崔濬瑞)가 당선되었고, 서곳에서도 무소속인 송병기가 당선되었다.

1961년 5월 16일의 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는 한참동안 중단되기에 이른다. 그후 법률 제4311호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의거하여 1991년 3월 26일 제1회 북구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북구 갑에서는 12개 선거구에서 42명이 입후보하여 22명이 당선되었고, 북구 을에서는 13개 선거구에서 40명이 입후보하여 23명이 당선되었다. 당선 의원은 북구 갑에서 강영택(姜榮澤), 홍성언(洪性彦), 김정배(金正培), 이복란(李福蘭), 김준봉(金俊奉), 황충식(黃充式), 김종구(金鍾九), 황기연(黃起淵), 성낙현(成洛鉉), 한천길(韓天吉), 김봉하(金鳳夏), 성하수(成河秀), 하창수(河昌洙), 김선태(金善泰), 이범성(李範成), 윤덕영(尹德榮), 장영호(張泳鎬), 박윤태(朴允泰), 홍미영(洪美英), 고진섭(高振燮), 김유복(金有福), 조영만(趙榮萬) 등 22명이었다. 그리고 북구 을에서는 서상대(徐相大), 명윤식(明允植), 김종봉(金鍾鳳), 최용남(崔容南), 임성호(林成浩), 조극상(趙克相), 윤재웅(尹在雄), 백용현(白龍鉉), 이강억(李康億), 이상만(李相萬), 김규문(金圭文), 정왕섭(鄭旺燮), 심수월(沈壽月), 이종민(李鍾敏), 김용헌(金容憲), 이건용(李建庸), 문창원(文昌元), 이노경(李魯卿), 김인배(金麟培), 김갑준(金甲俊), 이재권(李在權), 권효택(權孝澤), 이현우(李賢雨) 등 23명이었다.

제2대 95년 6월 27일에 구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구의원의 당선자를 보면 부평구에서 이달룡(李達龍), 홍성언(洪性彦), 하헌영(河憲永), 강태기(姜泰琪), 하필승(河弼昇), 이윤택(李允澤), 이복란(李福蘭), 장헌식(張憲植), 황충식(黃充式), 장수만(張壽萬), 김준봉(金俊奉), 유재홍(柳在鴻), 엄용진(嚴隆眞), 이역남(李力男), 이영식(李永植), 임석준(林錫俊), 황기연(黃起淵), 명태진(明泰鎭), 이언기(李彦基), 두충근(杜忠根), 김태경(金泰慶), 김봉하(金鳳夏), 김재룡(金在龍), 구자일(具滋逸), 양희조(梁熙朝), 서상대(徐相大), 장석리(張錫利), 전일룡(全一龍), 최용남(崔容南), 우준영(禹俊英), 이복관(李福管), 김학태(金學泰), 이종철(李鍾喆), 허은(許銀), 성하수(成河受), 배영선(裵英先), 남홍락(南紅洛), 김덕희(金德

熙), 신윤복(申潤福), 임성호(林成浩), 유수룡(柳洙龍), 오용세(吳龍世), 신현기(申鉉沂), 박재종(朴在鍾), 윤재웅(尹在雄), 신민한(辛敏漢), 이기천(李起天), 박남수(朴南洙), 김갑준(金甲俊), 최화자(崔花子), 정상규(鄭常圭), 박재철(朴在喆), 이운행(李雲行), 이기욱(李起旭), 최천만(崔天晩), 이범성(李範成), 김선태(金善泰), 최득룡(崔得龍), 안원학(安元鶴), 성영춘(成永春), 최용희(崔龍熙), 임헌일(林憲一), 장영호(張泳鎬), 이춘우(李春雨), 박종보(朴鍾甫), 이재승(李在承), 장정석(張定錫), 권상철(權詳喆), 한병렬(韓炳烈), 이찬구(李粲九), 김학현(金學鉉), 이후종(李厚鍾), 신영선(辛榮善), 김성태(金星太), 김지탁(金知卓), 이보근(李輔根), 문맹렬(文孟烈), 고진섭(高振燮) 등 제씨이다.

계양구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이강억(李康億), 백용현(白龍鉉), 이갑룡(李甲龍), 이상만(李祥萬), 권상기(權相基), 정왕섭(鄭旺燮), 김진옥(金鎭玉), 홍성균(洪性均), 한종덕(韓琮德), 조병규(趙炳奎), 이후진(李厚振), 이건용(李健庸), 노경남(盧京男), 이종진(李鍾辰), 김용익(金容翼), 김인배(金麟培), 심상혁(沈相赫), 윤혁상(尹赫相), 한종원(韓種源) 등 제씨이다.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 인천시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평구에서는 제1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조창용(趙昌容), 제2선거구에서 민주당의 홍미영(洪美英), 제3선거구에서 민주당의 강부일(姜富一), 제4선거구에서 민주당의 김건겸(金建謙)이다.

계양구에서는 제1선거구에서 민주당의 박형우(朴亨宇), 제2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윤창호(尹昌鎬), 제3선거구에서 민주 자유당의 이익진(李翼振) 등이 당선이 되어서 활동중이다.

한편, 1956년 8월 13일에 시행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인천시는 6개 선거구에서 6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는 바, 부평은 인천 제6 선거구로 민주당의 이후규와 자유당의 김영길이 입후보하였는데, 이후규가 당선되었다.[30]

1960년 12월 12일에 제2대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인천시는 6개 선거구에서 6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부평은 제6선거구로서 민주당의 김대남(金垈男), 신민당의 이창재(李昌在)의 두 후보가 겨루어 김대남이 당선되었다. 1961년 5월 16일의 군사혁명으로 경기도 의회 의원 선거가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되면서 인천직할시는 광역단체로서의 인천직할시 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1991년 6월 20일 제4대(광역단체의 의회로서의 제1대) 인천직할시 의회의원 선거가 시행되

30) 仁川直轄市, 『仁川開港100年史』, 1983, pp.780~781.

었다. 이 선거에서의 의원 정수는 27명이다. 동 선거에서 부평에서 선출된 의원은 북구 갑에서 4인, 북구 을에서 4인 모두 8인이었다. 북구 갑에서는 민주자유당에서 이윤환(李潤煥), 한승언(韓勝彦), 이희구(李希九)가 당선되었고, 무소속에서는 최용규(崔龍圭)가 당선되었다. 북구 을에서는 민주자유당에서 장순상(張淳相), 이완규(李琓奎)가, 민주당에서는 김성정(金盛政), 무소속에서는 이기본(李起本)이 당선되었다.

# 第3章 선거양상(選擧樣相)

## 1. 정·부통령 선거[1)]

### 1) 초대·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은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선출하였는데, 선거 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1951년 초에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으로 동년 5월 16일, 김성수가 제2대 부통령으로 피선되었다.

그런데 1952년 7월 7일에 공포된 제1차 개정헌법에 따라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부터는 직접선거의 적용을 받았다. 1952년 8월 5일에 제2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에 입후보한 이승만은 전국 유효 투표의 75.3%에 해당하는 5,238,76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인천에서는 이승만이 유효투표(76,317)의 79.68%에 해당하는 60,810표를 얻었다. 그리고 3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함태영이 유효 투표 총수의 41.5%에 달하는 2,943,813표를 획득하여 당선 되었고, 그가 인천에서 획득한 표는 총 77,715표의 31.58%인 25,320표를 얻었다.

### 2)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1956. 5. 15 시행)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과 진보당의 조봉암 양인이 경쟁하였다. 선거결과 자유당의 이승만이 유효투표 총수의 70%에 해당되는 5,046,437표로 당선되었으며, 인천시 북구인 병구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인 31,732의 65.6%인 20,815표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이 유효투표 총수의 46.4%인 4,012,654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는데, 인천 병구의 경우 유효투표 74,671표의 34.1%인 25,442표를 획득하였다. 제4대 부통령 선거에 나타난 인천 병구의 투표자수 및 투표율은 39개의 투표에 선거인 수는 49,001명이며, 투표율은 89.9%에 달했다.그리고 장면 외에 이기붕 10,990표, 윤치영 1,988표, 이윤영 289표, 백성욱 809표, 이범석 1,977표를 각각 획득했다.

---

1) 仁川直轄市史 編輯委員會編, 『仁川市史』 中卷, 1993, pp.48~57, 참조.

### 3)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1960. 3. 15 시행)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조병옥이 입후보하여 여·야의 대결 양상을 보였으나, 조병옥의 급서로 인하여 이승만의 단일 후보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의 선거결과는 단일 후보가 된 이승만이 유효투표 총수의 88.7%에 해당하는 9,633,376표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 나타난 인천 병구 시민들의 투표상황을 보면 39개의 투표구에 선거인수는 67,230명이었으며, 유효투표인 44,815표의 66.7%를 이승만에게 던져주었다.

한편 제5대 부통령 선거의 결과는 자유당의 이기붕이 유효투표 총수의 79%에 해당되는 8,337,059표를 획득하여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 나타난 인천 병구는 39개의 투표구에 선거인수는 67,230명이며, 95.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후보자별 득표 상황을 보면 이기붕 31,035표, 김준연 1,267표, 임영신 618표, 장 면이 27,330표를 각각 획득했다.

그러나 이 때의 정·부통령 선거는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의거에 의하여 동년 4월 16일에 소집된 국회에서 선거의 무효를 의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 4) 제5대 대통령 선거(1963. 10. 15 시행)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헌정이 일시 중단되는 불행한 시기를 맞게 되었으며, 그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년 7개월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민정이양 준비단계의 하나로 헌법과 선거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63년 10월 15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동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정당의 윤보선, 국민의 당인 허정, 자유민주당의 송요찬, 추풍회의 오재영, 민정회의 변영태, 신흥당의 장이석 등 7인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송요찬과 허정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5명이 경쟁하였다.

선거 결과는 박정희 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46.6%에 해당하는 4,702,640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던 윤보선 후보는 유효투표 총수의 45.1%에 해당하는 4,546,614표를 획득하였다. 그 당시 인천 을구는 68개의 투표구에 선거인수는 107,230명, 투표자수는 90,589명이었으며, 투표율 84.5%에 유효투표율이 92.7에 달했다. 그리고 을구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투표상황을 살펴보면, 장이석 1,250표, 박정희 24,361표, 오재영 2,519표, 윤보선 53,733표, 변영태가 2,110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 5) 제6대 대통령 선거 (1967. 5. 3 시행)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윤보선, 대중당의 서민호, 한국독립당의 전진한, 민중당의 김준연, 통한당의 오재영, 정의당의 이세진 등 7명이 입후보하였으나, 후에 서민호가 사퇴함으로써 6명이 경쟁하게 되었다. 선거결과는 박정희가 5,688,66표를 얻어 4,526,541표를 획득한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 때의 인천 을구는 75개의 투표구수에 131,440명의 선거인수와 104,718명의 투표자를 기록했고, 투표율 79.4%에 유효투표율이 95.4%였다. 그리고 을구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살펴보면 이세진 715표, 전진한 1,441표, 윤보선 54,734표, 김준연 1,407표, 박정희 40,021표, 오재영이 1,443표를 각각 획득했다.

### 6) 제7대 대통령선거 (1971. 4. 27 시행)

제7대 대통령선거는 3선개헌후 실시되었으며, 유권자 15,552,236명중 79.8%의 투표율을 보였고, 득표율 53.2%를 획득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7)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 12. 23 시행)

1972년 11월 2일의 국민투표의 형태를 빌려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동년 12월 23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유신헌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이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게끔 되어 있었다.

박정희후보가 단일 후보로 출마해서 대의원 2,359명 참석에,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인천지역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선거였다.

### 8) 제9대 대통령 선거 (1978. 7. 6 시행)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곽상훈 외 506명의 추천으로 박정희후보가 단일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재적의원 2,851명중 2,578명이 출석하여 박정희 후보가 2,577표를 획득하여 제9대 대통령이 되었다.

### 9) 제10대 대통령 선거(1979년 12월 6일 시행)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급서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곽상훈 외 827명의 추천에 의하여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출석대의원 2,549명이 투표한 결과 2,465표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10) 제11대 대통령 선거(1980. 8. 27 시행)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추천으로 단일후보인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11) 제12대 대통령 선거(1981. 2. 25 시행)

이 때의 대통령 선거는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었다. 제12대 대통령 후보자들로는 한국국민당의 김종철, 민권당의 김의택, 민주한국당의 유치송, 민정당의 전두환 등 4명이었다. 총 유권자수는 5,277명이었으며, 투표율 100%에 득표율 90.2%인 4,755표를 얻은 전두환후보가 임기 7년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12)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 12. 16 시행)

1987년 여·야가 공동발의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의에 의한 개헌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이는 동년 10월 2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1987년 12월 16일 실시되었는데, 투표율은 89.2%를 기록했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8,282,738표(36.6%)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는 6,337,581표(28%), 김대중 후보는 6,113,375표(23%),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가 1,823,067표(8.1%)를 획득했다.

이 선거에서는 인천 북구의 경우 투표구 수는 108개, 선거인 수는 393,911명, 투표자수는 343,400명(투표율 87.2%), 유효투표수는 337,932표(유효투표율 98.4%)를 각각 기록했다. 그리고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보면 노태우 123,747표(36.6%), 김영삼 97,838표(28.9%), 김대중 82,920표(24.5%), 김종필 33,004표(9.9%)로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 대통령 선거에 관한한 북구가 전국의 표본이 되었다.

### 13)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 12. 18 시행)

1992년 12월 18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5,34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되었다.

이 때의 투표상황을 살펴보면 선거인수 29,422,658명, 투표수 24,002,126표, 투표율 81.9%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유효표의 40%인 9,977,646표, 차점자인 민주당의 김대중후보는 유효표의 33.7%인 8,041,690표, 국민당의 정주영후보는 16.1%인 3,880,167를 각각 획득했다.[2]

인천북구 갑의 투표상황을 보면 선거인수 223,425명, 투표수 177,489표, 기권수 45,936명, 투표율 79.4%, 유효투표율 98.7%를 각각 기록했다.[3] 그리고 각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보면 김영삼 62,056표, 김대중 62,188표, 정주영 34,893표, 박찬종(신정당) 13,128표, 이병호(대한정의당) 237표, 김옥선(무소속) 613표, 백기완(무소속) 2,093표를 획득했다.

한편 북구 을의 경우는 선거인수 245,463명, 투표수 193,863표, 기권자수 51,600명, 투표율 79.0%, 유효투표율 98.6%를 각각 기록했다.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살펴보면 김영삼 64,329표, 김대중 70,436표, 정주영 38,744표, 박찬종 14,917표, 이병호 238표, 김옥선 698표, 백기완 1,867표를 얻었다.

## 2. 국회의원 선거[4]

### 1) 제헌국회의원 선거 (1948. 5. 10 시행)

1948년 2월 15일에 미군정 당국에서는 기존의 군정 최고 자문기관인 남조선 국민대표 민주의원을 해산하고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의원을 설치하여 제헌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동 선거법은 미 군정하에서 공포된 것이라 할지라도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우리 손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한국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선거에서 인천시 을구에서는 이성민(중도사퇴), 하상훈, 조봉암, 임홍재, 김석기 등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조봉암이 총 유효투표의 37.77%인 17,62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인천 을구의 입후보자별 득표상황은 〈표 2.1〉과 같다.

---

2) 『韓國年鑑』, 서울 : 韓國年鑑社, 1993, pp.109~110.
3) 仁川直轄市北區選擧管理委員會, 『選擧委員會史』, p.268.
4) 仁川直轄市北區選擧管理委員會, 『選擧委員會史』, pp.58~82 참조.

〈표 2.1〉 제헌국회의원 입후보자별 득표상황

| 성 명 | 연령 | 직 업 | 학력 및 경력 | 소속정당 | 득표수 |
|---|---|---|---|---|---|
| 이 성 민 | 31 | 회사 중역 | 중졸, 회사원 | 조선민족청년단 | 사퇴 |
| 하 상 훈 | 56 | 입법의원, 상공업 | 중졸, 인천시고문 | 무 소 속 | 4,394 |
| 조 봉 암 | 50 | 저술업 | 모스크바공산대학 | 〃 | 17,620 |
| 임 홍 재 | 48 | 신문사 사장 | 중졸, 인천시장 | 〃 | 8,806 |
| 김 석 기 | 50 | 회사 중역 | 중졸, 회사원 | 〃 | 15,827 |

###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50. 5. 30 시행)

2년간의 임기로 선출되었던 제헌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인천 병구에서는 국민당의 조봉암, 대한청년단의 김영일, 민국당의 이필상, 노총의 유경원, 무소속의 임홍재, 김석기, 이열헌, 최익환, 조윤수, 김태훈, 이종모, 김영배 등이 입후보하였으나, 조봉암이 총 유효투표수(32,970표)의 42.75%인 14,095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인천 병구의 국회의원 입후보자별 소속 및 득표수는 〈표 2.2〉와 같다.

〈표 2.2〉 입후보자의 소속 및 득표상황

| 성 명 | 연령 | 소속정당단체 | 득 표 수 |
|---|---|---|---|
| 조 봉 암 | 52 | 국 민 당 | 14,095 |
| 임 홍 재 | 50 | 무 소 속 | 4,248 |
| 김 석 기 | 52 | 무 소 속 | 6,481 |
| 김 영 배 | 53 | 기 권 | 2,732 |
| 김 영 일 | 32 | 한 청 | 2,732 |
| 이 필 상 | 45 | 민 국 당 | 1,146 |
| 이 열 헌 | 52 | 무 소 속 | 395 |
| 최 익 환 | 48 | 무 소 속 | 826 |
| 유 경 원 | 40 | 노 총 | 1,247 |
| 조 윤 수 | 39 | 무 소 속 | 855 |
| 김 태 훈 | 57 | 무 소 속 | 394 |
| 이 종 모 | 36 | 무 소 속 | 551 |
| 계 | | | 32,970 |

###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4. 5. 20 시행)

1952년 7월 4일 정치파동에 의한 발췌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7월 5일자로 공포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시 중이고 또 국내외의 정세로 인하여 참의원 구성을 보지 못한 채 1954년 5월 20일에 제3대 민의원 의원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인천 병구에서는 자유당의 표양문과 무소속의 김 훈, 두 명 만이 후보로 나서 경쟁하였으나 표양문이 총 유효투표수(32,414표)의 53.47%인 17,33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김 훈은 46.53%인 15,083표를 얻는데 그쳤다. 인천 병구의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소속과 득표상황은 〈표 2.3〉과 같다.

〈표 2.3〉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소속 및 득표상황

| 성 명 | 연령 | 학력 | 직 업 | 소속정당 | 득표수 |
|---|---|---|---|---|---|
| 표양문 | 47 | 소졸 | 전 인천시장 | 자 유 당 | 17,331 |
| 김 훈 | 44 | 대졸 | 전 경 찰 관 | 무 소 속 | 15,083 |

###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8. 5. 2 시행)

제3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의 일부 개정이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1958년 1월 25일에 법률 제470호로 민의원의원 선거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이 법에 의해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인천 병구에서는 김 훈과 김석기 등 두 명이 입후보하여 경쟁을 벌인 결과, 김 훈이 유효투표수(44,557표)의 64.93%인 28,932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인천 병구의 입후보자별 소속과 득표상황은 〈표 2.4〉와 같다.

〈표 2.4〉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소속 및 득표상황

| 성 명 | 연령 | 학력 | 직 업 | 소속정당 | 득표수 |
|---|---|---|---|---|---|
| 김 훈 | 48 | 대중퇴 | 무 직 | 민 주 당 | 28,392 |
| 김석기 | 60 | 상고졸 | 전 회사중역 | 자 유 당 | 15,625 |

###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 7. 29 시행)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선거였다.

먼저 민의원 의원의 경우 인천 병구에서는 조규동, 김 훈, 허 섭, 양재섭, 백창섭, 이성진, 조규희, 김진영, 심동기, 노재기 등 10명의 입후보가 난립하여 경쟁을 벌인 결과, 김 훈이 총 유효투표수(47,817표)의 50.37%인 24,086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입후보자별 소속과 득표상황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표 2.5〉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소속 및 득표상황

| | 성 명 | 연령 | 학 력 | 경 력 | 소속정당 | 득 표 수 |
|---|---|---|---|---|---|---|
| 1 | 조 규 동 | 42 | 동경 중대 졸 | 대학교수교수협회 총무간사 | 한국교수협회 | 8,249 |
| 2 | 김 훈 | 50 | 북경대학 4년 수료 | 민주당무위원 민의원 의원 | 민 주 당 | 24,086 |
| 3 | 허 섭 | 35 | 홍익대 졸 | 국제사회사업한국대표 | 무 소 속 | 2,092 |
| 4 | 양 재 범 | 43 | 경성직업학교 졸 | 인천시의원 | 무 소 속 | 1,720 |
| 5 | 백 창 섭 | 43 | | 중경임시정부국내 특파원 백의군정치사령관 | 무 소 속 | 468 |
| 6 | 이 성 진 | 54 | 수원농고 졸 | 동양척식기사 한국본부 총무부장 | 무 소 속 | 395 |
| 7 | 조 규 희 | 45 | 중앙대 2년 중퇴 | 사회대중당총무위원 | 사 회 대 중 당 | 4,179 |
| 8 | 김 진 영 | 27 | 단국대 3년 수료 | 한성일보편집국장, 육군대위 | 무 소 속 | 640 |
| 9 | 심 동 기 | 29 | 단국대 3년 중퇴 | 중학교 교사 | 무 소 속 | 4,325 |
| 10 | 노 재 기 | 29 | 부산고등학원 수료 | 언 론 인 | 자 유 당 | 1,663 |

중선거구로 실시된 참의원의 경우 인천은 경기도 선거구에 속했으며 1부에서 3명, 2부에서 3명 도합 6명의 참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참의원의원 경기도 선거결과는 1부에서 무소속의 여운홍(439,755표), 민주당의 성낙필(196,310표), 자유당의 신의제(179,313표)등이 당선되었으며, 2부에서는 민주당의 김용성(170,282표), 무소속의 이교선(162,734표), 자유당의 하상훈(146,783표) 등이 당선되었다.

###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1963. 11. 26 시행)

1961년 5월 16일의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헌정이 중단되고,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이 붕괴된 후, 이어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12월 17일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하였다. 기존의 내각책임제 통치구조를 대통령책임제로 환원하고, 정당정치가 강조되는 개정 헌법을 동년 12월 16일에 공포하였다.

당시 인천의 선거구는 경기 제1지역구와 제2지역구로 축소·조정되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제2지역구에서는 유권자 114,318명의 66.5%인 76,096명만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구의 입후보자는 허리복, 신응섭, 김 훈, 김은하, 백창섭, 김숙현 등 6명이었다. 이들 중 김은하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73,534표)의 33.53%인 24,658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표 2.6〉 참조).

〈표 2.6〉 제6대 국회의원입후보자 득표상황

| 정 당 명 | 성 명 | 연령 | 학 력 | 경 력 | 득표수 |
|---|---|---|---|---|---|
| 자유민주당 | 허 리 복 | 58 | 의사검정시험 합격 | 경기제2차지구당위원장 | 2,114 |
| 보 수 당 | 신 응 섭 | 37 | 경희대 법대 졸 | 강문중고교사, 고려중학교장 | 1,450 |
| 민 주 당 | 김 훈 | 54 | 북경대 2년 중퇴 | 제4,5대 민의원 | 17,179 |
| 민 정 당 | 김 은 하 | 40 | 동국대 정치과졸 | 시의원, 인천체육회장 | 24,658 |
| 정 민 회 | 백 창 섭 | 48 | 미상 | 임정내각부비서, 백의군정치사령관 | 2,043 |
| 민주공화당 | 김 숙 현 | 46 | 일본조도전대학 졸 | 단국대교수, 변호사 | 18,654 |

###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7. 6. 8 시행)

경기 제2지역구(인천시 을구)에서는 조남두, 김은하, 김숙현, 정 명, 김 훈 등 5명이 입후보하였다. 을구의 선거구 수는 75개, 선거인 수는 139,755명, 투표인 수는 96,811명(투표율 69.7%), 유효투표 수는 93,887표(유효투표율 96.9%)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김은하 후보가 41,438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인천 을구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소속과 득표상황은 〈표 2.7〉과 같다.

〈표 2.7〉 인천을구 국회의원 입후보자 득표상황

| 정당명 | 성 명 | 학 력 | 경 력 | 득표수 |
|---|---|---|---|---|
| 대 중 당 | 조남두 | 소졸 | ·국민당위원장, 국민친목회총본부회장 | 1,242 |
| 신 민 당 | 김은하 | 대졸 | 초대인천시의원, 제6대국회의원 | 41,483 |
| 민주공화당 | 김숙현 | 대졸 | 단국대학교이사장 겸 교수 | 41,127 |
| 한국독립당 | 정 명 | 대졸 | 동진화학연구소장, 한일부동산주식회사 | 1,044 |
| 민 주 당 | 김 훈 | 대졸 | 제4,5대국회의원 | 5,565 |
| 기 타 | | | | 3,426 |

###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1971. 5. 25 시행)

경기도 제3선거구에 속한 인천 병구(인천시 북구 전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민주공화당의 김숙현, 신민당의 신현정, 국민의 당의 김 훈 등 3명이었다. 병구의 투표상황을 보면 43개의 투표구 수에 선거인 수가 76,448명(부재자 수 2,017명 포함)이고 투표자 수는 54,187명으로 70.88%의 투표율(유효투표율 99.6%)이었으며, 무효표 713표, 기권자 수는 21,761명에 달했다. 투표 결과 김숙현 후보가 유효 투표의 62.21%인 33,579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신현정 후보가 18,512표, 김 훈 후보는 1,315표를 각각 획득했다.

###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3. 2. 27 시행)

법률 제2404호로 개정,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거 실시되었다. 중선구제의 실시로 인천시는 경기도 제1 선거구가 되고 2인을 선출하게 되어있었다. 선거 결과 유승원(민주공화당) 후보가 92,543표(38.9%), 김은하(신민당)후보가 100,694표(42.3%)를 각각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 10) 제10대 국회의원선거 (1978. 12. 12 시행)

인천에서의 입후보 상황은 유승원(민주공화당), 김은하(신민당), 한종수(통일당), 김숙현(무소속), 최락구(무소속) 후보 등 5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인천시의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총 선거인수 504,671명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368,294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선거 결과 유효투표수의 31.8%(115,506표)를 얻은 유승원 후보와 34.9%(126,683표)를 획득한 김은하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1981. 3. 25 시행)

제2선거구에서는 김숙현(민주정의당)후보가 유효투표수(209,232)의 39.9%인 83,584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되었고, 정정훈(민주한국당)후보는 유효투표수의 24%인 50,173표를 획득하여 2위로 당선되었다. 당선자들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표 2.8〉 제2선거구 국회의원당선자 인적사항

| 선거구명 | 소속정당 | 성 명 | 생년월일 | 본 적 | 직 업 | 학 력 | 경 력 | 비고 |
|---|---|---|---|---|---|---|---|---|
| 제2선거구<br>북 구<br>동 구 | 민주한국당 | 정정훈 | 1934.<br>11.15. | 경기 | 상업인 | 대학원졸 | 세한자동차 직업훈련소장,<br>부일교통 대표이사 | 초선 |
| | 민주정의당 | 김숙현 | 1917.<br>4.14. | 서울 | 변호사 | 대졸 | 제8대 국회의원,<br>대한변호사회 인권수호회 | 2선 |

###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1985. 2. 12 시행)

제2선거구에서는 김숙현(민주정의당), 이정대(한국국민당), 유제연(신한민주당), 정정훈(민주한국당) 등 7인이 입후보 하였다. 인천직할시 제2선거구에서는 총 선거인수(390,294명)의 79.7%인 310,924명이 투표하였으며 투표율은 98.3%, 유효투표수는 305,777표였다. 제2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상황은 〈표 2.9〉와 같다.

〈표 2.9〉 인천시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현황

| 선거구명 | 구별 | 투표구수 | 유권자수 | 투표수 | 투표내용 | | 기권자수 | 득표율 | 유효득표율 |
|---|---|---|---|---|---|---|---|---|---|
| | | | | | 유 효 | 무 효 | | | |
| 인천직할시 제2선거구 | 북구 | 87 | 298,614 | 235,075 | 231,320 | 3,755 | 63,539 | 78.7 | 98.2 |
| | 동구 | 47 | 91,680 | 75,848 | 74,457 | 1,391 | 15,832 | 82.2 | 98.4 |
| | 계 | 134 | 390,294 | 310,924 | 305,777 | 5,146 | 79,371 | 79.7 | 98.3 |

제2선거구에서는 유제연(신한민주당)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7.1%인 113,420표를 획득하였고, 김숙현(민주정의당)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3.5%인 102,396표를 획득하여 각각 1, 2위로 당선되었다. 각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제12대 국회의원 후보자별 득표현황

| 인천제2선거구 | 후보자별 / 구성별 | 김 숙 현 (민주정의당) | 이 정 대 (한국국민당) | 유 제 연 (신한민주당) | 정 정 훈 (민주한국당) | 계 |
|---|---|---|---|---|---|---|
| | 북 구 | 74,766 | 15,896 | 87,813 | 52,845 | 231,320 |
| | 동 구 | 27,630 | 6,211 | 25,607 | 15,009 | 74,457 |
| | 계 | 102,396 | 22,107 | 113,420 | 67,854 | 305,777 |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8. 4. 26 시행)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된 지 2개월 후인 동년 4월 26일에 시행되었다. 북구 갑에서의 투표율은 68.6%였으며, 유효투표의 35.1%인 38,252표를 획득한 정정훈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북구 을에서의 투표율은 65.9%였으며 유효투표의 32%인 30,389표를 획득한 이승윤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편 인천 서구에서의 투표율은 66.4%였으며, 유효투표의 32.5%인 21,812표를 획득한 조영장 후보가 당선되었다. 각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국회의원 후보자별 득표상황

| | | | | | | |
|---|---|---|---|---|---|---|
| 북구갑 | 정정훈 (통일민주당) 38,252 | 김용석 (평화민주당) 16,755 | 이정대 (신민주공화당) 17,382 | 하필승 (한겨레민주당) 3,052 | | |
| 북구을 | 이승윤 (민주정의당) 30,389 | 이병현 (통일민주당) 15,565 | 지영길 (평화민주당) 14,675 | 허 섭 (신민주공화당) 20,431 | 송경평 (민중의당) 13,911 | |
| 서구 | 조영장 (민주정의당) 21,812 | 유제연 (통일민주당) 16,932 | 오석보 (평화민주당) 11,916 | 김장환 (신민주공화당) 7,365 | 오순부 (한겨레민주당) 3,859 | 이훈국 (무 소 속) 5,984 |

###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 3. 24 시행)

1992년 3월 7일에 공고되어 24일에 시행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6공화국 출범 후 두 번째의 입법부 구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 선거는 제6공화국의 치적을 심판받고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온 야당의 입지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실시되었다. 인천의 북구 갑, 북구 을, 서구의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상황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 선거구명 | 유권자수 | 투표수 | 투표내용 | | 기권자수 | 득표율 |
|---|---|---|---|---|---|---|
| | | | 유효 | 무효 | | |
| 북구갑 | 224,072 | 150,965 | 149,126 | 1,839 | 73,107 | 67.4 |
| 북구을 | 227,012 | 146,751 | 144,682 | 2,069 | 80,261 | 64.7 |
| 서구 | 162,001 | 108,676 | 107,326 | 1,350 | 53,325 | 67.2 |
| 계 | 1,298,965 | 882,740 | 817,574 | 11,166 | 416,225 | 68.0 |

〈표 2.13〉 제14대 국회의원 후보자별 득표상황

| 선거구명 | 성명 | 추천정당명 | 득표수 | 비고 |
|---|---|---|---|---|
| 북구갑 | 정정훈 | 민주자유당 | 36,745 | |
| 〃 | 송선근 | 민주당 | 37,703 | |
| 〃 | 이정대 | 통일국민당 | 19,292 | |
| 〃 | 이수일 | 신정당 | 2,721 | |
| 〃 | 전희식 | 민중당 | 7,675 | |
| 〃 | 조진형 | 무소속 | 44,990 | 당선자 |
| 북구을 | 이승윤 | 민주자유당 | 49,455 | 당선자 |
| 〃 | 이병현 | 민주당 | 42,657 | |
| 〃 | 김숙현 | 통일국민당 | 31,271 | |
| 〃 | 송경평 | 민중당 | 21,299 | |
| 서구 | 조영장 | 민주자유당 | 33,384 | 당선자 |
| 〃 | 조철구 | 민주당 | 31,095 | |
| 〃 | 이현재 | 통일국민당 | 15,573 | |
| 〃 | 황선진 | 신정당 | 6,763 | |
| 〃 | 이기문 | 무소속 | 20,511 | |

북구 갑에서는 조진형(무소속) 후보가 유효투표(155,663표)의 30.2%인 44,990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고, 북구 을에서는 이승윤(민주자유당)후보가 유효투표(144,682표)의 34.2%인 44,990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서구에서는 조영장(민주자유당)후보가 유효투표(107,326표)의 31.1%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각후보자별 득표상황은 〈표 2.13〉과 같다.

## 3. 국민투표[5]

### 1) 제1차 국민투표 (1962. 12. 17 시행)

1961년 5월 16일의 군사혁명으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 종식 후의 민정이양에 대비하여 이듬해인 1962년 11월 15일에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였다. 이는 과거의 내각책임제 통치구조를 대통령책임제로 환원하고 정당정치를 강조하는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

인천 을구에서는 선거인수 88,036명에서 투표율 84%인 74,030인이 참가하였는데, 찬성 투표율은 80%로서 59,291표였다.

### 2) 제2차 국민투표 (1969. 10. 17 시행)

1969년 8월 9일에 공고된 3선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년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으나,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농성하므로 제3 별관에서 변칙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8일에는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제2차 국민투표 실시 결과를 인천에서의 개표구 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에서의 개표구는 동구, 중구, 남구, 북구로 분할되었는 바 총 투표인 수는 297,623인이었고, 이중 75.2%인 223,797인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찬성표 수는 123,506표(55.2%)를 나타내었다. 북구의 경우 38개투표구수에 투표인수 65,619명에다 투표수는 49,201표(부재자 표는 2,015표)였다. 이중 유효투표수의 내용을 보면 찬성 27,788표, 반대 19,263표가 되어 모두 합치면 48,051표에 달한다. 그리고 무효투표수는 1,150표, 기권표는 16,418표였다. 투표율 74.9%에 찬성투표율은 58.5%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3) 제3차 국민투표 (1972. 11. 21 시행)

제3차 국민투표는 1972년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이른 바 유신 헌법 개정안을 공고함과 더불어 동년 10월 23일에는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함으로써 실시한 것이다. 인천에서의 제3차 국민투표 개표구는 동구, 중구, 남구, 북구의 4개구였고, 투표구 수는 동구 47개소, 중구 32개소, 남구 58개소, 북구 51개소로 총 188개소였다. 북구의 투표 결과를 보면 총 투표인

5) 仁川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 『仁川市史』, 中卷, 1993, pp.84~90. 참조.

수는 76,472명(부재자 수가 2,439명)이었고, 이중 94.2%의 투표율을 보인 72,045명이 투표하였으며, 유효투표(71,950표)의 93.13%의 찬성률을 보인 67,008명이 찬성하였다. 찬성률면에서 보면 인천의 총평균(91.8%)보다 약 2%높은 비율이다.

### 4) 제4차 국민투표 (1975. 2. 12 시행)

제4차 국민투표는 1972년에 개정 공포된 유신헌법을 철폐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찬성투표이다. 인천 북구에서의 투표 결과를 보면 총 투표인수는 89,520인이었고, 이중 81.5%인 72,783명이 투표하여 찬성표는 73.5%인 53,467표였다.

### 5) 제5차 국민투표 (1980.10.22 시행)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 등 1979년 10월에서 1980년 8월까지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격변기였다. 1980년 9월 29일에 공고된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였는데, 이 개헌안에 대한 제5차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95.4%가 찬성하여 확정 되었다. 인천북구의 투표 상황을 보면 총 유권자수 94,957명 중 96.7%인 92,03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인 수는 93.0%인 85,589명이었다. 전국 찬성률 95.48%보다는 낮았지만 인천시 평균 찬성률(93.2%)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6) 제6차 국민투표 (1987. 10. 27 시행)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으로 경색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직선제로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9월 21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으며, 국회 의결을 거쳐 동년 10월 27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었다. 당시 민주화로의 환원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다. 1987년 10월 27일에 실시된 제6차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총 유권자 25,619,648인 가운데 78.2%인 20,028,672인이 투표에 참가하여 93.1%의 찬성율로 확정되었다.

인천에서의 6차 국민투표의 투표결과를 보면 총유권자 933,522인 중 71.5%가 참여하여 93.5%의 찬성율을 나타내었다. 북구에서는 총 유권자수 380,251명 중 83.7%인 263,888인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총 유효투표수(260,032표)의 93.7%의 찬성율인 247,353명이 찬성하였다. 이는 전국보다 인천의 찬성율이 약간 상회하는 비율이다.

## 4.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6]

### 1) 초대 대의원 선거 (1972. 12. 15 시행)

유신헌법 제35조에 근거를 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행하고 또 대통령을 선거하는 등의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원 기구다. 1972년 12월 15일에 실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낮았다. 인천에서의 의석수는 8개 선거구에서 37석이었고, 입후보자수는 65인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은 1.7대 1로 매우 낮았다. 북구의 경우 8석 정원에 18명이 입후보를 하였는데, 제1선거구에서는 정원 4명에 8명이 입후보하여 2: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제2선거구에서는 4명 정원에 10명이 입후보하여 2.5: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구 제1선거구에서는 총유권자수 38,256명중 66.1%인 25,036명이 참여하였고, 제2선거구에서는 총유권자수 37,184명중 74.8%인 27,824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의원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선거구별 주후보자들의 득표상황과 당선자를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인천시 북구 초대 대의원 후보자별 득표 상황

| | | | | | | |
|---|---|---|---|---|---|---|
| 북 구 제1선거구 | 〈윤 병 일〉 | 〈강 한 성〉 | 이 제 완 | 김 윤 원 | 이 기 현 | |
| | 3,732 | 5,849 | 1,404 | 2,096 | 2,116 | |
| | 〈한 천 길〉 | 〈차 병 락〉 | 김 영 준 | 계 | | |
| | 2,502 | 4,263 | 1,755 | 23,717 | | |
| 북 구 제2선거구 | 육 찬 승 | 〈고 승 곤〉 | 〈김 홍 규〉 | 〈장 진 호〉 | 곽 득 금 | 홍 순 준 |
| | 2,658 | 3,475 | 4,072 | 3,571 | 394 | 1,476 |
| | 박 광 수 | 〈심 홍 기〉 | 장 순 상 | 이 빈 경 | 계 | |
| | 1,901 | 4,655 | 3,364 | 1,869 | 27,375 | |

※〈 〉은 대의원 당선자

### 2) 제2대 대의원 선거 (1979. 5. 18 시행)

1979년 당시 인천의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구 수는 2개가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의원 정수 47에 입후보자는 79명으로 1.7대 1의 경쟁을 나타내었다. 북구 제1 선거구에서는

6) 仁川直轄市史編纂委員會, 『仁川市史』 中卷, 1993, pp.84~90 참조.

4명정수에 7명이 입후보하고, 제2 선거구에서는 4명 정수에 7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제3선 거구에서는 4명 정수에 11명이 입후보하여 총 1.83대 1의 경쟁을 나타내었다.

북구 제1 선거구에는 7명이 입후보하여 이 가운데 이익범이 등록 무효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6명이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2 선거구에는 7명이 입후보하였고, 제3 선거구에는 11인이 입후보하였다.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북구의 후보자와 득표상황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 인천의 제2대 대의원 후보자별 득표상황

| | | | | | |
|---|---|---|---|---|---|
| 북구 제1 선거구 | 박준성 | 〈성찬홍〉 | 〈고승곤〉 | 서정훈 | |
| | 3,598 | 5,070 | 4,737 | 3,413 | |
| | 〈장진호〉 | 〈장순상〉 | 이익범 | 계 | |
| | 4,754 | 9,851 | 등록무효 | 31,423 | |
| 북구 제2 선거구 | 윤병일 | 〈강한성〉 | 〈주봉건〉 | 이병현 | |
| | 3,818 | 4,613 | 4,541 | 2,522 | |
| | 〈차병락〉 | 〈한천길〉 | 김선태 | 계 | |
| | 5,771 | 4,032 | 3,063 | 28,306 | |

| | | | | | | |
|---|---|---|---|---|---|---|
| 북구 제3 선거구 | 〈송형순〉 | 신현돈 | 〈김홍규〉 | 박남수 | 최일선 | 양수전 |
| | 8,062 | 3,004 | 4,419 | 2,065 | 1,937 | 2,451 |
| | 〈심홍기〉 | 황영선 | 〈이병관〉 | 박자원 | 박영하 | 계 |
| | 4,727 | 936 | 5,576 | 사퇴 | 사퇴 | 33,177 |

※〈 〉안은 대의원 당선자

## 5.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1981. 2. 11 시행)

1980년 10월 22일에 시행된 제5차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행하도록 되었다. 그리하여 1981년 2월 11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가 시행되었다.

〈표 5.1〉 인천 북구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상황

| 위원회별 | 선거구별 | 투표구수 | 유권자수 | 투표수 | 투표내역 | | 기권자수 | 투표율 | 유효투표율 |
|---|---|---|---|---|---|---|---|---|---|
| | | | | | 유효 | 무효 | | | |
| 경기도 제2선거 위원회 (북구) | 제1선거구 | 7 | 24,058 | 16,758 | 16,533 | 225 | 7,300 | 69.6 | 98.7 |
| | 제2선거구 | 10 | 19,936 | 19,636 | 19,376 | 260 | 8,635 | 69.4 | 98.7 |
| | 제3선거구 | 9 | 32,421 | 22,294 | 21,942 | 352 | 10,127 | 68.7 | 98.4 |
| | 제4선거구 | 9 | 30,773 | 22,491 | 21,954 | 537 | 8,282 | 73.1 | 97.6 |
| | 제5선거구 | 7 | 25,124 | 무투표 | 무투표 | 무투표 | 무투표 | 무투표 | 무투표 |
| | 제6선거구 | 9 | 25,454 | 18,101 | 17,840 | 261 | 7,353 | 77.1 | 98.6 |
| | 제7선거구 | 10 | 28,845 | 20,957 | 20,710 | 247 | 7,888 | 72.1 | 98.8 |
| | 소계 | 68 | 194,946 | 120,237 | 118,355 | 1,882 | 49,585 | 70.8 | 98.4 |

제2 선거위원회(인천북구)의 경우 7개의 선거구가 있었으며, 선거인의 정수는 각 5명으로 35명이었으나 후보자 수는 56명이었다. 인천 북구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결과를 보면 총유권자(194,946명)의 70.8%인 120,237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이의 유휴투표율은 98.4%(118,355표)였다. 북구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상황은 〈표 5.1〉과 같다. 그리고 북구의 각 선거구에서 당선된 당선자 명단은 〈표 5.2〉와 같다.

〈표 5.2〉 북구 대통령선거인단 당선자

| 위원회별 | 선거구별 | 당 선 자 명 |
|---|---|---|
| 북 구 | 제1선거구 | 김지일, 김영남, 김용구, 이윤환, 황기연 |
| | 제2선거구 | 조진형, 이윤문, 권상철, 한천길, 이 석 |
| | 제3선거구 | 이영종, 송낙재, 백용섭, 서일모, 이 철 |
| | 제4선거구 | 김한복, 김재윤, 추영원, 김종봉, 이홍규 |
| | 제5선거구 | 성종선, 고윤석, 연규룡, 이병규, 김종근 |
| | 제6선거구 | 송진길, 김장수, 이우상, 박영하, 이홍경 |
| | 제7선거구 | 김민태, 이효섭, 박기양, 배춘명, 권오철 |

## 6.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7]

### 1) 자치단체장 선거

#### (1) 제1대 부윤(府尹) 선거

미군정하에서 인천의 군정관 스틸맨(Stillman)은 미국식 민주주의 방법에 의한 시장 선거를 위해 몇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①관선 정회장제(町會長制)를 폐지하였고, ②애국반을 통하여 정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③이들 민선 정회장들의 연합회를 조직하도록 하였고, ④정회장 연합회에서 부윤 후보자 7명을 추천하도록 한바 공천된 7명은 우익계 3명(장관순, 김세완, 임홍재)과 좌익계 4명(조봉암, 박남칠, 이승엽, 김용규)이었다. 기명투표 결과 임홍재가 선출되어 1945년 9월 미군정장관의 인준을 거쳐 제1대 인천부윤으로 선임되었다.

#### (2) 제2대 부윤

제1대 부윤 임홍재는 사회과장의 구호물자 부정처분 문제로 인해 1947년 1월에 인책 사임하였다. 그러므로 동년 2월에 표양문(당시 인천해항청장)후보를 제2대 부윤으로 선출하였다.

7) 仁川直轄市史編纂委員會, 『仁川市史』 中卷, 1993, pp.106~115 참조.

(3) 제1대 시장선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여 1952년 5월 7일 표양문을 제1대 시장으로 선출하였다.

(4) 제2대 시장선거

표양문 시장의 사임으로 제2대 인천시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소집된 제11회 인천시 의회에서는 5명의 입후보자(허섭, 사준, 조승환, 최병환, 김정렬)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정렬이 제2대 인천시장에 선출되었다.

(5) 제3대 시장 선거

1958년 2월 5일에 실시된 인천시장의 직접선거에는 국민회의 김정렬 후보만이 단일 후보자가 되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6) 제4대 시장 선거(1960. 12. 26 시행)

새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60년 12월 26일에 제4대 시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진두 후보가 총 유효투표(87,984표)의 36.7%인 32,305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그런데 1960년의 제4대 인천시장 선거를 끝으로 1994년에 이르기까지 민선 시장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 2) 지방의회 의원 선거

(1) 부고문회(府顧問會) 고문선거(顧問選擧) (1948. 1. 7 시행)

일제하의 부협의회와 부회 그리고 군정하의 부고문회 등은 부윤의 자문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성격을 갖는 기구다. 그런데 부고문회에서 선임된 제2대 부윤 표양문은 부행정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1948년 인천부 고시 제1호로 인천부고문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인천부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고문수는 모두 25명으로서 본청 관내에서 17명, 부평에서 3명, 주안에서 2명, 문학에서 2명, 남동에서 1명, 서곶에서 1명 등이다. 부평에서 선출된 고문은 심원응, 곽동헌, 이영석이며, 서곶은 심덕기 였다.

(2) 제1대 인천시 의회 의원 선거(1952. 4. 25 시행)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1952년 4월 25일에 시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 의해 당선된 28명의 의원들은 1952년 5월 5일에 제1회 시의회를 소집하여

초대 의장에 이명호, 부의장에 하상훈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바 그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일, 위원은 김호철, 김영길, 이문영, 이인규, 정은용, 김재홍, 윤재선, 고영원, 이성재 등이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권정석. 위원은 이후규, 임성호, 오혁근, 구필서, 김진성, 심덕기 등이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주원기, 위원은 김은하, 최정환, 정달용, 이증설, 이민, 황장원, 이용구 등이다.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오혁근위원은 김호철, 구필서, 김은하, 최정환, 이민, 정은용 등이다.

(3) 제2대 인천시의회 의원 선거(1956. 8. 8 시행)

개정 지방자치법과 경기도 규칙에 의거하여 1956년 8월 8일에 실시된 제2대 지방의원 선거에서 22명의 시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동년 8월 22일에 소집된 본회의에서 의장에 심덕기, 부의장에 차태열을 선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구, 위원은 추옥진, 김준식, 이창석, 김여생, 노태용, 김용기 등이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규, 위원은 노윤호, 심현구, 정창수, 정치환, 김진갑, 최삼룡(김의원사망으로 인한 보선) 등이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장석연, 위원은 김관철, 양재범, 권금천, 김국환, 윤건용 등이며,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 이창석, 위원은 김준식, 김기룡, 윤건용, 윤호규 등이다.

(4) 제3대 시의회 의원 선거(1960. 12. 19 시행)

자유당에 의한 1958년 12월 26일에 공포된 3차 개정의 지방자치법은 4·19로 빛을 보지 못하고 1960년 11월 1일에 새 지방자치법(법률 제563호)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 19일에 제3대 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선자는 차태열, 장석연, 백범기, 심현구, 추옥진, 권태기, 김용기, 김혁환, 송병기, 박의순, 최원섭, 권혁환, 한재수, 권금천, 김동현, 최준서, 장석희, 윤호규, 이기범, 문규욱, 김일남, 노태용 등 22명이다.

(5) 제4대 시의회 의원 선거(1991. 6. 20 시행)

1991년 6월 1일 대통령 공고 제114호로 동년 6월 20일에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1961년의 5·16군사혁명 이후, 그리고 1981년 인천직할시 승격 이후 처음있는 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북구갑의 경우 제1선거구의 선거인수는 57,063명에 투표수가 31,087표이고 기권수는 25,976명이었다. 이 구의 후보자들로는 이윤환, 진영광(민주자유당) 정희식이 겨룬 결과 이윤환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제2 선거구의 선거인수는 43,318명이고 투표수는 22,977표이며 기권자는 20,341명이었다. 후보들로는 두홍률(민주자유당), 서광석(무소속), 이종식(무소속), 차병락(무소속), 최용규(무소속) 등 5인이 경합하여 최용규가 당선되었다. 제3 선거구의 선거인수는

54,491명이고 투표수는 26,829표이며 기권자는 27,662명이었다. 여기서는 한승언(민주자유당), 김용석(신민당), 김상범(무소속)이 경쟁한 결과 한승언이 당선되었다. 제 4선거구는 선거인수 46,905명에 투표수는 24,070표이고 기권자는 22,835명이었다. 이 구의 후보자는 이희구(민주자유당), 한종술(신민당), 김헌경(무소속)으로 이중 이희구가 당선되었다.

북구 을의 경우를 보면 제5 선거구의 선거인수 51,550명에 투표수는 26,766표이며 기권자는 24,784명이었다. 이 구의 후보로는 장순상(민주자유당), 박경수(신민당) 등 2명 만이 경쟁하여 장순상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6 선거구는 선거인수 42,846명이며 투표수는 25,659표이고 기권자는 17,187명이었다. 후보로는 이완규(민주자유당), 노재철(무소속), 문병호(무소속), 박형우(무소속) 등으로 이완규가 당선되었다. 제7 선거구의 경우 선거인수 70,506명에 투표수는 35,207표, 그리고 기권자는 35,299명이었다. 이 구의 후보로는 안승택(민주자유당), 김성정(민주당), 박준규(무소속), 홍종원 중에서 김성정이 당선되었다. 제8 선거구에서는 선거인수 61,945명, 투표인수 33,617명이었다. 이익진(민주자유당), 이한면(민주당), 오영규(무소속), 이기본(무소속) 후보 중에서 이기본이 당선의 영예를 누렸다.

서구의 경우 제1 선거구는 선거인수 40,705명에 투표수가 20,939표이고, 기권자는 19,766명이었다. 박장원(민주자유당), 백석두(신민당), 민우홍(무소속) 후보중 박장원이 당선되었다. 제2선거구는 선거인수 61,471명에 투표수가 28,638표이며, 기권자는 32,838명이었다. 이 구의 후보자들로는 권중광(민주자유당), 김종률(민중당), 조희형(무소속) 등이며 이 중 당선자는 권중광이었다.

제3선거구는 선거인수 52,262명이고 투표수는 28,595표이며 기권자는 23,667명이었다. 이영호(민주자유당), 손기선(민주당), 박기양(무소속)등 3명이 겨룬 결과 손기선이 당선되었다.

## 7. 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부평구협의회는 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지역회의〉국전에 의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구(區)단위 지역협의회다. 1981년 3월 14일 법률 제3384호로 공포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은 1988년 2월 17일 법률 제4000호로 개정되었고, 법에 명시된 직능 그리고 구정을 통해 통일자문의의 성격을 알 수 있다.

(1) 직능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

(2) 구 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 직능 단체, 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층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부평구협의회에 소속된 통일자문위원은 총 69명이며, 조직구성을 보면 회장 1인, 부회장 4인, 간사 1인으로 되어 있고, 보건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3) 주요활동 내용

1996년도 부평구협의회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일에 대비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간화합 창출에 주력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통일후계세대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한다.

③ 주민의 화합과 사회안정을 통한 굳거한 통일기반을 구축한다.

④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창출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건의한다.

위와같은 운영계획은 월별사업추진을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되었다. 2월중에는 통일정세보고회가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주관으로 실시되고, 3월에는 북부소방서의 소방행정 보고와 보건분과위원회의 남북한주민 보건실상 비교토론회를 갖었다. 5월과 9월에는 통일문제세미나를 통해 통일환경의 점검 및 통일교육방향 정립에 관한 논의를 하고, 6월과 7월에는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북한 지역사회개발실상 비교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정립하는데 강연과 세미나를 가졌다. 8월에는 부평구관내 동별 순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벌렸다. 10월에는 협의회 홍보활동 및 통일후계세대 육성방안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북한 교육실상비교토론회를 갖았다.

11월에는 통일자문위원 부인과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한 1일 통일연수원을 개설 통일심포지움을 갖었다.

세미나, 웍크샵, 지역사회봉사가 주요활동이되고 있는 통일자문회의 사업은 지역주민의 통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봉사는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지급, 모범공무원포상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 임원진 명단

회장 : 김용구 부회장 : 강부일, 박태근, 안영기, 이연기

간사 : 고진섭

# 第 4 章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 1. 인천직할시 북구 갑 선거관리위원회[8]

### 1) 연 혁

본 위원회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함에 따라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되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당시에는 경기도 제2 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던 중 1968년 1월 1일, 인천시 구제의 실시로 1969년 인천시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그 후 선거구의 조정으로 1971년에 경기도 제3 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1973년에는 경기도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가 다시 1981년에 경기도 제2 선거구관리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 다시 북구 갑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북구 을 선거관리위원회 신설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관할구역의 변경도 불가피하였다. 청사 변천 상황을 개관하건대 인천시 북구청 총무과로 이전되었다가 그 후 1975년에 북구, 청사의 증축관계로 1975년에 다시 인천시 제2공보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가 증축이 완료됨에 따라 북구청사 3층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본 위원회의 주요업무인 선거관리 상황을 보면 대통령 선거는 제7대부터 관리하여 8회, 국회의원 선거는 제8대 때부터 시작해서 7회, 국민투표 4회,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회, 대통령선거인단 선거관리 1회를 각각 관리하였다. 그리고 1982년에는 위원회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위원회 연혁 및 중요일지, 위원 및 공무원 이동상황, 각 종 선거 및 정당사무 관리 상황 등을 수록 작성한 위원회사를 발간하였다.

### 2) 위원회 변천 상황

1968년 1월 1일 인천시구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법정동 또는 행정동 단위로 선거구역을 획정하였던 관계로 현 인천시 북구 관할 구역의 각 동이 선거구제로 분할 조정되어 위원회 명칭 변경에 정확을 기할 수 없었으나 현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표 1.1〉과 같다.

---

8) 仁川直轄市北區選擧管理委員會, 『選擧委員會史』, 1982, p.13.

〈표 1.1〉 선거위원회 변천 상황

| 명 칭 | 변경일 | 관할구역 | 동수 | 투표구수 | 법 적 근 거 | 비 고 |
|---|---|---|---|---|---|---|
| 인천시 을구 선거위원회 | 1948. 3.17. | 인천시 일부와 부평지청관내 | 25 | | 미군정법령제175호 | |
| 경기도 제2 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1963. 1.16. | 인천시일부 | 59 |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25호 | |
|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 위원회 | 1969. 9.18. | 인천시북구 | 22 | 38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062호 | 1971년에 투표구 수 5곳 증설 |
| 경기도 제3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 1971. 1.26. | 인 천 시 북 구 | 22 | 51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5495호 | |
| 경기도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1973. 1.20. | 인천시북구 | 22 | 64 |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 법률 제2445호 | 1980년에 투표구수 4곳 증가 |
| 경기도 제2 선거구관리 위원회 | 1981. 2.26. | 북구<br>동구 | 22<br>25 | 68<br>47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208호 | |
| 인천직할시 제2 선거 관리위원회 | 1982. 7.15. | 〃 | 〃 | 〃 | | |
| 인천직할시 제2 선거 관리위원회 | 1984. 7. 25. | 북구<br>동구 | 26<br>12 | 87<br>47 | 국회의원선거법개정 법률 제3731호 및 선거 관리위원회법시행령 대 통령령 제11498호 | |
| 인천직할시 북구 선거 관리위원회 | 1987. 11. 17. | 북구<br>동구 | 22<br>15 | 68<br>47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 제3938호 | |
| 인천직할시 북구 갑 선 거관리위원회 | 1988. 3. 17. | 인천시북구 일원 | 11 | 40 | 선관위법시행규칙 개정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제65호 | |

출처 : 인천직할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회사』, 1982, pp.151~153.

### 3) 위원장 이·취임 상황

본회가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오늘의 인천시 북구 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이·취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김 철 수 | 1969. 9.20~1971. 1.25 | 1920.10.21 | 사범학교 졸업 | 부평남국교교장 |

(2) 경기도 제3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주 재 우 | 1971. 3.15~1972.10.20 | 1937. 4. 3 | 대 졸 | 인천지원 판사 |
| 2 대 | 이 영 신 | 1972.10.26~1973. 1. 3 | 1994. 2.26 | 대 졸 | 영신의원장 |

(3) 경기도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이 영 신 | 1973. 1.29~1975. 1.27 | 1924. 2.26 | 대 졸 | 영 신 의 원 장 |
| 2대 | 김 석 기 | 1975. 1.28~1978. 2.11 | 1988.12.25 | 고 졸 | 라이온스클럽 부 총 재 |
| 3대 | 임 완 규 | 1978. 2.20~1978.10.24 | 1945. 7. 7 | 대 학 원 졸 | 인 천 지 원 판 사 |
| 4대 | 조 중 한 | 1978.10.26~1980. 9.19 | 1948. 9.10 | 대 졸 | 인 천 지 원 판 사 |
| 5대 | 최 형 기 | 1980. 9.22~1981. 2.25 | 1944.11.19 | 대 졸 | 인 천 지 원 판 사 |

(4) 경기도 제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천직할시 제2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최 형 기 | 1981. 3. 4~1981.12.10 | 1944.11.19 | 대 졸 | 인 천 지 원 판 사 |
| 2대 | 권 남 혁 | 1981.12.19~1982.10.22 | 1949. 6.10 | 대 졸 | 인 천 지 원 판 사 |
| 3대 | 임 순 명 | 1982.10.22~1983. 9.16 | 1961. 1.20 | 대 졸 | 인 천 지 원 판 사 |
| 4대 | 유 지 담 | 1983. 9.16~1984. 8.27 | 1941. 5. 3 | 대 학 원 졸 | 인 천 지 원 판 사 |
| 5대 | 유 지 담 | 1984. 9.21~1985. 9.23 | 1941. 5. 3 | 대 학 원 졸 | |
| 6대 | 김 효 종 | 1985. 9.23~1986. 5. 9 | 1943. 1.17 | 대 학 원 졸 |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장 판 사 |
| 7대 | 차 광 웅 | 1986. 5. 9~1988. 3.17 | 1945. 1.24 | 대 졸 | 〃 |

(5) 인천직할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임 창 원 | 1987. 9. 8~1989. 3. 3 | 1945. 3.13 | 대 학 원 졸 | 인천지원부장판사 |

(6) 인천직할시 북구 갑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임 창 원 | 1988. 3.17~1989. 3. 3 | 1945. 3.13 | 대 학 원 졸 | 법 관 |
| 2대 | 김 정 남 | 1989. 3. 4~1990. 9.24 | 1943. 1. 1 | 〃 | 〃 |
| 3대 | 성 기 창 | 1990. 9.25~1992. 2.26 | 1946. 2.20 | 〃 | 〃 |
| 4대 | 김 영 기 | 1992. 2.27~1993. 3.25 | 1947. 4.26 | 〃 | 〃 |
| 5대 | 한 정 덕 | 1993. 3.25~1994. 3.22 | 1947.10.17 | 〃 | 〃 |
| 6대 | 장 용 국 | 1994. 3.22~1994.11월 현재 | 1953. 2.13 | 〃 | 〃 |

### 4) 역대부위원장 취임상황

(1)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구 연 영 | 1969. 9.18~1071. 1.25 | 1915. 8.18 | 사 범 졸 | 산곡국민학교교장 |

(2) 경기도 제3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이 영 신 | 1971. 3.16~1972.10.25 | 1924. 2.26 | 대 졸 | 영 신 의 원 장 |
| 2대 | 노 창 환 | 1972.10.26~1973. 1.19 | 1916. 6.15 | 대 졸 | 부평동중학교교장 |

(3) 경기도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노 창 환 | 1973. 1.29~1978. 1.29 | 1916. 3.15 | 대 졸 | 인 천 여 고 교 장 |
| 2대 | 우 상 근 | 1978. 2.20~1978.11.24 | 1918. 1.19 | 고 졸 | 회 사 대 표 |
| 3대 | 김 상 일 | 1978.11.24~1980.11.25 | 1935.10.22 | 대 졸 | 미 육 군 병 원 근 무 |

(4) 인천직할시 북구 갑 선거관리위원회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
| 초대 | 김 상 일 | 1988. 3.17~1989.10.30 | 1935.10.22 | 대 졸 | 미 육 군 병 원 근 무 |
| 2대 | 윤 희 선 | 1989.10.30~1994. 4. 4 | 1932. 3. 5 | 대 학 원 졸 | 의 사 |

### 5) 일반위원 이·취임 상황

#### (1)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안 경 환 | 1936. 2.17 | 대 졸 | 약 업 | 1969. 9.18~1971. 1.25 | 일 반 |
| 김 문 봉 | 1923. 4.19 | 〃 | 〃 | 〃 | 공 화 당 |
| 한 금 섭 | 1933. 1.17 | 〃 | 상 업 | 〃 | 〃 |
| 우 상 근 | 1918. 1.19 | 고 졸 | 회 사 대 표 | 1969. 9.18~1970. 1.12 | 〃 |
| 정 윤 구 | 1922. 3. 1 | 국 졸 | 무 | 1969.10.17~1971. 1.25 | 신 민 당 |
| 여 운 하 | 1909.11.30 | 고 졸 | 공 업 | 〃 | 〃 |
| 이 인 식 | 1935. 9.25 | 대 졸 | 운 수 업 | 〃 | 〃 |
| 김 상 일 | 1935.10.22 | 대 졸 | 미군병원근무 | 1970. 1.12~1971. 1.25 | 공 화 당 |

#### (2) 경기도 제3 지역 선거구관리위원회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안 경 환 | 1936. 2.17 | 대 졸 | 약 업 | 1971. 1.26~1973. 1.19 | |
| 한 금 섭 | 1933. 1.17 | 대 졸 | 상 업 | 1971. 1.26~1972.10.24 | 공 화 당 |
| 김 상 일 | 1935.10.22 | 대 졸 | 미육군병원근무 | 1971. 1.26~1972.10.24 | 공 화 당 |
| 김 용 철 | 1919. 9. 7 | 중 졸 | 시 장 | 1971. 1.26~1972.10.24 | 공 화 당 |
| 이 인 식 | 1935. 9.25 | 대 졸 | 운 수 업 | 1971. 3.27~1972.10.24 | 신 민 당 |
| 김 권 무 | 1917. 9.22 | 중 졸 | 농 업 | 1871. 7.27~1972.10.24 | 〃 |
| 김 연 식 | 1919.11.25 | 중 졸 | 회 사 원 | 1971. 7.27~1972.5.18 | 〃 |
| 김 창 규 | 1935. 2.10 | 대 졸 | 상 업 | 1971. 2.22~1971. 3. 5 | 〃 |
| 김 창 호 | 1926. 3. 6 | 고 졸 | 상 업 | 1971. 5.18~1972.10.24 | 〃 |
| 윤 중 균 | 1915. 3.20 | 고 졸 | 사 장 | 1972.10.24~1973. 1.19 | |
| 김 상 일 | 1965.10.22 | 대 졸 | 미육군병원근무 | 1972.10.24~1973. 1.19 | |
| 김 용 철 | 1919. 9. 7 | 중 졸 | 사 장 | 〃 | |
| 강 한 우 | 1922.12.26 | 중 졸 | 사 장 | 〃 | |
| 전 갑 룡 | 1914. 1.26 | 중 절 | 상 업 | 〃 | |
| 황 정 수 | 1921. 2.16 | 대 졸 | 사 장 | 〃 | |

(3) 경기도 인천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안 경 환 | 1936. 2.17 | 대 졸 | 약 업 | 1973. 1.29~1978. 1.29 | |
| 김 용 철 | 1919. 9. 7 | 중 졸 | 회 사 원 | 〃 | |
| 전 갑 룡 | 1914. 1.26 | 중 졸 | 상 업 | 〃 | |
| 황 정 수 | 1921. 2.16 | 고 졸 | 사 장 | 〃 | |
| 강 한 우 | 1922.12.26 | 중 졸 | 회 사 원 | 〃 | |
| 김 용 철 | 1919. 9. 7 | 중 졸 | 사 장 | 1978. 1.29~1981. 2.25 | |
| 황 정 수 | 1921. 2.16 | 고 졸 | 〃 | 〃 | |
| 김 기 석 | 1937.11.22 | 대학원졸 | 〃 | 〃 | |
| 김 진 일 | 1933. 7. 5 | 대 졸 | 〃 | 〃 | |
| 김 상 일 | 1935.10.22 | 〃 | 미육군병원근무 | 〃 | |
| 김 문 봉 | 1923. 4.19 | 〃 | 약 업 | 〃 | |

(4) 경기도 제2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김 상 일 | 1935.10.22 | 대 졸 | 미육군병원근무 | 1981. 3.14~1984. 8.26 | |
| 김 문 봉 | 1923. 4.19 | 〃 | 약 업 | 〃 | |
| 김 진 일 | 1933. 7. 5 | 〃 | 회 사 대 표 | 〃 | |
| 김 기 석 | 1937.11.22 | 대학원수료 | 〃 | 〃 | |
| 박 재 휘 | 1929. 4.28 | 〃 | 부평고등학교 교장 | 1981. 3. 4~1983.12. 2 | |
| 성 우 근 | 1929. 4.28 | 고 졸 | 사 법 서 사 | 1981. 3. 4~1984. 2.26 | |
| 지 석 태 | 1921. 1.15 | 대 졸 | 부평서여중교 장 | 〃 | |
| 송 재 두 | 1937.12.26 | 대학원수료 | 상 업 | 〃 | |

(5) 인천직할시 제2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김 상 일 | 1935.10.22 | 대 졸 | 미육군병원근무 | 1981. 3.14~1984. 8.26 | |
| 김 문 봉 | 1923. 4.19 | 〃 | 약 국 경 영 | 〃 | |
| 이 건 명 | 1921. 1.15 | 대학원졸 | 교 장 | 〃 | |
| 김 진 일 | 1933. 7. 5 | 대 졸 | 회 사 사 장 | 1984. 8.27~1985. 2. 8 | |
| 김 기 석 | 1937.11.12 | 대학원졸 | 〃 | 1984. 8.27~1988. 3.16 | |
| 윤 도 선 | 1932. 3. 5 | 〃 | 병 원 장 | 〃 | |
| 유 석 종 | 1927.12.20 | 대 졸 | 상호신용금고 사 장 | 〃 | |
| 김 영 갑 | 1930. 1.17 | 대 졸 | 대우자동차 신용조합 | 〃 | |
| 최 정 길 | 1941. 7.16 | 대 졸 | 병 원 장 | 〃 | |

(6) 인천직할시 북구갑 선거관리위원회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 직업 | 위촉 | 해촉 |
|---|---|---|---|---|---|
| 김문봉 | 23. 4.19 | 대졸 | 약사 | 84. 8.27 | ? |
| 이건명 | 34. 8.15 | 대학원졸 | 교육공무원 | 84. 8.27 | ? |
| 윤도선 | 32. 3. 5 | 〃 | 의사 | 84.10.10 | 89. 10. 9 |
| 최정길 | 41. 7.16 | 대졸 | 의사 | 85. 2. 8 | ? |
| 이준식 | 35. 9.15 | 대퇴 | 무 | 87.11.17 | 92.11.16 |
| 김영갑 | 30. 1.17 | 대졸 | 회사원 | 87.11.25 | ? |
| 정준호 | 46.10.24 | 대퇴 | 회사대표 | 87.12.14 | ? |
| 이복란 | 47. 7. 9 | 대학원졸 | 인쇄업 | 89. 7.10 | 91. 3. 7 |
| 주영태 | 32. 4. 7 | 대졸 | 교육공무원 | 89. 9.19 | 91. 5.28 |
| 이인범 | 37. 6.27 | 〃 | 한의사 | 89. 9.19 | |
| 윤운 | 44.11. 5 | 〃 | 약사 | 89. 9.19 | |
| 김영갑 | 30. 1.17 | 〃 | 회사원 | 91. 1.30 | 92.11.14 |
| 서동수 | 44. 2.25 | 〃 | 약사 | 91. 3.12 | 92.12. 1 |
| 채홍덕 | 28. 7. 1 | 〃 | 교육공무원 | 91. 5.28 | 92.11.14 |
| 송영일 | 33. 9. 2 | 〃 | 교육공무원 | 92.11.14 | 94. 3.22 |
| 이준구 | 47. 2.28 | 〃 | 한의사 | 92.11.14 | |
| 우상준 | 46. 5.20 | 〃 | 축산업 | 92.11.14 | 93. 3.25 |
| 이준식 | 45. 9.15 | 〃 | 상업 | 92.11.20 | |
| 김성수 | 49.10. 9 | 대학원졸 | 약사 | 92.12. 1 | |
| 황기환 | 56.11. 4 | 대졸 | 변호사 | 94. 3.22 | |
| 이윤량 | 36. 1.15 | 〃 | 교육공무원 | 94. 4. 4 | |

6) 대통령 선거관리

| 역대 | 공고일 | 선거일 | 투표구명 | 후보자수 | 당선자 | 소속정당 | 비고 |
|---|---|---|---|---|---|---|---|
| 제5대 | 1963. 9. 5 | 1963.10.15 | 인천시을구 | 5명 | 박정희 | 민주공화당 | |
| 제6대 | 1967. 3.24 | 1967. 5. 3 | 〃 | 6명 | 〃 | 〃 | |
| 제7대 | 1971. 3.23 | 1971. 4.27 | 인천시북구 | 5명 | 〃 | 〃 | |
| 제8대 | 1972.12.18 | 1972.12.23 | 경기도제3지역 선관위 | 1명 | 〃 | 〃 | 단일후보 |
| 제9대 | 1978. 7. 1 | 1978. 7. 8 | 북구선관위 | 1명 | 〃 | 〃 | 〃 |
| 제10대 | 1979.12. 1 | 1979.12.16 | 〃 | 1명 | 최규하 | | 〃 |
| 제11대 | 1980. 8. | 1980. 8.27 | 〃 | 1명 | 전두환 | | 〃 |

| 역 대 | 공 고 일 | 선 거 일 | 투 표 구 명 | 후보자수 | 당선자 | 소속정당 | 비 고 |
|---|---|---|---|---|---|---|---|
| 제12대 | 1981. 1.24 | 1981. 1.25 | 경기도제1선거관리위원회 | 4명 | 〃 | 민주정의당 | |
| 제13대 | 1982.11.16 | 1987. 1.16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5명 | 노 태 우 | 〃 | |
| 제14대 | 1992.11.20 | 1992.12.18 | 북 구 갑 선 관 위 | 7명 | 김 영 삼 | 민주자유당 | |

출처 : 인천직할시 북구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사』, 1982, pp.259~268.

### 7) 국회의원 선거관리

| 역 대 | 선 거 일 | 선 거 구 명 | 당 선 자 | 소속정당명 | 의원정수 | 후보자수 | 비 고 |
|---|---|---|---|---|---|---|---|
| 제헌국회 | 1948. 5.10 | 인 천 시 을 구 | 조 봉 암 | 무 소 속 | 1명 | 5명 | |
| 제2대 | 1950. 5.30 | 〃 | 곽 상 훈 | 〃 | 〃 | 7명 | |
| 〃 | 1950. 5.30 | 인 천 시 병 구 | 조 봉 암 | 국 민 당 | 〃 | 12명 | |
| 제3대 | 1954. 5.20 | 인 천 시 을 구 | 곽 상 훈 | 무 소 속 | 〃 | 4명 | |
| 〃 | 〃 | 인 천 시 병 구 | 표 양 문 | 자 유 당 | 〃 | 2명 | |
| 제4대 | 1958. 5. 2 | 인 천 시 을 구 | 곽 상 훈 | 민 주 당 | 〃 | | |
| 〃 | 1958. 5. 2 | 인 천 시 병 구 | 김 훈 | 자 유 당 | 〃 | | |
| 제5대 | 1960. 7.29 | 인 천 시 을 구 | 곽 상 훈 | 민 주 당 | 〃 | 3명 | |
| 〃 | 1960. 7.29 | 인 천 시 병 구 | 김 훈 | 〃 | 〃 | 10명 | |
| 제6대 | 1963.11.26 | 경기제2지역선거구 | 김 은 하 | 민 정 당 | 〃 | 6명 | |
| 제7대 | 1967. 6. 8 | 〃 | 김 은 하 | 신 민 당 | 〃 | 5명 | |
| 제8대 | 1971. 5.26 | 경 기 제 3 지 역 구 | 김 숙 현 | 민 주 공 화 당 | 〃 | 3명 | |
| 제9대 | 1973. 2.27 | 경 기 제 1 선 거 구 | 유 승 원<br>김 은 하 | 신민주공화당<br>신 민 당 | 2명 | 4명 | |
| 제10대 | 1978.12.12 | 경 기 제 1 선 거 구 | 유 승 원<br>김 은 하 | 신민주공화당<br>신 민 당 | 〃 | 5명 | |
| 제11대 | 1981. 3.25 | 경 기 제 2 선 거 구 | 김 숙 현<br>정 정 후 | 민 주 공 화 당<br>민 주 한 국 당 | 〃 | 9명 | |
| 제12대 | 1985. 2.12 | 인 천 직 할 시<br>제 2 선 거 구 | 김 숙 현<br>유 제 연 | 민 주 정 의 당<br>신 한 민 주 당 | 〃 | 4명 | |
| 제13대 | 1988. 4.26 | 인 천 시 북 구 갑 | 정 정 훈 | 통 일 민 주 당 | 1명 | 5명 | |
| 제14대 | 1992. 3.24 | 〃 | 조 진 형 | 무 소 속 | 〃 | 6명 | |

출처 : 인천직할시 북구 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회사』, 1982, pp.267~286.

# 2. 인천직할시 북구 을 선거관리위원회

## 1) 연혁

인천직할시 을 선거관리위원회는 1988년 갑구에서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므로 그역사는 매우 일천하다고 하겠다. 선거관리라야 고작 제14대 대통령선거와 제13, 14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인천직할시 의회의원선거관리에 불과할 뿐이다.

## 2) 위원장 이·취임상황

### (1) 역대위원장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직업 | 역대 | 성 명 | 재 임 기 간 | 생년월일 | 직업 |
|---|---|---|---|---|---|---|---|---|---|
| 초대 | 석호철 | 88. 3.24~89. 9.19 | 56. 5.15 | 판사 | 4대 | 송영천 | 91. 5. 7~93. 3.25 | 57.12. 2 | 판사 |
| 2대 | 김경종 | 89. 9.19~90. 3.23 | 54.11.18 | 〃 | 5대 | 홍일표 | 93. 3.25~94. 3.22 | 56. 2.11 | 〃 |
| 3대 | 윤우지 | 90. 3.23~91. 5. 7 | 53. 2.22 | 〃 | 6대 | 이상철 | 94. 3.22~ | 58. 1.22 | 〃 |

### (2) 위원명단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위 촉 일 | 선정구분 | 비 고 |
|---|---|---|---|---|---|---|
| 위 원 장 | 이 상 철 | 58. 1.12 | 판 사 | 94. 3.22 | 일 반 | |
| 부위원장 | 양 정 모 | 48. 2.19 | 약 사 | 91. 3.12 | 일 반 | |
| 위 원 | 김 인 수 | 32. 2.27 | 상 업 | 91. 1.30 | 민 자 당 | |
| 〃 | 고 정 섭 | 59.12. 9 | 변 호 사 | 91.11.29 | 〃 | |
| 〃 | 이 민 제 | 29.10.29 | 국 교 장 | 92. 2.14 | 〃 | |
| 〃 | 이 규 진 | 46. 6.20 | 상 업 | 94. 4. 4 | 〃 | |
| 〃 | 양 점 석 | 54. 5.10 | 건 설 업 | 94. 4. 4 | 〃 | |
| 〃 | 김 중 기 | 34. 1. 3 | 상 업 | 94. 5.30 | 민 주 당 | |

### (3) 제14대 대통령선거 관리

| 구 분 | 계 | 후보자명 | 득표합계 | 비 고 |
|---|---|---|---|---|
| 선 거 인 수 | 245,463 | 김 영 삼 | 64,329 | |
| 투 표 수 | 193,868 | 김 대 중 | 70,436 | |
| 무 효 투 표 수 | 2,634 | 정 주 영 | 38,744 | |
| 기 권 수 | 51,600 | 박 찬 종 | 14,917 | |
| 투 표 율 (%) | 79.0 | 이 병 호 | 238 | |
| 유 효 투 표 율 | 98.6 | 김 옥 선 | 698 | |
| | | 백 기 완 | 1,867 | |

(4) 국회의원 선거관리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3,14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2회에 걸쳐 실시했을 뿐이다. 제13대의 선거상황을 보면 선거인수 145,665(2,134)명, 투표수 95,984표, 무효투표수 1,013표, 기권자 수 49,681명, 그리고 유효투표율 65.9%를 기록했다. 총 5명이 입후보하여 자웅을 겨룬 결과 이승윤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한 제14대의 경우 선거상황을 보면 선거인수 227,012명, 투표수 146,751표, 무효투표수 2,065표, 기권자수 80,261명, 투표율 64.6%, 유효투표율 98.6%를 각각 기록했다. 총 4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벌인 결과 이승윤 후보가 제13대에 이어 계속 당선되었으며 양대 선거 당선자의 주요상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국회의원 당선자 주요사항

| 역 대 | 선 거 일 | 당선자 | 소속정당 | 학 력 | 경 력 |
|---|---|---|---|---|---|
| 제13대 | 1988. 4.26 | 이승윤 | 민주정의당 | 대학원졸 | 재무부장관,<br>제9,10대 국회의원 |
| 제14대 | 1992. 3.24 | 이승윤 | 민주자유당 | 〃 | 재무부장관,<br>제9,10,13대 국회의원 |

출처 : 인천직할시 북구 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회사』, 1988.

(5) 북구 의회의원 선거관리(1991.3.26)

북구 의회의원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선거구명 | 성 명 | 직 업 | 학 력 | 경 력 |
|---|---|---|---|---|
| 산 곡 1 동 | 서 상 대 | 상 업 | 한 양 고 졸 | 동정자문위원장 |
| 〃 | 명 윤 식 | 상 업 | 동 양 의 대<br>한 방 과 수 료 | 산곡 1동 새마을금고이사장 |
| 산 곡 2 동 | 최 용 남 | 약 사 | 중 앙 대 약 대 졸 | 인천지검선도위원, 산곡남중육성회장 |
| 〃 | 김 종 봉 | 선산식품<br>대 표 | 인 하 대<br>행 정 대 학 원 | 마을금고이사장, 동정자문위원장 |
| 청 천 1 동 | 임 성 호 | 조 경 업 | 인천기계공고졸 | 인천다방조합이사, 동정자문위원 |
| 〃 | 조 극 상 | 상 업 | 서 산 농 고 졸 | 동새마을협의회장 |
| 청 천 2 동 | 윤 재 웅 | 건 축 업 | 목 포 고 졸 | 새마을금고감사, 방범자문위원 |
| 효 성 1 동 | 백 용 현 | 청운전자<br>대 표 | 연 세 대 농 업<br>개 발 원 수 료 | 효성 1동 청년회부회장 |
| 〃 | 이 강 익 | 제 조 업 | 선 인 중 졸 | 효서국교육성회장 |
| 효 성 2 동 | 이 상 만 | 서비스업 | 성 광 고 졸 | 새마을지도자 인천시협의회장 |

| 선거구명 | 성 명 | 직 업 | 학 력 | 경 력 |
|---|---|---|---|---|
| 계 산 1 동 | 정 왕 섭 | 농 업 | 선 린 상 고 졸 | 새마을지도자 계산동협의회장 |
| 〃 | 김 규 문 | 회 사 원 | 경기대행정대학원 | 사회문화센터연구위원 |
| 계 산 2 동 | 심 수 월 | 사 업 | 단 양 고 졸 | 대우전자영업부장 |
| 〃 | 이 종 민 | 축 산 업 | 인하대경영대학원 | 계산 2동 정자문위원 |
| 작 전 1 동 | 김 용 현 | 중앙상가대표 | 동 산 고 졸 | 민자당동협의회장 |
| 〃 | 이 건 용 | 부동산임대업 | 강 릉 농 고 졸 |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
| 작 전 2 동 | 문 창 원 | 계량증명업소 | 동 양 농 고 졸 | 민정당 북구 을 부위원장 |
| 〃 | 이 노 경 | 금 융 업 | 송 도 고 졸 | 작전국교육성회장 |
| 서 운 동 | 김 인 배 | 농 업 | 인 천 고 등 기 술 학 교 수 료 | 민정당동지도장,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
| 갈 산 동 | 이 재 권 | 삼 성 엔 지 니 어 링 대 표 | 방 송 대 경 영 학 과 졸 | 방송대 전국학생회 부회장 |
| 〃 | 김 갑 준 | 상 업 | 예 산 농 고 졸 | 동자문위원장 |
| 계 양 동 | 이 현 우 | 농 업 | 동 양 한 의 원 학 원 수 료 | 한간강농지개량조합대의원, 동자문위원 |
| 〃 | 권 효 택 | 상 업 | 동 산 고 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방범자문위원장 |

(6) 인천직할시 의회의원 입후보자 현황

| 선거구명 | 소속정당명 | 성 명 | 직 업 | 학 력 | 경 력 | 비고 |
|---|---|---|---|---|---|---|
| 제5 | 민주자유당 | 장순상 | 신 일 상 호 신용금고회장 | 인하대경영 대학원수료 | 인천시 북구청 행정자문위원장, 민자당 북구 을 수석위원장 | 당선 |
| | 신 민 당 | 박경수 | 정 당 인 | 대 졸 | 지구당부위원장 | |
| 제6 | 민주자유당 | 이완규 | 사 업 | 한양대행정 학 과 졸 | 인천지구 청년회의소회장, 인천 부평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장 | 당선 |
| | 무 소 속 | 노재철 | 청 천 공 업 협 동 조 합 장 | 합천농고졸 | 북구 청천동장 | |
| | 〃 | 문병호 | 변 호 사 | 서 울 대 법 대 졸 | 인천지방 변호사회위원, 시민법률상담소장 | |
| | 〃 | 박형우 | 건 설 업 | 전 문 대 졸 | 우진토건대표 | |
| 제7 | 민주자유당 | 안승택 | 의 사 | 카톨릭의과 대 학 졸 |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청년회고문 | |

| 선거구명 | 소속정당명 | 성 명 | 직 업 | 학 력 | 경 력 | 비고 |
|---|---|---|---|---|---|---|
| 제7 | 민 주 당 | 김성정 | 현우상사대표 | 인하대경영대학원수료 | 민주당 북구 을 지구당부위원장 | 당선 |
| | 무 소 속 | 박준규 | 외국어학원장 | 대 학 원 졸 | 계양산 보존회회장 | |
| | | 홍종원 | 상 업 | 명지대행정학 과 중 퇴 |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
| 제8 | 민주자유당 | 이익진 | 운 수 업 | 인하대경영대학원수료 | 인천시청 도시계획국장, 현대교통회장 | |
| | 민 주 당 | 이한면 | 열원건설대표 | 필라델피아전 문 대 졸 | 민주당 북구 을 지구당부위원장 | |
| | 무 소 속 | 오영규 | 건 축 업 | 인천대숙졸 | 신민주공화당 중앙위원 | |
| | | 이기본 | 사 업 | 인하대경영대학원수료 | 삼산·갈산동동정자문위원장, 영신건업대표 | 당선 |

# 第4篇　行　　政



# 第1章 행정구역(行政區域) 및 행정기구(行政機構)의 변천(變遷)

## 1. 행정구역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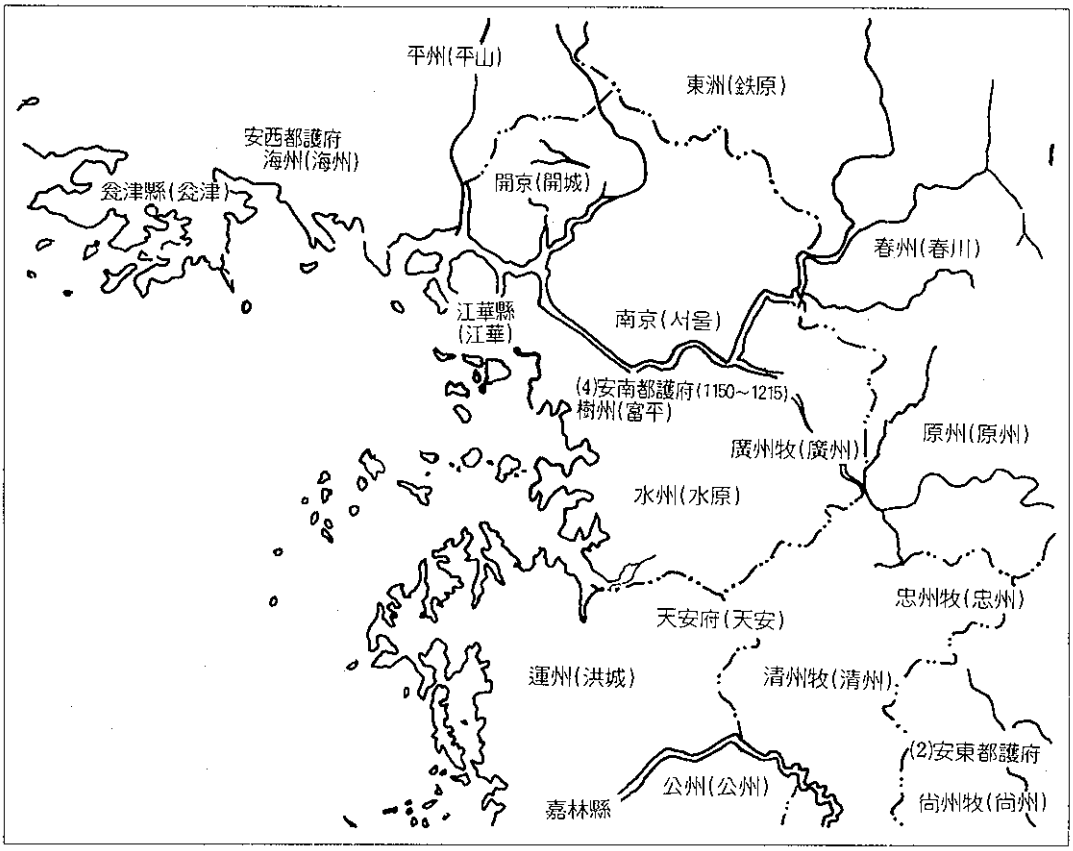
### 1) 안남(安南),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시대

부평의 명칭은 주부토(主夫吐), 장제(長堤), 수주(樹州), 안남(安南), 계양(桂陽), 길주(吉州), 부평(富平) 등으로 변경되어 왔다.[1] 즉 고구려 장수왕(長壽王) 58년(475년)부터 281년까지 주부토군(主夫吐郡)이라 하였고,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景德王) 16년(756년)부터 262년 동안(1018년까지) 한주(漢州) 소속의 장제군(長堤郡)으로 변경되었다. 당시의 장제군은 무성현(戊城縣), 김포현(金浦縣), 동성현(童城縣), 통진현(通津縣) 등을 관할하였다.[2]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태조(太祖) 23년(940년)에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장제군(長堤郡)만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18년만에 수주(樹州)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위가 격상되었다.[3]

그후 1150년(顯宗 4년)에는 수주(樹州)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두었는 바 그 속현은 금주현(衿州縣), 동성현(童城縣), 통진현(通津縣), 공암현(孔岩縣), 김포현(金浦縣) 등이였다. 당시 수주(樹州) 주변의 행정관할도를 보면 다음의 〈도 1〉과 같다.[4]

---

1) 富平府邑誌, 郡名條 및 國史編纂委員會, 『輿地圖書上』, 韓國史料叢書 二十, 서울, 探究堂, 1973, p.69.
2) 조찬석, 「富平地域의 行政區域 變遷과 各洞의 由來」『기전문화연구』 제21집,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92, p.207.
3) 당시 주(州)는 현(縣)의 중간기관이였으며 수주(樹州)는 군성현(郡城縣)(현 인천)을 관할하였다.
4) 진단학회, 『한국사』, 중세편, 서울:을유문화사, 1961, p.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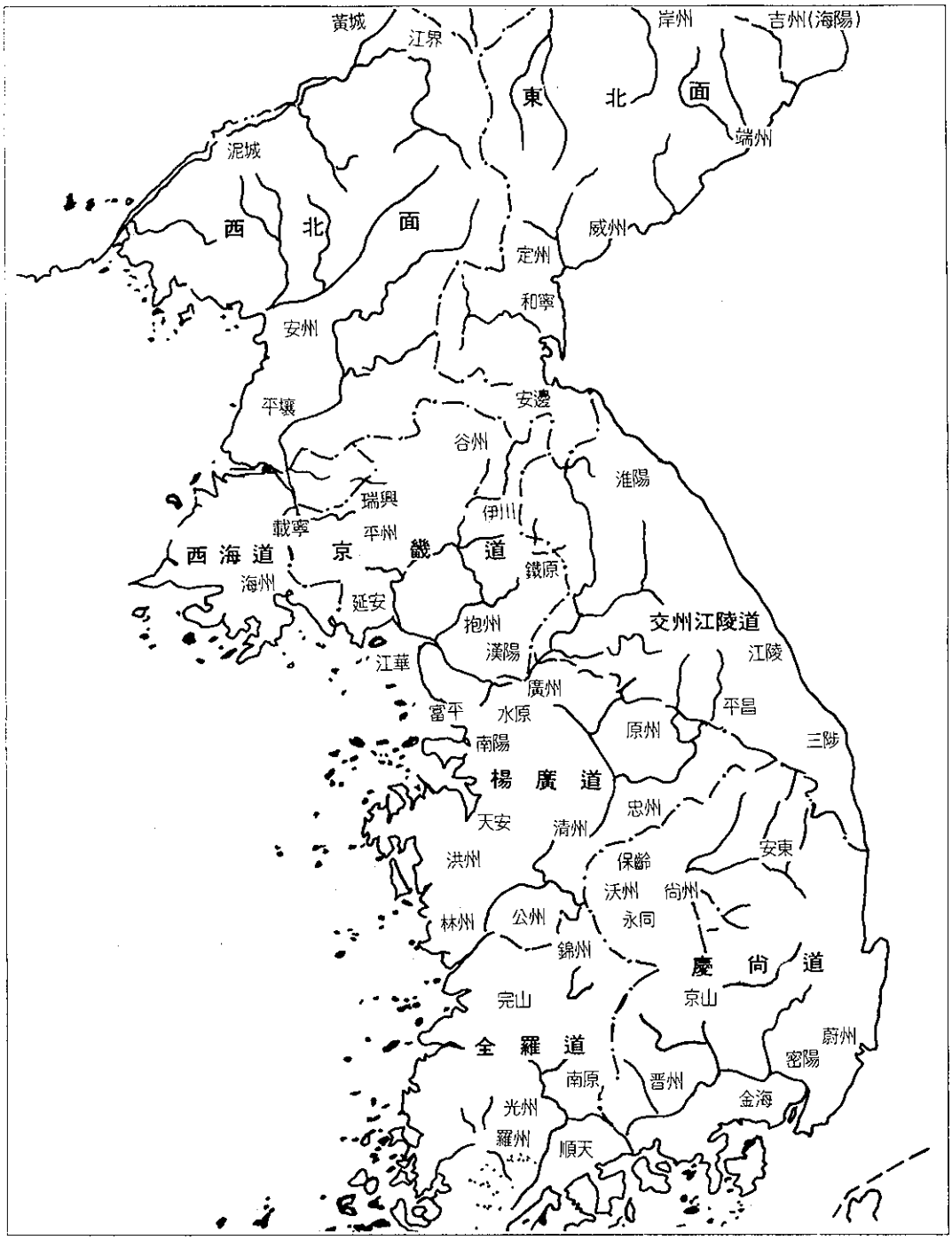

〈도 1〉 수주(樹州) 주변의 행정구역도

그후 1215년(高宗 2年)에는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개칭하였고, 1308년(忠列王 34년)에는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되었으나 1310년에 처음으로 부평부(富平府)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평부(富平府)의 관할이였던 금주현(衿州縣)(시흥), 수안현(守安縣), 동성현(童城縣) 등이 분리되기도 하였으나, 고려시대의 부평은 동(東)으로는 한양(漢陽)과 광주(廣州), 서(西)로는 강화(江華), 남(南)으로는 수원(水原)과 남양(南陽), 북(北)으로는 개경(開京)과 접하는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려말의 전국 행정구역을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5]

5) 옹진군지편찬위원회, 『옹진군지(甕津郡誌)』, 1989, p.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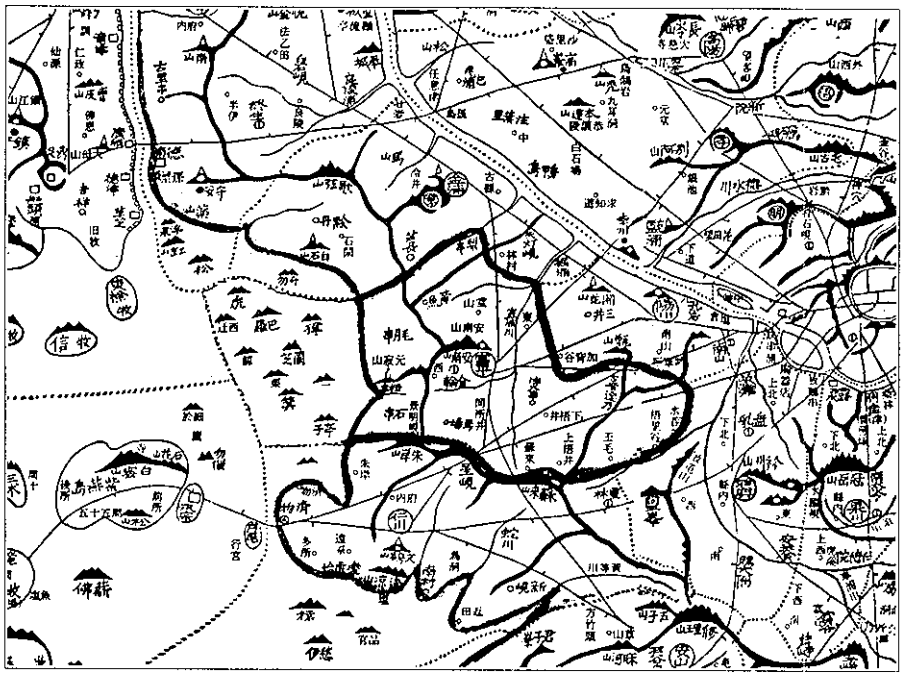



〈도 2〉 려말(麗末)의 행정구역

## 2)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시대

1413년(朝鮮 太宗 13년)에는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가 되었다. 당시 조선의 행정제도는 도제(道制)와 그 밑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8도(道)는 경기(京畿), 충청(忠淸), 경상(慶尙), 전라(全羅), 황해(黃海), 강원(江原), 함경(咸鏡), 평안도(平安道) 등인데, 이는 고려시대의 5도(道) 양계제(兩界制)에서 발전된 것이다.[6] 그리고 이때의 경기도는 목(牧), 8도호부(都護府), 10군(郡), 12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8도호부 가운데에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와 인천도호부가 포함되어 있었다.[7]

당시 부평도호부의 관할 구역은 고려시대보다는 축소되어 동으로는 금주현계(衿州縣界)에 이르는 34리, 서로는 대해(大海)에 이르는 14리, 남으로는 안산군계(安山郡界)에 이르는 48리와 인천부계(仁川府界)에 이르는 15리, 북으로는 김포현계(金浦縣界)에 이르는 17리와 통진현계(通津縣界)에 이르는 36리, 그리고 경도(京都)까지의 55리에 해당하는 구역을 관할하고 있었는 바[8] 이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도 3〉과 같다.[9]



6) 김보현(金甫炫)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법문사, 1973, p.141.
7) 내무부, 『지방행정구역발전사』, 서울:휘문인쇄주식회사, 1979, pp.67~72.
8) 고전간행회, 신증(新增),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서울:동국문화사, 1958, p.155.
8)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당시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의 행정구역은 모두 15개면에 84개리로 구성되어 있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10]

〈표 1〉 부평도호부 관할 행정구역

| 면 명 | 리 · 동 명 | 호수 |
|---|---|---|
| 부 내 면 | 상동, 하동 | 257 |
| 동 면 | 임학동, 방축리, 용종리, 병방리, 박촌리 | 154 |
| 당 산 면 | 동양리(당미), 굴현리(굴재), 상야리(위벌말), 하야리(아래벌말), 평리 | 273 |
| 주화곶면 | 내촌, 오강리, 오곡리, 대장리 | 141 |
| 상오정면 | 오정리, 도당리, 삼정리, 약대리, 내촌 | 173 |
| 하오정면 | 작리(까치울), 원종리(먼마우), 고리동(고리울), 여월리 | 243 |
| 수 탄 면 | 천왕리, 고척리, 개봉리, 오류리, 궁리, 온수리 | 179 |
| 왕 산 면 | 범박리, 항리, 소사리, 괴안리, 조종리, 벌지절리, 표절리 | 184 |
| 석 천 면 | 상리, 구지리, 중리, 심곡리 | 176 |
| 동소정면 | 대정리, 마분리, 항리, 구산리 | 173 |
| 서 면 | 가현리(가루계), 신대리(새터), 화전리(된밭), 갈월리, 후정리(뒤우물), 도두리(도두머리), 작전리(까치우물) | 290 |
| 마 장 면 | 효성리(새벼리), 청천리(맑은내), 산곡리(뫼골말) | 109 |
| 석 곶 면 | 가좌리, 번작리, 고기리, 포리(갯말), 가정리, 율도리(밤섬말), 신현리(새오개) | 290 |
| 모월곶면 | 공촌리, 과곡리, 연희리, 고기리, 검암리, 여천리, 백석리, 난지도, 청라도, 세어도, 장구도, 응도 | 352 |
| 황 어 면 | 둑실리(둑실), 목상리, 역리(역골), 갈산리(칡메), 오류리(오류골), 이화촌(배꽃이), 노오지리(눌미), 선주지리(선주지), 장기리(장터) | 157 |
| 15개면 | 84개리 | 3,021호 |

### 3) 부평군(富平郡) 시대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인 8도제는 1883년의 개항이후에도 적용되었었다. 그러나 1895년 1월 7일 고종(高宗)은 지방관제(地方官制)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홍범 14조(洪範 14條)를 경고(警告)하고 동년 5월 26일 제령(制令) 제98호를 반포(頒布)하여 행정구역의 일대 개편을 단

10)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 방리조(坊里條) 및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富川市史)』, 부천:경인일보사, 1988, p.108.

행하였다. 즉 1413년 이후 480여년간 적용되던 8도제를 폐지하고 새로 23부제를 도입하여 종래의 목(牧), 군(郡), 현(縣) 등을 일괄하여 군(郡)으로 통일하는 동시에 각 부(府)에는 관찰사(觀察使)를 두며 각 군(郡)에는 군수(郡守)를 두는 직제를 내용으로 하였다.

이와같은 23부제의 특징은 과거의 대지역주의(大地域主義)로 부터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를 취하므로써 근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구역체계(區域體系)를 확립하여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행정관리의 부정, 부패를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1895년 당시의 전국 행정구역 수는 모두 23부, 236군으로 조직되었는데, 23부는 ①한성부(漢城府), ②인천부(仁川府), ③충주부(忠州府), ④홍성부(洪城府), ⑤공주부(公州府), ⑥전주부(全州府), ⑦남원부(南原府), ⑧나주부(羅州府), ⑨제주부(濟州府), ⑩진주부(晋州府), ⑪동래부(東萊府), ⑫대구부(大邱府), ⑬안동부(安東府), ⑭강릉부(江陵府), ⑮춘천부(春川府), ⑯개성부(開城府), ⑰해주부(海州府), ⑱평양부(平壤府), ⑲의주부(義州府), ⑳강계부(江界府), ㉑함흥부(咸興府), ㉒갑산부(甲山府), ㉓경성부(鏡城府) 등이었다. 이 가운데 그리고 인천부(仁川府)에는 ①인천군(仁川郡), ②김포군(金浦郡), ③부평군(富平郡), ④양천군(陽川郡), ⑤시흥군(始興郡), ⑥안산군(安山郡), ⑦과천군(果川郡), ⑧수원군(水原郡), ⑨남양군(南陽郡), ⑩강화군(江華郡), ⑪통진군(通津郡), ⑫교동군(喬洞郡) 등 12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컨대 부평군(富平郡)은 단지 인천부(仁川府)에 소속되었을 뿐 그 관할 구역은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때와 같았다.

그러나 이 23부제는 외관상 획일적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보였지만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에 입각한 지나친 지역분할이였기 때문에 행정 운영상의 곤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8도제를 무시한 인위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1년 2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실시되었다.

1896년 8월 4일내는 「지방제도 개정」(칙령 제35호) 및 「지방제도 관제, 봉급, 경비 개정」(칙령 제36호)의 건(件)을 반포하여 23부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13도제를 실시하게 되었다.[11]

요컨대 1896년의 이 13도제의 특징은 첫째, 종래의 8도제에 기초한 것으로 경기(京畿), 강원(江原), 황해(黃海)의 3개도를 제외한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慶尙), 평안(平安), 함경(咸鏡) 등 5개도를 남북 양개도(兩個道)로 분할한 것이며, 둘째 도(道)의 관할 밑에 두는 지방행정조직은 부(府), 목(牧), 군(郡)으로 나누었다.

당시 전국 각 지방의 행정조직은 13도, 8부, 1목 331군이었다. 따라서 부평군(富平郡)의 행

11) 『고종실록(高宗實錄)』 건양 3년 8월 4일.

정조직은 경기도(京畿道)의 소속군으로 편경되었으나, 그 관할 구역은 과거의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시대의 관할 구역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구역제도 시행후 10년이 경과된 1906년에는 부평군(富平郡)의 관할구역이었던 주화곶면(注火串面), 하오정면(下吾丁面), 수탄면(水呑面), 석곶면(石串面) 등은 인구가 급증하여 31개의 동리가 새로 생겨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12]

〈표 2〉 부평군의 변경 동·리 (1906년)

| 구분 / 면명 | 신설 및 변경된 동·리명 | 증감수 |
|---|---|---|
| 당 산 면 | 상야리, 하야리, 평리가 야리로 변경 | △2 |
| 주화곶면 | 화교리(꽃다리), 사수거리(죽은나무거리), 외오쇠리(바깥오쇠), 석교리(돌다리) | 4 |
| 하오정면 | 점촌(점말), 신촌(새말), 간촌(샘말), 언염리, 수성리, 신능리(새터말) | 6 |
| 수 탄 면 | 부평촌, 호동, 덕의리, 조갈목리, 구리내, 금반리, 방축내, 갈탄리(가을여울), 백사리(자절리), 삭세리, 주은리, 사동(절골), 유동(버들리) | 13 |
| 석 곶 면 | 한적동(한자고개), 상촌(웃말), 하촌(아랫마을), 행화리(산고지), 감동사리(감동절리), 능내리(능안말), 소리(자근말), 대리(큰말), 칠정리(옷우물), 굴내리 | 10 |
| 5개면 | | 31 |

### 4) 부천군(富川郡) 시대

1910년의 한일합병(韓日合併) 당시에도 그간에 있어서의 부(府), 군(郡)의 부분적인 변경으로 13도, 12부, 317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3] 그러나 일제(日帝)는 총독부(總督府)의 발족과 동시에 지방행정구역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즉 1910년 9월 30일자의 「조선총독부관제」(칙령 제354호)와 함께 「조선총독부지방관제」(칙령 제357호)를 공포(公布)하여 도관찰사(道觀察使)를 도장관(道長官)으로 개칭하고, 각 도에 내무부와 재무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도의 하부행정조직으로 부, 군, 면을 두며 면장(面長)은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하였다.[14]

그리고 이 칙령은 도와 부, 군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에 대해서도 이를 총독(總督)이 정하도

12) 조찬석, 전게서, p.212.
13) 내무부, 전게서, p.92.
14) 상게서, p.94.

록 위임하므로써 동년 10월 1일에는 「도의 위치와 관할구역」(부령(府令) 제6호) 및 「부·군의 명칭과 관할구역」(부령(府令) 제7호)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부평군(富平郡)의 행정구역은 종래의 구역을 재확인하는 정도 였다.[15]

그런데 1913년 10월 30일에 공포된 부제(府制), 제령(制令) 제78호에 의하여 1914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전국 부, 군, 면의 행정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을 단행하게 되었다. 당시의 행정구역 정리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6]

① 부(府)는 부제(府制)를 실시할 수 있는 최소 한도로 그 구역을 축소한다.

② 군(郡)은 면적이 약 40방리(方里)로 하며, 호수는 10,000호를 한도로 하되 이에 미달되는 군은 인접군에 병합한다.

③ 면(面)은 그 면적이 약 4방리(方里)로 하며 호수는 약 800호를 최소 기준으로 하되 이에 미달된 곳은 인접면과 합병한다 등이었다.

이와같은 기준에 의하여 전국의 행정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道)는 13道로 전과 동일하였고,

② 부(府)는 12府로 전과 동일하였으며,

③ 군(郡)은 317개 군에서 97개 군이 감소되어 220개군이 되었고,

④ 면(面)은 4,322개 면에서 1,804개 면이 줄어들어 2,518개 면이 되었으며,

⑤ 리(里)는 28,181개 리가 되었다.

이와같은 행정구역 정리에 따라 1913년 12월 29일에 제정, 공포된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府郡) 명칭, 위치, 관할구역」(부령(府令) 제111호)에 의하여 종래까지 방대하였던 인천부(仁川府)의 관할구역은 개항장(인천 부내면(府內面) 전역과 다소면(多所面) 일부 지역으로 그 면적은 6,056㎢ 정도) 만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인천부(仁川府) 관할이었던 나머지 면(面)들은 모두 종래의 부평군(富平郡) 관할이었던 면들과 병합되어 새로이 명명된 부천군(富川郡)에 속하게 되었다.

이 때에 명명된 부천군(富川郡)은 부평(富平)의 「富」와 仁川의 「川」자를 따서 새로 형성된 것으로서[17] 이 부천군(富川郡)의 관할인 행정구역의 면수는 15개 면인 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

15) 상게서, pp.94~95.

16) 조찬석, 전게서, p.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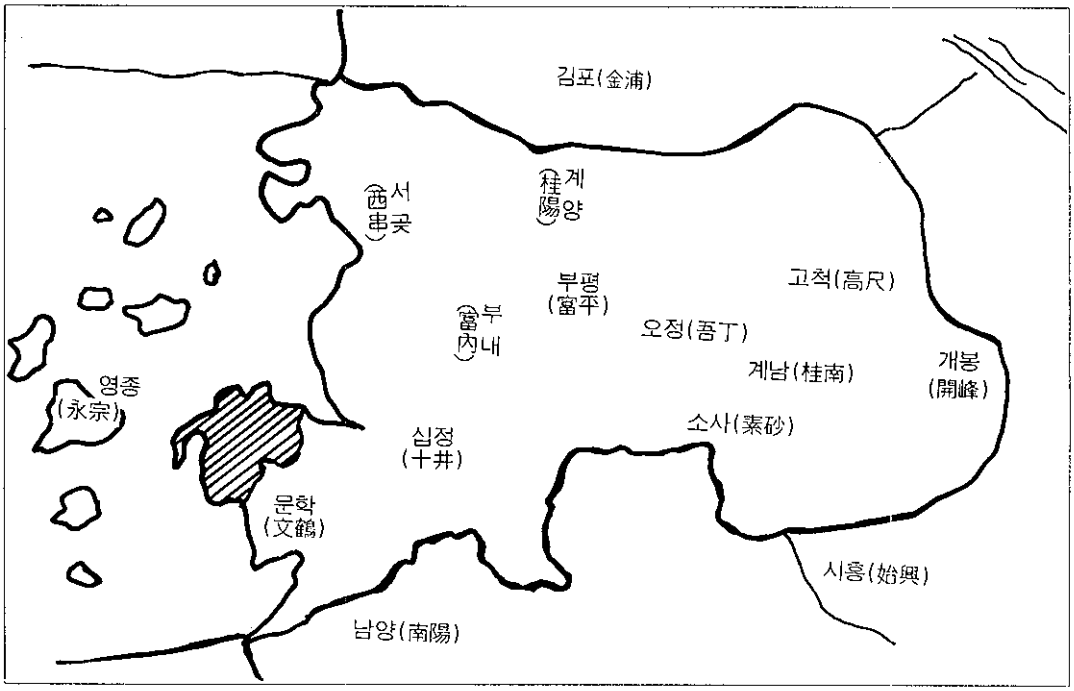
17) 인천부(仁川府), 『인천부사(仁川府史)』, 경기:근택상점인쇄부, 1933, p.178, p.181. 및 pp.571~572.

〈표 3〉 부천군의 각 면별 동·리 (1914. 4. 1)

| 면 명 | 동 리 명 |
|---|---|
| 다 주 면 | 사충리, 도화리, 장의리, 용정리, 구월리, 간석리, 십정리 |
| 문 학 면 | 학익리, 승기리, 관교리, 도장리, 문학리, 연수리, 청학리, 동춘리, 옥련리 |
| 소 래 면 | 대야리, 은행리, 신천리, 미산리, 방산리, 포리, 안현리, 매화리, 도창리, 금이리, 무지리, 과림리, 옥길리, 계수리 |
| 남 동 면 | 논현리, 고잔리, 와우리, 도산리, 본산리, 장수리, 운연리, 서창리, 만수리 |
| 부 내 면 | 부평리, 하리, 가현리, 신대리, 화전리, 작전리, 도두리, 후정리, 갈월리, 효성리, 청천리, 산곡리, 마분리, 대정리, 항동리, 구산리 |
| 계 양 면 | 박촌리, 병방리, 용종리, 방축리, 임학리, 동양리, 귤현리, 상야리, 하야리, 평리, 노오지리, 선가지리, 장기리, 이화리, 오류리, 갈산리, 다남리, 목상리, 독실리 |
| 오 정 면 | 오쇠리, 오곡리, 대장리, 도당리, 약대리, 삼정리, 내리, 오정리, 원종리, 고강리, 여월리, 작리 |
| 계 남 면 | 고척리, 개봉리, 오류리, 궁리, 온수리, 천왕리, 표절리, 조종리, 벌응절리, 항리, 괴안리, 소사리, 범박리, 구지리, 상리, 중리, 심곡리 |
| 서 곶 면 | 가정리, 신현리, 포리, 고작리, 고잔리, 가좌리, 백석리, 검암리, 시흥리, 공촌리, 연희리, 심곡리 |
| 북 도 면 | 장봉리, 신도리, 모도리, 실도리 |
| 대 부 면 | 선감리, 풍도리, 동리, 남리, 북리 |
| 영 흥 면 | 선재리, 내리, 외리, 자월리, 대이작리, 소이작리 |
| 영 종 면 | 운남리, 운북리, 중산리, 운서리 |
| 용 유 면 | 을왕리, 남북리, 덕교리, 무의리 |
| 덕 적 면 | 진리, 울도리, 익포리, 우포리, 북리, 소야리, 문갑리, 백아리, 승봉리, 굴업리 |
| 15 면 | 148 리 |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부천군(富川郡)의 관할구역은 15개 면에 148개 리로서 인천부(仁川府)에서 제외된 전역과 부평 전역 그리고 강화군(江華郡)의 신도(信島), 아도(芽島), 장봉도(長峯島)와 남양군(南陽郡)의 대부면(大阜面)과 영흥면(靈興面)까지 포함하고 있었는 바[18]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도 3〉과 같다.

18) 부천시사편찬위원회, 『富川市史』, 부천:경인일보사, 1988, p.108.




〈도 3〉 부천군의 행정구역(1914)

### 5) 인천부(仁川府) 및 인천시(仁川市)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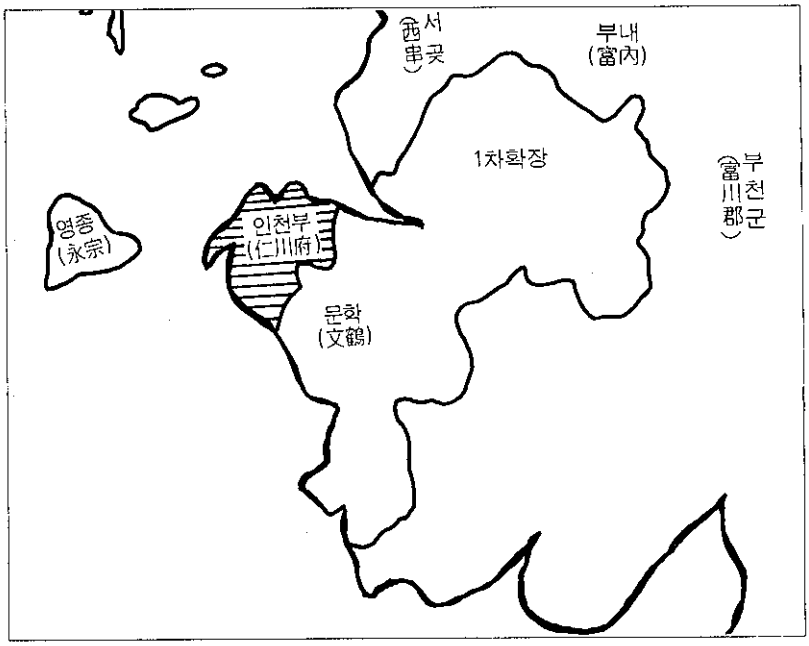
1936년 9월 26일에 이르러 부군(府郡)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개정 부령(府令) 제93호령(令)을 공포(동년 10월 1일 실시)하여 과거의 인천부 관할이었으나, 당시 부천군(富川郡) 관할이었던 문학면(文鶴面), 학익리(鶴翼里), 옥련리(玉連里), 관교리(官校里)의 일부 승기리(承基里)의 일부 다주면(多朱面) 내 도화리(道禾里), 용정리(龍亭里), 사충리(士忠里), 장의리(長意里), 간석리(間石里)의 일부를 인천부(仁川府)에 병합(併合)하므로서 다시 인천의 부역(府域)을 크게 확장하였는데 이것이 인천부역(仁川府域)의 1차 확장이다.[19]

이러한 인천부역(仁川府域)의 확장은 부천군(富川郡)의 관할지역 축소를 가져와 부평지역(富平地域) 행정구역 일부가 분리되기도 하였다. 확장된 인천부역(仁川府域)의 변화를 지도로 제시하면 다음의 〈도 4〉와 같다.

---

19) 김용필, 「富平史」, 『畿甸文化硏究』 제19집,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90, p.553.

1940년 4월 1일에는 부령(府令) 제40호와 경기도령(京畿道令) 제5호에 의하여 당시 부천군 관할이던 서곶(西串), 문학(文鶴), 남동(南洞), 부내면(富內面) 등 4개면을 인천부(仁川府)에 편입하게 되어 제2차 부역확장을 보게 되었다.[20]




〈도 4〉 인천부역(仁川府域) 1차 확장(1936. 10. 1)

새로이 인천부(仁川府)에 편입된 부평지역 부내면(富內面)과 서곶면(西串面)의 동리명(洞里名)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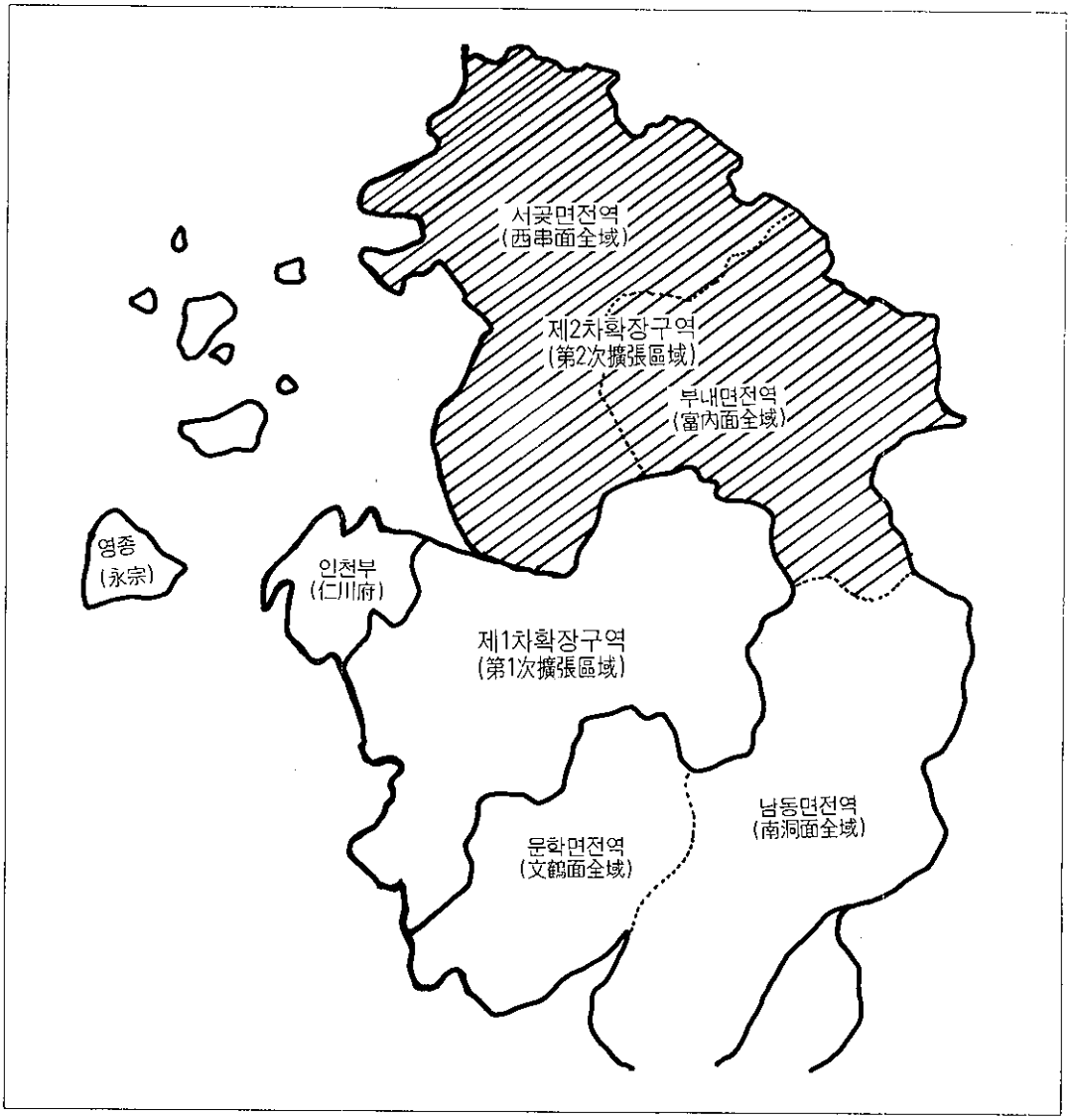
〈표 4〉 새로 편입된 부평지역의 동리명(洞里名)

| 편입전의 소속면명 | 정(町) 명(名) |
|---|---|
| 부 내 면 | 대도정(십정리), 소화정(대정리), 백마정(산곡리), 천상정(청천리), 서정(효성리), 대정정(부평리), 작전정(가현리), 동운정(도두리), 삼림정(후정리), 길야정(갈월리), 명치정(마상리), 향취정(항동리), 이갈정(구산리). 13개정 |
| 서 곶 면 | 천간정(가좌리), 촌상정(고작리), 구영정(포리), 현무정(신현리), 천대전정(가정리), 일진정(심곡리), 혹전정(공촌리), 정상정(연희리), 이가정(고잔리), 춘일정(시천리), 과생정(검암리), 운양정(백석리). 12개정 |
| 계 4 면 | 42개정 |

20) 인천시, 『仁川市史』(상권), 인천: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73, pp.591~592.

1940년의 제2차로 확장된 인천부역(仁川府域)의 면적은 과거 면적의 5배가 넘는 165,817㎢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바로 부천군(富川郡)의 면적이 이 만큼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확장된 인천부역(仁川府域)의 면적을 보면 다음의 〈도 5〉와 같다.




〈도 5〉 인천부역(仁川府域) 2차 확장시의 부평지역

위와 같은 인천부(仁川府)의 제2차 부역(府域) 확장으로 관할 구역이 광활해졌으므로 인천부(仁川府)에서는 1941년 4월 1일에 고시(告示) 제32호로 인천부출장소 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제2차 부역(府域) 확장으로 편입된 부내면(富內面), 남동면(南洞面), 서곶면(西串面) 등)에 각각 출장소를 설치하여 이 곳에서 그 구역내의 행정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 부평지역이었던 인천부의 부평·서곶출장소의 행정관할 구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21]

〈표 5〉 인천부 부평·서곶출장소의 위치와 행정 관할구역

| 출장소명 | 위 치 | 사 무 취 급 구 역 |
|---|---|---|
| 인 천 부 부평출장소 | 인천부 白馬町 (산곡동)1번지 | 大正町(계산동), 曙町(효성동), 川上町(청천동), 白馬町(산곡동), 昭和町(부평동), 明治町(부개동), 香取町(일신동), 伊藤町(구산동), 吉野町(갈산동), 三笠町(삼산동), 東雲町(서운동), 鶴田町(작전동) |
| 인 천 부 서곶출장소 | 인천부 井上町 (연희동)247 번지의7 | 淺間町(가좌동), 李家町(경서동), 久水町(원창동), 千代田町(가정동), 玄武町(신현동), 黑田町(공촌동), 日進町(심곡동), 井上町(연희동), 村上町(석남동), 瓜生町(검암동), 春日町(시흥동), 雲揚町(백석동)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년 11월 17일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臨時措置法)」(법률 제8호)이 공포되고, 동법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제43호에 의하여 시·도(道), 부, 군, 도(島)의 관할 구역은 1948년 8월 15일 현재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49년 7월 4일에는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이 제정, 공포되고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서 인천부(仁川府)는 인천시(仁川市)로 개칭하게 되었다.[22]

그러나 행정구역은 종전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계승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인천시의 관할구역은 변동이 없었고, 단지 출장소간의 약간의 관할구역 변경이 있었을 뿐이였다.

그리고 출장소 제도의 시행으로 과거 부평지역의 일부가 서곶(西串)과 남동출장소(南洞出張所)의 관할로 분리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부평출장소의 관할하에 속하게 되었다.

21) 상게서, p.596.
22) 내무부, 전게서, pp.515~518.

그런데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의 행정구역 명칭이 우리 고유의 명칭으로 환원 및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인천부(仁川府) 고시(告示) 제62호에 의하여 환원 및 개정하였다.

부평지역의 동리명(洞里名) 변천을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23]

〈표 6〉 부평지역 동·리명의 변천

| 舊 名 | 倭 名 | 改 正 | 備 考 | 舊 名 | 倭 名 | 改 正 | 備 考 |
|---|---|---|---|---|---|---|---|
| 十井里 | 大島町 | 十井洞 | 古 洞名 | 佳佐里 | 淺間町 | 佳佐洞 | 古 洞名 |
| 大井里 | 昭和町 | 富平洞 | 〃 | 高作里 | 村上町 | 石南洞 | |
| 山谷里 | 白馬町 | 山谷洞 | 〃 | 浦 里 | 久水町 | 元倉洞 | 轉漕倉所在로 因함 |
| 淸川里 | 川上町 | 淸川洞 | 〃 | 新峴里 | 玄武町 | 新峴洞 | 古 洞名 |
| 曉星里 | 曙 町 | 曉星洞 | 〃 | 佳亭里 | 千代田町 | 佳亭洞 | 〃 |
| 富平里 | 大正町 | 桂山洞 | 桂陽山下에 所在 | 深谷里 | 日進町 | 深谷洞 | 〃 |
| 佳峴里 | 鵲田町 | 鵲田洞 | 依 舊 | 公村里 | 黑田町 | 公村洞 | 〃 |
| 道頭里 | 東雲町 | 瑞雲洞 | 解放을 紀念 | 連喜里 | 井上町 | 連喜洞 | 〃 |
| 後井里 | 三笠町 | 三山洞 | 古 洞名 | 高棧里 | 李家町 | 景西洞 | 景明峴西便村임 |
| 葛月里 | 吉野町 | 葛山洞 | 〃 | 始川里 | 春日町 | 始川洞 | 古 洞名 |
| 馬墳里 | 明治町 | 富開洞 | 〃 | 黔岩里 | 瓜生町 | 黔岩洞 | 〃 |
| 航洞里 | 香取町 | 日新洞 | 〃 | 白石里 | 雲揚町 | 白石洞 | 〃 |
| 九山里 | 伊藤町 | 九山洞 | 〃 | | | | |

1956년 11월 23일에는 인천시 조례(條例) 제114호로서 「인천시출장소설치조례」를 개정하여 195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행정구역은 본청(本廳) 직할의 중부, 북부, 남부, 동부 등 4개 출장소와 주안(朱安), 부평(富平), 서곶(西串), 남동(南洞), 문학(文鶴) 등 5개 출장소를 두어 모두 9개 출장소를 설치 관할하였다.[24]

부평지역을 관할하도 부평·서곶출장소와와 여타 7개 출장소의 행정구역을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25]

23) 조찬석, 전게서, p.217.
24) 인천시, 전게서, p.599 및 인천시 시세일람(市勢一覽), 인천:한영사, 1959, pp.3~4, pp.122~125.
25) 인천직할시, 『仁川開港100年史』, 인천: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 1983, p.397.

〈표 7〉 출장소별 행정구역 (1957. 1. 1)

| 구분 / 소별 | 소재지 | 행정구역 | | | 시청으로부터 거리 | |
|---|---|---|---|---|---|---|
| | | 동수 | 방수 | 면적 | 육로 | 철로 |
| | | | | 평방천 | 천 | 천 |
| 중부출장소 | 인천시 관동1가 9 | 44 (9) | 369 | 3.219 | | |
| 북부 〃 | 〃 송현동 56 | 8 (5) | 273 | 1.995 | 1.80 | |
| 동부 〃 | 〃 금곡동 51 | 8 (6) | 215 | 2.313 | 1.88 | |
| 남부 〃 | 〃 숭의동 169 | 8 (6) | 231 | 11.541 | 3.02 | |
| 주안 〃 | 〃 도화동 413 | 7 (6) | 126 | 21.837 | 5.65 | 6.6 |
| 부평 〃 | 〃 부평동 109의 5 | 16 (10) | 224 | 41.644 | 14.50 | 12.2 |
| 서곶 〃 | 〃 연희동 산70 | 12 (6) | 73 | 36.554 | 15.25 | |
| 남동 〃 | 〃 만수동 444 | 10 (6) | 59 | 33.454 | 11.85 | |
| 문학 〃 | 〃 관교동 147의 10 | 6 (3) | 47 | 13.740 | 7.70 | |
| 계 | | 119 (57) | 1.617 | 166.297 | | |

비고 : 괄호내는 동장 수를 표시함.

위 표와 같이 인천시에서 부평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2분지 1에 육박하였다.

### 6) 인천시(仁川市) 및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 북구(北區)시대

1966년의 인천시 인구는 528,000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설치건의안(區設置建議案)」을 12월 21일자로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

1967년 3월 10일 제10차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구설치(仁川市 區設置)」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동년 3월 30일에는 법률 제1919호로 공포되어 구제(區制)는 196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26]

따라서 동일자료 중구, 동구, 남구, 북구의 4개 구청(區廳)을 개칭하고. 종래의 9개 출장소를 폐지하면서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남구와 북구에만 출장소를 두었다. 북구에는 서곶출장소(西串出張所)를 설치하여 검암(黔岩), 경서(景西), 연희(連喜), 석남(石南), 가신(佳新), 원창(元倉), 가좌(佳佐) 등 법정 7개 동을 관할하였다.

당시 부평지역은 북구에 속하였는 바 각 구의 관할 구역과 법정(法定) 및 행정동(行政洞)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8·9〉와 같다.[27]

---

26) 인천직할시, 전게서, pp.398~399.
27) 전게서, p.399.

〈표 8〉 각 구(區)의 관할구역

(1968년 1월 1일)

| 구 별 | 구 | 출장소 | 동 | | 면 적 | 본청과의 거리 | | 인 구 |
|---|---|---|---|---|---|---|---|---|
| | | | 법정명 | 행정동 | | 육 로 | 철 로 | |
| | | | | | ㎢ | km | km | |
| 인천시 | 4 | 2 | 119 | 66 | 165.35 | — | — | 555,868 |
| 중 구 | 1 | — | 44 | 10 | 3.22 | 0.5 | — | 92,060 |
| 동 구 | 1 | — | 16 | 13 | 4.37 | 1.88 | — | 164,827 |
| 남 구 | 1 | 1 | 30 | 24 | 77.16 | 5.65 | 6.6 | 178,506 |
| 북 구 | 1 | 1 | 29 | 19 | 81.61 | 14.50 | 12.2 | 120,475 |

〈표 9〉 북구의 관할(管轄)동명(洞名)

(1968년 1월 1일)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북 구 |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1동, 작전동, 서운동, 계산2동,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백천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및 십정1동 |

그런데 1950년부터 인천시의 각 동은 그 인구와 면적이 균일하지 못하고 재정능력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여러 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行政洞)의 체제로 운영하여 왔다. 이는 동행정(洞行政)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단독 혹은 수개의 법정동(法定洞)을 한 단위로 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구제(區制) 실시를 앞두고 1967년 12월 29일자 인천시규칙(仁川市規則) 제241호에 의거하여 관하의 행정동을 모두 66개로 증설하였으며, 이후 인구와 면적의 증가에 따라 행정동 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북구의 관할 동수는 29개 법정동에 19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였던 부평지역은 북구와 서곶출장소 관할로 사실상 분리되고 오직 북구만이 부평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천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인천이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24호로 인천시를 인천직할시로 승격시키고, 동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 인천직할시의 구역(區域)은 종전의 관할구역 일원에 한하도록 함으로서 구역의 변경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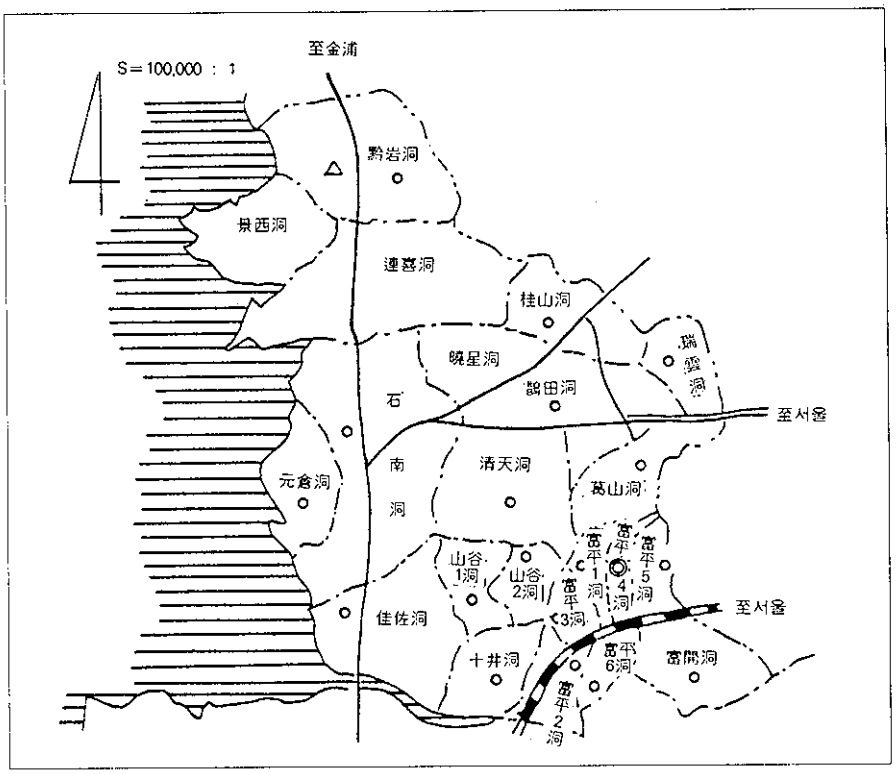
1981년 당시의 부평지역 즉 북구의 관할구역 및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 및 〈도 6〉과 같다.[28]

〈표 10〉 북구의 관할구역 (1981년)

| 동<br>출장소 | 면적<br>(㎢) | 가구 | 인구 | (통수)<br>반 수 | 관 할 |
|---|---|---|---|---|---|
| 22 동<br>1 출 장 소 | 89.51 | 82,035 | 369,708 | (402)<br>2,426 | 법정 29동 |
| 부 평 1 동 | 1.26 | 3,639 | 15,370 | (22)<br>120 | 부평1동 중 경인철도북부구역과 부평간선도로(광로2류 8호선)의 서부지역 일원 |
| 부 평 2 동 | 0.80 | 4,111 | 18,409 | (23)<br>119 | 부평동 산19, 20, 25, 40~53, 83번지와 734, 747, 752, 763번지 및 665, 343번지구역의 일부 |
| 부 평 3 동 | 1.10 | 5,857 | 25,735 | (24)<br>148 | 부평3동, 십정2동 일원 |
| 부 평 4 동 | 0.83 | 5,963 | 26,642 | (32)<br>182 | 법정동, 부평1동 중 행정동 부평1동을 제외한 구역의 중로 2류 27호선과 대로 3류 16호선 및 대로 1류 1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의 서부지역 일원 |
| 부 평 5 동 | 0.90 | 4,381 | 19,648 | (25)<br>147 | 법정동 부평1동 중 행정동 부평1동, 부평4동을 제외한 지역 일원 |
| 부 평 6 동 | 1.58 | 2,787 | 12,280 | (18)<br>108 | 부평동 산12, 15, 16, 17, 22, 54~57번지와 603, 617, 625, 641, 657, 662, 669, 674, 680, 684, 687~689, 693~695, 702, 703, 707, 708, 710, 711, 718, 722, 724, 735, 742, 744번지 및 665, 743번지구역의 일부 |
| 산 곡 1 동 | 2.60 | 4,663 | 19,582 | (19)<br>107 | 산곡동 중 대로 2류 36호선과 대로 1류 28호 및 중로 3류 11호선과 부평3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서부구역 일원 |
| 산 곡 2 동 | 2.54 | 3,008 | 13,980 | (16)<br>103 | 산곡동 중 산곡1동을 제외한 지역 일원 |
| 청 천 동 | 3.20 | 6,272 | 26,935 | (22)<br>169 | 청천동 일원 |
| 효 성 동 | 7.26 | 4,605 | 25,773 | (25)<br>134 | 효성동 일원 |

| 동<br>출장소 | 면적<br>(㎢) | 가구 | 인구 | (통수)<br>반 수 | 관 할 |
|---|---|---|---|---|---|
| 계 산 동 | 4.92 | 3,092 | 13,614 | (17)<br>109 | 법정동 계산동 일원 |
| 작 전 동 | 3.13 | 3,604 | 16,831 | (11)<br>71 | 작전동 일원 |
| 서 운 동 | 1.08 | 555 | 2,466 | (4)<br>12 | 서운동, 법정동 계산2동 일원 |
| 갈 산 동 | 3.90 | 3,793 | 15,956 | (18)<br>93 | 삼산동, 갈산동 일원 |
| 부 개 동 | 5.73 | 7,417 | 32,836 | (28)<br>225 |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일원 |
| 십 정 동 | 3.38 | 5,519 | 25,683 | (23)<br>156 | 십정동 일원 |
| 서 곶<br>출 장 소 | 45.30 | 12,678 | 57,968 | (75)<br>423 | △12 |
| 검 암 동 | 8.40 | 560 | 2,666 | (6)<br>24 | 백성동, 시천동, 검암동 일원 |
| 경 서 동 | 6.63 | 398 | 1,844 | (14)<br>13 | 경서동 일원 |
| 연 희 동 | 9.56 | 752 | 3,458 | (5)<br>26 |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일원 |
| 석 남 동 | 9.59 | 6,803 | 29,595 | (38)<br>233 |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일원 |
| 원 창 동 | 2.74 | 295 | 1,304 | (3)<br>11 | 원창동 일원 |
| 가 좌 동 | 8.38 | 3,870 | 19,101 | (19)<br>116 | 가좌동 일원 |

28) 인천직할시, 전게서, pp.409~411.




〈도 6〉 북구의 행정구역(1981. 4. 13)

1987년에 이르러 인천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국제항으로 발전하였고, 당시 인천시의 인구는 150만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북구는 대통령령 제12,367호(1987. 12. 31 공포)에 의거 북구와 서구로 분구(分區)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북구의 관할구역은 1출장소, 29개 법정동에서 옛 부평출장소 지역이었던 19개 법정동만을 관할하도록 축소되었다. 그러나 법률 제4,051호(1988. 12. 31 공포)에 의거 1989년 1월 1일 부터는 옛 부평지역이었던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桂陽面)이 북구로 편입되었으며, 구조례(區條例) 제100호에 의거 계양동(桂陽洞)이 설치되어 부평지역은 다시 확장되었다.[29]

요컨대 부평지역의 행정구역은 현재 인천시 북구로 나타났고, 그 관할은 옛 부평군(富平郡) 석곶면(石串面)과 모월곶면(毛月串面) 지역(부천군 서곶면)을 서구로 이관시킨 대신에 옛 황어면(黃魚面 부천군, 계양면) 지역을 모처럼 환수하였다.[30]

그리고 1988년 12월 31일에는 북구조례(北區條例) 제95호로 계양출장소(桂陽出張所)가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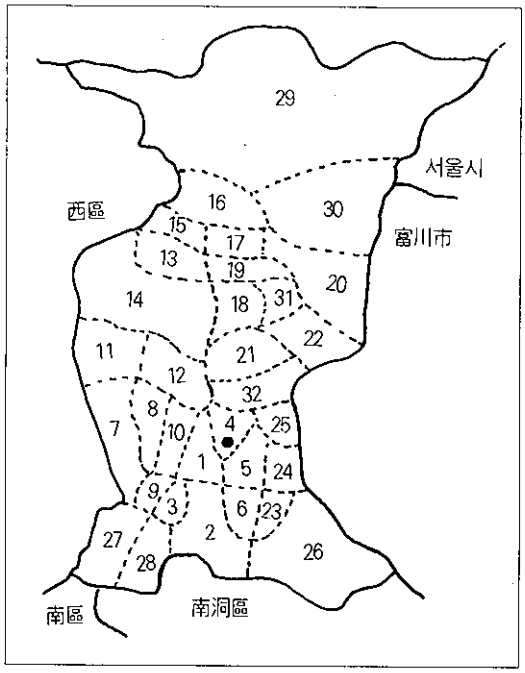
29) 내무부, 『地方行政區域要覽』, 서울:전광인쇄주식회사, 1990, p.332.
30) 조찬석, 전게서, pp.223~224.

치되어 확대전 관할 구역의 행정업무 수행을 보완하려 하였다.

또한 1990년 1월 1일에는 북구조례(北區條例) 182호로 3개 동이 증가하였고, 동년 5월 1일에는 북구조례(北區條例) 제190호(1990. 4. 30 공포)로 2개 행정동(行政洞) 설치 및 행정동간의 경계 조정으로 25개 행정동(行政洞)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1년 8월 5일에는 북구조례(北區條例) 제241호에 의하여 계산2동을 분동하여 계산3동을 설치하므로써 대민 행정력을 보강하였다.

1992년 8월 31일에 공포된 북구조례(北區條例) 제292호로 또다시 3개 동이 증설되어 29개 행정동과 32개 법정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31]

이와같은 북구 관할 법정 동명(法定 洞名)과 위치를 도시하면 다음의 〈도 7〉과 같다.[32]




1. 부평1동 2. 부평2동 3. 부평3동
4. 부평4동 5. 부평5동 6. 부평6동
7. 산곡1동 8. 산곡2동 9. 산곡3동
10. 산곡4동 11. 청천1동 12. 청천2동
13. 효성1동 14. 효성2동 15. 계산1동
16. 계산2동 17. 계산3동 18. 작전1동
19. 작전2동 20. 서운동 21. 갈산1동
22. 삼산동 23. 부개1동 24. 부개2동
25. 부개3동 26. 일신동 27. 십정1동
28. 십정2동 29. 계양1동 30. 계양2동
31. 작전3동 32. 갈산2동

〈도 7〉 북구 관할의 동명과 위치(1992. 9. 1 현재)

또한 동일자 북구조례(北區條例) 제294호는 계양출장소(桂陽出張所)의 위치를 계양동(桂陽洞)에 두며 그 관할 동을(임학, 용종, 병방, 방축, 박촌, 동양, 귤현, 상야, 하야, 평, 선주지, 이화, 오류, 갈현, 목상, 다남, 장기, 노오지 등) 19개 동으로 하였다.

---

31) 조찬석, 전게서, pp.231~232.
32) 조기준, 『富平史硏究』, 인천: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4, pp.93~94.

그리고 각 동의 동세(洞勢)와 관할을 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33]

〈표 11〉 북구 관할의 행정구역

| 동 별 | 면 적 (㎢) | 가 구 | 인 구 | (통수) 반 수 | 관 할 |
|---|---|---|---|---|---|
| 32 동 1출장소 | 76.88 | 228,965 | 746,168 | (1,170) 6,015 | 32 |
| 부평1동 | 1.26 | 9,282 | 29,667 | (56) 286 | ○부평동 38, 41~47, 49~52, 54~97, 99, 179~183, 185, 249, 251, 253~269, 299~307, 315~317, 319~325, 327, 330~336, 339~352, 390~393, 410~414, 418~429, 432, 464, 465, 529, 534~543, 545, 546, 549, 550, 552, 770~780, 782~799 |
| 부평2동 | 2.08 | 6,774 | 22,079 | (33) 158 | ○부평동 산19, 산20, 산34, 산182, 53, 287~290, 665의 14, 26, 40, 47~50, 55~58, 60, 61, 69, 72, 73, 75, 76, 79, 80, 85, 95, 96, 126~128, 145, 157, 158, 162, 233, 234, 248~257, 262, 263, 265~273, 284~314, 325, 327, 333~336, 346, 347, 349, 352, 672~678, 685, 711~716, 743, 745~765 |
| 부평3동 | 1.07 | 6,382 | 19,860 | (31) 174 | ○부평동 270의 1, 4~62, 65~81, 271, 273의 1, 4~85, 274의 1~25, 27~90, 92~102, 275~286, 299, 767의 1~53, 108~168, 179, 185, 186, 189, 202, 236, 773의 2~4, 18~21, 35, 38~39, 788의 3~13, 십정동 170~182, 183의 50~55, 68, 80, 109, 120, 148, 156, 163, 184의 4, 7, 185의 7, 9, 31, 40, 76, 78, 186의 15~19, 25, 53, 57, 71, 77~79, 82, 246~416, 420~458, 187의 1~14, 568의 1~7, 570의 1~19, 571의 1~36, 572의 1~13, 573의 1~47, 574의 1~28, 575의 1~25, 576의 1~16, 577의 1~8, 산29, 산32~33, 산36, 산38, 산40, 산41, 산곡동 307의 12~15, 310의 87~99, 113~118 |

33) 1995. 10. 1 인천광역시 북구청 기획감사실 제공.

| 동 별 | 면 적 (㎢) | 가 구 | 인 구 | (통수) 반 수 | 관 할 |
|---|---|---|---|---|---|
| 부평4동 | 0.79 | 8,410 | 27,166 | (42) 217 | ○부평동 1, 40, 48, 100~103, 105~111, 114, 117, 136~138, 192~194, 199, 201~207, 210~215, 217, 220~224, 229~248, 250, 252, 353~360, 370, 372~375, 377~379, 394~409, 415~417, 430, 431, 433, 434, 436~442 |
| 부평5동 | 0.89 | 6,856 | 22,810 | (41) 213 | ○부평동 10, 98, 104, 112, 113, 115, 116, 118~135, 139~179, 184, 186~191, 195~198, 200, 208, 209, 216, 218, 219, 225~228, 361~369, 371, 376, 380~390, 435, 443~463, 466~528, 530~533, 544, 547, 548, 551, 553~602 |
| 부평6동 | 1.29 | 5,785 | 18,337 | (27) 145 | ○부평동 산12, 603~664, 665의 1~9, 11, 15~18, 20~25, 27~31, 34, 35, 41, 43, 46, 51, 54, 62, 66, 67, 70, 77, 82~84, 86~93, 97, 98, 100~121, 123~125, 132, 133, 137~144, 147~153, 165~168, 170~222, 224~232, 235~241, 243~246, 258~261, 278~282, 315~324, 330, 331, 339, 340, 343~345, 350, 353~355, 357~363, 365, 367~370, 372~385, 666~671, 679~684, 688~710, 717~738, 740, 744 |
| 산곡1동 | 2.58 | 8,175 | 26,976 | (41) 217 | ○산곡동 1~15, 26~44, 45의 2~15, 75, 48의 2, 3, 49의 4, 52~86, 87의 1, 4~13, 15~17, 28~71, 73~119, 121~209, 211~235, 334~617, 807~902, 904~947, 971~983, 985~995, 998~1027, 93~95, 174~179, 180, 194~224, 335, 337~364, 산57~산157 |
| 산곡2동 | 0.84 | 8,742 | 29,358 | (47) 244 | ○산곡동 87의 18~24, 26, 27, 236~333, 618~806, 903, 948~970, 88, 90~92, 96~123, 124의 1, 3, 6~48, 50~74, 76~79, 81~94, 125~127, 130~134, 136, 138~141, 143~173, 181~193, 225~233, 236, 241, 245~247, 250~253, 255, 261, 263, 264의 1, 276, 289, 334, 336, 372 |

| 동 별 | 면 적 (㎢) | 가 구 | 인 구 | (통수) 반 수 | 관 할 |
|---|---|---|---|---|---|
| 산곡3동 | 1.07 | 9,455 | 31,222 | (69) 290 | ○산곡동 226의 104, 228의 1~9, 27, 229의 1~6, 230의 1, 307의 1~11, 16~27, 310의 1~96, 100~112, 119~135, 308, 309, 311~371, 373의 2, 산20의 1, 3, 산39의 1, 산42의 3, 5, 산43, 산45의 7, 산53, 산54, 부평동 270의 23, 63, 64, 272의1, 6, 273의 2, 3, 274의 26, 91, 317의 13, 318의 4, 773의 36, 37, 315의 8, 9, 12 |
| 산곡4동 | 0.70 | 5,989 | 19,806 | (38) 184 | ○산곡동 124의 2, 4, 5, 49, 75, 80, 128, 135, 137, 142, 234, 274, 294의 35, 408, 409, 412 |
| 청천1동 | 1.78 | 7,025 | 22,160 | (26) 158 | ○청천동 1, 13~17, 19~21, 25~30, 32~37, 40~43, 45~108, 123, 125, 126, 145, 150, 162, 168, 169, 171, 172, 181~184, 186~188, 364, 366~371, 390, 산1, 산3~산7, 산10~산25, 산27~산31, 산34~산40, 산42, 산44~산51, 산53~산55, 산57~산60, 산곡동 45의 18~23, 26~35, 43~58, 62~70, 73, 74, 46, 48의 1, 4~12, 49의 1~3, 5~17 |
| 청천2동 | 1.74 | 5,621 | 18,038 | (30) 166 | ○청천동 1의 1, 2~12, 111~114, 116, 118, 120, 139, 142, 164, 166, 173~180, 190~193, 195, 196, 199, 201, 207~212, 214, 218~223, 234, 236, 240~241, 259, 261, 265, 300~303, 311~314, 317, 320 |
| 효성1동 | 2.29 | 9,678 | 32,723 | (46) 240 | ○효성동 1~11, 13~16, 20~28, 31~34, 36, 38, 40~122, 123의 1~56, 61, 63~66, 124~181, 183~193, 228~235, 243~250, 253, 254, 258~263, 266~270, 274~286, 290~297, 299, 533, 535, 578~581, 657~674, 산1~산10, 산13, 산16~산23, 산27, 산32, 산4, 산42, 산43, 산48, 산52, 산53의 23~27, 산80, 산83~산96 |

| 동 별 | 면 적 (㎢) | 가 구 | 인 구 | (통수) 반 수 | 관 할 |
|---|---|---|---|---|---|
| 효성2동 | 3.77 | 7,728 | 24,282 | (46) 226 | ○효성동 123의 57, 59, 60, 62, 195~200, 204~227, 236, 238~242, 251, 252, 271~273, 300~317, 319~328, 330~340, 344, 352, 359, 362~364, 370, 371, 374~376, 379~415, 418, 419, 423~425, 427, 428, 430, 435, 438, 440, 442, 452, 487, 488, 490, 494~497, 499, 503~506, 508~524, 526, 527, 529~532, 534, 536~541, 543~551, 553~559, 562, 564~571, 573~577, 583~590, 592~640, 655, 산53의 20, 21, 산34~산56, 산58~산75~82 |
| 계산1동 | 1.60 | 9,013 | 28,964 | (46) 231 | ○계산동 산45, 산68, 산69~산77, 751~765, 767~783, 787, 788, 796, 799, 822, 823, 836, 857, 862, 880, 885~889, 892~896, 937, 940, 942~990, 1014~1052번지 일원 |
| 계산2동 | 1.85 | 7,605 | 24,871 | (29) 148 | ○계산동 산1, 산2, 산6, 산8, 산17, 산19, 산20, 산23, 산24, 산26, 산33, 산34, 산36, 산37~산42, 산45, 산50~산52, 3, 8, 517, 547, 548, 563, 629, 722, 724~735, 737, 738, 760, 897~936, 991~998, 1000~1014, 1054번지 일원 |
| 계산3동 | 0.96 | 8,613 | 28,439 | (39) 222 | ○계산동 1, 4, 12, 14, 15, 17, 18, 19~96, 257의 1~6, 8~11, 269~271, 273, 275~306, 319~335, 337~343, 345~351, 355의 1~6, 357~358, 471, 478~481, 484, 485, 489, 563~1, 880번지 일원 |
| 작전1동 | 1.61 | 8,186 | 24,694 | (61) 264 | ○작전동 30~34, 36, 42, 44, 53~61, 63~65, 67~72, 74~75, 77~79, 98~103, 109~110, 136~140, 142, 147, 169, 173~182, 188~190, 192~193, 197, 200, 202~206, 208~217, 224~245, 253, 255~261, 268, 269~274, 286~288, 381~382, 386, 388~392, 396~399, 414~416, 481, 482, 485, 486, 869~879 |

| 동 별 | 면 적 (㎢) | 가 구 | 인 구 | (통수) 반 수 | 관 할 |
|---|---|---|---|---|---|
| 작전2동 | 1.06 | 8,790 | 25,069 | (50) 180 | ○작전동 산1~4, 401~402, 407~410, 418, 437~445, 448~450, 453~454, 458~460, 462, 464, 472~474, 476, 492, 493, 497, 500~502, 504~505, 508~512, 518~521, 527, 530, 702, 757~767, 769~778, 782~789, 791, 793, 794, 797~802, 852~868, 878, 879 |
| 작전3동 | 1.01 | 8,287 | 19,872 | (33) 189 | ○작전동 1~10, 12, 13, 16, 17, 19~28, 116~131, 134, 149, 150, 155, 161, 531~574, 580, 583~598, 600~620, 626~666, 668~677, 685~698, 701, 705~709, 711~715, 718~732, 734, 735, 737~740, 744~745 |
| 서 운 동 | 2.54 | 899 | 3,058 | (6) 24 | ○서운동 일원, 계산동 97-256, 257-7, 258-268, 272, 274일원, 작전동 531의 1, 532~537, 540~541, 용종동 65, 65의 1, 2, 71의 1~22, 72의 1~9, 139의 4, 6, 140의 1~2, 4~6, 141의 3, 4, 142의 2~5, 143의 3, 145 |
| 갈 산 동 | 1.70 | 7,559 | 27,726 | (61) 342 | ○갈산지구 |
| 삼 산 동 | 2.11 | 7,063 | 23,633 | (34) 169 | ○삼산지구 |
| 부개1동 | 1.92 | 7,782 | 26,180 | (41) 225 | ○부개동 223~240, 241~300, 301~400, 산6~19, 부평동 609, 623 |
| 부개2동 | 0.73 | 6,251 | 21,477 | (31) 158 | ○부개동 1~10, 11~100 |
| 부개3동 | 1.09 | 5,830 | 18,720 | (29) 152 | ○101~222 |
| 일 신 동 | 4.31 | 2,547 | 8,634 | (14) 84 | ○알신, 구산 |
| 십정1동 | 1.77 | 8,815 | 28,380 | (43) 231 | ○십정동 1~161, 186의 1, 186의 55, 187~395, 399~416, 418, 421, 422~427, 436의 1, 17~20, 25, 28, 29, 56, 60, 75, 77, 79, 80, 81의 2, 83, 87, 90, 93~99 |

| 동 별 | 면 적 (㎢) | 가 구 | 인 구 | (통수) 반 수 | 관 할 |
|---|---|---|---|---|---|
| 십정2동 | 1.07 | 9,914 | 30,318 | (45) 234 | ○십정동 362의 80~89, 383의 2, 417의 5~8, 418의 1, 435, 437~439, 441의 7, 8, 450의 30~38, 452, 455, 457, 459, 463, 464, 467, 475, 478, 479, 480, 494, 500의 12, 13, 18, 501, 505~508, 510, 524, 525, 526의 4~7, 528의 7, 529의 13, 531의 3, 산39, 40, 41의 17, 48의 1, 50, 51, 52 |
| 계양1동 | 26.89 | 3,844 | 12,635 | 24 (84) | ○장기, 임학, 용종(단 65, 71, 72, 139의 4~6, 140, 141의 3~4, 142의 2~5, 143~3, 145제외) 병방, 방축, 박촌, 동양, 귤현, 상야, 하야, 평, 선주지, 이화, 오류, 갈현, 잠실, 목상, 다남, 노오지동 |
| 계양2동 | 3.51 | 9,003 | 28,676 | (39) 149 | ○장기, 임학, 용종(단, 65, 71, 72, 139의 4~6, 140, 141의 3~4, 142의 2~5, 143~3, 145제외) 병방, 방축, 박촌, 동양, 귤현, 상야, 하야, 평, 선주지, 이화, 오류, 갈현, 잠실, 수상, 다남, 노오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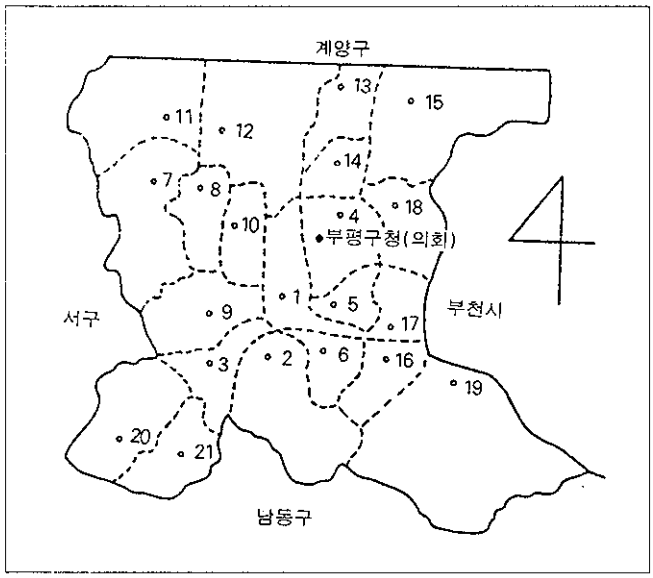
### 7)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대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89호('94. 12. 20)「지방자치법중 개정령」에 의거 인천직할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5년 3월 1일에는 법률 제4802('94. 12. 22)「서울특별시 왕진구 등 7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북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이로서 부평구의 면적은 32.03㎢(북구 76.88㎢)로, 인구는 497,646명(북구 746,168명)으로 관할동은 21동(북구 32동, 1출장소)으로 축소되었는 바 행정구역과 인구분포는 다음의 〈도 8〉 및 〈도 9〉와 같다.[34]

34) 부평구. 구정백서, 1996, pp.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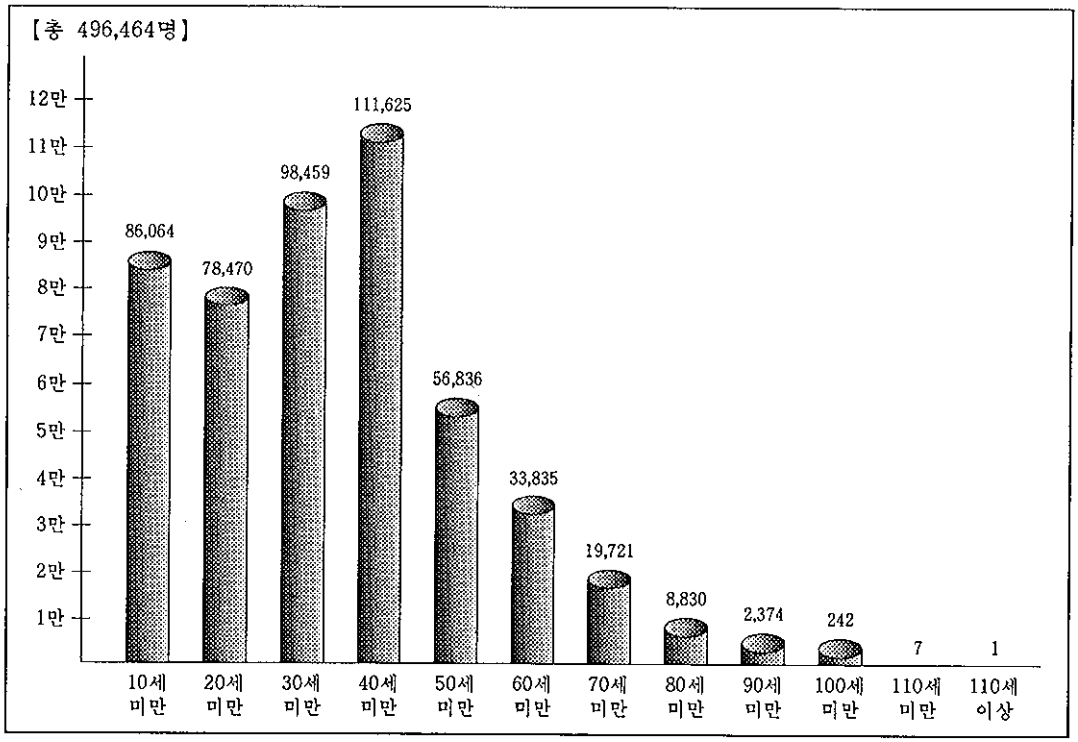

【범 례】

구경계 ————

동경계 ----------

| | |
|---|---|
| 1 부평1동 | 12 청천2동 |
| 2 부평2동 | 13 갈산1동 |
| 3 부평3동 | 14 갈산2동 |
| 4 부평4동 | 15 삼산동 |
| 5 부평5동 | 16 부개1동 |
| 6 부평6동 | 17 부개2동 |
| 7 산곡1동 | 18 부개3동 |
| 8 산곡2동 | 19 일신동 |
| 9 산곡3동 | 20 십정1동 |
| 10 산곡4동 | 21 십정2동 |
| 11 청천1동 | |

〈도 8〉 부평구의 행정구역도




〈도 9〉 인구분포현황('96. 1. 31 현재)

그리고 1996년 7월 현재의 부평구의 동세(洞勢)와 관할을 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부평구 관할의 행정구역

| 동 별 | 면 적 (㎢) | 세대수 | 인구수 | (통수) 반 수 | 관 할 · 구 역 |
|---|---|---|---|---|---|
| 계 | 32.03 | 155,675 | 497,646 | (848) 4,393 | |
| 부평1동 | 1.26 | 9,789 | 31,415 | (67) 329 | ○부평동 38, 41~47, 49~52, 53의 2,54~97, 99, 179~183, 185, 249, 251, 253~269, 299~307, 315~317, 319~325, 327, 330~336, 339~352, 390~393, 410, 414, 418~429, 432, 464, 465, 529, 534~543, 545, 546, 549, 550, 552, 770~780, 782~799번지 일원 |
| 부평2동 | 1.99 | 7,040 | 21,995 | (34) 164 | ○부평동 산17~20, 산34, 산40~44, 산47, 산49, 산52, 산53, 산60, 산182, 53, 287~290, 665의 14, 16, 26, 40, 47~52, 55~61, 69, 72, 73, 75, 76, 80, 95, 96, 126~128, 145, 155, 157, 158, 162, 223, 225~234, 248~257, 262, 273, 275, 284~314, 325, 333~337, 346, 347, 349, 350, 352, 395, 397호, 671의 1, 3, 10~12, 36, 38~41호, 672~678, 711~716, 738, 739, 743, 744, 746, 747, 750~763, 767의 55~59, 65~67, 69~74, 76~79, 81, 83~87, 89~95, 97~99, 101~103, 105~107, 109, 150, 156, 157, 170~172, 174~177, 180~184, 188~194, 196~198, 200, 201, 203~207, 209~228, 231~234 |
| 부평3동 | 1.07 | 5,986 | 18,146 | (30) 173 | ○부평동 270의 1, 4~62, 65~81, 271, 273의 1, 4~85, 274의 1~25, 27~90, 92~102, 275~286, 299, 767의 1~53, 108~168, 179, 185, 186, 189, 202, 236, 773의 2~4, 18~21, 35, 38~39, 788의 3~13, 십정 170~182, 183의 50~55, 68, 80, 109, 120, 148, 156, 163, 184의 4, 7, 185의 7, 9, 31, 40, 76, 78, 186의 15~19, 25, 53, 57, 71, 77~79, 82, 246~416, 420~458, 187의 1~14, 568의 1~7, 570의 1~19, 571의 1~36, 572의 1~13, 573의 1~47, 574의 1~28, 575의 1~25, 576의 1~16, 577의 1~6, 산29, 산32~33, 산36, 산38, 산40, 산41, 산곡 307의 12~15, 310의 87~99, 113~118 |

| 동 별 | 면 적 (㎢) | 세대수 | 인구수 | (통수) 반 수 | 관 할 구 역 |
|---|---|---|---|---|---|
| 부평4동 | 0.75 | 8,120 | 25,186 | (43) 222 | ○부평동 1, 10, 12, 13, 15~20, 31, 33~35, 37, 38, 40, 48, 100~103, 105~111, 114, 117, 136~139, 192~194, 199, 201~207, 210~215, 217, 220~224, 229~248, 250, 252, 353~360, 370, 372~375, 377, 379, 394~409, 415~417, 430, 431, 433, 434, 436~442, 879~914번지 일원 |
| 부평5동 | 0.79 | 6,844 | 21,971 | (41) 213 | ○부평동 10, 98, 104, 112, 113, 115, 116, 118~135, 139~178, 184, 186~191, 195~198, 200, 208, 216, 218, 219, 225~228, 361~369, 371, 376, 380~390, 435, 443~463, 466~528, 530~533, 544, 547, 548, 551, 553~602, 915번지 일원 |
| 부평6동 | 1.19 | 5,621 | 17,132 | (28) 146 | ○부평동 12, 603~664, 665의 1~9, 11, 15~18, 20~25, 27~31, 34, 35, 41, 43, 46, 51, 54, 62, 66, 67, 70, 77, 82~84, 86~93, 97, 98, 100~121, 123~125, 132, 133, 137~144, 147~153, 165~168, 170~222, 224~232, 235~241, 243~246, 258~261, 278~282, 315~324, 330, 331, 339, 340, 343~345, 350, 353~355, 357~363, 365, 367~370, 372~385호, 666~671, 679~684, 686, 688~710, 717~738, 740, 744번지 일원 |
| 산곡1동 | 2.54 | 8,845 | 27,767 | (47) 246 | ○산곡동 1~5, 26~44, 45의 2~15, 75, 48의 2, 3호, 49의 4호, 52~86, 87의 1, 4~13, 18~24, 26~71, 73~119, 121~209, 211~235, 236~983, 985~995, 998~1027, 93~95, 174~179, 180, 194~224, 335, 337~364, 산57~산157번지 일원 |
| 산곡2동 | 0.84 | 7,302 | 25,145 | (41) 211 | ○산곡동 88, 90~92, 96~123, 124의 1, 3, 6~48, 50~74, 76~79, 81~94, 125~127, 130~134, 136, 138~141, 143~173, 181~193, 225~234, 236, 241, 245~247, 250~253, 255, 261, 263, 264의 1, 276, 289, 334, 336, 372 |

| 동 별 | 면 적 (㎢) | 세대수 | 인구수 | (통수) 반 수 | 관 할 구 역 |
|---|---|---|---|---|---|
| 산곡3동 | 1.07 | 9,355 | 30,887 | (53) 269 | ○산곡동 226의 104, 228의 1~9, 27, 229의 1~6, 230의 1, 307의 1~11, 16~27, 310의 1~96, 100~112, 119~135, 308, 309, 311~371, 373의 2, 산20의 1, 3, 산39의 1, 산42의 3~5, 산43, 산45의 7, 산53, 산54, 부평동 270의 23, 63, 64, 272의1, 6, 273의 2, 3, 274의 26, 91, 317의 13, 318의 4, 773의 36, 37, 315의 8, 9, 12 |
| 산곡4동 | 0.70 | 6,982 | 23,319 | (42) 205 | ○산곡동 124의 2, 4, 5, 49, 75, 80, 128, 135, 137, 142, 234, 274, 294의 35, 408, 409, 412 |
| 청천1동 | 2.23 | 7,096 | 21,679 | (30) 177 | ○청천동 1, 13~17, 19~21, 25~30, 32~37, 40~43, 45~108, 123, 125, 126, 145, 150, 162, 168, 169, 171, 172, 181~184, 186~188, 364, 366~371, 390, 산1, 산3~산7, 산10~산25, 산27~산31, 산34~산40, 산42, 산44~산51, 산53~산55, 산57~산60, 산곡동 45의 18~23, 26~35, 43~58, 62~70, 73, 74, 산곡동 46, 48의 1, 4~12, 산곡동 49의 1~3, 5~17, 청천동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산61, 61-1, 61-2, 산67-9, 69-10, 산71-15번지 일원 |
| 청천2동 | 2.71 | 7,854 | 24,908 | (43) 237 | ○청천동 1의 1-1, 2~12, 111~114, 116, 118, 120, 139, 142, 164, 166, 173~180, 190~193, 195, 196, 199, 201, 207~212, 214, 218~223, 234, 236, 240~241, 259, 261, 265, 300~303, 311~314, 317, 32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8, 449, 450, 451, 452번지 일원 |

| 동 별 | 면 적 (㎢) | 세대수 | 인구수 | (통수) 반 수 | 관 할 구 역 |
|---|---|---|---|---|---|
| 갈산1동 | 1.18 | 5,510 | 17,473 | (32)<br>156 | ○갈산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6, 17, 18, 19, 20, 21, 23,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3-1~3, 6, 7, 44, 52, 52-1~6, 8, 53, 54, 55, 56, 57, 58, 58-1,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90, 91, 94, 95, 105, 106, 107, 108,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43,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5,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93, 208, 209, 213, 214, 216, 228, 243, 244, 294, 301, 310, 348, 354, 358,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번지 일원<br>○삼산동 62-2, 4, 5, 67-1, 2, 211-3, 4, 6, 215-1, 2, 3, 4, 216-1, 2, 5, 217-1, 3, 7, 222-4, 36-48, 224-1, 3, 4, 6, 225-1, 6, 226-1, 9, 270-4, 5, 9, 12, 271-1, 2, 4, 5, 6, 272, 273-3, 7, 8, 9, 274-3, 4, 275-3, 4, 5, 6, 276-4, 5, 8, 9, 283-1, 310-2, 5, 11, 19, 317-7, 11 |
| 갈산2동 | 0.60 | 8,908 | 30,076 | (39)<br>221 | ○갈산동 359, 360, 361, 362, 363, 364,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9, 400, 401, 402 |

| 동 별 | 면 적 (㎢) | 세대수 | 인구수 | (통수) 반 수 | 관 할 구 역 |
|---|---|---|---|---|---|
| 삼 산 동 | 3.08 | 8,609 | 28,426 | (44) 221 | ○삼산동 일원, 갈산동의 43의 4, 44의 1, 2, 4, 45의 1~5, 46의 2, 47의 2~6, 48의 1, 49의 10, 12, 50의 1, 3, 4, 7, 9, 11, 51의 1, 3~6, 8, 52의 7, 58의 10, 235의 1~3, 236의 1, 3, 4, 8, 336의 1, 2, 337의 1, 3, 6, 8, 9, 338의 1~9, 339의 1, 5, 340, 349, 350, 351(단 삼산동 62의 2, 4, 67의 2, 3, 68의 2, 211의 3, 215의 1, 2, 216의 1, 2, 217의 3, 222의 2, 3, 4, 36~48, 224의 1~6, 225의 1, 270의 5, 9, 12, 271의 1, 2, 4, 5, 272, 273의 2, 6, 7, 9, 274의 2, 3, 4, 275의 3~6, 283의 2, 3, 8, 310의 5, 18, 19, 317의 5, 7, 8, 11은 제외) |
| 부개1동 | 0.96 | 7,630 | 25,227 | (42) 232 | ○부개동 223~400, 산6~19번지 일원 |
| 부개2동 | 0.76 | 6,175 | 20,736 | (31) 158 | ○부개동 59, 70, 74, 75~77, 78, 80의 2, 7, 82~95, 97, 98, 100~106, 108, 109, 113, 116, 117, 118, 124~128, 130, 142, 144~155, 161, 163~167, 175~181, 186, 187, 191, 192, 194, 196~197, 206, 208~211, 489, 494 일원 |
| 부개3동 | 1.16 | 5,692 | 17,674 | (29) 149 | ○부개동 1~58, 60~69, 71~73, 79, 81, 96, 99, 107, 110~113, 116~119, 121, 143, 159, 173, 188, 190, 200, 205, 212~222, 445, 488, 495 일원 |
| 일 신 동 | 4.31 | 3,891 | 13,099 | (26) 130 | ○일신동, 구산동 일원 |
| 십정1동 | 1.77 | 8,375 | 26,210 | (43) 238 | ○십정동 1~169, 186의 1, 55, 459, 462, 463, 187~395, 399~416, 418, 421, 422~427, 436의 1, 6, 462, 463, 535, 536, 산6~19, 16~20, 25, 28, 29, 56, 60, 75, 77, 79, 80, 81의 2, 83, 87, 90, 93~99번지 일원 |
| 십정2동 | 1.07 | 10,051 | 29,175 | (63) 296 | ○십정동 362-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383-2, 417-5, 6, 7, 8, 418-17, 427, 429~433, 434-1, 435, 437, 438, 439, 441-7, 8, 14, 450-30, 31, 32, 33, 34, 36, 38, 452, 455, 457, 459, 463, 464, 467, 475, 478, 480, 494,, 457, 459, 463, 464, 467, 475, 478, 480, 494, 500-12, 13, 18, 501, 505, 506, 507, 508, 510, 524, 525, 526-4, 5, 6, 7, 528-7, 529-13, 531-3, 산 39, 40, 41-17, 48-1, 50, 51, 52 |

과거의 부평지역이 오늘의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형성되기 까지의 행정구역 변천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3〉와 같다.[35]

〈표 13〉 부평구의 연혁

| 년 도 | 연 혁 |
|---|---|
| 1968. 1. 1 | ○ 법률 제919호(1967. 3. 30 공포)로 구제실시에 따라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를 통합 북구 설치(18개동)<br>○ 시조례 제506호(1967. 12. 8 공포)로 서곶출장소 설치<br>○ 시조례 제515호(1967. 12. 29 공포)로 1개 행정동 설치(19개동)<br>· 산곡, 청천동 → ┌ 산곡동<br>└ 청천동 |
| 1970. 7. 1 | ○ 시조례 제628호(1970. 6. 30 공포)로 3개 행정동 설치(22개동)<br>· 부평1동 동부동 → ┌ 부평1동 동부동<br>└ 부평1동 중부동<br>· 부평2동 → ┌ 부평2동<br>└ 부평2동 동수동<br>· 산곡2동 → ┌ 산곡1동<br>└ 산곡2동 |
| 1977. 5.10 | ○ 시조례 제1075호(1977. 4. 18 공포)로 13개동 명칭 변경<br>· 부평1동 동부동 → 부평4동<br>· 부평1동 중부동 → 부평5동<br>· 부평1동 서부동 → 부평1동<br>· 부평2동 동수동 → 부평6동<br>· 부평3동 십정2동 → 부평3동<br>· 서운, 계산2동 → 서운동<br>· 삼산, 갈산동 → 갈산동<br>· 부개, 일신, 구산동 → 부개동<br>· 계산1동 → 계산동<br>· 십정1동 → 십정동<br>· 백석, 시천, 검암동 → 백석동<br>· 공촌, 연희, 심곡동 → 연희동<br>· 가정, 신현, 석남동 → 석남동 |

35) 조찬석, 전게서, pp.223~224.

| 년 도 | 연 혁 |
|---|---|
| 1978. 7. 1 | ○ 시조례 제1128호(1978. 6. 16 공포)로 백석동을 검암동으로 명칭 변경 |
| 1982. 9. 1 | ○ 제1569호(1982. 7. 23 공포)로 부개동을 부개동, 일신동으로 분동(22동→23동) |
| 1983.10. 1 | ○ 시조례 제1649호(1983. 8. 26 공포)로 석남동을 석남동, 가신동으로 분동(23동→24동) |
| 1985.11.15 | ○ 시조례 제1895호(1985. 9. 19 공포)로 부개동을 부개1동, 부개2동으로, 시정동을 십정1동, 십정2동으로 석남동을 석남1동, 석남2동으로, 가좌동을 가좌1동, 가좌2동으로 분동(24동→28동) |
| 1987. 6.15 | ○ 시조례 제2055호(1987. 6. 12 공포)로 가좌2동을 가좌2동, 가좌3동으로 분동(28동→29동) |
| 1988. 1. 1 | ○ 대통령령 제12367호(1987. 12. 31 공포)로 북구와 서구로 분구(1출장소 29개동→19개동) |
| 1989. 1. 1 | ○ 법률 제4051호(1988. 12. 31 공포)로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을 인천직할시 북구 편입<br>○ 구조례 제95호(1988. 12. 31 공포)로 계양출장소 신설(1출장소)<br>○ 구조례 제100호(1988. 12. 31 공포)로 계양동 설치(19개동→20개동)<br>○ 대통령령 제12577호(1988. 12. 22 공포)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br>· 남동구 간석1동 일부 → 북구 십정2동에 편입<br>· 북구 십정2동 일부 → 남동구 간석1동에 편입 |
| 1990. 1. 1 | ○ 구조례 제182호(1989. 12. 30 공포)로 부평3동을 부평3동, 산곡3동으로, 효성동을 효성1동, 효성2동으로, 계산동을 계산1동, 계산2동으로 분동(20동→23동) |
| 1990. 5. 1 | ○ 구조례 제190호(1990. 4. 30 공포)로 2개 행정동 설치 및 행정동간 경계 조정(23동→25동)<br>· 청천동 → 청천1동, 청천2동으로 분동<br>· 작전동 → 작전1동, 작전2동으로 분동<br>· 계양동 일부 → 서운동에 편입 |
| 1991. 8. 5 | ○ 구조례 제241호(1990. 8. 27 공포)로 계산2동 → 계산2동과 계산3동으로 분동(25동→26동) |
| 1992. 9. 1 | ○ 구조례 제292호(1992. 8. 31 공포)로 갈산동 → 갈산동과 삼산동으로 분동<br>· 부개2동 → 부개2동과 부개3동으로 분동<br>· 계양동 → 계양1동과 계양2동으로 분동 |

| 년 도 | 연 혁 |
|---|---|
| 1993. 3. 1 | ○ 구조례 제322호에 의거 산곡2동에서 산곡4동으로 분동 |
| 1994. 7. 1 | ○ 구조례 제338호에 의거 갈산1동과 갈산2동으로 분동 |
| 1995. 1. 1 | ○ 법률 제4789호(1994. 12. 20 공포)「지방자치법중 개정령」에 의거 인천직할시 북구 → 인천광역시 북구로 명칭 변경 |
| 1995. 3. 1 | ○ 법률 제4802호(1994. 12. 22 공포)「7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북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br>○ 부평구는 부평1·2·3·4·5·동, 산곡1·2·3·4동, 청천1·2동, 갈산1·2동, 삼산동, 부개1·2·3동, 일신동, 십정1·2동 등 21개동을 관할<br>○ 계양구는 효성1·2동, 계산1·2·3동, 작전1·2·3동, 서운동, 계양1·2동 등 11개동을 관할 |

## 2. 행정기구의 변천

### 1) 고려시대

936년 고려 태조(太祖)가 후삼국을 통일하여 세운 고려의 면적은 약 19만㎢로 축소되었다. 행정구역도 신라시대와 같은 군현제도(郡縣制度)를 사용하였지만 질서가 안정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太祖 18년(922년)에는 부평지역(富平地域)에 지방수령인 장제군지사(長堤郡知事)와 사심관(事審官) 그리고 향직단체(鄕職團體)를 두어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였다.

사심관의 주요 임무는 ① 국왕으로 부터 지방통치를 위임받아 관내를 통치하고, ② 지방 호족을 감시 안무하며, ③ 지방분권에 의한 향리의 발호를 견제하여 지방주민을 보호하는데 있었다.[36]

또한 향직제도도 지방분권적인 요소를 지닌 것으로 지방토호들에게 중앙 관직의 위계(位階)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소규모의 조직을 갖게 하여 지방행정을 담당하게한 제도이다. 이는 지방토호의 협조를 통하여 요역(徭役), 공납(公納) 등의 부과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설치한 것이다.

36) 김종표, 전게서, pp.71~72.

향직단체의 조직은 일반행정을 맡는 부문(호장(戶長)이 담당), 병무행정(兵務行政)을 맡은 부문(사병(司兵)), 재무행정(財務行政)을 맡은 부문(사창(司倉))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향직(鄕職)으로서는 호장(戶長), 당대등(堂大等), 부호장(副戶長), 대등(大等), 호정(戶正), 낭중(郎中), 병정(兵正), 병부향(兵部鄕), 창정(倉正), 창부향(倉部鄕) 등을 두었다.[37] 그리고 이러한 향직(鄕職)의 수는 인구수(人口數)에 따라 정원을 다르게 하였다.

호장(戶長), 부호장(部戶長)은 명예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호장(戶長)은 현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섭호장(攝戶長), 정조(正朝)에 수령(守令)을 대신하여 관문(關門)에 나아가 왕에게 문안하는 정조호장(正朝戶長),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어 직무에서 물러난 안일호장(安逸戶長) 등 세 가지 구분이 있었다.

이러한 향직(鄕職)의 임용(任用)은 사심관(事審官)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이 임명하였지만 향직(鄕職)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 세력가인 지방호족(地方豪族)들이었다. 향직단체(鄕職團體)가 행하는 주된 사무는 조공(租貢)과 병역(兵役)을 포함한 요역(徭役)의 부과와 징수, 향촌사회 질서의 유지와 풍속의 교정, 가구의 파악과 유민방지(流民防止) 등이었다. 이들은 처음에 사심관(事審官)의 감독을 받았으나 후에는 사심관에 대체된 군지사(郡知事)나 현령(懸鈴) 등 지방관의 통제를 받았다.

### 2) 조선시대

조선시대를 크게 전·후기로 나누어 고찰할 때, 전기는 1392년 건국초로 부터 1895년 까지로 하고 후기는 갑오경장(甲午更張) (1895년)이후 부터 한일합방(韓日合邦(1910년))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보면 1910년까지는 조선시대가 계속되지만 구미의 자본주의와 일제의 침투로 종래의 유교적 봉건체제와 행정조직이 무너진 시기이다.

#### (1) 조선시대 전기

조선시대의 관료기구는 크게 문(文)·무(武)와 경(京)·외(外) 즉 중앙과 지방의 직으로 나누어졌다. 중앙의 관아(官衙)는 건국초에 80개였으나 후에는 증가하였고, 그 대부분을 그 직능에 따라 분속(分屬)시킴으로서 형식상 왕에게 직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38]

조선의 지방행정 구역은 중앙직할지로서 경도(京都)인 한성부(漢城府)와 별도(別都)인 개성부(開城府), 수원부(水原府), 강화부(江華府), 광주부(廣州府) 이외의 도·부·목·군·현 등으

37) 상게서, p.72.
38) 한원택, 『한국지방행정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8, pp.33~35.

로 되어 있었다.

경기도에는 왕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2품(正二品)의 관찰사(觀察使)가 있어 그가 도의 행정, 사법, 군사의 권한을 장악하고 도내의 여러 수령 즉 부윤(府尹),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 군수(郡守), 도호부사(都護府使), 현령(懸令), 현감(縣監) 등을 감독하였다.

관찰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감영내(監營內)에 도사(都事), 판관(判官), 교수(敎授), 중군(中軍), 심약(審藥), 훈도(訓導), 검률(檢律), 역학(譯學) 등의 관원을 두었는 바 그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사(종5품) ~ 지방관의 불법을 규찰하고 科試를 관장한다. (임기 1년)

② 판관(종5품) ~ 서무과 부·목·도호부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수운, 해무가 주 임무이다.

③ 교수(종6품) ~ 관내 교육사무를 관장한다.

④ 중군(종6품) ~ 도내(道內)의 군사사무를 관장한다.

⑤ 심약(종9품) ~ 감영, 병영내의 의약사무를 관장한다.

⑥ 훈도(종9품) ~ 관내의 교육사무를 관장한다.

⑦ 역학(종9품) ~ 감영, 국경, 부·목의 번역, 통역과 어학을 교수한다.

⑧ 검율(종9품) ~ 법의 해석, 적용 및 형률, 취조를 담당하며 법규 및 형의 통일에 노력한다 등이다.

또한 관찰사의 사무는 중앙관청 사무의 축도(縮圖)로서 중앙에서 분장(分掌)된 각종의 사무가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관찰사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영에는 중앙관청과 같이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 등 6房을 두어 그 수장(首長)을 비장(裨將)이라 하고, 6방(房)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이속(吏屬), 아전(衙前)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그 지방 출신의 토착민 만이 채용되었다.

그리고 1413년의 부평도호부와 1895년의 부평군의 행정기구로 도(道)에서와 같이 6방제(房制)가 그대로 적용되었고 군의 사무는 6방의 이속(吏屬)에 의하여 처리되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4〉과 같다.

〈표 14〉 방(房)의 사무분장

| |
|---|
| 戶房 : 民戶의 總察·官奴婢의 出入·柴炭의 事務 掌理 |
| 吏房 : 人事 出張 命令 및 庶務를 掌理 |
| 兵房 : 收稅 등 軍政에 관한 事務 掌理 |
| 禮房 : 簽·文·祭祀·禮節·賓客·優生·改印·官敎·帖文·赦文·文陰官의 履歷 등에 관한 事務 掌理 |
| 刑房 : 裁判·禁令·刑具·罪囚·監獄 등에 관한 事務 掌理 |
| 工房 : 工匠·營繕·公用地 등에 관한 事務 掌理 |

지방수령이 감사 또는 타 관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관찰사, 사간원(司諫院)을 경유하여 왕에게 상주하고 재결을 받았다. 요컨대 부평군수(富平郡守)는 국가와 군주를 위하여 지방에 설치된 관청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자치행정을 주관하는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부평지역에도 촌락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치가 존재하였던 바 향소(鄕所)와 향약(鄕約)이 그것이다. 향소(鄕所), 향청(鄕廳)은 군수의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인 동시에 행정의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곧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조언을 하였으며 풍속을 바로 잡고 향리(아전)을 규찰하며 개령(改令)을 민간에게 전달하고 또한 민정(民情)을 상달하여 군의 하부조직인 면(面)의 장(長)인 도윤(都尹)을 추천하며, 면의 장(長), 풍헌(風憲), 약정(約正) 등의 직원을 추천하는 등의 임무가 있었다.[39]

향소(鄕所)에는 그 장인 좌수(座首)와 임원인 별감(別監), 향임(鄕任)이 있었는데 이들은 향내(鄕內)에서 덕망있는 고령자로 주민의 선거로 추대받은 자를 군수가 임명하였다. 당시 부평군의 향임의 수는 3명이었고, 임기는 2년이었다. 향청(鄕廳)도 지방관청(地方官廳)을 본받아 6방으로 사무가 분장되었으며, 좌수(座首)는 이(吏)·병방(兵房)을, 좌별감(左別監)은 호(戶)·예방(禮房)을, 우별감(右別監)은 형(刑)·공방(工房)을 담당하였다.[40]

또한 당시 부평군의 말단 행정기관은 면(面), 리(里), 통(統)의 3단계로 되어 있었으며, 모두 향청(鄕廳)의 관장하에 있었다. 그리고 부평군 소속의 15개 면에는 도윤(都尹)과 부윤(副尹)을 각각 1인씩 두어 조세의 징수 등록과 법령, 훈유(訓諭) 등을 받아 보게 하였다. 면장인 도윤(都尹)의 선정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직간접으로 주민의 의사가 크게 작용하였다. 동이나 리는 5통(統)을 위주로 하여 설정되었었다. 그리고 동, 이장의 선출방법도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대개 면장(面長)이 선임하거나 연장자나 덕망있는 자들이 협의 선출하여 동민(洞民)에게 통고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면과는 달리 자연촌을 기초로 한 지역적, 혈연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였다.

(2) 조선시대 후기

1894년 7월 27일에 신설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장 김홍집(金弘集))에서는 1895년 11월 3일에 향회조규(鄕會條規)를 공포하였다. 그 중요 내용은 "지방수령은 각 면에서 1인을 선출하여 향회(鄕會)를 조직하고 그 의결(議決)을 거친후 개령(改令)을 시행한다."[41]는 것으

39) 김영훈, 『한국지방행정의 역사적 전개』, 국제대학논문집(개교 25주년 기념), 1972, p.245.
40) 진단학회, 『한국사』, 근세 전기편, 1962, pp.186~187.
41) 고양군지편찬회, 전게서, p.395.

로 이는 군장(郡長)의 지방행정 참여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일이다.

향회(鄕會)는 그 성격과 조직이 마치 지방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대(大), 중(中), 소회(小會)가 있는데 대회(大會), 중회(中會)로 면회(面會), 소회(小會)는 리회(里會)이다. 군회(郡會)의 조직은 군수와 각 면의 집강(執綱) 및 각 면에서 공선(公選)된 2명으로 구성되며 면회(面會)는 집강(執綱)과 면내(面內) 각 리(里)의 존주(尊住) 및 각 리에서 공선된 2명으로 구성되고, 리회(里會)는 존주(尊住)와 리내(里內) 매호 1명으로 구성되었다.

향회(鄕會)에 부의할 사항은 ① 교육, ② 호적 및 지적, ③ 위생, ④ 사회, ⑤ 도로, 교량, ⑥ 식산흥업, ⑦ 산림항(港), ⑧ 제반 세목 및 납세, ⑨ 흉년시의 환난상휼(患難相恤), ⑩ 공공복무(公共服務), ⑪ 제반계약(諸般契約), ⑫ 신식령(新式令)의 정비 등 18개 항목에 달하였다.[42]

1894년의 을미개혁(乙未改革)으로 11월 20일에는 전문(全文) 20개조에 달하는 2차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즉 군국기무처의 폐지와 내각개편이 있었고, 95년 1월 7일에는 홍범14조(洪範14條)가 반포되었다. 동 제10조에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권한을 한정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일본인 고문들의 법령 호안을 공포한 것으로 타율적인 것이었다.

이에따라 1895년 5월 26일에 칙령 제98호로 지방관제의 개정이 이루어져 조선 건국이래 482년간 존속되어 온 8도제를 폐지하여 23부제로, 하고 도(道)이하의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을 통털어 336개 군으로 폐합(廢合)하였다. 당시 부평군은 한성부(漢城府)에 속하였다.[43]

1896년(建陽元年) 8월 4일에는 칙령 제36호에 의거 다시 개편되었다. 즉 한성부(漢城府) 이외의 지역을 13도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7부, 1목, 331군으로 세분하여 수도인 한성부만을 예외적으로 단호제(單戶制)로 하고, 다른 지역은 모두 중호제(重戶制)로 하되, 한성부에 판윤(判尹), 목사(牧使), 군수(郡守) 등의 지방관(地方官)을 두어 통할하게 하였다. 당시 부평군은 경기도에 속하였다.[44]

그리고 지방 인사제도는 과거제가 폐지됨으로서 추천제로 바뀌었는데 조세의 금납제(金納制), 관리의 봉급을 화폐로 지급하는 등 재정의 화폐화와 아울러 예산편성 방안이 새로 도입되어 지방재정도 1895년 이래로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어 지방재정은 도지부(度支部)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

42) 상게서, p.395.
43)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제56호, pp.2~3, 1895. 5. 28일자.
44) 상게서, 제397호, pp.2~3, 1896. 5. 28일자.

### 3) 일제 및 미군정시대

(1) 일제시대

1910년 8월 29일,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탈취한 일제는 동년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관제(朝鮮總督府官制)와 지방관제(地方官制)를 발표하여 지방 행정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지방행정은 총독부의 내무부(地方局)의 관장사무가 되었고, 지방 행정구역은 13도, 12부, 317군, 4,322면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1913년의 제령(制令) 제7호(1914. 4. 1 시행)로 13도, 12부, 220군, 2,512면이 되었으며, 1917년의 제령(制令) 제1호(1917. 10. 1 시행)에 의하여 지정면제도(指定面制度)가 채택되었다.

부평지역의 지방 행정기구와 관계된 변화는 1920년 7월의 제1차 「지방제도의 개정」(10월 1일 시행)인 바 그 내용은

① 조선도(朝鮮道)의 지방비령(地方費令) (제령(制令) 제15호)의 발포(發布),

② 부제(府制)의 개정(改正) (제령(制令) 제13호),

③ 면제(面制)의 개정(改正) (제령(制令) 제12호) 등이다.

그리고 1930년의 제2차 지방제도의 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부제(府制) (제령(制令) 제11호), ② 읍면제(제령(制令) 제12호), ③ 도제(道制)(제령(制令) 제15호) 등의 개정이다.

일제시대 동안 이러한 여러 차례에 걸친 지방제도의 변화에 따라 부평지역의 지방 행정기구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 경기도의 기구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하여 제1차 지방관청으로 경기도에 도장관(道長官)을 두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5]

① 종래의 관찰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도지사(道知事)로 개칭한다.

② 도장관(道長官)은 도행정(道行政)의 집행에 관하여 관내의 경찰권을 사용할 수 있고, 지방경찰 업무에 관하여 도경무부장(道警務部長)은 필요한 명령을 말할 수 있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 행정사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위임의 범위내에서 도령(道令)을 발할 수 있다.

③ 도(道)에는 장관(長官)·관방(官房) 및 내무(內務)·재무(財務)의 2부를 두고, 그 부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 등이다.

이러한 직제는 1919년 8월에 당초 도에서 독립된 도경무부(道警務部)가 관장하던 경찰권이 도지사에게 이관되었으며, 도의 행정기구에 경찰부가 다시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후 경

45) 김철준, 전게서, p.100.

기도에는 산업부(産業部)가 설치되어 도의 행정기구는 지사관방과 내무·경찰·산업의 3부가 중심이 되었다.

나) 부천군의 기구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 이후 1913년까지 부평지역은 부평군에 속하였고, 군수의 감독 통치를 받아왔다. 그런데 1913년 10월 30일에 공포된 제령(制令) 제78호 부제(府制)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단행되어, 동년 12월 29일에 제정공포된 부령(府令) 제111호에 의거 부평지역은 부천군(富川郡)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천군의 군청(郡廳)은 문학면(文鶴面) 관교리(官校里)에 두었다. 비록 군수의 관할 구역이 방대해졌다 할지라도 면(面)이 기초적 행정기관이 되므로써 군수의 지위와 권한은 과거 부평군 당시의 군수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당시의 군(郡)은 다른 행정구역과의 지위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방 행정단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군이 지닌 실제적인 문제는 군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사업이 없었고, 또 경제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군의 경제능력이 사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 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업을 지방비의 사업으로 하거나, 또는 면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인정되어 군을 단순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의 성격만 지니게 되었다.

다) 부내면(富內面)의 기구

부평지역에는 여러 개의 면(面)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면으로 부내면(富內面)을 들 수 있다. 곧 1917년 10월 1일부터 부내면(富內面)은 최 하급 지방행정 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면(面)에 속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과거의 면은 군과 동리와의 중계기관 내지 군수의 보조기관에 불과하였으나 이 때부터 면이 기초적 행정단위의 지위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이 면제(面制)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20년의 개정과 1930년의 개정을 거친 후인 1931년 부터이다. 1920년의 개정에서는 면을 지정면(指定面)과 보통면(普通面)으로 구별하고, 지정면에서는 면협의회원(面協議會員)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나, 보통면에서는 군수가 이들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지정면에서는 부장(副長) 1인을 두고 기채능력(起債能力)을 인정하였으나, 보통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31년의 읍면제(邑面制)는 정(町)(읍의 행정구역)·동·리에 구장(區長)을 두었으며, 이 구장은 명예직으로 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지정면을 보통면과 구별하기 위하여 읍이라 하고 의회의 권능에 많은 차이를 두었다. 즉 보통면(普通面)에도 선거에 의한 협의회를 두었으나 읍회(邑會)가 의결기관(議決機關)인데 비하여 면회(面會)는 행정 감사권도 없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부내면장(富內面長)은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공공사무(公共事務) 및 법령(法令)에 의하여 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즉 부내면(富內面)은 법인체(法人體)로서 고유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읍면(邑面)의 규칙)도 부여되어 10원(圓)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내면협의회(富內面協議會)의 구성을 보면 의장은 면장이 되고, 임기 4년의 회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임하였다.

라) 인천부의 기구

부평지역은 1940년 인천부의 제2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천부에 소속하게 되었고, 인천부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평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된 인천부 기구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1910년 9월 30일자 칙령 제357호(조선총독부지방관제)에 따라 인천부에는 부윤(府尹), 주관(奏官)과 사무관(事務官)(및 서기) 및 통역관(通譯官) 및 통역생(通譯生)을 두었는데 부(府) 사무관은 부윤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맡게하고, 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따라 통역을 맡으며 부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참사(參事)를 두었다.[46]

1913년 10월 30일에 공포된 칙령 제7호 (府制)와 1914년 4월 1일자로 단행된 지방 행정제도에 의하면 인천부에는 부리원(府吏員)을 두고, 부윤의 명에 따라 그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부리원 중에서 부출납리(府出納吏)를 두어 출납사무를 관장하였다. 특히 부(府)에는 부윤(府尹)을 의장으로 하는 부협의(府協議)를 두어 부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7]

① 부조례(府條例)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일
② 세입·세출예산을 정하는 일
③ 부채(府債)에 관한 일
④ 예산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⑤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이나 곡물 등의 보관 또는 처분에 관한 일
⑥ 제2호 제2항의 재산처분에 관한 일
⑦ 앞에 제시한 각항 외에 부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 등이다.

이 부협의회 회원은 10명이였고, 부윤의 자문기관이었다.

1932년 당시의 인천부 기구는 부윤밑에 서무계, 내무계, 재무계 등이 있었고, 직원은 모두

---

46)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1992. p.186.
47) 상게서, p.186.

107명인 바 이들의 사무분장(事務分掌)을 보면 다음과 같다.[48]

◎ 서무계의 업무

- ○ 기밀에 관한 사항
- ○ 부 및 학교직원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 ○ 포상 및 의식에 관한 사항
- ○ 직인의 관수에 관한 사항
- ○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 통계에 관한 사항
- ○ 도서 보관에 관한 사항
- ○ 공고에 관한 사항
- ○ 숙직 및 청내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 물품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 ○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 부출납리에 관한 사항

◎ 내무계의 업무

- ○ 부제1부 특별경제 및 제2부 특별경제에 관한 사항
- ○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 ○ 구휼 및 자선에 관한 사항
- ○ 사사, 종교 및 형축에 관한 사항
- ○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 ○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 지방 개량에 관한 사항
- ○ 경비에 관한 사항
- ○ 도로·하천·항만 및 수리에 관한 사항
- ○ 수도 및 하수도에 관한 사항
- ○ 수도사업의 재산관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 영선에 관한 사항
- ○ 위생에 관한 사항
- ○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사항
- ○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
- ○ 농·상·공업에 관한 사항
- ○ 삼림, 수산에 관한 사항
- ○ 광업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 ○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재무계의 업무

- ○ 국세·지방세·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 사용료·수수료 기타 세외제수입에 관한 사항
- ○ 세법 위반자의 처분에 관한 사항
-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관한 사항
- ○ 세원 조사에 관한 사항
- ○ 세무에 관한 면허장·허가장 및 감찰의 교부에 관한 사항
- ○ 세무 통계에 관한 사항
- ○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 ○ 지방경제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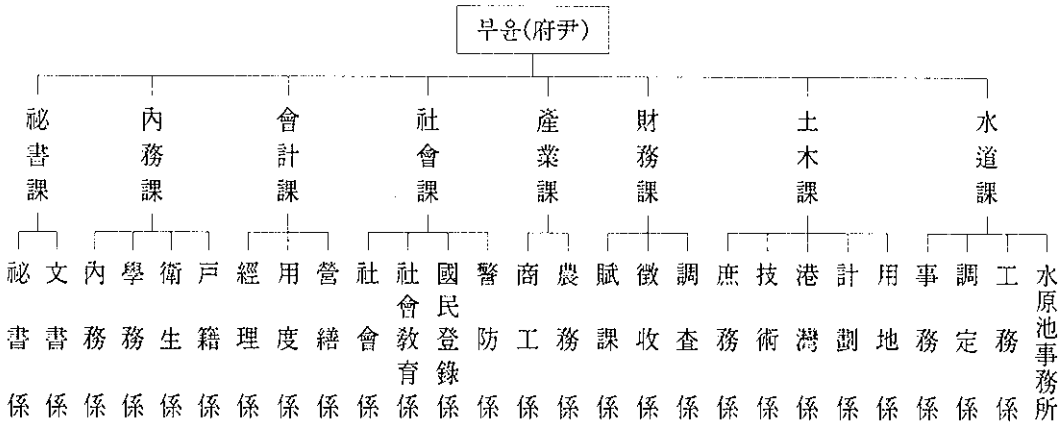
48) 상게서, pp.187~188.

인천부는 그후 제1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기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즉 서무과(문서계, 회계계), 내무과(내무계, 근업계(勤業係), 위생계, 호적계, 영선계), 사회과(사회계), 경방계(警防係), 재무과(부과계, 징수계), 토목과(서무계, 기술계, 계획계, 수도계) 등 5과(課), 16계(係)의 기구로 확대되었고, 직원은 229명이였다.[49]

1940년 4월 1일의 제2차 인천부역(仁川府域) 확장에 따라 동일자 부훈령 제1호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부의 행정기구는 모두 8과(課), 27계(係)로서 비서계가 비서과로 승격되었으며, 서무과를 폐지하고 회계과, 산업과, 수도과 등이 신설되었다.

1940년 당시 인천부의 행정기구는 다음 〈표 15〉와 같다.[50]

〈표 15〉 인천부의 행정기구표 (1940. 4. 1)




그리고 인천부로 편입된 부평지역은 인구, 산업, 사회, 교통, 거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기존 인천부의 행정기구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인천부 훈령 제2호를 공포하여 신편입 지역에 출장소를 두어 종래 면에서 취급하였던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당시 부평과 서곶출장소(西串出張所)에 적용되었던 사무분장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51]

①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보관에 관한 사항

② 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③ 군사 원호에 관한 사항

---

49) 상게서, p.188.

50) 상게서, p.188.

51)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권), 1973, p.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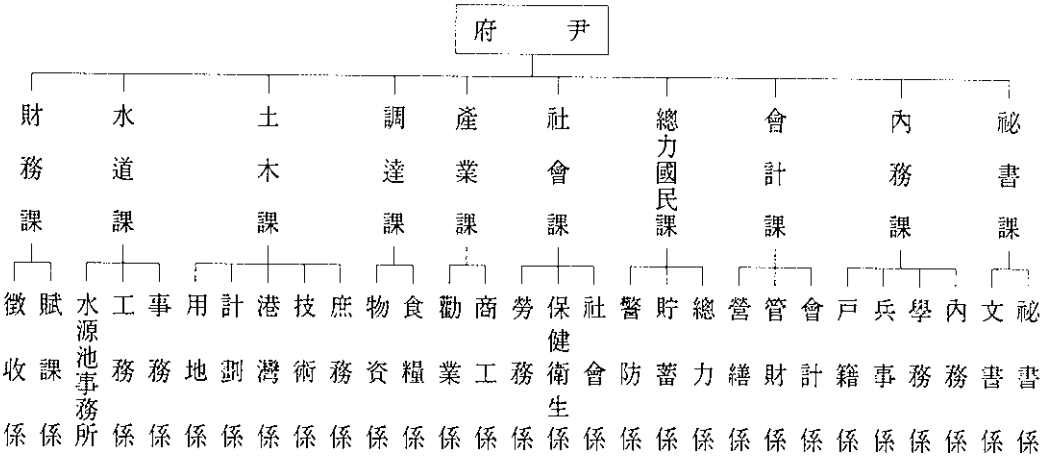
④ 숙직 및 청중 취체(取締)에 관한 사항
⑤ 공고에 관한 사항
⑥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사항
⑦ 인감에 관한 사항
⑧ 매장 및 개장 또는 화장의 인허에 관한 사항
⑨ 묘지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⑩ 신분, 거주, 기타 제증명에 관한 사항
⑪ 정리(町里)에 관한 사항
⑫ 상공·농업·수산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⑬ 구휼, 자선에 관한 사항
⑭ 위생 및 전염병에 관한 사항
⑮ 거처에 관한 사항
⑯ 도로 및 하수에 관한 사항
⑰ 상수도 급수에 관한 사항
⑱ 부세(府稅) 및 부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⑲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사항
⑳ 세무 감찰의 교부에 관한 사항
㉑ 농어촌 진흥에 관한 사항
㉒ 식산계에 관한 사항
㉓ 기타 경이(輕易)한 사항

그러나 이 출장소는 법정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종래의 면 단위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편의상의 기관이었을 뿐이다.

그후 2차대전 말기의 전쟁 동원을 위해 1943년 12월 1일자 경기도 훈령 제42호에 의하여 개편된 인천부의 행정기구는 10과, 29계로 조직되어 있었는 바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52]

52)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중권), 1992, p.189.

〈표 16〉 인천부기구표 (1943. 12. 1)




(2) 미군정시대

1945년 8월 15일의 광복과 함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스틸맨(Stillman) 미군정관(美軍政官)은 초대 인천부윤(仁川府尹)을 정민(町民)의 선거로 선임된 인천부정회장연합회의(仁川府町會長聯合會議)에서 선거하게 하여 미군정청(美軍政廳)에서 인준, 임명하도록 하였다. 초대 부윤 임홍재(任鴻宰)는 인천부의 기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령(府令) 제11호(1945. 11. 1)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된 인천부의 행정기구 편제는 서무, 회계, 학무, 사회, 재무, 농림, 상공, 토목, 수도 등 9과로 되었고, 과(課)에 과장(課長)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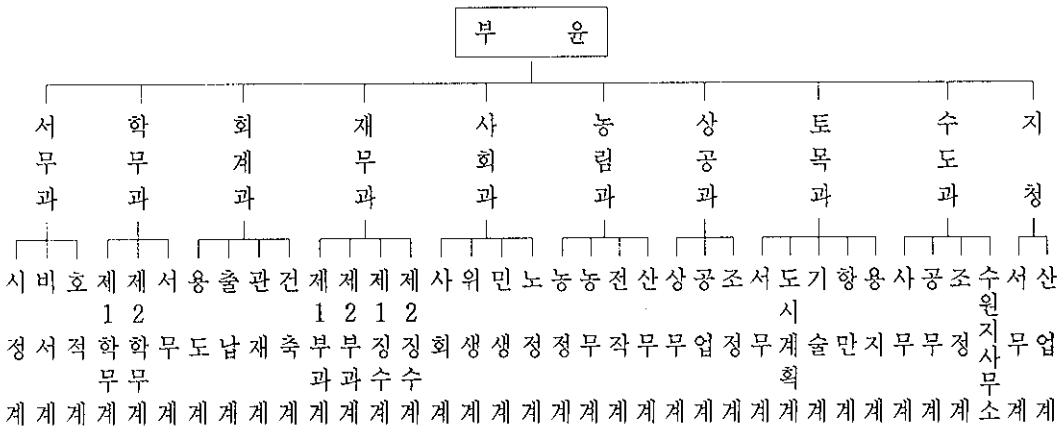
또한 인천부 고시(告示) 제53호(1945. 11. 1)로 인천부지청규정(仁川府支廳規定)을 제정하여 부평, 서곶(西串), 남동(南洞), 문학(文鶴) 등 4개 출장소를 지청(支廳)으로 변경하였다. 이 지청의 직제는 청장외에 서기(書記), 고원(雇員), 삼림주사보(森林主事補), 소사(小使), 급사(給仕), 통역원(通譯員) 등을 두었다.

1947년 4월 11일에는 인천부훈령(仁川府訓令) 제12호로서 청장을 지청장(支廳長)으로 변경하고 부지청장(副支廳長)을 새로 두었으며, 서무계(庶務係)와 산업계(産業係)를 두었다.

미군정 당시 인천부의 행정기구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53]

53) 상게서, p.190.

〈표 17〉 미군정시기의 인천부 기구 (1945. 11. 1 부훈령 제11호)




### 4) 대한민국 수립 이후

(1) 제1·2공화국시대

1949년 8월 15일의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에 따라 인천부(仁川府)는 인천시(仁川市)로 개칭되고, 행정권한(行政權限)과 기구도 확대 개편되었는데, 그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천시는 기초적 자치단체로 되었고,

② 시장을 시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었고,

③ 시에 자치입법권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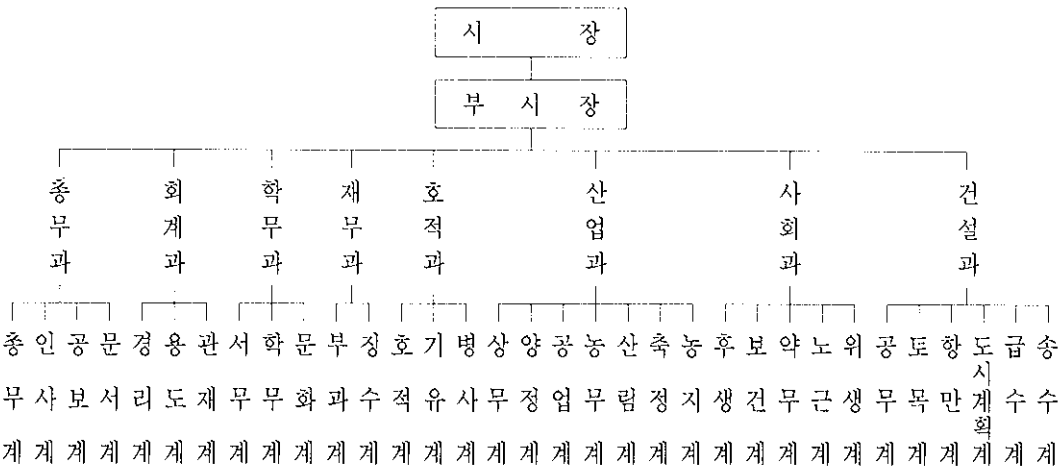
④ 인천시의 직제는 시장과 그 보조기관으로 부시장(시장 추천으로 도지사 임명)을 두며, 시장은 시를 대표하며, 그 직무는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위임사무를 관리 집행하도록 하였다.[54] 그 구체적인 내용은 ㉠ 시의 경비로 지급할 안건의 집행과 1급 사무의 처리, ㉡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 제출, ㉢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 ㉤ 증서와 공문서류의 보관, ㉥ 법령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었다.

54) 상게서, p.191.

그리고 인천시장은 권한으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면, 분한,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구역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또 그 하부 조직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규칙(市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949년 4월 20일의 인천시 훈령 제4호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시의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55]

〈표 18〉 제1공화국시대 인천시의 행정기구 (1949. 4. 20 시훈령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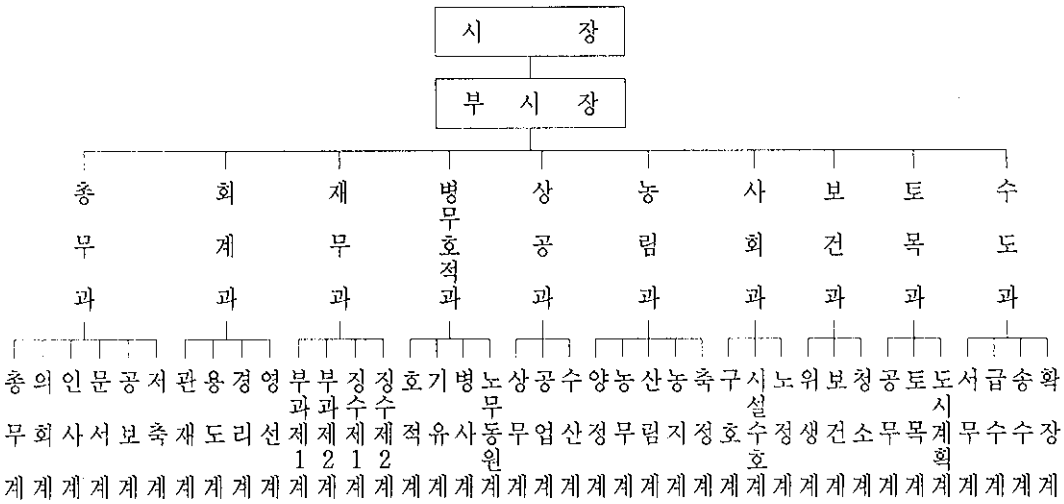



그후 1950년 3월 12일에는 인천시 규칙 제4호로 인천시 직제를 공포하였다. 이에 의하면 시장과 부시장외에 지방참사, 지방기좌, 지방주사, 지방기사, 지방서기, 지방기원 등으로 공무원의 직제를 분류하였다.

1952년 7월 1일에는 인천시규칙 제23호로 인천시행정기구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즉 인천시교육위원회 발족으로 시직제에서 이탈하였으며, 산업과, 사회과, 건설과 등이 확대 분과되고 수도과가 신설되는 등 10개 과(課)로 확대된 바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9〉와 같다.[56]

55) 상게서, p.192.
56) 상게서, p.192.

〈표 19〉 인천시 행정기구표 (1952. 7. 1 시규칙 제23조)




〈표 20〉 1·2공화국시대 인천시의 행정기구 변천표

| 연 월 일 | 신 설 | 폐 지 |
|---|---|---|
| 1956.10.10 | 농림과 농업교도계 | |
| 1957. 1.17 | 의좌 의사 간호원 보건원 | 호적·병무과 |
| 1958. 1. 4 | 총무과 인사계 예산계 | 토목과 공무계 |
| | | 수도과 조정계 수도계 |
| 1958. 2.13 | 재무과 조사계 | |
| 1959. 1.17 | | 산업과 농업교도계 |
| 1960. 6.27 | 수도과 징수계 | |
| 1960.10.14 | 보사과 위생계 주택계 | |

자료 : 《인천시사》 (上), p.615에서 전재

1960년 4.19혁명이후 제2공화국 시대의 인천시 행정기구는 총무, 재무, 회계, 산업, 보건사회, 토목, 수도 등 7개 課를 두고 있었다. 이는 제1공화국 시대보다 기구의 축소가 아니라 업무의 전문화에 따른 기구의 통폐합으로 인한 것이었다.

요컨대 1·2공화국시대 인천시의 행정기구변천을 보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57]

(2) 제3공화국시대 (1961~1979)

1961년 5.16군사혁명후 건립된 제3공화국시대의 인천시의 행정기구는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즉 시본청(市本廳)은 1실(室), 9과(課), 38계(係)로 확정되었는 바 그 중요한 변동 내용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58]

1966년 12월 1일을 기해 내무부장관(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국제(局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표 21〉 제3공화국초 인천시의 행정기구 변천

| 연 월 일 | 신 설 | 폐 지 |
|---|---|---|
| 1961. 5.16 | (보좌관) | 부시장 |
| 1962. 1.15 | 교육과 | 시교육감 |
| 1961. 9.30 | | 수도과 징수계 |
| | | 총무과 의회계 |
| | | 산업과 농지계 |
| | | 보사과 후생계 |
| 1962. 7. 9 | 공보실 | |
| 1962.10. 2 | 부시장제(부활) | (보좌관) |
| 1962.11. 6 | 산업과 시정계 | |
| 1963. 5.28 | 보건과 청소계 | |
| 1964. 1.17 | 총무과 지도계 | |

자료: 《인천시사》 (上), p.619에서 전재

57) 상게서, p.193.
58) 상게서, p.194.

이에 따라 시규칙 제204호(1966. 12. 3)로 제정된 인천시의 행정기구(行政機構)는 2실(室), 5국(局), 14과(課), 50계(係)로 대폭 개편 확대되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59]

① 공보실 ~ 공보계, 보도계, 관광계
② 기획실 ~ 기획계, 예산계, 심사분석계
③ 총무국(신설) : 총무과 ~ 서무계, 인사계, 문서계, 통계계, 운수계, 민원계
세정과(신설) ~ 시정계, 지도계, 감사계, 호적징수계, 병적계
세무과 ~ 부과계, 징수계, 세원조사계, 지적계
회계과 ~ 관재계, 경리계, 용도계, 영선계
④ 보건사회국(신설) : 사회과 ~ 사회계, 구호계, 노정계, 부녀계
보건과(신설) ~ 보건계, 위생계, 청소계
⑤ 산업국(신설) : 산업과 ~ 농무계, 양정계, 축정계
상공과 ~ 상정계, 공업계, 진흥계
수산과(신설) ~ 어정계, 어로계, 증식계
⑥ 건설국(신설) : 건설과 ~ 건설행정계, 도로계, 치수계, 개간간척계, 임정계
도시계획과 ~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구획정리계, 건축계
⑦ 수도국(신설) : 업무과(신설) ~ 관리계, 조정계, 수납계
시설과(신설) ~ 시설계, 공무계
급수과(신설) ~ 수원계, 배수계, 급수계 등이다.

또한 1967년 3월 30일에는 인천시 구제(區制) 실시에 관한 법률(1919호)이 공포되어 1968년 1월 1일부터 종래의 출장소를 폐지하고, 중구, 동구, 남구, 북구 등 4개 구청이 설치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부평지역은 북구청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특히 인천시규칙(仁川市規則) 제230호로 제정된 인천시구제(區制) (1967. 12. 8)에 따라 북구청장(北區廳長)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과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리고 세무과장은 지방재경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토목기좌로 각각 보하였다.

이때부터 북구청은 부평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적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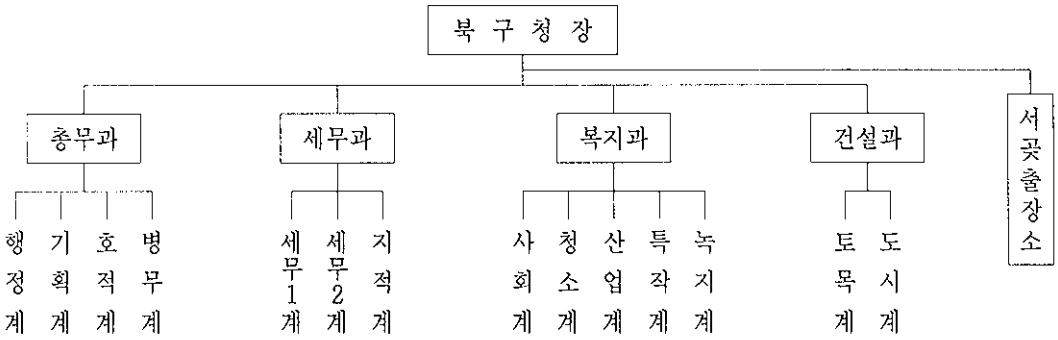
인천시 규칙 제239호(1967. 12. 29)와 동규칙 제259호(1968. 8. 17), 동규칙 제268호(1968. 10. 23)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던 인천시 북구청의 행정기구는 총무, 세무, 복지, 건설 등 4과(課)와 14계(係)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1967년 12월 29일자 인천시규칙 제240호(1967. 1. 1시행)에 의하여 북구 관할의 서곶출장소(西串出張所)가 설치되었다.

북구의 행정기구를 보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60]

---

59) 상게서, p.194.
60)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상권, 1973, p.627.

〈표 22〉 북구 행정기구 (1968)




그리고 계장의 직급은 지방공무원 4급 갑류(주사급)로서 전문 직종에 따라 행정, 재경(財經)주사와 지적, 농업기사 등으로 보하였다.

또한 북구청(北區廳)의 각 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61]

총무과(總務課) : ① 서무, ② 인사, ③ 기밀, ④ 공무원의 교양과 후생복지, ⑤ 선거, ⑥ 국민투표, ⑦ 기획, ⑧ 예산, ⑨ 심사분석, ⑩ 문서, ⑪ 행정서사, ⑫ 공보선전, ⑬ 문화재보호, ⑭ 향교, 사찰 기타 문화·예술·관광, 구출장소 및 동의 지휘감독, ⑮ 회계, ⑯ 국채, ⑰ 금융, ⑱ 기부금의 통제, ⑲ 통계, ⑳ 운수, ㉑ 징·소집, ㉒ 호적과 주민등록, ㉓ 인감증명, ㉔ 범죄자와 파산자의 대장, ㉕ 청중(廳中) 단속과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세무과(稅務課) : ① 지방세 및 세입수입, ② 세원조사, ③ 세무의 사찰, ④ 저축 및 지적에 관한 사무

복지과(福祉課) : ① 구호, ② 후생, ③ 노정, ④ 부녀, ⑤ 아동복리, ⑥ 실업대책, ⑦ 청소, ⑧ 농업, ⑨ 잠업, ⑩ 축산, ⑪ 농지개량, ⑫ 양정, ⑬ 농업단체의 지도육성, ⑭ 원예·특용작물·농가부업·농산가공·농업기상, ⑮ 상공업·광업·시장·물가·계량·전기·중소기업 및 수산물에 관한 사무

건설과(建設課) : ① 도로·교량·하수도·공유수면·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과 개발, ② 산림보호·조림·수렵·자연재해의 방제 대책, ③ 도시건설·토지구획정리·도시 시설물의 계획 및 확충, ④ 건축·건축물 단속·주택건설및 개량·도시환경 정리·공원·가로수·옥외광고물 단속, ⑤ 건축물의 방제 및 건축서사에 관한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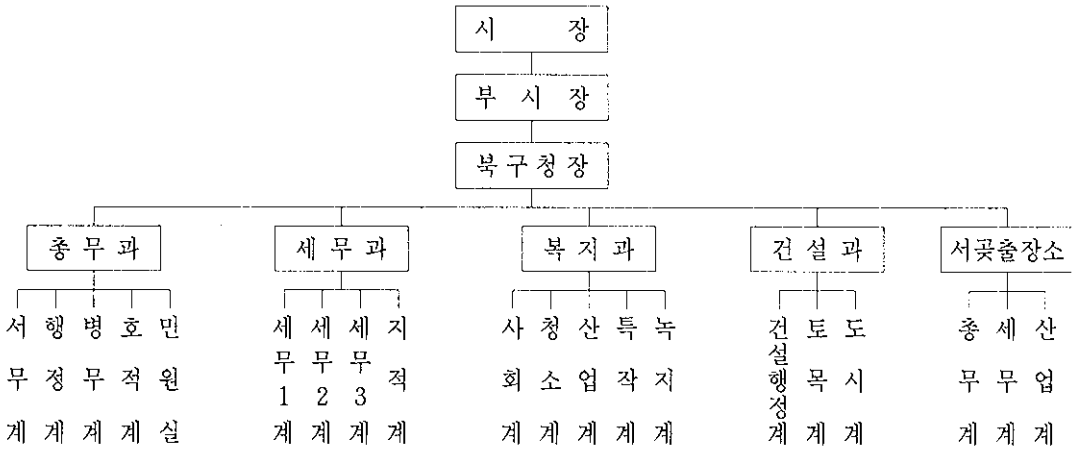
그리고 서곶출장소(西串出張所)에는 직제에 따라 총무계, 세무계, 산업계 등이 신설되었으며 총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세무계장은 지방재경주사보로, 산업계장은 지방농업기사보로서 각각 보임되었다.

그리고 1970년 5월에 단행된 시 본청의 대 개편과 1970년 5월 1일자 시규칙 제301호에 따라 북구청의 직제는 4과(課), 17계(係), 1출장소(出張所), 3계(係)로 확대 개편되었는 바 그

61) 상게서, p.195.

내용은 다음의 〈표 23〉과 같다.[62]

〈표 23〉 인천시 북구의 행정기구표 (1970. 5. 1일자 시규칙 제301호)




(3) 제5공화국시대 (1980~1987)

1981년 7월 1일에 법률 제3424호(1981. 4. 1 공포)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인천직할시의 행정기구가 대폭 개편되었다. 즉 인천직할시 직제규칙 제734호 및 인천직할시 담당관 및 실과직제 제735호(1981. 7. 1)로 개편된 행정기구는 3실(室), 7국(局), 1본부(本部), 5담당관(擔當官), 3과(課), 98계(係)였다. 그러나 동규칙 제769호 및 770호(1981. 11. 10)로 재개편된 인천직할시의 본청기구(本廳機構)는 모두 2실, 8국, 1본부, 4담당관, 34과, 98계로 조직되었다.[63]

그리고 인천직할시 구직제규칙(區職制規則) 제830호 및 구과직제규칙(區課職制規則) 제831호(1982. 2. 24)로 북구청 행정기구는 또 개정을 보았다.[64] 곧 구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며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總務課), 시민과(市民課), 세무과(稅務課), 지적과(地籍課), 복지과(福祉課), 산업과(産業課), 환경위생과(環境衛生課), 건설과(建設課), 건축과(建築課), 민방위과(民防衛課) 등으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총무과장(總務課長), 시민과장(市民課長), 복지과장(福祉課長), 세무과장(稅務課長) 등은 지방행정사무관(地方行政事務官)으로, 지적과장(地籍課長)은 지방지적기좌(地方地籍技佐)로 환경위생과장(環境衛生課長)은 지방행정사무관(地方行政事務官), 또 지방보건기좌(地方保健技佐)로 건설과장(建設課長)은 지방건축기좌(地方建築技佐)로 각각 보(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동직제규칙(洞職制規則)(규칙 제767호 1981. 10. 20) 개정에 따라 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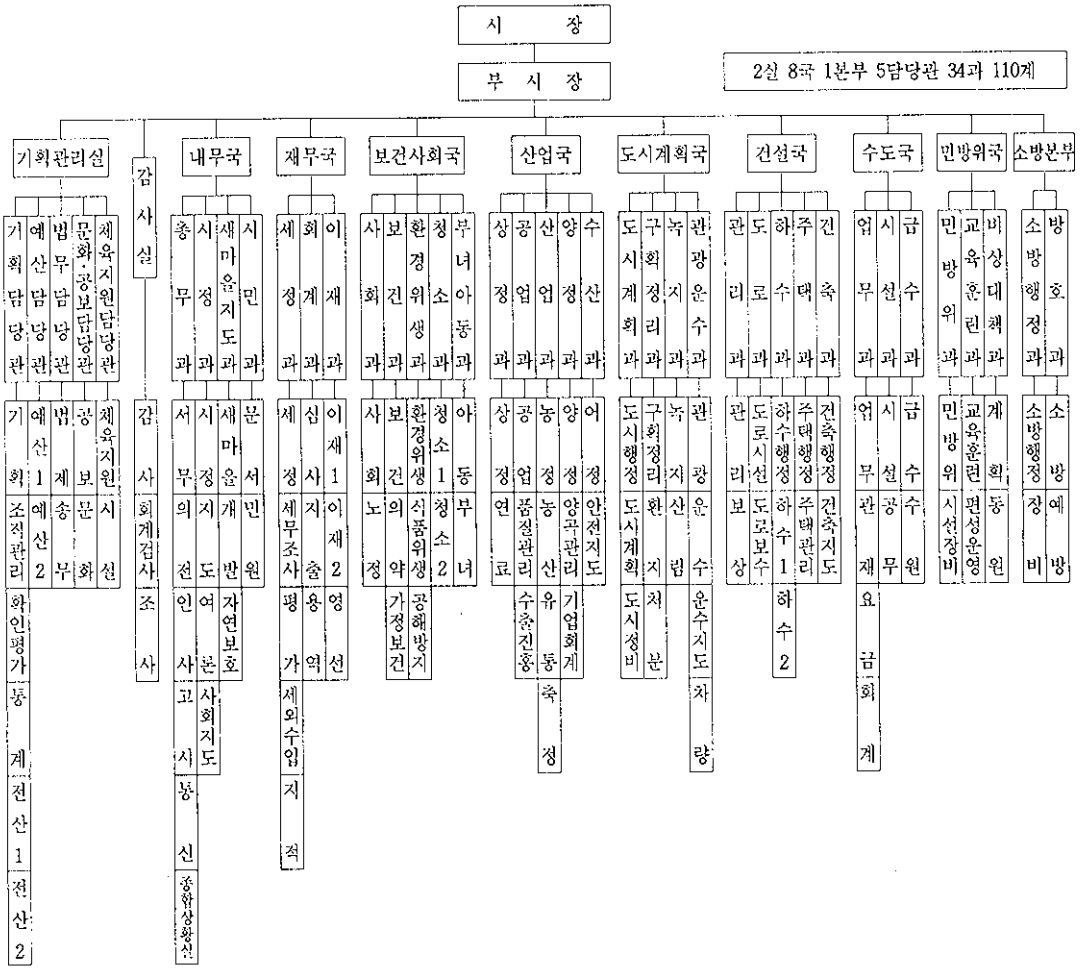
62) 상게서, p.628.
63)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중권』, 1992. p.196.
64) 상게서, p.201.

도 동장과 사무장(事務長)을 두되 동장은 5급(사무관)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자수로 보하였다.

또한 인천직할시 규칙 제795호(1982. 1. 22)로 출장소 직제규칙(出張所 직제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곶출장소(西串出張所)에는 총무계(總務係), 서무계(庶務係), 산업계(産業係) 등 3係를 두어 행정사무를 분리하였다.

그후 1984년에는 보다 기능이 강화되어 2실, 8국, 1본부, 5담당관(擔當官), 34과, 110계로 증편되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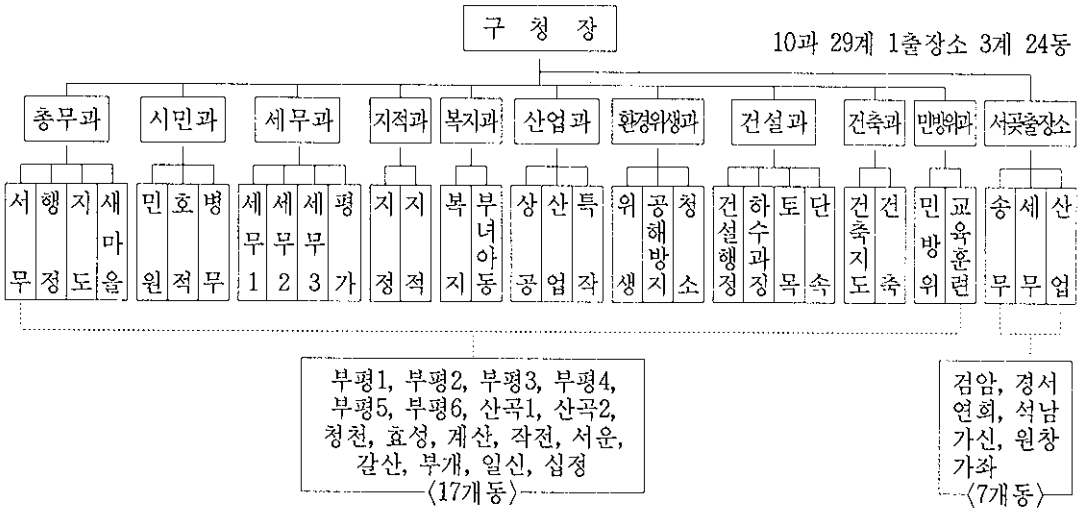
〈표 24〉 인천직할시 기구표 (1984. 5. 15 현재)




65) 상게서, p.202.

1984년 당시 북구의 행정기구는 구청장 밑에 10과, 29계, 1출장소, 3계, 24동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66]

〈표 25〉 북구의 행정기구표 (1984. 5. 15 현재)




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 당시의 인천직할시의 행정기구를 1984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67]

① 기획관리실에 통계담당관과 전산담당관의 신설

② 보건사회국에 환경위생과가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되었으며, 보건과 산하에 방역과가 신설되었고, 부녀아동과가 부녀청소년과로 변경되면서 청소년계가 신설되었으며, 청소과가 환경관리과로 변경

③ 산업국이 지역경제국으로 변경되어 지역경제과가 신설되었고, 상정과의 연료계가 연료1·2계로 확장됨과 함께 수출진흥계는 공업과에서 상정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산업과는 폐지되고 농정과가 신설되었으며, 양정과의 기업회계 폐지

④ 도시계획국의 구획정리과가 폐지되고 도시정비계가 도시정비과로 승격 신설되었다.

⑤ 수도국이 상하수국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국의 하수과가 상하수국 관할로 변경되었다.

---

66) 상게서, p.204.
67) 상게서, p.205.
68) 상게서, pp.209~211.

또한 북구청의 행정기구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68]

① 건설과에 녹지계 신설
② 부청장제 신설
③ 부녀아동계가 부녀청소년계로 변경
④ 부개(富開), 십정(十井), 석남(石南), 가좌(佳佐) 등 4개 동이 분동되어 8개 동이 됨
⑤ 총무과에 경리계와 문화공보계의 신설
⑥ 공해방지계를 환경관리계로 변경
⑦ 서곳출장소에 민원계와 서무2계의 신설
⑧ 산업과에 공업계를 신설

이와같은 행정기구의 변동으로 1987년 당시 북구의 행정기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직속의 10과, 33계, 1출장소, 5계, 28동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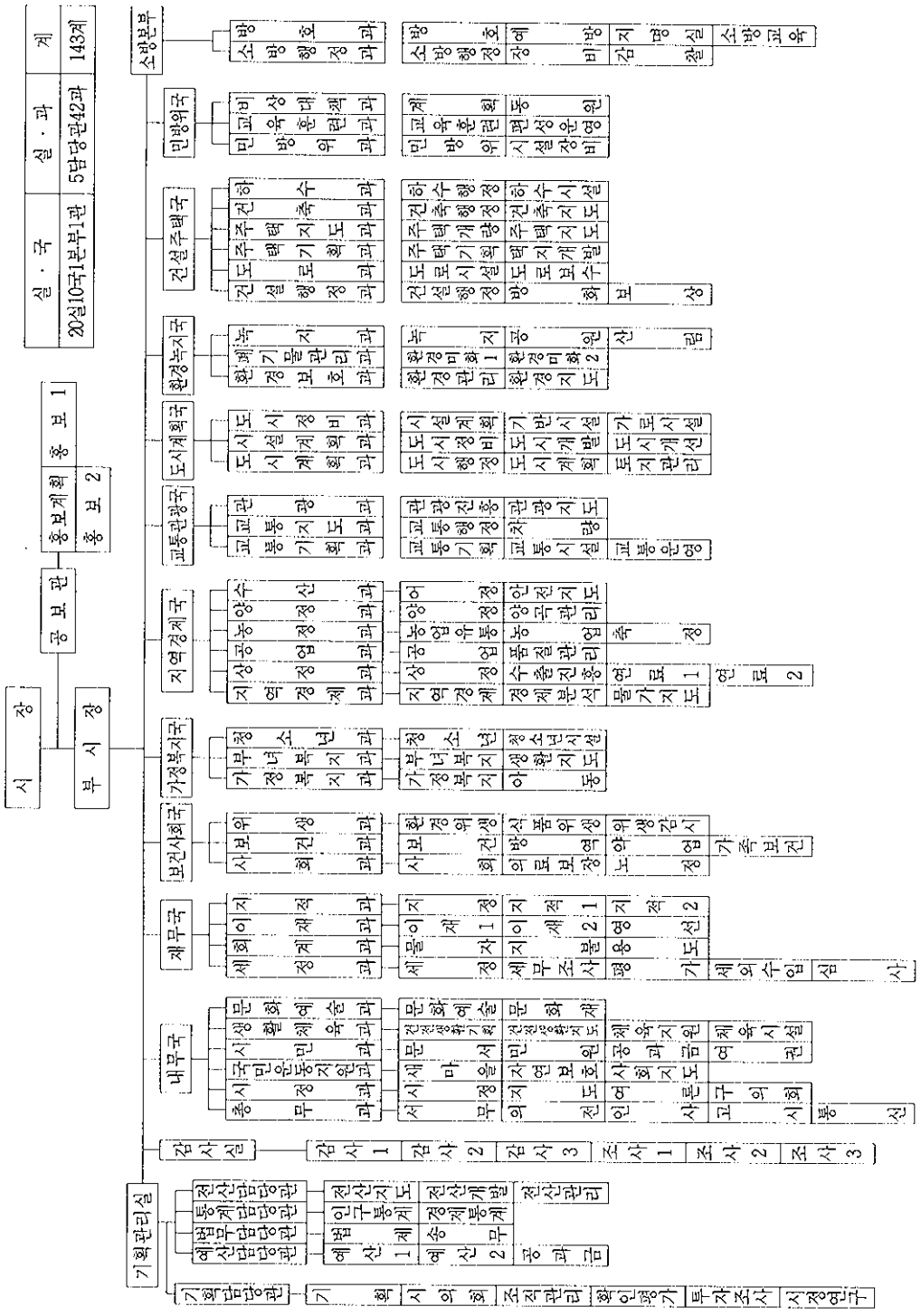
(4) 제6공화국시대(1988~1994년 현재)

제6공화국시대에 이르러 인천시민의 행정적 욕구는 증대되었고, 대민봉사를 주임므로 하는 인천시의 행정기구는 신설, 변경, 폐지되면서 확대 개편되었다.

1990년 당시 인천의 인구는 180만을 돌파하였고, 행정기구도 확대 개편되어 2실(室), 10국(局), 1본부(本部), 1관(官), 5담당관(擔當官), 4과(課), 143계(係)로 조직되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69]

69) 상게서, p.225.

〈표 26〉 인천직할시 본청의 행정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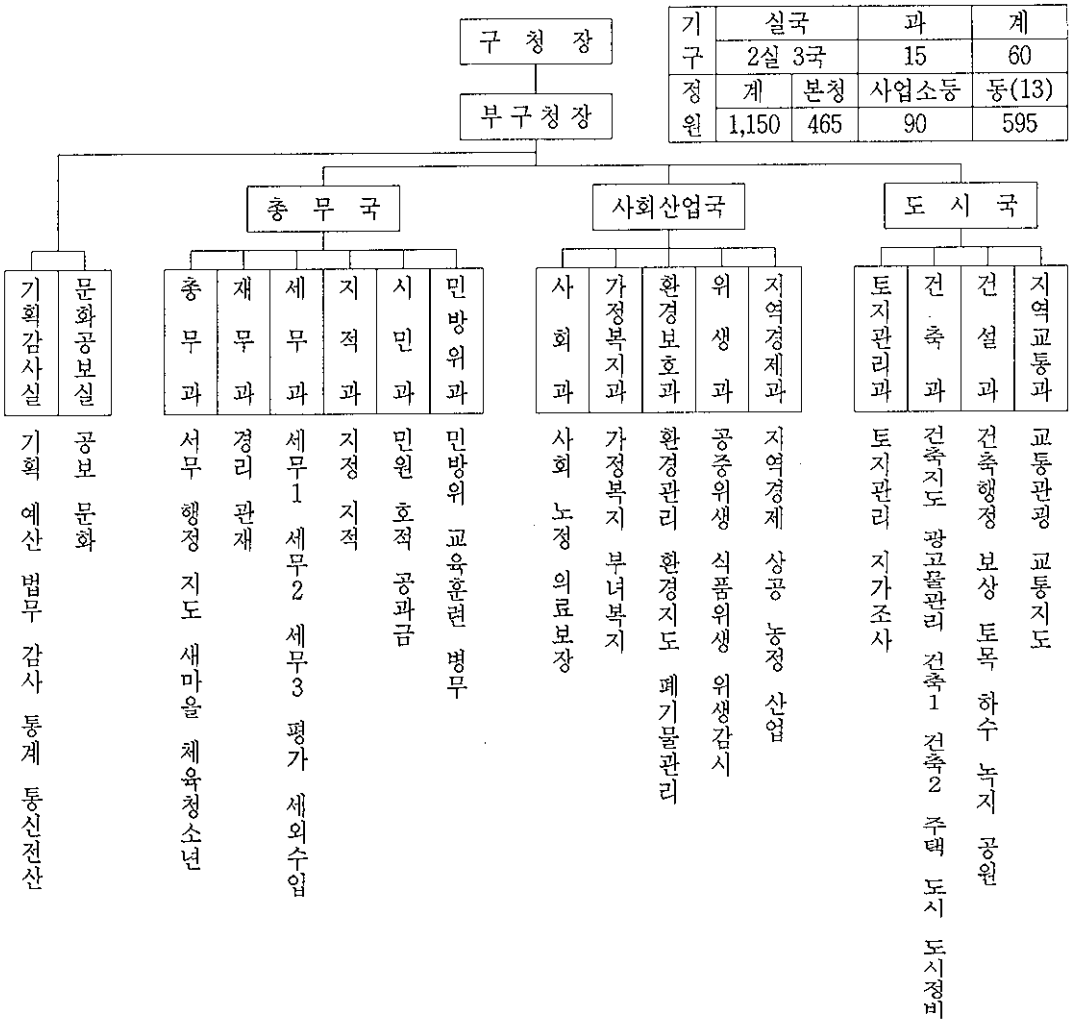


이와같이 1988년 이후 인천직할시의 행정기구는 확대 개편되었다. 그러나 북구는 서구가 분구되어 나간 대신 1989년에 김포군 계양면을 환수하여 계양동(桂陽洞)을 설치함으로써 북구(부평지역)의 면적은 76.87㎢를 유지하였을 뿐 관할동수는 29개 동에서 20개동으로 축소되었다.

1990년대 이르러 구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행정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북구의 행정기구는 2실(室), 3국(局), 15과(課), 60계(係)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다음의 〈표 27〉과 같다.

〈표 27〉 북구의 행정기구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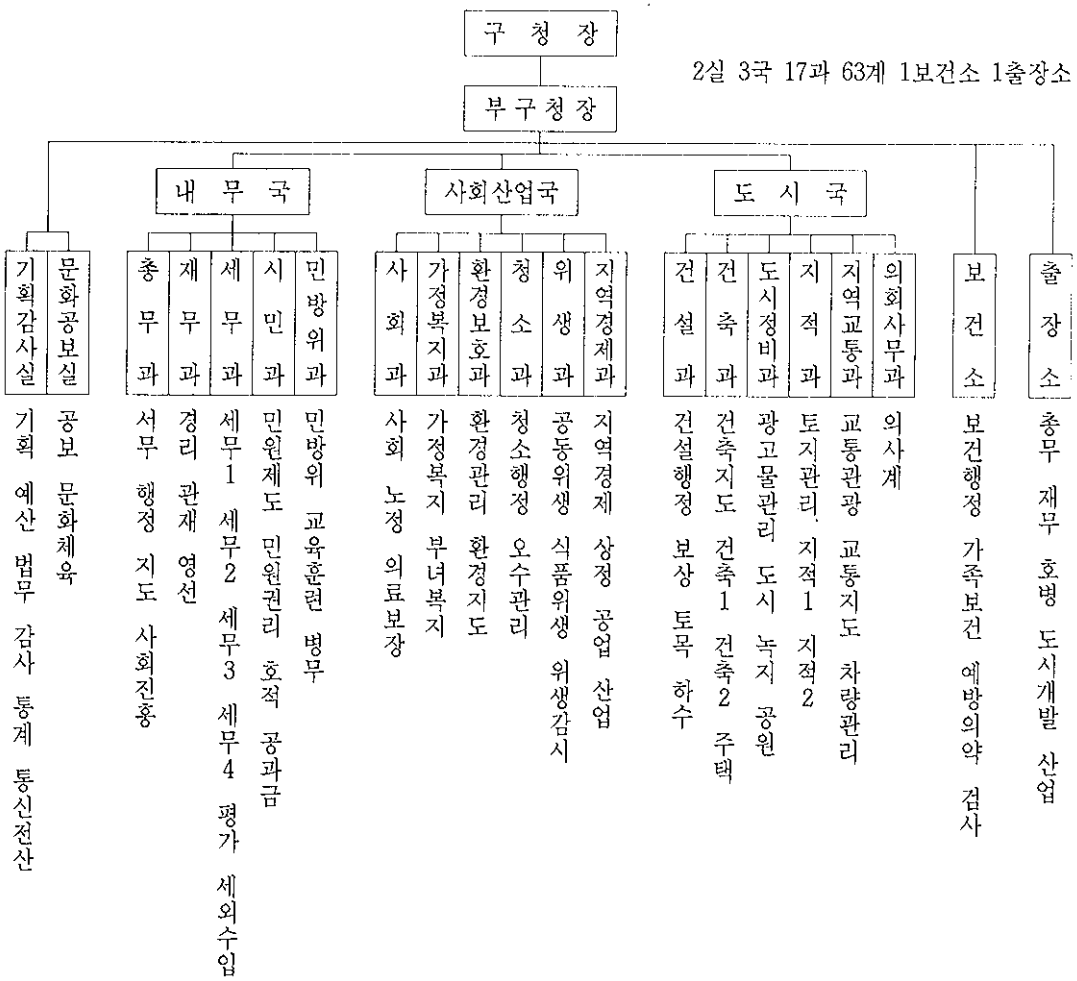
| 기구 | 실국 | | 과 | 계 |
|---|---|---|---|---|
| | 2실 3국 | | 15 | 60 |
| 정원 | 계 | 본청 | 사업소등 | 동(13) |
| | 1,150 | 465 | 90 | 595 |



1994년 7월 1일의 변경에 따른 인천직할시 북구의 행정기구는 2실(室), 3국(局), 17과(課), 6계(係), 1보건소(保健所), 5계(係), 1출장소(出張所)(5계), 32동으로 조직되어 있다.[70]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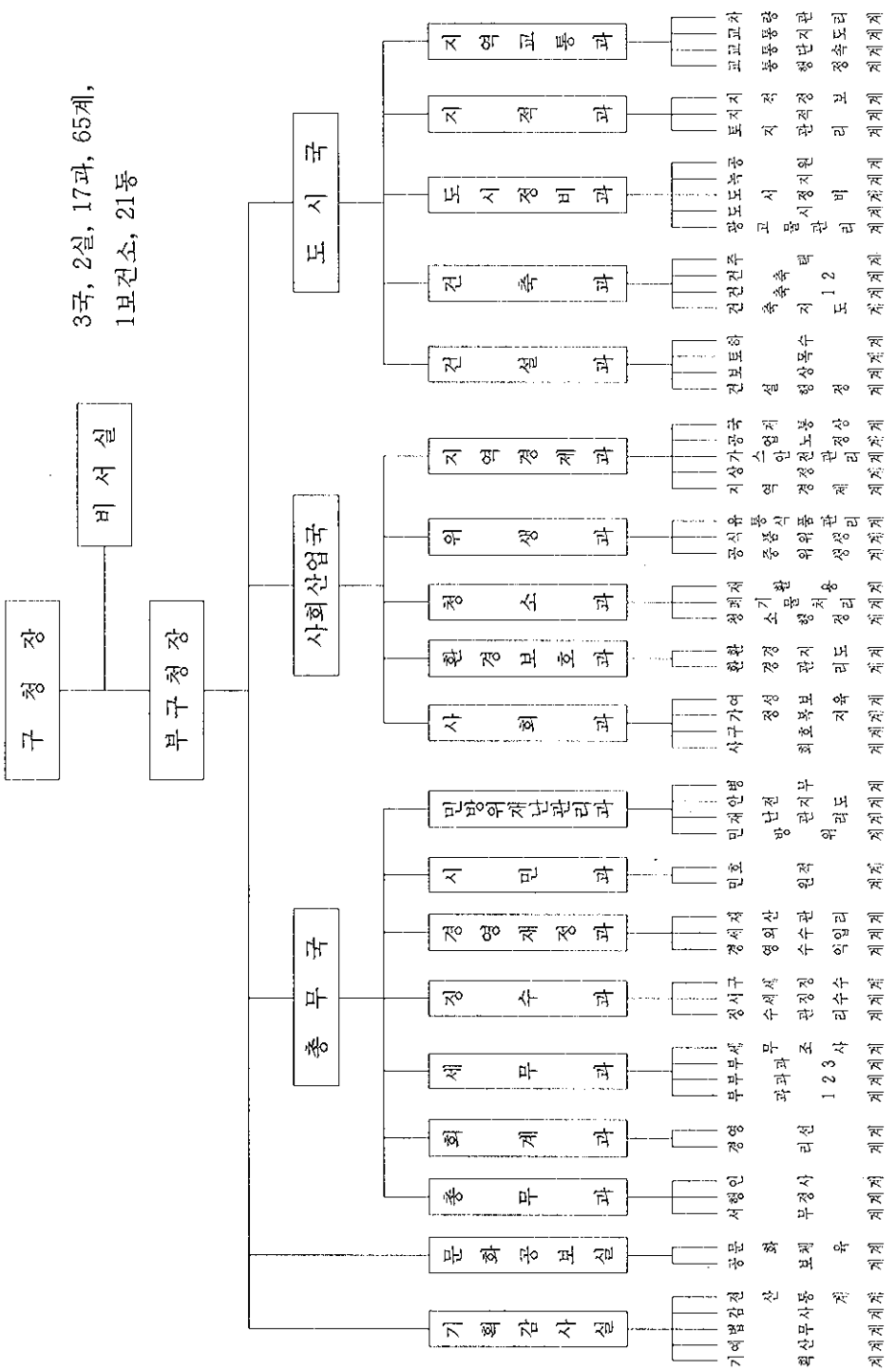
〈표 28〉 북구의 행정기구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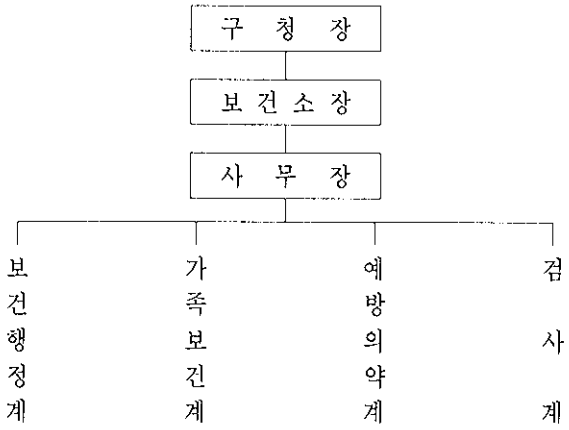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북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므로서 그 명칭이 사라졌다. 이로서 부평구의 행정기구는 3국, 2실, 17과, 65계, 1보건소, 21동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9및 30〉과 같다.

70) 북구청, 기구변동대장 참조.

〈표 29〉 부평구의 행정기구 (1996)



〈표 30〉 부평구 보건소의 행정기구 (1996)




그리고 이 이외에 부평구의회 담당의 1국 1계가 있다.

또한 인천직할시 승격 이후인 1981년부터 인천광역시로 변경된 1996년까지 사이에 신설, 폐지, 변경된 북구 및 부평구의 행정기구 변천내용을 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북구 및 부평구의 행정기구 변천

| 시 행 일 | 개 편 내 용 |
|---|---|
| 1981. 10. 20 | • 동의 계조직 폐지 |
| 1982. 9. 1 | • 부개동을 부개동, 일신동으로 분동 |
| 1983. 2. 16 | • 총무과에 지도계 신설 |
| 10. 1 | • 석남동을 석남동, 가좌동으로 분동 |
| 10. 10 | • 시민과의 주민등록계 폐지 |
| | • 산업과에 상공계 신설 |
| | • 건설과에 하수과징계 신설 |
| 1985. 1. 22 | • 건설과에 녹지계 신설 |
| 6. 20 | • 부구청장 신설 |
| 7. 1 | • 부녀아동계를 부녀청소년계로 변경 |
| 1987. 1. 1 | • 총무과에 경리계 신설 |
| 4. 1 | • 총무과에 문화공보계 신설 |
| | • 공해방지계를 환경관리계로 변경 |
| 6. 27 | • 서곶출장소에 민원·세무2계 신설 |
| 9. 1 | • 산업과에 공업계 신설 |

| 시 행 일 | 개 편 내 용 |
|---|---|
| 1988. 1. 1 | · 서구(9과, 30계, 1실) 신설 |
| 1. 25 | · 가정복지과와 가정복지, 부녀복지계 신설 |
| | · 의료보호계 신설 |
| 4. 4 | · 세외수입계 신설 |
| 6. 21 | · 10과 38계에서 2국 1실 11과 43계로 기구확대 |
| | · 총무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기획예산·법무·감사·관재·노정계 신설 |
| 1988. 12. 10 | · 관광운수계 신설 |
| 12. 30 | · 계양출장소(5개계), 북구보건소 계양지소, 계양동 신설 |
| 1989. 2. 21 | · 지적·산업·임야분야에 7명 보강 |
| 3. 7 | · 건전생활계 신설 |
| | · 위민실 폐지 |
| 4. 28 | · 건축과 도시정비계 신설 |
| 7. 27 | · 의료보호계를 의료보장계로 변경 |
| 9. 1 |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 신설 |
| | ·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변경 |
| | · 환경관리계를 환경보호계로 변경 |
| | · 위생과 신설 |
| 1989. 12. 31 | · 재무과 신설 |
| | · 전산통계계, 보상계 신설 |
| 1990. 2. 1 | · 토지관리과 신설 |
| | · 토지관리·지가조사계 신설 |
| 3. 30 | · 북구보건소 검사계 신설 |
| 8. 16 | ·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계로 변경 |
| 10. 20 | · 기획감사실에 통신전산계 신설 |
| | · 전산통계계를 통계계로 변경 |
| 11. 20 | · 위생과 신설 |
| | · 환경관리과 청소계를 환경보호과 청소계로 변경 |
| | · 환경보호계를 환경관리계로 변경 |
| 12. 11 | · 지역교통과와 주차단속계 신설 |
| | · 지역경제과 주차단속계 신설 |

| 시 행 일 | 개 편 내 용 |
|---|---|
| 1991. 4. 15 | • 구의회전담기구 설치로 의사계 신설 |
| 3. 20 | • 건축과 광고물관리계 신설 |
| 6. 25 | • 문화공보실을 설치하고 문화계, 공보계 신설 |
| 7. 15 | • 청소계를 광고물관리계로 변경 |
| 7. 31 | • 사회업무국 신설 |
| 10. 10 | • 위생감시계 신설 |
| 12. 26 | • 법집행 특별단속반 신설 |
| 1992. 8. 31 | • 계양동을 계양1동, 계양2동으로 분리 |
| 12. 29 | • 서무3계를 서무3·4겨리 분리 |
| | • 법집행특별단속반 폐지 |
| 1993. 7. 1 | • 법집행특별단속반 폐지 |
| 5. 6 | • 민원계를 민원제도계로 변경 |
| | • 민원처리계 신설 |
| 8. 5 | • 도시정비과와 차량관리계 신설 |
| 1994. 5. 9 | • 문화계를 문화체육계로 변경 |
| | • 청소년 체육계 폐지 |
| | • 영선계 신설 |
| 7. 1 | • 지적계를 지적1·2계로 분리 |
| 9. 5 | • 도시정비과 구획정리계 신설 |
| 10. 1 | • 시민과 공과금계 폐지 |
| 1995. 3. 1 | • 민방위과 폐지, 민방위계, 교육훈련계가 민방위계로 병합, 총무과로 흡수 및 총무과내 병무계 설치 |
| | • 시민과 민원처리계 폐지 |
| | • 시민과 민원제도계가 민원계로 명칭 변경 |
| | • 세무과 세무1계, 세무2계, 세무3계, 세무4계, 평가계, 세외수입계 폐지 |
| | • 부가1·2·3계, 세무조사계 신설 |
| | • 징수과 신설(징수1·2계, 체납정리계 신설) |
| | • 도시정비과 구획정리계 폐지 |
| | • 노동복지회관 폐지 |

| 시 행 일 | 개 편 내 용 |
|---|---|
| 1996. 1. 1 | 〈직제개편〉<br>① 본 청<br>• 경영재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br>• 전산통계계, 인사계, 시세징수계, 구세징수계, 경영수익계, 세외수입계, 재난관리계, 구호계, 폐기물처리계, 유통식품관리계, 교통단계 등 12계 신설<br>• 통계계(전산통계계), 통신전산계(서무계, 전산통계계), 지도계(전산통계계, 행정계, 민원계), 사회진흥계(행정계, 환경관리계, 폐기물처리계), 의료보장계(사회계), 위생감시계(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유통식품관리계), 징수2계, 체납정리계 등 8계 폐지<br>•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회과로 통폐합<br>• 노정계와 공업계를 공업노정계로 통폐합<br>• 산업계와 지역경제계를 지역경제계로 통폐합<br>• 재무과를 회계과로 명칭변경<br>•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명칭변경<br>• 징수1계를 징수관리계로 명칭면경<br>• 지적1계를 지적계로 명칭변경<br>• 지적2계를 지적정보계로 명칭변경<br>• 교통관광계를 교통행정계로 명칭변경<br>• 총무과 민방위계, 병무계를 민방위재난관리 민방위계, 병무계로 변경<br>•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를 사회과 여성보육계로 변경<br>• 청소과 청소행정계를 청소과 청소행정계, 폐기물처리계로 분리, 명칭변경<br>② 의 회<br>• 의회사무국 신설<br>• 의회사무과 폐지 |
| 7. 1 | • 지역경제과내 가스안전관리계 신설<br>• 민방위재난관리에 안전지도계 신설 |

# 第 2 章 행정시책(行政施策)의 전개(展開)

## 1. 내무행정(內務行政)

오늘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내무행정을 부평권이라는 특성이 잠재되어 지역향토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으며, 특히 환경문제가 대두된 시기에 쾌적한 부평구 건설을 목표로 선정하여 전체구민의 참여와 이해 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동참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도 건국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관할 면적의 확대·기구의 급진적 증가와 경제성장, 그리고 산업의 발달 등 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보게 되었다.

부평구의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1930년대 인천부 시대부터 제5·6공화국과 1993년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정리하면서 진정한 내무행정을 통해 지역민에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위민행정과 지역과의 연대감을 이어온 맥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내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구의 대 변혁을 가져온 1968년부터의 구제실시가 그 모태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구의 내무행정에 따른 변천과정과 그 특징을 묶어 시대별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인천부 시대

1930년대초 인천직할시가 인천부로 있을 당시 인천부의 행정조직은 서무계, 내무계로 단순한 행정체제로[1] 미약했기 때문에 우리구는 진정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였으며, 인천부의 일개부락으로서 면면을 이어왔다.

(2) 제1·2공화국시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수년이 지난 1954년에 비로소 인천시의 행정력이 신장되면서[2] 1956년 인천시에 9개의 출장소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고,[3] 행정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1) 인천시사편찬위원회, 『仁川市史』 중권, 1993, p.251.
2) 상게서, p.252.
3) 상게서, p.252.

따라 부평출장소(16개) 법정동과 10개의 행정동)에서 행정의 총괄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종합적 사무지도와 동 행정강화, 국민반 편성운영 등으로 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1960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에서는 각과에 사무전담 담임제가 도입[4] 되었으나 우리구는 북구청의 전신인 부평출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기구를 두고 봉사행정을 실천하게 되었다.

1962년 행정체제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법정동과 10개의 행정동, 378개 국민반으로 편성되었으며 41.64㎢의 행정구역과 공무원 31명이 근무하는데 머물렀다.

(3) 제3공화국시대

1963년에 이르러 시에서는 출장소와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민원서류에 대해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1966년 12월 1일을 기하여 인천시의 기구가 대도시 체제로 국제가 실시됨에 따라 출장소의 체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직제는 1출장소 8계였으며 11개동 433개 반으로 구성되었고, 인원구성은 총 75명으로서 그 내역은 출장소에 35명(일반직 3명, 고용직 1명) 동사무소에 40명(별정직 동장 11명, 일반직 4급을 6명, 5급갑 8명, 5급을 25명, 고용원 11명)이었다.

1960년대부터 내무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이를 부문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사관리

5.16혁명은 공직관리의 근간인 인사행정에 일대혁신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5] 범 정부 차원의 부정 부패 공직자에 대한 가차없는 정리와 공정한 인사관리의 핵이되는 승진의 길이 마련됨으로 실적주의(merit system)에 입각한 직업 공무원 제도가 확립되어[6]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사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에는 동사무소 사무장의 사기앙양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승급, 승진조치가 따랐으며,[7] 신속한 결원보충과 유능한 인재를 다수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 공무원에 대해 공개 채용시험제도가 마련되어 시도 단위에서 채용중점 배치됨으로 지방공무원의 자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4) 상게서, p.252.
5) 상게서, p.254.
6) 상게서, p.254.
7) 상게서, p.254.

② 동 행정기반조성[8]

연락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동사무소에 대하여 시로부터 대폭적인 사무이관이 이루어져 동사무소 행정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구와 출장소,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수십 종에 달한 민원 서식을 통일·표준화 하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동직원은 그 맡은 바 직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승진, 교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기는 저하되어 동행정 침체의 요인이 되었다.

이의 개선책으로 1964년 인천시에서 332명의 전체 동 직원에 대해 일제히 지방공무원 임용전형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하여 1964년 11월 30일 합격자 273명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화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1971년에는 기반행정 즉 동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특색있는 지역개발의 자력 추진, 시정에의 자진참여 분위기 조성등을 동 행정의 시책으로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9]

③ 감사행정 강화

범 정부적 부정부패 척결의지로 공무원의 각성촉구와 부정척결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감사업무의 강화가 그 특징을 이루었다.

④ 주민등록 정리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067호로 주민등록법이 공포됨으로서 종전의 기류법이 폐지되어 동년 6월 20일부터 주민등록을 실시하였고[10] 그 당시 상주인구는 86,920명[11]에 이르렀다.

1968년 5월 29일, 법률 제2016호에 의거 주민등록 관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개월간 각 동을 통해 주민등록 재정비 일제신고를 주민들로 부터 접수한 결과 1968년 10월말 현재 22,664가구, 인구 120,475명이었다. 주민등록 재정비 일제신고로 18세이상자에게는 신고된 사항을 신고자의 본적지에 조회 확인후, 1968년 10월 20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결과, 1969년까지의 총 발급자수는 65,869명으로서 대상자 68,627명중 96.8%의 실적을 올렸다.[1]

한편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일본, 중국, 구미 등으로 분포상황을 나타냈다.

---

8) 상게서, p.254.
9) 인천직할시, 『개항100년사』, p.4418.
10)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전게서, p.254.
11) 상게서, p.146.

⑤ 국민반 조직

1969년 행정의 순환과정의 출발점인 동시에 귀결점인 국민반 개편에 의거 동 단위 1개 국민반을 15~25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동의 실정에 따라 그 수를 가감하였다.

그 후 1970년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분 개편을 하였으며, 국민반을 통하여 시책을 주지시킴과 동시 국민의 의사 욕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였다.[12] 당시에는 지금처럼 반상회 제도가 제도화 되지 않았으나 반장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지역 공동관심사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행정참여와 상부상조의 협동심을 신장하는 계기도 되었다.

〈표 1〉 국민반 개편 현황

| 개 편 전 | 69년 개편 | 70년 개편 |
|---|---|---|
| 698반 | 725반 | 745반 |

자료 : 개항 100년사, 1983, p.448.

〈표 1〉에서 보듯이 국민반의 증가 요인을 철거민의 집단 이주가 주요인으로 분석 되었다.[13] 그리고 국민반장의 처우개선과 지도력 강화를 위해 년1인당 4,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위촉장과 신분증을 시장의 명의로 교부하여 인정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켰다.

또한 인천시 조례 제924호(1975년 7월 11일)에 의거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의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는 통장제가 시행되었으며, 통에는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 운영케 되어 행정력이 강화 되었다.

⑥ 민원실 운영

시 단위에서는 69년 9월 2일 민원실을 개설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에서도 민원실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구에서는 1970년 5월 1일 기구 개편이 승인됨에 따라 동년 6월 1일 우리 구에서도 민원실을 개설하게 되었다.[14] 이로써 민원업무 추진이 강화 되었으며, 그 운영은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한편, 창구즉결처리, 민원상담 및 열람 등의 대민 봉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민원실에는 우선 각과에서 처리되는 민원서류를 7개 창구화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창구마다 창구번호, 취급내용을 게시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모든 민원사무는 즉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어려운 민원사무는 민원실장 또는 처리 주무과장이 전결로 처리케 하였고, 그밖의 민원도 민원실에서 지도와 통제를 가하여 대민봉사 행정업무를 확대시켰다.

12) 개항100년사, 1993, p.448
13) 인천시사, 중권, 1993, p.256
14) 개항100년사, 1983, p.451

⑦ 기타 업무

1968년에 인감증명, 주민등록사무의 지도 감독권을 시로부터 이양받아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처리 업무인 대민봉사에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었으며, 1970년 새마을운동 창제로 개발행정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게 되었다.

1972년 외국인 등록 및 거주지 신고 사무와 주민등록 및 거류지 변경 사무와 인감사무 지도 감독권을 출장소로 이양하여 출장소 단위의 행정에도 권한을 증대시켜 주었다.

1973년에는 봉사행정 자세확립에 역점을 두어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신고와 신청인감에 관한 신고와 증명업무가 출장소, 동사무소로 이양하였음다.[15]

1976년에는 서정쇄신과 반상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그 실적으로는 ①서정쇄신 추진위원회 결성 및 회의 개최 등으로 자정의 노력을 하였으며, ②자체 감사를 통한 인사조치로 기강을 확립하였고, ③대화, 협동, 실천하는 반상회 운영, ④반상회보의 최초발간 배포를 47,300부로 이를 통한 건의사항 처리등이 주요 실적으로 나타냈다.

1978년에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정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공무원 정신교육 강화와 참다운 공무원상 정립과 행정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중점 추진하였다. 특히 서정쇄신의 내실화와 봉사행정을 10대 중점 사업으로 선정 중점 추진한 것이 주요 사업의 내용이 되었다.

(4) 제5·6공화국 시대

1981년 7월 1일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된 인천 북구는 명실상부한 직할시 단위의 구청으로 빠른 시일내에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시정구호인 「활기찬 시민, 약진 새인천」[16]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할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구정의 목표를 「책임 행정 구현과 지역 안정」으로 정하였다. 새시대에 걸맞는 행정 패턴으로 직할시 소속의 구청이란 자긍심으로 전체 공직자의 헌신적인 봉사 행정체제로 정의로운 민주 복지 국가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선진 조국 창조 대열에 서게 되었다.

① 제5공화국 초기 인천 북구의 역점시책

인천직할시 북구는 책임행정을 198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 정하고 전체 구민과 공직자의 솔선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책임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대화행정을 추구함은 물론 지역단위 문제를 지역에서 책임진다는 지휘 방침으로 지역대책 협의회를 활성화 시켰다. 공직자의 정신 무장을 통해 발상 자체를 전환하는 계기 조성을 위해 정신교육 강화를 통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였으며, 지역단위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주

15) 상게서, p.440.
16) 인천직할시, 전게서, p.257.

민여론을 수렴키 위해 여론모니터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행정행태의 변화를 위해 공직자 중심의 사고 전환과 공직자 사기문제에 역점을 두고, 퇴근시간의 엄수, 위임 전결 규정의 하향조정,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의 보강, 신상상담과 공직 내부 친목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도시생활에 맞는 도시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시책에 따라 질서정착, 일등시민운동 전개, 도시환경의 근간이 되는 도로변의 불량건축물, 광고물과 뒷골목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범시민 식수운동, 자연보호운동, 새마을 유아원 시설 확충과 시민복지 증진 시책으로 주민 생활보호, 유해식품단속 강화, 진개 분리수거의 전체동 확대실시등 다방면의 시책을 추진하였고 공장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하여 노사 협조 풍토를 조성하였다.

② 인사 관리

5공초 정부의 역점 시책에 따라 행정풍토 쇄신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행정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는 우선 공직자 각자의 쇄신이 필요하므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83년도에는 직무와 관련된 소양교육 등을 44회를 실시하는 등 정신 교육 위주의 교육이 두드러졌다.[17] 고질적인 관료행태를 불식하기 위하여 격식주의 탈피 권위의식 불식고압자세 개선 등 과감한 행정풍토 쇄신을 추구하였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는 정시퇴근제를 시행하므로써 밀도있는 근무기강을 확립하였다. 또한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직장 분위기를 우선 부드럽게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위공직자의 애로사항을 18회[18]을 청취·수렴하여 해결한 바 있다. 아울러 불우직원 돕기, 친목 동호인모임의 구성등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 모범사례 및 특수시책 11건을 개발·지원한 바 있다.[19]

1985년도에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원년의 해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공인정신과, 부패심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키 위해 어느 때보다도 정신교육이 우선시 되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근무 하위직 공무원 우대승진제가 실시되어 동에서 4년 근무하면서 9급 4년된 직원 46명에게는 8급으로 특별 승진시켰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40명에게는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빈 공무원 24명과 공무원 자녀에게는 대학입학 격려와 특별휴가제를 도입하여 효도휴가제를 실시하므로써 공직자의 근무의욕과 사기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87년에는 근속승진제가 제정되어 93년도에 기능직 7명을 승진시킨 바 있다.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우수인력 확보와 보직관리 적정, 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 시책

17) 1984년도 북구업무보고서중 『83주요추진실적』 p.5~6.
18) 상게 자료, p.5.
19) 상게 자료, p.6.

을 지속 추진하면서, 이를 인사관리의 목표로 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능률을 제고 시켰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부각 시키기 위하여 경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민봉사 실천과 서로돕고 이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활동강화 및 정신교육 강화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20] 한편 전체구민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정참여 기회확대 방안인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인 공감대 형성과 불우 이웃돕기운동 전개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21]

또한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주인의식 고취 교육이 중시되었으며 자율 동참 분위기 조성과 손님맞이 환경정비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22] 특히 내실있는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었던 우리 공직자의 부단없는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당시에는 모든 행정의 최우선을 '88 서울올림픽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표 2〉의 퇴직현황과 〈표 3〉의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 632명중 퇴직자 33명, 퇴직율 5.22%를 기록하였다.

〈표 2〉 년도별 퇴직현황

| 구분 \ 년도별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
| 정 원 | 489 | 531 | 663 | 744 | 632 | 883 | 989 | 1,123 | 1,230 |
| 퇴직인원 | 16 | 19 | 23 | 20 | 33 | 41 | 46 | 61 | 97 |
| 퇴직율(%) | 3.27 | 3.58 | 3.47 | 2.69 | 5.22 | 4.64 | 4.65 | 5.43 | 7.89 |

자료 : '94년 구정백서

〈표 3〉 공무원 현황

(88년/92년도)

| 구분 \ 부서별 | 계 | 구 | 의회사무기구 | 사업소 | 동 |
|---|---|---|---|---|---|
| 계 | 632 / 1,230 | 226 / 490 | 0 / 20 | 40 / 81 | 366 / 629 |
| 일반직공무원 | 430 / 794 | 173 / 303 | 0 / 12 | 19 / 65 | 238 / 414 |
| 별정직공무원 | 32 / 66 | 3 / 11 | 0 / 0 | 1 / 1 | 28 / 54 |
| 기능·고용직공무원 | 157 / 370 | 50 / 176 | 0 / 8 | 7 / 15 | 100 / 171 |
| 의료직공무원 | 13 / 0 | 0 / 0 | 0 / 0 | 13 / 0 | 0 / 0 |

20) 1988년 북구 업무보고서, p.21.
21) 상게 자료, p.23.
22) 상게 자료, p.27.

〈표 4〉 승진·전보현황

(1988년도)

| 구분 \ 부서별 | | 계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기능·고용 |
|---|---|---|---|---|---|---|---|---|---|
| 계 | | 350 | 0 | 7 | 54 | 96 | 106 | 22 | 65 |
| 인원(명) | 승진 | 133 | 0 | 0 | 24 | 47 | 50 | 0 | 12 |
| | 전보 | 217 | 0 | 7 | 30 | 49 | 56 | 22 | 53 |

'90년에는 공무원이 연고지에서 애향심을 바탕으로 보람있고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하였다. '90년 연고지 배치 실적으로는 타시도 전입 13명, 타시도 전출 9명 총 22명을 배치하였으며 이외에도 장기근속 공무원 40명에게 부부동반 산업시찰 실시와 출퇴근 버스운영, 청렴공무원 생계비지원, 하위직 직원과 간담회 실시등 사기진작에 노력하였다.

〈표 5〉 '90년 비위 공직자 처리현황

| 계 | 파 면 | 해 임 | 정 직 | 강 등 | 견 책 | 훈계·경고 |
|---|---|---|---|---|---|---|
| 13 | | | 3 | 1 | 9 | |

③ 소양고사 실시

1972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우수 공무원을 발탁 등용하기 위하여 소양고사가 실시되었다.[23] 그리고 1988년 자치구제 실시로 구에서 자체로 실시하였으며, '93년까지 6회를 실시한 바 있다.

〈표 6〉 소양고사 실시현황

| 실시년도 | 실시회수 | 대 상 | 응 시 | 응시율(%) | 비 고 |
|---|---|---|---|---|---|
| 90 | 1 | 202 | 168 | 83.0 | |
| 91 | 1 | 271 | 184 | 67.8 | |
| 92 | 1 | 260 | 212 | 81.0 | |
| 93 | 1 | 287 | 232 | 81.0 | |

④ 민원행정

1981년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민원인 편의중심의 민원봉사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환경개선은 물론 공중전화 1대를 설치하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편익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23) 인천직할시, 상게서, 70년대편, p.93.

각 과에서 처리해오던 업무중 창구즉결이 가능한 업무를 인수받아 민원창구를 재정비하여 활성화하였으며 날로 창구즉결이 가능하도록 범위로 확대해오고 있다.

또한 구·출장소·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생활민원 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주야를 불구하고 운영케 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생활민원 접수처리 전담반 및 생활민원 기동봉사대를 구성 배치활용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구와 출장소, 동사무소 24개 기관에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 15종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토록 하였다.

〈표 7〉 '89 민원사무처리 현황

| 구분 | 합계 | 제증명 | | 면허 | 허가 | 인가 | 승인 | 추천 | 등록 | 확인 | 신고 | 이의신청진술 | 질의건의 | 기타 |
|---|---|---|---|---|---|---|---|---|---|---|---|---|---|---|
| | | 건 | 통 | | | | | | | | | | | |
| 계 | 2,348,321 | 1,998,476 | 3,061,919 | 22 | 8,199 | 205 | 154 | 347 | 4,820 | 25,601 | 291,079 | 6,652 | 238 | 12,528 |
| 구 | 350,542 | 290,772 | 462,940 | 22 | 8,199 | 205 | 154 | | 1,453 | 456 | 47,905 | 474 | 135 | 767 |
| 동 | 1,997,779 | 1,707,704 | 2,598,979 | | | | | 347 | 3,367 | 25,145 | 243,174 | 61,178 | 103 | 11,761 |

〈표 8〉 기한별 민원처리 실적

(단위 : 건)

| 기한별 \ 기관별 | 계 | 구 |
|---|---|---|
| 계 | 516,311 | 516,311 |
| 창구민원즉결 | 486,350 | 486,350 |
| 유기한민원 | 29,961 | 29,961 |

자료 : '90년 북구 구정백서

〈표 9〉 전화, 우편, 전신 민원처리 실적

(단위 : 통수)

| 분야별 \ 기관별 | | 합계 | 구 |
|---|---|---|---|
| 우편민원 | 소계 | 94,555 | 94,555 |
| | 일반민원우편 | 323 | 323 |
| | 민원전용우편 | 3,261 | 3,261 |
| 전신민원 | | 152 | 152 |
| 전화민원 | | 90,819<br>(29,459) | 90,819<br>(29,459) |

* 전화민원중 ( )내서는 전화로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민원건수임.

자료 : '90년 북구 구정백서

특히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공과금의 부과, 수납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 11월 부터 통합 공과금 제도가 실시되었다.

실시 배경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요금, TV시청료, 도시가스 사용료, 폐기물 수수료(청소비)이상 6종에 대해 검침원을 가장한 불순분자의 가정침입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행되었다.[24] 그간의 실시 효과로서는 검침 및 고지서 송달을 위한 검침원의 방문이 월 6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으며[25] 개별 고지서에 의하여 공과금별로 따로 따로 납부하던 것을 통합 고지서로 납부하게 되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시설 및 기기의 간단한 고장을 현장에서 즉석 수리하는 현장 기술봉사와 민원대행처리, 기타 행정시책의 홍보 등으로 지방행정의 서비스 기능 제고에 기여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큰 성과라 하겠다.[26]

통합 공과금 실시 당시인 1986년과 1993년말 통합 공과금 자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 통합공과금 자원 현황

| 년도별 / 자원별 | 86년 12월 | 93년 12월 | 증 감 | 비 고 |
|---|---|---|---|---|
| 총 자 원 수 | 297,962 | 536,098 | 238,136 | |
| 전 기 | 84,861 | 135,250 | 50,389 | |
| 상 수 도 | 34,185 | 44,677 | 10,492 | |
| 하 수 도 | 36,134 | 46,931 | 10,797 | |
| 도 시 가 스 | 14,034 | 80,458 | 66,424 | |
| 폐 기 물 | 37,250 | 66,346 | 29,096 | |
| T.V 시 청 료 | 91,498 | 162,436 | 70,938 | |
| 고 지 매 수 | 120,166 | 205,669 | 85,503 | |

1987년에는 대민봉사업무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 구정방향을 확고한 국가관 확립, 위민봉사행정 구현, 지역책임행정실천으로 58만 구민의 대단합을 결집하였다. 예년보다 강도있는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위해 친절봉사 교육이 중시되었으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접촉 장소인 각 기관의 민원실을 주민 위주의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원대 높이 조정과 민원인 사용 대기의자 확보, 증지 구매창구의 일원화, 노인들을 위한 돋보기 비치 등 민원 봉사행정에 최선을 기하였다.

24) 동상공과금실무, 1997년판
25) 통합공과금실무, 1997년판
26) 통합공과금실무교재, 1993 그간의 실시 효과

지역주민 아울러 통장집에 통 민원실을 644개소 개설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제 서식등을 비치캐 하여 효율성있게 주민편익을 제공하였다. 아파트 단지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각종 제 증명서식과 민원서식을 비치하고 구와 동사무소 직원이 현지 출장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였다.

〈표 11〉 1987년 민원처리 현황

| 민원명 / 구분 | 호적 등초본 | 병무 제신고 | 신원 증명 | 호적 재신고 | 건축물 관리대장 | 취득세 자납 | 세무 제증명 | 부지 증명 | 토지 대장 | 계 |
|---|---|---|---|---|---|---|---|---|---|---|
| 처리건수 | 49,898 | 59 | 13,530 | 17,573 | 59,858 | 11,539 | 71,598 | 48,835 | 81,674 | 354,564 |

〈표 12〉 1987년 기한부 민원처리실적

| 종류 / 구분 | 계 | 인·허가 | 증 명 | 신고·등록 | 진 정, 이의신청 | 질의, 건의, 기 타 |
|---|---|---|---|---|---|---|
| 처리건수 | 18,414 | 5,358 | 8,420 | 4,210 | 364 | 62 |

〈표 13〉 1992년 생활민원 처리실적

(단위 : 건)

| 분야별 / 기관별 | | 계 | 구 | 동 |
|---|---|---|---|---|
| 생활민원 | 계 | 114,783 | 75,184 | 39,599 |
| | 상수도분야 | 31 | 2 | 29 |
| | 하수도분야 | 1,218 | 905 | 313 |
| | 청소분야 | 2,447 | 292 | 2,155 |
| | 도로환경분야 | 85,989 | 52,425 | 33,564 |
| | 응급민원 | 4 | | 4 |
| | 고발민원 | 1,506 | 1,333 | 173 |
| | 기타민원상담 | 23,588 | 20,727 | 3,361 |

자료 : '93년 구정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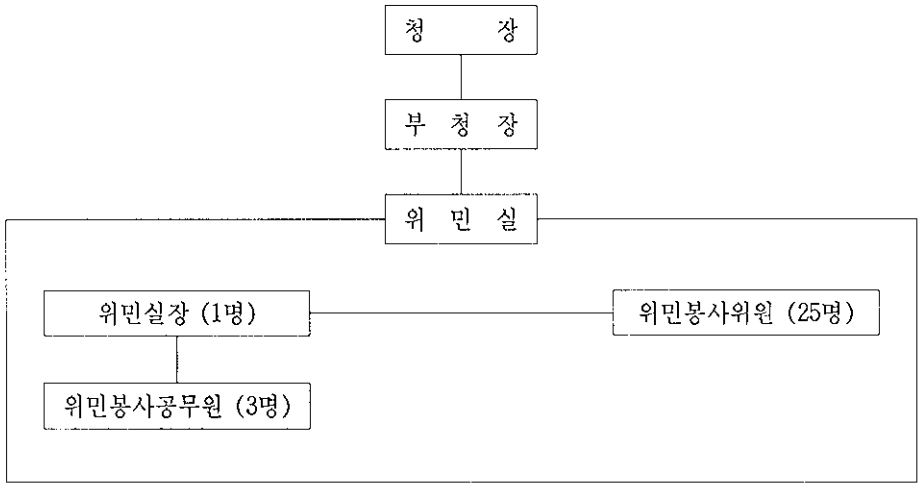
1986년부터 정부에서는 수시로 여러가지의 민원인 편익시책을 시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시책적으로 시행되었던 민원 편익 제도들을 보면 ①위민실 제도, ②직소 민원실 제도, ③민원1회 방문 처리등이 특징있는 시책이라 할 수 있겠다.

① 민원실 제도[27]

1986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위민실 제도는 1986년 10월 27일 자로 인천직할시 조례 제1,976호인 인천직할시 구 위민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되면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위민실 제도가 전면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실시로 약 2년 3개월 동안 34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본 위민실 제도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민원 제기를 받아서 그 사정의 전모를 재검토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불우한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주민조직인 위민 봉사회에 의한 주민 자발적 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민의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인 고정 사항은 친절하게 상담하고 관계기관(부서)으로 하여금 처리·해결토록 하였다.

위민실 조직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행정 6급을 위민실장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 위민 봉사 공무원인 실무자를 3명 배치하여 고정사항의 행정처리를 전담토록 하였다. 특히 위민봉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한 것이 특징이며 본 위민봉사위원은 북구 관내의 전문직 종사자 9명과 일반 봉사자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고충사항에 대한 고충 처리의 방향을 의논토록 하였다.

27) 제7호, 구정연구발표대회 북구연구단편, 1993. 11. 7, p.17~20.

〈표 14〉 위민봉사위원 위촉현황

| 총계 | 전문봉사위원 | | | | | | | 일반봉사위원 | | | | |
|---|---|---|---|---|---|---|---|---|---|---|---|---|
| | 소계 | 의사 | 사법서사 | 건축사 | 세무사 | 종교인 | 회사대표 | 소계 | 주부 | 학생 | 상업 | 기타 |
| 25 | 9 | 1 | 1 | 2 | 2 | 2 | 1 | 16 | 3 | 1 | 3 | 9 |

위민실 운영 실적으로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 10월 31일 현재 총 접수 건수는 312건이며, 처리건수는 308건으로서 98.7%를 처리하였다. 308건중 162건인 51.9%는 위민실에서 84건인 26.9%는 위민봉사위원이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처리하였다. 고정 유형별로는 어려운 일이 73.7%인 230건 이었고, 억울한 일은 26.3%인 82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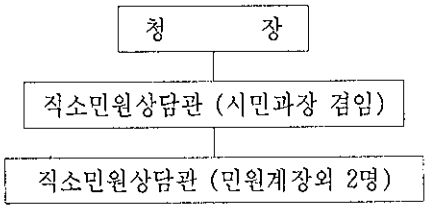
〈표 15〉 위민실 운영실적 (88. 10. 31)

| 구분 | | 추진사항 | | | | |
|---|---|---|---|---|---|---|
| | | 총계 | 해결 | 미해결 | 추진중 | 비고 |
| 총계 | | 312 | 308 | | 4 | |
| 처리부서 | 위민실 | 162 | 162 | | | |
| | 실국과 | 125 | 121 | | 4 | |
| | 타기관 | 25 | 25 | | | |
| 상담주관 | 공무원 | 228 | 224 | | 4 | |
| | 봉사위원 | 84 | 84 | | | |
| 고정유형 | 어려운일 | 230 | 226 | | 4 | |
| | 억울한일 | 82 | 82 | | | |
| 고정내용별 | 생활민원 | 163 | 162 | | 1 | |
| | 취업알선 | 7 | 7 | | | |
| | 생활보호 | 53 | 50 | | 3 | |
| | 피해보상 | 10 | 10 | | | |
| | 의료시혜 | 16 | 16 | | | |
| | 법률구조 | 55 | 55 | | | |
| | 지역사업건의 | 1 | 1 | | | |
| | 민원인의진정 | 2 | 2 | | | |
| | 시책건의 | 0 | 0 | | | |
| | 기타 | 5 | 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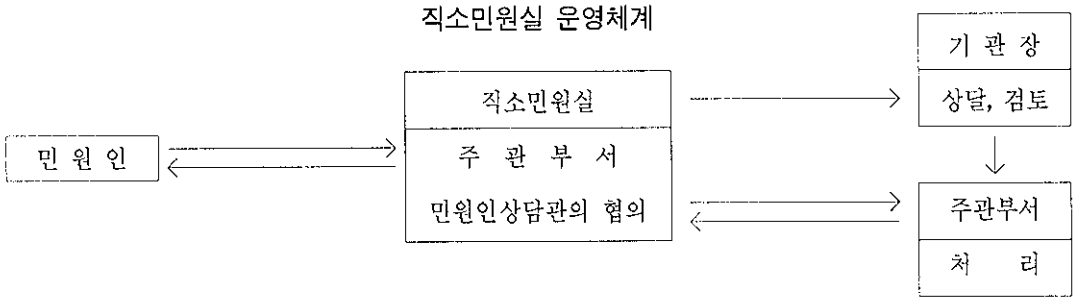
② 직소 민원실 제도[28]

본 제도는 1991년 4월 10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약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민원부서나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 듣고 성의를 다하게 처리하고 답변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대민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던 제도이다.

직소민원실 조직




직소민원실 운영체계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을 보면, 1991년 11월 30일 현재 총 43건이 접수되어 39건이 해결 되었으며 접수된 43건 대부분 도시관련 사안이었다. 직소민원실 운영실적과 내용별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16〉 운 영 실 적

| 접수(건) | 처리 | | | | 처리불가 |
|---|---|---|---|---|---|
| | 계 | 해 결 | 대안제시 | 이 첩 | |
| 43 | 39 | 34 | 4 | 1 | 4 |

28) 제7회 구정연구발표대회, 1993. 11. 17, 북구연구단, p.22~24.

〈표 17〉 내용별 처리실적

| 계 | 도시계획 | 건 축 | 도 로 | 건 설 | 청 소 | 교 통 | 호 적 | 국공유지 |
|---|---|---|---|---|---|---|---|---|
| 43(4) | 5(1) | 13(1) | 5(2) | 10 | 4 | 2 | 1 | 3 |

※ ( )안은 처리불가 건수

③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인·허가업무를 비롯한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단 1회만 방문하여 민원사항 처리에 있어 중간처리 과정은 공무원이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잉태된 것은 사회의 각종 제도는 점점 신속하고 간편해져 일상 생활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감소되는데 반하여 행정기관을 통한 민원해결의 더욱 복잡성과 사회비용의 증가로 인해 1993년 문민정부 출범후 행정개혁 차원에서 동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도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전인 1992년의 북구청에서 처리한 종류별 민원처리 실적과 내용별 민원서류 접수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18〉 '92 종류별 민원처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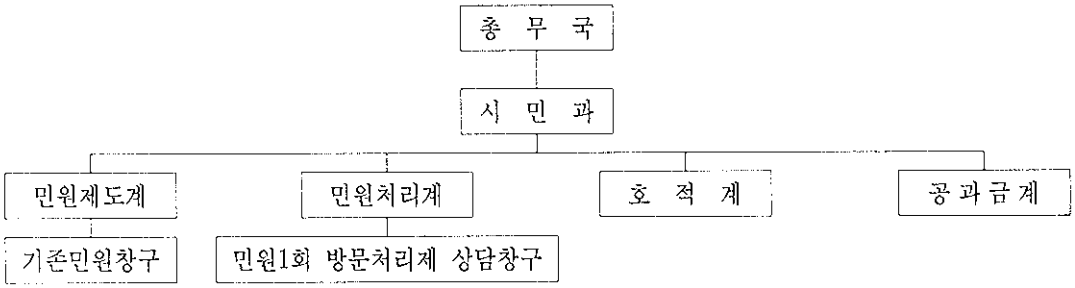
| 계 | 기 한 부 민 원 | 즉 결 민 원 | 제 증 명 민 원 |
|---|---|---|---|
| 505,149(100%) | 23,750(4.7%) | 9,527(1.9%) | 471,872(93.4%) |

〈표 19〉 '92 내용별 민원서류 접수실적

| 합계 | 일 반 민 원 | | | | | | 기 한 부 민 원 | | | | |
|---|---|---|---|---|---|---|---|---|---|---|---|
| | 소계 | 진정 | 건의 | 청원 | 질의 | 신고 | 소계 | 허가 | 승인 | 인가 | 등록 |
| 23,423 | 15,459 | 368 | 123 | 85 | 222 | 14,661 | 7,964 | 7,465 | 247 | 251 | 1 |

본 제도의 전담 처리부서는 총무국 시민과의 민원계와 총무과 지도계의 민원관련업무를 이관시켜 민원제도계로 확대·개편하였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전담을 위한 민원처리계를 신설하였다.

전담부서의 기구조직




또한 본 제도의 실시일인 1993년 5월 10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0〉 민원접수 처리실적

| 구 분 | 접 수 | 처 리 | 처 리 불 가 | | | 취 하 | 처리중 | 비 고 |
|---|---|---|---|---|---|---|---|---|
| | | | 소 계 | 불 가 | 반 려 | | | |
| 계 | 4,596 | 4,185 (91.0%) | 228 (5.0%) | 209 | 19 | 9 (0.2%) | 174 (3.8%) | |
| 단 순 | 1,015 | 749 | 211 | 205 | 6 | 5 | 50 | |
| 복 합 | 3,581 | 3,436 | 17 | 4 | 13 | 4 | 124 | |

〈표 21〉 '92 동기간중 민원 접수 처리 실적 비교

| 구 분 | 접 수 | 인허가 처 리 | 불 가 처 리 | | | 취하등 | 처리중 | 비 고 |
|---|---|---|---|---|---|---|---|---|
| | | | 소 계 | 불 가 | 반 려 | | | |
| '92년 | 4,463 | 3,796 | 132 | 112 | 20 | 374 | 165 | |
| '93년 | 4,596 | 4,185 | 228 | 209 | 19 | 9 | 174 | |
| 증 감 | 증129 | 증389 | 증96 | 증97 | 감1 | 감365 | 증9 | |

이상과 같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효과로서는 국민편익증진,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행정제도 쇄신, 경제 사회적 비용 절감, 공직자 의식개혁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표 22〉 주요민원 처리성과 (93. 5. 10 ~ 12. 31)

| 민 원 명 | 접수건수 | 처리일수 | 평균처리일수 | 종전처리일수 | 단축일수 |
|---|---|---|---|---|---|
| 복합민원 | 6,095 | 24,690 | 4.0 | 5.8 | 1.8 |
| 건축허가 | 2,029 | 7,710 | 3.8 | 6.7 | 2.9 |
| 건축물용도변경 | 411 | 1,274 | 3.1 | 6.1 | 3.0 |
| 식품·위생업허가 | 1,728 | 4,665 | 2.7 | 3.0 | 0.3 |
| 공장설립허가 | 150 | 630 | 4.2 | 14.9 | 10.7 |
| 옥외광고물허가 | 788 | 2,285 | 2.9 | 4.8 | 1.8 |
| 배출시설허가 | 287 | 976 | 3.4 | 14.2 | 10.8 |
| 석유판매허가 | 233 | 2,773 | 11.9 | 10.0 | -1.9 |
| 토지형질변경 | 36 | 259 | 7.2 | 28.0 | 20.8 |
| 담배소매인지정 | 415 | 3,619 | 8.7 | 14.2 | 5.5 |
| 주택건설사업 | 18 | 508 | 28.2 | 60.0 | 31.8 |
| 단순민원 | 3,131 | 10,106 | 3.2 | 6.5 | 3.3 |
| 사용검사 | 1,957 | 4,110 | 2.1 | 3.8 | 1.7 |
| 토지분할허가 | 102 | 224 | 2.2 | 3.0 | 0.8 |
| 방문시설인가 | 105 | 242 | 2.2 | 3.2 | 0.9 |
| 양곡매매업허가 | 89 | 169 | 1.9 | 3.0 | 2.1 |
| 행정서사업허가 | 9 | 17 | 1.8 | 3.0 | 2.2 |
| 부동산중개허가 | 244 | 1,001 | 4.1 | 7.0 | 2.9 |
| 토지거래허가 | 436 | 3,401 | 7.8 | 21.0 | 13.2 |
| 택지취득허가 | 92 | 746 | 8.1 | 21.0 | 12.9 |
| 마을금고인가 | 11 | 58 | 5.2 | 7.0 | 1.8 |
| 체육시설이용료 | 86 | 138 | 1.6 | 3.0 | 1.4 |

〈표 23〉 주요민원 첨부서류 감축실적

| 민 원 명 | 당초첨부서류 | 변경첨부서류 | 감축첨부서류 | 감 축 서 류 명 |
|---|---|---|---|---|
| 평 균 | 6종 | 4.3종 | 1.7종 | 감축서류는 청내공부확인으로 가능 |
| 건축허가 | 9 | 5 | 4 | 도시계획, 토지, 건축물등 |
| 건축물용도변경 | 3 | 1 | 2 | 도시계획, 건축은 대장 |

| 민 원 명 | 당초첨부서류 | 변경첨부서류 | 감축첨부서류 | 감 축 서 류 명 |
|---|---|---|---|---|
| 식품위생업허가 | 5 | 2 | 3 | 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
| 공장설립허가 | 4 | 3 | 1 | 건축물 관리대장 |
| 옥외광고물허가 | 8 | 7 | 1 | 〃 |
| 배출시설허가 | 8 | 7 | 1 | 〃 |
| 석유판매업허가 | 6 | 5 | 1 | 도시계획, 건축물대장 |
| 토지형질변경 | 6 | 5 | 1 | 도시계획, 토지대장 |
| 담배소매인지정 | 2 | 1 | 1 | 건축물관리대장 |
| 주택건설사업 | 9 | 7 | 2 | 도시계획, 토지대장 |

또한 1989년 세무민원의 대다수였던 과세증명민원을 각 동에 이관시켜 신속히 처리토록 하여 민원 편익을 증진시킨 바 있다. 특히 1994년에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업무용 차량을 최초로 동당 1대씩(총 29대) 구입 배치하여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등 대민 봉사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④ 행정의 전산화 추진

우리 구에서는 대민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장비의 보강 및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1987년부터 실시하게 된 행정장비 보강 5개년계획(1987년 ~ 1991년)에 의거 정수 부족분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불량장비 등을 교체·확보한다는 방침으로 행정 전산망 구축 등 다가올 지방화 시대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행정 전산망의 총체인 전국 온라인(on-line)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표 24〉 1993년말 행정장비 보유현황

| 장 비 별 | 정 수 | 보 유 수 | 과 부 족 | 기 관 별 보 유 현 황 | | |
|---|---|---|---|---|---|---|
| | | | | 구 | 사 업 소 | 동 |
| 총 계 | 924 | 704 | 220 | 241 | 37 | 426 |
| W/S | 434 | 318 | 116 | 99 | 10 | 209 |
| FAX | 59 | 58 | 1 | 26 | 2 | 30 |
| 복 사 기 | 112 | 114 | △2 | 32 | 6 | 76 |
| 광화일시스템 | 1 | 0 | 1 | | | |
| 마이크로필림시스템 | 1 | 0 | 1 | | | |

| 장비별 | 정 수 | 보유수 | 과부족 | 기관별 보유현황 | | |
|---|---|---|---|---|---|---|
| | | | | 구 | 사업소 | 동 |
| 문서세단기 | 60 | 60 | 0 | 24 | 6 | 30 |
| 전동등사기 | 37 | 17 | 20 | 3 | 2 | 12 |
| 타 자 기 | 83 | 74 | 9 | 35 | 5 | 24 |
| 인 증 기 | 32 | 32 | | 1 | 1 | 30 |
| 제 판 기 | 1 | 0 | 1 | | | |
| 환 등 기 | 40 | 4 | 36 | 3 | 1 | |
| 투시투명기 | 2 | 0 | 2 | | | |
| 앰 프 (대 형) | 4 | 4 | | 4 | | |
| V T R | 47 | 17 | 30 | 8 | 4 | 5 |
| 사진기(고감도) | 6 | 5 | 1 | 5 | | |
| 녹음기(대 형) | 5 | 1 | 4 | 1 | | |

⑤ 새마을 유아원 운영

1981년 대통령의 지방순시때의 지도이념에 따라 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것을 토대로 우리구에도 기존 어린이집 1개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유아교육 진흥법(법률 제3635호, 82년 12월 31일)에 의거 유아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심신발달에 충실을 기함과 아울러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하게 함으로써 장차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 그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새마을 유아원이 본격 운영되게 되었다.

우리구에서는 새마을 유아원을 8개소를 운영하였으나,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거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5개소가 전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 새마을 유아원의 운영 효과로는 조기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사회교육의 전면 확대 기반구축과 전인교육을 통한 국민정신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

〈표 25〉 유아원 운영현황

| 유아원명 | 위 치 | 초대원장 | 수용능력(명) | 교사수(명) | 설립일시 | 건물규모(평) | 운영주체 | 비 고 |
|---|---|---|---|---|---|---|---|---|
| 목 련 | 산곡 93 | 李順子 | 160 | 4 | 81. 3. 5 | 160 | 공 립 | 94.1.14 어린이집 전환 |
| 진달래 | 부평 5104-10 | 柳明淑 | 80 | 2 | 82. 9. 4 | 74 | 공 립 | 93.12.31 폐원 |
| 작 전 | 작전 184 | 金淑子 | 160 | 4 | 83.11.25 | 72 | 공 립 | 94.1.14 어린이집 전환 |
| 서 운 | 서운 238 | 權東順 | 50 | 2 | 83. 9. 5 | 32 | 공 립 | 92 폐원 |
| 충 성 | 구산 10 | 沈福子 | 120 | 4 | 82. 3.10 | 114 | 공립(군부대) | 93.12.23 사설화 |
| 병 방 | 병방 101 | 全敬子 | 40 | 2 | 81. 4.20 | 22 | 공 립 | 94.1.14 어린이집 전환 |
| 반 석 | 부평 186-104 | 盧春玉 | 40 | 4 | 83. 4.26 | 26 | 사 립 | 95.5.7 어린이집 전환 |
| 철 마 | 산곡 138 | 李明順 | 240 | 7 | 78. 3.13 | 290 | 법 인 | 90.4.2 어린이집 전환 |

⑥ 청사 관리

공직자의 사기는 물론 도시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전당으로서 청사문제도 도외시 될 수 없었다. 노후 청사 등이 협소하게 사용되는 공공시설물이 날로 증가되어 신축 또는 증·개축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연차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1988년 자치구제 실시 이후 신·증축된 청사도 개소에 이르는데 특히 기구확대 등으로 구본청 청사의 부족으로 193평을 본 청사 뒷편에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사업비 25,47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인천직할시 부평구 부평동 879의 7필지에 연건평 9,305평 규모의 구청사 신축공사를 1993년 10월부터 착공하여 1996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열악한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도 연차계획을 수립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는 청사가 확보될 전망이다.

〈표 26〉 청사 신·증축 현황

| 연도별 | 신 증 축 현 황 |
|---|---|
| 1968년 | 북구 공보관 3층 신축(420평) |
| 1971년 | 북구청사 3층 신축(1,023평), 산곡2동 2층 신축(49평) |
| 1974년 | 현 효성2동 신축(51평), 부평6동 신축(47평), 서운동 신축(33평) |

| 연도별 | 신 증 축 현 황 |
|---|---|
| 1975년 | 부평5동 신축(37평), 현 부개1동 신축(62평), 구본청 3층 증축(106평), 현 작전1동 신축(34평), 십정1동 신축(52평) |
| 1979년 | 부평3동 신축(42평), 산곡1동 2층 신축(100평), 부평2동 2층 증축(75평), 현 갈산1동 2층 신축(81평), 현 청천1동 신축(105평) |
| 1982년 | 현 계산2동 신축(129평) |
| 1985년 | 산곡3동 신축(196평), 일신동 신축(117평) |
| 1986년 | 부개2동 신축(139평) |
| 1987년 | 십정2동 신축(114평), 작전1동 증축(30평) |
| 1988년 | 북구청사 증축(141평), 구의회청사 신축(293평) |
| 1989년 | 계양1동 신축(336평) |
| 1990년 | 부평1동 이전 신축(158평), 부개1동 증축(46평), 갈산1동 증축(40평) 부평4동 이전 신축(172평) |
| 1991년 | 부평2동 이전 신축(158평), 청천2동 이전 매입(265평), 북구보건소청사매입(245평), 효성1동 신축(182평), 계산1동 신축(199평), 구의회청사증축(41평) |
| 1992년 | 부평6동 증축(68평), 작전2동 신축(221평), 구청사증축(193평) |
| 1993년 | 산곡2동 신축(250평), 산곡4동 임시건물(70평), 계산3동 신축(219평), 삼산동 신축(267평) |
| 1994년 | 계양2동 신축(292평) |

⑦ 차량관리

차량은 능률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기동력으로서 행정지원에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서 1993년말 현재 7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한편,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차량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간 보유하고 있는 차종으로는 승용차, 업무용, 화물용 차량 등이 있으며 도시여건에 맞추어 1989년부터 굴삭기, 포크레인, 노면청소차, 준설기 등을 확보하여 도시행정수요에 맞는 차종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표 27〉 자치구 이후 차량보유 현황

| 차종 / 년도별 | 총계 | 승용차 | | 업무용 | | | 화물 | | | 특수차 |
|---|---|---|---|---|---|---|---|---|---|---|
| | | 1800cc 이하 | 1600cc 이하 | 찝 | 승합 25일이상 | 승합 16인이하 | 8톤 | 2.5~4.5톤 | 2.5톤 이하 | |
| 1988년 | 18 | | 4 | 6 | | | 1 | 3 | 4 | |
| 1989년 | 19 | | 3 | 4 | | | 1 | 3 | 6 | 2 |
| 1990년 | 26 | | 2 | 5 | 1 | | 1 | 3 | 6 | 8 |
| 1991년 | 35 | 1 | 3 | 7 | 1 | 1 | 1 | 5 | 8 | 8 |
| 1992년 | 45 | 2 | 3 | 7 | 1 | 1 | 1 | 8 | 8 | 14 |
| 1993년 | 74 | 2 | 2 | 6 | 1 | 1 | 1 | 9 | 36 | 16 |

⑧ 기타사항

제5공화국 이후 구세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충만케 되었으며 또한 편익시설의 놀라운 확충으로 구민의 화합과 동참의식이 크게 향상 되었다.

특히 제6공화국 출범과 동시 북구가 북구와 서구로 분구가 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하여 신뢰받는 민주행정구현에 한 발 더 가깝게 봉사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구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위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비롯 구민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이 만족할만한 시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책임 행정완수의 대업이 창출되었다.

〈표 28〉 5공화국 초기와 85년의 성장대비표[28]

| 구 분 | 80년 | 85년 | 성장율(%) | 비 고 |
|---|---|---|---|---|
| 주택보급(棟) | 39,190 | 74,428 | 89.9% | |
| 도로포장율(%) | 44.5 | 62.0 | 17.5 | |
| 급수율(%) | 50.4 | 90.2 | 40.2 | |
| 하수도보급율(%) | 51.0 | 64.0 | 13.0 | |
| 학교(개교) | 15 | 44 | 190.0 | |
| 자동차(대) | 5,620 | 13,050 | 132.2 | |
| 전화(대/100인당) | 6.4 | 14.6 | 128.0 | |

28) 인천시 북구, 86년도 주요업무계획, p.7.

〈표 29〉 88년 1월 분구로 인한 구세변화[29]

| 구세변화 | 분구전 | 분구후 |
|---|---|---|
| 면적 | 95.09㎢ | 45.8㎢ |
| 행정구역 | 1출장소 29개동 | 19개동 |
| 가구 | 159천가구 | 121천가 |
| 인구 | 629천명 | 474천명 |
| 도로망 | 954㎞ | 618㎞ |
| 도로포장율 | 66% | 72.5% |
| 주택수 | 146,012동 | 103,267동 |
| 사회복지시설 | 16개소 | 13개소 |
| 학교(초·중·고) | 60개교 | 44개교 |
| 의료시설(병·의원) | 151개소 | 114개소 |
| 산업시설 | 1,420개업체/175천명 | 679개업체/994명 |

(5) 문민정부 출범

1993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적으로 국내의 관심과 기대욕구가 증폭될 것이 예상되어 신한국 건설의 동참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수용 등 새 화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므로써 선진 도시의 기반은 구축한다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구정의 방향을 「다정한 이웃 활기찬 북구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 정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한 주요시책을 자율과 동참의 자치구정 구현 등 7대 시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표 30〉 공무원 현황

'93. 12. 31

| 구분 \ 부서별 | 계 | 구본청 | 의회사무과 | 사업소 | 동 |
|---|---|---|---|---|---|
| 계 | 1,266 | 496 | 21 | 77 | 672 |
| 일반직공무원 | 809 | 312 | 12 | 61 | 424 |
| 별정직공무원 | 69 | 11 | | 1 | 57 |
| 기능 및 고용 | 388 | 173 | 9 | 15 | 191 |

자료 : 94년 북구 구정백서

29) 1988년 업무보고서, p. 5.

〈표 31〉 퇴직 현황

| 구분 \ 부서별 | '88 | '89 | '90 | '91 | '92 | '93 |
|---|---|---|---|---|---|---|
| 정 원 | 632 | 883 | 989 | 1,123 | 1,230 | 1,266 |
| 퇴직인원 | 33 | 41 | 46 | 61 | 97 | 55 |
| 퇴직율(%) | 5.22 | 4.64 | 4.65 | 5.43 | 7.89 | 4.34 |

자료 : 94 북구 구정백서

〈표 32〉 승진·전보 현황

'93. 12. 31

| 구분 \ 직류별 | | 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 능 | 별 정 |
|---|---|---|---|---|---|---|---|---|---|---|
| 계 | | 486 | 1 | 8 | 55 | 88 | 95 | 142 | 70 | 27 |
| 인원(명) | 승진 | 116 | 1 | 1 | 12 | 50 | 44 | | 7 | 1 |
| | 전보 | 205 | | 7 | 43 | 36 | 50 | 33 | 25 | 11 |
| | 신규 | 165 | | | | 2 | 1 | 109 | 38 | 15 |

자료 : 94 북구 구정백서

〈표 33〉 공무원 포상 현황

| 구 분 | 계 | 총 리 | 장 관 | 시 장 | 구청장 | 기 타 |
|---|---|---|---|---|---|---|
| 계 | 128 | 2 | 5 | 44 | 77 | |
| 우수및모범공무원 | 6 | 2 | 2 | 2 | | |
| 자랑스런공무원 | 16 | | | 8 | 8 | |
| 친절봉사상 | 23 | | 3 | 8 | 12 | |
| 법질서확립유공 | 20 | | | | 20 | |
| 민방위대운영유공 | 7 | | | 2 | 5 | |
| 기타시책유공 | 56 | | | 24 | 32 | |

자료 : 94 북구 구정백서

그 주요 실적으로는 자치구로서의 우수인력의 확보, 보직관리의 적정, 직원자질의 향상 및 사기앙양 등 인사관리의 목표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의 돌의 전산능력 배양을 위해 주민전산 상설교육장을 산곡 3동 여유청사에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 설치현황은 다음의 〈표 34〉와 같다.

〈표 34〉 주민등록 전산관련 기계 설치 현황

| 구 분 | 총 계 | A T (MB) | | | | | | X T | | |
|---|---|---|---|---|---|---|---|---|---|---|
| | | 소 계 | 120 | 140 | 160 | 200 | 300 (386DX) | 소 계 | HDD (유) | HDD (무) |
| 계 | 601 | 32 | 1 | 13 | 6 | 8 | 4 | 122 | 105 | 17 |
| 구 | 46 | 5 | 1 | | | | | 8 | 8 | 17 |
| 동 | 555 | 27 | | 13 | 6 | 8 | 4 | 114 | 97 | |

| 구 분 | P R T | | | UPS | AVR | R/S기 및R/D | MODEM | PAD | 비 고 |
|---|---|---|---|---|---|---|---|---|---|
| | 소 계 | 돗 트 | I.BP | | | | | | |
| 계 | 172 | 139 | 33 | 31 | 30 | 150 | 63 | 1 | 275 |
| 구 | 22 | 19 | 3 | 1 | | 6 | 3 | 1 | |
| 동 | 150 | 120 | 30 | 30 | 30 | 144 | 60 | | |

모든 생활민원 창구를 1개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종합 민원 신고 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보다 친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35〉 종합 민원 신고 센터 운영 실적 ('93년)

| 분야 / 구분 | 계 | 가로환경 | 청 소 | 하 수 도 | 상 수 도 | 보건위생 | 기 타 |
|---|---|---|---|---|---|---|---|
| 접 수 | 5,093 | 4,046 | 150 | 444 | 48 | 105 | 300 |
| 처 리 | 5,093 | 4,046 | 150 | 444 | 48 | 105 | 300 |

## 2. 재무행정(財務行政)

### 1) 지방 재정

(1) 지방 재정의 운용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수행하는 종합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지방자치의 본절에 따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관점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주민의 창의와 책임에 의해 수행된다고 볼 때, 지방 재정은 지방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 재정의 실태를 보면 세입면에

서는 지방세 수입 중 목적세 수입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보통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비중은 크게 낮아지고 있어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계속적인 증가와 지방재정의 구조적 빈약성에 비해 사회복지의 증가, 그리고 행정서비스 수요의 대폭적 증대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신장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향상과 고도산업화를 통한 다양한 행정의 수요가 계속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정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은 필수적이다. 이는 바로 지방행정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충실한 운용이 갈수록 더욱 중요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은 지방세 제도의 보완, 국고 보조와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점차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나아가 지방재정에 융통성을 제공해 주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방행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예 산

예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견적 또는 계획을 말한다. 사경제(私經濟)나 공경제(公經濟)를 불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리 예산안을 계획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질적 양적으로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률로 엄정한 예산제도를 따라야 한다. 예산 운용면에서도 역시 엄격히 통제운용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은 조직내 여러 부서의 업무를 상호 조정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안에서 회계기간 중 가장 합리적인 지출방법을 제시하고 조정 통제해 나가는 계획적인 경영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지도조정→차이 분석과 보고→개선 조치 등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절차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종합예산, 변동예산, 책임회계 등 더욱 정교한 과학적 경영의 단계로 계속 발전되고 있다.

현재 부평구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대별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구정의 일반적이고도 전반적인 재정운용계획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어떤 특정사업이나 특정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별도의 회계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회계로서 해당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특별회계는 폐지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는 신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의 수 역시 매년 일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기복이 심하다.

예산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계속사업비, 채무부담행위, 명시 이월비 등으로 편성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으로는 세입예산은 매년 당해 연도 세입의 단순한 견적의 성격만을 가짐으로써 계상된 금액에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출예산은 당해 년도 세출의 단순한 견적임과 동시에 세입예산의 성격과 달리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양자는 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1985년 5월 1일부터 직할시 체제의 구가 자치구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 일괄 편성하여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해 왔던 예산은 시와 구에서 각각 분리하여 편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의 예산은 시에서, 시의 예산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4월 기초의회와 1991년 7월 광역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그간 시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온 예산이 이로부터 지방의회(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재정운용상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예산관장 부서는 자치구 시행 이전에는 배부 예산으로 총무과(회계계)에서 담당하여 본청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왔는데, 1985년 5월 1일 자치구 실시와 더불어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신설된 기획감사실(예산계)에서 자치구의 예산 편성 및 운용업무를 관장하여 왔다. 그러다가 1992년부터는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3) 세입 세출 현황

북구 당시의 총재정규모는 1988년에 375억 3,516만 8천원이었으나, 1933년말에는 1,154억 8,374만 7천원으로 약 3.2배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 후 계양구가 신설된 후 부평구의 재정규모는 특히 1990년 대비 1991년의 재정은 27%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1989년 대비 1990년의 재정은 62.5%의 급팽창을 보여주고 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세입과 세출별로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1989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증가율을 나타내다가 1990년과 1991년에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데 비하여 특별회계는 1991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표 1〉 참조

〈표 1〉 세입·세출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세입 | | | 세출 | | |
|---|---|---|---|---|---|---|
|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1988 | 37,535,168 | 36,392,181 | 1,142,987 | 14,791,765 | 13,722,011 | 1,069,754 |
| 1989 | 60,064,993 | 58,592,076 | 1,472,917 | 25,436,469 | 24,229,791 | 1,206,678 |
| 1990 | 76,114,580 | 74,652,092 | 1,462,488 | 34,255,808 | 32,929,392 | 1,326,416 |
| 1991 | 103,105,836 | 101,773,255 | 1,332,581 | 47,478,365 | 46,421,218 | 1,057,147 |
| 1992 | 114,745,168 | 112,824,473 | 1,920,695 | 70,296,801 | 68,692,452 | 1,604,349 |
| 1993 | 115,483,747 | 112,733,585 | 2,750,162 | 77,732,230 | 75,600,446 | 2,131,784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 통계연보(1988~1993)》

(4) 일반회계 세입현황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체재원의 경우 1988년 48.3%, 1989년 50.9%, 1990년 55.7%, 1991년 51.8%, 1993년 47.7%로 나타났다. 즉 북구 자체재원의 변화율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존재원은 1992년 이후 50%이상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2, 3, 4〉 참조

〈표 2〉 자체 재원

(단위 : 백만원)

| 과목 \ 연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일 반 회 계 | 15,957 | 29,448 | 40,346 | 63,744 | 87,345 | 81,755 |
| 계 | 7,711 | 15,001 | 22,467 | 33,014 | 40,760 | 38,967 |
| | (48.3%) | (50.9%) | (55.7%) | (51.8%) | (46.7%) | (47.7%) |
| 지 방 세 | 5,351 | 8,087 | 11,281 | 14,244 | 17,195 | 20,668 |
| 세 외 수 입 | 2,360 | 6,914 | 11,186 | 18,765 | 23,565 | 18,788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 통계연보(1988~1993)》

〈표 3〉 의 존 재 원

(단위 : 백만원)

| 과목 \ 연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계 | 8,240 | 14,447 | 17,879 | 30,730 | 46,585 | 42,788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보 조 금 | 6,807 | 10,967 | 12,792 | 17,181 | 26,385 | 19,402 |
| 교 부 금 | 1,439 | 3,480 | 5,087 | 13,549 | 20,200 | 23,386 |
| | (51.7%) | (49.1%) | (44.3%) | (48.2%) | (53.3%) | (52.3%)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 통계연보 (1988~1993)》

〈표 4〉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 상황

(단위 : 천만원)

| 과목 \ 연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계 | 19,606,301 | 31,303,626 | 46,564,394 | 69,764,128 | 95,171,916 | 103,570백만원 |
| 지 방 세 | | 8,703,711 | 10,864,242 | 13,723,009 | 16,430,794 | 19,462 |
| 세 외 수 입 | | 8,203,887 | 17,728,647 | 25,875,874 | 35,167,057 | 41,384 |
| 재산임대수입 | | 50,319 | 294,667 | | | 81 |
| 사 용 료 수 입 | | 3,730 | 3,129 | | | 2,418 |
| 수 수 료 수 입 | | 1,210,214 | 1,469,063 | | | |
| 교 부 금 | | 1,659,795 | 2,281,424 | | | 3,487 |
| 이 자 수 입 | | 64,442 | 138,215 | | | 1,374 |
| 재산매각수입 | | 492,615 | 2,392,711 | | | 513 |
| 이 월 금 | | 1,965,894 | 7,073,836 | | | 26,479 |
| 지 방 채 | | 766,000 | 500,000 | | | 4300 |
| 융자금회수수입 | | 1,014 | | | | |
| 부 담 금 | | 1,823,447 | 3,214,427 | | | 2,810 |
| 잡 수 입 | | 164,903 | 357,315 | | | 1,124 |
| 과 년 도 수 입 | | 1,514 | 3,860 | | | 2,797 |
| 보 조 금 | | 10,099,931 | 12,884,518 | | | 19,338 |
| 조 정 교 부 금 | | 4,296,097 | 5,086,987 | | | 23,386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 통계연보 (1988~1993)》

(5) 일반회계 세출현황

부평구의 일반회계 과목별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공익사업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비의 경우 1988년 총결산액의 22.2%를, 1989년에는 32.3%, 1990년 32.4%, 1991년 33.6%, 1992년 29%, 1993년에는 29%를 부평구로 개칭된 후에는 각각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비는 33.2%(1988), 34%(1989), 28%(1990), 27.3%(1991), 24%(1992), 29%(1993)를 각각 나타냈으며, 산업경제비는 2%(1988), 2.5%(1989), 3%(1990), 2.5%(1991), 2%(1992), 2.7%(1993)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공익사업비)는 34.2%(1988), 27.%(1989), 29.8%(1990), 29.3%(1991), 37%(1992), 30%(1993)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문화 및 체육비는 0.5%(1991), 3.1%(1992), 4%(1993)이고 민방위비는 1%(1988), 3.3%(1989), 3.1%(1990), 2.6%(1991), 2.1%(1992), 2.1%(1993)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0.3%(1989), 1.6%(1990), 2.3%(1991), 1.4%(1992), 2.6%(1993), 부평구 분구후에는 각각 보여주고 있다. 〈표 5 참조〉

〈표 5〉 일반회계 과목별 세출결산상황

(단위 : 천원)

| 연도 / 금액 / 과목 | 1988 | | 1989 | | 1990 | | 1991 | | 1992 | | 1993 | |
|---|---|---|---|---|---|---|---|---|---|---|---|---|
|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 계 | 17,326,956 | 100 | 24,229,791 | 100 | 32,929,292 | 100 | 46,421,218 | 100 | 68,692,452 | 100 | 75,600,438 | 100 |
| 의회비 | 2,899 | 0.02 | 4,727 | 1.2 | – | | 854,710 | 1.9 | 525,668 | 0.7 | 818,249 | 1.0 |
| 일반행정비 | 3,815,981 | 22.2 | 7,825,355 | 32.7 | 10,660,943 | 32.4 | 15,611,245 | 33.6 | 20,183,635 | 29.4 | 22,069,680 | 29.2 |
| 사회복지비 | 5,754,185 | 33.2 | 8,160,227 | 33.6 | 9,108,544 | 27.7 | 12,670,712 | 27.3 | 16,748,896 | 24.4 | 21,726,935 | 28.7 |
| 산업경제비 | 331,185 | 2.0 | 615,087 | 2.5 | 957,277 | 2.9 | 1,157,971 | 2.5 | 1,379,640 | 2.0 | 2,043,447 | 2.7 |
| 지역개발비 | 5,918,528 | 34.2 | 6,665,569 | 27.5 | 9,800,650 | 29.8 | 13,607,804 | 29.3 | 25,324,844 | 36.9 | 22,366,598 | 29.5 |
| 문화및체육비 | 94,762 | 0.6 | 99,623 | 0.4 | 839,725 | 2.5 | 244,994 | 0.5 | 2,127,105 | 3.1 | 3,047,825 | 4.0 |
| 민방위비 | 167,229 | 1.0 | 790,406 | 3.3 | 1,027,714 | 3.1 | 1,212,422 | 2.6 | 1,458,902 | 2.1 | 1,566,204 | 2.2 |
| 지원및기타경비 | – | | 68,797 | 0.3 | 534,529 | 1.6 | 1,061,360 | 2.3 | 943,762 | 1.4 | 1,961,500 | 2.7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 통계연보 (1988~1993)》

## 2) 지방세정

(1) 지방세의 개설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 달성하기 위하여 그 관

할 구역내의 주민으로부터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보상없이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조세의 개념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과거 조세가 반대급부 없이 징수된다는 개념에서 현재는 직접 간접으로 반대급부를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지방세는 당해지역의 사회, 복지, 문화, 건설 등의 비용으로 충당되어 짐으로서 반대급부적 느낌이 매우 큰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성격으로 볼 때 지방세는 과세 자체가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에 편재되지 않고 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 단체별로 특수성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같을 수가 없으므로 지방세의 수입도 자체 스스로가 증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용도 주민전체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 제도 고찰

가. 대한민국 수립이전의 지방세 제도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삼국시대까지는 기록이 간단하여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중국의 제도를 본따서 조(租), 용(庸), 조(調)제도 즉 조(祖)는 토지를 대상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과징하고, 용(庸)은 사람을 대상으로 역·요의 부역을, 조(調)는 호를 대상으로 토산물을 과징하는 제도로, 고려·조선시대를 일관해서 조세제도의 주조를 이뤄왔다.

시대별로 기술해 본다면 신라시대까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상세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조세제도를 알 수 없고 다만 조용조와 비슷한 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의 조세는 기록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제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재정의 부담은 주로 농민, 상인, 수공업자가 부담하고 귀족계급은 원칙적으로 조세부담이 면제되었다. 농민은 전조, 공물, 군역 및 요역을, 상인은 공광세, 시장세를, 그리고 수공업자는 장인세를 부담하였으며, 귀족에게도 왕이나 태자가 중국의 원나라에 입공할 때 수시로 부과하던 품세가 있었다고 기록에는 전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여조(麗朝)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백성의 원성대상이던 조세의 일대개혁을 추진하였던 바 태종원년(1401년)에 담혐법을 시행하였고, 세종 26년(1444년)에는 토지의 비옥도와 매년의 풍흉을 참작 세율을 정하는 전분년분법을, 그리고 선조 41년(1608년)에 공물 등 잡세를 폐지하고 모두 전결에 부과하는 대동법을 실시 세원을 모두 단일화 하였다.

나.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지방세 제도

지방세제의 변천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1950년 12월 22일 지방세법(법률 제84호)을 공포한 이래 그 시대상

황과 주민복지 재정수요의 증대와 사회정책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차례 개정되었다. 지방세제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직할시 승격 이전까지는 6차례 개정되었고, 5.16이후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한 조세정책에 따라 국세 중에서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농지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광구세 및 마권세를 지방세로 이양받았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 등을 국세에 흡수하는 한편 인정과세의 폐단이 있는 호별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소득세 부가세와 법인세부가세를 신설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 12월 2일에 공포시행한 후 1992년 말까지 21차례나 개정되었다. 5.16이후 21차례에 펼친 개정내용 중에서 주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67년에 국세부가세의 폐지
- 1973년에 주민세의 신설과 대도시내 고장신설에 대한 취득세 5배 중과
- 1977년에 시세인 유흥음식세와 국세인 등록세의 상호교환
- 1989년에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
- 1990년에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종합토지세 시행
- 1992년에 지역개발세(컨테이너세)의 신설

(3) 지방세 징수액

1977년 부가가치세 세제개혁 이후 골격이 갖추어진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우선 과세권자(과세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과징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과징하는 목적세로 대별된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방위세, 교육세 등 목적세로 구분되며, 지방세도 지방정부 계층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특별시, 직할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 등으로 구분된다.

국세가 14종, 지방세가 14종으로 도합 28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데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5개 세목이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전화세 등 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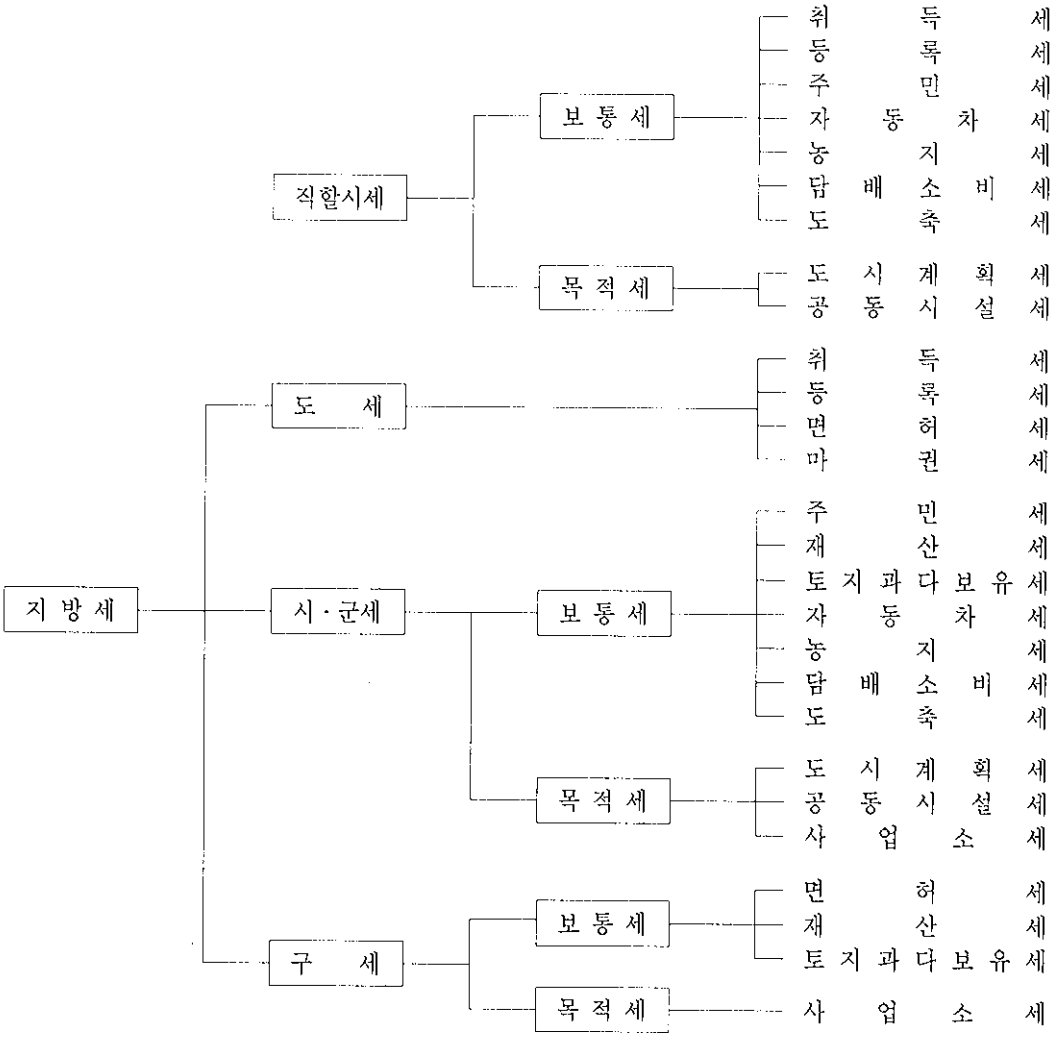
지방세는 다시 법정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정보통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마권세 등의 11개 세목이 있고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의 3개 세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되는데,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로 나누어지고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토지과다보유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지방세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많은 변천을 거쳐 199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는

다음과 같이 분류·운영되고 있다. 자치구의 세로는 보통세로 면허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3종이 있고, 목적세로는 사업소세 1종에 불과하다. 〈표 6〉

〈표 6〉 우리나라 조세 체계도 (1993. 1. 1 현재)




1) 세목은 1993년 1월 1일 현재 기준이며, 세수는 1993년도 예산 기준임.
2) 세수중에는 과년도 수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1991년)

일반적으로 지방총세입 중에서 자체수입이 많을수록 지방재정이 안정적이고 1인당 세출규모가 클수록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지출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천직할시 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표 7〉과 같다.

〈표 7〉 지방세징수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 합 계 | | 시 세 | | 구 세 | |
|---|---|---|---|---|---|---|
| | 징 수 액 | 비 율 | 징 수 액 | 비 율 | 징 수 액 | 비 율 |
| 1 9 8 8 | 36,392,181 | 100% | 29,615,292 | 81.4% | 6,776,889 | 18.6% |
| 1 9 8 9 | 58,592,076 | 100% | 49,889,669 | 85.1% | 8,702,407 | 14.9% |
| 1 9 9 0 | 74,652,092 | 100% | 63,840,036 | 85.5% | 10,812,056 | 14.5% |
| 1 9 9 1 | 101,773,255 | 100% | 88,049,483 | 86.5% | 13,723,772 | 13.5% |
| 1 9 9 2 | 112,824,473 | 100% | 96,325,908 | 85.4% | 16,498,565 | 14.6% |
| 1 9 9 3 | 112,733,585 | 100% | 93,213,436 | 82.7% | 19,520,149 | 17.3%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 통계연보 (1988~1993)》

1988년 이후부터 1993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상황을 보면 1988년의 지방세 징수액은 시세가 296억 1,529만 2천원이고, 구세가 67억 7,688만 9천원으로 합계 363억 9,218만원이었다. 1991년에는 지방세 세수가 1,017억 7,325만 5천원으로 36.3%가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시세는 86.5%, 구세는 13.5%의 비중을 각각 보여 주었다. 1992년에는 지방세수가 1,128억 2,447만원으로 1991년에 비하여 10.8%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 기간 중에는 시세 85%, 구세 15%의 비중을 보여 주었다. 시세 중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구세의 징수액은 1988년(18.6%), 1989년(14.9%), 1990년(14%), 1991년(13.5%)로 해를 거듭함에 따라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다가 1992년, 1993년에는 각각 14.6% 및 17.3%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 참조

1988년 이후부터 1993년까지 징수된 지방세를 시세와 구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구세의 비중이 낮아졌으나, 1992년 부터 구세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의 경우 총징수액 746억 5,209만원 중에서 638억 4,003만 6천원을 시세로 징수하여 85.5%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세와 구세의 비중은 1991년과 1992년에 다소 기복을 보이다가 1993년에 와서는 구세의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세의 비중은 82.7%로 932억 1,343만 6천원을, 구세의 비중은 17.3%로 195억 2,014만 9천원을 징수하였다. 북구의 시세와 구세의 징수현황은 〈표 7〉과 같다.

시세의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토지과다보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10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9년, 1990년, 1991년, 1993년의 북구 구세의 세목별 징수액은 〈표 8〉과 같다.

〈표 8〉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 과목 | 1981 | | 1982 | | 1983 | | 1984 | | 1985 | | 1986 | | 1987 | |
|---|---|---|---|---|---|---|---|---|---|---|---|---|---|---|
| | 징수액 | 비율 | 징수액 | 비율 | 징수액 | 비율 | 징수액 | 비율 | 징수액 | 비율 | 징수액 | 비율 | 징수액 | 비율 |
| 계 | 13,102,810 | 100 | 17,108,129 | 100 | 22,234,975 | 100 | 27,513,826 | 100 | 35,624,834 | 100 | 38,375,053 | 100 | 43,773,729 | 100 |
| 주민세 | 1,952,449 | 14.9 | 2,441,660 | 14.3 | 2,674,529 | 12.0 | 2,859,637 | 10.4 | 2,989,957 | 8.3 | 4,014,807 | 10.4 | 5,726,271 | 13.0 |
| 재산세 | 1,880,016 | 14.3 | 2,397,978 | 14.0 | 2,574,215 | 11.6 | 2,710,985 | 9.8 | 3,448,496 | 9.6 | 4,231,412 | 11.0 | 5,414,158 | 12.3 |
| 자동차세 | 442,174 | 3.4 | 506,783 | 2.9 | 658,745 | 2.9 | 894,711 | 3.2 | 1,018,731 | 2.8 | 1,406,688 | 3.6 | 1,939,610 | 4.4 |
| 농지세 | 51,857 | 0.4 | 64,965 | 0.4 | 64,541 | 0.3 | 48,731 | 0.1 | 8,151 | 0.02 | 9,726 | 0.02 | 9,894 | 0.02 |
| 도축세 | | | 215,018 | 1.2 | 435,499 | 1.9 | 526,562 | 1.9 | 617,701 | 1.7 | 683,113 | 1.7 | 698,802 | 1.6 |
| 도시계획세 | 944,413 | 7.2 | 1,210,698 | 7.0 | 1,374,220 | 6.2 | 1,585,427 | 5.7 | 1,924,091 | 5.4 | 2,259,834 | 5.8 | 2,872,038 | 6.5 |
| 소방공동시설세 | 294,189 | 2.2 | 399,300 | 2.3 | 440,021 | 1.9 | 721,019 | 2.6 | 782,131 | 2.1 | 952,009 | 2.4 | 1,121,693 | 2.5 |
| 사업소세 | 1,180,010 | 9.0 | 1,327,001 | 7.7 | 1,586,244 | 7.1 | 1,853,807 | 6.7 | 2,060,687 | 5.7 | 2,350,450 | 6.1 | 2,960,148 | 6.8 |
| 과년도수입 | 191,452 | 1.5 | 309,238 | 1.8 | 195,553 | 0.9 | 268,820 | 0.9 | 240,513 | 0.6 | 343,074 | 0.9 | 391,137 | 0.8 |
| 취득세 | 3,403,945 | 26.0 | 3,763,727 | 22.0 | 5,084,960 | 22.9 | 7,294,442 | 26.5 | 11,482,533 | 32.2 | 12,332,997 | 32.1 | 8,945,345 | 20.4 |
| 등록세 | 2,498,402 | 19.0 | 4,132,729 | 24.1 | 6,700,107 | 30.1 | 8,248,754 | 29.9 | 10,634,342 | 29.8 | 9,339,487 | 24.3 | 13,183,127 | 30.1 |
| 면허세 | 263,903 | 2.0 | 339,032 | 2.0 | 446,341 | 2.0 | 500,931 | 1.8 | 417,501 | 1.1 | 451,456 | 1.8 | 511,506 | 1.7 |

자료 : 《인천직할시 통계연보 (1981~1987)》

〈표 8〉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단위 : 천원)

| 연도 | 합계 | 보통세 | | | | | | | | 목적세 | | | 과년도수입 |
|---|---|---|---|---|---|---|---|---|---|---|---|---|---|
| | | 취득세 | 등록세 | 면허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종합토지세 | 농지세 | 도시계획세 | 소방공동시설세 | 사업소세 | |
| 1988 | 36,392,180 (100%) | 8,438,505 (23.2%) | 11,493,503 (31.6%) | 405,616 (1.1%) | 4,438,491 (12.2%) | 3,768,556 (10.3%) | 2,017,144 (5.1%) | 172,278 (0.5%) | 3,120 (0.08) | 2,117,414 (5.8%) | 861,568 (2.3%) | 2,387,107 (6.5%) | 288,875 (0.8%) |
| 1989 | 58,592,075 (100%) | 14,308,633 (24.4%) | 23,326,881 (39.8%) | 509,100 (0.8%) | 5,193,811 (8.8%) | 5,008,269 (8.5%) | 3,124,111 (5.3%) | 262,749 (0.4%) | 5,217 (0.08) | 2,608,791 (4.4%) | 1,124,944 (1.9%) | 2,887,473 (4.9%) | 232,096 (0.4%) |
| 1990 | 74,652,091 (100%) | 20,647,196 (27.6%) | 27,022,249 (36.1%) | 657,486 (0.8%) | 5,593,772 (7.4%) | 3,889,208 (5.2%) | 5,040,002 (6.7%) | 3,074,234 (4.1%) | 2,760 (0.03) | 3,586,596 (4.8%) | 1,285,019 (1.7%) | 3,143,827 (4.2%) | 709,742 (0.9%) |
| 1991 | 101,773,256 (100%) | 27,236,473 (26.7%) | 39,277,501 (38.5%) | 1,265,898 (1.2%) | 6,303,719 (6.1%) | 4,822,778 (4.7%) | 8,526,360 (8.4%) | 4,163,799 (4.0%) | 2,612 (0.02) | 4,673,784 (4.5%) | 1,634,053 (1.6%) | 3,401,696 (3.3%) | 464,013 (0.4%) |
| 1992 | 112,824,473 (100%) | 25,735,602 (22.8%) | 41,742,966 (36.9%) | 1,738,225 (1.5%) | 8,094,203 (7.5%) | 5,935,877 (5.2%) | 12,034,281 (10.6%) | 4,948,315 (4.3%) | 395 (0.03) | 5,832,863 (5.1%) | 1,980,699 (1.7%) | 3,716,459 (3.2%) | 1,061,588 (0.9%) |
| 1993 | 112,733,585 (100%) | 27,155,446 (24.0%) | 29,232,132 (25.9%) | 2,199,494 (1.9%) | 10,267,395 (9.1%) | 6,431,097 (5.7%) | 15,984,681 (14.1%) | 6,693,382 (5.9%) | 184 (0.01) | 7,032,011 (6.2%) | 2,312,949 (2.0%) | 3,979,357 (3.5%) | 1,445,457 (1.2%) |

자료 《인천직할시 북구 통계연보(1988~1993)》

주민세와 재산세의 경우 198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991년부터는 증가현상을 보여주었다. 자동차세는 1981년부터 1986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1988년이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지세는 1988년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여타세목에 비하여 상당한 세수비중을 점하고 있다.

목적세(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경우 1988년에는 도시계획세 5.8%, 소방공동시설세 2.3%, 사업소세 6.5%로 목적세의 비중이 14.6%를 점하게 되었고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에는 각각 10.7%, 9.4%, 10.0%, 11.7%로 목적세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4) 세외수입 현황

현행 지방재정통계에서 세외수입 분류체계에 다른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실질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일반회계상의 경상적 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한 사용료 사업장수입, 재산임대수입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되는 요금수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내부 또는 지방재정내부에서의 이전재원 또는 회계상의 수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반회계상의 세외수입으로서는 재산매각대금, 교부금, 이월금, 기부금, 지방채, 융자금수입,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있는데, 이 중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지방채 등이 임시적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수입은 일반회계상의 사용료수입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87년 예산기준으로 지방정부의 특별회계는 5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59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수입 비중이 괄목할만한 하며, 기타 특별회계 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처리장, 공업단지조성, 재개발사업 등의 특별회계의 수입비중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명목적 수입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별회계 사업수입으로는 이월금, 과년도수입, 전입금, 지방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지방채 수입의 비중이 가장 괄목할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회계에 있어서 전년도에 생긴 잉여금 중 지방채나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하고 난 잔여금을 당해년도의 세외수입에 이전'하는 이월금도 상당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북구의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세외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 과목 \ 금액 | 1988 | | 1989 | | 1990 | | 1991 | | 1992 | | 1993 | |
|---|---|---|---|---|---|---|---|---|---|---|---|---|
|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결산액 | 구성비 |
| 계 | 2,445,099 | 100 | 8,203,887 | 100 | 17,728,647 | 100 | 29,353,616 | 100 | 36,659,817 | 100 | 41,383,810 | 100 |
| 재산임대수입 | 26,880 | 1.0 | 50,319 | 0.6 | 294,667 | 1.6 | 152,507 | 0.5 | 128,531 | 0.3 | 80,582 | 0.1 |
| 사용료및수수료 | 949,213 | 38.8 | 1,213,944 | 14.7 | 1,472,192 | 8.3 | 1,866,743 | 6.3 | 2,565,828 | 6.9 | 2,417,636 | 5.8 |
| 이 자 수 입 | 4,357 | 0.1 | 64,442 | 0.7 | 138,215 | 0.7 | 419,819 | 1.4 | 1,352,123 | 3.6 | 1,374,281 | 3.3 |
| 재산매각수입 | 73,960 | 3.0 | 492,615 | 6.0 | 2,392,711 | 13.4 | 350,967 | 1.1 | 1,946,622 | 5.3 | 513,230 | 1.2 |
| 이 월 금 | | | 1,965,894 | 23.9 | 7,073,836 | 39.9 | 16,635,002 | 56.6 | 23,346,824 | 63.6 | 26,479,464 | 63.9 |
| 지 방 채 | | | 766,000 | 9.3 | 500,000 | 2.8 | 903,000 | 3.0 | | | 300,000 | 0.7 |
| 교 부 금 | 510,677 | 20.8 | 1,823,447 | 22.2 | 3,214,427 | 18.1 | 2,692,685 | 9.1 | 3,115,332 | 8.4 | 3,487,176 | 8.4 |
| 잡 수 입 | 872,523 | 35.6 | 164,903 | 2.0 | 357,315 | 2.0 | 6,325,015 | 21.5 | 4,158,508 | 11.3 | 1,123,973 | 2.7 |
| 과년도수입 | 17,489 | 0.7 | 1,514 | 0.1 | 3,860 | 0.02 | 7,878 | 0.02 | 46,049 | 0.1 | 2,797,386 | 6.7 |
| 부 담 금 | | | 1,659,795 | 20.2 | 2,281,424 | 12.8 | | | | | 2,810,082 | 6.7 |
| 융자금회수수입 | | | 1,014 | 0.01 | | | | | | | | |

자료 《인천직할시 북구 통계연보(1988~1993)》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 재산임대수입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되는 요금수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교부금, 이월금, 지방체 등이 주요 수입원으로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융자금, 전입금 등은 미미한 수준이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총 세외수입 중 특히, 이월금의 경우, 1989년 23.9%, 1990년 39.9%, 1991년 56.6%, 1992년 63.6%, 1993년 63.9%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다소 기복은 있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3) 재산 관리

#### (1) 재산 관리의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재산이 있기 마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에는 현금,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양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이를 관리 규제하는 개별법을 제정 적용하고 있다.

특히 현금을 제외한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 등을 포괄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근년에 크게 증가해서 이 재산들을 지향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서는 수익재산으로서 재정수입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법규를 보면 국유재산법과 동법인 시행령 동시행규칙을 기본법규로 하여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위탁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과 동시행세칙, 국유재산 도면조제 표준 국유재산 감정평가 규정, 그리고 국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법과 동법시행령, 산림법과 동법시행령,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 지적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준법과 동법시행령 등이 있다.

(2)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그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기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토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권, 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특허권, 저작권, 상품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이들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특히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대별하는데, 행정재산은 국가나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동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공용재산, 그리고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보존재산은 법령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서 이들 재산 역시 대부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잡종재산이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공유재산으로서 이들 재산은 대

부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도 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정부수립과 동시에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1966년 2월 28일부터 국유재산 관리 업무 체계화를 위해 국세청에서 관리했으나, 1976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국세청에서 관리하던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이양되었다, 이로써 북구지역 내에 있는 국세 청소관 국유 잡종재산을 인수 관리하게 됨에 따라 북구의 국유재산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1988년 12월 31일부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아래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0〉 국 유 재 산 현 황

(단위 : ㎡)

| 년 도 | 계 | | 대 지 | | 경 지 | | 잡 종 지 | | 임 야 | |
|---|---|---|---|---|---|---|---|---|---|---|
|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 적 |
| 1988 | | | | | | | | | | |
| 1989 | 1,775 | 1,056,942.10 | 587 | 136,564.45 | 596 | 349,403.5 | 462 | 230,485.67 | 130 | 340,488.48 |
| 1990 | 1,795 | 1,069,105.62 | 586 | 132,507.93 | 598 | 343,352.54 | 470 | 252,990.67 | 131 | 340,254.48 |
| 1991 | 1,801 | 985,819.24 | 594 | 138,673.60 | 601 | 343,001.54 | 473 | 252,325.47 | 133 | 253,095.08 |
| 1992 | 1,800 | 992,477.99 | 595 | 139,822.35 | 598 | 348,511.09 | 472 | 250,592.47 | 135 | 253,552.08 |
| 1993 | 1,846 | 1,005,123.37 | 599 | 141,538.53 | 636 | 363,225.09 | 476 | 246,807.67 | 135 | 253,552.08 |

(3)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이란 지방재정법 제56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그 재산의 범위와 구분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내용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기교, 부기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속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품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등을 말하고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행정재산은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의 공용재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한 기업용재산으

로 구분하고 있다.

보통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보존재산 그리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는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유재산 역시 국유재산과 같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의 관리기준으로는 행정재산은 이를 양도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그 용도나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는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 교환, 매각,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도 할 수 있고, 대부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잡종재산을 대부 매수 양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발견된 때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하는데 공유재산의 현황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0〉 공 유 재 산 현 황

(1993년 12월)

| 구 분 | | 계 | | | 행 정 재 산 | | | 잡 종 재 산 | | |
|---|---|---|---|---|---|---|---|---|---|---|
| | | 필지 | 면 적 (천㎡) | 금 액 (백만원) | 필지 | 면 적 (천㎡) | 금 액 (백만원) | 필지 | 면 적 (천㎡) | 금 액 (백만원) |
| 토지 | 계 | 5,332 | 6,813.322 | 53,032,481 | 4,110 | 6,114.858 | 36,731,518 | 1,222 | 698.614 | 16,300,963 |
| | 시유 | 2,790 | 3,982.692 | 13,221,584 | 2,207 | 3,373.206 | 1,011,961 | 583 | 609.436 | 12,215,623 |
| | 구유 | 2,542 | 2,830.83 | 39,804,897 | 1,903 | 2,741.652 | 35,719,557 | 639 | 89.178 | 4,085,340 |
| 건물 | 계 | 110 | 28,338.31 | 6,620,331 | 86 | 26,962.31 | 6,384,103 | 24 | 1,376 | 236,050 |
| | 시유 | — | — | — | — | — | — | — | — | — |
| | 구유 | 110 | 28,338.31 | 6,620,331 | 86 | 26,962.31 | 6,384,103 | 24 | 1,376 | 236,050 |

## 3. 상공행정(商工行政)

### 1) 상공행정의 변천

#### (1) 시장 현대화 시책

항구도시로서의 인천은 1883년 2월 개항되어 동년 6월 개항장으로 지정되었으나, 천연적 조건이 나쁜 자연항에 불과하였다. 당초 수도권의 관문항으로서의 군사적 기능이 중시된 인천항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를 배후로 한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인천지역은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북방외교가 활발해지고 대공산권국가와의 경제 교류가 구체화됨으로써 도래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유통경제는 서울의 동시 생활권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서울 상권에 흡수되므로서 대부분의 시장이 시설 및 관리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천의 유통구조는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출이 없어 대부분의 상품이 서울 상권을 통하여 유통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어 물가가 유동적이며 지역간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의 시장은 대부분 재래시장으로 상인 개개인이 운영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 새로 개설된 시장도 개설허가를 얻은 후 개개인에 분양·운영됨으로써 시장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었다. 또한 재래시장의 시설이 대부분 낙후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인천시의 팽창과 소득증가에 힘입어 1970년대 후반이후 근대적 상점 형태인 백화점이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 이후 수퍼마켓, 연쇄점 등이 발전되기 시작하여 서부경기의 상거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근대화 추세에 따라 일반시장, 지하상가, 수퍼마켓 등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시설규모의 확대와 운영방식이 현대화 되기 시작하였다.

부평은 60년대 이후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힘입어 수출공단 및 신진자동차(대우자동차)등의 기업체 건설과 근로자들의 유입에 힘입어 대단지 아파트 등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인천 상권에서 독립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 들어서는 인구 70만이 넘는 대형 도시로 발전하여 부평을 중심으로하는 독자적인 상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의 유통구조 개선은 시장법에 의거 1987년 6월말까지 업태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체제를 보강하는 한편, 대기업의 유치로 유통구조의 근대화와 융자금 알선지원 등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켜 유통체계의 일원화와 서부 경기지역 상권은 물론 전국의 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에 제1차 목표를 두었다.

1970년대 후반기에 접어 들면서 시장의 근대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시설규모 대형화, 되었으며 운영방식도 현대화되기 시작한다. 1974년 5월 동인천수퍼마켓이 개설된 것을 효시로 대량판매, 대량구입의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1978년 부평백화점이 개점됨에 따라 백화점 시대가 막을 열게 되었다. 특히 셀프서비스와 개선된 가격 지불제도, 그리고 대량판매와 대량구매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슈퍼마켓은 소비자의 각광을 받아, 1974년의 2개 점포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는 41개소로 급속히 늘어났다.

부평시장은 1962년 6월 7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 225번지 521평에 인천시에서 공설시장으로 개설하여 시장법에 의한 최초의 시장이 되었으며, 1971년 2월 5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 224,225,220번지와 부평토지구획정리지구 73브럭에 350.75평(1159.595㎡)의 규모로 (주)자유시장 대표이사 이돈원이 경기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동년 5월 6일 사설시장으로 정식 개장되었다. 당시 주요 시설로는 지하실 창고 3개소, 1층 점포 61개(137평), 2층 주택 또는 점포용 광장 1개소, 소화전 4개소, 상수도 30개소, 하수도 30개소, 오물처리장 1개소, 화장실 1개소로 총 공사비 31,430,000원을 들여 동년 8월 31일에 준공을 보았다. 당시의 주요 거래 품목으로는 각종 곡물을 비롯하여 청과, 채소류, 해륙산물, 주단, 포목, 의류장식품, 주류 및 음료식, 각종 기계 기구류, 일용잡화와 생활용품 일체를 취급 하였으며, 부평자유시장 주식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다. 1992년 6월 16일 (주)부평자유시장이 해산됨에 따라 그것이 부평자유시장 번영회로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장이 팽창하면서 형태도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1979년도에 부평역을 기점으로 하는 지하상가가 개설되었으며, 부평로 지하상가로 명명된 이 지하상가는 인천시 북구 부평동 241번지의 도로 지하에 위치하였다. 총 면적 1,031평에 일반점포 139개, 종합점포 51개등 총 190개 점포가 개설되었다. 시장 운영은 부평지하상가 주식회사가 직영하고, 귀금속을 비롯하여 포목 및 각종 의류, 전기, 각종화류, 완구류, 수예품, 운동구, 사진기기, 레코드, 양품, 문방구류, 경양식품, 약방, 비상용품 등이 거래되었고, 1993년 현재 인구 70만이 넘는 유동인구가 부평역에 집중되는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성일로 지하상가, 부평시장, 로타리지하상가 등이 개설되는 등 새로운 시장형태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아파트 건설붐이 조성되면서 아파트 단지별로 상가가 건축되기 시작하여 수퍼마켓을 비롯한 정육점, 세탁소, 양곡상,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 야채 및 수산물 등 일상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상업전용 건물로 점차 규모가 대형화 되었다. 1992년 10월, 갈산동 택지개발 지역의 대동아파트 단지내 대동상가가 2,241㎡ 매장에 67개 점포가 개설되는 등 시장의 형태가 다양화 되었다.

〈표 1〉 인천시 아파트 상가 현황

(단위 : 세대, ㎡)

| 구분 | 연도별 | 세대수 | 상가 | | 비고 |
|---|---|---|---|---|---|
| | | | 면적 | 세대당면적 | |
| 전 국 | 1986 | 835,325 | 2,480,632 | 30 | |
| | 1989 | 1,236,659 | 3,010,048 | 24 | |
| | 1992 | 1,950,002 | 3,764,365 | 19 | |
| 인 천 | 1986 | 40,130 | 44,650 | 11 | |
| | 1989 | 71,808 | 65,004 | 9 | |
| | 1992 | 142,561 | 115,655 | 8 | |

《건설부 아파트 주거환경조사 1993》

기업체의 증가 및 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1978년 12월 23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 153번지에 대도백화점이 개점됨으로써 부평에도 백화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278.28평 매장면적에 55개 점포가 개설되었으며 의류, 양품, 포목, 전기전자, 신발, 양품, 기타 생활용품 등이 거래되었다.

1985년 5월 24일 인천시 북구 작전동에 3,346㎡의 매장에 348개의 점포로 현대백화점이 개점되고, 1987년 10월 22일에는 북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대단지를 배경으로 현대백화점이 7,134㎡의 매장에 119개 점포가 개설되었다. 1991년 10월 26일에는 동아아파트 단지 및 부평시장의 상권을 겨냥한 동아시티 백화점이 12,595㎡에 111개 점포로 개점되어, 1993년 현재 인천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백화점으로 부상되었다.

재래시장의 경우 1989년에 노후 또는 낙후되어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 근대화재정자금을 1989년에 3억원, 1991년에는 4억 9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불량시설 개선 및 시장내 도로정비, 하수도 시설의 정비, 화장실 개선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를 기하였는 바 부평의 시장분포와 시장개설허가 상황은 다음의 〈표 4·5〉와 같다.

1994년 1월 11일 부평의 농산물 수급 기능을 담당하던 건영농산이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 개장되고,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행태도 고급화 추세에 있어 부평의 재래시장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시장 분포 현황

| 년 도 | 계 | 공설시장 | | 사설시장 | | 백화점 | 슈퍼마켓 |
|---|---|---|---|---|---|---|---|
| | | 상설 | 정기 | 일반 | 상가 | | |
| 1983 | 58 | — | — | 13 | 2 | — | 43 |
| 1984 | 16 | — | — | 4 | 11 | 1 | — |
| 1985 | 113 | — | — | 15 | 2 | 1 | 95 |
| 1986 | 27 | — | — | 15 | 2 | 1 | 9 |
| 1987 | 26 | — | — | 15 | 2 | 1 | 8 |
| 1988 | 17 | — | — | 4 | 12 | 1 | — |
| 1989 | 28 | — | — | 14 | 5 | 1 | 8 |
| 1990 | 28 | — | — | 14 | 5 | 1 | 8 |
| 1991 | 56 | — | — | 13 | 7 | 3 | 33 |
| 1992 | 61 | — | — | 14 | 3 | 3 | 41 |

《인천직할시북구 통계연보 1989, 1993》

## 〈표 3〉 시장개설허가 현황

| 허가일자 | 상 호 | 소 재 지 | 개 설 자 | | 연 건 축 | 점포 | 매장면적 |
|---|---|---|---|---|---|---|---|
| | | | 법 인 명 | 대표자 | 면적(㎡) | 수 | (㎡) |
| 1978. 6.22 | 부평아케이드부평상가 | 부평 5.192 | ㈜ 경 인 산 업 | 최옥명 | 1,288 | 38 | |
| 1979. 1.16 | 부 평 종 합 상 가 | 부평4. 229 | ㈜부평종합상가 | 김형돈 | 6,089 | 94 | 4,418 |
| 1980. 4.28 | 갈 월 조 합 시 장 | 갈산169-17 | ㈜갈월종합상가 | 남정현 | 1,207 | 29 | 1,207 |
| 1979.12.15 | 부 평 동 지 하 상 가 | 부평224-1 | ㈜부평동지하상가 | 홍진양 | 3,408 | 186 | 1,293 |
| 1981. 3.13 | 청 천 종 합 시 장 | 청천2 178-9 | ㈜ 태 호 산 업 | 이기택 | 1,440 | 72 | 1,444 |
| 1981. 5.21 | 갈산종합시장로타리 | 갈산63 | ㈜갈산종합시장 | 이건형 | 1,421 | 30 | 2,709 |
| 1981. 6. 5 | 시장로터시지하상가 | 부평224-1 | 부 흥 기 업 ㈜ | 권영수 | 5,158 | 296 | 1,076 |
| 1981.12.16 | 동 수 종 합 시 장 | 부평6 684-8 | 원 창 물 산 ㈜ | 김현제 | 3,068 | 36 | 1,608 |
| 1982. 1.22 | 유 창 종 합 시 장 | 부평1 534-87 | ㈜ 유 창 물 산 | 조남수 | 2,616 | 4 | |
| 1982. 1.29 | 십 정 종 합 시 장 | 십정1 321-6 | ㈜십정종합시장 | 이석형 | 2,743 | 46 | 2,743 |
| 1979. 1.26 | 진 흥 종 합 시 장 | 부평4 252-52 | ㈜진흥종합상가 | 신원범 | 2,626 | 95 | 3,105 |
| 1980. 6.25 | 부 평 자 유 시 장 | 부평4 225-1 | 부 평 시 장 ㈜ | 변동우 | 1,874 | 65 | 1,157 |
| 1982. 1.29 | 효 성 시 장 | 효성63-9 | 서 인 사 업 ㈜ | 손계수 | 1,607 | 44 | 2,732 |
| 1982.11.17 | 부 일 종 합 시 장 | 일신 107 | ㈜ 부 일 통 상 | 양달석 | 2,820 | 98 | 2,732 |
| 1985. 5.24 | 현 대 백 화 점 | 작전 444-2 | 유 강 유 통 ㈜ | 송학수 | 8,716 | 348 | 5,495 |
| 1987.10.21 | 현 대 백 화 점 | 산곡311-151 | 금강개발산업㈜ | 안소승 | 12,710 | 119 | 7,144 |
| 1987.12.17 | 작 전 종 합 시 장 | 작전2 856-117 | ㈜ 태 화 실 업 | 이달성 | 2,534 | 118 | 1,673 |
| 1985.12.10 | 평 화 시 장 | 임학 67 | 평 화 산 업 ㈜ | 임준길 | 2,188 | 134 | 1,823 |
| 1989. 6. 7 | 부평성일로지하상가 | 부평 626-17 | ㈜부평성일로지하상가 | 조건수 | 15,708 | 880 | 5,685 |
| 1990. 2.26 | 동 암 프 라 자 | 십정2 406-3 | ㈜동암프라자 | 정현채 | 5,327 | 147 | 3,002 |
| 1990. 1.31 | 나드리인천프라자종합상가 | 계산2 926-27 | 구 경 산 업 ㈜ | 김인자 | 27,928 | 360 | 14,064 |
| 1992.10.15 | 대 동 상 가 | 갈산택지개발지1브럭 | ㈜ 대 동 건 설 | 백남경 | 3,433 | 67 | 2,241 |
| 1991.10.26 | 동 아 시 티 백 화 점 | 부평70-127 | ㈜동아건설사업 | 구성웅 | 28,199 | 111 | 12,595 |
| 1992. 8. 4 | 삼 보 상 가 | 작전1 64-13회 7림리 | ㈜상보산업건설 | 성백수 | 1,993 | 33 | 1,768 |
| 1992.11.19 | 부평경남아파트종합상가 | 산곡4 142-3 | 경 남 기 업 ㈜ | 임학용 | 10,864 | 118 | 5,133 |
| 1992. 3.19 | 훼 밀 리 코 아 | 임학 67 | 평 화 산 업 ㈜ | 임준길 | 21,801 | 490 | 7,270 |

《인천직할시 북구 시장개설허가대장 1994》

(2) 물가안정시책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식품접객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을 뒷받침하는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시 되어, 지방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활성화 되었다. 지방단위 물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 관리토록 함에 따라 강력한 행정지도 실시와 시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통제기능의 지원, 관련 사업자단체의 자율안정 노력의 독려 등을 기본방향으로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서비스요금과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이 중점 추진되었다.

〈표 4〉 식품접객업소 등록현황

| 연 도 | 계 | 전 문 음식점업 | 대 중 음식점업 | 유 흥 음식점업 | 간이주점 인삼찻집 | 과자정업 | 다방업 | 휴게실 |
|---|---|---|---|---|---|---|---|---|
| 1983 | 1,445 | 36 | 996 | 23 | 68 | 60 | 259 | 3 |
| 1984 | 1,793 | 40 | 1,177 | 36 | 79 | 104 | 354 | 3 |
| 1985 | 2,086 | 38 | 1,406 | 45 | 6 | 152 | 436 | 3 |
| 1986 | 2,502 | 15 | 1,712 | 110 | — | 173 | 485 | 7 |
| 1987 | 2,791 | — | 1,970 | 109 | 4 | 193 | 508 | 7 |
| 1988 | 2,908 | — | 2,217 | 115 | — | 141 | 434 | 1 |
| 1989 | 3,310 | — | 2,533 | 133 | — | 176 | 467 | 1 |
| 1990 | 3,967 | — | 3,084 | 151 | — | 204 | 517 | 1 |
| 1991 | 4,872 | — | 3,894 | 152 | — | 261 | 566 | 1 |
| 1992 | 5,604 | | 4,497 | 129 | — | 398 | 578 | 2 |

《인천직할시북구 통계연보 1989, 1993》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은행, 세무서, 경찰서등 관련 기관 부서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94년 5월 20일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94년 10월 2일 정식 위원회로 출범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심의 결정과 그것의 구성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이를 보조하는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또한 물가동향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2년 1월 1일부터 유급 물가모니터 5명을 위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 관리하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기초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여 지방물가동향 분석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 부녀회 등을 통한 물가동향 홍보를 함으로써 지방물가안정에 도모하였다. 그리고 동별 명예 모니터를 새마을 부녀회원, 통·반장 등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 봉사자들로 하여금 부당요금 제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 산하 전공무원에게는 담당 업소를 지정하여 정기적 행정지도를 통한 개인 서비스

요금의 부당인상 억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공동 행위에 의한 요금인상이 관례화 되어 있어 이를 근절키 위하여 675명의 명예모니터를 위촉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제보 및 제보 엽서제를 운영하여 범시민이 참여하는 감시망을 구축하였다. 기관별 물가안정대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 평가제를 도입, 각 기관별 평가가 실시된 결과 92년도에는 인천시 산하 6개구청중 시범구로 구로 지정되었으며, 93년도에는 인천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인천직할시 북구가 최우수구의 영예를 얻은 바 있다.

(3) 생필품 수급안정시책

기초 생필품 및 농, 축,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도농(都農)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 도 시 동 | | | 농 촌 동 | | |
|---|---|---|---|---|---|
| 동 별 | 단 체 명 | 회원수 | 주 소 | 단 체 명 | 생 산 물 |
| 부평 1 | 새마을부녀회 | 55 | 충북옥천군안내면 | 안 내 농 협 | 미곡, 고추, 버섯류, 잡곡 |
| 부평 2 | 새마을협의회<br>새마을부녀회 | 61 | 경기여주군대신면 | 대 신 농 협 | 쌀, 땅콩 |
| 부평3 | 새마을부녀회 | 26 | 경북청송군파천면 | 파 천 농 협 | 고추, 사과 |
| 부평4 | 새마을부녀회 | 33 | 경기강화군화도면 | 화 도 농 협 | 버섯류 |
| 부평5 | 새마을협의회 | 70 | 충북괴산군청안면 | 청 안 농 협 | 고추, 미곡, 잡곡, 참기름 |
| 부평6 | 새마을협의회 | 27 | 경기김포군화성면마조2리 | 새마을부녀회 | 미곡, 기타농산물 |
| 산곡1 | 새마을부녀회 | 41 | 경기강화군불은면 | 불 은 농 협 | 미곡, 기타농산물, 인삼 |
| 산곡2 | 새마을부녀회<br>새마을협의회 | 100 | 충남예산군삽교읍 | 삽 교 농 협 | 미곡, 사과, 고추, 딸기 |
| 산곡3 | 통 합 협 의 회 | 70 | 충남청원군문의면 | 문 의 농 협 | 미곡, 마늘, 고추 |
| 청천1 | 새마을협의회 | 52 | 충남예산군신안면 | 신 안 농 협 | 사과, 도마도, 배추, 메론 |

| 도시동 | | | 농촌동 | | |
|---|---|---|---|---|---|
| 동별 | 단체명 | 회원수 | 주소 | 단체명 | 생산물 |
| 청천2 | 새마을협의회<br>새마을부녀회 | 60 | 충북청원군현도면 | 현도농협 | 복숭아, 수박, 딸기, 포도, 감자, 고추 |
| 효성1 | | | | | |
| 효성2 | 효성2동사무소 | 10 | 충북청원군오창면 | 오창농협 | 쌀 |
| 계산1 | 새마을협의회<br>새마을부녀회 | 98 | 경기포천군관인면 | 관인농협 | 쌀, 버섯, 오이, 땅콩, 옥수수 |
| 계산2 | 새마을협의회<br>새마을부녀회 | 58 | 충북괴산군증평읍 | 괴산농협 | 오이, 고추, 호박<br>감자 |
| 계산3 | 계산3동사무소 | 27,000 | 경기김포군김포읍 | 김포농협 | 쌀, 배추, 포도, 기타 |
| 작전1 | 새마을부녀회<br>새마을지도자협의회 | 89 | 강원홍천군서석면 | 서석면사무소<br>서석농협 | 산나물, 잡곡류, 버섯류 |
| 작전2 | 작전2동 | 24,000 | 충북제천군백운면 | 백운농협 | 고추, 감자, 사과, 호박 |
| 갈산동 | 갈산동 | 12 | 경기김포군통진면 | 월곶농협 | 쌀, 포도, 채소 |
| 삼산동 | 새마을부녀회 | 34 | 충북청원군팔미면 | 팔미농협 | 고추, 기타농산물 |
| 부개1 |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 28 | 충남예산군청양읍 | 청양농협 | 미곡, 수박, 고추, 잡곡, 채소류 |
| 부개2 | 새마을부녀회지도자 | 262 | 충남예산군고덕면 | 고덕농협 | 고추, 오이, 채소류 |
| 부개3 | 새마을부녀회 | 29 | 충남천안군목천면 | 목천농협 | 건고추, 버섯류, 오이, 마늘 |
| 십정1 | 새마을부녀회 | 27 | 경기여주군여주읍 | 여주농협부녀회 | 미곡, 땅콩, 기타 농산물 |
| 십정2 | 새마을부녀회 | 43 | 충남예산군오가면 | 오가농협 | 미곡, 사과, 고추, 채소류 |
| 계양2 | 동장자문위원 | 26 | 강원양양군현두면 | 현북농협 | 송이버섯, 산나물, 고구마 |
| 효성1 | 새마을부녀회 | 81 | 김포군통진면동을산1리 | 동을산1리 | 쌀, 포도 |
| | 새마을협의회 | | 김포군통진면가현4리 | 가현4리 | 채소류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 산업계》

(4) 소비자 보호 시책

소득수준의 향상, 지방자치제도 실시, 국제화, 개방화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소비자 의식도 점차 선진화 되는 추세에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반 부당요금 근절, 민간 자율 통제기능의 강화, 거래의 적정화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표시·규격 및 계량제도의 개선,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확충, 소비교육 및 정보 제공보기능의 확충,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소비자 조직 활성화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구와 동사무소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의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사례 예방 및 구제책으로 위하여 부정, 불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부정상품 유통 근절, 유사상품권 유통 억제 등을 지도하였다.

'92년도에는 소비자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회사와의 협조 하에 현장에서의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아남전기 등 6개 가전제품 회사를 중심으로 사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토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토록 하였다.

'93년도에 들어 소비자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평 공보관 상설 알뜰매장 내에 별도의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여 소비자고발용 전용 전화와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연간 1,218건의 소비자 민원을 해소하였는 바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소비자고발 민원 처리상황

| 구 분 | 1991 | 1992 | 1993 | 1994 (8.30현재) |
|---|---|---|---|---|
| 계 | 692 | 481 | 1,218 | 1,220 |
| 환불 | 4 | 18 | 20 | 5 |
| 수리 | 76 | 296 | 864 | 1,173 |
| 교환 | 13 | 56 | 228 | 10 |
| 합의배상 | 1 | 1 | 12 | 4 |
| 시정경고 | 489 | 6 | 23 | — |
| 해약반품 | 2 | 4 | 21 | 10 |
| 상담정보 | 40 | 89 | 28 | 17 |
| 당국고발 | — | 2 | 3 | — |
| 기타 | 2 | 9 | 19 | —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 지역경제계》

(5) 저축증대사업 전개

저축증대 사업은 사치와 낭비등의 소비풍조를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함과 동시에 투자를 유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업인, 근로자, 시민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었다. 저축증대를 위한 주요 추진 시책으로는 충동 구매를 지양한 짜임새 있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계도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의식을 고양하고,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고려한 장·단기 생활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계부 기록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리고 가계부 무상배부와 가계부 기록 시범반을 지정, 운영하여 우수 기록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가계부 기록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각 기업체에 대한 봉급의 은행이체 제도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제도의 자동이체를 권장함과 동시 근로자, 학생, 주부 등 1인 1통장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경조사 때 통장을 선물하도록 권장하였다. 나아가 저축 증대 시책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기업체 등에 기관장의 공한문을 발송하고, 주부생활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강의와 저축 성공사례에 대한 VTR상영을 실시하는 등 저축의 활성화를 기하였다.

금융기관도 점차 증가하여 1983년도에 16개소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도에는 126개소로 증가하였고, 금융기관 형태도 기능별로 점차 다양화 추세에 있다. 또한 은행별로 예금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저축의 생활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부평지역의 금융기관을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금융기관 현황

| 연도별 | 계 | 은 행 | 농 협 | 수 협 | 축 협 | 투 자<br>신 탁 | 상호신용<br>금 고 | 신용협동<br>조 합 | 새마을<br>금 고 |
|---|---|---|---|---|---|---|---|---|---|
| 1983 | 16 | 16 | — | — | — | — | — | — | — |
| 1984 | 21 | 21 | — | — | — | — | — | — | — |
| 1985 | 37 | 22 | — | — | — | — | 6 | 9 | — |
| 1986 | 40 | 23 | — | — | 2 | — | 6 | 9 | — |
| 1987 | 43 | 26 | — | — | 2 | — | 6 | 9 | — |
| 1988 | 72 | 17 | 9 | — | 3 | — | 6 | 12 | 25 |
| 1989 | 75 | 17 | 11 | — | 3 | — | 6 | 12 | 26 |
| 1990 | 77 | 19 | 11 | — | 3 | — | 6 | 12 | 26 |
| 1991 | 115 | 33 | 15 | 9 | 6 | 1 | 6 | 8 | 37 |
| 1992 | 126 | 38 | 17 | 12 | 4 | 4 | 9 | 8 | 34 |

《인천직할시북구 통계연보 1989, 1993》

(6) 도량형기 정비시책

계량, 계측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추진하였다. 부평의 최초 계량증명업소는 인천 북구 갈산동 151-3에 소재하는 공단계량증명업소로 1977년 9월 11일에 등록되었다. 이후 북구 작전동 429-8에 협진계량소가 등록되는 등 주로 부평 수출4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1993년 현재 10개소가 영업 중에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계량이란 공정거래의 척도인 동시 화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계량기 추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였다. 정기검사미필 계량기, 검정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사용공차 초과계량기, 비 법정계량 단위표시 계량기 등의 부정 계량기와 계량기의 임의조작, 무등록판매행위의 근절 등 계량의 정확도를 기해, 시민의 신뢰 제고와 공정거래 풍토조성에 노력하였다.

〈표 9〉 계량기 검사 현황(1993년도)

| 구 분 | 검사대상 | 합 격 | 불합격 | 조치내용 | | 비고 |
|---|---|---|---|---|---|---|
| | | | | 수 리 | 파 기 | |
| 계량기 | 3,218 | 2,534 | 747 | 622 | 125 | |

《인천직할시북구 구정백서 1994》

〈표 10〉 계량증명업소 등록현황

| 상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등 록 일 자 | 비 고 |
|---|---|---|---|---|
| 공단계량증명업소 | 갈산동 151-3 | 박 태 근 | '77. 8. 11 | |
| 협진계량증명업소 | 작전동 429-8 | 남 기 영 | '80. 9. 11 | |
| 경기계량증명업소 | 효성동 235-1 | 김 동 선 | '80. 9. 11 | |
| 우정계량증명업소 | 부개동 230-2 | 김 범 중 | '81. 2. 16 | |
| 부정계량증명업소 | 작전동 734-2 | 오 석 근 | '82. 2. 10 | |
| 창명계량증명업소 | 십정동 348-25 | 강 명 희 | '82. 11. 12 | |
| 대우계량증명업소 | 효성동 392-12 | 조 기 동 | '85. 2. 18 | |
| 까치계량증명업소 | 작전동 706-8 | 김 병 수 | '90. 4. 12 | |
| 대성계량증명업소 | 십정동 122-2 | 이 도 근 | '91. 10. 31 | |
| 정밀계량증명업소 | 청천동 28-4 | 박 두 현 | '92. 12. 17 | |

(7) 상품권 발행 제도개선

1973년 2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충족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과소비 등 각종 부작용의 발생으로 정부 물가대책회의 결정에 의거 소비자 물가안정 및 국민소비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재무부에서 각 시도에 상품권 발행 등록을 수리하지 말도록 함에 따라 1975년 12월 3일자로 전면 중지되었다.

이 후 과소비 조장 우려가 없고 국민의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1991년 4월 8일 부로 총 10억원규모 이내의 도서상품권의 발행등록을 허용하였다. 상품권 발행금지에 따라 상품권이란 명칭을 바꾸어 영수증, 보관증, 인환권, 할부구매전표 등의 변칙 형태로 유통되어 행정지도 대상이 되었으나, 94년 1월 5일 상품권법(법률 제4700호)에 의거 상품권유통이 합법화 됨으로써 행정지도 업무를 덜게 되었다.

자기발행형상품권 발행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행정권한의 재위임 승인('94. 2. 2. 재무부장관)과 인천직할시 사무위임규칙 개정('94. 3. 23)에 의거 구에서 자기발행권 발행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1994년 현재 동아시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상표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8) 에너지 소비구조개선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1968년도까지는 석탄이 전체의 35%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석유의 생산 및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70년이후에는 석유가 주된 에너지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석유류제품 소비는 1986년 이후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88년 이후의 소비 신장세가 두드러져 1988년과 1989년에는 국내의 GNP성장율을 앞지르는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력의 경우 1961년 7월에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이 한전이 주체가 되어 1962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되게 되었으며, 1967년부터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제한 송전이 불가피하게 되기도 하였다.

1989년 현재 발전 설비능력은 29,997MW로 1962년의 434MW에 비하여 69배 증가하였고, 고 유가에 따라 원자력과 유연탄 화력, 가스화력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종래의 석유화력 위주에서 벗어나 원전 다양화가 이루어져 전력의 장기적 안정공급이 마련되었다.

한편 가스 사용은 198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가스업 부문의 총 생산량은 2,789,383,000$m^3$에 이르고 있다.

부평의 경우 1983년 연탄판매소는 202개소였으나, 1992년에는 150개소로 21%가 감소한 반면, 석유판매소는 1983년이 14개소에서 1992년 159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여 연탄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석유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1〉 에너지 소비구조

가스의 경우 1976. 4. 16 동양철관(주)에서 탄산가스 저장허가를 얻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LPG의 경우는 영주가스가 1978. 12. 23. 영업허가를 얻어 일반판매가 시작되었다. 1992년 당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면 다음의 「도표1」과 같다. 그리고 북구의 에너지 판매소의 증가 상황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동력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1992》

〈표 11〉 연탄, 가스, 석유류 판매소 현황

| 연도별 | 연탄판매소 | | | 고압가스 판매소 | | | 석유류 판매소 | | |
|---|---|---|---|---|---|---|---|---|---|
| | 계 | 직영 | 일반 | 계 | LPG | 산소 | 계 | 주유소 | 부판점 |
| 1984 | 235 | — | 235 | 31 | 21 | 10 | 15 | 15 | — |
| 1986 | 332 | — | 332 | 34 | 23 | 11 | 117 | 17 | 100 |
| 1988 | 531 | — | 531 | 34 | 23 | 11 | 114 | 17 | 97 |
| 1990 | 244 | — | 244 | 42 | 28 | 14 | 139 | 19 | 120 |
| 1992 | 150 | — | 150 | 98 | 56 | 42 | 159 | — | 159 |

《인천직할시북구 통계연보 1989, 1993》

또한 석유류 소비증가에 따른 공해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이 장려되어 1993년 3월 16일 인천직할시북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4억을 조성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의 억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1979년부터 모든 신 건물에 대하여 주택단열을 의무화하였으며, 전기사용제한,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 냉난방온도 준수 의무화, 자가용 부제운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였다.

(9) 수출실적의 확대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 시장이 협소한 여건하에서 기본적으로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취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동안 경제발전 전략의 기본방향은 수출 주도형 공업화로 성격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개발정책에 의한 고도 성장의 달성은 대외교역의 확대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가져왔다.

인천의 경우, 서울 및 경기도의 관문으로써 우리나라 산업활동의 중심지역으로 수출입 물량을 원활히 수송할 수 있는 국제적 항만시설을 갖추어 왔다. 특히 부평은 수출 4공단이 위치하여 74개의 수출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1994년 8월 현재 1,139개 업체가 등록되어 가동중에 있다.

부평지역의 1992년 한해 동안의 수출실적은 1,922,025천불로 인천시 전체 수출의 4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기계류가 626,531천불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수 출 실 적

| 연도별 | 계 | 기 계 | 화 학 | 섬 유 | 농산물 | 기 타 |
|---|---|---|---|---|---|---|
| 1987 | — | — | — | — | — | — |
| 1988 | 2,235,078 | 866,940 | 124,129 | 266,741 | — | 977,268 |
| 1989 | 1,872,830 | 792,408 | 104,769 | 277,756 | — | 697,897 |
| 1990 | 1,782,707 | 1,074,195 | 72,526 | 183,192 | 688 | 435,106 |
| 1991 | 2,057,933 | 1,097,686 | 204,659 | 231,557 | — | 524,031 |
| 1992 | 1,922,025 | 626,531 | 425,308 | 138,423 | 753 | 731,010 |

《인천직할시북구 통계연보 1989, 1993》

부평의 수출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체로는 93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대우자동차가 577,799천불을 수출하여 북구지역 전체 수출의 30%를 점유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샤프가 177,747천불로 2위, 삼익악기(주)가 122,062천불로 3위, 협성산업(주)가 112,485천불로 4위, 5위는 아남전자(주)가 37,819천불로 부평지역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1993년도 수출액 1,538,136천불중 기계금속이 708,618천불로 1위, 전기전자류가 396,052천불로 2위, 섬유제품이 143,534천불로 3위, 석유화학제품이 57,855천불로 4위, 음식료 및 담배류가 26,734천불로 5위를 점유하고 있다. 수출에 있어 조립 금속이 671,164천불로 자동차 등 조립 금속의 수출 강세를 보이고 있어 부평이 공업지역임을 단적으

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수출이 1993년도 전체 수출액의 66%를 대기업에서 점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이 부진한 실정에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 ⑽ 수출산업의 육성

인천시의 근대공업은 구이포(현재의 송림)제철소가 건설된 1918년부터 비롯된다.

부평의 최초 공장으로는 1937년 4월 1일 사업이 개시된 부평연와공업을 시발점으로 1953년에 공작기계 부문의 한국베어링공업주식회사(현 한국베어링)가 1953년에 설립되었고, 1953년에는 방직회사인 전남방직주식회사(현 전방주식회사의 전신), 1956년에는 제분회사인 신한제분주식회사 등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산업의 신진자동차(현 대우자동차), 그리고 1968년에는 비철금속 부문의 풍산금속주식회사가, 1966년에는 전자공업 부문의 한독, 1967년에는 한국후지카공업 주식회사가 각각 설립되었다.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인천 북구 효성동 316일대에 조성된 한국수출산업공단은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생산노동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증대를 기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공단이었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3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내에 수출산업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963년 10월 26일 (주)한국수출산업공단이 창립되었다. 이어 1964년 9월 24일에는 수출산업지 개설조성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971년 11월 24일 부평 효성동 일원의 부평공단으로 세칭되는 당시의 인천수출산업공단을 흡수, 통합하여 4단지로 개칭하였고, 1969년 주안의 폐 염전을 매립하여 1973년 7월 15일 제5단지가 준공되었다. 이어 6단지는 1974년 인천비철금속공업단지로 정지중인 주안동 부지를 매입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수출공단은 수도권 전철 또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악 1㎞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천항과도 인접하고 있어 원·부자재의 반입과 수출화물의 선적, 종업원들의 출, 퇴근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출산업공단의 단지별 규모를 살펴보면 총 1,745천㎡ 중 제4단지는 609천㎡, 제5단지는 403천㎡, 제6단지는 403천㎡이며, 이 중 분양면적은 제4단지는 541천㎡, 제5단지는 643천㎡, 제6단지는 297천㎡으로 총 1,481천㎡이다.

이들 수출공단 중 제4단지에서는 92년도 기준 60개 업체가 입주하여 8,31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수출은, '93년도 기준 580,161천불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13〉 입주업체 고용동향

| 입주기업체수 | | | 고 | | | 용 | | | | | |
|---|---|---|---|---|---|---|---|---|---|---|---|
| '90 | '91 | '92 | 1990 | | | 1991 | | | 1992 | | |
| | |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63 | 62 | 60 | 10,166 | 7,685 | 17,751 | 9,438 | 5,980 | 15,418 | 8,316 | 5,522 | 13,838 |

《한국수출산업공단, 인천시 지역경제백서 1993》

〈표 14〉 .수출 실적

(단위 : 천달러)

| 1991년도 | | | 1992년도 | | |
|---|---|---|---|---|---|
| 계 획 | 수 출 액 | 전년대비율 | 계 획 | 수 출 액 | 전년대비율 |
| 800,000 | 599,965 | 74.9 | 800,000 | 580,631 | 96.8 |

《인천직할시 지역경제백서 1993》

(11) 중소기업 육성 시책

부평지역의 중소기업체는 전체 기업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산업의 밑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생산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면이나 기술면, 경제면에서 취약한 실정에 있어 이들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매년 지원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93년도 한 해동안 122개 업체에 대하여 시의 지원으로 108억7천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88년 2월부터 건물 연면적 3,000㎡미만의 공장설치에 대한 공장 신설, 증설, 허가 및 이전 허가등을 구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등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1992년에는 구청장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표 15〉 중소기업 현황

(1993. 12. 31)

| 구 분 | 계 | 음 식 | 섬 유<br>의 복 | 목 재<br>가 구 | 종 이<br>인 쇄 | 고 무<br>프라스틱 | 비금속 | 1 차<br>금 속 | 조 립<br>금 속 | 기 타 |
|---|---|---|---|---|---|---|---|---|---|---|
| 업 체 수 | 941 | 33 | 82 | 38 | 33 | 135 | 26 | 43 | 482 | 69 |
| 종업원수 | 45,441 | 1,591 | 5,059 | 997 | 586 | 3,642 | 743 | 960 | 28,363 | 3,500 |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0, 1991, 1992, 1993》

〈표 1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 개 업체, 백만원)

| 구 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업체수 | 11 | 21 | 74 | 55 | 128 |
| 지원액 | 580 | 1,190 | 2,700 | 3,020 | 9,480 |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0, 1991, 1992, 1993》

공장피해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공장방재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장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수해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복구지원을 위한 대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90년대 들어 점차 3D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기 시작하여 외국인 불법취업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부계층을 대상으로하는 유휴인력 동아리를 편성하여 인력수급의 시간적, 공간적 불균형 해도를 도모하였다.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가 88년 2월부터 구로 위임됨에 따라 공산품 파기 또는 수거명령, 품질표시 명령, 보고 조사,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금지의 해제, 공산품 지도, 단속 등을 수행하였다. 1993년도의 불법 공산품 관리상황을 보면 공공이용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공산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산품 품질관리법 대상품목에 대하여 총 7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불량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10업체에 대하여 고발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계도활동전개로 불법공산품 유통방지와 품질향상에 적극 대처하였다.

〈표 17〉 불법공산품 행정지도상황

| 대상업체 | 적발업체 | 적발업소 조치내역 | | | |
|---|---|---|---|---|---|
| | | 소 계 | 고 발 | 품질표시명령 | 판매진열금지 |
| 722 | 50 | 50 | 10 | 31 | 9 |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4》

(12) 새마을 공장 지원

1973년 3월 20일 농촌 및 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이 상공부고시 10416호로 제정되어 1개 읍·면의 행정구역내에 1개 공장 이상을 설치토록 하였다. 그리고 따라서 새마을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고 기능공 양성 및 기술개발을 보조해 주는 한편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다. 이들 새마을공장은 농촌에서 원료조달이 가능하고 생산공정이 단순하며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서 농촌 소득증대가 가능해야 되며 사업계획서에 의거 성실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공장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위탁경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부평의 새마을 공장으로는 1987년 6월 2일 청천동 204에 귀성산업이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며, 주된 생판품목은 양말편조업으로 6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였다.

⑬ 광업구조 개편사업

부평의 광산으로 인천시 북구 부평동 산182번지 일대에 영풍산업(주)에서 운영하는 부평광산이 있으며, 1954년 엄모씨의 철광업권 출원으로 1960년 9월에 국립지질조사소(현재 자원연구소) 시추 착광이 시행되었다. 1962년 3월 경인철광주식회사(경인철산)이 설립되어 1987년 12월 갱내 작업이 완료되었고 1988년 1월부터 1981년 4월까지 갱외 제련작업이 있었으며, 금, 은, 연, 아연등이 채취되었고 1991년 5월에 휴지인가를 득하였다. 1993년 5월 2일 부평광산 구역내에서의 함몰 사고가 발생하여 1993년 6월15일부터 1993년 11월 15일까지 5개월간 안전진단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표 18〉 공장 등록 현황

| 연도별 | 계 | | 섬유 | | 화학 | | 기계 | | 기타 | |
|---|---|---|---|---|---|---|---|---|---|---|
| | 공장수 | 종업원수 | 공장수 | 종업원수 | 공장수 | 종업원수 | 공장수 | 종업원수 | 공장수 | 종업원수 |
| 1984 | 387 | 52,916 | 53 | 3,286 | 61 | 10,675 | 213 | 35,997 | 51 | 2,958 |
| 1986 | 600 | 79,562 | 119 | 7,378 | 92 | 16,100 | 802 | 51,038 | 87 | 5,046 |
| 1988 | 689 | 89,108 | 163 | 10,251 | 104 | 18,295 | 323 | 54,820 | 99 | 5,742 |
| 1990 | 717 | 89,658 | 63 | 3,527 | 90 | 3,407 | 423 | 63,920 | 141 | 18,804 |
| 1992 | 1,063 | 75,198 | 84 | 8,230 | 146 | 3,987 | 554 | 48,065 | 279 | 14,943 |

《인천직할시북구 통계연보 1989, 1993》

## 2) 상공행정의 특징

공산권의 붕괴와 더불어 대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 90년대 이후 국제화, 개방화 물결이 더욱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개방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인천은 서울·수원 등 수도권 지역을 배후로 인천항을 갖추고 있어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국내외적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송도신시가지 조성,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은 본격적으로 서해안시대가 개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평은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의거 부평은 공업도시로서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수출단지로 육성되었으며, 그 특징으로 첫째 인천의 수출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8년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수출액 3,980,987천불 중 2,235,078천불로 56%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지역 6개 구청 중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표 19) 수 출 실 적

(단위 : 천불)

| 구 분 | 인천시 | 중 구 | 동 구 | 남 구 | 남동구 | 북 구 | 서 구 |
|---|---|---|---|---|---|---|---|
| 1992 | 4,632,495 | 509,984 | 382,087 | 733,218 | 181,998 | 1,922,025 | 940,926 |
| 1991 | 4,385,043 | 241,909 | 257,921 | 736,351 | 181,998 | 2,057,933 | 909,291 |
| 1990 | 3,977,252 | 246,782 | 256,095 | 726,565 | 195,296 | 1,676,644 | 875,870 |
| 1989 | 4,052,904 | 228,083 | 336,058 | 653,959 | 78,310 | 2,095,699 | 660,795 |
| 1988 | 3,980,987 | 89,789 | 299,050 | 588,196 | 67,269 | 2,235,078 | 701,605 |

《인천직할시 통계연보 1993》

두번째로 부평은 공업중심 도시에서 점차 상업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부평 수출산업공단의 고용 동향은 1990년도에 10,166명이었으나 1992년도에는 8,316명으로 18%가 감소하였고, 1991년도 수출액도 1990년도의 74.9%에 그쳤으며 남동공단 준공에 따라 1988년 이후 200여 기업체가 이전되는 등 생산기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장은 1983년도 58개소에서 1992년도 61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전 된 공장부지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인구도 1987년도 629,016명에서 1992년도 727,528명으로 증가하여 인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행정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또한 인천지역 대형 백화점 6개소 중 3개소가 부평지역에 있고 특히 동아시티백화점은 1991년도 개점되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천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부평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세번째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행정기능이 점차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 1990년대들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중국과의 교역증대, 남북간 경제교류 증가등 국제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저임금을 자원으로 하는 후발 개발도상국에 맹추격을 당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고임금과 물가안정 등 대외경쟁력 강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활성화 되었고, 부평지역 기업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1989년도 11개업체 5억8천만원에서 1993년도에는 94억8천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1994년에 들어서는 지방정부간 국제교류가 증가되어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행정 기능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다.

## 4. 건설행정(建設行政)

### 1) 건설행정의 특징

건설이라함은 도시개발과 산업건설등 경제, 사회영역의 전반에 걸쳐 총제적인 것을 말한다. 부평구의 건설행정의 특징은 도심의 조성과 하천의 개수,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아 만월산, 철마산을 기축으로 하는 도시의 형성과, 부천 중동신도시와 인접되어 인천중부권과 서울, 부천을 연결하는 중간 매체의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천 중부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경인전철이 우리 부평구를 가로지르고 있으므로 부평구를 주거지와 공업지가 공존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띤다.

현재는 70년대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수출 4,5공단 조성으로 부평의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나, 점차적으로 환경과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제조부문이 날로 비활성화로써 새로운 부평건설과제가 제기된다. 각종 공장이 헐리고 새로운 APT조성과 농경지가 택지개발로 인한 부평구의 인구가 날로 증가 되고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태가 도시의 건설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로인해 각종 건설 개발, 도로확충, 철도증설 등 과거의 부평의 이미지가 공업, 농업, 산업에서 주거, 교통의 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각계 각층에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원, 녹지의 조성이 필요하며 도로 교통수단등이 빠른 시일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기도 하다.

그간 부평은 주거지역인 부평동, 부개동의 주거활동권과 갈산동, 삼산동의 신흥개발권과 산곡, 청천동의 공업지역권으로 구분되었으나, 이제는 부평의 상업권과 갈산, 삼산, 산곡의 주거권과, 청천동의 공업권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경인전철을 축으로 하는 주거 생활권과 산업물량 목적의 고속도로를 축으로하는 제조업권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부평지역은 인천의 중부지역과는 철마산, 만월산이 가로 막혀 있어 도시의 연결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천, 계양지역과 교통권, 생활권이 더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중추인 동인천, 주안지역과는 도로가 3개 노선 뿐인데 반해 부천 계양지구쪽으로는 5개의 주요도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인천 중부권과는 동서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며, 인천 남부권인 주안, 간석지역으로의 남북도로간의 개설이 시급하여 부평구에서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더 한층 가속시키는 건설 행정을 펼치고 있다. 부평구의 도심지는 부평역 앞을 축으로 하는 도시형태이며 도시계획도 부평역 앞 부평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허나 상업지역 주변에는 군부대(미8군, 88경비대, 제6보급창, 공병대, 3군지사등)가 주둔하고 있어 도시의 저해요인이 되는 군부대가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부평구가 환경, 교통, 교육등

제구실을 할수 있을 것으로 도시가 활기차고 발전의 도약이 될 것이다.

그동안 부평구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나름대로 주택 용지확보와 교통수요에 대비한 도로망 형성, 각종 택지개발 사업 및 주민의 여가 활동과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조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자연녹지 확보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70년대의 경제성장 도약기의 모체인 제조업체들의 공장에서 주거형 대단위 APT가 들어서므로써 점차 공업지역에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러면 부평구의 각종 개발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 2) 건설행정의 변천

#### (1) 부평구의 도시계획 및 인구배치계획 현황

우선 도시의 모든 계획에 근간이 되고 도시의 형태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것인가를 지정한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1981년(부평구가 계양구로 분구되기전)에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계획 면적 44.561㎢중 주거지역이 11,859㎢로서 26%인데 반해, 1995년(부평구와 계양구)에는 분구 후 총계획면적 32.68㎢ 중 주거지역이 12.4㎢로 약 38%로 부평구가 주거지로서 점차 그 면적을 넓혀가고 있다. 반대로 공업지역은 1981년 9.941㎢로 계획면적중 22.3%이었던 것이 1995년 6.84㎢로 19.8%로 감소 되었다. 이는 공업지역내 공장들이 주거인 APT 지역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참고로 1981년과 1995년의 도시계획 용도지정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 용도지정 현황(1981~1995)**

(단위 : ㎢)

| 년도명 | 계획면적 | 주 거 | 상 업 | 공 업 | 자연녹지 | 시설녹지 | 미지정 | 비 고 |
|---|---|---|---|---|---|---|---|---|
| 1981년 | 44.561 | 11.589 | 2,817 | 9,941 | 15.967 | 3.962 | 0.015 | 분구전 |
| 1995년 | 32.68 | 12.4 | 1.85 | 6.84 | 11.28 | 0.45 | 0.06 | 분구후 |

또한 1986년 부평구 생활권별 인구 배차계획은 부평중권과 산곡중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평중권의 면적은 817.05ha로 주거지 642.91ha, 상업지 174,14ha로서 배분 인구는 약 206.400명으로 인구밀도는 헥타(ha)당 253명으로 계획하여 약 7개소의 소 생활권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산곡중권 면적은 총 490.58ha로 주거지 437.31ha와 상업지 53.27ha에 배분인구는 107,000명으로 인구밀도는 헥타(ha)당 218명으로 약5개의 소 생활권으로 인구를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이로 보아 주거지는 산곡, 청천동 일대보다 부평, 부개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5년 점진적으로 부평중부권과 산곡중권이 동등하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 (2) 부평구 대규모 택지개발 현황

부평구는 그동안 주택 및 상업지역 확충을 위하여 각종 대형택지개발사업을 1941년부터 부평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택지조성사업을 시작하게되었다. 우선 1941년 11월 5일자로 부평 제1지구면적 1,368,687㎡ 3.041필지를 대상으로 도로, 공원등의 공공용지 198.28㎡을 제외하고 주거지역 774,192㎡와 체비지 81,923㎡로 평균 감보율 24%로 사업인가를 받아 1959년 12월 16일부터 사업착수하여 1970년 4월 14일 완료하였다.

이어 1963년 12월 12일자로 부평2지구 595,230㎡ 1.322필지를 공공용지(도로, 공원등) 198,284㎡와 택지 362.169㎡ 및 체비지 34,750㎡를 1964년 3월 17일부터 1997년 1월 29일까지 사업완료 하였다. 계속해서 부평3지구 1,992,654㎡를 1969년 12월 10일자로 사업인가를 득하여 1969년부터 1979년까지, 부개지구 884.595㎡를 1971년 8월 20일자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1973년 3월 10일부터 1981년 4월 4일까지, 십정 1,2,3지구를 각각 79년 7월 20일과 1982년 3월 5일, 1982년 11월 10일자로 사업인가를 득하여 약 1.260.384㎡를 1980년 7월 24일부터 1987년 12월 30일까지 주요도로망 건설과 택지조성에 따른 소방도로개설, 공원(어린이놀이터), 학교등을 건설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부평구 구획정리 사업 지구현황

| 사업지구명 | 사업면적 | | 용도별면적(천㎡) | | | 평균감보율(%) | 구획정리사업일자 | | |
|---|---|---|---|---|---|---|---|---|---|
| | 면적(천㎡) | 필수 | 환지 | 체비지 | 공공용지 | | 시행일자 | 계획일자 | 완료일 |
| 계 | 6,101.523 | 13.885 | 3,532.372 | 752.653 | 1,816.418 | | | | |
| 부평1지구 | 1,368.687 | 3,041 | 774.192 | 81.923 | 512.572 | 24 | 41.11. 5 | 59.12.16 | 70. 7.14 |
| 부평2지구 | 595.203 | 1,322 | 362.169 | 34.750 | 198.284 | 11 | 63.12.12 | 64. 3.17 | 74. 1.29 |
| 부평3지구 | 1,992.654 | 4,428 | 1,357.039 | 284.244 | 351.371 | 21 | 69. 2.10 | 69.12.27 | 79. 6.18 |
| 부개지구 | 884.595 | 1,955 | 507.244 | 87.223 | 290.128 | 26 | 71. 8.20 | 73. 3.10 | 81. 4. 4 |
| 십정1지구 | 457.778 | 1,386 | 257.374 | 71.084 | 147.320 | 50.8 | 79. 7.20 | 80. 7.24 | 86. 4. 5 |
| 십정2지구 | 479.322 | 1,332 | 192.374 | 114.592 | 171.971 | 49.8 | 82.11.10 | 83. 4.20 | 87.12.30 |
| 십정3지구 | 305.284 | 421 | 81.595 | 78.387 | 144.852 | 42.7 | 82. 3. 5 | 82.12.27 | 87.11.13 |

《인천광역시 〈시정백서〉 1990년》

또한 부평지구 및 갈산지구택지개발 사업현황을 보면 부평지구택지개발 사업은 부평구 부평동 일원으로 총 면적 346,034㎡(104천평) 중 주택건설 1,476세대에 수용인구 5,904명으로 총사업비 193억원을 투자, 1985년 7월 22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단독, 공동주택 용지 43.8%와 공공시설 50.6%를 시설하여 총밀도는 ha당 170명으로 토지개발 공사에서 완료하였다. 갈산지구택지개발 사업은 총 면적 659,734㎡(199.568평)으로 7,638세대 30.552인을 수용할 계획으로 1989년 7월 12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총사업비 63,213백만원을 투자 공동, 단독주택용지 46.8% 및 공공시설 42.6%, 기타 10.6%의 시설을 확충하여 총밀도 ha당 459명으로써 부평의 신흥 개발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부평, 갈산지구 택지개발 사업

| 지구명 | 면 적 (천㎡) | 1 인당 총면적 (평/인) | 세대수/ 인구수 | 토지이용 (%) | | | 사 업 기 간 | 시 행 자 |
|---|---|---|---|---|---|---|---|---|
| | | | | 계 | 단독 공용 | 공공 시설 | | |
| 부 평 | 346 | 17/7 | 1,467/ 5,904 | 100 | 43.8 | 50.6 | 1985. 7. 22. ~1988. 12. 31 | 토지개발공사 |
| 갈 산 | 660 | 6/5 | 7,638/ 30,552 | 100 | 46.8 | 42.6 | 1989. 7. 12. ~1992. 6. 30 | 〃 |

(3) 부평구 위락 및 휴식공간 시설(공원)

부평구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미 조성된 면적이 전체 공원 계획에 10%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아직도 공원에 대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원 조성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공원이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부평구는 도시자연 공원이 2개소중 2,417,194㎡ 현재 미조성되어 있으며, 근린공원 17개소 1,130,666㎡중 4개소 121,801㎡는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있는 어린이공원 38개소 94,071㎡중 27개소 56,214㎡는 조성되었고, 10개소 28,757㎡는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1개소 9,100㎡는 미조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전체적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총 58개소 중 55개소가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으로, 이중 46개소가 조성되어 부평구 주민들의 휴식처와 놀이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부평구 공원 현황

(단위 : 천㎡)

| 구 분 | 계 | | 조 성 | | 조성중 | | 미조성 | |
|---|---|---|---|---|---|---|---|---|
| | 개소 | 면 적 | 개소 | 면 적 | 개소 | 면 적 | 개소 | 면 적 |
| 계 | 58 | 6,986.103<br>(8,119.492) | 31 | 178.015<br>(178.015) | 15 | 89.777<br>(89.777) | 12 | 6,718.311<br>(7,851.700) |
| 도시자연공원 | 2 | 2,417.194<br>(3,483.194) | | - | | - | 2 | 2,417.194<br>(3,483.194) |
| 묘지공원 | 1 | 3,344.172<br>(3,411.561) | | - | | - | 1 | 3,344.172<br>(3,411.561) |
| 근린공원 | 17 | 1,230.666 | 4 | 121.801 | 5 | 61.020 | 8 | 947.845 |
| 어린이공원 | 38 | 94.071 | 27 | 56.214 | 10 | 28.757 | 1 | 9.100 |

또한 부평구의 주요 휴식공간으로는 부평근린공원과 백운공원을 들수 있으며, 그 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주요공원(휴식공간) 현황

| 공원명 | 위 치 | 시설규모 | 시 설 현 황 | 1일 이용적정인원 |
|---|---|---|---|---|
| 부평근린공원 | 부평4동 88번지 | A=34,643㎡ | • 축구장 5,798㎡<br>• 놀이기구 5종 17개<br>• 주차장 2개소<br>• 기타 3종 43 | 1일 350명 |
| 백운공원 | 십정. 186-17번지 | A= 7,763㎡ | • 축구장 5.981㎡<br>• 놀이기구 6종 15개<br>• 기타 4종 22 | 1일 250명 |

(4) 부평구 도로 현황

부평구의 도로는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타 시, 타 구와 연결되는 도로로 경인국도, 원통로, 천마로 등 3개 노선뿐이며, 남북도로로 계양구와 연결되는 부흥로, 부평로, 청천로, 백마로, 작전로 등 5개노선 뿐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균형있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확

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부평구의 주요 간선도로는 부평역을 축으로 하는 도로폭 40m에 부평구간의 평로가 있고, 좌측에는 도로폭 35m의 연장 4,000m의 부흥로가 있으며, 우측에도 30m의 4,100m의 청천로가 있어 마치 3개노선이 남북으로 연결되는 증축의 역할을 하고있으며, 열십자(+)형으로 신촌로, 공병로, 삼산로, 갈월로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보조간선도로로 산곡로, 천마로, 동중로, 백마로 등이 있으며, 부평상업지역을 축으로 부평 1로, 2로, 3로로 구분하여 시장로타리를 축으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남동구 간석동과 부평 농협로타리 연결되는 만월산 터널과 부평구 산곡동에서 서구 석남동으로 연결되는 철마산 터널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부개동 현 부평구청 앞~산곡동~서구 가좌동으로 연결되는 도로폭원 30M도로도 시급히 개설해야 할 것이다.

부평구 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에 계획연장 334km중 개설되어 포장된 곳이 195km와 미포장된 곳은 24km이다. 원래 미개설된 것이 115km였는데, 1992년 계양면 편입으로 계획면적 426km 중 250km가 개설되어 포장되었으며 176km가 미개설되었었다. 그런데 1995년 북구에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부평구 관내 총 계획 연장 285km 중 개설된 곳은 218km이며, 미개설된 것이 67km 도로 도로개설율은 74.27%로서 타구에 비해 아직도 도로 시설은 부진한 편이고, 부평 전체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은 도로율 15.16%에 불가한 실정이다.

### 부평구 도로현황

(단위 : km)

| 년도별 | 계획연장 | 개 설 | | 미 개 설 | 비 고 |
|---|---|---|---|---|---|
| | | 포 장 | 미포장 | | |
| 1987 | 334.355 | 194.395 | 24.436 | 115.524 | |
| 1992 | 426.837 | 250.484 | - | 176.353 | 분구전 |
| 1995 | 285.2 | 217.7 | - | 67.4 | 북구에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 |

### 부평구 노선별 도로현황

(단위 : m)

| 노선명 | 총연장 | 부평구연장 | 폭 | 구 간 | 비고 |
|---|---|---|---|---|---|
| 부 평 로 | 3,600 | 3,600 | 40 | 부평역~부평 I.C간 | |
| 경 인 로 | 11,500 | 5,300 | 35 | 구인천세관~숭의동~삼능부천시계 | |
| 신 촌 로 | | 1,400 | 30 | 부평농협R~부평3거리 | |

| 노선명 | 총연장 | 부평구연장 | 폭 | 구 간 | 비고 |
|---|---|---|---|---|---|
| 부 흥 로 | 4,000 | 4,000 | 35 | 경인국도~부흥국교~경인고속도로 | |
| 원 통 로 | 3,800 | 2,400 | 35 | 부삼4거리~십정사거리~법원고가교~석바위사거리 | |
| 청 천 로 | 4,700 | 4,100 | 30 | 부삼4거리~한양4거리~삼보물산 | |
| 천 마 로 | 4,700 | 2,700 | 20 | 가좌동I.C~산곡동~부평로 교차점 | |
| 부 평 1 로 | 900 | 900 | 25 | 부평구청~시청R~농협R | |
| 부 평 2 로 | 1,100 | 1,100 | 25 | 부평역~시장R~농협R | |
| 부 평 3 로 | 1,750 | 1,750 | 30 | 부평구청~부흥R~부천시계간 | |
| 부 개 로 | 4,850 | 4,850 | 20 | 산곡남중학교~삼능4거리~경찰종합학교~송신고가교~시계 | |
| 산 곡 로 | 1,750 | 1,750 | 30 | 부원중학교~천마로 교차점 | |
| 동 암 로 | 2,950 | 1,300 | 30 | 장수로교차점~동암역북광장~천마로 교차점 | |
| 장고개길 | 4,250 | 2,700 | 30 | 천마로교차점~산곡여중~부평로 교차점 | |
| 작 전 로 | 5,600 | 2,750 | 20 | 부평구청~부평근린공원~갈산사거리~작전국교~계양구청 | |
| 장 수 로 | 9,800 | 1,650 | 35 | 가좌I.C~간석5거리~시흥시계 | |
| 청 수 로 | 6,100 | 6,100 | 25 | 청천국교~대우자동차~삼산동~시계 | |
| 마 장 로 | 6,750 | 5,500 | 35 | 석남동~철마국교~부평경찰서~시계 | |
| 백 마 로 | 3,500 | 2,800 | 20 | 산곡경남ⓐ~대우자동차 옆~효성동간 | |

관내의 교량은 경인전철을 가로지르는 고가 교량과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교량이 주축을 이룬다. 그 중 주요 고가교로는 철도횡단 교량인 부안, 송신, 남부, 십정고가교가 있으며,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고가로는 작전, 천대, 효성고가교가 있다. 그리고 철도를 횡단하는 굴다리로는 부평쌍굴다리와 십정굴다리가 있다.

현재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교 량 현 황**

| 구 분 | 계 | 고가교 | 지하차도 (굴다리) | 보도육교 | 일반교량 | 지하보도 | 기 타 |
|---|---|---|---|---|---|---|---|
| 개 소 | 31 | 7 | 2 | 2 | 18 | 2 | |

한편 가로등 설치 현황은 1986년 2,870등에서 1995년 3,817등으로 늘어 났으며, 소방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도 1995년 현재 4,970등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5) 치수 및 하수도

관내 하천은 굴포천과 청천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굴포천 및 청천천은 1989년 12월 30일 제295호로 인천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준용하천으로 공고되었으며, 하천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현재 굴포천과 청천천은 도심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수 등으로 인하여 악취가 심하다. 현재 보건위생 측면에서 암거설치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복개완료 구간은 도심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정이나, 이는 하천을 더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하천 복개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수 없다고 생각된다.

준용하천 현황

| 하천명 | 시 점 | 종 점 | 연 장 | 비 고 |
|---|---|---|---|---|
| 굴포천 | 부평동 285-1<br>(부평 1교) | 계양동 64-3<br>(경기도 경계) | 11,5㎞<br>(4,7) | '89. 12. 30일자로<br>준용 하천으로 공고 |
| 청천천 | 갈산동 179-5<br>(청천교뒤) | 갈산동 179-8<br>(굴포천 합류점) | 1,3㎞<br>(1,3) | 〃 |

( )은 부평구 관내 연장임

부평구 관내 생활 하수 및 우기시 우수를 배수시키는 하수도 관거 계획연장은 394,5㎞ 인데, 이 가운데 303.7㎞의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하수시설율은 총 77%에 이르고 있다. 부평구 계획 배수면적은 25,7㎢인데 현재 배수면적은 19,7㎢에 이르고 있다. 배수 인구는 417,000명으로 하수도 보급율은 배수면적기준 76%, 배수인구기준 95% 하수관리 기준 7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기시 저지대 지역의 배수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개소 펌프장 시설을 하였다. 그 용량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펌프장 시설현황

| 시 설 명 | 위 치 | 용 량<br>(배수능력) | 시 설 규 모 | 설치년도 | 비 고 |
|---|---|---|---|---|---|
| 갈산펌프장 | 갈산2동 403번지 | 72.000/시간당 | • 유수지 4,920㎡<br>• 450HP×5대 | 1992. 5.30. | |
| 부평펌프장 | 부평3동 888번지 | — | • 40HP×2대 | 1988.12.30. | |

(6)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개발제한 구역 현황

부평구 관내 고지대, 낙후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건축물을 재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도로, 상하수도등)을 확충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대상을 1989년에 14개 지구를 선정, 그 중 2개지구 가운데 하나인 희망천 1지구는 1989년 12월 20일자로, 희망천 2지구는 1990년 5월 14일자로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였다. 잔여 구간 12개소는 주민의 설문지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지구를 지정하여, 전면개량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을 선정하여 추진 계획중에 있으나,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미진한 실정이다.

지구지정 현황

| 지구명 | 위 치 | 면적(㎡) | 주택수 | 세대수 | 인구수 | 지 정 일 자 |
|---|---|---|---|---|---|---|
| 희망천1 | 부평2동 768 | 6.874 | 27 | 72 | 244 | 1989.12.30. |
| 희망천2 | 부평2동 768 | 13.354 | 48 | 136 | 452 | 1990. 5.14. |

1972년 도시의 확산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를 지정하였다. 부평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은 7.286㎢(부평구 행정면적의 22.2%을 차지함)인데 지목별 현황을 보면 임야가 3.9㎢로 개발제한 구역 전체면적에 53.3%에 달하고 있으며, 대지는 1.714㎢로 23.5%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답 부분이 각 0.573㎢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발제한 구역내 지목별 현황

(단위 : ㎢)

| 지 목 | 계 | 대 지 | 전 | 답 | 임 야 | 잡종지 | 기 타 | 비 고 |
|---|---|---|---|---|---|---|---|---|
| 면 적 | 7.286㎢ | 1.714 | 0.573 | 0.122 | 3.9 | 0.801 | 0.176 | |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물 현황은 총 900동인데, 이 가운데 주택이 301동으로 34.4%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248동과 주택부속사 건물은 214동에 이른다. 그밖에 축사 95동 창고, 종교, 기타 등이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주거용과 공공시설물로서 점차적으로 전원 주택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양상이다. 인구 증가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163세대 636명이 거주했던 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후 유입된 인구는 255세대 864명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총 388세대 1,500여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데, 72년 이래 23년간 136%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7) 기 타

(가) 건설업체 실태

관내 건설업체는 주로 전문 건설업체로서 철근 콘크리트 및 상·하수도, 토공, 포장 유지 등의 건설 분야와 창호, 철물, 도장, 설비, 의장공사 등의 건축분야 업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전문 건설업체는 총 65개업체 중 36개업체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분야의 업체는 29개의 업체가 있다.

(나) 중기보유 현황

관내 중기 보유된 현황은 총 4.546대가 있다. 이 가운데 지게차는 1,888대로 41.5%로 중기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굴삭기(포크레인)는 991대, 불도져 334대, 로우더 318대, 기중기 804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수 기계인 아스팔트 휘니셔, 모우터그레이더 등은 소량 보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대)

| 건 설 기계명 | 계 | 불도우져 | 굴삭기 | 로우더 | 지게차 | 기중기 | 로울러 | 아스팔트 휘 니 셔 | 모 우 터 그레이더 | 쇄석기 외6종 |
|---|---|---|---|---|---|---|---|---|---|---|
| 수 량 | 4,546 | 334 | 991 | 318 | 1,888 | 804 | 66 | 18 | 45 | 82 |

(다) 부평구 지하상가 시설실태

상업권은 부평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도로 지하에 있는 관내 지하상가는 부평지하상가,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성일로 1, 2차지하상가 등이 있어 부평구 상업지역의 상권 형성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부평로 지하상가는 1978년 8월 31일자로 8억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점포 190개소 (1,233㎡)가 있다. 그리고 부평시장 로타리 지하상가는 1980년 3월 22일 총 사업비 15억 8천 5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점포 296개소 (2,709㎡)를, 성일로 1차 및 2차 지하상가는 1986년 9월 10일과 1993년 12월 27일 자로 각각 총사업비 49억 1백만원과 4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점포수 425개소와 248개소 총 7.121(㎡)의 상가를 조성하였다.

부평구 지하상가 현황

| 시 설 명 | 시 설 개 요 (㎡) | | | | | 무상사용 기 간 | 관 리 자 | 관리청 |
|---|---|---|---|---|---|---|---|---|
| | 계 | 점포면적 (개소) | 통 로 | 기 타 시 설 | 사업비 (백만원) | | | |
| 계 | 21,282 | 7,399 (1,159) | 9,962 | 3,921 | 11,794 | | | |
| 부평로 지하상가 | 2,303 | 1,233 (190) | 859 | 211 | 808 | 1978. 9.15 ~2004.11.30 | 지하상가 흥 진 양 | 부 평 구 청 |
| 부평시장 로타리 지하상가 | 4,899 | 2,709 (296) | 1,981 | 209 | 1,585 | 1979.12.20 ~1997.12.19 | ㈜부흥기업 | 〃 |
| 부평로 지하상가 | 7,316 | 1,233 (425) | 4,359 | 1,724 | 4,901 | 1986. 8.16. ~2001. 8.15 | 성일로㈜ | 〃 |
| 부평로 지하상가 | 6,764 | 2,224 (248) | 2,763 | 1,777 | 4,500 | 1989. 7. 1. ~2004. 6.30. | 〃 | 〃 |

(8) 주요 건설사업 추진

㈎ 경인전철 복복선 확장

경인전철은 우리나라 수도권과 부평,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로 산업경제 인구 및 학생 등 생활인의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최근 인구의 증가로 인해 현 단일 철도를 1992년부터 서울 구로역에서 하인천역까지 총 연장 27.4㎞를 총 사업비 4,700억원을 들여 복복선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우리 부평구는 5.4㎞로, 부평구 관내에 부개역사 신설과 부평역 증설 공사를 병행하여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경인전철 확장으로 인근 기존도로 부분 총 연장 1.661m와 방음벽 1.400m를 설치하는 등 본사업은 1차, 2차로 구분하여 19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만성적인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면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시민들이 많은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인천 및 부평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경제적인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순환 외곽도로 건설

본 도로는 서울 도심의 교통난을 외곽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교통의 만성적 체증을 일부 해소하고 위성도시와의 물물교류와 생활권역을 확장하고자 건설되고 있다. 즉 서울 외곽인 판교-구리-일산-인천-시흥-안양-판교로 연결되는 총 연장 120.5㎞(고속 8차선)를 총 사업

비 3조 277억원을 들여 폭 40m로 고속 전용 자동차 도로로 신설되고 있다. 이 도로 건설 중 우리 부평구는 12공구로, 남동구 장수동에서 부평구 일신동을 경유 부천 송내로 연결하는 구간인데, 1995년 현재 완공되었고, 부천시 송내에서 계양구 서운동으로 연결되는 13, 14, 15공구는 1995년 6월부터 1997년 완공 목표로 한창 시행 중에 있다. 본 도로가 우리구 관내 외곽인 일신동을 경유함에 따라 도심의 교통량 감소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건설

도시철도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기존의 220만 인구에다가 매년 5.4%씩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년 20%)로 교통수요가 폭증되는 등 교통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도로망 확충 한계('93년 도로율 15.5%)및 항만의 연간 물동량의 증가(18%) 추세로 시내 자동차가 평균 주행속도가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교통 제반 여건으로 볼 때 2001년에는 8.3㎢/㎡까지 악화될 예상이며, 교통소음 매연 등으로 환경공해가 심각성을 더해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1993년 부터 2007년까지 3개노선 78.87km에 약 32.801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철도(지하철)을 건설할 계획으로 1992년부터 도시철도 1호선을 착수하게 되었다. 이 도시철도 1호선은 계양구 굴현동에 차량기지를 설치하여 부평 I.C－부평역－간석 5거리－시청옆－연수구 하수종말 정리장까지 총 26,41km, B=20M를 총사업비 9,156억을 투입하여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다. 현 공정은 약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22개소에 역사를 두고, 15공구로 나누워 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 부평구는 총 연장 7km로 6개소의 역사중 2개소의 환승역을 두게 되며, 전구간(N=5개공구) 모두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부평구 관내 도시철도 1호선 현황

| 공구별 | 구 간 | 연장(km) | 사업기간 | 해당역(가칭) | 비 고 |
|---|---|---|---|---|---|
| 1－5공구 | 북인천세무서 － 갈산대우자동차 | 1.47 | 93.12～ 97. 4 | 갈 산 | |
| 1－6공구 | 갈산대우자동차 － 부평구청 입구 | 1.537 | 93.12～97. 3 | 부 평 구 청 | |
| 1－7공구 | 부평구청 입구 － 삼능사거리 | 1.15 | 93. 6～97.12 | 부평시장부(부평) | |
| 1－8공구 | 삼능사거리 － 부평 삼거리 | 1.22 | 94. 6～97.12 | 동 수 | |
| 1－9공구 | 부평 삼거리 － 동암국교 간 | 1.32 | 93. 6～97.12 | 원 통 | |

(9) 택지개발사업

(가) 부개지구 택지개발 사업

부개3동 32번지 일대를 1992년 12월 28일자로 택지 개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1992-784호)을 받았다. 택지 면적 60,529㎡-182,567평을 1992년 12월부터 대한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 8.595세대에 30.083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552억원을 투입하여 택지조성중 에 있는데, 96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나) 일신지구 택지개발 사업

일신동 120번지 일대를 1989년 12월 28일자로 택지개발 계획 승인 (건설부 고시 제811호)을 받았다. 택지 면적 82.179㎡-24.859평을 1989년 12월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 1.820세대 7.28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하여 택지조성, 95년도에 완료하였다.

(다) 삼산 지구 택지개발 사업

부평구 삼산동, 부개동, 갈산동 일원에 94년 3월 1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건설부고시 1994-74호)로 지정받았다. 현재 삼산 제1, 제2, 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대한 주택공사와 인천광역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총 1.576.000㎡-477.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각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10) 굴포천 종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굴포천 치수사업

굴포천은 우리 부평구 구 도심권의 배수, 하수처리의 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용 하천으로서의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굴포천으로 여름철 우기시 배수능력 부족으로 삼산, 부개, 갈산 일대는 해마다 침수가 되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있다. 따라서 현재 굴포천의 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특히 굴포천은 부평구 도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유일한 하천으로 종점에서는 한강과 접속되는 곳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굴포천 치수사업과 병행하여 굴포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함께 건설할 계획으로 굴포천 치수사업과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굴포천 치수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69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의 굴포천을 폭 40m내지 80m로 총연장 8.5km를 94년 9월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굴포천 하수종말 처리장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538번지상에 인천시와 부

천시 공동으로 1일 처리량 60만톤급의 시설로 총 사업비 109.800백만원 투자, 91년 11월부터 착공하여 97년 12월까지 완공할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굴포천 확장과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이 완료되면 그간 해마다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생활 하수로의 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의 방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11) 도로망확충

(가) 부평구청~장고개간 도로개설

본 도로의 개설은 부평구청에서~산곡동 우성APT~청천로~서구 석남동을 연결하는 도로 폭원 30m에 연장 3,000m를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총 사업비는 61,514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94년부터 총 연장 3,000대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개설 구간에 미군부대와 군부대가 있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여 이중 1차구간인 부평구청에 산곡동 우성APT 간 길이 540m만 우선 개설키로 하고 소요사업비 110억을 투자, 95년부터 보상추진중에 있으며, 96년 개설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 도로가 완료되면 현재 도시전철 1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잔여구간 2,460m는 계속 미군부대와 군부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 산곡 3동 현대APT~삼능 삼거리간 도로 개설

산곡동 현대백화점에서 88정비부대를 관통하여 부평 2동 삼능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다. 이 도로는 폭 20m에 총 연장 8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4년에 44백만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설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 경인전철을 사이에 두고 도로망이 적은 우리 구로서는 이 도로의 확보로 상당한 교통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다) 경인국도 ~ 장수동간 도로개설

이 도로는 서울~인천간 경인국도(일신동 지역)에서 수인산업 도로를 경유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시점인 서창I.C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B=40m에 총연장 5.608m로, 총사업비 50,484백만원이 소요된 사업이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199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5년 10월 본 도로는 부평구에서 인천 남부권으로 연결되는 남북도로 중 일부 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현 경인국도에서 간석동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크게 감소시켰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경인전철 복복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3개

지구 택지개발 사업, 굴포천 치수 및 하수종말 처리장과 주요 간선도로 개설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부평구의 개발은 더 한층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와 시간적인 여유로 생활의 질 향상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아직도 부평구민의 숙원사업이자 요구사항인 철마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조기 착공으로 동서간과 남북간의 도로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부평구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미군부대와 군부대들이 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시계획 용도에 맞추어 공원 등을 조성한다면, 미래의 부평은 활기차고 힘찬 도시로 도약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철마산 터널 건설과 만월산 터널 건설에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터널 건설 계획 현황

| 시설명 | 구 간 | 규 모 | 추 진 실 적 | 추 진 계 획 | 비 고 |
|---|---|---|---|---|---|
| 철마산 터 널 | 부평 산곡동 - 서구 석남동 | B=35M L=2.200M | 기본설계용역완료 -기 간:93. 6.15 ~94. 2.28 -사업비:665백만원 (3개터널) | ○ 민자유치계획 -인천광역시 조직 개편으로 민자유치계 신설로 적극 추진 | 동서간 도 로 |
| 만월산 터 널 | 부평농협R ~남동구간석동 | B=35M L=2.200M | 〃 | 〃 | 남북간 도 로 |

한편 부평구에서는 기존도로의 유지 관리 보다는 도시계획으로 도로의 신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상하수도의 확충 등 도시 기반 시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매년 소방도로 개설로 10개소에 2.000m를 사업비 150억가량을 투입하여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도 수시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주요시설물인 교량의 유지관리에도 더 한층 힘을 쓰고 있다.

'94년과 '95년의 건설사업 현

(건수/단위 : 백만원)

| 년도별 | 계 | 도로개설 | 도로유지관리 | 하수도사업 | 비 고 |
|---|---|---|---|---|---|
| 94년 | 131/27,064 | 26/17,965 | 48/1,838 | 57/7,261 | 분 구 전 |
| 95년 | 81/15,746 | 24/12,053 | 25/1,493 | 32/2,200 | 분 구 후 |

## 5. 주택행정(住宅行政)

부평지역의 주택 연혁을 언제부터 기술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부평지역에 남아 있는 건물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용도의 건물은 일제시대에 건립된 일부 소규모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철거되어 소멸되었고, 현재 건립되어 사용 중에 있는 주택건물 대다수가 60년대이후에 건축되었다. 그 중 노후된 건물 일부는 재 건축되었고,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80년대이후에는 고층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대량으로 건립되었다.

부평지역이 인천의 생활권으로 편입된 것은 1940년 4월 1일 제2차 인천부 확장계획에 의거 경기도 부천군에서 인천부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부터이다. 1940년 이전의 부평지역은 부천군의 일부지역으로 집단 부락만 있는 한가로운 농촌마을이었다. 특별히 주택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언급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개념에서의 주택문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1882년이전, 1883년(인천개항)이후부터 1939년까지, 1940년(인천편입)이후 1961년까지, 1962년(건축법제정)이후부터 1970년까지,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각각 시대 구분을 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1882년 이전에는 옛 문헌상에 나타나는 주택의 형태 및 규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했고, 1883년 이후 1939년까지는 부평과 같은 인천생활권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개화기에 많은 건물들이 건립되었던 중구와 동구지역 등에 대한 현황도 아울러 건물 양식별로 살펴보도록 했다.

1940년이후 1960년까지는 일제 말로 우리나라 산업의 태동기여서 점차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의 골격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도시의 구역확장, 도시계획사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1961년 이후 1970년까지는 6.25전쟁 이후 파괴된 건물의 복구와 아울러 도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난 해소 대책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이후 1990년대까지는 도시유입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늘어나는 주택난 해소와 관련된 정책 추진 내용 및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1995년이후 주택정책에 대한 향후계획 등을 함께 기술했다. 또한, 북구가 95년 3월 1일자로 부평구와 계양구가 분구됨에 따라 부평구로 용어를 변경하여야 하나, 구제가 처음 실시되면서 북구로 명칭이 계속 불리워져 왔고, 부평지역이라 함은 부평구와 계양구를 합한 종전 북구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통계수치도 북구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부평지역을 북구로 언급하고자 한다.

### 1) 주택행정의 변천

(1) 1882년 이전

주택은 향교나 불교 건축물처럼 오랫동안 보존된 건축물은 거의 없고, 건축 기술로 전승하여 내려오고 있어 시대별 변천사항은 문헌자료에 의해서만이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삼국시대의 주택에 대한 문헌을 보면 『신당서 고려전(新唐書 高麗傳)』에 "적목위루(積木爲樓)"(나무를 쌓아올려 루(樓)를 만들었다)라 하였고, 위지(魏志, 倦三十)에는 "무대창고기가유소창각부경(無大倉庫家家有小倉各之浮京)"(대창고가 없고 집마다 소창고인 부경이 있다)이란 구절이 있으나 누목식(累木式)건축과 고상식 건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신당서(新唐書)에는 "동작장항온화이취난(冬作長抗溫火以取亂)"(겨울에는 온돌을 만들어서 난방을 하였다)란 구에서 당시에 온돌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구당서(舊唐書)에 "기소거필의산곡이모초이(其所居必依山谷以茅草茸)"(산곡에 살았으며, 모초로 집을 이었다.)란 구와 수서에 "공실이침(空室而寢)"(같은 방에서 잔다.)라는 말이 있어 일반 서민은 비교적 검소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목조 건축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어 주거 건축의 양상도 큰 발전을 보게 되며, 경주 왕경(王京)안에서는 대부분의 서민 주택들도 기와를 덮었으며, 사회계급에 따라서 주택의 규모 양식 및 사용 재료까지 제한을 받게 된다. 문헌을 살펴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 第三十三志, 第二屋舍條)에는 진골육두품(眞骨六頭品), 오두품(五頭品) 및 사두품 이하와 백성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유사(三國遺史 辰韓條)에 있는 '삼십오금입택(三十五金入宅)'과 '사절유택(四節遊宅)'의 기록들은 신라 전성시의 저택명을 전하는 것으로 고아한 주택 등으로 보아서 수한한 풍미(風味)가 넘치는 화려하고 훌륭한 저택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에는 『고려도경』 高麗圖經 卷三民居條)에 "왕성(王城)은 비록 크나 산과 언덕으로 되어 평지가 적으므로, 민가(民家)는 지형(地形)에 따라 높고 낮은 모양이 봉방(蜂房)봉황과 같고, 모초로 집을 이은 것이 많으며, 그 중 열의 하나 둘 정도는 기와를 이은 부유한 집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도경』(高麗圖經 卷三十八)과 양조에는 주택의 실내를 설명하면서 "침상앞에 낮은 평상을 놓고 3면에 난간이 있으며, 비단요 위에다 자리를 깔아서 가구들의 모양이 전혀 이풍(夷風)을 느끼지 않고, 서민들은 주로 흙침대를 만들어 불 구들을 놓아서 그 위에서 잠을 잔다. 겨울철은 매우 춥고, 명주나 명주솜들은 매우 귀하다"라는 기록이 있어, 귀족들은 매우 호화롭게 생활하였고, 일반서민들은 온돌에서 기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건축기술이 매우 발달하여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건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건축도 매우 호화롭게 단장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한성에 천도하고 30년이

경과한 세종 조시대에는 대규모 도시건설이 일단락을 보게 되자 가사(家舍)들이 사치하는 경향이 있어 대소신민(大小臣民)들의 주거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세종 13년(1431년)에는 가사건축(家舍建築)을 규제하게 되는데,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의하면 "전략(前略) 예조(禮曹)에 하교(下敎)하여 대소신민의 가사에 정제(定制)가 없어서 이로 인하여 서민가사는 경사(卿士)를 잠의하고, 경사제택(卿士弟宅)은 궁궐을 잠의하여 과미를 경상(競尙)하여서, 상하가 무등이니 참으로 미편(米便)하다. 지금부터는 친자(親子)와 친형제공주(親兄弟公主)는 오십간(十間), 대군(大君)은 여기다 십간(十間)을 더하도록 하고, 삼품(三品)이상은 사십간, 삼품이하는 삼십간, 서인(庶人)은 十間을 불과할 것"이라 하여 신분계급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제한되었다.

부평지역내 주택현황에 대하여 문헌을 살펴보면, 『부평사연구』(조기준, pp.103~104p)에 "장매이 고개(경명현)에서 시시내(신천동)를 질러 가자면 작은 징맹이고개(發阿峴)를 넘게 된다. 이 고개 밑의 마을이 바름이 마을로 옛 발아장(發阿場)터이다. 이 곳은 삼국시대부터 중국으로 통하는 국도변으로 고려 때는 민호가 500호의 대촌으로써 문물의 집산지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또한 "고련이(공촌동)는 고현리의 변음이라 한다. 지금의 마을 동쪽 산중턱 넓은 곳에 마을이 있어 한 때 200호의 대촌을 이룬 옛날의 읍터라고 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계양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굴포천으로 수량이 풍부한 평야지대이므로 옛부터 많은 사람과 물산이 모여서 대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평사연구』(조기준, p.320)에 "부평뜰이 지금은 비옥한 곡창지로 유명하지만 이조말엽까지 해수와 강물이 범람한 습지로 잡초무성한 벌판이었으니 천년전인 삼국시절에야 오죽하였으랴. 사람이 내왕하는데는 나룻배를 건너야 다닐수 있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촌락이 크게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이조말엽, 일제시대부터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1883년 이후 1939년까지

이조시대 건축은 경복궁(1865~1925)건축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개화기를 맞아 양풍의 건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건축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발전해 오던 우리나라의 전통양식 건축은 그 양식의 생성. 변천. 발전을 계승하지 못한 채, 새로운 시대적 요구변화에 따라 문화재 보수 또는 복원에만 일부 사용되는 등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개항 초기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없었지만, 신사유람단 조사 12명을 포함한 62명이 일본에 파견(1881)되었을 때, 그들 중 조사 강문경(姜文馨)이 일본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를 견학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소용돌이치는 세계 정세 속에 일본, 청나라 등에 연수단을 보내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였고, 외국인을 국

내에 불러들여 신 기술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건축 전문가가 없었고, 자본 또한 부족하여 실제 근대 건축물은 한국인에 의해서는 아직 건축되지 못하였다.

확실한 양관 건축이 출현한 것은 일본인이 설계한 원산 일본영사관, 공사관(1880년)건물부터이며, 이 건물은 목조 2층으로 일본에서 당시 유행하던 의양풍으로, 이보다 앞서 건축되었던 부산의 관리관경(管理官)慶이 양풍(洋風)이 아니라면, 이 건물이 한국 최초의 양관(洋館)이 되는 것이다.

원산보다 3,4년 늦게 개항한 인천(1883년)의 일본영사관 또는 공사관도 비슷한 규모의 목조 2층 건물로 르네상스 양식에 가까운 의양풍(擬洋風)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조선정부의 건축사업은 병기창(1884년), 전원국(1886년)등으로 병기창은 솟을 지붕에 벽돌조 단층건물 이었고, 전원국은 벽돌조단층의 건축군이었으며, 이것들이 한국에서 공장 건축의 효시라 할 수 있다(『인천건축사 10년사』, p.137.).

인천 개항초기(1883~1910) 양식주택 보존현황

| 국 가 | 주 택 명 | 건립연도 | 위 치 | 구 조 | 연면적 | 보존현황 |
|---|---|---|---|---|---|---|
| 독 일 | 세창양행 사택 | 1884 | 송화동 1가 1 | 벽돌조적 2층 | 173.[15] | 소실(1950.9.15) |
| 미 국 | Dr. Allen별장 | 1893 | 숭의동 107 | 벽돌조적 2층 | 67.[17] | 1956.10철거(1957) |
| 미 국 | 여 선교사 합숙소 | 1894 | 창영동 42 | 벽돌조적 2층 | | 현 기독교 사회관 |
| 독 일 | Henkel저택 | 1895 | 송학동 1가 2 | 벽돌조적 단층 | | 소실(6.25말기 파괴) |
| 미 국 | Morse저택 | 1896 | 송학동 2가18-15 | 벽돌조적 2층 | 46.[2] | 1954년에 재건 |
| 프랑스 | E.lapord저택 | 1896-97 | 송학동 | 벽돌조적 단층 | | 소실 |
| 독 일 | Schribau저택 | 1902 | 송월동 3가 9 | 벽돌조적 단층 | | 현 섭리피정의 집 |
| 영 국 | Jamcs Johnston별장 | 1905 | 북성동 3-1 | 석조마감 4층 | 452.[98] | 소실(1950.9)파괴 |
| 독 일 | P.Baumann별장 | 1906-07 | 송월동 | 2층 | | 소실 |
| 중 국 | 오례당 저택 | 1909 | 송학동2가16 | 벽돌조적 3층 | 405 | 소실(1968.4.16화제) |

《자료 : 인천개항 초기 현존양식 주택의 외관에 관한 연구논문, 1990.8월 홍석일》

인천은 고종13년(1876년 2월 26일)에 체결된 강화도조약에 의하여 부산(1876년), 원산(1880년)에 이어 세번째로 개항하였고, 그 당시 인천은 제물포라는 이름을 지닌 인구 기천명에 황량한 소어촌에 불과했었다. 10여개의 가옥이 점점이 산재한 완만한 구릉일대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각국 거류지에 생긴 저지대에는 갈대가 울창하였다. 때로 월미도 동단이나 만석동 해변의 어가에는 저녁 연기가 일어나는 외에는 문자 그대로 만목 숙조한 무인의 산야였고, 인마의 왕래나 선박의 출입도 없는 고요한 해안이었다. 그리고 『인천부사』와 『인천개항 25년사』

를 살펴보면 개항 당시 인천의 인구는 약 4,7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한일합방 당시에는 31,011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인천이 근대 항만도시로서 면모를 지닌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게된 동기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수륙관문의 위치에 있어 각국의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고, 각국의 거류지가 형성되어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국 거류지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농촌에서 생계의 목적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점차 도시로 형성이 되어 갔다. 각 거류지의 주택은 점차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 기술로 인하여 여러가지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그리하여, 한일 수호조약 제4관에 의하여 일본 단독 거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선두로 하여 청국 단독 거류지와 각국 공동 거류지(The General Foreign Settlement at Chemulpo)가 설정되면서, 일본은 인천시 중구 중앙동과 해안동 일부분에 걸쳐 위치하고 일식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몰려드는 일본인들의 수용을 위하여 거류지 면적을 조선촌(내동, 답동, 전동)으로 확장하는 한편 항동, 해안동, 만석동 등지의 해변을 매립하여 발전했으며, 마침내는 전체 도시를 뒤덮게 되었다.

강화도조약 이후 우리의 땅에 설정된 외국인 거류지내에 외국의 거리를 방불케하는 외인관이 들어섰으며, 각 거류지를 중심으로한 각 나라별 주택이 나타나 특수한 주택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인천에서 현재까지 현존하는 1930년대 이전의 전통 한옥과 민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개항 당시의 일본, 청국 및 각국 거류지에 비해 조선 가옥은 여기저기 낮은 초가집이 점점이 있는 소부락에 불과했다는 문헌을 통해 개항초기의 한옥은 대부분이 고대의 토조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인천부청, 전게서 p.117, 471 Bi-shop여사 「Korea and Foreign-hours」).

이 당시 유행한 주택양식은 일식, 청식, 양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일식주택은 명치시대(1860년대)로 부터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명치초기에는 일본개항장의 외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택과 호텔이 지어졌으며, 그들 주택의 내부에는 일본 및 당파풍의 장식수법이 사용되었다(장국사, 『건축강좌 5』, 역사편, 1969, pp.196~198).

개항초기 인천시 현 중앙동일대 일본 단독 거류지에 최초로 선보인 일식주택은 대부분 목조로·일관되어 있다. 또한 점포달린 주택들이 대부분이었고, 순수한 주거 기능만을 가진 주택은 한일합방 이후에 많이 생겼다. 그 당시 유통구조에 의해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게 생긴 평면 유형이며 침실에는 다다미를 기준으로 한 모듀울을 사용했다.

둘째, 청식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항초기 활발한 상거래로 말미암아 청단독 거류지의 지형이 타 거류지 지형보다 좋지 못한 급경사 지형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일식주택과 같이 점포를 갖고 있으며, 연립주택의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

지붕은 슬레이트를 사용한 박공으로 되어 있고, 벽돌조 건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국으로부터의 벽돌 반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1888년경 중국인 길성이라는 사람이 인천에

서 최초의 서구식 벽돌 제조를 시작하여 건축 청부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인천부청, 전게서, pp.132~133.).

셋째, 양식·주택은 병인수호조약(강화도조약)이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체결된 이후 조선시대 말기까지 존속하였던 신분체제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사회의 변화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도입과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식민지로 변화하여 타국과의 외교가 사실상 단절됨에 따라 양식주택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양식주택의 출현은 우리나라내에서의 수요증가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외국인의 자본과 설계와 시공에 의한 것이지만, 벽돌 조적 구조의 채용과 신 재료의 도입 등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인천은 개항장으로서 또한 서울의 관문으로서 가장 먼저 양식주택을 받아들인 곳이다. 1883년 개항후 인천시는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양식 주택은 각 국가별로 그들의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었다. 각국 거류지의 구조 또한 벽돌조 및 석조로 일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서구인의 본거지인 중국 상해로부터 건축재료 및 건축청부사업의 반입이 용이하였다는 것에 있다(이광노 외, 「한국개항장의 외인관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권2호, p.23.)

이러한 굴욕적인 거류지의 분양 등에 의한 양식주택의 출현은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하겠지만, 주택의 발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개항기 양식 주택의 성격은 대부분이 사택과 선교사를 위한 주택, 각국 관사들의 관저, 별장 등으로 순수 주택은 아니지만, 한국의 주택 건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각종 재해와 전쟁, 노후로 인해 대부분 철거가 되어 없어졌지만 여선교사 합숙소(schribaum)와 저택 뿐이다.

양식 주택의 평면은 대부분 복도를 중심으로하여 각 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한옥과는 달리 건물 내부에 모든 기능을 수용하였다. 세창 양식 주택은 붉은기와를 썼다. 알렌(Allen)박사 별장은 기와지붕에 일부 둥근 돔(dome)이고 일부는 박공형식이다. 여선교사 합숙소와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게 솟아오른 검은 생철로 복고풍 스타일이며, 물매가 가파르다. 라포드(E. Lapord)저택은 뾰족한 생철, 오례당 저택은 동와슬레이트와 돔을 사용했다. 양식 주택의 벽체는 예외없이 벽돌조적으로 하였으나, 인천각은 석조마감을 하였다. 이는 인천이 포구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건축자재 반입이 용이한 점에 많은 혜택을 받은 결과라 생각된다.

세창양행 사택의 전면 아래층에 르네상스풍의 아케이트를 설치한 점과 선교사 합숙소의 복구풍 스타일의 입면, 인천각의 탑각부에 설치된 로코코풍의 조각, 오례당 저택의 돔이 특이한 입면을 이루고 있다.

개구부에서 세창양행 사택은 1층 부분의 르네상스풍의 아케이트를 설치 하였고, 2층의 창은

직사각형이고, 알렌박사 별장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창을 만들었으며, 선교사 합숙소는 지붕면에 돌출한 창이 있어 이채로우나, 현관 부분은 대부분 간결한 장식을 하였다.

인천 개항초기 주택 구분별 특성

| | 일 식 주 택 | 청 식 주 택 | 양 식 주 택 |
|---|---|---|---|
| 형 식 | 점포주택 | 점포주택, 연립주택 | 별장, 사택, 선교사를 위한 주택 |
| 구 조 | 목조(외벽:목조 비닐 판 붙임)<br>점포딸린 주택 | 벽돌조<br>점포 딸린 연립주택 | 벽돌조, 석조(일부)<br>사택, 관저, 별장, 합숙소 등 다양함(자국내의 특성) |
| 형 식 | (다다미 모듈 사용) | (평면과 입면이 대칭) | |
| 지 붕 | 기 와 | 생철(함석)지붕<br>슬레이트(박공) | 생철(함석), 슬레이트,<br>기와지붕 |
| 식당<br>/부엌 | 좌 식 | 입 식 | 입 식 |
| 사용자 | 일본인 | 중국인 | 외국인선교사, 통상인, 관리 |
| 화장실<br>/욕실 | 외부에 설치<br>없 음 | 내부설치(제거식)<br>없 음 | 내부에 설치<br>내부에 설치 |
| 침 실 | 다용도와 단일용도 | 다용도와 단일용도 | 단일용도 |
| 정 원 | 후면대지에 위치 | 중정형식 | 건물부변미 모두 정원 |

(홍석일, 인천 개항초기(1883~1910)현존 양식주택의 외관에 관한연구, 인하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9.)

1910년 한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일본 제국은 조선총독부 관제를 내 세워 식민지 통치에 효과적인 행정부서와 사법기구를 재 조직하고, 지방의 말단까지 일본인을 관사로 임용하여 행정을 강화했다. 이전 도지부 건축소와 통감독 관방 회계에서 행하고 있던 영선 업무는 총독부 영선과에 흡수하여 청사 건축, 공립학교 교사 등의 신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는 행정기구의 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추세였다. 건축 설계와 시공이 일본인의 독무대였던 연유로 관과 민의 일본인 기술자가 증가하여, 1922년 4월에는 122명의 회원으로 조선건축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다. 건축회 창립 당시 한국인의 회원은 한 명뿐이었고, 1920년대 전반기에 가입한 한국인은 15명 정도였다. 거의가 관료 기술자로서 주로 고등공업학교 출신의 20대청년들이었으며, 초기에는 개인적인 설계는 없었으나, 1920년 말부터 퇴관한 사람들에 의한 작품이 나타났다.

일제 전반기의 건축양식의 동향은 초기에는 관청건축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므로 일본 자체의 조류에 준한 양식주의를 채택하였지만 과도기적 형태를 가진 경성부청(현 서울시청)이 착공된

1925년경부터 양식주의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유럽에 있어서의 1920년대는 기능주의적 근대 건축에 차츰 회의가 일기 시작하여 현대 건축의 여러 경향들과 역사적 맹락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구의 근대 건축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일본의 관제 근대화의 서구의 종속성을 가진 일본 제국주의의 특성에 근거를 둔 근대 양식의 건축이 활발하였을 뿐, 아직 독자적인 경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현 국립중앙박물관, 1926년 준공) 등을 비롯한 관공서 건축이 재래의 양식으로 그 필요량을 거의 채워가는 1925년경부터 일본 자본의 유입에 따른 상업 건물의 출현과 세계 조류에 따른 콘크리트조 합리주의 양식의 건축 형태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인천내 각국 지계의 특징과 해당 건축물

| 구 분 | 일 본 지 계 | 청 국 지 계 | 공 동 지 계 |
|---|---|---|---|
| 조인날짜 | 1883. 9. 30 | 1884. 4. 2 | 1884.11. 7 |
| 해 당 국 | 일 본 | 중 국 | 미,영,독,불,노국 |
| 범 역 | 관 동 1,2가<br>중앙동 1,2가 | 선린동 전역 | 송학1-3, 북성1-3가<br>송월2-3, 항동 1가<br>관동 2,3가 |
| 면 적 | 7,000평 | 5,000평 | 140,000평 |
| 확장유무 | 1884년<br>관동1가 3,800평<br>1897년<br>해안2가 항동3가 4,000평 | 내동, 경동일대 도로변 | |
| 특 징 | 상,중,하급지 선정 | 해안지대중 약간 높은<br>건조한 주택지 | 항구를 조망할 수 있는 서남향 |
| 호수인구<br>(1907년)<br>(1931년) | 2922호/11,467명<br>2655호/11,373명 | 414호/1,373명<br>302호/1,469명 | <br>37호/63명<br>20호/34명 |
| 철 폐 일<br>(기간) | 1914. 4<br>(31년간) | 1913. 11<br>(29년간) | 1913. 4<br>(29년간) |
| 지계내 주요 건축물 | 일본영사관(1883)<br>우선회사(1885)<br>대불호텔(1888)<br>조선신보사(1889)<br>제18은행(1890)<br>제58은행(1892)<br>제 1은행(1899)<br>인천은행(1906) | 청국영사관(1898)<br>러시아영사관(1903) | 세창양행사옥.<br>세창양행(1884)<br>Dr.Allen(1893)<br>선교사숙소(1894)<br>영국영사관(1897)<br>외인구락부(1901)<br>영화학교(1904)<br>전기회사(1906) |

《인천지사 지계편 참조》

개항직후 지계내의 자치에 관한 지계규정조항(인천, 제물포 각국 지계 장정 : Agreement Responding a General Foreign Settlement at Chemulpo(Oct.3.1884))을 제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건축에 관한 내용은 이러했다.

① 이 규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존하는 조선 가옥은 모두 제거하고 조선인 가옥을 건축하는 것은 금한다.

② 모두 연와 또는 돌, 혹은 철로써 견고하게 건조하여야 하며, 목조의 건물 또는 초읍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청국지계의 북편에 건축하는 가옥은 모두 와읍으로 하되, 그 벽은 연와(煉瓦) 또는 돌 혹은 두터운 석회벽(石灰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시기의 건축물을 성격에 따라 각기 분류하였다. 먼저 관청 건축으로 일본영사관(목조 2층 1883.10.31 준공)은 일본에 있어서 관청의 건축을 장악하던 공무성 시대(1874~1885)의 말기에 해당하였으므로 공무성에 고용되었던 외국인 기술자의 영향을 받아 다소 세련되었고, 또한 좌우대칭으로, 지붕은 일본 기와이음과 2층의 전면 중앙부를 발코니로 장식한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의양풍의 르네상스양식에 준하는 건물이었다.

영사관 구내에는 경찰소, 순사 합숙소 등 여러 부대시설이 함께 지어졌는데, 외관이나 형태는 거의 영사관에 준한 것이었다. 영국영사관은 1884년에는 소규모 양옥 목조건물을 사용하다가 1897년에 단층 벽돌조로 본 청사를 건립하였다. 전면에 아케이드(Arcade)로 장식한 베란다를 둔 영국식 르네상스양식의 건물로 'ㅁ'자 형태의 경사실, 침실, 식당, 창고 등이 배치되었다.

청국영사관은 인천에서 청국지계가 설정되었던 1898년에 건축된 것으로, 청국 지계 중 가장 높은 지대였던 현 화교중산학교내에 위치했으며, 이 건물은 일식기와 이음에 중국풍의 '弓'형의 아치(Arch)가 아케이드(Arcade)로 장식 되었다. '弓'형 아치의 장식 수법은 당시 중국지계내의 중국인 주택에 많이 볼 수 있었으며, 현존하는 선린동 중국인 거주지역내의 주택에서도 다소 찾아 볼 수 있다.

종교 건축으로는 인천시 동구 창영동에 소재하는 여선교사 합숙소(1894년 준공)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옛모습을 간직한채로 유아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 바오르수녀원은 현재 인천 답동성당 교리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6.25동난 당시 일부 훼손되었고, 그후 잦은 보수로 인하여 당시의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다. 성바오로대성당(현 답동성당)은 상부 적벽돌과 하부 화강석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1887년 프랑스 코스테(Coste)신부가 설계한 당시는 고딕식이었는데, 1937년 키잘렛(Chizallet) 신부의 개축이 있은 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바뀌었다.

학교 건축은 1887년 인천 영학사(英學舍)로 시작하여, 1912년 인천공립 상업전수학교로 개교한

남공립상업학교가 양관 유입시기에 건축된 유일한 것이다. 이 건물은 한동안 인천고등학교를 거쳐 중앙국민학교 교사로 사용되어 있었다. 본관은 신교사 신축으로 철거되고, 박공지붕의 강당이 현재 보존되어 활용되고 있다.

상업 건축물로는 외국인 상사 건물과 호텔, 은행, 병원 등으로 종류가 다양했다. 최초의 외국인 상업 건물로는 세창양행(1884년 준공-벽돌조 1층)이 있는데, 독일계 상사로 중구 송학동에 위치하여 당시 바늘, 염료, 바이엘약품 등의 판매하였다. 그리고 1895년에 건축된 영국계 상사 Holme Ringer양행은 벽돌조 2층에 아치가 반복되는 영국식 르네상스 형식으로 1953년 해군 수로국으로 전용 되어오다가 1961년경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1888년에 벽돌조 3층으로 건축된 최초의 서구식 호텔은 대불호텔이다. 이 호텔은 건축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1833년 일본인 掘力太郎에 의해 건축되었다. 그 후 1899년 경인선의 개통으로 인천의 숙박업소가 불황을 맞자 호텔에서 중화루(중국요리집)로 개칭되어 사용되다가 건물 노화로 79년 철거되었다. 1층에 난간이 있었으며, 그리스식 Pediment로 입구를 강조한 절충의 건축이다.

상업 건축에서 가장 활발했던 건물은 은행 건물이었다. 은행은 인천의 상권을 크게 좌우하였으며,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던 중앙동 일대에 주로 건축되었다. 그중 제18, 58, 1은행은 아직 현존하는 건물로 1890년대 상업건축 양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 세개의 은행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제18은행(1890년 준공)은 고전적 장식의 절충주의 양식으로 지붕은 일식기와 이음으로 되어있는 벽돌조 단층건물로 되어있다. 현재는 민간인에게 불하되어 주점으로 영업 중에 있다. 제58은행은 석조 기단과 발코니, 돔(dome)창, 맨사르지붕이 조합된 프랑스식 르네상스의 형식을 띠며, 현재 중구 요식업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1은행은 일인 건축가 新家孝正의 설계되었으며 건축 자재는 동경과 대만에서 수입했다.

이 건물 중앙에 돔을 얹고, 일식 기와에 석조 피라핏이 있는 후기 르네상스 양식을 보여 주며, 현재 시 지정 문화재 제7호로 법원 등기소로 사용되고 있다.

민간 건축으로 전환국, 조선신보사 등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892~1893 서양식 화폐 제조를 위한 전환국이 단순한 벽돌 공장형태의 3동이 건축되었다. 화폐공장이 서울로 이전된 후 1908년 인천여고에 불하됐으나, 화재로 말미암아 철거되었다. 이 건물은 건축사적으로 한국 정부 최초의 서양식건축이란 데에 의의가 있다.

주택건축으로 세창양행주택, Dr.Allen별장, Henkel저택, Mores저택, Lapord저택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 세창양행 사택은 인천 최초의 양관 저택으로 Italian Villa식의 Arch베란다가 있는 전면 대칭의 중복도형 건물이었다. 이후 인천부립도서관(1922), 인천박물관(1946)으로 사용되다가 1950년 9월 15일 포화로 파괴되었다. Dr.Allen별장은 벽돌조 2층의 당시 미국 일반주택의 표준형에서 볼 수 있

었던 식민지풍(Colonialtype)주택으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점차 풍치를 잃기 시작하여, 1956년 10월 황폐한 구옥을 헐고 그 자리에 인천전도관을 새로 지었다.

Henkel저택과 Morse주택은 미국인이 살았는데, 전자는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 되었고, 후자도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벽과 굴뚝만 남은 것을 1954년 복원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다.

개항 초기 약 20년간 서구식 건축 유입의 2대 경로는 외교 계통과 종교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통을 밟아 인천의 도심에 적지 않은 신식 건물이 들어섰고, 또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새로운 문물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서양건축도 활발해졌다.

1990년 이후의 건축물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관청 건축으로 러시아 영사관을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2층 상부에 그리스풍 Pediment가 있는 일식과 그리스식이 잘 조합된 양식으로 지어졌다. 1904년 영사관이 폐쇄됨으로 말미암아 해사출장소와 여러 정부기관으로 전용되다가 1974년 상가 신축으로 철거되었다.

학교 건축물은 공립 심상고등소학교(1903. 5. 준공)와 영화보통학교(1904년 준공)를 들 수 있다. 공립 심상고등소학교는 현재 신흥국민학교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산, 원산교 이외에 최고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민학교이기도 하다. 영화보통학교는 내리교회 내에 미국인 선교사가 1893년 창설한 것으로, 1904년에 벽돌 단층 건물을 신축하여 1907년 2층으로 증축되었으나, 1970년 운영난으로 폐쇄되어 현존하고 있지 않다.

상업 건축으로는 동양연초상사와 전기주식회사 등을 들 수 있다. 동양연초상사는 1901년 영국와 미국의 합자회사로 한국 최초의 담배공사였으나 불행히 6.25동난의 폭격으로 파괴되어 현존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기주식회사는 1906년에는 벽돌과 콘크리트의 조합된 건물로 발족되어 1912년 일한와기전기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전력을 담당하였으나 현존치 않고 있다.

정부 민간단체 건축으로는 종두검사소와 제물포구락부, 기상관측소 등이 있었다. 종두검사소는 종두약을 실험하는 기관으로, 현재 동명국민학교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물포구락부는 외국인 친선을 위한 사교장으로서 1953년 이래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전용되었다. 기상관측소는 한국 최초의 기상대로 1904년 설치 되었다가 1907년 일본 총감부 관측소로 개칭되어 해방후까지 사용하던 중 1984년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신축으로 철거되어 현재 창고만이 남아 있다.

주택건축으로서는 서감리 저택, 슈르바움 저택, 이하영 별장, 제임스 존스톤 별장, P.Baumann별장 오례당 저택 등이 있었다. 이하영 별장은 구한말 법무대신의 별장으로 일본 수비대로 전용되어 오다가 해방후 밀알성도그리스도 교회의 신축으로 1958년 철거되었고, 슈르비움 저택은 1902년 제임스 존스톤 별장(인천각)을 짓기 위해 준비차 건립된 것으로 현재 섭리피정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수녀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제임스 존스톤 별장은 성곽풍으로 영국 근대식(순수한 유럽식)건축으로 설계자 독일인

Rothkegel과 시공업자 중국인 Leekeitue가 건축하였으며, 상해의 조선 업자 영국인 제임스 존스톤의 하계 별장이었다. 당시 각국 지계 내에서도 가장 크고 훌륭한 사택이라 알려졌었는데, 윤일주 교수의 논문「한국 근대건축의 발달」에 의하면 1900년대 초기의 건축 중 가장 특이한 것으로 석조 기와지붕으로 당시 양식주의에 따르지 않은 유일한 건축이며, 탑실 등 경쾌하고 서정적인 수법은 향토적인 것과 Secession적 요소가 적절히 결합된 작품을 연상케 한다.

P.Baumann별장은 제승별장이란 별칭을 가진 독일인 별장이었으나 동란 중 함포로 부분 손상되었다가, 1955년에 철거되었다. 오례당 저택은 중국인 외교관 주택으로 'Queen Anne'의 Dome과 붉은 벽돌조 2층 건물이었으나 여러차례 매각을 거치고, 잇단 화재로 말미암아 소실되었다. 그리고, 중국인 점포주택(1940년대 신축)과 일인 고급 사저, 주정기씨의 점포 주택 등이 있었는데, 청국 지계내 중앙동 3가에 위치하여, 1층은 점포, 2층은 주거로 쓰여 왔다. 일본인 고급 사저는 일제말기 일본인의 고급주택으로 1940년 신축되어 1953년 민간인에게 불하되어 1층 내부구조가 약간은 개조되었지만, 'ㄷ'자 형태의 평면과 2층 다락, 일식 정원 등이 그대로 보존된 일본풍의 전형적인 주택이라 하겠다. 주정기씨 주택도 194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현 인천세무소로 전용되고 있지만, 당시 조선인 고급 주택의 면모를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별로 건립된 특징을 살펴보면, 1900년 이전은 은행을 위시한 상업건축이 많이 건축되었으며, 외국상인의 주택, 각국의 외교와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관청건축 순으로 나타났다. 1900~1910년 사이에는 주택을 비롯, 학교 건축과 정부 및 민간단체의 건축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전기에 비하여 관청과 종교건축의 퇴조를 보였다. 1911~1925년은 주로 대일 수출을 위한 농수산 관계의 민간단체 건축이 우위를 차지했으며, 학교 건축과 상업건물이 꾸준히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6년부터 해방전의 건축 상황은 자선과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의 건물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개인 소유의 공장건축과 점포를 겸한 2층 구조의 주택이 중앙동(일본지계 내)을 중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또 이 시기에 면적이 큰 관청 건축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건물의 과반수가 현존하고 있다. 해방 후와 전후의 건축은 특히 대학교 본관과 교사건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정부(인천시)차원의 건축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 대량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축할 때 사용되는 건축 자재별로 건립된 특징을 살펴보면, 1900년 이전의 근대건축물의 건축 재료로는 벽돌의 사용이 다수를 차지하며, 수법에 있어서 적벽돌로 마감하는 방법과 벽돌쌓기에 스코터칠을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가 보였다. 초기 관청 건물과 영사관 건물과 가건물은 목골조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벽돌과 수에 있어서 적기는 하나 석조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또 건축 자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건축설계(예 : 1899년 7월에 지은 제일은행—일인 新家孝正 등)와 시공에 있어서도 외국인, 주로 중국인 목수에 의한 것(예 : 세창양행 사택)도 당시 일반적인 것이었다.

1900~1910년(구한말)에도 1900년 이전의 건축과 건축 구조의 양상은 비슷했다. 벽돌조 건물이 많이 건축되었고, 목조와 석조 순이다. 이 시기 유일한 석조건물인 제임스 존스콘 별장은 독일인 기사의 설계와 중국 청부업자의 합작으로 건축되었으며, 그리고 이 공사는 1903년부터 1905년에 러·일전쟁 중 노동임금 앙등과 건축자재 구입난 속에 지어진 것으로 중국 청도에서 붉은 타일기와를 수입해다가 쓰기도 했다.

1911~1925년 사이에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벽돌조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건축물의 신축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또한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서 목골조로 건축되는 일이 드물었다.

1926~1945년에는 지금 현존하는 목조 일식 주택의 대다수가 이 시기에 건축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건축양식의 침체기에 접어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1940년이후 1960년까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그리하여 인천을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위하여 경인공업지구를 형성하게되자 인천의 공업도시화가 촉진되었으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한 부역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36년 부역의 1차확장(부천군 다주면 전역, 문학면 일부가 편입되었고, 부면적은 6.056㎢에서 27.123㎢)에 이어 1940년 2차 확장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대폭적인 부역의 확장에 따라 1940년 4월 1일 부평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부평지역이 인천으로 편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로 제정된 도시계획 관리법은 1934년 6월 「조선시가지계획령」이며 인천의 근대적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은 계획인구 20만인을 기초로한 1937년 4월 20일 총독부 고시 제263호 「인천지구계획결정」에서 비롯된다. 이는 인천지구의 27.59㎢에 대한 주거지역, 녹지지역, 풍치지역, 공원, 도로의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기의 도시계획안

1937년

| 구 분 | 구 역 내 | 총면적대비 | 인구-인당면적 |
|---|---|---|---|
| 총 면 적 | 27,588,400㎡ | — | 137㎡ |
| 주거적지면적 | 24,308,000 | 89% | 122㎡ |
| 계 획 인 구 | 200,000人 | — | — |
| 녹지지역면적 | 7,010,000㎡ | 29% | — |
| 풍치지구면적 | 6,840,000㎡ | 25% | — |
| 공 원 면 적 | 2,832,000㎡ | 10% | 14㎡ |
| 대 로 2 류 | 목 원 30m | 연장 13,920m | 5개 노선 |
| 대 로 3 류 | 목 원 25m | 연장 23,080m | 15개 노선 |
| 중 도 1 류 | 목 원 20m | 연장 12,940m | 8개 노선 |
| 중 도 2 류 | 목 원 15m | 연장 31,980m | 30개 노선 |
| 중 도 3 류 | 목 원 12m | 연장 21,240m | 26개 노선 |
| 계 | | 연장103,160m | 84개 노선 |

토지구획 정리구획면적 : 약 18,000,000㎡

자료 : 인천시, 인천시사(상), 1973, p.743.

이후, 1939년 11월 18일 도시계획과 관계된 공업지구, 주택지, 경영사업이 결정되었고, 1940년 1월 19일 부내, 서곳, 문학, 남동 4개면이 인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지역은 46.098㎢로 확장되었으며, 부평지역에는 17만 5천명을 계획인구로 하는 계획이 마련되었다.

일본은 1944년 1월 8일 인천의 도시계획 구역면적을 168.887㎢크게 확장한 다음 패망하고 말았다. 해방후 1963년 1월 14일 건설부 고시 202호「인천도시계획 재정비」로 가로, 공원, 공업용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4월 23일 소로 일부가 변경되었다. 1964년에는 운동장 조성 공사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1965년 1월 11일 대통령공고 제1호의 경인간 특정지역지정에 의한 경인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고속도로의 축조와 제2선거축조, 경인운하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65년 1월 19일 인천시전역과 부천군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제가 결정 되었으며, 1966년 8월 31일 가로, 광장, 공원, 용도지역 등이 결정되었다.

1967년과 1968년에는 가로, 광장, 공원의 변경 고시와 더불어 제2선거지구, 가로, 철도계획이 마련되었다. 1970년과 1968년 가로, 광장, 공원의 변경고시와 더불어 제2선거지구, 가로, 철도계획이 마련되었다. 1970년 2월 9일에는 건설부 고시 제54호로 재정비결정이 이루어져 용도지역, 가로, 광장, 선지, 풍치지구, 철도, 운하계획이 구체화 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계획이 입안되어 도시계획구역이 237.430㎢로 확장되었다.

1972년 8월 25일에는 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과 함께 시흥군 소래, 군자면 일부와 김포면, 계량면, 고촌면 일부를 인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여 298.250㎢를 계획 구역으로 하였으며, 1975년 5월 16일 고촌면 일부지역을 분리하였다. 1976년 3월 27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1940년에 편입된 부천 상동지역을 제외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다. 1981년 인천항공유수면매립계획에 의한 항만구역을 편입하여 총면적 326.148㎢의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었다.

인천도시계획변경 현황

(단위 : ㎢)

| 결정년월일 | 고 시 번 호 | 계획구역면적 | 사 유 |
|---|---|---|---|
| 1937. 4. 20 | 총 독 부 제263호 | 27.388 | 당초계획구역 |
| 1940. 1. 19 | 총 독 부 제 25호 | 46.098 | 부평지구 단독구역 |
| 1944. 1. 8 | 총 독 부 제 13호 | 168.887 | 인천. 부평통합 |
| 1970. 2. 9 | 건설부고시 제 54호 | 237.430 | 매립지 포함 |
| 1972. 8. 25 | 건설부고시 제385호 | 298.250 | 개발제한구역 포함 |
| 1974. 6. 27 | 건설부고시 제199호 | 297.990 | 개발제한구역 포함 |
| 1975. 5. 16 | 건설부고시 제 75호 | 278.990 | 김포군 고촌면 분리 |
| 1976. 3. 27 | 건설부고시 제 37호 | 310.998 | 상동분리. 해면포함 |
| 1981. 8. 1 | 건설부고시 제287호 | 326.148 | 공유수면매립예정지 포함 |

자료 : 인천시, 인천도시계획연혁, 1985. p.104.

토지구획정리사업

| 연도별 | 지구수 | 면적(㎡) | 비 고 |
|---|---|---|---|
| 40년이전 | 1 | 1,255,000 | 숭의지구 |
| 41~50년 | 2 | 2,325,000 | 송림, 부평1지구 |
| 51~60년 | 1 | 1,014,000 | 제1지구 |
| 61~70년 | 10 | 23,384,000 | 부평, 주안, 고속지구 |
| 71~80년 | 5 | 5,434,000 | 부개, 송도, 십정, 계산지구 |
| 81~현재 | 3 | 4,197,000 | 구월, 십정지구 |
| 계 | 22 | 37,609,000 | |

자료 : 경인일보사, 인천년감, 1986, p.188.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토지확충 사업은 개항기에 이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항만 수축을 위한 매립이 이루어지고, 1930년대 들어와서는 항만관련시설 용지 및 공장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매립공사가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한일합방 이후 일시적으로 인천의 경제와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 등 수출입 무역의 신장으로 회복되고, 후반기에 와서는 일본의 중국 동북지방 침략을 계기로 군사적, 경계적 목적하에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부각되어 항만시설이 확장되어 갔다.

1911년 착공하여 1918년에 준공한 제1선거의 축조는 동양 유일의 갑문식 선거로 해안 매립을 이용한 최초의 대규모 토목공사였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하천 취체규칙과 공유수면매립 규칙을 제정하여 수면의 매립과 항만의 건설에 총독의 허가를 요구하였다. 이는 1923년의 조선 공유수면 매립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개항 당시 항구에 관한 제도는 주로 조약과 이에 부수한 협정에 의한 것으로 항만시설 및 해안 매립에 있어 기본적인 단속과 규제는 없었다. 그러나 서해안 지역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커서 인천항의 경우 그 차이가 8.79m에 달하여 일본인들은 간석지의 매립 및 간척사업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총독부는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산미 증산과 이주민을 위해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총독부는 1920년 11월 식산국 토지개량과를 신설하고 서해안 간척사업을 위해 업무 전담 기구를 설치하였다.

경인지역은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을 계기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공장입지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다.

현 북성동 일대의 매립(1931)은 수산물 유통을 위한 제방 및 냉장창고를 건설하기 위해서였고, 화수동 앞 해면매립은(1938)은 위험물 창고, 석탄 하치장, 항만 관련시설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매립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항만 북부 해면이 집중적으로 매립되었는데, 송림, 송현(1939, 1943), 용현동(1942) 및 학익동(1936), 북성동(1943) 해면이 이 시기에 매립된 것이다. 1910~1945년까지의 약 36년간 이루어진 공유수면매립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이를 비교해 보면 인천항의 모습은 자연적 조건을 이용한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크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현황 (1910~1945)

| 매립지 (현재) | 면적(평) | 매립시기 | 시 행 자 |
|---|---|---|---|
| 제 1 선 거 | 85,382 | 1911~1918 | 조선총독부 |
| 신생동및신흥동1가 | 10,803 | 1914 | 조선권농사 |
| 항 동 3,4,5,6 가 | 87,924 | 1915 | 조선총독부 |
| 월 미 도 | 7,000 | 1923~24 | 남만주철도회사 월미도 유원회사 |
| 북 성 도 | 3,169 | 1929~31 | 인 천 부 |
| 신 흥 동 일 대 | 5,927 | 1926~31 | |
| 항 동 7 가 | 26,758 | 1930~32 | 조선총독부 |
| 화 수 동 | 30,567 | 1936~38 | 조선총독부 |
| 송 현, 송 림 동 | 40,295 | 1939~43 | 조선이연금속 |
| 학 익 동 | 234,688 | 1936 | 인 천 부 |
| 용 현 동 | 111,940 | 1940~42 | 인 천 부 |
| 북 성 동 | 64,727 | 1940~43 | 인 천 부 |

또한 일본은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화의 목적으로 1930년부터 그들 본사의 공업을 모체로하는 보조적 공업체제로 인천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의 인천은 주로 무역항으로서 생성, 발전했으므로 인천의 공업도 미곡수출에 관련된 정미공업이 주로 발전하거나, 소비재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입지면에서 인천은 공업 완료와 재료가 결여되어 있지만 교통, 무역상의 요충에 있어 원료의 수입에 극히 편리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노동력 확보에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력 사정이나 판로 기타 행정금융의 자원 등의 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경성과 함께 경인공업지대를 형성, 주요한 공업지대가 되었다.

만수사변(1931)에서 중일전쟁(1937)에로 전국을 확대하는데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도로확장, 해변 매립, 공업용수도 포설 등을 시공했을 뿐만아니라, 2차에 걸친 부역확장으로 배후지를 마련하였고, 북부(현 만석동 송림동), 남부(현 용현동 학익동) 부평의 조병창 등 3대공업지구를 설치하고, 일본의 유력한 기업자들을 설득하여 공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공업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1939년말의 공장수는 137개소에 달하였다. 정밀공장이 28개소, 기계공장 26개소, 제재공장 6개소, 제차공장 3개소가 이동되는 등 군수기재의 생산이 본격화 되고 있었다. 1941년 세계 제2차대전이 발발되자, 일본군부는 규모를 확장시킬 계획하에 각종 군수공장을 잇달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하청업체인 군소공장도 많이 생겼는데, 조선기계제작소, 조선화

공, 동양방직, 대동제강, 조선철강, 대한제침, 경성공작, 조선화약 등 대소공장이 약 300여개소로 확장되었다. 그 후 1945년 일본의 전세가 꺽이고 8.15해방을 맞게되자, 운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이전까지는 근대건축이 소극적 경로에 의해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해방후 인천의 근대건축은 자체의 힘으로 시작하여 건축으로서의 도시 면모가 서서히 나타났다.

1950년대 후반기 전란의 휴유증과 정치적 혼란으로 큰 프로젝트는 없었지만, 전후 복구를 비롯하여 공장, 상업 건축, 학교, 극장 등이 계속해서 요구되었고, 구제주의 양식이 '필요양식'으로 부상하면서 본격적 근대건축을 성황을 이루었다.

당시의 관청 건축으로는 구 부평경찰서, 제1관구 경찰서, 인천지방 해운국 등이 지어졌다. 구 부평경찰서는 1948년일제 과도기적 건물로 적벽돌 2층으로 건축되었으며, 현재 철거된 상태이다. 제1관구 경찰서는 현재 인천시 경찰국 구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1955년 3월 3층부분을 증축한 것이다. 인천지방 해운국은 해무청이 설립됨에 따라 1957년 본청이 건축되었다. 이 건물은 건축형태에 있어 르꼬르뷔제의 상디가르 종합청사의 루바건물형태와 비슷하며, 김중엽씨가 설계한 것으로 국제주의 양식이 내포된 건물이라 하겠다.

학교 건축으로는 인하공대 강의실과 다수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있다. 현재 인하 전문대 강의실로 쓰이는 구 인하공대 A동, 한국 인천화교중산학교는 모두 철근 콘크리트건물 이전의 건축으로 연와 골조와 나무 floor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하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관은 1954년 10월 27일에 준공된 것인데 인천에서의 초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속한다. 이는 1959년 국립중앙관상대를 설계했던 정부국씨의 작품으로 건축사조로 볼때 국제주의 경향이 짙은 인천의 최초 근대건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인천교대 본관(1957.6.30준공)은 국제주의 경향을 기반으로 좀더 세련된 고층의 단순미가 강조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59년 11월에 준공된 제물포 중·고 도서관은 근대 건축의 수법 중 하나였던 유리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물이다.

근대의 건축법에 속한 수직, 수평이 루버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건물로는 인천세관, 인하공전 제1실습관(일명 UNESCO 실습관)과 시립도서관, 인천부인병원(현 기독병원)등이 있었는데 1960년대를 장식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60년대말에 들어서는 점차로 국제주의 양식에 대한 무조건 모방하려는 자세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인천시 제1공보관(현 인천시 공보관), 인하대학 수조관(의과대학관), 올림포스호텔이 그러했고,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열주로 Box의 형태를 배제한 건물로 인천시의 제2공보관과 도립보건소가 점차 형태의 다원화를 꾀하려 하였다.

해방이 되자 인천에서는 일제에 항거했던 청년들이 치안유지회를 결성하였는데, 그 모임을 애관극장(경동소재)에서 가졌다. 또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의 재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동안 전무했던 방위를 보강하기 위해, 1946년 4월 국방사령부는 인천에 해방 병단의 기지를 설치하였고, 한국주재 미군은 인천 월미도 호텔에 기지 청사를 개청하기도 하였다. 1948년에는 UN감시하에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49년 8월을 기하여 지방자치법이 선포되어 정식으로 인천시(전 인천부)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지 2년후, 한국은 1950년 6.25를 맞이하게 된다.

6·25전쟁을 치루며 인천시내의 학교들은 거의 군의 시설이 상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전시 폭격으로 말미암아 근대 건축물의 상당수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무렵 북한은 경찰서를 보안서로 개칭하고, 애국지사를 인천 경찰서와 인천 소년형무소(학익동 소재)에 구금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인천이 수복되었으나, 중공군의 개입(1950. 10)으로 1.4후퇴를 맞는다. 반격 작전으로 1951년 2월 제2차 인천상륙이 개시되었고, 다시 수복된 인천은 동년 4월에 이르러 인천 전후복구 업무를 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53년 7월 휴전으로 인하여 전쟁은 종식되었고, 인천은 물론 전국 도처에 재건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재건사업을 인천시민의 공공의 장인 공회당이 전란 폭격으로 소실되자, 한미친선위원회의 업무 일환으로 1956년 제1시민관(영화, 연극 등 공연을 해오다가 1967년에 「제일학원」에 불하)이 준공되었고, 일인이 세운 덕무관(송학동 3가 4번지)이 개축을 거쳐 1962년 제2시민관으로, 제3시민관이 1962년 이래 제2시민관으로 개칭)과 1966년에 사회복지회관의 건립 및 복구 등이 있었다.

전후 근로 구호와 재해 구호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보육원, 영아원, 양로원 등이 건립되었다. 또 노동자 구제를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로 노동자 합숙소와 직업안정소(관동1가 9번지)같은 사회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과 함께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인천의 도시계획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제1지구(신생동, 사동, 답동 일원)와 부평 제1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작으로 고도지구, 교육지구, 임항지구, 풍치지구 등이 재정비가 되고, 1970년대 후반 인천의 중심시가, 주도시 지역이였던 동인천지역이 지리적으로 입지조건에 합당하지 않아 주안지구로 중심권을 이동하는 한편 건축물 신축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1946년 이후에 전세계는 일본을 비롯, 합리적 근대건축의 지배했던 모든 국가에서 점차 자국의 전통과 지역성을 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국제주의 건축은 점차 신망을 잃

어 갔다. 그 당시 한국은 해방과 전후의 복구사업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70년대까지 경제성장과 함께 합리적 근대건축이 만연하였다. 인천의 근대 건축도 50년 후반부터 인하대 기공관을 시발로 철근콘크리트의 합리주의 건물이 점차 번져갔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은 주로 학교와 정부, 민간단체의 건물에서 그 성황을 이루었다. 이 같은 추세는 70년대 후반에 계속되다가 80년대에 이르러 현대건축의 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5년 해방과 6.25전후의 건축재료는 빠른 시일내에 전후 복구라는 과제에 부응하여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재료가 널리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간혹 종교 건축물에서 벽돌조나 석조가 이용 되었지만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그리고 건물이 대형화됨에 따라 철골을 사용하여 학교 실습장의 지붕이나 체육관의 상부를 덮는 예가 생겨났다.

한편 근대 건축물의 소실 추이를 분류하여 소실 원인을 분석하면, 전쟁에 의한 소실과 사용상 재난에 의한 소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실 건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건축 신축에 의한 철거, 도시계획에 의한 철거 등이 시도되었는데, 점점 합리화, 고층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당시 한국은 해방과 전후의 복구사업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70년대까지 경제 성장과 함께 합리적 근대건축이 만연할 수 밖에 없었다. 인천의 근대건축도 50년 후반 인하대 기공관을 시발로 철근콘크리트의 합리주의 건물이 점차 번져갔으며, 주로 학교와 정부, 민간단체의 건물에서 그 성황을 이루었다.

(4) 1951년 이후 1970년까지

주택의 증가, 감소의 영향은 인구의 증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53년말과 비교한 1961년말의 부평지역 인구 증감상태를 살펴보면, 부평동은 2.75배, 산곡동은 2.88배로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예전에 비하여 많은 주택과 건물이 소요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1961년말 부평동은 6.286명/㎢로 인구 증가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인구밀도가 낮은점으로 보아 도시로서의 형성은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0년대부터 6.25전쟁으로 파괴된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속되어 온 정부 주택건설 지원정책은 60년대에서도 계속 지속 되었다. 난민정착 주택은 60년도에 470동, 61년도 270동에 건설하다가 63년도에 200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재건주택도 60년도에 200동, 62년도에 200동이 건축되었다. 그리고 부흥주택은 62년도에 75동이 건축되었고, 귀속재산 융자주택은 60년도에 290동, 61년도에 215동, 62년도에 5동, 66년도에 80동, 67년도에 110동, 68년도에 70동, 69년도에 90동을 건축하였다. I.C.A.원조 주택은 65년도에 9동, 66년도에 10동이 건립되었으며, 시영주택은 67년도에 22동을 건립하였다. 아파트는 68년도에 7동 280호, 69년도에 2동 96세대가 건립되었다.

## 인천시 주택건축 실태

(단위 : m³) 1969. 12. 31

| 연도별 | 총계 | 공영주택 | 수용소 | 간이주택 | 월동용 | 복구농 | 주민주택 | 수간복지 | 간이주택 | 난정착주민택 | 실주명용사택 | 한주미재단택 | 재건주택 | 부흥주택 | 외인주택 | 상주이군인택 | 아파트 | 원ICA조주택 | 후생주택 | 시영주택 | 귀속재산융자주택 상가주택 | 귀속재산융자주택 일반주택 |
|---|---|---|---|---|---|---|---|---|---|---|---|---|---|---|---|---|---|---|---|---|---|---|
| 1969 | 960 | — | — | — | — | | — | — | | 470 | — | — | 200 | — | — | — | — | — | — | — | — | 290 |
| 1961 | 485 | — | — | — | — | | — | — | | 270 | — | — | — | — | — | — | — | — | — | — | — | 215 |
| 1962 | 50 | — | — | — | — | | — | — | | — | — | — | 200 | 75 | — | — | — | — | — | — | — | 50 |
| 1963 | 850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375 | — | — | — |
| 1964 | 50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5 | 6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10 | — | — | — |
| 1966 | 90 |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1967 | 132 | 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 | — |
| 1968 | 350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호 | — | — | — | — | — |
| 1969 | 186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세대 | — | — | — | — | — |

('69년도 인천시 통계연보 p.71)

다음은 주택 보급율이다. 1960년도의 주택 보급율은 가구수 74,975세대에 주택수는 53,288동으로 주택 부족율은 28.93%였다. 이후 연도별 주택 부족율은 검토해 보면 63년도에 33.62%, 64년도에 34.04%, 65년도에 32.53%, 66년도에 36.65%, 67년도에 35.65%, 68년도에는 34.25%, 69년도에 39.44%, 70년도에 43.03%로 점차 주택 부족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의 건립이 인구의 증가를 따르지 못한 결과라 분석된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주택건립은 관 주도하에 건립이 되었는데, 전쟁직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개인이나 단체에서 주택을 건립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60년대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주택을 건립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대규모 해외차관을 이용하여 난민정착주택, 재건주택, ICA원조주택, 부흥주택 등을 많이 건립하였다. 1963년 당시의 전국의 주택상황을 살펴보면 전국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가구수는 4,788,000세대로 이에 비해 주택수는 3,408,500동에 불과하였다. 곧 전국 평균 주택 부족율은 28.8%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서울은 46%로 전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천은 가구수가 84,355세대에 주택수가 55,994동으로 주택 부족율은 33.6%로 서울보다는 낮으나 절대량의 부족과 도시의 인구집중 추세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예견되어 양적인 문제해결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전국 및 주요도시 주택상황

1963년말

| 구 분 | 가구수 | 필요주택수 (A) | 현재주택수 (B) | 부족주택수 (C) | | 비 고 |
|---|---|---|---|---|---|---|
| | | | | 실 수 | (C/A) % | |
| 전 국 | 4,788,000 | 4,788,000 | 3,408,000 | 1,379,500 | 28.8 | |
| 서 울 | 579,132 | 579,132 | 322,386 | 274,746 | 46.0 | |
| 인 천 | 84,355 | 84,355 | 55,994 | 28,361 | 33.6 | |

자료 : 인천도시계획 기본조사 용도지역 지정보고서, 인천시, 1964

따라서, 시당국에서는 1964년 1월까지 주택공급과 환경개선 및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주택 건립에 중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국민재건부흥자금으로 1,226동, AID자금 융자로 385동을 건립하여 시민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택 건립을 추진 하였으나 주택부족현상을 크게 개선할 수 없었다. 특히, 1967년에 집계된 주택수에는 15.2%의 불량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의 부족율은 더 높을 것이다.

1966년 인천시에서는 1986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148,084동(154,071세대)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67~71년까지 11,264동 11,769세대분, 72년~76년까지는 35,021동 36,794세대분, 77년~81년까지는 47,348동 49,208세대분, 82년~86년까지는 54,440동 56,300세대분으로 총 148,084동 154, 071세대분을 공급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주택 부족율이 76년도 47.23%를 최고치로하여 1981년도에는 42.83%로 5.6%가 낮아져, 주택공급의 절대량에는 못미쳤지만 그나마 주택난의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69년도말 인천시의 보유주택수는 70,227동으로 이를 양식별로 보면 ①현대식 5,659동(8%), ②절충식 11,125동(15.9%), ③재래식 41,764동(59.5%), ④불량주택 11,679동(16.1%)으로 전체 수요의 39.4%를 점유하였다. 특히 당해년도의 건축실적을 보면 ①시민자력에 의한 건립이 2,792동, ②공영주택 90동, ③서민아파트 2동(90세대 입주) 등 총 2,978동이 건립되었다.

한편 인천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73년까지의 주택 부족율 39.4%를 30%로 인하시켰다. 그리고 68년부터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주택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아파트 건립 상황

(단위 : 금액 1,000원)

| 구 분 | 규 모 | | 사업비 | 총건평 | 호당건평 | 호당공사비 | 평당공사비 |
|---|---|---|---|---|---|---|---|
| | 동 수 | 호 수 | | | | | |
| 1968~1972 합 계 | 25 | 864 | 569,806 | 10,833.6평 | 62,18평 | 3,726,5 | 289,58 |

자료 : 인천도시계획 재정비, 인천시, 1976

## 주택 건설 계획

| 구분 \ 년도별 | | | 1967~1971 | 1972~1976 | 1977~1981 | 1982~1986 | 계 |
|---|---|---|---|---|---|---|---|
| 건물형태별 | 계 | 호수 (세대) | 11,769 | 36,794 | 49,208 | 56,300 | 154,071 |
| | | 동수 (주택) | 11,264 | 35,021 | 47,348 | 54,440 | 148,084 |
| | 단독주택 | 호수 (세대) | 11,109 | 34,486 | 46,538 | 53,480 | 145,613 |
| | | 동수 (주택) | 11,109 | 34,486 | 46,538 | 53,480 | 145,614 |
| | 공영주택 | 호수 (세대) | 140 | 500 | 750 | 900 | 2,290 |
| | | 동수 (주택) | 140 | 500 | 750 | 900 | 2,290 |
| | 아파트 | 호수 (세대) | 520 | 1,808 | 1,920 | 1,920 | 6,168 |
| | | 동수 (주택) | 15 | 46 | 60 | 60 | 181 |

주) 단독주택 : 동당1호수용
연립주택 : 동당2호수용
아 파 트 : 동당32~40호 수용
자료 : 도시종합계획, 인천시, 1972.

부평지역내 건립된 건물의 구조별 건축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연와조와 석조는 61년도에 408동 43,900㎡가 건립되었으나, 65년도에는 85개동 10,432㎡로 건축면적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조도 61년도에 790동 35,436㎡가 건립되었으나, 65년도에는 15동 944㎡가 건립되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철근-철골조는 61년도에 1동 204㎡가 건립되었으나, 64년도에 30동 8,311㎡와 65년도에 17동 85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립되는 전체 건물규모는 61년도에 1,199동 79,540㎡였으나, 65년도에는 166동 14,572㎡로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60년대의 부평지역은 인천권역안에 있으면서도 독자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위성소도시로 농산물만을 주로 생산하는 한가한 농촌지역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부평지역의 구조별 건축현황

(단위 : 동, ㎡)

| 연도별 | 총 계 | | 철근.철골조 | | 연와 및 석조 | | 목 조 | | 기 타 | |
|---|---|---|---|---|---|---|---|---|---|---|
| | 동 수 | 면 적 | 동 수 | 면 적 | 동 수 | 면 적 | 동 수 | 면 적 | 동 수 | 면 적 |
| 1961년 | 1,199 | 79,540 | 1 | 204 | 408 | 43,900 | 790 | 35,436 | | |
| 1962년 | | | 6 | 550 | 85 | 8,554 | 143 | 6,538 | 1 | 1,096 |
| 1963년 | 464 | 44,787 | 31 | 6,215 | 173 | 13,857 | 235 | 20,757 | 23 | 3,957 |
| 1964년 | 213 | 20,352 | 30 | 8,311 | 103 | 7,402 | 42 | 2,211 | 38 | 2,427 |
| 1965년 | 166 | 14,572 | 17 | 854 | 85 | 10,432 | 15 | 944 | 49 | 2,340 |

해방 이후의 행정구역의 개편에 의한 시역 확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곧 1963년 작약도가 관광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부천군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1963년 이후의 해면매립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1963년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 작약도를 인천시 만석동에 편입케 하고, 1968년 1월 1일부터 구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천이 1966년에는 인구가 50만을 넘게 되었고 1968년에는 인구 55만의 대도시로 성장되어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4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대도시 행정체제를 완전히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중구, 동구, 남구, 북구의 4개 구청을 개청하고 종전의 9개 시직할 출장소는 폐지하였으며, 다만, 행정상의 편의로 남구관할의 남동출장소와 북구관할의 서곶출장소만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계획적 경제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공업화의 진전 및 성장에 의한 현상에 맞추어 인천에서의 공업화도 진전을 보았으며, 그에 따라서 인천도 산업화를 수반한 도시화적 현상으로 1962년 이후의 인구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각구의 관할구역

1968년 1월 1일

| 구 분 | 구 | 출장소 | 동 | | 면 적 | 본청과의 거리 | | 인 구 |
|---|---|---|---|---|---|---|---|---|
| | | | 법제정 | 행정동 | | 육 로 | 철 로 | |
| 인천시 | 4 | 2 | 119 | 66 | 166.36㎢ | --㎞ | — | 555,868 |
| 중구 | 1 | — | 44 | 10 | 3.22 | 0.5 | — | 92,060 |
| 동구 | 1 | — | 16 | 13 | 4.37 | 1.88 | — | 164,827 |
| 남구 | 1 | 1 | 30 | 24 | 77.16 | 5.65 | 6.6 | 178,506 |
| 북구 | 1 | 1 | 29 | 19 | 81.61 | 14.50 | 12.2 | 120,475 |

자료 : 인천시, 인천시사(상), 1973, p.601

인구증가의 추세

| 년도 | 총인구수 | 증가율(%) | 년도 | 총인구수 | 증가율(%) | 년도 | 총인구수 | 증가율(%) |
|---|---|---|---|---|---|---|---|---|
| 1961 | 397,255 | −1.18 | 1965 | 485,511 | 4.38 | 1969 | 577,939 | 3.95 |
| 1962 | 430,054 | 8.25 | 1966 | 528,579 | 8.87 | 1970 | 646,013 | 11.77 |
| 1963 | 445,378 | 3.56 | 1967 | 535,577 | 1.32 | 1971 | 671,053 | 3.83 |
| 1964 | 465,158 | 4.45 | 1968 | 555,868 | 3.79 | 1972 | 689,793 | 2.79 |

자료 : 인천시, 인천시사(상), 1973, p.213
인천시 통계년보 참조

특히, 인구 증가에 있어서 공단조성 이후인 1969년에서 1970년사이의 인구 증가율은 11.77%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행정구역별 인구 비교는 1961년말 각구별로 재분류하여 1968년 구제실시를 하였던 당시와 1971년말 당시를 비교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구별 면적과 인구 및 인구밀도

(1961년말)

| 구분 \ 구별 | 중 구 | 동 수 | 남 구 | 북 구 | 계 |
|---|---|---|---|---|---|
| 면 적 (㎢) | 3.22 | 4.37 | 77.16 | 81.61 | 166.36 |
| 인 구 (명) | 78,777 | 119,125 | 107,989 | 81,119 | 387,010 |
| 인구밀도(명/㎢) | 24,464.9 | 27,259.7 | 1,399.6 | 993.98 | 2,326.3 |

(1968년 1월 1일)

| 구분 \ 구별 | 중 구 | 동 수 | 남 구 | 북 구 | 계 |
|---|---|---|---|---|---|
| 면 적 (㎢) | 3.22 | 4.37 | 77.16 | 81.61 | 166.36 |
| 인 구 (명) | 92,060 | 164,827 | 178,506 | 120,475 | 555,868 |
| 인구밀도(명/㎢) | 28,590.06 | 37,717.85 | 2,313.45 | 1,476.23 | 3,341.36 |
| '68년 인구밀도 /'61년 인구밀도 | 1.17 | 1.38 | 1.65 | 1.49 | 1.44 |

(1971년 10월 1일)

| 구분 \ 구별 | 중 구 | 동 수 | 남 구 | 북 구 | 계 |
|---|---|---|---|---|---|
| 면 적 (㎢) | 4.069 | 5.240 | 90,241 | 89.617 | 189.167 |
| 인 구 (명) | 92,498 | 180,459 | 242,395 | 155,701 | 671,053 |
| 인구밀도(명/㎢) | 22,732.4 | 34,438.7 | 2,686.1 | 1,737 | 3,547.4 |
| '71년 인구밀도 /'68년 인구밀도 | 0.79 | 0.91 | 1.16 | 1.18 | 1.06 |
| '71년 인구밀도 /'61년 인구밀도 | 0.93 | 1.26 | 1.92 | 1.75 | 1.52 |

자료 : '61년말 인천통계년보, 1962(2회) p.22~22참조. (실제로 면적은 166.297㎢이나 재분류시의 오차로 '68년도 면적을 사용하였음)
'68년 1월 1일은 인천시사(상) p.601참조
'71년 10월 1일은 인천통계년보, 1972(12회), p.24~37 참조하여 저자작성.

인천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의 경우, '61년말에 대한 '71년도의 인구밀도는 0.93배로 인구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구의 인구밀도는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간의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면적의 증가도 작용한다고 하겠으나, 중구와 동부지역의 인구증가의 둔화현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남구와 북구의 인구증가 추세는 그 절대비와 인구밀도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를 보이며, 특히 남구에 있어서는 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 밀도가 1.92배까지 증가하였다.

1968년 구제실시 이후의 중구, 동구는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 지역의 인구가 '60년대말부터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인구분포는 자연, 경제, 정치, 사회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또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 한 예로 개항후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중구가 행정과 경제적 중심지로 인구의 절대적인 과밀현상을 보여오다가 점차적으로 남구를 중심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동별 인구의 증가는 '61년말과 '71년말의 비교해서 4.0배 이상을 나타낸 동은 남구의 간석동과 북구의 청천동으로 각각 4.38배와 4.18배를 나타냈다. 3.0배 이상은 남구의 주안동과 만수동, 2.0배 이상은 남구의 용현동, 학익동, 도화동, 구월동, 북구의 효성동, 작전동, 십정동, 석남동, 원창동 등이다. 그 외의 전 지역도 모두 다소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구의 중앙동 및 남구의 서창동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5)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와 이미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와 현대식 항만시설 건립, 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구는 나날이 유입되었다. 따라서 이는 주택의 부족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무렵 시의 인구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곧 살펴보면 해방 전 인구 20만 미만의 인천시 인구가 1968년에 인구 55만명으로 발전하더니 1970년의 경제 성장, 수출 진흥 및 특히 인구가 100만을 육박하는 대형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인구증가율을 검토해 보면 1970년부터 1981년까지 연평균 5.27%로, 이는 전국 도시인구 증가율 4.85% 및 서울 인구증가율 4.33%보다 상회하고, 전국 인구증가율 1.93%의 2.7배에 달하고 있다.

인구증가의 추세

| 년도 | 총인구수 | 증가율(%) | 년도 | 총인구수 | 증가율(%) | 년도 | 총인구수 | 증가율(%) |
|---|---|---|---|---|---|---|---|---|
| 1971 | 671,053 | 3.83 | 1975 | 799,982 | 4.25 | 1979 | 1,043,744 | 11.5 |
| 1972 | 689,793 | 2.79 | 1976 | 830,061 | 3.76 | 1980 | 1,084,730 | 3.9 |
| 1973 | 714,246 | 3.54 | 1977 | 873,955 | 5.28 | 1981 | 1,414,705 | 5.3 |
| 1974 | 767,357 | 7.44 | 1978 | 936,497 | 7.2 | | | |

자료 : 인천직할시, 인천개항100년사, 1983, p.856
인천시 통계 연보 참조

아래표에서 보듯 1971년 당시 북구내의 인구는 155,701명 이었다. 1980년도에는 350,700명으로 1배 이상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 밀도에 있어서 중구와 동구는 공위수면 매립에 의한 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대치가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북구는 인구의 절대치와 인구 밀도에 있어서도 모두 1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구에서 가좌동(5.03%)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밖에 수출공단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성동, 계산동 등 인구증가율이 4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구별면적과 인구 및 인구밀도

(1971년 10월 1일 현재)

| 구분 \ 구별 | 중 구 | 동 구 | 남 구 | 북 구 | 계 |
|---|---|---|---|---|---|
| 면 적(㎢) | 4.069 | 5.240 | 90.241 | 89.617 | 189.167 |
| 인 구(명) | 92,498 | 180,459 | 242,395 | 155,701 | 671,053 |
| 인구밀도(명/㎢) | 22,732.4 | 34,438.7 | 2,686.1 | 2,686.1 | 3,547.4 |
| '71년말 인구밀도 /'61년말 인구밀도 | 0.93 | 1.26 | 1.92 | 1.75 | 1.52 |

(1980년 11월 1일 현재)

| 구분 \ 구별 | 중 구 | 동 구 | 남 구 | 북 구 | 계 |
|---|---|---|---|---|---|
| 면 적(㎢) | 11.91 | 5.69 | 94.07 | 89.46 | 201.13 |
| 인 구(명) | 84,285 | 162,639 | 487,106 | 350,700 | 1,084,730 |
| 인구밀도(명/㎢) | 7,228 | 28,583 | 5,178 | 3,930 | 5,393 |
| '80년말 인구밀도 /'71년말 인구밀도 | 0.32 | 0.83 | 1.93 | 2.26 | 1.52 |

자료 : '71년 10월 1일은 인구통계연보, 1972(12회), p.24~37
'80년 11월 1일은 인구통계연보, 1981(21회), p.16~23 참조.

인천시는 1971년부터 주안지구를 주축으로 해서 인천도시형을 풍차형으로 조성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구시가와 부평지구, 송도지구, 남동지구를 풍차의 큰 날개로 삼고, 인천 시가를 다심제 시가로 개편하려는 신 시가지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이 1971년에 설정되어 주안지구를 축으로 삼는 새로운 중심지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경인철도의 복선화, 전철화와 동시에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중심성이 높은 상업이나 도매업이 서울의 상권으로 흡수되고 일상생

활의 상업 중심지는 분산되면서 신 시가지는 고속도로와 철도연변을 따라서 발달하여 구시가지와 부평시가지가 연담화되었다.

또한, 70년대초의 수출공단의 조성은 상당히 많은 인구의 유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곧 북구의 가좌동, 계산동, 효성동, 청천동 지역은 공업의 발달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평동은 상권이 활발히 형성되면서 새로운 부도심으로서의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남구의 구월동, 만수동, 간석동, 주안동 일대의 지역도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다.

수출공단 4,5,6단지를 중심으로 청천동 일대와 일부 서구지역의 성장은 공업의 발달을 수반한 인구의 대량 집중으로 공장 건물이 많이 건축되었고 인근지역에도 주택건축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인천시에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 방침으로 첫째, 단독주택 건립을 가급적 지양하고, 집단 주택의 건립을 장려하며, 둘째, 주택개발 단체에 의한 주택 건립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셋째, 농촌 주택은 농촌형 표준주택으로 건립하고, 넷째 민간 자립 주택건립을 최대로 지원하고, 다섯째, 도시계획과 용도지역계획에 부합시켜 불량주택을 개량하며, 여섯째, 아파트의 건립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진되었다.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년평균 11%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민간 자력 건설주택을 계속 추진하였을때 년 평균 5,000여동이 증가되므로, 주택 부족율은 1.5%씩 인하시킬 수 있어, 1970년 주택 부족율 42.3%를, 1975년에는 35.8%까지 감소시키려고 추진하였다.

주택사업 종합계획

| 연도별 | 총소요주택수 | 민간자력 | 공영주택 | 아 파 트 | 주 택 수 | 부 족 율 |
|---|---|---|---|---|---|---|
| | | 동 | 동 | 세대 | | |
| 69 | 115,868 | 2,187 | 90 | 2동(72) | 70,227 | 39.4% |
| 70 | 126,815 | 2,635 | 50 | 8(280) | 73,192 | 42.3 |
| 71 | 134,868 | 4,221 | 150 | 27(1,024) | 78,587 | 41.8 |
| 72 | 141,448 | 4,685 | 200 | 20(720) | 84,192 | 40.5 |
| 73 | 148,664 | 5,200 | 250 | 23(828) | 90,472 | 39.2 |
| 74 | 155,840 | 5,772 | 300 | 25(900) | 97,442 | 37.5 |
| 75 | 163,632 | 6,402 | 350 | 27(972) | 105,171 | 35.8 |
| 계 | | 31,107 | 1,390 | 132(4,796) | | |

자료 : 인천도시계획재정비, 인천시, 1976

그리하여, 1970년도에 실시한 결과 민간자력 2,635세대분, 공영주택 50세대분, 아파트 280세대분(8동)을 건립하여 총 2,965세대를 공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택지조성사업도 실시하여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해 용현지구 4.224㎡, 송림지구 8.580㎡, 공영주택 건립을 위해 주안지구 6.102㎡, 도화지구 4.967㎡와 또한 시범주택지로 주안 도화지구 32.634㎡를 조성 공급하는 등 많은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평지역은 개발권의 영향밖인 부도심권의 위치에 있었다.

1971년의 주택사업은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택 150동과 시민아파트 7동 224세대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아파트 168호, 연립주택 200동, 단독주택 1,379동을 건립하였으며, 건축 허가 상황은 총 2,765건에 260,456㎡로서 전년에 비하여 928건이 증가하였다. 1975년에는 연립주택 50동과 단독주택 2,320동을 건립하였고, 건축허가 상황은 신축 3,202동, 증축 502동, 개축 120동, 기타 6동으로서 총 3,829건 564,587㎡에 달하였다. 1976년에는 연립주택 76동, 단독주택 2,341동을 건립하여 공동주택의 건립비율이 전년대비 5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1978년도에는 아파트 9,082세대, 연립주택 9,726동, 단독주택 6,757동을 건립하였으며, 건축허가 상황은 8,986건으로서 전년에 비해 1,493건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주택 7,197동, 주택, 사무실겸용 790동, 점포 223동, 창고 125동 기타 65동으로 총 575.781㎡에 달하였다.

1980년에는 아파트 7,585가구, 연립주택 1,914가구, 단독주택 3,117동으로써 총 12,616세대분이 건립되었으나, 주택부족율은 42.88%로써 아직도 많은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 년도별 주택건립 실적

| | 계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
| 계 | 81,114 | 1,807 | 1,747 | 4,482 | 2,370 | 2,417 | 9,394 | 25,565 | 12,683 | 12,616 | 8,033 |
| 아 파 트 | 34,468 | 650 | 168 | 588 | — | — | 2,996 | 9,082 | 7,649 | 7,585 | 5,750 |
| 연립주택 | 14,666 | 130 | 200 | 400 | 50 | 76 | 601 | 9,726 | 582 | 1,914 | 987 |
| 단독주택 | 31,980 | 1,027 | 1,379 | 3,494 | 2,320 | 2,341 | 5,797 | 6,757 | 4,452 | 3,117 | 1,296 |

자료 : 시정백서, 인천시, 1982

그리고, 1970년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17%, 연와조가 9.6%, 목조가 29.6%, 기타 10%로 건립이 되어, 내구 연한이 긴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가 전체 건립되는 건물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나, 1978년도에는 60.4%로 증가되었으며, 목조는 1970년의 59.6%에게 29.6%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구조별 변천상황

| 년도별구분 | 주택총수 | 연와 석조 | 철근콘크리트조 | 목 조 | 기 타 |
|---|---|---|---|---|---|
| 1971년 | 75,380 | 13,535(18.0) | 7,459( 9.9) | 44,186(58.6) | 10,200(13.5) |
| 1972년 | 76,759 | 7,699(10.0) | 14,185(18.5) | 44,675(59.2) | 10,200(13.3) |
| 1973년 | 78,693 | 7,439( 9.5) | 7,293( 9.3) | 52,648(66.9) | 11,293(14.3) |
| 1974년 | 83,462 | 7,538( 9.0) | 8,766(10.5) | 55,388(66.4) | 11,770(14.1) |
| 1975년 | 92,145 | 9,178(10.0) | 12,045(13.1) | 55,388(60.1) | 15,534(16.8) |
| 1976년 | 91,084 | 9,072(10.0) | 11,960(13.1) | 54,751(60.1) | 15,355(16.8) |
| 1977년 | 97,099 | 9,230( 9.5) | 17,741(18.3) | 54,71(56.4) | 15,377(15.8) |
| 1978년 | 108,471 | 43,165(20.6) | 22,325(39.8) | 32,091(29.6) | 5,564(10.0) |
| 1979년 | 129,469 | 54,377(42.0) | 40,135(31.0) | 27,189(21.0) | 7,768( 6.0) |
| 1980년 | 139,712 | 61,927(43.2) | 55,836(40.0) | 16,094(11.5) | 5,855( 4.2) |

특히, 연와 석조는 77년도에는 전체 건립건물의 9.5%인 9,230동을 건립하였으나 78년도에는 전체 건축물의 20.6%인 43,165동을 건립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철근콘크리트도 77년도에 18.3%인 17,741동이 건립된 후 78년도에는 39.8%인 22,325동이 건립되는 등 이 시기에 내구 연한이 큰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된 점으로 보아, 시멘트공장 신·증설로 인하여 시멘트 공급사정이 좋아진 사정과 정부의 주택공급에 따른 각종혜택이 맞물려 상호상승작용이 일어났으리라 추측된다. 6.25동란시 피난민의 급격한 집중으로 고지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량주택군은 도시환경, 보건위생재해, 범죄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으므로 이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렇듯 기존 불량주택의 개량문제는 주택부족을 충족시키는 양적 문제에 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1966년 당시 인천시에는 8,644동의 불량주택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주택을 보상없이 철거시킬 수도 없었으며, 또한 자력개량에만 의존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 취약지구에 대하여 공영주택 또는 아파트를 건립하여 철거민을 입주케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특히 196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연변지역의 불량주택 2,750동을 철거하고, 12억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1976년까지 아파트 85동을 연차적으로 (69년 2동, 70년 8동, 71년 7동, 72년 11동, 73년 13동, 74년 14동, 75년 15동, 76년 15동)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립위주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주택부족율 완화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1970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총사업비 95,536,000원을 투입하여 9,836동에 달하는 불량주택 개량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대체로 초가, 토담, 판자집 등의 개량이다.

### 지역별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

(단위 : 동)

| 년도별 / 지역별 | 1967~1971 | | 1972~1976 | | 1977~1981 | | 1982~1986 | | 계 | |
|---|---|---|---|---|---|---|---|---|---|---|
| | 아파트 | 연 립 | 아파트 | 연 립 | 아파트 | 연 립 | 아파트 | 연 립 | 아파트 | 연 립 |
| 호 수 | (900) | (3,800) | (5,400) | (10,800) | (5,400) | (10,730) | (6,600) | (14,400) | (18,300) | (39,730) |
| 동 수 | 30 | 1,900 | 180 | 5,400 | 180 | 5,365 | 220 | 7,200 | 610 | 19,865 |
| 중 구 | 8 | — | 60 | — | 30 | — | — | — | 98 | — |
| 동 구 | 12 | — | 70 | — | 30 | — | — | — | 112 | — |
| 주 안 | — | — | — | — | 20 | 365 | 50 | — | 70 | 365 |
| 송 도 | 10 | — | 50 | — | 50 | — | 50 | — | 160 | — |
| 남 촌 | — | 630 | — | 1,800 | — | 2,500 | 40 | 2,700 | 40 | 7,630 |
| 남 동 | — | 500 | — | 2,200 | — | 2,500 | 40 | 3,500 | 40 | 8,700 |
| 부 평 | — | 770 | — | 1,400 | 30 | — | 20 | 1,000 | 50 | 2,170 |
| 서 곶 | — | — | — | — | 20 | — | 20 | — | 40 | — |

자료 : 인천도시종합개발계획, 인천시, 1970

1970년 당시의 불량 주택수는 8,667동으로서 11.8%의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비율이 1966년부터 1969년까지의 사이에 공영주택 411동, 아파트 9동(376호)을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음은 불량주택의 절대량 증가에 비해 주택건립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4년에 이르러 인천시에서는 1976년까지 불량주택을 완전히 일소한다는 목표아래 매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또한 노후주택중 도괴되는 주택과 개량한 주택을 구분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불량주택의 완전해소는 자금사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택개량 사업은 도시발전에 불가결한 요건이되므로 시당국에서는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왔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화된 주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일정기간까지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 불량주택 개량사업

단위 ┌ 주 택 : 동
　　└ 사업비 : 천원

| 구분 \ 년차별 | | 1970 | 1971 | 1972~1976 | 계 |
|---|---|---|---|---|---|
| 계 | 주택수 | 1,500 | 1,150 | 7,186 | 9,836 |
| | 사업비 | 14,575 | 11,175 | 69,786 | 95,536 |
| 고옥초가 | 주택수 | 200 | 150 | 691 | 1,041 |
| | 사업비 | 1,900 | 1,425 | 6,565 | 9,890 |
| 판 자 집 | 주택수 | 650 | 500 | 3,310 | 4,280 |
| | 사업비 | 6,630 | 5,100 | 31,926 | 43,656 |
| 토 담 지 | 주택수 | 650 | 500 | 3,365 | 4,515 |
| | 사업비 | 6,045 | 4,650 | 31,295 | 41,990 |

자료 : 인천도시종합개발계획, 인천시, 1970

### 주택개량 사업

| 구 분 | '74~'76 | '77~'81 | '82~'86 |
|---|---|---|---|
| 불량주택 (동) | 4,476 | — | — |
| 노후주택개량동수 | 2,563 | 6,727 | 9,931 |
| 투 자 액 (천원) | 563,120 | 605,430 | 993,100 |

자료 : 인천도시계획 재정비, 인천시, 1976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내무부가 주관하여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건설부가 주관하여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추진하는 도시 지역내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80년도까지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불량주택을 정비하였는데 농촌주택 442동의 개량사업이 80년도로 완료됨에 따라, 1981년부터는 주로 재개발사업에 의해 불량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6) 80년대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의·식생활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주택문제는 전국을 휩쓴 땅투기와 함께 투기 열풍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등 오히려 악화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 나아가 고도성장 기간에 심화된 계층간의 소득 격차와 불균형이 주택문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중산층 이상의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는 오히려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인천시의 주택보급율은 1981년 62.0%이던 것이 1989년에는 70.2%로 크게 호전되었다. 또한 정부의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시책에 힘입어 1990년 말에는 총가구 439,144세대에 비하여 총 주택수 32 7,706호로 주택보급율 74.6%로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25.4%인 111,438가구가 무주택자로 나타나 있고, 이중에서 18,148세대는 환경이 나쁜 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택의 절대부족과 불량주택에 대한 질적 향상의 문제가 여전했다.

인천시의 년도별 주택보유현황

| 년도 | 가 구 | | | | 주택부족율 (%) |
|---|---|---|---|---|---|
| | | 계 | 정상주택 | 불량주택 | |
| 1981 | 254,184 | 145,306 | 115,089 | 30,217 | 42.8 |
| 1985 | 327,223 | 210,543 | 199,794 | 20,749 | 35.7 |
| 1987 | 377,335 | 238,730 | 218,898 | 19,832 | 36.7 |
| 1988 | 418,169 | 274,245 | 254,943 | 19,302 | 34.4 |
| 1989 | 455,610 | 319,800 | 301,155 | 18,725 | 29.8 |
| 1990 | 439,144 | 327,706 | 309,558 | 18,148 | 25.4 |

주 : 1988, 1989년도 보유현황은 총가구수와 착공기준 주택수로 산출한 수치이며, 1990년도분은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 의한 수치임.

자료 : 인천직할시 〈시정백서〉, 1990

특히, 80년대 초에 건립이 허용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정하는 호수(20세대)이하로 건축 함으로써, 일정규모이상 설치 하여야하는 어린이놀이터, 구매시설, 의료시설, 국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간선 시설이 확보되지 못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일반서민들에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된 결과를 초래

한 점은 앞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다세대주택은 건설업 법에서 정하는 건설업 면허를 득한 일정기술자격자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면허업자가 부실시공을 하게됨으로써, 시공후 발생되는 하자로 인하여 불편한 주거생활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었다. 다만 다세대주택이 다른 용도의 건물과 섞여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산곡동 등에 집단으로 건립된 주택은 추후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슬럼화할 우려가 있어 도시 미관, 기능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주택의 절대 공급수를 늘리고 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하며 인천시 1980년대 이후의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즉 주거생활의 안정과 지역적 생활권의 기능 배분 및 부심권 발전에 부응하고 또한 당면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서민을 위주로 한 소형의 영구 임대, 장기 임대 분양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공급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자의 거주문제를 해결한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의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건설을 지향하며, 그리고 불량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아파트 지역개발은 생활편익시설과 제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건물배치로 미려한 경관을 조성하며, 소형아파트는 특히 저소득 주민의 생활조건 및 생활방식에 적합하도록 특수 설계하여 건설하는 방침으로 추진되었다.

인천시에서는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69년부터 1973년을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여, 시영주택, 공영주택을 비롯하여 연립, 단독주택 등 총 30,156동을 건립하였으며, 이어 제2차 5개년계획의 마무리 연도인 1982년에는 주택부족율을 30%선에서 15%선으로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연립주택건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주택건설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분화, 그리고 주택의 노후화와 재해로 인한 자연 멸실 등으로 주택사정이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의거, 인천시에서도 1988년부터 1992년 이르는 동안 주택 12만호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8년도부터 주택건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소형의 영구 임대, 장기 임대 아파트와 근로자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 공급하였다.

1989년말 인천시의 종류별 주택현황

(단위 : 주택, 동)

| 계 | 단독 주택 | 아 파 트 | 연립 주택 | 다세대 주택 | 비주거용건물내의 주택 |
|---|---|---|---|---|---|
| 319,363 | 120,634 | 134,537 | 39.109 | 14,097 | 10,986 |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교통계〉, 1990

1980년대의 인천시의 아파트 건립현황

| 구분 | 동 수 | 가구수 | 15평미만 | 15~20평 | 20~30평 | 30~40평 | 40평이상 |
|---|---|---|---|---|---|---|---|
| 1982 | 61 | 1,630 | 1,190 | 520 | 650 | 270 | — |
| 1983 | 148 | 15,137 | 170 | 14,261 | 706 | — | — |
| 1984 | 347 | 15,328 | 296 | 4,662 | 9,502 | 206 | 662 |
| 1985 | 245 | 12,565 | 1,591 | 6,459 | 4,515 | — | — |
| 1986 | 134 | 8,606 | 1,851 | 3,850 | 2,325 | 580 | — |
| 1987 | 141 | 10,605 | 2,227 | 4,666 | 2,864 | 848 | — |
| 1988 | 235 | 22,135 | 4,524 | 11,144 | 4,119 | 1,838 | 510 |
| 1989 | 307 | 28,828 | 5,042 | 7,476 | 13,555 | 1,638 | 1,072 |

자료 :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90

1989년의 인천시 아파트 건립현황(시공주체별)

| 구 분 | 동 구 | 가구수 | 15평미만 | 15~20평 | 20~30평 | 30~40평 | 40평이상 |
|---|---|---|---|---|---|---|---|
| 시영 아파트 | 27 | 2,440 | 2,150 | 290 | — | — | — |
| 주공 아파트 | — | — | — | — | — | — | — |
| 민영 아파트 | 280 | 26,388 | 2,892 | 7,186 | 13,555 | 1,686 | 1,072 |

자료 :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90

위 표는 1989년도 인천시의 시공주체별 아파트 건립 현황이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인천시의 아파트 건립에 있어 민영아파트 건립 가구수가 전체 아파트 건립 가구수가 전체 아파트 건립 가구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평이상의 중·대형아파트는 모두 민영아파트 건설업자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인천시 아파트현황을 살펴보면, 82년도에는 61동 1,630세대분이 건립되었으나, 83년도부터는 평균 10,000세대 이상 건립된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15평 미만의 국민주택규모가 82년도 1,190세대, 85년도 1,591세대, 87년도 5,042세대 등으로 점차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형 크기의 20평 이상 30평형 주택도 82년도 650세대, 85년도 4,515세대, 89년도 13,555세대로 주택 수량의 절대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점차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점도 있지만, 평형 크기가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선호한 것으로 추측된다.

1989년도의 아파트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시영아파트는 27동 2,440세대분인

반면에 민영아파트는 280동 26,388세대분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민영아파트의 평형의 크기가 30평이상이 2,758세대분이고, 20~30평형이 13,555세대분임을 보면 85년 이전에는 200~600세대 건립하던 것에 비하여 상당히 크게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인천시의 주택 12만호 건설계획 및 실적표는 인천시의 주택 12만호 건설계획(1988~1992)과 1988년~1990년간의 실적을 대비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주택건설목표 12만호 가운데 14만 6천호를 건설, 목표의 121.7%를 달성한 셈이다. 이러한 주택 건설은 주로 민영아파트의 건설에 힘입은 것으로, 근로복지아파트 등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건설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말해준다.

인천시의 주택 12만호 건설계획 및 실적

(단위 : 호)

| 구 분 | 계획('88~'90) | 실적('88~'92) | 대비(%) | 1990계획 | 1990실적 | 1990대비(%) |
|---|---|---|---|---|---|---|
| 계 | 120,000 | 146,029 | 121.7 | 35,000 | 63,734 | 182.1 |
| 영구임대 | 8,300 | 8,354 | 100.7 | 5,100 | 4,124 | 80.9 |
| 근로복지 | 11,000 | 2,040 | 18.5 | 3,000 | 2,040 | 68.0 |
| 사원임대 | 5,200 | 1,482 | 28.5 | 1,000 | 1,482 | 148.2 |
| 장기임대 | 7,200 | 7,448 | 103.4 | 800 | 1,743 | 217.9 |
| 분 양 | 88,300 | 126,705 | 143.5 | 25,100 | 54,345 | 216.5 |

자료 : 인천직할시 「시정백서」, 1990.

1980년대의 인천시 건축허가현황

(단위 : 동, ㎡)

| 구 분 |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신축 | 계 | 1.089 | 2.160 | 3,869 | 2.363 | 1.610 | 1.798 | 3.773 | 4.856 |
| | | (2,433) | (3,999) | (4,709) | (2,995) | (2,781) | (2,892) | (5,177) | (8,142) |
| | 철골조 | 0.821 | 1.134 | 2.168 | 2.040 | 1.213 | 1.139 | 2.553 | 3.782 |
| | | (655) | (891) | (922) | (1,152) | (1,024) | (939) | (1,561) | (2,380) |
| | 조적조 | 0.268 | 0.490 | 0.701 | 0.323 | 0.396 | 0.657 | 1.199 | 1.068 |
| | | (1,777) | (2,802) | (3,787) | (1,843) | (1,754) | (1,949) | (3,597) | (5,740) |
| | 목 조 | 0.000275 | — | — | — | 0.000072 | 0.000182 | — | 0.000063 |
| | | (1) | (—) | (—) | (—) | (1) | (1) | (—) | (1) |
| | 기 타 | — | 0.402 | — | — | 0.000162 | 0.000794 | 0.022 | 0.005827 |
| | | (—) | (306) | (—) | (—) | (2) | (3) | (19) | (21) |

| 구 분 |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증축개축기타 | 계 | 0.191 | 0.219 | 0.257 | 0.136 | 0.205 | 0.304 | 0.306 | 0.182 |
| | | (470) | (619) | (913) | (577) | (528) | (549) | (663) | (722) |
| | 철골조 | 0.158 | 0.172 | 0.173 | 0.091 | 0.175 | 0.197 | 0.115 | 0.139 |
| | | (216) | (263) | (314) | (169) | (213) | (309) | (206) | (226) |
| | 조적조 | 0.033 | 0.047 | 0.084 | 0.045 | 0.031 | 0.107 | 0.190 | 0.041 |
| | | (253) | (353) | (599) | (408) | (315) | (240) | (452) | (485) |
| | 목 조 | 0.000120 | 0.000186 | — | — | — | — | 0.00045 | 0.001112 |
| | | (1) | (2) | (—) | (—) | (—) | (—) | (1) | (5) |
| | 기 타 | — | 0.000014 | — | — | — | — | 0.000868 | 0.001827 |
| | | (—) | (1) | (—) | (—) | (—) | (—) | (4) | (4) |
| 대수선 | 계 | 0.001 | 0.000994 | 0.000757 | 0.000997 | 0.004 | 0.000314 | 0.002490 | 0.002621 |
| | | (7) | (8) | (6) | (6) | (6) | (4) | (10) | (9) |
| | 철골조 | 0.001020 | — | — | 0.000516 | 0.003781 | — | 0.001180 | 0.002283 |
| | | (5) | (—) | (—) | (2) | (5) | (—) | (2) | (4) |
| | 조적조 | 0.000126 | 0.000892 | 0.000757 | 0.000481 | 0.000140 | 0.000314 | 0.000730 | 0.000219 |
| | | (2) | (7) | (6) | (4) | (1) | (4) | (6) | (4) |
| | 목 조 | — | 0.000102 | — | — | — | — | 0.000056 | 0.000119 |
| | | (—) | (1) | (—) | (—) | (—) | (—) | (1) | (1) |
| | 기 타 | — | — | — | — | — | — | 0.000524 | — |
| | | (—) | (—) | (—) | (—) | (—) | (—) | (1) | (—) |
| 합계 | 계 | 1.281 | 2.275 | 4.127 | 2.500 | 1.819 | 2.102 | 4.081 | 5.041 |
| | | (2,910) | (4,626) | (5,628) | (3,578) | (3,315) | (3,445) | (5,850) | (8,873) |
| | 철골조 | 0.980 | 1.305 | 1.342 | 2.131 | 1.392 | 1.336 | 2.669 | 3,923 |
| | | (876) | (1,154) | (1,236) | (1,323) | (1,242) | (1,248) | (1,769) | (2,610) |
| | 조적조 | 0.301 | 0.528 | 0.785 | 0.368 | 0.427 | 0.765 | 1.389 | 1.109 |
| | | (2,032) | (3,162) | (4,392) | (2,255) | (2,070) | (2.193) | (4,055) | (6,229) |
| | 목 조 | 0.000395 | 0.000288 | — | — | 0.00072 | 0.000182 | 0.000101 | 0.001294 |
| | | (2) | (3) | (—) | (—) | (1) | (1) | (2) | (7) |
| | 기 타 | — | 0.402 | — | — | 0.000162 | 0.000794 | 0.023319 | 0.007654 |
| | | (—) | (307) | (—) | (—) | (2) | (3) | (24) | (27) |

주 : ( )속은 동수
자료 :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90

2001년의 인천시의 인구수는 1981년의 115만명에서 190만명으로 20년간 165% 늘어난데 비해 주택 총수요는 가구당 가구원수의 축소 등에 힘입어 194% 늘어나 44만 2,900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시는 2001년에는 주택보급율을 1981년의 62%에서 90%까지 끌어올린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1992년부터 향후 10년간 14만 9,100호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목표연도인 2001년에는 모두 39만 8,600호의 주택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주택공급계획

| 구 분 | 주택실수요 | 기존주택 | 공 급 계 획 |
|---|---|---|---|
| 1978 | — | 110.5 | — |
| 1981 | 141.6 | 110.5 | 31.2 |
| 1986 | 194.8 | 141.6 | 53.2 |
| 1991 | 249.5 | 194.8 | 54.7 |
| 2001 | 318.3 | 249.5 | 68.8 |
| | 398.6 | 318.3 | 90.3 |

자료 : 경인일보 「인천연감」, 1986

인천시의 주택수요 추정치

| 구 분 | 단위 | 1978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인 구 수 | 천인 | 947.1 | 1,150 | 1,410 | 1,580 | 1,750 | 1,900 |
| 가구당가구원수 | 인 | 4.8 | 4.7 | 4.6 | 4.4 | 4.2 | 4.0 |
| 가 구 | | | | | | | |
| 총 수 | 천가구 | 197.3 | 245 | 307 | 359 | 417 | 475 |
| 주택실수요가구수 | 천가구 | 177.6 | 220 | 276 | 323 | 375 | 428 |
| 공 가 수 | 천동 | 2.6 | 3.3 | 4.1 | 4.8 | 5.6 | 6.4 |
| 감 실 주 택 수 | 천동 | 2.7 | 5.1 | 8.5 | 8.5 | 8.5 | 8.5 |
| 주 택 총 수 요 | 천동 | 181.9 | 228.4 | 288.6 | 288.6 | 389.1 | 442.9 |
| 주 택 보 급 율 | % | 60.9 | 62.0 | 67.5 | 74.2 | 81.8 | 90.0 |
| 주 택 실 수 요 | 천동 | 110.5 | 141.6 | 194.8 | 249.5 | 318.3 | 398.6 |

자료 : 경인일보 「인천연감」, 1986

인천시는 또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상하수도 시설 등의 필수시설과 주민통행로 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마을진입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의 도로망 시설,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 석축, 배수시설, 방범 등을 비롯한 생활안전시설,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유아원, 어린이놀이터를

바롯한 공동시설 등 불량주거지역 주민들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80년까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주택개량사업이 1981년부터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도심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주민을 시영아파트 또는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거나 현지 개량하는 2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에 추진된 불량주택 정비사업은 1981년~1984년에 송현3동에서 실시되었고, 1983~1984년에는 경인고속도로변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4년~1990년에는 동구 만석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송현3동 재개발사업

| 구 분 | 사 업 내 역 | 사 업 비 | 사 업 기 간 |
|---|---|---|---|
| 계 | 아파트 22동 900세대 | 12,324백만원 | |
| 1 차 산 업 | 아파트 11동 500세대 | 6,979백만원 | 1981. 7~1982.12 |
| 2 차 산 업 | 아파트 11동 400세대 | 5,345백만원 | 1983. 4~1984. 4 |

자료 : 인천직할시 「시정백서」, 1990

경인고속도로변 불량주택정비사업

| 위 치 | 사 업 내 역 | 사 업 비 | 사업기간 |
|---|---|---|---|
| 남구 도화동 491번지 일대 | 단독 2동, 연립 2동 42세대 | 674백만원 | 83. 5~83.12 |
| 용현 2동 577번지 일대 | 아파트 2동 60세대 | 1,261만원 | 94. 7~84.12 |

자료 : 인천직할시 「시정백서」, 1990

인천시 동구 만석동 재개발사업

| 구 분 | 위 치 | 대 지 | 규 모 | 사 업 비 | 기 간 |
|---|---|---|---|---|---|
| 계 | | 3,792평 | 아파트 6동 295세대 | 4,337백만원 | 84.12~85.11 |
| 1차 산업 | 만석동 43-15 | 1,625평 | 아파트 3동 125세대 | 1,802백만원 | 86.12~87.10 |
| 2차 산업 | 만석동 71 | 1,310평 | 아파트 2동 100세대 | 1,620백만원 | 89.12~90.12 |
| 3차 산업 | 만석동 43 | 857평 | 아파트 1동 70세대 | 915백만원 | |

자료 : 인천직할시 「시정백서」, 1990

인천시 주택개량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계 | 137,586 | 14,232 | 14,076 | 42,720 | 46,752 | 19,788 |
| 현지개량 | 43,476 | 6,036 | 9,372 | 12,252 | 7,440 | 8,376 |
| | 3,623동 | 503동 | 781동 | 1,021동 | 620동 | 698동 |
| 아파트건립 | 94,092 | 8,196 | 4,704 | 30,468 | 39,312 | 11,412 |
| | 7,841호 | 683호 | 392호 | 2,539호 | 3,276호 | 951호 |

자료 : 인천직할시 「시정백서」, 1990

(7) 1990년대

1981년도에는 주택수는 145천호로서, 주택보급율이 59.9%이던 것이 12년이 지난 1993년도에는 주택수가 431천호, 곧 주택보급율이 76.3%로 확보되어, 주택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 주택을 제공받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생활수준이 점차 나아지는 점과 주택의 재산가치가 가장 높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주택건축이 항상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감안하면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대다수 서민들에게 집을 갖게해 주어 안락한 주거생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보급율을 근거로하여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수 대비 주택수를 기준으로하여 분석을 하고, 지역별로 주택공급물량을 정하여 독려하였다. 이는 주택물량을 특별히 정하여 정책자료로 쓸수있는 공급자수가 없는 현실정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참고자료로서는 이용가치가 있지만, 이를 중심으로 모든 주택 건립에 대한 공급자료의 전부인 양 판단하여 단순히 주택공급에 대한 사항만을 분석자료로서 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행착오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단독주택내에도 여러 세대가 입주하여 거주가 가능한 점과 당해 세대가 일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건립된 주택이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주택보급율 등 획일적인 주택공급 통계수치로써만 사용하여 지역별로 주택을 집중하여 건립토록 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이 건립된 지역내에 인구증가 유발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2) 주택행정의 특징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주택정책도 좀 더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분석하여,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고 세대수가 늘어난만큼 해당지역에서 수용하여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점차 복잡 다양해져가는 사회구조 및 도시환경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

그리고, 요즈음 도심권내에서의 대부분의 택지개발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개발하는 주체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지역이 당해 도시지역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아울러 갈수록 부족해져가는 녹지공간 등에 대한 확보 및 도시기능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진 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발이익 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한두사람의 의견으로는 개선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평지역내에서는 8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부평택지개발지구(부평, 갈산, 부개, 중일원) 346,034.2㎡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총 7개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적되어 많은 주택용지들이 공급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공급될 예정이다.

**년도별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세대)

| 구 분 | | 계 | '89 | '90 | '91 | '92 | '93 | '94 |
|---|---|---|---|---|---|---|---|---|
| 총 계 | | 255,281 | 51,969 | 63,734 | 28,526 | 32,666 | 39,123 | 39,263 |
| 공공부문 | 소 계 | 53,727 | 4,320 | 11,901 | 2,223 | 8,068 | 12,865 | 8,875 |
| | 영구임대 | 8,354 | 4,565 | 4,124 | — | — | — | — |
| | 장기임대 | 11,208 | — | 1,347 | 338 | 960 | 2,712 | 1,286 |
| | 사원임대 | 3,769 | — | 1,878 | 681 | 420 | 490 | 300 |
| | 근로복지 | 7,075 | 1,000 | 2,040 | 217 | 2,678 | 1,440 | 700 |
| | 공공분양 | 23,321 | 3,000 | 2,512 | 987 | 4,010 | 8,223 | 6,589 |
| | 시 영 | 10,490 | 1,000 | 4,200 | — | 2,390 | 900 | — |
| | 영구임대 | 2,300 | 1,000 | 1,300 | — | — | — | — |
| | 장기임대 | 1,330 | — | — | — | 330 | — | — |
| | 사원임대 | — | — | — | — | — | — | — |
| | 근로복지 | 2,800 | 1,000 | 1,200 | — | 1,100 | 500 | — |
| | 공공분양 | 4,060 | 5,810 | 1,700 | — | 960 | 400 | — |

| 구 분 | | 계 | '89 | '90 | '91 | '92 | '93 | '94 |
|---|---|---|---|---|---|---|---|---|
| 공공부문 | 주택공사 | 22,648 | 3,230 | 4,624 | 1,385 | 2,220 | 4,193 | 4,416 |
| | 영구임대 | 6,411 | 2,580 | 2,824 | — | — | — | 357 |
| | 장기임대 | 4,356 | — | — | 338 | 630 | 446 | 362 |
| | 사원임대 | 2,851 | — | 960 | 681 | 420 | 400 | 300 |
| | 근로복지 | 3,779 | — | 840 | 129 | 1,170 | 940 | 700 |
| | 공공분양 | 5,251 | 985 | — | 237 | — | 2,317 | 2,697 |
| 민간부문 | 민간업체 | 20,589 | — | 3,077 | 838 | 3,458 | 7,772 | 4,459 |
| | 영구임대 | — | 985 | — | — | — | — | — |
| | 장기임대 | 5,165 | — | 1,347 | — | — | 2,266 | 567 |
| | 사원임대 | 918 | — | 918 | — | — | — | — |
| | 근로복지 | 496 | — | — | 88 | 408 | — | — |
| | 공공분양 | 14,010 | 42,174 | 812 | 750 | 3,050 | 5,506 | 3,892 |
| 민간부문 | | 201,554 | 42,174 | 41,833 | 26,303 | 24,598 | 26,258 | 30,388 |

자료 : 인천광역시 주택과

90년부터 94년까지 인천지역내 주택건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시영아파트, 주택공사, 민간업체의 공용)은 90년도에는 주택 200만호 실적달성을 위해 많은 주택이 건립되었는데, 모두 11,901세대분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2,223세대가 건립되면서, 당시 갑자기 늘어난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자재파동이 있어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주택공급 배당량이 감소되었다. 그후 93년도에는 선거 등에 따른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12,865세대분이 건립되었고, 94년도에는 약간 감소한 8,875세대분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점차 나아기는 주택보급율의 안정세로 인하여 시영아파트의 물량은 점차 감소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90년대에 4,200세대분이 건립되었으나 91년도에는 전혀 건립되지 않았고, 그후 92년도에 2,390세대, 93년도에 900세대분 건립되는 등 감소하다가 94년도에는 전혀 건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부분중에서 주택공사 건립현황을 살펴보면 90년 4,624세대, 91년 1,385세대, 92년 2,220세대, 93년 4,193세대, 94년 4,416세대로 일정규모로 건립되었다. 공공부문 중 민간업체에서 건립하는 주택은 90년 3,077세대, 91년 838세대, 92년 3,458세대, 93년 7,772세대, 94년 4,459세대로써, 91년도에 잠시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규모 이상 계속 건립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택 정착이 소유개념에서 사용편의 개념으로 점차 바뀌지는 시점에서 많이 건립되어야 하고 증가시켜야할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분의 주택건립과는 다르게 민간부문의 주택건립도 90년 51,833세대, 91년 26,303세대,

92년 24,598세대, 93년 26,258세대, 94년 30,388세대로서, 90년도에 주택 500만호 건립정책에 따라 많은 주택이 건립되었으나 91년 자재파동으로 대폭 물량이 감소된 후 점차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주택용도로 구분하여 건립된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90년 3,741세대, 91년 1,432세대, 92년 1,430세대, 93년 2,464세대, 94년 1,837세대가 건립되었는데, 91년도에 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건축자재파동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그 93년도에 조금 증가하다가 94년도에 감소한 것은 택지 개발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용지가 많이 양상됨 에따라 단독주택의 수요가 많이 감소된데 많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파트의 건립현황을 살펴보면, 90년도에 35,044세대, 91년에 19,594세대, 92년에 23,791세대, 93년에 21,813세대, 94년 28,125세대가 건립되었으며, 91년도에 약간의 감소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지정되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대지가 많이 공급되고, 주택공급율의 안정에 따라 각 민간업자들이 년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90년부터 94년도까지 건립된 주택용도별로 살펴보면, 18평미만이 109,770세대분이고 18~25.7평이 66,357세대분, 25.7평초과분이 27,185세대를 건립하여 국민주택 규모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국민주택 규모이상이 13%를 차지하고있는 바, 이는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이하 건축시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융자들의 지원으로 많이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주택 규모이상 건축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0년 7,020세대(당해년도 전체건립비율1%), 91년 9,040세대(31.7%), 92년 4,903세대(15%), 93년도 3,399세대(8.6%), 94년 2,823세대(7%)로써 91년도에는 약간의 상승은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주택 규모이상 호화주택일 경우 세제, 융자 등의 불이익과 정부의 통제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년도별 건설실적 규모, 종류(전용면적기준임)**

(단위 : 세대)

| 구 분 | | 계 | 단 독 | 다세대 | 연 립 | 아파트 | 대비(%) |
|---|---|---|---|---|---|---|---|
| 계 | 총 계 | 203,312 | 10,904 | 63,334 | 707 | 128,367 | 100.0 |
| | 18평미만 | 109,770 | 1,521 | 52,368 | 91 | 55,790 | 54.0 |
| | 18~25.7평 | 66,357 | 3,412 | 7,939 | 576 | 54,430 | 33.0 |
| | 25.7평초과 | 27,185 | 5,971 | 3,027 | 40 | 18,147 | 13.0 |
| 구 성 비 (%) | | 100.0 | 6 | 30.0 | 0.7 | 63.3 | - |

| 구 분 | | 계 | 단 독 | 다세대 | 연 립 | 아파트 | 대비(%) |
|---|---|---|---|---|---|---|---|
| 90 | 소 계 | 63,734 | 3,741 | 24,465 | 484 | 35,044 | 100.0 |
| | 18평미만 | 33,693 | 200 | 20,521 | 9 | 12,963 | 52.9 |
| | 18~25.7평 | 23,021 | 954 | 3,216 | 475 | 18,376 | 36.1 |
| | 25.7평초과 | 7,020 | 2,587 | 728 | - | 3,705 | 11.0 |
| 91 | 소 계 | 28,526 | 1,432 | 7,333 | 167 | 19,594 | 100.0 |
| | 18평미만 | 8,925 | 292 | 5,654 | 82 | 2,897 | 31.3 |
| | 18~25.7평 | 10,561 | 494 | 1,363 | 85 | 8,619 | 37.3 |
| | 25.7평초과 | 9,040 | 646 | 316 | - | 8,078 | 31.7 |
| 92 | 소 계 | 32,666 | 1,430 | 7,429 | 16 | 23,791 | 100.0 |
| | 18평미만 | 17,646 | 186 | 6,908 | - | 10,552 | 54.0 |
| | 18~25.7평 | 10,117 | 417 | 307 | - | 9,393 | 31.0 |
| | 25.7평초과 | 4,903 | 827 | 214 | 16 | 3,846 | 15.0 |
| 93 | 소 계 | 39,123 | 2,464 | 14,822 | 24 | 21,813 | 100.0 |
| | 18평미만 | 27,313 | 387 | 13,451 | - | 13,475 | 70.0 |
| | 18~25.7평 | 8,411 | 808 | 458 | - | 7,145 | 21.4 |
| | 25.7평초과 | 3,399 | 1,269 | 913 | 24 | 1,193 | 8.6 |
| 94 | 소 계 | 39,263 | 1,837 | 9,285 | 16 | 28,125 | 100.0 |
| | 18평미만 | 22,193 | 456 | 5,834 | - | 15,903 | 57.0 |
| | 18~25.7평 | 14,247 | 739 | 2,595 | 16 | 10,897 | 36.0 |
| | 25.7평초과 | 2,823 | 642 | 856 | - | 1,325 | 7.0 |

자료 : 인천광역시 주택과

또한 일부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90년 24,465세대, 91년 7,333세대, 92년 7,429세대, 93년 14,822세대, 94년 9,285세대로서 90년에는 대량으로 건립되었으나 91년에 대폭 감소된후 93년까지 조금씩 증가되다가, 94년도에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천시에서 다세대주택 건립에 따른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에 주거를 허용치 않는(단, 자연배수시에는 제외) 규제와 개구부방향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93년까지는 우선 건축하고자하는 풍조로 인하여 증가가 되었으나 94년도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초세대상 토지에 대부분 건축허가 등을 득하여 건립하게 됨으로써, 동요인에 따른 수요가 많이 감소된 원인도 있다고 하겠다.

## 년도별 아파트의 구별, 규모별(전용면적 기준)

(단위 : 세대)

| 구 분 | | 계 | 중 구 | 동 구 | 남 구 | 남동구 | 북 구 | 서 구 |
|---|---|---|---|---|---|---|---|---|
| 계 | 총 계 | 128,294 | 951 | 776 | 59,535 | 13,549 | 44,427 | 9,056 |
| | 18평미만 | 54,940 | 617 | 511 | 24,795 | 5,696 | 19,804 | 3,517 |
| | 18~25.7평 | 55,376 | 293 | 265 | 24,471 | 6,159 | 19,543 | 4,645 |
| | 25.7평초과 | 17,978 | 41 | | 10,269 | 1,694 | 5,080 | 894 |
| 90 | 소 계 | 35,044 | 95 | | 15,665 | 7,380 | 10,385 | 1,519 |
| | 18평미만 | 12,963 | 95 | | 7,107 | 2,448 | 3,180 | 133 |
| | 18~25.7평 | 18,376 | | | 6,792 | 3,846 | 6,670 | 1,068 |
| | 25.7평초과 | 3,705 | | | 1,766 | 1,086 | 535 | 318 |
| 91 | 소 계 | 19,594 | | 575 | 9,126 | 668 | 8,256 | 969 |
| | 18평미만 | 2,897 | | 397 | 654 | 54 | 1,792 | |
| | 18~25.7평 | 8,619 | | 178 | 3,472 | 54 | 4,268 | 647 |
| | 25.7평초과 | 8,078 | | | 5,000 | 560 | 2,196 | 322 |
| 92 | 소 계 | 23,718 | | 87 | 17,183 | 3,864 | 1,836 | 748 |
| | 18평미만 | 9,702 | | | 6,635 | 2,367 | 400 | 300 |
| | 18~25.7평 | 10,339 | | 87 | 7,710 | 1,457 | 757 | 328 |
| | 25.7평초과 | 3,677 | | | 2,838 | 40 | 679 | 120 |
| 93 | 소 계 | 21,813 | 165 | 114 | 10,428 | 881 | 8,420 | 1,805 |
| | 18평미만 | 13,475 | 143 | 114 | 6,343 | 349 | 5,626 | 900 |
| | 18~25.7평 | 7,145 | 22 | | 3,552 | 524 | 2,276 | 771 |
| | 25.7평초과 | 1,193 | | | 533 | 8 | 518 | 134 |
| 94 | 소 계 | 28,125 | 691 | | 7,133 | 756 | 15,530 | 4,015 |
| | 18평미만 | 15,903 | 379 | | 4,056 | 478 | 8,806 | 2,184 |
| | 18~25.7평 | 10,897 | 271 | | 2,945 | 278 | 5,572 | 1,831 |
| | 25.7평초과 | 1,325 | 41 | | 132 | | 1,152 | |

자료 : 인천광역시 주택과

90년부터 94년도까지 구별아파트 건립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5년간(90~94)건립된 주택(세대)수는 총 128,294세대로서, 여기에서 북구가 차지하는 규모는 44,427세대로서 전체의 34.6%를 차지하고 있어, 남구의 59,535(46.4%)세대 보다는 작지만, 전체 6개 구청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구지역내 택지개발된 지역이 많이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년도별로 북구지역내 아파트 건립현황을 살펴보면 90년도 10,385세대, 91년

도 8,256세대, 92년도 1,836세대, 93년도 8,420세대, 94년도 15,530세대가 건립되었으며 '91년도 및 92년도에 잠시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94년도에는 전체의 55%인 15,530세대를 건립하여, 남구를 제치고 가장 많이 주택을 건립한 구가 됨으로써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리라 본다.

북구지역내 아파트 평형별 건축현황은 90년~94년 기간중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은 전체의 11.4%인 5,080세대로서 91년도에는 2,196세대(26%)를 건립하여 물량적으로는 많이 건립되었으나, 비율면으로서는 92년도의 37%로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점차 국민주택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북구관내 택지개발하는 곳도 96.12.31일까지 계산지구 1,622.660㎡(16,681세대), 부개지구 611.925㎡(10,960세대), 일신지구 82.179㎡(1,820세대)가 준공예정에 있고, 삼산지구는 개발면적 1,576.000㎡를 개발하고자 94.3.10일 택지예정지구 고시를 하였고, 갈산지구는 개발면적 659.734㎡로 예정지구를 고시하는 등 아직도 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많아 주택부족율이 점차 낮아지리라 본다.

앞으로 인천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종합계획('93~'97년, 인천광역시 주택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시의 주택현황은 주택 200만호계획(인천 12만호) 추진으로 주택의 절대량 부족문제가 크게 완화되고 있으나 신규공단입주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아직도 136천호의 주택이 부족하고,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은 '92년말 현재 74.2%로 6대 도시 평균 67.3%보다는 높은편이나 전국평균 76%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어 부문간 불균형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주택보급율 추이

| 구 분 | 80년 | 85년 | 90년 | 91년 | 92년 |
|---|---|---|---|---|---|
| 가 구 수 | 244,610 | 327,223 | 439,144 | 492,000 | 527,733 |
| 주 택 수 | 139,712 | 210,543 | 327,706 | 360,014 | 391,598 |
| 보 급 율 | 57.1 | 64.3 | 74.6 | 73.2 | 74.2 |

자료 : 인천광역시 주택과

또한 소득수준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매우 높은편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택공급의 확대로 '91년 5월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는 있으나, 주택의 절대량 부족으로 시장구조가 불안정하여,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거나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 주택가격지수(전국) : 100(85년) → 173.1(91.4월) → 154.6(92년)
+73.1% −10.9%

그리고 전체가구의 24%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도시영세서민과 일반서민의 주거복지는 낮은 수준에 처해있고, 주택건설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유지, 보수,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주택의 품질이 낮고 조기에 조후해짐으로써 거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 규제, 각종 사업승인관련규제 등 주택시장에 대한 직접규제와 투기억제에 치중한 과세제도 등으로 주택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팽배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주택임대문화 정착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인천시 주택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인구의 사회적 증가와 급속한 세대증가, 둘째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 및 재정지원의 부족, 세째 주택의 안정적 공급기반 미비, 네째, 주택정책의 연계성과 종합성 미흡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즉, 인구의 자연증가와 핵가족화현상으로 가구수가 급증하여 가구의 증가속도가 재고주택의 증가 속도를 상회하고 있고, 인천이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보다도 높은 편이며, 그동안 빈곤탈피를 위한 경제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60~70년대에 GNP의 6~7%를 주택부문에 투자하였으나, 우리는 80년대말까지 GNP의 4~5%를 투자하였고, 재원부족으로 중산층이상의 여유자금에 의존하여 주택건설을 추진하므로써 경기의존적인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여 매우 불안정한 수요 구조체계가 상존하고 있고, 공급측면에서도 택지, 자금 등 요소의 탄력성이 낮고 주택자금으로 투자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택정책이 시급한 가격안정시책에 치중함으로써 거시 경제정책이나 지역균형 발전시책 등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왔다.

| 구 분 | 30개국평균 | 일 본 | 독 일 | 프랑스 | 이태리 |
|---|---|---|---|---|---|
| 주택투자율 | 5.9% | 7.4% | 5.8% | 6.9% | 5.5% |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많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고자, 택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하였고, 주택사업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도입(89.11월)하였으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주택전산망 구축 등 몇가지 공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택 200만호(인천 12만호) 건립계획에 따라 추진한 결과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 204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전망을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가구증대 및 소득상승에 따른 주택의 양적 수요증대가 예상되며, 공급측면에서는 구도심 및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교외의 통근 가능거리에 있는 미이용토지의 활용압력이 커질 전망이고, 주택자재, 자금 등 주택생산요소의 공급여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주택사업과 관련한 각종규제에 대한 해제요구도 점증할 전망이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공급 절대량 부족문제해결, 무주택서민과 근로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민간주도로 전환, 지속적인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 관리의 강화를 통한 재고주택의 질적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여, 매년 2

~3만호를 건설하여 97년에는 주택보급율을 81%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주택보급율은 현재의 「공부상의등록호수」 개념에서 「거주가능호수」 개념으로 개선하여 운영토록하며, 공공부문의 도시영세민과 근로자 등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담당토록하고, 중산층이상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무주택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매년 10~11천호의 주택을 전용면적 18평이하로 건설하고, 단칸방 전·월세가구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며, '97년에는 공공부문 건설물량의 5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2000년대 초에는 공공 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 재고주택의 10% 수준까지 올리고 향후 5년간 주택 127천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 3,999천평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기지정 미사용 택지 1,520천평 및 민간보유 택지 1,688천평을 '95년도까지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규택지개발과 중소규모의 민간대지조성 등으로 충당하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년차별 주택건설계획

| 구 분 | '93~'97 | '93 | '94 | '95 | '96 | '97 |
|---|---|---|---|---|---|---|
| 가구수(천가구) | 증 85 | 540 | 558 | 575 | 590 | 612 |
| 재고주택(천호) | 증 109 | 412 | 432 | 454 | 478 | 500 |
| 건설호수(천호) | 127 | 26.5 | 25.5 | 25 | 25 | 25 |
| 주택보급율(%) | 증 7.5 | 76.3 | 77.4 | 79.0 | 81.0 | 81.7 |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발전지표에 의함》

### 년차별 택지수요

(단위 : 천호, 천평)

| 구 분 | '93~'97 | '93 | '94 | '95 | '96 | '97 |
|---|---|---|---|---|---|---|
| 주택건설 | 127 | 26.5 | 25.5 | 25 | 25 | 25 |
| 택지공급 | 3,999 | 835 | 803 | 787 | 787 | 787 |

자료 : 인천광역시 주택과

### 부문별 건설계획

(단위 : 천호)

| 구 분 | | '93~'97 | '93 | '94 | '95 | '96 | '97 |
|---|---|---|---|---|---|---|---|
| 총 계 | | 127 | 26.5 | 25.5 | 25 | 25 | 25 |
| 공공부문 | 소 계 | 51 | 11 | 10 | 10 | 10 | 10 |
| | 시영주공 | 6.9 | 0.9 | 1.5 | 1.5 | 1.5 | 1.5 |
| | 민간업체 | 44.1 | 10.1 | 8.5 | 8.5 | 8.5 | 8.5 |
| 민간부문 | | 76 | 15.5 | 15.5 | 15 | 15 | 15 |

# 6. 상수도행정(上水道行政)

## 1) 상수도행정의 변천

물은 예로부터 인간생명의 유지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에 물의 이용(利用)은 우리 인류사와 그 맥을 같이 해왔다. 먼저 우리나라의 상수도사(上水道史)를 살펴보면 조선시대말까지는 정호수(井戶水)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수도(水道)라 칭할 만한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울市의 상수도(上水道)가 1903년(광무 7년) 12월 9일, 미국인 콜브란(H. Collbran)과 보스트위크(H. R. Bostwick)가 당시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상수도시설 특허를 받아 1905년(광무 9년) 8월 그 특허권을 영국인이 설립한 조선수도공사(Korea Water Works Co.)에 양도하여 광무 10년(1906년) 8월 1일에 총생할량 12,500M³/日의 시설로서 '뚝도(水源池)'를 착공하여 1908년(유희 2년) 8월에 준공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상수도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어 인천, 평양, 부산, 대구 등 여러도시에 상수도시설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부평지역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말까지는 농업을 주로 한 취락지역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수도의 필요성은 거의 없었고, 취락지역의 공동 또는 개인 정호수에 의존항 생활용수를 이용하여 왔다. 또한 부평지역은 행정구역이 인천시에 편입되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부평지역만이 독자적으로 상수도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천시 상수도행정에 소속되어 인천시 상수도발전상과 그 맥을 같이 하였다. 인천가 상수도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개발을 처음 시작한 것은 제물포항구가 개항되면서 선박급수와 외국인 집단거류지의 급수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며 당시 이의 필요성을 절감한 뜻있는 인사 40여명이 1905년 2월, 임시급수위원회를 발족하고, 문학산 계곡에 우수저수지(雨水貯水池)를 축조하여 1인 1일 약 38ℓ의 급수량을 배정, 약 14,000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원지건설(水源池建設)을 계획하였으나 그 규모가 너무 작아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뒤 정부차원에서 1906년 2월 구한국정부도지부(舊韓國政府度支部)에 수도국이 신설되어 한강연안인 노량진에 수원지를 건설하고 이에 따른 정수시설과 부평지역을 통과하는 송수관로, 송현배수지 등 제반 시설공사를 4년여에 걸쳐 시행하여 1910년 10월 30일에 준공을 보았는데, 이것이 인천시 인구 70,000명의 급수를 충족시킨 최초의 인천상수도 시설이다.

이 후 부평지역에는 일제시대의 일본군이 진주함에 따라 일본군 부대의 조병창(현 부평역~현대APT 부근일대)기지의 급수를 위하여 노량진 수원지계통에서 공급받는 10,000M³규모의

갈산배수지(현부평정수장내 위치) 및 부평가압장(富平加壓場)을 신설하고 조병창 및 일부 부평지역에 급수되었다.

여기서 수도사의 발자취를 요약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 혁

| 년 월 일 | 요 약 사 항 |
|---|---|
| 1906년(광무 10년) | 구한국정부 경지부에 수도국을 신설하고 노량진수원지의 정수시설과 인천까지의 송수관 부설공사 착공(12천톤/일) |
| 1901년 10월 30일 | 노량진수원지의 정수설비와 노량진수원지에서 부평을 통과하는 구경 500㎜ 주철관 30.8㎞ 포설·완공 통수식(12천톤/일) |
| 1919년 4월 | 노량진 수원지 2차 확장공사 착공(12천톤/일 증산) |
| 1922년 3월 | 노량진 수원지 2차 확장공사 준공(12천톤/일 증산, 총 24천톤/일) |
| 1940년 4월 1일 | 인천시토목과 수도계에서 수도과로 승격 |
| 1940년 | 부평가압펌프장 신설(송수량 16천톤/일) |
| 1956년 4월 15일 | 김포수원지 신규공사 착공(32천톤/일) |
| 1959년 10월 20일 | 김포수원지 준공(1차 : 32천톤/일) |
| 1961년 8월 | 김포수원지의 용량을 13천톤/일 증산하여 총 45천톤/일 규모로 확장 |
| 1963년 2월 23일 | 가양취수장 착공(1차 : 80천톤/일) |
| 1965년 10월 | 김포수원지 2차 확장·준공(증산 45천톤/일, 총 90천톤/일) |
| 1966년 12월 3일 | 인천시 수도과에서 수도국으로 승격 |
| 1967년 4월 23일 | 부평급수장 신규 공사 착공(AID차관사업, 120천톤일) |
| 1968년 1월 1일 | 인천시북구수도사업소 설치 |
| 1968년 11월 30일 | 김포수원지 제3차 확장공사 준공(증산 20천톤/일, 총 110천톤/일) |
| 1970년 10월 31일 | 가양취수장~부평정수장 간 원수관로 포설(구경 1,200㎜ 강관 11.6㎞) |
| 1971년 8월 11일 | 가양취수장 제2차 확장공사 준공·증산(155천톤/일, 총 235천톤/일) |
| 1971년 8월 20일 | 부평정수사업소 개소 |
| 1971년 8월 31일 | 부평정수장 준공(AID차관 사업, 용량 120천톤/일) |
| 1978년 12월 28일 | 부평정수장 제2차 확장공사 1단계 준공(증산 150천톤/일, 총 270천톤/일) |
| 1979년 7월 14일 | 팔달수 통수식 |
| 1979년 9월 17일 | 김포정수사업소 개소 및 김포수원지 및 노량진 취수장의 운영관리권을 서울시에 이관 |

| 년 월 일 | 요 약 사 항 |
|---|---|
| 1980년 8월 27일 | 부평정수장 제2차 확장공사-2단계 준공(증산 100천톤/일, 총 370천톤/일) |
| 1986년 12월 15일 | 부평정수장 제3차 확장공사(고도정수처리 증산 : 130천톤/일, 총 500천톤/일, 1일 600천톤까지 생산가능) |
| 1989년 12월 27일 | 부평 제2 가압장 준공 |
| 1990년 7월 11일 | 서울(풍납)취수장 및 원수관로 시설공사 착공(1일 700천톤중 1단계 250천톤/일과 구경 2,400mm 강관 연장 28km) |
| 1990년 7월 21일 | 서부수도사무소 신설로 행정구역상 북구행정구역만을 관리하게 됨 |
| 1991년 4월 26일 | 수질 검사소 설치 |
| 1994년 7월 16일 | 서울(풍납)취수장 및 성산가압장 1단계 준공·통수식(250천톤/일) |

### 2) 상수도 시설

인천시의 시세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북구지역도 도시개발이 확발하게 이루어져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본래 인천지역여건상 자체 상수도수원이 없는 관계로 필히 상수원을 한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장거리에 위치한 한강원수를 취수하여 이송하는 시설을 개발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불리한 여건이다.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기존 김포정수장(당시시설능력 : 90천톤/일)과 노량진 정수장(12천톤/일)만으로서는 격증하는 상수도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김포정수장을 확장한다 하여도 2~3천톤/일 정도에 불과하게 됨으로 부평지역 내에서 신규의 정수장 부지를 물색하다가 당시 도유지(道有地)였던 현 부평정수장 위치(북구 갈산동 140)에다 신규로 120천톤/일 규모로 건설키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내자(內資)만으로는 조달할 방법이 없어 외국차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IDA(국제개발기금) 또는 IBRD(세계은행) 등의 차관선(借款先)과 절충하여 보았으나 실패함으로써 시기만 낭비한 채 1967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차관에만 의존하다가 계속 실패할 경우 상수도 확장사업의 시기만을 잃게 됨으로 이에 대비하여 차관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내자 2억 4천1백만원을 확보하고 1차적으로 현 부평정수장 부지에다 침전지 3지(池) 및 배수지(수봉 : 10천톤/일) 1지(池) 축조시설공사를 1967년 4월 23일에 착수하였다.

그 후 다행히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한 국제개발처)와 성공적인 협의로 1967년 6월 30일, 차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확장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차관협정에 따라 외국용역회사인 「트란스-아시아」(Trans-Asia Engineering Association Inc.,)와 1968년 5월 14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취수시설로는 취수능력 155천톤/일을 증설하여 기존 가양취수장 취수능력 80천톤/일을 합해 총 235천톤/일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고, 취수장에서 부평정수장까지 구경 1,200㎜ 강관 14,458m의 원수관로 포설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부평정수장의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착수되어 늦어도 1969년까지 준공되었더라면 김포정수장을 확장할 필요성은 없었으나 차관선 지연관계로 부평정수장 건설사업이 지연되어 1971년까지 급수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기존 김포정수장에 20천톤/일 규모의 소단위 확장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68년 5월 9일 확장사업을 착수하여 동년 11월 30일 기존 90천톤/일 시설에 20천톤/일을 증설하여 총 110천톤/일의 김포정수장을 확장하였다.

○ 부평정수장

부평정수장 건설공사가 120천톤/일 정수시설로서 AID차관사업으로 시행되어 1971년 8월 31일 완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직제가 신설·공포되어 '부평정수사업소'가 1971년 8월 20일 개소됨으로써 정상 가동하게 되었다.

이 후 점차 시세가 확장되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75년 8월 3일에 부평정수장 제2차 확장공사의 1단기 공삭 착수하게 되었다. 동사업을 착수하게 된 경위는 당시 김포정수장 110천톤/일 시설과 부평정수장 120천톤/일 시설 총 230천톤/일 시설로서 인천시와 시외 급수지역인 서울시 신월동, 신정동, 목동, 방화동 등 일부와 부천시 접경지역 일부를 본 시설에서 공급하였다.

인천시로서는 격증하는 인천시 인구의 급수난을 해결못하면서 우리 급수지역이 아닌 타시지역 급수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원수의 수질이 양호한 팔당수의 원수를 개발하여 수도권 각 도시에 급수하여 주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천시도 이에 참여하여 양질의 팔당수를 공급받아 생산하여 시민에게 급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증설하여야 하는 난관에 봉착되었다.

그리하여 일단 서울시와 협조하여 김포정수장 계통의 모든 정수시설과 부대시설을 일괄 서울시에 이관토록 하고, 이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팔당수원 계통의 정수시설확장 사업에 투자하기로 계획하여, 서울시와 김포정수장 계통시설 매각을 위한 상수도 이관협정을 1978년 5월 17일 양시장(兩市長)간에 체결하였고, 이 매각대금 18억7천8백6십7만원을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다. 위 자금으로 1978년 12월 28일 부평정수장 제2차 확장사업의 일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150천톤/일이 증설된 270천톤/일의 정수장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서 공급되는 원수는 계속 가양취수장에서 공급받았으나, 한강 하류에 위치한 가양원수의 수질이 불량하여 정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던 차에, 건설부에서 수도권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원수(原水)의 수질이 양호한 팔당수를 수수(受水)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였다.

팔당수의 수수과정을 설명하면, 건설부에서 시행한 팔당취수장의 250마력 8대(대당 취수능력 : 200천톤/일)에 의하여 3개의 터널(구경 : 3,500㎜) 4,540m와 구경 2,800㎜, 2,600㎜, 2,200㎜, 2000㎜, 1,800㎜ 등의 강관 42,210m를 거쳐 김포가압장의 조절지(착수정)에 팔달수가 도착하게 된다. 도착된 물은 다시 350마력 2대(대당 : 60천톤/일)에 의하여 구경 2,000㎜~1,800㎜, 강관 10,000m의 관로를 거쳐 부평정수장에 도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팔당취수장에서 취수된 원수는 약 13시간 후에 부평정수장에 도착되어 정수로 처리케 된다. 이로서 정부의 수도권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1979년 6월 10일 전량 팔당수로 교체되어 급수하게 되었고, 1979년 7월 14일 팔당수 통수식을 부평정수장에서 거행하였다.

계속하여 부평정수장 제2차 확장사업 2단계 공사를 추진하여 1980년 8월 27일 100천톤/일을 증설하여 총 370천톤/일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70년도 말과 80년도 초기까지는 공급량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수질이 불량한 가양원수를 중단하고 전량 수질이 양호한 팔당수(3차에 걸쳐 팔당수 공급계약 증량 : 350천톤/일)로서 정수처리를 시행·공급하였으나, 북구지역의 계산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등을 비롯하여 시 전지역의 도시개발사업, APT건립의 공급 등으로 유례없이 인구가 팽창하므로서 기존 부평정수장 시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급수난이 심각하여 이에 따른 '격일급수제'라는 어쩔 수 없는 급수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단되었던 가양취수장(250천톤/일)의 원수중 120천톤/일의 취수를 재개하고, 기존 부평정수장을 500천톤/일 능력으로 개량하여 생산·공급하게 하였음에도 급수부족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급수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 가양취수장 잔여분 130천톤/일을 부평정수장에서 추가증산하여 공급코자 하였으나, 지리적으로 한강하류에 위치한 가양수의 수질이 오염·악화일로에 있어 일반 정수처리방식 시설로서는 처리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하여 가양원수 130천톤/일에 대하여는 일반정수 처리방식이 아닌 고도정수처리기법을 도입하기로 기획하고, 1982년 8월26일~1983년 6월 20일까지 부평정수장 130천톤/일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결과 개략 3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본래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공기업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으로 자체 급수 수익 이외에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더우기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추세에 맞추어 3~4년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확장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시 빈약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상 부채를 감수하지 않고는 재원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1983년 7월 30일 건설부의 상수도확장사업인가를 얻어, 경제기획원의 본사업비투자 심사과정에서 인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상 부득이 외자(借款)를 도입하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는 건의를 하였다. 이에 경제기획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외자를 도입키로 투자 심사를 마치고 정부의 내무부, 건설부, 재무부 등의 협조하에 ADB(Asian Development Bank : 아시아 개발은행)의 차관단과 협상한 결과 본 사업에 필요한 토목·건축분야의 구조물에 대한 사업비는 내자로서 충당하고, 전기·기계·계장분야(計裝分野)의 사업비는 외자인 ADB차관 사업비로서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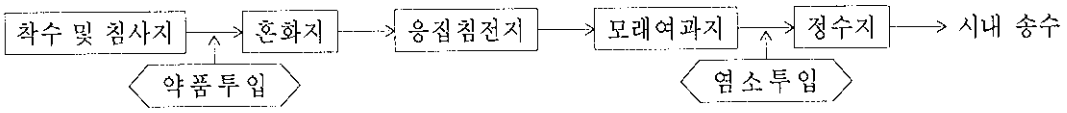
마침내 1983년 9월 6일 본 사업의 설계용역을 (주)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 실시·설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설계 검토 및 지엠피아이(GMPI)사와 공동으로 계약, 우선 정수처리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처리 공정검토에 필요한 모형실험운영(Pilot Plant) 시설을 제작·운영하였다. 1984년 6월 1일 실시·설계를 마친 후, 같은 해 10월 23일 (주)한보종합건설사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23일에 기공식을 가졌다.

또한 1983년 12월 14일 제119회 정기국회에서 에이디비(ADB)차관 지불동의(부평정수장분 : 14,000천달러)를 얻고, 1984년 12월 28일 ADB 제8차 상수도 시설 차관협정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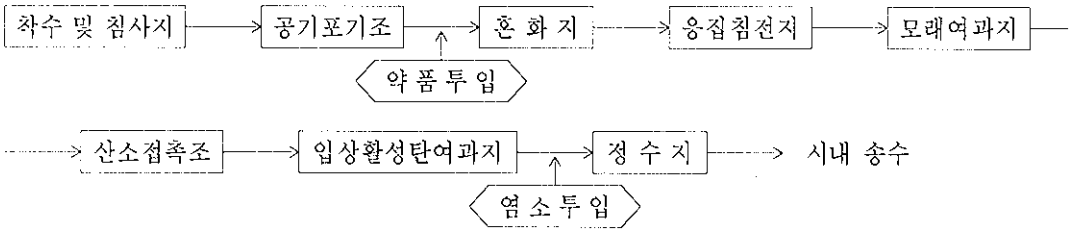
이 후 시급한 급수난을 조기에 해소하려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1986년 7월 1일 우선 통수식을 하여, 1일 130천톤을 증설한 총 600천톤/일 시설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각종 공사 및 자재 입찰시 낙찰액 차액이 절감됨으로써 당초 계획된 316억원보다 83억원이 절약된 233억원(내자 : 121억원, 외자 : 112억원)이 투자되었다.

여기에서 특기하여야 할 것은 본 130천톤/일 시설확장 공사가 정수처리방식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래식 정수처리방식이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외국선진국의 정수처리기법인 입상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방식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정수처리방법이라고 하면 원수의 수질이 비교적 양호할 경우 채택되는 방법으로 다음의 5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급수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고도 정수처리 방식은 다음 단계의 과정을 거쳐 급수가 이루어진다.




이 고도정수방식은 외국에서 원수수질이 악화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정수처리하기 위한 입상활성탄 처리방식이다. 일반 정수처리보다 정수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결점이나 공기포기조에서 산소와 접촉시킨후, 산소 접촉조에서 순 산소를 투입하여 원수 중의 용존산소(DO)를 높인 후 입상활성탄여과지를 거치게 되면 입상활성탄에 유기물질이 흡착하게 되고, 이 흡착된 유기물질은 입상활성탄에 기생하여 번식된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유기물질, 즉 우리가 말하는 각종 수질오염원 제거에 큰 효과가 있다. 특히 근래에 많은 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 인분 등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당초 고도정수처리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오존처리방식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오존 Pilot Plant 시험도중 빈번한 고장과 당시 여건으로 비용 문제, 기술적인 운영관리 미숙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오존처리방식 대신 산소주입시설로 대체하여 시험한 결과 오존처리방식에 뒤지지 않는 시험결과를 얻어, 절감된 비용과 유지관리운영에 손쉬운 '산소주입 및 입상활성탄처리방식'을 택하였다.

이로써 팔당원수 공급량 350천톤/일과 가양원수 250천톤/일 총 600천톤/일로 부평정수장을 가동하므로써 제한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격일제 급수시행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수요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타구지역은 수도권광역상수도 3단계 및 4단계 사업(건설부시행)에 따라 팔당수로서 노온정수장, 남동정수장을 연이어 건설하여 공급하였고, 부평정수장계통은 지역적으로 북구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로 북구 및 서구지역을 위주로 상수도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부평정수장계통의 원수 중 팔당수(350천톤/일)를 제외한, 가양원수(250천톤/일)의 수질오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일부 고도 정수 처리시설(130천톤/일)로서도 양질의 정수를 생산공급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특히 부평정수장계통의 급수를 받고 있는 북구·서구지역 주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숙원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필연적으로 가양취수장을 한강 상류로 이전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므로 1988년 8월 5일, 가양취수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원수수질이 다소 양호한 서울시의 영등포, 선유, 노량진취수장이 집결되어 있는 성산대교

부근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취수장 및 관로부지를 협조받고자 협의에 들어갔다.

근 1년여간 각종 행정협의를 마친 결과 폐천부지(서울 영등포구 양하동 1-119) 2,270평(7,500㎡)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가양취수장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89년 8월 17일 정부의 '맑은물공급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시의 영등포, 선유, 노량진 취수장의 원수수질의 오염이 심하여,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이전하여 폐쇄되는 지역으로 가양취수장을 옮기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계획은 인천시민에게는 불행한 결과이므로 새로운 수정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9월 23일 인천시도 서울시와 병행하여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하는 새로운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재 협의에 들어갔다. 또한 이 기회에 장기대책으로 장래 2000년도 이후를 고려하여 현재 가양원수 250천톤/일 시설을 700천톤/일로 확장(서울시에서도 700천톤/일), 서울시와 동시설 용량으로 이전·확장함으로써 투자사업비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2000년도까지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원수부족상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자 함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취수장과 관로부지가 인천시분의 취수장과 관로부지까지 공동으로 시설할 만한 위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이 기회에 공동시설토록 강력히 주장하여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갖고, 또한 국무총리실에 행정조정요청과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발의한 바 1989년 12월 5일 서울시에서 인천시 안(案)을 수용토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과 사업비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20일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여 검토한 결과, 취수장부지는 서울시 700천톤/일과 인천시 700천톤/일 시설로서 잠실수중보 상류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19번지(중앙병원앞)로 확정하고 관로부지는 풍납취수장부터 성산대교까지 연장 23.7㎞ 구간을 강관 구경 2,400㎜ 2개라인(서울분(分) 및 인천분(分))으로 한강고수부지를 주로 이용하여 매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따른 취수장 및 관로부지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협조하여 주는 조건이었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30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1990년 4월 4일 서울시에서 본 사업의 공동발주 및 공동시행토록 자체결정하였다. 1990년 6월 13일 제3회 수도권 행정협의회(참석자 :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 강원, 충북지사)를 개최·확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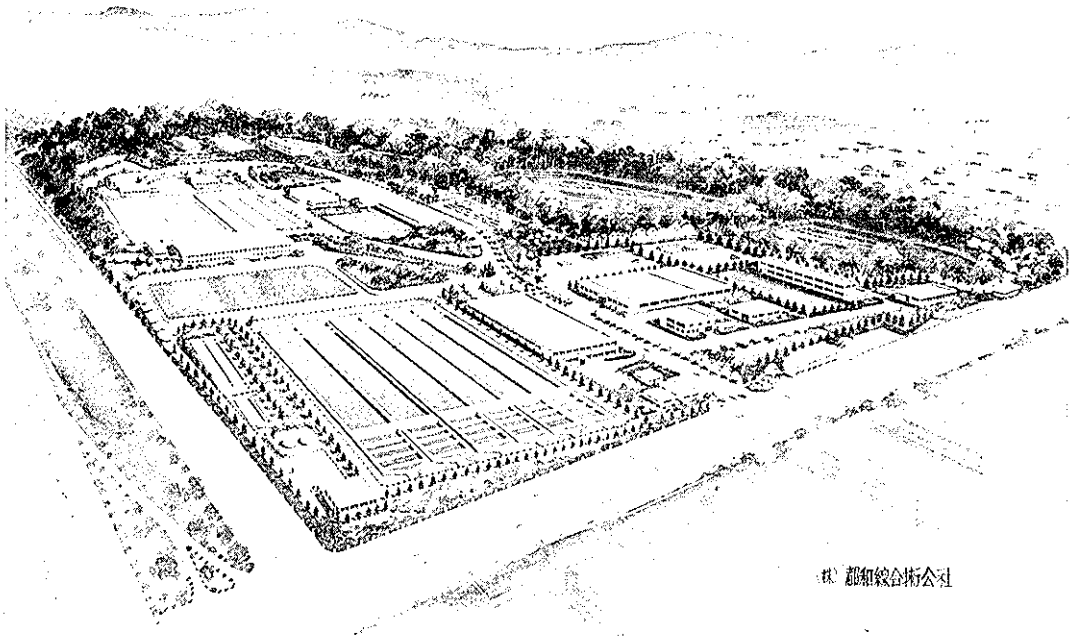
인천시로서는 본 사업이 인천시의 2000년대의 장래까지 대비한 커다란 상수도 사업이며 더구나 인천시 지역이 아닌 타 행정구역에서 사업이 실시됨으로 이에 관계되는 많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각종 인허가사항, 관로시설에 따른 수많은 장애물, 이에 수반되는 막대한 사업비 등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1990년 7월 11일 풍납취수장과 성산대교 밑까지의 공동구간 연장 23.7㎞에 대한 공사를 6개공구로 나누어 착공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잠실수중보 상류인 풍납취수장부터 성산대교밑까지 시공을 완료하면 끝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에 연계하여 단독으로 계속, 기존가양취수장의 부평계통 원수관로에 신설관을 연결하여 주고 인천시계까지 연장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원수관로의 송수거리가 인천까지는 너무 길어 중간에 1차 중간 가압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1991년 9월 30일 성산가압장과 인천시계(市界)까지 연장 10.8㎞를 강관 2,400~2,000㎜로서 6개공구로 분할하여 착공하였다.

이 후 4년간에 걸친 공사 결과 1994년 7월 6일 드디어 700천톤/일 중 1단계분 원수 250천톤/일을 부평정수장으로 송수하게 되었다. 본 공사 시행 중에도 계속 가양취수장(250천톤/일)을 사용하여 왔으나, 수질이 악화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1993년 7월 1일 가양취수장 취수를 중단하여 시내 급수난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풍납취수장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므로써, 1994년 7월 6일 이 후에는 원수수질이 양호한 팔당수 350천톤/일과 가양취수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신설된 풍납취수장의 250천톤/일 도합 00천톤/일을 부평정수장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구주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게 되므로써 시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게 되었다.

여기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7백32억 2천1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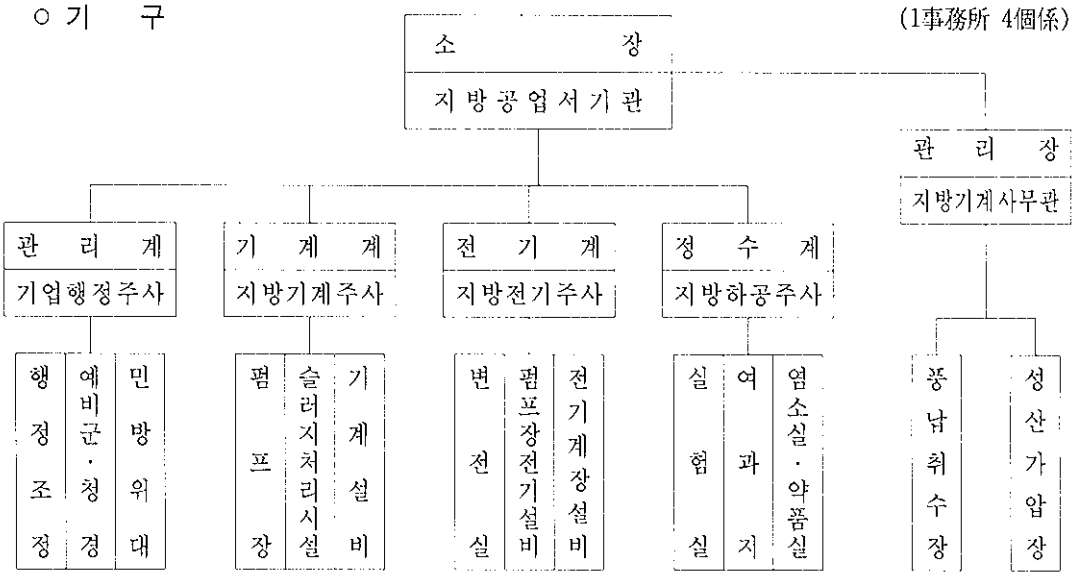


부평정수장 전경

그리고 부평정수장 운영에 따른 기구조직, 인원 및 각종 시설현황은 〈표 6-1〉과 같다.

〈표 6-1〉 기구 및 인원

○ 기 구 (1事務所 4個係)




○ 인 원

| 구분 | 계 | 일반직 | | | | | | | 연구직 | | | 기능직 | 청원경찰 | 일용 |
|---|---|---|---|---|---|---|---|---|---|---|---|---|---|---|
| | | 소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소계 | 보건 | 환경 | | | |
| 정원 | 196 | 40 | 1 | 1 | 7 | 9 | 18 | 4 | 3 | 1 | 2 | 92 | 35 | 26 |
| 현원 | 188 | 36 | 1 | 1 | 7 | 5 | 6 | 16 | 3 | 1 | 2 | 88 | 38 | 23 |
| 증감 | △8 | △4 | | | | △4 | △12 | 12 | | | | △4 | 3 | △3 |

※ 일반직 36명(공업 1, 기업행정 4, 수도토목 1, 기계 12, 전기 6, 하공 11, 통신 1)

○ 서울사무소 : 32명(일반 7, 기능 15, 일용 2, 정경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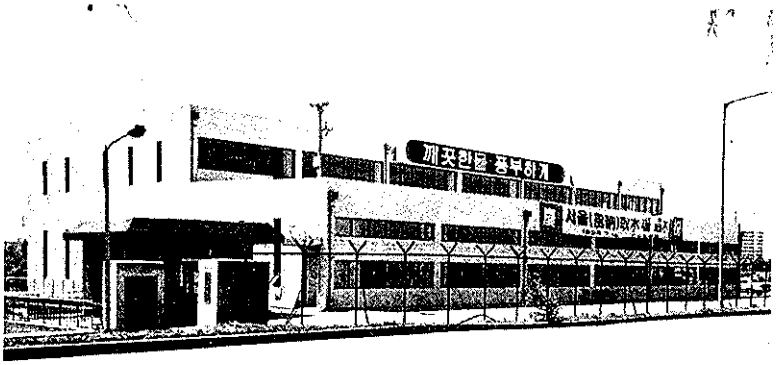
○ 근무형태 : 일근자 56, 3교대근무자 : 132명

그리고 부평정수장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표 6-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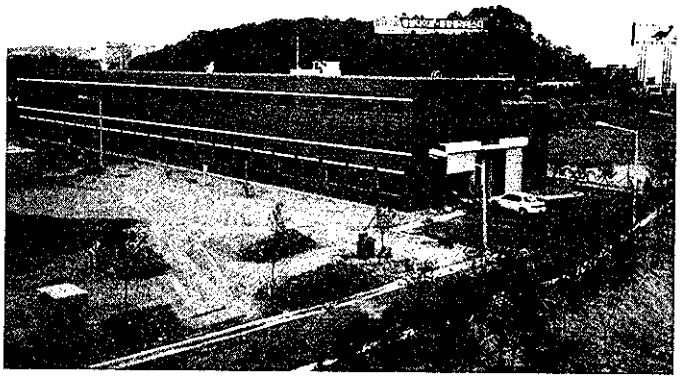
〈표 6-2〉 부평정수장 시설현황

| | |
|---|---|
| □ 시설개요 | |
| ○ 위 치 : 인천직할시 북구 갈산동 140 | ○ 원 수 : 600천톤/일 |
| ○ 면 적 : 153,069㎡(46,303坪) | • 팔 당 수 : 350천톤/일 |
| ○ 건 평 : 26동 24,228㎡(7,3 2 9坪) | • 풍납취수장 : 250천톤/일 |

| | |
|---|---|
| □ 정수시설 : 생산능력 600천톤/일<br>○ 침 사 지 : 2지<br>○ 침 전 지 : 14지(600천톤/일)<br>○ 여 과 지 : 40지(600천톤/일)<br>・급속여과지 : 20지(600천톤/일)<br>・활성탄여과지 : 10지(150천톤/일)<br>○ 정 수 지 : 8지(31,500톤) | □ 슬러지처리시설 : 76㎡/일<br>○ 배후지, 조정조, 농축조, 탈수시설, 방출수조<br><br>□ 전기시설 : 시설용량(10,559KW)<br>○ 인입선조 : 지중 회선, 지상 1회선<br>○ 수전설비 : 지하변전실(전시대비 7,500 KVA 1대, 3,500KVA 1대, 옥외변전실 2,500KVA 6대, 3,000KVA 2대) |



서울 풍납취수장 전경



성산가압장 전경

〈표 6-3〉 취수시설현황

□ 풍납 취수장
-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19
- ○ 면 적 : 3,310㎡(2,215평)
- ○ 건 평 : 1,690㎡(512평)
- ○ 취 수 량 : 700천톤/일 – 현재 : 250천톤/일
- ○ 펌프용량 : 1,500마력 – 2대, 750마력 – 1대
- ○ 수전설비용량 : 6,000kw

□ 성산가압장
-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119
- ○ 면 적 : 7,500㎡(2,270평)
- ○ 건 평 : 2,382㎡(720평)
- ○ 펌프용량 : 1,350마력 4대
- ○ 저수용량 : 16,000㎥
- ○ 수전설비용량 : 9,500kw

### 3) 송·배수 시설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은 송수관로를 통하여 배수지(配水池)로 압송되면서 배수관로, 그리고 가정에 이르는 급수관을 통하여 공급된다.

공급지역은 부평정수장이 3차에 걸쳐 확장·증설되므로써 이에 따라 송수관로도 계속 증설되어 왔다. 관내 주요 송수관로 매설현황을 살펴보면 부평정수장에서 시작되는 대형송수관로가 대동맥 역할을 하는 4개의 라인으로 설치 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제1정수장 건설시에 설치된 '구관라인', 제2정수장 건설시에 설치된 'A·B라인', 제3정수장 건설시에 설치된 'C라인' 등의 대형 송수관로가 부설되어 있다.

구관 라인은 부평정수장에서 북구 청천동을 통과하면서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인천교를 횡단, 수봉배수지계통까지 연결되는 구경 1,200~900㎜ 강관으로 부설되어 있으며, A라인은 부평정수장에서 북구청앞, 부평쌍굴다리, 삼능, 부평삼거리, 약사사, 주원고개를 통하여 석바위방향으로 구경 1,200㎜, 1,100㎜, 1,000㎜ 강관으로 부설되어 있다. 그리고 B라인은 부평정수장에서 대우자동차, 백마강, 병참부대, 장고개를 넘어 가좌동 인천교, 지방단지, 인천제철방향으로 송현배수지까지 연결되는 구경 1,200㎜, 1,000㎜, 900㎜ 강관으로 부설되어 있다. 또한 C라인은 부평정수장에서 대우자동차앞, 산곡동, 동아 및 현대APT단지를 통과하여 백운역 사거리, 십정동 열우물, 법원앞, 석바위방향으로 연결되는 구경 1,200㎜ 강관으로 부설되어 있다.

이러한 4개라인의 주요송수관로는 북구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지역의 급수를 담당한다. 주요 송수관로에서 상수도가 분기되어 배수관으로 연결되므로서 각 해당 급수구역으로 압송하여, 가정급수관을 통하여 급수되는데 배수관의 구경은 각 급수구역의 급수인구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북구관내 송·배급수관의 매설현황을 살펴보면 〈표 6-4〉와 같다.

〈표 6-4〉 상수도관 현황(관종별연장)

(단위 : m)

| 관종 / 구경 | 계 | 도복장강관 (S. P) | 아연도강관 | 주 철 관 (C.I.P) | 스텐레스관 (S.T.S) | 폴리에틸렌 분체 강관 (P.F.P) | P.V.C (P.E) |
|---|---|---|---|---|---|---|---|
| 계 | 991,816 | 105,743 | 225,892 | 245,738 | 263,058 | 57,072 | 94,313 |
| φ13 | 364,800 | | 182,400 | | 182,400 | | |
| φ20 | 25,000 | | 2,210 | | 22,790 | | |
| φ25 | 34,290 | | 3,429 | | 30,861 | | |
| φ40 | 21,632 | | 13,734 | | 5,038 | | 2,860 |
| φ50 | 50,595 | | 24,119 | | 21,969 | 637 | 3,870 |
| φ75 | 107,621 | 12,13 | | 43,419 | | 22,636 | 29,373 |
| φ100 | 129,449 | 9,475 | | 52,530 | | 33,799 | 33,649 |
| φ150 | 87,900 | 14,753 | | 58,287 | | | 14,860 |
| φ200 | 57,840 | 12,996 | | 39,086 | | | ,58 |
| φ250 | 21,541 | 2,677 | | 6,901 | | | 1,963 |
| φ300 | 30,194 | 6,806 | | 21,404 | | | 1,984 |
| φ300~400 | 11,020 | 2,987 | | 8,033 | | | |
| φ500 | 23,636 | 9,818 | | 13,818 | | | |
| φ600 | 5,460 | 3,724 | | 1,736 | | | |
| φ700 | 4,061 | 3,537 | | 524 | | | |
| φ800~900 | 2,443 | 2,443 | | | | | |
| φ1,100 | 9,501 | 9,501 | | | | | |
| φ1,200 | 14,833 | 14,833 | | | | | |

또한 급수공급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내에 배수지를 설치하여, 균등·배부코자 1984년도에 설치한 계산배수지(용량 : 2천톤)와 부개동·부평동 일원의 주민을 위하여 현재 삼능배수지(용량 : 20천톤)를 시공 중에 있다.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1993년 12월 18일 착공, 이에 공사를 마친 바 있다.

○ 배수지 현황

| 명 칭 | 위 치 | 면 적 | 용 량 | 수혜지역 | 수혜인구 | 비 고 |
|---|---|---|---|---|---|---|
| 계 산 배수지 | 북구 계산동 548-4 | 4,095㎡ (1,240평) | 2,000㎥ | 계산토지구획정리지구일원 | 6,129가구 20,000명 | |
| 삼 능 배수지 | 북구 부평동 산 40-2 | 18,500㎡ (5,600평) | 20,000㎥ | 부평, 부개동 일원 | 57,000가구 192,000명 | |

그러나 시내 고지대에 위치한 일부 급수구역은 시내의 평상시 상수도 수압이 고지대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 고지대 주민의 급수가 불량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시내요소에 중간가압장을 설치하여 공급함으로써 고지대주민의 원활한 급수를 도모하게 된다. 북구관내에는 이러한 시내 중간가압장을 17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6-5 참조〉

〈표 6-5〉 가압장 현황

| 구분 | 명 칭 | 위 치 | 시 설 | 수 혜 지 역 | 비 고 |
|---|---|---|---|---|---|
| 가압장(유인) | 부평2동 | 부평2동 763-8 | 50Hp 2대 | 부평2동 희망촌 1,400세대 | 희망촌 72m |
| | 십 정 동 | 십정동 219-1 | 100Hp 1대<br>150Hp 1대 | 십정동<br>2,900세대, 14,500명 | 금성APT 40m |
| | 효 성 동 | 효성2동 293-9 | 75Hp 2대<br>40Hp 2대 | 효성1동, 작전2동<br>3,200세대, 16,000명 | 한일스텐레스 50m |
| 가압장(무인) | 부 개 동 | 부개1동 120 | 30Hp 3대 | 부개1동, 부평6동<br>2,700세대, 13,500명 | 경찰학교뒷산 70m |
| | 부평2동 | 부평2동 699 | 15Hp 3대 | 보혜주택<br>300세대, 1,500명 | 보혜주택 60m |
| | 부평3동 | 부평3동 186 | 15Hp 대 | 백운빌라<br>320세대, 1,580명 | 백운빌라 50m |
| | 십 정 동 | 십정동 577-8 | 40Hp 2대 | 정양사 부근<br>1,100세대, 5,800명 | 정양사 54m |
| | 산곡1동 | 산곡1동 120 | 30Hp 3대<br>150Hp 1대 | 정우연립, 혹룡아파트<br>308세대, 1,500명 | 정우연립 48m |

| 구분 | 명 칭 | 위 치 | 시 설 | 수 혜 지 역 | 비 고 |
|---|---|---|---|---|---|
| 가압장(무인) | 청 천 동 | 청천동 48 | 15Hp 2대 | 영남, 인성아파트<br>850세대, 3,200명 | 국민주택 45m |
| | 산곡3동 | 산곡3동 370 | 25Hp 2대 | 화랑맨션, 국민주택<br>750세대, 4,600명 | 화랑맨션 45m |
| | 효성1동 | 효성1동 69 | 30Hp 3대 | 남성빌라, 일반주택<br>1,060세대, 5,000명 | 남성빌라 45m |
| | 계산1동 | 계산1동 932 | 30Hp 2대 | 희망, 삼오, 채원주택<br>380세대, 1,500명 | 희망주택 45m |
| | 임 학 동 | 임학동 | 150Hp 3대 | 임학동, 병방동일부<br>4,500세대, 20,000명 | 계산배수지 76m |
| | 부평3동 | 백운주택 | 20Hp 1대<br>10Hp 2대 | 송학사부근<br>3,400세대, 15,000명 | 송학사 45m |
| | 청 천 동 | 청천동 67-18 | 30Hp 3대 | 청천동, 청천농장<br>300세대, 4,300명 | 청천농장 60m |
| | 효 성 동 | 효성동 623-57 | 10Hp 2대 | 효성동 장수빌라<br>626ㅅ[데. 2,504명 | 장수빌라 40m |
| | 박 촌 동 | 박촌동 58 | 15Hp 3대 | 박촌동하트그린빌라<br>572세대, 2,288명 | 하트그린빌라 50m |

### 4) 급수 시설

송·배수시설을 통하여 압송된 상수도는 급수관로를 통하여 가정급수전까지 이르게 된다.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총칭한다.

한편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총 상수도 생산능력 1,269천톤/일(부평·남동·노온정수장) 시설에 하절기 성수기에는 1일 최대 1,200천톤, 1일평균 1,060천톤이 소요되어 최대수요량에 비하여는 1일 69천톤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1일 평균 수요량에 비하여는 209천톤의 여유가 있다.

북구지역은 1994년 7월 31일 현재 하절기 1일 최대 410천톤, 1일평균 366천톤을 사용하고 있어, 인천시 총사용량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를 포함한 용량이며, 북구주민의 급수보급율은 98.2%이고,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440ℓ에 이르고 있다. 〈표 6-6 참조〉

〈표 6-6〉 상수도 급수현황

| 인천시 | | 북구 | | | | | | 비고 |
|---|---|---|---|---|---|---|---|---|
| 총생산능력 | 1일최대사용량 (1일평균사용량) | 인구 | 급수인구 | 보급율 | 1일최대사용량 (1일평균사용량) | 비율 | 1인1일 급수량 | |
| 1,269천톤/일 | 1,200천톤/일 (1,060천톤/일) | 746,168명 | 733,139명 | 98.2% | 410천톤/일 (366천톤/일) | 34.5% | 440ℓ |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 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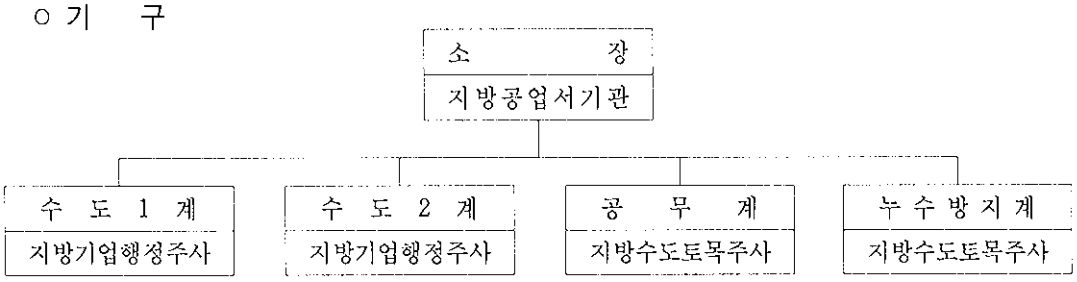
1994년 7월 31일 현재

이와 같이 시민의 급수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각구별로 지역사업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북구지역에는 1968년 1월 1일 북구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서구지역까지 관할하였다. 그러나 1990년 7월 21일 서부사업소가 신설·분할됨으로써 현재는 북구지역만을 관할하고 있으며, 사업소의 기구 및 인원현황은 〈표 6-7〉과 같다.

〈표 6-1〉 기구 및 인원

○ 기 구




○ 인 원

| 직급 | 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 | 일용 |
|---|---|---|---|---|---|---|---|---|
| 정원 | 65 | 1 | 4 | 4 | 8 | 5 | 5 | 14 |
| 현원 | 62 | 1 | 4 | 4 | 4 | 7 | 7 | 14 |
| 증감 | △3 | | | | | △4 | 2 | |

북부수도사업의 주요업무내용은 시민의 제반급수행정에 따른 급수신청인허가, 급수공사시행, 급수사용량검침, 사용료조정 및 고지, 계량기 설치 및 유지관리, 관내 배·급수관의 노후관 개량·교체·신설·누수방지 및 누수수선, 공동저수조관리 등 업무를 주로 하고있다.

북부수도사업소의 '94예산규모 및 관내 각종현황은 아래와 같다.

○ 예산규모

• 세 입 : 22,377,477천원 (단위 : 천원)

| 급수수익 | 수탁공사수입 | 시설분담금 | 기 타 |
|---|---|---|---|
| 18,942,115 | 1,618,810 | 1,305,190 | 511,332 |
| 84.7% | 7.2% | 5.8% | 2.3% |

※ '93대비 '94 : 10.5% 증(2,131,341천원)

• 세 출 : 7,189,971천원 (단위 : 천원)

| 인 건 비 | 물 건 비 | 급수공사비 | 기 타 |
|---|---|---|---|
| 841,507 | 2,277,496 | 3,993,877 | 77,091 |
| 11.7% | 31,7% | 55.6% | 1.0% |

※ '93대비 '94 : 76.0% 증(3,110,251천원)

○ 급수전수 (단위 : 전수)

| 계 | 가 정 용 | 영 업 용 | 욕 탕 용 | 공 공 용 | 원 수 | 정 수 |
|---|---|---|---|---|---|---|
| 44,582 | 34,134 | 9,861 | 110 | 474 | 1 | 2 |

'93. 12. 31. 현재

○ 계량기(구경별) (단위 : 전수)

| 계 | 13m/m | 20 | 25 | 40 | 50 | 75 | 100 | 150 | 200 | 250 | 300 |
|---|---|---|---|---|---|---|---|---|---|---|---|
| 44,582 | 37,445 | 2,425 | 3,382 | 697 | 278 | 145 | 137 | 52 | 16 | 2 | 3 |

'93. 12. 31. 현재

○ 급수시설 및 장비

| 시 설 | | | | 장 비 | | | | | | |
|---|---|---|---|---|---|---|---|---|---|---|
| 정수장 | 배수지 | 가압장 | 급수탑 | 차 량 | 굴착기 | 착암기 | 발전기 | 양수기 | 압축기 | 카타기 |
| 1 | 2 | 17 | 10 | 6 | 1 | 7 | 1 | 3 | 2 | 2 |

※ 차량 6대 : 짚프 1대, 굴삭기 1대, 작업차(2.5톤) 2대, 급수차 1대, 누수탐사차 1대 '93. 12. 31. 현재

급수신청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 시설분담금, 공사비, 자재비, 수수료 등을 일괄 합산하여 거리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시행한다.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노후관의 개량과 교체, 관내 대수요가의 지하저수조 물탱크 304개소(공동주택 : 212, 일반건물 : 31, 학교 : 61개소)를 연 2회 이상 청소토록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누수수리반을 자체 2개반, 대행업소 6개업소로 편성하여 신속히 누수 수리업무에 임하고 사전누수탐사와 구역개량사업 및 병합계량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상수도 요금부분을 살펴보면 경영분석 결과 생산단가 톤당 306원에 비해 판매단가는 톤당 261원으로 톤당 45원의 적자를 안고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단가로서 상수도 재정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요인 중의 하나다.(표 6-8 참조)

〈표 6-8〉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단위 : m³/원)

| 업 종 별 | 기 본 요 금 | | 초 과 요 금 | | 차 액 | 비 고 |
|---|---|---|---|---|---|---|
| | 사용량 | 요 금 | 사용량 | 요금 | | |
| 가 정 용 | 0~ 10 | 1,200 | 11~ 30 | 150 | 300 | 공용수도전의 초과 요금은 기본요금 m³당 단가 적용 |
| | | | 31~ 50 | 180 | 1,200 | |
| | | | 51~ | 200 | 2,200 | |
| 영업용 1종 | 0~ 20 | 4,500 | 21~ 50 | 250 | 400 | |
| | | | 51~ 100 | 270 | 1,400 | |
| | | | 101~ 300 | 300 | 4,400 | |
| | | | 301~ | 370 | 25,400 | |
| 영업용 2종 | 0~ 30 | 7,800 | 31~ 50 | 400 | 4,200 | 누수량. 일시적인 사용량은 최종단계 요율 적용 |
| | | | 51~ 100 | 600 | 14,200 | |
| | | | 101~ | 700 | 24,200 | |
| 욕 탕 1 종 | 0~500 | 94,000 | 501~ 700 | 230 | 21,000 | |
| | | | 700~1,000 | 260 | 42,000 | |
| | | | 1,001~ | 320 | 102,000 | |
| 욕 탕 2 종 | 0~200 | 113,000 | 201~ 300 | 650 | 17,000 | |
| | | | 301~ 500 | 1,050 | 137,000 | |
| | | | 501~ | 1,400 | 312,000 | |
| 공 공 용 | 0~ 30 | 4,500 | 31~ | 220 | 2,100 | |

※ 초과요금의 금액은 매 초과 m³당 금액임

※ 사용료 = (사용량 × m³당 요금) - 차액

### 5) 수질 관리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의 원수수질에는 오염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나 80년대에 이르러 수도권의 급격한 인구집중현상으로 생활하수 및 각종공장폐수, 축산분뇨 등의 오염으로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보다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코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상수원을 한강하류인 가양취수장을 폐쇄하고 잠실수중보상류인 풍납취수장으로 이전·확장하였다. 그리고 기존 수도권광역상수도의 팔당수와 함께 2개계통으로 원수공급을 받고 있다. 부평정수장에서는 각종수질 시험기기를 완비하고 보사부령 제932호('94. 7. 1)에 의거한 음용수수질기준 38개 항목 외에 4개항을 추가시험토록 하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도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주간 및 월간으로 시험하게 되어있는 항목을, 일간, 주간항목으로 시험주기를 빈번하게 하므로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부평정수장계통의 주요수질시험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표 6-9〉와 같다.

〈표 6-9〉 수 질 현 황

○ 원 수

(단위 : ㎎/ℓ)

| 구분 / 항목 | 팔당 | | | 풍납 |
|---|---|---|---|---|
| | '93 | '94. 6. | 증 감 | '94. 7. 현재 |
| 과망간산칼리소비량 | 4.7 | 4.7 | — | 5.4 |
| 수소이온농도 | 7.5 | 7.9 | 0.4 | 8.2 |
| 과망간산칼리소비량 | 0.002 | 0.030 | 0.028 | 0.100 |
| 수소이온농도 | 1.4 | 1.4 | — | 1.4 |
| 과망간산칼리소비량 | 9.1 | 10.4 | 1.3 | 13.3 |

※ 팔당 및 풍납취수원수 모두 II급수 이내임

○ 정 수

(단위 : ㎎/ℓ)

| 구분 / 항목 | 정수수질 기준 | 정수 | |
|---|---|---|---|
| | | '93 | '94. 6월 현재 |
| 과망간산칼리소비량 | 10 이하 | 2.0 | 1.6 |
| 수소이온농도 | 5.8~8.5 | 7.1 | 7.3 |
| 암모니아성질소 | 0.5 이하 | — | — |
| 질산성질소 | 10 이하 | 1.9 | 1.4 |
| 용존산소 | — | 10.0 | 11.0 |
| 트리할로메탄 | 0.1 이하 | 0.002 | 0.003 |

※ 정수수질기준 : 보사부령 제932호 음용수 수질기준('94. 7. 1)

○ 수질검사시험 항목 현황

| 구분 / 주기 | 규 정 | 시 행 |
|---|---|---|
| 계 | 38항목 | 42항목 |
| 일 간 항 목 | 6항목 | 16항목 |
| | 탁도, 색도, 잔류엽도, 맛냄새, 수소이온농도 | 탁도, 색도, 잔류염소, 맛수소니온농도, 암모니아성질소, 대장균군, 과망간산카리소비량, 경도, 염소이온, 시안, 비소, 알카리도,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냄새 |
| 주 간 항 목 | 6항목 | 26항목 |
| | 암모니아성질소, 대장균, 과망산카리소비량, 일반세균, 증발잔유물, 질산성질소 |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수은증발잔유물, 동, 철, 망간, 비소페놀, 납, 아연, 크롬, 카드늄, 황산이온, 세제, 말라치온, 파라치온, 페니트로치온, 다이지논, 세레늄, THM, 생물적산소요구량(BOD)<br>(카바릴, 1.1.1-트리클로르에탄테트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르에칠렌) |
| 월 간 항 목 | 26항목 | |
| | 시안, 비소, 경도, 수은, THM, 염소이온, 동, 철, 망간, 불소, 페놀, 납, 아연, 크롬, 세제, 황산이온, 카드늄, 말라치온, 파라치온, 페니트로치온, 다이아지논, 셀레늄<br>(카바릴, 1.1.1-트리클로르에탄, 테트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르에칠렌) | 주, 월간 항목을 일, 주간 항목으로 시험주기 강화<br>※ 4개 항목 추가시험<br>-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전기전도도, 알카리도, 용존산소 |

'9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수질오염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한 전문 수질검사소를 별도로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1991년 4월 26일 수질검사소 직제를 조례로 공포하고, 1991년 5월 17일 부평정수장부지내(인천시 북구 갈산동 140)에 수질검사소를 정식 개소하였다. 이 수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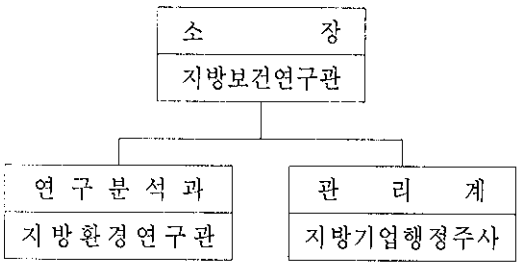
검사소는 정수장의 시험실 운영과는 별도로 원수의 취수과정, 각 정수장의 정수생산과정, 그리고 가정수도전에 이르기까지 수질검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억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수질검사 시험장비를 구비하였고, 고급 전문인력으로는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황공기사 등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생산되는 정수는 물론 향후 수질개선대책과업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업무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수계원수검사로써 인천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 등 6개 지점을 선정하여 수질상태 및 변화과정을 면밀히 사전 조사하므로써 정수생산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다음은 정수수질검사로서 정수장의 정수에 대해 음용수 수질기준 38개 항목을 월 2회, 또한 38개 항목을 포함하여 79개 항목에 대해 월 1회 실시한다. 그리고 관말수도전 검사는 관내 6개 권역을 각 50개소씩 선정하여 월 300원 이상 검사·시행한다. 또한 저수조검사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등 저수조의 내부수질오염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지도에 임한다. 그리고 민원검사로서 민원인의 요청에 의거 수시출장하여 가정수도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 이외에 음용수로 서용하고 있는 약수, 지하수 등을 검사하여 주므로써 시민이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도록 신뢰회복에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수처리공정으로는 잘 제거되지 않는 유해유기물질의 돌발적 수질오염사고 또는 장래 예측되는 오염증가에 사전대비하여 오존처리에 의한 제거가능성 및 정수처리공정으로서 도입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표 6-10 참조〉

〈표 6-10〉 수질검사소 기구 및 인원

○ 기 구




○ 인 원

| 구분 | 계 | 연구직 | | | | | 일반직 | | | | | | 기능 | 일용 |
|---|---|---|---|---|---|---|---|---|---|---|---|---|---|---|
| | | 소계 | 연구관 | | 연구사 | | 소계 | 6급 | | 7급 | | 9급 | | |
| | | | 4급 | 5급 | 보건 | 환경 | | 기업행정 | 화공 | 기업행정 | 화공 | 화공 | | |
| 정원 | 23 | 12 | 1 | 1 | 2 | 8 | 6 | 1 | 2 | 1 | 2 | 0 | 4 | 1 |
| 현원 | 23 | 12 | 1 | 1 | 2 | 8 | 6 | 1 | 2 | 1 | 1 | 1 | 4 | 1 |

○ 수질검사소 주요 검사장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장 비 명 | 수 량 | 가 격 | 사 용 용 도 |
|---|---|---|---|
| 가스질량분석기 | 1 | 94,037 | 수중의 극미량 유기물 분석 |
| ICP | 1 | 85,994 | 수중의 미량 중금석 분석 |
| 이온크로마토그라피 | 1 | 62,898 | 수중의 음이온 및 양이온분석 |
| 원자흑광광도계 | 1 | 62,521 | 중금속 측정 |
| 가스크로마그라피 | 2 | 39,029 | 잔류농약등 수질분석 |
| 스펙트로포토메타 | 1 | 19,300 | 암모니아성, 질산성 질소분석 |
| 수은분석기 | 1 | 46,611 | 수중의 수은 측정 |
| 현미경 | 1 | 16,292 | 미생물검사(일반세균, 대장균군) |
| 총질소·탄소측정기 | 1 | 88,434 | 부영양화염류 분석 |
| 총인측정기 | 1 | 46,206 | 부영양화염류 분석 |
| 형광분광광도계 | 1 | 24,709 | 수중의 농약 분석 |
| 오존발생기 | 1 | 9,647 | 오존접촉 정수처리 실험 |
| 고압멸균기 | 1 | 4,818 | 세균의 멸균 |
| 순수제조기 | 1 | 8,000 | 시액 및 시약제조용 순수제조 |
| 이동차량용분석기 | 2 | 30,000 | 현장 수질 측정 |
| 자동채수기 | 2 | 10,395 | 시료의 자동 채수 |
| 기타검사장비 | 120 | 151,628 | 수질검사 |
| 계 | 139 | 800,519 | |

## 7. 보건위생행정(保健衛生行政)

### 1) 보건위생행정의 변천

(1) 보건행정의 역사적 고찰

보건은 개인적으로는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국력신장과 경제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게 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의 고통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정복과 도전을 거듭해온 선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오늘의 보건의학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고조선 때에는 초근목피(草根木皮)나 약석(藥石)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한 민간요법이 전해오다가 한사군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의학이 전래되었다.

삼국시대인 백제에서는 질병의 치료와 약제등의 조달을 권장하는 약부(藥部)라는 관청이 있었으며, 신라 효소왕 1년(692년)에 의학을 처음으로 두고 의박사 2명을 배치하여 본초경(本草經), 침경(針經)등을 배우도록 하였다.[1] 또한 약전(藥典)을 설치하여 의약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경덕왕때에 보명사(保命司)로 고쳤다가 다시 환원하였다.[2] 고려때의 광종 14년(963년)에는 빈민과 행려자의 구호 및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위보(濟危寶)를 두었다가 공양왕 3년에 폐지하였으며 과거제도에 잡과의 하나로 의과(醫科)를 두어 시행하였다.[3] 그리고 성종 6년(987년)에는 12주에 의학박사를 두어 지방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문종 3년(1049년)에 개경의 동·서 두곳에 대비원(大悲院)을 설치하고 병자, 빈민, 행려자등의 치료와 구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4]

예종 7년(1112년)에는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인 혜민국(惠民局)을 설치하였는데, 충선왕때에 사의서(司醫署) 관할로 되었다가 공양왕 3년에 혜민정약국(惠民典藥局)으로 개칭하였다.[5] 목종때에는 태의감(太醫監)을 설치하여 의약과 치료를 전담하도록 하였는데, 뒤에 사의서(司醫署)로 고쳤다가 공민왕때에 전의시(典醫寺)로 개칭하였다.[6] 또한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을 조제하는 상약국(尙藥局)을 두었으며 충선왕때에 장의서(掌醫署)로 개칭하고 뒤에 봉의서(奉醫署), 상의국(尙醫局)으로 고쳤다가 공양왕 3년에 전의시(典醫寺)로 폐합하였다.[7]

조선이 개국하면서 고려의 혜민국을 계승하여 크게 확장하였으며 세조 12년에 혜민서(慧民署)로 개칭하였다가 고종 19년에 폐지하였다. 1392년(태조 1년)에 서울의 전염병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활인서(活人署)를 두었으며 태종때에 활인원으로 고쳤다가 세조 13년에 활인서로 환원하였는데 이는 고려때의 동서대비원과 혜민국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대비원이라고도 하였다.

---

1) 『고창군지』, 보건행정편, p.66.2
2) 『국사대사전』 백만사, p.943.
3) 『고려사』, 『국사대사전』 백만사편, p.1478.
4) 『고려사』, 『국사대사전』 백만사편, p.441.
5) 『고려사』, 『국사대사전』 백만사편, p.1838.
6) 『고려사』, 『국사대사전』 백만사편, p.1421.
7) 『고려사』, 『국사대사전』 백만사편, p.657.

궁중에서 사용하는 의약의 공급과 임금이 하사하는 의약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전의감(典醫監)을 두었는데 이를 내의원(內醫院)이라고 하였으며, 1603년(선조 36년) 종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종청(治腫廳)을 두었다가 전의감에 폐합되었다. 또한 약재의 재배를 관장하는 종약색(種藥色)이라는 관청을 두었으며 궁중에서 사용하는 약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심약(審藥)이라는 관리를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선임하여 각도에 파견하였다.[8]

1876년 한일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제1차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따라갔던 박영선이 일본의 두묘제법(痘苗製法)을 습득하여 돌안온 후 그 기술을 지석영에게 전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우두법이 보급되었다.

현대화 된 서구의학은 1984년 미국인 선교사 알렌((Allen)이 갑신정변때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해준 인연으로하여 정부의 후원을 받아 최초의 국립병원인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하였으며, 1886년에 백성의 치료에 공이 크다하여 제중원(濟衆院)으로 개명하였다.

1902년 왕실의 의료를 전담하는 태의원(太醫院)이 설립되고, 3년뒤에 대한의원(大韓醫院)이 세워졌으며 후에 총독부의원이 되었다가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 개편되었다. 1909년(융희 3년)에는 각 도에 자혜의원(慈惠醫院)이란 국립병원이 설립되었으며, 뒤에 도립병원으로 개편되었다.

한일합방이 되면서 1910년 9월 3일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하여 내부부 지방국에 위생과를 두어 보건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1927년 전후에는 총독부 경무국에 위생과를 두고 각도 경찰부에 위생과를 설치하여 규제위주의 식민지 보건위생 시책을 실시하였다.

광복이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1945년 9월 24일 군정법령 제1호로 위생국이, 설치되고 동년 10월 27일에 보건위생국으로 개편되었다가 이듬해 3월 20일 보건후생부로 승격되었다.

정부수립후의 중앙조직은 1948년 8월 15일 사회부 산하에 보건국(6개과)으로 축소·개편하였다가 이듬해 3월 31일 보건부로 승격·독립하였으며, 1955년 2월 17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조직은 1945년 11월 7일에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각 도에 보건후생부를 설치하고, 이듬해 10월 23일에 보건후생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정부수립과 함께 사회국 보건과로 개편되고 1950년에 문교사회국으로 편입되었다가 5·16혁명 이후 보건사회국이 되면서 보건과와 의약과로 분리되고 1972년 6월 10일 기구 개편에 의하여 보건과로 통합되었다.

---

8) 『고려사』, 『국사대사전』 백만사편, p.1538.

(2) 보건소의 발전과정

1950년 3월 8일, 시립 인천보건소가 선화동 6번지에서 처음 창설되었다. 그 후 1962년 8월 1일 법률 제406호(보건소법)에 의거하여 도립 보건소로 승격되었다가, 이해 9월 24일 보건소법의 개정에 따라 인천보건소로 개칭되었으며, 구청 제도가 실시되면서 중구보건소로 개편되었다.

북구보건소의 전신인 부평보건소는 1962년 5월 21일 인천시 부평동 442-1번지에 경기 도립으로 설립되었다.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를 관할에 두고 보건위생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이듬해 1월 1일 법률 제1160호(보건소법)에 의하여 인천시 부평보건소로 개편되었다. 설립 당시의 직제는 의무직 소장과 행정 5급의 사무장을 두고 보건계와 위생계를 설치하였다.[9]

보건소의 직제와 업무는 시대 변천에 따라 변경을 거듭하였는데 1964년에는 인천시의 기구개편에 의하여 시청의 보건과가 폐지되면서 청소계가 보건소로 이관되었으며, 1965년 6월 10일 청소계가 운영계로 변경되었다. 그후 1966년 7월 1일 운영계가 행정계로, 보건계가 예방계로 변경되고, 같은해 9월 1일에는 예방계가 방역계로 위생계가 식품·환경위생계로 개칭되었으며 이해 12월 보건소의 청소업무가 시청 보건과로 다시 환원되었다.

1968년 1월 1일 시세확장과 인구의 급증으로 구청 제도가 실시되면서 인천시 북구 보건소로 개칭되고 1971년 6월 4일 인천시 조례 제745호에 의거 서곶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늘어나는 보건의료의 수요를 담당하도록 하였다.[10]

1976년 1월 4일 정부방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던 위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때부터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1983년 1월 10일에는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전담하는 가족보건계가 신설되고, 방역계가 예방의약계로 명칭이 변경되어 방역업무와 의약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88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구청이 분구가 되면서 같은해 11월 19일 서곶보건지소를 모체로 하여 서구보건소가 신설되었다.

1988년 12월 30일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김포군 계양면이 편입되면서 김포군 계양보건지소를 인수하여 북구보건소 계양보건지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늘어나는 각종 검사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990년 3월 30일자로 검사계를 신설

9) 『인천시사』 (중권), p.591.
10) 인천시, 『인천개항 백년사』, pp.610~611.

하였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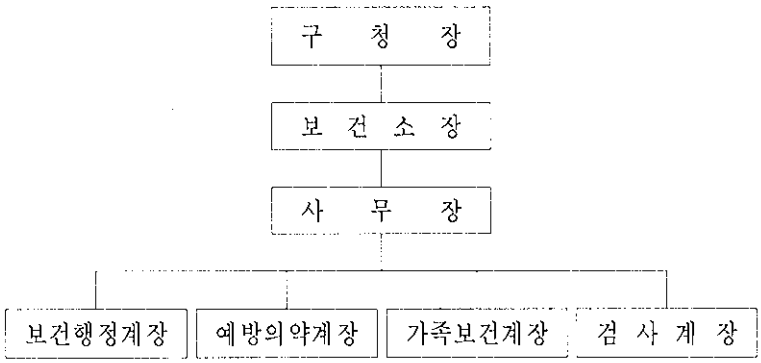
보건소는 42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개소 이후 경인의원(현 한일은행), 부평공보관, 북구청 등 5회에 걸쳐 이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8월 현청사인 북구 부평동 159-1번지에 소재한 한국전력(주) 부평영업소 사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1993년 6월 5일 구비 39억원을 들여 매입하므로써 독립청사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날로 급증하는 보건행정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북구조례 제300호(1993. 3. 16)에 의거 소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격상하였다.

(3) 보건소의 조직과 업무

보건소의 직제를 보면 4급 소장밑에 사무장과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검사계를 두고 있으며,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주요 기능별로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검사실, 가족계획실, 모자보건실, 통합보건실, 결핵실, 방사선실, 검진실, 예방접종실등을 두고 있다.

보건소의 기구·직제




주요 관장업무는 ①급만성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②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③보건교육 ④보건에 관한 각종검사 ⑤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⑥부정의료업자 단속등 의무관리 ⑦부정약업자 단속등 약무관리 ⑧구강보건관리 ⑨일반진료 및 순회진료 ⑩노인병관리 ⑪학교보건의 협조등으로 보건소 개소이래 지역사회 보건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의 보건수준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였다.[12]

(4) 보건요원의 구성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한 예방보건 활동과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요원의 구성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직 공무원 등의 전문직과 행정직 및 기능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1) 인천직할시사 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중권), 1993. p.208. p.213. p.216.
12)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4. p.183.

보건요원의 직종별 구성

| 구분 / 정원 | 계 | 보건직 | 의무직 | 약무직 | 간호직 | 의료기술직 | 기능직 | 기 타 |
|---|---|---|---|---|---|---|---|---|
| 명 | 50 | 17 | 2 | 2 | 14 | 4 | 8 | 3 |
| 분포비 | (100%) | (34%) | (4%) | (4%) | (28%) | (8%) | (16%) | (6%)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 2) 보건위생행정의 특징

(1) 급성전염병 관리

인천은 외국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동남아등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어 콜레라 등 악성 전염병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1960년대의 사후 방역체제에서 사전 방역체제로 전환하여 연중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므로써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일본뇌염을 비롯한 악성 전염병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

① 전염병발생(傳染病發生)

북구지역의 전염병 발생실태를 보면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장티푸스와 일본 뇌염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콜레라는 1980년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장티푸스는 1961년에 32명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1964년에 48명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였으며 1965년에는 63명이 발생하였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이후 매년 10명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가 1974년 이후부터는 크게 줄어들었다.[13]

콜레라는 1963년에 10명, 1969년에 4명(사망 1), 1970년에 11명(사망 2)이 발생되고 9년뒤인 1980년에 32명이 발생되었으나, 사망자는 없었으며 그후 1991년에 1명이 발생된 바 있다.

또한 치사율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일본 뇌염은 1966년에 11명이 발생되어 1명이 사망하고, 1968년에 5명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으며, 1980년에는 3명이 발생된적이 있으며, 이후 13년간 발생되지 않았다.[14]

1961년 이후 급성전염병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다.[15]

13) 인천직할시, 『통계연보』 1962~1974년 보건분야 참조.
14) 인천직할시, 『통계연보』 1964~1992년 보건분야 참조.
25) 인천직할시, 『통계연보』 1962~1994년 보건분야 참조.

## 급성전염병 발생상황(직할시 이전)

| 구분 / 년도별 | 계 | | 장티푸스 | | 콜 레 라 | | 파라티푸스 | | 디프테리아 | | 일본뇌염 | |
|---|---|---|---|---|---|---|---|---|---|---|---|---|
|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 1966년 | 16 | 2 | 5 | — | — | — | — | — | — | — | 11 | 2 |
| 1967년 | 20 | 5 | 9 | — | — | — | — | — | 2 | — | 11 | 5 |
| 1968년 | 11 | 1 | 5 | — | — | — | 1 | — | — | — | 5 | 1 |
| 1969년 | 15 | 2 | 10 | — | 4 | 1 | — | — | — | — | 1 | 1 |
| 1970년 | 68 | 3 | 57 | 1 | 11 | 2 | — | — | — | — | — | — |
| 1971년 | 17 | — | 15 | — | — | — | — | — | 2 | — | — | — |
| 197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3년 | 11 | — | 11 | — | — | — | — | — | — | — | — | — |
| 197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5년 | 1 | 1 | — | — | — | — | — | — | 1 | 1 | — | — |
| 1976년 | 2 | — | — | — | — | — | — | — | 2 | — | — | — |
| 197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8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9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0년 | 45 | — | 10 | — | 32 | — | — | — | — | — | 3 | — |

註 : 1967년도와 1980년도 발생현황은 인천시 전체통계임(구별내역불명)

## 제1종 전염병 발생상황(직할시 이후)

| 구분 / 년도별 | 계 | | 장티푸스 | | 콜 레 라 | | 파라티푸스 | | 디푸테리아 | | 발진티푸스 | | 세균성이질 | |
|---|---|---|---|---|---|---|---|---|---|---|---|---|---|---|
|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 198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2년 | 2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198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6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8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9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0년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1991년 | 1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1992년 | 2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1993년 | 10 | — | 9 | — | — | — | — | — | 1 | — | — | — | — | — |

제2종 전염병 발생상황

| 구분 / 년도별 | 계 | | 백일해 | | 홍역 | | 백일해 | | 일본뇌염 | | 유행성출혈열 | | 성홍열 | | 기타 | |
|---|---|---|---|---|---|---|---|---|---|---|---|---|---|---|---|---|
|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발생 | 사망 |
| 198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2년 | 2 | — | — | — | 1 | — | — | — | — | — | — | — | — | — | 1 | — |
| 1983~1985년 | 발생상황없음 | | | | | | | | | | | | | | | |
| 1986년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7~1989년 | 발생상황없음 | | | | | | | | | | | | | | | |
| 1990년 | 10 | — | — | — | 6 | — | 4 | — | — | — | — | — | — | — | — | — |
| 1991년 | 17 | — | — | — | 9 | — | 2 | — | — | — | 2 | — | 4 | — | — | — |
| 1992년 | 17 | — | — | — | 2 | — | 12 | — | — | — | — | — | 3 | — | — | — |
| 1993년 | 1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② 예방접종(預防接種)

전염병의 면역력을 재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인 예방접종은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인구층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1959년에 장파라티푸스, BCG, DPT 등의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는바 사업별로 처음 실시된 연도는 자료가 없어 자세히 살필 수는 없다.

그후 1961년에 디푸테리아, 발진티푸스, 장티푸스의 예방접종이 실시되었으며 콜레라는 1962년에 접종이 처음 실시되었다. 예방접종 실태를 보면은 1960년대에 크게 유행한 장티푸스와 콜레라의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두배가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1963년에 220%, 1964년에 300%, 1966년에 220%, 1967년에 213%의 높은 접종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70년에는 장티푸스환자 57명, 콜레라 환자 11명이 발생되어 보건소에서는 일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인구의 두 배에 이르는 296,332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16]

예방접종이 폐지된 사업을 보면은 발진티푸스가 1976년 이후부터 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지 않으며, 천연두는 근절 선언이 된 전염병으로 1979년이후 완전 중단되었다.

16) 인천시, 『통계연보』 1961~1980년 보건부문 참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1973년에 외국원조에 의한 150명분의 백신이 배정되어 2년간 실시하였다가 1978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자는 유료접종을 실시하여 면역군을 높혀 나가고 있다.

제2종 지정전염병인 B형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수혜자 부담에 의한 자비접종 제도를 도입하여 198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접종실적을 보면 해마다 증가되어 191년에 83,252명, 1992년에 75,264명, 1993년에 94,010명을 접종하였다.

1981년 이후의 주요 예방 접종사업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17]

년도별 예방접종 실적

(단위 : 명)

| 구분 / 년도별 | 계 | 장티프스 | 콜레라 | 소아마비 | D.P.T. | B.C.G. | 기 타 |
|---|---|---|---|---|---|---|---|
| 1981년 | 207,283 | 84,193 | 76,558 | 13,328 | 12,257 | 13,328 | 7,619 |
| 1982년 | 237,624 | 49,437 | 96,787 | 27,043 | 33,650 | 15,260 | 15,447 |
| 1983년 | 208,629 | 37,712 | 21,540 | 28,040 | 32,030 | 17,286 | 71,921 |
| 1984년 | 281,079 | 35,106 | 8,000 | 29,010 | 30,110 | 20,913 | 157,940 |
| 1985년 | 352,610 | 37,295 | 9,094 | 34,342 | 33,401 | 20,837 | 217,641 |
| 1986년 | 314,469 | 29,357 | 5,777 | 40,640 | 20,832 | 19,480 | 198,383 |
| 1987년 | 365,508 | 25,916 | 9,028 | 39,800 | 37,150 | 16,989 | 236,625 |
| 1988년 | 392,255 | 19,143 | 6,705 | 41,835 | 35,328 | 17,248 | 271,996 |
| 1989년 | 343,151 | 18,828 | 2,313 | 36,380 | 32,601 | 13,320 | 239,709 |
| 1990년 | 323,589 | 16,053 | 2,623 | 34,431 | 29,260 | 13,639 | 227,583 |
| 1991년 | 360,997 | 14,182 | — | 41,705 | 38,873 | 18,383 | 247,854 |
| 1992년 | 403,832 | 16,596 | — | 46,839 | 42,137 | 21,238 | 277,022 |
| 1993년 | 420,872 | 15,001 | — | 51,942 | 47,323 | 26,012 | 280,594 |

③ 보균자검사(保菌者檢査)

1980년에 발생하였던 콜레라와 장티푸스의 전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어패류 취급자와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7년 이후의 검사실적을 보면은 다음과 같다.[18]

17)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82~1994년 보건분야 참조.
18)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88~1994년 보건행정 참조.

특히 동남아등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콜레라의 감염여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전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므로써 악성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

최근의 추적 조사실적을 보면은 1992년에 1,838명, 1993년에 2,639명, 1994년에 3,158명을 조사한 결과 전원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환인되었다.[19]

보균검사 실적

| 구분 / 년도별 | 계 | 콜레라 | 장티프스 |
|---|---|---|---|
| 1987년 | 8,734 | 653 | 8,081 |
| 1988년 | 11,659 | 1,935 | 9,724 |
| 1989년 | 14,701 | 2,352 | 12,349 |
| 1990년 | 14,156 | 2,598 | 12,558 |
| 1991년 | 18,662 | 4,504 | 14,158 |
| 1992년 | 24,739 | 7,144 | 17,595 |
| 1993년 | 31,640 | 9,404 | 22,236 |

④ 방역소독(防疫消毒)

소독작업은 전염병의 매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매년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저소득층 밀집지등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차량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자율방역제도를 도입하여 방역소독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은 뒷골목등 생활환경 불결지를 중심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방역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므로써 일본뇌염등 악성전염병의 발생을 격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를 중심으로 1989년도 이후의 소독실적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다.[20]

방역소독 실적

(단위 : 회)

| 구분 / 년도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
| 계 | 1,540 | 1,612 | 1,465 | 1,836 | 2,750 |
| 보 건 소 | 690 | 620 | 437 | 475 | 593 |
| 자율방역단 | 850 | 992 | 1,028 | 1,361 | 2,157 |

(2) 만성병 관리

보건소는 건강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급성 전염병의 효율적인 예방대책과 함께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성 전염병의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매년 집단 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면역인구의 증대를 위한 예방 접종 등의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환율을 크게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성 개방과 윤리관의 퇴색으로 성병과 신종질환인 에이즈(AIDS)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의 보건사업은 만성 질환 관리에 보다 많은 행정 지원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19)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20)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0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① 결핵관리

우리나라의 결핵유병율이 1965년도의 5.1%에서 1990년에 들어 1.8%로 급격히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에 있다.

북구지역의 신환자 발견 실태를 살펴보면은 1968년에 495명에서 5년뒤인 1973년에 658명이 등록되었는 바, 이는 추정한 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당시 국민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상당수의 환자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등록을 기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후 보건 당국의 결핵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집단검진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하여 매년 결핵 환자의 등록율이 점차 증가되었으며, 1983년에 들어서는 1,871명에 이르렀다. 등록된 결핵환자는 우수 의약품의 개발과 효율적인 치료관리에 힘입어 1988년부터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고, 등록관리자가 감소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결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신생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새로 발견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치료와 추구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완치율을 높혀나가고 있다.

1981년 이후의 『인천시 통계연보』와 북구의 『구정백서』에 나타난 결핵관리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다.[21]

결핵 관리 실적

(단위 : 명)

| 구분 / 년도별 | 신환자 발 견 | 년말현재 등록환자 | B.C.G. | 객담검사 | X-선검사 |
|---|---|---|---|---|---|
| 1981년 | 07 | 979 | 13.328 | | 3,978 |
| 1982년 | 955 | 1,450 | 15.260 | | 12,374 |
| 1983년 | 4,496 | 1,871 | 17.386 | | 19,852 |
| 1984년 | 1,470 | 1,819 | 20.913 | | 17,174 |
| 1985년 | 1,264 | 1,236 | 20.837 | | 18,328 |
| 1986년 | 1,179 | 1,063 | 19.480 | | 27,231 |
| 1987년 | 1,062 | 1,014 | 16.989 | | 19,587 |
| 1988년 | 670 | 515 | 18.248 | | 20,252 |
| 1989년 | 755 | 564 | 13.320 | 4,057 | 15,966 |
| 1990년 | 677 | 467 | 13.639 | 3,185 | 15,313 |
| 1991년 | 765 | 540 | 18.383 | 3,799 | 21,483 |
| 1992년 | 681 | 447 | 21.238 | 3,643 | 20,971 |
| 1993년 | 805 | 648 | 25.630 | 3,316 | 26,246 |

② 나병관리

음성나환자의 정착은 5·16혁명 이후인 1961년 8월 정부의 나병 음성자 정착사업이 확정 시행되면서 국립 부평병원에 수용 중이던 음성나환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북구 십정동 산39번

21)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82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0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지에 경인농장을 설립하고, 청천동 산51번지 일대에 청천농장을 정부지원으로 설립케 하여 이주시키면서 비롯되었다.

보건소에서는 정착민들의 나병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투약과 분기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신환자의 발생을 차단시키고 양성환자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발견되는 신환자와 난치성 환자는 소록도 국립나병원으로 후송하여 이환율을 감소시켜 왔다. 1981년 이후의 나환자 등록과 신환자 발견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나환자 등록실태

(단위 : 명)

| 구분 / 년도별 | 등록자 계 | 등록자 정착장 | 등록자 재가 | 신환자 발견 | 구분 / 년도별 | 등록자 계 | 등록자 정착장 | 등록자 재가 | 신환자 발견 |
|---|---|---|---|---|---|---|---|---|---|
| 1981년 | 299 | 279 | 20 | — | 1988년 | 252 | 219 | 33 | — |
| 1982년 | 269 | 244 | 25 | 5 | 1989년 | 250 | 217 | 33 | — |
| 1983년 | 262 | 241 | 21 | 2 | 1990년 | 244 | 212 | 32 | — |
| 1984년 | 251 | 227 | 24 | 3 | 1991년 | 245 | 211 | 34 | — |
| 1985년 | 257 | 228 | 29 | 3 | 1992년 | 244 | 207 | 37 | — |
| 1986년 | 262 | 228 | 34 | 9 | 1993년 | | | | |
| 1987년 | 258 | 222 | 36 | 1 | | | | | |

아울러 부랑나환자의 단속은 자윤단체인 한성협동회 인천직할시 지부에 업무를 위탁하여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1990년 이후의 나환자 관리실적은 다음과 같다.[23]

나환자 관리실적

(단위 : 명)

| 구분 / 년도별 | 등록 | 이동검진 | 치료(연) | 정밀검진 | 비고 |
|---|---|---|---|---|---|
| 1990년 | 244 | 1,071 | 2,499 | 244 | |
| 1991년 | 246 | 1,734 | 2,624 | 246 | |
| 1992년 | 244 | 877 | 2,998 | 244 | |
| 1993년 | 242 | 597 | 2,310 | 242 | |

③ 성병관리

인천은 항구도시로 외항선원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특히 6·25동란을 거치면서 부평을 중심으로 미군 병참기지와 한국군 부대들이 주둔하게 되어 자연히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또한 북구 부평1동 96번지 일원과 산곡2동 125번지 일대에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특정지역이 형성되면서 성병 문제는 지역사회의 심각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다.

---

22)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82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23)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자료.

보건당국에서는 제한된 시설과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성병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되자 전염병 예방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4개소의 대용 성병진료소를 지정하여 성병의 검진과 치료업무를 대행토록 하였다.

특히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특정지역의 윤락여성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검진기피자와 낙검자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성병감염율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병의 감염율이 급증하게 되자, 1970년 1월 8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산 5-8번지에 시립 제인원을 설립하여 완치시까지 수용치료를 실시하였다. 그 후 제인원은 1976년 5월 22일 행정기구 통폐합에 따라 남구보건소로 흡수되었다가 1978년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성병의 치료제도가 전액 무료화되면서 수용치료 제도가 폐지되었다.[24]

1980년대에 들어 퇴폐풍조와 향락산업으로 성병의 감염층이 확산되면서 1983년 12월 20일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흥접객원과 다방, 숙박업, 안마시술소 등의 여자 종업원 및 터키탕 입욕보조자를 성병검진 대상자로 포함하게 되었다.

인천시 통계연보에 나타난 성병의 치료 연인원을 보면 1981년에 4,951명에서 1983년에 488명으로 격감되었다가 1988년에 들어 다시 5,718명으로 증가되고, 1992년에는 8,469명으로 급증되었는 바 이는 성병검진 대상자의 확대와 만연된 퇴폐풍조에 기인된 사회병리 현상으로 보여진다.

1981년 이후의 년도별 성병검진 실태와 치료 연인원, 그리고 최근의 성병 감염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5]

성병검진 및 치료실적

(단위 : 명)

| 구분 \ 년도별 | 1981년 | 1982년 | 1983년 | 1984년 | 1985년 | 1986년 |
|---|---|---|---|---|---|---|
| 검 진 수 | 15,334 | 6,019 | 3,653 | 3,146 | 7,240 | 11,568 |
| 치료자(연) | 2,951 | 5,670 | 488 | 3,657 | 1,882 | 974 |

| 1987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비 고 |
|---|---|---|---|---|---|---|---|
| 8,651 | 15,731 | 22,323 | 23,186 | 9,061 | 26,178 | 24,248 | |
| 4,555 | 5,718 | 5,096 | 5,539 | 6,260 | 8,469 | 8,167 | |

24)

25)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82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④ 기생충관리

6·25동란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생충의 감염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상존되어 왔다.

보건소에서는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하여 학생, 일반 주민, 산업체 근로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와 투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대대적인 식생활개선 운동을 전개하므로써 기생충의 감염율을 저하시키는데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1981년 이후 기생충으로 인한 치료연인원을 살펴보면 1981년에 1,565명에서 1984년까지 2천명선에 육박하였으나 1987년부터 100명 미만으로 격감되었으며, 1992년에는 7명으로 줄어들었다.[26]

기생충 감염자 치료실적

(단위 : 명)

| 구분 \ 년도별 | 1981년 | 1982년 | 1983년 | 1984년 | 1985년 | 1986년 | 1987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
| 치료실적 | 1,565 | 1,141 | 1,911 | 1,981 | 169 | 118 | 77 | 92 | 71 | 56 | 56 | 7 | — |

⑤ 에이즈관리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에이즈(AIDS)는 1993년 현재 세계 187개국에서 85만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며 감염자는 1,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처음 확인되어 9년이 지난 1994년 7월말 현재 369명의 감염자가 발견되었다.

1987년 8월 내국인 끼리의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사례가 확인되면서 유흥 접객원 등의 성병검진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의 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에이즈 검사가 강화된 1990년 이후 4년간 57,186명을 검사한 결과 내국인의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년도별 검사실적은 다음과 같다.[27]

에이즈 검사실적

(단위 : 명)

| 구분 \ 년도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비 고 |
|---|---|---|---|---|---|---|---|
| 검사실적 | 2,347 | 4,056 | 9,508 | 14,627 | 14,355 | 18,696 | |

26)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82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27)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특히 관내 중소기업체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으나 법정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각산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1992년부터 2년간 861명을 검사하였으며 이중 가나공화국등의 불법체류자 2명이 감염자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외국인의 국가별 검사실적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에이즈 검사 실적

| 국적별 / 년도별 | 계 | 필리핀 | 방글라데 쉬 | 중 국 | 파 키 스 탄 | 인 도 네시아 | 네 팔 | 태 국 | 가 나 | 기 타 |
|---|---|---|---|---|---|---|---|---|---|---|
| 1992년 | 223 | 50 | 13 | 61 | 4 | 61 | 17 | 2 | 13 | 2 |
| 1993년 | 638 | 164 | 160 | 68 | 25 | 92 | 102 | 14 | 11 | 2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3) 가족보건사업

① 가족계획

가족계획사업은 좁은 국토와 부족한 부존자원에 비하여 과밀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의 양적 억제에 중점을 두고 1962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가족계획 사업이 추진되면서 보급된 주요피임보급 방법을 살펴보면 1962년 사업초기에는 주로 콘돔과 정관수술이 채택되었고, 1964년에는 자궁내 장치를, 1968년에는 먹는 피임약을 주로 권장하였으며, 1974년에 들어서는 난관수술을 채택하여 불임시술 보급에 역점을 두었다.

1981년 이후의 가족계획사업 실적을 보면은 정관수술이 16,884건, 난관수술 28,743건, 일시피임인 자궁내 장치 10,521건 등을 시술하였으며, 콘돔과 먹는피임약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인구성장을 순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역점을 두었던 영구 불임수술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정관수술의 경우 1976년에 4.2%에서 1988년에 11%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난관수술은 4.1%에서 무려 37.2%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불임수술의 수용율은 8.3%에서 48.2%로 큰 변하를 가져왔다.

가족계획 사업의 성과를 보면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유교 관념과 뿌리 깊은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기관과 보건요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소자녀관이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며 피임실천율도 기임 부인의 77% 수준으로 생활화되어 합계 출산율이 1961년에 5.8명에서 1987년에 인구의 대치수준인 1.7명보다 낮은 1.6명수준 이하로 저하되었다. 또한 1962년에 2.8%였던 인구증가율이 1989년에 0.98%로 둔화되어 정부가 목표했던

인구증가율 1% 계획이 4년이나 앞당겨 달성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28]

1981년 이후의 가족계획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계획사업 실적

| 구분 / 년도 | 계 | 정 관 | 난 관 | 자궁내 장 치 | 콘돔보급 | 먹 는 피임약 | 월 경 조절술 |
|---|---|---|---|---|---|---|---|
| 1981년 | 19,142 | 303 | 1,821 | 874 | 6,791 | 8,662 | 691 |
| 1982년 | 34,073 | 775 | 3,083 | 1,500 | 11,081 | 15,817 | 1,817 |
| 1983년 | 12,139 | 1,049 | 3,790 | 2,220 | 1,279 | 716 | 3,085 |
| 1984년 | 14,553 | 2,640 | 3,850 | 2,252 | 1,873 | 694 | 3,244 |
| 1985년 | 12,909 | 2,226 | 3,349 | 1,902 | 1,858 | 583 | 2,991 |
| 1986년 | 14,182 | 2,384 | 3,356 | 2,412 | 1,957 | 696 | 3,377 |
| 1987년 | 14,882 | 1,765 | 3,313 | 3,681 | 2,071 | 585 | 3,467 |
| 1988년 | 14,119 | 1,584 | 2,647 | 4,146 | 2,229 | 582 | 2,985 |
| 1989년 | 10,047 | 1,204 | 1,463 | 3,794 | 1,088 | 1,844 | 1,354 |
| 1990년 | 7,141 | 947 | 785 | 3,389 | 1,448 | 316 | 256 |
| 1991년 | 5,639 | 691 | 611 | 2,558 | 1,529 | 114 | 136 |
| 1992년 | 6,084 | 773 | 421 | 2,818 | 1,875 | 94 | 103 |
| 1993년 | 4,077 | 534 | 354 | 1,756 | 1,271 | 115 | 47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② 모자보건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모자보건에 관한 보건의료의 수요가 날로 급증되고 있어 이러한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활동과 모자보건의 교육계몽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의 불행을 예방하는 우생학적인 보건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부를 등록토록하여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발육부진아 등 이상 소견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 3천명당 1명꼴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신지체아의 예방을 위하여 1981년부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계획사업 평가보고서』,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1992.

아울러 부인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20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년간 1천명에게 무료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되는 유소견자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989년 이후의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 실적은 다음과 같다.[29]

모자보건사업 실적

| 구분 / 년도별 | 등록 | | 건강진단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기본예방접종 | | | |
|---|---|---|---|---|---|---|---|---|---|
| | 임산부 | 영유아 | 임산부 | 영유아 | | D.P.T | 폴리오 | M.M.R | D.T. |
| 1989년 | 1,054 | 2,826 | 1,014 | 1,334 | — | 32,601 | 32,380 | — | 11,279 |
| 1990년 | 595 | 4,561 | 610 | 875 | — | 29,260 | 34,431 | — | 11,561 |
| 1991년 | 591 | 4,798 | 601 | 558 | — | 38,873 | 41,705 | 19,733 | 11,144 |
| 1992년 | 524 | 5,290 | 524 | 524 | 130 | 42,137 | 46,839 | 11,073 | 12,572 |
| 1993년 | 619 | 6,564 | 594 | 418 | 340 | 47,323 | 51,942 | 12,165 | 12,071 |

③ 통합보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자, 저소득층 노인, 임산부 등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보건소의 간호사가 현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보건사업은 1993년부터 북구 십정2동 희망촌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보건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방접종과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간염, 혈당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영양상태가 불량한 주민에게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와 전문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 첫 해인 1993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간염, 당뇨, 빈형, 성병 등 657건의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2,394명에게 환자담당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3명에게 무료분만 혜택을 부여하였다.

(4) 진료봉사

① 환자진료

국민개보험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보건소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1989년부터 지역의료보험이 도시지역에 확대시행되면서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를 하게되었다.

---

29) 인천직할시 북구, 『북구통계년보』 1990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특히 보건소는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수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1993년에는 전년도보다 64.2%가 증가된 39,826명을 진료하였다. 또한 매월 10일을 "이동진료의 날"로 정하고 11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30]

1989년 이후의 년도별 진료실적은 다음과 같다.

년도별 진료실적 (단위 : 명)

| 구분 / 년도별 | 순회진료 | 시설진료 | 일반진료 | 비 고 |
|---|---|---|---|---|
| 1989년 | 4,108 | 1,201 | — | |
| 1990년 | 1,180 | 1,468 | — | |
| 1991년 | 1,219 | 1,978 | 22,594 | |
| 1992년 | 911 | 1,203 | 24,253 | |
| 1993년 | 1,025 | 1,176 | 39,826 | |

② 노인 한방진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노인복지의 사회적 욕구를 수용한 특별시책으로써 북구 한의사회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력진료 사업으로, 1993년 2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다.

개설 초기에는 매회 20여명이 진료를 받았으나 노인층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불과 6개월만에 백명선을 넘게되어 늘어나는 진료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자, 북구청 별관 30평에 진료실, 침술실, 대기실, 역제실 등의 쾌적한 진료시설을 갖추고 1994년 5월 12일 이전하였다.

1993년도의 진료실적을 보면은 47회에 걸쳐 94명의 한의사가 진료봉사를 하였으며 연인원 9,081명을 진료하였다.[31]

(5) 의약무 관리(醫藥務管理)

① 의료기관의 실태

인천지역 최초의 의료시설은 개항과 동시에 일본영사관이 일본거류민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부속의 무실을 설립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내국인을 위한 의료시설은 인천공립병원으로 1888년 4월 30일에 설립되었으며 그 후 운영상의 적지않은 곡절을 겪으면서 1931년 5월 1일 경기도립병원으로 개편되었다.[32]

이 병원은 1981년 7월 1일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민간인에게 위탁된 것을 인수하여 시립인천병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987년 7월 1일 지방공사 인천병원으로 법인화되어 오늘

30) 자료 : 인천시 북구보건소 진료실.
31)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32) 인천직할시사 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중권), p.603.

에 이르고 있다.

부평지역 최초의 의료기관은 구 경찰서 부근에 일본인이 개설한 구세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1940년 12월 21일 북구 부평동 357번지에 부평안병원의 설립자인 고 안형범 박사가 부평의원을 처음 개설하면서 오늘의 종합병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북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성모자애병원은 1955년 6월 27일 전재민의 치료를 목적으로 고 김영식(베드로) 신부가 북구 부평동 665번지에 내과, 외과, 소아과 등 6개과와 41병상을 갖춘 진료소를 처음 개설한 것이 모체가 되어 1962년 4월 7일 카톨릭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발전되었다.

의료기관의 실태를 살펴보면은 부평보건소가 설립되던 1962년에 38개소가 개설하고 있었으며 이당시의 의료기관당 진료 인구는 2,249명으로 인천보건소 관할의 1,630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수준이 열악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1962년말 현재 의료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33]

1962년도 보건소별 의료기관분포

| 구분 / 보건소별 | 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의무실 | 요양원 |
|---|---|---|---|---|---|---|---|---|---|
| 인천보건소 | 207 | 1 | 6 | 94 | 24 | 41 | 38 | 1 | 2 |
| 부평보건소 | 38 | — | 1 | 21 | 3 | 3 | 10 | — | — |

그후 도시발전에 따라 1972년말 현재 북구의 인구는 161,196명으로 10년전 보다 83.8%가 증가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은 불과 23%가 증가한 48개소이었다.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을 때의 의료기관은 모두 69개소로써 1972년 이후 9년 동안에 21개소가 증가되었으나, 1993년 말에는 390개소로 늘어나므로써 직할시 승격 이후 무려 4.5배가 증가되었다.

1961년 이후 북구지역의 년도별 의료기관 분포상황은 다음과 같다.[34]

33) 인천시, 『통계년보』 1963년, 보건행정 참조.
34) 인천직할시, 『인천통계년보』 1962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 연도별 의료기관 분포상황(직할시 이전)

| 구분 / 년도별 | 총 수 | 병의원 | | | | 치과의원 | 한의원 | 요양원(나병) | 조산원 | 부속의원 | 보건소 |
|---|---|---|---|---|---|---|---|---|---|---|---|
| | | 소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 | | | |
| 1961년 | 34 | 20 | | 1 | 19 | 3 | 3 | 1 | 7 | — | — |
| 1962년 | 39 | 22 | | 1 | 21 | 3 | 3 | 1 | 10 | — | — |
| 1963년 | 46 | 26 | 1 | 1 | 24 | 4 | 2 | 1 | 11 | 1 | 1 |
| 1964년 | 52 | 30 | | 2 | 28 | 5 | 4 | — | 12 | — | 1 |
| 1965년 | 52 | 30 | | 2 | 28 | 5 | 4 | — | 12 | — | 1 |
| 1966년 | 52 | 26 | | 2 | 24 | 7 | 6 | — | 12 | — | 1 |
| 1967년 | 48 | 24 | | 2 | 22 | 6 | 6 | — | 10 | 1 | 1 |
| 1968년 | 45 | 22 | | 2 | 20 | 6 | 6 | — | 9 | 1 | 1 |
| 1969년 | 45 | 24 | | 2 | 22 | 5 | 7 | — | 7 | 1 | 1 |
| 1970년 | 43 | 23 | | 2 | 21 | 5 | 6 | — | 8 | — | 1 |
| 1971년 | 47 | 28 | | 3 | 25 | 5 | 5 | — | 8 | — | 1 |
| 1972년 | 48 | 27 | | 3 | 24 | 5 | 5 | — | 8 | 2 | 1 |
| 1973년 | 42 | 20 | | 3 | 17 | 5 | 5 | — | 8 | 3 | 1 |
| 1974년 | 45 | 23 | | 2 | 21 | 6 | 5 | | 7 | 3 | 1 |
| 1975년 | 42 | 19 | | 2 | 17 | 6 | 6 | | 7 | 3 | 1 |
| 1976년 | 43 | 21 | | 2 | 19 | 5 | 7 | | 6 | 3 | 1 |
| 1977년 | 45 | 20 | 1 | 1 | 18 | 5 | 7 | | 7 | 5 | 1 |
| 1978년 | 45 | 22 | 1 | 1 | 20 | 6 | 5 | | 7 | 4 | 1 |
| 1979년 | 50 | 27 | 1 | 2 | 24 | 7 | 5 | | 6 | 4 | 1 |
| 1980년 | 56 | 31 | 1 | 2 | 28 | 9 | 7 | | 5 | 3 | 1 |

## 연도별 의료기관 분포상황(직할시 이후)

| 구분 / 년도별 | 총 수 | 병의원 | | | | 치과의원 | 한의원 | 요양원(나병) | 조산원 | 부속의원 | 보건소 | 기타 |
|---|---|---|---|---|---|---|---|---|---|---|---|---|
| | | 소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 | | | | |
| 1981년 | 69 | 38 | 1 | 3 | 34 | 10 | 12 | | 5 | 3 | 1 | — |
| 1982년 | 75 | 40 | 1 | 3 | 36 | 10 | 12 | | 5 | 3 | 1 | 4 |
| 1983년 | 89 | 52 | 4 | 3 | 45 | 15 | 11 | | 5 | 3 | 1 | 2 |
| 1984년 | 107 | 66 | 4 | 3 | 59 | 16 | 13 | | 4 | 3 | 1 | 4 |
| 1985년 | 123 | 77 | 4 | 3 | 70 | 17 | 17 | | 5 | 3 | 1 | 3 |
| 1986년 | 162 | 102 | 4 | 3 | 95 | 32 | 18 | | 3 | 3 | 1 | 3 |
| 1987년 | 195 | 121 | 4 | 3 | 114 | 39 | 22 | | 4 | 3 | 1 | 5 |
| 1988년 | 188 | 112 | 3 | 3 | 106 | 38 | 24 | | 4 | 4 | 1 | 5 |
| 1989년 | 218 | 119 | 3 | 3 | 13 | 53 | 32 | | 3 | 4 | 1 | 6 |
| 1990년 | 268 | 137 | 3 | 3 | 131 | 71 | 43 | | 1 | 4 | 1 | 11 |
| 1991년 | 329 | 187 | 3 | 3 | 182 | 96 | 29 | | — | 4 | 1 | 3 |
| 1992년 | 358 | 188 | 3 | 3 | 182 | 98 | 53 | | — | 4 | 1 | 14 |
| 1993년 | 399 | 200 | 3 | 3 | 194 | 114 | 65 | | — | 3 | 1 | 16 |

② 의료인 실태

1966년말 현재 등록된 의료인수는 의사 26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6명, 조산원 12명, 간호사 15명등 66명이었다. 그후 1976년 말에는 99명으로 10년간 33명이 증가되었으나, 오히려 의료인 1인당 진료인구는 증가되어 의료인의 절대수요가 인구증가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도시확장과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말 현재 기타 의료인을 제외한 의료인은 204명으로 5년간 105명이 증가되었으나, 의료인 1인당 진료인구는 한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의료인이 급격히 늘어난 때는 직할시 승격이후로 12년간 5배가 증가되었음 의료인 1인당 진료인구는 의사 1747명, 치과의사 6,270명, 한의사 11,137명, 조산사 41,453명, 간호사 1,215명으로 크게 개선되어 시민보건의 수준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1981년 이후의 의료인 면허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35]

의료인 면허 등록현황

| 구분 / 연도별 | 계 | 의 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기 타 |
|---|---|---|---|---|---|---|---|
| 1981년 | 204 | 54 | 10 | 12 | 5 | 123 | — |
| 1982년 | 475 | 75 | 11 | 12 | 7 | 127 | 243 |
| 1983년 | 919 | 177 | 20 | 11 | 20 | 269 | 422 |
| 1984년 | 968 | 193 | 20 | 14 | 20 | 272 | 449 |
| 1985년 | 1,117 | 207 | 21 | 18 | 21 | 306 | 544 |
| 1986년 | 1,254 | 242 | 36 | 19 | 15 | 327 | 615 |
| 1987년 | 1,225 | 265 | 43 | 22 | 14 | 338 | 543 |
| 1988년 | 1,162 | 245 | 41 | 24 | 16 | 331 | 505 |
| 1989년 | 1,249 | 254 | 55 | 32 | 15 | 362 | 531 |
| 1990년 | 1,527 | 270 | 75 | 43 | 5 | 409 | 725 |
| 1991년 | 2,583 | 250 | 96 | 38 | 16 | 920 | 1,263 |
| 1992년 | 2,389 | 352 | 103 | 54 | 27 | 498 | 1,355 |
| 1993년 | 2,644 | 427 | 119 | 67 | 18 | 614 | 1,399 |

35)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82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③ 의약품판매업소

1996년말 현재 북구의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36개소, 양약방 15개소, 한약방 14개소, 매약포 8개소 등 73개소였으며, 10년 뒤인 1976년에는 모두 86개소로써 약국 15개소, 양약방 3개소, 의약품제조업소 6개소가 늘어나고 한약방 4개소, 매약포 7개소가 감소되었다.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에는 168개소로 5년간 86개소가 증가되었으며, 1993년 말에는 385개소로 1981년에 비하여 약국 191개소 등 217개소가 증가되었다.

의약품 판매업소의 증가 추세를 보면은 북구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약국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매약포와 약종상은 신규허가 제도가 없어지면서 허가자의 사망 등으로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1981년도 이후의 의약품판매업소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36]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 연도별 | 계 | 약 국 | 의약품 도매업 | 약종상 | 한 약 종 상 | 위생용품판매 |
|---|---|---|---|---|---|---|
| 1981년 | 169 | 130 | 1 | 14 | 18 | 5 |
| 1982년 | 183 | 143 | 1 | 14 | 18 | 7 |
| 1983년 | 206 | 166 | 1 | 13 | 18 | 8 |
| 1984년 | 232 | 184 | 1 | 11 | 17 | 19 |
| 1985년 | 257 | 207 | 1 | 11 | 17 | 21 |
| 1986년 | 329 | 264 | 1 | 9 | 18 | 37 |
| 1987년 | 374 | 286 | 1 | 9 | 17 | 61 |
| 1988년 | 321 | 241 | 2 | 8 | 14 | 58 |
| 1989년 | 291 | 267 | 2 | 6 | 16 | — |
| 1990년 | 328 | 289 | 3 | 5 | 17 | 14 |
| 1991년 | 456 | 314 | 4 | 5 | 17 | 116 |
| 1992년 | 378 | 307 | 5 | 5 | 17 | 44 |
| 1993년 | 385 | 321 | 7 | 5 | 18 | 34 |

④ 의약업소지도단속

6·25동란을 겪으면서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수요는 급증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의료인과 약사 및 의약품등은 절대 수요에 크게 못미치는 열악한 시대적 상황을 이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부정 의약품이 독버섯처럼 성행하였다.

보건소에서는 1960년대 이후 부정식품과 함께 보건 3대악으로 일컬어졌던 부정의료 행위와 부정약품 뿌리뽑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의약업계의 신뢰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왔다.

1981년 이후 부정의료업자의 단속실적을 보면은 다음과 같다.[37]

---

36) 인천직할시, 『인천통계년보』 1982년~1984년 보건행정 참조.
37) 인천직할시, 『인천통계년보』 1982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부정 의료업자 단속실적

| 구분 / 년도별 | 적발상황 | | | | | 처리상황 | | | | | |
|---|---|---|---|---|---|---|---|---|---|---|---|
| | 계 | 무면허 | 표방위반 | 시설위반 | 기타 | 계 | 고발 | 업무정지 | 시설개수 | 훈계 | 기타 |
| 1981년 | 8 | — | 1 | 4 | 3 | 8 | 3 | — | 4 | 1 | — |
| 1982년 | 3 | 1 | — | — | 2 | 3 | 1 | — | — | 1 | 1 |
| 1983년 | 6 | 5 | 1 | — | — | 6 | 5 | — | 1 | — | — |
| 1984년 | 3 | 2 | 1 | — | — | 3 | 2 | — | 1 | — | — |
| 1985년 | 8 | 2 | 4 | — | 2 | 8 | 3 | — | — | 5 | — |
| 1986년 | 15 | 1 | — | 8 | 6 | 15 | 1 | 3 | 8 | — | 3 |
| 1987년 | 11 | — | 1 | 3 | 7 | 11 | — | — | 7 | — | 4 |
| 1988년 | 3 | — | — | 2 | 1 | 3 | — | — | 2 | — | 1 |
| 1989년 | 14 | — | 1 | 2 | 11 | 14 | 4 | — | 2 | 5 | 3 |
| 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1991년 | — | — | — | — | — | — | — | — | — | — | — |
| 1992년 | — | — | — | — | — | — | — | — | — | — | — |
| 1993년 | — | — | — | — | — | — | — | — | — | — | — |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병의원, 약국 등의 개설등록이 증가되면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지능적이고 다양화 되어짐에 따라 감시활동에도 전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 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92호 1990. 3. 29)을 제정하여 의약단체등에 자율지도 업무를 위탁하므로써 전문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율감사제도의 시행이 일천하고 동업자인 전문인들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려움 때문에 가시적인 실적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1990년 이후 보건소에서 실시한 의약품 판매업소의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판매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실적

| 구분 / 년도별 | 대상업소 | 위반업소 | 위반내용 | | | | 행정처분 | | | |
|---|---|---|---|---|---|---|---|---|---|---|
| | | | 무면허조제 | 표준소매가위반 | 불량약취급 | 기타 | 계 | 영업정지 | 시정경고 | 사망서 |
| 1990년 | 225 | 32 | 2 | 22 | — | 8 | 32 | 4 | 28 | — |
| 1991년 | 231 | 28 | 4 | 9 | — | 15 | 28 | 9 | 19 | — |
| 1992년 | 260 | 22 | — | 13 | 2 | 7 | 22 | 4 | 14 | 4 |
| 1993년 | 321 | 27 | 1 | 1 | 11 | 14 | 27 | 19 | 8 | —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 3) 위생행정의 특징

(1) 위생행정의 변천

① 위생업무의 관리

광복이 되던 1945년까지의 위생행정은 경찰관서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1946년 5월 13일 공설욕탕 및 음식점 면허에 대한 군정법령 제83호가 공포되면서 위생사무를 각도의 부·군(府·郡)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다. 이때의 주요업무는 전염병예방, 구강위생, 나병예방, 환경위생개선등으로 종합방역 주간을 설정하여 국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계몽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결한 환경위생의 심각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53년 12월 "위생업무 취급에 대한 전시 비상조치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위생사무가 경찰관서로 다시 이관되었다가 1960년 10월 14일 환원되어 이 때부터 취제단속의 위생행정이 조장행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북구 지역의 위생행정은 1962년 5월 21일 경기도립 부평보건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인천시와 인천보건소에서 관장하여 오다가 부평보건소가 설립될 때 행정 관할구역이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로 조정되어 이때부터 관내의 위생업무를 직접 취급하게 되었다. 그후 1968년 구제가 실시되면서 북구보건소 위생계로 개칭되고 1976년 1월 10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북구청 복지괄 위생계와 관장사무 일체가 이관되었다.

80년대에 들어 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80년 7월 25일 위생과가 신설되어 위생업무와 공해방지 및 청소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환경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4년 9월 1일 환경위생계가 신설되어 식품위생과 환경위생 업무를 분리관장하게 되었고 1988년 5월 1일 환경위생계를 공중위생계로 개칭하였으며, 이 해 6월 21일 환경보전 업무의 이관에 따라 환경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9년 9월 1일 퇴폐변태등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해 위생과가 분리 독립되어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청소계 업무를 관장하여 오다가 얼마후 청소계가 환경보호과로 소속 변경이 되었다. 뒤이어 1991년 10월 8일 범인성 유해업소의 단속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위생감시계가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② 위생업소 증가

부평지역의 위생업소는 1953년 9월 28일 수복이 된후 부평을 중심으로 미군기지와 한국군부대들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숙박업소와 유흥주점등의 요식업소들이 성업을 이루게 되었다.

1958년 부평경찰서에서 관장하던 접객업소의 허가상황을 보면 모두 149개소로 인천경찰서 관할의 507개소, 동부경찰서 관할에 328개소에 비해 월등하게 적었으며, 업종별 허가 실태는

다음과 같다.[38]

위생접객업소 허가상황

(1958년말)

| 구분 / 소관별 | 계 | 음식점 | 식 당 | 주 점 | 다 방 | 여 관 | 하숙업 | 이용업 | 미용업 |
|---|---|---|---|---|---|---|---|---|---|
| 부평경찰서 | 149 | 10 | 63 | 9 | 4 | 7 | 1 | 28 | 33 |
| 인천경찰서 | 507 | 45 | 173 | 42 | 50 | 54 | 8 | 75 | 60 |
| 동부경찰서 | 328 | 31 | 127 | 47 | 4 | 1 | 11 | 67 | 40 |

1966년에는 504개소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식품 위생업소가 295개소, 환경 접객업소가 190개소, 식품 제조업소가 19개소였다. 그후 1971년 말에는 824개소로 5년간 320개소가 증가되었으며, 1972년 이후에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1976년 말에는 1,152개소로 5년동안 328개소가 증가되었다.

1978년에는 제59회 전국체전을 유지하면서 거시적인 환경 정비와 손님맞이를 위한 위생시설의 대대적인 정화로 그간 낙후되었던 접객 시설이 대폭 개선되어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때의 허가업소는 식품접객업소 898개소, 환경위생업소 46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57개소등 1,418개소로 5년간 374개소가 증가되었다. 인천이 수도권의 관문 도시로 시세가 급신장하면서 1981년 7월 1일을 기하여 직할시로 승격되었는데, 이 때의 위생업소는 1,933개소로 10년전보다 식품 접객업소가 704개소, 환경 위생업소가 405개소 등 1,109개소가 늘어났다.

1993년말 현재 식품 접객업소가 6,747개소, 환경위생업소 2,896개소 등 모두 9,643개소로 늘어났으며 이는 직할시 전에 비해 식품 접객업소가 5.6배로 환경 위생업소가 4배로 증가되었다.

식품 접객업소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은 대중음식점이 전체의 81.1%인 5,474개소이고, 다방이 8.8%(591개소), 과자점이 6.3%(428개소), 유흥음식점 1.9%(125개소), 기타업종이 1.9(129개소)이다.

식품 접객업소의 업종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번에 걸쳐 조정이 있었는데 1993년에는 단란주점과 휴게음식점이 신설되었으며, 특히 다방은 '80년대 이후 카페 등 새로운 유사 업종이 출현되면서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1993년말 현재 환경 위생업소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미용업이 40%인 1,164개소이고, 이용업이 16.5%(479개소), 숙박업이 12.3%(355개소), 목욕탕이 4.2%(123개소), 유기장업이 7.1%(207개소), 세탁업 등 기타업종이 19.9%(568개소)이다.

1981년 이후의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의 허가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39]

---

38)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중권).

39) 인천직할시, 『인천통계년보』 1982년~1994년 보건행정 참조.

## 식품접객업소 허가

| 업종 / 년도별 | 계 | 전문음식점 | 대중음식점 | 유흥음식점 | 임삼찻집 | 과자점영업 | 다방 | 휴게실 | 단란주점 | 휴게음식점 |
|---|---|---|---|---|---|---|---|---|---|---|
| 1981년 | 1,198 | 28 | 972 | 23 | — | 23 | 150 | 2 | — | — |
| 1982년 | 1,269 | 31 | 979 | 21 | — | 39 | 197 | 2 | — | — |
| 1983년 | 1,445 | 36 | 996 | 23 | 68 | 60 | 259 | 3 | — | — |
| 1984년 | 1,793 | 40 | 1,177 | 36 | 79 | 104 | 354 | 3 | — | — |
| 1985년 | 2,086 | 38 | 1,406 | 45 | 6 | 152 | 436 | 3 | — | — |
| 1986년 | 2,502 | 15 | 1,712 | 110 | — | 173 | 485 | 7 | — | — |
| 1987년 | 2,791 | — | 1,970 | 109 | 4 | 193 | 508 | 7 | — | — |
| 1988년 | 2,908 | — | 2,217 | 115 | — | 141 | 434 | 1 | — | — |
| 1989년 | 3,310 | — | 2,533 | 133 | — | 176 | 467 | 1 | — | — |
| 1990년 | 3,957 | — | 3,084 | 151 | — | 204 | 517 | 1 | — | — |
| 1991년 | 4,872 | — | 3,084 | 150 | — | 261 | 566 | 1 | — | — |
| 1992년 | 5,604 | — | 4,497 | 129 | — | 398 | 578 | 2 | — | — |
| 1993년 | 6,747 | — | 5,474 | 125 | — | 428 | 591 | 3 | 46 | 80 |

## 환경위생업소 허가현황

| 구분 / 년도별 | 계 | 호텔 | 여관 | 여인숙 | 이용업 | 미용업 | 대중탕 | 한증탕 | 싸우나 | 터키탕 | 전자유기장 | 기타유기장 | 당구장 | 세탁업 | 기타 |
|---|---|---|---|---|---|---|---|---|---|---|---|---|---|---|---|
| 1981년 | 735 | — | 94 | 108 | 188 | 222 | 43 | 1 | — | — | 13 | — | 67 | — | — |
| 1982년 | 869 | — | 85 | 128 | 203 | 284 | 49 | 1 | — | — | 13 | 3 | 103 | — | — |
| 1983년 | 1,033 | — | 90 | 138 | 232 | 369 | 59 | 1 | — | — | 13 | — | 131 | — | — |
| 1984년 | 1,241 | — | 107 | 149 | 244 | 488 | 69 | 1 | — | — | 13 | — | 170 | — | — |
| 1985년 | 1,663 | — | 143 | 154 | 294 | 647 | 77 | 1 | — | — | 120 | — | 227 | — | — |
| 1986년 | 1,952 | — | 160 | 157 | 338 | 781 | 88 | 1 | — | — | 164 | — | 263 | — | — |
| 1987년 | 2,055 | 1 | 161 | 161 | 363 | 850 | 96 | 1 | 1 | 1 | 155 | — | 265 | — | — |
| 1988년 | 1,782 | 1 | 169 | 156 | 298 | 722 | 80 | 1 | 1 | 1 | 113 | 1 | 238 | — | 1 |
| 1989년 | 2,347 | 2 | 190 | 158 | 339 | 849 | 90 | 1 | 1 | 1 | 162 | 2 | 255 | 293 | 4 |
| 1990년 | 2,298 | 2 | 203 | 151 | 363 | 926 | 101 | 2 | 2 | 2 | 204 | 2 | — | 334 | 6 |
| 1991년 | 2,405 | 2 | 211 | 149 | 366 | 1,107 | 105 | 2 | 2 | 2 | 200 | 3 | — | 335 | 11 |
| 1992년 | 2,428 | 2 | 202 | 146 | 401 | 941 | 108 | 2 | 2 | 2 | 193 | 3 | — | 410 | 16 |
| 1993년 | 2,896 | 2 | 208 | 145 | 479 | 1,164 | 117 | 2 | 2 | 2 | 204 | 3 | — | 504 | 64 |

(2) 위생행정의 특징

① 부정불량식품단속

위생 수준과 생활환경이 취약하였던 1960년대를 거치면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쳐왔던 부정 불량식품은 위생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소비자 고발 등 부정 식품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에 힘입어 1980년대에 들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1989년 이후 5년간의 단속실적을 보면은 총 2,681건을 단속하여 이중 321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12건, 영업정지 65건, 고발 17건, 시정·경고 166건, 폐기처분등 61건을 각각 행정처분하였다.[40]

부정불량식품 단속 실태

| 구분 / 년도별 | 단속 건수 | 위반 업소 | 행정처분 | | | | | | 비고 |
|---|---|---|---|---|---|---|---|---|---|
| | | | 계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경고 | 고발 | 기타 | |
| 1989년 | 325 | 6 | 6 | — | — | 6 | — | — | |
| 1990년 | 349 | 33 | 33 | 4 | 10 | 10 | 9 | — | |
| 1991년 | 728 | 125 | 125 | 4 | 34 | 79 | — | 8 | |
| 1992년 | 575 | 67 | 67 | 3 | 6 | 32 | 4 | 22 | |
| 1993년 | 706 | 90 | 90 | 1 | 15 | 39 | 4 | 31 | |

또한 부정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매년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1987년 이후 5년간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해 총 1,58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 중 107건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 1건을 영업정지 처분하고 81건을 시정·경고조치하였으며, 25건을 폐기처분등의 조치를 취하였다.[41]

제품수거검사 결과 행정처분현황

| 구분 / 년도별 | 수거 건수 | 위반 건수 | 행정처분 | | | | 비고 |
|---|---|---|---|---|---|---|---|
| | | | 계 | 영업정지 | 시정경고 | 기타 | |
| 1989년 | 325 | 6 | 6 | — | 6 | — | |
| 1990년 | 232 | 4 | 4 | 1 | 2 | 1 | |
| 1991년 | 376 | 55 | 55 | — | 47 | 8 | |
| 1992년 | 298 | 2 | 2 | — | 1 | 1 | |
| 1993년 | 356 | 40 | 40 | — | 25 | 15 | |

40)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0년~1994년 보건행정편 참조.
41)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0년~1994년 보건행정편 참조.

② 식중독예방

시민생활이 윤택해지고 건강 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공식품을 비롯한 인스탄트 식품과 외식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이로 인한 식중독 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위생당국은 이러한 식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부정불량 식품의 집중단속과 함께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의 발생율이 높은 집단 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생선회 판매업소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1989년 이후의 보균검사 실적을 보면은 다음과 같다.[42]

보균검사 실적

(단위 : 건)

| 구분 \ 년도별 | 검 사 대 상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
| 급수시설 | 관리자·종사자 | 605 | 823 | 799 | 790 | 881 |
| 집단급식소 및 생선회판매업소등 | 종사자·식기구등 | 1,634 | 1,454 | 2,010 | 1,902 | 3,133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③ 범인성(犯因性) 유해환경 정화

1980년대에 우리 사회속에 독버섯처럼 만연되었던 사치낭비 풍조와 퇴폐향락 등의 사회적 병폐가 국가발전을 저해하게 됨에 따라 1990년 10·13일 대통령의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특별선언이 선포되었다. 이의 후속조치로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과 준법영업의 확립을 위해 위생업소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고 유흥음식점의 신규허가 억제 등의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심야영업과 퇴폐·변태 등의 반사회적인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뿌리뽑기식 집중단속을 실시하므로써 10·13특별선언 이후 4년간 총 5,287건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였다.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시간외 영업 1,179건, 무허가 영업 1,464건, 퇴폐·변태영업 473건, 기타법규 위반 2,171건이며,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910건을 고발 조치하고 허가취소 992건, 영업정지 2,101건, 시정경고 1,284건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준법영업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2)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검사실.

그 결과 고질화되었던 이용업소와 유흥음식점 등의 퇴폐·변태영업 행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한 학교주변에 대한 교육환경이 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므로써 1992년도에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우수 구로 내무부장관의 단체표창을 받았다.[43]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분 / 년도별 | 총계 | 적발내역 | | | | 업종별 | | | | | 위반업소 조치 | | | |
|---|---|---|---|---|---|---|---|---|---|---|---|---|---|---|
| | | 시간외영업 | 무허가영업 | 퇴폐변태 | 기타 | 대중음식점 | 유흥음식점 | 이용업소 | 전자유기장 | 기타 | 고발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경고 |
| 1990년 | 525 | 140 | 139 | 84 | 162 | 214 | 89 | 79 | 86 | 57 | 17 | 229 | 140 | 139 |
| 1991년 | 2,296 | 776 | 505 | 125 | 890 | 1,231 | 199 | 301 | 98 | 167 | 73 | 661 | 1,057 | 505 |
| 1992년 | 1,108 | 99 | 347 | 127 | 535 | 783 | 69 | 21 | 28 | 207 | 347 | 70 | 393 | 298 |
| 1993년 | 1,358 | 164 | 473 | 137 | 584 | 944 | 106 | 42 | 57 | 209 | 473 | 32 | 511 | 342 |

자료 : 인천직할시 위생과

④ 위생업소(衛生業所) 지도단속(指導團束)

1968년 구청제도가 실시되면서 위생시책의 방향을 부정불량식품의 발본·색원에 두는 한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낙후된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976년에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도시행정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관장하던 위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위생과가 신설되고 감시공무원의 증원 등 위생감시 기능이 보강됨으로써 인허가 업무에 급급하던 위생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1978년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손님맞이를 위한 범시민적인 노력을 통하여 그간 낙후되었던 위생시설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그후 위생당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의 강화로 준법영업 질서가 정착되는 등 위생수준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서정쇄신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부 훈령 제592호(1990. 3. 29)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던 위생업소의 정기감시 등의 단속업무를 위생단체에 위탁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하여 행정의 불신요인이 해소되게 되었음은 물론 업계의 자정노력에 의한 준법영업이 뿌리 내리게 되었으며 아울러 위

43) 자료 : 인천직할시 위생과.

생감시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게 되므로써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북구 위생당국이 1989년이후 5년간 실시한 위생업소의 단속실적을 보면은 식품접객업소 4,683건, 환경위생업소 2,246건등 모두 6,923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1,462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허가취소 350건, 영업정지 2,237건, 시설개수명령 2,874건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위생업소 시설의 향상과 준법 영업의 정착에 노력하여 왔다.

1989년도 이후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실적과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44]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상황

| 구분 / 년도별 | 업소수 | 지도단속 건수 | 위반 건수 | 행정처분내역 | | | | | 폐기처분 |
|---|---|---|---|---|---|---|---|---|---|
| | | | | 계 | 고발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설개수 | |
| 1989년 | 2,666 | 1,738 | 383 | 383 | 100 | 33 | 116 | 119 | — |
| 1990년 | 3,324 | 639 | 639 | 639 | 156 | 14 | 336 | 133 | — |
| 1991년 | 5,254 | 18,606 | 1,618 | 1,618 | 491 | 55 | 522 | 550 | 138 |
| 1992년 | 5,204 | 44,199 | 927 | 927 | 336 | 45 | 334 | 212 | — |
| 1993년 | 6,190 | 17,850 | 1,131 | 1,131 | 294 | 50 | 414 | 373 | — |

환경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상황

| 구분 / 년도별 | 업소수 | 지도단속 건수 | 위반 건수 | 행정처분내역 | | | | | 폐기처분 |
|---|---|---|---|---|---|---|---|---|---|
| | | | | 계 | 고발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설개수 | |
| 1989년 | 1,796 | 2,387 | 408 | 408 | 18 | 31 | 76 | 283 | — |
| 1990년 | 1,976 | 23,041 | 647 | 647 | 27 | 65 | 158 | 397 | — |
| 1991년 | 3,108 | 17,758 | 478 | 678 | 14 | 18 | 139 | 507 | 150 |
| 1992년 | 4,731 | 16,056 | 191 | 191 | 14 | 22 | 52 | 103 | — |
| 1993년 | 5,349 | 9,986 | 316 | 316 | 12 | 17 | 90 | 197 | — |

44)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0년~1994년 보건행정편 참조.

## 8. 사회복지행정(社會福祉行政)

### 1) 사회복지행정의 변천

1989년 지방 자치법이 입법화 되고 지방의회가 성립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형의 복지에서 지방화에 따른 지역복지 문제가 큰 과제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장하여 오던 업무를 분석, 검토하여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6공화국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새로운 법률이 입법되었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되었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장애인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였다.

한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히 증대되어,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의 확충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5공화국정부에서는 '새마을유아원'을 통한 탁아기능을 수행하도록 행정을 펼쳐, 1988년에 직장탁아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탁아욕구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관점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입법화됨으로써 탁아사업은 보육사업으로 개칭되어, 보육사업의 설치주제도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크게 확충되었다.

또한 제6공화국정부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가 복지봉사센터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장, 편부모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사회부는 1987년부터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990년까지 약324명을 배치하였다. 이어서 1992년까지 사회복지요원을 신규 채용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도청 소재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100가구 이상의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1인씩 배치하고 저소득층 200가구당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명씩 증원 배치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300가구 이상의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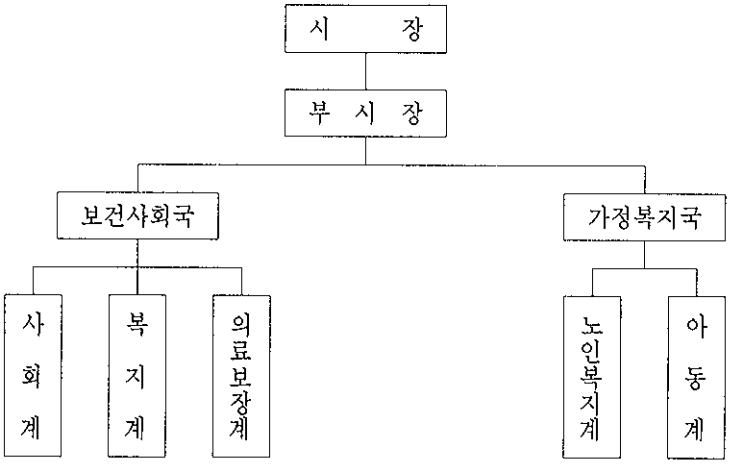
한국의 생활보호 사업은 그동안 내부부 소속의 일반행정직원이 순환보직에 의거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과 사후관리의 불철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과 퍼스널 서비스(personal service)가 결여된 불충분한 구호로는 대상자들의 인간다운 생존권 보장과 자립대책은 성취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공공부문에 채용된 것이다.

(1) 인천직할시 사회복지 행정의 변천

인천시의 사회복지행정의 변천을 보면 1945년 11월 1일 부훈령 제11호로 설치되었다. 사회과 사회계가 1952년 7월 1일 시규 제23호로 사회과내 구호, 시설원호, 노정 3계로 되었다. 그러다가 시 규칙 제204호로 제정한 인천시 직제(1966년 12월 3일)에 의한 보건사회국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과 내 부녀아동계가 부녀아동과로 승격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는 부녀아동과에서 관장을 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7월 가정복지국이 신설되어 보건사회국에 속하여 있던 부녀아동과가 가정복지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정복지국으로 소속되어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과 영세민 관계는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94년 7월 현재 인천시에는 65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65개동에서 영세민 구호사업업무를 보고 있다. 인천직할시 사회복지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표 8-1〉과 같다.

〈표 8-1〉 인천직할시 사회복지 행정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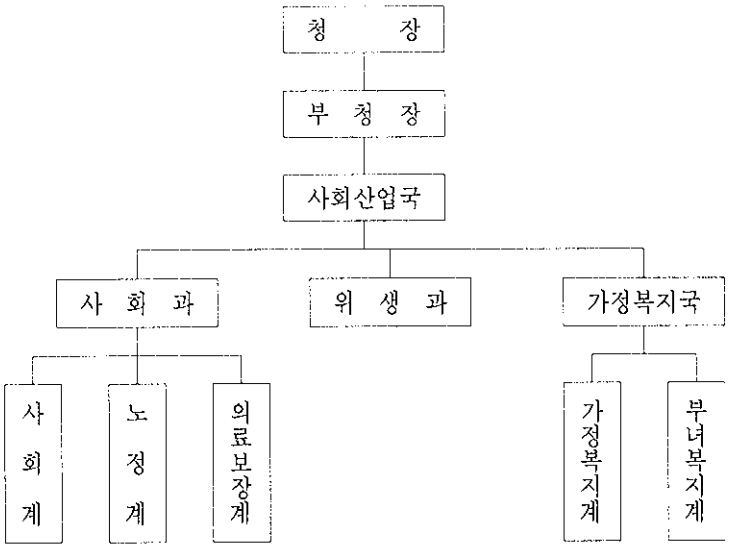

(2) 부평지역의 사회복지행정의 변천

북구의 사회복지행정은 인천시의 인구팽창에 따라 1956년 10월 1일 부평출장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8년 1월 1일 법률 제1919호로 구제 실시에 따라 부평출장소와 서곳출장소를 통합한 북구청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업무는 복지과 내 복지계와 부녀아동계에서 관장하다가 1988년 1월 25일 구직제 개편에 따라 부녀아동계가 가정복지과로 승격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되어 사회과에서는 장애인과 영세민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과 육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991년 7월 31일 사회산업국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사회산업국 소속으로 되었다.

북구는 1994년 7월 현재 17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7개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 기구표는 〈표 8-2〉와 같다.

〈표 8-2〉 북구사회복지 행정기구 도표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는 극히 짧다고 하였다. 멀게는 1900년대초라 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태동은 1950년대 이후라 볼 수 있다.

이런 토대 위에 북구의 사회복지는 1950년대 미군의 주둔으로 혼혈아, 전쟁고아들과 걸인들의 보호가 절실히 대두되어 사회사업가들의 관심과 일념으로 이곳 저곳에 복지시설이 설립되었고, 이들이 수용된 시설유지와 수용자들은 미군부대로부터 빵과 과자 등으로 연명케 하였으며 시설장비 보조로 유지되는 형편이었다. 또한 1960년대이후 농촌에서 무작정 이주한 저소득 영세민이 급격히 증가하여 북구에는 노동자, 걸인들이 점증하였다. 이렇게 북구 지역은 미군기지 부대촌 시설수용원, 영세민들로 혼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부

평공단이 조성되므로써 도시의 면모는 복잡다난했으나 구민생활상은 그야말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이 무렵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투자재원은 기대할 수 없었고, 다만 외국원조인 '480-Ⅱ 양곡지원'으로 생활보호 내지는 자활구호사업에만 지원받았다. 참고로 6·25후인 1952년부터 1953년의 구호대상자 실태를 살펴보면 〈표 8-3〉와 같다.

〈표 8-3〉 6·25후 구호대상자 현황

(단위 : 명)

| 년도 | 구역별 | 총 인 구 | | | 구호대상자 | | |
|---|---|---|---|---|---|---|---|
| | | 원주민 | 피난민 | 합 계 | 원주민 | 피난민 | 합 계 |
| 1952 | 본 청 | 126,634 | 65,824 | 182,458 | 46,946 | 55,191 | 102,237 |
| | 남동출장소 | 9,593 | 2,106 | 11,699 | 2,335 | 1,556 | 3,901 |
| | 문학출장소 | 6,590 | 496 | 7,086 | 1,299 | 133 | 1,432 |
| | 주안출장소 | 15,237 | 1,511 | 16,748 | 3,001 | 1,444 | 4,445 |
| | 부평출장소 | 25,478 | 4,476 | 29,854 | 21,771 | 4,134 | 25,905 |
| | 서곳출장소 | 7,843 | 963 | 8,806 | 2,343 | 965 | 3,308 |
| | 계 | 181,375 | 75,376 | 256,751 | 67,695 | 63,433 | 131,128 |
| 1953 | 본 청 | 123,229 | 69,881 | 193,110 | 27,374 | 36,640 | 64,014 |
| | 남동출장소 | 10,063 | 1,774 | 11,837 | 1,024 | 1,043 | 2,067 |
| | 문학출장소 | 6,312 | 354 | 6,666 | 1,154 | 306 | 1,460 |
| | 주안출장소 | 15,050 | 1,356 | 16,406 | 952 | 407 | 1,359 |
| | 부평출장소 | 26,534 | 3,833 | 30,369 | 4,721 | 2,307 | 7,028 |
| | 서곳출장소 | 7,794 | 734 | 8,528 | 415 | 357 | 772 |
| | 계 | 188,982 | 77,932 | 266,914 | 35,640 | 41,060 | 76,700 |

자료 : 인천시, 인천개항 100년사, 1990, p.332

위의 표를 참고로 하였을 때 1953년도 북구의 인구는 30,369명이었으며 구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전년도 보다 1,877명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호자 수가 감소한 원인은 UN 및 외국원조단체와 북구지역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에 기인되었다.

〈표 8-4〉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 년 도 | 계 | | 거택보호 | | 자활보호 | | 시설보호 | |
|---|---|---|---|---|---|---|---|---|
| | 가 구 | 인 원 | 가 구 | 인 원 | 가 구 | 인 원 | 가 구 | 인 원 |
| 1987 | 3,011 | 10,047 | 843 | 1,706 | 2,168 | 8,344 | 16 | 1,573 |
| 1988 | 2,317 | 7,409 | 778 | 1,576 | 1,539 | 5,833 | 12 | 913 |
| 1989 | 3,088 | 8,768 | 1,161 | 1,890 | 1,927 | 6,878 | 12 | 894 |
| 1990 | 1,678 | 4,365 | 832 | 1,450 | 846 | 2,915 | 9 | 836 |
| 1991 | 2,929 | 7,939 | 1,099 | 1,769 | 1,830 | 6,170 | 7 | 753 |
| 1992 | 2,377 | 6,177 | 978 | 1,595 | 1,399 | 4,582 | 10 | 760 |
| 1993 | 3,108 | 8,970 | 1,115 | 1,978 | 1,982 | 6,011 | 7 | 576 |

출처 : 인천시 북구, 인천시북구통계연보, 1994, p.138

북구의 생활보호자 현황(〈표 8-4〉 참조)을 보면 1987년도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843가구에 가구원이 1,703명이고, 자활보호자가 2,168가구 8,344명, 시설보호자는 어린이 육아시설을 비롯하여 장애자 시설들에 수용된 자들을 포함하여 16개소 1,573명으로 총 3,011가구 10,047명이었다.

1993년 말에는 3,108가구에 8,970명으로 구호인원은 줄었으나, 가구는 늘어난 현상을 나타냈으나 이는 1인1가구 현상인 단독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때문으로 본다. 북구의 구호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거 65세이상의 노약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며, 시설보호 대상자는 위 보호자들 시설에서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거택보호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인 식량, 연료, 의료등의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1990년대초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표 8-5〉와 같다.

〈표 8-5〉 생계비 지원 기준

| 구분 \ 대상별 | | 거택보호대상자 | | 시설보호대상자 | |
|---|---|---|---|---|---|
| | | 1991 | 1992 | 1991 | 1992 |
| 양 곡 | 백 미 | (인/월) 10kg | 좌 동 | (인/월) 456kg | 좌 동 |
| | 정 맥 | (인/월) 2.5kg | 좌 동 | (인/월) 114kg | 좌 동 |
| 부식비 | 세대주(인/일) | 550원 | 600원 | 550원 | 600원 |
| | 가구원(인/일) | 220원 | 400원 | — | — |
| 연료비(가구/일) | | 513원 | 좌 동 | 50원 | 50원 |
| 피복비(일/년) | | — | — | 46,040원 | 47,420원 |

〈표 8-6〉 생활보호자 구호양곡지급 (단위:kg)

| 년도 | 인 원 | 구 호 양 곡 | | |
|---|---|---|---|---|
| | | 계 | 쌀 | 보리(정맥) |
| 1987 | 10,047 | 256,099 | 204,993 | 51,106 |
| 1988 | 18,912 | 245,184 | 196,265 | 48,909 |
| 1989 | 28,328 | 428,217 | 343,283 | 84,934 |
| 1990 | 17,081 | 225,190 | 180,218 | 44,972 |
| 1991 | 18,696 | 222,607 | 178,088 | 44,519 |
| 1992 | 18,986 | 236,813 | 189,062 | 47,751 |
| 1993 | 19,475 | 242,756 | 193,776 | 48,980 |

한편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지급상황은 〈표 8-6〉과 같다.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구호양곡으로는 주로 쌀과 보리였으며, 1일 기준으로 한 달분씩을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1987년도에는 10,047명에게 쌀 204,993kg, 보리 51,106kg, 도합 256,099 kg을 지급하였다.

한편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구호양곡지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으로부터 이주한 인구증가와 노년층, 직장인들의 퇴직, 산업재활자 발생 등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 1993년도의 경우 19,475명에게 쌀 193,766kg, 보리 48,980kg 총 242,756kg의 양곡이 지급되었다.

② 자활보호 및 취로보호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가구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실업, 생활난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운 자,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로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시적 어려운 형편으로 빈곤의 탈피를 위해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8-7〉 취로 구호 사업실적

| 년 도 | 사업장수 | 취로가구 | 취로인원 | 노 임 지 원 (천원) | | |
|---|---|---|---|---|---|---|
| | | | | 계 | 국 비 | 지방비(시·구) |
| 1987 | 35 | 3,556 | 74,383 | 447,348 | 333,324 | 114,024 |
| 1988 | 20 | 1,313 | 28,605 | 208,972 | 137,572 | 71,400 |
| 1989 | 28 | 1,251 | 17,258 | 128,045 | 47,696 | 80,349 |
| 1990 | 26 | 715 | 14,475 | 128,910 | 78,352 | 50,558 |
| 1991 | 46 | 930 | 8,473 | 101,670 | 78,732 | 22,936 |
| 1992 | 26 | 989 | 5,907 | 86,340 | 60,000 | 26,340 |
| 1993 | 25 | 845 | 6,304 | 102,814 | 64,032 | 38,782 |

출처 : 인천시 북구, 북구통계연보, 1994, p.115

따라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는 취로사업으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북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7〉 참조)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구호가 우선이므로 사업의 실적이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이들의 노력이나 근로에 적합한 하천의 준설, 가로변 풀뽑기 등 단순한 성질의 사업이었다. 노임은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대신 구호양곡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먼저 취로 대상자를 살펴보면, 1987년에는 35개 사업장에 3,556가구 74,383명이고 1988년에는 1,131가구 28,605명으로, 1987년보다 가구수는 77.1%가 감소되었으며, 취로가구는 15% 감소되어 자립 또는 자활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임지급도 1987년 당시는 국비 333,324천원, 시·구비 114,024천원, 총 447,348천원을 지급하였으나, 1993년에는 국비 64,032천원, 지방비 38,782천원, 총 102,814천원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③ 자립의지 기반 조성

국가경제가 향상되고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국민소득이 높아져 국민생활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이는 국가나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고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 간의 소득격차는 아직도 심화되고 있다. 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1980년대에 지속적인 발전과 190년대 중진국을 향한 과정에서 산업이 발전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저소득 영세민은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저소득 서민들의 보호대책으로 자립의지를 조성하고자 1988년도 북구청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영세민들의 생업자금과 전세, 월세자금을 지원한 것이 860여가구에 120,000,000원, 영세민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한 학비보조가 184,556,000원, 이 밖에 이웃돕기 보상금등 지원혜택을 받게 하였다.

④ 도시지역 의료보험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기업체 및 근로자의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된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환자나 질병이 발생하면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임으로, 정부에서는 1989년 7월 1일부터 정부지원과 국민부담으로 대도시 지역부터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북구에도 1988년 11월 22일부터 보험 업무가 이뤄져, "인천직할시 북구지부 의료보험조합"의 명칭으로 1989년 4월 1일 지부가 설립되었다. 당시 지부장은 북구지부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으며, 조합직원은 지부장을 포함 2급 1명, 3급 2명, 4급 4명, 5급 19명, 6급 26명, 별정직 4

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의료보험적용대상자는 46,739가구 158,073명으로, 북구 인구 525,203명의 31.8%가 혜택을 받았다. 1989년의 보험료는 세대당 1,200원, 피보험자인 가구원 1인당 900원, 소득비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800원에서 19,100원까지 15등급으로 부과되었으며, 재산비례보험료도 600원에서 12,000원까지 1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였다.

### 2) 사회복지시설

(1) 운영관리 및 시설현황

북구의 사회복지시설은 구세 확장 및 지역발전과 더불어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미군의 주둔과 피난민 정착 그리고 농촌인구의 급격한 이동 현상 등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형편에 놓여있다. 이들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전·월세가 비교적 낮은 도시 외곽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이용한 무허가건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영세민 집단촌과 달동네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십정1동과 부개동, 효성동 지역을 꼽을 수 있다.

1910년 인천부가 설치된 이래 초기의 사회복지시설로는 직업안정소, 근로자합숙소 등을 들 수 있다. 직업안정소는 시립도서관 아래 중구 율목동 58번지에 1920년 7월 1일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위치에 근로자 합숙소도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후 1942년 10월 1일 부평에 공회당이 건립되었으며, 그 운영권은 1962년 5월 24일 인천시에 이관되었다. 그러다가 1952년 5월 25일 북구 십정동 185번지에 고아원인 신명보육원이 부평에서는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으며, 당시 수용대상자로는 육아인 어린이들이었다.

〈표 8-8〉 사회 복지 시설 현황

| 종 별 |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립일자 |
|---|---|---|---|
| 육 아 | 시온 육아원 | 북구 일신동 62 | 53. 9. 6. |
| 육 아 | 신명 보육원 | 십정동 185 | 52. 5.26. |
| 시각장애 | 인천 광명원 | 십정동 185 | 56. 1. 7. |
| 청각장애 | 성 동 원 | 부평동 756 | 53.12.20. |
| 정신박약 | 예 림 원 | 부평동 662 | 59. 3. 1. |
| 지체부자유 | 성린 재활원 | 십정동 501 | 57. 7. 1. |
| 지체부자유 | 은 광 원 | 부개동 347 | 73. 3.30. |
| 아동직업보도 | 명성직업훈련원 | 산곡동 산113 | 64.12. 5. |
| 아동직업보도 | 구세군직업훈련원 | 산곡동 369 | 83. 7. 2. |
| 부녀직업보도 | 협성기술양성원 | 산곡동 370 | 62.12. 1. |
| 부녀직업보도 | 평화의 집 | 산곡동 370 | |

출처 : 인천시북구청, 북구통계연보, 1994, p.133

이후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늘어 1980년대말 북구의 사회복지 시설은 모두 11개소로 인천 어느 구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원이 2개소, 시각장애시설 1개소, 청각장애시설 1개소, 정신박약시설 2개소, 지체부자유시설 2개소, 아동직업훈련원 2개소, 모자보호, 부녀직업양성원이 각각 2개소에 수용인원 904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1인 1일 백미 450g, 정맥 114g, 육아는 288g, 부식비는 1인 1일 550원, 피복비는 년간 46,040원, 연료비 50원씩 지급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도 이들 수용시설 이외에 노인복지회관, 나환자정착시설, 부녀복지회관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2) 노인복지 시설

한국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1950년부터 1960년대에는 60세 전후였으나, 국민소득의 향상과 사회환경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1970년 이후에는 10여세가 늘어났다.

그렇지만 우리의 숭고한 경로효친사상은 점차 없어지고 핵가족화와 더불어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과 같은 미풍양속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던 차에 날로 증가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이 북구에 설치되어, 1987년도에는 시립이 14개소, 사립이 69개소이던 것이 1993년도에는 시립이 29개소, 사립이 158개소로 6년 사이에 총 187개소로 2배이상 늘어났다.(〈표 8-9〉 참조)

〈표 8-9〉 노인정 현황

| 년 도 | 계 | | 시 립 | | 사 립 | |
|---|---|---|---|---|---|---|
| | 개 소 | 인 원 | 개 소 | 인 원 | 개 소 | 인 원 |
| 1987 | 83 | 4,194 | 14 | 1,090 | 69 | 3,107 |
| 1988 | 63 | 14,047 | 12 | 338 | 51 | 13,709 |
| 1989 | 95 | 4,690 | 9 | 1,020 | 86 | 3,670 |
| 1990 | 111 | 5,468 | 9 | 521 | 102 | 4,947 |
| 1991 | 140 | 6,874 | 15 | 756 | 125 | 6,118 |
| 1992 | 166 | 9,445 | 20 | 1,137 | 145 | 8,308 |
| 1993 | 187 | 9,163 | 29 | 1,421 | 158 | 7,742 |

출처 : 인천북구청, 북구통계연보, 1994, p.134

(3) 나환자 시설

세계적인 난치병으로 의학계의 커다란 과제로 대두된 나환자들에 대한 수용 시설로는 소록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걸쳐 설치되었다.

1960년 이전에는 국민생활의 빈곤과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구호 대상자나 복지시설에 대한 공적부조는 빈약한 실정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져 국민소득은 물론 정부재정도 크게 팽창되어, 우리사회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비지원과 복지행정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일반인들과의 생활을 격리시켰

던 나환자들에게 일정한 정착지를 마련하여 정비지원과 자활사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북구의 경우 나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에 258명이던 것이 1993년 현재 242명으로 다소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8-10〉 참조)

〈표 8-10〉 나환자 현황

| 년도 | 계 | | | 정착 | | | 재가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1987 | 258 | 131 | 127 | 222 | 108 | 114 | 36 | 23 | 13 |
| 1988 | 252 | 124 | 128 | 219 | 102 | 117 | 33 | 22 | 11 |
| 1989 | 250 | 122 | 128 | 217 | 100 | 117 | 33 | 22 | 11 |
| 1990 | 244 | 117 | 127 | 212 | 97 | 115 | 32 | 20 | 12 |
| 1991 | 245 | 118 | 127 | 211 | 97 | 114 | 34 | 21 | 13 |
| 1992 | 244 | 118 | 126 | 207 | 94 | 113 | 37 | 24 | 13 |
| 1993 | 242 | 116 | 126 | 204 | 92 | 112 | 38 | 24 | 14 |

출처 : 인천북구청, 북구통계연보, 1994, p.118

한편 수용소로는 인천지역에 남동구 2개소, 북구 2개소 등 모두 4개소의 시설이 있다. 인천지역에서 최초의 수용시설로는 1960년대 초에 남동구 간석동 공동묘지 옆에 설립된 부평농장이었다. 그 후 2~3년 사이 시설의 포화 상태와 인구증가로 북구지역에는 십정2동과 청천동에 각각 십정농장, 청천농장의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들의 삶의 수단으로 양계와 양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생활보호자라는 법적 적용을 받아 정부지원이 계속되었다.

처음 정착시에 비해 현재는 사회에 많이 적응하고 있으며, 1987년도에는 2개 시설에 남자 131명, 여자 127명, 총 258명이다. 이들은 자녀가 많지 않고 이주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 1993년도에도 남자 116명, 여자 126명, 총 242명에 불과하다.

누구보다도 불우하고 사회적인 소외속에서 살아온 이들이지만 현재는 도시 발달과 더불어 축사가 변형되어 중소기업들에게 건물 임대로 과거보다는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 9. 문화공보행정(文化公報行政)

### 1) 문화행정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징물 제정

1960년대 부평지역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수출 전진기지로 개발되어 한국수출공단 4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타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이르

러서는 산곡동과 부평동 일대에 현대·동아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각종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삼국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역적 특색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경향이 짙었다. 동시에 애향심도 사라지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21대 이용기(李龍起) 북구청장 재직시부터 북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대화합의 장을 열기 위한 계기를 마련키 위해 구의 상징물 제정을 서두르게 된다.

그리하여 1993년 5월 4일 상징물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해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민의 날은 10월 1일, 구조(區鳥)는 비둘기, 구목(區木)은 은행나무, 구화(區花)는 국화로 선정되었다. 그런 다음 지역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징물 제정심사위원회의 수차에 걸친 심사·수정작업을 거쳐 이듬 해 5월에 구기(區旗), 구민헌장, 그리고 구민의 노래를 제정하여 구민 화합의 상징으로 삼았다.

○ 구민헌장

민족의 얼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내고장 부평은 첨단산업의 요람이자 동서를 잇는 교통의 혈맥으로 세계를 여는 관문이다.

너와 나 자랑스런 구민으로서 알찬 슬기를 모아 전통문화를 꽃 피우고 풍성한 삶의 터전 가꾸어 웅비하는 인천, 영광된 새 북구 창조하자.

○ 구민의 노래

(1 절) 계양산 힘찬 정기 숨쉬는 터에 슬기와 땀으로 건설한 도시
한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서 알뜰한 보금자리 다져 나가세

후 렴 계양산에 새 역사를 펼쳐가리 부평 뜰에 새 문화를 꽃 피우리
아! 아! 우리의 자랑 인천 북구

(2 절) 부평별 넓은 기상 샘솟는 터에 이 강산 살찌운 산업의 요람
사랑과 봉사로 힘써 일하여 영원한 삶의 터전 가꾸어 보세

(3 절) 서해의 푸른 소망 꿈서린 터에 높은 해 밝은 내일 희망찬 우리
가슴마다 차오르는 꿈을 엮어서 끝없는 번영의 길 이루어 가세

○ 구 기

– 인천광역시 북구구기등에 관한 조례 –

〈1988. 5. 1 조례 제10호〉

북구의 'ㅂ'과 구조(區鳥)인 비둘기 상징




북구의 구조인 비둘기의 평화로운 형상을 상징하고 있는 형태로서 ⊙는 북구의 'ㅂ'자를 의미한다.

北區의 北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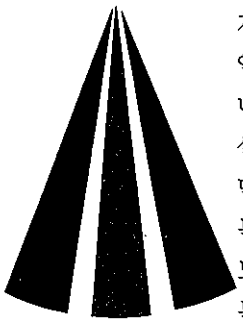
북구(北區)의 '北'자를 상징하며, 외곽의 둥근원은 區와 區民간의 화합을 의미하고 협동단결하여 미래로 도약하는 북구의 발전상을 상징함.

北區의 발전 목표 상징

떠오르는 태양의 형상으로 북구의 발전을 의미함.




仁川의 '川'자와 도약상징



가운데 아래의 선 3개는 인천(仁川) 한자의 '川'을 나타낸다. 또한 공업 및 건설에 대한 도약의 상징을 담은, 뻗어나가는 형태로 북구를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를 동시에 상징하며 북구의 희망과 발전 및 건설을 의미함.

色 의 의 미

- 青색 : 근면한 기질과 의욕이 하늘과 같이 높고 밝으며 깨끗함을 나타냄.
- 綠색 : 자연과 같은 푸르름과 청렬함. 그리고 온화한 區의 느낌을 나타냄.

—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

〈전문개정 1994. 9.27 조례 제346호〉

〈1995. 5. 9 조례 제382호〉

(도안 및 색상)




(부분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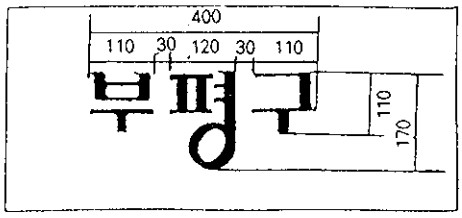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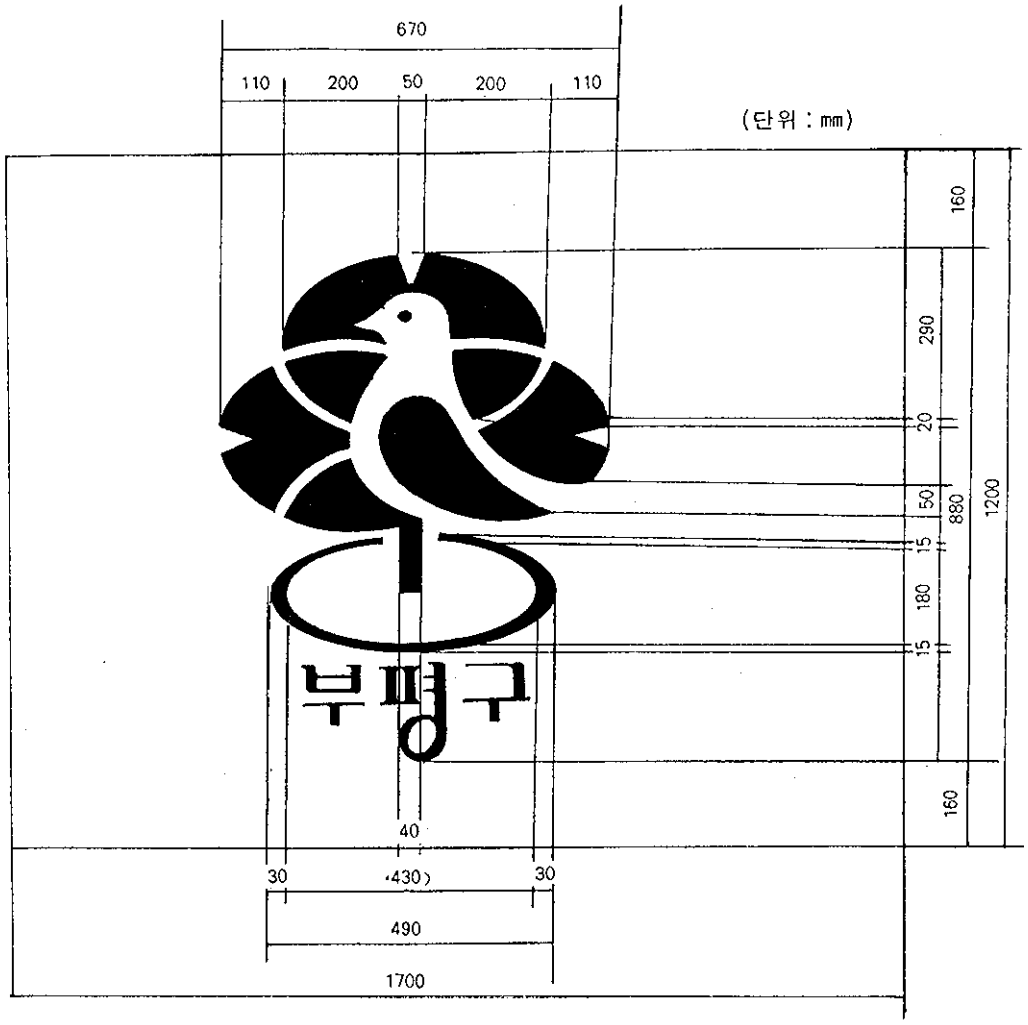


부평구

1. 비둘기를 형상화하여 평화롭고 온화한 살기좋은 부평구조의 상징
2. PUPYONG의 'P'를 뜻하며 구목인 한그루의 은행나무를 형상화하여 자연의 조화, 구민의 화합을 무궁한 번영을 상징
3. 타원의 형상은 최첨단 산업의 요람지임을 뜻하며 웅비하는 새 부평의 의미지를 도식화
4. 청색 : 희망찬 전진　　녹색 : 자연과 젊음

(구기규격)


400
110
30
120
30
110
부평구
110
170


670
110
200
50
200
110
(단위 : mm)
160
290
20
50
880
15
180
15
1200
160
부평구
40
30
(430)
30
490
1700

○ 구민의 날 : 10월 1일

구민 16,370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5월 1일 1,311명(8.0%), 7월 1일 998명(6.1%), 7월 7일 370(2.3%), 9월 1일 495명(2.7)명, 10월 1일 777명(4.7%), 10월 10일 446명(2.7%), 기타 11, 973(73%)순으로 집계됐으나 5월 1일은 남구 구민의 날과 겹치고, 7월 1일은 인천시민의 날과 겹침에 따라 10월 1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특히 10월 1일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이며 일년을 마무리하는 분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수확과 나눔의 기쁨을 안겨주는 시기로서 구민 대화합 차원에서 가장 적절한 일자인 것으로 제정심사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하게 됐다.

○ 구의 나무 : 은행나무

(특 징) 암수가 마주있어야 열매를 맺고 자생력이 강함

(상 징) 구민화합과 구가 힘차게 발전함을 상징

○ 구의 꽃 : 국 화

(특 징) 성스러운 영초로서 가을의 대표적인 꽃

(상 징) 은근하고 친근감있는 다정한 구민상 표현

○ 구의 새 : 비 둘 기

(특 징) 성질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름

(상 징) 소박하며 평화를 소망하는 구민의 성품을 상징

(2) 문화·체육행사

'94년 10월 1일 제1회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그동안 비공식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구민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구민행사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6년에 와서는 최용규 초대민선 구청장이 제3회 구민의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부평구와 문화예술발전진흥을 위하여 전례없는 제1회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구민생활체육대회

■ 제 1 회 체육대회

• 일 시 : '94년 10월 1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40분

• 장 소 : 계산잔디구장

• 참가종목 및 선수수 : 12개종목(13세부종목) 1,632명
  - 남 자 경 기 (2) : 100m 달리기, 볼끼고 달리기
  - 여 자 경 기 (4) : 100m 달리기, 협동줄넘기, 훌라후프 돌리기
  - 혼 성 경 기 (5) : 800m 릴레이, 굴렁쇠 굴리기, 열차경기, 발배구, 줄다리기
  - 노 인 경 기 (1) : 꼬깔쓰고 공차돌기
  - 어린이놀이 (1) : 세발자전거타기 (남)
• 대회결과
  - 종합성적 : 우승 = 갈산1동, 준우승 = 효성2동, 3위 : 부평4동
  - 응 원 상 : 은행나무상 = 갈산2동, 국화상 = 계양1동, 비둘기상 = 부평6동
  - 입 장 상 : 부개3동






■ 제2회 체육대회

- 일 시 : '95년 10월 1일(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 소 : 백운공원
- 참가종목 및 선수수 : 8개종목 941명
  - 혼성경기 (5) : 800m 릴레이, 줄다리기, 열차경기, 애드벌룬굴리기, 박터트리기
  - 여자경기 (1) : 협동줄넘기
  - 노인경기 (1) : 밀가루속의 떡물고 달리기
  - 내빈경기 (1) : 800m 릴레이
- 대회결과
  - 종합성적 : 우승 = 부평4동, 준우승 = , 3위 =
  - 응원상 : 1위 = 부개2동, 2위 = 청천1동, 3위 = 십정2동
  - 입장상 : 부개4동

■ 제3회 체육대회

- 일 시 : '96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 소 : 백운공원
- 참가종목 및 선수수 : 6개종목 816명
  - 혼성경기 (2) : 열차경기, 줄다리기
  - 노인경기 (1) : 애드벌룬굴리기
  - 어린이경기 (1) : 훌라후프돌리기
  - 여자경기 (2) : 협동줄넘기, 부녀자축구대회
- 대회결과
  - 종합성적 : 우승 = 부평1동, 준우승 = 부평2동, 3위 = 부평4동
  - 응원상 : 1위 = 갈산1동, 2위 = 산곡1동, 3위 = 십정1동
  - 특별상 : 삼산동

○ 구민사진공모전

■ 제1회 가족사진 공모전

- 공모기간 : '93년 5월 24일 ~ 5월 31일
- 출품작 : 138점
- 입선작품 : 38점

- 대 상 : 가족나들이 (김동출 작) 주소 :
- 금 상 : 뽀뽀뽀 ( 이종애 작) 주소 :
- 은 상 : 무제 (이창만 작) 주소 :
  아이 차가워 (오은주 작) 주소 :
- 동 상 : 모정 (황재연 작) 주소 :
  남매의 경주 (최복수 작) 주소 :
  웬! 돼지 삼형제 (박미경 작) 주소 :
- 장려상 : 모정 (최정해 작) 주소 :
  가위 바위 보 (김창수 작) 주소 :
  앞으로 (송영철 작) 주소 :
  즐거운 한때 (정월영 작) 주소 :
  정 (조규범 작) 주소 :
  할머니와 나들이 (최미숙 작) 주소 :
- 입 선 : 조윤선씨외 24점

■ 제2회 가족사진 및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진 공모전

- 공모기간 : '94년 9월 5일 ~ 9월 14일
- 출 품 작 : 207점
- 입선작품 : 43점
  - 대 상 : 하모니 (안현주 작) 주소 :
  - 금 상 : 우정 (황재연 작) 주소 :
  - 은 상 : 행복한 우리 가족 (허병택 작) 주소 :
    행복 (이기범 작) 주소 :
  - 동 상 : 생각 (황인희 작) 주소 :
    내아들 (이창만 작) 주소 :
    아이 예뻐 (나승업 작) 주소 :
  - 장려상 : 아빠와 함께 (이찬영 작) 주소 :
    만족 (이금란 작) 주소 :
    3부자 (박지원 작) 주소 :
    뽀뽀 (이수경 작) 주소 :
    가위 바위 보 (이경수 작) 주소 :

모두 함께 (안재영 작) 주소 :

- 입 선 : 김희경씨외 29점

■ 제3회 가족사진 공모전

• 공모기간 : '95년 5월 1일 ~ 5월 10일 (10일간)

• 출품작 : 92점

- 대 상 : 자매 (황재연 작)
- 금 상 : 과자먹기 (안은주 작)
- 은 상 : 핵가족시대 (이사철 작)
  자매 (김은권 작)
- 동 상 : 일손돕기 (나승엽 작)
  엄마! 나 이뻐? (허형규 작)
  효친 (위대성 작)
- 장려상 : 휴일 하오 (이사철 작)
  개구장이 장난 (이순애 작)
  할아버지와 나들이 (이금란 작)
  가족놀이 (김양희 작)
  풀밭에서 (김원태 작)
  나들이 (박철완 작)
- 입 선 : 이장래씨외 21점

○ **여성합창제**

여성 노래동호인들에게 평소 연마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여성합창제를 개최했다.

■ 제1회 여성합창제

• 일 시 : '93년 10월 30일 14:00 ~ 17:00

• 장 소 : 부평1동 신협회관(부평1동 성당 앞)

• 합창단과 합창곡

- 한국음악학원 어머니합창단(대표 김인숙) : 도라지 타령, 이 모든 세상이 너의 것
- 부평남국교 어머니합창단(대표 홍연자) : 고향의 노래, 구르는 소리
- 북구 어머니합창단(대표 최소영) : 고양의 노래, 인당수

- 인천대정국교 어머니합창단(대표 석희순) : 남촌, 즐거운 웃음
- 에덴성결교회 어머니합창단(대표 이길환) : 항구의 종, 노래소리들려
- 북구 새마을부녀회 어머니합창단(대표 장정렬) : 푸른열매, 저구름 흘러가는 곳
- 산곡남중 어머니합창단(대표 이형숙) : 들장미, 춤추는 춘향이

■ 제2회 여성합창제

• 일　　시 : '94년 10월 29일(토) 14:00 ~ 17:00

• 장　　소 : 여성문화회관 2층 대강당(갈산2동 소재)

• 합창단 및 합창곡

- 부평감리교회 여선교성가대(대표 홍은파) : 사랑은 언제, 능하신 주의손
- 부평남국교 어머니합창단(대표 권경순) : 산길, 잊혀진 계절
- 북구 어머니합창단(대표 최소영) : 사공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 부평농협 주부대학합창단(대표 이계호) : 푸른열매, 물새알 산새알
- 산곡남중 어머니합창단(대표 이형숙) : 새타령, 그네
- 부흥국교 어머니합창단(대표 최민수) : 고향의 노래, 사랑의 미로
- 부원국교 어머니합창단(대표 최소영) : 그대 있는 곳까지, 새파란 하늘에
- 평화교회 어머니합창단(대표 장효희) : 산마다 불이탄다 고운 단풍에, 고향 그리워

○ 구민노래자랑

'94년 10월 1일 제1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KBS 인기프로인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구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신명나는 축제한마당이 펼쳐넸는데, 이를 계기로 매년 구민들이 자신의 장기와 노래를 뽐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 제1회 구민노래자랑

• 일　　시 : '94년 9월 29일(목) 13:00

• 장　　소 : 부평근린공원

• 대회진행내용

'94년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결과 총 455명이 접수되어 1차 예심을 치뤄 16명의 최종 결선자를 선발, 본선을 치루게 되었는데 약 1만여명을 상회하는 관람객이 몰려들어 공원전체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성공적인 주민행사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 최우수상 : 김여옥 (계산2동, 비가, 작사·작곡 )
- 우 수 상 : 염소영(부평6동, 사랑을 위한 밤, 작사·작곡 )
- 인 기 사 : 박향례 (일신동, 날버린 남자, 작사·작곡 )
  염소영 (심정동거주, 중국 흑룡강성 교포, 낭랑십팔세, 작사·작곡 )

○ 꽃꽂이 전시회

국화가 구화로 지정됨에 따라 제1회 구민의 날에 구화를 널리 알리고 구역 주부층간의 친교의 장을 마련키 위해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 제1회 꽃꽂이 전시회
- 기 간 : '94년 10월 4일(화) ~ 10월 8일(토)
- 전시장소 : 여성문화회관(부평4동)
- 출 품 작 : 일반주부 37개 작품, 여성공무원 4개 작품
- 입 선 작
  - 최우수상 : 웨딩 (김안순 작) 주소 :
  - 우 수 상 : 사랑의 둥지 (인난영 작) 주소 :
    모래위의 욕망 (국현옥 작) 주소 :
  - 장 려 상 :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경년 작) 주소 :
    희귀 (김형숙 작) 주소 :
    가을정원 (박소영외 2인) 주소 :

(3) 문화시설

○ 부평문화회관 건립 추진

1968년 1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가 통합돼, 북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래 '88년 1월 1일 백석, 시천, 검암, 경서, 연희, 공촌, 심곡, 가정, 신현, 석남, 원창, 가좌지역이 서구로 분구되었다.

그러나 그 해 5월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분구된지 1년만에 계양면이 편입되어 총 면적이 76.872㎢로 확대되었으며 인구도 75만에 달하는 거대구로 성장했다.

양적 팽창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지역문화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부평지역주민들은 자연히 서울문화권에 예속되는 현상을 빚게 되고 만다.

이러던 차에 '89년 2월 지역문화창달의 기치를 내걸고 계산동 724번지외 2필지 상 대지 3,

328㎡에 연건평 2,895㎡, 지하2층 지상3층의 건축규모에 846석의 전문공연시설을 비롯, 163㎡의 전시장과 143대 주차시설을 갖춘 부평문화회관이 '95. 4월 완공되었다.

■ 추진상황

- '89. 2. 24 : 건립 후보지 선정 및 기본계획 확정
- '89. 3. 22 : 부평문화회관 건립계획 수립
  - 총사업비 : 50억원
  - 위 치 : 계산동 724번지
  - 부지면적 : 2,488㎡
  - 연 건 평 : 1,900㎡
  - 주요시설 : 대강당, 소강당, 전시장, 교양실
- '89. 7. 15 : 부평문화회관 설계현상 공모
- '89. 10. 5 : 당선작 결정 (미래환경, 명인종합건축사)
- '90. 2. 26 : 건설부 대형공사 집행 승인
- '90. 6. 1 :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고시
- '90. 10. 18 : 착 공
- '90. 12. 29 ~ '91. 1. 22 : 동절기 공사중단
- '91. 1. 23 : 부평문화회관 설계·재검토에 따른 선진지 비교시찰
  - 기 간 : '91. 1. 24 ~ 1. 26
  - 시찰자 : 관계공무원 3명과 감리업체 1명(초석미래종합건축사무소)
  - 시찰지 : ① 경기도 종합문화예술회관(수원), 구미문화회관
    ② 광명시 시민회관, 경남도립 문화예술회관(진주)
- '91. 3. 22 : 부평문화회관 설계변경

  부지면적 3,476㎡, 연건평 2,895㎡ 등 건축규모를 확대하고 대강당을 843석 규모의 전문공연시설로 전환, 각종 무대공연시설을 보강하였고 지하주차장(300㎡)을 대표 확장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118억 2천 3백만원으로 당초 설계금액의 2배가 증액되었다.
  - 무대설비확충 : 오케스트라 리프트, 스테이지 리프트, 싱잉스테이지, 무대조명
  - 내부인테리어 및 방송시스템 확충
  - 무대통신 보조설비, 중앙감시 설비시스템 보강
  - 지하수 개발 및 조형물 설치

• '92. 11. 30 : 공사 재개
• '95. 4 : 준 공

○ 부평도서관

인천광역시 북구 십정동 186-45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도서관은 1981년 12월 14일 부평도서관 설치조례 공포(인천직할시 조례 제1431호)에 의거 1982년 5월 18일 준공·개관되었다. 1982년 7월 1일 초대 김순원 관장이 취임했고, 그후 1988년 1월 26일 제4대 강동린 관장이 취임한 후 1988년 5월 7일에는 본관 4층을 증축했으며 동년 7월 8일에는 휴게실 증축도 보게됐다. 그후 1991년 8월 27일 제5대 이용범 관장이 취임했고 1992년 5월 18일 개관 10주년 행사를 가졌다.

본 도서관은 1992년 9월 현재 관장을 중심으로 서무과, 열람과, 사서과 등 3과로 되어 있고 일반직 4명, 사서직 12명, 기능직 20명 등 총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방향을 ①열람질서 확립 ②독서운영 전개 ③도서자료 확충 ④독서환경 개선으로 정하고 주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독서교실 운영, 독서주간행사, 주부독서회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연계 협력지원, 우수독후감상문 발간배 및 배포 등이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부지는 총 5,726㎡로서 건물은 본관 1동(2,740㎡)과 부속건물 1동(489㎡)이 있고, 여기에는 10실의 열람실과, 4실의 자료실, 그리고 총 1,232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장서수는 1992년 9월 1일 현재 84,987권에 달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수는 연간 33만명에 이르고 있다.

○ 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4동 88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북구도서관은 1991년 3월 22일 북구도서관 설치조례 공포(인천직할시 조례 제2494호)에 의거 1991년 8월 23일 준공되어 1991년 9월 26일에 개관을 보게 된 도서관이다.

개관과 함께 초대 이용한 관장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관장을 포함하여 일반직 4명, 사서직 11명, 기능직 15명 등 총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개관과 함께 본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 풍부한 교양, 함께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①풍부하고 다양한 자료확보 및 최신성 유지 ②평생교육 기반조성 ③문화정보센터로서의 기능신장 ④쾌적한 환경조성 ⑤직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와 적극적인 봉사 등을 운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시설환경을 살펴보면 장서수는 1992년 9월 1일 현재 11,274권에 달하고 열람석을 1,078석에 이르고 있다.

○ 공 연 장

1962년 부평역 부근 지금의 부평1동 347번지에 대한극장이 총 4백석 규모에 현대식 영사설비와 대형무대를 갖추고 건립된 것을 시발로 '63년에는 백마극장과 금성극장, '65년 10월에는 부평극장이 잇달아 건립되에 따라 부평지역이 경인지역의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이 후 답보상태를 거듭해 오다 80년대말 들어 효성극장, 계산예술극장, 부평문화극장, 청천극장, 대성극장, 동암시네마, 현대시네마 등 1백석에서 2백석 내외의 소극장들이 연이어 문을 열었으나 이류극장이란 오명을 벗지 못한 채 일부 극장은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부평극장과 금성극장은 '88년 극장 내외부 정비작업을 통해 개봉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외국영화에서 방화에 이르기까지 수준높은 영화상영으로 지역주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음으로써 영화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북구에 소재한 공연장 현황은 〈표 9-1〉과 같다.

〈표 9-1〉 공연장 현황

| 연번 | 공연장명칭 | 소 재 지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공연장의종류 (좌석수) | 전화번호 |
|---|---|---|---|---|---|---|
| 1 | 부 평 극 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201-9 | 소 용 일 | 530926 -1140817 | 대 극 장 (548) | 518-5605 |
| 2 | 대한극장 1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534-27 | 김 윤 봉 | 450610 -1155126 | 소 극 장 (230 | 522-0394 |
| 3 | 대한극장 2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534-27 | 김 윤 봉 | 450610 -1155126 | 소 극 장 (174) | 522-0394 |
| 4 | 부평문화극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11-10 | 윤 홍 선 | 420827 -1068815 | 소 극 장 (97) | 513-7474 |
| 5 | 청 천 극 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11-35 | 김 영 안 | 620824 -1067639 | 소 극 장 (131) | 529-0303 |
| 6 | 동 암 소 극 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403 | 박 웅 소 | 500113 -1068712 | 소 극 장 (190) | 438-2233 |

## 2) 공보행정

### (1) 공보행정의 변천

공보행정이라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어 공중으로부터 동의, 이해, 협력, 신뢰 등을 확보·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선의적인 공익기능이라 할 것이다.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이라 할 수 있는 언론홍보활동, 둘째는 홍보주체가 독자적으로 인쇄한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이뤄지는 인쇄매체 홍보활동, 셋째는 회의, 방문, 간담회 등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대민홍보활동이다.

이를 볼 때 부평지역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보행정이 실시된 것은 언론자유화 이후 지방 언론사가 앞다퉈 창간된 88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부평지역에 근대화된 행정체계가 자리를 잡은 시점은 1968년 구제실시에 따라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를 통합, 북구가 탄생된 시기로 잡을 수 있는데 가난극복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때인 만큼 국정시책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홍보단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공보행정은 총무분야의 구민들의 구정참여 유도라는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행정수행을 위한 보조수단 기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공보행정의 낙후성은 그 뒤 '88년 5월 자치구 승격에 따라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가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20년 후까지 답보상태를 거듭하게 된다.

'88년 5월 1일 기구 재편성에 따라 새로 조직된 기획감사실내에 공보계가 생기고, 이어 '88년 7월 15일 인천일보 창간을 시발로 그해 7월에 기호일보, 8월에 경기일보, 12월에 경인매일신문이 뒤를 잇게 된다. 그리고 '91년 2월에는 중부일보와 수도권일보가 '92년 9월에는 경기도민일보, '93년 4월에는 새한일보가 '96년 6월 8월에는 현대매일과 경도일보가 각각 창간되어 지역신문을 통한 구정홍보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91년 6월 25일, 공보계와 문화계 등 2개 계로 구성된 문화공보실이 탄생되어 본격적인 공보행정의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존 전단배부 및 가두탬페인성 홍보에서 구정홍보용 VTR 테이프를 비롯, 부평구 소식지(월간지), 구정화보 등의 발간과 케이블 TV 등 영상매체를 통한 현대적인 홍보기법들이 등장하게 된다.

### (2) 지역언론사

부평지역을 포함, 인천에서 처음 신문이 발간된 것은 개항 7년 후인 1890년 1월 28일 仁川京城隔週商報라는 제호 밑에 일인(日人)들에 의해 창간되었다. 지금의 신문 반 페이지 크기로

제물포상보사가 발행인이 되어 한달에 두번씩 발행됐다. 青山好惠의 저작인 仁川事情에서 "아아, 이 일편(一片)의 신지(新誌)야 말로 실로 조선, 그리고 인천에 있어서의 최초의 신문일 뿐 아니라" 운운했다.

그 후 이 신문은 1891년 8월 15일 지령 44호로서 휴간되었다.(휴간된 사유 명기)

인천경성격주상보가 휴간된 후 그 후신지로서 조선순보(朝鮮旬報)로 개제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순보도 지령 22호로 끝나고 1892년 4월 15일에 지면의 배대(倍大)와 기사의 증가로 면목을 일신하는 동시, 제호를 개제하여 상보와 순보의 지령까지 통산된 제63호의 조선신보(朝鮮新報)를 발행했다. 이 무렵 인천이 점차 번영과 조정의 대개혁으로 풍운이 격동하는 등 그 당시의 시국은 자못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세의 요구에 비추어 일인 청산호혜(青山好惠)가 조선신보(朝鮮新報)를 1895년 10월 25일부터 격일간으로 속간했다. 이 신문은 1902년 종래의 격일간을 일간지로 하는 한편, 서울에 통신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1908년 11월에 『조선신보사』는 조선타임사와 합병하여 『조선신문』으로 개제하는 동시에 진용을 정비하고 일본의 이용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와 대결하여 당당한 논평을 폈다. 그 후 조선신문은 사주가 바뀌어 1920년에 본사를 서울로 이전, 중앙지가 되었고 인천에는 그 지국만을 두었다.

3.1운동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으나 한민족의 전면적인 저항을 받은 일본은 우리 겨레의 독립을 위한 민족적 단결력과 저항정신을 새롭게 인식케 돼 조선통치가 무력통치가 아닌 문화정책을 내 세우게 되었다. 1919년 하반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좀 늦게 『시대일보』 등의 민족지가 서울에서 발간되었으며 인천에 우리나라말판(版) 보도기관이 생기게 됐다.

광복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신문이 발간되기는 일간 『大衆日報』로 광복이 되던 해인 1945년 10월 7일 고고의 소리를 냈으며, 사장에는 개업의 고주철(高珠澈)씨가 맡았다. 그 이듬 해인 1946년 3월 1일에는 김홍식(金弘植)씨를 사장으로 엄흥섭(嚴興燮)씨를 편집국장으로 한 『仁川新聞』이 창간되었다. 대중일보와 인천신문은 6.25와 더불어 모두 정간되었다가, 다시 9.15 수복후 매각되었으며, 1950년 9월 15일 인천이 수복되자 『대중일보』는 곡 제호를 『인천신문』으로 개제·발행했다.

제1대 高사장이 물러나고, 제2대 조희순(曺喜淳) 사장, 제3대 임홍재(任鴻宰) 사장에게 차례로 인계되었다가 제4대 송수안(宋壽安) 사장이 인천일보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발간되다가 다시 1957년 7월에는 기호일보(畿湖日報)로 제호가 바뀌어 방행되었다. 이후 기호일보는 경기매일신문(京畿每日新聞)으로 개제·발간되다가 1973년 8월 31일을 끝으로 경기신문(京畿新聞)에 통합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1957년부터 사장에 임영균(任營均)씨, 편집국장에 김응태(金應泰)씨를 중심으로 발간되던 『주간인천』이 1960년 8월 15일 발전적 방ㅎㅇ을 모색하고 지방언론창달을 하고자 인천신문이 창간되었다. 이 신문이 오늘의 경인일보 전신지로서 1973년 9월 1일 인천에서 발간되던 경기일보와 경인매일신문을 통합, 경기신문으로 수원에 본사를 두고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1952년 3월에 발행인 김병윤(金秉胤), 편집인 맹헌(孟憲), 인쇄인 채호(蔡浩)로 발행인가를 얻은 인천일보가 잦은 스태프 이동에 이어 경인일보로 제호가 바뀌 발간되다가 창간 9년만인 1961년에 폐간되었다.(군정포고령 제11호)

경기일보는 성실(誠實), 공정(公正), 참신(斬新)을 사제(私題)로, 『내고장의 새신문』이라는 지표로 1966년 2월 22일에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운영의 합리화와 왕성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 발간 2년 미만에 편집, 업무, 관리등 여러 부문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여 사세는 날로 번창하였다. 당시의 인사로는 사장에 황광수(黃光秀), 부사장겸 편집국장에 김응태(金應泰), 전무에 곽인성(郭仁星), 상무에 황준수(黃俊秀), 논설위원에 이옥산(李玉山), 림병운(林炳云), 한상억(韓相億), 송하일(宋河一), 김영수(金良洙), 정오현(丁五鉉), 편집부국장에 이벽(李闢), 최경조(崔景朝) 등으로 조직되었다. 겸영사업으로서는 잡지 『월간경기』를 1967년 12월부터 발간했으며, 1969년 7월부터 격월간 잡지로서 『경기교육』을 발행했다.

(3) 다양한 공보행정기법 등장

○ 구정홍보용 VTR 테이프

6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결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주민계몽식 공보행정이 계속되어 오다가 90년대초에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가 도래하며 구정에 대한 자율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키 위한 다양한 홍보기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구는 92년부터 기존 전단배부 및 보고서 형식의 홍보에서 벗어나 구정 전반의 주요사항을 영상화한 홍보용 VTR 테이프를 제작하게 된다. 총 20분용으로 제작된 테이프는 지역적 특성 및 주요 구정성과부석, 구정운영방향, 특수시책소개 등 구민 누구나 손쉽게 구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이 선보여 90년대 공보행정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작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VTR 테이프는 매년 50개가 제작되어 행정관서와 군부대, 유선방송사 등에 보내져 각종 구정 설명회, 민방위교육, 예비군 훈련, 대규모 직능단체회의시 방영되고 있으며 비교시찰 및 타지역 방문시 대외홍보자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북구화보제작

다양한 영상매체의 홍수 속에서 일방주민계도식의 행정으로는 더 이상의 홍보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자체 분석, 1년여간의 기획 및 제작기간을 거쳐 1993년 10월, 시각적 홍보효과를 최대한 살린 구정화보를 내놓기에 이른다.

총 56면에 1백 17매의 사진으로 구성된 화보는 부평약사를 비롯, 발간사, 지역여건, 기본현황, 의정활동, 구정방향, 서해안 시대의 주역, 구민복지향상, 교육, 교통관광, 산업유통 및 서비스, 쾌적한 녹지 및 사회체육, 구민체육대회, 민생치안, 문화 등 17개 분야로 편집됐다.

화보는 총 2천부가 제작되어 각 관공서 및 금융기관, 학교, 1백이상 기업체, 종교단체, 관광업소, 사회복지시설, 백화점 등에 보내져 구정홍보의 일익을 담당했으며 지역소개책자로서 적극 활용되었다.

○ 북구소식지 발간

북구소식지는 '90년 7월 20일 창간 후 총 4면으로 구성 매월 2만부가 발간되어 통·반장을 비롯, 많은 주민들에게 배부되었다. 그러나, 1993년 1월을 기해 북구소식지의 편집방향을 규격축소, 지면증면, 배부량 축소(1만부) 등에 따라 1994년 2월부터는 4면을 증설하고 격월 발간에 들어갔다. 개정발간을 통해 북구는 일률적인 구정홍보식 편집보다는 이웃간의 친선과 정부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구민들의 각종 제언, 투고, 문학작품란을 신설하고 생활지식, 건강코너를 보강하여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주력했다. 특히 제9면은 우리고장 인물과 미담수범사례를 통해 날로 각박해지는 현대인의 생활속에서도 훈훈한 이웃 수랑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제3면 의정소식에는 구민의 대표적인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서 향토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95년 3월 부평구 소식으로 이름을 바꾼 부평구 소식은 '95년 12월 현재 52호 발간을 맞았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호홍 속에서 진정한 향토지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구정이해증진 및 애향심 제고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구정홍보위원

1989년부터 동별로 신망이 두터운 지역유지 1명을 홍보위원으로 위촉, 1년에 2회씩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구청장에게 전달토록 하였다. 그리고, 접수된 의견은 정밀검토 후 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당면한 구정주요시책과 주요사업을 널리 알림으로써 주민동참의 시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 내고장소식보내기

1989년 재경인천향우회 모임을 기화로 인천출신 인사 1백명을 대상으로 인천소식을 담은 인천일보를 우송한 것이 계기가 되어 출향인에 대한 내고장소식보내기 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1991년 12월에 이르러 옛부터 인천권과는 달리 독자적인 생활권을 영위해 왔던 부평지역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과 타지역 거주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일명 부평토박이 출향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 1백여명의 출향인사를 선정, 이듬해 1월부터 다양한 지역소식과 구정추진현황을 담은 인천일보를 보내기 시작함으로써 내고장 소식보내기 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당시 출향인들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가 16명, 자영상인 10명, 회사원 28명, 공무원(사립교원 포함) 15명, 교수 2명, 군인 6명, 종교인 7명, 농촌지도자 9명, 의사 3명, 사회단체원 5명 등의 분포가 보였다. 또한 거주지별 분포도를 보면 서울지역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25명, 경상도 18명, 충청도 11명, 전라도 9명, 강원도 5명 순으로 나타났다.

## 10. 도시계획행정(都市計劃行政)

### 1) 도시계획 행정의 변천과 특징

(1) 도시계획 구역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발전 방향과 도시개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장기적, 종합적 계획으로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므로 그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상 부평지역은 용도지역 총 면적이 76,872,500㎡로서 계양산과 철마산, 호봉산, 만월산, 철마산에 이르는 소산맥에 북서와 남측에 둘러싸였으며, 동측은 평탄지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 옛부터 황해를 생활권으로 한 인천지역과는 달리 다른 권역으로 발달하여,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토로, 통일신라시대에는 장제군, 고려시대에는 수주, 안남, 길주, 부평 등으로, 조선시대에는 부평부로, 1914년에는 부천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40년에 이르러 비로소 인천부에 편입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인천시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일제 강점 시기인 1937년 4월 20일 최초의 인천 도시계획 구역 27.388㎢에는 부평지역이 부천군에 소속되어 있어 제외되었다(조선총독부 고시 제263호).

그 후 부평지역은 1940년 1월 19일 구역면적 46.098㎢ 계획인구 175,000명의 경인 시가지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다가(총독부 고시 제25호), 1940년 4월 1일 인근인 부천군, 문학, 남동, 부내, 서곶 등 4개면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부에 편입되어 도시계획 구역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기존 인천과 부평을 통합하여 인천부 행정구역과 일치된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하였으며(1994년 1월 8일 총독부 고시 제13호), 이 당시의 계획구역 면적은 168.887㎢이다. 이 계획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미군정 6·25동란 등 혼란기를 거쳐 1961년까지 지속되어 왔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한 성문법전이 최초로 시행 공포되었고, 그후 1972년 8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385호에 의거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이(Green Belt) 설정되므로써, 시흥군 소래읍과 김포군 계양면, 고촌면 일부 101.46㎢가 인천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 구역이 298.250㎢로 확장되어 김포군 계양면 및 고촌면이 부평지역 도시계획권에 포함이 된다.

1975년 5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75호에 의거 김포군 고촌면 19㎢가 소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인천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되고, 1976년 3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37호에 의거 부천시 상동과 구지동 2.592㎢를 부천시 도시계획 구역을 분리시켰다. 한편 인천시 남구 송도 해안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를 포함하여 인천 도시계획 구역이 결정되었으며, 1986년 9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427호에 의거 경기도 시흥군, 김포군이 인천 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되었다. 부평을 핵으로 하여 93.67㎢의 면적으로 이루어진 북구는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6호에 의거 검암동, 경서동, 연희동, 가신동, 석남1·2동, 원창동, 가좌1·2·3동 등 10개동이 인천직할시 서구로 분구되므로써 행정구역 면적이 45.95㎢로 감소되었다. 그러다가 1989년 1월 1일자로 법률 제4051호와 인천직할시 북구 조례 제95호에 의거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구역으로 편입되고, 1990년 12월 21일 건설부 고시 제959호에 의거 계양동이 인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됨에 따라 행정구역 면적과 도시계획 구역이 일치하는 76.88㎢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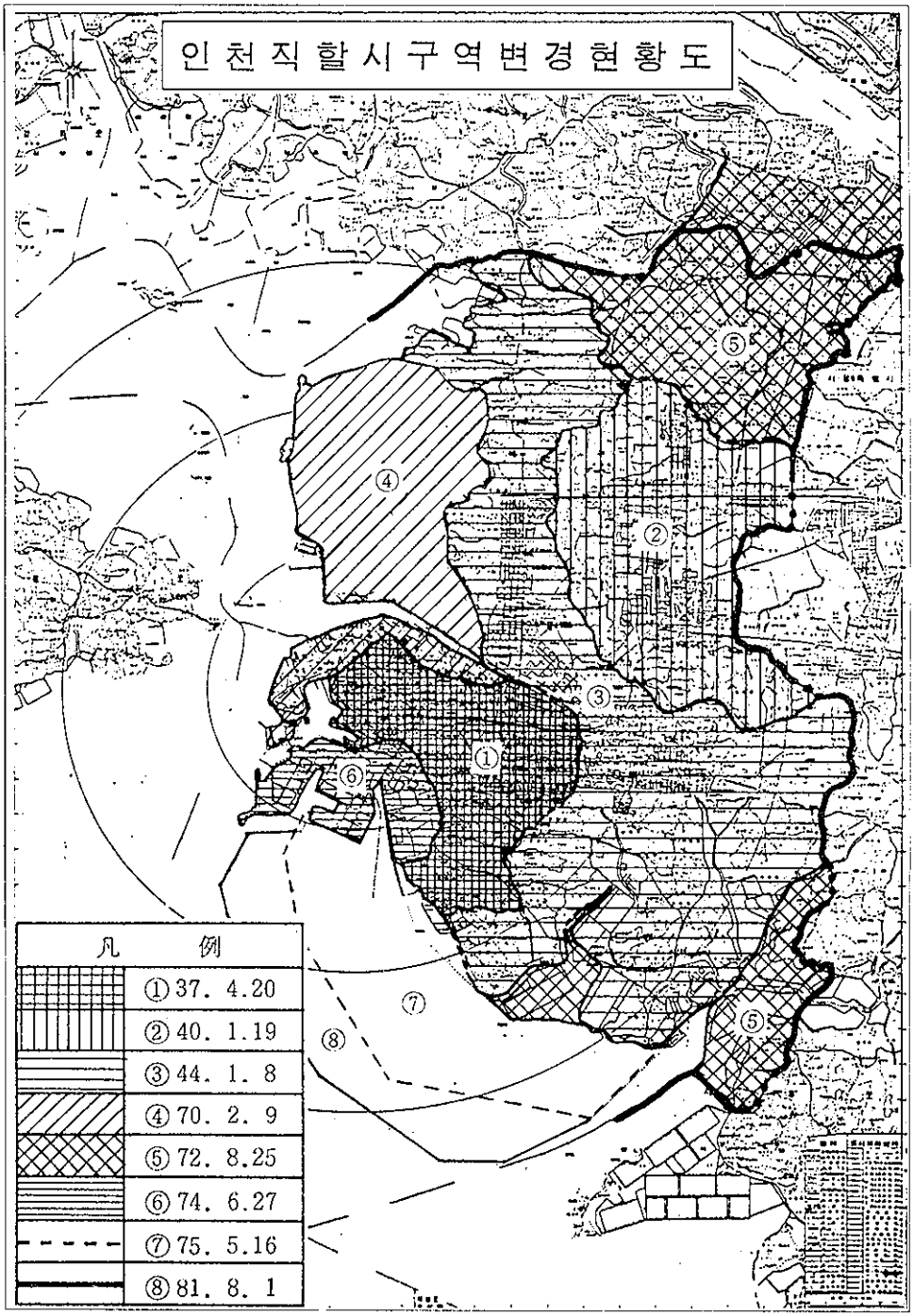
그 후 대통령령 제12557호에 의거 인접한 남동구와 구경계를 재 조정함으로써 현재의 면적인 76.87㎢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인천 도시계획 변경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인천 도시계획 구역 변경 현황

| 고시년월일 | 고 시 번 호 | 계획구역면적 (㎢) | 비 고 |
|---|---|---|---|
| 1937. 4. 20 | 총독부 제263호 | 27.388 | 인천 최초 도시계획 구역 |
| 1940. 1. 19 | 총독부 제 25호 | 46.098 | 부평지구 계획 구역 |
| 1944. 1. 8 | 총독부 제 13호 | 168.887 | 인천, 부평 통합 |
| 1970. 2. 9 | 건설부 제 54호 | 237.430 | 매립지 포함 |
| 1972. 8. 25 | 건설부 제385호 | 298.250 | 개발제한구역(G.B)포함 |
| 1974. 6. 27 | 건설부 제199호 | 297.990 | 〃 |
| 1975. 5. 16 | 건설부 제 75호 | 278.990 | 김포군 고촌면 분리 |
| 1976. 3. 27 | 건설부 제 37호 | 310.887 | 부천 상동 분리, 해면 계획구역 확장 |
| 1981. 8. 1 | 건설부 제278호 | 326.148 | 인천항 공유수면 매립계획구역 편입 |
| 1986. 9. 29 | 건설부 제427호 | 447.690 | 시흥, 김포 분리, 항만구역내 공유수면 편입 |
| 1990. 12. 21 | 건설부 제959호 | 478.920 | 계양동 포함 |
| 1991. 9. 27 | 건설부 제569호 | 631.561 | 영종, 용유 내륙 일원 확장 |
| 1992. 3. 21 | 건설부 제109호 | 661.111 | 지정항만(공유수면)확장 |

그리고 인천직할시 구역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천직할시 구역변경 현황

(2) 토지이용 계획

① 용도지역

용도지역제는 토지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발전을 저해요인을 방지하려는 측면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의 법적 행정적 장치로는, 1934년 최초의 법제화 되어 공포된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거 1937년 4월 20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63호에 의거 최초의 인천 도시계획 구역 결정시 녹지지역, 풍치지구, 공원 등을 지정한 것이 인천시 용도지역제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용도지역제의 기본이 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1940년 1월 19일 총독부 고시 제25호에 의거 결정된 경인 시가지 계획안을 보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 및 일단의 주거지 경영지구가 등장한다.

경인 시가지 계획안을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 시가지 계획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것으로 계획안 내용 중 부평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 결정안에 구로, 시흥, 소사, 부평, 서곶, 계양, 양천지구 등 7개지구 중에서 부천군 부내면, 문학면 각 일부인 부평지구에 면적 약 9.00㎢와 부천군 계양면 일부인 계양지구에 면적 약 3.11㎢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에 포함되었고, 일단의 주거지 경영지구 결정안을 보면 총 11개 지구 중에서 부평지구에 면적 약 16.25㎢, 계양지구에 면적 약 6.35㎢가 계획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부평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부에 편입하게 된다.

이 후 해방, 6·25동란을 거치면서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고 주택, 상점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다가 1960년 1월 20일 도시계획법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 1965년 10월 19일 건설부 고시 제1915호에 의거 비로소 인천 도시계획 구역 168.952㎢에 대한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59.304㎢, 상업지역 9.433㎢, 공업지역 35.216㎢, 녹지지역 64.999㎢가 결정되어 건전한 도시발전의 유도와 함께 현대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의 인천시 토지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중구 일대에 구도심과 주안, 부평등에 부도심이 있고 동구 만석동 일원과 고잔지역, 부평지역, 서곶 등은 4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평역 앞 부평시장, 경찰서(현재 이전) 일원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부평지역의 도심을 이루고 있고, 현재 갈산택지 일원이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 부평지역 도심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평동, 계산동, 효성동, 청천동, 작전동, 서운동, 삼산동, 갈산동, 산곡동, 십정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등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거지역은 부평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부개, 서운동 등 농경지로 이루어진 녹지지역과 도심의 공업지역 사이에

일부 지정되어 있다.

이후 산업발달과 함께 늘어나는 공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업지역은 점점 증가하게 되었으며, 1970년 2월 9일 제4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건설부 고시 제54호에 의거 준공업 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되면서 부평지역은 공업지역이 모두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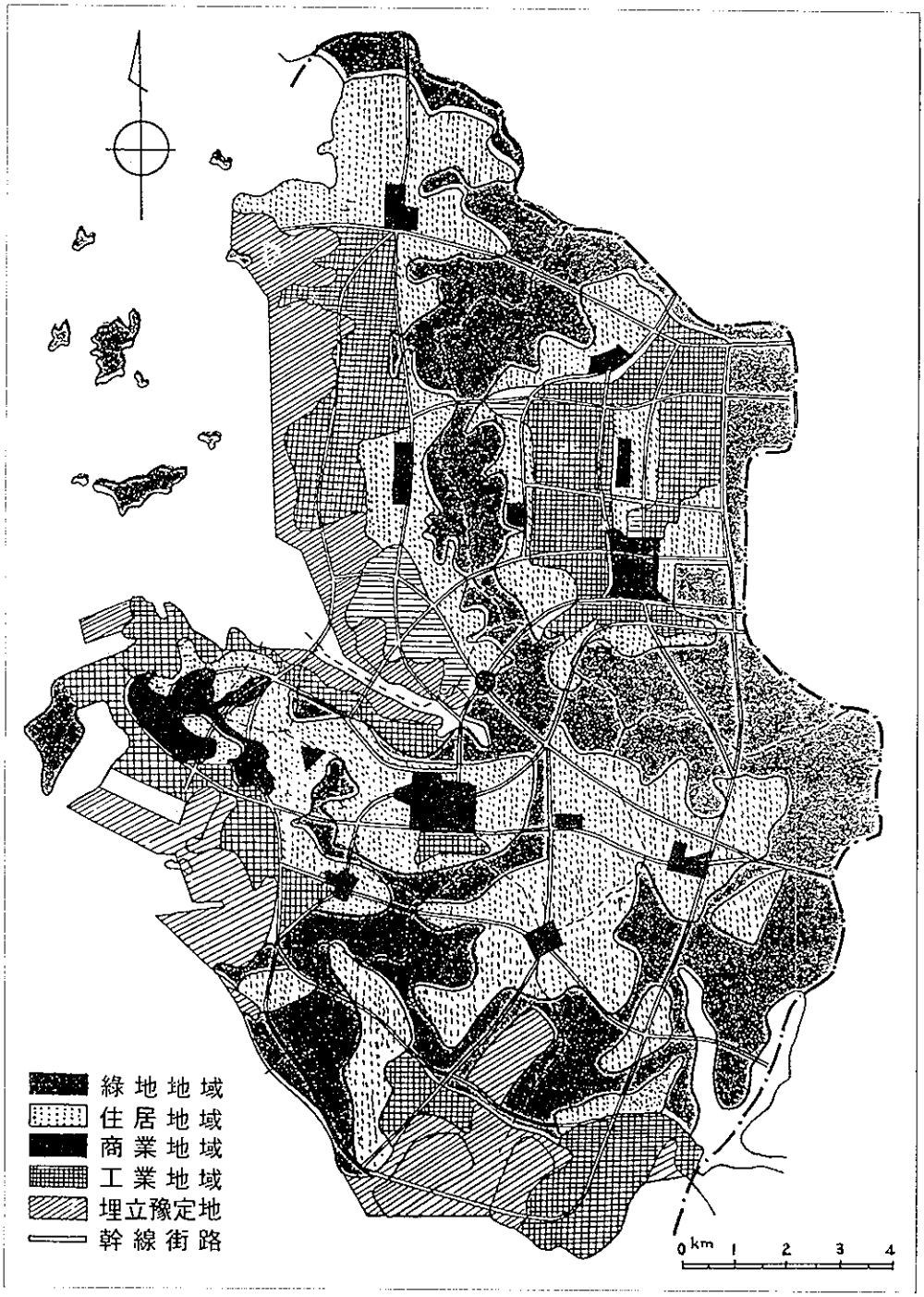
1975년 5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75호에 의거 전용 공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이 인천시에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나 부평지역에 전용 공업지역은 없고, 부평2동 부평남국민학교 일원에 준주거지역이 결정되었다.

이 후 1976년 3월 제5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거쳐 1984년 8월 7일 인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얻게 됨에 따라 1986년 9월 29일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건설부 공시 제427호에 의거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4공단 일원 준공업 지역 1,737,000㎡가 기존 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청천농장 일원 주거지역 256,300㎡가 음성 나환자촌의 자활을 돕기 위해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 결정되며, 갈산택지지구, 일시택지지구, 계산동 주공아파트 부지, 경찰 종합학교 부지 등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계산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등이 준공업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업지역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1991년 7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410호에 의거 갈산, 삼산동 일원 준공업 지역 496,000㎡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부평1동 굴포천변 역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 때 인천시에 중심 상업지역이 최초로 결정되고, 1992년 2월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보전지역이 결정되었으나, 송도 신도시, 용유 등 부평지역가는 무관하다.

1992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92-324호에 의거 동암역 북광장 일원 68,500㎡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 북광장 일원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게 되고 1992년 7월에는 부개동 경인국도변 455,000㎡가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 후 1993년 10월 13일 인천시 고시 제1993-131호에 의거 부개 택지지구가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1994년 3월 3일 인천시 고시 제1994-23호에 의거 계산택지지구가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와 용도지역 현황은 각각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계획도

용도지역 현황

(1994, 단위 : ㎡)

| 구 분 | 인천시 | 북 구 | 비 고 |
|---|---|---|---|
| 합 계 | 661,111,000 | 76,872,500 | |
| 주거지역 | 71,560,858 | 17,243,812 | |
| 전용주거 | – | – | |
| 일반주거 | 65,604,212 | 15,950,816 | |
| 준 주 거 | 5,956,646 | 1,292,996 | |
| 상업지역 | 12,251,019 | 2,425,567 | |
| 중심상업 | 1,186,082 | – | |
| 일반상업 | 10,552,837 | 2,425,567 | |
| 근린상업 | 511,100 | – | |
| 유통상업 | – | – | |
| 공업지역 | 45,940,196 | 9,404,897 | |
| 전용공업 | 1,755,562 | – | |
| 일반공업 | 26,389,711 | 2,989,960 | |
| 준 공 업 | 17,794,923 | 6,414,937 | |
| 녹지지역 | 352,781,378 | 47,798,224 | |
| 보전녹지 | 627,000 | – | |
| 생산녹지 | 8,997,417 | 1,661,139 | |
| 자연녹지 | 343,156,961 | 46,137,085 | |
| 미지정지 | 178,577,579 | | |

② 용도지구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용도지역제만으로는 복잡다단한 도시구성을 정연하게 꾸밀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이 지역에 질서를 부여하고 각종 도시시설물의 적정한 배치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용도지구제가 시행되었다.

도시계획법 시행 공포 이후 인천시 최초의 용도지구 지정은 1965년 7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1692호에 의거 인천항 일원을 중심으로 해안선에 연해 결정고시된 임항지구이며, 1966년 8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2701호에 의한 제3차 인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부평지역에도 용도지구가 결정되었다.

당시 지구 지정된 임항, 풍치, 방화, 고도, 교육, 미관, 재개발 지구 중에서 부평지역에서는 부평역 앞에서 부평시장 및 경찰서(현재 이전) 일원 면적 13,200㎡에 집단 방화지구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부평역에서 갈산동 63호 광장에 이르는 폭원 40m, 길이, 1,900m에 이르는 부평로 양측에 노선식 방화지구가 지정되었으며, 노선식 방화지구와 동일한 구간에 부평로변 양측 15m폭으로 고도지구가 결정되어 당시 건축물 최저 높이가 3층으로 결정되었다.

계산, 효성, 공촌, 심곡, 가정동 등 계양산 일원에 면적 12,192,000㎡의 부평, 일신, 간석, 만수동 등 만월산 일원에 면적 6,228,000㎡, 산곡, 청천, 석남, 가좌동 등 철마산 일원에 면적 3,199,000㎡ 등이 지정되었다.

이후 여러차례 도시계획 재정비를 거치면서 풍치지구는 1970년 2월 제4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계산동 산 57번지 일원 675,000㎡만 축소 결정되고, 나머지 2개소는 폐지되었으며, 부평로, 가현로, 경인국도 등 도로폭이 25m 이상인 대로 및 광로 11개 노선에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양측 15m까지 미관지구가 수차에 걸쳐 지정되었다. 그리고 1984년 2월 11일 인천시 고시 제726호에 의거 산곡동 31번지 일원에 아파트 지구가 결정되었고, 1986년 9월 29

일 건설부 고시 제427호에 의거 산곡동 294번지 일원에 아파트 지구가 추가 결정되었다.

노선식 방화지구가 폐지되고 1987년 1월 8일 인천시 고시 제1063호에 의거 방화지구가 부평동 일원 상업지역 전역 1,282,800㎡에 확대 지정되었으며, 1992년 7월 11일 인천시 고시 제92-107호에 의거 인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에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장 정비지구가 결정되었다.

노선식 고도지구가 폐지되고 1994년 9월 10일 인천시 고시 제92-115호에 의거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김포공항과 인접한 계산동, 계양동 일원 29,835,381㎡에 공항지구가 결정되고, 동지역 29,268,000㎡ 일원에 고도지구가 결정되어 원추 표면에는 해발 112.96m까지, 수평 표면에는 해발 57.86m까지 건축시 고도제한을 받게 되었다.

한편 용도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용도지구 현황**

(1994년, 단위 : ㎡)

| 지 구 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일 | 비 고 |
|---|---|---|---|---|
| 풍 치 지 구 | 계산동 산 57-1 일원 (계양공원) | 675,000 | 1970. 2. 9 건설부 고시 제54호 | |
| 방 화 지 구 | 부평1, 4, 5동 상업지역 | 1,282,800 | 1987. 1. 8 인천시 고시 제1063호 | 집단방화 |
| 미 관 지 구 | 공촌로, 가현로, 부흥로, 부평로, 신촌로, 경인국도, 부평1로, 부평2로, 부평3로, 북구청~장고개간 | 11개노선 | | 노선식 |
| 아 파 트 지 구 | 산곡동 31번지 일원 (현대아파트) | 373,030 | 1984. 2. 11 인천시 고시 제726호 | |
| | 산곡동 294번지 일원 (우성아파트) | 392,970 | 1986. 9. 29 건설부 고시 제427호 | |
| 주차장정비지구 | 주거, 상업, 준공업 지역 전역 | 26,084,316 | 1992. 7. 11 인천시 고시 제92-107호 | |
| 공 항 지 구 | 계산동 외 19개동 | 29,835,381 | 1994. 9. 10 인천시 고시 제94-115호 | |
| 고 도 지 구 | 계산동 외 19개동 | 29,268,000 | 〃 | |

③ 개발제한 구역(Green Belt)

1972년 8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54호에 의거 수도권 일원 도시계획 구역내에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되고, 1973년 6월 9일 건설부 고시 제241호로 지적고시 되었다.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으로서, 1972년 8월 당시 부평지역에는 산곡동, 청천동, 십정동, 부개동, 일신동, 계산동, 서운동 등 일부지역에 8.336㎢가 지정되었다.

이 후 1989년 1월 개발제한 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김포군 계양면 행정구역이 북구로 편입되면서, 계양지역 개발제한 구역 면적 25.349㎢가 증가되어 총 면적이 33.685㎢로 늘어나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다. 이는 북구 전체 면적 76.87㎢의 43.8%,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 구역 면적 80.58㎢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허용되는 행위 이외의 불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적 고시된 경계선을 따라 100m마다 경계 표석을 설치하고,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유·무허가 여부를 막론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각종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개발제한 구역 현황

| 면 적 | 법정동수 | 가 구 | 인 구 | 건축물 | 비 고 |
|---|---|---|---|---|---|
| 33.685㎢ | 26동 | 1,516 | 5,871명 | 3,610동 | |

개발제한 구역 토지 현황

(단위 : ㎢)

| 계 | 대 지 | 전 | 답 | 임 야 | 잡종지 | 기 타 |
|---|---|---|---|---|---|---|
| 33.685 | 1.141 | 3.427 | 14.804 | 13.181 | 0.711 | 0.421 |

개발제한 구역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 계 | 주택 | 부속사 | 축사 | 관리사 | 창고 | 공장 | 종교시설 | 공동시설 | 공공시설 | 학교 | 기타 |
|---|---|---|---|---|---|---|---|---|---|---|---|
| 3,610 | 1,308 | 1,364 | 639 | 32 | 169 | 8 | 12 | 20 | 2 | 2 | 54 |

개발제한 구역 관리 시설

| 감시 청원 경찰 | 경 계 표 석 | 안 내 판 | 오 토 바 이 | 기 타 |
|---|---|---|---|---|
| 11명 | 511개 | 17개 | 5대 | 30 |

④ 공 원

도시에서 공원은 자연 경관의 보호, 시민의 정서 생활과 쾌적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며,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문화형성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부평지역에 최초로 공원이 지정된 것은 1944년 1월 8일 총독부 고시 제13호에 의거 결정된 부평 제1공원 등 23개소이며, 그 현황은 〈표 10-8〉과 같다.

이후 1966년 8월 31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건설부 고시 제2701호에 의거 산곡동, 청천동, 석남동, 가좌동, 신현동 일원에 백마공원이 결정되고 1967년 8월에는 공업지역의 증가와 함께 많은 공원이 폐지되었다.

1970년 7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344호에 의거 산곡동, 가좌동 일원에 호봉공원이 결정되고 현재까지 인천에서 유일하게 부평묘지 공원이 부평동, 만수동 일원에 결정되었

최초 공원 현황

| 번호 | 공 원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1 | 부 평 제 1 공 원 | 부평동, 부개동 | 76,000 | |
| 2 | 부 평 도 로 공 원 | 부평동 | 7,000 | |
| 3 | 부 평 제 2 공 원 | 부평동 | 4,800 | |
| 4 | 부 평 제 3 공 원 | 부평동 | 13,000 | |
| 5 | 부 개 공 원 | 부개동, 소사읍 상리 | 150,000 | |
| 6 | 부 평 제 5 공 원 | 부평동 | 4,300 | |
| 7 | 부 평 제 4 공 원 | 부평동 | 4,500 | |
| 8 | 갈 산 제 2 공 원 | 갈산동, 부평동 | 46,000 | |
| 9 | 삼 산 공 원 | 삼산동 | 90,000 | |
| 10 | 갈 산 제 1 공 원 | 갈산동, 작전동 | 173,000 | |
| 11 | 작 전 제 2 공 원 | 작전동 | 19,200 | |
| 12 | 서 운 공 원 | 서운동, 작전동, 계산동 | 107,000 | |
| 13 | 작 전 제 1 공 원 | 작전동 | 50,000 | |
| 14 | 효 성 제 2 공 원 | 효성동 | 16,700 | |
| 15 | 효성 제2도로공원 | 효성동 | 78,000 | |
| 16 | 효 성 제 1 공 원 | 효성동 | 335,000 | |
| 17 | 효성 제1도로공원 | 효성동 | 82,000 | |
| 18 | 계 산 공 원 | 계산동, 작전동, 효성동 | 324,000 | |
| 19 | 계 산 제 1 공 원 | 계산동 | 61,000 | |
| 20 | 청 천 공 원 | 청천동 | 32,000 | |
| 21 | 산 곡 제 2 공 원 | 산곡동 | 4,600 | |
| 22 | 산 곡 제 3 공 원 | 산곡동 | 8,200 | |
| 23 | 산 곡 제 1 공 원 | 산곡동 | 170,000 | |
| 계 | | | 1,856,300 | |

다. 그리고 1970년 8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404호에 의거 산곡 제2공원이 폐지되고, 이어 1971년 2월 제4차 도로계획 재정비 시 효성 제2도로 공원이 폐지되었다. 이 후 1975년 5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75호에 의거 십정공원, 부평3공원 등이 결정되었고, 1980년 1월 4일 도시공원법이 법률 제3256호에 의거 시행공포되어 막연히 대공원, 소공원으로 분류되던 공원이 그 기능에 따라 도시자연 공원, 근린 공원, 어린이 공원, 묘지 공원으로 구분되게 되어 세분화되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1980년대 택지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많은 공원이 신설 및 변경 결정되어 조성 되었으며, 1994년 10월 현재 부평지역에 도시자연 공원 3개소, 근린 공원 15개소, 묘지 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43개소 등 전체 62개소 공원이 결정되어 이중에서 40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공 원 현 황**

| 구 분 | 지 정 | | 조 성 | | 미 조 성 | | 비 고 |
|---|---|---|---|---|---|---|---|
| | 인천시 | 북 구 | 인천시 | 북 구 | 인천시 | 북 구 | |
| 계 | 269 | 62 | 119 | 50 | 150 | 20 | |
| 도지자연공원 | 9 | 3 | — | — | 9 | 3 | |
| 근 린 공 원 | 65 | 15 | 18 | 5 | 45 | 10 | |
| 묘 지 공 원 | 1 | 1 | 1 | 1 | — | — | |
| 어 린 이 공 원 | 196 | 43 | 100 | 36 | 96 | 7 | |

(2) 도시계획 행정의 특징

인천은 수도서울과 중부지역 해상교통의 관문인 항만 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개항되어 옛부터 물자조달 및 수송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은 자연스럽게 동·서축으로 계획되어 경인철도, 경인고속도로, 경인국도 등이 건설되었다.

한편, 부평지역은 인천항과 서울의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배후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인천 축항 공사 등 황해를 통하여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꾸며 일제 강점기 당시 결정된 경인 시가지 계획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부평 지역은 발상지인 계산동 부평국민학교 일원에서 철도개통과 함께 수도 접근성이 양호한 부평동 일원으로 중심기능이 이동하면서, 1960년대 후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수출 4공단을 축으로 하는 수도권 제1의 공업단지로 성장하면서 소비재 및 생산재 공급기지로 발달하게 되고,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도, 공업지역이 수출 4공단을 중심으로 새로 개발

된 부평지역 중심부로 차지하게 된다.

또 부평역 앞 일원에는 일찌기 상업지역이 계획되어 수도권 방위측면에서 부평지역에 다수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병력의 각종 소모자재 및 부식품 등의 현지 구매 및 조달이 상업의 발전에 큰 요소로 작용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부평지역을 발전시킨 기능은 수출 산업공단 제4단지의 공업기능과 부평중심의 상업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 유도 및 정비를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982년 12월 시행 공포되어 부평지역을 포함한 인천은 제한 정비 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의 신설이 제한을 받게 된다.

1980년대 들어 효성동,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 부개동, 일신동 등 외곽 공업지역은 지가의 앙등으로 생산기능을 상실하여 주거지역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또 주거지구로 개발된 시가지가 지역 발전에 따라 중심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토지이용상의 불합리 및 효율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편익 및 서비스 시설 등의 지원시설 입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생활권 형성이 부진한 면도 없지 않다.

인천이 수도권의 해상 물동량을 담당하는 제2의 항만도시로서 앞으로 수도권의 생활기능을 가진 임해 공업도시 및 인천항, 영종 신공항 등을 통해 대륙진출은 물론 국제교역 중심도시로 발전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부평지역은 중공업 등 각종 제조업체가 밀집하여 국내유수의 수출 공업지역으로 성장하여 충분한 자생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재력과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1호선이 김포공항으로 연결되고 앞으로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부평지역을 관통하는 등 편리한 교통조건으로 수도서울의 주거 및 산업의 지역적 분산과 금융, 상업, 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도시계획사업

(1) 토지구획 정리 사업

①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인천은 서해안을 통한 수도서울의 관문이자 서해안 최대의 항구도시로서 해상, 육상을 통하여 점차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평 지역에도 이들 인구 수용과 시민생활 편익시설의 공급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고, 그 해소방안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도시계획 사업이 바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를 증

진시키기 위하여 도로, 광장, 하천, 구거 등의 신설 및 개량, 공원확충, 시장, 학교, 기타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및 토지 형질변경을 실시하여 혼잡하고 무질서한 자연상태의 토지를 정리하여 정연한 택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미건축지에 대해서는 통제있는 개발을 실시코져 하는 사업이다. 즉 자연 그대로의 토지가 대지로 개발되어 토지 소유주 각자의 자유 의사대로 방임된다면 무질서한 시가지가 형성될 뿐 아니라 후일 개조, 개량키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를 택지화하여 각종 시설물을 균형있게 설치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획정리 사업 추진 재원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제공(감보)으로 공공시설 용지 및 체비지를 확보한 후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

부평 지역에서 실시한 최초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총독부 고시 제444호에 의거 1941년 4월 4일 고시된 부평역 – 북구청 – 부흥로터리를 축으로 한 부평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다. 이 부평 1지구는 총면적 1,368,688㎡, 사업비 124,905천원으로 일제 강점기인 1941년 11월 5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해방, 미군정, 제1, 2공화국을 거쳐 제3공하국인 1970년 4월 14일 인천공고 제132호로 환지 확정 처분되어 사업 완료되므로써 사업 시행기간이 무려 29년에 걸쳐 소요되었다.

이어서 부평 1지구 동편에 동수천을 지구계로 쌍굴다리에서 부광국민학교를 잇는 부평5동, 부개2동 일원에 부평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595,204㎡ 면적으로, 1963년 12월 12일부터 1974년 1월 29일까지 시행되어 부평 1지구 및 부평 2지구가 부평지역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22호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공포되고 1969년 10월 20일 대통령령 제4153호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되므로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정립되어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8년 1월부터 효성동 5공수 입구에서 작전동 까치마을까지 경인고속도로 좌우 2,718,978㎡ 면적에 고속 5공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어 1977년 8월 완료되어 4공단 및 고속국도 주변이 깨끗이 정비되었고, 1969년에는 청천동 대우자동차 부지를 중심으로 부평경찰서와 갈산동 일원에 부평 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1979년까지 시행되어 많은 공업용지가 확보되었으며, 1971년에는 경인국도변 농아학교에서 동수시장, 부개동, 일신동에 이르는 부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1981년까지 시행되었다.

그후 1979년에는 십정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계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되었고, 1982년에는 십정 2지구 및 십정 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되어 십정 1지구가 1986년에 완료되고 나머지 3개지구는 1987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계속해서 1983년 4월 26일 건설부에서 6대 도시에 대하여 신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억제 지시하므로서 인천지역에서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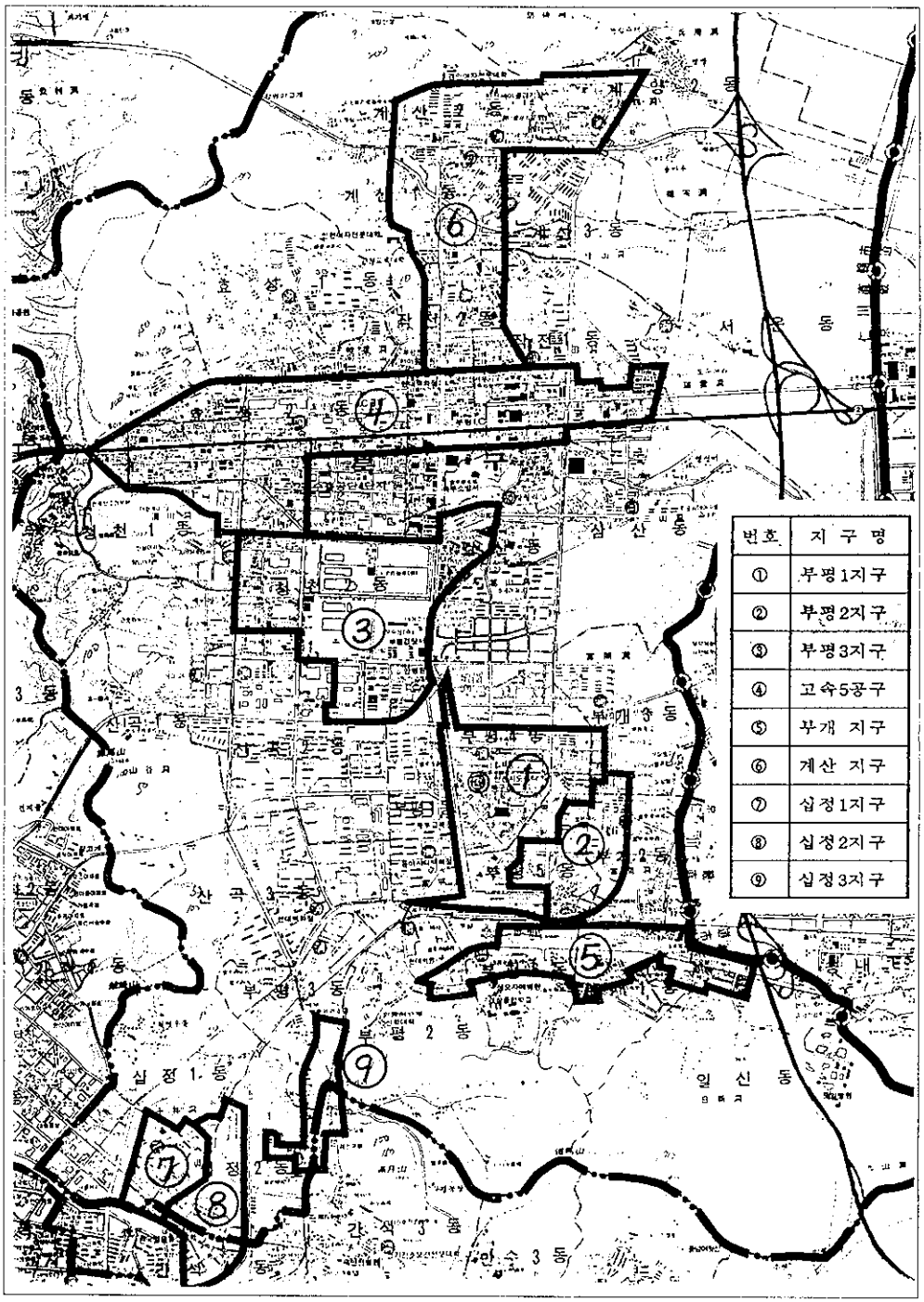
| 지구명 | 면 적 (㎡) | 필지수 | 택 지 (㎡) | | 공 공 용 지 (㎡) | | | | 사업비 (천원) | 환지 방법 | 감보율 (%) | 사업시행 인 가 | 환지계획 인 가 | 확정처분 |
|---|---|---|---|---|---|---|---|---|---|---|---|---|---|---|
| | | | 환 지 | 체비지 | 공원 | 학교 | 시장 | 도로·기타 | | | | | | |
| 부평 1 | 1,368,688 | 3,137 | 774,191 | 113,454 | 5,021 | 31,530 | 2,224 | 442,268 | 123,905 | 면적식 | 39.0 | 41.11.05 | 59.12.16 | 70.04.14 |
| 부평 2 | 595,204 | 1,120 | 362,168 | 19,159 | 4,248 | 16,615 | – | 193,014 | 18,738 | 〃 | 14.0 | 63.12.12 | 64.03.17 | 74.01.29 |
| 부평 3 | 1,999,938 | 2,295 | 1,429,540 | 212,419 | 20,000 | – | – | 337,979 | 1,289,458 | 〃 | 26.0 | 69.02.10 | 69.12.27 | 76.06.18 |
| 고속 5 | 2,717,798 | 6,039 | 1,693,031 | 296,741 | 20,304 | – | – | 707,722 | 515,000 | 〃 | 32.7 | 68.01.27 | 69.02.12 | 77.08.09 |
| 부 개 | 888,970 | 2,600 | 507,244 | 84,994 | 1,474 | – | 1,553 | 293,705 | 865,048 | 〃 | 36.0 | 71.08.20 | 73.03.10 | 71.04.04 |
| 계 산 | 2,418,955 | 4,047 | 1,129,869 | 351,900 | 61,187 | 32,955 | 6,419 | 566,625 | 10,705,702 | 급지별 | 48.3 | 79.11.26 | 80.04.02 | 87.04.23 |
| 십정 1 | 475,778 | 1,368 | 266,679 | 71,084 | 4,123 | 9,305 | 2,220 | 122,367 | 2,160,000 | 〃 | 50.8 | 79.07.20 | 80.07.24 | 86.04.05 |
| 십정 2 | 479,322 | 1,332 | 263,348 | 59,428 | 10,535 | 12,071 | 3,300 | 130,640 | 5,170,270 | 〃 | 49.5 | 82.11.10 | 83.04.20 | 87.12.30 |
| 십정 3 | 305,284 | 421 | 132,283 | 39,418 | 6,614 | 38,900 | 1,000 | 87,069 | 2,811,000 | 〃 | 42.7 | 82.03.05 | 82.12.28 | 87.11.23 |

②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1988년 8월 24일 그동안 건설부에 의해 억제되었던 수도권 및 6대 도시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민간 자본에 의한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억제 지시가 폐지되었다.

그동안 인천시 구획정리과, 도시정비과 등에서 시행하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89년 3월 인천시 공영개발 사업단이 개청됨에 따라 동 사업단이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영개발 사업단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개인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을 자치단체가 투자재원으로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도시개발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중 일부를 낙후지역 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정한 시설 지구내 대지의 효용 증대와 공공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도

설 확보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별도의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개발 이익이 남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6조의 2규정에 따라 당해 지구내의 공공사업에 사용해야 함으로, 구획정리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택지개발, 공단개발, 도서관광 개발 등 공영개발사업과는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인천시에서는 1994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각 구청에서 직접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인천시 북구청에서는 부평지역내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 중에서 구획정리가 되지 않았으나 이미 시가화 되어 건물이 밀집된 부평2동, 부평3동, 산곡1동, 청천1동, 갈산동, 삼산동 일원에는 사업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런데 1989년 1월 경기도 김포군에서 인천시 북구로 편입되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장기동 326,695㎡, 동양동 275,000㎡, 귤현동 193,000㎡ 일원을 신규 토지구획정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장기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동양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등 2개 지구는 1994년 6월 도시계획 입안, 1994년 8월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 기본 계획 및 인구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용역 발주하는 등 사업추진 중에 있다.

(2) 택지개발사업

①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발달에 따른 이농현상과 더불어 대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 도시의 과밀화 현상을 초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200만호 주택건설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등장할 만큼 극심한 택지 부족 및 주택 부족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주택건설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형질변경,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다.

인천시 주택지 개발 방식은 일제시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는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 후 매각하는 방식인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 방식은 억제되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억제하고 택지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요인으로는, 1970년대부터 산업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되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한정된 토지

를 고밀도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토지소유는 영세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환지 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단독주택용 규모로 개발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결과 대규모의 공동주택지 조성에 장애가 되었을 뿐만아니라 개발된 택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독점하게 되고,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만 기대하고 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택지를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가지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업자는 택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었다.

또한 도시계획상으로도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개발 가능지가 없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지가가 고가인 서민 택지 공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시행이 어려우나,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기본 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현재 도시계획상 녹지지역도 사업시행이 가능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도시계획 용도지구 중 그 지역 일대의 개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및 연구지구, 업무지구, 임항지구, 공지지구, 보존지구, 특징가구 정비지구, 공항지구는 가능한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도시계획상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G.B), 특정시설 제한구역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 기본 계획상의 도시성격, 도시지표, 도시기본 구상, 생활권 및 인구 배분 계획, 토지이용, 교통, 통신계획, 산업개발, 생활환경, 공원 녹지계획, 사회개발, 도시방호, 방재, 재정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 주택건설 위주로 일단의 지역을 개발항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 이에 수반되는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부평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택지개발 사업은 1984년 9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364호에 의거 지구 지정된 부평 택지개발 지구와 계양 택지개발 지구이며, 이는 1985년 3월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지구는 갈산동과 인접한 부평4동, 부평5동, 부개3동 일원에 총면적 346,034㎡, 수용인구 1,476세대, 5,904명으로 사업비 193억원으로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시행하였으며, 현재 기존 청사가 협소하여 이전 추진 중인 부평구 청사의 부지도 이 부평택지 개발 사업지구에서 확보되었다.

특히 부평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근린공원인 갈산 2공원과 76호 어린이 공원 등 60,245㎡의 공간을 확보하여 공원 면적이 수용인구 1인당 10.2㎡로서 전체면적의 17.4%를 차지함으로써 지구내 공원 확보율이 현재까지 15개 택지개발 사업지구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계양 택지개발 지구는 임학동, 병방동, 방축동 일원에 총면적 162,713㎡, 수용인구 755세대, 3,010명이 규모로 역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되어 1987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부평택지개발 지구는 1988년 12월에 완료되었다.

이어서 1986년 3월에 부개동 송신소 옆 현 부개역사 부근에 총면적 71,148㎡, 수용인구 500세대, 2,000명 규모의 부개 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되어 1989년 9월 사업이 완료되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부평지역에서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택지개발 사업이 모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지구 지정되어 시행된데 비하여, 부개 1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유일하게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아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1986년 7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335호에 의거 갈산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어 농지 659,734㎡에 대하여 1989년 7월부터 토지개발 공사에서 사업 착수하여 굴포천을 정비한 후, 수용인구 30,552명, 단독주택 277세대, 공동주택 7,361세대 등 주택 7,638세대분, 사업비 632억원을 투자하여 1992년 6월 완료하여 이 지역을 변모시켰다.

이어서 1986년 12월 31일 일신동 일원 82,179㎡ 면적에 일신지구가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1989년 12월부터 사업비 412억원으로 사업시행 중이며, 1989년 12월 29일 부개2, 3동 일원에 611,925㎡ 면적의 부개지구가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되어 역시 대한주택공사에서 1992년 12월부터 1,552억원을 투자 사업시행중에 있다. 이 지역의 택지개발 지구 현황과 이용계획은 각각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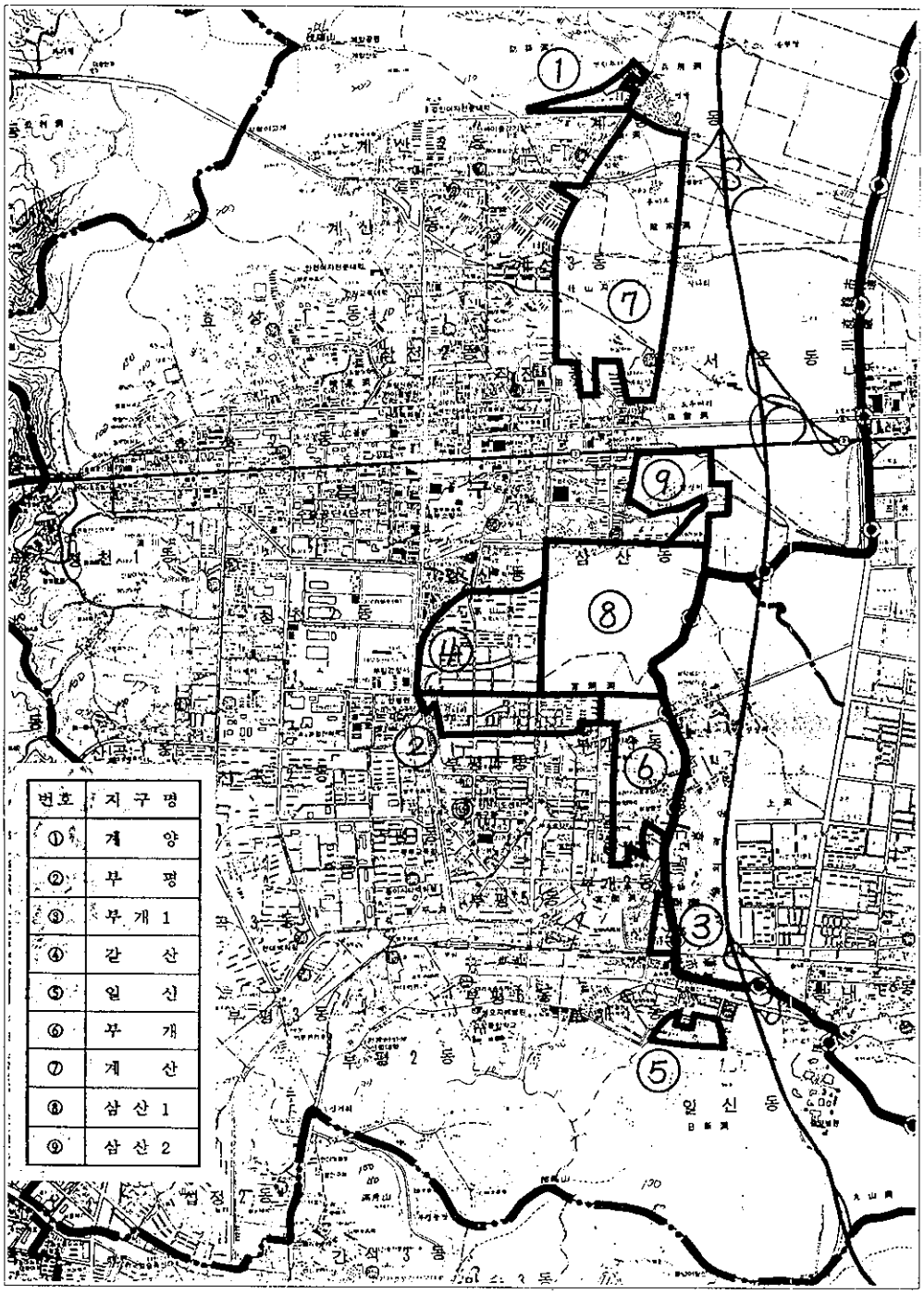
**부평지역 택지개발 지구 현황**

| 구분 | 지구명 | 위 치 | 지구 지정일 | 면 적 (㎡) | 주택및인구 (세대명) | 사 업 기 간 | 시행자 |
|---|---|---|---|---|---|---|---|
| 완료 지구 | 계 양 | 임학, 병방, 방축동 | 1984. 9. 17 (건고 제364호) | 162,713 | 722 (3,010) | 85. 3~ 87. 12 | 토개공 |
| | 부 평 | 부평동 | 1984. 9. 17 (건고 제364호) | 346,034 | 1,476 (5,904) | 85. 3~ 88. 12 | 토개공 |
| | 부 개 1 | 부개동 | 1986. 3. 25 (건고 제127호) | 71,148 | 500 (2,000) | 86. 3~ 89. 9 | 토개공 |
| | 갈 산 | 갈산동 | 1986. 7. 26 (건고 제335호) | 659,734 | 7,638 (30,552) | 89. 7~ 92. 6 | 토개공 |
| 시행 지구 | 일 신 | 일신동 | 1986. 7. 26 (건고 제639호) | 82.179 | 1,820 (7,280) | 89. 12~ 95. 12 | 주 공 |

| 구분 | 지구명 | 위 치 | 지구 지정일 | 면 적 (㎡) | 주택및인구 (세대명) | 사 업 기 간 | 시행자 |
|---|---|---|---|---|---|---|---|
| 시행 지구 | 부 개 | 부개동 | 1989. 12. 29 (건고 제821호) | 611,925 | 9,920 (36,704) | 92. 12~ 96. 12 | 주 공 |
| | 계 산 | 계산, 작전, 서운, 계양동 | 1992. 12. 10 (건고 제769호) | 1,622,660 | 16,485 (57,697) | 92. 12~ 96. 12 | 인천시 |
| 예정 지구 | 삼 산 | 삼산동 | 1994. 3. 10 (건고 1994-74) | 1,239,000 | | 95. ~ | 인천시 |
| | 삼 산 2 | 삼산동 | 1994. 3. 10 (건고 1994-74) | 337,000 | | 95. ~ | 주 공 |

## 택지개발 지구별 토지 이용계획 현황

| 구분 \ 지구명 | | 계 양 | 부 평 | 갈 산 | 일 신 | 부 개 | 계 산 |
|---|---|---|---|---|---|---|---|
| 면 적 (천㎡) | | 163 | 346 | 660 | 82 | 612 | 1,622 |
| 밀 도 (인/ha) | 총 밀 도 | 183 | 170 | 459 | 889 | 599 | 355 |
| | 순 밀 도 | 318 | 388 | 954 | 1,086 | 998 | 1,005 |
| 1 인 당 총 면 적 (평/인) | | 16.5 | 17.7 | 6.5 | 3.4 | 5.0 | 8.5 |
| 세 대 수 | | 755 | 1,476 | 7,638 | 1,820 | 9,920 | 16,485 |
| 수 용 인 구 | | 3,010 | 5,904 | 30,552 | 7,280 | 36,704 | 57,697 |
| 토지이용 (%) | 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주 택 용 지 | 57.6 | 43.8 | 46.8 | 81.7 | 60.1 | 33.7 |
| | 단 독 | 34.7 | 22.2 | 8.7 | — | 0.1 | 2.4 |
| | 공 동 | 22.9 | 21.6 | 38.1 | 81.7 | 60.0 | 31.3 |
| | 상 업 (근린포함) | 5.6 | 1.7 | 1.3 | — | 2.6 | 11.8 |
| | 도 로 · 광 장 | 30.7 | 27.8 | 22.1 | 13.5 | 17.6 | 29.9 |
| | 공 원 | 4.6 | 17.4 | 9.9 | 3.9 | 6.3 | 5.3 |
| | 녹 지 | — | 2 | 2.9 | — | 2.1 | 3.5 |
| | 학 교 | — | 3.4 | 7.7 | 0.3 | 10.0 | 7.5 |
| | 기 타 | 1.5 | 3.9 | 9.3 | 0.6 | 1.3 | 8.3 |
| 공 원 확 보 (㎡/인) | | 2.5 | 10.2 | 2.1 | 0.4 | 1.0 | 1.5 |
| 공원·녹지확보 (㎡/인) | | 2.5 | 11.4 | 2.8 | 0.4 | 1.4 | 2.5 |
| 시 행 자 | | 토개공 | 토개공 | 토개공 | 주 공 | 주 공 | 인천시 |




택지개발사업지구 위치도

② 택지개발 사업계획

1989년도까지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부평지역내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하였으나, 1989년 3월 인천시 공영개발 사업단이 개청함에 따라 이제 인천시에서 직접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체계를 구비하여 인천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용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원활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키 위해 의욕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평지역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사업이 건설부 고시 제769호에 의거 1991년 12월 10일 계산동, 병방동, 서운동, 용종동, 임학동, 작전동 일원에 지정된 계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이다.

계산지구는 총 면적이 49만평이 넘는 1,622,660㎡로 1992년 12월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얻어 추진중에 있으며, 총 면적 1,622,660㎡에는 주택건설 용지가 573,560㎡, 상업용지 165,240㎡, 공공시설 용지 880,860㎡로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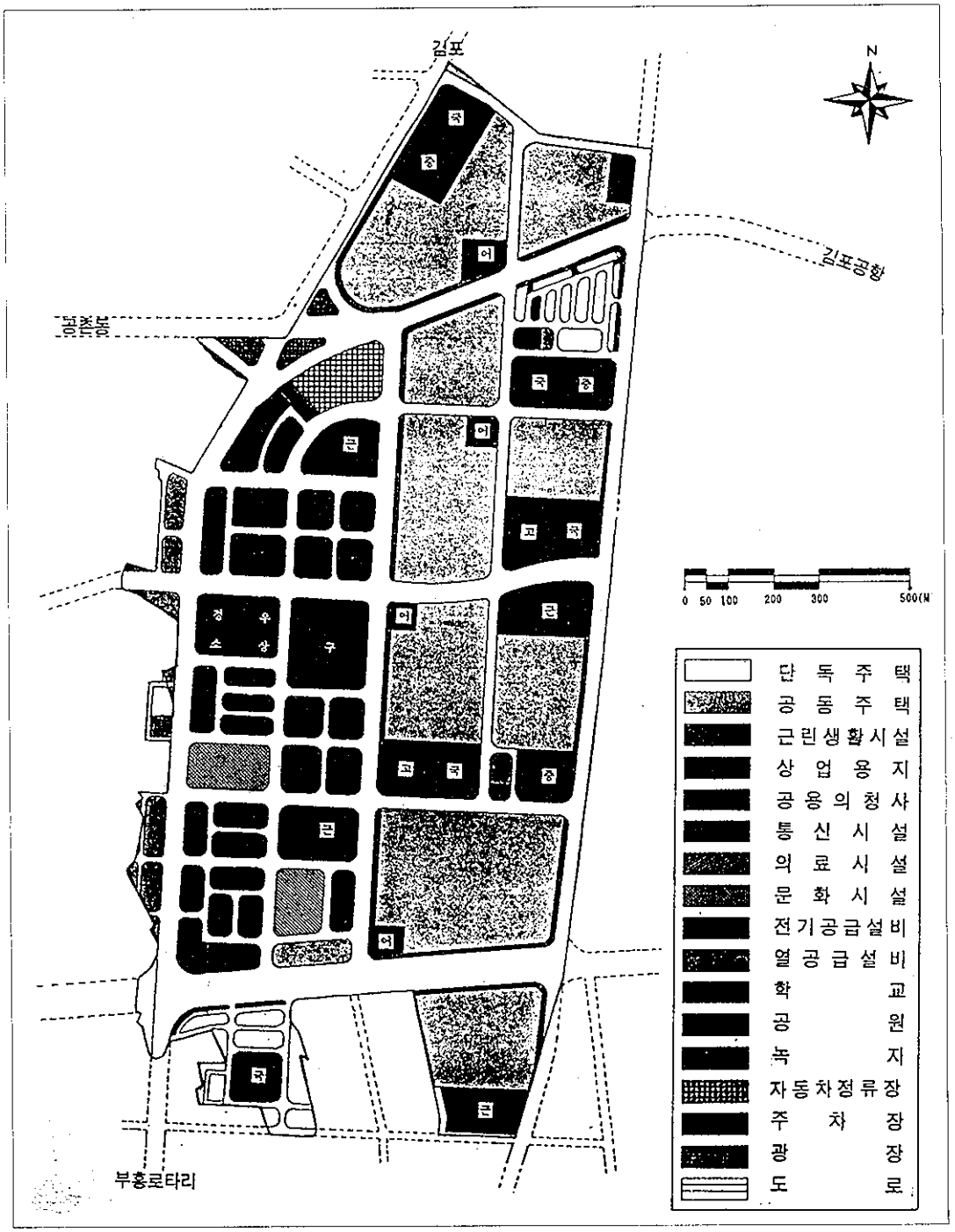
공공시설 용지에는 북구 분구를 대비하여 구 청사 부지가 포함된 것을 비롯하여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종합병원, 발전소 등과 학교 10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 공원 6개소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완료시 수용인구는 16,485세대 57,697명으로 2개 행정동 규모이며, 총 사업비가 3,684억원으로 1996년 12월 완료 예정인 이 계산지구가 완료되면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 3월 10일에는 현재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삼산동 일원 생산녹지 지역에 1,239,000㎡ 규모의 삼산 1지구와 337,000㎡ 규모의 삼산 2지구가 건설부 고시 1994-74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지정되어, 삼산 1지구는 공영개발 사업단, 삼산 2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1996년부터 사업 예정지로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이 개발되면 갈산지구, 부개지구와 더불어 부평지역내 주거지역의 핵을 이루게 된다.

계산지구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계산지구 토지 이용 계획

|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 비 고 |
|---|---|---|---|---|
| | ㎡ | 평 | | |
| 계 | 1,622,660 | 490,850 | 100 | |
| 주택건설용지 | 573,560 | 173,500 | 35.3 | |
| 단독주택 | 38,490 | 11,643 | 2.4 | |
| 공동주택 | 508,390 | 153,787 | 31.3 | |
| 근린생활시설 | 26,680 | 8,070 | 1.6 | |
| 상업용지 | 165,240 | 49,980 | 10.2 | |
| 공공시설용지 | 883,860 | 267,370 | 54.5 | |
| 공용의 청사 | 53,930 | 16,310 | 3.3 | 공용의 청사,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
| 통신시설 | 4,270 | 1,290 | 0.3 | 전신전화국 |
| 종합의료시설 | 14,500 | 4,390 | 0.9 | 종합병원 |
| 문화시설 | 17,680 | 5,350 | 1.1 | |
| 전기공급시설 | 5,000 | 1,510 | 0.3 | 발전소 |
| 열공급설비 | 9,670 | 2,930 | 0.6 | |
| 학교 | 121,260 | 36,680 | 7.5 | 국 5, 중 3, 고 2 |
| 공원 | 86,500 | 26,170 | 5.3 | 근린 4, 어린이 6 |
| 녹지 | 56,680 | 17,150 | 3.5 | |
| 여객자동차정류장 | 17,920 | 5,420 | 1.1 | |
| 주차장 | 10,810 | 3,270 | 0.7 | |
| 광장 | 11,580 | 3,500 | 0.7 | |
| 도로 | 474,060 | 143,400 | 29.2 | |


김포
김포공항
공촌동
부흥로타리
N
0 50 100 200 300 500(M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공용의청사
통신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학교
공원
녹지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광장
도로

계산지구 토지이용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주택 부족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만호 주택건설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주택 보급율이 3.7% 성장에 그치고 신규 주택 공급에만 의존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향상을 위한 보완책이 별도로 요구되었다.

특히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 주택의 밀집지역을 재개발 일변도로 개발함에 따라 정부가 당초 의도하였던 대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철거민 촌 등 제2의 불량 주택지를 발생시키는 악순환만 거듭하였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과 의지에 따라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다소의 이익일지라도 외부 사업자에 의해 개발 이익이 유출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아, 지역 개발의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복잡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설정하였다. 마침내 정부에서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을 공포하여 19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북구에서도 지역 여건,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이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 하수도 등의 필수 시설과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소방도로 개설, 마을 진입로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의 도로망 정비,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 석축, 보안등 설치 등 생활 안정시설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유아원, 어린이 놀이터, 공동 화장실 등을 비롯한 공동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천 1, 2, 3지구, 경찰학교 뒤 지구, 부평 1지구, 신트리 지구, 청천산곡 지구, 부평여상 지구, 신촌 지구, 굴포천 지구, 경인농장 지구, 석천마을 지구, 산곡 지구, 청천농장 지구, 효성 지구 등 15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북구청의 경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부평2동 768번지 일원의 희망천 동네를 3등분하여 우선 면적 6,874㎡, 건물 27동 72세대 규모의 희망천 1지구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받아 1989년 12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808에 의거 지구지정을 하여 지구내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 결정 1990년 1월 7일 개선 계획 고시하였으며, 주택 개량 방식으로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어서 희망천 1지구 인접 지역에 면적 13,354㎡, 건물 48동 136세대 규모의 희망천 2지구가 1990년 5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277호에 의거 지구로 지정되어 역시 현지 개량방식으로

1992년 5월 7일 개선 계획 고시되어, 희망천 1, 2지구에 대하여 진입도로 및 지구내 도로 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주택 개량도 희망천 1지구에 253백만원의 융자금 지원으로 주택 13동이, 희망천 2지구에 1994년 10월 현재 264백만원의 융자금 지원과 함께 주택 22동이 신축 또는 개량되어 주거지역으로 탈발꿈하였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현황

| 번호 | 지 구 명 | 위 치 | 면적(㎡) | 주택수 | 세대수 | 인구수 | 지구지정일 |
|---|---|---|---|---|---|---|---|
| 계 | | | 743,684 | 4,815 | 11,275 | 40,636 | |
| 1 | 희망천 1 | 부평2동 768 | 6,874 | 27 | 72 | 244 | 89. 12. 30 |
| 2 | 희망천 2 | 〃 | 13,354 | 48 | 136 | 452 | 90. 5. 14 |
| 3 | 희망천 3 | 부평2동 산 43 | 23,100 | 11 | 121 | 698 | |
| 4 | 경찰학교 뒤 | 부평6동 산 8 | 82,023 | 568 | 877 | 2,197 | |
| 5 | 부 평 1 | 부평1동 56 | 13,468 | 72 | 245 | 886 | |
| 6 | 신 트 리 | 부평4동 55 | 50,236 | 214 | 650 | 2,730 | |
| 7 | 청천, 산곡 | 산곡동 67 | 90,544 | 704 | 1,459 | 5,462 | |
| 8 | 부평여상 | 십정동 190 | 80,774 | 825 | 1,775 | 6,636 | |
| 9 | 신 촌 | 부평3동 73 | 46,487 | 723 | 2,431 | 8,446 | |
| 10 | 굴 포 천 | 부평동 258 | 40,603 | 315 | 764 | 4,095 | |
| 11 | 경인농장 | 십정동 33 | 130,795 | 407 | 554 | 2,471 | |
| 12 | 석천마을 | 산곡동 산 71 | 6,566 | 76 | 102 | 422 | |
| 13 | 산 곡 | 산곡동 87 | 80,402 | 506 | 1,632 | 4,104 | |
| 14 | 청천농장 | 청천동 65 | 26,325 | 78 | 226 | 932 | |
| 15 | 효 성 | 효성동 119 | 52,133 | 139 | 231 | 861 |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1989년 기초 조사결과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평지역내 15개 지구가 임시 조치법상의 법적 효력 기간인 1999년까지 모두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대상 지구내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절대적인 만큼 토지주 및 건물주들이 지구지정 동의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경찰학교 후면 지구다.

경찰학교 후면 지구는 면적 82,023㎡, 주택 568동 877세대의 달동네로서, 인천시 및 북구청에서 수차에 걸쳐 지역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면 개량방식으로 유도코

자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찬성율이 토지주 30%, 건물주 31%로서 법적 충족율인 66%에 미달되어 동의요건 미비로 지구지정 작업이 정체된 상태이며, 여타 많은 대상지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또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경사도 15%이상, 표고 해발 60m 이상 지역은 개발 불가능지로 설정했듯이 효성지구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에다 표고가 50~100m의 급경사로 지구지정 작업에 애로가 많다. 굴포천 지구, 산곡 지구 등은 기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대상 지구내 주민들은 지구지정 후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지가 하락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평 지역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중 현재 지구지정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 희망천 3지구다. 희망천 3지구는 부평2동 산 43번지 일원 면적 23,100, 주택 113동 121세대 규모로서 기 지구 지정된 희망천 1, 2지구와 연계되며, 대상지내 토지는 2필지로서 토지소유주인 명지학원 및 삼영화학(주)이 우여곡절 끝에 이미 지구지정에 동의한 상태이고 건물주 97.6%, 세입자 61%가 동의하여 지구지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투자사업 현황**

(1989~1994)(m/백만원)

| 번호 | 지 구 명 | 계 | 도로개설 | 도로정비 | 하수도 정 비 | 하천정비 | 가로등 보안등 | 기 타 |
|---|---|---|---|---|---|---|---|---|
| 계 | 15개 지구 | 10,570 / 9,461 | 2,487 / 8,123 | 2,530 / 335 | 4,243 / 692 | 1,160 / 196 | 37등 / 9 | 450 / 106 |
| 1 | 희망천 1 | 530 / 246 | 80 / 198 | – | – | – | – | 옹벽450 / 48 |
| 2 | 희망천 2 | 1,035 / 1,870 | 535 / 1,830 | – | 500 / 40 | – | – | – |
| 3 | 희망천 3 | 395 / 56 | – | – | 395 / 55 | – | 5등 / 1 | – |
| 4 | 경찰학교 뒤 | 480 / 61 | – | 280 / 17 | 100 / 14 | 100 / 30 | – | – |
| 5 | 부평 1 | 630 / 1,147 | 330 / 1,122 | 300 / 20 | – | – | 20동 / 5 | – |
| 6 | 신트리 | 1,120 / 1,618 | 550 / 1,451 | 290 / 64 | 580 / 103 | – | – | – |
| 7 | 청천, 산곡 | 180 / 56 | – | – | 180 / 56 | – | – | – |
| 8 | 부평여상 | 1,530 / 1,196 | 180 / 940 | – | 1,350 / 198 | – | – | 경로당30평/58 |
| 9 | 신 촌 | 1,262 / 2,839 | 812 / 2,582 | 30 / 124 | 420 / 130 | – | 12동 / 3 | – |
| 10 | 굴 포 천 | – | – | – | – | – | – | – |
| 11 | 경인농장 | 550 / 40 | – | 550 / 40 | – | – | – | – |
| 12 | 석천마을 | 1,040 / 103 | – | 280 / 22 | – | 760 / 81 | – | – |
| 13 | 산 곡 | 610 / 47 | – | – | 610 / 47 | – | – | – |
| 14 | 청천농장 | 300 / 85 | – | – | – | 300 / 85 | – | – |
| 15 | 효 성 | 908 / 97 | – | 800 / 48 | 108 / 49 | – | – | – |

년도별 도시기반 사설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년 도 | 사업건수 | 사 업 비 | 비 고 | 년 도 | 사업건수 | 사 업 비 | 비 고 |
|---|---|---|---|---|---|---|---|
| 1989 | 8 | 1,334 | | 1994 | 5 | 1,378 | |
| 1990 | 9 | 262 | | 1995 | 4 | 4,799 | |
| 1991 | 15 | 4,910 | | 1996 | 3 | 4,401 | |
| 1992 | 8 | 425 | | 1997 | 3 | 2,175 | |
| 1993 | 3 | 1,152 | | | | | |

## 11. 민방위행정(民防衛行政)

### 1) 민방위 제도의 변천

(1) 민방위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정부수립 직후에는 민방위대에 대한 통일된 전국적인 조직과 총괄적인 업무관장 부처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각 개별 법령에 의해 부처별로 그 기능에 따라 민방위에 관련된 업무가 수행되어 왔다. 즉 방재분야에 있어서는 충수해 대책법, 재난 구호법 등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건설부, 보사부 등 소관 부처별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 민방위제도가 처음 시작된 때는 6·25동란 직후로 1951년 1월중 순경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사령부에서 각 시도지부를 설치하여 방공업무를 통할·관장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된다. 민방공 업무는 동년 1월 26일 계엄사령관 요청에 의해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관되어 중앙에서는 치안국 책임하에, 각 시도에서는 관할 경찰국장 책임하에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또, 동년 3월 22일에는 방공법을, 4월 12일에는 방공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조직이 미흡하여 업무수행이 원할하지 못하였다.

1952년 7월 3일 내무부훈령 40호에 의거 민방공기구조직규정 일부를 개정하므로써 중앙에서는 내무부장관을 총사령관으로, 치안국장을 참모장으로하는 민방공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지방에서는 각 시·도지사를 지구사령관으로 경찰국장을 참모장으로 하는 민방공 각 시·도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기구확장과 업무의 원활을 도모했다. 동년 8월 25일에는 시·읍·면방공단 조직령을 개정하여 각 시·읍·면 단위까지 민방공 조직을 확대했다.

그러나 국가총력전에 대항할 수 있는 민방위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민방위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정부기구와 범국민적 주민 자위조직이 필요하게 되어 1961년 9월 30일 각령에 의해 국방부에 비상사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방위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즉 동위원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임명하는 장교 1명과 내무부 치안국장이 되며 입법, 사법, 행정부처에서의 공무원과 각군 장교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대책을 조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동 위원회는 1962년 4월 26일 정부 이동 및 전쟁 자원 철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6월에는 국가 방공계획을 수립하는 업적을 남겼다. 동 위원회의 활동지원을 위해 1963년 5월 30일 각령에 의거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에 민방위과를 설치하여 군사적 방위에 유효한 보조수단으로서 효과적인 민방위활동을 구상하였다.

1965년 2월 24일 대통령령에 의거 민방위개선위원회 규정을 공포하고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민방위개선위원회를 두었으며, 1966년 5월에는 국가동원체제 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후 1967년 9월 1일 내무부 치안국에도 방위과를 설치하고 종래의 소방과 소관중에 있던 민방위업무를 이관시켰다. 1967년 9월 26일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에서 민방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철회함으로써 민방위의 제도화작업은 중단되었다.

1968년 3월 24일 김신조일당의 불법 기습 난동사태를 계기로 같은 해 4월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거국적인 향토방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69년 3월 24일 비상기획위원회 규정 공포와 함께 국가동원체제 연구위원회는 해체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비상기획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1년 12월 31일 대통령령에 의거 '방공·소방의 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72년 1월 15일에는 제1차 '민방공·소방의 날'훈련을 실시하였고, 1975년 6월 27일에는 대통령령에 의거 '민방위의 날'로 개정하였다. 동년 7월 25일 42차 훈련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실시됨으로써 민방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통용하게 되었다.

1972년 6월 29일 내무부훈령에 의거 치안국 방위과에 민방위계가 설치되어 민방공활동에 관한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러던 중 1975년 월남의 패망 등 인도지나 반도의 공산화로 우리나라 안보가 직접적으로 큰 위협을 받자 범 국민적으로 총력안보의 결의를 바탕으로 하여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8월 22일에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이 공포됨

으로써 선진국과 같은 현재의 민방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각 부처 단위로 추진되어 온 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주요 부처의 전담기구 설치가 요청되어 주무 부처로서 내무부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8월 29일에는 내무부 민방위업무 전담기구인 내무부 민방위본부가 설치되어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민방위 행정은 명실공히 내무행정의 한부분으로서 기반을 구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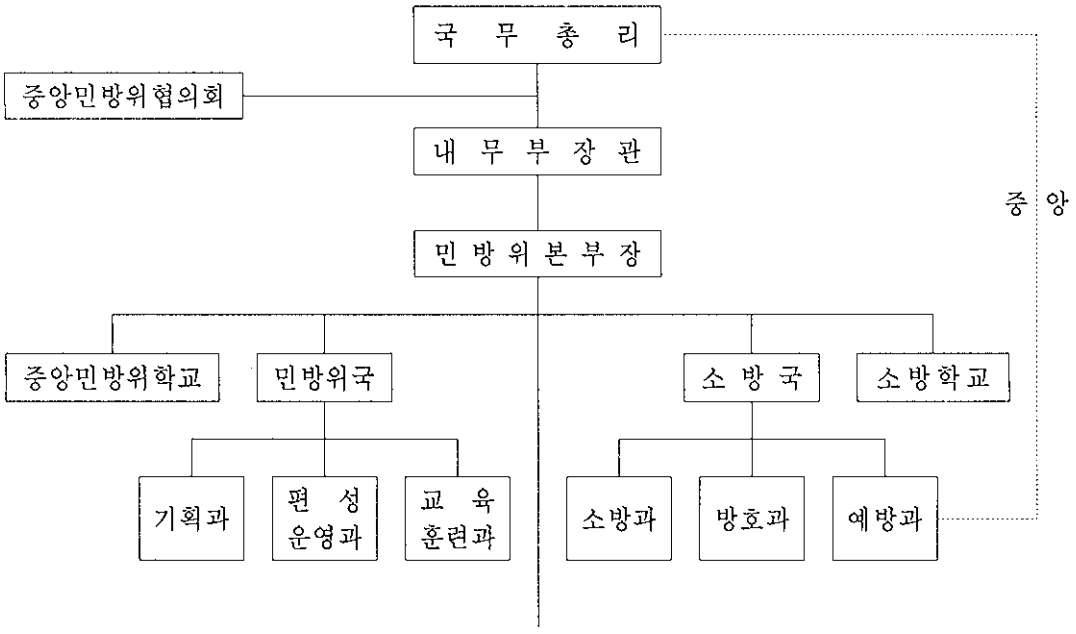
또 9월 22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전국단위의 민방위대가 발족하게 되었다. 12월 15일 제47차 '민방위의 날'훈련이 치안본부로부터 민방위본부로 이관되었고, 또 1976년 10월 31일 민방위 경보망이 치안본부에서 민방위 본부로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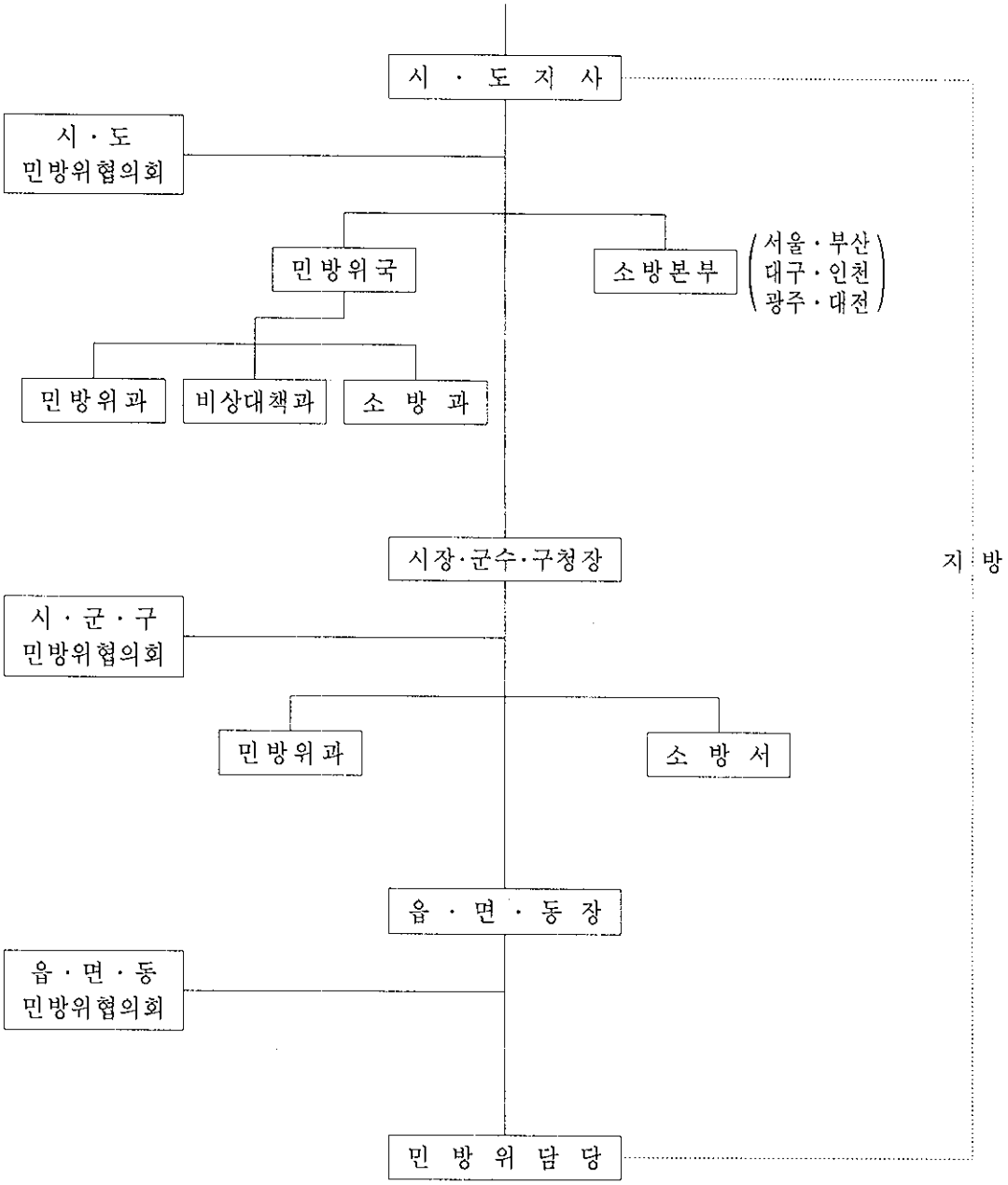
1975년 12월 10일에는 관계전문가, 각계 각층의 공모를 통한 민방위표상(기·복장·모자 등)의 제정이 있었으며, 1976년 5월 7일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1986년 12월 26일에 중앙민방위학교 직제가 공포되고 이듬해 1월 1일에 학교가 설치됨으로써 민방위 강사, 담당 공무원의 정예 간부교육이 확립되었다.

민방위 기본법은 1979년 12월, 1981년 3월, 1988년 12월 세 차례나 개정되어 왔다.

위의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방어 행정기구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민방위 행정기구




시 · 도 지 사
시 · 도
민방위협의회
민방위국
소방본부
(서울 · 부산
대구 · 인천
광주 · 대전)
민방위과
비상대책과
소 방 과
시장·군수·구청장
지 방
시 · 군 · 구
민방위협의회
민방위과
소 방 서
읍 · 면 · 동 장
읍 · 면 · 동
민방위협의회
민 방 위 담 당

(2) 민방위제도의 도입 배경

① 민방위 기본법의 입법 취지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 도입까지는 타국가의 민방위제도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방위제도의 입법 취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민방위 제도를 확립하여 군사방위와 함께 국가안전을 더욱 튼튼히 하며, 둘째 민방위 활동을 통하여 내 마을 내 직장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위의 정신을 함양, 자체 방위능력을 제고하고, 셋째 10대의 학도호국단, 30대의 향토예비군가 함께 40대의 민방위로 조직화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며, 넷째 유비무환의 총력방위태세로서 안정을 기하고 그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② 법제정의 배경

민방위기본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을 살펴보면, 안보적 측면으로는 ①북한의 남침위협과 ②인지사태 교훈의 측면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장발전을 통하여 국가안전의 보장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방어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하여 조직적이고도 단결된 주민의 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소의 불편과 부담을 감소하고라도 국가방위에 모두 참여하여야겠다는 결집된 각오로 민방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 2) 부평구의 민방위현황

(1) 민방위 기구

1975년 8월 26일 대통령령 7760호로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가 설치되고 전국적으로 민방위 업무를 위한 직제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인천시에 민방위국을 설치하고 우리 구도 민방위과를 설치하고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두어 동년 9월 1일부터 민방위 업무를 개시하였다.

또한 민방위업무의 효율적 운용과 지원체제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동년 9월 10일자로 구·동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민방위대 편성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 편성 조직된다. 단, 17세 이상의 남·여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연합민방위대로 조직될 수 있으며, 지역대는 민방위대원이 6명이

상, 직장민방위대는 대원이 20명이상 될 때 조직하고 구 전체에서 지역대 편성대상 중 기술자격 소유자는 기술지원대로, 연합민방위대는 지역대원이 5명 이하, 직장대는 대원이 20명 미만시에는 인근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다.

우리구의 1981년과 1994년 민방위대 편성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81년 민방위대 편성 현황

| 계 | | 지 역 | | 직 장 | | 기술지원대 | |
|---|---|---|---|---|---|---|---|
| 대 수 | 대원수 | 대 수 | 대원수 | 대 수 | 대원수 | 대 수 | 대원수 |
| 499 | 44,599 | 450 | 36,650 | 48 | 7,874 | 1 | 75 |

1994년 민방위대 편성 현황

| 계 | | 지 역 | | 직 장 | | 기술지원대 | |
|---|---|---|---|---|---|---|---|
| 대 수 | 대원수 | 대 수 | 대원수 | 대 수 | 대원수 | 대 수 | 대원수 |
| 1,328 | 123,090 | 1,169 | 104,479 | 158 | 18,329 | 1 | 282 |

(2) 민방위대의 동원 및 교육훈련

① 민방위대 동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모와 강도에 따라 민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거나, 긴박할 때에는 동원권자의 판단 결정으로 민방위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동원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태 예방 및 수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등 일체의 자위적 행동을 전개하고자 일정 지역에 동원하는 것이다.

북구에서는 민방위대 교육 때와 민방위의 날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대원과 유관 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도모하면서 각종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동원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방위대원을 동원될 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원 실적은 없다.

② 민방위의 날 훈련

가. 민방위의 날 제정 경과

1950년 6·25동란 중에 방공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제 민방공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1971년 4월에 와서야 매월 15일을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을 치안국 주관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이후 41차 훈련까지 계속되다가 1975년 5월 15일 민방공·소방의 날을 민방위 날로 개칭하고 중앙경보 통제소와 중앙방송국간의 연계로 훈련요령을 전국민에게 발령 계몽하고 있다.

나. 민방위의 날 훈련 종류와 내용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재난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별, 계절별, 직장별, 특성훈련을 실효있게 실시하여 주민의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고 안보의식을 진작시켜 사태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년 9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3·6·9월에는 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93년도부터는 년 2회 실시와 1994년부터는 년 1회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민방위의 날 훈련 내용은 전국 공통 훈련으로써 민방공 대피 및 사태수습훈련을 지방단위 특성훈련으로서 전시대비훈련(직장방호, 주민신고, 화생방 방호)과 재난대비훈련(다중집합장소, 방재훈련, 자연재난대비훈련 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년 1회에 한하여 적기의 야간공격 목표를 은폐하고, 위치식별을 곤란하게 하여 야간공습에 대비하여 등화의 차광, 소등 등의 방법으로 불빛을 통제하는 등화관제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 직장별, 시범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훈련실시 상황 및 현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상황

| 년 도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비고 |
|---|---|---|---|---|---|---|---|---|---|---|---|---|---|---|---|---|---|---|---|---|---|---|---|---|
| 실 시 (회) | 12 | 12 | 12 | 12 | 12 | 12 | 11 | 13 | 11 | 10 | 12 | 12 | 12 | 12 | 11 | 11 | 8 | 9 | 12 | 12 | 12 | 12 | 12 | |
| 미실시 (회) | | 11 | | | | | 1 | | 1 | 2 | | | | | 1 | 1 | 4 | | | | | | | |
| 야간등화 관제훈련 | | 1 | | | | 3 | 2 | 3 | 1 | 1 | 2 | 1 | 1 | 1 | 1 | | | | | | | | | |

(3) 민방위 시설 및 장비

① 대피 시설

적의 공습과 공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대부분 지하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상 발전기, 방송 통신시설, 급수시설, 공기여과 및 제독시설, 소방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래식 기구에 대한 방호 뿐만 아니라 현대식 기구의 공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안전한 시설을 말한다. 대피시설의 종류는 안전성, 타 건물과의 독립성, 개방성, 투자재원, 방호능력에 따라 대피 전용시설로서의 독립 대피호인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지하철역 승강장, 터널 등이 있다.

일제하에 설치하여 활용하던 대피시설은 대부분 시세확장과 도시개발에 따라 폐쇄되고 나

머지 몇몇개는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창고 등 물품저장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6년 36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9평 규모의 표준형 대피시설 4개를 구청 앞, 공보관, 부평역에 구축하여 민방위훈련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이 협소하고 부대시설이 전무하여 현재는 용도에 적합치 않아 92년도에 폐쇄 조치하였다. 1977년도에는 시설의 투자효과를 거양하고 도시계발과 연계하여 시설 면적의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도 겸 지하상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항상 교통 취약지역과 인구 밀집지역인 부평역 도로인 부평로에 1,031평 규모의 지하도 겸 지하상가를 민자와 지원비를 투자하여 1978년 준공을 보았다. 또한 1989년도에는 부평시장로타리에 국내 최초의 원탁형 지하상가 1,490형을 완공하였으며, 1978년 9월에 준공한 부평로 지하상가를 연결하여 부평역과 연결되는 성일로 1차 공사를 84년 착공하여 86년 9월 10일 2,893평을 준공하였으며, 2차 성일로 지하상가를 90년 착공하여 93년 12월 27일 1,868평을 준공하였다.

또한 부평서여자중학교 지하에 시범 독립대피호를 1981년 8월에 착공, 1982년 1월 12일 224평을 준공하여 부대시설인 제독실, 응급처치실 등을 설치함으로써 화생방 대피호로써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으며, 평시에는 민방위 상설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도표 참조〉

1981년 대피시설

| 구 분 | 계 | 지하도겸상가 | 독립대피소 | 지 하 실 | 비 고 |
|---|---|---|---|---|---|
| 개 소 | 159 | 2 | 1 | 156 | |
| 평 수 | 29,753 | 2,521 | 224 | 27,008 | |
| 수용인원 | 119,012 | 10,084 | 896 | 108,032 | |

1984년 대피시설

| 구 분 | 계 | 지하도겸상가 | 독립대피소 | 지 하 실 | 비 고 |
|---|---|---|---|---|---|
| 개 소 | 440 | 4 | 1 | 435 | |
| 평 수 | 88,528 | 7,282 | 224 | 81,022 | |
| 수용인원 | 354,112 | 29,128 | 896 | 324,088 | |

② 경보망 시설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및 지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는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는 경우 주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신호시설로 1986년 11월부터 민방공 경보자동화사업 추진으로 1987년도에 7개의 경보시설을 확보하였다. 도시 확장으로 인한 경보 난청 지역은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10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

③ 비상 급수시설

비상 급수시설은 재난으로 인하여 단전·단수가 되거나 수원지가 파괴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에 대한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지하양수시설과 저수조가 있다. 지하양수시설은 1980년까지는 15T/일 이하의 소형수동식 15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표층수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수질이 떨어져 음용수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져 1989년 1월에 폐쇄하였다. 그후 1981년부터 연차적으로 100T/일 이상의 대형 지하 암반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저수조의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1981년 비상급수시설 확보 현황

| 구 분 | 계 | 지하양수시설 | | 저수조 | 비 고 |
|---|---|---|---|---|---|
| | | 대 형 | 수 동 | | |
| 개 소 | 186 | 11 | 15 | 160 | |
| 생산량 | 78,146 | 3,405 | 225 | 74,516 | |

1994년 비상급수시설 확보 현황

| 구 분 | 계 | 지하양수시설 | | 저수조 | 비 고 |
|---|---|---|---|---|---|
| | | 대 형 | 수 동 | | |
| 개 소 | 569 | 28 | — | 540 | |
| 생산량 | 261,848 | 8,285 | — | 253,548 | |

④ 민방위 장비

민방위사태 수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를 말하는데, 평시에 확보하여야 할 민방위장비 중 20종을 기본 장비로 지정하고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다. 1986년에는 수해에 대비 학자 수해상습지역인 굴포천 인근 지역대인 부평1동, 청천동, 갈산동을 연합으로 수방기동대 1개대에 75명으로 조직, 편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기본장비 품목과 부평구의 장비현황은 아래와 같다.

민방위 기본 장비

| 個 人 裝 備 (6種) | 共 同 裝 備 (14種) |
|---|---|
| ·化生放裝備(2種中 1種) : 化生放 個人裝備세트(防毒面, 保護雨衣 等)<br>·勸奬裝備(9種中 5種) : 水電燈, 個人防護裝備세트(헬멧, 수통 等), 農建用 工具세트(삽, 곡괭이, 못뽑이 等), 家庭用 手工具세트(뺀치, 망치, 톱 等), 電氣通信工具세트(드라이버, 電氣인두 等) | ·必須裝備(5種) : 電子메가폰, 指揮用엠프, 移動式發電機, 交通信號棒, 應急處治裝備세트<br>·地域特殊裝備(4種) : 簡易用 無電機세트, 로프종세트, 구명대, 로프<br>·勸奬裝備(9種中 4種) : 雙眼鏡, 交通遮斷表示板, 緩降機, 구명보트<br>·化生放裝備(2種中 1種) : 化學 探知裝備 |

1994년도 장비 현황

(1994년)

| 구 분 | 지휘용장비 | 인명구조장비 | 응급복구장비 | 화생방장비 | 소 화 장 비 |
|---|---|---|---|---|---|
| 계 | 116 | 123 | 181 | 4,152 | 123 |
| 지 역 대 | 14 | 22 | 80 | 2,284 | 21 |
| 직 장 대 | 101 | 101 | 101 | 1,770 | 101 |
| 기술지원대 | 1 | | | 98 | 1 |

## 12. 소방 행정(消防行政)

### 1) 소방 행정의 변천

(1) 개항기 이전의 소방 활동

소방행정다운 소방행정은 구한말(1883년) 문호가 개방되면서부터 체계를 잡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의 소방 행정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문명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하여 왔으며, 특히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근대 소방 행정제도가 조직적으로 발달한 효시는 구한말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도성이나 읍도의 발전과 더불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구휼(救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때까지는 소방 행정이 전문적인 행정 분야로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도성이나 읍도에서는 화재발생 때마다 군사들과 도민들이 대중적 차원에서 합세하여 화재 진압에 나섰고, 지방의 경우 부락단위로 소방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전보다 산업이 더욱 발달하였으며, 아울러 인구도 급증하면서 도성 내에서 시가를 이루어 살게 되었다. 그리고 국교인 불교의 융성으로 사찰 역시 많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도시가 번창하고 인가(人家)가 조밀해짐에 따라 화재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건축 자재는 거의 목재가 주종을 이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화재가 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소방과 경찰행정 등 전문분야는 오늘날처럼 전문화가 되지 못해, 그 이전 시대와 같이 부락민의 본능적이고 대중적인 소화활동에만 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점차 지방행정 제도가 발달하고 군대가 지방에 배치되어 행정권이 지방에까지 미치게 되자, 군대가 주단한 지방에서는 군인들이 소방 활동에 적극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고려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종 12년 2월에 확대 실시한 상평창(常平廠) 제도의 시행에

따라 미곡 창고가 전국에 걸쳐 설립되었다. 그 후, 문종 20년(1066) 운흥창(雲興倉)의 화재를 계기로 창고, 부고(府庫)에 금화(禁火)하는 관리를 특별히 두고, 어사대가 수시로 점검하되 일직자(日直者)는 관품(官品)의 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금화를 최우선으로 한 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려 시대에는 전국 각 창고 소재지마다 금화원이 배치되었으며, 모든 관청의 관위(官衛), 착수군(着守軍), 위숙군(圍宿軍), 점검군(點檢軍), 주현군(州縣軍)들로 하여금 실화(失火)의 감시 및 소방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조선왕조 초기에 금화 법령이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태종 17년(1417년)에는 명나라의 율(律)을 쫓아 실화자(失火者)와 방화자(放火者)에 대한 형률(刑律)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세종 5년(1423년) 병조에서는 궁중화재(宮中火災)에 대비하여 금화 조건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세종 8년(1426년) 2월 26일에는 이조(吏曹)의 건의로 병조(兵曹)에 속하는 기관으로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금화도감이 설치된 후로는 궁중뿐만 아니라 관가가 민가를 구화(救火)하기 위한 금화군 제도와 5가작통제도(五家作統制度)가 실시되었으며 각 지방의 소방 조직은 세종 19년 충청 감사의 상소를 받아들여 각 고을의 지혜있고 근검한 사람을 뽑아 두목으로 정하여 순찰을 돌게 하고 화재 진압에 나서도록 하였다.

(2) 구한말 인천 소방의 태동

구한말(1883년)에 문호가 개방되면서부터 인천에는 일본인 거주자의 수가 인구 384명 가구수 75호로 인구가 급증하자, 이에 왕이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882년 현재 중구청(구 시청) 앞에 가건물을 건축하여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이 영사관 내에 경찰소를 두어 배치한 것이 일본의 한국내 영사 경찰제도의 효시가 된다.

또한 재한(在韓)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인명을 화재로부터 보호받고자 영사관에 소방 상비군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에 따라 인천영사관령에 의한 인천 최초의 사설 소방조(私設消防組)가 조직되었다.[1]

그 후 1889년 12월 일본인 총대장인 장유장작(長留藏作)의 제청에 따라 일본인 거류민단과의 협의로 종래의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소방부의 정원 25명을 6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목수직으로 1번조, 부두 노무자로 2번조를 만들어 소방 사무를 맡겼다.

또한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에서 일본인의 인천이주가 빈번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구수 709호에 인구도 4,418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인의 인구 증가에 따라 그들이 공설(公設) 소방 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건양 원년(1896

1) 『인천시세 일람』 1931.

년) 7월 18일에 일본 영사관령으로 소방조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소방부를 100명으로 증원시켜 인천경찰소(1904년 서(署)로 개칭) 소속 하에 인천소방조가 편성되었다.

을사 보호조약(1905년)이 체결된 후 1906년 2월에는 주한 일본 공사관을 철수하고 그 대신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였다. 동시에 인천의 영사관을 폐지하고 이사청을 개설하였으며,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초대 한국통감으로 임명되었다.

통감부의 조직을 보면 총무부, 농공상부, 경찰부를 설치하고 경찰부내의 보안과에서 거류민단 지역의 소방 문제를 전담하였다. 동년 7월 탕천(湯淺) 인천 경찰서장은 일본인 민단장 부전(富田)과의 협의 하에 소방 기구를 재편하여, 일본인 거주 지역 곳곳에 저수조 10개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공설소방부의 복무 점검을 강화하려고 소방부의 소집과 점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소방부의 근무 강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인천에서 대형화재가 있은 1907년에 완용(腕用)펌프 1대, 이듬 해에 중기 펌프 1대, 대저수지(大貯水地) 10개소 및 망루 등을 신설하게 되어 비로소 인천 소방 행정이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3) 일제시대의 소방 행정

인천 소방 조의 조직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일합방 년도인 1910년에 인천 관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자 당시의 인천 경찰서장인 신부이사관(信夫理事官) 암기(岩奇)와 일본인 민단장이 협의하여 상비 소방대를 신설하고, 동년 10월에는 상비 소방수 9명을 채용하였다. 이로 보아 1896년에 조직된 예비 소방조는 의용소방조의 성격을 띠었으며, 1910년 10월에 조직된 상비소방조는 오늘날의 소방대의 역할과 유사한 성격을 띠었다. 그리하여 동년 12월에 관정(官町, 현 신생동)에 건평 22.5평에 관정 파출소를 설립하고 26척의 소방 망루도 설치하였다. 이후 관정 파출소는 1912년에 다시 증축을 하게 되었다.

또한 1913년(大正 2년) 9월에는 한국인 부호(富豪) 정치국, 정영화, 장내흥, 서상빈 등 4명이 발기하여, 경비 약 420원을 갹출, 외리(外里, 현 중구 경동) 870번지(현, 기독병원 아래 전 김영균 치과 자리)에 상비파견소를 신설하였다. 여기에 소방수 및 기구를 배치함으로써 한국인 부락에도 소방상비대를 두게 되었다.

1915년 6월 23일 소방조 규칙이 제정되면서 인천소방조에도 상비소방수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대정 8년) 5월에는 건평 9평에 전동 파출소〔山根町〕를 건립했으며 건평 4평에 높이 46척의 소방 망루를 설치하였다.

1931년 당시의 인천 소방 조의 기구를 보면 인천 경찰서 예하에 2개의 힐소(詰所, 현 파출소)와 4개의 치장(置場, 현 파견소)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의 소방 업무를 살펴보면 신생, 전동, 힐소는 소방대원이 항상 상주하는 상비소방조였고, 4개의 치장은 화재 다발 지역

에 소방 장비를 비치·보관하였다가 화재 발발 시에는 의용소방조가 출동하여 화재 진압을 하는 곳이었다.

이 네 군데 치장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현재 남아 있지는 않으나, 그 당시의 지도를 통해 추정해 본다면, 월미도 주변은 천연직물단과 석유회사가, 화정(花町, 현 신흥동) 치장 주변은 목재 야적장과 재판소가, 송림리(현 송림동) 치장 주변은 전염병 연구소와 공장지대이며, 빈정(貧町 ; 현 사동) 치장 주변은 신포시장 등 주거 밀집지대였다. 특히 산근정(山根町, 현 전동), 관정(현 신생동), 회소(현, 파출소격) 주변은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의용소방조를 배치하였다.

(4) 광복 후 미 군정하의 소방 행정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0월 21일 국립 경찰의 창설과 동시에 경기도 경찰부 소방과 예하에서 인천의 소방행정을 수행하였다. 그 때의 장소로는 인천 중구 도원동 5-17(전 인천소방서 자리)이었다. 당시 경기도 경찰부의 직제는 경무과, 보안과, 형사과, 경제과, 위생과, 소방과로 편제되었으나, 도 경찰부에 소방과가 설치된 지역은 경기도경찰부 밖에 없었다. 기타 도의 경우에는 통신과를 두어 소방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였으나 동년 12월 10일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는 소방과를 두어 소방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해방 직전 경기도에는 인천, 수원, 개성 등 3개 소방서가 있었다.

인천 소방서는 해방이 되자 일제 치하의 소방수 부장이던 서광희가 분산된 직원들을 통합하여 '인천 소방 자치회'를 조직하고, 정이곤 서장을 다시 임명하여 소방 차량 11대로 소방 행정을 폈다. 그러던 중 1946년 4월 10일 소방 업무가 내무부 소관에서 토목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부터 소방부와 소방 위원회가 경기도에도 설치되어 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인천 소방 행정의 경우 여전히 경찰로부터 독립을 유지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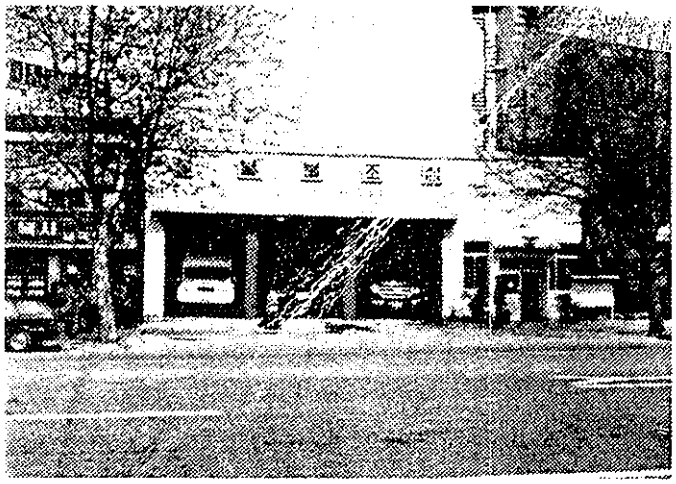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동년 5월 1일 인천부윤(仁川府尹) 하에 있던 기구를 개편하여 소방 사령장, 소방 사령, 소방 부사령, 소방사 등으로 계급을 구분시켰다. 그리고 각 관공서의 장을 망라한 인천 소방 임시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수립 직전 해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소방차 4대를 인수받아 총 15대의 소방 장비를 갖추었다. 그 당시의 인천 지역은 가구 수가 50,884호, 인구는 297,046명, 면적은 165,575㎡의 소방 행정을 정부 수립 전까지 토목부와 인천소방임시위원회에서 분담하였다.

(5) 정부 수립 후 과도기의 소방 행정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소방 행정이 토목부에서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관되었다. 정이곤 총경이 소방서장으로 재임용 되었다. 당시의 인천 소방서 예하 관서를 보

면 직할 파출소와 신생, 전동 파출소가 설치되었으며, 부평분소등 4개의 파출소급 소방관서가 설치되었다.


부평파출소 청사(1972)

부평분소 설치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해방후 미군정 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부평분소의 위치는 현재 부평(삼능고개 주변)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미군부대내로 이전하면서 출장소로 승격되어 운영되다가, 1955년 8월 5일에 현위치(북구 부평동 194-5)로 신축 이전된 후, 1972년 3월 3일 출장소에서 파출소로 승격되었다.

(6) 6·25사변과 인천 소방

6·25사변으로 인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이 한동안 함락되자 인천소방서의 서장직을 인민군 소위 고성도가 강탈하였다. 고성도는 경찰관 등 공무원들 중에서 반동분자들을 색출했으나, 소방관들은 사상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방관 정원에는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 소방관 정원을 130여명에서 70명으로 차츰 감원 조치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 간부들을 선정하여 개성으로 사상교육을 보내기도 하였다.

1951년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 때, 정시환 서장은 인천소방서를 대구로의 이전을 지시하였다. 이 때 인천소방서 인원 70여명, 차량 15대 등을 대구소방서 대봉파출소 뒷마당에 천막을 치고 운영하는 실정이었다. 인천소방서의 인원은 9·28수복 후 10월 25일에 마침내 인천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그 당시 인천소방서는 인민군의 침략과 인천상륙작전의 포탄공격으로 건물 120여평에 1,673원, 동산 4,200원, 총 5,873원의 손실을 입어, 1955년에 이르러서야 피해를 완전히 복구되었다.

또한 전란 후의 혼란으로 소방서원이 크게 부족하게 되자, 1953년 1월 5일에는 신생파출소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8년 10개월만인 1961년 11월 30일에 유급상비대원 18명을 증원하여 신생파출소를 재 개소하였다.

당시의 소방예산은 경기도경에서 지원받았으나, 그나마 인건비 예산만 겨우 배정 받았을 뿐 소방장비 등을 자체 구입하기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며, 소방장비 구입은 미국의 원조에 의

해 이루어진 것 뿐이었다. 그 후 1952년 1월 20일에 I.C.A의 원조로 삼륜차 1대를 인수하였고, 그리고 1955년 12월 10일에는 소방정(1척) 도원호를 부산소방서에서 인수 받았으며, 1957년 4월 1일에는 I.C.A 원조로 레오인타소방차 2대를 인수 받았다.

(7) 직할시(소방본부 설치) 이전의 소방 행정

인천의 소방행정은 60년대 말까지가 침체기였다면, 70년대는 한국수출산업 4공단 및 5공단의 유치로 인천소방행정의 발전기라 하겠다. 4공단과 5공단이 효성동과 가좌동 등 북구에 자리잡게 되어 자연 소방력 또한 북구에 편중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1970년 7월 1일에는 한국수출산업 4공단 내에 효성소방관 파견소를 설치하여 소방차 1대와 소방관 5명을 배치하였다. 이어 1972년 3월 3일에는 한국수출산업 4공단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평출장소를 파견소로 승격시켜 소방력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1974년 9월 26일에는 부평수출산업 5공단 내 가좌파출소 설치승인(경기도 규칙 제811호)을 받았다. 이 때의 청사는 당시의 빈약한 예산사정으로 인해 한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 최명헌)에서 인천시 북구 가좌동 180-96에 대지 70평, 건평 41.2평의 임시 소방청사를 신축하여 인천시장에게 기부 헌납으로 5공단 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인천소방서는 총 2과 4계, 6개 파출소, 총인원 103명, 소방차 21대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러던 중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760호)으로 민방위본부가 신설되면서 약 30년간의 경찰기구 내의 소방행정에서 민방위본부의 소방행정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1975년 5월 23일 한국수출산업 4공단내의 효성소방관 파견소가 정규 소방파출소로 승격(경기도 규칙 제856호)되었다. 1976년 3월 9일에는 공단내 입주업체대표자협의회(회장 : 이호익, 삼익악기대표)에서 인천시 북구 작전동 215-7호에 대지 65평, 건평 45평의 소방청사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1981년 4월 28일에 북부소방서의 청사가 신축완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천시 북구(부평) 시세의 팽창으로 부평, 가좌, 효성파출소만으로는 소방수요의 대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1980년 7월 8일(대통령령 제9950호)에 부평 정수사업소가 청사에서 부평, 가좌, 효성 3개 파출소와 더불어 북부소방서로 통괄, 개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1년 4월 28일에는 북구 작전동 502-1에 1억9천만원을 들여 연건평 1,064㎡의 신청사를 신축·이전하였다(경기도 규칙 제1211호). 이와 동시에 직할파출소도 개소함으로써 인천소방서의 조직은 2개 소방서에 9개 파출소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인천소방서의 기구는 다음 〈표 12-1〉과 같다.

## 약 정 서

1. 부동산표시

인천시 북구 가좌동 180-96 대지 70평 : 무상대여

위 지상 철콘콘크리트별동조(41.2평) 1동 및 부대시설 : 기 증

2. 동산표시

가. 소 방 차 : 1대

차량년식 : 1976 시보레 탱크트럭

등록증번호 : 외교 418호

나. 사무용집기 : 2점

상기 재산을 인천소방서 가좌 소방관 파출소 용으로 기증 및 무상대여 할것을 약정함.

1974. 10.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188-5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최 명 헌

인 천 시 장 귀하

가좌소방파출소 기증·무상대여 약정서

## 기 부 증 서

부동산 표시

인천시 북구 작전동로 215-7호

대지 65평

지상건물 45평 14

위 부동산을 금번 정부의 화재예방 시책에 호응하여 인천소방서 효성파출소를 신축하여 기증합니다.

1976년 3월 9일

기 증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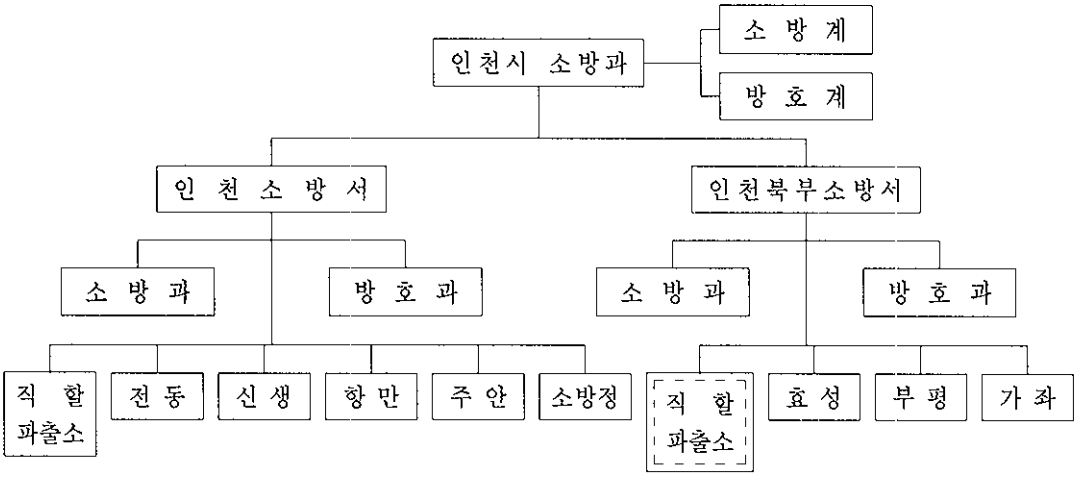
한 국 수 출 산 업 공 단
이사장 최 명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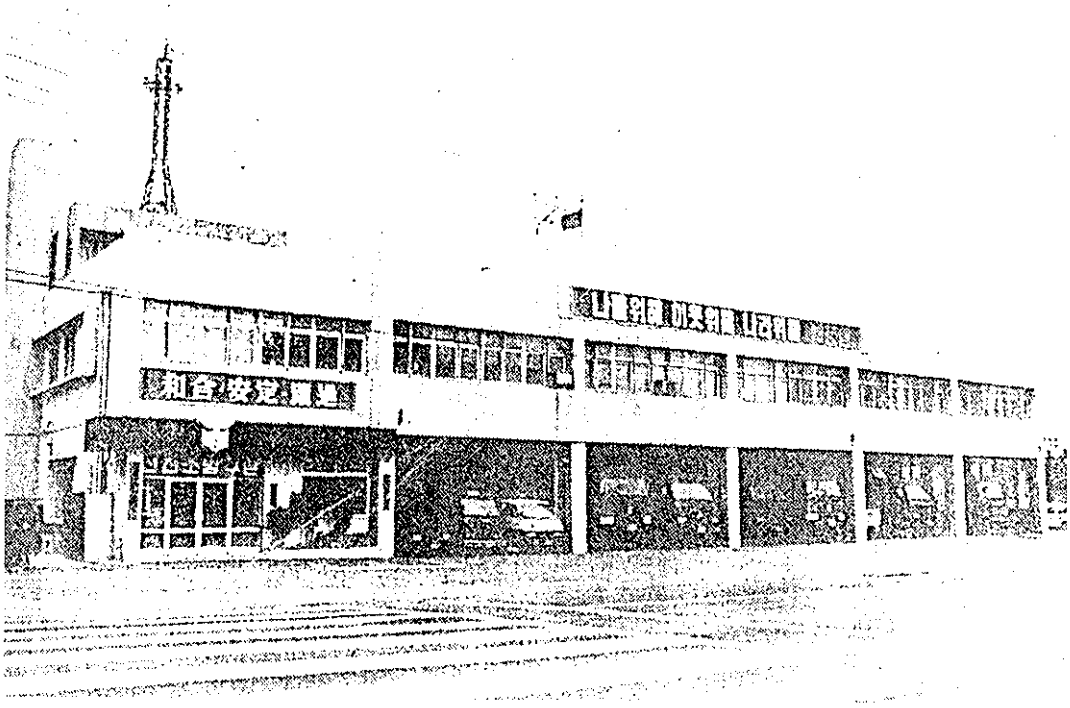
한국수출산업공단 인천사업소
입주기업체 대표자 협의회
회 장 이 효 익

인 천 시 장 귀하

효성소방파출소 기부증서

〈표 12-1〉 인천소방기구(1981년)





북부소방서 청사(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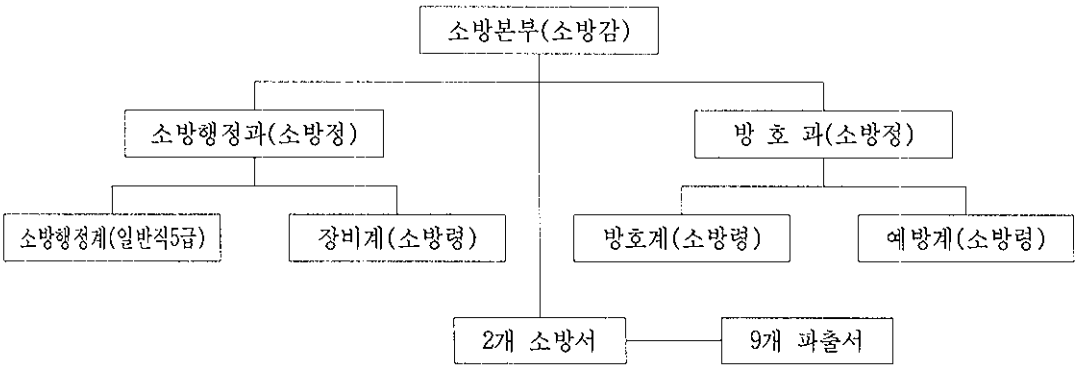
(8) 소방본부 발족 후의 소방행정

해방 전 인구 20만명 미만의 인천시 인구가 1968년에 이르러 인구 55만명의 대도시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975년 갑문의 준공과 함께 경제성장, 수출진흥, 100만명의 인구에 육박하는 시세의 신장을 보였다. 이렇게 시세가 팽창함에 시 본청의 업무량도 자연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천시에서는 구제(區制)를 실시하여 행정수요의 증가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듯 하였다. 그렇지만 1980년에 이르러서는 시인구가 100만을 돌파하는 대형도시로 탈바꿈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제도의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었다. 이와같은 행정수요의 격증에 따라 지방행정제도의 보완이 시급해져 정부에서는 1981년 4월 13일에 인천시를 인천직할시로 승격시켰다(법률 제13424호).

인천시가 인천직할시(1981년 7월 1일)로 승격됨과 동시에 인천소방본부도 시청 가청사(현 신생파출소 2층)에 소방본부가 발족되었다.(1981년 3월 13일 법률 제3424호) 초대 본부장에게 윤원균 소방감이 임명되었고,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를 두었으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임하였다. 이 소방본부는 2개 소방서와 9개 파출소의 기구를 두었다.

당시의 인천소방본부의 기구는 다음 〈표 12-2〉와 같다.

〈표 12-2〉 소방본부 기구(1981. 7. 1)




한편 북구 지역의 소방행정관서의 변천은 구세의 급신장과 더불어 더욱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신현파출소는 1981년 4월 28일에 북부소방서 직할파출소(현 작전파출소)가 개소됨과 동시에 4공단(작전동 일대)을 관할하던 효성파출소의 필요성이 자연 없게 되자, 1982년 11월 29일에 효성파출소의 명칭을 신현파출소로 개칭(인천시 규칙 제875호)하고, 서구 신현동 294에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82년 11월 29일자로 6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본서 청사에 438㎡(차고 및 강당)을 증축하였으며, 1986년 10월 8일에는 1억 8백만원을 투입해 부평파출소를 개축하였다.

그리고 1988년 8월 26일에는 1억 1천8백50만원을 투입하여 계산파출소를 신축하여 1989년 1월 13일 개소를 보게 되었다. 또한 1989년 1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에 편입됨에 따라 계양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인수, 계양파견소로 운영하게 되었다. 1989년 1월 1일에는 중부파출소를 작전파출소로 개칭하였으며, 1990년 2월 16일자로 서구 석남동 579-2에 석남파출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1991년 4월에는 북구 십정동 160번지에 3억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십정파출소를 신축 개서하였고, 계양파견소가 파출소로 승격되었다.

1988년 1월에는 서구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서구가 북구에서 분구되었고, 이와 아울러 서구지역의 소방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방서의 신설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소방본부에서는 1991년 5월 26일자로 내무부의 설치승인을 받아 인천직할시 서구 연희 3지구 60블럭 1롯트에 총 사업비 72억 2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970㎡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본서가 완공되어 1992년 12월 1일에 드디어 개서하였다.(인천직할시 소방서 설치조례

2648호) 그동안 북부소방서에서 관할하던 서구지역인 신현, 석남, 가좌소방관 파출소를 인수하는 동시에 직할파출소인 연희파출소를 본서 1층에 개소하였다.

서부소방서의 개서에 따라 서구지역의 소방수요는 충족되었으나, 계산과 계양지역의 소방수요 또한 급속히 늘어나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 청사를 계산택지 개발구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지만 현 북부소방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계양구가 신설되면 계양소방서를 별도로 설치키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 동안 북구소방의 임시가설 차고 등을 영구청사로 증축하기로 결정하였고, 1993년 11월에 11억 6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2층이던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였다. 그리고 부평정수사업소의 부지 293㎡를 분할받아 주차장 확장과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부지 1927.55㎡ 연건평 3224.408㎡의 현대식 청사를 확보·운영하게 되었다.

(9) 재해예방과 진압활동

소방의 본래 목적은 화재를 초기에 발견·진압함으로써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있다. 1958년 소방법이 처음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예방업무가 소방행정의 주요 분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소방행정은 종래의 진압위주에서 예방위주로 그 성격이 점차 변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 생활사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신속한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 등의 소방행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8·15해방 후 근대화이전의 경향 각지 소방서의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망루에서 화재를 발견하는 즉시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압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극소화 하는 일이 소방에서는 전투행동과 같은 것으로 본다.

소방대는 화재현장에 도착 즉시 전투행동을 개시하는 것이므로 화재발생에 따라 다양한 작전기술이 필요하였다. 그렇지만 정형화된 진압작전은 유경험자에 의한 주먹구구식 진압활동에만 의존했던 형편이었다.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대형화재사건을 계기로 내무부 소방국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계적인 소방작전 기본지침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화재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활동의 요구도 증대되었다. 1976년 작전지침을 총정리하여 화재진압작전의 기본 행동요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화재현장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화재현장 지휘의 기본요령을 제정했다. 또한 지휘본부의 설치, 지휘관 책임원칙, 응원요청 진압부대 임무부여,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요령 등에 관한 지침 등도 체계화 하였다.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화재의 위험과 발생빈도는 점점 더 높아짐은 자연적 추세다. 부평지역의 화재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25전쟁의 전후에 해당되는 50년대와 60년대의 화재양상은 주로 정미소, 학교, 양계장 등 소규모 화재에 불과했다. 그 당시의 주요 화재 발생 사례를 보면 1950년 3월 9일 오후 3시 55분에 발생된 부평국민학교(부평동 107번지)의 화재 피해액은 6천6백만 3천4백원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형화재였다. 그 후 1957년 6월 17일 새벽 1시 인천부평정미소(부평동 100번지)에서 발생된 화재도 7백 5만 4천환어치의 양곡 손실을 입혔다.

1971년에는 경향 각지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여, 서울의 경우 12월 25일 새벽에 충무로 대연각 호텔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때의 피해상황은 사망 163명, 부상 63명, 8억 3천 8백 2십만원의 피해액수로 나타나 세계의 10대 화재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부평에서는 3월 18일 13시 55분 북구 십정동 276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2명, 부상 9명, 재산피해액 8만원으로 인천소방행정사에 인명피해 4위의 대형화재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동년 3월 23일 11시 55분에는 북구 십정동 500번지 소재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5명에 재산피해액이 5백 15만 3천원이나 되었다. 동년 5월 13일 22시 55분경에는 대성목재 공장(북구 검암동 244번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4명과 4만 4천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고도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부평지역에도 대형공단이 들어서면서부터 화재발생도 대형화에 이르렀으며, 현대의 화재피해는 인명피해보다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추세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인다.

80년대의 화재발생사례를 보면 1981년 4월 22일 06시 44분에 북구 효성동 대림도정공장의 화재로 3천 3백 5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1987년 1월 27일 06시 10분에는 부평지역에 있는 삼익악기주식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2명에 3천 8백 5십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1987년 1월 29일 01시에는 청천동에 소재한 부평지역 최대의 생산공장인 대우자동차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억 7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인천지역 10대 대형화재 중 제4위로 기록되어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⑽ 민간 소방 조직

근대 소방행정이 비롯된 구한말 재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인명을 화재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영사관에 '소방상비조'설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요구가 관철되어 1884년 11월 18일에 인천 최초의 상설소방조가 결성되었다(인천영사관령에 의함). 이런 조직이 계속 운영

되다가 중·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일본은 전시체제를 갖추려고 1937년 11월 18일 방공법 조선시행령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39년 7월 3일에는 경방단(警防團) 규칙(조선총독부 제104호)을 제정·공포하고, 소방조와 수방단을 해체하여 경방단으로 종합하였다.

그리하여 구 한말 이 후 조직되어 활동한 소방조는 제도상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경방단 조직으로 흡수되어 전개되었다.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배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됨과 동시에 소방대가 편성되었다.

정부수립 후 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1952년 8월에는 방공단 규칙·제정으로 소방대는 일시 방공단에 흡수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53년 7월에는 민병대를 조직케 됨으로써 방공단을 포함한 각종 청년단체가 해산되어 잠시동안 순수 민간자체 소방조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54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958년 소방법 재정시에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소방법 제40조)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합법적 기관으로서의 소화, 수방, 방공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더욱 발전된 계기는 예외규정에 "필요한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인천지역에서도 1959년 4월 1일에 인천소방서 내 유급상비대원 8명을 채용하였다. 그 후 이들 유급상비대원은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최고 150여명까지 증원되어 늘어나는 소방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에 대한 사기 앙양과 신분보장을 위해 유급상비대원을 지방고용원(소방수) 정규직을 부여하였다.(경기지방 180-2580호 1975. 12. 30) 이에 따라 1976년 1월 1일 유급상비대원 132명 전원을 인천시 지방고용원(소방수)으로 특채하였고, 1977년 3월 1일에는 고용원 132명 전원을 지방소방원으로 특채하였다.

한편 지역 의용소방대의 발전상을 보면 1976년 1월 23일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인천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경기 제943호)가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동년 4월 1일에 인천소방서 의용소방대본대 1개대 55명과 부평시장을 중심으로 한 제1지대 2명, 계산동을 중심으로 한 제2지대 25명, 서곶(연희)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20명, 문학을 중심으로 한 제5지대, 주안을 중심으로 한 제6지대 등 1개본대와 5개지대 총 160명으로 구성되었다.

본대와 지대에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 서무반과 보급반을, 방호부에 소방반과 구호반을, 지도부에 예방반, 훈련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 후 1980년 8월 1일 북부소방서(부평 지역 관할)의 개서로 동년 11월 13일에 인천시 의

용소방대 설치조례(인천시 조례 1313호)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소방서 제1지대인 부평지대를 북부소방서 본대로 확대·개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제2지대인 계산지대, 제3지대인 연희(서곶)지대를 북부소방서 제1지대, 제2지대로 각각 명칭을 변경·운영하게 되었다.

1981년 7월 1일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동년 11월 11일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인천직할시 조례 1424호)을 받아 인천직할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 부녀대 1개대 50명 및 인천북부의용소방대 부녀대 1개대 50명을 정원으로 신설되었다. 여기에 홍보부와 구호부의 2개부를 두고, 홍보부내에는 서무반과 홍보반을 두어, 인사, 교육, 훈련, 소방업무, 계몽, 홍보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구호부내에는 구호반을 두어 화재현장의 부상자 처리 및 이재민 위안활동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그 후 북구지역의 구세확장에 따라 1986년 4월 4일 인천북부소방서 제3지대가 십정동 지역에 설치되었고,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시 북구에 편입됨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계양지역에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제4지대를 23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 21일에는 효성동을 중심으로 한 20명 규모의 효성동 제5지대가 증설되었고, 동년 12월 19일에는 석남동을 중심으로 제6지대인 석남지대가 되었다. 1992년 12월 1일 서구지역의 구세확장으로 서부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제2지대인 서곶, 제6지대인 석남지대가 서부소방서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1994년 9월 현재 북부지역에는 본대 1개대와 계산, 계양, 십정, 효성 등 4개지대에 총 148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부녀의용소방대는 1개본대와 계산, 작전 등 2개지대 총 91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화재예방과 진압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소방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자연보호운동 등 각종 정부시책에 솔선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2) 구 소방행정의 특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생활안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 필요하고도 기본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 소방행정의 사명이자 복지국가건설의 첩경이 된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강조, 기회평등의 보장, 사회보장,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등이 요청됨은 당연하다.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야말로 국민복지 정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복지향상에 있다는 점

을 염두에 둔다면 소방행정 역시 이에 대응하여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80년대에는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생활은 더욱 풍요롭고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면에서 괄목할 정도의 향상을 이룩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주변의 안전문제에 잠시 눈을 돌린다면,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구조의 밀집화 현상 등이 초래되어 일상생활을 통해 여러분야에 걸쳐 재해의 발생 및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요인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박한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현 우리 사회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볼 때 위험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의 기능 역시 소극적 소화활동 위주에서 적극적 의미를 띤 예방소방 위주의 행정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소방행정 측면에서 볼 때 환경적 요인으로는 첫째,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고밀도 사회의 구조를 나타내어 도시권의 확대와 대형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재해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야말로 하나의 재해발생이 또 다른 재해를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유발시킴으로써 피해의 양상은 확대될 뿐이다.

둘째로 고층건물과 지상가의 증가에 따르는 건물의 고층화와 심층화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고층건물 및 지하상가의 증가는 화재 발생시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이 매우 곤란함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건축물의 밀폐구조와 장식용 건축자재 그리고 화학성 가연물에 의한 유독가스의 생성, 연기의 급속한 전파 등이 구조활동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

셋째로, 국민생활의 급격한 변화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스사용등의 일상화, 석유난로 등의 대량 보급과 각종 전기 기구류 등의 위험물 취급 기회가 빈번해졌다. 이와 동시에 재해요인의 증대는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전국적 현상이 되고 말았다.

여러가지 분야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각종 산업재해도 증가일로에 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역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노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서 인구 구성비의 변동을 가져와 우리 사회의 응급환자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기초적인 경제욕구가 해결되어, 의료문제를 포함한 안전의식에 대한 욕구 또한 심화되었다. 그러므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욕구가 팽배해 가고 있음은 자연적 추세다.

이러한 도시화에 수반된 재해발생 위험도의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려면 지역사회의 자체 구조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서는 방재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경화사상(警火思想)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해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오늘의 현실에서 소방행정의 업무는 양적으로 방대해지고 질적으로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소방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전문행정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해야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화재예방 및 초기 진압태세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119구급 및 구급업무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소방',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자율소방'이 될 것이다.

북구는 구 권역이 공장 밀집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급속히 도시화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가 증가됨에 따라 건물 구조의 대형화,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폭증적 소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소방서와 파출소의 증설은 물론 고가 사다리차 등과 같은 과학적 소방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능동적인 진압 태세를 완비하며,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화재대상과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안전 점검을 정밀히 하여 예방위주의 소방행정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화재 예방과 진압업무 이외에도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아동봉사대의 설치 운영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름철 한해나 수해 발생시에 급수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도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행정이 항상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자리하여 위험이 생기면 언제, 어디든지 찾아가는 봉사기관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방행정이 전개될 때 인천북구 소방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소방행정이 그저 '불만 끄는' 소방행정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모든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방관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방재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갖도록 해양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 강화와 지역방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반의 소방안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시민 각자의 인명가 재산,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민들 각자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화재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초기에 대처하는 소방행정의 근본업무 역시 개선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한 대민봉사 행정의 강화로 구급 및 구조업무를 좀 더 전문화하여 재해발생시 그 피해의 최소화를 기하는 소방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13. 새마을 행정

## 1) 새마을행정의 특징

새마을행정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 지방장관회의시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한 것이 효시가 된다.

새마을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이다. 즉 '잘살 수 있다'라는 정신적 의지로 잘살아 보자는 운동이다. 둘째, 근대화 운동이다. 산업근대화에 따른 경제적 근대화와 여기에 발을 맞추어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근대화를 이룩하여, 명실상부한 고도산업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셋째, 새마을정신의 생활화 운동이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새마을 정신으로, 잘 살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자조·자립정신이 강해야 되며, 그리고 협동해야 한다는 정신인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은 1960년대에 구축된 공업기반위에서 출발하게 된 것임은 물론이다.

1970년도부터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이념으로 삼아 농촌에서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한국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민족의 지력과 역량을 결집한 민족의 대 약진운동이었다. 이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관과 민족이념, 그리고 국민의 주체의식을 성립시키는 터전이 마련되어 경이적인 경제발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오늘의 현실은 2000년대 민주번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과 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도 추진과정에서 하향식 추진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비판적 여론이 대두되어 새마을운동은 침체일로의 길을 걷게 되었다.

더욱이 1994년 정부의 새마을 단체 및 바르게살기 단체, 자유총연맹 단체와 정부의 지원중단에 따라 새마을 단체도 95년도에는 전년도의 50%만 지원 받았고, 96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 청사에 있는 새마을과 관련된 건물은 사업소나 기타 건물로 이전토록 하였으며, 95년부터는 현재 공보관에 있는 사무실도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어서 새마을 단체는 독자적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 속의 발전을 희구하는 국민적 열망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범국민적 에너지의 결집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한 때의 시련과 침체를 딛고 일어나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이념과 목표를 발전적으로 정립하고 자체역량을 키워나갈 기로에 서 있다. 이 운동은 국민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특히 발전의 그늘이 있는 농촌을 비롯한 사회 저변층에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보내 국민적 일체감과

화합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자존의 새 지표를 열어 세계사의 주역으로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기필코 이룩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부평구의 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할 할 때 비로소 새마을행정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 2) 새마을행정의 변천

(1) 조 직

① 협의회 운영

새마을운동의 종합적이고 통일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시에는 시새마을운동협의회, 구에는 북구(부평구)새마을운동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다. 그리하여 1983년 12월 20일에 북구지회가 결성되고, 1984년 3월 22일에는 새마을운동북구지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의 기능으로서는 새마을운동 관련기관의 사업조정과 지도계몽 및 홍보협의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새마을운동 추진방안의 검토와 조사 및 연구를 한다.

② 추진기구

새마을사업의 종합적인 추진과 구 및 동의 개발행정의 지도 및 조정 등을 위하여 1973년 2월 5일 시에는 총무국 내에 새마을과, 구에는 총무과 내에 새마을계를 신설하여 새마을 업무를 전담, 추진토록 하고, 구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 농촌건설, 새마을 가꾸기, 새마을 지도자 육성, 부락세 조사, 농로개발 등을 담당하는 새마을계를 두었다. 시 개발계에서는 도시개발, 농가 지붕개량, 도로변 정화사업, 시범지역 개발사업, 농촌취락 건설, 도서와 낙도의 개발, 가로수관리 마을 및 양묘 대상마을 지정업무를 추진토록 하였다. 그리고 1993년 8월 5일에 새마을 운동의 혁신을 위하여 담당계의 명칭을 새마을계에서 사회진흥계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새마을지도자 위촉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풍요한 마을에는 으레 그 마을을 희생적으로 이끌어가는 동장이나 지도층이 있었고, 그와 반대로 빈궁한 마을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숙명적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풍조가 있었거나 이를 극복하는 지도자적 인물이 부재했던 배경을 들 수 있다.

1971년 새마을 실험 사업 이후 1972년에 전국 마을단위로 새마을운동을 주도해 나갈 새마을지도자를 남자 1명, 여자 1명씩 위촉하였다. 그 당시에 동 단위로 남자, 여자 각각 1명씩 총 22명을 위촉하였으며 1974년에는 당시 통 제도가 설립됨에 따라 동단위 지도자외 통단위로 남·여 지도자 각 1명씩 98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그 후 시정 발전에 따라 동이나 통증설시마

다 지도자는 남·여 각 1명씩을 계속 위촉하여 1994년 10월말 현재 2,386명이 위촉되어 지도활동을 펴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 제복, 모자 그리고 뺏지의 착용과 훈련화를 신고 지도활동에 나섰다. 또한 성실한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동당 1명씩 선발하여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함은 물론 지도자증을 발급하여 지사, 시장과 면담할 수 있는 특혜도 주었다.

이 밖에 이들 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구청장이 년 1회 이상의 격려서한을 발송하였으며, 그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지도자 경력 2년이상, 학년석차 100분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94년 상반기에 84명, 하반기에 90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지역 새마을사업에 공이 많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전국단위 새마을 지도자대회와 구단위 새마을운동 전진대회에서 시상하였다. 또한 매년 1회씩 새마을지도자의 성공사례를 발표케 항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케 함은 물론 그 효과를 확산토록 하였다.

(2) 교육, 홍보

① 새마을교육

새마을교육이 새마을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이 운동의 성과는 지도자 활동 여하에 달려 있어,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 해주고 지도자를 양성해 내는 새마을 교육이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된다. 그리하여 중앙단위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이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430의 3에 신축되어 1972년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도 단위로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수원시민회관(매산로 3가 1번지)에 임시 설치하여 1975년부터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감당케 하였다. 그러던 중 교육원(수원시 파장동 184번지)을 신축함으로써 1979년 하반기부터 이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새마을중앙연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17의 2)에서 94년에 118명, 95년 상반기에는 236명의 지도자에게 핵심지도자 교육을 5박6일씩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의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갈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중이다. 동시에 『제2의 새마을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젊은층의 새마을 지도자를 선발하여 『핵심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새마을지도자 교육시간은 중앙교육의 경우, 남자 지도자는 10박 11일, 여자지도자는 4박5일이며, 도단위 교육의 경우는 남·여 지도자 공히 4박5일이다. 교육부 부담은 중앙단위 교육은 국비로서 충당하며, 도단위 교육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한편 시 자체 교육내용을 면 1973년부터 인천교육대학의 시청각 교육관 또는 강당에서 주부시민대학을 운영하였으며, 강사진은 교육대학 교수진으로 1기에 3일간씩 실시하였다. 그리

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에 시민대학을 부설하여 중졸이상의 기·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유명교수를 초빙하여 기당 4주씩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1974년 7월 1일부터 부평중학교(교장 오학환)에서 국내 최초로 민족주체학교가 개교되어, 지역 새마을지도자와 학부모, 주민 등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년간 44시간에 걸쳐 국사, 반공, 새마을운동 및 시사교육을 매년 실시하였다. 그 후 오교장이 부평여중으로 전근함에 따라 이 교육을 1981년 6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② 새마을 홍보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이 운동의 동기나 중요성을 공무원들 또는 주민들에게 주지시키려고 "새마을에의 길"이라는 휘호를 관공서 각 사무실마다 게첩하였다. 또한 "새마을 노래"도 작곡해 새마을행사는 물론 각 사업장에서도 부르도록 하여, 새마을운동이 우리 세대에 꼭 성공해야할 시대적 과업이라는 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1973년부터는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그 이듬해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 사이에 구단위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새마을열기를 가열시켰다.

새마을운동의 홍보 방법으로는 간행물이나 전단배포, 표어 게첩, 동별 앰프방송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매년 꾸준히 전개하였다. 그리고 가로에는 아치, 선전문, 입간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새마을 사진 전시회, 신문을 통한 담화문 발표 등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

(3) 도시 새마을운동

① 기초 환경개선

1970년 새마을운동 제창이후 1971년에 전국 33,267개 마을(1979년 현재 34,871개 마을)이 정부지원 시멘트를 마을 당 335포씩 배당받아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실험적으로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이 실천사업에 대해 이론이 분분했으나, 새마을지도자를 주민 총회에서 선출하여 지역 새마을운동을 구심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 말하자면 주민 총회는 직접 민주제의 한국적 형태를 이루었고, 대규모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오늘에 와서는 소집단 민주주의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새마을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75개동(1979년 현재 시 79개동)이 정부 지원 시멘트와 철강으로 새마을사업을 시작한 결과 1970년대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초기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1977년까지는 중앙지원에 의존하였으나 1978년부터는 도시 지역의 사업에는 중앙지원이 끊겼다. 그런데 1976년부터 시 자체 예산에 의한 근교마을 가꾸기 사업을 타 시보다 특수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의 근면, 자주,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나

가는 동시에 근교 농어촌의 생활 환경, 생산 기반 등 기본 시설을 정착 확충하여 근교 복지문화농어촌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또한 새마을운동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우수마을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 선발 보고토록함으로써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지원금을 마을 당 100~150만원씩을 받아 마을 개발에 투자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을 열성있게 추진한 우수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그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 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한편 인근 비지원 마을에 대하여는 자극과 분발의 기폭제가 되어 새마을운동의 파급 효과를 기함으로써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뒷바침 된다는 전통을 확립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사업 추진 기간은 12월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하였으며, 마을 선정 기준은 당해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지도자가 포상을 받는 마을이나 새마을사업 실적이 현저히 우수한 마을 또는 자립 의욕이 강하고 부녀지도자 등의 활동이 우수한 마을로 시장,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마을에 한했던 것이다.

대상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하되, 새마을의 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반영구적 기반시설을 원칙으로 했고, 사업추진은 중앙에서 별도로 제정한 '특별지원사업 추진관리 종합지침'에 의거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새마을가꾸기 사업과 아울러 농어촌의 초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경이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수세기 동안 겪어온 가난과 개선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꼬불꼬불한 마을 진입로, 비좁은 마을 안길을 따라 무질서하게 자리잡은 초기마을은 우리 농어촌 사회의 정체와 낙후, 나태와 체념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이었다.

이리하여 지붕 개량 추진은 고속도로 주변, 주요 도로변, 철도주변, 관광지 주변 등 지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작하였고, 보조금 이외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과 농한기 없이 노력하는 농어민들의 힘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이룩하였다.

그동안 남·북구 관내 개설한 농로 면적은 5,552.7평(16,600지)이고 이는 전국적 길이로 환산하면 43,966km로서 경부 고속도로의 103배에 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교량을 만들고 소하천을 가꾸었으며 농어촌 전화사업은 전국적으로 98.9%를 이룩하였으며 당시는 거의 100% 완성되었고 근교마을 구석구석까지 전화가 가설되었으며 간이 급수 시설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마을단위에서 주민 스스로 조성한 재산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니 재산 유형으로는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 등의 토지와 마을회관, 복지관, 목욕탕, 공공 창고 등의 건물 등을 들 수 있다.

인천시 북구의 82년도 새마을 가꾸기 사업내용은 〈표 13-1〉과 같다.

〈표 13-1〉 82년도 새마을 가꾸기 사업 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 사업량 | | 사업비 | 지 원 | 주민부담 | 비 고 |
|---|---|---|---|---|---|---|
| | 건 수 | 수 량 | | | | |
| 계 | 116 | | 20,946 | 4,125 | 16,821 | |
| 도 로 사 업 | 12 | | 8,514 | 1,375 | 7,139 | |
| 농 로 보 수 | 5 | 1,600m | 3,198 | | 3,198 | |
| 마 을 안 길 | 6 | 2,455m | 3,255 | | 3,255 | |
| 도 로 포 장 | 1 | 110m | 2,061 | 1,375 | 686 | |
| 수 리 사 업 | 1 | 500 | 167 | | 167 | |
| 도 수 로 보 수 | 1 | 500 | 167 | | 167 | |
| 위 생 사 업 | 17 | | 1,610 | | 1,610 | |
| 변 소 시 설 | 2 | 2평 | 360 | | 360 | |
| 변 소 보 수 | 8 | 8평 | 205 | | 205 | |
| 공 동 우 물 | 2 | 2평 | 34 | | 34 | |
| 하 수 구 보 수 | 5 | 2평 | 1,011 | | 1,011 | |
| 가 로 환 경 개 선 | 86 | | 10,655 | 2,750 | 7,905 | |
| 장 독 대 신 설 | 2 | 6평 | 35 | | 35 | |
| 장 독 대 보 수 | 31 | 62평 | 613 | | 613 | |
| 부 엌 신 설 | 3 | 15평 | 57 | | 57 | |
| 부 엌 보 수 | 20 | 88평 | 1,432 | | 1,432 | |
| 부 속 사 신 축 | 3 | 15 | 350 | | 350 | |
| 부 속 사 보 수 | 12 | 63 | 710 | | 710 | |
| 공 동 빨 래 터 | 2 | 2 | 61 | | 61 | |
| 측 구 정 비 | 4 | 600m | 891 | | 891 | |
| 담 당 보 수 | 4 | 39m | 181 | | 181 | |
| 하 상 정 비 | 3 | 1,300m | 1,140 | | 1,140 | |
| 제 방 보 수 | 1 | 160m | 1,723 | 1,375 | 348 | |
| 측 구 신 축 | 1 | 200m | 3,642 | 1,375 | 2,087 | |

② 주민 정신 계발

모든 근교 새마을에 마을문고를 설치하여 마을단위 소도서관화 함으로서 주민정신 계발에 기여하였다. 이 마을문고는 지식의 대중화와 근교 농어촌 주민의 정신문화 창달을 기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주민의 생산 기술가 생활문화를 향상시켜 새마을운동이 정신적 기조를 정립하고 도시 근교에 문화, 복지농어촌 건설을 촉진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문고 사업은 1978년 문교부로부터 내무부로 이관되어 1978년 7월 24일 사단법인 마을문고 인천시 지부를 결성하고 초대 지부장에 강한성(북구 관내 경향산업대표)씨를 임명하여 제1공보관 2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근교마을마다 문고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마을문고의 운영 주체로 '마을 문고회'를 조직하고 문고운영의 자립화를 도모하였으며, 1983년 6월 14일 북구 초대회장에 유춘식(柳春植)씨를 임명해 북구 지부를 창립하였고, 현재는 김장석(金長錫)씨가 2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마을문고에는 최신 농업기술 책자 등 좋은 신간 도서 확충을 위하여 매년 양서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주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문고는 주민 도서실겸 교육장화하고 청소년의 학습장(마을 공부방)화하는 것을 문고운영지표로 설정해 문고 이용자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북구관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개 문고에 75명의 회원들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다.

③ 자립마을 육성

도시 근교마을이란 마을규모가 40호 이상인 마을로서 마을의 전 호수중 60%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마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의 당초 근교마을은 시전체 122개 마을로서, 중앙지원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시비 지원의 근교마을 가꾸기 사업 등이 마을 개발과 발전에 참여하여 왔다.

그리고 이 마을들에 대하여는 생산 기반사업, 소득 증대사업, 복지 환경사업, 협동 정신계도사업의 4개 분야로 사업별 평점을 두어 평가하는 새마을평가제를 1973년부터 실시하여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매년 10월중에 내무부 주관으로 새마을 운동 총열을 실시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도시 근교마을은 시장, 구청장이 마을 총열을 실시하여 마을별 평가점수에 의해 마을단위와 마을등급을 결정하였으며 이미 정해져 있는 수준별 승급 필수기준 사업을 완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 평점이 일정 기준 점수를 얻은 우수한 마을은 승급 조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기초마을은 자조마을로, 자조마을은 자립마을로 승급하고 80년대에는 자립마을을

자영마을로 승급하게 하였다.

새마을 총열을 한 다음 새마을 총열 평가표는 시장, 구청장이 총열 집계를 마친 후 마을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마을의 수준을 알게 학 총열 내용에 대한 정확, 공정성을 확인하게 하여 마을 개발 지표로 활용케 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 결과 결정된 마을 등급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근교 마을을 가꾸어 왔는데 근교마을의 도시화 추세에 따라 1977년에는 122개 마을이 30개 마을로, 1978년에는 30개마을 중 북구에 6개 마을로 감소되었으며, 1979년도 새마을운동 총열 결과는 전 근교마을이 자조마을에서 자립마을로 평가되어 승급되었다.

(4) 도시 새마을운동의 점화

① 배 경

1970년 이래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일어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던 중 1973년에 들어서면서 산유국의 유가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불어 닥쳤다. 그러자 도시민에게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처방은 새마을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찾게됨으로써 농촌 새마을에서 도시 새마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새마을운동이 '잘 살기 운동'이라면 전 인구의 65%가 도시에 거주하고 앞으로도 도시화 추세에 따라 도시인구는 점점 증가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도시 새마을운동이 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핵적 기능을 수행함으로 도시민의 의식구조가 곧 전국민의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더구나 경제적 근대화에 병행하여 시민 정신의 근대화가 병행되어야 하는데도 도시사회에는 각종 병리 현상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도시 새마을운동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② 추진 과정

1974년 3월 22일 동구 관내에 있는 오성극장에서 도시새마을직장단체대회를 열어, 70만 시민은 물론 각 직장이 새마을 사업에 앞장설 것을 다짐함으로써 도시새마을운동이 점화되었다.

따라서 1974년부터 1976년에 걸쳐 새마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도시새마을운동이 정착 단계에 들어섰고, 1977년부터 1978년에 걸쳐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 운동 등으로 도시 새마을운동의 내실·정착과 자조 발전을 이룩했다. 1979년은 10대 구심 사업을 설정·추진하는 등 도시 새마을운동의 확산, 심화과정으로서의 자립과 발전을 보는 해였다.

(5) 도시 새마을운동의 성과

① 시민윤리의 확립

도시 새마을운동은 도시인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아 시민윤리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반상회를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일깨우고 새마을의욕을 고취시켰다. 1976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반상회를 이용한 "이웃 친하기운동"에 새마을 역점을 두고 지역 개발을 자율화 효과를 고양한 바 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범시민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공유지나 접객업소의 퇴폐풍조를 추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공동체 의식과 질서 의식 고취를 위하여 반복적 교육과 계몽,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 밖에 사회 지도층의 솔선 참여와 범시민적 결의를 다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직능별 새마을 촉진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한편 새마을운동 협의회 운영도 강화시켰다.

특히 새마을 실천지구로 지정된 시장이나 상가의 상법내 질서 확립을 위하여 폭리·부당요금 안받기, 매점매석 안하기, 불량식품, 불량상품 안팔기, 정부요금 시책 협조하기 등을 실천요목으로 제시하고 자율 실천을 계도하는 지도 계몽과 단속을 병행하였다.

② 새마을금고의 육성

새마을금고운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적극 지원, 육성하여 도시새마을운동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 협동 조합법 제84조를 보면 재무부 장관은 금고 및 연합회의 신용 재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89조를 보면 정부의 협력을 규정하여 정부는 금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연합회에 보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새마을정신의 상징으로, 마을 수준의 척도로, 주민 소득의 원천으로, 그리고 인보(隣保)협동의 모체로 육성하여 근검절약의 산 교실로 키워왔고 시민 총화의 실천 도장으로 육성해 왔다.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는 알차게 육성하여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절약과 저축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케 하고, 상조와 협동으로 통화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새마을운동의 자율적 영속 발전을 위한 주민의 정신적, 경제적 협동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③ 쾌적한 환경 조성

도시 새마을사업 중 가로 환경정비 사업은 가장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처음 1972년 북구에서는 고속도로 및 국도변을 중심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벌려 1,235건을 정비하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시범 가로를 지정·정비함으로써, 1973년에 5,651m에 달하는 가로와

1974년에는 가로변 정비와 아울러 시범가로에 대하여 7,140건의 정비 실적을 쌓았다. 그리고 시내 가로 환경정비 사업을 벌려 1975년에는 8,137건, 176년에 10,356건, 1977년에 11,160건을 정비하였고, 1978년에는 전국체전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38,201건이나 정비하였으며, 1979년에도 마무리 사업으로 6,146건을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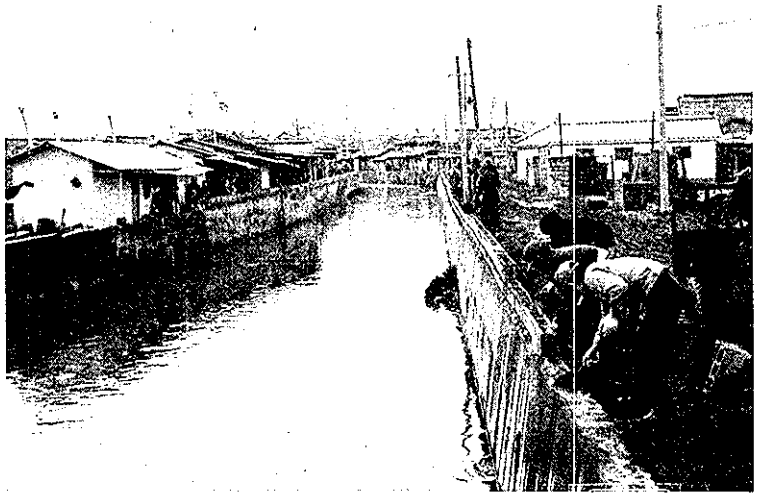
특히 1974년 5월 10일 동양 최대의 인천권 선로 준공을 전후하여 월미도 주변의 정비와, 같은 해 7월 14일 경인간 전화 전면 자동화에 이어 개통되는 8월 15일 경인 전철 운행을 계기로 철로변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는 제59회 전국체전 개최 준비로 환경 정비를 비롯한 도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④ 1978년도의 가로환경 정비

중점 지도 방향으로 가로별로 조화미를 살려 건물을 정비토록 하였고, 간판은 1점1간판을 원칙으로 정비토록 하였으며 담장은 유형별로 표준화하여 정비토록 하였다. 정비실적을 보면 건물 정비가 12,535건, 간판정비 9,170건, 담장정비 1,388건, 도색정비 11,365건 그리고 기타 3,734건으로 총 38,201건씩이나 정비되었다.

가로 환경정비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시에서는 특별히 도시 환경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정비추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정 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가로 또는 지붕 도색의 조화미를 살리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전문 교수단을 초빙, 도시 색상에 대한 자문을 받아 도시 미관에 주력하였다.

시민들의 정비 의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인천역 광장에서 시범 간판과 광고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기능별 추진 관계자들로 하여금 선진 도시와 가로 등의 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선진국가의 도시를 3회에 걸쳐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구간, 동간의 비교평가



부평시장에서 갈산동으로 흐르는 굴포천 정비

를 실시해 8회에 걸친 평가 보고회를 갖기도 하였다.

한편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도로 환경정비 건축물에 한하여는 건축설계비를 협정가의 25%만 부담할 수 있도록 대폭 인하 조치를 취하였다. 때마침 당시에 시멘트 품귀현상이 일어났는데, 서울 서한실업(주)에 특별히 의뢰, 시전체 141천포를 알선하여 구입희망자에는 공급하였다.

북구에서는 십정동, 효성동의 일부지역과 갈산동 사근다리 주변에 수해방지 제방 설치로 투자비 400,000원을 들여 시멘트 200포, 길이 200미터의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가로 정비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 주기 위하여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15억원을 융자받았으며, 정비 계획 지구에 한해서는 상수도 공채를 면제토록 하고, 도로 점용료를 감면토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었다.

⑤ 불량지구 정비

가시권 불량 지구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비를 단행하였다. 대상지구는 주요 도로에서의 가시권과 주·보조 경기장 주변의 가시권으로 5개 불량지구에 대하여 2,647동을 철거하여 정비하였다. 정비 방법으로는 주거 지구에는 현지 개량으로 하고, 녹지 지구에는 철거 후 조정·공원화 하도록 추진하였다.

⑥ 도시 공간 미화(꽃거리 조성)

꽃에 묻힌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각구·동에 꽃 은행 창구를 상설 운영 꽃거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별 책임제를 실시하면서 자연보호 운동과 연계하였다. 당시 공간 미화를 위하여 중점추진한 내용을 보면, 주요 가로에는 꽃 상자와 화분을, 각 상가점포에는 화분을 내 놓도록 하였고, 도로변 공지에는 수벽이나 화단을, 근교 도로에는 꽃길을 가꾸었다.

(6) 직장 새마을 운동

① 민간단체 새마을 운동

직능 새마을운동은 1973년에 점화된 도시 새마을운동과 같이 출발하였다. 같은 해 중앙에는 기업인, 경제인, 교육자,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이 모여 직능 새마을운동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직능단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를 조성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 것이 도시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이 후 1975년 6월 27일 상공회의소내에 서울특별시 민간 단체 새마을 협의회가 발족됨에 따라 인천에서도 상공회의소내에 1975년 7월 9일 협의회 발기를 추진하여 1975년 7월 31일 인천시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협의회를 창립함으로써 도시 직능단체 새마을운동을 관 주도형

에서 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 11월 10일 내무부로부터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협의회 운영지침이 시달되고, 1976년 11월 10일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창립됨에 따라 본격적 활동이 시작되어 이 협의회가 도시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② 학교 새마을 운동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과 밀접한 연계가 이뤄져야 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정신혁명운동으로 볼 때 학교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국민교육의 장이자, 교육을 통한 국민정신 배양의 보루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점화 단계에서부터 정신 계발면에서는 물론 환경의 개선, 소득의 증대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학교 새마을운동은 따로 새마을교육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왔던 것이다.

- 교육과정 운영을 지역사회 조사를 기초로 향토화하고 그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교육과정).
- 학습 지도는 지역사회 조사의 모든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화 한다.
-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의 함양과 합리적, 능률적, 생산적인 생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내외 생활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지도한다.
-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및 미진학 청소년과 성인 전체의 교육을 위한 각종 기회를 제공한다(성인교육).
- 학교는 교육적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 학교는 그 지역사회의 과학생산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적인 역할을 한다(생산교육).
-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교육, 문화, 체육활동을 조장하고 그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문화활동 주도).
- 학교는 새마을교육, 성공사례집 등의 발간을 통해 충분히 홍보한다(홍보활동).

이러한 새마을교육의 추진방침에 따라 그동안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학교 새마을 교육이 계획되고 실천되었다.

학교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학내 새마을운동

- 새마을정신 교육을 통하여 국가민족에 대한 자주성 내지는 주체의식 고양과 애국애족하는 실천적 생활자세의 확립
- 학내 및 학교주변의 녹화와 환경정리
- 새마을 갖기, 고운말 쓰기 등을 통한 의식의 순화
- 면학 분위기 조성 등 건전 기풍의 확산
- 새마을운동의 연구를 통한 발전 기반의 구축
- 학습지도의 향상을 위한 교사의 협력체제 강화
- 공공물 애호, 교토도덕, 준수 등 생활 태도의 개선
- 합리적 써클 활동을 통한 집단 의식의 제고
- 폐품 활용 등 생활개선 학습을 통한 절약 저축 정신의 함양

○ 학외 새마을운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새마을운동 확대 추진의 기여
- 인근지역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참여
- 모내기, 벼베기 등 지역 영농 일손돕기

○ 새마을기술 봉사

- 지역환경 정화운동 참여
- 군부대, 양로원, 고아원 등의 위문
- 교통정리 푸른 도시 가꾸기, 각종 캠페인 참여

이상 총괄적으로 학교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실례를 찾아 그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 새마을운동 담당교사를 두고 새마을운동을 추진토록 했다. 그리고 우선 학교 주변을 정화하고 교재원을 조성하며 생울타리를 만드는 등 새 학교 가꾸기운동부터 시작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과 도시 새마을운동의 기본이 되는 질서교육을 담당·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고버섯, 국화, 수목의 재배 등 생산교육도 실시하였다. 특히 도시 새마을교육의 파급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 새마을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1978년 2월에는 각급학교 단위로 '자연보호회'를 조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을 알고 사랑할 줄 알도록 자연속에서 자연을 공부하는 임간(林間)학교를 설치하는 등 자연교육에 치중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보호 행사에도 참여하고 매주 말, 일요에는 보호회 별로 담당보호구역에서 현지 정화활동을 하고 아울러 비닐류 폐품 수집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실업학교와 근교 농어촌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농어촌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서 학교로 하여금 근교 지역의 과학적 생산 기술의 진흥을 도모함과 아울러 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역할을 하여 새마을 운동의 확대와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③ 부녀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조국 근대화 운동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는 동안 농촌과 도시 직장과 공장에서 부녀(여성)의 역할은 매우 컸다. 매년 기회있을 때 발표된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 아래 부녀자들은 잠자던 주민들의 개발 의욕을 일깨워 새마을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부녀자들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우리 사회에 근검절약의 기초를 조성하고 주도한 점이다. 아침 저녁으로 쌀 한 숟가락씩을 모아 그 돈으로 부엌도 개량하고, 가난한 이웃도 도와준 사례도 있고,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공병, 폐품을 수집, 매각하는 등 알뜰히 모아서 새마을 금고에 저축하여 그 기금을 공동 직판장을 만들어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보다 싼 값에 공급받기도 했고, 공동 빨래터를 만들기도 하였다.

부녀회는 한국부인회 등 각종 부녀단체가 참여하였으며, 1973년 4월에는 새마을 부녀교실이 발족, 운영되었고, 1977년 9월에는 새마을 부녀교실, 가족계획 어머니회, 생활개선구락부 등이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부녀회는 우리 생활의 폐습을 타파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미신과 도박을 마을에서 추방하고, 술집을 정비하여 술주정 대신 건전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며, 관혼상제의 가정의례를 간소화 하는데 여러가지 계몽을 하였다. 또한 애써 모은 재산이 허례허식에 낭비되는 폐풍을 없애는데 기여하였다.

그외에도 농촌에서는 모내기, 가마니 짜기, 새끼꼬기 등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였고, 도시의 여성들도 지역과 직장, 공장에서 수출고를 올려 수출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산업 역군으로서의 한 몫을 다하여 왔다.

④ 기타 직능 새마을운동

사회 일선에서 물러 선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건전한 심신 발달과, 보람되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지도하여 명랑한 사회 기풍조성에 자율 참여토록 함으로써 새 노인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노인 새마을운동의 추진 내용을 보면 노인학교를 통한 사회교육, 집안 가꾸기, 3대 질서 운동의 솔선 실천, 가훈 갖기, 국기 갖기, 인보(隣保) 운동, 독서하기, 기타 도의운동 등을 펼쳤

는데, 매년 10월 중에는 성공사례 발표회를 갖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시장 새마을운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설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는 바, 시장별로 새마을운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새마을사업의 자율적인 추진을 전개하였다.

먼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상인과 고객간의 신뢰 풍토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시장의 난잡한 불량간판을 정비하고, 시장 골목을 정비하는등 환경 시설을 정비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7) 공장 새마을운동

① 배　　경

1970년대는 경제성장, 국제수지, 산업구조 및 사회 간접 자본 등 각종 개발사업 분야와 경제구조면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73년도에 세계를 휩쓴 석유파동은 우리나라에도 닥친 매우 큰 시련이었다. 당시 공장에서의 노사간협조, 원가 절감 등은 크나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때 문제의 해결은 새마을운동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첩경이고,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공장 새마을운동은 도시 새마을운동과 동시에 점화되기 시작하였다. 1976년까지만 해도 공장새마을운동은 도시 새마을운동의 한 분야인 직능 새마을운동의 범위에 포함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고도산업사회 발전에 대응해서 보다 높은 노사윤리를 확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977년부터 이를 분리하여 독립된 분야로 발전시켜 왔다.

(8) 80년대말의 새마을운동 성과

89년의 새마을운동은 한 때의 시련과 침체를 딛고 일어나 새마을운동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적 과제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새마을운동으로 재 점화, 활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등 추진 요원에 대한 사기 진작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의 새로운 결속을 통해 국민운동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다.

① 새마을운동 재점화, 활성화

○ 새마을운동 결속의 활성화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유능인사 187명을 새마을지도자로 신규 영입하여, 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지도자 자녀로서의 자긍심 제고와 후속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다. 그 내용은 〈표 13-2〉와 같다.

아울러 새마을지도자의 하계수련대회 및 산업시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으로 재점화, 활성화에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 현황은 〈표 13-3〉과 같다.

〈표 13-2〉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실적 (1993, 1994년)

| 구 분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비 고 |
|---|---|---|---|---|
| 93년도 | 61명 | 96명 | 43,255,800원 | |
| 94년도 | 89명 | 87명 | 51,153,000원 | |

〈표 13-3〉 94년도 새마을지도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지역 새마을지도자 | | | 직 장 | 문 고 | 금 고 | 계 |
|---|---|---|---|---|---|---|---|
| | 소 계 | 남 | 여 | | | | |
| 명 | 2,080 | 1,010 | 1,070 | 47 | 75 | 31 | 2,283 |

○ 새마을운동 자율 실천결의대회 개최

침체되었던 새마을운동을 재 점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들이 앞장 서 실천하겠다는 자율실천결의대회를 새마을운동 재창 제19주년을 전후하여 89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각 구별로 개최하였다. 의식행사로서는 자율실천 결의 및 유공자 표창이 있었고 부대행사로는 나무심기, 꽃심기 자연보호 캠페인, 법질서 지키기, 가도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표 13-4〉 새마을운동 자율실천결의대회 개최

| 일 시 | 장 소 | 참 석 | 비 고 |
|---|---|---|---|
| 89. 4. 21 | 부평안병원앞 | 단체원 등 | |

②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89년 새마을운동 추진상황을 종합결산하고 90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89년 12월 12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새마을지도자 등 3,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새마을운동 결산보고, 우수마을 특별지원금 수여, 유공자 표창, 건전소비생활실천 결의 등이 있다. 한편 대통령 하사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 13-5〉와 같다.

〈표 13-5〉 대통령 분기 포상사업 집행 현황

(1989년)

| 위 치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기간 | 사 업 비 (천원) | | |
|---|---|---|---|---|---|---|
| | | | | 계 | 지 원 | 자부담 |
| 북구 부평6동 18통 | 18통 콘크리트 포장 공사 | 콘크리트포장 − 3a<br>인도브럭공사 − 3.4a | 83. 3. 18 ~ 3. 30 | 4,000 | 3,00 | 1,000 |
| 북구 부개동 2통 | 2통 콘크리트 포장 공사 | 콘크리트포장 − 12.8a<br>하수도토관매설공사 − 100m − $\phi$45 | 83. 3. 18 ~ 4. 1 | 9,070 | 5,000 | 4,070 |
| 북구 부평4동 13통, 2통, 6통 | 콘크리트 포장 공사 | 콘크리트포장 − L = 134m − W = 8m 10.27a | 83. 8. 23 ~ 8. 30 | 8,000 | 5,000 | 3,000 |
| 북구 부평1동 제이시공원 (부평역전앞) | 육각정 건립 − 3평 | 육각정 건립 − 3평 | 83. 6. 26 ~ 12. 28 | 8,250 | 3,000 | 5,285 |
| 북구 작전동 99-1 천마화학(주) | 회사내 도서실 설치 | 열람실 10평<br>서 고 5평<br>창 고 7조<br>탁 상 6조<br>의 자 36조<br>도 서 1,384권 | 84. 3. 10 ~ 5. 3 | 5,000 | 3,000 | 2,000 |

○ 부평역 육각정 건립 현황

− 설립 발기인 : 직장새마을운동 인천직할시 북구협의회(회장, 안승택)

• 당시 부평 연합병원 부원장

− 기 공 식 : 1982년 6월 26일(토) 12:00

• 부평역앞 제이시(JC) 공원 내

− 사업 개요

• 노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충효사상을 함양하고,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고독감을 덜어주고자 함.

- 82년 대통령 훈장〔근면장〕 우수새마을지도자 대통령 하사금(3,000,000원)으로 사업 집행

③ 새마을 사업의 내실추진

○ 새마을 교육

새마을 운동 추진요원의 자질 향상과 지도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새마을교육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중앙연수원과, 강화 산업교육원에서 실시하였다. 89년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주관으로 교육대상자를 차출, 입교토록 하였으며, 대리 입교 및 노약자, 병약자 등 부적격자가 입교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고, 나아가 피교육자가 희망하는 적절한 시기에 입교토록 하였다.

○ 건전 소비생활 유도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퇴폐와 향락,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로 시민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며, 사치, 과소비, 과대소비 배격으로 근검, 절약하는 사회진풍을 조성하고자 건전한 소비생활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추진 방법은

- 고위 공직자, 사회지도자층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 새마을 조직 소비자 단체, 여성 단체 등 민간조직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 반복적, 지속적 홍보와 계도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원천적인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불법광고물 정비

공권력 복구 차원에서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하여 시가지, 고속도로, 국도, 철도변 등에 있는 불법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창출하고 조화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였다. 특히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하여, 행정 광고물을 비롯한 불량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도록 했고, 특히 음란, 퇴폐 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쇄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 새마을 대청소

대청소를 새마을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 기간을 설정하여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자생 조직원, 유관단체, 학생, 시민 등 시 전체 1,713,272명이 범시민운동으로 참여하여 주요 거리, 뒷골목 등 11,538개소를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 시범가로 조성

색상과 조형미가 조화된 밝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와 꽃이 사시사철 피는 쾌적한 생활공

간으로 격조 높은 선진 국제 항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시 전체를 색채환경을 고려한 시범가로 12개 노선 9,479개소를 지정, 중점 육성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 색채 환경 시범 가로
  -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별, 가로별 특성을 살려 밝고 화려하게 조성
  - 가로, 점포의 간판은 네온사인 등으로 시설
  - 가로변 가로등은 타트륨으로 교체하여 밝고 생동감있는 도시 건설
- 꽃길 조성 시범 가로
  - 지역별, 노선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1년 화초보다 숙·구근류 위주 식재
  - 계절별 순환개화할 수 있는 화종선별 식재

〈표 13-6〉 88 새마을 가꾸기 서운동 시범 사업

| 구 분 | 건 수 | 사업비(천원) | 주민참여현황 | |
|---|---|---|---|---|
| | | | 가구수 | 인구수 |
| 계 | 20 | 5,170 | 607 | 706 |
| 수리사업 | 1 | 201 | 40 | 40 |
| 도로사업 | 2 | 2,805 | 550 | 550 |
| 위생사업 | 2 | 535 | 2 | 9 |
| 가초환경 | 15 | 1,629 | 15 | 107 |

- 86년도 화분 내놓기 운동 추진
  - 도심지 주요도로변, 상가, 직장 등에 대한 화분 내놓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화향기 그윽한 꽃의 도시를 조성 이 지역을 찾는 외국 손님과 구민들의 정서순화함양에 이바지함은 물론 활기찬 도시 북구 건설의 면모를 보여 주었음

〈표 13-7〉 화분내놓기 운동 상황

(1986년)

| 구 분 | 개 소 | 화 종 별 | | | 비 고 |
|---|---|---|---|---|---|
| | | 계 | 국 화 | 기 타 | |
| 계 | 84 | 6,593 | 5,482 | 1,111 | |
| 성화봉송로 | 21 | 3,088 | 2,888 | 200 | |
| 부 평 로 | 28 | 1,575 | 1,364 | 211 | |
| 가 현 로 | 14 | 510 | 460 | 50 | |
| 철 마 로 | 15 | 730 | 280 | 450 | |
| 청 천 로 | 4 | 90 | 90 | 0 | |
| 부평역광장 | 1 | 400 | 200 | 200 | |
| 쌍굴다리로타리 | 1 | 200 | 200 | 0 | |

④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립 의욕은 있으나 자금 능력이 없는 저소득 마을 및 가구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안정에 기여코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표 13-8〉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지원 실적

| 구 분 | 가 구 | 지 원 액 | 비 고 |
|---|---|---|---|
| 계 | 573 | 1,213,650천원 | |
| 83년도 | 20 | 10,650천원 | • 융자한도 : 3년거치 2년상환 |
| 84년도 | 35 | 99,000천원 | • 융자금액 : 가구당 3백만원이내 |
| 85년도 | 165 | 184,000천원 | |
| 86년도 | 78 | 125,000천원 | • 융자이율 : 무이자 |
| 87년도 | 51 | 111,000천원 | |
| 88년도 | 34 | 82,000천원 | |
| 89년도 | 37 | 106,000천원 | |
| 90년도 | 67 | 201,000천원 | |
| 91년도 | 29 | 87,000천원 | |
| 92년도 | 29 | 124,000천원 | |
| 93년도 | 14 | 42,000천원 | |
| 94년도 | 14 | 42,000천원 | |

⑤ 우수 마을 특별지원사업

81사업추진결과 우수 마을로 선정된 북구 서운동 마을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지원받은 30,000천원의 사업비로 마을 주민 숙원사업인 교통문제를 해결하였다.

〈표 13-9〉 대통령 우수 새마을 특별 지원 사업

| 대 상 | 사업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천원) | | | 참여기구 | 참여인원 |
|---|---|---|---|---|---|---|---|
| | | | 계 | 지 원 | 주민부담 | | |
| 서운동 | 진입로 포장공사 | 길이 = 280m 폭 = 4m | 6,844 | 3,000 | 3,844 | 120 | 514 |

※ 공사기간 : 1982. 3. 8 ~ 1982. 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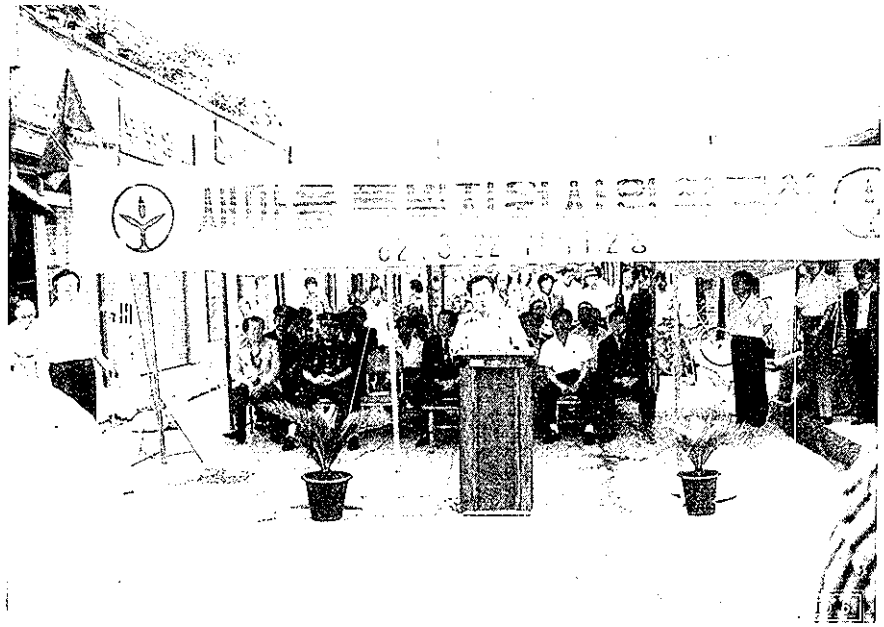
⑥ 도시 영세민 지역 새마을 특별 지원 사업

도시 변두리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노임소득 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마을 사업을 활력시키고자 함

〈표 13－10〉 사업량 및 사업비

(82년도)

| 대 상 | 사업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천원) | | | 위 치 | 비 고 |
|---|---|---|---|---|---|---|---|
| | | | 계 | 특별지원 | 시 비 | | |
| 산곡1동 | 도로시설 사업 | 길이 = 365m<br>폭 = 2.2m | 29,240 | 23,392 | 5,848 | 산곡동 97 | |
| 산곡2동 | 하수구 정비 | 길이 = 310m<br>A = 8a<br>8개소 | 33,260 | 26,608 | 6,652 | 산곡동 87 | |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착공식 장면

(9) 90년대 새마을운동의 방향

90년대 들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고질적인 사회병리현상과 불법, 무질서의 개선, 근검 절약과 합리적 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질서가 있고 건전한 사회로 점차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생활의 폐습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건전한 시민 정신을 선도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계층, 지역간 균등과 조화를 촉진시키고 국민의지를 결집하여 공동체적 결속을 도출해 나감으로써 국가, 사회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연성과 안으로는 홀로서기의 선두 주자답게 일어서야 하는 등 당

면 주요사항이 산적해 있었다.

○ 땀흘려 일하는 사회기풍의 범 국민적 확산

기업인과 근로자 모두가 일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제 다시 뛰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별 실천덕목을 설정하고, 실천 역량을 제고하여 새마을정신의 창출에 주력하였다.

○ 호화, 사치추방과 씀씀이 10% 절약운동의 활성화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과 경쟁적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호화, 사치 과소비 풍조를 추방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를 조기 정착시켰다.

○ 새마을 알뜰마당 확대 운영

시범적으로 북구 공보관에 상설 알뜰마당을 운영하는 등 기법을 다양화하여 근검절약 정신을 확산하고 건전한 소비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다.

○ 건전한 향락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계절인 봄, 여름피서철, 가을단풍철에 행락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하여 목상동 계곡에 환경안내소를 20일간 운영하여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폈다.

○ 쓰레기 30% 줄이기 범국민운동 전개를 위하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92년 10월 쓰레기 30% 줄이기 실천 다짐대회를 각 단체별로 전개하였다.

○ 교통사고 줄이기 범 국민운동 전개를 위하여

홍보전단의 배포 및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녹색 새마을어머니를 통하여 지속적인 계몽을 실시하는 등 밖으로나 안으로 새마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동이 되도록 개편코자 하였고, 나아가 새마을지도자 육성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지도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 단위, 여성 중심의 새마을운동 실천 덕목을 중점 개발하여 건전 구민의식의 결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였다.

⑽ 새마을 포상 현황

○ 현　　황

| 총　계 | 새 마 을 훈 장 | | | 새마을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 |
|---|---|---|---|---|---|---|
| | 계 | 근 면 장 | 노 력 장 | | | |
| 34명 | 12명 | 4명 | 8명 | 7명 | 6명 | 9명 |

○ 역대 포상자 명단

| 포 상<br>훈 격 | 서 훈 일 자<br>(서 훈 행 사) | 성 명 | 생년월일 | 성<br>별 | 소 속 | 직 책 |
|---|---|---|---|---|---|---|
| 근 면 장 | 78. 12. 6<br>새마을지도자대회 | 박 기 택 | 37. 9. 19 | 남 | 새마을지도자북구계산동협의회 | 회 장 |
| | 82. 8. 25<br>분기포상(1/4) | 안 승 태 | 42. 1. 31 | 남 | 새마을조기축구회 | 회 장 |
| | 84. 7. 18<br>분기포상(2/4) | 이 종 복 | 28. 4. 23 | 여 | 북구새마을부녀회 | 회 장 |
| | 85. 7. 15<br>분기포상(2/4) | 하 광 수 | 33. 6. 11 | 남 |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 회 장 |
| 노 력 장 | 82. 3. 25<br>분기포상(1/4) | 이 량 범 | 33. 3. 22 | 남 | 새마을지도자북구부평4동협의회 | 회 장 |
| | 82. 9. 27<br>분기포상(3/4) | 이 원 향 | 33. 6. 27 | 여 | 북구부평6동새마을부녀회 | 회 장 |
| | 82. 9. 27<br>분기포상(3/4) | 최 순 희 | 38. 11. 3 | 여 | 북구부개1동새마을부녀회 | 회 장 |
| | 83. 4. 1<br>분기포상(1/4) | 백 기 환 | 44. 8. 24 | 남 | 직장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 | 회 장 |
| | 83. 6. 29<br>분기포상(2/4) | 김 종 민 | 22. 2. 26 | 남 | 천마화학(주) | 공장장 |
| | 84. 7. 18<br>분기포상(2/4) | 박 철 화 | 38. 12. 4 | 남 | 북구청천동새마을금고 | 이사장 |
| | 87. 11. 5<br>분기포상(4/4) | 김 수 천 | | 남 | 북구계산동새마을금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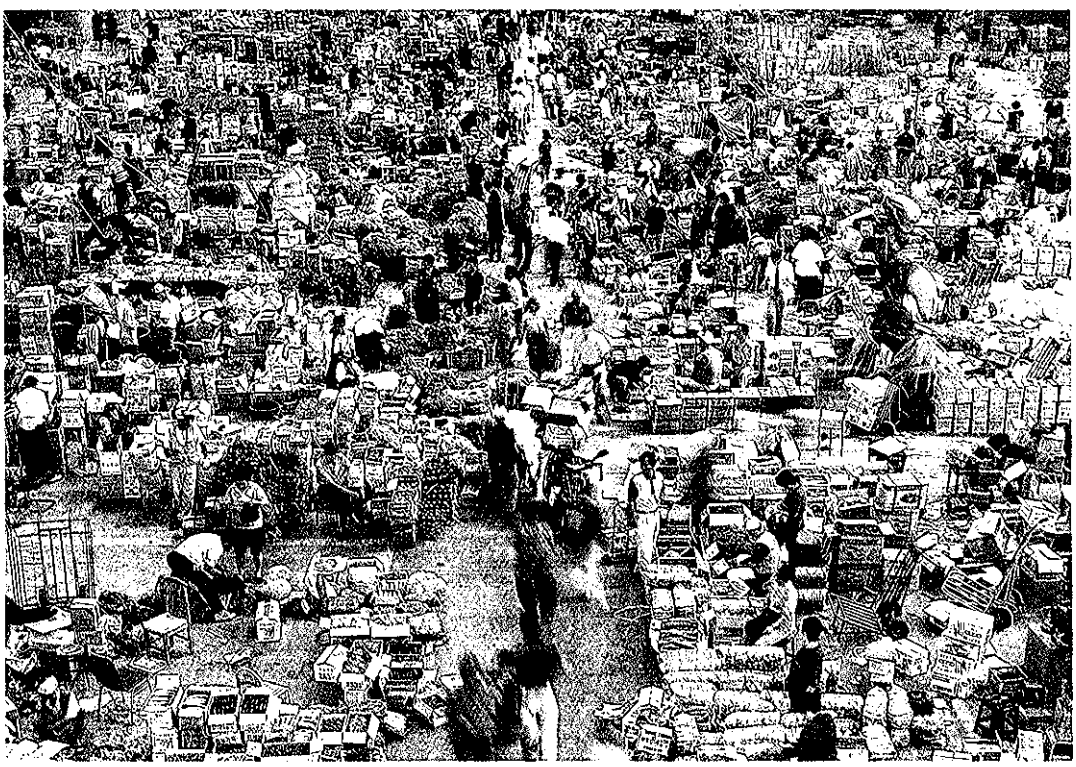
| 포 상<br>훈 격 | 서 훈 일 자<br>(서 훈 행 사) | 성 명 | 생년월일 | 성<br>별 | 소 속 | 직 책 |
|---|---|---|---|---|---|---|
| 노 력 장 | 92. 11. 9<br>새마을지도자대회 | 황 옥 순 | 33. 11. 3 | 여 | 갈산동새마을부녀회 | 회 장 |
| 포 상 | 78. 12. 6<br>새마을지도자대회 | 송 남 호 | 39. 9. 11 | 남 | 북구산곡동새마을금고 | 이사장 |
| | 81. 12. 9<br>새마을지도자대회 | 이 윤 환 | 40. 3. 1 | 여 |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 회 장 |
| | 82. 12. 10<br>새마을지도자대회 | 한 천 길 | 28. 4. 29 | 남 | 부흥실업(주) | 대표이사 |
| | 87. 11. 3<br>새마을금고유공 | 류 재 윤 | 28. 11. 8 | 남 | 북구청천동새마을금고 | 이사장 |
| | 87. 11. 3<br>새마을지도자대회 | 이 완 규 | 48. 2. 17 | 남 | 직장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 | 회 장 |
| | 92. 11. 19<br>새마을지도자대회 | 신 현 명 | 40. 5. 8 | 남 |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 회 장 |
| | 94. 12. 16<br>새마을지도자대회 | 김 광 대 | 45. 6. 6 | 여 | 북구산곡1동새마을부녀회 | 회 장 |
| 대 통 령<br>표 창 | 85. 10. 24<br>새마을지도자대회 | 성 락 현 | 37. 12. 7 | 남 | 새마을체육회 | 이 사 |
| | 86. 10. 30<br>새마을지도자대회 | 박 철 수 | 41. 9. 19 | 남 | 새마을지도자북구십정1동협의회 | 회 장 |
| | 87. 11. 3<br>새마을지도자대회 | 유 영 동 | — | 남 | 롯데제과(주)부평대리점 | 대 표 |
| | 87. 11. 3<br>새마을지도자대회 | 이 건 용 | 42. 10. 21 | 남 | 새마을지도자부구작전동협의회 | 회 장 |

| 포상훈격 | 서훈일자(서훈행사)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소속 | 직책 |
|---|---|---|---|---|---|---|
| 대통령표창 | 89. 11. 24 새마을지도자대회 | 정왕섭 | 48. 6. 25 | 남 | 새마을지도자북구계산1동협의회 | 회장 |
| | 91. 11. 23 새마을지도자대회 | 장정렬 | 39. 4. 20 | 여 | 북구십정2동새마을부녀회 | 회장 |
| 국무총리 | 80. 12. 10 새마을지도자대회 | 배긍황 | 27. 10. 5 | 남 | 새마을지도자북구부평4동협의회 | 회장 |
| | 81. 12. 9 새마을지도자대회 | 류상경 | 42. 6. 25 | 남 | 새마을지도자북구부평6동협의회 | 회장 |
| | 84. 10. 24 새마을지도자대회 | 손순철 | 43. 1. 20 | 여 | 북구부평4동새마을부녀회 | 회장 |
| | 84. 10. 24 새마을지도자대회 | 홍현표 | 48. 11. 16 | 남 | 북구삼삼동새마을금고 | — |
| | 85. 10. 24 새마을지도자대회 | 유춘식 | 50. 9. 9 | 남 | 새마을문고북구지부 | 회장 |
| | 86. 10. 30 새마을지도자대회 | 황정순 | 30. 3. 6 | 여 | 북구서운동새마을부녀회 | 회장 |
| | 87. 11. 3 새마을지도자대회 | 신현명 | 40. 5. 8 | 남 | 새마을지도자북구갈산동협의회 | 회장 |
| | 87. 11. 3 새마을지도자대회 | 김차신 | 44. 2. 18 | 여 | 북구갈산동새마을부녀회 | 회장 |
| | 87. 11. 3 새마을지도자대회 | — | | | 북인천청년회의소 | 단체 |
| | 88. 12. 30 새마을지도자대회 | 장경순 | 34. 8. 20 | 여 | 북구십정1동새마을부녀회 | 회장 |

## 역대 북구 새마을 회장단 명단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재 임 기 간 | 주 소 |
|---|---|---|---|---|
| 지 회 | 이 윤 환 | 40. 3. 1 | 84. 3.22 ~ 현재 | 부평4동 239 |
| 지 역 | 이 윤 환 | 40. 3. 1 | 77.11.27 ~ 84. 2.13 | 부평4동 239 |
| | 하 광 수 | 33. 6.11 | 84. 3.14 ~ 86. 1.14 | 부평5동 556 |
| | 이 상 만 | 40. 8. 7 | 86. 1.15 ~ 83. 3. 3 | 효성동 410 |
| | 박 철 수 | 40. 9.19 | 88. 3. 4 ~ 90. 1.10 | 십정1동 산 81 |
| | 신 현 명 | 40. 5. 8 | 90. 1.11 ~ 현재 | 갈산동 52 |
| 부 녀 | 이 순 자 | 31. 1.19 | 80. 1.11 ~ 83. 3.18 | 산곡1동 87 |
| | 이 종 복 | 28. 4.23 | 83. 3.19 ~ 86. 1.21 | 석남2동 556 |
| | 이 원 향 | 33. 5.27 | 86. 1.22 ~ 88. 2. 7 | 부평6동 702 |
| | 김 명 숙 | 35. 7. 1 | 88. 2. 8 ~ 92. 1.23 | 산곡3동 현대아파트 산 37-3 |
| | 장 정 렬 | 39. 4.20 | 91. 1.24 ~ 현재 | 십정2동 317-68 |
| 직 장 | 안 승 택 | 42. 1.31 | 81. 2.14 ~ 83. 2.10 | 청천동 302 |
| | 백 기 환 | 44. 8.24 | 83. 2.11 ~ 86. 1.28 | 작전동 401 |
| | 이 완 규 | 48. 2.17 | 86. 1.29 ~ 92. 3.19 | 효성동 (주)동익 |
| | 고 영 진 | 53.10. 7 | 92. 3.20 ~ 현재 | 부평5동 영진전업사 |
| 문 고 | 유 춘 식 | 50. 9. 9 | 83. 6.14 ~ 87. 2.20 | 부평4동 220 |
| | 김 장 석 | 49. 9.18 | 87. 4. 1 ~ 현재 | 산곡동 한신아파트 102동 |

# 第5篇　産業・經濟



# 第1章 농업(農業)

## 1. 농업의 변천

### 1) 개항기 이전의 농업활동

농업의 발달과 변천은 기후와 토지 및 생활습관등에 따라서 그 형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본국으로서 "耕田而食 織布而衣"이라하여 농업을 토대로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권농에 힘썼다.

조선시대 초기 세종11년(1429)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업의 발전을 크게 도모하였으며, 또한 세조는 『사시찬요』, 『농산축목서』 등의 농서를 펴내어 권농에 힘썼다.

여기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연대는 불확실하나(1475~1483경으로 추정됨) 강희맹(姜希孟)의 저술로 되어있는 『금양잡록』(衿陽雜錄)이다. 이 금양잡록의 금양지방이란 지금의 시흥시, 안양, 군포, 과천시 일원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농업기술과 농정에 관한 짜임새있는 농서로서의 저술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체험과 농부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수필집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 때까지 나와 있던 여러 국내 농서나 중국의 농서가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당시의 그 지방의 농사 실정을 살피는데는 더없이 소중한 자료이다.

이 기록의 대부분은 벼농사를 위주로 한 것이어서 부평지방의 농업사 연구로서는 가장 인접한 고을에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부평지방, 계양지방을 합한 넓은 평야에서의 벼농사는 이 『금양잡록』의 기록과 같고, 보는 이에 따라서는 경기도 일원에 관한 기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곡물품종에서는 당시 이미 80여종을 들고 있으니 즉, 벼 27, 콩 8, 팥 7, 녹두 4, 완두 1, 기장 4, 조 15, 피 5, 보리 5, 수수 3, 밀 1종 등이다.

농사기술에서는 특히 적지적작과 적기 영농을 강조하였고, 파종 적기를 아는 농부는 상농이오, 이에 어두운 자는 하농이라 하여,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이것과 같다고 하였다. 농업은 위로는 천시(天時)를 살피고, 아래로는 지리(地利)를 다하여 김매는 횟수 등 그 묘를 터득하여 다수확을 올린다는 것이 곧 농업기술의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농업은 수해와 한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개사업과 벼농사 확장에 정책중심을 두고 권농관 제도를 채택하였다. 특히 세종은 권농교문에서 국민안정, 농사연구, 지력배양, 근

로 등 요령을 송포하고, 농서의 송포, 제언(堤堰), 보(洑) 개수, 농기구개량, 농기구의 대여, 수예(樹藝), 식재, 권농관의 배치 등 다채로운 농업정책을 시행하였다. 당시의 농업생산 기술에 있어서는 논벼의 조생종, 만생종의 재배법 및 밭벼 재배법, 종자 저장법, 묘판 설치법, 이앙법, 시비법, 윤작법을 지도하고, 농우의 보급뿐만 아니라 각종 농기구가 이용되고, 녹비의 대대적인 사용이 권장되었다.

16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학의 사상과 풍조에 의하여 이것이 농업연구면에서도 반영되어 많은 농정서와 농서가 배출되었다. 1700년대에는 북학파의 석학들이 농업면에 보여준 관심은 대단하였다. 특히 농업발전에 탁월한 식견을 발표한 학자도 있어 그 논조는 뛰어나고 혁신적인 내용을 지녔음에도 실천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시대환경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말기에 접어들면서 왕실 외척의 세도정치가 심해지면서 관기(官紀)는 혼란과 부패로 말이 아니었으니, 농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더욱 가중할 뿐이었다.

### 2) 개항기의 농업활동

1876년 강화조약을 계기로 하여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계획적 침투의 발판을 굳히면서 서서히 식민체제로의 정비를 서둘렀다. 그 당시 일인들 눈에 비친 구 한말의 농업은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 일본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적절한 기후풍토하에 제반 농사에 틀이 잡혀가고 있을 때였음으로, 일본 경종법과 비교하여 볼때 한국의 농업은 불완전한 곳이 너무나 많았다.

벼 농사에 있어서도 일모작(단작)을 고집하고 있었으며, 특히 논벼의 품종은 강약이 혼합되어 잡다하고, 모자리의 파종량은 일본의 배를 쓰면서도 종자의 손실 뿐만이 아니라, 수확량도 형편없이 적었다. 비료의 사용법과 해충구제예방에는 전혀 손이 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일본은 한일합방전 이미 그들의 식량확보를 위한 식민정책이 한국에 깊숙히 침투되어 있었다. 한국농업 발전을 구실로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였고, 1908년에 일본 자본가의 지주의 결합으로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시에 일본농민의 이식, 농업경영의 시범, 지력척식 융자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실은 토지 수탈의 특수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 때를 즈음하여 일본은 자기들의 쌀 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정미업의 특이한 발달을 유치하게 되었으니, 일본인들은 인천을 위시한 개항지 곡물집산지에 현대적 기계설비를 갖춘 정미공장 건설을 하게 되었다. 이 때의 개항지를 중심으로 한 유력한 곡물상인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이 때를 계기로 일본으로의 쌀 공급량 증가에 따른 한국의 특수 사정으로 이 정미공업은 인천과 부평에서 성황을 이룬 기업을 발전하였다.

한일합방 이전 권업모범장의 창설과 농사개량의 일환으로, 그 때까지 전해오던 수 많은 벼

품종은 일본품종의 강력한 장려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07년에 일본 품종인 『조신』, 1908년에 『곡양도』, 『다미금』, 『일출』, 『관산』 등을 도입하여 소수 품종으로 통일시키고 말았다.

과수재배는 한국의 풍토가 이에 적합하여 고래로 각종의 과일을 생산하여 왔고, 각 지방에 명산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의 발전을 보지 못한 채 외세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니 일본의 자본이 기업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1890년경을 전후하여 개량된 사과, 배, 복숭아가 시험재배된 이래 점차로 과수원 규모의 재배가 활발하여 졌고, 그리하여 경인간 지방에 배와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었다. 이때에 도입된 배의 품종은 『장십랑』, 『금촌추』, 『명월』 등으로 일부 품종은 지금까지도 재배되고 있다.

한국 농업경작기술의 후진성과 아쉬움은 농기구와 비료의 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조선시대 후기 실학파의 학자들에 의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고 있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렇다 할 발전을 보지 못하여 이것도 일본인들이 진출하는 구실을 터놓게 된것은 물론이다. 특히 관개용기구, 탈곡조제기 등을 위시하여 거의 모든 농기구, 축산용구, 양잠용구 등을 그들의 각종 농작물의 품종 도입과 함께 경작법이 개량되면서 일본제 농기구 제품의 대대적인 판매를 시도하였다. 처음에는 일부 농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것을 시발로 하여 1908년경부터 일본 공장(工匠)들의 내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농기구가 일본 제품으로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 3) 일제 강점기의 농업활동

1876년 강화조약의 체결을 계기로하여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침투의 발판을 굳히면서 서서히 식민체제로의 정비를 서둘렀다. 이 때를 시점으로 일본은 이미 한국에 자국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908년에 일본 자본가와 지주의 결합에 의하여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10년에 1,000정보의 소유이던 것이 1923년에는 무려 8,830여 정보로 늘어났다는 것은 토지 수탈의 특수 임무로 인한 토지의 집중현상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민의 영세화 현상은 심하여 졌던 것이다. 1913~1917년간 39.4%이던 소작농 호수 비율이 1939년에는 55.7%로 늘어났고, 반면 소작면적은 53%에서 58%로 별로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소작농가 호수만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버려, 결국은 경작규모는 점차 영세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호당경지면적은 1918년의 1.63정보가 1936년에는 1.44정보로 줄어들었고, 1913년에 0.5정보 미만 농가호수가 35%였던것이 1937년에는 38%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농업이 일본식민체제하에서 강제적으로 수립된 쌀증산계획, 면화장려계획, 누에고치증수계획, 축우증산계획 등 농업증산 4대요강이 나왔는데, 일본의 식량부족을 보충하기 위

한 공급원을 한국에 두고 제1차 산미증식계획(1918~1926)을 세워 약 920만석의 쌀을 증수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관개개선, 개간간척, 품종개량, 퇴비장려, 적기파종, 심경, 제초운동의 전개, 수리조합의 창설, 종묘장 설치 등 다각적인 시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부평수리조합의 창설인 것이다.

그러나 쌀의 강제적인 일본으로의 수출과 소작농으로의 전락은 농가경제를 파탄으로 빠뜨리고 말았는데, 이에 『자력갱생』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농촌진흥을 서둘렀다. 1907년 금융조합이 창설되었고, 1929년에 농회가 설립되어 농사개량, 농업지도 양곡수집, 비료배급, 공판사업을 맡았고, 또한 산업조합이 생겨 특산물의 생산 판매를 1935년에는 식산계가 만들어져서 계원간에 생산품의 판매, 소비품 구매, 공동 이용시설, 공제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면작(綿作)장려계획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화북지방을 장악하면서 그 추진계획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농업기술면에 있어서는 산미증산을 기점으로 하여 종자개량, 정조식식재의 보급, 제초기와 탈곡기의 보급, 시비 개선 등에 많은 진보를 하였다. 당시 우리 농촌이 이러한 체계를 수용할 여러가지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는 못하였고, 일본의 식민지 체제하에서 그들의 수탈목적을 위한 것이었지만 농업생산기술에 발전 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 농업공황은 한국의 농업을 한층 고통과 압박으로 치닫게 되었다.

### 4) 부평수리조합의 설치

1900년 시점에서 일본은 식량부족으로 대량의 쌀을 수입하여 충당해 왔고, 1918년에는 한국의 쌀이 280만석이나 수탈되었다. 더욱이 세계제1차대전의 발발로 세계식량사정의 악화와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국, 대만 등 식민지에서 획기적인 쌀 증산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1910년부녀 1918년에 이르기까지 소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 소유권의 정립, 지적도의 작성, 토지등기제도와 토지세제도의 제정 등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일인들은 한국 도처에서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여 그들의 투기폭리에 이용하였다. 또한 식민지에서의 수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연한 소유권과 엄격한 세금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산미증식』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식량증산을 강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식 농법의 한국에로의 이전이 구체화 되어 1906년에 권농 모범장, 1908년에 각도에 종묘장, 1908년에 동양척식회사, 1918년에 수리조합 설치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본은 식량부족과 식량수요의 격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반도에서의 쌀 증산에 대한

강요는 한층 강요되어 1920년부터는 『제1차산미증식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 하였으며, 이어서 1926년부터 『제2차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종법(耕種法)의 개선을 비롯하여 품종의 개량, 종자개량, 퇴비장려, 심경, 제초운동의 전개, 수리개선, 개간, 간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탈목적을 위한 식민정책의 일환인 쌀 증산운동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부평수리조합의 태동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1906년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한 일본은 영농기업을 시도한 지주들을 한국에 침투시켜 그들의 영농토대를 확립시킬 수 있는 기본수단으로서 수리 관개시설의 설치와 개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같은 경위를 통하여 각처에 일본인 지주들을 주축으로한 수리조합을 조직케 함으로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역, 현품 등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관개, 개척, 보호에 관한 사업을 경영케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17년에 조선수리조합령과 등 시행령을 만들어 운영에 확고한 기준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게 됨에 따라 이것을 영농 기업가들에게만 맡길 경우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여겨져 수리조합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공사비 일부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부평수리조합도 그 조성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이다. 부평수리조합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경인 철도의 부평, 소사 양 역 간에서 북쪽으로 바라보이는 약 5,000여 정보에 달하는 논은 일정한 용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천수답에 지나지 않았고, 더욱이 우기에는 언제나 홍수에 시달렸다.

본시 이 부평평야는 농지가 비옥한데다가 남으로는 경인철도가 있고, 북으로는 한강의 흐름이 있어서 서울과 인천을 가까이에 두고서 천혜적인 지세임에도 불구하고, 가뭄과 수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옛부터 오리 떼가 모여 들어 주변 도시인들의 좋은 수렵장으로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덕부의 산미증식계획에 의거 보조, 장려에 의해서 마침내 1920년 5월 18일 부평수리조합의 설치를 신청하여 1923년 4월 9일 설치 인가를 받은 것이다. 당시의 규약에 의하면, 관개, 방배수를 위한 부평수리조합 구역은 부천군 부내면 도두리, 후정리, 마분리, 대정리, 갈월리, 하리, 작정리, 부천군 계양면 하야리, 평리 노어지리, 선주지리, 장기리, 귤현리, 동양리, 박촌리, 병방리, 용정리, 부천군 오정면의 거의 대부분 지역과 김포군 고촌면의 일부지역, 양서면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었다.

1923년 4월 9일부로 설치 발족된 부평수리조합의 당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조합의 명칭 : 부평수리조합

○ 조합의 위치 :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606번지

○ 조합의 목적 : 관개 배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한 목적 외에 농사의 시설을 병행하여 나간다.

○ 조합의 설치 당시의 몽리면적 : 3,441정보

○ 조 합 원 수 : 1,371명

부평수리조합은 굴포천 양쪽의 평탄한 지역 3,872정보를 구역으로 하여 한강 왼쪽에 연 1,440간의 방수 제방을 축조하고, 굴포천 유역을 하구로 하여 홍수시 한강의 역수를 방지하면서 영사정(永思亭) 부근에 양수기계를 설치하여 한강의 물을 양수해서 관개 용수로 하는 동시에 외수가 높을 경우에는 양수기를 역으로 사용함으로서 내수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 때의 부평지역은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 품종을 보면, 벼에서는 『풍옥』, 『팔달』, 『중생』, 『은방주』가 대부분이며, 보리 품종으로는 『수원 4호』, 『수원 6호』, 『승맥』 등이 재배되었다. 콩은 『장단백목』과 『충북백목』이 흔히 재배되었다.

### 5) 광복 이후의 농업활동

일제 강점기간 동안 일본은 대륙진출과 자본주의화를 위하여 한국의 경제는 그들에게 원료를 제공하고, 그 대신 그들의 제품을 강매 당하는 불균형된 상품 시장으로 전락하였고, 그에 따라서 산업의 중추는 농업에 정체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자본의 결핍성, 산업구조의 전근대성, 기업의 후진성이라는 전 근대적 기반을 온존시킨 중요한 경제 내적인 요인을 형성 시킨 것이었다. 따라서 농업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되어 해방 후 상당 기간 동안의 혼란기를 맞게 맞게 된것이다.

해방 후 농업정책의 지상과제는 전근대적인 토지제도의 개편과 농산물 증산에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군정과 민정을 거치는 동안 농업정책부문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1) 1945년 10월 군정법령 제9호로 공급배출제를 폐지하고 양곡통제를 해제

(2) 소작료의 3:1제 선포

(3) 1947년 9월 『미곡법』을 공포하여 식량통제기능을 실시

(4)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어 소작제도 폐지됨

(5) 농업증산 3개년계획(1949~1951), 축산 9개년계획(1949~1957), 조림 10개년계획(1949~1958)등 농업증산을 위한 강력한 시책을 추진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여러 정책은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그 실효을 잃게 되었다. 1945~196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민 식생활의 생산공급에 전력하였다. 60년대 이

후 오늘의 농업은 수출주도형 공업발전을 위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형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며, 그 결과 197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기간산업은 농업에서 공업, 수출주도형으로 자리 바꿈을 하였으며, 오늘의 산업구조는 농업 10%미만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국가경제 사정과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농업정책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1956년에 농사교도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과 시행이 있었으며, 1962년에는 농사시험연구와 농사기술 보급 및 농촌지역사회개발 농촌생활개선을 위한 농촌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이 있었으며, 1970년대 초에는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잠식되어가는 농지의 보존을 위한 농지 이용과 보전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1978년에는 농업용수 개발 및 토지개량과 농지개발, 농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진흥공사의 설립을 보았으며, 1980년도에 들어와 오랜동안의 식량 및 가축의 사료를 포함한 식량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던 농업의 기본방향을 주곡의 자급자족으로 농정의 기본정책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변천을 거치면서 부평지역의 농업은 쌀 생산기반을 주축으로 농지개량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1965년 11월 계양지구에 농지개량사업의 확장이 있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약 44%에 해당하는 수리불안전 답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대륙성기후의 영향으로 주기적으로 내습하는 한발로 인하여 매년 농작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식량부족의 요인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천후 농토조성사업계획의 하나로 인천시 일부와 김포군에 산재해 있는 한해지대에 대하여 항구적인 전천후 농토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의 일부 낮은 지역은 1923년 이후 수리사업이 완비되었으나 고지대는 천수답 및 전작지대로 되어 있고, 관개용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관개용수를 공급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 지역의 북단을 흐르고 있는 한강물을 끌어 들이는 것이다. 즉 한강물을 끌어들여 이 지구의 동북부와 서북부의 간척지에 두 줄의 수로를 간선으로 하여 2단 양수로 고지대 4,300정보에 관개용수 공급계획을 실천한 것이다.

1961년에 제정공포된 토지개량 사업법은 식량증산에 중점을 둔 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지의 개량이나 보전 개발은 물론 농업의 기계화와 농가주택의 개량 및 시범농촌의 건설 등 농촌 근대화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농촌 근대화작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토지개량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

로 이루어진 2원화된 토지개량사업 시행체제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여 강력한 농촌 근대화사업 시행기구로 개편하고 전천후 농토를 조성함으로서 농업생산력의 획기적인 증진을 이룩함은 물론 농업기계화의 촉진, 농촌환경의 근대화 등 대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1970년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부평수리조합은 1970년 1월 28일 한강농지개량조합으로 발전 개편하여, 1975년 7월 1일 현위치인 김포군 김포면 사우리 288번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적 시책의 일환으로 1971년 11월 26일 착공하여 72년 6월 20일에 준공된 계양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획기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 계양지구는 경인선철도 소사(지금의 부천역 일대)에서 시작하여 부평평야의 중심을 흐르는 굴포천에 접하여 있는 광활한 평야로서, 이 지구 서쪽에는 높이 약400m의 계양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 김포간 지방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이 지역은 수리 안전답으로는 비록 역사가 길지만, 경지정리가 되지못한 재래 농지였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토의 토양개선, 농업기계화, 용배수로의 개선으로 관개배수를 더욱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농토를 확장 정리하여 교통 운반의 편이를 이룩함은 물론 대대적인 경지정리를 시행한 것이 있다.

이리하여 전천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다. 그리하여 부평평야와 계양지구를 포함한 이 일대의 약 7,000정보와 전천후 농사가 실현되어 연간 12,000m/t의 식량 증산을 이룩하였다.

부평평야에서의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선과 특징을 살펴 보면, 주작물인 수도작에 있어서의 재배개술의 발전이 괄목할 만하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쌀의 수확량을 10a당 500kg까지 생산할 것을 목표로 자연적조건을 고려하여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것이 벼의 신품종 개발과 재배에 있어서의 적정성 연구와 지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1971년에 『IR 665』을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1972~1976년까지는 『통일』, 1977~1979년에는 『수원 251』, 『수원 258』, 『수원 264』, 『밀양 21』, 『밀양 23』을, 그리고 1974~1978가지는 『조생통일』을 재배함으로서 신품종으로의 발전적 개량을 추진한 것이다.

종래의 일반품종에서 제일 먼저 재배된 신품종은 『IR667』로서, 1971년에 10a당 501kg를 생산하여 일반품종보다 약 48%의 증수를 보왔다. 그 후 새로 개발된 『통일』이나, 『유신』, 『수원』계, 『밀양』계, 『조생통일』등도 종래의 일반 품종보다 약 30%내외의 증산을 보았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새로 개발된 『풍산』, 『서광』, 『태백』, 『한강찰벼』가 재배되고 있다. 풍산

벼는 일반벼로서 중생종이며 『추청』보다 1주 정도 조생한다.

태백벼는 통일계로서 조생출수이며 탈립이 없고, 멸구에 대한 내충성이 강하고 도열병에도 강하다. 인천시 농촌지도소에서는 10a당 420kg이상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동일 지역에도 단일 품종을 전면적에 재배하는 것을 지양하고, 장려 품종으로는 조생종에 『조생통일』, 『호남조생』, 『밀양 21』을, 중생종으로는 『밀양 23』, 『수원 251』, 『수원 264』를 만생종으로는 『수원 258』을 권하였다.

90년대에 와서는 벼 품종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조생종으로는 『오대』, 『운봉』 등이 있고, 중생종으로는 『화성』, 『청명』, 『장안』, 『서안』, 『봉광』, 『신선찰벼』등이 있으며, 중만생종으로는 『서해』, 『일품』, 『대청』, 『추청』 등이 권장되고 있다.

## 2. 농업의 특징

부평 농업의 특징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부평지역과 계양지역의 평야지에서 주곡농업 중에서도 벼농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시 확장과 공단조성, 주거지 확장 조성 등으로 크게 잠식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도시화 과정의 촉진으로 농업의 면모나 특징은 사라져가는 형편이다.

특히 대도시의 소비시장을 배경으로 도시근교에서 행하여지는 고소득작물, 즉 경제작물의 농업도 효성동 일대에 남아 있던 과수나 화훼 채소 등의 농업지대는 도시확장으로 그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며, 새로 편입된 계양지구에서 약간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원래 인천의 근교농업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채소는 중국인이, 과수는 일본인에 의해서 경영되어 왔으나, 1940년 부평이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서 채소류의 수요가 급증하여 재배기술의 발전과 새품종의 도입이 이룩되었다. 1935년 후반에서 1950년까지는 인천이 전국적인 근교농업의 선진지가 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도시권의 계속적인 확대는 이러한 특징을 소멸 시키고 말았다.

한때 1966~1970년까지 근교농업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부평, 산곡동, 효성동 일대를 화훼, 과수단지로 조성하여 기술지도와 재원을 지원하여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근년에 이르기까지 서운동 일대에 과채류 생산단지가 조성 육성되었다. 그러나 근교농업도 경영의 전환이 시도되어야 하며, 특히 도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관광농업과 도시어린이들의 학습도장으로서의 농원활동장제공, 주말농장 등으로의 전환 등 획기적인 정책 지원도 요망된다.

# 第2章 공업(工業)

## 1. 공업의 변천

### 1) 개항기의 공업활동

188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주요 항구가 개항됨에 따라서 외국 상인 특히 일본과 청국 상인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근대적 공업제품이 많이 유입되었으며, 이러한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새로운 수요증대에 대응할 만한 근대적 공업은 좀처럼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가 1890년대에 주로 일본자본에 의하여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04년 당시의 인천, 경성 및 기타 개항장에서 일본인에 의해 경영된 공업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대체로 당시의 공업의 종류는 별다른 자본이나 기술이 필요없는 전근대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1904年度 仁川의 日本人경영 공업 현황

(단위 : 명)

| 지명 \ 작업명 | 鐵工혹은鍛治職 | 鍼力職 | 蠟燭製造 | 瓦製造 | 煉瓦製造 | 製綿業 | 石鹼製造 | 酒醸造 | 醬酒醸造 | 鑵詰業 | 청량음료製造 | 味噌製造 | 煙草業 | 精米혹은신랍業 | 棉打器械 | 染工 | 木挽工 | 合計 |
|---|---|---|---|---|---|---|---|---|---|---|---|---|---|---|---|---|---|---|
| 인 천 | 10 | 6 | 2 | 1 | 1 | 1 | 2 | 3 | 3 | | | | | 3 | 1 | | | 33 |
| 경 성 | 8 | | | 5 | | 1 | | 1 | 4 | 1 | 3 | 4 | 1 | 1 | | | | 27 |
| 부 산 | 40 | | | | | 13 | | 3 | 4 | 5 | | | 4 | 29 | | 13 | | 111 |
| 진남포 | 3 | 2 | | 1 | | | | 2 | 2 | | | | | 5 | | | 2 | 17 |
| 목 포 | 6 | 2 | | | | 1 | | 1 | | | | | | 3 | | | | 13 |
| 마 산 | 3 | 2 | | | | | | 1 | | | | | | 2 | | | | 8 |
| 원 산 | 3 | 3 | | | 1 | 1 | | | 2 | | | | | 1 | | | 1 | 12 |

자료 : 德永勳美著「한국종람」p.904.

한편 개항기의 부평의 공업활동을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나 문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평은 1883년 일본에 의해 개항된 인천의 인접지역이므로 이 당시의 인천의 공업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이나마 부평의 공업실태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원래 무역항으로 생성, 발전되어 온 인천항은 개항이래로 무역에 관련된 업종 이외에는 큰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관련되어 발흥한 업종으로는 정미업을 비롯하여 청주, 장유, 재제염(再製塩), 주류, 요업, 철공업, 연초제조, 전기업 등이 전부이었고, 그밖에 공업으로서는 성냥, 비누, 고무신, 식료품 등이 있었으나 매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해 왔다.

이같은 공업도 연초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것이었고, 한국인은 1910년 이후에야 약간의 정미업을 착수하기에 이른다.

이와같이 인천은 일본인 주도하에 인천항을 중심으로 몇몇의 공업분야에서 영세 가내공업 규모 혹은 그것을 약간 벗어난 정도의 소규모 공업이 그나마도 생성될 수 있었으나, 천연의 공업원료나 재료 그리고 노동력, 교통, 기술 및 자본 등에서 공업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상대적으로도 미비했던 부평에는 개항이래 이렇다할 공업이 발달한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2) 일제강점기의 공업활동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되었으며 철도, 항만 등의 교통망과 통신망이 정비되고 도량형제도의 통일이 기해짐과 아울러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금융제도의 확충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산미(産米)증식계획이니 해서 주로 식량의 공급기지와 상품판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 기초 위에서의 자본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1년부터 한국은 대륙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게 됨에 따라 한국의 산업에서 공업 및 광업 즉 근대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기업의 수와 규모 그리고 임금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특히, 합병 직후 일본경제에 대한 원료의 공급지로, 그리고 서구와 일본상품 판매를 위한 전진기지로 개발되었던 인천항에 1920년대부터 일본의 공업자본이 진출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설립되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 중공업공장의 건설과 일본의 재벌기업들이 진출되었다.

그후 일본육군조병창의 착공을 계기로 인천이 대륙병참화기지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1940년대에 들어서는 각종 군수공장까지도 건설되어 종래 인천항의 공장지대이던 송현동, 화수동, 만석동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인천의 매립지와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남부인천 그리고 육군조병창을 위시한 부평지구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근대적인 대규모 공장들이 유치되어 경인공업지대가 새로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공장다운 공장 하나 없었던 부평지역에 실질적 의미에서의 근대적 공업이 태동하기 시작된 것이다. 당시 부평지구에 설치된 대표적인 공장은 1939년에 착공된 일본육군조병창이다. 이 조병창에서는 인천지역의 중화학 기계공장의 지원으로 주로 소총, 탄약, 소구경화포탄약, 총검, 수류탄, 경차량 등을 제작하였는데 그 일부공정은 각지의 민간하청공장에 위임하기도 했다. 대부분 일본인이 경영한 민간 하청업체로는 함흥의 와타나베철공소를 비롯 인천, 신의주 평양, 서울, 대구, 부산, 원산 등 전국에 걸쳐 조합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었다.

또 이 조병창에서는 육군병기 뿐만 아니라 1944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잠수정(潛水艇)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을 감독하며 잠수정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조병창의 월간 생산능력은 소총 4천정, 총검 2만정, 소총탄환 70만발, 포탄 3만발, 군도 2천정, 차량 2백량 등이며 1944년부터 패전시까지 탄정 250대와 무전기 2백조도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

한편 부평지구에 건설되어 1940년대에 조업한 공장들은 대부분 금속 및 기계공업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부평에서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금속제품 제조업체로는 1939년 11월에 설립된 경성공작주식회사(청천동 소재)가 시작이며 주로 수도용 강관을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차 조립생산을 위한 디젤자동차공업(주) 부평공장, 자동차 생산수리의 국산자동차(주) 부평공장, 각종 기계생산을 위한 홍중상공(주) 부평공장 등의 비교적 대규모 공장들이 설립, 가동되었다.

이외에도 화학공업, 식품공업, 요업 및 기타 공업의 군소 생산업체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의 부평의 공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 「仁川日報」, 1994년 8월 2일.

〈표 2〉 부평의 공업

| 명 칭 | 소 재 지 | 제 품 | 자 본 금 |
|---|---|---|---|
| 동양제강 | 청천동 | 제강 | 5,890,920원 |
| 부평금속공업공사 | 부평동 | 금속 | 300,000원 |
| 조선베어링(주) | 산곡동 | 기계 | — |
| 국산자동차(주) | 산곡공 | 자동차부품 | — |
| 홍증상공(주) | 부평동 | 차량, 광산기계 | — |
| 디젤자동차공업(주) | 부평동 | 자동차조립 | — |
| 동경제강 | 부평동 | 제강 | — |
| 광진정공 | 부평동 | 기계 | — |
| 동양정공(주) | 산곡동 | 기계 | — |
| 경성공작(주) | 청천동 | 수도용강관 | — |
| 부평와사공장 | 청천동 | 와사 | — |
| (유)조선아미노산장유 | 부평동 | 장유 | 250,000원 |
| 부평양조조합 | 계산동 | 양조 | 37,600원 |
| 부평요업 | 부개동 | 요업 | 10,000원 |
| 부평연와공업(합) | 부개동 | 연와 | — |
| 부평인쇄소 | 부평동 | 인쇄 | — |
| 조선공무점 | 부평동 | 공무 | — |

자료 : 년간조선 1942년판, 경제년감 1949년판,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

### 3) 광복이후의 공업활동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는 민족의 자생적 추진력에 의한 근대화의 달성이라는 지상과제를 안게 되었으나, 해방직후 일본인의 철수와 남북분단, 소비재 중심의 미국원조정책 등으로 극심한 생산위축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인천지역은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공장이 많았고, 일본인이 산업계를 지배하는 등 일본의 전초기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해방에 따른 혼란은 더욱 극심했다.

〈표 3〉 해방직후 인천지방 공업가동상황

| 구역 / 공장 | 서 부 | 남 부 | 북 부 | 부 평 | 계 |
|---|---|---|---|---|---|
| 공 장 수 | 47 | 37 | 36 | 10 | 130 |
| 가동공장수 | 22 | 13 | 11 | 2 | 48 |
| 가 동 율 | 0.46 | 0.35 | 0.3 | 0.2 | 0.36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 p.379.

일본인들이 철수한 후 기업들은 오랫동안 관리부재 상태에 빠졌으며 모든 공장시설은 도난을 당하거나 파괴되었고, 원료 및 자재의 부족으로 거의 가동이 불가능했다.

인천시에서는 관내 공장지대를 서부·남부·북부·부평지구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8·15광복 직후 130개 공장 중 가동 공장수는 불과 48개로 전체의 36%에 머물렀다(〈표 3〉 참조).

한편 공공재산 및 적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1945년 11월 1일 적산관리국을 설치한 인천군정 당국은 11월 5일 전 인천공장 종업원대표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시내 45개 업체에서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45개 업체중 근근히 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0개 공장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재부족, 연료부족, 기계파괴, 임금문제, 자본주와 종업원간 분쟁 등의 사유로 인해 휴업중이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부평지구 기업체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2]

① 동경제강 : 종업원 80명으로 공장유지 자치위원회조직 조업중, 자재소요량 2개월분, 연료부족, 기계수리 중

② 국산자동차 : 포항의 김용수 접수, 공원 30명, 자재 2개월분.

이후 미군정청은 광공부의 신설(1946. 6), 부실관리 적산회사 공장지배인의 변경, 관재령 제8호(1946. 12. 31)에 의한 관재관의 적산공장 배치 등을 통해 적산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자재난, 원료난, 비위관리인의 횡포 등으로 가동율은 극히 저조했다.

조선의 산업에 대하여 조선인이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재령 제8호에 의하여 관재관이 배치된 적산공장은 부평의 경우 동경제강, 광진정공(光津精工) 등 2개 공장이었다. 당시 부평지구에 있던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업종·경영형태·총자본 및 종업원 등을 살펴 보면 〈표 4〉와 같은데 이로써 우리는 당시의 부평공업계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무렵에 설립된 대표적인 업체로는 일신종합화학(주)과 동화기업(주)을 들 수 있는데,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일신종합화학(주)은 1947년에 설립(석남동 소재)되어 주로 산화철을 생산하였으며, 제재업체인 동화기업(주)은 1948년 4월에 설립(가좌동 소재)되어 주로 제재목과 후로링 등을 생산하였다.

---

2) 『仁川商工會議所 九十年史』, 仁川商工會議所, 1979, pp. 347~348.

〈표 4〉 부평지구 귀속사업체

(상공부소속)

| 사 업 체 명 | 소재지 | 관리인 | 업 종 | 경영형태 | 총 자 본 | 종업원수 |
|---|---|---|---|---|---|---|
| 동 양 제 강 (주) | 청 천 동 | 주 종 준 | 제 강 | 관 리 | 5,890,921원 | 83 |
| 조 선 베 어 링 (주) | 산 곡 동 | 유 병 선 | 기 계 | 〃 | — | — |

(지방관할귀속 업체명)

| 사 업 체 명 | 소재지 | 관리인 | 업 종 | 경영형태 | 총 자 본 | 종업원수 |
|---|---|---|---|---|---|---|
| 부 평 금 속 공 업 공 사 | 부 평 동 | 윤 국 중 | 금 속 | — | 300,000 | — |
| 부 평 와 사 공 장 | 청 천 동 | — | 와 사 | 관 리 | — | — |
| 부 평 요 업 (주) | 부 개 동 | 최 성 순 | 요 업 | 임 대 | 10,000 | — |
| (유)조선아미노산장유 | 부 평 동 | 김 중 혁 | 장 유 | 〃 | 250,000 | — |
| 부 평 양 조 조 합 | 계 산 동 | 윤 순 동 | 양 조 | 관 리 | 37,600 | — |
| 부 평 인 쇄 소 | 부 평 동 | 김 소 금 | 인 쇄 | 〃 | — | — |
| 조 선 공 무 점 | 부 평 동 | — | 공 무 | — | — | —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 pp.352~355.

### 4) 정부수립 이후 구제(區制)이전의 공업활동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새 정부는 경제정책기구 및 제도를 개편하고 한미경제원조협정의 체결을 통해 원조수용 태세를 정비하면서 점차 구체적인 시책강구에 힘을 기울였다. 경제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산업시책의 실시와 미국의 막대한 원조에 힘입어 국내 경제활동은 차츰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이러한 시책이 채 실효를 거둘 사이도 없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동란은 한국경제에 또 한 차례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동란중 수차례에 걸친 전선의 이동과 가열된 포화로 인해 경인공업지대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공업시설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한국의 공업은 본격적으로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부평의 공업도 착실히 성장을 계속해 왔다. 1950년대 중반 공업부문의 주요 기업들을 살펴 보면, 기계공업의 주요 업체로 불이기계(不二機械), 국산자동차 외에 1953년 2월에 설립되어 주로 베어링 콘베이어를 생산하는 한국종합기계(주) (산곡동 소재) 등이 있었고, 금속공업으로는 1951년 4월에 설립되어 주물을 생산하는 조양금속공업사(주) (부평동 소재)와 1951년 9월에 설립되어 주로 철강재를 생산하는 한국건업(주) (가좌동 소재)등이 있었다. 요업으로는 부평연와공업이 있었으며, 주요 화학공업으로는 일신종합화학과 1950년에 설립되어

주로 염료 및 염료중간재를 생산하는 이화산업(주) (석남동 소재)등 중소기업규모의 공장들이 산재해 있었다. 또 제재업체로는 Particle Board와 M.D.F를 주로 생산하는 동화기업(주)이 있었으며, 양조공장으로 부평양조조합(계산동 소재)이 있었다. 1955년 현재 부평지구에 있었던 종업원 20인 이상의 주요 기업체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기업체 명단(1955년도) (단위 : 명)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주생산품 | 종업원수 |
|---|---|---|---|---|
| 〈금속제품 제조업〉 | | | | |
| 부흥제작소 | 백귀남 | 부평동 350 | 건축용 경첩 | 15 |
| 천일제정공업소 | 조종성 | 부평동 38 | 양정 | 38 |
| 부평기계제작소 | 김윤옥 | 부평동 85 | 〃 | 15 |
| 대륙제선공장 | 홍재우 | 부평동 101 | 〃 | 15 |
| 〈기계 제조업〉 | | | | |
| 불이기계공업(주) | 박성하 | 산곡동 125 | 베아링 | 53 |
| 국산자동차(주) | 김용성 | 산곡동 128 | 자동차스프링 | 67 |
| 〈식음료품 제조업〉 | | | | |
| 평안양조(자) | 김창훈 | 부평동 326 | 탁·청주 | 14 |
| 〈요 업〉 | | | | |
| 세광제도사 | 강대복 | 청천동 412 | 그라인더 | 35 |
| 부평연와공업(자) | 최성순 | 부개동 120 | 연와 | 102 |
| 삼하연마공업사 | 유상록 | 청천동 412 | 그라인더 | 35 |
| 〈제재·목제품 제조업〉 | | | | |
| 대성임업(주) | 이석구 | 부평동 319 | 제재 | 20 |
| 부평제재소 | 민덕기 | 부평동 1 | 〃 | 20 |
| 〈운 수〉 | | | | |
| 영운공사운수(주) | 김윤옥 | 부평동 85 | 육운업 | 10 |
| 부평화물자동차운수부 | 김윤옥 | 〃 | 〃 | 14 |
| 경인화물자동차운수부 | 최봉길 | 부평동 94 | 〃 | 7 |
| 〈토목건설업〉 | | | | |
| 중앙공무사 | 이승제 | 부평동 98 | 토건업 | —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 pp. 544~550.

또한 이 무렵 부평지역에는 피아노·오르간 등을 생산하는 영창악기(주) (1956년 11월 설립, 가좌동 소재), 물엿과 전분을 생산하는 신한제분(1956년 12월 설립, 산곡동 소재), 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합)삼성화학(1957년 설립, 산곡동 소재), 그리고 주로 철제사무기구·모빌렉을 생산하는 동성상공(주) (1957년 설립, 효성동 소재)등이 있었다. 그리고 또 가전음향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전자(주) (1959년 7월 설립, 가좌동 소재)와 가발·가방 등을 생산하는 동안물산(주) (1959년 8월 설립, 효성동 소재)등이 있었다.

이러한 공장들은 시세의 진운에 따라 혹은 성장하고 혹은 침체를 거듭하면서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의 부평지역의 공업화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큰 시련에 직면하였다. 대내적으로는 4·19혁명과 5·16군사혁명 등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대변혁을 겪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데다가 정정(政情)불안 등의 경제 외적인 제약요인이 가세되어 경제활동은 정체와 둔화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원조정책의 전환으로 원조액이 감소됨으로써 외환사정의 악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실시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기반이 취약하여 침체상태에 있는 기간산업에, 특히 시설이 노후하고 거액의 자본이 필요한 중공업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여 시설을 복구 확장케 함으로써 정상가동하게 되었는데, 부평지역에는 신진자동차(1962년 부평에 설립된 근대적인 자동차조립생산 공장인 새나라 자동차(주)를 1965년에 인수)·경성공작소·수도피아노·전남방직·부평제강 등을 비롯하여 주로 기계공업체가 가동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산업촉진위원회가 1963년 3월 7일에 설치되어 수출산업공업단지 예정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인천 부평지역이 적지로 예상된다」는 동년 6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유치의 가능성을 간파하고,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3일 수출산업촉진위원회,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상공부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지역으로 인천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1964년 3월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서울 구로동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동년 10월 인천시는 부평지구를 별도 공업단지로 설정키 위하여 수출산업공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1965년 3월 30일,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인천 부평지구를 공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할 것을 의결하였고, 건설부는 동년 6월 16일 건설부공고 제141호로 부평지역을 수출산업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 공고하였다. 이 공고에서 공업단지 지정위치는 인천시 효성동·갈산동·작전동 일대 면적 213,535평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년 6월 2일에 결성된 인천수출산업공단설립기성회는 상공부에 공단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동년 11월 23일 상공부로부터 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인가를 받아 1966년 4월 8일에는 부평 제1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부평공업단지의 특징을 들어 보면 그 성격은 복합단지(12개 업종)에 속하는 것이며 대지가격이 저렴하고(평당 2,585원) 분양대지면적이 중소기업에 적합(3천평)할 뿐 아니라 대지대(垈地代) 상환은 5년균등 분할상환이라는 특전이 있다. 그 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 내용〉

(1) 사업목표

- 현대적 수출산업공업단지의 개발운영
- 해외교포의 수출산업 제조기업 유치 정착
- 수출산업센터 역할 담당
- 공동 서비스시설 운영에 의한 국제경쟁력 증진
- 외화획득 증대와 유휴노동력 흡수
- 해외판매량 증대를 위한 시장조사 및 시장확보
- 점진적인 선진제국의 수출산업 유치

(2) 부　　지

① 위치 : 인천시 효성동, 작전동, 갈산동, 서울 26km, 인천 12km 지점
② 면적 : 211,215평(경인지구 종합개발 경공업단지 120만평 중심지)
③ 지형, 지세, 지질 : 평지, 해발 7m50, 중사지

(3) 교통수송

① 육로 : 고속도로(거리 75m) 경인국도(거리 3,600m)와 연결
② 철도 : 부평역까지(3km) 산업선 인입미군철도(1.8km) 연장가능 경인간 1일 67왕복 복선
③ 해상 : 인천항 년간 하역량 약 200만톤 제2선거공사 40% 진행 완공후 하역 능력 337만톤
④ 공로 : 김포공항까지 11km

(4) 전　　력

① 변전시설
㉠ 부평변전소 : 800m 지점
㉡ 부개변전소 : 3,500m 지점
㉢ 최대공급능력 : 6,000KV~9,000KV
㉣ 현재공급량 : 2,500KV~5,600KV
㉤ 잔여시설량 : 3,400KV~3,500KV
㉥ 현재잔여시설량 : 6,900KV

(5) 용 수

① 수도 : • 1일 2만톤 공급가능
• 단지옆에 I.D.A자금으로 1日 10만톤 정수지 설치
• 운하완성후 1일 100만톤 공급계획

② 배수, 폐수 : 처리시설 용역

(6) 유치대상업종

| 업 종 별 | 수 출 생 산 품 종 목 |
|---|---|
| ① 금 속 제 품 | 자동차, 오토바이, 삼륜자전차, 유모차, 리어카, 양식기, 완구, 조침, 미싱침, 시계밴드, 주사침, 수도전, 원예도구, 우승컵, 건, 관악기, 각종미싱, 가위류, 알미늄제품(판), 볼트낫트, 양산대. |
| ② 합성수지제품 | 낚시대, 신발, 구두창, 완구, 주방용구, 프라스틱함석, 비니루페이퍼, 연초케이스, 안경테, 우의, 프라스틱제품, 비니루제품, 아크릴제품 |
| ③ 섬 유 제 품 | 레-스, 벳트카바시-트, 넥타이, 수건, 스카프마후라, 테블크로스, 냅킨 양솔포, 스타킹, 장갑, 실내화, 쉐-터, 문장, 망사, 메리야스, 양말, 어망, 모계, 모직물, 견직물, 면직물, 합성직물, 각종의류 |
| ④ 목 제 품 | 피아노, 올갠, 기-타, 바이올린, 만돌린, 현악기, 골프용품, 야구배트, 베드민튼용구, 테니스라켓, 스키용품, 가구, 죽세공품, 합판, 완구 |
| ⑤ 초 자 제 품 | 샨데리아, X마스조명구, 마법병, 수병, 식기류, 화병, 소전구, 화학시험기구, 목거리, 회명, 컵, 완구 |
| ⑥ 고 무 제 품 | 타이어, 튜-브, 풍선, 장화, 덧신, 신발, 우화, 공류, 우의, 잠수복, 잠수안경, 완구 |
| ⑦ 농산물가공품 | 낙농물(분유, 연유, 버터, 치즈, 햄, 쏘세이지), 건과(건포도), 과실통조림, 버섯통조림, 왕골슬리퍼, 전분, 과실주, 인삼주, 위스키, 부랜디, 특산가공물, 건고구마 |
| ⑧ 수산물가공품 | 생선통조림, 전자, 간유, 어유, 생선냉동물, 생선절건품, 어포, 건어, 람어, 어물훈제품(가마보꼬). |
| ⑨ 광 물 가 공 품 | 천연보석, 대리석, 가오린, 석분, 귀중품, 금은동연가공품, 광석제브로취, 단추, 파이프, 광석공예품, 타이루, 도자기, 양식류, 조형물 |
| ⑩ 전 기 제 품 | 라디오, TV, 전축,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디쇼너, 전화기, 무전기, 마이크, 트랜지스터, 소켓, 각종전선, 축전지, 건전지 |
| ⑪ 공 예 품 | 인형, 조화, 인조보석, 인조진주, 나전칠기, 목거리, 귀거리, 브로취, Xmas장식품, 지제품, 핸드백, 고급단추, 조각물, 진유공예품, 갈포벽지, 기타초공예품(매물용, 핸드백 외) |
| ⑫ 기 타 제 품 | 농약, 인체약, 화공약품, 특수사료, 도료, 모제품(가발, 눈썹, 브러쉬), 피혁제품(트렁크, 구두, 가방, 혁대, 핸드백, 볼), 한지, 모피(토) 기타 선택기준에 의한 제품 |

단지조성을 시작한 이후 1966년 7월 2일 부평공업단지에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첫 입주지정을 받은 기업체는 재일교포 임호씨가 운영하는 코리아 크리스탈공업사였다. 그 다음이 한국인테리어화학(주)과 삼양전기공업이 입주 지정되어 들어오면서 1966년도에는 3개 기업체가 입주하였다. 1967년에는 대한마이크로전자공업외 8개 기업체를 유치·입주하므로서 총 12개 기업체가 되었다. 그러나 부지정지 공사 등의 부진으로 인하여 기업체 유치는 당초 계획보다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한편 1960년 이후부터 1967년말 현재까지 부평지역에 설립되어 가동하고 있었던 주요 제조업체를 설립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립년월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주생산품 |
|---|---|---|---|---|
| 1960년 3월 | 삼양식품공업(주)장유공장 | 전중윤 | 효성동 274-5 | 간장,된장,고추장 |
| 1961년 1월 | 풍원실업(주) | 정광진 | 효성동 298-3 | 화공약품 |
| 2월 | 신한공기(주) | 최상보 | 가좌동 180-28 | 수도 가스미터 |
| 10월 | 신성공작소 | 김연갑 | 가좌동 570-26 | 금형제품 |
| 10월 | 유광산업(주) | 장익용 | 작전동 136 | 자켓, 신사복 |
| 1962년 | 새나라자동차(주) | - | 청천동 145 | 승용차 |
| 2월 | 역전제재소 | 조영학 | 부평동 159-5 | 목재 |
| 3월 | 신도실업 | - | 효성동 | 신사복 |
| 3월 | 삼양건업사 | 이계복 | 산곡동 181 | 나왕, 미송 |
| 3월 | 한성전기(주) | 이문식 | 작전동 473-4 | 모타 |
| 8월 | 홍일실업(주) | - | 가좌동 | 염료 |
| 10월 | 새한요업사 | 유상록 | 청천동 240 | 흑연도가니 |
| 1963년 4월 | 고려연마공업(주) | 윤남현 | 가좌동 290 | 연마지포 |
| 10월 | 중원상사(주) | 강재영 | 효성동 423-5 | 화섬직물 |
| 11월 | 한일연탄상사 | 강한성 | 부평동 529-16 | 연탄 |
| 1964년 4월 | 선일포도당공업(주) | 박상만 | 가좌동 285 | 포도당, 물엿 |
| 4월 | 부평강원연탄공장 | 이종수 | 부평동 419 | 연탄 |
| 4월 | 천미광유공업(주) | 유성태 | 효성동 583 | 윤활유, 절전유 |
| 6월 | 대한화학기계공업(주) | - | 효성동 | 화학기계류 |
| 6월 | 대우바브콕(주) | 최영섭 | 산곡동 274 | 발전기기 |
| 12월 | 고미반도체(주) | 김경동 | 효성동 316 | 전자부품 |

| 설립년월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주생산품 |
|---|---|---|---|---|
| 1965년 1월 | 세운산업(주) | 나오용 | 효성동 | 철탑, 철구류 |
| 2월 | (주)연합기계 | 김시화 | 효성동 340-15 | 천정크레인 |
| 4월 | 인부제재소 | 이상현 | 부평동 233 | 목재 |
| 7월 | 신화공업사 | 김창섭 | 가좌동 524-3 | 압출성형기 |
| 8월 | 진영산업(주) | 박성철 | 효성동 388-1 | 신사복, 숙녀복 |
| 10월 | 동남합성공업(주) | 이의갑 | 효성동 596-3 | 계면활성제 |
| 11월 | 일진금속공업사 | 허진규 | 부평동 65-7 | 비철주물 |
| 1965년 12월 | 동국무역(주) | 백영기 | 효성동 316-56 | 자수직물 |
| 12월 | 인천전기제작소 | 오대균 | 가좌동 469-8 | 변압기, 펌프 |
| 1966년 3월 | (주)한독 | - | 작전동 | 전자손목시계 |
| 5월 | 다나무역 | 박인근 | 효성동 514-1 | 가발 |
| 5월 | 오리온전자공업(주) | 김완길 | 가좌동 531-1 | 앰프라디오 |
| 11월 | 세아산업(주) | 홍구작 | 작전동 160-13 | 차량부품 |
| 1967년 2월 | 한신공영(주) | 김형종 | 작전동 102-1 | 보일러 및 탱크류 |
| 5월 | 동흥전기(주) | - | 가좌동 | 형광등 및 기구 |
| 6월 | 동보전기(주) | 성도원 | 일신동 18-2 | 〃 |
| 7월 | 삼화프라스틱(주) | 박인근 | 효성동 516-1 | PE.P.P |
| 8월 | 전남방직(주) | - | 청천동 | 아크릴사, 면사 |
| 8월 | 서울제강(주) | - | 십정동 | 앵글, 찬넬 |
| 8월 | 영광식품공업사 | 백학범 | 부평동 276 | 간장 |
| 9월 | 삼화종합전자산업사 | 장만수 | 작전동 682-4 | 난로, 곤로 |
| 12월 | 동아피아노제작소 | 이병근 | 효성동 566-1 | 피아노 |
| 12월 | 삼신기업사 | 박정원 | 십정동 439-15 | 시계 케이스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 인천시사 1993, 인천개항 100년사

### 5) 구제(區制) 이후의 공업활동

1968년도에 들어서는 기업유치에 활기있는 진전을 보여 연말까지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에 총 50개 기업체가 입주·지정되므로서 당초 목표한 바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당시 입주지정된 기업체는 〈표 6〉과 같으며, 업종을 살펴보면 잡화가 1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전자와 금속재

품이 각 8개 업체였으며, 직물 6개, 쉐타제조업이 5개, 봉제와 완구 제조업이 각 4개, 가발과 농수산물 가공업이 각 1개 업체였다.

〈표 6〉 입주지정기업체

|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업종 | 입주지정일 |
|---|---|---|---|
| 코리아크리스탈 | 임 호 | 특수초자 | 66. 7. 2 |
| 한국인테리아화학(주) | 박진화 | 프라스틱제품제조 | 66. 8. 5 |
| 삼양전기공업사 | 최형두 | 전자기기제조업 | 66. 8. 5 |
| 신신전자공업 | 정일모 | 전자기기제조업 | 67. 8. 1 |
| 한국마이크로전자(주) | 김종길 | 전자기구제작 | 67. 8. 8 |
| 한남섬유산업(주) | 양재범 | 섬유제품 | 67. 8. 8 |
| 대월부레키공업(주) | 홍구표 | 차량부분품제조 | 67. 8. 8 |
| 한국유리공업(주) | 최태섭 | 크리스마스장식용 전구 | 67. 9. 30 |
| 신성전기산업(주) | 신창호 | 전자기기조립가공 | 67. 9. 30 |
| 태아실업(주) | 이순한 | 섬유제품가공업 | 67. 9. 30 |
| 우보산업(주) | 최부성 | 의료제조업 | 67. 9. 30 |
| 양덕산업(주) | 김승찬 | 직물제조업 | 67. 10. 7 |
| 중원상사(주) | 강재영 | 의류제조업 | 68. 1. 4 |
| 한국크리스탈공업사 | 홍대희 | 특수초자제조업 | 68. 1. 4 |
| 삼익물산(주) | 이효익 | 악기제조업 | 68. 1. 4 |
| 동아전자(주) | 최진수 | 전자기기제조업 | 68. 3. 9 |
| 명성산업(주) | 박영상 | 우모및조화제조업 | 68. 3. 9 |
| 삼송산업(주) | 성병림 | 쉐타제조업 | 68. 3. 9 |
| 세정실업(주) | 김중정 | 악기제조업 | 68. 3. 9 |
| 동초산업(주) | 이종원 | 합성수지제품 | 68. 3. 30 |
| 동양전자공업(주) | 신학균 | 전기통신부분품 | 68. 4. 9 |
| 한송산업(주) | 윤 량 | 자동차부속품 | 68. 5. 10 |
| 신우산업(주) | 김진곤 | 특수봉제품 | 68. 5. 18 |
| 동남아기업사 | 조동연 | 합성제품가공업 | 68. 6. 10 |
| 삼우상사 | 이용순 | 통신기기제조업 | 68. 6. 10 |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업 종 | 입주지정일 |
|---|---|---|---|
| 대 원 강 업 (주) | 허 주 열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68. 6. 10 |
| 동 산 유 지 (주) | 김 정 관 | 유 지 제 품 제 조 업 | 68. 6. 10 |
| 오 성 만 포 공 예 (주) | 백 성 빈 | 섬 유 제 품 가 공 업 | 68. 6. 10 |
| (합) 몽 철 사 | 송 창 주 | 금 속 류 제 조 업 | 68. 6. 10 |
| 동 양 규 소 공 업 (주) | 이 현 명 | 특 수 건 축 재 제 조 | 68. 6. 10 |
| (유) 연 방 물 산 | 장 상 범 | 공 예 품 제 조 업 | 68. 6. 10 |
| 고 려 전 자 (주) | 최 치 영 | 전 자 기 기 제 조 업 | 68. 6. 10 |
| 범 양 합 성 화 학 (주) | 김 요 라 | 합 성 수 지 제 조 업 | 68. 6. 10 |
| 용 천 산 업 (주) | 곽 용 수 | 농 산 물 가 공 업 | 68. 7. 18 |
| 평 화 교 역 (주) | 유 순 규 | 쉐 타 제 조 업 | 68. 7. 18 |
| 유 미 실 업 (주) | 최 상 호 | 쉐 타 제 조 업 | 68. 7. 18 |
| 씨 부 라 더 즈 섬 유 (주) | 배 순 홍 | 봉 제 업 | 68. 7. 18 |
| (주) 신 진 편 물 사 | 오 성 룡 | 수 편 물 제 조 업 | 68. 7. 18 |
| (주) 오 리 진 | 김 봉 길 | 쉐 타 제 조 업 | 68. 7. 18 |
| 범 양 상 공 (주) | 권 상 진 | 의 류 제 조 업 | 68. 7. 18 |
| 삼 아 전 자 (주) | 유 봉 식 | 전 자 기 기 제 조 업 | 68. 7. 18 |
| 한 국 가 구 공 업 (주) | 최 기 곤 | 가 구 제 조 업 | 68. 8. 30 |
| 뉴 코 리 아 전 자 (주) | 김 인 | 전 자 기 기 제 조 업 | 68. 8. 30 |
| 대 양 화 성 (주) | 조 영 일 | 합 성 수 지 제 조 업 | 68. 8. 30 |
| 광 성 공 업 (주) | 반 성 휘 | 도 자 기 제 조 업 | 68. 8. 30 |
| 천 부 광 업 (주) | 최 호 | 가 단 주 물 제 조 업 | 68. 12. 8 |
| 동 국 무 역 (주) | 백 영 기 | 메 리 야 스 제 품 제 조 업 | 68. 8. 30 |
| 공 신 양 행 | 김 용 석 | 가 발 제 조 업 | 68. 8. 14 |
| 동 광 금 속 | 강 병 학 | 비 철 금 속 가 공 | 68. 9. 27 |
| 대 영 섬 유 (주) | 김 노 성 | 합 성 섬 유 제 조 업 | 68. 8. 30 |

부평 제1단지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끝나고(1969년 10월 31일 준공),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1969년 2월 20일에 개최된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회는 정부의 당면시책인 임해지역 공업단지개발과 수출산업진흥책에 부응하여 주안 임해지구에 약 20만평 규모의 제2단지를 다시 조성하기로 결의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동년 3월 18일 상공부의 승인을 받고, 7월 11일 건설부 공업단지 종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8월 5일 건설부 공고 제82호로 주안공업단지(주안 제2단지)로 지정되었고, 그해 10월 22일 조성공사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주안 제2단지의 개황 및 입주확정업체는 다음과 같다.

〈단지개황〉

1. 입지적 제여건

① 인천 북부 임해지역에 위치

② 공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처리가 지극히 용이함.

③ 전원이 풍부하고, 공급이 무한정 보장

④ 육·해·공 수송수단이 간편

| 구분 \ 지점 | 서울 | 인천항 | 주안역 | 김포공항 | 제1단지(부평) |
|---|---|---|---|---|---|
| 거 리 (km) | 32 | 5 | 2 | 18 | 7 |
| 소요시간(분) | 25 | 5 | 3 | 18 | 5 |

〈개발효과〉

1. 직접효과

(1) 국토의 이용도 증대

폐염전 160,000평을 이용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한다.

(2) 수출 증대

년간 30,000,000불의 신규 수출증대를 자져온다.

(3) 고용 증대

공단 조성기간중 취로 100,000명, 완성후 10,000명의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4) 입주업체 국제경쟁력 강화

공동시설 운영으로 생산코스트를 절감케 되어, 경영효과를 높이게 된다.

(5) 산업구조 개선

협업화, 계열화, 전문화를 이루게 된다.

토 지 현 황

소재지 : 인천시 북구 가좌동

| 소유권자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 국 유 지 | 6,523평 | 3.1% | 조성법 22조 불하취득 |
| 대한염업 | 156,832평 | 76.7% | 이미 매수취득 |
| 사 유 지 | 40,964평 | 20% | 대부분 매수 |
| 계 | 204,319평 | 100% | |

2. 간접 효과

(1) 현대식 도시개발에의 기여

(2) 지역사회 개발에의 공헌

(부근 농촌의 전화촉진과 상·수도관 포설등을 유치한다.)

(3) 모든 공해방지로부터 도시보건에의 기여

(4) 산업시설의 집단방위제 확립

(5) 관련 산업의 유발

### 3. 단지 조성계획

(1) 개발기간 : 1969~1970(2개년)

(2) 총면적 : 204,319평

블럭수 : 14개

단지배치 종합계획

|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 공 장 부 지 | 172,290坪 | 84.5% | 공동시설부지포함 |
| 도로및방호제 | 32,029 | 15.5 | |
| 계 | 204,319 | 100 | |

### 4. 입주업체

범양합섬화학(김요라)
한국마이크로전자(김종길)
한남섬유산업(양재범)
한국유리공업(최태섭)
신성전기산업(신창호)
우보산업(최부성)
중원상사(강재영)
삼익물산(이효익)
삼송산업(함병림)
동초산업(이종원)
한송산업(윤 양)
삼우상사(이용순)
대원강업(허주열)
고려전자(최치영)
평화교역(유순규)
시브러더스섬유(배순홍)
오 리 진(김봉길)
대원부레기공업(홍구표)
태아실업(이순한)
양덕산업(김승찬)
한국크리스탈(홍대희)
명성산업(박영상)
세정실업(김중정)
동양전자공업(신학균)
신우상사(김진곤)
동남아기업사(조동연)
동산유지공업(김정관)
몽 철 사(송창주)
연방물산양행(장상범)
삼아전자공업(유봉식)
한국가구공업(최기곤)
대영화섬(김노성)
대흥제재소(김창진)
용천산업(곽용수)
유미실업(최상호)
신진편물사(오성용)
범양상공(권상율)
천부광업(최 호)
뉴코리아전자(김 인)
고미산업(이석우)
세경산업(박윤구)
천마공예사(김영숙)
미성가발양행(지종상)
동양밸브(이창남)
동양규소공업(이현명)
근대주물공업(장석원)
제일화학(박성업)
부평산업(박상능)
경기농산가공(정택수)

한편 1968년 1월 1일 구제(區制)실시 이후부터 1969년말 현재까지 부평지역에 설립된 주요 제조업체를 설립연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립년월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주생산품 |
|---|---|---|---|---|
| 1968년 2월 | 한국특수화학(주) | 이 병 서 | 효성동 331-1 | 도료 |
| 2월 | 한국티타늄(주) | 문 승 균 | 가좌동 556-15 | 튜브 |
| 2월 | 삼송산업(주) | 함 병 림 | 효성동 316-20 | 운반용 소형바퀴 |
| 3월 | 삼부특수제강(주) | 김 정 복 | 부개동 445 | 주강 |
| 3월 | 삼일페인트공업사 | 박 형 규 | 효성동 593 | 페인트 |
| 3월 | 럭키콘티넨탈카본(주) | - | 갈산동 | 염료 |
| 5월 | 동서식품(주) | 이 홍 희 | 효성동 316-11 | 커피, 프리마 |

| 설립년월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주생산품 |
|---|---|---|---|---|
| 1968년 7월 | 영풍빗트공업(주) | 이 하 원 | 십정동 557-3 | 빗트 |
| 7월 | 뉴-코리아전자공업(주) | - | 효성동 | 엘리베이터 |
| 8월 | 시브라더스섬유(주) | - | 효성동 | Y셔츠, 브라우스 |
| 10월 | 몽철공업(주) | 송 창 주 | 효성동 319-20 | 농기구부품, 전화기캐이스 |
| 10월 | 동진화성공업(주) | 이 부 섭 | 가좌동 472-2 | 발포제 |
| 10월 | 풍산금속공업(주) | - | 효성동 | 동 및 동합금 |
| 11월 | 동방기계공업(주) | 채 기 태 | 효성동 72-1 | 목공기계 |
| 12월 | 몬트레스산업(주) | 김 창 규 | 청천동 140-1 | 시계케이스문자판 |
| 12월 | 금영실업(주) | 한 광 렬 | 효성동 225-2 | 냉장고용 선반 |
| 1969년 2월 | 삼신철공업(주) | 김 윤 동 | 부평동 65-124 | 단조발브 |
| 5월 | 반도상사(주)부평공장 | 문 박 | 효성동 316-7 | 의류, 제화 |
| 8월 | 남영통상(주) | 윤 종 진 | 가좌동 548-12 | 시계 |
| 8월 | (주)신성기업 | 최 종 규 | 구산동 121 | 아세탈린 |
| 9월 | 부림목재(주) | 김 성 도 | 가좌동 173-2 | 제재 |
| 10월 | 한국이노시돌공업(주) | 김 초 원 | 작전동 160-4 | 이노시돌 |
| 10월 | 하니(주) | 홍 승 채 | 효성동 316-16 | 인형, 완구 |
| 11월 | 유신흥업(주) | 김 정 태 | 효성동 316-38 | 야구배트, 골프채 |
| 11월 | 경인에너지(주) | 김 종 희 | 원창동 100 | 석유류, 전력 |
| 12월 | 한양목재제1·제2공장 | 이 재 선 | 가좌동 178-3 | 가구, 목재, 합판 |
| 12월 | 동양이화공업(주) | 홍 원 식 | 작전동 101-1 | 자동차부품 |

자료 : 인천 상공회의소 90년사, 인천시사 1993, 인천개항 100년사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 주안 제 2단지 조성이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1971년 11월 4일「한국수출산업공단 및 인천수출산업공단 합병」이란 제목의 상공부의 공문발송을 계기로 인천수출산업공단은 동년 동월 16일 해산이 되었고, 동월 24일 한국수출산업공단과 합병운영을 위한 통합총회가 실시되면서 부평 제1단지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단지로 흡수되었으며, 한국수출산업공단은 합병 후 주안 제2단지에 제5단지를 조성하였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고속도로 연변 폐염전 지대의 개발활용을 목적으로 남구 도화동과 북구 가좌동 일원에 인천지방 공업단지를 조성하였는데, 단지 연혁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공업단지 개황〉

## 1. 연 혁

68. 1. 27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건설부고시 제1915호)

73. 4. 1 인천지방공업단지로 지정

76. 11. 10 공업단지 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

82. 9. 20 인천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대행(시 → 관리공단)

92. 3. 25 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고시(인천직할시고시 제52-42호)

## 2. 단지 개요

(1) 일반현황

| | | |
|---|---|---|
| 조성목적및단지특성 | | 고속도로 연변 폐염전 지대의 개발활용 |
| 사업주체 | | 인천직할시 |
| 위치 | | 인천직할시 남구 도화동, 서구 가좌동 일원 |
| 지형 | | 평지 |
| 조성기간 | | 1970. 3~1973. 12 |
| 이용항만및화물접안능력(천톤) | | 인천항(공단에서 4.5km) |
| 교통여건 | 고속도로 | 경인고속도로 가좌인터체인지 인접 |
| | 국도 | 46번 국도(인천-서울), 42번 국도(인천-수원) |
| | 지방도 | 307번 지방도(인천-김포), 305번 지방도(인천-강화) |
| | 항공 | 김포공항(공단에서 20km) |
| | 철도 | 주안역, 제물포역, 동인천역을 통해 경부선 이용 |
| 입주업종(중분류기준)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 입주제한 | | |
| 공장설립가능시기 | | 입주완료(수시) |
| 입주혜택 | 금융지원 | |
| | 세제지원 | 5배 중과세 면제(일반과세) |
| 주변지역경제현황 | | 대도시인 인천직할시 내에 위치하여, 구인이 용이하고 전력 및 용수공급이 원활하며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이 인접, 교통여건이 좋아 기업의 생산활동 및 제품판매에 조건이 유리함. |

(2) 조성 및 분양현황

(93. 12. 31 현재/단위:천㎡)

| 조성(대상)면적 | | | 공장용지면적 | | | 공공시설및 지원시설용지 |
|---|---|---|---|---|---|---|
| 총면적 | 조성 | 미조성 | 총면적 | 분양면적 | 미분양면적 | |
| 1,136 | 1,136 | — | 999 | 999 | — | 134 |

(3) 지원시설현황

| 구분 | 단위 | 소요시설 |
|---|---|---|
| 공업용수 | 천톤/일 | 3,583 |
| 전력 | KW | 46,778 |
| 통신시설 | 회선 | 198 |
| 진입도로(폭) | m | 40 |
| 단지내도로 | km | 6.2 |
| 하수도시설 | km | 6.2 |
| 폐수종말처리장 | 천톤/일 | |

한편 제2·3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정부는 수출진흥시책과 기술도입 및 외자유치사업 등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온 결과 인천지방의 경우 외국인 직·합작 투자기업이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 부터 크게 늘어나 1976년에는 법인 전 제조업체(514개사)의 17.7%, 전 수출업체(210개사)의 34.2%를 차지하는가 하면 수출실적에 있어서도 1974년에는 25.2%, 1975년에는 14.3%를 각각 차지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3]

외자기업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1976년 8월말 현재 91개업체 중 북구가 78.0%(71개사)로 가장 많은데, 이같은 집중현상은 가구밀도 및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고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 5단지가 이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표7〉참조).

〈표 7〉 외자기업 구역별 분포

| 구분 | 북구 | 남구 | 동구 | 중구 | 계 |
|---|---|---|---|---|---|
| 업체수 | 1 | 11 | 3 | 6 | 91 |
| 분포율 | 78.0 | 12.1 | 3.3 | 6.6 | 100.0 |

※ 자료 : 인천상의 「외국인 직·합작투자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북구에 자리잡은 외자기업들의 설립연역을 보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63.4%인 45개업체가 설립되었는데, 초년도인 1972년에는 7개업체(9.9%), 1973년에는 무려 25개업체(35.2%)가 설립되어 피크를 이루었으며, 1974년에는 12개업체(16.9%)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75년도에는 단 1개업체가 늘었을 뿐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3) 『仁川商工會議所 九十年史』, 仁川商工會議所, 1979. p. 853.

그 나머지는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설립되었는데, 1970년이전에 5개업체(7.0%), 1970년에는 11개업체(15.5%), 1971년에는 1개업체가 감소한 10개업체(14.1%)가 설립되었다(〈표 8〉참조).

또한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단지에 12개업체, 제5단지에는 15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단지 외 지역은 44개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표 8〉 외자기업 설립 연역

(1976년 8월말 현재)

| 구분 / 설립년도 | 업체수 | 구성비 | 비고 |
|---|---|---|---|
| 1970년도이전 | 5 | 7.0% | |
| 1970 | 11 | 15.5 | |
| 1971 | 10 | 14.1 | |
| 1972 | 7 | 9.9 | 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63.4% |
| 1973 | 25 | 35.2 | |
| 1974 | 12 | 16.9 | |
| 1975 | 1 | 1.4 | |
| 1976 | 0 | 0.0 | |
| 계 | 71 | 100.0 | |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외국인 직·합작투자기업 실태조사보고서」

한편 제4차 5개년계획기에 이르는 동안 실시된 정부의 적극적인 중화학공업 건설정책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5단지 및 인천지방공단이 조성되고 외국인 투자업체가 유치됨에 따라 부평지역의 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1979년 현재의 주요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공업으로는 철근·강관 및 강괴 등을 주로 생산하는 일신제강(주) 인천제강소(북구 가좌동 소재, 1974년 5월 가동), 수도용 도장강관·강관·강관파일·주물 등을 주요 생산 품목으로 하는 동양철관공업(주) (북구 청천동 소재, 1973년 6월 설립), 볼트·너트·철강구조물 등을 주로 생산하는 동아건설산업(주) 부평공장(북구 부평동 소재, 1978년 1월 건설)등이 있다. 기계공업으로는 베아링·콘베이어·공작기계 등을 주요 생산품목으로 하는 한국베아링공업(주) (북구 산곡동 소재, 종업원은 1,881명), 보일러·공기조화기기 및 버너제조업체인 한보열기공업(주) (북구 가좌동 소재, 1971년 3월 설립) 등이 있다. 화학공업으로는 일당 원유 6만배럴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경인에너지(주) 인천정유공장(북구 원창동 소재, 1971년 12월 1일 가동)과 합성피혁제품을 생산하는 삼화프라스틱(주) (북구 효성동 소재, 1973년 2월 설립)등이 있고, 전기기기공업과 전자공업으로는 냉난방기기·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화신전기(주) (북구 효성동 소재, 1975년 9월 준공)과 앰프·카세트·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대우전자(주) (북구 가좌동 소재, 1974년 1월 설립)등이 있다. 자동차공업으로는 제

미니·레코드·트럭 등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새한자동차(주) (북구 청천동 소재, 1972년 6월 설립, 종업원은 6,505명)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의 생산·판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의 〈표 9〉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9〉 자동차 생산 능력

(단위 : 천대)

| 차 종 | 회 사 명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9. 2월말 |
|---|---|---|---|---|---|---|---|
| 승 용 차 | 현 대 | 7.8 | 7.8 | 56.0 | 56.0 | 56.0 | 116.0 |
| | 새 한 | 16.0 | 16.0 | 16.0 | 50.0 | 50.0 | 50.0 |
| | 아 세 아 | 7.2 | 7.2 | 7.2 | — | — | — |
| | 기 아 | — | 7.2 | 24.0 | 50.0 | 50.0 | 50.0 |
| | 소 계 | 31.0 | 38.2 | 103.2 | 156.0 | 156.0 | 216.0 |
| 트 럭 | 현 대 | 6.9 | 6.9 | 20.0 | 20.0 | 20.0 | 20.0 |
| | 새 한 | 6.0 | 6.0 | 6.0 | 7.0 | 7.0 | 7.0 |
| | 아 세 아 | 3.6 | 3.6 | 3.6 | 3.6 | 3.6 | 3.6 |
| | 기 아 | 8.4 | 8.4 | 24.0 | 24.0 | 24.0 | 24.0 |
| | 소 계 | 24.9 | 24.9 | 53.6 | 54.6 | 54.6 | 54.6 |
| 버 스 | 현 대 | 1.8 | 1.8 | 4.0 | 4.0 | 4.0 | 4.0 |
| | 새 한 | 3.0 | 3.0 | 3.0 | 3.0 | 3.0 | 3.0 |
| | 아 세 아 | 2.4 | 2.4 | 2.4 | 2.4 | 2.4 | 2.4 |
| | 소 계 | 7.2 | 7.2 | 9.4 | 9.4 | 9.4 | 9.4 |
| 합 계 | 현 대 | 16.5 | 16.5 | 80.0 | 80.0 | 80.0 | 140.0 |
| | 새 한 | 25.0 | 25.0 | 25.0 | 60.0 | 60.0 | 60.0 |
| | 아 세 아 | 13.2 | 13.2 | 13.2 | 6.0 | 6.0 | 6.0 |
| | 기 아 | 8.4 | 15.6 | 48.0 | 74.0 | 74.0 | 74.0 |
| | 소 계 | 63.1 | 70.3 | 165.2 | 220.0 | 220.0 | 280.0 |

자료 : 한국산업은행조사부, 〈한국의 산업〉. 1979(上) p. 486.

섬유공업으로는 아크릴사·면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전방(주) 부평공장(북구 청천동 소재, 1967년 8월 건설)과 주로 메리야스·합성수지 및 에어포트를 생산 수출하는 (주)세서울상사 (북구 효성동 소재, 1970년 12월 설립, 종업원은 약 1,200명) 등이 있고, 비철금속공업으로는 주로 양식기를 생산하는 대림통산(주) 부평공장(1970년 4월 설립)과 동·동합금을 주로 생산

하는 풍산금속공업(주) (북구 효성동 소재, 1968년 12월 설립, 종업원은 약 1,000명)등이 있다.

1970년대에 부평지역에서 설립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주요 제조업체를 설립연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립년월일 | 업 체 명 | 대표자 | 소재지 | 종업원 | 주 생 산 품 |
|---|---|---|---|---|---|
| 70년 3월 | 대한마이크로전자(주) | 안 중 규 | 작 전 동 | 450 | 고밀도 직접회로 |
| 3월10일 | 대 진 정 밀 산 업 (주) | 이 해 구 | 작 전 동 | 130 | 음향기기벨트,롤러,샤프트 |
| 4월 1일 | 대림통상(주)주안공장 | 이 재 하 | 가 좌 동 | 1,600 | 수분, 포크, 칼 |
| 4월 1일 | 대림통상(주)부평공장 | 이 재 정 | 부 평 동 | 800 | 수분, 포크, 칼 |
| 4월 6일 | 대원안전유리공업(주) | 홍 대 식 | 효 성 동 | 196 | 안전유리,일반건축용유리 |
| 5월16일 | (주) 화 영 | 이 태 욱 | 작 전 동 | 165 | 양조식초, 현미 외 |
| 6월30일 | 동 일 전 자 통 신 (주) | 박 계 동 | 작 전 동 | 145 | H.V.T.P-Coil, I-Coil |
| 7월31일 | 대 진 특 수 섬 유 (주) | 송 영 희 | 효 성 동 | 752 | 마사, 소모사, 혼방사 |
| 9월25일 | 한 국 화 학 장 치 (주) | 왕 정 권 | 가 좌 동 | 120 | 교반기, 여과기, 세척기 |
| 70년10월2일 | (주) 서 흥 | 이 세 노 | 가 좌 동 | 270 | 스텐레스,진공보온기,도시락 |
| 12월 | 로 얄 동 도 금 속 (주) | 박 신 규 | 효 성 동 | 410 | 샤워기류, 세면기부속류外 |
| 12월 9일 | 원 창 홍 업 (주) | 박 연 척 | 가 좌 동 | 120 | 파티클 보드 |
| 71년2월4일 | 세 한 견 직 (주) | 김 정 범 | 효 성 동 | 280 | 견직물, 봉제의류 |
| 2월12일 | 한 국 로 아 (주) | 홍 영 식 | 효 성 동 | 160 | 가방, 마네킹 |
| 3월 5일 | 서 전 기 업 (주) | 최 무 현 | 계 산 동 | 260 | 철제완구,다이케스팅완구外 |
| 3월20일 | 동 양 이 화 공 업 (주) | 유 래 형 | 작 전 동 | 300 | 자동차내장품, 건축자재 |
| 5월26일 | 우 국 물 산 (주) | 이 기 영 | 작 전 동 | 170 | 자수, 나일론 니트직물 |
| 7월31일 | 태 평 특 수 섬 유 (주) | 손 해 동 | 효 성 동 | 783 | 마사, 소모사, 혼방사 |
| 72년 | (주) 진 도 | 김 영 도 | 작 전 동 | 400 | 콘테이너 |
| 1월31일 | 한 전 유 화 공 업 (주) | 강 상 태 | 가 좌 동 | 172 | 아스팔트,공업용제,윤활유 |
| 2월29일 | 태 평 양 물 산 (주) | 한 정 섭 | 가 좌 동 | 197 | 텐트, 비닐가방 |
| 3월10일 | 동 화 상 협 (주) | 승 일 범 | 가 좌 동 | 100 | 알루미늄휠 |
| 3월28일 | 한 일 화 학 공 업 (주) | 한 정 숙 | 작 전 동 | 144 | 아연화, 아연말 |
| 4월22일 | 송 도 물 산 (주) | 강 정 식 | 효 성 동 | 100 | 재봉사 |
| 5월12일 | 코이라스파이서공업(주) | 김 영 철 | 삼 산 동 | 1,037 | 자동차부품(변속기, 추진축) |
| 6월 1일 | (주) 서 우 | 김 만 중 | 갈 산 동 | 170 | 자켓 |

| 설립년월일 | 업 체 명 | 대표자 | 소재지 | 종업원 | 주 생 산 품 |
|---|---|---|---|---|---|
| 72년 6월7일 | 대우자동차(주) | 이경식 | 청천동 | 15,745 | 승용차,버스,트럭,특장차 |
| 9월 6일 | 범한무선(주) | 황필주 | 작전동 | 576 | 카스테레오셋트 |
| 9월18일 | 알파제약(주) | 안상인 | 가좌동 | 150 | 로진연질캅셀, 베로신연고외 |
| 10월24일 | (주)경인양행 | 성중관 | 석남동 | 145 | 연료 |
| 11월 6일 | 동국무역(주)부평공장 | 백영기 | 효성동 | 532 | 셔츠, 잠옷, 쟈켓 |
| 12월12일 | 태림섬유(주) | 손인상 | 가좌동 | 130 | 방모사 |
| 12월20일 | 원풍물산(주) | 이원기 | 가좌동 | 557 | 신사복 정장 |
| 12월21일 | 대열기계공업(주) | 구정회 | 가좌동 | 110 | 집전기,도장,건조설비,송풍기 |
| 73년 2월 1일 | 해태음료(주) | 김현곤 | 작전동 | 2,300 | 쥬스류, 탄산음료 |
| 3월14일 | 인성기연(주) | 이세일 | 가좌동 | 400 | 카셋트, 워키토키, R/C |
| 3월22일 | (주)대양 | 이진우 | 효성동 | 700 | 캐쥬얼 슈즈 |
| 4월 9일 | (주)코리아스테플 | 신중규 | 가좌동 | 260 | 스테플,스테플러핀,클립 |
| 4월20일 | 한국단자공업(주) | 이창원 | 가좌동 | 240 | 터미날 컨넥터 |
| 4월27일 | 이성전자(주) | 이인영 | 가좌동 | 290 | 플라스틱 전자부품 |
| 6월28일 | 새한미디어(주) | 모성진 | 가좌동 | 900 | 비디오, 오디오테이프 |
| 7월 9일 | 코리아하이답프(주) | 김병일 | 가좌동 | 300 | 가정용 주방기구 |
| 8월 1일 | 동양철관(주) | 김한구 | 청천동 | 645 | 수도용 도북장강관 |
| 8월 9일 | (주)쌍용정공 | 이완섭 | 효성동 | 520 | 자동차부품(프레스,클러치) |
| 8월22일 | (주)대양금속 | 강석두 | 효성동 | 150 | 스텐레스강관 |
| 8월24일 | 범우화학공업(주) | 김명원 | 작전동 | 106 | 절삭유, 방청유, 압연유 |
| 9월 4일 | 이화금속공업(주) | 조동근 | 효성동 | 120 | 금속, 금망 |
| 9월28일 | 극동요업(주) | 전우연 | 경서동 | 300 | 모자이크, 파스텔 타일 |
| 10월12일 | 남일금속(주) | 박홍상 | 계산동 | 675 | 냄비 후라이팬, 주전자 |
| 10월17일 | 아남전자공업(주) | 김상수 | 효성동 | 1,640 | 칼라TV, 오디오시스템 |
| 10월30일 | 평국전자공업(주) | 양승규 | 가좌동 | 230 | 스피커시스템,유든케비넷,A/VRader |
| 74년 1월 | 대우전자(주)주안공장 | 김용원 | 가좌동 | 1,038 | 영상장치 및 음향장치 |
| 1월17일 | 대도화섬(주) | 권순기 | 십정동 | 160 | 폴리에스텔, 가연사 |
| 1월22일 | 린나이코리아(주) | 강성모 | 십정동 | 1,055 | 가스난방기류 오븐 |
| 1월28일 | 봉오산업(주) | 박태언 | 가좌동 | 187 | 자동차부품,콤프레샤부품,미싱부품 |

| 설립년월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종업원 | 주 생 산 품 |
|---|---|---|---|---|---|
| 74년5월1일 | 희 성 금 속 공 업 (주) | 강 세 원 | 가 좌 동 | 350 | 전기접점, 납재, 귀금속 도금재 |
| 5월15일 | 삼 민 화 학 공 업 (주) | 임 동 준 | 효 성 동 | 170 | 식품, 의약품, 포장지, 다층필름 |
| 6월17일 | 한 국 미 싱 공 업 (주) | 박 정 수 | 부 개 동 | 267 | 공업용미싱 |
| 7월11일 | 코 리 아 제 록 스 (주) | 문 대 원 | 가 좌 동 | 1,890 | 복사기, 팩시밀리 |
| 9월 1일 | 삼양식품공업(주)장유공장 | 김 웅 진 | 효 성 동 | 150 | 간장,된장,고추장 |
| 12월14일 | 천 일 식 품 제 조 (주) | 천 동 환 | 효 성 동 | 430 | 게맛살, 만두, 돈까스 |
| 74년 | (주) 서 통 부 평 공 장 | 김 순 강 | 효 성 동 | 143 | OPP테이프 |
| 75년 3월17일 | (주) 하 인 벨 | 강 두 성 | 효 성 동 | 150 | 수정전자 탁상시계, 벽시계 |
| 7월 3일 | 대 서 산 업 (주) | 김 용 운 | 부 평 동 | 154 | 자전거핸들, 오토바이 릴 |
| 8월20일 | 한 국 훼 라 이 트 (주) | 안 창 준 | 갈 산 동 | 286 | 훼라이트 마그네트(음향부품) |
| 10월 3일 | 경 민 실 업 (주) | 이 창 근 | 청 천 동 | 180 | 겉바지류 |
| 11월 6일 | 대림통상(주)인천공장 | 이 재 우 | 가 좌 동 | 320 | 스텐레스, 식기류 |
| 76년2월11일 | (주) 삼 기 전 자 | 조 현 종 | 가 좌 동 | 350 | CAR RADIO, BOOSTER |
| 3월 | 벽 산 금 속 (주) | 한 세 기 | 가 좌 동 | 110 | 스텐레스샷시, 철구조물 |
| 3월19일 | 경 일 화 학 공 업 (주) | 박 두 근 | 작 전 동 | 197 | 핸드백, 신발용 피혁원단 |
| 4월20일 |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 | 한 상 수 | 효 성 동 | 840 | 스텐레스, 주방용기 일체 |
| 5월 1일 | 덕 창 기 업 (주) | 박 창 선 | 삽 정 동 | 150 | 자동차부품 |
| 5월18일 | 삼 익 목 재 (주) | 유 동 기 | 가 좌 동 | 160 | 목재, 합판, 창호 |
| 6월 1일 | 선 일 전 자 산 업 (주) | 남 궁 하 일 | 가 좌 동 | 150 | PFC, MPFC, Capacitorpack |
| 7월 7일 | 고 니 정 밀 (주) | 신 대 균 | 효 성 동 | 750 | 수정발진소자, 초소형 전자회로 |
| 8월10일 | 대우통신(주)주안1공장 | 박 성 규 | 가 좌 동 | 62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8월26일 | (주) 레 이 디 가 구 | 김 용 배 | 가 좌 동 | 480 | 장농, 장식장 |
| 12월15일 | 고 려 시 스 템 산 업 (주) | 이 동 훈 | 작 전 동 | 610 | CRT터미날, 모니터, 퍼스널컴퓨터 |
| 2월 6일 | 코 오 롱 유 화 (주) | 나 공 묵 | 가 좌 동 | 106 | PVC안정제, 폴리우레탄수지外 |
| 77년2월3일 | (주) 홍 화 B . M | 박 창 식 | 청 천 동 | 180 | 코드, 쟈켓 |
| 6월 2일 | (주) 기 호 상 사 | 성 상 현 | 부 개 동 | 150 | 지갑, 벨트, 핸드백, 일용잡화 |
| 6월 7일 | (주) 삼 익 가 구 | 김 동 수 | 가 좌 동 | 850 | 장농, 화장대, 문갑外 |
| 6월29일 | 한 국 리 레 이 | 이 용 흔 | 가 좌 동 | 300 | 리레이류,스위치류,제어기기 |
| 9월 9일 | (주) 제 일 물 산 | 정 인 화 | 작 전 동 | 270 | 프레스금형,스윗치,호스 |

| 설립년월일 | 업 체 명 | 대표자 | 소재지 | 종업원 | 주 생 산 품 |
|---|---|---|---|---|---|
| 77년10월 | 쌍용자동차(주) | 손명원 | 효성동 | 430 | 휠디스크(차륜) |
| 10월 1일 | 신성무역(주) | 김홍건 | 가좌동 | 200 | 실크브라우스 |
| 12월30일 | (주)신창정기 | 이태웅 | 청천동 | 130 | 자동차부품, FLOOR닥트 |
| 78년1월24일 | (주)피존 | 이윤재 | 효성동 | 280 | 계면활성제, 세제류, 샴프류 |
| 2월15일 | 대한중기공업(주) | 장량술 | 가좌동 | 300 | 주물제조 |
| 3월25일 | 해태전자(주) | 안병휘 | 청천동 | 1,400 | 텐테이블,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카오디오 |
| 4월19일 | 라니산업(주) | 장희정 | 작전동 | 336 | 가스렌지, 스토브 |
| 8월 3일 | (주)한국자동제어 | 이용위 | 가좌동 | 145 | 스윗치, 타이머, PCB부품 |
| 8월 4일 | 동신공업(주) | 임중순 | 작전동 | 150 | 스텐레스 및 주방용가스 제조 |
| 8월17일 | (주)서울조구 | 이기동 | 효성동 | 330 | |
| 9월13일 | (주)한일불단 | 김경복 | 석남동 | 264 | 불단 |
| 10월 4일 | 동양유압(주) | 조병호 | 효성동 | 150 | 자동차통신기기, 카스테레오外 |
| 10월 5일 | 동양기전(주) | 조병호 | 효성동 | 370 | 유압실린더,카스테레오,DC모터 |
| 11월 1일 | 청우기업(주) | 위상돈 | 가좌동 | 900 | 바로구가구류 |
| 12월28일 | 가야실업(주) | 배정희 | 십정동 | 200 | 봉제품, 면직물, 가연사 |
| 79년1월1일 | 승일제관(주) | 남기일 | 가좌동 | 260 | 에어졸용기, 알미늄캔, 밸브 |
| 1월22일 | 단해공압공업(주) | 신고수 | 가좌동 | 154 | 공기조절장치, 테스트기, 여과장치 |
| 3월22일 | (주)세모 | 유병언 | 십정동 | 1,720 | 진주안료, 우레탄제품, FRP선박外 |
| 10월 1일 | (주)대성 | 김웅래 | 가좌동 | 180 | 창호, 문, 가구 |
| 12월14일 | 국제전열공업(주) | 이동건 | 효성동 | 670 | 가전제품 Crystal,Oscillator Unit |
| 12월27일 | 한국광학기술개발(주) | 노원복 | 가좌동 | 150 | 렌즈, 프리즘 |

資料 : 「仁川市史」, 1993.

한편 1980년대 전반기에 시작된 제5차 5개년계획과 1990년대초까지 실시된 제6차 5개년 계획기간중에 부평지역의 제조업은 급신장하였다.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1983년에 292개이던 것이 1992년에는 6배이상 증가하여 1,767개(북구 관내 1,063개, 서구 관내 704개)가 되었으며 종업원수는 41,235명이던 것이 3배이상 증가하여 132,719명(북구 관내 75,198명, 서구 관내 57,521명)이 되었다. 이 공장등록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3년에는 292개 공장중 섬유공업이 38개, 화학공업이 47개, 기계공업이 168개, 기타가 39개였었는데, 1992년에는 1,767개 공장중 섬유공업이 109개(북구 관내 84개, 서구 관내 25개), 화학공업이 214개(북구 관내 146개, 서구

관내 68개), 기계공업이 692개(북구 관내 554개, 서구 관내 138개), 기타가 752개(북구 관내 279개, 서구 관내 473개)로 되어 기계·화학 및 기타 공장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종업원은 기계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1992년에는 무려 58,386명(북구 관내 48,065명, 서구 관내 10,321명)으로 전체 종업원(북구 관내 75,198명, 서구 관내 57,521명)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공장등록 현황

| 연도별 | 계 | | 섬유 | | 화학 | | 기계 | | 기타 | |
|---|---|---|---|---|---|---|---|---|---|---|
| | 공장 | 종업원 | 공장 | 종업원 | 공장 | 종업원 | 공장 | 종업원 | 공장 | 종업원 |
| 1983 | 292 | 41,235 | 38 | 2,356 | 47 | 8,225 | 168 | 28,392 | 39 | 2,262 |
| 1984 | 378 | 52,916 | 53 | 3,286 | 61 | 10,675 | 213 | 35,997 | 51 | 2,958 |
| 1985 | 525 | 72,094 | 82 | 5,084 | 78 | 13,650 | 290 | 49,010 | 75 | 4,350 |
| 1986 | 600 | 79,562 | 119 | 7,378 | 92 | 16,100 | 802 | 51,038 | 87 | 5,046 |
| 1987 | 659 | 85,065 | 154 | 9,548 | 101 | 17,675 | 310 | 52,390 | 94 | 5,412 |
| 1988 | 1,206 | 153,006 | 184 | 14,943 | 172 | 34,376 | 521 | 77,442 | 329 | 26,245 |
| 1989 | 1,328 | 139,117 | 79 | 6,711 | 154 | 20,643 | 485 | 56,596 | 610 | 55,167 |
| 1990 | 1,420 | 147,628 | 87 | 6,479 | 163 | 6,561 | 555 | 74,030 | 615 | 60,558 |
| 1991 | 1,997 | 162,329 | 134 | 17,841 | 242 | 8,221 | 897 | 76,440 | 724 | 59,827 |
| 1992 | 1,767 | 132,719 | 109 | 10,407 | 214 | 6,903 | 692 | 58,386 | 752 | 57,023 |

자료 : 인천직할시 북구, 서구 통계연보

〈표 11〉 부평의 수출실적

(단위 : 1,000불)

| 구분 | 북구 | 서구 | 계 |
|---|---|---|---|
| 1986 | 1,575,913 | — | 1,575,913 |
| 1987 | 2,226,905 | — | 2,226,905 |
| 1988 | 2,235,078 | 701,605 | 2,936,683 |
| 1989 | 2,095,699 | 660,795 | 2,756,494 |
| 1990 | 1,676,644 | 875,870 | 2,552,514 |
| 1991 | 2,057,933 | 909,291 | 2,967,224 |
| 1992 | 1,922,025 | 940,926 | 2,862,951 |

자료 : 인천통계연보

그리고 부평지역 수출업체의 수출실적을 보면 1985년 4/4분기 이후 계속된 3저현상으로 인해 1988년도까지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였으나 1989년도부터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등의 부진과 관련 업종의 부품생산 저조,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고임금에 따른 국제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였다.

그후 1991년도에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1992년도에는 수출신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표 11〉참조).

한편 인천시에서는 상공시책의 역점을 중소기업의 육성에 두고 영세중소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조성에 주력하였다.

서구 관내 중소기업체는 1988년에 493개업체이던 것이 1992년에는 29.1% 증가하여 637개업체가 되었으나 종업원수는 41,575명이던 것이 10.9% 감소하여 37,044명이 되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2〉참조).

〈표 12〉 서구 관내 중소기업현황

| 연도별 | 계 | | 섬유 | | 화학 | | 전기·전자 | | 기계 | | 기타 | |
|---|---|---|---|---|---|---|---|---|---|---|---|---|
|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 1988 | 493 | 41,575 | 20 | 4,222 | 67 | 9,275 | 156 | 13,710 | 88 | 5,027 | 163 | 9,337 |
| 1989 | 591 | 36,960 | 22 | 1,837 | 69 | 2,321 | 233 | 18,675 | 79 | 2,302 | 188 | 11,825 |
| 1990 | 673 | 37,096 | 22 | 1,877 | 70 | 2,036 | 249 | 18,581 | 123 | 2,402 | 209 | 12,200 |
| 1991 | 746 | 39,250 | 23 | 1,917 | 71 | 2,065 | 268 | 19,211 | 160 | 3,378 | 224 | 12,679 |
| 1992 | 637 | 37,044 | 23 | 1,526 | 65 | 1,798 | 196 | 19,192 | 129 | 2,613 | 224 | 11,915 |

자료 : 서구 통계 연보

반면에 북구 관내 중소기업체는 1991년에 1,189개업체이던 것이 1993년에는 19.2% 감소하여 941개업체가 되었으며, 종업원도 1991년에 52,664명이던 것이 1993년에는 13.7% 감소하여 45,441명이 되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조립금속업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3〉참조).

〈표 13〉 북구 관내 중소기업 현황

| 연도별 | 계 | | 음식료 | | 섬유·의복 | | 목재가구 | | 종이인쇄 | | 고무프라스틱 | | 비금속 | | 제1차금속 | | 조립금속 | | 기타 | |
|---|---|---|---|---|---|---|---|---|---|---|---|---|---|---|---|---|---|---|---|---|
|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업체 | 종업원 |
| 1991 | 1,189 | 52,664 | 39 | 2,365 | 106 | 11,290 | 54 | 1,441 | 41 | 1,099 | 168 | 5,038 | 32 | 1,169 | 31 | 2,173 | 621 | 25,404 | 77 | 2,685 |
| 1992 | 1,050 | 40,607 | 35 | 2,010 | 79 | 4,941 | 53 | 1,359 | 36 | 1,033 | 148 | 3,982 | 30 | 845 | 45 | 1,465 | 553 | 20,589 | 71 | 4,383 |
| 1993 | 941 | 45,441 | 33 | 1,591 | 82 | 5,059 | 38 | 997 | 33 | 586 | 135 | 3,642 | 26 | 743 | 43 | 960 | 482 | 28,363 | 69 | 3,500 |

자료 : 북구 통계연보

한편 1980년이후 1993년 현재까지 부평지역에 가동중인 주요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 제조업체로는 각종 사료를 생산·공급하는 서부배합사료, 커피·프리마·국산차 등을 생산하는 동서식품(주)와 오렌지쥬스·넥타·청량음료업체인 해태음료(주) 등이 활발히 가동하였

다. 그리고 섬유·의복·가죽제품제조업체로는 폴리에스텔 가연사, 저지(Jersey)등을 주로 생산·수출하는 대도화섬(주)을 비롯해서 자수직물·봉제잠옷·쟈켓류를 생산하여 미국에 대부분을 수출하는 동국무역(주), 면사·화섬사·재봉사 등을 생산하고 수출액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방(주)인천공장 등이 활발히 가동하였다. 의류생산업체로는 쟈켓 및 신사복을 수출하고 까뜨리네뜨·버진온리라는 브랜드로 여성복시장에 뛰어든 (주)서광이 있으며, 가죽제품 제조업체로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금강 브랜드의 신사화 및 숙녀화가 금강제화(주) 부평공장에서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뉴욕에 해외현지판매법인을 설립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고 (주)대양에서는 「랜드로바」라는 브랜드로 캐쥬얼화를 생산·판매하여 시장을 넓혔다.

목재·합판·가구제품 제조업체로는 제재목·가공목·칩보드(chipboard) 등을 생산하여 내수판매 및 수출을 하는 동화기업(주)이 있고, 클래식풍의 고급가구를 생산하여 호평받은 (주)삼익가구와 라자가구 및 창호생산으로 알려진 (주)한양목재 등이 위치하고 있다.

석유·화학관련업체로는 산화티타늄·제1황산철 제조업체인 한국티타늄공업(주),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삼익제약(주), 정유 및 발전을 비롯해 LPG를 생산하여 경인지역에 공급하는 경인에너지(주)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로는 강화(強化)유리·접합유리·복층유리·자동차용 안전유리 등 각종 특수유리를 생산·수출하는 대원안전유리공업(주), 건축용자재로 쓰이는 내외장타일·모자이크타일 생산업체인 극동요업(주), 도자기 인형을 만들어 수출하는 세창물산(주) 등이 활발히 가동하였다.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체로는 각종 플랜트설비·건설기계·산업기계를 생산하는 동아건설산업(주) 부평공장, 자동차용 추진축 및 변속기를 생산하여 국내 자동차업계에 공급함은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는 코리아스파이서공업(주), 각종 베아링·연삭기·콘베이어 등을 생산하는 한국종합기계(주), 스테레오 음향기기·VTR 등을 생산하는 대우전자(주) 주안공장, 전기기부품 및 반도체칩인 IC를 생산·수출하는 대한마이크로전자(주), 전화기·교환기 및 통신기기 등을 생산·수출하는 대우통신(주) 주안제2공장,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새한미디어(주), 전자타자기·오디오 등을 생산하는 (주)한국샤프, TV·음향기기·라디오 등을 생산하는 아남전자(주), 전자손목시계·마이크로 컴퓨터를 생산·수출하는 (주)한독, 승용차·트럭·버스를 생산·수출하는 대우자동차(주), 각종 주방용품을 생산·수출하는 경동산업(주), 남일금속(주), 대림통상(주), 한일스텐레스, 스틸공업(주), 주방용금구(金甌)·목조용금구(金甌)·세면기 등을 생산하는 로얄동도금속(주), 가스렌지·가스테이블·오븐렌지 등을 생산하는 린나이코리아(주) 등이 활약하였다.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체로는 각종 수도용강관·오일관

·유정된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동양철관(주), 스테인레스 강판을 생산하는 (주)대양금속, 알미늄판 및 냉장고용 냉각기를 생산하는 한영알미늄공업(주) 등이 활발히 가동하였다.

한편 목재가공업 및 제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서구 석남동 223-153번지 주변에 인천중소목재가공단지가 조성되고 또한 수도권 소재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로 기업의 집적이익과 효율적 관리로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서구 경서동 381번지 일대에 인천주물공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 등 부평지역은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설립된 주요 제조업체(종업원 100명이상)를 설립연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조 업 체 현 황

| 설립년월일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종업원 | 주 생 산 품 |
|---|---|---|---|---|---|
| 80년 4월 1일 | 신 영 공 업 (주) | 이 홍 균 | 서구 가좌동 | 100 | 카세트부품, 오디오케이스 |
| 4월21일 | 삼 보 산 업 (주) | 이 상 기 | 서구 가좌동 | 115 | 스텐레스, 주방용품 |
| 5월10일 | 한 국 카 리 화 학 (주) | 김 용 정 | 남구 학익동 | 105 | $K_2Co_3$, KOH, HCL, NaOCL |
| 6월 1일 | 로 얄 산 업 (주) | 양 재 진 | 서구 가좌동 | 134 | 사진틀 |
| 7월 1일 | 한 신 보 일 러 (주) | 최 용 | 북구 작전동 | 115 | 육용강제보일러, 온수보일러 |
| 7월23일 | 삼 익 제 약 (주) | 이 세 영 | 북구 효성동 | 160 | 키디정, 우황청심환 |
| 7월30일 | 대 동 케 이 블 산 업 (주) | 이 중 아 | 북구 작전동 | 150 | 자동차용 콘트롤케이블 |
| 10월20일 | 한 국 존 슨 (주) | 로버트맨<br>지겐하겐 | 남구 주안동 | 117 | 살충제, 왁스 |
| 81년 4월 1일 | (주) 귀 영 | 최 상 규 | 북구 효성동 | 131 | 감광지, 청사진복사기 |
| 4월 8일 | (주) 대 진 | 성 두 근 | 북구 청천동 | 150 | 스피커시스템, 오디오랙외 |
| 6월 4일 | 배 진 산 업 (주) | 주 동 수 | 북구 계산동 | 100 | 텐트, 배낭외 |
| 7월25일 | 정 호 실 업 (주) | 김 영 태 | 서구 가좌동 | 130 | 스키복 |
| 11월15일 | 덕 진 산 업 (주) | 오 석 환 | 북구 부평동 | 150 | 신사복, 상의, 브레이져 |
| 82년 5월 7일 | 한국미우라공업(주) | 문 치 규 | 북구 효성동 | 130 | 관류형 고압스팀보일러 및 부품 |
| 5월15일 | 부 평 수 지 공 업 (주) | 맹 명 호 | 북구 효성동 | 100 | 스치로폴박스 |
| 6월30일 | 효 성 공 업 (주) | 오 세 창 | 서구 가좌동 | 110 | 중장비부품(Tooth, 어댑터, 포인트) |
| 8월 1일 | 한 일 유 리 공 업 (주) | 조 세 준 | 서구 가좌동 | 140 | 선스크린, 전자렌지, Doorglass |
| 9월14일 | (주) 영 본 가 구 산 업 | 정 광 화 | 북구 부개동 | 150 | APT가구류 및 쇼파류 |
| 11월19일 | 신 화 공 업 (주) | 고 병 무 | 북구 산곡동 | 170 | 압출성형기, 자동포장기, 공업용로 |
| 83년 4월 1일 | (주) 선 일 종 합 금 속 | 최 돈 학 | 북구 효성동 | 102 | 각종 금속제품 |

| 설립년월일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종업원 | 주 생 산 품 |
|---|---|---|---|---|---|
| 83년 6월 1일 | 태 흥 실 업 (주) | 윤 용 택 | 북구 효성동 | 115 | 프라스틱 버튼 |
| 6월 8일 | 인 성 공 업 (주) | 이 고 | 북구 효성동 | 137 | 카셋트 부품 |
| 9월 1일 | (주) 금 하 | 유 성 근 | 북구 작전동 | 104 | 빙과류, 식료품, 냉동·냉장 |
| 9월 2일 | 삼 영 산 업 (주) | 김 영 만 | 서구 가좌동 | 100 | 합성수지제품(오디오, 비디오케이스) |
| 9월 2일 | (주) 미 미 양 행 | 이 윤 상 | 북구 청천동 | 180 | 동제품, 스텐레스주방기구 |
| 9월19일 | 한 국 데 크 레 코 (주) | 고 의 석 | 북구 효성동 | 113 | 마그네틱헤드 |
| 10월23일 | 대 한 정 밀 공 업 (주) | 임 재 국 | 북구 삼산동 | 125 | 수도미터기, 가스미터기 |
| 11월 1일 | 태 흥 산 업 (주) | 정 석 주 | 북구 효성동 | 127 | 낚시대 |
| 11월 3일 | 대 영 기 계 공 업 (주) | 전 문 휘 | 북구 효성동 | 140 | 무심연삭기, 밀링 |
| 11월29일 | (주) 기 풍 | 조 용 호 | 북구 효성동 | 120 | 전투화, 작업화 |
| 84년 2월 3일 | (주) 부 라 오 | 석 풍 장 | 서구 가좌동 | 102 | 핸드백 |
| 4월10일 | (주) 성 우 미 크 론 | 김 충 삼 | 북구 작전동 | 132 | 반도체금형, 장비, 전자부품 |
| 6월 1일 | 인 성 공 업 (주) | 이 고 | 북구 효성동 | 130 | 사출, 금형, 프라스틱성형 및 가공 |
| 7월 1일 | (주) 프 라 자 제 과 | 김 여 숙 | 서구 가좌동 | 173 | 제과, 제빵 |
| 7월 1일 | 서 통 화 학 (주) | 김 순 망 | 북구 효성동 | 135 | 접착테이프 |
| 7월30일 | (주) 유 니 크 | 이 창 연 | 서구 가좌동 | 140 | 인쇄회로기판 |
| 9월14일 | 대 준 전 자 | 박 희 봉 | 북구 청천동 | 127 | 전원공급기, 자동차점화코일 |
| 10월 2일 | (주) 동 광 실 업 | 박 노 송 | 북구 작전동 | 150 | 동 사진틀 |
| 10월13일 | 명 일 전 자 (주) | 이 건 화 | 북구 갈산동 | 110 | 인쇄회로기판 |
| 11월 | 대우통신(주)광케이블공장 | 박 성 규 | 서구 가좌동 | 100 | 광섬유케이블 |
| 12월 8일 | 부 성 냉 열 (주) | 이 보 웅 | 서구 가좌동 | 100 | 열·공기관련기기류 |
| 85년 5월 1일 | (주) 우 성 기 계 | 이 광 덕 | 북구 부평동 | 112 | 콘베아류 |
| 6월1일 | 태 연 물 산 (주) | 박 광 연 | 북구 갈산동 | 130 | 전자완구 |
| 10월29일 | 고 석 전 기 (주) | 정 하 영 | 서구 신현동 | 152 | 릴레이 |
| 11월29일 | 서 우 물 산 (주) | 김 회 연 | 서구 가좌동 | 130 | 자켓, 봉제류 |
| 12월 1일 | (주) 범 화 | 박 장 태 | 북구 작전동 | 198 | 남자샤쓰, 여성자켓 |
| 12월19일 | 세 안 산 업 (주) | 정 영 호 | 서구 석남동 | 140 |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
| 86년 1월 1일 | 대 흥 제 지 공 업 大(주) | 김 동 수 | 북구 구산동 | 100 | 골판지 박스 |
| 1월15일 | 헵 시 바 산 업 (주) | 배 병 수 | 서구 가좌동 | 130 | 각종 콘트롤러(연소기구·산업용) |

| 설립년월일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종업원 | 주 생 산 품 |
|---|---|---|---|---|---|
| 86년 2월19일 | 삼화주철공업(주) | 윤재용 | 북구 경서동 | 150 | 각종맨홀 |
| 3월18일 | 고창산업(주) | 고화석 | 북구 효성동 | 100 | VTR, VCR부품 |
| 3월21일 | (주) 상아양행 | 이경호 | 북구 작전동 | 158 | 테프론소재전자기기부품(VTR용) |
| 4월12일 | (주) 태을금고 | 송명철 | 북구 작전동 | 120 | 황동봉, 구조물 |
| 5월14일 | (주) 한국쥬얼리 | 김경순 | 서구 가좌동 | 140 | 모조장신구 |
| 6월16일 | (주) 동협 | 홍종대 | 서구 가좌동 | 130 | 철재, 목재가공, 철재포장 |
| 10월10일 | 조일공업(주) | 김상식 | 서구 경서동 | 130 | 가스렌지부품, 양수기부품 |
| 11월 1일 | 협우실업(주) | 김순진 | 북구 효성동 | 180 | 5″7″흑백 TV |
| 11월28일 | 태성조구(주) | 김태주 | 북구 효성동 | 160 | 낚시용품 |
| 11월 | 덕흥산업(주) | 김기상 | 서구 석남동 | 130 | 자켓 |
| 87년 1월 5일 | (주) 마미손 | 김수동 | 북구 효성동 | 100 | 가정용 고무장갑 |
| 2월 1일 | 세림요업(주) | 석만균 | 북구 박촌동 | 100 | 양변기, 세면기 |
| 2월 3일 | (주) 현진섬유 | 이상실 | 북구 부개동 | 140 | 여성의류 |
| 3월18일 | 제일제네랄(주) | 윤청목 | 북구 부개동 | 100 | 컴퓨터, 타자기, 잉크리본 |
| 4월 1일 | 경남공업(주) | 이인녕 | 북구 십정동 | 105 | Heat Sink, Side Cover |
| 4월 1일 | 대화섬유(주) | 여재구 | 북구 효성동 | 160 | 와이셔츠 원단 |
| 6월30일 | 고려강철(주) | 이강찬 | 서구 가좌동 | 150 | 보일러 부품 |
| 7월10일 | (주) 청우산업 | 조현우 | 서구 가좌동 | 110 | 옷장, 장식장류 |
| 8월 3일 | 원일기계공업(주) | 이우현 | 서구 가좌동 | 100 | 압연기 |
| 12월14일 | (주) 세화상사 | 양봉식 | 서구 가좌동 | 130 | 가구용품 |
| 12월18일 | (주) 아니마지율구 | 북구 청천동 | 100 | 봉제완구 | |
| 88년 7월 5일 | (주) 퍼시픽다나 | 장동순 | 서구 가좌동 | 130 | 5″흑백 TV |
| 9월 1일 | 대산목재(주) | 조춘제 | 서구 석남동 | 120 | 제재목, 목창호, 문틀외 |
| 88년 | (주) 보명 | 이유희 | 서구 가좌동 | 189 | 미속각재 |
| 〃 | 신영물산(주) | 신경순 | 서구 석남동 | 120 | 목재 |
| 〃 | 봉신산업(주) | 유권호 | 서구 가좌동 | 120 | 고무, 플라스틱성형기기 |
| 89년 | 세광금속 | 노학우 | 북구 청천동 | 120 | 비철금속 |
| 〃 | 청담물산 | 송명호 | 서구 가좌동 | 130 | 하드보드 |

자료 : 인천시사, 1993.

또한 1990년이후 1993년 3월말까지 부평지역에 설립된 종업원 100명이상의 주요 제조업체를 설립연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설립년도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종업원 | 주생산품 |
|---|---|---|---|---|---|
| 1990년 | (주) 서 아 | 조영시 | 효성동 316-74 | 150 | 오디오, Etwis |
| | 대전피혁공업(주)부평공장 | 조세환 | 작전동 | 120 | 피혁 |
| 1992년 | 신흥프라스틱공업(주) | 백현원 | 가좌동 548-12 | 100 | 화장품케이스 |
| | (주) 장 인 | 이종필 | 경서동 381-91 | 115 | 가구류 |
| 1993년 | 승 보 목 재 (주) | 이강석 | 가좌동 159-1 | 100 | 제재, 가구 |
| | (주) 반 도 레 포 츠 | 정종우 | 효성동 316-72 | 157 | 릴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명감

그리고 1993년 3월말 현재 부평지역 공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평지역 공업단지 현황

| 구분 / 단지명 | | 업 체 수(개) | 종 업 원 수(명) |
|---|---|---|---|
| 한국수출 산업공단 | 제 4 단 지 | 58 | 17,908 |
| | 제 5 단 지 | 74 | 13,938 |
| 인 천 기 계 공 단 | | 5* | 1,247 |
| 인 천 지 방 공 단 | | 12* | 6,413 |
| 인 천 주 물 공 단 | | 66 | 2,047 |
| 인천중소목재가공단지 | | 104 | 2,725 |
| 합 계 | | 319 | 44,278 |

주 : *는 서구 가좌동 소재 업체임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연감

부평지역 공업단지에 입주한 주요 업체의 업체명과 대표자 그리고 소재지와 종업원수 및 주생산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수출산업공단

### (1) 제4단지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계 양 전 자 | 김 봉 기 | 효성동 316-64 | 528-6151 | 516-1427 | 6 | 91 | 전자튜너 |
| 고 창 산 업 (주) | 이 상 은 | 효성2동 316-35 | 519-5561 | 529-5564 | 70 | 86 | VTR테크부품 |
| 광 진 전 자 (주) | 노 경 환 | 효성동 316-83 | 511-5996 | 514-6842 | 65 | 86 | P.C.B |
| 금성하니웰(주)부평공장 | 신 용 균 | 효성동 316-7 | 524-0655 | 745-0767 | 246 | 84 | 자동제어기기 |
| 기 산 전 자 산 업 | 황 규 석 | 효성동 316-64 | 516-1426 | 516-1427 | 7 | 91 | 자동·차음증폭기 |
| 대농특수섬유(주) | 김 경 종 | 효성동 316-23 | 524-9501 | 529-2963 | 249 | 71 | 마사, 소모사 |
| 대 림 EMB(주) | 권 영 규 | 효성동 316-21 | 515-7781 | 515-7780 | 90 | 87 | 자수직물 |
| (주) 대 양 금 속 | 강 석 두 | 효성동 316-5 | 529-5001 | 528-5003 | 230 | 73 | 스텐레스강판, 코일 |
| 대원강업(주)부평공장 | 허 영 준 | 효성동 450-10 | 524-9148 | 523-8355 | 205 | 76 | 스테비라이자바, 체인, 자동차스프링 |
| 대한마이크로전자(주) | 최 만 립 | 작전동 449-2 | 528-0411 | 524-2944 | 450 | 70 | 고밀도직접회로 |
| (주) 동 광 화 성 | 박 영 춘 | 효성동 316-15 | 522-4715 | 524-7063 | 40 | 87 | 사출제품(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 |
| 동 국 무 역 (주) | 백 영 기 | 효성동 316-56 | 92-5111 | 92-5114 | 285 | 72 | 자수직물, 연사 |
| 동 미 산 업 (주) | 김 종 건 | 작전동 160-11 | 93-3760 | 529-7488 | 110 | 75 | 낚시대 |
| 동 서 식 품 (주) | 최 인 호 | 효성동 316-11 | 526-3111 | 526-1715 | 2000 | 68 | 커피, 프리마, 국산차 |
| 동 서 인 삼 (주) | 최 경 탁 | 작전동 450-13 | 512-9988 | 526-1155 | 16 | 81 | 인삼제품 |
| (주) 동 성 | 최 병 석 | 작전동 450-17 | 516-2124 | 92-0939 | 93 | 86 | 피혁제품 |
| 동 성 상 공 (주) | 김 영 휘 | 효성동 425-9 | 524-5101 | 524-5104 | 95 | 57 | 사무용가구, 건축내장 |
| 동양나일론(주)부평공장 | 구 창 남 | 효성동 316-15 | 524-7061 | 524-7063 | 122 | 66 | 프라스틱식품용기 |
| 로얄동도금속(주) | 박 신 규 | 효성동 410-19 | 518-4641 | 523-4625 | 580 | 76 | 수전금구 |
| 롯데칠성음료(주) | 박 준 익 | 작전동 505-12 | 92-0511 | 92-0514 | 35 | 77 | 주류(캡핀Q,조우커) |
| (주) 명 성 우 레 탄 | 김 종 태 | 효성동 316-16 | 515-5090 | 515-5093 | 30 | 85 | 우레탄몰딩(가구부품) |
| 명성전자공업(주) | 김 동 현 | 효성동 316-38 | 518-6112 | 518-6206 | 220 | 80 | 카세트라디오, 카스테레오 |
| (주) 반 도 래 포 츠 | 정 종 우 | 효성동 316-72 | 511-4003 | 501-7391 | 157 | 93 | 릴 |
| 삼 송 공 업 (주) | 송 무 우 | 효성동 316-20 | 527-2151 | 524-2652 | 130 | 80 | 캐스터, 운반구 |
| 삼 연 물 산 (주) | 쓰 기 노 | 효성동 425-3 | 527-4886 | | 27 | 70 | 쉐타 |
| 삼 오 | 원 종 호 | 효성동 410-21 | 524-7430 | 524-7436 | 29 | 86 | 엘리베이터부품 |
| (주) 삼 익 악 기 | 이 호 진 | 효성동 316-48 | 526-3333 | 524-4233 | 4300 | 58 | 앱프,피아노,디지틀피아노,기타 |
| 삼익전자공업(주) | 이 재 환 | 효성동 316-25 | 527-8961 | 501-0059 | 130 | 69 | 전광판, 스코아보드, 주식시세판 |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서 통 산 업 (주) | 최 귀 봉 | 효성동 316-36 | 524-3901 | 524-3902 | 96 | 84 | OPP테이프 |
| (주) 세 원 기 연 | 김 용 석 | 작전동 450-12 | 517-5557 | 528-2277 | 72 | 79 |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저온냉동기 |
| 세 한 견 직 (주) | 김 정 범 | 효성동 410-13 | 525-6100 | 524-1123 | 150 | 71 | 견직물 |
| 신 도 실 업 (주) | 김 용 특 | 효성동 316-60 | 93-0982 | 527-7654 | 180 | 62 | 신사복 |
| 아남산업(주)부평공장 | 황 인 길 | 효성동 316-74 | 524-3401 | 523-1252 | 5,191 | 56 | 반도체 |
| 아 남 전 자 (주) | 김 주 연 | 효성동 316-29 | 524-1321 | 524-6787 | 2,100 | 73 | 칼라TV, 오디오, VCR |
| 아 시 아 전 자 (주) | 이 진 중 | 효성동 400-9 | 527-5005 | 528-6600 | 30 | 89 | 비디오폰 |
| 오 매 가 전 자 | 노 병 관 | 효성동 316-38 | 514-6734 | 515-5689 | 11 | 92 | P.C.B |
| 이 화 금 망 (주) | 조 동 근 | 효성동 316-31 | 528-2111 | 526-0077 | 78 | 83 | 스텐레스금망, 브라스망 |
| 이화금속공업(주) | 조 동 근 | 효성동 316-31 | 528-2111 | 526-0077 | 25 | 73 | 와이어베쉬, 구갑망 |
| (주) 정 동 부 품 | 한 춘 국 | 효성동 425-3 | 511-2902 | 511-2903 | 75 | 89 | 자동차범퍼 |
| 중 원 상 사 (주) | 강 재 영 | 효성동 410-31 | 524-0008 | 524-0010 | 200 | 63 | 실크원단, 화섬류 |
| (주)진도부평공장 | 김 영 진 | 작전동 505-7 | 523-7111 | 523-7120 | 347 | 80 | 트레일러, 샤시, 밴 |
| 천일식품제조(주) | 천 동 환 | 효성동 316-51 | 92-1252 | 528-7433 | 504 | 74 | 만두, 게맛살, 돈까스, 피자 |
| (주)천일정공제2공장 | 최 병 열 | 효성동 633-7 | 525-6601 | 525-6603 | 20 | 89 | 공구셋트 |
| (주) 캉 가 루 | 박 상 대 | 효성동 316-43 | 523-2531 | 528-9535 | 98 | 62 | 구두약,자동차왁스및세제 |
| (주) 케 이 알 에 스 | 정 인 근 | 효성동 425-9 | 517-6191 | 517-6193 | 30 | 90 | 철구조물, 사무기기 |
| 코리아스파이서공업(주) | 유 준 기 | 삼산동 211-3 | 518-5990 | 524-4221 | 1,137 | 72 | 차축, 변속기, 추진축 |
| 코 오 롱 상 사 (주) | 최 석 철 | 효성동 316-40 | 92-1803 | 512-4321 | 303 | 75 | 신사복 |
| 태 연 물 산 (주) | 조 중 헌 | 갈산동 152-12 | 526-1891 | 527-8368 | 151 | 85 | VCP |
| 한국대양전기(주) | 이 영 백 | 효성동 425-10 | 526-7627 | 526-1132 | 70 | 76 | 저항기 |
| 한 국 로 아 (주) | 홍 영 식 | 효성동 352-1 | 524-2771 | 524-4377 | 80 | 71 | 가발, 마네킹 |
| (주) 한 국 샤 프 | 이 관 진 | 효성동 410-20 | 524-1531 | 524-1536 | 980 | 72 | 전자타자기, 오디오 |
| 한국씨스템서비스(주) | 조 홍 식 | 효성동 316-21 | 528-2461 | 514-2806 | 5 | 84 | 윤활유첨가제 |
| 한국이노시돌공업(주) | 김 석 은 | 작전동 450-4 | 517-4073 | 511-7803 | 12 | 69 | 이노시돌, 아미노산액 |
|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주) | 설 인 수 | 작전동 449-2 | 528-3391 | 528-3394 | 57 | 87 | 각종스위치및화스너 |
| 한국횡하전기(주) | 안 병 우 | 효성동 316-34 | 524-5321 | 524-5333 | 268 | 78 | 자동제어기기 |
| (주) 한 독 | 조 덕 영 | 작전동 449-3 | 526-3311 | 525-0118 | 402 | 66 | 손목시계 |
| 한 미 악 기 (주) | 송 무 우 | 갈산동 152-26 | 526-3333 | 529-8877 | 15 | 83 | 피아노 |
| 형제열처리공업사 | 최 종 덕 | 효성동 316-83 | 524-4243 | 526-1540 | 10 | 91 | 열처리 |

(2) 제5단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가 야 실 업 (주) | 김 영 욱 | 십정동 565-1 | 577-5161 | 578-8201 | 132 | 72 | 니트셔츠, 편직물 |
| 경 신 공 업 (주) | 김 현 숙 | 가좌3동 538-3 | 578-5331 | 578-5339 | 400 | 74 | 자동차배선 |
| 광천기계공업(주) | 장 상 순 | 가좌동 548-11 | 578-0860 | 577-8804 | 39 | 80 | 트랙스프링, Knuckleboss |
| 구 산 실 업 (주) | 김 명 환 | 가좌동 542-2 | 577-6230 | 578-1732 | 4 | 82 | 방모사 |
| (주) 국 제 전 광 | 고 용 현 | 십정동 565-3 | 578-1197 | 578-7172 | 70 | 82 | Powerjack |
| (주)귀뚜라미가스보일러 | 정 영 선 | 가좌동 525-1 | 578-5131 | 577-6109 | 300 | 87 | 보일러 부품 |
| 금 남 화 학 공 업 사 | 성 훈 용 | 가좌동 530-2 | 578-8055 | 571-0244 | 10 | 83 | 자동차고무부품 |
| 기 상 전 자 (주) | 박 성 근 | 가좌동 541-4 | 581-0550 | 576-9443 | 120 | 74 | 카세트라디오, CDP |
| 단 해 공 압 공 업 (주) | 신 호 수 | 가좌동 524-2 | 573-5555 | 577-6894 | 210 | 79 | 공기압이용기계류,부속 |
| (주) 대 기 정 밀 | 조 덕 천 | 가좌동 548-11 | 578-4551 | 578-5070 | 43 | 77 | 오일여과기 |
| 대 도 화 섬 (주) | 권 순 기 | 십정1동 563-1 | 578-0921 | 578-3294 | 131 | 73 | D.T.Y사 |
| (주)대림엘리베이터 | 윤 장 한 | 가좌동 545-2 | 579-7020 | 581-3620 | 13 | 85 | 엘리베이터 |
| 대림통상(주)인천공장 | 원 용 훈 | 가좌동 539-2 | 577-6491 | 578-7581 | 260 | 75 | 냄비류 |
| 대림통상(주)주안공장 | 원 용 훈 | 가좌동 524-4 | 578-0071 | 577-9127 | 950 | 72 | 스푼, 포크, 나이프 |
| 대우전자(주)주안공장 | 배 순 훈 | 가좌2동 541-5 | 578-5161 | 577-9864 | 579 | 74 | VTR정밀부품 |
| 대 우 통 신 (주) | 박 성 규 | 가좌동 531-1 | 578-4711 | 578-6068 | 328 | 83 | PC주변기기, 통신기기, 광케이블 |
| 대우통신(주)주안제2공장 | 박 성 규 | 십정동 563-5 | 578-4071 | 578-4071 | 226 | 76 | 전화기, 팩시밀리 |
| 동 서 유 압 | 전 병 도 | 가좌동 552-27 | 577-4395 | 578-8493 | 12 | 92 | 유압자동화설비 |
| 동 아 무 역 (주) | 라 재 훈 | 가좌동 542-3 | 577-9644 | 578-1879 | 33 | 51 | DC콘트롤판넬 |
| 동아알루미늄(주) | 라 제 건 | 가좌동 548-11 | 578-8080 | 578-3285 | 48 | 88 | 텐트폴대 |
| 동 진 목 형 제 작 소 | 손 동 휴 | 가좌동 545-2 | 578-4257 | 578-9679 | 8 | 86 | 목형 |
| 린나이코리아(주) | 최 창 선 | 십정1동 560-2 | 578-7000 | 578-7024 | 1,080 | 74 | 가스렌지,가스보일러,가스스토브 |
| 미쿠니R.K정밀(주) | 최 창 선 | 가좌동 524-1 | 578-5501 | 578-5505 | 50 | 87 | 가스소화안전장치 |
| 방 진 산 업 (주) | 정 영 구 | 가좌동 545-2 | 577-6216 | 578-0601 | 42 | 73 | 의복(패딩, 퀼팅) |
| 범 진 공 업 사 | 최 영 철 | 가좌3동 538-2 | 579-0418 | | 20 | 87 | 구두약관 |
| (주) 별 표 수 세 미 | 구 평 길 | 가좌동 533-3 | 578-4949 | 578-7280 | 40 | 77 | 나일론,스텐레스수세미 |
| 봉신기계공업(주) | 김 성 광 | 가좌동 530-3 | 578-4561 | 578-4566 | 80 | 41 | 치차,감속기,변속기,압연기 |
| 봉 신 중 기 (주) | 유 권 호 | 가좌동 530 | 577-6661 | 578-1712 | 280 | 67 | 산업기계주물 |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주) 부 리 오 | 석 풍 장 | 가좌동 542-10 | 578-1411 | 578-3073 | 50 | 84 | 가죽핸드백 |
| (주) 삼 광 수 기 | 김 해 수 | 작전동 408-2 | 542-7223 | 542-7224 | 250 | 77 | 수처리기계,닥트운반구 |
| 삼 영 공 업 (주) | 이 인 영 | 가좌동 532-3 | 578-3691 | 577-7799 | 42 | 76 | 사출금형 |
| (주)삼원프라스틱 | 김 경 진 | 가좌동 537-4 | 578-3311 | 578-0076 | 60 | 84 | 자동차부품, 수액용기 |
| 새 한 미 디 어 (주) | 한 형 수 | 가좌동 552-27 | 578-0171 | | 470 | 73 |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컴퓨터테이프 |
| 서 한 물 산 (주) | 이 식 진 | 가좌동 543-1 | 577-6653 | | 20 | 73 | 파일 |
| (주) 서 해 기 계 | 신 진 철 | 가좌동 524-2 | 573-5555 | 577-6894 | 6 | 85 | 용접용기기, 다이케스팅 |
| (주) 서 홍 | 이 세 로 | 가좌동 525-5 | 577-7101 | 578-0901 | 495 | 70 | 스텐보온병, 도시락, 쌀통 |
| 성 실 공 업 | 안 태 정 | 십정동 563-4 | 577-8925 | | 9 | 89 | 가위 |
| 성 지 공 업 (주) | 오 낙 영 | 가좌동 548-11 | 578-4761 | 578-5070 | 47 | 83 | 지게차아타치먼트 |
| (주) 세 모 | 박 상 복 | 십정동 558-10 | 578-3535 | 578-2047 | 177 | 79 | 스쿠알렌, 알콕시글리세롤 |
| 세 신 물 산 (주) | 문 태 규 | 가좌동 530-2 | 578-0230 | 578-4873 | 12 | 66 | 통신케이블 |
| 세 신 합 성 (주) | 문 병 경 | 가좌동 530-2 | 578-0230 | 578-4873 | 26 | 92 | 합성수지 |
| (주) 세 양 산 기 | 이 종 만 | 가좌동 548-11 | 578-5486 | 577-6219 | 42 | 89 | 중기유압, 고압파이프 |
| 세 창 물 산 | 김 세 준 | 가좌동 543-2 | 577-7676 | 577-7676 | 17 | 91 | 도자기, 완구 |
| 승 일 제 관 (주) | 남 기 일 | 가좌동 543-4 | 578-1811 | 578-1817 | 220 | 79 | 에어졸용기, 알미늄캔 |
| 신 성 무 역 (주) | 김 홍 건 | 가좌동 525-2 | 577-9660 | 578-0323 | 29 | 77 | 실크의류 |
| 신 주 실 업 (주) | 양 정 수 | 가좌동 540-3 | 577-6975 | | 50 | 73 | 티셔츠 |
| 신홍프라스틱공업(주) | 백 현 원 | 가좌동 548-12 | 578-5001 | 578-5005 | 100 | 92 | 화장품케이스 |
| 와이디엔터프라이즈 | 윤 영 달 | 가좌동 541-1 | 581-4510 | 581-0669 | 13 | 86 | 산업기계 |
| 우 영 유 압 (주) | 채 경 호 | 가좌동 548-11 | 578-2652 | 577-8674 | 40 | 88 | 유압실린더 |
| (주) 원 풍 로 자 | 구 운 서 | 가좌동 537-4 | 578-0269 | | 120 | 79 | 마네킹 |
| 원 풍 물 산 (주) | 이 원 기 | 가좌동 539-3 | 578-5454 | 577-9906 | 430 | 72 | 신사복(Paologucci) |
| (주) 유 일 실 업 | 장 동 협 | 가좌3동 538-2 | 578-3121 | 578-2702 | 10 | 78 | 직물조화 |
| 이 레 정 밀 (주) | 김 석 환 | 가좌동 545-2 | 577-9988 | 577-9989 | 3 | 92 | 전기용접기부품 |
| 이 성 전 자 (주) | 이 인 영 | 가좌동 532-3 | 578-3691 | 577-7799 | 140 | 73 | 프라스틱전자부품 |
| (주) 21 세 기 | 김 웅 종 | 십정동 558-10 | 578-8182 | 577-8184 | 38 | 90 | 산업기계 |
| 정 호 실 업 (주) | 김 영 태 | 가좌동 532-5 | 578-1072 | 578-0157 | 98 | 81 | 스키복, 자켓 |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제 일 산 업 (주) | 장 세 헌 | 십정동 562-3 | 578-9701 | 578-0710 | 22 | 73 | 롤러, 링크체인 |
| 진흥정밀화학(주) | 조 택 호 | 가좌3동 543-6 | 578-5171 | 577-7349 | 116 | 78 | 농약원제(살충제, 살균제) |
| (주)코리아스테플 | 신 중 규 | 가좌3동 537-1 | 578-6611 | 578-6614 | 170 | 73 | 스테플, 스테플러, 클립 |
| 코리아제록스(주) | 문 대 원 | 가좌동 540-2 | 578-8801 | 578-4571 | 377 | 74 | 복사기, 팩시밀리 |
| (주)태평양시스템 | 이 진 구 | 가좌동 541-2 | 578-4879 | 577-7260 | 25 | 72 | 텐트, 가방 |
| 평국전자공업(주) | 이 수 민 | 가좌동 530-1 | 578-5051 | 578-6113 | 172 | 73 | 스피커 시스템 |
| 한 광 산 업 (주) | 노 원 복 | 십정동 563-4 | 577-7659 | 577-7920 | 103 | 76 | 가위 |
| 한 국 I.B.M(주) | J.H 비 숍 | 십정동 562-3 | 577-9257 | 577-8363 | 208 | 5 | 컴퓨터 부품 |
| 한 국 강 업 (주) | 김 덕 제 | 가좌동 542-1 | 577-7273 | 577-9758 | 50 | 79 | 변압기, 코아 |
| 한국광학기술개발(주) | 이 원 승 | 가좌동 291-1 | 578-5898 | 578-4943 | 180 | 79 | 광학렌즈, 프리즘 |
| (주) 한 국 메 그 론 | 이 영 국 | 가좌동 532-1 | 578-1231 | 578-0089 | 28 | 81 | 보일러, 온풍기 |
| (주) 한 미 금 형 | 곽 노 권 | 가좌동 532-2 | 577-9751 | 578-9753 | 240 | 80 | 반도체장비, 금형 |
| (주) 한 양 정 밀 | 신 동 국 | 가좌동 543-3 | 578-9951 | 578-9956 | 140 | 81 | 굴삭기프레스, 특장차부품 |
| (주) 협 성 정 공 | 최 병 섭 | 가좌동 545-2 | 577-7320 | 577-7322 | 20 | 89 | 다이케스팅금형 |
| (주) 화 인 | 안 영 수 | 가좌동 525-3 | 578-7631 | 578-4188 | 98 | 84 | 가스렌지부품, 기계류 |
| 화 인 화 학 (주) | 유 희 수 | 가좌동 525-6 | 578-5808 | 577-7597 | 67 | 75 | 합성피혁원료 |
| (주) 훼 미 리 | 김 병 일 | 가좌동 537-2 | 577-8989 | 577-8911 | 408 | 74 | 키친캐비넷 |
| 희성금속공업(주) | 김 화 중 | 가좌동 180-12 | 578-1151 | 745-1320 | 300 | 74 | 전지접점, 납재, 도금재 |

### 2) 인천기계공업단지(서구 가좌동 소재업체)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경 동 산 업 (주) | 최 용 재 | 가좌동 570-10 | 577-0077 | 577-0081 | 800 | 60 | 양식기, 기물제품류 |
| 기 아 특 수 강 (주) | 장 양 술 | 가좌동 570-8 | 575-6633 | 576-2903 | 240 | 76 | 산업기계, 금형, 공작기계 |
| 신 세 기 산 업 (주) | 조 청 시 | 가좌동 570-17 | 575-7325 | 575-9545 | 30 | 82 | 밀링척, 툴홀더 |
| 원일기계공업(주) | 서 수 일 | 가좌동 570-3 | 576-1355 | 576-2808 | 97 | 87 | 압연기 |
| 유창기계공업(주) | 이 응 호 | 가좌동 570-29 | 576-3711 | 576-3713 | 80 | 77 | 콤프레샤 |

### 3) 인천지방공업단지(서구 가좌동 소재 업체)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경기레미콘(주) | 김 훈 경 | 가좌동 574-16 | 576-0037 | 575-5835 | 35 | 85 | 레미콘 |
| 대열기계공업(주) | 구 정 회 | 가좌동 578-4 | 576-5601 | 577-0989 | 93 | 68 | 집진기, 송풍기, 건조설비 |
| 동부제강(주) | 송 용 호 | 가좌동 590-1 | 577-0141 | 577-0158 | 460 | 71 | 강판, 형강, 강관 |
| (주)레이디가구 | 김 용 배 | 가좌동 148-6 | 576-6661 | 576-6663 | 550 | 76 | 종합가구 |
| 봉명산업(주) | 강 훈 식 | 가좌동 577-3 | 576-0101 | 575-7911 | 230 | 74 | 자동차부품, 콤프레샤부품, 미싱부품 |
| (주)삼익가구 | 이 부 일 | 가좌동 180-103 | 576-0331 | 576-5801 | 840 | 77 | 가구(혼례용, 사무용) |
| 새한양행 | 권 근 춘 | 가좌동 589-6 | 576-7157 | | 15 | 89 | 가성소다, 황산 |
| 영창악기제조(주) | 남 상 은 | 가좌동 564-1 | 576-2331 | 576-2340 | 400 | 56 | 피아노, 기타, 목공기계 |
| (주)영흥목재 | 이 창 업 | 가좌동 578-9 | 575-7771 | 575-7774 | 25 | 84 | 나왕제품 |
| 우석금속(주) | 김 주 한 | 가좌동 574-8 | 576-2031 | 576-2032 | 11 | 79 | 절단가공(AL,STEEL) |
| 중앙금속 | 양 승 주 | 가좌동 578-2 | 575-4001 | 576-9028 | 22 | 87 | 스텐레스, 구조용파이프 |
| 한전유화공업(주) | 김 만 경 | 가좌동 180-44 | 575-5381 | 575-5386 | 132 | 72 | 아스팔트, 솔벤트 |

### 4)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주)거송실업 | 김 홍 기 | 경서동 381-92 | 525-0522 | 525-0523 | 32 | 87 | 중장비부품, 산업기계 |
| 경인금속공업(주) | 김 선 태 | 경서동 363-166 | 516-9011 | 516-9015 | 47 | 77 | 주강품 |
| 광회주물제작소 | 허 경 욱 | 경서동 381-75 | 526-8998 | 525-4719 | 42 | 68 | 주철제난방, 용수용보일러주물 |
| (주)국일금속 | 한 규 문 | 경서동 363-188 | 516-4173 | 516-4173 | 5 | 89 |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
| (주)극동주공 | 박 명 선 | 경서동 363-199 | 527-4121 | 527-4124 | 114 | 68 | 회주철(가스용, 기계, 자동차부품) |
| 금남주철공업(주) | 김 희 중 | 경서동 363-161 | 518-5051 | 525-4610 | 50 | 78 | 회주철 |
| 금방산업사 | 박 창 하 | 경서동 363-202 | 524-4383 | 525-1177 | 28 | 77 | FCD주물 |
| (주)다물전기 | 김 인 호 | 경서동 363-178 | 672-2511 | 672-2514 | 3 | 89 | 모터, 선풍기 |
| (주)대광주공 | 류 옥 섭 | 경서동 363-184 | 526-5151 | 525-4648 | 40 | 73 | 회주철, 닥타일 |
| 대성주철공업(주) | 양 재 옥 | 경서동 363-181 | 525-4606 | 526-8995 | 23 | 89 | 회주철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대한금속공업(주) | 서 정 돈 | 경서동 363-195 | 514-1395 | 527-2646 | 42 | 88 | 닥타일주물(D.C.I) |
| 도림주철관공업(주) | 박 우 엽 | 경서동 363-165 | 526-7111 | 526-7115 | 65 | 69 | 주철관, 주물 |
| 동 남 금 속 | 이 태 호 | 경서동 363-178 | 517-6111 | 522-9526 | 10 | 92 | 자동차부품 |
| 동보주물공업사 | 반 헌 식 | 경서동 363-160 | 526-2187 | 526-2187 | 30 | 70 | 주물(유압기,펌프,감속기) |
| 동 산 산 업 (주) | 김 의 평 | 경서동 363-178 | 526-4447 | | 4 | 88 | 주물사 |
| 동원주철공업(주) | 이 득 중 | 경서동 363-188 | 525-4600 | 516-5852 | 22 | 90 | 주물 |
| (주) 동 진 주 공 | 신 직 성 | 경서동 363-157 | 527-6017 | 525-4608 | 45 | 73 | 자동차금형 |
| 범 진 특 수 금 속 | 이 춘 근 | 경서동 363-158 | 526-9938 | 517-7370 | 31 | 92 | 주강, 주철 |
| 부 국 탄 소 공 사 | 오 규 서 | 경서동 363-188 | 526-2121 | | 6 | 59 | 씨콜(주물부자재) |
| 부 천 주 물 공 업 사 | 장 정 수 | 경서동 363-167 | 525-4722 | 529-7450 | 20 | 86 | 일반모터케이스 |
| (주) 삼 부 정 공 사 | 최 명 규 | 경서동 363-155 | 515-2644 | 525-0096 | 33 | 66 | 밸브 |
| (주) 삼 성 주 공 | 김 기 태 | 경서동 363-182 | 525-5318 | 528-2846 | 36 | 82 | 주물(기계부품) |
| 삼 양 주 물 공 업 사 | 송 승 영 | 경서동 363-192 | 527-6111 | 525-4657 | 53 | 61 | 모터케이스, 산업기계부품 |
| (주) 삼 왕 주 철 | 장 기 욱 | 경서동 363-187 | 527-7175 | 528-8754 | 23 | 89 | 모타후레임 |
| 삼 진 상 사 | 김 영 배 | 경서동 363-176 | 526-4449 | | 6 | 77 | 주물부자재 |
| 삼창주철공업(주) | 이 규 홍 | 경서동 363-177 | 527-7752 | 529-1152 | 80 | 77 | 회주철, 주강품 |
| 삼화주철공업(주) | 윤 재 용 | 경서동 363-175 | 527-1116 | 527-1118 | 98 | 75 | 주물(상하수도용,전기통신용맨홀) |
| 서 인 기 계 공 업 | 이 종 창 | 경서동 363-178 | 529-1193 | | 5 | 91 | 집진기(공해방지시설) |
| 서 해 주 공 (주) | 하 광 수 | 경서동 363-163 | 527-5327 | 527-5329 | 30 | 71 | 일반기계주물 |
| 성보종합기계(주) | 안 승 복 | 경서동 363-174 | 529-4801 | 523-1028 | 27 | 88 | 산업기계, 압력용기 |
| 성 보 특 수 금 속 | 안 승 락 | 경서동 363-174 | 524-3511 | 523-1028 | 37 | 79 | 스텐펌프, 내열강제품 |
| (주) 성 진 주 공 사 | 장 극 리 | 경서동 363-201 | 515-6521 | 515-6524 | 40 | 79 | 주물가공, 펌프케싱 |
| (주) 세 일 플 란 트 | 진 세 일 | 경서동 363-192 | 514-0002 | 529-9943 | 32 | 87 | 도장설비, 산업기계 |
| 신 양 금 속 (주) | 송 상 완 | 경서동 363-169 | 525-4661 | 525-4661 | 22 | 78 | 일반주물 |
| 신 원 주 공 소 | 강 성 환 | 경서동 363-162 | 514-2501 | 525-4721 | 25 | 68 | 일반기계주물 |
| 아 세 공 업 (주) | 이 광 석 | 경서동 210-1 | 523-0544 | 523-0545 | 21 | 91 | 중장비부품 |
| 영 신 주 물 | 이 우 용 | 경서동 363-173 | 525-4723 | 528-6171 | 22 | 70 | 산업용기계주물 |
| (주)용산주물제작소 | 정 건 호 | 경서동 363-176 | 529-3247 | 525-0095 | 6 | 76 | 밸브 |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주) 용 암 정 밀 | 김 용 구 | 경서동 363-192 | 529-7514 | 529-3285 | 30 | 88 | 금형소재, 기계부품 |
| 우 정 주 재 상 사 | 김 진 만 | 경서동 363-193 | 527-8861 | 524-2160 | 7 | 81 | 규석(전기로재료) |
| 우 진 특 수 주 물 | 김 종 규 | 경서동 363-183 | 513-7975 | | 13 | 89 | 엘리베이터부품,양수기부품,밸브 |
| (주)원일주물제작소 | 최 대 규 | 경서동 363-193 | 527-8861 | 524-2160 | 7 | 81 | 산업기계, 주물 |
| 원 창 정 밀 | 진 희 창 | 경서동 363-79 | 517-6291 | 527-5648 | 12 | 90 | 금형, AL다이캐스팅 |
| (주) 유 환 | 송 진 희 | 경서동 363-178 | 529-9230 | 528-4414 | 20 | 85 | 펌프 |
| (주) 이 원 정 공 | 우 순 필 | 경서동 363-185 | 529-5811 | 529-5814 | 56 | 91 | 자동차부품 |
| (주) 제 물 포 금 속 | 박 윤 섭 | 경서동 363-215 | 528-8092 | 525-2943 | 14 | 91 | 알미늄괴 |
| 조 양 금 속 공 업 사 | 김 병 문 | 경서동 363-164 | 93-7560 | 525-9788 | 40 | 75 | 자동차부품,회주철,내열강,체어크럼 |
| 조 일 공 업 (주) | 김 상 식 | 경서동 363-180 | 527-7211 | 527-3882 | 120 | 86 | 가스렌지, 양수기부품 |
| 진 흥 기 업 | 조 훈 형 | 경서동 363-186 | 525-4602 | 512-8225 | 54 | 76 | 베아링집, 주물 |
| (주) 진 흥 주 물 | 손 창 수 | 경서동 363-190 | 528-8271 | 529-6607 | 32 | 92 | 지게차부품, 크롬관 |
| 태 양 기 계 제 작 소 | 황 시 영 | 경서동 363-192 | 512-4378 | 513-5184 | 25 | 86 | 염색기, 건조기 |
| 태 양 벤 드 | 임 창 섭 | 경서동 210-1 | 517-3800 | 528-3833 | 8 | 77 | 스텐레스배관부속 |
| 태 양 주 물 제 작 소 | 차 준 식 | 경서동 381-80 | 514-9830 | 524-3158 | 20 | 90 | 도가니, 뿌리재 |
| 태 영 비 철 금 속 (주) | 김 호 남 | 경서동 363-169 | 526-5577 | 523-9063 | 12 | 91 | 동괴 |
| 풍 양 로 루 제 작 소 | 민 현 수 | 경서동 363-188 | 524-2386 | | 5 | 79 | 압연용롤 |
| 풍 전 금 속 공 업 사 | 변 태 복 | 경서동 363-171 | 523-9477 | 529-9390 | 38 | 78 | 중기엔진부품 |
| 한 국 산 업 철 강 | 이 선 영 | 경서동 90-2 | 528-5322 | 522-6981 | 20 | 88 | 일반철물 |
| (주)한국특수주물 | 신 석 철 | 경서동 381-78 | 92-1191 | 525-4718 | 45 | 77 | 승강기, 유압기부품 |
| (주)한독금속제작소 | 서 승 은 | 경서동 363-178 | 513-6662 | 529-4096 | 20 | 87 | 수공구류 |
| (주) 한 스 공 업 | 한 기 석 | 경서동 363-200 | 525-8211 | 524-5955 | 50 | 78 | 연속주철주조봉, 라이너 |
| (주)한일엔지니어링 | 이 기 군 | 경서동 363-178 | 528-8688 | 528-2446 | 20 | 89 | 산업기계 |
| 현 덕 주 물 공 업 사 | 김 경 한 | 경서동 363-187 | 513-3225 | 515-2773 | 20 | 77 | 소화전, 밸브 |
| (주) 협 동 주 조 | 황 규 완 | 경서동 363-169 | 525-0108 | | 6 | 84 | 용탕 |
| (주) 협 신 주 철 | 박 주 훈 | 경서동 363-170 | 527-3004 | 515-1485 | 35 | 80 | 선철 |
| 화 성 주 철 제 작 소 | 김 성 남 | 경서동 363-183 | 527-3240 | 527-3243 | 37 | 76 | 펌프, 밸브 |
| 화 영 주 물 공 업 (주) | 문 경 상 | 경서동 363-159 | 515-8651 | 515-8653 | 27 | 76 | 일반기계주물 |

## 5) 중소목재가공단지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주) 경 남 목 재 | 배 풍 조 | 석남동 223-293 | 571-4006 | 573-0137 | 34 | 85 | 미송, 제재목, 미송파렛트, 건구 |
| 고 려 특 수 강 (주) | 조 륵 | 석남동 223-262 | 574-9375 | 514-9377 | 11 | 90 | 스텐레스시트 |
| 광 성 정 밀 | 이 특 주 | 석남동 223-233 | 579-5003 | 571-1116 | 3 | 90 | 금형 |
| 금 구 목 재 (주) | 김 명 호 | 석남2동 223-364 | 574-6881 | 571-5505 | 20 | 88 | 미송각재, 판재 |
| 금 성 산 업 사 | 양 기 현 | 석남동 223-213 | 579-0420 | 579-0422 | 9 | 78 | 바이어끈, 로프 |
| 금 정 공 업 (주) | 김 옥 균 | 석남동 223-298 | 571-0661 | 571-0665 | 60 | 82 | 수중모타펌프, 에어레이타, 수중믹서 |
| 남 성 산 업 기 계 | 황 성 기 | 석남동 223-257 | 581-6040 | 581-6044 | 20 | 89 | 콘베이 |
| 대 동 실 업 | 신 문 섭 | 석남동 223-224 | 578-8070 | 578-8072 | 10 | 92 | 발전기부품 |
| (주) 대 명 | 이 학 주 | 석남동 223-251 | 571-2508 | 571-8364 | 48 | 86 | 가위 |
| 대 방 목 재 (주) | 권 태 호 | 석남동 223-266 | 573-1333 | 573-8050 | 15 | 80 | 각재, 판재 |
| 대 성 공 사 | 김 노 춘 | 석남동 223-226 | 572-4560 | 581-4560 | 22 | 93 | 알미늄샤시, 복층유리 |
| 대 신 상 사 | 지 대 성 | 석남동 223-288 | 577-9194 | 577-9194 | 13 | 91 | 피아노밑판부품 |
| 대 영 기 공 | 이 덕 영 | 석남동 223-233 | 581-2080 | 581-2081 | 3 | 87 | 산업기계 |
| 대 원 합 판 | 이 길 호 | 석남동 223-223 | 574-7122 | 573-9260 | 3 | 84 | 합판 |
| 대 윤 화 학 | 여 두 근 | 석남동 223-309 | 571-3989 | 573-0684 | 17 | 82 | 컴퓨터및전화기부품 |
| 대 일 기 업 | 김 대 웅 | 석남동 223-245 | 571-1865 | 573-2214 | 19 | 78 | 타자기부품, 전자제품BOX |
| 대일종합목재(주) | 김 훈 영 | 석남동 223-268 | 574-5111 | 574-5114 | 100 | 82 | 문틀, 문짝, 가구 |
| 대 진 종 합 금 형 | 우 창 현 | 석남동 223-347 | 571-1543 | 581-7440 | 14 | 89 | 금형 |
| 대 한 목 재 | 윤 윤 진 | 석남2동 223-214 | 571-0022 | 571-2259 | 18 | 91 | 가구문짝전면문양 |
| (주) 대 협 전 자 | 박 병 대 | 석남동 223-285 | 571-2067 | 571-4697 | 90 | 86 | P.C.B |
| (주)동녘종합목재 | 송 태 욱 | 석남동 223-290 | 577-2556 | 577-2558 | 13 | 92 | 미송제재 |
| 동방목재공업(주) | 진 한 종 | 석남동 223-295 | 571-4588 | 571-4136 | 20 | 84 | 제재 |
| 동 서 합 판 공 업 사 | 장 욱 조 | 석남동 223-248 | 573-0778 | 573-0778 | 22 | 77 | 합판 |
| (주) 동 성 화 학 | 박 수 성 | 석남동 223-261 | 571-8683 | 581-2834 | 12 | 92 | 멜라민식기 |
| 동 양 금 속 공 예 사 | 조 철 | 석남동 223-212 | 574-7411 | 574-6289 | 32 | 75 | 식기류 |
| 동양풍력기계제작소 | 김 경 훈 | 석남동 223-242 | 574-4441 | 573-4445 | 15 | 82 | 송풍기, 집진기 |
| (주) 동 영 정 수 | 조 규 식 | 석남동 223-264 | 581-4297 | 581-4298 | 8 | 92 | 금속탱크, 공해방지기기 |
| (주) 동 일 기 연 | 박 종 석 | 석남동 223-216 | 571-5275 | 571-5216 | 30 | 84 | 산업, 화학기계 |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동현특수시멘트공업(주) | 이 상 재 | 석남동 223-294 | 574-6850 | 571-6868 | 15 | 87 | 고강도, 초속경시멘트 |
| (주) 동 화 금 속 | 임 태 승 | 석남동 223-287 | 571-5311 | 574-7123 | 30 | 88 | 볼트 |
| (주) 등 우 | 선 호 천 | 석남동 223-366 | 571-3683 | 573-3504 | 45 | 88 | 귀금속도금 |
| 만 수 목 재 | 김 원 길 | 석남동 223-260 | 571-8243 | 573-8559 | 16 | 92 | 각재 |
| 명성종합목재(주) | 홍 성 명 | 석남동 223-267 | 574-6177 | 571-5691 | 103 | 81 | 제재, 파렛트 |
| 명 신 정 공 (주) | 전 우 범 | 석남동 223-355 | 581-4273 | 581-4275 | 11 | 93 | P.C.B |
| 문 학 목 재 | 이 기 호 | 석남동 223-287 | 573-2013 | 573-2013 | 9 | 83 | 미송각재, 판재 |
| (주) 미 목 가 구 | 김 용 남 | 석남동 223-272 | 574-4656 | 574-4656 | 40 | 93 | 일반가구 |
| 방 주 산 업 | 이 우 석 | 석남동 223-205 | 574-2273 | 577-1276 | 13 | 89 | 무늬목 |
| 보 성 산 업 사 | 민 완 식 | 석남동 223-273 | 571-9221 | 571-9223 | 17 | 78 | 미장합판 |
| 봉 천 합 성 수 지 | 이 치 길 | 석남동 223-271 | 571-1331 | 571-2722 | 10 | 88 | 프라스틱 |
| 부 덕 실 업 (주) | 김 원 택 | 석남동 223-203 | 574-3361 | 574-3365 | 46 | 82 | 새들분수전, 이탈발지압륜 |
| 삼림목재공업(주) | 구 무 | 석남동 223-280 | 571-4012 | 571-4013 | 12 | 92 | 미송각재, 판재 |
| 삼 신 산 업 | 김 동 혁 | 석남동 223-366 | 577-4014 | 571-4013 | 4 | 90 | 도금 |
| 삼 우 산 업 | 김 정 곤 | 석남동 223-281 | 579-6688 | 577-6689 | 7 | 91 | 염화제2철 |
| 삼 원 공 작 소 | 김 용 식 | 석남동 223-252 | 573-7777 | 573-2282 | 18 | 76 | 목공기계 |
| 삼 화 정 유 | 이 천 용 | 석남동 223-153 | 578-8490 | | 6 | 91 | 각종오일, 크게 |
| (주) 상 신 | 김 영 기 | 석남동 223-283 | 578-6011 | 572-3394 | 25 | 92 | 운반하역기계, 자동화설비 |
| (주)서울종합화학 | 은 기 표 | 석남동 223-261 | 571-8681 | 571-8682 | 17 | 89 | 접착제 |
| 서울특수인물공업사 | 조 치 환 | 석남동 223-233 | 571-1114 | 571-1116 | 17 | 72 | 공업용인물, 금형 |
| 선 구 화 학 | 황 성 옥 | 석남동 223-282 | 574-6471 | 578-8594 | 16 | 82 | 합성수지(EBS활재) |
| 성 남 기 업 (주) | 김 강 배 | 석남동 223-228 | 574-7172 | 573-7898 | 130 | 78 | 문, 문틀, 제재 |
| (주) 성 민 산 업 | 박 홍 원 | 석남동 223-210 | 574-5422 | 573-9955 | 30 | 87 | 가구 |
| (주)성민종합상사 | 오 삼 근 | 석남동 223-297 | 571-6450 | 573-4561 | 33 | 89 | 각재, 판재 |
| 성 신 기 업 사 | 김 성 근 | 석남동 223-294 | 573-5222 | 573-5222 | 8 | 89 | 철선 |
| 성 우 금 속 | 심 영 근 | 석남2동 223-231 | 573-0696 | 571-4411 | 44 | 83 | 알미늄샤시임가공 |
| 성 원 목 재 | 이 성 호 | 석남2동 223-263 | 571-6390 | 571-8494 | 20 | 86 | 제재, 파렛트 |
| 세 양 엔 지 니 어 링 | 유 병 현 | 석남동 223-244 | 578-6227 | 578-6229 | 10 | 91 | 크레인, 승강기부품 |
| 세 원 공 예 | 신 갑 생 | 석남2동 223-238 | 571-6751 | 571-4465 | 16 | 83 | 목공예품(불단조각) |
| 세원기계공업사 | 차 기 종 | 석남동 223-221 | 571-3875 | 571-3870 | 23 | 76 | 공기압축기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송 도 목 재 | 김 용 남 | 석남동 223-272 | 574-4656 | 574-4656 | 16 | 87 | 미송각재 |
| 순 흥 목 재 (주) | 장 호 진 | 석남동 223-234 | 571-9671 | 574-6404 | 20 | 86 | 미송, 나왕제재 |
| 신 성 목 재 | 박 대 근 | 석남동 223-247 | 581-2333 | 581-2335 | 10 | 92 | 미송각재 |
| 신 양 산 업 | 송 양 규 | 석남동 223-201 | 573-7066 | 577-2533 | 6 | 88 | 전자도금 |
| 신 원 목 재 (주) | 유 영 진 | 석남동 223-259 | 573-1551 | 573-1552 | 16 | 92 | 뉴송각재 |
| 신 하 사 | 하 박 행 | 석남동 223-452 | 581-0724 | 581-0726 | 6 | 85 | 각종스프링 |
| 안 일 기 업 (주) | 안 성 훈 | 석남동 223-265 | 575-0081 | | 14 | 88 | 판재, 각재 |
| 안 일 산 업 (주) | 박 희 현 | 석남동 223-265 | 574-5684 | 574-5685 | 10 | 86 | 제재, 파렛트 |
| 안 일 임 업 (주) | 한 치 국 | 석남동 223-265 | 574-5681 | 574-5685 | 21 | 86 | 미송각재, 목상자 |
| (주) 양 지 산 업 | 김 문 수 | 석남2동 223-253 | 573-6766 | 573-7992 | 33 | 90 | 목상자, 목재가구 |
| (주) 에 이 스 산 업 | 김 광 수 | 석남동 223-184 | 577-9328 | 578-4487 | 55 | 90 | 산업기계 |
| (주) 영 동 | 김 주 봉 | 석남동 223-278 | 575-4850 | 575-5743 | 20 | 89 | 몰딩, 내장재, 특수목 |
| 영 진 기 공 | 권 영 재 | 석남동 223-247 | 573-3461 | 573-1348 | 1 | 87 | 산업기계 |
| (주) 영 풍 석 재 | 최 인 보 | 석남동 223-367 | 574-2266 | 574-2267 | 23 | 88 | 석재, 타일 |
| 오 성 목 재 상 사 | 이 덕 창 | 석남동 223-227 | 571-4157 | 574-2744 | 12 | 87 | 농기구환봉 |
| 우 림 목 재 | 최 락 두 | 석남동 223-255 | 573-8214 | 573-7485 | 10 | 80 | 라왕제품 |
| 우 성 산 업 | 고 선 우 | 석남동 223-210 | 573-2718 | 571-3110 | 35 | 90 | 목재가공(싱크대손잡이) |
| 우주설비공업(주) | 홍 성 태 | 석남동 223-253 | 574-7240 | 574-7240 | 14 | 89 | 금속탱크 |
| 유 진 금 속 공 업 사 | 김 준 겸 | 석남동 223-269 | 571-0278 | 573-6732 | 10 | 79 | 철분 |
| (주) 유 진 상 사 | 허 덕 범 | 석남동 223-202 | 571-4611 | 573-5344 | 175 | 77 | 불단 |
| 이생산업(주)목재사업소 | 이 동 연 | 석남동 223-204 | 581-0691 | 581-0693 | 20 | 92 | 뉴송각재, 판재 |
| 일 화 목 재 | 백 종 석 | 석남동 223-213 | 574-5534 | | 10 | 86 | 목재건조 |
| 재 령 산 업 | 민 덕 용 | 석남동 223-208 | 578-2425 | 578-2529 | 10 | 91 | 목재가공, 문틀, 창 |
| 정 일 기 공 사 | 김 정 겸 | 석남동 223-294 | 574-6833 | 578-6370 | 10 | 78 | 산업기계부품 |
| 진 보 산 업 | 우 영 선 | 석남동 223-357 | 575-3872 | 576-1859 | 13 | 90 | P.C.B |
| 청 원 산 업 | 김 칠 원 | 석남동 223-233 | 575-8744 | 578-7639 | 10 | 90 | 라미네이팅 |
| (주) 태 림 목 재 | 정 금 환 | 석남동 223-275 | 577-0224 | 574-4743 | 30 | 87 | 미송각재 |
| 태 승 목 재 | 이 찬 복 | 석남동 223-289 | 571-2121 | 574-9743 | 11 | 80 | 문틀, 문창호 |
| (주) 태 신 | 이 연 종 | 석남동 223-208 | 579-9300 | 579-9303 | 5 | 93 | 미송각재 |
| 태 원 산 업 | 김 양 진 | 석남동 223-222 | 581-0521 | 581-0520 | 7 | 93 | 문틀, 문짝 |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전 화 | FAX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주 생 산 품 |
|---|---|---|---|---|---|---|---|
| (주) 하 나 금 속 | 유 유 보 | 석남동 223-269 | 578-4325 | 578-4327 | 22 | 92 | 엘리베이터도어 |
| 한국수지공업(주) | 나 영 준 | 석남동 223-292 | 571-1335 | 573-6138 | 51 | 89 | 스치로폴 |
| 한 국 하 론 (주) | 송 수 근 | 석남동 223-240 | 573-1222 | 573-1330 | 10 | 88 | 고압가스 |
| 한 성 실 업 | 김 태 환 | 석남동 223-232 | 571-8229 | 575-6088 | 10 | 90 | 도금 |
| 한양엔지니어링 | 김 제 영 | 석남동 223-354 | 578-4011 | 578-4012 | 8 | 89 | 철구조물 |
| (주) 한 일 교 역 | 강 영 웅 | 석남동 223-205 | 571-3361 | 573-7513 | 280 | 78 | 불단 |
| 한 진 산 업 | 서 혁 진 | 석남동 223-235 | 581-6533 | | 15 | 92 | 피아노부품(건반대) |
| 현 성 산 업 (주) | 이 용 성 | 석남동 223-279 | 575-1331 | 571-2555 | 23 | 82 | 미송, 나왕, 각재 |
| (주) 형 평 | 이 동 창 | 석남동 223-441 | 581-0440 | 581-0442 | 18 | 91 | OA가구 |
| 혜 성 산 업 사 | 나 균 섭 | 석남동 223-207 | 574-2879 | 574-1177 | 18 | 89 | 미장합판 |
| 호 남 목 재 | 홍 광 남 | 석남동 223-276 | 571-2535 | 573-2535 | 15 | 86 | 미송제재 |
| 화 산 산 업 (주) | 이 규 화 | 석남동 223-241 | 574-8834 | 574-8837 | 10 | 88 | 전자관, 전자부품 |
| 화 신 공 업 (주) | 박 래 심 | 석남동 223-250 | 573-5951 | 573-2635 | 85 | 88 | 크립, 침핀, 호침, 압핀, 스테플 |
| 화중엔지니어링 | 박 면 수 | 석남동 223-285 | 573-4253 | 577-5832 | 7 | 88 | P.C.B |
| 홍 림 산 업 (주) | 임 충 규 | 석남동 223-220 | 571-6071 | 575-1305 | 30 | 91 | 목재건조, 가공 |
| 홍 화 산 업 | 김 정 수 | 석남동 223-218 | 573-6736 | | 8 | 81 | 코티드샌드(주물사)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연감, 1993.

## 2. 공업의 특징

부평지역은 정부의 기간산업 투자와 수출확대 정책에 따라 공업부문이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므로써 국내 유수의 공업지역으로 발돋움했으며, 1992년말 현재 인천지역 전체 업체수의 58.8%(북구 38.8%, 서구 20.0%), 종업원수의 59.1%(북구 36.4%, 서구 22.7%), 생산액의 57.1%(북구 30.4%, 서구 26.7%)를 각각 차지하여 인천의 핵심공업지역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표 14〉참조).

인천 광공업체 현황

(단위 : 개, 명, %, 억원)

| 구분 | 중 구 | 동 구 | 남 구 | 남동구 | 북 구 | 서 구 |
|---|---|---|---|---|---|---|
| 업 체 수 | 108 | 148 | 598 | 1,237 | 1,971 | 1,014 |
| 구 성 비 | 2.1 | 2.9 | 11.8 | 24.4 | 38.8 | 20.0 |
| 종업원수 | 9,295 | 13,510 | 27,292 | 37,803 | 78,258 | 48,664 |
| 구 성 비 | 4.3 | 6.3 | 12.7 | 17.6 | 36.4 | 22.7 |
| 생 산 액 | 1조 6,495 | 2조 0,234 | 2조 1,879 | 2조 0,160 | 5조 5,749 | 4조 9,087 |
| 구 성 비 | 9.0 | 11.0 | 11.9 | 11.0 | 30.4 | 26.7 |

자료 :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통계청)

공업구조는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등과 같은 대표업종은 없으나,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산업공단 4·5단지를 비롯하여 인천주물공단, 인천중소목재가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립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 목재 및 가구, 악기 업종 등 전업종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1993년 수출산업 4·5공단의 총수출액은 12억 3,019만 달러를 기록하므로써 인천시 전체 수출액 41억 1,084만 달러의 29.9%를 차지하여[4] 1966년 4공단 조성 이래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경제현황, p. 23, 1994.

# 第3章 상업(商業)

## 1. 상업의 변천

### 1) 개항기의 상업활동

1883년 개항 당시 인천항은 황량한 한촌이었으나 개항과 더불어 일본인조계, 청국조계 그리고 서구각국의 조계가 설정되고 일본인, 청국인 그리고 구미 각국인이 들어와 상권의 신장을 위하여 치열한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개항 후 인천항의 경제는 강력한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던 일본 상인과 근면과 단결력으로 뭉치고 있던 화교사이에 격렬한 경쟁이 전개되었고, 그 사이에 한국인의 생활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참한 최하의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이와같이 개항이래로 원주민이 무력하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인접된 강화, 충남의 서산 및 태안, 그리고 수원, 개성 등지로부터 이주한 상인들이 진출하여 그나마 인천의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인천에 모여든 민족상인들은 대부분 객주와 여각(旅閣)들로서, 곧 상회를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영업은 매우 부진하였다. 따라서 새로이 전개되는 상업질서에 부응하기 위하여 객주들이 중심이 되어 혜상공국(惠商公局)의 허가를 얻어 1885년에 인천객주회를 설치하였다. 인천객주회는 항내에 진출한 외국상인들에 대항하여 민족상인들의 상권을 옹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인천항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관허유문권(官許有文卷) 주인이라는 25객주제가 확립되어, 인천항의 모든 화물주선은 이들만이 담당할 수 있으며 지정객주로 선정되지 못해 탈락한 객주들은 25명의 지정객주에게 각각 분속시켜 구문의 일부를 배분받아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부평등읍주인(富平等邑主人)을 비롯하여 당시 인천항 관지정 25객주의 전 관지역 분담 및 각 읍주인(邑主人)은 다음과 같다.

1. 公州等邑主人 (首客主)
2. 通津等邑主人 李景幹
3. 德山等邑主人 李景瑞
4. 富平等邑主人 吳益瑞
5. 瑞山等邑主人 李洛女
6. 全州等邑主人 朱希元
7. 松 都 主 人 朴景祐
8. 禮山等邑主人 李用錫
9. 喬洞等邑主人 盧澤奎
10. 南陽等邑主人 柳景賢
11. 豊德等邑主人 朴達鄕
12. 平 壤 主 人 朴道夏
13. 京 城 主 人 金在健
14. 唐津等邑主人 姜宅甫
15. 仁川等邑主人 車致學
16. 江華等邑主人 安士弘
17. 水原等邑主人 黃鶴秀
18. 洪州等邑主人 金在田
19. 咸悅等邑主人 崔君善
20. 延安等邑主人 李東信
21. 海州等邑主人 朴明珪
22. 長端等邑主人 金鳳珪
23. 牙山等邑主人 姜子玉
24. 恩平等邑主人 李公振
25. 全州等邑主人 李春瑞

자료 : 仁川港關草客主差帖列錄

한편 개항 당시 인천의 시장은 현재의 신포동과 바다에 인접한 해안동 일대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인천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전통적으로 농업에 바탕을 두었던 부평지역에는 개항이래 이렇다할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 2) 일제강점기의 상업활동

한일합병 직후 일본이 한국을 전형적인 식민지형태로 개발하기 시작한 1910년대에는 인천항은 일본경제에 대한 원료의 공급지로, 그리고 서구와 일본상품의 판매를 위한 전진기지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인천항의 상세(商勢)와 이를 지원하는 간접자본시설인 교통·운수·항만 등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정비하였다.

한편 한국상인들과 일본상인들과의 시장쟁탈전이 격심해지자 민간인에게 맡겨오던 시장운영이 일본상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일제는 시장의 공익성을 내세워 시장규칙을 공포하는 한편, 부·읍·면 등 공공기관만이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영화를 추진하였다.

1914년 9월 조선총독부령 제136호로 공포한 시장규칙에는 시장에 대한 정의와 경영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일용품 소매시장과 수산물, 청과류의 도매시장 경영은 인천부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1937년말 현재 인천의 공설시장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공설시장 현황

(1937년말 현재)

| 시장별 | 소재지 | 설립 | 년간매상고 | 경영자 | 점포 | 매상고 | | |
|---|---|---|---|---|---|---|---|---|
| | | | | | | 1935년 | 1936년 | 1937년 |
| 공설제1일용품시장 | 신포동 | 1927.7 | 115,724 | 부영 | 27 | 90,172 | 117,879 | 115,724 |
| 공설제2일용품시장 | 신포동 | 1927.7 | 59,235 | 〃 | 31 | 69,222 | 67,933 | 59,235 |
| 송현일용품시장 | 송현동 | 1936.7 | 223,368 | 〃 | 120 | 195,698 | 182,291 | 238,774 |
| 공설가축시장 | 송월동 | 1937.2 | 146,945 | 〃 | — | 158,817 | 213,936 | 223,368 |
| 공설청과물시장 | 인현동 | 1930.7 | 238,774 | 인천물산 | — | — | — | 192,738 |
| 수산도매시장 | 북성동 | 1936.5 | 1,095,956 | 경기어련 | — | 1,471,340 | 1,560,705 | 1,095,996 |

지료 : 인천부세일반

일제하에 인천의 상업은 일본상인만의 일방적인 발전이 보장되었으며 민족상인의 활동은 극히 소수의 정미소와 소매상인을 제외하고는 존립할 수 없었다.

인천객주회가 모체가 되어 1896년 1월에 인천항 신상협회가 결성되고, 그 후 신상협회 회원들과 혁신적인 상인들이 주동이 되어 인천조선인 상업회의소가 1907년 7월 2일에 설립되었는데 1911년 인천조선인 상업회의소의 보고에 의하면, 인천에 주소를 둔 한국인 수는 11,508명이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46명에 불과하였다. 개항된지 약 3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수가 이렇게 적었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인 상황(商況)의 조잔(凋殘)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사회사나 공설시장 하나 없었던 부평지역에는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광복이후의 상업활동

인천항에는 조국광복의 기쁨을 안고 귀환한 해외동포들이 거리를 메웠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 대한 구호는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의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시민의 민생고는 극에 도달하였다. 자연히 호구지책으로 아낙네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노점을 차렸고 광주리를 머리에 인 행상이 무리를 지었다.

이렇듯 8·15해방의 부산물로 등장한 노점은 해외귀환동포, 실업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었다. 노점상인의 번창은 곧 인천상가를 주름잡은 새로운 유통체계로 등장하게 되었다. 보잘것 없는 판자가게에서 부를 축적해온 노점의 생성과 축재과정은 인천항 개항초기에 일상(日商), 청상(淸商)을 비롯한 외국상인들이 해안동 근처에서 가옥을 짓고 유리그릇, 비누, 바늘 등 일용품을 팔았던 것과 너무나 흡사한 발자취라 하겠다. 한편 자연발생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노점이 위생, 교통, 치안 등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사태를 중시한 정부당국은 뒤늦게 나마 단속의 손길을 뻗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 무렵 상인보존회가 조직되어 상인들의 권익을 도모하려고 노력했으나 재원난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46년 12월 청년애지단의 발단으로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던 노점을 한 곳으로 집중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동년 동월 17일 8·15해방 전의 인천일용품시장(송현동)을 중심으로 소성자유시장 자치회를 조직하여 노점의 규합을 시도하였다.

소성자유시장을 모체로 하여 송현동, 답동, 숭의동, 도원동 등 각처에서 노점자유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송현동 100번지 일대에 집중 유치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중앙시장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부평지역의 노점실태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4) 정부수립이후 구제(區制)이전의 상업활동

정부수립후 자립경제의 재편성을 지향한 정부의 노력과 미국의 경제원조로 경제적 혼란이 수습되고 경제적 기틀이 잡히려 할 무렵 발발한 6·25동란으로 인천경제는 전례없는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나 6·25동란이후 수만의 월남동포들이 정착한 데다가 항만을 중심으로 한 공업의 발달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산업인력의 증가와 더불어 구매력이 크게 늘어나자 시장은 번창하였고 시장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기 시작하였다.

부평지역에는 집단화된 상가는 없었으나 많은 군부대들이 주둔하여 이 지역의 상가들은 늘 호황기를 누렸다.

그후 새로운 부도심지(副都心地)로 등장한 부평지역에 처음으로 공설상설시장인 부평시장이 1962년 6월 7일 부평동 225번지에 설치되었다.

일용품 소매시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평시장은 계속 번창하여 1967년말 현재 52개의 점포를 갖추고 있으며, 시장의 면적은 1,719㎡에 연간 거래고의 추산액은 44,544,000원에 달하였다.[1]

### 5) 구제(區制)이후의 상업활동

구제(區制)실시 이후 1970년대초 인천시의 상점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년도에 중구가 1,471개소의 점포에서 1971년에는 1,891개소로 증가하였고, 동구는 1,752개소에서 2,33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남구 역시 1,480개소에서 2,033개소로 크게 점포수가 늘어난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북구로서 1968년에 1,458개소의 점포가, 1971년에는 3,028개소로 약 2.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점가의 변화에 따라 점포수의 분포는 1971년말 현재 북구가 32.6%로 수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다음은 동구의 25.1%, 남구 21.9%, 중구 20.4%의 순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구시가지(중구)로부터 새로운 부도심지대로 시세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이는 인구와 주요 기관의 분산책으로 당국의 도시계획이 이를 유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 인천시내 상점분포

(1971년말)

| 년도 / 지역 | 1968 | | 1969 | | 1970 | | 1971 | |
|---|---|---|---|---|---|---|---|---|
| | 상점수 | % | 상점수 | % | 상점수 | % | 상점수 | % |
| 합 계 | 6,161 | 100 | 7,056 | 100 | 7,564 | 100 | 9,286 | 100 |
| 중 구 | 1,471 | 23.9 | 1,580 | 22.3 | 1,767 | 23.4 | 1,891 | 20.4 |
| 동 구 | 1,752 | 28.4 | 2,352 | 33.3 | 2,180 | 28.8 | 2,334 | 25.1 |
| 남 구 | 1,480 | 24.0 | 1,531 | 21.7 | 2,080 | 27.5 | 2,033 | 21.9 |
| 북 구 | 1,458 | 23.7 | 1,593 | 22.7 | 1,537 | 20.3 | 3,028 | 32.6 |

자료 : 인천통계연보

1) 『仁川統計年報』, 1968, p 148.

상점의 현황을 도소매별로 살펴보면 1971년말 현재 북구의 경우 소매상이 2,829개소인데 반하여 도매상의 점포수는 전체의 약 6.6%밖에 안되는 199개소에 불과하다(〈표 3〉참조).

이처럼 도매상이 매우 적은 이유는 인천시가 서울 근교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까닭에 이 지역 소매상들이 인천의 도매상이나 중간 도매상을 배제하고 서울의 도매상과 직접 유통거래함으로써 상업자본이 유출되고 있으며 소비자인 시민도 서울을 왕래할 때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하고 있다.

〈표 3〉 상점의 형태·기능현황

| 구분 / 연도및 종별 | 총수 | 형태별 | | | 도·소매별 | | 종업원수 |
|---|---|---|---|---|---|---|---|
| | | 주식회사 | 기타법인 | 개인 | 도매 | 소매 | |
| 1968 | 6,161 | 16 | 11 | 6,134 | 253 | 5,908 | 6,536 |
| 1969 | 7,056 | 15 | 8 | 7,033 | 283 | 6,773 | 10,206 |
| 1970 | 7,564 | 14 | 17 | 7,533 | 240 | 7,324 | 11,355 |
| 1971 | 9,286 | 31 | 36 | 9,219 | 450 | 8,836 | 11,070 |
| 중구 | 1,891 | 19 | 27 | 1,845 | 82 | 1,809 | 2,432 |
| 동구 | 2,334 | — | — | 2,334 | 94 | 2,240 | 3,237 |
| 남구 | 2,033 | 10 | 9 | 2,014 | 75 | 1,958 | 2,075 |
| 북구 | 3,028 | 2 | — | 3,026 | 199 | 2,829 | 3,326 |

자료 : 인천통계연보

한편 부평지역의 유일한 공설시장이었던 부평시장이 1971년 5월 6일부터 사설시장인 부평자유시장으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동년 8월 17일에 부평동 252번지에 부평진흥자유시장이 설립된 이후 백화점, 종합상가 그리고 지하상가 등의 사설시장이 개설되는 등 부평의 시장은 1970년대에 획기적인 변화와 신장을 가져왔다. 또한 유통산업의 근대화 촉진과 함께 현대적 소매점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그 영업실적 및 기반이 점차 확고해져 가는 슈퍼마켓의 등장도 1970년대의 일이다.

1970년대에 부평지역에 개설된 시장과 주요 슈퍼마켓의 실태는 〈표 4〉와 같다.

〈표 4〉 부평의 시장과 슈퍼마켈 실태

(1979. 12. 31 현재) (면적 : ㎡)

| 시장명 | 소재지 | 형태 | 대지 | 건평 | 점포수 | 설립년월일 |
|---|---|---|---|---|---|---|
| 부평자유시장 | 북구 부평동 225 | 사설 | 1,201 | 1,756 | 47 | 71. 5. 6 |
| 부평진흥자유시장 | 북구 부평동 252 | 〃 | 4,646 | 4,950 | 164 | 71. 8.17 |
| 부평백화점 | 북구 부평동 192-7 | 〃 | 931 | 1,320 | 80 | 78. 6.22 |
| 대도백화점 | 북구 부평동 153 | 〃 | 1,436 | 749 | 55 | 78.12.22 |
| 부평종합상가 | 북구 부평동 229 | 〃 | 2,129 | 4,419 | 200 | 79. 1.16 |
| 부평로지하상가 | 북구 부평동 241-1 | 〃 | 3,402 | 3,402 | 190 | 79.12.15 |

자료 : 인천통계연보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점포수 | 설립년월 |
|---|---|---|---|---|
| 갈산수퍼마켙 | 차석영 | 북구 갈산동 91-61 | 5 | 79. 11 |
| 나나수퍼마켙 | 한태식 | 북구 계산동 410 | 12 | 79. 7 |
| 동양수퍼마켙 | 인성만 | 북구 부평동 201-43 | 12 | 79. 11 |
| 백마수퍼마켙 | 현 원 | 북구 산곡동 96 | 5 | 78. 6 |
| 부남수퍼마켙 | 장덕순 | 북구 부평동 684 | 5 | 79. 7 |
| 부평생필수퍼마켙 | 민원순 | 북구 부평동 210 | 10 | 74. 7 |
| 부평종합수퍼마켙 | 편일우 | 북구 부평동 229 | 18 | 79. 9 |
| 부평한남수퍼마켙 | 정해순 | 북구 부평동 192-6 | 20 | 78. 12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80 인천상공명감, 1980.

1980년대에 들어 부평의 도·소매업이 인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는데, 〈표 5〉에 의하면 인천의 행정구역별 도소매업 점포수는 1982년 현재 남구가 7,536개 점포로 전체의 38%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28%의 북구(5,750개 점포), 17%의 중구(3,439개 점포), 15%의 동구(3,065개 점포)의 순으로 되어 있다.

〈표 5〉 인천시 구별 도·소매업 점포 추이

| 연도 | 구분 | 중구 | | 동구 | | 남구 | | 북구 | | 계 | |
|---|---|---|---|---|---|---|---|---|---|---|---|
| | | 점포수 | 구성비 | 점포수 | 구성비 | 점포수 | 구성비 | 점포수 | 구성비 | 점포수 | 구성비 |
| 1968 | 도매업 | 71 | 28.1 | 80 | 31.6 | 54 | 21.3 | 48 | 19.0 | 253 | 100.0 |
| | 소매업 | 1,925 | 28.9 | 1,912 | 28.7 | 1,620 | 24.2 | 1,210 | 18.2 | 6,657 | 100.0 |
| | 계 | 1,996 | 28.9 | 1,992 | 28.8 | 1,664 | 24.1 | 1,258 | 18.2 | 6,910 | 100.0 |
| 1976 | 도매업 | 333 | 46.3 | 122 | 17.0 | 163 | 22.7 | 101 | 14.0 | 719 | 100.0 |
| | 소매업 | 3,046 | 22.8 | 2,975 | 22.3 | 4,477 | 33.6 | 2,847 | 21.3 | 13,345 | 100.0 |
| | 계 | 3,379 | 24.0 | 3,097 | 22.0 | 4,640 | 33.0 | 2,948 | 21.0 | 14,064 | 100.0 |
| 1982 | 도매업 | 330 | 25.4 | 129 | 9.9 | 398 | 30.7 | 440 | 33.9 | 1,297 | 100.0 |
| | 소매업 | 3,109 | 16.4 | 2,936 | 15.5 | 7,198 | 37.9 | 5,310 | 28.0 | 18,993 | 100.0 |
| | 계 | 3,439 | 17.3 | 3,065 | 15.4 | 7,536 | 37.9 | 5,750 | 28.1 | 19,850 | 100.0 |

이를 1968년, 1976년의 구별 분포와 비교하면 남구와 북구 등 신시가지의 구성비가 증대하고 인천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던 중구, 동구의 구성비가 감소하고 있다.

구시가지로 부터 신시가지로의 상권이전은 1970년대에 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한 후인 1980년대에 인접지역의 편입, 교외지역의 개발에 의한 인천의 광역화와 교통시설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상권의 이동과 지역상권의 평준화는 더욱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권의 이전은 인구증가에 있어 중구와 동구의 정체 내지는 감소와 남구와 북구의 급격한 인구증대와 도시화의 진전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상권의 이동에 있어서 소매업이 선행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는 소매업이 보다 소비자 밀착형(密着形)이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1980년대와 1990년초에 부평지역에 설립된 유통업체는 다음과 같다.

## 일 반 시 장

| 명 칭 | 개 설 자 | 소 재 지 | 개설일 | 자본금(백만원) | 대지면적(㎡) | 시장연면적(㎡) | 매 장 면 적(㎡) | | | | 점포수(개) | | | 종업원수(명) | | |
|---|---|---|---|---|---|---|---|---|---|---|---|---|---|---|---|---|
| | | | | | | | 합계 | 직영 | 임대 | 분양 | 합계 | 직영 | 임대분양 | 합계 | 남 | 여 |
| 청천종합시장 | 태호산업(주) | 북구 청천동 178-9 | '81. 2.13 | 13 | 1,630 | 1,440 | 1,334 | — | 1,334 | — | 50 | — | 50 | 1 | — | 1 |
| 시장로타리지하상가 | 부흥기업(주) | 〃 부평동 224-1 | '81. 6. 5 | 15 | 5,158 | 5,158 | 820 | — | — | 820 | 296 | — | 296 | 9 | 8 | 1 |
| 동수종합시장 | 동수종합시장(주) | 〃 부평동 642 | '81.12.16 | 50 | 1,052 | 3,068 | 1,399 | — | 1,399 | — | 29 | — | 29 | 4 | 3 | 1 |
| 유창종합시장 | 유창흥업(주) | 〃 부평동 534-87 | '81. 1.22 | 200 | 1,642 | 2,616 | 1,608 | — | 1,608 | — | 20 | — | 20 | 1 | — | 1 |
| 신 현 시 장 | 신현물산(주) | 서구 신현동 272 | '85. 7. 8 | 10 | 3,104 | 4,991 | 3,054 | — | 310 | 2,744 | 13 | — | 13 | 4 | 2 | 22 |
| 기 북 시 장 | (주)기북공영 | 서구 석남동 548 | '84. 2. 4 | 50 | 984 | 700 | 984 | 233 | 751 | — | 12 | 3 | 9 | 9 | 2 | 7 |
| 갈산종합시장 | 이 건 형 | 북구 부평동 229 | '81. 5.21 | 10 | 1,421 | 818 | 790 | 790 | — | — | 94 | — | 94 | 1 | 1 | — |
| 효 성 시 장 | 손 계 수 | 〃 부평동 63-9 | '82. 1.29 | 270 | 4,171 | 1,607 | 1,384 | — | 1,384 | — | 9 | 9 | — | 2 | 2 | — |
| 나드리프라자상가 | 나드리유통(주) | 〃 계산동 926-27 | '90. 1.31 | 200 | 4,167 | 27,928 | 14,062 | 5,801 | 249 | 8,012 | 360 | 4 | 356 | 154 | 82 | 72 |
| 부평자유시장 | 부평시장(주) | 〃 부평동 225-1 | '80. 6.25 | 30 | 1,157 | 1,874 | 878 | — | — | 878 | 65 | — | 65 | 2 | 1 | 1 |
| 부일종합시장 | (주)부일통상 | 〃 일신동 107 | '82.11.17 | 30 | 1,576 | 2,800 | 2,732 | 819 | 1,913 | — | 98 | 42 | 56 | 3 | 2 | 1 |
| 작전종합시장 | 대화실업(주) | 〃 작전동 856-117 | '87.12.17 | 50 | 2,007 | 2,534 | 1,673 | — | 1,673 | — | 118 | — | 118 | 5 | 4 | 1 |
| 평 화 시 장 | 평화산업(주) | 〃 임학동 67 | '85.12.10 | 400 | 2,788 | 2,188 | 1,823 | — | 1,823 | — | 134 | — | 134 | 5 | 4 | 1 |
| 부평성일로지하상가 | (주)성일로지하상가 | 〃 부평동 606-17 | '89. 6. 7 | 50 | 9,544 | 9,544 | 3,429 | — | — | 3,429 | 425 | — | 425 | 10 | 9 | 1 |
| 십정종합시장 | 십정종합시장(주) | 〃 십정동 321-6 | '82. 1.29 | 10 | 2,219 | 2,734 | 1,686 | — | — | 1,686 | 46 | — | 46 | 1 | 1 | — |
| 갈월종합시장 | 갈월종합상가(주) | 〃 갈산동 96-1 | '80. 4.28 | 100 | 908 | 1,207 | 264 | — | 264 | — | 34 | — | 34 | 3 | 2 | 1 |
| 석 남 시 장 | 조 규 만 | 서구 석남동 579 | '81.12.26 | 16 | 2,184 | 2,993 | 2,663 | | | | 35 | — | 35 | 42 | | |
| 부평청과도매시장 | 부평청과도매시장(주) | 북구 부평동 252 | '81. 5.20 | 155 | 5,430 | 2,264 | 2,264 | | | | 1 | 1 | | 31 | | |

## 백 화 점

| 명 칭 | 개설자 | 소 재 지 | 개설일 | 자본금(백만원) | 대지면적(㎡) | 시장연면적(㎡) | 매장면적(㎡) | | | | 점포수(개) | | | 종업원수(명) | | |
|---|---|---|---|---|---|---|---|---|---|---|---|---|---|---|---|---|
| | | | | | | | 합계 | 직영 | 임대 | 분양 | 합계 | 직영 | 임대분양 | 합계 | 남 | 여 |
| 현대백화점 | 유강유통(주) | 북구 작전동 444-2 | '85. 5.24 | 100 | 3,808 | 8,715 | 5,495 | 3,346 | 342 | 1,807 | 348 | — | — | 24 | 18 | 6 |

## 쇼 핑 센 터

| 명 칭 | 개설자 | 소 재 지 | 개설일 | 자본금(백만원) | 대지면적(㎡) | 시장연면적(㎡) | 매장면적(㎡) | | | | 점포수(개) | | | 종업원수(명) | | |
|---|---|---|---|---|---|---|---|---|---|---|---|---|---|---|---|---|
| | | | | | | | 합계 | 직영 | 임대 | 분양 | 합계 | 직영 | 임대분양 | 합계 | 남 | 여 |
| 동암프라자상가 | (주)동암프라자 | 북구 십정동 406-3 | '90. 2.26 | 100 | 1,653 | 2,904 | 3,002 | 1,609 | 1,295 | — | 147 | 10 | 137 | 19 | 15 | 4 |
| 인천현대타운 | 현대산업개발(주) | 북구 산곡동 311-151 | '87.10.22 | 500 | 10,407 | 32,915 | 18,109 | 11,457 | 6,651 | — | 275 | 234 | 41 | 238 | 92 | 146 |

## 연 쇄 점

|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자본금(억원) | 점포수(개) | | 보관시설(㎡) | | 운송장비(대) | | 판매사(명) | | 종업원수(명) |
|---|---|---|---|---|---|---|---|---|---|---|---|---|
| | | | | 직영 | 가맹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 2급 | 3급 | |
| (주)중앙연쇄점 | 신 부 천 | 서구 가정동 180 | 1.0 | — | 193 | — | 1,635 | 5 | — | — | 3 | 16 |
| (주)경인체인 | 오 춘 현 | 서구 석남동 494-2 | 1.0 | — | 116 | — | 297 | 5 | — | — | 3 | 14 |
| 회성산업(주) 인천영업소 | 구 자 윤 | 북구 작전동 252-1 | — | — | 178 | — | 5,170 | 2 | 9 | — | 3 | 40 |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부평지역 시장분포상황을 보면 부평의 협소한 상권을 반영하여 부평의 유통업계는 근대적인 백화점이나 연쇄점, 쇼핑센터 보다는 일반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경우, 특히 잡화나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경우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일반시장은 일괄 구매가 가능하고 선택의 폭이 다양하여 편리한 상품구입지가 되고 있다. 또한 1991년도부터 수퍼마켓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대적 소매점으로서의 수퍼마켓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표 6〉 참조).

〈표 6〉 시장분포현황

(단위 : 개소)

| 연도별 | 총수 | 공설시장 | 사설시장 | | 백화점 | 수퍼마켙 |
|---|---|---|---|---|---|---|
| | | | 일반 | 상가 | | |
| 1983 | 58 | — | 13 | 2 | — | 43 |
| 1984 | 16 | — | 4 | 11 | 1 | — |
| 1985 | 113 | — | 15 | 2 | 1 | 95 |
| 1986 | 27 | — | 15 | 2 | 1 | 9 |
| 1987 | 26 | — | 15 | 2 | 1 | 8 |
| 1988 | 25 | — | 7 | 12 | 1 | 5 |
| 1989 | 36 | — | 17 | 6 | 1 | 12 |
| 1990 | 36 | — | 17 | 6 | 1 | 12 |
| 1991 | 102 | — | 16 | 7 | 3 | 76 |
| 1992 | 83 | — | 17 | 3 | 3 | 60 |

주) 수퍼마켙은 단독 매장면적이 50평이상인 사업자임
자료 : 북구통계연보, 서구통계연보

1993년 3월말 현재 부평지역의 시장현황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설시장 25개소에 2,630개 점포가 있어 각종 식료품과 잡화물을 거래하고 있다. 지하상가로는 부평로, 부평성일로, 시장로타리 등에 있으며 각종의 양품(洋品), 의류, 장신용구 등을 거래하는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표 7〉 일 반 시 장 현 황

(1993. 3. 31 현재)

| 상 호 | 소 재 지 | 점포수 |
|---|---|---|
| 나드리인천프라자 | 계산동 926-27 | 360 |
| 대 동 상 가 | 갈산 택지 개발지구 | 67 |
| 동 암 프 라 자 | 십정동 406-3 | 147 |
| 부평로지하상가 | 부평동 224-1 | 186 |
| 부 평 상 가 | 부평동 192 | 38 |
| 부평성일로지하상가 | 부평동 606-17 | 425 |
| 부 평 종 합 상 가 | 부평동 229 | 94 |
| 시장로타리지하상가 | 부평동 224-1 | 296 |
| 신 현 종 합 상 가 | 신현동 272 | 95 |
| 대 신 산 업 (주) | 가좌동 477-4 | 1 |
| 인천원예협동조합 부 평 공 판 장 | 부평동 150-24 | 1 |

| 시 장 명 | 소 재 지 | 점포수 |
|---|---|---|
| 갈 산 종 합 시 장 | 갈산동 63-1 | 60 |
| 갈 월 종 합 시 장 | 갈산동 169-17 | 29 |
| 거 북 상 가 시 장 | 석남동 592 | 68 |
| 동 수 종 합 시 장 | 부평동 684-8 | 39 |
| 부 일 종 합 시 장 | 일신동 107 | 98 |
| 부 평 자 유 시 장 | 부평동 225-1 | 65 |
| 석 남 종 합 시 장 | 석남동 579-1 | 62 |
| 십 정 종 합 시 장 | 십정동 321-6 | 46 |
| 유 창 종 합 시 장 | 부평동 534-87 | 70 |
| 작 전 종 합 시 장 | 작전동 856-117 | 117 |
| 진 흥 종 합 시 장 | 부평동 252-52 | 98 |
| 청 천 종 합 시 장 | 청천동 178-9 | 72 |
| 한 국 시 장 | 가정동 567 | 24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명감, 1993.

한편 부평의 인구팽창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힘입어 근대적인 대규모 상점형태인 백화점이 1985년에 개점한 현대백화점을 효시로 현대백화점 부평점, 동아시티백화점 등이 차례차례로 개점되어 유통구조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표 8참조) 이외에도 부평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30여개의 수퍼마켙이 산재하고 있어 부평의 상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표 9〉참조).

〈표 8〉 백화점현황

| 명 칭 | 소 재 지 | 개 설 일 | 자본금 (백만원) | 대지면적 (㎡) | 시장연면적 (㎡) | 점포수 |
|---|---|---|---|---|---|---|
| 현대백화점 | 작전동 444-2 | 1985. 5.24 | 100 | 3,808 | 8,725 | 348 |
| 동아시티백화점 | 부평동 1-70-127 | 1992.11. 2 | | 7,500 | | 111 |
| 현대백화점부평점 | 산곡동 311-151 | 1987. | | 10,426 | 12,734 | 119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통계연보, 1993. '93~'94 인천상공명감, 1993.

〈표 9〉 수퍼마켙현황

| 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 화 |
|---|---|---|---|
| 가 좌 | 김 상 규 | 가좌동 143 | 576-2179 |
| 경 인 | 박 연 수 | 계산동 530-49 | 543-1221 |
| 고 려 | 김 정 욱 | 석남2동 535-5 | 571-5386 |
| 고 려 | 선 정 숙 | 효성동 192 | 547-8972 |
| 광 명 | 양 동 석 | 작전동 672-2 | 517-2179 |
| 대 성 | 김 정 희 | 부평5동 98-64 | 522-4583 |
| 덕 수 | 조 남 율 | 계산동 109B-1L | 541-3983 |
| 동 암 | 유 연 균 | 십정2동 514-18 | 423-5900 |
| 또 와 | 임 명 섭 | 가정동 5-96 | 573-1621 |
| 럭 키 | 송 신 행 | 산곡2동 106-17 | 92-1814 |
| 보만북인천소비자유통프라자 | 박 희 란 | 산곡동 310-113 | 528-4179 |
| 보만북인천프라자(주) | 박 희 란 | 계산동 931-51 | 541-2136 |
| 부 평 종 합 | 최 덕 현 | 부평2동 760-323 | 534-1050 |
| (주) 세 일 유 통 | 김 성 기 | 십정동 320 | 439-0777 |
| 알 파 | 고 익 | 효성동 331-6 | 547-2329 |
| (주)엘지유통인천영업소 | 하 태 봉 | 작전동 856-55 | 542-1761 |
| (주)우성유통산곡지점 | 송 영 관 | 산곡동 294 | 92-1783 |
| 유 진 | 천 병 호 | 부평동 459-1 | 528-4012 |
| 인 성 | 이 병 용 | 석남1동 519-4 | 571-3892 |
| 인천가좌보훈매점(주) | 박 윤 하 | 가좌동 84-5 | 576-8700 |
| 일 동 | 이 정 안 | 부평동 82-9 | 92-8075 |

| 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 화 |
|---|---|---|---|
| 일 신 | 구 자 문 | 계산동 600 | 542-2235 |
| 지 수 | 전 순 희 | 부개동 227 | 519-7362 |
| 팔 팔 | 이 완 규 | 부평4동 250-11 | 523-8800 |
| 한 아 름 | 정 종 호 | 십정동 400-34 | 433-2176 |
| (주) 한양유통 산곡점 | 가 갑 손 | 산곡동 152 | 93-6271 |
| 한 우 리 | 김 연 경 | 계산동 898-6 | 525-3804 |
| 한 일 | 임 대 성 | 십정2동 499-51 | 422-7716 |
| 형 제 | 문 재 열 | 부평1동 180-19 | 515-1053 |
| 효 성 | 박 정 옥 | 효성동 99-11 | 547-8266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명감, 1993.

## 2. 상업의 특징

부평지역의 유통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 현재 북구 관내에는 총 20개소(지하상가시장 3, 일반소매시장 14, 백화점 3)가 있고 서구 관내에는 총 13개소(상설시장 4, 수퍼마켙 9)가 있으나[2]

산업자본의 유통업계 진출이 없어 근대적인 대형유통기구나 다목적 쇼핑센타가 설립되지 못했고 수도(首都) 서울과 동시 생활권의 여건으로 인하여 아직 부평의 독자적인 상권(商圈)이 형성되지 못해 서울 수도권에 흡인되고 있으며, 대형매장이나 다양한 상품의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구매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쇼핑센터, 동아시티백화점 등 대형매장이 마련되었고 유통경로의 합리적인 체계화와 시장의 건실한 운영·발전에 관한 사업추진 등으로 지역상권을 확립·발전하고 있어 부평지역의 상업활동 및 유통기능이 활발해지고 있다.

2) 『북구구정백서』와 『서구구정백서』. 1994.

# 第4章 금융(金融)

우리나라에 근대적 금융기관이 도입되게 된 것은 1878년 일본의 제일은행이 부산에 최초로 지점을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거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무역금융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에 진출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부산에 제일은행 지점을 설치한데 이어 원산, 인천, 목포, 진남포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지점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사카의 제18은행을 비롯해 나가사끼의 제58은행과 저축은행 등 일본계 은행들을 대거 진출시켰다.

더욱이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비대해지게 되면서 부터 일본계 은행의 진출은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개항장내의 일본인을 거래대상으로 국한하였던 영업범위도 전국의 한국인으로 확대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금융기관의 주도권은 일본계 은행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항전까지만 해도 내국인간의 자금조달과 융통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해 왔던 객주제도를 비롯해 여각(旅閣)·외획(外劃)·계(契)·시변(時邊)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몰락과 함께 한국에 근대적 금융제도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영향에 자극받아 한국인 사이에서도 은행설립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갑오경장 이후 조선은행을 비롯해 한흥은행과 제국은행 등 한국계 은행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설립당시 부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데다 은행 경영에 관한 지식 또한 결여되어 얼마 가지않아 대부분의 은행들은 폐점되고 천일은행과 공립 한성은행, 한일은행 등 세 은행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은행도 일본계 은행에 비하여 자본 규모와 조직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해 한국의 금융기관은 일본계 은행의 독무대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더욱이 한일협약이후 시행된 금융 개혁안에 따라 식민지 경제정책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농공은행, 지방금융조합, 공동창고(주), 동양척식(주) 등 식민지화를 위한 특수금융기관이 설치됨으로써 본래 기반이 취약한 한국계 금융기관의 경영난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더욱 극심해져 은행이 금융기관 본래의 기능보다는 금지금의 일본 반출이나 전시자금의 동원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8·15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일제지배하의 한국의 금융기관은 민족의 수난과 함께 기형적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운을 겪어야만 했다.

부평지역은 1940년 인천시로 편입될 때까지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행정개편이 이루워졌으나, 당시의 개항장과는 달리 농업 위주의 봉건구조를 탈피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농경자금 조달이외의 금융활동은 일천했고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금융기관도 지역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개항이후 국내 최대의 항구도시로 발달하기 시작한 인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인천경제권에 흡수됨으로써 지역내에 금융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부평의 금융활동은 인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오늘날 부평금융의 기초가 된 인천의 금융활동과 연관을 지어 부평지역의 금융활동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장을 기술하기에 앞서 근대 이전까지 부평금융에 대해 명시된 기록문헌이 없고 최근의 통계자료도 인천시에 포함된 포괄적 통계이외의 독자적으로 분류된 자료가 불과 한두건에 지나지 않는 등 자료의 빈곤과 입수의 제약으로 인해 개연적으로 기술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혀 둔다.

## 1. 금융의 변천

부평지역에 금융기관 점포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961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금융기관의 진출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이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부평지역이 오늘날과는 다르게 기업체를 비롯해 산업시설 등 제반 산업활동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적었던 데 기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항구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한 인천시내와 불과 10㎞도 안되는 지척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별도 금융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적었던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말 대륙침략에 따른 병참기지의 구축을 위해 부평 역전과 산곡동 일대에 조병창과 미쓰비시 등 몇몇의 일본계 군수공장이 들어서 한 때 부평지역에 상공업이 활기를 띠우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 지역은 황량한 농촌지역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금융활동이 일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조달과 융통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인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평지역에 금융기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제의 금융개혁안에 따라 부평지역에도 금융조합이 설치되어 있기는 했었지만 소액대부에 국한되어 그 영역이 매우 협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능이 국고금의 수납이나 공채인수 등 일제의 식민통치 강

화와 금융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부평의 금융활동에는 그다지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

당시 인천에는 조선은행 인천지점을 비롯해 식산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등 일제 전시체제에 의해 재편된 국책은행들과 무진업, 금전대부업 등 금융기관 점포들이 대거 진출해 인천을 비롯해 김포, 강화 등 인접지역의 금융활동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평의 독자적인 금융활동은 이루워 질 수가 없었다.

인천에는 1883년 최초로 일본의 제일은행 점포가 설치된 이래 수도인 한성의 제1관문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국내은행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 결과 1890년에는 일본 나가사끼에 본점을 가진 제18은행이 인천에 지점을 개설한데 이어 1892년에는 인천전환국에서 주조되는 구화폐의 교환을 목적으로 오사카의 제58은행이 진출하였다. 그리고 1897년에는 홍콩은행과 상해은행이, 1899년에는 한국계의 대한 천일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는 등 많은 은행들이 인천에 진출하였다.

당시 인천은 외국상인의 진출이 허용된 서해의 유일한 개항지로서 수도인 한성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무역의 확대와 지원을 위해 은행의 진출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더욱이 제일은행을 비롯해 일본계 은행들은 한국 정부로 부터 정치적 자금융자와 청국상인과의 대체거래 및 해관세의 취급과 은행권 발행,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고금 취급 등에 관한 특허를 받고 인천에서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당시 인천은 한국의 금융 및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후 한일합방에 따른 일제의 식민통치 시작과 함께 경제활동의 중심이 서울로 이전되어 인천의 금융 및 무역 기능이 다소 저하되기는 하였지만, 항구를 통해 반출입되는 교역량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금융기관 진출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일제의 식민통치 강화와 금융통제를 위한 여러 차례에 걸친 금융제도의 개편 끝에 인천의 금융구조가 조선은행 인천지점, 식산은행 인천지점, 상업은행 인천지점, 저축은행 인천지점의 4개 지점과 금융조합 체제로 정비되었다.

또한 이들 은행이외에도 조선증권 인천지점이 설치되어 증권매매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역무물산(주)과 인천흥업, 그리고 중앙무진이 각각 설립되어 금전 대부업무와 무진업무를 취급하게 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들이 인천권 전역의 부동산 금융을 비롯해 상업금융과 무역금융을 관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1940년에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부평지역이 인천에 편입되면서부터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을 인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됨에 따라 부평의 독자적인 금융활동은 더욱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평지역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도심권 개발계획에 밀려 항상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고 급기야는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8·15 해방과 함께 미군주둔기지가 설치되면서 한때 경기가 호전되는 계기를 맞이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에 지나지 않았을 뿐 6·25 동난의 발발로 인해 부평의 경제적 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표 1〉 은행 및 금융업체 현황(1937년말 현재)

| 구 분 | 창업년월 | 소 재 지 | 불입자본금(원) | 대 표 자 |
|---|---|---|---|---|
| (주)조선은행 인천지점 | 1909. 9 | 중앙동 | 25,000,000 | 和田國安 |
| (주)식산은행 인천지점 | 1918. 10 | 해안동 | 30,000,000 | 蓮井靜 |
| (주)조선상업은행 인천지점 | 1912. 3 | 항 동 | 4,975,000 | 豆生田健一郎 |
| (주)조선저축은행 인천지점 | 1933. 11 | 중앙동 | 3,750,000 | 掘內富次郎 |
| 인천흥업 | 1935. 11 | 용 동 | 37,500 | 최 승 우 |
| 중앙무진(주) 인천지점 | 1937. 9 | 중앙동 | 1,250,000 | 平野達池 |
| 역무물산(주) | 1927. 9 | 사 동 | 700,000 | 九武黑在門 |
| 조선증권(주) 인천지점 | 1932. 5 | 해안동 | 1,000,000 |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 p. 263.

그러나 전후 복구기를 맞이하여 경인지역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부평의 역할이 증대되고 미군주둔기지 특수로 인해 경기가 호전되면서부터 역내에 유입 인구증가와 함께 상설시장이 설치되고 인근 주변지역들에 대한 개발이 촉진되는 등 부평에 개발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부평지역의 상권형성과 개발확대에 따른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부터 지역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기존에 있었던 금융조합 부평지소를 해체함과 동시에 부평지점을 설치하여 1961년 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를 필두로 국민은행, 상업은행이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침체일로로만 걷고 있었던 역내금융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더욱이 정부의 수출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부평지역 일대가 수출산업 단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수출산업공단 4단지의 조성과 함께 개발의 열기가 부평의 전 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부평이 수도권의 핵심공업지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은행을 비롯해 특수은행 등

전국 규모의 금융기관들이 서둘러 점포를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한편으로 금융 자율화를 맞이하여 제2금융권과 신설 은행들이 점포를 설치하고 상호 경쟁속에 상업금융 및 무역금융을 전담하게됨으로써 오늘날 부평 금융이 활성화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2. 금융기관 현황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통화창출 유무에 따라 통화 금융기관과 비통화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통화 금융기관은 화폐발행의 형태로 현금통화를 공급하는 한국은행과 요구불 예금의 형태로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예금은행으로 구성되며 이외의 투자금융이나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과 같은 금융기관은 비통화 금융기관에 속한다.

1994년 6월말 현재 부평지역의 예금은행 점포를 살펴 보면 총 54개 점포로 34개의 일반은행 점포와 20개의 특수은행 점포가 설치되어 금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평지역에 진출한 예금은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점포를 설치한 은행은 농업협동조합 부평지점으로 1961년 8월 15일에 개점을 했으며 그로 부터 2년 뒤인 1963년 국민은행 부평지점과 상업은행 부평지점이 각각 설치되었다. 또한 1969년에는 한일은행 부평지점이 설치되었고, 1970년에는 경기은행 부평지점이 개점되어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71년에는 외환은행 부평지점이, 1974년과 1976년에는 각각 서울신탁은행 부평지점과 주택은행 부평지점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제일은행 부평지점과 조흥은행 부평지점이, 1981년과 1987년에는 각각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과 신한은행 부평지점이 설치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동남은행 부평지점과 대동은행 부평지점이 설치되었으며, 1991년에는 한미은행 부평지점과 동화은행 부평지점이, 1992년에는 보람은행 부평지점이 1993년에는 평화은행 공단출장소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현재 부평지역에는 경기은행 6개점포, 농업협동조합 6개 점포, 국민은행 5개 점포, 주택은행 4개 점포, 조흥은행 3개 점포, 상업은행 3개 점포, 외환은행 3개 점포, 한일은행 3개 점포, 중소기업은행 3개 점포, 제일은행 1개 점포, 서울신탁은행 2개 점포, 신한은행 2개 점포, 한미은행 1개 점포, 대동은행 1개 점포, 동남은행 1개 점포, 동화은행 1개 점포, 보람은행 1개 점포, 평화은행 1개 점포 등 총 31개의 예금은행 점포로 확장되어 영업 중에 있다.

각 점포의 개점 연월일과 소재지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부평지역 예금은행 점포현황 ('94년 6월 현재)

| 구 분 | 점 포 명 | 주 소 | 설치년월일 | 전화번호 |
|---|---|---|---|---|
| 일반은행 (31) | 조흥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204-12 | 1980. 12. 26 | 524-9051 |
| | 〃 산곡동(출) | 산곡동 294-35 | 1989. 9. 22 | 528-5448 |
| | 〃 성모병원(출) | 부평동 665-8 | 1993. 3. 11 | 515-4958 |
| | 한국상업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549-3 | 1963. 12. 23 | 522-1461 |
| | 〃 갈산동(출) | 갈산동 363 | 1992. 11. 12 | 512-2078 |
| | 〃 산곡동(출) | 산곡동 182 | 1990. 5. 3 | 512-7461 |
| | 제일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206-21 | 1980. 9. 25 | 528-8591 |
| | 한일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199-36 | 1969. 12. 21 | 528-9311 |
| | 〃 동아APT(출) | 부평1동 70-5 | 1989. 4. 8 | 526-7125 |
| | 〃 대림APT(출) | 부평동 64-20 | 1989. 12. 20 | 512-9747 |
| | 서울신탁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152-13 | 1974. 4. 29 | 523-6801 |
| | 〃 갈산동(출) | 갈산동 73-10 | 1990. 4. 19 | 516-6611 |
| | 한국외환은행 부평지점 | 효성동 316-76 | 1971. 12. 7 | 526-3691 |
| | 〃 산곡동(출) | 산곡동 274-6 | 1991. 9. 6 | 519-4264 |
| | 〃 작전동(출) | 작전동 555-1 | 1993. 12. 28 | 549-1107 |
| | 신한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442-13 | 1987. 4. 16 | 527-7500 |
| | 〃 현대APT(출) | 산곡동 산 37-4 | 1990. 12. 4 | 517-0798 |
| | 한미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202-1 | 1991. 5. 17 | 518-9700 |
| | 동화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549-5 | 1991. 10. 15 | 519-9011 |
| | 동남은행 부평지점 | 효성동 385-19 | 1990. 2. 14 | 514-9970 |
| | 대동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192-14 | 1990. 3. 23 | 514-9947 |
| | 보람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202-69 | 1992. 7. 15 | 501-5300 |
| | 평화은행 부평공단(출) | 효성동 311-7 | 1993. 8. 5 | 523-2001 |
| | 경기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199-24 | 1970. 4. 21 | 519-3201 |
| | 〃 갈산동(출) | 갈산동 361-4 | 1993. 12. 3 | 525-6233 |
| | 〃 부흥(출) | 부평동 10-523 | 1993. 9. 14 | 516-5911 |
| | 〃 부평구(출) | 부평동 442-1 | 1991. 10. 29 | 519-3209 |
| | 〃 동암지점 | 십정동 356-4 | 1990. 4. 26 | 427-7172 |
| | 〃 동암역전(출) | 십정동 419-1 | 1994. 4. 19 | 432-6408 |
| | 부산은행 인천지점 | 부평4동 378-1 | 1994. 4. 29 | 527-4063 |

| 구 분 | 점 포 명 | 주 소 | 설치년월일 | 전화번호 |
|---|---|---|---|---|
| |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126-7 | 1979. 11. 26 | 517-8231 |
| | 〃 청천지점 | 청천동 179-7 | 1981. 12. 15 | 529-1451 |
| | 〃 인천북지점 | 작전동 863-16 | 1989. 12. 27 | 542-1241 |
| | 국민은행 부평지점 | 부평동 199-14 | 1963. 2. 1 | 511-3111 |
| | 〃 대우차(출) | 청천동 193-1 | 1988. 8. 9 | 514-4776 |
| 특 | 〃 갈산(출) | 부평동 890-3 | 1993. 6. 30 | 519-0133 |
| | 〃 동암(출) | 십정2동 441-5 | 1993. 6. 18 | 437-2571 |
| 수 | 〃 산곡동지점 | 산곡2동 99-15 | 1990. 1. 17 | 512-7901 |
| | 한국주택은행 부평지점 | 부평1동 543-3 | 1976. 10. 6 | 527-8001 |
| 은 | 〃 산곡동지점 | 산곡동 311-151 | 1987. 9. 25 | 528-3121 |
| | 〃 동암(출) | 십정동 293-10 | 1990. 6. 29 | 429-0110 |
| 행 | 〃 작전동지점 | 작전동 442-2 | 1985. 11. 22 | 548-7561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 |
| (18) | 부평지점 | 부평동 199-19 | 1961. 8. 15 | 527-2501 |
| | 〃 백마장지점 | 산곡동 99-6 | 1970. 7. 28 | 527-2511 |
| | 〃 청천동지점 | 청천동 15-30 | 1989. 6. 2 | 529-9751 |
| | 〃 동암지점 | 십정동 402-6 | 1983. 7. 5 | 427-4601 |
| | 〃 부개지점 | 부개동 183-15 | 1983. 11. 1 | 511-3411 |
| | 〃 북인천지점 | 계산동 391-51 | 1991. 5. 7 | 545-0071 |

자료 : 한국은행 인천지점, 『관내금융기관 점포 총람』, 1994. 6.

한편 부평지역의 제2금융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금융권이란 투자금융기관 및 투자신탁기관을 비롯해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을 총칭하여 일컫는 용어로서 이는 1972년 「8·3조치」 이후 사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설치된 비은행 중개기관이다.

「8·3조치」 이후 제정된 사금융 양성화법에 따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떠돌아 다니던 거액의 사채자금이 점차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였고, 부평지역에도 영세상인과 서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1970년 처음으로 한국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된 이래 현재 4개의 상호신용금고가 추가로 설립되어 영업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새마을 금고는 1970년에 설치된 산곡동 새마을 금고를 필두로 북구지역에 지금까지 약 50,000명의 회원에 54개의 새마을 금고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972년에는 지역사회의 개발과 조합원의 후생증대를 목적으로 부평2동 신용협동조합을 비롯

한 6개의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21개의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을 해 오고 있다. 더욱이 1989년에 들어와서는 지방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폭을 넓히고 조성된 자금의 역내환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의 3개지역 주민들(50%)과 상공인(50%)이 중심이 되어 부평에 본점을 둔 한일투자신탁을 설립함으로써 역내 신탁금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일투자 신탁은 1989년 11월 28일 영업 개시하고 같은 해 원주와 수원에 지점을 설치한 이래 성남, 서초, 부천, 주안, 안양에 지점을 확대하여 현재 부평 본점과 7개 점포을 운영해 오고 있다.

〈표 3〉 부평지역 제2금융권 점포 현황

| 연 도 | 투자금융 | 투자신탁 | 상호신용금고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합 계 |
|---|---|---|---|---|---|---|
| 1970 | — | — | 2 | — | 1 | 3 |
| 1980 | — | — | 6 | 15 | 21 | 42 |
| 1985 | — | — | 7 | 18 | 27 | 52 |
| 1990 | — | | 7 | 18 | 46 | 71 |
| 1994 | — | 1 | 7 | 21 | 55 | 84 |

자료 : 한국은행 인천지점, 「관내 금융기관 점포총람」, 1994. 6.

따라서 부평지역의 제2금융권은 1994년 6월 현재 총 84개 점포로 투자신탁회사 1개 점포와 상호신용금고 7개 점포, 신용협동조합 21개 점포, 새마을금고 55개 점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지역의 제2금융권 현황과 기관 별 설립연월일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 3〉, 〈표 4〉과 같다.

다음으로 생명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 제일생명보험이 처음으로 부평에 영업국을 설치하였고, 이어서 1989년에는 대한생명이, 1992년에 들어서는 동양베네피트, 대한교육보험, 국제생명보험과 대일생명보험의 4개 영업국이 설치되었으며, 1994년 3월에 아주생명보험 부평영업국이 설치됨으로써 현재 총 9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활동을 해 오고 있다.

〈표 4〉 부평지역 제2금융권 점포현황(1) ('94년 6월 현재)

| 구 분 | 점 포 명 | 주 소 | 설치년월일 | 전화번호 |
|---|---|---|---|---|
| 투자 | 한일투자신탁 | | | |
| 기관 | 영업부 | 부평동 440-5 | 1989. 11. 28 | 512-1212 |
| | 〈상호신용금고〉 | | | |
| | 경은상호신용금고 부평지점 | 부평동 543-48 | 1975. 4. 10 | 528-8300 |
| | 금화상호신용금고 본점 | 부평동 416-18 | 1970. 10. 23 | 526-2000 |
| | 신일상호신용금고 본점 | 부평동 568-3 | 1972. 12. 26 | 528-7731 |
| | 안흥상호신용금고 본점 | 부평동 222-2 | 1974. 11. 4 | 501-5771 |
| | 한국상호신용금고 본점 | 부평동 95 | 1970. 3. 19 | 528-8000 |
| | 한서상호신용금고 부평지점 | 부평동 439-2 | 1984. 9. 5 | 516-8151 |
| | 대양상호신용금고 본점 | 부평동 194-9 | 1978. 4. 14 | 501-5111 |
| | 〈새마을 금고〉 | | | |
| 저 | 부평1동 | 부평동 464-28 | 1976. 9. 30 | 511-7101 |
| | 제1분소 | 부평1동 542-77 | 1986. 11. 2 | 525-9081 |
| 축 | 제2분소 | 부개1동 | 1988. 10. 19 | 522-0428 |
| | 부평2동 | 부평2동 754-100 | 1976. 9. 30 | 516-7118 |
| 기 | 제1분소 | 부평동 678-14 | 1990. 10. 25 | 517-0072 |
| | 부평3동 | 산곡동 307-13 | 1972. 8. 2 | 514-3931 |
| 관 | 제1분소 | 십정동 182-87 | 1990. 2. 26 | 523-1054 |
| | 제2분소 | 산곡3동 370-53 | 1990. 6. 1 | 515-2162 |
| (60) | 부평4동 | 부평동 370-21 | 1980. 8. 31 | 511-6301 |
| | 제1분소 | 부평동 10 | 1990. 10. 10 | 513-6219 |
| | 부평5동 | 부평동 572-1 | 1973. 6. 5 | 519-1661 |
| | 제1분소 | 부개동 93-2 | 1988. 5. 29 | 511-7414 |
| | 산곡1동 | 산곡동 87-185 | 1974. 10. 9 | 572-2464 |
| | 제1분소 | 산곡동 180-383 | 1990. 1. 10 | 513-1025 |
| | 제2분소 | 산곡1동 26-20 | 1993. 11. 8 | 518-4111 |
| | 산곡2, 4동 | 산곡동 100-36 | 1970. 11. 24 | 514-6328 |
| | 제1분소 | 산곡동 415-94 | 1992. 1. 20 | 526-2761 |
| | 제2분소 | 산곡동 264-8 | 1992. 3. 15 | 519-2377 |

| 구 분 | 점 포 명 | 주 소 | 설치년월일 | 전화번호 |
|---|---|---|---|---|
| 저축기관(60) | 청천동 | 청천동 174-6 | 1976. 10. 11 | 527-5894 |
| | 제1분소 | 청천동 259-15 | 1990. 5. 4 | 526-5894 |
| | 효성1동 | 효성1동 25 | 1993. 7. 1 | 549-5900 |
| | 효성2동 | 효성동 320-3 | 1978. 6. 20 | 547-7001 |
| | 십정동 | 십정동 279-2 | 1980. 9. 20 | 422-2470 |
| | 제1분소 | 십정동 168-15 | 1989. 3. 19 | 425-7563 |
| | 신성동 | 십정동 319-2 | 1979. 6. 24 | 423-6015 |
| | 제1분소 | 십정동 514-18 | 1989. 10. 22 | 438-6015 |
| | 제2분소 | 십정동 400-36 | 1992. 4. 21 | 426-6015 |
| | 갈산삼산동 | 갈산동 59-5 | 1984. 12. 22 | 514-5001 |
| | 갈산분소 | 갈산동 361-3 | 1993. 6. 12 | 529-8001 |
| | 삼산제3분소 | 삼산동 74-6 | 1989. 8. 11 | 514-5004 |
| | 풍산금속 | 효성동 239-1 | 1976. 10. 1 | 547-1022 |
| | 경찰종합학교 | 부평6동 663 | 1977. 1. 20 | 529-0341 |
| | 한국샤프 | 효성동 410-20 | 1980. 10. 13 | 524-1531 |
| | 아남전자 | 효성동 316-29 | 1979. 3. 3 | 510-8552 |
| | 코리아스파이서 | 삼산동 211-3 | 1978. 5. 11 | 518-5990 |
| | 북구청 | 부평동 442-1 | 1982. 11. 7 | 527-5911 |
| | 부평경찰서 | 청천동 199 | 1983. 6. 30 | 526-7000 |
| | 동서식품 | 효성동 316-11 | 1981. 9. 29 | 526-3111 |
| | 쌍용자동차 | 효성동 395 | 1989. 12. 27 | 510-5137 |
| | 해태음료 | 작전동 392-1 | 1988. 8. 1 | 542-4251 |
| | 해태전자 | 청천동 177 | 1988. 12. 21 | 510-4778 |
| | 부흥실업 | 부평4동 373-1 | 1976. 12. 20 | 526-7771 |
| | 부평축산기업 | 부평동 568-3 | 1979. 4. 1 | 519-5613 |
| | 부평종합상사 | 부평동 229 | 1981. 9. 17 | 528-0703 |

자료 : 한국은행 인천지점, 「관내 금융기관 점포 총람」, 1994. 6.

〈표 5〉 부평지역 생명보험회사 점포 현황 (1994년 6월 현재)

| 구 분 | 점 포 명 | 주 소 | 설치년월일 | 전화번호 |
|---|---|---|---|---|
| 생명보험회사 (8) | 국제생명보험 부평영업국 | 부평동 549-5 | 1992. 7. 30 | 519-2041 |
| | 대일생명보험 경인영업국 | 부평동 543-3 | 1992. 12. 1 | 518-2080 |
| | 대한교육보험 부평영업국 | 부평동 431-17 | 1992. 6. 20 | 512-1307 |
| | 신부평영업국 | 부평동 378-1 | 1993. 1. 1 | 529-8694 |
| | 동아베네피트생명보험 인천영업국 | 산곡동 310-111 | 1992. 1. 3 | 517-1349 |
| | 신한생명보험 동인천영업국 | 부평동 534-1 | 1992. 11. 2 | 518-6592 |
| | 아주생명보험 부평영업국 | 부평4동 378-1 | 1994. 3. 1 | 502-0611 |
| | 제일생명보험 부평영업국 | 부평4동 202-6 | 1987. 4. 1 | 517-7681 |

자료 : 한국은행 인천지점, 「관내금융기관 점포총람」, 1994. 6.

다음으로 북구지역에 기타 비통화 금융기관을 살펴 보면, 1994년 6월 현재 총 12개 지점으로 2개의 손해보험회사와 7개의 증권회사가 북구에 진출해 있다. 그외에 신용보증기금 1개 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 1개 지점, 그리고 1개의 리스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비통화금융기관 점포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부평지역 기타기관 현황 (1994년 6월 현재)

| 구 분 | 점 포 명 | 주 소 | 설치년월일 | 전화번호 |
|---|---|---|---|---|
| 손해보험회사 (2) | 대한보증보험 부평지점 | 부평동 439-2 | 1991. 9. 1 | 518-0021 |
| | 신동아화재보험 부평지점 | 부평동 378-1 | 1994. 4. 1 | 502-6363 |

| 구 분 | 점 포 명 | 주 소 | 설치년월일 | 전화번호 |
|---|---|---|---|---|
| 증권회사 (8) | 교보증권 인천지점 | 부평동 152-13 | 1989. 11. 20 | 529-9981 |
| | 동서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440-5 | 1989. 1. 30 | 529-0111 |
| | 서울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543-46 | 1989. 3. 15 | 524-3100 |
| | 신한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549-5 | 1989. 7. 27 | 511-1851 |
| | 한신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529-14 | 1989. 2. 10 | 526-1611 |
| | 한일증권 인천지점 | 부평5동 199-36 | 1989. 5. 24 | 525-0333 |
| | 현대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202-1 | 1989. 4. 4 | 529-9701 |
| 기타 (3) |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 | 부평4동 493-2 | 1988. 6. 3 | 529-8991 |
| | 기술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 | 효성동 316-76 | 1991. 3. 29 | 519-6611 |
| | 동화리스 부평지점 | 부평동 549-5 | 1991. 7. 30 | 519-1500 |

자료 : 한국은행 인천지점, 「관내 금융기관 점포 총람」, 1994. 6.

# 第5章 무역(貿易)

우리나라의 근대무역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병자수호 조약에 의해 일본과의 통상외교가 이루워지면서 부터이다. 1854년 미국의 강압에 의해 통상의 문을 열은 일본은 구주 각국과의 통상확대를 통해 일찌기 산업화의 길로 들어선 이래 근대 산업사회의 이행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국내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인근국가의 침략을 기도하였고 그 첫번째 시도로써 우리나라에 개국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오랜 동안 봉건·쇄국정책으로 인하여 국력이 쇠잔해질대로 쇠잔해진 당시 구한국은 함대와 육병을 동원하는 등 군사적 행동을 통해 개국을 강요해 온 일본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병자수호조약의 체결과 함께 굳게 닫았던 쇄국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개국이 우리나라의 자발적 의지와 필요가 아닌 일제의 강요와 압력에 의해 이루워졌던 관계로 대외무역도 관세의 자주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일제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으로 이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운속에서도 한국은 1882년 5월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고 이어서 1883년에는 영국에, 1885년에는 러시아에, 그리고 1886년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문호를 개방하는 등 대일 일변도의 무역에서 탈피하여 구주 각국들과 독자적인 통상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외무역에 눈을 뜨게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과 원산, 인천의 3개 항구가 개방되고 이들 개항지를 중심으로 구주 열강들의 통상진출이 확대됨으로써 상권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의 근대무역이 형성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부평지역도 조정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개항장 출입의 객주가 존재하고 있었고 구한말 근대무역의 최대 중심지였던 인천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 부평지역의 무역활동에 대한 뚜렷한 기록 문헌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명하는데 적지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오늘 날 부평 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온 인천의 무역활동과 연관을 지어 부평무역의 변천과정과 수출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무역의 변천

부평지역의 무역활동이 본격화 된 것은 1960년대말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고 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평지역에는 기업체를 비롯해 산업시설 등 제반수출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 관내에서의 수출활동은 지극히 저조했었다. 그 원인은 개항이래 인천의 개발구도가 항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 인접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나머지 그동안 부평지역의 개발은 소외되어 온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한말 개항기를 맞은 인천은 서해의 유일한 개항장으로서의 역할과 수도 한성의 제일 관문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외국 상인들의 진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불과 몇 년이 안되어 항구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의 개항장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때에도 식민지 수탈을 통한 본국의 원료를 공급하는 항구로서, 그리고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해안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공업지대로 부상하는 등 발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 무역 또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한국무역의 50% 이상을 처리하는 등 1910년 까지 전국의 개항장 중에서 인천이 항상 수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산에 이어 계속 최다의 무역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내 제2의 무역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표 1〉.

〈표 1〉 한국 각 항구별 무역액 순위표

| 年 次 | 輸 出 | | | 輸 入 | | | 總 額 | | |
|---|---|---|---|---|---|---|---|---|---|
| | 首 位 | 次 位 | 三 位 | 首 位 | 次 位 | 三 位 | 首 位 | 次 位 | 三 位 |
| 1885 | ○ | ◆ | ● | ◆ | ● | ○ | ◆ | ○ | ● |
| 1889 | ○ | ◆ | ● | ◆ | ○ | ● | ◆ | ○ | ● |
| 1900 | ◆ | ○ | ● | ◆ | ○ | ● | ◆ | ○ | ● |
| 1901 | ○ | ◆ | ● | ◆ | ○ | ● | ◆ | ○ | ● |
| 1902 | ◆ | ○ | ● | ◆ | ○ | ● | ◆ | ○ | ● |
| 1903 | ◆ | ○ | △ | ◆ | ○ | ● | ◆ | ○ | ● |
| 1904 | ◆ | ○ | △ | ◆ | ○ | △ | ◆ | ○ | △ |
| 1906 | ○ | ◆ | △ | ◆ | ○ | △ | ◆ | ○ | △ |
| 1907 | ◆ | ○ | △ | ◆ | ○ | △ | ◆ | ○ | △ |
| 1908 | ○ | ◆ | △ | ◆ | ○ | ◎ | ◆ | ○ | △ |
| 1909 | ○ | ◆ | ▫ | ◆ | ○ | ◎ | ◆ | ○ | ◎ |
| 1910 | ○ | ◆ | △ | ◆ | ○ | ◎ | ◆ | ○ | ◎ |
| 1912 | ○ | ◆ | △ | ◆ | ○ | ◎ | ○ | ◆ | ◎ |
| 1914 | ○ | ▫ | ◆ | ○ | ◆ | ◎ | ○ | ◆ | ◎ |
| 1915 | ○ | ◆ | ▫ | ○ | ◆ | ◎ | ○ | ◆ | ◎ |

| 年 次 | 輸出 | | | 輸入 | | | 總額 | | |
|---|---|---|---|---|---|---|---|---|---|
| | 首 位 | 次 位 | 三 位 | 首 位 | 次 位 | 三 位 | 首 位 | 次 位 | 三 位 |
| 1916 | ○ | △ | ◆ | ◆ | ○ | ◎ | ○ | ◆ | ◎ |
| 1917 | ○ | △ | ◆ | ○ | ◆ | ◎ | ○ | ◆ | ◎ |
| 1918 | ○ | △ | ◎ | ○ | ◎ | ◆ | ○ | △ | ◆ |
| 1919 | ○ | □ | ◆ | ○ | ◆ | ◎ | ○ | ◆ | ◎ |
| 1920 | ○ | ◆ | △ | ○ | ◆ | ◎ | ○ | ◆ | ◎ |
| 1921 | ○ | ◆ | △ | ◆ | ○ | ◎ | ○ | ◆ | ◎ |
| 1922 | ○ | ◆ | □ | ◆ | ○ | ◎ | ○ | ◆ | ◎ |
| 1923 | ○ | ◆ | □ | ○ | ◆ | ▲ | ○ | ◆ | ▲ |
| 1924 | ○ | ◆ | □ | ○ | ◆ | ▲ | ○ | ◆ | □ |
| 1925 | ○ | ◆ | □ | ○ | ◆ | ▲ | ○ | ◆ | ▲ |
| 1926 | ○ | ◆ | □ | ○ | ◆ | ▲ | ○ | ◆ | □ |
| 1928 | ○ | ◆ | △ | ○ | ◆ | ▲ | ○ | ◆ | △ |
| 1929 | ○ | △ | ◆ | ○ | ◆ | ▲ | ○ | ◆ | △ |
| 1930 | ○ | ◆ | △ | ○ | ◆ | ▲ | ○ | ◆ | △ |
| 1931 | ○ | △ | ◆ | ○ | ◆ | ▲ | ○ | ◆ | △ |
| 1932 | ○ | △ | ◆ | ○ | ◆ | ▲ | ○ | ◆ | △ |

◆ 仁川 ○ 釜山 ● 元山 △ 新義州 □ 群山 ◎ 서울(京城)

資料：「仁川市史」

이처럼 개항이후에서부터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될 때 인천이 항구의 역할과 중요성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해 온데 반하여 부평지역은 인천시의 관할하에 있었으면서도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개항기의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고, 또한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도 공업제한 정책과 인식부족으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한때 지금의 부평동과 산곡동일대에 조병창과 미쓰비시 등 몇몇의 군수공장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일제의 대륙침략에 따른 병참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을 뿐 부평은 그대로 황량한 촌락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무역이라고는 당시 부평평야 일대에서 산출되었던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인천항에 집산시키는 것이외에 뚜렷한 활동은 없었다.

8·15 해방이후에도 인천항은 황해와 발해만을 사이에 둔 지리적 이점 때문에 6·25사변으로 남북이 분단될 때까지 중국 남부의 마카오항에서부터 북부 지역의 안동에 이르기까지 상해, 청도, 지위, 천진, 영구, 대련 등 주요 항구들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워짐으로써 당시 무역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부평지역도 8·15 해방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대 중국무역과 미군주둔기지 설치에 따른 특별수요로 한때 경기가 호전되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를 생산에 연계시키지 못한 채 6·25동난을 겪게됨으로써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6·25사변을 거쳐 1960년대 이전까지 계속 이어져 부평지역은 개발에서 소외

된 채 인천의 외곽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정부가 추진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부평지역 일대가 수출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부터 그 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던 부평지역에 개발의 확산 바람과 함께 경제의 대 변혁을 일으키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6년부터 1968년까지 3년간에 걸친 각고끝에 효성동·작전동·갈산동 일원의 21만여평 부지에 수출산업공단 4단지가 조성되었다. 이어 50여개의 국·내외 기업체가 입주를 하여 생산활동을 개시함으로써 부평지역이 인천의 핵심 공업지대로 변모함과 동시에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부평지역에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기계, 비철금속 등 대규모 공장과 관련 중소기업체들의 진출이 확대되게 됨에 따라 부평지역은 경공업 이외 다양한 산업구조를 갖춘 수도권 핵심공업지대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인천지역의 수출을 확대시키는 커다란 기반이 되었다.

## 2. 수출입 활동

부평지역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수출산업공단 4단지(부평공단)가 조성 완료된 196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부평공단에 입주한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외 2개 업체가 1968년 7월부터 공장을 가동한지 5개월만에 총 79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이 공단 최초의 수출이자 기록상으로 나타난 부평지역의 공산품 수출실적이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69년에는 50개 공단 입주기업체중 14개 업체의 생산이 가동되어 당초의 수출목표 500만 달러의 40%를 초과하는 703만 달러를 수출실적을 기록하였고 1970년에 들어와서는 50개 입주업체가 전원 생산을 가동하여 3천 99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함으로써 명실공히 수출공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표 2〉 공단 초창기 인천의 수출실적 (단위:천 달러)

| 구 분 | 인 천 | 수출공단실적 | |
|---|---|---|---|
| | | 한국수출산업공단 | 인천수출산업공단 |
| 1966 | 11,899 | 140 | – |
| 1967 | 16,282 | 1,126 | – |
| 1968 | 22,446 | 6,682 | 791 |
| 1969 | 31,465 | 31,061 | 7,036 |
| 1970 | 54,478 | 57,531 | 23,170 |

자료 : 「한국수출공단 30년사」

그 결과 1968년까지만 해도 인천의 수출총액에 3.5%에 불과하였던 수출실적이 1년후에는 24.4%로 급격히 신장되었고, 다음 해인 1970년에는 인천의 총 수출액에 무려 42.5%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수출에 있어 부평이 위상은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수출에 있어 부평의 위상이 격상되게 된 것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인천시 당국의 수출입국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효율적인 집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단이 채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수출에만 전념해 온 입주업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당시 부평에는 재일교포 기업체를 비롯해 입주업체로 지정된 국내기업들이 공단조성이 시작된 1966년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하여 1968년 말까지 50개의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고 생산활동을 전개하였다.

취급 업종도 전자, 금속부문에서 직물, 쉐타 제조업, 봉제, 완구, 가발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업체들이 공단에 입주하여 수출에 참여함으로서 인천의 수출상품 구조도 종래에 주종을 이루었던 합판과 판유리를 비롯해 면포, 수산물 등의 품목에서 전자, 금속, 직물, 봉제, 완구 등 다양한 공산품의 형태로 수출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부평공단에 입주했던 기업과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수출산업공단 4단지 입주지정업체 현황

| 기 업 체 명 | 업 종 | 대표자명 | 입주지정일 |
|---|---|---|---|
| 코리아크리스탈 | 특수초자 | 임 호 | 66. 7. 2 |
| 한국인테리아화학(주) | 프라스틱제품제조 | 박 진 화 | 66. 8. 5 |
| 삼양전기공업사 | 전자기기제조업 | 최 형 두 | 66. 8. 5 |
| 신신전자공업 | 전자기기제조업 | 정 일 모 | 67. 8. 1 |
| 한국마이크로전자(주) | 전자기구제작 | 김 종 길 | 67. 8. 8 |
| 한남섬유산업(주) | 섬유제품 | 양 재 범 | 67. 8. 8 |
| 대원부레키공업(주) | 차량부분품제조 | 홍 구 표 | 67. 8. 8 |
| 한국유리공업(주) | 장식용 전구 | 최 태 석 | 67. 9. 30 |
| 신성전기산업(주) | 전자기기조립가공 | 신 창 호 | 67. 9. 30 |
| 태아실업(주) | 섬유제품가공업 | 이 순 한 | 67. 9. 30 |
| 우보산업(주) | 의류제조업 | 최 부 성 | 67. 9. 30 |
| 양덕산업(주) | 직물제조업 | 김 승 찬 | 67. 10. 7 |
| 중원상사(주) | 의류제조업 | 강 재 영 | 68. 1. 4 |
| 한국크리스탈공업사 | 특수초자제조업 | 홍 대 희 | 68. 1. 4 |
| 삼익물산(주) | 악기제조업 | 이 효 익 | 68. 1. 4 |
| 동아전자(주) | 전자기기제조업 | 최 진 수 | 68. 3. 9 |
| 명성산업(주) | 우모 및 조화제조업 | 박 영 상 | 68. 3. 9 |
| 삼송산업(주) | 쉐타제조업 | 성 병 림 | 68. 3. 9 |
| 세정실업(주) | 악기제조업 | 김 중 정 | 68. 3. 9 |

| 기 업 체 명 | 업 종 | 대표자명 | 입주지정일 |
|---|---|---|---|
| 동초산업(주) | 합성수지제품 | 이 종 원 | 68. 3. 30 |
| 동양전자공업(주) | 전기통신부분품 | 신 학 균 | 68. 3. 9 |
| 한송산업(주) | 자동차부속품 | 윤 량 | 68. 5. 10 |
| 신우산업(주) | 특수봉제품 | 김 진 곤 | 68. 5. 18 |
| 동남아기업사 | 합성제품가공업 | 조 동 연 | 68. 6. 10 |
| 삼우상사 | 통신기제조업 | 이 용 순 | 68. 6. 10 |
| 대원강업(주)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허 주 열 | 68. 6. 10 |
| 동산유지(주) | 유지제품제조업 | 김 정 관 | 68. 6. 10 |
| 오성만포공예(주) | 섬유제품가공업 | 백 성 빈 | 68. 6. 10 |
| (합)몽철사 | 금속류제조업 | 송 창 주 | 68. 6. 10 |
| 동양규소공업 | 특수건축제조업 | 이 현 명 | 68. 6. 10 |
| (유)연방물산 | 공예품제조업 | 장 상 범 | 68. 6. 10 |
| 고려전자(주) | 전자기기제조업 | 최 치 영 | 68. 6. 10 |
| 범양합성화학(주) | 합성수지제조업 | 김 요 라 | 68. 6. 10 |
| 용천산업(주) | 농산물가공업 | 곽 용 수 | 68. 7. 18 |
| 평화교역(주) | 쉐타제조업 | 유 순 규 | 68. 7. 18 |
| 유미실업(주) | 쉐타제조업 | 최 상 호 | 68. 7. 18 |
| 씨-부라더즈섬유(주) | 봉제업 | 배 순 홍 | 68. 7. 18 |
| (주)신진편물사 | 수편물제조업 | 오 성 룡 | 68. 7. 18 |
| (주)오리진 | 쉐타제조업 | 김 봉 길 | 68. 7. 18 |
| 법양상공(주) | 의류제조업 | 권 상 진 | 68. 7. 18 |
| 삼아전자(주) | 전자기기제조업 | 유 봉 식 | 68. 7. 18 |
| 한국가구공업(주) | 가구제조업 | 최 기 곤 | 68. 8. 30 |
| 뉴코리아전자(주) | 전자기기제조업 | 김 인 | 68. 8. 30 |
| 대양화성(주) | 합성수지제조업 | 조 영 일 | 68. 8. 30 |
| 광성공업(주) | 도자기제조업 | 반 성 휘 | 68. 8. 30 |
| 천부광업(주) | 가단주물제조 | 최 호 | 68. 12. 8 |
| 동국무역(주) | 메리야스제품제조업 | 백 영 기 | 68. 8. 30 |
| 공신양행 | 가발제조업 | 김 용 석 | 68. 8. 14 |
| 동광금속 | 비철금속가공 | 강 병 학 | 68. 9. 27 |
| 대영섬유(주) | 합성섬유제조업 | 김 노 성 | 68. 8. 30 |

자료 : 한국수출산업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 30년사」, 1994.

이와같이 부평공단 입주업체들의 수출확대를 위한 상품의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의 노력에 힘입어 인천의 수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65년에 9백만 달라에 불과했던 수출이 1968년에는 2천2백44만 달라로 급속한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1969년에는 전년대비 40.2%가 증가된 3천1백46만5천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1969년에는 전년대비 40.2%가 증가된 3천1백46만5천 달라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대단히 높은 수출 신장세를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1970년에 들어와서도 부평공단의 수출이 2천3백17만달라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5천4백47만8천달라를 수출해 경기도 전체수출에 절반 이상이나 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1974년 이후부터는 수출산업공단 제5단지와 6단지가 완공되어 부평공단(수출산업공단 제4단지)과 함께 인천의 수출활동을 주도함으로써, 당시 석유파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선진국의 보호장벽 속에서도 1975년에 5억9천9백만 달라를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1.8%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기계, 비철금속 등 대규모 공장들과 관련 중소기업체들의 진출이 확대되게 됨에 따라 부평지역은 경공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구조를 갖춘 수도권 핵심공업지대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것이 후일 인천지역의 중화학 공업제품 수출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2차오일 쇽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현상과 보호주의의 강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국내물가의 상승 등 대·내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6·25동란 이후 처음으로 감속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인천지역도 수출신장세가 크게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부평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출증가율의 둔화속에 날이 갈수록 높아만가는 수입국의 보호무역장벽과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출채산성의 악화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출을 포기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도 발생하였다.

〈표 4〉 1980년대 인천의 수출실적 (단위:백만$)

| 구 분 | 전국(A) | 인천(B) | 구성비 | 구 분 | 전국(A) | 인천(B) | 구성비 |
|---|---|---|---|---|---|---|---|
| 1980 | 17,505 | 1,392 | 8.0 | 1986 | 34,715 | 2,453 | 7.1 |
| 1981 | 21,254 | 1,635 | 7.7 | 1987 | 47,281 | 3,130 | 6.6 |
| 1982 | 21,853 | 1,477 | 6.8 | 1988 | 60,696 | 3,981 | 6.5 |
| 1983 | 24,445 | 1,629 | 6.7 | 1989 | 62,337 | 4,053 | 6.1 |
| 1984 | 29,245 | 2,119 | 7.2 | 1990 | 65,016 | 3,977 | 6.1 |
| 1985 | 30,283 | 2,009 | 6.6 | | | |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 경제통계연보」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꾸준한 수출지원정책과 시당국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였던 수출은 1983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1984년에는 전년대비 30%를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수출패턴도 종래의 경공업 위주의 패턴에서 점차 중화학 공업분야로 전환되게 되었다.

더욱이 1986년부터는 선진국 경제성장율의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대와 일본 엔화의 강세현상, 그리고 저유가, 저금리, 저물가로 이어지는 3저현상의 호기까지 겹쳐 그동안 실추되었던 국내상품의 수출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됨으로써 인천지역의 수출은 1988년까지 연 평균 25.7%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부평지역도 1986년에 4억5천5백만달라의 수출실적을 보였던 공단이 1987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31.4%가 증가한 5억9천7백8십만달라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고, 1988년에는 다시 6억9천9백만달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부평공단을 비롯해 관내기업체들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1988년 인천지역 전체 수출의 56.1%에 해당하는 22억3천5백만달라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표 5〉 부평·주안공단 수출실적 현황 (단위:천$)

| 구 분 |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단 | 4 | 455,030 | 597,868 | 699,427 | 685,961 | 614,438 | 599,965 | 580,631 | 525,195 |
| 지 | 5 | 614,995 | 684,535 | 655,071 | 576,369 | 473,622 | 670,966 | 671,981 | 692,582 |
| 별 | 6 | 45,497 | 76,542 | 119,171 | 111,043 | 96,801 | 102,963 | 104,028 | 110,215 |
| 합 계 | | 1,115,522 | 1,358,945 | 1,473,669 | 1,373,373 | 1,184,861 | 1,373,894 | 1,356,640 | 1,327,992 |

주: 부평(4단지), 주안(5, 6단지)
자료 : 한국산업수출공단.

이와같이 대외 무역환경의 호전과 3저현상으로 인해 부평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몇년간 호황을 누려 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수출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 결과 1989년부터 불어닥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의 감축현상과 수입제한조치의 강화 등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와 국내에 야기된, 이른 바 겨품경제라고 불리우는 고인플레현상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출은 또 다시 둔화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노사분규 및 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기

술개발노력의 미흡으로 인한 품질저하 현상마저 겹쳐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대부분 상실됨으로써 인천지역의 수출은 1990년에 들어와 1.9%의 감소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후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이 크게 진정되고 북방무역의 확대 등 해외시장 다변화 노력을 통하여 인천의 수출이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1991년에는 전년대비 10.2% 증가에 그쳤으며, 1992년에는 5.6%로 증가율이 점차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평지역도 이에 영향을 받아 1990년에 1천7백8십2만달라를 수출해 전년대비 4.8%의 감소율을 기록하였고, 1991년에는 20억5천7백만 달라를 수출해 수출증가율이 15.4%로 높아졌으나, 1992년에 다시 전년대비 6.5%가 감소된 19억2천3백만달라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1988년 22억35백만달라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이래 수출증가율이 줄곧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부평지역 수출현황

(단위:천$)

| 연 도 | 목 표 | 실 적 |
|---|---|---|
| 1988 | 2,477,906 | 2,235,078 |
| 1989 | 2,672,835 | 1,872,830 |
| 1990 | 1,705,666 | 1,782,707 |
| 1991 | — | 2,057,933 |
| 1992 | 2,267,833 | 1,922,025 |

자료 : 인천직할시북구청, 북구통계연보

또한 수출상품구조면에서 볼때 원가상승의 압력과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기계, 전자부문을 비롯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점차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부평지역의 수출 주력상품은 가발, 섬유를 비롯해 봉제완구 등 경공업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 7〉 부평지역 업종별 수출현황 (단위:천$)

| 구 분 | 1988 | | 1989 | | 1990 | | 1991 | | 1992 | |
|---|---|---|---|---|---|---|---|---|---|---|
| 합 계 | 2,235,078 | (100) | 1,872,830 | (100) | 1,782,707 | (100) | 2,057,933 | (100) | 1,922,025 | (100) |
| 기 계 | 866,940 | | 792,408 | | 1,074,195 | | 1,097,686 | | 626,531 | |
| 화 학 | 124,129 | | 104,769 | | 72,526 | | 204,659 | | 425,308 | |
| 섬 유 | 266,741 | | 277,756 | | 183,192 | | 321,557 | | 138,423 | |
| 농산물 | — | | — | | 688 | | — | | 753 | |
| 기 타 | 977,268 | | 697,897 | | 435,106 | | 524,031 | | 731,010 | |

자료 : 인천직할시, 「인천통계연보」, 1993년에서 작성

그러나 선진국들의 수입제한 강화와 원가상승에 따른 수출 채산성의 악화로 인해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기계, 비철금속 등 대규모 공장들과 관련 중소기업체들의 진출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부평지역은 경공업 이외의 다양한 구조로 산업을 전환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1980년 이후부터는 기계, 전자류를 비롯한 중화학제품의 수출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해 1988년에는 중화학제품 수출비율이 전체수출의 44.3%로 높아졌고, 1990년에는 전체수출의 65%이상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1991년에 들어서부터는 62.%로 그리고 1992년에는 54.7%로 중화학제품 수출비율이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부평지역의 수출활동 여부가 인천지역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이다.

〈표 8〉 수출실적 구성현황 (단위:천$, %)

| 연 도 | 합 계 | 지역별 구성비(%) | | | | | |
|---|---|---|---|---|---|---|---|
| | | 중 구 | 동 구 | 남 구 | 남동구 | 북 구 | 서 구 |
| 1988 | 3,980,987 | 2.2 | 7.5 | 14.7 | 1.7 | 56.1 | 17.6 |
| 1989 | 4,052,904 | 5.6 | 8.3 | 16.1 | 1.9 | 51.7 | 16.2 |
| 1990 | 3,977,252 | 6.2 | 6.4 | 18.2 | 4.9 | 42.1 | 22.0 |
| 1991 | 4,385,403 | 5.5 | 5.9 | 16.7 | 4.2 | 46.9 | 20.7 |
| 1992 | 4,632,495 | 11.0 | 8.2 | 15.8 | 3.1 | 41.4 | 20.3 |

자료 : 「인천직할시 인천 통계연보」 1993에서 작성

〈표 9〉 인천 지역 갑류무역업체 현황 ('94년 6월 현재)

| 년 도 | 인천지역 합 계 | 지역별 무역업체수 | | | | | |
|---|---|---|---|---|---|---|---|
| | | 북 구 | 중 구 | 동 구 | 남 구 | 남동구 | 서 구 |
| 1994 | 1,109 | 307 | 102 | 20 | 185 | 268 | 227 |
| | (100) | (27.7) | (9.2) | (1.4) | (16.7) | (24.2) | (20.5) |

* ( )는 구성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인천 무역업체 총람」, 1994.

수출공단이 조성된 첫해인 1968년에는 인천수출에 대하여 부평지역이 점하는 비중은 불과 3.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단수출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1970년에 이미 수출비중이 42.5%를 넘어섰고 1988년에는 다시 56.1%로 급격히 높아졌다. 그리고 1990년에는 42.1%, 1991년에는 46.9%로 1992년에는 41.4%로 수출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6공단 및 부평이외 여타지역의 수출증대로 인해 예전보다는 다소 기여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지난 20여년간 인천수출의 절반 이상을 부평지역에서 이루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 第6章 교통(交通)

## 1. 교통의 변천

### 1) 도로교통의 발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발달과정을 본다면 최초에 중국제도를 모방하여 신라 소지왕(炤知王) 9년(487)에 역로(驛路)라는 행정제도가 있었다. 역이란 공문서의 전달, 관리의 왕래와 숙박, 관물의 운송을 돕기 위한 교통운수와 통신 기구를 겸하였는데, 고려 건국초에는 전국의 도로를 대·중·소로 등분하여 47개의 역을 두어 병부(兵部)에 부속시켰으며, 역전(驛田)으로 경비를 충당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전국에 538개소의 역을 설치하고 이를 40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찰방(察訪)을 1명씩 두었는데 찰방의 주재(主宰)역을 찰방역이라 하였다. 이렇듯 근대에 이르기까지 도로망은 운수·통신의 유일한 수단방법으로서 지속되어 왔다.

도로 각지의 요소에는 원(院)이라는 숙박소를 설치하고 고려·조선 때에는 공용으로 출장하는 관리들이나 특수 민간인에게도 숙식의 편의를 주어 왔다. 그 유지비로는 고려 공민왕 때에 원위전(院位田)을 주었으나, 조선시대 세조 27년(1445)에 들어와서 부터는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원주(院主)를 뽑아서 관리케 하였다. 숙종조때 역의 제도를 정비할 때 역과 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져서 역(驛)과 원(院)을 같은 지점에 설치하면서부터 역원(驛院)이라 병칭(並稱)되기 시작하였다. 원은 한때 크게 발전하였으나 그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기에는 점차 쇠퇴해졌다. 조선의 세조 3년(1457)부터 인천에는 찰방역이 설치되었으며 찰방으로 하여금 이를 주재케하고 관내의 부속역을 통괄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서 역시 인천이 수륙양로를 연접하는 중요 지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항 직전, 구한말 인천의 교통노선에는 인천읍에서 소사·오류동·양화진을 거쳐 마포·용산·한성에 이르는 경인도로와 인천읍에서 구월동·만수동·뱀내장터·안산을 거쳐 수원에 이르는 수인도로, 인천읍에서 석바위·부평 원통이 고개·부평읍내·어란이 장터(부천군 계양면)를 거쳐 김포읍에 이르는 김포도로, 그리고 인천읍에서 별리현·청학동·옥련동을 거쳐 능허대에 이르는 도로가 있었다.[1]

인천은 항구도시로서 쇄국정책이 그 효력을 잃게 되자 주로 외국인들에 의해 해상교통은

1) 인천시, 『仁川市史』, 1973, pp. 76~77.

발달하게 되었으나 육상교통은 비교적 경시되었다. 서울의 관문으로서 중요도로인 인천-서울간의 도로는 좁은 도로로 옛부터 개발은 되었으나 국가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관원과 예산이 따로 없어 제때 보수를 하지 않아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경인간 교통은 한강을 소급하는 강운(江運)이외에는 모두 육상도로에 의존하였다. 여객이라면 보행 이외에 승마 또는 가마를 타는 것이 보통이었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오는 각국의 외교사절이나 무역상인들은 인천을 통하여 한양으로 갔는데 경인도로의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았으므로 모두들 도로개수를 건의하고 나섰다. 그래서 지방관(부윤 군수)이 상부의 명령을 받아 도로변 주민들을 동원하여 도로를 수리하였으나 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1886년 8월에는 경기감영(京畿監營)의 강태흥(姜泰興)을 파견하여 도로를 긴급 보수하게 하였다.

1887년 9월 23일에는 국고 1만원을 투자하여 수리하였으나 완전한 도로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경인철도가 개통되기 전의 일로써 일본인 제등차랑(齊藤次郎)은 일본에서 철제 마차 두대를 구입하여 경인간을 1일 2회 왕복 운행하였다. 그러나 길이 워낙 나쁘고 고용자와 마부 등을 일본인으로 두어야 하므로 급료·잡비 등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비하여 이용자가 적었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 폐업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한국에 주재하던 청나라 장군인 원세개(袁世凱)는 교통수단의 개선을 위하여 한국정부에 권유하여 차관으로 만주지방에서 마차를 사들여 육상운수 개선을 이룩하였다. 승완차(乘完車) 40량, 하마차(荷馬車) 60량을 구입하여 서울-인천간, 서울-의주간 객차 및 화물차를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하였다.

이 마차는 목제 3량차로 객차는 말 3필이 끌었고, 하차(荷車)는 말 9필이 끌고 다녔다. 객차에는 승객 두명과 수행원 1명을 태우고 경인간을 달렸다.

마차에 이용한 말은 중국산 노새였는데 한 필에 약 30량씩 주고 만주에서 사들였다. 이 마차는 요철이 심한 도로에는 아주 적당한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개통되기 전의 경인간의 명물로 큰 인기를 모았다.[2]

개항기까지의 경인간의 도로는 매우 부실했는데 이것은 대대로 상업을 억제하는 시책을 써왔기 때문에 물자의 지역적 유통이 활발치 못했고 사람의 통행이 원거리라 하더라도 보행에만 의존했으므로 도로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갑신정변(甲申政變) 이후 도로의 수리가 요망되었다. 그래서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기 위한 침략로로 개수한 결과였다.

---

2) 李蕉益, 『仁川地誌』, 1987, pp. 287~288.

자전거는 1895년 윤치호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 처음으로 가지고 왔다고 전해지며, 그 후 10년간에 상당수가 도입되었다. 인력거는 1894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들여왔는데 일본인 화산장장(花山帳場)이 10대를 들여와 경성에 점포를 차리고 경인간 및 시내에서 영업을 했다고 한다. 그 후 인력거는 상류층에 널리 사용되었고 그 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03년이다. 당시 주한외국공사관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승용차 1대가 구입되어 고종이 이용함으로써 첫선을 보였다. 그 뒤 융희 2년(1908)에는 왕실용으로 영국제 차와 불란서제 차가 각각 1대씩 도입되어 고종과 순종이 전용하였고, 그 후 또 다시 1대를 수입하여 왕실의 고관들이 이용하였다고 전해진다. 한일합방 다음 해인 1911년에 일제는 황실용과 일본인 총독용으로 영국제 리무진 2대를 들여왔다.

1911년말 당시 육상 운송수단은 자동차 2대, 인력거 1,217대, 하차(손수레) 1,804대, 하우차(荷牛車) 38,337대, 하마차 585대, 그리고 객마차가 110대에 이르렀는데, 이 숫자는 한반도 전역의 것으로 인천 또는 부평 자체만의 숫자는 알 수 없다. 다만 자동차는 왕실에만 있었으며, 객마차의 50% 이상이 경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문호개방 이래 국내 운수업계의 변화발전에 따라 민간운수회사들이 발전해 나갈 여건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 침투해 오고 있던 일본인 운수회사들과의 심한 경쟁 아래서 열세한 자본력과 일본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조선인이 경영하는 운수회사는 크게 발전되지 못했다. 한국에 진출한 가장 큰 운수회사는 일본선박주식회사로 이미 1885년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1890년에는 대판(大阪)상선주식회사가 진출하였다. 이들 두 회사는 곧 인천에 지점을 두고 인천에서 수출되는 상품과 수입되는 상품의 수송을 거의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연안 운송과 하역도 도맡았다.

특히 일본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내국통운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일본계 운송회사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운수업자들은 점차 이들에게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 철도 소화물운송은 경인철도 개통 당시에는 철도회사 직영으로 담당했으나, 1900년대 이래 화물운송량이 크게 늘어나자 철도 운송점 승인제도가 생겨 일본 내국통운주식회사를 비롯한 37개 일본인 통운회사가 이를 전담하게 되었다.

합병 다음 해인 1911년부터 일제는 7개년 계속 사업으로 제1기 치도(治道)사업을 시행하여 전국의 1·2등 도로 34개선의 개수와 교량을 가설하였다. 이때 총연장 2,690㎞의 도로가 개수되었고, 한강교를 비롯한 몇개 큰 교량이 건설되었다. 특히 한강교는 1916년 3월에 착공하여 19개월만에 완공되었는데, 이로서 경성에서 인천으로 통하는 교통에 큰 편의가 제공되며, 이 교량의 건설로 종래 이 지점을 왕래하던 도선(渡船)이 자취를 감추기에 이른다.

이같이 도로가 정비되자 자동차운송사업이 성행하게 되어 이미 1912년에 일본인들이 2대의 승용차를 들여와 경성에서 임대 영업을 시작했고, 또 지방에도 부정기로 합승차를 운행하여 택시와 버스의 영업이 점차 활기를 띠웠다. 그리고 경인 및 경수간의 도로가 정비되고 자동차 공업이 진보됨에 따라 인천항에도 육상운송업이 크게 발전되었다. 승용자동차 영업은 일본인 별부신치(別府信治)에 의하여 1919년 8월 별부자동차부라는 명칭으로 개업된 것이 그 최초가 되었다.

한편 인천-경성간의 버스는 도로가 좋지 못하여 처음에는 발달되지 않았으나 1929년 5월부터 경인버스주식회사에서 사계절을 통하여 1일 3회 운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요시간이 두시간이나 걸려 기차에 비하면 그 소요시간이 길 뿐 아니라 요금도 비싸서 이용자가 매우 적었다. 또한 화물운송 신속화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화물자동차의 수요증대는 자연적 추세였지만, 인천부내는 구역이 협소하고 우마차 운송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28년 4월에 일본인 직거가일(織居加一)의 인천자동차상회에 의해 경인간의 트럭 운송사업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1930년 6월 인천자동차주식회사에 승계된 후 경성의 화물운송회사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부터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원래 트럭운송업은 철도에 비해 포장이 간단하며 탁송수속이 간편하고 파손 등의 사고가 비교적 적으며 그 배달이 신속하다는 것 등 편리한 점이 많아 경인선과 같은 경제권내에서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경인간 도로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인국도가 개선, 보수되어 화물운송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자 경인국도에는 주야로 트럭운행이 끊임없는 듯 하였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그리고 다시 태평양전쟁으로 가열되자 육운통제가 시작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1935년 조선자동차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화물자동차업이 한 업체로 통합되었다. 인천에는 조선화물차 인천지점이 독점경영을 하게 되었다.

태평양전쟁의 전세가 일제측에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육운통제령에 의해 버스업체도 1도 1회사로, 택시도 대폭 제한·감축되었는데 종전무렵에는 유류통제에 따른 대용연료로의 대체 등으로 운행이 지장을 받게 되어 거의 모든 육운운송업이 정지상태에 놓이게 되었다.[3]

1937년말 현재 인천항에서 영업을 했던 육운업체는 〈표 1〉과 같다.

3) 인천시, 『仁川市史』, 1993, pp. 1285~1289.

〈표 1〉 육 운 업 체 현 황 (1937년 말 현재)

| 업 체 명 | 소 재 지 | 창립년월 | 불입자본금 | 대 표 자 |
|---|---|---|---|---|
| 조 선 운 수 (주) | 사 동 | 1930. 5 | 4,250,000 | 대태건차랑 |
| (주) 경 전 조 | 사 동 | 1933. 11 | 250,000 | 황 목 홍 |
| 조 선 우 선 (주) | 항 동 | 1912. 4 | 6,500,000 | 석 교 아 |
| 삼 신 운 수 (주) | 항 동 | 1927. 4 | 75,000 | 김 종 섭 |
| (주) 조 일 조 | 중 앙 동 | 1931. 4 | 200,000 | 천 수 약 일 |
| (주) 복 도 조 | 사 동 | 1934. 7 | 190,000 | 대 평 우 시 |
| (주) 조 선 해 양 사 | 항 동 | 1936. 9 | 175,000 | 금촌각차랑 |
| 합 자 회 사 선 양 사 | 사 동 | 1934. 1 | 14,000 | 태 전 인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통계년보』

광복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남북한을 통털어 16,000여대였으나, 이중 약 1만대는 군용차량이어서 관용 및 민용은 6,337대에 불과했는데 그 대부분이 폐차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8·15 해방후 한동안 침체기를 지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육상운송업도 통제가 해제 또는 완화되고 군수용차가 일반용으로 활용됨으로써 오랜만에 활발한 기운을 얻었고, 때마침 미군이 진주하자 연료난의 해소, 부속품의 입수 등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운송업은 많은 발전을 보았으며 경제발전에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6·25동란이 발발하면서 자동차운송업은 또 다시 마비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9·28수복후 잔존 차량대수는 너무 극소수여서 교통운송은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후퇴 당시에는 동란전 보유대수의 약 2할 가량이 남하하여 후방운송을 맡았으며, 1951년 3월에 들어서면서 군용으로 징발되었던 차량이 해제되면서 운송업이 회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소개남하한 버스 64대에 대하여 임시면허로서 각 도간 연락노선이 개설되는 한편, 지방간 교통이 트이고 전세가 호전됨에 따라 수복지구인 인천에도 복귀·운행되기에 이르렀다. 트럭사업도 1·4후퇴 당시에는 피난수송에 쓰여졌으나 군용차의 다량수입에 따라 징발이 해제되자 민수수송으로 복귀되었다. 또 트럭은 ECA원조로 900대가 수입되어 전국 정부행정기관 및 주요 민간기업에 배정됨으로서 점차 화물수송은 궤도에 오르기에 이르렀다.

긴급 전재복구가 끝나고 인구의 증가, 수출입물자의 증가에 수반하여 1955년부터 생산공장이 점차 가동되자 각지로 운송되는 화물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정기 및 부정기의 화물자동차운송이 늘어났다. 시내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시내승합·시내택시 등이 이용되면서 여객운송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6·25 당시까지 인천에서 영업을 하였던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표 2〉·〈표 3〉·〈표 4〉참조).

〈표 2〉 트럭수송업체명단 (6·25당시까지)

| 회 사 명 | 대 표 명 | 회 사 명 | 대 표 명 |
|---|---|---|---|
| 한진상사운수부 | 조 중 훈 | 경 인 화 물 | 최 봉 길 |
| 삼 신 화 물 | 홍 천 용 | 한청기업운수부 | 김 영 희 |
| 한중양행운수부 | 심 하 경 | 동 화 공 사 | 홍 금 유 |
| 영진공사운수부 | 김 경 창 | 성 운 사 | 유 능 호 |
| 인 천 화 물 | 문 희 중 | 인 천 상 사 | 유 재 봉 |
| 극 동 운 수 사 | 조 계 영 | 신 한 운 수 | 조 재 하 |
| 조선운반인천지사 | 이 중 인 | | |

〈표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명단 (버스)

| | |
|---|---|
| 대 한 여 객 운 수 주 식 회 사 | 김 희 복 |
| 인 항 여 객 자 동 차 주 식 회 사 | 윤 복 만 |
| 소 신 자 동 차 부 | 한 홍 옥 |

〈표 4〉 택 시 업 체 명 단

| 회 사 명 | 대 표 | 회 사 명 | 대 표 |
|---|---|---|---|
| 항 구 택 시 | 김 태 욱 | 인천자동차교통(주) | 김 경 창 |
| 신 흥 자 동 차 부 | 지 은 영 | 상 인 천 택 시 | 김 영 복 |
| 동 명 택 시 | 이 익 성 | 합 동 택 시 | 문 희 중 |
| 부 평 택 시 | 구 명 서 | | |

자료 : 『仁川市史』, 1973.

인구증가 및 수출입물자의 증가에 수반하여 1961년도부터는 인천시내 대·소기업체 약 400개소에 달하는 생산공장의 가동이 점차 생산능률을 상승케 하였으므로 경향각지로 운송되는 생산품의 수송량이 매년 증가하였다.

이에 인천 도시개발 5개년 계획서(1966년 5월 발행)에 기재된 인천시내 자동차운송기관의 운행상황을 보면, 시내 일원의 교통수단으로는 시내버스·합승·택시에 의존하고 있는 바 1일평균 버스가 연 357회 운행으로 828,800명, 합승은 연 921회로 484,600명, 택시는 연 7,358회로 441,480명을 각각 수송하였다.

시외교통수단으로는 인천~서울간에 1일 평균 연 199대, 근교지방 연 79대, 서울~백마장(산곡동)간 연 21대 등 도합 연 296대로 680,000명을 수송하였다. 그 외에 인천-서울간에 연 35회의 택시합승이 운행되고 있었다. 화물자동차 운송은 정기가 1일 평균 약 39회, 부정기가 연 1,115회 운행하여 월간 약 13만톤의 화물이 수송되었다(〈표 5〉 참조).

〈표 5〉 인 천 자 동 차 운 행 실 적

| 구분 / 종별 | 평 균 1 일 연운행회수 | 월 간 평 균 연이용자수 | 월 간 평 균 연 운 송 량 | 매월평균 연영업87천 | 비 고 |
|---|---|---|---|---|---|
| 시 내 버 스 | 357회 | 828,800명 | -톤 | 365,310km | 47.2% |
| 시 내 합 승 | 921회 | 484,600명 | - | 333,050km | 27.6% |
| 시 내 택 시 | 7,358회 | 441,480명 | - | 875,700km | 25.2% |
| 시 외 버 스 | 296회 | 680,000명 | - | 854,090km | 98.6% |
| 시외합승택시 | 35회 | 9,450명 | - | 28,350km | 1.4% |
| 정 기 화 물 | 39회 | -명 | 2,775톤 | 60,582km | 2.1% |
| 부 정 기 화 물 | 1,115회 | -명 | 128,289톤 | 592,833km | 97.9% |
| 장 의 차 | 3회 | -명 | 78구 | 1,350km | |
| 계 | 10,124회 | 2,444,330명 | 131,064톤 78구 | 3,111,265km | |

자료 : 인천도시개발5개년계획서(1966년 5월 발행)

또한 1960년대의 인천지역 자동차 운임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자 동 차 운 임 변 동 표

| 구분 / 년도 | 여객버스 | | 특급좌석버스 | | 합 승 | | 택 시 | | 트 럭 | |
|---|---|---|---|---|---|---|---|---|---|---|
| | 시 내 | 시 외 | 시 내 | 시 외 | 시 내 | 시 외 | 시 내 | 시 외 | 차 급 | 구 간 |
| 1964 | 1인1구 3원 | 1인1천 9전 | - | - | 1인1구 5원 | | 기본요금(2천 이내) 30원 | 좌 동 | 1천1둔당 70원 | 1구당(1 둔) 40원 |
| 1965 | 〃 5원 | 〃 9전 | - | - | 상 동 | | 상 동 | 상 동 | 1천1둔당 90원 | 〃 70원 |
| 1966 | 〃 7원 | 〃 1원33전 | - | 경일인간 40원 | 〃 10원 | | (〃) 50원 | 상 동 | 〃 120원 | 〃 90원 |
| 1967 | 상 동 | 상 동 | 인천일산 곡동20원 | 〃 60원 | 상 동 | | (〃) 60원 | 상 동 | 〃 150원 | 〃 120원 |

비고 : 합승 1구 초과마다 5원 가산, 택시 500m초과마다 10원 가산
자료 : 대한운반, 인천택시, 항도교통, 소신화물 제공

한편 1967년말 현재 부평지역내의 합승택시·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운행노선을 살펴보면, 당시 부평지역에는 2개 노선에 총 28대의 합승택시가 인가를 받고 운행중이었다. 동인천을 출발하여 서곶을 경유 백석까지 가는 노선은 인천시내에서 가장 긴 노선으로 17.4㎞의 거리를 왕복 100분에 운행하였다. 또한 동인천 출발 부평경유 백마장까지 운행하는 노선 역시 당시 인천시내에서 운행대수가 가장 많았던 노선으로 17㎞에 왕복 80분이 걸렸지만 24대의 합승택시가 투입되었다. 회사별로는 항도와 홍진이 13대씩 인가를 받고 있으며, 천의(天儀)는 2대의 운행을 인가받고 있었다(〈표 7〉 참조).

〈표 7〉 합승 택시 운행노선 일람 (1967. 12. 31 현재)

| 기점 | 경유 | 종점 | 거리 | 구간 | 왕복시간 | 회사별인가대수 | | | 계 |
|---|---|---|---|---|---|---|---|---|---|
| | | | | | | 홍진 | 항도 | 천의 | |
| 동인천 | 부평 | 백마장 | 17 | 2 | 80 | 11 | 13 | — | 24 |
| 〃 | 서곶 | 백석 | 17.4 | 4 | 100 | 2 | — | 2 | 4 |
| 계 | 2개노선 | | | | | 13 | 13 | 2 | 28 |

자료 : 시 총무과, 「인천시사」, p. 134.

시내버스노선은 총 4개로서 33대의 버스가 인가를 받고 운행하였다. 송림4동 출발 효성동 도착 노선은 당시 인천시내에서 가장 많은 버스가 투입된 노선으로 인천시내버스의 총운행대수(41대)의 1/4이 넘는 11대가 투입되었다. 회사별로는 소신버스가 인천시내 운행버스 전체의 75.6%에 달하는 31대의 운행을 인가받았으며, 인성은 2대를 인가받았다(〈표 8〉 참조).

〈표 8〉 시내버스 운행노선 일람 (1967. 12. 31 현재)

| 기점 | 경유 | 종점 | 거리 | 구간 | 회사별인가대수 | | |
|---|---|---|---|---|---|---|---|
| | | | | | 인성 | 소신 | 계 |
| 동인천 | 서곶 | 금곡사거리 | 20.5 | 4 | 2 | 3 | 5 |
| 송림4동 | 부평 | 박촌 | 22.6 | 4 | — | 7 | 7 |
| 〃 | 〃 | 효성동 | 20.9 | 3 | — | 11 | 11 |
| 동인천 | 〃 | 산곡동 | 17 | 3 | — | 10 | 10 |
| 계 | 4개소 | | | | 2 | 31 | 33 |

자료 : 시 총무과

시외버스는 총 17개노선에 171대가 인가받아 운행중이었다. 이중 64.3%에 달하는 110대가 서울-인천의 황금노선에 투입되었으며, 가장 긴 노선은 인천출발 부평·김포·온수리를 경유하여 초지리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총 78.8km에 달한다.

참여회사는 9개사로 이중 강남여객이 49대로 가장 많은 인가를 받았으며 다음에는 인성이 28대, 한진과 삼화가 각각 25대씩 인가·운행중이었으며, 인천 굴지의 시내버스업체인 소신은 시외버스에도 14대나 인가를 받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시외버스 운행노선 일람 (1967년 12월말 현재)

| 기점 | 경유 | 종점 | 거리 | 회사별 인가대수 | | | | | | | | | |
|---|---|---|---|---|---|---|---|---|---|---|---|---|---|
| | | | | 소신 | 강남 | 인성 | 한진 | 동광 | 삼화 | 대한 | 인항 | 제일 | 계 |
| 인천 | 부평 | 서울 | 39.8km | 4 | 49 | — | 25 | — | 25 | 5 | — | 2 | 110 |
| 〃 | 〃 | 수원 | | 3 | — | — | — | 10 | — | — | — | — | 13 |
| 〃 | 〃 | 안양 | | 4 | — | — | — | — | — | — | — | — | 4 |
| 〃 | 〃 | 비행장 | | 3 | — | — | — | — | — | — | — | — | 3 |
| 〃 | 부평·김포·온수리·관청 | 초지리 | 78.8 | — | — | 2 | — | — | — | — | 1 | — | 3 |
| 〃 | 부평·김포·관청 | 외포리 | 81.8 | — | — | 2 | — | — | — | — | 1 | — | 3 |
| 〃 | 〃 | 창후리 | 75.8 | — | — | 1 | — | — | — | — | 1 | — | 2 |
| 〃 | 부평·김포·마곡 | 군하리 | 56.5 | — | — | 1 | — | — | — | — | — | — | 1 |
| 〃 | 부평·김포·마송 | 강화 | 59.8 | — | — | 1 | — | — | — | — | 1 | — | 2 |
| 〃 | 부평·김포·양곡 | 대명 | 52.0 | — | — | 1 | — | — | — | — | — | — | 1 |
| 〃 | 仁川橋·부평 | 대명 | 36.7 | — | — | 3 | — | — | — | — | — | — | 3 |
| 〃 | 인천교·양곡·마송 | 강화 | 48.3 | — | — | 2 | — | — | — | — | — | — | 2 |
| 서울 | 소사·부평 | 산곡동 | 31.3 | — | — | 5 | — | — | — | — | — | — | 5 |
| 〃 | 김포·비행장·양곡 | 대명 | 64.5 | — | — | 5 | — | — | — | — | — | — | 5 |
| 〃 | 소사·부평·산곡동 | 백석 | 44.6 | — | — | 5 | — | — | — | — | — | — | 5 |
| 〃 | 오류동 | 범박 | 23.0 | — | — | — | — | — | — | 5 | — | — | 5 |
| 〃 | 소사·부평 | 산곡동 | 37.1 | — | — | — | — | — | — | 4 | — | — | 4 |
| | 계 | | | 14 | 49 | 28 | 25 | 10 | 25 | 14 | 4 | 2 | 171 |

자료 : 「인천시사」, 1993, p. 1293.

한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던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국의 교통수요는 격증일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운송차량 또한 점차 고도화, 대형화로 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로의 근대화 작업을 서둘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 39억원을 투입하여 전국도로의 개발정비에 힘써 왔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은 전근대적인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렇게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도로의 혁명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제2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1차 5개년 계획중 총투자액의 약 8배에 달하는 302억원을 도로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정비촉진법까지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도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1967년 3월 24일에 착공된 경인고속도로에는 총 33억8,000만원의 공사비, 중장비 8만여대, 연인원 87만여 명이 투입되었다.

경인고속도로는 총연장 28.92㎞, 폭 20.4m의 4차선이 거의 직선으로 뻗었는데 시속 최대 80㎞~120㎞로 달리면 종전의 1시간을 단 18분으로 줄일 수 있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의 제1차 개통이라 함은 영등포로부터 가좌동 톨게이트까지의 준공을 말하며, 1969년 7월 20일에 이루어진 제2차 개통은 가좌동-신흥동(제2도크 입구) 종점까지의 개통을 말한다. 시공면에서는 서울 신월동 부근의 토지반(土地盤)처리, 부천 오정동 이탄층(泥炭層)처리, 인천지역의 연약한 지반처리 등 난공사처리 뿐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을 한강에 의존하고 공급하는 장거리 운송의 난관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는 전부 국내생산품을 사용하였으며, 교량공사에 필요한 P.C.D.E.A를 단시일내에 현장에서 제작 설치하는 등 많은 악조건과 공사기간의 제한을 극복하여 준공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룩된 경인고속도로는 연변토지의 이용도를 한층 높였을 뿐 아니라 서울-인천 양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근대화의 촉진, 지역격차의 완화, 지역개발의 촉진 및 수도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위성도시건설 등 우리나라 도로개발사에 새로운 전기를 기록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대 산업국가에서 도로의 혁명없이 산업의 혁명도 없고 도로의 근대화 없이 산업의 근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지론으로 볼 때 국내 최초의 경인간 고속도로야 말로 산업근대화의 상징임이 틀림없다.

경인고속도로 부평인터체인지를 이용한 차량수를 보면 1970년에 438,520대로 이는 1일 평균 1,201여대의 달하는 숫자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수는 그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에는 1,744,307대로 늘어나게 되어 1일 평균 4,779여대가 부평인터체인지를 이용한 셈이다.

경인고속도로 부평인터체인지의 이용차량중 1종 승용차의 숫자는 1970년 330,970대로 75%, 3종 및 4종 화물차의 수는 97,634대로 2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간 화물차의 이용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1980년에는 화물차의 수는 878,388대로 50%를 차지하게 되었다(〈표 10〉 참조).

〈표 10〉 경인고속도로 부평인터체인지 이용현황 (수량:대)

| 연 도 별 | 총 수 | 1 종 (승용차) | 2 종 (버 스) | 3 종 (10톤미만화물) | 4 종 (10톤이상화물) |
|---|---|---|---|---|---|
| 1970 | 438,520 | 330,970 | 9,916 | 87,564 | 10,070 |
| 1971 | 558,060 | 413,194 | 12,508 | 118,707 | 13,651 |
| 1972 | 463,934 | 308,621 | 10,255 | 130,097 | 14,961 |
| 1973 | 591,577 | 350,687 | 16,873 | 205,751 | 18,266 |
| 1974 | 593,324 | 283,292 | 43,910 | 242,729 | 23,393 |
| 1975 | 650,294 | 287,477 | 50,796 | 289,481 | 22,540 |
| 1976 | 860,385 | 356,362 | 57,458 | 408,017 | 38,548 |
| 1977 | 1,264,245 | 517,320 | 83,867 | 611,082 | 51,976 |
| 1978 | 1,785,987 | 707,058 | 72,787 | 901,494 | 104,648 |
| 1979 | 1,911,945 | 847,238 | 78,056 | 889,917 | 96,734 |
| 1980 | 1,744,307 | 780,563 | 85,356 | 813,446 | 64,942 |

자료 : 한국도로공사

한편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노선취득을 위한 분쟁을 근절하고 운행질서 및 친절봉사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1983년 2월 1일부터 인천 시내버스의 공동배차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4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시민자율버스를 운행함과 아울러 1984년 8월 18일부터는 요금선수제 실시와 1990년 12월 1일부터 좌석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해소와 자율정신을 고취하여 질서생활화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북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9년에 28,545대에서 1991년말 현재 총 62,128대로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차량종류별로는 관용차량이 124대, 자가용차량이 61,535대, 영업용차량이 2,461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자가용차 등록율은 1990년도 대비 55%가 증가하여 다른 차종에 비해 유난히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표 11〉 북구의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대)

| 차종 \ 년도별 | '89년도 | '90년도 | '91년도 | (90~91) 증가율(%) |
|---|---|---|---|---|
| 계 | 28,545 | 41,959 | 62,128 | 53 |
| 관 용 | 78 | 118 | 124 | 5 |
| 자 가 용 | 26,338 | 39,607 | 61,535 | 55 |
| 영 업 용 | 2,129 | 2,234 | 2,461 | 10 |

* 이륜차 : 13,850대

자료 : 북구청, 「구정백서」

그리고 서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9년에 13,423대에서 1991년말 현재 총 24,708대로서 1.8배가량 증가되었고, 차량종류별로는 영업용차량이 2,256대, 자가용차량이 22,452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승용차 등록율은 1990년도 대비 52%가 증가하여 다른 차종에 비해 매우 높은 등록율을 보이고 있다(〈표 12〉 참조).

〈표 12〉 서구의 자동차등록 현황 (단위:대)

| 차종 \ 년도별 | | 1989 | 1990 | 1991 | 증 가 율 (%) |
|---|---|---|---|---|---|
| 총 | 계 | 13,423 | 17,866 | 24,708 | 40 |
| | 영 업 용 | 1,573 | 2,027 | 2,256 | 11 |
| 계 | 자 가 용 | 11,850 | 15,839 | 22,452 | 42 |
| 승 | 계 | 6,840 | 9,859 | 14,951 | 52 |
| | 영 업 용 | 804 | 997 | 1,090 | 9 |
| 용 | 자 가 용 | 6,036 | 8,862 | 13,861 | 56 |
| 비 | 계 | 2,410 | 2,875 | 3,115 | 8 |
| | 영 업 용 | 483 | 512 | 543 | 6 |
| 스 | 자 가 용 | 1,927 | 2,363 | 2,572 | 9 |
| 화 | 계 | 4,173 | 5,132 | 6,642 | 29 |
| | 영 업 용 | 286 | 518 | 623 | 20 |
| 물 | 자 가 용 | 3,887 | 4,614 | 6,019 | 30 |

* 이륜차 3,267대(125cc이상 1,057대, 50cc 이상 2,210대)

자료 : 서구청, 「구정백서」

한편, 1992년 6월 24일부터 한정면허 마을버스가 운행하게 되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94년 1월 현재 부평지역에는 27개(북구 24개, 서구 3개) 업체에 158대(북구 142대, 서구 16대)의 마을버스가 27개(북구 24개, 서구 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마을버스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는 20대의 마을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강인여객(대표 최종태)이다(〈표 13〉 참조).

〈표 13〉 부평의 마을버스 업체

|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차 대 수 |
|---|---|---|---|---|
| 갈 산 주 공 (주) | 부평동 252-35 | 515-5130 | 최 영 환 | 4대 |
| (합) 계 양 산 운 수 | 계산동 903-18 | 548-5353 | 이 상 철 | 5대 |
| 뉴 서 울 교 통 (주) | 부개동 483-3 | 511-0891, 526-7013 | 조 영 숙 | 4대 |
| 동 영 운 수 (주) | 부개3동 477-1 | 515-3317, 515-8750 | 이 완 우 | 4대 |
| 미 도 운 수 (주) | 청천동 236-22 | 515-7308, 502-5553 | 이 근 배 | 3대 |
| 부 일 교 통 (주) | 부개동 492-15 | 515-4856 | 김 영 권 | 3대 |
| (합) 백 마 운 수 | 산곡동 87-364 | 515-3982, 518-7391 | 김 혁 진 | 4대 |
| 삼 산 운 수 (주) | 삼산동 80-13 | 516-7422 | 박 경 연 | 9대 |
| 산 곡 운 수 (주) | 산곡동 369-19 | 522-5243, 522-5245 | 김 상 식 | 4대 |
| 삼 곡 운 수 (주) | 산곡동 255-1 | 515-2004, 526-7660 | 우 춘 식 | 6대 |
| 오 성 운 수 (주) | 부개동 21-9 | 515-9854, 512-3143 | 이 명 진 | 6대 |
| 우 성 운 수 (주) | 부평동 62-33 | 522-7725, 511-3602 | 최 상 철 | 3대 |
| 안 암 운 수 (주) | 부평동 758-35 | 517-3895 | 손 정 묵 | 4대 |
| (주) 옛 원 운 수 | 십정동 436-1 | 518-1266, 428-3052 | 김 홍 기 | 4대 |
| 용 마 운 수 (합) | 작전동 635-4 | 545-1462, 547-6436 | 안 계 식 | 6대 |
| (합) 아 주 운 수 | 계산동 903-18 | 548-5353, 518-2281 | 이 상 용 | 4대 |
| 재 동 운 수 (주) | 청천동 236-22 | 515-2822, 522-6508 | 유 재 훈 | 3대 |
| (주) 태 청 운 수 | 작전동 30-1 | 548-5209, 542-4086 | 강 병 원 | 8대 |
| (주) 태 양 마 을 | 부평4동 911-5 | 503-9111~3 | 배 선 해 | 11대 |
| 청 농 교 통 (주) | 청천동 51 | 515-1738, 526-2593 | 조 자 환 | 9대 |
| (주) 청 명 운 수 | 부개동 492-15 | 515-4856, 516-6458 | 송 정 휘 | 4대 |
| (주) 현 화 운 수 | 산곡동 223-1 | 515-4896, 518-2777 | 유재동외 | 7대 |
| 한 정 운 수 (주) | 계산동 66 | 548-0115, 546-9900 | 안 창 희 | 6대 |
| 강 인 여 객 | 십정동 261-2 | 578-1738 | 최 종 태 | 20대 |

자료 : 인천신문사, 「인천연감」, 1994.

1994년 1월 현재 부평에는 8개 시내버스업체가 1,071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회원 중 가장 큰 규모는 제물포버스(대표 송석중)로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의 수는 227대, 예비차 7대이다. 이외의 7개 시내버스업체들은 평균 121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표 14〉 참조).

그리고 부평의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1994년 4월 1일 현재 45개 노선(좌석버스 5개노선 포함)이 있다(〈표 15〉 참조).

〈표 14〉 버스 운송사업조합 회운현황

| 사 업 명 | 대 표 자 | 업 체 주 소 | 전화번호 | 대 수 | 예비차 |
|---|---|---|---|---|---|
| 제물포버스 | 송 석 중 | 가좌동 205-18 | 575-5018 | 227 | 7 |
| 경 향 여 객 | 이 준 영 | 십정동 557-1 | 577-7221 | 153 | 6 |
| 강 인 여 객 | 최 종 태 | 십정동 281-2 | 578-1738 | 142 | 7 |
| 부 성 여 객 | 김 성 회 | 가좌동 289 | 578-1883 | 132 | 6 |
| 동 화 운 수 | 박 동 순 | 효성동 550-2 | 547-1373 | 122 | 6 |
| 영 풍 운 수 | 신 창 규 | 석남동 223-177 | 571-7617 | 116 | 6 |
| 경 인 여 객 | 이 용 준 | 효성동 583 | 92-9328 | 100 | 5 |
| 대 진 운 수 | 송 석 중 | 가좌동 178-31 | 577-1482 | 79 | 2 |

자료 : 인천신문사, 「인천연감」, 1994.

〈표 15〉 시내버스 노선운행 현황

| 노선 번호 | 기 점 | 경 유 지 | 종 점 | 첫차 출발 시간 | 막차 출발 시간 | 운행 간격 (분) | 운행 대수 (대) | 운행 시간 (분) |
|---|---|---|---|---|---|---|---|---|
| 1 | 검 단 | 백석, 검암동, 연희동, 공촌로, 홍진A, 한마음병원, 고속진입로, 4공단입구, 대우자동차, 백마장, 산곡동입구, 백마장입구, 부평역(회차) 〈반환시=역순〉 | 부 평 농 협 | 05:29 05:31 | 23:10 23:05 | 6~7 | 18 | 104 |
| 23 | 월미도 | 인천역,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 사동, 삼익A, 숭의R, 제물포역, 주안4, 석바위, 법원고가교, 십정동, 백운역, 부평R, 시장R, 부흥R, 부개동 | 백 조 (아) | 05:33 05:37 | 22:52 22:56 | 10~11 | 14 | 124 |

| 노선 번호 | 기 점 | 경 유 지 | 종 점 | 첫차 출발 시간 | 막차 출발 시간 | 운행 간격 (분) | 운행 대수 (대) | 운행 시간 (분) |
|---|---|---|---|---|---|---|---|---|
| 2 | 효성동 | 효성A, 청천동, 산곡동입구, 북구청입구, 부평역, 부평3, 간석5, 석바위, 주안4, 도화5, 제물포역, 송림R, 배다리, 동인천, 화평동, 화도고개, 동일방직, 송월동, 하인천 | 월미도 | 05:34<br>05:35 | 22:37<br>22:45 | 3~4 | 48 | 156 |
| 3 | 연수동 | 면허시험장, 남동공단, 소방서, 뉴서울A, 선학신길, 순복음교회, 동양장, 석바위, 법원, 주안역, 시민회관, 인천공고, 용일4거리, 학익3, 인하대, 용현시장, 숭의R, 터미널, 안국A, 중부서, 삼익A, 사동, 동인천, 배다리, 송림R, 대헌공전, 가좌I.C, 주안공단본부, 십정동, 주공2단지 | 십정동 | 05:34<br>05:33 | 22:27<br>22:26 | 5~6 | 36 | 177 |
| 4 | 도림동 | 남촌, 문학, 신동아A, 학익3, 용일4, 제일시장, 제물포역, 숭의4, 숭의R, 터미널입구, 신흥R, 답동, 동인천, 동부A, 송현A, 송림R, 대헌공전, 인천교, 5공단입구, 가좌4, 가정국교, 동인천여중, 주공2단지(반환시:십정4, 주공본부, 고속진입로) | 십정동 | 05:30<br>05:31 | 22:47<br>22:48 | 6~7 | 23 | 137 |
| 5 | 주 공 2단지 | 가정국교, 가좌4, 인천교, 도화5, 제물포역, 송림R, 인천제철, 송현A뒤, 화수4, 동일방직, 송월동, 인천역, 중구청입구, 답동, 신흥R, 터미널입구, 숭의R, 제물포역, 주안역, 시민회관, 쌍용A, 동서우유 | 인하대 후 문 | 05:32<br>05:31 | 22:44<br>22:53 | 4~5 | 33 | 137 |
| 7 | 검 단 | 검암동, 서구청(신길), 가정5, 신현주공, 석남동(신길), 영창악기, 고속도로고가교, 청소년회관, 십정4, 선린감리교회, 동암역, 동암4, 간석5, 희망백화점, 석천국교, 동호탕, 만수주공정문, 건설기술교육원, 삼환A, 만수국교, 남동국교, 남동구청-삼환A | 만 수 3단지 | 05:36<br>05:34 | 22:49<br>22:47 | 10~11 | 14 | 129 |

| 노선 번호 | 기점 | 경유지 | 종점 | 첫차 출발 시간 | 막차 출발 시간 | 운행 간격 (분) | 운행 대수 (대) | 운행 시간 (분) |
|---|---|---|---|---|---|---|---|---|
| 77 | 검단 | 검암동, 연희동, 서구청(구길), 가정5, 신현주공, 석남고가교, 경인여상, 진주A, 가좌4, 가좌주공, 십정동, 십정고개, 동암역, 동암4, 희망백화점, 석천국교, 동호탕, 만수주공정문, 남동구청, 장수동, 만수임대A | 만수3단지 | 05:31<br>05:29 | 22:54<br>22:52 | 10~11 | 14 | 129 |
| 8 | 연수단지 | 의료시설, 태평A, 송도호텔, 송도유원지, 송도역, 송도고교입구, 인하대, 학익3, 용일4, 삼일의원, 신기파출소, 시민회관, 석바위, 시청후문, 남동구청, 간석시장, 간석5, 동암(남) | 동암역 | 05:30<br>05:34 | 22:56<br>23:01 | 7~8 | 19 | |
| 88 | 서운동 | 작전동, 갈산지구, 부흥R, 부평시장, 부평역, 백마장입구, 산곡동입구, 명신여고, 진주A, 가좌4, 십정4, 십정고개, 동암4, 십정4, 회차 | 동암역 | 05:33<br>05:32 | 22:56<br>23:14 | 9~10 | 13 | |
| 10 | 독쟁이 | 독쟁이고개, 남부역, 터미널입구, 사동, 답동, 하인천, 송월동, 동일방직, 화도진고개, 동인천, 배다리, 동부서, 동구청, 동산고교〈반환시: 도원고개, 배다리 역순〉, 박문R, 제물포역, 도화5, 주안역뒤, 광명A, 우성A, 동암역, 십정고개, 부평여상, 현대A, 부평역, 부평시장, 부흥R, 부평고입구, 갈산동단지〈반환시=역순〉 | 코리아스파이서 | 05:34<br>05:34 | 22:41<br>22:41 | 10~11 | 16 | |
| 11 | 연수단지 | 의료시설, 동춘역, 남동2단지, 남동공단1단지 공단본부4거리, 풍림A, 태영A, 인항, 청학동, 송도역, 용현고개, 숭의R, 동인천, 배다리, 제물포역, 도화5, 인천교, 영창악기, 목재단지 | 북항 | 05:39<br>05:30 | 22:32<br>22:39 | 16~17 | 12 | |
| 12 | 연안부두 | 회센타, 객선부두입구, 남항부두, 백주년기념탑, 신흥R, 답동, 동인천, 미림극장, 문화극장, 송림R, 인천교, 동부제강, 영창악기, 석남동, 신현주공A, 가정5, 아나지고개, 효성4, 4공단, 갈산동입구, 백마장입구, 부평역, 쌍굴다리입구, 부평시장, 송전고가교(항운아파트 경유) | 일신동 | 05:29<br>05:31 | 22:29<br>22:31 | 4~5 | 46 | |

| 노선 번호 | 기점 | 경유지 | 종점 | 첫차 출발 시간 | 막차 출발 시간 | 운행 간격 (분) | 운행 대수 (대) | 운행 시간 (분) |
|---|---|---|---|---|---|---|---|---|
| 46 | 연수 단지 | 시영A, 청학동, 송도역, 용현고개, 동인천, 배다리, 송림R, 제물포역, 도화5, 인천교, 영창악기후문, 율도4〈반환시=역순〉 | 원창동 | 05:30<br>05:34 | 22:45<br>22:41 | 7~8 | 22 | |
| 13 | 연수 단지 | 현대A, 동춘역, 남동2단지, 면허시험장입구, 면허시험장, 연수상업지구, 우주A, 남부서, 남동공단입구, 소구월테니스장, 석천국교, 간석5, 석바위, 주안4, 쑥골고개, 도화5, 제물포역뒤, 송림R, 인천교, 영창악기, 석남동(신길), 새인천A, 지구재도로, 가정동(신길), 서구청, 검암동(회차) | 백석 | 05:35<br>05:33 | 22:21<br>22:19 | 11~12 | 19 | |
| 14 | 연안부두 | 풍물거리, 여객선부두입구, 어시장, 연안국교, 남항부두, 안국A, 하나로쇼핑, 유원A, 터미널, 숭의R, 운동장, 박문R, 송림R, 인천교, 동부제강, 경인여상(반환시:영창악기), 율도입구, 가정5, 아나지고개, 동화버스, 효성동입구, 효성4, 공단입구, 청천동, 산곡동입구, 백마장입구, 부평역, 쌍굴다리(항운아파트 경유) | 부개4거리 | 05:38<br>05:35 | 22:26<br>22:33 | 9~10 | 19 | |
| 16 | 연수 단지 | 현대A, 공공청사, 태평A, 송도호텔, 정비단지, 해안도로, 새한A, 하나로쇼핑, 유원A, 터미널, 신흥R, 답동, 동인천, 화평동, 송림R, 제물포역뒤, 주안역뒤, 직업훈련원, 5·6공단, 이화A, 십정4, 동암4, 간석5, 간석시장, 만수주공정문, 남동구청, 만수국교, 장수동 | 서창동 | 05:32<br>05:31 | 22:35<br>22:38 | 7~8 | 25 | |
| 17 | 수봉공원 | 제물포역, 숭의4, 터미널입구, 삼익A, 국제터미널, 사동, 답동, 동인천, 미림극장, 송림R, 인천교, 경인여상, 가정5, 서곳로, 연희동, 검암, 백석 | 검단 | 05:47<br>05:28 | 22:51<br>22:58 | 10 | 15 | |
| 18 | 수봉공원 | 제물포역, 사동, 답동, 동인천, 미림극장, 문화극장, 송림R, 도화5, 인천교, 경인여상, 가정5, 서곳로, 연희동, 골프장입구〈반환시:역순〉 | 경서동 | 05:30<br>06:46 | 18:26<br>19:42 | | 1 | |

| 노선 번호 | 기점 | 경유지 | 종점 | 첫차 출발 시간 | 막차 출발 시간 | 운행 간격 (분) | 운행 대수 (대) | 운행 시간 (분) |
|---|---|---|---|---|---|---|---|---|
| 47 | 수봉공원 | 제물포역, 사동, 답동, 동인천, 미림극장, 문화극장, 송림R, 제물포역뒤, 인천교, 경인여상, 가정5, 연희동, 검암동〈반환시:역순〉 | 장기동 | 05:39<br>06:44 | 20:03<br>21:08 | | 1 | |
| 24 | 연안부두 | 백주년기념탑, 삼익A, 사동, 동인천, 송현동, 인천제철(송현A), 송림R, 대현공전, 가좌I.C, 진주A, 철마로, 한양A, 화랑농장, 백운역, 부평R, 갈산동, 코리아스파이서, 작전현대A(항운A 경유)〈한라중공업-07:00~08:00, 17:00~19:00〉 | 임학동 | 05:29<br>05:32 | 22:44<br>22:47 | 5~6 | 30 | |
| 26 | 서창동 | 장수동, 남동국교, 남동구청, 건설교육원, 하이웨이주유소, 테니스장, 신세계A, 간석5, 동암역(남), 부평3, 삼능, 부평농협, 부평R, 백운역, 청천동, 부평4공단, 부평IC, 북인천세무서, 작전동, 사이클경기장 | 박촌 | 05:23<br>05:31 | 22:35<br>22:32 | 12~13 | 13 | |
| 28 | 연안부두 | 일억조, 쌍용(정), 풍물의장, 라이프A, 어시장, 안국A, 터미널, 신흥R, 공보관, 인천역, 송월동, 한국유리, 화수4, 화도진공원, 화평동, 동인천, 배다리, 도원고개, 남구청, 독쟁이고개, 용일4, 동양장, 인고, 석바위, 법원고가교, 이화A, 용화사앞길, 주안역뒤, 6공단입구, 신영전기, 공단본부, 경기은행, 가좌4, 진주A(반환시=범양A, 가좌현대 써비스, 봉산중기) | 가좌<br>범양A | 05:32<br>05:31 | 22:32<br>22:34 | 5~6 | 31 | |
| 30 | 박촌 | 홍진A, 부평IC, 부평R, 백운역, 간석5, 간석시장, 신세계A, 테니스장, 하이웨이주유소 | 숭덕여중 | 05:29<br>05:32 | 22:57<br>23:10 | 3~4 | 36 | |
| 31 | 월미도 | 인천역, 답동, 동인천, 도원고개, 제물포역, 도화국교, 주안역, 법원, 석바위, 시청후문, 간석5, 부평3, 삼능(구도로), 부개4, 송신고가로, 부개동, 부평농협앞, 부평역, 부평시장, 부흥로, 부광여고, 백조A | 갈산동(백조A) | 05:29<br>05:37 | 22:37<br>22:45 | 12~13 | 13 | |

| 노선 번호 | 기 점 | 경 유 지 | 종 점 | 첫차 출발 시간 | 막차 출발 시간 | 운행 간격 (분) | 운행 대수 (대) | 운행 시간 (분) |
|---|---|---|---|---|---|---|---|---|
| 32 | 박 촌 | 병방동, 홍진A, 한마음병원, 효성동입구, 효성4, 4공단입구, 갈산동입구, 백마장입구, 북구청입구, 부평시장, 부평역, 쌍굴다리, 부개4, 성모병원, 부평3, 간석5, 주원, 석바위, 주안4, 쑥골고가교, 제물포역뒤, 야채시장, 도원고개, 인천병원, 신흥R, 답동〈반환시=배다리 역순〉 | 동인천 | 05:59<br>05:29 | 22:35<br>22:14 | 9 | 20 | |
| 32-1 | 박 촌 | 32번과 동일(효성동 구간 일부변동)<br>〈홍진A-JC공원-효성동〉 | 동인천 | 05:31<br>05:52 | 22:12<br>22:42 | 9 | 19 | |
| 34 | 연 수 단 지 | 현대A, 공공청사, 면허시험장, 남동공단1단지, 도림동입구, 남촌동입구, 남부서, 소구월 테니스장, 석천국교, 희망백화점, 간석5, 부평3, 현대A, 부평역, 부평관광호텔, 삼산동, 삼보A | 삼 보 (A) | 05:28<br>05:29 | 23:04<br>22:57 | 4~5 | 25 | |
| 35 | 연 수 단 지 | 현대A, 동춘역, 고잔동입구, 남동공단, 순복음교회, 안국A, 동양장, 석바위, 법원고가교, 십정4, 부평여상, 현대A, 부평역, 부흥R, 갈산동, 부평서, 청천동, 공단입구, 효성4 | 효성동 | 05:38<br>05:29 | 22:40<br>22:42 | 10~11 | 16 | |
| 37 | 연 수 단 지 | 현대A, 동춘교, 남동공단, 외환은행, 연수교, 연수국교, 선학교, 도림동, 남부서, 석촌국교, 간석5, 동암4, 동암역, 십정고개, 대신산업입구, 동인천여중, 주공2단지, 수정탕, 경인여상, 한신빌라 | 가정동 | 05:38<br>05:28 | 23:00<br>23:02 | 12~13 | 10 | |
| 38 | 소 래 | 논현4, 수산동, 남동구청, 건설기술연수원, 만수소방서, 간석시장, 간석5, 동암4, 동암역, 십정고개, 부평여상, 현대A, 갈산단지 | 코리아 스파이서 | 05:35<br>05:49 | 22:40<br>22:54 | 24~25 | 6 | |
| 39 | 서운동 | 갈산동, 해태음료, 갈산시장, 부평관광호텔, 부평세관, 부평역, 현대A, 십정동, 십정4, 동암역, 동암4, 대신산업, 부평여상, 십정동, 주공2단지, 수정탕, 경인여상, 한신빌라(가정5거리 지하차도 공사완공후 서구청까지 운행) | 서구청 | 05:32<br>05:36 | 22:57<br>22:52 | 8~9 | 13 | |

| 노선 번호 | 기 점 | 경 유 지 | 종 점 | 첫차 출발 시간 | 막차 출발 시간 | 운행 간격 (분) | 운행 대수 (대) | 운행 시간 (분) |
|---|---|---|---|---|---|---|---|---|
| 41 | 율 도 | 율도입구, 석남동(구길), 인천교, 송림4동, 대헌공전, 송림R, 문화극장, 미림극장, 화평동, 동인천, 답동, 신흥R, 터미널, 숭의R, 용현시장, 독쟁이고개, 용일4〈회차시=동서우유, 인하대후문, 용현시장〉, 동서우유, 시민회관, 주안역, 법원, 석바위, 시청후문, 길병원, 경기은행, 안국A, 문화회관, 남부서, 시청후문, 석바위 | 문 화 회 관 | 05:33<br>05:36 | 22:23<br>22:50 | 4~5 | 37 | |
| 42 | 율 도 | 석남동, 석남고가도로, 우람A, 진주A, 가좌A, 동인천여중, 십정고개, 동암역, 간석5, 간석시장, 만수종합상가, 만수북중학교 | 만 수 주 공 | 05:32<br>05:30 | 23:18<br>23:18 | 5~6 | 19 | |
| 48 | 수 현 부 락 | 구산동, 부개4, 동중, 부평시장 | 부평역 | 05:30<br>05:55 | 23:00<br>23:00 | 30 | 2 | |
| 45 | 박 촌 | 병방동, 임학동, 사이클경기장, 삼보A, 작전동, 갈산동, 백마장입구, 북구청, 부흥R, 부평시장R, 부평역, 부평농협, 쌍굴다리, 삼능, 간석5, 석천국교, 남동공단입구, 동양장, 용일4, 독쟁이고개, 숭의R, 신흥R, 배다리〈반환시=답동, 송도중, 신흥R〉 | 동인천 | 05:30<br>05:29 | 22:36<br>22:47 | 6 | 29 | |
| 60 | 월미도 | 인천역, 답동, 동인천, 송현국교, 동부A, 송현A, 송림R, 대헌공전, 인천대, 도화5, 주안역뒤, 이화A, 십정4, 선린감리교회〈동암4, 십정4, 회차〉 | 동암역 | 05:27<br>05:33 | 22:56<br>23:45 | 14~15 | 8 | |
| 62 | 연 수 단 지 | 현대A, 동아A, 동춘동, 송도유원지, 무선국, 수산고교, 정비단지, 대림A, 터미널, 신흥A, 답동, 동인천, 화평동, 송림R, 제물포역뒤, 주안역뒤, 직업훈련원, 5·6공단, 우성A, 십정4, 동암4, 간석5, 간석시장, 만수주공, 남동구청 | 장수동 | 05:48<br>05:36 | 22:40<br>22:33 | 17~18 | 10 | |
| 65 | 오류동 | 박촌, 병방동, 홍진(A), 인천교대, 한마음병원, 부평IC, 백마장입구, 부평역(회차) | 부 평 농 협 | 05:30<br>05:42 | 23:00<br>22:57 | 15~16 | 6 | |

| 노선 번호 | 기 점 | 경 유 지 | 종 점 | 첫차 출발 시간 | 막차 출발 시간 | 운행 간격 (분) | 운행 대수 (대) | 운행 시간 (분) |
|---|---|---|---|---|---|---|---|---|
| 56 | 남 동 유수저 | 공단본부, 남부서, 길병원, 희망백화점, 간석5거리 | 동암역 | 06:30<br>06:26 | 19:30<br>19:42 | 17 | | |
| 101 | 월미도 | 인천역, 동인천, 제물포역, 주안4, 석바위, 시청후문, 희망백화점, 부평3, 백운역, 부평역, 백마장, 4공단입구, 북부세무서, 홍진A, 계산동(회차)〈반환시=역순〉 | 병방동 | 06:00<br>06:00 | 22:39<br>22:48 | 3~4 | 54 | |
| 103 | 연 수 단 지 | 의료시설, 금호A, 공공청사, 면허시험장, 남부서, 시청, 동암역, 십정4, 영창악기, 석남동, 가정5, 아나지고개, 청천동, 산곡동, 백운역, 현대A, 부평역(회차) | 부 평 농 협 | 06:02<br>06:03 | 22:30<br>22:40 | 4~5 | 43 | |
| 105 | 연 수 단 지 | 현대A, 공공청사, 시영A, 풍림A, 태영A, 인항A, 동남A, 청학동, 송도역, 용현고개, 숭의R, 동인천, 송림4, 인천교, 경인여상, 신현주공, 아나지고개, 효성4, 4공단, 백마장입구, 부평역(회차) | 부 평 농 협 | 06:03<br>06:01 | 22:34<br>22:36 | 4~5 | 47 | |
| 106 | 원창동 | 신현주공후문, 율도입구, 거북시장, 석남신고가교, 진주A, 가좌4, 신길, 동암역, 석천국교, 만수주공입구 | 만 수 3단지 | 06:02<br>06:06 | 22:36<br>23:02 | 11~12 | 10 | |
| 107 | 연 수 단 지 | 현대A, 태영A, 송도호텔, 송도유원지, 정비단지, 해안도로, 대림A, 유원A, 터미널, 신흥A, 답동, 동인천, 화평동, 미림극장, 송림R, 제물포역, 도화5, 인천교, 가좌4, 진주A, 철마산, 산곡동입구, 백마장 | 계 산 고 교 | 06:05<br>06:05 | 22:38<br>22:38 | 6~7 | 29 | |

자료 : 인천신문사, 「인천연감」, 1994.

또한 부평의 시외버스 업체 현황을 보면 1993년 3월 31일 현재 2개 업체가 177대를 보유하고 있다(〈표 16〉 참조).

〈표 16〉 부평지역시외버스업체현황 (1993. 3. 31 현재)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차량대수 | 설립년도 |
|---|---|---|---|---|---|
| 부평여객운수(주) | 김 재 준 | 북구 임학동 5-27 | 542-1716 | 92 | 1970 |
| (주) 상 원 교 통 | 김 용 웅 | 서구 가좌동 173-116 | 576-5049 | 85 | 1991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명감」, 1993.

한편 1993년 3월 현재 부평의 택시업체 현황은 28개 업체에 차량 2,150대로서 전업체가 택시선진화와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표 17〉 참조).

〈표 17〉 택 시 업 체 현 황 (1993. 3 현재)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보유대수 |
|---|---|---|---|---|---|---|
| 경 진 교 통 (주) | 한 도 섭 | 작전동 725-1 | 525-3331 | 99 | 1980 | 62 |
| 공 성 교 통 (주) | 윤 재 원 | 가좌동 602-28 | 578-7900 | 98 | 1981 | 59 |
| 광 도 기 업 (주) | 김 만 수 | 가좌동 602-20 | 578-1611 | 63 | 1985 | 41 |
| 남 북 택 시 (주) | 이 상 덕 | 석남1동 498 | 574-2226 | 125 | 1979 | 69 |
| 대덕삼상택시(주) | 장 질 훈 | 가좌동 272-8 | 571-5746 | 106 | 1979 | 64 |
| (주) 대 도 기 업 | 임 문 규 | 가좌3동 272-9 | 571-7339 | 124 | 1979 | 69 |
| 대 명 운 수 (합) | 고 상 옥 | 가좌동 147-14 | 575-8331 | 113 | 1980 | 66 |
| 대 영 운 수 (주) | 박 용 성 | 효성동 산60-10 | 547-4571 | 96 | 1979 | 58 |
| (유) 대 일 실 업 | 이 해 영 | 석남동 505 | 573-8673 | 120 | 1993 | 67 |
| 대 창 운 수 (주) | 최 주 완 | 가좌동 215-19 | 571-0500 | 82 | 1979 | 47 |
| (합) 동 산 운 수 | 유 근 성 | 십정동 557-6 | 578-3530 | 148 | 1979 | 97 |
| 동 우 교 통 (주) | 강 창 남 | 석남동 521 | 572-3301 | 95 | 1979 | 67 |
| 동 원 택 시 (합) | 김 배 권 | 작전동 785-2 | 544-1929 | 105 | 1979 | 57 |
| 부 강 교 통 (합) | 하 기 철 | 석남동 519-1 | 577-9111 | 134 | 1979 | 78 |
| (합) 삼 삼 기 업 | 유 영 득 | 작전동 868-6 | 542-0161 | 96 | 1979 | 58 |
| 쌍 마 교 통 (주) | 정 진 희 | 가좌동 602-4 | 571-5377 | 284 | 1976 | 143 |
| (주) 성 용 교 통 | 성 낙 현 | 삼산동 270-9 | 528-1161 | 100 | 1979 | 59 |
| 신 광 기 업 | 김 기 연 | 가좌동 157-12 | 575-6992 | 203 | 1973 | 112 |
| 신 신 교 통 | 이 용 범 | 석남2동 650-85 | 581-2177 | 388 | 1963 | 200 |
| 신 진 운 수 | 김 동 문 | 가좌동 260-20 | 571-3910 | 93 | 1979 | 68 |
| 영 부 교 통 | 임 종 기 | 효성동 331-21 | 548-5503 | | | 85 |
| 재 인 기 업 | 최 수 길 | 가좌동 147-32 | 575-6139 | | | 58 |
| 제 물 포 택 시 (주) | 이 승 주 | 석남2동 650-86 | 581-0387 | 223 | 1972 | 121 |
| 풍 진 기 업 | 김 철 주 | 가좌동 602-29 | 577-4700 | 135 | 1981 | 90 |
| 한미교통(삼성교통) | 정 찬 배 | 석남동 516-5 | 571-1032 | 99 | 1981 | 61 |
| 한 일 운 수 | 한 경 억 | 계산동 900-9 | 549-3311 | 105 | 1979 | 60 |
| 현 대 교 통 | 이 범 진 | 계산동 725-3 | 524-3311 | 141 | 1968 | 76 |
| 화 신 교 통 (합) | 박 재 철 | 석남동 650-39 | 581-9100 | 112 | 1979 | 58 |

자료 : 인천신문사, 「인천연감」, 1994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명감」, 1993.

또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사회공익사업자로서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운송사업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7월 27일 창립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소재지:서구 가좌4동 287의 25)의 현재(1994년 4월말) 조합원수는 4,179명이다.[5]

한편 부평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 현황을 보면 1993년 3월말 현재 일반구역화물 10개업체, 특수화물 13개업체 등 총 23개업체가 차량 807대를 보유하고 있다(〈표 18〉 참조).

〈표 18〉 부평지역 화물자동차 현황 (1993. 3. 31 현재)

〈구역화물〉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설립년도 | 차량대수 |
|---|---|---|---|---|---|
| 건영화물자동차(주) | 석만석 | 부평동 70-88 | 523-9494 | 1992 | 1 |
| 동남운수(주) | 박연철 | 가좌동 178-169 | 578-5600 | 1976 | 17 |
| (주)동신공사 | 한명자 | 석남동 223-431 | 575-2341 | 1968 | 74 |
| 삼영운수(주) | 김규연 | 부평동 506-2 | 525-0110 | 1974 | 46 |
| 양양운수(주) | 김영철 | 십정동 578-2 | 02)862-2253 | 1978 | 30 |
| 중아기업(주) | 성기수 | 임학동 73-8 | 02)785-5527 | 1983 | 4 |
| 한경운수(자) | 김병곤 | 십정동 423-5 | 434-1303 | 1969 | 50 |
| 한청상공(주) | 김광섭 | 석남동 223-398 | 02)685-6008 | 1983 | 18 |
| 한청상운(주) | 조행자 | 〃 | 〃 | 1962 | 66 |
| (주)효신운수 | 최철 | 석남동 223-405 | 574-3805 | 1982 | 25 |

〈특수화물〉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설립년도 | 차량대수 |
|---|---|---|---|---|---|
| 남북통운(자) | 정병찬 | 석남동 228-198 | 02)691-2301 | 1992 | 20 |
| 동남통운(주) | 박연철 | 가좌동 178-169 | 578-5600 | 1976 | 34 |
| 명진특수화물(주) | 박립원 | 가좌동 278-7 | 574-3221 | 1989 | 38 |
| 서녕유조(주) | 이기준 | 석남동 223-400 | 02)568-4005 | 1978 | 7 |
| 신성특수유조(주) | 이기봉 | 석남동 223-400 | 02)568-4005 | 1979 | 20 |
| 전국냉동(자) | 성명재 | 백석동 211 | 02)307-1181 | 1984 | 90 |
| 중아기업(주) | 성기수 | 임학동 73-8 | 02)785-5527 | 1983 | 13 |
| 청도운수(주) | 강종훈 | 가좌동 178-170 | 576-7600 | 1988 | 20 |
| 태창가스화학(주) | 정공호 | 효성동 392-2 | 02)753-4282 | 1984 | 5 |
| (주)88유조 | 신철용 | 석남동 223-198 | 02)691-2301 | 1988 | 135 |
| 한국특수운송중기(주) | 강상희 | 석남동 650-45 | 581-7575 | 1993 | 28 |
| 한청상공(주) | 김광섭 | 석남동 223-398 | 02)685-6008 | 1983 | 59 |
| (주)효신운수 | 최철 | 석남동 223-405 | 574-3805 | 1982 | 7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명감」, 1993.

5) 인천신문사, 『인천연감』, 1994, p. 320.

그리고 2개에 달하는 관광운수회사에 소속된 차량수는 37대이다(〈표 19〉 참조).

또한 차량대여업 즉 렌트카업체 역시 2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보유하는 차량수는 118대에 달한다(〈표 20 참조).

〈표 19〉 부평지역관광운수업체현황 (1993. 3. 31 현재)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종업원수 | 설립년도 | 차량대수 |
|---|---|---|---|---|---|---|
| (주)오림포스관광 | 이 영 효 | 부평동 229 | 528-2000 | 35 | 1992 | 15 |
| (주) 인 천 전 세 | 박 노 학 | 부평동 194-4 | 523-5111 | 36 | 1986 | 22 |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명감」, 1993.

〈표 20〉 부평지역렌트카업체현황 (1993. 3. 31 현재)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설립년도 | 차량대수 |
|---|---|---|---|---|---|
| (합)경 인 렌 트 카 | 권 순 석 | 부평4동 49 | 523-4444 | 1983 | 68 |
| 영 일 렌 트 카 (주) | 여 원 환 | 가좌동 207-1 | 577-1001 | 1990 | 50 |

資料 : 인천상공회의소, 「'93~'94 인천상공명감」, 1993.

### 2) 철도교통의 발달

한국의 철도는 경인철도 부설이 그 시발이 되었으며, 경인철도 부설을 둘러싸고 열강 제국간에 부설권 분쟁이 전개되었으나, 모오스(James R. Morse)라는 미국인 광산 브로커가 미국공사 알렌(Horace N. Allen)을 통하여 한국 전토에 걸친 간선철도 부설권 획득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내정개혁을 강요하고 있던 일본측과의 한일참정합동조관(韓日參政合同條款)에 의하여 철도 및 전신에 관한 권리를 일본이 획득한데 대하여 불만을 품은 구미제국은 반대태도를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1895년 5월 4일 영·미·독·러 4국대표는 외부대신 김윤식에게 공문으로써, 철도 등의 이권을 일국에게만 준허(准許)함은 한국 또는 다른 각국 상민에 대하여 이롭지 못하다는 경고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김윤식 외부대신은 후일 정부의 행동에 제한을 받을 우려 있는 언사를 피하고, 극히 간단히 그 호의를 감사한다는 뜻으로 회답하였는데, 4국 공사도 역시 별로 추궁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이것이 후일 일본의 계획에 대하여 적지 않은 장애를 가져오게 하였다.

경인간의 철도부설은 청일전쟁 초기에 일본군부가 작전상의 필요로 이를 추진하다가, 저들의 전세가 의외로 유리하게 전개되어 주(主)전장(戰場)이 어느덧 압록강을 넘어 만주로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승승장구하기에 몰두하여 경인철도의 부설같은 것은 불급지사(不急

之事)로 외교교섭에 맡겨 지연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고 국면이 뒤바뀌어 일제의 승패도 한반도에서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열강간에 전개하는 이권경쟁의 첫 케이스로 경인철도의 부설권은 미국인 모오스에게 건양 원년(1896) 3월 29일자로 특허가 부여되었다.

앞서 철도부설의 필요를 주장하던 일본인들도 참정합동조관 성립 후는 도리어 그 사업에 착수하려는 자가 적어, 일본정부내에서는 차라리 약간의 금액을 한국정부에 대여하여(이때 한국정부로 부터 차관요구가 있었다) 철도사업을 수행케하자는 논의도 없지 않았으나, 그 결정을 짓지 못하던 차에, 경인철도의 부설권이 미국인 모오스로 재빨리 넘어가고 말았다. 미국인 모오스에게 철도부설권을 빼앗긴 일본측은 동년 4월 17일 소촌수태랑(小村壽太郎) 공사의 이름으로 외부대신 이완용(李完用) 앞으로 청일개전 초기에 체결된 한일간의 참정합동조관을 내세워 '일본정부의 승락없이 경인철도의 부설권을 제3국인에게 허용한 것은 전기 조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한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외부대신 이완용의 회답은 갑오 당년에 체결한 조관 중의 철도일절이 현재 '귀·아국간에서 편용될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본년 1월 귀정부에 5백만원 차관을 제청할 때, 그 중의 2백만원은 철도건설비에 충당하겠다고 하였건만 3·4삭(朔)이 경과하여도 회답조차 없었으니, 아(我)정부가 무심했다기 보다는 귀정부가 실로 응윤(應允)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하며 모오스와의 계약이 하등의 구애받을 성질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제측도 별 수가 없었던지 문서상 이의만을 반복하고 그 이상 어쩌지 못하였다.

한편 미국인 모오스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다음, 그의 친우인 인천주재 미국상인 타운센드(W. Townsend)의 출자를 얻어 회사를 조직하고, 동국인 토목·광산업자인 콜브렌(Collbran)을 기사장으로 초청하여 노선측량을 한 결과, 그 거리가 26여리(약 40km)에 달하였는데, 노선부설에 약 1년, 한강 가교에 2개년이 소요될 예정으로 서울·인천 양지점에서 동시에 시공할 계획을 세웠다.

모오스는 막대한 소요자금 조달차 미국으로 돌아가서 동분서주하였으나 미지의 나라 한국에 투자하려는 자본가가 없었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겨우 약간의 금액을 변통하여 귀한한 후 광무원년(1897) 3월 22일 인천 우각리(牛角里)에서 기공식을 거행하고 약 350명의 인부를 사역하여 공사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언제나 철도공사가 그러하듯이 용지관계로 만부득이한 계측과 노선변경은 아니할 수 없었고, 그보다 자금난의 고통으로 많은 장애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부설공사는 자연 지연되었는데, 일제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수교섭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모오스가 자금조달차 도미했다가 실패하고 귀로에 일본에 체류하게 되자(당시 일본에는 모오스상회의 지점이 있었다), 일본측은 정부와 민간재벌이 결탁하여 경인철도 양수의 조합결성을 서두르며 저

희 외무성고문 데니슨을 내세워 모오스와의 교섭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모오스는 일본의 요청을 수락하고 광무 원년(1897) 5월 8일에 삽택영일(澁澤榮一)을 대표자로 하는 일본인의 경인철도 인수조합(澁澤榮一·岩崎彌之助·三井守之助·安田善次郎 등의 일본 대실업가군의 출자로 된 조합)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5만불(일화 10만3천6백26원94전)까지 수령하였다.

계약조건의 주요 골자는 선로건설은 계속 모오스가 이를 시행하여, 향후 18개월 내에 준공한 후 정확히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계인수토록 하되, 공사는 일본인 기술자가 이를 감독하며 공사비는 그 공정에 따라 이를 지불하고 완전 준공되었을 때 정산하기로 되었다.

이와같이 동 계약내용은 우선 동업을 원칙으로 삼았음으로, 모오스는 얼마 못가서 다시금 저들에게 교섭하여 동년 11월 경인철도 부설권을 지당하고 일본정금(正金)은행에서 금백만원을 대여받았다. 그리하여 광무 3년(1899) 1월에 공사의 기성분조로 일화 170여 만원을 받은 다음 경인철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일인측 조합에 아주 양도하고 말았다.[6]

경인철도인수조합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오스에 대한 당초의 계약을 변경하여 공사가 미진한 채로 인수하여 스스로 남은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인수조합을 합자회사로 개칭하여 1899년 5월 15일부터 정관을 작성하여 발족하고, 종래의 조합위원장 삽택영일(澁澤榮一)을 취체역 사장으로 하여 동 17일 회사설립등록을 마쳤는데, 자본금은 725,000원, 사원은 종래의 조합원 15명으로 하여 조합의 권리의무와 총지배인 이하 직원 전부를 회사에서 승인하였다.

공사는 모오스와의 계약에 의하여 1899년 1월 1일부터 조합의 직영으로 하게 되었으나 겨우 4월 초에야 인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보수공사에 착수하였다. 인계 당시의 공사상황은 토목공사가 거의 반이나 이루어졌고, 한강교량은 양교대 및 교각 3개가 건조 중이었는데, 이 공사를 맡은 콜브란의 청부공사가 조잡하고 당초의 설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많은 개축과 보수공사를 서둘렀는데 그 시행은 다음과 같다.

제1공구 인천 기점 5리지점까지

제2공구 인천 기점 5리서 15리까지

제3공구 인천 기점 15리부터 21.60리까지

제4공구 인천 기점 21.60리부터 종점까지

궤조부설공사는 기술자와 인부를 충원하지 못하여 시일만 보내다가 6월 10일부터 착수하고, 2리(里)를 부설한 다음 6월 18일부터 기성구간에 기관차 시운전을 감행하고 동 19일부터 건축열차를 운전하였으나 우기에 접어들어 공사가 지지부진했으며, 8월 15일에 겨우 17리지

6) 인천시, 『인천시사』, 1973, pp. 96~100.

점에 이르렀다가 9월 7일부터 공사를 서둘러 13일에 4리를 연장하여 총 21리 지점까지 도달하여 1899년 9월 18일부터 인천-노량진간에 가영업을 시작하였다. 개통 당시의 열차는 인천-노량진간 매일 상오와 하오에 각 1회씩 도합 2회 운행되었는데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이었고 정차장은 인천역·축현역(현 동인천역)·우각역(현 박문여중앞 네거리)·부평역·소사역·오류역·노량진역 등이 있었다. 승객의 8할은 한국인이며 모두 3등 승객이었으며 화물은 광목·쌀·동화·생선·술·채소·우피·미역 등이었다.

한편 특허조건에서 착공후 3년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한강교공사 등의 사정으로 그 기일안에 도저히 완공할 수 없게 되자 경인철도 인수조합은 일본 외무성을 거쳐 한국정부에 교섭하여 6개월간 준공연기를 허용받았다. 따라서 1899년 9월 30일 다시 부설공사에 들어가서 한강 가교점까지 도달하고 한강 석안(石岸)으로부터 경성정거장까지 2리 여의 공사는 1900년 5월 26일 착공하여 6월말 한강교량의 준공과 동시에 궤도연장을 완료하고, 7월 5일 시운전을 하여 8일로써 경인간 전선 26리 20치의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으므로 종착역 서울 서대문정거장(현재는 폐쇄)과 인천역앞 광장에서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영등포역은 개업당시 노량진의 가역사였던 것인데, 전선개통과 동시에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존속시키자는 여론이 높아서 1900년 9월 1일부터 영등포정거장으로 승격되었다.

매일 2왕복의 기차운행은 12월 1일부터는 3왕복, 다음해인 1901년 3월 16일부터는 4왕복으로 증가되고, 경인선 전통과 동시에 5왕복이 되었다. 그 후 계절에 따라 4왕복 혹은 6왕복의 운행도 되었다. 여객등급은 1등·2등·3등의 3개 등급이었으며, 각 구간에 따라 차임을 정하여 인천-서울간 1등 1원 5전, 2등 80전, 3등 40전으로 하고, 화물은 1개 단위로 각 품목에 따라 운임을 정하였다. 그러나 영업개시 초기에는 노량진정거장과 경성사이의 교통불편과 한강의 선운정세로 철도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경인철도를 부설하여 운영하던 경인철도합자회사는 1902년 8월 경부철도가 착공되고서 5개월 뒤인 1903년 1월에는 경부철도회사에 합병되어 그 운영권이 넘어갔다. 또 1906년 7월에는 경부철도매수법에 의하여 통감부 철도관리국으로 이관된 후 인천의 두 역인 상인천역과 하인천역의 운수실적을 보면 1906년에 승하차 인원이 12만명을 넘었으나 1910년에는 20만명에 이르렀다. 화물의 발착은 8만톤에서 17만톤으로 운수수입은 19만원대에서 36만원대로 증가되었는데 연도별 운수실적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경인철도에 최초로 운행된 기관차는 미국의 브룩스공장제 모갈탱크 기관차이었는데 이것은 1899년 7월 인천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중량은 35톤이었다.

한편 당시의 객차는 보기식 중앙관통식 객차이었는데 길이는 50척, 폭이 9척8촌으로 자중(自重) 5천파운드의 목제차체이었다.

〈표 21〉 인천역 운반실적 (1906~1910)

| 구분 / 년도 | 여 객(명) | | 화 물(톤) | | 소하물(근) | | 운반수입(원) | |
|---|---|---|---|---|---|---|---|---|
| | 승 차 | 하 차 | 발 송 | 도 착 | 발 송 | 도 착 | 객 차 | 화 차 |
| 1906 | 55,410 | 66,955 | 64,169 | 18,479 | 496,075 | 633,497 | 61,349 | 133,281 |
| 1907 | 73,393 | 80,696 | 140,121 | 21,860 | 1,123,994 | 744,355 | 86,094 | 243,882 |
| 1908 | 117,936 | 128,269 | 113,835 | 14,950 | 742,141 | 716,289 | 80,407 | 264,858 |
| 1909 | 111,884 | 116,785 | 79,733 | 28,031 | 692,160 | 685,440 | 64,376 | 198,478 |
| 1910 | 100,453 | 108,534 | 131,896 | 40,201 | 460,711 | 758,290 | 57,914 | 302,856 |

자료 : 조선총독부 발행, 「인천상공업조사」, 1912년판.

경인철도의 초창기에 보유하던 시설을 보면 유개차 16량, 화물수급차 4량, 무개차 8량 합계 28량의 화차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점차 개량 확충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치된 철도공장은 1899년에 경인철도회사에 의해서 인천항에 세워진 것인데 이 곳에서는 차량과 교형 등을 제작하다 용산공장에 흡수되었다.

경인철도는 당초 경비관계로 교량·구교 등이 거의 가구조로 되었고 또 소곡선이 많았다. 그 후 열차운행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량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1907~1908년 두 해에 걸쳐 총액 52만 5천2백30원으로 그 개축에 착공, 한일합방 전년인 1909년 3월에 준공되었다. 그 결과 구선에 비하여 1리(里) 여가 단축되고, 또 장래에 있어 복선이 될 경우를 예상하고, 용지·토공·교량 등 모든 준비가 아울러 시행되었다. 인천부와 부천군의 경계에 있던 우각리정거장은 1906년 4월에 폐지되었고, 축현역(일제말 상인천역, 현 동인천역)자리는 당초 인천역에서 1리 2분의 지점에 해당하는 용동 구릉 아래(일제시 인천물산회사)에 있었던 조잡한 건물이었던 것인데, 개량공사에서 선로변경에 따라 1908년 12월에 현재의 위치로 신설이전하여 종래 구내 단선으로 여객만 다루던 것을 화물취급도 겸행케 하였다.[7]

일제하의 경인선 열차 운행회수를 보면 1910년 합병 당시 화물과 여객 혼합열차가 2회, 여객열차가 7회이었으나 1920년부터는 급행열차와 화물전용열차가 등장하였고, 1929년에 이르러서는 내왕객수가 급증하여 여객열차가 1일 14회까지 운행되기도 하였었다(〈표 22〉 참조).

인천역과 축현역(후에 상인천역)의 운행실적을 보면 여객운송의 승하차 인원이 연간 18만여명이었으나 1921년에는 52만여명, 그리고 1939년에는 132만여명으로 늘어났다. 화물의 발송량도 1911년에 17만톤이었으나 1939년에는 101만톤으로, 도착량은 3.5만톤에서 54만톤으로 늘

7) 인천시, 『인천시사』, 1993, pp. 1316~1319.

어났다. 또 소화물의 운송량도 1911년에 70만근이었으나 1939년에는 2,270만근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운송수입은 1911년에 여객과 화물운송수입의 합계가 53만원이었으나 1921년에는 105만원으로, 그리고 1939년에는 467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표 23〉 참조).

〈표 22〉 경인선 열차운행회수 변동표

| 구분 / 년도 | 혼 합 | 여 객 | 급 행 여 객 | 화 물 | 구분 / 년도 | 혼 합 | 여 객 | 급 행 여 객 | 화 물 |
|---|---|---|---|---|---|---|---|---|---|
| 1906 | 7 | · | · | · | 1920 | 2 | 5 | 2 | 1 |
| 1907 | 6 | 4 | · | · | 1921 | 4 | 3 | 2 | · |
| 1908 | 8 | 3 | · | · | 1922 | 1 | 6 | 2 | 1 |
| 1909 | 2 | 8 | · | · | 1923 | 6 | 4 | 2 | 2 |
| 1910 | 2 | 7 | · | · | 1924 | 1 | 9 | 2 | 2 |
| 1911 | 2 | 7 | · | · | 1925 | 1 | 9 | 2 | 2 |
| 1912 | 2 | 7 | · | · | 1926 | · | 9 | 3 | 2 |
| 1913 | 3 | 6 | · | · | 1927 | · | 9 | 3 | 2 |
| 1914 | 3 | 6 | · | · | 1928 | · | 10 | 3 | 4 |
| 1915 | 2 | 6 | · | · | 1929 | · | 14 | 2 | 4 |
| 1916 | 2 | 6 | · | · | 1930 | · | 14 | 2 | 4 |
| 1917 | 5 | 3 | · | · | 1931 | · | 13 | · | 4 |
| 1918 | 5 | 4 | · | · | 1932 | · | 13 | · | 4 |
| 1919 | 5 | 4 | | | | | | | |

자료 : 「인천부사」, p. 854, 「인천개항 100년사」, p. 113.

〈표 23〉 인천·상인천역 운반실적

| 구분 / 년도 | 여 객(명) | | 화 물(톤) | | 소하물(근) | | 운반수입(원) | |
|---|---|---|---|---|---|---|---|---|
| | 승 차 | 상 차 | 발 송 | 도 착 | 발 송 | 도 착 | 객 차 | 화 차 |
| 1911 | 182,903 | 184,737 | 168,930 | 35,240 | 708,630 | 926,218 | 155,383 | 372,038 |
| 1921 | 527,279 | 529,006 | 199,444 | 236,826 | 2,096,358 | 1,856,521 | 478,423 | 586,116 |
| 1932 | 675,556 | 699,238 | 453,424 | 305,740 | 7,143,000 | … | 436,591 | 1,234,883 |
| 1939 | 1,326,956 | 1,326,313 | 1,007,267 | 543,214 | 22,708,000 | … | 1,001,388 | 3,666,361 |

자료 : 「한국철도사」 제3권, 1979년 발행, 「인천개항 100년사」, p. 1132.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점차 내정까지 간섭하면서 한국의 철도관리권을 통감부 철도국으로 흡수하였다. 이 무렵의 한국내 철도부설망을 살펴보면 경인선, 경부선, 마산-삼랑진선, 황주-겸이포선 등의 선로가 완성되어 운수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 총연장은 1,027km, 정거장수 98개소, 종업원수가 6,500명에 이르는 등 철도운영은 날이 갈수록 번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용대중에 의한 저렴한 요금, 열차운행 회수의 증가 및 시간단축을 요망하는 여론도 점차 높아갔다.

경인선의 스피드-업(speed-up)의 요망은 점차 실현되어, 1927년 인천상공회의소는 경인선 여객열차 설비개선의 건을 건의하고 당시 1일 12회 왕복을 적어도 16회 왕복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본선과의 접속시간 단축을 요망하였다. 1928년 7월 1일부터는 종래의 1일 12회 왕복을 13회로 하고 소요시간도 1시간 23분이던 것을 보통 1시간, 급행 50분으로 단축하였다. 1932년 11월에 이르러 소위 경인간 푸레형 쾌속열차가 1일 13회 왕복하였으며 그 1회의 소요시간이 50분내지 59분(최단시간 인천-경성의 경우 52분에 대하여, 경성-인천의 경우는 50분간)에 운전되었다. 서울발 인천행은 부평에 내리받이 코오스가 많아서 비교적 빨랐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는 열차횟수의 증가였다. 예컨대 30분 간격으로 발차되기를 요망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는 결국 경인간의 복선과 전철화 문제에 귀착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으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일본의 대륙침략 일환으로 군수물자수송 루트로서의 경인철도의 수송량이 폭주하자 경인선의 복선 또는 전철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지연되었으며 한때 보수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후 중일전쟁의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제2차 세계대전마저 유발되자 경인선은 보수할 틈도 없이 마구 혹사한 탓으로 종전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철로, 역사 및 부대시설 기구 등은 모두 노후 황폐되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해방 당시에 한국의 철도총량은 철도 연장이 6,362km이었고, 기관차가 1,166대, 객차가 2,027량, 화차가 10,352량이었으며 역은 모두 762개소였다. 남한에 소재한 철도연장은 전체의 58.7%인 3,738km이었고, 기관차는 41.8%인 488대, 객차는 63.1%인 1,280량, 화차는 54.8%인 8,424량이, 그리고 역은 300개소가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 혼란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던 철도운영이 미군정의 부흥시책에 의하여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수립 후에는 원조로 철도자재가 도입되어 수송능률 향상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중단되었던 야간열차가 부활되었고 주요 간선에 여객열차가 운행되었으며 생산공장이 가동되었고 이에 따라 수송사업이 촉진되어 갔다. 철도의 정상운행이 회복된 1949년의 열차운행 회수를 보면 경인선이 여객열차 14회, 화물열차 8회였다. 당시 전국 27개선을 통하여 정기여객열차 운행회수는 도합 3백개 열차에 이르렀는데 그 운행회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경인선 14회, 군산선 12회, 충북선 11회, 화순선 10회, 경부선 6회 등이여서 경인선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인지방의 상공업이 타 지방보다 활발하였다는 사실이 교통 운수면에 반영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6·25동란이 발발하자 경인선은 전시태세를 갖추었으나 그 기능은 전면 마비되었으며 공산군의 점령 후 그들의 철도요원들이 기관차와 객·화차를 운행코자 하였으나 미공군의 폭격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인천시 관내의 각 역은 거의 폭파 혹은 소실되고 말았다.

6·25동란으로 인한 철도시설의 피해상황은 터널 4,935m(6%), 궤도 32만9,480m(7.5%), 역건물 41%, 기관차 51%, 교량 9,351m(12%), 객차 50%, 화차 34%가 파괴 또는 소실되었으므로 UN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시내 각역이 탈환된 후에도 시설이 보수되기까지 열차는 운행할 수가 없었다. 3개월 여에 걸친 북한군 점령하의 열차운행상황에 대하여서는 『한국철도사』에서조차 자료수집 불가능으로 생략되어 있다.

1950년 10월 19일에는 6·25때 파괴된 한강교에 대신할 가교가 설치되어 준공하였으며 10월 23일에는 한강교의 A선을 복구하여 개통하였다. 한편 UN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함에 따라 북한에도 속속 교통부의 파견대들을 보냄으로써 1950년 11월 12일에는 서울－대동강간의 처녀열차가 운행되는 등 철도의 새기록을 세웠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도종사원들도 모두 철수하고 말았다. 철도복구대가 부산항에서 인천항으로 출동하여 긴밀한 복구작업을 편 결과 1950년 9월 19일 인천－부평간에 열차가 시운전되었고, 9월 28일에는 인천－영등포간에 군수열차가 운행될 수 있었다. 드디어 10월 8일에는 서울－부산간 철도가 완전 개통되어 처녀열차 운행을 하였다.

또한 1951년 7월 15일에는 한국철도사상 처음으로 UN군의 디젤기관차 SW-8형 35대가 도입되어 전국에 걸친 열차가 정상운행하기에 이르렀으며, 1954년에는 UN군에서 사용하던 디젤기관차 4대를 인수하여 철도청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또 1953년에는 철도 5개년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각 지역의 철도선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인선은 열차운행 횟수가 증가되었고 이용승객수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경인선이 개통된지 불과 반세기에, 경인간 기차운행의 폭주로 복선화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일제 말기에 이미 그 노반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태평양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추진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기존 경인선의 시설로서는 보다 폭주하는 운송난을 해결할 수 없었음으로 교통순화의 일환책으로 복선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경인지구 주민들이 갈망해온 숙원이기도 하였다. 철도청은 이 경인선을 복선화하기 위하여 1963년 11월 20일에 착공하여 우선 동인천－영등포간 27.8km구간의 노반을 완성하였다.

1964년 5월 8일에는 제1공구와 3공구를, 5월 19일에는 제2공구를, 착수하였던 동인천－주안

간의 4.5km궤도 부설은 1964년 12월 30일에 완성되었다. 이어서 2차공사로 개통을 본 주안-영등포간 23.3km의 공사에는 총공사비 2억9백여만원이 투자되어 본선 23.3km와 측선 8.1km가 부설되었다. 그리하여 주안-영등포간의 23.3km는 한국 최초의 철도이기도 한 경인선이 개통된지 65주년이 되는 1965년 9월 18일을 기하여 경인복선 개통식을 가졌던 것이다. 경인선의 복선 개통으로 매 30분마다 여객열차가 발차하는 꿈이 이루어졌으며, 경인간의 교통완화를 보게 되었다.[8] 그러나 경인선의 운송량이 해마다 증가되고 그 당시 시공중이던 내항 도크화에 따라 경인선의 전철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인간 주민들이 갈망해온 숙원이기도 하였다.

이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전철이 1971년 4월 7일 착공한지 만 3년 4개월만인 1974년 8월 15일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 철도사상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수도권 전철건설은 급증하는 수도권 주변인구의 도심유입을 기존 디젤기관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두르게 된 것이다. 과거 디젤기관차는 열효율이 20%인데 반해 전동차는 27%이고 디젤기관차급 엔진을 돌려서 발전해 움직이는, 말하자면 독립된 발전기를 지닌 것이어서 엔진이 노후했을 때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반면에 전동차는 노후부분만 교체해 주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경제성의 이점이 많다. 때문에 수도권 전철 개통이야 말로 대중교통수단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다 하겠다.

한편 부평지역의 3개역 가운데 여객 및 화물수송이 가장 큰 역은 부평역으로 경인선철도가 개설되던 1899년 9월 18일 제물포-노량진간 33.4km 구간의 개통과 동시에 부평역사가 준공,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74년 8월 15일 수도권전철의 개통과 동시에 남부역사를 신축 운영한 이후 계속 철도승객 및 화물이 증가하자 철도청에서는 1982년 11월 23일 현재자리(북구 부평동 738번지)에 부평역사를 현대식 건물로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4년 8월 15일 동암역이 설립되기까지 부평지역의 유일한 철도역이었던 부평역의 수송실적(1960~1974년)을 보면 여객운송의 승하차 인원이 1960년에는 178만여명이었으나 1974년 말에는 551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화물의 발송량은 1960년에 14만톤에서 1974년 말에는 4만6천톤으로, 도착량은 23만톤에서 17만톤으로 감소하였다(〈표 24〉 참조).

한편, 인천시의 확장에 따라 구월동, 십정동 일대의 아파트단지 조성과 더불어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교통편의의 필수적인 수요증가로 인하여 수도권전철 개통과 동시에 부평역-주안역 사이에 동암역이 개통되어 역원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다가 1983년 8월 8일 보통역으로 승격되어 동년 9월 14일 현재자리(북구 십정동 427)에 역사신축을 착공하여 동년 12월 31일 준공하였다. 그후 1988년 8월 20일 남북부 역사 분리 증축을 착공하고 동년 12월 27일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8) 『인천개항 100년사』, pp. 1132~1134.

〈표 24〉 부평역 수송실적

| 년 도 | 승 객 (명) | | | 화 물 (톤) | | |
|---|---|---|---|---|---|---|
| | 승 차 | 하 차 | 계 | 발 송 | 도 착 | 계 |
| 1960 | 749,258 | 1,032,230 | 1,781,488 | 140,984 | 233,211 | 374,195 |
| 1961 | 920,577 | 864,016 | 1,784,593 | 200,752 | 290,992 | 491,744 |
| 1962 | 1,770,550 | 1,701,274 | 3,471,824 | 199,079 | 279,522 | 478,601 |
| 1963 | 1,681,811 | 1,539,594 | 3,221,405 | 91,122 | 312,050 | 403,172 |
| 1964 | 1,566,846 | 1,516,179 | 3,083,025 | 96,214 | 283,391 | 379,605 |
| 1965 | 1,453,729 | 1,353,705 | 2,807,434 | 136,401 | 33,281 | 169,682 |
| 1966 | 2,688,160 | 2,507,087 | 5,195,247 | 130,044 | 317,265 | 447,309 |
| 1967 | 2,777,909 | 2,961,766 | 5,739,675 | 141,804 | 227,947 | 369,751 |
| 1968 | 3,278,786 | 3,118,986 | 6,397,772 | 234,140 | 356,271 | 590,411 |
| 1969 | 3,224,695 | 2,979,887 | 6,204,582 | 182,078 | 262,561 | 444,639 |
| 1970 | 3,176,522 | 3,084,395 | 6,260,917 | 156,918 | 233,720 | 390,638 |
| 1971 | 3,018,712 | 2,915,762 | 5,934,474 | 124,261 | 218,071 | 342,332 |
| 1972 | 2,573,586 | 2,433,076 | 5,006,662 | 178,221 | 198,225 | 376,446 |
| 1973 | 2,694,318 | 2,651,038 | 5,345,356 | 76,705 | 207,894 | 284,599 |
| 1974 | 2,646,589 | 2,866,816 | 5,513,405 | 46,020 | 167,586 | 213,606 |

자료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1984년 11월 4일 백운역이 개통되기까지 부평역과 동암역의 수송실적(1975~1984년)을 살펴보면 1975년에 부평역의 총승차인원은 326만여명, 강차인원은 346만여명이었으나 10년뒤 1984년말에는 승차인원은 1,985만명, 강차인원은 2,143만명에 이르러 승·강차인원 모두 6배 이상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동암역의 1975년 총승차인원은 77만명, 강차인원은 93만여명이었으나 1984년말에는 승차인원은 494만여명, 강차인원은 491만여명으로 승차인원은 6배, 강차인원은 5배이상씩 상승하였다. 여객수입은 부평역이 1975년 2억여원에서 1984년말에는 44억원으로 22배 상승하였고, 동암역은 4천5백만여원에서 2.2배이상 증가한 10억여원을 기록하였다. 부평역의 화물수송을 보면 발송톤수는 1975년 7만톤에서 1984년말에 6만톤으로 감소하였으나, 도착톤수는 20만톤에서 46만톤으로 2.3배 늘어났다(〈표 25〉 참조).

〈표 25〉 부평·동암역 수송실적 (단위:여객(명), 화물(톤), 금액(원))

| 연도별·역별 | 여객 | | | 화물 | |
|---|---|---|---|---|---|
| | 승차인원 | 강차인원 | 여객수입 | 발송톤수 | 도착톤수 |
| 1975 | 4,030,248 | 4,394,610 | 283,872,690 | 69,610 | 195,720 |
| 부평역 | 3,262,647 | 3,464,094 | 238,711,500 | 69,610 | 195,720 |
| 동암역 | 767,601 | 930,516 | 45,161,190 | — | — |
| 1976 | 4,762,278 | 4,429,822 | 475,758,235 | 53,125 | 227,754 |
| 부평역 | 3,755,400 | 3,474,892 | 411,761,860 | 53,125 | 227,754 |
| 동암역 | 1,006,878 | 954,930 | 63,996,375 | — | — |
| 1977 | 6,031,228 | 5,815,210 | 568,971,610 | 114,262 | 252,576 |
| 부평역 | 4,816,536 | 4,648,473 | 478,594,460 | 114,262 | 252,576 |
| 동암역 | 1,214,692 | 1,166,737 | 90,377,150 | — | — |
| 1978 | 8,940,997 | 8,785,402 | 936,596,839 | 66,876 | 252,091 |
| 부평역 | 7,556,901 | 7,584,596 | 790,472,499 | 66,876 | 252,091 |
| 동암역 | 1,384,096 | 1,200,806 | 146,124,340 | — | — |
| 1980 | 14,456,402 | 14,744,830 | 2,090,296,522 | 50,898 | 309,325 |
| 부평역 | 11,836,227 | 12,162,583 | 1,751,434,782 | 50,898 | 309,325 |
| 동암역 | 2,620,175 | 2,582,247 | 338,861,740 | — | — |
| 1981 | 18,254,168 | 18,201,037 | 2,938,323 | 72,275 | 302,638 |
| 부평역 | 15,024,624 | 14,981,200 | 2,410,986 | 72,275 | 302,638 |
| 동암역 | 3,229,544 | 3,219,837 | 527,337 | — | — |
| 1982 | 20,873,190 | 21,922,500 | 3,564,005 | 62,294 | 274,590 |
| 부평역 | 16,418,000 | 17,506,000 | 2,909,931 | 62,294 | 274,590 |
| 동암역 | 4,455,190 | 4,416,500 | 654,074 | — | — |
| 1983 | 18,223,522 | 18,476,053 | 3,747,811 | 90,743 | 385,240 |
| 부평역 | 14,775,483 | 15,063,715 | 3,050,919 | 90,743 | 385,240 |
| 동암역 | 3,448,039 | 3,412,338 | 696,892 | — | — |
| 1984 | 24,786,778 | 26,344,755 | 5,392,255 | 64,574 | 462,009 |
| 부평역 | 19,845,401 | 21,431,140 | 4,377,634 | 64,574 | 462,009 |
| 동암역 | 4,941,377 | 4,913,615 | 1,014,621 | |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주) 1981년도부터는 금액단위가 1,000원임.

한편,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후 북구 십정동 일대에 신생 주택가가 형성되면서 철도청은 이 지역 주민들의 철도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84년 11월 4일 백운역(북구 십정동 172번지 소재)을 신축, 개통하였다.

1985년부터 1993년말까지 부평지역 3개역의 철도수송실적을 보면 승객수송면에서 부평역이 1985년 승차 2,163만명, 강차 2,247만여명에서 8년뒤인 1993년말에는 승차 2,628명, 강차 2,651명으로 승차인원은 21.5%, 강차인원은 15.2% 증가하였다. 동암역은 승차 558만명, 강차 414만여명에서 승차 1,818만명과 1,824만명으로 승차인원은 3.3배, 강차인원은 4.4배 상승하였으며, 백운역은 승차 270만명, 강차 219만여명에서 승차 782만명, 강차 734만여명으로 승차인원은 2.9배, 강차인원은 3.3배 상승하였다.

여객수입면을 보면 부평역이 1985년에 50억여원에서 1993년말에는 145억여원으로 2.9배 증가하였고, 동암역은 14억원에서 72억여원으로 5배이상 증가하였으며 백운역은 6억여원에서 33억여원으로 5.5배 상승하였다. 부평역의 화물수송을 보면 1985년 발송톤수 8만여톤, 도착톤수 38만여톤에서 1993년 발송톤수 4만여톤, 도착톤수 16만여톤으로 이 기간 오히려 화물취급톤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수송수입 역시 1985년에 3억여원에서 1993년에는 19억원으로 감소하였다(〈표 26〉 참조).

〈표 26〉 부평 각역 수송실적

(단위:여객(명), 화물(톤), 금액(천원))

| 연도별·역별 | 여객 | | | 화물 | | |
|---|---|---|---|---|---|---|
| | 승차인원 | 강차인원 | 여객수입 | 발송톤수 | 도착톤수 | 화물수입 |
| 1985 | 29,901,183 | 28,809,912 | 7,009,448 | 83,820 | 383,715 | 337,603 |
| 동암역 | 5,575,969 | 4,144,407 | 1,365,583 | — | — | — |
| 백운역 | 2,695,604 | 2,192,255 | 602,517 | — | — | — |
| 부평역 | 21,629,610 | 22,473,250 | 5,041,348 | 83,820 | 383,715 | 337,603 |
| 1986 | 32,592,145 | 31,209,110 | 8,198,806 | 56,090 | 545,040 | 219,370 |
| 동암역 | 6,566,519 | 5,558,693 | 1,728,299 | — | — | — |
| 백운역 | 4,125,626 | 3,250,417 | 921,584 | — | — | — |
| 부평역 | 21,900,000 | 22,400,000 | 5,548,923 | 56,090 | 545,040 | 219,370 |
| 1987 | 35,160,495 | 35,702,549 | 9,934,459 | 51,091 | 401,925 | 210,647 |
| 동암역 | 7,551,526 | 6,787,264 | 2,143,324 | — | — | — |
| 백운역 | 4,978,969 | 4,825,285 | 1,396,834 | — | — | — |
| 부평역 | 22,630,000 | 24,090,000 | 6,394,301 | 51,091 | 401,925 | 210,647 |

| 연도별·역별 | 여객 | | | 화물 | | |
|---|---|---|---|---|---|---|
| | 승차인원 | 강차인원 | 여객수입 | 발송톤수 | 도착톤수 | 화물수입 |
| 1988 | 37,302,861 | 37,493,170 | 11,741,713 | 64,676 | 453,392 | 220,709 |
| 동암역 | 10,003,700 | 9,603,550 | 2,798,204 | — | — | — |
| 백운역 | 5,894,819 | 6,484,300 | 1,607,430 | — | — | — |
| 부평역 | 21,404,342 | 21,405,320 | 7,336,079 | 64,676 | 453,392 | 220,709 |
| 1990 | 44,965,426 | 45,151,543 | 15,491,436 | 49,900 | 333,450 | 183,201 |
| 동암역 | 14,285,702 | 15,785,702 | 4,022,913 | — | — | — |
| 백운역 | 6,808,123 | 5,446,498 | 2,025,476 | — | — | — |
| 부평역 | 23,871,601 | 23,919,343 | 9,443,047 | 49,900 | 333,450 | 183,201 |
| 1991 | 49,803,102 | 49,569,027 | 20,421,721 | 46,234 | 266,299 | 180,050 |
| 동암역 | 17,208,000 | 17,211,000 | 5,861,746 | — | — | — |
| 백운역 | 5,282,294 | 4,225,835 | 2,743,872 | — | — | — |
| 부평역 | 27,312,808 | 28,132,192 | 11,816,103 | 46,234 | 266,299 | 180,050 |
| 1992 | 52,156,899 | 52,382,161 | 21,279,319 | 47,247 | 176,565 | 174,180 |
| 동암역 | 17,640,394 | 17,630,410 | 6,031,384 | — | — | — |
| 백운역 | 8,278,462 | 8,243,527 | 2,896,606 | — | — | — |
| 부평역 | 26,238,043 | 26,508,224 | 12,351,329 | 47,247 | 176,565 | 174,180 |
| 1993 | 52,274,592 | 52,088,615 | 25,107,132 | 40,516 | 160,235 | 189,471 |
| 동암역 | 18,178,280 | 18,237,715 | 7,233,347 | — | — | — |
| 백운역 | 7,818,462 | 7,342,676 | 3,327,460 | — | — | — |
| 부평역 | 26,277,850 | 26,508,224 | 14,546,325 | 40,516 | 160,235 | 189,471 |

자료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 2. 교통의 특징

부평지역은 서울의 관문(關門)으로서 경인고속도로, 경인선전철화 등으로 서울과는 일상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업지역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밀한 인구와 급증하는 자동차, 대형화된 화물차량의 운행 등으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구청과 서구청에서는 근본적인 교통난 완화를 위한 각종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 아파트 밀집지역, 집단 신주거지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도심상가지역 등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의 확충과 증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정면허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교통불편해소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

# 第7章 통신(通信)

## 1. 통신의 변천

### 1) 개항이후 광복이전의 통신

인천의 우정 및 통신업 발달의 근원은 구한말 고종 21년(1884) 4월, 인천개항 직후 증가된 일본거류민의 요구와 한·일간 보다 빈번해진 무역왕래를 돕기 위해 일본인에 의해 설치된 일본우편국의 개설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우편물 발착취급은 한국에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던 일본 삼능(三菱)회사의 기선편에 탑재의뢰되어 왔으며, 1883년 11월 처음으로 매월 정기우편선 1항로를 개시하기 전까지 중요 긴급한 공문서만은 일본군함이나 외국군함편에 탁송되었다. 때문에 당시 인천에서 일본 동경으로 발신한 서신의 회신을 받아보기까지 3개월여가 걸렸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초 이 우편국은 인천의 일본영사관내에서 시무되다가 건양 원년(1896) 청사신축을 계기로 이전되어 독자적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고종 25년인 1888년에 이르러서는 한성 거주 일본인과의 빈번해진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경 인천 우체국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일본인에 의한 이러한 우편업무는 광무 3년(1899)에 이르러 외국환·우편저금 및 소포우편도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경인일대의 일본에 의한 우정활동의 확대는 청국을 자극하여 청국 역시 그들의 세력권내에 있던 인천해관(세관) 영역에서 자국우표를 사용하는 해관(海關) 우편제도를 운영하였다.[1]

한편, 우리나라 즉 구한말의 인천지역 우정통신사업은 전술된 일본인에 의한 우체국의 개설보다 약 7개월이 뒤늦은 1884년 11월이라 볼 수 있다. 1884년 3월 고종의 칙령으로 우정총국이 창설·공포된 후 그해 11월 그 기구 가운데 하나인 우정분국의 인천분국이 인천항 감리서안에 설치되어 경인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근대 우편업무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갑신정변(우정국사건)으로 인하여 우정총국이 개설 17일만에 폐쇄되자 인천분국도 따라서 폐국되었다.

당시 공고된 우정에 관한 고종칙령들은 그 후 우리나라 우체사업 발전의 근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예로서, 고종 칙령 124호 국내우편규칙을 보면, 제1장은 우체물의 종류와 우체료, 제2장은 우체물의 제한, 제3장 우표, 제7장 등기우체물, 제8장 무료우체물 등 전 10장 80조로

1) 인천시, 『인천개항 100년사』, 1983, pp. 1006~1007.

구성되어 있다. 우체물의 종류는 갑신년 당시와 같은 3종 즉, 제1종 신서(편지), 제2종 관보·신문지·잡지 등, 제3종 서적 등 각종 인쇄물, 사진, 영업품 견본, 농산물 종자 등이었다. 우표는 앞서 미국에 주문하였던 이른바 태극우표(국기우표)로서 5푼, 1돈, 2돈 5푼, 5돈의 4종이었다.[2] 인천(서울 역시 마찬가지)에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정제도인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된 것은 우정총국 인천분국이 폐국된지 10여 년이 지난 고종 32년(1895) 음력 6월 1일이었다.

인천우체사는 인천부 외리(경동) 226번지에서 시무하다가 1898년경 내리(내동) 103번지에 청사가 신축되었고, 다음해에 전보사(電報司)가 이곳에 뒤따라 이전하였다. 초대 국장은 김창한(金彰漢)이었고 그와 함께 주사 2명과 수명의 집배원이 종사하였다. 그러나 초기 우체사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로 개설년수가 앞선 일본 우편국과 청국의 해관우편에 의존하는 형편이었고, 그나마 내국인은 문화척도나 우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용도는 하루에 고작 50~60개의 우편물에 불과했다.[3]

우체사의 제도는 10년전 우정총국 당시 미국인 구레에 의하여 추진된 미국식 우편제도를 전제로 했지만[4], 구한말의 우정사업이 경험부족, 인식부족 등의 애로를 겪게 되자 우정에 한 걸음 앞선 일본정부를 통해 일본인 우체국 고문 야마다(山田雪助)를 초빙하여 일본우정 제도의 도입에 힘썼으며 얼마후에는 불란서인 크라망세의 자문을 얻기도 하였다. 이후 광무 4년(1900)에 이르러서는 한국우정이 만국우편연합에 가맹한 바, 이는 청국보다 3년을 앞선 것이다.[5]

이즈음 인천우체사의 운영에는 많은 개선이 뒤따라 서신비밀의 보호, 체송·배달 등이 정확해지고 대외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 또한 국내 각지에 36개 우체사가 설립된 광무 2년(1898) 경에는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한국내 지방체신은 우체사 이외에 다른 이용방법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광무 8년(1904)의 한일의정서체결을 계기로 일본은 한국내 우정(통신)기관의 합병, 정비를 강요하게 되고 마침내 1905년 4월 1일을 기해 한일통신협정에 의거, 일제에게 병탐(倂呑)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구한말 개혁의 의지와 개화의 상징으로 설치된 인천우체사의 기능은 1905년 5월 20일자로 일본우편국에 예속되었다. 그후 인천우체사를 포함하여 이 나라의 모든 우정·통신업무는 광무 10년(1906) 1월부터 일본 통감부 통신관리국에 의해, 그리고 융희 4년(1910)부터는 조선총독부 통신국에 의해 관장되었다.[6]

---

2) 체신부, 『한국우정사 1』, 1970, p. 166.
3) 『인천개항 100년사』, p. 1208.
4) 『한국우정사 1』, p. 165.
5) 『인천개항 100년사』, p. 1208.
6) 『인천개항 100년사』, pp. 1209~1212.

한편, 인천의 전기통신 즉, 전보의 효시는 고종 22년(1885) 7월 17일 조선과 청국간에 조청(朝淸)전선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정부가 인천을 기점으로 한성을 경유하여 의주에 이르는 전선을 가설키로 합의되어(가설비 10만원은 청국전보총국에서 차관으로 빌려왔으며, 시공도 전보총국에서 담당하였다), 동년 9월 28일 한성과 제물포의 전신의 개통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해 11월에는 의주에 이르는 전선이 가설되고, 이는 천진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청국은 인천이사부(영사관)에 전신국을 설치·운영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조일(朝日)해저전선부설조약에 위배된다고 항의하자 조선정부는 서울·부산간의 전선을 가설하여 일본의 부산전신분국과 연결하여 주었다. 결국, 경의 및 경부 양선이 개통되어 의주와 부산간이 전신으로 연결되었으며, 6년 후 고종 28년(1891)에는 경원선 역시 개통되어 전신망은 더욱 확대되었다.[7]

그러나 이러한 전신망의 가장 큰 수요자인 일본인들이 이 전선을 이용하기란 용이치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일본문이 취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보료는 비쌌으며 관할을 달리하는 네 곳의 전선을 통과하여야 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청국, 서울서 부산까지는 한국, 부산서 대마도까지는 덴마크, 대마도에서 나가사키까지는 일본소유였던 것이다. 더우기 가설공사의 미숙함과 풍수해 등으로 전선에서 통신두절이 빈발하여 통신의 정확성과 신속성의 기대는 무리였다고 볼 수 있다. 그후 1895년 청·일전쟁이 종결되고 일본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전국 각 도시 사이의 전선망이 새로운 가설 및 접선을 통하여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신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보사(電報司)가 설치된 것은 광무 원년(1897)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전보총사가 설치되었으며, 인천·원산·부산·삼화·무안·전주·평양·의주·옥강·창원·성진·경성·경흥·회령에 일등전보사가 설치되고 공주·대구·개성 등 각 도시에 이등전보사가 설치되었다.[8] 매사(每司)에는 사장(司長) 1인, 총사에는 추가로 기사 2인이 있었으며, 주사는 총사에 15인 이하, 일등사에는 3인이하 이등사에는 2인 이하를 두었다. 인천의 전보사는 인천우체사안에서 집무되었다. 전보사는 후에 통신원에 속하다가 우체사와 함께 러·일전쟁 후인 광무 9년(1905) 4월 1일 한일통신합동운영협정에 따라 일본의 통신기관에 흡수·통합되었다.

한가지 덧붙여 특기하고자 하는 것은 융희 2년(1908)부터 전보에 한글이 사용되어 능률과 편의가 한층 개선되었다는 점이다.[9] 한국전보사에서 취급한 전보는 국문·한문·영문 및 해외전보의 4종류였으며 요금은 국내 1자당 4전, 영문은 1자당 10전이었다. 광무 3년인 1899년에는

7) 『인천개항 100년사』, 1983, p. 187.
8) 『인천개항 100년사』, 1983, p. 186.
9) 『인천시사』, 1973, p. 166.

신문전보가 취급되었으며 요금은 1자당 20전으로 고시되었으나 다음해에 12전으로 감해졌다.

한편, 전화는 광무 6년(1902) 3월 통신원에서 서울·인천간에 전화를 가설하여 서울·인천 사이에, 그리고 용산 및 영등포에 전화교환과 통화업무를 개시한 것이 최초로서 전신보다 17년이나 늦은 셈이다. 초기에는 동일한 요금으로 시내와 연접지(시외) 사이를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내통화보다 주로 시외통화를 위한 가입자가 많아 시외전화회선이 시내교환선을 웃도는 이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입자는 서울에 약 50명, 인천에 약 20명, 영등포 및 수원에 각 1명이라는 소수였으며, 노선연장은 220리에 불과하였다. 요금은 가입등기료가 15원, 전화사용료는 1가입마다 연간 백원, 통화료는 5분에 50전, 호출료는 1리마다 20전이었다. 광무 9년(1905) 4월에 통신기관이 모두 일본에 강탈당하였기 때문에 이후 일본정부의 규정요금율에 의하여 실시되었다.[10]

시외 장거리 전화취급은 융희 2년(1908)부터 인천-한성-용산간, 진남포간, 인천-평양간에 통화되었으며 그후 각처로 연결되었다. 구한말 시외전화 이용은 인천-한성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인천 미두거래장의 호황기(1919년경)에는 보통선의 증설과 아울러 전용선도 가설되었다.

한편, 1940년 3월 15일에 부평역전우편소가 설립되었으나 일제하 부평지역이 군수공업지대로 공업도시화하자, 1941년 10월 24일에 부평동 422로 위치가 이전됐고 부평우편소로 개칭하였다.

### 2) 광복이후 구제(區制) 이전의 통신

광복 이후인 1949년 11월 25일에 부평우편소가 부평우체국으로 개칭되고, 6·25동란과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진정된 1960년초에 계산동우체국(계산동 108 소재)이 신설된 이후 8년간(1960~1967)의 부평지역 2개 우체국의 우편물 취급상황을 살펴 보면, 이 기간 취급된 총 우편물은 120만여 건(부평우체국 111만여 건, 계산동우체국 9만여 건)에서 483만여건(부평우체국 454만여 건, 계산동우체국 29만여 건)으로 4배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 기간을 통하여 이중 거의 대부분이 국내 보통우편물임은 물론이다. 우편요금 수입액도 1963년 254만여 원에서 1967년에는 729만여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표 1〉 참조).

10) 인천시, 『인천시사』, 1973, p. 175.

〈표 1〉 우편물 취급상황 (건, 원)

| 우체국별 / 연도별 | 국내우편 | | | 항공 | 총계 | | | 우편요금 |
|---|---|---|---|---|---|---|---|---|
| | 보통 | 특수 | 소포 | | 계 | 접수 | 배달 | |
| 1960 | 1,155,704 | 43,792 | 3,408 | | 1,203,615 | 515,854 | 687,761 | |
| 부평 | 1,070,055 | 39,829 | 2,989 | 160 | 1,112,824 | 500,549 | 612,275 | |
| 계산동 | 85,649 | 3,963 | 419 | 11 | 90,791 | 15,305 | 75,486 | |
| 1961 | 1,240,093 | 48,998 | 3,935 | | 1,293,026 | 533,452 | 759,574 | |
| 부평 | 1,150,762 | 44,693 | 3,576 | | 1,199,031 | 514,743 | 684,288 | |
| 계산동 | 89,331 | 4,305 | 359 | | 93,995 | 18,709 | 75,286 | 578,410 |
| 1962 | 1,248,023 | 49,162 | 3,920 | 19,434 | 1,320,539 | 543,447 | 777,092 | |
| 부평 | 1,150,362 | 44,697 | 3,576 | 19,434 | 1,218,069 | 518,678 | 699,391 | |
| 계산동 | 97,661 | 4,465 | 344 | — | 102,470 | 24,769 | 77,701 | 75,345 |
| 1963 | 1,196,042 | 53,283 | 6,023 | | 1,355,348 | 664,633 | 690,715 | 2,541,042 |
| 부평 | 1,066,805 | 48,890 | 5,611 | | 1,221,306 | 632,362 | 588,944 | 2,523,019 |
| 계산동 | 129,237 | 4,393 | 412 | | 134,042 | 32,271 | 101,771 | 18,023 |
| 1964 | 1,231,167 | 61,024 | 6,149 | | 1,298,340 | 584,368 | 713,972 | 2,064,205 |
| 부평 | 1,065,803 | 56,203 | 5,638 | | 1,127,644 | 540,526 | 587,118 | 1,921,982 |
| 계산동 | 165,364 | 4,821 | 511 | | 170,696 | 43,842 | 126,854 | 142,223 |
| 1965 | 1,020,005 | 71,338 | 1,439 | 200 | 1,791,571 | 771,949 | 1,019,622 | 4,188,582 |
| 부평 | 871,943 | 66,900 | 924 | 200 | 1,651,825 | 737,712 | 914,113 | 4,094,040 |
| 계산동 | 148,062 | 4,438 | 515 | — | 139,746 | 34,237 | 105,509 | 94,542 |
| 1966 | 1,989,093 | 67,390 | 8,313 | 186,471 | 2,251,267 | 838,872 | 1,412,395 | 1,415,229 |
| 부평 | 1,714,100 | 61,728 | 7,858 | 185,996 | 1,969,682 | 801,002 | 1,168,680 | 1,189,992 |
| 계산동 | 274,993 | 5,662 | 455 | 475 | 281,585 | 37,870 | 243,715 | 225,237 |
| 1967 | 4,730,448 | 86,869 | 13,597 | 180 | 4,830,915 | 1,663,073 | 3,167,842 | 7,293,378 |
| 부평 | 4,442,410 | 82,308 | 13,168 | — | 4,537,886 | 1,630,094 | 2,907,792 | 7,026,337 |
| 계산동 | 288,038 | 4,561 | 429 | 180 | 293,029 | 32,979 | 260,050 | 267,041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우편물취급 이외에도 우편저금 및 대체저금의 예입과 불출업무 역시 우체국의 주요 사업중 하나이다. 1967년 부평지역 2개 우체국에서 취급한 우편저금의 예입은 5,870구좌 1,858만여 원이었으며 불출은 2,564구좌 1,794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대체저금의 예입은 2,106구좌 366만여원, 불출은 2,639구좌 4,948만원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우편저금 및 대체저금 수령액 (1967. 12. 31 현재)

| 우체국별 | 우편저금 | | | | 대체저금 | | | |
|---|---|---|---|---|---|---|---|---|
| | 예입 | | 불출 | | 예입 | | 불출 | |
| | 계좌수 | 금 액 | 계좌수 | 금 액 | 계좌수 | 금 액 | 계좌수 | 금 액 |
| 총 계 | 5,870 | 18,585,114 | 2,564 | 17,942,300 | 2,106 | 3,662,395 | 2,639 | 49,476,481 |
| 부평우체국 | 2,230 | 13,337,707 | 1,828 | 13,033,735 | 1,662 | 3,300,932 | 2,405 | 46,543,731 |
| 계산동우체국 | 3,640 | 5,247,407 | 736 | 4,908,565 | 444 | 361,463 | 234 | 2,932,750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한편, 해방이후 6·25동란이 지난 후 인천시의 전화보급시설과 용량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1957년까지의 자석식시설은 1958년 공전식 교환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1965년 7월 자동식 교환시설로 개선되면서 2국이 개통되었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부평지역의 전화가입자 현황을 가설종별로 살펴 보면, 우선 총가입자수는 1965년 479대에서 1966년 560대, 1967년에는 970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설종별로는 일반인의 비중이 가장 크며, 공중전화는 1967년에 10대가 가설되었다(〈표 3〉 참조).

〈표 3〉 부평지역의 전화가입자 현황

| 년 도 | 가설종별 | | | | | |
|---|---|---|---|---|---|---|
| | 계 | 관공서 | 사설단체 | 일 반 | 공중전화 | 기 타 |
| 1965 | 479 | 39 | 52 | 388 | — | — |
| 1966 | 560 | 37 | 20 | 503 | — | — |
| 1967 | 970 | 60 | 147 | 306 | 10 | 447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 3) 구제(區制) 이후의 통신

구제실시 이후 13년간(1968~1980)의 부평지역 우편업의 상황을 살펴 보면, 우선 이 기간

취급된 총 우편물은 약 348만건(접수 97만건, 배달 251만건)에서 1,250만건(접수 539만여 건, 배달 711만여 건)으로 3.6배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편요금 수입액도 1968년 964만여 원에서 1980년에는 5,527만여원으로 5.7배 증가하였다. 또한 부평지역의 우체국은 1960년대 2개(부평·계산동)에서 1970년에 서곶우체국(북구 연희동 소재), 1974년에 산곡우체국(북구 산곡동 6-15), 1976년에 공단분국(북구 가좌동 180) 등이 추가로 설립되어 1980년말 현재 7개 우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조).

〈표 4〉 국내 우편물 취급상황 (건, 원)

| 연도및 국별 | 총계 | | | 보통 | | 특수 | | 소포 | | 항공 | 우편요금 |
|---|---|---|---|---|---|---|---|---|---|---|---|
| | 계 | 접수 | 배달 | 접수 | 배달 | 접수 | 배달 | 접수 | 배달 | | |
| 1968 | 3,477,199 | 972,163 | 2,505,036 | 856,150 | 2,257,813 | 62,160 | 81,399 | 4,869 | 8,010 | 206,796 | 9,643,615 |
| 1969 | 2,579,671 | 1,182,451 | 1,397,220 | 1,125,501 | 2,208,873 | 66,979 | 89,972 | 6,366 | 7,681 | 255,616 | 10,754,912 |
| 1970 | 4,679,978 | 1,568,445 | 3,111,533 | 1,475,348 | 2,915,045 | 63,873 | 90,945 | 7,736 | 11,867 | 115,164 | 19,331,551 |
| 1971 | 5,205,380 | 2,001,483 | 3,203,897 | 1,915,623 | 3,086,940 | 75,471 | 105,206 | 10,359 | 11,751 | – | 12,730,957 |
| 1972 | 5,065,912 | 2,062,303 | 3,003,609 | 1,961,672 | 2,846,962 | 88,616 | 135,467 | 11,750 | 20,854 | 591 | 60,399,745 |
| 1973 | 5,514,889 | 2,512,420 | 3,002,469 | 2,404,379 | 2,851,049 | 95,356 | 132,921 | 12,463 | 18,463 | 258 | 15,390,080 |
| 1974 | 5,578,652 | 2,343,683 | 3,234,969 | 2,223,510 | 3,047,398 | 102,603 | 166,472 | 17,352 | 23,880 | 437 | 36,082,977 |
| 1975 | 10,717,236 | 4,271,560 | 6,445,676 | 3,990,993 | 6,048,761 | 247,404 | 359,229 | 32,694 | 37,300 | 855 | 88,271,810 |
| 1976 | 11,962,090 | 3,196,605 | 8,765,485 | 3,007,473 | 8,514,007 | 159,384 | 225,531 | 29,013 | 25,947 | 735 | 89,585,236 |
| 1977 | 9,707,424 | 4,568,361 | 5,139,063 | 3,567,211 | 4,833,400 | 721,892 | 271,602 | 277,248 | 28,823 | 7,248 | 111,201,618 |
| 1978 | 10,403,920 | 4,384,502 | 6,019,424 | 4,096,066 | 5,587,229 | 254,822 | 186,550 | 32,771 | 35,645 | 674 | 104,969,225 |
| 1979 | 11,994,208 | 5,354,745 | 6,639,433 | 5,014,115 | 6,189,144 | 301,591 | 411,288 | 38,231 | 39,001 | 808 | 174,190,679 |
| 1980 | 12,495,511 | 5,389,975 | 7,105,536 | 4,992,753 | 6,582,158 | 359,714 | 482,034 | 37,518 | 41,384 | 228,577 | 55,274,047 |
| 공단분국 | 36,761 | 36,761 | – | – | – | 29,565 | – | 7,196 | – | 56 | 6,408,420 |
| 부평우체국 | 10,289,923 | 4,735,591 | 5,554,332 | 4,462,799 | 5,102,817 | 253,007 | 415,978 | 19,785 | 35,537 | 188,127 | 21,439,360 |
| 산곡동우체국 | 32,248 | 32,248 | – | – | – | 25,233 | – | 7,015 | – | 169 | 6,464,435 |
| 서곶우체국 | 1,558,272 | 249,125 | 1,309,147 | 228,554 | 1,251,662 | 20,218 | 53,466 | 363 | 4,059 | 39,522 | 9,619,212 |
| 계산동우체국 | 19,131 | 19,131 | – | – | – | 16,353 | – | 2,778 | – | 150 | 3,642,265 |
| 제317군사우체국 | 558,793 | 316,736 | 242,057 | 301,400 | 227,679 | 15,009 | 12,590 | 327 | 1,788 | 550 | 7,620,450 |
| 경찰대분국 | 383 | 383 | – | – | – | 329 | – | 54 | – | 3 | 79,905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한편, 부평우체국은 1973년 10월 1일에 감독국으로 지정돼 북구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1942년 12월 20일에 부평우편소에서 교환업무의 취급을 개시했던 부평지역 전신전화국은 1966년 11월 14일에 부평동 342번지에 4층짜리 부평전신전화분국 청사를 신축한 후, 1971년 12월 15일에는 부평우체국에서 분리하여 부평동 546번지에 자동식 1,000회선을 갖는 부평전신전화국으로 승격하였다. 그 후 1979년 9월 20일에는 92국으로 수용변경된 부평전신전화국 산곡분국이 개설되었다. 이 기간 부평지역의 전보취급상황을 살펴 보면, 1968년부터 1978년까지 발신·착신 및 중계를 모두 포함하는 국내 총 전보취급건수는 58,392건에서 197,706건으로 약 3.4배 증가하였다. 전보요금 수입총계 역시 1968년의 130만원에서 1978년에는 934만원으로 약 7.2배나 상승하였다(〈표 5〉 참조).

〈표 5〉 국내 전보 취급 상황 (건, 원)

| 연도 및 국별 | 발신 | | | 착신 | | | 중계 | 합계 | 요금 |
|---|---|---|---|---|---|---|---|---|---|
| | 계 | 유료 | 무료 | 계 | 유료 | 무료 | | | |
| 1968 | 22,218 | 17,351 | 4,867 | 30,560 | 24,459 | 6,101 | 5,614 | 58,392 | 1,299,838 |
| 1969 | 28,193 | 22,018 | 6,715 | 35,495 | 29,453 | 6,042 | 8,617 | 72,845 | 1,745,372 |
| 1970 | 32,824 | 24,720 | 8,104 | 39,143 | 33,442 | 5,701 | 11,049 | 83,016 | 2,115,660 |
| 1971 | 37,080 | 26,415 | 10,665 | 48,317 | 37,867 | 10,450 | 1,322 | 86,719 | 2,414,673 |
| 1972 | 30,421 | 20,545 | 9,876 | 49,736 | 43,664 | 6,072 | 7,956 | 88,073 | 474,181 |
| 1973 | 35,081 | 24,992 | 10,089 | 51,832 | 42,077 | 9,755 | 12,970 | 99,923 | 1,525,837 |
| 1974 | 44,372 | 31,314 | 13,058 | 60,728 | 51,255 | 9,473 | 18,864 | 123,964 | 1,946,116 |
| 1975 | 46,906 | 32,975 | 13,931 | 75,671 | 69,103 | 6,568 | 25,642 | 149,394 | 3,913,552 |
| 1976 | 36,776 | 26,577 | 10,199 | 51,724 | 40,858 | 10,866 | 19,758 | 108,258 | 4,682,801 |
| 1977 | 44,599 | 29,638 | 14,961 | 74,315 | 62,646 | 13,469 | 16,735 | 132,405 | 8,811,880 |
| 1978 | 47,220 | 27,178 | 20,042 | 81,199 | 65,216 | 15,986 | 19,314 | 197,706 | 9,337,410 |
| 부평전신전화국 | 23,683 | 14,180 | 9,503 | 65,673 | 56,522 | 9,151 | 19,314 | 108,670 | 4,937,891 |
| 부평우체국 | 11,818 | 6,499 | 5,319 | 2,940 | — | 2,940 | — | 64,758 | 2,142,609 |
| 공단분국 | 1,843 | 1,085 | 758 | 709 | — | 709 | — | 2,522 | 334,070 |
| 산곡동우체국 | 4,771 | 3,366 | 1,405 | 981 | — | 981 | — | 5,752 | 1,213,090 |
| 계산동우체국 | 2,132 | 1,331 | 801 | 340 | — | 343 | — | 2,475 | 451,940 |
| 서곳우체국 | 2,973 | 717 | 2,256 | 10,556 | 8,694 | 1,862 | — | 13,529 | 257,810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한편, 1971년에 5국이 개통된 부평의 전화가입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던 바, 1968년부터 1980년까지 부평지역의 전화가입자 현황을 가설종별로 살펴 보면, 우선 총 가입자수는 1968년 1,714대에서 1980년에는 14,659대로 약 8.6배 증가하였다. 가설종별로는 일반인의 비중이 가장크며 공중전화의 비중이 가장 작다.

공중전화대 수는 1968년 단 10대에서 1980년 1,218대로 급증하였다. 또한 통화량과 통화요금을 살펴보면, 총 통화량은 1969년 814만여 회에서 1980년에는 1억 6,495만여 회로 약 20.3배 증가하였다. 이중 거의 절대다수는 시내전화통화였다.

통화요금은 1969년 4,207만여 원에서 1980년에는 19억 7,942만여 원으로 약 47배 증가하였던 바, 이것이 통화량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그간의 물가상승에서 그 원인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표 6〉, 〈표 7〉 참조).

〈표 6〉 전화가입자 현황

| 연 도 별 | 가 설 종 별 | | | | | |
|---|---|---|---|---|---|---|
| | 계 | 관 공 서 | 단 체 | 일 반 | 공중전화 | 기 타 |
| 1968 | 1,714 | 72 | 34 | 1,598 | 10 | — |
| 1969 | 2,271 | 79 | 64 | 2,117 | 11 | — |
| 1970 | 2,563 | 84 | 210 | 2,258 | 11 | — |
| 1971 | 3,787 | 116 | 48 | 3,614 | 9 | — |
| 1972 | 4,326 | 2,198 | 139 | 1,957 | 32 | — |
| 1973 | 4,572 | 353 | 427 | 3,755 | 37 | — |
| 1974 | 4,948 | 171 | 98 | 4,628 | 51 | — |
| 1975 | 5,915 | 185 | 2,847 | 2,698 | 82 | 83 |
| 1976 | 7,345 | 307 | 12 | 6,929 | 97 | — |
| 1977 | 8,600 | 316 | 256 | 7,917 | 111 | — |
| 1978 | 9,246 | 131 | 3,123 | 5,854 | 138 | — |
| 1979 | 9,326 | 175 | 124 | 8,809 | 218 | — |
| 1980 | 14,659 | 391 | 12 | 14,002 | 254 | —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표 7〉 전화 통화량 및 통화요금

| 연 도 별 | 통 화 량 | | | 통 화 요 금 (원) | | |
|---|---|---|---|---|---|---|
| | 계 | 시 내 | 시 외 | 계 | 시 내 | 시 외 |
| 1969 | 8,142,853 | 5,421,943 | 2,720,910 | 42,072,577 | 20,148,436 | 21,924,141 |
| 1970 | 8,166,662 | 7,488,847 | 742,970 | 57,617,211 | 29,955,348 | 27,661,863 |
| 1971 | 9,424,192 | 8,565,204 | 858,988 | 73,678,416 | 34,260,816 | 39,417,600 |
| 1972 | 13,518,228 | 13,493,199 | 25,029 | 55,937,198 | 53,972,796 | 1,964,402 |
| 1973 | 17,192,022 | 15,939,510 | 1,252,512 | 150,896,391 | 63,758,040 | 87,138,351 |
| 1974 | 34,150,675 | 33,211,652 | 939,023 | 242,626,995 | 155,864,074 | 86,762,921 |
| 1975 | 49,408,218 | 49,408,218 | — | 499,834,127 | 395,265,747 | 104,568,380 |
| 1976 | 7,757,038 | 7,678,346 | 78,692 | 73,558,698 | 60,874,547 | 12,684,151 |
| 1977 | 80,705,096 | 79,929,000 | 776,096 | 796,886,000 | 639,434,000 | 157,452,000 |
| 1978 | 82,000,440 | 81,356,442 | 643,998 | 872,399,000 | 698,915,000 | 173,484,000 |
| 1979 | 122,195,967 | 40,713,989 | 81,463,978 | 890,184,306 | 296,728,102 | 593,456,204 |
| 1980 | 164,952,240 | 144,041,580 | 20,910,660 | 1,979,420,000 | 1,728,499,620 | 250,920,580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한편, 구제실시 이후 꾸준한 인구증가로 부평의 통신분야 활동 역시 커다란 발전이 뒤따랐다.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지난 12년간 부평지역의 우편관서 현황을 보면, 총 우편관서는 1981년 6개에서 1992년에는 27개로 4.5배나 증가하였다(〈표 8〉 참조).

〈표 8〉 부평지역 우정관서

| 연 도 별 | 우 정 관 서 | | | | | | 우 편 취급소 |
|---|---|---|---|---|---|---|---|
| | 계 | 일 반 | 별 정 | 군 사 | 분 국 | 분 실 | |
| 1981 | 6 | 4 | — | 1 | 1 | — | — |
| 1982 | 8 | 4 | — | 1 | 3 | — | — |
| 1983 | 8 | 4 | — | 1 | 3 | — | — |
| 1984 | 8 | 4 | — | 1 | 3 | — | — |
| 1985 | 10 | 4 | — | 1 | 4 | — | 1 |
| 1986 | 13 | 7 | — | 1 | 3 | — | 2 |
| 1987 | 15 | 6 | — | 1 | 4 | — | 4 |
| 1988 | 15 | 6 | — | 1 | 4 | — | 4 |
| 1990 | 61 | 10 | 1 | 1 | 4 | — | 9 |
| 1991 | 27 | 13 | 1 | 2 | 2 | — | 9 |
| 1992 | 27 | 13 | 1 | 2 | 2 | — | 9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부평우편소로 개소, 부평우편국으로 개편된 후 1986년 7월 30일에 북구 부평동 546-63번지에 신설된 북인천우체국은 2과 10계의 편제로 정비되어 1992년말 현재 부평우체국을 비롯하여 계산·서곳·산곡·석남·부평 6동·동암·효성·곡전·계양·군사우체국·경찰종합분국·인천공단·부평공단·현대아파트분국 등 17개의 우체국과 백운우편취급소 등 9개의 우편취급소를 감독하고 있다. 북구와 서구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북인천우체국에는 1992년 10월 현재 14개의 주사국, 2개의 분국, 1개의 별정국 및 9개의 우편취급소가 있다(〈표 9〉 참조).

〈표 9〉 부평지역 우체관서 현황 (1992. 10 현재)

| 감독국 서기관급(4급) | 북 인 천 |
|---|---|
| 주 사 국 (6급) | 계산동, 가좌2동, 동암, 부평, 부평6동, 부평현대아파트, 서곳, 산곡동, 석남동, 인천공단, 작전동, 효성동, 제317군사우체국, 제803군사우체국 (이상 14국) |
| 분 국 (7급) | 경찰종합학교, 부평공단 (이상 2국) |
| 별 정 국 | 계양 (이상1국) |
| 취 급 소 | 가정동, 백운, 부평1동, 부평5동, 삼보, 삼산동, 서운동, 인천전방, 임학동 (이상 9개소) |

부평지역 우체국의 우편물 취급현황을 보면, 1981년 국내우편 10,758통 국제우편 409통, 도합 11,167통으로부터 1993년에는 국내우편 102,163통 국제우편 540통, 도합 102,703통으로 거의 9.2배나 증가하였다(〈표 10〉 참조). 또한 우편물요금 수입현황을 보면 1981년 국내우편 221,343원 국제우편 81,442원, 도합 302,785원에서 1993년에는 국내 5,915,621원 국제 467,891원, 도합 6,383,512원으로 증가하였다(〈표 11〉 참조).

한편, 1971년 12월 부평우체국에서 분리되어 부평전신전화국으로 개국된 부평전화국은 1983년 10월 10일 북구 산곡동 410번지의 현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1991년 1월 5일에 부평전화국으로 국명이 개칭되었다. 1991년 4월 10일에는 계산동·효성동지역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계산분국을 신설하였다. 관할행정구역은 2개시 4구 35동(102.92㎢), 관할인구는 1993년 말 현재 9만 8천명(213,000가구)이다. 부평전화국으로부터 작전 1·2동, 계산 1·2동, 서운동, 임학동, 영종동, 효성동 일부를 관내로 하여 북구 작전동 433-1번지에 개국된 부평전화국 계산분국의 현 시설은 9만 2천회선으로 가입자가 8만 7천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부평지역의 우체국 및 전신전화국에서 취급한 국내전보의 총 건수는 1981년 145,355건에서 1993년 221,503건으로 약 1.5배의 증가에 그쳤다(〈표 12〉 참조).

〈표 10〉 우편물 취급현황 (단위 : 천통)

| 연도별 | 국내 | | | | | | | | | 국제 | | | | | | | | |
|---|---|---|---|---|---|---|---|---|---|---|---|---|---|---|---|---|---|---|
| | 총계 | | | 보통 | | 특수 | | 소포 | | 총계 | | | 보통 | | 특수 | | 소포 | |
| | 계 | 접수 | 배달 | 접수 | 배달 | 접수 | 배달 | 접수 | 배달 | 계 | 접수 | 배달 | 접수 | 배달 | 접수 | 배달 | 접수 | 배달 |
| 1981 | 10,758 | 4,941 | 5,817 | 4,534 | 5,310 | 375 | 467 | 32 | 40 | 409 | 142 | 267 | 133 | 249 | 8 | 18 | 1 | – |
| 1982 | 10,318 | 4,587 | 5,731 | 4,251 | 5,277 | 303 | 416 | 33 | 38 | 200 | 134 | 66 | 126 | 62 | 7 | 4 | 1 | – |
| 1983 | 10,142 | 4,167 | 5,975 | 3,829 | 5,407 | 304 | 518 | 34 | 50 | 261.2 | 142 | 119.2 | 131 | 113 | 8 | 6 | 3 | 0.2 |
| 1984 | 11,415 | 4,831 | 6,584 | 4,447 | 5,993 | 344 | 551 | 40 | 40 | 331.5 | 211 | 120.5 | 202 | 115 | 7 | 5 | 2 | 0.5 |
| 1985 | 12,367 | 5,109 | 7,258 | 4,651 | 6,687 | 418 | 527 | 40 | 44 | 331 | 182 | 149 | 173 | 144 | 7 | 5 | 2 | – |
| 1986 | 14,983 | 5,491 | 9,492 | 4,888 | 8,840 | 542 | 600 | 61 | 52 | 386 | 174 | 212 | 160 | 203 | 10 | 9 | 4 | – |
| 1987 | 22,618 | 7,238 | 15,380 | 6,658 | 14,463 | 524 | 855 | 56 | 62 | 665 | 189 | 476 | 173 | 463 | 12 | 12 | 4 | 1 |
| 1988 | 28,280 | 8,618 | 19,662 | 7,919 | 18,606 | 639 | 992 | 60 | 64 | 795 | 204 | 591 | 189 | 581 | 10 | 8 | 5 | 2 |
| 1990 | 71,380 | 27,082 | 44,298 | 26,000 | 42,783 | 980 | 1,400 | 102 | 115 | 353 | 285 | 68 | 264 | 52 | 14 | 14 | 7 | 2 |
| 1991 | 106,632 | 50,189 | 56,443 | 48,909 | 54,563 | 1,148 | 1,742 | 132 | 138 | 326 | 190 | 136 | 169 | 117 | 13 | 16 | 8 | 3 |
| 1992 | 101,531 | 53,235 | 48,296 | 51,847 | 46,146 | 1,237 | 1,978 | 151 | 172 | 335 | 132 | 203 | 106 | 183 | 16 | 17 | 10 | 3 |
| 1993 | 102,163 | 53,208 | 48,955 | 51,705 | 46,820 | 1,341 | 1,951 | 162 | 184 | 540 | 134 | 406 | 104 | 378 | 18 | 24 | 12 | 4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표 11〉 우편물 요금수입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 총계 | | | 보통 | | | 특수 | | | 소포 | | |
|---|---|---|---|---|---|---|---|---|---|---|---|---|
| | 계 | 국내 | 국제 | 계 | 국내 | 국제 | 계 | 국내 | 국제 | 계 | 국내 | 국제 |
| 1981 | 302,785 | 221,343 | 81,442 | 208,732 | 156,388 | 52,344 | 65,403 | 50,629 | 14,774 | 28,650 | 14,326 | 14,324 |
| 1982 | 540,355 | 446,355 | 94,000 | 387,105 | 330,166 | 56,939 | 113,239 | 96,675 | 16,564 | 40,011 | 19,514 | 20,497 |
| 1983 | 503,231 | 394,445 | 108,786 | 291,418 | 231,300 | 60,118 | 153,284 | 134,121 | 19,163 | 58,529 | 29,024 | 29,505 |
| 1984 | 634,526 | 491,504 | 143,022 | 383,431 | 288,657 | 94,774 | 174,674 | 159,406 | 15,268 | 76,421 | 43,441 | 32,980 |
| 1985 | 643,351 | 512,912 | 130,439 | 379,293 | 304,741 | 74,552 | 179,717 | 165,044 | 14,673 | 84,341 | 43,127 | 41,214 |
| 1986 | 977,370 | 802,752 | 174,618 | 493,388 | 424,195 | 69,193 | 324,092 | 300,679 | 23,413 | 159,890 | 77,878 | 82,012 |
| 1987 | 1,062,453 | 878,334 | 184,119 | 606,685 | 527,511 | 79,174 | 293,601 | 267,283 | 26,318 | 162,167 | 83,540 | 78,627 |
| 1988 | 1,255,595 | 1,045,150 | 210,445 | 705,531 | 615,793 | 89,738 | 360,432 | 335,456 | 24,976 | 189,632 | 93,901 | 95,731 |
| 1990 | 3,076,863 | 2,730,506 | 346,357 | 2,124,848 | 1,995,559 | 129,289 | 641,919 | 560,599 | 81,320 | 310,096 | 174,348 | 135,748 |
| 1991 | 5,235,372 | 4,770,183 | 465,189 | 3,886,566 | 3,822,568 | 63,998 | 799,141 | 708,643 | 90,498 | 549,665 | 238,972 | 310,693 |
| 1992 | 6,711,866 | 6,322,249 | 389,617 | 5,308,336 | 5,254,048 | 54,288 | 937,985 | 789,988 | 147,997 | 465,545 | 278,213 | 187,332 |
| 1993 | 6,383,512 | 5,915,621 | 467,891 | 4,699,552 | 4,638,319 | 61,233 | 1,170,121 | 987,477 | 182,644 | 513,839 | 289,825 | 224,014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표 12〉 국내 전보취급 현황

| 연도별 기관별 | 총 계 | 발 신 | | | 수 신 | | |
|---|---|---|---|---|---|---|---|
| | | 계 | 유 료 | 무 료 | 계 | 유 료 | 무 료 |
| 1981 | 145,355 | 50,468 | 29,331 | 21,137 | 94,887 | 76,785 | 18,102 |
| 1982 | 87,811 | 28,358 | 20,944 | 7,414 | 59,453 | 58,332 | 1,121 |
| 1983 | 115,444 | 40,562 | 31,891 | 8,671 | 74,882 | 73,362 | 1,520 |
| 1984 | 116,658 | 39,324 | 31,376 | 7,948 | 77,334 | 75,916 | 1,418 |
| 1985 | 120,110 | 42,196 | 35,028 | 7,168 | 77,914 | 76,800 | 1,114 |
| 1986 | 133,140 | 47,127 | 39,969 | 7,158 | 86,013 | 84,913 | 1,100 |
| 1987 | 159,934 | 60,584 | 52,075 | 8,509 | 99,350 | — | — |
| 1988 | 181,569 | 72,168 | 62,909 | 9,259 | 109,401 | 108,402 | 999 |
| 1990 | 161,354 | 41,408 | 29,234 | 12,174 | 119,946 | 118,444 | 1,502 |
| 1991 | 243,086 | 85,042 | 53,245 | 31,797 | 158,044 | 156,850 | 1,194 |
| 1992 | 201,588 | 45,671 | 29,825 | 15,846 | 155,917 | 154,808 | 1,109 |
| 1993 | 221,503 | 44,433 | 31,738 | 12,695 | 177,070 | 176,329 | 741 |
| 북인천우체국 | 19,206 | 14,570 | 14,357 | 213 | 4,636 | 4,589 | 47 |
| 부평전화국 | 202,297 | 29,863 | 17,381 | 12,482 | 172,434 | 171,740 | 694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19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러 전보사용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값싼 전화시설망의 확대 및 FAX이용의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부평의 전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의 시설수는 1981년 23,200대에서 꾸준한 증가끝에 1993년말에는 292,100대로 약 12.6배로 증가하였다. 전체 가입자수도 같은 기간 22,837대에서 250,365대로 거의 11배나 증가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전화기 보유 및 전화가입자 현황 (단위:대)

| 연도별 | 방식별 보유현황 | | | | 시설수 | 가 입 자 수 | | | 공 중 전 화 |
|---|---|---|---|---|---|---|---|---|---|
| | 계 | 자동식 | 공전식 | 자석식 | | 계 | 업무용 | 주택용 | |
| 1981 | 28,008 | 28,008 | — | — | 23,200 | 22,837 | 3,320 | 19,517 | 309 |
| 1982 | 33,893 | 33,893 | — | — | 29,000 | 28,295 | 5,095 | 23,200 | 406 |
| 1983 | 45,139 | 45,139 | — | — | 54,000 | 36,881 | 7,015 | 29,866 | 477 |
| 1984 | 49,803 | 49,803 | — | — | 54,000 | 49,803 | 10,104 | 39,699 | 721 |
| 1985 | 54,000 | 54,000 | — | — | 54,000 | 53,271 | 10,792 | 42,479 | 930 |
| 1986 | 85,447 | 85,447 | — | — | 84,000 | 72,683 | 14,063 | 58,620 | 1,165 |
| 1987 | 91,014 | 91,014 | — | — | 104,600 | 91,014 | 10,759 | 80,255 | 1,286 |
| 1988 | 110,004 | 110,004 | — | — | 107,672 | 104,668 | 12,358 | 92,310 | 1,378 |
| 1990 | 199,452 | 199,452 | — | — | 185,600 | 179,152 | 28,491 | 150,661 | 2,230 |
| 1991 | 213,692 | 213,692 | — | — | 242,600 | 210,662 | 8,890 | 201,772 | 3,030 |
| 1992 | 233,129 | 233,129 | — | — | 290,600 | 233,129 | 14,732 | 218,397 | 3,171 |
| 1993 | | | | | 292,100 | 250,365 | | |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 2. 통신의 특징

인구의 성장세와 걸맞게 북인천우체국과 부평전화국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평의 통신분야 활동 역시 커다란 발전이 뒤따랐으며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第8章 동력원(動力源)

## 1. 동력원의 변천

### 1) 전력사업의 발전

우리나라는 일찌기 개화사업의 상징으로 전력사업을 추진하였다. 1884년 9월 당시 조선정부는 발명왕 에디슨(Thomas Alva Edison)에게 전등설비를 발주하였으며, 1887년 3월경(고종 24년 2월) 경복궁에 최초의 점등이 이루어졌다. 경복궁에 설치된 전등설비(전등소, 처음에는 전기소라고도 불렸음)는 16촉광의 백열등 750개를 점등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러한 조선왕궁의 전등가설은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후 7년 5개월만의 일이었으며 북경의 자금성은 물론이고 일본의 궁성보다도 약 2년을 앞지른 선구적인 사업이었다. 이어 1894년 5월 30일에 제2 전등소가 창덕궁에 준공되었다. 그 규모는 240마력의 증기설비와 16촉광의 백열등 2,000개를 켤 수 있는 발전설비들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상업용 점등은 이보다 7년 후인 1901년에 이루어졌다. 서울 시내의 전차, 전등 및 전화사업의 시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광무 2년) 고종의 비밀출자로 설립되었다. 이 회사가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이유는 당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날카롭게 대립한 때문이었다.

당시 전기사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성전기회사의 운영이 시공청부업자인 영국인으로 미국영주권자인 콜브란(Henry Collbran)에게 맡겨졌다. 이 회사는 전등보급의 첫 대상을 궁궐을 비롯하여 외국공관이 모여 있던 정동과 일본인 상가인 진고개(현 충무로), 그리고 남대문 및 서대문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1901년 6월 17일 그 첫번째로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에 전등 6개를 점등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조명과 동력의 역사는 가스에서 전기로 발전하는 것이 하나의 통례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부터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하게 되었다.

경복궁의 전기점등 이래 고종의 전기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철도자영에 의한 수익의 기대에서 한성전기회사의 설립동기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고종은 전기시설의 건설이권을 미국인에게 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국가와 황실의 안정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고종은 미국정부로부터 아무런 정치적 보장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콜브란과의 불평등계약 때문에 한성전기회사(1904년 한미전기회사로 전환되었음)의 모든 재산과 특허권을

그에게 넘겨 주게 되었다. 콜브란은 1909년 이 회사를 일본인(日韓瓦斯주식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전신)에게 매각하고 조선을 떠났다.

한편, 러일전쟁 당시 전국에서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였던 인천에서는 1904년 9월 일본 거류민에 의해 전기회사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설립을 위해 각국 거류민의 찬동이 전제되었던 바, 일본인들은 당시 인천에 거주하였던 구미인들, 청국인들과의 공동출자로 1905년 1월 일본법률에 의한 인천전기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자본금은 12만 5천원이었으며 주주는 일본인 18명, 구미인 13명 그리고 청국인 8명 등 모두 39명이었다. 이 회사는 1905년 7월 인천일본영사관에 설립 등기를 마치고 다음해 1906년 4월 인천 이사청(理事廳;을미조약이후의 인천일본영사관의 후신)으로 부터 전등영업의 사업특허를 득하였으며 회사(화력발전소)의 소재지는 지금의 중구 송월동 2가 22번지이었다.

인천 이사청에서 발급한 허가서에 의하면 운영상의 규제를 일본 체신성령(遞信省令)에 준하여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이미 일본이 한국에서의 강력한 실권자임을 과시하였다.

인천전기주식회사는 한성전기주식회사(1901년)와 부산전등주식회사(1902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1906년 4월에 개업하였다. 1906년말과 1910년말 현재의 수용호수는 각각 658호와 690호, 전등수는 각각 2,934등과 3,860등이었다.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수용호수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수용가 모두가 외국인 거류민이었다.

인천전기는 개업초기에 러일전쟁 뒤의 호경기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발전하였으나 1907년이후 재계불황으로 운영난에 허덕이며 난항을 거듭하던 중 1911년의 인천축항(제1도크) 기공으로 도산은 면하였으나 200kw 출력의 발전용량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발전설비를 도입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1912년 7월 일한와사(日韓瓦斯)주식회사(경성전기주식회사의 전신)에 22만 5천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전기주식회사는 일한와사전기주식회사 인천지점으로 바뀌었으며, 1915년 9월 동사의 명칭이 경성전기주식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경전인천지점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로 경성전기주식회사는 발전회사가 아닌 배전회사이었으며, 1961년 7월에 발전회사인 조선전기와 다른 배전회사인 남선전기와의 전기 3사 통합으로 한국전력주식회사로 발족되었다.

한때 일한와사전기주식회사는 연료비가 값싼 인천에서 1,000kw를 발전하여 서울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어떤 까닭인지 실현하지 못한 채 1922년 절대량이 부족한 대로 인천에서의 발전량으로 자급자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인천은 1922년 7월부터 서울로 부터 수전(受電)하였다. 처음에는 전주(木)를 세워 송전하였으나 1927년에 철탑이 세워졌다.

1938년 1월에 인천지역의 수전전압 22kv로 승압하는 동시에 인천변전소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됨에 따라 전력부문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방당시

충분하였던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북한에 놓였기 때문에 남한은 일시에 전력자립 기반을 상실케 되었다. 남한의 발전설비는 19만 8,700kw로 전체(172만 2,700kw)의 11.5%에 불과하였으며 남한의 발전량은 그 보다도 훨씬 적은 전체의 4%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남한의 발전설비로는 해방후 생산공장의 운휴로 평균 6만kw에 그쳤던 수요도 충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평균 5만kw 정도를 공급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군정당국에서는 그동안 운휴중에 있던 영월·당인리·부산 등 화력발전소를 긴급 보수하여 1946년 12월부터 발전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1948년 발전함 Jacona호(2만kw)와 Electra호(6,900kw)를 도입함으로써 1948년 4월에는 평균 10만 4천kw를 발전·수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5·10총선 직후인 1948년 5월 14일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단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남한 자체의 평균출력은 5만 8천kw로 수요의 55.9%에 불과하므로써 심각한 전력난이 초래되었다.

5·14단전 이후 발전설비의 확충에 힘입어 전력사정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6·25동란으로 전국의 발전설비는 발전 40%, 송전 20%, 배전 60%가 각각 피해를 입었다. 휴전 이후 활발한 전후복구 사업에 힘입어 1956년 5월에는 전국의 최대출력이 21만5천kw로 증가되어 전력사정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후 5·16군사혁명때까지 신규전원개발이 중단됨으로써 전력사정이 다시 악화되었다.

5·16혁명 이후 우리나라는 6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자립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를 이룩하였다.

전력사업 역시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어 발전설비는 1961년 36만 7천kw에서 1991년 2,111만 1,000kw(58배)로 급속히 확충되었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발전으로 해방후 줄곧 되풀이되어온 극심한 전력난을 해소하고 고속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발전부문의 조선전기, 배전부문의 경성전기와 남선전기의 합병으로 한국전력이 발족한 1961년 당시 우리나라의 총발전 설비는 36만 7천kw, 공급가능한 최대출력은 28만 8천kw에 불과한 데 반하여, 최대수요는 49만 5천kw로 14만 7천kw의 전력이 부족한 상태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제1차 전원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 추진하여 발전설비를 크게 확충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1964년 4월 1일을 기하여 무제한 송전이 실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력제한의 해제와 더불어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가전기기의 보급확산 등으로 전력수요는 급증하여 1967년 하반기부터 다시 제한송전을 실시하여야 했다.

한편, 인천은 1906년 200kw 출력의 발전소를 가동한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추가 발전소의 건립이 없었다. 인천은 처음에는 조선전기로부터 그리고 전기 3사의 통합 이후 한국전력으로 부터 수전하여 전력수요의 전량을 충당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

진에 따른 급속한 공업화로 경인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키 위해 제2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1967~1971) 기간중 부평지역에 부평내연발전소·인천화력발전소·경인에너지 등 3개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후 1973년 석유파동으로 그때까지 석유위주의 전원개발계획이 수정되어 발전연료의 다원화가 시도되었다. 제4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1977~1981)기간 중에는 탈석유 및 에너지 다원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돼 원자력, 유연탄 및 양수발전소가 건립되었다. 1970년 6월에 착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시설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1978년 4월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1]

그후 부평지역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단기간 충족시키기 위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1·2단계 건설이 각각 1990년 6월과 11월에 착공되어 1992년 11월에 준공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부평지역의 발전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평내연발전소

부평내연발전소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건설공기가 짧고 건설비가 적게 드는 디젤발전소로 1968년 9월 30일 완공되었다. 시설용량 3만kw(5,000kw×6기)의 부평내연발전소는 1일 중 첨두시간대(peak hour)의 가동을 위해 건립되었다. 이 공사에는 외자 287만 6천달러와 내자 3억 7,200만원이 소요되었다. 현재 디젤발전기들은 첨두시간대 가동용으로 보다 경제성과 효율이 높은 가스터빈(Gas Turbine)으로 거의 대체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디젤발전기들을 주로 도서지방용 발전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 부평내연발전소는 부평, 온수(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와 덕적도에 발전소(발전시설)를 관할하고 있다. 부평의 경우 기존 디젤엔진 외에 5만 5천kw 시설용량의 가스터빈(1977년 11월 준공)으로, 온수의 경우 1만 5천kw 시설용량의 가스터빈과 1,300kw 시설용량의 디젤엔진 각각 2기(1977년 2월 준공)로, 그리고 덕적도의 경우 300kw 시설용량의 디젤엔진 3기(1989년 8월 준공)로 구성되어 있다.

(2) 인천화력발전소

인천화력발전소는 경인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고 당시 기저(基底)부하발전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전기계통운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당시 경인지구의 전력공급은 주로 한강계의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발전소의 입지는 중량물의 운반과 연료수송 및 냉각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인지역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10m의 간만의 차로 인한 냉각수의 취수설비가 문제되어 3개 후보지를 조사측량하여

1) 인천시, 『仁川市史』, p. 1073.

상공부에 선정을 의뢰한 결과 인천 앞바다의 율도(서구 원창동 388)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8월 31일에 건설지점을 확정하였다.

일본 상업차관에 의하여 계획된 이 발전소는 시설용량 25만kw로 중유전소식 반옥외형 자연순환식 보일러와 재열식 터빈 및 보조기로 구성되어, 터빈과 발전기는 일본「도시바」(東芝社)에서 제작 공급하고, 보일러는「이사가와지마 하리마시」(石川島社)로부터 공급되었다. 당초 1호기는 2호기로 계획되어 1971년 8월을 준공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1년을 앞당겨 준공하므로써 1호기로 호칭되었다.

인천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확정되자, 1967년 5월 5일 일본「도시바」로부터 기술사양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10월 17일에 일본「미쓰이」와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1967년 11월 20일 자본 재도입이 인가되고, 1968년 1월 12일에 사업허가를 받아 건설사무소를 발족시키고 3월 11일부터 부지정지공사에 착공하였다. 이어 5월 27일 E/L이 발급되어 외자가 선적되고, 한전의 대비공사도 급속도로 진척되었다. 1968년 11월 25일 보일러 설치공사와 1969년 8월 3일에는 발전기 설치공사에 각각 착공하였다.

1969년 8월 30일에 보일러 수압시험을 끝내고, 1970년 1월 5일 화입(火入), 3월 2일 계통에 병입되었다. 3월 31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 1970년 5월 29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사업은 일본 삼정물산(三井物産)의 상업차관으로 외자 2,344만 4천달러와 내자 43억 2천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한편, 인천화력 2호기는 당초 1호기로 건설 추진되었는데, 25만kw의 동일 사양의 2호기 발전설비가 추가되어 1호기보다 앞서 준공됨에 따라 2호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천화력 1호기 건설당시부터 장차 후속사업에 대비하여 2·3·4호기를 수용할 공용설비가 같은 부지 안에 함께 완성되고 기자재도 대부분 도입되었으나, 계획조정과정에서 3차사업으로 이월되었다. 1호기와 마찬가지로 2호기도 일본「미쓰이」상사와 1968년 4월 3일 건설계약이 체결되고, 보일러는 일본 I.H.I사 터빈과 발전기는「도시바」에서 공급되었다. 6월 8일 사업이 인가되어 8월 28일에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3일 자본재도입이 인가되어 기자재가 현장에 도착, 공사가 추진되었다. 2호기 건설에 따른 공용설비는 1호기 공사에서 완료되고, 같은 제어실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1974년 7월 1일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끝내고 12월 20일 준공되어 상업발전을 개시하였다. 이 2호기 건설에는 외자 2,249만 9천달러와 내자 47억 6,700만원으로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이어 급증하는 경인지역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천화력 1·2호기에 인접하여 유전소식(油專燒式) 32만 5천kw 시설용량의 발전기 2기가 증설되었다. 1968년 3월 1호기 착공시부터 후속사업에 대비하여 6만 5천평의 대지가 축조되어 공용설비에 3·4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 것이다. 1974년 4월 29일 프랑스 Alsthom사와 3·4호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끝내고,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975년 5월 1일 발전소 건설공사에 착공, 부대공사는 현대건설이 담당·시공하였다. 1976년 8월 4일 보일러드럼 상양작업에 착수하여 3시간만에 설치 완료하였다. 이 보일러드럼은 프랑스의 Stein Industrie사가 제작 공급한 자연순환재열 강압통풍식으로 중량이 120톤에 이르고 있다.

터빈과 발전기는 Alsthom사가 제작한 시설용량 32만 5천kw로서, 1978년 5월 31일 3호기가 설치되고, 4호기는 같은 해 12월 20일에 준공 완료되었다. 이 3·4호기의 건설로 인천화력은 총 115만kw의 발전설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3·4호기 건설에 따른 공사비는 프랑스은행단 차관의 외자 8,975만달러와 내자 328억 5,500만원 등 도합 762억 5,700만원이 소요되었다.

인천화력 3·4호기는 1·2호기와 함께 1981년 4월 6일 제11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LNG사용 발전소로 선정되어 개조공사를 시행하였다. 1983년 12월 26일 당초 인천화력 보일러공급자인 일본 I.H.I사에게 개조방안을 검토시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1984년 3월 21일 기술용역계약을 한국전력기술(주)와 체결하고, 1985년 2월 5일 기자재공급계약을 한국중공업(주)가 일본 I.H.I사와 체결하였다. 개조공사는 LNG연소를 위한 보일러본체의 개조 및 연소설비설치, LNG연소제어계통설치, 공급설비, 안전설비 등을 시공하였다. 이 공사는 1986년 1월 착공되어 1987년 2월에 모두 완공되었다.

발전용 연료로 가동시에는 경유, 정상부하 운전시에는 중유 및 천연가스를 전소 및 혼소하도록 되어 있다. LNG는 평택 LNG인수기지로부터 기화시켜 72kg/㎠ 기체상태로 약 9.8㎞ 떨어져 있는 발전소 정문앞 Governing Station까지 지하배설관을 통해 보내지고 Governing Station에서 압력조절(72kg/㎠→8.5kg/㎠)되어 발전소내로 공급된 후 다시 강압되어 약 1.0~2.5kg/㎠의 압력으로 버너에 공급된다. 발전용 연료 공급원의 다원화로 년간 890만 배럴의 연료유를 LNG로 대체 가능하며 LNG사용 및 종합폐수처리설비 운영으로 인천지역의 대기오염 방지와 해양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1993년 발전실적은 64억 2,800만KWH로서 한전 전체 발전량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전력수요 약 73.5%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3) 경인에너지주식회사

경인에너지는 한미합작투자로 미국 Union Oil사가 5,000만달러, 한국화약계열에서 500만달러를 출자하여 1969년 11월 3일에 설립되었다. 전력수급의 안정과 민간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1967년 12월 13일자 정부방침에 따라 경인에너지는 동해전력과 호남전력 등 3개 민간화력발전소 중 하나로 건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동해전력이 1972년 2월, 그리고 호남전력이 1973년 5월에 한국전력에 인수되므로써 경인에너지는 현재 국내 유일의 민간 화력발전소로 운영되고 있다.

경인에너지는 1968년 4월 3일 경제기획원의 합작투자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20일 상공부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1969년 2월 19일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 발전소는 한국전력 인천화력발전소와 인접한 서구 원창동 율도 동부에 부지면적 4만 2천평을 확보하고, 1969년 4월 22일 한전과 율도공동개발계획을 체결하고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 발전소는 유전소(油專燒)반옥외형 자연순환식 재열식으로 설비용량 32만 4,800kw(16만 2,400kw×2기)를 설치하였다. 1970년 10월 발전소기기 설치공사를 끝내고 1972년 2월 21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보일러는 Babcock-Hitachi사 제작이며, 터빈은 반동·충동재열, 텐덤 콤파운드식으로 일립사(日立사) 제품이다. 기술용역은 미국 Flour사가 맡아 사양서의 작성과 설계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경인에너지는 발전소 건설과 아울러 연료수급대책으로 유조선 전용부두와 6만BPSP 정유공장을 1972년 9월 15일에 완공하여 방카C유를 자급자족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1972년 4월 17일 발전소 및 간이정유공장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발전소 건설에는 외자 4,280만 9,000달러와 내자 54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969년 11월 24일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약에 의해 전량이 한전에 공급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계약에 따라 경인에너지측에 고정비에 해당하는 수용원가와 연료비에 해당하는 전력량 원가를 합산한 전력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경인에너지의 발전량은 한국전력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예비율이 높아 1986년 7.4%까지 떨어졌던 경인에너지의 발전설비 이용률은 우리나라의 전력부족으로 1992년 현재 73.8%로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인에너지는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도를 저하시키기 위한 환경처고시(1991년 12월 18일)에 따라 발전용 연료를 현재의 저황왁스유에서 1997년 9월 1일부터 LNG로 전환시켜야 한다.

(4)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1987년 이후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건설공기가 비교적 짧은 LNG복합화력의 건설을 중심으로 한 단기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1991년 12월 31일까지 일도화력발전소라 불리었음)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 발전소의 건설기본계획과 건설사업세부계획이 각각 1987년 2월과 4월에 확정되어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각각 1990년 6월과 11월에 착공되었다.

한전이 총 공사비 8,326억원을 투입하여 1992년 11월에 준공한 서인천발전소는 서구 경서동(一島)에 위치하고 있으며 1, 2단계 설비용량이 각각 94만kw(15만 5천kw×가스터빈 4기와 8만kw×증기터빈 4기)인 대형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되는 도합 188만k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발전소의 기술용역을 한국전력기술(주)에 의뢰하였으며 (주)대

우, (주)한국중공업과 각각 토건공사 및 기전(機電)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기기공급자로는 미국의 General Electric사와 (주)한국중공업이 선정되었다. 이 발전소는 1차로 가스터빈을 가동시키고 회수된 증기(열)를 이용해 2차로 증기터빈을 가동시켜 열효율을 높이는 발전방식을 채택하였다.[2]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일일 기동정지 및 신속한 기동발전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도모함은 물론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므로써 수도권지역 환경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 가스사업의 발전

우리나라에 가스가 보급된 것은 일한와사주식회사(경성전기주식회사의 전신)의 창립에서 비롯된다. 1905년 7월 일본인 증니관치(曾禰寬治)는 러일전쟁 후 한국진출을 꿈꾸고 내한하여 겨울철이 길고, 추운 서울에서는 난방을 겸한 가스공급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미 한국인 권동수(權東壽)가 기득권을 얻고 있어,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가스사업의 이권을 매수하였다.

증니(曾禰)는 일본재벌 삽택영일(澁澤榮一;동경瓦斯사장) 등과 협의, 1907년 3월 5일자로 경성 이사청(理事廳;을미조약 이후의 서울일본영사관의 후신)경유 통감부에 가스영업 허가신청서를 제출, 그 해 6월 27일에 허가지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자본금을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불입금 75만원으로 제1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동경와사회사내에 일한와사 창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08년 5월 서울 용산에 있는 철도관리국과 주한일본군사령부 관할 토지 1만 4,000평을 대여받아 공장건설 등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9월 30일 동경에서 창립총회를 거친 일한와사(주)는 가스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영업시설을 1909년 10월 31일에 준공하고, 그 해 11월 3일을 기해 일본인 상가 등에 점화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가스등(燈)점화의 시초이자 가스이용의 효시였다.

일한와사(주)의 가스공급사업은 통감부의 절대적인 비호를 받아 활기를 띠었는데, 영업개시 후 1910년 1월말 당시의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 ○ 영업일수 90일
- ○ 1일평균 공급량 978m³
- ○ 제조용 석탄 소비량 342,578kg
- ○ 코크스 생산량 38,750kg
- ○ 가스제조량 92,712m³
- ○ 콜타르 생산량 7,739kg

---

2) 『仁川市史』, 1993, pp. 1079~1083.

○ 가스총공급량 88,006m³

○ 수용가 계약수 1,152호

이 때(1907년 1월 조사) 서울인구는 약 5만호에 20여 만명(이 중 일본인 2만 포함)이었다고 한다. 가스요금은 1,000입방피트에 3원이어서 보통 가스등 한 개를 한 달 사용하면 1원 내외였다. 이 무렵 물가는 쌀 한 되에 18전, 쇠고기 한 근에 40전이며, 일본인 목수 일당 1원 30전(한국인 1원), 일본인 인부 1원, 한국인은 30전일 때였다.

일한와사(주)의 가스사업은 꾸준히 신장하여 1915년 1월말 당시 등화구수가 1만 6,509공구에 이르렀으나, 그 뒤부터는 해마다 전등(텅스텐 전구 발달)에 밀려 1941년말에는 306공구에 불과하였다.

광복당시 서울의 가스공급시설은 고압관 1만 7,402m, 본관 13만 9,303m, 지관 11만 1,358m, 계량기 2만 5,517대에 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으로 일반공업부문이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원료탄(유연탄)의 구입난으로 가스와 코크스생산은 한때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당시 미군정청 미국인 관리관의 주선으로 조선석탄공사(대한석탄공사의 전신)청량리저탄장에서 원료탄 700톤과 당인리발전소의 보유탄 200톤을 구입하여 1945년 12월 가스발생로에 화입한 다음, 1946년 2월 21일부터 가스를 생산하여 일반가정과 공장에 공급하였다. 그러나 가스원료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해방후에도 주로 일본산 석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구입이 어려웠고, 탄질이 좋지 못해 가스사업에 큰 애로를 겪었다.

1961년 7월 1일 전기 3사가 통합되어 한국전력(주)이 발족하자 가스공급사업의 복구가 논의되었다. 1962년 7월 1일 한전 제9차 이사회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던 가스사업을 프로판가스사업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하고, 상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중지하라는 지시공문에 따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서울 및 부산의 가스제조 및 공급설비 일체를 1962년과 1966년 사이에 일반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1909년부터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전기사업체가 운영하던 (석탄)가스제조 및 공급사업은 56년만에 종말을 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액화석유가스(LPG)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59년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소량의 LPG가 사용되면서 부터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용기LPG가 직접 일본에서 수입되어 일부 부유층의 가정연료로 판매되었다.

국내 LPG생산은 1964년 대한석유공사의 울산정유공장이 가동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정제능력이 점차 확충되면서 가동초년도에 불과 1,000톤 미만이던 생산량이 1968년에는 1만 6,0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1969년에는 제2 정유회사인 호남정유가 가동함으로써 3만 3,00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LPG생산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동안 사치품목으로 취급되던 LPG가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었으며, 1966년에는 가솔린엔진 버스에 부탄을 사용하여 최초의 LPG사용차량이 등장하였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국내 LPG수요가 년평균 98%이상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자 1970년 정부는 조만간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LPG가격을 125%나 대폭 인상하는 등 가스수요 억제책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LPG수요 증가세는 대폭 둔화된 반면 정유회사의 신·증설은 계속 이어져서 국내 LPG공급여력이 생기게 되었는데, 특히 부탄의 경우 국내수요가 생산량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잉여분을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택시의 LPG사용은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휘발유 대비 가격상의 잇점으로 불법구조 변경을 통하여 성행하였는데 정부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1975년 LPG택시 종합대책을 수립, 이를 규제하였으나 동력자원부 발족을 계기로 재검토하여 1982년부터는 택시의 전면적인 LPG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도시연료의 편의성 및 안정성 추구를 위한 도시가스사업에 있어서도 1971년 서울시가 LPG/AIR방식의 도시가스공급을 개시하여 도시가스 원료로서 LPG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LPG수입은 1983년 6월 여천지역에 15만 2,000톤 규모의 지하저장시설을 갖춘 민간수입기지를 완공하면서 본격화되어 1984년에는 국내 LPG수요의 절반을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었으며, LPG수입소요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1988년 2월 울산지역에 세계최대인 27만톤 규모의 지하저장시설을 갖춘 민간 수입기지를 추가로 완공함으로써 국내 LPG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LNG도입 기본방침을 입안한 것은 1980년 10월이었으며 LNG도입을 위한 장기수요전망 및 적정 도입물량, 도입시기, 수입기지, 위치선정 등 전반적인 LNG사업의 기본계획이 1981년 4월 제11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도시가스수요가 충분히 개발될 때까지 LNG를 우선 발전용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도시가스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발전용 LNG의 공급량을 줄여간다는 방침하에 평택 및 인천화력발전소를 LNG, 중유겸용으로 개조 또는 건설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LNG인수기지의 위치는 평택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아산만 부근으로 결정하였으며, LNG사업의 추진은 사업추진주체의 설립시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계약에 따라 한전은 LNG도입국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LNG수출이 가능한 9개 나라에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렐리아만이 수출가능성을 회신하여 왔는 바, 오스트렐리아는 천연가스 매장량만 확인된 상태여서 LNG의 생산·도입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미 가스전(田)개발이 끝난 상태인 인도네시아를 도입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교섭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3년 8월 한국전력공사와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PERTAMINA)간에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간 년 200만톤의 LNG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은 LNG사업을 전담추진키 위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가스공사에 승계되었다.

LNG를 수입하여 저장·기화 공급할 인수기지는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에 건설키로 하고 1983년 4월에 착공하였다. 또한 기화된 천연가스를 소비지인 서울, 인천 등까지 수송할 배관망의 건설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에 돌입하게 되었다. 4년여에 걸쳐 총 공사비 5,237억원과 연인원 110만명이 동원된 대역사 끝에 년간 200만톤 처리가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의 LNG 인수기지와 직경 26인치의 주배관망 98km 및 직경 20인치의 도시가스 간선망 128km가 완공되어 1987년 2월부터 수도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LNG 공급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수요의 3% 이상은 LNG로 공급이 가능케 되므로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수급 구조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정연료인 LNG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오염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가스가 지니는 사용상의 편의성, 즉 연탄처럼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고스럽게 연탄을 갈아 넣을 불편이 없어지며, 요즘처럼 대도시의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운반의 어려움도 도시가스 사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잇점 등으로 수도권의 천연가스 수요는 지난 1987년 공급을 시작한 이래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70년대 들어 도시가스사업의 타당성을 당시 상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오다 시험적으로 서울시가 용산구 이촌동에 LPG/AIR방식의 설비를 1972년 5월에 완공하여 약 3,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다가(1975년 11월 폐쇄)동년 11월 14일 서울시영으로 강서구 염창동에 납사분해 방식의 설비(5만$m^3$/일, 7,000kcal/$m^3$)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1981년 3월 서울도시가스에 매각)하여 우리나라 도시가스사업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1978년 12월 5일 도시가스사업법의 제정·공포(법률 제3133호)로 민영도시가스회사 설립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1980년 2월 5일 민간주체인 대한도시가스(주)가 서울 강남구에 납사분해방식의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였고 이어 1982년에는 부산지역에 부산도시가스(주)가 납사분해방식, 1983년에는 삼천리도시가스(주)가 LPG/AIR방식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는 등 1991년말 현재 전국에 24개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경인지역의 7개 도시가스회사는 LNG를 기화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하고 있고 부산도시가스(주)를 비롯한 17개의 지방도시가스회사에 LPG/AIR방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융자지원 등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시책에 힘입어 도시가스 배관매설 총 연장이 1984년말 5,169km에서 1990년말 19,569km로 확충되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1982년말까지 3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말 24사로 늘어났고 공급가구수도 1982년의 16만4,000가구에서 1990년에는 120만2,000가구로 대폭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물량(10,500kcal/m³기준)도 1982년의 2,600만m³에서 1990년에는 9억 6,000만m³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인천의 도시가스사업은 인천도시가스(주)가 1984년 4월 간석동 범양아파트 2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인천은 현재 두개의 공급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천도시가스(주)가 북·서구, 남동구 일부 그리고 (주)삼천리는 중구, 동구, 남구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인천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LPG/AIR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평택 LNG인수기지와 수도권 LNG배관망이 가동되면서 1987년 2월부터 천연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하고 있다.

부평지역의 경우 가정용 도시가스 수용가구수는 1984년 13,020가구에서 1991년 83,503(북구 56,421, 서구 27,082) 가구로 6.4배 늘어났다(〈표 1〉 참조).

〈표 1〉 도시가스 사용가구수

| 구역/연도 | 북 구 | 서 구 | 계 | 구역/연도 | 북 구 | 서 구 | 계 |
|---|---|---|---|---|---|---|---|
| 1984 | 13,020 | -- | 13,020 | 1988 | 20,614 | 10,368 | 30,982 |
| 1985 | 78,921 | -- | 78,921 | 1989 | 30,624 | 13,115 | 43,739 |
| 1986 | 14,034 | -- | 14,034 | 1990 | 41,500 | 20,508 | 62,008 |
| 1987 | 18,286 | -- | 18,286 | 1991 | 56,421 | 27,082 | 27,082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가구수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배관망건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부평지역에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2. 동력원의 특징

부평지역에는 한국전력공사 인천화력발전소,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부평내연발전소 등이 위치하고 있어, 경인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第 9 章 산업경제단체(産業經濟團體)

## 1. 정부투자기관

### 1) 한국통신 부평전화국

1940년 3월 4일 부평역 역전우편소에서 전신전화업무를 개시하여 1966년 11월 14일 부평동 546에 부평우체국 전신전화분국을 설치했으며, 1971년 12월 15일 부평우체국에서 분리, 부평전신전화국을 개국하였다. 또한 1983년 10월 10일 북구 산곡동 410번지의 현 청사로 이전했고, 1991년 1월 5일 부평전화국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1991년 4월 10일 계산동, 효성동지역의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계산분국을 신설하였다.

편제는 4부 1분국 15과 1실로 직원수는 323명이다. 관할행정구역은 2개시 4구 35동, 19만4천여 가구를 관할하고 있다.

1993년 사업실적은 수입 71,720백만원으로 가입 전화대수는 17,122대, 기계식 20,000회선을 철거하여 전자식으로 바꾸었다.

### 2) 한국공중전화관리(주) 인천지점

인천시 및 경기도 부천시 관내 무인 공중전화기와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것을 목적으로 1981년 9월 1일 체신공제조합 경기지부(인천관리소)가 발족되었고, 1984년 5월 1일 경기지부 산하에 수원관리소가 새로 설립되었다.

1987년 3월 1일자로 안양, 성남관리소를 새로 설립·운영해 오다가 공중전화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1988년 8월 1일자로 체신공제조합에서 공중전화사업부로 분리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계열인 한국공중전화관리(주)를 설립하게 되었다. 1989년 2월 1일자로 인천·부천지역을 관장하던 인천관리소를 분리하고 부평·부천지역을 전담관리하는 부천관리소를 부천시 송내동에 새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중전화관리(주) 인천지점의 소재지는 북구 십정 2동 587번지이며, 1993년말 현재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 DDD : 1,226대
- 동전교환기 : 20대

○ CARD : 1,362대

○ 시설의 옥내·외 구분 : 옥내 801대, 옥외 1,801대

### 3) 한국통신 신석전화국

1988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520번지의 15에서 주안전화국 신석분국으로 개국, 1994년 7월 11일 신석전화국 1급전화국으로 승격되면서 1994년 10월 1일에 신석전화국으로 개국되었다. 신석전화국은 서구, 북구, 동구, 일부지역의 정보통신사업을 위하여 일반전화, 공중전화 및 정보통신상품의 판매 및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직제기구는 2부 11과로 되어 있다.

○ 국장 ┌ 업무부 — 총무과, 회계과, 창구과, 판매과, 고객상담과, 수납과
　　 └ 기술부 — 교환기술과, 전력과, 소통관리과, 전송 1과, 전송 2과

○ 역대국장 : 초대 김의일, 2대(현재) 강정섭

### 4) 한국통신 경기전산국

1990년 4월 2일에 현 소재지 인천광역시 북구 부개 2동 120번지의 7에서 경기전산국으로 개국하여 1994년 7월 18일부로 1급국으로 승격, 행정구개편으로 1995년 3월 1일부로 부평구 부개2동 120-7로 소재지가 바뀌었다. 사업내용은 전화요금관리시스템운용 및 요금청구서 발행과 전화계약자관리시스템 전산운용을 하고 있다.

실적을 보면 1994년에 경기·인천지역 전화계약자 전화요금 청구서 4,200만장을 발행함과 동시에 전화계약수에 있어서는 약 354만명의 실적을 올렸다.

기구는 2부 8과로 전산지원부에 소속된 과로서는 전산관리과, 영업전산과, 화일운용과, 전산기운용과, 전산망운용과에 87명의 직원이, 요금전산부에 요금전산 1과, 요금전산 2과, 수납전산과 3개과에 48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 역대기관장 : 초대 조추오, 2대 한근수, 3대 조추오, 4대(현국장) 이공우

### 5) 한국감정원 부평지점

1969년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외 5개 시중은행이 공동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국감정원이 설립(정부지분 49.4%)되었고 부평지점은 1990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3-15에 개설되었다.

감정원의 설립목적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정거래의 기초를 확립함

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란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영업권, 광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함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 부평지점은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이 담당구역으로 1993년도 감정업무실적은 약 2,000여 건을 처리하였다.

○ 역대지점장 : 초대 송안섭, 2대 박종민, 3대 김항식, 4대 백태진, 5대 송안섭, 6대(현재) 김익남

### 6) 성업공사 인천지점

성업공사는 1962년 4월 6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과 이의 시행을 위한 「성업공사령」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성업공사는 특별공법인으로서 정부(재정경제원장관이 업무감독 및 임원의 임명)가 직접 관리하여, 자본금 출자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전액투자하여 1994년 12월 31일 현재 252억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이다.

그 주요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된 연체대출금의 정리

○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자산처분과 그 대금의 추심

○ 정부대행업무수행

- 국가귀속청산법인의 청산
- 국세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 지방세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 매출부과금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각업무

이상과 같은 인천지역내에서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성업공사 인천지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에 1985년 3월 1일부로 개설되었다. 업무기구로는 채권회수과, 재산처분과, 서무과의 3과로 되어있다.

○ 역대지점장 : 초대 최진국, 2대 김종립, 3대 고수환, 4대 최진국, 5대 박홍채, 6대(현재) 황병호

### 7) 한국담배인삼공사 북인천지점

구 전매청의 하부기관으로 1987년 4월 1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체제 전환후 1989년 4월 1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한국담배인삼공사 북인천지점」은 1993년 4월 1일 인천직할시 북구 작전동 855-18(행정구역 개편으로 1995년 3월 1일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55-18로 변경)에 신설발족하여 인천직할시 북구(부평구, 계양구)와 서구를 관할하는 정부투자기관이다.

사업내용은 국산담배와 홍삼드링크 판매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1994년도 실적을 보면 담배가 58,723백만원, 홍삼제품이 286백만원, 홍삼이 23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기구로는 지점장, 영업 1과, 영업 2과로 되어 있고 역대지점장에는 초대가 이혁범, 2대가 박종수지점장이다.

### 8)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건설사무소

굴포천건설사무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하부사업기관으로 1987년 7월 26일 경인지역 집중호우로 420억원에 해당하는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1993년 2월에 서구 시천동 162번지에다 사무소를 개설하고 1993년 4월 15일 굴포천 치수사업공사에 착수하였다.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은 1990~99년까지의 10년동안에, 투자총액은 242,530백만원으로서 1994년까지의 공사비는 52,800백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29%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부서는 총무과, 공사과의 2개과로 되어 있고, 박한기소장이 초대를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9) 한국전력공사 부평지점

한국전력사업은 1898년 1월 26일 한성전기회사설립에서 비롯되었으며, 전력사업은 8·15해방과 1948년 북한으로부터의 5·14단전, 6·25동란의 참화로 숱한 험난한 고비를 거쳐 1961년 7월 1일 구 3사(조선, 경전, 남전)를 통합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한전은 국가산업의 급속한 확대·발전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 전원개발사업에 주력해왔다.

그리하여 1982년 1월 1일 주식회사 체제를 공사체제의 공기업으로 체제전환을 함과 동시에

공사주식의 21%를 1989년에 국민주로 매각함에 따라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국민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평에서의 전력공급은 1904년 4월, 인천에 인천전기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이루어졌으며 사업소가 설치된 것은 3사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 경기지점 부평출장소로 발족한 것이 그 시초였다. 이어서 1965년 3월에 영업소로 승격, 1970년 7월에는 직제개편에 따라 인천지점산하로 편입되었다. 1981년 6월에는 인천지점에서 분리되어,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6동 623-27번지에 부평지점(3급)을 개설·발족하게 되었고 1983년 10월에는 2급지로 승격하였으며 이 지역에 산업공단과 아파트단지가 대대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7년 2월에 1급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사업현황은 인천직할시 북구, 서구일부지역에다 전력을 판매하는 일이며 1994년도 실적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1994년도 전력판매실적

| | 주택용 | 업무용 | 산업용 | 기타 |
|---|---|---|---|---|
| 호수 | 230,064 | 15,295 | 4,104 | 1,642 |
| 전력판매량 (MW) | 577,378 | 305,098 | 1,446,807 | 18,924 |
| 판매액 (백만원) | 50,051 | 27,070 | 7,136 | 909 |

資料 : 한국전력공사 부평지점

직제기구는 4부 14과로 되어 있다.

○ 지점장
- 영업운영부 – 서무과, 요금과, 수금과
- 영 업 부 – 종합봉사실, 영업과, 내선과, 계기과
- 배 전 부 – 지중배선과, 배전과, 승압과
- 배전정비부 – 배전보수과, 배전운영과, 정보통신과, 배전기술과

역대지점장 : 초대 류홍렬, 2대 조영래, 3대 김완배, 4대 이성진, 5대 전영수, 6대 박형규, 7대(현재) 이기웅

### 10) 한국전력공사 신인천전력소

1988년 1월 11일 345KV 신인천변전소 건설공사착공, 1988년 11월 2일 남서울전력관리처 345KV 신인천변전소 발족, 1988년 12월 26일 345KV 신인천변전소의 건설공사가 준공되면서

1989년 4월 1일 인천직할시 서구 가좌 4동 산184번지에서 한국전력공사 신인천전력소가 발족되었다.

사업내용은 인천직할시와 경기지역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다.

사업실적은 1994년에 있어서 평균시간당 공급량이 1,198MW(h), 평균 1일간 공급량이 35,000MW을 공급하였다.

직제기구는 2부 6과로 편성되어 있다.

○ 소 장 ┌ 변 전 부 – 서무과, 운전과, 보수과, 통신과
　　　 └ 송 전 부 – 운영과, 보수과

○ 역대소장 : 초대 김준성, 2대 이형용, 3대(현재) 박규남

### 11) 한국전력공사 인천화력발전소

서구 원창동 336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화력발전소는 1968년 1월 인천건설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1969년 1월에 발족되었다. 1970년 5월에 제1호기, 1974년 12월에 제2호기, 1978년 4월에 제3·4호기가 각각 준공되어 현재의 설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1987년 2월 LNG 연료전환공사를 완료하여 무공해발전을 하고 있다. 발전용량은 1·2호기가 각각 250,000KW, 3·4호기가 각각 325,000KW 총 1,150,000KW로서 한전 전체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 발전 실적은 64억 2,800만KWH로서 한전 전체발전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전력수요의 약 73.5%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청정연료인 LNG 및 초저유황유를 발전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인천지역 환경오염방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직제기구 및 인원은 7부 33과에 간부 43명, 직원 244명, 별정직 60명, 총 347명이 이 발전소를 지키고 있다.

### 12) 한국전력공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서구 경서동 산247에 소재하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한전이 총공사비 8,326억원을 투입하여 1990년 6월 30일에 착공하여 1992년 11월 17일에 준공된 발전소로 총 설비용량 1,880MW의 대용량 발전소이며,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환경 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발전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발전현황

| 구분 \ 연도 | | 93 (실적) | 94 (계획) | 증감율 (%) |
|---|---|---|---|---|
| 발전량 (MWH) | | 6,428,000 | 6,040,000 | △6.0 |
| 평균전력 (MW) | | 734 | 690 | △6.0 |
| 이용율 (%) | | 63.8 | 60.0 | △6.0 |
| 열효율 (%) | | 37.12 | 36.91 | △0.56 |
| 연료사용량 | 초저유황유 (kℓ) | 1,244,269 | 1,265,482 | 1.7 |
| | (Ton) | 214,195 | 136,366 | △36.3 |
| | 경유 (kℓ) | 1,622 | 2,235 | 37.8 |

1994년도 현재의 직제기구 및 인원은 7부 28과에 간부 43명, 직원 204명, 별정직 및 청경 44명을 포함하는 총 291명이다.

### 13) 한국전력공사 부평내연발전소

부평구 갈산동 90번지에 소재하는 부평내연발전소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건설공기(工期)가 짧고, 건설비가 적게 드는 디젤발전소로 1967년 12월 20일에 착공하여 1968년 9월 30일에 완공되었다. 시설용량 3만KW(5,000KW×6기)의 부평내연발전소는 하루중 첨두(尖頭)시간대(peak time)의 가동을 위해 건립되었다. 이 공사에는 외자 2,876,000달러와 내자 3억 7,200만원이 소요되었다.

현재 부평내연발전소는 부평 온수(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와 덕적도의 발전소(발전시설)를 관할하고 있다. 부평의 경우 기존 디젤엔진 외에 55,000KW 시설용량의 가스터빈(1977년 11월 준공)으로, 온수의 경우 15,000KW 시설용량의 가스터빈과 1,300KW 시설용량의 디젤엔진 각각 2기(1977년 2월 준공)로, 그리고 덕적도의 경우 300KW 시설용량의 디젤엔진 3기(1989년 8월 준공)로 구성되어 있다.

### 14) 한국주택공사 일신공사사무소

부평구 일신동 택지개발지구 1블럭번지에 소재하는 일신주공아파트 공사사무소는 1993년 12월 30일에 개소되었으며 불량주택 및 경작지 혼합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대지면적 10,909평에 17평형 아파트 134세대, 24평형 833세대 총 967세대의 분양아파트를 건설 공급하여 4,000여 주민들에게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31일 착공, 1995년 9월 및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995년 5월 1일 현재 6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직제기구는 소장밑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감독 각 1명씩 총 6명이다.

○ 역대소장 : 초대 이재열, 2대(현재) 이응규

### 15) 한국주택공사 부개주공아파트 공사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 3동 택지개발지구에 소재하는 부개주공아파트 공사사무소는 1994년 6월 2일 개소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기존의 논·밭으로 사용중이던 18만 3천여 평을 주택지로 개발하여 8,6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공급하고 행정기관, 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직제기구는 소장, 건축과장 및 감독 6명, 토목과장 및 감독 2명, 기계감독 1명, 전기과장 및 감독 2명 총 15명이다.

○ 역대소장 : 초대 심영태, 2대 손세긍

### 16) 한국주택공사 갈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부평구 갈산동 360번지에 소재하는 갈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990년 9월 30일에 개소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도시영세민 계층에게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12평짜리 1,170세대)을 건설·임대하여 현재 5,000여 명의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내 사회복지관에 공부방, 유치원, 놀이방,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관이 그 운영을 담당하므로써 영세민의 육아, 건강증진, 부업 등을 지원한다.

직제기구는 소장 1명, 관리 및 영선담광직원 4명, 관리담당직원 7명 총 12명이다.

○ 역대소장 : 초대 강현욱, 2대 이석진, 3대 허대욱, 4대 홍석진

### 17) 한국주택공사 삼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부평구 삼산동 154번지에 소재하는 삼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991년 8월 12일에 개소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등 도시영세민 계층이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12평짜리 1764호)을 건설·임대하여 현재 7,000여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공부방, 유치원, 놀이방,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영세민의 육아나 부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직제기구로는 소장 1명, 관리 및 영선담당직원 4명, 관리원 10명, 경비원 26명 총 41명이 종사하고 있다.

○ 역대소장 : 초대 서관호, 2대 정태삼, 3대 김재성, 4대 이상호, 5대 문형인

### 18) 한국주택공사 계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양구 계산 3동 2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계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990년 10월 10일 개소하여, 저소득 무주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6평~22평까지의 장기주택(5년 임대후 분양시행) 1,140세대를 건설·임대하여, 분양전환시까지 단지내 주택 및 부대시설물의 유지 운영관리를 한다. 이리하여 1990년 12월 9일까지 입주하여 1,140세대 5,000여 주민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있다.

직제기구는 소장 1명, 관리 및 영선담당직원 3명, 관리원 9명, 경비원 16명 총 29명이다.

○ 역대소장 : 초대 이석진, 2대 임준철, 3대 차기도, 4대 권석원, 5대(현재) 이형주

※ 이상의 모든 자료는 정부투자기관의 각 기관의 자료제공에 의한 것임.

## 2. 금융기관

### 1) 부평관내 금융기관

1962년 2월 정부는 무진(無盡)회사를 개편하여 서민금융전담기구로 한국국민은행을 설립한 후 한국국민은행과 2개의 무진회사를 합병하여 서민금융전담의 단일기구로 국민은행을 설립(1963년 2월 1일)하였다. 부평에는 1963년 2월 1일에 부평지점(부평동 355의 2에 소재)이 개점 되었는데, 이는 부평지역에 개설된 최초의 금융기관이자 특수은행이었다.

한편, 민족자본에 의한 근대적 금융기관으로서 1899년 1월에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 1911년에 조선상업은행으로, 그리고 1950년 4월 24일에 한국상업은행으로 행명(行名)이 개칭된

이후 1963년 12월 23일에 한국상업은행 부평출장소(부평동 248의 2에 소재)가 개점되었으며 1965년 5월 15일에는 부평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부평지역에 개설된 최초의 일반시중은행이었다. 1968년말 현재 국민은행 부평지점에는 26명(남자 22명, 여자 4명)의 직원이 있으며, 상업은행 부평지점에는 29명(남자 22명, 여자 7명)의 직원이 있었다.

한편, 1937년 8월 14일 창립된 조선중앙무진회사가 1942년 9월 1일 조선무진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고, 1946년 4월 1일에는 조선상호은행으로 1950년 5월 17일에는 주식회사 상호은행으로 1950년 6월 6일에는 한국상공은행으로 1954년 10월 1일에는 한국흥업은행으로 1960년 1월 1일 한일은행으로 개칭된 이후 1969년 12월 22일에 한일은행 부평지점(북구 부평동 357-36에 소재)이 개점되었다. 개점 당시에는 20명(남자 15명, 여자 5명)의 직원이 있었다.

1967년에 이르러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정부방침이 밝혀지자 1968년 3월 2일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상공인들이 가칭 인천지방은행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후인 1969년 7월 18일 발기인총회를 갖고 경기도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경기은행을 설립한다는 취지아래 가칭 경기은행 정관을 통과시켰으나 설립과정에서 허다한 어려움을 겪었다.

발기인회는 은행명칭을 경기은행에서 인천은행으로 변경하고 영업구역도 경기도 일원에서 인천시 일원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1969년 9월 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은관번 제70호로 인천은행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70년 4월 21일에 부평지점(북구 부평동 212-64에 소재)이 개점되었다.

한편,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동원을 위해 외자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환업무의 단일화를 위해 1967년 1월 30일 외국환업무와 무역금융업무를 전담하는 특수은행으로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었고, 1971년 12월 17일에 부평출장소가 개점(북구 효성동 316-2에 소재) 되었다. 그 후 1972년 6월 1일 인천은행이 경기은행으로 개칭되고 1973년 5월 3일 한국외환은행 주안출장소(북구 가좌동 180에 소재)가 개점되었으며 1973년 12월 17일에 한국외환은행 부평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1973년말 현재 경기은행 부평지점에는 19명(남자 14명, 여자 5명)의 직원이 있고 한국외환은행 부평지점과 주안출장소에는 각각 27명(남자 20명, 여자 7명), 20명(남자 15명, 여자 5명)의 직원이 있다.

1974년 4월 16일에는 한국신탁은행(1968년 12월 2일 창립) 부평간이예금취급소(북구 부평동 235에 소재)가 개점되었는데, 개점 당시의 직원 수는 8명(남자행원 5명, 여자행원 2명, 고용직 1명)이었다.

1975년 6월 30일에는 한국외환은행 주안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고, 제재단지 간이예금취급소(북구 가좌동 164-1에 소재)가 개점(남자행원 4명, 여자행원 1명, 기능직 1명 합계 6명)

되었다.

한편, 1950년대까지 중소기업자에 의한 자금지원은 일반금융부문의 중소기업자금대출과 대충자금 등 재정자금대출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취급은행이 다원화됨에 따라 효율적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금융체제를 정비하여 중소기업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도모코자 1961년 8월 1일 구(舊) 농업은행도시점포를 모체로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고, 부평에는 1975년 12월 18일에 주안지점(가좌동 537-1에 소재)이 개점되었다.

한편, 1959년 12월 1일 순수한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된 지방은행인 서울은행과 1968년 12월 2일 창립된 한국신탁은행을 1976년 8월 5일 흡수 합병하여 서울신탁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한국신탁은행 부평예금취급소가 서울신탁은행 부평예금취급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후 1967년 3월 30일 한국주택금고법이 제정공포되고 그해 7월 10일 한국주택금고가 설치됐다가 1969년 1월 4일 한국주택은행법이 공포됨으로서 한국주택은행에 권리업무가 인계된 이후 1976년 10월 6일 한국주택은행 부평출장소(북구 부평동 192-14)가 개점(남자행원 10명, 여자행원 7명, 남자고용직 3명, 여자고용직 2명 합계 22명) 되었고 1979년 5월 28일에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부평관내 금융기관별 예금실적을 보면 1979년말 현재, 일반은행이 전 예금의 47.9%인 21,880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은행은 52.1%인 23,787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1968년과 비교해 보면, 일반은행이 1968년 53.4%의 비중에서 5.5% 감소한 것이고 특수은행은 46.6%에서 5.5%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은행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특수은행의 대부분이 60년대에 개설되어 1970년대에 영업신장이 본격화된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또한 대출금 역시 1970년대를 통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1968년의 383백만원에서 1979년말 현재 47,867백만원으로 약 125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1968년 이래 들어서 경인공업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시설의 지역분산 및 수출산업을 위한 전문공업단지 조성, 그리고 지역특수산업 개발의 적극 추진 등으로 인한 왕성한 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출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

대출금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1979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대출실적이 16,802백만원으로 전체의 35.1%이고, 특수은행은 31,065백만원으로 전체의 64.9%를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부평관내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현황 (단위:백만원)

| 연 도 | 예 금 | | | 대 출 | | |
|---|---|---|---|---|---|---|
| | 총 계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총 계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 1968 | 1,138 | 608 | 530 | 383 | 138 | 245 |
| 1969 | 2,004 | 1,215 | 789 | 581 | 266 | 315 |
| 1970 | 2,376 | 1,438 | 938 | 919 | 509 | 410 |
| 1971 | 3,310 | 1,939 | 1,371 | 1,271 | 716 | 555 |
| 1972 | 4,386 | 2,676 | 1,710 | 2,140 | 690 | 1,450 |
| 1973 | 5,976 | 3,284 | 2,692 | 3,241 | 736 | 2,505 |
| 1974 | 6,474 | 3,604 | 2,870 | 3,907 | 1,222 | 2,685 |
| 1975 | 7,152 | 4,200 | 2,592 | 4,216 | 1,636 | 2,580 |
| 1976 | 10,316 | 5,561 | 4,755 | 7,447 | 2,589 | 4,858 |
| 1977 | 19,788 | 9,167 | 10,621 | 19,151 | 5,074 | 14,077 |
| 1978 | 34,667 | 15,677 | 18,990 | 32,878 | 10,908 | 21,970 |
| 1979 | 45,667 | 21,880 | 23,787 | 47,749 | 16,684 | 31,065 |

資料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예금실적면에서 일반은행 대 특수은행의 비율이 47.9% 대 52.1%인 점과 대출의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일반은행이 상업적 채산기준에 의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이라는 점에서 자금조달에 중시한 반면, 특수은행은 국민경제개발을 촉진 조정하기 위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장기산업자본의 공급과 금융상의 쇠약부분에의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정부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1928년에 제정된 저축은행령에 의해 1929년 7월 1일 조선식산은행의 저축에 관한 예·대금 업무를 인수하여 저축예금을 전담하기 위해 발족한 조선저축은행이 1950년 5월 20일 행명을 한국저축은행으로, 1958년 12월 1일에는 제일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했으며, 1980년 9월 11일에 부평지점(북구 부평동 206-21에 소재)을 개점하였다. 그 이전에 서울신탁은행은 부평예금취급소를 1980년 1월 14일자로 지점으로 승격하였다.

한편, 1897년 2월에 설립된 한성은행과 동일은행을 합병하여 1943년 10월 1일 창립된 조흥은행은 1980년 12월 26일에 부평출장소(북구 부평동 204-12에 소재)를 개점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1981년 12월 15일에 청천동 간이예금취급소(북구 청천동 179-7에 소재)를 개점하였

다. 또한 1982년 3월 25일에는 경기은행 부평남지점(북구 부평동 642 소재), 1982년 10월 6일에는 국민은행 계산동지점(북구 계산동 956-7 소재)이 개점되었다.

그 후 1985년 11월 22일 주택은행 작전동지점(북구 작전동 444-1 소재), 1986년 12월 12일 경기은행 계산동지점(북구 계산동 944-5 소재), 1987년 5월 8일 경기은행 신현동지점(서구 신현동 282 소재), 1987년 9월 25일 주택은행 산곡동지점(북구 산곡동 311-151 소재), 1987년 12월 28일 경기은행 가좌동지점(서구 가좌동 30-48 소재), 1988년 4월 12일 기업은행 석남동지점(서구 석남동 537-3 소재), 1988년 8월 9일 국민은행 대우자동차출장소(북구 청천동 193-1 소재), 1989년 2월 14일 외환은행 가좌출장소(서구 가좌3동 17 소재), 1989년 4월 8일 한일은행 동아아파트출장소(북구 부평1동 70-5 소재), 1989년 9월 22일 조흥은행 산곡동출장소(북구 산곡동 294-35 소재), 1989년 11월 24일 주택은행 신현동출장소(서구 신현동 283-3 소재), 1989년 12월 6일 외환은행 가정동출장소(서구 가정동 541 소재), 1989년 12월 20일 한일은행 대림아파트출장소(북구 부평동 64-20 소재), 1989년 12월 27일 인천북지점(북구 작전동 863-16 소재)이 잇달아 개점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금융산업에의 설립 내인가 조건을 완화하고, 은행점포·지점설치에 대한 자율조정폭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1982년에 신설되어 1987년 4월 16일 부평지점(북구 부평동 442-13 소재)이 개점되었고, 1983년에는 한미은행이 신설되어 1991년 5월 17일 부평지점(북구 부평동 202-1 소재)이 개점되었다. 1989년에는 동화·대동·동남은행 등이 신설되어 1990년 2월 14일 동남은행 부평지점(북구 효성동 385-19 소재), 1990년 3월 23일 대동은행 부평지점(북구 부평동 192-14 소재), 1991년 10월 15일 동화은행 부평지점(북구 부평동 549-5 소재)이 잇달아 개점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보람·하나·평화은행 등이 신설되어 1992년 7월 15일 보람은행 부평지점(북구 부평동 202-6 소재), 1993년 8월 5일 평화은행 부평공단출장소(북구 효성동 311-7 소재) 등이 개점되었다. 이 외에도 1990년이후 1993년말 현재까지 부평지역에 개점된 은행들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조흥은행은 성모자애병원출장소(북구 부평동 665-8 소재)와 계산동출장소(북구 계산동 968-12 소재)를 1993년 3월 11일과 6월 23일에 각각 개점하였고, 상업은행은 석남동출장소(서구 석남동 538-43 소재)와 산곡동출장소(북구 산곡동 182 소재)를 1990년 1월 17일과 5월 3일에 각각 개점하였다. 또한 1992년 11월 12일에는 갈산동출장소(북구 갈산동 363 소재)를 개점하였다. 제일은행은 1991년 9월 18일 작전동출장소(북구 작전동 866-13 소재)를 개점하였고 서울신탁은행은 1990년 4월 19일 갈산동출장소(북구 갈산동 73-10 소재)를 개점하였다. 외환은행은 1991년 9월 6일 산곡동출장소(북구 산곡동 274 소

재)와 1993년 12월 28일 작전동출장소(북구 작전동 555-1 현대아파트상가내)를 개점하였다. 경기은행은 1990년 4월 26일 동암지점(북구 십정동 356-4 소재), 1991년 8월 30일 병방출장소(북구 병방동 317-3 소재), 1991년 10월 29일 북구청출장소(북구 부평동 442-1 소재), 1991년 12월 3일 서구청출장소(서구 연희동 산 7외), 1992년 1월 27일 주안공단지점(서구 가좌동 548-14 소재), 1993년 8월 17일 석남동출장소(서구 석남동 510-9외), 1993년 9월 14일 부흥출장소(북구 부평동 10-523 소재), 1993년 12월 3일 갈산출장소(북구 갈산동 361-4 대동아파트단지내) 등을 개점하였다. 국민은행은 1990년 1월 17일 산곡동지점(북구 산곡2동 99-15 소재), 1993년 6월 18일 동암출장소(북구 십정2동 441-5 소재), 1993년 6월 30일 갈산출장소(북구 부평동 890-3 소재), 1993년 10월 27일 석남동지점(서구 석남동 450-4 소재) 등을 개점하였다. 주택은행은 1990년 5월 29일 동암출장소(북구 십정동 293-10 소재)와 1992년 12월 4일 계산동출장소(북구 계산동 918-6 소재)를 개점하였다.

1993년말 현재 부평지역에는 조흥은행 5개 점포, 상업은행 4개 점포, 제일·서울신탁·신한은행 각 2개 점포, 한일은행 3개 점포, 외환은행 6개 점포, 한미·동화·동남·대동·보람·평화은행 각 1개 점포 등 총 30개의 시중은행 점포가 영업중이며, 지방은행인 경기은행 13개 점포가 영업중에 있다. 또한 부평지역에는 중소기업은행 5개 점포, 국민은행 7개 점포, 주택은행 6개 점포 등 총 18개의 특수은행 점포가 영업중이다. 부평관내 금융기관 점포별 개점일과 소재지는 〈표 2〉와 같다.

〈표 2〉 부평지역 금융기관 점포현황 (1993. 12월말 현재)

| 은 행 명 | 점 포 명 | 개 점 일 | 주 소 |
|---|---|---|---|
| 조 흥 은 행 | 부평지점 | 1980. 12. 26 | 부평동 204-12 |
| 〃 | 산곡동출장소 | 1989. 9. 22 | 산곡동 294-35 |
| 〃 | 성모자애병원출장소 | 1993. 3. 11 | 부평동 665-8 |
| 〃 | 계산동출장소 | 1993. 6. 23 | 계산동 968-12 |
| 〃 | 가좌동출장소 | 1991. 4. 11 | 가좌동 129-37 |
| 상 업 은 행 | 부평지점 | 1963. 12. 23 | 부평동 549-3 |
| 〃 | 갈산동출장소 | 1992. 11. 12 | 갈산동 363 |
| 〃 | 산곡동출장소 | 1990. 5. 3 | 산곡동 182 |
| 〃 | 석남동지점 | 1990. 1. 17 | 석남동 538-43 |
| 제 일 은 행 | 부평지점 | 1980. 9. 25 | 부평동 206-21 |
| 〃 | 작전동출장소 | 1991. 9. 18 | 작전동 866-13 |

| 은 행 명 | 점 포 명 | 개 점 일 | 주 소 |
|---|---|---|---|
| 한 일 은 행 | 부평지점 | 1969. 12. 21 | 부평동 199-36 |
| 〃 | 동아아파트출장소 | 1989. 4. 8 | 부평1동 70-5 |
| 〃 | 대림아파트출장소 | 1989. 12. 20 | 부평동 64-20 |
| 서울신탁은행 | 부평지점 | 1979. 4. 16 | 부평동 152-1 |
| 〃 | 갈산동출장소 | 1990. 4. 19 | 갈산동 73-10 |
| 외 환 은 행 | 부평지점 | 1971. 12. 14 | 효성동 316-76 |
| 〃 | 산곡동출장소 | 1991. 9. 6 | 산곡동 274 |
| 〃 | 작전동출장소 | 1993. 12. 28 | 작전동 555-1 현대아파트상가내 |
| 〃 | 주안공단지점 | 1973. 5. 3 | 가좌동 552-23 |
| 〃 | 가좌출장소 | 1989. 2. 14 | 가좌3동 17 |
| 〃 | 가정동출장소 | 1989. 12. 6 | 가정동 541 |
| 신 한 은 행 | 부평지점 | 1987. 4. 16 | 부평동 442-13 |
| 〃 | 현대아파트출장소 | 1990. 12. 4 | 산곡동 산37-4 |
| 한 미 은 행 | 부평지점 | 1991. 5. 17 | 부평동 202-1 |
| 동 화 은 행 | 부평지점 | 1991. 10. 15 | 부평동 549-5 |
| 동 남 은 행 | 부평지점 | 1990. 2. 14 | 효성동 385-19 |
| 대 동 은 행 | 부평지점 | 1990. 3. 23 | 부평동 192-14 |
| 보 람 은 행 | 부평지점 | 1992. 7. 15 | 부평동 202-6 |
| 평 화 은 행 | 부평공단출장소 | 1993. 8. 5 | 효성동 311-7 |
| 경 기 은 행 | 부평지점 | 1970. 4. 21 | 부평동 199-24 |
| 〃 | 갈산출장소 | 1993. 12. 3 | 갈산동 361-1 대동아아파트단지내 |
| 〃 | 부흥출장소 | 1993. 9. 14 | 부평동 10-523 |
| 〃 | 북구청출장소 | 1991. 10. 29 | 부평동 442-1 |
| 〃 | 부평남지점 | 1982. 3. 25 | 부평동 642 |
| 〃 | 주안공단지점 | 1992. 1. 27 | 가좌동 548-14 |
| 〃 | 계산동지점 | 1986. 12. 12 | 계산동 944-5 |
| 〃 | 병방출장소 | 1991. 8. 30 | 병방동 317-3 |
| 〃 | 신현동지점 | 1987. 5. 8 | 신현동 282 |
| 〃 | 석남동출장소 | 1993. 8. 17 | 석남동 510-9외 |
| 〃 | 서구청출장소 | 1991. 12. 3 | 연희동 산7외 |
| 〃 | 가좌동지점 | 1987. 12. 28 | 가좌동 30-48 |
| 〃 | 동암지점 | 1990. 4. 26 | 십정동 356-4 |

| 은 행 명 | 점 포 명 | 개 점 일 | 주 소 |
|---|---|---|---|
| 중소기업은행 | 주안지점 | 1975. 12. 8 | 가좌동 537-1 |
| 〃 | 청천지점 | 1981. 12. 15 | 청천동 179-7 |
| 〃 | 부평지점 | 1979. 11. 26 | 부평동 126-7 |
| 〃 | 석남동지점 | 1988. 4. 12 | 석남동 537-3 |
| 〃 | 인천북지점 | 1989. 12. 27 | 작전동 863-16 |
| 국 민 은 행 | 부평지점 | 1963. 2. 1 | 부평동 199 |
| 〃 | 대우자동차출장소 | 1988. 8. 9 | 청천동 193-1 |
| 〃 | 갈산출장소 | 1993. 6. 30 | 부평동 890-3 |
| 〃 | 계산동지점 | 1982. 10. 6 | 계산동 956-7 |
| 〃 | 동암출장소 | 1993. 6. 18 | 십정2동 441-5 |
| 〃 | 석남동지점 | 1993. 10. 27 | 석남동 450-4 |
| 〃 | 산곡동지점 | 1990. 1. 17 | 산곡2동 99-15 |
| 주 택 은 행 | 부평지점 | 1976. 10. 6 | 부평1동 543-3 |
| 〃 | 산곡동지점 | 1987. 9. 25 | 산곡동 311-151 |
| 〃 | 동암출장소 | 1990. 5. 29 | 십정동 293-10 |
| 〃 | 작전동지점 | 1985. 11. 22 | 작전동 444-1 |
| 〃 | 신현동출장소 | 1989. 11. 24 | 신현동 283-3 |
| 〃 | 계산동출장소 | 1992. 12. 4 | 계산동 918-6 |

資料 : 인천일보사, 「인천연감」, 1994, pp. 366~370.

### 2) 협동조합

인천과 부천관내 농민들에 대한 농자금융자와 영농지도 등을 위해 1961년 8월 15일 부천군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돼 부평에 지소(부평동 199-9 소재)를 두고 1970년 7월 28일에는 백마장 예금취급소(북구 산곡동 87 소재)를 설치했으며, 1973년 10월 1일에는 인천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81년 10월 1일 농협중앙회 인천지회로 승격했다. 1983년 7월 5일에는 십정동지소를, 같은 해 10월 1일에는 부개예금취급소(북구 부개동 283-15 소재)를 신설 개점하였으며, 1984년 8월 14일 중앙회 지소를 지점으로 명칭 변경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자금 조성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그 후 1988년 4월 29일 가좌지점(서구 가좌동 336 소재), 1989년 6월 2일 청천동출장소(북구 청천동 15-30 소재), 1989년 7월 5일 동암지점(북구 십정동 402-6 소재), 1991년 5월 9일 북구 계

산동에 북인천지점을 개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4년 5월말 현재 부평지역에는 농협중앙회 7개 점포, 종합농협 18개 점포, 특수농협 1개 점포 등 총 26개 농협점포가 영업중이다. 각 점포별 개점일과 소재지는 〈표 3〉과 같다.

〈표 3〉 부평지역 농협점포 현황 (1993. 1월말 현재)

| 점 | 포 명 | 개점일자 | 주 소 |
|---|---|---|---|
| 중앙회 | 부평지점 | 1961. 8. 15 | 부평동 199-9 |
| | 부개지점 | 1983. 11. 1 | 부개동 283-13 |
| | 동암지점 | 1983. 7. 5 | 십정동 416-6 |
| | 백마장지점 | 1970. 7. 28 | 산곡동 99-6 |
| | 가좌지점 | 1988. 4. 29 | 가좌동 336 |
| | 북인천지점 | 1991. 5. 7 | 계산동 931-51 |
| | 청천동지점 | 1989. 6. 2 | 청천동 15-3 |
| 종합농협 | 부평농협 | | 부평동 509-1 |
| | 직할지소 | 1973. 10. 3 | 부평동 431-33 |
| | 효성지소 | 1974. 1. 10 | 효성동 335-1 |
| | 계산지소 | 1974. 7. 20 | 계산동 987-20 |
| | 갈산지소 | 1973. 2. 20 | 갈산동 91-3 |
| | 작전지소 | 1990. 2. 10 | 작전동 134-11 |
| | 신촌지소 | 1992. 3. 27 | 산곡동 310-95 |
| | 동수지소 | 1992. 11. 23 | 부평6동 658 |
| | 서인천농협 | 1972. 8. 12 | 가정동 482-4 |
| | 석남지소 | 1983. 11. 24 | 석남동 576-45 |
| | 연희지소 | 1986. 6. 2 | 연희동 530-4 |
| | 남부지소 | 1989. 5. 8 | 가좌동 146-37 |
| | 신현지소 | 1991. 12. 28 | 신현동 140-50 |
| | 천마지소 | 1992. 6. 24 | 석남동 470-7 |
| | 건지지소 | 1991. 5. 14 | 석남동 470-7 |
| | 계양농협 | 1970. 9. 26 | 박촌동 101-4 |
| | 임학지소 | 1986. 4. 19 | 임학동 101-2 |
| | 장기지소 | 1976. 1. 16 | 장기동 6 |
| 특수농협 | 부평시장지소 | 1991. 1. 20 | 부평동 150-24 |

資料 : 인천일보사, 「인천연감」, 1993.

한편 양축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 향상 구현을 위해 1951년 4월 발족한 인천시축산업협회는 1954년 2월 인천시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 개편하였고, 1980년 12월 축산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어 1981년 1월 1일 인천시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으로 가입하였다.

1986년 6월 9일에는 북구 십정동에 동암지소를 개설하여 상호금융 신용업무를 확장한 이후 1987년 12월 24일 북구 청천동 179-9에 청천지소를 개설하였고, 이어 1988년 7월에는 북구 부평동 360-23에 부평지소를 개설했다. 또한 1989년 11월 16일 서구 가정동 540-15에 가정지소를 개설했고, 1990년 12월 24일 부평지소를 부평동 143-71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92년 9월 17일 북구 계산동 958-11에 계산지소를 개설하였고, 동년 11월 4일 동암지소를 북구 십정동 318-9로 신축이전하였으며, 1993년 7월 22일 동암지소 지하에 농림수산부지정 축산물 시범판매장을 개설하였다.

1993년말 현재 부평지역에는 축협중앙회 5개 점포가 영업중이며, 각 점포별 개점일과 소재지는 〈표 4〉와 같다.

〈표 4〉 부평지역 축협사무소 현황 (1993. 12월말 현재)

| 점포명 | 개점일 | 소재지 |
|---|---|---|
| 동암지소 | 1986. 6. 9 | 십정동 318-9 |
| 청천지소 | 1987. 12. 24 | 청천동 179-9 |
| 부평지소 | 1988. 7. 7 | 부평동 143-71 |
| 가정지소 | 1989. 11. 16 | 가정동 540-15 |
| 계산지소 | 1992. 9. 17 | 계산동 958-11 |

資料 : 인천일보사, 『인천연감』, 1994.

한편, 1926년 인천어업조합으로 시작한 인천수협은 1961년 5월 26일 송도, 영종 어업조합을 편입시켰으며 1962년 4월 1일에는 인천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 1972년 1월 11일에는 인천시 어업협동조합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고 1974년 7월 20일부터는 상호금융업무를 시작했으며, 1976년 3월 29일에는 홍신업무도 개시했다. 1977년 4월 30일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인천수협은 부평지역에 1987년 12월 28일 가좌출장소(서구 가좌2동 480-20 소재)를 개설하여 영업중에 있다.

### 3) 부평관내 비은행 금융기관

(1) 투자신탁 단자회사

정부의 지방투자신탁회사 설립방안에 따라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증권투자가의 유가증권 투자를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로 유도하여 투자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금융저축 수단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자금의 조달면에 있어서는 수도권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조성자금의 유출을 억제하여 지방기업에 대하여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지역주민(50% 출자) 및 상공인(50% 출자)이 중심이 되어 북구 부평동 440-5에 본점을 두고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1989년 10월 30일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11월 28일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상호신용금고

서민대중의 금융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내저축의 증대, 사금융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신용질서를 확립하며,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신용금고는 부평지역의 경우에는 1970년 3월 19일 북구 부평동 95에 한국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된 이후 1993년말 현재까지 모두 7개 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어 지역내 서민 및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서민금고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말 현재 부평지역의 상호신용금고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부평지역 상호신용금고 점포현황 (1993. 12월말 현재)

| 점 포 명 | 개점년월일 | 주 소 |
|---|---|---|
| 경은상호신용금고 부평지점 | 1975. 4. 10 | 부평동 543-48 |
| 금화상호신용금고 | 1970. 10. 23 | 부평동 416-18 |
| 신일상호신용금고 | 1972. 11. 26 | 부평동 568-3 |
| 안흥상호신용금고 | 1974. 11. 4 | 부평동 222-2 |
| 서인천지점 | 1974. 11. 4 | 석남동 575 |
| 한국상호신용금고 | 1970. 3. 19 | 부평동 95 |
| 한서상호신용금고 부평지점 | 1984. 9. 5 | 부평동 439-2 |
| 대양상호신용금고 | 1978. 4. 14 | 부평동 194-9 |

資料 : 인천일보사, 「인천연감」, 1994.

(3) 신용협동조합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공동판매 및 공동시설 이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조합원의 후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여수신업무를 수행하는 저축기관으로 발전된 신용협동조합은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지역별 공동사업이나 공동개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져 1993년 2월말 현재 부평지역에는 20개의 신용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52,588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1개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는 2,629명이고, 조합원들이 조성한 자산은 총 1,070.6억원으로 1개 조합당 평균자산은 53.5억원이다. 부평관내 신용협동조합별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부평지역 신용협동조합별 현황

(1993. 2. 28 현재, 단위:명, 천원)

| 조 합 명 | 주 소 | 인 가 일 | 조합원수 | 총 자 산 |
|---|---|---|---|---|
| 부 평 2 동 | 부평1동 645-1 | 1972. 12. 30 | 2,333 | 4,071,604 |
| 부 평 1 동 | 부평4동 250-4 | 〃 | 5,065 | 16,940,560 |
| 산 곡 동 | 산곡1동 5-12 | 〃 | 7,216 | 18,294,465 |
| 대 우 자 동 차 | 청천동 199 | 1974. 10. 2 | 9,598 | 18,485,395 |
| 전 방 (주) | 청천동 336 | 1976. 8. 24 | 1,432 | 4,730,709 |
| 계 산 | 계산동 374-17 | 〃 | 6,616 | 13,318,655 |
| 대 한 마 이 크 로 | 작전동 449-2 | 1976. 11. 15 | 561 | 587,164 |
| 삼 익 악 기 | 효성동 316-48 | 1977. 4. 25 | 4,488 | 6,011,736 |
| 한 국 종 합 기 계 | 산곡2동 162 | 1977. 12. 26 | 528 | 1,161,293 |
| 인 천 선 진 | 십정1동 220-1 | 1978. 6. 29 | 5,522 | 8,491,524 |
| 성 모 자 애 병 원 | 부평6동 665 | 1982. 8. 11 | 430 | 1,098,484 |
| 효 성 동 (천) | 효성동 271-9 | 1983. 3. 23 | 2,444 | 4,482,046 |
| 한 독 | 작전동 449-3 | 〃 | 658 | 592,038 |
| 신 현 교 회 | 신현동 293-1 | 〃 | 732 | 1,353,491 |
| 경 인 에 너 지 | 원창동 100 | 〃 | 914 | 1,505,803 |
| 대 우 통 신 | 가좌동 531-1 | 1987. 2. 12 | 1,615 | 3,079,773 |
| 석 남 동 (천) | 석남2동 546-3 | 1988. 8. 18 | 544 | 960,035 |
| 산 곡 2 동 (천) | 산곡3동 330-6 | 1992. 3. 9 | 349 | 392,227 |
| 부 평 5 동 (천) | 부개2동 16-62 | 〃 | 596 | 1,062,674 |
| 경 인 침 례 교 회 | 가좌3동 189-3 | 〃 | 947 | 444,631 |

資料 : 인천일보사, 『인천연감』, 1994.

(4)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당초 신용협동조합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966년부터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명칭도 처음에는 마을금고였다. 그 후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이라고 불리우는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 실시됨과 더불어 부실금고가 정리되면서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하여 그 명칭도 새마을금고로 바뀌었다.

부평지역의 새마을금고 현황을 보면 1992년말 현재 지역, 직장, 단체 등 총 57개 금고에 회원수는 114,234명을 두고 있으며 총 자산은 2,681.6억원에 이르고 있다. 부평관내 새마을금고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부평지역 새마을금고별 현황

(1992. 12. 31 현재, 단위:명, 백만원)

| 금 고 명 | 회원수 | 총 자 산 | 설 립 일 | 소 재 지 |
|---|---|---|---|---|
| 부평1동 | 4,260 | 19,037,430 | 72. 3. 21 | 부평동 464-37 |
| 부평2동 | 378 | 9,146,990 | 76. 9. 30 | 부평동 754-100 |
| 부평3동 | 4,282 | 10,318,744 | 73. 1. 25 | 산곡동 307-13 |
| 부평4동 | 2,214 | 7,310,497 | 73. 3. 29 | 부평동 372 |
| 부평5동 | 2,464 | 8,969,101 | 73. 1. 29 | 부평동 572-1 |
| 부평6동 | 1,943 | 7,632,915 | 76. 2. 27 | 부평동 653-68 |
| 산곡1동 | 4,457 | 13,474,724 | 74. 9. 9 | 산곡동 87-185 |
| 산곡2동 | 3,135 | 6,767,202 | 70. 11. 24 | 산곡동 100-36 |
| 청천 | 7,449 | 21,620,335 | 73. 1. 4 | 청천동 174-6 |
| 효성동 | 4,416 | 19,551,558 | 76. 8. 15 | 효성동 320 |
| 계산동 | 3,774 | 11,451,095 | 72. 5. 23 | 계산동 940 |
| 작전동 | 4,893 | 21,819,142 | 73. 2. 10 | 작전동 206 |
| 십정동 | 1,433 | 5,051,489 | 72. 5. 25 | 십정동 279-2 |
| 신성 | 6,028 | 15,085,076 | 79. 7. 4 | 십정동 319-2 |
| 갈산·삼산동 | 2,963 | 10,526,586 | 76. 4. 1 | 갈산동 59-5 |
| 계양동 | 1,525 | 4,333,231 | 76. 3. 11 | 병방동 381 |
| 후지카대원전기 | 196 | 224,181 | 76. 4. 9 | 작전동 286-1 |
| 풍산금속 | 751 | 1,187,119 | 76. 9. 30 | 효성동 176 |

| 금 고 명 | 회원수 | 총 자 산 | 설 립 일 | 소 재 지 |
|---|---|---|---|---|
| 동양철관 | 619 | 439,693 | 76. 10. 1 | 청천동 176 |
| 경찰종합학교 | 270 | 141,846 | 77. 1. 17 | 부평동 산15-1 |
| 한국샤프 | 466 | 548,997 | 77. 4. 9 | 효성동 410-20 |
| 동국무역 | 343 | 147,126 | 76. 10. 15 | 효성동 316-56 |
| 아남전자 | 1,621 | 523,942 | 76. 9. 16 | 효성동 316-19 |
| 신광기업 | 328 | 97,542 | 76. 11. 1 | 일신동 18-2 |
| 코리아스파이서 | 1,166 | 820,917 | 78. 1. 8 | 삼산동 211-3 |
| 북구청 | 1,165 | 227,208 | 74. 12. 20 | 부평동 422-1 |
| 부평경찰서 | 547 | 119,743 | 76. 10. 20 | 청천동 199 |
| 아남시계 | 893 | 1,076,961 | 89. 10. 1 | 효성동 516-1 |
| 동서식품 | 1,695 | 726,285 | 79. 10. 31 | 효성동 316-11 |
| 쌍용자동차 | 258 | 177,269 | 86. 12. 9 | 효성동 395 |
| 현대페인트 | 257 | 99,514 | 79. 9. 20 | 효성동 395 |
| 서광 | 681 | 1,1145,473 | 78. 3. 23 | 작전동 448-2 |
| 쌍용정공 | 235 | 81,772 | 83. 10. 10 | 효성동 219 |
| 대농특수 | 243 | 575,700 | 76. 9. 6 | 효성동 316-23 |
| 삼송공업 | 180 | 197,240 | 84. 12. 17 | 효성동 316-20 |
| 해태음료 | 489 | 348,666 | 88. 7. 6 | 작전동 392-1 |
| 해태전자 | 915 | 986,059 | 88. 11. 19 | 청천동 177 |
| 인천협심 | 289 | 414,180 | 75. 7. 1 | 부평동 250 |
| 부흥실업 | 2,649 | 21,032,881 | 76. 12. 17 | 부평동 373-1 |
| 부평축산기업 | 656 | 493,074 | 79. 1. 10 | 부평동 568-3 |
| 부평종합상가 | 323 | 1,010,160 | 78. 11. 12 | 부평동 229 |
| 가신석 | 4,845 | 17,281,868 | 76. 9. 16 | 석남동 455 |
| 가좌1동 | 8,710 | 4,154,639 | 91. 2. 21 | 가좌동 142-77 |
| 가좌2, 3, 4동 | 16,362 | 7,115,795 | 75. 11. 30 | 가좌동 122-8 |
| 서곳 | 1,162 | 6,142,476 | 76. 8. 20 | 공촌동 51-6 |
| 동화기업 | 285 | 202,710 | 76. 9. 30 | 가좌동 178-26 |
| 경동산업 | 1,366 | 927,434 | 77. 2. 1 | 가좌동 180-58 |
| 선일포도당 | 428 | 267,291 | 77. 1. 24 | 가좌동 263 |
| 영창악기 | 4,081 | 3,386,046 | 79. 7. 23 | 가좌동 546-1 |
| 한국티타늄 | 273 | 399,583 | 79. 8. 23 | 가좌동 556 |
| 한전인천화력 | 264 | 340,621 | 75. 7. 30 | 원창동 336 |
| 극동요업 | 374 | 356,706 | 85. 8. 28 | 경서동 363-80 |
| 대림통상(주안) | 752 | 908,998 | 77. 10. 10 | 가좌동 524-4 |
| 한국안전유리 | 446 | 389,893 | 88. 1. 1 | 가좌동 585-1 |
| 바로크가구 | 1,100 | 1,029,551 | 90. 3. 31 | 가좌동 178-65 |
| 풍진기업 | 161 | 72,317 | 86. 3. 29 | 가좌동 602-29 |
| 서구청 | 776 | 244,303 | 92. 3. 16 | 연희2지구 17BL/LT |

資料 : 인천일보사, 『인천연감』, 1993.

(5) 보험회사

1987년 4월 1일 제일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북구 부평 5동 202-6 소재)이 개설된 이후 부평지역에는 1993년말 현재 모두 14개의 생명보험회사 영업국이 영업중이다(〈표 8〉 참조).

또한 손해보험회사로는 대한보증보험 부평지점(북구 부평동 439-2 소재)이 1991년 9월 1일 개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8〉 부평지역 생명보험회사 점포현황

(1993년 12월말 현재)

| 기 관 명 | | 주 소 | 점포개설일 |
|---|---|---|---|
| 대한교육보험 | 부평영업국 | 부평동 431-17 | 1992. 6. 20 |
| 대한생명보험 | 부평영업국 | 부평4동 202-1 | 1989. 4. 1 |
| | 신부평영업국 | 부평동 378-1 | 1993. 1. 1 |
| 삼성생명보험 | 부평영업국 | 부평동 440-5 여산빌딩 | 1988. 7. 5 |
| 동아생명보험 | 부평영업국 | 부평동 549-38 | 1988. 4. 1 |
| 중부생명보험 | 부평영업국 | 부평동 543-47 | 1992. 10. 1 |
| 신한생명보험 | 동인천영업국 | 부평동 546-122 | 1992. 11. 2 |
| 한국생명보험 | 부평영업국 | 부평동 549-50 | 1992. 11. 27 |
| 경남생명보험 | 경인영업국 | 계산동 931-51 | 1992. 12. 2 |
| 동양메네피트 | 인천영업국 | 산곡동 310-11 | 1992. 1. 3 |
| 대일생명보험 | 경인영업국 | 부평동 543-3 | 1991. 9. 1 |
| 고려생명보험 | 경인영업국 | 부평동 439-2 | 1991. 9. 1 |
| 국제생명보험 | 부평영업국 | 부평1동 543-47 | 1992. 10. 1 |

資料 : 인천일보사, 「인천연감」, 1994.

(6) 증권회사

부평의 최초 지점인 동서증권 부평지점이 1989년 1월 30일에 문을 연 뒤 1993년말 현재 8개의 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표 9〉 참조).

〈표 9〉 부평지역 증권회사 점포현황

(1993년 12월말 현재)

| 기 관 명 | 주 소 | 점포개설일 |
|---|---|---|
| 동서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440-5 여산빌딩 3층 | 1989. 1. 30 |
| 한신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529-14 | 1989. 2. 10 |
| 한흥증권 인천지점 | 부평5동 199-36 | 1989. 1. 27 |
| 현대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202-1 현대증권 빌딩 3층 | 1989. 4. 4 |
| 서울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543-46 | 1989. 3. 15 |
| 신한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549-5 금남빌딩 5층 | 1989. 7. 27 |
| 교보증권 부평지점 | 부평동 152-13 | 1989. 11. 20 |
| 한양증권 부평지점 | 계산동 931-51 대진빌딩 3층 | 1992. 3. 30 |

資料 : 인천일보사, 『인천연감』, 1994.

# 第6篇 社 會



# 第1章 사 회(社會)

## 1. 사회의 변천

부평지역은 1968년 구제(區制)실시로 북구가 되면서 많은 발전을 했다. 1967년 3월 10일 제10차 국회본회의에서 인천시 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같은 해 3월 법률 제1919호로서 「인천시 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1968년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구제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에서 관할하던 부평(富平)과 서곶지역이 합해져 북구로 편제되었다. 구제의 실시는 시 중심의 행정수행에서 부평지역이 구청중심의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부평지역의 특색을 살린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구제실시 당시 북구의 관할구역은 29개법정동과 19개 행정동, 면적은 81.61㎢, 인구는 120,475명이었다. 그러나 '71년에는 인구가 149,840명으로, 81년에는 369,708명으로 71년이후 10년만에 20만 이상이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88년 1월 서곶지역이 북구에서 분리돼 서구로 되면서 629,016명(87년 현재)이었던 인구는 508,875명으로 줄었다. 이후 '89년 1월 김포군 계양면이 북구의 일부가 되면서 인구는 다시 증가해 91년 686,634명, '94년 8월 현재 752,076명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 각 구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증가수면에서 북구가 가장 많은데 이같은 인구성장은 '69년 효성동에 수출4공단이 들어서고 주변지역인 작전동, 계산동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서울등지에서 원거리 통근을 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이주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예로 작전동이 '70년 2,505명에서 90년 48,000명으로, 계산동이 '70년 3,027명에서 '90년 62,000명으로 약 20배가 폭증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면적도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되던 해인 '81년 89.51㎢에서 '83년에는 89.88㎢, '87년에는 93.67㎢로 조금씩 늘다가 '88년 서구지역이 분리되면서 45.95㎢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88년 계양지역의 편입으로 다시 76.88㎢으로 증가해 '94년 8월말 현재 같은 규모(시의 22.9%)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면적 및 관할 구역의 변동, 인구증가 등은 부평을 포함한 북구지역 사회 변천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북구지역에서의 주택보급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92년 발간된 『북구통계연보』의 건축연도별 주택현황을 보면 1980년 이전까지는 동구, 남구의 건축이 두드러졌으나, 80년대들어 북구지역의 주택건축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곧 '80~'85년 사이 인천지역에 지어진 주택 81,179동 중 북구에 26,366동(전체의 32.5%)이 지어져 구성비 중 최고를 나타내고 있고, 이후 '86년에 7,510동, '88년에 10,109동, '89년에 16,653동, '90년에 7,997동등으로 6개구 중 가장 많은 건축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급속한 주택건축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였다. '90년 발간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90년의 경우 7,997동 중 아파트가 3,642동(45.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아파트 비율이 더 높아 '88년에는 10,109동 중 아파트가 7,297동(72%), '86년에는 7,510동 중 4,999동(66.6%), '80~'85년에는 26,366동 중 절반 이상인 13,596동(52%)이 아파트였다.

예산규모도 커졌다. 부평출장소가 북구로 편제되던 68년에 거둬들인 지방세(도세와 시세)규모는 77,124,781원에 불과했으나 '94년에는 22,754백만원으로 엄청난 증가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마찬가지로 80년 세출부문 결산액은 2,824,944,641원이었던 것이 92년에는 68,692,452천원으로 20배이상 늘어났다. 참고로 94년도 세입세출액은 95,484백만원, 특별회계는 3,540백만원 등 모두 99,024백만원으로 93년도보다 15.3%가 늘었다.

부평지역의 인구 폭증은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그 지원 등 사회구제제도의 시행을 서두르게 했다. 사회복지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교육, 직업, 의료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아동, 노인, 장애자 등에 대해 금전적 지원외에 서비스급부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 생활 곤궁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부조인 공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92년 현재 북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2,377가구, 6,177명으로 거택보호자가 1,595명, 자활보호자가 4,582명이던 것이 '94년 8월 현재 3,574가구, 9,103명(거택보호자 1,947명, 자활보호자 4,990명, 자립지원대상자 2,16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저소득층 주민들은 효성1동 산동네와 십정1동 철거민촌, 삼산동 삼산영구임대아파트, 부개1동 산동네 등에 밀집해 살고 있다. 또 청천1동과 십정2동에는 청천농장과 경인농장이 있어 이곳에서 각각 15세대(45명), 3세대(5명)의 음성나환자들(94년 현재)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 외에 인천광명원(시각장애, 십정동 185), 성동원(청각·언어장애, 부평동 756), 예림원(정신박약, 부평동 633), 성린직업재활원(지체부자유, 십정동 501의 2), 은광원(지체부자유, 부개동 347)등 5개 사회복지시설에 383명의 장애자들이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구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 유지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2,780명에 대해 2,568백만원, 94년도에는 2,278명에 대해 3,48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임대 및 소형분양주택 개선사업,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로 정부 및 구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이처럼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노인과 부녀자들을 위한 복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과 부녀자를 위한 사회문화시설로 북구에는 협성양로원(북구 산곡동 370의 71)과 협성여자기술원(일명 협성원), 인천여성문회회관이 있다. 지난 '62년 제정된「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거해 '63년 요보호여성을 위한 부녀직업보도시설로 처음 문을 연 협성원은 당초에는 설립목적대로 윤락여성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지도하는 곳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88년 병설한 중간기술훈련장인『평화의 집』이 입소자 미달로 '92년 6월 폐쇄(협성여자기술원에 통합됨)되자 곧바로 이 유휴시설을 협성양로원이라는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한 것이다.

부녀직업보도시설인 협성원의 정원은 1백 28명이나 '92년에는 40명, '93년에는 약 50명으로 정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 입소하는 동기를 볼 때 원래의 입소대상자인 윤락행위단속시 적발된 사람이 '91년에는 45명, '92년에는 38명(총 입소자 8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93년에는 입소자 34명중 26명이 부모의 의뢰에 의해 입소한 경우였다. 따라서 입소자의 연령과 직업도 변하고 있다. '91년과 '92년의 경우 입소자 연령은 15~30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직업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나('91년의 경우 입소자 83명중 유흥업소종사자는 44명), '93년에는 21세이상 여성은 한명도 없고 직업도 학생이 95%이상(34명중 28명이 학생)을 차지, 협성원이 윤락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4년 북구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입소자 감소, 입소대상자 부적절, 봉재, 자수, 미용, 편물 등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는 동떨어진 기술교육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협성원을 하루속히 폐쇄하고 시설을 보강해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완전히 변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대신 구 차원에서 운영되던 것을 시 차원에서 국비와 시비로 직접 운영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부녀직업보도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협성양로원은 가정에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무의탁 할머니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정원이 50명이나 '92년 8명, '93년 27명, '94년 34명으로 아직 입소자가 많지는 않다. 이곳에는 '92년의 경우 운영비, 시설비, 수용자 간식비등의 명목으로 국비와 시비 2억 54만 6천원이, 93년에는 2억 6백 58만원이, 94년에는 2억 5천여만원이 지원되어왔다. 또 95년에는 이곳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6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부평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세에 비하면 양로원, 복지회관등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93년에 발간된 「인천통계연보」를 보면 북구의 노인인구(65세이상)는 24,340명(92년 기준)으로 전체인구(726,637명)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93년말 현재는 26,591명으로 1년동안 2,251명이 늘었다. 이 증가폭은 '90년(18,244명)부터 3년사이 6,096명(연평균 2천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 '85년에는 20,039명(전체의 3.7%)으로 오히려 90년보다 적었는데 그 이유는 서구가 '88년 1월 북구로부터 분리되면서 인구가 일시 감소한 때문이다.

이같은 고령인구의 급증추세는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 및 지원폭이 더욱 많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94년 현재 193개소의 경로당(노인정)에서 10,723명의 여가를 즐기는 노인들을 위해 구에서 지원하고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산하 북구지회의 노인능력은행(인재은행)에서 기업체와 연계를 해주거나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75만인구, 2만 5천여명의 노인이 있는 거대도시에서 50명 정원의 양로원시설 1곳 밖에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그만큼 미흡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94년 현재 북구청은 노인복지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20억원을 들여 연건평 725평(지하1층, 지상4층)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중이어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노후보장사업등이 기대되고 있다.

'94년 2월 개관한 문화복지시설인 인천여성문화회관(북구 갈산동 375의 1)은 지역 여성들의 잠재능력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75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규모(연건평 2,448평)로 지어진 여성문화회관은 개관이래 여성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컴퓨터, 제과제빵, 조리, 미용, 도배, 한복과)과 문화교양교육(문예창작, 홈패션, 한국무용, 수채화, 연극, 합창, 기타, 피부미용 등 20여과목), 정기적인 여성교양강좌등을 개최하여 지역여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외 상담실, 도서정보실 등을 통해 여성들의 의식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수영장, 보육실 등 부대시설과 대·소강당,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은 '94년 현재 시온보육원, 신명보육원, 구세군직업훈련원등 3곳이 있는데 274명이 수용되어 있다. 구는 94년 한 해동안 이들 3개 시설에 경상비와 시설보강비, 장비보강비 명목으로 약 73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동보호시설 지원 외에 아동복지시책으로 취업알선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취업알선은 성장한 불우아동들이 자활, 자립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비 등 모든 소요경비를 지원해 공동직업훈련원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구에서 이처럼 취업을 알선해 준 불우 아동수는 '86년 82명, '88년 98명, '90년 79명, '93년 65명등이다.

한편 북구 관내에는 '93년 현재 세대주 55명, 세대원 63명 등 118명의 소년, 소녀가장이 살고 있는데 북구는 '93년 이들에게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등 19,844천원을 지원해주는 등 매년 평균 2천여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아동들 뿐 아니라 영·유아에 대한 보호사업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는 영·유아에 대한 사회차원의 보육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93년 현재 북구에는 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6곳, 직장 보육시설 1곳, 민간 보육시설 69곳, 가정 보육시설 43곳 등 모두 109곳의 아동 보육시설이 있다. 이 수는 '92년의 69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나 정작 직장여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직장탁아소는 생기지 않고 보육료 부담이 큰 민간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만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영유아 보호시설 설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모자시설, 성인 불구시설 등이 북구지역에는 전혀 없어 이같은 복지시설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보건분야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의료시설의경우 '68년 당시 북구보건소 관내에는 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고 일반 병의원만 45곳이 있었으나 94년 현재 카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부평안병원 등 종합병원 3곳, 일반병원 4곳, 의원 390곳등 397개의 병의원(병상수는 약 2천배드)으로 크게 증가, 75만 인구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은 '93년 현재 2,573명으로 이중 의사(치과, 한의원, 조산원포함)는 631명에 불과, 북구 전체 인구에 비춰 볼 때 의료인 1명이 1,182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의료보장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 의료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보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장 방법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와 보험료 부담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북구의 의료보호대상자는 '94년 현재 모두 7,408명으로 이들에게는 1,2차 병원 진료시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1종)과 1, 2차시 진료비 일부 지원(2종)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보호대상자 이외의 모든 구민들(군인, 수형자는 제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94년 11월 현재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는 330,479명(103,356세대), 직장 및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 피보험자는 407,091명이다.

사회질서의 확립과 정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각종 사회운동단체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도 사회의 변화에 한몫을 하게 되었다. '94년 현재 부평지역에서 활동중인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북부학교어머니협의회, 한국부인회 인천북구지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사단법인 인천북구미용협회, 부평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북구 여약사회, 전국주부교실 인천북구지부, 적십자사 인천북구지부, 한국어린이 육영회 북구지부등 10개 여성단체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북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 민족통일 북구협의회,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재향군인회 북구연합회, 상이군경회 북구분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북구 1,2지역회,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 광복회 인천지부 등의 사회단체가 있다.

그 외 단체로 북구의사회, 북구약사회, 북구한의사회, 대한요식업중앙회 북구지부, 부동산중개업중앙회 북구지회, 다방동업조합 북구지부, 숙박업중앙회 부평지부, 이용사회 북구지회, 대한무공수훈지회 북구지회, 부평축산기업납세조합, 인천시 불교연합회, 대한간호사협회 시지회, 세탁업북구지회등이 북구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북인천청년회의소, 북인천 J.C.특우회, 인천서북 J.C. 부평라이온스클럽, 부일라이온스클럽, 북인천라이온스클럽, 부내라이온스클럽, 북부라이온스클럽, 계양라이온스클럽, 부평로타리클럽, 인천안남로타리클럽, 수주로타리클럽, 계양로타리클럽, 북인천로타리클럽, 인천북구로타리클럽, 부평키와니스클럽, 계산키와니스클럽, 부평와이즈맨, 피플투피플클럽 등은 지역봉사단체로서 각종 장학사업과 의료사업,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무료개안수술, 장애자단체돕기, 무의탁 노인돕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 부평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도 활발했다. '74년 북구지역의 각급 학교수를 보면 국민학교 14개교, 중고교 8개교 등 모두 22개교에 불과했으나 '87년 현재 1백 35개, 92년 162개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교실수도 '87년 1,999개에서 92년에는 2,895개로 늘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가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 그 외에도 노후되거나 낙후된 시설을 대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교육자료실을 설치해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82년 부평도서관(열람석 1,046석, 장서보유수 56,096권, 94년 4월 현재)이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 지난 92년 부평4동에 북구도서관이 문을 열어 좌석수가 2,124석으로 늘어나

고 장서보유량도 65,031권으로 증가하게 되었다(인천교육통계연보, 인천시교육청, 1994년도).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은 '67년 당시 부평출장소 관내에 영화관과 극장 4곳(수용인원 2,155명)이 전부였으나 사회의 발전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이들이 급증해 '92년 현재 11개소, 수용인원 2,909명, 연관람인원 284,198명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영화상영은 물론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현재는 17,102백만원을 들여 부평문화회관(북구 계산2동 724번지외 2필지)을 신축중(94년 8월 현재 공정 56%)에 있다. 이곳의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는 95년 4월경 완공되면 보다 수준높은 문화 제공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북구도 인구폭증과 함께 자동차보유 가정이 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구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해왔다. 북구청이 발간한 '93년도 구정백서를 보면 북구의 자동차보유대수는 '92년말 현재 82,473대에서 '93년말에는 100,069대로 2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93년말 현재 인천시 총 자동차 대수 303,174대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1,229대로 가장 많고 버스(승합)가 9,604대, 화물차가 1,929대, 특수차가 107대 순이다.

이같은 자동차의 증가는 경인고속도로 뿐 아니라 경인국도가 통과하는 부평지역의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북구를 비롯한 시 전체의 교통체증이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인천시는 시 도시전철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가장 먼저 북구 계산동지역에서 부평역에 이르는 구간을 공사중에 있다.

또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주민을 위해 하루 유동인구가 30만에 달하는 부평역사를 확장,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부평역의 경우 하루승차 인원이 26,238,043명, 하차인원이 26,508,224명(92년기준)으로 동암역(승차 인원 17,640,394명, 하차 인원 17,630,410), 주안역(승차 인원 14,760,624명, 하차 인원 14,896,408명)등 인천지역에 걸쳐 있는 다른 역들보다 수송인원이 10만명 가량이나 더 많다. 『인천통계연보(78,81년판)』에 따르면 부평역의 유동인구는 지난 '78년 연 승차 인원이 4,816,536명, 하차 인원이 4,648,473명이었던 것이 81년에는 연간 11,836,227명이 승차를 12,162,583명이 하차를 해 유동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구통계연보(93년판)』에 따르면 서비스업을 주로하는 식품접객업소가 '87년 2,791곳에서 불과 5년사이 5,604곳으로 2배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인구의 급증 및 유동인구의 증가에서 비롯된 변화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집중으로 인한 사회변동은 생활환경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범죄의 증가와 심각한 환경공해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2년도 『북구통계연보』에 의하면 '92년 한해동안 부평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6,431건으로 이중 14,651건이 검거돼 89.2%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범죄 종류별로는 강력범죄가 120건, 도범이 776건, 폭력범이 2,158건, 지능범이 1,315건, 기타형사범이 4,312건, 특별법범이 7,750건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발생건수는 남부경찰서의 13,776건, 중부경찰서의 10,731건 등 보다 많은 것이다. 또 93년에는 모두 18,975건의 범죄가 발생, 북구지역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범죄도 함께 늘고 있음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19세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가 93년 한해에만 1,068건(전체의 5.6%)에 달해 그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의심각성을 측정하는 수치인 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산업화과정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 때문이다. 사회질서와 시민의식 확립등이 강조되는 반면 경쟁에서 뒤지고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계층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과 갈등을 겪게 되고 이것이 범죄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부평지역은 수출산업공단의 입주로 인한 소비향락 위주의 서비스산업 발달, 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증가와 유흥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청소년들이나 사회 소외계층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해문제 역시 심각하다. 차량의 증가는 매연의 유출량을 증가시켰고 무엇보다도 효성동에 위치한 제4수출산업공단내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가스, 분진, 악취 등 공해물질은 부평지역을 인천지역에서도 가장 공해가 심한 지역으로 손꼽히게 하고 있다.

'인천자유아카데미'가 지난 '93년 펴낸 『연수논총』중 인천교대 송종헌 교수가 쓴 「인천의 도시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93년 4월 현재 인천이 전국도시가운데 도시공해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환경처가 15개 시도의 환경실태를 평가한 결과 환경오염평가점수가 1백점 만점에 제주가 61.1점으로 가장 높고 인천이 30.1점으로 가장 낮아 $SO_2$발생량과 공해배출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인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곧 수출산업공단을 끼고 있는 부평지역도 공해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93년 2월 인천시가 펴낸 『인천지역의 환경실태조사(대기)보고서』에 의하면 북구의 경우 1년간 도시가스사용가구 61,380가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분진 1,015kg, $SO_2$ 609kg, $NO_x$ 101,473kg, $CO_2$ 20,295kg으로 각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6개구 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 부평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하천인 굴포천이 인천지역의 법정하천(굴포천, 승기천, 시천천)중 가장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처럼 굴포천의 오염도가 날로 심해지는 것은 부평지역과 부천지역에서 방류되는 가정하수, 공장폐수 등을 함유하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제 굴포천은 5급수 이하로 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93년 2월 인천시가 발행한『인천지역의 소음실태조사』에서도 북구의 공해의 심각성은 여실히 나타난다. 이 조사서에 의하면 북구는 공해발생 신고를 한 788업소 중 소음은 530업소, 매연은 357업소, 폐수는 209업소로 다른 구에 비해 숫적으로도 훨씬 많다.

최근(경인일보 '94년 8월 22일자) 한강수질관리청 인천출장소가 공단폐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공단에서 하루 배출하는 8천톤의 폐수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인 1백50PPM을 훨씬 초과한 1백96PPM이었고, 구리, 아연, 크롬, 시안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출 5, 6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함께 굴포천과 가좌천을 오염시키고 한강과 서해바다 주변의 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쓰레기 배출량도 6개구 중 최고로 심각한 상태다. '94년 발간된「인천통계연보」를 보면 '93년 현재 북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763톤으로 남구의 565톤, 남동구의 352톤, 서구의 289톤보다 훨씬 많다. 인구에 비례해 분석해 볼 경우 1인당 하루 1kg의 쓰레기를 버리는 셈이다. 95년 전국적인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늘어나고, 쓰레기의 양도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한적한 곳이나 농촌 등지에 야간을 틈타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쓰레기종량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인구가 비대해지고 도시화가 계속되는 한, 이같은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더욱이 부평지역은 제조업체 중심의 2차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해문제 해결에 다른 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실정이다.

강구될 수 있는 우선적인 대책으로는 공해배출산업의 추방이나 공해배출행위의 금지가 필요하며 그와 함께 하수도시설 개선, 가정연료의 현대화(도시가스), 환경영향 평가제도 시행 등 인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방법의 강구다. 공해의 원인은 인구의 집중과 공업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방출, 에너지원의 개발로 인한 매연 등 복합적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를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 대신 저황유 및 LPG,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산업공해를 개선하려면 정책적으로 제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한 산업배치의 지역적 변화, 공해처리산업 창출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평지역을 내 고향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이다. 나와 내 후손이 살아갈 곳임을 자각한다면 스스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 2. 사회의 특징

북구지역은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출4공단(1,786개업체 입주)이 위치해 있다. 산업활동의 중심지인 반면 변두리에는 비록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농촌지역이 잔존하고 있다. 제조업체 근로자 및 수십만의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부평역 등 역 주변과 공단 주변에 유흥, 소비산업이 밀집해 있는 점도 부평사회를 특징 짓는 한 요인이다. 『북구통계연보('92년)』에서는 북구가 "공업지역 및 농촌지역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고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부평지역이 인천의 다른 지역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주거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동시에 도소매상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부평역 등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발달이 눈에 띈다.

『93년 북구구정백서』를 보면 '92년말 현재 북구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시장은 모두 20개소로 이중 부평상가, 부평종합상가, 부평로지하상가, 시장로타리 지하상가, 동수종합상가, 유창종합상가, 진흥종합상가, 부평자유시장, 부평성일로지하상가, 동아시티백화점 등 10개소가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음식점, 다방, 휴게실 등 식품접객업소도 총 5,604곳중 부평1동에서 6동에 이르는 지역에 1,824곳이 집중되어 있고 호텔, 여관, 여인숙, 이미용업소 등 환경위생 관련 업소도 2,002곳 중 666곳이 부평동 지역에 있어, 상권의 발달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천의 도시구조 개선의 과제와 방안(1990,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상의는 중구와 동구는 주거지로써의 매력을 잃을 대신 항만관련산업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구와 남동구는 행정기능이 위치하고 있어 공공행정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북구와 서구는 대규모 공단이 있고, 임야와 농경지가 아직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 특히 북구는 계획된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갖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군사시설까지 관내에 있어 종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 연구서는 또 주거중심지가 중·동구에서 남·북구로 이전하고 있다며 그 자료로 행정 구역별 인구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구에 비해 급속하게 늘고 있는 도소매업의 증가수에서도 부평은 서울 등 수도권과 인천을 잇는 중간지대로서 그 역할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구별 도소매업 점포수 추이를 보면 북구의 경우 '79년 106개였던 도매업이 82년에는 440개, '86년에는 433개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매업도 '79년 3,651개에서 '82년에는 5,310개, '86년에는 7,761개로 급격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제기획원, 도·소매업 센서스 보고서, 경제기획원, 1979, 1987). 그러나 북구상권은 연계성이 미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신흥주거단지의 형성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 상권이 여러 곳에 산재하게 되었고, 이들간 연계가 안돼 전반적으로 유통구조의 취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다행히 동아시티백화점,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시설이 최근 수년사이 속속 들어서 유통구조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서 그 기반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구의 상권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서울 통근자들의 흡수가 최대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북구구정백서(93년)』에서는 북구지역의 유통기관(일반소매시장과 백화점, 쇼핑센터)이 '85년 이전 12곳에서 '92년에는 28곳으로 증가되었으나, 산업자본의 유통업계 진출이 없어 근대적인 대형 유통기구나 다목적 쇼핑센터가 설립되지 못하고 가계경상적인 영세성으로 인해 고객을 서울상권에 빼앗겨 왔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대형백화점 개설로 유통경로가 체계를 잡아 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부평하면 우뚝 솟은 아파트가 연상될 정도로 아파트위주의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도 북구의 특색이다. 부평, 산곡, 효성, 계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것을 비롯해 앞으로 부개, 일신, 계산, 계양지구의 택지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이같은 활발한 주택건축에 힘입어 내 집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1990)』와 경제기획원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1085)』에 의하면 북구의 경우 '85년 총 133,864가구중 자기집을 갖고 있는 경우(자가)는 54,376가구로 약 40%였고 90년에는 167,435가구중 76,659가구(약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외는 전세나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무상으로 살고 있었다. 반면 '92년에는 주택보급률이 61.6%로, '93년에는 71.4%(북구구정백서, 북구청, 1993, 238쪽)로 상승되었다.

앞서 사회의 변천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수도권 중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눈에 띄는 인구의 대규모 유입은 인구 구성과 동별 밀도 등 여러 측면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92년말 현재 북구의 인구는 모두 727,528명, 인구밀도는 ㎢당 9,465명이다. 이는 '89년 서구 탄생과 함께 구 면적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구밀도가 5년전의 6,715명보다 3천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한정된 면적에 인구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93년 말 현재 북구의 인구는 약 75만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동별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부평동 일대로 4동이 35,151명/㎢, 5동이 26,728명/㎢, 1동이 22,734명/㎢이었고 그 다음이 작전2동(32,352명/㎢), 부개2동(29,944/㎢), 산곡3동(29,167/㎢) 순으로 높았다.

증가요인도 출생으로 인한 자연적 증가는 92년 경우 16,738명인데 반해 사회적 증가를

나타내는 척도인 전입은 같은 한 해동안 무려 186,291명으로 자연증가의 10배이상을 웃돌아 외부유입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송종헌 교수(인천교대)는 『인천시사(93년 발행, 상권)』에 인천지역의 인구 변화를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65년 당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은 중구의 신흥1동을 비롯한 7개동, 동구의 화수동등 14개동, 남구의 숭의 2.3동 지역을 포함하는 구시가지가 1만명이상의 고밀도지역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70년에는…(중략) 북구의 부평 1,2,3,4,5동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고밀도 지역이 형성되었다.…(중략) 인천지역에서는 도시형성적 기반이 되어왔던 원인천(原仁川) 지역이…(중략) 75년에는 34%, 80년에는 22%로 점유율이 작아지고 있는데 이는 부평지구와 더불어 주안지구에도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중략)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연변지역의 공업단지 조성에 의한 공업화와 주택지로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구가 교외로 유출, 이동하게 된 데에서 나타난 것이다." 송교수는 또 "…(중략)인천시 전체인구의 75%이상이 북구, 남구, 남동구에 밀집되고 있는데 이곳으로의 편중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연령 및 성별인구 구성을 보면 '85년 현재 538,894명 중 25~29세가 77,846명으로 가장 많고 0~4세가 67,479명, 20~24세가 62,124명, 30~34세가 55,481명순인 반면 65~69세는 6,072명, 70~74세는 3,811명등으로 청·장년층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267,684명, 여자가 271,210명으로, 여자가 3,526명이 더 많다(성비는 여성 1백명당 남성이 98.7명이다). 그러나 5년 뒤인 90년에는 25~29세(86,434명)가 가장 많은 것은 변함없으나 30~34세가 81,626명으로 2위에 올라서 30대 인구의 유입이 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구성도 변해 616,658명 전체인구중 남자가 310,036명, 여자가 306,622명으로 남성이 여성을 앞지르는(성비 10,111명) 현상을 나타낸다. 남성이 우세한 연령층은 0~14세, 30~49세로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자 아이를 가려 낳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다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등에 취업하기 위해 30대이상의 청장년층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교육정도는 '85년 전문대졸 이상자(재학, 졸업 포함)가 40,972명으로 6세 이상 인구(457,792명)의 약 10%였으나 90년 현재는 69,755명으로 전체(536,849명)의 13%로 높아졌다.

북구주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구성으로도 사회적 특성을 알 수 있다. '85년을 예로 들면 산업별로는 취업자 176,295명중 53%인 94,083명이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종사 인원은 28,679명, 사회 및 개인 서어비스업이 18,409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 통계를 볼 때 부평이 제조업 위주의 산업도시이자 도소매업이 발달한 상업도시, 3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9,835명)나 행정 및 관련직 종사자(2,073명)보다는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29,724명)와 판매종사자(22,618명),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합해서 95,598명)가 훨씬 많다.

구 전체면적의 43.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양동을 중심으로 군부대와 절대농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도 북구의 특색이다. 즉 북구의 총면적 76.88㎢중 북구지역 45,92㎢중에는 8,336㎢이, 계양지역 30.96㎢중에는 무려 25,349㎢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94년 4월말 현재).

한편 북구지역에는 17사단, 5공수여단, 3군지사, 미군부대등의 군부대가 있다. '94년 11월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인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인천일보 94년 11월 25일자)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의 8.6%가 군사통제보호구역과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구는 둑실, 목상, 갈현, 선주지동 일원의 제한보호구역 11.58㎢를 포함해 구 면적의 24.27%에 해당하는 18.6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6개구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대부분 '90년 이후에 지정된 것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발전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비해 제약의 정도가 덜한 제한보호구역은 시 및 구가 관련 군기관과 협의해 각종 건설사업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第2章 사회운동(社會運動)

## 1. 청소년 운동

### 1) 청소년 운동

조선시대에는 씨족집단 외에는 요즈음과 같은 범주의 사회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1919년 기미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정책상 1920년부터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 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우후죽순같이 생겨 났는데, 당시 인천에서는 청소년운동단체의 경우 인천엡웟청년회를 비롯하여 20여개에 달하는 단체가 있었다.[1] 하지만 부평지역의 경우에는 1919년 3.1운동 때 "장날인 3월 24일 부평시장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미리 대기중이던 청년들이 예측한대로 군중이 많이 모이자 이들을 지휘하여 만세를 부르고 부평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2]"는 사실 이외에는 뚜렷한 청년운동 내지 사회운동을 전개한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렵다. 김영길(金永吉)과 조기준(趙璣濬)옹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상 부평에서는 해방 될 때까지 이렇다 할만한 어떤 사회운동단체도 조직된 것이 없었다고 한다.[3] 따라서 부평에서의 실질적인 청소년운동의 시작은 해방 이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해방후 청년운동은 치안유지와 사회질서 확립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였으며, 특히 남북분단에서 오는 이념갈등 현장에서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반공운동이 그 중심이었다. 해방직후 공산계열에서는 이 땅의 주인공이 근로대중 즉 노동자, 농민이라며 각 공장에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 침투, 직장분회를 조직하고, 농촌에는 농민동맹을 조직하여 일반대중에게 공산주의를 선전 선동하며, 태업, 파업등 노사분규를 일삼았으며, 궁극에 가서는 국제공산화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부평도 예외가 아니어서 타 지방에서와 같이 공산계열이 이미 기선을 제압하고 있었다. 이에 민족진영의 청년인 김건용, 류한구, 이기만, 김홍태, 이창재등이 '건국청년회 부평지부'를 결성하고 옛 조병창에 남아 있던 일제 99식 장총을 가져와 무장하고 치안유지에 나섰다.[4] 당시 전국 여러 곳에서는 공산폭동이 일어났으며,

---

1)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상권, 인천 : 인천직할시인쇄공업협동조합, 1993, pp.365~374.
2) 위의 책, p.352.
3) 1994년 7월 7일 북구부평동 210-3 김영길 옹의 개인사무실에서 만나 면담시 증언함.
4) 김영일, 『격동기의 인천』-광복에서 휴전까지, 인천:동아사, 1986, pp.339~340.

부평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각 부대마다 많은 한인 통역들이 종사하고 있었는데, 남노당에서는 그들을 포섭하여 군사기밀을 빼내려고까지 하였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을 절감한 부평지구 국민회(대한독립촉성국민회) 간부들은 숙의한 끝에 월남한 애국청년을 초청 이곳에 정착시켜 공산당들의 폭거를 같이 막기로 하고, 서울에 있는 평안청년회와 북선청년회를 찾아가 협의한 결과 1946년 10월 말경 송택선을 중심한 평양청년 약 50명, 김두하, 이정기를 중심한 함경도 청년 약 50명이 부평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고 이들이 지방청년들과 같이 반공투쟁에 나섰던 것이다.[5]이 밖에 부평에는 한국광복회 부평지회, 대한독립청년단 부평지단 등이 더 있었으나, 1947년 서울에서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이청천 장군이 대동청년단(大同青年團)을 결성하자 부평지구에서도 이에 따라 기존 단체를 통합하여 동년 10월 15일 대동청년단 부평지단을 결단한다.[6]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각 애국단체의 통합을 지시, 중앙에 대한청년단(大韓青年團)이 결성됨에 따라 부평에서는 동 부평지구단을 1949년 1월 말경에 부평공회당에서 결성하게 된다.[7] 이들 단체들은 당시의 형편상 한편에는 반공 또 다른 한편에는 건국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단체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평지역에서는 인천지역과는 별도로 독립된 하나의 단체를 부평지단 또는 지회로 결성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단체 조직에 있어서도 거의 마찬가지였으며 이같은 경향은 그 후 60~70년대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8]

학생단체는 인천의 경우, 인천학생선무대, 인천학생대, 서북학련인천지부, 반탁학련인천지부, 전국학련인천지부등이 있었으나[9] 부평의 경우는 1960년대에 중학교, 1970년대에 고등학교가 비로소 설립되기 시작하므로 특별한 학생조직은 없었으며 다만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무렵에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한 기차통학생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 어찌되었거나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전국의 중학교와 대학에는 학도호국단이 창단되었고 1950년 북한군의 남침이 있자 인천지역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인천학도의용대를 조직하고 활약하다가 후에 모두 현역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는데 생명을 바쳐 헌신하였다. 또한 국가 위급시 생명을 던져 나라를 지킨 전통을 갖고 있는 청년학도들은 1960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교문을 뛰쳐 나와 시위를 벌였으며 마침내 민주 정의를 실현하는데 성공하였으니 당시 부평지역의 통학생들도 모두 이러한 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

5) 위의 책, pp.443~444.
6) 위의 책, pp.445~446.
7) 위의 책, pp.449~450.
8) 1995년 7월 7일 김영길 옹 증언.
9)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하권, 인천:인천직할시인쇄공업협동조합, 1993, p.22.

다만 6.25동난 후 부평역 부근에서 소년대를 조직 소년단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김영길 옹의 증언에 의하면 박준성이란 분이 1960년대 초까지 보이스카웃활동과 B.B.S활동을 열심히 하였다고 한다.[10]

그 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적십자, 해양소년단, M.R.A. 같은 청소년단체들이 각급 학교에 많이 조직 되었고, 1980년대에는 이 밖에 우주소년단, 청소년연맹등이 생겨 났다. 특히 1981년에는 가정교육의 약화와 학교교육의 한계성에 따른 사회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운동이 재정비 되었고, 심신수련과 사회봉사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연맹 중심의 청소년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1987년도에는 청소년육성법(법률 제3973호)이 제정되었고 1988년 시행령 공포와 함께 이를 근간으로 행정부에 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청소년단체들의 기능강화와 함께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평에는 구청소년육성위원회, 동청소년육성위원회를 운영하며, 행정기관으로도 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를 두고 있다.[11]

1994년 현재 청소년운동단체와 북부교육구청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청소년 단체 가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단체

| 단 체 명 (회장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한국청소년 인천연맹 (이철옥) | 남구 숭의동 131-6 청소년회관내 | 884-0054 |
| 한국보이스카우트 인천연맹 (이준경) | 중구 중앙동 2가 11 | 762-5801 |
| 한국걸스카우트 인천연맹 (이기화) | 남구 숭의동 131-6 청소년회관내 | 882-5851 |
| 청소년적십자 (이영호) | 남구 용현5동 627-47 | 885-2104 |
|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연맹 (이기상) | 남구 숭의동 131-6 청소년회관내 | 885-3818 |
| 한국우주소년단 인천연맹 (김용구) | 남동구 구월동 새마을문고내 | 467-5357 |
| MRA 인천지부 (빈무식) | 남구 숭의동 131-6 청소년회관내 | 884-8772 |
| 홍사단 (김순제) | 남구 숭의동 131-5 | 885-8083 |
| 인천 YMCA | 남동구 간석동 511 | 431-8161 |
| 대한 YWCA 인천지회 (노근옥) | 중구 유동 6-14 | 427-1076 |
| 한국 BBS 인천연맹 (송대호) | 중구 율목동 244-1 | 73-5570 |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인천지부 (이갑훈) | 남구 숭의4동 8 | 883-1059 |
| 한국 4H후원회 인천지부 (최경웅) | 북구 십정동 461-2 | 422-3305 |

10) 1994년 7월 7일 김영길 옹 증언.
11)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하권, pp.22~23.

청소년 단체 가입 현황

| 학교구분 | 단체명 / 구분 | 보이및걸스카우트 | 청소년연맹 | 해양소년단 | 우주소년단 | 청소년적십자(R.C.Y) | 기타 | 합계 |
|---|---|---|---|---|---|---|---|---|
| 초등학교 | 남 | 3,422 | 2,207 | 545 | 847 | 219 | 20 | 7,260 |
| | 여 | 2,790 | 2,330 | 285 | 484 | 327 | 25 | 6,241 |
| | 계 | 6,212 | 4,537 | 830 | 1,331 | 546 | 45 | 13,501 |
| 중학교 | 남 | 584 | 806 | 141 | 227 | 423 | | 2,181 |
| | 여 | 358 | 807 | 63 | 79 | 501 | 22 | 1,830 |
| | 계 | 942 | 1,613 | 204 | 306 | 924 | 22 | 4,011 |
| 고등학교 | 남 | 140 | 233 | 17 | 17 | 124 | 55 | 586 |
| | 여 | 223 | 359 | 21 | 21 | 269 | 204 | 1,097 |
| | 계 | 363 | 592 | 38 | 38 | 393 | 259 | 1,683 |

한편 1970년도부터는 부평에 북인천청년회의소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초창기의 청년운동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청년회원들의 능력 개발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하는 사회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12] 이는 부평에서의 청년운동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음을 말한다. 부평지역의 주요 단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동청년단 부평지단

부평에 있는 기존 단체들이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1947년 10월 15일 국민회관에서 결단하였다. 당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단　　장 : 이재준(李載濬)
부 단 장 : 김영길, 김건용
간　　부 : 류한구, 강한성, 권봉성, 박태원, 김정후
감찰부장 : 김홍태
서곳지구책 : 이창재
하촌단장 : 권봉성,　　역전단장 : 강한성,　　시장단부 단장 : 이종석,
사거리 단장 : 공옥성,　　신트리 단장 : 이승재,　　갈산동 단장 : 이선문,
후정리단부 단장 : 최명복,　　작전동 단장 : 이무경,　　계산동 단장 : 박태원,
효성동 단장 : 이회창,　　부평2동 단장 : 이규종,　　부평3동 단장 : 양재윤,
산곡동 단장 : 윤재화

12) 북인천 청년회의소, 『북인천청년회의소 20년사』, 인천:평화상사, 1990, p.48.

위와 같은 조직원칙은 단장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인데 그 특징이 자연부락을 단위로 세분하여 조직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솔면에서나 특히 정보파악에 유리하였다고 한다.

당시 동 지단에서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결의안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5.10선거에도 적극 참여하여 그 방해세력을 분쇄하므로써 큰 불상사 없이 선거를 마칠 수 있게 하였고, 그 후 많은 단원들을 군문에 입대케 하여, 건군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13]

(2) 대한청년단 부평지구단

정부수립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한청년단이 새롭게 출범하자 부평에서도 김영길 준비위원장의 준비로 대한청년단 부평지구단을 1949년 1월 말경 부평공회당에서 결성한다. 당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단　　장 : 이재준
부 단 장 : 김영길, 한동선
감찰부장 : 김홍태
총　　무 : 김정후,　　재무 : 윤재화,　조직 : 이규종,　사회 : 이영주
역전단부 단장 : 강한성,　하촌단장 : 권봉선,　시장단장 : 이종석, 박상현,
사거리단장 : 공옥성,　신트리단장 : 이승재,　갈산리단장 : 이선문,
후정리단장 : 최명준,　작전동단장 : 이무경,　계산동단장 : 박태원,
효성리단장 : 이회창, 정은용, 박춘만,　부평2동단장 : 이규종,
산곡동단장 : 윤재화, 이정기,　효성동단장 : 박상수, 류석오,　부평3동단장 : 양재윤,
서곶지구대 : 이창재,　간부 : 김두하, 김양한,
감찰대 간부 : 최용구, 안추호, 이광형, 이강윤, 송문섭, 장수경, 황익주, 박홍서

동 지구단에서는 1949년 6월 13일 부평공회당에서 공산책동을 분쇄한다는 비상시국대책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 애국기 〈인천호〉 기금을 모금하는 헌납운동에도 앞장섰다. 또한 1950년 1월 25일에는 국민회와 같이 신익희선생과 조병옥박사를 초청하여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14]

(3) 북인천청년회의소

부평지구는 상주인구 10만이 넘는 지역으로 가장 심한 전후파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군사도시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정화운동과 청소년선도 운동의 전개가

13) 앞의 책, pp.445~449.
14) 위의 책, pp.449~453.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1970년 5월 6일 인천제2공보관에서 북인천청년회의소를 창립하였다. 당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심재갑
내무부회장 : 김진일,　외무부회장 : 서광선,　감사 : 최태연, 서동수,
사무국장 : 허문명,　지역사회개발위원장 : 이세구,　지도역량개발위원장 : 권순하,
홍보위원장 : 정진철,　회원확충위원장 : 김홍규,　경제활동위원장 : 이공진
국제관계위원장 : 김규완,　교육청소년위원장 : 한재이

동 청년회의소에서는 창립후 곧 식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부평시내 6개소에 버스 대기소를 설치하였고, 신문배달원에게 운동화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동 청년회의소는 본래 부평청년회의소로 출발하였으나 1972년 2월 2일 북인천 청년회의소로 개명한 것이며, 지금도 박현수 회장을 비롯하여 99명의 회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15]

### 2) 여성운동

해방이 되면서 부평에서의 여성운동도 시작된다. 즉 1949년 7월 6일 부평공회당에서 대한부인회 부평지회(지회장 : 최상명, 부지회장 : 최은식)가 결성되었는데[16] 기록은 없으나 아마도 부녀층에 대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후 1950년대에는 전화(戰禍)로 상처입은 상이용사들에 대한 원호, 전쟁 미망인의 구호, 그리고 일선장병들에 대한 위문활동을 펴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정화에 크게 힘쓰는 여성활동이 있었을 것이나 역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1960년대,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여성운동도 질적으로 크게 변한다. 즉 과거 구국운동이나 계몽운동차원에서 벗어나 여성의식 및 능력개발교육, 여성노동운동, 여권신장운동 등 여성권익보호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71년 '세계여성의 해' 이후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조직적이고 연합체적인 연대활동으로 사회참여의 저변확대를 통한 여성의 변화와 함께 사회모순에 대한 관심과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983년 4월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이어서 12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도 새로운 여성운동의 질적 변화와 의식 전환에서 온 제도적 장치 마련인 것이다. 특히 부평에서는 1988년 3월 16일 10개의

15) 북인천청년회의소, 앞의 책, pp.48~51. 및 동회 제49차 정기총회 자료 (1994) p.132.
16) 김영일, 앞의 책, p.451.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여성단체협의회를 발족하여 매월 월례회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17]

1996년 현재 부평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10개 단체는 다음 표와 같다.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창립 초기에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인천북구지부가 가맹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 대신에 한국어린이육영회 인천북구지부가 들어와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적인 봉사활동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은하수로타리클럽(초대회장 : 김옥환, 현재 2대회장 : 안영기)이 1992년 10월 9일 창립된 바 있으며[18], 지난 1993년 7월 12일에는 부평 키와니스 백합여성클럽(회장 : 박순자)이 조직된 바 앞으로 이들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기대된다.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 구명 | 일련번호 | 단 체 명 | 회원수 | 대표자 | 연령 | 직 업 | 전 화 | 비 고 |
|---|---|---|---|---|---|---|---|---|
| 인천직할시 북구 | 1 | 부평구새마을부녀회 | 8,416 | 장정열 | 55 | 무 | 423-7903 | 32개동 1,095명으로 구성 |
| | 2 | 부평구학교어머니협의회 | 6,513 | 노경자 | 39 | 무 | 502-3996<br>523-1518 | 56개국민학교 어머니회 |
| | 3 | 한국부인회 인천부평구지부 | 40 | 김영애 | 61 | 무 | 503-9339<br>503-9594 | |
| | 4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북부지부부녀회 | 340 | 변병주 | | 무 | 522-4957 | 32개동으로 조직구성 |
| | 5 | 사단법인 인천부평구미용협회 | 568 | 최영희 | 56 | 미용업 | 516-1881<br>518-9966<br>527-5924 | |
| | 6 | 부평경찰서 녹색어머니회 | 45 | 유갑순 | 48 | 무 | 522-1021 | |
| | 7 | 부평구 여약사회 | 100 | 모연자 | 56 | 약사 | 515-7033 | |
| | 8 | 전국주부교실 인천부평구지부 | 100 | 김매열 | 50 | 무 | 502-8240 | |
| | 9 | 적십자인천북구지부 | 14 | 윤순자 | 53 | 무 | 503-3717 | |
| | 10 | 한국어린이육영회 인천부평구지부 | 39 | 이순자 | 61 | 유치원 원장 | 503-8801<br>502-2518 | |

17)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인천:예일문화사, 1994, pp.170~172.
18) 인천은하수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가입승인증서전수식 팜프렛, 1993. 2. 18.

이들 여성단체 가운데 주요단체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부인회인천부평구지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는 1948년 창립되었던 대한부인회의 후신으로 1963년 10월 9일에 설립되었다. 부평에서는 1949년 7월 6일 대한부인회 부평지회가 설립된 바 있는데, 그 후 한국부인회 인천북구지회가 1967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창립 당시 초대 회장은 정석은이다. 동 지회는 여권신장과 건전한 가정 정착을 도모하며,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활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9년 8월 29일부터는 중앙에서와 같이 소비자 고발센타 '불만의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보호 사업으로 깨끗한 인천 만들기 각종 캠페인, 거리청소 기타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김영애 회장을 비롯해서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무실은 부평구 부개1동 283-19에 소재하고 있다.

(2) 전국주부교실인천부평구지부

주부의 사회성 개발, 봉사정신의 함양, 시민으로서의 주부의 역할 체득·실천 및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1981년 1월에 설립되었다. 창립당시 초대 회장은 박준숙이며, 현재는 김매열 회장을 중심으로 1,600여 회원이 상설 알뜰 매장에 나와 중고물품 수거·판매 등 적극적인 자세로 중고품 재활용에 앞장 서고 있다. 사무실은 부평구 부개 2동 103-1에 있다.

(3) 인천광역시 부평구여성단체협의회

부평에 있는 10개 여성단체들이 여성단체 상호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16일에 결성하였다. 창립 당시 초대회장은 김일란이었으며 현재는 이순자 회장이 맡고 있다. 본 협의회에서는 매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며, 그동안 요리강습회를 열고, 고부간 만남의 광장을 개최하였으며, 상설 알뜰매장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이익금으로 여성교양대학을 3개월 과정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사업으로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 무공해 비누 제작·보급등 수질오염 방지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 여념이 없는 중이다.

## 2.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운동

### 1)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살기 좋고 잘 사는 부자마을을 만드는 운동이며, 궁극적으로는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 근대화 운동이다. 이것은 1970년 4월 22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운동'을 제창한 것이 그 효시가 된다.[20] 그 후 중앙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설치되자 새마을운동의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는 추진을 하기 위하여 동년 4월 29일부터는 시에 시새마을운동협의회, 구에는 구새마을운동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1973년 2월 5일부터는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과 구 및 동의 개발행정지도 및 조정을 위하여 총무과 내에 새마을계를 신설하였다.[21] 뿐만 아니라 1972년부터 전국 마을 단위로 새마을운동을 주도해 나갈 새마을 지도자를 남자 1명, 여자 1명씩을 위촉하였는데 시에서도 동 단위로 남녀 각 1명씩을 새마을지도자로 위촉하였으며 시세 발전에 따라 추가위촉을 거듭하였다.[22]

또한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지도자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뒷받침 해 주고 또 그러한 지도자를 양성해 내는 새마을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수원에 짓고 1972년부터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해 냈다는데, 부평에서도 1974년 11월 1일 국내 최초로 민족주체학교가 부평중학교에 개설되어 지역 새마을지도자와 학부형, 주민등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년 44시간에 걸쳐 국사, 반공, 새마을운동 및 시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78년도부터는 부평여중으로 장소를 옮겨 시행하였다.[23] 그리고 1973년부터는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였고, 또 그 이듬해 1월 하순부터 2월 초 사이에 구 단위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이를 기점으로 새마을 열기를 가열화시켜 나갔는데 부평지역에서는 1980년까지 매년 부평극장에서 이를 실시 하였다.[24]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가꾸기운동'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자연히 도시새마을운동으로 확대·추진된다. 부평에서도 1974년 도시새마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도시 새마을

20) 인천직할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인천직할시지부, 『새마을운동 20년 공헌록』, 인천:인천직할시인쇄공업협동조합 1990, p.23.
21) 위의 책, pp.24~25.
22) 위의 책, pp.25~26.
23) 위의 책, pp.27~28.
24) 위의 책, pp.29~30.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운동의 추진으로 도시 새마을운동이 확산되었다.[25]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83년 전국체전,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대비하여 3대 시민운동과 5~20대 중점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도시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26] 이무렵 부평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1977년 11월 27일 결성), 동단위 새마을부녀회(1977년 8월 10일 결성)등이 결성되고, 1983년 12월 20일에는 드디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인천직할시북구지회가 결성되어 부평지역에서의 새마을운동을 지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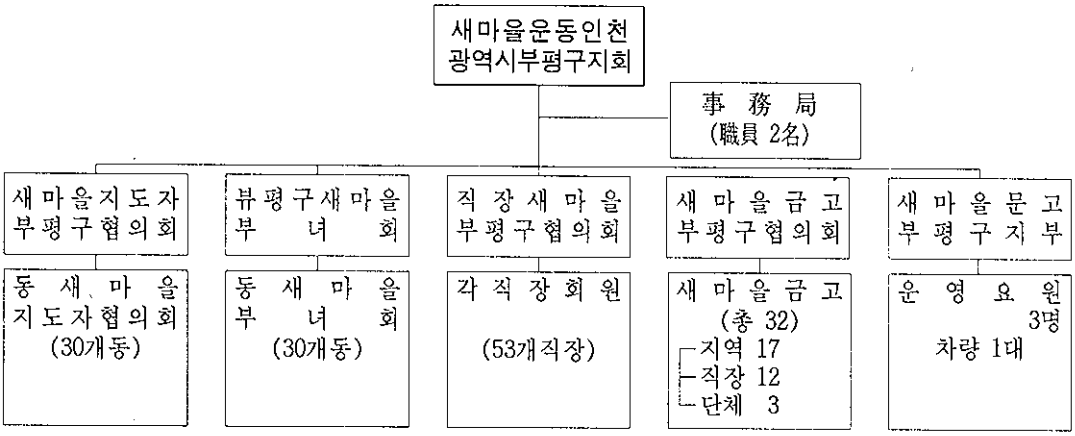
한편 1970년 10월 20일 재건국민운동 인천시위원회에서 단위 마을금고 조직 및 시·구지부 설립 결의로 시작된 새마을금고 운영은 1972년 8월 17일 마을금고에 관한 특별법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공포됨으로써 적극 지원·육성케 되어 도시새마을운동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케 되었다. 그 후 1978년 3월 2일부터는 모든 단위의 금고명칭을 새마을금고로 통일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새마을정신의 상징으로 운영되었으며, 마을수준의 척도로, 주민소득의 원천으로 그리고 인보협동의 모체로 육성되었다.[27] 1994년 현재 부평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황을 보면 모두 32개 금고에 회원수 113,276명, 총 자산이 268,940백만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절대적인 공감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국민의 참여의식 결여로 1980년대 후반에 와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적 과제와 시대적 소명에 부응키 위해 새시대의 새마을운동으로 재점화 활성화 되고 있다. 특히 10.13 특별선언인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의 이념은 계승, 발전되고 있다. 또한 1990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각 구별로 새마을운동 범 국민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자유실천 결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1994년 현재 부평에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편성 현황을 보면 위와 같으며, 주요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5)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하권, p.48.
26) 인천직할시 새마을운동협의회인천직할시지부, 앞의 책, p.23.
27)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50.

새마을 조직 편성 현황




(1) 새마을지도자 인천시부평구협의회

새마을지도자를 지역단위로 조직하여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1977년 11월 27일 발족하였다. 초대회장은 이윤환이었으며 하광수, 이상만, 박철수 회장을 거쳐 현재 신현명 회장이 맡고 있다. 회원은 1,010명이다. 3.1절 국기달기운동 전개 및 방범 봉사, 환경보호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농산물먹기 직거래장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은 부평구 부평4동 220번지에 있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새마을부녀회

1970년대 초에 부녀교실, 식생활개선구락부, 가족계획어머니회, 농협새마을부녀회 등이 있었는데 1977년 8월 10일 국무총리 훈령 제141호에 의거 이들을 통합 마을(통·반)단위 새마을부녀회로 조직하였다가 1980년 1월 15일 부평구새마을 부녀회가 된 것이다. 초대회장은 이순자가 취임하였으며 그 후 이종부, 이원향, 김명숙 회장을 거쳐 현재 장정렬 회장이 맡고 있고 회원은 32개동 1070명이다. 부녀회의 목적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가정의 육성과 부녀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다. 활동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이웃사랑실천 자원봉사등을 하였으며 새마을부녀회 알뜰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 주소는 부평구 부평 4동 220번지이다.

(3) 직장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부평구협의회

1975년에 창립된 인천시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직장새마을로 그 명칭을 변경한 것

으로 부평에서는 1981년 2월 23일 직장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초대회장은 안승택 안병원 원장이 취임하였으며, 그 후 박기환, 이완규회장을 거쳐 현재 고영진회장이 맡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총회 및 월례회를 통하여 직장새마을을 조직·관리하고 있으며, 의식개혁운동, 인보협동운동, 활기찬 일터가꾸기, 내고장 환경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47개 직장 및 직능단체를 갖고 있으며 사무실은 부평구 부평4동 220번지에 있다.

(4) 새마을문고 인천시부평구지부

1971년부터 새마을문고 설치운동이 전개되어 1978년에는 시·도·군지부가 설립된 바 있다. 새마을문고 부평구지부는 1983년 6월 14일 창립되었으며, 초대회장에 유춘식이 취임하였고 그 후 김장석이 맡아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 동지부는 지역 및 직장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하여 국민독서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30개 동분회장에 75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알뜰 도서교환 및 동민독서경진대회등을 열고 있다.

(5)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

1984년 3월 22일 창립되었으며, 새마을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시해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 대내외 홍보, 회원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지도·지원을 하고 있다. 1994년 6월 11일에는 계산동 싸이클경기장에서 환경 감시원 발대식 및 실천대회를 가진 바있다. 회장은 초대 이윤환 회장이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으며, 사무실은 부평구 부평4동 220번지 공보관내에 있다.

### 2) 바르게 살기 운동(사회정화운동)

바르게 살기운동은 1980년대 사회정화 운동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평에서도 1980년 8월 7일 지역정화추진위원회의 조직으로 사회정화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81년 7월 23일에는 사회정화운동 인천직할시 북구추진위원회로 개칭된다. 본 위원회는 사회정화운동의 3대 기본 이념인 정직, 질서, 창조를 바탕으로 자율적 창의적 사회정화운동을 추진해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중앙과제 및 자체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본 협의회 사무국은 편의상 북구청에 설치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6개 전문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또 유관 기관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었는데 그 위원장은 북구청장이 맡고 있다. 그리고 각 동에는 동위원회를 두고 지역정화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국민 4대 질서인 거리교통질서, 행락질서, 경기장질서, 공중질서와 청소년서도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글짓기 대회와 주부학교운영 등으로 소위 국민정신 9대 덕목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였다.[28]

· 그 후 사회정화운동 북구추진위원회는 중앙에서 1989년 1월 17일 순수 민간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새로 발족하게 됨에 따라 1989년 4월 1일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직할시 북구협의회로 바꾸게 된다. 바르게 살기운동은 그 활동을 지역단위로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협의회가 있고, 구와 동단위에는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바르게 살기운동을 종합기획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시·구협의회에 사무국 직제를 두고 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실, 질서, 화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29]

① 진실 : 거짓말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 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한다.

② 질서 : 원리와 원칙, 질서와 규범, 예의와 범절을 지키며, 겸허와 친절, 양보와 아량으로 혼란과 폭력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③ 화합 : 화합은 번영의 길이며 불화는 파멸의 길임을 명심하여 관용과 이해로써 분열을 막고 근면·검소한 생활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합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바르게 살기운동 북구협의회는 발족 이래 두홍률 회장이 계속 맡고 있으며, 조직상황을 보면 100명(남자 위원 40명, 동위원장 30명, 여성위원 30명)의 위원과 30개 동위원회 1,5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현재 활동으로는 첫째,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전개로서 매월 첫 토요일에 친절 서명운동과 친절뱃지 달아주기 및 홍보전단을 나누어 주고 있다. 둘째, 효자 효부 시상 및 경노위안잔치 행사를 매년 5월 중에 실시하며, 경노잔치는 주로 무의탁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거리교통질서 계도, 퇴폐풍조 추방, 자연보호운동, 내집앞 쓸기운동, 청소년 선도 활동, 기타 행락질서 지키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네째, 불우이웃돕기운동으로 소년소녀가장돕기, 농번기 일손돕기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무실은 북구 부평4동 220번지에 있다.

---

28) 경인일보사, 『인천연감』, 1988. 수원:경인일보사, 1988, pp.245~247. 및 인천일보사, 1993 『인천 연감』 인천:인천일보사 출판국:1993, pp.176~177.

29)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56.

## 3. 노동 운동

해방을 맞아 국내 정국의 혼미를 틈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각 산업현장에 공산당 간부들을 침투시켜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즉 공산당의 전위조직으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조직하고, 각 공장에 이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1945년 11월 5일 서울 중앙극장에서 각 산업별 노동조합 대의원 550명이 모인 가운데 '조선의 주인공은 근로층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세우며 박헌영, 김일성, 모택동을 명예위원장에 추대한 전평은 인천지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기계제작소, 조선차량공장, 동양방직공장 등의 노동쟁의나 투쟁에 가세,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회혼란을 획책하였다.[30]

한편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주들은 공산당의 지령에 움직이는 노조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김두한을 중심한 대한민청원 일행, 인천소년군대원, 평양청년회, 서북청년회 조직을 동원하여 공장노조 내의 공산당의 파괴활동을 막았으며, 나아가 공장 내의 공산당 조직을 분쇄하여 대한노총분회로 전환시킴으로써 인천의 노동운동은 안정되기 시작하였다.[31] 물론 이러한 경향은 부평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해방 초기 인천 또는 부평에서의 노동운동은 인평(仁平)과 노총인천지구연맹 간의 정치적, 사상적, 조직적 투쟁의 시기였으나 5.10선거를 기점으로 전평조직이 무너지게 되고 사실상 정치투쟁의 노동운동도 막을 내렸다. 그러나 6.25와 정치파동의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근로자 중심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노동관계법은 마련되지도 않았고, 노동조합은 제헌헌법 제18조에 의해 보호를 받을 뿐이었다. 1953년 3월 8일 비로서 전 4장 45개조로 구성된 노동조합법이 제정·공포되고, 동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782호가 공포되면서 노동조합의 대내적 자주성과 대외적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었으며, 협약의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군소노동조합의 난립이 많은 사회의 혼란을 가져 왔고 특히 정치성을 띤 노조의 투쟁은 격렬하고 대규모적인 것이었다. 5·16 이후에 노동조합운동은 산업별 체제로 크게 전환되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강화된다.

1963년 4월 17일과 12월 1일에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으며, 노동조합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노동쟁의의 해결에 국가기관의 참여 규제 및 공익중심의 노동행

30) 김영일, 앞의 책, pp.507~510.
31) 위의 책, pp.628~632 및 인천직할시사 편찬, 앞의 책, p.58

정 유도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1978년 노동조합법은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지양하고,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권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장별 조직이 중심이 되어 조합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80년 12월 31일에는 기업별 노조로 개정하였으나 1987년 6.29선언 이후 다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년 11월 28일 직종별 및 사업장 단위로 개정되어 노사 당사자간 자율원칙을 바탕으로 제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민주노조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이 권익을 스스로 보호 신장하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한때 한국노총 산하조직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인노협(仁勞協)을 조직 활동한 노동조합도 있다. 대체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믿는 근로자들은 단결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노동운동의 대중성과 지도성을 내 세우며 투쟁하였다. 따라서 민주화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은 심화 되었으며, 이 때 노사분규의 주요 내용은 임금투쟁이 핵심을 이루었다.[32]

1994년 1월 현재 부평에 있는 노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모두 142개 조합에 34,524명의 조합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 勞動組合 設立 現況

○ 총계 (94. 1. 5現在)

| 구 분 | 계 | 금 속 | 연 합 | 화 학 | 택 시 | 자동차 | 섬 유 | 노동부 | 기 타 |
|---|---|---|---|---|---|---|---|---|---|
| 조 합 수 | 412 | 44 | 25 | 13 | 8 | 8 | 9 | 34 | 1 |
| 조합원수 | 34,524 | 4,892 | 6,257 | 748 | 977 | 1,207 | 1,146 | 19,258 | 39 |
| 노동자수 | 50,673 | 9,112 | 7,647 | 1,517 | 1,093 | 1,513 | 1,517 | 28,198 | 45 |

그런데 이중 가장 오래된 노종조합은 1962년 6월 17일 조직된 전국주한미군 노동조합으로서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부평에는 노동조합다운 조합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후반에 부평에 수출공단이 들어 서면서 1970년대에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 생겨나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었으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과정을 타고 갑자기 많은 노동조합이 생겨 났다.

### 년도별 노동조합 설립 현황

| 년 도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 대 | | 1990년대 | 기 타 | 계 |
|---|---|---|---|---|---|---|---|
| | | | 전 반 | 후 반 | | | |
| 조 합 수 | 3 | 12 | 9 | 88 | 18 | 12 | 142 |

32) 김영일, 격동기의 인천 -광복에서 휴전까지- (인천:동아사, 1986), pp.507~510

인천(부평포함)에서의 년도별 노사분규 발생 상황을 보면, 1984년 24건, 1985년 31건, 1986년 33건, 1987년 298건, 1988년 202건, 1989년 150건, 1990년 123건, 1991년 85건, 1992년 20건이었으며, 분규의 내용은 대부분 임금인상과 관련된 것으로 임금 인상율은 다음과 같다.[33]

임금인상률 (1985~1991)

| 연 도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인상률 | 7.5% | 7.8% | 8.9% | 13.6% | 17.8% | 10.74% | 10.3% |

한편 부평에서 제일 큰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자동차 노조가 지난 1994년 7월 26일 오전에 실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인원 중 52.1%가 찬성함으로써 92, 93년도에 이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노·사간에 평화정착을 이룩한 것은[34] 부평지역에서의 노동운동(노사관계)이 한층 성숙한 단계에 올라 섰음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로 이해된다.

## 4. 소비자 보호운동

부평에서의 소비자보호운동은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4년 도시새마을운동으로 추진된 시민윤리확립운동은 범 시민운동으로 소비절약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불량식품, 불량상품 추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시도하였다. 주로 새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소비절약운동은 일반 여성단체의 호응을 얻어 소비자보호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국산품 애용 및 품질 향상, 소비자 교육운동이었는데, 당시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외국상품으로부터 국산품을 보호하려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소비재 생산이 증가하고 그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사회에 많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보호운동의 방향도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전환되어 1980년대부터는 소비자의 고발을 처리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특히 1985년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가 설립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에서 오는 고발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부평에서 소비자보호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민간소비자단체로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부와 한국부인회 인천북구지부가 있으며, 각급 생산업체의 고발센터, 국가기관의 소비자 불만처리 전담부서가 있다. 이중 한국부인회 인천북구지부에서는 1989년 8월 29일부터 소비자고발센타 '불만의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00여건의 고발을 접수 처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였다. 이 밖

33) 인천일보사, 1992, 『인천년감』, p.112. 및 1993 『인천년감』, p.121.
34) 대우기획조정실, 『대우가족』, 1994년 8월 1일 p.1.

에도 직접 고발 접수는 안 하나 여성 교양강좌로 소비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부녀복지회관에서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1990년대에는 지자제 실시 등에 따라 증가될 소비자보호 관련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의 단계적 확대 추진이 요구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소비자보호 시책의 발굴 및 시행을 위해 소비자보호 행정관련 조례 제정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구청에서 추진한 1993년도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시책과 사업을 보면,

① 물가안정과 소비자 자율통제 기능의 강화

② 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

③ 소비자 안전관리 시책의 강화

④ 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공정거래 질서, 표시, 규격 및 계량 관련 제도 개선

⑤ 소비자교육 및 정보 제공의 확충

⑥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

⑦ 소비자 조직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연중 운영하고 있다.

## 5. 복지 사업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된 것은 1950년대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이 종교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에 의해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또한 비전문성을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적, 전문적인 차원보다는 인간적, 비전문적 입장에서 자선적, 구호적, 사후대책적 성격을 띠고 수행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은 일제 때 제정된 조선구호령이 그 기본법이 되어 왔으나 1960년대 부터는 공무원 연금법(1960년)을 비롯해서 생활보호법(1961년), 군인보호법(1962년), 산업재해보상보호법(1963년), 공적부조(功績 扶助)에 관한 법률(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법령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상당히 향상된 사회복지가 이루어져 왔다. 즉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고용기회의 확대를 비롯해서 의료보장, 노후생활 보장등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영세민, 장애자, 저임금 근로자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상대적인 빈곤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고 있다.[35] 특히 부평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와서 경로당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청소년 공부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를 위한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 1) 저소득층 생활보호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시설보호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중 1994년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 1,229세대 1952명, 시설보호 대상자 5개시설 383명에 대한 기본생계 유지를 위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1993년도에는 2,56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1994년도에는 3,480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지급 기준은 오른쪽 표와 같다.[36]

생계비 지급 기준

| 구분 | 보 호 내 용 | 기준 '94 | 기준 '93 |
|---|---|---|---|
| 거택보호 | – 쌀 1인/1일 | 10kg(인/월) | 10kg(인/월) |
| | – 보리 1인/1일 | 2.5kg(인/월) | 2.5kg(인/월) |
| | – 연료비 1가구/1일 | 540원 | 450원 |
| | 월동기 연료비(1인/1일) | 270원 | 225원 |
| | –부식비(1인/1일) | 820원 | 700원 |
| | • 가구주 | 820원 | 700원 |
| | • 가구원 | 820원 | 700원 |
| | – 장제비(1구당) | 300,000원 | 250,000원 |
| 시설보호 | – 쌀 1인/1일 | 456 g | 456 g |
| | – 보리 1인/1일 | 114 g | 114 g |
| | – 연료비 1가구/1일 | 50원 | 50원 |
| | – 부식비 1인/1일 | 820원 | 700원 |
| | – 피복비 1인/1일 | 49,790원 | 49,790원 |
| | – 간식비 1인/1일 | 700원 | 500원 |
| | – 장제비(1구당) | 300,000원 | 250,000원 |

35)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부천:경인일보사, 1988, pp.525~526. 및 p.536.
36) 인천직할시 북구, 『구정백서』 1994, 인천:예일문화사, 1994. pp.157~163.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은 다음과 같다.[37]

사 회 복 지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종 별 | 대표자 | 소 재 지 | 정원 | 현원 | 설립연도 |
|---|---|---|---|---|---|---|
| 계 | 6 | | | 510 | 383 | |
| 인 천 광 명 원 | 시 각 장 애 | 한 정 석 | 십정동 185 | 100 | 69 | 56. 1. 7 |
| 성 동 원 | 청각언어장애 | 정 헌 | 부평동 765 | 100 | 54 | 53.12.20 |
| 예 림 원 | 정 신 박 약 | 장 영 순 | 부평동 633 | 130 | 120 | 59. 3. 1 |
| 성린직업재활원 | 지 체 부 자 유 | 김 영 주 | 십정동 501-2 | 80 | 58 | 57. 7. 1 |
| 은 광 원 | 지 체 부 자 유 | 이 은 수 | 부개동 347 | 100 | 82 | 73. 3.30 |
| 삼산사회복지관 | 종합사회복지 | 강 정 옥 | 삼산동 157 | | | 91.12.30 |
| 갈산사회복지관 | 종합사회복지 | 이 창 운 | 갈산동 360 | | | 93. 7. 7 |

또한 거택보호 대상자 및 시설보호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체의 검사, 운반, 화장 기타 장례를 행하는 비용으로 30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다.[38]

한편 자활보호 대상자는 1994년 현재 1701세대 5,153명이 되는데, 이들은 노동능력이 있으므로 이들의 빈곤 원인을 조사하여 자활에 필요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생활안정 자금 500만원과 생업자금 500~7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것과 특히 구비, 시비 및 국비를 재원으로 하여 취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1994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142,000천원을 투입 30개 사업장을 선정 취로케 하고 있다.

이 밖에 모든 생활보호 대상자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1,424명 전원에게 48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39]

### 2)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안정과 지역사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노동부 및 내무부와의 협의하에 시·도·구 단위 취업안내 및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92년 7월부터 전국 단위 취업 전산망 개통과 취업관계 전용 전화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취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민주화와 더불어 노사문제는 급속도로 복잡하여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이해 득실을 놓고 항상 대립의 요인을 지니고 있는데, 노사분규의 사전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37) 위의 책, p.162.
38) 위의 책, p.163.
39) 위의 책, pp.160~163.

노·사·정 간담회 및 노사교육, 복지시설등을 확충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40]

특히 부평에 사는 산업체 근로자 및 주민들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811평) 규모의 노동복지회관을 북구 계산동 906번지의 1필지에 짓고, 1992년 3월 3일부터 개관·운영해 오고 있다. 본 회관에는 식당, 체육실을 비롯해서 구판장, 미용실, 소회의실(교육실), 독서실, 취미교실, 예식장, 노동상담실 등이 있어서 저소득층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각종 교육을 통하여 화합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41]

### 3) 의료보호

1970년대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료보장제도의 하나인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의료보호 대상자 유형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재산과 소득의 기준으로 1종(거택)과 2종(자활) 대상자 2종류가 있다.

부평에는 1994년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가 모두 3,107세대 8,229명이 있는데 이들은 표와 같은 의료시혜를 받고 있다.[42]

의료시혜현황

| 구 분 | 의 료 시 혜 현 황 | 비고 |
|---|---|---|
| 1종(거택)보호 대 상 자 | - 1차(의원), 2차(병원)진료시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 |
| 2종(자택)보호 대 상 자 | - 1차(의원)→진료당 1,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보호 비용의 전부<br>- 2차(병원)<br>본인 부담금 : 100분의 20<br>의료보호기관 부담금:100분의 80 | |

### 4) 노인복지

경로우대제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 날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그 후 1981년 노인복지법과 경로헌장이 제정됨으로써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노인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우대 업종 6개 업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부터는 지금까지 실시하던 민간 경로우대업체에게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다가 1991년부터 각

40) 위의 책, pp.163~165.
41) 위의 책, pp.176~179.
42) 위의 책, pp.165~167.

업소의 협조를 받아 목욕, 이발, 미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료 써어비스를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시내 버스 승차에 대해서도 1992년부터 승차권을 분기별 36매를 제공하던 것을 1993년부터는 분기별 60매로 늘려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10,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1993년부터는 월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해서 19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건강진단은 1,2차에 걸쳐 기본적 검사 및 정밀검사를 병원급 이상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진단 결과를 노인과 가족에게 알려서 노인 질병의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경노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모두 26,591명이다.[43]

노인 현황

| 연 도 | 계 | 65~69세 | 70~74세 | 75~79세 | 80세이상 |
|---|---|---|---|---|---|
| '93연말 | 26,591 | 10,684 | 7,902 | 4,428 | 3,577 |

또한 주민 생활권내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1993년 말 현재 186개의 경노당에 운영비 및 연료비를 개소당 년간 126만원씩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노당을 도시형 농촌형등으로 건립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제공과 아울러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사회에 발 맞추어 가정에서 부양을 받기가 곤란한 무의탁 노인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1992년 7월 1일 양노원 1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 말까지는 20억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725평 규모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의 교육 및 취미생활, 공동작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평동 914번지에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 있다.[44]

노인복지시책 현황

|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정원 | 현원 | 비 고 |
|---|---|---|---|---|---|
| 협성양로원 | 부평구 산곡동 370-71 | 김옥환 | 50 | 34 | '92.7.1개설 |

### 5) 부녀복지

부녀복지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저소득 모자세대와 요보호 여성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평에는 1994년 1월 1일 현재 여성 인구가 367,483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이상 사회활동이 가능한 여성은 17,320명이나 된다.

---

43) 위의 책, pp.167~168.
44) 위의 책, pp.167~170.

여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총사업비 76억 3천 2백만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여성회관을 북구 갈산동 375-1에 신축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실내 수영장과 운동실을 비롯 기술교육실,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강당, 식당, 도서실, 탁아시설, 어학실 습실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부평에는 요보호 저소득 모자세대가 927세대 2,644명이나 있다. 부녀지도사업요원과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이들과 자녀진학, 취업, 사상등의 문제를 상담 해결하고 교육비를 보조하는 등 모자세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부평에는 유관기관과 협조로 요보호 여성 생활단속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등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사업을 통해 이들의 건전한 생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45]

부녀복지시설 현황

|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표지 | 정원 | 현원 | 비고 |
|---|---|---|---|---|---|
| 협성여자기술양성원 | 부평구 산곡동 370-71 | 김옥환 | 128 | 38 | |

한편 10개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여성단체협의회는 1988년 3월 16일 발족한 이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적응할 수 있는 여성의 의식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 상설알뜰시장 개설 운영, 기타 이웃돕기, 자연보호운동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여러 사업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6) 아동복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문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쟁고아가 그 핵심을 이루었고, 그 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파생된 가출아동, 부랑아, 미아, 기아등이 중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비행아동, 학업부진아동, 정서적 장애아동, 심신장애아동 등이 어려운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외국의 여러 원조단체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고, 그 후 1957년에는 어린이보호헌장이 제정·선도되었으며,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가 1981년에는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발전시켜 현대 사회의 아동문제 해결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부평에는 아동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고 현재 247명이 수용중에 있다.[46] 그리고 수용자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시설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생활보조운영비 외에 시설보강비, 장비보강비 등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

---

45) 위의 책, p.172.
46) 위의 책, p.173.

아동복지시설 현황

| 종 별 | 시 설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정원 | 현원 | 설립연월일 |
|---|---|---|---|---|---|---|
| 계 | 3개소 | | | 355 | 247 | |
| 육 이 | 시 온 복 육 원 | 김 선 | 부평구 일신동 62 | 150 | 128 | '53. 9. 6 |
| 육 아 | 신 명 보 육 원 | 정해득 | 부평구 십정동 577-4 | 75 | 70 | '52. 5.25 |
| 아동직보 | 구세군직업훈련원 | 양희동 | 부평구 산곡동 369-303 | 130 | 40 | '83. 7. 2 |

○ 연도별 취업알선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 구분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
| 계 | 82 | 89 | 98 | 99 | 79 | 103 | 69 | 65 |

또한 성장한 불우아동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훈련비등 제반 경비 전액을 지원하여 공동직업훈련원에서 갖가지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있다.[47]

그 밖에 부평에는 1993년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55세대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소녀가장 전원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또 여러 사회단체와의 결연사업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 7) 영·유아 보호사업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영·유아에 대한 적당한 보육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는 저소득층 보육아동 중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보육아동 301명에게 88,000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동년 9월 부터는 북구 보육정보센타를 운영하여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보육시설 확충에 일익을 담당케 하였다. 부평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48]

아동보육시설 현황

('94. 5. 1 현재)

| 계 | 구립보육 | 정부지원 | 민간보육 | 가정보육 | 직장보육 | 비 고 |
|---|---|---|---|---|---|---|
| 139 | 3 | 5 | 74 | 56 | 1 | |

47) 위의 책, p.174.
48) 위의 책, p.176.

|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장 | 정원(영/유) | 전화번호 |
|---|---|---|---|---|
| 철 마 어 린 이 집 | 산곡1동 138 | 이 명 순 | 270(77/193) | 515-6651 |
| 인 천 YWCA | 작전1동 870-2 | 조 동 숙 | 200( 70/13) | 543-2569 |
| 구세군산곡어린이집 | 산곡3동 369-303 | 이 희 숙 | 81( 25/56) | 518-0843 |
| 목 련 어 린 이 집 | 산곡1동 93 | 이 순 자 | 123명 | 517-0320 |
| 작 전 어 린 이 집 | 작전1동 184 | 김 숙 자 | 55명 | 542-5097 |
| 병 방 어 린 이 집 | 병방동 102 | 진 경 자 | 20명 | 546-4615 |
| YMCA 어 린 이 집 | 갈산동 360 | 이 창 운 | 72(5/12/55) | 515-8187 |
| 삼 산 어 린 이 집 | 삼산동 157 | 강 정 옥 | 65(5/10/50) | 529-8607 |

### 8) 청소년복지

청소년은 2000년대의 국가발전을 주도할 주역이자 원동력이므로 북구에서는 이미 민간인과 사회단체 등 범시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건전생활 지원,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 비행청소년 선도교화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 1차년도 사업은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수련터전 확보, 어려운 청소년 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다.

청소년 건전생활 지원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사생대회 또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축제 등을 개최하고 한편 모범청소년을 발굴 표창하고 있다. 또한 동·하절기 방학기간에는 유적지 견학나 야외수련을 통한 심신단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992년부터는 청소년 수련실 2개소 외에 청소년 공부방을 11개소나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천2동, 일신동, 십정2동 등은 위탁단체와 협의중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청소년 수련실 및 청소년 공부방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수련실 현황

('94. 5. 1현재)

| 수 련 실 명 | 운 영 단 체 | 규 모 | 주 요 시 설 | 수용인원 | 설 치 |
|---|---|---|---|---|---|
| 삼 산 동 청 소 년 수 련 실 | 삼 산 종 합 사 회 복 지 관 | 111평 | 음악감상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상담실 | 135명 | '93. 2 |
| 산곡1동 수련실 | 산 곡 1 동 신 협 | 79평 | | 70명 | '94. 2 |

## '94 청소년 공부방 현황

| 공부방명 | | 서운동 공부방 | 갈산동 공부방 | 부개1동공부방 | 효성1동공부방 |
|---|---|---|---|---|---|
| 소재지 | | 계산1동 208-18 | 갈산동 359 | 부개1동 445 | 효성1동 143-2 |
| 위탁운영단체명 | | 서운동 새마을회관 | 갈산주공1단지 관리사무소 | 부개감리교회 | 효성제일교회 |
| 대표자 | | 이희범 | 정영운 | 김춘식 | 이진용 |
| 전화번호 | | 542-7923 | 511-0583 | 527-3160 | 548-9033 |
| 시설현황 | 유형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 | 사용가능 면적(평) | 32.6평 | 45평 | 22평 | 40평 |
| | 사용가능 인원(명) | 50명 | 84명 | 50명 | 75명 |
| 개설일자 (예정일자) | | '93. 2월 | '93. 11월 | '92. 2월 | '94. 3월 |
| 주위여건 | | 도·농복합지역 | 영세민㉮단지 | 도시영세민지역 | 주택지역 |

| 공부방명 | | 산곡1동 공부방 | 산곡2동 공부방 | 효성2동 공부방 | 작전2동 공부방 |
|---|---|---|---|---|---|
| 소재지 | | 산곡1동 5-12 | 산곡2동 100-36 | 효성2동 316-13 | 작전2동 864-57 |
| 위탁운영단체명 | | 산곡동 신협 | 산곡2동 새마을금고 |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상담실 | 작전동 새마을금고 |
| 대표자 | | 원민구 | 김종봉 | 이기동 | 이노경 |
| 전화번호 | | 529-1271 | 523-8288 | 522-1569 | 545-0554 |
| 시설현황 | 유형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 | 사용가능 면적(평) | 50평 | 48평 | 40평 | 70평 |
| | 사용가능 인원(명) | 120명 | 72명 | 60명 | 120명 |
| 개설일자 (예정일자) | | '93. 2월 | '93. 2월 | '92. 2월 | '93. 2월 |
| 주위여건 | | 주택지역 | 주택지역 | 공단지역 | 주택지역 |

| 공부방명 | | 계산1동 공부방 | 삼산동 공부방 | 계양2동 공부방 | |
|---|---|---|---|---|---|
| 소재지 | | 계산1동 972-10 | 삼산동 157 | 병방동 419 | |
| 위탁운영단체명 | | 부평향교 | 삼산종합사회복지관 | 계양2동새마을금고 | |
| 대표자 | | 이만영 | 강정옥 | 황기택 | |
| 전화번호 | | 541-2924 | 529-8607 | 546-6223 | |
| 시설현황 | 유형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위탁운영단체 제공시설 | |
| | 사용가능 면적(평) | 48평 | 35평 | 40평 | |
| | 사용가능 인원(명) | 80명 | 55명 | 76명 | |
| 개설일자 (예정일자) | | '94. 3월 | '94. 3월 | '94. 3월 | |
| 주위여건 | | 주택지역 | 도시영세민지역 | 도시영세민지역 | 주택지역 |

※ 3개소 청천2동, 일신동, 십정2동은 위탁단체와 협의 중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으로는 우선 지원대상자인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이들에 대한 취학 및 직업훈련과 취업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자립지원금을 지원,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 1993년에는 어려운 청소년 133명에게 61,416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그밖에 7곳에서 청소년야간공부방을 운영하였다.

비행청소년 선도교화사업으로는 공무원, 민간인, 사회단체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연말 연시뿐 아니라 매월 실시하며, 구·동합동단속반을 편성 당구장, 전자오락실, 숙박업소, 극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특히 매월 25일은 청소년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구 총무과와 동사무소등 27곳에 청소년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49] 또한 지역 청소년의 실질적 지도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각동별로 20인의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청소년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50]

48) 위의 책, pp.119~121. 및 인천직할시 북구,『구정백서』1991, 부평:예일문화사, 1991, pp.203~206.
50) 위의 책, pp.204~205.

### 9) 보훈복지

1961년 8월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따라 시작된 원호사업이 원호처로 바뀌었다가 1985년 1월 1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국가보훈처로 그 명칭이 개정된다. 1985년도 보훈복지사업은 국민의 보훈의식 선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 특히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취업알선과 자영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집중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를 중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생계안정에 힘썼다.

부평에는 대한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모두 5개의 원호단체가 있는데 1992년 현재 1인당 월 보상금지급액을 보면, 애국지사의 경우 33만4천원에서 최고 1백18만2천2백원, 상이군경 28만2천원에서 1백17만4천2백원, 전몰군경유족 28만2천원에서 40만2천원이 된다. 뿐만아니라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는 학자금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산업체는 일정비율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의료시혜를 위해 황색진료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북구에 있는 보훈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51]

보훈 단체 현황

| 단 체 명 | 위 치 | 회원수 | 비 고 |
|---|---|---|---|
| 대한상이군경회 | 부평4동 220(공보관내) | 499명 | |
| 대한전몰군경유족회 | 부평4동 220(공보관내) | 286명 | |
|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 부평4동 220(공보관내) | 290명 | |
| 무 공 수 훈 자 | 부평4동 220(공보관내) | 431명 | |

51) 인천직할시 북구, 앞의 책, p.159.

# 第3章 사회단체(社會團體)

## 1. 공공단체

①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부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사업을 진행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89년 4월 1일 반공연맹이 해체됨과 동시에 이를 개칭하여 결성함.
○ 조직현황 : 임원 5명, 회원 1835명
○ 역 대 장 : 초대 ~ 현재 변종구
○ 기 구 : 지부장 1명, 사무장 1명, 운영위원 35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134~3번지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재향군인회

○ 설립목적 :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권익을 향상시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81년 12월 19일 인천시북구 연합회분회로 창설.
○ 조직현황 : 이사 25명, 회원 102,905명
○ 역 대 장 : 초대 박영규, 이병규, 현재 김운봉
○ 기 구 :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국장 1명, 원로 5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146~29호

③ 재향경우회 부평지회

○ 설립목적 :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70년 6월 결성
○ 조직현황 : 16개 분회, 회원 250명
○ 역 대 장 : 초대 홍순복, 이기현, 백남철, 이상훈, 김영철 현재 한성섭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383번지

④ 재향경우회 계양지회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94년 5월 30일 재향경우회 부평지회에서 분회 창설됨.

⑤ 상이군경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설립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51년 6월 수원에서 대한상이군인회 경기도지회로 시작됨. 그 후 1975년 인천남북구분회가 되었다가 1989년 1월 6일 북구지회가 됨.

○ 조직현황 : 회원 499명

○ 역 대 장 : 성기경, 박정수, 장윤진, 김용우 현재 두제삼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20번지

⑥ 전몰군경유족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63년 8월 1일 경기도지회 인천북구분회를 결성, 그 후 1989년 1월 1일 북구지회로 승격됨.

○ 조직현황 : 대원 286명

○ 역 대 장 : 초대 김종매, 현재 문병수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20번지

⑦ 전몰군경미망인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63년 8월 7일 인천북구분회로 설치, 그 후 1989년 1월 1일 북구지회로 승격됨.

○ 조직현황 : 회원 290명

○ 역 대 장 : 초대 심재호, 현재 조원휘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20번지

⑧ 대한무공수훈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설립목적 :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조국통일 성업달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88년 2월 24일 발기, 1989년 5월 13일 승인 받음.

○ 조직현황 : 자문위원 20명, 회원 431명
○ 역 대 장 : 초대 이성실, 현재 정창화
○ 기　　구 : 사무장 1명, 유족회장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20번지

⑨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

○ 설립목적 : 순국선열의 유지를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69년 5월 22일 인천·경기지구연합지회를 설립, 그 후 1987년 6월 1일 인천광역시지부가 됨.
○ 조직현황 : 회원 130명
○ 역 대 장 : 현재 김재룡
○ 소 재 지 : 부평구 십정동 397－4번지

⑩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광역시 부평구협의회

○ 설치목적 :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78년 8월 1일 결성
○ 조직현황 : 지역 17, 직장 12, 단체 3
○ 역 대 장 : 초대 김영길, 현재 조덕민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20번지

⑪ 자연보호중앙회 인천광역시 부평구협의회

○ 설립목적 : 우리의 자연을 오손과 파괴로부터 보호하여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아름다운 국토를 소중히 보존함과 아울러 이를 후손들에게 기리 물려주고자 종합적이고 범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77년 10월 창립
○ 조직현황 : 30개동 145명
○ 역 대 장 : 현재 노종학
○ 기　　구 : 부회장 1명, 총무 1명

⑫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설립목적 : 노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81년 6월 25일 창립
○ 조직현황 : 분회 29, 노인정 162, 회원 9,888명
○ 역 대 장 : 초대 조기준, 박덕용, 정원조, 현재 조진규
○ 기 구 : 부지회장 4명, 노인학교장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1동 464－28번지

⑬ 인천4H연합회

○ 설립목적 : 지덕노체의 4가지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 농어촌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54년에 창립 됨.
○ 조직현황 : 회원 2,000여명
○ 역 대 장 : 현재 김희완
○ 소 재 지 : 부평구 십정동 461－2번지

⑭ 인천지방검찰청 소년선도위원 부평구지역 협의회

○ 설립목적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 또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확정되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중인 소년수형자, 소년원생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정화활동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83년 12월 15일 창립
○ 조직현황 : 위원 55명
○ 역 대 장 : 초대 한천길, 현재 정병욱
○ 기 구 : 부회장 1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373－1번지

⑮ 인천지방검찰청 소년선도위원 부평구 제2지역협의회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91년 4월 1일 창립
○ 조직현황 : 위원 26명
○ 역 대 장 : 현재 초대 장순상
○ 기 구 : 부회장 1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442－1번지

⑯ 법무부아동보호관찰소 보호위원 부평구지역협의회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90년 1월 18일 창립
○ 조직현황 : 위원 55명(1지구 소년선도위원이 겸임하고 있음)

⑰ 유도회 부평지부

○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교선양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46년 3월 설립 됨.
○ 조직현황 : 회원 300명
○ 역 대 장 : 초대 조구현, 류희진, 윤창섭, 김경원, 조기준, 이기혁, 박노송, 이찬동, 임덕용, 이훈두, 이기필, 현재 윤재현
○ 기　　구 : 부회장 2명
○ 소 재 지 : 부평구 계산동 982－1번지

⑱ 한미친선협의회

○ 설립목적 : 부평지역 주둔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에 올바른 이해촉진과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서로간의 우호관계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81년 8월 17일 미군부대장과 북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구성
○ 역 대 장 : 현재 곽노훈 청장, Pendergast대령

## 2. 민간단체

① 민족통일 부평구협의회

○ 설립목적 :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81년 4월 30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50명
○ 역 대 장 : 초대 안승택, 현재 이언기
○ 기　　구 : 부회장 5명, 사무국장 1명
○ 소 재 지 : 북구 부평5동 554번지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의사회

○ 설립목적 :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 의술의 발전·보급, 의권옹호 및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61년 4월 22일 인천시의사회부평분회로 설치, 1981년 8월 13일 북구의사회가 됨.
○ 조직현황 : 회원 188명
○ 역 대 장 : 초대 김승태, 박영모, 안형범, 전병집, 장진호, 윤도선, 윤백현, 하길풍, 임남재, 현재 전현수
○ 기 구 : 고문 2명, 부회장 4명, 이사 7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1동 대인병원 내

③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과의사회

○ 설립목적 : 구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치과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 보건의 발전과 의도의 앙양 및 의권옹호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90년 7월 인천치과의사회에서 분리 창립함.
○ 조직현황 : 회원 120명
○ 역 대 장 : 초대 김진일, 현재 김인규
○ 기 구 : 부회장 2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계양구 작전동 863-15

④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의사회

○ 설립목적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81년 7월 31일 경기도 북구분회에서 북구한의사회로 승격 됨.
○ 조직현황 : 회원 68명
○ 역 대 장 : 초대 이인범, 현재 최상순
○ 기 구 : 부회장 2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50-4번지

⑤ 인천광역시 부평구약사회

○ 설립목적 :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약사업무 및 약학에 관한 연구, 개인발전을 도모하며 약사권익 보호와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원래 인천시 의약품판매협회 부평분실이었는데, 1964년 2월 15일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부평분회로 설립, 그 후 1981년 12월 23일 북구약사회가 됨.
○ 조직현황 : 개국회원 328개, 약종상 5개, 비개국회원 55명, 총회원 388명
○ 역 대 장 : 초대 김종우, 임근태, 안경환, 이성수, 이병태, 이석구, 안경환, 남호순, 노관형, 서동수, 송종헌, 장종근, 현재 최원섭

○ 기　　구 : 부회장 4명, 사무국장 1명
○ 소 재 지 : 북구 부평5동 449-2번지

⑥ 대한간호협회 인천시지부

○ 설립목적 :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46년 9월 경기도지부로 발족하였으며, 1983년 1월 23일 인천시지부가 됨.
○ 조직현황 : 회원 1964명
○ 역 대 장 : 초대 이군자, 박명구, 조미자 현재 김병연
○ 기　　구 : 제1·2지부장 각 1명, 이사 8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6동 657번지

⑦ 인천광역시 부평구의료보험조합

○ 조직현황 : 회원 73,784명
○ 역 대 장 : 현재 유재성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 5동 568-4

⑧ 한국어린이육영회 인천부평구지부

○ 설립목적 : 영세민, 유아원에 대한 봉사활동과 어린이 초기교육 및 어린이 심장병 상담 및 치료에 기여함을 목적함.
○ 연　　혁 : 1982년 1월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39명
○ 역 대 장 : 현재 이순자

⑨ 인천북부학교 어머니협의회

○ 조직현황 : 56개 국민학교 어머니회 회원 6,513명
○ 역 대 장 : 현재 노경자

⑩ 부평경찰서 녹색어머니회

○ 조직현황 : 회원 45명
○ 역 대 장 : 현재 유갑순

⑪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약사회

○ 조직현황 : 회원 100명
○ 역 대 장 : 현재 모연자

⑫ 적십자부녀봉사대 북구지회

○ 조직현황 : 회원 14명
○ 역 대 장 : 현재 윤순자

⑬ 대한미용사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설립목적 : 공중위생법 제32조에 의거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64년 설립
○ 조직현황 : 회원 568명
○ 역 대 장 : 초대 강봉림, 윤분희 현재 최영희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361번지

⑭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부평구지부

○ 설립목적 : 국민영향과 보건 향상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증진에 앞장서며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66년 1월 19일 창립
○ 조직현황 : 일반음식점 3,809개 업소
○ 역 대 장 : 초대 김창익, 강한수, 박영귀, 노종섭, 홍창수, 신경수, 현재 최광희
○ 기 구 : 부지부장 2명, 운영위원 12명

⑮ 한국목욕업중앙회 인천시지회 부평구지부

○ 설립목적 : 업소 권익보호와 종업원 위생교육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조직현황 : 회원 101명
○ 역 대 장 : 현재 이윤환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152-1

⑯ 인천광역시 다방동업조합 부평구지부

○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복리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조합원 권익보호와 대정부 건의 및 제 연락에 관한 업무에 진력함을 목적으로 함.
○ 조직현황 : 회원 480명
○ 역 대 장 : 현재 이윤환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152-1 번지

⑰ 대한숙박업 인천광역시 부평지부

○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조직현황 : 회원 310명
○ 역 대 장 : 현재 이윤환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152-1번지

⑱ 한국이용사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설립목적 :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며, 이용업소 환경개선지도 및 종사자 위생교육과 이용업소 위생검사 및 시설에 관한 지도를 목적으로 함.
○ 조직현황 : 회원 378명
○ 역 대 장 : 현재 심평옥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442-2번지

⑲ 한국세탁업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조직현황 : 회원 376명
○ 역 대 장 : 현재 박성규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1동 464-14번지

⑳ 전국 부동산중개업 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부평구분회

○ 조직현황 : 회원 810명
○ 역 대 장 : 현재 양용의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03-19번지

㉑ 대한행정서사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조직현황 : 회원 39명
○ 역 대 장 : 현재 조재만
○ 소 재 지 : 부평구 청천1동

㉒ 한국인장업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 조직현황 : 회원 85명
○ 역 대 장 : 현재 김석중
○ 소 재 지 : 부평구 청천2동

㉓ 대한양곡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지부

○ 조직현황 : 회원 543명
○ 역 대 장 : 현재 김진원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동 228번지

㉔ 장군 및 6.25참전 동지회

○ 설립목적 :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91년 6월 13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664명
○ 역 대 장 : 현재 박용득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1동 451-48번지

㉕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부

○ 설립목적 : 회원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91년 10월 24일 조직
○ 조직현황 : 회원 93명
○ 역 대 장 : 현재 도이록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385번지

㉖ 인천YMCA 부평지회

○ 설립목적 : 청소년들이 Y회원으로서의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청년문화를 창조하는데 목적을 둠.
○ 연 혁 : 1990년 12월 개설
○ 소 재 지 : 부평구 갈산동 360번지

㉗ 인천 YMCA 부평구지회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소 재 지 : 계양구 작전동 862-25번지

㉘ 인천서북 청년회의소

○ 설립목적 : 청년회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세계회원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조직현황 : 회원 77명
○ 역 대 장 : 현재 김창식
○ 소 재 지 : 계양구 계산2동

㉙ 부평라이온즈클럽

○ 설립목적 : 국제관계 여러문제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인 상호간 이해의 정신을 배양·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향상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정, 친선, 상호이해로 클럽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64년 4월 22일 부평문화예식장에서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53명
○ 역 대 장 : 초대 김석기, 김숙현, 김영길, 전병집, 안형범, 강한성, 윤병일, 장내복, 우상근, 박상현, 임병한, 김모봉, 윤중료, 김병곤, 박금준, 윤도선, 안상재, 이병권, 최재근, 전갑룡, 조진형, 안순승, 김상일, 현재 전현수
○ 기　　구 : 부회장 3명, 총무 1명, 재무 1명, 이사 7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20번지

㉚ 부내라이온즈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89년 10월 26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56명
○ 역 대 장 : 초대 이문경, 이상구, 안광수, 김한배, 현재 이규진
○ 기　　구 : 부회장 3명, 총무 1명, 이사 16명
○ 소 재 지 : 계양구 작전2동 840번지

㉛ 인천북부라이온즈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81년 6월 19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52명
○ 역 대 장 : 초대 김종봉, 현재 김장회
○ 기　　구 : 부회장 3명, 총무 1명, 이사 9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554번지

㉜ 부일라이온즈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조직현황 : 회원 42명
○ 역 대 장 : 현재 장태인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496－4번지

㉝ 북인천라이온즈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조직현황 : 회원 51명
○ 역 대 장 : 현재 김경식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1동 70~84번지

㉞ 계양라이온즈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조직현황 : 회원 46명
○ 역 대 장 : 현재 김동수
○ 소 재 지 : 계양구 박촌동 145-35번지

㉟ 신명라이온즈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조직현황 : 회원 39명
○ 역 대 장 : 현재 최용희
○ 소 재 지 : 부평구 부개2동 85-1번지

㊱ 북인천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교우의 범위를 넓히며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75년 10월 13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45명
○ 역 대 장 : 초대 안정훈, 송재두, 신현돈, 고관선, 김홍배, 공휘진, 신경수, 김영배, 최해동, 송진길, 두홍률, 이교인, 이우영, 정홍채, 김민기, 유태형, 전명환, 이희구, 현재 이기봉
○ 기 구 : 부회장 2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03-19

㊲ 인천안남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87년 1월 24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52명

○ 역 대 장 : 초대 김성정, 송창근, 박노완, 김청원, 심우성, 김성부, 조장현, 최영재, 현재 김영두
○ 기　　구 : 부회장 2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계양구 계산1동 956－27번지

㊳ 인천계양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90년 10월 18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32명
○ 역 대 장 : 초대 이종민, 김창수, 이영환, 현재 강한구
○ 기　　구 : 부회장 2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계양구 임학동 3－5번지

㊴ 인천은하수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92년 10월 9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48명
○ 역 대 장 : 초대 김옥환, 현재 안영기
○ 기　　구 : 부회장 2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동 203－28번지

㊵ 수주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조직현황 : 회원 42명
○ 역 대 장 : 현재 이석우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1동 534－169번지

㊶ 부평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조직현황 : 회원 33명
○ 역 대 장 : 현재 고기천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199－19번지

㊷ 북부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조직현황 : 회원 42명
○ 역 대 장 : 현재 박용건
○ 소 재 지 : 계양구 효성동 243-7번지

㊸ 동부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92년 10월 15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29명
○ 역 대 장 : 초대 박재홍, 홍영기, 현재 임장호
○ 기 구 : 부회장 2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계양구 작전2동 855-27번지

㊹ 서부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위와같음

㊺ 남부로타리클럽

○ 설립목적 : 위와같음

㊻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부평클럽

○ 설립목적 :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치중하며, 정의와 도의 및 애국심과 선량한 의지를 증진하도록 힘쓰며, 클럽을 통하여 확고한 우정의 형성과 참된봉사로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69년 9월 11일 조직
○ 조직현황 : 회원 57명
○ 역 대 장 : 초대 조기준, 현재 유영동
○ 기 구 :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 이사 10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143-45번지

㊼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북인천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80년 9월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42명
○ 역 대 장 : 초대 이남표, 최명옥, 백낙오, 이계삼, 명영식, 유돌용, 윤덕영, 정헌, 인교본, 최익환, 김형만, 심상호, 현재 김종학

○ 기　　구 : 부회장 2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4동 252-45번지

㊽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계산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91년 6월 5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40명
○ 역 대 장 : 초대 이용우, 김병길, 이화석, 현재 정왕섭
○ 기　　구 : 부회장 3명, 총무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계산2동 917-23번지

㊾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부평백합여성클럽

○ 설립목적 : 위와 같음.
○ 연　　혁 : 1993년 7월 12일 조직
○ 조직현황 : 회원 25명
○ 역 대 장 : 초대 박순자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143-45번지

㊿ 국제와이즈맨 한국중부지구 부평클럽

○ 설립목적 : YMAC를 공동으로 성심껏 도우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계발, 육성하므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　　혁 : 1971년 7월 7일 부평중앙장로교회에서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30명
○ 역 대 장 : 초대 장일섭, 김희섭, 조남섭, 유지은, 김학규, 임근택, 이삼덕, 김정봉, 강정길, 김상희, 이종상, 김조웅, 장덕훈, 선우 영환, 김병학, 김홍기, 최한호, 견문우, 이정현, 이중구, 현재 이봉춘
○ 기　　구 : 부회장 1명, 사무장 1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3동 276-44번지

(51) 국제피플투피플 북인천클럽

○ 설립목적 : 국제이해와 친선을 통한 평화세계의 구현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며 정치 및 종파를 초월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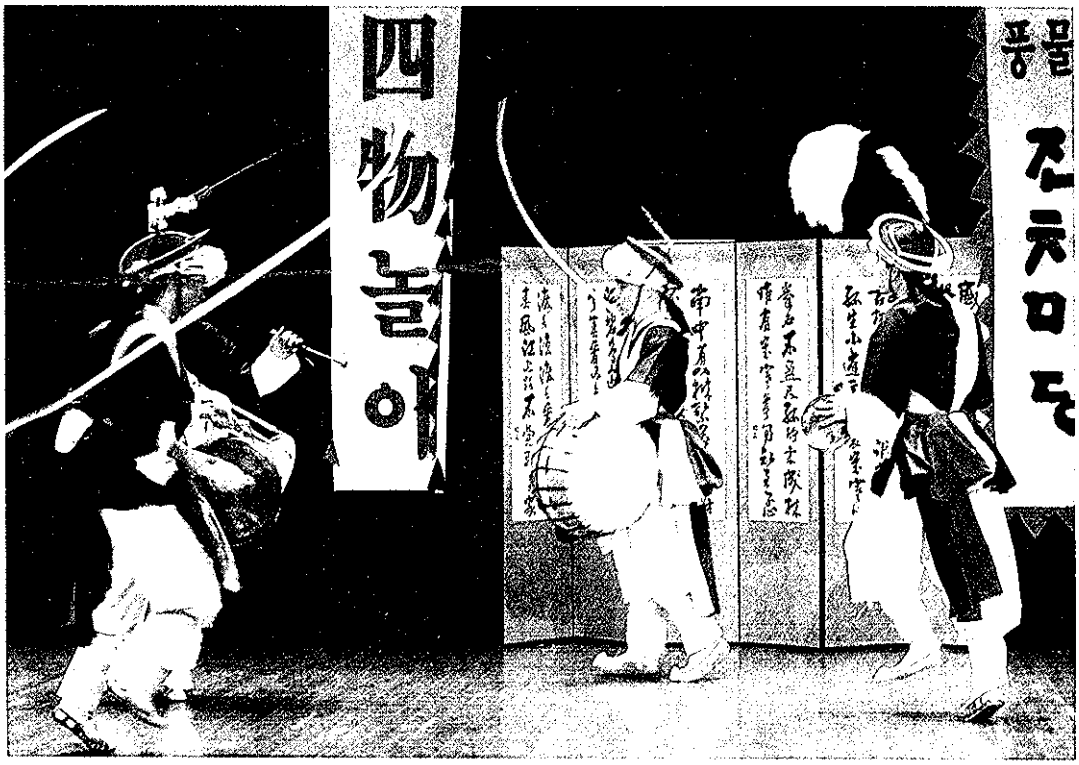
○ 연 혁 : 1972년 5월 6일 창립
○ 조직현황 : 회원 44명
○ 역 대 장 : 초대 서상우, 김홍연, 주의선, 주명익, 조남섭, 오필용, 김홍태, 신현모, 김동훈, 김금룡, 강한기, 장순상, 신길성, 류오동, 홍종선, 고윤옥, 차세룡, 이중성, 최수진, 정병묵, 이성영, 현재 김장수
○ 기 구 : 부회장 2명, 간사장 1명, 이사 7명
○ 소 재 지 : 부평구 부평5동 572-1번지

## 3. 기타 단체

부평에는 이 밖에도 각종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문회 등이 있으며, 자료수집 부족으로 꼭 넣어야 할 단체를 빠뜨린 것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날에 있었던 단체들을 뺄 수 없어서 그 이름만이라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국청년회 부평지부(1945), 한국광복청년회 부평지회(1946), 대한독립청년단 부평지단(1946), 부평체육회(1946), 대한부인회 부평지회(1949), 부평의용소방대(1951), 부평 및 서곳지구 민심계도 위원회(1959), B.B.S운동 경기도연맹 부평지부(1964), 한국반공연맹 인천시부평구지부(1965), 부평산업수출공단설치후원회(1966), 재건국민운동 인천시부평구위원회(1970), 마을금고연합회 인천시부평구지부협의회(1978), 사회정화운동 인천광역시 부평구추진위원회(1980),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인천부평구올림픽추진위원회(1986)

# 第7篇 文 化



# 第1章 종교(宗教)

## 1. 유교(儒教)

### 1) 유교의 개관

유교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갖게된 것은 고려 충열왕 때의 안유(安裕)와 안향(安珦)이 중국에서 공자 및 72현(賢)의 위패를 모셔오고, 충선왕 때 백이정(白頤正)이 남종에서 정주학을 배워온 후부터이다. 즉 성리학, 주자학, 도학 등으로 불리어지면서 실천도덕성을 강조하는 유교이념이 민간에까지 널리 전파되었던 것이다.

한국유교가 현대적인 조직으로 정비된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3월 사단법인 유도회총본부가 결성되면서부터였다. 재단법인으로 성균관이 설립되고,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를 관찰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던 것이다. 성균관에는 이사장과 이사회, 사무국이 있고 그 산하에 성균관의 책임자는 관장이며, 성균관 산하에 전국 231개 향교가 있다. 향교의 책임자는 전교(典敎)이며 의결 기구로 유림총회가 있으며, 실행기구로 장의회가 있다. 유도회 총본부는 위원장이 그 책임자이고 의결기구로 중앙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의 산하조직으로 시·도지부와 시·군지부 및 읍·면지회, 그리고 리동분회가 있다.

유교의 교리는 공자의 도의사상을 종지(宗旨)로하는 인본주의적 윤리의 교(敎)이다. 명덕(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세 강령(綱領)은 유교의 기본 이상이며,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8조목은 인간의 내적 수양을 거쳐서 외적 덕화(外的德化)의 과정을 명시하여 그 이상을 완수하게하는 단계적 기본행위를 밝히고 있다.[1]

유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하는 유학의 교육은 향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평지역의 유교활동도 부평향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향(祭享) 기능의 하나인 석전제에서 비롯되는 유교적 의식과 각종 교육활동등은 전통 유교이념을 국민도덕의식으로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1) 송세영, 『富平鄕校』, 大田:回想社, 1987, p.49 참조.

### 2) 부평향교

부평지역에서의 유교활동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기록을 보면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부평조에 '향교재부북2리(鄕校在府北二里)'로 나와있고, 고려사에는 '인종 5년(1127) 입학광교(入學廣敎)하다'라고 되어있어 부평에는 이미 고려조부터 향교가 설치되었고, 유교활동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부평향교는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소실되었고, 지금까지 몇차려의 증·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2]

병자호란(1592)때 소실된 옛 향교의 규모는 대성전(大成殿) 10칸, 동서무(東西無) 각 6칸, 명륜당(明倫堂) 10칸, 동서재(東西齋) 각 7칸 반, 전사청(典祀廳) 3칸, 공수고(公須庫) 10칸, 대문(大門) 3칸, 중문(中門) 3칸, 도합 66칸으로 이루어져 현재의 향교보다 약 1.5배나 큰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 14년(1688) 8월 4일 지금의 계산동 892번지에 향교를 재건하고 성위의 위판을 설치하였다. 재건된 지금의 향교는 대성전 9칸, 동서무 각 3칸, 명륜당 10칸, 동서제 각 10칸 수복청 6칸, 외삼문 3칸, 내삼문 3칸 등 총 57칸(298.5㎡)이다.

부평 읍지에 기록되어 있는 향교는 현재 계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 건축된 향교를 말하는 것이다. 부평향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해 오면서 부평지역 유교발전에 크게 공헌해 오고 있는 것이다.

부평향교의 변모과정을 명륜당 안에 보관되어 있는 10여개의 중수 및 보수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편액(篇額)을 통해 살펴보면,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3]

- 1853년 명륜당 및 대성전, 동무 서무, 동제 서제, 전사청, 주감방 및 문, 수복방과 담장보수를 하였다.
- 1871년 향교의 전반적인 수선공사
- 1904년 내삼문을 정비하고 관청개와를 옮겨다 번화하였다.
- 1914년 부평군과 인천부가 병합되어 부천군(富川郡)이 됨으로써 부평군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부평향교만이 부평이라는 이름을 보존하게 되었다.
- 1921년 무너진 동쪽 담장을 수리하고, 서무를 새로 지었다.
- 1933년 대성전 내외 석회공사와 동무 서무의 기둥과 대들보의 보수 및 석회공사를 하였다.
- 1937년 한달간 전반적인 보수를 하였다.
- 1940년 외삼문 및 고직실을 중수하였다.

---

2) 위의 책, p.88.

3) 『仁川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인천:인천직할시간, 1991, pp.189~90참조.

- 1943년 한부에 한개의 향교만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문학문묘를 부평문묘에 합하여 인천향교라고 하였다.
- 1946년 해방 이듬해에 유림의 상소로 문학문묘는 부평향교로 개칭되었다.
- 1966년 대성전 및 내외삼문을 중수하고 단청하였다.
- 1970년 단청 및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졌다.
- 1778년 외삼문 및 홍전문에 단청과 인조석마광의 현대식 계층설비 및 하수구 복개와 정면포장 등의 환경정비 공사를 실시하였다.
- 1980년 대성전을 보수하였다.
- 1981년 명륜당, 용무, 서무, 칙간, 내삼문, 동제 등이 보수되고 홍전문이 신축되었으며 담장이 개축되었다.
- 1985년 교직청의 해체 및 보수와 외삼문의 개축공사를 하였다.
- 1986년 동무 서무와 내삼문의 단청공사와 대성전, 동제, 명륜당과 전정에 석판부설공사를 하였다.
- 1987년 없어진 서제를 동제를 모방하여 복원하였다.
- 1990년 11월 16일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부평향교의 직제는 고종말기까지 도유사(都有司) 1명, 장의(掌議) 2명, 색장(色掌) 2명이었는데 한일합병후 조선총독부는 성균관을 경학원으로하고 지방향교의 도유사를 직원(直員)으로 통일시켰다. 해방후 향교의 직원을 전교(典校)로 고치고, 색장을 없애고, 장의의 수를 향교 실정에 따라 두게 되어 부평향교는 21명의 장의가 있다.

부평향교의 관할구역은 수차에 걸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부평군 구역내의 유림들은 전래대로 석전봉행(釋奠奉行)과 교궁(校宮) 보존 관리 및 교육문화사업에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부평향교의 관할지역을 보면, 인천직할시 북구 일원, 부천시 일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 고척, 개봉, 오류, 온수, 천왕, 항동, 궁동일원이다.[4]

부평향교의 제임(濟任) 명단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제임 명단

- 고　　문 : 정영근, 조기준, 송범식, 이찬동
- 전　　교 : 송세구

4) 조기준, 『富平史 硏究』, 인천: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4, p.135.

- 수석장의 : 이만영
- 장 의 : 임윤순, 김홍수, 박용규, 이재돈, 이강찬, 남궁협, 김형규, 한기룡, 심진택, 김인수, 송영규, 윤종, 최명복, 유명원, 윤재헌, 한기녕, 이정선, 이석주, 김영택, 신규택, 이한직, 강영희, 한기완, 이정우, 이황재, 박로달
- 감 사 : 이영하, 박화영

### 3) 유교행사 및 교육문화사업

석전제의(釋奠祭儀)는 1981년 봄부터 시행되어 오고있으며 대성전 선성(先聖) 선현(先賢)의 위패 봉안은 동서 종형에 봉안한 정(程) 주(朱) 두 분과 한국의 18현이다. 특히 한국성현에게도 오성위(五聖位)와 같이 삼헌(三獻)을 드리도록 하고 있다. 유교의 전통의례인 석전제의는 사상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통일하고 실천적인 행동양식을 유교의 교의(敎儀)에 일치시키는데 기여한다.

〈석전제 위패 봉안도〉

富平鄕校大成殿先聖先賢位牌奉安位次圖

大成至聖文宣王

| | | |
|---|---|---|
| 衛國公朱 熹 | | 豫國公程 頤 |
| 文昌侯崔致遠 | | 弘儒侯薛 聰 |
| 文忠公鄭夢周 | 成國宗聖公曾子 | 文成公安 裕 |
| 文獻公鄭汝昌 | | 文敬公金宏弼 |
| 文元公李彦迪 | | 文正公趙光祖 |
| 文正公金麟厚 | | 文純公李 滉 |
| 文簡公成 渾 | | 文成公李 珥 |
| 文烈公趙 憲 | | 文元公金長生 |
| 文正公宋時烈 | | 文敬公金 集 |
| 文純公朴世采 | 鄒國亞聖公孟子 | 文正公宋浚吉 |

유교의 교육문화행사는 유도회가 중심이 되어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교사상 고취를 위한 행사는 충효교실 및 전통예식장 등을 갖추어 유교의 학문과 도덕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고 계승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향교회관은 1989년 6월 29일 향교재단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150평(1층 75평, 2층 75평) 규모로 신축키로 하고, 같은해 9월 20일 착공하여 다음해인 1990년 1월 준공되었다. 부평향교지에 나와 있는 향교회관의 그 건립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5] 즉 "해방후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전통적인 유교문화 및 선행사항

5) 송세영, 『富平鄕校誌』(속간), 大田:回想史, 1990, p.91.

이 실추되었고, 이의 부흥을 통한 도의사회 건설을 염원하던 중 부평향교 근처인 계산동에 교육대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따라서 유교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 직업관 국가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 교육시설인 향교회관을 신축하게된 것이다."

전통혼례식장은 1988년 9월 7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16일에 준공되었다. 혼례식에도 서구풍조가 만연하여 전통혼례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위해 충효교실 2층에 마련된 전통혼례예식장은 일반에 널리 이용하도록 하여, 부부의 도리를 밝히고 가정윤리를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혼례식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6]

- ○ 의혼(議婚) : 중매자를 내세워 혼인을 청한다.
- ○ 문명(問名) : 양가에서 서로 이름을 묻는다.
- ○ 납채(納采) :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사주단자를 부낸다.
- ○ 납징(納徵) :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청단홍단을 보낸다.
- ○ 청기(請期) : 신부집에서 혼인날을 정하여 신랑집에 가부를 묻는다.
- ○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를 맞는 예식을 올린다.

부평향교가 일찍부터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도의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것은 충효교실의 운영에서 비롯되었다.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충효사상 고취를 제창하는데 힘입어 충효교실을 신축하고, 1986년 8월 20일부터 상설 개강하였다. 국민도덕실천운동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충성과 효도 등 전통 유교윤리의 고취는 청소년 선도뿐만 아니라 도의 선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매년 관내 효(孝), 열(烈) 선행자를 찾아내서 석전제 때, 표창하고 있다. 선정 방법은 각 동 통장, 학교장 및 유림대표자를 통해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지금까지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민학생 200여명을 포함하여 효열선행자가 50여명에 이른다. 부평향교지에 기재되어 있는 효열선행 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효열상 수상자 명단

- 효 자 상 : 이충경, 이락범, 서명석, 원용무, 김경한, 김기원, 김형구, 이석구, 이재승
- 효 부 상 : 정쌍금, 이금순, 권계동, 오정근, 이병하, 이대영, 임현숙, 최봉화, 권난식, 박은순, 방순분, 홍종자, 김양분, 오순자, 이계숙, 이기숙, 이의자, 주순분, 강매숙, 이영숙, 최량란, 김순임
- 효 행 상 : 최기순, 임성자, 임금순, 이세구
- 효열선행 : 김옥수, 윤옥희, 서영복, 이철기
- 망부선행 : 윤선순
- 공 로 상 : 정영근, 조기준, 송범식

6) 송세영, 『富平鄕校誌』(속간), 大田:回想史, 1990, pp.93~95 참조.

### 4) 유 도 회

유도회는 향교창설 이후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향내(鄕內) 각 명문 중에서 청금록(靑衿錄)에 등재된 사람, 그리고 유포유복(儒布儒服)하고 선성(先聖) 선현(先賢)을 숭앙하는 사람을 유림이라한다. 1945년 8월 광복후 10월에 전국 유림 2,500여명이 성균관 명륜당에서 회합을 갖고 유도회를 창립하였다.

부평향교 유도회는 한국유도회총본부 산하기관으로 유도(儒道)정신에 입각한 회원의 조직을 통해 도의천명과 유교윤리를 실천하고 수신제가치국평천의 대도를 선양하여 사회질서의 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도회는 1980년 10월 부평향교 유림회관을 건립하고 유도진흥에 진력하고 있다.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중·고교생들에게 충효를 중심으로하는 생활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부녀자들에게 서예교육을 실시하여 유교도의 선양에 힘쓰고 있다.

역대 유도회의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역대 지부장**

조구현, 유희진, 윤창섭, 김경원, 조기준, 이기혁, 박종송, 이찬동, 임덕용, 이훈두, 이기필

**현재 임원진**

지 부 장 : 이기필　　부지부장 : 윤재현, 윤철
총무부장 : 이정선　　조직부장 : 김홍수　　재무부장 : 남궁협
정경부장 : 원각희　　교화 선전부장 : 한기룡　　감사 : 이영하, 박화영

### 5) 간행물 발간

부평향교가 발간한 중요 간행물은 부평향교지(1987), 부평향교지 속간(1990)외에 1970년 이기원이 펴낸 유교선설집(儒敎鮮設集)이 있다. 이밖에도 교육문화사업과 관련된 책자들이 수시로 발행되고 있다.

## 2. 불교(佛敎)

### 1) 불교의 개관

한국의 불교는 1천6백년동안 이땅의 정신적 뿌리로 성장하여 왔다.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불교는 완전히 토착화되어 한민족의 생활과 의식구조 일반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실로 한국문화의 뿌리로서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여 왔던 것이다.

한국불교의 사상적 특징은 첫째 보살정신의 함양과 실천이다. 사상사적 맥락에서 볼 때 호국불교는 대승사상의 이상을 바탕에 둔 고매한 이론과 실천을 표방한다. 대승불교의 실천윤리에 의하여 가치질서를 확립한 것이다. 화랑의 세속오계라든지,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 이상의 실천윤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겠다. 고려 조선조를 거치면서 한국의 불교사상가들을 관통하였던 이상(理想)은 바로 보살도(普薩道)의 실천에 있었다. 그 구체적 결정으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있고, 임진왜란시의 승병들의 구국항쟁이 있었다.

둘째는 일승(一乘) 정신의 추구이다. 한국불교는 종파주의를 지양한다. 화엄경의 일승원융(一乘圓融) 사상에 바탕을 두고 현실과 이상을 하나로 조화시키려는 이상을 갖는다. 이 때의 하나는 단순히 수량적 의미라기보다는 조화·통일성으로서의 영원성을 상징한다. 즉 귀일심원(歸一心源), 일즉일심(一卽一心), 색즉시공(色卽是空)으로서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질서와 평화, 조화와 통일의 상태를 나타내는 호국적 영원의 상징일 수 있다.

셋째는 호법의 전통이다. 호법(護法)은 두 가지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좁은 의미로 나의 조국을 지킨다는 뜻과 넓은 의미로 진리가 머무는 국토를 지킨다는 뜻으로, 이 때의 법은 다르마(Dharma)이다. 우주의 질서, 자연의 섭리, 그리고 그 자연이나 우주와의 관련 속에서 인간이 지켜 나가야 할 도리를 깨닫게 한다. 한국의 불도(佛徒)들은 이같은 불교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각종 법회를 열어왔으며, 이러한 불법수호의지는 민족의식으로 승화 발전되어 왔다.

묘향산의 휴정, 관동지방의 유정, 호남지방의 처영 등의 승군장들은 신명을 바쳐 호법에 최선을 다하였다. 사제(四諦) 십이연(十二緣) 팔정도(八正導) 등 불교 교리의 근본과 반야(般若), 유식(唯識), 선(禪) 등 대승(大乘) 불교의 가르침이 인천지역에 들어온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 2) 부평지역 사찰유적[7]

『부평부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계양산(桂陽山)에는 만일사(萬日寺)와 명월사(明月寺), 봉일사(奉日寺)가 있었으나 폐사되었다고 되어 있다.

(1) 만일사지(萬日寺地) : 『동국여지승람』 권 9 부평도호부 불우조에 『만일사재계양산(萬日寺在桂陽山)이라고 되어 있다. 계양산 서면 경명현(景明峴) 너머에 있는 고려초기의 사찰지로, 현재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2) 명월사지(明月寺址) : 『동국여지승람』에 명월사재계양산(明月寺在桂陽山)이라고 기록되어

7) 이 부분은 『仁川市史』(下卷),(1993)에 수록된 佛敎부분에서 발췌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힌다.

있다. 계양산 북면 약 200m중복에 자리한 이 사찰은 약수로 알려진 큰 우물이 있었다.

(3) 봉일사지(奉日寺址) : 『동국여지승람』에 '봉일사재계양산(奉日寺在桂陽山)'이라 기록되어 있다. 계양산 남양산 남록 동편에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밖에도 북구 관내에서는 벗어났으나 부평지역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찰로 약사암(藥師庵)이 있다. 이 약사암은 옛 주안사지(朱雁寺址)로 『동국여지승람』 권 9 불우조에 '주안사재주안산(朱雁寺在朱雁山)'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약사암은 인천지역 화엄종(華嚴宗)의 총본산의 역할을 통해 부평지역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주안산에는 옛 개북사지(開北寺址)가 있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으니 『조선고적보물조사자료(朝鮮古蹟寶物調査資料)』 부평군 2호에 있다.

### 3) 부평지역 종단(宗團) 및 사찰 현황

한국불교를 발전시켜 온 주요 종단은 조계종(曹溪宗), 태고종(太古宗), 천태종(天台宗), 법화종(法華宗), 진각종(眞覺宗), 총화종(總和宗), 일승종(一乘宗), 관음종(觀音宗), 법상종(法相宗), 법화정(法華宗), 보문종(普門宗), 미륵종(彌勒宗), 화엄종(華嚴宗), 정토종(淨土宗) 등이 있다. 이중 인천지역은 조계종과 태고종, 법화종, 화엄종 계통의 사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종단마다 독특한 종지(宗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종단의 종지구현(宗旨具現) 차원에서의 운영상의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종단에 관계없이 개별 사찰중심으로 교리전파와 교육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직할시의 불교교리 전파 및 교세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인천불교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을뿐, 아직 각 구에 지회가 설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찰 및 암자 수가 50여개에 이르는 부평지역에도 불교단체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없다.

부평지역 사찰들이 속해있는 주요 종단과 사찰들은 다음과 같다.

(1) 태고종(太古宗)[8]

고려말 종조(宗祖) 태고(太古) 보우국사(普遇國師)가 오교구산(五敎九山) 통합 선교양종(禪敎兩宗) 수립을 시작으로 주요 종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석가세존의 자각 각타(覺他) 하신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근본정신을 봉체(奉体)하고 태고 종조의 종풍(宗風)을 선양하여 전법도생(傳法度生) 한다.

둘째, 소의경전(所依經典)은 화엄경(華嚴經), 금강경(金剛經), 기타 경전의 지송(持誦)과 연구는 제한하지 않는다.

---

8) 『韓國의 宗敎』, 서울:文化公報部宗務室, 1989, p.128.

셋째,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며, 단,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태고종 종단에 속하면서 부평지역 불교도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은 백운사(白雲寺), 법성원(法成院), 정양사(靜養寺), 관음정사(觀音正寺) 등이 있다.

(2) 법화종(法華宗)[9]

혜일정각(蕙日正覺) 대사가 대각국사(大覺國師)를 종조로 법화경(法華經)을 근본 경전으로 하는 불교의 일파로 1946년에 법화도장인 무량사(無量寺)를 서울에 창건하였다. 종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동신라의 원효성사(元曉聖師)가 경찬(敬讚)하신 묘법(妙法)의 현의(玄義)와 고려 제관법사(諦觀法師)가 홍전(弘傳)하신 법화의 종지를 계승한다.

둘째, 소의경전(所依經典)은 석가세존의 일대(一代) 교설 중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다. 단, 다른 성전을 지송연구함은 제한하지 않는다.

셋째, 본존불은 십계만다라(十界曼多羅)로 하고, 석가모니불을 봉안한다.

부평지역 법화종단 소속 사찰은 보각사(普覺寺)와 호명사(護明寺)등이 있다.

(3) 화엄종(華嚴宗)[10]

한영석(韓永錫) 대종사(大宗師)가 인천에서 37년간 포교활동 중 대승불교의 염불문(念佛門)을 열어 화엄(華嚴)의 지관(止觀)을 닦고자 1965년 창립하였다. 종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불교의 보살행을 실천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화엄의 지관을 닦아 견성(見成) 성불을 기하는 한편 염불문을 열어 왕생(往生)을 발원한다.

둘째, 소의경전은 화엄경(華嚴經)이다.

셋째,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다. 단, 타불상의 봉안은 제한하지 않는다. 부평지역의 화엄종단 소속 사찰은 계양산성 불사가 있다.

부평지역 주요사찰

| 번호 | 사찰명 | 주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1 | 관음정사 | 김홍제 | 청천동 48-399 | 501-8800 |
| 2 | 광명사 | 정청곡 | 청천동 48-317 | 501-2010 |
| 3 | 극락암 | 유춘란 | 부평6동 634번지 19/2 | 522-3683 |
| 4 | 능해정사 | 이도해 | 부평2동 산 43-2 | 519-5551 |
| 5 | 대명사 | 양명순 | 부평5동 369 | 93-6730 |

9) 『韓國의 宗教』, 서울:文化公報部宗務室, 1989, p.133.
10) 위의 책, p.152.

| 번호 | 사찰명 | 주지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6 | 덕 홍 사 | 김 덕 웅 | 효성동 101번지 | 548-0485 |
| 7 | 동 암 사 | 김 무 찰 | 십정동 46-2 | 423-5369 |
| 8 | 미 륵 사 | 박 월 은 | 산곡동 70-3 | 92-4794 |
| 9 | 반 야 사 | 김 옥 희 | 부개동 377-2716 | 92-0133 |
| 10 | 반 야 암 | 채 갑 순 | 부평2동 768-3 | 522-3739 |
| 11 | 백 련 사 | 김 일 우 | 산곡1동 141 12/1 | 92-3821 |
| 12 | 법 정 사 | 강 보 일 | 부평4동 18-6 35/5 | 524-6616 |
| 13 | 보 각 사 | 안 경 래 | 산곡1동 | 92-4102 |
| 14 | 보 광 사 | 방 승 찬 | 십정2동 34번지 | 522-2036 |
| 15 | 보 문 사 | 박 문 자 | 십정동 186-301 | 92-4533 |
| 16 | 보 현 사 | 이 종 현 | 십정동 157 | 423-8897 |
| 17 | 보 현 사 | 위 형 십 | 계산동 857-50 | 541-4146 |
| 18 | 사 리 암 | 윤 일 원 | 부평동 445 | 525-1818 |
| 19 | 삼 불 사 | 오 보현심 | 부평2동 665 | 522-3823 |
| 20 | 삼 선 사 | 김 복 희 | 부평2동 767번지 20/1 | |
| 21 | 삼 선 사 | 이 향 덕 | 부평2동 767-82 | 525-1578 |
| 22 | 성 불 사 | 이 성 애 | 효성1동 186 20/1 | 541-5800 |
| 23 | 영 덕 사 | 이 재 한 | 산곡동 180 3/5 | 92-2836 |
| 24 | 영 천 사 | 정 대 은 | 산곡동 180 | 92-0658 |
| 25 | 월봉약사암 | 공 구 담 | 십정2동 435-18 우진빌라B동3층 | 519-6185 |
| 26 | 자 원 사 | 박 보 광 | 부평6동 612-4 | 525-4009 |
| 27 | 정 양 사 | 이 형 관 | 십정2동 579-3 | 501-3689 |
| 28 | 지 선 사 | 김 덕 환 | 계산동 산48-7 | 545-7835 |
| 29 | 홍 복 사 | 배 동 환 | 부평3동 183 | 522-4849 |
| 30 | 화 천 사 | 김 정 각 | 부평1동 341-93호 | 513-5328 |
| 31 | 불 광 사 | 강 보 성 | 동구 금곡동 58번지 7/8 | 764-1254 |
| 32 | 약 천 사 | 홍 하 존 | 둑실동 270-1 | 528-6527 |

### 4) 불교 행사 및 교육문화 활동

불교전래의 포교행사로는 부처님 성도기념(成道紀念) 법회, 부처님 열반절, 석가세존 탄생 기념식, 종조(宗祖) 탄생 기념식, 맹란분절(孟蘭盆節)봉행, 결제(結制)봉행, 단일계단수계산림(單一戒壇授戒山林) 봉행 등이 있다. 이들 행사는 종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불교

교리를 전파한다는 점에서 사찰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재가(在家) 불교운동이라 불려지고 있는 교육문화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신행단체(信行團體) 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재가불교운동은 불교강좌·사회사업 등을 통해 생활불교로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 성가 등을 보급하여 전통의식에 도입함으로써 불교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통일 불교성전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서 불교현대화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 산하 통일불교성전편찬위원회에서는 14인의 편찬위원들에 의해 3년에 걸친 각고 끝에 한글판 통일 불교성전을 간행하였다.[11] 대부분의 불교경전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사찰도 멀리 있어 불교의 진리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총 920페이지에 10장으로 나누어 편집된 통일 불교성전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일반인들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한 일은, 불교교리의 전파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널리 보급한다는 측면에서도 크게 경하할 일이다.

불교현대화의 획기적 발전 계기를 만들어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은 불교텔레비젼 방송설립을 위한 불자 주식 청약이다. 채널 32를 확보한 불교텔레비젼은 평일(월~토)은 8시간, 일요일은 13시간씩 1주 총 61시간을 방송하게 된다. 1995년 3월에 시작될 불교텔레비젼 프로그램을 보면 불교 교양대학, 문화강좌, 다큐멘타리 불교기행, 찬불가 공양 등 불교현대화 및 생활화를 위한 알찬 내용으로 짜여지고 있다. 불교텔레비젼의 방송은 포교와 신행의 바람직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부평지역에 산재해 있는 50여개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신도회 등 각종 신행단체 중심으로 불교포교와 자체결속 등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도단체들을 횡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구(區)지역단위의 조직이 없어 불교의 교육문화활동이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부평지역 사찰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재가 불교운동 및 교육문화활동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행단체

사찰에따라 조직 및 운영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재가 불교운동 차원에서 신행단체를 조직하여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계양산성불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신도회는 약 25,000가구의 불자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불자중심으로 조직된 판음회는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반야회는 교육·홍보활동을, 성심회는 90여명이 참여하여 불교행사 및 사찰의 주요행사를 주관한다. 학생회는 초등학교부, 중·고등부를 두고 있으며 불교교리를 중심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여성합창단을 조직하여 찬불가 등을 보급한다.

---

11) 『통일불교성전』, 서일:통일불교성전 편찬위원회, 1992, p.1.

(2)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중에는 장학 사업, 불우이웃 돕기, 소년 소녀가장과의 결연 사업, 환경보호운동 참여, 마약퇴치 운동 등 다양하다. 특히 장학사업의 경우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대상의 장학금을 매학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찰들이 많이 있다. 계양산 성불사의 경우 매년 중고등학교 학생 20명 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관음정사의 경우도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각 사찰별로 실시되고 있는 장학금은 불교장학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장학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경승실운영[12]

관내 계양경찰서와 부평경찰서에는 경승실이 마련되어 재직 경찰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평경찰서 경승실은 불기 2838년 7월 19일 개설하였고, 경승실장에 김홍제 스님이 취임하여 성대한 기념 법회를 가졌다. 부평지역 30여개 사찰이 후원하고 있는 부평경찰서 경승실과 계양경찰서 경승실(김덕환스님)은 사제(四諦) 팔정도(八正道)의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경찰행정을 지원함으로써 부평지역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3. 천주교(天主教)

### 1) 천주교(天主教)의 개관

1784년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해 한국천주교회는 창설되었고, 인천에 복음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개항후인 1889년 빌렘신부의 부임후부터였다. 빌렘신부는 부임 이듬해인 1890년에 현 답동본당 자리를 마련하면서 막연히 서양사상으로 연구대상이었던 천주교를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갔다. 1904년 제4대 주임으로 부임한 드뇌신부에 의해 인천의 천주교회는 본격적인 복음 전파활동을 시작하였고, 학교(박문학교)와 고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교세의 확장에 따라 늘어나는 신자를 위한 교당의 증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1937년 6월 증축하였는데, 인천본당은 라리보 주교의 집전으로 축성되었다.

제5대 주임신부로 취임한 임종국 신부는 천주교의 자립을 목적으로 신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각종 조직을 만들어 나갔다. 1938년 여성신도들의 모임인 소화테레사회, 1946년 남학생들의 복사반의 조직이 그것이다. 평신도단체도 점차 늘어나 1935년 예수성심회, 1955년

12) 부평경찰서 경승실 개원 기념법위(불기 2538년 7월 19일)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것임.

카톨릭성심회, 1955년 카톨릭학생회 1956년 성우회, 1957년 레지오 마리에가 잇따라 창설되었다. 인천천주교의 교세는 날로 확장되어 1952년 3월에는 부평공소를 산곡공소와 서곳공소 및 서해안 모든 도서를 포함하여 부평본당으로 독립, 승격시켰다. 1961년 6월 6일에는 인천감목대리구를 대목구로 승격시킴으로써 인천천주교는 자신의 쇄신과 사회 속에서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천주교인천교구 산하에는 교육기관 5개소와 의료기관 2개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봉사단체를 갖고 있으면서, 복음을 토대로 한 근대화와 인간화의 사회건설을 위해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인천교구는 그 관할지역을 인천직할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전역으로 하고 있으며, 교인수는 250,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2) 부평지역의 교세

1952년 3월 부평공소를 부평본당으로 승격시킨 이래 부평지역 천주교교세는 크게 발전하였다. 교세가 신장됨에 따라 민족복음화 차원에서 교육사업, 의료사업, 문화사업, 사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구 산하에 있는만큼 부평지역 성당활동도 대부분 인천교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세 신장에 따른 천주교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목회 조직

1974년 2월 1일 인천교구 공의회 사목회칙이 발표됨에 따라 부평지역 모든 성당에서도 사목회를 조직하였다. 사목회는 모든 신도들의 의견이 교구행정에 반영되는 제도로서 교구 및 각 성당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카톨릭 학생연합회 활동

대학생들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복음전파를 목적으로하는 인천교구 카톨릭 연합회가 1972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카톨릭 신학원에서 동계 피정을 가졌다. 1973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캠프장에서 인천교구 카톨릭대학생연합회 지역대회를 개최하였고, 1974년 3월 17일 답동성당에서는 레지오 마리애 봉헌 사열식이 개최되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구내 신도들의 심령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동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6,000여명이 참석하는 청년신앙대회가 개최되었다. 인천시민회관, 답동성당, 인천실내체육관으로 나뉘어 강연회와 기도회, 젊음의 광장, 대회미사 등이 집전되었다.

(3) 선교 및 교육활동

성직자, 평신도 교육과 함께 선교활동은 천주교 발전을 위한 기본적 활동이다. 1976년 본당

단위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선교활동이 전개되어 본당 관할내의 냉담자 및 행방불명자 찾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1977년을 청소년 선도의 해로 지정 청소년들의 정신교육 및 신앙교육을 강화하고 본당 단위로 재정적 지원을 의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교회서적과 종교음악을 담은 레코오드와 카세트를 취급하는 선교목적의 서원이 1976년 답동성당 옆 성바오로 서원에 이어 부평에도 카톨릭 출판물 보급을 위한 책방이 문을 열었다.

(4) 인천교구설정 20주년 성체대회[13]

1981년 6월 6일 인천교구설정 20주년 기념 성체대회를 개최하였다. 교구산하 20,000여명의 신자가 참여하여 미사를 보았으며, 인천종합운동장, 숭의로타리, 소방서앞, 도원파출소, 도원회관을 지나는 성체거동 행렬을 가졌다.

(5) 각급 신앙대회

신앙쇄신, 형제적 일치, 복음전파를 목적으로하는 신앙대회가 1982년 6월 11일 청년신앙대회, 동년 9월 26일 어린이 신앙대회가 개최되어 성도일치를 위한 미사를 가졌다.

부평지역은 인천교구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곳으로, 이에 상응하는 사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먼저 교구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 카톨릭대학 설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을 향한 북방선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부평지역에는 12개의 성당이 중심이 되어 복음 전파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수도단체와 사목회의를 통하여 교구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교세를 키워나가고 있다.

### 3) 교육·문화활동

천주교의 사회봉사활동은 인천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부평지역은 한국전쟁후 상이군경들에 의해 개간된 화랑농장을 중심으로 천주교의 사회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1962년 4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가 도화동에서 전쟁 고아를 수용, 운영하던 육아시설을 인수하여 동년 10월 계산동에 건물을 짓고, 성 요셉 직업보도원을 운영하였다. 1966년 산곡동 369-216번지에 183평 규모의 건물을 개축하였으며, 1969년 7월부터 14세 이상의 아동과 영세민 자녀들에게 자활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영원한 도움성모수녀회 수녀들의 지도를 받았던 교육내용은 양재와 편물이 중심이었으며, 기숙사의 생활지도를 통해 종교, 한문, 음악 등 교양교육을 실시하였다. 1972년부터는 양계를 하여 생활터전 마련을 위한 실습도 병행한 성 요셉 직업보도원은 1979년 문을 닫을 때까지 500여명의 소녀들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

13) 인천직할시, 『인천시사』(하권), 인천: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93, pp.124~130참조.

한편 천주교에서는 성당별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특히 주부대상의 교육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고 있으며, 사목 지침에 따른 청소년 교리교육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지도하고 있다.

4) 부평지역의 성당

| 성 당 | 담 임 신 부 | 소 재 지 |
|---|---|---|
| 갈 산 동 | 윤종일 | 인천 부평구 삼산동 261-1 |
| 계 산 동 | 송주석, 신베곤 |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6-11 |
| 부 평 1 동 | 이윤하 | 인천 부평구 청천동259 쌍용아파트 3-208 |
| 부 평 2 동 | 황상근 |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56-27 |
| 부 평 3 동 | 홍창만 |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190 |
| 부 평 4 동 | 박성규, 이근일 | 인천 부평구 부평4동 338 |
| 부 평 5 동 | 김재영 | 인천 부평구 부개2동 16-62 |
| 산 곡 동 | 송병섭 | 인천 부평구 산곡1동 5-3 |
| 산 곡 3 동 | 설요한, 도명환 | 인천 부평구 산곡3동 330-6 |
| 십 정 동 | 이용권 |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6 |
| 일 신 동 | 황해룡 | 인천 부평구 일신동 180-4 |
| 효 성 동 | 김준석 | 인천 계양구 효성동 271-9 |

## 4. 기독교(基督教)

### 1) 기독교의 개관

개신교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는 고난과 격동의 민족 역사현실에 접촉되었고 한국인들의 생활속에 서구이념을 수용토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기독교는 한국에 있어서 약소 민족, 고난받는 백성, 억눌린 자, 가난한 백성에게 새 희망과 힘의 종교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국합방 이후 기독교는 개화와 자주독립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삼았었다. 기독교는 항일운동에서부터 민주사회 건설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정신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14]

14) 윤이흠 외, 『한국인의 종교』, 서울 : 정음사, 1986, p.96.

인천에 기독교가 들어온것은 1885년 9월 17일 제물포교회에서 종교집회를 가지면서부터이다. 지금의 내리교회인 감리교계통의 제물포교회의 설립 연대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으나 인천에 처음으로 기독교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인천에는 감리교단을 비롯하여 장로교(통합·합동), 성결교, 침례교 등 기독교 계통의 교회들이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기독교연합회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는 인천지역의 복음화를 목표로하는 설교 및 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부평지역에는 1905년 계산감리교회가 설립되면서 갈월, 서광, 효성, 굴현, 당미교회를 개척하였고, 1947년 3월 부평제일교회가 설립되어 성결교회가 본격적인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장로교는 1951년 부평대광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75년에는 부일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밖에도 군대식 조직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추진하는 구세군 부평영이 1954년에 개척되었고, 1967년에는 침례교단인 승리교회가 설립되었다.

부평지역 기독교의 교단별 교리 및 주요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리교[15]

감리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개신교파가 믿는 복음주의이며, 재래 감리교회의 설교와 찬송집 그리고 감리교회가 선언한 교리 8개항이다. 요한·웨슬레주의와 에큐메니칼주의를 근본으로하고, 1930년 남북감리교회가 통합하면서 선언한 복음적 신앙교리를 갖고 있다. 감리교단의 주요행사에는 총회가 격년으로 10월중에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1회에 한하여 년회(年會)가 3월중에 개최된다. 또한 각 지방회의가 매년 2월중에 열리며, 각 교회당회가 1월중에 열린다.

(2) 장로교[16]

칼빈주의에 입각한 장로교 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웨스터민스트 신앙고백에 의한 장로교 헌법과 12개 신조 및 대소요리문답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주요행사는 교단총회를 매년 1회 개최하며 노회를 년2회 개최한다. 또한 국내외협력기구에 참여하여 복음전파 및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3) 성결교[17]

사중복음(四重福音) 성결교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일반으로 믿는 복음주의로서 성결교의 교리도

15) 감리교는 예수교대한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대한기독교 감리회를 중심으로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16) 장로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연합장로회 총회 등으로 교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기독교중 제일의 교파이다.
17) 『韓國의 宗敎』, 서울:文公部宗務室, 1989, p.227. 참조.

이를 바탕으로 되어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대 표제를 들어 고조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의 몸이 주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신앙교리이다.

성결교의 주요행사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며 각 지방총회가 2월중에 열린다. 또한 연 1회 하기수양회를 개최한다.

(4) 침례교[18]

침례교교리는 성경 하나님 사람 구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을 담은 온전한 보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오직 한 분으로 이지적 영적 인격적 존재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시요 구속자이시며, 보호자이며 통치자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 창조의 정상을 이룬다. 구원은 전인적 구속을 포함하여 예수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믿는자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는다.

침례교의 주요 행사로는 매년 1회의 총회를 개최하며 전국 목회자 성장대회, 교단 목회자 및 사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5) 구세군[19]

구세군의 교리는 요한·웨슬레 신앙내용에 의한 11개 신조 조항 즉 성서가 하나님의 법규이며,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배(神拜)대상이며, 하나님의 3위 일체설, 예수그리스도의 신인양성(神人兩性), 원죄, 속죄, 중생, 의인화(擬人化), 예수에 대한 순종, 재림 부활 등을 구세군의 교리로 하고 있다. 구세군의 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교리선언을 신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세군의 주요행사로는 매년 1월중에 하사관임명식을 거행하며, 연 1회의 절제운동과 가정단 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7월중에는 구세군창립 기념행사를 하며, 12월 중에는 성탄절 및 자선운동을 전개한다.

### 2) 교회성장의 의미

부평지역의 교회성장은 부평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 고려 충선왕 때(1310) 부평부로부터

18) 위의 책, p.227. 참조.
19) 위의 책, p.260. 참조.

시작된 이 지역은 1940년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소화정(昭和町)이라 했고, 1946년부터 부평동으로 개칭되었다. 그동안 군마훈련의 조련장, 관동군 군사훈련장소, 병참기지, 미군주둔과 국군부대 지역으로 군병원, 병기, 병참, 항공, 수송 등 군사도시로 알려져 있던 부평지역은 이제 산업도시로서 인구 250여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외형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교회의 성장도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복된 삶의 터전을 이룩하였다. 기독교의 발전은 그리스도의 주권의 확대이며 그리스도의 역사의 계속적인 확장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정신이 살아 숨쉬는 부평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생활의 뿌리를 내리기 보다는 거쳐가는 도시쯤으로 여겨지는 부평은 교회들의 영적 활동에 힘입어 질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전도활동은 교인 및 그 가족들의 신앙생활의 건실함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교회를 통한 각종 교육문화 사업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교회별 선교단체들의 봉사활동은 양노원 고아원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각급 교회학교의 기초 도덕 실천운동은 학교교육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훌륭한 인간교육의장이 되고 있다. 교회의 사회활동이야말로 자유롭고 성숙된 민주사회를 건설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 한국건설의 시대정신을 발양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CBS방송의 선교활동과 사회 교육활동,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CATV의 컨소시엄과 개신교회의 단일방송 실시는 인천지역의 교회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이며, 부평지역의 시민생활을 더욱 복되게 인도할 것이다.[20]

### 3) 교육문화 활동

개신교의 교회운영은 개교회주의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교육문화활동은 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문화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교회 조직내의 부서를 보면, 교육문화활동을 책임지는 교회학교가 있다.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 그리고 대학부까지 두고 있는 교회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에 의해, 체계적인 인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청소년교육의 건전한 준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활동은 선교회조직인 남·여 선교회와 청년회, 장년회 등에서 하고 있다. 교회의 사회참여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활동에는 교회내에서의 각종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며,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다.

부평지역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교육문화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광 교회와 부평 중앙교회의 활동을 살펴본다.

---

20) 『한국종교연감』, 서울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4, p.108 참조.
21) 『부광교회 45년사』, 함께 일하는 교회, 인천 : 부광교회, 1994, pp.85~111참조.

(1) 부광교회[21]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소속된 부광교회(담임목사 : 고홍배)는 1949년 5월 1일에 창립예배를 봄으로써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부광교회는 교회내적으로 평신도 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교회외적으로는 선교 활동에 중점을 두고 북방 선교와 남방 선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그곳 한인들은 물론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제2의 도시 창마이에도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부광교회는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활동은 교회내에 사회봉사부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전교인들의 참여아래 양로원, 고아원, 지체부자유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또한 해외 구호활동 차원에서 아프리카의 우간다 등 전란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을 돕기위해 '사랑의 빵'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부평 지역 발전을 위해 각급 기관장들을 초청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다. 특히 청년회에서는 부광청년의 밤을 개최(1978)하여 지역 선교에 공헌 하였으며, 인천로고스 합창단을 초청 공연을 가짐으로서 지역 문화운동에 적극 참여 하기도 하였다.

교육활동으로는 교회학교를 통해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신앙인의 인격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교육 프로그램, 인간관계 프로그램, 신체훈련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영성개발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실시하는 교회학교 교육은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교회내 기관인 선교 사회관에서는 저명인사 초청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수지침 등 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2,000여명의 신도가 3부로 나누어 예배를 보는 부광교회 교인들의 헌금은 지역 불우청소년들의 후원금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도 쓰여지고 있다.

(2) 부평중앙교회[22]

대한예수교 장로회소속인 부평중앙교회는 선교차원의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47년 3월에 세워진 부평 중앙교회당회장:윤효종는 1,000여명의 신도들이 선교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선교활동으로는 농어촌교회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농어촌교회는 강원 해군동해안교회를 비롯하여 60여개소나 되고 있다. 농어촌교회 돕기 이외에도 국내선교기관 및 구제기관에 참여하여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있다. 국외 선교활동으로 부평중앙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와 교회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수단(김균배), 중국(김순영), 브라질(김완기), 터어키(김요셉), 대만(김윤희), 사이판(김정남), 태국(김종일), 러시아(김혜정), 폴란드(김희진), 인도(로수길), 필리핀(박계옥), 우간다(배상호), 파푸아뉴기니(심재욱), 감비아(유명국), 이태리(이종윤), 라이베리아(조형섭), 뉴질랜드

22) 『교회요람』, 인천 : 부평중앙교회, 1994, pp.5-12 참조.

(정택정), 모슬렘(이수만), 헝가리(정병철), 선교사파송 우즈베키스탄(김경일)

사회봉사는 여선교회와 남선교회가 중심이되어 실시하고 있다. 부평지역 양노원과 고아원을 수시로 찾아 위문하고 있으며, 매년 5월과 12월 두차례 인근지역 노인들을 초청 경노잔치를 베풀고 있다. 특히 전교인들이 참여하는 헌혈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후 안구 기증 등도 활발히 전개하여 앞을 못보는 맹인들에게 빛을 찾아주는 일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당회장인 윤효종 목사는 사후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할 결심을 밝힘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의 수범을 보이고 있다.

위에 소개한 두 교회의 교육문화 활동은 교회의 일상적인 선교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부평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개신교의 특성상 이러한 봉사활동이 각 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바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교회의 숨은 봉사는 부평지역의 미래를 약속하는 십자가의 빛이 되고 있는 것이다.

### 4) 부평지역 교회명단[23]

| 교 회 명 | 교 단 명 | 목 회 자 | 전 화 | 주 소 |
|---|---|---|---|---|
| 충인 | 예장합 | 송수은 | 515-4101 | 부평구 일신신동105-9 |
| 큰사랑 | 기성 | 최세걸 | 524-3886 | 부평구부개동368-2 |
| 큰사랑 | 예장합 | 김형용 | 526-9654 | 부평구산곡동310-113 |
| 희망정 | 기감 | 김준만 | 522-2927 | 부평구부평2동희망촌 |
| 초정일 | 기감 | 유세열 | 422-6259 | 부평구십정동365-27 |
| 초중앙 | 예장합 | 손창일 | 429-1635 | 부평구십정동300-32 |
| 초제중 | 기감 | 신명균 | 422-0812 | 부평구십정동27--6 |
| 초정사 | 기감성 | 이인구 | 428-1769 | 부평구십정2동57B6L |
| 한사랑 | 예하 | 손소개 | 423-3968 | 부평구십정2동297-6 |
| 충신광 | 예장대 | 김병하 | 403-0144 | 부평구부평4동890-6 |
| 충은나 | 예장합침 | 정영섭 | 426-0169 | 부평구십정1295--2 |
| 충인나 | 기장합 | 청해룡 | 523-4227 | 부평구부개2동90-13 |
| 충현천 | 예장합보 | 송수은 | 515-4101 | 부평구일신동105-9삼성 |
| 혜광일 | 예장고신 | 이만호 | 431-3220 | 부평구십정1동289-9 |
| 호나일 | 예장합 | 정문용 | 519-8255 | 부평구부개2동494성일A |
| 호산앙 | 예장합정 | 송영호 | 432-3692 | 성일상가4층 |
| 청산만 | 예장합감 | 장기연 | 529-7647 | 부평구십정398-1 |
| 청천 | 예장 | 송춘현 | 92-0142 | 부평구부개3동12-350 |
| 청천제 | 기장감 | 송병래 | 524-0383 | 부평구산곡2동100-9 |
| 청천제 | 예장보 | 한정섭 | 529-1255 | 부평구청천동산6-3 |
| 청천중 | 예장감 | 박대건 | 92-2078 | 부평구부평동136 |
| 청천 | 예장보 | 황영봉 | 524-3865 | 부평구청천동48--251 |
| 충 | 예장개 | 황규영 | 93-0041 | 부평구산곡1동180 |

23) 교회연합 주소록(1994)에서 부평지역 교회명단을 발췌하였음.

| 교회명 | 교단명 | 목회자 | 전화 | 주소 |
|---|---|---|---|---|
| 희망 | 예장합총 | 고정오 | 523-0620 | 부평구작전동137 |
| 화목 | 예성 | 김재엽 | 529-1059 | 부평구부평3동 |
| 햇빛선교 | 예장합중 | 정종덕 | | 부평구부평1동48 |
| 청농 | 예장합 | 최광선 | 92-1278 | 부평구청천동51 |
| 평화 | 예장개 | 유양열 | 527-4709 | 부평구부평5동542-27 |
| 평화 | 예장합보 | 강순혁 | 517-2310 | 부평구산곡동369-512 |
| 평화 | 예장합정 | 장효희 | 93-9555 | 부평구일신동176-13 |
| 화목 | 예감 | 정원영 | 527-9970 | 부평구청천동30-3 |
| 화목 | 예장합 | 강재섭 | 425-0289 | 부평구십정1동279-23 |
| 호산나 | 예장합정 | 장기염 | 529-7647 | 부평구부개2동12 |
| 임마누엘 | 예장통 | 정용현 | 512-4280 | 부평구부개2동490 |
| 진광 | 예장합보 | 김윤환 | 92-3664 | 부평구삼산동207-4 |
| 진리 | 예하성 | 이창모 | 432-3049 | 부평구부개1동264-5 |
| 재건부평 | 예장재건 | 정문용 | 522-3127 | 부평구부평6동735 |
| 천성 | 예장대 | 정성진 | 529-7174 | 부평구부개2동493-10 |
| 천성 | 예장개합 | 윤석희 | 92-0544 | 부평구갈산동175-4 |
| 진리 | 기하성 | 이원삼 | 524-6495 | 부평구부개동246-5 |
| 주사랑 | 예성 | 홍영식 | 512-2063 | 부평구청천동183-9 |
| 인천 | 예장합개 | 한정록 | 501-0691 | 부평구갈산동363태화상가 |
| 한일 | 예장호 | 권훈 | 94-3490 | 부평구일신동118-17 |
| 한일 | 예하성 | 장영내 | 92-5945 | 부평구갈산동167-11 |
| 일신평화 | 예장합정 | 장효희 | 515-9555 | 부평구일신동176-13 |
| 찬양 | 예성 | 최대식 | 516-5776 | 부평구삼산동254한국APT |
| 주현 | 예장통 | 노영일 | 513-1363 | 부평구십정동174-27 |
| 평강 | 예장통 | 백덕은 | 528-0101 | 부평구부평1동799-5 |
| 화평 | 예장대 | 정무현 | 439-0729 | 부평구십정2동423 |
| 한영 | 예장합정 | 임현숙 | 466-0206 | 부평구십정동170-31 |
| 팔복 | 기침 | 임종호 | 523-0409 | 부평구산곡2동87-791 |
| 한국중앙 | 예장합정 | 우상명 | 524-2050 | 부평구청천1동14-10 |
| 한길 | 예장합 | 성재권 | 542-4908 | 부평구산곡1동38-19상길상가4 |
| 진실 | 기장 | 진철 | 92-3554 | 부평구청천동100-12 |
| 청천 | 기감 | 한재연 | 516-2094 | 부평구청천동12 |
| 평강 | 기감 | 권혁찬 | 92-9800 | 부평구부평5동143 |
| 은혜레바논 | 기하성 | 최영자 | 517-2618 | 부평구부평3동248-1 |
| 인천중앙 | 예장합 | 김진국 | 92-6682 | 부평구부평5동438 |
| 중앙 | 기하성 | 박원회 | 526-5618 | 부평구부평1동860 12/3 |
| 인천시민 | 예장고려 | 이문주 | 528-5194 | 부평구부개동486 |
| 영락 | 예장합 | 서정훈 | 522-1061 | 부평구십정동186-278 |
| 주사랑 | 기침 | 김경석 | 517-8050 | 부평구산곡동369-330 |
| 은석 | 예장합전 | 전판덕 | 525-8436 | 부평구십정동186-310 |
| 성산중앙 | 예장합 | 한언수 | 529-3260 | 부평구부평4동889-11 |
| 축복 | 예장통 | 이성오 | 516-2923 | 부평구부개3동492-10 |
| 동양 | 예장합개 | 박형상 | 426-0148 | 부평구산곡2동181 |
| 권훈 | 예장호 | 권훈 | 501-4390 | 부평구일신동105-1 |
| 임마누엘 | 예장호 | 이영일 | 517-2814 | 부평구부개2동12-206 |

| 교회명 | 교단명 | 목회자 | 전화 | 주소 |
|---|---|---|---|---|
| 복된 | 예장합 | 송영호 | 429-9369 | 부평구십정2동297-3 |
| 신복 | 기성 | 한상옹 | 92-3387 | 부평구부평4동396-10 |
| 은총의 | 기장 | 우완용 | 525-1737 | 부평구인천사서함57호 |
| 인천중앙 | 기하성 | 정찬규 | 514-0597 | 부평구삼산동198 |
| 인천중앙 | 예장대 | 최균형 | 545-7974 | 부평구삼산동198 |
| 서인 | 그리스도 | 이재석 | 93-8837 | 부평구부개동301 |
| 횃불 | 기침 | 장치호 | 522-0332 | 부평구부평1동341 |
| 삼산 | 기감 | 이시백 | 524-1825 | 부평구삼산동191 |
| 삼산 | 기침 | 홍철호 | 529-0960 | 부평구삼산동167-28 |
| 삼산추수 | 예장합정 | 조상원 | 526-0126 | 부평구삼산동128-1 |
| 인천소망 | 예장합 | 김장중 | 517-8670 | 부평구산곡동78-2 |
| 현대중앙 | 예장합 | 이의섭 | 93-4933 | 부평구산곡314-36 |
| 승리 | 예장합정 | 이상춘 | 525-2214 | 부평구산곡1동180-116삼보A다 |
| 광음 | 기침 | 김동기 | 528-9829 | 부평구부평5동119-7 |
| 광현 | 예장합정 | 윤광용 | 434-9900 | 부평구십정동488-29 |
| 광현 | 예장고신 | 이상욱 | 516-0116 | 부평구산곡동191-3무지개A |
| 구령 | 예장합 | 원용관 | 752-6859 | 부평구산곡동44 |
| 평원 | 예장대 | 전봉길 | 522-2426 | 부평구삼산동168-2 |
| 이웃사랑 | 기감 | 송규의 | 517-2450 | 부평구갈산동171-17 |
| 예본 | 예장통 | 조환국 | 512-6182 | 부평구부개3동477-5동아5/209 |
| 성산 | 예장보 | 박영애 | 527-8925 | 부평구산곡동307 |
| 서부 | 기감 | 홍순옥 | 522-4610 | 부평구부평3동186-20 |
| 동광 | 예장호 | 임병은 | 866-7754 | 부평구산곡동현대A308-206 |
| 동광제일 | 예성 | 김순갑 | 513-6268 | 부평구청천동234-14 |
| 성산 | 예장합보 | 우현철 | 92-0110 | 부평구산곡2동247-6 |
| 생명 | 예장 | 신재현 | 518-4276 | 부평구부평2동 756-265 |
| 생명 | 예장합정 | 홍선곤 | 517-9060 | 부평구부평4동10-718 |
| 생명수 | 예장장신 | 김재철 | 523-4944 | 부평구십정동189-4 |
| 생명샘 | 기하성 | 이송자 | 513-4483 | 부평구산곡3동314-31 |
| 사랑의 | 기감 | 차덕윤 | 522-3312 | 부평구부평3동175-4 |
| 복된 | 예장근본 | 김재만 | 511-5479 | 부평구부개2동13-5오성Ⓐ지하상사 |
| 복음 | 예장장신 | 김중배 | 93-5697 | 부평구부개동105-16 |
| 영림 | 예장합 | 김상규 | 429-4006 | 부평구십정동70-18 |
| 평성 | 예장합 | 박종민 | 92-6607 | 부평구부평4동406-7 |
| 사랑 | 예장개 | 강대철 | 534-5619 | 부평구청천동25-3 |
| 사랑 | 예장장신 | 이두옥 | 529-9572 | 부평구청천동82-21 |
| 반석 | 기침 | 김현식 | 511-6847 | 부평구십정동182-248 |
| 진광 | 기감 | 권성연 | 522-5022 | 부평구부평5동166-2 |
| 삼능 | 기정 | 김현옥 | 528-1620 | 부평구부평3동산767-23 |
| 삼능 | 기장 | 김정희 | 523-1259 | 부평구부평2동산758-38 |
| 벧엘 | 기감 | 정기성 | 516-6896 | 부평구일산동58-20 |
| 성도 | 기하성 | 윤남철 | 524-1287 | 부평구부평4동10-977 |
| 선교 | 예장합정 | 장윤철 | 513-0946 | 부평구부개2동490-1 |
| 동수 | 기감 | 주봉택 | 528-1881 | 부평구부평6동635-1 |
| 은광 | 예장대 | 김인덕 | 92-3634 | 부평구갈산동104 |
| 늘푸른 | 예장개 | 안만호 | 516-9663 | 부평구산곡1동13-7 |
| 창일 | 예장합정 | 백황영 | 527-5865 | 부평구부평2동738-12 |
| 반석 | 예장합보 | 이실영 | 92-4144 | 부평구청천동125 |
| 벧엘 | 예장합정 | 장승대 | 421-8585 | 부평구십정1동69-2 |

| 교회명 | 교단명 | 목회자 | 전화 | 주소 |
|---|---|---|---|---|
| 선민교회 | 예장보감 | 안길선 | 523-0688 | 부평구청천동10 |
| 선일교회 | 기감 | 서기태 | 519-8824 | 부평구부평4동897 |
| 선빛교회 | 예장고려 | 김영제 | 525-2070 | 부평구산곡1동38 |
| 새방교회 | 예장합동 | 조순복 | 523-3435 | 부평구십정2동182 |
| 동앙교회 | 기하성 | 이병천 | 525-6696 | 부평구부개동243-1 |
| 인네교회 | 예장호헌 | 김영언 | 525-7407 | 부평구부평2동760-694 |
| 겟광교회 | 예예장호 | 조용환 | 526-4239 | 부평구삼산동157 |
| 대일교회 | 예장합동 | 장원일 | 513-5698 | 부평구갈현동113-2 |
| 동인교회 | 기감 | 황관화 | 429-0218 | 부평구십정동587-8 |
| 부빛교회 | 기성 | 구본삼 | 523-4490 | 부평구일신동108-18 |
| 부광교회 | 예장합동 | 최정훈 | 522-3622 | 부평구십정동174-132 |
| 부서교회 | 예장정통 | 김종헌 | 511-5751 | 부평구갈산동400-8 |
| 부성교회 | 기성 | 이세범 | 527-5335 | 부평구부개동234-3 |
| 부소교회 | 기성 | 이규정 | 523-3322 | 부평구산곡동뉴서울Ⓐ2차상가 |
| 부은교회 | 예장합동 | 이용규 | 523-4915 | 부평구산곡2동391-49 |
| 부은교회 | 예장대신 | 김인덕 | 528-3973 | 부평구갈산동74 |
| 부은교회 | 예장대신 | 심현만 | 94-0016 | 부평구부개68-8 |
| 부서교회 | 예장합동 | 조승인 | 501-0252 | 부평구산곡1동61-6 |
| 부제교회 | 기감 | 장수일 | 523-4287 | 부평구산곡3동369-86 |
| 부산교회 | 기성 | 홍순옥 | 522-4610 | 부평구부평3동186-20 |
| 부서교회 | 예장합동 | 강신찬 | 527-7365 | 부평구부평4동110 |
| 부성교회 | 예장합동 | 김진옥 | 523-9428 | 부평구부개동120-75 |
| 부소교회 | 예장합동 | 우인명 | | 부평구부평동622-20 |
| 부은교회 | 기감 | 이정일 | 524-1331 | 부평구부평1동185-78 2/5 |
| 부은교회 | 기감 | 이원배 | 517-0333 | 부평구부평5동124-30 |
| 부서교회 | 예장합동 | 강성국 | 511-3005 | 부평구부평1동96동 동구약국 |
| 부제교회 | 기성 | 이재옥 | 93-9279 | 부평구부평5동463 |
| 부중교회 | 예장합동 | 윤효종 | 522-0282 | 부평구부평1동342 |
| 부중교회 | 예장합동 | 김정식 | 528-5758 | 부평구부평2동759-34 |
| 부풍교회 | 예장합동 | 남궁두재 | 523-7430 | 부평구청천동9-20 |
| 부평교회 | 예장합동 | 이기범 | 512-4344 | 부평구부평2동760-681 |
| 부한교회 | 예장 | 류인택 | 542-0411 | 부평구산곡동370-27 |
| 부화교회 | 예장 | 이주환 | 516-3592 | 부평구부개2동484-5 |
| 부활교회 | 기성 | 신철호 | 92-4092 | 부평구청천동179-15 |
| 백마교회 | 기감 | 김기천 | 92-2449 | 부평구산곡1동82-107 |
| 백마교회 | 기감 | 배인현 | 526-7116 | 부평구청천동324-11 |
| 백마장교회 | 예장 | 김학범 | 527-3545 | 부평구청천88-8 |
| 백제중앙교회 | 기성 | 윤석용 | 522-8584 | 부평구산곡1동87-927 |
| 백장교회 | 예장 | 박영표 | 579-1004 | 부평구청천2동190-43 |
| 백일교회 | 기예 | 정길남 | 515-6292 | 부평구십정동182-233 |
| 백빛교회 | 예장 | 이계훈 | 93-1177 | 부평구십정동169-20 |
| 백광교회 | 예장 | 박종무 | 524-3966 | 부평구부평2동752-31 |
| 백혜교회 | 예장정통 | 신현덕 | 524-2882 | 부평구부평4동10 |
| 백부일교회 | 예장 | 유인수 | 525-0805 | 부평구산곡1동10-137 |

| 교 회 명 | 교 단 명 | 목 회 자 | 전 화 | 주 소 |
|---|---|---|---|---|
| 터 | 감 | 복 | 522－9920 | 부평구십정동191--16 |
| 터 | 통 | 태 | 422－5851 | 부평구십정1동318－4 |
| 터 | 정 | 태 | 421－5851 | 부평구십정2동302－36 |
| 명 | 합 | 곤 | 512－9060 | 부평구부평4동10--718 |
| 앙 | 대 | 국 | 542－6682 | 부평구부평5동438 |
| 혁 | 대 | 만 | 501－0016 | 부평구부개동86－8 |
| 심 | 정 | 표 | 577－6579 | 부평구부평동798 |
| 성 | 합 | 철 | 544－7549 | 부평구청천1동43--40 |
| 성 | 대 | 근 | 529－5111 | 부평구부개2동191－30 |
| 원 | 감 | 하 | 514－2141 | 부평구부평4동887 |
| 일 | 개 | 홍 | 528－9191 | 부평구부개동242 |
| 일 | 통 | 성 | 524－9889 | 부평구청천동14－10 |
| 평 | 군 | 배 | 522--3964 | 부평구십정동181 |
| 평 | 도 | 원 | 93--8112 | 부평구부평5동454－11 |
| 평 | 감 | 문 | 522--2468 | 부평구부평6동665 |
| 평 | 개 | 파 | 522－1026 | 부평구부평2동760 |
| 부 | 통 | 권 | 526－0883 | 부평구부평4동143－9 |
| 부 | 침 | 국 | 518－7239 | 부평구부평4동39--166 |
| 부 | 성 | 오 | 501－0393 | 부평구부개3동12--283 |
| 부 | 성 | 범 | 511－4938 | 부평구갈산동177 |
| 부 | 성 | 혁 | 93--9823 | 부평구부개동232--7 |
| 부 | 통 | 학 | 513－3021 | 부평구부개2동477 |
| 부 | 합 | 열 | 513－3800 | 부평구삼산동216--1 |
| 부 | 대 | 필 | 515－8502 | 부평구부평6동722 2/3 |
| 부 | 신 | 호 | 526－7714 | 부평구부평2동675－1 |
| 부 | 합 | 택 | 515--1401 | 부평구부평5동200－2 |
| 부 | 총 | 규 | 523－8602 | 부평구산곡2동263－40 |
| 부 | 성 | 수 | 511－8569 | 부평구부평4동16--13 |
| 부 | 감 | 화 | 522--1479 | 부평구부평동915--2 |
| 부 | 장 | 구 | 522--8367 | 부평구청천동381 |
| 부 | 합 | 규 | 525－8223 | 부평구부평4동881 |
| 부 | 려 | 현 | 522--2868 | 부평구부평6동665－83 |
| 부 | 성 | 목 | 428－4208 | 부평구십정2동301－1 |
| 부 | 정 | 원 | 527－3585 | 부평구산곡동산47－33연진빌딩 |
| 부 | 통 | 재 | 525－2070 | 부평구산곡1동38 |
| 부 | 정 | 환 | 423－7905 | 부평구십정1동산19--1 |
| 양 | 성 | 태 | 511－4757 | 부평구삼산동57삼보A3동 |
| 부 | 신 | 한 | 518－0922 | 부평구산곡2동202－7 |
| 부 | 중 | 문 | | 부평구부평3동274－61 |
| 의 | 합 | 운 | 522－6365 | 부평구삼산동224--1 |
| 광 | 대 | 호 | 513－6913 | 부평구부평2동759－34 |
| 망 | 동 | 갑 | 516－8628 | 부평구산곡1동38--27 |
| 명 | 목 | 회 | 522－1192 | 부평구부평2동756－180 |
| 성 | 북 | 래 | 527－9736 | 부평구삼산동192대동빌딩201 |
| 길 | 교 | 순 | 92－2935 | 부평구갈산동59－15 |
| 일 | 회 | 문 | 426－3832 | 부평구십정169－42 |
| 덴 | 당 | 회 | 524－2209 | 부평구부개2동493－9 |
| 덴 | 목 | 용 | 422－9995 | 부평구십정동374--2 |
| 교 | 사 | 명 | 523－6483 | 부평구십정동186--397 |
| 신 | 랑 | | | |
| 산 | 북 | | | |
| 교 | 교 | | | |
| 리 | 회 | | | |
| 산 | 선 | | | |
| 림 | 선 | | | |
| 음 | 무 | | | |
| 문 | 천 | | | |
| 광 | 린 | | | |
| 광 | | | | |
| 샘 | 평 | | | |
| 샘 | 평 | | | |
| 생 | 평 | | | |
| 인 | 평 | | | |
| 은 | 수 | | | |
| 인 | 선 | | | |
| 왕 | 천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부 | 부 | | | |
| 은 | 부 | | | |
| 소 | 부 | | | |
| 소 | 부 | | | |
| 소 | 부 | | | |
| 손 | 부 | | | |
| 성 | 부 | | | |
| 에 | 부 | | | |
| 에 | 부 | | | |
| 예 | 부 | | | |
| 동 | 부 | | | |
| 인 | 부 | | | |
| 은 | 부 | | | |
| 영 | 부 | | | |
| 들 | 부 | | | |
| 믿 | 부 | | | |
| 열 | 부 | | | |
| 염 | 부 | | | |
| 영 | 부 | | | |
| 영 | 부 | | | |

| 교회명 | 교단명 | 목회자 | 전화 | 주소 |
|---|---|---|---|---|
| 엘림 | 예장합환 | 박승용 | 527-4195 | 부평구부평동10-928 |
| 성은 | 예장통 | 김광태 | 523-0450 | 부평구부평6동625-9 |
| 성암 | 예장합보 | 이해석 | 432-7490 | 부평구십정동314-20 |
| 소망 | 예장학 | 김장중 | 524-1548 | 부평구산곡1동78-2 |
| 온유한 | 예장합 | 이동구 | 431-2814 | 부평구십정1동298-8 |
| 에벤에셀 | 예장통 | 김용순 | 528-0658 | 부평구삼산동주공Ⓐ105-206 |
| 소망 | 예장통신 | 이문기 | 519-4725 | 부평구부개1동455 |
| 우리 | 기감 | 구재집 | 92-4806 | 부평구갈산동151 |
| 양의문 | 기감 | 이언숙 | 522-0927 | 부평구부개동477-5 동부Ⓐ상가4층 |
| 아름 | 예성 | 박형식 | 512-4240 | 부평구십정동186-397 |
| 운화 | 기감 | 문만식 | 523-1410 | 부평구산곡동333-3 |
| 양무리 | 예장정보 | 서치홍 | 524-1591 | 부평구산곡1동79 11/3 |
| 은성 | 예장통 | 김철용 | 528-9632 | 부평구부개동481-3 |
| 성원 | 예장합정 | 명수훈 | 529-5168 | 부평구부평3동284 |
| 세광 | 예감 | 강중회 | 522-8224 | 부평구효성동578-8 |
| 성화 | 예장합보 | 이종식 | 93-7911 | 부평구부개동132-8 |
| 세계선교 | 예장보개 | 홍은성 | 522-3918 | 부평구부평5동574-1 |
| 세광 | 기감 | 유천형 | 514-0824 | 부평구부평5동477-6 |
| 세광 | 로고스 | 박갑식 | 93-1341 | 부평구부평4동894-2 |
| 소망 | 개혁고려 | 김명제 | 525-2070 | 부평구청천2동산951 |
| 소망 | 예장개 | 최문휴 | 522-2971 | 부평구부평6동699 |
| 신실 | 예장합 | 장정일 | 525-8435 | 부평구부평4동 889-6 |
| 부개 | 기감 | 김춘식 | 527-3160 | 부평구부개동445-17 |
| 부개동 | 기정 | 이태경 | 511-7955 | 부평구부개2동419-10 |
| 부개동 | 예장합 | 최웅진 | 93-9741 | 부평구부개동347-3 |
| 부개반석 | 예장합개 | 권장석 | 527-5706 | 부평구부개3동477-2 |
| 부개은광 | 예장합정 | 김원호 | 518-6269 | 부평구부개3동489-5 |
| 부개중앙 | 예장대 | 서정국 | 523-6069 | 부평구부개2동66-3 |
| 부광 | 기성 | 윤진근 | 523-4510 | 부평구부개3동69-15 |
| 부광 | 기감 | 고홍배 | 514-0228 | 부평구부평1동84 |
| 부광 | 예장 | 이덕종 | 439-1869 | 부평구십정2동590-38 |
| 시온 | 기침 | 전유식 | 519-8916 | 부평구부개2동120-347동산Ⓐ상가 |
| 신성 | 기감 | 신종철 | 527-8724 | 부평구부평4동10-205 |
| 아름다운 | 예성 | 이민철 | 528-5098 | 부평구부개2동124-35 |
| 양떼 | 기감 | 김혁 | 518-4673 | 부평구부평4동416-42 |
| 한빛 | 예장고려 | 신창동 | 524-8133 | 부평구부개2동492-11 |
| 실로암 | 기감 | 양회만 | 525-7991 | 부평구부평5동521-7 |
| 신홍 | 예장합정 | 홍광표 | 522-0101 | 부평구부개2동144-17 |
| 신촌 | 기성 | 우창준 | 522-0312 | 부평구부평3동278 |
| 신촌진광 | 예장합보 | 김진환 | 94-2935 | 부평구십정동270-40 |
| 아멘 | 예장대 | 오세종 | 522-2529 | 부평구부개2동105-16 |
| 아세아 | 기장 | 오재근 | 502-3471 | 부평구산곡3동137-3한신상가 |
| 수정 | 예장통 | 문철영 | 523-9695 | 부평구부평4동890-2 |
| 수정 | 예장개 | 이성표 | 525-5567 | 부평구산곡2동263-22성미상가 |
| 수정 | 예장합정 | 신진균 | 524-6595 | 부평구부개1동246-5 |
| 십정 | 기성 | 정명근 | 562-7481 | 부평구십정1동169-42 |
| 십정 | 예장합 | 손창일 | 429-1635 | 부평구십정1동300-32 |
| 십정 | 기감 | 유세열 | 422-6259 | 부평구십정동317-42 |
| 십정제일 | 기감 | 신명군 | 422-0812 | 부평구십정동327-6 |
| 심정중앙 | 기하성 | 손소래 | 424-7541 | 부평구십정2동297-6 |

| 교회명 | 교단명 | 목회자 | 전화 | 주소 |
|---|---|---|---|---|
| 십정중부 | 기감 | 이인구 | 428-1769 | 부평구십정2동57-6 |
| 은일 | 예장합 | 김성근 | 529-2104 | 부평구부평5동370-1 |
| 주랑 | 기침 | 김경석 | 517-8050 | 부평구산곡동369-330 |
| 평안 | 예장합 | 윤성원 | 526-7183 | 부평구부개동391-1 |
| 평강 | 예장합 | 추연학 | 425-6490 | 부평구십정2동448-5 |
| 보혈 | 예장진 | 이정태 | 93-8582 | 부평구일신동109-14 |
| 중심 | 예장합 | 정성수 | 513-2883 | 부평구산곡1동180-386 |
| 일동 | 예장대 | 황지원 | 522-5440 | 부평구일신동108-4 |
| 일일 | 예장합 | 송수은 | 515-4101 | 부평구일신동105-9 |
| 일신 | 예장호 | 권훈 | 94-3490 | 부평구일신동118-17 |
| 앙제 | 기감 | 박용우 | 93-9932 | 부평구일신동106-23 |
| 앙중 | 예장대 | 김진식 | 516-9126 | 부평구부개2동489-13 |
| 평부 | 예장통 | 이창민 | 432-6583 | 부평구십정동459 |
| 심중 | 예장합 | 김태중 | 516-6948 | 부평구부평5동497-1 |
| 수앙 | 예장호 | 김찬양 | 529-0459 | 부평구십정1동394-8 |
| 산평 | 예장호 | 이하종 | 511-2987 | 부평구산곡동현대APT |
| 심교 | 예장개 | 박영석 | 423-0514 | 부평구십정동315-46 |
| 암회 | 기침 | 우완용 | 432-1143 | 부평구십정1동321-201 |
| 암 | 기침합 | 이용대 | 429-2327 | 부평구십정1동353-4 |
| 별 | 예장목 | 김종렬 | 433-1807 | 부평구십정498-4 |
| 미 | 연합여 | 임윤임 | 516-0674 | 부평구부평6동655-40 |
| 랑 | 기하성 | 한승배 | 515-5338 | 부평구동양동286-2 |
| 랑 | 예장합 | 진성용 | 524-5861 | 부평구삼산동13-2 |
| 로 | 예장개 | 김연희 | 514-2018 | 부평구부개1동269-1 |
| 천 | 예장감 | 한기도 | 528-0620 | 부평구부평5동907-3 |
| 천 | 기예성 | 원영관 | 522-2094 | 부평구부개2동120-3471동산상가 |
| 천 | 예장려 | 노태룡 | 514-8842 | 부평구갈산동367-3승진빌딩 |
| 엘 | 예장고 | 박성영 | 524-2309 | 부평구부개1동276-11부개상가 |
| 산 | 예하성 | 김정헌 | 528-1333 | 부평구산곡동235 |
| 북 | 예장합 | 허용구 | 438-3678 | 부평구십정2동460-2 |
| 일 | 애예려 | 김주원 | 512-9042 | 부평구부평5동492-15 |
| 성 | 예장고 | 김종우 | 516-0342 | 부평구부평4동433-172 태화빌딩 |
| 성 | 예장개 | 최승길 | 523-6236 | 부평구갈산동78 |
| 의 | 예장합 | 전봉일 | 435-1238 | 부평구십정동335-5 |
| 의 | 예장개 | 노동혁 | 548-7698 | 부평구십정동357-5 |
| 일 | 예장호 | 김영언 | 525-7407 | 부평구십정동305-166 |
| 만 | 예장개 | 안태원 | 517-5281 | 부평구십정동182-220 |
| 곡 | 예장장 | 황규영 | 525-0646 | 부평구산곡1동180 1/1 |
| 곡 | 예장군 | 이철호 | 518-7217 | 부평구일신동109-44 |
| 곡 | 예장감 | 여웅호 | 518-0843 | 부평구산곡동369-303 |
| 곡 | 기성려 | 최성봉 | 527-3537 | 부평구산곡1동180-35 |
| 곡 | 기장려 | 김기천 | 512-2504 | 부평구산곡1동82-107 |
| 곡 | 예장합 | 임재훈 | 519-0081 | 부평구부평동64-20 |
| 산 | 예장합 | 최대팔 | 519-3148 | 부평구산곡2동264-8 |

| 교회명 | 교단명 | 목회자 | 전화 | 주소 |
|---|---|---|---|---|
| 광일영곡 | 예장개 | 박희욱 | 93-2078 | 부평구산곡2동한양Ⓐ13-207 |
| 일제곡산 | 기성 | 신상범 | 528-8916 | 부평구산곡2동159-50우성상가3층 |
| 일재곡산 | 예장합 | 송경삼 | 92-2746 | 부평구산곡2동123 |
| 앙중곡산 | 예성 | 조기현 | 513-1490 | 부평구산곡2동247-2 |
| 샘 | 예장합 | 이지철 | 511-8191 | 부평구부평5동132-31 |
| 앙중성새 | 예장합 | 임영균 | 518-0319 | 부평구부평6동606 |
| 망민소새 | 기예장침 | 오태수 | 522-5989 | 부평구일신동220-21 |
| 망소새 | 예장보 | 서정환 | 433-1876 | 부평구십정동348-27 |
| 일 | 예장보호 | 안병덕 | 528-3474 | 부평구청천동259-18 |
| 광 | 예장통 | 임형빈 | 513-8246 | 부평구부평5동509-11 |
| 남 | 예장보 | 이하준 | 529-2104 | 부평구부평5동371-1 |
| 섬 | 기장 | 백영민 | 513-9114 | 부평구삼산동78-16유성빌라상가 |
| 천 | 기침 | 전은갑 | 427-8884 | 부평구심정2동301-7 |
| 린 | 기감 | 권영각 | 428-3111 | 부평구십정1동220 9/3 |
| 주 | 예장합 | 성용철 | 512-5334 | 부평구부개2동69-15 |
| 산 | 기침 | 박재구 | 529-8533 | 부평구갈산동113번지 5/4 |
| 일 | 예장합보 | 김상근 | 92-1362 | 부평구갈산동74-15 |
| 월 | 기감 | 신억균 | 524-5124 | 부평구갈산동8-19 |
| 앙 | 예장합 | 이익권 | 516-6700 | 부평구삼산75-3 |
| 원 | 예장호원 | 장기원 | 519-7498 | 부평구부평2동341-35 |
| 양 | 예장 | 정준홍 | 524-8584 | 부평구삼산동192-3소립주택1호 |
| 원 | 기장 | 이은규 | 527-3735 | 부평구산곡동180-389 |
| 벽 | 기하 | 김정현 | 528-1333 | 부평구부평270-36 |
| 별 | 예장합보 | 김명언 | 432-2147 | 부평구십정동296-58 |
| 평 | 기감 | 구재집 | 547-4806 | 부평구갈산동182 |
| 늘 | 예장대 | 전봉길 | 525-3169 | 부평구삼산동168-2 |
| 순 | 기감 | 전혜인 | 516-2283 | 부평구부평4동888-9 |
| 순 | 예장합 | 김중곤 | 523-5893 | 부평구부평1동799-1 |
| 현 | 예장합 | 윤양표 | 435-5888 | 부평구십정동408-15 |
| 영 | 예장 | 여거범 | 527-9752 | 부평구부평1동179-33 |
| 영 | 예장합 | 송종선 | 51-0518 | 부평구갈산동169-3대진B |
| 도 | 기감 | 김재중 | 428-0805 | 부평구십정동400-39 |
| 한 | 예장합 | 이영민 | 522-4047 | 부평구부평2동747대일연립101 |
| 행 | 기침 | 강대준 | 514-6244 | 부평구부평4동10-55 |
| 리 | 예장합 | 신재국 | 528-0715 | 부평구부평1동546-93 |
| 리 | 예장합 | 박승열 | 525-2011 | 부평구부개1동239-2 |
| 리 | 예장합 | 황정식 | 532-8218 | 부평구작전동227 |
| 국 | 예장합 | 이정만 | 522-0101 | 부평구부평5동505-7 |
| 문 | 기감 | 김도진 | 423-4271 | 부평구십정동501-2 |
| 인 | 기감 | 신광수 | 522-3781 | 부평구십정동183. 18/2 |
| 라 | 기감 | 전종진 | 427-4934 | 부평구십정2동316-35 |
| 성 | 예장보 | 김성규 | 432-0622 | 부평구십정2동491-6 |

| 교 회 명 | 교 단 명 | 목 회 자 | 전 화 | 주 소 |
|---|---|---|---|---|
| 다락방 | 기성 | 노 영 일 | 526-7590 | 부평구산곡2동현대단지2주구상가2층 |
| 갈길 | 기장 | 박 민 옥 | 524-3469 | 부평구갈산동362-4 |
| 만민중앙 | 예장합총 | 정 찬 회 | 516-2109 | 부평구산곡1동226-3 |
| 두란노 | 예장합 | 권 주 홍 | 525-5094 | 부평구부개2동479-8 |
| 로뎀 | 예장합보 | 김 차 광 | 527-5886 | 부평구산곡1동38-39 |
| 한국중앙 | 예장합정 | 우 상 명 | 524-9171 | 부평구청천1동14-10 |
| 성동 | 기성 | 강 상 구 | 511-8390 | 부평구부평2동756 |
| 믿음 | 예장고신 | 최 상 권 | 546-0304 | 부평구부개2동125-8 |
| 믿음뿐 | 기침 | 박 재 구 | 529-8533 | 부평구부개2동12-202 |
| 기성 | 기성 | 김 철 규 | 431-2957 | 부평구십정2동522-1 |
| 단비중앙 | 예장합정 | 정 종 성 | 435-0437 | 부평구십정1동277-3 |
| 경천 | 기감 | 김 달 성 | 529-1065 | 부평구산곡2동391-47우성상가 |
| 부민 | 예장 | 정 연 모 | 525-9272 | 부평구갈산동104 |
| 대인 | 기감 | 황 성 연 | 527-7947 | 부평구산곡2동258-3 |
| 늘푸른동산 | 예장합정 | 이 용 진 | 518-4420 | 부평구삼산동54-2 |
| 은성 | 예장 | 엄 인 용 | 514-5436 | 부평구부개동382-2 |
| 만국선교 | 예장합정 | 김 도 원 | 528-3321 | 부평구갈산동35-3 |
| 동광 | 기감 | 강 성 규 | 527-3972 | 부평구부개2동100-8 |

## 5. 민족 종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 민족종교는 각 교단별로 조직을 정비하고 종단의 역사적 사건을 대대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전교의 계기를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다원적 종교전통과 창교자들의 종교체험을 바탕으로하는 민족종교들은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최근 천도교가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도입과 핵개발 기도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보스니아 성폭행 만행에 대한 규탄성명을 내는 등 천도교 특유의 정치적 민감성을 보이는 것은 강한 민족의식을 마탕으로하는 종교분위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족종교는 민족주의적 성격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것이다. 구한말에는 혹세무민의 사도(邪道)로 몰아 지도자와 신도들을 처단하였고, 일제 식민통치기간에는 독립운동을 막기위해 모진 탄압을 하였다.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종교, 사이비 종교쯤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세는 위축되었고, 종교활동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인천에는 천도교가 숭의동에 포교소를 설치하고 있고, 대종교와 천리교가 교당을 세우고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평지역에는 천도교도 200여명이 있으며, 산곡동에 대종교 교당이 있다. 대종교 교당은 1980년 장영희, 신영빈 두 사람에 의해 백마시교당이 세워진데서 비롯된다. 1965년에 포교가 시작된 천리교는 간석동에 부평교회, 부평3동에 화룡교회를 갖고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증산교는 인천교육대학교 학생써클 활동 차원에서 교리강습 등이 실시되고 있다. 증산도를 배우자는 구호아래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 포교를 하고 있다.

## 6. 종교단체(宗教團體)

인천의 종교단체로는 인천불교연합회, 인천기독교연합회, 인천기독교연합장로회, 천주교인천교구산하의 각급 단체, 인천YMCA 천도교인천교구, 유도회 등이 있다.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평지역 종교단체는 천주교와 기독교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의 명칭과 주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단 체 명 | 주 소 | 단 체 명 | 주 소 |
|---|---|---|---|
| (수도 단체) | | (사회사업기관) | |
| 가르멜 남자수도회 | 인천 북구 계산동 산50-1 | 성원선시오집 | 인천 북구 산곡동317 |
| 마리아 수도회(인천공동체) | 인천 북구 산곡동5-5 | 엠마누엘특수교육원 | 인천 북구 부평6동 657 |
| 노들담 수도회(본원) | 인천 북구 계산동40 | 요셉의 집 | 인천 북구 삼산동 261-1 |
| 티없으신 마리아 딸 수녀회 | 인천 북구 임학동33 | | |
| 전교 가르멜 수녀회(수련원) | 인천 북구 계산동 산421-1 | (피정의 집) | |
| 예수 성심 시녀회 | 인천 북구 부평4동 339 | 가르멜기도의집 | 인천 북구 계산동 산50-1 |
| 한국순교 복자수녀회 | 인천 북구 부평동665 | 샤미나드피정의집 | 인천 북구 산곡1동4-5 |
| 포교 성베네딕드수녀회 | 인천 북구 부개동16-62 | 노틀담 수녀원 | 인천 북구 계산동 산40 |
| (의료기관) | | (출판 및 홍보) | |
| 카톨릭의대부속 성모자애병원 | 인천 북구 부평동 665 | 카톨릭성바오로서원 | 인천 북구 부평동241-4 |

### 2) 기독교 단체 및 기관

| 단 체 명 | 주 소 | 단 체 명 | 주 소 |
|---|---|---|---|
| 장로회 부흥사협회 | 인천 북구 산곡동 309-1 | 연 합 병 원 | 인천 북구 부평동 357 |
| 메시아천교단 | 인천 북구 산곡2동 202-7 | 총 회 신 학 교 | 인천 북구 산곡동47-1 |
| 연 합 병 원 | 인천 북구 부평동 357 | 호산나음악선교단 | 인천 북구 부평동 684-25 |

# 第 2 章 교육(敎育)

## 1. 개항기(開港期)의 교육

### 1) 전통적인 유교교육

외국과 교류를 거부해 오던 조선왕조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을 계기로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의 발달된 문명에 접하게 되자 교육에 의한 국가의 근대화를 촉진하려는 일대 개혁조치를 취하게 된다. 갑오개혁을 통해 근대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입국조서의 정신에 따라 각급 학교의 관제를 제정하여 근대식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의 근대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개회기의 교육은 전통적인 유교교육과 서구식 근대교육으로 양분되는 분수령이 된다. 전통적인 유교교육은 국가의 지도이념인 유교사상을 보급, 국민예속을 교화하고 정무체제에 필요한 관리양성에 목적을 둔 교육이다.

이를 위한 조선조 교육기관은 관학과 사학으로 구분된다. 관학교육기관으로는 중앙에 성균관, 사학(四學)이, 지방에 향교가 설립되었고, 사학교육기관으로는 전국에 서원과 서당이 설립되어 있었다. 개화기 부내(富內), 계양(桂陽), 오정(吾丁), 소사(素砂), 서곶(西串)을 주 관할 구역으로 한 부평부에는 향교와 서당이 설립되어 향토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향교는 조선시대 주·부·군·현에 1교를 설립하고 지방 목민관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된 교육기관이다. 시설구조는 문묘가 중심이 되며 그 앞에 명륜당이 있고, 좌우에 동서양재가 위치하였다. 동재에는 양반의 자제를 수용 내사생이라 불렀고, 서재에는 상민의 자제를 수용 교육하였다.

향교의 설립목적은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을 교수하여 향토사회를 교화하고 관리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유생의 정원은 향교 소재의 관부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두고, 1명의 교관을 파견하고 있다.

부외 대도호부 및 목에는 90명, 도호부 70명, 군 50명, 현 30명으로 정원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교관은 교수관(6품 이하), 훈도관(7품 이하), 교도관(생원, 진사), 학장(유학)으로 구분 향교가 소재한 지방관부의 대소에 따라 파유하였다.

향토 부평에 향교가 처음 설립된 것은 고려 인종 5년(1127)으로 추측된다.[1] 그 위치는 수주의 관부 소재지인 황어현(지금의 인천직할시 북구 오류동 27번지)근처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인천직할시 북구 오류동 산 4번지에 향교터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2]

현존하는 부평향교는 부평읍지에 『鄕校在府 西二里』라고 기술된 향교이다. 병자호란으로 소실된 문묘를 숙종 14년(1688)에 현위치(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 892-1)에 재건하고 열성위판을 환안함으로서 시작된다.[3]

서당은 동몽교육과 민중교육을 담당한 사설 교육기관이다. 서당의 설립은 자유로웠다. 조선조 서당은 그 설립과 운영의 형태에 따라 훈장자영서당, 유지독영서당, 유지조합서당, 촌조합서당으로 분류된다.

서당의 교육목적은 유교이념의 보급에 의한 민중교화와 과거준비 교육이었다. 교육내용은 한문의 독해력을 기르고 초보적인 유교지식을 가르친후 유교의 경학과 사장을 중심으로한 교육이다. 교재는 천자문, 유합, 격몽요결, 동몽선습, 통감, 소학, 사서·오경, 사기, 당송문, 당률, 근사록 등이 읽혀졌다.

서당의 입학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모두 허락하고 있다.

17세기 이후 조선조 사회에는 각 고을과 마을에 많은 수의 서당이 설립되어[4] 민중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크게 융성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평부에도 각 마을마다 서당이 설립되어 향토교육에 크게 공헌하였을 것으로 본다.

### 2) 서구식 근대교육의 시작

갑오개혁(1894)은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 질서에 대한 개혁이요 제도의 정비였다.

교육면에서는 예조를 폐지하고 학무아문을 설립하는 한편 과거제도를 폐지하였다.[5] 봉건적인 잔제를 일소하고 근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교육의 전통을 확립 모색한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1) 『고려사』에 인종 5년 諸州에 立學廣敎하라고 하는 기록이 있음.
2) 이훈익, 『향토자료집』 제6권, 「인천지방의 전통제례」, 인천향토문화연구소, 1994, p.152.
답사를 통해 수주의 청사지리(오류동 27번지)와 향교자리(오류동 산4번지)를 노인들이 입증함.
3) 부평향교사, 『부평향교지』 p.88 참조.
4) 정약용 『목민심서』 예전, 제6조 〈과예〉 참조.
5) 『고종실록』 고종31년 7월 3일 조.

새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안은 학무아문 고시와 홍범 14조 및 교육입국조서 등에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1895년 4월 16일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이어 외국어학교 관제, 성균관 관제, 소학교령, 한성사범학교 규칙, 성균관 경학과 규칙, 소학교 규칙 대강, 보조공립소학교 규칙, 의학교 관제, 중학교 관제, 상공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규칙, 농상공학교 관제등 각급 학교의 관제와 규칙을 차례로 제정, 근대학교의 설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1894년 4월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한 후, 전국의 경향 각지에 각급 학교의 설립을 추진 하였다.

개화기 근대학교의 설립 주체는 정부, 민족선각자 및 기독교 선교사 등으로 구분된다.

부평군(1895년 부평부는 부평군이 되고, 인천감리서의 관할이 됨)에도 근대교육기관인 부평소학교가 설립된다. 부평소학교는 1895년 7월 19일 공포된 소학교령과 같은 해 8월 12일 공포된 소학교 규칙 대강에 의거 정부에 의해 1899년 3월 15일 개교 되었다.[6] 향토부평지역에 세워지는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다. 부평소학교는 개교 당시 전통적인 유교교육기관인 부평향교(지금의 인천직할시 계양구 계산동 892-1)의 시설 일부를 빌려 사용하였으며 유일한 근대교육기관으로 부평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이로써 부평군의 교육은 전통적인 유교교육을 단절하고 새로운 서구식 근대교육의 장을 열게 된다.

### 3) 통감부의 교육침략

1904년 2월 23일의 한일의정서와 같은 해 8월 23일 제 1차 한일협약 및 1905년 11월 17일 제 2차 한일협약(일명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제의 식민지화 교육이 시작되었다. 일제는 1905년 12월 21일 칙령으로 『통감부급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고 1906년 1월 31일 통감부의 업무를 개시 통감부로 하여금 한국의 조속한 식민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교육을 식민화 교육으로 재편하고자 각급학교의 관제와 규칙을 개정·제정 하여 학제를 개편하고 교과서 편찬을 추진하였다.

당시 통감부에 의해 마련된 교육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7]

보통학교령 및 동 시행규칙(1906), 고등학교령 및 동 시행규칙(1906), 사범학교령 및 동 시행규칙(1906), 외국어학교령 및 동 시행규칙(1906), 학부관제(1907), 학부직할학교 및 공립학교관제(1907), 학부직할학교 직원정원령(1907), 고등여학교령 및 동 시행규칙(1908), 사립학교 보조 규정(1908), 학부 인천공립·사립학교 인정에 관한 규정(1908),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

---

6) 인천부평국민학교 동창회, 『부평80년사』 1980, p.43.

7) 정재철, 『일제의 대한민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pp.222~223참조.

(1908), 학부 편찬 교과용 도서 발매규정(1908), 사립학교령(1908), 실업학교령 및 동 시행 규칙(1909) 등이다.

통감부에 의해 개정·제정 공포된 교육령과 규칙은 한국정부의 이름을 빌어 일제가 한민족의 교육을 식민지 교육으로 재편하려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통감부에 의해 추진된 교육방침은 한민족의 우민화 교육, 점진적인 동화교육, 일본어 보급 및 친일교육으로 집약 된다.[8]

개항이후 근대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부평교육은 통감부의 식민화교육정책에 의해 억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교육으로 재편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1995년에 제정된 소학교령에 의해 1899년 설립을 하여 부평지역의 근대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던 부평소학교는 1906년 통감부에 의해 제정된 보통학교령에 의해 4년제 부평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는 한편 통감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식민지화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 2. 일제강점기(日帝強點期)의 교육

### 1) 일제 침략 초기의 교육

한일합방(1910)으로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한반도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데라우찌(寺內正毅)을 초대 총독으로 임명, 역사상 유래가 드문 강압 공포의 통치방식에 의한 무단정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민지 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립교육기관을 탄압하고 통제하여 식민지 체제를 굳혀가려 했다.

조선총독부는 이와같은 교육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총독부 내무부 안에 학무국을 설치, 한국인 교육을 지배하고 교육에 관한 법령을 개정·제정 공포하며 식민지교육을 자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교육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9]

조선교육령(1911), 사립학교 규칙(1911), 보통학교 규칙(1911), 고등보통학교 규칙(1911),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1911), 실업학교 규칙(1911), 전문학교 규칙(1911), 유학생 규정 및 유학생 감독에 관한 규정(1911), 개정사립학교 규칙(1915), 교원시험 규칙(1916), 서당규칙(1916), 교원심득(1916), 각급학교 제규칙(1918) 등이다.

조선교육령에 들어난 총독부의 교육방침은 '충량한 국민의·육성', '시세와 민도에 알맞는 교육' 및 '국민된 성격의 함양과 일본어를 보급하는 교육'을 표방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려는 것

8) 인천직할시, 『인천개항 100년사』, 1983, pp.1291~1292 참조.
9) 인천직할시, 『인천개항 100년사』, 1983, pp.288~290 참조.

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식민통치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피지배 민족을 말살하려는 폭거 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은 한국인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전국적인 의병의 봉기와 사학과 서당을 중심으로 한 반일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민족의 저항이 응집되어 3.1운동(1919)으로 이어 졌다.

일제침략초기 향토 부평은 1913년 지방행정 제도의 개편으로 부평군이 폐지되고 1914년 인천부의 일부지역과 강화군 남양군의 일부지역을 통합 부평군의 "부"와 인천부의 "천"자를 취하여 부천군이 신설됨에 따라 부평군시대를 마감하고 부천군의 행정관할 구역이 된다.[10]

일제 침략초기의 부천군의 교육은 보잘것 없는 상태로 초등교육기관인 부평 보통학교 만이 설치되어 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부평(부내, 계양, 오정, 소사, 서곳)의 교육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채 서당을 중심으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을 것으로 본다.

### 2) 일제 침략 중기의 교육

3.1독립운동 이후 일제는 한민족의 끈질긴 저항의 예봉을 피하고자 외면상으로는 무단정치를 완화, 고등식민지 정책인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회유책을 펴게된다.

총독부의 관제를 개정(1919)하여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일본의 천왕이 조서를 발표 한국인을 회유하는 한편, 수상 하라다가시(原敬)가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에 관한 담화」(1919)를 발표, 식민지 지배체제를 개선할 것 처럼 위장하였다. 3대 총독인 사이도오 마꼬도(齋藤實)도 '훈시',와 '유고',를 통하여 한국인에게 자치권을 부여할 것처럼 기만하고 회유하였다.[11] 이러한 식민지 정책의 전환과 함께 일제는 교육에 있어서도 융화책을 반영 조선교육령을 개정(1922) 학교제도를 일본의 제도와 비등하게 개편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도 완화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정책은 한국인의 격화된 항일감정을 무마하려는 회유책일뿐 그 기저에 깔린 동화주의와 교육적 차별은 여전하였다. 기만적인 회유책으로 "일시 동인" "내선공학" "내선일체" "일선융화" "내지준거주의" "내지연장주의" 등의 기묘한 논리를 내세워 동화주의 교육을 더욱 본격화하였으며, 학제도 종래의 각급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 형식상으로는 일본내의 학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하고, 사범학교와 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편, 표면상 한국인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어(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와 상용하지 않는 자로 구분 교묘하게 차별하였다. 학교의 명칭도 일본인의 학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어 민족 차별교육에는 변함이 없었다.

---

10) 김용필, 『부평사』, 기전문화연구 19,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1990, p.547.
11) 정재철, 『일제의 대한민국식민지 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p.338 참조.

침략중기 부평의 1차 행정관할 구역인 부천군에는 일제의 동화주의교육 추진의 일환으로 전개된 3면 1개 보통학교의 정책이 1면 1개 보통학교 설립으로 바뀌면서 소사공립보통학교(1922), 서곳 공립보통학교(1929), 오정공립보통학교(1931), 계양공립보통학교(1932) 등 4개의 보통학교가 신설되었으며 일본인 자제를 대상으로한 소사심상소학교(1922)가 설립을 보였다.

이로서 부평지역에 한국인 학교 5, 일본인 학교 1개교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식민지교육 추진 기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며 향토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 3) 일제 침략 말기의 교육

일제는 중국대륙을 침략하고 이어 태평양전쟁(1941~1945)을 도발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정책은 발악적인 수탈과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을 일본인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일상생활의 일본화, 일본어 상용, 창씨 개명등을 강요, 한민족의 영원한 말살을 획책하였다.

따라서 이시기 일제의 식민지교육은 제국신민교육에서 황국신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체명증" "내선일체" "인고단련" 등의 구호를 만들어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여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확보 충당하려는데 주력했다.

일제는 1938년 〈3차 조선교육령〉를 공포 교육제도를 개편, 학교의 명칭과 수업연한을 일본내의 학교와 동일하게 바꾸었으며,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을 발표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명하고, 1943년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을 공포, 교육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였다. 1944년에는 〈학생 동원체제 정비에 관한 훈령〉, 〈학도동원본부 설치령〉 및 〈학도근노령〉을 1945년에는 〈결전 교육조치 요강〉 등을 제정 각급 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교육내용도 전시체제로 개편하였다. 학생들은 학업의 연마보다 전쟁물자의 생산과 군사시설의 건설에 동원함으로써 학교를 군사능력의 양성과 국방력 증강을 위한 도구화 하였다.

일제침략말기 향토 부평은 1940년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부내와 서곳지역이 인천부에 편입됨에 따라 부천군과 인천부의 관할 구역으로 양분되어 새로운 향토사의 장을 열게된다.[12]

이무렵 부평지역에는 인천소화공립심상소학교(1940)과 인천소화서공립국민학교(1941)가 개교함으로서 초등교육의 확충을 가져왔으며, 1941년 11월 7일 부평동 15번지(지금의 경찰종합학교 자리)에 인천소화고등여학교가 교사를 신축하고 이사해 옴에 따라 중등교육의 시대를 열게된다.

---

12) 김용필, 『부평사』, 기전문화연구 19,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1990, p.553.

### 4) 각급 학교의 현황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교육이 종식된 1945년 8월 15일 현재 부평지역에 설립된 각급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

(1) 인천대정공립국민학교

지금의 인천부평국민학교의 전신이다. 1899년 3월 15일 부평향교에서 부평소학교로 개교하였다. 1909년 1월 4일 부평보통학교로 개편되고, 1911년 사립 계창학교를 병합하였으며, 1912년 부평공립보통학교로 개명, 1934년 4월 1일에는 대정리(지금의 부평역 부근)에 부설 간이학교(지금의 부평동국민학교의 전신임)을 설치 했다. 그후 1938년 4월 1일 부평공립 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부평지역의 일부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학교의 위치가 인천부의 관할지역이 되어 인천대정심상소학교로 개명되고, 1941년 국민학교령에 따라 인천대정공립국민학교로 개명되어 광복을 맞았다.

(2) 소사북공립국민학교

지금이 부천북국민학교의 전신이다. 1924년 5월 1일 소사공립보통학교로 개교, 1938년 3월 19일 소사북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되고, 1941년 3월 25일 소사북공립국민학교로 개명되어 광복을 맞았다.

(3) 인천정상공립국민학교

지금의 인천서곶국민학교의 전신이다. 1929년 3월 24일 서곶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어 1930년 1월 20일 개교, 1938년 4월 1일 서곶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되고, 1940년 4월 1일 인천부의 관할지역이 되면서 인천정상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되었으며, 1941년 국민학교령에 의해 인천정상공립 국민학교로 개명 광복을 맞았다.

(4) 오정공립국민학교

지금의 부천오정국민학교의 전신이다. 1931년 9월 6일 오정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 1932년 개교 하였다. 1938년 오정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되고, 1941년 4월 1일 오정공립국민학교로 개명되어 광복을 맞았다.

(5) 계양공립국민학교

지금의 계양국민학교의 전신이다. 1932년 8월 11일 설립인가, 1932년 12월 3일 개교하였다.

---

13)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1993, pp.287~290. 참조.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1988, pp.991~1002. 참조.

1938년 계양공립심상소학교로, 1941년 계양공립국민학교로 개명 광복을 맞았다.

(6)인천소화동공립국민학교

지금의 부평동국민학교의 전신이다. 1934년 4월 부평공립보통학교 부설 간이 학교로 출발 1940년 4월 24일 인천소화동공립심상소학교로 개교, 1941년 4월 1일 인천소화동공립국민학교로 개명되어 광복을 맞았다.

(7) 소사공립국민학교

부천지역의 일본인 자녀를 교육하기위해 1922년 5월 1일 소사소학교로 개교 1941년 소사공립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 광복후 1945년 11월 15일 소사남국민학교로 재출발하였으며 지금의 부천남국민학교이다.

(8) 인천소화서공립국민학교

부평지역의 일본인 자녀교육을 위해 1941년 3월 31일 설립되었다. 광복후 인천부평서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9) 인천소화고등여학교

지금의 인천박문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940년 4월 27일 설립인가되어 1940년 5월 18일 인천송림공립심상소학교의 교사을 빌어 개교 하였다. 1941년 11월 7일 부평동 15번지(지금의 경찰종합학교 자리)에 교사를 신축하고 이사하였다. 1945년 4월 1일 교사가 일본 육군에 징발되어 항동 9번지에 있는 조선식량영단으로 이전하여 광복을 맞이 했다.

## 3. 광복이후(光復以後)의 교육

### 1) 민족교육의 재개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하자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다. 조국의 광복은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를 안겨 준다. 한반도에 먼저 진군한 소련군은 38선 이북에서 군정을 시행하고 뒤이어 미군도 이남에 진군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든 것은 조국의 분단과 3년에 걸친 군정통치였다.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이틀 후인 9월 11일 군정사무를 시작하고, 9월 14일 학무국을 접수한 미군정은 교육부문 담당자로 락카아드(E.L. Lackard) 대위를 임명하였다. 그는 한국의 실정에 대하여 몹시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교육행정을 요리할만한 지식

과 경험을 겸비하지 못하였다. 락카아드는 처음부터 한국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한국인의 지혜와 판단에 의존하는 도가 높았다.

학무국 시무 5일만에 한국인으로 「한국교육위원회」(The Committee of Education)을 구성하고 이어 중앙교육위원회를 조직 교육의 모든 부문에 걸쳐 심의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00명을 초청 「조선교육심회」를 구성하고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행정,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사범교육, 고등교육, 교과서, 의학교육등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로 하여금 학무국에서 마련한 의제를 협의 결정하게 하였다. 미군정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학무국은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한편 긴급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중점을 두었다.

1945년 9월 17일 일반 명령 제4호를 발표, 9월 24일을 기하여 공립초등학교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사립초등학교도 개교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문을 열도록 하였다. 9월 28일에는 각 도에 통첩을 보내어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도 수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여 닫혀있던 각급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1946년 3월 29일에는 군정법령 제64호를 공포 학무국을 문교부로 승격시켜 1948년 정부수립 당시까지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제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14]

8.15 광복후 향토 부평의 교육은 경기로 관할 인천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수행되었다. 광복직후 인천지역에는 민족교육의 재개를 위해 인천시 초등교육 건설회를 조직하고 교수지침과 임시교재를 준비하는 등 민족교육 재개에 대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15]

인천의 초등학교가 일제히 교문을 연 것은 1945년 9월 24일 이었다. 미군정 일반명령 제24호에 의해 경기도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향토 부평에서도 초등교육기관의 교정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우리 글 우리 말에 의한 민족교육을 재개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민족교육이 재개되면서 부평의 교육은 일제 식민지교육의 잔재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인천 대정공립국민학교를 인천 공립계동국민학교로, 인천 정상공립국민학교는 인천 공립서곳국민학교로, 인천 소화동공립국민학교는 인천 공립부평동국민학교로, 인천 소화서공립국민학교는 인천 공립부평서국민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 식민지교육을 불식하고 민족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16]

---

14)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1945~1973),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pp.3~15. 참조.
15) 인천직할시사 편찬위원회, 『인천시사』 1989, p.1322.
16) 위의 책, p.203. 참조.

### 2) 교육이념과 시책

미군정기 한국교육의 과제는 일제의 황국사관에 입각한 군국주의적인 교육내용과 식민지 교육의 잔제를 청산하고 민족교육의 전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교육심의회에서 마련한 교육이념에서도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근본목적으로 표방하고 이념관철을 위한 교육방침을 ①민족적 독립 자존의 기풍과 국제적 우호 협조의 정신이 구전한 국민의 품성을 도야함, ②실천궁행과 근로역행의 정신을 강조하고 충실한 책임감과 상호협조의 공덕심을 발휘케 함, ③고유문화를 순화앙양하고 과학기술의 독창적 창의로서 인류문화에 공헌하도록 함, ④국민의 체위 향상을 도모하며 견인불굴의 기백을 함양케 함, ⑤숭고한 예술의 감상 창작성을 고조하여 순후원만한 인격을 양성 함』[17]

라고 기술하고 있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미군정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책에서 ①교수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 ②일제의 잔제인 황국사상을 조속히 불식할 것, ③민주교육의 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사 재교육강습에 주력할 것, ④학교제도를 단선제로 민주화할 것, ⑤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에 주력할 것[18] 등을 표방하여 한국교육을 민주적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아니라 1948년 8월 12일에는 교육자치제에 대한 법령을 공포, 같은 해 9월 1일 부터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서[19] 한국교육의 현대화 민주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추진은 부평의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민족교육과 민주교육확립에 참여하게 되었고, 1946년에는 소양국민학교, 석남국민학교, 송현세어분교 등이 개교 초등교육기관이 확충됨으로써 취학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각 마을 마다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 4. 정부수립이후(政府樹立以後)의 교육

### 1) 1·2 공화국시대의 교육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법률 제86호로 공포됨으로서 자주독립 국가의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17)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앞의 책, p.13. 참조.
18)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3, p.1320.
1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1982, p.1250.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이념이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있음을 밝히고 교육방침을 교육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신체의 건강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 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②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③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 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④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⑤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경애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⑥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⑦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여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 생활을 하게 한다.

1949년 공포된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제도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1-3년(중학교 3년 수료후 입학), 대학 4~6년(고등학교 졸업후 입학), 초급대학 4년(중학교 졸업후 입학), 초급대학 2년(고등학교 졸업후 입학), 사범학교 3년(중학교 졸업후 입학), 사범대학 2년 또는 4년(고등학교 졸업후 입학),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유치원 등 복선형 학제 였다.

6, 3, 3, 4제의 단선형 학제가 마련된 것은 1950년 3월 10일 개정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중학교 수업년한을 3년으로 조정하고 4년제 초급대학이 삭제됨으로서 한국교육의 기간학제가 6, 3, 3, 4제의 단선형 학제로 정착되었다.[19]

정부수립후 부평의 교육은 부평이 경기도 관할의 인천시 행정구역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경기도의 교육시책인 의무교육의 추진, 1인 1기교육,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교육이 이루어 졌다.

1950년 3월 16일 경기도 교육국(후에 사회국과 통합 교육사회국이 됨)에 의해 도내 적령아동 실태를 조사, 대상아동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마친후, 같은 해 6월 1일을 기해 의무교육을 적극추진하게 되자 부평은 대망의 의무교육시대를 맞이하였으나, 6.25동난으로 일시 교육이 중단되어 전시 피난학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전란중 부평은 1951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서 공산치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후 중단된 교육을 재개

19)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문교사』(1945~1973),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pp.22~24 참조.

하게 되었다.

1952년 4월 25일 한강 이남 지역에서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인천시에도 시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시의회가 구성되자 같은 해 5월 24일 인천시 교육위원이 선출되어 다음 달인 6월 24일 인천시 교육위원회를 구성, 초대 교육감에 황광수(黃光秀)가 선출 임명됨으로서 인천교육은 교육자치시대의 장을 열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부평의 교육도 인천시 교육감 산하의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 하였다.[20]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초등의무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구와 시교육위원회가 발족되자 정부는 의무교육 6개년(1954~1959)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경기도가[21]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령아동의 완전 취학을 목표로 각 시·군에 전임 취학독려원을 배치하는 한편 전 교육공무원을 동원하여 취학을 독려하고 초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부평지역에는 창영청라분교(1948), 산곡(1953), 부개(1955), 상야(1960), 부평남(1962) 등의 초등교육기관인 국민학교가 신설되어[22] 국민학교 취학의 기회를 확대시켜 의무교육의 내실을 기하였다. 뿐만아니라 부평교육은 교육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55년 12월 22일에는 특수교육기관인 인천맹아학교(1987년 성동학교로 개명 함)와 1961년 4월 1일 인천혜광학교가 개교 됨으로써 부평은 인천특수교육의 산실이요 요람이 되었고, 1957년 6월 20일에는 에덴유치원이 개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1960년 4월 10일에는 북인천여자중학교가 개교하게 되자 부평은 중등교육시대의 서막을 올려 교육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외적 발전과 함께 부평교육은 1957년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지역사회학교 건설과 학원윤리운동의 전개"[23]를 교육시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역사회학교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그 결과 부평지역의 학교들은 방과후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 향토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향토사회 발전을 향도하였다.

### 2) 3.4 공화국시대 교육

3, 4 공화국 시대란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 취임과 제6대 국회의 개원으로 출범한 공화당 정부의 시대로 10월 유신, 5.18등을 거치며 정부의 모습이 3 차례나 바꾸어진 격변의 시기이다.

정치와 행정의 특징은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적 지배, 통제, 통치로 일관되었다. 이에 자연

20)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직할시사』, 1993, p.305, 참조.
2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1982, p.1212.
22) 인천직할시 교육청 『1993년도 인천교육통계연보』, pp.402~415참조.
23)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경기도사』, 1992, p.1259 참조.

교육도 정치에 예속되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이 상실되어 갔으나 경직된 정치적 상황속에서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지어 '교육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시도되었다. 교육자치제 실시, 중학교 입시제도의 개혁,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실시, 교육의 장기계획 수립, 새마을교육 추진 및 고등학교의 입시제도의 개혁 등이 실행되었다.[24]

교육개혁이 활발히 추진된 3공화국시대의 부평의 교육은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던 경기도 교육자치제가 1964년 1월 1일을 기해 전국 시·도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하부 행정기관인 인천시 교육청이 개청되어 교육이 내무행정으로 부터 벗어나게 되자 다시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부평교육을 관장한 인천시 교육청은 개청당시에는 초등교육기관인 국민학교 만을 관장할 수 있는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부평지역의 중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직접 관장 감독하였으나 1973년 3월 23일 중학교의 감독권이 경기도 교육위원회로 부터 교육청으로 이양되어 중등교육의 전기단계인 중학교가지 감독하게 된다.[25] 그 결과 부평의 교육을 관장하는 1차 교육행정기관이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위원회로 양분되어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인천시 교육청이,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관장 감독하게 된다.

향토 부평지역은 1967년 3월 30일 도시계발계획에 따라 마련된 법률 제1919호(인천시 구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옛날의 부내지역과 서곶지역을 통합하여 인천시 북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행정구역이 조정된 부평지역의 교육은 1969년을 원년으로 전국에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가 시작되고 인천지역에 1970년을 기해 무시험진학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2월 3일 부평에서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추첨이 행해졌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의 남구, 중구, 동구와 부천시 및 강화, 옹진군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50개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남인천여자중학교에서 북구의 11개 국민학교를 다른 하나의 학군으로 나누어 북인천여자중학교에서 추첨, 국민학교 졸업생을 중학교에 배정하였다.[26] 이로서 부평은 인천시 중등교육사에 독립된 하나의 학군이 됨으로서 중등교육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자, 국민교육헌장은 부평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헌장이 선포된후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과 생활화를 추진하고자 문교부(현 교육부)는 「국민교육헌장 실천지침」을 하달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회도 「국민

24)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2, p.1283 참조.
25)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직할시사』, 1993, p.312 참조.
26) 『위의 책』, 1993, p.315 참조.

교육현장 이념구현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도내 각급 학교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하였다.[27] 이에 부평지역의 각급 학교의 교육은 국민교육헌장이념의 구현·실천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1971년에는 3월 명신여자고등학교(인천직할시 북구 산곡동 180)와 같은 해 12월 부평고등학교(인천직할시 북구 부평4동 10)가 개교함으로써 부평은 중등 후기단계인 고등학교시대를 태동시켜 교육발전을 다져 갔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단행한 「10월 유신」은 국정의 모든 부분이 유신을 위한 행정체제로 급전환 되었다. 교육도 유신과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구현, 국민정신교육, 국가안보교육, 새마을교육, 과학기술교육, 보건체육교육 등을 제창 교육시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부평의 교육은 유신교육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이시기의 부평교육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아래 생활개선 소득증대 국민적 가치의 확립 등을 통해 잘사는 살기 좋은 향토를 건설하려는 새마을 운동을 학교교육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1973년 3월 14일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경기도 교육규칙 제30호)을 제정 공포하고 교육감의 행정권한중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에 다라 부평지역의 중학교의 감독권이 경기도 교육감에서 인천시 교육장에게 이양되어 교육행정 체제의 변혁을 가져왔고, 1973년 2월 28일 교육부가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교육의 정상화, 고등교육의 평준화, 실업 및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지방학교의 발전 조장, 교육비 국민부담 절감, 학생 대도시 집중의 억제 등을 목적으로 1973년 3월 13일 고등학교 추첨 배정 입시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함에 따라 1975년을 기해 인천시에서도 고등학교 추첨배정 입학제도가 시행된다. 그 결과 부평지역에 고등학교 추첨 배정 입시제도가 정착되었다.

부평교육의 도약기라 할 수 있는 3·4 공화국시대 부평의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28]

1981년 2월 당시 인천시 북구의 행정구역이된 부평지역에는 유치원 12, 국민학교 20, 중학교 9, 고등학교 4, 특수학교 3, 사설학원 40개 등 많은 수의 각급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3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신설된 각급학교는 아래와 같다.

---

2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p.1295.

28) 경인일보사, 『경인교육요람』, 1985, pp.771~777 참조.
인천직할시교육청, 『1993년도 인천교육통계연보』, pp.393~409.

○ 유치원(11) — 중앙(1967), 에녹(1970), 성심(1970), 새아람(1972), 갈원(1978), 청원(1978), 가좌(1980), 제일(1980), 계산(1980), 신애(1980), 삼능(1980)

○ 국민학교(8) — 부흥(1963), 한일(1965), 동암(1966), 부평북(1967), 청천(1971), 백석(1971), 가정(1975), 신현(1981)

○ 중학교(8) — 부평(1967), 부평여(1968), 계양(1969), 부평동(1970), 동인천여(1977), 부평서여(1978), 부평서(1980), 제물포(1981)

○ 고등학교(4) — 부평(1971), 명신여(1971), 경인여상(1972), 부평여상(1975)

○ 특수학교(1) — 인천예림(1974)

등이 신설 개교하여 부평교육이 크게 확충 발전하였다.

### 3) 5·6 공화국시대 교육

5·6 공화국시대란 1980년 10월 25일 헌법이 개정되고 새 헌법에 의해 1981년 3월 3일 12대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한 민정당정부와 6·29선언으로 창출된 민주화가 추진된 변화의 시대이다.

5 공화국은 ①민주주의의 토착화 ②복지사회의 건설 ③정의사회의 구현 ④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국정지표로 표방하고, 교육혁신의 4대과제로 ①전인교육의 충실, ②국민정신교육의 강화, ③과학기술교육의 진흥, ④평생교육의 확충을 제시하였다.[29]

부평지역의 1차 행정관할 기관인 인천시는 1981년 4월 13일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3424호) 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 인천직할시로 승격되어 새로운 향토사의 지평을 열게된다.

그결과 부평은 경기도의 행정관할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직할지가 되었고, 인천의 교육이 경기도 교육위원회 관할에서 분리 독립되어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가 탄생하자 부평교육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결별하게 된다.

1981년 7월 16일 인천직할시 초대 교육감에 김천홍이 임명되었다.[29] 김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지표를 ①주인정신의 고취 ②질서생활의 실천 ③자활의지의 함양으로 표방하고, 재임기간(8년) 동안 이의 실현을 위한 교육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부평교육은 이러한 인천교육의 지표 실현을 위한 교육을 전개하게 된다.

---

29)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6
30)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3, p.326

1982년 5월 18일에는 부평도서관(북구 십정동 186-454)이 개관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향토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1985년 3월 1일에는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산하 기관인 교육구청의 개청을 위한 준비작업이 추진되고 같은 달 8일 초대 북부청장에 윤세완을 임명, 15일 남부교육구청(중구와 남구를 관할)과 북부교육구청(동구와 북구를 관할)을 개청, 중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육을 관장하게 됨에 따라 부평교육은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북부교육청의 관할이 되었다.

부평지역은 도시발전에 의해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6호에 의해 서곳지역이 북구에서 분리되어 인천직할시 서구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6 공화국시대를 맞이 하게 된다. 6 공화국의 문교시책은 ①교육본질의 추구 ②교육에서의 민주화 ③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기본시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1989년 1월 1일에는 행정구역이 조정되어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시 북구에 편입 되었으며 제2 대 북부교육청장에 하만춘이 임명되었다. 같은 해 7월 16일에는 3 대 인천직할시 교육감에 신홍균이 임명되었다.[31] 신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지표로 "국제화시대에 주역이될 진취·창조적 한국인 육성"을 천명하고 재임기간동안 교육지표로 추진함에 따라 이는 부평교육의 지표가 된다.

같은 해 11월 24일 3대 북부교육청장에 채홍덕이 취임하였다. 그후 부평교육의 1차 행정관할 기관인 북부교육청은 교육시책으로 민주시민의 가치관 정립,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과학기술교육 충실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환경 개선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게 된다.

1990년에는 인천교육대학교(계양구 계산동 산59-12)가 신축교사를 완공, 이전하여 옴에 따라 부평은 고등교육시대를 맞아 향토교육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아니라 초등교원 양성의 요람이 되었다.

1991년 9월 9일 서구도서관(서구 가좌3동 198)과 같은 해 9월 26일 북구도서관(부평구 부평4동 880)이 개관 부평지역 문화의 센터가되어 향토사회의 문화를 선도하였다.

1992년 3월 2일 경인여자전문대학(계양구 계산동 540-4)이 개교,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1993년 7월 16일 인천직할시 4대 교육감에 유병세가 임명되었다. 유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육성"이라고 천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993년 9월 1일 4대 북부교육청장에 임명된 안상원은 북부교육청의 교육시책을 고운 심성을 가꾸는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자율적인 학교 경영, 쾌적한 교단환경 조성, 등을 표방하고 추진함에 따라 부평교육의 지표가 된다.

---

31)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직할시사』, 1993, p.342.

1995년 3월 현재[32] 인천시 부평지역(부평구, 계양구)와 서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부평지역에는 유치원 144개교, 공립7(북구 6, 서구 1), 사립 137(북구 105, 서구 32), 초등학교 54개교 공립 53(북구 38, 서구 15), 사립 1(북구 1), 중학교 29개교 공립 29(북구 19, 서구 10), 인문계 고등학교 7개교 공립 4(북구 4), 사립 3(북구 2, 서구 1) 실업계 고등학교 9개교, 공립 4(북구 2, 서구 2), 사립 5(북구 3, 서구 2), 전문대학 1개교, 교육대학 1개교, 특수학교 5개교 공립 1(북구 1), 사립 4(북구 4), 고등기술학교 1개교(북구 1) 각종학교 1개교(북구 1), 학력인정학교 5개교(북구 3, 서구 2), 사설학원 832개(북구 591, 서구 241)등 많은 수의 각급 각종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5 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신설되는 각급·각종학교는 다음과 같다.

(1) 부평구 (계양구 포함)

〈유치원 (102)〉

○ **공립병설 유치원** — 소양국교(1981), 상야국교(1982), 동암국교(1986), 부평국교(1986), 부평남국교(1987), 계양국교(1987)

○ **사립유치원** — 십정(1982), 백합(1982), 양지(1983), 가람(1983), 성결(1984), 은선(1984), 한우리(1984), 영재(1985), 노틀담(1985), 진광(1985), 엄지(1985), 영광(1985), 샤론(1985), 찬혜(1986), 큰꽃(1986), 새동암(1986), 지혜(1986), 엔젤(1986), 동심(1987), 예뿐(1987), 동암(1987), 아란(1987), 마리아(1987), 햇님(1987), 정원(1987), 성아(1988), 나래(1988), 하나(1988), 별초롱(1988), 고은(1988), 예음(1988), 성혜(1988), 우리(1989), 승리(1989), 인예(1989), 새별(1989), 사무엘(1989), 밀알(1989), 아가랑(1989), 북인천(1990), 세송(1990), 단원(1990), 한솔(1990), 리라(1990), 이화(1990), 선일(1990), 무궁화(1990), 푸른(1990), 홍범(1990), 참사랑(1991), 부평중앙(1991), 흑룡(1991), 두노란(1991), 청송(1991), 으뜸(1991), 은혜(1991), 경희(1991), 벧엘(1991), 홍익(1991), 은아(1992), 서해(1992), 단비(1992), 사랑(1992), 부성(1992), 꿈내리(1992), 한벗(1992), 은강(1992), 호산나(1993), 하늘(1993), 예림(1993), 효성(1993), 예그랑(1993), 성지(1993), 현대(1993), 보람(1993), 선화(1993), 연홍(1993), 경남(1993), 충성(1993), 혜성(1993), 새미(1994), 열매(1994), 꼬까신(1994), 늘프름(1994), 예슬(1994), 해나라(1994), 여림(1994), 부성(1994), 산곡(1995), 룸비나(1995), 경인여전부속(1995), 새소망(1995), 현대예꼬(1995), 새하늘(1995), 소망(1995), 은하(1995).

○ **초등학교(25)** — 효성(1982), 부원(1982), 신촌(1982), 부일(1983), 작전(1983), 부광(1983), 산곡북(1983), 일신(1984), 십정(1984), 산곡남(1985), 효성동(1985), 삼산(1986), 효성서(1986),

---

32) 인천직할시 교육청, 『1993년도 인천교육통계연보』, pp.393~469 참조.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북부교육청, 제공 자료, 참조.

대정(1987), 화전(1987), 계산(1987), 상정(1988), 마곡(1989), 안남(1990), 하정(1991), 동수(1991), 개흥(1992), 작동(1993), 부개서(1993), 갈산(1993)

○ 중학교(15) — 효성(1982), 신곡(1983), 북일여(1983), 청천(1984), 동암(1985), 부광(1985), 신곡남(1986), 부흥(1986), 산곡여(1990), 부원(1991), 계산(1991), 부일(1992), 갈산(1994), 안남(1994), 계산여중(1994).

○ 고등학교(8) — 공립 : 부평여(1981), 계산(1987), 부광여(1987), 부평공고(1994), 부광고(1995).

사립 : 세일(1982), 제일상(1982), 영일상(1990)

○ 전문대학(1) — 경인여자전문대학(1992)

○ 교육대학교(1) — 인천교육대학교(1990 이전)

○ 특수학교(2) — 공립 : 인천인혜학교(1992)
사립 : 인천은광학교(1981)

○ 고등기술학교 — 부평고등기술학교(1984)

○ 각종학교(1) — 인천외국어학교(1984)

○ 학력인정학교(3) — 북인천여자상업학교(1987) 대경여자상업학교(1987), 인천북공업학교(1987)

(2) 서 구

〈유치원(29)〉

○ 공립병설유치원 — 석남국교(1987)

○ 사립유치원 — 가브엘(1982), 석남(1982), 한샘(1983), 예일(1984, 천사(1985), 성원(1985), 신현(1985), 색동(1986), 장미(1986), 한신(1986), 선아(1986), 아람(1986), 코알라(1987), 신흥(1988), 극동(1988), 청아(1989), 미일(1989), 명문(1990), 기쁨(1990), 꽃나라(1991), 새싹(1991), 대송(1991), 부광(1992), 뿌리(1992), 가정(1993), 흰돌(1993), 고운(1994), 천사(1994).

○ 초등학교(9) — 신현(1981), 석남서(1983), 가좌(1986), 시석(1986), 신현북(1986), 봉수(1988), 천마(1989), 건지(1990), 가석(1994).

○ 중학교(5) — 가좌여(1981), 가정여(1985), 가좌(1988), 신현(1990), 신현여(1993)

○ 고등학교(4) — 공립 : 서인천공예고(1995), 정보산업고(1995)
— 사립 : 서인천(1984), 대인종합(1990)

○ 학력인정학교(2) — 예화여자상업학교(1986), 한진실업학교(1986)

이상 부평지역 교육기관은 유치원 135, 국민학교 34, 중학교 20, 고등학교 12, 전문대학 1, 교육대학교 1, 특수학교 2, 고등기술학교 1, 각종학교 1, 학력 인정학교 5, 사설학원 832개 교가 설립되어 눈부신 교육의 양적 발전과 함께 질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 5. 교육단체(敎育團體)

### 1) 교육기관 및 단체

부평지역의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는 인천직할시 교육청(남동구 구월동 1,137)과 북부교육청(북구 부평1동 542-18)이 설치되 있으며, 부평지역에는 부평도서관(북구 십정동 186-454), 북구도서관(북구 부평4동 880), 서구도서관(서구 가좌3동 198)이 설립되어 지역사회 문화의 센터로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원단체로는 사단법인 인천직할시 교원단체연합회(남구 숭의동 190-4)가 조직되어 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인천직할시 교육청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른 행정조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1일 합의재집행기관인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로 개청, 학무국과 관리국 등 2 국 5 과 21계를 두고 출범했다.

1985년 3월 1일 대통령령 제11650호의 교육구청 설치근거에 의해 북부교육구청과 남부교육구청을 설치하였고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347호 91. 3. 8)이 공포됨에 따라 심의의결기관인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와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분리 독립하였다.[33]

□ 인천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

〈인천교육의 지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 육성

'94 인천교육시책

도덕적 바탕을 다지는 교육

우수성을 추구하는 교육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

쾌적한 교단환경 조성

(2) 인천직할시 북부교육청

1985년 3월 1일 대통령령 11650호에 의거 교육구청 개청을 위한 준비작업 추진, 1985년 3월 15일 인천직할시 북부교육청이 개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34]

---

33) 경인일보사, 『경인교육요람』, 1993, p.760.

34) 위의 책, 1993, p.853.

〈'94 북부교육시책〉

고운심성을 가꾸는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자율적인 학교경영
쾌적한 교단환경 조성

〈'94북부교육장학역점〉

기초질서 및 예절생활 태도 형성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

(3) 부평도서관

1981년 12월 14일 부평도서관 설치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1982년 5월 18일 개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의 특색 사업은 동·하계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및 독서주간 행사, 주부 열람실 운영, 이동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연계협력 지원 등을 들 수 있다.[35]

(4) 인천 북구도서관

1991년 3월 22일 북구도서관 설치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1991년 9월 26일 개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의 특색 사업은 주부교실 운영, 최신정보서비스 및 학습정보제공, 대학원생 및 교직원 연구실 설치운영, 어학실 운영 등을 들수 있다.[36]

(5) 인천 서구도서관

1991년 3월 22일 서구도서관 설치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1991년 9월 9일 개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의 특색 사업은 독서회조직, 독서교실운영, 도서관 주간 행사, 독서주간 행사, 주부교실 운영, 시청각실 운영, 취업정보자료실 운영 등을 들수 있다.[37]

(6) 인천직할시 교육단체연합회

1972년 4월 28일 초등·중등·대학 등 급별 교육회를 통합 발족하였으며, 1981년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인천직할시 교육회로 창립을 보여 1982년 5월 22일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

35) 위의 책, 1993, p.791.
36) 위의 책, 1993, p.795~796.
37) 위의 책, 1993, p.796~797.

를 받았다. 1990년 2월 23일 인천직할시 교육회라는 명칭을 인천직할시 교원단체연합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단위학교별 분회를 두었다. 교육청과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활동을 통해 교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38]

### 2) 사설학원 및 독서실

사회교육기관인 사설학원이 부평지역에 처음 설립된 것은 1960년대 말의 일이다. 1968년 10월 22일 경기학원(부평동 202-4)이 설립됨으로서 시작된다. 이어 1969년 1월 25일 현대음악학원(부평동 147-6)이 설립되고, 그후 많은 학원들이 설립을 보여 1980년까지 40여개의 각종 학원이 서립되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향토사회 교육에 일익을 했으며, 5 공화국 출범 이후 791개의 사설학원이 설립되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부평지역에 사설 독서실이 처음 설립된 것은 1972년 12월 19일 진학독서실이 설립된 것이 그 효시이다. 그후 독서실은 1970년대에 2개 독서실이 설립되고, 5 공화국 출범 이후 24개의 독서실이 설립되어 학습의 장으로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4년 4월 1일 현재 부평지역에 설립된 사설학원은 총832(북구 591, 서구 241) 이다. 계열별로 분류해보면 문리계열 22(북구 15, 서구 7), 기술계열 104(북구 75, 서구 29), 예능계열 305(북구 219, 서구 86), 사무계열 365(북구 259, 서구 106), 종합계열 35(북구 24, 서구 11) 개 학원이 설립되어 있다. 독서실은 27(북구 23, 서구 4)이 설립되어 있으며 부평지역에 설립된 각종 학원과 독서실의 위치와 명칭은 〈표1〉과 같다.[39]

〈표 1〉 사설학원 및 독서실 현황

(1994년 4월 1일 현재)

○ 문리계열 (22)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경기 | 김인경 | 부평동 441-28,32 | 상록고시 | 김종욱 | 부평동 274-56 |
| 종로 | 윤태순 | 십정동 575-23 | 현대 | 안병국 | 부평동 147-13 |
| 서울외국어 | 신건철 | 부평동 549-43 | 대일외국어 | 최화수 | 십정동 396-6 |
| 한미외국어 | 전 황 | 부평동 185-58 | 대일고시 | 최화수 | 십정동 396-6 |
| 성지 | 김복석 | 부평동 129-2 | 영국외국어 | 김관철 | 작전동 857-35 |
| 상록수고시 | 서현석 | 부평동 431-34 | 부평대성 | 라은순 | 계산동 987-2 |
| 아엠아이 | 박명수 | 부평동 441-2 | 경서검정고시 | 이경민 | 산곡동 1-1 |
| 부평한샘 | 부대홍 | 산곡동 91-9, 97-8 | | | |

38) 사단법인 인천직할시 교원단체 연합회, 연혁 참조.
39) 경인일보사, 앞의 책, pp.855~864 참조.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연세외국어 | 권명택 | 가좌동 488-3 | 서부세종 | 정창식 | 석남동 533 |
| 엘리트 | 설병수 | 가좌동 326-5 | 청솔검정고시 | 박원기 | 석남동 479-3 |
| 대성 | 라은순 | 석남동 588-24 | 서인천외국어 | 이청구 | 석남동 455-6 |
| 상아탑 | 박인환 | 가좌동 129-34 | | | |

○ 기술계열 (104)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한진종합정비 | 정진욱 | 부평동 549-43 | 한일컴퓨터 | 신양호 | 작전동 30-3 |
| 부평미용 | 강창성 | 부평동 153-27,40 | 서울전산 | 변영섭 | 부개동 327-11 |
| 수도미용 | 윤상희 | 부평동 431-21 | 인천전산 | 정재권 | 십정동 481-9 |
| 현대미용 | 신현미 | 작전동 433-3 | 계산컴퓨터 | 이재평 | 계산동 49-2 |
| 한국피아노조율 | 김태정 | 부평동 534-29,30 | 이지컴퓨터 | 안정례 | 계산동 947-3 |
| 광진컴퓨터통신 | 오경록 | 부평동 534-26 | 금화컴퓨터 | 이종형 | 부평동 416-18,20 |
| 인천비디오기술 | 박성근 | 십정동 402-41 | 선화 〃 | 유병기 | 작전동 381-10 |
| 대한컴퓨터 | 권영길 | 부평동 546-69 | 일신 〃 | 이미영 | 일신동 109-4 |
| 경인 〃 | 신선균 | 부평동 431 | 부원 〃 | 황원형 | 갈산동 169-18 |
| 연수 〃 | 김창수 | 계산동 955-20 | 부평 〃 | 김계영 | 부평동 375-125,127 |
| 원 〃 | 고해용 | 부평동 134-15 | 슬기 〃 | 홍순태 | 부평동915-1 |
| 효성 〃 | 이영복 | 효성동 53-2 | 미래 〃 | 심현구 | 산곡동 180-390 |
| 현대 〃 | 이기홍 | 산곡동 307-13 | 천재 〃 | 오규석 | 효성동 320-3 |
| 정진 〃 | 조원옥 | 산곡동 310-101 | 동산 〃 | 김선호 | 부개동 87-2 |
| 성문 〃 | 이근홍 | 청천동 172-21 | 유일 〃 | 전유식 | 작전 418-1 |
| 삼성 〃 | 정혁근 | 십정동 317 | 선화 〃 | 유병기 | 작전동 321-12 |
| 진 〃 | 이민숙 | 계산동 987-25 | 동수원컴퓨터 | 신동수 | 서운동 26-7 |
| 화랑 〃 | 이종철 | 십정동 488-41 | 재능 〃 | 박응준 | 삼산동 237-6 |
| 세종 〃 | 김창현 | 계산동 940-1,2 | 홍익 〃 | 박홍준 | 십정동 488-41 |
| 남해 〃 | 곽근주 | 부평동 606-19 | 명문 〃 | 이혜숙 | 작전동 98-3 |
| 동암 〃 | 김진란 | 십정동 278-5,8 | 대교 〃 | 유은주 | 작전동 588-1 |
| 한미 〃 | 장현서 | 십정동 408-10 | 은하전산 | 강현정 | 십정동 282-11 |
| 영일 〃 | 김영일 | 청천동 15-30 | 부홍컴퓨터 | 황정기 | 부평동 377-15 |
| 서림 〃 | 유영동 | 부평동 147-4 | 은혜 〃 | 장현식 | 부평동 672-32 |
| 제일 〃 | 박용식 | 산곡동 91-9 | 고려 〃 | 이광철 | 작전동 134-3 |
| 정민 〃 | 천광현 | 계산동 990-28 | 해동 〃 | 전영독 | 계산동 978-34 |
| 북일 〃 | 한종미 | 부개동 105-2,3 | 우성 〃 | 손석준 | 산곡동 294,75 |
| 대진 〃 | 김순일 | 산곡동 7-65 | 성지 〃 | 성계정 | 십정동 169-42 |
| 인하 〃 | 이학주 | 계산동 925-10 | 예술공원디자인 | 한미경 | 십정동 186-326 |
| 하나 〃 | 윤혜숙 | 청천동 259-18 | 일등컴퓨터 | 이학성 | 산곡동 369-509 |
| 새빛 〃 | 황경철 | 부개동 245-13 | 정진전산 | 조성남 | 산곡동 310-110 |
| 아주 〃 | 김국환 | 병방동 381 | 은성항공기술 | 김삼문 | 부평동 168-5.9 |
| 반도 〃 | 이효재 | 삼산동 74-6 | 삼성도배 | 최길완 | 십정동 421-5 |
| 은석 〃 | 박진홍 | 부평동 756-72 | 대동전산 | 김영종 | 계산동 931-61 |
| 우림 〃 | 원경옥 | 십정동 577-6 | 태백컴퓨터 | 곽순식 | 십정동 408-31 |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부평홈패션 | 김명철 | 부평동 372-28 | 명성컴퓨터 | 김영도 | 가정동 543-7 |
| 상일미싱자수 | 김순덕 | 부평동 561-4 | 유창 〃 | 유병기 | 가좌동 586 |
| 인천비디오기술 | 윤일주 | 십정동 414-3 | 동보 〃 | 유세현 | 가좌동 215-3 |
| 엘비씨도배 | 이병찬 | 십정동 580-26 | 세일 〃 | 박용식 | 석남동 579-8 |
| 파리홈패션 | 서고명 | 부평동 606 | 가정 〃 | 조재옥 | 가정동 540-15 |
| 지성컴퓨터 | 조규정 | 가좌동 361-9 | 동경 〃 | 최용호 | 가좌동 192-86 |
| 신현 〃 | 최권남 | 가정동 505-5 | 국제 〃 | 이성호 | 신현동 83-19 |
| 영재 〃 | 김정희 | 가좌동 30-45 | 신명 〃 | 최장섭 | 가좌동 139-8 |
| 서인천 〃 | 나세균 | 신현동 259-12,13 | 가좌 〃 | 유한림 | 가좌동 144-12 |
| 태백 〃 | 송건호 | 석남동 523-6 | 서인 〃 | 이상일 | 석남동 472-4 |
| 예일 〃 | 김희준 | 가정동 565-1 | 신일컴퓨터 | 김도선 | 가좌동 30-69 |
| 석남 〃 | 양연순 | 석남동 576-1 | 화인 〃 | 윤원섭 | 석남동 467-2 |
| 지혜 〃 | 김성수 | 가좌동 81-25 | 노벨전산 | 김상기 | 석남동 511-2 |
| 천하 〃 | 곽영숙 | 석남동 500-10 | 형제컴퓨터 | 이인수 | 가정동 530 |
| 중앙 〃 | 한미숙 | 석남동 181-2,4,5 | 인천열관리기술 | 임연성 | 석남동 538-39 |
| 동양 〃 | 김상기 | 석남동 533-38 | 인천자동차정비 | 임연성 | 석남동 538-39 |
| 첨단 〃 | 김부녀 | 석남동 556-52,53 | 수도홈패션 | 박희빈 | 가정동 517-1 |

○ 예능계열 (305)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부평피아노 | 임연순 | 부평동608-8 | 성신피아노 | 이정열 | 부개동 90-14 |
| 고은 〃 | 최원진 | 산곡동 87-618,619 | 화음 〃 | 김순매 | 효성동 25-15,16 |
| 예랑 〃 | 이순자 | 부개동 16-21 | 즐거운피아노 | 한성길 | 갈산동 66-16 |
| 영광 〃 | 유정신 | 작전동 140-8 | 오선 〃 | 조윤자 | 청천동 181-32 |
| 기린 〃 | 전명숙 | 계산동 702 | 하나더 〃 | 소상준 | 갈산동 172 |
| 홍진 〃 | 서영문 | 작전동 864-12 | 연지 〃 | 유영심 | 부평동 70-5 |
| 나리 〃 | 이정희 | 계산동 135블록 17-1로트 | 숭실 〃 | 정정희 | 십정동 193-9 |
| 빈음악피아노 | 이창빈 | 부평동 431-24 | 유진 〃 | 유정숙 | 십정동 186-324,413 |
| 청강 〃 | 강영희 | 작전동 437-4 | 정음 〃 | 정순실 | 부평동 431-37 |
| 아리아피아노 | 이종여 | 산곡동 37-4 | 새별 〃 | 박부기 | 십정동 459-90 |
| 청하 〃 | 조수정 | 삼산동 192 | 문정 〃 | 김성매 | 부평동 10-457 |
| 대하 〃 | 문미자 | 부평동 400-24 | 삼산 〃 | 황선란 | 삼산동 77-1 |
| 은지 〃 | 박은희 | 계산동 49-2 | 영 〃 | 최영신 | 부개동 234-1 |
| 지혜피아노 | 김용배 | 부평동 202-8 | 라미 〃 | 최옥숙 | 십정동 351-2 |
| 예인피아노 | 김용숙 | 부평동 134-4 | 윤이 〃 | 이경옥 | 장기동 99 |
| 예슬 〃 | 김연식 | 부평동 705-3, 708-4 | 하은 〃 | 이해용 | 박촌동 52-14 |
| 은파 〃 | 김향득 | 효성동 248-1 | 한샘 〃 | 최현영 | 부평동 760-606 |
| 경원 〃 | 김명애 | 작전동 306-2 | 새롬 〃 | 김남호 | 부개동 141-4 |
| 이성숙 〃 | 이성숙 | 부개동 364-6 | 이상복 〃 | 이상복 | 부평동 904-19 |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예명음악 | 김재건 | 산곡동 185-7 | 큰꽃음악 | 최성순 | 작전동 842 |
| 한음음악 | 김재익 | 부평동 374-14,16 | 심포니음악 | 권오경 | 계산동 973-9 |
| 세종음악 | 심재연 | 작전동 860-23 | 혜린 〃 | 정경애 | 십정동 522-12 |
| 가나음악 | 강영모 | 계산동 968-37 | 샤론 〃 | 김숙경 | 부평동 441-36,37 |
| 예그린음악 | 김진호 | 부평동 543-28,29 | 서홍 〃 | 이용엽 | 동구 송림동 35-64 |
| 부영 〃 | 유병주 | 부평동 153-37 | 햇님미술 | 최수동 | 부평동 760-137,138 |
| 현대 〃 | 방선균 | 십정동 186-278 | 선아 〃 | 서진순 | 청천동 172-21 |
| 성일 〃 | 이근순 | 효성동 394-6 | 성진 〃 | 정석기 | 부개동 254-3 |
| 청음 〃 | 이태호 | 계산동 979-1 | 시온 〃 | 김욱진 | 삼산동 60-64 |
| 신대 〃 | 최장평 | 작전동 102-3 | 새롬미술 | 최성식 | 부평동 756-250 |
| 아뭉 〃 | 임순례 | 작전동 767-1 | 푸른솔미술 | 조금이 | 산곡동 180-379, 380 |
| 신홍 〃 | 원계자 | 갈산동 177-10 | 금보라 〃 | 이연호 | 부개동 872-2 |
| 꾸러기 〃 | 임경빈 | 작전동 588-1 | 영광 〃 | 황경아 | 작전동 140-8 |
| 천사 〃 | 김응칠 | 산곡동 185-7 | 늘봄 〃 | 송남희 | 효성동 242-1 |
| 유럽 〃 | 안경희 | 산곡동 247-2 | 코끼리 〃 | 김영희 | 부평동 481-4 |
| 새순 〃 | 권여옥 | 부평동 799-3 | 천사 〃 | 김응칠 | 산곡동 185-7 |
| 도란 〃 | 정재두 | 계산동 507 | 세일 〃 | 이재오 | 계산동 434-9,29 |
| 예랑 〃 | 김원석 | 삼산동 192 | 은초롱 〃 | 이원형 | 부평동 134-15 |
| 가람 〃 | 오제영 | 십정동 576-4 | 그림나라 〃 | 이금숙 | 산곡동 307-15 |
| 해바라기미술 | 맹익재 | 부평동 211-43,121 | 청천 〃 | 박영식 | 청천동 9-95 |
| 한아름 〃 | 정해영 | 청천동 9-21,10-1 | 현대 〃 | 이원교 | 산곡동 307-7,9 |
| 원일 〃 | 강선영 | 부개동 131-11 | 홍익 〃 | 최영애 | 산곡동 310-109 |
| 아름 〃 | 서경애 | 부평동 375-107 | 사랑 〃 | 황태자 | 계산동 987ㅁ24 |
| 분홍 〃 | 문미경 | 일신동 107 | 샘물 〃 | 박현숙 | 부평동 622-20 |
| 태양미술 | 이혜영 | 작전동 842-3 | 여원 〃 | 고만성 | 임학동 4-10 |
| 파랑새 〃 | 신현원 | 부평동 10-723 | 무궁화 〃 | 김태옥 | 부개동 477-2 |
| 세원 〃 | 진송자 | 계산동 348-2,11 | 크레용 〃 | 윤순자 | 임학동 47-6 |
| 예원 〃 | 강신주 | 계산동 625-1 | 새하얀 〃 | 김태영 | 효성동 82-4 |
| 노랑 〃 | 이태경 | 계산동 633 | 만능 〃 | 이종국 | 산곡동 362-17 |
| 서광 〃 | 김지하 | 부평동 204 | 슬기 〃 | 박성애 | 부평동 881 |
| 중앙 〃 | 우경신 | 계산동 102-12 | 상아 〃 | 이남수 | 산곡동 370-227 |
| 그린 〃 | 김석은 | 계산동 865-79 | 청운 〃 | 김태석 | 십정동 389 |
| 계양 〃 | 이인옥 | 계산동 931-49 | 동그라미 〃 | 장천애 | 십정동 570-21 |
| 동암 〃 | 김정이 | 십정동 398-1 | 정봉 〃 | 유제심 | 산곡동 7-73 |
| 율빈 〃 | 윤현호 | 십정동 296-62 | 우성 〃 | 임정희 | 산곡동 293,294 |
| 아라 〃 | 조성임 | 부평동 753 | 청아 〃 | 장신자 | 부평동 911-5 |
| 청색 〃 | 신경식 | 부평동 431-28 | 주홍 〃 | 방시애 | 부평동 124-34 |
| 다솔 〃 | 김미향 | 부개동120-288,291 | 나래 〃 | 안관태 | 작전동 854-4 |
| 단원 〃 | 정순근 | 효성동 261-12 | 은성 〃 | 한영자 | 청천동 48-270 |
| 다솜 〃 | 이상만 | 산곡동 87-428 | 샛별 〃 | 이강심 | 부평동 406-7 |
| 표현 〃 | 정숙명 | 계산동 903-13 | 그림동산 〃 | 장경심 | 십정동 580-25 |
| 참아름 〃 | 윤인숙 | 효성동 25-15 | 보라 〃 | 허명숙 | 십정동 169-23 |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3차원미술 | 송강석 | 부평동 534-11 | 동곡미술 | 김재화 | 부평동 529-23,24 |
| 전위 〃 | 이미화 | 십정동 186-301 | 다제 〃 | 김낙영 | 효성동 251-13 |
| 예림 〃 | 장인곤 | 십정동 322-22 | 한일 〃 | 신양호 | 작전동 856-77 |
| 다슬기 〃 | 신성현 | 부개동 140-28 | 청곡 〃 | 김옥섭 | 청천동 190-104 |
| 유경원 〃 | 유경원 | 부개동 69-3 | 남경 〃 | 심상근 | 효성동 25 |
| 예지 〃 | 이은숙 | 작전동 360-6 | 유재 〃 | 최규삼 | 부평동 10-151,152 |
| 한신 〃 | 이미자 | 산곡동 137-3 | 극동 〃 | 박금희 | 계산동 903-18 |
| 서울서예 〃 | 김국완 | 계산동 348-2 | 석연 〃 | 유종순 | 산곡동 180-382 |
| 추강 〃 | 김종태 | 병방동 418 | 대신 〃 | 이정자 | 십정동 289-6 |
| 선정 〃 | 유종순 | 계산동 954 | 정경바이올린 | 홍옥자 | 계산동 931-50 |
| 부평미용예술 | 김설자 | 부평동 381 | 새싹피아노 | 김선행 | 병방동 86-12 |
| 미라바이올린 | 윤리미 | 계산동 948-4 | 배꽃 〃 | 노은하 | 산곡동 311-126,118 |
| 한일서예 | 김명희 | 부평동 549-20 | 다래 〃 | 김용동 | 임학동 10-78 |
| 동양 〃 | 윤애자 | 부평동 192-14 | 경희 〃 | 추기호 | 임학동 73-15 |
| 백초 〃 | 박민수 | 산곡동 307-7,9 | 반달음악 | 박경자 | 계산동 990-28 |
| 운산 〃 | 이문훈 | 십정동 402-43 | 한울림피아노 | 권인경 | 계산동 899,899-1 |
| 동해 〃 | 이일용 | 산곡동 310-102 | 세영음악 | 배말남 | 산곡동 180-390 |
| 운장 〃 | 유상하 | 계산동 969-17 | 여맥피아노 | 최애희 | 산곡동 247-2 |
| 고은 〃 | 지성룡 | 부평동 431-25,27 | 부열피아노 | 김향숙 | 부평동 760-383 |
| 부평 〃 | 한인숙 | 부평동 201-127,128 | 십정리라피아노 | 박정숙 | 십정동 296-58 |
| 세나음악 | 최금자 | 부평동 10-782 | 예지음악 | 봉유리 | 부평동 10 |
| 내외 〃 | 조혜란 | 부평동 376-2 | 은혜 〃 | 손선숙 | 효성동 242 |
| 월광피아노 | 최원숙 | 부평동 175-4 | 찬양음악 | 양영석 | 갈산동 41-7 |
| 수정 〃 | 장옥경 | 십정동 20-7 | 숙진피아노 | 김진천 | 산곡동 293, 294 |
| 대동음악 | 은배영 | 효성동 242-7 | 명곡음악 | 윤영균 | 부평동 278-11 |
| 보아피아노 | 조인덕 | 계산동 956-4,5 | 성혜피아노 | 조명희 | 계산동 348-2,11 |
| 한양음악 | 이정애 | 계산동 337-12 | 작전바이올린 | 김성수 | 작전동 34-5,6,59 |
| 한나음악 | 송원섭 | 부평동 654-28,29 | 대신음악 | 맹광진 | 작전동 766-5 |
| 수연피아노 | 양숙희 | 십정동 568-5 | 중앙피아노 | 우승현 | 효성동 179-9 |
| 김인숙피아노 | 김인숙 | 산곡동 137-3 | 백합음악 | 손춘수 | 삼산동 54-2 |
| 샛별피아노 | 성경자 | 부평동 65-7 | 우성음악 | 김미경 | 산곡동 325-23 |
| 윤이 〃 | 심영복 | 장기동 99 | 경빈음악 | 허민옥 | 갈산동 111-11 |
| 민정 〃 | 임영애 | 산곡동 38-5,6 | 자애피아노 | 고주임 | 부평동 655-47 |
| 정일 〃 | 김윤호 | 십정동 400-19 | 산곡음악 | 이미희 | 산곡동 26-10 |
| 은희 〃 | 장용순 | 작전동 328-6 | 소라피아노 | 박경자 | 부개동 481-4 |
| 은별 〃 | 민영원 | 일신동 106-35 | 동암피아노 | 배영희 | 십정동 488-30 |
| 미도 〃 | 정순근 | 효성동 320-4 | 강현음악 | 강길례 | 십정동 515-11 |
| 예찬음악 | 김선영 | 일신동 108 | 부개피아노 | 권동희 | 부개동 265-36,37 |
| 선명피아노 | 김영신 | 효성동 553-4 | 가람피아노 | 조혜숙 | 부평동 201-108 |
| 민호 〃 | 엄혜정 | 부개동 16-21, 35 | 마미음악 | 이은진 | 청천동 259-18 |
| 경남피아노 | 김용숙 | 산곡동 142-3 | 무지개미술 | 박은주 | 계산동 731, 732 |
| 높은음악 | 강희석 | 계산동 979-13 | 호에피아노 | 최종순 | 십정동 186-396 |
| 진학미술 | 최은희 | 부평동 546-67 | 예원피아노 | 박명희 | 부평동 492-15 |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이화음악 | 김정옥 | 부개동 260-19 |
| 전원피아노 | 배애숙 | 부평동 542-28 |
| 미성음악 | 이희숙 | 부개동 191-14 |
| 원피아노 | 이선애 | 산곡동 307-15 |
| 애피아노 | 김영미 | 일신동 109-1 |
| 몬피아노 | 이승혜 | 부평동 642-6,642-4 |
| 진미술 | 이순희 | 산곡동 180-390 |
| 온음악 | 김영선 | 부개동 477-5 |
| 진음악 | 정용기 | 작전동 693-6 |
| 비음악 | 조은숙 | 십정동 577-8 |
| 양무용 | 김영미 | 부평동 542-28 |
| 무 | 한규숙 | 신현동 173-32 |
| 진피아노 | 박주옥 | 신현동 282-2 |
| 롱〃 | 신미숙 | 가정동 5-87 |
| 인천〃 | 한명숙 | 가좌동 260-3,19 |
| 솔〃 | 노혜경 | 석남동 536-44 |
| 남〃 | 도금자 | 가좌동 171 |
| 개〃 | 박영란 | 가좌동 346-8 |
| 지〃 | 박도삼 | 가좌동 347-15 |
| 음피아노 | 김현미 | 석남동 549-24 |
| 샘〃피아노 | 윤민자 | 가좌동 81-43 |
| 심〃 | 류병선 | 석남동 529-29 |
| 나〃 | 이미자 | 가좌동 351-8 |
| 영〃 | 임은화 | 가정동 산84-20 |
| 성피아노 | 이혜란 | 가좌동 25 |
| 은소리피아노 | 오혜숙 | 가좌동 3-1,4-5 |
| 주정피아노 | 문형순 | 가좌동 142-47 |
| 래들피아노 | 김수영 | 가정동 517 |
| 슬석피아노 | 정윤옥 | 석남동 500-1 |
| 희원피아노 | 노지철 | 가좌동 30-38 |
| 람〃피아노 | 김종란 | 가정동 488-15 |
| 울림〃피아노 | 홍혜숙 | 석남동 578-41 |
| 선진〃피아노 | 이재석 | 연희동 530-6 |
| 얀기〃피아노 | 김옥순 | 석남동 473-1 |
| 리〃피아노 | 임현경 | 석남동 555-18 |
| 산〃피아노 | 전선희 | 가좌동 30-2 |
| 리〃피아노 | 권임숙 | 가좌동 246-3 |
| 일선〃피아노 | 노인숙 | 가좌동 189-33 |
| 화이〃피아노 | 신이균 | 가좌동 328-4 |
| 이〃피아노 | 이순자 | 석남동 454-3,4 |
| 경송〃피아노 | 조희창 | 석남동 480-15 |
| 극동피아노 | 이양숙 | 가정동 504 |
| 주은〃 | 김정원 | 가좌동 30-22 |
| 소명〃 | 심주현 | 석남동 533-3 |
| 남향피아노 | 김경이 | 석남동 470-7 |
| 송희〃 | 권순선 | 가좌동 505-5 |
| 참빛〃 | 박영옥 | 가좌동 45-5 |
| 신명〃 | 신동영 | 석남동 496-18 |
| 세모네모〃 | 장신희 | 석남동 418 |
| 아람미술피아노 | 김연옥 | 신현동 144-1 |
| 유미〃 | 임미혜 | 석남동 541-21 |
| 현음음악 | 고영미 | 가정동 504 |
| 송이서예 | 이애란 | 신현동 279-13 |
| 화란서예 | 송향희 | 석남동 162-2 |
| 석남서예 | 허주숙 | 석남동 109-55 |
| 천사무용 | 허주숙 | 석남동 488 |
| 예림전자올겐 | 장숙자 | 신현동 173-32,77 |
| 성심음악 | 방순녀 | 가정동 284-108 |
| 정인음악 | 김소진 | 신현동 259-12,13 |
| 예린바이올린 | 정관우 | 석남동 37-4 |
| 청아음악 | 하영숙 | 가정동 541-12 |
| 지송피아노 | 유윤자 | 석남동 583-46 |
| 수련음악 | 최규천 | 석남동 578-5 |
| 나하나음악 | 신영자 | 가좌동 30-46 |
| 세계〃 | 황철환 | 가정동 516-8 |
| 석아〃 | 박미경 | 가좌동 38-102 |
| 정〃 | 이인숙 | 검암동 242-3 |
| 세기〃 | 이병님 | 가정동 482-8 |
| 지성〃 | 오순남 | 가좌동 360 |
| 한울음악 | 안정숙 | 가좌동 192-52,53 |
| 우주미술 | 진명숙 | 가좌동 147-10 |
| 개나리〃 | 박춘옥 | 석남동 44-6 |
| 주현〃 | 노성영 | 석남동 454 |
| 성심〃 | 이석아 | 가정동 472-10 |
| 미성〃 | 이가영 | 가좌동 45-1,5,6 |
| 진주미술 | 이강문 | 가좌동 243-10 |
| 큰별〃 | 이혜란 | 가정동 30-102 |
| 새싹음악 | 계미희 | 석남동 195-16 |
| 열매〃 | 김영길 | 가좌동 125-15 |
| 근영〃 | 정은섭 | 가정동 산84-20 |
| 백조〃 | 이화순 | 가정동 478-3 |
| 나라〃 | 최돈숙 | 가정동 504-7,11 |
| 영주〃 | 박현동 | 가정동 542-1 |
| 민들레미술 | 김성진 | 가좌동 30-2 |
| 은피아노미술 | 김선숙 | 가좌동 212-25 |
| 푸른〃 | 홍종자 | 가좌동 108-1,3 |
| 그림마을〃 | 김광숙 | 석남동 587-48 |
| 신명〃 | 윤근순 | 석남동 215-2,216-1 |
| 고은〃 | 조계희 | 가좌동 360-10 |
| | 유경희 | 가좌동 4-2 |
| | 안정순 | 가좌동 142-47 |
| | 유정현 | 가좌동 262-1 |
| | 김태원 | 가정동 564 |
| | 박정애 | 석남동 547-27 |
| | 이정숙 | 가좌동 38-102 |
| | 권영자 | 가좌동 139-34 |
| | 추성숙 | 가정동 341-13 |

□ 사무계열 (365)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한신주산 | 정진찬 | 청천동 259-18 | 삼산주산 | 이복순 | 삼산동 207-11,12 |
| 샛별 〃 | 김정옥 | 효성동 25-15,16 | 천재 〃 | 정종철 | 부개동 362-4 |
| 지혜 〃 | 최규백 | 작전동 767 | 엄지 〃 | 이기혁 | 산곡동 102-22 |
| 난비 〃 | 정용기 | 작전동 665-12 | 꿈나무 〃 | 이상권 | 계산동 54블록 3로트 |
| 오성 〃 | 이정화 | 계산동 960-42 | 다솜 〃 | 이경옥 | 계산동 979-5 |
| 나라 〃 | 강기호 | 산곡동 185-7 | 하정 〃 | 송기명 | 십정동 309-115 |
| 부일 〃 | 김인철 | 부평동 760-377 | 새샘 〃 | 이선자 | 산곡동 325-23 |
| 정성주산 | 김덕봉 | 계산동 985-11 | 대교 〃 | 박혜계 | 효성동 34-20 |
| 우등생 〃 | 임영순 | 효성동 160-1 | 명성주산 | 유병기 | 부평동 16-8 |
| 원진 〃 | 서춘석 | 부개동 254 | 성진 〃 | 한은숙 | 부개동 90-14 |
| 우승 〃 | 이명순 | 산곡동 90-15 | 대인 〃 | 임종익 | 부개동 87-7 |
| 부평 〃 | 이태경 | 계산동 630,634 | 동암 〃 | 배용순 | 십정동 510-5 |
| 일신 〃 | 이영희 | 일신동 105-10 | 작전 〃 | 지명교 | 작전동 52 |
| 천재 〃 | 최중환 | 부평동 620-12,13 | 수석 〃 | 이용호 | 산곡동 26-16 |
| 심성 〃 | 김덕봉 | 부평동 416-42 | 대한 〃 | 김동복 | 계산동 343,343-2 |
| 단비 〃 | 정용기 | 작전동 665-2 | 가나 〃 | 박범주 | 산곡동 366-20 |
| 청하 〃 | 심서택 | 작전동 201-1 | 소망 〃 | 한인향 | 부평동 650-4 |
| 원일주산 | 강선영 | 부개동 131-11 | 한별 〃 | 전덕순 | 부개동 23-8 |
| 계양 〃 | 오석봉 | 계산동 933-2 | 동원 〃 | 임권자 | 산곡동 82-123 |
| 명신 〃 | 이영호 | 부개동 301-13 | 만점 〃 | 박신덕 | 부개동 151-4 |
| 광명주산 | 이광수 | 부구 효성동 60-4 | 지명 〃 | 지명교 | 서운동 19-19 |
| 하나 〃 | 강사순 | 부평동 134-4 | 초록 〃 | 김정녀 | 장기동 115-25 |
| 한수주산 | 노재향 | 부평동 605-8 | 경연 〃 | 김경연 | 부평동 911 |
| 라미 〃 | 김상일 | 십정동 351-2 | 화진 〃 | 장덕님 | 작전동 134-3 |
| 유비 〃 | 김규윤 | 청천동 179 | 일이삼 〃 | 가영님 | 십정동 571-29 |
| 슬기 〃 | 권혜경 | 십정동 289-1 | 한울 〃 | 박진규 | 산곡동 137-3 |
| 신촌 〃 | 이순애 | 부평동 283-75 | 십정주산부기 | 백광기 | 십정동 210-17 |
| 호암 〃 | 남궁연순 | 작전동 857-5 | 동신주산부기 | 박원호 | 계산동 973-13 |
| 세희 〃 | 선우세창 | 십정동 348-62 | 기교 〃 | 곽창의 | 십정동 186-397 |
| 고려 〃 | 전정숙 | 청천동 108-8 | 명성 〃 | 유병기 | 부평동 16-8 |
| 태양 〃 | 이혜영 | 작전동 361 | 속성 〃 | 김용의 | 산곡동 180-95 |
| 계양 〃 | 이재창 | 임학동 67-2 | 계산주산부기 | 유옥경 | 계산동 660-12,13 |
| 성지 〃 | 문차종 | 임학동 46-55 | 경인주산부기 | 오규석 | 효성동 234-1 |
| 대성 〃 | 유승우 | 부평동 665-333 | 경일주산부기 | 윤경희 | 십정동 168-1 |
| 개나리 〃 | 백혜정 | 작전동 436 | 한일경리 | 민희순 | 십정동9블록 1로트 |
| 상아탑웅변 | 배광식 | 계산동 489-6 | 천지 〃 | 천식 | 십정동 420-3 |
| 대하 〃 | 문미자 | 부평동 400-24 | 하늬 〃 | 전영숙 | 계산동 979-2 |
| 중앙 〃 | 이혜진 | 갈산동 172-2 | 청탑 〃 | 김선태 | 부평동 621-36 |
| 경기 〃 | 이필숙 | 부평동 489-4 | 셈벗 〃 | 지독주 | 부개동 430-4 |
| 제일 〃 | 고정자 | 효성동 51-10 | 지혜 〃 | 이순화 | 작전동 555-1 |
| 큰빛 〃 | 송윤이 | 계산동 925-19 | 제일 〃 | 윤종경 | 효성동 51-10 |
| 정인 〃 | 윤종경 | 계산동 965-1 | 대성 〃 | 신현남 | 효성동 321-14 |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아랑솔웅변 | 김용남 | 임학동 305 | 문화주산 | 전미자 | 십정동 518-5 |
| 백운 〃 | 박경식 | 십정동 568-5 | 대명 〃 | 신근홍 | 부개동 265-17 |
| 동암 〃 | 정은령 | 십정동 488-1 | 유신 〃 | 원교식 | 부평동 442-13 |
| 단원 〃 | 정순근 | 효성동 261-12 | 영일 〃 | 김영일 | 청천동 53-6 |
| 세종 〃 | 박한서 | 십정동 450-32 | 주심 〃 | 박상철 | 일신동 106 |
| 뉴서울 〃 | 이종원 | 작전동 102-3 | 상록수 〃 | 김화숙 | 계산동 92블록 1로트 |
| 영재 〃 | 김선호 | 부평동 13-38,97 | 경률 〃 | 강규섭 | 작전동 827-1 |
| 동산 〃 | 김선호 | 부평동 115-23 | 나라 〃 | 강기호 | 산곡동 185-7 |
| 한일 〃 | 정미향 | 산곡동 180-385 | 정성 〃 | 이영자 | 부개동 12-181,295 |
| 대동 〃 | 박경수 | 부평동 38-133 | 창원 〃 | 김옥선 | 갈산동 29-47 |
| 대일 〃 | 김효성 | 산곡동 87-907 | 강일 〃 | 백신열 | 십정동 441-4 |
| 일류웅변 | 지송미 | 산곡동 369-40 | 백마 〃 | 고갑수 | 산곡동 77-7,20 |
| 백두 〃 | 오재동 | 십정동 305-40 | 척척 〃 | 서병조 | 산곡동 87-625 |
| 십정 〃 | 윤재주 | 십정동 387-8 | 한샘 〃 | 김기전 | 부평동 112-7 |
| 글샘 〃 | 전길영 | 작전동 30-1 | 가교 〃 | 곽창의 | 십정동 186-397 |
| 즐거운 〃 | 강해운 | 갈산동 28-19 | 한강 〃 | 김형덕 | 임학동 38-5 |
| 한샘 〃 | 김완기 | 작전동 856-124 | 이레 〃 | 이은순 | 부개동 196-9,12,13 |
| 수정 〃 | 허영숙 | 청천동 234-2 | 은현 〃 | 조순배 | 부개동 12-91 |
| 아론 〃 | 안영희 | 산곡동 101-17 | 자연주산 | 김선준 | 임학동 31-1,3 |
| 현대 〃 | 이경인 | 산곡동 310-113 | 금실웅변 | 심영숙 | 작전동 869-24 |
| 정성 〃 | 김한산 | 부평동 893-9 | 부평 〃 | 유인정 | 작전동 102-1 |
| 뿌리 〃 | 장병용 | 부평동 605-17 | 예솔웅변 | 박은영 | 임학동 31-1,3 |
| 유비 〃 | 감규윤 | 부구 청천동 179 | 지혜속셈 | 천광현 | 작전동 869-24 |
| 청운 〃 | 이예지 | 부평동 751-84 | 성락 〃 | 김명환 | 작전동 102-1 |
| 으뜸 〃 | 장문길 | 부평동 758 | 경남 〃 | 이옥희 | 산곡동 255-1 |
| 인천 〃 | 이태경 | 계산동 633 | 승리 〃 | 최춘옥 | 산곡동 120-23 |
| 부광 〃 | 김점순 | 부개동 16-89 | 반도 〃 | 김영준 | 산곡동 47-33 |
| 문화 〃 | 현순실 | 작전동 360-2 | 성균관 〃 | 윤영옥 | 부개동 177,191 |
| 천지 〃 | 천 식 | 십정동 420-3 | 삼성 〃 | 남진용 | 일신동 126-39 |
| 꽃동산 〃 | 박명숙 | 청천동 6-1 | 대현 〃 | 안승렬 | 작전동 437-14 |
| 꿈나무 〃 | 안향숙 | 삼산동 258-4 | 혜동 〃 | 허남수 | 계산동 979-1 |
| 극진 〃 | 이강환 | 작전동 864-27 | 삼일 〃 | 손춘수 | 삼산동 54-2 |
| 승리 〃 | 박승욱 | 십정동 324-12 | 명문 〃 | 박승욱 | 십정동 408-8 |
| 나리 〃 | 김란숙 | 계산동 947-3 | 혜성 〃 | 이강현 | 삼산동 237-6 |
| 무궁화 〃 | 서광수 | 부개동 131-15 | 안남 〃 | 양재득 | 계산동 484-6 |
| 혜성 〃 | 고윤자 | 부평동 284-49 | 영재 〃 | 이은자 | 산곡동 87-282,283 |
| 한양속셈 | 김대곤 | 작전동 310-6 | 성광 〃 | 박삼길 | 일신동 108 |
| 우등 〃 | 조신형 | 부평동 542-27 | 동수 〃 | 정순옥 | 부평동 642,642-4 |
| 수석 〃 | 박청산 | 십정동 300-31 | 원 〃 | 황원길 | 부평동 134-5 |
| 정진 〃 | 이용경 | 산곡동 310-101 | 현대 〃 | 엄기태 | 산곡동 310-105 |
| 효성 〃 | 임용범 | 효성동 238-1 | 극동 〃 | 김홍진 | 병방동 91-3 |
| 국보 〃 | 신상은 | 작전동 34-1 | 그린 〃 | 백경숙 | 부평동 655-46 |
| 대림 〃 | 이순호 | 부평동 64-20 | 인하속셈 | 김건영 | 계산동 931-70 |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애일속셈 | 권광로 | 부평동 282-1 | 한셈 〃 | 신윤섭 | 부개동 363-2 |
| 목화 〃 | 이명숙 | 십정동 182-166 | 꽃동산 〃 | 박명숙 | 청천동 6-1 |
| 부평 〃 | 박옥련 | 부개동 132-12 | 세은 〃 | 엄현옥 | 부평동 855-7 |
| 세종 〃 | 신동선 | 부개동 477-5 | 예술 〃 | 임석효 | 효성동 546-2 |
| 영림 〃 | 박승환 | 십정동 510-8 | 하나더 〃 | 소상준 | 갈산동 172 |
| 현 〃 | 권영희 | 부개동 444-1 | 우주 〃 | 박종길 | 부평동 161-2 |
| 왕성 〃 | 김윤호 | 효성동 53-2,51-6 | 만점 〃 | 김창배 | 청천동 13-19 |
| 모범 〃 | 한은섭 | 계산동 942-18 | 북인천 〃 | 정금성 | 효성동 산60-7 |
| 극진 〃 | 이강환 | 작전동 864-27 | 창비 〃 | 이판개 | 부평동 756-67,68 |
| 해오름 〃 | 김재성 | 효성동 384-1 | 상정 〃 | 나경숙 | 십정동 189-1 |
| 천재 〃 | 장영석 | 부평동 415-8 | 갈산 〃 | 신상은 | 갈산동 80-6,8 |
| 중앙명 〃 | 신태정 | 청천동 181-32 | 성우 〃 | 신동수 | 서운동 29-36 |
| 대보람 〃 | 신근홍 | 삼산동 74-9 | 대우 〃 | 김용수 | 십정동 590-38 |
| 동양산 〃 | 고명숙 | 부평동 799-5 | 부광 〃 | 김효중 | 작전동 28-10 |
| 계유비림 〃 | 이강현 | 계산동 348-2,11 | 동아 〃 | 배호임 | 산곡동 369-275,276 |
| 미수현 〃 | 김현숙 | 계산동 920-12 | 한나주산웅변 | 김성자 | 삼산동 74-6 |
| 똑똑래 〃 | 진선자 | 산곡동 7-7 | 대동 〃 | 진준심 | 부개동 482 |
| 미신광 〃 | 임혜숙 | 부평동 621-22,23 | 대광속셈 | 이해원 | 계산동 984-17 |
| 명문기 〃 | 이강수 | 효성동 614-4 | 유진 〃 | 유병기 | 계산동 987-25 |
| 슬홍서 〃 | 안용근 | 신정동 180-52 | 혜림주산속셈 | 한만을 | 산곡동 38-5,6 |
| 다진정 〃 | 이강환 | 계산동 931-77 | 광명 〃 | 김영민 | 임학동 65-1 |
| 신쌍동 〃 | 김향선 | 부평동 10-500 | 부개 〃 | 윤영옥 | 부개동 120-8 |
| 부부평 〃 | 박승욱 | 십정동 458-3,7,9 | 부흥 〃 | 고옥철 | 부평동 115-23 |
| 이이화 〃 | 권혜경 | 십정동 289-1 | 고운 〃 | 고주모 | 효성동 124-34 |
| 주현명 〃 | 이종영 | 십정동 292-26 | 성지 〃 | 송원란 | 부평동 124-34 |
| 산영광 〃 | 유영동 | 부평동 147-4 | 영지수웅변 | 심상님 | 효성동 331-1 |
| 세일 〃 | 이명우 | 산곡동 180-380,379 | 지성 〃 | 고재도 | 부평동 433-8 |
| 양지 〃 | 김미연 | 산곡동 234-27 | 글셈 〃 | 이옥희 | 산곡동 37-4 |
| 꿈동산주산웅변 | 신경철 | 청천동 58-13 | 서울속셈 | 장석일 | 부평동 270-47 |
| 국제주산부기타자 | 이동석 | 청천동 259 | 나라 〃 | 민영애 | 부평동 194-4 |
| 부평속독 | 박인수 | 부평동 115-23 | 단비 〃 | 정용기 | 작전동 659 |
| 경희 〃 | 안숙희 | 부개동 1320-12 | 대한 〃 | 김형용 | 십정동 316-56 |
| 성락 〃 | 이세환 | 박촌동 72-3 | 대일 〃 | 박영순 | 갈산동 115-3 |
| 기교타자 | 조미화 | 효성동 623-26 | 경동 〃 | 김낙영 | 임학동 43-22 |
| 상록수속독 | 윤경자 | 산곡동 274 | 우성 〃 | 이현숙 | 산곡동 293, 294 |
| | 윤승기 | 십정동 186-288 | 뉴타자 | 이학순 | 산곡동 179-60 |
| | 주현철 | 부평동 480-11 | 은성타자 | 양희준 | 청천동 168-2 |
| | 이홍재 | 산곡동 362-14 | 동양경리 | 최광천 | 부평동 150-6,7 |
| | 이갑수 | 작전동 140-8 | 푸른캐디 | 공경구 | 부평동 557-17 |
| | 한상인 | 계산동 969-19 | 고려속독 | 최광석 | 부평동 529-24, 28 |
| | 이옥분 | 계산동 899,899-1 | 호산속주 | 이창열 | 병방동 424 |
| | 이미순 | 병방동 424 | 한양 〃 | 최병택 | 석남동 455 |
| | 박경용 | 부평동 549-17 | 유미인 〃 | 최광진 | 가좌동 344,382 |
| | 손경호 | 부평동 464-7 | 거석남 〃 | 고정주 | 가좌동 139-16 |
| | 김연호 | 부평동 199 | 석인천 〃 | 이사문 | 석남동 548-10 |
| | 김명환 | 작전동 102-1 | 현대석 〃 | 송순자 | 가정동 504-7,11 |
| | 유완종 | 십정동 186-323 | 반 | 주명애 | 신현동 282-2 |
| | 김영관 | 계산동 933-4 | | 임도빈 | 석남동 569-12 |

| 학 원 명 | 원장명 | 소 재 지 | 학 원 명 | 원장명 | 소 재 지 |
|---|---|---|---|---|---|
| 승 리 〃 | 김종철 | 석남동 577 | 신 일 〃 | 윤종숙 | 가정동 산84-20 |
| 가 좌 〃 | 홍현표 | 가좌동 245-7 | 백 합 〃 | 이운일 | 가좌동 243-8 |
| 정 수 〃 | 최성원 | 가정동 479-2 | 영 무 〃 | 박영희 | 가좌동 143-81 |
| 미 성 〃 | 박현동 | 가정동 542-1 | 색 동 〃 | 박난희 | 가정동 284-214 |
| 글 샘 〃 | 윤태식 | 가정동 563-1 | 명 문 〃 | 이순녀 | 신현동 173-11 |
| 희 망 〃 | | 가좌동 361 | 신 석 〃 | 박형렬 | 석남동 190 |
| 우 리 〃 | 문연태 | 가좌동 143-46 | 웅 지 〃 | 이정자 | 석남동 473-1 |
| 초 롱 〃 | 이태순 | 가좌동 379-19 | 서 일 〃 | 이보영 | 신현동 279-4 |
| 원 무 〃 | 김원겸 | 석남동 449-28 | 유 진 〃 | 정영출 | 석남동 587-3 |
| 가 정 〃 | 김종만 | 가정동 489 | 동 보 〃 | 유정현 | 가좌동 262-2 |
| 홍 익 〃 | 양종남 | 석남동 578-17 | 지 애 속 셈 | 이재림 | 가정동 5-96 |
| 지 선 〃 | 노인숙 | 가좌동 189-33 | 성 동 속 셈 | 이정용 | 석남동 576 |
| 미 래 〃 | 오선용 | 석남동 530-9 | 으 뜸 속 셈 | 진덕만 | 가정동 517-8 |
| 신 현 〃 | 임한풍 | 석남동 449-40 | 한 독 속 셈 | 윤영숙 | 신현동 272 |
| 선 아 〃 | 박형익 | 가정동 576-15 | 천 사 속 셈 | 임영순 | 가좌동 30-77 |
| 서 인 〃 | 유점순 | 가좌동 246-3 | 홍 익 〃 | 정천수 | 석남동 579-13 |
| 선 분 주 산 | 박 춘 | 가좌동 30-38 | 신 현 〃 | 제경민 | 신현동 282-2 |
| 한 림 부 기 | 재성주 | 가좌동 139-31, 41 | 신 연 〃 | 임한풍 | 석남동 449-40 |
| 고 려 웅 변 | 서영식 | 신현동 173-32,77 | 한 빛 〃 | 김금례 | 가정동 512-26 |
| 유 미 〃 | 이금자 | 가좌동 379-10 | 무지개 〃 | 석종근 | 석남동 524 |
| 우 주 〃 | 장인심 | 석남동 472-4 | 율 도 〃 | 이홍기 | 신현동 140-53 |
| 우등생 〃 | 기진무 | 석남동 555-18 | 신 명 〃 | 고정주 | 가좌동 139-16 |
| 서인천 〃 | 송성련 | 가정동 5-87 | 서 진 〃 | 임숙인 | 가정동 565-13 |
| 석 남 〃 | 정해성 | 석남동 495-8 | 유 일 〃 | 이명희 | 가좌동 197 |
| 꿈 나 무 속 셈 | 이진송 | 가좌동 30-102 | 신 화 속 셈 | 천영호 | 가정동 515-22 |
| 강 변 〃 | 이진우 | 석남동 558-3 | 침 솔 〃 | 유달순 | 가좌동 81-25 |
| 청 운 〃 | 최은주 | 가정동 477-2 | 청 하 〃 | 윤용근 | 석남동 467 |
| 서인천 〃 | 김영창 | 신현동 173-11 | 샛 별 〃 | 이혜숙 | 가좌동 174 |
| 재 원 〃 | 이정옥 | 서남동 579-13 | 성 은 〃 | 이순원 | 가정동 565-8 |
| 경 서 〃 | 최분식 | 경서동 174-4 | 하 니 〃 | 장소영 | 석남동 488 |
| 동 서 〃 | 김영선 | 가좌동 360-11 | 햇 빛 〃 | 한순자 | 가좌동 206-56 |
| 대 성 〃 | 박명란 | 신현동 292 | 파랑새 〃 | 한대옥 | 가정동 535-39 |
| 종 로 〃 | 김두섭 | 가좌동 186-6 | 천 하 〃 | 김명미 | 석남동 588-25 |
| 무지개 〃 | 석종근 | 석남동 524 | 웅 진 〃 | 조효상 | 신현동 254 |
| 명 신 〃 | 이영희 | 가좌동 144-25 | 장 학 〃 | 홍종혁 | 가좌동 308,309 |
| 일이삼 〃 | 한은숙 | 가좌동 30-41 | 선 일 〃 | 황영주 | 가좌동 30-69 |
| 동 화 〃 | 지옥선 | 석남동 578-5 | 우 리 〃 | 전병숙 | 가좌동 260-10 |
| 일 등 〃 | 유수열 | 가좌동 243-12 | 일 등 속 독 | 유수열 | 가좌동 243-10,11 |
| 무지개 〃 | 박상우 | 석남동 524 | 참 교 육 속 독 | 김현철 | 석남동 168-126 |
| 명 신 〃 | 이명순 | 가좌동 144-25,27 | 샘 터 〃 | 곽원영 | 석남동 579-3 |
| 동 우 〃 | 이태순 | 가정동 5-83 | 세 기 〃 | 원유인 | 가좌동 480 |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시대속기 | 이희영 | 가정동 516-8 | 극동경리 | 이희영 | 가정동 516-8 |
| 영주주산웅변 | 안정순 | 가좌동 142-47 | 대승부기 | 안정순 | 가좌동 142-47 |
| 봉수속셈웅변 | 김원겸 | 가정동 산84-17 | 대승타자 | 김원겸 | 가정동 산84-17 |
| 연희 〃 | 이은님 | 연희동 530-6 | 색동속셈웅변 | 이은님 | 연희동 530-6 |
| 동일웅변속셈 | 서충성 | 신현동 293-3 | 지능속셈웅변 | 서충성 | 신현동 293-3 |
| 청솔주산속셈 | 홍기안 | 신현동 123 | 경이주산웅변 | 홍기안 | 신현동 123 |
| 인일주산속셈 | 윤희병 | 석남동 545 | 강변주산웅변 | 윤희병 | 석남동 545 |
| 청파주산속셈 | 이강수 | 가좌동 25 | 배광속독 | 이강수 | 가좌동 25 |

□ 독서실 (27)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진학독서실 | 김미자 | 부평동 220-19 | 작전독서실 | 박계순 | 작전동 822-1,2 |
| 대성 〃 | 이한석 | 병방동 119-1 | 삼익 〃 | 유남희 | 계산동 928-28 |
| 농수 〃 | 이철우 | 부평동 657-28 | 명문 〃 | 이홍수 | 산곡동 180-390 |
| 성균관 〃 | 임방식 | 부평동 672-20 | 부흥 〃 | 최현진 | 갈산동 169-3 |
| 진성 〃 | 김 식 | 작전동 857-28 | 삼진 〃 | 조경홍 | 계산동 672,673 |
| 삼산 〃 | 박윤철 | 삽산동 60-64 | 종효 〃 | 김숙희 | 부평동 406-6 |
| 부평 〃 | 이경원 | 부평동 529-14 | 청천 〃 | 이하영 | 청천동 178-32 |
| 세신독서실 | 조헌걸 | 부평동 543-3 | 부개 〃 | 이주하 | 부개동 269-6 |
| 동암독서실 | 오종환 | 십정동 405-1 | 제일 〃 | 김영배 | 효성동 192-1,2,3 |
| 동아독서 | 조진호 | 부평동 70-5 | 지점 〃 | 유장진 | 석남동 450-4 |
| 계양 〃 | 강원병 | 임학동 10-18 | 촌리 〃 | 전달수 | 석남동 549-30 |
| 현대 〃 | 이종관 | 십정동 175-11 | 독 〃 | 한상걸 | 신현동 282-2 |
| 인성 〃 | 김희섭 | 십정동 282-2 | | 김정배 | 석구 가좌동 72-18,19 |
| 광명 〃 | 전명수 | 작전동 134-4 | | | |

□ 종합계열 (35)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학원명 | 원장명 | 소재지 |
|---|---|---|---|---|---|
| 원형종합 | 조의행 | 산곡동 87-903 | 진영종합 | 김영봉 | 작전동 862-14 |
| 경기 〃 | 임영택 | 청천동 9-95 | 상목미술속셈 | 이우인 | 부평동 441-36,37 |
| 정석종합속셈 | 문정석 | 부개동 264-6 | 혜원미술속셈 | 정순근 | 효성동 533-1 |
| 양문속셈 | 서종대 | 십정동 577-8 | 새한종합 | 이홍순 | 갈산동 170-18 |
| 상아탑종합터 | 전범식 | 계산동 14-11,15-9 | 우수미술웅변 | 양진환 | 산곡동 38-19,20 |
| 시사컴퓨터 | 신동욱 | 부평동 549-42 | 미추홀미술 | 문관주 | 병방동 404 |
| 하영종합컴퓨터 | 김연동 | 효성동 242-11 | 신지종합 | 황원형 | 작전동 444-2 |
| 화랑 〃 | 이인경 | 작전동 859-7 | 대신종합 | 맹광진 | 작전동 766-4 |
| 상아 〃 | 강평순 | 계산동 963,963-5,6 | 광명컴퓨터 | 김영민 | 임학동 35-8 |
| 등용컴퓨터 | 김인숙 | 산곡동 411-3,4 | 가람 〃 | 권영숙 | 부개동 23-18 |
| 남부종합 | 신영자 | 부평동 760-85 | 세계 〃 | 김학신 | 부개동 191-19 |
| 해동속셈 | 전영독 | 계산동 979-1 | 한울림미술 | 한금자 | 박촌동 99-6 |
| 유일피아노 | 고동근 | 석남동 480-11 | 거성 〃 | 최병설 | 가정동 487,487-2 |
| 동명속셈미술 | 김금순 | 석남동 195-16 | 향상종합 | 정구창 | 신현동 293-39 |
| 신석미술속셈 | 김성중 | 신현동 293-2 | 한일 〃 | 한현숙 | 신현동 279-13 |
| 세광속셈 | 김영임 | 가정동 543-9 | 선진 〃 | 신이균 | 가좌동 328-4 |
| 신양 〃 | 신영식 | 석남동 519-4 | 두름 〃 | 이순자 | 가좌동 30-47 |
| 고려미술속셈 | 유애순 | 석남동 444 | | | |

# 第3章 예술(藝術)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사를 기술하자면 적어도 그 기원을 비류 백제 시대부터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이 땅에서 면면히 삶을 영위해 온 인천들이 남겨놓은 문화 예술적 발자취를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기술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각종 문헌이 발굴 보존된 것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나마 그에 대한 학자들의 고구(考究)도 일천하여 이를 통시적으로 개괄하기에는 시기 상조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해서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고려 때 계양도호부 부사(桂陽都護府 副使)로 부임해 와 『망해기』(望海記) 등 수편의 시문(詩文)을 남긴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를 인천, 특히 부평지역의 문화 예술로 편입시키기에는 그의 생애사와 부평지역과의 연계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고, 조선 말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시문 몇 편이 『인천읍지』 등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들은 양적으로나 조선 말기 국문학의 보편적 수준에 일견 미흡한 것들이어서 역시 언급할 대상이 못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정은 비단 문학 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문학, 음악, 미술, 사진, 공연 예술 및 영화, 문화 시설, 예술 단체 등을 기술함에 있어 그 기점을 일단 개항 이후로 잡는 소이를 긍정케 하고 있다.

더구나 타 분야와는 달리 부평지역의 문화예술사를 한 단위로 떼어내어 기술할 만큼 부평지역이 독자적인 문화 예술권을 형성하고 있었느냐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간혹 부평 지역 출신의 문화 예술인들이 활동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대개 '부평'이라는 문화권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문화 거대 권역인 '인천문화'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약했던 것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 예술에 관한 기술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인천 문화 예술사요, 협의로는 바로 부평 문화 예술사일 터이다.

## 1. 문 학

### 1) 인천 문학의 여명기

인천지역이 근대 문화의 유입 창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개항 이후부터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개항후 근대적 의미의 문화를 접하게 된 인천인들은 문화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겪는 동시에, 이를 부지불식 간에 수용해 전통적 문화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화형 창출을 모색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개항된 후 40여년이 지난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이렇다 할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 채 경인기차통학생친목회와 제물포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의미의 문학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등사판 형식의 간행물을 회지로 발행했는데 정노풍(鄭盧風), 고유섭(高裕燮), 이상태(李相泰), 진종혁(秦宗爀), 임영균(林榮均), 조진만(趙鎭滿), 고일(高逸) 등과 이길용(李吉用), 송건우(宋健雨), 장건식(張健植) 등이 각각 자신들의 회지에 시와 산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후에 우리나라 고고학의 선구자가 된 고유섭이 있는데, 그는 시와 수필을 써서 선을 보였고, 또 인천지역 최초의 문학동인지인 『습작시대』를 묶어 낸 진완혁, 동아일보 일장기 사건의 주역인 이길용, 인천 향토사의 진서(眞書)인 『인천석금』(仁川昔今)을 상재했던 고 일 등이 나름대로의 문학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경인기차통학생친목회의 회지나 제물포청년회의 '제물포'는 문자 그대로 청년학생들의 친목 단체 회지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본격적인 문학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들은 당시 엘리트로서 사회적 예우를 받은 청년, 학생들이었지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문인들의 집단은 아니었다. 그래도 인천지역에서 본격적인 문학지로서의 효시는 아무래도 진종혁이 주도해 엮어낸 『습작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1930년대에 인천을 주름잡았던 문학지로는 전기 『습작시대』와 신문 기자이자 문인으로 알려져 있던 김도인이 발행한 잡지 『월미』(月尾)를 꼽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인천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문인들이 탄생하게 된다. 우봉준은 『아이생활』이란 어린이 잡지를 통해 박목월, 박화목 등과 함께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고, 후에는 인천 문단사상 최초로 기록되는 어린이 잡지인 『동화세계』를 인천에서 펴내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 시기에 이들과 함께 문명을 날린 이는 현덕(玄德)이었다. 그는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작품 〈남생이〉로 당선되어 인천 문단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1940년에 이르러 두각을 나타낸 이로는 희곡 작가 함세덕(咸世德)을 들 수 있다. 사실주의에 바탕을 둔 그의 희곡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광복 직후 그는 좌우익의 갈등 속에서 급기야 월북하고 만다. 그는 최근 현덕, 김동석 등과 함께 해금되어 재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그의 문학적 행로는 인천지역 문단사적 측면에서 볼 때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단발마적인 광기에 휩싸인 일제의 만행에 짓눌려 제대로 작품을 발표하지 못했던 인천 지역의 문인들은 광복 이후에는 잔인한 이데올로기의 파고(波高)에 휩쓸려 북으로 떠밀려갔으며, 그들이 북에서 표류하면서 또 한번 절망을 맛보아야 했던 것은 민족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 2) 광복 이후의 인천 문학

광복 직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문인으로는 김차영(金次榮), 배인철(裵仁哲), 김동석(金東錫)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차영은 1945년 11월 문예지인 『문예탑(文藝塔)』을 간행했다. 이 동인지는 비록 등사판이기는 해도 서울에서 정한모, 김윤성 등이 1946년에야 『백맥(白脈)』을 발행한 것으로 미루어 광복후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동인지로 보인다.

이들 중 배인철은 인천이 배출한 특이한 시인으로, 그의 흑인시(黑人詩)는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 대학 영문과 출신으로 미군정 당시 인천지역 통역관을 지낸 그는 오장환, 서정주 등과 교류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1947년 5월 사고로 요절하고 말았다.

김동석은 경성제대 영문과를 졸업한 엘리트로 광복후 '상아탑'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며 문예지 『상아탑(象牙塔)』을 주도하였다. 그는 『상아탑』 창간호에서 임화(林和)를 비롯해 이태준, 유진오, 최재서, 정지용 등 당대 내노라하는 문인들을 신예다운 날카로운 논리로 비판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와 김동리 간의 논쟁은 특히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와 함께 주목받을만한 문학 동인은 『시와 산문』이다. 1946년 7월 창립을 본 이 동인회의 회원은 표양문(表良文), 최태호(崔台鎬), 한상억(韓相億), 김차영(金次榮) 등으로 제7집까지 동인지를 펴냈다. 이들은 6.25이후 각기 독자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조수일(趙守逸), 이인석(李仁石), 조병화(趙炳華) 등은 이들과는 별다른 관계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6.25 전쟁 직전 한 자리에 모여 인천예술인협회를 결성하였고, 이 협회는 곧 문총인천지부(文總仁川支部)로 재 발족하게 되었다. 이 협회에 참여한 문인으로는 표양문, 김차영, 조수일, 조병화, 이인석, 한상억 등이었으며, 후에 이들은 인천 문단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 3) 6.25 이후의 인천 문단

6.25전쟁이 터지고 3개월이 지나자, 인천의 도심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런 와중에 출범 한 달여 만에 뿔뿔이 헤어져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인천문총대(仁川文總隊)회원들은 이 비극적 참상을 대대손손 전해 주어야 하며, 문화 예술인들만이라도 한데 뭉쳐 이에 대응하자며 그 명칭을 인천문총구국대(仁川文總救國隊)라 칭하고 결속을 다짐하였다. 처음에는 표양문이 대장을 맡았고 부대장은 신태범, 우문국이 맡았다. 뒤에 이경성이 부대장을 승계했으며, 조병화, 이인석, 유희강, 조수일, 최성진, 이민, 최성연, 장인식, 김차영, 김웅태, 김영달, 김용배, 박윤섭, 최영섭, 백석두 등이 주요 참여 인사로 활약하였다.

이들은 멸공문화인궐기대회(滅共文化人蹶起大會), 가두 벽시전(壁詩展) 등을 통해 멸공의

결의를 다졌으나 어쩔 수 없이 재차 피란길에 올랐고 부산 등지에서 참혹한 고난 끝에 휴전을 맞아 다시금 속속 인천으로 모여 들었다. 그 무렵 인천의 문인들이 주로 회동하는 장소는 유토피아와 르네상스라는 다방이었으며, 이곳을 무대로 이들 문인들은 시화전, 문학 강연회, 시집 출판 등을 왕성히 펼쳐 나갔다.

1950년대 말경 최병구, 박송, 윤부현, 최창섭, 이종범 등은 『초원(草原)』 동인을 결성하였고 정벽봉, 이홍우, 김양수, 홍윤기, 랑승만, 이광훈, 박송 등은 당시 패기에 찬 젊은 문인으로 활동하였다. 이중 김양수가 1955년 『현대문학』을 통해 처음으로 정식 등단했고, 이듬 해에 정벽봉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인천 문단에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무렵 이정태, 랑승만, 손재준이 중심이 되어 동인지 『사파(砂坡)』를 출간시켰고 김영달, 홍명희의 2인 동인시집 『소택지대(沼澤地帶)』 그리고 당시 장년층이었던 조수일, 심창화, 김창황, 김창홉, 최정삼 등이 소설 동인지 『해협(海峽)』을 출간시켜 눈길을 모았다. 이 시기에 최성연은 동아일보 신인 응모에 시조가 당선돼 등단하였으며, 최경섭, 최승렬 등의 활약도 돋보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인천에는 문협경기도지부가 위치해 그 활동 범위가 경기도 일원에까지 뻗쳤다. 이 시기에 가장 특기할 일은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 걸쳐 학생백일장을 매년 개최한 일이다. 이 연합백일장은 김양수가 지부장을 맡으며 시작되었으며 조수일, 한상억, 최병구, 조한길, 손설향, 장현기, 이정태 등이 이 행사를 위해 크게 활동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천 경기지역의 각 고등학교서는 문학의 밤 행사가 한창 유행하였으며, 이런 문학적 분위기와 제도를 통해 훗날 등단한 문인으로는 비평가 김홍규, 조남현, 신상철, 최원식, 시인 조우성, 정승렬, 김윤식, 소설가 이원규 등이 있다. 이야말로 본격적인 인천문학의 저력을 발휘하여 집단적인 힘을 보여주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천 문학은 바야흐로 발흥기를 맞이하였다.

김구연은 문단에 등단하자마자 우리나라 아동문학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며 기세를 올렸고, 조우성은 박목월 시인이 창간한 시 전문지 『심상』으로 등단한 이후 독특한 경향의 단시(短詩)를 꾸준히 발표해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또 김홍규, 최원식, 조남현, 윤영천 등은 차례차례로 신춘문예에 문학 비평으로 당선해 인천 평론의 우위성을 과시했으며, 김상렬과 우선덕도 신춘문예에서 소설로, 이동렬은 아동문학으로 각각 당선해 인천문학의 저력을 한껏 빛냈다. 이들과 함께 정승렬이 『시문학』지로 등단했고, 70년대 후반기에 인천으로 이주해 온 윤조병이 인천 연극의 활성화에 불을 당겨 지방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신예들의 등장은 광복 직후부터 문제시 되었던 아마추어리즘을 완전히 탈피하게 하였고, 나아가 인천 문학이 당당히 한국 문학의 일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인천 문학의 특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문예지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협 경기도지부의 회지인 『경기문단』이 속간되기 시작했고, 『경기문예』와 『시문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72년부터 활동해 온 경기시문학동인회가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 『내항문학회(內港文學會)』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며 동인지를 꾸준히 발간해 왔다는 것이다. 『내항』은 인천지역 최 장수 문학 동인지로 자리를 굳혔으며 최근에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의 명물인 관광유람선 코스모스호 선상에서 시 낭송회를 개최해 큰호응을 얻었다.

1980년대로 넘어 오면서 이원규는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후 현대문학 창간기념 장편소설 공모에서 『훈장과 굴레』가 당선되어 작가나름의 역량을 보였고, 나혁채, 김윤식은 현대문학으로 시 추천을 완료받아 문단에 나왔다. 이밖에도 이은미, 최건, 장종권, 박일, 이영유, 정세훈, 이효윤, 채성병, 임노순 등이 시로, 장영기가 시조로, 정동수, 김인숙, 이항복, 서동익 등이 소설로, 한상렬이 수필로, 문광영이 평론으로 등단하여 인천 문단은 광복 이후 가장 번성한 문학 시대를 맞았다.

이 시기에 특기할 일은 인천문인협회가 계간지 『학산문학』을 간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새얼문화재단이 전국 최대의 학생 백일장인 '새얼 어머니 학생백일장'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자랑할만한 인천의 '백일장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백일장에서 입상한 학생과 주부들의 작품은 매년 새얼문화재단이 발행하는 단행본 『새얼문예』에 수록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 2. 음 악

### 1) 국악의 발흥

광복 이전 인천지역에서도 정악, 속악, 성악, 무악, 범패, 시조, 잡가, 민요 등이 불려졌으리라는 것은 익히 추정할 수 있는 일이나, 일부 노동요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천 특유의 악곡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천에서의 국악의 역사 역시 개항 이후로 그 기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1920년 인천지역에는 이우구락부(以友俱樂部)가 조직되었으나 이는 국악을 전공하던 이들의 전문가적 모임이라기보다는 국악애호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활발치 못했으며, 광복이 되자 무분별한 외래 음악에 밀려 국악은 더욱 더 그 설 땅을 잃어 날이 갈수록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인천의 국악이 그나마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광복 직후인 1947년 김영재, 김인수, 김영수, 김태영 등이 정악회(正樂會)를 결성하고, 그해 11월 사단법인 한국정악원으로 재출발한 것에서부터였다. 그러나 이도 6.25로 혼란을 겪었으며 1951년 수복후 이두칠, 김영권, 유석태, 김영주, 강홍익, 박민하, 이례흠, 김춘섭 등의 헌신은 인천 국악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

이들은 1953년 인천정악원을 창립했으나, 재정 관계로 불안정하였고, 1955년 그 명칭을 인천국악원으로 개칭하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인천국악원 건물 건립의 뜻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0년 한국국악협회가 결성되자 인천에서도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부를 발족시켰고, 초대 지부장에 김영권이 취임하였다. 1962년 제2대 지부장 한도련은 당시 시장인 유승원씨 등 각계 유지들의 협조로 그해 11월 인천시가 제공한 중구 율목동 소재 대지에 건물을 착공하였다. 이 건물은 1963년 완공돼 같은 해 3월 회관 명칭을 경아대(景訝臺)라 칭하고 시조부, 기악부, 민요부, 농악부, 무용부 등을 두어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인천상악시우회(仁川象樂時友會) 회원 전원이 가입해 그 바탕을 공고히 했다. 이후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 첫 예술제를 치루었는데, 이를 시점으로 매년 국악큰잔치를 인천시민회관 무대에 올려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서양 음악이 이 땅에 유입된 것은 기독교의 도래와 맥을 같이한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목사가 인천에 상륙한 이후 이들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워 찬송가를 가르쳤다. 그리고 학교도 세워서 창가를 교육시켰다. 『영화70년사』에 따르면 "음악을 그때는 창가라 했는데 주로 찬미가를 번역하여 가르쳤다. 그 때 송 수산나, 한 데이세 교사들이 풍금을 치면서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1902년 우리나라의 군악대를 가르치기 위하여 독일인 에케르트의 영향과 최초의 음악인 양성소라 할 수 있는 조선정악교습소의 서양음악 교습사상을 들 수 있으나, 인천에서의 이러한 서양 음악의 활동은 1920년대까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1923년 인천 거주 한국인으로써 처음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운 사람은 박흥성(朴興成)이었다. 그는 당시 신포동 소재 극장 '표관'에서 무성영화의 음악을 편곡, 연주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홍난파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운 박종성이 인천공회당과 내리교회 등에서 발표회를 가져 환호를 받았다고 한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는 최순룡이 작곡 발표회를 가졌고, 원종철이 1940년 인천공회당에서 독창회를 가졌으며, 더불어 피아니스트 최성진과 그의 아내인 소프라노 김정순, 피아니스트 장보원도 인천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광복 이후 인천 음악계는 타 장르와 마찬가지로 혼란 상태를 면치 못하였으나, 몇몇 뜻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1947년 12월 〈인천관현악단〉 창립기념 연주회를 가졌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들은 1948년 인천 극장 공연을 위시해 문화관, 애관극장 등을 순회하며 정기 공연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6.25로 인하여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1951년 수복 직후 인천 음악계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52년에는 약 40여명의 내리교회 성가대원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합창단이 창단되었다. 단장에 최성진, 지휘에 최영섭, 반주에 장보원으로 이들의 활동은 후에 인천 합창운동의 기틀이 되었다.

1953년 인천음악협회가 발족하여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회장 최성진, 부회장 장익상, 사무국장 박진태, 사무차장 김춘하, 심의위원에 김종하, 차병학, 최영섭, 양윤식 등이 포진하고 있던 인천음악협회는 1955년 7월 애관극장에서 피아니스트 시몬 번스틴을 위시한 미국의 저명 음악가들을 초청해 연주회를 가졌다. 그후 1958년에는 이인범 독창회를 열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1956년 결성한 인천음악애호가협회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다. 음악애호가를 자처한 이들은 31명의 단원으로 관현악부까지 조직해 1960년 초까지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에 특히 기억할 만한 연주회는 59년 4월 인천여상 강당에서 가진 프랑스의 바이얼리니스트 부리지드 드 보풍의 공연과, 같은 해 11월 인천여상 강당에서 가진 서울방송교향악단 연주회, 1960년 3월 역시 인천여상 강당에서 연 안익태 초청 한국환상곡 감상회를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인천시립교향악단의 결성을 손꼽을 수 있다. 1964년 홍훈표를 비롯한 젊은 음악인들이 인천 필하모닉 관현악단을 조직하여 이듬해 3.1절 기념음악회, 세종문화 큰잔치 음악회 등을 열었다. 이들은 1966년 5월 4일자로 조례 승인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위촉하였고, 같은 해 6월 1일 제2회 시민의 날을 기하여 정식으로 창단기념 공연을 펼쳤다. 이후 매년 정기 공연 등을 가져 오면서, 1980년 4월에는 단원이 76명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시립합창단 50명, 시립무용단 30명과 함께 명실상부한 시립예술단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인천문화원, 인천음악문화원, 새얼문화재단, 인천교양취주악단, 한국관악협회인천지부, 인천남성합창단, 대한어머니합창단, 호산나합창단, 로고스합창단, 노엘합창단, 인천 장로성가단, 인천오페라단, 내리교회 등은 70, 80년대를 통해 인천지역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단체들이다.

## 3. 미 술

인천 지역의 미술 활동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일천함을 숨길 수 없다. 그것은 인천의 지정적, 토착적, 문화적 여건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한국화가 이당 김은호가 1982년 인천 관교동에서 태어나 1979년 88세를 일기로 영면하기까지, 이른바 동양화 7명가로 활동하였다는 것은 인천

미술로서는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당이 인천 지역의 미술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여한 점이 무엇인지는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 오히려 사후에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세웠던 '이당기념관'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것은 인천광역시와 인천 미술인들은 물론 그 문하생들의 모임인 후소회 회원들이 일고해 볼 일로 남아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미술사가이자 미학자인 우현 고유섭이 또한 인천 출신이라는 것은 인천 미술의 영광이자 한국 고고학의 명예였다. 그를 기념해 1991년 새얼문화재단이 제1회 새얼문화상에 그를 추서한 것도 그러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현 역시 그의 학문을 인천 미술발전에 구체적으로 뒷받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인천 미술은 이렇듯 불출세의 두 거인을 배출했지만, 이들의 학문과 예술을 인천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못했다. 그것은 두 거인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인천이 개항지로서 출범한 항구 도시라는 특성에 기인하였다고 보인다. 그같은 상황은 1922년에 열린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이후 대거 인천의 월미도와 인천역 일대를 그린 풍경화가 입선되고 있으나, 그 작가들이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이 연거푸 입선되었고, 당시 일본인이 인천 인구의 절반에 달했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초기 인천 미술은 서양화를 전공하는 일본인 일색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런 중에 이당 김은호가 제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되어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위안이라 하겠다.

광복 전 인천 미술은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조선미술전람회〉(선전)와 동경 유학생의 활동이 축이 되었다. 조규봉, 김순배, 이남수, 최석재, 이경성 등과 선전에 출품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무영, 김영건, 박응창, 김진태 등은 인천 미술 초창기의 공헌자들이었다. 이들은 1940년대 초 '낙랑'다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광복 후 미술평론가인 이경성은 박물관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 나라 최초의 시립 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초대 관장으로 활약하였다. 인천 미술인들은 자연스럽게 인천시립박물관을 무대로 활동하였으며, 1947년에는 인천미술인협회를 창립하였다. 창립회원은 박응창, 김학수, 우문국, 김찬희, 유희강, 박세림, 장인식, 이경성, 이명구, 윤기영, 한봉덕 등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건영, 김순배, 최석재 등이 결성하였다는 인천미술동인회와 동일한 단체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6.25동란으로 미술 활동은 일시 정지되었으며 1951년 1월의 〈전쟁전람회〉, 1951년 11월의 〈전시미술전〉 등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1952년에는 문총 산하의 대한미술협회 인천지부가 조직되었고 일부 미술인들은 자유미술동인회를 조직하여 이들과 맞섰으나, 1954년 정부의 예술 단

체 일원화 방침에 따라 〈인천미술협회〉(1961년 한국미술협회인천지부로 개편)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의 〈인천 앙데팡당전〉, 〈재인 홍익대 미전〉은 화단 진작의 일익을 감당하였다.

1960년대 인천 화단에 등단하여 활동하기 시작한 미술인들은 이재호, 조평휘, 이규선(한국화), 김상유, 김종엽, 정상화, 황용엽, 조용익, 김대우, 이철명, 이언구, 김옥순(서양화), 김인환(미술평론) 등이었고, 홍용선, 선학균, 황만영(한국화), 고정수(조각), 강찬균, 이부웅(공예) 등이 신예 작가로 등장하였다. 특히 이경성의 제안으로 결성된 중견 미술인들의 모임인 오소회를 통해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활약해 온 박응창, 김영건, 이경성, 윤갑로, 우문국, 유희강, 정재홍, 장인식, 오석환, 황병식 등은 인천 미술 발전의 중핵적 구실을 해 온 인물들이다. 이밖에 장발, 임영방, 임명전 등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1970년대 인천 미술은 1974년의 〈우현 고유섭 선생 30주기 추모비건립〉과 1979년 〈이당기념관 개관 기념 이당 유작전〉 〈후소회전〉을 들 수 있으나, 그 밖의 특기할 만한 실적을 읽어낼 수가 없다. 다만 김상유가 제1회 동아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는 뉴스는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인천 화단에 앞날의 활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1980년 젊은 화가들에 의하여 창립된 〈현대미술상황 인천전〉은 1983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들은 다각적인 실험을 통하여 관람객을 끌어들이려 노력하였다. 강하진, 최병찬, 한기주, 조덕호, 박병춘, 장충익, 권경애, 이종구, 김주성, 김규창, 홍용택, 조성휘, 최효원 등이 주요 멤버였다. 1986년에 발족된 〈인천청년작가회전〉과 1985년 창립한 〈지평전〉, 1986년의 미술패 〈갯꽃전〉, 1987년의 〈오늘의 인천미술 그 형상전〉, 1989년의 〈민중미술전〉 등도 인천 미술 공간에 시대성과 지역성을 가미시키는 작업을 활발히 펼쳤으며, 1992년에 열린 〈현대 회화의 단면전〉은 광복 이후 인천 미술의 한 단면을 작품을 통해 검증하는 자리로 김옥순, 홍윤표, 정진영, 이종구, 조성휘, 안성용, 한윤기, 강하진, 조덕호, 정수모, 홍용택, 이성미, 김진안, 박동진 등이 주목을 받았다.

## 4. 공연 예술과 영화

### 1) 연 극

인천 연극의 효시는 1919년 11월 임성구의 혁신단일행이 협률사에서 신파극 〈육혈포 강도〉를 공연한 것이다. 1894년 인천의 부호(富豪) 정치국이 인천 용동에 지은 창고를 연극장으로 전용한 협률사는 처음에는 사당패와 남사당패의 풍물놀이, 묘기, 인형극, 창 등을 공연하다가 신연극을 공연하였는데, 일시 축항사(築港舍)로 불리다가 1915년 애관(愛館)으로 개칭되었다. 이 때의 배우로는 한창렬, 황치삼, 임운서, 김소랑, 김도산 등이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료가 발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아쉽다.

이를 기점으로 1897년에는 송학동에 인천좌가, 1905년에는 사동에 가무기좌가, 1909년에는 신생동에 표관이 생겼는데, 이들은 주로 일본에서 건너온 사극, 신파극, 가극, 영화 등을 흥행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이따금 한국의 구국이나 신파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1925년 박승희가 대표로 있는 토월회가 인천 출신의 원우전, 서일성을 비롯해 복혜숙, 이백수, 이소연 등을 무대에 올려 〈카츄사〉, 〈오로라〉를 공연, 인천 연극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자극받은 인천의 연극인들은 〈칠면구락부〉를 창단, 극작가 진우촌, 함세덕, 연기자 정암, 무대 장치가 원우전을 비롯해 임창복, 임영균, 고일, 송수안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1926년 창단과 함께 〈춘향전〉, 〈칼멘〉, 〈사랑과 죽엄〉, 〈눈무의 빛〉 등을 애관과 가무기좌에서 공연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 이르러 더욱 악랄해진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인천의 연극은 소위 국민극 위주로 공연돼 순수성과 활력을 잃다가 광복을 맞았다.

광복과 함께 인천에서 맨처음 창단된 극단은 고향이었다. 진우촌, 백호, 한광수, 이동민이 주축이 된 고향은 1945년 10월 〈피를 파는 사람들〉, 〈명상〉등을 애관에서 공연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6.25동란까지의 인천 연극은 향토 연극인의 공연보다는 서울 연극인들의 인천 공연이 주를 이루웠다.

6.25이후 1960년대까지는 1955년경부터 비약적 발전을 본 한국 영화와, 1957년부터의 방송극 전성기를 맞아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 때 인천의 김동규, 이준경, 김진엽, 임영업, 최경섭 등은 인천연극협회를 주도하면서 〈연못이 삼킨 비밀〉(김진엽작), 〈불전야화〉 등을 공연함으로써 인천 연극을 일궈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극단체인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부가 정식으로 결성된 것은 1966년이었다. 당시 인천의 극단으로는 연인회, 청산회, 극우회 등이 활약하였고 1974년에는 극단 까뽀가 창단 공연을 가졌으나 이들은 대부분 단명했다. 이 가운데 극단 극우회는 가장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 〈개펄〉, 〈도시의 나팔 소리〉, 〈갈가마귀〉 등 30여회의 공연을 가졌다. 특히 윤조병 작 〈도시의 나팔 소리〉는 인천 연극사상 최초로 1983년에 열린 제1회 전국 연극제에 인천 대표작으로 참가해 단체우수상, 개인 희곡상 등을 획득했으며, 유조병 연출의 〈휘파람새〉는 제2회 전국 연극제에 나가 대통령상인 최우수상, 희곡상, 여자연기상 등을 수상하며 인천 연극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함께 극단 엘칸토, 미추홀, 돌체의 활동은 80년대 인천 연극의 축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극단 경동예술, 예전, 중앙, 예술무대, 우리, 인천교사극회 등도 인천 연극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 7월 1일 마침내 창단을 본 인천시립극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투하였던 인천 연극인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쾌사였다. 인천시립극단은 창단 공연으로 윤조병 극본, 연출의 〈춘향전〉을 공연한 이래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운영상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풀어야 할 여러 숙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 2) 무 용

인천에서의 현대적 무용은 학교 무용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고종 29년(1892년) 경부터 영화여자보통학교, 박문보통학교, 창영학교, 영화유치원 등에서 가르쳤던 율동과 유희와 1900년대 유행하던 사교 춤 무도는 간간히 인천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1945년에는 인천신문 배달조합이 주최하는 인천무용무도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1935년에는 조택원 등이 애관극장에서 〈화려한 원무곡〉등을 공연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본격적인 인천 무용인들에 의한 공연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정은 광복 이후까지 지속되 서울 지역 무용인들의 인천 공연이 부쩍 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주목할 일은 인천여중, 인천신흥국민학교가 우리나라 최초로 무용교육과 체육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무용 교사를 채용해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조선무용을 한국무용이라 개칭하였고, 1950년 6.25사변으로 공전하다가 1953년 9월 강선영, 조 광 등이 애관에서, 1956년 5월에는 김백봉, 이매방 등 6명이 무용극 〈우리 마을 이야기〉를 인천여중 강당에서, 1958년 9월에는 박금술 무용발표회가 신흥국교 강당에서, 1959년에는 조택원, 최려성 등이 자유중국 무용가 이숙분과 함께 인천여상 강당에서 각각 공연을 펼쳤다.

이 시기에 민천식과 양소운은 인천에 정착하여 민속 계열의 무용과 탈춤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불모지 인천 무용계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1962년 당시 인천신문사는 인천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생 대상 무용대회를 개최해 무용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나 이마저 언론 3사 통합에 따라 제10회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한국무용협회 경기도지부가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1968년 7월의 일이다. 이 협회는 무용경연대회를 개최해 신인을 발굴하였으며, 각종 대회나 문화 행사 등에 참여해 향토 무용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인천지역 무용계는 광복 이후 인천시립무용단 창단 전까지는 학교 무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천전문대학의 무용과가 1972년에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이곳을 졸업한 무용계 자원을 흡수할 무대가 당시로서는 없었으며 무용학원 중심의 무용이 학생 무용이라는 틀을 벗어나기도 힘들었던 것이다.

1981년 4월, 단원 30여명으로 출범한 인천시립무용단의 활동은 인천의 무용계가 비로소 전문 무용인의 장을 열었다는 큰 뜻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은 창단 공연 〈굴레야 굴레야〉를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 후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외면당해 오다가 최근에 신임 이청자 안무자의 리더로 의욕을 다지며 활약해 광복 이후 처음으로 무용계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1982년에 재편된 무협인천직할시지부는 매년 제물포예술제와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해 인천 무용인의 저변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3) 영 화

우리 나라에 활동사진이 처음 들어 온 것은 1903년 경이다. 그것은 일본의 요시자와상회(吉澤商會) 영사반이 가지고 들어온 필름에 의해서였다. 활동사진은 그 후 한국인들에게 진기한 구경거리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아직은 남의 나라의 동화같은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국인이 처음으로 활동사진을 만든 것은 1919년 김도산이 만든 연쇠극 〈義理的仇鬪〉속에 영사된 1천 피트의 필름 제작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활동사진이 근대적 의미의 영화매체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926년 춘사 나운규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아리랑〉부터라고 보아야겠다. 이후 우리나라의 영화는 민족 정신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매체로서 인기를 끌었으나 그럴수록 일제의 탄압이 가해져 한국 영화는 대중 오락 매체로서 자리잡기가 어려웠다.

영화가 대중 오락 매체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55년 이후의 일이다. 이 때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은 사상 유래가 없는 흥행 실적을 올렸으며, 1965년까지 세상에 선보인 영화는 무려 2백여 편을 넘었다. 그런데 한국 영화사상 획기적인 일은 이 시기에 인천지역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최철(崔鐵)이 대표로 있던 건설영화사는 1946년에서 1948년 사이에 문화 영화 〈무영(無影)의 악마〉와 〈조국을 위하여〉를 제작하였고, 이승하가 대표로 있는 합동영화사는 1957년에 〈복지강화(福祉江華)〉를 펴냈다.

극영화로는 건설영화사의 〈추우〉와 〈여명〉, 청구사진문화사의 〈심판자〉, 성보영화사의 〈사랑의 교실〉, 합동영화사의 〈망향〉, 〈돌아오는 사람〉, 〈사랑〉등이 있다. 이들 인천의 영화 개척기의 산 증인들의 면모는 1949년 8월 5일자 〈인천신문〉에 인천예술인협회 발기회 취의서(趣意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협회의 영화 및 연극부에 김성민, 김의민, 박병훈, 백호, 원용일, 주일, 주성택, 최도원, 최일리 등은 같은 해 영화분과위원장에 신영순(申永淳), 연출분과위원장에 김성민(金聖民)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 후 최성연(崔聖淵), 김철세(金哲世), 원용일(元容一) 등이 영화분과위원장을 맡아보고 있었으나, 현대 영화 산업의 특성상 그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광복 직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했던 인천의 영화 산업은 머지 않아 부활되리라 보인다. 최첨단 산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영화이기는 하지만, 영화가 반드시 대규모의 자본만을 요구하는 매머드 산업만도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 영화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 第4章 언론(言論), 출판(出版)

## 1. 언론(言論)의 변천

### 1) 민족 언론의 탄생

부평지역이 인천과 통합된 것은 일제치하인 1940년 4월 1일 당시 부천군 부내(府內)면이 인천부(仁川府)로 편입되면서부터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천지역과 별도의 고장으로 독자적 문화를 형성해 온 부평지역은 이로써 인천과 떨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발전의 길을 공동모색하게 된다.

인천지역에는 제물포 개항 7년후에 해당하는 1890년 1월 28일 일본인에 의해 최초의 신문인 「인천경성경주상보(仁川京城隔週商報)」가 발행된 이래 「조선순보(朝鮮旬報)」, 「(조선신보)朝鮮新報」, 「(신조선)新朝鮮」, 「(조선신문)朝鮮新聞」, 「(조선매일신문)朝鮮每日新聞」 등 일본인이 주축이 돼 발행된 일문(日文)신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역시 일본인에 의해 발행된 국한문혼용신문으로서는 처음인 「對韓日報」등이 잇따라 발행되었으나, 사실상 부평지역과는 직접적으로 이렇다할 관련이 없는 신문들이었다. 따라서 부평언론사에 첫 획을 긋는 사건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0월 「대중일보(大衆日報)」의 창간을 꼽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15해방을 맞아 전국토가 민족 재건의 뜨거운 열기에 휩싸이면서 부평을 포함한 인천지역에서도 민족정기의 앙양을 위한 제반 노력이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로서 인천지역 최초의 지방지가 탄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대중일보(大衆日報)」였다.

해방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와중에 최상철(崔相澈)이 발행인이 되어 仁川府 宮町2街(현 中央洞)에 「대중일보사」를 창립하고, 마침내 1945년 10월 8일 「대중일보(大衆日報)」 제1호를 발행했던 것이다. 이 신문은 타블로이드판에 1면만을 인쇄하였는데, 당시 신문의 가격은 20전이었다. 이 신문은 당초에 「한민일보」라는 제호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창간 막바지 단계에서 「대중일보」로 결정됐다. 「대중일보」의 창간 취지는 혼돈 속에 빠져있는 민중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엄정 공평한 보도를 통해 건국대업에 기여하고자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대중일보」는 좌우익의 사상적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만큼 때로는 좌익에 경도되는 현상도 보였다.

이 신문의 지면 구성을 보면 1면에 정치 및 사회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사설란을 두었으며, 하단에는 이른바 가십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解放)〉과 〈개진터〉란을 마련했다. 2면 발행은 창간 한달 뒤인 11월 9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날부터 가정 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11월 6일에는 최초의 스포츠란을 마련하고 미군환영 야구대회 소식을 실었다.

같은 달 11일부터 최초의 연재소설인 〈야담 상불당(野談 三不堂)〉(金道仁 작)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사들은 주로 잔존 일제 세력의 발본색원과 해방 정국의 이모 저모, 군정청 발표내용, 미곡(米穀)관련기사들을 다루었으며 전체적으로 의기가 넘쳐 흘렀다.

특히 창간되던 해인 10월 19일자 사설 〈민족반역자를 소탕하라〉는 "민족반역자들을 지금 철저히 소탕치 않으면 우리 민족은 천추만대에 갚게할 바를 잊어버리고 언제나 사대주의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대중일보」는 5년여 가까이 지역사회를 선도하면서 맹활약을 했으나, 1950년 6.25사변 발발로 부득이 휴간치 않을 수 없었다. 휴간 당시 지령은 제1488호였다.

이 신문의 주요 경영진은 사장 고주철(高珠澈), 전무 송수안(宋壽安), 상무 최상철(崔相澈) 등이었으며, 인쇄는 이종란(李鍾瀾)이 경영하는 선영사인쇄소에서 맡았다. 1946년 3월 1일 김홍식(金弘植)을 사장으로 하고 엄홍섭(嚴興燮)을 편집국장으로 하는 「인천신문(仁川新聞)」이 창간됨으로써 비로소 인천언론의 경쟁시대가 열리게 된다.

비교적 좌익적 입장을 반영한 「인천신문」은 앞서 발행된 「대중일보」와 미묘한 사상적 차이를 보이며 논진(論陳)간의 대결을 펼치곤 했다. 「대중일보」도 한때 우익진영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했으나 우익성향의 논조가 그래도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인천신문」은 일시적이나마 좌익에 서서 그들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하는 매체 역할을 했다.

「인천신문」의 창립자인 김홍식(金弘植)은 창간 7개월만인 1946년 10월에 스스로 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경영권이 김태영(金泰永), 이근세(李根世)로 이어지던 중 6.25사변이 발발로 신문발행이 완전중단됐다.

「대중일보」와 「인천신문」이 양립했던 4년여간은 인천에서 최초로 민간 지방지들이 보도와 논조에서 각기 특색을 띠며 경쟁을 벌인 시기로 어느 한편의 주의주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예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일제치하인 19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과 함께 인천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중앙지들의 지국 및 지사들이 다시 인천지역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또 통신사 지사도 이에 뒤질세라 인천에 포진하고 활발한 보도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해방과 함께 인천에 지사 및 지국을 설치한 중앙지와 책임자는 동아일보(郭尙勳), 조선일보(金鍾淳), 서울신문(朴容聞), 경기신문(朴鍾聲), 한성일보(崔祥麟), 민주일보(孟憲), 독립신문(林善澤), 大東신문(崔鐵), 예술신문(崔鐵), 자유신문(金權日), 공업신문(方道範), 中外신문(金東浩) 등이었다.

해방을 계기로 인천에 차츰 모습을 드러낸 통신사 지사는 「해방통신」, 「합동통신」, 「조선통신」 등 3개 통신사였다.

이순근(李順根)이 운영하던 「합동통신」 인천지사는 자사가 독점해있던 경인 직통 전화를 통해 인천발 기사를 즉시 서울본사로 보낼 수 있었다. 「조선통신」은 곧 「고려통신」으로 社名이 바뀌었다가 다시 「한국통신」이 되었는데, 각 일간신문들이 일요일에 휴간하는 것을 이용해 월요일마다 「월요조통(朝通)」이라는 타블로이드판 주간신문을 발행했고 「합동통신」 측에서도 서너차례 발행했으나, 당국의 금지처분을 받고 폐지했다.

이들 3개 통신외에도 「공립(共立)통신」「전보(電報)통신」 등이 곧 활동을 개시 했다.

한편 이 시기에 민간지가 아닌 신문으로서 인천시기관지 「주간인천(週刊仁川)」이 발행됐다. 최상철(崔相澈)이 위탁경영을 맡고 서봉도(徐鳳道), 한상억(韓相億) 편집으로 6.25사변 발발 때까지 발행된 「주간인천」은 특히 문예면에 在仁 필진을 대거 등장시켜 눈길을 끌었다.

### 2) 전시(戰時)공간과 인천 언론

해방이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신문이 발행된 지역인 인천의 언론전통은 6.25전시하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6.25발발로 인천을 떠나야만 했던 「대중일보」 관계자들은 1950년 9.15수복으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자마자 제호를 「인천신보(仁川新報)」로 바꾸었다.

전시하의 도내 유일한 지방지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여야만했던 「인천신보」는 그러나 주민의 대변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판형은 종전 「대중일보」의 타블로이드판에서 오늘날의 신문형태와 같은 표준신문판형으로 바뀌었고, 발행 면수는 2면이었다.

1면에는 정치기사, 외신등과 함께 사설이 실렸고 시내 소매물가 시세표도 함께 게재됐다. 2면에는 도정(道政) 및 시정 관련기사와 함께 시의회 소식 등이 게재됐으며, 「거리의 화제」라는 가십란이 등장했다. 2면은 특히 딱딱한 기사만을 다루는 1면과 차별을 두어 詩와 隨想등 가벼운 읽을거리를 자주 실었다.

1953년 4월 17일부터 개제(改題)후 첫 연재물인 〈戰鹿〉(趙守逸 作 단편소설)이 수차례에 걸쳐 나뉘어 게재됐으며 시사만화 〈노다지영감〉(金仁煥)과 〈먹어지기〉(金根培)도 1955년 10월부터 등장했다.

휴전때까지는 전황을 알리는데 주력했으며 휴전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전후의 혼탁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앞장섰다.

6.25사변이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인 1951년 봄 인천이 1.4후퇴후 재수복되자 전시판 「대한신문(大韓新聞)」이 인천에서 발행됐다. 이 신문의 편집 책임자는 여러 중앙지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온 언론인 이정훈(李正勳)이었다. 당시 이 신문의 본사(本社)는 전란을 피해 부산에 있었으며 발행인 김광섭(金珖燮)에 의해 부산에서도 발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본사의 서울 복귀를 위한 선발대격으로 인천에 체류하면서 전시판을 발행한 것이었다. 이때는 시민 모두가 전황(戰況)에 애태우던 때라 신문에 대한 호응이 대단히 높았다. 기자로서는 오광수(吳廣樹), 이필면(李弼冕), 이화수(李和秀), 박치원(朴致遠), 김양수(金良洙) 등이 있었다.

「대한신문」은 약 1년 반동안 인천에서 발행되다가 본사가 서울로 복귀함에 따라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신문」 전시판(戰時版)보다 다소 늦기는 했으나 1952년 8월 1일 제2의 지방지인 「인천일보(仁川日報)」가 창간돼 인천에서는 2개의 지방신문이 비록 전시(戰時)이기는 하나 왕성한 취재활동을 벌였다. 「인천일보」의 판형은 당초 타블로이드판이었으나, 1953년 8월 창간1주년을 기해 표준신문 판형으로 바뀌었으며 자영 인쇄시설도 갖추게 되었다.

순조롭게 발행되던 「인천일보」는 그러나 3년뒤인 1956년 6월 발행인 金炳胤이 부산에서 올라오면서부터 일대 파란에 휩쓸리게 된다. 즉 김병윤(金炳胤)이 인천에 복귀하면서 그때까지 사실상 신문사의 운영권을 맡고 있던 맹헌(孟憲)으로부터 판권을 인수하려 했으나, 맹헌(孟憲)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판권을 놓고 소송사태에 이르렀고, 1주일여동안 양측에서 같은 신문제호로 다른 내용의 신문을 발행하는 우리나라 언론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승소한 김병윤(金炳胤)은 새로 사옥을 마련하고 인쇄시설을 갖춘 뒤 1955년 2월 10일 자(字)부터 아예 제호를 「京仁日報」로 바꿔 신문을 발행하게 된다. 이때의 진용은 사장 김병윤(金炳胤), 주간 김길봉(金吉鳳), 편집국장 김윤환(金潤煥), 총무국장 이옥산(李玉山) 등으로 짜여졌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발행되어온 「경인일보」는 1961년 5.16군사 쿠데타와 함께 포고된 군정포고령 제11호에 의해 신문제작에 필요한 시설기준 미비로 창간 9년여만에 폐간해야만 했다.

민간지가 아닌 행정기관 기관지로서 해방직후에 모습을 나타냈던 「주간인천」이 6.25발발로 휴간된 뒤 그 후신인 「인천공보(仁川公報)」가 1953년 1월 10일 전란 속에서 다시 탄생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표양문(表良文)이 발행인이 되고 부시장 최병환(崔炳煥)이 편집인이 되어 발행한 「인천공보」는 국정과 인천사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함이 주목적이었으나 보도기능도 함께 수행했다.

「인천공보」는 1954년 11월 27일 제69호부터 판형을 종전의 타블로이드판에서 표준 신문 판형으로 바꾸고 詩 등의 문예류와 상업광고 등을 게재, 타 신문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를 바 없었다.

1956년 12월 26일에는 인천문총(文總)이 주최하는 〈시와 음악의 밤〉을 「인천신보」「경인일보」「주간인천」 등 당시 발간되고 있던 지방지들과 함께 공동후원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공보」의 전신인 「주간인천」과는 성격이 다른 본격 민간 주간지가 마침내 1954년 4월 12일 첫선을 보였다. 임영균(林榮均)이 발행인이 되고 김응태(金應泰)가 편집인이 되어 간행한 「주간인천」이 바로 그것이다.

「주간인천」은 당시로선 인천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주간지로서 격조높은 문장으로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창간 당시의 인물들로는 앞서 거론한 인물외에도 주필 고일(高逸), 주간 권성오(權成五), 정치부장 김상봉(金相鳳), 문화부장 김양수(金良洙) 등이 있었다.

창간당시의 지면은 타블로이드판형에 2면이었다.

「주간인천」은 1960년 지령 305호를 마지막으로 창간 6여년만에 사기(社旗)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주간인천」에 쏟았던 많은 사람들의 열정은 쉬이 식지 않고 결국 일간지인 「인천신문(仁川新聞)」으로 재창간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 3) 언론 매체의 난립

전란후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전국적으로 적지않은 신문들이 사라져갔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간지의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 창간과 폐간이 끊이질 않았다. 인천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50년대 중반 또는 1960년대 초반에는 발행되다가 5.16군사정권의 수립과 함께 영영 사라져버린 주간지들이 허다했다. 이들 주간지들은 영세한 자본과 인력을 갖고 의욕만을 앞세워 창간되었으나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기 일쑤였다.

1960년 9월 당시 인천시 공보계에 등록된 언론기관은 모두 130개 였는데, 4개월뒤인 1961년 1월에는 156개로 늘어났고 기자만도 600명을 헤아렸다. 「기자사단」 형성에 일조를 했음은 물론이다.

5.16군사쿠데타 발생후 군정 포고령에 의해 신문제작 시설미비로 폐간조치된 인천지역의 주간지로는 「경기평론신문(京畿評論新聞)」, 「경기비판신문(京畿批判新聞)」, 「경기문화신문(京畿文化新聞)」, 「경기경제(京畿經濟)」, 「경기신보(京畿新報)」, 「경기산경신문(京畿産經新聞)」 등이 있었다.

이밖에 「경기민경」이 경기도경(京畿道警) 기관지로서 1957년 7월 30일 창간되었다가 5.16

후 자진폐간했으며, 1960년 9월 21일 이형우(李亨雨)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된 「인천통신(仁川通信)」과 1961년 3월 18일 김동규(金東奎)가 창간한 「동서통신(東西通信)」등이 5.16을 맞아 폐간조치됐다.

한편 서울에 본사를 둔 신문과 통신의 인천지사 지국이 60여개 이상 설치되어 있었으나 5.16후 대부분 사라져갔다. 이들 신문의 지사와 지국들은 이름만 그럴듯 했을 뿐 사실상 참인론의 기능은 수행치 못했다.

### 4) 본격지방지들의 경쟁시대

「대중일보」의 맥을 이어 나간 「인천신보」는 1959년 7월 7일 보급망을 호남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호를 「기호일보(畿湖日報)」로 바꾸게 된다. 만약 이같은 사세확대 정책이 성공했더라면 이 신문은 중앙지와 지방지간의 특색을 모두 갖춘 매우 독특한 성격을 띠게 되었을 것이나 이같은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경영진은 제호를 다시바꿔 「경기매일신문(京畿每日新聞)」이라 이름지었다. 이 신문이 바로 인천지역의 유력지로서 1973년 통폐합될 때까지 오랫동안 명성을 떨치게 된다.

「경기매일신문」은 강론직필(強論直筆)을 결코 누그러뜨리는 일 없이 초지일관했다. 1960년 7월 28일자 사설에서 "신의와 덕망이 높아 변절성이 없고 혁명정신에 투철한 인물을 뽑자"고 역설한데 이어 선거가 끝난 직후인 7월 30일자 사설을 통해서는 "반혁명세력과 금력의 배격에 과감했던 유권자의 혁명정신을 찬양함"이라는 글로 기염을 통했다.

이 신문의 지면구성을 보면 1면의 경우 정치관련 기사와 가십 〈여운(餘韻)〉, 그리고 사설이 게재됐으며, 2면은 경제기사와 외신 단신, 3면은 수필, 문화 관련기사, 학생문예 등이 실렸고 4면은 인천시정 소식과 민의원 동정, 사회성 기사 등이 게재되어 다양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경기매일신문」은 도내 주요지역과 국내 주요도시에 지사와 지국을 두었고, 1971년 4월 20일 6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했으며 최신형 고속윤전기를 도입, 지면을 계속 쇄신해 나갔다. 그러나 대망의 지령 1만호를 앞둔 1973년 9월 1일 뜻하지 않은 정부 당국의 경기 3社 통폐합조치로 통분 속에 종간호를 아니낼 수 없었다. 지령 제9918호를 끝으로 「경기매일신문」은 폐간의 비운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다.

인천지역 최초의 주간지인 「주간인천」이 1960년에 이르러 지령 305호를 끝으로 사기를 내리고 일간지인 「인천신문」으로 재탄생한 것은 같은 해 8월 15일의 일이었다. 인천시 사동 14번지에 사옥을 마련하고 사기를 높이 세운 「인천신문」의 창간 당시 주요 인사는 사장 許합, 편집국장 김응태(金應泰), 전무 이중섭(李重燮), 주필 고일(高逸) 등이었다. 이 신문은 1962년 도내 최초로 마르노이식 윤전기를 설치하고 지면도 4면으로 늘려 평판 인쇄시대에서 탈피했다.

보급망도 확대해 도내 각 지역과 전국 주요도시에까지 지사 및 지국을 두기도 했으나 성공하진 못했다. 지면 구성을 보면 1면에는 도정 및 시정소식과 함께 칼럼 〈전망차(展望車)〉를 게재, 사회계도에 앞장섰다. 2면에는 가십 〈홍여문〉과 단신, 해외토픽 등을 혼합한 〈듣고보고〉라는 난을 마련, 독자들의 흥미를 끌었으며 지방지 중에서는 최초로 〈스크린〉이라는 영화평을 정기적으로 실어 영화팬들의 인기를 끌었다.

지방지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추어나간 「인천신문」의 기자들은 그러나 근무 여건면에서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박봉과 열악한 경영 구조는 물론 타 지방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해 가자 「인천신문」은 1968년 명실상부한 경기도민의 대변지로서의 활약을 다짐하면서 제호를 「京畿聯合日報」로 개칭하고, 이듬해인 1969년 4월 28일 당시 일간 지방지가 하나도 없던 수원으로 이전,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역대 편집국장은 金應泰(1대), 朴應烈(2대), 黃俊秀(3대), 李昌植(4대)이었으며 주요 논설진은 高逸, 金良洙, 李玉山 등이었다.

성실, 공정, 참신을 社是로 하고 내고장의 새 신문을 지표로 하는 「경기일보(京畿日報)」가 1966년 2월 22일 창간됨으로써 인천언론계는 「경기매일신문」, 「인천신문」과 함께 1道 3社, 이른 바 지방지 트로이카시대를 맞게 된다.

「대중일보」와 「인천신보」를 거쳐 「주간인천」과 「인천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낸 金應泰가 주동이 되어 창간을 보게 된 「경기일보」는 본격적인 지방지임을 처음부터 표방하고 나섰다. 기사 역시 도정(道政) 및 시정(市政)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사장에는 황광수(黃光秀)가 취임했으며, 편집진에는 「인천신문」에서 활약하던 중견들이 가담했다.

주요 면면들을 보면 부사장에 홍부원(洪福元), 부사장겸 편집국장 김응태(金應泰), 전무 곽인성(郭仁星), 상무 신도철(申道澈) 등이었다. 이후 「경기일보」는 1973년 9월 1일 정부당국의 언론통폐합시책으로 지령 제2335호로 폐간할 때까지 왕성한 활동상을 보였다.

잡지 「월간경기(月刊京畿)」를 1967년 12월부터 발간했으며, 격월간 교육지 「경기교육(京畿教育)」을 1969년 7월부터 발간했다. 또 어린이들을 독자로 하는 「소년경기일보」를 발간, 종합언론사로서의 성가를 높여 나갔다. 사옥은 인천시 신포동 소재 국제빌딩에 위치했다.

### 5) 지역 언론의 통폐합

자율결의의 이름이건 통폐합의 이름이건 5.16군사 쿠데타 이후 세 차례의 언론정비 파동이 있었다. 1980년 언론 통폐합은 그 규모나 방법에 있어 한국 언론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혁명적 조치였다.

그러나 지방 언론계의 통폐합은 이보다 훨씬 앞섰다. 1970년대 초반부터 거론되던 지방 1도1사원칙이라는 정부 방침아래 이른 바 제2차 언론 파동의 먹구름이 1972년도부터 전국을 덮기 시작했다.

지방언론계의 통폐합은 당시 朴正熙정권이 독재에 반대하는 언론의 고삐를 죄기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아일보를 선두로 해서 중앙 언론, 통신 기자들이 잇달아 언론 자유수호선언을 하여 편집권의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자, 정부는 1971년 12월 27일 국회 제4별관에서 언론 규제를 포함한 국가보위법 개정안을 공화당과 무소속의 원만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1972년 1월 1일 프레스카드제를 실시, 2월 3일까지 3,543명의 기자에게만 프레스카드를 발급하여 기자들의 활동을 대폭 위축시켰다. 지방지 가운데 맨 먼저 통폐합의 된서리를 맞은 신문사는 전북지방사였다. 1972년 3월 21일 「전북일보」, 「전북매일신보」, 「호남일보」등 3개사가 통합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또 같은 날 31일 「대구일보」가 지령 6,238호를 끝으로 자진폐간형식을 취해 문을 닫게 되었고, 4월 1일 「대구경제신문」이 지령 6640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다.

이듬해인 1973년도에 이르러 5월 25일 「대전일보」와 「중도일보」가 폐간되더니 급기야 7월에 들어 인천, 경기지역에도 통폐합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3개사 사장들은 1973년 인천올림포스호텔에 모여 이른바 〈경기 3사 통합폐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유신시대에 대처할 강력한 지역 신문의 필요를 재 확인하고 3개 신문이 8월 31일자를 끝으로 자진폐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폐합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선언에 따라 한 달 후인 8월 31일 경기 3사, 즉 「경기매일신문」, 「경기일보」, 「연합신문」등 3개사가 통폐합되고 만다.

인천, 경기지역의 3개사 통폐합은 내용상 「경기매일신문」과 「경기일보」가 「연합신문」에 흡수되는 꼴이었다. 「연합신문(聯合新聞)」은 1970년 10월 1일 당시의 「경기연합일보」가 제호를 바꾼 신문이었다. 앞서 69년 4월 수원으로 이전해 갔던 이 신문은 재일교포 실업가였던 이현수(李鉉琇)가 병사(病死)한 직후 상무로 있던 홍대건(洪大健)이 발행인이 되어 발간되고 있었다. 비록 2개 타 경쟁사를 흡수하는 형태의 통폐합이었지만 「연합신문」이라는 제호도 더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73년 8월 31일자 지령 제 4,131호를 끝으로 종간(終刊)하기에 이른다.

1973년의 경기 3사 통폐합은 인천 언론사에 각별한 의미를 던져준 불행한 사건이었다. 일찌기 지방 언론의 발상지로 자부해 왔던 인천에 본사를 둔 신문사가 아예 없어지고 이후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공백기로 기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 6) 독재하 1道 1社시대의 언론

경기 3사 통폐합의 결과로 나온 도내 유일의 신문은 「경기신문(京畿新聞)」으로 이름지어졌다. 사장은 통폐합전의 「연합신문」사장이었던 홍대건(洪大健)이었으며, 편집국장도 역시 「연합신문」에서 활동해온 조창환(趙昌煥)이었다. 그밖에 업무국장은 임필규(林奭圭), 공무국장서리는 홍청(洪淸)이 맡았다.

이 신문은 창간사에서 창간의 먼 배경이 되었던 '유신(維新)'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등 첫 출발부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1도 1사라는 전례 없는 좋은 조건과 권력의 방패막 속에서 「경기신문」은 수원시 교동 136번지에 본사 사옥을 갖추고 해마다 시설을 증설해 갔다. 1979년에는 서독 하이델베르크사로부터 최신형 컬러옵셋 인쇄기 3대를 도입, 인천·경기 언론사상 처음으로 자가시설에 의한 컬러판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77년부터 서울지사를 직영화했고 인천국에서 승격한 인천분실을 인천시 중구 항동 4가 16번지의 별도 사옥(전 인천전매청)에 두어 완전 직영제로 운영해 갔다. 이어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등 4개지역에 지사를 설치하고 기타 군청소재지에 보급소를 두어 기자를 주재시켰다.

「경기신문」은 창간 당시 1일 4면을 제작했으나, 1977년 1월부터 격주 8면제로 주당 36면을 발행했으며, 1977년 9월 1일 창간 7주년을 기해 매일 8면 1주 48면으로 발행 면수를 계속 늘려나갔다.

1979년 12월 당시의 「경기신문」간부진은 사장 홍대건(洪大健), 전무 임필규(林奭圭), 편집국장 오광철(吳光哲), 인천국장 정순영(鄭舜永), 논설위원 김형희(金亨熙), 김진동(金普東), 박상복(朴商福), 인천국기획실장 김창모(金昌模) 등으로 일부 인사의 이동이 있었다.

「경기신문」은 이렇듯 순항을 계속하다 1980년 9월에 이르러 경영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차례 회오리바람에 휩싸이게 된다. 당시 경영 전권을 쥐고 있던 발행인 겸 사장 홍대건(洪大健)이 경영권 일체를 정부에 헌납한 것이다.

억측이 난무하고 해석이 구구한 가운데서도 「경기신문」의 경영권을 새 경영진의 손에 넘기지 않을 수 없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다. 새 경영진은 16억원으로 모든 재산과 권리를 인수, 1980년 11월 1일을 기해 박상복(朴商福)을 사장으로 임원진을 개편했다. 새로 구성된 법인은 「경기신문」을 범 지역적 신문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 인천, 수원, 안양 등의 주주를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최종 주식 배분은 인천 64% 수원 및 기타지역 36%의 비율로 정해져 본사를 갖지못하고 있는 인천측이 경영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은 창간당시의 5000만원에서 16억 7610만원으로 증자됐다.

「경기신문」은 이같은 사세 확장 속에서 신문발행 외에도 「경기연감」과 「경기교육연감」「경기화보」등의 출판사업을 동시에 펼쳐 나가는 의욕을 보였다.

1981년 7월 1일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 독립하게 되자 「경기신문」은 발빠르게 대응, 이듬해 3월 1일 「경인일보(京仁日報)」로 개제(改題)하게 된다. 이어 창간 22주년을 맞은 이해 9월 1일자 신문부터 중앙지와 똑같이 12면 증면발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신문」이 「경인일보」로 제호까지 바꾸어가며 인천과 경기의 대변지임을 강조했지만 인천시민의 대변지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직할시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본사를 둔 신문이 없다는 사실은 인천시민의 자긍심에 계속 손상을 입혔다. 이같은 현상은 1988년 7월 「인천신문(仁川新聞)」의 탄생때까지 계속됐다.

한편 6.25사변 직후에 창간된 「주간인천」이 7년만에 일간지 「인천신문」으로 탈바꿈하면서 인천에는 이렇다할 주간지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주간인천」이 사라진 지 15년만인 1975년 10월 10일에 새로 모습을 나타낸 특수 주간지 「경기교육신보(京畿教育新報)」가 끊어지나 주간지의 맥을 다시 이어나갔다. 이 신문은 지방나름의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계도지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 아래 1975년 9월 5일 등록허가를 받아 다음달 10일 제2호를 발행케 되었다.

### 7) 인천 언론의 부활

한국 언론사에서 1987년 소위 「6.29」선언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6.29」선언의 8개항목에 걸친 시국수습대책 가운데 가장 특기할 부분은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함께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항목이었다. 물론 「6.29」선언에 대한 해석이 구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황으로선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른바 언론의 자유화, 자율화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인천에서도 신문사 설립을 위한 논의에 박차가 가해졌다. 인천상공회의소 소속사들 사이에 신문사 설립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마침내 「경인일보사」의 주주였던 인천의 주주 15명이 1988년 4월 25일 등록인가를 받아 「주식회사 인천신문」을 설립하고 같은 해 7월 15일 「(인천신문)仁川新聞」을 창간함으로써 인천 언론 공백 15년의 종지부를 찍게 되기에 이르렀다.

「인천신문」의 초대 대표이사로는 문병하(文炳河) 한염해운(주) 사장이 선임됐다. 본사 사옥은 인천시 중구 항동 4가 2 옛 경인일보 인천분실 건물을 사용했다.

「인천신문」은 애향심 제고, 공동체 구축, 독자성 창출, 공정성 견지 등 4개항의 사시(社是)를 정하는 한편 경인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吳光哲을 편집인으로 정했다.

「인천신문」은 1990년 7월 15일 창간 2주년을 맞아 「인천일보(仁川日報)」로 제호를 변경했으며, 1994년 4월 사장이 「장재춘(張在春)」으로 바뀌었다.

「인천신문」이 인천언론 단절 15년의 회복으로 부르짖으며 탄생한 지 닷새후인 1988년 7월 20일 인천 제2의 신생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교육신보」의 핵심 멤버였던 서강훈(徐康勳) 등이 주축이 되어 1988년 5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어 7월 20일 「畿湖新聞」 창간호를 내게됐다.

이 신문은 인천시 중구 중앙3동 1번지에 사옥을 마련하고 공정, 책임, 정론, 진실을 사시로 내세웠다.

1989년 1월 7일 지령 제425호부터 제호를 「기호일보(畿湖日報)」로 개제(改題)했다. 「인천일보」와 「기호일보」가 각각 독자적인 논조를 유지하면서 독자층을 확보, 사세를 확장해 가는 동안 인천지역에는 언론사의 신설이 계속되었다.

일간지로는 「한서일보(韓西日報)」가 1992년 3월 14일 창간호를 냈으며, 주간지로는 「인천라이프신문」이 인천지역 주간지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신문으로 지역문화 창달과 인천인의 향토의식 함양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1989년 11월 30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3년여만인 1992년 문을 닫고 말았다.

이밖에 환경 정보의 제공과 환경 운동의 대중화를 내세웠던 「경인환경신문(京仁環境新聞)」이 1992년 1월 15일 창간호를 냈으나 창간 6개월여만에 경영난으로 인해 신문발행을 중단했다.

이들 신문외에도 상당수의 일반 주간지, 특수 주간지 등이 우후죽순처럼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발행됐으나 대부분 시장성을 확보치 못하고 발행을 중단한 상태거나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일반 및 특수 주간지들로서는 남동신보(1989. 9. 8등록), 주간 인천내고장신문(1988. 12. 3등록), 주간 부평신문(1989. 3. 31등록), 격주간 상업교육신문(1990. 3. 29등록), 경인장애자신문(1991. 5. 3등록), 서울레포츠(1991. 4. 2등록), 격주간 인천시민교통신문(1990. 2. 7등록), 격주간 인천장애자생활신문(1990. 6. 25등록), 주간 자동차뉴스(1991. 6. 22등록), 주간 즐거운학습신문(1990. 3. 14등록), 산곡신보(1992. 4. 13 창간), 인천교육신문(1992. 2. 8 창간),

주간 경인여성생활(1992. 3. 2), 인천마당발(1992. 5. 21), 인천등대(1992. 9. 23 창간), 인천경제신문(1992. 11. 30 창간) 등이 있다.

## 2. 출판(出版)의 변천

### 1) 일제하 인천 상업계(商業界)의 출판 활동

인천이 개항되고 처음으로 來仁한 일본 상인들이 그들의 거류지에서 상점을 개설하고 각기 운수업, 무역업, 미곡업, 잡화업, 여관업, 조리업 등을 시작하였으나, 주도권은 청국(淸國) 상인(商人)들에게 빼앗긴 상태였다.

일본 상인들은 상권의 주도권을 청국 상인들로부터 빼앗기 위해 1885년 10월 인천항일본인상법회의소를 결성하고 1892년에 이르러 이를 인천일본인상업회의소로 개편하게 된다.

이 일인(日人)상의(商議)는 일본상인들의 산업 장려와 무역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매월 「인천일본인상업회의소월보(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月報)」를 간행하여 배부했는데, 이 월보에는 인천항 상공업의 상황조사, 회의소록사, 물가, 금융, 생산, 수출 등에 대한 통계와 해설이 게재됐다.

이처럼 일본상인들이 월보를 통해 상호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가자 조선 상인들도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를 결성하고 1912년부터 월간지를 간행, 대응하기에 이르른다. 이것이 오늘날 인천 최초의 출판사업으로 기록되는 「상계월보(商界月報)」의 발행이다.

「상계월보」에는 당시 상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보탬이 되는 학설 및 기술 등에 관한 의견을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었다. 또 회의소 기사, 법령 등과 함께 상인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대부분 계몽 위주의 성격을 띠었다. 「상계월보」는 이후 1915년말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매월 발행이 계속돼 1915년 4월 15일 제36호까지 이어졌다.

1915년 7월 15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포된 상업회의소 령에 따라 인천의 조선인상업회의소와 일본인상업회의소가 통합된 이후에도 출판 사업은 여전히 상의의 몫이었다.

통합된 인천상업회의소는 간행물의 발간 등 출판사업에 역점을 두고 1916년 1월 15일 「인천상업회의소월보」의 발행 인가를 받아 곧 월보를 발행했다. 인천상업회의소는 월보와 더불어 「인천상업회의소 통계年報」도 발행했는데, 매호당 약 200面의 年刊물인 이 「통계年報」에는 인천항의 무역량과 무역액이 국가별 연도별로 수록되었으며, 주요 곡물의 집산상황, 인천미두거래소 실적 등 商議의 연간 활동상황이 집대성되었다.

당시 민간 출판물로는 잡지 「새가정」 제물포부인회의 「신학월보(神學月報)」 신정회 회지 「정의(正義)」등이 고작이었는데, 이처럼 민간 차원의 출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의(商議)의 출판 활동은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개인으로는 이종윤(李鍾潤)이 출판 사업에 열의를 보였는데 1925년 인천선영사라는 인쇄소를 설립해 출판 인쇄업에 뛰어 들었다.

### 2) 격변기의 출판 사업

해방직후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출판 사업에 뛰어든 것은 「대동평론(大東評論)」사였다.

인천시 관동3가 6번지에서 문을 연 「대중평론」사는 대중일보 1946년 2월 25일자 2면에 〈대동평론 사선언〉이라는 것을 게재,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이 회사의 진용을 보면 대표에 김성근(金聲根), 고문에 박한춘(朴漢春), 이건웅(李健雄), 강직순(姜直淳), 백남규(白南圭), 이원일(李源一), 김동수(金東洙), 김유근(金裕根) 등이었다.

1947년에는 「주간인천」사에서 조병화(趙炳華)시인의 시집 「버리고 싶은 遺産」이, 1949년에는 「국제항도大仁川건설譜」(仁川公論社)등이 발행되었으며, 6.25사변 와중에서는 인천 문인들의 작품 다수를 수록한 잡지 「신진(新進)」(발행인 金琉燮, 주간 李仁石)이 1952년 1월 창간호를 내는 데 족했고, 1953년 6월에는 잡지 「북진(北進)」(북한피난민총연맹 간, 주간 金昌璜)이 국제통신 부록으로 창간돼 3년 반동안 명맥을 유지했다. 그리고 출판사로는 「성미당」(조한영, 1953년 2월 23일 설립), 「경기문화사」(이향, 1955년 2월 25일) 등이 새로 모습을 보였다.

휴전후인 1955년에 언론인 고일(高逸)이 「(인천석금(仁川昔今)」(경기문화사)을 출판했으며, 향토사학자 최성연(崔聖淵)이 1959년에 『開港과 洋館歷程』(경기문화사)을 펴냈고 같은 해 당시 인천시립박물관장으로 있던 유희강(柳熙綱)이 『鄕土仁川의 案內』(光明社)를, 조석기(趙碩基)가 『爐邊夜話』를 각각 출판했다. 그리고 1960년대 접어들어서는 이경성(李慶成)의 「美術人間」(1961년 출간), 永化女中의 「永化70年史」(1962년 출간)등이 출판되었다.

1965년 사진작가 이종화(李宗和)가 출판한 향토사자료 『文鶴山』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보는 컬러 사진을 수록하였다. 슬라이드로 촬영해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현상한 이 사진들은 고풍스런 맛을 전해주는 귀중한 사진집으로서 오늘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학산 일대의 파노라마사진과 봉화대, 성문, 성벽, 비류왕릉이라 불리워졌던 古塚, 安官堂址, 인천府使廳, 고인돌 등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료집이다.

한편 해방이전까지 인천출판의 맥을 이어오다시피한 인천상공회의소는 1954년에 다시 월간지 「所報」를 발행하고 1960년 3월에 월간 「仁川經濟」를 발행하는 등 출판사업을 계속해 나갔다.

이밖에 어린이 잡지로서 「경기어린이」가 발행인 이창석(李昌錫)에 의해 1960년 2월 창간호를 내었으나 곧 자취를 감췄다.

### 3) 지방日刊紙들의 출판활동

「경기매일신문」과 경기연합일보로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인천신문」 그리고 「경기일보」가 신문뿐 아니라 출판업 분야에서도 서로 치열한 경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67년도부터였으나 1965년 인천신문사가 『京畿年鑑』을 창간하면서부터 이미 그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다.

인천신문사는 1965년도에 許함을 편찬위원장으로 하고 박홍렬(朴弘烈)을 주간으로 하여 연감의 편찬에 착수, 그해 12월 15일 『경기연감』창간호(1965년판)을 발행했다.

이 책은 인천.경기지역 최초의 종합자료집으로서 각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며 출판되었다. 「경기연감」이 지방신문사의 출판사업에 불을 당기자 이에 뒤질세라 2년후인 1967년 「경기일보」가 본격 월간지인 「月刊京畿」를 발행하고 나섰다. 「경기일보」의 자매지인 「월간경기」는 1967년 12월 창간호를 낸 이래 1970년대까지 계속 발행되어 지역주민의 상식과 식견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간 당시부터 도내 문인들의 작품 게재와 신인발굴에 애썼으며 도정 소개 및 논평에도 역점을 두었다.

「경기일보」는 1969년 7월에 격월간인 『경기교육』을 또한 창간하는 의욕을 보였다. 이 시기에 지방신문사외의 민간 출판물로는 임석진의 『金剛般若波羅密經』(海光社 발행), 李宗和의 『인천사진문화사』(1968년. 경기연합일보사 발행) 등이 있다.

잡지로는 1971년 3월 1일 발행인 김재근(金在根)에 의해 「月刊仁川」이 발행됐다. 이 잡지는 3호로 폐간됐다. 이밖에 시인 최병구(崔炳九)에 의해 「仁川文學」이 부정기 간행으로 창간되었으나 6집으로 마감했고, 崔始昊를 발행인으로 하는 「경기문예」가 1976년 12월에 창간되어 제4집까지 간행되었으나 이후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인수, 「畿西文化」로 개제(改題)됐다. 또 김양수(金良洙)에 의해 「京畿文學」이 1977년 12월에 창간돼 3집까지 발행되었다.

한편 인천상의에서 발행하는 출판물로는 「仁川商議報」가 유일한 기관지로서 1969년 3월 6일 타블로이드 배대판 6면으로 창간되어 처음 월 2회 격주간에서 1974년 1월 10일자부터 월 3회 순간(旬刊)으로 발행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월간 『물가조사보고서』가 1967년 4월 10일부터 1972년 12월까지 발행되었고 뒤이어 전문잡지 형태를 띤 월간 「인천상의」가 1973년 1월부터 발간되었다.

### 4) 쇠락하는 출판 문화

1973년 경기 3사의 통폐합으로 자연 각 지방신문사의 출판 활동에도 막이 내려지고 연감 출판이 가까스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그나마 통합 「경기신문」의 본사가 수원에 있음으로써 신문사에 의한 출판은 인천에서 완전히 사라져 갔다.

이 시기에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은 1973년 9월 30일 인천시에 의해 『仁川市史』라는 향토사가 편찬된 사실이다. 상·하권 1,778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출간된 『仁川市史』는 1933년 일본인들에 의해 발간됐던 『仁川府史』이래 실로 40년만에 인천인의 손으로 편찬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식민사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79년말 당시 인천에서 출판사업을 벌이고 있던 출판사는 초석출판사(사장 이호문), 수암출판사(사장 신원철), 춘남출판사(사장 김동인), 선민출판사(사장 성경웅), 미문출판사(사장 김재은)등 5개사에 불과했으며 인하대학교출판부가 여기에 가세하는 정도였다.

1980년대 들어 출판사가 20여개 이상 늘어나 양적으로는 괄창현상을 보였으나 질적으로는 이렇다할 개선이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1970년대부터 인천의 출판문화가 쇠퇴 일로를 걷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늘 우선해서 꼽힌다. 인천에서 서울과 같은 출판시설을 갖추려면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데, 인천의 출판물이 대부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로 몰리기 때문에 투자비를 겨둬들이기는 커녕 운영비마저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이다.

최근들어 컴퓨터의 보급으로 이를 이용한 소규모의 전산 출판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지방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출판문화의 재건에 한가닥 희망을 걸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에 간행된 출판물 중에는 1983년 6월에 인천시에 의해 발행된 『인천개항 1백년사』, 이선주(李鮮周)의 『인천지역巫俗』, 인천상의에 의해 1986년 11월에 발행된 『인천상공회의소백년사』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천시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인천개항1백년사』는 과거 『인천시사』나 70년대편 인천시사가 지닌 단점을 대폭 보완한 향토사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는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천노동사와 독립운동사 등을 새로 기술하는 성과를 보였다. 1988년 미문출판사에 의해 발행된 『인천지역무속』은 인천지역에서 고래(古來)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내림굿, 고창굿, 진오귀굿, 병굿 등을 취재 기술함으로써 향토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역작이다. 또 『인천상공회의소백년사』는 구한말 인천개항을 전후한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천상공업의 발달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기술한 출판물로 인천향토사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새로 늘어난 인천지역 출판사들로는 소명사(문행수), 청암출판사(이윤열), 경기출판사(박상복), 가나안 교육사(박창옥), 도서출판 홍문당(이재희), 극동생활정보센터(김연옥), 광고출판 장서방(장석호), 인촌광고출판사(정중화), 인천세무교육협회(홍봉표), 신용공업(이제순), 도서출판 문학당(채충희), 정출판사(정인철), 동호기획(이성희), 정서문화사(주영노), 주식회사 대진음향(박민원), 도서출판 보림(배복관), 한국세무연수원 출판부(김영환),

도서출판 소피아(박명곤), 도서출판 나래(임수덕) 등이 있다.

이중에서 출판활동이 가장 활발한 출판사는 도서출판「나래」로서 주요출판물은 〈하이네풍으로 된 풀꽃〉, 〈마른 성냥개비로 집짓기 혹은 집허물기〉, 〈바람앞에 등을 켜고〉, 〈저수지 부유도〉, 〈약장사 춘풍의 처〉, 〈출구없는 방〉, 〈여왕과 반역자〉 등의 문학 서적이다.

인천지역의 대학교 중 가장 일찍 설립되어 많은 출판물을 내고 있는 곳은 인하대학교 출판부이다. 이 대학출판부는 1971년 9월 1일에 설립되어 1991년말 현재 학술도서 40종, 교양교재 12종, 외국어교재 4종, 교양도서 23종, 영문도서 3종, 고전영인본 2종, 문집류 4종, 기타 학교 홍보 소개서 및『仁荷30年史』등 5종의 출판물을 내 학술 및 문화 발전에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 第5章 체육(體育)

## 1. 체육의 변천

### 1) 개항기의 체육

여러가지 신체활동을 통한 체육운동의 역사는 인류의 생활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도 옛부터 종족간의 방위무술이나 숭천경신(崇天敬神)의 원시인신앙인 영고(迎鼓), 무천(舞天), 동맹(東盟) 등의 제례를 중심으로 즐기던 가무를 비롯하여 유희나 오락이 점차로 생활양식으로 변천되어 고대의 유풍으로 명절과 농한기에 활쏘기(弓道), 씨름, 당수(鬪技), 장치기(擊毬), 공차기(蹴鞠), 스키(雪馬), 그네뛰기(鞦韆), 널뛰기(板跳), 윷놀이(擲柶), 연날리기(飛鳶) 등이 전승되어 다채롭게 실시되었으며 이 고장 부평지역에서도 어김없이 이러한 민속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현대의 각종 스포츠는 쇄국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과의 거래를 시작한 갑오경장(1894)을 전후하여 구미 각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소개된 교육사조를 배경으로 신교육이 실시되면서부터 체육은 근대적인 각광을 받게 되었다.

고종 32년(1895) 2월에 내린 교육칙서에는 교육의 실제는 덕육, 체육, 지육이라고 하여 교육의 3대강령의 하나로 근대적 성격을 띠운 체육의 장려를 강조하는 동시에 동년에 한성사범학교의 설립공포를 비롯하여 외국어학교, 성균관 경학과, 정동, 묘동, 계동, 장동의 4개 소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교과에 체조과목을 두어 각 학교에서는 운동회 등의 행사를 가지게 되므로써 현대적인 각종 운동경기가 점차로 일기 시작하였다.

한편 부평의 경우는 1899년 3월 15일 부평소학교(계양구 계산동 162)가 설립되어 서울에 이어 인천을 비롯한 이 고장 부평지역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학교로서 현대교육의 효시가 되었으며 종교계에 의해 사립학당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가 거행된 것은 영어학교의 영국인 교사 허치슨(轄治臣=Hutchison)의 치도하에 개최(1896)된 것이 처음이며 이것은 우리나라 체육운동의 초창기에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1897년 허치슨은 영어학교 학생들의 식비예산을 아껴 운동장 확장과 운동기구 구입에 충당하여 체육운동의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운동연습을 실천에 옮기게 하였다. 그리고 동년 6월에는 그의 활약으로 훈련원(현 동대문운동장 맞은편)에서 현재의 육상경기대회와 같은 영어학교 운동회를 개최·지도하는 등 우리나라 운동경기의 창건, 육성에 심혈을 경주한 은인일뿐 아니라 교육사업에도 공로가 지대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교육계의 원로로서 1899년 5월에는 칙어(勅語)로서 종 2품 금장이 특사되었다.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학계 또는 일반 사회인들은 청소년을 위한 체육단체 또는 체육구락부를 다수 결성했는데 이로 미루어 우리사회가 봉건사회로부터 개화사회로 전향되어간 발자취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개항기의 부평지역은 체육활동은 사실상 미개지였다.

이와같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조의 교육제도는 성균관 사학(四學) 서원과 서당이었으며 그 내용은 사서 등의 경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교육이었다. 이무렵 부평지역의 교육도 부평향교에서 유교적 경학교육이었으며, 여러 고을에서는 사학으로서의 학당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같은 종래의 전통적 유교교육에 대하여 서양식 신교육이 인천의 개항과 함께 대두되게 되었다. 인천항은 인천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에 서양문화와 교육을 전파시켜 개화사상을 촉진시키는 관문이었다. 기독교와 더불어 서양문물을 전파하고 서양식 교육을 실천한 선교사들이 인천항을 거쳐 한국 땅에 첫발을 딛였고, 또 인천 등지에서 이같은 사업을 실시했으며 개화사상가들이 인천항을 거쳐 드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인천이나 부평은 서울과 같은 시기에 서양식 신교육이 실시되었고 구미 각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각종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인천으로 입항하여 부평을 거쳐 서울을 왕래했다는 점에서 근대체육의 가교(架橋)적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부평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일제 강점기의 체육

#### (1) 민속경기

민속경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특히 민속놀이는 그 나라 민속의 역사를 재현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농한기나 풍년을 구가한다든가 또는 명절의 축제로서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움을 통한 단합의 촉진책으로 주로 춘추로 벌어졌었다. 처음에는 풍년을 구가하는 놀이로 시작되었으나 점차로 행사의 규모가 다양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고대의 민속경기는 참가자들의 흥을 돋구는 음악과 무용, 힘을 겨루는 경기, 싸움놀이 등이 주류를 형성했었다. 음악과 무용은 오늘의 민속경기로 이어지고 있으나 힘을 겨루는 격기와

싸움놀이는 올림픽 경기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전국체육대회의 일부 종목은 바로 고대의 민속경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음악과 무용을 곁들인 체육대회는, 힘을 겨루는 대회로서 민족의 제전으로 대변되고 있다. 이러한 제전은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제전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민속경기는 민족의 단결을 더욱 촉진시키는 동시에 그 나라의 역사를 재현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적인 스포츠는 바로 민속경기의 연장·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전국체전에서의 씨름이나 천하장사의 씨름은 우리의 민속경기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검도는 일본의 민속(사무라이의 전투경기)을 계승하는 것이며, 마라톤은 그리스의 전쟁비화 속에서 발굴한 경기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평지역에서는 1920년을 전후하여 민속경기와 운동경기가 성행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주로 면대항의 운동대회로서 일반부와 소학교부의 경기를 종합점수로서 우열을 판가름 했었다. 운동경기라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나 것은 못되었고 소박한 실정 그대로를 나타내는 육상운동으로서 기록보다는 등위를 앞세우는 100m, 200m, 릴레이(200m트랙), 마라톤 등이 고작이었다. 마라톤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실질적인 풀코스가 아닌 출발점을 기점으로 하여 15km~20km 내외의 거리를 왕복하는 형식의 단축 마라톤이었다.

이것은 소학교 운동회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태반이었으며 부평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큰 행사로서 산간, 오지 먼 동리로부터 남녀노소가 운집하여 음식을 서로 나누며 하루를 즐기는 지역사회의 축제행사였던 것이다. 또한 봄과 가을에 남자는 씨름, 여자는 그네뛰기 대회가 끊임없이 열렸다. 가령 봄철에는 단오절, 가을철은 추석절을 전후해서 성황리에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의 상품내용은 씨름 1등에는 황소 한마리, 2등에는 쌀 한가마, 3등에는 광목 한 필이었으며, 그네뛰기 1등에는 금반지 하나, 2등에는 광목 한필, 3등에는 솥이 하나였다.

### (2) 부평체육의 태동과 발상

1920년대 이후부터 부평과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의 체육이 대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인천의 명예를 걸고 전과를 올린 종목도 차츰 많아지기는 했지만 다른 도시에 비하여 두드러진 것이 별반 없었고, 다만 결과보다는 참가에 의의를 찾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 당시 인천의 많은 지역이 부평이나 부천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실질적인 부천의 선수도 있었고 부평일대의 선수가 인천과 연고를 맺어 출전할 때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부평은 일개의 자그마한 촌락에 불과하였던 관계로 자체로 운동경기를 유치·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뚜렷한 이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여건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서울과 인천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부평은 서울·인천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산발적으로 마을마다 소규모의 체육운동을 실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광복 이전 일제 강점기의 체육활동은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광명을 되찾으려는 굳은 의지를 줄기차게 계속 실시되었으며 특히 스포츠를 통해서 마음의 울분을 소화시키기도 하였다. 그 주최 단체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선체육대회·YMCA·각급학교·언론기관·각종 체육단체 주최의 경기 등이 있었는데 실제로 「부평」이라는 명칭을 걸고 출전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고,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인천이 지척간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연고를 맺어 인천의 선수로 출전한 흔적은 간혹 있었으니 부평체육의 발상은 이 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견해라고 본다.

(3) 「웃터골」과 부평체육

부평과 인접하고 있는 인천체육의 발원지는 「웃더골」(현 제물포고교)이다.

시민에게 민족혼의 씨를 뿌렸고 민족주의의 묘목을 심었으며 항일의 거화를 들어 8·15 광복을 맞이한 애국투사들이 육성된 곳이 바로 웃터골이다. 여기는 일제시대 오포산(午砲山) 관측소 바로 밑에 있던 넓은 분지이다.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선열의 뜻을 받들어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민족적 애국투지에 불타게 해서 한덩어리 굳은 단결체로 미래의 역군의 터전을 만든 것은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였다. 이것이 중핵체가 되어 체육과 운동경기의 외피를 쓰고 나온 것이 한용단(漢勇團)이고 여기서 분산·발전한 것이 한용청년회, 제물포청년회, 인천청년회, 기봉단(起峯團), 보이스카우트 등의 다수 단체였다.

이와같이 경인기차통학생 중에는 부평의 학생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한용단은 기차통학생 중에 배제·중앙·휘문·YMCA등 서울의 각 고등보통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어 초기의 야구기술과 단체훈련을 연마해서 야구인천의 영명을 개척한 원조이며 지도자였다. 아쉬운 것은 이 당시의 부평은 소규모의 촌락이라 뛰어난 직접적인 선구자가 희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조직체를 이룰만한 미흡한 고장이었고, 다만 웃터골의 영향을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야구 이외의 정구·축구·유도·빙상·육상·권투 등의 다채로운 스포츠를 육성시킨 사실임에 틀림없는 곳이 바로 웃터골이다. 이 당시 만석동에서 엄복동·조수만의 초기 자전거 경주대회도 그 후에는 이곳 웃터골로 자리를 잡고 인기를 끌었는데 부평 사람이 많이 운집하여 관람하고 즐기던 곳이었다. 매년 춘추로 실시하는 각 학교의 운동회와 연합체전이 모두 여기

에서 베풀어 졌으며 부평지역에서도 규모의 대소는 있었으나, 어김없이 운동회와 연합체전 형식의 모임이 베풀어졌었다.

이와같이 모든 야외집회의 단초를 푼 것이 기차통학생의 야구연습과 시합이었다. 그래서 웃터골이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야구전이었다. 흰옷 입은 남녀노소의 인파는 웃터골 주위를 진치고 한용단장 곽상훈은 유일한 우리 야구단의 존재로서 진두지휘를 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많이 보고 느껴 자극제가 된 것은 인근의 부평인들이엇다.

지난날 일제에 반항하여 투쟁한 인천 청년이 웃터골 항일 야구전에서 그 싹이 터 그것이 대중적으로 조직화되어, 민족단일체 신간회(新幹會)로 집중적으로 단결된 역사적 과정을 회상할때, 인천의 청년 그리고 체육의 발상지는 웃터골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받은 것이 또한 부평인이며 이 때부터 부평의 유지나 청년이 분발하여 체육을 육성했던 것이 바로 부평체육의 발상이다.

### (4) 군사 야행군·마라톤 경유지의 부평

일제시 만주사변, 지나사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학생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경인간 야행군이 성황한바 있었다. 서울의 많은 중학교는 월간, 계간 행사로 전투모(일본군의 모자)에다 다리에 각반(걸음을 걷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정강이 아랫부분에 감는 헝겊)을 감고 38식·99식 총대와 배낭을 짊어지고 소속학교 또는 서울역전 광장에 모여 한강철교를 건너 노량진·영등포·오류동·소사를 거쳐 부평·인천 월미도에 이르는 소위 심신단련을 위한 군사교육의 절정기였다.

야행군은 밤새 걸으면서 40분 행군에 10분 휴식을 되풀이 하여 먼동이 틀 무렵 부평에 도착하면 으레 소화여고(현 경찰종합학교·소화여고는 현 박문여고) 울타리 밖 도로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행군을 계속하여, 월미도에 도착하여 해변가에서 온종일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인천역에서 기차편으로 상경하곤 했었다.

오늘날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많은 종목이 군사면에서 비롯된 것을 회상할 때 부평은 어김없는 근대체육에서 야기되는 체력육성, 지구력 신장의 중추적 역할을 제공한 수련장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근대체육의 중핵인 각종 역전경주를 비롯하여 마라톤 총거리의 초반구간이 바로 부평의 갓바른 언덕길이었다. 하인천(현 올림포스 호텔 앞 삼각지대)을 출발하여 중앙청(현 중앙박물관) 앞 광장에 이르는 42.195km를 주파한 무수한 건각들이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1970년대 말까지도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세계를 누비는 저명한 선수들이 부평가도

를 힘차게 달렸으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마라톤의 발전을 구축한 전초기지가 부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3) 광복이후의 체육

일제 36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구가한 것도 잠시였을 뿐 무수한 정당이 난립하고 정치이념인 좌우익의 격돌, 청년단체들의 노기에 찬 열기 등으로 몹시 어지럽고 분분한 가운데에서도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민간주도의 부평체육회가 조직되었다. 물론 이 무렵 인천체육회도 발족되었으나 부평 사람들의 자존심과 정서가 대단하여, 인천에 질세라 당당히 체육부문에 축구·권투·정구·씨름 등의 각 종목을 망라한 혼합단체를 구성한 것이 최초의 부평체육회이다.

이 시기는 국내의 어수선한 모든 치안유지가 급선무였던 관계로 체육회는 치안대와 합류하여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실시하였다. 회장 김영길, 부회장 이기만이 수년간 역임하다 교체·운영하던 중 1971년 2월 25일부터 시 행정책임자가 당연직 체육회장을 겸임하게 되어 북구체육회장에 북구청장 최용기가 선임되었다.

### 4) 정부수립 이후의 체육

#### (1) 경기·인천체육의 발전과정과 부평체육

부평이 인천시 행정의 관할권에 있었던 경기도시대인 1950년 6월 10일 경기도체육회는 초대회장에 구자옥 경기도지사를 추대하고 임원진을 구성하는 한편 사무국을 경기도청 문정과내에 두었었다. 그러나 체육업무의 대부분은 이와 동시에 발족한 인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었다.

경기도체육회가 창립되던 해에 돌발적인 6·25사변이 발발하여 도 체육회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격동기의 사회적인 현상이었다.

1961년 7월 15일 체육회 사무국이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체육회는 그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어 경기도체육회가 인천체육회의 업무까지를 인수하고 장악하게 되었다. 1961년 5.16 혁명후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시·군 체육회 13개, 가맹경기단체 23개를 조직하였고, 1964년에는 시·군 체육회 22개, 경기단체 27개로 증가되어 1981년 7월 1일 이전 즉 경기도와 인천직할시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시·군 체육회 27개 경기단체가 29개로 늘어났었으며 현재 인천직할시는 6개구 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 40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선수권대회를 위시하여 여러가지 대회는 물론,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있는 선수들이 속출되고 있다. 그러나 직할시 승격이후의 인천팀(부평)은 시세의 약화, 선수분포의 저조로 전국체전에서 8위~11위의 중하위권으로 전락되어 허전한 느낌을 주고있다. 다행히 1993년 제74회 전국체전에서 모처럼 종합 6위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올린 것은 지극히 경하스러운 체육발전의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64년에는 인천시로서는 전국 최대의 종합공설운동장을 완성하여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기도 하였으며, 1978년에는 체육사상 최대의 규모와 시설을 보완하여 제59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3년에는 인천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고 직할시 승격을 경축하는 제64회 전국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2) 전국체육대회와 부평체육

전국체육대회는 우리의 현대사와 역정을 같이해 왔다. 나라 잃었던 민족의 희노애락에 얽힌 수난의 역사이며 망국의 비분을 스포츠로 소화시켜 투혼의 작열을 달랜 분화구의 역정인가 하면 나라를 찾은 후에는 내일의 번영을 노래하며 벅찬 희망에 부풀었던 겨레가 해마다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잔치로서의 발걸음이다.

이 체육의 성전은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립된 후의 첫 행사였던 제1회 조선야구대회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그 후로 축구·정구 등 각종 경기별 대회가 열리다가 1929년에 비로소 전조선 종합경기대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종합경기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행사였다.

전국체육대회의 회수를 셈함에 있어서는 1920년의 제1회 조선야구대회를 제1회로 기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이 대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조선체육회가 해산을 당함에 따라 제18회로 끝을 맺었다. 그로부터 한 때 민족의 잔치는 이민족의 손에 의해 이즈러진채 제모습을 잃었었다.

1945년 8월 15일에 민족의 광복을 맞이하자 우리의 체육도 소생하여 1945년 10월 27일부터 자유해방 전국종합경기대회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26회 전국체육대회로 계승된 것이다. 이 대회에서는 육상을 비롯하여 축구·농구·배구·야구·정구·럭비풋볼·자전거·탁구·마술 등 10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 해가 해방된 우리 체육계의 재건 착수의 해라면 1946년의 제27회 대회는 각 경기단체들이 정비기에 들어선 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제28회 대회가 열린 1947년은 대한체육회의 각 가맹경기단체가 서서히 그리고 힘차게 발전을 계속하여 제30회 대회가 열린 1949년에는 각종 경기들이 거의 완숙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1897년에는 잡화 등을 취급하는 상점이 있었고 1905년에는 다루의 수가 1909년에는 신생동에 포함의 생겨났다. 또 1925년 전국체육대회로서 종목과 비군을 신파할 수 없이 제31회 대회는 끝내 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민족의 체육정신은 다시 빛을 보게되어 1951년에는 광남지역 에 콘크리트의 제32회 대회를 개최하여 채육의 동원, 극복과 전통관, 봄대회, 현충일 등이 때 였다. 그 무렵 전국체육대회, 춘추대회, 관람석도 마련할 수 있는 포장이 있었다. 서울에서 1926년 창단하여 (춘향전) (갈매기) (사랑의 죽음) (눈물의 빛) 등을 대관람 가무기악에서 공연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 이르러 더욱 암담해진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인천의 연극은 소위 국민극 위주로 공연돼 순수성과 활력을 잃다가 광복을 맞았다.

광복과 함께 인천에서 맨처음 창단된 극단은 고향이었다. 신우돈, 백호, 한광수, 이동만이 주 발전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 해인 제48회 대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카드섹션은 수 죽이 된 고향은 1945년 10월 〈외로운 파른 사람들〉, 〈명상〉등을 애관에서 공연하였다. 그러나 이 포츠 예술을 체육대회에 도입했다는 관점에서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또한 제49회 때부터 입장 서거부터 6.25동란까지의 인천 연극은 창단 연극인의 공연보다는 서울 연극인들의 인천 공연이 행진의 질서를 살리고자 대통령상을 마련한 것도 대회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고 할 수 있다.

6.25이후 1960년대까지는 1955년경부터 비약적 발전을 본 한국 영화와, 1957년부터의 방송극 한편 1969년 제50회 때부터 능선화 행사를 지원부 심경선, 전금임주, 룸 잔업, 참영업, 이희행 등은 이봉 5도연극 협회 탈을 우 및 창년제 〈현장에게 삼된 스무살〉(김표협 작), 〈물선 이야기〉 장할도공연했었다. 1978년 제53회 대회를 전환점으로 체육대회는 일단 체질을 개선하였으나 이 해에 전국 각지 춘추대회 연극단 체인대회 연극경연을 당으로써 무게 학교부와 중학부로 구분 경연 것은 1980년에 와 대서양 라이온스 그단전 료채 육대회 청대회에 따른 정방개발하였 이래 연극 회 대관 창단 공연을 개최으로 되었다. 그 후 1984년에는 육대회 대 방개최를 제56회부터 광복절 행사로 확대 함으로써 부평(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선수단은 제32회부터 이와 함께 극단 예술좌, 봉춘 등의 돌체의 활동은 80년대 인천 연극의 축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 7월 1일 마침내 창단을 본 인천시립극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투하였던 인천 연극인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쾌사였다. 인천시립극단은 창단 공연으로 윤조병 극본, 연출의 〈춘향전〉을 공연한 이래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돌이켜보면 지난 83년 제64회 전국체전을 인천(부평)에서 개최한 이후 종합 1위 1번(58회 〈광주〉), 종합 2위 3번(45회 〈인천〉), 57회(부산), 66회(대전), 종합 3위는 8번(36회 〈서울〉), 46회(서울), 48회(서울), 50회(서울), 52회(서울), 54회(부산), 55회(서울), 56회(서울), 종합 13번의 1,2,3위의 상위 입상권을 유지 확보한 저력이 있다.

그러나 1990년 7월 1일 마침내 창단을 본 인천시립극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투하였던 인천 연극인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쾌사였다. 인천시립극단은 창단 공연으로 윤조병 극본, 연출의 〈춘향전〉을 공연한 이래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돌이켜보면 지난 83년 제64회 전국체전을 인천(부평)에서 개최한 이후 종합 1위 1번(58회 〈광주〉), 종합 2위 3번(45회 〈인천〉), 57회(부산), 66회(대전), 종합 3위는 8번(36회 〈서울〉), 46회(서울), 48회(서울), 50회(서울), 52회(서울), 54회(부산), 55회(서울), 56회(서울), 종합 13번의 1,2,3위의 상위 입상권을 유지 확보한 저력이 있다.

항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로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다.

그 후 84년에 인천시와 함께 직할시로 승격한 대구시가 제65회 전국체전을 치렀고 다음해인 85년에 강원도 춘천에서 제66회 대회를 개최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국체전 개최지가 이미 연도별로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실상인즉 92년 제73회 대회가 대구직할시, 93년 제74회 대회가 광주직할시, 94년 제75회 대회가 대전직할시, 95년 제76회 대회를 경상북도, 96년 제77회 대회를 강원도, 97년 제78회 대회를 경상남도, 98년 제79회 대회를 제주도 그리고 99년 제80회 대회를 인천(부평)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어찌하여 지난번에 인천보다도 뒤늦게 체전을 치른 대구가 92년에 또한 87년에 개최한 전남(실질적으로 태반의 경기를 광주에서 개최)이 93년에 또다시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가 96년에 개최하기로 되어있으니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어 인천시민 특히 부평인으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허전한 느낌마저 든다.

인천(부평) 체육계는 직할시 승격 이후 전국체전에서 종합순위 10위권 내외에서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에만 집념을 강화시킨 것이 고작이었고, 그동안 체육관계자나 실무진들은 과연 해당 업무나 변천하는 체육의 발전추세에서 안일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체전을 이 고장에서 다시 한번 멋지고 괄목하게 치러보겠다는 의식부족 내지는 의욕상실이 마침내 전국체전 유치에 늑장을 부린 것을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만이 모두의 바램과 능사는 아니겠지만 흔히 떠들썩하는 지방화시대, 서해안시대, 대망의 2000년대 등을 상기할 때 무엇인가 이 고장의 낙후성이 간혹 입에 오르게 된다.

필자(문동규)는 89년 초반에 지방신문을 통하여 「인천의 제2 스포츠 타운은 요원한가」라는 주제하에 2,3차에 걸쳐 그 필요성과 진립추진을 역설한 바 있고 그 후 시당국과 체육관계자의 간담회에서도 그 실현을 강력히 요청한바도 있었다. 그 밖에 많은 체육관계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90년도에 진일보하고 괄목했던 사실은 현 숭의동 및 도원동 일대의 스포츠타운은 그 건립연도가 오래된 전근대적이고 잦은 보수공사와 비좁고 낡은 시설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못할뿐더러 인구 200만이라는 대도시 인천(부평)은 2000년대 서해안시대를 감안할 때 제2의 스포츠타운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에 고무·착안하여 시 당국은 남구 관교동, 선학동 일대에 9만여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9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년에 종합경기장의 완공계획이 수립된 것은 획기적인 단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구 도원동(현 종합운동장 후면의 광장)에 950평(연 1930평)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32억원의 예산으로 체육회관 및 투기종목의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여 93년에 완공하게된 것은 답보상태에 있는 인천 체육계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숙원사

업의 장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다행히 97년에 또다시 전국체전을 인천(부평)에 유치하기로 시와 체육회가 합의했다는데 대해 새로운 스포츠타운 건설의 확약과 인천·부평 스포츠의 재건을 볼 수 있다는데 다소나마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었다. 물론 인천·부평으로서는 전국체전을 4번째 개최하는데 늦은 감은 없지않았으나 그 유치시기가 인천·부평이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설 시점이라는 입장에서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하였다.

제97회 전국체전 유치의 결정을 이고장 인천·부평에서 영종 국제공항의 개항을 기념하는 한편 서해안시대의 주역도시로서 세계속에 인천·부평을 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과거 3회에 걸친 대회개최(45회, 59회, 64회)의 폭넓은 경험과 250만 시민의 성원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화합은 물론 체육을 통한 애향심을 가일층 고취시켰다. 이미 치른 제64회(83년) 전국체전 이후 14년만에 체전을 유치함으로서 근대체육의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여 선진 인천·부평 체육의 위상을 정립하고 체육발전을 도모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92년 후반부터 93년 초반에 걸쳐 관교동·선학동 일대의 종합경기장 건립에 적지않은 부작용이 대두되어 97년 개최의 전국체전을 부득이 반납이냐 아니면 연기냐의 논의가 제기되어 체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 내막인즉 첫째 종합운동장 건립시 지하에 암반이 대거 매몰되어 그 제거작업이 험난한데다 96년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운동장 건립의 흙을 별도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조건으로 논란 끝에 99년 80회 대회로 연기됨에 따라 인천·부평 시민들을 아연 실망시키기도 하였다. 이로서 인천·부평의 전국체전 개최는 83년에 이어 무려 16년만에 이 고장에서 열리게 되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고찰컨데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60여년을 육성기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강력한 국력신장과 더불어 줄기찬 신장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지난 86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리에 치루었고 88년에는 세계 올림픽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인의 위상을 널리 만방에 과시한 대역사의 기반조성을 정착시켜, 앞으로는 전국체전의 면모도 대담하게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하간 제75회를 치른 전국체육대회는 온 겨레의 소망에 부응하여 가일층 단계를 높여 화려하고 성대하게 계속 막을 올릴 것이다. 겨레나 체육인이나 모든 선수가 이 대회를 점진적으로 빛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공명정대하여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것 뿐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평의 체육은 경기도 체육은 물론 인천체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유수한 시·군·구중에서도 괄목할만한 체육의 저력을 과시한 것이 사실이다.

### 5) 체육시설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급속히 도시규모가 발전하고 인구가 급증한 부평은 체육시설 면에서도 급증한 부평은 체육시설 면에서도 급격히 몰아닥친 근대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스포츠 인구는 물론 생활체육의 변모가 일기 시작하였다.

체육시설은 정규시설과 간이·약식의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나 먼저 정규규모의 시설로는 83년 제63회 전국체전에서 처음 적용되었던 계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최초의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을 위시하여 체육관으로는 농구, 배구를 할 수 있는 부평고등학교의 체육관, 93년에 완공된 산곡중학교의 북부학생종합체육관 그리고 현재 외형은 완성단계에 있으며 내부시설이 '95년에 준공된 인천교육대학교의 최신식 종합체육관을 들 수 있다. 간이 체육 시설로는 동네체육시설, 근린공원의 체육시설, 약수터 등에 설치된 축구장을 위시하여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수영장은 시티백화점 수영장, 현대백화점 수영장, 여성회관 수영장 등의 실내수영장을 비롯하여 옥외수영장으로서는 계양산의 솔밭 수영장을 들 수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평지역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95. 12. 30 현재)

| 업종 / 계 | 수영장 | 체육도장 | 볼링장 | 테니스 | 골프연습장 | 탁구장 | 롤러스케이트장 | 체력단련장 | 미용체조장 | 당구장 |
|---|---|---|---|---|---|---|---|---|---|---|
| 556 | 4 | 82 | 13 | 2 | 10 | 16 | 1 | 19 | 32 | 377 |

**부평지역 체육시설물현황 총괄**

('94. 2. 1 현재)

| 설치장소 | 간이운동시설 | | 체력단련시설 |
|---|---|---|---|
| | 종목별 | 시설내역 | |
| 32개소<br>공공 : 25<br>민간 : 7 | 축구장 | 5개소 | 23개소<br>18종 170점 |
| | 배드민턴장 | 11개소 31면 | |
| | 게이트볼구장 | 6개소 7면 | |
| | 테니스장 | 21개소 7면 | |
| | 농구장 | 3개소 | |
| | 배구장 | 1개소 | |

부평지역 장소별 체육시설물 현황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현황 | | | 비고 |
|---|---|---|---|---|---|
| | | 간이운동시설 | 체력단련시설 | 편익시설 | |
| 삼능배드민턴장 | 부평동 산34-16 | 배드민턴장 3면 | | | 민간시설 |
| 백운게이트볼구장 | 십정동 186-141 | 게이트볼장 2면 | | 의자 5 | |
| 용포약수터 | 십정동 산4-1 | | 2종 2점 | 의자 3 | |
| 부평근린공원 | 부평4동 880 | 축구장 1면<br>테니스장 5면<br>배드민턴장 4 | 2종 3점 | | 공원계관리 |
| 부평4동<br>동네체육시설 | 부평4동 892<br>913 | | 13종 13점 | 의자 10<br>휴지통 5 | |
| 부홍공원 | 부평5동 178 | 게이트볼장 1 | 2종 2점 | | 공원계관리 |
| 부개산 | 부평동 산12 | 배드민턴장4 | 7종 11점 | 의자 16<br>정자 2<br>파고라 1<br>휴지통 8 | |
| 철마약수터 | 산곡3동 산 138 | 배드민턴장 1면 | 4종 5점 | 의자 9 | |
| 우성APT<br>게이트볼구장 | 산곡3동 306-3 | 게이트볼구장<br>1면 | | | 민간시설 |
| 삼천약수터 | 청천1동 산59-5 | | 3종 4점 | 간이화장실 1<br>의자 4 | |
| 석천약수터 | 청천1동 산59-1 | 배드민턴장 1면 | 3종 4점 | 간이화장실 1<br>의자 9 | |
| 매곡약수터 | 산곡1동 146-1 | | 2종 3점 | 간이화장실 1<br>의자 11 | |
| 선포약수터 | 산곡동 산43-45 | 배드민턴장 4 | 2종 5점 | 정자 1<br>등의자 20<br>간이화장실 1<br>휴지통 3 | 배드민턴장<br>민간시설 |
| 장수산동네체육시설 | 청천1동 산3-2 | 배드민턴장 2<br>배구장 1 | 4종 7점 | 파고라 1<br>정자 1<br>의자 8<br>간이화장실 2 | |

## 부평지역 장소별 체육 시설 현황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현황 | | | 비고 |
|---|---|---|---|---|---|
| | | 간이운동시설 | 체력단련시설 | 편익시설 | |
| 청천약수터 | 청천1동 산4-6 | | 2종 3점 | 의자 4<br>파고라 1 | |
| 벽송배드민턴장 | 효성1동 28-3 | 배드민턴장 3면 | | | 민간시설 |
| 효성약수터 | 효성1동 산38 | | 4종 4점 | 의자 4 | |
| 효성테니스장 | 효성 1동 34 | 테니스장 2면 | | | 민간시설 |
| 효성공원 | 효성동 223 | 축구장 1면<br>농구장 1면 | 10종 12점 | | 공원계관리 |
| 계산근린공원 | 계산2동 902 | 축구장 1면<br>게이트볼장1 | 18종 20점 | 의자 10<br>휴지통 6 | 공원계관리 |
| 계양약수터 | 계산2동 산52-2 | | 2종 4점 | 의자 10 | |
| 작전동 게이트볼구장 | 작전1동 19-2 | 게이트볼장 1면 | | | 민간시설 |
| 작전공원 | 작전1동 414 | 축구장 1 | 15종 15점 | | 공원계관리 |
| 갈산4공원 동네체육시설 | 갈산동 362-4 | 농구장 1면<br>배드민턴장 5면 | 10종 11점 | 의자 20<br>휴지통 5 | |
| 일신게이트볼구장 | 일신동 95 | 게이트볼장 1면 | | | |
| 98호 공원동네체육시설 | 십정동 280 | | 12종 13점 | | |
| 호봉산배드민턴장 | 십정동 산6-1 | 배드민턴장 3면 | | | 민간시설 |
| 백운공원 | 샘정1동 186-419 | 축구장 1면 | 3종 5점 | | |
| 동양동동네체육시설 | 동양동 288-4 | 농구장 1면<br>배드민턴장 2면 | 9종 10점 | 의자 7<br>휴지통 3 | |
| 임학약수터 | 임학동 산10 | | 4종 11점 | | |
| 임학공원 | 임학동 135-1 | 배드민턴장 3면 | | | 공원계관리 |

한편 근래에 급속히 일기 시작한 검도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기 시작하여 부평지구에만도 5개 도장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검도는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예의로부터 시작하여 예의로 끝나는 취지에서 인고득도(忍苦得道:고난을 참고 극복하여 참다운 도를 닦자), 삼사일언(三思一言:세번 생각하여 한마디 말을 하자), 파사현정(破邪顯正:요사스럽고 사악한 것을 타파하고 옳고 바른 것을 지향하자)은 함축성있는 수련을 거듭하고 있으며 각 도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검도장 현황

| 도 장 명 | 관 장 | 소 재 지 | 개관연도 |
|---|---|---|---|
| 정무(正武)검 도 관 | 김영면 | 부평1동 529-100 | 1992 |
| 부 평 검 도 체 육 관 | 김제휴 | 부평4동 204-10 | 1992 |
| 부 평 검 도 수 련 관 | 김성필 | 갈산동 158-10 | 1994 |
| 검 도 클 럽 검 도 관 | 김재곤 | 산곡3동 369-246 | 1994 |
| 대 동 검 도 관 | 김성필 | 갈산 158-10 | 1994 |

## 2. 체육의 특징

### 1) 체육의 시대적 배경

과학의 발달, 경제의 성장, 식생활의 변화와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자동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점차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반면에 인간의 신체활동은 이에 반비례하여 수족을 박탈해가는 요즈음 현대인의 움직임이 감소되어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체활동의 감소와 생물학적 본능의 불만족은 여러가지 환경에 직면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져 건강과 체력을 저하시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에 의한 각종 성인병을 발생케하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대문명의 진보에 따른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체육운동의 시책이 전개되었으며 우리도 뒤늦기는 했으나 '88올림픽 이후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지역사회 주민의 체육을 정부차원에만 기대하는 입장을 탈피하여 이제는 지역사회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비의존적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86아시안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은 아시아는 물론 지구촌에 한국의 위상을 널리 보급시켜 스포츠의 정상수준을 가늠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제는 '보고', '듣고', '얘기하고', '평가',하는 수용적인 단계를 초월하여 모두가 참여하여 '하는 스포츠', '즐기는 스포츠」로 전환하는 건설

적인 시기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의 체육진흥은 국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구조속에서 먼저 국민의 건강 또는 건강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체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평생체육의 방향제시와 생활체육 활성화가 요청된다.

### 2) 현재까지의 우리체육

스포츠의 선진적인 유럽 각국의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지역이라는 생활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이에 비해서 현재까지의 우리의 스포츠는 체육회의 각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스포츠 인구의 구조나 스포츠 시설의 설치상황을 보더라도 학교와 직장을 중심으로 육성된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일반적으로 시합(경기)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의 고도화 노선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력했던 까닭에 널리 「모두의 스포츠」라기 보다는 오히려 스포츠를 「하는」층과 「보는」층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직도 이나라 이 고장에서의 스포츠는 일상생활에서 인연이 먼 것 같으며 확실히 외국인들의 주체적인 여가에 대한 생활의 지혜에 비해서 "레져의 빈곤" "레크리에이션의 빈곤" "스포츠의 빈곤"은 면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먹고 마시는 것에 욕구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주변에는 생활의 시간적, 경제적 융통성도 문제가 되지만 현재까지의 우리의 레져교육, 레크리에이션교육, 스포츠교육의 빈곤성에 경종을 울리게 된다.

### 3) 부평체육의 과제

우리의 체육은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주로 우수선수 중심의 체육시책으로 국가면모의 대외적 이미지 쇄신이나 국위선양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올림픽을 한국에서 치를 수 있었고 체육선진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엘리트 체육시책의 성공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2000년대를 향한 선진조국건설을 앞두고 엘리트 스포츠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온 국민이 체육을 생활속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체육시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생활체육 추진기구의 내실화이다. 이것은 조직의 일원화와 예산의 절감을 위해 기존의 조직인 체육회가 생활체육도 담당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설득력을 갖기는 하지만 88올림픽을 성공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스포츠 한국의 위상을 과시한다고 해서 이제 엘리트 스포츠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성원으로 성공한 올림픽의 위업이나 각종 국제대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체육회는 엘리트 스포츠의 전담기구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이와 반면에 오늘날의 생활체육은 단순한 체력육성만의 수단일 수만은 없다. 생활체육을 통해서 허약해지고 있는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켜야 하겠고, 또한 점차로 꺼져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식을 회복시킴으로써, 증가일로에 있는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그 추진기구의 내실성 있는 설치는 필연적인 것이다.

향후 부평지구의 체육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운동장, 체육관 등 대규모 체육시설의 설치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높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비경제적 투자이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다목적 지역체육의 시설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투자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시·공유지, 도시공간의 유휴지, 공원 및 하천부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체육시설로 개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유지나 사유지의 공개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더욱이 민간사유지로서 공개용지로 지정되어 용도가 규제된 토지는 체육관리공단을 통하여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체육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거나 또는 장단기 분할상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제한구역(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등) 내에는 체육시설 설치 가용구역을 선정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과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대단위 국토 토지조성이나 아파트 건립지역에는 형식적인 체육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를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특히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적당한 체육공간의 확보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이미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불허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의 보존 및 존속을 보장해야 한다.

종전의 체육공원 설치의 실패를 거울삼아 도시 휴식공간의 체육공원화를 추진하여 산책로, 조깅코스, 체력단련장을 설치,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건물의 지하공간이나 대형건물 옥상에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건물의 지하공간을 에어로빅장이나 탁구장,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대형건물의 옥상에는 조깅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및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할 것 이다.

한편 비영리적 민간체육시설은 공공단체의 구성원이나 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자생적 체육동호인 조직의 시설과 직장 체육시설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영리적 민간체육시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법의 취지를 홍보, 계몽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도를 전개하는 동시에, 현재까지의 운동경기 중심의 직장체육활동을 탈피하여 전체 종업원 중심으로 활동방향을 전환하도록 직장체육 진흥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세제상의 혜택, 공과금의 경감, 시설부한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시설자금 등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기업자금이나 공공자금의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상업체육 시설은 설치기준의 완화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하여 체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설치기준의 완화는 허가제에서 신고제 또는 자유업으로 법규를 개정하도록 하며, 세제의 특혜는 운영비 중 전기요금의 누진세율 인하, 상하수도 요금의 공업용수 사용요금의 적용, 체육시설 및 용기구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등의 특혜를 부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저수지 등 내수면은 풍부한 자연적 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인천·부평의 경우는 서해안의 도서지구 주요 하천 및 저수지의 수면과 그 주변공간을 체육시설이나 여가공간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체육의 활성화를 이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이 수영장 건설과 해수욕장 및 낚시터의 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탈의장·샤워장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각종 수상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수변지역의 선박장을 이용한 보트, 모터보트, 수상스키, 카누, 요트, 윈드서핑, 스킨스쿠버다이빙, 낚시 등 수상 스포츠의 활성화는 자연과 접촉하면서 모험을 즐기고 자립심을 기르며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체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활동에서 스포츠는 참으로 집단의 응집력을 나타내며 이 응집력은 집단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집단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간의 유대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하여 집단은 집단의 성원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집단 성원간에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동료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며 자기의 실패는 동료의 실패가 된다. 그러므로 성원간의 협력과 유대를 중시하며, 우리들이라는 동료의식이 매우 강한 까닭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성원간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집단은 집단 성원간의 역할분담, 의도,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과업수행을 위한 참여 정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참여정도는 집단응집력을 타나내게 된다.

이상과 같이 부평의 체육을 위하여 향후 수년간은 폭넓은 경기장의 건립이나 시설만이 아니라 한층 시야를 넓혀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다.

## 3. 체육 단체

### 1) 부평구체육회

사회체육의 진흥으로 지역주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켜 부평구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부평구 체육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활동을 하고 있다.

- ○ 체육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 ○ 구민 체력향상 및 체육운동에 관한 조사 연구
- ○ 구민 체력육성 및 체육운동에 관한 선전 계몽

북구 체육회 이사회 구성현황

| 직 위 | 정 원 | 현 원 |
|---|---|---|
| 총 계 | | 63명 |
| 고 문 | 약 간 명 | 3명 |
| 회 장 | 1인(구청장) | 1명 |
| 부 회 장 | 약 간 명 | 6명 |
| 전 무 이 사 | 1 명 | 1명 |
| 총 무 이 사 | 1 명 | 1명 |
| 감 사 | 2 명 | 2명 |
| 운 영 이 사 | 70 명 | 44명 |
| 경 기 이 사 | 7~8명 | 5명 |

○ 간사 : 문화공보실장 ○ 서기 : 문화체육계장

부평구체육회는 그동안 연1회 개최하던 정기총회를 '96. 5. 22 개정된 규약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재정상황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로 1210만원(96년 현재)을 충당하고 있다. 이사회비 납입액(연회비)은 부평구체육회 규약에 의거 정기총회에서 고문 120만원, 부회장 120만원, 운영이사 60만원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2)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는 1985년에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시행의 추진내용을 개념화한 새로운 용어로서 종전에는 흔히 사회체육이라고 불려왔다. 선진 각국은 오래전부터 생활체육을 국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방지와 수명연장, 국가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근래에 우리나라국민의 욕구도 메달 획득 등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승에 못지않게 운동에

대한 균등한 참여기회와 체육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 따라 88올림픽 이후 15개 시·도에 지회를 두고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순회지도 강사들은 물론 각종 직장·단체의 현장 생활 체육 지도자들에게 체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광범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및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 ○ 생활체육 프로그램 순회지도
- ○ 생활체육 광장 상설운영
- ○ 생활체육 상담실 운영
- ○ 이웃과 함께 달리기 지속운영
- ○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 ○ 장수노인 생활체육대학 운영
- ○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 ○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
- ○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 ○ 여성 생활체육 건강강좌
- ○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
- ○ 구단위 생활체육 동호인 관리 및 클럽지도자 대치지원
- ○ 주부 생활체육대회
- ○ 노인 생활체육 축제
- ○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 ○ 구협의회 및 연합회 보조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 현황

| 직 위 | 성 명 | 소 속 |
|---|---|---|
| 회 장 | 유 돌 용 | 안홍상호신용금고 |
| 사무국장 | 황 의 구 | 부 평 구 협 의 회 |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장 현황

| 종목별연합회 | 직위 | 성 명 | 소 속 | 종목별연합회 | 직위 | 성 명 | 소 속 |
|---|---|---|---|---|---|---|---|
| 배드민턴연합회 | 회장 | 구남회 | 신 영 건 업 | 태 극 권 연 합 회 | 회장 | 박종진 | 체 육 관 |
| 게이트볼연합회 | 〃 | 조진규 | 사 업 | 윈드서핑연합회 | 〃 | 유제진 | 왕 홍 설 내 과 |
| 축 구 연 합 회 | 〃 | 유돌용 | 안홍상호신용금고 | 생 활 체 조 | 〃 | 이용희 | 성원에어로빅 |
| 탁 구 연 합 회 | 〃 | 황남식 | 사 업 | 배 구 | 〃 | 노재철 | 원우개발대표 |
| 싸 이 클 연 합 회 | 〃 | 이윤복 | 상 업 | 테 니 스 | 〃 | 서동수 | 동화약국대표 |

## 4. 부평체육의 근황

근래에 이르러 도시규모가 확장되고 점진적인 인구증가로 구세(區勢)가 확대되어가는 부평은 약진하는 체육에서도 국제대회를 위시하여 국내 체육계에서 적지않게 확고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한국대표로 출전한 선수도 상당수 배출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남녀 학생선수들이 대거 등장하여 스포츠 명문학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체육이 단순한 승부를 통해 명예를 얻는다는 차원을 초월해서 우리의 국력과 민족의 응집력이 강대해졌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스포츠가 외교의 일환으로까지 작용하는 현실을 두고 볼 때는 스포츠의 중요성은 배가됨은 물론 애교심·애향심의 고취, 나아가서는 개인의 영예, 소속학교의 영광과 이 고장 부평의 위상을 널리 드높이는 것에 틀림없다.

이제 전국체전을 비롯한 권위있는 굵직한 각종 경기대회에서 유능한 부평 선수들의 활약상을 종목별로 최근의 전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축구〉

부평국민학교, 안남국민학교, 부평동중학교, 부평고등학교가 뛰어난 축구 명문학교이며 특히 부평고교 출신으로는 노정윤, 이임생, 곽경근 등의 현역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있다.

축 구

| 학 교 명 | 대회년도 | 대 회 명 | 등 위 |
|---|---|---|---|
| 부 평 국 교 | 1994년 | 제3회 금석배 초·중·고 축구대회 | 1위 |
| 안 남 국 교 | 1994년 | 제3회 금석배 초·중·고 축구대회 | 3위 |
| 부 평 동 중 | 1993년 |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1위 |
| 〃 | 〃 | 전국 시도대항 초·중·고 축구대회 | 2위 |
| 부 평 고 교 | 1993년 | 제2회 금석배 전국축구대회 | 3위 |
| 〃 | 1994년 | 제23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축구대회 | 1위 |
| | 1995년 | 제31회 봄철중고축구 연맹전 | 1위 |

〈씨름〉

부개국민학교,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가 씨름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고교 출신으로는 장지영, 고경철 등의 천하장사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 씨 름

| 학 교 명 | 대회년도 | 대 회 명 | 등 위 |
|---|---|---|---|
| 부 개 국 교 | 1993년 |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장수남) 경장급 | 1위 |
| | 1993년 | 〃 (김민수) 경장급 | 2위 |
| | 1994년 |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준민) 경장급 | 3위 |
| | 〃 | 〃 (박동현) 소장급 | 3위 |
| 부 평 중 | 1993년 |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광복) 소장급 | 1위 |
| | 1994년 |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왕종호) 용장급 | 1위 |
| | 〃 | 〃 (국이호) 소장급 | 3위 |
| 부 평 고 | 1995년 |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이광원) | 1위 |

〈볼링〉

여자 일반부의 유일한 부평구청 소속의 볼링부는 지난 92년에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국내 정상급을 굳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을 유능한 팀으로서 선수단의 구성원과 실적을 보면 표와 같다.

### 선수단 현황

| 구 분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감독 | 유 기 영 | 전 국 가 대 표 | |
| 주장 | 원 미 영 | 청 소 년 대 표 | |
| 선수 | 김 현 혜 | 전서울시설관리공단 | |
| 〃 | 강 현 주 | 〃 | |
| 〃 | 강 윤 희 | 대 정 고 교 졸 | |
| 〃 | 김 일 엽 | 서 울 시 일 반 | |
| 〃 | 장 진 숙 | 영 등 포 여 고 졸 | |

○ '94선수단 교체보강 : 2명 (교체 2명)

## 볼 링

| 팀 명 | 대회년도 | 대 회 명 | 등 위 |
|---|---|---|---|
| 북 구 청 | 1993년 |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5인조, 여자 3인조, 여자 마스터즈 | 1위 |
| | | 제9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볼링대회 | 1위 |
| | | MBC창사 25주년 기념 실업 볼링대회 | 1위 |
| | 1994년 |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 4개 대회에서 1위입상 4회 | 개인종합 |
| | 1994년 | 제74회 전국체전 : 금메달 2, 은메달 1 | 2위 |
| | 1992년 | 제13회 대한체육회장기 : 개인전 2위 | 1위 |
| | 1993년 | sbs수요볼링 5회우승 : 하반기 연속 3주우승(장진숙) | |
| | | 볼링장 경영자협회장배 : 개인전 1위 (이미영) | |
| | 1995년 | 제 2회 KBS배 볼링대회 개인전(원미영)1위 3인조 1위, 여자종합1위 5인조 1위 | |
| | | 제10회 대통령기 볼링대회 : 개인전 (길윤희) | |
| | | 제15회 대한체육회장기대회 : 5인조, 마스터즈(장진숙) | |
| | | 제76회 전국체육대회 : 3인조, 단체종합 마스터즈(장진숙) | |

〈레슬링〉

산곡중학교는 부평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에서 레슬링의 명문학교로 전국에서도 굴지의 레슬링부를 가지고 있는 유망선수를 다수 보유하고 육성하고 있는 레슬링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다.

레 슬 링

| 학교명 | 대회년도 | 대 회 명 | 등 위 |
|---|---|---|---|
| 산곡중 | 1993년 | 제3회 회장기레슬링대회(이승관) 자유형 70kg | 1위 |
| | 〃 | 〃 (김상길) 그레고 76kg | 1위 |
| | 〃 | 〃 (최종섭) 그레고 76kg | 2위 |
| | 〃 | 〃 (남성식) 그레고 55kg | 3위 |
| | 〃 | 〃 (임경훈) 자유형 60kg | 2위 |
| | 〃 | 〃 (백남민) 그레고 60kg | 3위 |
| | 〃 |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승관) 70kg | 1위 |
| | 〃 | 〃 (김상길) 76kg | 3위 |
| | 〃 | 〃 (이병재) 96kg | 3위 |
| | 〃 | 제21회 체육부장관기 레슬링대회 | 단체2위 |
| | 〃 | 〃 (이승관) 70kg | 1위 |
| | 〃 | 〃 (김상길) 76kg | 1위 |
| | 〃 | 〃 (백남민) 65kg | 3위 |
| | 〃 | 〃 (위 현) 70kg | 3위 |

〈핸드볼〉

전통적으로 강세를 두텁게 정착시키고 있는 인천·부평의 핸드볼 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교가 바로 부평남국민학교와 효성중학교를 꼽을 수 있다.

핸 드 볼

| 학 교 명 | 대회년도 | 대 회 명 | 등 위 |
|---|---|---|---|
| 부평남국 | | | |
| 효 성 중 | 1993년 | 제4회 CBS배 전국 중·고 핸드볼대회 | 2위 |
| | 1994년 | 제5회 CBS배 전국 중·고 핸드볼대회 | 1위 |

〈하키〉

하키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로는 부평서여자중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 산곡남중학교, 계산고등학교로서 특히 부평서여중과 부평여고는 하키의 강팀으로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 키

| 학교명 | 대회년도 | 대 회 명 | 등 위 |
|---|---|---|---|
| 부평서여중 | 1993년 | 제36회 종별선수권대회 | 2위 |
| | 1994년 | 제23회 소년체육대회 | 1위 |
| 부평여고 | 1993년 | 제74회 전국체육대회 | 3위 |
| | 〃 | 제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 1위 |
| | 〃 | 전국 춘계 남·여 하키대회 | 1위 |
| | 〃 | 제12회 협회장기 하키대회 | 3위 |
| | 〃 | 제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하키대회 | 1위 |
| | 〃 | 제2회 우수고교 4강전 하키대회 | 2위 |
| 산곡남중 | | | |
| 계산고교 | 1993년 | 제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하키대회 | 3위 |

〈양궁〉

부평동중학교는 축구와 함께 양궁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스포츠에서 손꼽히는 학교로 지목되고 있다.

양 궁

| 학교명 | 대회년도 | 대 회 명 | 등 위 |
|---|---|---|---|
| 부평동중 | 1993년 | 제20회 중·고 연맹 양궁대회 | 2위 |
| | | (이정윤) 개인종합 | 2위 |
| | | (이정윤) 50m | 2위 |
| | | (김정태) 30m | 2위 |
| | 1993년 | 제14회 화랑기 시도대항 양궁대회 | 3위 |
| | | (김정태) 개인종합 | 3위 |
| | | (김정태) 30m | 2위 |
| | 1994년 |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3위 |

# 第6章 부평의 시문(詩文)

## 1. 부평 형승(形勝) 이규보의 시(李奎報 詩)

東南沿野 幽荒卑濕之地
西濱海 北山間土瘠

동남쪽에 연한들은 거칠고 비습한 땅이고,
서쪽은 바다에 연하고 북은 산간지대로 땅이 척박하다.[1]

## 2. 부평 풍속 이규보(李奎報)의 시

人淳事簡 地瘠 民殘不忍

사람들은 순박하며 관청일은 간편하여 비록 참고 견디면 좋은 곳이다.
백성들은 잔인하고 참지 못한다.

## 3. 이규보(李奎報)의 시

坰馬晴方牧 巢禽暮自投

들말은 비가 개이자 바야흐로 먹이고
깃드린 새는 날이 저무니 저절로 돌아온다.[2]

## 4. 이규보(李奎報)의 만일사시(萬日寺詩)

斜日溟河水獨明　亂山蟠屈路難平
雲迷極涌千帆包　風濤長江一笛聲
了畿人舟自乏噪　殘孤虎鳥猶明去
易得深得江湖興　忽起蓴鱸萬里情

---

1) 고려 고종때 정부 고관직으로 재임중 누구의 모함을 받고 부평(계양)부사로 좌천해와 부평지역의 형상을 보고 지은 시이다.
2) 전기와 같이 부평부사로 도임해 부평의 풍습을 보고 지은 글이다.

지는 해는 침침하여 물은 홀로 맑고 어지러운 산이 구불구불 서렸으니
길이 편하기 어렵네 구름은 먼개의 일천 돛빛을 희미하게 하고 바람은 긴
감에 한피리소리를 떨어트리네 몇 사람이나 건넜는고 배는 스스로 떠있고
외로운 호랑이를 지저귀어 쫓고 새는 오히려 운다.
가고 오면 서로 길이 강호의 흥치를 얻었으니 홀연히 순채와 노어가 만취의
정취를 일으킨다.[3]

## 5. 이규보(李奎報)의 초정기(草井記)*(一名 滌暑亭)

桂陽僻在蓬艾之間 無一林 泉勝境可以遊踐者
惟南山之側有一亭焉 父老相傳者云
故相國許公洪才 嘗典是州 初其地 築石而臺之
故太守李諱寘忠 踈水作沼 跨亭於其上也
一間十椽 覆之而茅示儉也 縱廣不過八尺 坐不過八人 殺其度也
水出岩罅 極寒冽如氷雖盛夏入浴 毛髮立竪 不可奈久
加以盤松茂樹 布陰產涼 淸風自來
畏景不逼 最愜於避暑 故有額曰滌暑
然州人猶以草亭號呼之 或曰此地有奇形 勝勢 亢利於爲州
者斯類巫瞽不經之說 儒者所宜愼道 然俚言野語
有時而中 亦不可不信也 先僕之未到 忽爲燒
琴煮鶴者所毁 荒涼舊地而已 予見而庸害 召州
吏謂曰亭 是李太守所創 傷之 汝州 而及敢毁耶
古人有思其人 不剪甘棠者 敢毁亭耶 吏默然而退
尋捨舊材 咄嗟更構 明歲以畢事來告 予興僚
友置酒落之 噫 予以去歲孟炎 自補闕出守是州
至今年六月 除拜禮部郎中起居注知制誥 將詣
天闕 僚友諸君曰 此亭 太守所重開也 不留誌 無
以使後者知之 予然之 因書大概 囑後來者之無

3) 이규보는 고려팔대문호(八大文豪)의 한 사람으로 그는 정부고관으로 재직 중 모함을 받아 안남(부평)부사로 좌천하여 부임 이후 하등의 불평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여 2년만에 다시 중앙직으로 전근 할 무렵 만일사에 올라가 지은 시이다.

輕廢毁 且爲李太守存不朽之迹耳

계양이 궁벽하여 쑥대 우거진 사이에 있어서 하나도 림천의 지경만큼 놀만한 데가 없고, 오직 남산 옆에 정자가 있는데 늙인이들이 전하며 말하기를
전날 상국 허홍재가 일찌기 이 고을에 태수로 있을 때에 처음으로 이 터를 잡아서 돌을 쌓아서 대를 만들었고 전날 태수였던 이실충이 문을 터서 못을 만들고 정자를 그 위에 지었다.
한 간 열 석가래에 떠로 덮은 것은 검소한 것을 보인 것이요, 길이와 넓이가 8척에 지나지 못하고 앉는 것도 8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은 그 제도를 줄인 것이다.
물이 바위 틈에서 나와 얼음같이 극히 차서 비록 한 여름 일지라도 들어 가지 못하며 추워서 머리털이 서서 오래 견딜 수가 없다.
게다가 둥그런 솔과 무성한 나무는 그늘을 펼쳐서 서늘한 기운이 생기어 맑은 바람이 저절로 오고, 뜨거운 햇빛이 다가오지 못하니 피서하기에 가장 적당하다. 그러므로 현판을 척서(滌暑)라 하였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이 오히려 초정으로 부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땅이 풍수설에 의한 한 형상과 좋은 국면이 없어서 더욱 태수가 되어 온 사람에게 이롭다고 하나 이것은 무당과 판수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아서 선비된 자가 마땅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지만은 촌 사람의 비록 한 말도 때로는 맞는 것이 있으니 또한 맞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오기 전에 홀연히 거문고를 태워 학을 삶는 장의 헐어 치운 것이 되어서 황량한 묵은 터만 남았다. 내가 보고 딱하게 여기어 고을 아전을 불러 말하기를 정자는 이태수가 창건한 것인데, 무엄이 너의 고을에 해가 되기에 감히 헐었는가, 옛날 사람을 생각하여 감당을 잘 지키지 않는 일이 있었거늘 감히 정자를 하는가 하였다. 아전이 아무 말없이 물러가서 묵은 재목을 찾아 수습하여 잠깐 동안에 다시 짓고 다 지은 이튿날에 와서 일을 마쳤음을 고하였다. 내가 동리 친구와 더불어 술을 베풀어 낙성하였다. 내가 지난 해 첫여름에 보궐로 물러나와 이 고을의 태수가 되었는데, 금년 유월에 이르러 예부랑중기거주지재고로 제수되어 장차 대궐에 나가게 되었다. 동료 친구 제군들이 말하기를 이 정자는 태수가 거듭 세운 것이니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여겨 대계를 쓴 뒤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솔히 헐어치우지 말도록 부탁하고 또한 이태수를 위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자취를 남기었다.

## 6. 이규보(李奎報)의 초정시(草亭詩)

鑿岩通湧溜　潴沼誇飛檻
望恐浮漁艇　來疑入畫屛
水仙應畜異　地媼正儲靈
野色蓴前飛　泉聲扁底聽
淸風當夏足　白露未收零
錦蘇纏珉砌　氷漿凍玉甁
凿零增遠跳　洞豁助遐聆
樹卓高憧碧　松根偃蓋靑
許公曾相地　李守始開亭
欲配甘棠泳　重營刻此銘

바위를 파서 솟은 물을 통하여 못에 저수하여 나는 듯한 집을 그 위에 걸치였다.
바라보면 고기잡이 배인가 생각되고 와서는 그림 병풍에 들어왔는가 의심한다.
수선이 응당 기이한 것은 저장하였든 것이며 땅 신령이 정히 영기를 쌓았도다.
들빛은 처마앞에 껴안았고 샘소리는 자리밑에 들린다.
맑은 바랑은 여름을 당하여 족하고 흰이슬은 가을도 않되어서 떨어진다.
비단이끼는 섬돌에 얽히고, 빙수는 옥병에서 언다.
산이 뚫어 졌으니 먼 조망을 더하고 골이 없으니 듯는 것을 돕는다.
나무가 우뚝하니 높은 깃발이 푸르고 솔이 벌어졌으니 비스듬한 일산이 푸르다.
허공이 일찍이 터를 보고 이태수가 비로소 정자를 지었다.
감당의 덕에 길이 짝하려하여 다시 중건하고 이를 새긴다.

## 7. 이규보(李奎報)의 망해지(望海誌)

路四出桂陽山之邀惟一面得通於陸 三面皆水也
始余謫守是州環願水蒼然浩然者 疑入島嶼中

悒悒然不樂輒低首閉眼不欲見也 及二年夏六月 除
拜省郎 將計日上道 以復于京師 則向之蒼然浩然
者 皆可樂也 於是凡可以望海者 無不游踐始 於萬
日寺楼上望之 大舶點波心 僅若島鴨之游泳者 少舟則
如人入水微露其頭者 帆蓆之去 僅類人揷高帽而
行者 群山衆島渺然相望 有屹者峻者 跂者伏者 脊
出者髮擢者 中穿如穴者 首凸如傘頭者 寺僧來佐
望 輒以手指點之 島曰 被紫燕也 高灣也 麒麟也 山
曰彼京都之 鵲嶺也 彼昇天府之鎭也 龍山也 仁州
之望也 通津之望也 歷歷而數 如指諸掌 是日余甚樂 爲
余與游者觴之 乘醉以反後數日 遊明月寺 亦如之 然
游明月頗有山之 掩翳者 不若萬日之豁敞也 後數日 復循山而北 幷
海而東 觀潮水之激薄與海 市之變恠 或乘馬
或步行 稍憊而後還焉 與游者某某人 皆携壺從
之 嗚呼 水向者之水也心向者之心也 以向之所心忌
見者 今反爲嗜觀 豈以得區區一官之故歟 心吾心也
不能自制 使因時貿易之如此 其於一死生齊得
喪 得可冀乎 後尙可警故誌之

길이 네갈래로 난 계양의 교통은 한쪽만이 육지로 통하고 삼면이 다 물이다. 내가 처음 이 고을로 올때 푸르고 세차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섬가운데도 들어가는 듯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보기도 싫어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6월에 성랑의 발령을 맡고 장차 날을 헤아려 서울로 돌아 가려하니, 전에 푸르고 세차게 흐르던 물이 모두가 즐겁게만 보인다.

이제야 바다를 바라다보기 위해 모든 것을 편답하려고 만일사에 올라 바라다 볼 때, 배가 바다 가운데 떠있는 것은 오리가 노는 것 같고 적은 배는 사람이 누워 겨우 그 머리만 내놓은 것 같고 돗단배가 가는 것은 사람이 높은 모자를 쓴듯하며 여러 산 묻섬들은 아득히 보여서 솟은 듯, 펴는 듯 엎드린 듯, 둥만 나온 듯, 상투만 꽂은 듯 가운데 구멍이 뚫린 듯,

일산꼭지 같기도 하다. 이 절의 중이 곁에 와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것이 자연도, 고만도, 기린도요, 저기가 서울의 곡령이요 저기는 승천부의 진산이요 용산이요 인천의 주산과 통진의 주봉을 력력히 손바닥 위에서 세는 것 같다. 이 날 나는 매우 기뻐서 같이 놀던 사람들과 술을 나누어 취해서 돌아왔다. 며칠뒤에 명월사에 올라가니 자못 산들이 가로막혀 만일사의 시원한 것만 못하고 또 며칠 뒤에 다시 산을 따라 북으로 가고 바다를 따라서 동쪽으로 조수의 격박한 것과 신기루의 변천을 바라보고 혹 말도 타고 걷기도 하며 조금 피로해서 돌아왔다. 같이 놀며 다닌 몇사람들이 술병을 가지고 따라왔다. 아~ 물도 전일의 물이요. 내 마음도 전일의 마음인데 전에는 보기 싫던 것이 지금엔 즐겁게만 보이니 어찌 구구한 벼슬 한자리 얻었다고 그러한가.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때에 달라지기가 이러하니 저 사색에 한결같고, 득실이 변치 않는 것은 가히 바라리오. 후일에도 깊히 경계할 바이므로 기록 하노라.*

## 8. 이규보(李奎報)의 명월사시(明月寺詩)

荒榛擁難開　石徑少平曠
下馬行且顚　折我三尺杖
幽廳不慣入　措立形惘惘
飢虎爾莫嗥　忠信吾旦杖
木未得招提　架屋依岩嶂
何人命其名　明月以標榜
欲將月澄心　豈爲月可望
丈屋高於樓　迫歷漢海廣
久聞天難昇　忽已在天上
水色遠愈白　霜練鋪一樣
陰雲與霽露　頭刻千万狀
大舶點波心　磨若輕鷗樣

* 이규보는 고려정부 고관직으로 있다가 계양(부평)부사로 좌천되어 두문불출하다가 2년만에 정부 고관으로 전근발령을 받고 비로소 부평 고을 산천을 유람한 글이다.

寄語漁舟子　著意如搖槳
將以閑遊形　入我試此況
嗟予醉簿書　久矣負情賞
到郡侵二年　大副宿心想
請君更留遲　此是天所餉

황무한 가시숲 헤쳐도 열리지 않으니, 돌길이 평탄한 곳이 적구나 자빠져서 내 석자되는 지팽이를 꺾었다. 깊숙하게 박쥐는 앞발 모으고서 멍한 모양을 한다.
주린 호랑이야 너는 으르렁대지 말라. 충신도 내가 받은 바이다.
나무끝에 암자를 찾아내어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네
어떤 사람이 이름지어 명월이라 표방 하였는고, 달을 가져 마음을 깨끗이 하려 함인가
혹시 달을 바라볼수 있다는 뜻인가 한길되는 집이 다락보다 높으니 한수와 바다 넓은 곳이 다 보인다.
전일이 하늘에 오르기 어렵다 들었더니, 홀연히 이미 하늘 위에 있도다.
물빛이 멀수록 더욱 희여 서리같은 흰비단을 펼친 것과 한모양이네
침한 구름갠 높이 경각 사이에 천만가지 형상이로다.
큰 배가 물결 가운데 있는것이 가벼운 갈매기 헤엄 치는 것 같다.
어주자에게 부탁하느니 적신을 들여서 노를 잘 지어라.
너의 한가히 노는 모양을 내 시속에서 넣으련다. 나는 공무부서에 빠져서 맑은 흥취저버린 지 오래니, 이 고을에 이른 것이 2년동안 오래 마음으로 그리던 취미 매무맛네
청하건대 그대는 다시 머물라 이것이 하늘이 주는 바이다.*

## 9. 이규보(李奎報)의 자오당기(自娛堂記)

貞祐七年孟夏 予自左司諫知製誥 謫守桂陽
州之人 以深山之側萑葦之間一頹然如蝸之破殼

*이규보가 계양부사 재임중 명월사를 방문한 시이다.

者 爲太守之居 觀其制度 則抛梁棟 強名屋耳 仰
不足以櫨頭 俯不足以橫膝 當署處之 如入深甑
中而遭蒸灼也 妻兒藏獲 瞋之皆不欲就居 予獨
喜焉 灑掃而處之 因榜基堂曰自娛 客有語其
由者曰 今至太守古之邦伯 賓客請謁 日相踵
繼 登是堂者 皆官曺之俊秀 儒釋之魁奇 無不與太
守亨其樂者 而太守遽稱之曰自娛 則其不以向
之賓客 置人品中耶 何示人以不廣歟 予笑而應之
曰 客安有足言哉 方僕之爲省郞也 出則黃裾喝道
入則方丈滿前 當是之時 在膏粱之予 則誰若不
足 於僕則太過矣 然試人命簿 自古而然 忽一旦
被有司所誣枉 而落此幽荒卑濕之地者 殆天也
非人也 若屋宇宏傑 居處華靡 不痛自貶損 則非
天所以處我之意 而祗益招禍耳 然則玆陋也 獨
予之所自娛 而衆人之所深擯也 豈可以己之
所偏嗜而欲強人而同之哉 如或有邊豆之設 聲色
之歡 則予亦何心獨亨樂 而忍不與賓客共之耶
然居是州處是堂 其無此樂也 審矣 又何疑栽 客
慙而退因以誌之

정우칠년(고려고종 6년 : 1219년) 초여름에 내가 대사간 지제고 벼슬에서 계양 도호부 부사로 갔는데 고을 사람들은 심산곁에 갈대밭 사이에 퇴락되어 마치 깨진 달팽이 껍질같이 생긴 집을 태수의 거처라 하였다. 그 형편을 살펴보니 겨우 들보와 기둥만 세우고 억지로 집이라 해놓은 것이다. 우러러 머리를 들기 불편하고 굽혀서 무릎을 펴기 거북하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으면 시루 속에 들어가 한증이라도 하는 듯하다. 온가족이 한결같이 거처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지만 나만이 홀로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거기서 거처하며 그집을 자오당(나만이 즐겁다는 뜻)이라 이름지었다. 어느 사람이 문책하듯이 오늘의 태수는 옛적의 방백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태수의 방을 찾은 사람들은 중앙부처의 빼어난 이들이요. 또한 유불교의 뛰어나고 기이한 인물들이기에 태

수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눌처지 일터인데 태수가 문득 스스로의 거처를 자오라 이름하여 손님들을 맞이하려는 눈치로 보이니 이 어째서 도량을 보이지 않으시오 내가 서낭(고려정부의 고관직)으로 있을때는 밖에 나가면 하배가 길을 열어주고 집에들면 먹을 것이 눈에 가득 찾드랫소 그것도 부호의 자제들에게는 충직스런 것이 못되었으나 내게는 너무 과분한것이었고, 그런데 시인이 구구함을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어서 홀연히 하루아침에 유사의 무고로써 거칠고 외지며 낮고 습한기가 많은 고장으로 오게 되었으니 자못 하늘이 시킴이요 사람이 함이아닐 것이요. 그리하여 만약에 집잉 넓고 거처가 화려하여서 스스로 근신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이 나를 가르치는 본뜻이 아니라고 여겨 오히려 화를 불러 들이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이 누추한 방을 참으로 나홀로 스스로 즐길 것이지 남들은 꺼려할 것이다. 먼저 내가 즐겁다하여 남들에게까지 강요할 수 있겠소. 만약 성찬과 술과 노래가 기녀까지 베풀 수 있다면 내어찌 손님들과 즐기지 않겠소. 그러나 이고을의 이 방에서 그와같은 즐거움이 없는 것은 뻔할 것이며 댁은 또한 무엇을 의심하는 것이요 하니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물러갔고 그래서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다.*

## 10. 과거길의 경계시(科擧行警戒詩)

桂陽出下侵具女　配年鵬頭怨無心

계양산 아래 사는 구처녀와 사귀면
기유년 2월초에 원망한들 소용이 없다.

고려말의 일이다. 전라도 대가집 청년이 과거차 송도로 가다가 계양산 아래 장모루(始川洞) 여관촌에서 유숙하다가 구처녀와 정을 맺고 놀아나 과거 전날에야 개경에 가서 과거를 보니 여지없이 낙방이 되어 다시 이 곳 구처녀와 사귀다가 아버지가 찾아와 데리고 갔다. 그 후 누군가가 위와 같은 시를 지어 그후에 자식이 과거를 보러 갈때는 이 시를 써서준다. 이 행위는 수백년간 존속되었다고 전한다.

---

* 이 기문은 이규보가 고려정부 고관으로 있다가 모함을 받고 계양부사로 좌천되어 불편한 집에 살면서도 조금도 불편없이 스스로 즐겁게여겨 자오당이라하고 여기서 거처하며 열심히 일을해 다시 인정을 받아 중앙직 고관으로 영전하여 이글은 유명해지고 과거 제목에 여러번 출제되었다고 전한다.

## 11. 문숙공(文肅公) 류사눌(柳思訥)의 망월사시(望月寺詩)*

曾於此寺解童夢　豈意如今成老翁
殿佛猶存前日態　居僧非是昔用客
海舍洛熙黃金嫩　山帶浮雲白玉濃
簿暮欲歸歸未得　倚樓愁思誥無窮

일찍이 이 절에서 동몽선습 익혔거니 이처럼 늙으리라 생각이나 했던가
대웅전 부처님은 홀로 옛날 그대로이나 스님들은 어이 다 옛날 얼굴 아니네
바다는 낙조를 머금어 황금같이 곱고 산들은 백옥같은 아지랑일 둘렀구나.
해는 저무는데 갈길은 아득하고 다락에 기대어서 만감 수심 그지없다.

류사눌은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숙부에게서 자라났다. 그는 소년시절 이 절에서 글을 배웠다. 그후 그는 대제학에 올랐다. 늙어서 이절을 찾아 지은 시이다.

## 12. 안숭선(安崇善)의 부평시(富平詩)

民稠知古郡　俗厚見淳風

백성이 조밀하니 오래된 고을인 것을 알겠고,
풍속이 후하니 순박한 인심을 보겠도다.

안숭선은 조선초 세종때 고관으로 집현전 대제학 병조판서 춘추관사로 고려사를 수정하고 좌찬성을 지냈다. 1435년경 부평땅에 둘러 지은 시이다.

## 13. 허성(許誠)의 부평시(富平詩)

人家桑影裏　官道柳陰中

민가는 뽕나무 그림자 속이고,
관길은 버들 그늘 가운데로다.

허성은 조선 세조때 인물로 예조·이조판서를 지내고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한 학자이다. 1430년경 부평에 들러 지은 시이다.

---

* 望月寺는 萬日寺이다

### 14. 허암(虛菴) 정희량(鄭希良)의 시(試)

日暮滄江上　天寒水自波
孤舟宜早海　風浪初應多

해는 저물어 강위는 푸른데, 날씨가 차니 물결도 스스로 일드라
외로운 배는 일찌기 처맨 것이 마땅하였는데, 풍랑은 밤을 타서 더욱 많이 일드라.

허암, 정희량은 천재로 문과에 급제하고 왕자 연산(燕山)의 스승이 되어 엄하게 왕자를 훈육하였다. 연산이 왕위에 오르자 스승을 박해하니 그는 귀향살이도하고, 일시 은거하기도 하고 방랑 생활로 여생을 보냈다. 그의 방랑 시가 허다하게 전해진다.

### 15. 허암(虛菴) 정희량(鄭希良)의 방랑시(放浪詩)

— 폐절에서 묵으며 지은 시

내 손수 빚은 술을 마시니
모든 것이 내 세상이고
나는 술로 스승을 삼으니
현인(獨酒)도 성인(藥酒)도 나의 스승은 아닐세
요즈음 마음 즐거우니 늙어가는 줄 모르고
오직 내 마음만 즐거워라

허암이 방랑 생활을 하며 지은 시의 한 구절이다.

### 16. 허암(虛菴) 정희량(鄭希良)의 방랑시(放浪詩)

鳥窺頹埋穴　僧汲夕陽泉
山水爲家客　乾坤何處邊

새는 허무러진 담으로 엿보이고
중은 석양에 물을 길어오네
자연을 집을 삼는 손님아
천지의 끝난 데가 어듸뇨

## 17. 무의공(武懿公) 이언척(李言惕)의 시(詩)

安南(富平)途遇雪

日暮安南府　風寒雪滿衣
路岐行欲沒　村樹近還微
來往三年過　乘除萬事非
何時行役了　蓑笠上漁磯

안남(부평)가는 길에 해는 저물어 찬바람에 내린 눈이 옷에 쌓인다
갈레길은 눈에 묻혀 헤아릴길 바이없고, 가까운 나무조차 희미하게 어린다.
이길 오가며 삼년세월 지났건만, 만사가 되는 일이 그 하나도 없구나
어느 때나 이것을 끝 마치고서 도랭이 덮어나 쓰고 낙시터에나 가본담

이언척은 부평부 가좌동 출신의 무관이다 그는 무관으로 일생동안 국경방위사령관과 수령으로 큰 공을 세웠다. 그가 자기집 가까이 지나며 눈을 맞으며 지은 시이다.

## 18. 조서강(趙瑞康)의 가정시(佳亭詩)

乘閒勝日到村家　十里芽郊萬樹花
洋醉騎驢無事客　太平春興自堪誇

한적한 좋은 날 두매집 찾아오니 향기로운 십리들은 꽃이 덮였네.
거나하게 취하여 나귀에 탄 한가한 나그네 좋구나, 꽃철에 흥취넘치네.

조서강은 가정 정자를 세운 조반의 아들이다. 그는 이조참판에 재임 중 벼슬을 버리고, 아버지가 세운 가정을 이어받아 자연을 벗삼고 살았다. 이때 세종임금이 그를 찾으니 도성에 없었다. 왕은 그에게 벼슬을 내리고 취임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가 벼슬을 받지 아니하니 세종은 양평대군과 신하들을 내려보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석호가정(石湖佳亭)의 별업도(別業圖)라 이름하여 왕께 바쳤다. 그 후 조서강은 이 정자를 지키다 죽었다.

## 19. 안평대군(安平大君) 가정시(佳亭詩)

依山芽屋裏　偏好主人心
日月自朝暮　江山無古今

軒外花薰酒　　窓前風人琴
始如塵世上　　眞樂在泉林

산기슭 띄로 이은 오두막집은 주인의 마음씨가 좋기만 하이.
아침엔 해뜨고 저물땐 달밝은 이 강산 언제나 다름이 있으랴.
문밖에 꽃향기로 술을빚고 창가에 바람소린 거문고로다.
비로소 알았노라. 티끝세상에서 자연 속에 깃들인 참다운 멋을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로 명필이자 학자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조참판 조서강이 벼슬을 버리고 없어지니 세종은 그에게 새로 벼슬을 내리고 취임하라 하였으나 불응하니 세종은 아들 안평대군 및 여러 신하를 가정에 내려 보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 이를 석호가정별업도라 이름을 지어 세종께 바쳤다.

### 20. 정인지(鄭麟趾)의 가정시(佳亭詩)

岡壺依然更就看　　長堤別墅對靑山
霜添柿栗三秋暮　　雨浥桑麻十畝間
南浦歸帆縱堪日　　後園踈竹足開顔
知君早有江湖往　　吃退他年自在閑

그림 위에 좋은 경치 다시 살펴 바라보니 가정 별장이 청산을 대했구나.
서리덮인 감과 밤에 가을은 저무는데, 비에 젖은 전원은 밤 사이에 널렸네.
남포로 떠오는 배 눈길을 수치는데, 뒷동산 성긴 대가 주름살을 펴는 듯
옛부터 그대 심정 산촌에 쏠렸더니, 일찌감치 물러나서 한가함을 즐기는다.

정인지는 조선초 문신이고 학자이다. 세조를 도와 정난공신이 되고 하동부원군이 되었다. 그후 영의정이 되었다. 세종때 안평대군과 같이 가정에 내려와 시를 지었다.

### 21. 황정혹(黃廷或)의 가정시(佳亭詩)

拂拭霜紈古　　驚疑勝境偏
堂基還相宅　　舟壑只裏錢
萬里波濤遠　　千秋松竹姸
幷刀難剪取　　卷送意茫然

흰 비단에 묵은 먼지 쓸어버리니 놀랐구나 좋은 경치 여기에 쏠렸으니
낭집터에 이제는 알맞은 집 자리잡고 배를 매둔 언덕엔 폿돈쟁이 뿐이구나
물길은 아득히 바다뒤에 머언데 송죽은 몇천겹을 곱게만 서있구나
이경치 칼로서도 도려낼 길 없어서 도로 맡아 보내려니 마음 허전하구나

황정혹은 문장과 서예에 능한 인물이다.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지내고 호조, 병조판서를 지내고 임진난에는 임해군, 순화군을 모시고 도중에 적에게 잡혀 토굴에 강금되기도 하였다. 벼슬할 당시 가정에 들러 시를 남겼다.

## 22. 류의손(柳義孫)의 가정시(佳亭詩)

半幅鵝紈水墨徵　一區野墅轉依稀
風翻麥浪莘耕野　月蒲蘋州渭釣磯
牧笛隔林春兩歇　商帆傍崖暮煙霏
坐間剩得田園興　何必忽忽欲退歸

흰 비단 위에 은은한 수목화 가정정경이 어른거린다.
보리밭에 바람이 이니 옛 선비 갈던 들판 같구나.
갈대밭 달비치니 태공이 놀던 낚시터자리
수풀속 피릿소리에 봄비 개이고, 장삿배 머문 언덕 저녁 연기 덮혀서
앉은자리 전원의 흥이 넘쳐 흐르니, 무슨 일로 총총이 돌아가려 할련가

류의손은 세종때 문과에 급제하고, 검열감찰 집현전 수찬, 직제학 동부승지, 도승지 등을 지내고 이조참판을 지내다가 병으로 사임하였다. 그가 고관재임중 안평대군과 같이 가정정자에 내려와 지은 시이다.

## 23. 이경전(李慶全)의 기노재시(棄老齋詩)

溪在於溪山在山　野翁來往卽中間
烟雲風雨臥爲變　鷗鷺菰浦爭戲灣
已老天遊眞得意　幾人形役未投閑
靑城告酬猶留帖　波濕仍敎偶語還

시내건너 또시내 산넘어 또 산 이 사이에 촌노인 집짓고 사네.

비바람 연기구름 누우면 달라지고 갈매기 갈대숲에 넘노는 포구.
늙어 이 경치가 정말 좋아서 술한사람 고달픔에 지쳐있던가.
떠나가는 청성에도 시첩을 남겨 눈물 겨워 말 못하고 돌아섰노라.

이경전은 영의정 이산해의 아들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지내고, 관찰사를 역임하고 한평군에 봉해 졌으며, 예조판서를 지냈다. 문필에 뛰어난 학자이며, 어느날 기노재를 방문하여 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 24. 최명길(崔鳴吉)의 기노제시(棄老齊詩)

四老幽棲倚海山　當時勝事播人向
春泉細細通蓮沼　野艇依依渡柳灣
世業靑氈眞不墜　龍驤白首占餘閑
從公倘得謀隣社　月笛烟蓑空往還

선생이 쉬시든 곳 바다와 산 그 시절에 멋진 일 기리떨치리.
봄 샘물 가는 줄기 연못에 흘러 나룻배 가물가물 숨는 버들가
물려준 이 세업은 기리 누리어 흰머리 희날리며 만판 즐기소.
그래 따라 나도 함께 이웃이 되면 달빛아래 젓대 불고 오가며 놀리.

최명길은 일찌기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정랑이 되고, 인조반정때 공을 세워 성사 공시 1등이 되고 완성군에 봉해지고 부제학 한성판윤을 지낸 뒤에 영의정에 올랐다. 이 시는 1620년경에 이곳을 지나다 지은 시로 여겨진다.

### 25. 김지수(金地數)의 기노재시(棄老齋詩)

君家別業桂陽山　勝事偏多烟水間
秋淺蟹粱通藕渚　春深魚市接沙灣
已占江外年年樂　且在樽前日日閑
四老淸塵期獨斷　未應城郭晩來還

그대에 계양산의 지은 별장집 좋은 경치 안개 어린 물에 쏠렸네.
이른 가을 게가밭도랑 갈대숲 뚫고 깊은 밤 생선시장 모래톱에 있네.
한강가 술차리하여 해마다 즐겨 술 한 잔을 겹쳐드니 한가도 할사.
상산사고 맑은 흥취 혼자 취하고 서울길 떨치고서 늦게야 오네.

기노재란 버려진 노인들의 집이란 뜻이다. 지금은 서울시에 편입되었으나, 옛날에는 부평부 수탐면 관내였다. 군수를 지낸 조호(曺浩)가 아버지 현감을 지낸 조윤지(曺潤祉)를 위해 지은 제시이다. 이 집에는 조윤지 감찰 원사순(元士順), 좌랑 김복선(金福善), 이혁유(李赫遊) 등 네사람이 모여서 놀았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칭하기를 四皓仙人이라 불렀다.

### 26. 김기국(金耆國)의 기노재시(棄老齋詩)

棄老幽接地　多君肯構堂
種松皆傴盖　移柳已成行
村迴人烟少　身閑歲月長
春來佳興極　花鳥短笻香

세상을 등지고 유점에 살지만 항상 임을 그리며 기거할 때가 많다.
심어놓은 소나무는 비스듬이 누어서 덮었고 마을은 멀어서 인적이 드물고
봄은 한가로와 세월은 길다.
새봄이 돌아와 가흥이 저절로나고 꽃핀 언덕길에 지팡이가 향기롭다.

김시국은 광해군때의 인물로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좌랑 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왔다. 그 후 대사성, 대사간까지 지냈다. 남하도중 이 기로재에 들러서 지은시이다.

### 27. 최명길(崔鳴吉)의 기노재시(棄老齋詩)

四山幽樓傍海山　當時勝事播人間
春泉細細通蓮沼　野艇依依渡柳灣
世業靑氈眞不墜　龍驤白首占餘閑
從公徜得謀隣社　月笛烟蓑空往還

선생이 계시던 곳 바다와 산 그 시절의 멋진 일 길이 떨치리.
봄샘물 가는 줄기 연못에 흘러 나룻배 가물가물 숨는 비들가.

물려준 이 세업을 길이 누리어 흰 머리 흩날리며 만판 즐기소.
그대 따라 나도 함께 이웃이 되면 달빛아래 젓대불고 오가며 놀리.

최명길은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정랑 폐모론 기밀누설로 파직되었다가 인조반정에 가담해 정사 공신 1등으로 완성군에 봉해지고 참의 이조참판, 부제학, 한성판윤을 지내고 이조판서 재임중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냈다. 이 시는 기노재에 우연히 들러 지은 시로 추정된다.

### 28. 송국준(宋國準)의 부평성시(富平城詩)

穿繞鴻濛碧色中　樵歌鄕亮午峯空
鞦遷高柳今村閉　迸澼晴莎一隊紅
弱遇溪浪鳩婦爾　軟吹酒面蝶郎風
革綠帽影前霄帳　路曲如腸短約束
春初意不負春遊　無那春光一箭流
斗酒重峯鳴鳥院　家書遠送落花洲
羈燈客到詩通夜　石枕泉鳴夢欲秋
橈落每季殘昭路　分明身去奈心留

홍몽한 푸른 숲속 뚫고 헤쳐 누벼 가니 나뭇꾼의 노래소리 오봉에 울려퍼졌도다.
그네 매인 높은 버들 온마을 가리우고 빨래터 맑은 자리엔 붉은 옷에 여인네들
시내물에 스친 흔적은 비나린 그 탓이요. 숲잔 위 어린 물잔은 나비바람 일세라
모자의 그림자 앞으로 하늘은 장막처럼 펼치고 길은 굽어 창자같이 굽어 오므라
들었다.
봄이 오자 처음엔 봄놀이를 잊지 않으려 하였건만 언제나 봄빛이 햇살같이 흘러
갔으니 어쩔 수 없네. 말술로 명조원에서 다시 만나 가서를 낙화주로 멀리 보낸다.
등밝힌 객사에는 손들이 청담으로 밤새우고 돌베게 머리에서 샘물이 우니 꿈이
서늘타 해마다 석양길에 낙엽이 질때 분명 몸은 갔지만 마음만은 머무네.

송국준은 인조때 부평 부사로 도임해서 선정을 베풀다가 사퇴하고 인천땅에 낙향하였다. 그래서 전임지신 부평산성에 올라 시를 지었다. 이 글은 화방집(畵舫集)에서 이기한 것이다.

## 29. 송국준(宋國準)의 부평촌속시(富平村俗試)

切切憐郎又怨郎　秋歌凄咽足沾裳
村低二畔連湖屈　袖窄三分學漢陽
元瓮待朝醽白濁　瓜臨如露摘青黃
差科六月還難了　縣帖敲敲扉漂欲霜
叵闐殘根廢寺門　等閑啼鳥惱春魂
黃魚店上朝烟鬧　紫燕山前亂帆奔
民田祖符終歲急　人歸碑字一行昏
農桑舊幅堪添畵　豆葉匏花夜犬村

절절히 낭군을 예뻐도 하고 원망도 하니 가을 노래 슬퍼라.
눈물지는 이 치마폭 마을이 낮으니 한쪽은 호수로 연해 있고, 옷소매는 좁아서 삼푼 한양을 본을 땄구나.
항아리는 아침 되면 흰 탁주를 거르고, 오이 아랭찌엔 이슬발에서 광주리로 따 담는다.
제구실은 유월이되어도 다 바치지를 못하고, 고지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 섬뜩 하여라.
폐사 문턱에는 남은 뿌리 앙상하고 우짖는 새소리는 봄마음을 괴롭힌다.
어물전 황어 위로는 아침 안개 자욱하고 자연산 앞으로는 돛단배가 어지럽게 달린다.
백성들은 조세에 몰려 세밑이 되도 마음만 급하다. 사람이 다 돌아가는데 비석 글자는 그 한줄이 희미하구나.
농사 짓는 옛 그림에 덧붙일만 하도다. 콩이파리 박꽃에 개짖는 그 마음.

## 30. 계남(桂南) 이구령(李龜齡)의 시(詩)

深巷讀書窮日月　平原騎馬忽春風

궁벽한 시골에서 반평생 글만 읽다가 이제 넓은 들판에 말을 타고
관직을 얻어 부임하게 되니 마음에 봄바람이 불어 오는구나.

이구령은 부평 가현 사람이다. 일생동안 공부만 하다가 노론을 두둔하는 글을 지어 벼슬을 얻어 부임할 때 흥이 나서 지은 시이다.

### 31. 삼춘당시집(三春堂詩集) 고란사(皐蘭寺)

白馬江頭繫小舟　花殘龍去幾年秋
山河不管興之事　依舊峯巒立晩州

백마강엔 작은 배 매어 있는데 그 옛날 삼천궁녀가 꽃같이 떨어지고
깊은 강 용이 자취를 감춘지 몇 해인고 아직도 산하는 세간 흥망에서 무관한 듯
빼어난 산봉오리는 옛모습 그대로 저녁 강가에 우뚝하구나.

삼춘당은 유명한 학자이고 임금의 경연에 참여한 사람이다. 검암동 출신으로 오정 땅에서 살았다.

### 32. 소주(昭州) 가는 길에 부평을 배로 지나며 지은 시(昭州舟道富平試)

虛州正遡昭湖廻　四面蓬窓盡意開
通過太平岩畔出　眼前滄海水少盃

빈 배로 달리며 소호를 돌아 들어 사면의 봉창을 활짝 열어놓고
대평암을 거쳐서 앞으로 나아가니 눈앞에 푸른 바다 술잔같이 작아뵌다.

옛날 벼슬아치(성명은 알 수 없다)가 영종도 태평암을 지나 부평땅 해안을 지나며 지은 시이다.

### 33. 정조대왕(正祖大王)의 부평래행시(富平來幸詩)

桂陽山色極嬋姸　百里秋登上上田
民富政平斯可矣　誰能更續武城絃

계양산 그 모습은 그지없이 곱고 백리 들판엔 풍년이 들었구나.
백성들은 넉넉하고 정사가 공평하니 누가 능히 무성현을 다시 이어 받들가

정조대왕께서 정조 21년 8월 15일 궁성을 떠나 김포 장능을 참배하고 하루를 유숙하고 부평고을에 들러 점심을 인천, 안산을 지나 수원 아버지 사도세자 묘원으로 가는 도중 부평 땅에서 지은 시이다.

### 34. 당좌수(唐座首)를 부러워하고 비방하는 글

座首座首擢座首　富平땅에 唐座首
나라님 모신 權勢로 眼下無人되었네.
付託請託하려면 當身宅가여야 하네

권세 많은 좌수 부평고을 최당 좌수는 임금님 모신 권세로 안하무인이 되어
부탁을 하려면 당좌수댁 가야 하네

정종이 부평땅에서 당좌수(부평감부)의 자부담으로 왕 일행들의 점심 및 로비(路費)까지 대접을 해서 좌수가 되고 정부 고관을 알게 되어 권세를 부리게 되자, 그를 시기하고 탐내는 글이다. 이 시는 가치가 없으나 당좌수 권세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글로 그 당시 널리 유행하였다고 전한다.

### 35. 박장환(朴章煥) 부평고시(富平古詩)

桂山峩峩兮　下有霧阡芝
蘭浦洋洋兮　上有玉液泉

계양산이 우뚝함이여, 아래에 연기 덮혀 있네.
난포가 양양함이여, 위에 구슬같은 약물이 있네.

박장환이 어디서 사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그는 학자로 부평 고을에 들러 지은 시로 여겨진다. 蘭浦란 蘭芝島浦口를 뜻한다.

### 36. 계은(桂隱) 류지익(柳之翊) 꽃뫼시(花山詩)

桂陽北落得花山　山似嬋姸溪黛髮
一面橫臨蒼海上　千尋高岬斗兩間
朣朣出日如鉦棣　決決流泉映華環
不待招邀排戶澗　相看疑是故人顔

계양산 북쪽에 화산을 얻으니 산은 고운 여자같고 내는 검은 머리 봉같드라.
일면으로는 비껴 창해 위에 임하고 천길이나 높아 두우간에 꽂같드라.
당당히 흐르는 샘은 사립물에 비쳐 돌아가더라.
부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물을 밀치니, 서로 보매 이 고인의 얼굴인듯 하여라.

류지익은 근세 부평고을의 대표적인 학자이고 시인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다가 내던지고 고향에 내려와 일생동안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는데 그가 지은 시는 천수정도가 된다고 한다.

### 37. 계은(桂隱) 류지익(柳之翊) 범섬시(虎島詩)

滔滔碧海洪無邊　一抹青螺落遠天
雲寺遽生跋窟上　波光撓漾蜃樓前
有時的歷歸帆止　向夕分明倒景懸
若使中流無柢柱　洪河壯觀詎能然

도도한 바다가 넓어 가이 없으니 한 폭 푸른 섬이 원천에 떨어졌더라.
구름 짚은 격굴 위에부터 생기고 물결 빚은 신루 앞에 묘양하드라.
때로 있어 적실히 돌아가는 돗대가 그치고 저녁 때를 향하여 분명히 거꾸로 그림자가 달렸드라.
만일에 중류에 지주가 없으면 넓은 하수 장관을 어찌 능히 그러하리요.

### 38. 계은(桂隱) 류지익(柳之翊)의 명월사시(明月寺詩)

明月何年寺以名　寺今不在月猶明
從知佛力終難持　胎覺天生獨子情
名光黃搕藏鼷鼠　台生古井伏狸狸
原頭累累誰家塚　木落山空野狸鳴

명월이 어느 해로부터 이름 지었는고. 절은 이제 없어지고 달만 유독 밝도다.
조차 알겠노라 불력은 수난을 지탱하였지만 거친 해에 들길에는 두더지가 숨어 있고,
이끼 낀 옛 우물에는 섬섬이가 업드렸도다.
들판 위의 여러 고총은 누구집의 것인가 나무에는 낙엽이 지고 산은 비었는데 들새만 지저귄다.

### 39. 계은(桂隱) 류지익(柳之翊)의 해시(海詩)

滔滔巨渡因都西　將可乘湖湖至齊
吐細三光無上下　帰輪萬折畓端倪

笏胸雲氣龍頭起　極日天光鳥背低
安得長風高掛颿　直登銀漢駿遐昆

도도한 큰 파도가 도서에 임하니 자치 소루를 타매 조수가 가짓 참에 오르더라
감습에 찬구름 기운은 용의 머리에서 일어나고, 용마루의 하늘 빛은 새등에 아득하드라.
어찌 긴 바람은 더 높이 돛대를 걸고 곧 은한에 올라 멀리 달려볼고.

## 40. 류지익(柳之翊)의 계양산시(桂陽山詩)

吾家經濟卽泉林　暇日登臨楊素襟
乱石層台千古跡　浮雲流水一山心
挫來石上人同志　會向花前妓棧酒
呼吸想應通帝座　看天揆首木高吟

내 살림 천림일세 그 곳에 묻혀 살며 한가하면 산에 올라 회포도 푸네.
난석과 층대는 옛날 자취 그대로요. 뜬구름 흐르는 물은 이 산 마을일세.
돌 위에 모여 앉으니 서로 우리 동지인데 마침내 꽃 앞에 기녀 술잔을 친다.
숨결조차 상제께는 상통하는 법이오매 하늘 보고 머리를 극적 나락 낮춘다.

## 41. 국구(國舅) 김조순(金祖淳)에 부름에 불견(不見)하고 지은 시(詩) 류지익(柳之翊詩)

吾家知在桂西頭　湖海徜祥六十秋
腹儲讀書何處用　身無表褐不層愁
慢盧窩業辭金貫　脫落長江一笛聲
渡了畿人舟白泛　噪殘孤處島猶鳴
碭來深得江湖興　忽起尊鱸方里情

계양산 서쪽에다 집을 짓고서 육십평생 두고두고 바다를 거닐었는데,
뱃속에 채운 글은 어이다 쓸고 걸칠 옷이 없어도 근심치 않네.
벼슬도 어이하며 조복을 사양하고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갈매기와 벗하도다.
딴길을 걷자하니 마음이 부끄럽고 일생에 어쩌다가 세도할가 두렵다.

### 42. 류태형(柳台衡)의 등계양산시(登桂陽山詩)

地靈桂北華人豪　笻履聯翩共涉高
頓草無非縣圃藥　落花疑是武陵桃
酒餘候湯踈泉脉　飮後元香莫濶毛
滿目風光詩料足　踏來峰壑不辞勞

영기가 있는 땅 계북에 화인이 수질이네
지팽이 끌고 신 신고 오락가락 한가히 높 곳에 오르네.
정돈한 풀은 현포에 약 아님이 없고 떨어진 꽃은 이 무릉도인가 의심할네라.
술 마신 나머지에 목이 좋을 것 같으니 새암을 조롱하고
밥 먹은 뒤에 향기가 없으니 시내고기를 지지드라.
눈에 찬 풍광이 글짓는 재료에 만족하니 산봉우리와 계곡을 밟아와도
수고를 사양치 안할네라.

류태형은 문과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을 하다가 사퇴하고 낙향하여 살았는데, 계양산에 올라 지은 시이다.

### 43. 정학교(鄭鶴敎)의 계양독락운(桂陽獨樂韵)

一詠藥泉塵外尋　奇花落盡詩人軸
千峯迴迴白雲深　霽月開未逸士林
台老碧岩猶古揖　山禽知我兇機客
葉靑喬木亦幽除　故故飛來送好音

속세를 떠나 일영약천을 이곳에 찾으니 곱게 피었던 꽃들은
모두 시인의 필책 위에 떨어져 있고
저멀리 아득히 뻗은 천봉 위에는 흰구름 자욱하고
비개인 밤 모습을 드러낸 초생달은 아직도 일시에
수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태노의 푸른 바위는 옛모습 그대로이고 지저귀는 산새들은 나의
떠돌이 신세를 아는 듯
잎푸른 큰 나무는 우거진 그늘 그윽하고 산새들은 짐짓 날아들어
좋은 소리를 들려 주노나.

정학교는 학자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사귀고 놀기를 좋아하였다. 만년에 고향에 내려와 명장으로 있었다.

### 44. 부사(府使) 박희방(朴熙房)의 부평팔경(富平八景)

桂陽孤鍾　蘭浦歸帆
大橋漁火　景明落照
溫洞瀑布　古城牧笛
遠積暮雨　西川院沙

계양산에 외로운 종, 난지포구로 돌아오는 배
한다리 참게잡는 등불, 경명현에 지는 해.
온수동에 떨어지는 폭포수, 피리부는 고성의 목동
원적산 날 저문 비, 서천원에 쌓인 모래.

박희방은 부사로 도임해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하고 길목에 강해루(控海樓)를 짓고 부평팔경을 써서 걸어 놓았다.

### 45. 봉화(奉化) 송영진시(宋永鎭詩)

逢何難色別何景　殘月兩鄕勞遠夢
恨末當年共此生　惠詩一幅寫眞情
水舟無心歸海國　遙想桂陽西北衣
雪如有意鎭山城　某處某友正不明

우리 만남이 어려웠는데 이별은 어찌하였는고. 조각달은 두고을에 미쳐 우리들의 먼 꿈을 위로하였다.
지난 날 우리가 생을 함께 하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그대가 주신 한 폭의 서예는 진정이 남겨있었다.
작은 배는 무심하게 해국에 돌아갔는데 멀리 계양산 서북쪽에서 생겨난 일들을 회상케 한다.
차분히 내린 백설은 유정한듯 온 산성을 가득 덮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어떤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송영진은 일제시대 초기 유명한 학자이다. 검암동 출신인데 둘째 아들이 연천 땅에 살아서 거처를 두 군데 두고 오가며 회상하는 글이다.

## 46. 정지석(鄭芝錫)의 옛집을 찾아(訪舊屋)

半歲間扉客亦稀　滿庭物色依依
數叢芍藥雙松樹　數待主人深興歸

반년이나 집을 비웠으니 오신 손님 별로 없었고,
뜰에 가득한 물색은 예와 다름이 없구나.
몇포기 작약과 두어그루 소나무를 심으니,
자주 주인 오기를 기다렸는 듯 하여 감회가 깊구나.

정지석은 검암동 출신으로 한말 예학관이 되어 객지학교에 있었다. 반년만에 집에 와서 감회를 읊은 시이다. 한일합방이 되니 사퇴하고 고향에 내려 와 학당을 세우고 후배 양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 47. 정지석(鄭芝錫)의 하유월미도시(夏遊月尾島詩)

其一

島尾遠隨月尾依　湧天風浪四邊圍
怪石蒼松心界爽　珍禽靑鹿世塵稀
只爲觀瀾慊海霧　不須擇座可笞依
一觴一咏悠悠樂　物外登臨意忘歸

其二

落地月宮小島依　能達八尾幅長園
白日經濟當午近　紅芳轉綠見花稀
洶洶風勢膽鴻翼　瀠瀠江聲警街衣
愛岩幽菴薜蘿外　與君盡醉惠携歸

하나

먼성의 끝은 월미에 의해 연결되고 하늘까지 용솟움치는 풍랑은 사면을 둘러 쌓았구나.
괴석과 창송은 마음이 상쾌하고 진귀한 푸른 사슴 세상에 드물어라.
나만 물결을 보자니 비단안개가 혐의스럽고 모름지기 자리를 가리는데 이끼는 없드라.
한 잔 술로 시 한번 읊으니 유유한 낙이고, 뜻밖에 오르고 보니
돌아오기를 잊을 경일러라

둘
떨어진 월궁도 소월미도에 의지했고, 팔미도 긴 폭은 능히 포위하기에 달했더라.
청명한날 정오가 가까이 당도하니 붉은 방초는 녹수에 떨어져 꽃을 보기 드물더라.
도도한 풍랑은 봉새가 달아오는듯 거세고 늠늠한 각소리는 무쇠옷을 경계하도다.
담쟁이 덩쿨과 댕댕이 덩쿨 위의 그윽히 진주에 바탕함을 사랑하고,
그대와 더불어 같이 돌아옴에 취함이 더 했더라.

학자 정지석이 일제시대 초에 월미도에 몇몇이 여름에 구경왔다가 회포를 읊은 시이다.

## 48. 이철의(李哲儀)의 박연폭포(朴燕瀑布)

飮聞此勝得佳緣　及到朴淵眼豁然
兩岸層巖千丈壁　孤城落日一條烟
楓嶽廬山皆有瀑　萬壑雷聲幾代喧
半奏雨色何月露　壇名世界俱相傳

경치가 좋다고 익히 들었는데, 박연 폭포에 와서 보니 눈이 휘둥글해지는구나.
양 언덕 층층 봉우리는 천길벽이고 성 넘어 지는 해에 한 줄기 열길일세.
풍악 여산에 모두 폭포가 있으니, 만학의 뇌성은 몇만년 시끄러운가.
방공중 오는 비는 언제 갤까 온 세상에 같이 이름을 날리리.

이철의는 검암동에 사는 학자이다. 그는 산수강산을 즐겨 북정기, 삼정기 등의 시문집을 썼다. 중년에 박연폭포를 구경하고 지은 시이다.

## 49. 변영만(卞榮晩) 몽중미인삼수(夢中美人三首)

1. 침침한 초당(草堂)속이 홀연간(忽然間) 밝노라니
딸같은 고은한 분 온적 없이 오셨세라.
그 무어라 부를결 없네 알면 알듯 하여라.

2. 오백년 지난 풍류(風流) 기억조차 희진된 것.
가고 온 말 없는 채 양인 심리 양인지(兩人知)를
두 숨결 뇌성(雷聲)인듯 맞방매질 되거라.
3. 수류(垂柳)냥 숙이시다 갓빛처럼 쳐들을 때,
곱고도 엄한 상호(相互)보는 눈을 분쇠(紛碎)할 듯
묵은 죄 일시에 생각혀 울며 불며 했어라.

변영만은 구한말에 부평땅 오정면 고강리 출신으로 법관(검사)으로 재임 중 나라가 망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가담한 학자요 법률가이다. 그의 아우로 국무총리를 지낸 변영태가 있고, 시인 변영로가 있다.

## 50.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 시(詩)

1. 머리에 하늘을 이고 발은 땅을 덮었건만
아득히 허절할사 가는 그 곳 어디멘지
발뿌리 내지는 대로 진동한동 갈거라.
2. 가다가 해 저물고 산중수진 발 막히어
길가에서 쓰러진 채 찬 이슬에 언지언정
그렇다 한 번 떠날 길 돌려섬이 있으랴.
3. 초라고 하용없다 포풍제창 한평생
찾는 것 자못 없고 처지는 것 슬픔뿐을
울부짖어 무엇하기나. 이 악물고 살리라.

수주 변영로는 근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명 시인이다. 또한 대주호이기도 하다. 그의 시집이 전한다.

## 51.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의 시(詩)

생시에 못본 임을 꿈에나 뵐까하여
꿈가는 푸른 고개 넘기는 넘었으나
꿈조차 흔들리우고 흔들리니
그립든 그대 가까올듯 멀어라

## 52.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의 시(詩)

진주촉석루 의기(義妓) 논개(論介)에 대한 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더 깊고
불붙는 정렬은 사랑보다 강하다
아~강낭콩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땁던 아미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마추었네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에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 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임진란때 의기 논개가 왜장을 끼어 안고 촉석루에 강물에 빠져 숨진 논개를 찬양하는 시이다.

## 53.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의 봄비시(春雨詩)

나즉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보니 아~ 나아가 보니
주름살 잔득 실은 듯한 젓빛 구름만이 무척이나 가뿐듯이
한없이 게으르게 푸른 하늘 위를 거닌다
아~ 이른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나즉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하렴풋이 나는 지난 날의 회상같이 떨리는
보이지 않는 꽃에 입김만이
그의 향기로운 사랑 안에 지저기 거리노나
아~ 꺼림없이 아픔 나의 가슴 나즉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이제는 젖빛 구름도 꽃의 입김도 자취없고
다만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같이 봄비만이
소리 없이 근심같이 내리는구나 아~ 안올 사람 기다리는 마음

### 54.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의 유시(遺詩)

오~ 고달픈 심정이여, 너는 길이 길이 쉬어라
나는 떠나지 않을 줄 알았던 크나큰 망상도 사라졌나니

수주가 임종시 1961년 3월 14일 9시 40분에 지은 유시다.

### 55. 춘호(春湖) 류희진(柳熙晋) 대동강시(大同江詩)

往跡依稀江一岸　寒烟寂寞月千秋

지난 일은 희미해서 강에 한편같고
찬 연기 적막해서 달은 천추와 같다

류희진은 시천동 출신이다. 구한말 외국어 학교를 나와 세무서장을 지내다 한일합방이 되어 군속관과 명륜당 강사 등을 지내고 만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귀국하였다. 그가 만주를 드나들 때 대동강을 보고 지은 시이다.

### 56. 춘강(春江) 류희창(柳熙昌)의 계양산 詩

山名桂岫曾無桂　水似桃源訪桃

산이름은 계양산인데, 결국 계수나무는 없고나
물은 도원같은데 도원이 있겠지

시천동 출신으로 학자였다. 그가 계양산을 보고 지은 시다

# 第 8 篇　姓氏·人物



# 第1章 성씨(姓氏)

## 1. 관향 성씨

관향(貫鄕)이란 모든 성씨(姓氏)의 시조(始祖)가 나온 땅이름을 말하는데, 관적(貫籍), 본(本), 본관(本貫), 선향(先鄕) 등으로 불리워 왔다. 또 성(姓)은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의 창호로서 대대로 이어져 온 같은 겨레의 혈족을 구별하는데 쓰여왔다. 그리고 여기에 씨(氏)를 붙여 상대방을 높혀 불렀다.

문헌상에 나오는 부평의 옛 성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무 3년(1899) 11월 경기도에서 발행한『부평군읍지』에 의하면

본부(本府) : 김(金) 이(李) 유(柳) 진(陳) 형(邢) 손(孫) 최(崔) 조(趙) 유(劉)

황어(黃魚) : 정(鄭)으로 기록되어 있다.

둘째, 광무 10년(1906)에 발행된『부평부읍지』에 의하면

본부(本府) : 김(金) 이李) 유(柳) 진(陳) 형(邢) 손(孫) 최(崔) 조(趙) 유(劉) 윤(尹)

황어(黃魚) : 손(孫) 김(金) 정(鄭)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본부(本府)라 함은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를 말함이고, 황어(黃魚)라 함은 황어현(黃魚縣)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옛날 부평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고려 충선왕(忠宣王) 2년(1310) 8월, 전국의 목사(牧使)고을을 없앨 때 길주목(吉州牧)을 강등시켜 부평부(富平府)로 만들고, 황어현은 부평부에 폐합시켜 없앴다."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성씨가 본부와 황어로 구분되어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성씨는 고려 충선왕(1310) 이전에 거주한 성씨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중종 25년(1530)에 이행(李荇)등이 증보(增補)하여 간행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부평도호부조에 의하면,

본부(本府) : 김(金) 이(李) 유(柳) 진(陳) 형(邢) 손(孫) 최(崔) 조(趙) 유(劉) 윤(尹)

황어(黃魚) : 손(孫) 김(金) 정(鄭)

이란 성씨들이 보이고, 이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광무 10년(1906)에 발행된『부평부읍지』와 같다.

넷째, 이에 앞서, 단종 2년(1454) 3월 정인지(鄭麟址) 등에 의하여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부평의 호수는 429, 인구수는 954, 군정(軍丁)은 시위군 20, 선군 128 이다. 토착 성씨는 김(金) 이(李) 유(柳) 형(邢) 진(陳) 손(孫) 최(崔) 이고, 외지에서 드러온 성씨는 조(趙) 심(沈) 윤(尹) 등이다. 이 성씨 중 계속하여 내려온 성씨는 김씨이며, 지금은 김씨의 향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본부와 황어로 나누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황어현이 없어진 뒤 조선조 초기인 세종때의 성씨로 보인다.

다섯째, 1924년 강효석(姜斅錫)이 발간한 『전고대방(典故大方) 만성시조편(萬姓始祖編)』(1924.11.9)에 의하면 부평을 관향으로 한 성씨가 부평 이씨(富平李氏), 수주 김씨(樹州金氏), 부평 류씨(富平柳氏), 부평 사씨(富平舍氏) 등 4개 성씨가 등재되어 있다.

부평 이씨는 계양 이씨(桂陽李氏)로도 불러왔으며, 시조 이희목(李希穆)이 고려조에 귀부(歸附)하여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그 후손들이 현재 된밭(鶴田洞)에 집성촌을 이루어 많이 살면서 문맥(門脈)을 이어 오고 있다.

수주 김씨는 시조 김정실(金鼎實)이 고려조에 소감(少監 從4品) 벼슬을 하여 계양산(桂陽山) 남쪽 기슭 심일리(深逸里)에 집단거주한 대성이다. 이 성씨는 계양 김씨(桂陽金氏) 또는 심일리에 사는 김씨라 하여 심일 김씨로 불렀는데, 지금은 그 후손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

부평 류씨는 시조 류흥정(柳興廷)이 고려조에 무관인 낭장(郎將 從6品) 벼슬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후손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평부읍지』 효자조(孝子條)에, "효자류회이효복급(孝子柳繪以孝復給)"이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 부평사람인것 만은 틀림없는데, 다른 유씨문중에 없는 것으로 보아 부평 류씨였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 사씨는 기록만 간단히 있고, 그 내용이나 거주한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 1906)』 인물조(人物條)에 고려때 윤징고(尹徵古)는 현종조에서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우복야(右僕射)에 증직된 장경공(莊景公)이었고, 이위(李瑋)는 인종조에서 중서령(中書令) 계양백(桂陽伯)이고, 손변(孫抃)은 고종조에서 좌복야(左僕射)를 지냈으니 모두 부평사람이다. 계양도호부 시절에 이 세분은 계양삼걸(桂陽三傑)이라 하였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지금은 김씨의 향리가 되었다.[1] 함은 수주 김씨를 지칭하여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헌에 나타난 모든 성씨는 14개 성씨로 그중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성씨는 사(舍), 진(陳), 형(邢), 유(劉), 심(沈) 등 5개 성씨이다.

---

1) 李薰益, 『仁川地名考』, 1993. 11. 30.

그밖에 기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고려때부터 거주한 성씨는 고잔(景西洞)에 울산 김씨(蔚山金氏)와 곡부 공씨(谷阜孔氏)가 있었는데, 지금도 몇호씩 살고 있고, 깊이울(深谷洞)에는 남원 양씨(南原梁氏)와 곽씨(郭氏)가 살았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한집도 살지 않는다.

위와 같이 모든 문헌에 나오는 고려때 성씨의 관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1) 본부(本府, 富平都護府)의 이(李), 김(金), 류(柳), 최(崔), 조(趙), 윤(尹)

○ 이(李)는 부평 이씨(富平李氏)로, 수주 이씨(樹州李氏) 안남 이씨(安南李氏) 계양 이씨(桂陽李氏) 등으로 불리웠는데, 그 유래는 지명의 변천에 따른 것이다. 부평 이씨는 신라말 김포, 부평지방의 호족으로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 시조 이희목(李希穆)은 고려조 건국으로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을 제수받고 세거하여 대대로 충신 효자가문으로 발전되어 왔다. 부평이씨는 현재 계양구 작전동과 인천의 학익동, 문학동, 주안동 일대에 그 후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 김(金)은 수주 김씨(樹州金氏)로, 안남 김씨, 계양 김씨, 부평 김씨 등으로 불리웠는데, 소감(小監) 김정실(金鼎實)을 시조로 하여 고려말기에 부평이씨와 쌍벽을 이룬 대성씨의 문중이었다. 지금은 그 후손이 이곳에는 별로 살지 않고, 평안도 대동군지방에 많이 살고있다고 전한다.

○ 류(柳)는 부평 류씨(富平柳氏)로, 고려때 낭장(郎將) 류흥정(柳興廷)을 시조로한 부평의 옛 토박이 성씨었는데, 현재 부평 류씨로 행세하는 사람은 없다.

○ 최(崔)는 경주 최씨(慶州崔氏)로, 고려조때 인천, 부평지역에 널리 퍼져 많이 살던 대성씨로 고련이(公村洞)에 집단거주 했는데, 지금은 각동에 몇호씩 분산거주하고 있다.

○ 조(趙)는 한양 조씨(漢陽趙氏)로, 고려조 후기에 개경주(佳亭洞)에 많이 살고 있었다. 그후 조선조 초기에만 해도 계산동과 부평동 일대에 살았는데, 지금은 모두 분산되고 말았다.

○ 윤(尹)은 수안 윤씨(守安尹氏)이다. 수안은 수주(樹州)의 속현인 대곶(大串)을 말하는데, 고려조 개국 삼한공신 윤봉(尹逢)의 후손으로 계양 인걸인 윤징고(尹徵古)가 헌종 12년(1021) 추충좌리공신(推忠佐理功臣)이 되고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에 추증된 장경공(莊景公)에 오른 명문이다.

### 2) 황어(黃魚峴)의 정(鄭), 김(金), 손(孫)

○ 정(鄭)은 경주 정씨(慶州鄭氏)로 귤현동에 대성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몇 호가 살고 있다.

○ 김(金)은 김해 김씨(金海金氏)로 선주지동에 대성촌을 이루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않고 경주 김씨(慶州金氏)가 집단거주하여 대성을 이루고 있다.

○ 손(孫)은 계양 손씨(桂陽孫氏) 또는 부평 손씨(富平孫氏)로도 불리워 왔는데, 고려 고종때 좌복야(左僕射)에 오른 손변(孫抃)의 가문으로 굴재의 옛날 토박이 명문이다. 지금도 굴재(橘峴洞)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으로 쓰고 있다.

특히 부평이씨는 5세 장숙공(莊肅公) 이위(李瑋)의 전후대에 이르러 전성을 이루었고, 고려조 말기 까지 인주 이씨(仁州李氏)에 이어 전국에 명문으로 손 꼽혔다. 그러다가 조선조 개국때 후손 이의(李倚)의 불사(不仕)로 역신으로 몰려 한때 명문이 수난을 겪기도 했다. 허지만 200년이 지난 선조때 부터 쌍백당(雙栢堂) 이세화(李世華) 등의 후손이 나오고 번창하여, 다시 가문이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평의 옛 대성씨의 흐름을 살펴보면, 고려조 초기이후로 이 고장의 망족(望族) '부평 이씨'를 첫째로 꼽을 수 있고, 그후 고려조 말기부터 조선조 초기까지 '수주 김씨'와 '김해 김씨'의 향리로 변하여 대성을 이룬 두 성씨를 들 수 있다. 또한 조선조 초기부터 살기 시작한 한때 부평 박씨로도 불러온 밀양박씨가 번성하여 부평 제1의 대성이라 했다. 이어서 조선조 중기부터 살기 시작한 전주 이씨는 후손들이 번성하여 박씨를 앞질러 대성을 차지하여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문벌을 자랑삼었던 부평의 씨족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영고성쇠(榮枯盛衰)가 번복되어 왔다.

관향(貫鄕)은 위와같이, 고려조 이전의 옛 문헌에는 모두 관향없는 성씨만 기록되어 있어, 당시로는 관향을 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옛말에 천민들은 성(姓)도 없어 임금이나 고을 원님(守令)이 사성(賜姓)을 했다는 말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관향을 내렸다는 사향(賜鄕)이란 말은 없다.

관향인 본관은 모든 성씨의 시조가 태어났거나 살던 지명을 본(本)으로 삼았고, 본이 생기기 이전에는 다만 수주사람(樹州人) 또는 인주사람(仁州人) 등으로 하던 것을 조선조 이후에 씨족개념이 두드러짐에 따라 명문화 된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각 문중의 족보(族譜)를 살펴보면 모두 조선조 중기 이후에 발간되었으니, 한창 유학(儒學)이 번성 할 당시 그 문중의 학자들이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아 족보를 만들어 자기 씨족의 문벌을 빛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옛 모든 문헌에 관향없이 성명만 기록되었음은 조선조 중기 이전의 성씨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말기 당시의 부평의 성씨와 관향은 다음과 같다.

이씨(李氏) : 부평, 전주, 경주, 합천, 연안, 성주, 전의, 청주, 청송 등 9개 본이다.
김씨(金氏) : 김해, 경주, 광산, 안동, 언양, 청도, 울산, 의성 등 8개 본이다.
조씨(趙氏) : 배천, 한양, 평양
박씨(朴氏) : 밀양, 번남, 함양
심씨(沈氏) : 청송, 풍산
정씨(鄭氏) : 해주, 초계, 경주
장씨(張氏) : 인동, 덕수
서씨(徐氏) : 이천, 달성
윤씨(尹氏) : 파평
송씨(宋氏) : 진천, 은진
류씨(柳氏) : 진주
강씨(姜氏) : 진주
임씨(任氏) : 풍천
최씨(崔氏) : 경주
안씨(安氏) : 순흥
신씨(申氏) : 평산
신씨(辛氏) : 영월
문씨(文氏) : 남평
당씨(唐氏) : 밀양
권씨(權氏) : 안동
지씨(池氏) : 충주
임씨(林氏) : 나주
채씨(蔡氏) : 평강
남씨(南氏) : 의령
허씨(許氏) : 양천(공암)
공씨(孔氏) : 곡부
고씨(高氏) : 제주
홍씨(洪氏) : 남양
구씨(具氏) : 능성
孫씨(孫氏) : 밀양

황씨(黃氏) : 장수
노씨(盧氏) : 풍천
라씨(羅氏) : 나주
양씨(梁氏) : 남원
곽씨(郭氏) : 현풍
한씨(韓氏) : 청주
민씨(閔氏) : 여흥
성씨(成氏) : 창녕

이와 같이 조선조 말기 당시의 부평에는 38개 성씨에 63개 본관을 가진 씨족이 살고 있었다.

## 2. 성씨(姓氏)의 분포(分布)

### 1) 성씨별 거주 상황

지방향토사의 근원은 이 지방에서 살아 온 토착 성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어 있는데, 부평의 고대 성씨는 옛 문헌에 잘 나타나 있지 않아 이 고장의 유형, 무형의 유적과 여러 성씨들의 족보, 문집 등을 숙람하고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나 있는 약간의 자료를 찾아 모을 수 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

고려조 때부터 부평 고을의 토박이 성씨는 부평 이씨 등 10개 성씨이고, 조선조 때부터 토착한 성씨는 밀양 박씨(密陽朴氏) 전주 이씨(全州李氏) 등 모두 28개 성씨이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씨족마을의 형성이 두드러져 학문과 덕행으로 가문을 빛내며 양반행세를 하였다. 이들 28개 성씨 중 가장 으뜸으로 손 꼽은 가문이 다음의 5대 명문(5大名門)이다.

첫째는 갈개(佳峴, 鵲田洞) 살았던 태종의 둘째 아드님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으로 대사간(大司諫)을 지내고 낙향한 영신군(永信君)의 가문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당미(堂山, 東陽洞) 살았던 성종의 10남 경명군(景明君)의 손자 순강군(順康君)의 후손과 성종의 12남 무산군(茂山君)의 후손인 순평군(順平君)의 가문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고리울(古康, 城址洞) 살았던 세종때 명장을 말년에 공조판서와 지중추부사를 지낸 공장공(恭莊公) 변종인(卞宗仁)의 가문으로 지금은 삼변(3卞)의 고장으로 통한다. 여기에서 삼변이란 공장공의 19대손인 산강(山康) 변영만(卞榮晩), 일석(逸石) 변영태(卞榮泰), 수주

(樹州) 변영로(卞榮魯)를 말하는데, 현재 이들 3형제는 한 곳에 묻혀있다.

이들 3형제는 각기 그 재능에 따라 우리나라 학계와 정치계의 대들보로서 '산강'은 영문학자로, '일석'은 학자이며 정치가로, '수주'는 시인으로 활동해 온 인물들이다.

넷째 검바위(黔岩洞) 살았던 연산군때 둔적(道迹)한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의 아우인 정희신(鄭希信)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녕국공신 정도영(鄭道榮) 등 많은 문무관이 배출된 해주 정씨(海州鄭氏) 가문들이다.

다섯째는 시시내(始川洞) 살았던 진주 류씨(晋州柳氏)로, 대사간을 지낸 류태동(柳泰東)을 시발로 많은 문관과 학자가 배출된 가문이었다.

(1) 전주 이씨(全州李氏)

전주 이씨는 조선조 중기부터 살기 시작한 부평 제1의 대성씨이다. 밀양 박씨 보다 더 큰 성씨로 부각된 이씨는 갈산, 효성, 동양, 다남, 심곡 등 각동에 집성촌을 이루어 10~30호씩 살았고, 적게는 작전, 청천, 산곡, 병방, 목상, 갈현, 오류, 검암, 공촌, 신형 등 각동에 5~10호씩 흩어져 살아왔다.

① 경명군파(景明君派) 동양동(東陽洞)

성종의 10남 경명군의 손자 순강군(順康君) 이선린(李善麟)이 이곳에 정착하였는데, 그 아들 필형(必馨)의 지용이 뛰어나 인조 14년(1636) 무과에 급제한 후 수군절도사로 공을 세워 영국공신과 청백리에 녹천된 명문이다. 교지(敎旨) 33매가 종손댁에 보존되어 있다.

② 무산군파(茂山君派) 동양동(東陽洞)

성종의 12남 무산군의 손자 순평군(順平君) 이선봉(李善鳳)이 이곳에 낙향하여 정착하였는데, 아들 필험(必嬉)은 한성판관(漢城判官)을 지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선봉의 아내 현부인(縣夫人) 영월 엄씨(寧越嚴氏)와 그 며느리인 판관 필험의 아내가 강화성(江華城)으로 피난을 갔는데, 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러 고부가 같이 자결하였다.

인조 16년(1638) 열녀정려(烈女旌閭)를 내렸다. 그후 정려는 없어지고 현판(縣板)만이 차종손(次宗孫)댁에 보관되어 있다. 경명군의 아들인 능성군(陵城君)이 후무(后無)하여 무산군의 손자 순강군이 출계(出系)되어 가문을 이었다. 순강군과 순평군이 들은 형제간으로 후손은 당미(堂山, 東陽洞) 한 마을에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③ 임영대군파(臨瀛大君派) 갈산동(葛山洞)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후손으로 갈산동(葛山洞)에 약 350년 전부터 대성을 이루어 지금도 살고 있다.

문중에 이찰(李嶸), 이윤(李嵗) 형제는 효성이 지극하여 현종 11년(1670) 효자정려(孝子旌

閭)를 내려 참의(叅議)에 증직된 효자 가문이다. 이 정려각은 근래까지 종손댁 옆에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도시화 바람에 밀려 묘소가 있는 갈현동에 이전되어 있다. 후손들이 많이 분산되었으나 20여호가 살고 있다.

④ 영신군파(永信君派) 작전동(鵲田洞)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인 영신군 이이(李怡)가 명종때 대사간(大司諫)을 지내고, 이곳 갈개(佳峴, 鵲田洞)에 낙향하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 후손들이 새별이(曉星洞)에 분거되어 집성촌을 이루게 되니, 이씨의 마을이라서 이촌말(李村)이라 불러왔다.

현재 갈개(佳峴)에는 종손만이 살고 그 일부가 갈산동(葛山洞)에 분거되었는데, 지금도 효성동과 갈산동에는 30여호가 살고 있다.

이 문중에 영신군의 손자 이대성(李大城)은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렀는데 선조 25년(1592) 임진란때 왜장에게 항거하다 살해된 충신이다. 이후 참의에 추증된 그의 묘소는 장흥(長興) 선영에 있다. 또 이 가문에는 영조 3년(1727) 효자로 지평(持平)을 제수받은 이진욱(李震郁), 병조참판 이제만(李齊閔) 등 많은 인물이 배출된 명문이다.

⑤ 해안군파(海安君派) 다남동(多男洞)

중종의 둘째 아들 해안군의 후손이 조선조 후기부터 역굴(多男洞)에 정착하여 대성씨로 집성촌을 이루어 지금도 30여호가 살고 있으며, 그 후손 일부가 목상동(木霜洞) 갈현동(葛峴洞) 부평동(富平洞) 등에 분산 거주하고 있다.

⑥ 정석군파(貞石君派) 심곡동(深谷洞)

정종의 열넷째 아들 정석군의 후손들이 조선조 초기부터 깊이울(深谷洞)에 살기 시작하여 산골 깊숙히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최근 도시화의 물결로 흩어졌으나 지금도 적지않게 살고 있다. 이 문중에는 한성좌윤(漢城左尹)을 지낸 이지윤(李志尹)을 비롯한 많은 인물이 배출된 명문이다. 그리고 새우개(新峴洞)에는 조선조 중기부터 전주 이씨가 살았는데, 지금은 불과 몇 호가 살고 있을 뿐이다. 문중에 통훈대부를 지낸 이응상(李應相)이 있다.

또 구산동(九山洞)에는 옛날부터 전주 이씨가 많이 살아왔는데, 왜정말기에 마을이 철거되면서 거의 분산 되었다. 이곳은 제헌국회의원 이유선(李裕善)의 생장지이기도 하다.

부평 어느 마을에서 전주 이씨가 없는 동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씨들이 번성하여 분산 거주하고 있다.

(2) 경주 이씨(慶州李氏) 부평5동(富平五洞)

조선조 초기부터 하촌(富平5洞)에 살기 시작하여 30여호의 집성촌을 이루어 왔다. 지금은 도시화로 뿔뿔히 흩어져 몇 호만이 산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둥면(兵防洞)과 새우개(新峴

洞)에도 옛날부터 살아왔는데, 모두 분산되어 몇호만이 살고 있다.

(3) 합천 이씨(陜川李氏) 가정동(佳亭洞)

조선조 초기부터 개경주(佳亭洞)에 집단거주하여 대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은 모두 분산되었고 귤재(橘峴洞)에 몇 호만이 살고 있다.

문중에 선산부사(善山府使) 이윤희(李胤禧)등 몇 명정도 벼슬한 분이 있고, 숙종 2년(1676) 효자정려를 받은 이동진(李東振)이 나온 명문이다.

(4) 연안 이씨(延安李氏) 연희동(連喜洞)

조선조 중기부터 연일(連喜洞)에 살기 시작하여 대성씨로 집성촌을 이루어 큰 마을이 되어 있다.

(5) 성주 이씨(星州李氏) 가좌동(佳佐洞)

조선조 중기부터 가재물(佳佐洞)에 살기 시작하여 대성을 이루었고,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또한 개경주(佳亭洞)에도 옛날부터 거주했는데 지금도 10여호가 살고 있다.

문중에 '효자정려'가 내린 이교선(李敎善)이 있다.

(6) 전의 이씨(全義李氏) 가좌동(佳佐洞)

조선조 중기부터 가재울(佳佐洞)에 살기 시작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몇 호가 살고 있다.

문중에 병조판서에 증직된 무의공(武懿公) 이언척(李言惕)이 있다.

(7) 청주 이씨(淸州李氏) 석남동(石南洞)

옛날부터 옷우물(石南洞)에 살았는데, 지금은 몇 호만이 살고 있다.

(8) 청송 이씨(靑松李氏) 가좌동(佳佐洞)

조선조 중기부터 가재울(佳佐洞)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몇 호가 살고 있다.

(9) 김해 김씨(金海金氏) 작전동(鵲田洞)

김해 김씨는 신라시대부터 곳곳에 살고 있는 대성씨이다. 씨족 마을은 선주지(仙住地洞), 새대(鵲田洞), 갈산리(葛峴洞), 고잔(景西洞), 깊이울(深谷洞)에 많이 살고 있다.

(10) 경주 김씨(慶州 金氏) 선주지동(仙住地洞)

옛날부터 곳곳에 살았는데, 씨족 마을로는 선주지(仙住地洞), 용마루(龍宗洞), 고련이(公村洞)에 많이 살았다.

(11) 광산 김씨(光山金氏) 작전동(鵲田洞)

고려때는 선주지(仙住地洞)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모두 떠나고, 조선조 후기부터 까치말(鵲田洞)에 집성촌을 이루어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현재 광산 김씨 대표마을이 되고 있다.

(12) 안동 김씨(安東金氏) 효성동(曉星洞)

조선조 후기부터 새별이(曉星洞)에 살기 시작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김촌말(金村)이라 불리워 왔고,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13) 언양 김씨(彦陽金氏) 십정동(十井洞)

옛부터 열우물(十井洞)에 집단거주 하였는데, 지금은 몇 호만이 살고 있다.

(14) 청도 김씨(淸道金氏) 이화동(梨花洞)

옛부터 배꾸지(梨花洞)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몇 호만이 살고 있다.

(15) 울산 김씨(蔚山金氏) 경서동(景西洞)

고려때부터 고잔(景西洞)에 집단거주한 대성이었는데, 지금은 몇 호만이 살고 있다.

(16) 상산 김씨(商山金氏) 연희동(連喜洞)

고려말부터 연일(連喜洞)에 살았는데, 지금은 몇 호만이 살고 있다.

(17) 의성 김씨(義城金氏) 장기동(場基洞)

옛부터 황어장터(場基洞)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몇 호만이 살고 있다.

(18) 배천 조씨(白川趙氏) 가정동(佳亭洞)

조선조 개국공신(開國功臣) 복흥군(復興君) 조반(趙胖)이 가정(佳亭)을 세워 가정동이란 동명이 생겼다.

둘째 아들 이조참판(吏曹參判) 조서강(趙瑞康)이 세종때 낙향하여 살았는데, 그 후손이 퍼져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또 큰 아들 승지(承旨) 조서노(趙瑞老)의 후손이 도두머리(瑞雲洞)에 한일합방 때부터 살기 시작하여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가정(佳亭)을 세웠던 가정지(佳亭址)는 현재 인천시 지방문화재에 지정이 되어 있고, 경은당(耕隱堂) 조서강의 묘소는 석남동 독골에 있다.

(19) 한양 조씨(漢陽趙氏) 가정동(佳亭洞)

고려조 후기에 개경주(佳亭洞)에 많이 살았다. 그후 조선조 초기무렵에는 부평읍(桂山洞)과 동수재이(富平洞)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모두 흩어졌다.

⑳ 평양 조씨(平壤趙氏) 계산동(桂山洞)

수백년 전부터 계산동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모두 떠나고 한 두집이 살고 있을 뿐이다.

㉑ 밀양 박씨(密陽 朴氏) 박촌동(朴村洞)

밀양 박씨는 굴재(橘峴洞)에서 고려 때부터 살았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몇 호가 살고 있다.

박촌말(朴村洞)이란 박씨의 마을이라서 생긴 동명이며, 박씨는 조선조 초기부터 살기 시작하여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집성대촌을 이루었다. 이웃한 방죽말(防築洞), 뒹면(兵防洞), 임학동(林鶴洞), 부평웁(桂山洞) 등지에 분거되어 한때 부평부에는 5백호나 되는 대성씨를 이루었다. 지금도 이곳에는 박씨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문중에서 6~7명의 무관들이 배출된 바 있다.

또 조선조 초기부터 갯말(元倉洞)에 살기 시작한 밀양 박씨 문중은 집성촌을 이루었으며, 지금도 10여호가 살고 있다. 이 문종에서 부사 장군등 5~6명의 인물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새별이(曉星洞)와 열우물(十井洞)에도 옛날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몇 호만이 살고 있다.

㉒ 반남 박씨(潘南朴氏) 가좌동(佳佐洞)

가재울(佳佐洞) 아랫말(下村)에 한말에 집단거주하여 대성씨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많이 떠났으나 아직도 일부가 살고 있다.

㉓ 함양 박씨(咸陽朴氏) 부평동(富平洞)

함양 박씨는 동수재이(富平洞) 하촌에 조선조 말기부터 경주 이씨와 더불어 집단 거주한 대성이었는데, 도시화로 인하여 모두 분산되고 몇 호만이 산재되어 살고 있다.

㉔ 청송 심씨(靑松沈氏) 둑실동(纛室洞)

청송 심씨는 여러 곳에 살고 있었는데, 특히 둑실(纛室洞), 나무서리(木霜洞), 한둘(白石洞), 가재물(佳佐洞) 등에 많이 살았다.

특히 계양지방의 청송 심씨는 임진왜란후 부평부사 심신겸(沈信謙)이 낙향하여 둑실에 정착한 그의 후손들이다. 문중에서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한둘(白石洞)에도 풍산 심씨와 더불어 많이 살았는데, 호조반서를 지낸 심상리(沈尙履) 등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㉕ 풍산 심씨(豊山沈氏) 백석동(白石洞)

풍산 심씨는 한둘(白石洞)에 대성의 집성촌을 이루고, 또 일부는 고잔(景西洞)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심씨들은 명종 19년(1554) 부평부사를 거쳐 선조 23년(1590) 우의정에 오르고 청백리에 록선된 심수경(沈守慶)의 후손들로서, 조선조 후기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어져 온 명문이다.

문중에 독립투사 심혁성(沈爀成) 인천시의회 의장 심덕기(沈德基)가 있다.

㉖ 파평 윤씨(坡平尹氏) 오류동(梧柳洞)

선조 28년(1595) 부평부사 윤명선(尹明善)은 자기 명조상인 문숙공(文肅公) 윤관(尹瓘)이 고려때 수주지주사(樹州知州事)를 지낸바 있어 이를 감명깊게 여겨 벼슬을 내놓고 오리울(船串)에 낙향하였다. 그 후손들이 오이울(梧柳洞)과 새우개(新峴洞)에 대성씨의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또 후손들 일부는 됭면(兵防洞)과 구월동(九月洞)에 분거되어 살고 있다.

이 문중에서 칠효자(7孝子)가 배출되었으니, 4형제(起坡, 興坡, 堀坡, 弘坡)와 그 자손인 정(珽), 상우(尙友), 서(曙) 등으로 4정려가 내려진 효자 명문이다.

㉗ 해주 정씨(海州鄭氏) 검암동(黔岩洞)

해주정씨는 연산군 8년(1502)에 둔적(遁迹)한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의 고향으로 검바위(黔岩洞) 마을 앞산은 허암이 은거했던 곳이라서 허암산(虛庵山) 또는 허암봉이라 한다.

도승지(都承旨)에 증직된 허암의 아우 정희신(鄭希信)의 후손들이 약 5백년간 이어져 온 토박이 대성씨의 명문으로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문중에는 영국공신 정도영(鄭道榮)을 위시한 문무관 등 많은 인물이 배출된 바 있다.

㉘ 초계 정씨(草溪鄭氏) 연희동(連喜洞)

조선조 중기부터 샘말(連喜洞)에 집단 거주한 정씨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분산되어 몇 호만이 살고 있다. 문중에는 많은 문관들이 배출되었다.

㉙ 경주 정씨(慶州鄭氏) 귤현동(橘峴洞)

귤재(橘峴洞)의 정씨는 고려 때부터 살았다고 하고, 고잔(景西洞)의 정씨는 조선조 중기부터 살았다고 하는데, 모두 떠나고 각기 몇 호만이 살고 있다.

㉚ 진천 송씨(鎭川宋氏) 검암동(黔岩洞)

조선조 중기부터 간재울(艮才洞, 黔岩洞)에 집단 거주한 송씨로,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문중의 송윤(宋玧)은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남달리 숭유(崇儒)사상이 투철하여 부평향교사의 중추적인 역활을 한 유학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31) 진주 류씨(晋州柳氏) 시천동(始川洞)

옛날부터 시시내(始川洞)에 대대로 집단거주 한 대성씨로 학자의 마을로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이 문중은 대사간을 지낸 류태동(柳泰東)을 시발로 십수명의 문관을 배출하고 근세에는 독립운동가 류인무(柳寅茂), 성대강사 유희진(柳熙晋), 명필가 류희강(柳熙綱)이 있다.

(32) 진주 강씨(晋州姜氏) 귤현동(橘峴洞)

조선조 인조 때 이조참판 겸 대사헌을 지낸 복천(復泉) 강학년(姜鶴年)이 귤재(橘峴洞)에 낙향하여 그 후손들이 귤재와 임학골(林鶴洞)에 대성을 이루어 근세까지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모두 떠나고 몇 호만이 살고 있다.

문중의 인물로는 부호인 강석조(姜錫朝) 강한성(姜漢成)이 있다. 또 고잔(景西洞)에 조선조 초기부터 진주 강씨가 집단 거주했는데 모두 분산되고 지금은 10여호가 살고 있다.

(33) 풍천 임씨(豊川任氏) 효성동(曉星洞)

조선조 후기에 새별이(曉星洞)에 집단거주하여 임촌말(任村)이라 불러왔으며, 지금도 10여호가 살고 있다. 또 옛날부터 마제이(淸川洞)와 깊이울에 많이 살았었는데 모두 분산되어 마제이는 지금 살지 않고 깊이울에만 몇 호 살고 있다.

(34) 경주 최씨(慶州崔氏) 공촌동(公村洞)

현재 경주 최씨는 부평관내 각동에 몇 호씩 거주하고 있지만, 옛날 고려때 고련이(公村洞)에 집단거주한 대성이었다. 또 용마루(龍宗洞)에는 수군절제사 절충장군 최영상(崔榮常)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여 왔는데 지금은 몇 호가 살고 있을 뿐이다.

(35) 인동 장씨(仁同張氏) 연희동(連喜洞)

조선조 초기부터 연일(連喜洞)에 집단거주했지만 지금은 10여호가 살고 있다. 그리고 웃우물(石南洞)에서도 조선조 말엽부터 살아왔다고 하며, 지금도 몇 호가 그대로 살고 있다.

(36) 덕수 장씨(德水張氏) 연희동(連喜洞)

조선조 말엽부터 연일(連喜洞)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10여호가 살고 있다.

(37) 장성 서씨(長城徐氏) 일신동(日新洞)

옛날부터 황굴(日新洞)에는 장성 서씨와 평산 신씨가 대성을 이루고 살았다. 문중에 서채량(徐采亮)이란 인물은 주안산에서 호랑이를 잡아 모친의 병환을 치유한 효성으로, 순조 23년(1823) 사헌부 감찰을 제수하고 정려를 내려 효자가문이 되었다.

왜정 말기에 마을 전부가 군용지로 수용되어, 이 두 성씨들은 새로운 일신동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

(38) 달성 서씨(達城徐氏) 용종동(龍宗洞)

달성 서씨는 용마루(龍宗洞)와 가재울(佳佐洞)에 터를 잡고 옛날부터 많이 살아왔다. 지금은 용마루에 몇 호만이 살고 있으나, 가재울에는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마을 뒷산을 달성 서씨의 산이라서 서달산(徐達山)이라 불러왔으며, 문중에는 임진외란 때 전공을 세운 서경서(徐景瑞)장군이 있다.

(39) 순흥 안씨(順興安氏) 작전동(鵲田洞)

순흥 안씨는 조선조 중기부터 새대(鵲田洞), 벌말(上野洞), 연일(連喜洞), 등지에 살았는데 지금은 각기 몇 집씩 살고 있을 뿐이다. 또 마제이(淸川洞)에서도 많이 살았었는데 토박이 안씨는 살지 않는다.

(40) 평산 신씨(平山申氏) 삼산동(三山洞)

조선 초기부터 후정리(三山洞)에 집단 거주하여 신씨 마을로 대성을 이루었는데,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문중 가운데 사천군수를 지낸 신영훈(申永勳)의 묘소가 마을 뒤 등성이에 있다. 또 황굴(日新洞)에는 장성 서씨도 같이 살았는데, 왜정말기 군수기지에 편입되면서 마을이 철거 되어 몇 호만이 살고 있다.

(41) 창녕 성씨(昌寧成氏) 십정동(十井洞)

창녕 성씨는 옛날부터 웃열우물(上十井洞)에 집단거주한 성씨 마을로, 지금까지도 많이 살고 있다.

(42) 영월 신씨(寧越辛氏) 십정동(十井洞)

옛날부터 열우물(十井洞)에 살았는데, 지금도 몇 호가 있다.

(43) 남평 문씨(南平文氏) 십정동(十井洞)

조선조 중기부터 아래열우물(下十井洞)에 집단거주했는데 도시화 이후 분산되어 살고 있다.

(44) 밀양 당씨(密陽唐氏) 방축동(防築洞)

조선조 초기부터 방죽말(防築洞)에 집단거주한 당씨 마을로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45) 안동 권씨(安東權氏) 동양동(東陽洞)

옛부터 봄무굴(蘇室洞)에 많이 살아 오고 있다. 또 조선조 말기부터 당미(東陽洞)에 살기 시작하여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문중에 많은 인물이 배출된 명문이다.

(46) 나주 임씨(羅州林氏) 서운동(瑞雲洞)

1910년 한일합방이 되던 해 도두머리(瑞雲洞)에 살기 시작하였는데, 지금도 5~6호가 살고 있다.

(47) 평강 채씨(平康蔡氏) 이화동(梨花洞)

옛날부터 배꾸지(梨花洞)에 집단 거주하여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48) 의령 남씨(宜寧南氏) 오류동(梧柳洞)

조선조 초기부터 오리울(梧柳洞)에 집단거주하여 대성씨를 이루웠는데 지금도 몇 호가 살고 있다. 의령 남씨 가운데는 세종때 주전소(鑄錢所)를 감독하고 박연(朴堧)과 함께 악기를 제작한 과학자인 대호군 남급(南汲)장군이 있다.

(49) 양천 허씨(陽川許氏) 경서동(景西洞)

조선조 말기부터 고잔(景西洞)에 살기 시작하여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50) 곡부 공씨(曲阜孔氏) 경서동(景西洞)

옛날부터 고잔(景西洞)과 웃우물(石南洞)에 살았는데, 지금도 몇 호씩 살고 있다.

(51) 제주 고씨(濟州高氏) 석남동(石南洞)

옛날부터 웃우물(石南洞)에 많이 살았고, 지금도 10여호가 살고 있다.

(52) 남양 홍씨(南陽洪氏) 백석동(白石洞)

한둘(白石洞)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로 전하는데, 지금도 몇 호가 살고 있다.

(53) 능성 구씨(綾城具氏) 십정동(十井洞)

옛날부터 열우물(十井洞)에 살았고, 지금도 몇 호가 살고 있다.

(54) 장수 황씨(長水黃氏) 목상동(木霜洞)

옛날부터 나무서리(木霜洞), 당미(東陽洞), 가재울(佳佐洞)에 살기 시작한 이래, 지금도 몇 호씩 살고 있다.

(55) 풍천 노씨(豊川盧氏) 갈현동(葛峴洞)

갈산리(葛峴洞)와 고잔(景西洞)에 옛날부터 살아 왔는데, 지금도 몇 호가 살고 있다.

(56) 밀양 손씨(密陽孫氏) 원창동(元倉洞)

조선조 초기부터 갯말(元倉洞)에 집단거주한 대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흩어지고 인

근 마을에 몇 호가 살고 있다.

옛날부터 청주 한씨(淸州韓氏)는 구산(九山洞)에, 여흥 민씨(驪興閔氏)는 작전동(鵲田洞)에, 나주 나씨(羅州羅氏)는 갯말(元倉洞)에, 남원 양시(南原梁氏)와 현풍 곽씨(玄風郭氏)는 깊이울(深谷洞)에 각각 살았는데, 지금은 모두 떠나고 살지 않는다.

### 2) 동별 거주성씨 (옛날의 대성씨)

(1) 계산동(桂山洞)
밀양 박씨, 평양 조씨, 온양 방씨, 은진 송씨, 안동 권씨, 수주 김씨

(2) 서운동(瑞雲洞)
나주 임씨, 배천 조씨, 고성 이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3) 작전동(鵲田洞)
부평 이씨, 광산 김씨, 김해 김씨, 순흥 안씨, 전주 이씨, 함양 박씨, 남평 문씨

(4) 갈산동(葛山洞)
전주 이씨, 파평 윤씨, 창녕 조씨

(5) 삼산동(三山洞)
평산 신씨, 경주 최씨, 청주 한씨, 밀양 박씨, 이천 서씨

(6) 효성동(曉星洞)
전주 이씨, 풍천 임씨, 안동 김씨, 청송 심씨

(7) 청천동(淸川洞)
진주 하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 전주 이씨, 순흥 안씨, 풍천 임씨

(8) 산곡동(山谷洞)
전주 이씨, 충주 지씨, 광산 김씨, 인천 이씨, 김해 김씨

(9) 부평동(富平洞)
경주 이씨, 함양 박씨, 달성 서씨, 전주 이씨, 순흥 안씨, 한양 조씨

(10) 구산동(九山洞)
전주 이씨, 청주 한씨, 심씨, 오씨

(11) 일신동(日新洞)
장성 서씨, 평산 신씨, 경주 최씨

(12) 부개동(富開洞)
전주 이씨, 파평 윤씨, 덕수 장씨, 해주 오씨, 죽산 박씨, 의성 김씨

(13) 임학동(林鶴洞)
광산 김씨, 진주 강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14) 병방동(兵防洞)
밀양 박씨, 파평 윤씨, 선산 김씨, 연안 이씨

(15) 용종동(龍宗洞)
경주 김씨, 수성 최씨, 달성 서씨

(16) 방축동(防築洞)
밀양 당씨, 밀양 박씨, 남씨, 전씨, 청주 한씨

(17) 박촌동(朴村洞)
밀양 박씨, 한양 조씨, 김해 김씨

(18) 동양동(東陽洞)
전주 이씨, 안동 권씨, 장수 황씨, 배천 조씨, 전의 이씨, 청주 한씨

(19) 상야동(上野洞)
순흥 안씨, 경주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20) 귤현동(橘峴洞)
계양 손씨, 하동 정씨, 경주 박씨, 진주 강씨, 밀양 박씨, 합천 이씨

(21) 선주지동(仙住地洞)
김해 김씨, 광산 김씨, 경주 김씨, 전주 이씨

(22) 이화동(梨花洞)
평강 채씨, 정선 전씨, 남원 윤씨, 반남 박씨, 수성 최씨, 청도 김씨

(23) 오류동(梧柳洞)
파평 윤씨, 전주 이씨, 강릉 김씨, 의령 남씨

(24) 둑실동(纛室洞)
청송 심씨, 안동 권씨

(25) 목상동(木霜洞)
전주 이씨, 청송 심씨

(26) 장기동(場基洞)
안동 김씨, 의성 김씨, 해주 오씨, 제주 고씨

(27) 갈현동(葛峴洞)
전주 이씨, 김해 김씨, 파평 윤씨, 풍천 노씨

(28) 다남동(多男洞)
전주 이씨, 청송 심씨, 평산 신씨, 능성 구씨, 광산 김씨

(29) 십정동(十井洞)
창녕 성씨, 영월 신씨, 인양 김씨, 밀양 박씨, 능성 구씨

(30) 백석동(白石洞)
풍산 심씨, 청송 심씨, 광산 김씨, 남양 홍씨, 경주 정씨

(31) 시천동(始川洞)
진주 류씨, 나씨, 노씨

(32) 검암동(黔岩洞)
해주 정씨, 진천 송씨, 전주 이씨, 능성 구씨

(33) 경서동(景西洞)
울산 김씨, 진주 강씨, 김해 김씨, 풍산 심씨, 남원 양씨, 양천 허씨

(34) 연희동(連喜洞)
연안 이씨, 초계 정씨, 인동 장씨, 덕수 장씨, 순흥 안씨, 상산 김씨

(35) 공촌동(公村洞)
경주 최씨, 경주 김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

(36) 심곡동(深谷洞)
전주 이씨, 풍천 임씨, 김해 김씨, 현풍 곽씨, 남원 양씨

(37) 가정동(佳亭洞)

합천 이씨, 배천 조씨,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성주 이씨

(38) 신현동(新峴洞)

김해 김씨, 파평 윤씨, 전주 이씨, 경주 이씨

(39) 원창동(元倉洞)

경주 박씨, 밀양 손씨, 경주 최씨, 김해 김씨, 한양 박씨

(40) 석남동(石南洞)

곡부 공씨, 청주 이씨, 제주 고씨, 인동 장씨, 경주 김씨

(41) 가좌동(佳佐洞)

창원 황씨, 달성 서씨, 반남 박씨, 성주 이씨, 전의 이씨, 경주 박씨, 나주 이씨, 청송 이씨

### 3) 거주 호수의 추이

부평 고을은 관할구역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조선조 때 부평도호부가 부평군으로 개칭할 당시의 부평은 인천시의 북구, 서구와 부천시 전역, 서울시에 편입된 오류동지역과 오곡, 오쇠동 지역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부평도호부때 당시의 가구는 429호이고, 인구는 95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후 450년이 흘러간 광무 10년(1906) 『병오장적』(丙午帳籍)에 의하면 부평군은 15개면 3,164호 11,312명이 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비교하면 450년 동안에 가구는 7배, 인구는 11배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옛 부평지역으로 넓게 보면 약 250만명이 살고 있으니, 약 90년동안에 인구가 50배로 증가된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 第2章 인물(人物)

## 1.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인물

### 1) 李希穆(이희목, 신라말~고려초)

이희목은 신라말 부평지방의 호족(豪族)으로 부평 이씨의 시조(始祖)이다.

고려가 건국하자 태조 왕건(王建)은 부평고을에 와서 주권을 잡고 있는 이희목을 달래 높은 벼슬을 내려 부평고을을 무혈(無血)로 점령하였다. 그리고 고려 태조는 이희목에게 고려개국벽상공신(高麗開國壁上功臣)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에 봉작하고, 그의 아들을 기인(其人)으로 삼아 개경(開京)으로 데려갔다. 그 후에도 그의 자손에게 벼슬을 내려 요직에 등용하였다.

시호(諡號)는 충민(充敏)이다. 그의 증손인 이정공(李靖恭)은 시어사문하시랑(侍御史門下侍郎)을 지내고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러 부평백(富平伯)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부평을 본관(本貫)으로 세계(世系)를 계승해 왔다.

### 2) 尹 逢(윤 봉, 신라말~고려초)

윤봉은 수주의 속현(屬縣)인 수안 윤씨(守安尹氏)의 시조이다. 그는 무관출신으로 신라말 태봉왕 궁예(弓裔)의 부하였으며, 고려 건국 후에는 태조 왕건의 참모가 된 최응(崔凝)의 동료로 광평시랑(廣評侍郎)을 지내고 삼한공신(三韓功臣), 내사령(內史令)이 되었다. 그의 후손 윤징고(尹徵古)는 시호가 장경(莊景)으로 현종 때 시어사(侍御史), 추충좌리공신(推忠佐理功臣)이 되었다.

### 3) 李能睦(이능목, 신라말~고려초)

이능목은 부평 이씨 시조 이희목의 아들로, 불모(其人)로 개경(開京)에서 살았다. 그의 벼슬은 어위주부(御衛主簿)에 추증(追贈)되었다.

### 4) 金仁樹(김인수, 신라말~고려초)

김인수는 수주 김씨(樹州金氏)의 시조(始祖)이다. 그는 부평고을의 호족으로 부평 이씨와 쌍벽을 이룬 문벌이다. 후손에 소감(少監)을 지낸 김정실(金鼎實)이 있고, 그의 후손은 번성하여 평안남북도 지방에 수백호가 살고 있다고 한다.

### 5) 尹徵古(윤징고, 고려 현종~정종)

윤징고는 수안 윤씨의 시조인 윤봉(尹逢)의 후손이다. 고려의 문신(文臣)으로 초명은 원재(元載)다. 고려 성종 말, 문과에 급제하여 목종 때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되고, 현종 초에 시어사(侍御史)를 지냈고, 동 4년(1013)에는 내사사인 국사수찬관(內史舍人 國史修撰官)을 지냈으며 동 9년(1018)에는 중추사(中樞史), 동 20년에는 검교사도상주국(檢校司徒上柱國)에 오르고 동 12년에는 검교태위(檢校太尉)에 올라 추충좌리공신(推忠佐理功臣)이 되었다. 그리고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에 추증되고 시호는 장경(莊景)이다.

### 6) 李 書(이 서, 고려 현종~정종)

이 서는 부평 이씨 삼세(3世)로 이능목의 아들이다. 그는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에 추봉되었다. 그의 아들 이정공은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시호는 문충(文忠), 순종묘정(順宗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 7) 李靖恭(이정공, 고려 문종~숙종)

이정공은 고려 개국공신 이희목(李希穆)의 증손이다. 그는 일찌기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지냈다. 문종 13년(1059)에는 예부외랑(禮部外郞)을 지냈으며, 이어 남원부사(南原府使)가 되었다. 재직중 삼예도(三禮圖) 5천부와 손유자서(孫柳子書) 92부를 신조하여 문종에게 바쳤는데, 왕은 이를 가상히 여겨 상으로 의상을 내렸다. 그리고 내직에 임용되어 한림학사(翰林學士), 예부상서(禮部尙書), 병부상서(兵部尙書), 태자빈객(太子賓客), 참지정사(參知政事), 수국사(修國史)등의 요직을 지냈다.

문종 37년(1083)에는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고, 선종 때는 문하판상서이부사(門下判尙書史部事)를 지냈다. 숙종 2년(1097)에는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오르고, 숙종 4년(1099) 5월에 그가 죽으니 왕은 애석하게 여겨 조위교서(吊慰敎書)를 내려 부평백(富平伯)에 봉작하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 하였다. 그리고 순종묘정(順宗廟庭)에 배향하였다.

### 8) 李 瑋(이 위, 고려 숙종~인종)

이 위는 문하시중 이정공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일찌기 문과에 급제하여 호부외랑(戶部外郞)을 지내고, 숙종 1년에는 여주목부사가 되었다. 동 5년에는 급사중(給事中), 동 9년에는 직문하(直門下), 서부면행영병마사(西部面行營兵馬使)가 되었다. 그는 여진 정벌 때 임 간(林幹)과 함께 공을 세웠다.

그의 외손녀는 인종비(仁宗妃·恭瑤太后)가 되었다. 그후 비서감(秘書監), 상서이부사(尙書吏部事), 검교사공, 참지정사 등을 지내고, 접반신(接伴臣)으로서 송(宋) 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예종 4년에는 추밀원사(樞密院事)로서 윤관(尹瓘), 오연총(吳延寵), 임언(林彦) 등의 패전죄를 극론하였으며, 이어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다. 예종 5년에 형부상서(刑部尙書), 예종 7년에는 문하시랑 도중서문하평장사를 거쳐 예종 11년에는 수태수(守太守), 문하시중(門下侍中),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 동 12년에는 태부(太傅), 계양군(桂陽君), 개국백(開國伯)에 봉작되었으며, 인종 1년에는 계양백(桂陽伯), 중서령(中書令), 진정공신(鎭定功臣)이 되었고 식읍(食邑) 2천5백호, 식실봉 5백호가 내렸다. 인종 11년 85세로 죽으니 시호를 장숙(莊肅)이라 하였다.

### 9) 李 璹(이 도, 고려 예종~인종)

이도는 부평백 이정공의 아들이다. 예종 1년에 낭장(郎將)이 되고, 인종 6년에 검교사도 수사우복야(檢校司徒守司右僕射), 예부사(禮部事)를 지내고 이어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그의 처남 평장사 김인규(金仁揆)가 이자겸의 일당으로 몰려 유배됨으로 그의 집을 점거하고 가산과 노비까지 몰수하였다. 후에 김인규가 귀양에서 풀려나와 문책하였더니 그는 김인규를 역모로 어사대에 모함했다가 면직당했다.

### 10) 柳興廷(류흥정, 고려말~조선조초)

류흥정은 부평 류씨(富平柳氏)로 고려말에 낭장(郎將)을 지냈다.

고려시대 당시 부평 고을에는 부평 이씨, 수주 김씨, 부평 류씨, 부평 박씨 등이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부평 류씨는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류씨로 통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11) 孫 抃(손 변, 고려 고종~원종)

손변은 계양 귤현(桂陽 橘峴) 출신이다. 그의 초명은 습향(襲鄕). 일찌기 문과에 급제하고 천안판관(天安判官)이 되어 명판관으로 유명했다. 이어 공역서승(供驛署丞)이 되고 예부시랑(禮部侍郎)이 되었는데, 모함을 받아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그후 경사도안찰사(慶尙道按察使)가 되었는데, 각종 송사(訟事)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공정하게 판결하여 크게 이름을 날렸다. 그후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가 되고, 고종 38년(1251)에는 수사공상서좌복야(守司空尙書左僕射)로 재직 중 죽었다. 그는 천재(天才)로서 정승이 될 자질을 갖추었지만 명문 출신이 아니고, 또 처(妻)가 미천한 집안이라 정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주

위에서 이혼을 권하고 명문집에 장가들어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였지만, 손변은 그의 처에게, 나는 지금의 직책으로 만족하다하고 이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는 공평무사한 청백리(淸白吏)였다. 지금도 손변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다.

### 12) 郭得星(곽득성, 고려 고종~원종)

곽득성은 고려 고종 때 부평 판관(富平判官)을 지냈다. 그가 재임 중 한양 백악산(漢陽 白岳山) 계곡에 본거지를 둔 도적떼들이 들끓어 날로 주민들의 폐해가 심했다. 관에 도적을 없게 해 달라고 청원해 왔지만, 나라에서도 별 방책이 없었다. 한 때는 한강을 건너 부평땅에까지 출현해서 그 피해가 대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안 그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백악산에 들어가 도적의 소굴을 습격하여 도적떼를 일망타진 하였다. 그러자 나라에서 상(賞)을 내리고 벼슬을 올려 주었다. 이로 인하여 부평 고을 주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 13) 朴阿不花(박아불화, 고려 충렬왕)

고려 중엽 몽고(蒙古)는 그 세력이 막강하여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였다. 고려도 이들의 침략에 항거하다가 급기야는 굴복당하고 말았다. 이후 고려는 몽고를 종주국(宗主國)으로 섬기고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다. 공녀(貢女)를 뽑아 보내야 했고, 또한 내시(內侍, 고자)도 바쳐야 했는데, 공녀 26만명과 내시 2백명을 바쳤던 것이다. 그들 내시 가운데 부평출신 내시 박아불화(朴阿不花, 부평 박씨)도 뽑혀 갔다. 그는 몽고 궁중에 있으면서 벼슬과 등급이 높아 권세도 부리게 되었다. 약소국인 고려는 종주국인 몽고와 외교(外交)를 할 때는 반드시 이들 내시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이 공로로 박아불화는 계양군(桂陽君)에 봉작되기도 했다.

### 14) 李 珣(이 순, 고려 공민왕)

이 순은 부평 이씨로 고려말 벼슬하여 예부상서(禮部尙書)가 되고, 공민왕 11년(1362)에는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서북면도병마사(西北面都兵馬使)가 되어 홍건적(紅巾賊)을 토벌하였다. 그후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양광도순문사(楊廣道巡問使)를 거쳤다. 그는 홍건적 토벌공으로 호종일등공신(扈從一等功臣)이 되었는데, 서북면도체찰사(西北面都體察使), 판개성부사평리(判開城府事評理) 등을 역임하고 삼사좌사를 지냈다.

### 15) 辛星生(신성생, 고려말~조선조초)

신성생은 고려말의 무관(武官)이다. 그는 장군으로 순군제공(巡軍提控)이 되었다.

그런데 재상 가운데 염흥방이란 자가 있었는데 권세가 대단하였다. 염흥방의 종과 그의 사위의 종들은 상전의 권세를 믿고 부평땅에서 마구 노략질을 일삼고 남의 땅을 빼앗아 가로채었다. 부평 수령도 역부족이었다. 수령이 이를 제지하려다 오히려 매만 맞고 돌아 온 일도 있었다. 이에 신성생 장군이 부하를 거느리고 그들 무리를 일망타진 체포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 2.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인물

### 1) 趙 胖(조 반, 고려말~조선조 초)

조 반은 배천 조씨 조세경(趙世卿)의 아들이다. 그는 12세 때 아버지를 따라 원나라 연경에 가서 한문을 배우고, 몽고어에도 능통하여 중서성역리(中書省譯吏)로 있다가 공민왕 17년(1368)에 귀국했다. 우왕 8년(1382)에는 판도판서(版圖判書)로서 정조사 겸 주청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되고, 사은사로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1389년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왕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명나라에 갔을 때 윤이(尹彝)·이초(李初) 등의 본국에 대한 무고 사실을 변해하여 명나라 황제의 의심을 풀게 했다. 1392년 이성계가 개국하자 개국공신 2등으로 부흥군(復興君)에 봉해졌다. 1397년에는 정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판중추원사를 거쳐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에 이르렀다. 그가 부평땅(가정동)에 낙향하여 가정(佳亭)을 짓고 한 때 살다가 배천 고향에 가서 죽었다. 그의 시호는 숙위(肅魏)이다.

조 반이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를 다녀 왔을 때의 일이었다. 조정에서 권세를 부리던 염흥방(廉興邦)의 가노(家奴) 이 광(李光)에게 토지를 빼앗기자, 조 반은 이 광을 죽이고 그의 집을 불질러 태워버렸다. 이에 염흥방은 격노하여 조 반을 투옥시켰다. 이때 최 영(崔瑩)과 사전 협의한 바 있어 왕의 특명으로 석방되었다. 염흥방과 임견미(林堅味) 등은 체포되어 사형에 처한 사실이 있었다.

### 2) 李 倚(이 의, 고려말, 조선초)

이 의는 부평 이씨로 고려말 벼슬을 한 사람이다. 고려가 망하자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하여 절개를 지키고자 두문동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였다. 이태조는 이 의를 불러내어 새 나라 조선에 출사를 권하였으나, 끝내 이를 거절하고 말았다. 그러자 태조는 이 의의 가산을 몰수하고 자연도(紫燕島, 영종도)로 귀양을 보냈다. 이 의는 영종도에서 고려에 충절(忠節)을 지키며 일생을 마치었다. 그의 고고한 절개를 본받아 부평 이씨 문중에서는 충신과 효자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 3) 李 枚(이 매, 조선조 세종)

이 매는 고려 충신 이 의(李倚)의 아들이다. 그는 조선조 세종 때 생원(生員)이 되고, 사직(司直)을 지냈다. 그가 죽으니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다.

### 4) 李 棐(이 비, 조선조 태종)

이비는 이의의 아우이다. 그의 초명은 규(樛)이다. 태종 11년(1411)에 문과에 급제하고 통훈대부 예문관직제학(通訓大夫 藝文館直提學)을 지냈다.

### 5) 禹希烈(우희열, 조선조 태종)

우희열은 부평 평야(富平平野)를 개척한 공로자이다. 그는 태종 17년(1417)에 부평부사 목진공(睦進恭)과 협의하여 부평 평야의 관개수로(灌溉水路)를 개설, 수리안전답으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 공로자이다.

### 6) 李克孝(이극효, 조선조 세종)

이극효는 부평 이씨 이 매의 아들이다. 세종 17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지평(持平), 사예(司藝) 등을 역임하고 세종 29년에 통진현감(通津縣監),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등을 지내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 7) 李師孟(이사맹, 조선조 세종)

이사맹은 조선조 세종 때 사람이다. 그는 부평에서 온천 탐색 사건이 일어나자 왕의 지시로 특별임무를 띤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부평고을에 내려와 수백개소의 우물을 파서 온천을 탐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 8) 趙端康(조서강, 조선조 태종)

조서강은 개국공신 조반의 둘째 아들이다. 그의 자는 자경(子敬), 호는 경은(耕隱)이다. 태종 14년(1414)에 문과에 급제하고, 세종 13년(1431)에 사신(舍人)으로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이 되어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경상도관찰사 형조참의(刑曹參議), 도승지(都承旨) 등을 지내고 세종 25년(1443)에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냈다. 그가 만년에는 벼슬을 그만두고 부평 가정(佳亭)에 은거하였는데, 세종이 벼슬을 내리고 불렀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이후 왕은 안평(安平) 대군 등 여러 신하를 내려보내었으나, 대신 이에 그림과 시(詩)를 지어 왕에게 바쳤다. 그 제목을 「석호가정별업도」(石湖佳亭別業圖)라 하였다. 그

후 여러 學者들이 이 정자를 찾았다. 조서강은 수년후에 여기에서 죽었는데, 그의 묘(墓)는 석남동(石南洞)에 있으며, 인천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9) 南 級(남 급, 조선조 세종)

남 급은 부평 오류동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상호군(上護軍)에 올랐다. 그는 세종 3년(1421)에 이 천을 도와 주자(鑄字)를 개량하였고, 세종 6년(1424)에는 양근주자소(楊根鑄字所)를 설치, 감독하였다. 세종 12년(1430)에는 악기별좌(樂器別座)로 박연과 함께 조회악기(朝會樂器)를 제작한 성악가이기도 했다. 그가 죽으니 판서(判書)에 추증하고 고향땅에 묻었으나, 그 묘역이 군사기지가 되는 바람에 없어졌다.

### 10) 李 怡(이 이, 조선조 세조)

이 이의 자는 지보(知甫), 단종 2년(1454)에 출생하였다. 그의 조부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이요. 아버지는 의성군(宜城君)이다. 나라에 공을 세워 영신군(永信君)에 봉해졌고, 부평(작전동)에 낙향하였다.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벼슬을 하여 부평의 명문거족(名門巨族)이 되었다.

그는 73세로 사망하였는데, 부평고을의 명당(名堂)인 가현(佳峴)에 묻혔다. 그 묘역은 부평의 명소로 통한다.

### 11) 李宗顥(이종호, 조선조 예종)

이종호는 부평 이씨 이극효(李克孝)의 장남이다. 예종 1년(1469)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 은대(銀臺) 등을 지냈다. 후에 예조참판(禮曹參判),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 한성좌윤(漢城左尹) 등을 지냈으나, 그만 37세에 조사하였다.

### 12) 鄭希諒(정희량, 조선조 연산군)

정희량은 해주 정씨(海州鄭氏) 부사 정연경(府使 鄭延慶)의 아들이다. 그는 사림파(士林派)의 종조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한 사람으로, 성종 23년(1492)에 생원(生員)이 되었다. 연산군 1년(1495)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이 되었으며, 연산군 3년에 예문관대교(藝文館待敎)가 되었다. 그는 왕에게 충간하기를 임금은 마음을 바로잡고 경연(經筵)에 근면하며 간인(諫言)을 받아들여 현사(賢邪)를 분별하며 대신(大臣)을 경대(敬待)하고 환관(宦官)을 억제하며, 학교를 숭상하고 이단(異端)을 물리치며, 상벌(賞罰)을 공정히 하고, 재용(財用)을 절제할것 등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왕에게 미움을 샀다. 연산군 4년(1498)

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가 그 해에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난다는 난언을 범하고 고(告)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의주(義州)와 김해(金海)로 유배되었다. 이후 연산군 7년(1501)에야 풀려났다. 귀양살이 때 모친상을 당하여 대신 집상하던 중 장차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날 것을 미리 짐작하고 한강변에 상복과 신을 벗어 놓은 뒤 자취를 감추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강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여겼다. 그는 몰래 부평 검암동 허암봉(虛岩峯) 북쪽 기슭에 은둔생활로 2·3년 지내다가 소문이 날까 두려워 행방을 감추었는데, 만년에는 평안도 정주(定州) 심연동(深淵洞)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온다. 그는 재주가 비상하였을 뿐 아니라, 문장과 시(詩), 그리고 음양학(陰陽學)에도 능통했다. 그가 지은 허암유집(虛庵遺集)이 전해올 정도로, 재주가 많았다. 그밖에 허암의 일화는 수없이 각종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 13) 李 備(이 비, 조선조 세조)

이 비는 정종(定宗)의 아들 정석군(貞石君)의 손자이다. 그는 세종 16년(1434)에 출생하여 강동부령(江東副令)을 지냈는데, 낙향하여 부평 땅 심곡동(深谷洞)에 살았다.

### 14) 鄭希信(정희신, 조선조 성조)

정희신은 허암 정희량의 아우이다. 성종 6년(1475)에 음보로 벼슬하고, 경상좌도 수군우후(慶尙左道水軍虞侯)를 지냈다. 그는 낙향하여 부평땅 검암동에 형 정희량의 은거지에 살다가 명종 3년(1548)에 사망하였는데,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다.

### 15) 金繼元(김계원, 조선조 선조)

김계원은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부평 고을 수탐면(水呑面) 사람이다. 그는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무관이 되어, 자산군수(慈山郡守)를 지냈다. 말년 부평고을에 낙향하여 대를 이어 살았는데, 현손인 김민선(金敏善)은 인천부사(仁川府使)가 되었다.

### 16) 金漢秀(김한수, 조선조 중종)

김한수는 자산군수를 지낸 김계원의 장남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후에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지냈다.

### 17) 李培根(이배근, 조선조 중종)

이배근은 부평 이씨로, 관찰사 이종호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중종 8년(1513)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재감 정(司宰監 正)을 지내고,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 18) 李 億(이 억, 조선조 연산군)

이 억은 부사 이배근의 아들이다. 연산 2년(1496)에 출생하여 무관(武官)이 되고, 장사랑(將仕郞)을 지냈다.

### 19) 李 顥(이 호, 조선조 중종)

이 호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손자 이 이(李怡)의 장남이다. 자는 사연(似淵)이며, 명원군수(明原郡守)에 봉해졌다. 성종 22년(1491)에 출생한 그는 학식과 덕망이 높았다. 성종왕비의 장례시 공이 컸으며, 또 어전에서 강론할 정도로 경사(經史)에 밝고 시예(詩藝)도 능했다. 왕은 그에게 술과 한약, 말안장 등을 하사하였다. 정원(政院)에서 강론하면 중종임금은 대단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생동안 검소하고 욕심없이 정직하게 살았으나, 술을 너무 즐겨한 탓에 중종 8년(1513)에 죽었다.

### 20) 孟延陽(맹연양, 조선조 중종)

맹연양은 부평 고을에서 출생하여 부평감여(富平監如, 좌수격)를 지냈다. 중종 12년(1517)에 그는 부평 사람 김통동(金通同), 박우령(朴右齡) 등과 함께 무고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 21) 金萬年(김만년, 조선조 중종)

김만년은 부평고을에서 출생하여 부평감여(富平監如)를 지냈는데, 중종 12년(1517) 11월에 김통동과 박우령 등의 무고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다.

### 22) 金舜孫(김순손, 조선조 중종)

김순손은 조선 중종 때 부평고을에서 출생하여 승려(僧呂)가 된 사람이다. 그는 나라에 반역하였는데, 그 이유로 부평도호부가 부평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수년이 지난후에야 부평도호부로 환원되었다.

### 23) 李 霖(이 림, 조선조 중종)

이 림은 함안 이씨로 자는 중망(仲望)이다. 아버지는 중종반정(中宗反正)에 가담하여 정국(靖國功臣)이 되고, 함양군(咸陽君)에 봉해졌다. 이 림은 중종 19년(1524)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正字), 대사간(大司諫) 등을 지내고, 인조 1년(1623)에는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그의 아우 이 진(李震)이 형을 위해 압각정(鴨脚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는

데, 이 림은 이곳에서 살았다. 후에 벼슬이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이르렀으나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연루되어 의주(義州)로 귀양가서 사약(賜藥)을 받아 죽었다. 강직한 명신(名臣)중 한 사람이다.

### 24) 吳得仁(오득인, 조선조 광해군)

부평 고을에서 태어난 오득인은 매부인 고관 한필유(韓必有)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사려 했다. 그러나 그의 매부는 돈만 먹고 벼슬은 주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한필유와 그의 동료 6, 7명이 광해군(光海君)의 폭정을 비난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오득인은 이 사실을 광해군에게 고발하였다. 광해군은 격분하여 그들을 체포하고 직접 국문하여 그들을 죽여버렸다고 한다.

### 25) 韓必有(한필유, 조선조 광해군)

한필유는 부평고을에서 출생하여 고관 대작을 지냈다. 하루는 그의 처남인 오득인(吳得仁)이 와서 매관매직 하겠다고 돈을 가져 왔었다. 그러나 그는 돈만 받고 차일피일하였다. 처남 오득인은 이에 격분하여 광해군에게 자기의 비리사실을 고해바쳤다. 이로 인하여 한필유와 그의 동료 6,7명이 역적으로 몰려 체포되고 죽음을 당하였다.

### 26) 金兼齊(김겸제, 조선조 광해군)

김겸제는 부평부 수탄면(水呑面, 서울)에 사는 광산 김씨 김한수의 큰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덕천군수(德川郡守)를 지냈다. 그의 아들이 임진왜란 때 문학산성에서 순국한 인천부사 김민선(金敏善)이다.

### 27) 鄭光前(정광전, 조선조 광해군)

정광전은 수군우후(水軍虞侯) 정희신(鄭希信)의 손자이다.

명종 21년(1566)에 출생하여 음보로 벼슬하여 승사랑(承仕郞) 전옥서봉사(典獄署奉事)를 지냈다.

### 28) 李齊三(이제삼, 조선조 선조)

이제삼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후손 동원군(同原君)의 셋째 아들이다. 자는 경노(景魯)이며, 중종 27년(1532)에 출생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한성판관(漢城判官)을 지냈다.

### 29) 李點完(이점완, 조선조 명종)

이점완은 전주 이씨 정석군파로 강동부평(江東副令) 이비(李 備)의 아들이다. 명종 5년(1550)에 출생, 무과에 급제하고 부정(副正)이 되었다.

### 30) 烈女 辛氏(열녀신씨, 조선조 명종)

열녀 신씨는 조선 명종때 부평 고을의 영월 신씨집 처녀이다. 그가 9세때 집에 불이 났는데, 소녀의 몸으로 불더미 속으로 들어가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12세때 계모가 들어왔는데, 그 계모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효도하여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또 그가 출가하였는데 남편인 이명환(李明煥)이 병이 들자, 신명을 다해 보살피고 간호하였다. 남편이 급기야 죽자 그는 장례를 정중히 치르고 졸곡날 그는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자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열녀정려(烈女旌閭)가 내려졌다.

### 31) 李志尹(이지윤, 조선조 인조)

이지윤은 전주 이씨 정숙군파로 강동령(江東令) 이 비(李備)의 자손이다. 부평땅 심곡동에서 태어난 그는 명종 22년에 문과 급제하여 문관을 지냈으며, 부정(副正) 칭호를 받았다. 인조 3년(1625)에 사망하니 좌윤(佐尹)에 추증되었다.

### 32) 鄭道亨(정도형, 조선조 인조)

정도형은 해주 정씨로 봉사(奉事) 정광정의 아들로 자는 형여(亨汝)이다. 선조 17년(1584)에 출생하여 알성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에 이르렀다. 인조 23년(1645)에 죽으니 승지(承旨)에 추증되었다. 그의 묘가 송도유원지 내에 있었는데 근래에 김포로 이장하였다. 고서(古書)에 그의 행장(行狀)이 기록되어 있다.

### 33) 李大成(이대성, 조선조 선조)

이대성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예이고, 영신군(永信君)의 손자이다. 자는 경맥으로 그는 중종 24년(1592) 부평땅 작전동에서 태어났다. 왕족 명문 출신인 그는 일찌기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대사간(大司諫)에까지 올랐다.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들이 그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는 왜군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 오랑캐 놈들아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느냐."하고 대항, 왜군들은 그를 즉석에서 살해했다고 한다. 훗날 나라에서 그의 충성을 전해 듣고 참의(參議)로 추증하였고, 충절의 정려(旌閭)를 내렸다.

### 34) 李繼祿(이계록, 조선조 선조)

이계록은 부평 이씨(富平李氏)로, 자는 중수(中綏)이고, 중종 23년(1528)에 부평고을에서 출생하였다. 선조 15년(1582)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참봉(參奉)이 되었고, 선조 24년(1591)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때에는 연안성을 수호하였고, 정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이 되었다. 그후 춘방대각(春坊台閣)에 오르고 의인왕후(懿仁王后)의 만사를 지었다. 선조 35년(1602)에 사망하였는데, 나라에서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 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 35) 李繼禎(이계정, 조선조 선조)

이계정은 부평 이씨 이옥(李沃)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중종 37년(1542)에 출생, 명종 22년(1567) 초시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다. 선조 3년(1570)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내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도시 정(司導寺正)에까지 올랐다.

### 36) 李繼祉(이계지, 조선조 선조)

이계지는 이옥(李沃)의 다섯째 아들이다. 부평 이씨로 자는 계유(季綏)이다. 선조 18년(1585)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선조 36년(1603)에 문과에 급제하여, 조봉대부(朝奉大夫) 장수현감(長水縣監)을 지냈다.

### 37) 尹明善(윤명선, 조선조 선조)

윤명선은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그의 자는 택중(澤中)이다. 명종 22년(1567)에 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후, 선조 13년(1580)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보직되었다. 그후 형조좌랑(刑曹佐郞)에 오르고, 임진왜란 때에는 황해도사(黃海都事)로 류 근(柳根), 윤자신(尹自新) 등과 종묘신주(宗廟神主)를 모시고 평양까지 갔었다. 그후 예조정랑(禮曹正郞)이 되고 부평(富平), 장흥(長興), 평산(平山) 부사(府使) 등을 거쳐 양주목사(楊州牧使), 제용감 정(濟用監正) 등을 지냈다. 그가 만년에 부평부사(富平府使)로 부임하여 그의 선조 윤관(尹瓘)께서 수주 수령(樹州守令)을 지낸 곳을 알고 이곳 계양 오류동에 낙향하였다. 그가 죽으니 나라에서 그에게 도승지(都承旨)에 추증하였고, 후손들이 이곳에 집단거주 하고 효자가문(孝子家門)이 되었다.

### 38) 李齊顔(이제안, 조선조 선조)

이제안은 전주 이씨 효녕대군의 후손이며 함원군(咸原君)의 장남이다. 자는 계우(季愚)로,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곳에 무관을 지내고 호군(護軍)에 이르렀다.

### 39) 金敏善(김민선, 조선조 선조)

김민선은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부평 수담면(현서울 개봉동)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김겸제(金兼濟)이며, 자는 달부(達夫)이다. 선조 5년(1572)에 초시에 올라 생원(生員)이 되고,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쳤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때 인천도호부사(仁川都護府使)로 있었는데, 문학산성(文鶴山城)을 수축하고 방어진을 구축하여 적과 대항하다가 많은 적을 섬멸하였다. 그리고 인천, 부평, 김포 등지에 격문을 보내 의병(義兵)을 모집하여 적에 대항하였다. 목숨을 걸고 문학산성을 방어하였으나 적의 대군과 격전을 치루다가 순사(殉死)하였다. 그 후 나라에서 그의 전공(戰功)을 가상히 여겨 도승지(都承旨)에 추증하였다. 왜란이 끝나자 인천 주민들은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문학산성 내에 안관당(安官堂)이라는 사당을 세워 제향하였다.

### 40) 金福善(김복선, 조선조 선조)

김복선은 군수 김겸제의 차남이고 인천도호부사 김민선의 아우이다. 명종 11년(1556)에 출생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지냈다.

김복선은 부평땅 수담면(水呑面)에 있는 기로재(棄老齋)의 사호선인(四皓仙人)의 한 사람이다.

### 41) 曺胤祉(조윤지, 조선조 선조)

조윤지는 현감(縣監)을 지낸 사람으로 부평고을 수담면(서울 오류동)에서 살았다. 그의 아들 조호(曺浩)는 아버지 조윤지를 위해 이곳에 기로재(棄老齋)란 정사를 세우고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자 했다. 당시 좌랑을 지낸 김복선과 감찰을 지낸 원사순(元士順) 이혁유(李赫遊)등과 교유하였는데 이 분들을 일컬어 사호선인(四皓仙人)이라 불렀다.

### 42) 元士順(원사순, 조선조 선조)

원사순은 부평고을 수담면(水呑面) 사람으로 감찰(監察) 벼슬을 지낸 분이다. 군수 조호가 아버지를 위해 세운 기로재(棄老齋) 사호선인(四皓仙人)의 한 사람이다.

### 43) 李赫遊(이혁유, 조선조 선조)

이혁유는 부평고을 수담면 사람이다. 그의 내력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기로재(棄老齋) 사호선인(四皓仙人)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 44) 朴 祐(박 우, 조선조 선조)

박 우는 밀양 박씨로 원창동 출신이다. 그는 중종 때 초시(初試)에 합격하여 참봉(參奉)이 되었고, 이어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 45) 朴守安(박수안, 조선조 선조)

박수안은 부평고을 원창동에서 살았다. 밀양 박씨로 일찌기 벼슬하여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를 지냈고, 선조 17년(1584)에 사망하였다.

### 46) 朴大忠(박대충, 조선조 명종)

박대충은 밀양 박씨로 원창동 출신이다. 조선조 명종 11년(1556)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참봉을 지내고 그 후에 호군(護軍)을 지냈다.

### 47) 朴義眞(박의진, 조선조 명종)

박의진은 밀양 박씨로 부평고을 원창동에서 살았다.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여러 곳의 무관(武官)을 지낸 뒤 용양위 부사과(龍驤衛副司果)에 이르렀다.

### 48) 朴義蒙(박의몽, 조선조 명종)

박의몽은 밀양 박씨로 부평고을 원창동에서 살았다. 일찌기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여러곳 무관을 지낸 뒤에 갑산부사(甲山府使), 동인진관(東仁鎭管) 등 동북면 일선방어에 공을 세웠다.

### 49) 卞宗仁(변종인, 조선조 성종)

변종인은 부평고을 오정면(吾丁面) 고강리(古康里)에서 살았다. 밀양 변씨로 일찌기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여러 곳에서 무관을 지냈는데, 힘이 장사였다. 이시애(李施愛)의 난에 출전, 용맹을 떨쳐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말갈(靺鞨)의 난에도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성종임금은 그에게 어의(御衣)를 하사하고, 판서(判書)를 제수하였다. 그리고 시호를 공장(恭莊)이라 내렸다.

### 50) 卞三近(변삼근, 조선조)

변삼근은 공장공 변종인의 5세손이다. 부평고을 오정면(吾丁面) 고강리(古康里)에서 살았는데,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내고 참판(參判)을 지냈다. 그리고 인조반정 때에도 공을 세웠다. 그의 신도비(神道碑)가 마을 앞 길에 서있다.

### 51) 李胤禧(이윤희, 조선조 선조)

이윤희는 합천 이씨(陜川李氏)로 부평고을 석곶면(石串面, 가정동)에서 살았다.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낸 뒤 선조 22년(1589)에 선산부사(善山府使)를 지냈다.

### 52) 李 景(이 경, 조선조)

이 경은 합천 이씨(陜川李氏)이다. 이윤희(李胤禧)의 손자로 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가 되었다. 그 후 영능 참봉(英陵參奉)에 이르렀다.

### 53) 李東振(이동진, 조선조 선조)

이동진은 부평고을 석곶면(가정동) 출신으로 자는 평기(平其)이고 호는 택이(鐸以)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9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그 애통함과 통곡함이 성인과 같았다. 임진란(壬辰亂) 때는 아버지가 위독하니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간병하였다. 아버지가 사경에 들자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타계하자, 정중히 장례를 모시고 3년상을 시묘(侍墓)사리하였다. 선조 17년(1584)에 그가 죽으니, 숙종 4년(1678)에 나라에서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려졌다. 이 정려는 그의 후손이 보존하다가 화재로 말미암아 소실되었다.

### 54) 朴 理(박 리, 조선조 선조)

박 리는 밀양 박씨로 부평부 동면(현 병방동) 출신이다. 그는 벼슬 길에 올라 사헌부 감찰에 이르렀다. 지금의 박촌동 동쪽 길가에 묘역이 있다.

### 55) 朴士乭(박사돌, 조선조 선조)

박사돌은 조선 중기 사람으로, 벼슬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추증되었다.

### 56) 朴 仁(박 인, 조선조 선조)

박 인은 무과 벼슬을 하고, 용양위 부호군(龍驤衛 副護軍)에 오른 인물이다.

### 57) 朴商一(박상일, 조선조 선조)

박상일은 조선조 중기에 부평부 동면 박촌리 출신으로, 용양위 부호군(龍驤衛 副護軍)을 지냈다.

### 58) 朴 珍(박 진, 조선조)

박 진은 부평고을 출신으로 행적은 알 수 없으나, 그의 비문(碑文)에는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 59) 朴 綱(박 강, 조선조)

박 강의 벼슬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비문(墓碑文)에는 선략장군(宣略將軍)을 지냈다고 쓰여져 있다.

### 60) 朴大陽(박대양, 조선조)

박대양은 묘비 기록에 초시에 합격하여 진사(進士)를 지냈다고 적고 있다.

### 61) 徐景瑞(서경서, 조선조)

서경서는 달성 서씨로 부평부 석곶면(가좌동) 출신이다. 그는 무관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는 큰 전공을 세운 충신이다. 벼슬은 선략장군(宣略將軍)에 올랐다. 그는 선조 25년(1592)에 순절하였다.

### 62) 李禮壽(이예수, 조선조 선조)

이예수는 부평고을 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남포현감(藍浦縣監)으로 있을 적에 임진란이 일어났는데, 의병(義兵)을 모집하고 인솔하여 전주전투(全州戰鬪)에 참전하였다. 그는 치열한 전투에서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그때 엄지손가락이 부상을 당하자, 왼손으로 활을 당겨 적을 무찔렀다. 그러다가 결국 적의 총탄에 전사하였는데, 나라에서는 그의 전공(戰功)을 높이 찬양하여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추증하였고, 충신(忠臣)의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 63) 李悌可(이제가, 조선조 선조)

이제가는 부평사람으로 전주 이씨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이다. 일찌기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무관이 되었다. 북청 판관(北靑判官) 재임 중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는데 조정에서는 전란을 피하기 위하여 왕자 위(王子 瑋)를 북청으로 보내기로 하고 자원군 윤탁연(尹卓然)이 왕자를 모시고 북청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이때 왜장(倭將) 가등청정(加藤淸正)의 대부대가 북청을 통과할 때 이제가는 부하를 거느리고 왜병과 격전을 벌였는데 중과부족이라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 사실이 나라에 보고되니 그에게 벼슬을 높혀주고 충신의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 64) 朴吉城(박길성, 조선조 선조)

박길성은 밀양 박씨로 부평부 석곶면 원창동 출신이다. 선조 25년(1592)에 출생한 그는 통훈대부(通訓大夫)라는 벼슬에 오른 인물이다.

### 65) 沈信謙(심신겸, 조선조 선조)

심신겸은 청송 심씨(靑松沈氏)로 돈녕부사 청룡부원군(敦寧府事, 靑龍府院君) 심강(沈綱)의 둘째아들이다. 형 심의겸(沈義謙)과 벼슬길에 올라 가산군수를 지냈다. 당시 임진란이 일어나자 군대식량공급에 공을 세웠다. 그리고 선조 33년(1600)에 부평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를 지냈는데, 후에는 부평고을 계양면 둑실에 낙향하였다.

### 66) 李彦馥(이언복, 조선조 선조)

이언복은 부평고을 사람이다. 소년시절부터 부평향교의 학생으로 자랐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왜병이 부평고을에 와서 부평부청사와 향교에 불을 질러 그 일부가 소실되었다. 그 때 이언복을 비롯한 박무영(朴茂榮), 박대양(朴大陽) 등은 향교에 모셔진 공자와 열성들의 위패를 계양산정(桂陽山頂)에 있는 장사굴(將士堀)에 은밀히 천양하였다. 이후 공로가 인정되어 나라에서는 생원(生員)의 직함을 내리고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 67) 朴茂榮(박무영, 조선조 선조)

박무영은 밀양박씨로 부평고을 동면 박촌동 사람이다. 이언복(李彦福)과 같이 부평향교의 학생으로 있을 때 왜군에 의해 향교가 불이 나자, 공자와 열성들의 위판(位版)을 계양산 정상 장사굴에 천양하였다가 난리가 평정된 후에 다시 향교에 봉안한 공로가 인정되어 생원(生員)의 벼슬이 내리고 부역이 면제되었다.

### 68) 朴大陽(박대양, 조선조 선조)

박대양은 밀양 박씨로 계산동 사람이다. 임진왜란때 왜병이 부평고을에 침입하여 향교에다 불을 지르자, 공자 위패와 열성조 위판을 계양신 정상 장사굴에 봉안하였다. 전란이 평정된 후에 다시 향교에 봉안한 공로로 생원(生員)의 벼슬을 얻고 부역을 면제받았다.

### 69) 梁 誌(양 지, 조선조 선조)

양 지는 선조때 사람으로 벼슬길에 올라 정선의 현감(縣監)으로 재직하였다. 재직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기도 삭녕(朔寧), 연천 전투에 참전하였다. 그때 경기도 감사 심대(沈垈)의

부관이 된 양 지는 병조좌랑 강수남(姜壽男), 인천부사 윤 건(尹健), 안성군수 이몽태(李蒙台), 삭녕군수 윤경원(尹慶元) 등과 함께 적의 북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연천군 경계인 징파도 나루에서 적과 교전하였다. 적의 대군은 밤을 이용하여 쳐들어 왔는데, 그들은 오직 천운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들은 죽기를 맹서하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전투에 앞서 윤경원은 녹색 띠로 다리를 매었고, 강수남은 붉은 끈으로 상투를 맺으며, 양 지는 망건에 흰끈으로 표시하여 죽은 뒤에 시체를 찾는 데 알기 쉽게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삭녕 감영에 진을 치고 적의 북상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철원에 주둔하고 있던 가등청정은 첩자를 시켜 경기도 감사 심 대의 예하부대를 탐지하여 쳐들어 왔다. 이때 백병전이 일어났는데 윤경원은 장창을 잡고, 양 지는 큰칼을 휘둘러 용전분투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족으로 인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전란이 평정된 후에 순절한 그들의 충성심이 인정받아 충신 칭호와 벼슬을 더해주고 표절사(表節祠)를 세웠다. 그리고 후손들은 매년 10월 18일 날 군수 주제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후 정종 20년(1796)에 양 지에게 다시 공조판서(工曹判書)가 추증되었다. 그리고 시호는 충민(忠愍)이라 내렸다.

### 70) 李克成(이극성, 조선조 광해군)

이극성은 전주 이씨로, 자는 경숙(庚叔)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지내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까지 이르렀다. 광해군 6년(1614) 10월에 사망하였다.

### 71) 李鄕雲(이향운, 조선조 광해군)

이향운은 이극성의 장남으로 자는 군서(君瑞), 호는 정양재(精養齋)이다. 조선조 명종 11년(1556)에 출생하여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 지평(持平), 장령(掌令), 현감(縣監), 흥해군수(興海郡守) 등을 지내고, 인조 때 경연직신(經筵直臣)으로 이름을 날렸다. 광해군 11년(1619)에 그가 사망하자, 가선대부(嘉善大夫), 예조참판(禮曹參判),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 의금부 좌빈객(義禁府左賓客), 오위도총부총관(五衛都摠府摠管) 등에 추증하였다. 그의 문집(文集)이 현존하고 있다.

### 72) 李志納(이지눌, 조선조 광해군)

이지눌은 부평고을 심곡동에 살았다. 그의 부친은 부정(副正)을 지낸 이접만이다. 왕족의 후예로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다.

### 73) 李志尹(이지윤, 조선조 광해군)

이지윤은 이점완의 차남으로, 선조 32년(1599)에 출생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내고 한성좌윤(漢城左尹)에 추증되었다.

### 74) 鄭道榮(정도영, 조선조 선조)

정도영은 해주 정씨로 봉사 정광전(鄭光前)의 차자이다. 자는 영지(榮之), 조선조 선조 20년(1581)에 출생하였다. 문과에 급제, 황해도사(黃海都事)가 되고 영국공신(寧國功臣)이 되었다. 그가 죽으니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추증되었다.

### 75) 鄭翰周(정한주, 조선조 광해군)

정한주는 해주 정씨이다. 부평고을 검암동에서 살았다. 자는 한향(漢鄕), 음보로 경산현감(慶山縣監)을 지냈다.

### 76) 鄭羽周(정우주, 조선조 광해군)

정우주는 해주 정씨로 부평 고을 검암동에서 출생하였다. 조선 중기의 인물로 자는 동향(洞鄕)이며, 벼슬길에 올라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이르렀다.

### 77) 李光汝(이광여, 조선조 광해군)

이광여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군수(郡守)를 지낸 이경운이다. 선조 7년(1574)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관(敎官), 찰방(察訪) 등을 지냈다. 사후 집의(執義)에 추증되었다.

### 78) 李頤賢(이이현, 조선조)

이이현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후예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이경운이다. 선조 8년(1575)에 출생하였다. 자는 양고(養古)이며,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 군수(郡守), 부사(府使) 등을 지내고 예조좌랑(禮曹佐郎)에 이르렀다.

### 79) 權信中(권신중, 조선조)

권신중은 부평부 수탐면(水呑面)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刑曹正郎), 평창현령(平昌縣令), 여산군수(勵山郡守), 등을 지냈다.

### 80) 權謹中(권근중, 조선조)

권근중은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부평부 수탐면에서 살았다. 문과에 급제한 그는 문관을 거쳐 행세자익위사사어(行世子翊衛司司禦)를 지내고, 의정부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다.

### 81) 權 愼(권 신, 조선조)

권 신도 안동 권씨로 부평부 수탐면 출신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내고, 조봉대부행돈영부도사(朝奉大夫行敦寧府都事)에 올랐다.

### 82) 權以經(권이경, 조선조)

권이경은 안동 권씨로 부평부 수탐면에서 성장했다. 인조 16년(1638년)에 진사(進士)가 된 후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나라에 공이 있어 숙종 12년(1686년)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고 길평군(吉平君)에 봉해졌다.

### 83) 權世泰(권세태, 조선조)

권세태도 안동 권씨로 부평부 수탐면 출신으로 현종 1년(1660년)에 진사가 되었고, 여러 문관을 지낸 뒤 군수(郡守)를 지냈다.

### 84) 申 君(신 군, 조선조)

신 군은 중종 때 초시에 합격하여 승사랑(承仕郎)을 지내고, 용강현령(龍岡縣令)을 지냈다.

### 85) 李誠長(이함장, 조선조)

이함장은 전의 이씨(全義李氏)로 부평부 수탐면에 낙향하였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가선대부에 조참판(嘉善大夫 禮曹參判)에 이르렀다.

### 86) 李 佸(이 활, 조선조)

이 활도 전의 이씨이고, 부평부 수탐면 출신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광능참봉(光陵參奉)을 거쳐 통예원 좌통예(通禮院左通禮)를 지냈으며,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되었다.

### 87) 李 棹(이 도)

이도는 전의 이씨로 부평부 수탐면 출신이다. 문과 벼슬을 거쳐 부정(副正)을 지냈다.

### 88) 李季孫(이계손, 조선조)

이계손도 전의 이씨로 부평부 수탐면 출신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문관을 거쳐 영해부사(寧海府使)를 지냈으며, 가선대부 병조참판(嘉善大夫 兵曹參判)에 증직되었다.

### 89) 李光元(이광원, 조선조)

이광원도 전의 이씨이고 부평부 수탐면 출신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刑曹正郞)을 지냈다.

### 90) 李光亨(이광형, 조선조)

이광형도 전의 이씨로 부평부 수탐면 출신이다. 문관으로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다.

### 91) 李 沃(이 옥, 조선조)

이옥은 전주 이씨로 효령대군(孝寧大君)파이다. 왕족으로서 사직공(司直公)에 봉해졌는데, 부평땅 오정면 약대리에 낙향하여 살았다. 아직도 그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 92) 金 丸(김 환, 조선조)

김 환은 부평 김씨(富平金氏)의 중시조가 된다. 내력은 알 수가 없고 다만 그의 선조(先祖)가 신라 경순왕의 후예라고 전하고 있다. 일찌기 부평 고을에 정착하여 대대로 그의 자손들이 살았다고 한다.

### 93) 金尙瑚(김상호, 조선조)

김상호는 김 환의 자손이라고 전하며 자세한 내력은 알 수가 없다. 조선조 중기의 인물로 좌통례(左通禮)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 94) 金 澤(김 택, 조선조)

김택은 부평 김씨로 김 환(金丸)의 자손이다. 그는 조선조 중기에 부평 고을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시정(寺正)에 이르렀다.

### 95) 李 景(이 경, 조선조 광해군)

이경은 합천 이씨(陜川李氏)이다. 부평 고을 가정동에서 태어났는데, 일찌기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를 거쳐 참봉(參奉)이 되었다. 광해군 3년(1611)에 사망하였다.

### 96) 李孝可(이효가, 조선조)

이효가는 전의 이씨(全義李氏)이다. 문과에 급제한 그는 여러 벼슬을 거쳐 훈련원도정(訓鍊院都正)에 이르렀다.

### 97) 尹起坡(윤기파, 조선조)

윤기파는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윤명선의 후손이다. 그의 가문은 효자가문(孝子家門)으로 할아버지 윤 원(尹轅)도 효자(孝子)로 유명하다. 그리고 윤기파, 윤흥파(尹興坡), 윤홍파(尹弘坡) 등 네 형제가 모두 효자여서 사홍문(四紅門) 집이라고 했다. 또 이들 후손들 중에도 효자가 많이 나서, 나라에서 내린 정려(旌閭)가 마을에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효자로 지평(持平) 벼슬에 증직되었다.

### 98) 沈尙履(심상이, 조선조)

심상이는 청송 심씨(靑松沈氏)이다. 후에 부평 고을 백석동에 낙향하였다. 벼슬길에 올랐고,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 99) 沈 侑(심 유, 조선조)

심 유는 청송 심씨(靑松沈氏)로 심신겸(沈信謙)의 후손이다. 조선조 중기에 사용(司勇)을 지냈다.

### 100) 李齊容(이제용, 조선조)

이제용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로(孝寧大君派) 함원군(咸原君)의 6남으로, 자는 경신(景愼), 호는 남간(南澗)이다. 학자 김동천(金東泉) 선생의 문하에서 음보로 벼슬하여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학행(學行)이 두터워 지평(持平)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경서(經書)와 성리학(性理學) 탐구에 일생을 보냈다.

### 101) 李言暘(이언척, 조선조 인조)

이언척은 도정(都正) 이효가(李孝可)의 아들로, 자는 양이(揚而)이다. 선조 13년(1580)에 출생한 그는 선조 38년(1595) 무과에 급제하여 호분위 부사과,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 선전관(宣傳官),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호군사도총부총관(護軍司徒摠部摠管), 현감(縣監), 태천판관(泰川判官), 의주첨사(義州僉事), 안변수사(安邊水使), 충청·경기 병사(兵使), 경상좌

도목사(慶尙左道牧使), 파주부사(坡州府使) 겸 방어사(防禦使), 남양부사(南陽府使) 겸 방어사, 함경북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겸 경성부사 등의 요직을 지냈다. 그리고 인조 22년(1644)에 사망하였는데, 나라에서 참군사원종공신(參軍司原從功臣)과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하고, 시호를 무의(武懿)라 내렸다. 묘(墓)는 가좌동에 있었는데, 도시개발로 인해 김포로 이장하였다.

### 102) 朴 仁(박 인, 조선조 인조)

박 인은 밀양 박씨로 부평 고을 박촌사람이다. 묘비 기록에 의하면 조선조 인조 때 벼슬하여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다.

### 103) 金洪穆(김홍목, 조선조 인조)

김홍목은 김해 김씨로 부평부 경서동 출신이다. 묘비의 기록에 의하면 인조 때 나라에 기여한 공로로 가선대부 동지사(嘉善大夫 同知事)가 되었다고 적혀있다.

### 104) 金 登(김 등, 조선조 선조)

김 등은 부평 고을 경서동에서 살았다. 묘역(김홍목 묘역)의 비문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고 되어 있다.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 105) 沈 慄(심 율, 조선조 선조)

심 율은 부평부사(富平府使)를 지낸 심신겸(沈信謙)의 장남이다. 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를 지냈다.

### 106) 李應信(이응신, 조선조 선조)

이응신의 자세한 내력은 알 수가 없다.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일화가 있었다.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청군(淸軍)이 부평고을에 쳐들어 왔다. 이에 이응신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피신하다가 청군과 마주쳤다. 청군은 이응신을 사정없이 칼로 내리쳤다. 이응신은 어머니를 얼싸 안았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무사하였다. 그래서 그를 만고의 효자(孝子)라 일컬었는데 나라에서 그에게 효자정려(孝子旌閭)를 내렸다.

### 107) 李善麟(이선린, 조선조 선조)

이선린은 전주 이씨로, 성종대왕 후손 경명군(景明君)의 후손이고 완성군(婉城君) 이 종(李悰)의 아들이다. 자는 응서(應瑞), 선조 16년(1582) 12월 5일생이다. 벼슬은 정의(正義), 순강군(順康君)에 봉해졌다. 부평고을 동양동에 낙향하였다.

### 108) 李必馨(이필형, 조선조 숙종)

이필형은 순강군(順康君) 이선린(李善麟)의 아들이다. 광해군 7년(1615)에 출생하였고, 자는 문원(聞遠)이다. 인조 20년(1642)에 수의부위(修義副尉) 및 적순부위(迪順副尉)를 지냈고, 인조 24년(1646)에는 진용교위(進勇校尉)에 선전관(宣傳官)을 겸하였다. 그후 진위장군(振威將軍) 겸 선전관, 선략장군(宣略將軍) 겸 선전관, 어모장군(禦侮將軍) 겸 선전관을 지냈다. 인조 26년(1648)에 행오위도총부도사(行五衛都摠府都事)에 이르고,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평해군수(行平海郡守)에 올랐으며, 이어 행용양위 부사과를 지내고, 충무위사과(忠武衛司果), 행해미 현감(行海美縣監), 자산군수(慈山郡守), 행용양위부호군 겸 경주 영장(慶州營將), 그리고 행충무위부사과, 행충무위 부사과, 또한 행호분위 부사과, 통정대부 경원부사(慶源府使), 우림위 장군(羽林衛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 우림위장, 행호분위 부사과 겸 우림위장, 명천도호부사, 별천무과수사(別薦武科水使) 등의 요직을 지냈다. 그의 공적이 너무나 커서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에 올랐다. 이외에도 교지(敎旨)가 33매나 되었다. 숙종 3년(1677) 10월 18일에 죽었는데, 그의 묘(墓)는 마을 뒷산에 있다.

### 109) 李善鳳(이선봉, 조선조 인조)

이선봉은 전주 이씨 왕족이고 나라에 공이 있어 순평군(順平君)에 봉해졌다. 그는 부평고을 동면 동양리에서 살았다. 부인은 영월 엄씨(嚴氏)였는데 그 가족들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피난했는데 마침 청나라 군사가 강화도에 상륙하였고 그들은 닥치는대로 양민을 살해하였다. 그러자 엄씨 부인도 적군에 잡혀 죽기보다는 스스로 죽겠다고 자결하고 말았다. 그러자 또 그의 자부 구씨(具氏)도 어린 여자종 치마폭에 유서를 써놓고 시어머니를 따라 자결하고 말았다.

### 110) 李必馦(이필험, 조선조 인조)

이필험은 순평군 이선봉(李善鳳)의 아들이다. 부평부 동양동에서 출생하여 벼슬길에 올라 판관(判官)을 지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의 처 구씨(具氏)는 시어머니를 따라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적군의 난폭한 행동에 겁을 먹고 시어머니와 함께 자결하였다. 이 사실이 훗

날 알려져 이들 고부에게 열녀(烈女)의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 111) 金得男(김득남, 조선조 인조)

김득남은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곳에서 무관을 지냈다. 한 때 한강을 지키는 첨사(僉使)로 재임 하였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 강화도까지 청나라 군사가 침입하였다. 그러자 그는 서울에서 강화도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의병과 부하를 거느리고 적에게 대항하였다. 그렇지만 대군을 투입하여 돌진해 오는 적에게 김득남은 중과부족, 전사하게 된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그에게 벼슬을 높여주고 강화 표충사(表忠祠)에 제향하도록 하였다.

### 112) 宋 玧(송 윤, 조선조 인조)

송 윤은 진천 송씨로 부평 고을 검암동에서 살았는데, 그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학자였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군사가 부평고을에 침입해 왔을 때의 일이다. 당시 부평부청사와 향교가 불에 타고 있을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싸인 향교에 들어가 공자와 열성들의 위판(位版)을 모시고 나왔다. 그리고 이들을 공촌동 벌판에 은밀히 안치하였다가 난이 평정된 후 향교 자리에 가막을 짓고 봉안하여 크게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인조 26년(1648)에 생원(生員)이 되고,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청부 부총관이 되었다. 그리고 향교 재건에도 공을 세워 청금록(靑衿錄) 제1호로 등재하였다.

### 113) 沈 怡(심 이, 조선조 인조)

심이는 청송 심씨로 부평부사를 지낸 심신겸의 후손으로 부평부 둑실동에서 살았다. 인조 18년(1640)에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를 지낸 바 있다.

### 114) 李志訥(이지눌, 조선조 현종)

이지눌은 전주 이씨 강동령을 지낸 이 비(李備)의 자손이다. 선조 24년(1591) 부평 고을 심곡동에서 태어나 무과에 급제하여 부정(副正)이 되었다. 현종 5년(1664)에 사망하자, 그에게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추증하였다.

### 115) 李廷觀(이정관, 조선조)

이정관은 전의 이씨(全義李氏) 무의공(武懿公) 이언척(李言惕)의 아들로, 자는 원빈(元賓)이다. 감역(監役)을 거쳐 이어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다.

### 116) 李 巑(이 찰, 조선조 현종)

이 찰은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이다. 그는 조선조 광해군 6년 부평부 갈월동에서 태어나 아우 이율(李嶍)과 함께 형제 효자가 되었다. 그들 형제는 아버지가 병이 들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아버지 입에 교대로 피를 내어 넣어 드렸다. 그러나 소생하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들 형제는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뤘다. 그리고 묘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사리를 했다. 이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형제는 효도의 정려(旌閭)가 내렸다. 이 정려각은 지금도 계양지구 갈현동에 보존되어 있다.

### 117) 尹 斑(윤 정, 조선조 현종)

윤 정은 파평 윤씨로 부평고을 오류동 사람이다. 부친 4형제와 함께 효자(孝子)로, 나라에서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려졌다. 윤 정은 아버지가 위독할 때 곁에서 떠나지 않고 간호하였으며,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에 넣어드리기도 했다. 일시 소생을 했지만, 돌아가시니 정중히 장례도 치루고 3년간 시묘사리를 하였다. 현종 11년(1670)에 효자정려가 내렸다.

### 118) 朴一商(박일상, 조선조)

박일상은 밀양 박씨로 부평부 박촌 출신이다. 효종 1년(1650)에 벼슬하여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에 이르렀다.

### 119) 沈 侑(심 유, 조선조)

심 유는 청송 심씨 광흥창 주부 심 이(沈怡)의 손자다. 그의 자는 중직(重直), 무과에 급제하고, 효종 1년(1650)에 사용(司勇)을 지냈다.

### 120) 宣應時(선응시, 조선조 효종)

선응시는 부평고을 사람이다. 그의 내력은 알려지지 않으나, 어려서부터 효도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효종 6년(1655)에 나라에서 효자정려가 내렸다.

### 121) 李應相(이응상, 조선조)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인 이응상은 부평 고을 신현동에서 살았다. 효종 5년(1654)에 출생하여 벼슬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 학식과 덕망이 두터웠다고 전한다.

### 122) 申永勳(신영훈, 조선조)

평산 신씨(平山申氏)인 신영훈은 부평부 일신동에서 자랐다. 무과에 급제하여 사천눈수(泗川郡守)를 지냈다. 이름난 부자(富者)였다고 전한다.

### 123) 沈漢雄(심한웅, 조선조)

심한웅은 청송 심씨로 부평부 가좌동 출신이다. 효종 3년(1652)에 태어나서 문관을 지내고 참판(參判)에 추증되었다. 만년에 낙향하여 가좌동에서 살았다.

### 124) 金 研(김 연, 조선조)

김연은 광산 김씨로 부평부 임학동에서 살았다. 청양현감(靑陽縣監)을 지냈다.

### 125) 崔榮常(최영상, 조선조)

부평부 용종동 출신인 최영상은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을 지냈다. 현종 때 절충장군 행수군절도사에 올랐다.

### 126) 鄭彦福(정언복, 조선조)

해주 정씨인 정언복은 부평부 검암동 사람이다. 인조 때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를 지냈다.

### 127) 成九淵(성구연, 조선조)

성구연은 창녕 성씨(昌寧成氏)로 인천부 십정동에서 살았다. 숙종 때 사직(司直) 벼슬을 지냈다.

### 128) 沈 壁(심 벽, 조선조 인조)

심벽은 부평부 백석동 출신으로 청송 심씨(靑松沈氏)이다. 조선조 중기에 통덕랑(通德郞)을 지냈다.

### 129) 權齊南(권제남, 조선조 인조)

권제남은 조선조 중기 부평부 동양동 출신이다. 벼슬길에 나가 의금부 부총관(義禁府副摠管)에 이르렀다.

### 130) 李志學(이지학, 조선조 인조)

이지학은 전의 이씨로 무의공 이언척(李言惕)의 손자요, 도사 이정관의 아들이다. 인조 1년(1623)에 출생하였고, 인조 22년(1644)에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니산현감(尼山縣監)을 지냈다.

### 131) 李志行(이지행, 조선조 인조)

이지행은 전의 이씨, 도사 이정관의 차남이다. 자는 형보(亨甫)이고, 인조 7년(1639)에 출생하여 무과에 급제하고 통정대부 영변부사(寧邊府使)를 지냈다.

### 132) 鄭翔周(정상주, 조선조 숙종)

해주 정씨인 정상주는 부평부 검암동 출신이다. 인조 26년(1648)에 출생하였다. 자는 상경(翔卿), 숙종 7년(1681)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라좌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지냈으며, 영조 5년(1729)에 사망하였다.

### 133) 李龜齡(이구령, 조선조 숙종)

이구령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로 부평부 작전동 출신이다. 자는 성서(聖瑞)이고, 호는 계남(桂南)이다. 숙종 6년(1680)에 출생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공조좌랑(工曹佐郞), 안산군수(安山郡守), 강진군수(康津郡守) 등을 지냈다. 유명한 학자로 문집(文集)이 전한다.

### 134) 金萬亨(김만형, 조선조 숙종)

김만형은 부평 김씨로 부평고을에 살았는데, 숙종 31년(1705) 문과에 급제하고 현감(縣監)을 지냈다.

### 135) 權 瑍(권 환, 조선조 숙종)

권 환은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부평부 동양동에서 살았다. 자는 중장(仲章)이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 가선대부 행성균관 대사성겸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을 지냈다.

### 136) 洪世澮(홍세회, 조선조 숙종)

홍세회는 부평부 동면 사람이다. 벼슬에는 뜻이 없어 오직 학문과 도학을 연구하였고, 후진 교육에 공이 있어 계양처사(桂陽處士)로 불리었다. 부평부 박촌동에 공적비가 있었는데 도시 개발로 인하여 없어졌다.

### 137) 尹 曙(윤 서, 조선조 숙종)

파평 윤씨인 윤 서는 부평부 오류동 출신이다. 효자 윤흥파의 현손으로 효자 가문에서 태어나 또 효자가 나왔다고 크게 추앙하였는데, 숙종 30년(1704)에는 그에게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렸다.

### 138) 鄭 棟(정 동, 조선조 숙종)

정 동은 초계 정씨로 부평부 연희동 출신이다. 숙종 19년(1713)에 출생하여 문과에 급제한 후 수사(水使), 고양군수(高陽郡守), 무안군수(務安郡守) 등을 역임하고, 해주목사(海州牧使)까지 지냈다가 만년에 부평고을 연희동에 낙향하였다.

### 139) 尹尙友(윤상우, 조선조)

파평 윤씨인 윤상우는 부평부 오류동 출신이다. 효자 윤기파(尹起坡)의 손자로, 그의 집안은 부평 제일의 효자가문(孝子家門)이었다. 그 역시 부모에게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영조 25년(1750)에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려졌다.

### 140) 權世銓(권세전, 조선조)

권세전은 안동 권씨로, 자는 사형(士衡)이다. 초시에 급제하여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가 되었다.

### 141) 李震旭(이진욱, 조선조)

이진욱은 부평사람인데, 아버지가 병으로 10여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효심으로 약을 구하고 항상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모시었다. 조선조 중엽에 이러한 효행이 널리 알려져 나라에서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렸다.

### 142) 李 翁(이 옹, 조선조)

이 옹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로 부평부 작전동 출신이다. 왕족이라 부수(副守)에 제수되었다가 나라에 공(功)이 있어 승헌군(承憲君)에 봉해졌다. 경학(經學)에 정통하여 유명한 학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또한 강직한 선비로, 어전에서 치평지도(治平之道)를 건의할 정도였다. 정조 21년(1797)에 사망하였다.

### 143) 唐文輔(당문보, 조선조)

당문보는 부평부 동면 방축동 출신이다. 부평제일의 부자(富者)였다고 하며 학식과 덕망이 있었다고 한다. 정조 22년 8월에 정조 임금께서 선조에게 성묘(省墓)하기 위해 김포 장능(金浦章陵)을 참배하였을 때 접대비 전액을 부담하여 좌수벼슬을 제수받았다고 한다.

### 144) 金光啓(김광계, 조선조)

김해 김씨인 김광계는 부평부 작전동에서 살았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효성스러웠다. 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어른과 같이 행동해 칭찬을 받았다. 그후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하였을 때 자기 손가락을 잘라 피를 어머니 입에 넣어 드렸으나 얼마 후 임종하였다. 정성을 다해 장례를 모시고 묘옆에 묘막을 지어 3년상 시묘사리를 하였다. 이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그에게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렸다.

### 145) 鄭 勗(정 욱, 조선조)

정 욱은 해주 정씨로 부평부 검암동에서 태어나 오정면 작전리에서 살았다. 명문출신임에도 벼슬에는 뜻이 없고 오직 학자로서 향리 후진 교육에만 힘을 썼다. 그리하여 부평고을에서 존대를 받았다고 한다.

### 146) 沈弘祖(심홍조, 조선조)

청송 심씨인 심홍조는 부평부 가좌동 출신이다. 정조 8년(1784)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으며, 선략장군(宣略將軍)에 이어 초계군수(草溪郡守)를 지냈다.

### 147) 金漢秀(김한수, 조선조)

광산 김씨인 김한수는 부평부 백석동 출신이다. 공조좌랑(工曹佐郞)을 지냈다.

### 148) 鄭 晳(정 석, 조선조)

정 석은 초계 정씨로 부평부 연희동 출신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좌랑(工曹佐郞)을 지냈다.

### 149) 文鳳集(문봉집, 조선조)

문봉집은 인천 문씨라 자처하고 영조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과 자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 150) 李百年(이백년, 조선조)

이백년은 전주 이씨 정숙군파이다. 강동령(江東令) 이 비(李備)의 후손으로 왕족이라서 명천감(明川監)에 봉해졌다.

### 151) 李從年(이종년, 조선조)

이종년은 전주 이씨 정석군파이다. 왕족인 강동령 이 비의 후손이라 연천감(漣川監)에 봉해졌다.

### 152) 李萬年(이만년, 조선조)

이만년은 전주 이씨 정석군파로 그도 역시 왕족인 강동령 이 비의 후손이어서 숙천감(肅川監)에 봉해졌다.

### 153) 成 習(성 습, 조선조)

창녕 성씨인 성 습은 인천부 십정리에 낙향한 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를 거쳐 영월부사(寧越府使)에 올랐다.

### 154) 朴 珍(박 진, 조선조)

밀양 박씨(密陽朴氏)인 박 진은 여러 벼슬을 거쳐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다.

### 155) 唐孝利(당효리, 조선조)

당효리는 원래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부평부 동면 방축동에서 살았다. 전리서 주부(典理署主簿)를 지냈다.

### 156) 李悌立(이제립, 조선조)

이제립은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이다. 부평부 갈산리 출신으로 여러 벼슬을 거쳐 어모장군(禦侮將軍)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이르렀다.

### 157) 李忠慶(이충경, 조선조)

이충경은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이다. 부평부 갈월동에서 출생하여, 조선조 영조 때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지냈다.

158) 李世英(이세영, 조선조)

이세영은 부평 이씨로 부평부 서면 화전리 출신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우승지(右承旨)를 지냈다.

159) 李 性(이 성, 조선조)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인 이 성은 부평부 서면 갈월리 출신이다. 영조때 벼슬하여 순안군수(順安郡守)를 지냈다.

160) 李大英(이대영, 조선조 인조)

이대영은 부평사람으로, 인조때 충의위(忠義衛)를 지냈다. 그의 처 이씨는 병자호란때 남편이 병이 들어 기동을 못하자 남편을 업고 피난하기도 했으며 오랑캐군과 마주치자 욕을 당할까 두려워 자결하였다. 현종 8년(1667)에 나라에서 열녀정려(烈女旌閭)가 내렸다.

161) 李敦室(이돈실, 조선조)

이돈실은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이다. 부평부 갈산리 출신으로, 영조때 충의위(忠義衛)를 지냈다.

162) 李應相(이응상, 조선조)

이응상은 전주 이씨로 부평부 가좌동 사람이다. 벼슬길에 올라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163) 卞忠元(변충원, 조선조)

밀양 변씨인 변충원은 부평부 오정면 고강리 사람이다. 조선 중기에 김포현령(金浦縣令)을 지냈다.

164) 閔希說(민희열, 조선조)

민희열은 여흥 민씨로 부평부 오정면 작리에서 살았다. 과거에 급제하여 동복군수(同福郡守)를 거쳐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 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165) 鄭 勗(정 직, 조선조)

정 직은 해주 정씨로 부평부 검암동 출신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가선대부 대사헌(嘉善大夫 大司憲)에 증직되었다.

### 166) 鄭惟明(정유명, 조선조)

정유명은 초계 정씨로 부평부 연희동 출신이다. 초시에 급제하여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를 지냈다.

### 167) 成　羽(성　우, 조선조)

성 우는 창녕성씨로 인천부 주안면 십정동 출신이다. 공주 판관(公州判官)을 지냈다.

### 168) 沈　植(심　식, 조선조 정조)

심 식은 청송 심씨로 부평부 둑실동 사람이다. 조선 정조때 선무랑(宣務郎)을 지냈다.

### 169) 柳之翊(류지익, 조선조 순조)

류지익은 진주 류씨(晋州柳氏)로 부평부 모월곶면 시천동 출신이다. 자는 성보(聖輔), 호는 계은(桂隱)이다. 그는 영조 26년(1750)에 출생, 정조 17년(1793)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등을 지냈고, 순조 25년(1825) 사망하였다. 유고(遺稿) 20권이 전한다.

### 170) 柳春東(류춘동, 조선조)

류춘동은 지평(持平) 류지익(柳之翊)의 아들이다. 순조 1년(1801) 초시에 급제하였고, 동왕 3년(1803)에는 알성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연구에 일생을 보낸 학자이다.

### 171) 柳序東(류서동, 조선조 정조)

류서동은 정조 24년(1800) 출생하였는데 학문연구에 일생을 보냈다. 유명한 학자로 수상록(隨想錄) 8권이 전한다.

### 172) 柳逸衡(류일형, 조선조)

류일형은 자는 경민(景民), 호는 계음(桂陰)이다. 순조 26년(1826)에 출생하여 벼슬은 하지 않고 오직 학문연구에 전념한 학자로 박학통사(博學通史)를 저술하였다. 또한 증책사감(增册史鑑)을 저술 간행하여 이름을 날렸다.

### 173) 柳完東(류완동, 조선조)

류완동은 자가 맹인(盲仁), 호는 원제(源齊)이다. 순조 13년(1813)에 출생하였고, 헌종 15년(1849)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전부(典簿)를 지내고, 용안 현감(龍安縣監)을 지냈다.

### 174) 徐采亮(서채량, 조선조)

서채량은 장서 서씨로 부평부 동소정면 구산동 출신이다. 평소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머니께서 노환으로 병석에 있을 때 위중하여 백방으로 약을 구해 드려도 차도가 없었다. 그때 어느 의원이 그 병에는 호랑이 간이 특효라는 말을 듣고 호랑이 간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때마침 계양산 기슭기에 호랑이가 병이 들어 누워있다는 말을 듣고 그 호랑이를 잡아서 간을 내었다. 어머니에게 간을 들게하여 소생하였다. 그후 이 사실이 알려져 그에게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란 벼슬이 주어졌고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렸다고 한다.

### 175) 柳 繪(류 회, 조선조)

부평 황어면에 살았던 류 회는 평소 부모에게 효도하여 인근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순조때 나라에서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려졌다.

### 176) 唐淸龍(당청룡, 조선조)

당청룡은 부평부 동면 방축동 사람으로 좌수 당문모의 아들이다. 부자로 고을사람들에게 선심(善心)을 베풀었으며 부평좌수가 되었다.

### 177) 沈 俔(심 현, 조선조)

심현은 풍산 심씨로 부평부 백석동 출신이다. 용양위 부사과(龍驤衛副司果)를 지냈다.

### 178) 南 淵(남 연, 조선조)

남연은 의령남씨로 부평부 오정면 출신이다. 현종때 학자로 벼슬에 뜻이 없어 학문연구에 힘써 그 명성을 날렸다. 또한 그의 덕행(德行)이 온 고을에 미쳐 주민들의 추앙을 받았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유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 179) 鄭元諶(정원심, 조선조)

정원심은 해주 정씨로 부평부 검암동 출신이다. 헌종때 통덕랑(通德郞)을 지냈다.

### 180) 李敦培(이돈배, 조선조)

이돈배는 전주 이씨로 임영대군 자손이다. 부평부 서면 갈월리 출신으로 헌종때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 181) 沈廷燮(심정섭, 조선조)

심정섭은 청송 심씨로 부평부 황어면 둑실동 출신이다. 철종때 능 참봉(陵參奉)을 지냈다.

### 182) 李春日(이춘일, 조선조)

이춘일은 원래 김포 양촌면 구래리 출신인데 부평부 동면 병방리에서 살았다. 무과에 급제하여 강화진관 소속 남문의 수문장(守門將)이 되었다. 고종 3년(1866) 10월 18일에 불란서 함대가 강화도에 상륙할때 이춘일은 부하들과 남문을 지키면서 적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불란서 함대가 쏜 총탄에 맞았다. 그는 배 창자가 터져 나올 때까지 싸우다 전사하였다. 강화유수 이장겸(李章謙), 위유사(慰諭使) 강 광(康洸) 등은 사실을 임금께 상신하였다. 그리하여 충신의 정려(旌閭)가 내려졌고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추증되었다.

### 183) 李海鵬(이해붕, 조선조)

이해붕은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로 부평부 갈월리에서 태어났다. 철종때 부평좌수를 지냈고, 후에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

### 184) 柳泰東(류태동, 조선조 철종)

류태동은 지평(持平)을 지낸 류지익의 아들로 호는 계북(桂北)이다. 헌종 3년(1837)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할 때 바른 말을 하여 미움을 받아 지도(智島)에서 귀양을 살았다. 철종 6년(1855)에 다시 교리(校理), 수찬(修撰), 대사간(大司諫), 부승지(副承旨), 고흥부사(高興府使) 등을 거쳐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이르렀다. 고종 1년(1864)에 사망하였다. 그의 영정과 문집, 단종어제(端宗御製) 등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화재로 소실되었다.

### 185) 柳宅東(류택동, 조선조)

류택동은 진주 류씨이고 부평부 시천동 출신이다. 순조 13년(1813) 12월 28일생으로, 헌종 12년(1846)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철종 9년(1858)에 전부(典簿)가 되었고 이어 고종 2년(1865)에는 용안현감(龍安縣監)을 지냈다.

### 186) 李敎善(이교선, 조선조)

이교선은 성주 이씨로 부평부 가좌동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모가 병이 들자 항상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서 간병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정중히 장례를 치루고 매일 성묘(省墓)를 다니고 일생동안 계속하여 그 묘앞에 무릎을 끓었던 자리가 완연하였다. 나라에서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려졌다.

### 187) 秋煖源(추난원, 조선조)

추난원은 부평읍 출신이다. 고종때 부유하게 살았는데, 평소 부모에게 효도하여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아버지가 죽자 묘막을 짓고 3년간의 시묘사리를 하였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동침을 하여 임신을 하게되었는데, 결국 이런 연유로 효자정려를 받지 못했다.

### 188) 柳完茂(류완무, 조선조)

진주 류씨인 류완무는 부평부 시천동에서 태어났다. 자는 중일(仲一)이다.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자 그는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감옥에 갇히자, 그를 구출하여 은신시켜 주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되자 만주로 건너가 혼춘에 군관학교(軍官學校)를 짓고 독립군대를 양성하였다. 광무 11년 4월 24일 자객에게 암살되었다.

### 189) 朴慶福(박경복, 조선조)

박경복은 부평부 연희동에 이주해 살았다. 죽산 박씨(竹山朴氏)로 고종 17년(1880)에 선공감역(繕工監役)을 지냈는데 개화이후에는 법무부 주사(法務部主事)를 지냈다.

### 190) 朴熙房(박희방, 조선조)

박희방은 고종때 부평부사(富平府使)를 지냈다. 그가 재임중 계양산 경명현(桂陽山 景明峴) 좌우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하고 강해루(控海樓)를 지었다. 그리고 군대를 배치하고 서해로 침입하는 외국군대의 감시와 침공에 대비하였다. 이 중심성을 완공하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지금은 비초석만 남아있다.

## 3. 개화이후(開化以後)

### 1) 權丙權(권병권)

권병권은 안동 권씨로 부평부 당산면 동양리 출신이다. 한말 고종 17년(1880)에 황해도 재령재판소 검사(檢事)가 되었다.

### 2) 柳國衡(류국형)

류국형은 진주 류씨로 부평부 시천동 출신이다. 자는 경순(景純), 호는 혜천(惠川)이다. 참의 류태동의 아들로, 고종 4년(1865)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고종 21년(1884)에는 평양북부도사(平壤北部都事)를 지냈다.

### 3) 尹尙友(윤상우)

윤상우는 파평 윤씨로 부평부 오류동 출신이다. 집안은 부평고을에서 유명한 효자(孝子) 가문으로, 지평(持平) 벼슬을 지냈다. 5대 7효자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다.

### 4) 尹 曙(윤 서)

윤 서는 파평 윤씨로 효자가문 출신이다. 역시 부모에게 효도하여 지평(持平) 벼슬을 하고, 효자정려(孝子旌閭)도 받았다.

### 5) 柳台衡(류태형)

류태형은 순조 26년(1826)에 출생하여 고종 13년(1876)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이듬해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삭녕 군수(朔寧郡守) 등 여섯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단발령이 내리자, 이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서 은거생활로 학문연구에만 전념하였다. 문집(文集) 5권이 전한다.

### 6) 柳正東(류정동)

류정동은 진주 류씨이고, 부평부 시천리 사람이다. 유명한 학자로 석전유고(石田遺稿)를 저술, 간행하였다.

### 7) 朴炳吾(박병오)

박병오는 부평읍 출신으로, 한말에 감찰(監察)을 지냈다. 만년에 개척사업(도두리 황무지 개척사업)으로 부자가 되었다.

### 8) 鄭雲衢(정운구)

정운구는 1909년에 부평군수(富平郡守)로 재직중 부평학교 교장을 겸직하였다.

### 9) 丁大偉(정대위)

정대위는 서기 1902년에 부평군수(富平郡守)로 재직중 부평학교 교장을 겸직하였다.

### 10) 沈遠彬(심원빈)

심원빈은 청송 심씨로 부평부 백석리 출신이다. 철종 1년(1850)에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동벽(三司東壁)을 지냈으며, 건양 1년(1896)에는 비서승(秘書丞)을 지냈다.

### 11) 徐光年(서광년)

서광년은 달성 서씨로 부평군 가좌동 출신이다. 서울 명문에 양자로 들어가 초시에 급제하여 진사(進士)가 되고, 성균관 교수(成均館 敎授)가 되었다.

### 12) 朴周淳(박주순)

박주순은 부평부 옥산면 벌응절리 출신으로 죽산 박씨(竹山朴氏)이다. 구한말에 부자로 주민들에게 선심(善心)을 베풀고 부평 중심성 축조때에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도 했다. 그리고 향교(鄕校) 수리(修理) 대금을 희사하기도 하였고, 향교 전교(鄕校典校)로 활약하였다. 그의 큰아들은 사립학교(私立學校)를 경영하였으며,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 되어 농림부장관(農林部長官)을 역임하였다.

### 13) 李春根(이춘근)

이춘근은 부평부 수탐면 출신으로 원직을 지냈다. 경인철도가 부설되기 전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과 국내인들이 서울에 갈 때는 부평 오류동에서 하루를 자고 서울로 가야만 했다. 그래서 오류동에 오류원(梧柳院)을 두고 원직(院直)을 배치하였는데 이춘근이 원직에 임명되어 오가는 외국외교관(外國外交官)들을 유숙시키고 식사까지 대접하는 일을 맡았다. 이 오류원은 경인철도가 개통된 후에 폐지되었다.

### 14) 趙鍾俠(조종협)

조종협은 배천 조씨로 부평부 가정동 출신이다. 고종말 능참봉(陵參奉)을 지냈다.

## 4. 근세(近世)의 인물

### 1) 卞晟相(변정상)

변정상은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문관을 거쳐 군수(郡守)를 지냈다. 그의 아들은 셋이 있는데 모두 출세하였다. 큰 아들 변영만은 구한말에 법관이 되었는데 한일합방으로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해방후에는 성균관대 교수를 지냈다. 둘째 아들 변영태는 강직한 관리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셋째는 변영노로 시인이며, 학자이다. 그래서 3인의 형제면을 삼변(三卞)이라 한다.

### 2) 卞榮晩(변영만)

변영만은 광무(光武 3, 1889년) 부평부 오정면 고강리(古康里) 출신이다. 자는 곡명(穀明)이며, 호는 산강재(山康齋) 또는 백민거사(白旻居士)이다. 법관학교를 나와 판사(判事)가 되었다가 사법권이 일본에 이양되면서 판사를 사퇴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한일합방후 중국 북경에 망명하여 학문연구에 전념하여 한학(漢學) 및 영문학(英文學)의 석학이 되었다. 해방후 귀국하여 대학교수로 국문학 발전에 많은 힘을 썼다.

### 3) 卞榮魯(변영노)

변영노는 변영만, 변영태의 아우가 된다. 문학가로서 이화여전(梨花女專)교수를 지내고, 미국에 유학, 귀국해 동아일보 기자를 지내고, 성균관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냈다. 그 밖에 서울신문취재역, 대한공소이사장, 여자일간지발간, 국제펜클럽회장 등을 지냈다. 대주호(大酒豪)이며 많은 저서를 남겼다.

### 4) 李永培(이영배)

이영배는 부평부 오정면 고강리 출신이다. 구한말 정치운동에 가담하여 1896년 4월 19일 왕족 이준용(李埈鎔)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았다.

### 5) 朴齊鳳(박제봉)

박제봉은 박주순(朴周淳)의 아들로 계남학교(桂南學校)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경학원(經學院) 사성(司成)을 지냈다.

### 6) 元仁常(원인상)

원인상은 부평군 오정면 여월리(如月里) 출신이다. 일제(日帝)때 학식과 덕망이 있어 경기도평의원(京畿道評議員)을 지냈다.

### 7) 李桂賢(이계현)

이계현은 소사출신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어 경기도평의원(京畿道評議員)에 당선되었다.

### 8) 金基善(김기선)

김기선은 상산 김씨로 부평군 연희동 사람이다. 서기 1900년 나이 16세에 미국에 유학하여 링컨고등학교, 프린스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상업에 종사하여 부자가 되었다. 정치계에 참여하여 공화당 월슨대통령 선거운동에 가담, 활약 하였다. 그리고 서재필 박사와 함께 재미동포를 지도하였으며, 전명운(田明雲), 장인환(張仁煥) 등과 협조하여 조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만년에 귀국하여 여생을 보냈다.

### 9) 金悌鉉(김제현)

김제현은 광산 김씨로 부평군 백석리 출신이다. 당시 효자로 잘 알려진 그는 반신불구가 된 홀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자고, 아침이 되면 아버지 옷을 입혀 드리는 등 춥지 않게 온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였다. 농사일에 나가면 반드시 농작물 한포기를 가지고와서 보여드렸고 또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면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드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때가 일제시대라서 효자정려는 내려지지 않았다.

### 10) 민병훈(閔丙勳

민병훈은 부평군 작전동 출신이다. 일제시대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판사(判事)를 지냈다.

### 11) 柳熙晋(류희진)

유희진은 진주 류씨로 부평군 시천리 출신이다. 그는 한말 서울 외국어학교(外國語學校)를 나와 용당포세무소장을 지냈다. 세무서가 폐지된 후는 일제시대 초기에는 군속관(郡屬官)을 지냈다. 그리고 한 때 경학원(經學院·成均館大學 前身) 강사(講師)로 있었다. 박학다재하였으며, 해방후에는 「건국과 유교」란 책을 간행하였다.

### 12) 沈爀誠(심혁성)

심혁성은 풍산 심씨로 부평군 백석동 출신이다. 계양지방에 이주하여 살면서 천주교 신자(天主敎信者)가 되었다가 기미년 3.1독립운동을 주동한 사람이다. 이때 만세 시위하던 중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동정심이 많아 가산

을 팔아 의복 등을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산속에 들어가 약초를 캐서 연명하였다. 후에 만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살았다.

### 13) 李殷先(이은선)

이은선은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 사람이다. 기미년(1919) 3월 24일 계양면 황어장터에서 심혁성과 함께 만세시위에서 선두에서 지휘하다 인천경찰서 부내지서 순사의 칼에 베어 순절하였다.

### 14) 李公雨

이공우는 계양면 사람으로 기미년 3월 24일 계양면 황어장터에서 심혁성과 함께 만세운동 시위하다가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 15) 李 潭(이 담)

이 담은 부천군 계양면 출신이다. 기미년 만세운동때 심혁성, 이은선, 이공우 등과 함께 황어장날 대한독립만세 시위를 지휘하다가 체포되어 3년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 16) 朴容均(박용균)

박용균은 밀양 박씨로 부평읍 태생이다. 부자집 아들로 태어나 의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원(醫院)을 개업하다가 서울로 진출, 의사, 제약회사 등을 경영하면서 고위층과 교류하였다. 일제때에는 경기도 의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 17) 李有善(이유선)

이유선은 부평군 도수정면 출신으로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이다. 소사지방으로 이주해서 사업을 하다가 부천군 대표인 제헌국회의원(制憲國會議員)에 당선되었다.

# 第 9 篇　文化財·遺跡地



# 第1章 문화재(文化財)

## 1. 지정문화재

### 1) 부평도호부 청사(富平都護府 廳舍)

지정번호 : 인천시지정 유형문화재 제2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부평도호부 청사는 그 일부가 현재 부평초등학교 교정의 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청사의 건치(建置) 연대와 건물의 원형에 관해서는 확실한 것을 상고하기가 어렵다. 다만 고려 충선왕 2년(1310)에 부평부(富平府)로 불려오던 것이 조선의 태종 13년 (1413)부터 부평도호부로 개칭되었으며, 행정제도상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였다. 전하는 바로는 선조시대에 건립되었다고 하나 확인하기가 어렵고, 숙종 3년(1677)에 중수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부평군읍지』에 의하면 부평도호부 청사에는 객사(客舍, 7간 반), 동헌(東軒, 7간), 서헌(西軒, 7간), 중문(3간), 대문(3간), 근민당(近民堂, 16간), 내삼문(內三門, 3간), 좌우익랑(左右翼廊, 8간), 외삼문(外三門, 6간), 좌우익랑(左右翼廊, 6간), 동책방(東冊房, 9간), 서책방(西冊房, 7간반), 내아(內衙, 22간 반), 공수(公須, 10간), 사령청(使令廳, 10간), 향청(鄕廳, 7간), 작청(作廳, 22간), 형리청(刑吏廳, 7간반), 연무당(鍊武堂, 6간), 포도청(捕盜廳, 12간), 순교청(巡校廳, 8간), 부창(府倉, 6간), 대문(3간), 부고(府庫, 40간) 등의 23개 건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사규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평도호부 청사는 원형을 잘 유지하여 온 듯 하지만 이곳에 부평 보통학교를 세우게 되면서 대부분의 건물은 헐어버리고 일부만을 교정 한모퉁이로 이전하여 교사의 일부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옮겨질 당시에는 건물 모양이 ㄱ자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1968년에 다시 교사 동편으로 옮기면서 ㄱ자형의 한 변을 떼어 버려, 현재는 정면 6간 측면 2간의 一자형 건물로 남게 된 것이다. 현재의 건물이 동헌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동헌과 서헌은 당초 각각 7간에 불과한 건물이었으므로 동헌이라 볼 수 없고, 내아(내동헌)가 처음에 22간 반 이었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내아를 교정으로 옮기면서 축소·개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물의 원형은 자세히 알 길이 없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독특한 의장(意匠)

과 설계로 된 특이한 건물임을 알 수가 있다. 즉, 1m가 넘는 높이로 석축대를 쌓아올린 것이라던가, ㄱ자형으로 꺽어서 지은 의장 양식 등이 조선 중기 건축의 풍미를 다분히 풍기고 있다. 초석, 석축 원주(圓柱) 등은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여지며 건축 양식은 팔작(八作) 굴도리집으로 되어 있다.

### 2) 부평향교(富平鄕校)

지정번호 : 인천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2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향교는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인 선현에 대한 제향을 담당한 문묘(文廟)와, 이에 부설되어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는 관학(官學)으로서의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민을 교화하고, 향풍을 순화하는 지방교육기관이다.

부평향교는 현재 부평초등학교 서남쪽 약 800m 지점 언덕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나, 『부평향교지』에 의하면 처음엔 고려 인종 5년(1127) 부평의 진산인 계양산 남쪽 기슭(부평초등학교 교사 뒤쪽)에 건립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학교조)에도 '향교재부북이리(鄕校在府北二里 ; 향교는 부(府)의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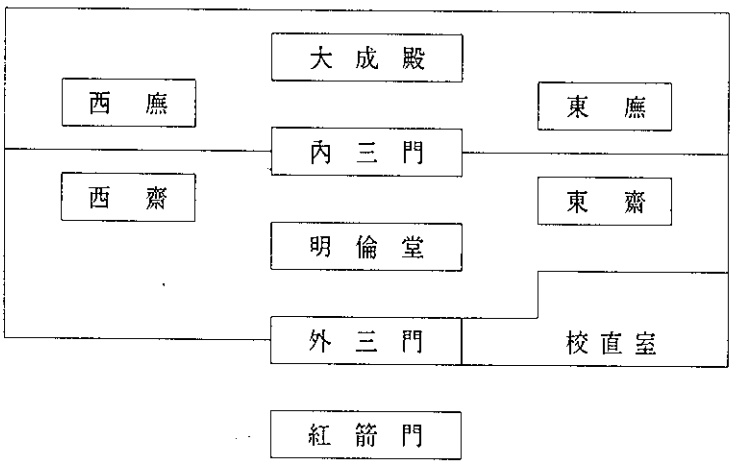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임진왜란(1592)때에는 교생 세 사람이 성전위판(聖殿位版)을 계양산의 움속(장사골)에 비장하였다가 난이 평정된 후에, 다시 봉안하였으므로 난중에 위판을 분실한 인근의 읍들은, 이 향교의 위판을 모두 본떠서 받아갔다고 한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당시에는 화재로 향교가 완전히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 후 50여년이 지난 숙종 14년(1688)에 현재의 위치에 새로 재건하고, 공촌동(公村洞)에 은닉·보관하였던 열성위 위패를 옮겨왔다고 한다. 『부평군읍지』(광무판)에 '향교재군서2리(鄕校在郡西二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물은 바로 현존의 향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1943년 10월 일제의 식민통치 말기에, 일본인 인천부윤은 같은 부내에 1개의 향교를 고집하여 강제로 문학문묘(文鶴文廟)를 부평문묘(富平文廟)에 합감(合龕)케 하고 명칭도 인천향교라고 한 바 있으나, 광복후 1946년 3월 문학문묘는 인천향교로 부평문묘는 부평향교로 개칭·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평향교는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교직실 등이 있고, 향교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다. 1899년에 편찬된『부평군읍지』(광무판)에 의하면 대성전(10간), 동무(6간), 서무(6간), 명륜당(10간), 동재(7간), 서재(7간반) 외에 전사청(3간), 공수고(10간), 중문(3간), 대문(3간) 등이 있었다고 한다.

〈부평향교 평면도〉




대성전은 맞배지붕에 한식골기와 형태이고 좌우에 방풍판이 있으며, 정면 3간, 측면 3간으로 건물의 크기는 16.7평이다. 좌우에 있는 동무와 서무는 건물의 규모와 건축양식이 동일하여 맞배지붕에 좌우에 방풍판을 달고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1간 반으로 건물의 크기는 약 5평 남짓하다.

명륜당은 팔작 지붕에 한식 골기와 형태로서 정면 5간, 측면 2간이며 건평은 약 19평으로 전교실(典校室)과 강당이 있다. 동재와 서재는 정면 5간, 측면 1간반의 민도리집으로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이다.

이밖에 내삼문과 외삼문이 있고 제향의식 등의 여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건물 교직실이 있는데 향교의 총 면적은 2,172㎡ 이다.

부평향교는 숙종 14년(1688) 현재의 위치에 재건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치었다. 『부평향교지』의 중수기에 의하면 철종 4년(1853)경부터 최근(1989) 사이에 건물 내외에 대한 보수와 복원, 내·외삼문의 개축과 정비, 도로, 담장의 개축과 보수, 단청 등 무려 17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가 있었다고 한다.

부평향교는 대성전에 오성위(五聖位)인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를 비롯하여 송나라 2현(二賢, 程顥, 朱熹)과 우리나라 18현(설총·최치원·안유·이황·이이 등 18인) 등의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 매년 춘추로 2회의 석전제를 거행하여 왔으나 향교 재단 결의에 따라 봄

2월 상정일(上丁日 ; 첫丁日)에 한 번만 지내기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평향교는 광무 10년(1906) 8월, 학제개혁을 위한 각급학교령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관학으로서의 지방교육기관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으나, 유교의 예속과 도의선양을 위한 교화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부평향교의 현임원은 향교를 대표하는 전교(典校) 1인과 장의(掌議) 21인, 감사(監事) 2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모든 향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3) 녹청자 도요지(綠靑磁 陶窯址)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11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녹청자 도요지는 검암동의 인천골프장안에 있다. 이 도요지는 1965년과 1966년,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는데, 발굴된 기종은 대접, 접시, 병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요지의 구조와 양식을 보면 구릉을 타고 서남형으로 쌓아진 요상(窯床)의 길이가 7.3m, 폭이 1.05m, 봉통(아궁이)의 폭이 1.2m의 흔치않은 소규모의 요지이다.

요(窯)의 경사도는 22도 가량의 단실요(單室窯)인데, 이 요지에서 주목되는 특수한 양식은 완만하게 경사진 요상의 표면에 흙으로 만든 원형의 도지미(개떡)를 배열하고 있는 점이다. 이 도지미란 자기를 굽기 전에 그릇들을 하나하나 올려 놓아서 그릇의 굽이 직접 요상에 닿지 않도록 마련한 굽받침을 일컫는 것이다. 이 굽받침의 모양이 말굽모양과 같이 앞쪽은 두껍고 뒤쪽은 얇게 빚어서 경사진 요상 위에 두꺼운 쪽을 아래편으로 놓아서 그릇이 평형으로 놓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상 자체를 수평이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굽받침으로 해서 그것이 수평으로 조절되도록 되어 있어, 아래쪽으로 갈수록 굽받침이 높아져 그 위에 놓여진 그릇들이 평형을 이루도록 굽받침으로 조절해 놓는 방법이다.

이같은 구조양식의 도요지가 일본에서 두 곳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들의 독자적인 것으로 자부해 오고 있었는데, 인천 검암동의 녹청자 도요지가 발굴됨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진전에 따라 도요기술의 일본 유입 경로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도요지의 자기는 비교적 정선된 청자계의 얇은 태토(胎土) 위에 거칠은 녹청색 유약을 발라서 구운 녹청자기이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도 있던 종류이다. 인천시에서는 1984년 12월 이곳에 보호막사를 복원하여 관리하고 있다.

## 2. 문화재 자료

### 1) 욕은지(浴恩池)

지정번호 : 인천시지정 문화재자료 제1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욕은지는 어사대와 함께 부평초등학교 교정의 동쪽, 부평도호부 청사 앞에 있다. 이 욕은지는 인조 9년(1631)에 축조한 것으로, 원래는 이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동쪽에 있던 것을 고종 24년(1887)에 중수하면서 현위치로 옮겨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연못 동쪽 돌축대 중심부에 '욕은지 광서 정해중수(浴恩池光緖丁亥重修)'라고 새겨진 돌이 끼어 있으므로 광서 정해는 청나라 덕종 13년(우리나라 고종 24년)으로, 이 해에 중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욕은지는 동서의 길이 18m, 남북의 길이 16m의 사각형으로, 돌로 쌓아 만든 인공 연못이며, 연못 가운데 둘레 7m의 인공섬을 만들어 초목을 심고 돌다리를 만들어 남쪽과 연결하고 있다.

욕은지는 인조가 그의 생부 원종(元宗)의 능침인 장릉(章陵)이 멀지 않은 김포에 있으므로, 장릉을 전배할 때 부평에 들러, 활을 쏘고, 이 연못에서 손을 씻었다고(발을 씻었다고도 하고, 혹은 목욕재계하였다고도 함)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조는 부평에 행차한 적이 거의 없으며, 욕은지와 어사대는 오히려 부평을 거쳐간 정조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보여진다. 인조는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후, 양주 땅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김포로 옮기고 인조 10년(1632)엔 그의 생부를 원종으로 추존하면서 묘소를 장릉으로 높혔던 것이다. 그런데 인조는 7년 9월 하순에 이 장릉을 전배한 바가 있다. 인천시는 1985년 7월에 크게 보수한 바 있는데, 이때에 동남쪽에 있던 '욕은지(浴恩池)'라고 음각된 대석을 북쪽 중앙으로 옮겨 놓았다.

### 2) 어사대(御射臺)

지정번호 : 인천시지정 문화재자료 제3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어사대는 욕은지와 함께 부평초등학교 교정 동쪽 모퉁이에 있는데, 욕은지 동편 약 10m 떨어진 곳에 큰 돌로 대를 만들고 중앙에 어사대(御射臺)라고 음각하고 그 왼쪽에 '광서 정해중수(光緖丁亥重修)'라고 새긴 돌이 놓여 있다. 전날에는 이 대 후면에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남아 있지 않고, 고종 24년(광서·정해는 청나라 덕종 13년, 1887)에 중수하였다는

어사대 표지석만 남아 있을 뿐이다.

어사대는 인조가 그의 생부인 정원군(定遠君, 인조 10년에 원종으로 추존)의 흥경원(興慶園, 인조 10년에 장릉으로 추상)을 전배 할 적에 이곳에 들러 활을 쏘던 곳이라고 전해오고 있으나, 인조는 부평에 들른 일이 없다.

인조는 반정후 왕위에 오르자 정원군을 대원군으로 추존하고 인조 5년 8월에 묘소를 양주에서 김포땅으로 천봉하고 흥경원이라고 칭하였다.

부평을 경유한 임금은 정조가 유일한데, 정조는 21년 (1797) 8월 15일 장릉 전배를 마치고, 수원의 현륭원(顯隆園 ; 정조의 생부 장헌세자의 묘소로 현재의 융릉)을 전배하기 위하여 8월 16일 김포를 떠나 부평에서 머물러, 부사 윤광석을 인견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안산으로 향하였는데, 정조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곳 어사대에서 활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第 2 章　유적(遺跡)

## 1. 유적지

### 1) 사직단(社稷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 서쪽 기슭

『신증동국여지승람』권 9 (부평도호부조)와 『부평부읍지』에 "사직단은 부평부 서쪽 2리에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 자리는 징매이고개(景明峴) 방향 계양산 중턱(현재는 주택단지)으로 전해오고 있다.

부평의 사직단 설치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조선왕조가 개국한 직후 태조는 지금의 서울 사직동에 사직단을 조성하고, 국태민안과 풍년을 비는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을마다 관아의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도록 한 사실과 『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전기부터 이미 사직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고을 수령도 사직단을 축단하고 사(社)의 토신과 직(稷)의 곡물신에게 춘추로 제사를 지내어, 백성의 평안과 풍년을 빌었으며 때로는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도 이곳에서 지내었다. 1910년 일본에게 강제 합병된 후부터 제사는 중단되고 사직단은 훼손되어, 지금은 주택단지로 변모하여 옛날 흔적을 찾을 길이 없으나, 그 당시의 제문과 축문, 설찬도, 홀기 등이 부평향교에 보존되고 있다.

### 2) 성황단(城隍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성황단은 마을 어귀나 고개 마루에 원추형으로 쌓아 놓은 돌 무더기와, 그 곁에 흔히 신목으로 신성시되는 나무 혹은 장승이 세워져있기도 한 곳이다. 이곳을 지날 때 사람들은 돌 세 개를 얹으며 침을 세 번 뱉고 지나가면 액운을 면하고 재수가 좋다는 서낭신(마을수호신)에게 제사지내는 단이며 서낭단이라고도 한다. 서낭신앙은 본래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북제(北齊)때에 출현하여 송대(宋代) 이후 보편화된 신앙이다.

서낭신앙은 팔사(八蜡)의 일곱째 신인 수용(水庸)을 제사하기 시작한데서부터 비롯된 성지

신앙(城池信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낭신앙이 전래된 것은 고려의 문종때(11세기 후기) 신성진(新城鎭)에 성황사(城隍祠)를 둔 것이 성황(城隍 ; 마을수호신을 지칭하며 서낭이라고도 한다)의 시초이며, 서낭신을 모신 서낭당을 신역으로서 신앙의 장소이다. 고려시대에는 각 주부현(州·府·縣)마다 서낭을 두고 이를 위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서낭은 널리 신앙되어 태조는 여러 산천의 서낭을 제사하였다. 따라서 정기적인 제사 뿐만 아니라 국난이나 가뭄이 있을 때 서낭제를 거행하여 국태민안을 빌었다. 서낭에 대하여는 『동국여지승람』과 『읍지』 등에 많은 기록이 있고 학자의 견해도 분분하나 대체로 우리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서낭신앙이 있었는데, 그 뒤 중국으로부터 성황신앙이 유입되어 서낭신앙과 성황신앙은 그 기능이나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재래의 우리 서낭과 전래의 성황은 쉽게 복합될 수 있었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서낭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하여는 성황(城隍)으로 기록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서낭은 마을 수호신의 성격뿐 아니라, 풍요신의 성격과 조상숭배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신앙형태로 보인다.

『부평군읍지』에 "성황단은 부평군 남쪽 2리에 있고 신실(神室)은 군북쪽 3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권 9(부평도호부조)에는 "성황사는 부평부 북쪽 2리에 있다"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성황단은 부평군 관아의 남쪽 2리 지점에 있었으며,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돌을 얹는다든가 침을 뱉는다든가 정성을 드리는 등 개인적인 의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위를 모신 신실이나 신당(神堂)은 군의 북쪽 3리에 있어서, 수령은 고을의 수호신으로 주신인 산신에게, 그 다음으로 부락신에게 제례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우가 부평부의 북쪽 2리에 있다고 적혀있으나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으며 부평향교에 홀기(笏記)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락의 수호신인 성황신에게 제례를 하였으나 여제(厲祭)를 지낼 때 함께 지냈다고 전해오고 있다.

### 3) 여단(厲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 기슭

여단은 조선시대 주로 돌림병(疫疾)의 퇴치와 예방을 위하여 국가에서 행하는 여제(厲祭)를 지내는 제단이다. 단의 크기는 정4각형이며 한 변의 길이가 6.3m에 높이는 0.75m정도이다. 사방을 층계로 담을 쌓고 주위를 막아서 단을 보호하였다. 토담 한 면의 길이는 15m정도이며 출입문은 남쪽으로 있다.

여단의 제도는 중국에서만 시행하였을 뿐, 우리나라에는 없었으나 태종 1년(1401) 좌찬성 권근(權近)의 주청으로 대명제례(大明祭禮)에 따라 처음으로 서울의 북교(北郊)에 여단을 조

성하고 여귀(厲鬼)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각 주(州)·현(縣)에 여단을 만들어 여제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여제는 3일 전에 성황당에서 발고제(發告祭)를 지낸다음 본제를 지내도록 규정하였다. 여단에는 여귀의 신좌(神座)를 단의 북쪽에서 남을 향하여 설치하며 좌우로 나열한다. 제사는 1년에 세차례(봄－청명일, 가을－7월 보름, 겨울－10월 초하루) 지냈다.

이에 따라 부평에서도 여단을 설치한 연대와 장소가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전기부터 부의 북쪽 3리지점에 여단을 쌓고 이 고을 수령이 매년 7월 보름과 10月 초하루에 정예적으로 제사를 지냈던 것 같다. 여제는 조선왕조말기까지 계속 지냈던 것으로 보이며 제례시의 축문 홀기(笏記), 설찬도(設饌圖) 등이 부평향교에 보존되어 있다. 여제는 의약에 의한 역질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미신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치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 자오당지(自娛堂址)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자오당은 고려 고종 6년(1219)경 부평이 계양도호부일때의 부사(副使)로 좌천된 이규보(李奎報)가 재임 중 관사에 붙인 당호(堂號)이다. 『부평부읍지』의 「산천조」에 보면 "부평부의 서쪽 3리의 계양산 서쪽 기슭에 있는 남쪽 봉우리 밑(중구봉 아래)에 이규보의 자오당 옛터가 있고, 또 냉천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부평향교 뒤편 큰 암석에 온수동천이라고 음각되어 있고, 그 밑에 샘물이 있었다고 하는 온수골 우측언덕 위가 바로 자오당 터라고 전해오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 권 9 「부평도호부조」에 이규보의 '자오당기'가 실려있는데 자오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우 7년(고려 고종 6년(1219))초 여름에 나는 좌사간 지제고에서 계양 부사(副使)로 귀양왔다. 고을 사람들이 심산곁의 덤불과 갈대 사이에 퇴락하여, 깨진 달팽이 껍질 같이 생긴 집을 태수의 처소라 하였다. 상황을 살펴보니 들보와 기둥을 아무렇게나 얽어매여 억지로 집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쳐다보면 머리를 들기 불편하고 구부리면 무릎을 펴기 부족하다. 무더운 더위를 만나 그 속에 있으려면 깊은 시루속에 들어가서 찜질을 당하는 것 같다. 온 가족이 한결같이 거기에서 거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지만, 나는 홀로 기뻐하여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거쳐하며 그 집에 써붙이기를 자오당이라고 하였다.' 라고 하여 부사(副使)의 초라한 처소(관사)에 당호를 붙이게 된 경위를 적고 있다.

이규보는 고려 의종(毅宗) 22년(1168)에 호부시랑을 지낸 이윤수(李允綏)의 아들로 태어나니 본관은 황려(黃驪 ; 여주(驪州))이다. 명종 20년(1190)에 문과에 급제하고 신종 2년(1199)

전주목사록겸장서가 되고 신종 5년(1202) 동경(慶州)에 반란이 일어나자 자원 종군하였고, 병마녹사겸수제를 거쳐 1207년 최충헌에 의해 권보직한림으로 발탁되었다. 그후 좌사간 지제고, 국자제주, 한림시강학사, 호부상서 등 관직을 두루 지내고 고종 24년(1237) 문하시랑평장사를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물러나 고종 28년(1241)에 타계하였다.

이규보는 고려 후기의 관직과 인품을 겸한 대표적인 시인 또는 문장가로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 하였다. 이규보의 부평과 관련된 글로는 '자오당기' 외에 '망해지(望海誌)', '초정기(草亭記)' 등이 있다.

### 5) 초정지(草亭址)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초정은 고려중기 부평에 있던 정자인데 『동국여지승람』 권 9 「부평도호부조」에 이규보(李奎報)의 '초정기(草亭記)'가 실려 있어 그 대체적인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초정기에 따르면, 고려 인종때 허홍재(許洪材: ?~의종 24)가 부평 태수로 재임중에 처음으로 터를 골라 축대를 쌓았고, 그 뒤에 태수 이실충이 물을 끌어 연못을 만들고 축대위에 정자를 세웠으니 그 길이와 넓이가 각각 8척에 불과하고 겨우 8명이 앉을만 하였다. 그런데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이 얼음같이 차서, 비록 한여름이라도 목욕을 하면 오래 견딜 수가 없다. 게다가 무성한 나무가 그늘을 펼쳐 서늘한 기운이 생겨 맑은 바람이 저절로 오고 뜨거운 볕이 다가오지 못하니 정자의 현판을 척서정(滌暑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고을 사람들은 띠풀로 정자를 덮었다하여 초정(草亭)이라 부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규보가 고종 6년(1219)에 계양도호부 부사(副使)로 부임하였을때는 무당과 판수의 허황된 말을 믿고, 고을사람들이 이미 초정을 헐어버려 황량한 묵은터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묵은 재목을 수습하여 이속(吏屬)으로 하여금 다시 짓게 하였다. 그리하여 동료 친구와 더불어 낙성연을 베푼 바 있는데, 다음 해(고종 7년) 6월에 예부낭중기거주지제고로 제수되어 개경으로 떠나게 되자, 동료 친구의 권에 따라 초정기를 써서 뒤의 사람이 경솔이 헐지 못하도록 정자의 내력을 후세에 남기게 된 것이다.

초정은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폐허가 되었으며, '초정기'에 그 위치를 남산 옆이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도 확인되어 있지 않다.

### 6) 중심성(衆心城)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서구 공촌동

중심성은 부평에서 서곶(西串)으로 넘어가는 징매이고개(景明峴)를 중심으로 동서의 능선을 따라 석축으로 축조한 산성이다. 성의 높이는 약 5척이며 길이는 동서 각 1km정도였다고 한다.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이후 강화수로와 인천만으로 침입하는 외국군을 막기 위한 국방 강화책으로 쌓여진 중심성은 중민(衆民)들의 마음을 모아 축성한 성이라서 중심(衆心城)이라고 이름 지었다 한다.

중심성에는 고개의 성문을 지나 서쪽으로 약 20m 옆에 「중심성 사적비」가 서 있었는데, 영구보전을 위하여 시립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여 오다가, 6.25 사변때 전재로 소실되었다 하며 비의 대석만이 남아 있다. 「중심성사적비」에 의하면, 고종 20년(1883) 10월,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이 조정의 명령에 따라 주민을 동원하여 축조한 성으로서 고개의 성문은 지명을 따라 경명문(景明門)이라 하고, 문위에 고루를 세워 공해루(控海樓)라 하였다.

현재 중심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문루인 공해루가 서 있던 주춧돌 4개만이 남아있다.

### 7) 허암산 토성(虛菴山 土城)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부평의 계양산 줄기 서북쪽의 허암봉을 허암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 정상의 좌우편에 조성된 토성을 말하는 것이다.

근래에 토성으로 알려졌으며, 대개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허암산에 오르면 토성의 자취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연장 약 1.5km에 이른다고 한다.

### 8) 압각정지(鴨脚亭址)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부평부읍지』에 "압각정은 부평부 동면에 있으며 을사사화(乙巳士禍 : 명종 즉위년(1545)) 때 명신이며 대사간을 지낸 이 림(李 霖)이 그 형인 부사 이 진(李 震)과 더불어 정자를 지었다. 뜰 가에 은행나무(鴨脚樹)가 있고 그 나무 밑에 돌우물이 있어서 물 맛이 몹시 차고 시원하며 언제나 끊이질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림(李霖 : ?~1546)은 함안(咸安) 사람으로 한성부 좌윤 세응(世應)의 아들이다. 중종 19년(1524) 생원으로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정원 가주서를 비롯하여, 정자, 대사간을 거쳐 1541년 진위사(進慰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년)에 병조참

의에 제수되었으나,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연루되어 곤장을 맞고,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사사되었으니, 압각정을 지은 시기는 이 림이 대사간을 지낼 때 일것으로 보인다.

압각정은 지금의 계양구 박촌동마을 뒷산 기슭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 9) 가정지(佳亭址)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가정(佳亭)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복흥군(復興君) 조 반(趙 胖)이 가정동 마을안 동산위에 별장으로 지은 정자(亭子)이다. 건립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1392년 전 후로, 이곳은 그의 부인 합천 이씨(陜川 李氏)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장을 짓고 낙향·은거하게 되었으며, 매우 아름다운 정자인 까닭에 가정(佳亭)이라 이름지어졌다고 전한다.

조 반(고려 충혜왕 복위 2년~조선 태종 원년)의 본관은 배천(白川)으로 호군 세경(世卿)의 아들이다. 우왕 8년(1382)에 판도 판서(版図 判書)로 하정사 겸 주청사(賀正使 兼 奏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밀직부사가 되었다. 우왕 11년(1385)에는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공양왕 1년(1389)에도 왕의 즉위를 알리기 위하여 명나라에 다녀온 바가 있다. 1392년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조를 개국할 때 공을 세워, 개국공신(開國功臣) 2등으로 복흥군에 봉해졌으며 지중추원사가 되었다. 태조 6년(1397)에는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들어가다가, 등주(登州)에서 제지를 받고 되돌아왔다. 조 반은 판중추원사와 상의문하부사를 거쳐 참찬문하부사를 역임한 뒤에 이곳 가정에서 은거하다가, 정자는 아들 이조참판 조서강(趙瑞康)에게 물려주고, 고향인 배천으로 돌아가 태종 1년(1401)에 사망하였는데 시호는 숙위(肅魏)이다.

『부평부읍지』고적조에 의하면, 조서강이 이조참판을 사임하고 만년에 이곳에서 퇴휴(退休)하였으며, 세종께서 여러 차례 벼슬길에 나오도록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세종이 화공(畵工)을 보내어 그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도사(圖寫)하여 올리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가정에는 한때 많은 명사들의 제영이 있었으며, 세종의 3자인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이 그 시(詩)들을 모아서 화첩(畵帖)을 만들고 "석호가정별업도(石湖佳亭別業圖)"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서강은 세종 25년 9월에 이조참판이 되고, 그 이듬해인 세종 26년 3월 10일에 현직 이조참판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곳 가정으로 퇴휴(退休)할 여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은 그 후 헐리고 지금은 "가정지" 라고 새겨진 유적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 2. 비 문

### 1) 창녕 성씨(昌寧成氏) 영월부사(寧越府使) 성습지(成習之) 묘비(墓碑)

영월부사 창녕성공습지묘 배위달성서씨지묘비(寧越府使昌寧成公習之墓, 配位達城徐氏之墓)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윗말 뒷산 기슭에 있다.

묘비형태 : 적갈색 대석위에 오석비이고 비갓도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2m, 넓이 43cm

### 2) 보성 오씨(寶城吳氏) 민정관(民政官) 오중돈(吳重敦) 묘비(墓碑)

민정관 보성오공 중돈, 유인의령남씨정우, 유인광주이씨광옥지묘(民政官寶城吳公重敦, 孺人宜寧南氏貞祐, 孺人光州李氏光玉之墓) 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공공묘지 입구에 있다. 출신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이고, 1941년 경기도 민정을 역임하였다.

### 3) 조선왕조종실(朝鮮王朝宗室) 영신군묘원(永新君墓苑)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가루개 고개

규모 : 산지 약 3,500평 정도이다.

※ 묘역앞에 전주이씨 회관 및 관리사무실이 있다.

### 4) 전주 이씨(全州李氏) 영신군(永新君) 이이(李怡) 묘비(墓碑)

정의대부 영신군지묘, 현부인 죽산손씨부좌(正義大夫 永新君之墓, 縣夫人, 竹山孫氏祔左)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가루개 영신군 묘원 상단부에 있다.

묘비형태 : 갈색대석위에 갈색 비와 비갓이 붙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08m, 넓이 34cm

영신군(永新君)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손자가 되고, 의성군(誼城君)의 여섯째 아들이다. 자는 지보(知甫)이고 이름은 이이(李怡)이다. 그는 단종 2년(1454)에 출생하여 나라에 공을 세워 정의대부(正義大夫) 영신군(永新君)에 봉해졌다.

만년에 부평부 마장면 가루개 마을에 낙향하여 살았는데 향년 73세였다. 그의 후손들 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 5) 전주 이씨(全州李氏) 부호군(副護軍) 이제안(李齊顔) 묘비(墓碑)

증 가선대부 행충의위 부호군 이공 제안지묘, 숙부인 장수 황씨 부좌(贈 嘉善大夫 行忠義衛 副護軍 李公 齊顔之墓)와 숙부인 淑夫人 長水黃氏 祔左)묘비는

묘비형태 : 대석위에 청갈색의 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72m, 넓이 42cm

### 6) 전주 이씨(全州李氏) 편수관(編修官) 이이현(李頤賢) 묘비(墓碑)

통훈대부 통례원상례 겸 춘추관 편수관 이공 이현지묘, 숙인남양홍씨부좌(通訓大夫 通禮院相禮 兼 春秋館 編修官 李公 頤賢之墓, 淑人南陽洪氏祔左)의 묘비는 영신군 묘원 안에 있다.

묘비형태 : 회색 대석위에 비석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20m, 넓이 55cm

### 7) 전주 이씨(全州李氏) 봉열대부(奉列大夫) 이광필(李光泌) 묘비(墓碑)

봉열대부 행경양도찰방 이공광필지묘, 영인연안김씨부좌(奉列大夫 行景陽道察訪 李公光泌之墓, 令人延安金氏付左)의 묘비는 영신군 묘원안에 있다.

묘비형태 : 엷은 적색 대석위에 같은 색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24m, 넓이 54cm

### 8) 전주 이씨(全州 李氏) 통정대부(通政大夫) 이극성(李克成) 묘비(墓碑)

이극성은 영신군의 후손이고 명원군(明原君)의 셋째 아들이다. 자는 경숙(敬叔)이다. 문관에 급제하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그는 광해군 6년(1614) 10월에 사망하였다.

묘비형태 : 흑갈색 대석위에 흑갈색 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15m, 넓이 45cm

위치는 영신군 묘원에 있다.

### 9) 함원군묘(咸原君墓)

증 정의대부 함원군 행창선대부 함원부수지묘, 현부인 채씨지묘(贈 正義大夫 咸原君 行彰善大夫 咸原副守之墓, 縣夫人 蔡氏之墓)는 영신군 묘안에 있다.

묘비형태 : 엷은 회색 대석위에 같은색 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07m, 넓이 47cm

### 10) 숙부인(淑夫人) 평택 임씨(平澤林氏)의 묘비(墓碑)

숙부인 평택임씨 지묘비(淑夫人 平澤林氏之墓碑)는 영신군 묘원안에 있다.

묘비형태 : 무늬가 있는 흑갈색 대석위에 같은색의 비가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0m. 넓이 42cm

### 11) 현부인(縣夫人) 양주 최씨(楊州崔氏)의 묘비(墓碑)

현부인 양주최씨지묘비(縣夫人 楊州崔氏之墓碑)는 영신군 묘원안에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08m, 넓이 36cm

### 12) 현부인(縣夫人) 경주 이씨(慶州李氏)의 묘비(墓碑)

현부인 경주이씨지묘비(縣婦人 慶州李氏之墓碑)는 영신군 묘원안에 있다.

묘비형태 : 백갈색 대석위에 검푸른 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07m, 넓이 43cm

### 13) 평산 신씨(平山申氏) 가선대부(嘉善大夫) 신칙(申忕) 묘비(墓碑)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평산신공휘칙지묘, 정부인경주최씨(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平山申公諱忕之墓, 貞夫人慶州崔氏)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동편에 있었는데, 도시개발로 인하여 최근에 김포군 대곶면 쇠암리로 이전하였다.

묘비형태 : 흰갈색 대석위에 오석비이며 비갓은 회갈색이다.

묘비규모 : 높이 1.34m, 넓이 36cm

### 14) 평산 신씨(平山申氏) 통정대부(通政大夫) 신영훈(申永勳) 묘비(墓碑)

통정대부 사천현감 평산신공 휘영훈 배숙부인 안동추씨지묘(通政大夫 泗川縣監 平山申公諱永勳 配淑夫人 安東秋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도당산 기슭에 있었는데, 근래도시개발로 인하여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로 이전하였다.

묘비형태 : 청록색 대석위에 오석비, 비갓은 청록색이다.

묘비규모 : 높이 1.34m, 넓이 36cm

### 15) 부평 이씨(富平李氏) 묘역(墓域)

부평이씨 진사공파 우승지 부평이공세영묘소(富平李氏 進士公派 右承旨 富平李公世英墓所)

입구 표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천동 안아지 마을옆에 있다.

묘비형태 : 갈색대석위에 무궁화 무늬가 있고 비석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52cm, 넓이 91cm

### 16) 부평 이씨(富平李氏) 우승지(右承旨) 이세영(李世英) 묘비(墓碑)

우승지 부평이공 세영지묘 숙부인영암이씨부좌(右承旨 富平李公 世英之墓 淑夫人靈巖李氏祔左)의 묘비는 부평이씨 묘역안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대석 위에 오석비가 있고 비위에 비갓도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0m, 넓이 38cm

### 17) 부평 이씨(富平李氏) 부사과(副司果) 이정번(李廷蕃) 묘비(墓碑)

부사과 부평이공정번지묘, 공인고성이씨부좌(副司果 富平李公廷蕃之墓, 恭人固城李氏祔左)의 묘비는 인천계양시 계양구 청천동 안아지 마을 뒷산 부평이씨 묘역에 있다.

묘비형태 : 적갈색 대석위에 오석비, 비갓은 적갈색이다.

묘비규모 : 높이 1.22m, 넓이 57cm

### 18) 갈현동(葛峴洞) 전주 이씨(全州李氏) 묘비(墓碑)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葛峴洞 全州李氏 墓域)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뒷산중에 있다. 이 묘역에는 갈산동 전주이씨의 묘비가 10여개 있다. 근래에 묘를 이장하고 세운비가 대부분이다.

### 19) 전주 이씨(全州李氏) 공조참의(工曺叅議) 이절(李절) 묘비(墓碑)

통정대부 공조참의 전주이공 절지묘, 숙부인선산김씨(通政大夫 工曺叅議 全州李公 절之墓, 淑夫人善山金氏)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안에 있다.

묘비형태 : 무늬가 있는 엷은 청색대석위에 오석비가 있고 비갓도 흰색이다.

묘비규모 : 높이 1.40m, 넓이 48cm

### 20) 전주 이씨(全州李氏)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진은(李震殷) 묘비(墓碑)

통정대부 절충장군전주이공진은, 숙부인 안동김씨지묘(通政大夫 折衝將軍全州李公震殷, 淑夫人 安東金氏地墓)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안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대석 위에 오석비와 비갓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23m, 넓이 46cm

### 21) 숙인(淑人) 광주 이씨(廣州李氏)의 묘비(墓碑)

숙인 광주이씨지묘비(淑人廣州李氏之墓碑)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안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대석위에 백색비와 비갓이 있고, 상석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6m, 넓이 41cm

### 22) 전주 이씨(全州李氏) 전력부위(展力副尉) 이충경(李忠慶) 묘비(墓碑)

전력부위 록호성훈 전주이공 충경지묘, 숙부인밀양변씨(展力副尉 祿扈聖勳全州李公忠慶之墓, 淑夫人密陽卞氏)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안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대석위에 오석비와 비갓도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30m, 넓이 45cm

### 23) 전주 이씨(全州李氏) 어모장군(禦侮將軍) 이제립(李悌立) 묘비(墓碑)

어모장군 행용양위부호군전주이공제립묘, 숙부인원주원씨(禦侮將軍 行龍讓衛副護軍全州李公悌立墓, 淑夫人原州元氏)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안에 있다.

묘비형태 : 무궁화무늬 백색대석위에 오석비와 비갓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30m, 넓이 45cm

### 24) 어모장군(禦侮將軍) 이제립(李悌立) 상석(床石)

전주이공 제립 숙부인 원주원씨지묘(全州李公悌立 淑夫人原州元氏之墓) 상석은 인천광역시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내에 있다.

상석형태 : 백색 상석에 비명을 새겨졌다.

묘비규모 : 높이 30m, 넓이 1.86cm

### 25) 전주 이씨(全州李氏) 충의위(忠義衛) 이돈실(李敦實) 묘비(墓碑)

충의위 전주이공돈실묘, 숙인능성구씨지묘(忠義衛全州李公敦實墓, 淑人綾城具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내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대석위에 오석비외 비갓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6m, 넓이 41cm

### 26) 전주 이씨(全州李氏) 통덕랑(通德郞) 이돈배(李敦培) 묘비(墓碑)

통덕랑 전주이공돈배, 숙인온양김씨지묘(通德郞 全州李公敦培, 淑人溫陽金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내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 대석위에 오석비와 비갓이 있다.
상석과 향로대가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6m, 넓이 41cm

### 27) 안동 권씨(安東權氏) 숙부인(淑夫人) 안동 권씨(安東權氏) 묘비(墓碑)

숙부인 안동권씨, 숙부인 단성이씨지묘(淑夫人 安東權氏, 淑夫人 丹城李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전주이씨 묘역안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대석위에 오석비와 백색비갓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6m, 넓이 41cm

### 28) 가선대부(嘉善大夫) 노공(盧公) 묘비(墓碑)

가선대부노공지묘, 숙부인강릉박씨지묘, 숙부인용궁전씨지묘(嘉善大夫盧公之墓, 淑夫人江陵朴氏之墓, 淑夫人龍宮全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입구산밑에 있다.

관직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예직으로 여겨진다.

묘비형태 : 백색 대석에 푸른색 비가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33m, 넓이 56cm

세운년도 : 영조 27년(1751) 1월

### 29) 절충장군(折衝將軍) 노공(盧公) 상석(床石)

절충장군행정방별장노공지묘, 숙부인김해김씨부좌(折衝將軍行正方別將盧公之墓, 淑夫人金海金氏祔左)의 상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중에 있다.

상석형태 : 회색대석에 상석이 놓여 있다.

상석규모 : 높이 56m, 넓이 1.09cm

### 30)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윤형리(尹亨理) 묘비(墓碑)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 윤공형리지묘, 정부인안동권씨부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尹公亨理之墓, 貞夫人安東權氏祔左)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마을 중간에 있다. 자손이 없는

무연분묘이다.

묘비형태 : 갈색 대석위에 검푸른 비가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8m, 넓이 54cm

### 31) 안동 김씨(安東金氏) 증좌찬성(贈左贊成) 김이경(金履慶) 상석(床石)

증좌찬성 안동김씨공 이경지묘, 증정부인밀양박씨부좌(贈左贊成安東金氏公履慶之墓, 贈貞夫人密陽朴氏祔左)의 상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마을중간에 있다.

상석형태 : 크고 정교하다.

상석규모 : 높이 49m, 넓이 1.19cm

### 32) 안동 김씨(安東金氏) 이조참판(吏曹參判) 김명순(金名淳) 상석(床石)

이조참판 증 영의정 안동김공 명순묘, 증정경부인평산신씨부좌(吏曹叅判 贈領議政安東金公明淳墓, 贈貞敬夫人平山申氏祔左)의 상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마을 중간에 있다.

상석형태 : 상석은 크고 정교하다.

상석규모 : 높이 49m, 넓이 1.19cm

### 33) 정의대부(正義大夫) 순강군(順康君) 묘비(墓碑)

증정의대부순강군겸오위도총부부총관행명선대부순강도정지묘, 현부인동래정씨부우(贈正義大夫順康君兼五衛都摠府副摠管行明善大夫順康都正之墓, 縣夫人東萊鄭氏祔右)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당산 산중에 있다.

묘비형태 : 회색 무늬의 대석위에 엷은 흰색비와 비갓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2m, 넓이 50cm

### 34) 전주 이씨(全州李氏) 순평군(順平君) 이선봉(李善鳳) 묘비(墓碑)

승헌대부 순평군지묘 현부인 영월엄씨지묘(承憲大夫 順平君之墓 縣夫人寧越嚴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당산에 있다.

묘비형태 : 갈색상석뒤에 갈색대석위에 갈색비가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23m, 넓이 49cm

순평군 이선봉(李善鳳)은 왕족으로 순평군에 봉해졌으며 현부인 영월엄씨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피난중에 청군이 강화도에 침입해오자 욕보일 것이 두려워서 순절하였는데 나라에서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 35) 어모장군(禦侮將軍) 당직(唐稷) 묘비(墓碑)

어모장군 당직 숙인전주이씨지 묘(禦侮將軍 唐稷 淑人全州李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뒷산 금계봉 기슭에 있다.

묘비형태 : 회색대석 위에 회색비와 비머리에는 꽃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31m, 넓이 46cm

### 36) 주부(主簿) 당효리(唐孝利) 묘비(墓碑)

선무랑 전택서주부 당효리지묘(宣務郎 典澤署主簿 唐孝利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뒷산 금계봉 기슭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 대석위에 백색비와 비갓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m, 넓이 36cm

### 37) 밀양 박씨(密陽朴氏) 가선대부(嘉善大夫) 박사돌(朴士乭) 묘비(墓碑)

밀양후인 가선대부 박공사돌 상주후인 숙부인 김씨지묘(密陽后人 嘉善大夫朴公士乭 尙州后人淑夫人金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밀양박씨 묘역내에 있다.

관직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예직으로 여겨진다.

묘비형태 : 검은 회색 대석 위에 푸른색 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92m, 넓이 44cm

년 월 일 : 정조 20년(1796) 10월

### 38) 가선대부(嘉善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 묘비(墓碑)

가선대부 절충장군 숙부인 경주정씨지묘(嘉善大夫 折衝將軍 淑夫人慶州鄭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밀양박씨 묘역에 있다.

관직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예직으로 여겨진다.

묘비형태 : 백색 대석위에 푸른색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98m, 넓이 32cm

높이 1.31m, 넓이 46cm

### 39) 밀양 박씨(密陽朴氏) 가선대부(嘉善大夫) 박인(朴仁) 묘비(墓碑)

가선대부행 용양위부호군 박공인지묘, 숙부인 안동김씨부좌(嘉善大夫行龍讓衛副護軍朴公仁之墓, 淑夫人安東金氏祔左)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밀양박씨 묘역내에 있다.

묘비형태 : 검붉은 대석위에 푸른색 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m, 넓이 42cm

### 40) 밀양 박씨(密陽朴氏) 가선대부(嘉善大夫) 박리(朴理) 묘비(墓碑)

가선대부 절충장군 박공리 숙부인 파평윤씨지묘(嘉善大夫 折衝將軍 朴公理 淑夫人 坡平尹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밀양박씨 묘역내에 있다.

묘비형태 : 검푸른 대석위에 푸른색 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98m, 넓이 32cm

### 41) 밀양 박씨(密陽朴氏) 호조참의(戶曹叅議) 박진(朴珍) 묘비(墓碑)

숙종조감신증호조참의박공진, 숙부인경주김씨지묘(肅宗組甲申贈戶曹叅議朴公珍, 淑夫人慶州金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밀양박씨묘역내에 있다.

묘비형태 : 갈색대석에 푸른색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94m, 넓이 34cm

세운년월일 : 숙종 30년(1704)

### 42) 밀양 박씨(密陽 朴氏) 가선대부(嘉善大夫) 박공(朴公) 묘비(墓碑)

가선대부행 용양위 부호군 박공, 숙부인 안동김씨지묘(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 朴公, 淑夫人安東金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밀양박씨묘역내에 있다.

묘비형태 : 갈색대석위에 푸른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m, 넓이 42cm

세운년월일 : 순조 24년(1824)

### 43) 성균관(成均館) 진사(進士) 묘비(墓碑)

성균관진사, 숙부인 통진임씨지묘(成均館進士, 淑夫人 通津林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밀양박씨 묘역내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 대석위에 푸른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90m, 넓이 32cm

### 44) 충의위부사정(忠義衛副司正) 묘비(墓碑)

충의위부사정 증절충장군 숙부인 통진임씨, 숙부인 김해김씨지묘(忠義衛副司正贈折衝將軍 淑夫人通津林氏, 淑夫人金海金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밀양박씨 묘역내에 있다.

묘비형태 : 갈색 대석위에 검푸른 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98m, 넓이 37cm

### 45) 안동 권씨(安東權氏) 묘비(墓碑)

안동권씨 묘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뒷산에 있다.

1. 의금부 부총관 권제남지묘
1. 성균관진사 권세전지묘
1. 판사겸검사 권병훈 지묘

### 46) 안동 권씨(安東權氏) 의금부(義禁府) 부총관(副摠官) 권공제남(權公齊南) 묘비(墓碑)

의금부 부총관 권공제남묘비(義禁府 副摠官 權公齊南墓碑)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뒷산에 있다.

묘비형태 : 갈색 대석위에 갈색비와 비갓도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49m, 넓이 56cm

### 47) 안동 권씨(安東權氏) 황해도(黃海道) 판사(判事) 권병훈(權丙勳) 묘비(墓碑)

황해도 판사 행검사 안동권공 병훈지묘, 숙인 진주정씨(黃海道判事行檢事安東權公丙勳之墓, 淑人晋州鄭氏)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뒷산에 있다.

묘비형태 : 엷은 회색 대석위에 회색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95m, 넓이 33cm

### 48) 안동 권씨(安東權氏) 성균관(成均館) 진사(進士) 권세전(權世銓) 묘비(墓碑)

성균관진사권공세전지묘, 배공인나주정씨부(成均館進士權公世銓之墓, 配恭人羅州丁氏祔)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뒷산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 대석위에 엷은 청색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20m, 넓이 37cm

### 49) 덕수 이씨(德水李氏) 인천도호부사(仁川都護府使) 이명달(李命達) 묘비(墓碑)

통정대부 인천도호부사 덕수이공 명달지묘, 배증숙부인예천권씨부좌(通政大夫 仁川都護府使 德水李公明達之墓, 配贈淑夫人禮泉權氏祔左)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입구에 있다.

묘비형태 : 대석위에 갈색비, 비갓이 있고 묘주위에 도리석과 상석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45m, 넓이 50cm

### 50) 청송 심씨(靑松沈氏) 부평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 심신겸(沈信謙) 묘비(墓碑)

심신겸(沈信謙)은 청송심씨이고 돈녕부사 청송부원군 심강(沈鋼)의 둘째아들이고, 명종왕비 심씨와는 남매간이 된다. 그리고 정승 심의겸(沈義謙)의 아우가 된다. 그는 일찍이 벼슬하여 가산군수를 지낼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량미 공급에 공을 세웠다. 선조 33년(1600) 부평도호부사를 지내고 사퇴한 후 부평고을 둑실마을에 낙향하여 개척사업에 힘썼다. 그가 죽은 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유명조선 부평도호부사 증이조판서 심공신겸지묘 증정부인 동래정씨부좌(有明朝鮮 富平都護府使 贈吏曹判書 沈公信謙之墓, 贈貞夫人 東萊鄭氏祔左)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부락 앞산에 있다.

묘비형태 : 상석 두리석 앞 대석위에 회색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45m, 넓이 51cm

### 51) 성균관(成均館) 진사(進士) 심율(沈慄) 묘비(墓碑)

성균관진사심공율지묘, 유인한산이씨부좌(成均館進士沈公慄之墓, 孺人韓山李氏祔左)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둑실마을 앞산에 있다.

묘비형태 : 대석위에 엷은 검은색 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1.19m, 넓이 56cm

### 52) 청송 심씨(靑松沈氏) 선교랑(宣敎郞) 심항(沈杭) 묘비(墓碑)

선교랑 증좌승지 청송심공항지묘 숙부인경주박씨(宣敎郞 贈左承旨靑松沈公杭之墓, 淑夫人慶州朴氏)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둑실마을 앞산에 있다.

묘비형태 : 백석 대석위에 오석비이다.

묘비규모 : 높이 87m, 넓이 37cm

### 53) 청송 심씨(靑松沈氏) 통훈대부(通訓大夫) 심정영(沈廷英) 묘비(墓碑)

통훈대부 순능참봉 증사복사정 청송심공정영지묘숙인광주안씨(通訓大夫 順陵叅奉 贈司僕寺正 靑松沈公廷英之墓, 淑人廣州安氏)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둑실마을 앞산에 있다.

묘비형태 : 백색 대석위에 오석비가 있다.

묘비규모 : 높이 83m, 넓이 37㎝

### 54) 진주 강씨(晋州姜氏) 좌윤(左尹) 강기치(姜基致) 상석(床石)

좌윤진주강공기치지묘, 증정부인김해김씨부좌(左尹晋州姜公基致之墓, 贈貞夫人金海金氏祔左)의 묘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길 옆에 있다.

상석형태 : 청색 상석이다.

상석규모 : 높이 45㎝, 넓이 1.83m

### 55) 가선대부(嘉善大夫) 김해(金海) 김공(金公) 묘비(墓碑)

가선대부 행용양위부호군김해김공지묘, 숙부인경주조씨지묘(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金海金公之墓, 淑夫人慶州趙氏之墓)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주지동 서쪽 아래 밭 가운데에 있다.

묘비형태 : 적갈색비인데 무연 분묘로 깨어져 방치되어 있다.

묘비규모 : 높이 1.10m, 넓이 41㎝

세운년도 : 영조 13년(1737) 3월

# 第3章 기념물(紀念物)

## 1) 계양산성(桂陽山城)

지정번호 : 인천시 지정 기념물 제10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성은 계양산의 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에 석축으로 축조된 석성이다. 『증보문헌비고』(여지고 14, 관방 2, 성곽 2)에 의하면 "부평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석성으로, 석축의 둘레가 1,937척이나 지금은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었다"고 하였다.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에 부평의 주산인 계양산의 주봉에 축조한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 중간쯤 표고 약 350m 고지에 축조한 것이며 부평읍에 대한 산성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계양산성은 불쑥 튀어나온 능선 중간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있어서, 성내가 사방으로 노출되는 특이한 성으로, 축조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현재 성벽 일부는 남아 있으나 대부분이 퇴락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명군(明軍)과 일본군이 이 산성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한강(漢江)과 주변의 사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계양산(桂陽山)은 고려때도 국방의 요새로, 안남삼(安南山)이라고 불려진 바가 있는 부평의 진산(鎭山)으로, 인천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높은 산이며 높이는 약390m가 넘는다.

이 산에는 크고 작은 절(寺)이 여러 곳에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고려때에 세워진 것으로 전하는 만일사(萬日寺)·명월사(明月寺)·봉일사(奉日寺) 등이 유명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빈터만 남아 있다.

특히 백제의 초기부터 계양산 서쪽(현재 서구 공촌동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은 계양산 밑의 장명이고개(景明峴)를 넘어 신정동 토성(서울시 양천구) 옆을 지나 백제의 왕성(王城)과 서울 지역으로 운반되었던 중요한 소금통로이었다.

이후 해방전까지도 소금의 공급로(供給路)로 전략적 비중이 컸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또한 가뭄이 심할 때에는 계양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2) 계산동 은행나무

지정번호 : 인천시 지정 기념물 제11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부평초등학교 교정

이 은행나무는 부평도호부 청사가 건축되면서 그 풍치목으로 심어진 듯하며 지금은 두 그루가 남아있다. 나무의 높이는 25m가 넘으며 둘레는 약 10m로 수령은 5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쪽의 나무는 열매가 열려 암나무라 하고 남쪽의 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 숫나무라고 전하고 있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서, 나무의 잎은 부채꼴로 중간부위가 갈라지고, 가지 끝에 3--5개가 조밀하고 어긋나게 달려 마치 한 곳에서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 암·수 두 그루로 4월에 꽃이 피고 10월에 열매가 익는데, 중국·일본·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의 높은 산, 고원지대 그리고 기온이 낮은 곳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은행나무는 오래 살며 수형이 크고 깨끗한데다 병충해가 거의 없으므로 정자목, 풍치목 또는 가로수 등으로 심고 있다. 목재는 결이 곱고 치밀하며 탄력이 있어 가구재 또는 조각재 등으로 이용되고, 잎은 심장에 좋다고하여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열매인 은행은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3) 계산동 느릅나무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이 느릅나무는 부평향교의 동쪽 계산천변 주택가에 있었는데, 높이는 약 17m이고 둘레는 2m에 이르는 풍치목이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 느릅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표고 100~1200m의 계곡이나 하천가의 심도 깊은 적윤지에서 자란다. 긴 타원형의 잎은 어긋나고 길이는 4~8㎝이며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으며 밑부분은 일그러진 둥근 모양이다. 잎 표면은 거칠거나 평활하고 꽃은 3월에 피며 열매는 도란형(倒卵形) 또는 타원형의 시과(翅果)로서, 길이는 1.0~1.5㎝이고 4~5월에 익는다. 추위에 잘 견디고 내음성도 강하며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토양속의 신선한 물기가 있는 곳에서 생장이 왕성하다. 느릅나무는 낙엽활엽교목으로 한자어로는 분유(枌楡) 또는 가유(家楡)라고도 하는데, 계산동 느릅나무는 지금은 고사하여 그 밑둥만 남아있을 뿐이다.

### 4) 신현동 회화나무

지정번호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15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이 나무는 높이가 약 20m이고 가슴높이의 줄기 둘레가 5.4m이며 수령은 약 5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화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일본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표고 600m 이하의 마을 주변이나 산지와 농지의 경계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낙엽활엽교목으로,

가지는 녹색이고 자르면 냄새가 난다.

잎은 15~40개의 소엽으로 된 우상복엽이고 소엽은 난형 또는 난상피침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길이 2.3~6㎝ 넓이가 5~2.5㎝이다. 꽃은 괴화(槐花)라고도 하는데 황백색으로 8월에 피며, 열매는 10월에 익는데 길이 5~8㎝의 잘록잘록한 꼬투리로 괴각(槐角)이라고도 부르며 약재로 이용한다. 회화나무는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을 좋아하나 수분이 적어도 잘 살고 병충해에도 강하다. 활엽수종 가운데 공해에 가장 강한 수종으로 알려져, 가로수 공원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5) 류사눌(柳思訥)의 묘(墓)

지정번호 : 인천시 지정 기념물 제5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류사눌의 묘는 서곶 경서동 금산에 있으며 묘역에는 문화 류씨 일문의 묘 수기가 있는 가운데 가장 윗쪽에 자리하고 있다. 묘앞에는 후대에 설치한 상석, 문인석 한쌍, 석등 등과 성구용(成九鏞)이 찬한 묘비가 배치되어 있다.

류사눌(1375(고려 우왕 1)~1440(세종 22))은 문화류씨로 자는 이행(而行)이며, 임(臨)의 아들로 어머니는 권숙(權肅)의 딸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숙부인 관(寬) 밑에서 학문에 정진하여 문장에 능하고 경전에 밝았다. 태조 2년(1393) 문과에 동진사로 합격하여 사간원 정언과 이조의 정랑을 지냈다. 태종 7년(1407)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태종 9년(1409) 사헌부 집의로 있을때에 태종의 처남인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의 불충의 죄를 탄핵하다가 황해도 안악에 유배되었다. 뒤에 풀려 나와 1411년에 사간원 사간을 지내고 태종 14년(1414)에 지신사(知申事)에 제수되었다. 태종 16년(1416)에 지신사로 소합유(蘇合油)를 진상하는데 잘못을 저질러 안악군에 다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와 이듬해에 홍주목사, 함경도 도순문사로서 좌군동지총제가 되었다.

그 뒤 세종 4년(1422)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경기도 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세종 10년(1428) 한성부윤이 되었다가, 예문관 대제학이 되어 진하사(進賀使)로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세종 12년(1430)에는 예문관 대제학으로서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악학제조(樂學提調)를 겸하여 박연과 함께 아악보(雅樂譜)를 정리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세종 14년(1432) 동지중추원사가 되고 세종 20년(1438) 중추원부사를 거쳐 이듬해에 예문관 대제학이 되었으나, 세종 22년(1440)에 사망하니 시호를 문숙(文肅)이라 하였다. 류사눌은 박연, 맹사성 등과 함께 조선 초기의 악학 정비에 큰 공을 세웠다.

### 6) 조서강(趙瑞康)의 묘(墓)

지정번호 : 인천시 지정 기념물 제6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독골)

조서강의 묘는 석남동, 경인에너지 진입로 좌측산 중턱에 있다. 장방형 기대석으로 둘려져 있으며, 묘 앞에는 묘비와 상석 및 문인석 한 쌍이 배치되어 있다.

'가선대부 이조참판 조공지묘(嘉善大夫 吏曺參判 趙公之墓)'라고 음각되어 있는 묘비에는 한송이의 연꽃을 엎어놓은 것 같이 조각한 옥개석이 있고, 비 후면에 음각한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마멸되었다. 이 조서강의 묘와 묘역에 설치된 석물 등은 조선 초기 분묘로서 그 완형을 유지하고 있는 부평지역의 대표적인 예이다.

조서강의 본관은 배천(白川)으로 자는 자경(子敬) 호는 경은(耕隱)이다. 조선의 개국 공신 복흥군(復興君) 조 반의 둘째 아들이다.

태종 14년(1414)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을 지내고, 세종 13년(1431) 의정부 사인(舍人)으로서 춘추관 기주관이 되어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사헌부 집의·사간원 사간·경상도 관찰사·형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세종 23년(1441)에 승정원의 도승지로 임명되어 세종을 측근에서 보필하였다. 세종 25년(1443) 이조참판에 승임하였으나, 이듬해 세종 26년 3월 향년 51세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부평부읍지』에는 조서강이 이조참판으로 있다가 만년에 가정(佳亭)으로 내려와 쉬고 있었으며 세종이 여러차례 불러도 출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에 의하면 조서강은 세종 25년 9월에 도승지에서 이조참판으로 승임하였다가, 세종 26년 3월 10일, 현직 이조참판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것으로 보아 조서강이 가정(佳亭)으로 퇴휴한 것은 말년이 아니라, 관직에 재직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第 10 篇　方言과 地名



# 第1章 방언(方言)

## 1. 방언 조사의 범위와 방법

역사적으로 보면, 옛 부평지방은 행정구역 상으로 여러 번 구획의 경계선이 달라져서 부평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는 옛 부평도호부 이후 현 계양구, 부평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으로 보아 중심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는 몇 곳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현재는 경인전철 부평역사 근처가 부평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바뀌었으나 그부근은 대부분 주민이 외지로부터 유입된 인구 구성을 보이고 있어서 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오랫동안(3대 이상) 이 지역(부평구, 계양구, 서구일부 지역)에서 살아온 토박이인 장년,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1990년대 현재 부평지방의 방언을 실제대로 조사한다면 사실은 표준어를 제외하지도 말고, 조사대상자도 학력, 직업, 나이 등을 총망라한 조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조사 불가능한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학교교육과 방송 등의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표준어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세대들과는 상당히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방언의 보수성을 감안하여 삼대 이상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현 부평 지역의 언어 사용의 모든 양상을 다 기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주로 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음운론적 특성, 통사론적 특성 등을 표준어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것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국한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방언연구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방언지리학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방언(체계)기술학이다. 방언지리학은 일정한 지역의 방언이 분화하는 모습을, 각 지여의 특색을 잘 드러내는 어휘를 중심으로 토씨나 종결어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역간의 차이와 경계선을 드러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별방언 기술학은 공시적으로 특정지역의 방언을 조사, 분석하여 그 방언의 체계를 세우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그 방언의 특색을 찾아내고, 나아가서 국어의 본질과 체계적인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언지리학은 인접방언 간의 차이와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중요시하는 반면, 개별방언 기술학은 다른 방언과의 차이나 역사성보다는 하나의 완전한 지역언어로서 공시적

인 언어체계, 음운체계, 어휘체계 등을 밝히는 것을 중요시한다.[1]

이 글에서는 옛 부평지역이 행정구역 상으로 여러 번 그 구획이 달라지고, 명칭도 여러 번 변경된 점을 고려하고, 소단위 인접한 방언과의 차이를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별기술방언학의 방법론을 사용하되 부분적으로 표준어 체계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기로 하였다. 인접 소단위 지역방언과의 차이를 밝히는 대신에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것들과 다른 대단위 지역 방언의 특성과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를 밝히고 체계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부평지역의 답사를 통하여서 생활 어휘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운체계와 통사 체계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특수 문항을 별도로 만들어 녹음하고 그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옛 부평지역이 그 지역이 상당히 넓고, 지역내의 사회적인 변화의 편차가 상당히 커서 부평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 지역 향토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2] 조사 대상자와 함께 조사 지역을 선정하기로 하고 사전 답사를 거쳐 조사 지역을 선정하였다.

우선 도시화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고, 과거 부평 지역의 중심권에서 볼 때 주변 지역이었던 현재의 경인 전철 부평역 근처는 제외하였다. 이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형 빌딩이 들어서고 주민의 대다수가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의 이동이 적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들이 많은 계양산 주변 지역의 집단 마을에 살아온 주민들 가운데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제보자 선정 기준 또한 중요한데,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언 연구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조사할 것인가에 못지 않게 누구를 제보자로 택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3] 지금까지는 방언조사의 제보자는 농촌의 나이 많은 토박이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표준말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학력도 비교적 무학이거나 낮은 수준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다. 직업도 그 지방에서 오래동안 떠나있을 필요가 없는 농업이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보아왔다.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보자가 될 수 있어야 오히려 공시적 관점의 방언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번 연구가 현 부평지역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부평의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부평사〉

---

1) 방언 연구의 두 방향에 대해서는 임용기(1988) 223-4쪽 참조.

2) 부평지역의 향토역사를 연구해 오시면서, 이번 연구에 많은 자료로 협조해 주신 조기준, 이훈익 두 분께 감사드린다.

3) 제보자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 출판부 9-34쪽 참조.

연구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되도록이면 타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의 말이나, 타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의 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부평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주민의 빈번한 이주와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한 수많은 교류를 생각한다면 그런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장차 다른 지역과의 방언 비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자료 또한 방언 조사에서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에 사용되는 자료가 제보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대로의 방언과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조사자료는 어휘 목록이다. 어휘 목록을 조사할 때에는 질문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야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휘를 가려내는 경우 이외에는 조사자도 조사대상으로 하는 질문형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보자들은 자신이 특별한 말, 구체적으로 표준어가 아닌 지역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평상시 쓰던 방언형을 피하고 조사자의 어형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표준형을 사용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과장된 어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와 제보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사자가 제보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촉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어휘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도록 질문을 해나가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일상말투를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필요한 어휘나 형태소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문장 읽기와 대립어휘 목록 읽기 등은 어휘나 음운의 분석에는 쓸모가 있으나 형태소나 어휘 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형태음소론적 특징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 등이 단점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일상적인 말투나 긴 이야기 녹음을 통하여 어휘 목록을 만들고, 어휘, 형태, 형태음소, 통사에 관련된 사항을 좀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의 어휘, 형태음소, 통사 목록을 작성해서 재조사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개인간의 변이나, 집단간의 변이를 나이, 학력, 직업, 성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언의 여러 양상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회언어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방언 내부의 여러 변인에 따른 변이형 조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중년이상의 제보자를 선정하고, 학력이나 직업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비교적 타지역과 교류가 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 결과에 부평지역 방언의 대표성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런 여러 변인에 따라 방언 내부의 여러 사회적인 특성은 좀더 연구가 진척이되고 기본적인 부평 방언의 체계가 자리잡은 다음에 가능하리라 본다.

## 2. 부평방언의 특성

부평 지역 방언은 크게는 경기방언권에 속하고, 그 가운데서도 서부 경기 방언에 속한다. 서부 경기 방언이라면서도 인천과 동일하지 않고, 서해 도서 방언권과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역사적 흐름과 사회적 배경이 이들 지역과 다소간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연구 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 방언과 차이를 조사하여 등어선을 긋고 방언구획을 확정 짓는 것은 차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부평지역 방언이 표준어와 비교하여 갖는 특성을 어휘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부평 지역 방언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휘 변이형을 조사,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평 지역 방언의 독자적 언어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음운체계와 통사체계를 현재 표준어와 변별성이 비교적 쉽게 드러나는 것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1) 부평방언의 음운론적 특성

이 연구는 각 지역의 방언 경계선을 가리는 방언 지도의 작성보다는 옛 부평지역의 현재의 언어체계를 연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현 어휘체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음운론적 체계, 어휘 형태론적 체계, 통사론적 체계의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이 지역의 음운체계, 그 가운데서도 음소체계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 결과를 진술하고자 한다.

한 언어이 음운체계를 밝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는 그 언어에 사용되는 언어 체제 안에서 체계를 세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지역의 음운체계와 비교를 통해서 비교의 바탕이 되는 언어에 있는 음운 체계가 이지역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조사해서 음운체계를 세우는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국어의 현재 표준어 음운 체계를 바탕으로 부평지역 방언의 음운체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개별음운의 변이음까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방대한 자료와 그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기술 편의상 표준어와 비교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고, 부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이음들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국어 표준어의 음소체계는 자음이 19개, 단모음 10개, 중모음이 12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부평 지역 방언의 자음 음소체계는 표준어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모음 음소체계를 음소의 변별성을 중심으로 대립관계를 살펴서 표준어와 동일하거나 다른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음운론적 특징 가운데 음소의 결합관계에서 음절 구성 법칙이나 음소 결합의 제약성과 같은 문제는 음소체계를 밝히는 데 부차적으로 이용할 뿐 본격적으

로 밝히지는 않기로 한다.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말끝에 드러나는 말끝 높이가 말하는 사람의 어감을 드러내는 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 운소로서 기능을 하거나 문법적 변별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하기로 하고 전반적인 운소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현재 국어에 사용되는 모음 단모음은 학자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표준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10모음 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 | 전설모음 | | 후설모음 | |
|---|---|---|---|---|
| | 평순 | 원순 | 평순 | 원순 |
| 고모음 | ㅣ | ㅟ | ㅡ | ㅜ |
| 중모음 | ㅔ | ㅚ | ㅓ | ㅗ |
| 저모음 | ㅐ | | ㅏ | |

〈표준어 단모음 음소 체계〉

이 가운데 현재 각 지역 방언에서 조사되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 모음의 변별성 유무가 각 지역 방언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이들 모음의 변별성이 부평 지역 방언에서도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1) /ㅔ/와/ㅐ/의 대립

/ㅔ/와/ㅐ/의 대립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 방언에서 노년층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젊은 층에서는 그 발음상의 변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음소들이다. 준동음어 형성면에서는 다음에 예로 쓰인 단어들 이외에도 상당한 어휘 생성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음소가 실제 발음에서는 변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현대국어의 입말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과 함께 현대 국어 단모음의 소리체계가 갖고 있는 체계상의 부분적인 불완전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표준어 단모음 음소 체계는 고저, 전후, 평원순의 세 가지 변별 기준을 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체계 쪽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평순, 전설 모음의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ㅣ/, /ㅔ/, /ㅐ/, /ㅏ/의 4단계로 전체 체계인 3단계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양극에 있는 /ㅣ/나/ㅏ/를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중간에 있는 /ㅔ/와/ㅐ/가 상대적으로 쉽게 통합되어 3단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부평지역 방언에서는 조사 대상이 된 장년, 노년 층에서는 이 두 음소의 구분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 전원이 발음할 때와 다른 사람의 발음을 들을 때 모두 두 음소를 정확히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다.

게/개

바다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것은 게고, 집 지키는 짐승은 개지.

베/배

길쌈 해서 맨들어 내는 것은 베라고 하고, 먹는 것은 배라고… 전혀 다르지.

떼/때

산소에 입히는 풀은 떼, 무슨 시간을 말하는 것은 때이지.

세/새

가거나 집 빌려 주고 받는 것은 세고, 날아 다니는 것은 새라고 떼하고 때처럼 전혀 다르지. 암.

제/재

사람 죽은 날 음식 차려 놓고 절하는 것은 제사, 동제, 사모제 하는 제고, 붉 때고 나면 남은 것은 재야.

네/내

촌장님한테 그렇다고 대답할 적에는 네 그러구 어린애들한테는 제가라고 안 그러구 내가라구 해야지. 네 자식, 내 자식 확실히 다르지.

데다/대다

뜨겨운 물에 덴다 데였다 그러구 손대다 할 때는 대다로 전혀 다르지.

세다/새다

힘이 강하다고 할 적에는 힘이 세다 이러커구 천정에서 물이 떨어질 적에는 물이 샌다고 하지.

/ㅖ/와 /ㅐ/의 구분은 나이 많은 세대에서는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만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질문해 본 결과, 쓸 때는 구분해서 쓰지만 말할 때는 별로 구분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서울말의 경우와 유사한 현상이다.[4]

그러나 이 두 음소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구별은 '모레'와 '모래'의 경우에서 보면 첫음절의 장단으로 단어 의미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실제 개구도에 의한 /ㅖ/와 /ㅐ/의 차이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 둘, 셋, 넷 할 때의 '셋, 넷'은 '서이, 너이' 식으로 발음하여 /ㅖ/가 단모음이 아니라 /ㅓ+ㅣ/의 복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

4) 이현복(1971),「현대 서울말의 모음음가」23쪽 참조.

(2) /ㅚ/와 /ㅐ/의 대립

/ㅚ/는 일부 지역 방언에서는 복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서울 지역어에서도 일부에서는 /ㅐ/로 발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평지역 방언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부평지역의 나이 많은 세대에서는 /ㅚ/가 보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가끔 다른 어형이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외다/외우다

남의 이름을 잘 왼다고 하고 특별히 배운 체로 할 적에는 외운다라고도 하지요.

(일상 쓰이는 구어에서는 '외다'가 우세하게 쓰이고 '외우다'는 그다지 잘 쓰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쇠다

설 쇤다고 하지.

쬐다

불 쪼니다고 보통 그러는데 다른 말은 안 써.

뇌다

(조사 곤란)

꾀다

턱을 괸다고 그러지……고인다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 괸다고 해요.

죄다

나사를 죈다고도 하고 조인다고도 하는데 일반 말로 할 적에는 죈다고 해요.

꾀다('꾀다'만 쓰고 '꼬이다'는 안 쓰임)

어린애를 꾄다고 하고 꼬인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쇠파리

쇠파리라고 하고 타지에서 온 사람이 가끔 소파리라고 쓰기도 하지.

뫼

말할 적에는 산소라고 하고 한문으로 묘소라고도 하는데 뫼라고는 안 해요.

회/홰

생선을 날 것으로 먹는 것 회라고 하고, 닭이 올라서는 데는 횃대라고 해요.

되/돼

열흡을 한 되라고 하고 그 때 되는 돼지라고 할 적에 돼하고 차이가 없어요.

(두 음절 이상 어휘에서 첫음절의 '돼'는 '되'와 같은 단모음으로 발음이 되고, '안 돼'와

같은 경우에는 '되'와는 다른 복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ㅟ/와 /ㅣ/의 대립

부평지역 방언에서 /ㅟ/와 /ㅣ/는 조사 어휘 대부분에서 확실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준어) | (부평지역 방언) |
|---|---|
| 귀띔 | 귀띰 |
| 귀밝이술 | (조사 불가) |
| 쉰살 | 쉰 |
| 띔박질 | 띔박질 |
| 쥐불놀이 | 쥐불놀이 |
| 튀김 | 튀김 |
| 휘파람 | 휘파람(변이형으로 '훼파람'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는 '위'와 '이'의 대립 때문에 생긴 변이형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
| 뒷간 | 뒷간 |
| 취하다 | 취하다(과거형 '취했다'의 경우에는 음절축약 현상을 보여서 '췄다'로 쓰이기도 함) |

(4) 구개음화

부평 지역 방언에서는 남부지역 방언에서 나타나는 음소 변화까지 이어지는 강한 구개음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표준어) | (부평지역 방언) |
|---|---|
| 혀 | 혀 |
| 형님 | 형님(기혼 여성의 경우에 손윗동서를 부를 때 '성님'이 가끔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도 '형님'이 일반적이고, 그 때도 '성님'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함) |
| 헤아리다 | 헤아리다('수량을 헤아리다'는 의미는 '세다'로 쓰고, '미루어 생각하고 짐작으로 따지고 살피다'라는 의미는 '헤아리다'로 쓴다고 주장함) |
| 힘 | 힘(명사형으로 '힘'이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심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나 '힘들다'의 경우는 '심들다'로도 사용됨) |
| 길 | 길('질'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체 없음) |
| 튜브 | 주부("자전차 주브 빼내고 나서 리무 가지고 굴렁쇠 굴리고 놀았지.") |

(5) 움라우트 현상

국어 표준어에서도 상당히 널리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움라우트 현상)이 있는데 이는 발음상의 노력 경제 현상의 하나로 부평지역 방언에서도 상당히 널리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 (표준어) | (부평방언형1) | (부평방언형2) |
|---|---|---|
| 땜장이 | 땜쟁이 | 뗌쟁이 |
| | ('땜장이'보다 '땜쟁이'가 더 우세하게 쓰임) | |
| 칠장이 | 칠쟁이 | |
| 호랑이 | 호랑이 | 호랭이 |
| | ('호랑이'의 경우에는 '호랑이'가 '호랭이'보다 우세) | |
| 정강이 | 정갱이 | 정강이 |
| | (이 둘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세력으로 쓰임) | |
| 다리미 | 대리미 | 다리다 |
| | ('대리미, 대리다'가 '다리미, 다리다'보다 우세) | |
| 홀아비 | 홀애비 | 홀야비 |
| | ('홀애비'가 '홀아비'보다 우세) | |
| 누비이불 | 뉘비이불 | |
| 소 먹이다 | 소 멕이다 | |

(6) 된소리화

현대 국어에서 입말에서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나는데 부평지역 방언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된소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층이 오십대 이상으로 비교적 나이든 세대들임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에 비하면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된소리화는 음운결합 관계에 따라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ㄱ, ㄷ, ㅂ/끝소리 다음에 오는 /ㄱ, ㄷ, ㅂ, ㅈ, ㅅ/를 제외하고 어휘의 첫소리나 결합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 국한하였다.

| (표준어) | (부평지역 방언) |
|---|---|
| 검정색 | 검정색 까만색 |
| 고등어 | 고등어 |
| 고두밥 | (조사곤란) |

| | | |
|---|---|---|
| 고쟁이 | 고쟁이 | 속곳 |
| 곱배기 | 곱배기 | |
| 굼벵이 | 굼벵이 | |
| 닦다 | 닦다('훔치다'가 '닦다'보다 우세하지만 '닦다'를 사용할 경우 '딱다'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닥다'는 거의 쓰이지 않음) | |
| 소나기 | 쏘낙비 | 쏘내기 |
| | (경음화되지 않은 '소나기'형은 잘 안 쓰임) | |
| 곱추 | 꼽새 | |
| 족제비 | 쪽제비 | |
| 상놈 | 쌍놈 | |
| 작다 | 짝다 | 작다 |
| | ('짝다'가 '작다'보다 우세) | |
| 질기다 | 질기다 | |
| 고추 | 고추 | 누엣꼬치('누에'와 결합되어 합성어를 만들면 된소리화가 일어남) |
| 가스 | 까스 | 깨스 |
| 골프 | 꼴프 | |
| 덤프트럭 | 덤프차 | |
| 싱크대 | 씽크대 | |
| 사이렌 | 싸이렝 | |
| 사이즈 | 싸이즈 | |
| 샴푸 | 샴뿌 | |
| 시트 | (조사곤란) | |
| 샐러드 | (조사곤란) | |
| 살롱 | (조사곤란) | |
| 산타클로스 | 싼타 | |
| 새시 | 아루미샤슈 | |
| 프로펠러 | 푸로페라 | 잠자리날개 |
| 파워 | (조사곤란) | |
| 퍼머넌트 | 파마 | 빠마 |
| | ('파마'가 '빠마'보다 우세함) | |

| | | |
|---|---|---|
| 페니실린 | 페니시링 | |
| 팬티 | 팬티 | |
| 페인트 | 뺑끼 | |
| 컵 | 컵 | 꼬뿌 |
| | ('꼬뿌'는 일본어라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음) | |
| 쿠데타 | 구데타 | |
| 시멘트 | 양회 | 세멘트 |
| 보트 | 뽀드 | |
| 배지 | 뺏지 | |
| 핸드백 | 핸드백 | |

된소리화는 순우리말의 경우에는 일어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건에서도 혼재하고 있어 된소리화가 점점 우세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외래어의 경우에는 유성자음의 경우에는 대부분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무성자음의 경우는 어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어휘 도입 경위나 조사자의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 2) 부평방언의 형태론적 특성(어휘적 특성)

부평방언의 형태론적 특성은 형태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 어휘[5]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형태소의 결합관계나 형태소의 변이형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가려 특성을 기술하기로 하였다. 한 형태소의 여러 변이형이 쓰일 경우에는 빈도수에서 어느 것이 우세하게 쓰이는가를 조사대상자에게 질문해서 우세한 것을 '부평(지역)방언형1'로, 그렇지 않은 것을 '부평(지역)방언형2'로 표기해서 함께 쓰이는 방언들을 함께 기술하기로 하였다.

(1) 농사 어휘

① 경작

| (표준어) | (부평방언형1) | (부평방언형2) |
|---|---|---|
| 벼 | 벼 | |
| 벼농사 | 벼농사 | 볏농사(ㄴ첨가 현상) |
| 벼이삭 | 벼이삭 | |
| 논농사 | 논농사 | |

5) 조사 대상 생활어휘는 성낙수(1993), 『우리말 방언학』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 | |
|---|---|---|
| 논두렁 | 논두랑 | |
| 뉘 | 누이 | |
| 못자리 | 못자리 | |
| 거름 | 거름 | |
| 모를 찌다 | 모를 찌다 | |
| 품앗이 | 품앗이 | |
| 김매다 | 논김매다/밭김매다 | |
| 애벌매다 | 애벌매다 | |
| 두벌매다 | 두벌매다("손으로 잡초를 훔친다고 하지.") | |
| 흙덩이 | 흙뎅이 | |
| 평평하게 고르다 | 팬팬하게 고르다 | |
| 새참 | 새 | 새참 |
| 일꾼 | 일꾼 | |
| 곁두리 | 곁두리(끼니 이외 음식이라는 점에서 '새참'과 차이가 없음) | |
| 쟁기 | 쟁기 | 애벌갈다 두벌갈다 세벌갈다 |
| 쇠스랑 | 쇠스랑 | 쇠시랑 |
| 써레 | 쓰레 | 써레 |
| 호미 | 호미 | |
| 가래 | 가래 | |
| 삽 | 삽 | |
| 들것 | 들것(곡물이나 흙을 운반하는 농기구) | |
| 길마 | 길마 | |
| 발채 | 발채(지게 위뿐 아니라 길마 위에 얹는 것도 포함) | |
| | 원구(길마 위에 얹어서 재나 두엄 같은 것을 실어낼 수 있도록 한 농기구 —표준어에 없음) | |
| 거지게 | 거지게(길마 위에 작대기를 W자 모양으로 엮어서 돌이나 장작 따위를 운반하던 농기구) | |

② 타작

| | |
|---|---|
| 볏단 | 볏단 |
| 볏단쌓다 | 벼조패리다(볏단을 쌓아올리는 행위) |
| 낫가리 | 낫가리 |
| 벼훑이 | (그런 도구는 있으나 특별히 불리는 이름은 없음) |

그네 그네
회전기 탈곡기 짚대기계(초기에 많이 쓰던 이름)
개상 개상(보통 절구통을 마당에 세우고, 볏단을 후려쳐 사용한다)
새끼 새끼
도리깨 도리깨
멍석 멍석
콩깍지 콩깍지 (콩)깍재기
광주리 광주리
바구니 바구니
송뎅이(감자나 고구마를 캐서 운반하는 짚을 엮어 항아리 모양으로 만든 농기구)
삼태기 삼태기
채반 채반

③ 도정

절구 절구
찧는다 찧는다
절구공이 절구깽이
디딜방아 디딜방아(디딜방아 명칭은 알고 있었지만 거의 사용치 않고 '메(나무를 톱니모양으로 홈을 파서 서로 문질러서 겨를 떨어내는 기구)'를 사용하였음)
쐐기 쐬기
겨 겨
왕겨 왕겨
등겨 등겨(더 부드러운 것은 '쌀겨'라 함, 쌀겨로 '겨떡/개떡'을 만들어 먹었음)
키 키
까부르다 까불르다('키'는 '까불르다', '돗자리'로 바람을 내서 곡식을 가려내는 것을 '부뚜질하다'라 함)
어레미 어레미(망의 눈이 큰 것, 작은 것은 '도두미', 풀을 쑤어 거르는 것은 '풀체'라고 함)
조리 조리
주걱 주걱

④ 곡물

| | | |
|---|---|---|
| 보리 | 보리 | 버리 |
| 깜부기 | 깜부기 | 깜베기/깜두기 |
| 밭둑 | 밭두둑 | (밭)두덕 |
| 밭고랑 | 밭이랑 | (밭)골 |
| 논두렁 | 논두렁 | |
| 밭두렁 | 밭두렁 | |
| 팥 | 팥 | |
| 조 | 조 | |
| 수수 | 수수 | |
| 수수잎 | 수숫닢 | |
| 수숫대 | 수숫대 | |
| 깨 | 깨 | |
| 참깨/들깨 | 참깨(창깨)/들깨 | |
| 참기름 | 창기름 | 참기름 |
| 콩기름 | 콩기름 | |
| 들기름 | 들기름 | |
| 옥수수 | 옥수수 | 강냉이(과거에는 옥수수와 같은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옥수수를 튀긴 것'으로 구분) |

⑤ 채소

| | | |
|---|---|---|
| 무 | 무 | |
| 무잎 | 뭇닢 | |
| 무말랭이 | 무말랭이 | 무말레이 |
| 조선무 | 조선무 | |
| 왜무 | 왜무 | |
| 총각무 | 알타리무 | 달랑무(종자가 좀 달랐음) |
| 호박고지 | 호박고지 | 호박꼬지 |
| 시래기 | 씨라기(씨래기) | 쓰라기 |
| 채소 | 채소 | |
| 배추 | 배추 | |
| 조선배추 | 조선배추 | |
| 개량배추 | 호배추 | |

| | | |
|---|---|---|
| 배추뿌리 | 배추꼬랭이 | 배추꼬래이 |
| 상추 | 상추 | |
| 부추 | 부추('정구지'등 다른 명칭은 사용치 않음) | |
| 나물 | 나물 | |
| 파 | 파 | |
| 고구미 | 구구마 | |
| 고구마줄기 | 고구마넝쿨 | |
| 감자 | 감자(늦은 감자/이른 감자) | |
| 가지 | 가지 | |

(2) 음식

① 부식

| (표준어) | (부평방언형1) | (부평방언형2) |
|---|---|---|
| 김치 | 김치(김장 당그다. 막김치, 포기김치) | |
| 깍두기 | 깍두기(깍두기에 배추잎을 함께 버무리면 '섞박지'가 됨) | |
| 간장 | 간장 | |
| 간장종지 | 간장종지 | 간장그릇 |
| 두부 | 두부 | |
| 비지 | 비지 | |
| 콩나물 | 콩나물 | |
| 콩기름 | 콩기름 | |
| 고추 | 고추 | 꼬치 |
| 고추장 | 고추장 | 꼬치장 |
| 오이 | 오이 | |
| 오이소박이 | 오이소배기 | |
| 오이지 | 오이지 | 오지 |
| 김 | 김 | |
| 반찬 | 반찬 | |
| 건건이 | (조사곤란) | |
| 국물 | 국물 | |
| 김치국물 | 김칫국물 | |

② 주식

| | | |
|---|---|---|
| 솥 | 솥(아주 작은 솥은 '옹솥'이라고 함) | |
| 가마솥 | 가마솥 | |
| 이남박 | 이남박 | |
| 쌀을 일다 | 쌀 일른다 | |
| 조리 | 조리 | |
| 주걱 | 주걱 | |
| 누릉지 | 누릉지 | 누룽갱이 |
| 눌은밥 | 눌은밥(누릉지에 물은 부은 것) | 누룽갱이 |
| 숭늉 | 숭님 | 숭늉 |
| 보리밥 | 보리밥('보리쌀을 곱삶다'는 보리쌀을 보리밥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삶아 둔다는 뜻) | |

③ 별식

| | | | |
|---|---|---|---|
| 가루 | 가루 | | |
| 흰떡 | 흰떡(백설기를 쳐서 차지고 쫄깃하게 만든 떡) | | |
| 가래떡 | 가래떡(흰떡을 가래로 길게 뽑은 떡) | | |
| 백설기 | 백설기(쌀가루를 그냥 찐 것) | | |
| 시루떡 | 시루떡 | | |
| 인절미 | 인절미 | | |
| 밀기울 | 밀기울 | | |
| 국수 | 국수 | | |
| 칼국수 | 칼국수(밀장국)<br>("도마 위에 다디미 방맹이로 칼국수를 맨들지/맹글지.") | | |
| 고명 | 고명 | | |
| 새알심(경단) | 샐새미 | 새시미 | 경단 |
| 수제비 | 수제비 | | |
| 튀밥 | 뺑튀기 | 쌀튀김/보리튀김/강냉이(튀김) | |
| 엿기름 | 엿기름 | 엿지름(구개음화가 일어나기도 함) | |
| 식혜 | 식혜('식혜'는 '감주'보다는 밥알이 많은 것을 지칭함) | | |
| 감주 | 감주('단술'이라는 명칭은 별로 사용치 않음) | | |

④ 그릇

| | |
|---|---|
| 시루 | 시루 |
| 시루떡 | 시루떡 |
| 시루밑 | 시루밑 |
| 시루번 | 시루뻔(쌀가루로 김새지 말라고 바르는 것) |
| 뚜껑 | 뚜껑 |
| 솥뚜껑 | 솥뚜껑 |
| 항아리 | 항아리 |
| 장독대 | 장뚝간 |
| 사발 | 사발 |
| 뚝배기 | 뚝배기 |
| 바가지 | 바가지 |

⑤ 부엌

| | |
|---|---|
| 아궁이 | 아궁이 |
| 부뚜막 | 무뚜막 |
| 부지깽이 | 부지깽이 |
| 땔나무 | 낭구(일반 나무도 '낭구'로 부름) |
| 고무래(재) | 고무래 |
| 고무래(곡식) | 고무래 |
| 부삽 | 부삽(화로에 불을 퍼담는 삽, 화롯불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도록 '불돌'을 올려 놓는다) |
| 숯 | 숯 |
| 화로 | 활로 화루 |
| 화롯불 | 화롯불 |
| 부젓가락 | 화젓가락('부젓가락'으로는 쓰지 않음) |
| 다리쇠 | 삼발이 |
| 석쇠 | 석수('석쇠'라고는 거의 쓰지 않음) |
| 담뱃대 | 담붓대 ('장죽'으로 대신 부르기도 함) |
| 물부리 | 물부리 |
| 담배설대 | 장죽 담배설대 |
| 담배통 | 담붓대 꼴통 |
| 부시 | 부시 |

| | | |
|---|---|---|
| 부싯돌 | 부싯돌 | |
| 그으름 | 검정 | 꺼멍 |
| 그을렀다 | 끄을리다 | |
| 냅다 | 내웁다 | 심버구리다/심버거리다("눈이 심버거린다.") |

(3) 가옥

① 가구

| (표준어) | (부평방언형1) | (부평방언형2) |
|---|---|---|
| 시렁 | 시렁걸이 | 실렁 |
| 선반 | 선반 | |
| 서랍 | 서랍 | |
| 궤 | 궤짝 | |
| 자물쇠 | 자물쇠 | |
| 놋쇠 | 노쇠 | |
| 열쇠 | 열쇠 | |
| 베개 | 베개 | |
| 목침 | 토막 | 목침 |
| 퇴침 | 토막 | 목침 |
| 홑이블 | 홑이불 | 홑겹 |
| 누비이불 | 뉘비이불 | |

② 방

| | | |
|---|---|---|
| 마루 | 말루 | 마루 |
| 툇마루 | 툇마루 | |
| 미닫이 | 미닫이(두껍닫이나 두껍미닫이는 따로 부르지 않음) | |
| 들창 | 돌창(열 수 없도록 된 창은 '되창(문)'이라고 구별함) | |
| 돌쩌귀 | 돌쩌귀/돌째기 | 돌째기 |
| 암쇠 | 암쇠 | 암돌쩌귀 |
| 숫쇠 | 숫쇠 | 숫돌쩌귀 |
| 벽 | 벽 | |
| 담벼락 | 밤벼락 | |
| 굽도리 | 굽도리 | |
| 흙손 | 흑손 | |

귀얄(도배할 때 풀칠하는 돼지털 같은 것을 넓적하게 묶은 도구) (조사곤란)

| | | |
|---|---|---|
| 종이 | 종이 | 조이 |
| 구겨지다 | 구겨지다 | |
| 구기다 | 구기다 | |

③ 건물

| | | |
|---|---|---|
| 시골집 | 시굴집 | |
| 한옥 | 한옥 | |
| 지붕 | 지붕 | |
| 사닥다리 | 사다리 | 사닥다리 |
| 기와집 | 기와집 | |
| 초가집 | 초가집 | |
| 이엉 | 영 | |
| 엮다 | 엮다 | |
| 이다 | 이다 | 영 덮다 |
| 용마름 | 용구새 | 곱새 용마름 |
| | 회첨(기역자 집의 꺾이는 부분의 움푹 들어가는 부분) | |
| 기둥 | 기둥 | |
| 터다지다 | 지경닫다 | |
| 주춧돌 | 주춧돌 | |
| 서까래 | 서까래 | 석까래 |
| 처마 | 처마 | 초마 |
| 추녀 | 서까래끝 | |
| 낙수물 | 기스락물 | 국(구)시랑물 낙수물 |
| 기스락물 | 기스락(물) | |
| 고드름 | 고두름 | 고드름 |
| 돌멩이 | 돌멩이 | 동멩이 |
| | 갱멕질하다(흙벽이 반질반질하도록 흙탕물로 바르는 행위. '개흙멕질하다'에서 줄어서 된 표현) | |
| | 산자(벽속에 수수깡으로 엮어서 막는 재료) | |

④ 마당

| | |
|---|---|
| 울타리 | 울타리 |
| 담 | 담 |

| | | |
|---|---|---|
| 뜰 | 마당 | |
| 뒤꼍 | 뒤란 | |
| 장독대 | 장독대 | |
| 변소 | 뒷간 | 칙간 |

⑤ 우물

| | | |
|---|---|---|
| 샘 | 샘 | |
| 우물 | 우물 | |
| 두레박 | 디리박 | 두리박 |
| 물동이 | (물)동이 | |
| 또아리 | 똬리 | |
| 도랑 | 갱구랑 | 도랑 |
| 개울 | 시냇물 | 개울 |
| 수렁 | 수렁 | |
| 거품 | 거품 | |
| 개수대 | 개수통 | |
| 수채 | 하수구 | 수채 |
| 구멍 | 구멍 | 구녕 |

(4) 의복

① 세탁

| | | |
|---|---|---|
| 빨래 | 빨래 | |
| 빨래방망이 | 빨래방망이 | 빨래방맹이 |
| 빨랫돌 | 빨래돌 | |
| 빨랫줄 | 빨랫줄 | |
| 다듬이돌 | 다듬잇돌('똘'로 받음되어 사이시옷을 인정해야 할 듯) | |
| 다듬이질 | 다디미질 | 다듬이질 |
| 다리미 | 다리미 | 대리미 |
| 인두 | 인두 | |
| 다리다 | 다리다/대리다 | 다리미질하다/대리미질하다 |
| 풀먹이다 | 풀멕이다 | |

② 복식

| | |
|---|---|
| 허리띠 | 허리띠(가죽허리띠, 천허리띠) |
| 두루마기 | 두루마기 |

| | | |
|---|---|---|
| 마고자 | 마구자 | |
| 조끼 | 조끼 | |
| 염낭 | 염낭(아주 작은 주머니로 남자는 부시, 부싯돌 등을 지님) | |
| 한복주머니 | 주머니('염낭'과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함) | |
| | (차고 댕기는 주머니도 주머니고 양복 주머니도 주머니지.) | |
| 양복주머니 | 주머니 | |
| 고쟁이 | 고쟁이 | 속곳 |
| 잠방이 | 잠방이 | 잠뱅이 |
| 장삼 | 장삼 | |
| 누더기 | 누비옷 | |
| 버선 | 보선 | |
| 대님 | 대님 | 댓님 |
| 미투리 | 미투리 | |
| 짚신 | 짚새기 | 짚신 |
| 삼다 | 삼다 | |
| 미투리 | 미투리 | |
| 나막신 | 나막신 | |
| 옷감 | 옷감 | |
| 옷감사오다 | 옷감끊다 | |
| 혼수감 | 혼수 | |
| 홑옷 | 홑옷 | |
| 겹옷 | 겹옷 | |
| 헝겁 | 천 | |
| 깁다 | 깁다 | |
| 바늘귀 | 바늘뀌 | |
| 재봉틀 | 재봉틀 | |
| 골무 | 골무 | |
| 가위 | 가위 | |
| 반짇고리 | 반짓고리 | 반짓그릇 |
| 호다 | 감친다 | 감춘다 |
| 베 | 베 | |
| 삼베 | 삼베 | |

| | | |
|---|---|---|
| 베틀 | 베틀 | |
| 물레 | 물레('물레질하다') | |
| 솜 | 솜(솜으로 이불 맨들다) | |
| 목화 | 목화 | |
| 목화다래 | 목화꽃(목화꽃 따먹는다) | |
| 씨아 | 씨아/씨아틀(하나는 목화를 멕이고 하나는 솜을 뽑지.) | |
| 누에 | 누에 | 눼 |
| 고치 | 고치 | 누에꼬치 |
| 번데기 | 번데기 | 뻔데기 |
| 누에나방 | 누에나방 | |
| 뽕나무 | 뽕나무 | |
| 오디 | 오디 | |

(5) 인체

① 머리

| (표준어) | (부평방언형1) | (부평방언형2) |
|---|---|---|
| 머리 | 머리 | |
| 대가리 | 대가리 | |
| 돼지머리 | 돼지머리 | |
| 머리카락 | 머리카락 | |
| 가마 | 가마 | |
| 가르마 | 가르마(가르마 타다) 가름자(가름자 타다) | |
| 비듬 | 비듬 | |
| 얼레빗 | 얼레빗 | |
| 참빗 | 참빗 | |

② 얼굴

| | | |
|---|---|---|
| 턱 | 턱 | |
| 수염 | 수염 | |
| 턱수염 | 턱수염(아랫수염) | |
| 콧수염 | 콧수염(웃수염) | |
| 구렛나룻 | 구렛나루 | 구레나룻 |
| 목 | 목 | |

| | | |
|---|---|---|
| 모가지 | 목아지 | |
| 얼굴 | 얼굴 | |
| 뺨 | 볼 | 뺨 |
| 볼 | 볼 | |
| 보조개 | 보조개 | |
| 주름살 | 주름 | 주름살 |

③ 눈

| | | |
|---|---|---|
| 눈 | 눈 | |
| 검은자위 | 검은자 | 눈동자 |
| 흰자위 | 흰자 | |
| 눈두덩 | 눈두덩 | 눈두덕 |
| 눈썹 | 눈썹 | |
| 눈꼽 | 눈꼽 | |
| 속눈썹 | 속눈썹 | |
| 눈물샘 | 눈물구녕/눈물구멍/눈물구녁 | |
| 다래끼 | 눈대래기 | (눈)다락지 |
| 소경 | 장님 | 소경('장님'보다는 좀더 높이는 말) |
| 애꾸 | 애꾸 | |

④ 코, 입

| | | |
|---|---|---|
| 코 | 코 | |
| 입술 | 입술 | |
| 혀 | 혀 | |
| 혓바늘 | 헷바늘 | |
| 혀끝 | 혀끝 | |
| 벙어리 | 벙어리 | |
| 말더듬이 | 말더디미 | |
| 귀 | 귀 | |
| 귓바퀴 | 귓바퀴(귓구멍 입구에 튀어나온 부분은 '귀젖'이라고 함) | |
| 귓불 | 귓밥 | |
| 귀에지 | 귀지 | |
| 귀머거리 | 귀머거리 | |

⑤ 세수

| | | |
|---|---|---|
| 세수대야 | 세숫대야 | |
| 비누 | 비누 | |
| 목욕 | 목욕 | |
| 물을 데우다 | 물을 디다 | 물을 데다 |
| 목욕물 | 목욕물 | |
| 거울 | 거울 | |
| 빗 | 빗 | |
| 얼레빗 | 얼레빗 | |
| 참빗 | 참빗 | |
| 다리 | (머리 끊어 팔다) | |

⑥ 상체

| | | |
|---|---|---|
| 손 | 손 | |
| 왼손 | 왼손 | |
| 오른손 | 오른손 | 바른손 |
| 손바닥 | 손바닥 | |
| 손가락 | 손가락 | |
| 마디 | 마디 | |
| 대마디 | (조사곤란) | |
| 겨드랑 | 겨드랑 | |
| 젖 | 젖가슴 | |
| 배꼽 | 배꼽 | |

⑦ 하체

| | |
|---|---|
| 허리 | 허리 |
| 다리 | 다리 |
| 가부좌 | 책상다리 |
| 엉덩이 | 엉덩이 |
| 궁둥이 | 궁둥이('엉덩이'와 구분해서 쓰지 않으며 '방둥이'라고도 함) |
| 넓적다리 | 허벅지 |
| 무릎 | 무릎 |
| 오금 | 오금(다리오금, 팔오금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함) |
| 저리다 | 저리다 |

| | | |
|---|---|---|
| 정강이 | 정갱이 | |
| 뼈 | 뼈 | |
| 복사뼈 | 복숭아뼈 | |

⑧ 피부병

| | | |
|---|---|---|
| 부스럼 | 부스럼 | |
| 고름 | 고름 | 진물 |
| 사마귀 | 사마귀 | 물사마귀 |
| 두드러기 | 두드러기 | |
| 땀띠 | 땀띠 | |
| 버즘 | 버짐 | |
| 기계충 | 백납 | 기계충 |
| 죽은깨 | 죽은깨 | |
| 기미 | 기미 | |
| 기미끼다 | 기미끼다 | |

⑨ 질병

| | | |
|---|---|---|
| 언청이 | 언챙이 | |
| 곰보 | 곰보 | |
| 천연두 | 마마 | 천연두 |
| 학질 | 학질(초기에는 격일로 열이나서 '하루걸이'라고도 하고, 식자층에서는 '마라리아'로 쓰기도 함) | |
| 홍역 | 홍역 | |
| 감기 | 고뿔들다 | 강기들다 |

⑩ 생리

| | | |
|---|---|---|
| 딱국질 | 딱굴질(하다) | |
| 사래 | 사래 | 사내(들리다) |
| 트림 | 트럼 | |
| 재채기 | 재채기 | |
| 하품 | 하품 | |
| 기지개(켜다) | 기지개(핀다) | |
| 졸음 | 졸음 | |
| 방귀 | 방구 | 방귀 |
| 방귀뀌다 | 방구뀌다 | |
| 구린내 | 구린내 | |
| 고린내 | 구린내 | |

(6) 육아

① 발달

| | | | |
|---|---|---|---|
| 갓난아이 | 갓난애 | | |
| 돌 | 돌 | | |
| 어린애 | 어린애 | | |
| 여자아이 | 계집애 | 여자애 | |
| 남자아이 | 사내애 | 남자애 | |
| 기저귀 | 기저구 | | |
| 똥 | 똥 | | |
| 오줌 | 오줌 | | |
| 마렵다 | 뒤마립다 | 똥마립다 | |
| 누다 | 누다 | | |
| 뉘다 | 똥뉘다/오줌뉘다 | | |
| 싸다 | 싸다 | | |
| 지리다 | 오줌지리다 | | |
| 지린내 | 지린내 | | |
| 포대기 | 포대기 | 천여 | |

② 재롱

| | | | |
|---|---|---|---|
| 재롱 | 재롱 | | |
| 재롱떨다 | 재롱부리다 | 재롱피다 | 재롱떨다 |
| 죄암죄암 | 잼잼 | | |
| 곤지곤지 | 곤지곤지 | | |
| 도리도리 | 도리도리 | | |
| 걸음마 | 걸음마 | | |
| 아장아장 | 아장아장 | | |
| 안다 | 안다 | | |
| 안기다 | 안기다 | | |
| 엄살 | 엄살 | | |
| 엄살떨다 | 엄살하다 | 엄살부리다 | |
| 샘 | 샘 | | |
| 샘내다 | 시기하다 | 샘내다 | |

③ 놀이

| | | |
|---|---|---|
| 공기 | 공기 | |
| 사금파리 | 사금파리 | |
| 숨바꼭질 | 숨바꼭질 | |
| 소꿉놀이 | 소꿉비 | 소꿉놀이 |
| 목말 | 무등(탠다) | |
| 자치기 | 자치기 | |
| 제기 | 재기 | |
| 쥐불놀이 | 쥐불놀이 | |
| 윷 | 윷 | |
| 도 | 도 | |
| 개 | 개 | |
| 걸 | 걸 | |
| 윷 | 윷 | |
| 모 | 모 | |
| | 두동업다 | |
| 두동무늬 | 두동사니 | |
| 석동무늬 | 석동사니 | |
| 넉동무늬 | 넉동사니 | |
| 그네 | 그네 | |
| 그네뛰다 | 그네뛰다 | 그네타다 |
| 그네타다 | 그네뛰다 | 그네타다 |
| 썰매 | 썰매 | |
| | 스키(서양식 썰매가 스키라는 것을 모두 인식함) | |
| 얼음지치다 | 얼음 타다 | |
| 팽이 | 팽이 | |
| 굴렁쇠 | 굴렁쇠 | |

(7) 인륜

① 가족

| | |
|---|---|
| 어머니 | 어머니 |
| 엄마 | 엄마 |

| | | |
|---|---|---|
| 어미 | 에미(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를 적에 호칭으로 사용) | |
| 아버지 | 아버지 | |
| 아빠 | 아빠 | |
| 아비 | 애비 | |
| 할머니 | 할머니 | |
| 할아버지 | 할아버지 | |
| 형 | 형 | |
| 언니 | 언니 | |
| 누가 | 누나 | |
| 오빠 | 오빠 | |
| 아우 | 아우 | |
| 아우보다 | 동생보다 | 아우보다 |
| 아우타다 | 아우타다 | |

② 결혼

| | | |
|---|---|---|
| 결혼 | 결혼 | |
| 결혼잔치 | 혼인잔치 | |
| 며느리 | 며누리 | 자부 |
| 처녀 | 처녀 | |
| 새색시 | 새색시 | 새댁 |
| 사위 | 사위 | |
| 조카사위 | 조카사위 | |
| 조카며느리 | 조카며누리 | |
| 매형 | 매부 | 자형/매형(매부보다는 점잖은 표현으로 여김) |
| 매제 | 매제(매제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예사높임 대우를 함) | |
| 시아주버니 | 시아주버니 | |
| 시동생 | 서방님/도련님(결혼 후에는 '아주버님' '서방님'이라고 부름) | |
| 올캐 | 올캐 | |
| 시누이 | 시누 | |
| 매형 | 매형 | |
| 매제 | 매제 | |
| 매부 | 매부 | |
| 시숙 | 시아주버니 | |

| | | |
|---|---|---|
| 시동생 | 시동생 | |
| 도련님 | 도련님 | |
| 서방님 | 서방님 | |
| 홀아비 | 홀애비 | |
| 홀어미 | 홀어미 | |
| 환갑 | 황갑 | 회갑 |
| 환갑잔치 | 황갑잔치 | 회갑잔치 |
| 효자 | 효자 | |

③ 친척

| | | |
|---|---|---|
| 맥부 | 큰아버지 | 백부 |
| 숙부 | 작은아버지 | 숙부 |
| 삼촌 | 삼춘(워낙 '아저씨'로 호칭했으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삼촌의 경우 '삼촌'이라 부르던 것이 최근 확대 사용된 것) | |
| 조카 | 조카 | |
| 조카딸 | 조카딸 | |
| 당숙 | 당숙(호칭으로는 '아저씨', '당숙아저씨'로 함) | |
| 이모 | 이모 | |
| 고모 | 고모 | |
| 고보부 | 고모부(고모부 형제, 부모들 호칭은 모두 '사둔'이라고 함) | |
| 남 | 남("남헌티 맽겨 둘 수가 없지.") | |

(8) 경제

① 마을

| | | |
|---|---|---|
| 이웃 | 이웃 | |
| 마을 | 마을 | |
| 이야기 | 이야기 | 얘기 |
| 마을간다 | 말간다 | |
| 가게 | 구멍가게 | |
| 구멍가게 | 구멍가게 | |
| 잡화상 | (조사곤란) | |
| 잔돈 | 잔돈 | |
| 거스르다 | 거시르다 | |

| | | |
|---|---|---|
| 그스름돈 | 거시름돈 | |
| 우수리 | 잔돈 | 우수리(돈) |
| 에누리 | 에누리 | |
| 에누리하다 | 깎다 | |
| 덤 | 덤 | |

② 대장간

| | | |
|---|---|---|
| 대장간 | 대장간 | |
| 풀무 | 풀무 | |
| 모두 | 모루 | |
| 벼리다 | 벼리다 | |
| 바퀴 | 바퀴 | |

③ 단위

| | | |
|---|---|---|
| 평 | 평 | |
| 마지기 | 마지기 | |
| 섬지기 | 섬지기(삼천평) | |
| 마리 | 마리 | |
| 쌍 | 쌍 | |
| 켤레 | 켤레(신발, 버선, 양말) | |
| 그루 | 그루 | |
| 포기 | 포기 | |
| 뼘 | 뼘 | |
| 홉 | 홉 | |
| 움큼 | 움큼 | |
| 자루 | 자루 | |
| 아름 | 아름 | |
| 두름 | 두름(스무 마리 또는 열 마리) | |
| 손 | 손(두 마리) | |
| 축 | 죽(오징어 스무마리) | |
| 꾸러미 | 꾸러미 | |
| 접 | 접 | |
| 필 | 필 | |
| 병 | 병(보통 '한 되들이 병'을 말함) | |

④ 수

서돈/말/발/푼　서 돈/말/발/푼
너돈/말/발/푼　너 돈/말/발/푼
석냥/되/섬/자　석냥/되/섬/자
넉냥/되/섬/자　넉냥/되/섬/자
다섯 되/말/돈　닷 되/말/돈　다섯 되/말/돈
(고등학생 이상은 '석 되', 그 이하는 '세 되'라고 하는 경향)
여섯 되/말/돈　여섯 되/말/돈
세다　세다
셈하다　계산하다　셈하다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 이레, 아흐레, 열흘, 보름, 그믐(표준어와 동일)

(9) 동물

① 민물고기

(표준어)　(부평방언형1)　(부평방언형2)
고기　고기
생선　생선
민물고기　민물고기(짠물고기와 대립적으로 사용)
미끼　낚시밥　미끼
지느러미　지느레미　지르레미
아가미　아가미
창자　창자
미꾸라지　미꾸라지
송사리　송사리
피라미　피래미
붕어　붕어
올챙이　올챙이
개구리　개구리
두꺼비　두꺼비

② 바다고기

멸치　메르치
젓갈　젓

| | | |
|---|---|---|
| 새우젓 | 새우젓 | |
| 멸치젓 | 멸치젓 | |
| 갈치 | 갈치 | |
| 가오리 | 가오리 | |
| 게 | 게 | |
| 꽃게 | 꽃게 | |
| 새우 | 새우 | |
| 다슬기 | 다슬기 | |
| 우렁이 | 우렁이 | |
| 달팽이 | 달팽이 | |

③ 벌레

| | | |
|---|---|---|
| 이 | 이 | |
| 서캐 | 서캐 | |
| 벼룩 | 벼룩 | |
| 모기 | 모기 | |
| 장구벌레 | 장구벌레 | |
| 파리 | 파리 | |
| 구더기 | 구더기 | |
| 지렁이 | 지렁이 | |
| 회충 | 회충 | |
| 촌충 | 촌충 | |
| 거머리 | 거머리 | |
| 쌀벌레 | 쌀벌레 | |
| 바구미 | 바구미 | |
| 굼벵이 | 굼벙이 | 굼벵이 |
| 노래기 | 노래기 | |
| 풍뎅이 | 풍뎅이 | |
| 진딧불 | 진딧물 | |
| 하루살이 | 하루살이 | |
| 거미 | 거미 | |
| 메뚜기 | 메뚜기 | |
| 방아개비 | 방개비 | |

| | | |
|---|---|---|
| 여치 | 여치 | 유치 |
| 소금쟁이 | 소금쟁이 | 소금장수 |
| 사마귀 | (조사곤란) | |
| 방개 | 물매미 | |
| 반딧불 | 반딧불 | 개똥벌레 |
| 벌 | 벌 | |
| 땅벌 | 땅벌 | |
| 벌집 | 벌집 | |
| 애벌레 | 애벌레 | |

④ 가축

| | | |
|---|---|---|
| 소 | 소 | |
| 황소 | 황소('숫소'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음) | |
| 암소 | 암소 | |
| 송아지 | 송아자 | |
| 쇠고기 | 쇠고기 | 소고기 |
| 쇠꼬리 | 쇠꼬리 | 소꼬리 |
| 쇠뿔 | 쇠뿔 | 소뿔 |
| 고삐 | 고삐 | |
| 코뚜레 | 코뚜레 | |
| 길마 | 개지게 | |
| 멍에 | 멍에 | |
| 소입막이 | 망 | 코망태 |
| 외양간 | 외양간 | |
| 두엄 | 소마닙 | |
| 발채 | 발채 | |
| 작대기 | 작대기 | |
| 구유 | 여물통 | 구유통 |
| 쇠죽 | 쇠죽 | 소죽 |
| 쇠주걱 | 쇠주걱 | 소주걱 |
| 쇠죽바가지 | 쇠죽바가지 | 소죽바가지 |
| 염소 | 염소 | |
| 말 | 말 | |

| | | |
|---|---|---|
| 망아지 | 망아지 | 마아지 |
| 개 | 개 | |
| 수캐 | 수캐 | |
| 암캐 | 암캐 | |
| 수캉아지 | 수캉아지 | |
| 암캉아지 | 암캉아지 | |
| 고양이 | 고양이 | |
| 암코양이 | 고양이 암놈 | |
| 수코양이 | 고양이 숫놈 | |
| 도둑고양이 | 도둑고양이 | |
| 닭 | 닭 | |
| 암닭 | 암탁 | |
| 수닭 | 수탁 | |
| 모이 | 모이 | |
| 닭똥 | 닭똥 | |
| 닭장 | 닭장 | |
| 달걀 | 달걀 | 계란 |
| 노른자위 | 노란자 | |
| 흰자위 | 흰자 | |
| 거위 | 거위 | |

⑤ 산짐승

| | | |
|---|---|---|
| 여우 | 여우 | |
| 노루 | 노루 | |
| 토끼 | 토끼 | |
| 멧돼지 | 멧돼지/산돼지 | |
| 덫 | 덧 | |
| 올가미 | 올무 | 옹무 |
| 살쾡이 | 살쾡이 | 살캥이 |
| 박쥐 | 박쥐 | |
| 다람쥐 | 다람쥐 | |
| 두더쥐 | 두더쥐 | |
| 족제비 | 족제비 | |
| 너구리 | 너구리 | |

⑥ 날짐승

| | |
|---|---|
| 새 | 새 |
| 깃 | 깃털 |
| 매 | 매(사냥용은 '보라매'가 널리 알려져 있음) |
| 솔개 | 솔개 소리개 |
| 까치 | 까치 |
| 까마귀 | 까마귀 |
| 뻐꾸기 | 뻐꾸기 |
| 뜸부기 | 뜸부기 |
| 딱따구리 | 딱다구리 |
| 꿩 | 꿩 |
| 까투리 | 까투리 |
| 장끼 | 장끼 |

(10) 식물

① 꽃

| | |
|---|---|
| 봉숭아 | 복숭아 |
| 해바라기 | 해바라기 |
| 꽈리 | 꽈리 |
| 꽈리불다 | 꽈리불다 |
| 진달래 | 진달래 |
| 철쭉 | 철쭉 |
| 도깨비바늘 | 도깨비바늘 |
| 칡 | 칡 |
| 칡덩굴 | 칡넝쿨('칡덩굴'은 그다지 쓰이지 않음) |

② 나물

| | |
|---|---|
| 냉이 | 냉이 |
| 질경이 | 질경이 |
| 씀바귀 | 씀바귀 |
| 삘기 | 삘기 |

③ 열매

| | |
|---|---|
| 딸기 | 산딸기 |

| | |
|---|---|
| 개암 | 가염 |
| 머루 | 머루 |
| 다래 | 다래 |
| 고염 | 고염 |
| 도토리 | 도토리('상수리'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도토리'라 함) |

④ 과실

| | |
|---|---|
| 사과 | 사과(개량종) |
| 능금 | 능금(토종) |
| 배 | 배 |
| 돌배 | 돌배 |
| 껍질 | 껍질 |
| 보늬 | 버미 |
| 복숭아 | 복숭아 |
| 홍시 | 연시 |
| 곶감 | 곶감 |
| 자두 | 자두 |
| 호두 | 호두 |

⑤ 야생수

| | | |
|---|---|---|
| 상수리 | 도토리('도토리'와 '상수리' 구분없이 '도토리'라 함) | |
| 떡갈나무 | 떡갈나무 | |
| 나무그루 | 나무그루 | |
| 삭정이 | 삭정이 | 삭쟁이 |
| 솔가리 | 솔가래 | |
| 갈퀴 | 갈키 | |
| 긁어모으다 | 긁어모으다 | |
| 도끼 | 도끼 | |

(11) 자연

① 산

| | |
|---|---|
| 산마루 | 산마루 |
| 산꼭대기 | 산꼭대기 |
| 산등성이 | 산등셍이 |

| | | |
|---|---|---|
| 기슭 | 기슭 | |
| 묘 | 산소 | 묘/무덤 |
| 언덕 | 언덕(바지) | 둔덕(별로 쓰이지 않으나 같은 의미) |
| 비탈 | 비탈 | |
| 벼랑 | 낭떨어지 | |
| 메아리 | 산울림 | |

② 돌

| | | |
|---|---|---|
| 바위 | 바위(땅속에 박혀 있는 큰 것) | |
| 돌 | 돌(땅 위에 드러나서 굴러다니는 것 | |
| 돌멩이 | 동멩이 | 돌메이 |
| 자갈 | 자갈 | |
| 모래 | 모래 | |
| 앙금 | 앙금 | |
| 이끼 | 니끼 | |
| 이끼끼다 | 니끼앉는다 | |

③ 하루

| | | |
|---|---|---|
| 아침 | 아침 | |
| 아침밥 | 아침(밥) | |
| 새벽 | 새벽 | |
| 새벽밥 | 새벽밥 | |
| 낮 | 낮 | |
| 저녁 | 저녁 | |
| 저녁밥 | 저녁(밥) | |
| 노을 | 놀 | |
| 해거름 | 땅거미 | 해거름(땅거미보다는 좀 밝은 느낌) |
| 별 | 별 | |
| 은하수 | 은하수 | |
| 달무리 | 달무리 | |
| 달무리지다 | 달무리하다 | |

③ 시후

| | | |
|---|---|---|
| 이제 | 인저 | 이제 |
| 먼저 | 먼점 | |

| | |
|---|---|
| 나중 | 낭중 |
| 내일 | 내일 |
| 모레 | 모레 |
| 글피 | 글피 |
| 그글피 | 그글피 |
| 어제 | 어제 |
| 그저께 | 그저께('그제'는 쓰이지 않음) |
| 그그저께 | 굿그저께 |
| 요즈음 | 요즈음 |
| 석달 | 섣달 |
| 작은설 | ('작은 설'이라는 말은 별로 사용치 않음) |
| 묵은세배 | (정월 초사흘이 지나서 때를 놓친 세배라는 뜻으로 사용) |

⑤ 날씨

| | |
|---|---|
| 이슬비 | 보슬비 |
| 가랑비 | 가랑비(보슬비와 별차이가 없음) |
| 소나기 | 소낙비 소내기 |
| 번개 | 번개 |
| 번개치다 | 번개치다 |
| 벼락 | 벼락 |
| 벼락치다 | 벼락때리다 |
| 우박 | 우박 |
| 홍수 | 홍수(홍수나다/큰물지다) |
| 가을 | 가을 |
| 가을하다 | 가을걷이 하다('가을하다'는 사용치 않음) |
| 겨울 | 겨울('겨울에'는 '겨울애'와 '겨울게'가 함께 쓰임) |
| 진누개비 | 진눈깨비 |
| 회오리바람 | 회리바람 |
| 먼지 | 먼지 |
| 아지랑이 | 아지랭이 |

⑥ 방향

| | |
|---|---|
| 구석 | 구석 |
| 모서리 | 모수리 |

| | | |
|---|---|---|
| 모퉁이 | 모퉁이 | |
| 위 | 위 | |
| 윗어른 | 웃어른 | |
| 밑 | 아래 | 밑 |
| 앞 | 앞 | |
| 뒤 | 뒤 | |
| 곁 | 곁 | |
| 어디 | 어디 | |

(13) 상태

| | |
|---|---|
| 뾰죽하다 | 뾰죽하다 |
| 뭉툭하다 | 뭉툭하다 |
| 굵다 | 굵다 |
| 가늘다 | 가늘다 |
| 두껍다 | 두껍다 |
| 얇다 | 얄다 |
| 짧다 | 짤따 |
| 길다 | 길다 |
| 크다 | 크다 |
| 작다 | 작다 |
| 높다 | 높다 |
| 낮다 | 낮다 |
| 좁다 | 좁다 |
| 넓다 | 널따 |
| 많다 | 많다 |
| 적다 | 적다 |
| 가볍다 | 가볍다 |
| 무겁다 | 무겁다 |
| 쉽다 | 쉽다 |
| 어렵다 | 어렵다 |
| 깊다 | 깊다 |
| 얕다 | 얕으다 |

| | | |
|---|---|---|
| 맑다 | 맑다 | |
| 흐리다 | 흐리다 | |
| 끄무레하다 | 꾸무레하다 | |
| 되다 | 되다 | |
| 묽다 | 묽다 | |
| 진하다 | 진하다 | |
| 엷다 | 열다 | |
| 밝다 | 밝다 | |
| 어둡다 | 어둡다 | |
| 춥다 | 춥다 | |
| 덥다 | 덥다 | |
| 차다 | 차다 | 차겁다 |
| 뜨겁다 | 뜨겁다 | |
| 시원하다 | 시원하다 | |
| 따뜻하다 | 따뜻하다 | |
| 짜다 | 짜다 | |
| 맵다 | 맵다 | |
| 싱겁다 | 싱겁다 | |
| 떫다 | 떨따 | |
| 낡다 | 낙다 | |
| 사납다 | 싸납다 | |
| 순하다 | 순하다 | |
| 닮다 | 닮다 | |
| 비슷하다 | 비슷하다 | 비싯하다 |
| 값싸다 | 싸다 | |
| 값비싸다 | 비싸다 | |
| 가깝다 | 가깝다 | |
| 멀다 | 멀다 | |
| 얇다 | 얄따 | |
| 두껍다 | 두껍다 | |
| 연하다 | 연하다 | 열따 |
| 진하다 | 진하다 | |

(14) 동작

| | | |
|---|---|---|
| 먹다 | 먹다 | |
| 잡아먹히다 | 잡혀먹다 | |
| 마시다 | 마시다 | |
| 씹다 | 씹다 | |
| 삼키다 | 삼키다 | |
| 뱉다 | 뱉다 | |
| 굽다 | 굽다 | |
| 삶다 | 삶다 | |
| 찌다 | 찌다 | |
| 끓이다 | 끓이다 | |
| 식히다 | 식히다 | |
| 붓다 | 붓다 | |
| 젓다 | 젓다 | |
| 튀다 | 튀다 | |
| 꾸다 | 빌리다 | 꾸다 |
| 닦다 | 닦다 | |
| 훔치다 | 훔치다 | |
| 줍다 | 줏다 | |
| 잃다 | 잃다 | |
| 잊다 | 잊어버리다 | |
| 맡기다 | 맽기다 | |
| 바꾸다 | 바꾸다 | |
| 나누다 | 나누다 | |
| 찧다 | 찧다 | |
| 빻다 | 빻다 | |
| 훑다 | 훑다 | |
| 꿰다 | 꿰다 | |
| 꽂다 | 꽂다 | |
| 널다 | 널다 | |
| 말리다 | 말리다 | |
| 썩다 | 썩다 | |

| | | |
|---|---|---|
| 삭다 | 삭다 | |
| 싣다 | 싣다 | |
| 묶다 | 묶다 | |
| 풀다 | 풀다 | |
| 기르다 | 기르다 | |
| 키우다 | 키우다 | |
| 가두다 | 가두다 | |
| 갇히다 | 갇히다 | |
| 잇다 | 잇다 | |
| 뚫다 | 뚫다 | |
| 기다 | 기다 | |
| 걷다 | 걷다 | |
| 뛰다 | 뛰다 | |
| 달리다 | 달리다 | |
| 켜다 | 켜다 | |
| 핥다 | 핥다 | |
| 가르치다 | 가르키다 | |
| 긋다 | 긋다 | |
| 긁다 | 긁다 | |
| 후비다 | 후비다 | 파다 |
| 곪다 | 곪다 | |
| 끓다 | 끓다 | |
| 재우다 | 재우다 | |
| 신다 | 신다 | |
| 벗다 | 벗다 | |
| 만들다 | 맨들다 | |

### 3) 부평방언의 통사론적 특성

과거에 이루어진 방언 연구는 방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체계보다는 어휘적 현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어휘적 특성 가운데서도 표준어과 연관지어 차이 나는 단어의 발음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어휘적인 현상도 방언 연구에서 대단

히 중요하지만 문법적인 전반적인 체계를 기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방언의 문법적인 특성도 표준어와 다른 것만을 선별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방언을 하나의 완전한 언어체계를 보고 기술하는 입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방언은 입말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표준어가 입말보다는 오히려 글말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방언은 글로 쓰게 될 경우에는 표준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입말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방언의 통사적 특성은 표준어와는 달리 입말체 문장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방언 문장은 입말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 그 짜임새가 글말 짜임새에 비해서 월등히 짧아지게 된다. 방언이 일상 생활 언어로서 입말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생략과 축약 등의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방언의 입말체 문장의 통사론적 특징들 가운데 격조사, 접속어미, 시상체계, 높임법 체계 등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지방의 방언 특징을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문장종결법의 상대높임법에 따른 의향법이므로 의향법에 따른 문장 종결어미들을 중심으로 부평지역 방언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말 표준어의 마침법의 의향법은 학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행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는 다섯 가지의 마침법의 의향법(문장종결법)을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네 가지의 높임법으로 단순화해서 각각의 의향법에 따라 기술해 나가고자 한다.

(1) 상대높임법과 문장종결법[6]

① 서술법

서술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직접적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장을 끝맺는 문장종결법 가운데 하나이다. 국어 표준어 서술법 종결어미는 확인, 약속, 말하는 사람의 추측, 의지 등을 나타내는 등의 여러 기능을 갖고 있으나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문장을 끝맺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 상대 아주높임 서술법 종결어미들

상대 아주높임 서술법 종결어미인 이들 종결어미는 표준어와 방언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부평지역 방언과 표준어는 차이가 거의 없이 '-ㅂ니다'가 쓰인다. 서술어 어간이 모음

6) 문장종결법은 학자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다. '문발서법'이라고도 하고, '문체법'이라고도 한다. 담화상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가 하는 행위지시적인 기능이 문법화된 것으로 본다면 감탄법은 제외해야 한다. 여기서는 표준학교문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장 종결법 체계 중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인정하고 이들을 상대 높임법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종결어미를 가지고 대응 방언형을 찾기로 한다. 상대높임법에 따른 종결어미의 종합적 분류는 한길(1991) 참조.

으로 끝나면 '-ㅂ니다', 자음으로 끝나면 '-습니다'가 사용된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부평지역방언에서는 자음 어간일 경우에 '먹읍니다'와 '먹습니다'가 모두 사용된다는 점이다. 표준어에서는 '먹습니다'만 인정되고 있으나 부평 일원에서는 상대존대의 별다른 차이 없이(어떤 이는 다소 차이가 있는 듯이 말하다가 나중에 차이가 없다고 정정하는 경우가 있었음) '-읍니다'와 '-습니다'가 자유로이 사용된다.

요랫만에 비가 옵니다.

송아지가 꼴을 잘 먹읍니다.

날이 상당히 더웠습니다.

'-ㅂ니다' 서술형은 상당히 격식을 차리는 공식적 자리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웃어른을 대할 경우에만 쓰이고 웃어른일지라도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때, 또는 젊은 사람에게 격식을 갖춰 말하는 경우에는 '-아/어요'형이 주로 쓰인다.

요즘은 그런 말은 안 써요.

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지요.

'-아/어요'형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의 존대 계층의 단순화 경향과 수평적 사고의 확산 때문으로 보인다.

㉡ 상대 예사높임 서술법 종결어미들

표준어 '하오'에 해당하는 서술법 종결어미 형태는 평상시 대화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그 자리를 '-아/어요'체가 대신하고 있다.

논이래야 한 두마지기 돼요.

(*논이래야 한 두마지기 되오.)

상대 예사높임에 해당하는 종결어미 가운데는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기능 전환된 것들에 '-요'를 덧붙여 사용하는 '-지요', '-는데요', '-면서요' '-거든요' '-던데요', '-다고요', '-지만요' 등이 있다. 이들은 반말형을 따로이 분류할 경우에는 '반말+요'로 높임 등급을 따로이 매길 수 있으나 부평지역방언에서는 '하오'체가 거의 쓰이지 않고 '반말+요'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상대예사높임 서술형 종결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7]

㉢ 상대 예사낮춤 서술형 종결어미들

표준어에서 예사낮춤에 해당하는 종결어미는 '-네'를 비롯하여 '-데', '-르세', '-음세'등과

7) 보조사 '-요'가 결합되는 종결어미들은 비격식체로 따로이 분류해서 예사높임문장종결 어미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격식을 차리는 경우에도 '-요'결합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므로 '-요'결합형도 예사높임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비격식체의 반말형은 예사낮춤으로, '반말+요형'은 예사높임으로 분류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이른바 반말형에 해당하는 종결어미들('-요'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한 어미들)이 있다.

부평지역 방언에서도 표준어와 별다른 차이 없이 '-네', '-데', '-르세' 등과 반말형 종결어미들이 상대 예사낮춤 종결어미로 사용된다.

비가 안 와서 큰일났네.

자네 동생이 그러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닐세. 아니야.

자네가 그랬다믄서.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반말형을 제외한 예사낮춤 종결어미들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아주 친밀한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고 대신 반말형이 쓰인다. 나이든 사람끼리 벗하는 경우나, 수하 사람에게 다소 격식을 갖추어 말할 때 '갑수 장에 갔네'식으로 말하고 많은 경우에 '-아/어'반말형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대 아주낮춤 서술법 종결어미들

표준어에서 상대 아주 낮춤 서술형 종결어미는 '-는다', '-으마', '-는구나', '-을라'와 복합형태로 '-는단다', '-느니라', '-으렷다' 등이 있다.

부평지역 방언에서도 표준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복합형태에서 '-느니라', '-으렷다' 등은 조사하기가 힘들었고 '-는 거야', '-지'가 그 대신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랫만에 비가 온다.

내가 촌장님한테 물어보마/물어보겠다.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표준어에서 아주 낮춤 종결어미들 가운데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사용되고, 사용될 경우도 예스런 느낌을 주거나 말하는 이가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기분을 주는 '-도다', '-노라', '-누나' 등이 있는데, 이들 종결어미들은 방언의 입말체적 특성 때문인지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실제 대화 가운데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질문법

질문법[8]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마침법 범주의 하나이다. 질문법은 표준어에서 '-ㅂ니까', '-오/소', '-나', '-니'의 네 등급으로 존대법이 나누어지지만 서술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사높임과 예사낮춤을 그 쓰임이 극히 제한적이고, 제한적을 사용되는

8) 질문법은 의문법, 물음법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행위를 수행하여 대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질문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경우에도 반말+요와 반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져가므로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네 등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상대 아주높임 질문법 종결어미

표준어에서 대표적인 상대 아주 높임 질문법 종결어미는 '-습니까'이다. '-더-' 결합형인 '-습디까'도 일상적을 많이 사용된다. 부평지역 방언에서도 '-습니까'와 '-습디까'는 일상적으로 상대 아주 높인 종결어미로 널리 사용된다.

언제 오셨습니까?

동장님 댁에 계십디까?

결혼식이 이번 일요일입니까? 얼마 안 남았구문요.

부평지역 방언에서 '-습니까'는 '-으세요?'와 별다른 존대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된다. 이는 부평지역 방언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젊은 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용상의 특성이다. 나이든 세대에서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아주 높임의 경우에는 '-습니까?'만 가능하고 '-으세요?'는 그보다 존대 등급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존대등급이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대 예사높임 질문법 종결어미

예사높임 질문법 종결어미는 표준어에서 문말억양에 의지하는 질문형 어미 '-오'가 있고, 그 쓰임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으리까'가 있다.

예사높임 질문법 종결어미의 대표격인 '-오'는 청유법을 제외한 서술법, 질문법, 명령법의 문장종결접미사로 두루 쓰인다. 각각의 종결법에 따라 억양이 달라지고 형태, 통사상의 특성도 다르다. 질문법 종결어미로 쓰일 경우에는 문말의 억양이 일반적인 질문 형태인 상승 억양을 취하게 된다.

어디 가시오?

어제 동장님 만났오?

예사높임 종결접미사 '-오'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사용연령 또한 나이 많은 세대에 국한되어 있다. 나이든 세대에서조차 점차 반말형에 '-요'가 결합된 형식을 예사높임으로 많이 사용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대 예사낮춤 질문법 종결어미

표준어에서 예사낮춤 질문법 종결어미는 '-는가' '-나'가 있다. 이들 종결어미들은 모두 존대보조사 '-요'가 덧붙어져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반말형 종결어미가 된다. 여기서는 반말체와 예사낮춤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예사낮춤으로 다루기로 하였으므로 하나의 범주로 다룬다.

부평 지역 방언에서 전반적으로 예사높임과 예사낮춤의 종결어미들이 그 사용영역이 좁아지고 있지만 '-는가'와 '-나'는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어미가 예사낮춤에만 쓰이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반말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서울 나갔다 오는가?

왜 그 때 이야기 하지 않았나?

'-는가'와 '-나'는 부평 방언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어른들 사이에서만 쓰이고 어린 세대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어른들 가운데서도 젊은 층에서는 이들 어미보다는 '-아/어'형의 반말체가 예사높임 형태로 두루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대 아주낮춤 질문법 종결어미

질문법 아주낮춤 종결어미는 '-느냐'와 '-니'가 있다. 이들은 아주낮춤 질문법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형태, 통사상의 여러 특징이 달라서 동일한 형태소로 볼 수는 없다.

부평지역 방언에서도 '-느냐'와 '-니'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아주낮춤 질문법 종결어미로 쓰인다. '-느냐'는 좀더 격식을 갖춘 경우나 글로 나타낼 때 사용하고 일상 대화에서는 '-냐'가 주로 사용된다.

꼬마야, 너 몇살이냐?

이거 어디서 났냐?

너 숙제 다 했니? 네 방에 가서 빨리 숙제 해.

왜 어른 말을 안 듣니?

너이 아버지 집에 계시니?

'-느냐'는 동사 어간에 직접 연결될 때 '-느냐' 또는 '-냐'로 나타나고, 형용사 어간에 직접 연결될 때에는 '-(으)냐'로 나타난다.

부평지역 방언에서도 아주낮춤 질문법 종결어미의 사용은 표준어와 별 차이가 없으나 표준어에 나타나는 '-(으)려느냐'나 그 줄임형인 '-(으)련'은 실제 말할 때는 거의 쓰지 않고 '-겠니'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명령법

명령법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의 하나로 국어에서는 문장 종결어미 가운데 특별한 어미들로 나타난다. 다른 문장종결법과 마찬가지로 상대 존대의 등급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 명령법 형태는 서술법, 질문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등분이나 형태소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이는 명령법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 즉 담화 상황에서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기 때문으로 보

인다.

㉠ 상대 아주높임 명령법 종결어미

상대 아주높임 명령법 종결어미로는 '-(으)십시오'가 대표적 형태소이다. 화자보다 청자가 나이가 월등히 많거나 서로 잘모르는 사이여서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으)십시오'는 그 사용자의 계층이 다양하고 거의 전 계층에서 고루 사용된다.

부평방언에서도 '-(으)십시오'는 상대 아주 높임 명령법으로서 '-요'결합형인 '-(으)세요'와 엇갈려 쓰이기도 하나 '-(으)세요'보다는 다소 격식체의 느낌을 갖는 종결어미이다.

이쪽 아랫목으로 앉으십시오.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면 들리십시오.

'-(으)세요'는 '-(으)십시오'보다는 덜 격식을 차린 경우에 쓰이고, 나이가 아주 손윗 사람이라 하더라도 친밀한 경우에 사용된다. '-(으)세요'는 나이 어린 층에서와 여성 화자 사이에서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물어 보세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시야죠.

상대 아주 높임 명령법 종결어미는 다른 종결법 범주와는 이들 밖에 달리 별다른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간결한 범주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상대 예사높임 명령법 종결어미

상대 예사높임 명령법 종결어미는 동사어간에 직접 결합되는 '-오'와 반말형 어미에 존대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어요'형이 있다.

'-오'는 그 사용하는 계층이 나이든 세대, 그 가운데서도 남성 중심으로 제한되는 반면 '-아/어요'형은 그 쓰임이 거의 제한이 없이 모든 세대, 모든 경우에 두루 쓰인다는 점에서 예사높임 명령법 종결어미의 대표 형태소는 '-아/어요'라고 할 수 있다.

'-오'는 단독으로 동사어간에 직접 결합되어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 주체존대 어미 '-시-'와 결합된 '-시오'가 나이든 계층에서는 아직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이든 세대간에 서로 벗하는 사이나 나이가 다소 어리지만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닐 경우에 사용된다.

소리 한 마디 하시오, 평소 잘 하던 거 있잖소.

그 수염이나 좀 깎으시오.

나이 어린 세대나 여성들 사이에는 '-(으)시오'형보다는 '-아/어요'형이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아/어요'가 명령법 뿐만 아니라 서술법, 질문법, 청유법에도 쓰이므로 질문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문말의 억양을 갑자기 떨어뜨려서 명령법을 나타낸다.

형님도 노래 한 마디 해요.

영민이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사실은 사용자의 계층이 다르므로 '-오'와 '-아/어요'가 존대 등급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남성 사용자 가운데는 '-오'는 격식체이고, '-아/어요'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높임에는 별 차이 없이 사용자가 달리 쓰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 상대 예사낮춤 며영법 종결어미

부평지역 방언의 상대 예사낮춤 명령법종결어미로 대표적인 형태로 '-게'와 '-게나'가 있다. '-게'와 '-게나'는 동일한 환경에서 항상 대치가 가능하며, 통사적 특성도 다름이 없어 둘은 자유변이 형태로 다룰 수도 있다. 다만 감정적 의미에서 '-게'보다는 '-게나'가 좀더 완곡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게'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일은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게.

밤길 운전 조심하게. 가로등이 없어서…

'-게'와 '-게나'이외에 반말형 종결어미 '-아/어'가 상대 예사높임 명령형으로 사용된다. 물론 '-아/어'는 서술형, 질문형, 청유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문종결 억양을 갑자기 떨어뜨려서 명령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이든 세대 남성 세대는 '-게'가 일반적이지만 젊은 세대나 아주 나이 많은 여성을 제외한 여성세대는 '-아/어'를 예사낮춤 명령형 종결어미로 사용한다.

그건 수동이네가 알아서 해.

다음 주쯤에 우리집으루 전화해.

'-어/어' 반말형 종결어미는 모든 세대가 골고루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 예사낮춤 명령형 종결어미의 대표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게'아 '-게나'의 위치를 '-아/어'가 점차적으로 대치한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사낮춤이라는 높임등급이 약화되고 예사낮춤과 아주낮춤 두 등급 모두를 통합하는 높임등급으로 반말형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 상대 아주낮춤 명령법 종결어미

상대 아주낮춤 명령법 종결어미로 대표적인 형태로 '-아/어라'가 있다. '-아/어라'는 '가거라', '오너라', '하여라'로 변이형태를 갖는 것은 표준어와 동일하다. '-어/아라'의 경우도 예사낮춤형인 '-게'보다는 낮은 형임을 알수 있으나 같은 예사낮춤으로 쓰이는 '-아/어'형과는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반말형이 예사낮춤과 아주낮춤에 두루 쓰여 그 사용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존대 등급이

점점 단순화 되면서 예사낮춤과 아주 낮춤의 구별이 희미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너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거 받아라. 창수 줄려구 백화점에서 사왔다.

같은 상대에게도 '-아/어'형과 '-아라/어라'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를 존대 등급을 다르게 인식하기보다는 명령기능의 강조때문에 존대 구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무시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야, 말도 마라, 말도마. 차가 30분 동안 꼼짝도 안 하는 거 있지.

이런 아주 낮춤과 반말형의 교체 현상은 표준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반말형의 사용 영역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청유법

청유법은 꾀임법, 제안법, 권유법 등으로도 불리는 문장종결법으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하되 화자 자신과 함께 하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령법과 구별된다.

청유법은 상황에 따라서는 제안이나, 권유 이외에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에 대한 동일체로서 희망을 나타낼 경우에도 사용된다.

㉠ 상대 아주높임 청유법

상대 아주높임 청유 종결어미로 대표적 형태로 '-(으)ㅂ시다'가 있다. 청유법은 서술법이나 질문법 종결어미처럼 존대 등급이 세분화되지 않아 '-(으)ㅂ시다'가 예사높임으로 쓰일 수도 있다. 단지 청유법은 항상 주어가 청자가 되므로 주체 존대 어미 '-시-'를 앞에 덧붙여 '-(으)십시다'로 아주 높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랑 얘기 좀 하십시다.

이 선생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표준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부평지역 방언에서도 청유법을 사용할 경우 상대를 아주 높임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직접화행으로서 청유법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지 않으시겠습니까' 질문형이나 '같이 ---아/어 주십시오'부탁조의 명령형으로 간접화행으로서 청유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 상대 예사높임 청유법 종결어미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으)ㅂ시다'가 주체 존대 어미 '-시-'와 결합되지 않고 사용되면 예사높임 청유법 종결어미로 사용된다.

형님, 한 잔만 더 하고 갑시다.

영택이 할아버지 편찮으시다는데 오늘 저녁에 같이 가 봅시다.

젊은 세대나 여성화자의 경우 '-ㅂ시다' 대산 '-아/어요'형이 상대 예사높임 종결어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는 문말의 억양은 명령법과 비슷하지만 그 하강 속도가 명령법의 경우보다는 다소 느린 감을 준다.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 봐요.

내일 시장에 같이 가요.

'-아/어요'형은 문말억양이 명령법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발화 가운데 '같이'나 '함께' 같은 청유형임을 드러내는 어휘가 사용되거나 하지 않으면, 명령법인지 청유형인지는 순전히 상황이나 맥락에 의존하게 된다.

㉢ 상대 예사낮춤 청유법 종결어미

부평지역 방언에서도 예사낮춤 청유법 종결어미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세'가 주로 사용된다. '-세'는 나이 어린 세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어른이 된 후에 사용하게 되고 남성 화자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따가 나랑 같이 가 보세.

일루 와 앉게, 한 잔 하세.

청유법 종결어미가 서술법이나 질문법 종결어미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 이외의 다른 형태소가 별로 쓰이지 않고 반말형인 '-아/어'가 문종결억양에 의지하고 상황에 따라서 예사낮춤 청유법 종결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 '-아/어'형이 딱히 존대 등급이 예사낮춤이 아니라, 예사낮춤인지 아주낮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통합형으로서 사용된다.

㉣ 상대 아주낮춤 청유법 종결어미

종결어미 '-자'가 상대 아주낮춤 청유법 종결어미로 두루 쓰이는 것은 부평지역 방언에서나 표준어가 동일하다.

야, 철민아 아빠 오시나 가 보자.

우리 현식이 노래 얼마나 잘하나 한 번 들어보자.

종결어미 '-자'는 중세어에 나타나는 '-쟈'가 표기만 '-자'로 변하였을 뿐 그 기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거의 전 지역의 방언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다.

방언의 통사론적 특징들 가운데 격조사, 접속어미, 시상 체계, 높임법 체계 등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지방이 방언 특징을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문장종결의 상대높임에 따른 문장종결법이므로 의향법에 따른 문장 종결어미들을 중심으로 부평지역 방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밖에 격조사, 접속어미, 시상체계, 높임법체계 등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평방언에서 이들 문법범주들은 표준어와 그다지 차이가 없고, 군

말 등은 개인차가 심해서 기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좀더 연구가 확대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3. 맺음말

지금까지 옛 부평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5차에 걸친 답사 자료를 토대로 음운론적 특성, 어휘론적 특성, 통사론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옛 부평지역의 경계가 현재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부평지역의 인구 이동이 비교적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언구획설정을 위한 등어선 등을 밝히는 인접지역 방언과의 비교 연구를 피하고, 오랫동안 토박이로 살아온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운론적 체계, 형태론적 체계, 통사론적 체계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표준어 체계와 비교하여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항목들을 점검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음운론에서는 /ㅔ/와 /ㅐ/음의 구별, 움라우트 현상, 대립되는 복모음과 단모음의 구별, 경음화현상 등을 살펴보았고, 형태론적으로는 형태론적인 여러 특징을 규정짓기 보다는 어휘 항목을 가지고 변이형태들을 조사해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형태론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휘 조사에서는 각 단어들의 발음 차이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어의 의미의 사용 영역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통사론적 특성 부분에서는 문장 종결어미들을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 서술, 질문, 명령, 청유 문장종결어미를 검토하고 여타의 통사론적 특성은 다음 연구로 미루었다.

이번 연구에서 부평지역 방언에 표준어와 다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점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 지역으로 타지역 사람들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방송 등의 대중 매체의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과거의 방언 특성이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디 이 지방에서 살아온 토박이 제보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이나마 부평지역 방언의 일단을 살펴보고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좀더 세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조사에 협조해 주신 분들)
조기준(78세)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152번지
이훈익(79세) 인천시 서구 연희동 305번지
권중옥(67세)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24번지
당병기(72세)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21번지
당병권(65세)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21번지
조임술(74세)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56번지

# 第 2 章　지명(地名)

## 1. 『전국지리지』·『도지』·『읍지』 등에 나타난 부평의 지명

### ( I )

문헌 기록에 따르면, 부평 땅은 고구려 때 이곳에 주부토군(主夫吐郡)이 설치된 이래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시대 등을 거치고, 1914년 부천군이 설치될 때까지, 경기 지방의 한 중요한 행정 구역이었다. 부평이란 지명은, 고려 말에 길주목(吉州牧)이 부평부(富平府)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명명(命名)되었는데, 그 뒤부터는 줄곧 그렇게 불리워 왔다. 그러나, 1914년에 시행된 지방 행정 제도 개혁 때, 전국의 부·군·현·면이 확장·조정됨으로 말미암아, 부평군은 인천부의 대부분의 지역과 함께 부천군으로 통합되는데, 그 때부터 그 이름을 잃게 된다.

부천(富川)이란 지명은 부평의 머릿글자와 인천의 끝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인데, 이곳이 관할하는 구역은 꽤 넓었다. 곧, 부평군 지역 일대와 개항장을 제외한 인천부의 나머지 지역, 곧 구읍면·서면·남촌면·도동면·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주안면·영종면·용유면·덕적면·다소면 등과 남양군의 영흥면·대부면, 그리고 강화군의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등이 여기에 속하였다.[1] 이 때 부천군에 통합된 기존의 부평군 일대는 부내면(富內面), 계양면(桂陽面), 계남면(桂南面), 오정면(吾丁面), 서곶면(西串面) 등의 다섯 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다섯 면은 각각 통합되기 전의 몇 개의 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곧, 부내면은 군내면(郡內面)·서면(西面)·마장면(馬場面)·동소정면(同所井面)을, 계양면은 동면(東面), 당산면(堂山面), 황어면(黃魚面)을, 계남면은 수탄면(水呑面), 옥산면(玉山面), 석천면(石川面)을, 오정면은 상오정면(上吾丁面), 하오정면(下吾丁面), 주화곶면(注火串面)을, 서곶면은 모월곶면(毛月串面), 석곶면(石串面)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2] 요즈음, 부평 토박이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부평 땅이란 바로 이 다섯 곳을 말한다. 그러나, 이곳은 그 뒤 다시 행정 구역의 개편을 겪게 된다. 곧, 1931년에 계남면이 소사면(素砂面)으로 개칭되고, 1940년에는 부내면과 서곶면이 인천부에 편입된다. 1941년 소사면이 소사읍으로 승격되고, 1963년에는 소사읍의 일곱 개 리(里)와 오정면의 두 개 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된다. 그리고, 1973년 오정면과 계양면이 김포군에 편입되

1) 임사빈·이봉섭 편, 『지방행정구역발전사』, 내무부 지방행정국, 1979, 이책의 101~102쪽 참고.

2) 양보경, "부평의 지지와 고지도", 1995년. (『부평사』에 실릴 글) 참고.

고,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소사읍 일대가 부천시로 승격된다.[3] 이와 같은 행정 구역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요즈음 부평 토박이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부평은, 행정 구역상의 명칭으로는, 그 이름이 아주 없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부평 토박이들의 마음에 매우 아픈 상처를 남긴 것 같다. 부평 사람 가운데 토박이 한 분은 그 애석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이제 부평 땅은 없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부평 땅에는 그대로 살면서도, 부평 사람 아닌 인천·김포 사람 노릇을 하게 됐고, 오직 하나 부평 향교만이 그 관할 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뿐, 동명(洞名), 교명(校名), 역명(驛名)만이 남아 있으니 통념(痛念)할 일이다.[4]

그러면서도, 그는 언제가는 부평이란 이름을 되찾을 날이 있을 것을 굳게 믿고 있다. 그러한 믿음을 그는 역사 변천의 원리에서 찾고 있다.

>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 부평 땅을 되찾을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고려 때 부평(樹州)는 인천·김포·시흥까지 관할한 일이 있었으니,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부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평을 버리지 말고, 뒷날을 대비하여, 부평의 과거지사를 후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5]

우리가 『부평사』를 엮게 된 동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부평 토박이 분들의 간절한 뜻과 해당 구청 당국의 이해가 합쳐짐으로써 이 사업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주로 조선 시대에 펴낸 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와 도지(道誌), 그리고, 읍지(邑誌) 등에 나타나 있는 부평의 지명들을 한데 모아 기술하려고 한다. 그러나 위의 지지들에는 지명 항목이 따로 세워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러 지지들 속에 들어 있는 항목들 가운데서 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임의로 가려 뽑아 기술할 수 밖에 없다. 지명에 관한 설명도 기록에 있는 그대로 따 와서 기술할 뿐, 따로 글쓴이의 설명을 덧보태지 않는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과 그 차례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이 글에서 참고한 지지 자료들에 관한 서지(書誌)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피고, III장에서는 참고한 지지 자료들의 항목들 가운데서 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가려 뽑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전국 지방 행정 제도 개

---

3) 박중배·위성소 편, 『지방행정구역요람』, 내무부 지방기획과, 1993. 이 책의 321쪽과 470쪽 참고.

4) 이훈익, 『부평군 읍지』, 1975년(등사본). 이 책 가운데 "부평 읍지를 종합 사간(寫刊)하면서"는 글에서 따옴.

5) 이훈익(1975) 앞의 글 참고.(인용부분 가운데 표현이 어색한 곳 일부를 글쓴이가 고쳤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애향심에서 기존의 몇몇 읍지를 참고하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부평군읍지』(1975), 『연대별부평약사』(등사본), 『인천지지』(1987), 『인천지명고』(1993) 등을 펴냈다.

혁의 변천을 간략하게 보이고, 아울러 부평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역대(歷代)로 부평이 관할해 온 구역과 그 주변 지역들의 연혁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기술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Ⅲ장에서 가려 뽑은 지명들을 자세하게 살펴 볼 것이다.

(Ⅱ)

부평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지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전국지리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평이 지지와 도 단위로 모은 도지와 전국의 읍지를 모은 전국 읍지, 그리고 부평 지역의 읍지로서 개별적으로 간행된 읍지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전국지리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평의 지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고려, 인종 23년, 1145)

(2)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조선, 문종 원년, 1451)

(3)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조선, 단종 2년, 1454)

(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 중종 26년, 1531)

(5)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6] (조선, 효종 5년~현종 14년, 1656~1673)

(6) 『동여도지(東輿圖志)』[7] (조선, 순조 34년경~철종 12년, 1834경~1861)

(7) 『여도비지(輿圖備志)』 (조선, 철종 2년~7년, 1851~1856)

(8) 『대동지지(大東地志)』 (조선, 고종 원년, 1864)

도 단위의 도지와 전국 단위의 전국 읍지로서 부평에 관한 기록이 포함된 자료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9) 『여지도서(輿地圖書)』[8] (조선, 영조 33년~영조 41년, 1757~1765)

(10) 『경기지(京畿誌)』[9] (조선, 현종 8년, 1842)

(11) 『경기읍지(京畿邑誌)』 (조선, 고종 8년, 1871)

(12) 『기전읍지(畿甸邑誌)』 (조선, 고종 21년, 1894)

---

6) 이 책은 1983년 아세아문화사에서 규장각 소장본을 대본으로 한국지리지총서 가운데 『전국지리지③』으로 영인해 낸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박인호(1989)와 양보경(1992)를 참고할 것.

7)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등 세 가지 책은 모두 김정호가 편찬한 것임. 『여도비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1991년 한국인문과학원에서 『한국읍지총람』의 일부분으로 영인한 적이 있다. 『대동지지』도 1974년 한양대학교 국학연구원과 1976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적이 있다. 『동여도지』는 영남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양보경(1995) 참고.

8) 이 책은 1973년에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적이 있다.

9) 『경기지』, 『경기읍지』, 『기전읍지』 등 세 가지 책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1985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한국지리지총서 가운데 『읍지』10(경기도 ①)으로 영인한 적이 있다.

부평도호부 또는 부평군에서 펴낸 읍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3)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 (조선, 정조 이전 또는 정도 이전에 편찬된 읍지를 전사한 것으로 추정[10],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상백 고 915.12-B8896)

(14) 『부평부읍지』 (조선, 앞의 (10) 『경기지』의 부평 부분을 뒷날 전사한 것으로 추정[11],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규 17361)

(15)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대한제국, 광무 3년 5월, 1899.5. 앞의 (11) 『경기읍지』 제1책에 수록된 「부평부읍지」 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규 10715)

(16) 『부평군읍지』 (대한제국, 광무 3년(1899) 11월. 앞의 『기전읍지』(12)의 제2책에 수록되어 있는 「부평읍지」를 대본으로 전사한 것임[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도서번호;2-4241)

(17) 『부평부읍지』 (일제시대, 앞의 『경기읍지』(11)의 부평 편을 전사한 것으로 추정[1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도서번호;B16BBB-19)

이 밖에 그 동안 소개된 적이 없는 부평 읍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읍지들은 앞의 읍지들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전사한 것들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덧보태어 진 곳이 곳곳에 보인다. 이것들은 모두 일제 시대에 펴낸 것들이다.

(18) 『부평읍지』 (일제시대, 1941년경, 필사본)[14]

(19) 『부평부읍지』 (일제시대, 편찬시기 미상, 필사본)

부평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전국지리지 형식의 자료가 또 한 가지 있다. 이것은 부평 지역에 관한 기초적인 지지 사항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일종의 자료집의 성격을 띤 것인데, 조사 결과를 일정한 공문서 양식의 조사지에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모두 붓으로 쓴 것인데, 이 자료집을 만든 이와 만든 곳, 소장처 등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판심(版心)에 해당하

---

10) 이 읍지의 서지 사항에 관해서는 양보경(1995)을 참고할 것.

11) 이 읍지의 서지 사항에 관해서는 김전배(1972:부록 26쪽), 『규장각 한국본 도서 해제』 사부 4(1993: 195), 양보경(1995) 등을 참고할 것. (15)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12) 이 읍지의 서지 사항에 관해서는 김전배(1972:부록 26쪽),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기』-지리류(Ⅰ)-(1993:189~190), 양보경(1995) 등을 참고할 것.

13) 양보경(1995)을 참고할 것.

14) 『부평읍지』(18)와 『부평부읍지』(19)의 「인물」 조에 보이는 인물들을 『경기읍지』(11)와 『부평군읍지』(16)에 보이는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 (18)은 (11)보다 말 시기의 인물로 끝나고, (19)는 (16)보다 앞 시기의 인물로 끝난다. 곧, (18)은 조선조의 인물 "이의익"으로 끝나고, (19)는 조선조시 인물 "정병하"로 끝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18)은 (11)보다 앞선 시기에 펴낸 어떤 읍지를 저본으로 하여 전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읍지에는 1941년 4월 1일에 바뀐 내용들이 읍지 곳곳에 첨기(添記)되어 있다. (19)의 필사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부분에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라고 쓰여 있어, 책 이름이 『조선지지자료』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조사지에는 "경기도 ○○군 ○○면"이라는 조사 지역과 "종별, 지명, 언문(諺文), 비고" 따위의 조사 내용을 밝혀 적도록 항목이 인쇄되어 있다.

⑳ 『조선지지자료』 (일제시대, 편찬 시기 미상, 원고본)[15]

이와 같은 양식을 가진 조사지에 실제로 조사된 내용은 "면명(面名)·동리명(洞里名)·산명(山名)·천명(川名)·야평명(野坪名)·도진명(渡津名)·포구명(浦口名)·현명(峴名)·보명(俌名)·역명(驛名)·주막명(酒幕名)·토산명(土産名)" 등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지에 따라 조사 내용 및 명칭에 차이가 있다. 비교적 조사 내용이 자세하다.

위에서 살펴본 자료 가운데, 이 글에서는, 주로 ⑷, ⑸, ⑻, ⑼, ⑽, ⑮에 나타나는 지명들을 비교하여 기술하게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⑳도 참고할 것이다.

## (Ⅲ)

각각의 읍지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각 읍지들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의 수도 읍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떤 것은 20여 항목 안팎으로 그치는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40여 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899년에 펴낸 『의흥군읍지(義興郡邑誌)』는 그 항목이 40개나 된다. 또, 읍지의 편찬 목적에 따라 항목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읍지들은 문화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읍지들은 주로 사회·경제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읍지를 편찬하는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글은 부평의 지명, 특히 조선조 때의 부평의 지명을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시대 상황과 항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이 글에서 참고 자료로 삼는 부평의 지지들 ⑷, ⑸, ⑻, ⑼, ⑽, ⑮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먼저 들어 보이고, 그 가운데 지명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가려뽑아 제시해 보이기로 한다.

각각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5) 『한국고서종합목록』 (국회도서관 1968:1286)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조선지지자료』(사본, 50책)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글쓴이는 이것과 이름이 똑 같은 『조선지지자료』(도서번호;조 60-13)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뒤의 것은 『중보문헌비고』와 같은 체제를 가진 일종의 유서(類書)인데, 활자본이다. 이 두 책은 체제와 판종(版種)이 모두 다른데, 이 두 책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표 1〉

| 번호 | 항목 / 지지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 동국여지지(1656-1673) | 대동지지(1864) | 여지도서(1757-1765) | 경기지(1842) | 부평군읍지(1899.5) | 비고 |
|---|---|---|---|---|---|---|---|---|
| 1 | 건치연혁 | 건치연혁 | 건치연혁 | 연혁 | 건치연혁 | | 건치연혁 | 建治沿革 |
| 2 | 군명 | 군명 | 군명 | | 군명 | 군명 | 군명 | 郡名 |
| 3 | 방리 | | | 방면 | 방리 | 방리 | 방리 | 坊里, 坊面 |
| 4 | 성씨 | 성씨 | | | 성씨 | | 성씨 | 性氏 |
| 5 | 풍속 | 풍속 | 풍속 | | 풍속 | | 풍속 | 風俗 |
| 6 | 형승 | 형승 | 형승 | | 형승 | | 형승 | 形勝 |
| 7 | 산천 | 산천 | 산천 | 산수 | 산천 | 산천 | 산천 | 山川,山水 |
| 8 | 토산 | 토산 | 토산 | | 물산 | 토산품 | 토산 | 土產,物產 |
| 9 | 봉수 | 봉수 | 봉수 | 봉수 | 봉수 | 봉수 | 봉수 | 烽燧 |
| 10 | 학교 | 학교 | 학교 | | | 학교 | 학교 | 學校 |
| 11 | 역원 | 역원 | 우관 | 역참 | 역원 | 역원 | 역원 | 驛院,驛站,郵驛 |
| 12 | 교량 | 교량 | 량 | | 교량 | | 교량 | 橋梁,關梁 |
| 13 | 제언 | | | | 제언 | 제언 | 제언 | 堤堰 |
| 14 | 시장 | | | | | 시장 | 시장 | 市場 |
| 15 | 불우 | 불우 | 사찰 | | 사찰 | 불우 | 불우 | 佛宇,寺刹 |
| 16 | 사묘 | 사묘 | 사능묘 | | 단묘 | 단묘 | 단묘 | 祀廟,壇廟 |
| 17 | 총묘 | 총묘 | 묘 | | | 총묘 | | 塚墓,陵墓 |
| 18 | 고적 | 고적 | 고적 | 성지 | 고적 | 고적 | | 古蹟,城池 |
| 19 | 명환 | 명환 | 명환 | | | | | 名宦 |
| 20 | 인물 | 인물 | 인 | | 인물 | | | 人物 |
| 21 | 관직 | | | | 관직 | 관직 | 관직 | 官職 |
| 22 | 공해 | | | | 공해 | 공해 | 공해 | 公廨 |
| 23 | 궁실 | | 궁실 | | | | | 宮室 |
| 24 | 진관 | | | | | 진관 | | 鎭管 |
| 25 | 창고 | | | | 창고 | | | 倉庫 |
| 26 | 도로 | | | | 도로 | | | 道路 |
| 27 | 군액 | | | | | 군액 | 군액 | 軍額 |
| 28 | 봉름 | | | | 봉름 | | 급 | 俸廩,俸給 |
| 29 | 조적 | | | | 조적 | | 적 | 糶糴 |
| 30 | 전세 | | | | 전세 | | 부 | 田稅,田賦 |
| 31 | 한전 | | | | 한전 | | | 旱田 |
| 32 | 수전 | | | | 수전 | | | 水田 |
| 33 | 대동미 | | | | 대동미 | | | 大同米 |
| 34 | 균세 | | | | 균세 | | | 均稅 |
| 35 | 해세 | | | | | 원장부 | 해세 | 海稅 |
| 36 | 원장부 | | | | | | | 元帳付 |
| 37 | 전고 | | | 전고 | | | | 典故 |
| 38 | 제영 | 제영 | | | | | | 題詠 |

위 〈표 1〉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지지들의 항목은 원래대로의 차례가 아니다. 알아보기 쉽게 글쓴이가 조정한 것이다. 비고란은 각 항목의 다른 명칭을 들어 보인 것이다. 이 항목들 가운데 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산천, 봉수, 학교, 역원, 교량, 제언, 시장, 불우, 사묘, 총묘, 고적" 등이다. 이 항목들은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한글학회 1985)의 「일러두기」에서 규정한 "지명은 자연물·인공물·기타로 말미암아 생긴, 지역성·역사성·대중성을 지닌 땅의 이름을 말한다."는 지명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이 지명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Ⅴ장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평의 건치연혁과 군명·방리 등의 항목도 지명과 관련이 있다. 이것들은 따로 모아 Ⅳ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Ⅳ)

부평의 연혁은, 우리 나라 지방 행정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시켜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래에서는, 먼저, 우리의 지방 행정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평의 연혁과 역대(歷代)로 부평이 관할해 온 구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만열(『한국사 년표』, 학민사, 1985)에 따르면 우리의 지방 행정 제도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 온다.

〈표 2〉

| 왕조 | 연 대 | 개 혁 내 용 |
|---|---|---|
| 신라 | 757년(경덕왕 16, 정유) 12월 | 전국에 9주를 두고 지방 제도를 대폭 정비함. |
| 고려 | 995년(성종 14, 을미) 9월 | 전국을 10도, 128주, 449현, 7진으로 구획함.(개주를 개성부로 고침) |
| | 1018년(현종 9, 무오) 2월 | 안무사(安撫使)를 폐지하고, 4도호, 8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을 둠. |
| | 1310년(충선왕 2, 경술) 8월 | 제사(諸司) 및 주·군의 호를 고침 |
| 조선 | 1396년(태조 5년, 병자) 10월 | 주·군의 경계를 고침 |
| | 1413년(태종 13, 계사) 10월 | 각 도·군·현의 칭호를 고침. |
| | 1895년(고종 32, 을미) 5월 | 지방 관제를 개정함(전국에 23부, 331군 설치, 인천·부산·원산의 감리서를 폐지함. |
| | 1896년(건양 1, 병신) 8월 | 지방 제도를 개혁함(전국을 13도로 나누고, 7부·1목·331군을 둠, 인천·부산·원산의 감리서를 다시 설치함) |
| | 1914년(일제 침략 아래의 한국, 갑인) 3월 1일 |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함(317군 4351면을 12부·218군·2517면으로 바꿈[16] |

16) 이 때 일제는 전국적으로 면을 통폐합했을 뿐만 아니라, 군도 확대 개편함으로써 218군으로 줄었다. 이러한 개편 작업을 식민지 통치의 기초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나라 지방 자치제의 역사』, 구로역사연구소, 기획출판 거름, 1990년. 이 책의 53쪽 참고.

위에서 1914년까지의 변천사만을 살펴본 까닭은, 이 글에서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부평의 지지들이 거의 이 때보다 앞서 편찬되었거나,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들어보인 부평의 지지들 가운데, 『고려사』(2) 지리지, 『세종실록』(3)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4), 『동국여지지』(5), 『대동지지』(8), 『여지도서』(9), 『부평군읍지』(15) 등에는 건치연혁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들 기록에 따라, 부평의 연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왕 조 | 연 대 | 내 용 |
|---|---|---|
| 고구려 | | 주부토군[17] 설치 |
| 신 라 | 757년(경덕왕 16, 정유) | 주부토군을 장제군(長堤郡)으로 개칭함. |
| 고 려 | 940년(태조 23, 경자) | 장제를 수주로 개칭함[18] |
| | 995년(성종 14, 을미) | 단련사(團練使)[19]를 둠. |
| | 1005년(목종 8, 을사) | 단련사를 폐지함. |
| | 1018년(현종 9, 무오) | 지수주사(知樹州使)라 고침. |
| | 1150년(의종 4, 경오) |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20]라 고침. |
| | 1215년(고종 2, 을해) |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라 고침 |
| | 1308년(충열왕 34, 무신) |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함. |
| | 1310년(충선왕 2, 경술) | 여러 목(牧)을 없앰에 따라, 부평부(富平府)로 강등함. |

17) 신태현(1958:49)에서는 "主夫吐"를 "님터"라고 풀이한다.

18) 고려태조 23년에 수주로 고쳤다는 기록은 『대동지지』의 기록("高麗太祖 二十二年改樹州")에 따른 것이다. 그 밖의 지지에서는 모두 "高麗初"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경덕왕 16년에 장제군으로 고쳤다는 기록 또한 『대동지지』의 기록("新羅景德王十六年改長堤郡")에 따른 것이다.

19) '단련사'란 고려때는 주·군·부 등에 설치한 지방관이었다.

20) '도호부'란 고려때의 지방행정기관의 하나였다. 『국사대사전』(1962)에서는 도후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종 초에 5도호부가 설치되었는데, 뒤에 8목(10牧)과 같이 4도호·목이 되어 고려 일대에 걸쳐 실질적으로 최고 행정기관이 되다. 그 관할 아래 얼마간의지주사(知州使), 지군사(知郡使), 현령관(縣令官) 등을 두어 이들을 다스렸다. 처음 도호부가 설치된 곳은 안동(安東－慶州)·안서(安西－海州)·안남(安南－全州)·안북(安北－安州)등의 넷이었으나, 얼마 뒤 전주·경주에 둔 도호부는 폐지되고, 그대신 안변(安邊－登州)·안남(安南－樹州)·안동(安東－安東) 도호부가 새로 설치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구별이 따랐으니,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문종때 안서·안북 같은 대도호부(大都護府)에 둔 관원은, 사(使－3품 이상)·부사(副使－4품 이상)·판관(判官－6품 이상)·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7품 이상)·법조(法曹－8품 이상)·의사(醫師－9품)·문사(文師－9품) 각 1명씩이었으며, 중도호부(中都護府)에는 사(使－4품 이상)·부사(副使－5품 이상)·판광겸장서기(判官兼掌書記－6품 이상)·법조(法曹－8품 이상) 각 1명씩 두었다가 뒤에 관헌을 축소시켜 사(使)와 사록(司錄), 또는 사와 법조(法曹)만을 두게 되었다."

| 왕 조 | 연 대 | 내 용 |
|---|---|---|
| 조 선 | 1413년(태종 13, 계사) | 행정 관제의 개칭에 따라 부평도호부로 고침 |
| | 1414년(태종 14, 갑오) | 김포현을 내합(來合)함. |
| | 1416년(태종 16, 병신) | 김포현을 다시 나누어(還析) 따로 세움. |
| | 1438년(세종 20, 무오) | 부평도호부를 강등시켜 현령(縣令)을 둠. |
| | 1446년(세종 28, 병인) | 부평도호부로 복구함. |
| | 1505년(연산군 11, 을축) | 부평도호부 사람인 환자(宦者) 김순손(金舜孫)을 죽이고, 부평도호부를 없앰. |
| | 1506년(중종 1, 병인) | 부평도호부를 다시 둠. |
| | 1685년(숙종 11, 을축) | 영겸진무전영장(營兼鎭撫前營將)[21]을 둠. |
| | 1698년(숙종 24, 무인) | 장릉(章陵)을 불태운 죄인 최필성(崔弼成)이 태어난 읍이라 하여, 강등시키고, 현감(縣監)을 둠. |
| | 1707년(숙종 33, 정해) | 부평도호부로 복구함. |
| | 1895년(고종 32, 을미) 5월 | 지방 관제 개혁으로, 부평군으로 강등되고, 인천부에 속하게 됨. |
| | 1896년(건양 1, 병신) 8월 | 지방 제도 개혁으로, 경기도로 이속(移屬)되면서 부평군이 됨. |
| | 1914년(일제시대, 갑인) 3월 1일 | 지방 행정 제도의 개편으로, 부천군(富川郡)으로 바뀜. |

21) 『대전통편』(1963:374)의 「진무영」 조에는 다음과 같이 이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진무영(鎭撫營) 〔속〕=(강화부에 있다. 〔증〕 숙종조 경신년에 설치하였다. 당저기해년(當宇己亥年)에 통어영(統御營)에 통합한다.)

| | 정원수와 품계 | |
|---|---|---|
| 사(使) | 1원(員) | 종2품 유수(留守)가 겸임한다. |
| 중군(中軍) | 1원 | 정3품 〔증〕 수성장(修城將)을 겸임한다. |
| 진영장 | 5원 | 정3품 전영장(前營將)은 부평부사가 좌영장은 통진부사가, 중영장은 본부의 중군이, 우영장은 풍덕부사가, 후영장은 연안부사가 겸임한다. |

(〔속〕은 속전(續典)에 있는 조항을, 〔증〕은 수교(受敎)를 조항으로 증설한 것이다.)

숙종 경신년은 1700년(숙종 26)에 되는데, 위에서 영겸진영전영장을 둔 해가 1685년(숙종 11)이라 하였으니, 진무영과 관련한 연대(年代)에 어긋남이 있다.

위의 연혁에 따르면, 부평의 군명(郡名)은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 부평 따위로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이름만으로 본다면, 1914년 부천군이 새로 생기면서, 부평이란 이름이 없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제까지 살펴온 부평의 건치연혁을 바탕으로 하여, 고구려 이후 1914년까지 부평이 관할해 온 구역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부평의 관할 구역을 살피는 데 이용한 자료는 건치연혁을 기술할 때 참고한 자료와 같다. 이 밖의 참고 자료로는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권상로, 동국문화사, 1961년)이 있다.

주부토군은 원래 고구려에 설치된 한 군(郡)이었는데[22], 신라가 고구려를 차지한 뒤에는 이곳을 신라의 9주(州) 가운데 하나인 한주(漢州)에 귀속시켰다. 이와 같은 사실(史實)은 『삼국사기』(권제37 잡지(雜志) 제6 지리 4 고구려·백제)에 잘 드러나 있다.

> 고구려가 처음에는 중국의 북쪽 땅에 살았는데, 차츰 동(東)으로 패수(浿水) 곁으로 옮겼을 것이다. 발해사람 무예(武藝)가 "옛날 고구려의 강성시에 군사가 30만이 있어 당(唐)과 서로 대항하였다."고 말하였은 즉, 땅도 좋고, 군사도 강했던 모양이다. 말기(末期)에 이르러, 임금과 신하가 어둡고 사나워서 도(道)를 잃었으므로, 당이 두 번째 군사를 출동하고 신라가 원조하여, 고구려를 쳐 평정하였다. 그 땅이 대부분 발해·말갈로 들어가고, 신라 또한 그 남쪽을 차지하여, 한(漢)·삭(朔)·명(溟) 3주(州) 및 군현을 설치하여 9주를 갖추었다. 한산주(漢山州)……주부토군(主夫吐郡) 수이홀(首爾忽), 금포현(黔浦縣), 동자홀현(童子忽縣)〔달리, 구사파의(仇斯波衣)라고도 함〕, 평회압현(平淮押縣)〔달리, 별사파의(別史波衣)라고도 함. 회(淮)는 유(唯)라고도 함〕…… 이상이 고구려의 주·현·군인데, 모두 164개나 된다. 그에 대한 신라의 고친 이름 및 지금의 이름을 신라지(新羅志)에 보인다(신호열 1976:참고).

장제란 신라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인데, 이곳의 관할 구역에 관한 기록이 『삼국사기』(권제35 잡지제4 지리2)에 나온다.

> 장제군은 본디 고구려 주부토군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의 수주로 4현을 거느렸다. 수성현(戍城縣)은 본디 고구려 수이홀(樹爾忽)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의 수안현(守安縣)이다. 김포현(金浦縣)은 본디 고구려 금포현(金浦縣)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까지 인습(因襲)한다. 동성현(童城縣)은 본디 고구려 동자홀현(童子忽縣)〔장산현(嶂山縣)이라고도 함〕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까지 인습한다. 분진

22) 『대동지지』에서는 '주부토'가 백제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것, "富平…… 本百濟主夫吐."

현(分津縣)은 본디 고구려 호유압현(乎唯押縣)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의 통진현(通津縣)이다(신호열 1976:참고).

위의 기록에 따르면, 경덕왕 16년에 개칭된 장제군은, 그때 수서현, 김포현, 동성현, 분진현 등 네 개의 현을 관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제군의 영현인 수성, 김포, 동성, 통진 등 네 곳과 역대로 부평의 인접 군현이었던 양천(陽川), 금천(衿川), 과천(果川), 안산(安山), 인천(仁川) 등 다섯 곳의 연혁을 살펴보는 것은 부평의 관할 구역이 바뀌어 온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므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고려사』(1451)과 『한국지명연혁고』(1961) 참고).

수성현은 통진군 수안현의 옛 이름이다. 통진에서 남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의 수이홀(樹爾忽)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수성으로 개칭되고, 장제군의 영현(領縣)이 된다. 고려 초에 수안으로 개칭되었는데, 여전히 장제군에 속하였다. 장제가 수주로 개칭된 뒤에는 수주에 속하였다. 고려 명종 2년(1172, 임진)에 감무(監務)[23]를 두었다. 공양왕 3년(1391, 신미)에 통진 감무를 두고, 현으로 독립시켰다.

김포현은 본래 금포현(黔浦縣)이다. 신라 경덕왕 때 김포를 개칭되고, 장제군의 영현이 된다. 고려 태조 23년(940, 경자)에 장제가 수주(樹州)로 개칭되고, 현종 9년(1018, 무오)에 수주에 지주사(知州寺)를 둘 때까지 이곳에 속하였다. 명종 2년(1172, 임진)에 처음으로 감무를 두었다. 신종 원년(1198, 무오)에 이곳에 어태(御胎)를 묻고, 승격시키어 현령관을 둔다. 조선 태조 때 다시 부평에 편입되었다가, 곧 따로 독립 현이 된다. 태종 14년(1414, 갑오)에 양천을 없애고, 김포현과 병합하여 금양현(金陽縣)이라 하였다. 그 뒤 얼마되지 아니하여 양천은 금천(시흥)에 병합되고, 김포현은 부평에 병합하게 된다. 태종 16년(1416, 병신)에 다시 이들을 각각 독립시켜 현령을 둔다. 인조 10년(1632, 임신)에 군으로 승격된다. 고종 32년(1895, 을미)에 인천부에 소속된다. 1914년(갑인)에는 통진과 양천 두 군을 병합하였다.

동성현은 통진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는데, 본래는 고구려의 동자홀(童子忽)〔달리 당산(幢山) 또는 구사파의(仇斯波衣)라고도 함〕현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 동성현으로 개칭되고, 장제군의 영현이 된다. 고려 때는 수주에 소속되었는데, 공양왕 3년(1391, 신미)에 통진 감무를 두면서 따로 서게 된다.

---

23) '감무'란 고려 때에는 소현(小縣)의 지방 장관을 일컫는 관직명이었는데, 조선조에 오면 현감으로 바뀐다. 대현(大縣)의 지방 장관은 현령이라고 한다. 『국사대사전』(1962)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고려 때 현령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의 감독관, 1106년(예종 1) 유주(儒州-현 황해도 신천(信川)·안악(安岳)·장연(長淵) 등 41현에 감무를 두어 유망민(流亡民)을 초무(招撫)케 하였다. 이 감무는 조선 초까지 존속되었고, 후에 현감(縣監)으로 개칭되었다."

통진현은 본래 고구려의 평회압(平淮押)〔달리 평유압(平唯押), 북사성(北史城), 모사성(毛史城), 별사파의(別史波衣), 별사파아(別史波兒)라고도 함〕현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 분진현으로 개칭되고, 장제군의 영현이 된다. 고려 때 통진으로 개칭되었으나, 수주에 소속되어 있었다. 공양왕 때 이곳에 감무를 두었는데, 조선이 건국한 뒤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태종 13년(1413, 계사)에 승겨시켜 현감을 두었다. 숙종 20년(1694, 갑술)에 부(府)로 승격되었다. 고종 32년(1895, 을미)에 군이 되었다가, 1914년(갑인)에 김포군에 병합되었다.

양천은 본래 고구려의 제차파의현(齊次波衣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공암(孔巖)으로 개칭되고, 율진군(栗津郡)(과천)의 영현이 된다. 고려 현종 9년에는 수주에 소속된다. 충선왕 2년(1310, 경술)에 양천이라 개칭하고 현령을 두었는데, 조선 시대 동안은 그대로 지속된다. 고종 32년에 군으로 승격되었으나, 1914년에 김포군에 편입되었다.

금천은 본래 고구려의 잉벌노현(仍伐奴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곡양(穀壤)으로 개칭되고, 율진군에 영현이 된다. 고려 초에 금주(衿州)〔달리 금주(黔州)라고도 함〕로 개칭된다. 성종 14년(995, 을미)에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 을사)에 없앴다. 현종 9년에 수주에 소속된다.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 태종 14년에 과주(과천)와 병합하여 금과현(衿果縣)이 되었다. 몇 개월 뒤에 이것을 없애고, 다시 양천과 병합하여 금양현(衿陽縣)이라 하였는데, 이것 또한 1년만에 없애 버렸다. 태종 16년에 금천으로 개칭하고 현감을 두었다. 세조 때 다시 과천과 합하였으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복구하여 시흥(始興)이라 개칭하였다. 시흥이란 이름은 고려 성종 때 정한 것이다.

과천은 본래 고구려의 동사혜현(冬斯盼縣)이었는데, 뒤에 율목(栗木)이라 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 율진군(栗津郡)이라 개칭된다. 이때의 영현으로는 곡량·공암, 소성(邵城) 등 세 곳을 두었다.[24] 고려 초에 과주(果州)로 개칭된다. 현종 9년에 광주(廣州)에 속하였으나, 뒤에 다시 감무를 둔다. 조선 태종 13년에 금천과 병합하여 금과(衿果)라 하였다가 몇 개월만에 없앴다. 세조 때 금천을 과주에 내합(來合)하였으나, 얼마되지 아니하여 각각 복구하였다. 고종 32년에 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914년에 시흥군에 합병되었다. 달리 부안(富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고려 성종 때 정한 것이다. 또 부림(富林)이라 불리기도 한다.

안산은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獐項口)〔달리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라고도 함〕현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장구군(獐口郡)으로 고치었다. 고려 초에 안산으로 개칭된다. 현종 9년에 수원(水原)에 속하였으나, 뒤에 감무를 두었다. 충열왕 34년(1308, 무신)에 문종이 태어난 곳이라고 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켰다. 조선 시대 동안 그대로 따랐다. 1914년 군(郡)을 없애고, 그 땅을 나누어 월곡면(月谷面), 북방면(北方面), 성곶면(聲串面)은 수원에, 그 나머지는 시흥군에 소속시켰다.

---

24) 『대동지지』「과천」조 참고.

인천은 본래 고구려의 매소홀(買召忽)〔달리 미추홀(彌鄒忽) 또는 미추홀(彌趨忽)이라고도 함〕현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소성(邵城)이라 개칭되고, 율진군 곧 과천의 영현이 된다. 고려 현종 9년에 수주에 속하였다. 숙종 때에는 인예왕후(仁睿王后) 이씨(대각국사의 어머니)의 내향(內鄕)이라 하여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된다. 인종 때 다시 순덕왕후(順德王后) 이씨의 내향이라 하여 인주(仁州)로 고치고, 지주사(知州事)를 두었다. 공양왕 2년(1390, 경오)에 7대 어향(御鄕)이라 하여 경원부로 승격시켰다. 조선 태조 원년(1392, 임신)에 다시 인주라 하였다가, 태종 13년에 인천이라 고치었다. 이 때 각 도·군·현의 칭호를 고치면서 군이라 하였다. 세조 6년(1460, 경신)에[25]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외향이라 하여,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중종 21년(1526, 병술)에는 수원진(水原鎭)을 없애고, 이곳으로 옮겼다. 숙종 14년(1688, 무신)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숙종 24년(1698, 무인)에 복구된다. 고종 32년에는 23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부가 되는데, 이때 12개 군이 여기에 소속된다. 1914년 개항장에 한정된 인천부는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지역은 부평과 합하여 부천군이 된다.

고려 현종(1009~1031년) 때에 이르면, 어느 정도 지방 행정 구역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이 때 5도양계(五道兩界) 제도가 확립된다. 이 당시의 행정 구역은 전국을 경기와 5도양계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4경·4도호부·8목을 두었으며, 다시 그 아래 15부·129군·335현·29진을 두게 된다. 이 가운데 4도호부는 군사적인 방비를 위하여 사방의 요지에 설치된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전주·해주·경주·안주 등 네 곳에 두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아니하여 전주와 경주에 두었던 도호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수주, 동주, 안동 등에 새로 도호부를 두었다(『지방행정구역사』 1979:56). 이때 수주에 세워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는 금천, 동성, 통진, 공암, 김포, 수안 등 여섯 개의 속현을 두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게 되면, 고려 때의 5도양계 제도는 8도제로 바뀌게 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이때의 부평도호부에는 한 개의 도호부와 두 개의 군, 그리고 네 개의 현이 소속되어 있었다. 강화도호부, 인천군·해풍군, 김포현·교동현·양천현·통진현 등이 여기에 속했다.[26]

그 뒤 부평은 1895년에 23부제(二十三府制)가 시행되면서 잠시 인천부에 소속되었다가, 다음 해인 1896년에는 다시 부평군으로 따로 서게 된다. 그러나, 1914년에 시행된 지방 행정 제도 개혁 때, 개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천군 지역과 함께 부천군으로 통합된다.

다음에서는, 『대동지지』(8), 『여지도서』(9), 『경기지』(10), 『부평군읍지』(15) 등에 나타나 있는, 부평에 소속된 하위 행정 단위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단위들은, 방리(坊里) 또는 방면(坊面)이란 항목에서 다루어지는데, 오늘날의 면과 동·리에 해당한다. 특히 『여지도서』(8)와

25) 『대동지지』「인천」조에는 세종 5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26) 『세종실록』 지리지 「부평도호부」조의 다음 기록을 참고. "所領都護府一江華 郡二 仁川海曹縣四金浦喬桐陽川通津."

『부평군읍지』(15)에서는 각 면의 위치를 도호부나 군의 관문(官門)으로부터의 거리 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방(坊)[27]의 수, 호수(戶數), 남녀의 인구까지 숫자로 나타내고 있다. 위의 네 지지들에 나타나는 방리 또는 방면 항목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이면 〈표 4〉와 같다.

〈표 4〉

| 대동지지 (1864) | | 여지도서 (1757~1765) | | | | | 경기지 (1842) | 부평군읍지 (1899. 5) | | | | |
|---|---|---|---|---|---|---|---|---|---|---|---|---|
| 면이름 | 잇수 (里數) | 면이름 | 잇수 (里數) | 방수 (坊數) | 호수 (戶數) | 남녀 인구 | 면이름 | 면이름 | 잇수 (里數) | 방수 (坊數) | 호수 (戶數) | 남녀 인구 |
| | | 부내 (府內) | | 2 | 214 | 남380 여353 | 부내 | 군내 (郡內) | 관문의 전후좌우 | 6 | 257 | 남560 남480 |
| 동 (東) | 7리 | 동 | 동 5리 | 8 | 163 | 남265 여296 | 동 | 동 | 동 5리 | 5 | 154 | 남364 여273 |
| 당산 (堂山) | 동 7~15리 | 당산 | 동 10리 | 5 | 136 | 남197 여209 | 당산 | 당산 | 동 15리 | 4 | 143 | 남287 여249 |
| 주화곶 (注火串) | 동 7~15리 | 주화곶 | 동 15리 | 5 | 173 | 남310 여323 | 주화곶 | 주화곶 | 동 15리 | 5 | 141 | 남273 여219 |
| 상오정 (上梧井) | 동 7~15리 | 상오정 (上梧亭) | 동남 20리 | 7 | 126 | 남273 여234 | 상오정 (上五亭) | 상오정 (上吾丁) | 동 20리 | 6 | 172 | 남342 여267 |
| 하오정 (下梧井) | 동 10~15리 | 하오정 (下梧亭) | 동남 20리 | 7 | 184 | 남303 여350 | 하오정 (下五亭) | 하오정 (下吾丁) | 동 20리 | 8 | 243 | 남565 여479 |
| 수탄 (水呑) | 동 15~30리 | 수탄 | 동 30리 | 12 | 185 | 남316 여370 | 수탄 | 수탄 | 동 30리 | 6 | 179 | 남276 남250 |
| 옥모 (玉毛) | 동 15~30리 | 옥모 | 동남 30리 | 7 | 164 | 남297 여319 | 옥산 (玉山) | 옥산 | 남 30리 | 7 | 184 | 남483 여396 |
| 석천 (石川) | 남 5~15리 | 석천 | 남 15리 | 6 | 196 | 남370 여349 | 석천 | 석천 | 남 15리 | 6 | 176 | 남391 여342 |
| 동소정 (同所井) | 남 10~20리 | 동소정 | 남 20리 | 5 | 162 | 남290 여346 | 동소정 | 동소정 | 남 20리 | 4 | 173 | 남385 여290 |
| 서 (西) | 7리 | 서 | 남 5리 | 7 | 155 | 남280 여281 | 서 | 서 | 남 5리 | 6 | 208 | 남463 여334 |
| 마장 (馬場) | 남 5~10리 | 마장 | 남 10리 | 3 | 90 | 남146 여166 | 마장 | 마장 | 서 10리 | 3 | 109 | 남241 여191 |
| 석곶 (石串) | 서 7~15리 | 석곶 | 남 20리 | 8 | 326 | 남565 여646 | 석곶 | 석곶 | 서 20리 | 8 | 290 | 남573 여460 |
| 모월곶 (毛月串) | 서 5~15리 | 모월곶 | 서 20리 | 8 | 357 | 남571 여683 | 모월곶 | 모월곶 | 서 20리 | 8 | 352 | 남599 여482 |
| 황어 (黃魚) | 북 10~15리 | 황어 | 북 15리 | 7 | 288 | 남463 여622 | 황어 | 황어 | 북 15리 | 8 | 257 | 남560 여408 |
| 소래 (蘇來) | 남 20리 | | | | | | | | | | | |
| | | 15면, 2923호, 남 4928, 여 5970 (1759년 기묘장적에(己卯帳籍) 따름) | | | | | 15면 3164호 | 15면, 3054호, 남6399, 여5135 | | | | |

27) 방(坊)이란 흔히 면(面)을 가르키는 데 쓰이는 말이나, 『여지도서』나 『부평군읍지』에서는 동·리(洞·里)를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다.

위의 〈표 4〉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면의 총 수는 모두 15개인데, 다만 『대동지지』에서만 부내면 또는 군내면 대신 소래면을 그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15개의 면은 부내면(군내면), 동면, 당산면, 주화곶면, 상오정면, 하오정면, 수탄면, 옥모면(옥산면), 석천면, 동소정면, 서면, 마장면, 석곶면, 모월곶면, 황어면 등이다. 둘째, 『대동지지』와 『여지도서』의 옥모면이 『경기지』와 『부평군읍지』에 오면 옥산면으로 바뀐다. 이것은 그 사이에 면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셋째, 상오정면과 하오정면의 '오정'의 한자 표기는 「梧井, 梧亭, 五停, 吾丁」 등으로 네 지지가 모두 다르게 적고 있는데,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는 앞으로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넷째, 각 면의 위치, 곧, 관문(官門)으로부터의 방향 및 거리가 각 지지마다 서로 매우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28] 특히 옥모(옥산)면, 마장면, 석곶면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은 기술상의 차이는 그 당시 지지 작성자들이 각 면의 방향과 거리를 서로 조금씩 다르게 파악한 데 그 까닭이 있는 것같다.

위 〈표 4〉에서 부평에 소속된 각 면의 위치와 명칭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각 면의 명칭과 위치를 밝히는 것은 부평의 지명 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은 문제 가운데 한가지는 황어면의 내력에 관한 것이다. 『조선지명연혁고』(1961:341)에서는 고려 때 까지는 수주(계양·길주·부평 등으로 개칭됨)와 황어향(黃魚鄕)이 서로 다른 행정 구역으로 따로 서 있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 부평부(군)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표 4〕에서는 한결같이 부평의 북쪽 15리 거리에 있는 한 면으로, 7~8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1,00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황어향이란 어떤 곳이었는지,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지리지, 등에 나타나는 황어향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황어향이 황어면으로 바뀌는 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 부평 조에 보면, "황어향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곳에 살던 성씨로는 손(孫)씨와 들어온 성씨〔來姓〕인 정(鄭)씨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다만 속성(續姓)인 김(金)씨만이 있는데, 이제는 향리가 되었다. (亡黃魚鄕 亡性一孫, 亡來姓一鄭, 續姓一金令爲鄕使)"라고 적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 조의 「성씨」 항목에 보면, 본부(本府)와는 따로 황어에는 손씨·김씨·정씨〔來姓〕가 있다고 하고, 이어서 「고적」 항목에서 황어향은 부(府)의 북쪽 15리 거리에 있다고 적고 있다.( 姓氏 黃魚 孫金 鄭來…… 古蹟 黃魚鄕 在府北十五里) 또

28) 『대동지지』의 각 면의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표시는 다른 지지들과 좀 다르게 되어 있다. 곧, 이 지지는 각 면의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를 '초'(初)와 '종'(終)의 두 가지를 표시하는데, 초란 해당면의 경계가 시작되는 곳까지의 거리이고, 종이란 그 경계가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대동지지』 부평 조「방면」 항목에는, 황어는 부(府)의 북쪽 10~15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에 황어향이 있었다. (黃魚 北初十終十五 古黃魚鄕)고 적고 있다.

위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황어향이 고려 때에는 부평부와는 단지 특수한 지방의 한 행정 구역으로 따로 서 있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반 행정 구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조선지명연혁고』에서는 〔표 5〕와 같은 일람표로 나타내고 있다.

〈표 5〉 역대지지 연혁일람표

| 경 기 도 | | | | |
|---|---|---|---|---|
| 삼 국 | 남 북 조 | 고 려 | 조 선 | 대 한 |
| 고 구 려 | 신 라 | | | (괄호내는 현행시) |
| 주부토군 | 장 제 군 | 수 주 (계양·길주·부평으로 고침) | 부평부(군) | 부천군 인천부 (인천시) |
| | | 황 어 향 | | |
| 매소홀군 (미추홀 또는 경원 매소라고도 함) | 소 성 군 | 인 주 (경원부로 고침) | 인천군 | |

(원문은 한자, 한문으로 되어 있으나, 글쓴이가 위와 같이 고쳤음)

원래 향(鄕)은 소(所)·부곡(部曲)과 함께 우리 나라의 고대 시기로부터 고려 때까지 존속하였던 일종의 특수 집단으로, 특히 고려 때에는 촌락제 및 군현제와 함께 국가의 공적인 사회조직체로서의 부족제에 따른 결과로 생긴 것이다. 이처럼 고려 때에는 중요한 사회 구조의 일부로 존재했던 부곡제가 조선조에 들어오면 군현체제의 일부로 수용된다.[29]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황어현이 부평부의 일부로 편입되는 그동안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V)

Ⅲ장에서 우리는 지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항목들 가운데서, 지명과 관련 있는 것으로,「산천, 봉수, 학교, 역원, 교량, 제언, 시장, 불우, 사묘, 총묘, 고적」등을 가려 뽑아 제시했었다. 이제 이들 항목 하나하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 항목들은 그 안에서 다시 세분된다. 세분된 항목들의 내용은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각 지지들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기술한 것이다.

29) 박종기, 『고려시대 부곡제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초판 제3쇄), 이 책이 머리말 참고.

1) 산천(山川)

지지 항목 가운데 산천 조는 다시 「산, 고개, 내, 섬, 못」 따위로 더 가를 수 있다.

(1) 산

① 계양산(桂陽山)

부의 북쪽 2리에 있는 진산(鎭山)인데,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서해(西海)에 임해 있는데, 이곳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 있는 여러 섬이 모두 한눈에 들어온다. 남쪽으로는 인천의 소래산(蘇來山)으로부터 서락(西落)하였는데, 읍의 주산(主山)이다. 가뭄이 심하면 이곳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

② 원적산(元積山 또는 圓笛山)

부의 서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는데, 대교천(大橋川)이 발원하는 곳이다.

③ 축곶산(杻串山)

부의 서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는데, 이곳에 봉수가 있다.

④ 적유산(狄踰山)

『대동지지』에 그 이름만 나오는데, 직포의 발원지이다.

⑤ 영성산(靈成山)

『대동지지』에는 그 이름만 나온다. 『경기지』에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다. 곧, 이 산은 부의 동남쪽에 있는 큰 들 가운데 있는데, 부에서 4리쯤 되는 거리에 있다. 오른쪽에 있는 큰 돌은 반암(般巖)이라고 한다. 왼쪽에는 큰 못이 있는데, 장도(長淘)라고 한다(「못」 항목의 "장도지" 참고). 이곳에 긴 방죽이 있는데, 목숙교(苜蓿橋)와 이어져 있다.[30](목숙교에 관해서는, 지지에는 어떤 기록도 없지만 지도상에는 나타난다.)

⑥ 중구봉(重九峯)

부의 서쪽 3리 거리에 있다. 계양산 서록이 남으로 길게 뻗어 봉우리가 되었는데, 그 아래 이규보의 자오당(自娛堂) 옛터가 있다. 또 그곳에는 찬샘[冷泉]도 있다.[31]

⑦ 탁옥봉(琢玉峯)

『대동지지』에 그 이름만 나온다.

(2) 고개

① 경명원(景明院)

『대동지지』에만 그 이름이 보인다. 부의 서쪽 10리 거리에 있는데, 석곶로로 통한다[西十里

30) 『경기지』(10)의 다음 내용 참고. "在府東南大野中四里許 右有大石名曰般岩 左有大池名曰長淘 有長堤連苜蓿橋".

31) 『경기지』(10)의 다음 기록 참고. "重九峯 在府西三里 桂陽西麓迤南爲峯 峯下有李奎報自娛堂遺地 又有冷泉".

石串路]. 『조선지지자료』[20]에 보면, 모월곶면 공촌리(公村里)에 경명산이 있고, 바로 그곳에 경명현(경명이고개)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대동지지』의 "경명원"은 "경명현"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② 한희현(閑希峴)

『대동지지』에 그 이름만 나온다.

③ 직현(直峴)

『대동지지』에 그 이름만 나온다.

④ 작현(鵲峴)

『대동지지』에 그 이름만 나온다.

(3) 내(川)

① 직포(直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직포는 부의 동쪽 10리 거리에 있는데, 적유산에서 발원하여, 동쪼긍로 흘러 양천현의 북포(北浦)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32] 『여지도서』에도 똑 같은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동국여지지』에는 '북포'가 '한강(漢江)'으로 바뀌어 있다.

② 대교천

대교천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대동지지』, 『여지도서』, 『부평군읍지』 등 다섯 곳에 다 보이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위의 다섯 지지에 나타나 있는 기록을 좇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대교천은 부이 동쪽 7리 거리에 있는데, 원적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직포가 되고, 김포현을 지나면서 굴포(堀浦)가 되어, 제법진(濟法津)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33]

『동국여지지』에 보면, 대교천 대신에 굴포천이 표제어로 올라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굴포천이란 달리 대교천이라고도 한다. 부의 동쪽 7리 거리에 있는대, 원적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른다. 김포현을 지나 한강으로 들어간다.[34]

『대동지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교천은 부의 동쪽 7리 거리에 있는데, 원적산(圓寂山)에서 발원한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부의 남쪽을 지나면서 물줄기가 돌아 북쪽

3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다음 기록 참고. "直浦 在府東十里 源出狄踰山 又東流入陽川縣北浦".
33)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다음 기록 참고. "大橋川 在府東七里 源出元積山 北流爲直浦 經金浦縣爲堀浦入濟法津".
34) 『동국여지지』의 다음 기록 참고. "堀浦川 又名大橋川 在府東七里 源元積山 北流經金浦縣入漢江".

으로 흐르는데, 동북쪽으로 10리 되는 곳에 이르러 직포천이 된다."[35]

『여지도서』에서는 대교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교천은 부의 동쪽 7리 거리에 있는데, 원적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직포가 된다. 김포군을 지나면서 굴포가 되어 제법진에 들어간다."[36]

『부평부읍지』의 대교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곧, "대교천은 군의 동쪽 7리 거리에 있다. 원적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김포군을 지나면서 굴포가 되어 제법진으로 들어간다."[37]

위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대교천이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대교천이란, 부의 동쪽 7리 거리에 있는 내(川)인데, 발원지는 원적산이다. 처음 원적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부의 남쪽을 지나면서, 북쪽으로 물줄기를 바꾸게 되는데, 부의 동쪽으로 7리쯤 되는 곳을 흐르는 내를 대교천이라고 한다. 다시 이 내가 동북쪽 10리쯤 되는 곳에 이르러, 적유산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합류하여 곧은 내가 되는데, 이것을 직포 또는 직포천이라 한다. 직포를 지난 물줄기는 김포현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는 이미 조운(漕運)의 편의를 위해 넓고 길게 파 놓은 개, 곧 "판개"〔掘浦〕가 있었으므로, 이곳을 흐르는 내를 굴포 또는 굴포천이라 한다. 이 내는 다시 계속 흘러 제법진으로 들어간다('개'란 원래 포구(浦口)란 뜻인데, 직포와 굴포를 직포천 또는 굴포천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보면, 위의 지지들에서는 이것을 '내'의 뜻으로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굴포란 원래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넓고 깊게 판 개(浦)를 가리키는데, 굴포천이란 굴포로 이어지는 내(川)를 사람의 힘으로 넓고 깊게 파서, 배가 지나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여러 곳에 굴포를 판 적이 있는 것 같다. 기록에 따르면, 김포 굴포 밖에 충남 굴포와 경흥 굴포[38] 등이 있다. 굴포를 파는 까닭은 대개 조운의 편의를 돕는 데 있었던 듯하다. 이병도(1978/81:173)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굴포를 파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이 책(『농포문답』(農圃問答), 글쓴이의 주석)에 특히 우리의 주목과 흥미를 이끄는 것은 「착조거」(鑿漕渠)(운하조)에 종래 숙제로 여러 번 개착(開鑿)하다가 미성(未成)인 충남(忠

35) 『대동지지』의 다음의 기록 참고. "大橋川 在府 東七里 出圓寂山東流 經府南回面北流 至東北十里爲直浦川".

36) 『여지도서』의 다음의 기록 참고. "大橋川 在府東七里 源出元積山 北流爲直浦 經金浦爲堀浦入濟法津".

37) 『부평군읍지』의 다음의 기록 참고. "大橋川 在郡東七里 源出元積山北流經金浦郡爲堀浦入濟法津".

38) 경흥 굴포에 관해서는 『증보문헌비고』(권제 31, 여지고 19, 관방 7, 해방 10, 동해)의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것. "慶興……堀浦 在東三十五里許 有倉基世傳高麗北伐時漕轉處".

南) 굴포(堀浦)(안흥(安興) 양동(梁東))를 계속 개착하여 조운(漕運)의 편(便)을 돕자는 개절(剴切)한 주창과 의견이나, 그가 얼마나 실제 실용주의 학자인가를 더 한번 인식하게 된다.

③ 청천(淸川)

『대동지지』에 그 이름만 나온다.

④ 임천(林川)

『대동지지』에 그 이름만 나온다.

(4) 섬(島)

① 물차도(勿次島)

부의 서쪽 15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300보(步)이다.

② 호도(虎島)

부의 서쪽 15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100보이다.[39] 『부평군읍지』에는 이 섬이 군(郡)의 서쪽 10리 거리에 있고, 둘레는 200보라고 되어 있다.

③ 응도(應島)

부의 서쪽 15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300보이다.

④ 정자도(亭子島)

부의 서쪽 15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100보이다.

⑤ 문지도(文知島)

부의 서쪽 10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200보이다.

⑥ 청라도(靑羅島)

부의 서쪽 10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800보이다.

⑦ 일도(一島)

부의 서쪽 8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300보이다.

⑧ 장도(獐島)

부의 서쪽 6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500보이다.

⑨ 율도(栗島)

부의 서쪽 10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800보이다.

⑩ 서천도(西遷島)

부의 서쪽 25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800보이다.

---

39) 섬의 관한 풀이는 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참고하였는데, 간혹 지지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그럴 경우 차이점을 그 항목 아래 첨기한다.

⑪ 기도(箕島)

부의 서쪽 20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는 500보이다.

『대동지지』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없이, 섬의 이름만 죽 벌여 놓고 있는데, 위에 들어보인 것 밖에 파라도(巴羅島)와 난지도(難知島)가 있다. 이 섬들은 위의 11개 섬 밖의 다른 두 섬은 아니고, 그 가운데 어떤 섬들을 그렇게도 불렀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섬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부평군읍지』에도 그러한 섬 이름이 셋이나 나온다. "장구도(長口島), 장산도(長山島), 세어도(細於島)" 등이 그러한 경우에 든다.

(5) 못(池)

① 전지지(全之池)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부평군읍지』(15) 등 세 지지에는 모두 부의 남쪽 3리 거리에 있는 못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지』에는, 이 못의 위치는 다른 지지들과 똑 같이 되어 있지만, 못으 이름은 그것들과 다르게 "전지(全池)"라 되어 있고, 지금은 제언(堤堰)이 되었다(全池 在府面三里 今爲堤堰)고 적고 있다. 또 『동국여지지』와 『부평군읍지』의 제언 항목에는 "전지제언(全池堤堰)" 또는 "전지제(全之堤)"가 나온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경기지』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6의 「제언」 항목 참고).

② 장도지(長淘池)

이 못은 부의 남쪽 4리 거리에 있는데, 『경기지』와 『부평군읍지』에만 그 기록이 보인다. 아마도 뒷시기에 생긴 못인 듯하다.

2) 봉수(烽燧)

축곶산 봉수

이 봉수는 부의 서쪽 15리 거리에 있는데(『여지도서』에는 10리라 되어 있음) 남쪽으로는 인천부의 성산(城山) 봉수와 서로 응(應)하고, 북쪽으로는 김포현의 백석산(白石山) 봉수와 서로 응한다. 각 봉수들 사이의 거리는 25리이다. 그런데, 『부평군읍지』(15)에는 이 봉수가 이미 폐지되었다고 적고 있다.

3) 학교

① 향교(鄕校)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부평 향교는 부의 북쪽 2리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지』에는 향교의 위치가 부의 서쪽 2리 거리에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차이는 그 동안에 부평부의 관아(官衙) 자리가 옮겨진 사실에 원인에 있는 것 같다. 『부평군읍지』(15)에 보면, 향교에 관한 기록이 매우 자세하게 나온다. 곧, 향교는 군의 서쪽 그리 거리

에 있는데, 대성전(大成殿) 10간(間), 동무(東廡) 6간, 서무(西廡) 6간, 명륜당(明倫堂) 10간, 동재실(東齋室) 7간 반, 서재실(寺齋室) 7간 반, 전사청(典祀廳) 3간, 공세고(公洗庫) 10간, 중문(中門) 3간, 대문(大門) 3간, 모두 66간이라고 되어 있다.

4) 역원(驛院)[40]

① 금륜역(金輪驛)

이 역은 부의 북쪽 13리의 거리에 있었는데, 『여지도서』에 따르면, 이곳에는 큰 말 1필, 작은 말 6필, 이(吏) 13명, 노(奴) 30명, 비(婢) 6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평군읍지』(15)를 펴낼 무렵에는 이미 이 역이 폐지되었던 것 같다.

② 구슬원(球瑟院)

구슬원은 부의 북쪽 10리 거리에 있었다.

③ 대야원(大也院)

대야원은 부의 남쪽 15리 거리에 있었다.

5) 교량(橋梁)

① 대교(大橋)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이 다리가 직포에 있었던 모양인데, 『동국여지지』에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곧, 대교는 부의 동쪽 7리 거리에 있는데, 굴포천을 건너 다니도록 만든 것이다. 돌로 무지개 다리처럼 만들었는데, 그 아래로 배가 지나 다닐 수 있었다. 『여지도서』와 『부평군읍지』(15)에는, 이 다리가 부의 동쪽 10리 거리에 있는데, 그 길이가 3간이라고 적고 있다.

② 기탄교(岐灘橋)

『여지도서』를 보면, 이 다리는 부의 동쪽 34리 거리에 있는데, 그 길이가 6간 정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평군읍지』(15)에는 이와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곧, 이 다리는 군의 동쪽 30리 거리에 있는데, 양화(楊花)의 작은 나루 상류 지역에 연석(鍊石)을 평평하게 깔아 만들었고, 다리의 길이는 17간이었다고 한다.

6) 제언(堤堰)

부평의 제언은 모두 5개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만 제언이 5곳이 있었다고만

40) 역(驛)이란 중앙 관청의 공문을 지방 관청에 전달할 때나, 외국의 사신이 왕래할 때, 또는 관리가 여행을 하거나 부임할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던 곳이며, 원(院)이란 공무로 출장하는 관리의 왕래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각 도(道)로 통하는 길 옆에 세운 것과 안가가 드문 곳에 행려(行旅)의 편의를 위하여 세운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적고 있는데, 『여지도서』와 『부평군읍지』(15)에는 이에 관한 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두 지지 사이에는 그 내용에 얼마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부평군읍지』의 기록을 참고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① 동림제언(東林堤堰)

이 제언은 군의 동쪽 3리 거리에 있는데, 동면에 속해 있다. 둘레는 461보쯤 되고, 깊이는 5자이다.

② 유등제언(柳等堤堰)

이 제언은 군의 동쪽 5리 거리에 있는데, 이 제언 역시 동면에 속해 있다. 둘레는 1,380보이고, 깊이는 5자이다. 그러나, 『여지도서』에는 이와 좀 다르게 되어 있다. 곧, 이 제언은 부의 남쪽 5리 거리에 있는데, 둘레가 2,380자라고 되어 있다.

③ 장성제언(長省堤堰)

이 제언은 군의 남쪽 5리 거리에 있는데, 마장면에 속해 있다. 둘레는 954보인데, 이미 없애 버렸다. 『여지도서』에서도 역시 건제(乾堤)라고 적고 있다.

④ 혜기제언(鞋機堤堰)

이 제언은 군의 남쪽 10리 거리에 있는데, 동소정면에 속해 있다. 둘레는 560보인데, 이미 없애 버렸다. 『여지도서』에서도 역시 건제라고 적고 있다.

⑤ 전지제언(全之堤堰)

이 제언은 군의 남쪽 5리 거리에 있는데, 서면에 속해 있다. 둘레는 3,616보이고, 깊이는 5자이다. 『여지도서』는 전지제언(全池堤堰)이라 되어 있다.

7) 시장

시장에는 발아장(發阿場), 기탄장(岐灘場), 신기장(新基場) 등 세 곳이 있었는데, 『경기지』를 펴낼 때, 기탄장과 신기장은 이미 없어졌던 것 같다.

① 발아장

발아장은 부의 북쪽 10리 거리에 있는데, 황어면에 속해 있었다. 장이 서는 날은 3일과 8일이다.

② 기탄장

③ 신기장

8) 불우(佛宇)

부평에는 절이 세 개가 있었는데, 모두 계양산에 있었다. 그러나 『여지도서』를 펴낼 때는 이미 없어졌던 것 같다.

① 만일사(萬日寺)

② 명월사(明月寺)

③ 봉일사(奉日寺 또는 鳳日寺)

9) 사묘(祀墓)

사묘란 사직신(社稷神), 성황신(城隍神), 또는 주인이 없는 신 등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祭壇)과 공자 및 그의 제자, 그리고 역대의 거유(巨儒)들을 받드는 사당을 한데 묶어 일컫는 명칭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서는 부평에 네 곳의 사묘가 있다고 적고 있다.

① 사직단(社稷壇)

이 단은 부의 서쪽 2리 거리에 있다.

② 성황사(城隍祠 또는 城隍壇)

성황사는 부의 남쪽 2리 거리에 있다. 『부평군읍지』에 따르면, 신실(神室)은 따로 군의 3리 거리에 있었던 것 같다.

③ 여단(勵壇)

여단은 부의 북쪽 3리 거리에 있다.

④ 문묘(文廟)

문묘는 향교에 있는데, 부의 서쪽 2리 거리에 있다.

10) 총묘(塚墓)

'총묘'란 이름 있는 사람들의 무덤을 말하는데, 『경기지』에는 고려 때 사람 한 사람과 조선 때 사람 일곱 사람의 무덤을 들고 있다.

(1) 고려

① 노숭묘(盧崇墓)

노숭은 우승상의 벼슬에 올랐고, 시호를 경평공(敬平公)이라 하였는데, 묘지는 수탄면에 있다.

(2) 조선

① 민자방묘(閔子芳墓)

민자방은 성종의 부마로 여천위(驪川尉)에 봉해졌는데, 묘지는 하오정면 작동리(鵲洞里)에 있다.

② 유순정묘(柳順汀墓)

유순정은 영의정을 지냈고, 청천부원군(菁川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인데, 묘지는 수탄면에 있다.

③ 권협묘(權挾墓)

권협은 예조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충정공(忠貞公)인데, 묘지는 수탄면에 있다.

④ 권대임묘(權大任墓)

권대임은 선조의 부마인데, 길성위(吉城尉)에 봉해졌고, 묘지는 수탄면에 있다.

⑤ 이지익묘(李之翼墓)

이지익은 예조판서를 지냈는데, 묘지는 하오정면에 있다.

⑥ 이천보묘(李天輔墓)

이천보는 영의정을 지냈는데, 시호는 문간공(文簡公)이다. 묘지가 하오정면에 있다.

⑦ 화유옹주묘(和柔翁主墓)

화유옹주는 영조의 여식인데, 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에게 시집을 갔다. 묘지는 하오정면에 있다.

11) 고적(古蹟)

부평의 고적에는 자오당(自娛堂), 초정(草亭)〔또는 척서정(滌署亭)〕, 황어향, 계양산 고성(古城), 가정(佳亭), 허암구지(虛庵舊址), 압각정(鴨脚亭), 기로제(棄老齊) 등이 앞의 여러 지지들 속에 들어 있는데, 고적에 관해서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 이름만 듣고, 더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2. 소지명(小地名)

원래 소지명(小地名)이란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나, 혹은 적게 거주하는 곳의 마을 명칭이다. 또는 인가가 없는 곳일지라도 한 지역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편의상 불리온 곳을 말한다. 예로부터 마을의 명칭은 행정통치의 발전에 따라 인구의 밀도와 면적 교통을 감안하여 행정의 말단기구로 리동(里洞)을 설치했는데, 크게는 한 개의 마을, 적게는 여러 개의 자연부락을 통합한 명칭으로, 흔히 우리는 이 동리(洞里)를 동네(洞內)라고도 불러왔다.

이 「동네」는 지형과 농경을 생각하고 모여 살아 크고 작은 자연부락을 이룩하여 왔다. 어느 부락이고 출입하는 도로가 있어 아늑한 마을로 형성되고 인부상조의 미덕을 쌓으며 살아 왔으며, 그 부락의 테두리 밖을 동구밖(洞口外)이라 불러왔다.

행정기구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고을(邑)단위로 했고, 그후 고을(邑)밑에 면(面)이 생기여 면장(面長)을 집강(執綱)이라 하여 그 고을 수령(守令)의 보좌기구로 했다. 동리(洞里)에는 처음

구역을 정하여 구장(區長)이라 했는데 그후 이장(里長)이라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을 우리 고유의 토박이 말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한자말의 유입과 조선 사대부, 일제 식민지 치하의 한자 영향권에서 한자말로 쓰여졌고, 일부는 토박이 말이 살아있어 그대로 쓰여오고 있기도 하다. 가령 마을의 이름을 한(漢)자를 붙여 미화(美化)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이 소지명(小地名)은 후로 오랜 세월 불리워 오는 동안 많은 발음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소지명의 끝자가 「리」를 「이」라고 발음 되어 온 이외에도 수많은 어미(語尾)가 생겼으니 「니」라고 한 곳이 마분리가 「마분니」로, 용종리가 「용종니」로 발음되었다. 그리고 「미」라고 한 곳도 있는데, 동양동의 당리를 「당미」로, 삼산동의 영성리를 「영성미」로, 불리게 된 연유이다. 또 부개동의 굴재미, 갈현동의 칡미라는 소지명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울」이라 한 곳은 오류리를 「오류울」로, 심곡리를 「기피울」로, 간재리를 「간재울」로, 가좌리를 「가재울」로 불리워 오고 있다.

「굴」이라 한 곳은 곡(谷)과 동(洞)으로 산골짝 또는 마을을 말함인데 임학동을 「임학굴」로, 수동을 「온수굴」로, 지래골(地來谷)을 지래굴로, 항동을 황굴로 불리워 왔다.

「말」이라 한 곳은 자연부락의 「마을」을 「말」이라 줄여 부른 것으로 효성동의 이촌마을을 이촌말로, 김촌마을을 김촌말로, 임촌마을을 「임촌말」로, 박촌마을 「박촌말」로, 새마을을 새말로, 점마을을 점말로 요약되어 불리워 오고 있다.

'곶'이라 한 곳이 곶(串)은 갑(岬)과 같은 말로 글자 그대로 꼬챙이 같이 생긴 지형이 바다쪽으로 내민 뿌리 모양의 육지를 말하고 있다. 즉, 서곶(西串), 석곶(石串), 모월곶(毛月串), 이화동의 선곶(船串)이 모두가 땅이름 아래에 붙여서 바다나 냇물쪽으로 내민 새의 부리 모양의 지형을 말하고 있다.

성종 17년(1486)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조에 추곶산(杻串山), 철종 12년(1861)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에 석곶(石串)은 돌고지, 초곶(杻串)은 싸리곶, 모월곶(毛月串), 주화곶(注火串), 선곶(船串)은 「배곶이」 등으로 적혀있는데, 이는 아주 옛부터 우리 고유의 토박이 말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곶(船串)이란 배곶이는 배(船)가 닿는 곶(串)을 뜻하니, 한자말로는 선곶(船串)이다. 이 「배곶이」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이 배(船→梨)+곶이(串→花)로 변하여 이화(梨花)로 탈바꿈이 되었는데, 그간 이곳을 「배곶이」「배꾸지」로 불리워 왔고, 부평읍지에 기록된 선곶(船串)인 배곶이가 맞는 말이다.

또한 서구 신현동을 돌고지라 했는데 물이 휘어 돌아 흐르는 곶(串)이라 붙여진 땅이름으로 그 변음과정을 살펴보면 돈다가 돌(石)로+곶이(串)로 돌고지(石串)로 되어 석곶면(石串面)이

되었다. 그리고 옛 한글 어음에 따라 한문글자를 적당히 붙이었으니 한자(漢字)의 뜻풀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어쨌든 부평의 소지명이 한자말에 왔던, 우리 고유의 토박이 말이던 간에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지명의 유래를 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평동

(1) 조병창(造兵廠)

지금의 부평 1동의 동아, 대림, 욱일아파트 자리와 산곡 3, 4동의 미군부대, 현대, 우성, 동남, 삼일아파트 지역, 그리고 화랑농장이 들어서 있는 일대로, 부평조병창의 군수기지였는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1940년 4월 1일 부천군 부내면을 인천부 제2차 부역확장으로 인천부에 편입시키고 부평조병창의 확장공사를 하였다. 그 하청업자는 모두 일본인으로 관또구미(關東組), 다다구미(多田組), 다마보구미(玉澡組), 시미스구미(淸水組), 하사마구미(間組) 등 5개업자가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조선총독부는 국민총동원령을 공포하여 전국의 젊은이들을 근로보국대를 편성하여 이 공사에 투입시켰다. 이 근로보국대는 시군별로 조직화하여 하청업체인 각 구미(組)에 배치하였는데, 이때의 연합대장은 김포출신 민병하(閔丙夏)였다.

이와 병행하여 일제는 부평조병창의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평역전 일대에 소유자의 동의를 묵살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후 8.15 해방을 맞이하여 이 조병창기지에는 미군 에스캄이 들어서 인근 주민들은 뜻밖에 호경기를 맞이 하였다. 당시 혹정에 굶주렸던 서민들은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다 다시 끓여 먹었는데 이를 「꿀꿀이죽」이라 했다.

한동안 이 지역은 국유화되어 미군의 주둔 기지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일부 미군기지가 대폭 축소되고, 나머지 땅은 모두 불하되어 오늘의 아파트 대단지로 바뀌었다.

(2) 동수재이

옛부터 부평역 일대를 「동수재이」라고 불리웠다. 이는 부평군때 동소정면이었다는 데서 유래하는데, 「동소정이」가 어음변화를 가져와서 「동수재이」가 된 것이다.

옛적에는 면소재지를 동리 이름과 병행하여 면이름을 불렀다. 가령 「서면」소재지 화전리(化田里)를 「쇠면」으로, 마장면 소재지 청천리(淸川里)를 「마재이」로, 또 동면소재지 병방리(兵防里)를 「뎅면」이라 부른 것과 같다.

동소정(同所井)이라는 면(面) 이름이 붙은 것은 지금의 한일은행 부근에 직경 5미터가 넘

는 대동우물이 있어 물량이 많아 이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큰 우물물을 먹고 살아 같은 우물을 먹는 곳이라 동소정(同所井)면이라 했다. 대정리(大井里)는 역시 큰우물이 있는 마을이라서 생긴 지명이다.

(3) 다다구미

지금의 동아시티백화점 앞 원통천 복개변화교학교가 있는 개울가 일대를 다다구미라 한다.

이는 부평조병창 확장공사 때 하청업자인 다다구미(多田組)의 현장사무소가 있던 자리이다.

8.15 해방후 다다구미가 철수하고 평평한 빈터만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빈한한 사람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달동네가 되어 너도나도 집을 지어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다. 그래서 이 지명은 다다구미가 있었던 곳이라서 다다구미라 불러왔다.

한 30년전 이곳에 사는 뜻있는 분이 평화촌(平和村)이라 이름을 짓고, 고쳐 부르기로 했는데, 고쳐지지 못하고 지금도 다다구미로 부르고 있다.

(4) 수도사거리

부평대로 옆 여산빌딩과 한서상호신용금고 사이에 상수도 펌프장이 있다. 이 펌프장은 상수도의 수압을 높여주는 가압펌프장인데, 인천에 처음 상수도가 개설되어 노량진 정수장에서 인천 송림동 수도국산까지 송수되는 5백미리 상수도관이 이곳으로 지나가는 곳이었다. 이 수도관 지상에는 4미터 폭의 도로가 부설되었다. 그래서 이곳이 옛 김포국도와 4거리가 이루어졌는데, 인가도 없던 무지공처에·1930년을 전후하여 인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수도사거리(水道四街里)라 불리워지게 되었다.

(5) 백마장 입구

부평로에서 백마장은 지금의 산곡동을 지칭한다. 그래서 산곡로로 이어지는 신일예식장 일대를 백마장입구라 부르고 있다. 혹자는 산곡동을 백마장이라 하니까 옛날에 백마(白馬)를 기르던 곳이었느냐 하고 물어 오기도 한다.

이는 1940년 4월 1일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가 부역확장으로 인천부에 편입되어 일본식으로 백마정(白馬町)으로 동명을 개칭하였는데, 「백마정」의 어음이 변하여 「백마장」이 되어 백마장 입구라 했다.

현재 이 백마장 입구에는 대림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일제말에는 조병창 공사의 청부업체인 옥조조(玉操組)란 일본인 「다마보구미」의 현장사무소가 있었던 곳이다. 부평전부가 인천부에 편입될 당시 계산동에 있던 부내면(富內面)사무소를 1년만에 폐쇄하고 인천부 부평출장

소가 처음 생기어 부평역전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 이「다마보구미」현장사무소 겸 창고로 이 가건물을 빌리어 썼다. 그때 부평출장소 초대소장은 헌병대 출신 일본인 마쓰노(松野正義)였다.

이곳에 근 2년간 있다가 부평극장을 세웠던 아베(安部泰輔)란 일본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아베농장(安部農場)의 창고를 지금의 상업은행에 세웠는데 식량통제로 공출제도가 생기어 지주들의 창고가 소용없게 되자 부평출장소는 이를 또 빌리어 이전을 하였다. 그후 대동아전쟁이 터지자 부평출장소는 다시 아베(安部泰輔)가 기증한 현 북구청자리의 철거된 구건물로 또 이전했는데, 제2대 소장은 일본인 헌병출신 야오까(矢岡爲十郎)란 노신사였다.

그후 1940년 4월 1일 이곳이 인천시에 편입되었는데, 당시 직제는 주사(主事), 서기(書記), 고원(雇員), 촉탁(囑託), 용인(傭人)뿐이었다. 주사는 일본인이 차지하여 과장, 소장 자리를 대부분을 맡았고, 한국인은 서기에 그쳤다. 당시 한국인 서기는 김영룡, 이형경, 송의래, 고원에, 지영태, 조기준, 김장봉, 김재천, 김윤환, 김정초, 초탁에 이경응, 이사성, 서경호, 용인에 박광원이었다.

(6) 공설시장

해방직후 인천시는 부평지구 공설시장을 세우기로 하고, 지금의 북부교육구청 북쪽을 주택지로 선정하고, 구획정리를 하여 상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입주하였으나 구매력이 전혀 없어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명신당 뒷편에 상인들이 모여 상가를 조성하고 번영을 꾀하였다. 이곳은 그런대로 발전의 길로 접어들어 그후 자유시장이 생기고, 이어 부흥청과물 도매시장이 연결되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런 반면 공설시장은 제대로 개점도 못하고 완전히 주택가로 변하여 이제는「공설시장」이란 이름만 남게 되었다.

(7) 히로나까, 미쓰비시

지금의 부평 2동 전체를「홍중사택」또는「히로나까 사택」이라 불렀다.

일제때 지금의 동아아파트 남쪽 도로 맞은편 철로변에는 모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바로 홍중(弘中)이란 군수공장이 있었다. 이 공장의 종업원 사택으로 지금의 부평 2동에 수십채가 자리하고 있었는데「홍중사택」또는「히로나까사택」이라 불렀다.

얼마 후 이「히로나까」인 홍중(弘中)회사가「미쓰비시」삼능(三菱)으로 바뀜으로써 그후부터는「히로나까」「홍중」이란 말이 점점 사라지고「미쓰비시」또는 삼능사택(三菱)이라 불리다가 줄여서「삼능」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

부평이 인천부에 편입된 1940년 당시 일제는 부평조병창 확장공사를 대폭적으로 단행하였다. 이와 함께 인접한 곳에 히로나까(弘中) 군수공장이 들어섰다. 따라서 일제는 많은 인력을 징발하였는데, 당시 한국인들은 이곳에 이에 입사하면 현지 징용이라해서 그 무서운 강제징용을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젊은이가 모여 들어 공원(工員)으로 입사하였는데, 한 때 이곳은 징용의 피신처가 되기도 했다.

(8) 희망촌

삼능사택에서 경인국도를 따라 인천 방향인 부평삼거리로 가자면 작은 원통이 고개를 넘게 된다.

바로 이 고개를 넘으면 남쪽으로 작은 골짜기 마을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을 「희망촌」이라 부른다.

8.15광복을 전후하여 부평 여러 곳에는 새로운 마을이 생겼다. 1950년경 까지도 이곳은 인가 하나 없는 무지공처 두메산골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경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당시의 국회의원 김훈(金勳)씨의 총참모이자 수석비서격인 원종국(元鍾國)씨가 이곳에 자리 잡았다. 빈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달동네를 이루웠다.

이 원 선생은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모아 희망(希望)을 갖고 살자고 하여 「희망촌」이라 마을 이름을 붙였다. 지금은 수백호가 운집해 있고, 고통도 편리해진 희망을 이루고 있는 아늑한 마을이 되었다.

(9) 신촌(新村)

지금의 부평 3동을 「신촌」이라 불리워 왔다. 이곳은 원래 원통천변의 초지가 무성한 벌판이었는데, 조병창(造兵廠)의 확장공사와 때를 같이 하여 바로 개울건너에 홍중공장(弘中工場)이란 군수(軍需)업체가 있어 여기에 공원(工員)으로 입사하면 그 무서웠던 징용면제(徵用免除)를 받게 되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장도 가깝고 땅값도 제일 싼 이곳에 자리잡게 되므로써 새로운 마을이 생기니 새마을이라는 뜻에서 신촌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당시 어느 고장이든 마을이 새로 생기면 흔히 새말이라 부르거나 아니면 좀 유식하게 신촌(新村)이라 했는데 여기도 예외는 아니다.

처음 마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수도사거리에 마을이 생긴 그 후가 되니까 1940년 전후가 될 것이다.

8.15 해방과 더불어 「홍중」의 후신인 삼능(三菱)이 문을 닫고 망하게 되자 직업을 잃은 원주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아 더러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부평조병창」 자리에 미

군 예스캄이 들어서면서 생계에 일부 보탬이 되었고, 또 「다다구미」와 「관또구미」의 지역과 더불어 미군을 상대로 한 위안부촌으로 전락되기도 했었다.

「예스캄」이 있는 미군지역과 백마정은 우범지대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근래에 예스캄 일부가 떠나고 현대아파트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고층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옛 모습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10) 지-젤 사택

지금의 부평중학교 앞 일대의 사택마을을 '지-젤사택'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부평조병창」 확장공사와 때를 같이 하여 지금의 부평고등학교 자리에 지-젤(디젤) 자동차 부평공장을 세우고 이곳에 공장 종업원의 사택 수십동을 세웠다.

공장은 부지정리를 끝내고 대형 굴뚝을 세워놓고 건축을 서두르는 판국에 8.15 해방을 맞이하여 사택만이 있어 이를 지-젤사택이라 부르게 되었다.

주택지역인 이곳은 지금도 옛 사택인 주택이 많이 남아 있다.

(11) 신트리

지금의 부평고등학교 서북쪽, 갈산지구 아파트단지 남쪽 길건너 근린공원 남쪽일대의 주택지를 신트리라 불리워 왔다.

논으로 벼를 심기에는 물이 모자라 쓸모가 없고, 밭으로는 습기가 많아 못쓰는 땅이었는데, 해방후 빈한한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 자리잡아 집들이 점차 생겨나면서 마을이 되었다.

이곳에 이주한 한학자 백난환(白樂煥)씨는 마을 이름을 새로 터전을 이루었다는 뜻을 담아 신터리(新基里)라 하였는데, 이것이 신트리라 부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약 백미터쯤 북쪽인 부평동과 갈산동의 경계선에 논을 일구기 위한 넓은 둑밭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한 이십호의 마을이 생기었다. 이곳이 바로 지금 갈산지구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다.

그래서 그 당시 부평사람들은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먼저 생긴 신일에식장 동쪽의 「신트리」를 「웃신트리」라 했고, 나중에 생긴 갈산동 경계선인 근린공원 북쪽의 「신트리」를 「아래신트리」라 구별하여 불렀다.

지금은 신트리 전체도 신도시로 탈바꿈되어 옛 모습을 전혀 찾을 길이 없다.

(12) 고니새말, 신복동(神福洞)

지금으로 부터 60년전만 해도 부평은 경인도심에서 제일 뒤떨어진 미개지였다.

1934년 부천시 약대동(若大洞)에 경성전기 주식회사가 변전소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여기서

전주(電柱)를 서운동-계산동-작전동-갈산동-부평역으로 송전하여 전기가 처음 들어왔으니, 경인간 각 역사 중 부평역이 맨 끝에 전기불이 들어왔다.

그 당시 인가라고는 원마을인 하촌(下村)에 약 30호, 부평역전에 10여호, 수도 사거리에 5~6호, 신트리와 신복동에 각각 서너집 뿐이었다. 그때만 해도 부평읍이었던 계산동은 면소(面所)와 주재소(駐在所)가 있어 부평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무렵 고니시(小西)란 일본사람이 어쩌다 이곳에 와서보니 부평역과 수도사거리 동쪽 벌판이 밭으로는 배수가 안되는 진흙탕이었다. 그래서 논으로 경작하자니 수원(水源)이 없어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이었다. 그러니 땅값은 무척 쌌다. 여기다 농장을 만들 생각으로 고니시는 몇십정보의 땅을 사고 그 중심지인 지금의 천주교성당 근처 논바닥에 저수지를 팠다. 직경은 50미터, 깊이는 십여미터가 넘는 큰 웅덩이를 파 물을 대서 쓰려고 하였다.

을축년 물난리에 혼이 난 빈농들이었지만 수해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믿고 이 저수지 옆에 고시니와 더불어 대여섯집이 모여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고니시말(小西村)이라 불렀다.

이 웅덩이 저수지에 물이 좀 고여 농사에 보탬이 될 줄 알았으나, 날이 가물자 말라서 이내 건지(乾地)가 되었다.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일 뿐 이렇게 몇해를 거듭하면서 결국 저수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고니시는 결국 포기를 하였다.

이 고니시란 사람은 한국 여자를 얻어 살았는데, 한국말이 유창하고 노름도 잘한 건달로 해방후 성을 박(朴)가라 하고 한국에 남아 살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곳 사람들은 그후 수리조합이 생기면서 신복동으로 이사를 하니 십여호의 마을이 되었다. 그리고 이곳을 「고니시말」이라 불르다가 후에 「고니새말」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6.25(1950) 수복후 이 마을의 유지 최규헌(崔奎憲), 원유본(元兪本), 유상목(兪相穆)제씨는 입을 모아 고니새말이란 마을 이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새로운 이름을 짓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숙의한 나머지 '새로운 복을 받는 마을'이라하여 신복동(新福洞)이라 고쳤는데, 이것이 오늘에 이어져 왔다. 지금도 간혹 고니새말로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보면, 한 번 지어진 이름을 없애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같다.

⑬ 새시장

지금의 부흥시장 전신으로, 시장 초창기에 새시장이라고 하였다. 6.25 수복직후인 1952년경 조종옥(趙鍾玉)씨는 자비로 지금의 대호탕 북쪽에 목조 2층으로 6동 50여개의 점포를 신축하였다. 그런데 지금난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입주가 잘 안되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건축한 형적이 몇 해 전까지 그 일부가 남아있었는데 도시의 발전으로 모두 철거되고 지금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어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그 당시 부평서초등학교 북쪽에는 인천시가 공설시장을 개설하였으므로 이곳을 「새시장」이라 불렀었다.

지금은 부평자유시장과 부흥시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 부흥시장안을 새시장이라 하였다.

(14) 하촌(下村)

경인선 전철 굴다리앞 로타리 서북쪽에 옛마을이 있어 과거 대정리(大井里)시절 이곳은 동수재이 원마을로 영해박씨(寧海朴氏)와 경주이씨(慶州李氏)의 누거지였다. 웃마을은 몇집 안되고 이곳은 대촌(大村)으로 아랫마을이므로 하촌이라 불리웠는데, 그 위치는 지금의 부평구보건소에서 신일상호신용금고 사이이다.

여기서 동쪽 일대는 인가도 없는 허허벌판 농경지였는데 도시화로 상가와 주택지로 변하여 부흥초등학교 일대를 모두 하촌이라 불렀다. 하촌(下村)이라서인지 옛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르고 있다.

(15) 동수동(東樹洞)

지금의 부평 6동이 동수동이다. 이는 원래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에 속했는데, 1940년 4월 1일 인천부로 편입될 당시만해도 인가가 없던 곳이었다. 당시 지금의 천주교 자리에 미스모리(水森勇)란 일본인 한 사람만이 살면서, 지금의 신복동(新福洞) 방죽이 천일농장(天日農場)을 관리하였다.

그후 성모병원옆 길섶에 아미노산 간장 공장이 들어서고 그 옆에 송죽원(松竹園)이란 일식 요리집이 생겨나 왜정말기에는 큰 성황을 이루웠다. 이어서 부평역 남쪽 언덕에 철도관사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해방후 이곳은 부평 2동의 관할구역이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자칭 동수동(東樹洞)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그 내력인즉 부평 역전이 과거 동소정면(同所井面)으로 동수재이라 불리워 왔음으로 같은 값이면 이를 미화(美化)해서 동수동(東樹洞)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은 것이다.

(16) 뚝방촌

부개서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전 경인철도 굴다리 밑으로 흘러내려 온 부개천이 동으로 흘러 학교 서쪽에서 굽어 북쪽으로 흐른 개울둑에 무허가 판자집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개울둑의 마을이라서 뚝방촌이라 불러왔다.

지금은 도시계획에 의해 문화주택지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도 사라져가고 있다.

## 2) 산곡동

### (1) 뫼끝말

뫼끝말이나 장끝말이란 지명을 살펴볼 때 산뿌리인 뫼끝의 마을은 뫼끝말, 마장들의 끝의 마을은 장끝말로 불리워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산곡동 옛마을을 뫼꼿말이라 불러오기도 했는데, 이는 「뫼끝말」이 변하여 온 이름으로 보인다.

산곡동 서쪽 뒤로 원적산(元積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한가닥 줄기가 동쪽으로 흘러내려 이 마을에 와서 뭉치어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 동산밑에 마을이 생기니 뫼의끝이란 뜻에서 뫼끝말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뫼의 남쪽은 작은 골짜기이고, 북쪽은 큰골짜기를 이루고 있어 산골짝의 마을이라 산곡리(山谷里)라 하였다.

마장뜰 남쪽끝에 마을은 장끝말이고 뫼(崗)끝에 마을은 뫼끝말이니 이 두 마을이 이 고장 지형상 같은 뜻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장끝말, 장끝고개

새벌이(曉星洞)에서 남쪽으로 멀리 부평조병창(富平造兵廠)까지의 초지가 무성한 넓은 벌판을 마장뜰이라 불렀다. 또 부평군 시절에는 마장면이기도 했다. 원적산(元積山) 줄기가 남으로 뻗고 원통 산맥은 호봉산(150m)으로 이어져 그 맞닿은 곳이 장끝고개이다.

인천에 처음 상수도가 놓이자 노량진 정수장 물은 목동을 거쳐 부천의 약대동을 거쳐 부평의 수도사거리로 해서 이곳 장끝 고개로 5백미리 상수도관이 넘어갔다. 이 장끝고개 동쪽 밑에 한 20호의 마을이 있어 이를 장끝마을이라 불리웠다.

이 장끝말이나 장끝고개 다같이 마장뜰의 끝이란 뜻에서 불러진 곳이다. 원래의 산곡리는 뫼끝말과 장끝말 두개의 동리로 구성되었다.

이 장끝말에는 백낙선(百樂善)씨와 신창섭(申昌燮)씨가 두 대농으로 살며 마을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1935년경 이곳에 조병창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용령을 내려 징발하였다. 그래서 장끝말은 모두 집이 헐리고 대농이었던 백낙선씨는 효성동으로, 신창섭씨는 청천동으로 떠나고 말았다. 장끝말은 글자 그대로 장이 끝나고 말았다.

1947년경 한국종합기계 자리에 성인기(成仁基)씨가 거주하면서 몇집이 생겨났다. 그런 후로 이곳을 장끝말이라 부르며 살았는데, 공업도시화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베아링공장이 들어서면서 모두 쫓겨나 장끝말은 또 끝장나고 말았다.

(3) 병참(兵站)

지금의 동아아파트 옆 우성아파트가 들어선 상수도선 근처를 병참이라 불렀다.

일제시대 일본군 포병대는 심심치 않게 이곳에 와서 대포(大砲)를 쏘는 연습을 했는데 여기서 쏜 대포알은 효성동 안하지 산골짜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인가 한 집 없는 허허벌판이건만 일본군 포병대가 자주 있던 곳이라해서 병참이라 불렀다.

(4) 화랑농장

지금의 현대아파트와 약수터가 있는 언덕너머 북쪽 골짜기 마을을 화랑농장이라 부르고 있다.

1950년경 상이용사 출신인 2대 시의원을 지낸 김국환씨와 진상구씨는 상이용사들의 자활원으로 이곳에 「화랑농장」을 설치했다. 인가 하나 없는 무지공처에 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얼마 안가서 운영난으로 중단하였다. 그후 이곳에 마을이 생겼고, 지금은 주택가로 도시화되어 있다.

(5) 원적산이 철마산

산곡동 명신여고 앞에서 서쪽 고개를 넘으면 서구 가좌동으로 이어지는데, 이 고개를 철마산 관통도로라 부르고 있다.

이 도로가 개설되기에 앞서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산곡동에 사는 어느 뜻있는 인사가 철마산 관통도로를 들고 나온 것이 시발이 되어 몇 해 후 인천시는 이 고개를 낮추어 도로를 개설 하였는데, 그대로 철마산 관통도로라 불렀다.

철마산(鐵馬山)은 천마산(天馬山)에서 온 것이며, 서구 가정동 뒷산인 마제봉(馬蹄峯)이 있고, 원래 이 산은 원적산(元積山)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6) 큰골과 양성골

뫼끝말(山谷洞)과 마재이(淸川洞) 사이에는 원적산에서 흐르는 대교천(大橋川)이란 개울이 있다. 이를 따라 올라가면 산중턱에 넓은 벌판이 있는데, 이를 큰골이라 불렀다.

이곳 건전(乾田) 수십만평은 일제때 일본인 한다센시로(半田善四郎)의 소유지였는데, 한국인 이춘삼(李春三)이 농막을 짓고 경작을 했지만 수원이 모자라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또 양성골은 한일초등학교가 자리한 골짜기로 그 생김이 마치 성을 쌓아 놓은 형국이라서 성안골이라 한 것이 양성골로 부르게 되었다.

### 3) 청천동

(1) 마제이

구한말때 부평동을 「동수재이」로 불렀듯이 마장면(馬場面) 사무소가 있었던 곳이어서 마장 또는 마제이로 불러왔다.

청천동 뒤에 있는 원적산과 철마산에서 맑은 물이 흘러 내렸는데, 이 시냇물은 물이 매우 맑았기로 맑은내(淸川)라 불러왔고, 청천개울 옆에 있는 마을이라서 청천리라 하였다. 그리고 이 마을은 마장뜰 벌판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마장면, 마장뜰, 마제이를 모두 청천동으로 일컬었다.

마장(馬場)이란 지명이 생긴 것은 효성동, 청천동, 산곡동 일대를 마장뜰이라 했다. 이곳을 수원이 없어 경작을 할 수 없는 허허 벌판에 억새풀만 우거진 초지가 무성한 곳으로 고려시대부터 말을 사육하던 곳이라서 마장(馬場)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데 이곳에는 말(馬)이 가장 좋아 하는 억세풀로 우거져 있던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억새풀벌판이라하여 새벌이, 새벌리로 또 효성동이 된 것이라 여겨진다. 바로 이 벌판의 중심지가 마제이(마장, 청천동)이었던 것이다.

(2) 마장(馬場)은 목장(牧場)

옛부터 나라에서는 마장을 설치하여 말을 사육하였다.

특히 삼국시대 이래로 각국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양마(養馬)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고려때는 태복사(太僕寺, 司僕寺)를 설치하여 양마를 관장토록 하였고, 조선왕조 역시 국초부터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양마에 힘썼다. 가령 세종 15년(133) 사복사제조(司僕寺提調)가 상계(上啓)한 것을 보면 마장(馬場)이 경기 17, 충청 7, 함길 5, 전라 12, 평안 3, 제주 2, 경상 4, 황해 7 등 도합 57개소에 달하고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경기도에 26개소로 늘어나 그중 최대의 마장이 강화 진강목장(鎭江牧場)이고, 다음의 자연도목장(紫燕島牧場)으로 국마(國馬) 1,500필을 방목하고 있었다.

국초이래로 마정에 힘써 확장되던 목장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황폐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인조와 효종이 이를 부활시키는 등 마정에 힘썼는데, 조선후기에 내려오면서 점차 폐지되었다.

이곳도 마장(馬場, 牧場)이 있었기에 마제이(馬場面)가 되고 마장뜰이 된 것이다.

(3) 양계마을

여기서 원적산 골짜기를 올라가면 산중턱에 넓은 산골마을이 있다. 1961년 12월부터 이곳

에 음성나환자를 집단수용하여 양계업(養鷄業)으로 생계를 유지토록 하였는데, 양계마을이 되었다.

(4) 대우자동차

1962년 부평 수출4공단 남쪽에는 공단의 배가 넘는 넓은 땅을 차지한 새나라자동차조립공장이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일본 닛산(日産)자동차회사가 공급하는 부분품조립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외환사정의 악화로 조업이 중단되었다. 그후 1965년 9월 신진자동차회사로 인수되면서 일본의 도요다(豊田)자동차회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부품을 수입하여 완전 조립생산케 되었다.

그후 1972년 일본과의 기술제휴를 끊고 미국 GM회사와 합작 투자하여 GMK를 설립하였다.

그후 70년대말에 이르러 이 회사는 대우실업에 인수되고, 새한자동차(주)로 상호를 붙였다. 그후 상호를 대우자동차(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 4) 효성동

(1) 새별이

새별이라는 명칭은 지금의 효성동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옛부터 불리워 왔다.

이 지역은 수원이 없는 불모지 벌판으로 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다.

개간은 하였어도 땅에는 씨가 자라지 못하니 모두 묵은 밭으로 도처에 억새풀만이 무성하게 자랐었다. 그래서 온통 억새 벌판이어서 새풀이라 불렀던 것이 새별이로 변하였다.

이 「새별이」를 한자로 적을 때 샛별로 잘 못 적어 효성(曉星)리로 바뀌어 부르게 된 것이다.

(2) 씨족마을

계양산 낭맥인 중구봉(重九峯) 남록 동쪽마을은 전주 이씨 효녕대군파가 많이 살고 있어 이촌(李寸)말이라 했고, 서쪽 마을은 풍산임씨(豊山任氏)가 모여 살고 있어 임촌(任村)말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남쪽 벌판마을에는 안동김씨(安東金氏)가 모여 살아서 김촌(金村)말이라 불리워 왔다.

(3) 안하지(雁下池)

천마산(天馬山) 골짜기 물은 급류로 원적산(元積山) 북쪽 기슭을 차고 지소(池沼)를 이루어 청천내로 흐르다가 마장뜰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흘러내렸다. 이 지소(池沼)에 기러기떼가 많이 내려 앉으니 기러기가 내려온 못이라 하여 안하지(雁下池)라 불리웠다.

규장각(奎章閣)에 보존된 부평부 지도에는 이곳 고개가 구십현(九十峴)으로 되어 있다. 이

는 이태조가 새도읍지를 물색할 때 골짜기가 백개라야 하는데 이「안하지」골짜기가 구십번째가 되므로 구십현(九十峴)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원통이고개는 한골짜기가 모자라서 원통하다고 한데서 부른 이름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때 포리(浦里)의 전조창(轉漕倉)의 세미(稅米)를 서울 경창(京倉)으로 운반할 때 이 안하지고개를 통과하였는데, 이 고개에 주막이 있어 주모의 이름이 안아지(安阿只)여서 주모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또 김안노(金安老)가 경인운하를 개굴할 때 원통현에서 실패하여 이 고개를 뚫을려고 고개밑에 연못을 만들어 안하지(內河池)라 한데서 안하지가 되었다고도 전하고 있다.

(4) 세골짜기(谷)

중구봉(重九峯) 남록(南麓)에 자리잡은 새별이(曉星洞)은 은골(銀穀) 되넘기골, 안하지골등 세 골짜기가 있다.

은골은 은(銀)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졌고, 되넘기골은 이 두 골짜기 사이에 마을이 생기어 되넘어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또 안하지골은 안하지고개 옆에 있어 생긴골 이름인데, 청천(淸川)의 발원지로서 골(谷)이 가장 깊은 골짜기이다.

일제때 마장뜰 병참(兵站)에서 인가가 없는 깊은 골짜기인 이곳에 대포를 발사하는 연습을 하여 포탄이 떨어졌던 곳이다.

이 효성동은 옛부터 서해 도서로부터 양곡, 소금, 젓인 생선 등이 모월곶 포구로 입하되면 길마에 싣고 안하지 고개를 넘어 새별이 앞을 지나 마포 나룻터로 가던 곳으로 1950년대까지도 별다른 발전이 없는 한촌(寒村)마을이었다. 그런데 수출공단이 조성되고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중소기업이 성황을 이루게 되면서부터 대형 아파트촌으로 변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루었다.

(5) 공단

경인고속도로 남쪽 벌판에 한국수출산업 제 4공단이 자리잡아 1969년 8월 19일부터 입주업체들이 가동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래 인천은 1883년의 개항때까지만해도 하등의 집락(集落)도 없는 해변가의 한촌(寒村)에 불과 했다. 1876년 운양호(雲揚號) 사건을 계기로 외압에 의한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부산, 원산에 이어 뒤늦게 개항되었지만, 서울의 관문이었기에 빠른 속도로 도시가 형성되었다. 인천에는「일본」「청국」에 이어 각국의 거류지계가 있어 상해(上海)와의 직선 항로가 활발히 움직였다. 그리고 인천은 강운(江運) 및 해운(海運), 우마차를 이용하기 편리하여 미두(米豆)시장이 활발하여 미곡(米穀)의 전국수출량의 4할을 차지 하였었다. 한일합방후 산미증식은 식

량공급으로 이어져 미두시장도 사라지고 병참기지로서 근대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많은 공장의 유치는 개인생활에 사활을 다투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니 인천과 부평인사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져 이곳이 입지조건이 좋아 당시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유승원(柳承源)과 상공회의소 회장 채 호(蔡晧)는 부평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이어서 1973년 7월 1일 주안에 제5공단을, 또 1974년 11월 5일 주안에 제 6공단을 세우게 되었다. 공단설립에 큰 효과를 가져옴으로서 1973년 4월에는 기계공단을 주안매립지에 조성하고, 지방공업단지, 목제단지가 생기고 남동공업단지가 활기를 띠게 되었으니 공업단지의 시발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국수출 4공단을 공단이라 요약해 부르고 있다.

### 5) 계산동

(1) 아남산

지금의 계양산(桂陽山) 옛 이름은 안남산(安南山)인데 어음이 변하여 아남산이라 부르고 있다.

부평 고을이 1018년에 수주(樹州)로 되어 황어향 선곶(黃魚鄕 船串)에 수주읍이 있을 때 이 계양산은 수주악(樹州岳)이라 불리웠다. 그러던 이 수주가 1150년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개칭되면서 수주악을 안남산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후 1215년에 안남도호부가 계양도호부로 개칭되면서부터 계양산(桂陽山)이라 부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310년 계양도호부는 부평부(富平府)가 되었다. 그러나 왜 부평산이라 부르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계양산은 기서(畿西)지방의 주산(主山)으로 문학산, 청량산과 더불어 인천의 삼대명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택리지(擇理誌)에 보면 보은 속리산의 낭맥 한자락이 죽산 칠현산을 거쳐 화성 광교산에 이르고, 안양 수리산을 거쳐 소래산에 이어 원통산을 거쳐 계양산이 우뚝 선다. 계양산에서 양곡 수안산으로 뻗은 산맥이 둘로 갈라져 한쪽은 북으로 흘러 통진 문수산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서쪽으로 나아가 강을 건너 강화 대모산을 만들어 덕정산, 진강산, 퇴모산, 혈구산을 낳고 북진하여 강화의 진산인 고려산을 만들었다. 또 고려산은 서북쪽의 별림산과 봉천산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교동으로 이어졌다. 대모산에서 덕정산으로 이어진 줄기는 정족산을 만들고, 동쪽으로 흘러 길상산에서 마리산으로 이어지니 마리산은 형(兄)이고 계양산은 아우

(弟)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산천조 참조).

(2) 고성살이

지금의 싸이클경기장에서 성불사(成佛寺)사이 일대를 고성살이라 불리웠는데 이는 계양산성(桂陽山城)이란 옛 고성(古成)이 있다하여 고성산(古城山)이라 하였다. 바로 고성(古城)의 밑에 산다하여 고성살이 또는 고생사리로 불려오고 있다.

(3) 고양꿀과 지래꿀

중구봉(重九峯) 동맥은 가현(佳峴)을 이루고, 북맥은 동으로 휘어져 부평향교터를 이루는 형상을 하니 지금의 인천교육대학교 정문 앞은 아늑한 골짜기를 이루어 고양굴이라 불리워 왔다.

이 고양굴은 귀향골이 변해진 말로 문열공(文烈公)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일찌기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지낼 때 죄인을 치죄(治罪)하다가 너무 심하게 다루었던지 죄수가 죽어서 그일로 탄핵(彈劾)을 받아 부평에 유배(流配)되어 귀양살이 하던 골짜기라서 귀양굴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 고양꿀이 되었다.

김포 감정리(坎井里)에 우도서원(牛堵書院)이 있어 매년 8월이면 군수이하 전 군민이 모여 제향을 올리는데 바로 문열공 조중봉을 배향하는 곳이고, 이곳이 조헌이 태생한 고장이다. 그는 다섯살에 글을 읽었으며, 열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나 항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김황(金滉)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학하였다.

집에서 스승이 계신 불놀이를 하러 가려면「여우재」란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저녁에 어린 몸으로 혼자 고개를 넘으면 미인으로 도섭한 여우가 여의주를 입안에서 굴리며 희롱하기를 매일같이 계속하니 낮에는 공부에 시달리고, 밤이면 미인한테 시달림을 받아 안색이 창백하고 몸이 여위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선생이 하도 이상하여 채근해 물었다. 그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아뢰었다.

선생이 이르기를 내일 또 만나면 그 여의주를 빼앗아 물고 뒤돌아 보지 말고 입에 문채로 가져오라고 일렀다. 다음날 밤 그 미인을 만나 스승이 일러준대로 여의주를 뺏어 물고 줄달을 쳐 도망하였다. 한참 달려 오다가 궁금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큰여우 한마리가 조헌의 엉덩이를 후려치는 바람에 입에 물었던 여의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여우는 캥소리를 지르며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돌아와서 선생님을 뵈옵고 있었던 일을 고하니, 하늘이 낸 천재로다 하고 탄식을 하였다 한다. 그 후로부터 여우도 나타나지 않고 중봉의 학문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아 일취월장하여 이십사세에 성균관인 태학(太學)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후 율곡 이이(栗谷 李珥)에게 사사

(師事)하고 성혼(成渾), 정철(鄭徹),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涵)과 친히 지내는 동안 선생의 학문은 당대에 명성이 높았다. 특히 이토정(李土亭)과 교분이 두텁고 강직한 성품과 충절로 드높았다.

그러던 중 통진현감때 실수로 부평부의 고향굴에서 귀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귀향살이를 하는데 부친 조응지(趙應祉)께서 운명하시니 귀양살이의 몸이라 거상(居喪)도 못하고 있는데,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涵)이 부평의 적소(謫所)로 조중봉을 찾아와 수일간을 머무르며 시문시답(詩問詩答)을 하는데, 하루는 유성(流星)이 흐르는 것을 본 토정은 중봉에게 앞으로 십오년후에는 유혈(流血)이 뻗치겠다고 예언하였다.

중봉은 학식과 덕망이 두터워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로 쳐들어 올 것을 예견하고 그당시 황무지인 율도(栗島)에 젊은이를 보내서 집을 짓는데 찰흙으로 벽을 바르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살도록 가족들과 젊은이 식구들을 피난시키고 중봉은 상경하여 왜적이 쳐들어 올 것이란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대궐에서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실성한 사람으로 돌리니 도끼(斧)를 지니고 댓돌에 머리를 받아 유혈이 낭자하며 애원하였으나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토정선생이 예언한 대로 임진년에 왜병이 쳐들어오니, 상감은 평양을 향하여 파천되고 한양성은 불바다가 되었다.

중봉선생은 영규대사(靈圭大師)와 같이 의병을 일으켜 빼앗긴 청주성을 탈환하고 금산(錦山)전투에서 관군의 배신으로 고립되어 이를 사수코자 분전하였으나 중과부족으로 중봉은 아드님 완기(完基), 영규대사(靈圭大師)와 더불어 휘하 장졸 7백명이 왜병에게 모두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이곳이 바로 금산의 칠백의총(七百義塚)이다. 그후 중봉 조헌에게 영의정이 추증되고 문열공(文烈公)의 시호를 내리고 선무공신(宣武功臣)이 되었다.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종용사(從容祠)에는 그때 순의된 칠백의병이 위패를 모시고 매년 나라에서 제향을 받들고 있다. 중봉은 성균관을 위시하여 전국 이백삼십일 향교에 한국유현 십팔위에 문열공 조헌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고양굴을 지래굴(池來谷)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이조 말엽 이감찰(李監察)이 낙향하여 삼태안 같은 골짜기 안(지금의 교대정문 자리)에 안팎채 큰 와가를 짓고 앞뜰에 연못을 만들었는데 수원이 좋아 아무리 가물어도 장류수로 흐르는 물은 이 골짜기 전체를 굴죽같은 옥토로 만들어 졌다. 그래서 연못에서 물이 내려오는 골짜기(池來谷)이라 해서 지래꿀이라 불리워 오고 있다.

(4) 온수골

고려 의종 19년(1165) 안남도호부 청사를 오리울(船串)에서 계산동 중구봉(重九峯) 아래로 이전한 태수(太守) 허홍재(許洪材, 훗날 문하시랑, 평장사)를 시발로 고려 고종 2년(1215) 계양도호부로 개칭되어서 고려왕조가 망할 때까지 도호부 청사가 있던 곳을 온수굴, 온수골이라 불리워 오고 있다.

위치는 부평향교 북쪽 산넘어 아늑한 골짜기 아래인데, 지금은 도시발전으로 옛모습은 찾을 길이 없으나 십여년전까지만해도 농경지에 무수한 와편이 있었다. 향교 동쪽 계산천변에 있는 느릅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데, 수령 800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물이 있는데 우물 암벽에 온수동천(溫水洞天)이라 새겨져 있고, 그 옆에 임인 8월 이라 음각된 것으로 보아, 고려 명종 12년(1182) 때의 것으로, 810여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도호부청사가 있는 온수굴(溫水洞)의 입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평 8경에 나오는 온동폭포(溫洞瀑布)는 수원도 끊겼을 뿐아니라 채석장(採石場) 발파 작업으로 모두 없어져 옛 흔적을 전혀 찾을 길이 없다.

계양도호부 청사가 자리한 윗쪽에 부사의 관사인 자오당(自娛堂)이 있었고, 지금의 교육대학 뒷산인 남산(南山)옆에 초정(草亭)이 있었다. 이 고장은 옛 기록이 없어 후세인들이 역사적인 수난을 겪고 있는데, 다만 여말의 대문호 삼혹호선생 이규보가 계양부사(桂陽副使)로 좌천되어 와서 쓴 기록이 그나마 역사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맑은 골짜기라서 두부골(杜府谷), 방앗간인 있던 방아골, 산안의 골짜기라해서 산안골 등이 있다.

(5) 비석거리

부평도호부의 부사(府使)를 지낸 분과 경기도 관찰사(감사)로서 이 고을의 구휼(救恤), 애민(愛民), 선정(善政)에 공적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던 곳을 말한다. 그 원래의 위치는 계산동 964번지로 부평부에서 동구밖에 있어 이곳을 비석거리(碑石街里)라 불러왔다.

이들 비석은 일제 36년 동안 관리 소홀로 모양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해방후 동사무실 또는 향교 앞으로 이전하고, 또 한 때 부평초등학교 진입로에 이전되었다가 지금은 싸이클 경기장 경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많은 수난을 겪었다.

(6) 하마청

어느 고을이던지 향교가 있어 공자를 위시한 성현을 모신 곳이 있었는데, 그앞에서는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 읍하고 지나게 되어 있다. 대개 지상 1m의 높이의 下馬碑라 쓴 표석이 세

워져 있다.

하마비의 위치는 계산동 987번지로 원창동 전조창에서 세곡(稅穀)을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던 경도(京道) 옆 부평향교 밑에 있었다. 비각(碑閣)도 없는 이 비석을 하마청(下馬廳)이라 한 것은 격을 높혀 불르고자한데서 연유되었다고 보아진다.

(7) 먼동재

지금의 작전초등학교 북쪽의 높은 지대가 망동산(望東山)인데, 산이라 하기보다는 솔밭 언덕에 해당하는 이를 「먼동재」라 불러왔다.

북쪽으로 계산천(桂山川)이 굽이쳐 흐르고 있는데, 조그마한 잔디마당이 두개가 있어 부평학교의 운동회나 매년 봄철이면 한량들이 모여 활쏘기 편사를 하던 공설운동장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이곳에는 몇 백년된 노송과 느티나무가 울창하였던 것으로 보아 안산을 드높히고 미려하게 가꾸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을 앞이 너무 허전하여 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 재라 하였고, 망동이 먼동으로 변하여 먼동재라 불리우게 되었다.

### 6) 작전동

(1) 된밭과 쇠면

화전리(化田里)는 부평군의 서면(西面) 소재지로 서면이 쇠면으로 바뀌어 불려진 것이다. 면소(面所)의 위치는 지금의 한신아파트 자리이다. 또 일명 된밭이라고도 불리웠는데, 이는 중구봉(重九峯)의 남쪽 줄기가 가현산(佳峴山)을 이룩하고 계속 남쪽으로 흘러 잔솔밭 등성이가 져서 서면사무소까지 내려 왔는데, 이 야산(野山)이 밭으로 변하여 된밭, 화전(化田)이라 하였다. 부평이씨(富平李氏)의 마을이다.

(2) 갈개

가현리(佳峴里)를 갈개라 불러왔는데, 이는 가현산(佳峴山)의 남쪽 두줄기 사이가 삼태안같이 아늑하고 좌우 줄기의 양쪽 언덕 고개를 포리(浦里) 전조창(轉漕倉)의 세곡(稅穀)을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는 길목이다. 국도로 경치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고개, 곧 가현(佳峴)이라한 것이 얼마전까지도 가을개라 불렀는데, 요즘은 갈개로 불리우고 있다.

이 갈개산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 효령대군파(孝寧大君派)의 종산이 있고, 한때 명사들이 모여 풍류를 즐겼던 곳이라 전하며, 이조말 산청현감(山淸縣監, 金東吉 父親)이 낙향하여 만년을 즐기던 곳이다.

(3) 새대

작전동 4개 마을 중 맨 나중인 조선조때 생긴 마을이라하여 새대(新垈)라 부르게 되었다.

이조 중종때 굴포천을 뚫고 원통현에서 실패한 당대의 권신 김안노(金安老)의 별장이 이곳에 있었다고 전한다. 근세에 들어와 이 고장은 유학계의 원노 안병혁(安炳赫)이 만년을 즐기던 곳이기도 하다.

(4) 까치말

부평읍의 안산인 망동산맥이 동남쪽으로 구릉을 이루어 흘러간 끝부분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까치말은 동네 주위가 허전하여 느티나무 등 많은 나무를 심었다.

옛부터 마을마다 대동우물이 한 두개씩 있었는데, 이 까치마을 우물은 물맛이 좋고 물량이 많았다. 그리고 동리 주위의 많은 나무들에는 우리가 길조(吉鳥)라고 반기는 까치가 많이 서식하였는데, 이 까치와 우물을 상징하여 까치우물이라 하던 것이 까치말로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광산김씨(光山金氏)가 대촌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굉다리

계산동의 지래골에서 흘러 내린 물은 작전동 된밭 앞을 거쳐 서운동 장도못물과 합쳐 굴포천에 입류되었다.

이 개울섶인 망동산 남쪽 논들은 생수가 많은 수렁논으로 흉년을 모르는 논이어서 농민들은 누구나 군침을 삼켰다. 그래서 항상 물이 마르지 않으니 거머리가 들끓어 금얼논들이라 불리웠다.

이 개울은 된밭 앞을 지나갔는데, 마을사람들이 마을앞 전장을 가자면 항상 이 개울을 건너야 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을의 부호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이병률(李秉律)씨댁 문앞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돌다리를 놓기로 하여 온 동리사람이 합심하여 넓적한 바위돌을 옮겨오기도 했지만 다리판으로 도저히 올려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장정한 분이 나타나 내가 해보겠노라 하더니 혼자 안아서 갖다 놓았다. 그때부터 굉장히 큰 돌다리라 하여 이를 요약해서 굉다리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7) 서운동

(1) 도두머리

옛부터 서운동을 도두머리라 불리웠다.

마을이 처음 생긴 것은 1910년 한일합방 때로 박주사라는 사람이 처음 이사를 왔다고 한다. 박주사는 지금의 모연풍씨가 살고 있는 곳에 큰집을 짓고 작인(作人)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 김포 검단의 임덕상, 박성희, 조인수 씨가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한 뒤로 해마다 몇집씩 늘기 시작한 것이 이 마을이 생긴 시초이다.

그럼 왜 동두머리였는가. 계산동 망동산 동쪽줄기 한가닥이 서운동 마을에 오면 주먹을 내민 것같은 동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동쪽의 머리라 해서 동두(東頭)머리라 한것이 도두머리로 변하여 왔다고 한다. 또 일선에는 부평읍 안산격인 망동산줄기가 동쪽 벌판으로 뻗어 뭉친 곳으로, 부평읍에서 서울로 가는 길머리라서 도두리(道頭里)가 되었다고도 하고 있다. 처음 거주한 박주사는 농장을 차려 외아들 용직에게 대를 이어줄 생각이었는데, 그 아들은 마음에 없어 연예계(演藝界)로 나아가 방랑하니, 박주사는 이를 인천의 갑부 장석우(張錫佑)씨에게 넘기고 손을 떼었다.

장석우씨는 장화순(張化淳)의 양부 석윤(錫胤)씨로 하여금 감농케 하였는데,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싹쓸어 모두 없어지니 할 수 없이 손을 놓았다. 그후 일본인이 인수하여 교전농장(橋田農場)을 설립하고 개간하여 구획정리를 하였다. 이때 개량농사법을 강행하여 방죽안 180정보의 대농장을 만들었는데 아주 혁신적인 사업이었다.

이후 1934년 동일은행 두취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서울의 갑부 김한규(金漢奎)가 10만원에 매수하여 김보합명회사란 가족법인 농장을 설립하여 이끌어 오다가, 1949년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모두 분배되어 개인소유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두머리 방죽은 『부평읍지』 또는 『동국여지승람』 부평조에 장성제(長省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태종 17년(1417) 우희열(禹希烈)이 부평뜰 개간사업때 축조된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장성제는 장두못(長陶池)에서 목수통까지의 긴 둑을 말한 것이고, 이에 연결된 동쪽과 북쪽의 방죽둑은 이곳에 인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후에 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장두못과 목수통

서운동 마을앞에 장도못(長陶池)이란 지소(池沼)가 있어 바늘꽃과에 속하는 마름이 자생하고 있었다.

1924년 부평수리조합이 생겨 이곳에 배수로를 설치하게 되자 연못은 없어지고 지하통수로의 물이 솟아 웅덩이가 되었는데, 이를 셍깡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장도지는 장두못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도두머리(瑞雲洞)와 까치말(鵲田洞, 鵲井部落) 사이의 곤논틀 물이 장두못으로 흘러 이물이

장성제(長省堤) 보뚝밖으로 흘러 목수통(苜蓿通)에서 직포(直浦 堀浦川)에 입류되었다. 장성제는 부평읍지에 나와 있듯이, 옛 이 고장의 제일 큰 제언(堤堰)이고, 목수통은 영성미(靈城里, 三山洞) 앞뜰에 삼강(元通川, 淸川, 石川)이 합류되어 물이 고이고, 지반이 높아 인공으로 굴천(堀川)하여 통수하여서 통(通)자를 썼고, 목수는 목숙의 변음으로 목숙(거여목, 개자리, 光風菜, 金枝草등으로 불렀다)은 녹비(綠肥)나 목초로 사용하는 콩과에 속하는 월년초가 이곳에 많이 자생하여서 생긴 이름이다.

(3) 살나리와 한다리

부평읍(桂山洞)에서 서울방향 경도(京道)를 따라 가면 용수로 다리를 건너 길 좌우로 제법 큰 마을이 있는데 이를 살나리(殺拿里)라 부르는데, 길 남쪽은 서운동에 딸린 계산동 지역이고, 북쪽은 계양에 딸린 용종동 지역이다.

그런데 살나리 옆에는 옛 부평부때 죄수를 처형하였던 사형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마을자리는 아니고, 서쪽으로 다리를 건너 좀 올라간 계산천의 개울섶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서울쪽으로 얼마쯤 가면 굴포천이 나오고, 한다리라 불리는 대교(大橋)가 있었다. 한다리는 홍예문(虹霓門) 처럼 미려한 큰 다리로 대교(大橋)라 했고, 직포(直浦)를 대교천(大橋川)이라 불렀다. 한이란 크다는 뜻으로 한다리라 불렀다.

(4) 토탄구덩이

서운동 38, 56번지 일대로 토탄(土炭)을 파냈던 웅덩이를 말한다.

우리의 주거생활은 재래식 온돌로 연료는 수목, 낙엽, 곡초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해방후 일제 학정에서 벗어난 주민들은 치안의 허술함을 틈타 너나 할것 없이 산에 올라 닥치는대로 나무를 마구 베어 땔감나무로 썼다. 이것이 몇해 안되어 계양산을 위시한 모든 산은 나무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6.25를 전후하여 주민들은 산으로 올라가 잘라간 나무뿌리를 캐는가 하면, 잔디뿌리까지 파내어 산야가 전부 황폐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서운동 장성제옆에서 작답(作畓)을 하다가 푸석푸석한 흙을 파내었는데, 이를 햇볕에 말라 불을 질러봤더니 잘 타므로, 너나 할것 없이 파다가 송풍기로 불을 지펴썼다. 이를 토탄(土炭)이라 하는데, 인천시는 이를 권장사업으로 했다. 토탄은 지면에서 약 1m쯤 흙을 파헤치면 그속에 0.5~1.5m 두께로 매장되어 있었고, 빛깔은 황색(黃色)인데 햇빛을 쏘이면 흑색(黑色)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모두 토탄을 캐다가 비축하고 여러 해를 썼는데 그후 무연탄이 보급되면서 사라졌다.

토탄은 지금의 경인고속도로 매표소 북쪽 장성제방 보뚝 밖으로 장두못(長陶池)에 이르는 저지대 일대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토탄을 파냄으로서 큰 웅덩이가 생겨나 토탄구덩이라 부르

게 된 것이다.

토탄층의 형성은 옛날 한강이 홍수로 범람하면 강원도 일대로부터 큰 나무 등 부상물이 급류에 밀려 왔다가 한강물이 서서히 줄어들면 물만 빠지고 큰 물체들은 처져서 쌓이고 쌓이기를 수천년에 이르니 이것이 사장되어 부식된 것으로 보인다.

이 토탄이 방죽둑 밖에만 있고 같은 저지대인 방죽 안쪽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장성제」의 축조는 참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8) 갈산동

#### (1) 갈월리

지금의 갈산동 상수도 정수장 자리가 갈산(葛山)란 야산이 있었던 곳이고, 그 서쪽 4공단 자리에는 김산(金山)이란 김해 김씨 종산이 있었다. 이 갈산(葛山)은 야트막한 야산(野山)인데, 산전체가 칡으로 뒤덮여 있었다. 칡이 어찌나 오래 묵고 굵었던지 마을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대들보로 썼다고 한다. 이 칡덩굴이 우거진 갈산(葛山)에 비추는 밝은 달의 야경(夜景)은 장관을 이루었다. 그래서 갈산명월(葛山明月)이라 한것을 요약하여 갈월리(葛月里)라 불리워 왔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임영대군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어 형제효자를 배출한 효자명문이기도 하다.

이 갈산(葛山)의 칡이 집의 재목으로 쓸 정도로 우거졌었다는데, 지금은 인천의 젖줄인 상수도 정수장이 차지함으로써 한 포기의 칡도 찾을 수 없다.

#### (2) 새갈

1943년 경인고속도로의 전신인 국방도로를 건설할 때 조성할 흙이 부족하여 갈산동 마을 북쪽 등성이의 흙을 가져다 섰다. 그래서 모두 파간 토취장(土取場) 자리가 몇천평의 평지로 남게 되었다. 해방이 되자 이곳에 주택이 들어서 수십호의 촌락을 형성하였는데 새로 생긴 갈월리, 곧 신갈(新葛)이란 뜻에서 새갈로 불리워 왔다.

#### (3) 사근다리

갈산동에서 부평역에 이어지는 김포국도는 한강토지개량조합의 용수로인 간선둑을 같이 사용하였다. 이 서부용수로는 원통천과 연결되는데, 물이 넘치면 여수토교(餘水吐橋)가 있어 수위를 조절을 하였다.

약간 높은 지대의 이곳에 하나 둘 인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농경에 이용하는 허술

한 나무다리가 있었는데 원래 왕래도 드물고 오랜 세월을 방치하여 삭아 있었으니, 이곳을 부르기를 사근다리라 불러왔는데, 이것이 이곳 마을 이름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수로가 전과 같이 있는데 대우자동차 앞 부평세관 근처의 동쪽지점이 된다.

### 9) 삼산동

(1) 후정리

갈산의 동쪽 줄기는 길게 영성산(靈成山)으로 이어져 갔는데, 갈산밑에 갈월리 마을이 있고, 동쪽 등성이 넘어 조그마한 골짜기로 삼태안같이 된 곳이 있어 이곳에 대동 우물을 팠다. 그리고 이곳에 등성이 뒤에 큰우물로 인하여 마을이 생기었다고 해서 후정리(後井里)라 하였다.

이 마을 주위에는 느티나무와 노송이 근자까지도 우거져 마을을 감싸고 있었는데, 도시화의 물결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후정리 마을은 평산 신씨의 누거지로 한일합방후 부내면장을 지낸 신현태(申鉉台)씨가 마을 중앙에 자리 잡고 문중을 통솔했다.

(2) 영성미와 벼락바위

후정리 동쪽 5백미터 현재의 삼산동 90번지 일대에 표고 백미터에 불과한 어여쁘게 생긴 산이 『부평읍지』에 나오는 영성산(靈成山)이다.

1925년 을축년 이전부터 이 영성산 밑에 마을이 생겨남에 따라 산이름을 따서 영성리라 한 것이 발음의 편의상 영성미라 불리우게 되었다.

이 영성산 줄기가 끝머리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바위 상부는 모두 부서져 있어 이곳 사람들은 벼락이 떨어져 그렇게 되었다고 벼락바위라 했는데, 이 말이 번져 아예 마을 이름이 되고 말았으니 영성미와 벼락바위 두 가지 이름을 갖게 되었다.

부평군 읍지 산천조에 이르기를 영성산은 부평부 동남쪽 넓은 벌판 가운데 4리쯤 되는 곳에 있다. 오른쪽에 큰 돌이 있으니 이르기를 홍암(舡巖)이라 한다로 되어 있다. 홍암이란 배다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벼락바위가 아니라 배다리가 잘못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 이 영성산도 1943년 경인고속도로의 전신인 국방도로 건설 때 토취장으로 모두 파가 산의 형태는 없어지고 밑둥만 남아 있다.

또 이르기를 "좌유삼강왈장제(左宥三江曰長堤)"라는 기록이다. 영성산 왼쪽에는 강수가 셋이 있는데, 곧 맑은내(淸川), 원통내(元通川), 돌내(石川)이 삼강(三江)이다. 그런데 이 세 강이 한데 모였는데, 이를 장제(長堤)라 했다. 이 물은 직포(直浦) 즉 굴포천(堀浦川)에 입류(入流)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 삼강이 합류(三江合流)한 곳은 삼산동, 부개동, 상동의 지계(地界)를 이룬 삼산동 141번

지 일대를 말하는데, 그 하류인 목숙교 일대가 지형이 높아 이곳의 물이 잘 빠지지 못하는 침수지대였다. 배다리(舡巖)라 한것은 이 삼강(三江)이 합류된 삼산동 148번지 바다같은 물가운데 큰바위가 홀로 우뚝 서있어 항해중인 돛을 단 배와 같다하여 생긴 이름인데 이, 홍암(舡巖)을 배다리라 불렀다. 이 바위가 하부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이곳 사람들은 그 구멍사이로 배가 드나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배다리 바위도 한말에 신현태(申鉉台) 면장댁을 수축할 때 이 바위를 가져다 썼으므로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3) 흙더미와 2구

영성산(靈成山) 밑에 있는 마을을 영성미 또는 벼락바위라 부르는 한편 흙더미라 불렀다.

이는 1924년 부평수리조합을 설치할 당시 갈산(葛山, 水源地)에서 영성산에 이어진 산줄기 등성이를 끊고 서부간선이란 용수로가 설치되었다. 이때 흙을 파서 제방을 모으고 남은 흙을 마을 입구인 삼산동 76번지 일대에 쌓아 흙더미가 되었고, 이곳에 주막이 몇집 생겼다. 이곳을 흙더미라 부른 것이 마을의 이름이 되었다.

또 이 마을을 2구라고도 불렀다. 이는 1930년경 모든 자연부락 단위로 농촌진흥회가 생겨 후정리(三山洞), 본동(本洞)을 1구(區)라 하고, 신촌(新村)인 영성미를 2구(區)라 한데서 생긴 이름이다. 그래서 이 마을은 영성미, 벼락바위, 흙더미, 2구 등 4개의 이름으로 불리워 왔다.

### 10) 부개동

(1) 마분이

사기(史記)에 "대야원역마동사장우동소정마분(大也院驛馬凍死葬于同所井馬墳)"이란 구절이 나온다. 이는 시흥시에 있는 대야원에서 역마가 얼어 죽어 이곳 부평의 동소정면 말무덤에 묻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말무덤이 있어 마분리라 불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래 우리 민족은 말고기는 먹지 않는 습성이 있어 말이 죽으면 매장을 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대야원, 오류원, 구슬원, 금륜역이 모두 멀지 않은 곳으로 말이 죽으면 이곳 말무덤으로 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까운 마장뜰에도 말을 사육한 국영목장이 있었으니, 죽은 말은 모두 이곳에 매장하여 말무덤(馬墳)이라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2) 벽돌막

지금으로부터 근 40년전 부평의 유지 최성순(崔成淳)씨가 인천의 장 모씨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부평동중학교 동쪽 벌판에 부평연와란 벽돌 공장을 차렸다. 당시 붉은 찰진흙 벌판에

몇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기는 했으나, 이 벽돌막공장을 세우고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지으니, 새로운 마을이 생기게 되어 이곳 일대를 벽돌막으로 부르게 되었다.

(3) 굴재미

경인전철 부평철도 굴다리에서 서울쪽으로 조금 가노라면 오른쪽에 삼태안같은 곳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굴재미라 불렀다. 이 마을의 서쪽은 부평 6동이고, 동쪽은 부개 1동의 관할구역이다.

굴은 굴챙이진 곳이고 재는 산고개를 말하며, 미는 동리란 뜻으로 재 넘어 굴챙이진 마을이라서 굴재미라 불리웠던 것이다.

전설에 나오는 코박굴의 코바위가 동수재이와 마분리 사이에 있었다고 한 것을 볼 때, 그 당시로는 마을이 있을 만한 곳이 이곳 밖에 없어 굴재미 이전에 코박굴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곳의 지형은 금마산(錦馬山, 富開山)의 북맥(北脈)이 흘러 등잔산(燈盞山)이란 조그마한 구릉(丘陵)을 이루고 계속 북으로 이어져 경인전철 철둑인 굴재미에서 끝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산맥의 끝뿌리였는데, 경인철도(1899)부설공사 때 이곳의 흙을 파다가 철뚝을 모았으므로 우묵한 굴챙이가 생기어 마을이 생기게 되었다.

인천시 초대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김영길(金永吉)씨는 1940년경 부개동 309번지 소유자인 소금왕 최병희(崔秉熙)씨의 승락을 얻어 이곳에 콩나물 공장을 세우고 조병창 확장공사에 납품하는 부식용역 사업을 하였다. 그런 뒤로 이곳에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또 의성 김씨 서너집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주택가로 변하여 고층 건물이 꽉차서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4) 신궁동

굴재미 마을 옆에 새로 생긴 마을이 신궁동이다.

1940년경 일본은 부평조평창 확장공사에 이어 일신, 구산도 일대를 강제 수용하여 부평의 제 2군사기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이곳의 물자수송을 위하여 경인철로의 인입선을 부설하는데, 지대가 얕아 역시 굴재미의 산줄기 흙을 파다가 철로둑을 쌓으니 이곳이 철로 분기점이 되고 토취장 자리는 아늑한 집터로 변하여 굴재미는 두개의 마을이 되었다.

이 새말의 이름을 지을 때 새말, 새굴재미, 새굴 등을 거론하다가 마을 형국이 궁궐같이 감싸여 있다고 하여 신궁동(新宮洞)이라 했는데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5) 산동네

부개산 북쪽 골짜기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무허가 판자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무려 수백호에 이르는 마을이 생겨 마을 사람들이 산동네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으슥한 골짜기라 외부로부터 눈에 띄지 않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국유임야 지역이기도 하며 어찌할 방도가 없이 방치해 온 곳이다.

### 11) 일신동

(1) 황굴

일신동은 1940년경에 군수기지로 수용되어 한 때 주택이 철거된 지역이다.

본래 부평도호부때 동소정면 항동(航洞)으로 마을 형국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하여 항동이라 한 것이 황굴로 변하였다. 일신동의 옛마을인 황굴은 동리 안에 우물이 없었다. 그래서 동리 동구 밖에 대동우물을 파놓고 물을 길어다 먹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항굴동리의 형국이 항해중인 배와 같이 생겨서 마을안에 우물을 파면 배밑창을 뚫는 격으로 배가 파선되어 망한다는 속설을 믿었다. 그래서 마을 안에는 절대로 우물을 못파도록 해 왔다고 한다.

항(航)은 항해중인 배고, 동(洞)은 골(고을), 곧 굴로 마을이란 뜻이니 항해중인 배의 마을이라 항동(航洞), 항굴이라 불리워온 것이 황굴로 변하였다고 본다.

이 마을의 위치는 부개초등학교 마을에서 남쪽으로 논들을 건너 등성이 넘어서 있는데, 남향으로 배모양 길게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일제때에 이르러 미신 타파가 성행할 시국이라 이 마을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집에 우물을 파고 살았다. 그러다가 얼마후 이 마을 전체를 위시하여 무너미고개에서 구산동일대까지 전부를 일본군의 군수기지로 수용을 내려 한 집도 안 남기고 전부 철거를 했다.

이 수용된 땅은 써먹지도 못하고 해방이 되니 후에 국군 부대(사단)가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철거된 황굴사람들은 부개동 동쪽끝과 송내역밑에 새 터전을 마련하여 살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일신동이다. 사단 앞에 있는 마을은 해방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마을이 이룩된 곳으로 없어진 항굴과는 무관한 곳이다.

(2) 무네미고개 비루고개(星峴)

이조 중종때 권신 김안노가 굴포천을 개굴하고, 원통현의 암반으로 좌절되니 물줄기를 돌려볼까 하고 안하지고개도 파보고, 또 이 무너미고개도 파보았는데, 모두가 지하에 암반이 깔려 실패로 끝났다. 이때 이 고개로 물을 넘긴다하여 물넘이고개라 한 것이 무네미고개로 불리우

게 되었다 한다.

이 무네미고개 남쪽이 장수동(長壽洞)인데, 이곳은 원래 인천부 조동면(仁川府鳥洞面) 지역이다. 1914년 3월 1일 부군면 폐합때 조동면(鳥洞面)과 남촌면(南村面)을 병합하여 남동면(南洞面)이 되고 무네미(水峴里), 장자골(長者洞), 만의골(晩宜洞)을 병합하여 장자와 수현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장수(長壽)리가 되었다.

무네미란 이름도 김안노(金安老)의 굴포천 개굴할 때인즉, 이조 중종년간 이후에 생겼을 것이다. 이 무네미고개를 비루고개라고도 부르는데, 옛 고지도에는 성현(星峴)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오기(誤記)이다.

옛날 한양에서 이 고개를 넘어 황해바다로 통하는 길목은 두 길이 있었다. 그 하나의 길은 오달기주막거리(구월국교)→황토꼬지(시청부근)→관교동, 문학동을 거쳐 사모지고개(三呼峴)→능허대로 이어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중국의 무역선이 닿았던 수산동(壽山洞) 포구에 이르는 길이었다.

서울에서 험난한 먼 뱃길을 전송나온 가족과 친지가 이곳에서 작별을 나누어 별리고개(別離峴)라 부른던 것이 비루고개로 변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옛날 고구려 시조 동명왕(東明王, 朱蒙)이 죽자 온조(溫祚)와 비류(沸流) 형제는 고구려를 등지고 남하하여 삼각산(三角山)에 올랐는데, 온조는 한산(漢山, 廣州)에 도읍하고 비류는 온조와 헤어져 미추홀에 비류국을 도읍할 때 비류(沸流)가 이 고개를 넘었다 하여 비류고개라 한 것이 비루고개로 변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옛 고지도에 성현(星峴, 별고개)으로 나오는데, 이는 비류고개(沸流峴)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당시 이곳은 장수동 뒷산인 거마산(距馬山) 서쪽 줄기와 금마산(錦馬山)의 동쪽 줄기가 맞닿은 불과 100m의 얕은 고개로 부평부(北區)와 인천부(南洞區)를 경계로 하고 있는 고개였다.

(3) 구산

구산(九山)은 구산(龜山)을 변형 표기한 이름으로 보인다.

구산은 부평부 동소정면(同所井面)과 같은 석천면(石川面)을 경계로한 곳으로 성주산(聖柱山)의 서봉(西峯) 한줄기가 북쪽으로 흘러 내렸는데, 그 형국이 거북이 등성이와 같았다. 그래서 구산(龜山)이라 하여 마을 이름도 구산리(龜山里)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 구산리(九山里)로 적어 구산동(九山洞)으로 되었다고 보아진다.

### 12) 십정동

(1) 열우물

경인철도 백운역(白雲驛)에서 서쪽 동암역(銅岩驛) 사이의 고개를 열우물고개(十井峴, 十項峴)라 한다.

이 고개 넘어 산중턱에 벽촌 마을이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는 대동 우물 한개 파는데 몇날 몇달이 걸리는데, 이 고개에서는 혼자서 며칠간이면 우물을 팔 수 있어 몇집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모두 우물을 파서 한 마을에 우물이 열개도 넘었다. 그리하여 이 마을에 우물이 열개도 넘는다하여 열우물(십정, 十井)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광무 3년(1899)에 발행된 도면에는 십정현(十井峴)으로 나와 있고, 헌종 8년(1842)에 편찬된 도면에도 우물목고개(井項峴)로 나와 있어, 모두 우물과 유래가 깊다. 또 일설에는 상정초등학교 위쪽에 대동 우물이 있어 물량이 많고 아무리 추워도 물이 따뜻하여 열(熱)이 나는 우물이라해서 열우물이라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또 일설에는 십정(十井)은 십정(十丁)의 오기(誤記)로, 대정(大井)도 대정(大丁)의 오기(誤記)로 산맥이 크게 꺾이었다는 뜻이고 보면 산맥이 십(十)자로 교차되어 생긴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형학적으로 보면 화성의 광교산(光敎山)이 북으로 뻗어 안산 수리산(修理山)을 이루고 다시 뻗어 수암산(秀岩山)을 이루었는데 계속 이 산맥이 북으로 뻗어 소래산(蘇萊山)에 이르고, 그 산맥이 서쪽으로 흘러 주안산에 이르러 크게 꺾여 계양산 남쪽 줄기인 원적산 줄기와 교차되어 대정(大丁, 大井)이 생기고, 또 십정(十丁, 十井)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그럴사한 말인데, 고증이 확실하지 않으니 좀 더 연구해 볼 수 밖에 없다.

웃열우물(上十井里)이 옛 원마을이고, 아랫열우물(下十井里)은 지금은 수출5공단 자리에 주안염전이 있어 여기에 종사하는 염부(鹽夫)들이 염전섶에 모여 살던 염부마을이었다. 그리고 화예농사를 짓는 골짜기를 꽃밭말(花田村)이라 하고, 모래가 내려왔다는 사리골(砂利谷)이 있다.

그 밖에도 삼거리말, 양지말, 재말 등의 속지명(俗地名)이 있다.

# 第3章 각동(各洞)의 유래(由來)

## 1. 부평구[1]

### 1) 부평1동

부평(富平)이란 이름은 고려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부평부(富平府)라고 불러진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원래 부평지역은 현 계산동이 그 중심지였으나 경인선에 부평역(富平驛)이 생기면서 그 주변과 시장지역을 부평동(富平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즉 본래 부평은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부내면(府內面) 지역으로 부청사(府廳舍)가 있었으므로 부평읍내(富平邑內)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평과 인천(개항장은 제외)을 합하여 부천군(富川郡)을 신설하고 옛 부평읍내 지역을 부내면(富內面) 부평리(富平里)로 격하시켰다. 이 때 지금의 부평동 지역은 부내면 대정리(大井里－일명 동수쟁이)였다.

그 후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仁川府域) 2차 확장에 따라 이 지역이 인천부에 편입되게 되었으며, 이 때 각 리의 명칭을 모두 일본식으로 고쳐 부평리를 다이쇼마찌(大正町), 대정리를 쇼와마찌(昭和町)로 개명하였다. 해방후 왜식(倭式) 동명(洞名) 변경에 의하여(인천부 고시 제62호) 다시 다이쇼마찌(옛 부평리)를 계산동으로, 쇼와마찌(옛 대정리)를 부평동으로 각각 바꾸었다.

이후 곧 동세가 확장되어 부평동을 부평 1동, 부평 2동, 부평 3동으로 분동하였는데, 1968년 1월 1일 시조례(市條例) 제506호에 의하여 부평 1동을 부평 1동 동부동과 부평 1동 서부동으로 분동하고, 1970년 7월 1일 시조례 제628호에 의하여 부평 1동 동부동을 부평 1동 동부동과 부평 1동 중부동으로, 부평 2동을 부평 2동과 부평 2동 동수동(東樹洞)으로 분동하였다가 1977년 5월 10일 시 조례 제1075호에 의하여 부평 1동 동부동을 부평 4동으로, 부평 1동 중부동을 부평 5동으로, 부평 1동 서부동을 부평 1동으로, 부평 2동 동수동을 부평 6동으로, 그리고 부평 3동과 십정 2동을 합하여 부평 3동으로 모두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1990년 1월 1일에는 구조례(區條例) 제182호에 의하여 부평 3동을 부평 3동과 산곡 3동으로 분동하였다.

현재 부평 1동에는 부평서초등학교와 북부교육구청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단위 동아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동아시티백화점이 들어와 있어서 이 지역의 큰 발

1)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하권, (인천:인천직할시인쇄공업협동조합, 1993) pp. 899～911), 조찬석, "부평지역의 행정구역 변천과 각동의 유래", 기전문화연구제21집(인천: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92) pp. 17～18. 및 pp. 26～27. 조기준, 『부평사연구』(인천: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4) pp. 325～340.

전을 가져 왔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부평 1동회의 소재는 부평구 부평동 70의 126이다.

2) 부평2동

부평2동은 1970년 7월 1일 부평2동에서 부평2동동수동이 분동하여 나간 나머지 지역으로 현재 부평남초등학교와 부일여자중학교 등이 있으며 산 너머쪽에는 부평공동묘지와 부평공설화장장이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부평2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부평동 760의 169이다.

3) 부평3동

부평3동은 1977년 5월 10일 부평3동·십정2동을 명칭 변경한 것이다. 그 후 1990년 1월 1일 부평3동은 부평3동과 산곡3동으로 분동된다. 현재 부평3동에는 부평서중학교, 부평서여자중학교, 부평도서관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부평3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부평동 283의 66이다.

4) 부평4동

부평4동은 1977년 5월 10일 부평1동동부동이 부평4동이 된 것이다. 현재 부평4동에는 북구청이 있으며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부평4동회의 소재는 부평구 부평동 434의 3이다.

5) 부평5동

부평5동은 1977년 5월 10일 부평1동중부동이 부평5동이 된 것이다. 부평5동에는 부흥초등학교와 부평극장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부평5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부평동 152의 9이다.

6) 부평6동

부평6동은 1977년 5월 10일 부평2동동수동이 부평6동으로 변경된 것이다. 현재 부평6동에는 경찰대학이 있으며 성모자혜병원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부평6동회의 소재는 부평구 부평동 657의 29이다.

7) 산곡1동

산곡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마장면(馬場面) 산곡리(山谷里)지역으로 산이 골으로 되었으므로 뫼꼬지, 뫼꽃말 또는 산화촌(山花村), 산곡(山谷)이라 하였으며, 또 조선조 때 말을 먹이던 곳이므로 마장, 백마장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의 폐합에 따라 장끝말을 병합하여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되었으며, 그 후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하구바쬬(白馬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산곡동이

된 것이다. 산곡동은 그 후 1970년 7월 1일 시조례 제628호에 의하여 산곡1동과 산곡2동으로 분동하였고 1990년 1월 1일에는 구조례 제182호에 의거 부평3동을 부평3동과 산곡3동으로 분동하였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다.

산곡1동에는 현재 산곡초등학교와 산곡중학교, 명신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산곡1동 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산곡동 87의 235이다.

8) 산곡2동

산곡2동은 1970년 7월 1일 산곡동에서 분동된 것이다. 산곡2동에는 한양아파트, 경남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곡남중학교가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산곡2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산곡동 122의 10이다.

9) 산곡3동

산곡3동은 1990년 1월 1일 부평3동에서 분동한 것이다. 산곡3동에는 대단위 현대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대정초등학교와 현대백화점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산곡3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산곡동 369의 481이다.

10) 산곡4동

산곡4동은 1993년 12월 1일 구조례 제322호에 의하여 산곡2동에서 분동한 것이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산곡4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산곡동 294의 37이다.

11) 청천1동

청천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마장면 청천리(淸川里) 지역으로 맑은 시내가 있어서 말을 먹였으므로 맑은 내 또는 청천(淸川)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장리를 병합하여 청천리라 해서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시켰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가와가미쪼(川上町)라 하였다. 그 후 해방이 되어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다시 청천동이 된 것이다.

그리고 청천동은 1990년 5월 1일 구조례 제190호에 의하여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분동된다. 청천1동에는 청천초등학교가 있으며 특히 1961년 12월부터는 음성나환자를 집단수용하여 양계마을을 형성 양계업으로 생계를 유지토록 하였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청천1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청천동 168의 4이다.

12) 청천2동

청천2동은 1990년 5월 1일 청천동에서 분동한 것이다. 현재 청천2동에는 부평경찰서와 부평안병원, 청천중학교 등이 있으며 특히 대우자동차공장이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청천2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청천동 174의 6이다.

### 13) 갈산동

갈산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서면 갈월리(葛月里) 지역으로 갈울 또는 갈월, 갈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근다리를 병합하여 부천군 부내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요시노쪼(吉野町)라 하다가 해방 후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갈산동이 되었다. 갈산동은 1977년 5월 10일 삼산동을 흡수하여 동세가 확장되었다가 1992년 9월 1일 구조례 제292호에 의하여 삼산동을 다시 분동시켰다. 갈산동도 경인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갈산동에는 부평정수사업소, 부평관광호텔을 비롯하여 많은 아파트가 있으며, 또 부평북초등학교가 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갈산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갈산동 68번지이다.

### 14) 삼산동

삼산동(三山洞)은 본래 부평도호부 서면 후정리(後井里) 지역으로 마을 뒤에 우물이 있으므로 뒤우물 또는 후정동(後井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영성미를 병합하여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시켰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다시 편입되어 왜식으로 미가사쪼(三笠町)라 하였다. 그 후 해방이 되어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삼산동이 되었다. 1977년 5월 10일에는 갈산동과 합하여 한때 갈산동 동회의 관할이었다가 1992년 9월 1일 구조례 제292호에 의하여 갈산동에서 다시 분동하였다. 삼산동이란 이 지역이 영선산과 장수못, 조산 등의 세산이 둘러 쌓인 분지모양의 지형에서 생긴 이름이다. 그리고 삼산동도 60년대 말 인근 작전동과 효성동에 수출공단이 들어 서고 경인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급격히 개발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동내 곳곳에 각종 공장과 주택이 들어 서고, 최근에도 대보아파트, 삼보아파트 등 큰 아파트단지까지 조성되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삼산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삼산동 192의 5이다.

### 15) 부개1동

부개동(富開洞)은 본래 부평도호부 동소정면(同所井面) 마분리(馬墳里) 지역으로 말무덤이 있으므로 말무덤 또는 마분, 마분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등세이, 굴째미, 새말을 병합하여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하였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메이지마찌(明治町)가 되었다. 그 후 해방이 되어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부개봉(富開峯)의 이름을 따서 부개동이 된다. 1977년 5월 10일 일신동과 구산동을 포함하여 부개동으로 하였다가 1982년 9월 1일 시조례 제1569호에 의하여 부개동을 부개동과 일신동으로 분동하였으며, 1985년 11월 15일 시조례 제1895호에 의해 부개동을 다시 부개1동과 부개2동으로 분동하였고, 1992년 9월 1일 구조례 제292호에

의거 부개2동을 다시 부개2동과 부개3동으로 분동하였다. 부개1동에는 현재 부개초등학교와 동방전자, 유성화학, 경인제철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부개1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부개동 259의 10이다.

16) 부개2동

부개2동은 1985년 11월 15일 부개동에서 분동하였으며, 1992년 9월 1일에는 부개2동이 부개2동과 부개3동으로 다시 분동되었다. 현재 부개2동에는 부개서초등학교와 부평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부개2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부개동 124의 35이다.

17) 부개3동

부개3동은 1992년 9월 1일 부개2동에서 분동한 것이다. 현재 부개3동에는 부광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부개3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부개동 477의 3이다.

18) 일신동

일신동(日新洞)은 일신동과 구산동(九山洞)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2년 9월 1일 시조례 제1569호에 의하여 부개동에서 분동되었다. 1996년 3월 1일 북구에서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현재 일신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일신동 96번지이다.

(1) 일신동

일신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동소정면 항동(航洞) 지역으로 큰 골짜기가 되므로 항골, 황골, 또는 항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부안을 병합하여 항동리(航洞里)라 해서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하였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가도리쬬(香取町)가 되었다. 그 후 해방이 되어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일신동이 된다. 1977년 5월 10일에는 한때 부개동회의 관할이 되었다가 1982년 9월 1일 구산동을 합해서 일신동회의 관할이 되었다. 현재 일신동에는 일신초등학교가 있다.

(2) 구산동

구산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동소정면 구산리(九山里) 지역으로 지형이 거북처럼 생겼으므로 귀산(龜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역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이도오쬬(伊藤町)라 하였다. 해방후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구산동이 되었다. 구산동에는 현재 노동부과학연구원, 노동부중앙직업훈련원, 국립중앙병원 등이 있다.

19) 십정1동

십정동은 본래 인천도호부 주안면(朱雁面) 상십정리(上十井里), 하십정리(下十井里) 지역으

로 우물이 열이 있으므로 열우물 또는 십정, 십정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거리, 꽃밭골, 안터를 병합하여 부천군 다주면(多朱面) 십정리(十井里)로 하였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다시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오오지마쵸(大島町)라 하였다. 그 후 해방이 되어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십정동이 되었다. 십정동은 1962년에 갈라서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분동하였는데 1977년 5월 10일 시조례 제1075호에 의거 십정1동은 십정동으로 하고, 십정2동은 부평3동에 흡수시켰다. 그 후 1985년 11월 15일 시조례 제1895호에 의해 십정동이 다시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분동되었다.

1996년 3월 1일 북구가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현재 십정1동에는 십정초등학교가 있으며 십정1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십정동 294의 4이다.

20) 십정2동

십정2동은 1985년 11월 15일 십정동에서 분동된 것이다. 현재 십정2동에는 동암역이 있으며, 동암초등학교와 동암중학교가 있다. 1996년 3월 1일 북구가 부평구로 바뀌었으며, 십정2동 동회의 소재지는 부평구 십정동 584번지이다.

## 2. 계양구

1) 효성1동

효성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마장면 효성리(曉星里) 지역으로 원적산(元積山) 밑에 큰 벼랑이 있으므로 새별리, 새별 또는 효성(曉星)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말, 넘말, 아나지(安和地)를 병합하여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시켰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아께보노쵸(曙町)가 되었다. 그 후 해방이 되어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효성동이 되었다. 그리고 1990년 1월 1일 구조례 제182호에 의하여 효성동을 효성1동과 효성2동으로 분동하였다. 효성동은 옛부터 서해도서로부터 소금과 절인생선 양곡등이 모월곶(毛月串) 포구로 입하되면 길마에 싣고 안아지고개와 길마재를 넘어 새별이 앞을 지나 약대를 거쳐 마포나룻터로 가던 곳으로 1950년대까지도 별다른 발전이 없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고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효성1동에는 그 배후 도시로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효성초등학교와 효성중학교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계양구로 바뀌었으며, 효성1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효성동 25의 6이다.

2) 효성2동

효성2동은 1990년 1월 1일 효성동에서 분동한 것이다. 효성2동은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수출공단이 빽빽히 조성된 지역으로 삼익악기, 풍산금속 등 200여개의 기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효성서초등학교와 수협연수원(水協硏修院)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계양구로 바뀌었으며, 효성2동 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효성동 321의 7이다.

3) 계산1동

계산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부내면 상동(上洞)과 하동(下洞) 지역으로 부평읍 또는 부평구읍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양골, 주막거리, 살나리를 병합하여 부평리(富平里) 및 하리(下里)라 해서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에 의하여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다이쇼마찌(大正町)가 되었으며, 해방 후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계양산 밑이 되므로 계산동으로 고쳤다. 계산동은 1962년 계산1동과 계산2동으로 분동하였는데, 1978년 5월 10일 시조례 제1075호에 의하여 계산1동은 다시 계산동으로 되었고, 계산2동은 서운동과 합하여 서운동(瑞雲洞)이 되었다. 1990년 1월 1일에는 구조례 제182호에 의해 계산동은 다시 계산1동과 계산2동으로 분동하였고, 1991년 8월 27일에는 구조례 제241호에 의거 계산2동이 계산2동과 계산3동으로 분동하였다.

현재 계산1동에는 부평초등학교내에 부평도호부청사(시지정 문화재 제2호) 일부가 남아 있고, 부평향교(富平鄕校)가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교육대학교가 숭의동에서 이사를 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계양구로 바뀌었으며, 계산1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계산동 953번지이다.

4) 계산2동

계산2동은 1990년 1월 1일 계산동에서 분동한 것이다. 현재 계산2동에는 계산초등학교와 까르멜수도원이 있으며, 나드리백화점, 싸이클경기장 등이 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계양구로 바뀌었으며, 계산2동 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계산동 517번지이다.

5) 계산3동

계산3동은 1991년 8월 27일 계산2동에서 분동한 것이다. 현재 계산3동에는 계산중학교가 있으며 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많은 아파트가 세워져 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계양구로 바뀌었으며, 계산3동 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계산동 337의 11이다.

6) 작전1동

작전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서면(西面) 작정리(鵲井里:까치말), 화전리(化田里:된밭), 신대리(新垈里:새터), 가현리(佳峴里:가루게) 등 4개리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 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사꾸덴죠(鵲田町)라 하였다. 이것은 4개리중 작정과 화전의 두 동리가 가장 컸으므로 작정(鵲井)의 작자(鵲字)와 화전(化田)의 전자(田字)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그 후 해방이 되어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작전동이 되었다. 그리고 1990년 5월 1일에는 구조례 제190호에 의하여 작전동이 작전1동과 작전2동으로 분동되었다. 작전동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순수한 농경지역이었으나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제4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어 고속도로 주변으로 공장이 들어 서면서 공업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작전1동에는 작전초등학교와 화전초등학교가 있으며, 삼익악기, 해태음료 등 많은 공장이 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계양구로 바뀌었으며, 작전1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작전동 147번지이다.

7) 작전2동

작전2동은 1990년 5월 1일 작전동에서 분동된 것이다. 작전2동에는 경인고소도로 부평인터체인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계산동에 이르는 직선도로가 훤하게 뚫려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계양구로 바뀌었으며, 작전2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작전동 856의 119이다.

8) 서운동

서운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서면 도두리(道頭里) 지역으로 마을이 길의 머리쪽이 되므로 길머리, 도두머리 또는 도두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도오운쬬(東雲町)가 되었다. 그 후 해방이 되어 1946년 1월 1일부터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서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1977년 5월 10일에는 계산2동을 통합하여 서운동이 확장되었다. 서운동(瑞雲洞)이란 해방을 맞이하여 상서로운 고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지어진 동명인데 최근까지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비로서 개발의 기지개를 펴려 하고 있다. 서운동에는 현재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다.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에서 계양구로 바뀌었으며, 서운동 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서운동 30의 6이다.

9) 계양1동

계양동은 본래 부평도호부에 딸린 황어향(黃魚鄕)인데 조선조 때 황어면(黃魚面)이 되어 둑실리(纛室里), 목상리(木霜里), 역동(驛洞), 갈산리(葛山里), 오류동(梧柳洞), 이하촌(梨花村), 노오지리(老吾之里), 선주지리(仙舟之里), 장기리(場基里) 등 9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東面)의 임학동(林鶴洞) 용종리(龍宗里), 병방리(兵房里), 박촌리(朴村里), 방축리(防築里)의 5개 동리와 당산면(堂山面)의 동양리(東陽里), 굴현리(堀峴里), 상야리(上野里), 하야리(下野里), 평리(坪里)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계양산의 이름을 따서 계양면(桂陽面)이라 해서 부천군에 편입시켰다. 그 후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579호에 의하여 김포군(金浦郡)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1호에 의해 인천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어 계양동(桂陽洞)이 되었다. 그리고 1992년 9월 1일 구조례 제292호에 의하여 계양동이 계양1동과 계양2동으로 분동되었다. 이후 1996년 3월 1일 북구가 분구되면서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현재 계양1동 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장기동 76의 1이다.

(1) 장기동

장기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黃魚面) 장기리(場基里)의 지역으로 황어시장(黃魚市場)이 있으므로 황어장터, 황어장, 장터, 또는 장기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인천 북구에 다시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계양구로 소속되었다.

(2) 박촌동

박촌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동면(東面) 박촌리(朴村里) 지역으로 박씨가 많이 살았으므로 박말 또는 박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가묘(馬哥墓) 송현말(松峴村)을 병합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인천 북구에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3) 동양동

동양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당산면(堂山面) 동양리(東陽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당미, 양지편, 모통말, 동넠말을 병합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인천 북구에 다시 편입되어 오다가 계양구의 신설로 여기에 편입되었다.

(4) 귤현동

귤현동(橘峴洞)은 본래 부평도호부 당산면 굴현리(堀峴里) 지역으로 굴재 밑이 되므로 굴재 또는 굴현(堀峴)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황어면의 노오지리(老吾之

里) 일부를 병합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인천 북구에 다시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계양구에 소속되었다.

(5) 상야동

상야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당산면 상야리(上野里) 지역으로 벌판에 마을이 위, 아래로 둘이 있는데 위쪽이 되므로 윗벌말 또는 상야촌(上野村)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인천 북구에 다시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계양구에 소속되었다.

(6) 하야동

하야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당산면 하야리(下野里) 지역으로 벌판에 마을이 위, 아래로 둘이 있는데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벌말 또는 하아촌(下野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인천 북구에 다시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계양구에 소속되었다.

(7) 평동

평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당산면 평리(坪里) 지역으로 벌판이 되므로 벌말 또는 평리(坪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에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계양구에 소속되었다.

(8) 선주지동

선주지동(仙住地洞)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 선주지리(仙舟之里) 지역으로 예전에 큰 장마 때 배가 이곳에 들어 와서 수재민들을 구했으므로 선주지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주지리(仙住地里)라 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인천 북구에 다시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가 분구되면서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9) 이화동

이화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黃魚面) 이화촌(梨花村) 지역으로, 벌판 가운데 마을로서 한강으로 통하여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서 배곶, 배고지, 배꼬지 또는 이화(梨花)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김포군 노장면(蘆長面) 당하리(堂下里)일부를 병합하여 부천군 계양면 이화리(梨花里)로 되고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인천 북구에 다시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가 분구되면서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⑽ 오류동

오류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 오류동(梧柳洞) 지역으로 오리나무가 많았으므로 오리울, 오릿골 또는 오류울, 오류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김포군 노장면 당하리 일부를 병합하여 오류리(梧柳里)라 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하였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로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가 분구되면서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⑾ 갈현동

갈현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 갈산리(葛山里) 지역으로 갈미, 칙미 또는 갈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김포군 노장면 당하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인천 북구에 다시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가 분구되면서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⑿ 둑실동

둑실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 둑실리(蘇室里) 지역으로 지형이 둑처럼 생겼으므로 둑실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성황당, 범무골, 바랫벌을 병합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에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가 분구되면서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⒀ 목상동

목상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 목상리(木霜里) 지역으로 뒤에 있는 계양산에 나무가 많아서 나무 서리를 하므로 나무서리 또는 목상(木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에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부로 북구가 분구되면서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⒁ 다남동

다남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 역동(驛洞) 지역으로 조선조 때 금륜역(金輪驛)이 있었으므로 금륜(金輪), 역골, 역말, 역동 또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고 하여 다랑이(多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남리(多男里)라 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에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북구가 분구됨에 따라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⒂ 노오지동

노오지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황어면 노오지리(老吾之里) 지역으로 옛날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못에 오래 묵은 잉어가 있어 노어지(老魚池)라 이름했던 것이 노오지라 부르게 되

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노오지리(老吾地里)라 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로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북구가 분구됨에 따라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10) 계양2동

계양2동은 1992년 9월 1일 계양동에서 분동된 것이다. 현재 계양2동 동회의 소재지는 계양구 임학동 69의 9이다.

(1) 임학동

임학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동면(東面) 임학동(林鶴洞) 지역으로 고성산성 밑이 되어 막(幕)이 있었으므로 예막골, 이막골 또는 임학골, 임학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임학리(林鶴里)라 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에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북구가 분구됨에 따라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2) 용종동

용종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동면 용종리(龍宗里) 지역으로 마을의 산줄기 모양이 용의 등마루 같다 하여 용마루 또는 용종(龍宗)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종리라 하여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에 편입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북구가 분구됨에 따라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3) 병방동

병방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동면 병방리(兵房里) 지역으로 병대(兵隊)가 주둔하였으므로 병방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에 편입되어 병방동이 되었다가 1996년 3월 1일 북구가 분구됨에 따라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4) 방축동

방축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동면 방축리(防築里) 지역으로 앞에 방축이 있으므로 방축안 또는 방축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김포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다시 인천 북구에 편입되어 방축동이 되었다. 그후 1996년 3월 1일 북구가 분구됨에 따라 계양구로 편입되었다.

## 4. 서 구[2]

### 1) 검암동

검암동은 법정동(法定洞)인 검암동(黔岩洞)과 백석동(白石洞), 시천동(始川洞)을 포함한 지역으로 1968년 1월 1일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법률 제1919호) 인천시 북구 백석·시천·검암동이라 하였다가 1977년 5월 10일 시조례 제1075호에 의거 백석동으로 개칭하였고, 곧 이어 1978년 7월 1일 시조례 제1128호에 의거 다시 검암동으로 개칭된 것이다. 그 후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67호에 의거 인천직할시 서구가 설치됨에 따라 인천직할시 서구 검암동이 되었다. 현재 검암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검암동 225의 5이다.

(1) 검암동

검암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모월곶면(毛月串面) 검암리(黔岩里) 지역으로 큰 검은 바위가 있으므로(현재 서인천고등학교 담장 옆) 검바위, 금바위 또는 검암, 금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벗쪽말, 간재율을 병합하여 부천군 서곶면(西串面)에 편입하였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우리바에쪼(瓜生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검암동이 되었다. 검암동은 최근까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나 김포군 검단면(黔丹面)으로 향하는 4차선 도로확장과 서해 매립 등으로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현재 검암동에는 서인천고등학교와 대인고등학교가 있다.

(2) 백석동

백석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모월곶면 백석리(白石里) 지역으로 뒷산의 주봉(主峰)이 흰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흰돌, 힌돌, 한돌, 한들 또는 백석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독정이, 너머말, 도마메, 골말, 거월이, 소데이, 종말을 병합하여 부천군 서곶면에 편입하였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운요오쪼(雲揚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백석동(白石洞)이 되었다. 백석동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나 최근에 이웃 검단면으로 향하는 도로의 확장과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하는 신설도로가 개설되므로써 이 지역의 개발이 한층 바빠지고 있다. 백석동에는 현재 백석초등학교가 있으며 백석묘지도 있다.

(3) 시천동

시천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모월곶면 시천리(始川里) 지역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 가는 시내가 있으므로 시시내 또는 시천(始川)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

2)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위의글. pp. 911~916.

합에 따라 객골, 안골, 점말을 병합하여 부천군 서곳면에 편입하였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하루히쬬(春日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며 변경에 의하여 시천동이 되었다. 시천동은 아직도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남아 있다.

2) 경서동

경서동(景西洞)은 본래 부평도호부 모월곳면 고잔리(高棧里) 지역으로 지형이 곶으로 되었으므로 고잔 또는 쑥이 많으므로 쑥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도(蛇島), 난지도(蘭芝島), 청라도(菁羅島), 일도(一島), 장도(長島)를 병합하여 고잔리(高棧里)라 해서 부천군 서곳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리까쬬(李家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경서동이 되었다. 경서동이란 해방후 경명현(景明峴) 서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경서동은 1986년 이후 율도(栗島)와 이도(耳島) 묘도(猫島)를 연결하는 대간척사업이 완성되므로서 약 천만평의 땅이 생기고 여러 섬들이 육지로 변하였다. 이곳에는 최근에 대단위 주물단지(鑄物團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경서동에는 골프장이 있으며, 골프장내에 녹청자도요지(綠靑磁陶窯址 사적 제211호)가 있다. 경서동 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경서동 197의 6이다.

3) 연희동

연희동(連喜洞)은 1977년 5월 10일 시조례 제1075호에 의하여 북구 공촌(公村)·연희(連喜)·심곡동(深谷洞)을 연희동으로 개칭한 것이다. 그 후 1988년 1월 1일 서구가 신설되므로써 서구 연희동이 되었다.

(1) 연희동

연희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모월곳면 연희리(連喜里)의 지역으로 지형이 연꽃처럼 생겼으므로 연잎 또는 연희, 연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의길, 용의머리, 샛말을 병합하여 부천군 서곳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이노우에쬬(井上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연희동이 되었다. 연희동은 그동안 순수 농촌지역이었으나 최근 4차선 신설도로가 생기고 서구 구청이 들어섬으로써 크게 발전하고 있다.

(2) 공촌동

공촌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모월곳면 공촌리(公村里) 지역으로 고련이 또는 공촌(公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자터, 갈미, 벌터, 빈정을 병합하여 부천군 서곳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구로다쬬(黑田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다시 공촌동이 되었다. 공촌동은

아직까지 농촌마을이라 하겠으나 최근 장명이고개를 넘어 계산동으로 넘어 가는 도로가 개설 확장되므로써 이 지역의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그리고 고련이(또는 고현이)는 부평의 발생지로 지금의 계산동 구부평읍내(旧富平邑內)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3) 심곡동

심곡동은 본래 인천도호부 모월곶면 심곡리(沈谷里)의 지역으로 깊은 골짜기가 되므로 깊은골, 짚은골 또는 심곡(沈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절골, 모통말, 양가말, 뒷골을 병합하여 부천군 서곶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히스미쪼(日進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심곡동이 되었다. 심곡동도 요즈음 한참 개발중이며 일찌기 한국은행체육관, 인천시공무원교육원등이 들어와 있다.

4) 가정1동

가정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석곶면(石串面) 가정리(佳亭里) 지역으로 고려 말에 숙위공(肅魏公) 조반(趙胖)이 이곳에 살면서 석호가정(石湖佳亭)을 세웠으므로 가정(佳亭)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돌고지, 각골, 되린결, 심아굴, 봉우재, 산저동을 병합하여 부평군 서곶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지요다쪼(千代田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면 변경에 의하여 가정동(佳亭洞)이 되었다. 그 후 가정동은 1968년 1월 1일 구제실시에 따라 북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신현동(新峴洞)과 석남동(石南洞)을 포함 가정·신현·석남동이라 하던 것을 1977년 5월 10일 시조례 제628호에 의하여 석남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83년 10월 1일 시조례 제1649호에 의거 석남동을 다시 석남동과 가신동(佳新洞)으로 분동하였으며, 1990년 1월 1일 구조례 제171호에 의하여 가신동을 다시 가정동과 신현동으로 분동하였고, 1991년 8월 17일 구조례 제227호에 의거 가정동을 다시 가정1동과 가정2동으로 분동하였다.

가정1동에는 현재 콜롬비아군 6.25참전 기념비가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다. 가정1동 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가정동 475의 11이다.

5) 가정2동

가정2동을 1991년 8월 17일 가정동에서 분동된 것이다. 가정2동에는 서인천인터체인지가 있으며, 기도의집 수녀원과 많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가정2동 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가정동 540번지이다.

6) 신현동

신현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석곶면 신현리(新峴里) 지역으로 새오개(고개) 밑이 되므로 새

오개 또는 신현(新峴)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요굴, 구석말, 양금머리를 병합하여 부천군 서곶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겐무쬬(玄武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신현동이 되었다. 신현동은 1968년 1월 1일 구제실시에 따라 북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석남동과 가정동을 포함하여 가정·신현·석남동이라 하던 것을 1977년 5월 10일 석남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후 1983년 10월 1일에는 석남동을 석남동과 가신동으로 분동하였다. 1988년 1월 1일 서구가 설치되므로써 서구 가신동이 되었다가 1990년 1월 1일 구조례 제171호에 의하여 가신동을 다시 가정동과 신현동으로 분동하였다. 신현동은 1975년 까지만 하여도 산과 들만 있는 전형적인 시골이었으나 지금은 천혜의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이 꽉 들어 차 있다.

신현동에는 신현초등학교가 있으며 현재 신현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신현동 294번지이다.

### 7) 석남1동

석남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석곶면 번작리(番作里)와 고잔리(高棧里)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바그뫼, 독굴, 옻우물, 명각굴을 병합하여 고잔(高棧)과 번작(番作)의 이름을 따서 고작리(高作里)라 하여 부천군 서곶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무라가미쬬(村上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전 석곶면의 남쪽이 되므로 석남동(石南洞)으로 고쳤다. 석남동은 1968년 1월 1일 구제실시에 따라 북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가정동과 신현동을 포함하여 가정·신현·석남동이라 하던 것을 1977년 5월 10일 석남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83년 10월 1일 석남동을 석남동과 가신동으로 다시 분동하였다. 그 후 1985년 11월 15일 시조례 제1895호에 의하여 석남동을 석남1동과 석남2동으로 분동하였으며, 1988년 1월 1일에는 서구가 설치되어 서구로 편입되게 되었고, 1992년 9월 5일 구조례 제264호에 의하여 석남1동이 석남1동과 석남3동으로 다시 분동하였다. 석남동은 동 한가운데를 관통한 경인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83년부터 시작된 서해안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석남1동에는 신석초등학교가 있으며, 석남1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석남1동 465의 3이다.

### 8) 석남2동

석남2동은 1985년 11월 15일 석남동에서 분동되었다. 석남2동에는 현재 석남서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밖에 중앙종합목재, 이화산업, 한국타이어 등 많은 기업체의 공장들이 있다. 석남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석남2동 549의 12이다.

9) 석남3동

석남3동은 1992년 9월 5일 석남1동에서 분동되었다. 석남3동에는 현재 석남초등학교와 경인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석남3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석남동 109의 4이다.

10) 원창동

원창동(元倉洞)은 본래 부평도호부 석곶면 포리(浦里) 지역으로 환자(還子) 창고가 있으므로 환자골 또는 창동(倉洞), 원창(元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동구역 폐합에 따라 넘말, 밤염, 세어도, 까투렴, 장끼염, 작은염, 장구염, 목섬, 범섬, 세루를 병합하여 부천군 서곶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히사미스쬬(久水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원창동이 되었다. 원창동이란 삼남(三南)의 세곡을 서울로 수송하기 위해 모아 두는 전조창(轉漕倉)이 있었던 곳이란 뜻에서 생긴 이름이다. 원창동은 그동안 도시속의 오지였으나 1971년 경인에너지가 이곳에 들어서면서 마을 형태를 갖춰 가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부터 시작된 원창·김포간 서해안 간척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원창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원창동 132번지이다.

11) 가좌1동

가좌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석곶면 가좌리(佳佐里) 지역으로 가재가 많았으므로 가재울 또는 가좌동(佳佐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감중절, 건지굴, 보도진과 마장면의 산곡리 일부를 병합하여 부천군 서곶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제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왜식으로 아사미쬬(淺間町)라 하다가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가좌동이 되었다. 그 후 가좌동은 1985년 11월 15일 시조례 제1895호에 의하여 가좌1동과 가좌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87년 6월 15일에는 시조례 제2055호에 의해 가좌2동이 가좌2동과 가좌3동으로 분동되었고, 1990년 5월 1일에는 구조례 제178호에 의하여 가좌2동이 다시 가좌2동과 가좌4동으로 분동되었다. 속칭 개건너라고 불리우던 가좌동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시내에서 사람들이 건너와 칡뿌리, 나무 등을 캐거나 특히 망둥이 낚시를 하던 곳인데 현재 가좌1동 지역은 해안을 매립하고 대단위 목재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가좌1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가좌1동 산 94의 2이다.

12) 가좌2동

가좌2동은 1985년 11월 15일 가좌동에서 분동된 것이다. 그 후 1987년 6월 15일 가좌2동이 가좌2동과 가좌3동으로 분동되었고 1990년 5월 1일에는 가좌2동이 가좌2동과 가좌4동으로 다

시 분동되었다. 가좌2동은 철마산(鐵馬山:사실은 원적산임)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주공아파트, 진주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또한 가좌2동에는 가좌초등학교가 있으며, 가좌2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가좌2동 236의 2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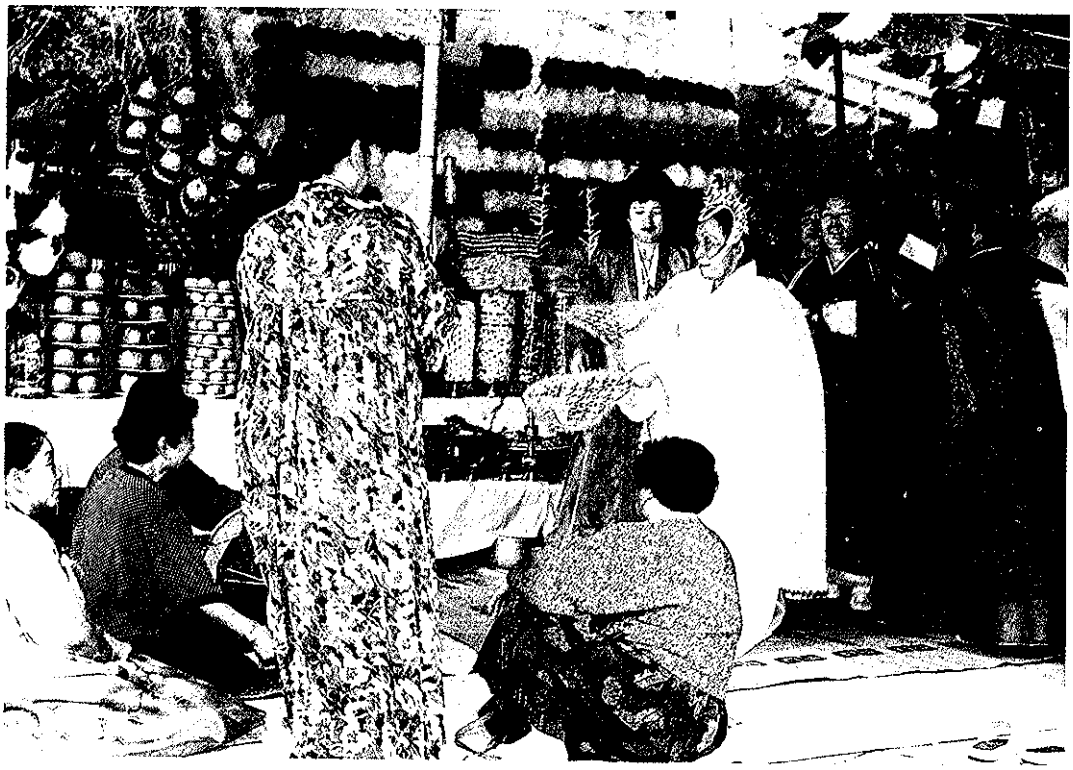
13) 가좌3동

가좌3동은 1987년 6월 15일 가좌2동에서 분동되었다. 가좌3동에는 가좌인터체인지를 비롯하여 한국티파늄공장이 있고 가좌4동과 더불어 대단위 수출5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가좌3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가좌3동 212번지이다.

19) 가좌4동

가좌4동은 1990년 5월 1일 가좌2동에서 분동되었다. 가좌4동에는 수출5단지가 있으며 산밑으로는 대우로얄아파트를 비롯하여 제물포중학교, 동인천여자중학교, 가정초등학교 등이 있다. 가좌4동회의 소재지는 서구 가좌4동 310의 12이다.

# 第 11 篇　民俗과 口碑傳承資料



# 第1章 민속(民俗)

## 1. 민속 신앙(民俗信仰)

부평지방의 민속신앙은 크게 나누어 개인제의(個人祭儀)로서의 가신신앙(家神信仰)과 공동제의(共同祭儀)로서의 동신신앙(洞神信仰)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 1) 가신신앙(家神信仰)

가신신앙은 춘, 하, 추, 동의 계절에 따라 풍요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계절제(季節祭)가 있고, 가택의 요소마다 신이 있어서 집안을 보살펴 주는 것이라 믿고 이 신에게 정기적으로 의례를 올리는 가신제(家神祭)를 들 수 있다.

부평지방의 민가에서는 가택의 요소마다 신(神)이 있어, 이 신들에게 정기적인 의례를 올렸는데, 각 가신(家神)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가신(家神)의 유형

① 성주(城主)신

성주는 가신(家神) 중 최고의 신으로, 가정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이다. 부평 지방에서는 이를 성주대감, 성주조상, 조상신이라고도 불렀다.

이 신은 집의 중심이 되는 대청의 대들보(성조목이라고도 함)나 상기둥의 상부에 창호지에 북어를 싸서 끼어 매놓고 신을 위하였다. 성주신에 대한 제의는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하였을 때 이 신을 새로 봉안하는 의식이 있고, 매년 봄과 가을에는 안택고사가 성주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 차례를 지낼 때도 성주신께 제를 올리고 재수굿에서도 성주신께 기원을 한다. 그 밖에도 햇곡식이 나면 택일을 하여 성주신께 바치는 의식을 가졌다.

제의를 올릴 때 성주풀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성조경의 송독을 일컫는다.

② 조상(祖上)신

부평지방에서는 성주신과 함께 대부분 이 조상신을 두고 있다. 조상신은 후손을 보살펴 주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신이 있는 자리는 안방의 윗목 벽 밑에 있다. 차례 때는 조상상

(床)을 차려 제하고 햇곡식이 나면 성주신과 함께 바친다. 그리고 굿을 할 때는 조상상을 따로 차려 제하며, 별식이 나면 조상에게 한 그릇 바친다.

③ 토주(土主, 터주)신

토주는 지신(地神) 또는 터주, 터줏대감, 토지대감, 토지대장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토주는 집터를 맡아보며 집안의 액운을 걷어주고 재복(財福)을 주는 신으로 믿고 있다. 토주는 집의 뒷뜰 장독대 옆에 '터주가리'로 만들어 모신다. 부평의 민가에서 모시는 터주가리는 서너 되 들이의 옹기나 질그릇 단지에 벼나 쌀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그 위에 짚으로 엮어서 원추형으로 만들어 덮는다.

④ 제석(帝釋)신

제석은 자손들의 수명과 부귀영화를 다스리는 신이다. 신주는 단지 또는 바가지에 쌀을 담고 창호지를 덮어서 방 또는 부엌의 시렁에 부착시키거나 또는 뒷동산 바윗돌에 위치시키기도 한다.

옛날에는 제석굿을 자주 하였는데, 지금은 수년 만에 1회 씩 굿을 하고 있으며, 고사 때에는 백설기를 쪄서 바친다.

⑤ 조왕(竈王)신

조왕신은 육아의 기능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의 옥황상제께 고하는 임무를 맡은 신이다. 일명 조왕대감, 조왕할머니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조왕신이 있는 자리는 부엌 부뚜막 뒤인데, 이곳에 조그만 단지나 바가지에 쌀 또는 정화수(井華水)를 담아놓고 신앙 의례를 표현한다. 매일 주부가 갈아 올리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한 치성을 드린다.

⑥ 삼(三, 產)신

삼신은 산신(產神) 또는 산신할머니라고도 부르며, 주부의 수태, 출산을 다스리는 신이다. 산실로 쓰는 안방에 신주를 모시는데 간혹 장독대를 제장(祭場)으로 쓰이기도 한다. 삼베주머니 2개에 쌀과 미역을 넣은 것을 신체(神體)로 삼거나 창호에 실을 싸서 자루로 만들어 안방 아랫목 구석에 매달아 놓는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을 '삼신자루'라 부르고 있다.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3일 만에 신체를 모시며, 새벽에 길어 온 정화수와 미역국을 차려놓고 신생아의 건강과 발육을 기원한다. 무당을 불러 할 때는 산신고사라고 한다. 이 날은 살생을 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는 물론 빨래도 하지 않는다.

⑦ 칠성(七星)신

칠성은 칠성신을 위하는 의제(儀祭)로 북두칠성에 제를 지낸다. 칠성님께 대한 치성은 가정 운세의 번창과 풍년을 기원한다. 대개 산이나 냇가에 칠성단을 만들고, 칠월 칠석날이 되면 주부가 백미와 정화수를 놓고 치성을 드린다. 10월 보름 또는 정월 보름에 치성을 하기도 한다. 치성을 드리는 내용은 환자의 치유, 과거의 급제, 기타 소원 성취를 하는데, 어떤 주부의 경우는 백일 기도까지 한다.

⑧ 산(山)신

산신에 제사하는 것인데, 대개 주부가 제주가 되며 자기 만이 아는 산 속의 깨끗한 곳(祭場)을 마련하여 아무도 모르게 제를 지낸다. 제사는 대체로 1년에 1, 2회 행하며 제주는 3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모든 금기사항을 지킨다.

때로 제장을 암석이나 고목을 신체(神體)로 삼으며, 제장에서 밥을 짓고 떡과 술, 정화수를 제물로하여 치성을 드린다.

⑨ 성황(城隍)신

풀 속이나 길가 언덕에 돌더미를 쌓거나 수목으로 성황신을 신체로 삼는다. 성황 제단에는 떡이나 약과를 차려놓고 간단히 치성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일가의 평안이나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기원한다든지 소원과 복을 비는 데, 20일 보름날 지내는 것이 통례이나 20일 안에 지내기도 한다.

⑩ 용왕(龍王)신

제신은 수신(水神)과 정신(井神)이다. 용왕제는 일가의 건강, 장수, 가정의 횡액, 수질 예방, 농사의 풍작과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비는 제이다. 대개 정월 안으로 지내는데, 제장은 우물이나 샘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냇가에 사는 사람은 강변이나 나룻터에서 지내기도 한다. 냇가에서 용신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바가지에 촛불을 켜서 띄어 보낸다.

⑪ 철융신, 업신, 우마(牛馬)신

이밖에도 부평 지방에서는 장독대에 철융신이 있어 된장을 보살펴 준다고 믿었고, 우물에 정신(井神)이 있어 물을 마르지 않게 하며, 광에는 업신이 있어서 재복을 주고, 마굿간에는 우마신(牛馬神)이 있어서 우마의 번식을 돌보아 주며, 대문에는 수문신(守門神)이 있어 역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변소에는 측간신(厠間神)이 있어 살(煞)을 막아준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각 장소마다 글씨나 부적을 써붙이는 등 가정의 횡액을 막고 평안을 빈다.

(2) 가신제(家神祭)로서의 계절제(季節祭)

봄의 제의적 행사로서 우선 신년제를 꼽을 수 있다. 신년제는 가정을 단위로 한 개인 제의의 성격을 지니는데, 설날 아침의 차례(茶禮)를 비롯한 안택(安宅), 홍수매기, 제웅치기, 볏가릿대 세우기, 달집 태우기, 다리밟기, 부럼, 달맞이, 복토(福土)훔치기 등이 있었다. 물론 100여년 전만 하더라도 공동제의로 동제, 지신밟기, 쥐불놀이 등도 있었다고는 하나 근래에는 하지 않는다.

① 차례(茶禮)

해가 바뀐 설날 아침에 새로 장만한 설빔으로 갈아 입고 조상에게 제의를 올리는 의례인데, 일명 "차례지낸다"라고 말한다.

일반 민가에서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제물로 떡국과 제주(祭酒)을 바치고 삼배(三拜)를 한다. 그러나 사당을 모신 종가에서는 유가(儒家)식의 제례에 준하여 독축(讀祝)까지 하면서 절차가 복잡하다. 일반 민가의 경우 대개가 조상과 성주신을 주신(主神)으로 제를 하고 그 밖에 지신(地神)과 조왕신(竈王神)을 위시해서 집안 곳곳에 간단한 제물을 바친다.

차례는 큰집에서 모여 지내고, 아침을 먹은 후 집안 어른에게 세배를 드린 다음 이웃의 웃어름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드리며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한다.

② 안택(安宅, 비손)

안택은 새해 1년간의 제액초복과 평안, 풍요를 위해 행해지는 제의이다. 대개 설날을 지내고나서 초이틀날부터 정월 중에 가정마다 각기 날을 정해 행한다.

안택은 비손으로 하는 것과 굿으로 하는 두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비손으로 하는 것은 제물을 간소하게 올리고 축원 위주로 하는 제의이고, 굿형식은 안택굿이라 하여 5~6명의 무당을 불러와 가무 위주로 하는 제의이다.

이 안택의 대상신은 성주신, 지신, 조왕신, 삼신, 업신 등이다. 대개 안방의 웃목이나 장독대, 또는 뒷뜰안의 나무 아래에 상 하나 놓고, 정안수(井華水, 玉水) 한 사발을 제물로 바친 다음 상 앞에 앉아서 두 손을 비비며 소망하는 형식을 이루어진다. 이 때 손을 비비며 소원하는 것이라하여 비손, 혹은 손비빔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즉흥적으로 행해지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비손으로 행해지는 안택은 비는 내용에 따라 입담이 좋은 동네 할머니를 모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중의 원로인 시어머니가 하거나, 독경자를 불러다가 하거나, 여유가 있으면 무녀(巫女)를 청하다가 할 때도 있다.

부평 지방에서 행해졌던 비손의 내용을 조사한 바로는 신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가족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를테면 가족의 사고(四苦:生苦, 病苦, 老苦, 死苦)와 팔난(이별, 怨憎, 원진, 화재, 수마, 심신고통, 도난, 求不得)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할 때, 여인이 아이를 바랄 때, 객지에 있는 가족 또는 여행 중인 가족이 무사하기를 바랄 때, 관재수가 있을 때, 과거시험을 보러 간 식구가 있을 때, 액운이 닥쳤을 때, 난산일 때, 젖이 잘 나오기를 바랄 때, 부부가 불화중일 때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 예로 난산일 때의 비손에서의 상차림과 그 손비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차림 : 미역국 세 그릇, 메(밥) 세 그릇, 정안수 한 그릇, 촛불 한 자루를 제설하고 시어머니 또는 가족 중의 아낙이 삼신에게 빈다.

○ 내용 :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께 비나이다.
○○동에 사는 ○○살 먹은 ○○기주가
자손을 보려고 저 고생을 하고 있나이다.
삼신 할머님 삼신 할어버님께 그저 도와달라고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삼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저 그냥 매달립니다.
○○살 먹은 ○○가중에 ○○기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소사.
노여움이 있으시면 사해같이 풀으시구.
도와만 주십소사 살려만 주십소사.
꺼리낀게 있으시면 뒷전에 식상으루 물리쳐 드릴테니
그저 순산 만 하게 도와를 주십시사.
비나니다 비나니다 두 손모아 비나니다
그저 순산 만 하게 도와를 주십소사.

③ 비방

비방은 뱅애, 방법, 예방, 동법 등으로도 불리우는데, 하나의 심리적 혹은 주술적 민간 치료 행위로 보여진다. 가령 원인을 모르는 병이 났을 때, 또는 남편의 바람기를 잡고 싶을 때, 가옥의 신축 및 개보수로 인한 동티가 났을 때, 실물을 하였을 때 등 어떤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목적을 달성했다.

많은 종류의 비방이 여러 형식으로 행하여 졌으나 몇 가지 조사한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 잡귀의 동태로 인한 발병이라 여겨질 때

우거지에 된장을 풀어서 끓인 우거지 죽을 바가지에 담는다. 그리고 그 위에 식칼을 얹어서

환자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다가 칼끝으로 죽을 휘저으면서 환자의 주위를 돈다. 부엌칼로 죽을 떠서 사방에 뿌리는 시늉을 하면서 "못 다먹고 못 다산 귀신이 있거들랑 어서 먹구 썩 물러가거라."고 호통을 친다. 그런 다음 죽바가지를 환자의 머리와 어깨 위로 둘러 낸 후 밖에다 죽을 버린다.

이렇게 호통을 치고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심리적인 데서 오는 현상이라 여겨지는데, 실제로 아낙의 이런 행위로 환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였는데도 차도가 없으면 무꾸리(占)을 하여 발병의 원인을 알아보기도 하고, 무당을 청하여 병귀를 몰아내는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메 1그릇, 삼색나물, 막걸리, 북어 1마리로 상을 차리고, 오곡을 볶아 바가지에 담아 놓는다. 그런 다음 달걀 3개에 각각 대수대명, 여(女), 왕(王) 자를 써서 준비한 다음 북어 1마리를 바가지에 담아 놓는다. 환자를 앉혀놓고 머리에 의련(속옷)을 뒤집어 씌우고 그 위에 바가지를 엎은 다음 무당이 주문을 외운 후에 볶은 오곡과 글씨가 쓰인 달걀을 환자에게 뿌리고 던지면서, "챙겨야, 챙겨야"라고 크게 외친다. 이 행위를 '벗긴다'라고 표현한다.

○ 눈의 삼을 제거하고자 할 때

눈에 하얗게 삼이 들었을 때는 산 미꾸라지의 눈을 바늘로 꿰어 동이틀 때 해가 비치는 벽에 다 꽂아 놓고 "내 눈에 든 삼을 미꾸라지 눈으로 보내 줍소사"라는 암축(暗祝:속으로 비는 것)을 한다.

○ 가장의 바람기를 잠 재우고 싶을 때

가장의 하의련(아래 속옷)과 상대방 여인의 하의련 속에 부적을 넣는다. 이 부적에는 그 사람들의 나이 숫자대로 바늘을 꽂는다. 혹은 그 여인의 화상을 그려 놓은 곳에 여인의 나이만큼의 바늘을 꽂아서 함께 잘 싸아가지고 자신의 대문에서부터 그 여인의 집 방향에 맞춰 몰래 묻는다.

어쩌다 무꾸리를 통하여 남편의 바람기가 사주에 들어 있을 때에는 극비로 이 일을 퇴치하였는데, 간혹 남편이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일 자체가 큰 흉이 되어 망종이라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 도둑질한 범인을 가려내고자 할 때

솥에 시루를 얹어 시루본을 붙인 후 고양이를 넣고 뚜껑을 덮은 후 의심가는 사람과 주위 사람을 불러모아 시루 주위에 서 있게 하고 불을 땐다. 뜨거운 수증기에 약이 오른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극에 달했을 때 솥뚜껑을 열면 훔친 사람에게 달려들어 코를 물거나 얼굴을 할킨다고 믿었다. 이 방법은 끝까지, 시행된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솥에 고양이를 앉혔다"는 말이 돌면 범인이 남모르게 자수를 하였기 때문이다.

○ 가옥의 동티로 인한 발병시

가옥의 신축이나 개수 또는 보수로 인하여 동티가 나서 환자가 생겼을 때 간단히 풀어내는 방법이다. 우선 셋집의 구정물을 얻어다가 솥에 넣고 끓여서 집의 안과 밖을 구석구석 끼얹는다. 이 방법으로 동티가 잡히지 않을 때는 메밀로 반대기를 빚어 그 위에 소금과 붉은 통고추를 얹고, 그 위에 쑥심지(쑥뜸 뜰 때의 것과 같은 모양)를 박아 불을 붙인다. 이 제물들을 집안 기둥마다 앞에 한 개씩 놓고 절구공이와 부엌칼을 양손에 들고 "드는 동법에 나는 용천"을 외치며, 절구공이로 세 번 쾅쾅 찧고 부엌칼로 세 번 기둥을 찍는 시늉을 한다. 이 의식이 끝나면 메밀 껍질과 메밀 반대기 등의 제물을 지붕 위로 던진다.

④ 고사(告祀)

고사는 가정에서 하는 계절별 고사와 마을 또는 어느 집단에서 하는 대고사(大告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정에서는 정월 또는 10월 상달과 동지, 그 가정에서 모시는 가신(家神)을 위하는 달 등에 팥시루 한 개, 북어 두마리, 촛불 한 자루, 정안수를 상에 올려 고사상을 준비한다. 주황(부뚜막), 성주(대청), 터주(장독대) 순으로 빌어 나가는데 가세가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는 고사상을 하나만 준비하여 옮겨 가지고 다니면서 치성을 드리기도 하였다. 수문장(대문), 뒤깐(화장실) 등에는 조그만 채반에 팥시루떡 한 조각과 물 한 그릇 씩을 담아서 고사상 올림을 하였다. 의식이 끝나면 마당과 대문 안팎 그리고 길목에 떡과 정안수를 조금씩 뿌리고 던지면서 고시레를 하였다. 무당이 고사를 맡아서 할 때에는 굿상 음식을 차리고 무복을 입지 않고 춤과 노래 없이 12거리를 하되 징 만을 사용한다.

대고사는 서곳염전의 고사, 김포 통진의 누산리 바닷쪽 당산나무 아래서 행해졌던 고사, 인천의 문학동 고사, 인천 남촌동 고사, 주안 염전의 고사가 쌍벽을 이룰만치 참석 인원에서나 떡시루 숫자 등에서 대규모로 치루어졌다.

특히 누산리 당산 고사와 문학의 고사는 무당(萬神)이 주제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고사를 지낼 때 무당은 무복(巫服)을 입지 않고 의식을 행한다. 서곳 염전과 주안 염전은 돼지를 여러 마리나 잡는 대고사로 치뤄졌다. 다만 무당을 청하는 일은 없었고, 염전 주인과 염부들이 자체적으로 제주, 제관, 소임 등을 맡아서 고사를 지냈다. 남촌동 고사는 마을 주민들의 것으로 매년 음력 7월 1일에 소 1마리를 잡아서 당(堂)에 올라가 고사를 지냈는데,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고사가 있었다고 한다.

⑤ 경문 풀이

판수를 청하여 안택 또는 살풀이나 병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하는 것으로 "경 잽힌다." 혹은 "경 읽힌다."라고도 하였다. 안택일 때는 저녁 해가 넘어갈 때 시작하여 동이 터 훤해질 때까

지 행하여지고, 정신병 치료를 위하여 제를 올릴 땡는 석달 열흘경이라 하여 여러 날이 걸린다. 살풀이를 할 때는 명산에 찾아가서 백일 정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안택을 할 때 상은 삼색 과일, 삼색 나물, 팥시루(성주를 위함), 백설기 시루(지신을 위함), 신장대를 꽂은 쌀 1말, 대추 3알을 넣은 옥수 한 그릇 등 3단의 상에 차리는데, 그 상차림 법은 다음과 같다.

- ㅇ 1단상 : 백지로 상을 덮고 그 위에 쌀을 얇게 깐다. 2단 상을 상의 중앙에 올려놓고 제물들을 그 단상 주위로 배설한다.
- ㅇ 2단상 : 백지와 쌀을 1단상과 같게 해놓고 상의 중심부에 3단 상을 올려 놓는다.
- ㅇ 3단상 : 백지와 쌀로 덮은 제일 작은 상위에 쌀이 수북하게 담긴 말(모말—쌀말)에 신장대를 꽂아 놓는다.

원귀로 인한 병을 치유할 때의 상차림은 안택의 것과 동일하나 메밀떡과 춤병이 더 추가되고 '사귀대'라 하여 손가락 크기의 남녀 인형을 만들어 각각 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를 입혀서 긴 실로 서로 연결하여 1단상의 양옆에 세워둔다.

경문풀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귀대가 흔들거리고 "사귀대 내림" 때는 사귀대가 환자의 옷속으로 자유자재 날아다니다가 춤병(주둥이가 긴 사기병)에 들어가면 메밀떡으로 병의 주둥이를 틀어 막고 산에다 묻는 것으로 의식이 끝난다.

경문풀이 가운데 하나인 〈육모적살경〉은 다음과 같다.

천지지인 소기인 생상무궁 고금동
인명생시 범음살 사주팔자 정길흉
길신흉신 본무정 길변위성 흉변길
천라지망 연령살 삼재팔난 삼형살
오귀육해 괴사살 상문조객 곡성살
년살월살 흉신살 수옥망령 억귀살
〈중략〉
청용지아 오곡살 수양수양 고어살
생년생월 범중살 생일생시 범하살
천을태을 적살신 탐랑거문 적살신
녹존문곡 적살신 파군대성 적살신
〈중략〉
청제장군 적살신 적제장군 적살신

백제장군 적살신 흑제장군 적살신
황제장군 적살신 금신목신 오행살
수신화신 암석살 석물목물 애명살
금은옥백 삼패설 결항치사 횡액살
〈중략〉
관재구설 개소멸 겁살재살 개소멸
도로횡액 개소멸 고진과숙 개소멸
상남상녀 개소멸 혼인범살 개소멸
〈중략〉
사방출입 개환회 심중소구 만여의
종차제살 영소멸 무량중생 역여시
세세생생 불법살 무진복락 과태평
마하반야 바라밀

또 〈도액경〉은 다음과 같다.

여시아문 일시불 설구호신명 제인질
병도액경 호쾌합장 일심제환 중악소멸
갑자장군 상하해제 연성지액 칠천불
소호인신 원득성취 일심죄악병
갑술장군 종아해제 유성지액 칠천불
구호인신체중 제한각화 갑신장군 양아해제
적서지액 칠천불 구호인신 홧귀 삼혼칠백
갑오장군 여아해제 천라지액 칠천불
보호인신 년년익수 일백이십세
〈중략〉
육순곡생생 아양아 호아신령 괴작관행
필보표존재 옴 급 급 여율령 사바하

⑥ 푸닥거리

초상(상문)이나 동태로 인하여 환자가 생겼을 때, 또는 주당이 들었을(맞았을) 때, 병굿을 하지 못 할 형편이면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푸닥거리를 하게 된다.

제물은 팥떡, 삼색 과일, 삼색 나물, 술(막걸리), 촛불, 북어, 돼지고기, 잿물, 맑은 물을 준비하는 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메(밥) 3접시, 술 3잔, 나물 3접시, 잿물, 맑은 물로 제물 차림을 하거나 팥죽을 쑤어 놓고하는 경우도 있다.

무인(巫人:무당 또는 萬神)은 평복을 입고 앉아서 징을 치면서 조상, 대감, 장군, 등을 이름을 불러 청배하며 고수를 내리는 등 굿의 부정거리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략〉
해원 단년 아무 년에 달에 월삭 아무 달에
아무 년에 받아낼 때 아무 데 사는 아무 가중에
어느 소에서 난 바람인지
미련한 인간들은 아무 것도 모르오니다
신에서 도와주어 살려를 주옵소서
〈중략〉
해로 묵은 상문 달로 묵은 상문
성다른 상문 본다른 상문
남상문 여상문 진상문 마른 상문
〈하략〉

⑦ 점술(占術, 무꾸리)

점은 무꾸리 '쉐-'를 외치며 골목골목을 누비는 맹인(盲人, 판수)이나 무당과 같은 점바치들에 의해 가정의 길흉화복을 보아주는 것을 말한다. 부평 지방에서는 대개 산통, 방울, 부채, 쌀, 엽전, 책 등으로 자기 신의 특성에 맞추어 점치는 도구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연말이면 신년 운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토정비결을 보고 있는데, 사주, 당사주, 궁합 맞춰보기를 즐겨하였다. 그밖에 사업관계, 이사의 결정, 건물(가택)의 신축과 개 보수, 굿날 잡기, 잔칫날 잡기, 결혼 일자 잡기, 과거 급제 여부, 가택 신축 등 가내외의 궁금함을 풀기 위하여 점바치를 부르거나 점집을 찾아다녔다.

요즈음은 철학관, 보살집, 도사, 거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점을 치고 있는데, 이가운데는 컴퓨터 점이라는 것까지 등장하고 있다.

⑧ 백일 기도, 치성(致誠)

치성과 백일기도는 인가가 멀고 개나 고양이,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부정한 것이 보이지 않는 심산유곡이나 성지에서 행해지는 제의다. 치성을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비리거나

누린 음식을 접해서는 않되며, 길일을 택하여 목욕재계하고 금기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기축(祈祝)하는데, 매일 반복으로 주언(呪言)한다.

백일 기도는 100일 간, 치성은 한달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에 따라 10일 씩 끊어서 하기도 한다. 비손이나 고사의 경우 제 삼자나 무인에게 의뢰하여 대리 치성이 가능하나, 백일기도나 치성은 반드시 본인이 행하였다. 그리고 백일기도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 있어 각기 다양한데, 이를테면 체계화되지 않은 민간신앙의 하나이다.

부평지방에서 행해지는 치성은 계양산이나 천마산을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먼 곳을 택하여 이루어졌다. 치성을 드릴 장소는 대개 바위를 이용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새자리를 깔고 치성을 드린다. 젯상 위에는 촛불 한 쌍 또는 세발 심지(참기름불)을 계속 켜놓으며, 정안수를 떠놓는데 매일 갈아준다. 그리고 제물로는 준주(백미) 1그릇, 삼색 과일, 삼색 나물, 팥떡 한 시루, 술, 소지 등이 쓰인다.

의식의 절차는 따로 없고 기원하는 내용이 반복으로 암축된다.

(3) 産俗 및 禮俗

① 기자(祈子)

옛날부터 가문의 후사(後嗣)가 끊기는 것을 커다란 죄로 알았다. 아들(자식)을 못낳는 부인들은 아들을 얻으려고 무한 애를 썼다.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산신이나 성황 또는 용왕께 치성을 드린다든가(주로 백일기도) 또는 절을 찾아 부처님, 산신각에 있는 산신할머니, 칠성각의 칠성님을 찾아 기도를 드리고 치성을 드렸다.

주술적 기자행위로 아들을 낳기 위해 아들을 난 집 대문의 인줄(금줄)을 훔쳐가기도 하고, 아들만 난 여인의 속옷을 얻어 입기도 하고, 남근처럼 생긴 바위에 치성을 드리는 등 여러가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부평지방에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 미륵님(부처님)의 코를 잘라가는 일이 많았다. 곧 그 돌가루를 먹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 이를 실천하였다. 지금도 절에 모셔있는 미륵이나 묘소에 있는 석상을 보면 코가 잘려나간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② 출산

가. 해산, 출산

지금은 아이를 출산할 때면 산파 또는 산부인과를 찾아가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임산부의 출산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일이었다. 특히 초산(初産)은 더욱 그러했다.

당시 첫아기의 출산은 친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임부가 산기가 있어 친정으로 달려가면 친정어머니는 밥 세 그릇과 국 세 그릇을 삼신에게 바치고 산실에는 깨끗한 짚을 추려서 깔았다고 한다. 지금은 폭신한 담요, 기름종이 또는 돗자리를 깔지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출산 경험이 많은 할머니가 아이를 받아내거나 친정어머니가 조산을 했다.

산모가 제때에 출산을 못하면 물수산을 지어다 먹였다. 또 산모가 출산을 하고 후산(胎를 낳는 것)을 하면 조산을 하는 사람은 태를 가위로 잘라 소태(燒胎:태를 태우는 것)는 보통 3일 만에 하였다.

출산 후에는 다시 산실 안에 흰밥과 미역국을 차려 삼신에게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장수와 명을 빈다. 이 국밥은 3주가 지날 때까지 바쳤다. 근래에는 한 번 만 한다.

아기를 낳으면 곧 인줄(禁줄)을 대문에 치는데, 아들이면 왼 새끼줄에 빨간 고추와 솔잎을 섞어 매달고, 외인 출입을 3주간 금했다. 그리고 조산한 사람은 3주 동안 하루 4회(아침, 점심, 저녁, 밤참)를 쌀밥과 미역국을 해서 주었다.

나. 출산후 3일

애기가 출산한 지 3일째 되는 날에는 삼신할머니가 내려온다고 하여 아침 일찍 산모는 쑥물에 목욕하고 아기의 몸을 씻기고 아기 머릿말에 삼신상을 차려놓는다. 삼신상은 보통 짚을 깔고, 상위에 정호수, 쌀밥, 미역국을 놓는다.

다. 출산후 7일, 14일

출산 7일째 되는 날인데, '한이레', 또는 '칠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을 '두이레'라고 하며, 21일째 되는 날을 '세이레', 또는 '3.7일'이라고 한다. 한이레날에는 아기와 배안 저고리를 벗기고 깃없는 옷을 입힌 다음 지금까지 동여매었던 팔 하나를 풀어준다.

두이렛날에는 깃달린 옷과 두러이를 입히고 나머지 한 팔을 풀어준다.

세이렛날에는 아래 위에 옷을 갖춰 입힌다.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친정에서 출산했을 때는 시집으로 돌아온다.

③ 백일(百日)

출산 후 백일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고 한다. 지금은 백일 잔치를 치르지만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만들어 이웃에 돌린다. 떡을 받는 집에서는 수명장수하라는 뜻으로 실을 한 태 보낸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은 아기옷 등을 가져와 축하를 해주고 쌀밥과 떡을 나누어 먹고, 떡을 얻어가지고 간다.

④ 돌

아기가 출산한 지 일년이 되는 날을 돌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축일로 여겨 돌잔치를 하고,

아기를 위해서 돌잡이를 한다.

돌상 위에는 쌀, 국수, 떡, 과일, 돈, 실, 활, 화살, 책, 종이, 붓, 먹(여자일 때는 활, 화살 대신 가위, 자, 바늘)을 쌓아놓고 돌아기가 무엇을 잡는가를 살펴보고 아기의 운수를 예측한다.

아기가 돈, 쌀을 잡으면 '爲'가 되고, 국수나 실을 잡으면 長壽하고, 활을 잡으면 武人이 되고 붓목을 잡으면 文人이 된다고 한다. 주민들에 의하여 이는 중국 풍습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돌날에는 큰 잔치를 차려 친척과 이웃을 대접하면 축하의 의미로 옷이나 실, 또는 돈을 내놓는다. 그러면 돌집에서는 돌떡(송편, 흰떡, 수수팥떡)을 이웃에 돌린다. 지금도 돌떡을 이웃에 돌리는 풍습이 남아 있으며, 선물은 옷이나 금반지를 내놓는다.

(4) 무속

부평의 무속에서 무(巫)의 신(神)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신들이 삽입되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부평은 최영 장군, 임 장군(임경업 장군), 백마 장군(越南 李氏 8대 王 혜종의 숙부 李龍祥이 외척의 난을 피해 현 옹진의 花山에 도착하여, 高麗 高宗 몽고군과의 전쟁 때 적장을 항복케 하고 큰 공을 세워 花山君으로 봉임 받아 花山 李氏의 시조가 되었으며, 후일 무속 신앙에서 白馬將軍이라는 수호신이 되었다.)이라는 신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평에는 세습무(世襲巫)보다는 강신무(降神巫)의 수가 월등하여 무인(巫人)을 지도, 관장하는 청(廳)의 구실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없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동독교, 단군 승려 등의 종파나 불교에 적당히 야합하였다.

인천 무인(巫人)들의 단체 결성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1965년에 해산된 〈신도회〉(회장:승동순)가 있었고, 1966년도 이후에는 〈정도회〉(회장:허진배)가 주축이 되어 활동해 오다가 〈경신연합회 인천지부〉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무인 수는 점바치와 판수들이 가세하여 모두 200여명에 달했는데, 1대 지부장은 허진배, 2대 지부장은 신현순, 3대 지부장은 강석경, 4대 지부장은 김영일 씨가 맡아 왔다. 그러다가 1977년도에 무인 180여명이 다시 모여 〈경신연합회 인천지회〉(지회장:김영일)를 재결성되어, 현재 등록된 회원은 6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신연합회 인천지회는 산하에 부평지부(지부장:김종남)를 두고 있는데, 회원수는 18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무인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서구지부(지회장:곽창수)에는 30여명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평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당 현황이다. 부평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김포, 안산, 부천, 통진에까지 그 관할권이 넘나들었다. 따라서 부평 관내에서 가장 큰 도당으로 한서 지방의 본조정에 해당하는 계양본향(桂陽本鄕, 계양도당)이 있었다고, 이 계양도당을 중심으로

사근다리당, 장말도당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부평 주변에는 인천의 본조정이라 할 수 있는 문학산의 안관도당(安官都堂), 동춘동의 동막도당, 송림동 수도곡산의 만수본향(萬壽本鄕), 현 대헌학교 자리에 있었던 화수본향(花水本鄕), 월미도의 소수본향, 간석동의 만월당산, 현 수봉공원의 수봉본향(水峰本鄕)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당이 있었다. 그밖에 남촌동의 염말당, 도화동의 쑥골당, 연수동의 함박당, 서곳의 고잔당, 소래지구의 도래당 등 부평과 인천에는 100여개나 되는 당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주택지의 조성, 시가지개발로 인하여 당이 헐리고, 당주나 당할머니가 계승되지 못하고 더불어 마을 주민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거의 소멸되어 왔다.

부평지방에서 주로 행해진 굿은 기대굿과 도당굿으로, 이 둘이 공존하여 왔다. 기대굿(家宅굿)은 주로 노래 가락과 창부타령에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울리며 강신무(降神巫:萬神 또는 拍手)가 주재한다.

① 기대굿

부평지방에서 주로 행해진 기대굿은 서울굿 또는 경기도굿이라고도 하며, 재수굿 진굿, 병굿으로 나누어진다.

재수굿은 운맞이굿으로도 불리는데, 계절에 따라 정월의 세배맞이, 2월의 입춘맞이, 3~4월의 잎맞이, 꽃맞이, 화전맞이, 불사맞이, 5월의 단오맞이, 6월의 유두맞이, 칠월의 칠석맞이, 9~10월의 신곡맞이, 단풍맞이가 있다. 그밖에 생일이나 회갑 또는 진갑잔치 대신에 하는 호사굿과 집을 신개축 및 보수하였을 때 하는 성주굿도 있다.

진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제의하는 의식 가운데 제일 처음 하는 것으로, '자리걸음'(자리걷이, 진자리, 넋걸음, 진상문으로도 불리움)과 진지오기 또는 진오귀라고도 하는 '새남'이 있다. 또 사망 후 자리 걷음이나 새남을 하지 않아 집안에 동티가 났다는 점괘가 나왔을 때 하는 '묵은 새남'이 있다.

재수굿, 진굿의 상차림과 굿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수굿

가. 상차림

부정상과 뒷전상의 제물은 접시에 담고 그 외의 상은 제기에 차린다.

○ 부정상 … 팥떡 1접시, 삼색나물(고사리, 도라지, 숙주) 1접시, 잿물 1그릇, 청수 1그릇, 북어 1, 삼색과일(사과, 배, 밤) 1접시, 어과모듬 1접시, 소지 1장, 술 1잔

○ 상산상 … 쌀 1그릇, 산시루(쌀 3되, 위는 백설기, 밑은 팥떡), 청수,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숙주나물, 두부전, 사과, 배, 밤, 대추, 어과모듬, 촛대 2틀, 돼지머리, 술

3잔

○ 불사상(천궁맞이상) … 쌀주발, 불사시루(백설기－쌀 3되), 인절미, 모두부, 세발심지, 사과, 배, 밤, 대추, 촛대 2틀, 후추차, 대추차

○ 제석상 … 쌀주발, 제석시루, (백설기－쌀 3되), 인절미, 모두부, 사과, 배, 밤, 대추, 촛대 2틀, 청수

○ 황제풀이상 … 술 3잔, 무명 1필, 북어 7마리, 쌀(상 위데 3되 가량의 쌀)들 소복하게 부어 놓는 것

○ 만감흥상 … 업시루, (백설기－쌀 2되), 팥떡 5틀, 대신시루(콩떡－쌀 2되), 계피떡, 인절미, 성주시루(팥떡－쌀 2되), 대감시루(팥떡－쌀 2되), 두부전, 소고기산적, 조기, 호박전, 생선전,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술 6잔, 촛대 4틀, 사과, 배, 밤, 대추, 수박, 참외, 옥춘, 다식, 산자, 팔보, 국화당, 밤사탕, 별사탕, 돼지머리, 쇠족(소발 4개), 향로, 청수

○ 뒷전상 … 팥떡 1접시, 삼색과일 1접시, 어과 모듬 1접시, 삼색나물 1접시, 북어 1마리, 밥 3그릇, 미역국 1그릇, 잡곡(보리, 팥, 콩, 조, 수수), 잡밥(굿음식 전부를 조금씩 바가지에 담은 것)

紙花는 수팔련, 목단, 전발, 서리화(雪留花)대, 홍모란, 백모란을 사용한다.

나. 굿의 절차

① 부정거리

초부정, 초가망이라고도 하는데, 무의(巫依)를 입지 않고 무당이 앉아 장단을 치면서 한다. 초부정은 부정공수청배(不淨空授請拜)로 시작하여 덕담 공수, 호구, 말명, 대감, 본향, 장군, 별상, 신장, 제석, 칠성, 불사, 성주, 왕신, 군웅, 창부, 서낭, 걸립, 업, 터주, 맹인, 상문, 영산을 청배하고 잿무로가 맑은 물(청수, 옥수)을 둘러댈 때 소지 한 장을 올리고 술 한 그릇을 둘러낸다.

초가망은 가망 청배를 하고 본향 노래가락, 전적 드림, 노랙가락을 부른다. 여기에서 전적 드림이란 점잖은 신을 모신다는 뜻으로 도드리와 타령을 연주한다.

② 천궁맞이

불사가 센 집(불교 신자의 집 또는 불교를 믿던 신자가 죽은 집)에서 제석거리와 독립해서 본향을 맞기 전에 따로 한 거리로 한다. 불사맞이라고도 하는데 춤의 반주 음악은 굿거리와 당악이다. 만수받이를 하고 춤을 추면서 용궁(물동이)에 올라가서 산내림까지 끝낸 다음 동이에서 내려온다. 만수받이, 불사공수, 칠성공수, 제석공수, 처낭(天王)공수, 중상놀음, 중산타령, 불사노래가락, 산쌀내림, 대신공수, 신장공수, 신장공수, 신장타령, 대감공수, 대감타령, 말명공

수, 업주공수, 걸립공수, 맹인공수, 수비의 차례로 진행한다.

③ 본향거리

감흥거리 또는 가망거리라고도 한다. 남치마에 섭수(석수)를 입고 빗갓을 쓰고 춤을 추며, 반주 음악은 굿거리와 당악이다. 본향공수, 군웅(軍雄)공수, 신장(神將)공수, 신장타령, 대감공수, 대감타령, 가망공수, 대신(大神)공수, 대신타령, 조상공수, 본향(本鄕)노래가락, 가망공수로 진행한다.

④ 장군거리

상산(上山)거리라고도 한다. 남치마에 섭수와 전복, 남천립을 입고 술띠를 맨다. 도드리타령, 굿거리 당악이 춤의 반주 음악으로 쓰인다. 상산공수, 장군공수, 별상공수, 장군사슬세움, 별상사슬세움, 신장공수, 신장타령, 장군별상노래가락으로 진행된다. 작두타는 것을 원하는 집에서는 상산공수, 장군공수, 별상공수, 작투 타고 서서(상산공수, 장군공수, 별상공수, 신장공수, 신장기뿜음, 대신공수, 창부공수), 신장공수, 신장타령, 장군 사슬세움, 별상 사슬세움, 장군별상 노래가락의 순서로 진행된다.

⑤ 대감거리

벙거지를 쓰고 전복을 입는다. 춤의, 반주 음악은 굿거리와 당악이다. 대감 공수와 대감타령으로 진행되는데, 대감 타령의 중간중간에 연희성이 짙은 투정과 재담이 있다.

⑥ 안당 제석거리

홍치마에 장삼을 입고 홍가사, 홍띠를 매고 고깔을 쓴다. 천궁맞이를 하는 집에서는 제석거리를 안당제석이라고 한다. 호구를 놀 때는 홍색 면사포를 쓰고 활옷을 입는다. 춤의 반주음악은 굿거리와 당악이다. 만수받이(宰釋, 七星, 佛師), 제석공수, 칠성공수, 불사공수, 서낭공수, 중상타령, 산쌀내림, 호구공수로 진행한다.

⑦ 성주거리

성주굿을 하기 전에 군웅을 간단히 풀어낸다. 평소에 입은 한복에 홍천릭을 입고 빗갓을 쓴다. 춤의 반주 음악은 굿거리와 당악이다. 성주굿에 이어지는 황제풀이는 빗갓과 홍천릭을 벗고 대들보에서 상 앞까지 무명을 늘어뜨린 앞에 상을 놓고 앉아서 무당이 장단을 치면서 한다. 군웅풀이, 성주공수, 왕신공수, 군웅공수, 성주노래가락, 소지올림, 산쌀내림, 복잔내림, 황제 풀이로 진행되는 긴 굿이다.

⑧ 창부거리

패랭이를 쓰고 활옷을 입는다. 춤의 반주 음악은 굿거리와 당악이다. 만수받이, 창부공수, 서낭공수, 창부타령, 도액타령, 직성타령, 놀이판으로 진행된다.

⑨ 뒷전

뒷전을 잘못하면 굿을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하여 무척 중요시되는 굿이다. 익살과 해악은 굿판을 흐뭇하게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무의를 입지 않고 보통 때 입는 한복을 입고 북어 한 마리와 부채를 들고 한다. 춤의 반주 음악은 당악이다. 만수받이(乞粒, 업, 상문, 영산, 수비), 걸립공수, 재담, 터주놀음, 터주타령, 지신놀음, 방아타령, 맹인놀음, 장님타령, 신세타령, 말명놀음, 상문풀이, 영산풀이, 수비풀이로 진행한다.

한 예로 부정거리의 초부정청배의 공수는 다음과 같다.

부정 가망이 영정가망이라 날리두(도) 영정에 돌리두 부정
선후와 봉공에 시위를 하소서
철묵은 부정과 해묵은 부정 가망으루(로) 부정가망
외행랑 내처소에 냉행랑 외처소 부정이요 수많은 인간으루 왕래나 부정이라
산이두 모거리루 피서리 부정이요 죽은 이는 모거리루 상문은 부정이요
외상문 부정에 내상문 부정과 대서리 부정을 썰썰이 저치어 도와를 주옵소
부정가망은 영정가망 조라루 철륭부정과 익으나 음식에 불구나 불이요
술에 술잔으루 왕래허구 따라들던 부정과 붙어든 영정에 가망으루 부정 가망
〈이하 생략〉

2) 진굿(자리 걷음)

자리걷음은 무의(巫依)를 입지 않고 키 또는 고리짝을 방울로 문질러가며 무당 혼자서 무무(巫舞)없이 하기 때문에 푸닥거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가. 상차림

○ 부정상 … 밥 1그릇, 술 1잔, 소지 3장, 삼색나물 1접시, 잿물 1그릇, 맑은 물 1그릇, 삼색과일 1접시, 팥떡 1접시
○ 망제상 … 탕, 메, 밤, 대추, 삼색과일, 위패, 간장, 김치, 국, 각종 전, 팥떡
○ 상식상 … 제사상과 같이 각 가정에서 그집의 풍습대로 차린다.
○ 사제상 … 밥 7접시(각각 동전 1개 씩 밥 위에 얹는다.) 삼색나물, 과일, 떡 1접시, 어과모듬 1접시, 삼색과일 1접시, 전불임 1접시, 상밑에 오곡을 볶아서 놓고 북어 4마리를 놓는다.
○ 옹기시루 … 시루에 쌀을 담고 심지를 얹어 놓고 한지로 봉한 것
○ 자리전 … 망제상 밑에 마련한다. 한지를 3절로 접어 쌀을 얇게 펴놓고 동전 7개를 놓은 다음 한지 1장으로 고깔을 접어서 덮는다. 넋 받음을 한 후에 보면 새, 사람,

나비, 뱀 등의 발자욱이 나타난다.

○ 넋대 …… 사철나무에 사고지를 묶어 옹기시루 뒷쪽에 세워 놓는다.

○ 넋상 …… 상에 한지 1장을 깔고 네 귀퉁이를 아물여놓고 쌀을 1되 가량을 붓고 넋전과 망제옷을 올려놓는다.

○ 가시문 … 소쿠리에 가시나무를 말굽 모양으로 구부려 세운다. 쌀, 떡 7무더기, 베, 망제 속옷, 동전 7개

나. 굿의 절차

① 부정

부정친다고 한다. 친부정은 부정, 영정, 가망, 덕망, 호구, 말명, 본향, 장군, 별상, 신장, 대감, 불사, 제석, 칠성, 성주, 군웅, 창부, 서낭, 걸립, 터주, 상문, 영산, 수비를 청배하고 잿물과 맑은 물을 둘러내고 소지를 올린다.

② 본향

청배하고 공수를 내린 다음 청배로 끝맺는다.

③ 뜬 대왕

노래가락청배, 공수의 순서로 진행한다.

④ 중 디

노래가락을 부르고 공수를 준다.

⑤ 아린 말명

청배하고 공수를 준다.

⑥ 사제 삼성

사제 청배, 삼성공수, 사제놀음, 삼성놀음으로 진행된다.

⑦ 넋 받음

초넋청배, 초넋 받음, 비손, 이넋청배, 넋노래 가락, 영실푸념, 넋대내림청배, 넋대내림, 극락천도염불, 상식오림으로 진행된다.

⑧ 뒷전

걸립, 터주, 말명, 상문, 영산, 수비를 청배하고 가시문과 잡밥, 잡고을 둘러낸다.

자리건은 가운데 〈중디〉과정의 노래가사는 다음과 같다.

서낭당 뻐꾸기 새야 너는 왜그리 우짓느냐
속비신 고양낭구에 새잎 나라고 우짓느냐
〈중략〉

안당 중디 오시는 길에 가야고로 다리를 놨소
가야고 열두 줄인데 어느 줄마다 서교셨나
줄 아래 덩기덩 소리 노리라고
안당 중디 잡으신 잔에 사위삼당 이슬 맺소
이 잔에 저 잔이요나 지성이라고 상 비울까
〈이하 생략〉

또한 자리걷음 가운데 〈아린 말명 청배〉는 다음과 같다.

구여라 구부시고 반거라 구부시고
아리던 말명에 쓰리던 말명에
숨지고 넋지면 말명에 애지고 펴지던 말명에
열시왕에 시왕은 사제는 말명이 받으시구
오늘은 아무씨 망제늙 말명삼성 제대왕찌게 뱃기시구
옥경에는 승하를 시키시구
천궁에는 제천하와 남자 발원 귀자천도
연화대루 사내지구 산인간들 성불을 시키시어
도와를 주옵소사
〈이하 생략〉

3) 새남

가. 상차림

○ 부정상 … 팥떡 1접시, 삼색나물(고사리, 도라지, 숙주) 1접시, 북어 1마리, 삼색과일(사과, 배, 밤) 1접시, 소지 1장, 잿물 1그릇, 맑은물 1그릇, 술 1잔

○ 영실상 … 위패(종이로 접은 위패를 연꽃 위에 얹은 것), 갖은편, 증편, 녹두부침, 두부부침, 북어포, 생선전, 쇠고기전, 조기, 고비나물, 도라지나물, 숙주나물, 탕, 식혜, 밥, 국, 술,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국화당, 팔보, 생률, 다식, 약과, 옥춘, 산자, 촛대 2틀

○ 사제상 … 팥떡 3접시, 밥 3접시, 술 3잔, 삼색나물(고비, 도라지, 숙주) 1접시, 삼색과일(사과, 배, 밤) 1접시, 어과모듬(건시, 대추, 옥춘, 다식, 팔보, 산자, 매화, 국화당) 1접시, 전종류 1접시 동전 7개, 짚신

○ 조상상 … 팥떡 3틀,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숙주나물, 사과, 배, 밤, 대추, 약과, 산자,

옥춘, 다식, 팔보, 국화당, 매화, 술 3잔, 향로, 촛대 2틀

○ 말미상 … 말미쌀(뱅뱅두리나 놋양푼 또는 징에 쌀을 수북하게 담아 촛불을 꽂아 놓은 것), 팥떡 1틀, 술 3잔, 세발심지

○ 뒷전상 … 팥떡 1접시, 삼색과일 1접시, 어과모듬 1접시, 삼색나물 1접시, 북어 1마리, 밥 3그릇, 미역국 1그릇, 술 3잔, 잡밥, 잡곡(콩, 팥, 보리, 수수, 조)

○ 가시문 … 소쿠리에 가시나무가지를 말굽형으로 구부려 세운다. 떡무더기, 동전 7개, 삼색나물

나. 굿의 절차

① 부정거리

초부정 초가망거리라고도 한다. 무당이 장고로만 세마치 장단을 치면서 하는데, 무의(巫依)를 입지 않고 상앞에 앉아서 한다.

초부정은 부정공수청배로 시작하여 호구, 덕담, 본향, 불사, 칠성, 제석, 장군, 신장, 대감, 성주, 왕신, 서낭, 걸립, 업주, 터주, 지신, 맹인, 영정을 청배하고 소지 한 장을 올려 잿물과 맑은 술 1잔을 버린다.

초가망은 가망청배, 말명청배, 본향노래가락으로 진행한다.

② 장군거리

진오귀 상산거리라고도 한다. 장군을 놀 때에는 남치마에 석수와 전복, 남천릭을 입고 큰머리에 빗갓을 쓰고 도드리반주로 한삼춤을 춘다. 별상을 놀때에는 남천릭을 벗고 빗갓 대신에 벙거지를 쓰며, 칼과 전복자락을 양손으로 잡고 타령과 당악으로 춤을 춘다. 신장을 놀 때 옷차림과 반주 음악은 별상과 같다. 신장기(오색기)를 들고 한다. 장군공수청배, 관운장청배, 별상청배, 공수, 장군사슬세움, 초영실 노래가락, 별상 노래가락, 신장청배로 진행된다. 굿을 하는 집의 형편에 따라 장군노래가락을 제일 마지막에 할 때도 있다.

③ 대감거리

전복을 입고 벙거지를 쓴다. 춤의 반주 음악은 굿거리와 당악이다. 대감청배, 텃대감청배, 대감타령, 술력춤, 사망떡내림으로 진행한다.

④ 창부거리

노란색 패랭이를 쓰고 활옷을 입으며, 춤의 반주 음악은 굿거리와 당악이다.

창부만수받이 창부타령, 도액타령, 삼재타령, 직성타령, 서낭청배, 동법타령으로 진행한다.

⑤ 뜬대왕거리

홍치마에 석수를 입고, 머리에 삼베수건을 쓴다. 춤의 반주 음악은 굿거리와 당악이다. 뜬대

왕노래가락, 공수, 중디노래가락, 공수, 중디만수받이, 말명만수받이, 공수, 삼성만수받이, 사제어름, 사제타령으로 진행된다.

⑥ 말미

'바리공주 청한다.' 또는 '말미드린다'고 한다. 경을 읽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창을 하는 서사(敍事) 무가(巫歌)로 방울과 북채를 손에 쥐고 장고의 북편을 두드리면서 한다. 홍치마에 노란색 동다리를 입고 머리 위에 큰머리를 얹는다.

⑦ 넋보냄

무복과 어리 장식은 말미 드릴 때와 같으나, 혼 영실과 상식 올림을 할 때는 벗고서 한다. 춤의 반주 음악은 도드리, 타령, 굿거리, 당악이다. 도령노래가락, 만수받이, 도령(道場)돌이, 길가름, 가시문넘김, 공수, 맞절 노래가락, 상식올림, 혼영실놀음으로 진행한다.

⑧ 뒷전

춤의 반주 음악은 당악이다. 재수를 비는 재수굿의 뒷전과 묵은 새남, 묵은 진오기굿의 뒷전은 연희적인 면을 갖고 있으나 진진오기, 햇진오기, 새남으로 불리우는 굿에서는 거의 울음소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연희성이 없다. 걸립, 맹인, 상문을 만수받이로 하고, 말명, 영실, 수비 등을 공수로 한다.

### 2) 동신 신앙으로서의 도당굿

도당굿(동제, 부락제)은 전라도 살풀이와 경기도 도살풀이로 구성된 시나위가락으로 주로 세습무(世襲巫:화랭이패)들이 주재하였다. 그런데 이 두 굿의 형식은 판이하게 달랐다. 또 도당굿은 마을에 세습무가 없었기에 굿꾼들을 타지역에서 불러다가 굿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당집을 지키는 당할머니의 부재는 결국 당집의 소멸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부평지방에서는 세습무보다는 강신무의 수가 월등하였다.

부평 도당굿은 음력 10월 초 장말, 청수골, 동막, 장봉, 용유, 영종, 덕물, 메무리, 마석의 것과 함께 널리 알려졌던 동제(洞祭)이다. 부평 도당굿은 동막 도당처럼 물목(上山 告祝奉行日表)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제물의 규모는 참여하였던 사람들과 가족 및 후손들의 이야기로 짐작할 뿐이다.

부평도당굿은 몇 년에 한 번이라고 정하지 않았어도 평균 2년에 한 번 꼴로 치루어졌었다고 한다. 그래서 도당굿을 올리는 해가 되면 9월 중순 쯤에 전에 당주를 맡았던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굿하는 날을 정하고, 굿의 규모를 논의하였다.

굿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이러하다. 어정과 굿꾼의 수로서 어음산이(줄타는 광대), 덧뵈기

(탈춤), 살판(땅재주), 소리광대 등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른 경비 총액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등이 결정되면 마을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등급을 두어 쌀이나 돈을 추렴하였다. 당주(堂主)는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 가운데 가장 다복하면서 그 해에 궂은 일이 없었던 사람으로 정하고, 몇 사람의 소임을 뽑아 제물의 구입과 굿 음식을 장만하였다. 물론 당주나 소임들은 각종 금기를 지켜 부정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굿이 시작되기 3일 전, 새로 깍은 장승을 세우고, 금줄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부정한 사람은 타 동네로 소개를 시키는 등 정성을 다하였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덧뵈기를 비롯하여 광대들의 놀이판까지 함께 벌어지는데, 동네 축제로 착각이 들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시루도듬이 끝날 때 쯤이면 외지인들도 참여하여 함께 어울려 동네 잔치의 절정을 이루었다.

부평의 당굿은 지정된 화랭이패가 없이 지영희 패와 김종환 패등 여러 팀이 맡아서 해왔다. 그러다가 6.25동란 이후에는 이용우(李龍雨)패(조한춘, 지갑성, 이영수, 오마겸, 서간난 등)가 몇 번 맡아서 굿을 주도해 왔다. 화랭이 패는 세습무로서 남자 무당은 무격(巫覡), 여자 무당은 미지(美知)라 하며 무격이 굿을 주도한다. 강신무를 청하여 하는 굿과는 달리 마을 주민도 남자만이 굿청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 부녀자들은 집에서 굿청에 올라가 있는 남정네들의 식사 준비나 하는 정도이고 돌돌이 때에 꽃반을 대문 앞에 내놓는 일과 고사 시루를 준비하여 집안에서 치성드리는 정도의 참여에 그친다. 굿청의 참여는 못하지만 각종 놀이판 구경은 자유롭다.

**가. 상차림**

- ○ 당주굿상 … 지신시루(백설기), 대신시루(콩떡), 대감시루(팥떡), 성주시루(팥떡), 굿상음식 전부한 틀씩
- ○ 안 반 …… 팥떡, 백설기, 굿상 음식 전부 한틀씩(굿 음식을 준비하면서 굿시루를 찌기 전에 행하는 의식을 쓴다.)
- ○ 부정상 …… 팥떡, 삼색나물, 오색 과일, 어과 모듬, 북어 1, 맑은 물, 잿물, 조라술, 모두부, 튀각, 소지, 오곡
- ○ 산맞이상 … 소머리, 당시루, 생선적, 준주(쌀), 대(소나무가지)
- ○ 돌돌이상 … 북어, 백지
- ○ 곶 반 …… 백미, 촛불, 돈(각 가정의 형편에 맞춰서 알아서 함)
- ○ 시루도듬 … 칠성 시루(백설기), 촛불, 북어, 준주
- ○ 제석상 …… 제석시루(백설기), 인절미, 모두부, 삼색나물, 색과일(사과, 배, 곶감, 대추,

밤), 옥수, 수저에 명실을 걸고 고깔 얹은 쌀 주발, 촛불, 퇴각, 어과, 소탕

○ 손님상 …… 왼새끼 감은 위에 쇠고기, 술, 떡 3무더기, 오곡, 준주, 백지, 촛불

○ 군웅상 …… 활과 화살, 북어, 산닭, 군웅 시루, 쇠머리, 쇠족, 술, 삼색나물, 촛불

○ 뒷전상 …… 백미, 옥수, 모두부, 퇴각, 삼색나물

○ 뒷고사상 … 미역국, 메(밥), 옥수, 술

나. 부평의 도당굿 절차

① 당주(堂主) 굿

도당굿 전에 당주의 신에게 집안이 편안하도록 빌어주는 굿으로 오후부터 저녁 늦도록 한다. 삼현 도드리로 한다.

② 거리 부정

아침 일찍 굿꾼들이 삼현 육각을 울리면서 마을을 돌며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굿이다.

③ 산(山)맞이

도당(할아버지, 할머니)을 모셔오는 의식이다.

④ 돌돌이

마을 장승에 길군악으로 장승굿을, 마을 우물에 굿거리로 용왕굿을 덕담으로 하고 집집마다 차려 놓은 꽃반 앞에서 덕담을 해주고 굿당으로 돌아와 대취타를 연주하면서 장문젭이는 장문잡기를 하고 진쇠춤을 춘다. 돌돌이를 잘하면 상으로 벼 한 섬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⑤ 시루 도듬

시루 디딤 또는 시루말이라고도 한다. 자손의 수명장수를 위해 칠성(七星)님께 비는 굿으로 시루에 촛불 두자루를 켜놓고, 대한제석 소한제석 신화인 칠성풀이를 한다.

⑥ 제석(帝釋)굿

수명장수 부귀공명을 관장하는 삼불제석과 생산의 신이 되는 과정을 엮은 당금애기 신화를 도살풀이, 도드리, 만수받이, 노래가락의 순서로 진행한다. 무격은 앉아서 청배하면 미지는 고깔 장삼에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춤을 춘다.

⑦ 본향(本鄕)굿

도당을 위하는 굿으로 미지가 진행한다.

⑧ 터 벌림

손굿과 군웅(軍雄)굿을 하기 전에 굿터를 벌여 놓는다. 뜻으로 장고와 징으로 반서림 넘김채, 곁마치 장단으로 연주를 하면 무격이 쨍가리를 치면서 터벌림 춤을 춘다.

⑨ 손(別相)굿

천연두 신인 손님마마를 위하는 굿이다. 반서림, 곁마치, 자진모리, 공수답, 삼공잡이, 휘모리장단을 쇠와 장고로 연주하면 두 명의 무격이 춤추고 춤이 끝나면 무격이 판소리조로 북장단에 맞추어 손님이 강남에서 의주, 평양을 거쳐 굿하는 동네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노래하는데, 평양 남원 기생 장고와 권주가, 온갖 음식조선 팔도의 경치와 특징들을 다 들어볼 수 있다.

⑩ 군웅(軍雄)굿

옛날 이름을 날리던 장군을 위한 굿으로 손굿과 같이 노정기를 창한다. 군웅 청배에는 천지가 생긴 이후 단군, 기자조선, 신라, 고려, 이조시대에 이르는 역대 우리나라를 다스려 온 국조신들을 섬기는 치국(治國)잽이로 이루어진다. 미지는 방울과 부채를 들고 무격은 꽹가리를 치면서 군웅상 양편에서 춤을 춘다. 이를 일컬어 쌍군웅 춤을 춘다고 말한다.

군웅굿의 과정은 부정놀이, 도살풀이, 올림채, 곁마치, 반서림의 반주 음악이 사용되며 산닭을 놀리고 활과 뼝대살 놀림이 있다. 이 굿은 8시간 이상 진행되기도 한다.

⑪ 도당 모심

여무(女巫)의 축원과 덕담으로 당주가 잡고 있는 신대가 흔들리면 "도당 할아버지(또는 도당할머니)께서 잘 받으셨으니 마을 이 편안하리라."는 덕담을 하고 당주를 앞세워 모셔온 곳으로 가서 신대를 고정시킨 후 간단히 굿을 한다.

⑫ 중굿(신장굿)

무격이 장고잽이와 재담을 주고 받으며 중타령을 엇모리 장단으로 한다.

⑬ 뒷전

영산, 수비, 잡귀들을 풀어내리는 굿으로 무격과 잽이들의 재담이 있고, 정업이와의 싸움, 시루 전에 닭사슬 붙이기 등이 진행된다. 허튼 타령, 곁마치, 자진타령, 어둔이 타령, 휘모리가 연주되며 미지(여자무당)가 추는 도살풀이 춤이 일품이다.

⑭ 뒷고사

굿이 모두 끝나면 당주와 소임들이 목욕재계하고 미역국을 끓여 메를 지어 옥수수와 술을 진설하여 놓고 굿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 2. 민속생활사 자료

### 1) 의(依) 생활

본 자료는 부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식·주 생활 분야로 나누어 1994년 6월 부터 8월까지의 제보자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현지 토박이로 나이가 많고 출생과 성장이 동일한 생활권에서 살았던 분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하여 어떤 지역에서는 타 지방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결혼한 후부터 계속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하였다. 나이는 65~90대 연령층이며 주로 여성들이다.

조사 대상 지역으로 부천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부평의 행정 구역이 김포, 부천, 소사, 오류동까지 아직까지도 노년층에서는 부천도 부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

본 자료의 시대적 배경은 자료 제보자[1]들이 성장기에 어른들의 생활을 통하여 본 것과 듣고 익힌 것들과, 출가 후에 자신이 생활 경험담을 토대로 한 것으로, 1900년대부터 일제강점기(日帝強點期)를 거쳐 1950년대 까지의 생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매우 혼란하고 복잡한 때이다. 국외의 정세의 영향 및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의 고유의 생활 풍속과 의식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시기였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우리 선조들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켰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의생활 연구내용은 크게 통과의례복과 일반 복식 및 기타로 나누었다. 그리고 통과의례복에서는 출생(出生), 혼인(婚姻), 수의(壽衣), 상복(喪服)으로, 일반복식(一般服飾)에서는 평상복

1) 자료 제보자는 11명이며,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김순현(여 80세) : 부평 부평6동, 경기도에서 혼인 이후 이사(남편 공무원).
- ○ 박복심(여 65세) : 부평 계산동, 29세 혼인. 경기도에서 첫 아이가 3살 때 이사.
- ○ 김선안(여 94세) : 부평 부평동, 8세 민며느리로 들어와 16세에 혼인.
- ○ 이구순(여 77세) : 부평 계산동.
- ○ 장순분(여 72세) : 부평 부평동, 19세 혼인(상업).
- ○ 이영만(남 72세) : 부평 계산동(부평 향교 전교).
- ○ 공대환(남 49세) : 부평 부평동, 3대째 거주(상업).
- ○ 최종은(남 78세) : 부천 심곡동, 김포에서 혼인 이후 이사(목수).
- ○ 이숙영(여 70세) : 부천 원미동(부천시 여성향우회 회장).
- ○ 진옥련(여 81세) : 부천 원미2동(부천시 원미2동 할머니 경로당).
- ○ 김정숙(여 45세) : 부평 계산동(부평 향교 여성국장).

(平常服)과 노동복(勞動服)으로 나누었고, 기타에서는 길삼, 세탁과 침구(寢具)를 다루었다.

(1) 통과의례복(通過儀禮服)

가. 출생의례복(出生儀禮服)

통과의례란 인간이 출생하여 사망 할 때까지 거치는 의례를 말하며, 의례복은 그런 의식 때 갖추게 되는 복식 전반을 말한다.

① 출생 직후

초생아의 배꼽을 처리한 후 주로 남자들의 헌 윗저고리나 바지로 싼다. 목욕은 시키지 않으며 손 발을 펴게하고 바람이 들어 가지 않게 꼭꼭 싸서 아래목 이불 속에 눕혀둔다.

② 배냇저고리

아기는 3일 후에야 처음으로 목욕시키고 옷을 입힌다. 옷감은 부드러운 흰색의 융이나 명주, 무명을 사용한다. 깃을 달지 않음으로 해서 짧고 짓무르기 쉬운 목을 위생적으로 보호하는가 하면, 소매를 길게 하여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일들로부터 외상(外傷)을 막게한다. 주술적인 면에서는 유사연상적(類似聯想的) 행위로 실고름을 달아서 실 길이만큼의 명을 잇기 위한, 즉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일, 또는 남아(男兒)선호사상, 남존여비(男尊女婢)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그밖에 낡은 옷은 깨끗이 처리한다든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김순현(여, 84세)씨에 의하면, 출산 후에는 아무 것도 입히지 않은 채 두었다가 산모가 첫 국밥을 먹고 아이를 씻긴 후 깃이 없는 배냇저고리를 입히고, 여밈 부분은 긴 실로 묶어 둔다고 하였다. 어려운 집에서는 부모의 옷 중에 부드러운 것을 깨끗이 빨아서 만들었다.

박복심(여, 65세)씨는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산모의 치마로 배내옷을 만들었다. 또 아이를 업는 포대기도 산모의 치마로 만들었다. 또 김성안(여, 94세)씨는 배냇저고리로 흰색 광목으로 짓고 명 길어지라고 무명실을 달았다. 그리고 공대환(남, 49세)씨는 출생하면 수건에 싸서 두었다가 배냇저고리를 입혔고, 이구순(여, 77세)씨는 나자마자 배내옷을 입히고 실로 메어 주었다고 한다.

장순분(여, 72세)씨의 경우 첫 아이는 융으로 만든 배냇저고리를 친정 어머니가 사 주셨는데, 여기에다 실로 고름을 달아 입혔다. 이렇게 처음에는 사 입혔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싸는 수건과 배냇저고리는 융을 끊어다가 만들어 입혔다. 이런 옷은 아래로 내려 입히는 것이 예사였는데, 다만 딸이 입었던 것은 재수 없다고 하여 아들에게 입히지 않고 과거를 볼 때 가져갔다. 그러다가 배내옷이 낡으면 행주로 쓰다가 버렸다고 한다.

③ 백일(百日)옷

옷은 흰색으로하는 데 흰 것은 한자에서 '白'이며, 그 음이 숫자의 '百(100)'과 같기 때문에 '흰옷', '백설기', '백일', '흰무리', '100'이라는 숫자에는 다 같이 장수의 개념이 상징화되어 있다.

백일 때는 남·여아 옷의 형태는 같다. 이 때는 아기들이라 누워 있기 때문에 주로 저고리나 입히고 배를 가리는 두렁이를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고, 가정형편에 따라 아래옷과 모자 버선까지 갖추어 입혔다.

김순현씨에 의하면 백일에는 바지, 저고리를 새로 해 입혔는데, 주로 바지만 새것으로 많이 해입혔다고 한다. 옷감은 광목, 무명이 주였고, 아주 잘해 주는 집은 명주로 해입혔다. 그리고 이 옷을 입혀 백일 사진을 찍었다.

이구순씨는 백일 때는 사온 것을 입혔는데, 융으로 만든 것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옷을 내리 받아 입혔는데, 이렇게 입히는 것은 형제 사이에서 딸, 아들 구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옥련(여, 81세)씨는 백일옷으로 모달리(융), 모단으로 만든 옷을 입히는 것이 제일 잘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종은(남, 78세)씨는 아이들 옷으로 누비옷을 입히면 아주 잘해주는 집에 속한다고 했다. 그리고 저고리는 누비는 경우가 많은 데, 백줄을 누비면 백살까지 장수한다 하여 누비옷을 만들기도 했지만, 주술적인 면보다 아기들 것이기 때문에 자주 빨아야 하므로 튼튼하게 막 입기 좋게 하기 위함이었다.

저고리는 남자의 저고리처럼 길게 하여 깃 섶 고름 동정을 모두 달고, 옷고름은 겉섶고름을 길게 만든 '돌띠'를 달아서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맬 수 있게 했다. 아래옷은 밑이 트이고 무가 달린 '퐁차바지'로 하고, 버선은 '타래버선'을 만드는데, 타래버선은 흰색 계통의 무명 종류의 옷감에다 속에는 솜을 넣어 누비고 다시 수를 놓았다. 버선코에는 빨간 수실로 상모를 달고 발목에는 남색이나 빨강색으로 대님끈을 단다. 옷감은 계절에 따라 달리하지만 대부분 융으로 하고 왜포(광목)로도 했다.

④ 돌

돌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는 생일이다. 출생률은 높았지만 질병이 많았던 옛날에는 아이의 돌은 집안의 경사였다. 형편이 어려운 집이든, 여유가 있는 집이든, 형편에 따라 어머니가 정성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재봉틀이 귀했던 시기여서 염색에서부터 엄마의 솜씨가 그대로 복식에 반영되었다.

돌옷은 남자 아이의 경우 저고리와 바지에 전복과 복건을 씌우고, 색동저고리를 많이 입혔다. 버선은 타래버선을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여자 아이는 노랑 저고리나 색동저고리를 입히

고 다홍 치마를 입혔다. 이 때 바지는 뒤에 무가 달리고 가랑이가 트인 '풍차바지'나 밑이 트인 '십자(개구녘바지)'를 입히고, 단속곳까지 갖추어 주기도 하였다.

두루마기나 저고리에는 '돌띠'를 달아서 허리를 한 바퀴 돌려서 매였다. 특히 솜씨 있고 여유 있는 집에서는 수(繡)를 놓은 '수 돌띠'를 만들어 허리에 띠어주고 두루마기나 저고리 소매는 색동으로 이어서 해 주었다.

박복심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돌복을 새로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고, 백일이나 돌잔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김순현씨에 의하면 남아는 바지, 저고리에 조끼를 입고, 복건을 씌웠으며, 여아는 치마, 저고리에 굴레는 씌우지 않았는데, 막내딸은 족두리를 씌우고, 돌사진은 아이들마다 찍었다고 한다.

김성안씨의 경우 옷감은 주로 광목이나 무명으로 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입혔다. 딸 아이에게는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를 광목으로 안을 넣고 겉은 베로 만들었다. 그리고 염색은 집에서 직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장순분씨의 경우는 여아의 옷은 녹색 명주치마, 노랑저고리를 입히고, 아들은 분홍저고리, 검정(청)바지를 입혔다. 그후 6.25이후에는 줄곳 옷을 사서 입혔다고 했다.

나. 혼례복(婚禮服)

대체적으로 신랑, 신부의 혼례복은 이러했다. 신랑은 사모에 관복을 입고 목화를 신고 관대를 매었으며, 신부는 치마저고리에 원삼 족두리 또는 활옷을 입고, 연지 곤지를 찍었다. 옷은 동네에서 마련된 것이거나 중신한 사람이 돈을 받고 빌려주기도 했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부의 속옷으로는 계절에 관계없이 모시 속적삼과 속치마를 입혔다. 이 옷은 속이 시원하고, 막힌 데가 없는 것처럼 결혼후 잘 살았으면 하는 염원을 담은 풍속적인 의미가 있다.

혼수감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뉴똥 호박단 모본단을 준비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무명을 곱게 다듬어 하거나 염료를 사서 직접 염색한 것으로 옷을 준비했다.

버선은 여자들의 필수적인 바느질감이었다. 어려서 부터 바늘을 잡기 시작하면서 버선 만들기와 버선복 기우기를 배우는데, 시집가서 평생을 신어도 될 정도의 버선을 만들어 갔다고 한다.

혼수로 반드시 걸레(월경대)를 준비해 가야 하는데, 왕베로 굵고 성글게 짠것으로 혼례시 다른 것은 못해도 3개는 반드시 혼수로 해주었다. 이 걸레는 귀를 접어서 허리에 매달았다고 하며, 월경대는 여자가 죽을 때 관 속에도 반드시 넣었다.

행주치마 역시 혼인 준비물이었다. 새색시는 의례히 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 상례였는데, 주로 광목으로 만들었고, 여름에는 인조 모시 삼베로 만들어 입었다.

다. 수의(壽衣)

수의는 망인(亡人)의 염습의를 말한다. 즉 사람이 죽어서 염을 할 때 입히는 옷으로, 노인이 있는 집안은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입히는 경우도 있었다.

수의는 베로 하되, 부유층은 명주로 안을 받쳐 입었고, 속옷과 홑이불까지 짓지만 일반인은 고의 적삼만을 만들기도 한다. 현재는 여성 예학 연구원에서 권장하는 수의로 하고 있다고 한다(이영만).

숨질 때에는 가장 좋아하는 옷을 갈아 입히고, 염을 할 때에는 따로 입던 것을 손질하여 입혔다. 선대에는 삼배 바지저고리를 입히고 복건(끈을 넷 달은 보자기 형태)과 악수(손에 끼우는 토시처럼 달은 끈)를 씌웠다. 이후에는 복건을 자루처럼 폭 덮어 씌웠다. 염을 할 때에는 쌀을 물에 담갔다가 시신의 입에 물리고, 망치로 엽전을 납작하게 빻은 후에 염을 하는 사람들이 버드나무 숫가락으로 천석이요, 만석이요 하면서 떠 넣기도 하였다. 평상시에 입던 옷은 창호지로 싸서 보공으로 사용하였으며, 옷이 모자라던 시절에는 짚으로 싸서 넣었다(김순현).

염을 할 때에는 광목으로 묶고 입관시킨다. 부평지방은 집안에 따라 시신을 묻을 때 입관하는 경우와 퇴관하는 경우의 두 가지 풍습이 있다고 했다(공대환). 장지에서 매장할 때 명주는 썩지 않는다고 사용하지 않고, 베를 주로 사용했다. 사신을 묶는 교렴포도 베로 사용했다. 수의를 미리 만들어 둘 경우에는 윤달에 만들고 관도 짜서 매달아 놓았다가 사용했다(최종은).

라. 상복(常服)

산업화가 되면서 정부의 상례 간소화정책의 추진으로 현재 부평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복은 장의사에서 사온 간이복을 주로 사용한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무명으로 만든 치마저고리에 흰 댕기를 꽂는 정도이고, 남자는 입관하기 전까지 굴건(간소화된 굵은 베로 만든 유건형태)을 하고 팔에는 삼베로 만든 완장을 하고, 다리에는 무명이나 삼베로 된 각반을 했다. 이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상복이다.

지금부터 30~40년 부평 사람들의 상복 형태는 오늘날과 전혀 달랐다. 상제의 의복은 굴건, 제복, 수질에 칡 껍질을 해서 착용하였다. 안 상제는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고 수질(박다리), 요질을 한다. 제복에는 중단이 있는데 옷감으로 더덕더덕 대었다. 수질은 남자 중에서 총각과 여자들만이 했다(이영만). 상복은 솔기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꺾어 넣은 형태의 굴건제복을 입었다. 소대상 이후로는 실댕기를 드리고 흰옷을 빗고 옥색 옷을 입었다. 그러다가 백일제가 지나면 실댕기를 풀고 흰댕기를 드렸다. 아버지 생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는 1년간 상청을 하며, 어머니 생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3년에 걸쳐 예를 다했다. 아버지가 돌아

갔을 때는 상복의 솔기처리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솔기처리를 꺽어 넣었다. 상제들은 상청을 지킬 때 단(袒)을 하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바른 쪽이고, 어머니의 경우는 왼쪽 어깨를 끼고 겨드랑이로 묶었다(김순현).

(2) 일반복식(一般服飾)

가. 평상복(平常服) 및 노동복(勞動服)

평상복과 노동복을 구별하기는 힘들다. 옛날에 부평지방은 농업지역이어서 농사일을 할 때는 간편한 옷을 입었다. 일제시대에 남자들은 당코바지와 양복을 많이 입었으나,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를 주로 입었다. 당시 일제시대는 전시체제였기 때문에 식량배급을 타기 위해서는 치마위에 몸베를 입어야 했다. 그렇지만 바지를 바깥으로 내입지는 않는다는 우리 고유의 예절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치마가 입혀졌으나 6.25이후 서구화, 산업화가 되면서 양복이 일상복으로 수용되어 몸베나 바지가 노동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평상복으로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적삼을, 겨울에는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출타시의 외출복은 광목 두루마기를 입었고, 단발령이 내려 상투는 틀지 않았다. 일본인이 흰옷을 금지시킨 후에는 흰옷을 입고 나가면 먹물을 튀겨, 검정이나 밤색 목세루 두루마기를 입었다. 13살 때 처음으로 고무신을 신었다(김순현). 그리고 고무신을 신기전에 신발은 짚세기나 나막신을 신었다. 남자들은 상투를 틀어 동곳 꽂기가 힘들었다고 한다(이규순). 머리 모양은 25,6세까지 낭자머리를 했으나, 그 후로 틀어 말아올린 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파마를 했다(장순분).

노동복은 베나 무명으로 짠 짧은 바지와 짧은 소매의 등걸이 잠방이를 입었다(이영만). 여자는 농사복으로 몸베가 있었지만, 잘 입지는 않았고, 단속곳에 치마를 걷어올리고 김을 매었다(이구순). 작업복은 당고바지를 입었다. 젊은이들은 중의적삼 입는 일이 적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옷은 가게에서 사 입거나 서울에서 사왔다(최종은). 당시 제일 좋은 옷감은 호박단, 모본단, 양단, 하부다에 순이며, 명주와 모시가 가장 흔했다(장순분).

(3) 침구, 세탁, 길삼

이불은 풀을 먹여 뻣뻣한 채로 쓰거나, 무명에 검정물을 들여 사용하기도 했다. 목세루 이불 명주 이불은 부유한 집에서나 사용할 수 있었다(김순현).

세탁은 다른 지방과 비슷하였다. 다만 오줌을 이용한 세탁법이 30~40여년 전에도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세탁법은 메밀, 콩깍지, 팥깍지 땐 재를 시루밑에 짚으로 앉혀놓고 재를 깔아놓은 다음 물을 주어 체로 막아 빨래감을 삶는 방법으로 빨래를 하였다. 그 중 깍지잿물이 가장 좋았다고 한다. 이 당시 세수는 팥을 갈아 떨어진 눈을 골라 물에 섞어 이용하였

고, 양치질은 소금을 볶아 빻아 치약 대용으로 썼고, 손으로 닦아 냈다. 머리는 잿물로 감고, 여름에는 뜨거운 날에 논바닥의 따뜻한 물을 떠다가 감았다(김순현). 그리고 때로는 쌀겨와 양잿물을 펄펄 끓인 것을 항아리에 넣어 두고 비누 대신 사용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꽁깍지와 메밀을 태운 재를 시루에 얹어 놓고 물을 내리면 잿물이 되었는데, 주로 아이의 똥 기저귀를 빨을 때 이 방법을 썼다. 이 방법을 쓰면 빨래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다고 한다. 머리를 감을 때는 오줌독 오줌을 물에 타서 사용했는데, 머리카락이 윤이 난다고 하였다(박복심).

길쌈은 부평지방에서 구경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영만씨에 의하면 명주를 집에서 짜기도 했었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부평에는 뽕나무가 많았고, 정책적으로 농촌진흥소에서 양잠용 누에와 뽕잎을 기술지도를 통해서 장려했다고 한다. 여러사람들의 기억으로 볼 때 부평에서는 베나 모시 무명들을 길쌈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기계로 짠 강화 인조를 짜는 집은 몇집이 있었던 기억은 난다고 하였다(최종은).

### 2) 식생활

음식(飮食)은 문화의 한 요소이다. 이는 자연환경에 기초하여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지역의 역사와 사회성,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하여 조리하느냐에 따라 식문화 현상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상차림이나 음식의 종류, 양의 정도, 식사예절 등에 있어서도 지역성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노동의 종류에 따라 식사의 횟수도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또 의례, 세시 등 풍속에 따라 일상식이 다르고, 계절에 따른 산물이 다르므로 상차림의 모습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또 주술적인 면에서 금기(禁忌)와 기복(祈福) 사상도 식문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 (1) 주식, 부식

쌀, 보리, 옥수수, 수수 등이 주식이었으나, 1950~60년대 6.25를 전후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군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 죽을 사다가 주식으로 많이 먹었다. 그리고 부평지방 역시 20~30년 전만 해도 보리고개 때에는 벗긴 소나무 껍질을 좁쌀이나 쌀을 섞어 넣고 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 쌀, 보리, 콩, 팥, 수수, 좁쌀을 혼식하였으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꽁보리밥을 먹었다. 음력 4~5월의 보리고개를 보내고, 6월에 햇보리가 익기 전에 익은 이삭(겉보리)을 따다가 솥에 볶아 맷돌에 간 것을 죽을 쑤어 먹었다. 부식은 김치, 깍두기, 장아찌를 주로 먹고, 부유층은 배추김치에 속을 넣어 먹기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에 배추 줄기와 무우 줄기를 주워 이를 절여서 새우젓 간장에 섞어 먹었다(이영만).

이 당시의 주식은 보리밥이 주종을 이루었고, 찬거리는 김치, 된장국, 콩나물국 등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여름에는 누구의 집이든 쌀을 보기가 드물었다(김순현). 또 한 때는 조, 보리, 팥도 주식이 된 적도 있었는데 나물이나 된장도 없이 연명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또 때로는 주위에 술도가에 가서 술찌끼미를 사와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 난후 쌀겨는 돼지를 먹었다. 꿀꿀이 죽도 주식의 일부였다(박복심).

명절때에는 형편이 좋은 친척집에 가서 얻어 먹었다. 계산동에서는 거의가 어려워서 장뇌쌀을 먹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갚곤 했다. 당시의 식생활은 누구의 집이든 보리밥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먹는 것이 일상 음식이었고, 부식으로 된장, 나물, 짠지, 오이지가 전부였다고 술회하고 있다(이구순). 돼지고기는 집에서 잡아먹었는데 당시 이것은 불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개고기는 먹기는 하였지만 잘 잡아먹지는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개를 잡아 먹으면 개백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눈총을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최종은).

(2) 통과 의례와 식생활

통과 의례에서 길한 일은 출생, 성년식, 결혼식, 회갑, 회혼례 등을 말하며 상사는 초상을 비롯한 갖가지 제사를 말한다. 모든 의식에는 특별한 식품이나 음식을 반드시 차리는데, 이에는 기원(祈願), 기복(祈福), 외경(畏敬), 존대(尊待)의 뜻이 담겨져 있다.

**가. 출생 의례**

① 백일

아기가 태어나서 백날이 되는 날로, 일가 친척과 이웃을 청하여, 날을 뜻있게 지낸다. 상은 보통 반상 정도로 차리고 흰무리(백설기)와 수수팥떡을 해서 먹는다. 흰무리떡으로 상을 차리는 것은 백설같이 순수무구(純粹無垢)함을 기원하고 새 아기를 찬양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먼저 삼신 할머니와 지석주머니께 먼저 빈다. 그리고 다음 집안 잔치를 하는데, 백일 잔치는 산모의 몸조리 기간이 끝났음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다(김정숙). 이렇듯 누구나 백일에는 백설기나 수수팥떡을 만들고 미역국을 끓여 집안이나 이웃들과 나눠먹었는데, 아기가 무병장수하여 백살까지 산다는 속신을 믿고 이 풍습을 지켜왔다.

② 돌

아기가 1년을 자라면 자축과 축복을 겸한 돌상을 차려서 돌잡이를 했다. 돌잡이는 아기의 장수, 자손의 번영과 다재다복을 기원하는 친족들간의 행사였다. 옛 문장으로 돌을 쉬, 돌상을 쉬반, 돌잡이를 시쉬·시주(試周)라 하였는데, 이 돌상에는 백반, 광탕(미역국), 백설기 수수팥단지, 송편, 인절미, 생 실과 등을 차렸다. 그리고 돌잡이를 하는 상차림 위에는 쌀, 면, 대추, 흰 타래실, 청홍색 타래실, 붓, 먹, 벼루, 책, 활, 돈 등을 상 위에 차려 놓는다. 그리고 아기가

상 위의 물건을 골라 잡도록 했는데, 이를 보고 장래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 백설기는 아무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뜻하므로 축원의 의미가 있다.

㉡ 수수팥단지는 보통 7살 생일까지 해 주는데 삼신이 아이를 지키는 나이까지 잡귀가 붙지 못하도록 예방한다는 의미가 있다.

㉢ 대추는 자손이 번영되라는 뜻으로 놓는다.

㉣ 쌀은 앞으로 식복(食福)이 많으라는 뜻으로 놓는다.

㉤ 변은 비는 상징이다.

㉥ 흰 다래실, 청·홍색타래실은 수명장수를 비는 뜻에서 긴 타래실을 굵직하게 타래지어 섞어 놓는다.

㉦ 붓, 먹, 벼루, 책은 재주가 많으라는 뜻에서 놓는 것이다. 붓은 굵은 것으로 놓으며, 예전에 천자문책을 놓았는데 아기가 자란 다음 이 천자문을 읽게 하였다.

㉧ 활은 무운과 용맹의 상징으로 놓는 것이다. 여아에게는 활 대신 자를 놓아둔다.

㉨ 돈은 옛날에는 굵은 홍실에 대대로 내려오는 엽전을 많이 꿰서 놓았다. 돈은 재복이 있으라는 뜻에서 놓았다.

돌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잔치 부조로 국수(반 관이나 한 관 정도), 막걸리, 속옷, 돌옷을 사 갔다. 요즈음같이 반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공대환).

### 나. 혼례

사례의 하나로 혼의(婚儀),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등 네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나, 보통 농가에서는 양가 어른들의 동의를 받아 정혼을 하게 되면 신부집에서 택일을 하고 혼례를 올렸다.

혼례시에 차리는 초례상에는 삼색과일(껍질을 까지 않은 밤, 대추, 곶감)과 암수 생닭, 쌀에 수저를 꽂아 놓으며, 대나무와 소나무를 화병에 꽂아 올려 놓았다. 예전에는 살아 있는 암수 닭의 다리를 청홍색실로 묶어 보자기에 싸서 올려 놓았는데, 최근에 와서 나무로 깎은 기러기로 대신한다고 한다(이영만).

잘 사는 집은 큰 상을 차렸는데, 과일, 떡 부침개, 실과 등을 한자씩 괴기도 하였다. 이바지 음식은 없었으며, 1년 후에나 친정에 갈 수 있었다(김순현).

### 다. 회갑

만 60세가 되면 회갑이라 하여 큰 상을 차렸다. 이 때도 역시 혼례상의 망상(望床)을 차리고 자손들이 차례차례 잔을 올렸다. 괴는 음식은 계절에 따라, 또는 가풍, 형편 등에 따라 상차림을 했는데,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았다. 대개 다식류와 강정, 편, 편육, 전유아, 건과, 생실

과 등을 차리고 탕속으로 옥춘, 팔보탕, 온탕 등을 차렸다. 괴의 높이는 근래에 와서 적당하게 하나, 재래에는 높이와 치수, 접시 수를 홀수로 하였다.

부모 회갑 때 부유층의 경우는 큰 상을 차리고, 기생을 불러 권주가를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상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수연만을 베풀었다. 큰 상에는 과일, 조과(造果), 육회 등을 차리고 앞줄에 보기 좋게 석자 정도로 음식을 괴었다. 상을 받는 사람은 상을 차리고 상을 안 받는 사람은 술상만 차려 대접했다.

라. 상례(喪禮)

상을 당하면 제일 먼저 사자밥을 해 마당 끝에 갖다놓고 10환짜리 동전을 꽂아 놓는다. 평소에 신던 신과 단장도 갖다놓는다. 사망한 지 만 하루가 지나면 염을 하고 상주들이 상복을 입고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있다. 이를 '성복제'라 하여 기제사 상차림과 같이 한다.

성복제가 끝난 후에는 문상을 받는다. 그리고 운명한 지 3일이 지나면 발인제를 지내기 위해 상을 차리는데 메와 탕은 생략하며 술도 한 빈만 올린다. 상여가 나가다 길에서 노제를 지내는데, 이때 음식은 상을 당한 집의 일가 친척들이 준비한다. 이 때도 메와 탕은 빠지고 술 한 잔이 올려진다. 봉분이 끝나면 평토제를 지내는데, 이때는 메와 탕이 들어가며 삼배(三拜)한다. 이 밖에 장사를 지내고 돌어온 날에 초우제를, 다음 날엔 재우제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엔 삼우제를 지내며, 탈상한 날과 탈상 후 백일째 되는 날 백제사를 지낸다. 제사 음식의 주가 되는 것은 주, 과, 포, 탕, 적, 편, 해, 메, 메탕, 침채, 채소 등이며, 각색 음식은 굽이 높은 제기에 담는다. 제물은 재료를 잘게 썰지 않고 통째 혹은 크게 각을 떠서 간단하게 조리하며 고명은 화려하게 하지 않는다.

제례를 지낼 때에도 살기 어려웠던 때에는 쌀 한 줌으로 뫼를 지어 괴에 놓고 지내기도 하였으며, 살기가 좀 나아졌을 때에는 포혜(북어 말린 것과 식혜)는 반드시 올려 지냈다. 제삿상에는 뫼와 탕 외에 삼색과일(밤, 대추, 곶감), 조과(산자, 강정, 다식, 약과), 삼적(쇠고기 육적, 생선어적, 두부소적)과 고추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김치를 올리고, 떡은 인절미와 편을 올렸다(이영만).

마. 제례(祭禮)

기제사(忌祭禮)란 고인의 망일(亡日)에 고인을 추념하기 위해 지내며, 상차림에는 젯메, 탕, 적, 포, 편, 식혜, 숙과, 건과, 제주 등을 제수로 한다.

제례를 지낼 때 살기 어려웠던 때에는 쌀 한줌으로 뫼를 지매 괴매 놓고 지내는 것이 예사였다. 허지만 살기가 좀 나아졌을 때에는 삼적에 포혜(북어 말린 것과 식혜)는 반드시 올려 지냈다(김성안). 또 여기에 김, 조기, 탕(칠탕, 오탕, 삼탕, 북어·멸치·두부), 편, 인절미, 나물,

나박김치, 생선포 부침, 고기갈아 부침으로 상을 차렸는데, 꼬챙이 꿰는 것을 하지 않으면 뼈 없는 자식이라 하였다. 나무로 만든 제기가 없었으므로 시피런 사기로 제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김순현). 때로는 고기, 나물 3가지(무우, 숙주, 고사리), 탕(두부, 무우, 고기), 메밥(대신 떡만 놓는 경우도 있었다.) 과일, 산적 등으로 상을 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집안 내력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었다(박복심).

(3) 세시(歲時)와 식생활(食生活)

우리나라에서 절후(節候)에 따라 정월 초하루, 대보름, 입춘, 중화절, 삼월 삼짓,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칠석, 삼복, 백중, 추석, 구월 구일, 시월 상달, 동지, 납평 등의 명일이 있다. 이런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차리고 때 마추어 갖가지 유희와 오락을 즐겼으며, 또는 면액의 뜻을 갖는 풍속이 행해졌다. 명절 때 차리는 음식에는 지역마다 공통된 것이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으며,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세시 풍속이나 식생활이 점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소멸되거나 간소화되고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 정월 초하루

설날 또는 원일(元日)이라 하여 어른, 아이 모두 설빔으로 단장하고 조상님께 차례(茶禮)를 지내 새해 첫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집안은 물론 문중 친지와 동네 어른께 세배(歲拜)를 하는데 어른들은 세배를 받으면서 세배상을 대접했다. 차례상은 메 대신 떡국을 올리는데 집안의 가풍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 떡국 : 「경기잡기」에서는 '동흔동'·'연박탁'이라하여 "멥쌀로 떡을 만드는데 치고 비벼 한 줄기로 했다. 그리고 굳어지기를 기다려 가로 자르는데 얇기가 돈과 같았다. 그것을 끓이는데 꿩고기, 후추가루 등을 섞어 세찬에 없어서는 안될 음식이었다.

② 세찬상과 세주(歲酒) : 떡국과 함께 이 계절의 시식(時食)으로 일컫는 만두, 약식, 인절미, 단자류, 빈대떡, 강정류와 식혜, 수정과 등을 나박김치, 장김치와 함께 차렸다. 그리고 세주도 함께 차렸는데, 보통 약주를 쓰며 따스하게 데웠다.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바램이 담겨 있다고 했다.

③ 강정 : 「열양세시기」에는 설날과 정월 보름에 민가에서 제사시 강정을 최상의 음식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요즘도 차례상이나 세찬상에 강정을 사용한다.

④ 수정과 : 반드시 설날에만 해서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옛부터 시식으로 정월 초하룻날 많이 해서 먹었다.

이밖에 시루떡과 인절미를 해서 먹었는데, 설날 그믐날에는 시루떡을 하여 제사에는 쓰지 않고 나눠 먹는 습관이 있었다(김순현).

### 나. 정월 보름(상원 절식)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는 오곡밥을 지어 김구이에 싸서 먹고, 묵은 나물 9가지에 두부를 부쳐 먹는 절식 풍습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15일 아침에는 부스름을 면한다 하여 부름을 깨며, 해 뜨기 전에 더위를 팔면 일년 내내 더위를 타지 않는다 하여 새벽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더위를 팔았다. 그리고 아침에는 '귀밝이술'이라 하여 찬술(주로 약주)을 한 잔씩 마시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다. 또 보름날에는 약밥을 지어 이웃끼리 나누어 먹었다.

보름날 9곡밥(콩, 찹쌀, 멥쌀, 팥, 조, 수수, 보리… 등), 9가지 나물을 하고, 9집을 얻어다니며 먹고, 9집에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해야 1년 동안 무병하고 복이 온다고 하였다(이구순).

### 다. 단오

단오절은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오래된 명절 중의 하나이다. 여자들은 창포로 달인 물로 머리를 감고, 창포뿌리에 분홍물을 들여 머리에 꽂아 단장을 하고 그네놀이를 즐겼으며, 남자들은 씨름을 하며 즐겼다. 절식으로 차륜병이 있었는데, 차륜병은 차바퀴같은 모양으로 찍은 둥근 모양의 절편이다. 또 수리취(쑥의 일종)를 뜯어다가 데쳐서 멥쌀가루 찐 것과 함께 섞어 안반에서 곱게 찧어 절편으로 만들어 먹었다. 장순분씨에 의하면 색색으로 옷 입히고 처녀들은 창포뿌리를 캐다가 깍아서 물감(적, 청, 황)들여 귀밑머리에 양쪽으로 꽂아 장식하였으며, 창포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한묶음에 20원), 창포의 잎을 삶아 머리를 감으면 윤을 낼 수 있고, 잔병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 라. 추석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적힌 추석의 유래는 이러하다. "신라 유리왕이 왕녀 두 사람을 시켜 육부(六部)의 여자를 반으로 나누어 7월 보름부터 큰 뜰에 모여 베길쌈을 하게 하는데 이경(二更)이 되어서야 파했다. 이렇게 하기를 8월 보름까지 하여 그 성적을 끊아, 진 편에서 주식(酒食)을 갖추어 이긴 편에게 사례하게 했다. 이때 진 편의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는데, 이것을 가위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로 음력 8월 15일을 '추석' 또는 '팔월 한가위'라 하여 특히 농가에서는 커다란 명절 중의 하나로 지냈다.

부평지방에서도 이 날은 햇곡식을 추수하여 떡을 빚고 밤, 대추, 감과 같은 햇과일을 따서 선조께 차례(茶禮)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또 이 날은 햅쌀로 송편을 빚고 토장탕을 먹는다. 솔잎을 뜯어다가 송편을 만들고, 감자, 무우국을 끓이는 집(박복심)과 송편을 하고, 토란국이 아닌 소고기국을 끓여 먹는 집도 있었다(공대환).

(4) 기타

가. 저장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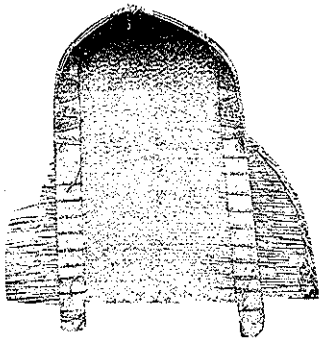
① 간장

콩을 씻어 솥에 넣고 끓이는데, 여러번 불을 땐다. 이렇게 하면 콩에 주름살이 펴져서 누렇게 흐물흐물 거리는데, 이를 다시 절구방아를 거칠게 찧으면 된장용 메주가 된다. 메주는 짚으로 잘 싸둔다. 음력 2월 장을 담그려면 메주를 씻어 바짝 말려 항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붓는다. 이 소금물은 하루 전에 물양동이 1통에 소금 2되를 넣고 계란을 넣어 가라 앉히는데 반쯤 뜨면 알맞다. 소금물을 따라서 붓는데 이 때 대추를 몇개 넣어 2달 후면 뜬다. 고추, 숯(깨도 넣을 때도 있다)을 넣어 부정을 막고 40~50일후 걸러서 채에 받힌다. 새까맣게 간장을 끓이고 남는 것은 된장 덩어리를 주무른다(박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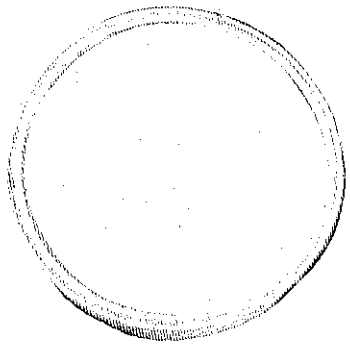
② 고추장

보리쌀(밀가루, 찹쌀)을 갈아 물에 불려 시루에 찐다. 엿기름을 넣고 뜨거울 때 시루를 아랫목에 두어 식힌다. 고추 가루를 넣고 간을 맞춘다. 만약 밀가루나 찹쌀가루를 이용할 때는 찹쌀을 담궈 두었다가 빻아서 개떡을 만든다. 이것을 끓는 물에 삶아내면 동동 떠오른다. 건져서 방망이로 쳐놓고, 메주가루와 고추가루를 방아에 찧는데 고추가루가 물이 들면 소금 간을 하고 엿기름을 끓여서 준비해 두었던 찹쌀에 넣어 버무린다(김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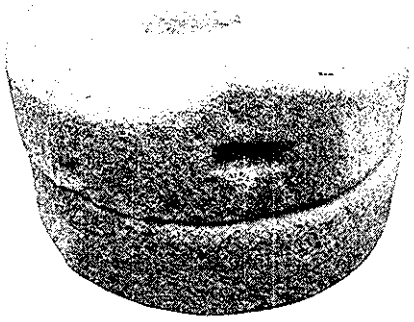
예로 부터 부잣집은 장이 묵어서 새까만 색이었다. 장류를 신성시하여 두란(장독대)에 터주거리(고사)를 지냈다. 장은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남아서 버려도 남은 주지 않았다고 한다. 장을 담그려면 날을 잡아 담그고, 말날(午)이 길일이라고 했다. 말날에 담그면 천액을 면한다는 것이다. 주부들은 장 간수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 장을 담근 후 익을 때까지 왼새끼를 꼬아 부정을 막았다(이영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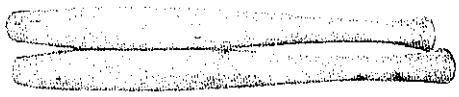
채



키



맷돌



다듬이 방망이

(제공자 장순분씨)

### 3) 주생활

주생활에 있어서도 기후 풍토 지역성과 계층에 따라 주택의 규모나 양식의 차이가 있다. 부평지역은 최근에 이르러 폭넓게 신도시가 형성되어 가면서 전통가옥이 사라져 옛 모습의 주택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고로 주생활 조사는 불가능하여 구전에 의하여 지난 날의 주택 구조와 배치, 공간 이용 등 알아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어 경기지방의 주거양식을 참고하기로 한다.

경기도 민가 평면의 개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곱은 자('ㄱ'자)집이 주루를 이루며, 또 안채는 곱은 자형으로 하고, 중앙에 대청마루 다시 'ㄱ'자 모양의 행랑채를 맞은 편에 배치 함으로써 튼 'ㅁ'자형이 많다. 다음에 많은 것이 'ㄷ'자형 집의 형태이다. 일부 가난한 사람의 집으로서는 한 '一'자형 집이 분포한다.

김순현씨에 의하면 부평지역의 가옥은 '一'자형 집으로 방이 2개였으며, 나중에 2개를 더 들여 4개로 만들어 썼다고 한다. 그리고 터가 있어서 광과 부엌을 다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부엌 왼쪽에 부뚜막이 있어 방 아랫목을 덥힐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부평지방의 가장 흔한 주택의 형태는  안방, 마루, 건너방으로 이루어진 '一'자 집이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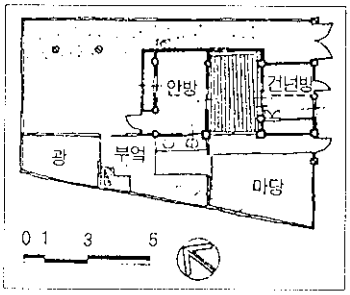
〈그림 1〉은 안방, 마루, 건너방으로 이루어진 '一'자형 가옥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상태가 영세하고 빈약한 가옥이 대부분이다.

최종은씨는 옛날에 대부분의 주택이 전부 3~4간 짜리 농가집으로 안팎채, 행랑채의 'ㄱ'자형 집이었다고 하였다. 공대환씨도 가옥은 'ㄱ'자 초가집으로 대문 좌측에 양계장, 우측에 광, 안방, 건너방, 사랑방으로 꾸미고 남향집을 지어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건축 재료는 소나무로 기둥을 하고 지붕과 벽은 수수깡(나무판자 대용)으로 덮고 빨간 흙을 개서 발랐다고 한다. 이영만씨는 부평지역의 가옥은 'ㄱ'자 또는 'ㅁ'자 였으며, 방위는 남향이나 동남향 집을 지었고, 부엌에는 찬광, 김치독, 나무광이 있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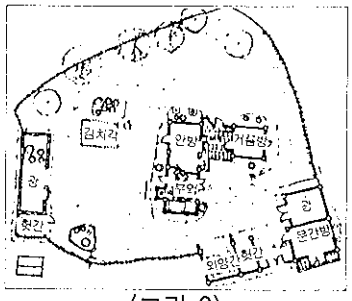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ㄱ'자형 가옥의 평면 형태이다. 전통가옥에 있어서 안채의 평면은 대부분 'ㄱ'자형을 이루는 곱은 자 형으로 평면 유형 분류의 기본이 된다. 'ㄱ'자형 가옥은 행랑채 없이 부엌, 안방, 대청, 거름방(건너방을 경기도에서 거름방이라 부름)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자형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 지방의 자영 농가 살림집으로 변형되지 않는 전통적 주택형을 따르고 있다. 지붕은 초가가 대부분이고 부유층은 조선 기와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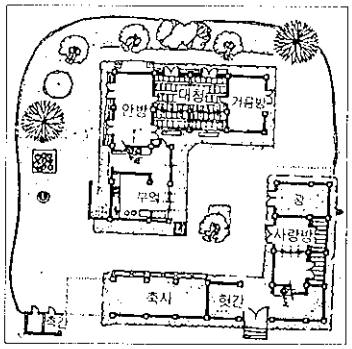
〈그림 4〉는 부엌, 안방, 마루, 건너방 만으로 구성된 '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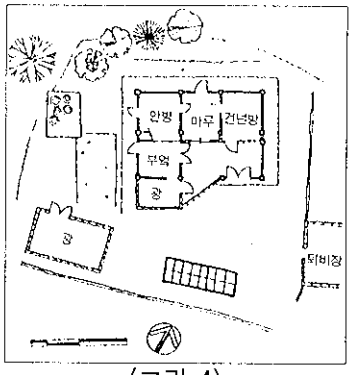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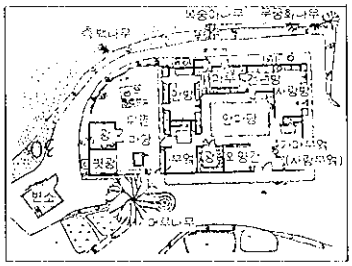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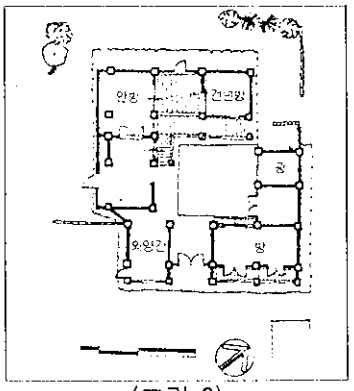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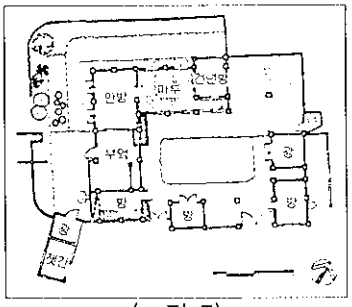
형의 집인데, 부엌 앞으로 광을 증축하여 'ㄷ'자 형으로 변형되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계층의 관계 없이 전통적으로 곱은자 형의 집을 선호하는데, 이는 건축비가 많더라도 쓰기에 편리하고 멋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같다.


〈그림 5〉

'ㅁ'자형 집이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ㅁ'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지붕이 모두 연결된 집을 말한다. 경상북도 지방에서 말하는 뜰집과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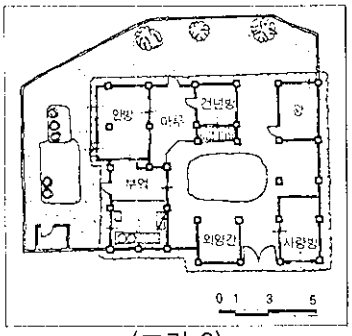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곱은자형 안채에 'ㄷ'자형의 행랑채를 더하여 이 두 채가 합쳐져 하나의 '튼 ㅁ'자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또 특수형으로 안채와 행랑채가 각각 'ㄷ'자형을 이루는데, 이를 합쳐서 'ㅁ'자형으로 된 것과 전체가 'ㅁ'자형으로 구조체가 하나로 이어진 것 등이 있다.


〈그림 7〉

튼 'ㅁ'자형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곱은자 형 안채와 곱은자 형 부속채로 구성된 집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채와 아랫채로 구성된 튼 'ㅁ'자형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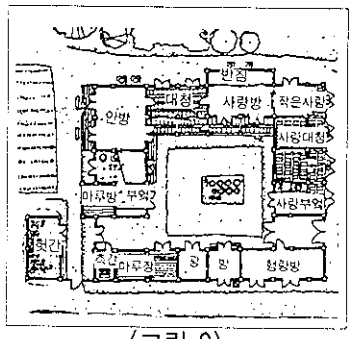
이구순씨에 의하면 부평지역에는 '一'자형 집은 별로 없고 'ㄱ'자형 집이 많았다고 하며, 자신은 30간짜리 'ㄷ'자형(똬리집) 집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이엉을 엮은 초가집이였으나 후에 기와를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부엌에는 부뚜막과 아궁이가 있고 솥단지 3개(가마솥, 밥솥, 옹솥의 대중소)를 걸어 놓았다고 한다.

'ㄷ'자형 집이란 똬리형 집에서 대문간 없이 지붕이 'ㄷ'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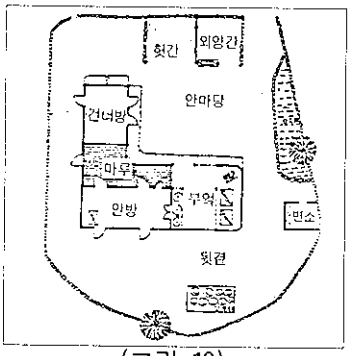
형으로 이루어진 집을 말한다. 'ㄷ'자형 집에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곱은자형의 안채에 건너방 쪽으로 사랑방, 사랑대청, 누마루를 붙인 'ㄷ'자형 배치에 곡간과 행랑방과 대문을 병렬한 형태이다.

또 〈그림 10〉에서와 같이 곱은자 정형(整型)을 안채로 한 'ㄷ'자형의 집도 있었고, 〈그림 11〉에서와 같이 'ㄱ'자형의 안채에 '一'자형의 아랫채로 구성된 튼 'ㄷ'자 형의 주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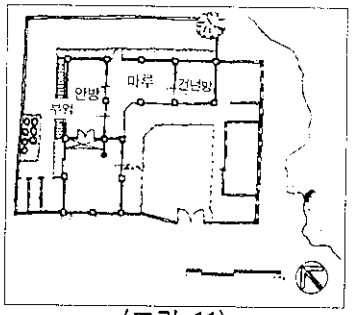
〈그림 12〉는 'ㄷ'자 모양의 집이 입구가 'ㅁ'자 모양으로 돌아 앉아서 이루어진 집인데, 일명 똬리집이라고 한다. 평면구성 또는 지붕모양이 마치 똬리(또아리:머리위에 짐을 얹을 때 고이는 물건) 모양 같다고 하여 붙여진 말이다. 똬리집은 기본적으로 외통집에 속하는 주택으로서 안동지방의 뜰집과 유사한 평면구성으로 지어지는데, 그 칸 수가 다르다. 똬리집은 좌우 각각 4칸을 기본으로, 안동의 것은 칸 수가 그보다 많으나 폐쇄적이라는 면에서 양자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즉 안마당을 중심으로 담장없이 사방으로 방들이 배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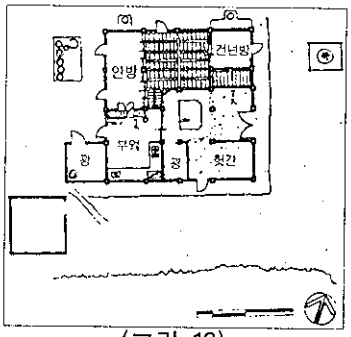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 3. 세시풍속(歲時風俗)

부평은 지리적으로 서울에 인접해 있어 시대 변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울 근교의 세시풍속과 크게 다른 것이 없으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들 가운데 일부가 빠졌거나 더 첨가되어 그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평의 세시풍속은 주로 농경생활 위주로 되어 있다.

한편 부평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세시 풍속을 풍성하게 지니고 있는 반면에, 서울에 이어 서구적 풍속을 받아드리는 속도가 빨라 옛날에 풍성하던 풍속이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거나 변형이 심하여 옛문헌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고 현재는 그 이름만이 남아 있을 뿐 행하여지지 않는 것도 적지 않다.

세시풍속은 옛부터 음력을 사용하여 온 전통 때문에 오늘날에도 음력으로 행해지고 있다. 옛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 토속적 정취를 이어주고 있는 부평의 세시풍속을 경기도 민속지와 인근의 향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월

음력 정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기에 어느 달보다도 많은 풍속이 있으며 1월부터 15일까지에 집중적으로 개인적인 놀이와 행사가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 (1) 설날풍속

① 설빔

설날 아침에 세수를 하고 새로 지은 옷을 입는 것을 '설빔' 또는 '설비음'이라 한다. 주로 아이들에게 이 말이 쓰였는데, 대체로 보름까지 입으며 어린이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른들은 두루마기, 도포, 버선, 댓님에 행전까지 갖추었다.

② 정조차례(正朝茶禮)

정월 초 하루날 새옷으로 갈아 입고 신주를 모신 종가에 자손 전원이 모여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차례는 4대조(아버지 내외, 할아버지 내외, 증조 할아버지 내외, 고조 할아버지 내외)를 모셨다. 5대조 이상은 기제사도, 차례도 지내지 않고 10월에 시제(時祭)를 지냈다. 제주는 소주를 쓰지 않으며, 주식은 떡국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메를 짓지 않았다. 삼색과일, 편 등 모든 음식이 제상에 올랐다.

③ 음복(飮福)

차례가 끝난 다음에 음복이라하여 제사에 쓴 술이나 기타 음식들을 제관과 식구들이 한 자

리 모여 먹었는데 아침 식사를 겸했다.

④ 세배(歲拜)

정월 초하루 아침 식사가 끝난 다음 어른부터 절하여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난뒤 먼저 부모가 돌아가시어 상청을 모신 집에 들러 상청에 조문하고, 상주에게 인사한 뒤 일가 친척 중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부터 행렬(行列) 차례로 인사를 다녔다.

어른께는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더욱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덕담으로 "금년에는 소원 성취하여라.", "복 많이 받아라." 등 그 사람에게 알맞는 소원을 이루도록 축원을 해주었다.

세배가 끝난 다음에는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세배돈이라 하여 약간의 돈을 주기도 했다. 덕담은 새해를 맞아 피차간에 행복을 빌고, 발전을 축하하는 미풍으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⑤ 복조리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로 생활 필수품이었다. 쌀 일듯이 복이 일라 하여 정월 초하루 이른 아침 복조리를 사서 방문 위나 부엌 높은 곳에 달아 복을 빌었다.

(2) 액(厄)연 날리기

그 해의 액을 없애 버린다는 뜻에서 정월 보름날 액, 송액(送厄), 액송이란 글자를 연에 써서 하늘 높이 날려 보냈다.

(3) 쥐불놓이

정월 첫번째 닿는 쥐날(子日)에는 농가에서 밤중에 부녀자들이 방아를 찧으면 쥐가 없어진다는 속설에 따라 방아를 찧고, 젊은이들은 밭이나 논두렁에 불을 놓아 잡초를 태우고 해충을 잡아 병충해를 없앴다.

(4) 입춘(立春) 글귀 써 붙이기

입춘날 입춘 시각에 대들보, 기둥, 문위, 대문 등에 좋은 글귀를 써 붙이고 행복을 기원하였다.

입춘 글귀는 취향에 따라 다르나 대략 다음과 같다.

○ 立春大吉 建陽多慶.

○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 天增歲月人增壽 春滿乾坤福滿家.

○ 門迎春夏秋冬 戶納東西南北財.

(5) 오곡밥

정월 14일에는 오곡(쌀, 좁쌀, 보리쌀, 팥, 콩)을 섞어 밥을 짓고, 각종 채소(고사리, 고비, 호박꼬지, 무스라기, 버섯 등)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 또 이 날은 밥을 9번 먹고, 나무 9짐을 하고 글 읽는 학동은 글 9차례를 읽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웃과 밥과 나물을 나누어 먹었다.

(6) 더위 팔기

정월 14일에는 더위팔기라 하여 그날 처음 만나는 친구에게 "내 더위 사게."하며 더위를 판다. 먼저 말한 사람이 더위를 판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더위를 산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 해 여름의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7) 제웅(處容) 만들기

가족 중에 제웅직성(直星:별의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14일 밤 액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제웅을 만들어 길가에 버렸다. 제웅은 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집어 그 속에 약간의 돈을 넣고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종이에 써서 함께 넣는 것이다. 직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설수가 있고 재수가 없다는 것이다.

직성에 해당하는 남자는 10세, 19세, 28세, 37세, 46세, 55세, 64세이고, 여자는 11세, 20세, 29세, 38세, 47세, 56세, 65세이다.

(8)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정월 14일에 과일나무의 가지 친 곳에 돌을 끼워 두면 그 해에는 과일이 많이 열린다 하여 과일 나무 시집보내기를 하였다.

(9) 귀밝기 술(耳明酒)

정월 보름날 새벽에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또 그 해 중에 좋은 소식이나 좋은 말을 듣는다 하여 이날 아침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을 마셨다. 평소에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조금씩 먹었다.

(10) 보름깨기(腫果)

정월 보름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날밤, 호도, 은행, 잣 등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깨물어 먹었다. 깨물 때는 "일년 중 무사태평하고 부스럼, 종기 등이 나지 맙소사."라고 축원하였는데, 이를 '보름깨기' 또는 '보름 먹는다'고 한다. 또 이(齒)를 굳힌다고 하여 건강의 비결로도 삼았다.

(11) 복쌈

정월 보름날에는 김, 또는 묵은 나물로 쌈을 싸서 먹었는데, 이를 복쌈이라 한다. 이는 볏섬을 쌓듯이 밥을 싸서 먹으면 농사가 잘된다는 데서 유래한다.

(12) 달맞이(迎月)

정월 대보름 초저녁 동산에 올라 달맞이 하는 것을 말한다. 홰를 만들었는데 홰는 짚을 길게 묶어 만들며, 자기 나이만큼 마디를 집으로 엮었다. 그리고 이 홰에 불을 붙이고 수없이 절을 하며 자기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이 날의 달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소원 성취가 된다 하여 되도록이면 높은 동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시골마다 동산은 불빛이 찬란했다.

(13) 12지(十二支) 상일(上日)

설날부터 12일 동안 일진에 따른 첫번째 각 날을 상일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행사를 가짐으로써 일년 내내 무사하기를 빌었다.

① 상자(上子)일

이 날을 쥐날이라 하여 마을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쥐를 없애기 위하여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놓았는데, 이를 쥐불이라 했다. 또한 어른들도 쥐불을 놓았는데 들의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② 상축(上丑)일

이 날을 소날이라하여 소에게 일을 안 시키고 여물과 콩을 삶아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외양간은 전날 쓸어 냈는데, 이는 소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 날 만큼은 일년 내내 소의 건강을 빌었다.

③ 상인(上寅)일

이 날을 호랑이 날이라 하여 부녀자는 외출을 삼가고, 남의 집에 가서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호환(虎患)을 막기 위함이었다.

④ 상묘(上卯)일

이 날을 토끼날이라 하여 가장이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을 열었다. 이는 남자가 문을 열면 가운이 일어나지만, 부녀자가 열면 불길하여 삼간 것이라 한다.

⑤ 상진(上辰)일

이 날을 별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은 하늘에 있는 용이 땅에 내려와 우물에 용알을 낳는다하여 자정(子正)이 지나면 부녀자들은 서로 먼저 용알을 뜬다고 물을 길어다 밥을 지었다. 그러면 가정의 운세가 좋다고 하였다. 대개 상진일에 하기도 하고 보름 15일에 하기도 했다.

⑥ 상사(上巳)일

이 날을 뱀날이라 하여 머리를 빗지 않았다. 머리를 빗으면 집안에 뱀이 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뱀의 길이가 길고 머리채도 긴 공통점이 있어 머리를 빗지 않은 데서 왔다고 본다. 또 이 날에는 머리를 깍거나 감지도 않았다.

⑦ 상오(上午)일

이 날은 말날이라 하여 말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⑧ 상미(上未)일

양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해가 없는 길일이라 했다.

⑨ 상신(上申)일

이 날을 잔나비날이라 하여 나무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며, 부녀자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면 길한다고 하였다.

⑩ 상유(上酉)일

이 날을 닭날이라 하여 부녀자는 남의 집에 가지 않았다.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의 닭이 죽는다 했다. 그리고 이 날은 부녀자들이 바느질, 길쌈, 빨래 등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날 일을 하면 손 발이 닭발처럼 보기 흉하게 된다고 속설을 믿고 따랐다.

⑪ 상술(上戌)일

이 날은 개날이라 하여 죽을 쑤어 먹지 않으며, 밭일을 하지 않았다. 이 날 죽을 쑤면 개가 먼저 먹으며 밭일을 하면 개가 밭을 짓대긴다고 믿었다.

⑫ 상해(上亥)일

돼지날이라고도 하는데, 부녀자들은 팥을 갈아서 만든 비누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깨끗하고 부드러워진다고 하여 실천하였다.

⑭ 패일(敗日) 또는 인동토일(人動土日)

정월 초 5일, 14일, 23일을 패일이라 하는데, 이를 합쳐 3패일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꺼리는 날로 여겨 모든 일을 삼가며, 먼 길을 나서지 않는 풍습이 있다. 또 매월 8일, 13일, 18일, 23일, 24일을 인동토일이라 하여 이 날에는 혼인이나 며슴들이기 등 사람이 들고 나는 일을 삼가하였다. 이 날에 사람이 들어오면 무슨 동티가 나는 줄로 믿었다.

⑮ 복토(福土) 날으기

정월 14일 밤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마당이나 뜰의 흙을 파다가 자기집의 부뚜막에 바르면 부잣집의 복이 자기집으로 온다고 믿었다. 흙에는 터주신이 있어 재물을 모

은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날에는 부잣집의 감시가 심하여 좀처럼 흙을 나르지 못했다고 한다.

(16) 가장(假粧) 떡술받기

정월에 흔한 놀이로 여자는 남장을 하고 남자는 여장을 하거나 괴상하게 변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동네 이집저집 다니며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술, 떡, 과일 등을 주면 그것들을 받아 모아 물동이 악기를 치며 밤새 놀이를 한다.

### 2) 2월

(1) 나이 떡

2월 1일은 나이 먹는 날이라 하여 송편을 빚어 나이 먹은 만큼 송편을 먹었다. 솔잎을 깔아 놓고 송편을 만들어 노비들에게도 나이대로 주어 농사일의 시작을 알렸다고 한다.

(2) 좀생이 보기

2월 6일 저녁에는 동네 마당이나 뒷동산에 올라 좀생이를 보았다. 좀생이란 28개 성좌 중에 하나인데 묘성(昴星)이라 하여 작은 별들이 한테 모여 하나의 성군(星群)을 이룬 것을 말한다. 2월 6일이면 이 별이 달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운행을 하는데, 좀생이가 달보다 앞서 가면서 마치 고삐를 쥐고 끌고 가듯하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달과 평행으로 가면 평년이고 달보다 뒤 떨어져 가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또 좀생이의 빛깔이 너무 붉으면 가뭄이 심하고 약간 투명하면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든다하여 민간 신앙의 하나로 보아왔다.

### 3) 3월

(1) 삼짇날

음력 3월 3일을 삼짇날이라 하는데, 상제(上除)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속절(俗節)로 정하여 시식(時食)으로써 가문의 제사를 지냈는데 점차 청명, 한식에 통합되었다.

이 날에는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 온다"하여 기대에 들뜬다. 이는 봄이 되었다는 증거로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농사일이 시작된다. 이날에는 화전을 붙여 먹고, 서당의 유생들은 양춘가절을 만나 춘색을 즐기며 시를 짓고 하루를 즐겼다.

사람들은 짐승들 중 어느 것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그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하였다. 개구리를 먼저 보면 먹을 것이 많고, 도마뱀을 먼저 보면 뛰어다녀야 할 바쁜 일이 생기고,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으며, 흰나비는 상제가 될 운수라하여 꺼렸다.

(2) 청명, 한식

청명은 24절기 중의 하나이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대개 2월 혹은 3월 중 같은 날이 되기도 하고 혹은 청명 다음날이 한식이 되기도 한다.

이 날에는 옛날부터 조상의 묘소에 성묘를 하고 제초도 하고 상석(床石)을 세우는 일 등을 해왔다. 이 때는 농한기이고, 기후 조건이 알맞기 때문이다. 또 한식날에는 묘제를 지냈다.

(3) 전춘(錢春)

음력 3월 그믐날을 전춘이라 했는데, 봄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다. 이 날은 시인·묵객들이 산과 들에 모여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즐겼다.

### 4) 4월

(1) 초파일(初八日)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 탄신일로 불가의 큰 명절이다. 각 사찰에서는 축제를 올렸는데, 남녀 신도와 일반인들도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저녁에는 연등이라 하여 등에 불을 붙이어 온 집안, 온 마을에 달아 놓았다. 그리고 등을 들고 여러 신자들이 줄을 지어 다녔는데, 이를 제등행렬이라 한다. 한편 신도들은 양초와 향을 바치고 복을 빌며 또 등을 만들어 바친 사람의 주소 성명을 써 달아 놓았다.

이러한 풍속은 불교의 전성기인 신라의 팔관회(八關會)에서부터 시작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내려오면서 전국에 전파되어 오늘에도 성행하고 있다.

### 5) 5월

(1)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은 단오라 하고, 중오절(重五節) 또는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하며 우리 말로는 '수릿날'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4대 명절의 하나로 차례를 지내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이 날은 농촌의 명절로서 수리치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자들은 창포에 목욕을 하며, 그네를 뛰며, 남자들은 씨름 따위를 하며 하루를 즐겼다.

(2) 단오부

단오절에 불길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잡귀를 물리치는 글을 붉은 글씨로 써서 문 위에 붙이는데 이를 천중적부(天中赤符)라 하였다.

(3) 단오 쑥과 익모초

단오날 오시(午時)에 뜯는 쑥과 익모초는 특히 약효가 있다고 해서 시간에 맞추어 쑥과 익모초를 베어 말렸다. 또 쑥은 부싯돌로 불을 일으켰는데 이 때의 쑥이 좋았으며, 특히 부평쑥댕이(경서동) 쑥이 유명하였다. 지금도 쑥땡이고장의 쑥은 한약재료로 많이 쓰인다.

(4) 태종(太宗)비

4월이 되면 모를 내었다. 못자리는 3월에 하는데 날이 가물면 모를 못내고 비를 학수고대하였다. 가뭄이 계속되면 5월 10일 전후에 내리는 태종비를 기다려 모를 냈다. 태종비의 내력은 이러하다. 태종이 5월 10일에 돌아가셨는데, 태종이 세종(世宗)의 임종시에 가뭄이 심하여 모를 못내니 이 날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하신다 하였다. 과연 이 날 비가 내렸다. 그래서 가뭄뒤에 모를 내게 5월 10일경에 비가 오면 이를 태종비라 한다.

6) 6월

(1) 유두(類頭)

음력 6월 15일을 유두라 한다. 이 말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취동류수두목욕(就東流水頭沐浴)에서 유래한 말로 유두날 쯤이면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시기이다. 그래서 이 날은 맑은 냇물을 찾아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즐겁게 놀았다. 이렇게 하면 불길한 액운을 쫓고 무사히 여름을 난다고 믿었다.

또 이 날을 유두천식이라 하여 참외 수박 등을 신위나 토신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이는 조상숭배와 추원보은의 좋은 풍속이다.

(2) 봉선화 물들이기

음력 6월이 되면 소녀들은 울타리 밑에 흐드러지게 핀 봉선화를 따고, 여기에 백반을 섞어 찧어서 손톱에 붉은 물을 들였다. 이는 붉은 색이 귀신을 쫓는다는 오행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3) 삼복나기

하지를 기점으로 하여 세번째 드는 경일(慶日)을 초복, 네번째 경일을 중복, 그리고 입추부터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였다. 이 삼복 기간이 일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개장국을 끓여 먹고 술을 마시며 저자 아래서 하루를 즐겼다. 이를 "복다림"이라한다. 여름 내내 지친 몸을 보호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4) 탁족(濯足)놀이

옛부터 부평의 선비들은 더위를 피하여 숲속 맑은 시냇물을 찾아서 맑은 물에 목욕을 하거나 발을 흐르는 물에 담그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이를 탁족놀이라 한다.

### 7) 7월

(1)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달과 날이 겹치는 날을 뜻있는 날로 여겨 즐기는 풍속이 있다.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로 홀수 달에는 각기 시절에 맞는 행사와 놀이를 하였다.

이 날에는 성군(星群) 중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이 일년 만에 한 번 만나는 날이다. 만나면 하도 반가와서 눈물을 흘린다 하여 이 날에는 대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많다. 은하수로 하여 만나지 못하는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위하여 온 세상에 있는 까치와 까마귀가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나게 한다하여 이 다리를 오작교(烏鵲橋)라 불렀다.

이 날이 되면 부평사람들은 가묘에 차례를 드리고, 처녀들은 견우와 직녀 두 별에게 절하며 소원을 빌고 바느질 놀이를 즐겼다.

(2) 백중일(百中日)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일, 백종절(百種節)이라 했다. 불교의 영향으로 이 날은 조상의 날로 조상의 영(靈)에 천신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불교 신자들은 여름과일을 가져가 사찰에 가서 재를 올리기도 했다. 이 시기는 농사일이 거의 끝날 무렵이어서 일반 시민들은 하루를 놀이로 즐겼다.

(3) 호미걸이

음력 7월은 농사일이 거의 끝나는 시기다. 그래서 7월 15일을 전후하여 여름 동안 논을 매고 밭을 매는데 가장 중요한 연장이었던 호미를 잘 씻어서 다음 해의 준비를 위하여 깊숙히 보관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호미걸이 날을 정하여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애쓴 머슴들을 위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 이 날은 흥겹게 놀면서 농악기들도 손질하여 잘 보관하였다고 한다.

### 8) 8월

(1) 상정일(上丁日)

음력 8월 들어 첫번째 정일에 서울의 문묘(文廟)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향교에서 일제히

추기석전(秋期釋奠) 제향이 거행되었다.

(2) 벌초(伐草)

음력 8월에 접어들면 산소에 가서 재배를 하고 봉분을 비롯한 그 주변의 풀을 정성껏 깍는다. 이것을 벌초라 하는데, 벌초는 추석 전 미리하는 것이 예사인데, 추석 한가위에 성묘를 갔을 때 산소의 봉분에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큰 불효라 하였다. 분묘관리에 대한 자손들의 성의 표시라 하겠다.

(3)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을 추석, 중추절(中秋節), 가위,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이다. 시기적으로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오곡백과가 만발한 때이며, 하늘은 높고 푸르며 쟁반같은 달이 중천에 떠오른다. 그래서 이 날에는 여러가지 놀이와 행사가 치뤄졌다.

① 차례

아침 일찍 햅쌀로 빚은 송편과 새로 나온 과일 등 제물을 준비하여 온 일가 친척이 모여 차례를 올렸다.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음식을 먹은 다음에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여 조상 산소에 성묘했다.

② 근친(覲親)

추석날은 설보다도 근친하기에 알맞은 계절이다. 근친이란 부모와 떨어져서 외지에 나가 있던 아들 딸들이 어버이를 뵙고 문안드리는 것을 말한다. 출가한 딸들은 친정 어버이를 찾아뵈었다. 이 날은 또 그 동안 못보았던 어른들을 찾아뵙고 회포를 풀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③ 농악놀이

이날 저녁 나절이면 으레 농악을 앞세우고 동네 가가호호를 돌며 잡귀 잡신을 몰아내고 무명장수와 가내의 안락을 축원했다. 그리고 각기 집에서는 이들에게 음식대접을 하였다.

### 9) 9월

(1) 중양절(重陽節)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라 한다. 중(重)이란 9가 겹친다는 뜻이고, 중양은 양이 겹쳤다는 뜻이다. 홀수인 1, 3, 5, 7, 9는 양이고, 짝수인 2, 4, 6, 8은 음이다. 이 날은 3월 3일 강남에서 돌아왔던 제비가 강남으로 떠나고 기러기가 돌아온다는 날이다. 음식으로는 국화주를 마시며 선비와 시인들은 중양놀이로 시문을 지으며 즐겼다.

(2) 당제(堂祭)

당이 있는 동네에서는 음력 9월 9일에 당제를 지냈다.

### 10) 10월

(1) 성주제(城主祭)

음력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각 가정에서는 길일을 택하여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빚고 과실과 여러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성주님에게 평안과 무사를 빌었다. 무당이나 박수를 불러서 경문을 읽는 집도 있었다.

대개는 시루떡을 빚어 집안 곳곳에 놓아 평안을 빌며 이웃집에 고루 나누어 먹었는데, 이를 10월 고사(告祠)라 한다.

(2) 시제(時祭)

우리나라 풍속에 4대(부모, 증조, 고조)봉사라 하여 4대까지는 가묘에 신주를 봉안하고 기일(忌日)과 명절, 차례를 지낼때 받들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선조는 10월에 일년에 한 번 묘제를 지냈는데, 이를 시제라 했다. 대개 시제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냈는데, 이 날은 각지에 흩어졌던 자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

자손들이 분묘 근처에 전답을 장만하여 위토(位土)를 만들고, 그 농지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제수를 차렸다. 위토를 경작하고 묘소를 관리하는 사람을 묘지기라 불렀다.

(3) 김장담그기

"김장은 반 양식"이라 하여 겨울철 반찬으로 김장 담그는 풍속이 있었다. 그래서 10월을 김장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입동을 전후한 6일 동안이 가장 알맞은 시기여서 이 때 김장을 담갔다.

김장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그 담그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부녀자들은 모두 자기의 솜씨를 발휘하여 정성껏 김장을 담아 겨울철에 대비했다.

(4) 도당(禱堂)굿

이 지방에 내려오는 특수한 민간 신앙으로 동민(洞民)의 제전이다. 이 도당굿은 부평부 각 리에서 행했으며, 동리마다 도당산 제단이 있어 10월 초순에 추수가 끝난 뒤 길일을 택하여 이틀에 걸쳐 치뤄진다. 추수에 감사하고 동리의 태평을 비는 행사로 무당이나 광대가 주관한다. 제단에 제물을 차려 놓고 굿을 하는데 온 동민이 참가한다. 부평지방의 도당굿은 약 50년 전부터 점차 없어지더니 1955년경 완전히 폐지되고 산제사로 변형되었다.

산제사는 10월 초순에 길일을 택하여 부락민이 공동으로 산제사를 지낸다. 저녁 제단에 모여 떡, 술 과일을 차려 놓고 일년간의 무사와 동내의 행운을 비는 축문을 읽는다.

이날에는 집집마다 시루떡을 쪄서 가정에서 고사를 지낸다. 이를 10월 고사라고 한다.

### 11) 11월

#### (1) 동지(冬至)

음력 11월은 동지가 든 달이라 하여 '동짓달'이라 한다. 동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이 날로부터 해가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해가 바뀌는 날이라 하여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가정에서는 팥죽 차례를 지냈다. 서당에서는 천자문(千字文)입학을 동짓날 하였는데, 이는 해가 길어짐과 같이 글이 늘라는 뜻이였다고 한다.

#### (2) 팥죽뿌리기

동짓달에는 팥죽을 쑤어 먹고, 대문이나 방문 위에 뿌려 지난해의 모든 재난을 버리고 새해의 행운을 빌었다. 이는 붉은 색은 잡귀를 쫓는다는 풍속에 따른 것이다.

### 12) 12월

#### (1) 묵은세배

12월은 일년 중 마지막 가는 달이고, 섣달 그믐날은 일년의 마지막 가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인사로 이웃의 어른이나 일가 친척의 어른들께 새해 세배하듯이 인사를 다녔다. 이를 묵은세배라 했다. 이는 지난 해에 보살펴 주신데 대한 인사이며, 새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 (2) 밤새우기

섣달 그믐날 밤은 집의 방, 뜰, 부엌, 곡간, 변소는 물론 뒤뜰안까지 불을 밝혔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았다. 이를 수세(守歲)라 했는데, 이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같이 정월을 맞을 준비에 바쁨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

#### (3) 제석(除夕)

섣달 그믐날 밤을 제석 또는 제야(除夜)라 했는데, 이는 지난 해의 모든 거래는 이 날 자정까지는 모두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 만약 자정을 넘기면 정월 15일(보름)까지는 빚을 독촉하지 않았다고 한다.

## 4.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본래 민간의 신앙 행사에 부수되었던 예능이다. 즉 신에게 무사태평(無事泰平)과 오곡풍요(五穀豊饒)를 기원하면서 신을 즐겁게 하고 동시에 신의를 탐지하기 위해 발생한 제천의식(祭天儀式)의 일종이었다. 이 때 농악, 탈춤, 굿 등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씨름, 줄다리기, 편싸움 등은 신의(神意)를 탐지하기 위한 경기였다. 이러한 신앙행사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보편화되면서, 그 본래의 신성함은 약화되고 오락성이 강화되어, 마침내는 신앙행사와는 관계없이 일반대중의 유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오락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놀이는 양식을 추구하면서 향토성과 민족성을 띄게 되었다.[1]

민속놀이의 유형에는 계층에 따라 아이놀이, 어른놀이, 남자놀이, 여자놀이로, 놀이의 방식에 따라 개인놀이, 집단놀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놀이 보다는 집단놀이 일수록 큰 규모로 거행되며 더욱 흥겨울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일체감을 형성시켜 준다.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놀이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부 이남에는 줄다리기, 이북에서는 그네뛰기, 전남 해안지방에서는 강강술래, 영남지방에서는 쾌지나칭칭 등이 성행하여 그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2]

그러나 부평지역은 안남·계양 도호부(安南·桂陽 都護府)시대(1150~1413年)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명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변화가 심했으며, 특히 일제시대(1914년 3월)에는 지방 행정구역의 대변혁으로 부, 군, 읍, 면을 폐합하여 지명을 정할 때 즉흥적으로 적어 넣어 많은 왜곡을 가져와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지명이 되고 말았다.[3] 또한 지리적으로도 서울의 인접지역으로서 이 지역 나름대로의 독특한 민속놀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49년에 설치된 부평출장소[4]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많이 행하여졌던 전통 민속놀이들을 어른놀이와 아동놀이로 나누어, 놀이의 유래와 특성, 놀이방법 등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 1) 어른들의 민속놀이

#### (1) 석전(石戰)

석전은 옛날부터 정월 대보름날에 전국 각 지방에서 성행하여 오던 남성들의 놀이로서 "편

1) 박계홍,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p. 327.
2) 임동권, 『한국민속문화론』, 집문당, 1983, p. 374.
3) 조기준, 『부평사연구』, 한국인쇄공사, 1994, pp. 49~96.
4) 부평출장소 : 1949년에 설치된 행정구역으로 계산동, 효성동, 청천동, 산곡동, 부평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갈산동, 삼산동, 서운동, 작전동 등이 해당된다.

싸움"이라고 하며 한자로는 "변전(邊戰)" 또는 편전(便戰)"이라고 한다. 고구려 시대에는 매년 정초에 하나의 국가행사로서 국왕이 보는 앞에서 행하여졌다. 고려에 와서는 정초에 행하지 않고 5월 단오에 석전놀이가 행하여졌으며, 석투반(石投班), 석투군(石投軍) 등의 군대 조직이 편성될 정도로 성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종 5년(1510)에 일어난 삼포왜란 때에는 석전 선수들을 모집하여 왜인의 난동을 막기도 하였다. 그러나 석전경기가 과열되어 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한동안 폐지되었다가, 세종 원년(1419) 4월에 어명으로 석전을 부활시켜 "석전자발대(石戰自發隊)"를 모집하였으며 이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이 때 상왕인 태종은 병석 중에도 석전 구경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명나라 사신이 석전 구경을 청하여 이틀 동안 구경하기도 하였다고 한다.[5]

이와 같이 석전은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한 놀이로서 전투훈련의 성격을 지니며, 조선조까지 하나의 세시풍속으로 각 지방에서 성행하였다. 그러나 석전경기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일제시대에 관청에서 금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단지 시내나 강변에서 아이들의 도랄매놀이로 간혹 볼 수 있다.

놀이방법은 부락별로 편을 짜서 몽둥이나 돌, 깨진 기와조각 등을 던지며 싸움을 벌이다가 싸움이 절정에 이르면 농악대와 함께 응원도 하며, 심할 경우 쇠붙이를 휘두르거나 던지기도 하여 잔인한 패싸움이 전개된다.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는 등 피를 봐도 그치지 않으며 심지어는 사상자도 생긴다. 그래도 싸움은 계속되어 어느 한편이 쫓겨 달아나 숨어서 나오지 않으며 승패가 결정된다. 경기가 끝나면 부상자를 치료하고, 모두 모여 농악놀이와 술잔치를 벌이며 함께 즐긴다. 오늘날에는 아동들이 부상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나 콩주머니를 이용하며, 놀이방식도 여러 가지로 응용하여 즐긴다.

(2) 농기(農旗)놀이

농기놀이는 명절 때나 논밭의 김을 맨 후, 부락 단위로 농기를 선두로 큰 벌판에 모여 형제를 정하고, 아우부락이 형부락이 농기에 절을 하는 풍습이다. 일반적으로 정초에 행할 때에는 "기세배(旗歲拜)"라고 하며, 부평 지역에서는 정초보다 김매기를 끝낸 후에 "농기놀이" 또는 "농기싸움"이라고 하여 성대히 행하여졌다고 한다.

놀이방법은 농기는 대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며, 또한 용을 그리기도 하는데 이 때는 용기(龍旗)라 하여 맏형 부락에 봉안하였다. 농기에는 그 부락의 작업 공동반 설립 년도를 적어 형제를 정할 때 이용하며, 크기는 거대하게 만들었다. 놀이의 경비를 염출하기 위해 마을의 집집을 찾아 다니며 지신(地神)밟기를 하여 얼마간의 금품을 거두어 들인

5) 고대 민족문화 연구소, 『한국민속대관』 4권, 고대 민족문화 연구소, 출판부, 1982, pp. 511~514.

다. 이 때 거두어 들인 돈은 농기놀이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동사업에 쓰기도 한다. 놀이 준비가 끝나면 막내 부락에서 농악대를 앞세우고 춤도 추고 묘기도 부리면서 형님 부락으로 가면, 형님 부락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막내 부락과 합세하여 다음 형님 부락으로 찾아 간다. 이렇게 마을 곳곳을 누빈 다음 맨 맏형 부락과 합세하여 놀이터로 향한다.

이 때 각 부락은 형제 순서로 대열을 짓고 나가며, 행진 순서는 농기, 소동농기(小童農旗), 영기, 좌상(坐上:총지휘자), 공원(公員:부지휘자), 총각좌상, 총각머슴, 무동, 농악대 순서로 행진한다. 농악대와 무동은 신나게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리며 나아간다. 놀이터에 도착하면 각 부락은 잠시 쉬었다가 농기 아래에 제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난 후, 소동기대(小童旗隊)는 농악대의 풍물소리와 함께 중앙 놀이판으로 모인다. 잠시후 좌상의 신호와 함께 맏형부락 농기는 서편으로 이동하고, 다른 농기들은 동편으로 이동하여 마주 선다. 이 때 거리는 양쪽 농기를 굽혔을 때 맞닿을 정도로 한다. 총각좌상의 다음 신호와 함께 아우농기는 맏형농기에게 40~50도 정도로 기를 굽힌다. 이를 지켜 보던 형님 부락 사람들이 더 굽히라고 소리치고 장내에 뛰어들어 아우농기를 누르기도 한다. 이어서 답례로 맏형농기가 15도 정도로 기를 굽힌다. 이것을 본 아우부락 젊은이들 역시 더 굽히라고 소리치며 달려 나와 실랑이가 붙는다. 이와 같이 막내부락 농기까지 절을 마치면, "기세배 끝이요." 또는 "군례(軍禮)끝이요."라고 크게 세번 외친 후 차례로 지정된 자리로 간다. 이어서 풍악놀이와 묘기 등을 부리며 장내를 10여회 돌고 쇠잡이의 선도로 풍악을 울리며 퇴장한다.

이와 같이 농기놀이는 단순히 의례적 행사로 보는 견해와 형제의 순서를 정하는 큰 겨룸판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여하튼 질서 속에 행해지는 한편의 소박한 겨룸놀이이다.[6]

(3) 호미걸이(호미씻기)

옛날부터 해마다 음력 7월 중순경에는 세벌 논매기가 끝나면, 그 해 농사의 성과를 알 수 있게 된다. 논매기를 마친 뒤에는 각 농가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징, 꽹과리, 날날이, 북, 장고 등을 동원하여 시냇가나 나무밑에 모여, 농사일의 힘들고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그 날 하루를 마음껏 즐겼다. 즉 논매기를 모두 마친 뒤에 "호미를 씻어 둔다"는 뜻이다.[7]

놀이방법은 그 부락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이 있으면, 그 집 머슴을 여러 머슴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 머슴에게 삿갓을 씌워 황소에 태운 다음 여러 머슴들이 에워싸서 노래하고 춤추며 그 부락을 돌아 다니는데, 이 때 집 주인은 이것을 보고 음식을 마련하여 잘 먹였다.

---

6) 상게서, pp. 546~551.
7) 강화문화원, 『세시풍속(강화편)』, 신진상사, 1990,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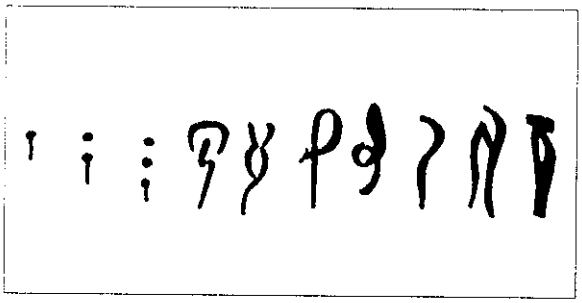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은 제초제를 사용하여 잡초가 없이 이 행사는 자연히 소멸되었다.

(4) 투전(鬪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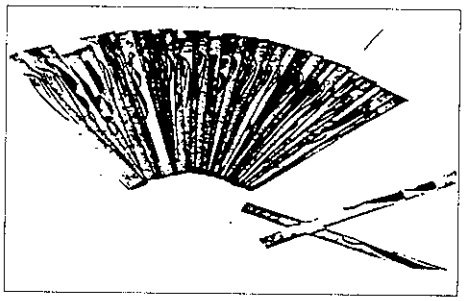
투전은 놀이라고 하기보다는 돈을 따먹는 도박이 일종으로, 조선시대의 영조 초기부터 전국 방방곡곡으로 크게 퍼져, 노름에 미쳐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였다. 나라에서 이를 단속하였으나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초상이 났을 때 밤샘한다는 핑계로 벌어지는 투전판은 관대히 보아 주었다고 한다.

투전장은 한지에 기름을 발라 만든 종이패로서 가로 1.5㎝, 세로 15㎝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1에서 10까지의 수를 그림으로 표시한 후 각 수마다 4장씩 50매를 사용했다. 투전장의 종류에는 60매, 50매, 40매, 25매 등이 있으나 주로 40매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수에는 명칭이 있는데 일-따라지, 이-두비, 삼, 사-새, 오-외, 육-써시, 칠-개비, 팔-덜머리, 구-갑오, 십-무대 라고 하고 같은 수가 두장일 경우 "땅"이라고 한다.

놀이방법은 오늘날이 "섯다"와 같이 한사람이 두장의 패를 받아 합한 수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긴다. 이 때 9가 되는 것을 갑오라 하여 이를 "갑오잡기(돌려태기)"라고 하며 이 놀이를 가장 많이 하였다. 투전장은 한 손에 쥐고 한장씩 서서히 뽑는데, 원래 투전장은 콩기름을 잘 먹인 만큼 서서히 빠져 나오며 마치 엿가락을 뽑는 것 같아 투전장을 엿방망이라고도 하고, 투전꾼을 엿방망이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일(따라지) 이(두비) 삼 사(새) 오(외) 육(써시) 칠(개비) 팔(덜머리) 구(갑오) 십(무대)



〈투 전〉

(5) 장치기

장치기는 지방에 따라 "공치기" 또는 "타구(打毬)놀이"라고 한다. 주로 정초에 많이 하며, 농한기에도 하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도 잔디밭에서 한다. 오늘날이 필드하키와 비슷한 놀이로써, 이 놀이의 기원은 말을 타고 하는 격구(擊毬)에서 유래되었다.[8] 격구의 유래는 唐나라 초기인 태종 때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며, 고려와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놀이로서 가장 성행하였다. 이 놀이는 본래 무사들의 기사(騎射), 기창(騎槍), 기검(騎劍)의 습무(習武)로 시작되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왕이나 양반들의 놀이로, 또한 일반서민들이 말을 타지 않고 하는 민속놀이로 변천되었다.[9][10]

공은 크기가 오늘날의 야구공만 하며 나무를 둥글게 깍아 다듬어서 만들고 간혹 그 위에 가죽을 꿰메 입히기도 한다. 채는 뽕나무나 기타 나무로 만들며, 크기와 모양은 오늘날의 하키채와 비슷하다.

놀이방법은 인원은 원래 제한이 없이 상황에 따라 두 팀으로 나누어 하나, 보통 한팀이 6명 또는 11명으로 하며, 그 중 한명은 수문장이 되고 나머지는 공격과 수비를 한다. 경기장은 넓은 벌판이나 잔디밭에서 하며, 중앙선을 긋고 중앙선 한 가운데 공을 놓을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서 1보와 7보 반경으로 원을 그린다. 장소가 넓을 때는 편의상 선을 그어 공이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하며, 경기장 네귀퉁이에 1보반경의 원을 그린다. 중앙선에서 50보 정도의 거리에 대나무로 구문(毬門)을 세우고 구문의 너비는 5보 정도로 한다. 시작할 때는 각 팀의 주장이 1명씩 나와 중앙의 공을 놓는 구멍 앞에서 "땡공"(공을 허공에 던져 넣고 치는 공)을 쳐서 멀리 간 편이 먼저 "구멍공"(중앙선 중심에 파 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공)을 쳐서 놀이를 시작한다. 득점은 공이 구문으로 들어 가면 한점을 얻고, 승패는 시작하기 전에 양팀이 먼저 5점 나기나, 10점 나기를 정하고 먼저 난 편이 이긴다.

이 놀이의 반칙 내용에는, 공이 몸의 일부에 닿는 것, 상대편의 공채로 치거나 치려는 행위, 상대편의 공채를 몸으로 막는 행위, 상대편의 경기 활동을 몸으로 막는 행위, 공을 경기장 밖으로 쳐내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따른 벌칙은 경기장 내에서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편에게 몸을 한바퀴 돌면서 공을 치는 "물레공"을 치게 한다. 또한 공기 경기장 끝줄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공을 굴려서 치는 "굴러공"을, 옆줄 밖으로 나갔을 때는 구멍공을 치게 한다. 심판은 오늘날과 같이 호각을 사용하지 않고 딱딱이를 이용하였으며, 상대편을 식별하기 위해서 청·홍색 띠를 둘렀다.

---

8) 高大 民族文化 硏究所, 前揭書, 1982, pp. 510~511.
9) 곽형기, 「麗朝 擊毬 發展相에 대한 小考」,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 28.
10) 나현성, 『한국체육사연구』, 교학연구사, 1981, pp. 54-57.

(6) 연(紙鳶)날리기

연날리기는 오랜 옛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정초에 행하는 마성들의 놀이로서, 연의 기원에는 몇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고려말기의 명장인 최영 장군이 제주도의 목호(牧胡)의 난을 평정할 때, 병선(兵船)이 제주도에 접근하였으나 섬 주위에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병사가 진군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연 밑에 갈대씨를 담은 주머니를 달아 높이 띄워 섬 주변의 가시밭에 그 주머니를 떨어뜨려, 그 해 가을에 섬 주위가 마른 갈대로 무성하여 여기에 불을 질러 가시밭을 없앤 후 상륙하여 섬을 정복하였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큰 연에 소년들을 매달리게 하여 성을 공략하였다고 한다. 둘째는 삼국시대의 전쟁시 자기편 진지 사이를 연락하는 한 방편으로 사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11]

연날리기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하는데, 대보름이 되면 "액연(厄鳶)을 띄운다"고 하여 연에다 액(厄)자 하나를 쓰기도 하고, 송액(送厄) 또는 송액영복(送厄迎福) 등 연에다 厄을 써서 날리고, 얼레에 감아 있던 실을 모두 풀고 실을 끊어 멀리 날려 보낸다. 이렇게 하여 그 해의 厄을 쫓아 보낸다. 대개 대보름 수일 전부터 대성황을 이루고 보름이 지나면 날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름이 지나서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놀렸다고 한다. 연날리기 놀이에는 높이 띄우기, 재주 부리기, 끊어먹기(연싸움) 등이 있으며, 끊어먹기를 할 때에는 연실에다 유리가루나 사기가루를 먹여 다른 연을 잘 끊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갬치 먹인다"고 한다.

연의 종류에는 가오리연, 방패연(꼭지연, 반달연, 치마연, 초연, 박이연, 발연), 창작연(인물연－이도령연, 춘향연, 할아버지연, 동물연－호랑이연, 지네연, 거북연, 나비연)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7) 승경도 놀이

조선시대의 양반층에서 성행했던 놀이로 오늘날의 주사위 놀이와 비슷하다. 관직명과 승진, 벌칙 등의 규칙을 쓴 말판을 준비하고, 윤목을 던져 나온 끝수에 따라 말을 놓아 말직에서부터 차례로 승진하여 먼저 최고 관직에 오르는 편이 이기는 놀이이다.

놀이방법은 길이 약 10㎝, 지름 3㎝ 정도의 나무를 5각형으로 다듬어 각이 지는 모서리에 각기 1에서 5까지의 눈금을 새긴 윤목을 만들고, 말판은 직사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칸을 나누고 벼슬의 품계와 종류를 직위 순서에 맞게 써 넣는다. 양반을 문과와 무과로 나누어 최하위 품계인 9품에서 1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관직명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중앙에는 경관직(京官職), 변두리에는 외직(外職)과 벌칙을 써 넣는다. 순서를 정한 후 윤목을 굴려 끝

11) 고대 민족문화 연구소, 전게서, pp. 355-359.
12) 놀이연구회, 『가슴펴고 어깨걸고』 1권, 도서출판 우리교육, 1992, p. 155.

수대로 말을 놓아 승진하는데 문과를 택한 경우에는 영의정을 거쳐 사궤장에 이르는 사람이 이기고, 무과를 택한 경우에는 도원수를 거쳐 사퇴하면 이기게 된다. 윤목의 끝수가 계속 1인 경우 승진을 못하고 강등되어 파직에 이르며 최악의 경우 사약을 받게 된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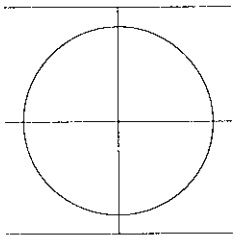
### 2) 아동들이 민속놀이

(1) 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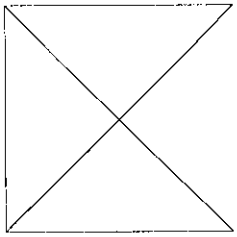
이 놀이는 땅바닥이나 마루 위에 말판을 그리고 승패를 겨루는 놀이로서, 명칭은 곤, 고니, 꼬니 등으로 부르고 한자로는 "지기(地碁)"라고 한다. 이 놀이의 특성은 특별한 놀이기구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할 수 많은 사람들이 이 놀이를 하였다.

놀이방법은 먼저 가위바위보로 선후수를 가린 다음, 차례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교차선상에 말을 놓아 가다가 3개의 말이 일직선상에 놓이면 "곤(꼰)"이라 하여 상대방의 말 하나를 따낸다. 따낸 자리는 비워 두고 계속 말을 놓다가 교차선상에 말이 다 놓이면 말 놓기를 중지하고, 자기의 말을 따낸 자리로 한칸씩 옮기면서 곤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상대방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사이로 이동한다. 이와 같이 곤을 만들면서 상대방의 말을 모두 따내면 이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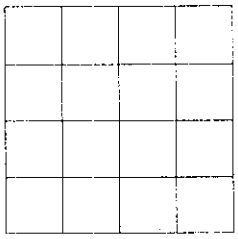
고누의 종류에는 곤절고누, 호박고누, 자전차고누, 샘고누, 왕고누, 강고누, 줄고누, 팔고누, 네발고누, 여섯말고누, 십자고누, 팔자고누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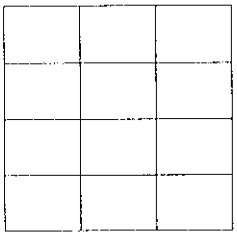
(호박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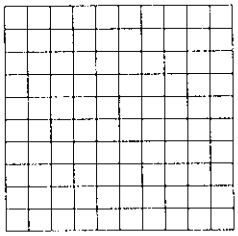
(샘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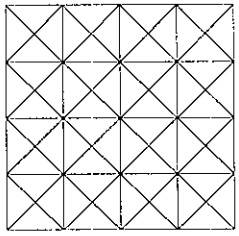
(자전차고누)



(네발고누)



(줄고누)



(왕고누)

(2) 돈치기

이 놀이는 주로 겨울철에 양지바른 골목이나 돌담 밑에서 일정한 거리에 구멍을 파놓고 엽전이나 동전 또는 목자를 던져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따먹기도 하고, 구멍 밖에 있는 것을 돌로 던져 따먹는 놀이이다. 이 때 목자의 모형은 정사각형의 쇠로 가운데는 둥그런 구멍이 뚫린 것도 사용하고, 깨진 기와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놀이방법은 5~6m 떨어진 곳에 작은 구멍을 파고 엽전이나 동전을 구멍을 향하여 던져 구멍에 들어간 사람이 첫번째 순서가 되고, 다음은 구멍 가까이 던진 순으로 순번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정한 거리에 선을 그어 각자의 동전이나 목자로 선에 던져 목자가 선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를 정하고, 선을 넘으면 끝번이 되어 놀이를 진행했다. 첫째 순번이 동전을 모두 쥐고 구멍을 향해 던져, 구멍에 들어간 동전은 모두 갖고, 구멍 밖에 있는 동전들은 상대방이 지적한 것을 편편한 돌을 던져 맞혔다. 이 때 지적한 동전을 맞혔을 경우에는 갖게되지만, 못맞혔을 경우에는 실격이 되고, 만약 다른 동전을 맞혔을 때에는 벌금을 내놓았다. 따라서 상대방은 맞히기 힘든 것을 지적했다. 또한 던진 동전 중 몇개가 포개져 있을 경우에는 목자로 힘껏 내리쳐 이를 떼어 놓게 되면 모두 따 먹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번에 따라 차례로 놀이를 하며, 놀이방법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3) 비석치기

일정한 거리의 선상에다 손바닥만한 돌을 세워 놓고 이를 맞워 넘어지게 하는 아동들의 놀이로서, 비석치기, 비사치기, 비사잭기, 돌치기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놀이 기구는 손바닥만한 편편한 돌이나 기와장, 사기그릇 조각 등을 이용했다.

놀이방법은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편은 작은 돌을 3~4m 거리에 선을 긋고 선상에 돌을 세워 둔다. 이긴편에서는 한사람씩 각자의 돌(목자)로 상대방의 돌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이 때 맞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 손으로 던져 맞추는 방법
- 자기 돌을 던져 놓은 다음 외발로 뛰어가 발로 차서 맞추는 방법
- 돌을 던져 놓은 다음 외발로 세번 뛰어가서 손으로 던져 맞추는 방법
- 돌을 발등에 얹어 놓고 뛰어가 발등으로 맞추는 방법
- 돌을 손에 들고 가랭이 속으로 던져 맞추는 방법
- 돌을 배, 어깨, 뺨, 이마, 머리, 궁둥이 등에 얹어 놓고 걸어가서 맞추는 방법

(4) 풀각시 놀이

이 놀이는 여름철에 소녀들이 지랑풀이나 각시풀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노는 놀

이로 "각시놀이"라고도 불렀다.

놀이를 하려면 15㎝의 수수깡이나 껍질 벗긴 나무와 담장 밑이나 밭두렁에 흔한 지랑풀이나 각시풀을 필요한 만큼 준비한다. 이 풀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가지런히 추려서 나무나 수수깡의 상단에 실로 묶은 다음 꺼꾸로 쳐 올려 머리처럼 곱게 만든다. 그 다음 머리를 땋아 처녀를 만들기도 하고 쪽진 머리를 한 각시를 만들기도 한다. 여기다 팔을 만들어 저고리와 치마를 입히기도 한다.

이와 같이 풀각시가 완성되면 신랑을 만들어 대례상(大禮床)을 차려 놓고 절을 시키고 신방을 차려 주는가 하면, 음식상을 차려 서로 나누어 먹는 시늉을 하면서 놀았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의 천진난만하고 순박한 놀이였다.

(5) 땅뺏기 놀이

지면에다 둥근 원이나 네모를 그려 집을 마련한 다음 바둑알 만한 작은 돌을 이용해 자기 땅을 넓혀 가면서 한편으로는 상대편의 땅을 빼앗는 놀이이다. 명칭은 지역에 따라 땅뺏기, 땅따먹기, 땅재먹기, 뽑을 땅, 꼭꼬락치기 등으로 불리었다.

놀이방법은 먼저 지면에 큰 원이나 사각형의 놀이판을 그린 다음 두사람 또는 세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뼘 직경의 원을 그려 자기 집을 마련한 후, 바둑알 만한 돌을 자기 집에 두고 순서에 따라 돌을 손가락으로 튕겨 상대의 돌을 한번에 맞히면 세 뼘, 두번에 맞히면 두 뼘, 세번에 맞히면 한 뼘의 땅을 차지한다. 그러나 세번에도 맞히지 못하면 교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놀이판의 땅을 모두 차지하고 상대편의 집까지 차지하게 되면 이기게 된다.

다른 방법은 자기말을 집안에 놓고 세번 튕겨서 자기집으로 되돌아 오면 말이 지나 간 선안이 자기 땅이 된다. 한번 성공하며 한뼘을 재어 먹는다. 그러나 자기집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거나 너무 세게 튕겨서 말이 선 밖으로 나가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

(6) 줄 씨름

아동들이 즐기는 놀이였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재미 있게 할 수 있는 놀이였다. 손가락 굵기의 밧줄이나 새끼줄 2-3m만 있으면 집단으로도 개인대 개인이 승부를 겨루기도 했다.

놀이방법은 적당한 거리에 마주 보고 서서 줄을 S자형으로 허리에 걸어 잡고 팽팽히 한 다음, 시작 신호와 함께 한손으로 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균형을 깨는 놀이로서, 한발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승부가 결정되며 보통 3판 양승제로 한다. 집단으로 할 때는 똑같은 수로 편을 갈라 1:1로 겨루어 이긴 사람이 많은 팀이 승리하고 개인 경기일 때는 많이 이긴 사람이 이기게 된다.

(7) 다리세기

이 놀이는 주로 겨울철이나 명절에 여자아이들이 방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다리와 다리를 엇섞어 뻗고서 노래를 부르며 다리를 세어가는 놀이로 "다리세기" 또는 "발헤기"라고 한다.

놀이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래에 따라 다리를 손바닥으로 짚어 가다가 노래 끝에 "땡"하는 순간 다리를 미쳐 오무리지 못하면 지게되고, 날쌔게 오무리면 다음 다리 어린이가 지게되는 놀이방법이다. 둘째는 노래에 따라 다리를 세어 가다가 "땡"에 해당하는 다리를 오무린다. 이와 같이 계속 노래를 부르며 게임을 진행하다가 먼저 두 다리를 모두 오무린 사람이 이기게 되고, 마지막 다리가 남아 있는 사람이 꼴찌가 된다. 꼴찌가 된 어린이는 이긴 어린이들의 명령에 따라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기도하고 짐승이나 병신 흉내를 내며 웃고 즐긴다.

이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지역에 따라 모두 다르며, 경기 지역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한알대(1), 두알대(2), 삼사(3), 나그네(4), 영남(5), 거지(6), 탈대(7), 장군(8),
구드레(9), 뻥(10), 똥기(11), 땡(12)

## 5. 민속극(民俗劇)과 연극

### 1) 부평의 민속극

"민속극이란 그 나라 그 고장 특유의 연극적 성격을 지닌 각종 놀이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서민 생활을 소재로 한 전문화되지 않은 소박한 형식의 연극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연으로서의 완전한 형식을 갖춘 연극이 아니라 대중 서민들이 행해 온 연극적 요소를 지닌 놀이를 말할 수 있겠다.

인천에 전승되어 오던 민속극으로는 김진엽(金振燁)씨가 발굴 공연한 〈경신역마놀이〉를 비롯해서 1983년 전국체전 개막식에 공연되었던 〈청·황패 놀이〉, 89년 제물포 예술제에서 공연된 〈인천 소금받이놀이〉등이 있다. 그러나 부평 지역에서 옛자취를 더듬어 민속극을 찾는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었다. 참고할 문헌 자료가 빈약한 데다가 부평 지역의 누대 토박이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70~80대 이상의 토박이 노인들이 별로 없어 그들을 통한 채집 또한 어려웠다.

(1) 수주 나무꾼 놀이

① 〈수주나무꾼 놀이〉의 발굴

김진엽씨에 의해 발굴, 기록된 이 놀이는 1983년 부평 향교 근처에 누대로 살아 온 당시 75세 촌로(지금은 고인이 되셨음) 김영식 옹(金英植)으로 부터이다. 김영식 옹이 그에게서 계양산록과 열우물 쪽으로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들이 내기 놀이를 한 것을 어릴 때 보았고 자신도 젊은이들과 풀공을 쳐서 내기를 건 놀이를 했었다는 얘기를 들어 그것을 토대로 재현, 구성한 것이다.

김옹의 말로는 그의 부친도 나무꾼들의 놀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나무꾼 놀이는 퍽 오래전부터 부평 지역 젊은 나무꾼들이 고된 나무하기에 꾀가 나서 힘들이지 않고 나무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도박과도 같은 놀이를 꾸며 내기를 거는 한편 울적한 심사를 놀이로 달랬던 것으로 짐작된다.

② 다른 지방 놀이와 다른 특징

이 놀이와 유사한 놀이가 여러 지방에 있었지만 수주나무꾼 놀이는 노는 방식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1대 1로 승패를 가르는데 삼판승으로 하는 점

㉡ 선공순(先攻順)을 지게작대기를 던져 정하는 점

㉢ 공격 방식이 전삼공(前三攻) 후일공(後一攻)이라는 점

㉣ 풀공을 넣는 상대방 집이 지겟다리 사이라는 점 등이다.

③ 〈수주나무꾼 놀이〉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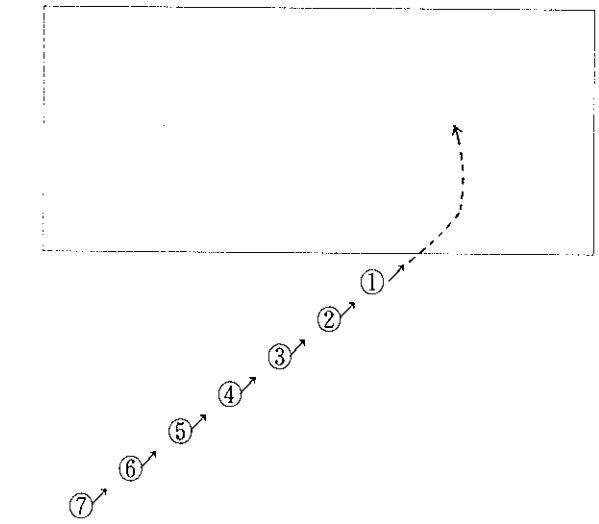
놀이마당

㉠ 드는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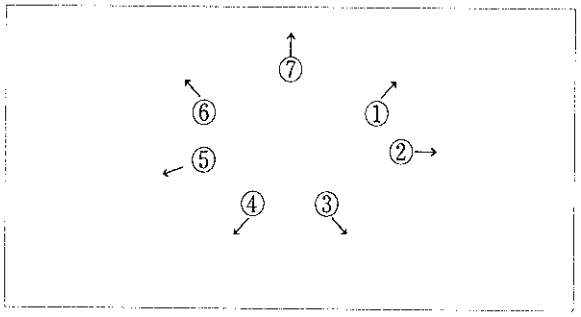
나무꾼들이(많을수록 좋으나 반드시 홀수여야 하며 실제 나무꾼떼(群)가 대여섯명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과다한 인원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신세타령의 민요조 노래를 부르며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는 차림으로 도식 ①처럼 놀이마당으로 들어가 구경꾼들에게 인사한다.

※ ⇕ 나무꾼
→ 행진방향

도식①




도식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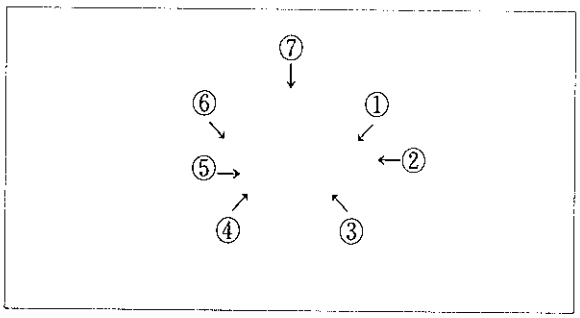



도식 ①처럼 마당에 들어서 돌면서 도식 ②의 형태를 취하고 구경꾼을 향해 선다.

㉡ 노는 마당

ㄱ. 도식 ②에서 구경꾼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도식 ③처럼 나무꾼들이 안을 향해 자리를 고친다.

도식③



ㄴ. 도식 ③으로 자리를 고치면 나무꾼 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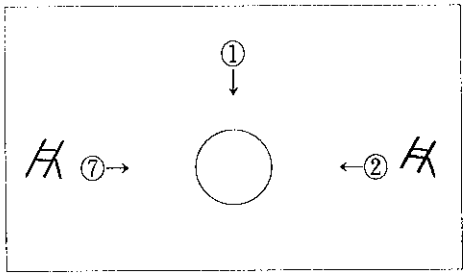
"슬슬 나무를 하러 가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내기를 해서 지는 녀석이 이긴 녀석에게 나무한 짐을 해다 바치면 심심풀이 구경거리도 되고 이긴 녀석은 꿩먹고 알먹는데 한 번 해보자"

나무꾼 ①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들 "좋다"고 외친다.

나무꾼 ①이 풀을 인원수만큼 뜯어 들고 "긴 것을 뽑은 두 사람이 내기를 한다"고 말하며 일동에게 풀을 뽑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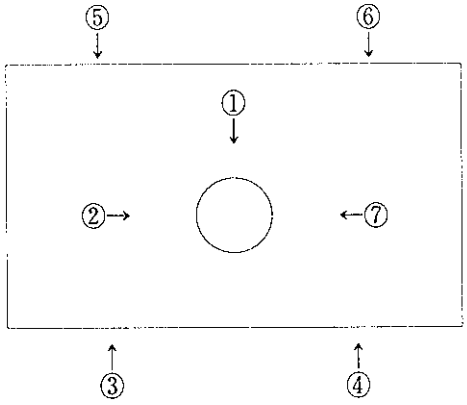
ㄷ. 뽑기를 해서 두 사람이 정해지면(여기서는 나무꾼 ②와 ⑦로 한다.) 나무꾼 ①이 도식 ④처럼 지게 작대기로 놀이터를 긋고 놀이터 중앙에 역시 지게 작대기로 원을 그린 다음 나무꾼 ②와 ⑦을 좌우 양편에 자리 잡도록 한다. 그런다음 자신의 지게를 ②의 뒷쪽에(혹은 ⑦의 뒷쪽에) 중앙을 향해 갖다 놓는다. 또 ③에게 ③의 지게를 ⑦의 뒷쪽에(혹은 ②의 뒷쪽에) 갖다 놓게 한다. 이상은 도식 ③과 같게 자리가 꾸며진다. 이에 앞서 내기를 하는 나무꾼이 뽑히면 나머지 나무꾼들이 도식 ⑤처럼 자리를 변경한다.

도식④




: 지게
⑦→ ←② : 내기 나무꾼
○ : 중앙에 그린원
(지름…지게 작대기의 반 정도)

도식⑤




ㄹ. 나무꾼 ①이 ⑤ 또는 ⑥에게 풀과 나뭇잎으로 풀공을 만들게 하고(풀공 크기는 주먹보다 약간 크게 만든다.) ②와 ⑦에게 지게 작대기를 차례로 윷가락 던지듯 던지게 한다(던진 지게 작대기 머리가 중앙의 원을 향하게 떨어진 쪽이 먼저 풀공을 친다.).

공격을 먼저 하게 되는 나무꾼에게 풀공을 던져준다.

ㅁ. 나무꾼 ①이 지게 작대기로 땅을 치면 선수(先手) 나무꾼은 제 지게 작대기 끝을 잡고 머리 쪽으로 풀공을 중앙 원 안을 향해 친다. 세 번 쳐서 원 안에 풀공을 넣어야 한다. 친 풀공이 원의 중앙선을 넘으면 실격이 되며, 세 번을 쳐서 풀공이 원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공격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야 한다.

풀공이 원 안에 들어가면 풀공이 놓인 자리에서 상대방 지겟다리 사이로 풀공이 들어가게 친다. 그러나 단 한 번에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겨지며 처음부터 다시 공격을 해야 하는데 중간 실격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것이다.

ㅂ. 내기에서 진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가며 이긴 나무꾼은 제 지게를 원 안에 놓고 지게에 기대여 의기 양양해서 나무해 오기를 기다린다.

ㅅ. 패자가 나무를 해 오면 거드름을 피우며 나뭇단이 실한지 살피고는 도리질을 하며 다시 해 오라고 손으로 툇자를 놓는다. 패자는 몸짓으로 사정을 하다가 풀이 죽어 다시 지게를 지고 발길을 돌린다.

ㅇ. 양쪽에서 구경을 하는 나무꾼들은 내기가 시작될 때부터 제멋대로의 자세로 구경을 하며, 패자가 다시 나무를 하러 가면 박장대소로 놀려댄다.

ㅈ. 패자가 다시 나무를 해오면 승자는 다시 살폈다가 나무를 제 지게에 옮겨 놓고 좋아라 춤을 춘다. 패자는 빈 지게를 지고 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시 나무를 하러 간다. 그 뒤를 나무꾼 ①을 비롯한 다른 나무꾼들이 뒤따른다.

ㅊ. 승자는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게를 지고 나온다.

나는 마당

두 방형으로 갈라선 나무꾼들이 도식 ②로 모여 관중에게 인사하고 승자를 선두로 퇴장한다. 단 이 놀이에 농악놀이를 넣어서는 안된다.

### 2) 부평 연극의 발달

(1) 부평 극우회

60년대말 부평의 예술에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학우회」를 조직하였고, 그 원동력에 힘입어 김원곤, 김정원, 김주성을 중심으로 「부평 극우회」가 발족되었다.

부평 극우회는 1970년 〈갈색 머리 카락〉을 창립 공연 작품으로 제2공보관에서 막을 올렸고, 1971년부터 김주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71년에 공연된 작품으로는

○ 〈성학〉(가노시다 존지 작/박영귀 연출)

○ 〈이후〉 인간(이철향 작/김광웅 연출)

○ 〈출발〉(윤대성 작/정현철 연출)

○ 〈Hella out there〉(윌리엄 싸로이안 작/김주성 연출) 등이 있으며 공연성과 또한 대단하여 제2공보관 대공연장이 연일 만원사례였다.

70년대 시절에 제2공보관은 부평에서 연극을 공연하고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며 「부평 극우회」 또한 부평에서 유일한 극단이었다.

1972년에는 〈어쩌면 좋아〉(윤대성 작/김주성 연출) 〈호수에 가을비 내리다〉(김광남 작/김주성 연출)를 성공리에 공연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 관할 경찰서에서의 공연 불허로 공연이 몰수되었다.

5년간의 침묵을 깨고 1977년 「부평 극우회」는 명칭을 「예인」으로 바꾸고 인천시 북구 부평동 235번지 김주성의 녹빈 아뜨리에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예술 동호 클럽을 조직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목적 :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전인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정신문화 보급을 통해 사회 계발에 앞장 선다.

○ 조직 : 1. 미술 학회 2. 극예술 연구회 3. 사진 학회 4. 시문학회 5. 음악학회 6. 무용학회

○ 회원 :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남녀, 고교재학생은 준회원

새롭게 태어난 극단 「예인」은 1977년 〈강제 결혼〉(몰리에르 작/김주성 각색, 연출)으로 막을 올렸는데 수준작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1978년에는 〈재치를 뽐내는 아가씨들〉(몰리에르 원작/김순곤 기획/김주성 각색 연출)을 제2공보관 2층 강당에서 공연하여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치를 뽐내는 아가씨들〉에는 이기욱, 이성근, 정현순, 최연희, 김주성, 조덕형, 홍순석, 이은희, 박명숙, 남현우가 출연했고 신상구, 최응천, 조장수, 이상인, 윤찬, 이성실, 지연희, 손승덕, 이강재, 김순희, 남미숙, 박혜련, 김경숙, 차문심, 박경옥, 김성애 등의 스탭진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다.

1979년 정기 공연으로 〈쥐덫〉(아가사 크리스티 작/홍순석 연출)을 제2공보관에서 12월 28일~30일에 공연했다.

○ 대표의 말(김주성)

날로 발전되어 가는 인천에서 우린 10여년간 유독 우리의 부평을 잊지 않으려고 힘을 기울여 왔다.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해왔듯이 우리 부평도 많은 성장을 해왔다. 그런데 이 성장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은 느끼고 있다.

상공도시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화활동은 점점 침체되어 갔다. 그래서 우린 사회적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게 됨에 따라 실질적 봉사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정신적 힘이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왔다. 무대에 못을 박기 시작한지 벌써 10년째가 되어가고 있다. 중간에 몇년 활동을 못해온 적도 있지만 우린 다시 일어나 굳은 의지를 불태웠다.

모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우리 예인극예술 연구회의 10주년 기념 공연을 마련한다.

○ CAST : 이영택, 이기욱, 장미정, 위정석, 김영배, 김주성, 이은자, 이창규

○ STAFF : 김혜숙, 김성애, 유의열, 유숙현, 윤찬, 서재앙, 이성희, 이강재, 정명숙, 송문윤, 정혜경

〈쥐덫〉 공연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연극에 대한 저변 확대에 큰 몫을 해냈으며 극단 예인의 회원도 55명에 이르러 예인 그룹 종합 예술제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평 극우회」로 출발하여 10년간 활동해오던 극단 「예인」은 1980년 〈수렵사회〉(이근삼 작/홍순석 연출)를 마지막 공연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주축을 이루던 젊은 회원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공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활동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연극의 볼모지나 다름없었던 부평지역에서 극단 「예인」은 10년간 연극 활동을 해오며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② 교사 극회

초등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인천 교사 극회」가 1882년 9월 창립되었다. 극단 「예인」의 대표였던 김주성이 연출을 맡아 김용락의 〈묵시록〉을 인천 교대 강당에서 창립 공연 작품으로 막을 올렸다(1983년 2월 25일).

연극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던 시절, 교사들의 연극 활동을 지원해 줄만한 지원체제가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고 연습 장소가 없어 교대 강의실을 전전긍긍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부평 로타리에 있던 김주성의 화실에서 연습이 이루어졌다. 공연에 필요한 자금도 모두 교사들 자신의 회비로 해결을 하였고 오로지 교사들의 연극에 대한 열의로 교사극회는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교사극회는 이명분을 중심으로 하여 신용우, 신성숙, 박재현, 정낙중, 구경분, 신택영, 김미혜, 이은교, 김정수, 박승란, 김미희 외에 7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1983년 10월 9일에 전국 체전 축하공연으로 〈벽난로 위의 귀뚜라미〉(찰스 디킨스 원작/전신 각색/이명분 연출)를 인천 시민 회관에서 공연하여 많은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사와 아동이 함께 출연한 무대였으며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었으므로 그 성과가 더욱 돋보였다.

교사 극회는 꾸준히 활동을 하여 매년 1~2회의 정기 공연을 가졌다.

○ 84. 9 〈창밖의 사람들〉(이명분 작/연출)
○ 85. 6 〈목소리〉(장 콕토 작/신성숙 연출)
○ 86. 5 〈어린 왕자〉(생떽쥐베리 작/이명분 연출)
○ 86. 11 〈리투아니아〉(루퍼트 부르크 작/신용우 연출)
○ 87. 6 〈왕자와 거지〉(마크 트웨인 작/조일도 연출)
○ 88. 5 〈브라이튼 해변의 추억〉(닐 사이먼 작/신용우 연출)
○ 89. 6 〈리어왕〉(세익스피어 작/조일도 연출)

1991년에는 구경분, 이명분, 신용우, 신성숙 등이 공동 창작한 〈제3의 교실〉을 부평4동 천주교회 교육관에서 공연을 하였다. 중·고등 학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갈등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펼쳐보임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더욱이 교사극회 회원들 자신의 창작품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이 작품은 이명분이 연출하였고, 윤순희, 최선순, 정낙중, 신용우, 김창용, 최근호, 김용구, 김보영, 신성숙이 출연하였으며, 이윤기, 박재현, 강준호, 목영경, 김정순, 이경희, 이성숙, 유현주 등이 뒷일을 도왔다.

그 이후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 92년 〈은고리〉(히드니 하워드 작/신용우 연출), 93년 〈바다를 향하는 사람들〉(이대영 작/김병훈 연출), 94년 〈팽〉(박재서 작/서국현 연출), 〈국물있사옵니다〉(이근삼 작/신용우 연출)를 공연하였다.

또한 교사극회에서는 84년부터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연극 교실을 개최하였다. 여름 방학에는 북부 지역의 초등 학교 어린이와 교사에게, 겨울 방학에는 남부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와 교사에게 일주일 동안 연극에 대한 연수 활동을 하여 연극의 저변 확대에 큰 몫을 해내었다.

84년부터 94년까지 연극 교실을 거쳐간 어린이는 800여명에 이르며 교사들은 50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5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 제1집 『동극 지도 자료집』, 제2집 『새교실 특별부록』, 제3집은 교과서의 글을 교과별로 극화한 극본집, 제4집은 『표현력 신장을 위한 동극 자료집』, 제5집 『창의적 표현력 신장을 위한 동극 지도 자료집』 등이다.

교사 극회에서는 4차례의 아동극 발표회를 가졌는데, 동극부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극회 회원 학교의 지원을 받아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아동극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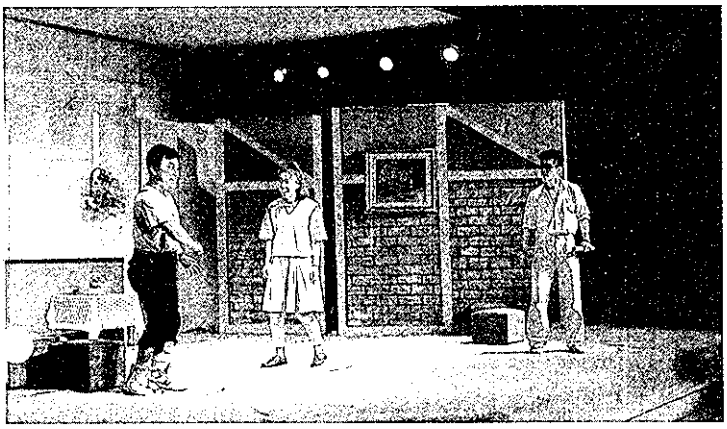
○ 제1회(84년 11월 인천교대 강당)
〈우리들의 꽃동산〉(이명분 작/지도), 〈가뭄〉(이명분 작/박재현 지도)
○ 제2회(85년 10월 인천교대 강당)
〈늘봄고을〉(이명분 작/지도), 〈아름다운 천사들〉(박재현 작/지도)
○ 제3회(87년 11월 인천교대 강당)
〈어린이 공화국〉(신용우 지도), 〈콩쥐 팥쥐〉(박재현 지도)
〈우리들의 꽃동산〉(이명분 지도), 〈윗물 아랫물〉(권정숙 지도)
○ 제4회(89년 11월 인천교대 강당)
〈무지개를 찾아서〉(이명분 지도), 〈우리들의 꽃동산〉(손성란 지도)

③ 극회「숨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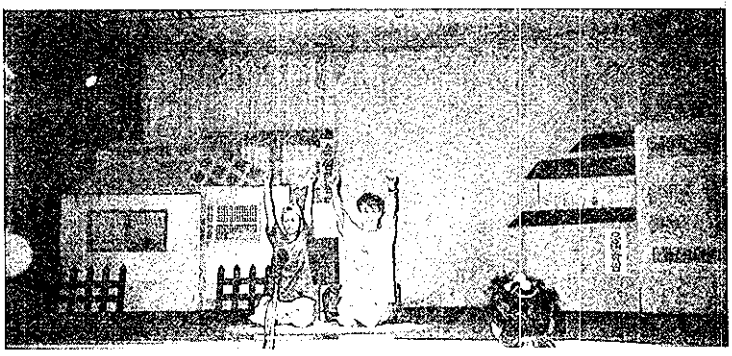
극회「숨결」은 인천노동선교문화원 내부에 있는 연극 모임이다. 산곡1동에 극회 사무실겸 연습실을 두고 있으며 92년 이주섭을 중심으로「노동자의 벗 예수」(공동 창작/이주섭 연출)를 부평 신협 회관 5층 강당에서 공연하면서 본격적인 연극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직장인을 중심으로 매년 1회의 연극 교실을 개최하여 연극 교실 수료자 중에서 극회 숨결의 단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92년 12월 제2회 정기 공연으로 〈성난 파도로 서다〉(대학극/이주섭 연출)를 부평신협 5층 강당에서 올렸는데 박래성, 김현정, 지성근, 최영미, 이영택, 임창국 등이 출연하였다. 특히 93년 11월 〈또?〉(공동 창작/이주섭 연출/부평4동 천주교회 교육관)에는 박래성, 김현정, 지성근, 최영미, 이영택, 임창국 등이 출연하였고, 94년 7월 〈꿈먹고 물 마시고〉(이근삼 작/반무섭 연출/인천 여성문화회관)를 공연하였다. 박래성 외에 6명이 출연하였고 구정은 외 10명이 뒷일을 도왔다.

극단 숨결은 교육연극에도 관심을 보여 서울 교육극단 한종현의 도움을 받아 교육 극회「새세움」을 만들어 94년 8월 〈우리들의 친구 덩달이〉(윤석진 작/한종현 연출)를 부평4동 천주교회 교육관에서 공연하는 열성을 보였다. 어린이를 위한 연극 〈우리들의 친구 덩달이〉는 핵가족화에 따른 어린이들의 개인주의 성향을 극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교사극회」의 〈제3의 교실〉공연, (1991 부평4동 천주교회 교육관)



극단 「숨결」의 〈우리들이 친구 덩달이〉공연 (1994. 8. 부평4동 천주교회 교육관)



「교사극회」의 〈벌난로 위의 귀뚜라미〉공연 1983. 10. (인천시민회관)

## 6. 민간의료

민간의료란 의사의 진단·처방·지시를 통하지 않고, 의료 효과가 있다고 전해오는 말에 의하여 일반 민가에서 널리 사용한 의료 행위다. 여기에 쓰이는 약을 민간약이라 하는데 민간약에는 전통적인 약초류를 비롯하여 각 곳마다 독특하게 알려진 묘약(妙藥)이나 향약(鄕藥)이 과학적인 증명의 기회를 거치지 않은채 약효를 발휘하는 수도 있다.

민간약의 발생 기원에는 (1) 주술적인 것으로서 약효가 없는 것. (2) 순수하게 민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 (3) 각 시대의 의사가 사용했던 약물이나 처방 중에서 특히 약효가 있고 사용이 간편한 것이 민간에 유포된 것으로 나누어 진다.

민간 요법에는 생약을 단방(單方)으로 쓰는 것을 비롯하여 지압, 정골(整骨), 온천욕 등 물리적 요소가 기본이 되는 요법과 주술에 의한 미신적 요법, 신앙에 의한 정신요법 등이 있다.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어떤 질병에 대해 경험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므로써 특정의 병세가 나아짐을 터득한 결과로 전해오는 것이 민간의료이다. 따라서 이를 전승요법이라고도 한다.

부평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고 이미 채록된 경기도 민속지 및 한국민간요법대전(문화방송편저)에서 인천시 북구의 민간요법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의료인 자연료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생약이 단방으로 쓰인 것.(민간약)

○ 속병, 냉, 더위를 먹었을 때는 쑥을 다려 먹는다.
○ 더위를 먹고 식욕이 없을 때는 익모초 생즙을 내어 마신다.
○ 변비에는 피마자 기름을 먹는다.
○ 가래톳이나 볼거리 등에는 보리밥에 소금을 섞어 찧어 환부에 바른다.
○ 덴 데는 감자를 긁어서 바른다.
○ 벌에 쏘였을 때는 된장을 바른다.
○ 화상에는 밤나무 진디물을 긁어다 바른다.
○ 개에게 물렸을 때에는 그 개의 털을 잘라 태워서 물린 곳에 바른다.
○ 어린이가 경기할 때는 경기풀을 짜서 먹인다.
○ 몸살감기에는 임덕넝쿨을 끓여서 먹는다.
○ 칼에 베었을 때는 지혈제로 성냥의 황을 쓴다.

○ 치질에는 닥나무를 데워서 진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
○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는 바로 그 음식을 태워서 먹는다.
○ 토사가 날 때에는 익모초 즙을 마신다.
○ 종기에는 선인장 진을 바른다.
○ 설사에는 비듬나물을 삶아 먹는다.
○ 낫이나 칼에 베었을 때는 담배를 붙인다.
○ 늑막염에는 옥수수수염을 달여 먹는다.
○ 구역질이 나면 생강을 먹는다.
○ 설사난 복통에는 매실을 먹는다.
○ 땀띠에는 복숭아나무잎을 찧어 바른다.
○ 뱀에 물리면 담뱃물을 바르거나 찹쌀죽을 쑤어서 담근다.
○ 급성토사에는 쑥을 먹인다.
○ 급체에는 쑥을 먹인다.
○ 급체에는 칡을 먹인다.
○ 토사에는 익모초풀과 마늘을 혼합해서 먹인다.
○ 속병에는 구절초를 다려 먹는다.
○ 깊은 상처에는 쑥을 짓이겨 바른다.
○ 개고기 먹고 체한 데는 살구씨를 먹인다.
○ 농이 낀 상처에는 송진을 붙인다.
○ 돼지고기 먹고 체한 데는 새우젓국을 먹는다.
○ 돼지고기 먹고 체한 데는 해바라기 대를 삶아 먹는다.
○ 가래톳에는 자고 난 다음에 침을 바른다.
○ 체한 데는 엿기름을 먹는다.
○ 손, 발 등을 삐었을 때는 팟뿌리에 초를 쳐서 바른다.
○ 감기에는 박속을 달여 먹는다.
○ 감기에는 인동덩굴을 더러 먹는다.
○ 허리가 아플 때는 움나무를 삶아 먹는다.
○ 배앓이에는 양귀비대를 삶아 먹는다.
○ 신경통에는 신경초를 달여 먹는다.
○ 두드러기가 났을 때에는 소금을 바르고 짚을 피워 연기를 쏘인다.

○ 눈병이 나면 소금물로 씻는다.
○ 치통에는 어린이의 소변으로 양치질을 한다.
○ 옴병에는 대나무잎을 태워 진흙과 함께 환부에 바른다.
○ 신경통에는 소의 쓸개를 술에 타서 먹는다.
○ 부인의 산후 조리에는 호박이 좋다.
○ 천식에는 살구씨의 속씨를 빻아 먹는다.
○ 백일해에는 무우와 배즙에 흑설탕을 조금씩 먹는다.
○ 타박상에는 밀가루에 식초를 넣어 반죽하여 붙인다.
○ 간염에는 잉어와 찹쌀을 고아서 국물을 마신다.
○ 복막염에는 선인장을 찧어서 즙을 내어 마신다.
○ 배가 아플 때는 박하잎을 즙을 내어 마신다.
○ 닭고기 먹고 체했을 때는 산사나무의 열매를 달여서 마신다.
○ 돼지고기 먹고 체했을 때는 흰복숭아 나무를 달여서 마신다.
○ 쇠고기 먹고 체했을 때는 맨드래미꽃을 달여서 마신다.
○ 설사할 때에는 질경이 뿌리를 즙을 내어 마신다.
○ 담이 결릴 때는 전나무잎을 즙을 내어 마신다.
○ 감기에는 대추, 생강, 귤껍질을 함께 달여서 마신다.
○ 감기에는 배, 모과를 설탕에 재웠다가 먹는다.
○ 기침에는 무우, 꿀, 들기름을 함께 삶아서 마신다.
○ 기침에는 화초호박의 속을 빼내고 꿀을 넣어 삶아서 먹는다.
○ 가래가 끓을 때는 수세미 열매를 꿀에 재워 두면 물이 나온다. 그것을 끓여서 마신다.
○ 폐결핵에는 은행을 볶아서 먹는다.
○ 냉·대하증에는 구절초, 수수, 엿기름을 푹 달여서 먹는다.
○ 냉·대하증에는 약쑥을 달여서 마시거나 찜질을 한다.
○ 산후복통에는 검정콩을 복아서 가루를 만들어 생강차에 소주를 약간 타서 마신다.
○ 산후 온몸이 부었을 때는 잔대와 닭을 달여서 마신다.
○ 하혈을 할 때는 측백나무를 찧어서 생즙을 내어 마시거나, 삶아서 마신다.
○ 산모의 젖 부족에는 돼지발을 고아서 먹는다.
○ 신장염에는 말린 옥수수수염을 달여서 마신다.
○ 늑막염에는 늑막초를 달여서 마신다.

○ 치질에는 꽈리나무를 뿌리째 삶은 물을 약솜에 묻혀서 환부에 바른다.
○ 치질에는 백반을 끓여서 솜에 묻혀 환부에 바른다.
○ 치질에는 선인장을 소금과 함께 찧어서 붙인다.
○ 어린이 백일해에는 패랭이꽃을 달여서 먹인다.
○ 어린이 이질에는 쑥을 생즙내어 먹인다.
○ 어린이 태열에는 버들강아지를 삶아서 먹인다.
○ 코피에는 띠뿌리를 즙을 내어 복용한다.
○ 코피에는 연뿌리를 즙을 내어 마시거나 삶아서 마신다.
○ 목이 쉰데는 무우즙과 생강즙을 섞어서 마신다.
○ 풍치에는 피마자씨를 불에 구워서 아픈이에 물고 있는다.
○ 베었을 때는 꼴뚜기뼈, 오징어뼈를 갈아서 상처 부위에 바른다.
○ 베었을 때는 들기름을 상처에 바른다.
○ 벌에 쏘였을 때는 소금을 씹어 환부에 바른다.
○ 화상에는 환부를 소주에 담근다.
○ 화상에는 오이를 생즙내어 환부에 바른다.
○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에는 감자즙을 장기간 복용한다.
○ 습진에는 밤나무잎을 삶아서 마시고 환부를 씻는다.

### 2) 물리적 요인에 의한 것

○ 복통이 나면 손바닥으로 배를 누른다.
○ 두통이 일 때면 관자노리를 누른다.
○ 신경통에는 통증 부위에 쑥뜸을 뜬다.
○ 고혈압에는 장단지 마사지법이 좋다.
○ 체했을 때는 사관을 튼다.

### 3) 주술에 의한 미신적인 것

○ 집안에 환자가 생겼을 때 무당을 불러 잡귀를 몰아 낸다.
○ 눈병이 났을 때 사람의 얼굴을 그려 놓고 그림의 눈을 바늘로 찌르면서 주문을 왼다.
○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 경을 읽는다.
○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 객귀물림을 한다. 객귀물림은 밥을 바가지에 담고, 여기에 물이

나 술을 붓고 된장이나 간장 또는 파를 조금 뿌리고 바가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바가지를 똑똑 두드리면서 환자의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꿈에 현몽한 귀신, 객사한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을 자주 불러 대며, 칼로 아픈 사람의 머리를 칼날을 눕힌 채로 세번 치고 바가지에 아픈 사람의 침을 세번 뱉게 한다. 그리고 즉시 칼을 들고 밖에 나와 길에서 객사한 또는 그밖에 여러 귀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귀신들이 왔거든 이 밥을 받고 물러가라 하면서 칼을 던져 칼끝이 밖을 향하면 귀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바가지의 물밥을 쏟아버린다. 칼이 밖으로 나가는 즉시 그 자리에 열십자를 그어 놓고 그 복판에 칼날이 밖으로 향하도록 꽂아 놓고 바가지를 덮어 씌운다.

○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병굿을 한다.

○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푸닥거리를 한다.

○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

### 4) 신앙에 의한 정신요법에 의한 것

○ 신앙(무속이 아님)의 힘으로 병을 극복하는 기도요법이 있다.

# 第2章 구비전승자료(口碑傳承資料)

## 1. 민요

부평 사람들은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할때 곧잘 노래를 불러왔다.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덜 수 있고, 한편으로는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노동요라 하는데, 부평 사람들이 부른 노래는 다양하였다. 이를 테면 논일, 밭일을 할 때 부른 노래 뿐 아니라 방아를 찧거나, 빨래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풀을 베거나, 노를 젓거나, 소금밭에서 일을 하거나, 물을 퍼 올릴 때 등 노래부르기를 좋아했고, 상여가가 나갈 때나 지신 밟기를 할 때도 노래를 부르는 등 부평의 민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평 사람들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거울 때도 곧잘 노래를 불러 용기를 내었고, 때로는 한을 풀었으며, 시름을 달래었다.

이렇듯 다양한 민요의 뿌리는 발견되고 있으나,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는 무엇보다 도시화 추세에 따른 농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토박이 노인들을 점점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가 하나요, 옛 부평 관할인 서구 전 지역과 계양구의 병방동, 동양동 일대가 공장이 들어서고, 또 남아 있는 농경지마저 기계에 의해 경작되고 있는 시대의 추세에서 그러한 변모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구 일대의 염전도 공장이나 농경지로 모두 변해 버려 염업과 관련된 민요의 잔재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채록된 민요는 70년대와 80년대에 조사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일부 토박이 노인들을 어렵게 찾아 녹음, 채록하였다. 그리고 기 채록된 민요는 인천의 향토사학자 이훈익 선생과 무용가인 이선주 선생이 도움이 컸다.

### 1) 모내기, 김매기 노래

사오월이 되면 논에 모를 심고 논을 매는데, 이때를 이앙기라 부른다. 이앙가를 부를 때 가끔 농악대를 조직하여 장단을 맞추기도 하는데, 목청 좋은 사람이 선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내기, 김매기 노래 1〉

에에렐 에에엘 상사도야
아라랄 아라랄 상사로구나
에헤렐 에헤렐 상사도야
상사도산을 동지사라
이 논배미를 걷는 매면
술도 나고 밥도 나네

일릴 일릴 일릴 상사도야
아랄 아랄 아랄 상사로구나
이 논배미를 얼른 찔구
자리뜀으로 넘어가네
얼릴 얼릴 얼릴 상사도야
상사소리를 제짓혀며는
술도 나고 밥도 나네
에랠에랠 상사로구나

아랄 아랄 아랄 상사도야
일일 일일 일일 상사도야
상사도산은 동지사라
일릴 일릴 일릴 상사도야
이 논배미를 얼른 찔구
저 논배미로 넘어가세

〈모내기 김매기 노래 2〉

아나농부야 말 들어
아나 농부야 말 들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니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제
어허어허 어허
에이에로 상사뒤야

이 농사를 어서 지어
나라 살림 보태주고
선영 제사 받들어 보세
우리 부모 봉양하고
처 자식도 덤을 주고
이웃 사촌 도와주세
어허 어허 어— 허
어이어도 상사뒤야

남문전에 달 밝은데
순임금이 놀이하고
오뉴월 당도하니
우리 농사 시절일세
띠쟁이 꼭지에다
장깃을 꽂아쓰고
마누라 앞세우고
풍년가를 불러보세
어허 어허 어— 허
이이어로 상사뒤여

### 2) 밭갈이 노래

부평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노동의 괴로움이나 일의 지루함을 유희적인 민요로 풀었다. 그래서 부평의 밭갈이 민요는 신세 타령이나 인생 무상과 같은 운명론적인 내용이 많고, 가진 자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많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된다.

다음의 밭갈이 노래에서 첫 행은 메기는 소리이며, 둘째 행은 받는 소리이다. 그리고 메기는 소리는 각각 내용이 다양하다. 받는 소리는 "어기여차 받갈이 하세"와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로 두 가지의 후렴구로 나타나고 있다.

〈창자 : 이희섭, 김남희, 변일남, 김진선
고소진, 정 원, 김 호, 김황혼
장찬영 등 20여명〉

어찌나 하니 일시에 놓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홍단잎에 나돌아든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강경활에 감돌아든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평택같이 흘러가는
물이라두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박연하니 띠는 입구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간데족족 정들여 놓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아까운 청춘 다 늙었구랴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굼실굼실 잘도 도는데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저기 가는 저 아주머니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이내 신세 어이하여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딸있거든 사위삼우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영틀리구 다틀렸구랴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딸은 있네만 어려서 안되네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아서요 말어요 그리를 말어요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아이구머니 그말 마우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이제 가면 언제나 오나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참새는 작아두 알만까구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제비는 작아두 강남을 가요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아서야 말어야 괄세를 마소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어떤 사람 팔자좋아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고대광실 높은 집에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창포밭에 금잉어놀듯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서산에 해는 지구싶어 지나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막걸리 생각이 절로나 난다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막걸리두 좋지만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마누라두 봐야 겠네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집 떠난 지 여러 날일세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경기도 일경에 돈풍년 들거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오시는 날을 일러를 주오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가다가)긴 한숨 쉬면
나는 다시 오리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손길 맞춰 밭갈이 하세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아서요 말어요 그리를 말어요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일락 서산 해 떨어지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월출동녘에 달 솟는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활대나 같이 달려를 가세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서해바다 만시춘하니
어기어차 밭갈이하세

가지가지 봄빛이로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궤돈 짝돈 바리 바릿돈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은자보물에 녹수천량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밭갈이 하세 밭갈이 하세
어기어차 발갈이 하세

### 3) 장례 의식요

부평의 장례 의식요로는 〈상여 소리〉와 〈달구질 소리〉가 있다. 상여 소리는 장례 때 시신을 상여에 싣고 장지까지 운반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선창자는 요령을 흔들면서 민요 가사를 선창하고 상여를 멘 사람들은 후렴을 받는다.

이곳 부평 지역에서의 〈상여 소리〉 후렴은 "에헤- 에헤-에헤"형과 "어-허-어-허"형, "오-호호 오호호"형이 돋보인다. 그리고 이들 노랫말은 대체로 인생무상을 한탄하고 인생극락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상여 노래(輓歌)

〈만가 1〉

가네가네 나는 간다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대궐같은 이내집은 빈절같이 비어놓고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내 자식아 잘있거라 내 자식아 잘있거라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북망산천마라해도 북망산천마라해도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삼짝박이 북맹일세 삼짝박아 북망일세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인제가면 언제올까 인제가면 언제오리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처자식아 잘있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가네가네 나는가네 나는가요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삼짝 밖에 나는 가네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북만산천 머다해도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삼짝밖이 북망일세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잘있거라 나는간다
에헤-에헤 에헤- 에헤 -(어-허 어-허)

〈만가 2〉

너호호 너혜호 너화넘차 너호호이 슬프고 슬프도다
어찌하요 슬프던고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이 세월 견고한줄 알았더니 백년가업 못다하고 백발되어 슬프도다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여보청춘 소년들아 백발노인 웃지마소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다같이 가는 세월 넨들 아니 늙을 쏜가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적은듯 늙는 것이 한심하고 슬프도다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오늘 백발 급할손가 오늘 백발 급할손가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목을 하여 거절하면 노염되여 아니올가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드는칼로 내리치면 혼이나서 아니올까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억만재물 인적쓰면 아니올까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만잔진수 차려놓고 빌어보면 아니올가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삼천갑자 동방석은 전후생전 초문일세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부운같은 이 세상 초로같은 우리 세상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칠팔십을 살었다하대 일장춘몽 꿈이로다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이내 몸은 늙어지면 다시 젊기 어렵도다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2) 달구질 노래

〈달구질 노래 1〉

에야라 지경아
지경소리 인붓난다
제일 명당터를 닦아
입口字로 집을 짓고
안팍중문 줄행랑에
소슬대문 뚜렷하다
이집진지 三年만에
삼태복을 담아오네
아들나면 孝子나고
딸을 나면 烈女로구나
에야라 지경아
심으로 닦아주세

〈달구질 노래 2〉

이어라 지경일세 이어라 지경이요
지경지경지경인데 이어라 지경이요
이집 짓고 三年만에 부자 장자되여집소서
이어라 지경이요 이어라 지경이요
아남산 밑 양지터에 이어라 지경이요
이집 짓고 三年만에 이어라 지경이요
아들 나면 孝子 낳고 딸을 나면 烈女를 낳고
에해여라 지경이요 에해여라 지경일세

### 4) 용탕소리(물 푸는 노래)

부평(북구)의 옛 관할인 지금 서구의 서곳은 염업이 성하여 물을 떠 올리는 일이 많았다. 또 한 부평 들판 굴포천 변에서도 두레로 물을 끌어들이는 일이 많아 물을 퍼 올릴 때 노래를 곧잘 불렀다.

〈물 푸는 노래 1〉

〈창자:김병찬, 고영기, 김덕봉〉

물 넘어 갑니다 물넘어 갑니다
강산에 청산에 가자
나의 갈길이 어디메냐
이제가면 언제오나
오실 날짜 일러를 주오
언제나 또다시 만나를 볼꺼나
노다가지 노다를 가지
아이 좋쿠 어른도 좋아요
이구십팔 열여덜인데
사위도 수물 딸두 수물
노다가세 노다가요
한평생 좋은 세월 어디다가 다 버리구
(두손이 젓갈이 되두록) 소금심을 부여 잡았나
섰으나 앉았으나 생각하면 장탄식이요
네놈에 꾐이나 내놈에 우둔이냐
다소간에 식솔들을 띠어놓쿠
염밭에 찾아들어 이 고생이 웬말이냐
보고지고 보고지고 일가친척 보고지고
팔팔한 세월이 반여든이 되었구나
구만리같은 우리 청춘 허송세월 하질 말고
열심히 일을 하여 만금쥐고 귀향 하세

"자주 자주 해보세. 이러다간 해 넘어 가겠네. 그러세."

〈물 푸는 노래 2〉

〈창자:김병찬(76)〉

일곱이요(일곱이로구나)
일구월심 그립구나
여덟이요(여덟이로구나)
팔년 대한 가뭄날에
아홉이요(아홉이로구나)
구년지수 장마비에
열이요(열이로구나)
장부 가슴 다 놓는다*

하나요(하나로구나)
한 평생을 살잤더니
둘이요(둘이로구나)
이별 이짜가 웬말이냐
셋이요(셋이로구나)
삼월 춘풍에 꽃피듯이
넷이요(넷이로구나)
사월 부터 녹음 지듯
다섯이요(다섯이로구나)
오손 도손 살잤며니
여섯이요(여섯이로구나)
욱갑에 동티가 났다.
"새참때 늦어지겠네. 숫소리로 막 세어 넘기게나.
그럼 주워 섬길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손길 맞추게나."

*옛부터 인천에서는 수를 셀 때 입곱부터 세어가는 습관이 있었다.

〈물 푸는 노래 3〉

하나는 둘이요 둘에는 서힌데
너희 다섯에 여섯
에- 일굽이구나 일구여덜 여덜아홉

희득번득이 넘어가네
〈중략〉
쉰하나 쉰둘이요 쉰셋에
쉰넷이 쉰다섯 여섯이구나
네- 일곱이구나 여덟아홉에
인간 육십은 한갑나일쎄
예순하나 예순 둘이요 예순세히
예순 네희다 예순다섯에 예순여섯다
에- 일굽이구나 일구여덟에 여덟 아홉
인간 칠십은 고래희 일쎄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에
일흔넷다 일흔다섯 여섯이구나
에- 일굽일다 여덟 아홉에
여든하구 아홉일쎄
팔도강산은 금강산이요
여든하나 여든둘 여든셋에
여든너희 다섯일구나 여섯일쎄
에- 일굽에 여덟 여덟에 아홉은
구월단풍이 단풍이 들었네
아흔에 하나 아흔에 둘일쎄 아흔셋에
아흔너힐다 다섯이구나 여섯일쎄
일굽에 여덟은
시들단풍이 다 떨어지네(낙엽진다)
새루 하나 새루 둘다 새루 셋에
세루 넷은 다섯일구나 여섯일세
백이로구나

### 5) 투전불림(곱새치기)

부평지방에서 행해졌던 투전(튀전)불림은 일명 "곱새치기"라고도 하는데, 1부터 10까지 5쪽씩 50개가 5쪽씩 50개가 한 목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한 목의 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3인이 놀 때는 1끝부터 4끝까지는 5쪽씩, 5끝부터 10끝까지는 2쪽씩, 24쪽을 한목으로 하여 한 사람

이 4쪽씩 떠서 쥐고 시작한다.

곱새치기(투전불림)는 승부의 과정에서 불림(노래)을 주고 받으면서 신명을 돋구어 놀음쪽보다는 풍류적인 면이 강하여 "돈 잃고 웃는다"는 양반놀음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끝 수의 숫자에 따라 부르기 때문에 숫자 뒷풀이나 장타령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놀이는 상가집에서도 많이 놀게 되는데, 상가에서는 죽음의 수인 4의 수를 빼고 하는 불문율도 있었다.

〈창자:박선구(75), 전유배(72), 김덕봉(72), 김덕현(72), 조두영(77)〉

〈지름소리〉

어디 보자 무슨 자를 내야 산단 말이냐
응엔응엔 여파난등 여파난등
에야 내구내구 물구 떨구 이건 잡구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는냐
어쿠야 꽃본듯이 반갑구나
매구맨다 물구떤다 여산
그대 불림 잘못냈네(냈구나)
어서 어서 떨어라 왜 아니 떠느냐
어따 벽상에 걸구나 보자(걸구 보잔다)
에구 에구 여과난등
에야 있건 잡아라 없건 내구
방친다 방 때린다
뒤돌렸다(뒤돌렸구나)

〈불림〉

(1)

일것골라 내낭군이요 화령도 꼽은 길일쎄
일자무식 전무식이 아는 척은 잘도나 한다.
알났다 봉산가자
학두 떴다 봉두떴다
일월영천 뜬구름
일년난득 재봉춘
일어나거라 다밝았다
통진을 십일면
봉숭아 맨드라미

봉학이 금각졌다
봉두난발 잡객꾼
일색같은 이내몸이 총각품에 놀아난다
일구월심 그린 님을 어느 때나 만나볼까
일자 한 장을 뜨고 보니 정월 초하루 당했네
일광단에 월광단을 구비구비 감아보세
남아장부 일언은 중천금이요
일년은 삼백예순날 하루만 같이 놀아보세

(2)

이 과수는 저 과수요 너하구 나하구 살아보자
과천 관악은 굴전기
이 구산이면 삼공자
이러저리 다다녀두 나같은 일이 또 있을까
설상에 매화 본듯
이짜나 한 장을 돌구나 보니 이팔청춘이 다 늙어간다
이월이 둘이면 윤이월
일부종사 박복한 년 눈물 고름 다 녹았내
이 과수가 날과 함께 살잔다
이눔저눔 잡은 손목 노좃인들 마다할까
두만강 틈만 텄다
이놈에 노인은 경술생인가
이단춘이면 함흥땅
이 과수는 살림꾼
이야디야 불뱃놈

(3)

삼년 탈상 새설움 난다
삼원이 둘이면 윤삼월
남이(의) 아들은 수영자요
삼남개 연 걸렸구나
삼천갑자 동방삭이 내 앞이루 달려든다
슬픈 세월 혼자 보낸다

금지옥엽 삼형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삼천리에(의) 조선팔도 이 내 일신이 제일
우리 부모 물린 유산 성명 삼짜 덩그랑
삼신산에 불로초를 어서어서 대령해라
삼남대로 벋(뻗)은 길일쎄
삼월이라 볼들었다가 기화요초 만발

(4)

사서삼경 배운 글을 오늘 여기서 다 불린다
사해 너른 바다 황하(해)수
춘하추동은 사시절이라
돌겠으면 반만 돌아라
사천곡석(식) 너만석이다
너희 가면 잡격꾼이다
사서삼경 배운 글이다
넉살강개 중갱경
넉살좋은 강회(화)년(연)*
사대부집 금지옥엽 등짐장수에 녹아났다
사짜나 한 장을 들구나보니 사색이 다되었다
엄덩짝을 들썩마라 사대육신이 녹아난다
이웃사춘(촌)이 내 사춘
사육신이 충신이냐 생육신이 충신이냐
내가먼저 살쟀냐 니(네)가 먼저 살쟀지

*강화에서 띄우던 연의 살이 네개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설인데, 한편 강화 여인들의 강인한 생활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5)

오춘모는 당숙모요 니람동순 내동생이라
오겸방중 중밤이라 꽃같은 얼굴 시들어진다
오경마 비껴 타구 승인선생 찾아간다
오명덕이 닭장사 부른다
오염산하에 백화초
오관참정 관음장
오매불망 보고지고 우리님을 보고지고

오동추야 닦밝으니 고향생각 절루난다
오면 갈 줄 모르고 가면 올 줄 모르네
오월이라 단오날에 추천놀이 경관
오이밭에 딩굴었네 껴안구서 딩굴었네
오다가다 만났어두 죽어져도 못놓겠네
오춘 댁이면 당숙모짜 나려간다
오사리에 육젓이면 괴불주머니 그득

(6)

육리청산에 보라매
육날 미투리 감발신이다
육천마디 육갑을 하구 굼실굼실 잘도 니논다
윷놀이 털조개요
유월유두 물맞이 수렵이나 나서세
유월 갈길은 응구지
안성마침(맞춤) 유기가 서울장안에 세도가
육간대청은 소대청이다
유기 한짐은 돈 두짐
내사춘(촌)이 육판서 육판서는 내사춘
육육봉 개미허리 짤룩봉*
짚어라 짚어라 육갑을 짚어라

*투전옥 그림을 나타낸 노랫말

(7)

양대거치 경강선 이로구나
칠군칠정 제갈량
칠보단장 곱게하고 저석으로 면경보네
여산은 칠십리
칠녀대한 가문 날에 빗발같이 내려오네
칠월높새 베(벼)죽는다
찔릴라 비켜나라
칠산간데 복을 쳤구나
칠성전에 발원이요 명복에(의) 발원이요
칠칠맞은 여편네 속옷 가랭이 끌린다

칠거지악 내몰려두 투기않콘 못살겠네
칠월이라 칠석날 까치머리 벗어진다
영내수 맑은 물이다
칠월이라 칠석날 견우직녀가 해우

(8)

팔팔 뛰는 것은 금붕어요
안구돌구 백년승
팔도강산 유람하게(유람가잔다)
팔자아미 한아미 내 눈섭을 그린듯
여덜(덟)팔짜가 나온다
팔만대장경이 나라를 구했는가(구했구나)
팔도명산 금강산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얕이 파면 나(너)죽는다*
금줄(줄)백이는 판관
팔봉산 꼭대기에 구름이 덜컹
안홍에 김효자
팔도루 돌든 유랑객

*남녀가 성교를 할 때 여인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내용

(9)

이리봉 저리봉 개미허리 잘룩봉
귀뜰새 울고 동이 텃구나
국이 끓고 밥내 난다
구월하구두 반야월짜 나려간다
구구고개 학이 되어 임의정을 잊을소냐
올라간 건 구관사 내려온 건 신관사
구월산 반월이라
구곡간장 녹아나네
구십춘광 에라 좋구나
구비구비 서린저을 어느한에 풀어내리
구월산에 해돋는다
구만리장천
구월산에 선녀로구나

(10)

장수박대는 군정법이요
진시황은 만리성을 쌓는구나
장수탄 말 비룡말
장짜를 돌구보니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
장터에 말매구 궁터를 돌아본다
내노라 내노라 장안 한량이 내로나(나로구나)
시월이라 상달이다
장에 장터에 새 술집
열시왕(十大王)이 나가신다
장안장수 임경업 방안통수 저 계집
장안이 설렁 끓었네
장수 죽으면 국문법
장초사 도연명
장에 가면 둘러가라

### 6) 소금내기 마당

인천의 소금 밭일 놀이는 1907년 천일염전 이전 조선 때부터 이조말까지 현재 서구의 서곶 지역(북구 가좌동이었음)에서 우리 선조들이 바닷물을 퍼 올려 염밭에 넣었다가 염도가 높아진 다음 가마솥에 조려서 소금을 생산했던 것이다. 『각사등록』에 의하면 인천 서곶 지역에 염밭(염벗이라고도 함)으로 많은 소금을 생산하여 전국에 판매한 기록이 있으며, 1901년 서곶 관내 염밭 업자 84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소금이 완성되면 환희의 홍에 취해 노래를 불렀다. "소금 낫다"라는 소리가 나면 염밭 일대는 바빠지기 시작한다. 염부들의 수불림 소리에 맞추어 소금이 섬에 담겨지고, 소금섬은 저장고에 쌓는 한편 주문한 소금섬은 지게 또는 운반도구에 의해 타지역으로 출고하였다. 한편 등짐 소금장수들도 한 두섬 씩 사서지고 떠나며 등짐 장수 소리로 염부들을 즐겁게 하여 염밭은 흥겨운 한 때를 갖는다.

〈소금담기 수불림〉

〈창자:박선구(75)〉

하나는 하나로구나
하나하면은 둘이로다

두둘에는 셋이 되구요
서희는 너희로다
너희는 다섯 하구요
다섯인가설라무네 여섯이요
여섯에는 일곱이란다
일곱은 여덟이 되구요
여허덟은 아홉이요
아홉에는 여헐이로구나

〈소금장수의 노래 1〉

어느 장으로 가려느나 어느 장으로 가려느냐
장에장사 황에장사 앉았다섰다 선창장
오줌찔끔 지린내장 방구한탕 구린내장
비거버벅 버그내장 보는 천장 대추장
새우젓에 마초장 조기민어에 제무장
금은패물 하양장 비단필육에 노들장
맞춤유기 안성장 어백미라 여주이천장
건과어과 평택장 화문석에 강화장
서울장안 벳겨먹는 경기도라 수원장
수원사람 제껴놓고 강원도라 춘천장
춘천장을 타고앉은 원주장에 횡성장
인삼쌓은 개성장 녹아나는 피양장
우걱떼걱 함흥장 얼어드는 진남포장
소만사리 연평장 영감많은 황가장
버들거리 천아장 바람 불었다 청풍장
예산 틀리는 예산장 껑충뛰는 제천장
참죽오죽 단양장 백통전은 금천장
세모시에 한산장 합죽선에 전주장
황진이에 친주장 엄벙중천 충주장
황색연초 황주장 성춘향에 남원장
칠기유전 나전장 명치칼치 남해장
제첩국에 토성장 말총머리 제주장

어화지화 김화장 이강저강 평강장
구비구비 정선장 화목쌓인 화천장
한자두자 삼척장 울퉁불퉁 울진장
헐떡헐떡 철원장 해태미역 강릉장
이장저장 다버리구 요장으로 왔소이다
서방님에 밥을 푸듯 인심좋은 소금이요
헐값으로 막팔아요 말만 잘하면
거저도 줘요
"영틀렸네 영틀렸구면
그렇게 청승을 떨구 다니면
누가 내다나 보겠나?
오뉴월 땡볕에 등짝엔 간수국 흘러 두부집에서
목물하구 가라겠다
나 같이 주워 섬겨야 안장백이라두
궁둥이 들썩하며 나오지
자 들어보시게."

〈소금장수의 노래 2〉

어제장에 천량이요 오늘 장에두 천량이요
한달육장 매장해두 수천량씩 재수있소
소금장수 소금장사 간곳마다 짭짭하네
싸파는 소금이요 인심좋은 소금이요
상감님에 숙수나인 소금없인 다틀리구
사대부집 산해진미 소금없인 속절없소
일년양식 젓갈에두 소금없인 다틀려요
오사리육젓, 추젓 동백젓, 이름 많은 새우젓에
조개젓이며, 어리굴젓, 증아젓에 곤쟁이젓,
홍합젓이며 꼴뚜기젓에 황새기젓, 밴댕이젓에
창난젓, 명란젓이며 소라젓에 갈치젓이
이 소금이 없다보면 이 세상이 생겼을까
반년농사 평생양식 건건치는 어떠한가
배추김치 나박지에 석박지며 깍뚜기요

외소배기 꼬들배기 채김치에 겉절이며
동치미는 어떠한가 소금없이 된다든가
장모시겐들 소금없이 집안가풍 이을손가
막된장에 간장이요 고추장에 청국장이요
짠짠지며 장아치는 마늘쫑에 더덕짠지
외장아치 물말랭이 들깻잎에 고추잎은
된장독에 고추장에 간장독에 박아놓세
서해바다 눠ㄴ조기 남해동해 서해어물
내 소금없이 다틀려요 소금사려 소금을 사요
아들 못난 아주머니 내 소금을 사시오면
떡두꺼비 쌍쌍으로만 년년으로 보시리다
음식솜씨 없는 이는 감칠맛으로 되여지다
싸게 팔아요 막싸게 팔아요
말만 잘하면 거저로도 줘요
한되 듬뿍 한말가득 한섬 선뜩 사신님네
험한 노정에 몸수편안 가내안녕 하시오며
재수대통 운수대통 마사형통 하십시다

### 7) 어부(漁夫)의 노래

스맛날 드더니 무싯날까지 내말러 간다
에헤에헤에헤요 달은 밝고 명랑한데
우리 뱃농사는 돗만 실리고 우리 뱃임자 사공은 돈만 추심하다
도돗물하자 도돗물하자
우리 배 마작에 지전풍치고 도돗물하자
앞산은 기침하고 뒷산은 멀어간다
어기여차 뱃소리에 우리 배 절로간다
지금은 수백백량 불어다 놓고 우리 뱁자는 거다리 거충거린다
도돗물하자 도돗물하자 우리 배 마작에 지전뭉치로 도돗물하자
우리 배 뱀자님 아주머니 열두폭치마 자락 끌고 울타리 밑에서 도둑춤 추누나
에헤에헤야 우리 뱀자님 아주머니 전라도 육백이 술빚어 놓고
유덕선 오기만 기다린다
도돗물하자 도돗물하세 우리 배 마작에 지전뭉치로 도돗물하자

### 8) 베틀 노래

노동은 남성 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만이 할 수 있는 노동도 있었다. 즉 집안에서 여성의 일은 베를 짜고, 방아를 찧고, 길삼을 하고, 바느질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곧 잘 노래를 불렀다.

부평지역의 베틀 노래는 타 지역의 노래가 장편 서사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형적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베틀가는 부모의 옷을 짓거나, 남편의 조복을 짓거나, 자녀의 혼인 시옷을 지을 때 이 베틀노래를 불렀는데, 어려운 살림에 옷을 지으려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이 심했다.

〈베틀 노래 1〉

월당에 놀던 선녀가 할 일이 전혀 없어
인간에 하강하야 옥난간에 베틀 놓고
금주틀 짜랴하고 앉은 깨를 돋아놓고
임앗대는 삼형제요 사치밋대 형제로다
노리깃대 외독신은 위심구에 던졌는 듯
북드라드는 양은 춘풍제 꾀꼬리가 세류강산에 날으는 듯
부티의 두른양은 북두칠성 돌렸는듯
도투마리 넘는 양은 벽해에 용놀듯
바디집치는 양은 벽력이 자주난다

〈베틀 노래 2〉

아기딸아 문열어라 비단짜는 구경하자
놓고짜면 공닥이요 둘고 짜면 대단이라
열쇠 없어 못열겠네 장자집맛 딸에게
키 모자라 못열겠네 장자집 일 당나귀
빌여다가 몰나서서 속히속히 여러주게
열어왓네열어왓네 딸각딸각 열어왓네
대단짜선 뭘하고기나 오라버니 장가갈제
도포바침 해주겠네

### 9) 찬불가(讚佛歌)

내로신다 내로신다 우리내 중상이 내로신다
검고도 푸른 중산 검고도 얽은 중상

우리내중산이 내로신다 가사를 메어서 중이드냐
고깔을 써서 중이드냐 장삼을 입어서 중이드냐
염주를 걸어서 중이드냐 목탁을 들어서 중이드냐
검고도 얽은 중상 바라를 사시요 바라를 시시요
바라를 사시며는 없던 자손 생남(生男)하고 있는 자손 수명장수
어찌나 좋은지도 모르겠네 어찌나 좋은지도 모르겠네

### 10) 정요(情謠)

〈정요 1〉

꽃이야 곱다마는 가지 높아 못 꺾겠내
꺾거나 못꺾거나 이름이나 짓고 갈까
아마도 그 꽃이 유정화이듯

〈정요 2〉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님의 창가 비친 달아
님 홀로 누었더냐 겨는 남군 품었더냐
저 달이 본래로 일러라고 사생결단

### 11) 부정요(不貞謠)와 첩요(妾謠)

부평의 민요에서 부정요와 첩요가 드러난 점이 특이하다. 아래의 부정요에서 보듯 아내의 부정에 대한 공격은 원색적이다. 그리고 첩요는 비유를 동원하여 직설적인 표현을 우회하고 있다.

우리 민요에서의 첩요는 대개가 본처와 첩과 화해를 통하여 극한을 피하는 현명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노래가 많다. 아래의 첩요에서도 본처가 화자로 등장하여, 남편의 첩질이 한때의 불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조강지처가 좋은 줄을 깨닫게 된다는 너그러움으로 승화시키는 노랫말이 담겨져 있다.

〈부정요〉

찢을년아 발길년아 대전통련에 목빌년아
야밤이라도 오라하면 병든 남군 홀로 두고
어린 자식 잠드려놓고 활등같이 이룹은 길로
쏜살같이 달아난 것

〈첩요〉

해는지고 저무신 날에 옷갓을 하고 어디를 가오
첩에 집앨 가시려거던 나 죽는 것을 보고 가오
첩에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한철인데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절이라

### 12) 청요(情謠)

나무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않오고
우리 인생도 늙어지면 오던 님도 않이 와요

### 13) 귀신쫓는 노래(逐鬼謠)

각행자자방심미기 두우여우실벽
금류유모필자삼 정구유신장익진
진익장신유구정 삼자필묘유류규
벽실우허여우두 기미십방저항각
어험어험 여률레 사라쒜

### 14) 시집살이 요(謠)

시집살이 노래는 〈시집살이요 2〉에서 보듯 시집 온 며느리가 생활고와 시부모 봉양의 어려움을 노래한 것이 많다. 〈시집살이 1〉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노래로 며느리의 하나하나 행동거지의 어려움을 4.4조로 나타내고 있다. 솥을 열어보니 언제 밥을 지어 먹었는지 청녹이 나 있으며, 쌀독을 열어보니 언제 쌀을 담은 일이 있었는지 거미줄이 쳐 있다. 식량은 없고 밥을 지어 먹은 지도 벌써 며칠이 된 상태이다. 말하자면 절량 농가로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민요에서 시집살이요는 전국적으로 며느리의 고충을 노래한 것이 많다.

〈시집사리 요 1〉

어렵더라 어렵더라 시집사리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탄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둥글둥글 수박탕기 밥담기도 어렵더라
바지멋은 시아제비 말하기도 어렵더라
시어머니 소식적삼 둥밧기도 어렵더라

〈시집사리 요 2〉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사리 어떱디가
고추당초 맵다해도 시집사리보담 더 매울가
시집 삼년 살고나면 미나리꽃이 다 피어나고
장다리꽃이 다 피어나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사리 어떱디까
시집간지 사흘만에 부엌문을 여러보니 거미줄이 가득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녹이 하나 가득하고 아궁이를 열어보니
각시줄이 가득하구 물독을 열어보니 갱개비가 가득하고
열두폭에 다홍치마 햇대끝에 걸어놓고 돌며들며 나며
들며 눈물씻기 다 썩었네

### 15) 화정노래

정월이라 15일에 액맥이연이 떴다
이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아하 아하 에요에요 방아홍아로다
삼월이라 삼짓날 제비새끼 막아주리 바랭개비가 떴다
아하아하 에요에요 방아홍아로다
사월이라 초파일 관등하려 하는 곳에 사멱 보살 장안사
아가리 뻥 봄끝 김이 동에 등대줄이 떴다
아하아하 에요에요 방아홍아로다
오월이라 단오일 송백수양 푸른가지 높다랗게 그네를 매고
지작 도화 느러진 가지 백등버선 두발길로 내후리쳐
툭툭 차니 낙화가 등실 떴다.
경상도 영천읍 물방아가 없다드니
밉지 않은 처녀가 도구방아를 찧는다

### 16) 치장 노래

초배하고 재배하고 정배하고 허울적에 청등화로 띠를 띠고
백능화로 되배하고 당이 오지 굽도지에

각장 장판 소라반자 사해 부벽 심춘서두 만만재삼에 솜씨로다
갖은 그림 그려다가 여기저기 붙일적에 진처사 도연명이
맹택령을 마다하고 주강에다 배를 띄워 견경으로 간는 형국
역력히 그려다가 동벽상에 붙여 놓고 강태공께 배육십중
선팔십에 위수변에 달삿갓 숙여쓰고 곧은 낙씨 물거 넣고
주문왕을 낙는 형을 역력히 그려다가 남벽상에 붙여놓고
한종유황숙이 적토마를 비껴타고 남야 호당풍설중에
과욕설선생 볼려하고 직선으로 가는 형을 역력하게 그려다가
서북 벽상 붙여 놓고 윤판대사 성진이가
팔선녀를 만나서 육관작을 백운간에 헐어짓고 합장배례
하는형을 역력하게 그려다가 북병상에 그려놓고 연욕
선요그려다가 벽장문에 그려놓고 상산사호 네노인이
바둑판을 앞에놓고 두건을 벗어서 종지에다 걸어두고
어깨 넘어 넘겨보며 바둑훈수하는 형을 역력히 그려다가
다락문에 붙여놓고 넓고 넓은 태산이요 얕구얕은 대아래를
역력히 그려다가 방문위에 붙여놓고 하액밤도 십장생은
여기저기 곁두리구 일월기는 그려다가 건너방 문위위에
붙여놓고 그림치장 끝내리라
호화롭다 영화로다 만고재생 솜씨로다
천년만년 살고지고 호화롭다 영화로다

부평의 노래는 거의가 일상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한 때 부평 지역이 바닷가를 끼고 있었기에 염업과 관련된 민요가 독특하고, 물 푸는 노래가 타 지역과는 달리 흥미를 끈다.

## 2. 전설(傳說)

### 1) 도둑맞은 쌍창(雙窓)백이 묘석등(墓石燈)

고척동(高尺洞)이란 높고 네모진 곳을 말한다. 고척동에는 능골(陵谷) 뒷산 양지 바른곳에 1502년(연산군 8년) 때, 평산신씨(平山申氏)로 중강현령(中剛縣令)을 지낸 신군(申君)의 묘소(墓所)가 있다. 그의 산소에는 여러 석물(石物)이 있는데 그 중 정교하고 특이한 석물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묘석등은 대개 창이 4방에 있다. 그러나 이 석등은 창이 두 개라서 쌍석등(雙石燈)이다.

또한 정교하게 조각해 희귀하여 이 묘등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

일제시대(日帝時代) 일본인이 이를 보고 탐이 나서 도굴꾼들을 시켜 야밤에 이 석등을 감쪽같이 가지고 가버렸다.

그의 자손들은 사면팔방으로 알아보았으나 허사였다. 일본인은 이 석등을 일본으로 반출하였다고 전할 뿐이다.

### 2) 원수놈의 우물

옛날에는 나라에서 100리 이내에 땅(산지)에 능갓 후보지를 간택해서 표시하고 타인의 묘지를 못쓰게 하였다.

서울 고척동(高尺洞) 능골마을 뒷산은 양유방형(兩乳房形)이라서 명당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라에서 능후보지로 지정하고 타인의 묘를 쓰지 못하게 금하였는데 어느 때인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국상(國喪)이 나서 유명한 지관들이 능을 정하고자 현지에 도착해서 산세를 자세히 답사하였다.

그러나 자리는 명당인데 이 산지 앞에 한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의 위치가 가장 해로운 방위에 존재해서 능자리의 가치가 상실되어 능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세인(世人)들은 이 우물을 원수놈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그 후 능후보지는 해제되고 이 산지는 두 젓가슴 산지인데 한 쪽에는 창녕조씨(昌寧曹氏)의 묘를 쓰고 한 쪽에는 평산신씨(平山申氏)의 묘가 되었다.

### 3) 바다에서 떠내려 온 안남산(安南山)

강서(江西)지방의 주봉이고 인천의 주산 계양산(桂陽山)을 수주악(樹州岳), 안남산(安南山), 계양산(桂陽山), 아남산(阿南山), 경명산(景明山)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산은 멀리서 떠내려 왔다는 전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바다에서 떠내려왔다는 전설도 있다.

고려시대 부평부사를 지낸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망해지(望海誌)에 부평 고을을 보고 '삼면(三面)이 모두 물이로다.'라 하였다.

옛날 부평평야는 황무지(荒蕪地)로 해수와 밀물이 혼합되어 조수가 드나들은 간사지였다.

계양산의 한줄기가 북으로 뻗었을 뿐인데 한강이 그 주위를 둥글게 감돌아 바다로 흐른다. 계양산을 멀리서 보면 이 산이 마치 물위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떠내려 왔다는 전설이 있음직하다. 또한 강화 마니산(摩尼山)과 마주하고 바다 건너에 있는지라 그런 전설도 그럴듯 하다. 그래서 마니산은 형(兄)산, 계양산은 아우(弟)산 이라고도 한다.

### 4) 계양산 상봉에 있는 장사굴(將士窟)

계양산(桂陽山) 상봉 남쪽 아래에는 한 굴이 있었다. 굴 입구는 비좁아 사람이 기어 들어가야만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5~6명이 앉을 만하다. 이 굴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한 흔적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이 굴에 대해 세 가지 전설이 있다.

① 옛날 이 굴에서 장사가 낳는데 어찌나 힘이 세고 키가 컸는지 그 장사는 그 굴에서 나와 남쪽으로 걸어가 영성산(靈城山) 기슭을 지날 때 넙적한 바위를 밟고 지나 갔었다고 하는데 그 발자국이 바위에 패여 남아 있다고 전한다.

② 옛날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부평 땅에 침입하여 부평 향교에 불을 지르자, 유생 등이 향교에 있는 공자를 위시해 여러 명현들의 위판을 이 장수굴에 안치하였다가 난이 평정된 뒤에 다시 봉안하였다. 인근 향교는 모두 불에 타니 훗날 이를 표본으로 삼고 다시 제작하여 갔다고 하며, 그 위판을 장사굴에 보존한 교생(校生) 박무영(朴茂榮), 박대충(朴大忠), 이언복(李彦馥) 등 세 사람에게는 숭유정신(崇儒精神)의 귀감이 된다 하여 참봉 벼슬을 내리고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고 전한다.

③ 계산동에 사는 도술철학자인 박거사(朴居士)가 이 굴에서 도통(道通)하기 위해 장기간 수도한 곳이라 전한다.

### 5) 계양(桂陽)이라는 지명(地名)

계양이란 지명은 고려중말에 계양산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 계양산은 원래 수주악(樹州岳), 안남산(安南山), 계양산(桂陽山) 등으로 불렀는데 전해 오기를 계(桂)는 계수나무의 자생지(自生地)를 뜻하고 양(陽)이란, 양(揚)자가 양(陽)자로 변한 것으로 회양목(檜揚木) 자생지라서 계양산이라 불리우게 된 것이라 하며 계양부도 이 산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 전한다.

### 6)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부평에서의 전투

조선조 선조(宣祖) 25년(1592년) 4월 일본군은 부산포를 점령하고 진군하여 5월에는 서울 장안을 점령하고 주력 부대는 두대로 나눠 한 부대는 평안도 방면으로 또 한 부대는 함경도 방면으로 진군하였다. 당시 서울장안에도 수만의 군대가 주둔하였는데, 한강변 노량진 방면에는 외곽 부대가 진주하였다. 한편, 한서 지방을 수비하는 전라병사(全羅兵使) 최원(崔遠)이 1만8천명을 인솔하고 있었고,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우성전(禹性傳) 등이 수천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수비하고 있었는데 불안을 느끼고 강화도로 들어가 한서(韓西) 지방이 공백상태가 되자 노량진 외곽 부대가 침임해왔다. 도중 소사 옆 오정 방면을 수비하는 남장군(南將軍)의 예하 부대와 충돌하고 이어 부평, 인천, 김포, 통진 등을 점령하며 노략을 일삼다가 돌아갔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 1월 내원(來援)하러 온 명나라 군대 이여송(李如松)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전한 일본군은 평양을 철수해 서울로 집결할 때, 그 주력부대는 임진강과 한강을 건넜고 일부 부대 약 2만명을 한강 하류로 건너왔다. 그리하여 통진, 김포, 양천, 부평, 인천 등을 모조리 점령하였다고 전한다.

이때 일본군 소서행장(小西行長) 예하 부대는 계양산고성(桂陽山古城)을 일부 수축하고 주둔하다가 한양 주둔 주력부대가 철수, 남하할 때 부평주둔 부대도 동시에 남하했다고 전한다.

왜군이 대거해서 부평에 침입할 때 부평부사(富平府使) 김시회(金時晦)는 산성을 지키다가 겁에 질려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다. 그 후 부평주민들의 비난은 많았고, 또한 나라에서 크게 질책하니, 또 김시회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결하고 말았다고 전한다.

또한 부평의 일부 인사들은 부사 김시회가 자결한 것은 일차 전투 때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7) 부평지방의 기후(氣候) 전설

계양산 상상봉에 물동이(안개낀다는 뜻)이면 비가 내리고, 해서풍(海西風)이 몰아치면 날이 개는 부평이라는 소리가 전한다. 이 뜻은 계양산이 높아서 이 산 상봉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서해 바다에서 서풍이 불어오면 날이 개인다는 뜻인 것이다.

이 말은 부평땅의 기후를 표현한 말이다. 옛날에는 부평 고을에 천수답(天水畓)이 많아서 비를 기다렸듯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옛날에 도두리(道頭里)를 일정 때에는 동운정(東雲町)이라 불려온 유래와 해방후 서운동(瑞雲洞)이라 이름을 지은 것도 계양에 구름(동운은 동쪽 산에 구름, 서운은 상서로운 구름을 뜻함) 즉 비를 중요시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수리시설이 없었던 옛날 농사에는 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 8) 연삼년(連三年) 흉년(凶年)

조선조 5백년간 기서지방(畿西地方) 농사는 평균 3년에 한번씩 가뭄 수해 등으로 흉년이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성종(成宗) 3년(1472년)부터 3년동안 전무후무한 대흉작으로 주민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였으며,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사방으로 유리걸식하고 나섰다.

또한 농사를 짓자니 종자가 없어 파종조차 못해 경작치 못한 논이 허다하였다고 전한다. 이

때 부평 지방의 인구가 반감해서 행정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전한다.

### 9) 능(陵) 조성(造成) 북잡이가 잡아 준 산소

김포 장릉을 조성할 때 북잡이가 부평 사람이었는데, 그는 지술가로 산소자리를 잘 보는 지관이었다. 그가 능자리를 보니 능의 3~4간 위가 명당인데 잘 못 자리를 잡은 것이 분명하여 북을 치고 노래하였다. 그리하여 흙을 다질 때 소리하기를 '서너판만 뒤에 모셨으면'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능조성도감(陵造成都監)의 미움을 받고 고발을 당해 부평 아전들이 그를 체포해 부평으로 압송하였다. 그후 계양산 기슭에서 살고 있을 때 아전(관리)들인 황씨, 백씨, 공씨등 세 사람들이 그 북잡이 지관에게 부탁해 각기 하나씩 산소 자리를 잡아주어 훗날 부모 묘를 이장했으며, 그 산소는 아직도 남아 있다.

### 10) 부평부(富平府)의 사직단(社稷壇)

우리나라에서는 먼 옛날부터 사직단을 만들어 사직신을 모셔왔다.

서울의 사직단은 장안 인달방(仁達坊)에 있는데, 사(社)는 동편에 있고, 직(稷)은 서편에 있다. 이 두 단의 둘레는 2장 5척이고, 높이는 3자이며, 사방에 섬돌은 삼급이다. 단의 장식은 그 방위의 따라 빛깔은 다르고 누런 흙으로 덮었다. 사(社)에는 돌로 된 신주(神主)가 있는데 깊이가 두자 오치이고 모는 한자이며 위는 뾰죽하게 하고 밑은 흙으로 북돋워 반은 단의 남쪽 섬들 위에 쌓았다. 4문(門)은 담을 같이하고 있는데 모두 25보이다. 남으로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의 신좌(神座)는 나란히 남에서 북방을 향해서 있는데, 후토신(后土神)은 신좌와 좌하였고 후직신(后稷神)은 국직과 짝하였는데 각각 바로 위치의 왼쪽에 있으면서 북에 가까이 동을 향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평읍지에 부평 사직단은 읍서쪽 2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방의 사직단은 단만이 있고 신은 모시지 않았다. 부평의 사직단은 고을 사또가 제사를 받들었는데 개화 이후 폐지되고 단만이 남아 있다가 19515년 헐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남자의 성기(性器)같이 생긴 목물(木物)이 다수 출토 되었다고 전한다. 당시 어느 사직단이던 이러한 장치를 하고 단을 지었다. 양근숭배(陽根崇拜)의 상징물로 원시적 무속주술(巫俗呪術)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직단을 부근단(付根壇)이라고도 한다.

서책에 쓰여지기를 사직단을 모실 때에는 길이가 2가 5척, 둘레가 1척으로 둥그런 양근(남자의 성기)을 만들어 색칠을 하고 그 귀두(龜頭) 부분을 햇빛이 닿게 노출시킨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 사직단을 지을 때는 나무를 깍아 양경(남자의 성기)처럼 만드는데, 그 길이가 2

자 2치, 둘레가 4치 5푼이라 하며, 붉은 칠을 하고 시작단 설치 때 귀두 부분만 노출시키고 땅에 묻었다. 사신(社神)은 토지신이고 직신(稷神)은 오곡신이다.

### 11) 부평의 오조산(五造山)

옛 부평읍인 계산동 앞뜰에는 인력으로 조성한 산이 있었는데 이를 오조산이라 불렀다.

부평읍은 부평부 소재지로 약 7백년간 읍이였는데, 계양산 및 양지에 자리하고 있어 명지(名地)로 여겼다. 조선 중엽이라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지사(유명한 지관)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살피니 자리는 명당이나 다만 앞에 안산이 없어 넓게 트여져 부자가 안 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부평읍 주민들은 입을 모아 사또께 건의하여 허락을 받고 동민들이 자진 동원하여 가래, 지게로 흙을 모아 인공으로 산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큰 조산을 두 개 만들고 보니 사이가 멀어서 안산(案山) 구실을 못하게 되니 그 후 다시 소조산(小造山) 세 개를 사이에 조성해 이를 부평의 오조산이라 하였다.

이 산은 수리조합 조성 때 4개는 없어지고, 한 개(소조산)만이 그 형적이 있었는데, 그 후 이것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 12) 아남산(阿南山) 부싯돌(点火石)

조선말인 고종17년(1880년)에 서양에서 성냥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불을 피울 때에 부싯돌을 이용하였다. 이 부싯돌은 가정에서는 물론 개개인의 필수품으로 몸에 지녔다. 가령 불을 붙일때는 넓직한 쇠판에다 깃(불이 잘 당기는 풀)을 대고 부싯돌을 치면 불이 깃에 당겨 불이 일어나도록 했다. 부싯돌은 부연돌이기도 하다.

부싯돌로 아남산(桂陽山)돌이 불이 잘 일어나 이를 사용했다. 그래서 계양산 주변 사람들은 농사를 다 짓고나면 이 돌을 캐어 부싯돌을 만들어 짊어지고 한양(서울) 장안을 돌면서 "부싯돌 사려" "아남산 부싯돌 사려"하고 외치며 돌을 팔았다. 후에 알고 보니 부평 인천 바닷가의 돌이 더 품질이 좋아 이것으로 대용하였다고 전한다.

### 13) 계양산(桂陽山)의 12 사찰(寺刹)

계양산은 한서(한강서쪽) 지방의 주산(主山)이다. 또한 여러 산을 거느리고 있어 산군대(山群帶)를 이루었다. 전해지기를 계양산에는 12개의 절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그 절터를 살펴보면 남쪽인 부평읍쪽에 두 개소, 동쪽 계양지구에 한 개소, 북쪽 계양방면에 다섯 개소, 서쪽인 서곶 방면에 세 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여기저기 절터로 보이는 곳이 발견되고 있

기도 하다.

『동국여지승람』 및 『부평읍지』 등에는 계양산 서쪽에 만일사(萬日寺), 북쪽에 명월사(明月寺), 남쪽에 봉일사(奉日寺)가 있었음이 표시되어 있다. 이 절 이외 절은 조선중기 때 절이 너무 많아 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된 이외의 절은 모두 왕명으로 헐게 할 때 없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 14) 코가 떨어진 미륵불상(彌勒佛像)

계산동 뒷산 계양산 서쪽 기슭에 있는 백련사(白蓮寺)에는 미륵불상이 있다. 이 미륵불상은 근래 부평읍 미륵땅에 안치되었던 미륵불상을 이 절에 옮겨 놓은 것이다. 원래 미륵불당에 모셔 놓았던 불상은 코가 떨어져 불상 구실을 못하게 되어 다시 조각해서 세운 불당이라 전한다. 그 사연인즉 이러하다.

부평 땅에 어느 부인이 시집온지 십년이 넘어도 자식을 낳지 못해 오래 전부터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집에서 삼천기도를 올려도 헛수고였다. 그래서 남편한테 소박을 당할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누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려면 불상의 코를 떼어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아기를 낳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부인은 읍 하천가에 있는 미륵 불당을 찾아갔다. 불당만 있고 이를 모시는 중도 없어 이 불상의 코를 뗄 궁리를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끌과 망치를 가지고 단독으로 불당에 들어가 불상의 코를 떼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잉태하기를 기다렸다. 2~3년이 되어도 소용이 없었고 불상만 병신이 되었다고 한다.

훗날 누군가가 다시 미륵불상을 새로 조각하여 바꾸어 세웠지만 이 불당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당집도 헐어지니 자연히 불상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 불상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근래 이 절로 옮겨다 놓았다.

### 15) 정조왕을 접대한 당좌수(唐座首)를 비방한 글

조선 정조(正祖) 임금께서는 선조(先祖)가 되는 원종(元宗)의 능인 장릉(章陵) 참배 겸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원(陵園)을 참배하기 위해 정조21년(1797년) 8월 15일인 추석날 여러 신하를 대동하고 장안을 출발하였다. 김포행궁(金浦行宮)에서 하룻밤을 자고 16일 낮에 부평땅에 도착하였다. 이 때 왕일행의 점심을 대접하고 사례금까지 바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부평의 갑부 당문보(唐文輔:防築洞사람)였다. 그래서 당문보는 왕을 배알하고 수행한 고관들을 만나 친해지고 그 덕분으로 좌수가 되었다.

그 후 수행했던 고관댁을 방문해 큰 권세를 부렸다. 부평 고을에서는 그를 만나 부탁을 하면 아니되는 일이 없었다. 당좌수는 부자에다 또한 권세가 대단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권세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부 선비들은 비위가 상해,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그를 간접적으로 비방하였다고 전한다.

〈당좌수의 비방시문〉
座首 座首 糖座首
富平땅의 唐座首
나랏님 모신 권세로
眼下無人 되었네
付託 請託 하려면
當身宅 가야야네

### 16) 한 많은 홍아문(虹霓門) 한다리

부평평야 굴포천(堀浦川)을 가로질러 놓은 다리를 한다리 또는 홍아문다리라 불렀다. 이 다리는 정부미(政府米)를 포리(浦里)항구에서 서울로 반출하기 위해 1884년에 가설한 다리로 무지개식으로 된 수문이 세 개가 있다.

부평부 읍지 교량조(富平邑誌橋梁條)에 "대교는 동쪽 10리에 있는데, 직포(굴포천)에 가설하였는데 돌로 된 무지개식 세 칸으로 되었다"(大橋在東十里直浦架石虹霓作三門)고 적혀 있다.

이 다리는 구한말 우리나라 기술자가 가설한 다리로 교묘하고 정교하게 가설되어 유명하였는데, 일제말 서울 인천간 국방도로(國防道路) 축조 때 헐어 버렸다. 그 때 교량 난간밑에서 그때 쓰던 석공의 연장과 글이 발견되었다. 그 글에 쓰여지기를 이 다리는 어느 연대에 헐린다는 기록이 쓰여져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연대와 맞게 헐린 연대가 부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17) 큰 뱀을 활로 쏜 류장사(柳壯士)

부평읍 심일(深逸) 마을 류씨 문중에서 기골이 장대한 청년 장사가 있었다. 모두가 그를 보고 류장사라 불렀다. 그는 청운의 꿈을 품고 무예를 열심히 연마하여 자신을 가지고 무과시험을 보기 위해 큰 활을 메고 한양 땅으로 떠났다. 그가 한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였다. 난데없이 큰 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앞을 막았다. 그는 재빨리 활 시위를 당겨 구렁이를 쏘았다. 그 뱀은 몸에 화살이 꽂힌 채 유유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의외로 과거길에 괴이한 일을

당한 것이었다. 잠시 후 생각하기를 과거길에 뱀을 쏘다니 하고 불길함을 느꼈다. 서울 장안에 당도하여 무과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웬일인지 자기 재주를 발휘하지 못해 여지없이 낙방하고 말았다. 실의에 빠져 집에 돌아온 류장사는 자나 깨나 과거길에 뱀을 쏜 일을 경망한 행동이라 여겼다.

십여일 후의 일이었다. 그는 뱀을 쏜 다리에 가 보았다. 그 화살이 꽂힌 구렁이가 나타나 자기를 따라 도는 것이다. 그 구렁이의 등에 박힌 화살을 빼주려고 하니 그 구렁이는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허탈에 빠진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류장사의 눈앞에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방이나 마당이나 장독대 부엌에 온통 화살이 박힌 구렁이 투성이었다. 그후 그는 정신을 잃고 실성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 18) 나진(羅津)

먼 옛날 부평 평야는 한강물과 바닷물이 혼합되어 드나들던 황무지였는데, 차차 방죽을 막아 논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이들 중간에는 굴포천이란 갯골이 있었는데 삼남지방에서 중국대륙 또는 황해도 평안도 등지로 가려면 갯골에 나루를 만들어 행인을 건네 주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 말기에 이르러 다리를 놓아 이 나루는 없어지고 말았는데, 신라 시대 만든 나루라 하여 나진이라 부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 19) 도두리(道頭里) 황무지를 개척한 박감찰(朴監察)

부평읍(계산동)에는 구한말에 벼슬한 박감찰(朴監察)이 살았다. 그의 본명은 박종오(朴鍾吾)이고 밀양 박씨이다.

박감찰은 욕심이 많아 항상 궁리하기를 무엇을 해서 부자가 될까 하고 궁리한 나머지 부평평야(富平平野)의 습지(濕地)인 황무지를 개척하기로 하고 지금의 서운동 넓은 들에 거점을 잡고 우선 개간하기 쉬운 곳에 말뚝을 박고 표시를 한 다음 인근 사람과 김포등지에서 사람을 모집해 개간을 시작하였다. 그 시기가 1904년 갑진년이다. 우선 논뚝을 만들어 논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제일 먼저 이주한 사람이 자기와 인척이 되는 김포에 사는 임덕봉(林德奉)이란 사람이었다.

박감찰은 임덕봉의 협조를 받아 마을 인부를 동원해 수십 정보를 개간해서 논을 만들고 차츰 확장하여 1백여 정보를 개간하였다. 그러나 허술하게 제방을 축조해 논뚝이 자주 터져 수확이 삼년에 한번 추수를 하니 살 수가 없어 농토를 버리고 되돌아 가는 사람도 있었다.

허나 수년간 고생을 계속하여 튼튼한 제방을 막아 훌륭한 논이 되었다. 그래서 큰 지주가

되었으나 씀씀이가 커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인천의 부자 장래형(張來衡)에게 큰 돈을 받고 팔아 버렸다. 장래형은 10여년간 투자를 해 1백 10정보의 논을 조성하였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지금의 서운동인 도두리는 1904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라 한다. 그후 부평수리조합이 조성되었으며, 일본인 교전(橋田)이란 사람이 이 토지를 사고 부근 수백 정보를 개간하였는데 주로 중국인 노무자를 고용해 경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농장을 만들어 경영하다가 그 후 우리나라 부호 김한규(金漢奎)가 이 땅을 사서 김보 농장(金保農場)을 만들었는데 토지개혁으로 땅이 모두 농민들에게 분배되고 말았다.

### 20) 큰 장사가 난 까치말

까치말은 지금의 작전동 작정부락(鵲井部落)을 말한다. 작정(鵲井)이란 까치우물을 뜻하는데, 작정부락에 한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 주위에는 나무가 무성해서 까치가 많이 모여들어 동네이름을 작정리라 불렀다. 옛날부터 전해 오기를 이 물을 먹으면 장사가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장사들이 많이 나왔다 한다. 근세에 이르러 광산 김씨 중에서 한 장사가 나왔는데, 그는 청년 시절 타작 마당에 갈 때면 수백근이 되는 매통대신에 암석을 굴려 가지고 다니며 타작을 하였다고 한다(옛날에 탈곡(타작) 할 때에는 벼 짚단을 매통에 돌려서 벼를 떨었다.). 훗날 그 장사는 감찰 벼슬을 해 김감찰이라 불리었다.

그 후 지금으로부터 9십여년 전에 떠돌이 중이 이 우물에 빠져 죽어 이 우물은 폐지되고 말았으며 또한 장사도 안나온다고 전한다.

### 21) 새펄이 새별이 된 효성동(曉星洞)

효성동의 원 이름은 새펄이었다. 이름을 새별이라 부르게 되고 한문으로 표기할 때 새별을 효성동이라 잘못 쓰고 사용한 것이다. 옛날 고려시대 지금의 효성동 산곡동 청천동을 통털어 마장(馬場)이라 불렀고 또 1914년 4월 1일까지 마장면(馬場面)이 있었다. 마장이란 이곳 땅이 토박해 곡식이 안 되므로 새펄(草原)을 만들고 나라에서 말을 사육(飼育)한 곳이다.

지금에 와서 동명은 고치기는 어려우니 다만 그 유래만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22) 안아지 고개는 아흔낮은 고개(九十峴)

안아지 고개는 북구 청천동과 서구 가정동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의 유래는 여러 설이 전해내려오고 있는데, 그 조사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안하지 고개(雁下地峴)

어느 노인은 주장하기를 기러기가 바다로 날아든다는 뜻이라 한다. 즉 청천동쪽에서 보면 가정동 바다에 기러기가 날아든 것이 보여 안하지 고개(雁下地峴)라 주장한다.

(2) 안아지고개(安阿只峴)

지금의 원창동 갯말(元倉洞浦村)에는 1884년 전조창(轉漕倉)이란 큰 창고를 세우고 삼남지방(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징수한 정부미 곡식을 운반하여 일단 이 창고에 적치하였다가 달구지에 싣고 이 고개를 넘었다. 달구지군들은 고개에서 쉬어가게 되니 안아지(安阿只)란 여자가 주막을 차려 쉬어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아 그 여자 이름을 따서 안아지 고개라 주장한다.

(3) 옛날 김안로(金安老) 대신이 경인 운하를 시굴할 때 청천천(淸川川)을 깊이 파놓았다고 하는데, 이 저수지가 2개 안(內)에 있다 해서 안하지(內河池)라 한다고 말한다.

(4) 이 고개의 원이름인 아흔나진고개(九十峴)에서 나왔다는 설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 도서실에 있는 옛날에 그려진 부평지도(富平地圖)를 보면 구십현(九十峴)이라 쓰여져 있다.

이는 90번째 낮은 고개, 즉 아흔 낮은 고개가 구십현이 된 것이다. 이 사유는 옛날 조선국을 건국하고 새 도읍지를 물색할 때 부평도 도읍 후보지로 지명되어 1백골 이상이 되어야 도읍지가 되는데 99골 뿐이라서 탈락되고, 이 고개는 90번째 낮은 골짜기라 해서 아흔 나진 고개가 차차 변했고 아흔 고개가 다시 변해서 안나지 고개로 부르게 된 것이다.

### 23) 도둑질 비법을 아들에게 알려준 조두목(趙頭目)

조선조 말 정치는 문란하고 관리들은 사복을 차리느라 노략을 일삼으니 나라의 정치는 문란해 사면 팔방에서 도둑떼가 극성을 부렸다. 그들은 엽총(葉銃)을 가지고 다니며 부자집을 터니 민심이 매우 불안하였다. 이때 계양산 낙맥에 안아지 고개 계곡 큰 골에 조두목(趙頭目)이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부평 인천 김포 등지를 행각하면서 도둑질을 하였다. 그런데 그 두목은 도둑비법(秘法)을 알고 있어 그 비법을 쓰면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그는 이 비법을 자기만이 알고 부하나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후 운이 다해 포도대장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야 그 아들에게 비법을 귓속말로 알려 주었다. 안 잡히는 비법은 쥐기름을 몸에 바르고 가면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도둑 두목은 쥐기름을 몸에 바르고 도둑질했다. 그래서 오래도록 잡히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 24) 도읍지로 잡았던 부평(富平)

무장 이괄(李适)은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하여 작전의 총지휘를 맡아 큰공을 세웠으나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그쳤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에 비해 1등 공신이 못된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때 새로 일어난 청국이 중국을 통일하고, 자주 우리나라를 침공해오니 이에 북쪽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 이괄 장군을 평안도 병마절도사겸 부원수(平安道 兵馬節度使兼副元師)로 임명하여 일선에 주둔 시켰다.

당시 새 임금으로 추대된 인조(仁祖)의 측근 공신들은 그 횡포가 심해 이에 격분한 이괄 장군은 그들을 비난한 사실이 알려져 이괄을 나라에서 체포하려 하니 이를 알고 휘하 장졸 1만2천의 군사를 총지휘하고 한양으로 진격해 오니 막강한 한성군대도 이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참패하기에 이른다. 이괄 장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선조의 아들인 흥안군(興安君) 이식(李瑆)을 새 임금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왕정(王政)을 시행하려 하였다.

그때 이괄 장군은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였는데, 새 도읍지로 부평을 지정하였던 것이다. 그곳이 바로 옛 부평부 마장면(산곡, 청천, 효성동)이었다고 전한다. 그후 이괄 부대는 관군에 몰려 패전하여 결국 이괄의 부대는 섬멸되고, 이괄도 체포되어 역적으로 몰려 죽고 말아 부평수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전한다.

### 25) 인두로 지져 죽인 지장사 아기

지금의 산곡동(山谷洞)을 옛날에는 부평부 마장면 산화촌(富平府 馬場面 山花村)이라 불렀다. 산화촌이란 산에 꽃이 많아서이다. 즉 진달래 꽃이 많아서 유래된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여러 성씨가 살았는데, 특히 지씨(池氏)들이 옛날에 많이 살았다고 전한다.

옛날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어으나, 지씨 가문에서 아기장사를 낳았다. 이 아기는 어깨에 날개가 달리고 힘이 세어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걸어다녔다고 한다.

옛날에는 특이한 장사가 나면 역모를 저질를까 두려워 미리 죽여버렸다. 그래서 장사가 나면 부모까지도 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누가 알까 두려워 장사아기를 인두에 불을 달여 지져 죽이고 말았다. 그 후 지씨 집안에서는 전혀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한다.

### 26) 형제효자(兄弟孝子)

옛날 부평 갈월리(富平 葛月里)에는 전주 이씨인 이찰(李穀)과 이율(李嵂) 형제가 살았다.

그들은 왕족의 후예로 교육을 받아 부모에 효도하였다. 그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병환

이 나시니 그 형제들은 백방으로 약을 구해드리고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위독했다. 형제는 번갈아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아버지의 입에 넣어 드렸다. 아버지는 수일간 연명하다가 급기야는 운명하셨다. 그들은 극진히 장례를 모시고 묘막을 짓고 3년간 시묘를 살았다. 그리고 아버지께 효도 못함을 유감히 여기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었다.

형제가 40이 가까워지자 어머니께서 병환이 나셨다. 그들 형제는 약을 구하고 극진히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다. 그러나 노환으로 위독하니 또다시 형제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드렸다. 그러나 보람도 없이 운명하시었다. 형제는 하늘이 무너진 것같이 애통하고 정중히 장례를 모시고 다시 토막을 짓고 3년간 시묘를 하였다.

이를 나라에서 알고 그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효자정려(孝子旌閭)를 내렸다. 그의 정려는 계양 갈현동에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 27) 등잔산과 변전소

등잔(燈盞)이란 전기가 없었던 옛날. 나무 또는 유기로 대를 만들고 접시를 달아 놓고 처음에 관솔도 불을 피우다가 기름에 심지를 박아 불을 피우다가 석유가 들어오니 호롱통에 석유를 담고 심지에 불을 피우는 것을 말한다.

부평땅 지금의 부개동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생김새가 마치 호롱통같이 생겨서 이 구릉(丘陵)이 등잔산이라 불리운다. 기이하게도 이 등잔산에 부평 최초의 변전소가 생겼다. 이 작은 산은 등잔산이라 불리다가 전기가 들어오니 변전소산 또는 언덕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 28) 우물을 파면 망한다는 항동(航洞)

부평땅에 항굴 또는 항동이라는 곳이 있다. 즉 지금의 일신동(日新洞)을 말한다.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신씨(申氏)와 서씨(徐氏)가 많이 살던 곳이다. 항동이란 이 마을의 형태가 마치 배와 같이 생겨서이다. 그러한 관계로 마을 가운데 우물을 파면 배가 뚫어져 가라앉는 격이라 해서 우물을 못 파고 그 테두리 밖의 우물을 파서 부인네들이 물을 길어다 먹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그후 개화가 되어 마을에 우물을 못 파는 것을 미신이라 여기고 여기저기 우물을 파니 부녀자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일정초(日政初)에 일본 군부에서 이 마을에 군사기지(평양군사보급창분소)를 설치하게 되어 이 마을 주민들은 모조리 철거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노인들은 철거된 원인이 항동 마을에 마구 우물을 파서 폐동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

### 29) 경인운하(京仁運河) 개굴의 전설

옛날에는 도로가 비좁고 우마차(牛馬車)가 다닐 수 없어 물건을 운반하려면 배(船)로 이를 실어 날랐다. 그래서 고려시대 실권자인 최이(崔怡)가 굴포천(堀浦川)을 깊이 파고 인천-부평간에 낮은 곳을 뚫으려고 하다가 중지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조선시대 정승을 지낸 김자점(金自點)이 경인간에 운하를 팠다는 전설이 있으나, 그 근거는 없고 정승을 지낸 김안로(金安老)가 만년에 경인운하를 시도한 기록이 보인다.

그는 부평부 신대리(新垈里)에 별장(신대리 고목나무밑)을 세우고 여기에 유숙하면서 경인운하를 감독하였다고 전한다.

(1) 1차공사

한강과 연결된 굴포천(堀浦川)을 깊이 파고 이와 연결시켜 원통이 고개를 깊이 파내어 인천 바다와 연결시키려 하였는데 고개의 암벽을 뚫지 못해 실패하였다.

(2) 2차공사

부평과 인천 사이에는 무넘이(물넘이)라는 낮은 고개가 있다. 굴포천에서 운하개굴 방향을 돌려 이 고개를 파내 운하를 개통시키려 하였으나 고개암벽을 역시 뚫지 못하여 실패했다고 전하며 그래서 무넘(水越)이란 지명이 생겼다 전한다.

(3) 3차공사

두번째 실패한 김안로는 3차로 굴포천과 청천천(淸川川)을 연결시켜 안하지고개(청천동과 가정동 사이에 있는 고개)를 파내 3차공사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고개 역시 암벽을 뚫지 못해 세번째 실패하고 김안로는 임금께 번명하기를 김포 장릉(章陵)의 안산(案山)을 감히 뚫을 수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복명한 기록이 보인다.

청천동과 청천천이란 이 하천을 운하공사 때 깊이 파내서 물이 맑아 청천(淸川)리라 부르게 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 30) 코박굴 코바위

옛날 마분리(부개동)와 대정리(富平洞) 사이에 코박굴이란 마을이 있었다. 이 코박굴에는 꼭 사람의 코와 같이 생긴 큰바위가 있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코박굴이라 한다.

이 코바위에 대하여 언제부터 전해왔는지는 몰라도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 코바위를 덮으면 대정리의 부녀가 많이 놀아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은 마분리 사람들은 실망스럽게도 밤중에 한아름씩 이엉을 가지고 가서 바위를 덮고 오면 대정리 사람들은 재빨리 치워버렸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 두 마을 사람들은 화목치 못하였다고 전한다.

### 31) 붓장수 백인혼혈아(白人混血兒)

지금으로 부터 70년쯤 전에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과는 다른 혼혈백인이 붓(手筆)을 짊어지고 부평 인천 김포등지에 있는 글방(堂)을 순회하며 붓을 팔려 다녔다.

지금은 백인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종교인 약간을 제외하고는 백인을 볼 수가 없었다. 그 혼혈 백인이 글방엘 올것 같으면 글 배운 아동들은 그를 보고 흰동이필경이라 불렀다.

그의 출생 경위는 광무1년(1897년) 경인철도를 기공할 때 공사 기사가 서양인이었다. 그는 부평역전에서 기숙하고 있었는데 독신이라서 우리나라 애인과 친하게 되어 이 두사람 사이에 혼혈아가 출생하였는데 그후 철도공사가 1899년에 끝나니 그 아비는 자식을 버린 채 우리나라를 떠났다. 그래서 그의 한국인 어머니가 키워 성장하니 자기에게 합당한 직업도 없어 붓장사가 된 것이라 전하며 그후 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모른다.

### 32) 십정동(十井洞)의 옛 이름은 십정리(十丁里)

옛 인천땅인 십정리(十井里)는 원지명(原地名)이 십정리(十丁里)가 맞는다. 십정리를 잘못 한문으로 표기할 때 십정(十丁)이라 쓸 것을 잘못써 십정(十井)이 되고 또 이를 속칭 부를 때 열우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십정(十丁)이란 계양산맥과 소래산맥이 교체됨을 뜻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고, 십정은 산맥이 X자로 교차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십정동 산에 올라가면 알 수가 있다.

### 33) 개국사(開國寺)의 절터

십정동 원통이 고개를 넘어서 부평쪽으로 가는 경인가도 오른쪽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을 온골이라 부른다.

이 큰골 안에는 빈대 때문에 망하였다는 개국사 절터가 있다. 바로 그 옆에 신도들의 수도장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이곳 주민들은 여기서 백일 기도를 드리면 무엇이든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며 또한 도(道)를 깨닫게 된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렸다고 전한다.

그러나 괴이하게도 백일기도를 마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이유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거나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것이다.

일정 때 일본인이 여기서 소원이 있어 백일기도를 올리다가 70일만에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하며, 또한 아기 못나는 부인은 3·7기도를 올려 옥동자를 낳게 된다는 미신이 전해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한다. 옛날 이 큰골에 능(陵) 자리를 잡고 재실을 짓고 능참봉까지 정하였다가 그만둔 일이 있다고 전한다.

### 34) 원통이 고개의 사연(事緣)

원통이 고개(圓通峴)는 경인간 산업도로인 주안-부평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원통현의 원이름은 원통현(怨痛峴)에서 유래 되어 그 이름 변한 것이다.

그 유래는 두 가지 전설이 있다.

(1) 조선중엽에 대신 김안노(金安老)가 삼남미(정부에서 징수한 삼남지방 현물세)를 운반하는데 강화 손돌목에서 사고가 잦아 경인간에 운하를 굴포천(堀浦川)을 파내어 원통고개를 뚫어 인천과 연결시켜 배를 동행케 하려 하다가 이 고개의 암벽을 뚫지 못해 중지하여 원통하다는 뜻이라 한다.

(2) 이성계(李成桂)가 새로이 조선국을 세우고 새 도읍지를 물색할 때 부평도 그 후보지로 지정되어 현지를 답사하였는데 골짜기가 1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99골 뿐이라서 도읍지에서 탈락되어 원통하다고 해서 원통현이라 부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 35) 부평고성(富平古城)

부평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계양산 동쪽에 위치한 계양산 고성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성은 삼국시대인 백제시대에 처음 축조한 것이라 전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및 『부평읍지(富平邑誌)』에 의하면, 계양산 고성 석축(石築)은 1937尺(또는 발)이라 하였고 지금은 퇴락되었다고 쓰여져 있다.

구전에 의하면 이 산성은 백제시대 축조하고 그후 여러 번 수축하였다고 전하며, 세조1년(1455년)에 이 성을 수축하고 부평부에 중익진(中翼鎭)을 설치하고 군사기지로 쓰여졌는데 이때 이 성을 수리할 때 이모(李某)란 사람이 감독하여 수축하였다 하여 이성(李城)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또한 임진 왜란 때 임진년 8월 부평부사는 이 산성을 지키다가 적군이 대거 침입하니 겁을 먹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도주해 그후 비난을 받아 자결하고 말았다.

임진란 때 평양까지 진출한 일본군이 명나라 군사에게 패하여 남하할 때 왜장 소서행장(小西行長) 예하 부대 약 2만명이 한강하류(조강)를 건너 부평땅에 침입하여 이 성을 수축하고 주둔하였다가 한양 주력 부대가 후퇴, 남하할 때 부평 주둔 왜군도 남하하였다고 전한다.

### 36) 옛날 백로(白露)가 서식한 임학동

계양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임학동은 산계곡에 위치하였으며 소나무가 울창한 마을이었다. 그래서 백로(해오라기)가 소나무 위에서 서식하였다.

이 마을 이름을 임학동(林鶴洞)이라 불리었다. 즉 임(林)은 소나무를 뜻하고 학(鶴)은 백로를 뜻한다. 지금은 백로가 서식하지 않는다.

### 37) 계양군(桂陽君) 박아불화(朴阿不花)

고려 중엽 원 나라(몽고)는 그 세력이 막강하여 전세계를 거의다 침략하였다. 고려도 그들의 침략을 받고 수십년간을 굴복치 않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힘이 모자라 종주국으로 섬기며 그들의 횡포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고려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해 왔다. 그 중에서도 공녀(여자를 뽑아 바치는 일)과 없는 내시(고자)를 뽑아바치는 일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큰 수치로 문헌상의 기록만으로도 공녀가 20만명, 고자가 2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고자가 부족하니 성기(性器)를 제거를 해서 보내기도 하였다.

공녀들은 몽고 고관(高官)들의 첩이 되었고, 내시들은 궁중에서 일을 보았다. 다행히도 원나라 조정에서 공을 세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많았다. 이 때 부평 고을 사람인 박아불화(朴阿不花)란 내시가 있었는데 이는 부평 박씨로 몽고에 뽑혀가 궁중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 지위가 높아 권세가 대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원 나라에 청탁하려면 그의 힘을 빌어야만 성취되니 그 공로로 그에게 계양군(桂陽君)을 봉해주었으며 힘을 빌어 고려국은 외교를 하였다.

### 38) 부평 고을 토박이 대성 박씨

인천의 토박이 대성은 최씨이고, 부평의 토박이 대성은 박씨라 전한다. 이 두 성씨는 부평읍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살고 있는데 한때는 2·3백호가 거주하였다고 전하며 지금도 제일 가는 대성이다.

전해오기를 옛 고려시대부터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박촌동(朴村洞)의 유래가 이를 증명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들이 부평땅에 살게 된 이유는, 부평의 어느 집에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 처가살이할 남자를 구하는데 이웃 고을에 사는 박총각을 사위로 삼아 처가살이를 하게 되어, 부평땅에서 살게 함으로서 그 자손이 널리 퍼져서 대성이 된 것이라 전해오고 있다.

### 39) 마가묘(馬家墓)의 차돌바위 전설

옛날 부평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있었다. 부평평야 중간에 굴포천의 갯골이 있었는데

옛날 신라시대에는 나진(羅津)이라 불러오다가 그후 팽저나루라 불리었다.

이 갯골은 1884년에 원창동 전조창(轉漕倉)에 삼남미(三南米: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징수한 세미)를 적치하였다가 서울로 운반하기 위해 한다리를 놓았다. 1백 10년 전에는 전지도(全之島)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그후 개간해 육지가 되었다).

이 섬에 언제였는지는 몰라도 마씨(馬氏)가 많았다. 그래서 이곳이 마가묘라 불리웠다. 마가묘에 큰 차돌이 있었는데, 이 돌에는 두치 정도의 구멍이 두 개 뚫여 있었다.

그 구멍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에 계양산 장사굴에서 장사가 나와서 부평평야를 지날 때 지팡이를 집고 다녔는데 구멍이 장사의 지팡이 자국이라 전한다. 이 차돌바위는 부평수리조합 조성 때 없어졌다고 전한다.

### 40) 명판관(名判官) 손변(孫抃)의 일화(逸話)

고려 때 손변은 부평 굴현리(堀峴里) 출신이다. 그는 명판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경상도 안찰부사(按察副使)로 있을 때다. 한 송사(訟事)가 들어왔다. 어느 집에 오누이만을 남기고 아버지(어머니는 벌써죽고)가 죽었다. 그때 누님은 이미 시집을 갔고 남동생만이 살았다. 그런데 그집 유산을 모두 누이에게 주어 송사가 난 것이다.

손변은 이 송사를 판결하기 위해 그들 남매를 불러 사유를 물은즉 아버지가 임종 때 유언하기를 가산 전부를 딸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옷 한 벌, 관(冠) 한 개, 짚신 한 켤레와 종이 한 권을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문계(줄로 된 증서)를 써 준 것이다. 이래서 이 송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해결치 못하였다. 손변이 이 두 사람을 불러 묻기를 아버지가 돌아갈 때 어머니는 어찌되었느냐 하니 먼저 돌아가셨다고 했다. 또 묻기를 너희들은 그때 몇살이었느냐고 하자, 누이가 말하기를 누이는 이미 출가했으며 아우는 어릴 때라 대답하였다. 손변이 이를 설유하기를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은 꼭 같은 것인데 어찌 나이 들어 가정을 가진 딸에게 후하고 어미없는 어린 아이에게 박하겠는가. 아이가 의지하는 바는 오직 누이일 것이니 만약 재산을 누이와 더불어 동등하게 주면 동기간의 사랑함이 혹시나 지극하지 않고 양육함이 혹시나 전일(專一)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아이가 이미 성장하거든 종이를 써서 소장을 만들고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짚신을 신고 관가(官家)에 고소하면 장차 능히 이를 가려줌이 있으리라고 하여 홀로 네 가지 물건만을 준 것은 뜻이 대개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다. 자(姉)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서로 대하여 우니 손판관은 드디어 가산을 반분하여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아무 불평도 없이 이에 순종했다.

### 41) 아버지 묘를 명당이라 자랑하다 봉변당한 송승지(宋承旨)

1628년 3월 폭군 광해왕(光海王)을 축출하고 능양군(陵陽君)을 새 임금으로 추대하였다. 이 분이 인조(仁祖)이다.

인조왕은 자기의 아버지인 정양군(定陽君)을 원종왕(元宗王)으로 추존하고 양주땅에 모신 산소를 김포 장릉(章陵)으로 결정하고 친히 현지를 행행(行幸)하였다. 그런데 그때 수행원으로 대동한 송승지(宋承旨)가 왕을 모시고 돌아가는데, 길옆에 자기의 아버지 묘가 있어 이 묘를 가리키며 이 산소가 명당이라고 왕께 자랑을 하니 왕은 진노하고 송승지를 말꽁지에 매달고 부평다리까지 끌려가게 하였다가 풀어주었다고 전한다.

### 42) 정승 김명순(金明淳) 묘(墓)의 세도를 믿고 행세(行勢)부린 마을 사람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김흥근(金興根)은 부친 김명순(金明淳)이 돌아가니 계양 굴현리(桂陽堀峴里) 언덕에 장사지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은 영의정의 묘가 있음을 기회로 행세를 부렸다고 전한다.

묘의 관리인 손씨(孫氏)는 물론 마을 사람들은 서울을 가려고 양화도(陽花島) 나루를 건너려면 나루 선가를 내여야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나는 김정승댁에 심부름 간다며 선가를 안내도 꼼작 못하고 굽실대며 거저 건네주었다고 전한다.

### 43) 신축년(辛丑年) 흉년에 빈민을 구제한 손부자(孫富者)

지금으로부터 90여년 전 신축년(辛丑年)은 근세 없었던 큰 흉년이었다. 부평지방에 가뭄으로 평년 수확에 일할 정도의 추수를 했을 뿐이라서 농민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을 하고 사방으로 구걸행각을 나섰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도 곡식이 없어 구제를 못하였다.

부평 고을 굴현리(堀峴里)에는 손가(孫家)가 많이 살고 있는데 부자가 한 집이 있었다.

손부자는 굶주리는 그 참상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양곡을 빈민들에게 나눠주어 구제하니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축년에 손부자의 가난 구제가 전해지고 있다.

### 44) 황어향(黃魚鄕)과 노어지(老魚池) 마을

황어란 누런 고기인 잉어를 뜻한다. 이 고장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여름 홍수 때가 되면

한강물이 흘러 넘쳐 잉어 산지로 옛날에는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 고려초에는 황어현(黃魚縣)이 있었던 곳이다. 또한 향(鄕)이란 전고을 소재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계양지방에는 노어지리(老吾地里)란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이 김포로 편입되고 선주지(仙住地)로 편입되어 이름까지 소멸된 곳이다. 노오지(老吾地)란 노어지(老魚池)의 오기(誤記)이다.

이 마을은 강가에 위치해 있으며, 옛날에는 강물이 터져 큰 웅덩이인 못(池)이 있었다고 한다. 이 연못에 늙은 잉어(老黃魚)가 많이 있어 노어지(老魚池)라 불렀던 것이다. 이것이 마을 이름을 한문으로 표기할 때 뜻을 모르고 지명이 그릇되게 쓰여진 것이다.

### 45) 독갑산(獨甲山) 감옥터

독갑산은 계양산 북쪽에 있는 작은 산인데 평지(平地)에 돌출(突出) 구릉지(丘陵地)이다. 전해 오기를 이곳에 옛날 죄인을 수용하던 곳이라 전한다.

산 주위를 파서 물이 고여 섬과 같이 만들고 출입구에는 다리를 놓고 산밑에 감옥집을 짓고 죄인을 수용하였다고 전해오는데, 아마도 수주(樹州) 시대에 일시적으로 존재하였던 감옥자리라 여겨진다.

### 46) 다랑이(多男里)

북구 계양지구에 다남리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다랑이라 부르고 있다. 다랑(多郞)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월등이 많음을 뜻한다. 이 마을은 원래 역동(驛洞)이었다. 한양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목역(驛)이 있어 숙식(宿食)시켜 주고 말을 태워 다음 역으로 보내준다.

이 역제도는 갑오경장(甲午更張) 즉시 폐지되고 말았으며, 1914년부터 역동을 다남리라 불렀다.

### 47) 선주지(仙住地)의 용마정(龍馬井)

부평 계양지구 선주지 마을에는 옛날 김해 김씨의 원주지라 전해 온다. 이 마을 기슭기에는 김씨들의 묘역이 있었는데, 자손들은 없고 여러 개의 비석이 뒹굴고 있다.

옛날 이 김씨집에 시집온 한 부인이 장사아기를 낳았다. 옛날에는 장사가 나면 나라에 반역할 것이 두려워 그 부모는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미리 장사아기를 죽여버리는 예가 많았다. 이 장사아기의 부모도 후환이 두려워 장사아기를 죽이려하다가 차일피일하고 있었는데, 이 아기장사는 걷기 시작하더니 앞산인 독갑산(獨甲山)을 지나 계양산으로 도망쳤는데 이 때 용마

정 우물에서 용마가 나타나 이 아기장사를 태우고 어디론가 달아났다고 전한다.

이 독갑산에는 아기장사의 발자국과 손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전한다.

### 48) 첨사(僉使) 김득남(金得男) 장군의 부평전투

조선 인조(仁祖) 14년(1634년) 12월 청태종(淸太宗)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였다. 우리나라는 임진란을 치른지 불과 40년만에 또다시 난리를 당하니 온 천지가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조정(朝廷)에서는 우선 왕족 및 중신들을 강화도로 긴급 피신시키고 인조왕과 중신들도 강화로 피신하려는 중이었는데, 이미 청군이 양천땅에 당도하여 강화행로가 차단되고 마니 왕 일행은 발길을 돌려 남한산성으로 긴급 피신하였다.

이때 철곶첨사(鐵串僉使:金浦) 김득남(金得男)은 부하 병졸과 의병을 모집해 청군들의 강화행로를 차단하고 말을 타고 선봉에 나서 용감하게 청군과 사력을 다해 싸웠다. 1636년 12월 22일 김득남 장군은 중과부적으로 결사적으로 적과 싸웠으나 부하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난이 평정된 후 그의 공을 치하하고 벼슬을 높여주고 강화 표충사(表忠祠)에 배향하였다.

### 49) 오캐다리(胡橋)의 사연

부평평야 갯골을 판개필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조선조 중기 정승 김안로(金安老)가 경인간에 운하를 파려고 갯골을 팠다. 그래서 이 갯골을 굴포천(堀浦川)이라고도 부른다. 굴포란 갯골을 팠다는 뜻이다. 이 굴포천은 동쪽으로 흘러 김포지구에서 북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진입된다.

선주지말 옆에는 작은 돌로 놓은 다리 하나가 있었다. 이 다리를 속칭 오랑캐다리라 불렀다. 이 다리는 조선조 인조14년(1636년) 12월에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청군(淸軍)들이 강화도를 점령하러 갈 때 우리 군대가 그들의 길목을 차단하니 그들은 굴포천 지류의 산에서 석판(石板)을 떠다가 긴급 다리를 가설하고 이 다리로 통과하였다고 전한다.

훗날 청군은 인조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갈 때 이 다리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수리조합이 수리 시설을 할 때 다리 및 비석은 매몰되고 말았다.

### 50) 계양산의 군자봉(君子峯)과 옥녀봉(玉女峯)

계양산은 삼국시대 중국대륙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민가가 5백호나 사람이 살았던 여각(旅閣)이 있어 내왕하는 행인들이 많았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한강을 건너면 송도 서울로 통하는 큰 길목이었는데 조선시대 서울을 한양으로 옮겨 통행하는 사람이 적고 대륙으로 가는

길목이 변경되어 폐허가 되고 말았다.

계양산 북쪽에는 세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군자봉(君子峯), 하나는 옥녀봉(玉女峯), 하나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봉우리를 꽃뫼(花山)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곳이 명당으로 불리고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장군이 미녀를 데리고 꽃밭에서 노는 형상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곳은 부평 이씨의 발상지로 고려시대 번영하였던 곳이었고 수많은 인물이 배출되고 부평고을 소재지라고 전하며 처처에 사람의 집터 와편(瓦片) 등이 발견되고 있다.

### 51) 둑실(纛室) 마을의 개척자 심신겸(深信謙)

심신겸은 본래 청송 사람이다. 그는 조선조 중기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지내고 부평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로 도임해와 선정을 베풀었다. 그가 부평부사를 사직하고 개나리봇짐을 짊어지고 낙향해 계양산 북쪽 기슭인 구룡산(九龍山) 밑에 새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부평발해벌을 개간한 개척자이다.

그가 황무지를 개척할 때 마을 사람들과 협동단결을 뜻하는 둑기(纛旗)를 내걸고 황무지를 개간한 것이라 전한다.

마을이름 둑실이란 집에 둑기를 세웠다는 뜻이라 전해 온다. 아직도 이 마을에는 그의 자손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다.

### 52) 수주읍(樹州邑)의 이전(移轉)

수주란 옛 고려초에 부평고을의 지명이다. 부평 땅이 백제, 고구려, 신라 시대에는 주부토군(主夫吐郡)이었고, 통일신라 때에는 장제(長堤)로 개칭되었다가 고려초 수주(樹州)로 개칭되었다. 수주는 도(道) 현(縣)의 중간기관이며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래서 (1) 황어현(黃魚縣) (2) 부평현(富平縣) (3) 통진현(通津縣) (4) 김포현(金浦縣) (5) 금천현(衿川縣) (6) 양천현(陽川縣) (7) 소성현(邵城縣) (8) 남양현(南陽縣) (9)부원현(富源縣:용산지방) (10) 석천현(石淺縣) 등을 관할한 큰 고을이다. 그리하여 소재지가 장모루(시천동—목상동 사이)에 있었던 것을 한강건너에 월토(越土:남의 골을 넘어 갔고 있는 땅)가 있어 소재지를 한강가인 오류리(梧柳里)로 이전하였던 것이다.

이곳에는 수주청사지(樹州廳舍社) 감옥지(監獄社) 향교지(鄕校社)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 53) 엄동(嚴冬)에 잉어를 잡아 효도한 윤 효자

계양관내 오류동(梧柳洞)에는 파평윤씨(坡平尹氏)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문은 효

자가 나온 부평고을의 대표적인 효자 가문이다.

그 효자 중 누구의 효행인지는 알려지지 않으나 효자의 어머니께서 병이 위중하여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 효도하였다. 그런데 엄동에 잉어(黃魚)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시니 그의 아들은 여기저기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으려고 노력한 결과 천우신조하여 잉어 한 마리를 잡아 어머니께 바쳤다. 어머니께서는 이 고기를 드시고 병환이 쾌유되었다고 전한다. 윤씨 가문에서는 옛 조상 때부터 잉어를 먹지 않아 왔었는데, 이 효자는 잉어가 자기 조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사연을 알 수가 없다.

### 54) 사정려(四旌閭)의 소실(燒失)

계양지구 오류동(梧柳洞)은 파평윤씨(坡平尹氏)가 집단거주하고 있는 부평땅의 대표적인 효자가문이다. 이 마을 산기슭에는 효자 윤기파(尹起坡), 윤정(尹珽), 윤서(尹曙), 윤상우(尹尙友) 등 네 효자의 정려각이 있었다. 그의 자손들은 가문의 명예로 여기고 잘 보존하였다.

한 1백여년 전의 일이라 전한다. 이 마을 아이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이 정려각에서 새를 잡다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정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그의 자손들이 복원하려 하였으나, 왕이 친히 내린 정려가 불에 타 없어졌으니 다시 복원이 어려워 재건하지 못하고 말았다.

### 55) 권세부린 양반 심현(沈俔)

백석동에 사는 풍산 심씨 중에 고종시대 선략장군용위사과(宣略將軍龍衛司果)를 지낸 심현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명성황후의 동생 민판서(閔判書)의 사촌처남(寺寸妻男)이 된다고 전한다. 그는 민판서 덕분으로 높은 벼슬을 갖고 부평고을에서 큰 권세를 부렸다.

(1) 매관행위(賣官行爲)

부평 김포 인천 등지에 사는 부유층들에게 미리 민판서와 결탁하고 벼슬을 팔았다.

(2) 세미선에서 사세(私稅)를 받음

세미선(나라에 쌀을 바치는 배)에서 그들이 정부미를 색출한 것을 알고 세어도에 드나들며 뱃사람들에게서 사세(私稅)를 받았다.

(3) 나라 세미를 팔아먹음

원창동(元倉洞)에는 삼남미(정부세곡보관창고)를 적치하는 전조창(轉漕倉)이란 창고가 있었다. 그는 민판서의 세력을 믿고 세미를 꺼내다 팔아먹었다고 전한다. 이 사건은 큰 문제가 날뻔하였는데 때마침 이 전조창이 폐지되는 관계로 무사하였다고 전한다.

### 56) 밥은 김포에서 먹고 잠은 인천에서 자는 거월피집

백석동은 김포 경계에 있는 동이다. 이 동리의 거월부락(巨月部落)은 인천 김포간에 있는 마을로 그 경계 구별이 모호하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십년 전에는 3가구가 양 경계선에 집을 지어 안방은 김포구역이고 사랑은 인천구역이었다.

그래서 밥은 안방에서 먹고 잠은 사랑에서 자는 관계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집이 모두헐려 없어지고 말았다.

### 57) 효자 김제현(金悌鉉)

김제현은 백석동 출신으로 광산김씨이다. 서구(西歐)에서 신문물이 들어와 세상이 급변하니 효도사상도 해이해졌을 때다.

그의 아버지께서는 홀아비로 중풍에 걸리시어 반신불수가 되었다. 김제현은 젊은 부인이 있지만 항상 아버지를 모시고 잤다. 그리고 몸을 주물러 드리고 밤중이면 방에 불을 때 뜨듯이 해드렸다. 또 이른 아침이 되면 아버지 바지 저고리를 입었다가 따뜻하게 해서 입혀 드렸다. 논밭에 일을 하러갔다오면 반드시 벼, 콩, 보리 등 곡식을 한포기 뽑아다 보여드렸다.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여쭈어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남의 집 경사(환갑, 잔치)에 가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싸 가지고 와서 드렸다.

아버지께서 별세하시니 장례를 정중히 모시고 3년간은 매일 아침에 참배하였다. 그리하여 현세에 드문 효자라 일컬었다.

### 58) 독립투사(獨立鬪士) 심혁성(沈赫誠)

심혁성은 풍산 심씨로 원래 백석동 출신이다. 그는 청년 시절 계양면 오류리(桂陽面梧柳里)로 이주해 살며 농사를 지으며 살던 천도교 신자였다.

기미년 3·1독립 시위 운동이 일어나자 손병희 선생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은밀히 각 마을에 비밀로 사발통문을 돌려 1912년 3월 24일 황어장날을 이용해 만세시위운동을 벌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당일 계양면장 이하 면직원들의 협조로 미리 그린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 쓴 기를 큰 장대에 달고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대표 심혁성은 큰 기를 들고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부내 주재소(桂山洞駐在所) 일본 순사부장과 순경이 나타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들었다. 시위 군중 한 사람이 왜경의 칼에 맞아 피살되고 심혁성은 왜경에게 체포되어 끌려갔다. 주민 수백명이 체포된 심혁성을 꺼내오려고 하였으나 부내

주재소 순사부장이 총을 쏘며 방해하였다. 심혁성은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인천경찰서 기동대가 동원되어 28명이 체포되었다.

그는 형무소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매일 불러 큰 골치꺼리였다. 후에 재판을 받고 복역하다가 2년만에 풀려났다. 석방된 후 집에 돌아와 가산(논, 밭, 집)을 팔아 만세 부르던 황어장(黃魚場)에서 옷을 사서 산만큼 쌓아놓고 수일간에 걸쳐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왜놈의 정치를 받을 수 없고 한 푼의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하고 가족을 이끌고 두메 산골로 들어가 지리산(地異山), 덕유산(德裕山)과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초를 캐서 시장에 내다팔아 끼니를 이었다.

그는 만주등지에 가서 독립투사들과 교유하며 독립투쟁을 벌리다가 해방을 맞아 고향인 백석동으로 돌아왔다. 아들 심홍기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한약방을 경영해 아버지를 봉양하였는데, 그 봉양을 받다가 심혁성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일본의 정치를 안 받고 한 푼의 세금도 안 내고 산 사람이 되어 일본의 정치를 받지 않은 진정한 애국자였다.

### 59) 과거보러 갔다가 처녀에게 놀아난 청년

고려말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전라도 대가집 청년이 과거를 보러 개경(開京)으로 올라 가다가 계양산 북쪽에 있는 장모루(長牟婁)라는 여관촌 어느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이 마을에 사는 구처녀(具處女)와 친해져 오랫동안 머물다가 과거 전날에야 송도에 도착해 들뜬 마음으로 과거를 보게 되었다. 역시 과거시험에서 여지없이 낙방하고 말았다.

이 청년은 부모를 대할 면목도 없고 해서 다시 장모루 여관촌에 내려와 구각씨와 놀며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는 과거보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통해 그가 이미 낙방됨을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돌아 오지 않으니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하여 장모루 여관촌에서 아들을 만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옛날의 과거는 3년에 한 번 보는 관계로 그 청년은 다시 3년간을 공부해야 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져 그만 포기하였다. 이 대가집 청년은 여자와 놀아나 낙방하게 되니 누군가가 이를 비유하여 과거길에 여자를 조심하라는 시문(詩文)을 아래와 같이 지었다.

桂陽山下侵具女 配年鵬頭怨無心

"계양산 밑에 사는 구처녀와 사귀고 기유년(配年) 2월초(鵬頭)에 원망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다. 잘 지은 글은 못 되나 전국에 전파되어 당시 유명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난 이후 전국 각처에서 자녀들이 과거를 보러갈 때면 아버지들은 아들의 주머니에 이 글을 써서 넣어 주었다고 한다. 과거길에 여자와 놀아나면 낙방될 것이니 조심하라는

금이 되었다고 한다.

이 관습은 고려말부터 조선조말까지(과거제도가 폐지될때까지) 지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60) 쑥 시장(市場)

옛날 한서지방(漢江西域)의 보부상(褓負商)의 중심지가 검암동 비루뫼(開阿峴) 시장이었다고 전한다. 이 시장은 포목 잡화, 가축, 쑥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장이었다. 이 시장에서는 오월(五月) 단오(端午)를 전후해서 동양에서 품질이 우수한 약쑥(獅子足艾)를 사기 위해서 개성 벽난도(開城璧難渡) 항구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약쑥을 사다가 중국, 일본 등지로 수출하였다고 전한다.

### 61) 장사(壯士) 박천봉(朴天奉)

구한말에 사천동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박천봉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키가 작은 편이나 힘이 장사여서 당할 사람이 없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하였으나, 술만 마시면 곧잘 힘 자랑을 하고 또 주정을 부렸다. 그래서 주인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와는 상대할 수 없어 건드리지 못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마을의 어느 농부가 소가 없어 논을 갈 수 없다고 하니 박천봉은 걱정말라며 자기가 소대신 논을 갈아 주었다. 일을 하고 나서 박천봉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니 마을 사람들은 합심해서 그를 밧줄로 꽁꽁 묶었다. 그렇지만 그는 이빨로 모두 끊어버렸다. 또 하루는 주정을 하기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집기둥에 꽁꽁 묶어 놓았다. 그러나 힘이 장사여서 이후에도 큰 집이 흔들렸다고 한다.

움직일 때마다 박천봉이 악독한 짓을 저지른다 해서 부평 고을 포졸들이 들이닥쳐 육모방망이로 마구 때려 감옥에 가두었다. 그날 밤 그는 견고한 담을 부수고 탈출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수백근이 되는 돌한지를 안고 친구의 집엘 갔다. 거기서 그는 피묻은 옷을 갈아 입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 62) 은(銀)을 감춰둔 은의지(銀池) 우물

계양 북서쪽 기슭에는 옛날 송도나 서울 또는 중국대륙으로 통하는 길목에 바루미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구씨(具氏)들이 집단거주하였는데, 구부자(具富者) 집은 은(銀)을 많이 갖고 있었다. 고려 말엽 전란(戰亂)이 일어나자,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은이 무거워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자 자기집 우물에 남몰래 묻고 피난을 갔다. 얼마 후 난이 평정된 후 집에

돌아와 우물에 묻힌 은덩이를 찾으려 했으나, 웬일인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후 이 우물은 은의지(銀池) 우물이라 부르고 있는데, 아직도 그 형적이 남아 있다.

이 마을 일부 노인들은 은덩이가 우물에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노인은 그 때 누군가가 건져 가서 없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 63) 송윤(宋玧)의 숭유(崇儒)

송윤의 자는 형중(瑩中)이고 진천송씨(鎭川宋氏)이다. 그는 선조36년(1603년) 한양에서 태어났다. 벼슬을 하다가 부평 검암동에 낙향하여 살았으며, 그는 박식하고 유교사상에 철저하여 향리에서 유림들을 지도 교육하여 이름이 알려졌다.

송윤이 34세 때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 났는데, 그때 그는 부평 향교에서 유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한다. 청군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남한산성으로 집결할 때 부평을 침공하여 부평부청사와 향교가 불에 탈 때 송윤은 위험을 무릅쓰고 향교 대성전에 뛰어 들어가 공자 및 열성들의 위패를 거두어 가지고 나왔다. 그는 이 위패를 계양산 서쪽 경명현(景明峴) 밑 바위틈에다 은밀히 숨겨 놓았다가 난이 평정된 뒤에 불탄 향교 자리에 임시로 가막(假幕)을 짓고 위패를 보관하였다. 이래서 송윤의 숭유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유림대표로 숭앙(崇仰)하였다.

그후 다시 벼슬을 해 여러 벼슬을 지내고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五衛道摠府副摠官)에 이르렀다. 그후 부평 향교 재건에 앞장섰으며, 90세를 일기로 1693년 11월 26일에 사망하였다. 아직도 공자님 위패를 모셨던 곳을 공자지필(孔子文原)이라 부르고 있다.

부평 향교 유림명부에도 제1호로 기록되어 있어 향교에 대한 그의 공적을 입증해주고 있다.

### 64) 만병(萬病)의 영약(靈藥) 난지초(蘭芝草)

난지도는 천일염전 축조때 육지화된 섬이다. 이 섬은 고잔(景西洞) 마을과 1km정도 떨어진 섬이다. 옛날 이 섬에서 난지초(蘭芝草)가 자생(自生)하였다고 하는데 의약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에는 이 풀이 백병통치약(百病痛治藥)으로 유명하였다고 전한다.

이 풀을 캐다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래서 너도나도 캐어 가서 멸종 위기에 이르니 사람들은 이 영약을 캐기 위해 산신에 기도를 드리고 캐려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난지초를 캐다가 이식을 해보았지만 결코 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은 영약 난지초는 멸종되고 섬이름만 난지도라 부르다가 섬마저 없어졌다.

### 65) 약쑥(藥艾)의 특산지 부평

약쑥은 한약방(漢藥房)에서 사자족애(獅子足艾)라 부른다. 쑥순이 누렇코 사자발과 같이 오굴오굴한 순이 진품이다. 또한 쑥 종류에는 약쑥, 참쑥, 뺑쑥 등이 있다.

경기만(京畿灣) 일대에서 나는 것이 우량품이고 특히 부평 고을 고잔(高棧:경서동)을 쑥땅이 고산이라 부르는데 『동국여지승람세종지리지』(東國輿地勝覽世宗地理誌)에 의하면 '부평산 약쑥이 최량이다'라고 쓰여져 있다.

한약이 발달되지 않았던 먼옛날에는 이 약쑥을 만병통치약으로 귀중히 여겼던 것 같다. 고서 맹자(孟子)에 이런 글귀가 있다.

欲猶七年之病來三年之艾也 苟爲不蓄終身不得

이 글을 보아도 약쑥을 옛날 얼마나 병자들이 중히 여겼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해오기를 전라도 지방 주민들은 1년에 한번씩은 장에 가서 약쑥을 한 타래 구해다 먹어야만 토질병에 안 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이면 가족들이 약쑥을 삶아 먹었다.

또 정초에 인사할 때, 금년에도 가족들이 약쑥을 시식하였는냐 라고 정초 첫인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기만의 바닷가 또는 섬에서 자생하는 약쑥을 해쑥(海艾)이라고 하는데 이 쑥은 나라에 진상(進上)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전해 오기를 경기만 일대에서 생산되는 약쑥은 고려시대 중국 일본 등지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쑥시장이 열렸다고 전한다.

### 66) 대제학 상여 운구(運柩)를 위해 닦은 섬피뚝길

부평땅 고잔(高棧:景西洞)리 호두산(虎頭山)에 조선초 세종때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류사눌(柳思訥)의 묘가 있다. 류사눌은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숙부 밑에서 자라며 공부하다가 고명한 승려(僧侶)를 찾아 계양산 서쪽 기슭에 있던 만일사(萬日寺)에서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다.

그는 여러 벼슬을 지내고 대제학에 이르렀다. 세종23년(1400년)에 사망하니 자손들은 류사눌의 유언에 의해 그가 생전에 잡아놓은 호두산(金山)에 묘를 쓰게 되었다. 이곳까지는 꾸불꾸불하고 좁은 길이라서 상여가 지나갈 수가 없어 긴급히 마을 사람을 동원하여 길을 만들었는데 굴곡이 심해 섬피를 늘어놓고 지게로 흙을 날라 부었으며 가래로 뚝을 모아 새길을 만들었다. 이 길이 골프장 진입로인데 이 길을 섬피뚝길이라 전해지고 있다.

대제학 류사눌 묘는 지금것 보존되고 있으며, 수년전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67) 바다 수렁에 빠진 사기배

부평 땅 바닷가인 고잔리(景西洞)에는 국가사적(史蹟)지로 지정된 녹청자 도요지가 있다. 이곳이 우리나라에 유일한 녹청자를 굽던 곳이다.

전해 오기를 조선초기라고 하는데 호남(전라도)지방 어느 사기그릇 장사치가 배를 가지고 와서 녹청자기를 한배에 가득 사서 싣고 떠나다가 해가 저무니 하룻밤을 자고 가기 위해 난지도 연안에 배를 정박시키고 잠을 잤다. 이른 새벽 뱃사람이 일어나 보니 배가 수렁에 가라앉아 생명이 위험해 뱃사람들은 닷줄을 이용해 간신이 살아나왔다. 배는 큰수렁에 빠져 건질 수가 없었다고 전한다. 그 배는 차츰 가라앉아 처음에는 배가 수몰되고 돛대도 잠아앉아 일년 1·2자식 가라앉고 그후 일년에 몇치(寸)식 잠아앉더니 급기야는 돗대조차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다고 전한다.

지금까지도 마을 노인들은 말하기를 수렁에 빠질 때 도자기는 일부 건졌을 것이라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다른 노인들은 만선된 사기배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은 그곳이 염전 축조때 매립되어 육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파내 이 배를 꺼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68) 부평 매방과 충렬왕의 매사냥

이습(李褶)은 고려왕 고종 첩의 딸과 장가들고, 자신이 국혼한 자라 칭하고 원종의 총애를 받고 많은 영화를 누렸으며, 상서우승(尙書右承)이 되고, 충렬왕 때에는 지어사상장군(知御史上將軍)을 역임한 간신이다.

고려시대에는 총이 없어 매사냥이 성행하였다. 송도 한복판에 매방이 있어 민가의 닭과 개를 함부로 잡아 죽이니 이런 일로 큰 비난을 받았다. 이때 이습은 부하 박향(朴鄕)을 시켜 도서안에 있는 매방을 다른곳에 옮길 것을 지시하여 여러 곳에 후보지를 탐색한 결과 부평 땅 경명현 부근이 적지라서 사육도가(飼育都家) 윤수(尹秀)를 시켜 매방을 이전하여 사육하였다.

충렬왕은 원나라 사신 달로화치(達魯花赤)와 더불어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이곳 부평땅에 와서 매사냥을 하고 즐겼다. 이때 이습의 지시로 왕을 즐겁게 해주려고 윤수를 시켜 미리 고니새와 따오기의 배와 등털을 뽑아서 높이 날게 하고 매를 시켜 이를 잡아오게 하니 왕은 이를 보고 낙을 삼았다. 그래서 왕은 이습을 총애하고 높은 벼슬을 내렸다. 이래서 충렬왕은 부평골에 등급을 높여 길주(吉州)라 하고 자기가 죽으면 이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까지 하였으나, 아들은 이를 반대하고 다른 곳에 능을 썼다.

### 69) 만일사(萬日寺)를 이전한 사연

계양산에는 옛날 12개의 절이 있었다고 해서 계양산 12사(寺)라 했다. 생각건대 이 산에 있는 절들은 조선 중기 때 나라에 절이 하도 많아 왕명으로 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되지 않은 절은 모두 없애라 하여 때 헐어 버리고, 만일사, 명월사(明月寺), 봉일사(奉日寺) 등 세 절만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 절 중 만일사는 신라시대에 세운 것이라 전하며 부평 제일의 큰 사찰이었다. 이 절은 계양산 서편 중턱에 있어 서해를 한 눈에 바라다 볼 수 있어 전망이 좋았다.

조선중엽에 정부 양곡을 운반하는 뱃사람들이 관리들과 결탁하고 벼를 색출하고 심지어는 거짓으로 배의 파산을 보고하고 나라의 세곡을 착취하니 정부에서는 이의 대책에 고심하였다. 뱃사람들과 그 대책을 의논하니 뱃사람은 거짓으로 변명하기를 계양산에 있는 저 만일사가 배에 비치면 배가 파산한다고 거짓 변명하니 정부측에서는 거짓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만일사를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전케 해서 이 만일사는 헐리고 말았다고 전한다. 그 이전 장소는 확실치 않으나 계양산 서남쪽 기슭인 것으로 여겨진다.

### 70) 고현리(古縣里) 최장사(崔壯士)

공촌동은 약2백년 전에 정착된 마을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원래 계양산 북쪽 봉우리 갈뫼(葛山)봉 밑에 고현리 마을에서 살았다. 고현리란 옛 삼국시대 부평골 읍소재지라서 고현리(고대읍이 있었다)라 한다.

지금으로 부터 1백 50년전 고려 때부터 살았는데 최씨 문중에서 장사가 났다. 그는 힘이 세어 미리채에 맷돌을 달고 흔들었다. 그리고 수백근된 물건을 지게에 지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힘자랑을 하기 위해 타작을 할 때에는 큰 돌을 가지고 다니며 벼를 털어 쌓았다고 전한다.

### 71) 세우면 쓰러뜨리고 쓰러뜨리면 세우는 중심성(衆心城) 사적비(史蹟碑)

병인양요(丙寅洋擾), 신미양요(辛未洋擾) 등이 일어날 때마다 프랑스 군함과 미국 군함 및 기타 여러나라 함대가 부평땅 해변에 자주 침입하니 이에 대비하여 인천에는 화도진(花島鎭)을, 부평에는 연희진(連喜鎭)을 설치하고 해안에는 대포(大砲)를 설치하여 이를 감시하였다. 1883년에는 제2전선인 경명현(景明峴) 좌우에 그 당시에 부평부사인 박희방(朴熙房)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하고 고개를 차단하여 강해루(控海樓)라는 누각을 짓고 군대를 배치하여 적들의 수도 침임에 대비하였다.

이 성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누각서편 약 1백m 지점에 중심성 사적비를 세웠다. 그후 이 비에 대해 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비석이 보이는 마을(서구지방)에서 여자들이 놀아난다는

말이 떠돌았다. 그래서 이 비석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쓰러뜨리면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비석을 세우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 비석은 쓰러졌다 세워졌다 하였다. 그래서 이 말썽 많은 비석을 인천시립박물관에 가져가 보관하다가 6.25전쟁 때 없어지고 말았다. 다만 비대석만이 남아 있었는데 도로 확장으로 대석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 72) 신라시대 직조마을 연희동(連喜洞)

부평땅 소속이었던 연희동은 신라(新羅)시대 직조(비단 및 광목)를 짜던 마을이라 한다. 그래서 원래 이 마을 이름을 여희마을(女姬村)이라고 한다. 그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여희동(女姬洞)을 연희동으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또다른 해설로는 이마을의 형국(形局)이 마치 여자가 직조를 짜는 것 같이 생겨 여희동이라 불리었다고도 말한다.

### 73) 용두산(龍頭山) 구성필(具聖弼)의 묘(墓)

조선조 영조때 구선복(具善復)은 수사(水使)를 지낸 구성필의 아들이다.

구선복은 남달리 힘이 세고 학식이 풍부하고 명문(名門) 출신이었다. 일찌기 무과(武科) 시험에 합격하고 여러 곳에 무관을 지내고 병조판서(兵曹判書)와 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등을 지낸 무신(武臣)이었으나, 성격이 교만 방자하여 고관대작으로부터 말직 관리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학대하였다. 또한 그는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몰아내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는데, 뒤주에 갇힌 세자를 감시하며 야유하기를, 뒤주 옆에서 떡을 쩌덕쩌덕 씹어먹으며 "나는 떡을 먹는데 먹고 싶지 않소"하고 빈정댔다고 한다.

그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 폭악 무도하여 자기집 종을 학대하니 종은 견딜 수가 없어 15.6세에 가출을 해 중이 되어 열심히 불도를 닦아 명승이 되었다. 그래서 자나 깨나 상전에게 학대당한 원수를 갚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구선복이 병조판서 재임시 아버지 구성필이 죽으니 때마침 부평땅 용두산에 명당이 있어 가보았다. 마음이 흡족한 이 산에 묘를 쓰고 연못을 파고 묘막을 지었으며 말을 타고 드나 들었다. 용의 머리에 산소를 썼으니 그는 기대를 걸었다. 어느날 어느 대사가 방갓을 쓰고 나타났다. 구선복은 그가 자기의 종이었음을 모르고 그 대사에게 자기 아버지의 묘소를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그 대사는 그 묘소의 산세(山勢)를 살펴 보고는 하는 말이 '자리는 과연 명당인데 다만 저곳이 흠이니 좀혈어 버리면 자손중 왕이 될 명당이라'고 극구 칭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는 대사의 말을 믿고 중이 지적한 대로 그곳을 인부를 동원하여 헐어 버렸

다. 그후 자기를 믿어주었던 영조가 돌아가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正祖)가 등극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게 한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 귀양보내니 구선복도 이에 연루되어 전라도로 귀양갔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고 사각을 떠서 서울로 올려오게 하였다. 그런데 각을 뜬 넙적다리가 무척 무거웠다고 한다. 어찌나 무겁던지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질 때 쓰는 말이 '구선복 넙적다리보다 무겁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지금 용두산(연희동)에는 초라한 구성필의 묘가 있고 연못 자리가 있다.

### 74) 전염병(傳染病) 환자(患者) 시체(屍體) 건폄(乾窆)

의약이 발달되지 못하였던 옛날에는 각종 전염병 홍역(紅疫), 마마(天然豆), 장질부사(腸疾扶斯), 쥐통(虎列刺) 등의 전염이 심하였다. 이 병들이 음식에 의해 전염되는 것을 모르고 귀신(鬼神)의 장난으로 여기고 여신(勵神)을 모시고 쾌유를 빌었다. 또한 국가와 각 고을마다 여단(勵壇)을 지어 역신(疫神)에게 고을의 수령은 제를 지냈다. 먼 옛날에는 이 전염병에 걸려 식구가 죽으면 그 집에 불을 질러 시신을 태워버린 시절이 있었다.

전염병이 걸리면 이웃과의 통행을 않는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으면 즉시 건폄(乾窆)을 한다. 건폄이란 죽은 시체를 즉시 운반해 마을 근처 솔밭에다 평상을 매고 시체를 올려놓고 솔나무 가지로 덮고 새끼로 매어 놓는 것을 말하는데 시체가 썩고 마르면 3.4개월 후에 산에 묻는다. 또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어도 건폄을 하는 예가 있었는데, 이 경우 부모가 다 돌아가면 장사를 지내고 매장하는 예도 있었다 한다.

또한 건폄을 구분하여 중폄(中窆), 권폄(權窆)으로 구분되는데 중폄, 권폄은 가매장(假埋葬)을 뜻하고 건폄은 시체를 일광욕(日光浴)시켜 병균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직까지도 마을 부근에는 옛날에 건폄하던 자리에 가기를 꺼려한다.

### 75) 장가 들어와 말에서 떨어져 죽은 신랑

지금으로부터 2백년 전의 일이라 전한다. 연희동 어느 집 처녀가 이웃 마을 신랑과 혼약을 맺었다. 혼인날을 택일해 신랑은 장가를 들러 신부집인 연희동으로 말을 타고 왔다. 그들 일행은 혼례식 준비를 위해 어느 집에 안내되어 사모관대를 하고 말을 타고 골목길로 지나 갔다. 그런데 이 때 난데없이 지붕 위에서 재(옛날 혼인할 때는 신랑에게 재를 던지는 풍습이 있었다)가 삼태기로 마구 떨어졌다. 이에 놀난 말은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다. 그리고 말을 탄 신랑은 여지없이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대소동이 일어나곤 했는데 그후 그 신부는 어찌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그 골목은 험지로 여기고 통행을 꺼리고 있다.

### 76) 주자(走者峴) 고개와 주마마루(走馬定)

연희동에는 주자고개와 주마마루(주란마루로 변했다)가 있다. 주자고개란 사람이 달려가는 고개란 뜻이고 주마마루란 말을 타고 달린다는 뜻이다.

옛날 고려시대 인천이씨(仁川李氏) 문중에서 허다한 인물이 나왔다. 이를테면 7대에 걸쳐 왕후가 12명이나 배출되니 이씨 고관들과 왕족들이 인천 개성과의 길목이라서 내왕이 많았으며 심부름꾼은 급히 이 고개를 달려갔다. 그래서 이 고개를 주자(走者)고개라 했는데, 이 고개는 오래 남아 있다가 없어졌다. 또한 주마마루란 말이 달려가는 언덕이란 뜻이다.

고종 3년 병인양요(丙寅洋擾), 신미양요(辛未洋擾) 이후 서구(西歐)의 군함이 서해 연안을 자주 침입하고 강화도까지도 함락되니 인천에는 화도진(花島鎭)을, 부평에는 연희진(連喜鎭)을 고종 16년(1879년) 7월에 설치하고 연해(沿海) 요소에 포대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군장교들이 감독차 말을 타고 용두산 포대를 위시해 여러 포대를 순시 감독하기 위해 인덕길을 달려 주마마루라 불리다가 그 어휘가 변해 지금은 주라마루라 부르고 있다.

### 77) 농기(農旗) 싸움

부평지방에도 먼 옛날부터 농악(農樂)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헌은 없다. 그러나 일제 초기에 이르러서는 농악놀이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농악의 설립목적은 협동농사를 위한 공동작업반 편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른바 농무계(農務契)라는 협동영농계를 조직해서 그 계가 주동이 되어 농악대를 만들어서 「품아시」일을 하였다. 부평지방에 농무계가 조직된 것을 보면 농가 50호 이상의 마을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조직연대는 1864년(고종 1년)부터 1915년 사이로 짐작된다.

농부들은 농사일(논 김맬 때)을 할 때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기를 치며 농토로 나간다.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크게 쓰고, 바른 쪽에는 계조직연대를, 좌측에는 농무계명을 써서 큰 깃대에 단다. 그리고 위에는 꼭 철장목을 씌우고 기 양축에 주령을 단다. 기를 논길 논두렁에 세우고 공동작업을 한다. 3회에 걸친 제초작업(논김매기)이 끝나면 면(面) 단위로 농악놀이를 한다.

논김 작업중에는 소리꾼이 북 또는 장고를 치며 농사노래를 선창하는데, 일꾼들은 이를 합창한다. 일을 하는데 힘이 들어도 피로를 잊게 된다.

농기싸움은 이러하다. 농악대는 농무계 조직연대를 따져 선후배를 가린다. 같은 편에서 이웃 농기들이 멀리서 보이면 선배 농악대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징을 높이 들고 쾡쾡 울린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징을 울려 신호한다. 후배가 농기를 휘둘러 인사를 하면 선배 농기도 답

례로 농기를 휘두른다. 그러나 후배농악대는 먼저 인사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어지간해서는 답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선배 농악단이 거듭거듭 신호를 보내도 신호(기를 휘두르는 것)의 응답이 없으면 선배농악단에서는 단체로 뛰어가 말다툼을 벌리고 급기야 싸움이 벌어진다. 싸움의 목표는 농기를 쓰러뜨려 종의 장목을 빼앗아 오는 것인데, 자연이 이때 격투가 벌어진다.

이때 부상자가 나면 관에 고소를 한다. 이것을 농기 싸움이라 하는데, 큰동네 농악대에 굴복하는 것이 모욕으로 여겨 작은 마을에서는 차츰 농악대를 없애 농무계 농악대는 1940년경에 없어졌다고 한다.

### 78) 도사(道士)가 수도(修道)한 탁옥봉(涿玉峯)

부평땅 심곡동(深谷洞) 뒷산을 탁옥봉이라 부른다. 이 산은 철마산의 한 줄기가 뻗어내린 곳으로 산기슭에는 조선조 문종(文宗) 후궁인 숙의문씨(淑儀文氏)의 능이 있다. 이 산은 산림이 우거지고 진달래 꽃으로 유명한 수려한 산이기도 하다.

신라(新羅)말의 일이라 전한다. 어느날 난데없이 어느 사람이 이 산 기슭에 자그마한 정자를 짓고 지붕에는 띠(풀)로 덮고 수도를 하고 있었다. 이상히 여긴 이곳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가보니 그는 아랑곳 않고 정좌(正坐) 상태로 참선을 하고 있었다. 정자를 돌아보니 책이 수십권 있을 뿐 먹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양식은 물론 식사도구도 없었다. 이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은 밥과 반찬을 슬그머니 곁에 놓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가서보니 밥과 찬이 모두 없어졌고 빈그릇만이 있었다. 그후 마을사람들은 밥을 갖다 주기도 하고, 수삼일 안 갖다 주기도 했는데, 그는 여전히 안좌 사색에 잠겨 있곤 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밤중에 몰래 그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정자에서 나와 소나무잎을 뜯어 먹는 것이었다. 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고 그를 존경하고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그 도사는 2.3년간 수도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그후 그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전혀 모른다고 한다.

이 산 이름인 탁옥이란 탁(涿)은 돌을 다듬는다는 뜻이고, 옥(玉)은 돌을 다듬어 옥돌을 만든다는 뜻이다. 즉 그 도사가 수도하여 훌륭한 도인이 되었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 전한다.

### 79) 천년 묵은 은행나무

심곡동 철마산 기슭에는 천년묵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다. 이곳에 7.8년전 인천시 지방공

무원교육원(仁川市地方公務員敎育院)을 신축할 때 건물을 짓는데 이 나무가 걸려 그 위치에서 약 10m쯤 옮겨 심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살아났다.

그러나 지금은 주접이 들어서 고사상태에 있다. 그동안 이 고목은 두 차례나 벼락을 맞아 큰 피해를 입었는데, 벼락맞은 나무는 집에 갔다 놓으면 집안이 무사하다는 전설을 믿고 너도 나도 가지를 잘라가는 바람에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곳 노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는 이 나무에 구멍이 생기고 갈라져 있었는데, 전시(戰時)때가 되면 구멍이 넓어져 많은 사람이 피신을 했다고 하며, 평화시에는 다시 좁아져 사람만이 겨우 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이 마을 이씨(李氏)는 이 은행나무 자리가 명당이라 하여 산소를 쓰려고 이 나무를 자르게 했는데, 그만 자르던 사람이 죽고 말아 산소를 쓰지 못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 80) 가정동(佳亭洞) 도당신당(都堂神堂)

옛날 경기도 지방에서는 마을마다 도당신당을 모시고 해마다 대동굿을 했다. 도당신은 영험하여 마을 사람이 잘못하면 도당벌을 받는다 해서 정중히 도당신을 모셨다. 가령 고혈압 등으로 급사(急死)하면 도당벌을 받았다고 믿었다.

가정동 도로변 옆에는 영험한 도당신을 모신 당이 있다. 누구나 이 당앞을 지나려면 경건하게 당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시체를 실은 상여는 돌아가는 것이 철칙이었다.

옛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고을 사또가 이 당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으레 말에서 내려 가야 됨에도 권세만 믿고 말을 타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또가 탄 말굽이 땅에 붙어 요지부동이었다. 사또는 후회하고 부하를 시켜 제물을 마련해 도당신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았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말굽이 떨어져 지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 도당신은 영험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신당도 헐어 치우고 그곳에는 도시가 들어 앉았는데, 확실한 장소는 알 길이 없다.

### 81) 범바위 호랑이굴

부평땅 가정동(佳亭洞) 산밑 마을을 산저동(山底洞)이라 부른다. 이 마을은 부평구 서구 사이에 있는 원적산(元積山)에 있는데, 북쪽 봉우리를 속칭 범바위(虎岩)라 부른다.

옛날 어느 때인지는 잘 알 수 없어도 이 산밑 마을 부인들이 소풍 겸 나물을 캐다가 범바위 앞에까지 갔었다. 그런데 낮은 굴에서 귀여운 범 새끼가 3-4마리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부인들은 범의 새끼인 줄도 모르고 들여다 보다가 그만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 어흥소리를 지

르니 그들은 혼비백산해 나물 바구니를 내던지고 도망을 쳐 돌아왔다. 그 범은 자기 새끼를 해치지 않아서인지 무사하였다고 전한다.

지금까지도 이 바위를 범이 살았다고 해서 범바위라 부르고 있다.

### 82) 왜군(倭軍)의 부평 노략

고려말 정치가 불안해져 왜군이 전국 해변을 휩쓸며 노략질을 일삼았다. 급기야는 인천, 부평, 안산, 시흥 등 해변 마을에도 왜군이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였다. 특히 부평 해변에는 수군병마사(水軍兵馬使)가 연해를 수비하고 있었으나, 적이 수가 많고 강해서 이를 막지 못해 연해(沿海)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양곡, 가축, 소·돼지·닭 등을 모조리 겁탈당하고 말았다.

### 83) 조중봉(趙重峯)과 율도(栗島) 개척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의병장(義兵將)인 조헌(趙憲)의 호는 중봉이다.

그는 김포 태생으로 일찌기 문과에 급제하고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지낼 때 실수로 종을 죽이니 그로 인해 부평땅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그때 율도(栗島)를 돌아보면서 유사시 피난지로 적지임을 알았다. 그가 얼마후 풀려나와 다시 벼슬을 하였는데, 학식이 풍부하고 의(義)를 숭상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예언가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왕께 자주 상소하기를 일본이 침입함을 예언하고 군비를 튼튼히 할 것을 수차 왕께 상소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의 주장을 묵살해 버렸다.

어느 날인가 한양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떡거머리 총각을 데리고 왔다. 조중봉은 이 총각을 위해 글을 가르치고 장기, 바둑도 두고 같이 놀았다. 그런데 옆집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그처녀의 아버지를 불러 그의 딸과 자기집에 있는 총각을 결혼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에 내력도 모르고 직업도 없는 그 청년에게 시집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조중봉은 내가 그를 보니 장차 쓸모가 있어 데리고 있으니 결혼시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승락을 받아 결혼을 시켰다. 조중봉은 그 부모를 데리고 살게 하였다. 하루는 그의 장인을 불러 말하기를 자네 사위를 보니 장사에 소질이 있으니 자네하고 나하고 반반씩 자금을 대주어 장사를 시키자고 하였다. 그동안 준 돈으로 자금을 대주었다. 그런데, 어디론가 가서 몽땅 다 쓰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후 두 차례나 장사 밑천을 대주었다. 그러나 그 돈도 다 써버리고 말았다.

조중봉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율도에 피난지를 미리 만들었다. 그 청년은 방죽을 막아 논을 만들고 산을 개척해 밭을 만들었다. 그리고 집을 짓되 벽을 찹쌀을 찌서

뭉개어 발랐다. 만약 양식이 떨어지면 벽을 떼어 기갈을 면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그가 예언한 대로 임진란이 일어나니 조중봉 가족과 떡거머리 총각가족과 그의 처가집 가족을 이 섬에 은밀히 은거시켜 임진란을 피해 살게 하였다. 또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義兵)을 모집하여 의병장이 되어 싸웠는데, 옥천(沃川) 전투에서 승리하고 금산(金山)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전공을 치하하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서하여 문열(文烈)이란 시호를 내렸다. 지금도 김포 주민들은 그의 고향에 사당을 짓고 그를 제향하고 있다. 그후 조중봉의 가족은 육지로 나와 다시 벼슬을 하고 그 총각의 가족(김해김씨)만이 계속 율도에 살다가 10여년 전 발전소가 설치되면서 철거를 당해 이주하고 말았다.

### 84) 원적사(元積寺)의 부처무덤 말무덤

산곡동 석남동 사이에 있는 산을 원적산이라 부른다(이를 철마산이라 부르는데 이는 잘못 부르는 것이다.). 이 산 서쪽 기슭(석남초등학교 위)에는 원적사란 절이 있었다. 그런데 빈대가 많아 살 수가 없어 절을 폐하고 부처 및 도구를 말에 싣고 절에서 내려오다가 짐이 무거워 말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를 땅에 묻고 말 시체도 땅에 묻었다. 그래서 부처무덤 말무덤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누군가가 부처무덤을 파보았더니 부처는 누가 캐어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전한다

### 85) 석곶(石串) 명당(名堂)

고려 명장 윤관(尹瓘)장군이 일찌기 젊은 시절에 수주(樹州:富平)부사로 재임할 때의 일이라 전한다.

어느 유명한 지관이 윤사또를 찾아 와 하는 말이 돌곶이(石串:가좌동)에 산소 명당이 있다고 하였다. 윤관이 그 자리를 가보니 과연 명당이라 여겨졌다. 지관은 이 자리에 계란을 묻어 놓면 계란이 부화되어 병아리가 깨어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믿은 윤 사또는 부하인 이모(李某)에게 지시해 시험케 하였다. 수행원 이 모는 이 자리가 탐이나서 자기 부인과 의논하여 알을 뜨거운 물에 쪄서 묻은 다음 그 알을 윤 사또께 보였다. 윤 사또는 부화되지 않음을 보고 실망하고 단념하였다.

그후 이 모는 그 자리에 부모의 산소를 쓰고 크게 영달하였다고 전한다. 그 이씨가 인천 이씨라고 한다. 그리고 수백년후 이 자리를 부평이씨(富平李氏)가 차지하여 선조의 산소를 썼다고 전한다.

부평이씨 족보(族譜)에 찬양하기를 이 명당은 소래산맥이 꿈틀하여 30리나 용트림을 해 뻗어 내렸고, 또한 계양산에 낙맥이 용과 같이 꿈틀거려 뻗어 천마산(天馬山) 마제봉(馬蹄峯)은 천년학이 내려앉는 것 같으며, 안산(案山)이 수려하고 아래에는 한 섬이 있어 대양(大洋)의 물을 끼고 있어 마치 금학(金鶴)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고 극구 칭찬하고 있다.

이 명당은 10여년 전 가좌 지구 시가지 조성 때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다. 지금은 제재단지(製材團地)가 들어서 있어 수입원목(輸入原木)이 쌓여 있다.

### 86) 가좌동(佳佐洞)이 된 가재올

지금의 가좌동을 가재올이라 불렀다. 가재란 개울에서 서식하는 가재를 뜻하고, 올이란 고장을 뜻한다. 이것이 가재리(佳哉里)라 쓰여지다가 근세에 이르러 가좌동이 된 것이다.

옛날 고려시대라 전해오고 있는데, 건지골(乾池谷) 서씨촌(徐氏村)에 자그마한 하천이 있고 그 하천 옆에는 연못이 있어 고기가 서식하였다. 그런데 자연에 의해 이 개울의 방향이 변동되어 다른 데로 흐르게 되니 연못의 물이 말라 건지(乾池)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건지에는 고기들을 잡아 먹으면서 못 흙속에서 오래 버티고 살아온 수백년 묵은 큰 가재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가재리라 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건지동(乾池洞) 또한 연못이 말랐다는 뜻이다. 이 못자리에는 읍나무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어 옛 건지를 입증하여 주고 있다.

### 87) 감중사(甘中寺)의 대문(大門)

가좌동 소재 고속도로 아래에는 옛날 감중절이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마을 이름도 감중절리(甘中節里)라 불렀다.

이 절터는 해망산(海望山) 기슭에 있었는데, 그만 도시조성(都市造成)때 파헤쳐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당시 이조 중엽엔 절이 하도 많은 데다가 사람들이 병역을 도피해 중이 되니 군인 모집에 피해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등재되지 않은 절은 왕의 명령으로 헐어버렸다. 아마 이 절이 없어진 것도 이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절은 해면을 바라다보고 있어 바다물이 밀면 대문이 저절로 닫치고, 바다물이 쓸면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 88) 각시당(閣氏堂)의 사연

지금의 가좌동 제재단지(製材團地)는 옛날에 소염도(素鹽島)란 작은 섬이었다. 이 섬을 근

래에 매립해 단지를 조성한 것이다.

옛날 이 섬에는 구씨(具氏)란 뱃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운반선(運搬船) 두 척을 가지고 정부미를 운반해 그 수입으로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구씨가 부자란 소문을 들었는 지 어느날 밤에 해적들이 나타나 재물을 강탈해 갔다. 그 후에도 자주 나타나 배까지도 끌고가니 구씨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이 때 해적들이 다시 나타나 그의 처를 강탈해가고 말았다. 그래서 구씨는 상심 끝에 죽고 말았다. 그때 집에는 과년한 무남독녀만이 남아 외가 식구와 같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도둑떼들이 나타나니 구처녀는 재빨리 소염섬 언덕에 올라가 바다에 몸을 던져 순결을 지켰다.

그후 마을 사람들은 이를 측은히 여기고 그 섬에 각시당(閣氏堂)을 짓고 해마다 그의 죽은 날이 되면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를 지내주었다. 그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당은 무너져 버리고 제사도 또한 폐지되고 말았다.

### 89) 소사(素砂)의 유래(由來)

지금의 부천시(富川市)는 옛날 부평부 석천면(石川面), 옥산면(玉山面), 수탄면(水呑面)이었던 것을 1914년 4월 1일 부천군이 신설될 때 이 3면을 통합해서 이루어진 시이다. 이 행정명칭을 처음에는 계남면(桂南面)이라 하였다. 한편 소사란 소사리, 소사역(素砂驛)에서 유래된 것이다. 경인철도가 개설되고 역을 설치할 때 최초의 역이 이 소사리에 설치되었다. 후에 심곡리 방면에 인구가 늘고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해 승객이 많아지니 역을 심곡리로 옮겨 놓고도 역명을 그대로 소사역이라 사용하였는데, 소사란 이름이 두각을 나타내 이 지방의 대표적인 지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소사면이 되고 도시가 커지니 소사읍(素砂邑)으로 승격된 것이다. 특산품 소사복숭아도 소사를 크게 빛냈다고 하겠다. 소사면은 그 요지인(옛 수탄면) 관할이 서울로 편입되었어도 계속 발전을 거듭하더니 부천군을 타시군에 편입시키고 소사읍만을 승격시켜 부천시로 만들어 소사란 지명은 다만 동명에만 남아있게 되었다.

### 90) 두 그루의 느티나무

부천시 소사동은 그 유래가 거치른 모래가 하천에 많아 냇물이 모래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이 마을 풍수설에 조리터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에는 8백년이나 된 고목 느티나무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동네 상징으로 여기고 신성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꽃피는 것을 보고 그해 흉(凶), 풍(豊)을 점치는데 괴화(槐花)가 위에서 먼저 피면 풍년이 들고 아래서 먼저 꽃이 피면 흉년이 든다고 믿고 있다.

### 91) 괴안말(槐安村)의 도당치성(都堂致成)

지금의 부천시 관내에 괴안(槐安)이란 마을이 있다. 옛날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도당치성(도당굿 또는 제사)을 드렸는데 마을에 있는 신목(神木)으로 추앙하는 느티나무(槐木) 밑에서 도당굿을 하였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산신제를 올리곤 하여 그래서 마을의 일년간 평안함을 기원하였다. 그래서 괴안(槐安)이란 마을 이름까지도 괴안리가 된 것이라 전한다.

### 92) 박주순(朴周淳)의 선심(善心)

박주순은 죽산 박씨로 부평부 벌응절리(伐應節里) 사람이다. 그의 선조가 이 마을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박주순은 청년 시절에 농사를 지으면서 서울이 가까워 나무 장사를 해서 살았다. 어느 날 그가 소에 장작을 한아름 싣고 서울 장안을 여기저기 돌며 "나무 사려" 하고 외치고 다녔다. 이때 한 청년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지금 돈이 없으니 나무를 외상으로 주고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 집이 우리 집이라며 부인 산기(아이를 나려고 한다는 뜻)가 있는데 나무, 쌀이 모두 떨어졌다고 하소연 하였다. 박주순이 그의 집을 보니 큰 기와집인데 허술하였다. 박주순은 선뜻 승낙을 하고 나무 한 바리를 들여다 주고 쌀 한 말을 사서 주고 돌아왔다. 그 주인은 크게 고맙게 여기고 감사했다.

훗날 알고 보니 그 집의 부모는 정부 고관이었다. 그후 그 청년은 박주순의 공을 잊지 않고 후사하고 가깝게 지냈다. 뿐만아니라 그 청년이 아버지께 말하여 벌응절리 부근에 많은 전답을 사주고 마름(舍音)을 시켰다.

박주순은 신용있게 추수를 해 바쳤다. 그후 그 고관은 다른 동지들에게 말하여 너도나도 토지를 사서 맡기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부근 전부가 자기가 관리하는 땅이 되고 차차 부유해졌다. 그후 지주들은 땅을 팔게되었는데, 이를 사서 농사도 짓고 또는 남에게 소작도 주고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후 박주순은 부평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고 부평부청에도 거금을 내놓고 또한 부평 향교에도 대금을 희사하고 협조하였다. 후에 부평좌수 및 향교 전교 등을 지내고 중심성(衆心城) 축조 때에 큰 논을 희사하고 이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를 시켜 성공하였다. 그의 큰아들은 소사에 사립학교를 지어 경영하고, 둘째 아들은 농림부장관 및 국회의원을 지냈고, 손자도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 93) 오정(吾丁)

옛 부평부에는 오정면이 있었는데 그후 호수가 늘어 이 면을 둘로 나누어 상오정(梧亭 또

는 梧丁), 하오정면으로 나누었다. 오정이란 오정(五丁)이 정확한 표기이다.

옛 오정리(五丁里)란 마을은 구릉(丘陵)으로 작은 산으로 되어 있었다. 이 구릉에서 작은 산맥이 다섯 군데로 뻗어 내려 오정(五丁)이라 했는데, 이것이 오정(吾丁), 오정(梧亭) 등으로 잘못 쓰여진 것이다.

지금의 부평동도 옛날 대정리(大井里)라 쓰였는데, 이도 대정(大丁)이 맞는다. 부평동과 십정동 사이에 북으로 뻗은 산맥이 북동향으로 크게 꺾인데서 대정(大丁)이란 이름이 나온 것이다.

또 십정동(十井洞)도 십정(十丁)이 맞는다. 이 마을에 우물이 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십정(十丁)이 속칭 우물 열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열우물이라 잘못 표기된 것이고, 십정(十丁)이란 계양산맥과 소래산맥이 서로 교차(交叉)됨을 뜻하는 말이 변해 쓰여진 것이다.

### 94) 성황당(城隍堂)을 부수고 화를 받은 남도사(都事)

부평부 오정 땅 원종리(遠宗里) 쇠기고개에는 성황당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말엽 도사 벼슬한 남모가 살고 있었다. 남 도사는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특히 미신을 배격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백년 전부터 있었던 쇠기고개 성황당이 미신이라 여기고 매일 말을 타고 그 성황당을 부숴버렸다. 이때 남도사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큰 아들이 죽고 이어 둘째 아들도 죽었다. 그때 이곳 사람들은 남도사가 성황당을 부숴 벌을 받은 것이라 여기고 마구 활쏘는 것을 충고하였다. 그리고 막내도 죽을 것이라 여겼다. 그때 남 도사가 꿈을 꾸었는데 성황신이 나타나 노하여 말하기를 너의 막내 아들은 명이 길어서 내 힘으로는 잡아갈 수 없다고 하며 너의 힘에 눌려 할 수 없이 시흥땅으로 옮겨간다고 현몽했다.

그후 시흥 땅에 누군가가 새로 성황당을 지었다고 한다.

### 95) 도둑질을 예언한 도둑 두목의 시(詩)

조선조말 외국 세력이 침입해 정국이 어지럽고 또한 동학란으로 나라 정치는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때 한양서울을 비롯해 각 고을마다 이 기회를 타서 도둑떼가 판을 치고 다니니 그 피해가 컸다. 더욱이 부평 땅에는 도둑 소굴이 있었으나 이를 소탕하지 못해 큰 골치꺼리였다. 그 도적떼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며 부자집만 털었다. 이때 부자들은 재물을 감추고 전전긍긍하였다.

도적들은 미리 계획을 짜고 차례차례 이 마을 저 마을에 나타나 총을 드리대고 마구 겁탈하였다. 그때 장대산(將垈山) 밑에 있는 오정면 여월리(吾丁面如月里)에는 부자가 많았

다. 어느날 도둑들은 이런 글을 써 붙였다. 내용은 "장대산(將垈山)에 장대봉하니 장차 봉화(烽火)하리니 여월민(如月民)은 여월리(如月離)하라"는 것인데, '장대산 봉우리에 봉화불이 비치면 여월리에 도적질을 하러 갈 것이니 그리 알고 여월 마을을 떠나라'는 뜻인 것이다.

당시 도적들이 가지고 다니던 총은 그 고을에 있는 군대의 총으로 낮에는 군인들이 가지고 쓰고, 밤에는 그 총을 빌려 도둑질하는데 썼는데,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 96) 주화곶면(注火串面)의 유래

부평부에는 옛날 주화곶면이 있었다. 이 면은 부천군이 생긴 뒤에 상오정면 하오정면과 함께 1914년 4월 1일 통합되어 오정면이 되었다. 주화(注火)란 그 관내에 있는 쇠리(劍里)와 음이 상통되는데, 쇠(鐵)물을 끓여 부었다는 뜻이다. 면 경계에는 시루산(甑山)이 있는데, 산 정기를 받아 장사가 많이 났으므로 산정기를 쇄신시켜 장사를 못나게 하기 위해 옛날 산정상에 쇳물을 끓여부었다 하여 쇠(劍)리라 불리웠고, 나중에 부락이 5개로 나누어 오소리가 되었다.

불에 끓이던 불쇳물을 끌어(注火) 부었다는 뜻과 면 형태가 꼬챙이같이 길게 뻗어 주화곶(注火串)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 97) 대장리(大壯里) 오소년 장사

옛날 부평부 대장리에는 수백년 전부터 해주 오씨(海州吳氏)가 살았다.

1백 50년 전의 일이다. 오씨 가문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불과 5.6세에 어른과 비등한 힘을 갖고 너무도 빨리 성장하였다. 10여세 때일이다. 홍수가 나서 부평 평야에 물이 넘쳐 대장리까지 물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날밤이 할아버지의 제사날인데 제수 흥정을 해오지 못해 그의 아버지는 좌불안석하며 걱정이 대단했다. 이때 이 소년이 부평읍엘 가서 제수 흥정을 해오겠다고 하였다. 그의 부모는 이 물난리에 어떻게 거기를 갔다올 수가 있겠느냐 하며 걱정을 하였다. 그때 그의 부모들은 어린 것이 어찌하려나 하고 돈을 내주었다. 그러자 그 소년장사는 뒷산 감나무에 나막신을 걸어 놓고 행방을 감추었다. 잠시 후 이 소년 장사는 어디로°어떻게 갔다 왔는지 제수 흥정을 해가지고 들어왔다. 그리하여 무사히 조부의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그후 소년장사가 났다고 소문이 널리 퍼졌다.

옛날에는 장사가 나면 나라에 반역할까 두려워하여 그의 부모까지도 벌을 주는 일이 있어 소년장사의 부모는 크게 걱정하였다. 그리고 겨드랑을 보니 과연 양편에 날개가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라에서 알기 전에 그 소년장사를 죽여버렸다. 그때 용마가 나타나 그

의 집을 돌다가 그 장사가 운명하니 그 용마도 자결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 장사의 시체는 산에 묻어 주고 용마의 시체는 동리 앞 돌다리 옆에 묻어 주었다고 전한다. 이를 말무덤이라 하고 소년 장사의 산소를 장사 무덤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후 그의 부모는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영혼을 위안하기 위해 영혼을 자기집에 모셔놓고 제를 지내 주었다. 이 영혼은 이 집이 인천으로 이사를 할 때(약 50년전) 불살라 없앴다고 전한다. 마을 이름 대장리도 이장사가 태어났음을 뜻하는 이름이라 전한다.

### 98) 약대(若大)

옛 부평부 오정면에는 약대리(若大里)란 마을이 있다. 약대란 낙타(駱駝)를 뜻한다.

낙타는 주로 사막지방에서 사육하는 짐승으로 고려태조(高麗太祖) 25년(942년) 10월에는 글안나라에서 낙타를 50필을 보내와 태조가 굶겨 죽인 일이 있다.

그후에도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에 낙타를 들여다 물건 운반에 쓰이고 사육한 일이 있다. 어느 때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도 이 약대 마을에서 낙타를 사육하여 마을 이름을 약대로 불리게 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 99) 남장군(南將軍)의 오정작리 전투(吾丁鵲里戰鬪)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왜군이 수도서울을 점령하고, 두 주력 부대는 평안도 함경도 방면으로 북진하고 총본부는 한양에 머무르고 외각부대는 한강을 차단하고 노량진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 부대는 임진년 8월 19일경 한강 서쪽 양천 금천 부평 인천 김포등지를 공격하고 노략을 일삼았다. 적들이 노량진을 출발 오류동을 지나 오정방면으로 통과 하다가 의외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남장군이 인솔한 우리 군대는 계곡에 은신하였다가 불시에 습격을 가해 적에게 큰 피해는 주었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말았다. 아직도 작리 산골에는 그때 전사한 일본군의 고분이 깔려 있다.

그런데 남장군의 신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적들은 곧바로 양천을 점령하고 부평 방면으로 침입해서 방축동 방면으로 해서 고성으로 쳐들어 가니 당시 부평부사 김시회(金時晦)는 고성을 지키다가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을 치니 부평읍은 무혈 점령되고 말았으며, 이어 인천 김포 등을 점령하고 노략을 일삼다가 복귀하였다고 전한다.

### 100) 보물(寶物) 천도 씨앗의 분실

이 혁진은 부평 이씨로 명문 후예라서 대대로 한양에서 살았다. 그의 선조가 중국 사신으로 갔다가 천도(天桃)씨 즉 천도씨 가공품인 귀중품 한개를 대를 이어 가보로 보관해 왔다. 좀

젊을 때라서 무식한 그는 그 물건이 귀중품인 것을 모르고 일정 때 일본인 친지에게 선사하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천도씨는 우리나라에 둘 밖에 없는 국보급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가 사는 곳은 옛날에는 부평땅이었으나, 지금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으로 변경되었다.

## 3. 금기언(禁忌言)

금기언은 금지하거나 꺼리는 말을 뜻한다. 금기는 신성시되거나 추악시되는 사람, 동물, 장소, 행위, 언어에 관하여 접근하거나 만지거나 하는 행위를 금하고 꺼리는 것을 뜻하므로 금기언은 그러한 '금기의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구전되어 온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금기언은 정신적으로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아 직접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해 왔다. 금기언이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 생활을 지배해 올 수 있었던 까닭은 금기언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금기언 속에는 우리 민족의 믿음, 희망, 교훈, 공경, 불만 등 심리적 특징이 스며 있음을 확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기언을 조사 연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한 지름길인 것이다.

필자는 1982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일원을 다니면서 금기언을 수집해 왔는데, 금기언을 수집해 놓고 보면, 금기언과 비슷하나 금기언 아닌 것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옴이 특히 더 가려우면 비가 온다.
- 죽은 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오면 송장에서 피가 난다.
- 이빨이 빠드러진 사람이 수박을 잘 먹는다.
- 변소에 빠지면 밀떡을 부쳐 먹는다.

이런 것들이 금기언이 아니라면, 금기언을 골라 내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이 그 기준이다.

첫째, 금지하거나 기휘(忌諱)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구전되어 온 것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부평의 금기언을 2차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일자와 장소와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일자 : 1994. 8. 17
조사 지역 :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
제 보 자 : 조준옥(남, 83세, 8대째 거주)
김용선(남, 80세, 5대째 거주)
〈2차〉
조사 일자 : 1994. 11. 15
조사 지역 : 인천직할시 북구 방축1동
제 보 자 : 남영자(여, 70세, 2대 이상 거주)

1차에서 조사지역을 계산동으로 잡은 까닭은 계산동이 옛적부터 부평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었다.[1] 부평은 고구려 때 主夫吐郡이라 하였고, 신라 때는 長堤郡이라 하였으며, 고려 때는 樹州道, 安南府, 桂陽府, 吉州牧으로 바뀌어 불리다가 충선왕(1310) 때 富平府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부평이라는 명칭의 처음이다. 조선말까지 부평 도호부가 이곳에 있었으며, 도호부 청사가 이곳 구읍에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구읍은 삼국시대부터 계속 부평 행정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1차 조사지역으로 부평의 구읍 지역인 계산동을 택하게 된 것이다.

2차 조사지역으로 방축리를 택했는데, 그 까닭은 방축리가 계양산 북쪽 산록에 자리하고 있는 계산동과는 5리 상거하고 있는 데다가, 과거 1906년(광무 10년)에는 부평군 동면이었고 1989년부터는 김포군 계양면에서 인천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었으므로 함께 조사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되었던 것이다.

조사방법으로는 집집이 방문을 하여 대대로 오래 산 분들을 수소문하고 직접 면담하여 조사하였다. 이미 10여차례 조사한 바 있는 경기도 일대의 금기언을 바탕으로 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내었다. 기존 조사의 범위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아무래도 새로운 금기언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얼마간의 제한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제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은 인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3학년 학생인 조영찬 군과 지옥윤 양이 수고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토의하고 불확실한 것을 정확히 확정하며, 금기언 아닌 것을 골라내고, 유사한 것을 옳게 통합하는 작업을 거쳤다. 표기는 가급적 제보자의 발음을 중시하였다.

다음은 조사된 금기언들이다. 편의상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1) 어진내, 자료집 2, 인천향토교육 연3회/조찬석, "부평지역의 행정구역 변천과 각동의 유래", 『기전문화연구』, 제2집,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1992/조기준, 『부평사연구』, 백암문집 간행위원회, 1994.

## 1) 부평의 금기언들

(1) 혼례

① 손[2]이 있는 날에는 결혼 날짜를 잡지 않는다.
② 결혼 날짜를 잡으면 조사(吊事)에 가지 않는다.
③ 집안에 초상이 나면, 결혼 날짜를 뒤로 미룬다.
④ 결혼 날짜를 잡은 집끼리는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서로 사돈이 될 집안끼리는 상관없고, 결혼 날짜를 잡은 남남의 집안끼리는 왕래하지 않는다는 뜻임).
⑤ 혼례 날짜가 같은 달일 때, 나중 혼례를 치를 집안에서는 먼저 혼례를 치르는 집의 잔치에 가지 않는다(먼저 혼례를 치른 집에서는 나중 혼례에 갈 수 있음).
⑥ 혼례 날짜를 잡으면 집안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지 않는다(듬부정을 탄다).
⑦ 혼례 날짜를 잡으면 집안 사람들은 출산한 집에 가지 않는다(피부정을 탄다).
⑧ 혼례 날짜를 받은 후에는 상주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⑨ 혼례 날짜를 받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다른 집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
⑩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혼인을 하지 않는다.
⑪ 혼수감 바느질은 팔자 좋은 사람이 한다(아들 낳아 잘 기르는 사람이 좋고, 과부나 팔자 나쁜 사람은 안 된다).
⑫ 혼수감을 함에 넣을 때는 가족 중에 복이 많고 해로한 사람이 한다.
⑬ 함진애비는 첫아들 낳은 사람이어야 한다.
⑭ 함진애비는 이웃에 복이 많은 사람이 한다.
⑮ 함진애비는 친척이 하지 않는다.
⑯ 사주가 들어오는 날에는 외부에서 온 손님을 꺼린다.

실례 : 사주가 들어온 날에 외부에서 온 손님을 친척집에 모셨다가, 사주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집으로 모셨다. —김용선씨 증언

⑰ 함진애비가 신부집에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은 함진애비 얼굴에 솥검정을 칠한다.
⑱ 사주가 들어올 때 그릇이 깨지면 좋지 않다.
⑲ 함은 아버지가 받는다.
⑳ 가마가 지나갈 때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면 안 좋다.
㉑ 가마가 집에 들어올 때 여자가 가로지르면 나쁘다.

---

2) 손 : 날수를 따라 네 방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귀신, 음력 하루와 이틀에는 동쪽, 사흘과 나흘에는 남쪽, 닷새와 엿새에는 서쪽, 이레와 여드레에는 북쪽에 있고, 아흐레와 열흘에는 아무방위에도 없다고 함.

㉒ 가마가 나올 때 상여가 지나가면 상여를 피해서 간다.

㉓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에 거의 왔을 때, 신랑에게 재를 뿌린다.(짚으로 재꾸레미를 만들어 뿌린다.)

실례 : 내가 신부집에 갔을 때 재꾸러미 세례를 받았다.-김용성씨 증언

㉔ 재꾸러미는 총각이 던지지 않는다(장가를 늦게 가기 때문).

㉕ 혼례 때 상제는 가지 않는다(상가에 다녀온 사람은 괜찮다).

㉖ 혼례 날 초상 장사 치른 사람, 아기 낳은 사람, 부인과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등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좋지 않다.

㉗ 혼례 때 동네에 초상이 나면 좋지 않다.

㉘ 혼례 때 그릇이 깨지면 나쁘다.

㉙ 초야시 촛불은 손으로 끈다(입으로 불어 끄면 복이 날라간다).

㉚ 초야에 동네 사람들이 신방의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본다(잡귀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㉛ 혼례날 비가 오면 좋지 않다.

실례 : 동네 사람이 4월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날 비가 오고 초상이 났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홀아비가 되었다. -남영자씨 증언

㉜ 혼례날 눈이 오면 좋지 않다.

실례 : 동네 사람이 겨울에 시집오는 날 눈이 가마꾼의 허벅지까지 쌓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과부가 되었다. -남영자씨 증언

㉝ 혼례날 날씨가 흐리면 좋지 않다.

㉞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에 들어갈 때 신랑을 향해 콩을 던진다(마귀를 쫓기 위해서).

㉟ 색시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에게 주당[3]이 들면 시어머니가 피한다(피하지 않으면 주당살을 맞아 죽는다).

㊱ 색시가 들어올 때 주당이 부엌에 들면 사람은 모두 부엌 밖으로 나간다.

㊲ 신부가 신랑집에 처음 들어갈 때 안방으로 들어간다.

㊳ 신부가 방으로 들어갈 때 소당뚜껑을 밟고 들어간다.

㊴ 삼살방[4]이 끼면 결혼 날짜를 잡지 않는다.

(2) 임신

① 임신부는 혼솔[5]에 앉지 않는다.

---

3) 주당 : 周堂, 周堂煞이라고도 함. 혼인 때 꺼려야 한다는 귀신.

4) 삼살방 : 三煞方, 滅煞, 劫煞, 災煞이 끼어 불길한 方位.

5) 이음새.

② 임신부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다.
③ 임신부는 말고삐를 넘어가면 안 된다(12달만에 아이를 낳는다).
④ 임신부는 초상집에 가지 않는다.
⑤ 아이를 가졌을 때 방 구들을 뜯으면 언챙이가 나온다.
⑥ 임신부는 방고래를 넘지 않는다.
⑦ 아이를 가졌을 때 짐승을 잡지 않는다.
⑧ 임신부는 비뚤어진 음식은 먹지 않는다(모양이 반듯한 음식만 먹는다).
⑨ 임신부는 찌그러진 과일을 먹지 않는다.
⑩ 임신부는 이그러진 그릇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⑪ 임신부는 남이 먹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⑫ 임신부는 초상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⑬ 임신부는 고양이나 쥐가 먹던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⑭ 임신부는 닭뼈, 오리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
실례 : 임신부가 닭뼈, 힘줄을 먹어서 아이의 엄지 손톱에 무가 나서 손가락이 가늘고 짧게 되었다. -남영자씨 증언
⑮ 임신부가 상어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살이 껄껄해 진다.
⑯ 임신부가 낙지나 홍어를 먹으면 뼈없는 아이를 낳는다(오징어는 상관없다).

(3) 해산

① 해산 후 삼칠일 안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살[6]이 끼므로).
② 해산 후 삼칠이 안에 빨래를 삶지 않는다.
③ 해산 후 동네에서도 잿물빨래를 하지 않는다.
실례 : 동생이 6월초에 태어났는데, 이웃집에서 양잿물에 빨래를 삶았더니 아기의 온몸이 불에 덴 것처럼 부르텄다. -남영자씨 증언
④ 해산 후 삼칠일 안에 풀을 쑤면, 아이의 이미에 땀띠같은 것이 솟는다.
⑤ 해산 후 삼칠일 안에 볶음질을 하지 않는다.
⑥ 해산 후 삼칠일 안에 못을 박지 않는다(눈에 삼이 선다).
실례 : 남편의 친구가 아이를 낳은 후 못을 박았는데, 아이의 한쪽 눈이 애꾸가 됐다. -남영자씨 증언
⑦ 해산 후 삼칠일 안에 기름을 짜지 않는다.
⑧ 해산 후 동네에서도 닭이나 개를 잡지 않는다.

---

6) 살 : 煞,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친다는 독하고 모진 기운.

⑨ 해산 후 삼칠일 안에 상주가 들어오면, 산모의 젖이 끊어진다.

실례 : 집사람이 해산후 일주일이 되던날 상주가 들어왔는데 산모의 젖이 끊어졌다. 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 놓고 정성을 들였더니 젖이 다시 나왔다. -김용선씨 증언

⑩ 해산 후 경도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다(경도한 사람에게 좋지 않다).

⑪ 해산 후 생고기는 집에 들이지 않는다(피부정을 탄다).

⑫ 해산 후 산모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⑬ 해산 후 산모는 몸을 덥게 해야 한다.

⑭ 인줄[7]은 왼새끼를 꼰다(잡귀를 물리친다).

⑮ 해산후 산모는 초상집에 가지 않는다.

⑯ 해산 후 산모는 초상집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⑰ 해산 후 산모가 김치, 깍두기 같은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이가 상한다.

⑱ 해산 후 산모가 두부를 먹으면 이가 빠진다.

⑲ 해산 후 산모는 무우를 먹지 않는다(이가 상한다).

⑳ 해산 후 삼칠일 안에 닭고기나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쇠고기는 먹어도 된다).

(4) 육아

① 남자는 밥먹을 때 밥상의 모서리에 앉지 못하게 한다.

② 아이가 밥 먹을 때 숟가락을 흔들거나 손발을 까불면 복이 나간다.

③ 아이가 문지방에 올라서거나 걸터앉거나 베지 못하게 한다.

④ 아이가 다듬잇돌을 베고 자거나 걸터앉으면 좋지 않다(풍이 걸리거나 입이 비뚤어진다).

⑤ 아이들이 생쌀을 먹지 못하게 한다.

⑥ 아이에게 김치 대가리를 먹이지 않는다.

⑦ 아이를 안았을 때 무겁다고 하지 않는다(아이가 마른다).

⑧ 밤에 휘파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뱀이 나온다).

⑨ 웃니가 빠지면 안채 지붕에 던지고, 아랫니가 빠지면 바깥 행랑채 지붕에 던진다.

⑩ 숟가락을 멀리 잡으면 장가를 멀리 간다.

⑪ 아이가 마마를 할 때 못을 박지 않는다(아이의 얼굴이 얽는다).

⑫ 아이가 마마를 할 때 깨를 볶지 않는다.

⑬ 아이가 마마를 할 때 빨래를 삶지 않는다.

실례 : 동네에 60세 넘는 사람이 마마를 앓는데, 며느리가 빨래를 삶았더더니, 얼굴을 쥐어뜯고 괴로워하였으므로 며느리가 길마를 엎어놓고 소모양 빌었더니 나았다. -남영

---

7) 인줄 : 금줄,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을 꺼리어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간에 건너 매는 새끼줄.

자씨 증언

⑭ 아이가 마마를 하면 나쁜 소리를 하지 않고, 매사에 삼간다.
⑮ 아이가 마마나 홍역을 하면, 콩나물이나 고기를 먹이지 않는다(먹이면 다시 앓는다).
⑯ 마마나 홍역에 걸리면 이웃집에 가지 않는다.
⑰ 아이가 마마를 하면 초상집 출입을 하지 않는다.
⑱ 아이를 데리고 외갓집에 처음 갈 때 아이의 콧잔등에 솥검정을 칠한다.

(5) 식생활

① 밥상 위에 바가지를 올려놓지 않는다.
② 김치 대가리는 먹지 않고 버린다.
③ 밥 먹을 때 상위에 그릇을 포개 놓지 않는다.
④ 밥을 먹고 난 빈 그릇에 물을 부어 놓는다(식복이 돌아온다).
⑤ 장맛이 좋아야 집안이 잘 된다.
⑥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⑦ 장을 담글 때에는 몸가짐을 깨끗이 한다.
⑧ 장을 담근 후 장독대 위에다 고추와 숯을 매단다.
⑨ 입동날에는 김장을 하지 않는다(입동날이 배추 환갑이므로 목숨을 끊지 않기 위해서).
⑩ 입동날에는 무우, 배추를 만지지 않는다.
⑪ 동지 때 팥죽을 쑤어 먹던 집은 해마다 쑤어 먹어야 하고, 팥죽을 쑤어 먹지 않던 집에서는 계속 쑤지 말아야 한다.

(6) 주생활

① 집 지을 때 주인의 운수를 보아야 한다.
② 집 지을 때 대문을 북쪽으로 내지 않는다(남자가 바람을 피운다).
③ 집을 지을 때 변소의 위치를 함부로 잡지 않는다.
④ 변소를 함부로 고치지 않는다.
⑤ 굴뚝이나 방 구들을 함부로 고치지 않는다(손없는 날을 받아 고친다).
⑥ 잠을 잘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지 않는다.
⑦ 잠을 잘 때 거꾸로 자지 않는다(부엌쪽에 머리를 두지 않는다).
⑧ 이사간 첫날에는 질구공이를 베고 거꾸로 잔다.
⑨ 손이 있는 날 못을 박으면 눈에 삼이 선다.

(7) 사람

① 남자가 가는 길을 여자가 가로지르면 재수가 없다.
②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③ 여자가 그릇을 깨면 재수가 없다.
④ 여자가 띠가 세면 남자가 먼저 죽는다.
⑤ 궁합[8]을 볼 때 호랑이띠 여자는 꺼린다.
⑥ 말띠(병오생)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⑦ 궁합을 볼 때 남자 띠가 여자 띠보다 높아야 한다.
⑧ 여자가 문지방에 앉으면 재수 없다.
⑨ 왼손잡이는 잘살지 못한다.
⑩ 왼손잡이가 제사상을 차리면 귀신이 응감을 하지 않는다.

(8) 동물

① 개가 땅을 파면 재수가 없다.
② 개가 땅을 파면 집안이 망한다.
③ 개가 풀을 먹으면 나쁘다(바람이 분다).
④ 개가 지붕에 올라가면 나쁘다.
⑤ 개를 오래 기르면 도섭한다.
⑥ 개나 돼지가 새끼를 날 때 주인이 보면 부정탄다.
⑦ 고양이는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원수를 갚는다).
⑧ 고양이가 아궁이에 들어가면 좋지 않다.
⑨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가면 좋지 않다.
⑩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⑪ 닭이 저녁에 울면 불길하다.
⑫ 초상집에 갔다온 사람은 개가 새끼 낳는 것을 보지 않는다(새끼를 물어 죽인다).

실례 : 동내에서 초상집에 갔다온 사람이 개가 새끼 낳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개가 5마리 새끼중 3마리를 물어 죽이는 것을 내가 보았다. —김용선씨 증언

---

8) 궁합 : 서로 상극인 띠는 다음과 같다.
- 쥐띠와 양띠(鼠忌羊頭角)
- 소띠와 말띠(牛嗔馬不耕)
- 호랑이띠와 닭띠(虎憎鷄觜短)
- 토끼띠와 원숭이띠(兎怨猴不平)
- 용띠와 돼지띠(龍嫌猪面黑)
- 뱀띠와 개띠(蛇驚犬吠聲)

⑬ 밤거미가 내려오면 근심이 생긴다.
⑭ 왕거미가 거미줄을 치면 동네가 좋지 않다.
⑮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⑯ 까마귀가 울면 초상이 난다.
⑰ 여우가 울면 동네가 좋지 않다.
⑱ 여우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⑲ 업이 눈에 띄면 좋지 않다.
⑳ 업을 죽이면 우환이 생긴다.

실례 : 우리집에 봄마다 구렁이가 추녀 밑의 새를 잡아 먹으러 나왔는데, 내 어머니께서 꼬챙이로 구렁이를 죽였다.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우환이 겹쳤다. -조준옥씨 증언

㉑ 집임자(뱀)가 눈에 띄면 언짢다.
㉒ 개·닭을 오래 기르면 도섭한다.
㉓ 명마구리[9]가 집을 지으면 언짢다.
㉔ 누에 치는 집에서는 잿물 빨래를 하지 않는다.
㉕ 누에 치는 곳에 상주나 초상집에 갔다온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탄다.

(9) 생활일반

① 해가 지면 불씨를 내주지 않는다.
② 해가 지면 돈거래를 하지 않는다.
③ 해가 떨어지면 쌀을 꾸어주지 않고 아무것이라도 내가지 않는다.
④ 동네의 큰 나무를 함부로 베면, 동티[10]가 난다.
⑤ 동네의 고목나무를 베면 살을 맞는다.
⑥ 밤에 휘파람을 불면 재수가 없다.
⑦ 비오는 날 머리를 감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비가 온다.
⑧ 잔칫날이나 생일날 그릇이 깨지면 재수가 없다.
⑨ 문지방이나 다듬잇돌 위에 걸터 앉으면, 궁둥이에 부스럼이 나고, 베고 누우면 입이 비뚤어진다.
⑩ 친척끼리는 같은 달 같은 날에 경사 날을 잡지 않는다.

---

9) 명마구리 : 칼새, 제비와 비슷하나 몸이 좀더 크고, 집은 긴 터널형으로 짓는다.
10) 동티 : 건드려서는 안 될 땅을 파거나 돌을 다치거나 나무를 베었을 때, 이것을 맡은 지신이 성을 내어 받게 된다는 재앙.

⑪ 편찮으신 어른께는 절을 올리지 않는다(편찮으신 분이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
⑫ 고개를 넘어갈 때에는 돌을 얹어 놓고 간다.
⑬ 보름날과 그믐날 밤에는 신발을 안으로 들여놓는다(귀신이 신발을 가져가므로).
⑭ 정월 귀신날에는 신발을 마루 위로 올려 놓는다.
⑮ 정월 귀신날에는 자정 전에 잠을 자지 않는다(귀신이 붙는다. 눈썹이 센다).
⑯ 남의 집에서 강아지를 가지고 올 때는 수저나 밥그릇 등 쇠붙이를 주고 가져온다.
⑰ 신체를 모신 방에 종자를 두면 안 된다.
⑱ 씨를 뿌릴 때 날을 택해서 뿌린다.
⑲ 조금 때 씨앗을 뿌리면 언짱다.
⑳ 볍씨를 담글 때 날씨를 본다.

(10) 상례

① 초상이 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② 초상이 나면 결혼 날짜를 연기한다.
③ 초상이 나면 머리 빗질을 하지 않는다.
④ 초상이 나면 빨래를 하지 않는다.
⑤ 초상이 나면 머리를 감지 않는다.
⑥ 초상이 나면 상주는 밥을 먹지 않는다(이웃에서 팥죽을 쑤어다 준다).
⑦ 초상이 나면 밥을 부엌에서 하지 않고 안 마당에서 하거나 이웃에서 해 온다.
⑧ 초상이 나면 고양이를 집에 두지 않는다(다른 집에 매어 놓는다).
⑨ 고양이가 굴뚝으로 드나들면 신체가 일어선다.
실례 :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고양이를 방에 가두었다.— 남영자씨 증언
⑩ 신체를 모신 집에서 고양이가 지붕을 넘어가면 신체가 일어난다.
⑪ 신체를 모신 방 근처에서 고양이가 울면 신체가 일어난다.
⑫ 신체를 모신 집에서 고양이가 아궁이에 들어가면 신체가 일어난다.
⑬ 객사한 신체는 집에 들이지 않는다(대문 밖이나 사랑채에 내놓는다).
⑭ 신체를 모신 방은 문을 열어 놓는다.
⑮ 신체를 모신 방에는 불을 때지 않는다.
⑯ 신체를 모신 방은 비워놓지 않는다.
⑰ 신체를 모신 방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⑱ 신체를 모신 방에서 냄새난다고 하지 않는다(신체가 대부등처럼 붓는다).
⑲ 신체를 모신 방에서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⑳ 신체를 모신 방에서 피난다, 썩는다와 같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㉑ 신체는 머리를 북쪽으로 모신다.
㉒ 신체의 머리는 손 없는 쪽으로 둔다.
㉓ 신체는 안방 웃목에 모시고 병풍을 친다.
㉔ 상주는 신체 모신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
㉕ 상주는 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채반에 올려 놓고 먹는다.
㉖ 염을 할 때 염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
㉗ 염을 할 때 신체 위로 칼이나 가위나 끈 등을 넘기지 않는다.
㉘ 염을 할 때 살이 낀 나이의 사람은 보지 않는다.
㉙ 염을 할 때 7매를 묶는다.
㉚ 신체 앞에서 반가운 사람이 울면 신체에서 피가 나온다.
㉛ 관이 방에서 나갈 때, 마루 아래 바가지를 올려놓고 관을 내가는 첫번째 사람이 발로 바가지를 깨뜨리고 나간다.
㉜ 신체가 나갈 때 머리부터 나간다.
㉝ 상여가 나갈 때 복판으로 나가야 한다(동네 큰 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금하는 곳도 있다).
㉞ 상여가 나갈 때 우물 곁으로 가지 않는다.
㉟ 상여가 우물 곁으로 갈 때는 우물을 멍석으로 덮는다.
㊱ 상여가 나갈 때 대문을 걸어닫는다.
㊲ 상여는 굴뚝 뒤로 가지 않는다.
㊳ 상여는 주산을 넘어가지 않는다(동네에 초상이 난다).
㊴ 사람이 상여 앞을 가로질러 가면 안 된다.
㊵ 상여를 멘 사람은 무겁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그 사람만 더 무거워져서 허리병에 걸린다).
㊶ 나이어린 사람이 죽으면 팥죽을 쑤지 않는다.
㊷ 상주는 3년 동안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귀신에게 벌을 받는다).
㊸ 상주는 3년 동안 고춧가루 넣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㊹ 하관시 보아서는 안 될 사람은 맏상제라도 그 자리를 피한다.[11]
㊺ 산소를 잘 모셔야 집안이 편안하다. 산소를 쓸 때는 석비레를 사용한다.
㊻ 죽은 사람의 옷은 태운다.

---

11) 피상 : 避喪인듯. 상례 특히 시신을 매장할 때 꺼리는 대상.

㊼ 초상집에 갔다오면 뒷간에서 이엉을 열십자로 놓고 불을 놓은 다음, 그것을 넘어오게 한다.
㊽ 상제는 외출할 때 방갓을 쓴다.

(11) 제례

① 집안의 어른이 편찮으실 때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아이가 아플 경우는 지낸다).
②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놓지 않는다.
③ 제사상에는 오징어나 복아지(복어)를 놓지 않는다.
④ 제사 음식에는 양념을 하지 않는다(소로 한다).
⑤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된다(귀신이 응감하지 않는다).
⑥ 삼신제를 올리기 한 달 전부터 모든 음식을 가린다.
⑦ 경도가 있는 사람은 산신제에 참여하지 못한다.

(12) 꿈

① 꿈에 보이는 아이나 여자는 사(邪) 덩어리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② 꿈에 소를 보면 나쁘다(소가 조상이다).
③ 꿈에 웃니가 빠지면, 부모가 죽고, 아랫니가 빠지면, 자식이 죽는다.
④ 꿈에 맑은 물을 보면 좋고, 흐린 물을 보면 나쁘다.
⑤ 꿈에 불이 꺼진 것을 보면 나쁘다.
⑥ 꿈에 먹으면 감기를 앓는다.
⑦ 꿈에 신발을 잃어버리면 언짢다(한짝을 잃어버리면 더 나쁘다).
⑧ 꿈에 죽는 것을 보면 나쁘다.
⑨ 꿈에 방고래를 고치면 좋지 않다.
⑩ 태몽에 구렁이를 죽이면 나쁘다(아이가 죽는다).

이상이 조사된 금기언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보거나 들은 금기언을 따로 조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2) 제보자가 확인한 실례들

(1) 혼례

〈사례 1〉

○ 금기언 : 사주가 들어오는 날에는 외부에서 온 손님을 꺼린다.
○ 실 례 : 사주가 들어온 날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었는데, 집에 모시지 않고 친척집에 모셨

다가 사주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 집으로 모시고 들어온 일이 있다.

○ 제보자 : 김용선

〈사례 2〉

○ 금기언 :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에 거의 왔을 때, 신랑에게 재를 뿌린다(짚꾸레미를 만들어 뿌린다.)

○ 실 례 : 내가 장가들러 신부집에 갔을 때 재꾸러미 세례를 받았다.

○ 제보자 : 김용선

〈사례 3〉

○ 금기언 : 혼례날 비가 오면 좋지 않다.

○ 실 례 : 동네 사람이 4월에 장가를 들었다. 그날 비가 오고 초상이 났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홀아비가 되었다.

○ 제보자 : 남영자

〈사례 4〉

○ 금기언 : 혼례날 눈이 오면 좋지 않다.

○ 실 례 : 동네 사람이 겨울에 시집을 왔는데, 그날 눈이 가마꾼의 허벅지까지 쌓였다. 그 사람이 나중에 과부가 되었다.

○ 제보자 : 남영자

(2) 임신

〈사례 1〉

○ 금기언 : 임신부는 닭뼈, 오리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

○ 실 례 : 임신부가 닭뼈, 힘줄을 먹어서 아이의 엄지손톱에 무가 나서 손가락이 가늘고 짧게 되었다.

○ 제보자 : 남영자

〈사례 2〉

○ 금기언 : 임신부는 잉어를 먹으면 안 된다.

○ 실 례 : 나의 재종이 시집가서 잉어를 먹었는데, 아이의 발이 양쪽으로 비틀어져 태어났다.

○ 제보자 : 조준옥

(3) 해산

〈사례 1〉

○ 금기언 : 해산 후 동네에서 잿물빨래를 하지 않는다.

○ 실 례 : 동생이 6월초에 태어났는데, 이웃집에서 양잿물에 빨래를 삶아, 아기의 온몸이 부어 댄 것처럼 부르텄다.

○ 제보자 : 남영자

〈사례 2〉

○ 금기언 : 해산 후 삼칠일 안에 못을 박지 않는다.

○ 실 례 : 남편의 친구가 아이를 낳은 후 못을 박았는데, 아이의 한쪽 눈이 애꾸가 되었다.

○ 제보자 : 남영자

〈사례 3〉

○ 금기언 : 해산 후 삼칠일 안에 상주가 들어오면 산모의 젖이 끊어진다.

○ 실 례 : 집사람이 해산 후 일주일이 되던 날 상주가 들어왔는데, 산모의 젖이 끊어졌다(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 놓고 정성을 들였더니 젖이 다시 나왔다).

○ 제보자 : 김용선

(4) 육아

〈사례 1〉

○ 금기언 : 아이가 마마를 할 때 빨래를 삶지 않는다.

○ 실 례 : 동내에서 60세 넘은 사람이 마마를 앓는데, 며느리가 빨래를 삶았더니, 얼굴을 쥐어뜯고 괴로워하였다(며느리가 길마를 엎어놓고 소모양 빚었더니 나았다).

○ 제보자 : 남영자

(5) 동물

〈사례 1〉

○ 금기언 : 초상집에 갔다온 사람은 개가 새끼 낳는 것을 보지 않는다(새끼를 물어 죽인다).

○ 실 례 : 동네에서 초상집에 갔다온 사람이 개가 새끼 낳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개가 다섯 마리 새끼 중 세 마리를 물어 죽였다. 내가 직접 보았다.

○ 제보자 : 김용선

〈사례 2〉

○ 금기언 : 업을 죽이면 우환이 생긴다.

○ 실 례 : 우리집에 봄마다 구렁이가 추녀밑의 새를 잡아먹으러 나왔는데, 내 어머니께서 꼬챙이로 구렁이를 죽였다. 그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우환이 겹쳤다.

○ 제보자 : 조준옥

(6) 상례

〈사례 1〉

○ 금기언 : 고양이가 굴뚝으로 드나들면 신체가 일어난다.

○ 실 례 :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고양이를 방에 가두었다.

○ 제보자 : 남영자

다른 곳에서는 채집이 안 되고, 이곳 부평에서만 채집된 금기언은 다음과 같다.

### 3) 부평에서만 채집된 금기언들

(1) 혼례

○ "손 있는 날에는 결혼 날자를 잡지 않는다."

'손'은 동남서북으로 돌아가며 드는 귀신인데, 하루부터 여드레까지는 결혼 날짜를 잡지 말라는 뜻인지, 신랑, 신부의 집 방향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 "혼례 날짜가 같은 날일 때, 나중 혼례를 치를 집안에서는 먼저 혼례를 치르는 집의 잔치에 가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혼례 날짜를 잡으면, 집안 사람들은 출산한 집에 가지 않는다."

결혼식에나 장례식에 가지 않는 금기언은 다른 지역에서도 채집되었으나 출산한 집을 꺼리는 것은 처음 채집되었다.

○ "혼수감을 함에 넣을 때에는 가족 중 복이 많고 해로한 사람이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혼수는 팔자 좋은 사람이 한다."는 정도였는데, 부평에서는 혼수감을 함에 넣는 일마저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았으니 혼례의 모든 과정에 매우 신중을 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함진애비는 친척이 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팔자 좋은 사람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함을 아비지가 받는다"와 같은 금기언도 채집되었는데, 이 역시 구체적 표현의 예이다.

○ "사주가 들어오는 날에는 외부에서 온 손님을 꺼린다.", "사주가 들어 올 때 그릇이 깨지면 좋지 않다."와 같은 금기언도 처음 채집되었고, 이 역시 혼례 전과정에서 매우 삼갔음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 "혼례날 눈이 오면 좋지 않다"

비가 오면 좋지 않다는 금기언은 여러 곳에서 채집되었는데, 눈을 꺼리는 것은 이 곳에서

처음 채집되었다.

(2) 임신

○ "임신부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다."

○ "임신부는 남이 먹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

(3) 해산

○ "해산 후 경도한 사람은 돌어오지 않는다."

○ "해산후 생고기는 집에 들이지 않는다(피부정을 탄다)."

다른 곳에서는 "해산후 3일 안에 개, 돼지, 닭 등을 잡지 못한다."라는 금기언이 채집되었다.

○ "해산 후 산모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는 "해산하면 3일 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4) 육아

○ "남자는 밥먹을 때 밥상 모서리에 앉지 못하게 한다."

다른 곳에서는 "밥상의 모서리에는 앉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남자일 것으로 보여진다. 부평 금기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아이들이 생쌀을 먹지 못하게 한다."

○ "아이가 마마나 홍역을 하면 콩나물이나 고기를 먹이지 않는다."(먹이면 다시 앓는다.)

(5) 식생활

○ "동지 때 팥죽을 쑤어 먹던 집은 해마다 쑤어 먹어야 하고, 쑤어 먹지 않던 집에서는 계속 쑤지 말아야 한다."

(6) 동물

○ "누에 치는 집에서는 잿물 빨래를 하지 않는다."

(7) 생활일반

○ "남의 집에서 강아지를 가지고 올 때는 수저나 밥그릇 등 쇠붙이를 주고 가져 온다."

(8) 상례

○ "신체를 모신 방 근처에서 고양이가 울면 신체가 일어난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양이가 아궁이에 들어가거나 지붕 위로 올라 가면 신체가 일어 난다고 했는데, 부평에서는 그런 것도 있으면서 우는 소리가 나기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금기가 좀더 엄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 "상여가 나갈 때 대문을 걸어 닫는다."
○ "나이 어린 사람이 죽으면 팥죽을 쑤지 않는다."
○ "초상집에 갔다오면, 뒷간에서 이엉을 열십자로 놓고 불을 놓은 다음, 이것을 넘어오게 한다."

(9) 제례
○ "산신제를 올리기 한 달 전부터 모든 음식을 가린다."

### 4) 부평 금기언의 특징

부평에서만 채집된 금기언들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정과정을 다 무겁게 여겨 조심하고 삼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부평의 금기언과 제보자가 확인한 시례들, 그리고 부평에서만 채집된 금기언을 제시하였거니와 부평 금기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집된 금기언이 수에 따라 많은 것부터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상례 : 49
- 혼례 : 39
- 임신과 해산 : 37
- 동물 : 25
- 식생활 : 11
- 사람 : 10
- 주생활 : 9

이 수치가 부평 금기언의 전체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 채집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은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시하고 조심했던 것은 아이를 낳는 일과 결혼시키는 일,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신부는 음식을 가장 조심하였고, 몸가짐을 매우 삼갔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삼칠일 안에 많은 것을 가렸으니 외부인 출입은 물론, 빨래하기, 풀쑤기, 볶음질하기, 못 박기 등 일상적인 것을 삼가서, 아기 양육에 정성을 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혼례의 경우에는 날을 받는 일로부터 첫날밤에 이르기까지 과정 과정에서 한결같이 조심에 조심을 다하였다. 좋은 일에 행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하였고, 앞으로 좋은 부부생활이 되

도록 축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더욱 정성을 기울였다.

상례는 더욱 엄정하였다. 초상이 나면 일단 모든 일상생활을 중지하였다. 제사도 안 지내고 결혼도 연기했으며, 빨래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중지되었다. 상제는 밥을 안 먹고 부엌에서 밥을 하지도 않았다. 3년 상이 날 때까지 상제는 고춧가루 넣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죄의식도 있고, 슬픔도 있어 그리하였던 것이다. 신체를 모신 방에서는 언행을 특히 조심하였다. 신체를 옆에 놓고 세상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불효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을 비우지 않았고, 아프다든지, 피가 났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무섭다든지 하는 말을 절대 금기하였다.

꺼리는 동물로서는 개, 고양이, 닭, 거미, 까마귀, 여우, 업, 명마구리, 누에 등인데 그 중에서 개가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 개의 경우 꺼리는 것은 땅을 파는 것, 풀을 먹는 것, 지붕에 올라가는 것, 오래 기르는 것 등인데, 이는 개가 인간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동물이지만,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의구심을 일으켜 꺼리게 되었고, 개가 영리하기 때문에 오래 기르는 것을 자연히 꺼리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사람에 대한 금기이다. 모두 10개가 채집되었는데, 모두가 여자에 관한 금기였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으니 여자의 시집살이가 어떠했었는지 짐작된다. 그릇을 다루는 사람은 여자이니 깨게 되면 그것은 곧 여자일수 밖에 없는데 '여자가 그릇을 깨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띠가 세면 절대 안 되었고, 왼손잡이 여자가 젯상을 차리면 귀신이 응감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여자에게는 온갖 것이 다 걸림이 되어 참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실례는 제보자들이 직접 겪었거나 보았거나 또는 확실하다고 들었거나 한 금기언과 그 실례들이다. 금기를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증언한 내용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금기를 지켰다고 하는 내용들이다. 필자가 이것을 따로 조사한 것은 실례가 있는 금기언일수록 그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금기 의식을 띠고 있는 것은 임신부가 닭뼈를 먹어서 무가 생겼다든지, 잉어를 먹어서 아기의 발이 비틀어졌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임신부의 음식 금기이다.

이와 버금 가는 것이 해산 금기이다. 잿물 빨래나 못 박기, 그리고 상주 등이 강력히 금기되었다. 훌륭한 아기를 얻고, 또 잘 기르려는 정성이 바탕에 깔려서 이런 금기 의식이 발달한 것으로 짐작된다.

결론적으로 부평의 금기언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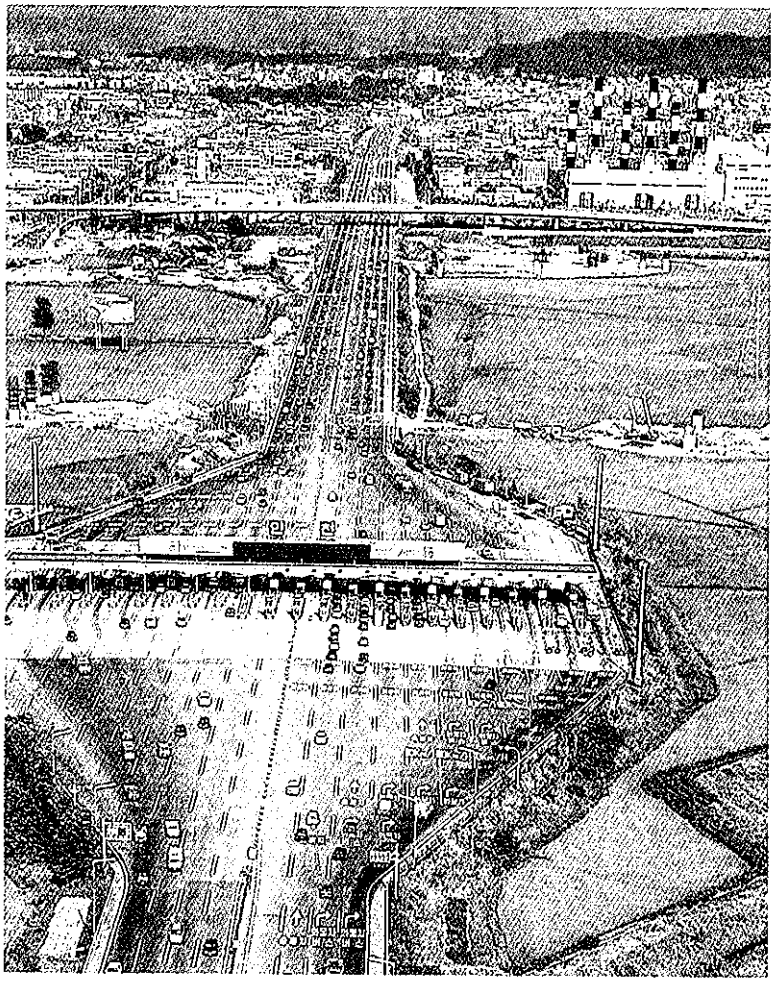
금기언은 산업 사회가 되고 지식 사회가 되면서 대다수가 사라져가고 있다. 생활 환경이 바

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어 옛날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생성되었던 금기 의식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더 시간이 지나면 옛모습을 연구할 수 있는 금기된 자료도 채집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제보자들이 대부분의 금기언에 대해 일소에 부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이야 누가 믿나요?"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들을 더듬는 가운데 반대로 알고 있는 금기언도 나타나고 있다. 조준옥씨는 "방에서 관이 나갈 때, 다리부터 나간다"고 했고, 김용선씨는 "방에서 관이 나갈 때 머리부터 나간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반대로 알고 있는 금기언들이 여럿 있다. 이것은 금기언이 힘을 잃고 기억 속에만 남아 있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금기언은 가능한 한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 정신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금기언이야말로 아주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기 의식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변형되어 새로운 문화속에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금기언도 조사되어야 한다.

부평의 금기언은 필자가 10여년간 조사해온 경인지역의 금기언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 새로 채집된 것도 있고, 남동구, 김포, 영종도에서 조사된 것이 상당수 여기서는 조사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제보자를 더 널리 찾고 더 면밀히 조사한다면 경인지역의 금기언 상호간에 많은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 第 12 篇　富平의 未來像



어느 일인(日人)교사가 부평국민학교에 부임하려고 부평역에 내려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첫 마디의 말이 "부평평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광활한 평야는 분명히 푸르고 맑고 쾌적한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2,000년대에 살아갈 부평인의 꿈이다.

2,000년대의 부평은 뿌리내린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교통·교육·복지·범죄의 5대 과제를 해결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시공학적인 미(美)를 살려 발전해 나갈 것이다.

## 1.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

진산인 계양산(395m)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부평은 계양산 도시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굴포천(掘浦川) 등의 하천을 되살리고, 대기(매연), 수질오염 등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등 시의회와 구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환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 1) 부평공단의 이전

부평평야에 자리잡은 부평 공단은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고장 부평은 전국에서 가장 큰 공해도시의 하나로 전락하여 공해의 주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부평 주민들은 대기오염(매연), 수질오염, 소음, 진동, 먼지(분진) 등의 오염 원인이 부평공단임을 알게 되면서 부평공단의 이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인천광역시 의회, 북구 의회도 여기에 호응하게 될 것이다.

부평공단이 옮겨지게 되면 그 터에 가칭 부평공업전문대학과 부평교통전문대학등이 들어서게 되고, 한편 각종 문화시설을 갖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특히 근린공원은 노인을 포함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을 갖추어 운동장으로서의 효율성을 살릴 것이다.

### 2) 굴포천과 청천천 등의 하천 정비

생활 하수와 부평공단의 폐수로 오염된 굴포천을 되살리자는 부평지역 주민의 여망과 환경

단체의 노력,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행정적 뒷받침으로 굴포천과 청천천 등 부평지역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차츰 옛 모습을 되찾아 갈 것이다.

만월산에서 발원하여 원통이 고개 밑을 흐르는 굴포천은 부평의 시가지를 관통하여 청천천, 그리고 계산천과 합류한 다음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굴포천 가꾸기는 잘 다듬어진 뚝 길위에 은행나무, 잣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사이 사이에 꽃나무들이 심어져 철에 따라 꽃을 피우고, 이름 모를 화초들이 정성스럽게 잘 가꿔져, 부평 주민의 휴식 공간은 물론 부평의 명소로 자리잡게 된다.

### 3) 부평 공동묘지 이전과 자연공원 조성

만월산과 부개산 사이의 분지(盆地)에 위치한 부평 공동묘지는 도심에 자리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 이전이 결정되고, 만월산과 부개산 그리고 부평 공동묘지 터에는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동시에 동물원, 식물원, 조각공원 등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부평의 자연 공원이 시민의 휴식 뿐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과 탐구성 관광자원 그리고 스포츠형 휴식 공간까지 곁들이면, 초·중·고 학생들의 소풍지로 각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곳에는 자동차 박물관, 기관차 박물관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도 마련되어 학생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4) 계양산 도시 자연공원의 조성

1944년 1월에 조선총독부 고시 제13호에 의거 인천 제1호의 공원으로 지정된 뒤, 1989년 7월 인천직할시가 건설부로부터 도시자연공원으로 승인받은 이래 계양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공원조성계획과 투자 그리고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부평지역은 높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공해요인과 공업단지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매연), 수질오염, 쓰레기, 소음, 진동, 교통체증 등 환경파괴 요인을 흡수, 완화, 정화할 기능을 가진 계양산의 중요성은 날로 그 가치가 높아져 왔다. 이에 527ha의 계양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 계획과 투자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인천광역시는 2,000년대를 앞두고 적극적인 공원조성 계획과 예산배정을 하기에 이른다.

특히 계양산성, 중심성(衆心城), 만일사(萬日寺), 비석거리(碑石거리) 등 사적(史蹟)의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봄·가을의 소풍철 뿐만 아니라 휴일이면 인천시민과 서울시민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화도 마니산과 전등사를 찾는 수도권의 소풍, 여행객들이 계양산을 거쳐가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잘 가꿔진 소나무, 아까시나무, 신갈나무, 상수리 나무 등 우거진 냉온대 혼합림은 생태학적 기법으로 가꿔지며 부평지역의 공기를 정화하는 산소탱크 기능과 지하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잘 정비된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에 자리한 나무의자에는 새벽녘에서 해질 무렵까지 계양산을 오른 시민과 약수를 마신 뒤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시민들로 가득하여 부평 주민들의 활력소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 5) 삼산동 농산물 시장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날

삼산동 제 2택지 개발지구에 들어서게 될 농산물 시장은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100만 부평시민 뿐만 아니라 서곶지역 주민, 나아가 전 인천시민과 강화, 김포, 부천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유통시장으로 부평의 명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 동쪽에 자리잡게 될 버스종합터미날은 인천 북부지역 교통의 요충지로, 부평지역을 오고 가는 각종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종착, 시발점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게 될 것이다. 특히 터미날과 인접한 경인고속도로, 인천순환도로, 부천 순환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를 이용코자 하는 인천시민은 물론 부천, 김포, 강화 주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쾌적한 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 2. 한반도·동북아시아의 교통요지 부평

1994년 10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을 보게 된 북·미 핵협상 합의는 긴장상태에 놓여있던 남북관계와 동북 아시아의 국제질서에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1950년의 6.25전쟁이후 긴장상태에 있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차츰 해빙 무드를 탈 것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 아시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각 방면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된다.

지난 1994년 10월 16일 북경에서는 남·북한 고위 실무자 사이에 북한의 나진, 선봉 자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정부는 학술, 문화 등 비 정치 분야에서 남북사이에 인적교류를 허용하는 한편, 기업의 북한 주재

사무소를 설치토록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에 투자를 위한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승인하는 등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한반도는 일본열도와 태평양을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하는 육교적 기능이 부활되면서 그 지리적 활용도가 높아져 육로 수송체계의 구상과 설계 및 수송로의 입지 선정등 동북아시아와 시베리아 나아가서 유럽을 잇는 교통망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른바 일본의 큐우슈우(구주)의 가라쓰에서 출발하여 이키섬에서 쓰시마 북쪽 섬을 지나 우리나라의 거제도를 거쳐 고성반도에 이르는 '한일 해저터널'의 등장과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아 횡단철도' 등의 한반도를 남북으로 달리며 아시아 대륙을 가로 질러 유럽에 이르는 세계 대동맥이 나타나게 된다.

부평은 바로 이 교차점에 위치한다. 부평의 국제 지리적, 경제적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한반도 남부의 영호남과 충청지방을 북부의 관서, 관북지방과 연결하고 나아가 중국의 만주, 몽골, 연해주, 시베리아, 유럽을 연계하는 한반도 육상교통 및 해상교통의 교차로서의 역할로 물류체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은 한반도의 육상 교통망 체계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거나 유인(誘引)할 수 없다. 서울의 교통체증은 벌써 한계를 넘은 지 오래이며, 남북 교류와 동북아 물류체계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 효용성이 낮다.

둘째,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인천은 그 지리적 가치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1978년 등소평의 개방정책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1990년대에 이르면 연간 10~13%의 놀랄만한 성장을 나타내면서 그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이에 총리,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주변 국가에 대한 순방외교를 통하여 국제외교상 큰 목소리를 낼 것이며, 2000년대 초에 이르면 연간 8~10%의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황해, 동지나해를 중심한 환 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지위는 급격히 부상하여 세계 무역거래액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상선의 통과 톤수가 1~4위의 대무역항이 모두 이 지역에 자리잡게 될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한다.

이에 인천은 영종 신공항의 국제지리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 공항 가운데 이·착륙 비행회수는 제1위로 부상하고, 인천신항 인천자유무역지구의 무역거래액은 세계 제2위로 양쯔강(揚子江) 하구의 상하이(上海) 항을 바짝 뒤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인천은 한반도 제1의 무역, 금융, 정보, 교통,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환 황해경제권의 국제 지리적, 경제적 지위 상승은 인천을 중심한 서해안 임해공업벨트의 공업생산력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이다. 더불어 인천항 후방교통망 체계가 정비되면서 인천-서울-춘천-속초, 인천-충청-호남·영남, 인천-관서-만주-몽골-유럽, 인천-관북-연해주-시베리아-유럽을 잇는 주요 교통망이

거미줄같이 뻗어나가며 이들의 대부분이 부평평야를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된다.

2000년대 들어서 한반도의 지역간 물류체계의 교차점과 동북아시아로 통하는 육상교통의 중심축은 바로 부평평야에 자리잡는다. 그러면 이들 육상 교통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인천 순환전철과 인천 순환도로

2000년대 인천시가 국제 지리,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남동공단·안산공단을 중심으로 아산·서산공단, 군산·장항·비인공단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임해공업벨트의 공업 생산력이 높아지면, 인천은 연 3~5%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여 2000년대 초반에 인구 450만을 넘는 우리나라 제 2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부평지역은 일신, 구산, 부개, 갈산, 삼산, 작전, 서운, 상야, 장기, 귤현동 등 뿐 아니라 인천의 외곽지역에 대단위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게 된다.

이에 인천의 도시화과정은 1990년까지 집중적 도시화(集中的 都市化 : urbanization)에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의 분산적 도시화(分散的 都市化 : suburbanization)로,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역도시화(逆都市化 : deurbanization)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2000년대 부평지역은 분산적 도시화(교외화) 현상이 나타나 연간 4~5%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여 인구가 150만을 넘게 되어 계양구는 다시 부내구(富內區)[1]가 분할되고, 부평구는 동소정구(同所井區)[2]가 분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단위 주거단지를 연결하기 위해 인천 순환전철과 인천 순환도로가 건설된다. 그 노선은 소래에서 도림-수산-만수동을 지나 무너미(물넘이)고개를 넘어 구산-일신-부개-삼산-임학-상야동에 이르는, 인천의 외곽지역을 한바퀴 돌게 될 것이다.

### 2)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안 철도 조성

1994년 10월에 북·미의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남북한의 교류가 활기를 띠게 되어 사람과 물자의 교류는 연간 15%이상 증가를 보이며,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육상교통망 체계의 조성을 위한 설계와 입지의 선정작업이 활발히 진행된다.

먼저 1945년 이래 끊어졌던 경의선과 경의가도, 경원선과 경원가도를 연결하는 복구공사가

---

1) 1914年 富川郡의 設置로 富平을 富內面으로 하였다.
2) 1906年의 富平郡의 面을보면 同所井面의 管轄은 大井里(富平洞), 馬墳里(富開洞), 航里(日新洞)로 되어 있다.

진행된 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교통량은 한계에 도달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주요 교통망은 서울을 벗어 부평평야를 통과하게 된다. 특히 목포-군산-비인-예산-아산-안산-인천을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는 부평의 갈산동을 지나 김포반도-개성-해주-사리원-평양-신의주로 이어지며, 만주-몽골-시베리아-유럽으로 연결되는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에 이어진다.

또 호남선의 정주에서 군산·장항을 잇는 서해안 철도는 장항선의 장항-대천-예산까지 복선화로 이어지고, 예산-당진-아산-화성-안산을 잇는 서해안 복선 철도가 신설되며, 소래-도림-수산-만수-일신-부개-삼산-작전-병방-상야동을 지나는 인천 순환철도에 이어진다.

이 서해선은 김포-개성-해주-사리원-평양까지 신설 또는 기존의 토해선(토성-해주)과 사해선(사리원-해주)의 협궤를 표준제로 직선화, 복선화가 추진되어 평양-신의주는 경의선의 복·복선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만주-몽골-시베리아-유럽으로 연결되는 아시아 횡단철도, (Trans Asian Railway:TAR)와 접속된다.

부개역은 서해선 철도와 경인 전철, 인천 순환전철과 경인 전철의 교차점으로 해서 철도 교통의 요지로 부상하게 된다.

### 3) 아시안 하이웨이와 아시아 횡단철도 통과

20세기 후반 국제연합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SCAP)는 한국-북한-중국-유럽국가연합(EU)을 직접 연결하는 아시아 관통의 '육상교통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에 그 가입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해온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검토한 끝에 여기에 가입을 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는 동남 아시아-서남 아시아를 연결하는 기존의 남부 노선과 우리나라를 출발점으로 중국-몽골-중앙아시아-유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북부노선이 생기게 된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유엔 개발기금(UNDP)의 지원과 당사국 협조로 조성된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부산-대전, 목포-대전을 거쳐 대전-천안-아산만-안산-부평-능곡을 지나 한가닥을 개성-해주-사리원-평양-신의주를 거쳐 만주-몽골-서 시베리아-유럽으로 이어지며, 또 한가닥은 능곡-의정부-원산-나진을 지나 연해주-동 시베리아-서 시베리아에서 다른 가닥과 연결되어 유럽까지 이어진다.

또 아시아 횡단 철도(Trans Asian Railway:TAR)는 부산-대전, 목포-대전을 거쳐 대전-

천안-아산만-안산-부평(부개)-김포-개성-평양-신의주를 지나 만주-몽골-중앙 아시아-유럽을 잇는 국제철도가 한반도를 종단, 관통하면서 부평은 한반도 육상교통의 중심지로 등장하고 부개역 주변은 육상 물류체계와 관련된 교통, 수송회사의 본사, 지사가 자리하게 된다.

### 4) 경인운하의 개통

인천항에서 김포반도를 가로질러 한강·임진강을 연결하는 경인운하의 개통으로 토·일요일의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는 서울에서 강화도 마리산과 전등사를 거쳐 계양산과 영종 해양관광 단지를 경유하는 1일,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수상 관광 코스가 개발되어 관광회사들은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는 경쟁에 나서게 되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

또한 남한강 상류의 영월, 단양, 제천(시멘트 3각지)의 시멘트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화물들은 남한강과 경인운하의 수운을 통하여 수도권에 공급되어 수도권의 공업제품들도 값이 싼 수로를 이용하여 충주, 영월, 제천 일대의 영서 남북, 중원지방에 운반된다.

### 5) 영종공항 고속도로와 영종고속전철 개통

2000년대가 시작되면 영종 신공항이 완성되어 김포공항을 잇는 영종 공항 고속도로와 영종 고속전철이 부평의 귤현동과 상야동을 지나 서해선 철도,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연결되어 아시아 하이웨이, 아시아 횡단철도(TAR)와 교차하여 부평지역은 한반도 육상 교통망 체계의 중심지로 부상된다.

## 3. 부평대학교와 부평공업전문대학 신설

2000년대의 부평은 한반도 육상교통과 물류체계의 중심지로 등장하면서 주변의 여러 도시와 출퇴근이 편리한 부평의 외곽지역에는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교육수요의 증가로 부평(종합)대학교와 전문대학이 들어서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유치원, 유아원, 탁아방 등 교육체계에 따른 교육기관이 잘 갖추어져 부평은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

부평공단은 궁극적으로 김포매립지가 매립이 끝나서 택지로 조성되면 값이 싼 이곳의 매립지로 옮기고, 공장이 이전된 이 부지에 부평공업전문대학과 부평교통전문대학이 들어서고 나

머지 터에는 문화회관, 도서관, 부녀복지회관 등의 문화시설이 자리잡게 되어 문화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대우그룹은 동북아 시대에 중국, 북한으로 고급인력을 진출시킬 인재양성과 산학협동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지역과 근접해 있는 계양산 밑의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종합대학교를 설치한다. 부평(종합)대학교는 대학교수들이 도시행정에 자문 및 제안을 하게 되고 신문, 잡지,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정신을 고양하고 공무원의 교양교육, 재교육과 실무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시민대학 및 주부대학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도 봉사하게 된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부평지역에 공업계 고교, 정보처리 고교, 인문계 고교와 초·중학교를 세워서 걸어서 10~15분이면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도 20~30명으로 하고 과학실, 기술실, 가사실 등 교육환경 등을 갖춘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발견학습을 통한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계발하는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와 뜻있는 인사들에 의한 유치원 탁아방이 곳곳에 설치되어 맞벌이 부부들은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기고 근무에 열중하게 됨으로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타고난 영재성과 천재성이 계발되어 장차 부평지역은 새로운 교육의 도시, 학원·연구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 4. 사회·복지의 향상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상대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시민복지정책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쟁점이 부각되고 과감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1) 실업수당과 노인수당의 지급

국가 정책에 의해 실업수당과 노령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는 바, 재해보상도 현실화되면서 노인무료 순회진료 및 의료보험체계가 확립되고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한 거택보호자의 집단시설과 수용자들의 생계비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고 이들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 자활능력을 키우는 직업 과정이 세심하게 준비되고 추진하게 된다.

## 2) 주민의 복지시설

공기도 맑고 자연 환경이 좋은 둑실동에 노인 전용의 운동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항상 찾아와 간단한 각종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노후의 여생을 즐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를 한다. 또한 둑실동에 노인 전용의 병원을 설치하여 모든 노인들로 하여금 항상 찾아올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편도 마련한다.

인구 1만5천명당 한채씩 세워지는 주민복지회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천에 옮기도록 한다. 주민복지회관은 표준형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지하층은 매점으로 꾸며 모든 주민이 값이 싸고 질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여러 곳에 설치하여 주민이 멀리 다니는 불편을 제거하고, 1층은 노인의 복지시설로 이용토록 하며, 2층은 유아를 위한 시설로, 3층은 주민을 위한 활용의 공간으로 해서 혼례식장이나 회갑연 또는 고희연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부대학이나 시민대학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각종 집회장소로도 이용되게 한다.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둑실동에 대규모로 설치되는 노인을 위한 병원이나 운동장의 설치 이외에 계양산 남쪽 기슭, 철마산 동쪽 기슭과 부개산 북쪽 기슭에다 노인을 위한 간단한 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삼산 택지개발지구에다가 노인 전용의 병원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附　　錄


富平의 歷代 先生案

富平의 年表

歷代 구청장 일람

富平區議會의원 명단

富平區 산하 간부 명단

# 부평(富平)의 역대(歷代) 선생안(先生案)

『선생안』이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아에서 전임(前任)관원의 성명, 赴任·離任 年 月 日, 교체사유 등과, 본관, 거주지, 출신지역, 전직(前職), 재직시의 공과 등을 기록해 놓은 문서(일명 案册이라 함)를 일컫는다.

현재 전해지는 지방의 수령을 기록한 『선생안』은 대부분 각 군현의 읍지 말미에 게재되어 있는데, 부평의 역대 선생안의 명단은 『京畿邑誌』의 말미에 실려있다. 부평지역 역대수령의 관직명은 행정 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조 23(940)년 부터는 지수주사(수주 : 樹州)로, 의종 4(1150)년 부터는 안남도호부사(안남도호부)로 충선왕 2(1310)년 부터는 부평부사(부평부, 이후 조선태종 13(1413)년에 도호부로, 세종 20(1438)년에 현으로 강등되는 등 변천이 있었음)로, 1895년부터는 부평군수(부평군)등으로 불리어졌다. 부평의 선생안 명단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 하였다.

① 『東國輿地志』 卷之二 京畿篇

② 『富平邑誌』(시기미상); 尹瓘부터 李宜翼(憲宗 5년, 1839)까지 기록되어 있다.

③ 『京畿邑誌』(奎12177, 1871년), 「富平府邑誌附邑事例」; 尹瓘부터 崔翼鳳(高宗 6년, 1869)까지 성명만 기록되어 있다.

④ 『靑雲譜』(奎4652-20, 1880년); 金龍淳(純祖 4년, 1804)부터 朴熙房(高宗 21년, 1884)까지 성명과 부임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⑤ 『搢紳外任案』(奎12132, 1890년); 趙學春(純祖 10년, 1810)부터 安駟壽(高宗 30년, 1893)까지 성명과 부임월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⑥ 『富平府邑誌』(시기미상); 尹瓘부터 鄭秉夏(高宗 22년, 1885)까지 기재되어 있다.

⑦ 『富平郡邑誌』(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4241, 1책(46장), 1899년); 尹瓘부터 申贊熙(高宗 33년, 1896)까지 수록되어 있다. 姓名·品階·出身資格·在任期間·交替事由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의 자료 중 ⑦의 『富平郡邑誌』가 성명, 품계, 출신자격, 재임기간, 교체사유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주로 기초자료로 하여 비교·검토하여 작성하였다. 각 자료마다 성명이나 교체연월일 등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자료를 언급하였다.

자료를 통해 볼 때, 고려시대에 7명, 조선시대(대한제국시기 및 1914년이전까지 포함)에 291명의 수령이 부평지역을 거쳐갔음을 알 수 있다. 수록시기는 부평군이 부천군으로 소속되기전인 1914년까지 다루었는데, 자료중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⑦의 『富平郡邑誌』에는 1896년까지만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그 이후부터 1914년까지는 이훈익의 『역대 부평수령』(199, 필사본)과 조기준의 『부평사 연구』(1995)를 참조하고, 전·후임자의 부임년월일로 비교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평수령의 명단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番號 | 姓名 | 出身資格 | 品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001 | 尹　瓘[1] | | | | 憲宗　1년(1095)　知樹州事 | |
| 002 | 許洪材 | | | | 毅宗 18년(1164)　安南都護府使 | |
| 003 | 李寶忠 | | | | 毅宗 24년(1170)　安南都護府使 | |
| 004 | 李仁孫 | | | | | |
| 005 | 李仁老 | | | | 明宗 10년(1180)　桂陽管記 | |
| 006 | 玄德秀[2] | | | | 明宗　5년(1175)　安南都護府使 | |
| 007 | 李奎報 | | | | 高宗　6년(1219)　桂陽都護府副使馬黔轄 | |
| 008 | 權　踐 | | | | 世祖　2년(1429)　安南都護府使 | |
| 009 | 睦進恭 | | | | 太宗 17년(1417)　安南都護府使 | |
| 010 | 李士寬 | | | | | |
| 011 | 金連枝 | | | | 世祖 14년(1432)　富平府使 | |
| 012 | 李繼福 | | | | 燕山　4년(1498, 戊午)　4월 29일 | |
| | | | | | －　8년(1502, 壬戌)　8월 21일 | 父喪(觀察使) |
| 013 | 尹衡老 | | | | 燕山　8년(1502, 壬戌)　9월　9일 | |
| | | | | | －10년(1504, 甲子)　4월　6일 | 監司相避還任廷安府使 |
| 014 | 沈順道 | | | | 燕山 10년(1504, 甲子)　4월　6일 | |
| | | | | | －11년(1505, 乙丑)　7월 26일 | 以同生弟順門緣坐被拿王府因革本府(敦寧副正) |
| 015 | 吳世勳 | | 通政大夫 | | 燕山 12년(1506, 丙寅) 10월 29일 | |
| | | | | | －14년(1508, 戊辰)　2월 22일 | 母病遞歸羅州 |
| 016 | 奇　褚 | | 通政大夫 | | 中宗　3년(1508, 戊辰)　3월 24일 | |
| | | | | | －　4년(1509, 己巳)　1월 25일 | 罷 |
| 017 | 徐克哲 | | 通政大夫 | | 中宗　4년(1509, 己巳)　2월 24일 | |
| | | | | | －　7년(1512, 壬申) | 瓜遞 |
| 018 | 安　璋 | | 通政大夫 | | 中宗　7년(1512, 壬申)　9월 | |
| | | | | | －　9년(1514, 甲戌) | 病不治事遞去 |
| 019 | 李允中 | | 通政大夫 | | 中宗　9년(1514, 甲戌) 11월　4일 | |
| | | | | | －11년(1516, 丙子)　1월 | 別世 |
| 020 | 申復淳 | 蔭 | | | 中宗 11년(1516, 丙子)　2월　4일 | |
| | | | | | －13년(1518, 戊寅)　7월 11일 | 瓜遞(靖國功臣, 齋襄君) |
| 021 | 許　磺 | 文 | 通政大夫 | 延安府使 | 中宗 13년(1518, 戊寅) 10월　7일 | |
| | | | | | －15년(1520, 庚辰)　8월 | 瓜遞 |
| 022 | 李希雍 | 文 | 通政大夫 | | 中宗 15년(1520, 庚辰)　9월　7일 | |
| | | | | | －20년(1525, 乙酉)　8월 10일 | 瓜遞(觀察使) |
| 023 | 金　祐 | 蔭 | 通政大夫 | | 中宗 20년(1525, 乙酉) 10월 | |
| | | | | | －22년(1527, 丁亥)　9월 26일 | 別世(公州牧使) |
| 024 | 鄭應麟 | | 通政大夫 | | 中宗 22년(1527, 丁亥) 10월 18일 | |
| | | | | | －23년(1528, 戊子)　1월 18일 | 病遞 |
| 025 | 韓叔昌 | 蔭 | | | 中宗 23년(1528, 戊子)　2월 12일 | |
| | | | | | －24년(1529, 乙丑)　7월 17일 | 病遞(靖國功臣, 西平君, 判決事) |

| 番號 | 姓名 | 出身資格 | 品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026 | 張季文 | | 奉政大夫 | | 中宗 24년(1529, 乙丑) 9월 28일<br>－27년(1532, 壬辰) 5월 18일 | 母喪 |
| 027 | 李希輔 | 文 | 通政大夫 | | 中宗 27년(1532, 壬辰) 6월 13일<br>－29년(1534, 甲午) 2월 6일 | 瓜滿拜大司成 |
| 028 | 崔重演 | 文 | 通政大夫 | | 中宗 29년(1534, 甲午) 2월 25일<br>－ 同年 9월 27일 | 別世 |
| 029 | 成 璉 | 蔭 | 通政大夫 | | 中宗 30년(1535, 乙未) 1월 15일<br>－ 同年 12월 15일 | 毁最居土遞去(靖國功臣, 昌城君) |
| 030 | 柳 沔 | | 通政大夫 | | 中宗 31년(1536, 丙辛) 1월 23일<br>－32년(1537, 丁酉) 11월 16일 | 災傷見罷 |
| 031 | 李萬孫 | | 通政大夫 | | 中宗 32년(1537, 丁酉) 11월 16일<br>－同年 12월 | 母病辭遞歸原州 |
| 032 | 鄭世紹 | | 通政大夫 | | 中宗 33년(1538, 戊戌) 2월 13일<br>－同年 2월 13일 | 以府啓駁遞 |
| 033 | 尹豊亨 | 文 | 通政大夫 | | 中宗 33년(1538, 戊戌) 4월 22일<br>－同年 7월 13일 | 移拜判決事(觀察使) |
| 034 | 李孟友 | 蔭 | 通政大夫 | | 中宗 33년(1538, 戊戌) 8월 3일<br>－34년(1539, 乙亥) 8월 | 兩司啓罷(靖國功臣, 國城君) |
| 035 | 沈光彦 | 文 | 通政大夫 | | 中宗 34년(1639, 乙亥) 8월 22일<br>－36년(1541, 庚子) 8월 | 移拜刑曹參議 |
| 036 | 金台俊 | 武 | 通政大夫 | | 中宗 37년(1542, 辛丑) 9월 17일<br>－39년(1544, 癸卯) 7월 5일 | 父喪(參贊, 諡號 胡安公) |
| 037 | 張 玉 | 文 | 中訓大夫 | | 中宗 39년(1544, 癸卯)[3] 8월 3일<br>仁宗 元年(1545, 乙巳) 6월 | 病遞(判校) |
| 038 | 陣復昌 | 文 | 通訓大夫 | | 仁宗 元年(1545, 乙巳) 7월 24일<br>－同年 12월 | 移拜掌令(大司憲, 被竄死) |
| 039 | 羅允明 | 文 | 通政大夫 | | 明宗 元年(1546, 丙午) 2월 7일<br>－ 2년(1547, 丁未) 2월 | 母喪 |
| 040 | 李坎男 | 蔭 | 通政大夫 | | 明宗 2년(1547, 丁未) 3월<br>－ 3년(1548, 己酉) 9월 | 瓜遞(衛社勳後削) |
| 041 | 成 謹 | 蔭 | 通政大夫 | | 明宗 3년(1548, 己酉) 10월<br>－ 5년(1550, 庚戌) 1월 | 別世 |
| 042 | 李 秫 | | 通訓大夫 | | 明宗 5년(1550, 庚戌) 3월 9일<br>－ 8년(1553, 癸丑) 5월 | 兩司啓罷 |
| 043 | 鄭士謙 | | 通訓大夫 | | 明宗 8년(1553, 癸丑) 6월<br>－ 同年 2월 | 毁最居水遞去 |
| 044 | 沈守慶 | 文 | 通訓大夫 | | 明宗 9년(1554, 甲寅) 1월<br>－ 同年 9월 29일 | 病遞(右議政) |
| 045 | 柳師琦 | | | | 明宗 9년(1554, 甲寅) 10월 8일<br>－12년(1557, 丁巳) 7월 26일 | 御使啓罷 |

| 番號 | 姓名 | 出身資格 | 品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046 | 尹玉文 | | 通政大夫 | | 明宗 12년(1557, 丁巳) 8월 12일<br>－15년(1560, 庚申) 2월 24일 | 瓜遞(同知) |
| 047 | 申 健 | 蔭 | 通政大夫 | | 明宗 15년(1560, 庚申) 2월 22일<br>－17년(1562, 壬戌) 8월 8일 | 被論遞去(判事) |
| 048 | 朴胤韓 | | 通訓大夫 | | 明宗 17년(1562, 壬戌) 8월 12일<br>－20년(1565, 乙丑) 4월 3일 | 御使啓罷 |
| 049 | 李餘慶 | | 通訓大夫 | | 明宗 20년(1565, 乙丑) 5월 23일<br>－22년(1567, 丁卯) 3월 | 因漕舡致敗見罷 |
| 050 | 丁胤禧 | 文 | 通政大夫 | | 明宗 22년(1567, 丁卯) 4월 4일<br>－24년(1569, 己巳) 9월 3일 | 瓜遞(副提學) |
| 051 | 柳順善 | 文 | 通政大夫 | | 宣祖 2년(1569, 己巳) 9월 20일[4]<br>－同年 12월 7일 | 嗜酒駑遞(江原監司) |
| 052 | 曺大坤 | 武 | 通訓大夫 | | 宣祖 2년(1569, 己巳) 12월 27일<br>－ 4년(1571, 辛未) 3월 6일 | 安城前任時差誤檢屍憲府啓罷(兵使) |
| 053 | 成壽益 | 文 | 通訓大夫 | | 宣祖 4년(1571, 辛未) 3월 21일<br>－ 5년(1572, 壬申) 7월 3일 | 父喪(禮曹參判, 昌山君) |
| 054 | 權 鵬 | 文 | 奉政大夫 | | 宣祖 5년(1572, 壬申) 8월 1일<br>－ 6년(1573, 癸酉) 6월 18일 | 以前任刑曹佐郎時以奴婢誤決憲府啓罷(兵使) |
| 055 | 金慶元 | 文 | 通政大夫 | | 宣祖 6년(1573, 癸酉) 7월 4일<br>－ 7년(1574, 甲戌) 7월 6일 | 以不治諫院啓罷(兵使) |
| 056 | 韓性源 | 文 | 通政大夫 | | 宣祖 7년(1574, 甲戌) 7월 25일<br>－ 8년(1575, 乙亥) 10월 26일 | 廳訟不公憲府啓罷 |
| 057 | 柳從善 | 文 | 通政大夫 | | 宣祖 8년(1575, 乙亥) 1월 21일<br>－ 9년(1576, 丙子) 6월 15일 | 遞(監司) |
| 058 | 崔興源 | 文 | 通政大夫 | | 宣祖 9년(1576, 丙子) 7월 13일<br>－11년(1578, 戊寅) 6월 | 孝陵永丁進排遞去(議政) |
| 059 | 韓孝友 | 文 | 通訓大夫 | | 宣祖 11년(1578, 戊寅) 7월 7일<br>－12년(1579, 己卯) 10월 | 濫率不治憲府啓罷 |
| 060 | 楊士奇 | 文 | 中訓大夫 | | 宣祖 12년(1579, 己卯) 12월 11일<br>－13년(1580, 庚辰) 6월 | 居水 |
| 061 | 金時晦 | 文 | 中訓大夫 | | 宣祖 13년(1580, 庚辰) 8월 9일<br>－14년(1581, 辛巳) 4월 | 以救荒不勤御使啓罷 |
| 062 | 南宮芷 | 文 | 奉列大夫 | | 宣祖 14년(1581, 辛巳) 4월 28일<br>－16년(1583, 癸未) 12월 14일 | 遞 |
| 063 | 沈禮謙 | 蔭 | 通訓大夫 | | 宣祖 17년(1584, 甲申) 1월 23일<br>－18년(1585, 乙酉) 11월 25일 | 殺人罪因逃躲啓罷 |
| 064 | 尹 暻 | 文 | 中訓大夫 | | 宣祖 18년(1585, 乙酉) 12월 9일<br>－20년(1587, 丁亥) 12월 25일 | 子弟心病殺妻府啓拿罷(承旨) |
| 065 | 韓伯厚 | 文 | 通訓大夫 | | 宣祖 20년(1587, 丁亥) 12월 25일<br>－22년(1589, 己丑) 8월 5일 | 父喪(司果) |

| 番號 | 姓名 | 出身資格 | 品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066 | 權 寔 | 文 | 通訓大夫 | | 宣祖 22년(1589, 己丑) 8월 24일 | |
| | | | | | -23년(1590, 庚寅) 5월 23일 | 漕紅一隻敗遞歸 |
| 067 | 金 淸 | 文 | 通訓大夫 | | 宣祖 23년(1590, 庚寅) 4월 27일 | |
| | | | | | -24년(1591, 辛卯) 7월 2일 | 御使遞去 |
| 068 | 南 瑜 | 武 | 通訓大夫 | | 宣祖 24년(1591, 辛卯) 8월 3일 | |
| | | | | | -25년(1592, 壬辰) 9월 12일 | 監司啓罷 |
| 069 | 奇 蕙 | 武 | 通訓大夫 | | 宣祖 25년(1592, 壬辰) 9월 16일 | |
| | | | | | -27년(1594, 甲午) 12월 11일 | 院啓罷 |
| 070 | 尹明善 | 文 | 奉政大夫 | | 宣祖 27년(1594, 甲午) 12월 20일 | |
| | | | | | -28년(1595, 乙未) 6월 4일 | 院啓罷 |
| 071 | 沈信謙 | 蔭 | 通政大夫 | | 宣祖 28년(1595, 乙未) 6월 14일 | |
| | | | | | -29년(1596, 丙申) 10월 24일 | 卒逝 |
| 072 | 崔 瓘 | 文 | 中訓大夫 | | 宣祖 29년(1596, 丙申) 11월 14일 | |
| | | | | | -30년(1597, 丁酉) 8월 24일 | 因漕舡致敗詔獄罷(判書) |
| 073 | 韓濤民 | 文 | 通政大夫 | | 宣祖 30년(1597, 丁酉) 9월 27일 | |
| | | | | | -31년(1598, 戊戌) 6월 | 褒貶居中 |
| 074 | 金 洎[5] | 文 | 通訓大夫 | | 宣祖 31년(1598, 戊戌) 8월 3일 | |
| | | | | | -同年 9월 3일 | 督運正言李惟弘啓罷 |
| 075 | 朴春茂 | 蔭 | 通政大夫 | | 宣祖 31년(1598, 戊戌) 10월 22일 | |
| | | | | | -32년(1599, 己亥) 4월 24일 | 監司啓罷 |
| 076 | 金 昉 | 文 | 通訓大夫 | | 宣祖 32년(1599, 己亥) 5월 23일 | |
| | | | | | - 同年 10월 22일 | 府啓罷 |
| 077 | 金 浹 | 文 | 通政大夫 | | 宣祖 32년(1599, 己亥) 11월 12일 | |
| | | | | | -33년(1600, 庚子) 1월 25일 | 府啓罷 |
| 078 | 黃致敬 | 文 | 通訓大夫 | | 宣祖 33년(1600, 庚子) 2월 24일 | |
| | | | | | -38년(1605, 乙巳) 1월 2일 | 瓜遞(全羅觀察使, 邑有去思碑) |
| 079 | 朴東望 | 文 | 通訓大夫 | | 宣祖 38년(1605, 乙巳) 2월 10일 | |
| | | | | | -同年 12월 28일 | 監司啓罷(吉州牧使) |
| 080 | 金庭睦 | 文 | 通政大夫 | | 宣祖 38년(1605, 乙巳) 12월 10일 | |
| | | | | | -39년(1606, 丙午) 2월 | 御使啓罷拿鞫 |
| 081 | 朴東善 | 文 | 通政大夫 | | 宣祖 39년(1606, 丙午) 3월 | |
| | | | | | -40년(1607, 丁未) 8월 | 病歸監司啓罷(左參贊) |
| 082 | 尹惟幾 | 文 | 通政大夫 | | 宣祖 40년(1607, 丁未) 10월 17일 | |
| | | | | | -41년(1608, 戊申) 8월 1일 | 監司啓罷(觀察使) |
| 083 | 金 珠 | 蔭 | 中訓大夫 | | 光海 元年(1609, 戊申) 8월 17일 | |
| | | | | | -- 2년(1610, 庚戌) 3월 6일 | 監司啓罷 |
| 084 | 徐希信 | 文 | 通訓大夫 | | 光海 2년(1610, 庚戌) 4월 4일 | |
| | | | | | -同年 9월 18일 | 院啓罷 |
| 085 | 李 瑩 | 文 | 通政大夫 | | 光海 2년(1610, 庚戌) 10월 5일 | |
| | | | | | - 3년(1611, 辛亥) 6월 15일 | (邑有去思碑) |

| 番號 | 姓 名 | 出身資格 | 品 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086 | 洪慶臣 | 文 | 通政大夫 | | 光海 3년(1611, 辛亥) 6월 3일[6] | |
| | | | | | — 5년(1613, 癸丑) 12월 12일 | 瓜遞(副提學) |
| 087 | 李翼寀 | | 嘉義大夫 | | 光海 5년(1613, 癸丑) 6월 10일 | |
| | | | | | — 9년(1617, 丁巳) 3월 9일 | 楊州牧使相換 |
| 088 | 許 任 | 醫 | 通政大夫 | | 光海 9년(1617, 丁巳) 3월 15일 | |
| | | | | | —11년(1619, 己未) 8월 30일 | 瓜遞 |
| 089 | 柳希老 | 蔭 | 通訓大夫 | | 光海 12년(1620, 庚申) 3월 12일 | |
| | | | | | —13년(1621, 辛酉) 3월 20일 | 棄官 |
| 090 | 許 柿 | 蔭 | 通訓大夫 | | 光海 13년(1621, 辛酉) 2월 28일 | |
| | | | | | —15년(1623, 癸亥) 3월 20일 | 府啓罷 |
| 091 | 朴知述[7] | 文 | 嘉善大夫 | | 光海 15년(1623, 癸亥) 4월 20일 | |
| | | | | | —同年 10월 22일 | 拿遞 |
| 092 | 安應亨 | 文 | 通訓大夫 | | 仁祖 卽位(1623, 癸亥)閏10월 25일 | |
| | | | | | —同年 12월 24일 | 棄官 |
| 093 | 趙 璞 | 陰 | 嘉善大夫 | | 仁祖 2년(1624, 甲子) 1월 25일 | |
| | | | | | — 3년(1625, 乙丑) 1월 1일 | 罷州牧使除授 |
| 094 | 洪振道 | 文 | 嘉善大夫 | | 仁祖 3년(1625, 乙丑) 1월 28일 | |
| | | | | | — 6년(1628, 戊辰) 4월 12일 | 遞(靖社功臣, 南陽君) |
| 095 | 吳 竣 | | | | 仁祖 6년(1628, 戊辰) 5월 1일 | |
| | | | | | — 7년(1629, 己巳) 10월 16일 | 延安府使相換(有去思碑) |
| 096 | 申得淵 | 文 | 通政大夫 | | 仁祖 7년(1629, 己巳) 6월 6일 | |
| | | | | | —同年 10월 6일 | 災傷漏卜罷 |
| 097 | 韓會一 | 蔭 | 通訓大夫 | | 仁祖 7년(1629, 己巳) 11월 5일 | |
| | | | | | —10년(1632, 壬申) 11월 14일 | 瓜遞(邑有去思碑) |
| 098 | 李景嚴 | 文 | 通政大夫 | | 仁祖 10년(1632, 壬申) 12월 3일 | |
| | | | | | —12년(1634, 甲戌)閏8월 | 父喪(1633년 陞嘉善大夫) |
| 099 | 閔 機 | 文 | 通政大夫 | | 仁祖 12년(1634, 甲戌) 9월 21일 | |
| | | | | | —13년(1635, 乙亥) 3월 3일 | 棄官罷職 |
| 100 | 宋克訒[8] | 文 | 通政大夫 | | 仁祖 13년(1635, 乙亥) 4월 6일 | |
| | | | | | —同年 6월 8일 | 病重啓罷(禮參議) |
| 101 | 鄭文翼 | 文 | 嘉義大夫 | | 仁祖 13년(1635, 乙亥) 7월 11일 | |
| | | | | | —14년(1636, 丙子) 10월 17일 | 棄官(觀察使) |
| 102 | 全以性[9] | 文 | 通訓大夫 | | 仁祖 14년(1636, 丙子) 12월 15일 | |
| | | | | | —15년(1637, 丁丑) 3월 | 經亂後棄官 |
| 103 | 韓 玨[10] | 文 | 通政大夫 | | 仁祖 15년(1637, 丁丑) 3월 25일 | |
| | | | | | —同年 12월 | 褒貶居中 |
| 104 | 宋國準 | 文 | 通訓大夫 | | 仁祖 16년(1638, 戊寅) 1월 11일 | |
| | | | | | —18년(1640, 庚辰) 3월 13일 | 安城等官作米缸致敗啓罷 |
| 105 | 趙 瀹 | 蔭 | 通訓大夫 | | 仁祖 18년(1640, 庚辰) 3월 20일 | |
| | | | | | —20년(1642, 壬午) 6월 20일 | 以病重監司啓罷(靖社功臣, 豊安君) |

| 番號 | 姓名 | 出身資格 | 品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106 | 柳後聖[11] | 醫 | 通政大夫 | | 仁祖 20년(1642, 壬午) 7월 2일 | |
| | | | | | -同年 12월 6일 | 監司啓罷 |
| 107 | 許 曙 | 文 | 通政大夫 | | 仁祖 20년(1642, 壬午) 12월 11일 | |
| | | | | | -21년(1643, 癸未) 11월 | 憲府啓罷 |
| 108 | 李必達 | 文 | 通政大夫 | | 仁祖 21년(1643, 癸未) 10월 16일 | |
| | | | | | -22년(1644, 甲申) 8월 27일 | 問安使日率濫率啓罷 |
| 109 | 李元龍 | 醫 | 通政大夫 | | 仁祖 22년(1644, 甲申) 8월 30일 | 除授, 9월 7일 |
| | | | | | -23년(1655, 乙酉) 8월 7일 | 弑夫獄事俺置府啓罷 |
| 110 | 李馨益 | 醫 | 通政大夫 | | 仁祖 23년(1655, 乙酉) 8월 10일 | 除授, 同月 23일 |
| | | | | | -26년(1648, 戊子) 11월 20일 | 瓜遞 |
| 111 | 申 濩 | 蔭 | 通政大夫 | | 仁祖 26년(1648, 戊子) 1월 6일 | 除授, 同月 17일 |
| | | | | | -27년(1649, 己丑) 11월 20일 | 御使啓罷 |
| 112 | 徐貞覆 | 蔭 | 通訓大夫 | | 仁祖 27년(1649, 己丑) 11월 26일 | |
| | | | | | -孝宗 4년(1653, 癸巳) 2월 14일 | 母喪 |
| 113 | 李弘淵 | 文 | 通政大夫 | | 孝宗 4년(1653, 癸巳) 2월 19일 | |
| | | | | | -同年 12월 22일 | 以李元九獄事拿推天安定配 |
| 114 | 李 澥 | 蔭 | 通政大夫 | | 孝宗 5년(1654, 甲午) 1월 18일 | |
| | | | | | -同年 12월 24일 | 棄官 |
| 115 | 金佑明 | 蔭 | 通訓大夫 | | 孝宗 6년(1655, 乙未) 1월 13일 | |
| | | | | | - 7년(1656, 丙申) 8월 25일 | 病罷 |
| 116 | 朴世模 | 文 | 通訓大夫 | | 孝宗 7년(1656, 丙申) 9월 13일 | |
| | | | | | - 8년(1657, 丁酉) 11월 23일 | 母喪(禮曹參判) |
| 117 | 李守綱 | 蔭 | 通政大夫 | | 孝宗 8년(1657, 丁酉) 12월 8일 | |
| | | | | | - 9년(1658, 戊戌) 7월 29일 | 殺人罪人於屯越獄逃躲啓罷 |
| 118 | 兪 瑒[12] | 文 | 通政大夫 | | 孝宗 9년(1658, 戊戌) 7월 29일 | |
| | | | | | -顯宗 卽位(1660, 庚子) 6월 3일 | 摠戎使狀啓拿因定配 |
| 119 | 鄭 晳 | 文 | 通政大夫 | | 顯宗 卽位(1660, 庚子) 6월 29일 | |
| | | | | | - 3년(1662, 壬寅) 4월 16일 | 移拜執義 |
| 120 | 鄭昌胄[13] | 文 | 通政大夫 | | 顯宗 3년(1662, 壬寅) 4월 16일 | |
| | | | | | -同月 22일 | 父喪 |
| 121 | 李長英 | 蔭 | 通訓大夫 | | 顯宗 3년(1662, 壬寅) 10월 4일 | |
| | | | | | -同年 11월 19일 | 病罷 |
| 122 | 吳 翻 | 文 | 通政大夫 | | 顯宗 3년(1662, 壬寅) 11월 22일 | |
| | | | | | - 5년(1664, 甲辰) 2월 6일 | 病罷 |
| 123 | 尹 橃 | 蔭 | 通政大夫 | | 顯宗 5년(1664, 甲辰) 3월 2일 | |
| | | | | | -同年 6월 22일 | 移拜原州牧使 |
| 124 | 姜允亨 | 文 | 通訓大夫 | | 顯宗 5년(1664, 甲辰)閏 6월 18일 | |
| | | | | | -7년(1666, 丙午) 1월 26일 | 不爲受由下住公山久不還任監司啓罷 |
| 125 | 嚴鼎耆 | 文 | 嘉義大夫 | | 顯宗 7년(1666, 丙午) 2월 11일 | |
| | | | | | - 同年 5월 15일 | 病罷 |

| 番號 | 姓名 | 出身資格 | 品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126 | 尹世喬 | 蔭 | 通訓大夫 | | 顯宗 7년(1666, 丙午) 6월 7일 | |
| | | | | | — 8년(1667, 丁未) 1월 11일 | 監司相避遞 |
| 127 | 姜 頌 | 蔭 | 通訓大夫 | | 顯宗 8년(1667, 丁未) 1월 27일 | |
| | | | | | —同年 11월 13일 | 諫院啓罷 |
| 128 | 金震標 | 文 | 通政大夫 | | 顯宗 8년(1667, 丁未) 12월 1일 | |
| | | | | | — 9년(1668, 戊申) 1월 2일 | 病罷 |
| 129 | 具文濟 | 蔭 | 通訓大夫 | | 顯宗 9년(1668, 戊申) 1월 5일 | |
| | | | | | —10년(1669, 己酉) 1월 20일 | 親病罷 |
| 130 | 崔孝騫 | 文 | 通訓大夫 | | 顯宗 10년(1669, 己酉) 2월 19일 | |
| | | | | | —11년(1670, 庚戌)閏2월 11일 | 臺啓罷 |
| 131 | 李 程 | 文 | 通政大夫 | | 顯宗 11년(1670, 庚戌) 3월 4일 | |
| | | | | | —12월(1671, 辛亥) 8월 15일 | 別世 |
| 132 | 金 鎬 | 文 | 通訓大夫 | | 顯宗 12년(1671, 辛亥) 8월 27일 | |
| | | | | | —13년(1672, 壬子) 6월 15일 | 居中 |
| 133 | 勸大載 | 文 | 通訓大夫 | | 顯宗 13년(1672, 壬子) 7월 1일 | |
| | | | | | —同月 21일 | 移拜忠州牧使 |
| 134 | 鄭時亨 | 蔭 | 通訓大夫 | | 顯宗 13년(1672, 壬子) 7월 20일 | |
| | | | | | — 肅宗 卽位(1675, 乙卯) 2월 6일 | 移拜海州牧使 |
| 135 | 金雲長 | 文 | 通政大夫 | | 肅宗 卽位(1675, 乙卯) 2월 6일 | |
| | | | | | — 2년(1676, 丁巳) 6월 | 瓜遞 |
| 136 | 李 煒 | 文 | 通訓大夫 | | 肅宗 2년(1676, 丁巳) 7월 1일 | |
| | | | | | — 4년(1678, 戊午) 10월 4일 | 父喪 |
| 137 | 柳英立 | 文 | 通訓大夫 | | 肅宗 4년(1678, 戊午) 11월 4일 | |
| | | | | | — 5년(1679, 己未) 3월 27일 | 以賑政疎漏分糶不均監司啓罷 |
| 138 | 黃道光 | 蔭 | 通政大夫 | | 肅宗 5년(1679, 己未) 4월 1일 | |
| | | | | | — 6년(1680, 庚申) 8월 | 臺啓罷 |
| 139 | 南斗北 | 武 | 嘉義大夫 | | 肅宗 6년(1680, 庚申) 8월 | |
| | | | | | — 7년(1681, 辛酉) 3월 | 監司啓罷 |
| 140 | 朴相馨 | 文 | 通訓大夫 | | 肅宗 7년(1681, 辛酉) 3월 | |
| | | | | | —同年 9월 | 移拜獻納 |
| 141 | 朴時璟[14] | 蔭 | 通訓大夫 | | 肅宗 7년(1681, 辛酉) 10월 6일 | |
| | | | | | — 9년(1683, 癸亥) 1월 22일 | 母喪 |
| 142 | 鄭載厚 | 蔭 | 通訓大夫 | | 肅宗 9년(1683, 癸亥) 2월 9일 | |
| | | | | | —10년(1684, 甲子) 11월 7일 | 病罷 |
| 143 | 趙渭叟 | 蔭 | 通政大夫 | | 肅宗 10년(1684, 甲子) 11월 29일 | |
| | | | | | —12년(1686, 丙寅) 6월 | 以前任南原府使時忠義誤査事罷 |
| 144 | 金錫衍 | 蔭 | 通政大夫 | | 肅宗 12년(1686, 丙寅) 12월 1일 | |
| | | | | | —同月 26일 | 移拜忠淸兵使 |
| 145 | 李曼著 | 蔭 | 通訓大夫 | | 肅宗 12년(1686, 丙寅) 12월 | |
| | | | | | —13년(1687, 丁卯) 1월 | 遞 |

| 番號 | 姓 名 | 出身資格 | 品 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146 | 朴元度 | 文 | 通政大夫 | | 肅宗 13년(1687, 丁卯) 11월 1일 | |
| | | | | | -15년(1689, 己巳)閏3월 15일 | 病罷 |
| 147 | 安弼星 | 蔭 | 通政大夫 | | 肅宗 15년(1689, 己巳)閏3월 | |
| | | | | | -16년(1690, 庚午) 3월 | 移公州牧使 |
| 148 | 李允文 | 蔭 | 通訓大夫 | 永川 | 肅宗 16년(1693, 庚午) 5월 | |
| | | | | | -19년(1693, 癸酉) 11월 21일 | 移拜正言(大司諫) |
| 149 | 鄭行百 | 蔭 | 通訓大夫 | 林川 | 肅宗 19년(1693, 癸酉) 11월 28일 | |
| | | | | | -22년(1696, 乙亥) 12월 27일 | 辭罷 |
| 150 | 嚴 緝 | 文 | 通政大夫 | | 肅宗 22년(1696, 乙亥) 12월 25일 | |
| | | | | | -23년(1697, 丙子) 2월 22일 | 陞拜開城留守 |
| 151 | 柳尙載 | 文 | 通政大夫 | | 肅宗 23년(1697, 丙子) 3월 1일 | |
| | | | | | -24년(1698, 戊寅) 6월 6일 | 瓜遞 |
| 152 | 李賀朝[15] | 蔭 | 通訓大夫 | | 肅宗 24년(1698, 戊寅) 7월 9일 | |
| | | | | | -26년(1700, 庚辰) 5월 27일 | 鎭撫使相避遞 |
| 153 | 南受萬 | 蔭 | 通訓大夫 | | 肅宗 26년(1700, 庚辰) 12월 22일 | |
| | | | | | -28년(1702, 壬午) 4월 5일 | 遞 |
| 154 | 朴泰遠 | 蔭 | 通訓大夫 | | 肅宗 28년(1702, 壬午) 5월 5일 | |
| | | | | | -29년(1703, 癸未) 3월 5일 | 遞 |
| 155 | 李箕翊 | 蔭 | 奉政大夫 | | 肅宗 29년(1703, 癸未) 4월 5일 | |
| | | | | | -同年 5월 24일 | 父喪 |
| 156 | 崔昌演 | 蔭 | 中訓大夫 | | 肅宗 29년(1703, 癸未) 6월 2일 | |
| | | | | | -同年 11월 16일 | 病罷 |
| 157 | 金柱揉 | 蔭 | 通訓大夫 | | 肅宗 29년(1703, 癸未) 11월 22일 | |
| | | | | | -30년(1704, 甲申) 1월 9일 | 母喪 |
| 158 | 鄭 治 | 蔭 | 通訓大夫 | | 肅宗 30년(1704, 甲申) 2월 5일 | |
| | | | | | -同年 10월 3일 | 以閔震標自縊獄事罷 |
| 159 | 李臣龍 | 蔭 | 通訓大夫 | | 肅宗 30년(1704, 甲申) 10월 11일 | |
| | | | | | -32년(1706, 丙戌) 7월 4일 | 母喪 |
| 160 | 李世瑜 | 蔭 | 通訓大夫 | | 肅宗 32년(1706, 丙戌) 7월 20일 | |
| | | | | | -33년(1707, 丁亥) 6월 15일 | 居下遞 |
| 161 | 李寅熹 | 蔭 | 通訓大夫 | | 肅宗 33년(1707, 丁亥) 8월 11일 | |
| | | | | | -同年 11월 10일 | 辭罷 |
| 162 | 洪萬選 | 蔭 | 通訓大夫 | | 肅宗 33년(1707, 丁亥) 11월 25일 | |
| | | | | | -35년(1709, 己丑) 4월 16일 | 親病罷 |
| 163 | 沈廷輔 | 南 | 通訓大夫 | | 肅宗 35년(1709, 己丑) 4월 19일 | |
| | | | | | -39년(1713, 癸巳) 6월 21일 | 呈病啓罷 |
| 164 | 李基漢 | 南 | 通訓大夫 | | 肅宗 39년(1713, 癸巳) 6월 23일 | |
| | | | | | -40년(1714, 甲午) 3월 | 呈病啓罷 |
| 165 | 朴弼明 | 文 | 嘉善大夫 | | 肅宗 40년(1714, 甲午) 3월 15일 | |
| | | | | | -同年 7월 11일 | 呈病啓罷 |

| 番號 | 姓 名 | 出身資格 | 品 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166 | 金萬栽 | 南 | 通訓大夫 | | 肅宗 40년(1714, 甲午) 8월 3일 | |
| | | | | | —同年 12월 15일 | 殿最罷歸 |
| 167 | 崔錫弼 | 南 | 通訓大夫 | | 肅宗 41년(1715, 乙未) 2월 | |
| | | | | | —43년(1717, 丁酉) 6월 | 以御使單書啓罷 |
| 168 | 魚有鳳 | 南 | 通訓大夫 | | 肅宗 43년(1717, 丁酉) 6월 25일 | |
| | | | | | —44년(1718, 戊戌) 2월 | 陞拜掌令 |
| 169 | 南至熏[16] | 文 | 通訓大夫 | | 肅宗 44년(1718, 戊戌) 3월 | |
| | | | | | —同年 10월 29일 | 別世 |
| 170 | 李聖佐 | 陰 | 通訓大夫 | | 肅宗 45년(1719, 己亥) 1월 | |
| | | | | | —同年 7월 | 移拜光州牧使 |
| 171 | 李 澳 | 陰 | 通訓大夫 | | 肅宗 45년(1719, 己亥) 9월 16일 | |
| | | | | | —46년(1720, 庚子) 11월 23일 | 別世 |
| 172 | 李尙鼎 | 南 | 通訓大夫 | | 肅宗 46년(1720, 庚子) 12월 | |
| | | | | | —景宗 3년(1723, 癸卯) 8월 | 移拜忠州牧使 |
| 173 | 林世讓 | 南 | 通訓大夫 | 金溝縣令 | 景宗 3년(1723, 癸卯) 9월 21일 | |
| | | | | | — 4년(1724, 甲辰) 1월 | 啓罷 |
| 174 | 李廣道 | 文 | 通訓大夫 | 掌令 | 景宗 4년(1724, 甲辰) 1월 16일 | |
| | | | | | —英祖 卽位(1725, 乙巳) 1월 18일 | 啓罷 守令 |
| 175 | 洪禹齊[17] | 南 | 通訓大夫 | | 英祖 卽位(1725, 乙巳) 2월 16일 | |
| | | | | | — 2년(1726, 丙午) 6월 2일 | 移拜坡州牧使 |
| 176 | 沈胄賢 | 南 | 通訓大夫 | 安山郡守 | 英祖 2년(1726, 丙午) 10월 14일 | |
| | | | | | —同年 10월 14일 | 母喪 |
| 177 | 趙奎彬 | 南 | 通訓大夫 | 陜川郡守 | 英祖 2년(1726, 丙午) 12월 8일 | |
| | | | | | — 3년(1727, 丁未) 2월 26일 | 監司相換遞 |
| 178 | 李雨臣 | 南 | 通訓大夫 | | 英祖 3년(1727, 丁未) 3월 27일 | |
| | | | | | —同年 10월 14일 | 辭狀啓罷 |
| 179 | 金彦熙 | 南 | 通訓大夫 | | 英祖 3년(1727, 丁未) 11월 29일 | |
| | | | | | — 5년(1729, 己酉) 11월 28일 | 辭狀啓罷 |
| 180 | 金啓煥 | 文 | 通政大夫 | | 英祖 5년(1729, 己酉) 12월 18일 | |
| | | | | | — 6년(1730, 庚戌) 5월 1일 | 辭遞 |
| 181 | 鄭東游 | 南 | 通訓大夫 | 沃川郡守 | 英祖 7년(1731, 辛亥) 3월 22일 | |
| | | | | | — 8년(1732, 壬子)閏5월 5일 | 因御使推覈上京後監司啓罷 |
| 182 | 金致庬 | 文 | 通政大夫 | | 英祖 8년(1732, 壬子)閏5월 22일 | |
| | | | | | —同年 7월 | 祖父喪 |
| 183 | 金尙星 | 文 | 通訓大夫 | 漣川縣監 | 英祖 8년(1732, 壬子) 10월 12일 | |
| | | | | | —10년(1734, 甲寅) 1월 6일 | 移拜副應敎 |
| 184 | 鄭厚一 | 南 | 通訓大夫 | | 英祖 10년(1734, 甲寅) 1월 19일 | |
| | | | | | —同年 5월 | 以巡使相換遞 |

| 番號 | 姓名 | 出身資格 | 品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185 | 尹得仁 | 南 | 通政大夫 | | 英祖 10년(1734, 甲寅) 5월 21일 | |
| | | | | | －11년(1735, 己卯) 12월 15일 | 殿最罷歸 |
| 186 | 李思胤 | 蔭 | 通訓大夫 | 忠勳都事 | 英祖 12년(1735, 丙辰) 1월 6일 | |
| | | | | | －13년(1736, 丁巳) 7월 28일 | 辭狀啓罷 |
| 187 | 林 鑵 | 南 | 通訓大夫 | 敦寧府主簿 | 英祖 13년(1736, 丁巳) 8월 16일 | |
| | | | | | －14년(1738, 戊午) 8월 2일 | 辭狀啓罷 |
| 188 | 尹慶一 | 南 | 通訓大夫 | | 英祖 14년(1738, 戊午) 8월 12일 | |
| | | | | | 15년(1739, 己未) 5월 14일 | 親病啓罷 |
| 189 | 徐命珩[18] | 文 | 通訓大夫 | | 英祖 15년(1739, 己未) 6월 17일 | |
| | | | | | － －同年 10월 3일 | 陞拜義州府尹 |
| 190 | 吳遂燁 | 南 | 通訓大夫 | | 英祖 15년(1739, 己未) 10월 13일 | |
| | | | | | －16년(1740, 壬戌) 10월 19일 | 身病辭狀啓罷 |
| 191 | 魚有鵬 | 南 | 通政大夫 | | 英祖 16년(1740, 壬戌) 11월 11일 | |
| | | | | | －22년(1746, 丙寅) 9월 1일 | 瓜遞 |
| 192 | 金尙遇 | 南 | 通訓大夫 | 朔寧郡守 | 英祖 22년(1746, 丙寅) 10월 13일 | |
| | | | | | －23년(1747, 丁卯) 8월[19] | |
| 193 | 金漢昌 | 南 | 通訓大夫 | | 23년(1747, 丁卯) 8월 15일 | |
| | | | | | －同月 | 引見時特罷 |
| 194 | 洪 樗 | 南 | 通訓大夫 | | 英祖 23년(1747, 丁卯) 9월 3일 | |
| | | | | | －25년(1749, 己巳) 10월 16일 | 宗臣支待不爲出站事資本道狀罷 |
| 195 | 李 墠 | 南 | 通訓大夫 | | 英祖 25년(1749, 己巳) 11월 17일 | |
| | | | | | －27년(1751, 辛未) 2월 | 臺臣以日廣官事疎罷 |
| 196 | 鄭東良 | 南 | 通政大夫 | | 英祖 27년(1751, 辛未) 3월 3일 | |
| | | | | | －同年 7월 22일 | 吏曹開拆坐起啓罷 |
| 197 | 申景閔 | 南 | 通訓大夫 | 金山郡守 | 英祖 27년(1751, 辛未) 8월 2일 | |
| | | | | | －30년(1754, 甲戌) 1월 | 狀罷 |
| 198 | 鄭錫敎 | 南 | 通訓大夫 | 通川郡守 | 英祖 30년(1754, 甲戌) 1월 | |
| | | | | | －31년(1755, 乙亥) 1월 | 營門以罪人檢屍事狀罷 |
| 199 | 徐敏修 | 南 | 通訓大夫 | 安城郡守 | 英祖 31년(1755, 乙亥) 2월 2일 | |
| | | | | | －32년(1766, 丙子) 12월 15일 | 殿最居下 |
| 200 | 方泰輿 | 醫 | 崇祿大夫 | | 英祖 32년(1766, 丙子) 12월 25일 | |
| | | | | | －35년(1766, 己卯) 9월 25일 | 瓜遞 |
| 201 | 金聖休 | 蔭 | 通訓大夫 | 金浦縣監 | 英祖 35년(1759, 己卯) 10월 9일 | |
| | | | | | －36년(1760, 庚辰) 2월 9일 | 移拜尙州牧使 |
| 202 | 安商楫 | | | 朔寧郡守 | 英祖 36년(1760, 庚辰) 3월 27일 | |
| | | | | | －40년(1761, 甲申) 12월 | 移拜健元陵令 |
| 203 | 朴好源 | | | 安城郡守 | 英祖 41년(1762, 乙亥) 1월 4일 | |
| | | | | | －45년(1769, 己丑) 12월 | 瓜遞 |
| 204 | 李福海[20] | | | | 英祖 45년(1769, 己丑) 12월 | |
| | | | | | －47년(1771, 辛卯) 3월 | 以鎭撫相避遞 |

| 番號 | 姓 名 | 出身資格 | 品 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205 | 李宬鎭 | | | 掌樂僉正 | 英祖 47년(1771, 辛卯) 3월 28일 | |
| | | | | | －48년(1772, 壬辰) 3월 | 遞 |
| 206 | 尹心緯 | 南 | 通訓大夫 | 獻陵令 | 英祖 48년(1772, 壬辰) 4월 12일 | |
| | | | | | － | 瓜遞 |
| 207 | 勸彛性 | | 通訓大夫 | | 英祖 52년(1776, 丙申) 12월 29일 | |
| | | 蔭 | | | － 2년(1778, 戊戌) 9월 17일 | 在喪 |
| 208 | 孫相龍 | | 通政大夫 | | 正祖 2년(1778, 戊戌) 9월 21일 | |
| | | 武 | | | － 3년(1779, 己亥) 6월 23일 | 因傳敎遞付僉知 |
| 209 | 宋在淵 | | 通訓大夫 | 丹陽郡守 | 正祖 3년(1779, 己亥) 6월 22일 | |
| | | 蔭 | | | － 4년(1780, 庚子) 10월 12일 | 仁川府殺獄同推事罷 |
| 210 | 尹光裕 | | | 戶曹正郎 | 正祖 4년(1780, 庚子) 10월 | |
| | | | | | － 8년(1784, 庚辰) 10월 | 移拜星州牧使 |
| 211 | 李 潨 | | | | 正祖 8년(1784, 庚辰) 10월 22일 | |
| | | | | | － 9년(1785, 丙午) 6월 29일 | 移拜羅州牧使 |
| 212 | 尹耆東 | | | 盈德縣令 | 正祖 9년(1785, 丙午) 7월 30일 | |
| | | | | | －10년(1786, 丁未) 10월 10일 | 大夫人在喪 |
| 213 | 兪漢儁 | | | | 正祖 10년(1786, 丁未) 10월 10일 | |
| | | | | | －12년(1788, 己酉) 1월 20일 | 移拜濟州牧使 |
| 214 | 李在亨 | | | | 正祖 12년(1788, 己酉) 1월 | |
| | | | | | －同年 10월[22] | |
| 215 | 鄭東協 | | | | 正祖 12년(1788, 己酉) 10월 27일 | |
| | | | | | － 7년(1793, 癸丑) 4월 28일 | 以豊德府使相換 |
| 216 | 康命吉 | | | 豊德府使 | 正祖 17년(1793, 癸丑) 5월 4일 | |
| | | | | | －18년(1794, 甲寅) 11월 6일 | 因御使書啓罷職 |
| 217 | 趙象存 | | | 使僕僉正 | 正祖 18년(1794, 甲寅) 11월 16일 | |
| | | | | | －20년(1796, 丙辰) 9월 19일 | 因御使書啓罷職 |
| 218 | 鄭尙愚 | | | 承旨 | 正祖 20년(1796, 丙辰) 9월 19일 | |
| | | | | | －同年 10월 2일 | 移拜東萊 |
| 219 | 尹光碩 | | | | 正祖 20년(1796, 丙辰) 11월 7일 | |
| | | | | | －22년(1798, 戊午) 12월 18일 | 移拜黃州牧使 |
| 220 | 趙翬振 | | | 安城郡守 | 正祖 22년(1798, 戊午) 12월 24일 | |
| | | | | | －24년(1800, 庚申) 5월 24일 | 病遞 |
| 221 | 趙廷鉉 | | | | 正祖 24년(1800, 庚申) 5월 27일 | |
| | | | | | －純祖 4년(1804, 甲子) 10월 | 移拜晉州牧使 |
| 222 | 金龍淳 | | | | 純祖 4년(1804, 甲子) 10월 22일 | |
| | | | | | －同年 11월 21일 | 以喬桐水使相避遞 |
| 223 | 李義文 | | | 林川郡守 | 純祖 4년(1804, 甲子) 12월 16일 | |
| | | | | | － 8년(1808, 戊辰) 9월 9일 | 別世 |
| 224 | 金 鍒 | | | | 純祖 8년(1808, 戊辰) 9월 9일 | |
| | | | | | － 9년(1809, 己巳) 3월 1일 | 別世 |

| 番號 | 姓 名 | 出身資格 | 品 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225 | 朴彬源 | | | 宗廟令 | 純祖 9년(1809, 己巳) 3월 11일 | |
| | | | | | —同年 12월 3일 | 別世 |
| 226 | 金世根 | | | 醴川郡守 | 純祖 10년(1810, 庚午) 1월[23] 3일 | |
| | | | | | —同年 6월 3일 | 白川郡守口傳相換 |
| 227 | 金在三 | | | 白川郡守 | 純祖 10년(1810, 庚午) 6월 13일 | |
| | | | | | —同年 12월 27일 | 政移拜華城判官 |
| 228 | 趙學春 | | | 平壤僉尹 | 純祖 10년(1810, 庚午) 12월 27일 | |
| | | | | | —13년(1813, 癸酉) 2월 5일 | 朔寧郡守相換 |
| 229 | 洪旭浩 | | | | 純祖 13년(1813, 癸酉) 2월 5일 | |
| | | | | | —14년(1814, 甲戌)閏2월 11일 | 以喬桐水使啓罷 |
| 230 | 李靖會[24] | | | | 純祖 14년(1814, 甲戌)閏2월 6일 | |
| | | | | | —15년(1815, 乙亥) 9월 22일 | 移拜晉州牧使 |
| 231 | 金思植 | | | | 純祖 15년(1815, 乙亥) 9월 29일 | |
| | | | | | —16년(1816, 丙子) 11월 5일 | 政移拜忠州牧使 |
| 232 | 金芝淳 | | | 咸陽郡守 | 純祖 16년(1816, 丙子) 11월 19일 | |
| | | | | | —17년(1817, 丁丑) 6월 6일 | 以自病呈辭狀 |
| 233 | 徐洛修[25] | | | 漢城僉尹 | 純祖 17년(1817, 丁丑) 6월 11일 | |
| | | | | | —19년(1819, 己卯) 6월 | 褒貶居中 |
| 234 | 金魯鍾 | | | 溫陽郡守 | 純祖 19년(1819, 己卯) 7월[26] 8일 | |
| | | | | | —21년(1821, 辛巳) 8월 23일 | 遭外艱 |
| 235 | 朴晩濤 | | | | 純祖 21년(1821, 辛巳) 8월 29일 | |
| | | | | | —26년(1826, 丙戌)[27] 2월 7일 | 因事就理罷職 |
| 236 | 金永錫 | | | 翊衛 | 純祖 26년(1826, 丙戌) 2월 7일 | |
| | | | | | —同年 10월 12일 | 安城郡守相換 |
| 237 | 金 鑅 | | | 安城郡守 | 純祖 26년(1826, 丙戌) 12월 12일 | |
| | | | | | —27년(1827, 丁亥) 4월 23일 | 遭外艱 |
| 338 | 徐鳳輔[28] | | | 司僕僉政 | 純祖 27년(1827, 丁亥) 4월 29일 | |
| | | | | | —30년(1830, 庚寅) 7월 9일 | 別世 |
| 239 | 成道默 | | | 翊衛 | 純祖 30년(1830, 庚寅) 7월 16일 | |
| | | | | | —32년(1832, 壬辰) 2월[29] | |
| 240 | 林顯喆[30] | | | 廣州判官 | 純祖 32년(1832, 壬辰) 2월 28일 | |
| | | | | | —33년(1833, 癸巳) 5월 | 辭遞 |
| 241 | 申在順 | | | 陜川郡守 | 純祖 33년(1833, 癸巳) 5월 26일 | |
| | | | | — | 憲宗 3년(1837, 丁酉) 12월 24일 | 移拜星州牧使 |
| 242 | 曺錫玄 | | | 大邱判官 | 憲宗 3년(1837, 丁酉) 12월 24일 | |
| | | | | | — 5년(1839, 己亥) 6월 | 繡罷 |
| 243 | 李宜翼[31] | | | 司僕僉正 | 憲宗 5년(1839, 己亥) 6월 29일 | |
| | | | | | — 6년(1840, 庚子) 1월[32] | |
| 244 | 李敏榮 | | | 丹陽郡守 | 憲宗 6년(1840, 庚子) 1월 20일 | |
| | | | | | — 7년(1841, 辛丑) 7월 24일 | 別世 |

| 番號 | 姓 名 | 出身資格 | 品 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245 | 金漢淳 | | | 繕工副正 | 憲宗 7년(1841, 辛丑) 7월 26일 | |
| | | | | | —10년(1844, 甲辰) 10월 21일 | 辭遞 |
| 246 | 金應根 | | | 宣惠郎廳 | 憲宗 10년(1844, 甲辰) 10월 21일 | |
| | | | | | —12년(1846, 丙午) 7월 29일 | 辭遞 |
| 247 | 金箕默 | | | 戶曹郎廳 | 憲宗 12년(1846, 丙午) 8월 2일 | |
| | | | | | —13년(1847, 丁未) 12월 24일 | 移拜星州牧使 |
| 248 | 朴峻陽 | | | 德山郡守 | 憲宗 13년(1847, 丁未) 12월[33]28일 | |
| | | | | | —哲宗 3년(1852, 壬子) 1월 30일 | 移拜務黃州牧使 |
| 249 | 徐用輔 | | | 軍資監判官 | 哲宗 3년(1852, 壬子) 2월 13일 | |
| | | | | | — 4년(1853, 癸丑) 11월 15일 | 移拜務安牧使 |
| 250 | 金有淳 | | | 沃川郡守 | 哲宗 4년(1853, 癸丑) 12월[34]21일 | |
| | | | | | — 6년(1855, 乙卯) 7월 11일 | 遭內艱遞 |
| 251 | 朴顯圭 | | | 繕工副正 | 哲宗 6년(1855, 乙卯) 7월 21일 | |
| | | | | | — 7년(1856, 丙辰) 6월 14일 | 移拜晉州牧使 |
| 252 | 安膺壽 | | | 永平郡守 | 哲宗 7년(1856, 丙辰) 7월[35]21일 | |
| | | | | | —11년(1860, 庚申) 12월 20일 | 移拜水原判官 |
| 253 | 金冑鉉 | | | 金川郡守 | 哲宗 11년(1860, 庚申) 10월[36]20일 | |
| | | | | | —高宗 卽位(1864, 甲子) 7월 28일 | 遭外艱遞 |
| 254 | 趙秉燮 | | | 戶曹正郎 | 高宗 卽位(1964, 甲子) 8월[37] 8일 | |
| | | | | | — 2년(1865, 乙丑) 4월 2일 | 移拜驪州牧使 |
| 255 | 鄭基年 | | | | 高宗 2년(1865, 乙丑) 4월 16일 | |
| | | | | | —同年 6월 10일 | 身病呈遞 |
| 256 | 趙雲競 | | | 咸興判官 | 高宗 2년(1865, 乙丑) 7월[38]27일 | |
| | | | | | —同年 12월 20일 | 安山郡守相換 |
| 257 | 趙秉儉 | | | 安山郡守 | 高宗 3년(1866, 丙寅) 1월[39] 9일 | |
| | | | | | —同年 7월 25일 | 以親患呈遞 |
| 258 | 趙秉老 | | | 永柔縣令 | 高宗 3년(1866, 丙寅) 8월 10일 | |
| | | | | | —同年 11월 26일 | 忠州牧使相換 |
| 259 | 韓應弼 | | | 忠州牧使 | 高宗 3년(1866, 丙寅) 12월[40] 6일 | |
| | | | | | — 4년(1877, 丁卯) 4월 20일 | 移拜洪州牧使 |
| 260 | 金秉燾 | | | 朔寧郡守 | 高宗 4년(1877, 丁卯) 5월[41]13일 | |
| | | | | | —同年 7월 19일 | 遭內艱遞 |
| 261 | 徐光斗 | | | 榮川郡守 | 高宗 4년(1877, 丁卯) 9월[42] 3일 | |
| | | | | | — 6년(1869, 己巳) 3월 20일 | 移拜鎭衛 |
| 262 | 崔翼鳳 | | | 仁川府使 | 高宗 6년(1869, 己巳) 3월 21일 | |
| | | | | | — 7년(1870, 庚午) 12월 16일 | 別世 |
| 263 | 李基祖 | | | | 高宗 7년(1870, 庚午) 12월 18일 | |
| | | | | | — 8년(1871, 辛未) 9월 29일 | 移拜訓練千摠 |
| 264 | 李貞夏 | | | 交河郡守 | 高宗 8년(1871, 辛未) 10월[43]15일 | |
| | | | | | —11년(1874, 甲戌) 2월 2일 | 高陽郡守相換 |

| 番號 | 姓 名 | 出身資格 | 品 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265 | 趙秉益 | | | 高陽郡守 | 高宗 11년(1874, 甲戌) 2월 17일 | |
| | | | | | -同年 8월 4일 | 移拜原州牧使判官 |
| 266 | 趙台永 | | | 淳昌郡守 | 高宗 11년(1874, 甲戌) 9월[44]13일 | |
| | | | | | -12년(1875, 乙亥) 5월 23일 | 身病呈遞 |
| 267 | 李秉淑 | | | 僉中樞 | 高宗 12년(1875, 乙亥) 6월[45] 8일 | |
| | | | | | -同年 12월 21일 | 遭內艱遞 |
| 268 | 閔哲鎬[46] | | | | 高宗 12년(1875, 乙亥) 12월 27일 | |
| | | | | | -15년(1878, 戊寅) 6월 16일 | 瓜遞 |
| 269 | 趙龍夏 | | | 忠州牧使 | 高宗 15년(1878, 戊寅) 7월[47]10일 | |
| | | | | | -17년(1880, 庚辰) 7월 29일 | 移拜淸州牧使 |
| 270 | 李浩善 | | | 楊根郡守 | 高宗 17년(1880, 庚辰) 9월[48] 6일 | |
| | | | | | -18년(1881, 辛巳) 11월 15일 | 遞 |
| 271 | 金洛鎭 | | | 朔寧郡守 | 高宗 18년(1881, 辛巳) 11월 30일 | |
| | | | | | -19년(1882, 壬午) 6월 29일 | 遞 |
| 272 | 金澔均 | | | | 高宗 19년(1882, 壬午) 7월 2일 | |
| | | | | | -20년(1883, 癸未) 5월 3일 | 遞 |
| 273 | 朴熙房 | | | | 高宗 20년(1883, 癸未) 5월 5일 | |
| | | | | | -21년(1884, 甲申) 1월 9일 | 遞 |
| 274 | 許 璡 | | | | 高宗 21년(1884, 甲申) 1월 21일 | |
| | | | | | -22년(1885, 乙酉) 6월 29일 | 遞 |
| 275 | 朴齊文 | | | 榮川郡守 | 高宗 22년(1885, 乙酉) 8월[49]19일 | |
| | | | | | -同年 11월 17일 | 遞 |
| 276 | 鄭秉夏 | | | 唐津縣 | 高宗 22년(1885, 乙酉) 10월[50] 6일 | |
| | | | | | -25년(1888, 戊子) 5월 29일 | 遞 |
| 277 | 金宏臣 | | | 安山郡守 | 高宗 25년(1888, 戊子) 6월 22일 | |
| | | | | | -同年 10월 5일 | 遞 |
| 278 | 李根澔 | | | | 高宗 25년(1888, 戊子) 12월[51]12일 | |
| | | | | | -同年 12월 7일 | 遞 |
| 279 | 高永根 | | | 長湍郡守 | 高宗 25년(1888, 戊子) 12월 14일 | |
| | | | | | -26년(1889, 己丑) 8월 13일 | 遞 |
| 280 | 閔俊鎬 | | | 慈山府使 | 高宗 26년(1889, 己丑) 8월[52]13일 | |
| | | | | | -同年 12월 29일 | 移拜龍川府使 |
| 281 | 崔錫斗 | | | 南原府使 | 高宗 27년(1890, 庚寅) 3월[53]12일 | |
| | | | | | -28년(1891, 辛卯) 12월 21일 | 遞 |
| 282 | 洪祐龍 | | | 庇仁縣監 | 高宗 29년(1892, 壬辰) 1월[54]17일 | |
| | | | | | -同年 4월 28일 | 遞 |
| 283 | 安駟壽 | | | 竹山府使 | 高宗 29년(1892, 壬辰) 5월[55]22일 | |
| | | | | | -30년(1893, 癸巳) 11월 8일 | 遞 |
| 284 | 李漢英 | | | 淮陽府使 | 高宗 30년(1893, 癸巳) 12월 9일 | |
| | | | | | -31년(1894, 甲午) 4월 15일 | 遞 |

| 番號 | 姓 名 | 出身資格 | 品 階 | 前職 | 在任期間 | 交替事由(官職) |
|---|---|---|---|---|---|---|
| 285 | 李根濬 | | | 三和府使 | 高宗 31년(1894, 甲午) 4월24일 | |
| | | | | | －同年 7월 14일 | 遞 |
| 286 | 姜泰喜 | | | | 高宗 31년(1894, 甲午) 7월29일 | |
| | | | | | －同年 8월 12일 | 別世 |
| 287 | 申 林 | | | 軍務衙門參議 | 高宗 31년(1894, 甲午) 8월27일 | |
| | | | | | －33년(1896, 丙申) 4월12일 | 移拜北靑郡守 |
| 288 | 申贊熙 | | | | 高宗 33년(1896, 丙申) 4월24일 | |
| 289 | 尹豊禎 | | | | 光武 5년(1901) 취임않고 즉시 사퇴 | |
| 290 | 姜永吉 | | | | 光武 5년(1901) 2월 사퇴 | |
| 291 | 朴基昌 | | | | 光武 6년(1902) 2월 22일 － 12월 | |
| 292 | 丁大緯 | | | | 光武 6년(1902)12월－光武 7년(1903) 5월 | |
| 293 | 成輔永 | | | | 光武 6년(1903) 6월－光武 10년(1906) 11월 5일 | |
| 294 | 李海昌 | | | | 光武 10년(1906)11월15일－隆熙 2년(1908) 7월16일 | |
| 295 | 金國換 | | | | 隆熙 2년(1908) 7월16일－隆熙 3년(1909) 4월 | |
| 296 | 鄭雲衡 | | | | 隆熙 3년(1909) 4월 －1991년10월(?)[56] | |
| 297 | 全 協 | | | | 1911년 10월－1912년 4월(?)[57] | |
| 298 | 鄭寅韶 | | | | 1912년 5월－1914년 3월 1일[58] | |

【註】

1) 이하는 『東國輿地誌』, 『富平邑誌』, 『京畿邑誌』, 「富平府邑誌附邑事例」, 『靑雲譜』, 『搢紳外任案』 『富平府邑誌』, 『富平郡邑誌』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2) 『富平郡邑誌』에는 누락되어 있다. 『東國輿地誌』 卷之二 京畿篇 참조
3) 『富平郡邑誌』에는 中宗 38년으로 되어 있다. 中宗 39년의 誤記인 것 같다.
4) 『富平郡邑誌』에는 宣宗으로 되어 있다. 宣祖의 誤記인 것 같다.
5) 『富平邑誌』에는 이름이 '泪'으로 되어 있다. (이하 註를 작성할 때 본문의 명단과 기재내용이 같은 경우는 인용하지 않고 다른경우에만 인용하였다.)
6) 『富平郡邑誌』에는 甲寅이라 되어 있다. 辛亥의 誤記인 것 같다.
7) 『富平府邑誌』에는 이름이 '和述'로 되어있다.
8) 『富平府邑誌』·『京畿邑誌』에는 이름 끝 자가 '認'으로 되어 있다.
9) 『富平府邑誌』에는 성이 '金'으로 되어 있다.
10) 『富平府邑誌』에는 성이 '許'로 되어 있으나 다른 읍지에는 모두 '韓'으로 되어 있어 '韓'의 誤記인 것 같다.
11) 『富平府邑誌』에만 이름 가운데 자가 '復'으로 되어 있다.
12) 『富平府邑誌』에는 이름 끝 자가 '場'으로 되어 있다.
13) 『富平府邑誌』·『富平邑誌』에는 이름 끝 자가 '周'로 되어 있다.
14) 『京畿邑誌』·『富平府邑誌』·『富平邑誌』에는 이름 끝자가 모두 '暻'으로 되어 있다.
15) 『京畿邑誌』에는 이름 가운데 자가 '駕'로 되어 있다.
16) 『富平府邑誌』·『富平邑誌』에는 이름 끝 자가 '薰'으로 되어 있다.
17) 『富平府邑誌』·『富平邑誌』에는 이름 끝 자가 '濟'로 되어 있다.
18) 『富平府邑誌』·『富平邑誌』에는 이름 끝 자가 '行'으로 되어 있다.
19) 『富平郡邑誌』에는 체임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후임자의 부임일로 추정하였다.

20) 『京畿邑誌』·『富平府邑誌』·『富平邑誌』에는 성명이 누락되어 있다.
21) 『富平府邑誌』에는 이름 가운데 자가 '薯'로 되어 있다.
22) 『富平郡邑誌』에는 부임·체임년도 기록이 없다. 전임자, 후임자기록으로 추정하였다.
23) 『靑雲譜』에는 '12월'로 되어 있다. 『靑雲譜』기록은 발령받은 달을 기재한 것이고, 『富平邑誌』는 부임일자를 기재한 것 같다.
24) 『靑雲譜』에는 이름 가운데 자가 '翊'으로 되어 있다.
25) 『富平府邑誌』·『富平邑誌』에는 이름 가운데 자가 '絡'으로 되어 있다.
26) 『富平郡邑誌』·『搢紳外任案』에는 '6월'로 되어 있다.
27) 『富平郡邑誌』에는 戊戌로 기록되어 있다. 丙戌의 誤記인 것 같다.
28) 『搢紳外任案』에는 이름 끝자가 '淳'으로 되어 있다.
29) 『富平郡邑誌』에는 체임년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후임자의 부임일로 추정하였다.
30) 『靑雲譜』에는 이름 끝 자가 '浩'로 되어 있다.
31) 『富平府邑誌』에는 이름 끝 자가 '益'으로 되어 있다.
32) 『富平郡邑誌』에는 체임년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후임자의 부임일로 추정하였다.
33) 『靑雲譜』에는 '3월'로 되어 있다.
34) 『靑雲譜』에는 '11월'로 되어 있다.
35) 『靑雲譜』에는 '6월'로 되어 있다.
36)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12월'로 되어 있다.
37)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7월'로 되어 있다.
38)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6월'로 되어 있다.
39)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乙丑年 12월'로 되어 있다.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趙秉儉뒤에 洪祐慶이 高宗 3년 1866(丙寅)년 7월에 부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부임한 것 같고 『富平邑誌』에는 누락되어 있다.
40)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11월'로 되어 있다.
41)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4월'로 되어 있다. 『富平府邑誌』에는 이름 가운데 자가 '炳'으로 되어 있다.
42)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7월'로 되어 있다.
43) 『搢紳外任案』에는 '9월'로 되어 있다.
44)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8월'로 되어 있다.
45) 『搢紳外任案』에는 '5월'로 되어 있다.
46) 『靑雲譜』에는 누락되어 있다.
47)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6월'로 되어 있다.
48) 『靑雲譜』·『搢紳外任案』에는 '6월'로 되어 있다.
49) 『搢紳外任案』에는 '6월'로 되어 있다.
50) 『搢紳外任案』에는 '6월'로 되어 있다. 『富平府邑誌』에는 이름 끝 자가 '河'로 되어 있으나 '夏'의 誤記이다.
51) 『搢紳外任案』에는 '10월'로 되어 있다.
52) 『搢紳外任案』에는 '5월'로 되어 있다.
53) 『搢紳外任案』에는 '己丑年 12월'로 되어 있다.
54) 『搢紳外任案』에는 '辛卯年 12월'로 되어 있다. 洪祐龍뒤에 吳哲善·元有常(高宗 29년(1892, 壬辰) 4월 부임)의 명단이 『搢紳外任案』에만 기재되어 있으나 미부임한 것 같다.
55) 『搢紳外任案』에는 '4월'로 되어 있다.
56) 후임자의 부임월일로 추정하였다.
57) 후임자의 부임년월일로 추정하였다.
58) 1914년 3월 1일 부평군이 폐지되고 행정구역이 부천군으로 바뀌면서, 1914년 4월 초대 부천군수로 유임하였다.

# 富平의 年表

**475년**(고구려, 장수왕 63년) 주부토군(主夫吐郡)

**757년**(통일신라, 경덕왕 16년) 한산주(漢山州; 漢州)소속 장제군(長堤郡); 무성(戊城)·김포(金浦)·동성(童城)·분진현(分津縣) 등

**922년**(고려, 태조 5년) 부평지역에 지방수령인 장제군지사(長堤郡知事)와 사심관(事審官)과 향직단체(鄕職團体)를 두어 지방의 행정사무 처리

**940년**(고려, 태조 23년) 수주(樹州); 장제군 지역 관할

**1127년**(고려, 인종 5년) 부평향교 설립(추정)

**1150년**(고려, 의종 4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금주(衿州)·동성·통진(通津)·공암(孔巖)·김포·수안현(守安縣) 등

**1215년**(고려, 고종 2년)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

**1308년**(고려, 忠烈王 34년) 길주목(吉州牧)

**1310년**(고려, 忠宣王 2년) 부평부(富平府)로 변경, 동으로 한양·광주, 서로는 강화, 남으로 수원과 남양, 북으로는 개경과 접하는 방대한 지역 관할

**1395년**(조선, 태조 4년) 경기우도(부평·양주·철원·연안 등)와 경기좌도(평주·수안·곡주·재령·서흥·신은·협계 등)으로 나뉨

**1402년**(조선, 태종 2년) 경기 좌·우도를 통합하여 경기좌우도 이룸

**1413년**(조선, 태종 13년) 8도호부중 하나인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로 됨 ; 15개면 84개리로 고려시대보다 축소. 개항 이후 1895년까지 8도제는 계속 시행됨

**1438년**(조선, 세종 20년) 부평현으로 강등

**1446년**(조선, 세종 28년) 부평도호부로 환원됨

**1505년**(조선, 연산 11년) 부평현으로 강등

**1506년**(조선, 중종 원년) 부평도호부로 환원됨

**1592년**(조선, 선조 25년) 8월 24일 임진왜란때 인천을 함락시킨 왜군이 부평·김포지역 점령

**1688년**(조선, 숙종 14년) 부평향교(문묘)를 재건

**1698년**(조선, 숙종 24년) 부평현으로 강등

**1707년**(조선, 숙종 33년) 부평도호부로 환원됨

**1789년**(조선, 정조 13년) 『호구총수』에 의하면, 부평의 호수는 3,200호, 인구는 11,600명임

**1853년**(조선, 철종 4년) 부평향교, 명륜당 및 대성전, 동무·서무, 동재·서재, 전사청, 주감방 및 문, 수복방과 담장 보수

**1866년** (고종 3년)

9. 프랑스함대 프리모오 등 3척을 이끌고 리텔신부 등이 부평부 영해인 난지도 앞바다에 정박(병인양요)

**1871년**

5. 25 미국 탐측함대가 물치도를 지나 부평경내로 들어와 탐측하며 정박
5. 28 미국 아시아함대의 5척 군함이 부평 경계 앞바다에 있는 호도(범선)에 정박(신미양요)
6. 3 율도의 백사장에서 약 100일간에 걸쳐 조선의 부평도호부사 이기조와 미국측의 드루(F.J.Drew)서기관간에 '장대교섭'이 진행
6. 12 부평부사 이기조, 서한을 통하여 미국의 강화도 상륙작전을 비난

이 해에, 부평향교, 전반적인 수선공사

**1878년**

8. 27 강화도조약 이후 부평연안에 진을 설치하고 포대를 축조

**1883년**

1. 1 인천항 개항
10. 부평에서 서곶으로 넘어가는 징맹이고개(景明峴)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 당시 부평부사는 박희방(朴熙房)

**1884년**

1. 31 부평부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

**1887년**

12. 29 부평부사, 토포사(토포사) 겸임

**1895년**

1. 7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로 시행되면서 부평군(富平郡; 15개면 관할)으로 강등, 인천관할부(12개군)에 예속, 종래의 부평도호부 소재지인 부내면(府內面)이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
3. 부평부의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 용산 만리창지(萬里倉址)로 이설
5. 2 인천부 부평군으로 소속
5. 26 도이하의 부목군현을 통털어 336개군으로 폐합하면서 부평군은 한성부의 관할구역이 됨

**1896년**

8. 4 23부제를 폐지하고 한성부 이외의 지역을 13도로 개편하면서 부평군의 행정조직은 경기도의 관할지역으로 편성, 관할구역(일부 늘어나 5개면 31개리)은 부평도호부와 비슷

**1897년**

이 해에 부평의 인구, 15,573명, 호수(戶數)는 2021호(戶)－일본인 4,200명, 영국인 15명, 독일인 16명, 미국인 6명, 프랑스인 7명, 청국인 420명, 이탈리아인 2명, 희랍인 2명, 기타 3명 포함)

**1899년**

3. 15 부평공립소학교(계양구 계산동 162소재) 설립·개교

9. 18 인천과 노량진간 경인철도 부설. 경인선개통과 함께 부평역, 업무 개시

12. 16 인천항에 거류하는 미국인 담생(淡生), 부평군 율도에 광산용 폭약 저장고 건축한다고 외부에 청원

**1904년**

4. 인천전기주식회사 설립, 부평지역 전력 공급

이 해에 부평향교, 내삼문 정비

**1905년**

이 해에 계산감리교회 설립

**1906년**

2. 구한국정부 탁지부 수도국에서 노량진에 수원지를 건설, 이에 따른 정수시설과 부평지역을 통과한 인천까지 송수관로 등 제반시설 공사 착수

이 해에 부평군, 군내면 등 15개면 관할

**1907년**

이 해에 부평의 호수는 3,330호, 인구는 12,500명

**1909년**

1. 4 부평소학교, 부평보통학교로 개편

**1910년**

10. 30 노량진 수원지에서 부평지역을 통과하는 송수관로 등 제반공사 완료, 최초의 인천 상수도 시설

**1911년**

이 해에 부평읍의 호수는 240호, 인구는 1,040명
부평보통학교, 사립계창학교를 병합

**1912년**

이 해에 부평보통학교, 부평공립학교로 개편

**1914년**

3. 1 인천부의 관할구역은 개항장으로 축소, 부평군의 일원과 인천에 편입하지 못한 종래 인천군의 일부지역과 강화군 중 일부지역(신도(信島), 아도(牙島), 장봉도(長峯島)의 대부면(大阜面)과 영흥면(靈興面)까지 포함)을 통합하여 부천군 신설

**1917년**

6. 15 경기도, 부천군 면내(面內)의 동리(洞里) 명칭과 구역을 변경

**1919년**

3. 13 계양면과 소래면 주민 수백명이 만세시위
3. 23 인천경찰서 시위진압을 위해 순사 10여 명을 부평주재소에 증파
3. 24 이은선(李殷先), 부평 장날을 이용한 대규모 만세 시위에서 일본경찰의 칼에 맞아 순절(殉節). 심혁성·윤덕상(尹德商)·권명규(權明圭) 등 여러 명이 체포됨. 군중들, 부평 면사무소를 파괴, 수십 명의 일본 경찰은 이들에게 발포
3. 25 부평 만세시위운동 주동자 28명이 모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로 이감(移監)됨
3. 28 부평에서 동년 5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만세시위를 벌려 52명이 부상당하고 98명이 체포됨

**1920년**

5. 18 부평수리조합 설치 신청
6. 20 문학면사무소 신축

**1921년**

이 해에 부평향교, 무너진 동쪽 담장을 수리하고 서무를 새로 지음

**1922년**

5. 1 소사소학교 개교, 일본인자제를 대상으로 한 소사심상소학교 설립

**1923년**

4. 9 부평수리조합, 총독부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아 창설. 위치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606번지

8. 부평수리조합, 부정고사시비에 관해 동아일보에 게재됨

**1924년**

4. 23 부천군청 위치를 '인천부 내리(內里)'에서 '인천'으로 정하여 발포

5. 1 부평에서 종두(種痘)실시

5. 1 소사 공립보통학교 개교

**1925년**

7. 24 홍수로 부평 일대 참재(慘災)

**1929년**

3. 24 서곶공립보통학교 인가

**1930년**

1. 20 서곶공립보통학교 개교

**1931년**

9. 6 오정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32년**

8. 1 계양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12. 3 계양공립보통학교 개교

이 해에 오정공립보통학교 개교

**1933년**

이 해에 부평향교, 대성전 내외 석회공사와 동무·서무의 기둥과 대들보의 보수 및 석회공사

**1934년**

3. 24 부평 장날 군중 수백 명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고창(高唱). 인천경찰서 순사 수명의 총탄에 6명 사망

4. 1 부평공립학교, 대정리(지금의 부평역 부근)에 부설 간이학교(지금의 부평동 국민학교의 전신)를 설치

이 해에 부평제강(富平製鋼), 경성공작주식회사(京城工作株式會社) 설립

**1936년**

10. 1 부천군의 문학, 다주(多朱) 일부가 인천부에 편입, 인천부역의 확장은 부천군의 관할구역 축소를 가져와 부평지역 행정구역 일부가 분리

**1937년**

4. 1 부평연와공업 설립, 부평의 최초 공장

이 해에 부평향교, 1달간 전반적인 보수를 함

국산자동차(주), 부평에 공장(군용자동차 독점 생산)설립

**1938년**

1. 1 인천변전소 건립

3. 19 소사공립보통학교, 소사북공립심상학교로 개명

오정공립보통학교, 오정공립심상학교로 개명

계양공립보통학교, 계양공립심상학교로 개명

4. 1 인천대정공립국민학교(현·인천부평국민학교), 부평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4. 1 서곶공립보통학교, 서곶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

**1939년**

11. 경성공작 주식회사(청천동 소재) 설립, 수도용 강관 생산

이 해에 디젤자동차공업(주) 부평공장·국산자동차(주) 부평공장·흥중상공(주) 부평공장 등 설립

일본군 부대의 조병창(造兵敞 ; 현 부평역~현대APT부근일대)착공

**1940년**

1. 19 부평지역, 총독부 고시 제25호로 계획인구 175,000명의 경인시가지계획구역으로 결정

3. 15 부평역전우편소(富平驛前郵便所) 개소(開所), 전신 전화업무 개시

4. 1 부천군 4개(서곶·문학·남동·부내)면이 인천부에 편입

4. 24 부평공립보통학교부서 간이학교, 인천소화동공립심상소학교로 개교

4. 27 인천소화고등여학교 설립인가
5. 18 인천소화고등여학교 개교(인천송림공립심상소학교의 교사를 빌어 개교)
12. 20 진종동원사(眞宗東願寺) 부평포교소(인천부 소화정 소재)설치
이 해에 소화지구(昭和地區; 지금의 부평지구)에서 부평지역의 시가가 형성된 것임
인천소화공립심상소학교 개교
부평향교, 외삼문 및 고직실을 중수
부평가압 펌프장 신설

**1941년**

3. 25 인천대정심상소학교, 인천대정공립국민학교로 개명
3. 25 소사북공립심상소학교, 소사북공립국민학교(현 부천북국민학교의 전신) 개명
인천정상공립심상소학교, 인천정상공립국민학교로 개명
3. 31 인천소화서공립국민학교, 광복후 인천부평서국민학교로 개교
4. 1 인천소화동공립심상소학교, 인천소화동공립국민학교로 개명(현 부평동 국민학교의 전신)
4. 1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부평공립보통학교(부평국교 전신), 인천대정 심상소학교로, 인천서곶국교전신 서곶공립심상소학교, 인천정상공립심상학교로, 오정공립심상학교(부천오정국교 전신), 오정공립국민학교로, 계양공립심상학교, 계양공립국민학교(현 계양국교의 전신)로 각기 개명
4. 4 부평1지구(부평역~북구청~부흥로터리)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총독부 고시 제444호), 부평지역에서 실시한 최초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10. 24 부평역전우편소, 청사를 신축(부평 422)하고 부평우편소(富平郵便所)로 개칭(改稱)
11. 5 부평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11. 17 인천소화고등여학교, 부평동 15번지(현 경찰종합학교)에 교사를 신축하고 이사
이 해에 소사소학교, 소사공립국민학교로 개명

**1942년**

6. 부평변전소 건립
10. 1 부평에 공회당 건립
12. 20 부평변전소, 전화교환 업무 개시

**1943년**

이 해에 문학향교와 부평향교를 합감(合龕)하여 인천향교로 호칭

**1944년**

1. 8 총독부 고시 제13호에 의거 부평 제1공원 등 23개소가 결정, 부평지역 최초의 공원

이 해에 부평경찰서 신설

**1945년**

9. 인천대정공립국민학교, 인천공립계동국민학교로
인천정상공립국민학교, 인천공립서곶국민학교로
인천소화공립국민학교, 인천공립부평동국민학교로
인천소화서공립국민학교, 인천공립부평서국민학교로 각기 교명을 변경

11. 15 소사공립국민학교, 소사남국민학교개명(지금의 부평남국민학교)

11. 15 인천부 고시 제53호로 인천부지청규정(仁川府支廳規定)을 제정하여 부평·서곶·남동·문학출장소를 부평·서곶·남동·문학지청(支廳)으로 개칭

이 해에 건국청년회 부평지부 개설

**1946년**

1. 1 일본식의 행정구역 명칭을 우리고유의 명칭으로 환원 개정, 정(町)명칭을 동(洞)으로 개정

3. 문학향교는 인천향교로, 부평향교는 부평향교로 분리·복원

3. 이경성(李慶成), 부평조병창에서 중국종(中國鍾) 3점 등을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김 (인천시립박물관은 4월 1일 개관)

3. 유도회 부평지부(계양구 계산동 982-1소재)설립

이 해에 한국광복청년회 부평지회, 대한독립청년단 부평지단, 부평체육회 개설

**1947년**

3. 대한예수교 장로회소속인 부평중앙교회 설립

3. 부평제일교회 설립

5. 25 인천각(仁川閣) 침입절도단 일당, 부평에서 검거

10. 15 대동청년단(大同青年團) 부평지단 결성, 당시 단장은 이재준(李載濬)

이 해에 일신종합화학(주) 설립

**1948년**

8. 15 출장소를 지청(支聽)으로 개칭하였던 것을 다시 출장소로 환원, 부평·서곶·남동·문학지청을 부평·서곶·남동·문학출장소로 개칭

9. 1 창영(昌榮)국교 청라도분교 신설

**1949년**

1. 대한청년단 부평지구단 경성, 단장은 이재준
5. 1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소속된 부광교회, 창립예배
7. 4 인천부가 인천시로 승격
7. 6 대한부인회 부평지회 결성, 지회장은 최상명
8. 1 부평지구위술사령부(富平地區衛戍司令部)설치
8. 15 인천부, 인천시로 개칭
10. 1 보건부장관, 부평에 나환자(癩患者) 수용소를 60일 이내에 설치하겠다고 발표
11. 25 부평우편소, 부평우체국으로 승격
12. 8 부평경찰서 청사 신축

**1950년**

3. 9 부평국민학교(부평동 107)화재발생, 피해액은 6천 6백만 3천 4백원으로 대형화재
9. 17 해병대, 부평역 서북쪽 고지에서 적 1개중대와 전투 끝에 소탕
9. 19 인천~부평간 열차 시운전
9. 28 인천~영등포간 군수열차 운행

이 해에 이화산업(주) (석남동 소재), 동화기업(주), 불이(不二)기계, 부평양조조합(계산동 소재)설립

**1951년**

4. 조양금속공업사(주) (부평동 소재) 설립
9. 한국건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이 해에 부평 대광교회 설립

**1952년**

3. 부평지역 천주교 부평공소를 부평 본당으로 승격
4. 25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초대 시의원선거 실시. 부평의 당선의원은 김영길(金永吉)·정은용(鄭殷鎔), 서곶의 당선의원은 심덕기(沈德基)
5. 26 고아원인 신명보육원(북구 십정동 185)설립, 부평지역 최초 사회복지시설

**1953년**

2. 한국종합기계(주) (신곡동 소재) 설립
6. 18 부평·부산·영천 등지에서 반공포로 석방 ; 부평 미군 제44공병대에서 작업중이던 1,500여 명 탈출, 감시원의 발포로 여러 명 사망, 80여 명 경·중상
8. 13 강우량 176미리로 부평형무소가 침수됨, 죄수들은 도경(道警)으로 응급 이감
9. 6 신명보육원(북구 십정동 185)설립
10. 20 창영국교,「창영어린이」창간
이 해에 부평향교 중수
산곡국민학교 신설
북구의 인구는 30,369명
한국베어링 공업주식회사(현 한국베어링)와 전남방직 주식회사(현 전방주식회사전신) 등 설립

**1954년**

9. 6 창영국교강당서 민병대(民兵隊)웅변대회 개최
12. 20 청각장애자 수용시설인 성동원(북구 부평동 756) 설립
이 해에 한미친선위원회의 전후 복구사업으로 부평장로교회, 부평성결교회 신축
구세군 부평영 개척

**1955년**

6. 17 인천부평정미소(부평동 100번지)에서 화재발생, 7백 5만 4천원 어치의 양곡 손실
8. 5 부평파출소 신축
11. 영창악기(주) (가좌동 소재) 설립
12. 22 특수교육기관인 인천맹아학교 개교(1987년 성동학교로 개명)
12. 신한제분(주) (산곡동 소재) 설립
이 해에 한미친선위원회의 전후 복구사업으로 부평소방서청사, 부평서국민학교, 부개동공민학교 신축
부개국민학교 신설

**1956년**

1. 7 시각장애자 수용시설인 인천광명원(북구 십정동 185)설립

10. 1. 부평출장소 개설, 16개 법정동과 10개 행정동의 행정을 총괄
12. 신한제분주식회사(산곡동 소재) 설립

**1957년**

1. 1 인천시 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9개의 출장소 설치, 부평지역은 부평 16동과 서곶 12동 출장소에서 관할
5. 1 창영국교,「창영 50년사」를 간행
6. 20 에덴유치원 개원
7. 1 지체부자유자 수용시설인 성린재활원(북구 십정동 5011)설립

이 해에 삼성화학(신곡동 소재) 설립

**1959년**

3. 1 정신박약아 수용시설인 예림원 (북구 부평동 662) 설립
7. 대우전자(주) (가좌동 소재) 설립
8. 안물산(주) (효성동 소재) 설립
12. 16 부평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착수

이 해에 부평 및 사곶지구 민심계도위원회 설립

**1960년**

3. 삼양식품공업(주) 의유공장(醫油공장; 효성동 소재) 설립
4. 10 북인천중학교 개교
5. 9 200여 부평 주민들, 부정환지(不正換地) 처분 즉각 무효를 주장하며 관재국(管財局)과 시청에 난입
9. 부평광산(인천시 북구 부평동 산182), 국립 지질조사소(현재 자원 연구소)시추 착광의 시행

이 해에 한미친선위원회의 전후 복구사업으로 부평제방 수리
상야국민학교 신설
3대 시의원 선출

**1961년**

1. 풍원실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2. 신한공기(新韓工機)(주) (가좌동 소재) 설립
4. 특수교육기관인 인천혜광학교 개교

4. 22 인천시의사회 부평분회 설치
5. 16 5·16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 해산, 지방자치제도 중단
8. 14 부평·인천간 상수도 확장공사 기공
8.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천군 농업협동조합) 부평지점(부평동 199-9) 개점
10. 8 부천군청, 인천에서 소사(素砂)로 이전
10. 신성공작소(伸成工作所; 가좌동 소재) 설립
10. 유광산업(酉光産業)(주) (작전동 소재) 설립

**1962년**

2. 역전제재소(부평동 소재) 설립
3. 경인철광주식회사(경인 철산) 설립
3. 신도실업(新都實業 ; 효성동 소재) 설립
3. 삼양건업사 (산곡동 소재) 설립
3. 한성전기(주) (작전동 소재) 설립
5. 24 부평 공회당, 인천시로 운영권이 이관
6. 7 부평시장(인천시 북구 부평동 225번지, 521평), 공설시장으로 개설. 시장법에 의한 최초의 시장
8. 15 부평에 근대적인 자동차조립생산공장인 새나라자동차(주) (청천동 소재) 설립, 국산택시 생산개시
8. 흥일실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10. 새한요업사 (청천동 소재) 설립
12. 1 부녀직업보도원 협성기술양성원(북구 산곡동 370) 설립
이 해에 부평남국민학교 신설
화물자동차업체인 한청상운(주) (석남동 223-398) 설립

**1963년**

1. 1 작약도(芍藥島), 부천군 관할에서 인천시로 편입
2. 1 국민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99) 개점, 부평지역 최초의 금융기관이며 특수은행
4. 고려연마공업(高麗硏磨工業)(주) (가좌동 소재) 설립
8. 7 전몰군경미망인회 인천직할시 북구 분회 설치,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회 인천북구 분회 결성
9. 1 부평주둔 ASCOM을 EUSAD로 개칭

10. 26 (주)한국수출산업공단 창립,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공단, 인천북구 효성동 316일대에 조성
10. 중원상사(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한일연탄상사 (부평동 소재) 설립
12. 12 부평 2지구(부평 1지구 동편 동수천~쌍굴다리~부평 5동·부개 2동 일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인가
12. 23 한국상업은행 부평출장소(부평동 549-3) 개점

**1964년**

1. 11 부평동, 대한극장 개관
2. 15 인천시 의약품판매협회 부평분실,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부평분회 설립)
2. 26 내리(內里)교회, 화재로 전소
3. 17 부평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착수
4. 20 「창영어린이」 지령 400호 발행
4. 22 부평문화예식장에서 부평라이온즈클럽(부평구 부평 4동 220소재) 창립
4. 선일포도당공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4. 부평강원연탄공장(부평동 소재) 설립
4. 천미광유공업(天美礦油工業)(주) (효성동 소재) 설립
6. 대한화학기계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6. 대우바브콕(주) (산곡동 소재) 설립
10. 19 보사부, 부평동에 진성(眞性)콜레라 환자 발생을 발표; 제인원(濟仁院)에 격리 수용
10. 21 중앙방역대책본부, 부평을 콜레라 오염지구로 선포
11. 16 보사부, 부평동 일대를 콜레라 오염지구에서 해제
12. 고미반도체(高美半導體)(주) (효성동 소재) 설립
12. 5 아동직업보도원 명성직업훈련원(북구 산곡동 산113) 설립

**1965년**

1. 11 정부, 부평지구 수출공단 지정공고
1. 세운산업(世運産業)(주) (효성동 소재) 설립
2. (주)연합기계(효성동 소재) 설립
3. 한국전력 경기지점 부평출장소, 영업소로 승격
3. 30 공업단지 신의위원회, 인천부평지구를 공업단지 후보지로 지정 의결

4. 인부제재소(仁富制材所; 부평동 소재) 설립
5. 15 한국상업은행 부평출장소, 부평지점으로 승격. 부평지역 최초의 일반시중은행
6. 16 부평지역(효성동·갈산동·작전동지역)을 건설부공고 제141호에 의해 수출산업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공고
7. 신화공업사(信和工業社; 가좌동 소재) 설립
8. 진영산업(進榮産業)(주) (효성동 소재) 설립
10. 인천시, 부평지구를 별도 공업단지 수출산업공업단지지정 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
10. 동남합성공업(東南合成工業)(주) (효성동 소재) 설립
10. 천주교 성모수녀회, 계산동에 건물을 짓고 성요셉 직업 보도원 운영
11. 일진금속공업사(日進金屬工業社 ; 부평동 소재) 설립
12. 동국무역(주) (효성동 소재) 설립
12. 인천전기제작소(가좌동 소재) 설립

이 해에 부평지역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하여 '신진자동차'운영

**1966년**

1. 19 한국음식중앙회 인천직할시 북구지부 창립
3. (주)한독(韓獨; 작전동 소재) 설립
4. 8 부평공단(북구의 효성동·작전동·갈산동 일대)기공식 거행. 현 대우자동차 공장
5. 다나무역 (효성동 소재) 설립
5. 오리온전자공업(가좌동 소재) 설립
7. 2 부평공업단지에 코리아 크리스탈공업사(대표; 임효, 재일교포)가 처음 입주
8. 5 한국인테리아 화학(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5 삼양전기공업사(부평공업단지내 내 소재) 설립
8. 31 도시계획재정비시 건설부 고시 제2701호에 의거 산곡동 등지에 백마공원 결정
11. 14 부평지역 전신전화국, 부평전신전화분국(부평동 342) 청사 신축
11. 세아산업(世亞産業; 작전동 소재) 설립
12. 30 부평우체국 청사 신축

이 해에 부평향교, 대성전 및 내외삼문을 중수하고 단청을 함
천주교 성모수녀회, 성요셉 직업 보도원을 산곡동에 개축

**1967년**

2. 한신공영(韓新工營)(주) (작전동 소재) 설립

4. 23 부평급수장 신규공사착공(A.I.D. 차관사업)
5. 동흥전기(주) (가좌동 소재) 설립
5. 10 부평정수장(富平淨水場) 기공
6. 동보전기(주) (일신동 소재) 설립
7. 삼화프라스틱(주) (효성동 소재) 설립
8. 1 신신전자공업(부평공업단지 소재) 설립
8. 8 한국마이크로 전자(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8 한남섬유산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8 대월부레키공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전남방직(주) (청천동 소재) 설립
8. 서울제강(주) (십정동 소재) 설립
8. 영광식품공업사(부평송 소재) 설립
8. 공업지역의 증가와 함께 많은 공원이 폐지됨
8. 전방(주) (청천동 소재) 건설
9. 삼화종합전자산업사(작전동 소재) 설립
9. 8 부평중학교 설립
9. 30 신성전기산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9. 30 태아실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9. 30 우보산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10. 7 양덕산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11. 27 부평동, 자동전화 개통
12. 20 부평내연 발전소(갈산동 90) 착공
12. 동아피아노제작소(효성동 소재) 설립
12. 삼신기업사(십정동 소재) 설립
이 해에 침례교단인 승리교회 설립

**1968년**

1. 1 9개의 출장소는 폐지하고(구제(區制)실시에 따라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의 구를 설치), 남구와 북구에만 출장소를 둠. 북구에는 서곶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부평지역은 사실상 분리되고 오직 북구만이 부평의 명맥을 유지. 검암(黔岩)·경서(景西)·연희(連喜)·석남(石南)·가신(佳新)·원창(元創)·가좌(佳佐) 등 7개동 관할: 북구는 법정동(法定洞) 29개동, 행정동 19개동과 십정동(十井洞)이 북구에 편입

1. 1 인천시 북구수도사업소 설치
1. 4 중원상사(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1. 4 한국 크리스탈 공업사(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1. 4 삼익물산(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1. 27 고속 5공구(효성동~작전동 까치마을)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2. 한국특수화학(주) (효성동 소재) 설립
2. 한국티타늄(주) (가좌동 소재) 설립
2. 삼송산업(三松産業)(주)(효성동 소재) 설립
3. 9 동아전자(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3. 9 명성산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3. 9 세정실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3. 30 동초산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3. 삼부특수제강(三富特殊製鋼)(주)(부개동 소재) 설립
3. 럭키콘티넨탈카본(주) (갈산동 소재) 설립
4. 9 동양전자공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5. 10 한송산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5. 18 신우산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5. 동서식품(주) (효성동 소재) 설립
6. 10 동남아기업사(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6. 10 삼우상사(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6. 10 대원강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6. 10 동산유지(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6. 10 은성만포공예(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6. 10 (합) 몽철사(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6. 10 동양규소산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6. 10 (유)연방물산(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6. 10 고려전자(주)(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6. 10 범양합성화학(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7. 18 용천상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7. 18 평화교역(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7. 18 유미실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7. 18 씨부라더즈 섬유(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7. 18 (주)신진편물사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7. 18 (주)오리진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7. 18 범양 상공(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7. 18 삼아전자(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7. 영풍빗트공업(주) (십정동 소재) 설립
7. 뉴-코리아전자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8. 14 공신양행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30 한국가구공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30 뉴코리아전자(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30 대성화성(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30 광성공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30 대영섬유(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8. 시부라더즈섬유(주) (효성동 소재) 설립
9. 27 동광금속(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9. 30 부평디젤발전소 준공
9. 30 부평내연발전소(디젤발전소)준공
10. 22 경기학원(부평동 202-4) 설립, 부평지역 최초의 사설학원
10. 29 북구 갈산동 주민, 부평디젤발전소 소음·매연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
10. 동진화성공업(東進化成工業)(주) (가좌동 소재) 설립
10. 풍산금속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동방기계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12. 8 천부광업(주) (부평공업단지 내 소재) 설립
12. 몬트레스산업(주) (청천동 소재) 설립
12. 금영실업(錦永實業)(주) (효성동 소재) 설립

**1969년**

1. 8 북구 부평동에 제2공보관(公報館)설치
1. 25 현대음악학원(부평동 147-6) 설립
2. 삼신철공업(주) (부평동 소재) 설립
5. 22 광복회, 인천경기지구 연합지회(부평구 십정동 397-4 소재) 설립
5. 반도상사(주) 부평공장(효성동 소재) 설립
7. 산곡동 소재 성요셉 직업보도원, 영세민 자녀들에게 직업훈련 실시

8. 16 부평동중학교 설립
부평여자중학교 설립
8. 남영통상(주) (가좌동 소재) 설립
9. 11 국제키와니스 한국지부 부평클럽(부평구 부평5동 143-45 소재) 조직
9. (주)신성목재(구산동 소재) 설립
9. 부림목재(주) (가좌동 소재) 설립
10. 11 신민당, 부평동에서 개헌반대 유세, 공화당은 12일 개헌지지를 호소
10. 31 부평 제1공업 단지 준공
10. 한국이노시돌공업(주) (작전동 소재) 설립
10. 하니(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14 한국콘티넨탈카본주식회사 부평공장 준공
11. 유신흥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경인에너지(주) (원창동 소재) 설립
12. 한양목재 제1·제2공장(가좌동 소재) 설립
12. 동양이화공업(東洋里化工業; 작전동 소재) 설립
12. 10 부평 3지구(청천동 대우자동차 부지~부평경찰서~갈산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12. 21 한일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99-36)개점
이 해에 부평 효성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수출공업단지(제4단지)가 조성됨
화물자동차업체인 환경운수(자) (십정동 423-5) 설립

**1970년**

1. 28 부평수리조합, 한강농지개량조합으로 개편
2. 3 부평지역 중학교 무시험 진학 추첨
2. 9 계산동 산 57-1일원(계양공원)이 건설부 고시 제54호로 풍치지구로 지정
3. 10 대진정밀산업(주) (작전동 소재) 설립
3. 19 한국상호신용금고 본점(부평동 95) 개점
3. 대한마이크로전자(주) (작전동 소재) 설립
4. 1 대림통상(주) 부평공장(부평동 소재) 건립
4. 6 대원안전유리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4. 14 부평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천공고 제132호로 환지 확정 처분되어 사업 완료. 1941년 11월 시작으로 거의 29년이 걸림

4. 21 경기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99－24)개점
4. 대림통상(주) 부평공장 설립
5. 6 부평청년회의소 창립, 회장은 심재갑
5. 16 (주)화영 (작전동 소재) 설립
5. 29 인천화력발전소 1호기 준공
6. 1 북구청[1]
6. 6 재향경위회 부평지회(부평구 십정동 397－4) 결성
6. 10 십정동 주민들, 주택가 지하에 갱도를 뚫고 발파작업을 한 경인광업(京仁鑛業)에 시정을 요구
6. 30 동일전자통신(주) (작전동 소재) 설립
7. 1 한국수출산업 4공단내에 효성소방관 파견소를 설치, 소방차 1대와 소방관 5명을 배치
7. 1 북구에 3개 행정동(부평1동, 부평2동, 산곡2동) 설치로 22개동이 됨
7. 20 건설부 고시 제344호에 의거, 산곡동·가좌동 일원에 호봉공원 결정
7.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백마장 지점(산곡동 99－6) 개점
7. 31 대농특수섬유(주) (효성동 소재) 설립
7. 한국전력경기지점 부평영업소, 직제개편으로 인천지점 산하로 편입
8. 17 1944년에 조성되었던 산곡 제2공원 폐지(건설부 고시 제404호)
9. 25 한국화학장치(주) (가좌동 소재) 설립
9. 26 종합농협 계양농협(박촌동 101－4) 개점
10. 2 (주)서흥 (가좌동 소재) 설립
10. 23 금화상호신용금고 본점(부평동 416－18) 개점
10. 31 가양취수장～부평정수장 간 원수관로 포설
12. 9 원창흥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12. (주)새서울 상사 (효성동 소재) 설립
12. 로얄동도금속(주) (효성동 소재) 설립

이 해에 인천시북구위원회 개설됨
부평향교, 단청 및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짐, 『유교선설집(儒敎鮮設集)』 발간
부평여객운수(주) (북구 임학동 5－27) 설립

---

1) 이하 북구청이 부평구청으로 개칭되기전까지는 북구청으로 함

**1971년**

2. 4 세한견직(주) (효성동 소재) 설립
2. 5 (주)부평자유시장(인천시 북구 부평동 224·225·220번지와 부평토지구획정리지구 73블럭에 350.75평 규모), 대표이사 이돈원이 경기도 지사에게 허가 신청
2. 12 한국로아(주) (효성동 소재) 설립
2. 제4차 도로계획 재정비시 효성 제2도로공원 폐지
3. 명신여자고등학교(산곡동 180소재) 개교
3. 5 서전기업(주) (계산동 소재) 설립
3. 18 북구 십정동 276소재 공장에서 화재발생, 사망 2명, 부상 9명 등 재산피해액 8만원으로 인천소방행정사에 인명피해 4위의 대형화재로 기록
3. 20 동양이화공업(주) (작전동 소재) 설립
3. 23 북구 십정동 500번지 소재 양계장에서 화재발생, 사망 1명, 부상 5명 피해액이 5백 15만 3천원
4. 7 경인전철, 착공식 거행
5. 6 부평시장, (주)부평자유시장 개설 허가 받음
5. 13 대성목재 공장(북구 검암동 244)에서 화재 발생, 사망 4명, 4만 4천원의 재산피해
5. 26 우국물산(주) (작전동 소재) 설립
7. 7 부평중앙장로교회 국제와이즈맨 한국중부지구 부평클럽 (부평구 부평3동 276-44) 창립
7. 31 태평특수섬유(주) (효성동 소재) 설립
8. 16 철도청, 동암역 준공
8. 17 부평 진흥자유시장(부평동 소재) 설립
8. 20 부평정수사업소 개소
8. 20 부개지구(경인국도변 농아학교~동수시장~부개동~일신동)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8. 31 부평정수장 준공(AID. 차관 사업)
8. 31 (주)부평자유시장(부평동 252) 준공
11. 26 계양지구 경지정리사업 착공
12. 1 경인에너지(주) 인천정유공장(북구 원창동 소재) 설립·가동
12. 4 부평동과 인천 시내간 자동전화 개통

12. 14 한국외환은행 부평출장소(효성동 316－76)개점
12. 15 부평지역 전신전화국, 부평우체국에 분리하여 부평전신전화국(부평동 546)으로 승격
12. 31 부평고등학교(부평 4동 소재) 설립

**1972년**

1. 31 한전유화공업(韓田油化工業)(주) (가좌동 소재) 설립
2. 2 부평청년회의소, 북인천청년회의소로 개명
2. 29 태평양 물산(주) (가좌동 소재) 설립
3. 3 부평 출장소를 파견소로 승격, 소방력 보강
3. 10 동화상협(주) (가좌동 소재) 설립
4. 22 송도물산(주) (효성동 소재) 설립
5. 6 국제피플투피플 북인천클럽 (부평 5동 572－1) 창립
5. 12 코리아스파이서공업(주) (삼산동 소재) 설립
6. 1 (주)서우(갈산동 소재) 설립
6. 1 인천은행, 경기은행으로 개칭
6. 7 대우자동차(주) (청천동 소재) 설립
6. 20 계양지구 경지정리사업 준공
6. 새한자동차(주) (청천동 소재) 설립
8. 2 새마을 금고 부평 3동(산곡동 307－13)개점
8. 12 종합농협 서인천농협(가정동 482－4) 개점
8. 준공업지구로서, 효성동·계산동지역은 계양준공업지구로, 강산동·청천동·산곡동·부평동 지역은 작전·부평준공업지구로, 부개동 지역은 부개준공업지구로 선정됨
9. 6 범한무전(주) (청천동 소재) 설립
10. 24 (주)경인양행(석남동 소재) 설립
11. 6 동국무역(주) 부평공장(효성동 소재) 설립
12. 12 태림정유(주) (가좌동 소재) 설립
12. 19 진학독서실 설립, 최초의 부평지역 사설 독서실
12. 20 원풍물산(주) (가좌동 소재) 설립
12. 26 신일 상호신용금고 본점(부평동 568－3) 개점
12. 30 신용협동조합 부평 1동(부평 4동 250－4), 부평2동(부평1동 645－1), 산곡동(산곡1동 5－12) 개설

12. 30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기전문화연구(畿甸文化硏究)」창간
이 해에 제물포 택시(주) (석남 2동 650－86) 설립

**1973년**

2. 1 해태음료(주) (작전동 소재) 설립
2. 5 철도청, 경인선에 송내·동암 등 7개역 신설을 확정 발표
2. 20 종합 농협 갈산지소(갈산동 91－3) 개점
2. 21 부평국민학교 전소(全燒)
3. 10 부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착수
3. 14 인성기연(주) (가좌동 소재) 설립
3. 22 (주)대양(효성동 소재) 설립
3. 30 지체부자유자 수용시설인 은광원(북구 부개동 347) 설립
4. 9 (주)코리아 스테플(가좌동 소재) 서립
4. 20 한국서자공업(韓國瑞子工業)(주) (가좌동 소재) 설립
5. 3 한국외환은행 주안출장소(가좌동 180) 개점
6. 5 새마을 금고 부평 5동(부평동 572－1) 개점
6. 28 새한미디어(주) (가좌동 소재) 설립
6. 동양철관공업(주) (청천동 소재) 설립
7. 9 코리아 하이탑프(주) (가좌동 소재) 설립
8. 1 동양철관(주) (청천동 소재) 설립
8. 9 (주)쌍룡정공(효성동 소재) 설립
8. 22 (주)대양금속(효성도 소재) 설립
8. 24 범우화학공업(주) (작전동 소재) 설립
9. 4 이화(二和)금속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9. 28 극동요업(주) (경서동 소재) 설립
10. 1 부평우체국, 감독국으로 지정되어 북구 일원 관할
10.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천군 농업협동조합, 인천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0. 3 종합 농협 직할지소(부평동 431－33) 개점
10. 12 남일금속(주) (계산동 소재) 설립
10. 17 아남전자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10. 30 평국전자공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12. 17 한국외환은행 부평출장소, 부평지점으로 승격
이 해에 택시업체인 신신교통(석남 2동 650－85) 설립

**1974년**

1. 10 종합 농협 효성지소(효성동 335－1) 개점
1. 17 대도화섬(大都化纖) (십정동 소재) 설립
1. 22 린나이 코리아(주) (십정동 소재) 설립
1. 28 봉명산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1. 29 부평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완료
1. 대우전자(주) (북구 가좌동 소재) 설립
4. 16 한국신탁은행 부평간이예금 출장소(부평동 235) 개점
4. 29 서울신탁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52－13) 개점
5. 1 희성금속공업(주) (가좌동 소재) 서립
5. 15 삼민화학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5. 일신제강(주) 인천제강소(북구 가좌동 소재) 설립
6. 17 한국마싱공업(주) (부개동 소재) 설립
7. 1 부평중학교(교장 오학환)에서 국내 최초로 민족주체학교 개교, 국사, 반공 새마을 운동 및 시사교육을 매년, 1981년 6월 28일까지 실시
7. 11 코리아 제록스(주) (가좌동 소재)설립
7. 17 경인선 전철 시운전
7. 20 종합 농협 계산지소(계산동 987－20)개점
7. 부평생필수퍼마켓(부평동 210)설립
9. 1 삼양식품공업(주) 장유(醬油)공장 (효성동 소재) 설립
9. 26 부평수출산업 5공단 내 가좌파출소 설치 승인(경기도 규칙 제811호) 임시 소방청사를 신축하여 5공단 지역 소방수요에 대처
10. 2 신용협동조합 대우자동차 (청천동 199) 개점
10. 9 새마을 금고 산곡 1동 (산곡동 87－185) 개점
10. 18 경인전철, 합선 사고로 부평·인천간 단선 운행
11. 4 안흥상호신용금고 본점(부평동 222－2) 개점
11. 24 부평 효성동 일원의 부평공단인 인천수출산업공단을 흡수, 통합하여 4단지로 개칭
12. 14 천일식품제조(주) (효성동 소재)설립

12. 20 인천화력발전소, 제2호기 준공

이 해에 (주)서통 부평공장(효성동 소재) 설립

화물자동차업체 삼영운수(주) (부평동 506－48) 개점

**1975년**

1. 23 YH무역회사(부국 가좌동 소재), 여공 4명을 부당해고해 물의 야기

2. 5 부평향교, 문화공보장관으로부터 '건조물 경기 제2호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통지서' 받음

3. 17 (주)하인벨 (효성동 소재) 설립

4. 10 경은상호신용금고 부평지점(부평동 543－48) 개점

5. 16 십정공원·부평공원 등이 결정(건설부고시 제75호)

5. 23 한국수출산업 4공단내의 효성소방관 파견소가 정규 소방파출소로 승격(경기도 규칙 제856호)

6. 18 부평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6. 30 한국외환은행 주안출장소, 지점으로 승격, 간이예금 취급소(가좌동 164－1) 개점

7. 1 한강농지개량조합(구 부평수리조합)을 김포군 김포면 사우리로 신축·이전

7. 3 대서산업(주) (부평동 소재)설립

7. 11 동에 통을 두는 통장제 시행(인천시 조례 제924호에 의거)

8. 20 한국 훼라이트(주) (갈산동 소재) 설립

10. 3 경민실업(주) (청천동 소재) 설립

10. 13 북인천로타리클럽(부평구 부평4동 203－19) 창립

11. 6 대림통상(주) 인천공장(가좌동 소재) 설립

12. 18 중소기업은행 주안 지점(가좌동 531－1) 개점

이 해에 부일교회 설립

부평역의 총승차인원은 326만여명

**1976년**

1. 16 종합농협 장기지소(장기동 6) 개점

2. 6 코오롱 유화(油化)(주) (가좌동 소재) 설립

2. 11 (주)삼기전자(가좌동 소재) 설립

3. 9 한국수출산업 4공단내 입주업체 대표자협의회(회장; 이호익, 삼익악기 대표)에서 소방청사(북구 작전동 215-7호) 신축
3. 19 경일화학금속(주) (작전동 소재) 설립
3. 벽산금속(주) (가좌동 소재) 설립
4. 1 인천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경기 제943호)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부평시장을 중심으로 한 제1지대(2명), 계산동을 중심으로 한 제2지대(25명), 서곶(연희)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20명), 문학을 중심으로 한 제5지대 등이 구성
4. 20 한일 스텐레스 스틸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5. 1 덕창기업(주) (십정동 소재) 설립
5. 16 십정공원 부평3공원 등 결정(건설부고시 제75호)
5. 18 삼익목재(주) (가좌동 소재) 설립
6. 1 선일전자산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6. 18 부평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7. 7 고니정밀(주) (효성동 소재) 설립
8. 5 한국신탁은행 부평예금취급소, 서울신탁은행 부평예금취급소로 개칭
8. 10 대우통신(주) 주안공장(가좌동 소재) 설립
8. 24 신용협동조합 전방(주) (청천동 336), 계산(계산동 374-17)개점
8. 26 (주)레이디가구 (가좌동 소재) 설립
9. 30 새마을금고 부평1동(부평동 464-28) 개점
9. 30 새마을금고 부평2동(부평2동 1154-100) 개점
10. 1 새마을금고 풍산금속(효성동 239-1) 개점
10. 6 한국주택은행 부평출장소(부평동 192-14) 개점
10. 6 한국주택은행 부평지점(부평1동 543-3) 개점
10. 11 새마을금고 청천동(청천동 174-6) 개점
11. 15 신용협동조합 대한 마이크로(작전동 449-2) 개점
12. 15 고려시스템(주) (작전동 소재) 설립
12. 20 새마을금고 부흥실업(부평4동 373-1) 개점

이 해에 화물자동차업체 동남운수(주) (서구 가좌동 178-169) 동남통운 설립
택시업체인 쌍마교통(주) (가좌동 602-4) 설립
부일교회 설립

**1977년**

1. 20 새마을금고 경찰종합학교(부평 6동 663) 개점
2. 3 (주)흥화B.M(청천동 소재) 설립
4. 25 신용협동조합 삼익악기(효성동 316－48) 개점
5. 10 북구 13개동 명칭 변경
6. 2 (주)기호상사 (부개동 소재) 설립
6. 29 (주)삼익악기 (가좌동 소재) 설립
8. 9 고속 5공구 토지구획정리 완료. 4공단 및 고속국도 주변 정비
8. 10 부평 부안교 개통
8. 10 부평에 동단위 새마을부녀회 결성
9. 9 (주)제일물산 (작전동 소재) 설립
9. 11 공단계량 증명업소(인천 북구 갈산동 151－3)등록, 부평 최초의 계량 증명업소
10. 1 신성무역(주) (청천동 소재) 설립
10. 25 부평화전(富平火電)「가스터빈」발전(發電) 개시
10. 자연보호중앙회 인천직할시 북구협의회 창립
10. 쌍룡자동차(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27 새마을 지도자 북구협의회 결성
11. 부평내연 발전소, 부평발전소 준공
12. 23 대도백화점(인천시 북구 부평동 153번지) 개점, 55개 점포 개설
12. 26 신용협동조합 한국종합기계(산곡2동 162) 소재

이 해에 부평의 인구는 250,723명

**1978년**

1. 24 (주)피죤 (효성동 소재) 설립
1. 동아건설산업(주) 부평공장(북구 부평동) 설립
2. 15 대한중기공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3. 1 부평여자중학교 개교
3. 25 해태전자(주) (청천동 소재) 설립
4. 14 대양상호신용금고 본점(부평동 194－9) 개점
4. 19 하니산업(주) (작전동 소재) 설립
5. 11 새마을금고 코리아스파이서(삼산동 211－3) 개점

6. 20 새마을금고 효성2동(효성동 320－3) 개점
6. 22 부평 아케이트 부평상가 개설
6. 22 부평 백화점(부평동 소재) 설립
6. 29 신용협동조합 인천선진 (십정 1동 220－1) 개점
6. 백마 슈퍼마켓(산곡동 96) 설립
7. 1 백석동을 검암동으로 명칭변경
8. 1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직할시 북구협의회 (부평4동 220) 결성
8. 3 (주)한국자동제어 (가좌동 소재) 설립
8. 4 동신공업(주) (작전동 소재) 설립
8. 17 (주)서울표구 (효성동 소재) 설립
9. 9 부평지하상가 준공, 점포는 190개소, 총사업비는 8억 8백만원 소요
9. 13 (주)한일불단(韓日佛壇) (석남동 소재) 설립
10. 4 동양유압(주) (효성동 소재) 설립
10. 5 동양기전(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1 청우기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12. 22 대도백화점(부평동 153) 설립
12. 28 가야실업(주) (십정동 소재) 설립
12. 28 부평정수장, 제2차 확장공사 1단계 준공
12. 부평한남수퍼마켓 (부평동 192－6) 설립
이 해에 부평향교, 외삼문 및 홍살문에 단청과 현대식 계층설비 및 하수구 복개와 정면포장 등 환경정비 공사 실시
부평백화점 개점
화물자동차업체인 양양운수(주) (십정동 578-2), 서녕유조(주) (석남동 223-400) 설립

**1979년**

1. 1 승일제관(주) (십정동 소재) 설립
1. 16 부평종합상가(부평 4동 229)번지 개설
1. 22 단해공압공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1. 26 진흥종합시장(부평 4동 252－52) 개설
3. 3 새마을금고 아남전자(효성동 316－29) 개점

3. 22 (주)세모 (십정동 소재) 설립
4. 1 새마을금고 부평축산기업 (부평동 568-3) 개점
4. 16 서울신탁은행 부평지점 (부평동 152-1) 개점
5. 28 한국주택은행 부평출장소, 지점으로 승격
6. 18 부평 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
7. 20 십정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7. 부남슈퍼마켓(부평동 684) 설립
7. 나나수퍼마켓(계산동 410) 설립
9. 20 부평전신전화국 산곡분국 개설
9. 부평종합슈퍼마켓(부평동 229) 설립
10. 1 (주)대성 (가좌동 소재) 설립
11. 26 계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인가
11. 26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26-7) 개점
11. 갈산슈퍼마켓(갈산동 91-61) 설립
11. 동양슈퍼마켓(부평동 210-43) 설립
12. 14 국제전열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12. 15 부평동 지하상가(부평 224-1) 개설
12. 27 한국광학기술개발(주) (가좌동 소재) 설립

이 해에 천주교 성모수녀회에서 운영하던 성요셉 직업보도원 문을 닫음

부평역을 기점으로 하는 지하상가(소위 '부평로 지하상가', 인천시 북구 부평동 241 도로지하에 위치)가 개설

남북택시(주)(서구 석남1동 498), 대덕삼상택시(주)(가좌동 272-8), 대명운수(주)(북구 효성동 산60-10), 대창운수(주)(가좌동 215-19), 동우교통(주)(석남동 5리), 동원택시(합)(작전동 785-2), 부강교통(합)(석남동 519-1), (주)성용교통(삼산동270-9), 신진운수(가좌동 260-20), 한일운수(계산동 900-9), 화신교통(합)(석남동 650-39)등 설립

화물자동차업체인 신성특수유조(주)(가좌동 278-7) 설립

**1980년**

1. 14 서울신탁은행 부평예금취급소, 지점으로 승격
1. 15 북구새마을부녀회 설립

3. 22 부평시장 로타리 지하상가 완공, 총사업비 15억 8천 5백만원, 점포 296개소 입점
4. 1 신영공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4. 21 삼보산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4. 28 갈원조합시장(갈산동 169－17번지) 개설
6. 1 로얄산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6. 25 부평자유시장(부평 4동 252－52) 개설
7. 1 한신보일러(주) (작전동 소재) 설립
7. 8 대통령령 제9950호에 의거, 부평 정수사업소가 북부소방서로 통괄·개서
7. 23 삼익제약(주) (효성동 소재) 설립
7. 30 대동케이블산업(주) (작전동 소재) 설립
8. 1 북구소방서(부평지역 관할) 개서
8. 7 부평지역 정화추진위원호 조직
8. 27 부평정수장, 제2차 확장공사 － 2단계 준공
8. 31 새마을금고 부평4동(부평동 370－21) 개점
9. 11 협진계량증명업소(작전동 429－8)·경기계량증명업소(효성동 235－1) 등록·영업
9. 11 제일은행 부평지점(부평동 206－21) 개점
9. 20 새마을금고 십정동(십정동 279－2) 개점
9. 25 제일은행 부평지점(부평동 206－21) 개점
9. 국제키와니 한국지구 북인천클럽(부평4동 252－45)창립
10. 13 새마을금고 한국사프(효성동 410－20) 설립
10. 부평향교, 유림회관 건립
11. 13 인천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인천시 조례1313호) 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소방서 제1지대인 부평지대를 북구소방서 본대로 확대·개편. 제2지대(계산지대)는 북구소방서 제1지대로, 제3지대(연희(서곶)지대)는 북구소방서 제2지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12. 26 조흥은행 부평지점(부평동 204－12) 개점
12. 26 조흥은행 부평출장소(부평동 204－12) 개점

이 해에 부평향교, 대성전 보수
대종교당 세움
대명운수(합) (가좌동 147－14) 설립
경진교통(주) (작전동 725－1) 설립

**1981년**

1. 22 동수종합시장(부평동 642) 개설
2. 16 우정계량증명업소(부개동 230－2) 등록·영업
2. 13 청천종합시장(청천동 178－9) 개설
2. 23 직장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북구 부평 4동)창립, 초대회장은 안승택(안병원 원장)
3. 13 청천종합시장(청천 2동 178－9번지) 개설
4. 1 (주)구영(龜暎; 효성동 소재) 설립
4. 4 부개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4. 8 (주)대진 (청천동 소재) 설립
4. 13 인천직할시로 승격, 이후 관할구역은 큰 변경없음. 당시 북구는 법정동 29동 관할
4. 28 북부소방서 청사, 신축 완공
4. 22 북구 효성동 대림도정공장에 화재 발생
4. 30 민족통일 북구협위원회(부평 5동 554) 창립
5. 20 부평 청과도매시장(부평동 252) 개설
5. 21 갈산종합시장로타리(갈산동 63번지) 개설
6. 5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부평동 224－1) 개설
6. 19 인천북부라이온즈클럽(부평구 부평 4동 554 소재), 부일북부라이온즈클럽(부평 5동 496－4 소재), 북인천북부라이온즈클럽(부평 1동 70－84 소재), 계양북부라이온즈클럽(박촌동 145－35 소재), 신명북부라이온즈클럽(부개 2동 85－1 소재) 등 창립
6. 25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 북구지회(부평 1동 464－28) 창립
6. 한국전력 부평지점(부평 6동 623－27) 개설 (3급)
7. 1 인천직할시 승격 실시
7. 23 부평지역 정화추진위원회, 사회정화운동 인천직할시 북구추진위원회로 개칭
7. 25 정호실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7. 31 경기도북구한의사분회, 인천직할시 북구한의사회(부평 4동 250－4)로 승격
8. 부평서여자중학교 지하에 시범 대피호 착공
8. 13 인천시의사회 부평분회, 북구의사회(부평 1동 대인병원 내)로 개칭
8. 17 부평지역 미군부대장과 북구청장(현 부평구청장)을 공동위원으로 하여 한미친선협의회 설립
9. 17 새마을금고 부평종합상사(부평동 29) 개점

9. 29 새마을금고 동서식품(효성동 316－11) 개점
10. 1 인천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인천지회로 승격
10. 20 북구청, 각 동의 계조직 폐지
11. 11 인천직할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인천북부 의용소방대 부녀대 1개대(50명 정원)를 신설
11. 15 덕진산업(주) (부평동 소재) 설립
12. 14 부평도서관 설치조례, 제정·공포
12. 15 중소기업은행 청천지점(청천동 179－9) 개점
12. 16 동수종합시장(부평 6동 684－8번지) 개설
12. 19 인천직할시 북구재향군인회, 인천시 북구연합회분회로 창립
12. 26 석남시장(석남동 579) 개설
이 해에 부평향교, 명륜당, 동무·서무, 착간, 내삼문, 동제 등을 보수, 홍전문 신축, 담장을 개축함
공성교통(주) (가좌동 602－28), 풍진기업(가좌동 602－29), 한미교통(삼성교통; 석남동 516－5)등 택시업체 설립

**1982년**

1. 12 부평서여자중학교 지하에 시범 대피호 준공
1. 22 유창종합시장(부평 1동 534－87) 개설
1. 29 십정종합시장(십정 1동 321－6번지) 개설
1. 29 효성종합시장(효성동 63－9번지) 개설
1. 한국어린이육영회 인천북구지부 창립
2. 5 문교부, 부평여고 설립을 인가
2. 10 부정계량증명업소(작전동 734－2번지) 등록·영업
3. 5 십정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3. 22 부평동중학교, 제1회 KBS배 쟁탈 전국중고교축구대회에서 준우승
3. 25 경기은행 부평남지점(부평동 642) 개점
5. 7 한국미우라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5. 15 부평수지(樹脂)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5. 18 부평도서관(십정동 186－454 소재) 개관

6. 26 부평역앞 JC공원 내 육각정 건립 기공식, 설립 발기인은 직장새마을운동 인천직할시 북구협의회(회장; 안승택, 당시 부평안병원 부원장)
6. 30 성선공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8. 1 한일유리공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8. 11 신용협동조합 성모자애병원(부평 6동 665) 개점
9. 1 부개동을 개신동, 일신동으로 분동(分洞)
9. 14 (주)영본가구산업(부개동 소재) 설립
10. 6 국민은행 계산동 지점(계산동 956-7) 개점
11. 7 새마을금고 북구청(부평동 442-1) 개점
11. 10 십정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11. 11 부평여자고등학교 개교
11. 12 창명계량증명업소(십정동 348-25) 등록·영업
11. 17 부일종합시장(일신동 107번지) 개설
11. 19 신화(信和)공업(주) (산곡동 소재) 설립
11. 23 부평역사(부평동 738), 현대식 건물로 준공
11. 29 효성파출소, 신현파출소로 개칭
12. 27 십정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착수
12. 부평·만수·논현·십정 일대 야산에 은광석 290t이 매장되어 있음을 관계당국이 밝힘
12. 부평지역, 제한 정비 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시설의 신설이 제한을 받게 됨
이 해에 북구의 인구는 391,801명
화물자동차업체인 (주)효신운수(석남동 223-405) 설립

**1983년**

1. 22 전두환대통령, 북구 효성동 소재 제화업체인 (주) 동양 등 시내 중소업체시찰
2. 26 북구청, 총무과에 지도계 신설
3. 2 부평향교,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문화재지정서'교부 받음
3. 23 신용협동조합 효성동(천) (효성동 271-9), 한독(작전동 449-3), 신현교회(신현동 293-1), 경인에너지(원창동 1000) 개점
4. 1 (주)선일 종합금속(효성동 소재) 설립
4. 20 십정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착수
5. 28 의료법인「부평안병원」(북구 청천동 소재) 개원

6. 1 태흥실업(주) (효성동) 소재
6. 8 인성공업(주) (효성동) 소재
6. 14 새마을금고 인천시 북구지부 창립, 초대회장에 유춘식씨가, 현재는 김장석씨가 2대 회장직을 맡고 있음
6. 26 부평역전 앞 JC공원내 육각정 건립 시작
6. 30 새마을금고 부평경찰서(청천동 199) 개점
7. 2 아동직업보도인 구세군 직업훈련원(북구 산곡동 369) 설립
7.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암지점(십정동 402-6) 개점
7. 27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가좌4동 287-25) 창립
8. 19 북인천세무서, 청사(작전동 422) 기공식
9. 1 (주)금하(錦河; 작전동 소재) 설립
9. 2 삼영산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9. 2 (주)미미양행(청천동 소재) 설립
9. 14 동암역(십정동 427), 역사 신축
10. 1 석남동을 석남동, 가신동으로 분동(分洞)
10. 10 부평전신전화국, 청사(북구 산곡동 410) 이전
10. 10 북구청, 시민과의 주민등록계 폐지
산업과에 상공계 신설
건설과에 하수과징계 신설
10. 23 대한정밀공업(주) (삼산동 소재) 설립
10. 한국전력 부평지점, 2급지로 승격
11. 1 태흥산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개지점(부개동 183-15) 개점
11. 3 대영기계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29 (주)기풍(起豊; 효성동 소재) 설립
12. 15 인천지방검찰청 소년선도위원 북구지역협의회(부평 4동 373-1) 창립
12. 20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인천직할시북구지회가 결성되어 부평지역에서의 새마을운동을 지도
12. 28 부평역앞 JC공원내 육각정 완공
12. 30 동암역 준공

이 해에 화물자동차업체인 중아기업(주) (임학동 73－8), 한천상공(주) (석남동 223－398) 설립
(합) 경인렌트카(부평 4동 49) 설립

**1984년**

2. 3 (주)부라오(가좌동 소재) 설립
2. 4 거북시장(서구 석남동) 개설
2. 11 건설부 고시 제726호로 산곡동 31번지 일원(현대아파트)가 아파트 지구로 결정
3. 10 천마화학(주) 회사내 도서실(북구 작전동 99－1) 설치
3. 22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직할시 북구지회 창립
4. 10 (주)성우 미크론 (작전동 소재) 설립
4. 19 인천직할시, 북구 경서동(景西洞)에 경인주물단지 조성계획 확정
4. 30 환경청, 인천직할시 백석동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조성계획을 발표
6. 1 인성공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7. 1 (주)프라자제과 (효성동 소재) 설립
7. 1 서통화학(주) (효성동 소재) 설립
7. 30 (주)유니크(가좌동 소재) 서립
8. 4 부평고등학교, 창단 3년만에 제3회 KBS배 추계중고축구대회에서 우승
9. 5 한서상호신용금고 부평지점 (부평동 439－2) 개점
9. 14 대준전자(청천동 소재) 서립
9. 17 부평·계양 지구 택지개발 시행인가(건설부 고시 제364호), 부평지역 처음으로 실시한 토지개발사업
9. 25 산곡북국민학교 등 7개교, 10월 5일까지 각각 개교
10. 2 (주)동광실업 (작전동 소재) 설립
10. 13 명일전자(주) (갈산동 소재) 설립
11. 4 백운역(십정동 172) 신축 개통
11. 20 백운역(부평역～동암역 사이) 준공
11. 대우통신(주) 광케이블 공장(가좌동 소재) 설립
12. 8 부성냉열(주) (가좌동 소재) 설립

이 해에 부평지하상가와 부평역을 연결하는 성일로 1차 공사 착공
부평역 총 승차인원은 1,985만명
화물자동차업체인 전국냉동(자) (서구 백석동 211), 태창가스화학(주) (효성동 392－2) 설립

**1985년**

1. 22 북구청, 건설과에 녹지계 신설
2. 2 부평남부역사(驛舍) 기공
2. 18 대우계량증명업소(효성동 392-12번지) 등록·영업
3. 1 성업공사 인천지점(부평동 202-1) 개설
3. 부평 택지개발지구와 계양 택지개발지구(부평 4동·5동·부개 3동),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 시행
3. 1 부평·계양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
5. 1 (주)우성기계(부평동 소재) 설립
5. 1 직할시체제의 구가 자치로서 법인격 부여, 내무부 승인을 얻어왔던 예산은 시와 구에서 각각 분리하여 편성됨
5. 24 현대백화점(인천시 북구 작전동 444-2번지) 개점
6. 1 태연물산(주) (갈산동 소재) 설립
6. 10 북구청, 부구청장 신설
7. 1 북구청, 부녀아동계를 부녀청소년계로 변경
7. 8 신현시장(신현동 272) 개설
7. 22 부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10. 29 고석전기(주) (신현동 소재) 설립
11. 12 주택은행 작전동지점(작전동 444-1) 개점
11. 15 부개동을 부개 1동·부개 2동으로 십정동을 십정 1동·십정 2동으로, 석남동을 석남 1동·석남 2동으로, 가좌동을 가좌 1동·가좌 2동으로 분동(分洞)
11. 22 한국주택은행 작전동 지점 (작전동 444-1) 개점
11. 29 서우물산(주) (가좌동 소재) 설립
12. 1 (주)범화 (작전동 소재) 설립
12. 10 평화시장(임학동 67번지) 개설
12. 19 세안산업(주) (석남동 소재) 설립
12. 30 인천교대, 숭의동에서 계산동 캠퍼스 이전을 확정

이 해에 부평향교, 교직청의 해체 및 보수와 외삼문의 개축공사를 함
택시업체 광도기업(주) (가좌동 602-20) 설립

**1986년**

1. 1 대흥제지공업(주) (계산동 소재) 설립
1. 15 헵시바 산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2. 10 건설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부평·서울간 승용차 100원)
2. 19 삼화주철공장(주) (북구 경서동 소재) 설립
3. 18 고창산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3. 21 (주)상아양행 (작전동 소재) 설립
3. 25 부개 1지구 택지개발 시행 인가(건설부고시 제127호)
4. 4 인천북부소방서 제3지대, 십정동 지역에 설치
4. 5 십정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4. 12 (주)대한 쥬얼리 (가좌동 소재) 설립
4. 19 종합농협 임학지소(임학동 101－2) 개점
5. 15 부평 1동 천주교회,「광주사태」6주년 추모미사를 거행
6. 9 부평경찰서, 전국에서 처음으로「의경(義警)방범대」를 발대(發隊)
6. 9 축산업협동조합 동암지소(십정동 318－8) 개점
6. 28 인천교육대학교 북구 계산동 소재 신축교사 기공
7. 26 갈산지구 택지개발 시행 인가(건설부고시 제335호)
일신지구 택지개발 시행 인가(건설부고시 제639호)
7. 30 북인천우체국(부평동 546－63) 신설
8. 20 부평향교, 충효교실을 신축하고 상설 개강
9. 10 부평로 지하상가와 부평역과 연결되는 성일로 1차공사 준공, 총사업비는 41억 1백만원 소요, 점포수는 425개소
9. 27 산곡남국교 개교
9. 29 산곡동 294번지 일원(우성아파트), 건설부고시 제427호로 아파트 지구로 결정
10. 8 부평파출소를 개축
10. 10 한일공업(주) (경서동 소재) 설립
10. 27 북구청(현 부평구청), 위민실제도 실시
11. 1 협우실업(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2 새마을금고 부평 1동 제1분소(부평 1동 542－77) 개점
11. 28 태성표구(주) (효성동 소재) 설립

11. 덕흥산업(주) (석남동 소재) 설립
12. 12 경기은행 계산동 지점(계산동 944-5) 개점
12. 15 부평정수장, 제3차 확장공사
이 해에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인천북구올림픽추진위원회 조직
수해상습지역 굴포천인근 지역대인 부평 1동 청천동·갈산동 연합으로 수방기동대 1개에 75명으로 조직·편성하여 운영
부평향교, 동무·서무와 내삼문의 단청공사와 대성전, 동제, 명륜당과 전정에 석판부설공사, 부평향교지 발간
(주)인천전세(부평동 194-4) 설립

**1987년**

1. 1 북구청, 총무과에 경리계 신설
1. 5 (주)마미손(효성동 소재) 설립
1. 8 부평 1·4·5동의 상업지역, 인천시 고시 제1063호에 의해 방화지구로 결정
1. 24 인천안남로타리클럽(계산 1동 956-27) 창립
1. 27 부평지역 삼익악기 주식회사에서 화재발생, 사망 2명, 3천 8백 5십만원의 재산피해
1. 29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창고에서 화재발생, 2억 7천만의 재산 피해
2. 1 세림요업(주) (북구 박촌동 소재) 설립
2. 3 (주)현진섬유(북구 박촌동 소재) 설립
2. 12 신용협동조합 대우통신(가좌동 531-1) 개점
2. 한국전력 부평지점, 1급지점으로 승격
3. 18 제일 미네랄(주) (북구 부개동 소재) 설립
4. 1 경남공업(주) (북구 십정동 소재) 설립
4. 1 제일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부평 4동 202-62) 개점
4. 1 북구청, 총무과에 문화공보계 신설
공해방지계를 환경관리계로 변경
4. 16 신한은행 부평지점(부평동 442-13) 개점
4. 23 계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5. 이훈익, 「인천지지(地誌)」를 발간
5. 7 계산고등학교 개교
5. 24 부평역 광장에서 예정되었던 천주교인천교구청년회 등이 개최하려던 「5월 광주영령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회」, 경찰의 사전봉쇄로 무산

6. 1 광복회 인천·경기지구연합지회, 광복회 인천직할시부로 개칭
6. 2 귀성산업(청천동 204), 부평의 새마을공장으로 지정·운영
6. 12 가좌 2동을 가좌 2동·가좌 3동으로 분동(分洞)
6. 26 부평역 일대에서 시위대 2,000여 명,「평화의 대행진」에 참여하여 자정까지 시위
6. 27 북구청, 서곶출장소에 민원·세무 2계 신설
6. 30 고려강철(주) (가좌동 소재) 설립
7. 10 (주)청우산업 (가좌동 소재) 설립
8. 3 원일기계공업(주) (가좌동 소재) 설립
9. 1 북구청, 산업과에 공업계 신설
9. 25 한국주택은행 산곡동지점(산곡동 311－151) 개점
9. 25 가좌국민학교 개교
9. 29 부평관광호텔 개업
10. 22 현대백화점(산곡동 311－151번지) 개점, 119개 점포 개설
11. 23 십정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11. 28 대우자동차공장 대화재(피해액 1백억원)
12. 14 (주)세화상사 (가좌동 소재) 설립
12. 17 작전종합시장(작전 2동 856－117번지) 개설
12. 18 (주)아니마(청천동 소재) 설립
12. 24 축산업협동조합 청천지소(청천동 179－90) 개점
12. 28 경기은행 가좌동 지점 (가좌동 30－48) 개점
12. 28 인천시 수산업협동조합 가좌출장소(가좌 2동 480－20) 개점
12. 30 십정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12. 계양지구 임학·병방·방축등 택지개발 완료
12. 경인철광주식회사, 갱내 작업 완료
12. 계양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완료

이 해부터 북구청(현 부평구청)에서는 행정장비 보강 5개년 계획(1987~1991)에 의거, '94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행정전산망의 총체인 전국온라인(ON－LINE) 시스템의 구축의 기반 확립

부평향교, 없어진 서재를 동재를 모방하여 복원

## 1988년

1. 1 북구의 서곶과 남구의 남동출장소가 폐지되고, 북구에서 북구와 서구로 분구(1개출장장소 29개동이 19개동으로 줄음)
1. 25 북구청, 가정복지과와 가정복지, 부녀복지계 신설
의료보험계 신설
2. 24 대한무공수훈자회 인천직할시 북구지회 발기
3. 16 부평에 있는 10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인천직할시 북구여성단체협의회 결성
4. 1 동아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부평동 549-38) 개점
4. 4 북구청, 세외수입계 신설
4. 11 대우자동차, 인천 등 4개공장 무기한 총 파업
4. 12 중소기업은행 석남동지점(석남동 537-3) 개점
4. 30 대우자동차, 노사분교 19일만에 11개항 타결 합의
5. 29 새마을금고 부평 5동 제1분소(부개동 93-2) 개점
6. 2 시, 자치구실시에 따른 직제개편을 확정
6. 3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부평 4동 493-2) 개점
6. 21 북구청, 10과 38계에서 2국 1실 11과 43계로 기구 확대
총무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기획예산·법무·감사·관재·노정계 신설
7. 5 삼성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부평동 440-5 여산 빌딩) 개점
7. 5 (주)퍼시픽 다나(가좌동 소재) 설립
7. 7 축산업협동조합 부평지소(부평동 143-71) 개점
7. 19 부평고 축구부, 제43회 전국고교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
8. 1 새마을금고 해태음료(작전동 392-1) 개점
8. 9 국민은행 대우자동차 출장소(청천동 193-1) 개점
8. 18 신용협동조합 석남동(천) (석남2동 546-3) 개점
8. 20 동암역, 남북부 역사 분리 증축 착공
8. 26 계산파출소 신축
9. 1 대산목재(주) (석남동 소재) 설립
9. 7 부평향교, 충효교실 2층에 전통혼례식장 착공
10. 19 새마을금고 부평 1동 제2분소(부개1동) 개점
12. 2 내무부, 1989년 1월 1일부터 인천직할시에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옹진군 영종면·용어면을 편입키로 하고, 편입안을 국회에 상정(上程)

12. 10 북구청, 관광운수계 신설
12. 12 계양·용류면 주민 1,000여 명,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인천직할시 편입지지대회를 개최
12. 13 국회, 계양, 영종, 용류면의 인천직할시 편입안을 전격 통과
12. 16 부평향교, 충효교실 2층에서 전통혼례식장 준공
12. 21 새마을금고 해태전자(청천동 177) 개점
12. 27 동암역, 남북역사 준공
12. 31 부평지구(부평동) 택지개발 완료
12. 31 북구조례(北區條例)에 의거 계양출장소 설치
이 해에 계양공원(인천직할시공원 제1호)내에 있는 계양산성을 복원하고 전망대·사적관·부평도호부청사·팔각정 등을 2001년까지 정비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하였으나 자연훼손·개발 논란을 불러 일으킴
화물자동차업체인 청도운수(주)(가좌동 178-170), (주)88유조(석남동 223-198) 설립, (주)보명(가좌동 소재), 신영물산(주)(석남동 소재), 태신산업(주)(가좌동 소재) 설립

**1989년**

1. 1 영종, 용류, 계양면 인천직할시에 편입. 북구에서 서구가 분리되어 나간 대신, 옛 부평지역이었던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 북구로 편입
계양출장소 신설,
계양동 설치
인천시 북구청, 미개발된 이 지역을 신규 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장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
1. 1 계산파출소 개소,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됨에 따라 계양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 계양파견소 운영
중부 파출소, 작전파출소로 개칭
1. 1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제4지대를 계양지역에 설치·운영
1. 1 전몰군경유족회 인천직할시 북구분회, 북구지회로 승격
전몰군경미망인회 인천북구분회, 북구지회(부평 4동 220번지)로 승격
1. 6 상이군경회 인천직할시 북구지회(부평구 부평 4동 220번지) 설립
1. 27 한흥증권 인천지점(부평 5동 155-36) 개점
1. 30 동서증권 부평지점(부평동 440-5)개점, 부평의 최초 지점

2. 1 한국공중전화관리(주), 부천관리소(부평·부천지역 전담관리)를 부천시 송내동에 설립·운영
2. 10 한신증권 부평지점(부평동 529-14) 개점
2. 14 외환은행 가좌출장소(가좌 3동 17) 개점
3. 7 북구청, 건전생활계 신설
위만실 폐지
3. 15 서울증권 부평지점(부평동 543-46) 개점
3. 19 새마을금고 십정동 제1분소(십정동 168-15) 개점
3. 31 주간 "부평신문"등록
4. 1 한국전력공사 신인천전력소(가좌 4동 산184) 발족
4. 1 인천직할시 북구지부 의료보험조합 지부 설립
4. 1 사회정화운동 북구추진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직할시 북구협의회로 개칭
4. 1 반공연맹이 해체된 후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북부지부로 개칭하여 결성
4. 1 대한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부평 4동 202-1) 개점
4. 4 현대증권 부평지점(부평동 202-1) 개점
4. 4 한일은행 동아아파트 출장소(부평 1동 70-5) 개점
4. 21 부평 안병원 앞에서 새마을운동 자율실천결의대회 개최
4. 28 북구청, 건축과 도시정비계 신설
5. 1 부평역 시발(始發)전철 출근시간대 2개 배차 운행 실시
5. 8 종합농협 남부지소(가좌동 146-37) 개점
5. 13 대한무공수훈자회 인천직할시 북구지회 승인
5. 24 한일증권 부평지점(부평 5동 199-36) 개점
6.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청천동지점(청천동 15-30) 개점
6. 7 부평시장 로타리에 국내최초의 원탁형 지하상가(1490평)가 완공. 부평 성일로 지하상가 개설
6. 29 부평향교재단 이사회의, 향교회관 신축 결정
7. 12 갈산택지개발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 착수
7. 27 북구청, 의료보호계를 의료보장계로 변경
7. 27 신한증권 부평지점(부평동 549-5) 개점
8. 11 새마을금고 삼산 제3분소(삼산동 74-6) 개점

8. 29 한국부인회 인천북구지부, 소비자고발센타 '불만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9. 1 북구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 신설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환경관리계를 환경보호계로 변경
위생과 신설
9. 20 향교회관 착공
9. 22 조흥은행 산곡동 출장소(산곡동 294-35) 개던
9. 부개 1지구 택지개발 완료, 부개 1지구 택지개발사업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아내 시행
10. 22 새마을금고 신성동 제1분소(십정동 514-18) 개점
10. 26 부내 라이온즈클럽 (계양구 작전 2동 840 소재) 창립
11. 16 축산업협동조합 가정지소(가정동 540-15) 개점
11. 20 교보증권 부평지점(부평동 152-13) 개점
11. 21 북구소방서 효성동 5지대 증설
11. 24 주택은행 신현동출장소(신현동 283-2) 개점
11. 28 한일투자신탁(부평동 소재) 개점
12. 6 외환은행 가정동출장소(가정동 541) 개점
12. 17 한일투신, 1차 청약실시 이전에 특정인에게 주식을 특혜 배정해 물의 야기
12. 20 한일은행 대림아파트 출장소(부평동 64-20) 개점
12. 27 부평 제2가압장 준공
12. 27 중소기업은행 인천북지점(작전동 863-16) 개점
12. 27 새마을금고 쌍용자동차(효성동 395) 개점
12. 28 일신소방서, 사업 시행중
12. 29 부개지구(부개 2·3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12. 30 부평 2동 일원의 희망천 1지구, 건설부 고시 제808호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
12. 30 부평구 관내 굴포천(부평동 285-1~계양동 64-3) 및 청천천(갈산동 175-5~갈산동 179-8), 준용하천으로 공고(제295호 인천시 하천 정비기본계획)
12. 31 북구청, 재무과 신설
전선통계계, 보상계 신설
이 해에 세광금속(청천동 소재), 청담물산(가좌동 소재) 설립
명진특수화물(주) (가좌동 278-7) 설립

**1990년**

1. 향교회관 준공
1. 1 부평 3동을 부평 3동·산곡 3동으로, 효성동은 효성 1동·효성 2동으로, 계산동을 계산 1동·계산 2동으로 분동(分洞), 20洞에서 23洞으로 증가
1. 7 희망천 1지구(부평 2동), 주거환경 개선 계획 고시. 주택개량 방식은 현지 개량 방식으로 결정
1. 10 새마을금고 산곡 1동 제1분소(산곡동 180-383) 개점
1. 17 상업은행 석남동지점(석남동 538-43) 개점
1. 17 국민은행 산곡동지점(산곡 2동 99-15) 개점
1. 18 법무부 아동보호관찰소 보호위원북구지역협의회 창립
1. 31 나드리 인천 프라자 종합상가(계산 2동 926-27번지) 개설
2. 1 북구청, 토지관리과 신설
토지관리, 지가조사계 신설
2. 10 종합농협 작전지소(작전동 134-11) 개점
2. 14 동남은행 부평지점(효성동 385-19) 개점
2. 14 동남은행 부평지점(효성동 385-19) 개점
2. 16 석남파출소(석남동 579-2) 신설
2. 26 새마을금고 부평 3동 제1분소(십정동 182-87) 개점
2. 26 동암프라자(십정 2동 406-3번지) 개설
3. 23 대동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92-14) 개점
3. 30 북구청, 북구보건소 검사계 신설
4. 2 경기전산국(부개 2동 120-7) 개국
4. 12 까치계량증명업소(작전동 706-8번지) 등록·영업
4. 19 서울신탁은행 갈산동 출장소(갈산동 73-10) 개점
4. 26 경기은행 동암지점(십정동 356-4) 개점
5. 1 청천동이 청천 1동·청천 2동으로, 작전동이 작전 1동, 작전 2동으로 분동(分洞)하여 25개 행정동으로 증가
5. 3 한국상업은행 산곡동 출장소(산곡동 182) 개점
5. 4 새마을금고 청천동 제1분소(청천동 258-15) 개점
5. 14 희망천(부평 2동) 2지구, 건설부 고시 제277호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

5. 29 주택은행 동암출장소(십정동 293－10) 개점
6. 1 새마을금고 부평 3동 제2분소(산곡 3동 370－53) 개점
6. 5 한국감정원 부평지점(작전동 863－15) 개설
6. 29 한국주택은행 동암출장소(십정동 293－10) 개점
6. 30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경서동 산247) 착공
7. 21 서부수도사업소 신설로 행정구역상 북구 행정 구역만을 관리하게 됨
7. 인천직할시 인천치과의사회에서 분리하여 북구치과의사회(작전동 863－15) 창립
8. 2 부평고, 제44회 전국씨름대회 고등부단체에서 우승
8. 16 북구청,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계로 변경
9. 30 한국주택공사 갈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갈산동 360) 개소
10. 10 새마을금고 부평 4동 제1분소(부평동 10) 개점
10. 10 한국주택공사 계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계산 3동 20) 개소
10. 18 인천계양로타리클럽(임학동 3－5) 창립
10. 20 북구청, 기획감사실에 통신전산계 신설
전산통신계를 통계계로 변경
10. 25 새마을금고 부평 2동 제1분소(부평동 678－14) 개점
11. 16 인천직할시문화재위원회, 부평·인천향교 등 16점을 지방문화재로 지정
12. 1 효성우체국 개국
12. 4 신한은행 현대아파트 출장소(산곡동 산37－4) 개점
12. 11 북구청, 지역교통과와 주차단속계 신설, 지역경제 주차단속계 신설
12. 20 북구청, 위생과 신설
환경관리과 청소계를 환경보호과 청소계로, 환경보호계를 환경관리계로 변경
12. 인천YMCA 부평지회(갈산동 360 소재), 인천YMCA북부지회(작전동 862－25)로 개설

이 해에 부평 지하상가와 부평역을 연결하는 2차 성일로 지하상가 착공
부평향교, 부평향교지 속간
인천교대, 신축공사 완공·이전
(주)서아(효성동 소재), 대전피혁공업(주) 부평공장(작전동 소재) 설립
영일렌트카(주)(가좌동 207－1) 설립

**1991년**

1. 5 부평전신전화국, 부평전화국으로 개칭
1. 14 북구청(현 부평구청)에서 운영하던 8개소의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5개소가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법률 제4328호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함)
1. 20 특수농협 부평시장지소(부평동 150－24) 개점
3. 20 북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계 신설
3. 22 계양구도서관 설치 조례가 제정·공포
3. 29 기술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효성동 316－76) 개점
4. 1 인천지방검찰청 소년선도위원 북구 제2지역협의회 창립
4. 10 북구청(현 부평구청), 직소민원실 제도 실시
4. 10 부평전화국 계산분국(작전동 433－1) 신설
4. 11 조흥은행 가좌동출장소(가좌동 129－37) 개점
4. 15 북구청, 구의회전담기구 설치로 의사계 신설
4. 기초의회 운영
4. 십정파출소(십정동 160)를 신축, 개정·계양파견소, 파출소로 승격
5.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북인천지점(계산동 391－51) 개점
5. 17 한미은행 부평지점(부평동 202－1) 개점
6. 5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계산클럽(계산 2동 917－23) 창립
6. 13 창군(創軍) 및 6·25 참전동지회(부평 1동 451－48) 창립
6. 25 북구청, 문화공보실을 설치하고 문화재·공보계 신설
7. 15 북구청, 청소계를 광고물관리계로 변경
7. 30 동화리스 부평지점(부평동 549－5) 개점
7. 31 북구청, 사회업무국 신설
7. 광역의회 운영
8. 5 계산 2동을 분동하여 계산 3동 설치(25동에서 26동으로 증가)
8. 12 한국주택공사 삼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삼산동 154) 개소
8. 30 경기은행 병방출장소(북구 병방동 317－3) 개점
9. 1 고려생명보험 경인영업국(부평동 439－2) 개점
9. 1 대한보증보험 부평지점(부평동 439－2) 개점
9. 6 한국외환은행 산곡동 출장소(산곡동 274－6) 개점

9. 18 제일은행 작전동출장소(작전동 866－13) 개점
9. 19 국회건설위, 11월 1일부터 경인고속도로 부평·부천·인천간 통행료 징수않기로 결정
9. 25 북구도서관 개관
9. 26 계양 도서관(부평 4동 880소재) 개관
10. 8 계양산 살리기 인천시민운동본부 결성
10. 10 북구청, 위생감시계 신설
10. 15 동화은행 부평지점(부평동 549－5) 개점
10. 24 대한 해외참전전우회 인천직할시 북구지부(부평 5동 385) 창립
10. 26 동아시티백화점(부평동 70－127번지) 개설
10. 29 경기은행 북구 출장소(부평동 442－1) 개점
10. 31 대성계량증명영업소(십정동 122－2번지) 등록·영업
11. 굴포천 하수 종말처리장 공사, 인천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사업 착수, 1997년 12월 완공 계획
12. 4 북한의 PACO사, 삼익악기(주)에 피아노 부품 공급 제의
12. 10 계산지구(계산·병방·서운·용중·임학·작전동 일원) 택지개발 사업 ; 건설부 고시 제769호에 의거 결정)
12. 26 북구청, 법집행 특별단속반 신설
이 해에 (주)상원교통(가좌동 173－116) 설립

**1992년**

1. 3 동아베네피트생명보험 인천영업국(산곡동 310－11) 개점
1. 20 새마을금고 산곡 2·4동 제1분소(산곡동 415－94) 개점
1. 27 경기은행 주안공단 지점(가좌동 548－14) 개점
3. 2 경인여자전문대학(계산동 540－4) 개교
3. 3 노동복지회관(계산동 906－1) 개관·운영
3. 9 신용협동조합 산곡 2동(천)(산곡3동 330－6), 부평 5동(부개 2동 16－62), 경인침례교회(가좌 3동 189－3) 개점
3. 15 새마을금고 산곡 2·4동 제2분소(산곡동 264－8) 개점
3. 19 훼밀리코아(임학동 67) 개설
3. 27 종합농협 신촌지소(산곡동 310－95) 개점
5. 7 부평 2동 일원 희망천 2지구, 주거환경 개선 계획 고시. 진입도로 및 지구내 도로 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6. 16 (주)부평자유시장 해산, 부평자유시장 번영회 발족
6. 20 대한교육보험 부평영업국(부평동 431－17) 개점
6. 30 갈산지구 택지개발 완료
7. 15 보람은행 부평지점(부평동 202－69) 개점
7. 30 국제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부평동 549－5) 개점
8. 4 삼보상가(작전 1동 64－13) 개설
9. 1 갈산동을 갈산동과 삼산동으로, 부개 2동이 부개 2동·부개 3동으로, 계양동을 계양 1동과 계양 2동으로 분동하여 29개 행정동과 32개 법정동으로 설치·운영. 계양출장소가 19개동 관할. 북구는 1개 출장소
9. 17 축산업협동조합 계산지소(계산동 958－11) 개점
10. 1 중부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부평동 543－47) 개점
10. 1 국제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부평1동 54－47) 개점
10. 9 인천은하수클럽(부평동 203－28 소재), 수추로타리클럽(부평4동 199－19), 북부로타리클럽(효성동 243－7), 동부로타리클럽(작전 2동 855－27) 등 창립
10. 15 대동상가(갈산택지개발 1블럭) 개설
10. 갈산동 택지개발지역 대동 아파트 단지 내 대동상가가 개설
11. 2 신한생명보험 동인천영업국(부평동 534－1) 개점
11. 12 한국상업은행 갈산동 출장소(갈산동 363) 개점
11. 17 한국전력공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준공
11. 19 부평경남아파트 종합상가(산곡 4동 142－3번지) 개설
11. 23 종합농협 동수지소(부평 6동 658) 개저
11. 27 한국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부평동 549－50) 개점
12. 1 대일생명보험 경인영업국(부평동 543－3) 개점
12. 1 서구 소방서 개서
12. 2 경남생명보험 경인영업국(계산동 931－51) 개점
12. 4 주택은행 계산동출장소(계산동 918－6) 개점
12. 17 정밀계량증명업소(청천동 28－4)번지 등록·영업
12. 28 부개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 중(1996년 12월 완공 예정)
12. 29 북구청, 서무3계를 서무3·4계로 분리, 법집행 특별단속반 폐지
12.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 중

이 해에 북구 도서관 개관(부평 4동 소재), 굴포천방수로 공사착공(1995년 완공 예정)
북구의 인구는 727,528명이며 부평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891명, 그중 449명이 중국인
부평구청, 볼링부 창단
부평구청 볼링부, 제13회 대한체육회장기에서 개인전 2위
진흥프라스틱공업(주)(가좌동 소재), (주)장인(경서동 소재) 설립
건영화물자동차(주)(부평동 70-88), 남북통운(자)(석남동 228-198) 설립
(주)오림포스 관광(부평동 229) 설립

**1993년**

1. 1 대한교육보험 신부평영업국(부평동 378-1) 개점
2.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건설사무소(시천동 162)
3. 1 산곡 2동에서 산곡 4동이 분동(分洞)
3. 11 조흥은행 성모병원 출장소(부평동 665-8) 개점
4. 1 한국담배인삼공사 북인천지점(작전동 855-18) 신설
4. 15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건설사무소, 굴포천 치수사업공사 착수
5. 2 부평광산 구역 내 함몰사고 발생
5. 6 북구청, 민원계를 민원제도계로 변경. 민원처리계 신설
6. 12 새마을금고 갈산삼산동 갈산분소(삼산동 361-3) 개점
6. 15 1993년 6월 15일부터 1993년 11월 15일까지 안전진단 실시
6. 18 국민은행 동암출장소(십정 2동 441-15) 개점
6. 23 조흥은행 계산동출장소(계산동 968-12) 개점
6. 30 국민은행 갈산출장소(부평동 890-3) 개점
6. 부평구관내 도시철도 1호선 1-7공구(부평구청 입구~삼능사거리:부평시장역), 1-8공구(삼능사거리~부평삼거리:동수역), 1-9공구(부평삼거리~동암국교간:원통역) 등 1997년 12월 완공 예정
7. 1 새마을금고 효성 1동(효성 1동 25) 개점
7. 12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부평백합여성클럽(부평 5동 143-45) 조직
8. 5 평화은행 부평공단 출장소(효성동 311-7) 개점
8. 5 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차량관리계 신설
8. 17 경기은행 석남동출장소(석남동 510-9) 개점

9. 14 경기은행 부흥출장소(부평동 10-523) 개점
10. 23 국민은행 석남동 지점(석남동 450-4) 개점
10. 북구청(현 부평구청) 청사 착공. 1996년 1월 완공목표로 추진중
11. 8 새마을금고 산곡 1동 제2분소(산곡 1동 26-20) 개점
11. 북부소방서, 3층으로 증축
12. 3 경기은행 갈산출장소(갈산동 361-14 대동아 아파트단지 내) 개점
12. 27 부평지하상가와 부평역을 연결하는 2차 성일로 공사 준공(1,868평), 총공사비는 45억, 점포수는 248개소
12. 28 한국외환은행 작전동출장소(작전동 555-1 현대아파트 상가내) 개점
12. 30 한국주택공사 일신공사사무소(일신동 택지개발지구 1블럭 번지) 개소
12. 부평구관내 도시철도 1호선 1-5공구(북인천 세무서~갈산대우자동차:갈산역)는 1997년 4월 1-6공구(갈산대우자동차~부평구청입구:부평구청역)은 1997년 3월 완공 예정

이 해에 부평동중이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위, 전국 시도대항 초·중·고 축구대회에서 2위
부평고등학교, 제2회 금석배 전국축구대회에서 3위
북구청 볼링부,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여자 5인조, 여자 3인조, 여자 마스터즈 부분)에서 1위, 제9회 대통령 시·도 대항 볼링대회에서 1회 차지
승모목재(주)(서구 가좌동 소재), (주)반도레포츠(효성동 소재) 설립
한국특수운송중기(주)(석남동 650-45) 설립
택시업체인(주)대일산업(석남동 505) 설립

**1994년**

1. 11 부평의 농산물 수급 기능을 담당하던 건영농산,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개장
2. 인천여성문화회관(갈산동 375-1) 개관
3. 1 아주생명보험 부평영업국(부평 4동 378-1) 개점
3. 10 삼산 1지구와 삼산 2지구가 건설부 고시 1995-74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 삼산 1지구는 공영개발사업단, 삼산 2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96부터 시행 예정
4. 1 신동아화재보험 부평지점(부평동 378-1) 개점
4. 19 경기은행 동암역전출장소(십정동 419-1) 개점

4. 29 부산은행 인천지점(부평4동 378-1) 개점
5. 9 북구청, 문화계를 문화체육계로 변경. 청소년 체육계 폐지. 영선계 신설
5. 30 재향경우회 계양지회, 재향경우회 부평지회에서 분회하여 창설
6. 2 한국주택공사 부개주공아파트 공사사무소(부개3동 택지개발지구) 개소
6. 11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직할시 북구지회 주체로 계산동 싸이클경기장에서 환경감시원 발대식 및 실천대회
7. 1 북구청, 지적계를 지적1·2계로 분리
7. 1 갈산 1동과 갈산 2동으로 분동
9. 굴포천 치수사업,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 임. 폭 40~80m로 총연장 8.5km로 1999년 완료계획
9. 북구지역 소방서, 본대 1개대와 계산, 계양, 십정, 효성 등 4개지대에 총 148명으로 조직. 부녀의용소방대는 1개 본대와 계산, 작전 등 2개지에 총 91명으로 편성
10. 1 북구청, 시민과 공과금계 폐지
10. 2 5월 20일 북구의회의 '물가대책위원회' 출범

이 해에 부평초등학교, 제3회 금석배 초·중·고 축구대회에서 1위, 안남초등학교는 3위,
부평고등학교, 제23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축구대회에서 1위
북구청 볼링부, 제74회 전국체전에 금메달 2, 은메달 1개로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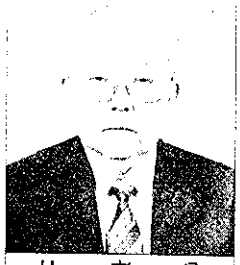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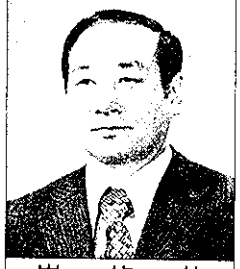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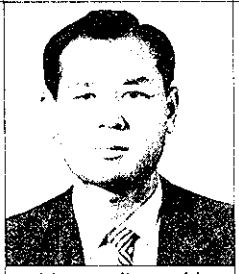
1. 1 인천직할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로 명칭변경
3. 1 인천광역시 북구는 부평구와 계양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됨. 기존의 북구 명칭은 없어짐. 부평구는 21동(북구 32동 1출장소)를 관할하는 것으로 축소
부평구 관할구는 부평 1·2·3·4·5·6동, 산곡 1·2·3동, 청천 1·2동, 갈산 1·2동, 삼산동, 부개 1·2·3동, 일신동, 십정 1·2동 등임
계양구 관할구는 효성 1·2동, 계산 1·2·3동, 작전 1·2·3동, 서운동, 계양 1·2동 등 11개동을 관할
3. 1 북구청, 민방위과 폐지, 민방위계·교육훈련계가 민방위계로 병합. 총무과내 병무계 설치
시민과 민원처리계 폐지, 민원계로 명칭 변경
세무과 세무1계·세무2계·세무3계·세무4계·평가계·세외수입계 폐지
부가1·2·3계, 세무조사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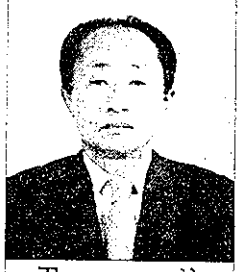
징수과 신설(징수1·2계, 체납정리계 신설)
도시정비과 구획정리계 폐지)
노동복지회관 폐지

이 해에 부평고등학교, 제31회 봄철 중·고 축구 연맹전에서 1위

# 歷代 구청장 일람

| 역대 | 성명 | 생년월일 | 취임일 | 이임일 | 재직기간 | 구정방향 |
|---|---|---|---|---|---|---|
| 1 |  金翼龍 | | '68. 1. 20 | '69. 7. 4 | 1년 6월 | |
| 2 |  朴孝益 | | '69. 7. 4 | '70. 10. 17 | 1년 3월 | |
| 3 |  崔龍基 | | '70. 10. 17 | '71. 9. 7 | 11월 | |
| 4 |  金翼龍 | | '71. 9. 7 | '73. 2. 4 | 1년 5월 | |

| 역대 | 성 명 | 생년월일 | 취임일 | 이임일 | 재직기간 | 구 정 방 향 |
|---|---|---|---|---|---|---|
| 5 |  趙 成 鶴 | | '73. 2. 4 | '73. 5. 2 | 3월 | |
| 6 |  柳 弘 善 | | '73. 5. 2 | '74. 11. 1 | 1년 6월 | |
| 7 |  趙 昌 煥 | | '74. 11. 1 | '75. 9. 7 | 10월 | |
| 8 |  金 智 瑞 | | '75. 9. 7 | '76. 6. 5 | 9월 | |

| 역대 | 성명 | 생년월일 | 취임일 | 이임일 | 재직기간 | 구정방향 |
|---|---|---|---|---|---|---|
| 9 |  趙昌煥 | | '76. 6. 5 | '77. 1. 1 | 6월 | |
| 10 |  尹泳 | | '77. 1. 1 | '78. 6. 16 | 1년 6월 | |
| 11 |  高潤男 | | '78. 6. 16 | '80. 7. 25 | 2년 1월 | |
| 12 |  劉錫鍾 | | '80. 7. 25 | '81. 6. 30 | 11월 | |

| 역대 | 성 명 | 생년월일 | 취임일 | 이임일 | 재직기간 | 구 정 방 향 |
|---|---|---|---|---|---|---|
| 13 |  成 樂 元 | | '81. 7. 1 | '82. 9. 12 | 1년 3월 | |
| 14 |  徐 守 伯 | | '82. 9. 18 | '85. 7. 12 | 2년 10월 | • 책임행정 구현과 지역안정<br>•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br>• 구민화합과 지역개발 |
| 15 |  全 和 益 | '32. 10. 15 | '85. 7. 12 | '88 1. 1 | 2년 6월 | • 확고한 국가관 정립<br>• 위민봉사행정 구현<br>• 지역책임행정 실천 |
| 16 |  柳 弼 祐 | '45. 1. 14 | '88. 1. 1 | '88. 6.11 | 6월 | —신뢰받는 민주행정 구현—<br>•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의 정착<br>• 복지향상과 도시개발 촉진 |

| 역대 | 성 명 | 생년월일 | 취임일 | 이임일 | 재직기간 | 구 정 방 향 |
|---|---|---|---|---|---|---|
| 17 |  金 相 珍 | '32. 12. 1 | '88. 6. 11 | '89. 3. 8 | 9월 | -신뢰, 화합, 안정의 구정 구현-<br>• 준법정신으로 선진구민상 정립<br>• 자율과 동참으로 구민 화합 기반조성<br>• 서민생활안정과 신뢰 행정 구현<br>• 생활환경개선과 균형적 발전 촉구 |
| 18 |  李 原 雨 | '45. 1. 12 | '89. 3. 8 | '89 12. 27 | 10월 | -질서, 화합, 안정의 구정 구현-<br>• 준법정신 함양으로 선진 구민상 정립<br>• 자율과 동참으로 구민 화합 기반조성<br>• 서민생활안정과 신뢰 행정 구현<br>• 생활환경개선과 균형적 발전 촉구 |
| 19 |  孫 宰 助 | '42 2. 9 | '89. 12. 27 | '90. 9. 20 | 10월 | -질서, 화합, 안정으로 활기찬 북구건설-<br>• 자율과 동참으로 자치 구정 구현<br>• 화합과 신뢰로 지역사회 안정<br>• 성장과 균형으로 복지 수준 향상<br>•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여건 조성 |
| 20 |  李 光 田 | '41. 2. 11 | '90. 9. 21 | '93 3. 28 | 2년 7월 | -질서, 화합, 안정으로 활기찬 북구건설-<br>• 민주화합의 자치구성 구현<br>• 준법의식으로 지역사회 안정<br>•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

| 역대 | 성 명 | 생년월일 | 취임일 | 이임일 | 재직기간 | 구 정 방 향 |
|---|---|---|---|---|---|---|
| 21 |  李 龍 起 | '41. 5. 15 | '93. 3. 29 | '93. 12. 7 | 8월 | —친절로 봉사행정·화합으로 북구건설—<br>• 주민화합으로 자치구정 구현<br>•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
| 22 |  郭 魯 薰 | '37. 7. 3 | '93. 1. 3 | '94. 9. 12 | 8월 | —쾌적하고 살기좋은 선진 북구건설—<br>•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 기반 조성<br>• 친절봉사로 신뢰행정 구현<br>• 밝고 활기찬 생활안정 조성 |
| 23 |  閔 鳳 基 | '45. 1. 12 | '94. 9. 13 | '95 5. 19 | 8월 | —새희망 새출발 새부평—<br>• 변화와 개혁을 통한 의식의 세계화<br>•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자치 행정<br>• 미래를 창조하는 발전 행정 |
| 24 |  崔 龍 圭 | '56 3. 10 | '95. 7. 1 | 현 재 | |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br>• 신뢰받는 친절한 행정<br>•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br>• 푸르고 쾌적한 환경<br>•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 富平區 議會 의원 명단 (제2대)

| 구 분 | 성 명 | 성별 | 소 속 위 원 회 | 선거구(동) | 전 화 번 호 |
|---|---|---|---|---|---|
| 의 장 | 李 福 蘭 | 남 | | 부평2동 | 사) 522-2551<br>자) 526-5086 |
| 부의장 | 李 彦 基 | 〃 | 사회산업위원회<br>(의원 겸직) | 부평5동 | 사) 503-5000<br>자) 503-4500 |
| 위원장 | 張 錫 利 | 〃 | 의회운영위원회<br>(사회산업위원회위원겸직) | 산곡1동 | 사) 522-8270<br>자) 522-8269 |
| 〃 | 徐 相 大 | 〃 | 총 무 위 원 회 | 산곡1동 | 사) 511-4447<br>자) 519-0646 |
| 〃 | 金 甲 俊 | 〃 | 사회산업위원회 | 갈산2동 | 사) 521-8988<br>자) 527-7270 |
| 〃 | 金 學 泰 | 〃 | 도 시 위 원 회 | 산곡3동 | 사) 514-4643<br>자) 529-5286 |
| 간 사 | 張 憲 植 | 〃 | 의회운영위원회<br>(총무위원회위원겸직) | 부평2동 | 사) 504-4077<br>자) 513-0836 |
| 〃 | 柳 水 龍 | 〃 | 총 무 위 원 회 | 청천1동 | 사) 501-0303<br>자) 511-0074 |
| 〃 | 朴 男 洙 | 〃 | 사회산업위원회 | 갈산1동 | 사)<br>자) 502-4520 |
| 〃 | 洪 性 彦 | 〃 | 도 시 위 원 회 | 부평1동 | 사) 511-6677<br>자) 529-0010 |
| 위 원 | 崔 龍 熙 | 〃 | 의회운영위원회<br>(도시위원회위원겸직) | 부개2동 | 사) 521-6660<br>자) 503-0307 |
| 〃 | 權 詳 喆 | 〃 | 의회운영위원회<br>(사회산업위원회위원겸직) | 일 신 동 | 사) 502-4640<br>자) 515-9891 |
| 〃 | 申 絃 沂 | 〃 | 의회운영위원회<br>(사회산업위원회위원겸직) | 청천2동 | 사) 502-3371<br>자) 515-2841 |
| 〃 | 高 振 燮 | 〃 | 의회운영위원회<br>(총무위원회위원겸직) | 십정2동 | 사) 426-9131<br>자) 427-3736 |
| 〃 | 鄭 尙 圭 | 〃 | 의회운영위원회<br>(도시위원회위원겸직) | 갈산2동 | 사) 504-5321<br>자) 529-5021 |
| 〃 | 杜 忠 根 | 〃 | 의회운영위원회<br>(총무위원회위원겸직) | 부평5동 | 사) 504-4077<br>자) 525-0412 |
| 〃 | 洪 性 彦 | 〃 | 의회운영위원회<br>(총무위원회간사겸직) | 부평1동 | 사) 511-6677<br>자) 529-0010 |

| 구 분 | 성 명 | 성별 | 소 속 위 원 회 | 선거구(동) | 전 화 번 호 |
|---|---|---|---|---|---|
| 위 원 | 韓 炳 烈 | 남 | 총 무 위 원 회 | 십정1동 | 사) 412-4969<br>자) 428-7686 |
| 〃 | 金 在 龍 | 〃 | 〃 | 부평6동 | 사) 519-5611<br>자) 522-2353 |
| 〃 | 吳 龍 世 | 〃 | 〃 | 청천2동 | 사) 511-2741<br>자) 526-1908 |
| 〃 | 嚴 隆 眞 | 〃 | 〃 | 부평4동 | 사) 502-5655<br>자) 545-9189 |
| 〃 | 李 鍾 哲 | 〃 | 〃 | 산곡3동 | 사) 519-6069<br>자) 522-1691 |
| 〃 | 姜 泰 琪 | 〃 | 〃 | 부평1동 | 사)<br>자) 524-8189 |
| 〃 | 林 憲 一 | 〃 | 〃 | 부개2동 | 사) 519-0005<br>자) 504-5900 |
| 〃 | 張 憲 植 | 〃 | 〃 | 부평2동 | 사) 504-4077<br>자) 513-0836 |
| 〃 | 高 振 燮 | 〃 | 〃 | 십정2동 | 사) 426-9131<br>자) 427-3736 |
| 〃 | 杜 忠 根 | 〃 | 〃 | 부평5동 | 사) 504-4077<br>자) 525-0412 |
| 〃 | 金 德 熙 | 〃 | 〃 | 산곡4동 | 사) 528-1181<br>자) 513-1305 |
| 〃 | 張 錫 利 | 〃 | 사회산업위원회 | 산곡1동 | 사) 522-8270<br>자) 522-8269 |
| 〃 | 李 輔 根 | 〃 | 〃 | 십정2동 | 사) 429-4734<br>자) 423-4362 |
| 〃 | 黃 充 式 | 〃 | 〃 | 부평3동 | 사) 523-7555<br>자) 522-1152 |
| 〃 | 李 彦 基 | 〃 | 〃 | 부평5동 | 사) 503-5000<br>자) 503-4500 |
| 〃 | 權 詳 喆 | 〃 | 〃 | 일 신 동 | 사) 502-4640<br>자) 515-9891 |
| 〃 | 申 鉉 沂 | 〃 | 〃 | 청천2동 | 사) 502-3371<br>자) 515-2841 |
| 〃 | 裵 英 先 | 〃 | 〃 | 산곡4동 | 사) 523-7963<br>자) 527-8998 |

| 구 분 | 성 명 | 성별 | 소 속 위 원 회 | 선거구(동) | 전 화 번 호 |
|---|---|---|---|---|---|
| 위 원 | 崔 容 南 | 남 | 사 회 산 업 위 원 회 | 산 곡 2 동 | 사) 522-0999<br>자) 527-6668 |
| 〃 | 李 起 旭 | 〃 | 〃 | 삼 산 동 | 사) 526-8100<br>자) 511-4100 |
| 〃 | 安 元 鶴 | 〃 | 〃 | 부 개 1 동 | 사) 504-4077<br>자) 524-8924 |
| 〃 | 林 成 浩 | 〃 | 도 시 위 원 회 | 청 천 1 동 | 사) 513-4345<br>자) 528-9911 |
| 〃 | 李 範 成 | 〃 | 〃 | 부 개 1 동 | 사) 511-4085<br>자) 501-2833 |
| 〃 | 崔 龍 熙 | 〃 | 〃 | 부 개 2 동 | 사) 521-6660<br>자) 503-0307 |
| 〃 | 李 燦 九 | 〃 | 〃 | 십 정 1 동 | 사) 426-3977<br>자) 423-6586 |
| 〃 | 李 春 雨 | 〃 | 〃 | 부 개 3 동 | 사) 517-2556<br>자) 503-6195 |
| 〃 | 柳 在 鴻 | 〃 | 〃 | 부 평 4 동 | 사)<br>자) 516-8077 |
| 〃 | 禹 俊 英 | 〃 | 〃 | 산 곡 2 동 | 사) 518-2662<br>자) 522-8657 |
| 〃 | 崔 天 晩 | 〃 | 〃 | 삼 산 동 | 사) 524-3297<br>자) 523-3283 |
| 〃 | 鄭 尙 圭 | 〃 | 〃 | 부 평 5 동 | 사) 504-4077<br>자) 525-04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富平區 산하 간부 명단

구 청 장 : 최 용 규
부구청장 : 이 정 일 ── 비서실장 : 박 찬 영

- 기획감사실 (실장:김원흥)
  - 기 획 계 (계장 : 김장근)
  - 예 산 계 (계장 : 정두종)
  - 법 무 계 (계장 : 류정숙)
  - 감 사 계 (계장 : 노기현)
  - 전산통계계 (계장 : 오윤경)
  - 정보통신계 (계장 : 류한희)
- 문화공보실 (실장:이창남)
  - 공 보 계 (계장 : 송태욱)
  - 문화체육계 (계장 : 김계환)
- 총 무 국 (국장:김명식)
  - 총 무 과 (과장:김용길)
    - 총 무 계 (계장 : 정상기)
    - 행 정 계 (계장 : 배동환)
    - 인 사 계 (계장 : 이호태)
    - 공공시설계 (계장 : 권혁철)
  - 세 무 과 (과장:서세양)
    - 부 과 1 계 (계장 : 류귀형)
    - 부 과 2 계 (계장 : 김영신)
    - 부 과 3 계 (계장 : 윤 현)
    - 세무조사계 (계장 : 신동국)
  - 징 수 과 (과장:최용환)
    - 징수관리계 (계장 : 양태식)
    - 시세징수과 (계장 : 배형진)
    - 구세징수계 (계장 : 이희자)

- 경영재정과 (과장:허도병)
  - 경영수익계 (계장 : 김경언)
  - 경 리 계 (계장 : 박준복)
  - 재산관리계 (계장 : 최병윤)
- 시 민 과 (과장:김기수)
  - 민 원 계 (계장 : 김춘숙)
  - 호 적 계 (계장 : 민흥기)
- 민 방 위 재난관리과 (과장:백은기)
  - 민 방 위 계 (계장 : 홍순용)
  - 재난관리계 (계장 : 김남윤)
  - 안전관리계 (계장 : 임원택)
  - 병 무 계 (계장 : 엄현섭)

사회산업국 (국장:최동섭)

- 사 회 과 (과장:정혜영)
  - 사 회 계 (계장 : 민병규)
  - 생활복지계 (계장 : 이종안)
  - 가정복지계 (계장 : 서을령)
  - 여성보육계 (계장 : 배은숙)
- 환경보호과 (과장:황관영)
  - 환경관리계 (계장 : 김종술)
  - 환경지도계 (계장 : 심영배)
- 청 소 과 (과장:장세강)
  - 청소행정계 (계장 : 강형구)
  - 폐기물처리계 (계장 : 강성환)
  - 재 활 용 계 (계장 : 박성범)
- 위 생 과 (과장:김성종)
  - 공중위생계 (계장 : 송경흡)
  - 식품위생계 (계장 : 고영균)
  - 유통식품관리계 (계장 : 이숙자)
- 지역경제계 (과장:김승규)
  - 지역경제계 (계장 : 박명근)
  - 상 공 계 (계장 : 허한정)
  - 가스안전관리계 (계장 : 박철현)
- 중소기업지원과 (과장:권오균)
  - 중소기업계 (계장 : 류홍목)
  - 공업노정계 (계장 : 석광백)
  - 국제통상계 (계장 : 윤동환)

- 도 시 국 (국장:이순달)
  - 건 설 과 (과장:권오정)
    - 건설행정계 (계장 : 윤등교)
    - 보 상 계 (계장 : 이영훈)
    - 토 목 계 (계장 : 봉종선)
    - 하 수 계 (계장 : 홍춘식)
  - 건 축 과 (과장:정상수)
    - 건축지도계 (계장 : 양기환)
    - 건 축 1 계 (계장 : 백성한)
    - 건 축 2 계 (계장 : 박성근)
    - 주 택 계 (계장 : 박기만)
  - 도시정비과 (과장:강상석)
    - 광고물관리계 (계장 : 손병숙)
    - 도 시 계 (계장 : 김복규)
    - 도시정비계 (계장 : 조규헌)
    - 녹 지 계 (계장 : 서재만)
    - 공 원 계 (계장 : 김진탁)
  - 지 적 과 (과장:이인근)
    - 토지관리계 (계장 : 이호남)
    - 지 적 계 (계장 : 박창신)
    - 지적정보계 (계장 : 김영희)
    - 부동산관리계 (계장 : 김일동)
  - 지역교통과 (과장:윤용진)
    - 교통행정계 (계장 : 국희정)
    - 교통단속계 (계장 : 김해성)
    - 교통지도계 (계장 : 이상재)
    - 차량관리계 (계장 : 고연춘)
    - 차량등록계 (차량 : 장영숙)
- 보 건 소 (소장:경창선)
  - 사 무 장 (박평기)
    - 보건행정계 (계장 : 최순옥)
    - 가족보건계 (계장 : 이명숙)
    - 예방의약계 (계장 : 구인숙)
    - 검 사 계 (계장 : 곽영순)

# 부평사 발간 편집 및 집필위원

## ◈ 부평사 발간 편집위원

위 원 장 신지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위　　원 구자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김용필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문광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조찬석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오영태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임용기 (연세대학교 교수)
이현복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최현섭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편집총괄 문광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편집보조 오연숙 (전 인천교육대학교 연구 조교)

## ◈ 부평사 원고 집필위원

| | |
|---|---|
| 序　　章 | 신지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1篇 地　　理** | |
| 第1章 自然環境 | 송종헌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2章 人文景觀 | 송종헌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3章 부평의 地誌와 古地圖 | 양보경 (서울대학교 규장각 특별연구원) |
| **第2篇 歷　　史** | |
| 第1章 開港以前 | 구자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2章 開港以後 | 구자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3章 日帝強占期 | 구자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4章 光復以後 | 구자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5章 區制실시이후 | 구자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第3篇 政 治**

第1章 政治發展 김용필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2章 政黨活動 김용필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3章 選擧樣相 임용경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4章 선거관리위원회 임용경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4篇 行 政**

第1章 行政區域 및 行政機構의 變遷 오영태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2章 行政施策의 展開
1. 內務行政 변천수 (지하철 건설본부기획단장)
2. 財務行政 배동환 (부평구청 행정계장)
3. 商工行政 박운영 (동구청 사회산업국장)
4. 建設行政 김복규 (부평구청 도시계장)
5. 住宅行政 정상수 (부평구청 건축과장)
6. 上水道行政 김수경
7. 保健衛生行政 경창성 (부평구청 보건소장)
8. 社會福祉行政 이복진 (남동구청 세무과장)
9. 文化公報行政 박찬진 (인천광역시청 차량등록사업소장)
10. 都市計劃行政 박원규 (연수구 토목계장)
11. 民防衛行政 정지찬 (동구청 송현2동장)
12. 消防行政 이석준 (내무부)
13. 새마을행정 박찬진 (인천광역시청 차량등록사업소장)

**第5篇 産業·經濟**

第1章 農 業 최영진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2章 工 業 조한보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3章 商 業 조한보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4章 金 融 채 훈 (인천대학교 교수)
第5章 貿 易 채 훈 (인천대학교 교수)
第6章 交 通 조한보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
|---|---|
| 第7章 通　　信 | 조한보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8章 動 力 源 | 조한보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9章 産業經濟團體 | 조한보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6篇 社　　會** | |
| 第1章 社　　會 | 원현진 (인천일보 사회부장) |
| 第2章 社會運動 | 조찬석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3章 社會團體 | 조찬석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7篇 文　　化** | |
| 第1章 宗　　教 | 이근철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2章 教　　育 | 이시용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3章 藝　　術 | 조우성 (광성고등학교 교사) |
| 第4章 言論·出版 | 오종원 (인천일보 논설위원) |
| 第5章 體　　育 | 문동규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6章 부평의 詩文 | 이훈익 (인천지방 향토문화연구소장) |
| **第8篇 姓氏·人物** | |
| 第1章 姓　　氏 | 조기준 (향토사학자) |
| 第2章 人　　物 | 이훈익 (인천지방 향토문화연구소장) |
| **第9篇 文化財·遺跡地** | |
| 第1章 文 化 財 | 신지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2章 遺　　跡 | 이훈익 (인천지방 향토문화연구소장) |
| 第3章 記 念 物 | 신지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10篇 方言과 地名** | |
| 第1章 방　　언 | 이창덕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 第2章 지　　명 | |
| 1. 「전국지리지」·「토지」·「읍지」에 나타난 부평의 지명 | 임용기 (연세대학교 교수) |
| 2. 小 地 名 | 조기준 (향토사학자) |
| 第3章 각 洞의 由來 | 문광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br>조찬석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

**第11篇 민속과 구비전승자료**

第1章 민　　속

1. 민속신앙 — 문광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이선주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
2. 민속생활사 자료 — 고광림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3. 세시풍속 — 이현복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4. 민속놀이 — 박기호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5. 민속극과 연극 — 이명분 (인천 부곡초등학교 교사)
6. 민간의료 — 이현복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2章 구비전승자료

1. 민　　요 — 문광영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2. 전　　설 — 이훈익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장)
3. 禁 忌 言 — 최현섭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第12篇　富平의 未來像** — 김용필 (전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부　록(附錄)**

富平의 歷代 先生案 — 오연숙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연구조교)
富平의 年表 — 오연숙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연구조교)
歷代 구청장 일람
富平區 議會 의원 명단
富平區 산하 간부 명단